전라북도
방언사전1

[ㄱ-ㅂ]

천·년·의·비·상
전라북도

전라북도 방언사전2

[ㅅ-ㅎ]

천년의 비상
전라북도

1 표제어와 용례 수

이 사전에 수록된 표제어는 11,018개이다. 자모별 표제어 수효는 다음과 같다.

자모	표제어	자모	표제어
ㄱ	1975	ㅇ	1512
ㄴ	639	ㅈ	953
ㄷ	1302	ㅊ	186
ㄹ	37	ㅋ	82
ㅁ	913	ㅌ	95
ㅂ	1242	ㅍ	141
ㅅ	1461	ㅎ	480

2 구조

이 사전에서는 표제어마다 '표제어, (원어), [발음], 품사 표시, [활용형], [대응어] 뜻풀이, 용례, 지역, 해설 순으로 각각의 정보를 제시하였다.

예

강기 (←感氣) 명 [대응어] 감기.
주로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걸리는 호흡기 계통의 병. 보통 코가 막히고 열이 나며 머리가 아프다. ¶아주 오디기, 오디기 엔날부터, 이 강기 걸리먼 채오데기네 집 까라고, 거거 어더머그라고 그러거든. {모르죠? 아주 호덕이, 호덕이, 옛날부터, 이 감기에 걸리면 채호덕이네 집 가라고, 거기서 얻어먹으라고 그랬거든}. ¶팽소에도 늘 건강을 챙겨야지 어째 꺼뜻허면 {강기}에 걸려서 그 고생이냐.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군산, 부안, 순창, 진안.
해설 '감기'는 '感氣'의 한자어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만든 한자어로 보인다. 오래 전부터 쓰이었던 것으로 '감기(感氣)'의 한자음 '감긔'로 나타난다. 처음 나타나는 것은 18세기 말이다. 전북 방언에서는 '감기'에서 위치 동화가 적용된 '강기'가 '감기'보다 더 활발하

게 사용되고 있다.

▲가찹다 형 [활용형] 가차워/가차와 [대응어] 가깝다.

대상 간의 거리가 짧다. 또는 대상 간의 사이가 스스럼없이 친밀하다. 또는 성질이나 모양 따위가 비슷하다. ¶잔디에서 불이 댈구(자꾸) 타 들어오는데 그 개가 보닝게는, 주인은 깨울 용기두 없구, 그래서 불이가 이렇게 타오는 대로 그 또랑(도랑)이 {가찹던가} 물에가 빠져가지구서는 잔디밭에가 굴르구 또 빠져가지구서는 잔디밭에가 굴르구 그래가지구, 나중에 주인이 실컷 자구서 일어나 보니까 개가 팡져서(지쳐서) 그냥 죽었드리야.<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가차운} 질 나두고 므던다고 먼 질로만 펴질러 가능가 모르겄어야.

지역 군산,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익산, 장수, 정읍.

가리재이 명 [발음] [가리재~이] [대응어] 가랑이.

☞가르쟁이.

지역 전북.

3 표제어

■ 전라북도에서 쓰이는 어휘, 조사, 어미, 접사, 융합형, 구, 관용표현, 속담 등을 표제어로 수록하였다.

■ 표제어는 고유어가 주가 되지만, 전라북도 방언의 특징을 잘 보여 줄 만한 한자어와 극소수의 외래어도 실었다.

■ 동음이의어는 별도의 표제어로 설정하였다. 동음이의어를 구분하는 어깨번호는 달았다. 용언의 경우, 보조용언으로만 쓰이는 형태나 융합형들은 별도 표제어로 제시하였다.

■ 표제어 배열은 현행 "한글 맞춤법"에 규정된 자모 순서를 기준으로 삼았다. 현대 맞춤법에서 사용하지 않는 자모와 초성과 종성의 병서자는 자모 순서에 따라서 배열하고 중성의 'ㆍ'는 'ㅣ' 다음에 두었다.

·초성 : ㄱ ㄲ ㄴ ㄷ ㄸ ㄹ ㅁ ㅂ ㅃ ㅅ ㅆ ㅇ ㅈ ㅉ ㅊ ㅋ ㅌ ㅍ ㅎ

• 중성 : ㅏ ㅐ ㅑ ㅒ ㅓ ㅔ ㅕ ㅖ ㅗ ㅘ ㅙ ㅚ ㅛ ㅜ ㅝ ㅞ ㅟ ㅠ ㅡ ㅢ ㅣ

4 원어

■ 원어명, 원어 정보를 표시하였다. 혼종어에서 원어를 제시할 수 없는 부분이나 고유어 부분은 한글로 적었다.

■ 표제어의 형태와 원어가 많이 달라졌을 경우에는 '←'를 사용하였다.

5. 발음

■ 단어 표제어에는 필요시 발음을 제시하였다. 표제어 표기와 발음 표기가 같은 경우, 형태소, 구, 관용표현, 속담 등의 표제어에는 발음을 제시하지 않았다.

■ 복수의 발음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능한 모든 발음을 빗금(/)으로 나누어 모두 제시하였다.

6 품사 표시

■ 사전에서는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로 나누어 품사를 표시하되, 의존 명사, 보조 동사, 보조 형용사에 대해서도 별도의 품사 표시를 하였다. 품사 표시에 사용된 약호는 다음과 같다.

- 명 명사 대 대명사 수 수사 동 동사 형 형용사 관 관형사 부 부사 감 감탄사
- 이외에도 의명 의존명사, 보동 보조동사, 보형 보조형용사, 【종결어미】, 【연결어미】, 【선어말어미】, 【접두사】, 【접미사】, 【어미】, 【관용표현】, 【속담】, 【융합형】, 【축약형】 표시도 사용하였다.

■ 품사 통용을 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다음과 같이 ‘ / ’ 기호를 사용하였다.

7 대응어

■ 표제어의 의미와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어 대응어를 제시하였다. 대응어를 하나의 단어로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 구로 제시하였다.

8 뜻풀이

■ 뜻풀이는 표제어와 대응어의 의미가 거의 일치된다고 생각될 때에는 대응어의 뜻풀이를 제시하였다. 표제어와 대응어의 의미가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용례에 맞게 대응어의 뜻풀이를 수정하였다. 대응어가 없을 경우에는 실제 쓰임과 용례에 맞는 뜻풀이를 제시하였다. 이때 『표준국어대사전』(1998, 국립국어원)과 『우리말샘』(https://opendict.korean.go.kr/)의 뜻풀이를 기본적으로 참고하였다.

■ 한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갖는 다의어(多義語)의 경우 다의에 해당하는 뜻풀이를 통합하여 하거나 각각의 뜻을 병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 표제어의 형태가 거의 비슷하여 대표 표제어의 다른 형태(하위 방언)로 묶일 수 있는 표제어들에 대해서는 따로 뜻풀이를 제시하지 않고 ‘☞’ 다음에 참고할 수 있는 표제어(대표 표제어)를 제시하였다.

9 용례

■ 용례는 뜻풀이 다음에 제시하되, 용례가 시작되는 본문 앞에 '¶'를 사용하였다.

■ 용례는 실제 쓰이고 있는 예문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실제 조사 자료를 제시하거나 방언이 수록된 문학 작품, 구비문학자료, 한국구비문학대계, 민중자서전, 판소리사설, 한국구비전설화, 지역에서 발간된 국어사 자료 중 방언이 포함된 자료에서 발췌하였다.

■ 표제어에 대한 용례는 필요한 경우 예구와 작성례도 활용하였다. 작성례는 전북 방언 화자가 직접 작성한 것이다.

■ '☞' 다음에 참고할 수 있는 표제어를 제시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나 그 표제어에 대한 용례가 풍부한 경우에만 제시하였다.

■ 지역어 조사 자료에서 인용한 용례들은 지역어 조사의 표기법을 따랐다. 필요한 경우 표준어 번역을 제시하였다.

■ 용례에서 해당 표제어가 포함된 어절은 어절 전체를 { }로 표시하여 눈에 쉽게 띄도록 하였다.

■ 용례의 출전은 기본적인 서지 사항만을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예 문학작품

- 작품: <저자, 작품 제목>
- 책: <저자, 책명>

예 연구논문: <저자(연도)>

예 구비문학대계: <구비문학대계 정읍편>

예 지역어조사: <지역어조사 남원>

■ 한국방언자료집 등 어휘 자료집에서 조사된 전북 방언의 경우, 더 이상의 쓰임을 찾기 어렵거나 용례를 찾기 어려울 경우 용례를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10 지역

■ 해당 표제어가 사용되는 지역을 지역 표시 다음에 제시하였다. 전라북도 전 지역에서 사용된다고 판단되는 방언의 경우 [전북]으로 제시하였다.

■ 해당 표제어의 사용 지역 전체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한국방언자료집 등에서 조사된 지역만을 제시하였다.

12 해설

■ 필요 시 표제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표기, 음운, 형태, 통사, 의미 등 표제어와 관련된 특기 사항을 '해설' 표시 다음에 자유롭게 기술하였다.



가 대 [대응어] 그 아이.
'그 아이'를 가리키는 삼인칭 대명사. ¶다리 밑에 가니께 거라지(거지) 떼들이 그 아동들이 웅크리고 있고. 만날 가서 그 돈을 타다가 {가들}(그 애들) 주었어.<구비문학 남원>
지역 전북.

가게바늘 명 [대응어] 코바늘.
한쪽 또는 양쪽 끝이 갈고리처럼 되어 있어 실을 걸 수 있도록 만든 뜨개바늘. ¶{가게바늘로} 꼬매. 쇠로 된 놈 있잖여. 끄트리 휘어지고.
지역 전북.

가까다 형 [대응어] 가깝다.
대상 간의 거리가 짧다. 또는 대상 간의 사이가 스스럼없이 친밀하다. 또는 성질이나 모양 따위가 비슷하다. ¶방개소리를 잘도나 허어 허어 허요/에헤야 아하 에헤으 에에 아헤 허엉저 로오다아 방개소리를 먼 데 사람 듣기 좋고 {가깐} 사람 보기 좋게/에헤야 아하 에헤으 에에 아헤 허엉저 로오다아<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완주.

가꼬다 동 [대응어] 가꾸다.
식물 따위를 더 좋은 상태로 만들려고 보살피다. ¶이런디넌 밭 가상에도 읻꼬, 가운데도 읻꼬, 머거 땅나무라고 인써. 게 그걸 {가꽈}, 가꾸면 인자 가시리 가서 이노멀 베요.(이런데는 밭 가에도 있고, 가운데도 있고, 뭐 그 닥나무라고 있어 닥나무 닥나무. 그 그것을 가꿔, 가꾸면 이제 가을에 가서 이놈을 베어요.)<지역어 자료 총서, 무주>
지역 고창, 남원, 무주, 순창, 임실, 장수.

가꼼사리 명 [대응어] 소꿉질.
아이들이 장난감 그릇 따위를 가지고 살림살이 흉내를 내며 노는 짓. ¶아이들이 {가꼼살이를} 하고 잘도 논다.
지역 정읍.

가난배기 (家難배기) 명 [대응어] 가난뱅이.
가난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그리 안해도 그 집이 {가난배기} 사우가 맘에 안 들어서 죽을라 하더만. 긍게 거그서 그집 사우얘기는 하지도 말어. ¶살아 볼라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디도 이런 {가난배기} 신세를 못 면허고 있으니 내 무신 팔자가 시어서 그런지 모르겄다. ¶미란이는 {가난배기} 집안이라 항상 옷을 허름하게 입고 다닌다.
지역 전북.

가난쟁이 (家難쟁이) 명 [대응어] 가난뱅이.
☞가난배기. ¶응, 그집? 그려! 저그 애비는 똥구

녁이 찢어지게 {가난쟁이였는디} 어릴 때 서울로 도망갔던 세째아들놈이 잘 돼 갖고 지그믄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고 하드라고.

지역 고창, 김제, 부안.

가난허다 (家難허다) 형 [대응어] 가난하다.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하다. ¶옛날 옛적에 말이지요. 하도 {가난허게} 살았는디 어떤 사람이, 이 동네 사람인가? 니우제(이웃의) 삥아리(병아리)가 하나 왔네.<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하늘의 복을 빌리다 사람이, 참 농촌에 있는 사람인데 부지런한 사람이여. 한 사람이 살았는데. 부지런한 사람인디 가세가 {가난허니까} 땔나무를 허는디, 다른 사람은 하루에 두 짐을 하면은 이 사람은 석 짐, 넉 짐을 헌단 말이여.<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그런데 그 웃 집에서는 항상 가난해두 남편이 멍청해서 그런 것두 못허구 만날(항상) 가난해서 빠지잖어, 못살아서 그냥 {가난허니까는},<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진안, 정읍.

가남 명 [대응어] 가늠.

일이 되어 가는 모양이나 형편을 살핌, 또는 그것을 살펴서 얻은 짐작. ¶제보자는 또 '이야기가 서로 나올라고 허니 {가남을} 못하겠다.'며 농담으로 응했다.<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일이 잘 되는지, 사람은 잘 있는지, 언제나 올지 도무지 통 {가남을} 할 수가 없었어.<구비문학대계 정읍군>

지역 부안, 정읍.

해설 '가남'은 '가놈', '가늠'의 두 형태로 19세기 문헌에 처음 나타난다. '가남'은 /ㆍ/가 소실되기 전의 '가놈'이라는 형태에서 변화한 것이다. 19세기 문헌의 '가늠 보다'는 "저울로 물건의 무게를 달 때에 저울이 바른지를 살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 의미가 확대되어 "일이 되어 가는 형편이나 모양을 헤아려 보다"는 의미가 된 것으로 보인다.

가남생이 명 [대응어] 가늠.

일이 되어 가는 모양이나 형편을 살피는 행위나 그로부터 얻은 짐작을 낮잡아 이르는 말. ¶아따, {가남생이} 없는 짓거리랑게. ¶하여튼간에 {가남생이가} 있는 놈인가? ¶죽어도 안 될 거인디~ {가남생이가} 독났구만.

지역 전북.

가남하다 동 [대응어] 가늠하다.

어떤 일을 웬만한 정도로 해내다. 또는 그 방법을 알다. ¶그것이 인자, 버꾸(악기 이름) 치고 풍장할 때 우리도 시방 대강 쳤었는데, 인자 하도 들어봐 쌓아서 지금도 떨려서 하는디, {가남하지}, 그냥 그것도 다 못내여.<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부안.

가녈가녈하다 형 [대응어] 가늘가늘하다.

몸매가 꽤 가느다랗거나 좁다. ¶그 {가녈가녈한} 몸에다가 꽃 만지는 솜씨 좀 봐라. 영락없지. 귀신이 감겨들게 생기잖었냐.<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가누다 동 [대응어] 겨누다.

☞고누다.

지역 전북.

가눌다 형 [대응어] 가늘다.

물체나 목소리 따위의 굵기가 보통에 미치지 못하다. ¶허리가 그렇게 {가눌어} 빠져가지고 어떻게 일을 한디야. ¶노래를 헌다고 허는디 목소리가 얼매나 {가눈가} 하나도 못 들었어. 그래서 잘 허는가 못허는가 잘 모르겄어.

지역 전북.

가느두름허다 형 [대응어] 가느스름하다.

조금 가늘게 느껴지다. ¶소금장사는 몽동이를 단단한 {가느두름헌} 놈에다 요지를 대다가 쇠를 송곳을 박아<구비문학대계 전북 고창군편>

지역 전북.

가느소롬하다 형 [대응어] 가느스름하다.

☞갠소롬하다. ¶임서방은 눈을 {가느소롬하게} 뜨고 어둠 속을 지그시 노려보았다.<최명희, 혼불> ¶그럼 그 사람 눈은? 영감 그렇지. 눈두 {가느소롬헌} 게 이뿌긴 이뿌지.<채만식, 예수나 안믿었더면>

지역 전북.

가는체 명 [대응어] 고운체.

올이 가늘고 구멍이 잔 체. ¶겨란을 부드럽게 맹글려면 {가는체에다가} 알끈을 걸러야 혀. ¶밀가루에 생긴 바구미를 {가는체에} 걸렀어.

지역 완주.

해설 형용사의 어간 '가늘-'에 어미 '-ㄴ'이 결합되어 '체'를 수식하던 구성이 한 단어로 굳어진 말이다.

가늘가늘 부

물체가 흔들거리거나 비 따위가 내리는 정도가 아주 약하게. ¶가랑비로 사운사운 날리거나 이슬비로 {가늘가늘} 뿌리다가 느닷없이 천둥이 울리고 번개를 치며 폭우를 퍼부어 대기도 했다. <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해설 표준어에서 '가늘'은 어근으로서 형용사 '가늘다'의 일부로 쓰일 뿐 홀로 쓰이지는 못한다. 이런 어근이 전북 방언에서는 중첩되어 부사로 쓰이고 있다.

가늘가늘하다 형 [대응어] 가늘다.

물체의 굵기가 보통에 미치지 못하고 잘다. ¶지붕은, 절망의 빛깔 같은 기와를 이고 기와 틈 사이로 {가늘가늘한} 풀포기도 순하게 살려 내고 있던 그 지붕은, 남김없이 벗겨져 <양귀자, 숨은 꽃>

지역 전북.

가늘허다 형 [대응어] 가늘다.

물체나 목소리 따위의 굵기가 보통에 미치지 못하다. ¶무명실을 {가늘허게} 짤수록 옷감 조직이 탄탄해진 게 좋은 것이지. ¶애기가 많이 아픈가 보오. 숨소리가 아주 {가늘허게} 이어지는 것이.

지역 전북.

가늠배 명 [대응어] 가르마.

☞가름배.

지역 무주.

-가니[1] 【종결어미】 [대응어] -는데.

해할 자리에 쓰여, 어떤 사실을 따지듯이 묻는 의문형 종결 어미. ¶말해 봐, 내가 뭘 {했가니}? 내가 헌 걸 봤는가?

지역 전북.

-가니[2] 【연결어미】 [대응어] -관데, -기에.

이유, 근거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그새 {가가니} 짐 챙겨<이윤구(2001)> ¶무얼 {잘못했가니} 저렇게 쩔쩔매나? ¶그것이 {머시가니} 그릏게 먹어 쌌는가?

지역 전북.

가다구 명 [대응어] 가닥.

한군데서 갈려 나온 낱낱의 줄. ¶짚을 몇 {가다구} 손에 잡고 둘로 나눠 손바닥으로 부비어 가마니를 짜는 거야. ¶잘 알지도 못험서 그 {가다구}도 없는 소리 허지 말어.

지역 전북.

가다리 명 [대응어] 써레질.

논 바닥을 고르거나 흙덩이를 잘게 부수는 일. ¶논 갈고 쓰리(써레)허는 거. {가다리}. {가다리}라고 허.

지역 전북.

가다리하다 동

논을 갈고 고르다. ¶모 심을라먼 {가다리히야지}. {가다리할라믄} 심들어.

지역 전북.

가닥지 명 [대응어] 가닥김치.

칼을 사용하여 가로로 썰지 않고 손을 이용하여 세로로 찢어 먹거나 머리만 잘라서 가닥으로 먹는 김치. ¶밥얼 물 말아갖고 손으로 {가닥지를} 올림서 먹어야 맛있당게. ¶짐치찜은 짐치를 칼로 댕강댕강 써는 것보담 손으로 쭉쭉 찢은 {가닥지로} 혀야 더 맛난 법이여. ¶김장김치는 {가닥지로} 찢어 먹어야 제 맛이 난다. ¶무수지는 {가닥지}로 밥 우에 둘둘 말어서 먹어야 제맛이지.

지역 전북.

해설 '가닥'이라는 명사에 김치를 뜻하는 전북 방언 '지'가 결합된 합성어이다. '김치'를 전북에서는 '짐치'로 쓰기 때문에 '가닥짐치'라고도 한다.

가닥짐치 명 [대응어] 가닥김치.

☞가닥지.

지역 전북.

가닥치매 명

넓게 펴져 있어 옆으로 빙 둘러 여며 입는 치마. ¶가락치매가 {가닥치매여}.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입잖여.

지역 고창.

가당구 (可當구) 명

사물의 이치. ¶당신 아들 여우시오. 그런게, 우리 같은 집에다 누가 딸을 준다요? {가당구도} 안 닿는 말을 헌다고.

지역 전북.

해설 의미상으로는 표준어의 '턱'에 해당되는 말이다. 그러나 표준어의 '턱'이 의존 명사임에 비해 자립 명사로 쓰인다.

가도다 동 [대응어] 가두다.

일정한 범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다. ¶이놈을 당장으 불러 가지고 옥에다 {가돠} 버렸단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아이 그렁게 원뜸에 새서방은 사랑으다 {가돠} 놔도 소용없고 인자는 전주로 아조 도망을 가부렀다 그거이제?"<최명희, 혼불>

지역 순창, 임실, 정읍.

가둥끄리다 동 [대응어] 가든그리다.

가든하게 거두어 싸다. ¶가방을 잘 {가둥끄려} 놨냐? ¶많아 보이드만 잘 {가둥끄린게} 많지는 않구만.

지역 전북.

가둬지다 동 [대응어] 갇히다.

갖히게 되다. ¶옥중에 {가둬져서} 딱 죽게 생겼어.

지역 전북.

-가디 【종결어미】 [대응어] -는데.

해할 자리에 쓰여, 어떤 사실을 따지듯이 묻는 의문형 종결 어미. ¶시집살이 {허가디}? ¶그리 갖고는 화제도 잊어 버리고 그 의원 양반 소식도 끊어졌네. 그런 명의 처음 봤네. 그러고 {그것뿐이가디}.<임실 "설장구잽이" 신기남의 한평생, 뿌리깊은 나무> ¶지금이사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가디}? 벼슬 좀 헌다 치먼 돈 벌고 권

세 부리느라고 눈이 벌건허지.<임실 “설장구잽이” 신기남의 한평생, 뿌리깊은 나무> ¶옛날이사 용을 아무나 {새겼가디}?<뿌리깊은 나무> ¶쌍 가래가 나오믄 애기패가 먹는디. 근디 쌍 가래가 빠지게 물주가 히 {놓가디}?<뿌리깊은 나무> ¶돈 잃고 애통히 봤자 {소용있가디}?<뿌리깊은 나무> ¶목포 갈라먼 어뜨케 {갈라가디}? ¶차 타고 가지 {걸어가가디}? ¶머 {하가디}? ¶그꼬시 {이뿌가디}? ¶그거시 {머시가디}? ¶내가 {이뿌가디}?

지역 전북.

지역 전북.

가라치다 동 [대응어] 가르치다.

☞가리치다

지역 완주, 익산.

가라투 명 [대응어] 가래톳.

☞가래투. ¶{가라투가} 스먼<2009 전북 임실>

지역 임실.

가락 명 [대응어] 벼훑이.

두 개의 나뭇가지나 수숫대 또는 댓가지의 한끝을 동여매어 집게처럼 만들고 그 틈에 벼 이삭을 넣고 벼의 알을 훑는 농기구. ¶{가락으로} 벼 이삭을 훑는다. ¶옛날이는 {가락으로} 타작을 했은게 많이 힘들었제.

지역 고창, 무주, 부안, 완주, 익산, 장수, 진안.

가락골 명 [대응어] 가락고리.

물레의 왼쪽에 있는 괴머리의 두 기둥에 가락을 걸기 위하여 고리처럼 만들어 박은 물건. ¶고창 물레질 소리-{가락골} 소리

지역 고창.

가락지 명

주로 여자가 장식으로 손가락에 끼는 두 짝의 고리. ¶아이그 이 사람아 내가 {가락지} 한 짝 빼줄 것이니 한 번 더 히보소.<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울 할머니는 항상 손가락에 {은가락지를} 끼고 계셨다[전주]. ¶옛사람들은 흙을 보고 그릇을 굽고, 나무를 보고는 가구를 짜고, 금을 보고 {가락지를} 만들었으니, 실이 생기고는 그 실을 가만 두었겠느냐?<최명희, 혼불> ¶네번치손꼬락에 {가락지}를 낀 걸 봉게 겔혼은 헀는 게비네.

지역 고창, 남원, 무주, 완주, 정읍.

가락치매 명

넓게 펴져 있어 옆으로 빙 둘러 여며 입는 치마. ¶{가락치매}가 가닥치매여.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입잖여.

지역 고창.

가락홀태 명 [발음] [가라골태/가라콜태]

쇠로 된 포크 모양의 벼훑이. 벼를 그 사이에 넣고 손으로 잡아 당겨 낟알이 떨어지도록 한다. ¶{가락홀태}. 홀태로 훑으는 것은 {가락홀태}. ¶말뚝 이렇게 니 개 박어 갖고 양쪽 박고 니 개 박고 줄 치고, 가운데 판자 놓고 볾는 것이 {가락홀태여}. ¶우리도 있어. 시방도 있어, 그것이 {가락홀태여}. 나무로 맨들아서 꿔어서. 그것이 {가락홀태여}. 홀태. ¶그거는 홀태고, {가락홀태고}.

지역 고창.

가람나무 명 [대응어] 떡갈나무.

¶뒷산에 가면 {가람나무가} 많이 있지.

지역 부안.

가랍다 형 [활용형] 가라워/가라와 [대응어] 가렵다.

피부에 긁고 싶은 느낌이 있다. ¶모구 물린 디가 {가랍다}. ¶등이 많이 {가랍다}.

지역 고창, 김제, 부안, 정읍, 장수.

가래또리 명 [대응어] 가래톳.
¶{가래또리를} 만져보아따(가래톳을 만져 보았다.)<2007 전북 군산>
지역 군산.

가래똘 명 [대응어] 가래톳.
¶오래 걸어서 {가래똘이} 섰다. ¶{가래똘을} 칼로 찢어서 고름을 빼냈어.
지역 전북.

가래매 명 [대응어] 가르마.
☞가리매.
지역 전북.

가래이 명 [대응어] 가랑이.
☞가랭이.
지역 전북.

가래투 명 [대응어] 가래톳.
넙다리 윗부분의 림프샘이 부어 생긴 멍울. ¶무릅을 다친게 {가래투가} 생기 버렸구만.
지역 임실, 남원.

가래툿 명 [대응어] 가래톳.
☞가래투.
지역 무주.

가래흰떡 명 [대응어] 가래떡.
가는 원통형으로 길게 뽑은 흰떡 ¶{가래흰떡얼} 잘 펴서 꼬득꼬득허게 말린 담에 이쁘게 얍실하게 썰으먼은 그것이 떡국떡이지.
지역 남원.

가랭이 명 [대응어] 가랑이.
원래의 몸에서 끝이 갈라져 나란히 벌어진 부분. ¶아 정지를 나와서 본게 가래중우 입은 놈이라 오죽 잘 나왔을 것여. 벌렁헌디 {가랭이를} 할딱 벌리고 오장짐을 진다고 졌는가빈디<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사과값을 쌀로 갖고 온다는 바람에 바지를 벗어서 양쪽 {가랭이를} 잡아 매가지고 자루마냥 벌리고 섰어. 사과짐을 받쳐놓고, 쌀을 퍼갖고 와서 보닌게, 이놈의 선비가 께를 홀딱 벗고 섰네.<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남원, 무주, 완주, 정읍, 군산.

가랭이가 찢어지다 【관용표현】
분수에 맞지 않는 일을 하여 탈이 나다. 또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도 극심한 상태를 이르는 말. ¶오막살이에 {가랭이가 찢어지게} 가난한 집인데<채만식, 태평천하>
지역 전북.

가루나무 명 [대응어] 가루나무, 솔가리.
갈퀴로 긁어모은 땔나무. ¶옛날에는 겨울만 되면 {가루나무를} 긁으러 댕겼어.
지역 임실.

가루마 명 [대응어] 가르마.
☞가루매.
지역 전북.

가루매 명 [대응어] 가르마.
이마에서 정수리까지 머리카락을 양쪽으로 갈랐을 때 생기는 금. ¶옛날이는 양갈래 머리를 많이 덜 하구 다녔다구. 그러먼은 양갈래 가운데 {가루매가} 빤뜻허니 보기 좋았지.
지역 익산, 진안.

가룹다 형 [활용형] 가뤄/가롸 [대응어] 가렵다.
☞가랍다.
지역 전북.

ㄱ

가르매 명 [대응어] 가르마.

이마에서 정수리까지 머리카락을 양쪽으로 갈랐을 때 생기는 금. ¶여학생덜언 양쪽이로 {가르매럴} 이쁘게 타서 쨈매고 다니고 그랬지. ¶옛날 어머니들은 항상 머리를 {가르매} 타고 얌전히 다니셨다.

지역 전북.

가르쟁이 명 [대응어] 가랑이.

원래의 몸에서 끝이 갈라져 나란히 벌어진 부분. ¶{가르쟁이} 찌저진다고(가랑이 찢어진다고)<전북지역어_완주>

지역 완주, 임실, 고창.

가름배 명 [대응어] 가르마.

이마에서 정수리까지 머리카락을 양쪽으로 갈랐을 때 생기는 금. ¶옛날 여자들은 쪽찐 머리라구 그래 가지구, 이마부텀 {가름배를} 타서는 잘 빗어 가지구 뒤로 넘겨서는 한 가닥으로 땋아서 둘둘 말아서 비녀로 고정을 시키지.

지역 무주.

가리 명 [대응어] 가루.

딱딱한 물건을 보드라울 정도로 잘게 부수거나 갈아서 만든 것. ¶한 대 맞았으면 {가리도} 안 남았을 것이여.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순창, 완주, 임실, 정읍.

해설 '가리'는 '가루'의 음운론적 이형태로, '가루'가 경음화된 '까루'와 제2 음절 모음이 탈락한 '갈' 등도 함께 쓰인다.

가리내다 동 [대응어] 가려내다.

여럿 가운데에서 분간하여 골라내다. ¶고 양반 입이 여간 까탈시런 게 아녀, 어느 날은 콩밥을 쳤더니만은, 콩을 죄 {가리내고} 쌀밥만 입에 처넣고 있는 거여. ¶진품명품에 나가면 진짜인지 {가리내}.

지역 무주.

가리니다 동 [대응어] 가려내다.

☞가리내다.

지역 무주.

가리때 명 [대응어] 가래톳.

허벅다리와 불두덩 사이의 림프샘이 부어 생긴 멍울. ¶{가리때가} 사타구니를 콕콕 찌르는 것 같어.

지역 고창.

가리때중 명

몸집이 장대하고 힘도 세고 폭력을 잘 쓰는 중. ¶양군(兩郡)이 편을 갈라서 씨름판을 벌이고 양군((兩郡)의 힘내기를 하고 있었다. 창평(昌平) 쪽에서는 {가릿대중을} 청해다가 씨름을 시켰다. <구비문학대계 임실군편> ¶원래 {가릿대중이란} 중은 심은 장사고 성질도 우락부락한 중이다.<구비문학대계 임실군편> ¶김덕령(金德齡)이 씨름판에 나가서 {가릿대중하고} 씨름을 허는데 그 중을 높이 들어올려가지고 씨름판 땅바닥에 콱 박어버렸어.<구비문학대계 임실군편>

지역 임실.

가리마 명 [대응어] 가르마.

이마에서 정수리까지 머리카락을 양쪽으로 갈랐을 때 생기는 금. ¶방안은 어느덧 희끄무레하건만 거울은 컴컴하다. 경대 서랍에서 빗치개를 꺼내 {가리마를} 타 보려고 하였으나, 손이 떨릴 뿐 얼굴도 보이지 않는데 <최명희, 혼불> ¶경옥이는 경대 앞에 앉아 머리를 빗고 있었다. 반듯하게 {가리마를} 탄 다음 고개를 쳐들어 머리채를 뒤로 넘겼다. 다시 머리채를 <송기숙, 녹두장군>

지역 전북.

가리매 명 [대응어] 가르마.

이마에서 정수리까지 머리카락을 양쪽으로 갈랐을 때 생기는 금. ¶양쪽이로 머리를 나눠 가지구, {가리매를} 탄다 그러지. 그렇게 하고 한 쪽씩 땋는 거여. ¶낭자를 한 할머니의 {가리매는} 언제나 단아하게 보였다. ¶머슴아가 {가리매}를 왼쪽으로 타면 어쩌고 오른쪽으로 타면 어쩐다냐 그 얼굴이 그 얼굴이지. ¶할머니는 머리를 묶을 때마다 {가리매를} 잘 타셨다. ¶옛날 어머니와 할머니들은 머리에 {가리매를} 타로 다니셨다.

지역 전북.

가리미 명 [대응어] 가르마.

☞가리매.

지역 전북.

가리비누 명 [대응어] 가루비누.

가루 상태로 만든 비누. ¶집에 {가리비누가} 똑 떨어졌네 그려. ¶빨래물에 {가리비누}를 풀고 빨래를 담갔다가 빨면 깨끗이 빨 수 있단다.

지역 고창, 남원, 무주, 부안, 정읍.

가리생이 명 [대응어] 가리사니.

사물을 판단할 만한 지각(知覺)이나 사물을 분간하여 판단할 수 있는 실마리. ¶{가리생이가} 있어야 뭔 일을 맡기지. ¶{가리생이를} 어따 팔아먹었나 일을 분간을 못 해?

지역 전북.

가리재이 명 [발음] {가리재~이} [대응어] 가랑이.

☞가르쟁이.

지역 전북.

가리치다 동 [대응어] 가르치다.

난가리의 형태가 되도록 묶다. ¶그런개 이것을 귀엽게 키웠어 그냥. {가리치들} 못허고 평생 키워가지고 오냐 오냐 허다가 남편이 그냥 죽었어.<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아 그 나도 지금 문장 말을 듣고 있는디 아 그 나이는 젊으시지마는 참 문장이시다고. 내가 모리는 자를 그 띠어주는 것 보닌게 참 문장이시라고. 그러니 내 손녀 딸을 좀 {가리쳐} 주시라.<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남원, 군산, 익산, 정읍.

가림질 명

간지럽게 하는 행위. ¶{가림질을} 친게로 전덜 수가 있어야제.

지역 고창.

가림질치다 동 [대응어] 간지럽히다, 간질이다.

살갗을 문지르거나 건드려 간지럽게 하다. ¶{가림질치면} 너 한 번도 안 웃고 전딜 수 있어? ¶{가림질치지} 마라.

지역 고창.

가마솟 명 [대응어] 가마솥, 가마(釜).

아주 크고 우묵한 솥. ¶전기밥통이 다 뭐시여. 우덜 어릴 때넌 아궁이에다가 큰 {가마솟을} 놓고 밥 지였지.

지역 고창, 남원, 임실, 정읍, 군산, 김제.

가마이[2] 부 [대응어] 가만히.

움직이지 않거나 아무 말 없이. ¶궁금도 헐 법헌디 암껏도 안 물어보고 그냥 {가마이} 있드라고. ¶그 양반이 헌 애기를 {가마이} 들어봉게 그긋도 맞는 말 같으드라고.

지역 전북.

가마이 명 [대응어] 가마니.

곡식이나 소금 따위를 담기 위해 짚으로 쳐서 만든 주머니 같은 용기. ¶지번 인자 소 메기고, 덕썽 맨들고, {가마이} 짜고 거걷 빼끼요.(짚은

이제 소 먹이고, 멍석 만들고, 가마니 짜고 그것 밖에 없어요.)<2009지역어자료조사보고서, 임실> ¶근디 나는 그런걸 안히써. 언제 내가 {가마이} 짜고 언제 미씽 해서 돈버를 시간도 엽꼬. 으른덜 뒤빠라지 허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항상 그 불만이어써써.(그런데 나는 그런 걸 안 했어. 언제 내가 가마니 짜고 언제 미싱해서 돈 벌 시간도 없고. 어른들 뒷바라지 하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항상 그 불만이셨어.)<2007지역어자료조사보고서, 군산>
지역 완주, 군산, 임실, 무주, 고창.

가마이틀 명 [발음] {가마~이틀} [대응어] 가마니틀.
가마니를 짜는 데 쓰는 재래식 기구. ¶하지만 눈썰미를 워낙 잘 타고난 충서는 금세 일에 문리가 트여 {가마니틀} 한쪽에 다소곳이 붙어 서서 어머니를 요령껏 도왔다. 씨줄에 해당하는 지푸라기를 잣대라 불리는 기다란 대바늘 끝에 건 다음<윤흥길, 소라단 가는 길> ¶손으로 꼬아서 짜던 가마니를 {가마니틀이} 나오자 일손이 편해졌다.
지역 전북.

가만이 부 [대응어] 살짝.
심하지 아니하게 조금. ¶새참 가져다 준다고 또 그릇 {가만이} 놓아두어.<2009 전북 임실>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진안.

가매 명 [대응어] 가마(轎).
사람을 태우고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조그마한 집 모양의 탈것. ¶그리고 옛날이는 시방같지 않해서 말 타고 {가매} 타고 장가가서 삼일만이는 신행을 오거든.<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예전엔 상여 나갈 때 {가매를} 많이 봤는데 요즘은 사라졌다. ¶가서 본게 {가매}에서 나오는디, 어떻게 키가 쪽은가 {가매} 문을 고개도 안수그리고 그냥 나오드랴 꼬부리도 않고.<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이르는 말 안듣고 고집만 부리더만 인자 {가매} 타고 시집가기는 벌써 글렀다 이년아.
지역 군산,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가매니 명 [대응어] 가마니.
☞가마이. ¶지녁마다 작은방으서는 엄니허고 할무니허고 {가매니를} 짜든 시절.
지역 고창.

가매바가치 명 [대응어] 쇠죽바가지.
쇠죽을 푸는 데 쓰는 바가지. ¶{가매바가치로} 소죽을 퍼붓는디….
지역 임실, 장수.

가매박적 명 [대응어] 쇠죽바가지.
쇠죽을 푸는 데 쓰는 바가지. ¶{가매박적이} 깨지며는 뭘로 소죽을 푼당가?
지역 순창.

가매솟 명 [대응어] 가마솥, 가마(釜).
아주 크고 우묵한 솥. ¶딸을 여우고 나서 인제 사우가 집에 오잖여. 그러먼은 장모가 인제 토종닭을 잡어다가 {가매솟}에 아주 푹푹 끓여서 내준다구.
지역 고창, 남원, 순창, 장수, 무주, 부안, 완주, 익산, 진안.

가매솥 명 [대응어] 가마솥, 가마(釜).
☞가매솟. ¶그냥 시어머니는 문고리 놓고 턱 떨어져 버리고, 시아버지는 {가매솥을} 짊어지고 닷새만에 들어왔던가, 엿새만에 들왔던가, 꼬역꼬역 들어와.<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도영이 아저씨는 소먹이를 {가매솥에} 끓여서 먹이곤 했다.

지역 고창, 남원, 순창, 장수, 무주, 부안, 완주, 익산, 진안.

가맹이 명 [대응어] 가마니.
☞가마이. ¶글고, 써그다 노아 둔 {가맹이허고} 새내키 봐겼소~?
지역 고창.

가무와 감실이 부 [대응어] 감실감실.
사람이나 물체, 빛 따위가 먼 곳에서 자꾸 아렴풋이 움직이는 모양. ¶좋일레라 좋을레라/꿩이란 놈 신세는 좋을레라/초록수건 목에 걸고/비단 대단은 꽁지에 달고/단풍에 든 콩밭에로/{가무와 감실이} 날아든다(고창 꿩타령)<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고창.

가무지다 동 [대응어] 삐다(팔이).
몸의 어느 부분이 접질리거나 비틀려서 뼈마디가 어긋나다. ¶발목이 {가무져서} 병원에 갔다
지역 전북.

가물엄 명 [대응어] 가뭄.
☞가물움.
지역 전북.

가물움 명 [대응어] 가뭄.
오래도록 비가 오지 않아 메마른 날씨. ¶올가을은 {가물움} 심하다. ¶자네가 그렇게 부지런히 일을 혔는디도 농사가 이모냥 인건 다 {가물움} 탓잉게 너무 속 끓이지 말어. ¶요즈음 너무나 {가물움이} 심하여 밭곡식이 다 타고 있다오.
지역 전북.

가믐 명 [대응어] 가뭄.
오래도록 비가 오지 않아 메마른 날씨. ¶멫 년 전에 비가 그렇게 안 와 가지구, 응, {가믐이} 심혔어. 그래 가지구 그 해 농사는 인제 다 말아먹었지. ¶{가믐이} 심할 땐 마을 인심도 흉했지. ¶작년 {가믐}에 웃뜸 저수지가 바싹 말렀는디도 물괴기가 멫 마리씩 나오더랑게.
지역 전북.

가법다 형 [대응어] 가볍다.
무게가 일반적이거나 기준이 되는 대상의 것보다 적다. ¶가방이 비서 {가버우니까} 내가 들고 가도 돼야.
지역 전북.
해설 '가법다'는 '가볍다'의 제2 음절 모음에서 반모음 /j/가 탈락한 결과이다.

가붑다 형 [대응어] 가볍다.
☞가법다.
지역 무주, 완주.

가살 명
말씨나 행동이 가량맞고 야살스러움. 또는 그런 짓. ¶{가살일레} {가살일레}/시누 남편 {가살일레}/ 요내 문전 {지내감성}/부채초민 하고 가리(임실 밭매는 소리)<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임실.

가상 명 [대응어] 가(邊).
경계에 가까운 바깥쪽 부분. 또는 어떤 중심이 되는 곳에서 가까운 부분이나 주변부를 이르는 말. ¶근께 그 물을 건너와야 하것는데 그 물을 못 건너오고, 또랑 {가상}에가 앉았은개 비암이 떠내려 가드래.<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아, 그놈이 풀떡 뛰도만 그 저 갱변 {가상으} 와서 떨어지드라네. 그 개란 놈이 가서 꽉 물었어. 물은게<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남원, 완주, 임실, 군산.

ㄱ

가상다리 [명] [대응어] 가장자리.

둘레나 끝에 해당되는 부분. ¶꼴도 뵈기 싫은게 방 저짝 {가상다리에} 가 있어. ¶근디 그놈을, 밧을 써먹은게 요리 {가상다리가} 있는 놈이 성해서 모시밭이라.

지역 전북.

가상이 [명] [대응어] 가(邊).

☞가상. ¶응. 그래서 거기다가 동자부처(童子佛)를 맹글어서 세웠단 말이여. {가상이에다}. 세워 놓고서 파니께 합창이 안돼.<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전북.

가새 [명] [대응어] 가위.

옷감, 종이, 머리털 따위를 자르는 기구. ¶{가새로}. 가위로 인제 배렐 짜르죠.<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엿장시 맘대로 {가새} 치는 대로 지름병도 받고, 보루바꾸 상지도 받고요. ¶그렁게, 엿장시 {가새} 맘대로 시 번 치등가, 니 번 치등가. ¶숫돌에 칼은 아무나 갈지만 {가새} 가는 일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해. ¶{가새로} 종이를 자르면 좋제.

지역 전북.

해설 '가새'는 15세기의 'ᄀᆞᇫ애'로 소급된다. 'ᄀᆞᇫ애'는 16~17세기에 'ᄀᆞᅀᅢ>ᄀᆞ애'로 변하였다가 19세기 이후 오늘날의 '가위' 형태로 쓰이기 시작하였다. /ㅿ/은 중앙 방언에서 16세기에 음가를 소실하였는데, 'ᄆᆞᅀᆞᆯ>모실(村)', 'ᄀᆞᅀᆞᆯ>가실(秋)' 등과 같이 전라 방언과 경상 방언 등에서는 '/ㅿ/>/ㅅ/'의 변화로 이어진 것이 많다. '가새'도 그런 예들 중 하나이다.

가새기 [명] [대응어] 가위.

옷감, 종이, 머리털 따위를 자르는 기구. ¶{가새기로} 천을 짤라 옷을 만드는디.

지역 전북.

가새다리 [명] [대응어] 가위다리.

가위에서 손으로 잡는 부분. ¶쪼만헌 가새로 그 뚜꺼 것을 짜를라니까 {가새다리가} 버티덜 못허지.

지역 전북.

가생이 [명] [대응어] 가장자리.

둘레나 끝에 해당되는 부분. ¶"이놈은 우리 어머니 주고." 또 던진게. "이놈은 아버지 주고." 지 아버지, 지그 어머니는 제일 {가생이} 주드래. 그놈은 홀라당 망해 버렸대. 복을 막 거두어 갖고.<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울도 못 허게 허고 인자 어떻게 히 가지고는 새복으는 이 놈을 걸레로 싸다가 저 동네 동구 앞에 자기 집에 가는 질 가상, 그 다리 {가생이먼} 뭐 다리 가상으다가 인제 말허자먼 가만히 놔뒀단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그런 옹구네 하는 양을 어이없다는 듯 바라보던 평순네가 "아이고, 수천양반 첩으로 못 가서 한잉가? 입 {가생이} 거품끄장 물고는 헌다는 소리마동."<최명희, 혼불> ¶"아, 우리가 츰음 만나든 그 시절 말이여. 그날 밤에 널금저수지 물 {가생이서} 자기가 김부월이 날것으로 회쳐 먹을 욕심으로 만판 불량을 떨든 그 사건 그새 잊어뿌렀어?"<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가서 [조] [대응어] 에.

(체언 뒤에 붙어) 앞말이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서울가서} 우리 아덜이 살고 있는디. ¶{공주가서} 우리 시조의 선조양반이 공주가 계셔.<이태영(1988)>

지역 전북.

가석 [명] [대응어] 가(邊).

경계에 가까운 바깥쪽 부분. 또는 어떤 중심이 되는 곳에서 가까운 부분이나 주변부를 이르는 말. ¶이불을 방 귀퉁이 {가석이다} 발로 밀처 놓구선 문을 열었어.

지역 전북.

가수원 명 [대응어] 과수원.

과실나무를 심은 밭. ¶전이는 여그에 큰 {가수원이} 있었는디 지금은 이롷게 달라져 뿌렀네.

지역 전북.

가슴배기 명 [대응어] 가슴패기.

가슴의 판판한 부분을 속되게 이르는 말. ¶인제 베 말하자면 {가심배기} 볼적에 인제 그 바디집, 그 칠떡이는 황옥이 그것이여. ¶어짜서 저것을 데리구 나오는고? 암상도 몰라서 {가심배기가} 서늘혀. ¶인자, 그대로 {가심배기에다} 칼을 들이대 부렀지, 금강산에서 왔다는 놈을.

지역 전북.

가시나 명 [대응어] 여자아이.

시집가지 않은 여자 아이를 낮잡거나 친근하게 이르는 말. ¶구석에다가 탁 개어 놓고는 뭣이 있어서 확 써 놨서. 그러니깨 조선필이 방으로 쑥 들어가. 줏어 봤지. 쑥 들어간개. 아 {가시나가} 뛰어와 보더니, "아이 어디서 왔느냐?"<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어뜬 놈이 머심을 사는디 쥔네가 {가시나가} 참 예쁜 놈이 하나가 있단 말이여. 쥔네 계집아가 참 예쁜 놈이 하나 있는디 그리 꼭 장개를 가믄 씨겄는디.<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고모 때문에 잘 대니도 못 하네. 못허는디 하루는 그 가시내가 팔려서 자기네 집으로 와 버렸어. 그래서 있는디, "저 {가시나를} 어찌 해야 보꼬? 보꼬?" 하는디, 하루는 본개 샘에 가서 물을 질어, 그것이. 근깨 쫓아갔어.<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저 {가시나는} 어찌나 사나운지 누구든 함부로 하지 못한다&

지역 남원, 무주, 임실.

가시내 명 [대응어] 여자아이.

시집가지 않은 여자 아이를 낮잡거나 친근하게 이르는 말. ¶"아하, 이것 참 꿈을 가서 사쇼. 그러면. 아 그 미친 놈의 {가시내." 라고} 막 욕을 헌단 말여. '어서 가시자.'고,<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가시내 꾀는 뭐나믄, 요놈을 갖다가는 저 데려다 강에다 떨어버릴라구, 손만 놔 버리믄 떨어져 버리거든. 그자 훨훨 날아서 이놈에 {가시내가} 쭉 가 갖고는 그 뭐인가를 널처 버렸네. 바다에 시퍼런 데다 널처 버렸어.<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그러면 그렇게. 우리 서방님이 그럴 리가 있간디." 험서 밥을 히놓고 줌서 저녁으 그 앞에가 큰 주막이 있는디, 이쁜 {가시내} 하나를 얻을 밤나 디리 씰란다고 그리드라우.<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운동장에서 {가지내}들 고무줄놀이 할 때 고무줄 끊고 도망가는 재미를 알랑가 몰라. ¶저 아이는 {가시내지만} 남자 못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고 갔는디 이놈으 {가시내들이} 엿들었던개벼<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이놈의 {가시내가} 어처케 했나 하더니 어떻게 해 갖고라도 물을 되퍼내래.<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고무줄 놀이는 주로 {가시내들이} 하였다.

지역 무주, 순창, 완주, 진안, 남원, 익산, 부안, 정읍, 고창.

가시라구 명 [대응어] 가시랭이.

풀이나 나무의 가시 부스러기. ¶{가시라구}가 많이 널려 있다.

지역 전북.

가시랑풀 명 [대응어] 가시랭이.

풀이나 나무의 가시 부스러기. ¶{가시랑풀}이 많

다.
지역 전북.

가시보시 명 [대응어] 가시버시.
'부부'를 낮잡아 이르는 말. ¶우리는 우여곡절 끝에 {가시보시가} 되었다.[고창]
지역 전북.

가시부치 명 [대응어] 가시버시.
부부. ¶짐제(김제)에는 붕산이란 산허고 명양산이 라넌 산이 있넌디 이 두 산은 옛적으는 {가시부치라고} 혔어.<구비문학대계 김제군>
지역 김제.

가시아범 명 [대응어] 가시아버지.
아내의 아버지. ¶{가시아범}이 오셨어.
지역 전북.

가시장클 명 [대응어] 가시덤불.
가시나무의 넝쿨이 어수선하게 엉클어진 수풀. ¶{가시장클이} 너무 많은게로 들어갈 수가 없네.
지역 전북.

가실[1] 명 [대응어] 과일.
나무 따위를 가꾸어 얻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열매. ¶그래서 약도 캐 먹을 만한 놈은 캐서 먹고, 나무 {가실도} 따먹을 만한 놈은 따 먹고, 그렇게 해서 연명을 했는디. ¶지철에 난 {가실을} 깎아 먹어야 건강허제. ¶올 가실 {가실은} 햇빛을 많이 받아서 겁나 단디.
지역 전북.

가실[2] 명 [대응어] 가을.
여름과 겨울 사이의 날씨가 선선한 계절. 또는 그때 농작물을 거두어 들이는 일. ¶올 {가실에는} 날씨가 좋아서 고추말리기가 참 쉬웠다. ¶높고 푸른 하늘을 보니 가실이 오나 보다. ¶몇 날 며칠이고 걸어갖고는 {가실이} 되았든가 인제 처녀 하나가 새를 봄서, "우여 우여 우여 새야 아랫녘 새는 아랫녘으로 가고 웃녘 새는 웃녘으로 가고 웃논은 멧떡 치고 아랫논은 찰떡 치고 우리 오빠 장개갈 적으 헐랑게, 개야 새야 먹지 말고 그만 올라 가거라."<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한 냥도 허고 노먼 먹은게 자꼬자꼬 줏어먹은게. 따먼 골마리 담고, 따먼 골마리 담고 밤새도록 허는디, 이놈을 따면 갖다, 그때 {가실인게로} 콩똥이 콩을 이렇게 비어가지고 쨈매서 세워놓고는 콩똥이 있는디 가서, 콩똥을 허부적거리고 갖다 쳐박고 쳐박고<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아이고 어쩌끄나, 속으로 걱정은 되얐지만 설마 별이 그런다고 참말로 흉년이 들라디야, 그랬드니마는 머엇을, 그해 {가실에는} 애들 맥일 것도 못 거두고 말어 부렀제이.<최명희, 혼불> ¶{가실} 내내 하루 점드락 일만 험서 지내다 시한 뒹게 일꺼리 줄어 드러. ¶아따, 물팍허고 삭신 쑤시는 것을 봉게 {가실} 쏘나기라도 한둘금 퍼붓을랑갑따~. ¶또 온 {가실} 운동회 날이다. ¶여름 목새 뿌려진 고실고실헌 날 가고 인자는 조석으로 {가실} 티 낼라고 그렁가. ¶듬성듬성 지피 박아둔 생각 {가실} 오면 히 보고 시픈 거슨 진 한숨 되어 여지없이 자빠진다. ¶급헌 승질 다음달 시월이 단풍 {가실} 속 진득허게 파묻혀 ¶농사꾼이 농사지어 논 거 없이 {가실} 당헌 것허고 똑같제.<최명희, 혼불> ¶"요번 {가실} 끝내고 나서…… 어디로 갈란지넌 안직……"<조정래, 아리랑>
지역 고창, 군산, 남원, 순창, 익산, 임실, 정읍.

가실일 명 [대응어] 가을일.
가을에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일. ¶{가실일} 해놓고, 고해 겨울을 보내지요. ¶일년 중 {가실일이} 제일 많아요.
지역 남원, 무주, 완주.

가실하다 동 [대응어] 가을하다.

벼나 보리 따위의 농작물을 거두어들이다. ¶그러면 다 되야꾸나 하고 막 {가실하제}. 그먼 가서 이러케 일리리 인자 그검만 따는거여 옥씨만?(그러면 다 되었구나 하고 막 가실하지. 그러면 가서 이렇게 일일이 이제 그것만 따는 거야 옥수수만?)<지역어 자료 총서, 중국 무주촌>

지역 고창, 김제,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가실허다 동 [대응어] 가을하다.

☞가실하다. ¶가실에 {가실헐} 때가 젤 바쁘제이. ¶맞구만이라, 빨갱이덜이 {가실허는} 대로 다 몰아가뿌렀구만이라."<조정래, 태백산맥> ¶아, 니 것도 내 것도 아닌 논에 그눔에 농새 자알 되야 묵겄소. 쎄빠지게 일헐 눔 하나또 읎을 것잉께 {가실허고} 나먼 쭉징이만 수북헐 농새 지나마나 아니겄소?<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가실히다 동 [대응어] 가을하다.

☞가실하다. ¶가흐런다고 히야제, {가실히야제}<2005 전북 남원>

지역 남원.

가심[1] 명 [대응어] 가슴.

배와 목 사이의 앞부분. 또는 마음이나 생각. ¶발등을 도치로 찍고 주먹으로 {가심을} 쳐도 시언찮허제.<최명희, 혼불> ¶양호장 일을 생각허먼 {가심이} 벌렁벌렁, 덩더꾸 덩더꾸, 덩더꾸 덩더꾸.<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그날이 지내고 날이 밝응게 {가심이} 두근두근 가라앉들 안허고, 도저히 맨얼굴로 마님을 다시 뵈입든 못허겄길래 기양 방안 맴만 돌다가.<최명희, 혼불> ¶아, 이놈의 소리를 들은게 마느래가 그양 {가심이} 덜컥흐다 그말이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암상도 몰라서 {가심이} 서늘허-. 그 사람도, 죽일라고 그러는지 살라고 그러는지 몰라서.<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어쩐다요 억울헝게 {가심도} 솔차니 아프요 이.

지역 무주, 완주, 임실, 군산, 부안, 정읍.

가심[2] 의명 [대응어] 거리.

(명사 뒤에 쓰여) 내용이 될 만한 재료. 또는 앞에 오는 말로 처리할 만한 것. ¶짓{가심}(김치용 채소)<이기갑(1998)> ¶맷{가심}(매를 맞아 마땅한 사람)<이기갑(1998)> ¶주먹{가심}(한 주먹이면 능히 대적할 만한 상대)<이기갑(1998)>

지역 전북.

가심배기 명 [대응어] 가슴패기.

가슴의 판판한 부분을 낮잡아 이르는 말. ¶사우{가심배기}가 널찍허고 좋드라만.

지역 전북.

가얼 명 [대응어] 가을.

여름과 겨울 사이의 날씨가 선선한 계절. ¶이 철에는 {가얼} 추젓이 최고야. ¶그나마 인자 그럭저럭 봄이 봄인디 그때 봄샌디 가을인디 {가얼이} 지내가고 인자 그럭저럭 어떻게 되야가지고서 그 이듬해 여름이 되얐어.

지역 완주

가오 명 [대응어] 가위.

☞가우. ¶엿장시 {가오}.

지역 전북.

가온대 명 [대응어] 가운데.

☞가온데.

지역 임실.

가온데 명 [대응어] 가운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양 끝에서 거의 같은

거리가 떨어져 있는 부분. ¶그려서 나중이는 그 기간을 다 못 채고 가운데 동생한티 갔어. 근개 또 {가온데} 딸 역시, “아, 저 막둥이동생한티 가서 많이 기시오.”<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 편>

지역 부안.

가온데손가락 명 [대응어] 가운뎃손가락.
☞가운데손구락.
지역 무주.

가우 명 [대응어] 가위.
옷감, 종이, 머리털 따위를 자르는 기구. ¶집에서 쓰는 {가우} 작은디 엿장수가 쓰는 {가우는} 크지.
지역 전북.

가우리 명 [대응어] 가오리.
가오릿과의 바닷물고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 ¶홍에 새끼처럼 생긴 거, {가우리} 종류허구 똑같어.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가운데손가락 명 [대응어] 가운뎃손가락.
☞가운데손구락
지역 군산, 익산, 장수.

가운데손고락 명 [대응어] 가운뎃손가락.
☞가운데손구락.
지역 무주, 완주, 정읍.

가운데손구락 명 [대응어] 가운뎃손가락.
다섯 손가락 가운데 셋째 손가락. ¶“칼이 크지도 않고 똑 {가운데손구락만썩} 허다데. 고걸 뽑아 던지는디, 워찌나 몸짓이 날랜지 번개 같다등마.”<조정래, 태백산맥> ¶{가운데손구락이} 부어서 많이 아프겠구나.
지역 고창, 김제, 남원, 순창, 완주, 진안, 무주, 정읍, 군산, 익산, 장수, 부안, 임실.

가운데손그락 명 [대응어] 가운뎃손가락.
☞가운데손구락. ¶종기는 봉선의 {가운데손그락에} 다이아반지를 끼워 주었다.
지역 부안, 임실.

가운데송꾸락 명 [대응어] 가운뎃손가락.
☞가운데손구락
지역 무주.

가을무수 명 [대응어] 가을무.
☞가을무시.
지역 전북.

가을무시 명 [대응어] 가을무.
겨울 김장용으로 가을철에 가꾸거나 김장을 하는 무. ¶짐장헐 적으는 주로 {가을무시를} 쓰는 거이여.
지역 전북.
해설 ‘가을’이라는 명사에 ‘무’를 의미하는 전북 방언 ‘무시’가 합성된 합성어이다. 표준어 ‘무’를 전북 방언에서는 ‘무시’, ‘무수’라고 하기 때문에 ‘가을무수’라고도 한다.

가을버리 명
가을에 씨를 뿌려 이듬해 초여름에 거두는 보리. ¶가을에 저 머야 벼 수확한 다음에 허는 것은 {가을보리로} 허고, 또 봄에 그 논에는 봄보리를 잘 안 갈어요.<지역어 자료 총서, 군산> ¶비가 억수로 와서 올해 {가을버리} 농사는 망쳤어요.
지역 장수, 진안.

가을일허다 동 [대응어] 가을하다.
벼나 보리 따위의 농작물을 거두어들이다. ¶그래

까꼬서나 개도 {가을일해} 놓고, 갈일 추수해 놓고요. 고해 겨울에, 하여튼 겨울내 보자 이제 봄::메, 그때 어지가니 닥 늦인봄이 그제 어지가니 물만 헬써요.(그래가지고서 그래도 가을일해 놓고, 가을일 추수해 놓고요. 그 해 겨울에, 하여튼 겨울 내, 보자 이제 봄에, 그때 어지간히 다 늦은 봄에 그 때 어지간하게 물만 했어요}<지역어 자료 총서, 무주>

지역 전북.

가을허다 동 [대응어] 가을하다.

벼나 보리 따위의 농작물을 거두어들이다. ¶거러먼 자, 뭐헝가 무러보면, 아니 나 요즘. {가을허니라고} 정신 엄네, 그럴 쑤도 읻꼬.{그러면 자, 뭐하는가 물어보면 아니 나 요즘 가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네, 그럴 수도 있고}.<2005 전북 남원> ¶추수허는 것을 {가을헌다구} 허지.

지역 남원.

가음 명 [대응어] 감.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자격을 갖춘 사람'의 뜻을 나타내는 말. ¶그만하면 네 아내 {가음으론} 괜찮을레라<서정주, 바람> ¶허 고 계집애 속엔 / 할망구가 열대여섯 명 들어 앉아서 / 장차 며누릿 {가음으론} 쓸만 하겠다.<서정주, 얌순이네집 밥상머리>

지역 전북.

해설 시인 미당 서정주는 고유어를 많이 사용하는 작가이다. 표준어 '감'은 역사적으로 'ᄀᆞᅀᆞᆷ>ᄀᆞᄋᆞᆷ>ᄀᆞᆷ>가음>감'의 변화를 겪어왔다. 따라서 그 역사적인 과정에 있던 '가음'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가이 명 [대응어] 가위.

☞가우. ¶{가이} 없는 집이 있가디.

지역 무주, 임실.

가이나 명 [대응어] 계집아이.

☞가이네.

지역 전북.

가이내 명 [대응어] 계집아이.

나이 어린 여자. ¶{가이내}는 없고 머이매만 둘 인디.

지역 전북.

가이네 명 [대응어] 계집아이.

나이 어린 여자. ¶말만헌 {가이네덜이} 꾀댕이를 벗어 부리고는 선불 맞은 암소아치맹이로 요리조리 험서나 비틀고 흔들며.<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가일 명 [대응어] 과일.

나무 따위를 가꾸어 얻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열매. ¶외 꺼슨 별또로, 삼실과에 안 드러강게. {가일} 가튼 건 별또로 인자 더 논는 거시지(그 외 것은 별도로 삼과일에 안 들어가니까. 과일 같은 것은 별도로 이제 더 놓는 것이지)<지역어 자료 총서, 고창> ¶상차리물 내가 몰라. {가일} 노코, {가일} 노코. 과일(상차림을 내가 몰라. 과일 놓고, 과일 놓고, 과일)<지역어 자료 총서, 고창>

지역 고창, 정읍.

가자 명 [대응어] 과자.

☞꽈자. ¶우리들은 아부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가자} 봉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여.

지역 전북.

가재미 명 [대응어] 가자미 ¶저녁거리로 {가재미를} 사 갖고 들온나. ¶{가재미랑} 넙치랑 구분이 안 돼야.

지역 전북.

가재미젓 명 [대응어] 가자미젓.
가자미를 소금에 절여 삭힌 것. ¶가재미 속을 싹 싹 다 긁은 담에 {가재미젓을} 담어야지, 안 글 먼은 써서 안 디아. ¶더위 먹었을 때 보리밥에 {가재미젓} 조금 넣고 비벼 먹으면 입맛이 돌아 온다.
지역 전북.

가조다 동 [대응어] 가져오다.
무엇을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옮겨 오다. ¶그거, 그거 허구, 인자 옷 한 벌을 이케 눟지, 응, 눟지. 그렇게 해 갖구서 인자 {가좠드라구}. ¶"또 한 그릇 가져오니라." 근게 또 {가좠어}. <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아니 정세환 아니먼 살릴 도리가 없으니 내 재산이 쉰섬거린디 스물닷섬 {가좠읍니다}. 살리주쇼. "<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익산, 군산, 정읍.

가조롱하다 형 [대응어] 가지런하다.
여럿이 층이 나지 않고 고르게 되어 있다. ¶신발들을 {가조롱하게} 정리허고 오니라.
지역 전북.

가조롱히 부 [대응어] 가지런히.
여럿이 층이 나지 않고 고르게.
지역 전북.

가주고오다 동 [대응어] 가져오다.
무엇을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옮겨 오다. ¶저그 가서 몽댕이 좀 {가주고와라}. ¶결과를 {가주고오다}
지역 순창, 군산.

가주오다 동 [대응어] 가져오다.
무엇을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옮겨 오다. 또는 어떤 결과나 상태가 생기게 하다. ¶장으서 맴생이를 샀는디 집이까지 {가주오는} 일이 제일 큰 문제여. ¶모두 합심허서 열심히 애썼응게 이런 영광을 {가주올 수} 있었지.
지역 완주.

가죽허르끈 명 [발음] [가주거르끈] [대응어] 가죽띠, 허리띠.
☞가죽허리끈.
지역 임실.

가죽허리끈 명 [발음] [가주거리끈] [대응어] 가죽띠, 허리띠.
바지 따위가 흘러내리지 아니하게 옷의 허리 부분에 둘러매는 띠 중에서 가죽으로 만든 것. ¶그 때 니가 사다준 {가죽허리끈이} 옷장 어디가 있을 거인디.
지역 남원, 임실.

가죽허리빵 명 [발음] [가주거리빵] [대응어] 가죽띠, 허리띠.
바지 따위가 흘러내리지 아니하게 옷의 허리 부분에 둘러매는 띠 중에서 가죽으로 만든 것. ¶요즘 백화점이서는 {가죽허리빵} 좋은 놈은 얼마나 하나? 주례 선상님 선물을 하나 사야 갔는디.
지역 무주.

가지고오다 동 [대응어] 가져오다.
☞가주고오다.
지역 군산.

가지꼬시래기 명 [대응어] 가지말랭이.
가지를 씰어서 말린 반찬감. ¶여름으넌 {가지꼬시래기} 있잖아, 까지 말린 거, 그거 갖다가 무쳐서 먹으믄 맛나, 입맛이 돌아.
지역 익산.

가지라이 명 [대응어] 가랑이.

☞가지랭이.
지역 전북.

가지랑[1] 명 [대응어] 가랑이.
원래의 몸에서 끝이 갈라져 나란히 벌어진 부분. ¶{가지랑을} 확 벌리더니 근육이 찢어졌대야.
지역 전북.

가지랑[2] 명 [대응어] 교만.
우쭐대거나 잘난 체하며 뽐냄. ¶조깨 잘난 듯 히가꼬 지가 양 {가지랑을} 떨어. ¶그건 양 별라 가지랑시럽게 사람이 조깨 {가지랑} 핀 사람이 있잖여. 그것 보러 {가지랑} 핀다고 허제 머. ¶아 조깨 내 차 갖고 {가지랑} 떠는 사람 있어.
지역 전북.
해설 '가지랑'은 주로 '떨다', '피다(피우다)'와 함께 쓰인다.

가지랑대다 동 [대응어] 거들먹대다.
우쭐대거나 잘난 체하며 뽐내다. ¶넘의 것 빌려입은 사람도 내노라고 {가지랑대는디} 자기 것 입은 사람은 얼매나 권세가 당당헐 것여.
지역 전북.

가지랑시럽다 형 [대응어] 교만하다.
우쭐대거나 잘난 체하며 뽐내는 데가 있다. ¶그건 양 별라 {가지랑시럽게} 사람이 조깨 가지랑 핀 사람이 있잖여. 그것 보러 가지랑 핀다고 허제 머.
지역 전북.

가지래이 명 [대응어] 가랑이.
☞가지랭이.
지역 전북.

가지랭이 명 [대응어] 가랑이.
원래의 몸에서 끝이 갈라져 나란히 벌어진 부분. ¶이놈이 단걸음에 강 뛰어 올라 갔어. 찾어 올라 감서 {가지랭이에} 옷 찢은 것도 고만 두고 강단에 올라 갔단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근디 가만히 인자 본게스니 정신이 인자 회생이 되았어 인자 회복히 갖고서, 근디 뭔 중놈의 자슥이 {가지랭이를} 타고서 있다 그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군산, 정읍.

가직허다 형 [발음] [가지거다/가지커다] [대응어] 가직하다.
대상 간의 사이가 스스럼없이 친밀하다. ¶나이 아직 젊었을 때 이 집안으로 시집을 왔소. 그러나 내가 박복해서 일찍 청상이 되야 갖고 일점 혈육도 없고, 누구 {가직헌} 일가 친척도 없소.<최명희, 혼불> ¶어느날 참 일기도 좋고, 새끼를 그냥 거기다 떼어 놓고 자기 혼자만 그 {가직헌} 자기 친구가 사는 그 동네를 찾아갔어. 그 동네를 찾아가서 참, 그 고생했다는 이야기와, 그 친구와 반가히 만나가지고서. 친구를 찾아갔구먼요.<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전북.

가징스럽다 형 [대응어] 가증스럽다.
몹시 괘씸하고 얄밉다. ¶{가징스러운} 얼굴을 보니 참을 수가 없네.
지역 전북.
해설 '가징스럽다'는 '가증스럽다'의 제2 음절 모음이 '/ㅡ/>/ㅣ/'로 전설모음화한 결과이다. 이는 19세기 후기 발생한 치찰음화 '스, 즈, 츠>시, 지, 치'의 한 예이다.

가차이 부 [대응어] 가까이
일정한 때를 기준으로 그때에 약간 못 미치는 상태로. ¶살린 사람은 그럭저럭 근 십 년이 되아 가는디 해 지내서 자꼬자꼬 잘 살어져 갖고는 부자가 되았어. 한 십 년 {가차이} 가니까 근디

이 사람 은혜를 갚어야 헐틴디<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가착다 형 [대응어] 가깝다.
☞가찹다. ¶고창은 여그서 {가착고} 광주는 멀어.
지역 정읍.

가찹다 형 [활용형] 가차워/가차와 [대응어] 가깝다.
대상 간의 거리가 짧다. 또는 대상 간의 사이가 스스럼없이 친밀하다. 또는 성질이나 모양 따위가 비슷하다. ¶잔디에서 불이 댈구(자꾸) 타 들어오는데 그 개가 보닝게는, 주인은 깨울 용기두 없구, 그래서 불이가 이렇게 타오는 대로 그 또랑(도랑)이 {가찹던가} 물에가 빠져가지구서는 잔디밭에가 굴르구 또 빠져가지구서는 잔디밭에가 굴르구 그래가지구, 나중에 주인이 실컷 자구서 일어나 보니까 개가 광져서(지쳐서) 그냥 죽었드리야.<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가차운} 질 나두고 므던다고 먼 질로만 퍼질러 가능가 모르겄어야. ¶니 눈깔 우게 {가찹디} 가차운 눈썹 한번 바바라. ¶응, 나로 말허믄 니애비가 동생이고 너로 말허믄 느 아버진디 동생이 {가찹겄냐}? 아버지가 {가찹겄냐}? 네 살림을 전부 바닥 싹 다 긁어서 내오간에 안 오믄 이 땅을 못 써. 귀신이다 그게.<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가차운} 넘들네가 채나낫어야? ¶비명에 {가차운} 소리를 냈어.
지역 군산,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익산, 장수, 정읍.

가테 명 [대응어] 가(邊).
경계에 가까운 바깥쪽 부분. 또는 어떤 중심이 되는 곳에서 가까운 부분이나 주변부를 이르는 말. ¶이 안, 망원경 보듯기 딱 둘래둘래 사방 {가테를} 처다보는 거여. '아, 이상허다. 나도 한번 봤으먼.'<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가토 명 [대응어] 아퀴.
☞가투.
지역 김제.

가투 명 [대응어] 아퀴.
어수선한 일을 정돈하여 마무리하는 끝매듭. ¶일의 {가투를} 지어야제.
지역 부안, 순창, 정읍, 김제, 군산.

가티 명 [대응어] 아퀴.
☞가투.
지역 군산.

가판지다 형 [대응어] 비탈지다.
땅이 경사가 급하게 기울어져 있다. ¶까탈막이 {가판진게로} 올라갈 수나 있간디?
지역 군산.

각귀 명 [대응어] 갑(匣).
물건을 담는 작은 상자. 보통 사진 넣는 갑을 말한다. ¶사진을 {각귀로} 맨들아 느놓잖여.
지역 전북.

각귀목 (角귀木) 명 [대응어] 각목, 받침목.
무엇을 괴거나 받칠 때 밑에 놓는 나무토막. ¶{각귀목} 잘 놓아졌나 봐라이.
지역 전북.

각기목 명 [대응어] 각목, 받침목.
무엇을 괴거나 받칠 때 밑에 놓는 나무토막.
지역 전북.

각놀다 (各놀다) 동 [대응어] 겉놀다.

집단이나 조직과 어울리지 못하고 따로 행동하다. ¶무엇에 되알지게 얻어맞아 꼬리 부분이 거지반 동강날 정도로 상해서 몸뚱이의 움직임과는 {각놀고} 있었다.<윤흥길, 장마> ¶그로서는 오히려 그게 바라던 바였던지 구정물에 뜬 호박씨처럼 집단에서 떨어져 늘 {각놀아도} 마르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다.<윤흥길, 빙청과 심홍>

지역 전북.

해설 '각놀다'는 한자어 '각(各)'과 동사 '놀다'가 합쳐진 합성어이다. '따로 놀다'에서 '따로'가 한자어 '각각'으로 바뀌어 '각각 놀다'로 쓰이거나, 또는 한자어 '각'으로 바뀌어 '각놀다'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각단지다 형 [대응어] 강단지다.

단호하거나 확실하다. 굳세고 꿋꿋하여 견디어 내는 힘이 있다. ¶그러나, 결단력이 없어 자기 앞을 {각단지게} 꾸려 나가기 힘들 사람처럼도 느껴진다.<최명희, 혼불> ¶"고추바람 분다."는 암호를 만들어 냈을 정도로 매사에 {각단지고}, 매차고, 여지없는 평소의 그답지 않게 그는 초췌해 보인다.<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해설 '각단'은 "일의 갈피와 실마리"를 뜻한다. 이것의 전북 방언에서는 합성 형용사인 '각단지다'가 되어, 주로 '각단지게'라는 부사형으로 많이 쓰인다. '각단지게'는 "확실하게"의 뜻을 가진다.

각두 명 [대응어] 가죽띠.

가죽으로 만든 띠.

지역 전북.

각뚜 명 [대응어] 가죽띠.

☞각띠.

지역 고창, 부안, 정읍.

각띠 명 [대응어] 가죽띠.

바지 따위가 흘러내리지 아니하게 옷의 허리 부분에 둘러매는 띠 중에서 가죽으로 만든 것. ¶단정해 보여야 하니께 {각띠도} 단단히 졸라매고 넥타이도 딱 허고, 그러고 갔다 오니라.

지역 김제, 무주,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진안, 고창, 부안, 정읍.

각시살이 명

주로 여자 아이들이 들에 나는 깩살이라는 풀로 각시를 만들며 노는 놀이. ¶바끔살이도 허고 {각시살이도} 허고. 깩살로 머리 따고 각시 맹글고 놀아.

지역 전북.

각시질 명 [대응어] 계집질.

본처가 아닌 여자와 정을 통하는 일을 낮잡아 이르는 말. ¶늘 작은각시를 열다섯 개를 얻었디야. 오수다 중국에다 얻어놓고 늘 {각시질만} 쫓아댕인게.

지역 전북.

-간 【종결어미】 [대응어] -게.

해할 자리에 쓰여, 따지듯이 묻는 종결 어미. ¶그럴 정신이 있간?

지역 전북.

해설 '-가디'와 '-간디', '-까디'와 '-깐디'는 수의적으로 선택하는 자유 변이 형태이다.

간대 명 [발음] [간때] [대응어] 간짓대.

긴 장대. ¶저어 옛날에 호랭이가 사람을 잡아묵고 헌께 여그다 {간대를} 걸어놨어.

지역 전북.

간데가리 명

밀을 갈 때 보얗고 부드러운 고급 가루. 처음에 나오는 질이 낮고 색이 빨간 가루와 비교한다.

지역 전북.

간뎅이 명 [대응어] 간덩이.

간을 낮잡아 이르는 말. ¶“하이고, 그 공갈 들으니깨 {간뎅이가} 단박에 콩알만허니 오그라붙네그랴! 임 종자 술자 서방님 무서워서 김부월이 같은 약질 예펜네는 으디 숨이나 지대로 쉬고 살겄드라고?” 부월은 깍짓동만한 남편을 공깃돌처럼 만만히 다루면서 대뜸 코웃음을 쳐버렸다.<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화가 난 조상병이 급기야 벌떡 일어서면서 소리쳤다. “중대장한테 보고하기 전에 모두들 나가요.” “저새끼가 {간뎅이가} 분 모양인데.” “나가요, 빨리. 수색 나가랬지 피엑스에 와서 주정부리랬어요?”<최창학, 심야의 정담> ¶아빠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다니, 너 {간뎅이가} 부었구나! ¶감히 네가 나한테 덤비다니 {간뎅이가} 부었구먼.

지역 전북.

간두깨 명 [대응어] 간짓대

긴 장대. ¶{간두깨를} 보통 전라도 사투리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 ¶밤 따고 감 따고 대추 따고 깜 딸 때는 {간두깨} 밑을 쪼개고 깍어서 감나무 가쟁이 들어가게 깎어 갖고 감 따는디

지역 전북.

간드깨 명 [대응어] 간짓대

☞간두깨. ¶근게, 구렁이가, “뭐라고 헙더?” “이만 저만허서 이러저러 허드라.” “그리야고. 그러먼은 그 집의 훌타리허고 우리집 훌타리허고 진 {간드깨를} 하나 걸쳐 주시요.” 그러드리야. 그려 진 {간드깨} 간짓대. 긴 대로 만든 장대를 하나 걸쳐 줬는디<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정읍.

간디 의명 [대응어] 군데.

낱낱의 곳을 세는 단위. ¶글먼 새썰로 말 허자먼 헛간디 보다가 아니 어믄 {간디} 보다가 그랬단 말이오. ¶집이서 쉬고 있응게 사방 {간디가} 쑤시고 아픈 디만 더 생긴당게요. ¶한번은 한 열두시쨈 된게로 사방 {간디서} 쿵쿵허니 야단들이네. 초랭이패라든가 이런 패가 원체 부자로 산게 털로 왔던개벼.<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전북.

-간디[1] 【종결어미】 [대응어] -게.

해할 자리에 쓰여, 따지듯이 묻는 종결 어미. ¶머 하간디? ¶그 꼬시 이쁘간디? ¶그거시 머시간디? ¶내가 이쁘간디? ¶그게 {진짜간디이}?<이병천, 모래내모래톱> ¶우리야 쌀보다는 이를 더 보고 살었응게 이팝이라고 안 {혔간디요}?<이병천, 모래내모래톱> ¶어치케 흔적을 {남겼간디}?<이병천, 모래내모래톱> ¶지깟녀르 지집이 갬히 우리 교장선상님 뵐 자격이나 {있간디요}.<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얼매나 되게 일을 {혔간디}<이태영(1992)> ¶야달시에도 밥 {안먹간디}?<이태영(1992)> ¶그 뇌미 여그 와서 살게 {생겼간디}<이태영(1992)> ¶아, 다리가 이런 판인디 어치케 딴 사람덜허고 발까장 맞출 수 {있간디요}?<이병천, 모래내모래톱> ¶그 어른은 머 어지 오늘 {그러시간디}?<최명희, 혼불> ¶거그는 몇 석이나 {헌다간디}?<최명희, 혼불> ¶말이 만 석이지 만 석 살림이 어디 그리 {쉽간디}?<최명희, 혼불> ¶머. 아, 지가 펭상으 숨어 댕기고 펭상으 도망 댕길 수가 {있간디요}?<최명희, 혼불> ¶언지는 머 우리가 농사 지어 갖꼬 우리 입으로 {들으왔간디요}?<최명희, 혼불> ¶아, 창씬가 머인가 허능 것도 그렇제, 우리덜 쌍놈이 머 언지는 성씨 갖꼬 이름 갖꼬 {살었간디요}?<최명희, 혼불> ¶우리덜이사 머 이름만 넘으 {꺼이간디}?<최명희, 혼불> ¶몸뗑이도 내놔라 허먼 그거이 내 {몸뗑이간디}?<최명희, 혼불> ¶인월마님이 머

두 손발 놓고 {살간디}?<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해설 '-가디'와 '-까디', '-간디'와 '-깐디'는 음운적 변이 형태이다. 전북 방언의 '-가니, -간디, -간'은 다양한 형태로 활발하게 쓰이고 있다.

-간디[2] 【연결어미】 [대응어] -관대(-기에).
원인이나 이유나 근거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누가 {오간디} 조롷게 난리데?(누가 오기에/오관대 저렇게 난리다니?)<이기갑(1998)> ¶누가 {오간디} 조롷게 난리데?

지역 전북.

간딩이 명 [대응어] 간덩이.
☞간뎅이. ¶{간딩이}가 부었나 어른들을 몰라보고 막 댐벼드네. ¶저 쬐그만게 큰 형에게 마구 달려 든 것을 보면 {간딩이가} 부었그먼.

지역 전북.

간물 명 [대응어] 간수.
습기가 찬 소금에서 저절로 녹아 흐르는 짜고 쓴 물. ¶소금에서 {간물} 떨어진게 시멘트도 다 삭아서 부스러지잖여.

지역 전북.

간발허다 동 [대응어] 감발하다.
발에 발감개를 하다. ¶문전걸식허는 식으로 허고, 깨끗허니 옷 입고 {간발허고} 그 집을 들어갔어.

지역 전북.

간보 (肝보) 명 [발음] [간뽀] [대응어] 배짱.
조금도 굽히지 아니하고 버티어 나가는 성품이나 태도. ¶그 사람은 {간보가} 크지.

지역 전북.

간새꾼 명
간사한 사람. ¶니가 {간새꾼} 모냥으로 여그저그 찔러 바 쌋께 미움을 받는 거여.

지역 전북.

간소롬하다 형 [대응어] 가느스름하다.
☞갠소롬하다. ¶정수는 아무 대답도 아니하고 반쯤 벌린 입과 {간소롬한} 눈초리에는 이상스러운 웃음을 띠고 문자를 끄윽 바라보았다.<채만식, 과도기>

지역 전북.

간솔 명 [대응어] 관솔.
☞간술.

지역 전북.

간수메 (←<일본어>kandume) 명 [대응어] 통조림.
고기나 과일 따위의 식료품을 양철통에 넣고 가열·살균한 뒤 밀봉하여 오래 보존할 수 있도록 한 식품. ¶지만 먹지 말고 두부랑 {간수메} 사다 지 넣고 지져먹어. ¶매실 {간수메가} 질 맛있지.

지역 전북.

간술 명 [대응어] 관솔.
송진이 많이 엉긴, 소나무의 가지나 옹이. 불이 잘 붙으므로 예전에는 여기에 불을 붙여 등불 대신 이용하였다. ¶날 며칠을 가는 판인디, 뭔 곳에서 그 등잔불, 석유호롱불, 아니면은 {간술}불, 그런 것이 '반딱 반딱' 비친다 이런 얘기여.

지역 전북.

간시 명
집안 살림 ¶간시 보고 자서(싫어서)(요양원에) 못 있어.

지역 전북.

간신이 부 [대응어] 간신히.
☞갠신이. ¶아따, 구경나온 사람들이 어찌나 만흔디 {간신이} 빠져나왔당게로.

지역 전북.

간잔조름하다 형 [대응어] 간잔지런하다.
졸리거나 술에 취하여 위아래 두 눈시울이 서로 맞닿을 듯하다. ¶{간잔조름한} 눈으로 바라보는 디 미치겄어.
지역 전북.

간잔조름허다 형 [대응어] 간잔지런하다.
☞건전주름하다.
지역 전북.

간잔주름하다 형 [대응어] 간잔지런하다.
☞간잔조름하다.
지역 전북.

간장종발 명 [발음] [간장쫑발]
간장을 담아서 상에 놓는 작은 그릇. ¶욫 던지는 디 없으면 {간장종발이라두} 가지고 해.
지역 김제, 익산, 완주.

간절허다 (懇切허다) 형 [대응어] 간절하다.
정성이나 마음 씀씀이가 더없이 정성스럽고 지극하다. 또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바라는 정도가 매우 절실하다. ¶기운 중에 젤로 무섭고 독헌 거이 사람 기운인디. 그런 만큼 또, 천지 신명 우주 공간에 사람의 기운으로 비는 것만치 {간절허고} 정확헌 거이 없는 거여.<최명희, 혼불> ¶아, 굶었던 사람이 오죽 헐 것이여? 인자, 그 눔을 잘 먹고서는 인자 자그 배는 불렀는디 아, 집안 생객(생각)이 {간절허거든}.<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전북

간절흐다 형 [대응어] 간절하다.
☞간절허다 ¶오늘 수도가 얼어봉게 느닷읎이 애랫슬 적 생각이 {간절흐네}. ¶애랫을 저그 동네 앞 시얌 가서 물지개로 질러다 부스짝 한 삐짝으다가 묻어 논 항아리다가 붓어 놓고 한 쪼박씩 떠다가 쓰든 생각이 {간절흐넹}.
지역 전북.

간지라다 형 [대응어] 간지럽다.
☞간지랍다. ¶콧구녕이 {간지라} 갖고 그냥 재채기를 해 대니께 자고 있던 애기가 깨 갖고 울고 양 난리네. ¶모기에 등을 물려 엄청 {간지라} 밤새 뒤척였다.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완주, 군산, 진안.

간지람 명 [대응어] 간지럼.
손으로 몸을 건드리거나 문질러서 간지럽게 하는 짓. 또는 간지러운 느낌. ¶송이가 겨드랑이를 {간지람을} 멕이자 저절로 웃음 터졌다. ¶발바닥을 {간지람을} 멕인게로 놀래지 않을 수가 있가디?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부안,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정읍.

간지람 멕이다 【관용표현】 [대응어] 간지럽히다.
살갗을 문지르거나 건드려 간지럽게 하다. ¶"아니, 이 예펜네가 실성을 혔나, 참을 인자 써붙이고 도 딲는 사람 뜬금없이 웬 {간지람은 멕여대고} 난리여?"<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부안,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정읍.

간지랍다 형 [활용형] 간지라워/간지라와 [대응어] 간지럽다.
무엇이 살에 닿아 가볍게 스칠 때처럼 견디기 어렵게 자리자리한 느낌이 있다. ¶야, {간지랍다}. 그만 좀 간지럽혀라. {간지라워} 죽겄다. ¶요즈음 목욕을 못했더니 온몸이 {간지랍다}.
지역 군산, 남원, 무주, 부안.

간지랍밥 명 [대응어] 간지럼.
손으로 몸을 건드리거나 문질러서 간지럽게 하는 짓. 또는 간지러운 느낌. ¶{간지랍밥} 맥인다 {정문연}<한국방언어휘자료집_전북편> ¶21933 간지럼 {간지랍빱} 메긴다고<2009 전북 임실> ¶옆에 누워서는 옆구리에 {간지랍밥}을 먹이며 장난을 거는 것이다. ¶아이한테 {간지랍밥} 태우면 놀란다.[무주].
지역 전북.
해설 '간지랍밥'은 주로 '먹이다'와 같이 쓰인다.

간지랍밥 멕이다 【관용표현】 [대응어] 간지럽히다.
살갗을 문지르거나 건드려 간지럽게 하다. ¶{간지랍빱} 메긴다고<2009 전북 임실> ¶서로 {간지랍밥 멕이다가} 나중으 가서 쌈질이나 말어. ¶그놈 발바닥에 {간지랍밥 멕이니} 깜짝 놀라고 말제.
지역 무주, 순창, 장수, 진안, 임실.

간지랑대 명 [대응어] 바지랑대.
빨랫줄을 받치는 긴 막대기. 또는 장대. ¶감나무가 있는 집에 {간지랑대} 하나씩은 필수로 두고 살았지.
지역 전북.

간지러다 형 [대응어] 간지럽다.
☞간지라다. ¶야, {간지러서} 죽겄다. 그만 좀 해라잉.
지역 전북.

간지름 명 [대응어] 간지럼.
☞간지럼. ¶웬 {간지름을} 멕여대고 난리여?
지역 군산, 남원.

간질밥 명 [대응어] 간지럼.
☞간지랍밥.
지역 무주.

간짓개 명 [대응어] 간짓대.
긴 장대. ¶지다란 {간짓개}로 감을 땄다.
지역 전북.

간치 명 [대응어] 까치. ¶어젯밤 꿈 속이 기러기 보더니 오늘 아참 오동 우헤/{간치} 앉어 짖었으니 아니나 기별이 올까 아니나 소식이 올까/기다리루고 바래도 일락은 서산헌디 종무소식이로 거나아 헤에(옥구 육자배기)<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 민요해설집>
지역 군산.

간치다 동 [대응어] 절이다.
푸성귀나 생선 따위에 소금기나 식초, 설탕 따위가 배어들게 하다. ¶그러먼 인자 참바람 나먼, 뽀바다가 이자 소그므다 {간쳐서}, 양니미가꼬 짐치 다마서 막 단, 시방은 여 냉장고가 이씅개 그러지마는(그러면 인제 참바람 나면 뽑아다가 인제 소금에다 절여서 양념을 해 갖고 김지 담아서 막, 단, 시방은 여기 냉장고가 있으니까 그렇지마는)<2009 전북 임실> ¶생고등어 사다가 {간쳐}, 놓으면 오래 먹을 수 있응게 몇 손 더 사가자.
지역 고창, 남원, 무주, 임실, 진안.

갈강 명 [대응어] 논두렁.
물이 괴어 있도록 논의 가장자리를 흙으로 둘러막은 두둑. ¶비가 많이 오니께 {갈강으} 좀 나가봐.
지역 전북.

갈강이 명 [대응어] 이[蝨]
서캐(이의 알)에서 금방 나온 작은 이. ¶{갈강아} {갈강아}/서대기 데리고 잘 있거라/석석바오 난

간에 빨래질 가다/마빠우 만나믄 나는 죽는다(진안 이타령)<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진안.

갈개 명 [대응어] 논두렁.
물이 괴어 있도록 논의 가장자리를 흙으로 둘러 막은 두둑. ¶마을 사램들이 {갈개으가} 앉어 있더만.
지역 전북.

갈갯둑 명 [대응어] 논둑.
논의 가장자리에 높고 길게 쌓아 올린 방죽.
지역 전북.

갈그생이 명 [대응어] 장구벌레.
모기의 애벌레. ¶요좀 못에 가믄 {갈그생이가} 솔찬히 보인다.
지역 무주.

갈그셍이 명 [대응어] 장구벌레.
☞갈그생이.
지역 전북.

갈대밧 명 [대응어] 갈대밭.
갈대가 우거진 곳. ¶가을밤에 혼자서 {갈대밧을} 다니노라면 으스스한바람은 억개를 스처지나가고 {갈대밧} 속에서는 버레들이 설리도 울고잇습니다!<신석정, 시집>
지역 전북.

갈대자리 명 [대응어] 삿자리.
갈대를 엮어서 넓게 만든 깔개. ¶대로 엮은 놈 그것보고, 거 먼 자리라고 허냐, 그 자리보고? {갈대자리}.
지역 임실.

갈람시르다 형 [대응어] 괜찮다.
별로 나쁘지 않고 보통 이상이다.
지역 전북.

갈람시릅다 형 [대응어] 괜찮다.
별로 나쁘지 않고 보통 이상이다. ¶나도 늙어서 글제 젊었을 때는 {갈람시랐어}, {갈람시릅다고}.
지역 전북.

갈랫질 명 [대응어] 갈림길.
여러 방향으로 나뉜 길. ¶{갈랫질에서} 오른쪽으로 가.
지역 전북.

갈러다 동 [대응어] 가르다
☞갈르다.
지역 익산.

갈르다 동 [대응어] 가르다(둘 이상으로).
따로 나누어 서로 구분을 짓다. ¶젊은이를 때려 죽여 버렸어. 때려 죽여 버리고 돈을 갖고 왔단 말이여. 갖고 산 몰랑(꼭대기)이에 앉았어. 우리 서이 {갈르자고}. 인제 두 놈들이 또 꾀가 나서, 한 놈을 죽여 버리면서<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 군편> ¶엔나레는 주이니 마니 가저갇꼬 똑가치 {갈르고} 절반썩 똑가치 갈란는디, 인자는 머.(옛날에는 주인이 많이 가져갖고 똑같이 가르고 절반씩 똑같이 갈랐는데, 이제는 뭐.)<2009 전북 임실> ¶공동작업을 한 뒤는 항상 물건을 {갈르는} 일에 불만을 갖는 사람이 있었다.
지역 전북.

갈마기 명 [대응어] 갈매기. ¶{갈마기는} 어디 가고 물 드는지 모리는가/사공님은 어디 가고 배 드는지 모리신가/우르 님은 어디 가고 날 죽는 디를 모리신가(갈매기는 어디가고 물드는지 모르는가 사공님은 어디 가고 배 드는지 모르는가/우리 님

은 어디 가고 나 죽는 곳을 모르는가)(고창 홍타령)<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들리나니 파도소리/낮이로는 고기잡기 밤이로는 {갈마기} 우는 소리/들어 가고 본 즛 살고나 싶네/아이고 데고 허허어어 성화가 났네 헤에(고창 홍타령)<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고창.

갈매봉 명
짙은 초록빛 도는 봉우리. ¶여보소 농부들 말 들어 아나 농부야 말 들어/저 건너 {갈매봉에} 비 몰아 오니 어서 심고 집으로 가세(김제 모심는 소리/상사소리)<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김제.
해설 '갈매봉'은 고유 명사가 아니라 "푸르고 높은 산봉우리"를 가리키는 말로, 민요 특히 육자배기조 모심는 소리에서 '갈미봉'이나 '갈매봉'으로 많이 등장한다.

갈미봉 명
☞갈매봉. ¶아나 농부야 말들어 여봐라 농부야 내 말 듣소/저건네 {갈미봉으} 어둠침침 비 몰아 온다/우장 삿갓을 둘러를 쓰소/여어 여어 허 여 허 여어루 상 사아 뒤이여(정읍 모심는 소리-상사소리/정읍군 입암면 연월리 반월) ¶철들어 가기 시작한 총각이 봄날 산나무를 하러 가면서 지겟목발을 장단삼아, "저 건너 {갈미봉에} 비가 묻어 들어를 온다……." 하고 멋등그러지게 넘깁니다.<채만식, 태평천하>
지역 전북.

갈버리 명 [대응어] 가을보리.
☞가을버리.
지역 무주, 완주.

갈보리 명 [대응어] 가을보리.
☞가을버리.
지역 무주, 익산.

갈일 명 [대응어] 가을일.
벼나 보리 따위의 농작물을 거두어들이는 일 ¶그래까꼬서나 개도 가을일해 노코, {갈일} 추수해노코요. 고해 겨으레, 하여튼 겨을내 보자 이제 봄::메, 그때 어지가니 닥 느진보미 그제 어지가니 물만 핻써요.(그래가지고서 그래도 가을일 해놓고, 가을일 추수해놓고요. 그 해 겨울에, 하여튼 겨울 내, 보자 이제 봄에, 그때 어지간히 다 늦은 봄에 그 때 어지간하게 물만 했어요) <지역어 자료 총서, 무주>
지역 무주.

갈일치다 동 [대응어] 가을일하다.
가을에 곡식을 거두어들이다. ¶쉬드래도 {갈일쳐} 놓고 쉬야지.
지역 익산.

갈체다 동 [대응어] 가르치다.
이치나 도리 따위를 알아 더 좋은 상태가 되도록 일러 주다. 또는 그릇된 버릇 따위를 고치어 바로잡다. ¶한 번 {갈체면} 다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열 번 {갈체도} 한나도 못 알아먹는 사람이 있어. 니가 그려.
지역 전북.

갈쳐내다 동 [대응어] 알아내다.
방법이나 수단을 써서 모르던 것을 알 수 있게 되다. ¶생각이 안 나서 못 {갈쳐내}. ¶그런게 거시기, 생각이 안 나서 못 {갈쳐낸다는} 말여.
지역 고창.

갈츠다 동 [대응어] 가르치다.
☞갈치다. ¶근디, 거시기는 구신도 모릉게 잘 조까 {갈차} 주시요 이~. ¶밤새도록 지지리 {갈

차} 줘도 모른당게요.
지역 전북.

갈치다 동 [대응어] 가르치다.
이치나 도리 따위를 알아 더 좋은 상태가 되도록 일러 주다. 또는 그릇된 버릇 따위를 고치어 바로잡다. ¶"삼춘은 어치케 허서 쌈을 잘허게 되었다야? 나도 쫌 {갈쳐주지!"}<이병철, 모래내 모래톱> ¶그런디 어떻게나 열심히 배우고도 총명헌지, 선생이 하나를 {갈치면} 둘을 알고 둘을 갈치면 열을 미리 짚어 부러서 선생도<최명희, 혼불> ¶근디, 거시기는 구신도 모릉게 잘 조까 {갈차} 주시요 이~. ¶밤새도록 지지리 {갈차} 줘도 모른당게요. ¶" 요번엔 형님이 좀 잘 {갈쳐서} 막내의 못된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놔야 겄어요". ¶아 지가 머 인제 내 도는 읍써마는 지가 한다고 그서 대헤꾜 머 학꼉만 한다먼 워터케라두 {갈치야죠}.(아 자기가 뭐 인제 내 돈은 없지마는 자기가 한다고 해서 그래서 대학교 뭐 합격만 한다면 어떻게라도 가르쳐야죠)<지역어 자료 총서, 무주> ¶"아직 나이가 어리서 츰부터 죄다 {갈칠라먼} 심들턴디". ¶"사람되라고 {갈쳤더니} 허고 댕기는 꼬라지를 봉게 공염불이 되었네". ¶그 사람더른 아라도 {갈치주덜} 아능개 몰라.(그 사람들은 알아도 가르쳐주지를 않으니까 몰라.)<전북지역어, 임실>
지역 전북.

갈쾡이 명
끝이 뾰족하고 꼬부라진, 갈퀴처럼 생긴 괭이. ¶밭에 딱 도착을 하믄 인제 {갈쾡이} 같은 걸로 땅을 싹 간단 말여.
지역 전북.

갈쾨이 명 [발음] [갈쾨~이]
☞갈쾡이. ¶그러더니 가서 {갈쾨이를} 가지고 가더니 말여 그놈 막 파고 잡았던개벼.
지역 완주.

갈쿠 명 [대응어] 갈퀴.
☞갈키. ¶막 {갈쿠} 같은 거로 막 득득 긁어서 나뒀어.
지역 고창, 부안, 정읍, 군산.

갈쿠나무 명 [대응어] 가리나무.
☞갈키나무. ¶참 열두시가 되아서 인자 나무 초군들이 나무를 히갖고 내려올 때가 되았던 모냥여. 나무를 그냥 {갈쿠나무가} 되얐던지 한 짐씩 짊어지고 여나명이 내려와서는 인자 그 공청으서 딱 받쳐 놓고, "우리 인자 여그서 또 꽁 한번 차자. 꽁 한번 차고 집에 가자." "그러자." 해갖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고창, 정읍, 무주.

갈쿠랭이 명 [대응어] 갈고랑이.
물건을 끌어당기거나 걸기 위해 끝을 구부려서 뾰족하게 만든 것. ¶{갈쿠랭이로} 솔가리를 긁다. ¶영호가 밭을 일구는데 돌덩이가 나오자 {갈쿠랭이를} 돌 밑에 넣고 힘껏 잡아당겼다. ¶마당에 있는 풀들을 {갈쿠랭이로} 긁어 모아 다오.
지역 전북.

갈쿠질 명 [대응어] 갈퀴질.
마른 잎이나 지푸라기 따위를 갈퀴로 긁어모으는 일. 또는 재물을 닥치는 대로 빼앗아 모으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신임 사또가, 감사가 와가지고서 회계비장이 기민 준단게 오직 좋아허겄어. 평양 시민들이 그냥 꽉 뒤집어졌지. 참 {갈쿠질을} 허는 사람이 있는디 이사람들은, '돈을 준다. 이게 어쩐 일이냐? 이것 참 옳게 진짜 왔다.' 하는 소문이 퍼져 버렸단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전쟁 통에는 산에 가서 {갈쿠질을} 해서 나뭇가지를 끌어 모았어.
지역 군산.

갈크막 명 [대응어] 가풀막.
☞깔크막.
지역 전북.

갈키 명 [대응어] 갈퀴.
낙엽이나 곡물 따위를 긁어모으는 데 쓰는 기구. ¶아침이 와서 이 사람이 {갈키로} 이렇게 긁어 본게 한 마리도 없드래여.<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김제, 남원,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정읍, 진안, 군산, 고창, 부안.
해설 '갈퀴'는 '갈퀴>갈쿠'와 '갈퀴>갈키>깔키'의 두 가지 방향으로 변화하여 '갈쿠'나 '갈키'나 '깔키' 따위로 나타난다.

갈키나무 명 [대응어] 가리나무.
갈퀴로 긁어모은 땔나무. ¶중핵교 댕길 나이만 되어도 뒷산에서 {갈키나무} 한 짐은 거뜬허게 혔지.
지역 전북

갈키다[1] 동 [대응어] 가르키다.
손가락 따위로 어떤 방향이나 대상을 집어서 보이거나 말하거나 알리다. ¶신기록 세웠다고 되되허게 거덜먹거리는 유월(六月)이 백몇십 년만에 도도허게 갈아치운 높은 온도 속에 시방은 지영 때 여섯시를 {갈킨다}.
지역 전북.

갈키다[2] 동 [대응어] 할퀴다(얼굴을).
손톱이나 날카로운 물건으로 긁어 상처를 내다. ¶내가 내 손톱에 {갈켜서} 얼굴에 상처가 났고만. 그니까 호들갑 떨지 말어.
지역 무주, 익산.

갈키질 명 [대응어] 갈퀴질.
마른 잎이나 지푸라기 따위를 갈퀴로 긁어모으는 일. 또는 재물을 닥치는 대로 빼앗아 모으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밭가에 있는 풀을 {갈키질} 하여 모아다오. ¶솔가리 나무를 헐라면 {갈키질}을 헐 수 백이 없어. ¶이사람이 인자 거기서 그놈을 가지고서, 그 봉투를 가지고 거기서 인자 암행어사로써 인자 거그를 갔다 그말 입니다. 거그를 가서 그 민성(民聲)을 들어보니까, 원성(怨聲)을 들어보니까 아주 말이 아녀. 형편이 아녀. {갈키질을} 허는디 뭐 이만 저만이 아니었어. 그냥 뭐 도저히, 뭐 도저히 살 수 없다는거라. 너무 그냥, 성헌 놈들 잡어다 뚜드러 때리가지고서 그냥 돈이나 긁어먹고 막 이런 짓을 헌다 그 말입니다.<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전북.

감낭구 명 [대응어] 감나무. ¶새아그야, 바깥이 {감낭구} 빨래줄에 난닝구 빤쓰랑 후딱 걷어서 고실고실허게 개아 노아라.
지역 전북.

감밥 명 [대응어] 누룽지.
솥이나 냄비 따위의 바닥에 눌어붙은 밥. ¶오지를 않네. 와 보넌개, 요 즈이 어머니가 솥에서 {감밥을} 긁어 먹어. {감밥} 긁어 먹을라구 가지고 안 갔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김제, 군산, 익산, 진안.

감악살이 (←監獄살이) 명 [대응어] 감옥살이.
감옥에서 사는 것. ¶{감악살이}를 오래 허고 나오더만 아주 정신 나간 사람이 되아 버렸어.
지역 전북.

감악소 ((←監獄所)) 명 [대응어] 감옥.
죄인을 가두어 두는 곳. ¶"아따, 아버지, 아이들

이, 느이 아버진 나쁜 짓 허구 {가막소} 갔다구, 날 막 놀려 먹고 그랬다우." "……"<채만식, 처자2> ¶지집 밑구녁으다 처박을라고 관공서에 공금을 훔쳐낸 거잉게 {가막소를} 가도 싸제잉. 하이간에 교옹장히 소란스랐능갑습디다.<최명희, 혼불> ¶끄니때 즈그 서방 밥상 채려줄 지 몰르는 못된 예펜네들 {가막소} 집어옇고 징역 살리는 법은 나라에서 왜 안 맨들꼬!"<윤흥길, 빛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감자 명 [대응어] 고구마. ¶여름에 {감자} 캐기 전에 감잿순으로 너물 무쳐 먹잖어. 하지감자 말고.
지역 전북.
해설 전북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고구마'를 이를 때는 '감자'나 '고구마'라고 하며, 표준어의 '감자'는 '하지감자'라고 부른다.

감잣대 명 [대응어] 고구마줄기.
고구마에서 돋아 나온 연한 싹. 이것의 껍질을 벗겨 나물을 해 먹는다. ¶저녁 먹고 설거지 썩은 고추 가려내어 배죽죽죽 타서 널고 호박조각 {감잣대}를 다듬어서 추려놓고 품앗이로 감을 깎네.<김용택, 섬진강>
지역 전북.

감잣순 명 [대응어] 고구마줄기.
고구마에서 돋아 나온 연한 싹. 이것의 껍질을 벗겨 나물을 해 먹는다. ¶{감잣순}을 가지구 볶아도 되구, 김치처럼 버무려도 먹지.
지역 전북.

감잣줄거리 명 [대응어] 고구마줄기.
고구마에서 돋아 나온 연한 싹. 이것의 껍질을 벗겨 나물을 해 먹는다. ¶손톱으로다가 {감잣줄거리} 끄트머리를 잡구 껍닥을 벳겨야 연하다구.
지역 전북.

감잣질고리 명 [대응어] 고구마줄기.
☞감잣줄거리.
지역 전북.

감재 명 [대응어] 고구마.
☞감자.
지역 전북.

감재기 부 [대응어] 갑자기.
☞갑재기.
지역 고창, 김제, 남원, 정읍, 진안.

감재끼 부 [대응어] 갑자기.
☞갑재키.
지역 무주, 고창, 김제, 남원, 정읍, 진안.

감잿대 명 [대응어] 고구마줄기.
☞감잣대.
지역 전북.

감잿순 명 [대응어] 고구마줄기.
☞감잣순.
지역 전북.

감저 명 [대응어] 감자.
지역 전북.
해설 '감자'는 19세기 문헌에 나타나는 '감져' 혹은 '감?'에 소급되는데, 그 어원은 한자어인 '甘藷(감저)'이다. '감져'는 이 한자어의 발음을 반영하는 형태이다. 이 '감져'가 '감?' 혹은 '감자'로 바뀐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藷(저)'와 '蔗(자)'가 모두 '사탕수수'를 뜻했기 때문에 '감져'가 '감?'로 바뀌지 않았나 한다. 전북 방언에서는 한자어의 발음을 반영한 형태인 '감저'가 그대로 남아 사용되고 있다.???

감죽 (감粥) 명
풋감과 밀을 넣어 만든 죽. ¶{감죽} 히먹고 그랬어. 감 널어진 놈에다 밀 섞어서.
지역 전북.

감짝같이 부 [대응어] 감쪽같이.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흔적도 없게. ¶옛날에는 행우가 그런개, 자그 딸 일인디 누구보고 얘길 헐 것이여? 좌우간 과거사는 모르지마는 그때 {감짝같이} 치워버렸지.<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부안.

감차다 동 [대응어] 감추다.
남이 보거나 찾아내지 못하도록 숨기거나 가리다. ¶돈 {감차면} 못 찾을지 알았는가 보네.
지역 고창, 군산,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임실, 장수, 정읍.

감초다 동 [대응어] 감추다.
☞감차다.
지역 남원, 순창, 장수.

감치 명 [대응어] 개미.
☞갬치.
지역 전북.

감토 명 [대응어] 방한모.
추위를 막기 위하여 쓰는 모자. ¶{감토를} 써야 춥지 않제.
지역 전북.

갑자게 부 [대응어] 갑자기.
☞갑재기.
지역 장수.

갑자께 부 [대응어] 갑자기.
☞갑재키.
지역 순창.

갑자끼 부 [대응어] 갑자기.
☞갑재키.
지역 부안.

갑자키 부 [대응어] 갑자기.
미처 생각할 겨를도 없이 돌연. ¶건강했는디 {갑자키} 아퍼. 숨이 가쁘고.
지역 전북.

갑재기 부 [대응어] 갑자기.
미처 생각할 겨를도 없이 돌연. ¶참 손님 혼자 이렇게 오래 기다리니라고 욕봤다고. 뭐 먹을 것이다 좀 자셔야(잡수셔야) 헐 것 아니냐고. 아 그 당골이 와서 {갑재기} 굿을 허는디, 허고 나닌게 우리 자슥놈이 단박으 효과가 있다." 고.<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아이구 배야, 아이고 아이고 배야."[청중: 웃음], 헌게나. "나요, 나, 나" "아이고 나라니 누구여? 저녁밥 먹고 {갑재기} 곽란이 나갖고 시방 배가 아퍼 죽것어!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허고 운단 말이여.<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어? 너 {갑재기} 어디서 그런 모자가 생겼어?" 어머니가 나를 보더니 새로 생긴 털모자에 관심을 나타내신다.<이병철, 모래내 모래톱> ¶"아직 자네 어르신네께서 저편을 다독거리고 있는 판이니까 불칙한 일이 {갑재기} 생기지는 않겠지…… 그러는 동안에 내가 뒤로 나서서 사건을 해결지어 바리면 일은 무사할 게 아닌가?"<채만식, 염마> ¶"그저 조께만 비우에 틀어지면 그렇게, 꺼떡허면 잡어다가 덕석에 몰아서 치는 거이 일임서도, 매안 양반들 쌀 떨어지고 돈 쓸 일 {갑재기} 생기면, 이 중인 중로 나 장엡이한테로 사람 보내네이. 아아따아, 그 뚜드러 팰 때 보면 곧<최명희, 혼불> ¶나는 자기보담 더혔으면 더혔지 절

대로 들허지는 않었을 거여. 미꾸리 신세로 둘이 서 똑같이 개천에서 흙탕물 뒤집어쓰고 지내다가 어느 날 {갑째기} 한쪽만 용으로 둔갑허서 구름 타고 하늘로 훨훨 올라가는 판국인디 성인군자가 아닌 이상 다른 한쪽이 무신 재주로 질투를 않고 배기겄어?<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정읍, 무주, 군산, 남원, 완주.

갑재키 뿐 [대응어] 갑자기.
미처 생각할 겨를도 없이 돌연. ¶"인재(人材) 있으면 들이라."고. 인재가 서로 있어도 {갑재키} 인재가 없어. "지가 가서 나라를 위, 위로 하겠다고." 그랬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완주, 익산, 임실, 부안.

갑지기 뿐 [대응어] 갑자기.
☞갑재기. ¶봉우는 {갑지기} 방 웃목에서 요란히 나는 소리에 겨우 들었던 잠이 깜짝 놀라 깨어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채만식, 과도기>
지역 전북.

갓 명 [대응어] 가(邊).
경계에 가까운 바깥쪽 부분. 또는 어떤 중심이 되는 곳에서 가까운 부분이나 주변부를 이르는 말. ¶하나는 가운대 읻꼬 양쪽 {가시} 읻꼬(하나는 가운데 있고 양쪽 가에 있고)<지역어 자료 총서, 무주>
지역 김제, 무주, 순창, 군산, 익산, 정읍.

갓모 (갓帽) 명 [대응어] 갈모.
비에 젖는 것을 막기 위해 갓 위에 두르던 물건. ¶비가 오면 {갓모를} 둘러쓰고 댕겼어.
지역 전북.

갓지 명 [대응어] 갓김치.
갓의 잎과 줄기를 이용하여 담근 김치. ¶갓으다가 파 조깨 늫고 {갓지를} 담으면 똑 쏘는 맛이 좋지.
지역 전북.
해설 '갓'이란 명사에 '김치'를 나타내는 전라도 방언 '지'가 연결된 합성어이다. '김치'를 전북에서는 '짐치'라고 하므로 '갓짐치'라고도 한다.

갓짐치 명 [대응어] 갓김치.
갓의 잎과 줄기를 이용하여 담근 김치.
지역 전북.

강개미 명 [대응어] 가오리. ¶제삿상에 {강개미를} 올리는 디가 많아. 요짐도 그렇고.
지역 전북.

강구 명 [대응어] 갯강구. ¶{강구라고} 바닷가 돌에 보면 빨빨거림서 지네맨치로 기어가는 동물이 있어.<고창군 해리면>
지역 고창.

강그래 명 [대응어] 고무래.
곡식을 그러모으고 펴거나, 밭의 흙을 고르거나 아궁이의 재를 긁어모으는 데에 쓰는 'T' 자 모양의 기구. ¶당겨라 걸구 닥 디려라 걸구닥 디려 /열이 열두 포구 {강그래} 낫질로 걸구닥 디리소··· {강그래} 낫질로 열으 열두 포구/ {강그래} 낫질로 걸구닥 디리소(옥구 벼베는 소리) <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군산.

강기 (←感氣) 명 [대응어] 감기.
주로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걸리는 호흡기 계통의 병. 보통 코가 막히고 열이 나며 머리가 아프다. ¶아주 오디기, 오디기 엔날부터, 이 강기 걸리면 채오데기네 집 까라고, 거거 어더머그라고 그러거든. {모르죠? 아주 호덕이, 호덕이, 옛날부터, 이 감기에 걸리면 채호덕이네 집 가라고, 거기서

얻어먹으라고 그랬거든}. ¶펭소에도 늘 건강을 챙겨야지 어째 꺼뜻허면 {강기}에 걸려서 그 고생이냐.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군산, 부안, 순창, 진안.
해설 '감기'는 '感氣'의 한자어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만든 한자어로 보인다. 오래 전부터 쓰이었던 것으로 '감기(感氣)'의 한자음 '감긔'로 나타난다. 처음 나타나는 것은 18세기 말이다. 전북 방언에서는 '감기'에서 위치 동화가 적용된 '강기'가 '감기'보다 더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강내이 명 [발음] [강내~이] [대응어] 강냉이.
옥수수가 열리는 식물 또는 그 열매. ¶{강내이} 심굴 적으, 괭이로 파 갖고, 서너 알썩은 느야돼. 글안허먼 안날랑가도 몰라.
지역 전북.

강냉이튀밥 명
'옥수수'를 튀겨 부풀린 군것. ¶고물장수라고 반드시 팔다 남은 {강냉이튀밥이나} 별식으로 먹으란 법은 없을 테니까.<윤흥길,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강냉이튀밥은} 맛이 고소해서 누구나 좋아한다.
지역 남원, 무주, 순창, 정읍, 진안, 부안, 임실, 장수.

강눈밥 명 [대응어] 누룽지.
솥이나 냄비 따위의 바닥에 눌어붙은 밥.
지역 전북.

강뛰기 명 [대응어] 돌차기.
바닥에 그림을 그려 놓고 그 위에서 돌을 가지고 노는 놀이. ¶숨바깍질도 허고 진도리도 허고 {강뛰기도} 허고
지역 전북.

강새비 명 [대응어] 새우(바다, 大).
바다에서 사는 큰 새우. ¶{강새비가} 살이 오동통하게 오른 것을 소금 탁탁 치가지고 구워 먹으면 엄청 맛나지. 거기에다 소주 한 잔 있으면 금상첨화고.
지역 진안.

강아지새끼 명 [대응어] 개새끼.
개의 새끼. ¶{강아지새끼} 여섯 마리를 밴 개를 팔아버렸다고 허는디.
지역 순창.

강애지 명 [대응어] 강아지.
☞갱아지.
지역 남원.

강종강종 부 [대응어] 강중강중.
짧은 다리를 모으고 자꾸 힘 있게 솟구쳐 뛰는 모양. ¶어미는 너무 크고, 송아지 등에 가 앉아 보았다. 간지럽다고 {강종강종} 뛰었다.<채만식, 왕치와소새와개미와> ¶제 어미랑 동산에 가는 것이 어린 마음에 못내 좋은지 {강종강종} 모둠발로 엾걸음을 치던 평순이가 또 묻는다.<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해설 '강종'은 표준어의 '강중'에 해당하며 "짧은 다리로 뛰는 모양"을 이르는 의태어 부사이다. '강중강중'은 '강중'이 반복되어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강주리 명 [대응어] 광주리.
☞광지리. ¶나물 광지리 한가득 담아 갖고 내려왔드랑게.
지역 고창.

강지미 명 [대응어] 가오리.
☞강개미.

지역 군산.

강치 (←强추위) 명 [대응어] 강추위.

눈이 오고 매운바람이 부는 심한 추위. ¶징허게 {강치를} 헝게 수도가 얼어 갖고 포도씨 마당꺼만 녹애 갖고 반대기로 질러다 쓸랑게 차말로 옹삭허고만. ¶글고, 새복에는 {강치까장} 허드랑게라우. ¶지영때 댕게 바람도 겁나게 불고 {강치할라} 흐드만.

지역 전북.

강치허다 형

강추위가 몰아쳐 아주 춥다. ¶촌 어매 아부지들이 요로코 {강치헐} 저근 마지막 메띄기는 {강치헌게} 딸싹도 않고 디지긠닥 흐드라.

지역 전북.

갖고는 부, 감 [대응어] 그래서.

'가지고는'이 줄어들어 접속부사로 변한 말. 또는 화제를 이어나갈 때 쓰는 말. ¶가꼬는{(갖고는)} 인자 난중이는 인자 요거시 끄터리만 인자 요러케, 잉 요러케, 요러케, 그리야 인자 물미시 재피서 인자 잘 내라지.(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요것이 끄터리만 이제 요렇게, 응 요렇게, 요렇게, 그래야 이제 물밑이 잡혀서 이제 잘 내리지.)<전북지역어, 남원> ¶하우! 가꼬는{(갖고는)} 인자, 왜 이렁가 시푸고, 대체 뭐 아무꺼도 몰룽거시 열여덜쌀 무궁 거시 머슬 안대.(하우! 그래가지고 인제, 왜 이런가 싶고, 대체 뭐 아무것도 모른 것이, 열여덟 살 먹은 것이 무엇을 안대.)<전북지역어, 남원>

지역 전북.

갖곤 부 [대응어] 그래서

☞갖고는. ¶가꼰{(갖곤)} 제 고노물 여그서 누여키우고 인자 씨누여 헌다고, 특뻬리 씨누여 헌, 키운 사라미 인떠구만.(그래갖고 이제 그것을 여기서 누에 키우고, 이제 씨누에 한다고, 특별이 씨누에 한, 키운 사람이 있더구만.)<전북지역어, 임실> ¶가꼰{(갖곤)} 자 마지막짬 자먼 막 누여가 요만씨기나 혀 그양.(그래갖고 이제 마지막잠 자면 막 누에가 요만씩이나 해 그냥.)<전북지역어, 임실>

지역 전북.

같으다 형 [대응어] 같다.

다른 것과 비교하여 그것과 다르지 않다. ¶본래 그 분은 국가여서 알어주는 지사여. 이치심 허고 같이 동료고 연갑도 {같으고} 그런다는디. 그분의 신위지지(身爲之地)가 장성 가서 있어요.<구비문학대계 정읍편> ¶이 도령을 인자 다듬을 대로 참 깨끗이 도령이 많이 갖고 간 돈이 있은게 폴죽 장사가 도령이 옷을 히갖고 요새말로 좋다는 옷 한 벌을 잘 지어서 잘 입히고 헌게 도령이 인물 좋겄다 참 달덩이 {같으거던}.<구비문학대계 정읍편>

지역 고창, 김제, 부안,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정읍, 진안.

개 명 [대응어] 개울. ¶가는 데가 {개가} 있어. 지금으로 말하면 방죽이나 되었던지, 쪼그마헌게 그랬겠지.<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전북.

개 머루 먹다 【관용표현】

아무 소용이 없다. 또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 ¶"에라, 이 무식헌 놈아! 반식자 우환도 유분수지, 무식이 무신 자랑이라고 앉었다 허면은 {개 머루 먹덧기} 택도 없는 소리로 상곡리 아는 체는 혼자 도맡어서 다 허고 자빠졌냐?"<윤흥길, 낫>

지역 전북.

해설 집에 사는 개는 산에서 나는 머루를 먹기도 어려우려니와 먹지도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비롯된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개가 똥을 마대다 【관용표현】

매우 좋아하는 일이나 물건을 싫다고 할 때 쓰는 표현이다. ¶아아므럼! 흥, {개가 똥을 마대지}?<채만식, 천하태평춘>

지역 전북.

해설 먹을 것이 부족한 시절에 개는 사람 똥을 먹었다. 이런 시절에 개가 똥을 싫다고 하면 믿을 수 없는 말이었다. '마다'는 '말다'에서 온 동사로 '싫다'의 의미를 갖는다.

개고동 명 [대응어] 가락고리.

물레의 왼쪽에 있는 괴머리의 두 기둥에 가락을 걸기 위하여 고리처럼 만들어 박은 물건. ¶물레장 파랑장/자구내 설대 궁글통/올로 졸로 니린 가락/석수쟁이 마친 가락/{개고동에} 걸린 가락/소리도 좋다 정가락(임실 물레질소리)<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임실.

개고랑창 명 [대응어] 개골창.

수채 물이 흐르는 작은 도랑. ¶마을 뒤로 흐르는 {개고랑창}은 생각보다 깨끗해 보였다

지역 전북.

개고리 명 [대응어] 개구리.

¶도망을 헌게 어디 만큼 와서 보리밭이 와서 가만히 이러고 눈을 감고 엎졌은게 사월이나 됐던가보데. 삼월이나. 엎졌은게 {개고리} 한 마리가 어서 큰 놈이 오드니<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도망을 헌게 어디 만큼 와서 보리밭이 와서 가만히 이러고 눈을 감고 엎졌은게 사월이나 됐던가보데. 삼월이나. 엎졌은게 {개고리} 한 마리가 어서 큰 놈이 오드니<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해설 국어사 자료에서 '개구리'가 소급하는 최초의 형태가 바로 17세기 자료에 보이는 '개고리'이다. 이것이 후대에 바뀐 것이 표준어형인 '개구리'이다. 단, 19세기 이후로 지금까지 전북 방언 등에 나타나는 '개고리'는, 표기는 이전 시기의 '개고리'와 같지만 발음은 첫 음절이 이중 모음에서 단모음으로 변했다는 점에서 다르다. 16세기 어형 '개고리'는 의성어인 '개골'에 명사 형성 접미사 '-이'가 결합된 것으로 분석된다.

개골물 명 [대응어] 개울물.

☞개울물.

지역 전북.

개골창 명 [대응어] 개울.

골짜기나 들에 흐르는 작은 물줄기. ¶있지만, 용은 개천에서 살 수 없다. 개천에 빠진 용은 제 비늘도 다 못 적시는 {개골창} 물 속에서 뒤척이며 몸부림치다 죽든지, 아니면 굳이 그렇게라도 살아야겠으면 미꾸라지가 되어야 하리.<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개구다리 명 [대응어] 절름발이.

한쪽 다리가 짧거나 다치거나 하여 걷거나 뛸 때에 몸이 한쪽으로 자꾸 거볍게 기우뚱거리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동네에 {개구다리가} 하나 있었는디 갸만 나타났다 허면 동네 애덜이 다리를 절름거리는 흉내를 내구 그렸다구.

지역 임실.

개구락지 명 [대응어] 개구리. ¶일을 하시다가 허리를 펴고. 저런 오사럴놈의 {개구락지들} 하고. 고함을 지르면.<김용택, 그리운 꽃편지> ¶삼춘으로 알도 않고. 어떤 땅으다 잡았느고니 구사장와(九巳狀蛙) 배암 아홉이 {개구락지} 하나를 쫓아내는 디다 잡어줬어. 구사장와라는 명당이 있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연

못에 가면 올챙이도 {개구락지}도 많아. ¶여름밤 이면 논에서 {개구락지들이} 마구 울어댄다.
지역 임실, 부안, 남원.

개구래기 명 [대응어] 개구리. ¶{개구래기가} 울면 비가 온다는디.
지역 순창, 정읍, 고창.

개구리 수염이 나다 【관용표현】
어떤 일이 전혀 일어날 수 없다. ¶주머니 사정이 부실한 시골 농투성이들한테 {개구리 수염이나 나면} 받을까 말까 한 외상을 잔뜩 깔아놓고는 늘 돈이 달려 쩔쩔매던 태인댁의 훈훈한 인정만 생각할라치면<윤흥길, 빛가운데로걸어가면>
지역 전북.
해설 개구리는 수염이 없다. 따라서 개구리가 수염이 난다는 말은 불가능한 상황을 가상해 보는 표현이 된다.

개굴태기 명 [대응어] 개구리. ¶{개굴태기가} 개굴 개굴 허는 놈두 있고 개볍냐 개볍냐 하는 놈두 있지.
지역 전북.

개꼿 명 [대응어] 개꽃.
먹지 못하는 꽃이라는 뜻으로, '철쭉'을 참꽃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해당화는 후배스고 남산촌아 웃지마라 기욱선이 희롱한다 {개꼿은} 장개간다<구비문학대계, 전남함편군편>
지역 전북.

개끗허다 형 [발음] [개끄더다/개끄터다] [대응어] 깨끗하다.
어떤 대상에 좋지 않은 이물질이 들어 있지 않다. ¶행랑 사랑에다 앉혀놨는데 아 {개끗허니} 초석 다 깔고 개끗헌 집인데.
지역 정읍.

개놈우새끼 명, 감 [대응어] 개새끼.
어떤 사람을 좋지 않게 여겨 욕하여 이르거나 부르는 말. 주로 남자를 이르거나 부를 때 쓴다. ¶아주 그냥 싸가지가 없는 새끼. 아주 {개놈우새끼여}. ¶부도난 사무실엔 {개놈우새끼} 하나 얼씬대지 않는구나. ¶나보다 키가 좀 크다고 나한테 함부로 해, {개놈우새끼}, 가만 두지 않을 거야.
지역 전북.

개다리 명 [대응어] 앞잡이.
남의 사주를 받고 끄나풀 노릇을 하는 사람. ¶그놈, 일제 {개다리} 노릇헌 사람이여
지역 전북.

개다리상 명 [대응어] 개다리소반.
상다리 모양이 개의 다리처럼 휜 막치 소반. ¶{개다리상} 옆에 술병을 얌전하게 내려 놓았다.
지역 완주.

개도 나갈 구녁 보고 쫓는 벱이다 【관용표현】
항상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는 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개도 나갈 구녁 보고 쫓는 벱이라는디}, 몰아세우드라도 쪼깨여지나 넹겨두고 몰아세운단 말이지.<윤흥길, 빛가운데로걸어가면>
지역 전북.
해설 개나 고양이를 쫓을 때 막다른 골목으로 몰면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해를 입힌다. 따라서 구멍이 있는 쪽으로 쫓으면 혼만 내고 도망갈 길을 터주는 셈이다.

개등그러지다 동
쌍꺼풀진 눈이 풀어져 뭉툭하고 뭉그러지다. ¶백만 원 주고 허면 존디 참 예쁘게 잘 된디 싼 놈으로 힜든(했더니) {개등그러지고}.

지역 전북.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속담】

아무리 천하고 고생스럽게 살더라도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낫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디}, 암만 세도허는 양반이라도 죽을 것을 안 죽든 못허능갑다.<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해설 '개똥밧'은 "개똥이 많이 있는 더러운 곳"이나 "보잘 것 없고 천한 곳"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개똥버러지 명 [대응어] 반딧불이.

¶저그 빤짝빤짝 한 것이 {개똥버러지인가벼}. ¶{개똥버러지가} 반짝거린다

지역 고창, 완주, 진안.

개똥버럭지 명 [대응어] 반딧불이.

☞개똥버러지.

지역 전북.

개똥벌거지 명 [대응어] 반딧불이.

☞개똥버러지.

지역 무주.

개똥벌래 명 [대응어] 반딧불이.

☞개똥버러지.

지역 전북.

개똥불 명 [대응어] 반딧불.

반딧불잇과의 딱정벌레. 또는 반딧불이의 꽁무니에서 나오는 빛. ¶반딧불 그기도 {개똥부리고}<2008 전북 고창> ¶말을 할 때마다 눈에서 {개똥불이} 번쩍이는 것 같았다.<문순태, 타오르는 강>

지역 김제, 남원, 부안, 순창, 익산, 임실, 정읍, 고창.

개랍다 형 [활용형] 개라워/개라와 [대응어] 가렵다.

☞가랍다.

지역 전북.

개레내다 동 [대응어] 가려내다.

여럿 가운데에서 분간하여 골라내다. ¶우리덜 눈에넌 곧바로 보이지. 이르케 이르케 손으로 훑다가 나락껍디기를 딱 {개레낸다구}. ¶콩에 섞인 돌을 {개레내라}.

지역 김제, 부안, 완주, 익산, 장수, 정읍, 진안.

개레다 동 [대응어] 가리다.

여럿 가운데서 하나를 구별하여 고르다. ¶그러면 양반도 종이란 말인디, 참말로 그렇다면 그께잇거 이판사판, 헐 말 못헐 말이 어디 있어? 너냐 나냐 체다보고, 개릴 것은 {개레} 바야겄네.<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개려내다 동 [대응어] 가려내다.

☞개레내다. ¶원은, 물론 치안(治安)을 하는 원이지, 백성들 잘잘못을 {개려내는} 그런 치안을 하는 원이고, 이 한량은 내가 신선같이 호화롭게 내 집을 차려놓고 기생하고 노래나 잠깐하고 즐겁게 놀러댕기는 사람이 한량여.<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암시랑 않고 다 해결되았다고. 그 뭐냐 과택 하나를 살해히 가지고 원귀가 되아 갖고서, 원님들이 놀래서 다 그렇게 잘급을 혔는디, 그걸 다 {개려내서} 지금은 해결되았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히서 참 원노릇을 혔드랴.<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전북.

개롬하다 형 [대응어] 갸름하다.

보기 좋을 정도로 조금 가늘고 긴 듯하다. ¶슬쩍 내다보니까 얼굴이 달걀맨치롬 {개롬하니} 이쁘

장하대.
지역 전북.

개롭다 형 [대응어] 가렵다.
☞가랍다.
지역 익산.

개릅다 형 [대응어] 가렵다.
☞가랍다. ¶귀때기가 간질간질험서 {개릅디야}? 으메-, 차말로~.
지역 고창.

개리내다 동 [대응어] 가려내다.
☞가리내다. ¶쌀 씻은 후엔 반드시 조리질을 혀서 돌을 {개리내야지} 글안허고 그냥 밥을 혔다가는 밥상머리에서 쌈나.
지역 전북.

개리다 동 [대응어] 가리다.
여럿 가운데서 하나를 구별하여 고르다. ¶워리, 벅구, 쫑이 찬 똥 더운 똥 {개리겄냐고라}. ¶죽을 똥 살 똥 안 {개리고} 히야지라우. ¶할랑빠진 매누리 될랑가 꺽정이 눈앞을 앵간허게 {개린다}. ¶"나 춘복이 순헌 거 인자 알었그마. 하이고, 그 성질에, 지 맘에 거실리먼 우아래도 없고 남녀도 안 {개리는} 사램이, 딴 디 가서 모질게 허디끼 왜 못히여, 긍게. 콱 무질러서 언감생심 나분대들 못허게 해야제."<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개마람 명 [대응어] 마름.
늪 같은 데에 절로 나서 자라는 풀의 한 가지 또는 그 열매.
지역 전북.

개막 명 [대응어] 개집.
개가 들어가 사는 작은 집.
지역 전북.

개막박적 명 [대응어] 쇠죽바가지.
쇠죽을 푸는 데 쓰는 바가지. ¶{개막빡적으로} 소죽을 구유에 퍼부었다.
지역 임실.

개발디딤 명 [대응어] 발돋움.
키를 돋우려고 발밑을 괴고 서거나 발끝만 디디고 섬. ¶{개발디딤을} 하다
지역 전북.

개밥 명 [대응어] 개암. ¶{개밥을} 줏어 먹어.
지역 전북.

개밥다 형 [대응어] 가볍다.
☞가법다.
지역 군산, 남원.

개법다 형 [대응어] 가볍다.
☞가법다.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완주, 군산, 진안.

개볍다 형 [대응어] 가볍다.
☞가법다 ¶으따메, 모다덜 우 허니 달라 들드라고 이~ 그러믄 훨썩 {개벼울} 텡게로~ ¶그것 있자나.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개볍드랑께}. 증말아여, 증말이여.
지역 전북.

개봅다 형 [대응어] 가볍다.
☞가법다.
지역 진안.

개붑다 형 [대응어] 가볍다.
☞가법다.

지역 완주, 진안.

개붓개붓 甼 [대응어] 가붓가붓.
여러 물건이 모두 다 가벼워 보이는 모양. ¶나비가 {개붓개붓} 날아가네.
지역 전북.

개붓하다 혱 [발음] [개부다다/개부타다] [대응어] 가붓하다, 거붓하다.
조금 가벼운 듯하다. ¶"허허, 차라리 밑구녁으로 먹고 입주뎅이로 싸는 재간 피우거라. 있는 재물 다 처분허고 {개붓하게} 빈 몸뗑이로 지달려야 공중으로 들림받기도 수월허다는 그 종말론 동네서 니가 무신 수로 한몫 챙기고 빼돌린단 말이냐?"<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개붓허다 혱 [대응어] 가붓하다, 거붓하다.
☞개붓하다. ¶"그런디 돈짐 실은 도라꾸 출입헌 적 없는 걸로 봐서 아매 똥그래미가 수도 없이 그려진 큼지막헌 수표 한 장으로 {개붓허니} 갖다바친 모냥이지?"<윤흥길, 빛가운데로걸어가면>
지역 전북.

개비 명 [대응어] 호주머니.
옷의 일정한 곳에 헝겊을 달거나 옷의 한 부분에 헝겊을 덧대어 돈이나 소지품 따위를 넣도록 만든 부분. ¶{개비에} 손 넣고 댕기면 넘어질대 다치기 쉽제 잉. ¶명주 헝겊으다 또 싸고 또 싸고 히서 그놈을 주었어. 준게 이 사람이 받어서 {개비에다} 딱 놓고서는 나오게 되는디 칙사대접허덧기 참 먼저와 같이 그렇게 그 벽장문을 열더니<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전북.

개새깽이 명 [대응어] 개새끼.
개의 새끼. 또는 어떤 사람을 좋지 않게 여겨 욕하는 말. 주로 남자를 가리키거나 부를 때 사용한다. ¶쩌그 지나가는 {개새깽이가} 다 웃어 불겄소~ 무신 놈에 헛소리를 헌다요? ¶저런 {개새깽이}. 저놈은 사람도 아니랑게. 상대히 줄 사람이 읎어.
지역 전북.

개새비 명 [대응어] 새우(바다, 小).
바다에서 사는 작은 새우. ¶{개새비로는} 마늘쫑허고 볶아서 밑반찬으로 먹으면 좋아. 담백허니.
지역 고창.

개시끼 명 [대응어] 개새끼.
어떤 사람을 좋지 않게 여겨 욕하여 이르는 말. 주로 남자에게 이른다.
지역 전북.

개시끼 명 [대응어] 개새끼.
개의 새끼. 어떤 사람을 좋지 않게 여겨 욕하는 말. 주로 남자를 가리키거나 부를 때 사용한다. ¶" {개새끼}, 신세 조져놓고 보내면 멋해?"<송기숙, 녹두장군> ¶막 이놈 저놈하고 요 욕하고, 우리나라 왕보고도 이놈 저놈하고 {개새끼야} 쇠새끼야 하고 욕 한다니까<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개심심하다 혱 [대응어] 심심하다.
☞게심심하다. ¶물김치 담을 때 소금을 덜 넣었나 {개심심하다}.
지역 전북.

개십보지 명 [대응어] 암쇠
맷돌 위짝 가운데에 박힌, 구멍이 뚫린 쇠. ¶{개십보지를} 만들어 맷돌을 돌려.
지역 전북.

개아짐 명 [대응어] 호주머니.
☞개아찜 ¶{개아짐이라기보다} 개아찜이라 했나 봐요?
지역 전북.

개아찜 명 [대응어] 호주머니.
옷의 일정한 곳에 헝겊을 달거나 옷의 한 부분에 헝겊을 덧대어 돈이나 소지품 따위를 넣도록 만든 부분. ¶학교 다닐때 {개아찜} 검사하면 괜히 신경씨였는데. ¶요즘은 {개아찜에} 앙꺼도 안 갖고 다닌게 괜찮지만. ¶개아짐이라기보다 {개아찜이라} 했나 봐요?
지역 전북.

개안하다 형 [대응어] 개운하다.
기분이나 몸이 상쾌하고 가뜬하다. ¶어쩟든, 동네 아무 일 없이 걍 {개안허게} 끝났단 말여. <구비문학대계 정읍편> ¶목욕을 하고나니 찌부등한 몸이 {개안하다}. ¶아따, 인자는 {개안허다}. ¶아따, 인자 {개안허요} 이~ 근디, 어째 쪼까 허퉁허요. ¶글먼, 거그 가서 지까심 허고, 아그들 밴또 싸 줄랑게 마른 새비 조까 사옴서 날도 더웅게 냉콩국시랑 사 먹고 오게 이~ 고거슨 나가 {개안허게} 쏠랑게~. ¶운동장 뽀짝 몽고루 천막도 솔차니 잇고, 운동장안의 잔디풀도 매꼿 {개안허게} 깍아 놓고. ¶그 뒤 설사 허고 난 것처럼 또한 머시기 소나기 퍼 붓은 것처럼 인자사 {개안헌} 맘을 정리 험서 개욕질 날라고 했던 그 일을 또 생각 속에 후참엔 그녀와 남생이 등거리가 되고 잡다.
지역 전북.

개안허다 형 [대응어] 개운하다.
☞개안하다. ¶동네 아무 일 없이 걍 {개안허게} 끝났단 말여.<한국구비문학대계, 전북정주시·정읍군편>
지역 전북.

개안흐다 형 [대응어] 개운하다.
☞개안하다. ¶포도시 회사다가 차 입고흐고 유모차 끌고 오는디 시상으 굴찌고라당 너머 슨게 질갓이 {개안흔} 거 잇지롸우 시서그릅디다.
지역 고창.

개암감 명 [대응어] 고욤.
☞괴옴.
지역 전북.

개엽다 형 [대응어] 가엾다.
마음이 아플 만큼 불쌍하다. ¶갱아지가 비를 쫄딱 맞아 {개엾어서} 마음이 짠허다.
지역 전북.
해설 '개없다'는 '가없다'의 제2 음절의 반모음 /j/의 영향을 받아 제1 음절이 '아>애'의 움라우트를 겪은 결과이다.

개온하다 형 [대응어] 개운하다.
☞깨온하다.
지역 전북.

개올 명 [대응어] 개울.
골짜기나 들에 흐르는 작은 물줄기. ¶{개올에} 빠져서 신발도 다 몽쳤다니께.
지역 무주, 순창, 장수, 진안.

개올물 명 [대응어] 개울물.
개울에 흐르는 물. ¶보따리를 {개올물에} 빠쳤어.
지역 전북.

개올창 명 [대응어] 도랑.
매우 좁고 작은 개울. ¶{개올창으} 가면 올챙이도 볼 수 있고, 개구락지도 볼 수 있는디 나허고

같이 가 볼텨?

지역 완주.

개와 (←開化) 명 [대응어] 호주머니.

자질구레한 물품 따위를 넣어 두거나 넣어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든 물건. 혹은 돈이나 소지품 따위를 넣도록 만든 옷의 부분. ¶달라므는 없이믄 꾸어서라도 줄 일이지 기양 그러고 가냐고 근게 돈 오백원짜리를, 오백원짜리 나왔던 모양이여, 그때는 시상에 오백원짜리를 주고 {개와에서} 쑥 내주고 그냥 가거든.(달라고 하면 없으면 꾸어서라도 줄 일이지 그냥 그러고 가냐고 그러니까 돈 오백원짜리를, 오백원짜리 나왔던 모양이야. 그때는 세상에 오백원짜리를 주고 주머니에서 쑥 내주고 그냥 가거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완주, 정읍.

개와주머니 (←開化주머니) 명 [대응어] 주머니.

자질구레한 물품 따위를 넣어 두거나 넣어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든 물건. 또는 돈이나 소지품 따위를 넣도록 만든 옷의 부분. ¶오늘 아침에 분판에다 글씨를 쓰는디 고놈이 와서 깜밥을 가지고 {개와주머니에다} 넣고 내 먹읍디다.<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개찜은 개와주머니라고도 혀. 옛날 우리 옷에는 개와주머니가 없었어. 서양 옷이 들옴서 만들어진 주머니라 히서 개와주머리라 허는개비여.

지역 김제, 부안, 군산, 정읍, 진안.

개와주머이 (←開化주머이) 명 [대응어] 주머니.

☞개와주머니.

지역 전북.

개완하다 형 [대응어] 개운하다.

기분이나 몸이 상쾌하고 가뜬하다. 또는 음식의 맛이 산뜻하고 시원하다. 또는 바람 따위가 깨끗하고 맑은 느낌이 있어 상쾌하다. ¶썩어서 말강물 되신 그 물로 백골의 흰 뼈를 {개완허게} 씻으실 때까지, 어머니, 이 못난 자식을 원망하시고…… 용서하지 마시고<최명희, 혼불> ¶날 적으는, 종의 때를 냉기지 말고, 눈물의 얼룩도 다 빼고, {개완허게} 나면 된다…….<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해설 경상 방언에서 '개운하다'가 '개반하다, 개분하다, 개빈하다'로 실현되는데 이 어휘와 관련지으면 '개반하다'의 /ㅂ/이 약화되어 '개완하다'가 된 것으로 보인다.

개완해지다 동 [대응어] 개운해지다.

괜찮아지다. 또는 좋아지다. ¶서해로 피서를 가셔서 짠 바닷물에 몸을 담그면 피부병이 싸악 {개완해질} 겁니다.

지역 고창.

개욕질 명 [대응어] 구역질.

속이 메스꺼워 자꾸 토하려고 하는 짓. ¶그 뒤 설사 허고 난 것처럼 또한 머시기 소나기 퍼 붓은 것처럼 인자사 개운헌 맘을 정리 험서 {개욕질} 날라고 했던 그 일을 또 생각 속에 후참엔 그녀와 남생이 등거리가 되고 잡다. ¶청렴헌 척, 결백헌 척 {개욕질나게} 드럽게 드럽게 싹수 누런 재판관 되어 버린다. ¶" 나는 저 자석 저 수염만 보면 묵은 것도 없이 생 {개욕질이} 나올락 해서 못 견디겄어. 아무리 생긴 대로 논다고 저것도 수염이라고 달고 댕기까? 저놈의 수염을 궁중 내시가 보면 아잡씨 아잡씨 할 것이여." <송기숙, 녹두장군>

지역 전북.

개운허다 형 [대응어] 시원하다.

막힌 데가 없이 활짝 트이어 마음이 후련하다. ¶글먼, 거그 가서 지까심 허고, 아그들 밴또 싸

줄랑게 마른 새비 조까 사옴서 날도 더웅게 냉콩국시랑 사 먹고 오게 이~ 고것은 나가 {개운허게} 쏠랑게~. ¶운동장 뽀짝 몽고루 천막도 솔차니 잇고, 운동장안의 잔디풀도 매쫏 {개운허게} 깍아 놓고. ¶그 뒤 설사 허고 난 것처럼 또 한 머시기 소나기 퍼 붓은 것처럼 인자사 {개운헌} 맘을 정리 험서 개욕질 날라고 했던 그 일을 또 생각 속에 후참엔 그녀와 남생이 등거리가 되고 잡다.

지역 전북.

개울창 명 [대응어] 개골창.

매우 좁고 작은 개울. ¶갑자기 바른쪽 길을 버리고 왼쪽으로 홱 꺾어져 들었다. 그쪽 {개울창으로도} 얕고 더러는 푹 파여 달아난 조그마한 냇물이 흐르고 있었다.<최창학, 심야의 정담> ¶어느 길로 들어서야 할지 쉽사리 판단이 서지 않을 만큼 {개울창} 저쪽은 짙은 그늘에 덮여 있었다.<최창학, 심야의 정담>

지역 전북.

개웁다 형 [대응어] 가볍다.

무게가 적다. 또는 정도가 약하다. 또는 행동 따위가 쉽고 빠르다. ¶우장도 짚으로 맨든 놈은 무겁고 띠로 맨든 것은 {개웁고}.

지역 전북.

개이[1] 명 [대응어] 괭이.

☞깨이.

지역 전북.

개이[2] 명 [대응어] 고양이.

☞괭이.

지역 전북.

개자석 명 [대응어] 개새끼.

어떤 사람을 좋지 않게 여겨 욕하는 말. 주로 남자를 가리키거나 부를 때 쓰인다. ¶앞으로 다시는 안 그러겄다고, 후제 또 그러는 날이면은 임종술이 {개자석이라고} 승을 갈기로 맹서헐 티니깨 요번 한 번만 살려돌라고 요로콤<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개작년 (再昨年) 명 [대응어] 재작년.

지난해의 바로 전 해.

지역 임실.

개좆버리 명 [대응어] 감기.

☞개좆부리.

지역 진안.

개좆부리 명 [대응어] 감기.

주로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걸리는 호흡기 계통의 병. ¶옛날에 약두 안 먹구 노인네들 항상 그러더라니까, "그 감기라구 하지말구 {개좆부리라구} 해라, 해라." 아, 그러믄 우리는, "어떻게 {개좆부리라구} 해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할머니 어렸을 적 할머니 친정 동네에서 동네 어른들이, 감기 걸리면 이 이야기를 해 주시며 "감기 걸리면 {개좆부리가} 약이라."는 말씀을 자주 했다고 한다.<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머리가 아프고 콧물이 줄줄 흘르구 그런 찰나에, "에이 {개좆부리} 들어서 큰일났다, " 그냥 나서(나아) 버린다는 걸루 그런디야<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임실.

해설 전북 완주에 '개좆부리'와 관련된 재미있는 설화가 전해오고 있다. 옛날에 왕이 성기를 두 개 가진 사내아이를 낳자 신하들은 이 이상한 아이를 죽여야 한다고 했고, 결국 왕은 아이를 죽여 버렸다. 이 사내아이는 죽어 귀신이 되었고 콧구멍에 대고 욕망을 푸는 데서 감기의 증상이 생겼다는 내용이다.<구비문학대계 전북 운주면

설화28> 위의 용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지역 옛날 어른들은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면 '개좆부리' 혹은 '개좆부리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감기가 빨리 낫는다고 했다고 한다. 표준어에서는 '감기에 걸리다'라는 표현이 일반적이지만, 전북 방언에서는 '강기, 고뿔, 개좆부리'가 '들다'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주꼽재기 명 [대응어] 감기.
주로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걸리는 호흡기 계통의 병.
지역 군산, 김제, 부안, 고창.

개주뻐리 명 [대응어] 감기.
☞개좆부리
지역 김제.

개주뿔 명 [대응어] 감기.
주로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걸리는 호흡기 계통의 병.
지역 부안.

개줌머리 명 [대응어] 감기.
주로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걸리는 호흡기 계통의 병.
지역 군산, 김제, 부안, 고창.

개지럴 명 [대응어] 개지랄.
너저분하고 미운 짓을 속되게 이르는 말. ¶술 먹고 {개지럴을} 허네. ¶저 놈들이 지금 무슨 {개지럴을} 떨고 있는 거야. ¶잘 하는 것도 없는 것이 {개지럴하고} 있네.
지역 전북.

개지삐리 명 [대응어] 감기.
☞개좆부리
지역 순창.

개진달래 명 [대응어] 철쭉. ¶철쭉이라고도 히여 그거뽀고 {개진달래라고} 그런는디<완주_지역어_텍스트> ¶새깔도 달르고 {개진달래는} 꼳뽕오리가 크고, 그냥 기양 진달래는 잘고.(색깔도 다르고, 개진달래는 꽃봉우리가 크고, 그냥 그냥 진달래는 작고.)<2009 전북 임실>
지역 고창, 김제, 부안, 정읍, 완주, 임실.

개진달리 명 [대응어] 철쭉.
☞개진달래. ¶인자, 진달리꼬시 이쓰먼 또 {개진달리} 꼬시 다메는 피고.(이제, 진달래꽃이 있으면 또 개진달래꽃이 다음에는 피고)<2009 전북 임실>
지역 부안, 정읍, 임실.

개찜 (←開찜) 명 [대응어] 호주머니
옷의 일정한 부분에 헝겊 등을 덧대어서 손이나 물건을 넣을 수 있도록 만든 주머니. ¶{개찜에} 멋이 그르케 많이 들어 있는가 모르겄어.<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전북.

개찮다 형 [대응어] 괜찮다.
별로 나쁘지 않고 보통 이상이다. ¶얼골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디, {개찮아}? ¶그 정도 했으면자 그만둬도 {개찮어}.
지역 전북.

개코 명 [대응어] 개뿔.
별 볼 일 없이 하찮은 것을 경멸하는 태도로 속되게 이르는 말. ¶거그다 {개코도} 암끗도 모르게 생긴 것이 아는 치께나 오사허게 험서 웃음 또한 내시 간신 웃음으로 꼴값을 떨어댐서 다가온다.
지역 전북.

ㄱ

개탕 명 [대응어] 도랑.

폭이 좁은 개울. ¶미꿀네허고는 친분이 깊고 허니, {개탕을} 쳐돌라는 거이시, 그려야무신 놈의 사단이 나도 날 게 아닌가.<조봉래, 풀벨골> ¶게 써리질, 써리질 하문 인재, 흐기 확: 푸러지자너요? 확 푸러지면 인재, 산내키로 인자 가지고 와서 {개탕이라고}. 게 이캐 양쪼게다 요로케 이제, 저쩌게 이르캐 주룰 매노코, {개탕이라고} 인제. 이노물 처가꾸서 인재, 또랑이끼지 또랑이지 인재, 또랑얼 이르캐 맨드랐써요.(그 써리질, 써리질 하면 이제, 흙이 확 풀어지잖아요? 확 풀어지면 이제 새끼로 이제 가지고 와서 {개탕이라고}. 그 이렇게 양쪽에다 이렇게 이제, 저쪽에 이렇게 줄을 매놓고, 개탕이라고 이제. 이 놈을 쳐가지고 이제, 도랑이겠지 도랑이지 이제, 도랑을 이렇게 만들었어요).<구비문학대계, 남원시> ¶이게요 이르캤따 이러캤따, 나무럴 {개탕을타고}, 이게 밀창문. 그기 인재: 엔나레 여. 문도 집 잘진코 엔나레 부재지비 거시간 지번 저런 무니 한짜기자나요 한짝, 한짜긴데 부재찌번 나두 쌍발집 땐 쌍발지무넌디, 쌍발지무니라고, 무니 이캐 저건 한짜긴디 일르캐 두짜기 인써,(이것이요.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나무를 개탕을 파고, 이것이 밀창문. 그것이 이제 옛날에 여. 문도 집 잘 짓고 옛날에 부잣집에 거시기한 집은 거런 문이 한짝이잖아요 한짝, 한짝인데. 부잣집은 나도 쌍닫이집 때는 쌍닫이문인데, 쌍닫이문이라고.)<구비문학대계, 남원시>

지역 전북.

개터럭 명 [대응어] 솜털.

솜에서 일어나는 잔털. ¶{개터럭} 같은 먼지가 가득 올라오다 ¶{개터럭이} 날리는 봄철이 오면 복실이는 할아버지한티 구박덩이 신세를 못 면혔지.

지역 전북.

개털 명

쓸데없는 일이나 행동. ¶쪼끔만 침착허랑게 자발시럽게 방정 떨고 여그 저그 댕깅게 영양가도 읎고 결과는 {개털이지야}.

지역 전북.

개토 명

콩이나 도토리 같은 열매 중에서 쪼글쪼글하고 야물게 영글지 않은 질이 낮은 곡식이나 열매. ¶{개토는} 골라내 삐리고. 닭이나 주고.

지역 전북.

개투 명 [대응어] 아퀴.

어수선한 일을 정돈하여 마무리하는 끝매듭. ¶일의 {개투를} 짓다.

지역 고창, 임실.

개트다 동

어패류나 해조류를 일정 기간 길러서 한꺼번에 잡기 위해 마을 공동으로 출입을 금지했던 바다를 개방하다. ¶{개트는} 날 조개 수확이 많지.

지역 전북.

개트름 명 [대응어] 트림.

먹은 음식이 위에서 잘 소화되지 아니하여서 생긴 가스가 입으로 복받쳐 나옴. 또는 그 가스. ¶시방도 {개트름} 험서, 갖은 똥폼 다 자버 감서 모가지에다 빳빳이 풀 메겨 힘 주고 댕기는 싸가지 없는 잉간들 땜시 맘이 지랄 같으요~.

지역 전북.

개펭 명 [대응어] 개평.

노름이나 내기 따위에서 남이 가지게 된 몫 중에서 조금 얻어 가지는 공것. ¶구겡이나 허고 {개펭이나} 얻어 가. ¶너는 나이가 어린게 으런들 가는디 {개펭}으로 묻어 가는 수 벾이 없어.

지역 전북.

개픈하다 형 [대응어] 가뿐하다.

들기 좋을 정도로 가볍다. '가분하다'보다 센 느낌을 준다. ¶아를 {개픈하게} 들어올리는 거 보니까 힘 좋네.

지역 전북.

객고 (←客鬼) 명 [대응어] 객귀(客鬼).

객지에서 죽은 사람의 혼령. ¶신수가 사나면 객고가 붙어.

지역 전북.

객광스럽다 (客光스럽다) 형 [대응어] 객스럽다.

쓸데없고 실없는 느낌이 있거나 말이나 행동들이 쓸데없고 실없다. ¶머 엄동 시안에 {객광시럽게} 잉어 먹고 잪다, 죽순 먹고 잪다, 그러는 노부모 봉양헌 이얘기?<최명희, 혼불> ¶"허어 참, 오래 살다보니깨 베라벨 {객광시런} 소리를 다 듣네!"<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객광시럽다 형 [대응어] 객스럽다.

쓸데없고 실없는 느낌이 있거나 말이나 행동들이 쓸데없고 실없다. ¶머 엄동 시안에 {객광시럽게} 잉어 먹고 잪다, 죽순 먹고 잪다, 그러는 노부모 봉양헌 이얘기? 나 맨날 그런 이얘기 들으면 웃음이 나오등만.<최명희, 혼불> ¶"꼭 목숨을 끊어야 될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시다면 차례차례 등을 떠밀어서 두 분을 강물에 빠뜨려드릴 수도 있고." "허어 참, 오래 살다보니깨 베라벨 {객광시런} 소리를 다 듣네!" 그 순간 거의 동시에 출발한 종술의 시선과 부월의 시선이 중간에서 딱 맞부딪쳤다.<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갠소롬하다 형 [대응어] 가느스름하다.

조금 좁고 가늘다. ¶말이나마 고맙네만 그만두소원…… 소리는 그렇게 나왔어도 실눈으로 {갠소롬하니} 웃는 눈웃음하며 헤벌어지는 입하며 답북 느긋해 하는 게 갈 데 없습니다.<채만식, 천하태평춘>

지역 전북.

해설 '가늘-+-으소롬하다>가느소롬하다>간소롬하다>갠소롬하다'의 변화 과정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갠소롬히 부

조금 좁고 가늘게. ¶제호는 눈을 {갠소롬히} 뜨고 연거푸 기다란 얼굴을 끄덕끄덕한다.<채만식, 탁류>

지역 전북.

해설 '가늘-+-으소롬->가느소롬->간소롬->갠소롬-'의 변화 과정을 거친 어근 '갠소롬'에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 '-히'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갠수 (갠數.) 명 [대응어] 식구.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하는 사람. ¶하늘겉이 높은 집이/ 다문 다문 다섯 {갠수}/나 하나를 남이라고/시누 깨논 옥동우를 날 깼다고 탓을 허네/시누 끊은 목단꽃을/날 끊었다고 탓을 허네/죽을라요 죽을라요/목을 잘라 죽을라요(남원 시집살이노래-"시누가 깬 옥동우를")<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남원.

갠신이 부 [대응어] 간신히.

겨우 또는 가까스로. ¶잃어부린 물건을 {갠신이} 찾았다.

지역 전북.

갠엿 명 [대응어] 갱엿.

푹 고아 여러 번 켜지 않고 그대로 굳혀 만든,

검붉은 색의 엿. ¶딱딱한 {갠엿} 하나를 입에 물고 빨아먹는다. ¶우리 막둥이는 {갠엿}을 먹다가 이빨이 쏙 빠져버렸대야.

지역 전북.

갠잔주럼하다 형 [대응어] 간잔지런하다.

졸리거나 술에 취하여 위아래 두 눈시울이 서로 맞닿을 듯하다. ¶{갠잔주럼한} 눈으로 바라보는디 미치겄어. ¶눈을 {갠잔주럼하게} 뜨고 있는디.

지역 전북.

갠잔주롬하다 형 [대응어] 간잔지런하다.

☞갠잔주럼하다.

지역 전북.

갠잔주름하다 형 [대응어] 간잔지런하다.

☞갠잔주럼하다

지역 전북.

갠잔즈럼하다 형 [대응어] 간잔지런하다.

☞갠잔주럼하다

지역 전북.

갠잔즈롬하다 형 [대응어] 간잔지런하다.

☞갠잔주럼하다

지역 전북.

갠잔즈름하다 형 [대응어] 간잔지런하다.

☞갠잔주럼하다

지역 전북.

갠잔지럼하다 형 [대응어] 간잔지런하다.

☞갠잔주럼하다

지역 전북.

갠잔지롬하다 형 [대응어] 간잔지런하다.

☞갠잔주럼하다

지역 전북.

갠잔지름하다 형 [대응어] 간잔지런하다.

☞갠잔주럼하다

지역 전북.

갤상갤상허다 형 [대응어] 호리호리하다.

몸이 가늘고 날씬하다. ¶체구가 {갤상갤상허니께로} 보기에 좋은지 모르겄구만.

지역 전북.

갬지 명 [대응어] 개미.

☞갬치.

지역 전북.

갬치 명 [대응어] 개미.

연줄을 질기고 세게 만들기 위하여 연줄에 먹이는 물질. 사기나 유리의 고운 가루를 부레풀에 타서 끓여 만든다. ¶크기가 제법 멧돌만한데 가운데 부분이 저절로 패어 있어서, {갬치} 먹일 사기가루 빻는 데는 아주 제격이었다.<최명희, 혼불> ¶이만하면 되얏지요? 인자 {갬치를} 멕이까요? 이번 연날리기는 맡어놓고 서방님이 일등 허실 거이구만요.<최명희, 혼불> ¶더구나 내일은 연싸움이 있는 날이다. 구로정(九老亭) 앞 언덕빼기에 모여서 시합을 하기로 했으니, 집집마다 연줄에 {갬치를} 먹이느라고 바쁠 것이다. 부레풀을 만들기가 수월치 않은 집에서는 밀가루나 찹쌀로 풀을 쑤어도 좋다. 강모는 연날리기에 자신이 있었다.<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해설 '감치'가 음운 변화로 '갬치'가 된 것이다.

갬치를 멕이다 【관용표현】

연줄을 질기고 세게 만들기 위하여 연줄에 사기나 유리의 고운 가루를 먹이다. ¶이만하면 되얏

지요? 인자 {깸치 를 멕이까요}? 이번 연날리기는 맡어놓고 서방님이 일등 허실 거이구만요. <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해설 옷에 풀을 입히는 것을 '풀을 먹이다'로 표현한다. 여기에서 유추되어 '깸치를 멕이다'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갯갑 명 [대응어] 갯값.

형편없이 헐한 값. ¶으메, 요걸 으찌 히야 쓰까이~ 오늘 또 {개값} 물어 주꺼나? ¶그럼, {개값이라도} 벌어 볼거나? ¶지금 거기 소들이 {개값} 되어 매여 있네<김용택, 맑은 날> ¶새마을운동 끝이 나고 소값 {개값} 되고 돼지금 똥금 되어 논 두 마지기 홀랑 날리고 미친 지랄 몇년에 불알만 덜렁 남았지<김용택, 꽃산 가는 길> ¶유원지의 행락인파는 더욱 불어났고. 소값이 {개값으로} 떨러져도. 소는 부지런히 풀을 뜯거나 한가롭게 산천을 바라보며. 되새김질을 하곤 했다.<김용택, 그리운 꽃편지>

지역 전북.

갯고기 명 [대응어] 생선.

바다에 사는 물고기. ¶{갯고기를} 잡아다 먹고 살었어.

지역 고창, 부안.

갱기다 동 [대응어] 감기다(머리를, 使動).

머리나 몸을 물로 씻겨 주다. ¶자식새끼 머리도 좀 {갱기고} 옷도 입히고 히야지.

지역 전북.

갱기찬허다 형 [대응어] 괜찮다.

☞갱기찮다.

지역 전북.

갱기찮다 형 [대응어] 괜찮다.

별로 나쁠 것이 없다. ¶인제는 앞장을 밀구 나가머는 조께 {갱기찮얼} 싹수가 있기는 있지만, 글씨 원수년의 돈이 어디 한 푼이나 있어야지!<채만식, 金의 情熱> ¶걸어서두 댕길라더냐, 고까짓 것 하룻저녁 좀 서서 가먼 어쩔라데야? {갱기찮다}, {갱기찮이여} ……<채만식, 강선달>

지역 전북.

해설 표준어 '괜찮다'의 방언형인데 주로 채만식의 작품에 나타난다.

갱또랑 명 [대응어] 도랑

☞또랑.

지역 전북.

갱번 명 [대응어] 갯벌.

밀물 때는 물에 잠기고 썰물 때는 물 밖으로 드러나는 모래 점토질의 평탄한 땅. ¶해태 양식을 할라구 {갱번에} 말을 박아 놓으면 그 말에 쩍들이 많이 달라붙어 있어.<고창군 해리면>

지역 고창.

갱솔허다 (←輕率하다) 형 [대응어] 경솔하다.

말이나 행동이 조심성 없이 가볍다. ¶긍게, {갱솔헌} 짓 마랑게.

지역 전북.

갱아지 명 [대응어] 강아지.

개의 어린 새끼 ¶꼭 쩜매 갖고, '어매, 갱아지 부르세요!" 그러니깨, {갱아지가} '어여여' 한깨 빗자루를 짊어지고 왔단 말이여. 그래 인자 빗자루로 방아를<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자고 가요?" "아무렴! 우리 {갱아지를} 안고 하룻저녁 자고 가야겄네. 어쩌, 괜찮겄어?"<이병철, 모래내 모래톱>

지역 전북.

갱아지풀 명 [대응어] 강아지풀.

줄기 끝에 강아지 꼬리 모양으로 생긴 털뭉치가 달리는 풀. ¶메뚜기네, 여치네 이른 것덜을 잡으면 말여, {갱아지풀이다가} 꽉 꿰아 놓으면 좋아.

지역 전북.

갱이 명 [대응어] 괭이.

☞깨~이. ¶"찾다 가는가?" "아이라우(아닙니다)." 저 시암 앞에 서 있는 놈들이 고 {갱이로} 근무할란다고.<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부안, 고창, 완주.

갱일 명 [대응어] 공일.

일을 하지 않고 쉬는 날. ¶일욜은 {갱일이고}, 토욜은 반갱일이고 그려.

지역 전북.

갱일날 (←空日날) 명 [대응어] 공일.

일을 하지 않고 쉬는 날. ¶웬 {갱일날에} 가야 외숭모랑 외갓집 성들도 만날 수 있응게.

지역 전북.

갱험 (←經驗) 명 [대응어] 경험.

자신이 실제로 해 보거나 겪어 봄. 또는 거기서 얻은 지식이나 기능. ¶다 {갱험을} 바탕으로 무시나 헐만 허요.

지역 전북.

갸 대

'그 아이'가 줄어들어 굳은 말. ¶니가 여직 뭘 몰라서 그렇지 우리 정옥이 {갸}, 애비 에미가 뭣인가도 몰르고 상업핵교 들어가드락 스럽게 살았지만서도 품행이 방정맞고 공부는 노상 일등이고 얼골은 거 뭣이라냐, 미쑤꼬랏감이기로 핵교 아난팎에서 일찌가니 소문이 둥둥 뜬 아다.<윤흥길, 빛가운데로걸어가면> ¶실은 말이다. 똥관이 {갸} 참말로 좋은 사람이다.<윤흥길, 소라단 가는길> ¶아, 그럼 {갸}한테도 물어 보시오." 그래 갸를 데려다가, "너, 이 노인 따라서 서울 갈래?" 그런깨,<구비문학 남원> ¶{갸보다는} 이장을 오라 허는 게 낫잖어?<조봉래, 풀벨골 시비주의>

지역 전북.

걍 부 [대응어] 그냥.

더 이상의 변화 없이 그 상태 그대로. 그런 모양으로 줄곧. 아무런 대가나 조건 또는 의미 따위가 없이. ¶그놈을 {걍 큰} 가마솥이다 히서 물 서말허고 넣고 걍 막 끼리라.<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소를 내서 그냥 나락 한 말씩을 십 년만이 찾어 가지감서 술을 크게 먹었든가. {걍} 가먼서 {걍} 막 자빠지는 놈도 있고 씨러지는 놈도 있고.<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전북.

거간쟁이 (居間쟁이) 명 [대응어] 거간꾼.

사고파는 사람 사이에서 흥정을 붙이는 일을 하는 사람. ¶물건을 떼어다가 직접 파니까 {거간쟁이가} 할 일이 없다.

지역 남원, 임실.

거게[1] 대 [대응어] 거기

듣는 이에게 가까운 곳이나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곳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 ¶들리는 소무네 머야 관촌 머야 저수지를 망는 {거게에} 그 이 김용호라는 사라미 또 감도그로 이따고 그래요.<전북지역어, 남원시> ¶그지배에 그 한산 인부를 인부들 사랑채가 큰:데, {거게에} 한 십오명이 이씁디다.(그 집에 그 한산 인부를 인부들 사랑채가 큰데, 거기에 한 십오명이 있습디다.) <전북지역어, 남원시> ¶{거게를} 한번 나가썬는데 음 아잉 거게서 요놈드리 그래요. 어이 머야 씨름이나 한번 해 보라고 말여.<전북지역어,

남원시> ¶내가 김영호라는 사라만테 내가 이러케 생켜는데 나타나지도 안꼬 이거 정말로 참머 지배 가지도 몯허고꼬, 이러케 생겨다니까 헌께 {거게에서} 국수파는데에서 쪼끔석 주는 그거슬 머꼬서나 거게서 한 일개워를 지내썯써요. (내가 김영호라는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생겼는데 나타나지도 않고 이거 정말로 참 뭐 집에 가지도 못하겠고, 이렇게 생겼다니까 하니까 거기에서 국수 파는 데에서 조금씩 주는 그것을 먹고서나 거기에서 한 일 개월을 지냈었어요.)<전북지역어, 남원시> ¶인제, 고놈한데 인자 저따하며는 {거게서는} 행시를 몯해요.<전북지역어, 남원시>

지역 전북.

거게[2] 부 [대응어] 거의.

☞거진.

지역 전북.

거그 대 [대응어] 거기.

듣는 이에게 가까운 곳이나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곳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 ¶{거그} 말캉 미테 있는 끄나플 조까 주실랑가요? ¶글먼, {거그} 가서 지까심 허고, 아그들 밴또 싸 줄랑게 마른 새비 조까 사옴서 날도 더웅게 냉콩국시랑 사먹고 오게 이~ 고거슨 나가 어쩌, 앙글라고 헝게 {거그가} 껄쩍지근허요 이~. ¶또 한 가지는 가방끈이 짧고 쎄깐히서 궁가, {거그까지} 한계를 느껴진당게요. ¶또라이가 따로 읎구만 이~ {거그는} 무덜라고 퍼질러 간디야? ¶{거그다} 등짝이 척척 헝게 난닝구 사쓰도 속빤쓰도

지역 전북.

거끔 명 [대응어] 거품.

액체가 기체를 머금고 부풀어서 생긴, 속이 빈 방울. ¶맥주 {거끔이} 흘러넘치는구만.

지역 무주, 완주, 정읍, 군산. [관련어]버큼, 뽀꿈.

지역 무주, 완주, 정읍, 군산.

거달다 동 [대응어] 거들다(일을).

남의 일이나 말 따위를 돕다. ¶남이 하는 일을 함께 하면서 돕다. ¶종 두기가 싫으시면, 나두 일 {거달아} 드리는 사람이라구 하면 그만 아녜요.<채만식, 심봉사> ¶“저 시꺼먼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먹쇠, 내 일 {거달아} 주는 사람.”<채만식, 심봉사>

지역 고창, 완주, 익산, 정읍, 군산.

거덜먹거리다 동 [대응어] 거들먹거리다.

신이 나서 잘난 체하며 자꾸 함부로 거만하게 행동하다. ¶신기록 세웠다고 되되허게 {거덜먹거리는} 유월이 백몇십 년만에 도도허게 갈아치운 높은 온도 속에 시방은 지영 때 여섯시를 갈킨다.

지역 전북.

거두 (鋸두) 명 [대응어] 톱.

얇은 강철판의 양쪽에 날카로운 이빨이 여럿 있어 나무나 쇠붙이 따위를 자르거나 켜는 데 쓰는 연장. ¶{거두로} 나무를 자르다.

지역 고창, 임실.

거드렁거리다 동 [대응어] 거드럭거리다.

☞더부렁거리다. ¶해가 서산이 져워 가니 모를 자주 자주 심이야만/장작매기를 두당거리며 {거드렁거리고} 놀것다(옥구 모심는 소리/상사소리)<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군산.

거들먹거리다 동 [대응어] 거들먹거리다.

☞거덜먹거리다. ¶“젊은 홀애비한티 무신 독약을 퍼멕였디야?” “독약은 무신!” 종술은 마냥 {거들먹거리는} 자세로 자신의 비방을 밝혔다.<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거등[1] 【종결어미】 [대응어] -거든.
청자가 모르고 있을 내용을 가르쳐 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나숭개 일케 뽀부먼 뿌리가 {질거등}.<백은아(2016)>
지역 전북.

-거등[2] 【연결어미】 [대응어] -거든.
'어떤 일이 사실이면', '어떤 일이 사실로 실현되면'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그 사람 {만내거등} 내 안부좀 전하소.<전북지역어, 남원시>
지역 전북.

거뚱거뚱하다 형 [대응어] 거든거든하다.
다루기에 많이 가볍거나 손쉽다. 또는 느끼기에 여럿에게 후련하고 상쾌하다. ¶옷차림이 {거뚱거뚱해서} 보기가 좋구만. ¶마음이 {거뚱거뚱한게로} 날아갈 것 같구만이.
지역 전북.

거뜨다 동 [대응어] 들치다.
물건의 한쪽 끝을 쳐들다. ¶한쪽을 {거뜨면} 다른 한쪽이 괜찮겠는가이. 고 참, 생각 좀 해 보슈.
지역 전북.

거라지 명 [대응어] 거지.
남에게 빌어먹고 사는 사람. ¶아 돈을 준 놈을 갖고 나가서 보니, 음식점에 가도 지그 집이 있는 것 뭐 다 귀찮다고, 다리 밑에 가니께 {거라지} 떼들이 그 아동들이 웅크리고 있고. 만날 가서 그 돈을 타다가 가들 주었어.<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전북.

거랭이 명 [대응어] 삼태기.
새끼 따위로 만들어서 흙이나 쓰레기나 거름 따위를 담아 나르는 데 쓰는 기구. ¶흙을 이제 뭐 {거랭이} 쌀 {거랭이} 같은 거 이런 것으로 이렇케 쳤제. 쳐서 한 무더기로 모아 놓고 그랬지. ¶{거랭이에} 담겨 있는 게 무다요?
지역 임실, 군산, 완주.

거러지 명 [대응어] 거지.
남에게 빌어먹고 사는 사람. ¶가만 둬도 죽든지 {거러지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납지요. 기왕에 그리 될 바에야 저를 따라오는 것이 백번 낫습지요.<최명희, 혼불> ¶그 옛날에 이사(御使)라는 것은 {거러지} 이 행세를 하고 다녔어. <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산이서 인자 시제를 모실라고 음식을 장만히 가지고 잘 채려놓고 인자 시, 시제를 모실라는디요. 얻어먹는 {거러지가} 오쟁을 짊어지고 가서 배가 고프니까 뭘 좀 돌라는가벼.<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전북.

거럭시 명 [대응어] 거지.
남에게 빌어먹고 사는 사람. ¶{거럭시가} 구걸하지 나가 구걸할까?
지역 전북.

거럼 명 [대응어] 두엄.
풀, 짚 또는 가축의 배설물 따위를 썩힌 거름. ¶농사를 짓기 전에 논으다가 {거럼을} 잘 넣어줘야 혀.
지역 장수.

거럽다 형 [대응어] 거북하다.
아주 거북한 데가 있다. ¶상주 여자라도 한 방으 있기가 {거러운게} 나갈라고 한게.
지역 전북.

거렁뱅이 명 [대응어] 거지.

남에게 빌어먹고 사는 사람. ¶전 수건을 동인 상투머리도 헝클어진 채 지푸라기 같은 것들이 붙어 있었다. 작은 보따리 대신 바가지를 들었더라면 영락없는 {거렁뱅이였다}.<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거룸 명 [대응어] 거름.
식물이 잘 자라도록 땅을 기름지게 하기 위하여 주는 물질. ¶그러고 인자 이놈이 농사짓는디 인자 그 {거룸} 주먼 거름 집어넣고는 또 집어넣어버려, 이놈이. 그러믄 그냥 야단낸다 이거여.
지역 남원.

거르막 명 [대응어] 대문 밖.
대문의 바깥이 되는 곳. ¶{거르막으로} 나가다
지역 전북.

거리 부 [대응어] 그리.
그곳으로. 또는 그쪽으로.
지역 전북.

거릿말 명 [대응어] 거짓말.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 대어 말함. 또는 그런 말. ¶{거릿말} 작작 좀 하쇼.
지역 군산.

거마리 명 [대응어] 거머리.
얕은 물속에 살며 배 쪽의 빨판으로 다른 동물에 달라붙어 피를 빨아 먹으며 사는 까만 벌레. 또는 그런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거마리에} 물리다. ¶매급시 그러지 말드라고. 내가 무신 {거마리}, 찐드기맹이로 들러붙어서 떨어지도 안허고 살자고 그러께미 미리부텀 장개 안 간다고 으름짱 놓능 거 내가 다 앙게로오.<최명희, 혼불>
지역 남원, 순창, 임실, 진안.

거마재비 명 [대응어] 버마재비.
☞버마자비.
지역 김제, 완주, 정읍.

거머락지 명 [대응어] 거머리.
얕은 물속에 살며 배 쪽의 빨판으로 다른 동물에 달라붙어 피를 빨아 먹으며 사는 까만 벌레. 또는 그런 사람을 비유적으로 낮잡아 이르는 말. ¶{거머락지} 같으면 딱 띠서 다른 데로 띵기겄는데. ¶{거머락지처럼} 따라댕기는 줄 몰라. 귀찮게시리. ¶{거머락지같은} 놈. 마누래 피 빨아 먹고 사는 놈이여.
지역 전북.

거머투테허다 형 [대응어] 거무튀튀하다.
너저분해 보일 정도로 탁하게 거무스름하다. ¶신랑 본게 {거머투테허니} 못 쓰겄어.
지역 전북.

거무 명 [대응어] 거미. ¶{거무}가 한 마리가 펑, 한 마리가 펑, 또 한 마리가 펑, 세 마리 나오더니, {거무가} 나오드랴. 각시가 잔개로 피르르 떨어진(잠이 깊이 드니까),<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거무락지 명 [대응어] 거머리.
☞거머락지.
지역 전북.

거무야하다 형 [대응어] 거무스름하다.
빛깔이 조금 검은 듯하다. ¶얼골이 먹칠을 한 것처럼 {거무야하더라}.
지역 전북.

거반 부 [대응어] 거의.

☞거진.
지역 전북.

거뷕이 명 [대응어] 거북이. ¶거뷕이처럼 느릿느릿 하다.
지역 전북.

거석 대, 감 [대응어] 거시기.
얼른 생각나지 않거나 바로 말하기 곤란한 사람 또는 사물을 가리키는 대명사. 또는 하려는 말이 얼른 생각나지 않거나 바로 말하기가 거북할 때 쓰는 군소리. ¶저기 {거석} 절 안 있소?
지역 전북.

거슬르다 동 [대응어] 거스르다
일이 돌아가는 상황이나 흐름과 반대되거나 어긋나는 태도를 취하다. ¶송어란 놈은 알을 까려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곰이란 놈들은 송어를 잡아먹으려고 강변에 지키고 있거던.<송기숙, 녹두장군>
지역 전북.

거시 명 [대응어] 거위.
오릿과의 새. ¶{거시가} 땍땍 험서 돌아댕기는데 잠을 잘 수가 있어야제.
지역 전북.

거시가 감
'거시기야'가 줄어들어 굳어진 말. 이름이 얼른 생각나지 않거나 바로 말하기 곤란한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한다. ¶아이, {거시가}! 니 눈깔 우게 가찹디 가차운 눈썹 한번 바바라. ¶아야, {거시가} 느그들 글라믄 딴디 가서 처묵으랑게.
지역 전북.

거시기시럽다 형
바로 말하기 어렵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데가 있다. ¶{거시기시러운} 나의 맘 지두린 거시 솔찬허다.
지역 전북.

거시기허다 형
바로 말하기 어렵거나 표현하기 어렵다. ¶아따, 후딱도 먹었는게비요 이~ 긍게, 멀뚱멀뚱 {거시기허게} 치다만 보내. ¶나가 시방 거시기가 허벌나게 {거시기허요이~~}. ¶"어따, 거 말끝마다 빠트리지도 않고 꼬박꼬박 갖다붙이는 이년 저년 소리 듣기가 참말로 {거시기허네}."<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모이먼 글도 머시라도 먹꾸, 이케 거시기를 허야 안저서 얘기덜또 허고, 오래간마니 만나쓰니까 {거시기헌디}, 그거뚜 참 그러트라구. {모이면 그래도 뭣이라도 먹고, 이렇게 거시기를 해야 앉아서 얘기들도 하고,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거시기한데, 그것도 참 그렇더라고}.<지역어 자료 총서, 군산>
지역 전북.

거시랑 명 [대응어] 지렁이. ¶옛적으는 가재는 눈이 없고 좋은 비단띠를 몸에 두르고 있고 {거시랑은} 눈은 있어도 비단띠가 없었단다<구비문학대계 진안군>.
지역 진안.

거시럼돈 명 [대응어] 거스름돈.
☞거시름돈. ¶까자 사고 남은 {거시럼돈은} 니 가져라.
지역 고창, 남원, 무주, 부안, 임실.

거시름돈 명 [대응어] 거스름돈.
거슬러 주거나 받는 돈. ¶아니 글씨 썩을 놈의 새끼가 심부럼만 시켰다 하면 {거시름돈을} 안 갖다주고 다 자기 보케트로 들어가는 거여. ¶물건을 사고는 {거시름돈을} 잘 받아와야 한다.
지역 무주, 완주, 익산, 임실, 진안, 고창, 남원,

부안, 군산.

거시림돈 명 [대응어] 거스름돈.

☞거시름돈. ¶거스름돈 {거시림똔}보당<2005 전북 남원>

지역 남원.

거우르다 동 [대응어] 지나다.

시간이 흘러 과거가 되다. ¶시장 허고만이라우. 때가 {거울러} 졌으니까 말 타고 가다가, 에 그려. 돈도 없고 헐 말 있는가.<구비문학대계 전북 고창군편>

지역 전북.

거운거운 부 [대응어] 거의거의.

여러 면에서 어느 한도에 매우 가까운 정도로. ¶근디 오뉴월 그때가 어느 때나믄 칠팔월달이 목케밭(목화밭) 지심을, 부인들이 짐을 메는 땐디 해는 {거운거운} 넘으가 석양이 되았는디 거그를, 한 곳을 가닝게 감나무에서 매미소리가 나고 새소리가 나는디 더운게 인자 그 그늘 밑이서 잠깐 앉어서 쉬는디 해는 넘으가고,<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해가 질 무렵에 일을 {거운거운} 다 마무리할 수 있어 좋았다.

지역 군산.

거자 부 [대응어] 거의.

☞거진.

지역 전북.

거작 부 [대응어] 거의.

☞거진.

지역 전북.

거작이 부 [대응어] 거의.

☞거진.

지역 전북.

거즘 부 [대응어] 거의.

어느 한도에 매우 가까운 정도로. ¶"학교에 {거즘} 다 왔을 때 숙제장을 놓고 온걸 알았다.". ¶근디 전부 다 구경을 허고 팔도 얘기를 {거즘} 다 들었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하여튼간에 우리 고창에서도 준비가 {거즘} 마무리 되았은게 수준 높으게 응원도 허실겸 많이들 귀경 오시요.

지역 전북.

거지 부 [대응어] 거의.

☞거진.

지역 전북.

거지반 명 [대응어] 거의.

어느 한도에 매우 가까운 정도로. ¶무엇에 되알지게 얻어맞아 꼬리 부분이 {거지반} 동강날 정도로 상해서 몸뚱이의 움직임과는 각놀고 있었다.<윤흥길, 장마> ¶그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돌라 먹다가 동네 사람만 디게 욕을 했는디, 허, 멧밥을 채려놓고 제사를 {거지반} 지내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선비들이 자는 방에 가서 방을 방을 쓸란개, 떡고물이 몇 개 떨어졌그든.<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몸땡이는 진짜허고 {거지반} 비젓허니 생기고, 꼬랑지만 살짝 틀리는 가짜배기가 바로 이단이란 말여, 이 친구야!"<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거진 부 [대응어] 거의.

어느 한도에 매우 가까운 정도로. ¶인제는 병중에 있던 증세가 {거진} 다 없어졌다.<채만식, 인형의 집> ¶"강실아, 너 그거 멀었냐?" "아니요." "{거진} 다 했어?"<최명희, 혼불> ¶"우리 허고 나이차가 {거진} 이십년 가차이 났으니깨 아직도 살어 기신다면 시방 아매 극노인이 되셨

을 거여."<윤흥길, 소라단 가는 길>

지역 전북.

해설 표준어 '거의'와 전북 방언에서 많이 쓰이는 '거진'은 역사적으로 '거싀'에서 왔다. '거의'형과 '거지'형의 분화를 보이는데 전북에서는 '거지'형이 많이 쓰인다. '거지'에 /ㄴ/ 또는 /ㅁ/이 첨가된 '거진', '거짐'을 많이 쓰고 있다.

거짐 뿐 [대응어] 거의.

어느 한도에 매우 가까운 정도로. ¶긍게 {거짐}, 다 된 것 같은디요.<조봉래, 풀벨골> ¶그니께 안올 놈 빼놓고는 인자 {거짐} 다 된 셈이제.<조봉래, 풀벨골> ¶거 {거짐} 가 갖고는, 아어디 간 곳이 없드래야.<구비문학대계, 정읍시> ¶근게 아 도적놈이 가만히 생각헌게 거주성명 일러 줄 것이 뭐 있어. 근게 {거짐} 따러서, '아 저놈이 벨놈 아니고나! 거주 성명 일러 주야겠다'고.<구비문학대계, 정읍시138>

지역 전북.

해설 표준어 '거의'와 전북 방언에서 많이 쓰이는 '거짐'은 역사적으로 '거싀'에서 왔다. '거의'형과 '거지'형의 분화를 보이는데 전북에서는 '거지'형이 많이 쓰인다. '거지'에 /ㄴ/ 또는 /ㅁ/이 첨가된 '거진, 거짐'을 많이 쓰고 있다.

거짓갈 명 [대응어] 거짓말.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 대어 말을 함. 또는 그런 말. ¶"야, 이년아, 내가 널더러 밥을 달라고 했어? 돈을 달라고 했어?" "왜 {거짓깔을} 허라우?" "남이야 거짓말을 하든 말든 늬가 무슨 상관이야?" " {거짓깔을}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나구라우? 그게 말이어라우? 막걸리어라우?"<최창학, 동물과 그들의 시간>

지역 전북.

거짓골 명 [대응어] 거짓말.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 대어 말을 함. 또는 그런 말. ¶하명이 자차(自此)고니 우리가 어매 아버지기다 {거짓골을} 했다. 그런것 인게 가서 나 보았다고 허면 보았다고 헐티먼 허고 말티먼 말어라.<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거짓깔 명 [대응어] 거짓말.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 대어 말을 하는 것. 또는 그런 말. ¶{거짓깔로} 일을 꾸며내면 안 돼. ¶그놈은 {거짓깔을} 씨부리도 대니는 놈이여.

지역 전북.

거짓꼴 명 [대응어] 거짓말.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 대어 말을 하는 것. 또는 그런 말. ¶여자 몸으로 죽산댁이 을매나 몸고상 맘고상 겪음서 사는지, 그 속이 을매나 씨리고 아프고 서런지 워째 몰르겄소. 그려도 광조 아부지럴 {거짓꼴로라도} 그리 말허먼 못쓰요. 광조 아부지는 장허고 또 장헌 사람이요."<조정래, 태백산맥> ¶우숩네. 우수워. 상놈, 상놈, 허지마는 우리 같은 상것들은 머 뽄낼 것도 쉉길 것도 없어 생긴 대로 상게는 즈그볼 때는 천허다고 허겄지만, 우리는 그래도 {거짓꼴은} 안 허제.<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거짓솔 명 [대응어] 거짓말.

☞그짓솔. ¶그러니깨 오성 마누라가 잠간 밖에 갔다가, "그렇지. {거짓솔} 허는 놈은 개똥이 마땅하지." 그렇게 둘이 웃으개 소리도 하며 잘 놀아.<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전북.

거천 명

부모나 웃어른을 모시는 일. ¶동네 사람들한티

들은게로 그 자부가 {거천} 잘 헌다고 허네.
지역 전북.

거청저 명 [대응어] 등겨.
벼를 벗겨 놓은 껍질. ¶푸대에다가 {거청저를} 담아서 내놓았어.
지역 완주.

거치 명 [대응어] 거처.
일정하게 자리를 잡고 사는 일. 또는 그 장소. ¶파동은(동네 이름) 회관 {거치를} 허고 뱁이랑 히 먹는다고 그런대.
지역 전북.

거판스럽다 형 [대응어] 걸다.
☞걸판시럽다.
지역 전북.

거판시럽다 형 [대응어] 걸다.
☞걸판시럽다.
지역 전북.

거판지다 형 [대응어] 걸판지다, 거방지다.
몸집이 크다. 또는 매우 푸지다. ¶먹곰보는 더 덤비려고는 안하고, 몸을 휘청거리면서 승재더러 욕만 {거판지게} …… "이 놈아, 네가 명색 의술을 한다는 놈이 그래 이놈"<채만식, 탁류> ¶매일같이 진령군을 시켜 {거판지게} 차려놓고 굿을 하였다.<채만식, 옥랑사> ¶내려선 것을 보니, 진실로 {거판진} 체집입니다. 허리를 안아 본다면, 아마 모르면 몰라도 한 아름하고도 반은 실히 될까 봅니다.<채만식, 태평천하>
지역 전북.

걱젱 명 [대응어] 걱정.
안심이 되지 않아 속을 태우는 일. ¶인자 원님이 오라고 헌게 안 갈 수는 없고 큰 {걱젱여}.<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전북.
해설 '걱정'은 전설모음 /ㅣ/가 후행하는 환경에서 '걱정+이→걱젱이'와 같이 움라우트된다. 그런데 이 '걱젱이'에서 '걱젱'만을 다시 분리해 내어 사용하다 보니, 동화주인 /ㅣ/가 없는 환경에서도 '걱젱만', '걱젱도'와 같이 '걱젱'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보인다.

건게옥질 명 [대응어] 건구역질.
게우는 것 없이 욕지기가 나는 일. ¶먹은 것도 읎이 {건게옥질만} 나오네. ¶메늘애가 아침이면 {건게옥질}을 허는 걸 봉게 아무리도 임신을 혔는게벼.
지역 전북.

건네가다 동 [대응어] 건너가다.
무엇을 사이에 둔 두 쪽 사이를 이동하여 옮아가다. ¶아, 그런게서나 인자 그렇게 알고서는 인자 전송차로 나오넌게 한강을 그냥 {건네가더라네}.<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우리 어머니가 병환이 나셔서 내가 오는 길인디 {건네가야겠다}."고 그러니께 물이 쫙 갈라지더라는군.<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산골 동네에서 학교를 가는디는 꼭 {건네가야} 하는 널븐 냇갈이 있느디 문제는 공부를 허다가 큰비로 물이 불어버리면 애덜 집이서는 소동이 난다. ¶그러고 저녁에 잘라면, 어머이 방으다가 꼭 손수 군불을 따땃허게 너 디리고는, 기양 횡제 방으로 가 부리는 거이 아니라, 방이 따순가 어쩐가 손바닥으로 온 방을 이리저리 짚어 보고야 안심을 허고는 {건네갔단} 말이여.<최명희, 혼불> ¶그 여학생한티 형의 편지가 {건네간} 것은 분명헌디 답이 없다고 심부름 탓만 허는 거여.
지역 전북.

건네다 동 [대응어] 건너다.
넘거나 지나서 맞은편으로 옮기다. ¶그러고는 그 궤를 들어다가 인제 배에다가 실고 대동강을 {건냈단} 말여. 건네가지고는 평양 감사한티 가서,<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가는 데가 개가 있어. 지금으로 말하면 방죽이나 되었던지, 쪼그마헌개 그랬겠지. 내를 건너는디? 내를 {건넸어}. 칡넝쿨로? 칡넝쿨로 배를 만들어가지고, 이전에 뗏목같이 그랬던 모양이지. 그래 갖고는 거진 건너가는디, 아<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건네펜 명 [대응어] 건너편.
마주 대하고 있는 저편. ¶고개를 들어 {건네펜을} 바라다봐. 머가 있는지 알어?
지역 전북.

건니다 동 [대응어] 건너다(냇물을).
무엇을 사이에 둔 두 쪽 사이를 옮아가다. ¶냇물을 띰박질로 띠어 {건니} 봐. {건니면} 자신감이 붙을 거여.
지역 전북.

건덕지 명 [대응어] 건더기.
국이나 찌개 따위의 국물이 있는 음식 속에 들어 있는 국물 이외의 것. 내세울 만한 일의 내용이나 근거를 낮잡아 이르는 말. ¶조병갑이가 방화범 조치를 미리 자세하게 지시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건져낼 {건덕지를} 얼른 건져내자는 생각도 있었지만, 아전들에게 국물이 푼푼한 이런 일을 하게 하여<송기숙, 녹두장군> ¶뭐 한나도 얘기헐 {건덕지가} 없어. 무엇을 이얘기허까 건덕지가 없어. 그러자 한숨을 쉬고 걱정거리지.<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전북.

건데기 명 [대응어] 건더기.
국이나 찌개 따위의 국물이 있는 음식 속에 들어 있는 국물 이외의 것. ¶멀겋게 풀어진 미음 같은 죽물에 몇 오라기 떠 있는 콩나물 {건데기가} 그래도 주린 창자를 진기 있게 해 주는 것이다.<최명희, 혼불> ¶엄마는 국물은 안주고 {건데기만} 퍼 주신다. ¶국물 속에는고기 {건데기가} 많이 있으니 잘 좀 보아라. ¶이렇게 서너 번 하다가 마지막 {건데기} 얼러 국을 소담하게 퍼부어 손님들 앞 개다리소반에다가 통 하고 갖다 놓고는<채만식, 정차장 근처> ¶그 아들을 구온해서 먹이고 그러는디, 죽은게로 그냥 치상칠 {건데기도} 없고 뭣도 없고 근게<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그러믄. "예, 어머니는 {건데기를} 잡수세요." 그러구 주구, 자기 메느리두 먹구 그러는데<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고창, 남원, 완주, 임실.

건들지 명
☞건틀지.
지역 전북.

건듯하면 부 [발음] [건드다면/건드타면] [대응어] 걸핏하면.
조금이라도 무슨 일이 있기만 하면 곧. ¶백성들이 하나하나가 사람 같으면 그놈들이 그 꼴로 험하게 뜯어가고 {건듯하면} 잡아다 패겠나?<송기숙, 녹두장군> ¶{건듯하면} 얼토당토 않는 트집으로 생사람을 잡아다 저렇게 사흘거리로 몽둥이찜질이오.<송기숙, 녹두장군>
지역 전북.

건뜻하면 부 [발음] [건뜨다면/건뜨타면] [대응어] 걸핏하면.
☞건듯하면.

지역 전북.

건방구지다 형 [대응어] 건방지다.

젠체하며 지나치게 주제넘다. ¶요런 싹수없이 {건방구진} 새끼 잠 보소!" 눈을 부릅뜬 작은형은 곧 후려칠 것 같은 기세였던 것이다.<조정래, 아리랑> ¶"당신 누군디 {건방구지게} 우리 감찰부장님 맨이름을 부르는겨?"<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해설 '건방'은 "젠체하여 주제넘은 태도"를 말한다. 방언에서 '건방이 궂다', '건방궂다' 표현이 사용된다. 이러한 표현에서 어간 재구조화가 일어나 '건방구지다'가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건방궂다 형 [대응어] 건방지다.

☞건방구지다.

지역 전북.

건붕채 (←金鳳釵) 명 [대응어] 금봉채.

머리 부분에 봉황의 모양을 새겨서 만든 금비녀. ¶서울이라 낭기 없어 {건붕채로} 다리 놨네(무주순 설천면)<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무주.

건살미 명

모를 심기 전에 대충 논을 써레질하는 일. ¶생바닥 갈아서 물 대놓고 {건살미라고} 쓰려(써레질해) 놔. 건정건정 한번 쓰리로 쓰린다고 {건살미}.

지역 전북.

건살미허다 동

두 번째 써레질을 하다. ¶생바닥 매고 {건살미허고} 또 쓰리혀(써레해).

지역 전북.

건성나발 명 [대응어] 건성.

어떤 일을 성의 없이 대충 겉으로만 함. ¶시상일 야지랑 깜서 정칫일 말(言) 팽맹이질 험서 창문 밖 모양성 철쭉 유혹에 굴풋 삼겹살 냄시 꼬심 속에 낯같 이름조차 까먹은 무심함에 {건성나발} 옹삭허게 해찰허면서. ¶알탕갈탕 포도시 히놓았도만 역시 {건성나발이구만} 이~. ¶하여튼 간에 둘 다 {건성나발이랑게} 긍게로 맨나 헛고상만 히쌌지 이~. ¶나이를 뭔 {건성나발} 폼으로 먹었간디요.

지역 전북.

건육 (←筋肉) 명 [대응어] 근육.

힘줄과 살을 통틀어 이르는 말. ¶{건육이} 뭉쳐서 움직일 수가 읎네.

지역 남원.

건잠허다 형 [대응어] 껑충하다.

키가 썩 크다. ¶큰애기가 키도 {건잠허고} 맘에 들었던게벼. 근게 막 결혼만 허자고

지역 전북.

건전주름하다 형 [대응어] 간잔지런하다.

졸리거나 술에 취하여 위아래 두 눈시울이 서로 맞닿을 듯하다. ¶"글안해도 {건전주름헌} 성님 눈에 잠이 따뿍 찼소. 허도, 금세 출발명령 떨어질 것잉께 잠잘 생각이야 허덜 마씨요."<조정래, 태백산맥> ¶춘향이 이 말 듯더니 고닥기 발연변식이 되며 요두졀목으 불그락 푸르락 눈을 {간잔조롬하게} 쓰고 둔셥이 꼭꼿하여지면셔 코가 발심발심ᄒᆞ며 이를 ᄲᅩ도독 ᄲᅩ도독 갈며 온 몸을 쑤순 입틀 덧하며 미 ᄭᅪᆼ 차난 듯 하고 안던이 허허 이게 웬 말이요<완판본 열여춘향수절가 上>

지역 전북.

해설 '건전주름허다'는 전북 방언에서는 '간잔조롬허다'로 많이 쓰는 방언이다. 채만식의 작품에

나오는 '갠소롬하다', '간소롬하다'와 뜻이 유사한 말이다. 대체로 눈이 작은 모습을 표현할 때 쓰인다.

건전주름허다 형 [대응어] 간잔지런하다.
☞건전주름하다.
지역 전북.

건정건정 부 [대응어] 건성건성.
정성을 들이지 않고 대강대강 일을 하는 모양. ¶생바닥 갈아서 물 대 놓고 건살미라고 쓰려 놔. {건정건정} 한번 쓰리로 쓰린다고 건살미.
지역 전북.

건지침 명 [대응어] 건기침.
가래가 나오지 않는 기침. ¶대답은 안 허고 {건지침만} 해 대는 거여. ¶칙간에 들어서기 전에는 반드시 {건지침}을 혀야 칙간귀신이 해꼬지를 안허는 거여.
지역 전북.

건진 부 [대응어] 거의.
☞건짐.
지역 전북.

건짐 부 [대응어] 거의.
어느 한도에 매우 가까운 정도로. ¶영화가 {건짐} 끝났을 때라 입구엔 기도 보는 등치 큰 아저씨는 없더라고. ¶"이렇게 히서 다 불합격 했는디 {건짐} 다 불합격 시켜놓고, 나중으 보니까 어떤 놈 하나가 남어서 서성대고 있는디<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멀기만 한 고모네집이 {건짐} 다 왔다.
지역 전북.

건집 부 [대응어] 거의.
☞건짐.
지역 전북.

건취하다 형 [대응어] 거나하다.
술 따위에 취한 그 기운이 몸에 돌기 시작하는 상태에 있다. ¶국으는 인자 가서 자. 가서 인자 일어나서 술 생각나면 가서 따러 먹고 따러 먹어. 술이 {건취혀서} 한밤중만 헌게 아 그 마룽(마루)으서 뭣이 우당탕 우당탕 허드니 희고 붉고 색색이로 옷을 입은 것들이 춤을 추고 이런 단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하긴 피할 데가 겨속 밖에 없어. 겨 속으로 들어가니께 자물통을 채나(채와놓아). 아 남자가 들어오더니 술을 {건취하니} 먹고서는, "하, 내가 오늘 어디가서 무엇을 좀 내 신수를 보니께<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전북.

건토 (←健鬪) 명 [대응어] 권투.
☞건투.
지역 고창.

건투 (拳鬪) 명 [대응어] 권투.
두 사람이 양손에 글러브를 끼고 상대편 허리 벨트 위의 상체를 쳐서 승부를 겨루는 경기. ¶{건투가} 조아.<2005 전북 남원> ¶{건투} 보당.<2005 전북 남원> ¶70년대는 {건투가} 제일 인기 있지 않았는가.
지역 부안, 정읍, 고창.

건트름 (乾트름) 명
☞건트림.
지역 전북.

건트림 (乾트림) 명
일부러 하는 가벼운 트림. ¶"이, 밥이야 배터지게 묵었제." 주성춘이 {건트림을} 해 보이며 자리잡았다.<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해설 '건트림'은 "시늉을 하는 것으로 보아 일부러 하는 행동"을 나타낸다.

건틀지 명

무청이 달린 잔 무로 담근 물김치. ¶건틀건틀 막 잎삭 차 막 담어서 먹은게. 그건 {건틀지여}.<2007민족생활어 조사6>

지역 전북.

해설 의태어로 보이는 '건틀'과 '김치'의 전북 방언인 '지'가 연결된 합성어이다.

건틈지 명

☞건틀지.

지역 전북.

걷질르다 동 [대응어] 겯지르다.

서로 마주 엇갈리게 걸다. 또는 엇갈리게 하여 다른 쪽으로 지르다. ¶문을 {걷질르면} 아무도 못 들오제. ¶첫마디부터 속을 {걷질러} 놓으면 어떡혀.

지역 전북.

걸기작거리다 동 [대응어] 걸리적거리다.

거추장스럽게 자꾸 여기저기 걸리거나 닿다. ¶차라리 아이를 기르는 데 {걸리적거리는} 물건짝이니, 이 기회에 윤희에게로 도로 내주고 선뜻 갈리는 것도 무방은 하다.<채만식, 탁류> ¶질바닥에 한번 나가보라니깨. 도적놈에 사기꾼 {걸리적거려서} 걸음도 지대로 못 걸을 지경이여.<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해설 '걸리적거리다'는 '걸리적걸리적'과 같은 합성 부사의 어근 '걸리적'에 동사 파생 접미사 '-거리-'가 연결된 것이다.

걸다 동 [대응어] 걸다(낫을).

벨 목적으로 벼 따위의 식물 포기를 낫으로 오그려 잡다. ¶우구려라 우구려라 우루려라/우굴우굴 우굴 우굴 우굴 우구려라아아아 허어허어어/열이 열두 포구럴 한 낫질로 {걸구서}/당그래 낫질로만 우구려라아어/어디 허고!(옥구 벼베는 소리/산아)<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군산.

해설 주로 '낫을 걸다', '낫질을 걸다'와 같이 쓰인다.

걸레들다 동 [대응어] 걸려들다.

그물이나 낚시 따위에 걸리어 벗어나지 못하게 되다. ¶이 한림학사 아들이 거기에 {걸레들었다} 이말여. ¶파놓은 덫에 {걸레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

지역 전북.

걸막 명 [대응어] 대문 밖.

☞거르막. ¶나는 가네 나는 가네 이 집 {걸막} 떠나갔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정읍.

걸배이 명 [대응어] 거지.

남에게 빌어먹고 사는 사람. ¶생긴 것이 똑 {걸배이} 모양이구만.

지역 전북.

걸엄마 명 [대응어] 걸음마.

어린아이가 걸음을 익힐 때 발을 떼어 놓는 걸음걸이. ¶우리 아덜이 첨으로 {걸엄마를} 배울 때 보먼은….

지역 전북.

걸우다 동 [대응어] 걸다.

벽이나 못 따위에 어떤 물체를 떨어지지 않도록 매달아 올려놓다. ¶베랑빡이 물러서 달력이나 시

계를 {걸워} 노먼 오래 못가더라고. ¶두루마기를 웃걸이에 {걸우고} 정중히 절을 올렸다.
지역 군산.

걸음마걸음마 감 [대응어] 섬마섬마.
어린아이가 따로 서는 법을 익힐 때, 어른이 아이의 의욕을 돋우기 위해 내는 소리.
지역 고창, 남원, 진안.

걸음발이 명 [대응어] 걸음걸이.
걸음을 걷는 모양새. ¶근디 색이 틀려서 그렇지 망아지는 아조 빙장어른 망아지허고 성질이나 {걸음발이나} 똑같은 것입니다.<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걸음허다 동 [대응어] 걷다.
어떤 곳을 다리를 번갈아 움직여 위치를 옮기다. ¶(이 사람은 어디 갔대여?) 아, {걸음헌다고} 나갔어. ¶여까지 {걸음혀} 주시고 고맙고만요.
지역 전북.

걸찌다 형
크게 앓거나 큰 일을 치른 다음에 푹 곁늙어 보이다. ¶늙은이가 {걸찌고} 나면 죽는디, 그 양반은 살아나네.
지역 전북.

걸찍하다 형 [발음] [걸찌가다/걸찌카다] [대응어] 걸쭉하다.
액체 따위가 묽지 않고 꽤 걸다. 또는 말 따위가 매우 푸지고 외설스럽다. ¶짝 찢을 년이니 오두가 나서 그러느니, 한바탕 귀먹은 욕을 {걸찍하게} 해주고 나서야 저으기 직성이 풀려<채만식, 태평천하> ¶괜히 놀랐다는 듯 허를 차고는, "성님, 오늘 저녁에 술 {걸찍허니} 한판 안 사실라요?" 그는 장덕풍에게 눈웃음을 치고 들었다.<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걸찍하다'는 부사성 어근 '걸찍'에 형용사 파생 접미사 '-하-'가 연결되어 형용사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 쓰임이 매우 다양하다.

걸찍허다 형 [발음] [걸찌거다/걸찌커다] [대응어] 걸쭉하다.
☞걸찍하다.
지역 전북.

걸치작거리다 동 [대응어] 걸리적거리다, 거치작거리다.
☞걸기작거리다.
지역 전북.

걸판나다 형 [대응어] 걸다.
음식이 가짓수가 많고 푸짐하다. ¶손 잡고 연히 잘 {걸판나게} 장만 히갖고 그 비를 개간을 히드려.
지역 전북.

걸판시럽다 형 [대응어] 걸다.
음식 따위가 가짓수가 많고 푸짐하다. ¶생님이라고 인자 동생이 데리다 대접을 허는디, 본게 막 {걸판시럽게} 채렸네. 고량진미(膏粱珍味)로, 진수성찬여.<한국구비문학대계, 전북군산시·옥구군편>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걸판시럽다'는 '걸판스럽다'의 변이형이다. 부사성 어근 '걸판'에 형용사 파생 접미사 '-스럽-'이 연결된 형용사이다.

걸퍽지다 형 [대응어] 걸판지다.
푸짐하고 배부르다. ¶아이들은 죽사발을 하나씩 안고 {걸퍽지게} 먹어댔다.<송기숙, 녹두장군> ¶허우대는 {걸퍽진} 놈이 겁은 왜 이리 많은지.

¶생일을 맞이하여 음식점에서 {결퍽지게} 먹었다. ¶농민군들은 장막 안에 가득히 앉아 {결퍽지게} 밥을 먹고 있었다. 치렁치렁한 미역 가닥에 쇠고깃국물을 시원스럽게 훌훌 마셔댔다.<송기숙, 녹두장군> ¶모두 또 한바탕 {결퍽지게} 웃어 재꼈다.<송기숙, 녹두장군> ¶일행은 밤길에 원체 허기가 졌던 다음이라 술잔부터 {결퍽지게} 기울였다.<송기숙, 녹두장군>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에서 '거판지다'는 주로 "사람의 몸집이 크다"는 것을 표현할 때 쓰고, '걸판지다'는 "성대하다"는 의미로 쓴다. '거판지다'와 '걸판지다'는 의미를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 '결퍽지다'는 이 두 어휘를 다 아우르며 쓴다.

걿다 동 [대응어] 걷다.

다리를 움직여 바닥에서 발을 번갈아 떼어 옮기다.

지역 고창,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임실, 장수, 정읍, 진안.

검당 명 [대응어] 그을음, 검댕.

☞검장.

지역 전북.

검문 (검門) 명 [대응어] 덧문.

문짝 바깥쪽에 덧다는 문. ¶{검문을} 달은께 방안이 훨씬 따땃해지드랑게.

지역 군산.

검벅거리다 동 [대응어] 끔벅거리다.

☞껌벅거리다.

지역 전북.

검부쟁이 명 [대응어] 검불.

☞검부제기.

지역 임실.

검부적 명 [대응어] 검불.

가느다란 마른 나뭇가지, 마른 풀, 낙엽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검부적을} 모아서 불피우고 놀았제 보름날에는.

지역 임실.

검부제기 명 [대응어] 검불.

가느다란 마른 나뭇가지, 마른 풀, 낙엽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검부제기} 속에다 노리를 묻어 놨어.

지역 완주, 임실.

검북댕이 명 [대응어] 검불.

가느다란 마른 나뭇가지, 마른 풀, 낙엽 따위의 뭉텅이를 통틀어 이르는 말. ¶불 땔 때 {검북땡이가} 있으면사 불이 잘 붙제.

지역 완주.

검엉고무신 명 [대응어] 검정 고무신.

까만 고무신. ¶{거멍고무신} 신고 하룻내 돌아다녀.

지역 전북.

검엉자 명 [대응어] 눈자위.

눈알의 언저리. ¶{거멍자가} 빨갛다.

지역 완주.

검엉창 명 [대응어] 검은자위.

눈알의 검은 부분. ¶검은자위/명/ * {거멍창} {정문연}<전북>[군산, 익산, 완주, 진안, 부안, 정읍, 임실, 장수, 고창, 순창], <한국방언어휘자료집_전북편> ¶그의 눈은 {거멍창이} 흐릿하다. ¶왜 그리 무섭게 {거멍창만} 보이나요?

지역 고창,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검우야하다 형 [대응어] 거무스름하다.
빛깔이 조금 검은 듯하다. ¶네 갈림길에 선 {검우야한} 소나무가지/ 종노릇 가는 그대 어린것의 길을 가르치는/ 소나무가지를 씻어 비껴가고 있을 때……<서정주, 뻐꾹새 울음>
지역 전북.
해설 '검으야하다'는 미당 서정주의 시에서만 나타난다. 따라서 방언이라기보다는 개인어???이다. '하얗다'의 경우 전북 방언에서 '하얀하다'라고 많이 쓰는데, 이러한 변화에 따라 '검으얗다'를 만들고 이것을 다시 '검으야하다'로 표현한 것이다.

검은창 명 [대응어] 검은자위
☞거멍창 ¶{거믄창}<2007 전북 군산>
지역 군산

검장 명 [대응어] 그을음, 검댕.
그을음이나 연기가 엉겨 생기는, 검은 물질. ¶아술 받아먹고 가보닝게 그 별마는 어디로 가버리고 얼룩마만 매있네요. 인자 그 앉은 {검장} 칠힌 놈이 그 소내기 맞아놨으니 그것이 다 벗어지넌게, 힌마 다 벗어진게 얼룩덜룩허니 얼룩마가 있단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전북.

검지리 명 [대응어] 거머리.
얕은 물속에 살며 배 쪽의 빨판으로 다른 동물에 달라붙어 피를 빨아 먹으며 사는 까만 벌레. 또는 그런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검지리에} 물려 봤어? ¶{검지리처럼} 따라다니네. ¶그자는 {검지리같은} 탐관오리여.
지역 전북.

검틀지 명
☞건틀지.

지역 전북.

겁나 부 [대응어] 아주.
무서울 정도로 많이. 과장이나 역설이 섞인 표현이기 쉽다. ¶말초신갱 {겁나} 자극헌 냄시에 멀크락이 빠질랑가 딸막딸막 시방 삐집고 나올려는 애옥질. ¶{겁나} 망신에 우세상게로, 잘 봐 갖고 뽀개라 이~. ¶또 눈깔 {겁나} 돌려감서 또 맘이 흔들리기 시작헌다.
지역 전북.

겁나게 부 [대응어] 아주.
무서울 정도로 많이. 과장이나 역설이 섞인 표현이기 쉽다. ¶천 장군 재산이 {겁나게} 많았어.<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호랭이가 {겁나게} 죽었거든.<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글도 고창은 나지때는 {겁나게} 푹힝게 짐장도 펄씨께 히버렸당게요. ¶시상살이가 빈해도 {겁나게} 빈했씅게 인자는 고러케 살믄 안되지라우. ¶으따, 믄노므 앙개가 이로코롬 {겁나게} 끼었다요. ¶아따, 지비는 그렇게도 열심이 이마빡에 땀까장 흘려감서 운동헝게 배랑빡에 똥볼라감서{겁나게} 오래 살겄소이~. ¶지영때 댕게 바람도 {겁나게} 불고 강치할라 흐드만.
지역 전북.

겁나다 형 [대응어] 많다
무서울 정도로 많다. 과장이나 역설이 섞인 표현이기 쉽다. ¶그리 날마다 그놈을 한 땡이썩 지고 가서 팔고 팔고 인제 돈이 {겁나단} 말이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휘이 둘러보고 오닌게 과연 남원 읍내 가서 원님이라고 허는 분네가 백포자기 청포자기 씌워논 사람이 {겁나단}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주위에서 무를 막 어만디로 날라갈깨미 막 군데군데 이제 지러다가 놔두고는 폭: 타머는 재가 푸연노미 기양 {겁나}. 그러먼.(주위에서 물

을 막 다른 데로 날라갈까봐 막 군데군데 길어다가 놓아두고는 폭 타면은 재가 뿌연 것이 그냥 겁나)<2009 전북 임실> ¶"우리 금강간에 가믄 소나무가 {겁나요}." "{겁나지}."<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한번은 자는디 울타리를 뚫고 들어와서 눈구먹을 뚫고 들여다 보넌게, 방에서 난리가 났는디 말여, 자기 아들이 대장이라고 앉었고 군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디 {겁나더라는먼}.<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내오간이 작당을 허고 사정없이 싸개를 주니께 {겁나서} 숨도 지대로 못 쉬겄네.<윤흥길, 빛가운데로 걸어가면> ¶그러나 딸 서울아씨는 친정아버지의 성화쯤 그다지 {겁나지} 않는 터라 "방금 마당에서 놀았는걸!" 하고 심상히 대답을 하면서.<채만식, 태평천하>

지역 임실, 고창, 정읍, 완주, 남원.

겁뎅이 명

'겁'을 속되게 이르는 말. ¶소리에 {겁뎅이를} 잔뜩 집어먹고는 여그 숨어서 마느래 돌아오기만 일각이 여삼추로 지달리고 있었구만?<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겁재이 명 [대응어] 겁쟁이.

겁이 많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겁재이라는} 말이 듣기 싫어 더 큰소리를 친다.

지역 전북.

겁짐 명 [대응어] 엉겁결.

((주로 '겁짐에'의 형태로 쓰여))미처 생각하지 못하거나 뜻하지 아니한 순간. ¶그렇게 그 큰애기는 {겁짐에} 일을 당해 부렀제. 아 소리 한번 못 내고.<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겄-[1] 【선어말어미】 [대응어] -겠-.

주체의 의지나 미래의 일을 추측하는 선어말 어미. ¶민들레가 꼬치로만(꽃으로만) 보제, 멍는 건 {몰르건네(몰르겄네)}<백은아(2016)> ¶호랭이 {물어가겄네}<이태영(2004)> ¶내일 내가 {가겄다}.(내일 내가 가겠다.) ¶벌써 {갓겄다}.(벌써 갔겠다.)

지역 전북.

-겄-[2] 【축약형】 [대응어] -시었-.

화자가 문장의 주체를 높여 가며 그 문장의 사태를 지난 일이나 완료된 일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어만니, 엇지 {와겄소}<김중진(1984a)>

지역 고창.

해설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기-'에 과거나 완료를 뜻하는 선어말 어미 '-었-'이 연결되면 '-기었-'이 된다. 이 '-기었-'이 관용적으로 줄어들어 '-겼-'으로 쓰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겄-'은 '-겼-'을 달리 발음한 것으로 보인다.

겅개 명 [대응어] 건건이.

밥에 간단하게 곁들여 먹는 음식을 통틀어 이르는 말. ¶밥상에 {겅개가} 변변치 않다.

지역 전북.

겅건이 명 [대응어] 건건이.

밥에 간단하게 곁들여 먹는 음식을 통틀어 이르는 말. ¶그 짜그서 그냐 머 {겅거니하고} 바바고 이제 바가지를 이르캐 숟까라그로 주문 그냥, 거그서 먹고 가고.(그 쪽에서 그냥 뭐, 겅건이하고 밥하고 이제 바가지를 이렇게 숟가락으로 주면 그냥, 거기서 먹고 가고)<지역어 자료 총서, 무주>

지역 남원, 무주, 진안.

겅게 명 [대응어] 건건이.

☞겅건이.

지역 전북.

겅궤 명 [대응어] 건건이.
☞경건이.
지역 전북.

겉가리 명 [대응어] 겉가루.
밀을 확에 갈 때 처음 부분에 나오는 빨갛고 거친 질이 낮은 가루.
지역 전북.

겉눈썹 명 [대응어] 속눈썹.
눈시울에 난 털. ¶저 사램은 가짜 {겉눈썹을} 붙였는가 하늘을 찌르겄어.
지역 군산.

게기 명 [대응어] 고기.
식용하는 온갖 동물의 살. 또는 물에서 사는 지느러미와 아가미가 있는 척추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지역 전북.

게기밥 명 [대응어] 미끼.
☞괴기밥.
지역 전북.

게다 (←<일본어>geta[下駄]) 명 [대응어] 나막신.
일본 사람이 신는 나막신 모양의 신발. ¶여름이면 {게다}짝을 끄시고 댕기는 사람들을 자주 보았지.
지역 완주.

게도 놓치고 구럭마저 잃다 【관용표현】
'어떤 일을 하려다가 욕심을 내는 바람에 자기가 가졌던 것까지 잃는다.'라는 뜻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시한부 종말론 바람에 {게도 놓치고 구럭마저 잃은} 꼴이 된 그 여편네가 갈 길이라고 딱 한 가지밖에 없을 것이었다.<윤흥길, 빛가운데로걸어가면>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볼 것을 욕심 사납게 괜히 무리를 하다가 결국 {게도 놓치고 구럭마저 잃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다는 후회들이 줄줄이 찾아들었다.<윤흥길, 빛가운데로걸어가면>
지역 전북.
해설 이 관용 표현은 게를 잡으러 갔다가 게를 못 잡고 가져갔던 구럭마저도 잃은 상황을 비유한 것이다.

게란 (←鷄卵) 명 [대응어] 달걀.
닭이 낳은 알. ¶{게란이} 썩었다. ¶하루에 두 개씩 {게란을} 먹으면 몸에 좋다고 허잖여.
지역 고창.
해설 '게란'은 '계란'에서 반모음 /j/가 탈락한 형태이다.

게란양념 명 [대응어] 알고명, 지단.
달걀의 흰자와 노른자를 갈라서 따로따로 번철이나 프라이팬 따위에 얇게 부쳐 잘게 썬 고명.
지역 임실.

게란줄 (←鷄卵줄) 명 [발음] [게란쭐] [대응어] 계란 꾸러미.
달걀 열 개를 묶어 세는 단위 또는 그 끈. ¶옛날에는 게란을 {게란줄}로 팔고 그랬지. 들고 다닐 때도 {게란줄이} 편했은게.
지역 남원, 순창, 임실, 장수.

게랄 명 [대응어] 달걀.
☞게란.
지역 무주.

게버큼 명 [대응어] 게거품.
사람이나 동물이 몹시 괴롭거나 흥분했을 때 입에서 나오는 거품 같은 침. ¶싫은 소리 한 마디

힜다고 {게버큼을} 물고 들라들더라고. ¶내가 미운 소리를 했더니, 저 새끼가 {게버큼을} 물고 달려드는구만.
지역 전북.

게비 명 [대응어] 호주머니.
☞괴비. ¶명주 헝겊으다 또 싸고 또 싸고 히서 그놈을 주었어. 준게 이 사람이 받어서 {게비에다} 딱 놓고서는 나오게 되는디 칙사대접허덧기 참 먼저와 같이 그렇게 그 벽장문을 열더니 계수나무 벌거지를 또 따서, 복상도 있드리야 복상.<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군산.

게시 명 [대응어] 거위.
☞거시.
지역 전북.

게시다 동 [대응어] 계시다.
☞기시다. ¶"아니 쪼금 가만 {게시시유}. 밥 해 드릴께." "아니, 나 갈라우."<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고창, 김제, 순창.

게실 명 [대응어] 털실.
짐승의 털이나 인조털로 만든 실. ¶날이 추워지믄 두를라고 {게실로} 목도리를 떴어.
지역 전북.

게실레 명 [대응어] 가재. ¶또 계실기허고 가재허고는 또 그 설명을 해 줄께. 까재가, 말하자면 까재는 게실레기고, {게실레가} 까재가 되었었는디.<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전북.

게실레기 명 [대응어] 가재.
¶또 게실기허고 가재허고는 또 그 설명을 해 줄께. 까재가, 말하자면 까재는 {게실레기고}, 게실레가 까재가 되었었는디.<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전북.

게심심하다 형 [대응어] 심심하다.
음식 맛이 조금 싱겁다. ¶그러나 일본음식점에 발길을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음식이 매운맛 짠맛이 없이 {게심심하고} 덤덜큼한데다가 술마저 싱거워 전부터 별로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게심심허다 형 [대응어] 심심하다.
☞게심심하다. ¶여름달이 {게심심허고} 텁터그리헌 것에 비허먼 겨울달언 얼매나 적적허고 서러우냔 말이여.<조정래, 아리랑> ¶그렇지 않아도 술 생각이 간절했던 참이었다. "자아, 한잔 받으시씨요. 인자 술도 다 공장술이라 맛이 {게심심허니} 지랄 같기넌 허도 마시먼 취허기넌 헝게 많이 드시게라." 김칠호가 술주전자를 들었다.<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게야침 명 [대응어] 호주머니.
옷의 일정한 곳에 헝겊을 달거나 옷의 한 부분에 헝겊을 덧대어 돈, 소지품 따위를 넣도록 만든 부분. ¶{게야침이} 떡을 하나 넣어 갖고 갔어.
지역 전북.

게옥질 명 [대응어] 구역질.
속이 메스꺼워 자꾸 토하려고 하는 짓. ¶비우가 약해서 길 가다 개똥만 봐도 {게옥질이} 나올라고 그려.
지역 전북.

게우 副 [대응어] 겨우.
어렵게 힘들여. 기껏해야 고작. ¶그렇다구 글쎄 {게우} 1년 하구서 고만두는 법은 어딨어?<채만식, 젊은날의 한 구절> ¶인자사 {게우} 눈뚜껑이 벌어져서 뭣이 뭣인지 사방이 쪼깨 분간이 되는 것.<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소질도 없는 눈물 품팔이허는 지집이 니 눈구녁에는 {게우} 배우로뿐이 안 뵈냐?<윤흥길, 빛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게우 명 [대응어] 거위. ¶22623 거위 {게우}<2009 전북 임실> ¶오리하고 {게우하고} 구별을 못 하는가? 참 별시럽구만.
지역 남원, 무주, 임실, 장수, 진안.

게우르다 형 [대응어] 게으르다(사람이).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을 제때 하기를 싫어하는 성미나 버릇이 있다. ¶그런데 그때에 그렇게 일 할 때에 일 잘한 사람도 있고, 못 한 사람도 있지? 응, 그럼 {게우른} 사라문 이를 잘 안 하고.(응, 그럼 게으른 사람은 일을 잘 안 하고.)<지역어 자료 총서, 중국 무주촌> ¶차꾸 따끄먼, 어떤 사람 {게우른} 사라먼 저건 윤끼 안 나지머.(자꾸 닦으면, 어떤 사람 게으른 사람은 저것 윤기 안 나지 뭐.)<지역어 자료 총서, 중국 무주촌>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진안, 정읍.

게울 명 [대응어] 겨울.
☞겨울.
지역 전북.

게울르다 형 [대응어] 게으르다(사람이).
☞게우르다. ¶인자 아 이놈이 기울기울 뽕을 잘 안 따고 있어. 근게 처녀가 하는 말이, "너는 어찌 그렇게 {게울르게} 뽕을 안 따냐?" 그런게, <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정읍.

게으름배기 명 [대응어] 게으름뱅이.
습성이나 태도가 게으른 사람. '게으름쟁이'를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거지도 {게으름배기면} 밥도 못 빌어먹는다.
지역 전북.

게으름보 명 [발음] [게으름뽀] [대응어] 게으름뱅이.
습성이나 태도가 게으른 사람. '게으름쟁이'를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그 같은 놈을 {게으름보라구} 하지.
지역 전북.

게으름재이 명 [대응어] 게으름뱅이.
☞게으름배기
지역 전북.

게을 명 [대응어] 겨울.
☞겨울.
지역 전북.

게을르다 형 [대응어] 게으르다(사람이).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을 제때 하기를 싫어하는 성미나 버릇이 있다. ¶옛날이 어른들이 글안혀? 부지런히야 밥도 얻어먹는 것이다고. {게을르먼} 밥도 못얻어 먹는다고 않간디.<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전북.

게을바이 명 [대응어] 게으름뱅이.
☞게을배기.
지역 전북.

게을배기 명 [대응어] 게으름뱅이.

습성이나 태도가 게으른 사람. '게으름쟁이'를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어치케든 지비 가서 드러누울 생각만 허는 {게을배기}여.
지역 전북.

게집 명 [대응어] 계집. ¶고요히 토혈하며 소리없이 죽어갔다는 숙은, 유체 손톱이 아름다운 {게집이었다한다}.<서정주, 시집> ¶내가 만날 테니 그를 술집으로 끌어내기만 하시오. 그런데 그자가 술하고 {게집을} 좋아하나?<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게집아 명 [대응어] 여자아이.
시집가지 않은 어린 여자 아이. ¶저 {게집아가} 너의 신붓감인디 마음에 드냐?
지역 전북

게집애 명 [대응어] 여자아이.
시집가지 않은 어린 여자 아이. ¶흘러가다가 해와함께 저므러서 네집에 들리리라.<서정주, 瓦家의傳說> 속눈섭이 기이다란, {게집애의} 年輪은 댕기 기이다란, 붉은댕기 기이다란, 瓦家千年의銀河물구비… 푸르게만 푸르게만 두터워갔다. 어느바람 속에서도 부끄러운<서정주, 시집>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 하자<서정주, 고향에살자> {게집애야} {게집애야} 고향에 살지. 멈둘레 꽃피는 고향에 살지.<서정주, 시집>
지역 전북

게집질 명 [대응어] 계집질.
본처가 아닌 여자와 정을 통하는 일을 낮잡아 이르는 말. ¶너 이놈, 죽일 놈 같으니, 네 이놈 눈구녁이 맞아 계집질을 했으면 {게집질이나} 할 따름이지, 남의 소 판 돈꺼지 짊어져 가?<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전북.

겐찬허다 형 [대응어] 괜찮다.
☞갱기찮다.
지역 전북.

겔국 (←結局) 명 [대응어] 결국.
일의 마무리에 이르러서. ¶옹그라 메는 놈이 맹이 질지 몰라도 {겔국에는} 후딱도 갑디다.
지역 전북.

겔혼 (←結婚) 명 [대응어] 결혼.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의 관계를 맺음. ¶둘이 {겔혼을} 헐라면 부모님 허락을 먼첨 받어야지.
지역 고창,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익산, 임실, 장수, 정읍, 남원.

겔혼식 (←結婚式) 명 [대응어] 결혼식.
부부 관계를 맺을 것을 서약하는 의식. ¶글씨, {겔혼식도} 안 올리고 같이 산다네. ¶{겔혼식} 하루 전날, 함지기 친구들이 함을 팔곤 했지.
지역 전북.

-겠- 【선어말어미】 [대응어] -시었-.
☞-겼-.
지역 고창.
해설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기-'에 과거나 완료를 뜻하는 선어말 어미 '-었-'이 연결되면 '-기었-'이 된다. 이 '-기었-'이 관용적으로 줄어들어 '-겼-'으로 쓰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겠-'은 '-겼-'을 달리 발음한 것으로 보인다.

겡오 (←境遇) 명 [대응어] 경우.
사리나 도리. ¶이건 겡오가 아니다. ¶돈을 취해 간지가 언지라고 지금까지 모른체 허는거여, 사람이 {겡오}가 있어야지.
지역 전북.

겡오지다 형 [대응어] 경우 있다.
생각이나 태도가 분명하고 바르다.
지역 전북.

겡우지다 형 [대응어] 경우 있다.
생각이나 태도가 분명하고 바르다.
지역 전북.

겉돌다 동 [대응어] 겉돌다.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따로 지내다. ¶조다 머시매만 있고 가시내 혼자라 혼자 맨날 {겉돌아}, 동무가 없어. 암만히도 머시마 축으 못 들어가. 어디가 태 나도 태 나.
지역 전북.

-겨 【종결어미】 [대응어] -ㅂ시오
하십시오할 자리에 쓰여, 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허든 말이나 해 {보시겨}.<최명희, 혼불> ¶내가 홀에미라고 깜보능게빈디이. 이리 뜯어먹고, 저리 발러먹고, 공것잉게 맘대로 {맛보시겨}.<최명희, 혼불> ¶양반 양반 허지 {마시겨}, 대대손손 영화 누린 양반이면 멋 헌다냐.<최명희, 혼불>
지역 남원, 고창.

겨다 보동 [대응어] 계시다.
'-아/어 겨다'의 형태로 쓰여((주로 동사 뒤에서 '-아/어 겨다' 구성으로 쓰여))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변화가 끝난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내는 말. ¶달아 달아 우리님은/눠어 {겼든가} 앉어 {겼든가}/보시고 보는 대로만 일러 주소(임실 신세타령 - "달아 달아 밝은 달아"-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천담)<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임실.

겨울살이 명 [대응어] 겨우살이.
홑옷에 솜을 두는 일. 또는 그런 옷. ¶겨울에는 솜옷 지어야제. 그게 {겨울살이여}. 여름에는 여름살이, 겨울에는 {겨울살이}. 아이고 말도 마.
지역 전북.

겨을 명 [대응어] 겨울.
한 해의 네 철 가운데 가을과 봄 사이의 넷째 철. ¶그리고 인자 {겨을가튼} 때는 다 떡 쓰러서 떡꾸그로 이케 다 대저버고, 여르메는 국수 쌀머서 이케 대저버고 다.<2007 전북 군산> ¶밀물처오는 서름의 江물 언제나 흘러… 봄에도, {겨을} 밤 불켤때에도, <서정주, 시집>
지역 김제, 남원, 무주, 군산, 완주, 임실, 진안, 부안.
해설 현대 국어 '겨울'의 옛말인 '겨슬'은 15세기 문헌에서부터 나타났다. 이 단어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조사 '과', '도'와 결합할 때에는 끝소리 /ㅎ/가 나타나지만, 그 밖의 조사와 결합하거나 단독으로 쓰일 때에는 끝소리 /ㅎ/가 나타나지 않는 '/ㅎ/ 종성 체언'으로 '겨ㅿㅡㅀ/겨슬'의 이형태 교체를 보였다. 그러나 이미 15세기에도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 끝소리 /ㅎ/가 탈락한 '겨슬'이 쓰인 예가 나타나고 있다. 18세기 이후로는 끝소리 /ㅎ/가 완전히 탈락한 '겨을, 겨올, 겨울' 등의 형태만이 문헌에 등장하였다. 16세기 이래로 /ㅿ/ 소리가 사라짐에 따라 '겨ㅿㅡㅀ, 겨슬'은 각각 '겨읋, 겨을'로 변화하였다. 또한 17세기에는 제2 음절의 모음 /ㅡ/가 /ㅜ/로 바뀌어 현대 국어와 같은 '겨울' 형태가 등장하였다. 한편 17세기에는 제2 음절의 모음 /ㅡ/가 /ㅗ/로 바뀐 '겨올' 형태도 나타났으며, 16~18세기 문헌에는 어간말 자음 /ㄹ/가 탈락한 형태가 보이기도 한다.

-겼- 【축약형】 [대응어] -시었-.
화자가 문장의 주체를 높여 가며 그 문장의 사태를 지난 일이나 완료된 일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논에 거름 {허겼어요}?<> ¶우산 {가

꽈겼어}?<> ¶아부지 {나가견냐}?<김중진(1984a)> ¶아버지! 저거 {봐겼죠}.<이태영(1988)> ¶언지 {와겼소} ¶아부지 {나가겼냐}?

지역 고창.

해설 화자가 주체를 높이는 데 사용하는 선어말 어미 '-시-'가 '-기-'로 나타나고 있다. 이 '-기-'에 과거나 완료를 뜻하는 선어말 어미 '-었-'이 연결되면 '-기었-'이 될 것이다. 이 '-기었-'이 관용적으로 줄어들어 '-겼-'으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겻-'이나 '-견-' 등은 이 '-겼-'의 음운론적 이형태로 보인다.

경오 명 [대응어] 경우.

사리나 도리. ¶"사정이야 그렇다지만, {경오가} 대단히 틀리오! 그러니 배 선가는 절반은 그 사람한테 받을 생각하오!<채만식, 배비장> ¶말 잘했네. 자네가 {경오를} 말했은께 하는 소린디, 어째서 자네는 경오를 따져도 자네 형편에 맞는 대로만 {경오를} 따지는가?<송기숙, 녹두장군>

지역 전북.

경오지다 형

☞경우지다. ¶옛날에는 그렇게도 관에서 하는 일에 꼬치꼬치 따지고 덤벼들고 {경오지게} 이장을 물고 늘어지더니.<김용택, 한수 형님 이장>

지역 전북.

경우 빠지다 【관용표현】

어떤 조건에 따르는 형편이나 사정을 고려치 않고 무례한 행동을 하다. 또는 경우에 어긋나다. ¶남한테 대접을 받구 싶거들랑 그만침 {경우 빠진} 짓을 말아야 하는 법예요!<채만식, 선량하고 싶던 날>

지역 전북.

해설 명사 '경우(境遇)'는 "사리나 도리"의 뜻이다. 전북 방언에서 많이 사용되는 '경우 빠지다'는 '경우가 빠지다'란 말로, "경우가 없다", "경우에 어긋나다"의 뜻이다.

경우지다 (境遇지다) 형

생각이나 태도가 분명하고 바르다. ¶{경우지고} 아능 것도 많은 자네가 어디 말을 좀 해 바. 머얼 어쩌겄다는 거인지.<최명희, 혼불> ¶이기채는 쫓기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놈이 이런 일을 {경우지게} 해낼 수 있을까? 웬만한 자각만 있다 하더라도 이만한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하련만.<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경우지다'는 명사 '경우(境遇)'에 형용사 파생 접미사 '-지-'가 연결되어 "사리나 도리가 밝다"의 의미를 갖는다.

계실기 명 [대응어] 지렁이. ¶또 {계실기허고} 가재허고는 또 그 설명을 해 줄께. 까재가, 말하자면 까재는 게실레기고, 게실레가 까재가 되었었는디.<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전북.

고고마 명 [대응어] 고구마. ¶시어메가 {고고마를} 찌러 가는디…. ¶{고고마를} 어쩌게 준고니, {고고마를} 쪄서, 노인이라는 것은 배가 고파 근게.

지역 전북.

고구마순 명 [대응어] 고구마 줄기.

고구마에서 돋아 나온 연한 싹. 이것의 껍질을 벗겨 나물을 해 먹는다. ¶그러구 {고구마순} 가틍 거 탕허고, 인자 그러케 되지.<지역어 자료 총서, 군산> ¶{고구마순} 뜯어다 지 담을란다. ¶그놈은 {고구마순이} 흐겨. 안 맛나.

지역 김제, 무주, 군산, 익산.

고구마순지 명

껍질을 벗긴 고구마 줄기로 담근 김치. ¶요새는 고구마순으로 지를 담어, 그것얼 {고구마순지라

고} 허지.

지역 전북.

해설 '고구맛순'에 '김치'를 나타내는 '지'가 연결된 합성어이다. '김치'를 전북 방언에서 '짐치'라고 하기 때문에 '고구마순짐치'라고도 한다.

고구마순짐치 명

껍질을 벗긴 고구마 줄기로 담근 김치. ¶당가 놨다가 {고구마순짐치가} 익으면 고구마랑 같이 먹어도 되겄지.

지역 전북.

고구마입사구 명 [대응어] 고구마 줄기.

고구마에서 돋아 나온 연한 싹이나 그 싹이 붙은 줄기. 이것의 껍질을 벗겨 나물을 해 먹는다. ¶{고구마입사구는} 뭐시냐면, 고구마줄기여.

지역 고창.

고구마죽다리 명 [대응어] 고구마 줄기.

고구마에서 돋아 나온 연한 싹. 이것의 껍질을 벗겨 나물을 해 먹는다. ¶한마디루 고구마줄기여 줄기. {고구마죽다리라구} 허서 인제 나물도 허서 먹고 볶아서도 먹구 그려.

지역 임실, 부안.

고구마죽데기 명 [대응어] 고구마 줄기.

☞고구마죽다리.

지역 부안.

고구마줄거리 명 [대응어] 고구마 줄기.

고구마에서 돋아 나온 연한 싹. 이것의 껍질을 벗겨 나물을 해 먹는다. ¶{고구마줄거리}는 뽂아도 먹고 짐치해서도 먹고 그러지. ¶"아닌디요, 우리 아부지가 알면 큰탈 날 것잉께. 글먼 써그저 {고구마줄거리라도} 치울라요." 종남이는 생글거리며 말했다.<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순창, 완주, 김제, 무주, 익산, 임실, 정읍, 진안.

고구맛대 명 [대응어] 고구마 줄기.

고구마에서 돋아 나온 연한 싹. 이것의 껍질을 벗겨 나물을 해 먹는다. ¶고구마줄거리라구두 하고 {고구맛대라구두} 하고, 껍질을 벳겨서 볶아서도 먹구, 김치도 담가먹구 그려. ¶{고구맛대} 껍질을 벗겨서 고구맛대 김치를 담가 먹으면 정말 그 맛은 최고야.

지역 남원, 정읍.

고구매 명 [대응어] 고구마.

☞고구마 ¶"잉, 니가 {고구매가} 묵고 잡은 모양인디, 쪼깐헌 것이 공짜 안 바래고 고런 이견 내는 것이 똑똑타."<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고구매대 명 [대응어] 고구마 줄기.

☞고구마대.

지역 전북.

고구매순 명 [대응어] 고구마 줄기.

☞고구마순.

지역 전북.

고기잽이 명 [대응어] 고기잡이.

낚시나 그물 따위로 물고기를 잡는 일.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고기잽이를} 나갔는디 파도가 하도 쳐서 걍 허는 일 없이 돌아와버렸어. ¶느그 아버지가 {고기잽이여서} 너희들이 이만큼 럭고 살고 혔어. 알기나 알아?

지역 전북.

고기토막 명 [대응어] 고기덩어리.

☞괴기토막.

지역 임실.

고깃뎅이 명 [대응어] 고깃덩어리.

☞괴깃뎅이. ¶한 마리가 골고루 나누어져 대원들의 입으로 들어가버린 지 나흘이 지나서였다. "요것이 워쩐 일이여? {고깃뎅이} 보투혔다는 것이 그 소였든갑제?"<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고깔 명 [대응어] 목말.

남의 어깨 위에 두 다리를 벌리고 올라타는 일. ¶농악할 때 아를 {고깔} 태우고서 춤도 추고 그러제.

지역 전북.

고내고내 부 [대응어] 부라부라.

☞곤내곤내.

지역 전북.

고냥이 명 [대응어] 고양이.

☞고앵이.

지역 전북.

고냥조냥 부 [대응어] 그냥저냥.

특별한 일 없이 그럭저럭. ¶고년이 참말로 잡년인가 아닌가 험서 {고냥조냥} 넘우 추잡헌 일로 치부혀 부리지 않었냔 말여라.<조봉래, 풀벨골> ¶아 {고냥조냥덜} 자빠지고 앙겄어야!<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고노고노 감 [대응어] 섬마섬마.

어린아이가 따로 서는 법을 익힐 때, 어른이 아이의 의욕을 돋우기 위해 내는 소리. ¶우리 아가 혼자 한 번 서 볼까? {고노고노}, {고노고노}

지역 익산.

고누고누 감 [대응어] 섬마섬마.

☞고노고노.

지역 무주, 완주.

고누다 동 [대응어] 겨누다.

활이나 총 따위를 쏠 때 목표물을 향해 방향과 거리를 잡다. ¶지금 이렇게 승자의 서슬이 시퍼렇게 날 서, 부여융의 덜미를 {고누고} 있는 문무왕 법민, 그는 김춘추의 아들이요, 김유신의 생질로서, 그의 외고조부 역시 부여융처럼 망한 나라 가야의 왕이었다.<최명희, 혼불> ¶아, 여시 한 마리가 뵈서 꼭 벼랑 위에서 그놈을 {고누고} {고누고} 하다가, 여시가 제대로 안맞어서 인자 고누는 도중인디,<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그래도 잡을 욕심으로 인자 거까지 올라가서 한참 {고누고} 있은개, 아, 이놈이고 {고누라고} 허면 돌아가구 돌아가구. 시간을 기다리던가 총이 제대로 안 고놔저.<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고창, 군산, 남원, 부안, 완주, 임실.

고닝이 명 [대응어] 고양이.

☞고앵이.

지역 전북.

고다구 대 [대응어] 고따위.

고러한 부류의 대상을 낮잡아 이르는 지시 대명사. ¶일처리를 {고다구로} 하려거등 그냥 그만둬.

지역 전북.

고다푸다 형 [대응어] 고달프다.

몸이나 처지가 몹시 고단하다. ¶그렇게 몸을 놀리는디 어찌 안 고다푸겄어?

지역 전북.

고닥 부 [대응어] 바로, 금방.

☞고닥기.

지역 전북.

고닥기 부 [대응어] 바로, 금방

갑작스럽고 아주 짧은 동안에. ¶춘향이 이 말 듯더니 {고닥기} 발연변이 되며 요두절목으 불그락 푸르락 눈을 간잔조롬하게 ᄒᆞ고<완판본 열여춘향수절가上>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고닥'은 "별안간"이란 뜻을 가진 명사이다. 여기에 부사 파생 접미사 '-이(기)'가 연결되어 '고닥기'가 된 것이다.

고닥새 부 [대응어] 바로, 금방. ¶누가 쳐들어와서 나무칼로 낱낱이 귀때지 끊어가도 몰르게 {고닥새} 잠이 들고 말 거여.<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여인네가 땅에 앉었다가 일어시기만 히도 애기럴 배고 오짐만 누구 일어서도 애기럴 배고 사람 그림재만 밟어도 애기가 서서 {고닥새} 사람이 많이 퍼지게 됐다고 헌다.<구비문학대계, 정읍>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의 부사 '고닥새'는 아주 많이 쓰는 어휘이다. '고닥'이 뒤에 오는 '금세'의 형태와 섞이면서 '고닥새'가 된 것으로 보인다.

고단허다 형 [대응어] 고단하다.

단출하고 외롭다. ¶없는 사람보고는 {고단허다고 그려}. ¶그 집안이는 {고단헌} 집이라고. 성제들도 없고 허는 집.

지역 전북.

고달푸다 동 [대응어] 고달프다.

몸이나 처지가 몹시 고단하다. ¶자, 보시요. 생활은 이렇게 모래밭같이 바싹 말렀지요, 게다가 또 당신이 오늘 붙들려 갈지 내일 어데로 망명을 가야 할지 모르지요, 이런 {고달푸고} 불안한 세상을 어떻게 살어가란 말이요?<채만식, 그의 가정풍경> ¶힘든 세상인디 어찌 당신 사는 것만 {고달푸겄소}. 전디다 보면 좋은 세월도 오겄지요. ¶일하기가 무척 {고달푼} 하루였다. ¶하루종일 밭에서 일을 하고 나니 온몸이 {고달푸구나}.

지역 전북.

고달피다 동

몸이나 처지를 몹시 고단하게 하다. ¶부모를 {고달펴서} 먼 좋은 게 나온다고 그런지 몰르겄네.

지역 전북.

고더럼 명 [대응어] 고드름.

☞고도롬.

지역 전북.

고더롬 명 [대응어] 고드름.

☞고도롬.

지역 전북.

고도롬 명 [대응어] 고드름.

낙숫물 따위가 밑으로 흐르다가 얼어붙어 공중에 길게 매달려 있는 얼음. ¶그 사람 얼굴이 어떻게 찬지 {고도롬} 같더라.

지역 전북.

해설 국어사 자료에서 '고드름'이 소급하는 최초의 형태는 18세기의 '곳어름'과 '고도롬'인데, '고도롬'은 '곳어름'의 제2 음절이 제1 음절의 영향으로 /ㅗ/로 바뀌고, 이어 제3 음절도 앞에 오는 모음의 영향으로 /ㅗ/로 바뀐 형태이다. '고도롬'이 비어두 음절에서 일어난 '/ㅗ/>/ㅜ/'의 변화를 경험한 것이 19세기 어형 '고두룸'이고, 제3 음절 모음이 'ㅗ-ㅗ-ㅗ'라는 같은 모음의 반복을 피하기 위하여 제3 음절의 /ㅗ/가 /ㅡ/로 바뀐 것이 19세기 어형 '고도름'이다. 20세기 어형 '고두름'과 '고드름'도 이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즉 '고두룸'에서 제3 음절 모음이 /ㅡ/로 바뀐 것이 '고두름'이고, '고두름'에서 같은 원순모음 /ㅗ/와 /ㅜ/의 반복을 피하기 위하여 /ㅜ/를 /

ㅡ/로 바꾼 것이 '고드름'이다. 위와 같은 역사적 변천과정에서 볼 수 있는 형태가 전북 지역을 포함한 전라 지역에서 지금까지도 널리 쓰이고 있다.

고도룸 명 [대응어] 고드름.
☞고도롬.
지역 남원, 완주.

고도름 명 [대응어] 고드름.
☞고도롬.
지역 전북.

고돌빼기 명 [대응어] 고들빼기.
☞꼬들빼기.
지역 김제, 군산, 익산, 장수, 무주, 완주.

고동 명 [대응어] 다슬기. ¶냇가에서 {고동도} 잡고 물고기도 잡고 놀았다. ¶예전에는 {고동을} 줏어서 거울도 맨들고 집도 맨들고 했는데, 요새는 그렇게 허는 사람이 없데. ¶해질 무렵 냇가에 가서 {고동을} 잡아다가 고동국을 끓여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고동} 삶아서 빼먹어. 냇가 가서 잡어서 먹고 그랬는디 지금은 없어.
지역 고창, 무주, 부안.
해설 표준어의 '고둥'과 별개로 '다슬기'를 가리키는 방언형으로 쓰인다.

고동그러지다 동 [대응어] 뒤엉키다.
마구 엉키다. ¶사람들이 {고동그러져} 싸운게 보는 사람들도 많어.
지역 전북.

고동시 명 [대응어] 고종시.
보통 감보다 잘고 씨가 없으며 맛이 단 감. ¶{고동시로도} 꽂감 깎기도 허는디, 여그서는 두리감으로 깎지.
지역 전북.

고두럼 명 [대응어] 고드름.
☞고도롬.
지역 전북.

고두룸 명 [대응어] 고드름.
☞고도롬.
지역 남원.

고두름 명 [대응어] 고드름.
☞고도롬.
지역 부안, 정읍.

고두어 명 [대응어] 고등어.
☞고둥에.
지역 전북.

고둘개 명 [대응어] 고들빼기. ¶{고둘개에} 꽃 핀 거 봐라. 노래갖꼬 이쁘지 않냐?
지역 전북.

고둥에 명 [대응어] 고등어. ¶{고둥에} 이만썩헌 것을 지져 가지고 먹으믄 얼마나 맛있겄소.
지역 전북.

고드럼 명 [대응어] 고드름.
☞고도롬.
지역 전북.

고드롬 명 [대응어] 고드름.
☞고도롬.
지역 무주.

고들빼기지 명 [대응어] 고들빼기김치.
☞꼬들빼기지.
지역 전북.

고들빼기짐치 명 [대응어] 고들빼기김치.
☞꼬들빼기짐치
지역 전북.

고등학상 명 [대응어] 고등학생.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헌개 {고등학상} 대학생들이 못 쓴 행동을 허고 댕긴개 어디가 딴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지.<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전북.

고따구 대 [대응어] 고따위.
고러한 부류의 대상을 낮잡아 이르는 지시 대명사. ¶아니, 사램이라는 것이 재무과장이면 되야먹어야 허는디 {고따구로} 되아?<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고라실 명 [대응어] 고래실.
바닥이 깊고 물길이 좋아 기름진 논. ¶메추리란 놈이 아주머니 밥을 내갖고 오는 광주리를 인자 살살 인자 뒤를 따러와. 따러와 갖고서는 어느 인자 그 {고라실}이 됐던게벼. {고라실}, 들판이 이렇게 들판이 아니고 이 {고라실이여}. 산넘고 산넘어서 이렇게 나가는 이 쪼그만헌 들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이러다 저러다 보넌게 벌써 일곱 살이나 먹었네. 일곱 살이나 먹도록 못 죽였어. 그러자 구시월이 돌아왔는개벼. 그래서 산골짝 {고라실} 농사를 두 마지기를 짓는 놈이 있는디, 내일은 나락(벼)을 베려가게 됐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한 입이다 할딱 핥아먹어 버리고 그 돈냥 닷 냥 그놈 받어갖고는 어디로 왔나믄 수원지대를 왔어. 왔는디 저 높은데 {고라실} 위에다가 유상각을 짓고 말여, 농촌 농부들이 그날 술맥이를 허던 갑데.<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고랑[1] 명 [대응어] 밭고랑.
밭작물이 늘어서 있는 줄과 줄 사이의 고랑을 통틀어 이르는 말. ¶그때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있었다. "아짐씨, 우리가 한 {고랑썩얼} 맡어 캐디릴 텡께 고구마 한 개썩만 주실라요?"<조정래, 태백산맥> ¶이야기대로 하면서도 일은 그들과 똑같이 했다. 동네 여인들이 보리밭 {고랑을} 세 고랑 잡으면 자기도 세 고랑을 잡고<송기숙, 녹두장군> ¶아 그냥 보리밭 {고랑에} 가서 찾아가지고 그냥 팍 질러 죽여버려.<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군산, 남원, 무주, 부안, 완주, 임실, 정읍, 진안.

고랑[2] 명 [대응어] 골.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외지고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의 혜택이 적은 곳. ¶서울 어느 {고랑이} 되얐든지 한가헌 디 가서 인자 가난헌 선비가 하나 살고 있는데 원청 청빈혀. ¶들독 든 여장사 옛날에 가마소 {고랑에서} 기골이 우람하게 생긴 여자가 있었던겨.<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이전에는 큰 절이 있었어. 그런개 이 {고랑서} 절이 몇 군데인디, 이 절이 젤(제일) 컸다느마.<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전북.

고랑내 명 [대응어] 고린내.
☞꼬린내.
지역 남원, 장수, 순창.

고래구녕 명
방의 구들장 밑으로 나 있는 방고래의 입구. ¶그 나지나 오늘 지녁도 솔채니 충게 끄렁불 애끼지 말고 때고 {고래구녕으로} 쌩솔까지 서너 개 쪼

셔 늫고 자믄 새복까징은 따닷흘 거쇼.
지역 전북.

고랭 명 [대응어] 밭고랑.
☞고랑.
지역 임실.

고럼 명 [대응어] 고름.
☞고롬.
지역 전북.

고로코롬 부 [대응어] 그렇게.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이. ¶{고로코} 댕기면 옴팍허게 땀떼기도 나긌소. ¶긍게로 손빠닥이라도 맞층게, 고 일이 {고로코롬} 수월했재. ¶호랭이 대그빡에다가 민도칼로 째까씩 살살 베께 낸 후참에 끄트머리 잡고 똥구녕 팍 차 갖고 내질러불면 영낙없이 배깨져 불잖이여 {고로코롬} 않허믄 어럼 택도 없어 불제이. ¶무땀시 {고로코름} 허야 쓰겄소이~?
지역 고창, 남원.

고롬 명 [대응어] 고름.
몸 안에 병균이 들어가 염증을 일으켰을 때에 피부나 조직이 썩어 생긴 물질이나, 파괴된 백혈구, ¶몸뚱아리가 온통 {고롬} 투성이에요.
지역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고창, 군산, 완주, 순창.

고룸 명 [대응어] 고름.
☞고롬. ¶근디 문둥병이 걸렸어. 용천배기가 걸려갖고는 툭툭 터지고 눈에서, 눈이서 {고룸이} 찌걱찌걱 나고 이래이 됐단 말여. 달랑 아들 그거 하난디….<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고창, 군산, 완주.

고른내 명 [대응어] 고린내.
☞꼬린내.
지역 완주, 김제.

고리 부 [대응어] 그리.
그곳으로. 또는 그쪽으로. ¶아 새 방으 들어가서 그 도장방 {고리} 들으가는디 도장문을 열고는 거그다 채곡채곡 오쟁이다 하나 땀묵 담었단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고리다 형 [대응어] 고리다
발 따위에서 썩은 풀이나 썩은 달걀 따위에서 나는 냄새와 같다. ¶어디서 {고린} 냄시가 나는 것 같은디.
지역 김제, 부안.

고리때 명 [대응어] 고릿적.
지난 지 꽤 오래된 시기를 막연히 이르는 말. ¶이거 어디 갔는고 혔드만 {고리때} 것이 인자 나왔고만.
지역 전북.

고리문 (고리門) 명 [대응어] 여닫이.
문틀에 고정되어 있는 경첩이나 돌쩌귀 따위를 축으로 하여 열고 닫고 하는 방식. 또는 그런 방식의 문이나 창을 통틀어 이르는 말. ¶우리집으 {고리문이} 말썽이네. 워찌나 빽빽헌지 성인 장정들오 문을 한 방에 못 열어, 못 닫고. 기름칠이라도 히야 하나.
지역 임실.

고리장 (←高麗葬) 명 [대응어] 고려장.
예전에, 늙고 쇠약한 사람을 구덩이 속에 산 채로 버려 두었다가 죽은 뒤에 장사 지냈다는 일. ¶아버지허고 어매가 할머니를 {고리장} 허고 옹텡이와 지게를 내버리고 올라고 헝께 아덜이 옹

텡이랑 지게를 갖고 가자고 했십니다.<구비문학대계 완주군> ¶아덜은 어머니가 늙어서 {고리장} 헐 적으 담어갖고 가야 헐팅게 가지고 가야 헙니다고 말했십니다.<구비문학대계 완주군> ¶그 뒤보텀 죽기 전에 {고리장} 허넌 법이 없어졌답니다.<구비문학대계 완주군>
지역 전북.

고림 명 [대응어] 고름.
☞고름.
지역 순창, 익산.

-고마 【종결어미】 [대응어] -구먼.
해할 자리나 혼잣말에 쓰여,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주목함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파뤌따레 날 파넌디, {낟꼬마(낳았구먼).[낳+았+고마],).<백은아(2016)> ¶집어 여뿔먼 암시랑도 안 헐걸 저려게 욕을 보고 {있다고마}.<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남원.

-고만 【종결어미】 [대응어] -구먼.
해할 자리나 혼잣말에 쓰여,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주목함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그 남잘 {좋아하는고만}. 뭘 그리 재고 그려.
지역 전북.

고멩 명 [대응어] 고명.
음식의 모양과 빛깔을 돋보이게 하고 음식의 맛을 더하기 위하여 음식 위에 얹거나 뿌리는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 ¶{고멩} 만들어 얹혀 놔야 음식이 보는 맛이 생기지.
지역 전북.

고모래 명 [대응어] 고무래.
곡식을 그러모으고 펴거나, 밭의 흙을 고르거나 아궁이의 재를 긁어모으는 데에 쓰는 丁 자 모양의 기구. ¶{고모래} 가지고 와서 여그나 긁어라.
지역 전북.

고모레 명 [대응어] 고무래.
☞고모래.
지역 전북.

고목낭구 명 [대응어] 고목나무.
말라서 죽어 버린 나무. ¶그러니깨 하나님이 예끼놈, 허고 개천 도채비 대갈박 우에 날베락 쌔리기 전에 당산 {고목낭구는} 챙길 것 챙겨서 잽싸게 멀찌가니 튀어야지.<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고몰에 (←汨沒에) 부 [대응어] 골몰히.
다른 생각을 할 여유도 없이 한 가지 일에만 파묻혀. ¶마음에서 난 병이냐/시상 사람이 준 병인가/{고몰에} 생각헌들 나를 미워라고 준 병이라/아이고 데고 허어 어어 성화가 났네 에(고창 홍타령)<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고창.

고무 명 [대응어] 거미.
☞거무.
지역 고창, 순창, 익산, 장수.

고무다라 (고무<일>tarai[盥]) 명
고무로 만든 아가리가 넓게 벌어진 둥글넓적한 그릇. ¶댔다 허믄 아산 인냇강에 독자갈 떤지기고 큰 {고무다라에} 목새 떤지기니 해 볼 재간이 업구만이 은제들 속들 채릴랑가 아이고, 속터져.
지역 전북.

고무락지 명 [대응어] 고물.

인절미나 경단 따위의 겉에 묻히거나 시루떡의 켜와 켜 사이에 뿌리는 가루로 된 재료를 낮잡아 이르는 말. ¶떡으 묻은 {고무락지라도} 얻어먹을라믄 귀에 척 감기는 소리 정도는 헐 줄 알아야지.
지역 전북.

고바위 명 [대응어] 언덕배기.
산이나 언덕을 넘어 다니도록 길이 나 있는 비탈진 곳. ¶저 {고바위} 가믄 밭 있어.
지역 전북.

고바치다 동 [대응어] 까바치다.
비밀 따위를 속속들이 들추어내어 일러바치다. ¶백말 내가 훔쳐갈란게 느가 입 다물고 아버지한데다가 아 {고바치지} 말라고 그렇게 했더니.
지역 전북.

고뱅이 명
줄이나 끈의 한쪽을 동그랗게 말아 풀어지지 않도록 한 것. ¶여그는 안 째졌은게. {고뱅이} 풀어가꼬. 톱이 또 있어. 이렇게 이렇게 허먼 싹 벳겨져 버려.
지역 전북.

고봉태미 명 [대응어] 고봉.
곡식이나 밥 따위를 그릇의 전 위로 수북하게 높이 담는 것. ¶이놈의 것이 뭔 일인고 허고는 걍 말로 탕탕 눌러서는 따둑따둑 히서, 몽땅 {고봉태미로} 한 말 주었든가.
지역 전북.

고부장장허다 형 [대응어] 고부장하다.
조금 고부라져 있다. ¶나무가 {고부장장헌} 놈.
지역 전북.

고빠이 명 [대응어] 고뻬.
☞꼬빵이.
지역 전북.

고빼이 명 [대응어] 고뻬.
☞꼬빵이.
지역 전북.

고삿질 명 [대응어] 골목길.
큰길에서 들어가 동네 안을 이리저리 통하는 좁은 길. ¶이것을 인제 개념을 사갖고 인제 그 이튿날은 또 조반 밥을 먹고 떠나게 되었는데 아, 인제 점심 때쯤 가니께, {고삿질에서} 뽜복쟁이 옷을 하나도 입지 않은 상태인 아이를 말함.놈들이 V놈이 누어서 떡하니 놀아. 아 이놈들 봐라,<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전북.

고상 (←苦生) 명 [대응어] 고생.
어렵고 고된 일을 겪음. 또는 그런 일이나 생활. ¶이트까지 {고상만} 힀응게 인자는 웃을 일만 남었어라우. ¶내가 뭔 보갈머리 업씨 느그를 나가지고, 느 {고상을} 이르케 시키는구나. 그러고 즈그 엄마가 바를 빼더노코 울어때요.{내가 뭔 복이 없이 너희를 낳아 가지고, 너 고생을 이렇게 시키는구나. 그러면서 자기 엄마가 발을 뻗고 울었대요}.<2008 전북 고창> ¶다 전상[前生], 에 죄가 많어서 이승에 와, 갚고 갈라고 이 {고상을} 안허냐. 속에서 치민 대로 말을 다 헐라면, 쎗바닥이 칭칭 필로 갱겨 있드라도 다 못 풀제잉.<최명희, 혼불> ¶여그 와서 드레가서, 애기 나가꾸는 그양, {고상을} 히씨. {여기 와서 들에가서, 아기 나갖고는 그냥, 고생을 했지}. <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지역 전북.

고상허다 (高尙허다) 동 [대응어] 고생하다.
어렵고 고된 일을 겪다. ¶긍게, 무덜라고 싼 놈

사 갖고, 서빠지게 {고상허능가} 모르겄네 이~. ¶아 그 한 민년만 {고상허머는} 송아치가 한 바리 떠러징개. {아 한 몇 년만 고생하면 송아지가 한 바리 떨어지니까}. {그<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지역 임실.

고소롬하다 형 [대응어] 고소하다.

볶은 깨, 참기름 따위에서 나는 맛이나 냄새와 같다. 또는 기분이 유쾌하고 재미있다. ¶상큼한 흙냄새와 {고소롬한} 보릿대 타는 냄새가 폐부 깊숙이까지 스며 들었다.<송기숙, 자랏골의비가>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고소롬하다'는 '고소다'에 형용사 파생 접미사 '-으롬하-'가 연결된 것이다. 의미는 '고소하다'와 거의 같다.

고소름하다 형 [대응어] 고소하다.

☞고소롬하다. ¶신씨는 갈치속젓의 {고소름한} 향내를 맡으며 숟가락을 들었다.<조정래, 태백산맥> ¶상큼한 흙냄새와 {고소름한} 보릿대 타는 냄새가 폐부 깊숙이까지 스며 들었다.<송기숙, 자랏골의비가>

지역 전북.

고솝다 형 [대응어] 고소하다.

☞고숩다.

지역 군산.

고수다 형 [대응어] 고소하다.

☞고숩다. ¶고수런 내가, {고순} 내가 나<2008 전북 고창> ¶요즘 사는 일이 참으로 {고수네}.

지역 고창, 군산.

고수렇다 형 [대응어] 고소하다.

볶은 깨, 참기름 따위에서 나는 맛이나 냄새와 같다. 기분이 유쾌하고 재미있거나 속이 시원하다. ¶{고수런} 내가, 고순 내가 나<2008 전북 고창> ¶{고수렇게} 사는 사람들 보면 참 부러워. ¶고놈 폭삭 망한 걸 보니 참으로 {고수렇구만}.

지역 고창.

고수하다 형 [대응어] 고소하다.

☞고숩다.

지역 전북.

고숩다 형 [대응어] 고소하다.

볶은 깨, 참기름 따위에서 나는 맛이나 냄새와 같다. 기분이 유쾌하고 재미있거나 속이 시원하다. ¶그 맛이 하두 {고수우해서}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놓치들 않습니다.<채만식, 천하태평춘> ¶{고수운} 맛을 으뜷게 표현한다요?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의 '고숩다'는 역사적으로 '고소다>고소다/고수다'로 변하면서 형용사를 파생시키는 접미사 '-압/업-'이 연결되어 '고숩다'가 되고 어두 경음화 현상이 적용되어 '꼬숩다'가 된 것이다.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다 【속담】

부모의 눈에는 제 자식이 다 잘나고 귀여워 보인다는 말.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다는디}. 어뜨케 사램이, 그것도 양반이, 우리 같은 천골들 천헌 세상을 사시는 것도 아님서, 당신 자식을 안 돌아보시까잉.<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고시란히 부 [대응어] 고스란히.

조금도 줄어들거나 변한 것 없이 원래의 상태 그대로. ¶{고시란히} 앉어서 굶어죽지 않을라면 술이라도 팔어서 연명을 혀나가야지.<윤흥길, 빛가운데로 걸어가면> ¶안입고 안먹어서 모태놓은

돈 그놈한티 {고시란히} 갖다 바친 꼴이지. ¶동생이 못한다고 하니 모든 일이 {고시란히} 내 몫이 되었다.

지역 전북.

해설 '고시란히'는 '고스란히'의 제2 음절 모음이 선행하는 /ㅅ/ 뒤에서 전설모음화한 결과이다. 19세기 후기 치찰음 '/ㅅ/, /ㅈ/, /ㅊ/' 뒤에서 '/ㅡ/>/ㅣ/'의 전설모음화가 발생하였다.

고시랑거리다 동 [대응어] 구시렁거리다.

못마땅하여 군소리를 듣기 싫도록 자꾸 하다. ¶므- 땜시, 또 앙알봉알, 두렁두렁, {고시랑거리냐}? ¶당시의 나이 아직 어린 상문은 두꺼비 선생의 그 훈계의 말을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저 밤이나 낮이나 앉아서 귀가 따갑게 정신을 들여 글씨를 쓰라거니 글을 읽으라거니 {고시랑거리는} 잔소리와 한가지로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었었다.<채만식, 금의 정열> ¶치료비를 배상하고난 그들은 속이 쓰리고 아려 견딜 수가 없는데 또 며칠 후에 수리비 줄 생각을 하면 밤잠이 안 오고 배창자가 비비꼬일 지경이었다. 그런데다가 마누라들까지 {고시랑거리기} 시작했다.<조정래, 태백산맥> ¶성경 말씀 위에 달팍 엎으러져 인사불성이 된 시늉을 하느라고 부월은 두 눈을 송곳처럼 사용해서 글씨마다 구멍을 뚫어나갔다. 어두움의 일은 뭣이고 빛은 갑옷은 또 뭣이다냐. 속으로 한바탕 {고시랑거리고} 나서 그니는 다음 글씨에다 다시 구멍을 뚫기 시작했다.<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고시랑머리 명 [대응어] 고수머리.

☞꼬시랑머리. ¶{고시랑머리} 너 언제 커서 내 낭군 될래. ¶고시랑머리는 {고시랑머리끼리} 어울려지내는구먼. 하긴 초록이동색이니께 그럴수도 있겠지. 안 그려? ¶철호는 {고시랑머리라} 그런지 머리가 영리해 보여.

지역 전북.

고시레 명 [대응어] 고수레.

☞꼬시레. ¶옛날으는 운전을 직업으로 허는 사람들은 음력 초사흗날이 되면 고사를 지내고 베깥으다 {고시레를} 뿌렸지. 효엄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야 맘이 편허담서 그렇게들 혔어.

지역 고창, 무주, 완주.

고시허다 형 [대응어] 고소하다.

볶은 깨, 참기름 따위에서 나는 맛이나 냄새와 같다. ¶그 두부도 {고시헌디}.

지역 전북.

고신돗 명 [대응어] 고슴도치. ¶요즘 애덜은 {고신돗도} 애완동물로 키운다더만.

지역 전북.

고실고실하다 형 [대응어] 고슬고슬하다.

밥 따위가 되지도 질지도 아니하고 알맞은 모양을 나타내는 말. 또는 빨래 따위가 햇볕에 바싹 마른 모양을 나타내는 말. ¶밥 들어갈 곳은 따로 있는 밥과 김치처럼 {고실고실하거나} 풋풋하고<김용택, 밥과김치처럼> ¶등허리에 달라 붙은 삼베 적삼이 어느결에 {고실고실해지고}, 그 바람에 고달픈 근심가지도 일순 잊혀지면서 잠시나마 낙낙해지는 것이다.<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해설 전북에서는 밥이 잘 되었을 때는 물론이고, 이불이나 옷 등이 잘 말라서 촉감이 좋을 때 '고실고실하다'라는 말을 쓴다. 전북 방언 '고실고실하다'는 발음이 완전히 굳어진 것으로 형용사로 쓰고 '고실고실'은 부사로 사용한다. 이 발음은 전라도의 전형적인 음운 변화 현상으로 /ㅡ/ 모음이 /ㅣ/로 바뀌는 전설 고모음화 현상의 적용을 받은 것이다.

고심도치 명 [대응어] 고슴도치. ¶{고심도치도} 지

자슥을 이뻐라 한다는디 넌 왜 니 자슥도 안 돌보고 허구헌날 밖으서만 지내냐.
지역 전북.

고써레 명
씨 뿌릴 골을 타거나 논의 바닥을 고르는 데 쓰는 농기구. ¶{고써레로} 논바닥을 골라서 거기다 씨를 뿌린다.
지역 전북.

고앙 명 [대응어] 곳간.
물건을 간직하여 두는 곳. ¶뒷간 옆으가 {고앙이여}. 거그에 휴지가 있을 거여.
지역 임실.

고야이 명 [대응어] 고양이.
☞고앵이.
지역 전북.

고앵이 명 [대응어] 고양이. ¶"허허, 참 그러냐고, 그나저나 억울하게 되았소." 허믄서(하면서) {고앵이} 한 마리를 줘. 허믄서, "이놈 갖다가서 놓으머는 흑백을<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게 애기도 아니고 가만히 본게 {고앵이를} 낳거든. '하 이거 참 이상허다' 음[갑자기 생각난 듯], <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고엥이 명 [대응어] 고양이.
☞고앵이.
지역 전북.

고연시리 (←空然시리) 부 [대응어] 괜스레, 공연히.
아무 까닭이나 실속 없이. ¶{고연시리} 울덜마냥 뒷전에서 시상을 비관허봤자 뎁데고깔로 능력없는놈이 되기 똑 알맞제야.
지역 전북

고염 명 [대응어] 고욤.
☞괴옴.
지역 전북.

고옇다 형 [대응어] 괴이하다.
정상적이지 않고 별나며 괴상하다. ¶아이가 없어져서 {고연} 일도 다 있다 하고 걱정으로 지냈넌디 그 아넌 영영 돌아오지 안했다.<구비문학대계 임실군편>
지역 임실.

고욤감 명 [대응어] 고욤.
☞괴옴.
지역 전북.

고용감 명 [대응어] 고욤.
☞괴옴.
지역 전북.

고운딩기 명 [대응어] 등겨.
벗겨 놓은 벼의 껍질. ¶{고운딩기를} 닭모이로도 주고 그랬지.
지역 무주.

고운소금 명 [대응어] 곤소금.
천일염을 물에 풀어서 잡물을 거르고 고아서 깨끗하게 만든 소금. ¶사각진 굵은소금으로 간 맞추기 어렵지. {고운소금으로} 간 맞춰야제.
지역 전북.

고자리 명 [대응어] 가시.
음식물에 생긴 구더기. ¶상투를 잘리면서 모탕에다 짓찧어 그랬는지 훌쭉하던 볼이 한참 부어올라 {고자리} 먹고 자란 호박 꼴로 뒤틀려 있었다.<송기숙, 녹두장군> ¶구석에 하나 딸려 있긴

했으나 바닥에 오줌이 질펀해 있고 {고자리가} 득실거리는, 몸을 구십도로 숙여야만 겨우 들어설 수 있는 공중변소라도<최창학, 바다 위를 나는 목> ¶시골의 또망속에 {고자리가} 드글거리는 것은 이상할 것도 없고 혐오스런 일도 아니었다.

지역 김제, 부안, 군산, 완주, 임실, 정읍, 진안.

고자배기 명 [대응어] 그루터기.

나무 따위를 베어 낸 뒤에 남은 밑동. ¶나락 폭씨 떠서 (쟁기로) 벼 포기의 {고자배기를} 떠내서 갈라고 헌단 말여.

지역 군산, 임실, 장수, 진안, 무주, 완주, 익산.

고재이 명 [발음] [고재~이] [대응어] 고쟁이.

☞꼬쟁이.

지역 고창.

고쟁이밧 명

골짜기에 있는 밭. ¶써그 {고쟁이밧으로} 일허러 간께 참거리 내오는 거 잊지 마러라.

지역 전북.

고조한아씨 명 [대응어] 고조할아버지.

지역 전북.

고조할매 명 [대응어] 고조할머니.

지역 전북.

고종집 (古宗집) 명 [대응어] 고가.

여러 대(代)에 걸쳐 버슬하며 잘살아 온 집. 또는 그런 집안. ¶저 박씨네는 {고종집이여}. 멫 대 동안 벼슬살이헌 것 같던디.

지역 전북.

고지름 명 [대응어] 고드름.

낙숫물 따위가 밑으로 흐르다가 얼어붙어 공중에 길게 매달려 있는 얼음. ¶처마 밑으가 {고지름이} 메달렀응게 조심히 다녀.

지역 전북.

해설 '고드름'에서 제2 음절과 제3 음절의 모음이 'ㅡ-ㅡ'로 반복되어 제2 음절이 고모음화되어 '고디름'으로 변하였고, 제2 음절이 '/ㄷ/+ 모음 /ㅣ/' 환경이어서 구개음화가 적용된 형태로 실현된 것으로 보인다.

고집머리 명 [대응어] 고집.

'고집'을 낮잡아 이르는 말. ¶{고집머리가} 세서 친구나 있겄어?

지역 전북.

고초장 (苦椒醬) 명 [대응어] 고추장.

☞꼬치장.

지역 전북.

고춧잎짐치 명 [대응어] 고춧잎김치.

고춧잎으로 담근 김치. ¶고춘닙도 버릴 것이 없당게. {고춘닙짐치를} 담으먼 되야.

지역 전북.

해설 '고춧잎'에 '김치'의 전북 방언형인 '짐치'가 연결된 합성어이다. 전북에서는 '고추'를 '고치, 꼬치'라고 발음하므로 '고칫잎짐치, 꼬칫잎짐치'라고도 한다.

고치 명 [대응어] 고추.

☞꼬추.

지역 남원, 임실.

고치장 (고치醬) 명 [대응어] 고추장.

☞꼬치장.

지역 완주.

고칫가리 명 [대응어] 고춧가루.

☞꼬춧가리. ¶"아따, 무신 바람이 저리 날이날마

다 몰아때리고 그라노. 맵기는 와이리 {고칫가리} 맛이고, 십이월이 발씨러 이러믄 일이월은 우예 살겠노.<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고칫잎짐치 명 [대응어] 고춧잎김치.
☞고춧잎짐치.
지역 전북.

고푸다 형 [대응어] 고달프다.
몸이나 처지가 몹시 고단하다. ¶배 {고푸고} 허기지면 언제라도 밥 묵어라.
지역 전북.

고풀 명 [대응어] 감기.
주로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걸리는 호흡기 계통의 병. 보통 코가 막히고 열이 나며 머리가 아프다. ¶사람이면 누구라도 그 몸에 병 없는 사람이 없어서, 하다못해 발바닥에 박힌 티눈에서부터 귀때기와 손가락 발가락 끄트머리 얼어터진 동상이나 {고뿔에} 배앓이를 비롯하여, 몸 안의 보이지 않는 오장육부 곳곳에 자리잡고 틀어앉은 그 많은 병의 갖가지 증상을 도무지 한두 마디 말로는 할 수가 없는 법인데<최명희, 혼불> ¶자주 {고뿔이} 들고 손발이 동상이 걸려 고생은 나우한 편이지만, 그래도 건강한 몸으로 새봄을 맞이할 수 있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었다.<윤흥길, 소라단 가는 길>
지역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정읍, 진안.
해설 '감기'를 예전에는 '고뿔'이라고 했다. '고뿔 들었다'고 해서 감기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로 흔히 사용되었다. 국어사 자료에서 '고뿔'이 소급하는 최초의 형태는 16세기에 나타나는 '곳블'이다. 이것이 '곳불'로 원순모음화가 되었다가 뒤에 오는 음절 초성이 앞 음절의 /ㅅ/ 때문에 된소리로 되어 20세기 즈음에 '고뿔'이 된 것이다. '고뿔'은 곧 '고(鼻)+ㅅ(속격)+블(火)'의 구성으로 된 단어로 감기가 들면 코에서 불이 나는 것처럼 더운 김이 나온다고 하여 감기를 고뿔이라 불렀다고 한다. 전북 방언에서는 '강기'와 함께 '고뿔'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곡간 (←庫間) 명 [대응어] 곳간.
물건을 간직하여 두는 곳. ¶보름이나 된 뒤여는 간다고 허닌게 곡간이 수두룩허드락만 앞뒤로. 근디 {곡간} 하나를 열었는디 산호지팽이만 가득차 있고, 또 한 곡간을 열은게<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그런게 남자가 되로 가가서 본게 큰 {곡간을} 쇠대(열쇠)로 채웠는디, 싹 열어본게 금이야, 돈이야 꽉 찼단 말이여.<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인자 그 놈을 키웠는디 그 계모년이 그 부자집 {곡간으가} 인자 지네가 있어서 인자 해마다 처녀 하나씩을 넣어주는디<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으메, 째까씩 째까씩 {곡간} 쥐새끼 소금 비어 먹듯이 쪼그라지네 이~.
지역 고창, 김제, 부안, 완주, 정읍.

곡개이 명 [대응어] 곡괭이.
☞꼭괭이.
지역 전북.

곡갱이 명 [대응어] 곡괭이.
☞꼭괭이.
지역 전북.

곡석 (←穀食) 명 [대응어] 곡식.
사람의 식량이 되는 쌀, 보리, 콩, 조, 기장, 수수, 밀, 옥수수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하루밤 자고 난게 싹 그자리가 돼있어. 정승 부인이 참 기가 맥히거든. 그 곡식을 보고 배는 고파 죽겄는디 다 갔네. 이놈으 {곡석이} 다 어디로 가버렸네. "여보 시상으 이렇게 배가 고파 죽겄는

디 밥히서 한 사발만 먹으면 죽어도 원이 없겄소." "안돼요.<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 아, 그런게 인자 옛날 사람이라 참 미련허고 뭣 헐 것이 없은게, 참 남이 준 {곡석}, 쌀닷 말, 참 달 어찧게 아무리 애껴 먹는다 해도 먹고 떨어진게 도로 그 마냥이 도로 굶게 되아 <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눈에 띠먼 가져 부링게, 사램이건 육축이건 땅뙈기건 먼저 가지는 놈이 임자였는디, 인자는 그런 시상이 아니라고요." "아, 집이다가 노적가리 {곡석을} 산데미로 쟁에 놓고, 문갑으다가는 논문서 발문서를 채곡채곡 낟가리맹이로 쟁에 놓고 사는 댁 종손이, 머이 아숩다고 도적질을 헌당 거이여?"<최명희, 혼불>
지역 남원, 무주, 임실.

곡섹 (←穀食) 명 [대응어] 곡식.
☞곡석.
지역 전북.

곤내곤내 부 [대응어] 부라부라.
어린 아기의 발을 손 위에 올려놓고 세우는 놀이를 할 때 내는 소리. ¶{곤내곤내} 우리 아기 잘한다
지역 전북.

곤달로쌈 명 [대응어] 곤달비쌈.
밥이나 반찬 따위를 곤달비 잎에 싸서 먹는 음식. ¶진안 군수는 상추쌈으로/에위 싸오/무주 군수난 {곤달로쌈으로}/에위 싸오/장수 군수는 처넙쌈으로/에위 싸오/우리 농군은 호멩이쌈으로/에위 싸오(진안 논매는 소리 -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원평지)<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진안.

곤딩기 명 [대응어] 등겨.
벗겨 놓은 벼의 껍질. ¶옛날에는 물건이 하도 귀해서 버리는 것이 없으니 {곤딩기도} 안 버렸어.
지역 무주.

곤심풍 (곤심風) 명 [대응어] 서풍.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곤심풍이 분다.
지역 전북.

곤작스럽다 형 [활용형] 곤작스러워/곤작스러버 [대응어] 곤란스럽다.
사정 따위가 몹시 딱하고 어려운 듯하다. ¶시상살이에 한번 금이 가농게 나 실기도 영 {곤작스러버지네}.<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곤지 명 [대응어] 검지.
다섯 손가락 중에서 두 번째 손가락. ¶{곤지를} 들어 하늘을 가리켜.
지역 고창.

곤지곤지 명, 감 [대응어] 곤지곤지.
젖먹이에게 왼손 손바닥에 오른손 집게손가락을 댔다 뗐다 하라는 뜻으로 내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 또는 젖먹이가 왼손 손바닥에 오른손 집게손가락을 댔다 뗐다 하는 동작. ¶아이가 곤지곤지 한다. ¶짝짜꿍만 하던 동생이 어느새 {곤지곤지도} 따라한다. ¶동생을 손가락 운동 시킬 땐 {곤지곤지} 하며 놀았어.
지역 임실, 장수.

곤치다 동 [대응어] 고치다(버릇을).
잘못되거나 틀린 것을 바로잡다. ¶만에 한나 휴거가 안 일어나드라도 아무일도 없었든 딧기 시무아흐렛날 새복부텀 안면 싹 {곤치곤} 돌아스면 고만이니께 표안나게 손해볼 것도 없고.<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렇게 얘기가 됐든 모양이요, 그래 이서구 씨가 그때 당시 무슨 재주를 부렸는지 몰라도 거 이름을 {곤쳐야}

되겄다, 그래서 그때부터 개 견(犬)자로 고치고, 그때부터 개 견(犬)자, 머리 두(頭)자 해서 견두산으로 개명을 했다 그럽니다.<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한두 번도 아니고 일곱 번씩이나 팔자를 {곤친} 예펜네 과거는 말짱 다 지만 보면 깔깔깔 웃어쌓는 운명에 장난 탓이 틀림없지라우.<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무주, 임실.

곤토 (←拳鬪) 명 [대응어] 권투.

두 사람이 양손에 글러브를 끼고 상대편 허리 벨트 위의 상체를 쳐서 승부를 겨루는 경기. ¶{곤토라고} 그리써요. 권투가 {곤토헌다고} 그리찌.<완주 지역어 텍스트>

지역 무주, 익산, 완주.

골련 (←卷煙) 명 [대응어] 궐련.

얇은 종이로 가늘고 길게 말아 놓은 담배. ¶그 전이는 뭣이나[앞에 놓인 담배를 가리키며], 이런 {골련}을 먹어<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그 인제 앉어서 '담배좀 피야겄다'고 '가져 오라'고 허니까 요새는 {골련도} 있고 다 허지만은 옛날에는 담배 잎사귀다 엽초로서 기다른 허게 있는 놈 갖다가 주니까,<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예이 여보슈! ……그런 소리한 벌루다가 {골련이나} 한 개 인내슈! <채만식, 젊은날의 한 구절> ¶촌으 사랑방에 뫼여 앉으면 {골련이나} 써럭초를 달력종이에 말어 피우는 거지.

지역 군산, 남원, 정읍.

골마리 명 [대응어] 허리춤.

바지나 치마처럼 허리가 있는 옷의 허리 안쪽. 곧 그 옷과 속옷 또는 그 옷과 살의 사이. ¶별도리가 없어서 무슨 수를 부릴까 어쩔까 하다가. 저는 {골마리를} 슬그머니 끌러가지고 뭣을 탱탱 꼴아가지고 {골마리} 밖으로 그걸 꺼내.<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뿌시럭 뿌시럭허더니만 {골마리를} 끄르고 뭔 대가리를 덜렁덜렁 했단 말이여.<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전북.

골매이 명 [대응어] 골무.

☞골맹이.

지역 전북.

골맹이 명 [대응어] 골무.

바느질할 때 바늘귀를 밀기 위하여 가죽이나 쇠붙이 따위로 만들어서 손가락에 끼는 도구. ¶{골맹이} 끼고 바느질 하거라잉.

지역 전북.

골무다 동 [대응어] 곪다.

상처에 염증이 생겨 고름이 들게 되다. 또는 내부에 부패나 모순이 쌓이고 쌓여서 터질 정도가 되다. ¶이렇게 뛰댕긴게 상처가 {골뭐 터지지}. ¶{골무고} 터지고 하는 생을 살아 왔어. ¶{골문} 정치인들 땜시 우리가 뭔 피해여.

지역 전북.

해설 '골무다'는 어간 '곪-'에 /ㅡ/가 삽입된 형태로 분석된다. 이때 모음 /ㅡ/가 원순모음화되어 /ㅜ/로 실현된 것이다.

골배기논 명 [대응어] 골짝논.

골짜기를 이용해 만든 논. ¶아 동네서 그렇게 인심을 주고 밭도 갖다가 얻어서 꼬치도 갈으라, {골배기논도} 줘서 농사도 지어 맥여라, 새끼도 나가면 느이 할머이한테 할아버이한테 느이 어머이가 잘하니 느이가 예쁘다.<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전북.

골아시 명 [대응어] 골탕.

크게 당하는 손해나 곤란. ¶무담시 애먼 미꿀네만 {골아시를} 묵이자는 수작이제.<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골코롬 부 [대응어] 그렇게.
그러하게. ¶밥을 엔간치 좀 먹어야지 {골코롬} 먹으면 위가 견더 나겠어?<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전북.

곪기다 동 [대응어] 곪기다.
☞곪기다.
지역 군산.

곰굄이 부 [대응어] 곰곰이.
☞곰굼이.
지역 남원.

곰굼이 부 [대응어] 곰곰이.
여러모로 깊이 생각하는 모양. ¶곰굼이 생각에 잠기다.
지역 전북.
해설 '곰굼이'는 제2 음절 모음이 '/ㅗ/>/ㅜ/'로 고모음화된 결과이다.

곰방대 명 [대응어] 담뱃대.
담배를 피우는 데 쓰는 기다란 도구. ¶{곰방대} 입에 물고 이얘기하면 잘 안 들려. ¶할아버지 {곰방대는} 길어서 담배를 태우지 않으실 땐 앉은뱅이책상 위에 잘 올려놓으셨다.
지역 고창.
해설 '곰방대'는 표준어에서 "살담배를 피우는 데에 쓰는 짧은 담뱃대"라는 의미이나, 고창 지역에서는 '담뱃대'와 구별하지 않고 사용된다.

곰부레 명 [대응어] 고무래.
☞고모래.
지역 전북.

곰슬 부 [대응어] 굼실-.
신체 일부를 느리게 자꾸 움직이는 모습. ¶북그러워 고ㄱㅣ을 슈겨 몸을 틀 제 이리 {곰슬} 져리 {곰실} 녹슈에 홍연화 미풍 맛나 굼이 난 듯<완판본 열여춘향수절가上>
지역 전북.
해설 표준어에서 '굼실'은 '굼실거리다'의 어근으로만 남아 있다. 그와 달리 전북 방언의 '곰슬'은 단독 형태로 부사로 쓰인다. '곰실'로도 나타난다.

곰실 부 [대응어] 굼실-.
☞곰슬.
지역 전북.

곰패이 명 [발음] {곰패~이} [대응어] 곰팡이.
☞곰팽이.
지역 고창, 완주.

곰팽이 명 [대응어] 곰팡이. ¶요것이 또 무식허고 {곰팽이} 쓴 구식 말이 될란지너 몰라도, 서방이 하늘이란 것얼 명념허는 것이 좋겄소.<조정래, 아리랑> ¶내놓으라구요. 그럼 남이나 줏어 가지 않겠습니까? 돌보지두 않을 걸 버리지두 않구 꽁꽁 묶어 가지구는, 쩌어 캄캄한 광에다가 턱 처박아 {곰팽이} 나게 썩후는 건 죄로 갈 짓이라구 그랬지요.다<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곱다 동 [대응어] 고다(엿).
졸아서 진하게 엉기도록 끓이다. ¶생선 잉어장수가 왔길래 내가 한 마리 사 가지고 어머니 좀 고아드릴라고 곤 중이라고. 지금 {곱고} 있다.<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고창, 김제, 부안, 순창, 완주, 임실, 장수, 진안.

곱단장허다 (곱丹粧하다) 동
곱게 단장하다. ¶싸나웠든 비바람으로 세수허고 {곱단장허며} 진 밤에서 아직질로 뿔딱 넘어온 조신헌 아침여인은 넘 좋게 쌔지는 기분으로 실성한 안무를 깨끗치 정리험서 콧노래 꾀꼴 꾀꼴.
지역 전북.

곱슬배기 명 [대응어] 고수머리.
고불고불하게 말려 있는 머리털. 또는 그런 머리털을 가진 사람. ¶저그 앉아 있는 {곱슬배기가} 갸여.
지역 남원.
해설 "털이나 실 따위가 고부라지게 말려 있다"는 뜻의 어근 '곱슬'과 일부 명사 뒤에 붙어 "무엇이 박혀 있는 사람이나 짐승 또는 물건"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박이'가 더해진 형태로 보인다. 이때의 '-박이'가 '-배기'로 변한 것이다. 또 다른 형태인 '꼽슬배기'는 어두 경음화에 따른 것이다.

곱은댕이 명 [대응어] 모퉁이.
구부러지거나 꺾어져 돌아간 자리. 또는 변두리나 구석진 곳. ¶{곱은댕이를} 끼도 돌면 된다 ¶저 공터 한 {곱은댕이에} 사람들이 모다 있을 거여.
지역 전북.

곱재기 명 [대응어] 곱절.
어떤 수나 양을 두 번 합한 만큼. 또는 ((수를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어떤 수치가 몇 번 거듭됨을 나타내는 말. ¶옷 띠어다 판게 {곱재기가} 남드라고.
지역 전북.

곱쟁이 명 [대응어] 곱절.
어떤 수나 양을 두 번 합한 만큼. 또는 ((수를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어떤 수치가 몇 번 거듭됨을 나타내는 말. ¶은행의 예금통장에서 녹이 슬고 있는 돈인 걸 두구 놀리느니 보담이야 몇 {곱쟁이} 이문이 아니냔 말입니다.<채만식, 천하태평춘> ¶{곱쟁이} 장사는 못해도 본전치기나마 술은 팔어야제잉.<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해설 명사 '곱'에 접미사 '-쟁이'가 연결된 어휘로 표준어 '곱, 곱절'의 방언형이다. 이 '곱쟁이'는 앞에 관형어가 있을 때는 그 관형어가 가리키는 만큼의 '배(倍)'가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단독으로 쓰일 때는 '두 배'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곱치다 동 [대응어] 곱하다.
둘 이상의 수 또는 식을 두 번 이상 되짚어 합치다. ¶두 배로 {곱처} 주면 기대 이상이여.
지역 무주.

곱허다 동 [발음] [고버다/고퍼다] [대응어] 곱하다.
둘 이상의 수 또는 식을 두 번이나 그 이상 몇 번 되짚어 합치다. ¶백에 백을 {곱언} 수는 몇인가 ¶거기다가 둘을 {곱언게} 얼마여? ¶다섯에다가 삼을 {곱에서} 열다섯개 내놓으랑게.
지역 전북.

곳달이 명 [대응어] 고달이.
노 끈이나 줄 따위로 물건을 묶을 때, 고리처럼 고를 내어 놓은 것. ¶{곳달이으다가} 열쇠 걸어 놓았은게 그거 가지고 화장실으 가.
지역 전북.

공갈 (恐喝) 명 [대응어] 거짓말.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서 말함.

또는 그런 말. ¶그런개 봉곡이 중놈들 혼을 냈던 지, 옛날은 그럴 것 아니여?[조사자:네.], 양반이 글 읽으러 가서 있으닝가니, 인제 중놈들을 {공갈을} 치니까 지금 문자로 말허면, 사실 그 양반이 돌아가셨는디,<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공갈} 치면 형사가 잡아간다. ¶형은 내가 어리다고 가끔 {공갈} 협박을 하여 나를 심부름 시켜 먹는단 말이야.

지역 전북.

공고리 (←<일>konkurîto) 명 [대응어] 공구리.

시멘트에 모래와 자갈, 골재 따위를 적당히 섞고 물에 반죽한 혼합물.

지역 전북.

공고리질 명←<일>konkurîto질 [대응어] 포장도로.

길바닥에 돌과 모래 따위를 깔고 그 위에 시멘트나 아스팔트 따위로 덮어 단단하게 다져 사람이나 자동차가 다닐 수 있도록 꾸민 길. ¶흑길은 비올 때 대책이 없었는디 요새는 {공고리질인게로} 비 와서 끄떡없어. ¶"앞마당도 말끔허게 {공구리질을} 허고 난게 집이 훨씬 훤히졌어.

지역 전북.

공곰이 부 [대응어] 곰곰이.

☞곰굼이.

지역 전북, 순창.

공굄이 부 [대응어] 곰곰이.

☞곰굼이.

지역 김제, 무주, 장수, 정읍, 진안, 남원.

공구 명 [대응어] 공기.

밤톨만 한 돌 다섯 개 또는 여러 개를 땅바닥에 놓고, 일정한 규칙에 따라 집고 받는 아이들의 놀이. ¶어렸을 저그 나도 {공구} 받기 잘 혔어. 징그랍게 많이도 혔제. 너그들도 그것을 할 줄 아나?

지역 무주, 완주, 진안.

공굼이 부 [대응어] 곰곰이.

☞곰굼이.

지역 순창.

공그리다 동 [대응어] 공글리다.

마음이나 생각 따위를 흔들리지 않도록 다잡다. ¶아이를 받아들인 것을 트집잡을까 봐 처음부터 마음을 {공그리고} 아들을 대했던 것인데, 아들은 의외로 순순하게 넘어갔던 것이다.<조정래, 태백산맥> 권 서장이 먼저 말했다. 공무상 그것이 자신이 취할 태도였기 때문이다. "권 서장님, ¶저게, 제게 예사 능구렁이가 아니라니까. 그는 마음을 {공그리고} 있었다.<조정래, 태백산맥> ¶"이 사람아, 호랭이헌테 물레갈 밤중도 아넌디 정신 똑똑허니 채려. 그 국회의원이란 주벅 그눔덜 손에 쥐준 것이 뉘기여? 우리덜 아니라고?" "그렇제." "긍께 담번에넌 우리가 각단지게 맘 {공그려} 묵고 그눔덜얼 안 찍어뿌는 디야 즈그덜이 주벅 뺏기제 워째." "음마, 들고봉께 자네 말이 공자님 말씸이시."<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공기집기 명 [대응어] 공기놀이.

밤톨만 한 돌 다섯 개 또는 여러 개를 땅바닥에 놓고, 일정한 규칙에 따라 집고 받는 아이들의 놀이. ¶에릴 적 {공기집기} 많이 혔지. 공기놀이라고도 혀.

지역 군산.

공동샴 (公同샴) 명 [대응어] 샘(泉).

둘 이상의 사람이나 단체가 함께 쓰는 샘. ¶지금 집이가 물이 없는디? 물을 먹을라믄 저그 동구밖에 있는 {공동샴까지} 가야 혀.

지역 전북.

공동시암 (公同시암) 명 [발음] [공동씨암] [대응어] 샘(泉).
☞공동샴.
지역 무주.

공둥산 (←空洞山) 명
임자 없는 산. ¶{공둥산에다} 아장살이 허고 그렸어. 공짜로 쓰는 산 있어. 주인 없은게.
지역 전북.

공상[1] (공床) 명 [대응어] 개상.
볏단을 메어쳐서 이삭을 떨어내는 데 쓰던 농기구. 굵은 서까래 같은 통나무 네댓 개를 가로로 대어 엮고 다리 네 개를 박아 만든다. ¶{공상을} 치다.
지역 고창, 남원, 무주, 임실, 장수.

공상[2] 명 [대응어] 높이.
높은 곳. ¶{공상의} 섰는 나무 도끼로 찍어내어 고마추어 걸어노니<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군산.

공연시 (空然시) 부 [대응어] 괜히.
아무 까닭이나 필요가 없이. ¶"양반이면 점잖허니 있을 일이제 {공연시} 넘 일에 훼방 놓고 들다가넌 안 존 일 당헐 것잉마."<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해설 표준어형 '공연히'에서 /ㅎ/가 /ㅣ/ 모음 앞에서 /ㅅ/로 바뀐 형태로 보인다.

공연시리 (空然시리) 부 [대응어] 공연스레.
까닭이나 실속이 없는 데가 있게. ¶그런게 서방님이 {공연시리} 바깥을 쳐다보더니 픽 웃어.<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옆집 예쁜이가 시집을 간다고 하니 {공연시리} 심술이 난다. ¶내가 안 히야 헐소리를 {공연시리} 힜는게벼, 미안허게 되얐고만!
지역 전북.

공이 명 [대응어] 옹이.
☞굉이.
지역 군산.

공자리 명 [대응어] 장다리무.
☞무공자리.
지역 김제, 부안, 군산, 완주, 진안.

곶감실 명 [대응어] 색실.
물을 들인 실. ¶그때 {곶감실} 있거든. 시방은 그 색색이실 있잖여. 근디 그 전이는 {곶감실이다고}. 곶감만이로 돌돌 몰아논 놈 열두 가지가 있어, 색깔이.
지역 전북.
해설 실이 곶감 모양으로 감겨 나왔다고 해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

과게 명 [대응어] 가게.
작은 규모로 물건을 파는 집. ¶그 집 앞피 쪼매난 {과게가} 하나 있었거든.
지역 임실.
해설 현대 국어 '가게'의 옛말인 '가개'는 15세기 문헌에서부터 나타난다. 근대 국어 시기 이중모음 /ㅐ/[aj]가 단모음 /ㅐ/[ɛ]로 바뀐 후 20세기 이후 양성 모음 /ㅐ/가 음성 모음 /ㅔ/로 변하여 현재의 '가게'가 되었다. 양성 모음 /ㅐ/가 음성 모음 /ㅔ/로 변한 것은 '자네(<자내)', '동네(<동?)', '나그네(<나ᄀᆞ내)'와 같은 예에서도 확인된다. 18, 19세기에 나타나는 '가가'는 한자어 '假家'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가개'의 제2 음절의 이중 모음 /ㅐ/[aj]에서 반모음 /j/가 탈락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15세기의 '가

개'는 "임시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어 '가가(假家)'에 명사 형성 접사 '-이'가 결합한 것이다. 본래 15세기의 '가개'는 "시렁"의 뜻을 가지고 있었으며 18세기까지도 이러한 의미로 쓰였음이 확인된다. 현대 국어와 같이 "점포"의 뜻을 갖게 된 것은 20세기 이후의 일로 보인다.

과부덕 (←寡婦宅)) 명 [발음] [과부떡] [대응어] 과부댁.
과부를 높여 부르는 말 ¶저 집이 {과부덕이} 혼자 사는 집이여. ¶{과부덕네들이} 모여사는 집. ¶우리 마을은 {과부덕이} 한 집도 없단다.
지역 전북.

과수 (寡婦) 명 [대응어] 과부.
남편이 죽어서 혼자 사는 여자. ¶근디 고 밑이 가머는 참도저 챔선이라고는 {과수가} 사나 사는디, 아 거가서 일도 히 주고 인자 품을 팔어다 <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다들 갈리고는 이놈(주인 남자)이 잘라고 드러 오거든, {과수} 데려다 논 줄 알고 인자 드러 온개로, <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과수} 하나이 아들이 하나 있는디 서당으를 보내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군산, 완주.

과아리 명 [대응어] 광주리.
☞꽝아리.
지역 전북.

과택 (←寡宅) 명 [대응어] 홀어미.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내는 여자. ¶저 혈루병자의 {과택은}, 서방도 없이 뒤늦게 애를 배고, 배가 불러지자, 낯 붉히며 어디 딴 고장으로 떠나 버렸다고<박상륭, 죽음의 한 연구> ¶넘의 집을 살돼 어디를 똑 찾어 댕기며 사냘것 같으믄, {과택집}, 응 과수집이나 큰 처녀 있는 집이 좇아댕기며 살드래야.<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진안, 군산.

곽거리 명 [대응어] 씻김굿.
죽은 이의 영혼을 깨끗이 씻어 주어 이승에서 맺힌 원한을 풀고 극락왕생하기를 비는 굿. ¶교통사고로 죽었는디 범인도 못 잡았은게 얼매나 억울하겄어? 그런게 야는 {곽거리를} 해 주야혀.
지역 전북.

곽머리굿 명 [대응어] 씻김굿.
죽은 이의 영혼을 깨끗이 씻어 주어 이승에서 맺힌 원한을 풀고 극락왕생하기를 비는 굿. ¶"동네가 쩡쩡허거 울리는 것이 뭔일이 있나벼?" "아, 저그서 민수네 어매 돌아가시갖고 {곽머리굿을} 한다나벼.
지역 전북.

관술 명 [대응어] 관솔.
☞간술. ¶{관술} 따다가 {관술} 뿔 저그만치 노코(관솔 따다가 관솔 불 저기만치 놓고)<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관술} 뿌리 인재 불나고 위허멍개로(관솔 불이 이제 불나고 위험하니까)<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지역 전북.

관자 (貫子) 명 [대응어] 관자놀이.
귀와 눈 사이의 맥박이 뛰는 곳. ¶어제 술 푼다고 펐더니 오늘 {관자가} 깨질라는구먼.
지역 고창, 완주.

관지통 (←貫子洞) 명 [대응어] 관자놀이.
귀와 눈 사이의 맥박이 뛰는 곳. ¶숙취 때문인지 {관지통이} 욱씬거려 죽겄다잉.
지역 남원.

광목실 (廣木실) 명 [대응어] 무명실.
솜을 자아 만든 실. ¶{광목실로} 천을 짜 맨들어 옷도 해 입고 하지.
지역 완주.

광상 명 [대응어] 개상.
☞공상[1].
지역 남원.

광솔 명 [대응어] 관솔.
☞간술. ¶그 글을 읽고 있는디 언청 빈한허니까 불을 쓰들 못허고 {광솔이다} 이렇게 불을 써 갖고 글을 읽고 있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광아리 명 [대응어] 광주리.
☞광아리 ¶"큰아가, 내 똥구넉에 {광아리} 갖다 대라." 싹 대까닥(당장) 먹어 버리드랴.<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삼을 깨물어 먹어 버렸은개, 어쩌나 하고 울고 있은개로, 똥구넉에 {광아리} 갖다 댄게로, 막 삼아서 삼아서, 이렇개 <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전북.

광저리 명 [대응어] 광주리.
☞광지리.
지역 전북.

광판 (←薑板) 명 [대응어] 강판.
무, 생강, 과일 따위를 갈아 즙을 내거나 채를 만들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 ¶광판에다가 무시를 갈아 갖고 맨들어 먹고 했는디 요새는 그렇게 하간디?
지역 남원.
해설 전북 방언에서는 '강판'의 1음절 모음이 이중 모음으로 실현되어 나타나는 '광판'이 '강판'과 함께 일부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다.

괘얀시 부
아무 까닭이나 필요가 없이. ¶"시방 가봤자 {괘얀시} 헛걸음만 헌다. 기관고 근방에 순사들이랑 철도 직원들이 시커멓게 깔려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철통같이 지키고 있드라."<윤흥길, 소라단 가는 길>
지역 전북.

괘이[1] 명 [대응어] 고양이.
☞괭이.
지역 전북.

괘이[2] 명 [대응어] 괭이.
☞깨이. ¶나들이 때꼭 쥘부채를 들게 되는 것이나 마찬지였다. 신세호는 농사일을 시작하고 얼마동안은 삽 {괘이} 드는 것을 잊고 집을 나섰다가 난감해진 것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괜시리 부 [대응어] 괜스레.
아무 실속이 없이. ¶노사랑서 한참 지다리고 있을 건디 {괜시리} 지체를 더 혔다간 혼만 더 나지 않겄소.<조봉래, 풀벨골> ¶쫌 있음 절로 알어질 일잉게, 고때 가서 {괜시리} 애통허다고 움서 속불퉁이 앓지 말고.<조봉래, 풀벨골> ¶일틀면 시상살이 눈뜨고 비관허다가 {괜시리} 자기만 반농판이 돼부린 셈이제.<조봉래, 풀벨골> "아이, 업순어머니두, 번연히 속 다 알먼서 그러시네! 내가 {괜시리} 그러간디라우?"<채만식, 童話>
지역 전북.

괜잖다 형 [대응어] 괜찮다.
어떤 대상의 상태나 사람의 마음이 별로 나쁘지

않거나 좋다. ¶다행히 건강은 {괜잖아} 보이더라. ¶오야, 인자 집에 가도 {괜잖어}.
지역 전북.

괠띠 명 [대응어] 허리띠.
바지 따위가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옷의 허리 부분에 매는 띠. ¶바지가 안 흘르게 {괠띠를} 매야 허.
지역 완주, 익산.

괭이[1] 명 [대응어] 고양이. ¶시방도 것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지만 그전이는 세 발 돋힌 {괭이라고서} 삼족구(三足狗)라고, 새 발 돋힌 괭이(고양이).<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괭이는} 미워하는 사람에게 꼭 헤코지를 한단다. ¶아무개 씨 없어요. 어디 갔오?" " {괭이} 뿔 빼러 갔구만이라요." 그 사람이 요상스럽거든.<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고창, 군산,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해설 표준어 '고양이'는 "고양이"를 뜻하는 '괴'에 접미사 '-앙이'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설명되어 왔다. '괭이'는 '괴앙이'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괭이[2] 명 [대응어] 굳은살.
☞굉이.
지역 전북.

괭이넝쿨 명 [대응어] 담쟁이. ¶{괭이넝쿨이} 베랑빡 타고 올라와서 보기에 참 좋아.
지역 전북.

괴기 명 [대응어] 고기
식용하는 온갖 동물의 살. 또는 물에서 사는 지느러미와 아가미가 있는 척추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큰물이 지면 냇가상으로 밀리는 {괴기}를 잡을라고 쪽대를 둘쳐매고 마을 청년들이 몰려 댕겼어. ¶순이야, 시장에 {괴기} 사러 가자. ¶그러고는 인자 나와서 강변이가 시방 둘이 쪼그리고 앉었어. 앉었는디 어떻게 막 {괴기가} 하나가 풀쩍 뛰드래여. "저것이나 어떻게 잡어갖고 가자.<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그날부터 시아버니에게 뭘 먹이는고 허니 용, 삼, 개 {괴기}, 쇠괴기, 돼지괴기 늘 멕여서, 그냥 몸띵이를 호박농짝만허게 맹길었어 시아버니를. <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한 자리 달라고 하닝개, 그러마고 해서 술밥에 {괴기에} 지금까지 잘 먹고. 내가.<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이 마당 가 있는 대전 밑이가 못이 있어. 못이다가 {괴기를} 많이 키워놓고 인자 점잖은 손님들이 오먼 때로 잡어다가 반찬을 해.<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술과 이 저 뭐든 잔뜩 얻어먹고는 떡하고 {괴기하고는} 싸가지고서는 종이다 싸서는 손바닥 밑이다 이렇게 놓고선 있응게,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꾀꼬리가 탄식을 허고 돌아올 때에, "아독무어다." 꾀꼬리가 {괴기} 못잡거든. "나는 아독무어다. 너한티 졌지만 나는 아독무어다." <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물이 쭉 빠져 논께 그 {괴기맛} 한번 기차네. <송기숙, 녹두장군>
지역 김제, 남원,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괴기밥 명 [대응어] 미끼.
낚시 끝에 꿰는 물고기의 먹이. ¶괴기밥을 만들어서 낚시를 간다. ¶기픈디서 헤엄치지 말라고 핼자녀. 너 그러다가 {괴기밥} 되어 뻔진다이.
지역 전북.
해설 '괴기밥'은 '괴기+밥'의 합성어이다. '괴기'는 '고'의 /ㅗ/가 후행하는 '기'의 전설모음 /ㅣ/에 동화되어 전설 모음 /ㅚ/로 바뀐 결과이다.

괴기토막 명 [대응어] 고깃덩어리.

덩어리로 된 짐승의 고기. 또는 잘라 내거나 떼어낸 고기의 한 부분. ¶옛날이는 인제 바너질을 하거나 베를 짜가지구 내다 팔었지. 그거 가져다가 {괴기토막으로두} 바꺄오고, 겨란두 가져오고 그렸어. ¶무를 듬벙듬벙 썰고 {괴기토막} 내어 갖은 양념해서 끓여 먹으면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른단다. ¶시장에서 사온 돼지괴기를 삶아 {괴기토막을} 내어 먹으니 참 맛이 최고였다.

지역 전북.

괴깃덩어리 명 [대응어] 고깃덩어리.

덩어리로 된 짐승의 고기. ¶아 글씨 아부지 국그릇에는 {괴기덩이리가} 그득그득헌디, 내 국그릇은 죄 시라구쪼가리만 주는 거여. ¶수육을 하려면 {괴기덩어리에} 생강을 넣어 끓여야 냄새가 안 나고 맛있다. ¶오랜만에 친정이라고 찾어온 딸년에게 {괴기덩어리}라도 싸보내고 싶지만 가난헌 친정에미는 가슴이 미어졌다.

지역 김제, 남원, 군산, 완주, 장수, 정읍, 임실.

괴깃뎅이 명 [대응어] 고깃덩어리.

덩어리로 된 짐승의 고기. ¶옛날에는 푸주간이라고 혔어. 고 앞을 지나가믄은 소니 돼지니 {괴깃뎅이}들이 많이 걸려있었그든.

지역 전북.

괴냉이 명 [대응어] 고양이.

☞고앵이.

지역 전북.

괴다 동 [대응어] 괴다(溜).

물 따위의 액체나 가스, 냄새 따위가 우묵한 곳에 모이다. 입에 침이 모이거나 눈에 눈물이 어리거나 하다. ¶딱 더듬아서 오닌게로 해골 쪽백이 있는디 물이 거그가 하나 {괴아가지고} 크나큰 그시랑 하나가 거그 가서 빠져서 죽어 있어. 아,<구비문학대계 정읍편> ¶물이 {괸} 수면 위로는 안개가 진하게 내리지 못하고, 사라지고 있는 연기 사라지고 있는 연기 같은 흐린 꼬리를…<조정래, 태백산맥> ¶침이 {괸} 채로 말을 허니께 그렇게 어둔해 보이는 거 아녀. ¶새콤한 자두를 생각한게로 입안에 침이 가득 {괴어}.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괴리다 동 [대응어] 고리다.

냄새가 고약하다. ¶맥반 청탁으 되 된장도/{괴리고나} {괴랴도} 좀 좋다/어허 품바 잘 헌다(부안 각설이타령-품바타령)<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부안.

괴명 명 [대응어] 고명.

☞고멩.

지역 전북.

괴물 명 [대응어] 물레 괴

목화를 물레로 잣을 때 물레에 달려 있는 괴는 부분. ¶미영을 잣이면 {괴물이} 병들면은 가락이 안 돌아가. ¶그 사람이 입을 가만 두었으면 조용허니 존디 말을 히서 시끄라. 그러면 물레는 {괴물에가} 병 낸다더니 저 사람이 병 주고 약 주고 병 냈다고 시끄럽다고 말혀.

지역 전북.

괴비 명 [대응어] 주머니.

자질구레한 물품 따위를 넣어 두거나 넣어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든 물건. 혹은 돈이나 소지품 따위를 넣도록 만든 옷의 부분. ¶{괴비} 맨든다고 그러제. {괴비}.(주머니 만든다고 그러지, 주머니)<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장만히서 인자 오머는, 애기 인자. 주먼치를 채이등가 {괴비가} 이뜽가 허머는 거기다가 그냥, 너주고 가아. (장만해서 오면, 아기 인제. 주머니를 채우든가

주머니가 있든가 하면 거기에다가 그냥, 넣어주고 가.)<2005 전북 남원> ¶고모가 주신 용돈을 빨리 {괴비에} 넣거라.
지역 남원, 임실.

괴악 명 [대응어] 고약.
☞괴약.
지역 부안, 장수.

괴알띠 명 [대응어] 헝겊 허리띠.
☞귀알띠.
지역 김제.

괴알쉬엄 명 [대응어] 구레나룻.
☞괴알시엄. ¶며칠 안 받더니 네 얼구레 {괴알쉬엄이} 피어버렸따.
지역 부안.

괴알쉬염 명 [대응어] 구레나룻.
☞괴알시엄.
지역 전북.

괴알시엄 명 [대응어] 구레나룻.
밑에서 턱까지 잇따라 난 수염. ¶{괴알시엄이} 덥수룩한 것이 거지꼴이 따로 없네.
지역 전북.

괴알시염 명 [대응어] 구레나룻.
☞괴알시엄.
지역 전북.

괴야이 명 [대응어] 고양이.
☞고얭이.
지역 전북.

괴약 (←膏藥) 명 [대응어] 고약.
주로 헐거나 곪은 데에 붙이는 끈끈한 약. ¶{괴약을} 붙여야 빨리 고름이 없어져. ¶냄시가 고약허서 {괴약인가}.
지역 김제, 완주, 임실, 정읍, 부안, 장수.

괴알수염 명 [대응어] 구레나룻.
☞괴알시엄.
지역 전북.

괴얌감 명 [대응어] 고욤.
☞괴옴.
지역 전북.

괴양감 명 [대응어] 고욤.
☞괴옴.
지역 전북.

괴양이 명 [대응어] 고양이.
☞고얭이. ¶그리고 고가허고 양가허고 뭣이냐 잠을 자서 나기때미 그려서 고양이라고. {괴양이가} 아니라 고양이대요.<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전남.

괴연하다 (괴然하다) 형 [대응어] 괜하다, 공연하다.
아무 까닭이나 실속이 없다. ¶거시랑은 비단띠하고 눈하고 바꾸자고 한 것이 {괴연한} 짓을 했다고 후회하고 해통해서 '애또올 애또올'하고 울게 됐다고 한다.<구비문학대계 진안군>
지역 진안.

괴염 명 [대응어] 고욤.
☞괴옴.
지역 전북.

괴염감 명 [대응어] 고욤.
☞괴옴감.
지역 전북.

괴옴 명 [대응어] 고욤.
고욤나무의 열매. ¶{괴옴이} 더 달아.
지역 전북.

괴옴감 명 [대응어] 고욤.
고욤나무의 열매. 감보다 작고 맛이 달면서 좀 떫지만 감의 한 종류처럼 보일 수 있다.
지역 정읍.

괴옹감 명 [대응어] 고욤.
☞괴옴감.
지역 부안.

괴욤 명 [대응어] 고욤.
☞괴옴.
지역 군산.

괴이다 동 [대응어] 괴다(溜).
물 따위의 액체나 가스, 냄새 따위가 우묵한 곳에 모이다. 입에 침이 모이거나 눈에 눈물이 어리거나 하다. ¶여그 저그다 흘리고 댕기먼 목마를 때 떠먹을 물 한 박적이라도 {괴이간디}?<최명희, 혼불> ¶이미 물도 피도 아니라 마지막 꽃밭 蒸發하여 {괴인} 시퍼렇디 시퍼런 한마지기 이내(嵐)<서정주, 시집> ¶아 주인 가서 묘소를 쓸라고 보니까 물이 그냥 탕구덩이가 한 구뎅이 {괴여갖고} 있거든. ¶너헌티 못됐게 구는 사람들이 있으믄 침을 한가득 {괴여} 갖고 뱉어 버려.
지역 전북.

괴자리 명 [대응어] 가시.
☞고자리.
지역 임실.

괴침 명 [대응어] 고비.
자질구레한 물품 따위를 넣어 두거나 넣어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든 물건. 혹은 돈이나 소지품 따위를 넣도록 만든 옷의 부분. ¶느 아버지 잔치를 하구서 그 느 아버지 {괴침에다가} 꼭 넣어 디려라."<구비문학대계 충남 아산군편>
지역 익산, 임실, 진안.

괴통 (←交通) 명 [대응어] 교통(交通).
탈것을 이용하여 사람이 오고 가는 일이나, 짐을 실어 나르는 일. ¶한 40년 전에, 그 때야 차도 {괴통도} 불편하고 해서 걸어내려오고, 주막집이가 잠자고 그랬지, ¶마을이 칠보와 정주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버스는 약 30분 간격으로 운행되어 {괴통이} 편리허지.
지역 남원, 무주,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괴함 (←高喊) 명 [대응어] 고함.
크게 부르짖거나 외치는 소리. ¶그담의 빈대를 한 대롱 헛친게 홀떡 벗어서 웃목으다 떤져 버리고는 막 자거덩. 그리고 나옴서, "도둑이여!" 허고 {괴함을} 질렀단 말여. 근게 그때는 서낭(성냥)도 없고 인자 불놀 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소도둑이야." 허고 {괴함을} 지른다고. 아 그런게 그 안으서 정승이 그 말을 듣고 '소도둑이야' 헌게 '오직이 저놈이 거식히야 배가 고파서 도적질을 해 갈라디야'허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디고 댕긴게 {괴함소리는} 안 나오고 그냥 싸우는디 가서 호랭이 모가지를 잡어서 그냥 내동댕이를 처버렀거든. 그에, 호랭이를 잡었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괵기 (←穀氣) 명 [대응어] 보릿겨.
보리에서 보리쌀을 꺼내고 남은 속겨. ¶괵기는 짐승이나 멕이지 얻다 쓸데가 없다.
지역 고창.

괸잔허다 형 [대응어] 괜찮다.
☞갱기찮다.
지역 전북.

괸찬허다 형 [대응어] 괜찮다.
☞갱기찮다.
지역 전북.

굂기다 동 [대응어] 곰기다.
곪은 자리에 딴딴한 멍울이 생기다. ¶상처가 아물었으면 이러케능 안 {굂겼지}.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순창, 완주, 임실, 장수, 진안, 군산.

굄감 명 [대응어] 고욤.
☞괴옴감.
지역 전북.

굅히다 동 [대응어] 괴다(溜).
물 따위의 액체나 가스, 냄새 따위가 우묵한 곳에 모이다. 입에 침이 모이거나 눈에 눈물이 어리거나 하다. ¶그 물이 덜 빠지면, 안에가 {굅혀} 갖고 있으면 굽다가 깨져 버려라우.<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7> ¶오데가 {괴핀} 덴고 이래 더듬어보니 오막한 데가 있어. ¶닭똥 같은 눈물이 눈에 {굅혀} 갖고 떨어지기 일보직전이여.
지역 무주.

굉이 명 [대응어] 옹이.
나무의 몸에 박힌 가지의 밑부분. 또는 '굳은살'이나 가슴에 맺힌 감정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나무에 {굉이가} 박히다. ¶굳은살 {굉이가} 배긴다; 공이가 배긴다<2007 전북 군산> ¶주야장천 죽만 먹음서 얼매나 오래 살 수 있겄소잉? 사람 뱃속이랑 거이 요 손이나 발허고 똑같애서, 일을 해야 {굉이} 백이고 굳은살 볼가져서 심도 생기는 거인디잉,<최명희, 혼불>
지역 군산.

굉이밥 명
매우 적은 양의 음식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밥도 {굉이밥만치나} 먹었어.
지역 전북.

굉일 명 [대응어] 공일.
일을하지 않고 쉬는 날. ¶참 웃기더라 그렇게 못쇠게 선전허쌓더니 구정을 {굉일로} 허니 사람덜이 해마다 선거혔으면 좋겄다고 허드라.<김용택, 꽃산 가는 길>
지역 전북.

구격지 명 [대응어] 썰매.
아이들이 얼음판이나 눈 위에서 미끄럼을 타고 노는 기구. ¶저그 뒷산 언덕빼기에서 {구격지를} 타고 내려오면 기분이 그만이여. 정말 재미나.
지역 전북.

구금살 명 [대응어] 주름살.
얼굴 피부가 노화하여 생긴 잔줄. ¶나만이로 늙으면 {구금살이} 많고 대리미로 피면 집이같이 싹 펴지고.
지역 전북.

구넉 명 [대응어] 구멍.
☞구녁. ¶허드리야 구랭이가. 근게 야광주 빽다구 하나를 그이 주드래야. 근디 {구넉이} 시구넉이여.<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전북.

구녁 명 [대응어] 구멍.
뚫어지거나 파낸 자리. ¶사랑헌다 말이죠. 거그를 가서 인자 가만히 인저 손가락으다 침발러문 {구녁} 뚫고 쳐다본게나 그전이는 말여.<구

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굳이 요리 쑥 나오다가 아 그놈의 목 {구녁에} 그만 담배대가 쑥 들어가서, 아 총각 대반이 달칵 되져뻐리네.<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흑암도 뒤집어지고 후기(훈기)가 돈개 구름이 나오고 버럭지가 {구녁에서} 나와서 돌아댕기고 훈기가 나온개.[조사자:그 음양허고 천지음양허고 남녀음양허고.], 남녀음향허고<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입안에 밥알을 넣고 있지 말고 속히 {목구녁으로} 넘겨라.

지역 전북.

구녁새 명 [대응어] 얼굴.

얼굴의 오목조목한 모양. ¶"쌍판에 오목조목 백힌 그 {구녁새} 허이며 아까막시 허든 그 짓거리허이며가 으짠지 낯설지가 않드라니깨."<윤흥길, 낫>

지역 전북.

해설 단순히 "얼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의 오목조목한 모양"을 이르는 말이기 때문에 '구멍'의 전라방언 '구녁'에 접미사 '-새'가 연결된 것이다.

구녕 명 [대응어] 구멍.

뚫어지거나 파낸 자리. ¶바가지를 하나 얻어오라고 갖고 와서는 각시는, 서방은 자는디, 그 바가지를 {구녕을} 뚫어서 두레박을 매갖고 작수바리를 처서 딱 걸어놓고는 이령수를 험서 군사를 뽑는디 수백 명이 나오더랴, 그 바가치에서.

지역 전북.

구누름 명 [대응어] 군말.

☞구느름. ¶조씨는 혼자 말하듯 {구누름을} 내다가, 바늘귀를 꿰느라고 고개를 처듭니다.<채만식, 태평천하>

지역 전북.

구느름 명 [대응어] 군말.

하지 않아도 좋을 쓸데없는 군더더기 말. ¶고씨는 방 때문에 비위가 상할 때면 으레 이런 {구느름을} 잊지 않곤 합니다.<채만식, 태평천하> ¶못 얻어먹었더니……." 동서의 위로가 아니고 어쩌다가 제 자신의 {구느름이} 쏟아져 나와서 마악 거기까지 말이 갔는데<채만식, 태평천하> ¶어처구니가 없다고 혀를 끌끄을 차다가, 미닫이를 도로 타악 닫으면서 {구느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채만식, 태평천하>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구느름', '구누름'은 채만식의 작품에서만 발견되는 어휘이다. '구누름하다'와 같이 동사로도 나타나고 있다.

구다 동 [대응어] 굽다(燒).

불에 익히다. 또는 나무를 태워 숯을 만들다. 또는 바닷물에 햇볕을 쬐어 소금만 남게 하다. ¶근디 적세여다 숯불을 화로를 안고 청애(청어) 한 마리를 {구어}.<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아이고, 머느리 못났다고 했더니 요새 밤을 {궈다} 주고, 쪄다 주고, 밥도 와서 많이 잡수십삽대 하네.<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어디 가서 걍 투탁 사냥허다가 {구워서} 먹고 막 그러고 댕김서 그렇게 댕겨.<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서른 살을 묵었는디 숯을 {구러} 갔오. 우리 아들은 숯 {구어} 팔아먹고 나는 밥을 해줘.<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영갬이 달랑 죽어버린께, 인자 아들허고 모자(母子)에 인자 숯을 {구워} 먹고 산단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금은 기름으로 소금을 굽지만, 그때는 소금 굽는데 가서, 모래로 잿물을 받쳐 가지고 음분(염분)을 빼어 가지고 그놈으로 {구어서} 소금을 만들었는디.<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남원, 무주, 순창, 군산, 완주, 익산, 고창, 부안, 정읍.

구다보다 동 [대응어] 들여다보다.

가까이서 자세히 살피다. ¶독자갈도 수십 년을 {구다보시기라우}. ¶때까우야 어지끄 지영때 잠깐 낮바닥 비치고 오늘은 아지끼랬너 사방을 {구다봐도} 비든 안코. ¶아 메누리보고 어찌케 나가라고 헐 수가 없어. 그서는 가서는 {구다보고는} 또 오고 또 오고 헌게는 며느리가, "아니 아버님! 무슨 말씀 허로 외다가 못 허시고 또 가시고 또 가시고 그리요?"<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그래서 숙소를 정허들 못허고 산길을 나가는디 일몰히갖고 어언중 산길을 돌아다니는디 잠은 자야 쓰게 생겼는디 그리서 어디를 {구다보니깐} 쪼그만헌 오두막집이 불이 써 있다 그말이여. 그래 거그를 들어갔어요.<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구더리 명 [대응어] 구더기.

파리의 애벌레. ¶저기 벽허고 바닥에 {구더리가} 드글드글 들끓어. 청소도 좀 허고 그래야 겄어.

지역 남원, 순창.

구덕 명 [대응어] 망태기.

☞구럭.

지역 고창.

구데기 명 [대응어] 구더기.

파리의 애벌레. ¶저 잔등 넘어가 보라고 허. 거그를 가보넌개로 가막 깐치가 {구데기를} 캐 줏어먹음서 있어. "가막 깐치야, 가막 깐치야, 이리 구렁덩덩 신선부님<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어렸을 적 할머니 집에 가면 화장실에서 꿈틀거리는 {구데기가} 무서워 소변도 제대로 누지 못할 때가 많았어. ¶마름 알기럴 쥐좆만치도 못허게 아는고나. 은혜 두 분만 베풀었다가는 나는 똥통에 {구데기만치도} 못 될 뻔혔구만.<조정래, 태백산맥> ¶여름철 시골 또망에 가면 누구 집이나 헐거없이 {구데기}가 더글더글 했지. 약을 뿌리면 없어지지만 똥속으다 왜 돈을 들여. ¶시궁창에 {구데기가} 꾸물 꾸물 거리고 있다.

지역 고창.

구뎅이 명 [대응어] 구덩이.

땅이 움푹하게 팬 곳. ¶그래서 그 탑이 말이여, 그 눈물로 {구뎅이가} 이렇게 파져서 그 구뎅이를 친다는 것이 그냥 한 쪽으로 치워 버렸어. 그 탑을,<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그러고 물은 어찌키 먹냐? 그 파들어 간 {구뎅이에} 가서 찬기운이 있은게 거그다 섯바닥을 대고 있으면 목요롬이 되아.<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아 사철 갠찮다. 야 좀 바. 누가 누 걱정을 허능가 모르겄네, 시방. 겨울 되까 무섭다, 참말로. 얼어터진 얼음 {구뎅이에} 발 당구고 홑이불 빨래허능 것 생각만 해도 내가."<최명희, 혼불> ¶내년에 심을 씨감자는 {구뎅이에} 묻어야겠다. ¶썩은 무를 {구뎅이를} 파서 묻었다.

지역 완주, 정읍.

구두새 명 [대응어] 구두쇠.

돈이나 재물 따위를 쓰는 데에 몹시 인색한 사람. ¶돈이 있으면 기부도 좀 허고 나눠 쓰고 그래야지 {구두새가} 되면 못 써. ¶저 {구두쇄는} 돈만 모을 줄 아랃찌 돈 한 푼 쓸 줄을 모른당게. ¶영수아저씨는 {구두새라} 생활을 해서 오늘날 저렇게 부자가 된거야.

지역 남원.

구두연발 명 [대응어] 구둣주걱.

☞구두염발.

지역 부안.

구두염발 명 [대응어] 구둣주걱.

구두를 신을 때, 발이 잘 들어가도록 뒤축에 대는 기구. ¶{구두염발} 좀 갖고 오니라.
지역 전북.

구둣주벅 명 [대응어] 구둣주걱.
구두를 신을 때, 발이 잘 들어가도록 뒤축에 대는 기구.
지역 순창, 진안.

구들장 명 [대응어] 구들.
고래를 켜고 구들장을 덮어 흙을 발라서 방바닥을 만들고 불을 때어 난방을 하는 구조물. ¶사람이 여기서 자기로 하면 엔간해 가지고는 {구들장에} 등 대고 자기는 틀린 것 같소." 금산 코맹넝이였다.<송기숙, 녹두장군> ¶한참 자랄 무렵의 어린아이임엔 다름이 없었다. 거침없이 바깥으로 싸다니고 {구들장이} 꺼지도록 쾅당거리며 뛰놀고 소리지르고<채만식, 아름다운 새벽> ¶더운밥 먹고 뜨뜻한 {구들장에} 누워 있으니 스르르 잠이 온다. ¶그 검댕 있잖요. 검댕 검댕이 막 외 그 {구들장에서} 막 이렇게 있고, 밑에 가서 가라앉고 그래, 검댕하고 구들짱하고<지역어 자료 총서, 무주>
지역 전북.

구들쟁이 명 [대응어] 구들.
☞구들장.
지역 완주.

구딩이 명 [대응어] 구덩이.
☞구뎅이. ¶시한에 먹을라고 묻어둔 무수 {구딩이를} 파 본게 서릿발 속으서도 노란 싹이 나 있더라고.
지역 완주.

구랭이 명 [대응어] 구렁이.
뱀과의 하나. 또는 음흉하고 능청스러운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서리 맞은 {구랭이} 다 무락 올라 가네 이~. ¶서당을 댕기는디 즈그 마느래가 언지던지 밥은 인자 싸주고 허믄 갖고는 서당으로 가. 늘 갔다 왔다 허는디 하루는 간게 {구랭이란} 놈이, 큰 놈이 있는디 불이 나서 말여 빵둘러 불이 와. 그러니 구랭이는 죽지. 그런게 막 적삼을 벗어갖고서 불을 다 껐어.<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아따, 쌍판데기(낯반대기)는 반반허고 수척, 으멍시럽게 안 생겼는디 속은 {구랭이가} 솔찬히 들어 있는개비요.
지역 군산, 남원, 정읍.

구럭 명 [대응어] 망태기.
새끼 따위로 드물게 망처럼 만든 그릇. ¶그제야 그드만 찰밥 쩌서 {구럭} 속으다 그놈을 딱 넣어서는 구럭을 꽉 올꽈가지고 찰밥허고 먹을 거 들고, 그 지리산 저 어디 들어 가먼은 함정 지암 절벽 밑이 가.<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근디 한 뿌리도 못 캐 갖고 왔어 그사람들은. 아, 그리 갖고서는 아, 온게 그 놈이 막 산삼을 막 {구럭으로} 하나 캐 갖고 왔네.<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한중이. 그서 {구럭을} 들고 같이 갔어.<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군산, 김제, 고창, 정읍.

구런내 명 [대응어] 구린내.
☞구룬내.
지역 전북.

구렁내 명 [대응어] 구린내.
☞구룬내.
지역 고창, 부안.

구렁창 명 [대응어] 구렁텅.
매우 험하고 깊은 구렁. ¶내 벗은 발등이 보였다. 조금 헤매느라고 하다 보니, 하긴 길 위에서

신발은 모지라져, 그 어떤 길의 한 옆 {구렁창에} 던져 버리고 말았었다. 하긴 발이 시렸었다. 이 중은 그런 길에서 늙어 온 것인데, 하지만 오늘 내가 한눈에 본 길은,<박상륭, 죽음의 한 연구>
지역 전북.

구레쉬엄 명 [대응어] 구레나룻.
☞굴레쉬엄.
지역 완주, 익산.

-구로 【종결어미】 [대응어] -게.
해할 자리에 쓰여, 상대의 의도를 묻거나 어떤 행동에 대한 약속 또는 의지를 나타내는 종결어미. ¶머 {하구로}?<이윤구(2001)> ¶나도 좀 {먹구로}.<이윤구(2001)>
지역 무주.
해설 주로 경북 방언에서 쓰이며, 경북과 접촉 방언인 무주에서 일부 쓰인다.

구루마 (<일>kuruma) 명 [대응어] 수레.
바퀴를 달아서 소나 말 따위가 끌면 굴러가도록 만든 운반 기구. ¶모든 저, 어 군속두부 같응 거 그냥 식냥얼 가따 말에 싫고 {구루마로} 싫고 댕기고 움반헸씨.(모든 저, 어 군속품 같은 것 그냥 식량을 가져다 말에 싣고 수레로 싣고 다니고 운반했어.)<2008 전북 고창> ¶그리서 그 {구루마} 속으서 뺏뺏헌 놈을 내리서 문 뒤여다 꼭꼭 시워서 문 뒤여다 꼭꼭 시워놨어.(그리고 그 수레 속에서 뻣뻣한 것을 내려서 문 뒤에다 꼭 세워서 문 뒤에다 꼭 세워놨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한 짐을 잘 앤겨 가지고는 그 짐을 인제 실어다 주고 밤질을 온게, {구루마} 끌고 소 끌고 시방 온게 질가티가 어떤 사람이 누워서 땅바닥으가 자빠졌그덩.(한 짐을 잘 안겨 가지고 그 짐을 이제 실어다 주고 밤길을 오는데, 수레 끌고 소 끌고 오는데 길가에 어떤 사람이 누워서 땅바닥에 넘어져있거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고구마 가마를 {구루마에} 실코(싣고) 집으로 가져왔당게.
지역 전북, 완주.

구룩구룩 부 [대응어] 꿀꿀.
☞꾸룩꾸룩.
지역 익산.

구룬내 명 [대응어] 구린내.
똥이나 방귀 냄새와 같이 고약한 냄새. ¶누구 방귀가 이렇게 {구룬내가} 나는 것이냐? ¶누가 방귀를 뀌었는지 {구룬내가} 난다, 자수해.
지역 전북.

구룸 명 [대응어] 구름.
¶{구룸} 개인 게 맑고 좋네잉. 빨래나 널어야것다. ¶글어하나 급 시졀의 타랑씨(大台王氏) 귀경상천(歸京上天)하야 일월셩신(日月星辰)과 풍원죵셩(風雲衆星)을 말연 젹의 도 두 분이요 달도 두 분이요, 별도 열 닷말이요, {구룸도} 열 닷말이요, 발암(風)도 열 닷말이요 운 안도 열 닷말이요.<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어느 {구룸}에 비올지 몰른다요, 사람을 그리 괄시를 허면 안되는 것여.
지역 전북.

구룸마 (←<일>kuruma) 명 [대응어] 수레.
☞구루마. ¶올해는 지붕이엉을 새로 얹어야 허는디 지푸락 두어 {구룸마} 실어와야겄다.
지역 완주.

구룽내 명 [대응어] 구린내.
☞구룬내. ¶으디선가 {구룽내} 살살 핑긴다.
지역 전북.

구르마 명 [대응어] 수레.

☞구루마. ¶게 포탄 소리에 소가 놀래가지고 튀는 바람에 그 머야 {구르마} 쇠발툭이라고 해짠아요. 예전에 한번, 거기에 갈려 가지고서난 막 그냥 뼈가 상헌 거여.(그러니까 포탄 소리에 소가 놀라가지고 튀는 바람에 그 뭐야 달구지 쇠발통이라고 했잖아요. 예전에 한번 거기에 갈려 가지고 그냥 뼈가 상한 거야.)<2007 전북 군산>

지역 전북.

구리마 (←<일>kuruma) 명 [대응어] 수레.

☞구루마. ¶자식 엄는 사람덜언 기양 지기 송장 히비리고, 저 {구리마에나} 어따가 싣꼬 가서 묻꼬 그러등마뇨.(자식 없는 사람들은 그냥 지게 송장 해버리고, 저 수레에다 어디다 싣고 가서 묻고 그러더만요.)<2009 전북 임실>

지역 임실.

구리시염 명 [대응어] 구레나룻.

☞굴레쉬엄.

지역 전북.

-구만[1] 【종결어미】 [대응어] -구먼.

해할 자리나 혼잣말에 쓰여, 화자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주목함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가드리 다 {이뿌구만}<이윤구(2001)> ¶저거시 다 우리 {지비구만}<이윤구(2001)> ¶소 때미 {올라갓구만}<이윤구(2001)> ¶막고 {있구만요}<최태영(1973)> ¶하나부지 진지 {잡수셨구만}!<김중진(1984b)> ¶오시 참 {크구만}!<김중진(1984b)>

지역 전북.

-구만[2] 【연결어미】 [대응어] -는데.

뒤 절에서 어떤 일을 설명하거나 묻거나 시키거나 제안하기 위하여 그 대상과 상관되는 상황을 미리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 ¶돈이래야 제우(겨우) 육십 원 {땄구만} 그러네!<채만식, 停車場近處> ¶네시가 다 되었는걸. 집으루 도루 가서 바꾸어 입구 올 새두 {업구만} 그리어!<채만식, 보리방아> ¶옷고름도 그래. 당최 짬매고 묶고 허는 건 못 {전디겄드구만}, 어찌 그리들 잘 참고, 때깔들 잘 내이?<최명희, 혼불> ¶기다리면 살인 나는 {일이구만}, 질녀 목숨이 걸린 참경을 명색이 중부(仲父)가 알고도 가만 있으란 말인가?<최명희, 혼불> ¶비도 {오구만} 멋허로 나가냐?(비도 오건만 무엇하러 나가니?)<이기갑(1998)>

지역 서남(호남).

구먹 명 [대응어] 구멍.

뚫어지거나 파낸 자리. ¶내가 쌀 갖다 준다." 개 {구먹으로} 쌀 한 말을 갖고 오드래여. 쌀 한 말 받고<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구먹으로 물이 우숙우숙 쏟아지고, 밥도 처먹으면 요 밥도 요 {구먹으로} 쑥쑥 나오고. 하 이 똑요만한 것이 체신을 보시요.<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본남자를 보닌게 귀 {구먹에다} 말뚝을 박고 귀에다 지름을 붓어 죽였다던가. 그렇게 불더랴<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전북.

구먹자가리 명 [대응어] 귀머거리.

귀가 먹어서 듣지 못하는 사람. ¶고개를 수그리면서 안녕허십니까 허고 이제 인사를 허는디, 이 영감님은 {귀먹자가리가} 되가지고 자기더러 시비를 허는지 알더라니께.

지역 남원.

구멍 명 [대응어] 설거지.

먹고 난 뒤의 그릇을 씻어 정리하는 일. ¶제앙 모시고 나먼 인자 또 {구멍을} 다 칠 일이 꺽정

스럽제.
지역 전북.

구멍치다 동 [대응어] 설거지하다.
먹고 난 뒤의 그릇을 씻어 정리하다. ¶팜나 밥허고, {구멍치고}, 밥허고, {구멍치는} 거이 내가 한평생 헌 일이지.
지역 전북.

구명 명 [대응어] 구멍.
뚫어지거나 파낸 자리. ¶아 요걸 가지고 사슬을 달아 갖고, 그 엽전 {구명에다} 쏘는 공부를 허. 엽전이라믄 구녁(구멍) 뚫어져있거든. 거기다가 끈을 껴서<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안방 다락에 자리를 잡고 있읍니다.---내다볼 {구명을} 뚫어놓고---한 몫 끼어 활동하는 것이 좋은지 아주 싱글벙근하든데요. "<채만식, 염마>
지역 전북.

구몽가게 명 [대응어] 구멍가게.
규모가 적은 가게. ¶삼촌이 저그 {구몽가게} 갈건데 뭐 먹고잪은 거 있어? 사다 줄게.
지역 임실.

구묵 명 [대응어] 구멍.
☞구먹.
지역 전북.

구물 명 [대응어] 그물.
노끈이나 쇠줄 따위로 여러 코의 구멍이 나게 얽어서 날짐승이나 물고기 따위를 잡는 데 쓰는 물건. ¶{구물을} 맺자 {구물을} 맺자/당사실로 {구물을} 맺자/헤에 에 헤헤야 헤헤헤 어러리야 {구물을} 치자 {구물울} 치자/영광 법성에다 {구물을} 치자/헤에 헤 헤헤야 헤헤헤 어 러리야 (남원 논매는 소리-이슬털이-그물가)<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남원.

구부구부 명 [대응어] 굽이굽이.
여러 개의 굽이. 또는 휘어서 굽은 곳곳. ¶문경새재가 웬 고갠가 {구부구부야} 눈물일세/어노어노 어이가리 어노/옆에 양반털 듣기 좋고 먼데 양반덜 보기 좋게/ 어노 소리를 잘 맞추게/어노어노 어이가리 어노(남원 상여소리)<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남원.

구부다보다 동 [대응어] 들여다보다.
가까이서 자세히 살피다. ¶소 {구부다본게} 소가 좋고만.
지역 전북.

구석대기 명 [대응어] 구석.
☞구석데기. ¶한번 본다고, 아 그 시문(柴門)이로 획 돌아가넌게 저 안 {구석대기가} 초당 하나가 있는디 불이 환허드려여.<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전북.

구석대니 명 [대응어] 구석.
모퉁이의 안쪽. ¶선생님이 보면은 구멍을 뚫어놨으니 큰 야단을 치게 생겼은게 한쪽 {구석대니가} 오물쭈물 앉았어.<구비문학대계 전북 고창군편>
지역 전북.

구석댕이 명 [대응어] 구석.
☞구석데기. ¶손이로 집어서 막 집어 넣는디 그때는 안먹고 가만히 한쪽 {구석댕이가} 물팍 꿇고 앉았어.<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전북.

구석데기 명 [대응어] 구석.

모퉁이의 안쪽 ¶놈들이 한 댓이 왔어. 그런디 그 것도 본동만동허고 막 관 {구석데기를} 찾어댕김서 빈망치로 막 투드리는 거요. 하이튼. "이 미친<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순이는 정지 {구석데기에} 웅크리고 앉아서 훌쩍이며 울고 있었다. ¶동생이 엄마한테 혼나고는 방 {구석데기에서} 웅크리고 앉아있다.

지역 고창, 김제, 부안, 정읍.

구석재기 명 [대응어] 구석.

☞구석데기. ¶찾으러 다니는 거야, 그 눈 어둔이가. 그런데 {구석재기에서} 하나가 잽혔어. 이렇게 더듬고 찾는데 한 아이가 잽혔단 말이야. <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15>

지역 전북.

구석태기 명 [대응어] 구석.

☞구석데기. ¶그리 쫓아갔다 그 말여. 니 놈이 노름을 헌디 한쪽 {구석태기} 앉어서 그전으 거 뒷뜨기란 것이 있어[조사자 : 예<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전북.

구석탱이 명 [대응어] 귀퉁이.

사물이나 마음의 한구석이나 부분을 낮잡아 이르는 말. ¶인제 {구석탱이} 쪼그리고 앉어서 발발 떨고 있지.<한국구비문학대계, 전북정주시·정읍군편p>

지역 전북.

해설 '귀'는 "사람의 귀"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한 부분이라는 뜻으로 "구석"의 의미를 갖는다. '-탱이'는 비하하는 말에 주로 붙는 접미사이다.

구석털털허다 형

구식으로 오래되어 볼 품이 없다. ¶옛날 구석털털헌 애기는 들어서 머덜라고 그려?

지역 전북.

구설 명 [대응어] 구슬.

☞구술.

지역 전북.

구설 명 [대응어] 구석.

모퉁이의 안쪽 ¶너 잘못했은게 저그 방 한 쪽 {구설에} 가 있어.

지역 무주.

구세 명 [대응어] 구유.

☞구시.

지역 전북.

구세미 명 [대응어] 아가미.

물속에서 사는 동물, 특히 어류에 발달한 호흡기관. ¶이거 겁나게 싱싱한 거여. 여기 {구세미를} 떠들어 봐봐. 숨을 할딱할딱한단게.

지역 고창.

구속대기 명 [대응어] 구석.

☞구석데기.

지역 전북.

구속데기 명 [대응어] 구석.

☞구석데기.

지역 전북.

구수 명 [대응어] 구유.

☞구시.

지역 김제, 완주, 임실, 진안.

구수룸허다 형 [대응어] 구수하다.

보리차, 숭늉, 된장국 따위에서 나는 맛이나 냄새와 같다. ¶이놈으로 물 끓여 노먼 물이 {구수룸허니} 괜찮여.

지역 전북.

구술 명 [대응어] 구슬.

보석이나 진주 따위로 둥글게 만든 장신구나 놀이 도구. ¶{구술} 따먹기 놀이나 허끄나?

지역 전북.

구숭테이 명 [대응어] 구석.

☞구석탱이.

지역 전북.

구시 명 [대응어] 구유.

소나 말 따위의 가축들에게 먹이를 담아 주는 그릇. 흔히 큰 나무토막이나 큰 돌을 길쭉하게 파내어 만든다. ¶대가리 같애요. 그러니 그래서 송광사 주지분은 모두 용한(재주있는) 분들이라 {구시를} 하나 구헐라고 했는디,<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전설 옛날 여기 있던 비사리를 베서 구시를 만들었는디, 비사리 {구시가} 그렇게 비사리 나무를 베 놓고, 거시기한깨,<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소먹이를 {구시에다} 부어 주어라.

지역 고창, 군산,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장수, 정읍.

구시렁탱이 명 [대응어] 아가미.

물속에서 사는 동물, 특히 어류에 발달한 호흡 기관을 낮잡아 이르는 말. ¶생선 소금간을 헐 때 {구시렁태이부텀} 벌려서 소금을 착착 뿌리면 되야.

지역 전북.

구시하다 형 [대응어] 구수하다.

보리차, 숭늉, 된장국 따위에서 나는 맛이나 냄새와 같다. ¶무신 국을 끓이는가 {구시한} 내음이 여기까지 나는구먼.

지역 전북.

구신 (←鬼神) 명 [대응어] 귀신.

미신적 관념에서, 사람이 죽은 뒤에 남는다고 하는 넋. ¶찍고 녹이홍생을 떨쳐입은 꽃각시가 앉었능게미 재미로 열어 봤다가, 무신 {구신맹이로} 흐옇게 앉었는 젊은 여자를 봤이니, 그것이 나였드라도 놀래 자빠졌겄네.<최명희, 혼불> ¶{구신} 들린 것 같소 이~. ¶근디, 거시기는 {구신도} 모룽게 잘 조까 갈차 주시요 이~. ¶어야, 거시기는 {구신도} 모룽게, 싸목싸목 차근차근이 조까 알켜 주랑게, 지발 서대지 말고 이~. ¶어쨌든 쎄까리(돈)가 좋ㅎ긴 존가 봅디다~ {구신도} 돈이면 환장 헐팅게로. ¶글고, {구신은} 뭇 헌다요.

지역 전북.

구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 【관용표현】

쓸데없는 소리라는 뜻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나 원 참, 오래 살다보니깨 베라벨 {구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를} 다 들어보겄네.<윤흥길, 빛 가운데로걸어가면> ¶사람 맘은 바뻐죽겄는듸, {귀신 씻나락 까묵는 소리를} 엄뱅하게는 질게 읽고 있데.<송기숙, 자랏골의비가>

지역 전북.

해설 누구도 귀신이 씻나락, 즉 볍씨를 까먹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표현은 “쓸데없는 소리”라는 뜻을 가진다.

구신 씻나락 까묵는 소리 【관용표현】

☞구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

지역 전북.

구앵이 명 [대응어] 고양이.

☞고앵이. ¶{구앵이} 쥐 위허덧기 맴에도 없는 허드렛말이나 치렛소리는 피차 입초시에 올릴<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완주, 진안.

구엽다 형 [대응어] 귀엽다.
예쁘고 곱거나 또는 애교가 있어서 사랑스럽다. ¶아따, {구여운} 손지놈 아까참에 까장은 곤히게도 자등만 인자 일어낭게 꼬치가 꼿꼿허네 이~.
지역 전북.

구왜이 명 [대응어] 고양이.
☞고앵이.
지역 전북.

구잡시럽다 형 [대응어] 구접스럽다.
몹시 지저분하고 더러운 데가 있다. ¶우게 글들, 님의 어릴쩍 시망 {구잡시런} 그 시절 축소판 아니길요~. ¶과거를 보러 갔는디, 과거를 봐서 급제를 히가지고 순천 부사를 힜는디, 그 양반이 애초여 그리갖고는 거그 책방을 대는디, 부안 거가 요쯤 돼서 부안 우리 일가집이를 와서 책방 하나를 고르는디, 거그 {구잡시런} 사람이 하나 있었던가벼.<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 편>
지역 정읍.

구정키리다 동 [대응어] 휘정거리다.
물 따위를 함부로 자꾸 젓거나 하여 흐리게 하다. ¶미꾸라지 한 놈이 온 웅덩이를 다 {구정키린다고} 하잖여.
지역 전북.

구지런히 부 [대응어] 구질구질.
상태나 하는 짓이 깨끗하지 못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게. ¶뭐가 깨깟혀? {구지런히} 보기 싫어.
지역 전북.

구질털털하다 형 [대응어] 구질구질하다.
하는 짓이 깨끗하지 못하고 털털하다. ¶갸는 에릴 적부텀 {구질털털헌} 걸 원판 싫어허는 아라 죽을 때도 아매 곱게 죽었을 거여.<윤흥길, 장마>
지역 전북.

구퉁이 명 [대응어] 귀퉁이.
사물이나 마음의 한구석이나 부분. ¶방 {구퉁이}에 쪼그리고 앉았다.
지역 전북.

구페 명 [대응어] 글페.
☞구피.
지역 전북.

구피 명 [대응어] 글페.
모레의 다음날. ¶{구피부터는} 날이 추워진다.
지역 전북.

국건데기 명 [대응어] 건더기.
국에 섞여 있는 덩어리. ¶국이 희멀건히가지고 {국건데기} 하나 없냐.
지역 전북.

국건지 명 [대응어] 건더기.
국에 섞여 있는 덩어리. ¶소괴기를 푹푹 고아노으면은, 그거를 가지구 인제, {국건지로도} 쓰고, 육개장도 만들고 그러지.
지역 전북.

국국 부 [대응어] 꿀꿀.
돼지 따위가 내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 ¶돼지가 {국국} 소리 내며 울제. 그짝 돼지는 어떻게 울간디?
지역 무주.

국말국 명 [대응어] 국물.
국, 찌개 따위의 음식에서 건더기를 제외한 물. ¶시간 없응게 후딱 먹어. 아, 여그 {국말국에}

훌훌 말아서 얼른 마셔 버려. ¶여기 {국말국} 좀 더 주세요. ¶밥을 {국말국에} 말아서 먹거라.
지역 남원, 순창, 임실, 장수, 정읍, 김제, 군산, 완주.

국멀국 명 [대응어] 국물.
☞국말국. ¶우리 큰놈은 {국멀국에다가} 숟구락 넣어 휘휘 저어가며 어찌나 잘 먹는지 먹는 것만 보면 정말 예뻐 죽겄어.
지역 완주.

국몰국 명 [대응어] 국물.
☞국말국.
지역 김제, 순창, 군산, 장수.

국물국 명 [대응어] 국물.
☞국말국.
지역 전북.

국시 명 [대응어] 국수.
밀이나 메일이나 감자 따위를 재료로 하여 가늘게 썰거나 틀에 눌러 가늘게 뽑아낸 식품. 또는 그것을 삶아 만든 음식. ¶고목나무 밑이서 걸(걷)고, 둘이 인자 뭣 {국시라도} 끓이 먹고 거그서 잠을 잔다 이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오늘 점심은 {국시를} 끓여 먹자. ¶배고픈 사람은 상가집에 가서 우선 {국시} 한그륵부터 얻어먹고 출상때는 상여 앞으서 만새(만사)를 들고 장지꺼정 따러 가는거여 거그가면 또 밥이랑 떡도 먹을 수가 있응게. ¶콩물로 {국시를} 말아먹으면 정말로 맛이 최고야.
지역 남원, 무주, 순창, 임실, 장수, 정읍.

군낫질 명
벼포기를 한 움큼 잡고 베는 일. ¶들으간다 들으간다 들으가 들으가 열두 폭 걸고 {군낫질로} 들으가네(김제 벼베는 소리-나락비는 소리)<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김제.

군동내 명 [대응어] 군내.
☞군둥내.
지역 전북.

군둥내 명 [대응어] 군내.
김치 따위의 맛이 변했을 때 나는 좋지 아니한 냄새. ¶강부자집에서 얻어다 먹는 묵은 김치의 {군둥내가} 코를 찔렀다.<윤흥길, 완장> ¶우리 아씨님 밥이서는 생쌀내 나고 물에서는 해금내 나고 집이서는 {군둥내} 나고 진피방으 머리 싸고 누웠답니다." 그드라우.<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그렇게 맛있는 동치미 국물을 애낀다고 안먹어더니만 {군둥내}가 나서 애끼면 똥된다는 말이 맞어.
지역 전북.

군디 명 [대응어] 그네.
밑싣개를 두 줄로 매달아 놓고 사람이 올라타서 앞뒤로 왔다갔다 하면서 노는 설비. ¶땅속으로 쑤우욱 꺼져들었다가 다시 솟아오르기를 거듭허다 보니께 마치 커다란 {군디를} 타는 것 같더라니께.
지역 전북.

군속 명
속에 품은 딴 마음. ¶앞냇갈로 빨래질 간게/그와 같은 도령님이/하늘 같은 호말 타고/옆으로 살짝 지내 가는구나/소리를 허자니 냄이 {군속} 알어/눈을 치자니 지가 몰라(완주 시집살이노래-"빨래질 가자 빨래질 가자")<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완주.

군장 명

박자. ¶다듬이질 헐 때 또그락또그락 군장이 잘 맞어. {군장이} 잘 맞어야 혀.
지역 전북.

굴간 (←屈巾) 명 [대응어] 굴건.
☞굴권.
지역 전북.

굴권 (←屈巾) 명 [대응어] 굴건.
상주가 상복을 입을 때에 두건 위에 덧쓰는 건. ¶문상을 하러 가니 {굴권을} 쓰고, 상복을 입고 있는 작은 저 아이를 보니 어찌나 가슴이 쓰라리던지.
지역 군산, 남원, 완주, 고창.

굴뚝 명 [대응어] 굴뚝.
불을 땔 때에, 연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도록 만든 구조물. ¶아이고, 말도 마라. 여그저그 공장들 들어서면서 {굴뚝에서} 엔기들을 밤낮 뿜어 낸 게 사람들이 살들 못허고 다 딴 데로 이사나가 버렸지. ¶마침 {굴뚝에서} 막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구먼.
지역 전북.

굴레쉬엄 명 [대응어] 구레나룻.
밑에서 턱까지 잇따라 난 수염. ¶{굴레쉬엄이} 꺼멓게 자라나고 있어요. ¶훈이네 할아버지의 {굴레쉬엄이} 많이 나 있어 정말 위엄이 있어 보인다.
지역 전북.

굴레쉬염 명 [대응어] 구레나룻.
☞굴레쉬엄.
지역 군산, 남원.

굴레쉬옴 명 [대응어] 구레나룻.
☞굴레쉬엄.
지역 장수.

굴레쉬욤 명 [대응어] 구레나룻.
☞굴레쉬엄.
지역 전북.

굴레시엄 명 [대응어] 구레나룻.
☞굴레쉬엄.
지역 남원, 임실.

굴레시염 명 [대응어] 구레나룻.
☞굴레쉬엄.
지역 완주.

굴렛수염 명 [대응어] 구레나룻.
☞굴레쉬엄.
지역 전북.

굴렛쉬염 명 [대응어] 구레나룻.
☞굴레쉬엄.
지역 전북.

굴렛시염 명 [대응어] 구레나룻.
☞굴레쉬엄.
지역 전북.

굴르다 동 [대응어] 구르다.
바퀴처럼 돌면서 옮겨가다. 또는 선 자리에서 발로 바닥을 힘주어 차다. ¶잠이 꺼빽(깜빡) 들었어. 꺼빽 들었는데, 잔디에서 불이 댈구(자꾸) 타 들어오는데 그 개가 보닝게는, 주인은 깨울 용기두 없구, 그래서 불이가 이렇게 타오는 대로 그 또랑(도랑)이 가찹던가(가깝던지) 물에가 빠져가지구서는 잔디밭에가 {굴르구} 또 빠져가지구서는 잔디밭에가 {굴르구} 그래가지구, 나중에 주인이 실컷 자구서 일어나 보니까 개가 팡져서(지쳐서) 그냥 죽었드리야.<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

시 완주군편> ¶그런개 집안이 큰일났지. 이런 일이 있냐 말여. 그런개 어머니도 발을 동동 {굴르고}, "어트거꺼냐?" 헌개 시집갈 여자가, "어머니, 어쩐 일이시오?" "느그 아버지가 술을 먹으러 대님서 여그 가서 출랑, 저그 가서 출랑 그래서 신랑이 셋이 왔다. 어트꺼냐?"<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배를 타고 건너간게 새끼를 데리고 대번 막 그냥 발로다 그냥 막 {굴르고서} 이렇게 막 날뛰고 거시기 허다가서는 나중으는 굴 속으 들어가 새끼 세 마리를 가지고 나왔어.<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굼빙이도 {굴르는} 재주가 있다는디 너는 잘 허는 일이 뭐냐?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임실, 장수, 정읍, 진안.

굴리 명 [대응어] 굴레.

말이나 소 따위를 부리기 위하여 머리와 목에서 고삐에 걸쳐 얽어매는 줄. ¶{굴리를} 잘 짜야 마소 부리기가 쉬워지는 볍이여.

지역 무주.

굴리시염 명 [대응어] 구레나룻.

☞굴레쉬엄.

지역 무주.

굴밤 명 [대응어] 상수리.

상수리나무의 열매. ¶그전에 일정 때는 저 산 높은 데 굴밤 주스러 댕겠다고요. ¶아이들은 낄리끼리 바구니를 들고 나와서 {굴밤을} 털어 밤을 주었다.

지역 무주.

굴와 명

모자의 일종. ¶지금 같으면 약산디 하로는 뜬금없이 여자 하나허고 남자 하나허고 둘이 석 오는디 중이여, {굴와} 씨고. ¶그 전이는 {굴와} 씨고 댕기면 중인게. {굴와} 쓰고 떡 들어오니.

지역 전북.

굴풋 부

배가 고파 무엇을 먹고 싶은 느낌이 살짝 들게. ¶시상일 야지랑 깜서 정칫일 말(言) 팽맹이질 험서 창문 밖 모양성 철쭉 유혹에 {굴풋} 삼겹살 냄시 꼬심 속에 낯갈 이름조차 까먹은 무심함에 건성나발 옹삭허게 해찰허면서.

지역 전북

굴풋하다 형 [발음] [굴푸다다/굴푸타다] [대응어] 배고프다.

배 속이 비어서 음식이 먹고 싶다. ¶깨는 볶아 뒀다가 음식에 섞어 먹고 꼬깜 한 접은 큰방 쥐주고 한 접은 저녁일 허고 {굴풋허면} 너 묵어라<김용택, 아들아, 내 아들아>

지역 전북.

해설 대개는 식사를 하기 전에 약간 배가 고픈 정도를 나타내는 말이다.

굴피나무 명 [대응어] 상수리나무. ¶{굴피나무} 숲을 달리다 보면 산꿩들이 푸드덕 날아 올랐다.

지역 장수.

굵운체 명 [대응어] 굵은체.

올이 굵고 구멍이 큰 체 ¶날은 이렇게 뜨듯헌디 체 장사 하나가 {굴군체를} 미고 나섰어.

지역 남원, 무주, 완주.

굼나묵개 명 [대응어] 나막신.

신의 하나. 나무를 파서 만든 것으로 앞뒤에 높은 굽이 있어 비가 오는 날이나 땅이 진 곳에서 신었다. ¶{굼나묵개}를 신는 사람은 없지.

지역 전북.

굼빙이 명 [대응어] 굼벵이. ¶{굼빙이도} 굴르는 재

주가 있다는디 너는 잘 허는 일이 뭐냐?
지역 전북.

굽더리 명 [대응어] 굽도리.
방 안 벽의 밑부분.
지역 전북.

굽돌지 (--紙) 명 [대응어] 굽도리지.
방 안 벽의 아랫도리에 바르는 종이. ¶이걸 해놓고 마지막에 장판지를 놓는데 조오 {굽돌지}가 말이야 딱 발라.<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17>
지역 무주, 고창.

굽둘지 명 [대응어] 굽도리지.
☞굽돌지.
지역 고창.

굽드리 명 [대응어] 굽도리.
방 안 벽의 밑부분. ¶장마철에는 {굽드리에} 습기가 많이 차서 을매나 옹삭스러운지 몰라.
지역 전북.

굽이다 동 [대응어] 굽히다.
어떤 물건이나 사람의 허리 따위를 굽게 하다. ¶허리 좀 {굽이지} 말고 빳빳하게 있어라. ¶어르신이니까 무조건 {굽이고} 가는 거지 뭐.
지역 고창, 익산.

굽ㅎ다 동 [대응어] 굽다(燒).
불에 익히다. ¶밥을 짓고 고기를 지지고 {굽코} 그러드라고.
지역 김제.

굿 뒤에 날장구 친다 【관용표현】
일이 다 끝나거나 결정된 후에 뒷말을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굿 뒤에 날장구 치는 격이고} 버스 지나간 연후에 손 흔드는 격이었다.<윤흥길, 빛가운데로걸어가면>
지역 전북.
해설 이 표현에서 '굿'은 "중요한 행사"를 의미하고, '날장구'는 부질없이 공연히 치는 장구로 "쓸데없이 하는 일"을 의미한다.

궁구르다 동 [대응어] 굴리다(굴렁쇠를).
바퀴처럼 돌면서 옮겨 가게 하다. ¶백지와(白瓦)로 괴았는데, 괴아놓아야 대처나 이렇게 떠들어지제. 잉아대는 오만(온) 몸을 {궁글러야지} 대처나 내려갔다 올라갔다 한개.<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미란이는 눈덩이를 {궁글러} 눈사람을 만들었다.
지역 장수, 남원.

궁글다 동 [대응어] 뒹굴다.
여기저기 어지럽게 널려 구르다. ¶뜨건 햇빛에 말릴라고 널어 논 고추가 여기저기 {궁글고} 있다.<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전북.

궁글리다 동 [대응어] 굴리다.
'구르다'의 사동사. ¶굴렁쇠를 궁글린다. ¶쬐깐 눈덩이를 살살 밀디끼 {궁글려서} 두 개를 맨들면 눈사람이 되는거여.
지역 전북.
해설 '궁글리다'는 '구르다'의 방언형인 '궁글다'에 사동 접미사 '-리-'가 결합한 형태이다.

궁글치다 동 [대응어] 굴리다.
세게 굴리다. ¶굴렁쇠를 궁굴치는 게 쉽가디? 인제 아들이 할라면 못혀.
지역 무주.
해설 '궁굴치다'는 '구르다'의 방언형인 '궁굴다'에 접미사 '-치-'가 결합한 형태이다.

궁글통 (궁글筒) 명 [대응어] 굴통.

물레의 중심에 지른 통나무. ¶물레장 파랑장/자구내 설대 {궁글통}/올로 졸로 니린 가락/석수쟁이 마친 가락/개고동에 걸린 가락/소리도 좋다 정가락(임실 물레질소리)<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 민요해설집>
지역 임실.

궁글패 명 [대응어] 굴렁쇠.
어린아이 장난감의 하나. 쇠붙이나 대나무 따위로 만든 둥근 테로서, 굴렁대로 굴리며 논다.
지역 전북.

궁기 명 [대응어] 구멍.
뚫어지거나 파낸 자리 ¶하나리 무어져도 소사날 {궁기가} 잇난이라<완판본 열여춘향수절가下>
지역 전북.

궁데이 명 [대응어] 궁둥이.
☞궁뎅이.
지역 전북.

궁뎅이 명 [대응어] 궁둥이.
앉으면 바닥에 닿는, 볼기의 아랫부분. ¶그래 쪼그대고(쪼그리고) {궁뎅이} 받치고 있던 모양이지.<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계집년이 {궁뎅이를} 실룩거리며 돌아다니면 바람나는 법여. ¶네 {궁뎅이} 좀 한쪽으로 치워 다오.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부안, 순창, 완주, 임실, 정읍, 진안, 무주, 군산.

궁뎅이방아 명 [대응어] 궁둥방아.
☞궁뎅이방애.
지역 완주.

궁뎅이방애 명 [대응어] 궁둥방아.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주저앉아서 궁둥이로 바닥을 쾅 구르는 짓. ¶{궁뎅이방아} 찧고 벌렁 자빠졌지.
지역 남원, 정읍, 진안, 완주, 무주.

궁두이 명 [대응어] 궁둥이.
☞궁뎅이.
지역 전북.

궁둥방아 명 [대응어] 엉덩방아.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주저앉아서 엉덩이로 바닥을 쾅 구르는 짓. ¶영감의 그와 같이 좋았던 기분도 삽시에 비거석양풍하고 깡총 한번 {궁둥방아를} 찧었을 것이다.<채만식, 금의 정열> ¶말이란 놈이 어린애를 업신녀겨서 {궁둥방아를} 찌여 우길이는 여러 번 그 말 잔등에서 떨어저보기까지 하엿다.<한설야, 탑> ¶정첨지의 아들이 발길로 내다차서 과부는 방문 아페가서 {궁둥방아를} 찌코 주저안젓다.<홍명희, 임거정> ¶그는 맥없이 뱃바닥에 {궁둥방아를} 찧고 말았다.<김성동, 풍적>
지역 익산.

궁둥방애 명 [대응어] 궁둥방아.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주저앉아서 궁둥이로 바닥을 쾅 구르는 짓.
지역 무주.

궁둥입 명 [대응어] 궁둥이.
☞궁뎅이.
지역 군산.

궁둥짝 명 [대응어] 궁둥이.
볼기의 아랫부분. 앉으면 바닥에 닿는, 근육이 많은 부분이다. ¶나는 한바탕 죽살이를 친 끝에 가까스로 천근같은 석주 녀석 {궁둥짝} 밑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윤흥길, 소라단 가는 길>
지역 익산.

궁뒹이 명 [대응어] 궁둥이.
☞궁뎅이. ¶본시 계집의 {궁뒹이}라면 염치업시 추근추근 ?차다니며 음흉한 술책을 부리는 삼십이나 갓가히된 로총각 삼돌이는.<나도향, 뽕>
지역 전북.

궁디 명 [대응어] 궁둥이.
☞궁뎅이.
지역 전북.

궁딩이 명 [대응어] 궁둥이.
☞궁뎅이. {궁딩이}를 활딱 까고는 뀌는디 첫참을 '땅땅' 허야 나중으 '또당땅 또당땅' 허거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무주, 진안, 정읍.

궁탱이 명 [대응어] 알항아리.
매우 작은 항아리. ¶{궁탱이에} 술을 담아 두다
지역 전북.

궇다 동 [발음] [구따] [활용형] ㄱㅜㅎ고[구꼬], ㄱㅜㅎ어서 [구어서] [대응어] 굽다(燒).
☞구다. ¶고기 {궇고}(굽고), 끓이는 냄새가 진동을 허네 기양.
지역 고창,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정읍.

궈간 (←居間) 명 [대응어] 거간꾼.
사고파는 사람 사이에서 흥정을 붙이는 일을 하는 사람. ¶물건을 떼어다가 직접 거래를 하니 궈간이 할 일이 없다.
지역 무주.

권디 명 [대응어] 그네.
밑신개를 두 줄로 매달아 놓고 사람이 올라타서 앞뒤로 왔다갔다 하면서 노는 설비.
지역 전북.

권연시리 (←空然시리) 부 [대응어] 공연스레.
까닭이나 실속이 없는 데가 있게. ¶가만히 보면, 나때미네 {궈년시리} 안 쓸 돈얼 디리읎이 써!
<채만식, 강선달>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의 부사 '권연시리'는 채만식의 작품에서만 발견된다. 이 방언에서 많이 쓰는 방언형은 '괜시리'이다.

권줄개 (←勸酒歌) 명 [대응어] 권주가.
술을 권하는 노래. ¶기상첩을 옆에 놓고/{권줄개를} 하는구나/집이나 통통 돌아와서/장농 속으/멩지비 석 자를 내어갖고/목을 메어 죽었구나/어이하라고 죽었는가(완주 시집살이노래-"빨래질 가자 빨래질 가자")<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완주.

권토 (←拳鬪) 명 [대응어] 권투.
두 사람이 양손에 글러브를 끼고 상대편 허리 벨트 위의 상체를 쳐서 승부를 겨루는 경기. ¶내일 {권토} 시합이 있다니께.
지역 진안.

귀 질기다 【관용표현】 [대응어] 귀 질기다.
둔하여 남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다. ¶넘우 말에 {귀질기고} 생묵는 것보담사 월등허니 낫다고 허야 허지 안허겄소?<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귀경 명 [대응어] 구경.
흥미나 관심을 가지고 봄. ¶그서 아이고 구렁덩덩 시선분이를 낳았다닌게 {귀경} 간다고 딸네들이 다 가서 넷이 가서 보더니, "하따 구렁이 징그랍더라." 고 그려.<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

시 정읍군편> ¶그럼 {귀경} 하나 시기도라(시켜 주라)." "그럼 나 허라는 대로만 허시요. 그럼 내 {귀경을} 참, 참말로 이 {귀경} 좋읍니다.<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아저씨 어찌요. 잘 먹고 {귀경} 잘 허지요?" "참 나 너 땜이 말여 오늘 잘 먹고 말여. {귀경} 잘 허고 참말로 재밌다. 아, 참 재밌다.<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꽃을 꺾어 손에다 들고/산에 오오 올라서 들귀 들{귀경} 간다/아이고 호호 담담 설움이야(순창 논매는 소리-오동동 추야)<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군산, 임실, 완주, 부안, 정읍, 남원.

귀경허다 동 [대응어] 구경하다.

흥미나 관심을 가지고 보다. ¶이왕지사 넓덕지 들킨 짐에 엤다, 윈 동네 눈 달린 것들 죄다 와서 실컨 {귀경허거라}. 허고는 궁뎅이까장 할씬 까서 코앞에 들이대는 게여.<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허기사 인자 가봤자 {귀경헐} 것도 별로 없다. 지금쯤 아매 시체랑 부상자들이랑 거진 다 치워놨을 것이다.<윤흥길, 소라단 가는 길>

지역 정읍, 군산.

귀고막 명 [대응어] 귀청.

귓구멍 안쪽에 있는 타원형의 반투명한 막. ¶넘으 집 앞에서 이 무신 난리판굿이여! 누구 {귀고막에} 빵구 낼라고 작심혔다나!

지역 전북.

귀구먹 명 [대응어] 귓구멍.

귀의 밖에서 귀청까지 통한 구멍. ¶갔는디 그렇게 됐어. 본남자를 보넌게 {귀구먹에다} 말뚝을 박고 귀에다 지름을 붓어 죽였다던가. 그렇게 불더라<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전북.

귀년시리 부 [대응어] 공연스레.

☞공연시리.

지역 전북.

귀더리 명 [대응어] 가시.

음식물에 생긴 구더기. ¶오래된 장인가 {귀더리가} 슬었어.

지역 남원, 무주, 장수, 진안.

귀도리 명 [대응어] 가시.

☞귀더리.

지역 장수, 진안.

귀때기 명 [대응어] 귀(耳).

사람이나 동물의 머리 양옆에서 듣는 기능을 하는 감각 기관 전체. 또는 겉귀의 드러난 가장자리 부분을 한정하여 이르는 말. ¶추운 겨울이라 바깥에 좀 나갔다 왔더니 {귀때기가} 빨갛게 변했다. ¶아이고오, 시끄러어. 그만 좀 처울어라. {귀때기} 떨어지겄다 기양.<최명희, 혼불> ¶황소란 놈이 강을 건너라며는 대갈박만 남기고 몸뚱이는 다들어 갑니다.[청중: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은 쇠고리란 놈이 뿔로 가 붙읍니다. 어디가 붙을데가 없으니께 코는 숨쉬어쌌고, {귀때기는} 내려가 쌌고, 꽁뎅이는 뿔로가 붙는거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아빠한테 매를 맞고 화가 난 동생이 개의 {귀때기를} 냅다 발로 차자 깨갱하며 꼬리를 감추고 도망쳤다. ¶하도 말 같잖어서 듣다 말고 {귀때기를} 후려 쳐 주기는 했는디요,<최명희, 혼불> ¶평소에 어머님이 나를 허수롭게 알으시니 이제 겨우 {귀때기에} 솜털도 안 벗어진 것까지 제 시에미를 짚신짝같이 아는 거 아니겠소.<최명희, 혼불> ¶선생님한티 {귀때기}를 잽혀 끌리가는 것을 보니 뭘 크게 저질렀고만.

지역 고창, 김제, 순창, 장수, 정읍, 완주.

귀똘 명 [대응어] 굴뚝.
☞귀뚝.
지역 순창.

귀똘개미 명 [대응어] 귀뚜라미.
귀뚜라미과에 속하는 해로운 벌레. ¶귀똘귀똘 귀또르르 {귀똘개미가} 베틀에 앉저 밤새드락 울고 있고만.
지역 전북.

귀뚜래미 명 [대응어] 귀뚜라미.
귀뚜라미과에 속하는 해로운 벌레. ¶귀뚜라미는 귀뚜래미라고 부르지.
지역 고창

귀뚜래비 명 [대응어] 귀뚜라미.
귀뚜라미과에 속하는 해로운 벌레. ¶자네를 나수에끼는 사람도 아매 드물 것이네. 칠월 {귀뚜래비맨치로} 몰르는 것 빼놓고는 뜨르르 죄다 안다는 성님이 자꼬만 구찮게
지역 전북.

귀뚝 명 [대응어] 굴뚝.
불을 땔 때에, 연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도록 만든 구조물. ¶알던 못하지만, 속담에 "불 안 땐 {귀뚝에서} 내가 날까만" 그런 일이 있으니깨로<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예전엔 초가집마다 {귀뚝에서} 밥 짓는 연기가 무럭무럭 피어올랐다. ¶아주머니. 애기 낳담서 어디다 두었소?" "{귀뚝} 옆에 새갓 덮어놨은개 가서 떠들어 봐라."<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떠 외얐등게비드라. 모두 집집마동 아침밥들 허니라고 {귀뚝에서} 연기가 나쌍게로 한 접시라도 더 팔고자퍼서<최명희, 혼불> ¶저녁 밥을 하느라 마을 {귀뚝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구나.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부안, 순창, 완주, 임실, 정읍.

귀띠기 명 [대응어] 귀(耳).
'귀'를 낮잡아 이르는 말. ¶아주 {귀띠기가} 시퍼렇구만.
지역 전북.

귀린내 명 [대응어] 구린내.
☞구룬내.
지역 전북.

귀먹장구 명 [대응어] 귀머거리.
귀가 먹어서 듣지 못하는 사람. ¶참 {귀먹장구} 삼 년, 벙어리 삼 년이라구 우리 어머이 허시는 대:루
지역 정읍.

귀먹쟁이 명 [대응어] 귀머거리.
귀가 먹어서 듣지 못하는 사람. ¶벨꼴이 반쪽이네. 여그서는 귀가 멍멍허니 잘만 들기는디 으째 그짝서는 {귀먹쟁이} 숭내로 엉뚱깽뚱헌 대답만 근너온다요?" 이곡리서 서울까장이 어디 보통으로<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벨꼴이 반쪽이네. 여그서는 귀가 멍멍허니 잘만 들기는디 으째 그짝서는 {귀먹쟁이} 숭내로 엉뚱깽뚱헌 대답만 근너온다요?" 이곡리서 서울까장이 어디 보통으로<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귀밑 명 [대응어] 귀밑.
뺨에서 귀에 가까운 부분. ¶십 원 남은 중에 주인 노인에게 육 원을 내어 주니 입이 {귀밑까지} 찢어진다.<채만식, 레디메이드 인식> ¶그네의 연한 목덜미와 {귀밑까지도} 어느새 발갛게 부끄러운 물이 들었다.<최명희, 혼불>
지역 고창, 군산, 남원, 임실, 완주.

귀밋 명 [대응어] 귀밑.

뺨에서 귀에 가까운 부분. ¶{귀미시라구도} 허쥬 <완주 지역어 텍스트>
지역 전북.

귀밥 명 [대응어] 귓불.
귓바퀴의 아래쪽으로 늘어진 부분. ¶허옇고 말간 귓바퀴에 {귀밥이} 도톰한 부인의 모습도 얼핏 비친다.
지역 군산, 임실, 남원, 신안.

귀새 명 [대응어] 굴뚝.
불을 땔 때에, 연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도록 만든 구조물. ¶아무리 바빠도 {귀새} 청소를 그때그때 허야 쾌쾌한 냄새 같은 것이 없는 벱이여.
지역 고창, 김제.

귀신 씻나락 까묵는 소리 【관용표현】
☞구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
지역 전북.

귀쌈 명 [대응어] 귀싸대기.
귀와 뺨의 어름을 낮잡아 이르는 말. ¶그려서 고냥 {귀쌈을} 올려붙였더니, 아 요것덜이 글씨 죽어보라 험서.<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귀알 명 [대응어] 귀얄.
풀칠이나 칠을 할 때에 쓰는 솔의 한 가지. 주로 돼지털 같은 것을 묶어서 넙적스름하게 만든다.
지역 무주, 완주.

귀알띠 명 [대응어] 헝겊 허리띠.
헝겊으로 만든 옷의 허리 부분에 둘러매는 띠. ¶{귀알}이 뭔지 몰라서 물어? 풀 발를 때 쓰는 거 있잔애. ¶중우가 커서 줄줄 내려강게 {귀알띠}를 꽉 매고 댕겨야지.
지역 군산, 완주.

귀알시엄 명 [대응어] 구레나룻.
☞괴알시엄.
지역 김제, 군산.

귀애이 명 [대응어] 고양이.
☞고앵이.
지역 전북.

귀앵이 명 [대응어] 고양이.
☞고앵이. ¶하 그것 참 곤란혀, 갈 수도 없고. 근디 {귀앵이허고} 개허고는 멕였든게벼 그사람이. 귀앵이란 놈도 하도 밥을 안준게'애오, 애오.<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전북.

귀야이 명 [대응어] 고양이.
☞고앵이.
지역 전북.

귀알쉬엄 명 [대응어] 구레나룻.
☞괴알시엄.
지역 고창.

귀양이 명 [대응어] 고양이.
☞고앵이.
지역 전북.

귀엄 명 [대응어] 고욤.
☞괴옴.
지역 전북.

귀엥이 명 [대응어] 고양이.
☞고앵이.
지역 전북.

귀역때기 명 [대응어] 구석빼기.

썩 치우쳐 박힌 구석 자리. ¶부엌 {귀역때기에} 가믄 함박지가 있을 것이여. 그것 좀 가지고 와.
지역 전북.

귀염 명 [대응어] 고욤.
☞괴옴.
지역 전북.

귀염보다 동
아랫사람이 윗사람으로부터 아끼고 사랑스러워하는 마음을 받다. ¶셋째 마누라가 아무 말도 못허고 코를 훌쩍훌쩍허고 있은게 아 니가 아이를 낳아 가지고 {귀염본다고} 허더니 그렇겠다고.
지역 전북.

귀영머리 명 [대응어] 귀엣머리.
이마 한가운데를 중심으로 좌우로 갈라 귀 뒤로 넘겨 땋은 머리. 또는 뺨에서 귀의 가까이에 난 머리털. ¶당신은 나이 적고 에레도 저 냥반과 {귀영머리를} 마주 풀었응게로 본처, 큰어머이가 되고<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해설 '귀영'은 정확한 뜻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귀영머리'는 '귀엣머리'의 이형태로 볼 수도 있다. 전북 방언에서 '구석'을 '귀영텡이'라고도 말한다. 이때 '구석'은 "모퉁이의 안쪽"이란 의미인데 "양 쪽으로 머리를 나누다가 제일 아래에서 한 곳으로 모으는 머리"가 '귀영머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귀영치 명 [대응어] 귀퉁이.
사물이나 마음의 한구석이나 부분. ¶마을 {귀영치까지} 샅샅이 뒤졌는디 못 찾았어.
지역 전북.

귀영탱이 명 [대응어] 귀퉁이.
사물이나 마음의 한구석이나 부분. 또는 물건의 모퉁이나 삐죽 나온 부분. ¶내가 강실이 일 한쪽 {귀영텡이} 거들어 주고는, 성사되면 큰마느래 노릇 톡톡히 험서<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해설 '귀'은 사람의 귀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한 부분이라는 뜻으로 "구석"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귀영'은 "구석", "모서리"의 의미로 보아야 한다.

귀옝이 명 [대응어] 고양이.
☞고앵이.
지역 전북, 전남.

귀오지개 명 [대응어] 귀이개.
귀지를 파내는데 쓰는 물건. ¶{귀오지개를} 놓고 우두머니 등잔 불꽃을 들여다보던 우례는 왜 어뜬 것은 저런 시커먼 끄시럼이 되능고 생각혔다.
지역 전북.

귀윙이 명 [대응어] 고양이.
☞고앵이.
지역 전북.

귀욤 명 [대응어] 고욤.
☞괴옴.
지역 전북.

귀졷 명 [대응어] 귓불.
귓바퀴의 아래쪽으로 늘어진 부분. ¶예쁘다는 말을 들응게 나도 모르게 {귀졷이} 벌겋게 붉어지드랑게.
지역 고창.

귀지개 명 [대응어] 귀이개.
귀지를 파내는데 쓰는 물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빗소리가 마치 귓밥을 살살 긁어내는 {귀지개의} 연약한 끝부리처럼 내 귀를 대고 간지

럽혔다.<윤흥길, 장마>
지역 고창, 무주, 익산, 정읍, 군산, 완주.

귀찮시럽다 형 [대응어] 귀찮다.
싫고 성가시다. ¶하따, 거그 길동이네가 이번으 선거에서 되아가꼬 조깨 잘된 모양인디 걍 뭐 조깨 얻어 볼라고 껄떡거리는 사람들이 많어서 {귀찮시럽게} 생각헌다도만.<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전북.

귀챙이 명 [대응어] 귀퉁이.
모퉁이의 안쪽. ¶왜 저렇게 {귀챙이에서} 오구리고 앉아 있다냐?
지역 군산, 임실.

귀탱이 명 [대응어] 귀퉁이.
모퉁이의 안쪽. ¶오두막살인데 말여, 아 그냥 난데없는 기와집을 짓고 걍, 네 {귀탱이} 핑경(풍경)을 달고 걍 '팔랑팔랑' 아, 문지기가, "어이, 못<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자다가 새벽으 일어나서 보닌게 저그 마누라가 기양 치마를 둘르고 {귀탱이를} 더듬고 돌더니 눈을 번뜩거리고 미쳐서 막 돌아 댕기거든.<한국구비문학대계, 전북정주시·정읍군편> ¶"그러면 그렇지, 글쎄 놈들이 제아무리 영악하기로소니 논에다 네 {귀탱이} 말뚝 박구섬 인도깨비처럼, 어여차 어여차, 땅을 떠가지구 갈 재주야<채만식, 논 이야기> ¶철수는 엄마한테 혼나고는 {귀탱이에} 가서 웅크리고 있다.
지역 고창, 군산, 김제, 부안, 장수, 정읍.
해설 '귀'는 '모가 난 물건의 모서리.'라는 뜻을 갖는데, 여기에 비하하는 말에 주로 붙는 접미사 '-탱이'가 연결된 것이다.

귀테이 명 [대응어] 귀퉁이.
구부러지거나 꺾어져 돌아간 자리. 또는 변두리나 구석진 곳. ¶{귀테이에서} 갑자기 고양이가 나와 놀랐다 ¶병아리들이 마당 한 {귀테이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 고창.

귀퉁 명 [대응어] 귀퉁이.
귀퉁이.
지역 전북.

귀호부작 명 [대응어] 귀이개.
귀지를 파내는데 쓰는 물건. ¶귀가 가려운게, 근게 장게 가먼 {귀호부작이나} 한 개 사 오니라.
지역 순창.

귀호지개 명 [대응어] 귀이개.
귀지를 파내는데 쓰는 물건. ¶장에 가거들랑 {귀호지개나} 한 개 사다달랑게요.
지역 임실, 나주, 장흥.

굶기다 동 [대응어] 굶기다.
굶게 하다. ¶아이 손님이 왔는디 그냥 {굶겨서} 보낼 수가 있는가? ¶밥투정 허는 애는 메칠 {굶겨봐}. 맨밥도 잘 먹을팅게.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굶다 동 [대응어] 굶다.
끼니를 거르다. ¶이놈이 점심도 {굶고} 울고 앉었는디 여간 배가 고플 것이냔 말여.
지역 남원, 장수.

귑히다 동 [대응어] 굽히다.
구부러지게 하다. 또는 뜻, 주장, 지조 따위를 꺾고 남을 따르다. ¶돈이 바닥에 떨어졌길래 냉큼 허리 {귑혀서} 줏었제. ¶아쉬워도 먼저 {귑히고} 들어가야지 우째.
지역 고창, 김제, 남원, 장수.

귓구녁 명 [대응어] 귓구멍.
귀의 밖에서 귀청까지 통한 구멍. ¶햇살이 훤허게 밝아 들어온께, 거 드러눠 자는디 콧구녁으서, 눈구녁으서, {귀구녁으로} 벌거지가 나오는디 이거 뭐<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귓구녕 명 [대응어] 귓구멍.
귀의 바깥쪽에서부터 고막까지 사이의 구멍. ¶{귓구녕에} 말뚝을 박은 것이여, 사람을 무시허는 것이여.<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귓넘 명 [대응어] 귓불.
귓바퀴의 아래쪽으로 늘어진 부분. ¶이 작자가 탐을 내도 꼭 열대여섯 살짜리, {귓넘에} 솜털도 안 벗은 애숭이들만 골라 그 지랄이라는구만.
지역 장수.

궝기다 동 [대응어] 굶기다.
☞굶기다. ¶보름날 개 밥 주먼 파리가 말도 못허게 뀐디야. 개가 삐삐 말르고. 긍게 아조 {궝기는} 거이여.<최명희, 혼불>
지역 남원, 임실.

그게 말이다요 막걸리다요 【관용표현】
얼토당토않은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말이 되지 않음을 뜻하는 말. ¶이그이그, 참마로 나가 폭폭허서 폴짝폴짝 뛰다 죽겄네! 우리 미금이 아씨께서, 따른 누구도 아니고 바로 최 선상 아씨께서 배낫질이를 몰르시다니, {그게 대관절 말이다요, 막걸리다요}?<윤흥길, 낫>
지역 전북.
해설 사람의 말이 얼토당토않을 때, '막걸리'와 비교하여 언어유희를 하면서 수사 의문문으로 표현하는 관용 표현이다.

그게 말이여 막걸리여 【관용표현】
☞그게 말이다요 막걸리다요.
지역 전북.

그그자 대 [대응어] 그이.
'그 사람'을 이르는 삼인칭 대명사. ¶느 어지끄 {그그자한티} 머라고 혔냐?
지역 전북.

그그저끄 명 [대응어] 그끄저께.
그저께의 전날. ¶"아, 저 자식이 {그그저끄} 아적으로 와서 '욕' 한 번 허고 가드만.
지역 전북.

그그페 명 [대응어] 그글피.
글피의 다음날. ¶기별이 닿거든 글피나 {그그페} 영암에서 만나잔다고 전하라시오.
지역 고창, 남원, 임실, 장수, 진안, 순창.

그글피 명 [대응어] 그글피.
글피의 다음날. ¶우리 집이 김장은 {그글피부텀} 헐라고.
지역 김제, 부안, 군산, 완주, 익산, 정읍, 무주.

그께잇 관 [대응어] 그까짓.
겨우 그만한 정도의. ¶새참이라고 어디 애들 장난맹이로 한 숟구락씩 엥게주먼, {그께잇} 거머, 한 볼때기 깨물고 말 것도 없는디.<최명희, 혼불> ¶누가 {그께잇} 노무 몸뗑이를 내노라고 나 허능게비네.<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따우'가 많이 쓰인다. '그께잇'은 '그까짓'과 '그따우'가 혼태되어 나타난 형태로 보인다.

그끄저끄 명 [대응어] 그끄저께.

그저께의 전날. ¶그나저나 {그끄저끄에} 만났는디 왜 또 만나잔디야?
지역 전북.

그니께 부 [대응어] 그러니까.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근거 따위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 ¶{그니께} 다 쓰잘데기없이 오래 사는 죄여, 어여 후딱 땅보탬을 허야 요런 꼴을 안 적꼬 볼 텐디…<조봉래, 풀벨골 시비주의> ¶생각허니, {그니께} 당최 답답허서나요, 무한정허니 지다릴 수도, 원체 그려야 헐 순선가 봐갖고.<조봉래, 풀벨골 시비주의> ¶{그니께} 안올 놈 빼놓고는 인자 거짐 다 뫈 셈이제.<조봉래, 풀벨골 시비주의>
지역 전북.

그닝게 부 [대응어] 그러니까.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근거 따위가 될 때 쓰이는 접속부사 ¶자네가 이번으 가믄 내 말대로 과거를 허니 나는 지금 가 죽어 자살을 헐랑게. 면목이 없어 집이를 못 가. {그닝게} 자살을 헐라닝게." 우리집 주소를 적어줌서. 자그 집 주소를 적어줌서, "암디 암디 가서 지사(제사) 가 오늘 날짜라고 일, 일러나<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내 남편 원수를 갚아야 할 거 아니냐? 허고 내 남편이 안 죽었으면 널 살려준다. 조금 있어 보면 안다." {그닝게} 에, 대체 한참 있으닝게 말하자므는 그, 종, 종소리, 종소리가 한 번 나드라는 거여. "응? 요것은 신호다. 요것은 신호다.<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내가 임완수니라고 허는 사라민데요.(내가 임완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닝게} 어 그 기피자, 왜 그 임완수니 기피잔데 그려.(그러니까 어 그 기피자, 왜 그 임완순이 기피자인데 그래.)<지역어 자료 총서, 군산>
지역 전북.

그달다 동 [대응어] 거들다(일을).
☞거달다.
지역 군산.

그댁잔허다 형 [대응어] 대수롭지 않다.
중요하게 여길 만하지 않다. ¶{그댁잔헌} 일들이 많아.
지역 전북.

그댁잖다 형 [대응어] 대수롭지 않다.
중요하게 여길 만하지 않다. ¶"많이 다쳤소?" 기다리고 있던 이태식이 물었다. " {그댁잖구만이라}. 한 쪽 발목이 접찔렀응께요." "그만하기 다행이요. 부대에도 인자 다 왔응께."<조정래, 태백산맥> ¶앞에 선 중대장이 조원제에게 물었다. "안전허겄소?" " {그댁잖겄소}." "그리헙씨다." 중대는 행군을 멈추고 노숙에 들어갔다.<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그던 【연결어미】 [대응어] -거든.
☞-그덩. ¶임서방. 자네 막손이 {만나그던} 이런 이얘기 꼭 일러 주소. 딸내미한테 가서 말허라고. 유자광이를 나라고.<최명희, 혼불>
지역 남원.

-그덩 【연결어미】 [대응어] -거든.
어떤 일을 가정하여 조건을 달 때 사용하는 연결 어미. ¶죽은 담에 안 {뵈이그덩} 서운타 말으시오.<최명희, 혼불> ¶인자 나 {죽그덩} 니가 존 디다 써 도라.<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그따구 관 [대응어] 풍기다.
(낮잡는 뜻으로) 그러한 부류의. ¶으뜷게 {그따구} 소리를 허면서 댕긴대요?
지역 전북.

그따우 관 [대응어] 그따위.

☞그께잇. ¶누가 {그따우} 소리를 해요?<채만식, 인형의집> ¶어허 잔소리가 무슨 잔소리여. 엇다가 여워 먹고 지미 {그따우} 행동을 혀? 여봐 요렇게 수작을 꾸며? 요렇게 수작을 꾸미냐?<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사람을, 왜 이렇게 동생을 막내동생을 니가 하인처럼 부리가지고 {그따우} 짓을 허고 있냐고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전북.

그때사 부 [대응어] 그제야.

☞그때서야. ¶해가 중천에 떠 있는디 {그때사} 일어나서 일을 헌다고 나서니 저 놈으 버릇을 어쩐다냐.

지역 완주.

그때서야 부 [대응어] 그제야.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바로 그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저녁도 혼자 차려야 할 밥그릇 역시 보인다. 그 보리밥 사발들은 왠지 우리 식구들이 옹기종기 모여앉은 모습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나는 {그때서야} 울기 시작한다.<이병철, 모래내모래톱> ¶"그려 방영근이, 어째 이리 늦었어." 네댓 사람 중에서 한 사내가 이쪽으로 빠르게 다가왔다. {그때서야} 지삼출은 그 사내가 장칠문인 것을 알아보았다. 그를 보자 비위부터 상했다.<조정래, 아리랑> ¶자기 엄마는 조개 잡으러 갔고, 그런데 와서 보니까 그렇게 생겼으니까, 이제 제 장모가 와서 보니까, 피를 쏟고 무엇하게 생겼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일일구 차를 불렀다는가 그래가지고, 간 것이 고창병원으로 가니까, 안 된다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니까 전주 예수병원으로 갔어.<지역어 자료 총서, 고창> ¶동생 친구가 {그때서야} 나를 알아 봤지 뭐야.

지역 전북.

-그라 【종결어미】 [대응어] -거라.

해라할 자리에 쓰여, 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효원이는 좋겄다. 인제 시집가거든 시부모님 사랑 마앓이 받고, 신랑한테 귀염 받고, 좋은 자식 낳고, 부디 잘 {살그라}.<최명희, 혼불> ¶아조 어둡기 전에 그럼 어서 {올라가그라}.<최명희, 혼불> ¶농사철 당해서 매급시 맘들뜨지 말고 두렛일 소홀허게 {말그라}. 잉?<최명희, 혼불> ¶아무래도 좀이 쑤셔서 견딜 수가 없다. 용수야, 쪼매 찐득허니 방으서 누워 {있그라이}!<이병천, 모래내모래톱> ¶아부지한티 디리고 {오그라}<김중진(1976)> ¶할머니럴 뫼시고 {가그라}<김중진(1976)> ¶어서 {가그라}<김중진(1976)> ¶어서 {먹그라}<김중진(1976)> ¶{가그라}<김옥화(2000)> ¶데려 {가그라}<권병로(1987)>

지역 고창, 고창, 무주.

그라제 감 [대응어] 그렇지.

틀림없이 그렇다는 뜻으로 하는 말. ¶{그라제}. 인자 곧 말복도 닥치고 허니께.<조봉래, 풀벨골> ¶{그라제}.또오, 기생년이 뭣이냐 연애한다고 껍덕대는 거, 내 참 눈이 시여 못 보겠더라.<채만식, 탁류>

지역 전북.

그람 감 [대응어] 아무렴.

말할 것도 없이 그렇다는 뜻으로, 상대의 말에 강한 긍정을 보일 때 하는 말. ¶그람, 당연히 그래야지.

지역 전북.

그러게코롬 부 [대응어] 그렇게끔.

☞그러코롬. ¶아버지한터 가서 이 애기를 달라고 허라. 그 주면 데리다가 소 깔도 띧기고 이렇게

심바람도 시기고 {그러게코롬} 달라고 그러라고.
지역 전북.

그러코롬 뿌 [대응어] 그렇게끔.
어떤 방법이나 방식으로, 어떤 이유로. ¶아무 연분에 너를 낳고 잊었다가 인제 왔다고 할텐개, {그러코롬만} 하고 있어라<한국구비문학대계 남원시> ¶각처에서 손님이 많이 오시고 {그러코롬} 히서 시방 반찬도 많이 장만허고 음식도 많이 장만허서<한국구비문학대계 고창군>
지역 전북.

그럭 명 [대응어] 그릇.
음식이나 그밖에 것을 담는 물건을 통틀어 이르는 말. ¶죽산댁이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아니다, 밥 한 {그럭이라도} 축낼 것 읎다. 나 핑 갈랑께 나오지 말고."<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김제, 남원, 무주, 순창, 장수, 진안, 완주, 임실, 정읍.

그럭끼레 명 [대응어] 그러께, 재작년.
재작년. ¶그럭끼레 지었어. 그럭끼레 지었은게 3년 되얐제.
지역 전북.

그렁게로 뿌 [대응어] 그러니까.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근거 따위가 될 때 쓰이는 접속부사 ¶거기서 부루루루 허면서 쓸어지거든. "술 따라!" 헌게는 저 구석테기 앉은 놈은 이 남자를 죽였으니 저 죽이러 오게 생겼거든. {그렁게로} 곧 죽어가. 죽어가는 판인디, 계집보구, "술 따라." 헌게 계집이 발발발 떨며 따라.<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그 효자 저그 아바이가 흐언(하얀)한 팔십 영감이 아, 새복(새벽)에 나가서 눈을 쓸고 댕겨, 비를 갖고. 아, {그렁게로} 아들이, 거 못 쓸게 한 것이 아니라, 아 화리(화로). 화루![조사자: 화로요?], 잉. 화루에다가 숯불을 막 일궈.<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요런 옹기 공장이 있어라우. 거기 들어서 이만저만 허서 인부럴 몇명 거식이 한다고 해서 왔다고 {그렁게로} 처음에는 "아, 그러나"고 일얼 시킬 듯이 합디다, 처음에는. 그라더니 한번 시험적으로 맨들어 보라고 그럽디다.<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7> ¶우리는 모두 할 일이 있다. {그렁게로} 너 혼자 다녀오너라.
지역 전북.

그레 감 [대응어] 그래.
해라할 자리에 긍정하는 뜻으로 대답할 때 쓰는 말. 또는 해라할 자리에 상대편의 말에 대한 감탄이나 가벼운 놀라움을 나타낼 때 쓰는 말. ¶외삼촌 이런분들 혹씨 상하신분 읻쓰세요? – 응 {그레} 자. – 내가 그 이를 당헐라다 참<지역어 자료 총서, 고창> ¶{그레}? 그 말은 처음 듣는디!
지역 남원, 순창, 장수.

그려 감 [대응어] 그래.
☞그레.
지역 전북.

그루타기 명 [대응어] 그루터기.
풀, 나무, 곡식 따위를 베어 낸 뒤에 남은 밑동. ¶갑옷을 다 입고 허는디, 어떻게 갑옷을 거그, {그루타기다} 벗어 놓고 어떻게 산이서 참 지랄을 허드리야 후딱 말허자먼 어느 여자허고.
지역 전북.

그르매 명 [대응어] 가르마.
이마에서 정수리까지 머리카락을 양쪽으로 갈랐을 때 생기는 금. ¶{그르매를} 탄다.
지역 남원.

그르코롬 뿌 [대응어] 그렇게.

그 정도로. ¶궁게 머덜라고 {그르코롬} 욕보게 일을 히쌌는가?<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전북.

그름 명 [대응어] 그을음, 검댕.
☞끄름.
지역 군산.

그름자 명 [대응어] 그림자.
물체가 빛을 가려서 그 물체의 뒷면에 드리워지는 검은 그늘. ¶저녁이 되면 {그름자의} 길이가 길어진다.
지역 전북.

그룽지 감 [대응어] 그래.
해라할 자리에 긍정하는 뜻으로 대답할 때 쓰는 말. 또는 해라할 자리에 상대편의 말에 대한 감탄이나 가벼운 놀라움을 나타낼 때 쓰는 말. ¶ "니 승이 뭐라겠지?" "김가 올습니다." " {그룽지}!" 아 그드리야.<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아:! {그룽지}? 그 말은 첨 듣는디
지역 전북

그림재 명 [대응어] 그림자.
물체가 빛을 가려서 그 물체의 뒷면에 드리워지는 검은 그늘. ¶여인네가 땅에 앉었다가 일어시기만 히도 애기럴 배고 오짐만 누구 일어서도 애기럴 배고 사람 {그림재만} 밟어도 애기가 서서 고닥새 사람이 많이 퍼지게 됐다고 헌다.<구비문학대계, 정읍>
지역 전북.

그마리 명 [대응어] 거머리
☞거마리. ¶거머리 {그마리}<2007 전북 군산>, 거머리/명/ *그:마리<한국방언어휘자료집_전북편>
지역 고창, 김제, 완주, 익산, 무주, 군산.

그만썩 부 [대응어] 그만큼.
그만한 정도로 ¶"{그만썩} 했으며 많이 했어, 이제 좀 쉬어."
지역 전북.

그머리 명 [대응어] 거머리
☞거마리. ¶아따 뭐다고 {그머리맨치로} 꼭 달라붙는다냐?
지역 무주.

그먼 부 [대응어] 그러면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조건이 될 때 쓰는 접속 부사. ¶웃기고 있네에. {그먼} 너랑 느 삼촌이랑 함께 도독질을 헌 거시지?<이병천, 모래내 모래톱>
지역 전북

그무락지 명 [대응어] 거머리
☞거머락지. ¶그:무락지<한국방언어휘자료집_전북편>
지역 부안, 정읍.

그무래기 명 [대응어] 거머리.
얕은 물속에 살며 배 쪽의 빨판으로 다른 동물에 달라붙어 피를 빨아 먹으며 사는 까만 벌레. 또는 그런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그무래기에} 물려봐. 피가 안 멎어. ¶{그무래기처럼} 따라댕기는 놈이 꼭 있제. 그래도 싫지는 않어. ¶{그무래기같이} 피만 빨아먹는 놈.
지역 정읍.

그므락지 명 [대응어] 거머리
☞거머락지.
지역 전북.

그믐끄 명 [대응어] 그믐께.

그믐날 앞뒤의 며칠 동안. ¶근게 초승은지 {그믐끈지를}, 초승으는 달이 일찍 뜨잖여. 해 넘어가기 전에 떠잖여. ¶{그믐끄} 시방은 해 넘어가도 안 떠. 새북으나 떠. ¶근게 {그믐끈디} 저녁으나 되아야, 저녁으 해 넘어가고 얼매나 있어야 뜨는디 밭을[바슬], 매러 간게 딸은 오매 말 듣고 해 빠지도락 밭을 매야.
지역 전북.

그믐끼 명 [대응어] 그믐께.
그믐날 앞뒤의 며칠 동안. ¶{그믐끼} 아주 달도 없고 캄캄한 밤에 왔다닝께 ¶지금 가면 이달 {그믐끼나} 돌아올라나 몰르겄어. ¶서울에 간 엄마는 아마도 {그믐끼에나} 올 것 같구나.
지역 전북.

그새보 부 [대응어] 벌써.
예상보다 빠르게. 또는 이미 오래전에. ¶{그새보} 갔다 왔는가? ¶{그새보} 일을 다 혔는가 보네.
지역 전북.

그슬리다 동 [대응어] 긋다.
비를 잠시 피하여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다. ¶바우 밑이 가서 옴싸허니 비가 와도 {그슬릴} 만헌게 고리 들어갔제.
지역 전북.

그시 명 [대응어] 지렁이. ¶{그시가} 3마리 들었은게 그 놈을 건져버리고 갖다 준게, 쭉 들어 마시더니,<구비문학대계 전북 고창군편>
지역 전북.

그시다[1] 동 [대응어] 긋다(劃).
뾰족한 것이나 가는 것 등으로 땅바닥이나 물체의 표면에 대고 당겨서 줄이나 금을 그리다. ¶여백을 완전히 메우고, 쓴 위에 겹쳐 쓰고 또 쓰고 하다가 보울펜으로 북북 {그신다}.(<최창학, 창> 수정)
지역 고창, 남원, 무주, 부안,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그시다[2] 동 [대응어] 긋다
비를 잠시 피하여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다. ¶응. 그런게 그전이 저 아저씨들은 잘 아시지만 초분해노먼 나래이여. 밑으로 그 나래 밑이가 여 쪼그리고 앉으먼 비 한줄기 {그십니다} 그 초분의 나래 밑이가 쪼그리고 앉었단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나무허러 가는디 비가 우지좌지 오그든. 그런게 비 {그실라고} 저 바우 밑이 바우가 있은게 바우 밑으로 싹 들어갔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얻어서 죽허니 앉아서 매넌디, 아 매가니라구 매간게, 아 그냥 느닷없이 비가 오구 천둥이 치는디 정신을 못차리겄어. 그런게 그 비를 {그실라고} 피하려고. 헌게 동네는 좀 멀고 마침 그 옆에 가서 원두맥이라구 있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군산, 정읍, 완주.

그시랑새끼 명 [대응어] 장구벌레. ¶모기의 애벌레. ¶물이 괘 있으면 {그시랑새끼들이} 난리천진게로 물이 못 괴게 해야 지.
지역 전북.

그시럼 명 [대응어] 그을음, 검댕.
어떤 물질이 불에 탈 때에 연기에 섞여 나오는 먼지 모양의 검은 가루. ¶얼굴에 {그시럼이} 묻은 꼴을 좀 보소.
지역 전북.

그작저작 부 [대응어] 그럭저럭.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로. ¶올 농사도 {그작저작} 다 끝내고/ 콩타작 팥타작까지 다 허고

<김용택, 아들아, 내아들아> ¶인자 농사일도 다 끝나가고, 올해도 {그작저작} 풍년인갑구마.<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그작저작'은 표준어로 '그럭저럭'이다. '그작'이 두 번 반복되는 합성어인데 그 어원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그저끄 명 [대응어] 그저께.
어제의 전날. ¶저놈은 {그저끄부텀} 와 갖고 아직까장도 죽치고 앉어서 뭣을 어쩌자는 건가 몰르것어. ¶{그저끄} 싸운 일을 끄집어내서 어쩌자고? ¶그리도 {그저끄까지넌} 비가 솔찬히 왔는디 시방은 빗님 코빼기도 안 뵈네. ¶철수야 너는 {그저끄} 한말을 벌써 잊었니?
지역 고창, 김제, 군산, 임실, 정읍, 익산, 진안.

그적새사 부 [대응어] 그제야.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바로 그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아, 내가 뜨신 방에서 진작 왔더라면 야야 그런 일이 없을 걸." {그적세사} 남편이 나무를 한 짐을 해서 마당에다가 놓으이, 또 문을 열고 보니, 각씨가 울고 섰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그래서 물어 봤어, 그래서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했다고 하닝개 {그적세사는} 이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시방 말하면 거시기 돈을 모아서 논도 사주고 밭도 사주고 좋은 지와집도 사주고 그랬대.<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전북.

그지 명 [대응어] 거지.
남에게 빌어먹고 사는 사람. ¶놀음허든 놈이라 놔서어디 가서 일도 못 허고 천상 빌어먹기 매련여. {그지가} 되야 갖고, 근디 한 간디로 가닝게로 이얘기를 잘 헌, 한 마디만<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놈을 타고서는 가서, 울타리 너머로 들여다 보니까, 집이 그리 {그지같이} 앉아서 빌어쌌더랴.<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아 이 쥔이 쳐다본게 거지란 말여. 그게 시커먼 {그지가} 앉었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그짓갈 명 [대응어] 거짓말.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 대어 말을 함. 또는 그런 말. ¶입만 열면 {그짓갈이} 튀어나오네.
지역 전북.

그짓굴 명 [대응어] 거짓말.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 대어 말을 함. 또는 그런 말. ¶이년들 집 처질르구서 염치없은 개는 이지랄들 하구서 온다구, 아 영감이 살았구먼, 꿀 따먹을라구 대가리를 푹 처박었다가 대가리를 벌들이 다 뜯어먹었다구 하더니, 저놈이 {그짓꿀을} 해도 그렇게 으스딱딱하게 한다구. 꿀은 무슨 꿀을 따냐고, 어디 잿날맹이 올라가다가 이놈이 톱하구 도치하구 가져온다구 보냈더니, 그 지랄하구 왔다구, 다시는 {그짓꿀도} 말구, 일하지도 말구. <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전북.

그짓솔 명 [대응어] 거짓말.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 대어 말을 함. 또는 그런 말. ¶허구헌날 {그짓솔을} 허고 다닝게로 누가 믿어 줘야지.
지역 전북.

그쩍 명 [대응어] 그적.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알고 있는 과거의 어느 시점. ¶{그쩍으는} 다들 그러고 살았제. {그쩍에} 배 안 곯고 살면 잘 살았제.

지역 전북.

그처 부 [대응어] 그만.
그 정도까지만 그대로 곧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자 나무장사 {그처} 해묵읍시다. ¶하루는 그저 인자, "날 봐, 아무개! 대감." "왜?" "인자 {그처} 보내 줘. ¶그 소첩 말이여, 그 큰놈의 집에다가 불 다 대버리고 여자, 첩, 불질러 버리고 종 다 내보내 버리고 {그처} 절로 가버렸어. 그래서 사명대사가 되었어.
지역 전북.

그첨저첨 부 [대응어] 겸사겸사.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아울러 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그래서 분이가 죽은 줄만 알고 {그첨저첨} 만주로 갔더니.<채만식, 흘러간 고향>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의 부사 '그첨저첨'은 "이러저러한 일을 아울러 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굳이 표준어를 고르면 '겸사겸사'가 해당된다. '이첨저첨'의 뒤에 '-하다'가 연결되어 '그첨저첨하다'로 동사로 쓰고 있다.

그첨저첨하다 동 [대응어] 겸사겸사하다.
한꺼번에 여러 일을 처리하고자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려 하다. ¶그래서, 꼭이 그래서뿐만 아니지만, {그첨저첨해서} 그는 승재를 맏사윗감으로 꼽고서 두루 유념을 해왔던 것이다.<채만식, 탁류>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의 부사 '그첨저첨'에 '-하다'가 연결되어 '그첨저첨하다'로 동사로 쓰고 있다. 이 형태로는 '이참저참하다'가 보인다.

그페 명 [대응어] 글페.
모레의 다음날. ¶인자 {그페까지넌} 이 일이 되아양게 좀 서둘르야지. ¶우리 {그페} 만나자.
지역 고창, 남원, 임실, 장수, 진안, 김제,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정읍.

그피 명 [대응어] 글페.
☞그페. ¶그 일 {글페까지는} 꼭 히노아야 혀. 긍게로 한눈팔지 말고 열심히들 혀.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근데 명 [대응어] 그네.
밑싣개를 두 줄로 매달아 놓고 사람이 올라타서 앞뒤로 왔다갔다 하면서 노는 설비. ¶아 근디 새악시가 예쁜 옷을 입구설랑 {근데럴} 뛰러 산으로 올라가덩만.
지역 김제.

근디 부 [대응어] 그런데.
뒤 내용이 앞 내용과 대립될 때 쓰여 앞뒤 문장을 이어 주는 말. ¶물론 그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었는디 말허자면 카츄사였거드은. {근디} 쭈매쭈매 험서나 가봉게로 나헌티 먼가를 주는 거여.<이병천, 모래내모래톱> ¶{근디} 왜 말을 안히여?<최명희, 혼불> ¶그리고 한 사람, 그 중에서도 공부는 제일 잘 했더라는 것이여, {근디} 그 사람 보고는, "너는 보독시(겨우) 시골 원은 갈 거이다.", 시골 원으로 살거라 그래,<구비문학 남원>
지역 전북.

근시러다 형 [대응어] 근지럽다, 간지럽다.
무엇이 살에 닿아 가려운 느낌이 있다. 또는 몸에 벌레 같은 것이 기어가는 듯한 느낌이 있다. ¶아 왜 옆구리 같은 디 {근시런} 것을 못 참는 사람한티 간지랍밥을 잘 탄단고 글지.
지역 완주, 진안.

근시럽다 형 [대응어] 근지럽다, 군시럽다.

무엇이 살에 닿아 가려운 느낌이 있다. 또는 몸에 벌레 같은 것이 기어가는 듯한 느낌이 있다. ¶목간을 안 해서 몸이 {근시런} 줄은 모르겠어도, 말을 그렇게 하면 아주 귀골다운 것 같아 <채만식, 貧第一章>

지역 전북.

해설 전라 방언에서는 '근실근실, 군실군실'과 같은 의태어를 많이 쓰고, '근시럽다, 군시럽다'는 "가려운 느낌이 있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고 있다.

근지러다 형 [대응어] 간지럽다.

☞근시러다.

지역 완주, 진안.

근지럽다 형 [대응어] 근지럽다, 가렵다.

피부에 긁고 싶은 느낌이 있다. ¶모구 물린 디가 {근지럽다}. ¶몸에 두드러기가 나서 얼마나 {근지러운지} 죽을 지경이야. ¶등이 {근지러우니} 좀 긁어줄 수 있겠니?

지역 남원, 순창, 임실, 장수.

해설 '근지럽다'는 "무엇이 살에 닿아 가볍게 스칠 때처럼 가려운 느낌이 있다"는 의미이나, 전북 방언에서는 '가렵다'와 통용된다.

근지른병 명

간지러워서 자꾸 긁는 병. ¶뜻밖에 {근지른병이} 와가꼬. 피 나도록 긁어도 근지라. 건강허단 소리 들었는디.

지역 전북.

근천끼 명 [대응어] 근천.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하여 보잘것 없고 초라한 상태. ¶그래도 어쩐지 우리만 {근천끼를} 떨며 사는 것 같아.<조봉래, 풀벨골> ¶얼굴에 {근천끼가} 좔좔 흐른다.

지역 전북.

근치다 동 [대응어] 그치다.

계속되던 일이나 움직임이 멈추거나 끝나다. 또는 그렇게 하다. ¶주인상 챙겨라. 울음 {근치고}, 울음을 뭐 울 거 있냐?<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부안.

해설 '근치다'는 '끝'의 옛 어형인 '귿'과 '그치다'가 혼태되어 나타난 '귿치다'에서 제1 음절의 말음이 비음화된 형태이다. 전북 지역에서는 비음화 이전 형태인 '귿치다' 및 어두 경음화가 진행된 '끝치다', '끋치다'가 모두 쓰이고 있다.

글것지라 감 [대응어] 그렇겠지요.

'그렇겠지라.'가 줄어든 말. 상대방의 예상에 대하여 동의를 표하는 말. ¶{글것지라}, 응!<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글게 감 [대응어] 그러게.

상대편의 말에 찬성하는 뜻을 나타낼 때 쓰는 말. ¶{글게} 말여. 고 매큼헌 추어탕에 쐬주 걸치며 크아 험시로.<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글고 부 [대응어] 그리고.

단어, 구, 절, 문장 따위를 병렬적으로 연결할 때 쓰는 접속 부사. ¶다 엎질러진 물인디 알린다고 무신 소양 있간디요. {글고} 손웃사람 승인디닫가, 입에 담기도 싫은 추접시런 일잉게요.<조정래, 아리랑> ¶{글고} 낭게 좌익이다 우익이다 험서 넋을 빼얏졌고, 금서나.<조봉래, 풀벨골 시비주의>

지역 전북.

글다[1] 동 [대응어] 걸다.

벽이나 못 따위에 어떤 물체를 떨어지지 않도록

매달아 올려놓다. ¶앉을라도 옷을 {글어} 놓고 앉어라.
지역 정읍.

글다[2] 형 [대응어] 그러하다.
앞에서 말한 내용과 같다. ¶어여 일로 와보라니께요, {근다}!<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글다[3] 동
'그리하다'가 줄어든 말. ¶실컨 데리고 온게 간다는 것여. 아 {글고} 나서 하, 이것 그나지나 큰일나제.<구비문학대계, 옥구군>
지역 전북

글도 부
'그래도'가 줄어든 말. 뒤 문장의 내용이 앞 문장을 양보한 사실과는 상관이 없음을 나타내는 접속 부사. ¶아 그 이튿날 가깸이 헌게 {글도} 안 가네.<구비문학대계, 정읍> ¶"이 빨래 다 히서 풀히서 푸새 다 히서 싹 대리서 농 속에다 딱 너놔주먼 갈쳐 주마."고 그러드라우 {글도} 그놈이 쉬워.<구비문학대계, 정읍> ¶쫓아 온게 그저는 그냥 물병 하나를 후딱 떤진게 물이 그냥 바다되았는디 {글도} 그냥 쫓아 오드래라우.<구비문학대계, 정읍>
지역 전북.

글먼 부 [대응어] 그러면.
'그러면'이 줄어든 말.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조건이 될 때 쓰는 접속 부사. ¶공손히 물팍 꿇고 앉어서 술을 딸어서 대접허 드리고 잡수라고 허고. {글먼} '그, 오입에 지쳐갖고는 욕을 보시오. 에, 나랑 삽시다. 그지 말고 삽시다!' 그런 몇 마디허고 아양을 부리고 술잔을 권하라 그말여.< 구비문학대계, 정주시>
지역 전북.

글면 부 [대응어] 그러면
'그러면'이 줄어든 말.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조건이 될 때 쓰는 접속 부사. ¶{글면} 날이 가물라먼은 새암 한 가운데가 널룬디 풀잎새기가 났는디. 그 풀잎새기가 잘 크먼 풍년이 들고 크다가 오그라지먼은 숭년이 들고 그러지.<구비문학대계, 정주시> ¶{글면} 지놈덜은 뉘 배아지서 나왔간디?<조봉래, 풀벨골 시비주의>
지역 전북

글장 감 [대응어] 그렇지.
청자의 의향을 묻거나 동의를 구할 때 쓰는 말. ¶내말이 맞지? {글장}? ¶내일 비가 와도 소풍은 간다고 혔어 {글장}?
지역 전북.

글지 감, 형
상대방의 말에 동의를 하거나 동의를 구할 때 쓰는 말. 또는 '그러하지'가 줄어든 말. ¶영미는 공부를 잘하지? {글지}? ¶새끼허고 어머니허고 얘기허는 소리가 새끼들이, "아, 어머니, 내일이 초하룻날인디, 나 한 번 옷도 좀 히주고 {글지}. 다른 아들은 다 히 입는디 안 허주고 그런단게." "어, 너그 아부지가 인지 다 히갖고 온다." 그 소리를 들은게 기가 맥혀.<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그서 그놈을 캐다가, "어머니, 동삼 삶어왔어요. 잡수시요." 근게 그놈을 먹고서는, "인자는 배가 후련허다 그 마당으 돌아댕기는 놈 다 잡어왔냐?" 노망들어서 정신이 없은게 {글지}.<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니가 평소 동생들 뒤를 잘 챙긴준게 {글지} 글안혔으면 벌써 사고가 났을거여.
지역 정읍, 군산.

글찮다 형
'그러하지 않다'가 줄어든 말. ¶{글찮음} 내내

보껴 죽을텡게, 알겄냐?<조봉래, 풀벨골 시비주의>
지역 전북.

글페 명 [대응어] 글피.
모레의 다음날. ¶모레, 아니 {글페} 오후에 가겠습니다.<채만식, 인형의 집>
지역 무주.

긁어모드다 동 [대응어] 그러모으다.
흩어져 있는 사람이나 사물 따위를 거두어 한곳에 모으다. 또는 이러저러한 수단과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들이다. ¶사람들을 다 {긁어모다} 모이게 해. ¶돈을 {긁어모드면} 모두 을마나 될까?
지역 장수, 고창.

긁어모이다 동
흩어져 있는 사람이나 사물 따위를 거두어 한곳에 모으다. 또는 이러저러한 수단과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들게 하다. ¶근게 그 많은 것들을 {긁어모일} 수 있을랑가 몰라.
지역 익산, 군산.

긁어모투다 동 [대응어] 그러모으다.
☞긁어모드다.
지역 고창.

긁어뫼다 동 [대응어] 그러모으다.
흩어져 있는 사람이나 사물 따위를 거두어 한곳에 모으다. 또는 이러저러한 수단과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들이다. ¶낙엽을 {긁어뫠} 봐야 쓸 데가 있겄어? ¶그깟녀르 싱겁디싱건 연설질로 간국이 쪽쪽 흘르는 그 짜디 짠 서울 돈을 어느 세월에 닥닥 {긁어뫼다냐}?<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임실, 정읍, 진안.

긇다 형
'그러하다'가 줄어든 말.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 ¶어떻게 돼서 이케 썼는디 어떻게 {글케} 되냐고.<구비문학대계, 정읍> ¶여자 손님이 오면 자네 성수가 굶고 이틀이고 하루고 그 손님 가드락 굶고 {글케} 대접히서 보내고 이 성세(盛世)를 모았네.<구비문학대계, 정읍> ¶헌디, 요시는 웬놈의 애린 것덜이<글케} 포악혀?<조봉래, 풀벨골 시비주의>
지역 전북, 정읍.

금뎅이 명 [대응어] 금덩이.
황금의 덩이. ¶그래서 더 좋은 {금뎅이를} 두 개, 세 개씩 준대도 마다네! 반지만 달라네.<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그래 그 냇갈이를 가다본게, 감천이가 본게 누런 {금뎅이가} 있단 말이여.<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전북.

금매 감 [대응어] 글쎄.
자신의 뜻을 다시 강조하거나 고집할 때 쓰는 말. ¶바로 고런 짓거리를 사정없이 뵈준다 허더라, {금매}.<조봉래, 풀벨골> ¶{금매}, 나 보러?<조봉래, 풀벨골> ¶새를 먹고 인자 헌개로 큰애기가 부재집으로 시집갈라고 날을 받아놨는디, 아, 시집을 못가게 밤낮 {금매} 새값을 받으러 댕겨(다녀).<구비문학대계, 부안군> ¶"{금매} 가잔 말이오." 젊은 인부가 팔을 더 세게 끌었다.<조정래, 아리랑> ¶{금매} 말이오, 과부도 한나가 아니고 쌍과부가 붙드는디 어쩔 것이오.<조정래, 아리랑> ¶{금매} 돈이 소양없소. 나넌 안된께 딴 소리꾼얼 수소문해 보씨요.<조정래, 아리랑> ¶{금매} 말이시, 물러슨다고 생각헝게 무신 중헌 것얼 뺏기는 것맨치로 맴이 서운헌 것이 엉 지랄 같구마.<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금매'는 감탄사로 조정래의 작품에서 주로 나타나고, 전남과 접촉지역인 남원 방언을 보여주는 최명희의 작품에서 나타나고 있다.

금메 감 [대응어] 글쎄.

☞금매. ¶"신랑은 애들맹이고, 신부는 큰마님 같으네에……." "……{금메} 말이시." 꼰지발을 딛고 넘겨다보던 두 아낙이 소근거린다.<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금사오죽 (金絲烏竹) 명 [대응어] 담뱃대.

줄기가 가늘고 마디가 불거졌으며 작은 점이 박힌 대나무로 만든 담배 설대. ¶팔모깎이 우산대/은소복으 연변대/주석대 백통대/파른 받침 구리동고리대/소상간죽으 별간죽/{금사오죽에} 양철간죽을/마치 맞게 잘 맞촤/네 구석으 세워두니/방안치레가 훌륭하네(진안 고사풀이)<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진안.

금새 (←今時에) 부 [대응어] 바로, 금방.

☞고닥새.

지역 전북.

금저리 명 [대응어] 거머리.

☞검지리.

지역 전북.

급작시럽다 형 [대응어] 급작스럽다.

미처 생각할 겨를이 없이 매우 급하게 일어난 데가 있다. ¶이장이 {급작시럽게} 방송을 혀서 동네 사람덜을 모이라고 했다.

지역 전북.

급작히 (急作히) 부 [대응어] 급자기.

미처 생각할 겨를도 없이 급히. 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이에 문득. ¶그런디도 기양 한 이십 쌀 머거서 여울란다 날리 나서 크내기덜 가따가 모집헌다 쏘리 듣꼬 그양 아부지가 {급짜키} 예워버러써.(그런데도 그냥 한 이십 살 먹어서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난리 나서 처녀들 갖다가 모집한다 소리 듣고 그냥 아버지가 급하게 결혼시켜버렸어.<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명당얼 잘 몯써가지고 지바니 어쩬따느니 머, 명당얼 잘써가지고 {급짜키} 인자 큰 이이글 마져 재사늘 모얃따든지 인자 큰사라미 낟따든지 이런 거슨 읍꼬.(명당을 잘 못 써가지고 집안이 어쨌다느니 뭐, 집안이 어쨌다느니 뭐, 명당을} 잘 써가지고 갑자기 이제 큰 이익을 맞아 재산을 모았다든지 이제 큰 사람이 났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2008 전북 고창>

지역 임실.

급재기 부 [대응어] 급자기.

☞급작히. ¶지그믄 이르케 세상이 {급재기} 조아져써, 아이고 옌나레는 그런 지건덜또 후딱후딱 휘가도 모도고, 거그 여그 집또 잘 몯 땡기고.(지금은 이렇게 세상이 급자기 좋아졌어}.<2009 전북 임실>

지역 임실.

급재키 부 [대응어] 급자기.

☞급작히.

지역 완주.

-긋- 【선어말어미】 [대응어] -겠-.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밀을 {살리보긋다고} 밀 좀 갈어<장승익(2008)>

지역 김제.

긍게[1] 부 [대응어] 그러니까.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근거 따위가 될 때 쓰이는 접속 부사 ¶칼을 들고는 쫓아오네, "방금 소복 입고간 처녀 간 거 봤소?" 그런단 말이야. 바로 운 처녀가 그 처녀여. {긍게} 이놈이 탁 헌다는 말이, "예, 방금 요리 보따리 하나 가지고 요 모퉁이 요쪽을 돌아갑디다." 했단 말이야.<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그 수백 년 후에, 그 집도 옮서저버리고 인공때, 음, 저 운문사라고, 운문까서 절이 있었니라. 큰 절이 있어서. {긍게} 정부이서 산중 위험지대가 된게 안된다 그리가지고 불을 질러버렀어. 그서 태워버린 연후에, 박뭣이더라. 중이 거그다 거,<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나도 고양으는 너 만헌 동생이 있어야. {긍게} 공부 잘허야 된다잉!<이병천, 모래내모래톱> ¶이 많은 것을 어떻게 혼자하겠니? {긍게}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

지역 전북.

긍게[2] 감

문장의 마지막에 쓰여, 앞에 말한 내용에 강조의 의미를 더하여 주는 말. 또는 상대방의 말에 동조함을 나타낼 때 쓰는 말. ¶암만 상년이라도. 살어야 무신 세상을 볼 거 아니여, {긍게}.<최명희, 혼불> ¶온 시상이 다 아는 양반의 자식으로 이씨 가문 피 받어난 봉출이가 무신 죄 졌다고 넘 다 가는 학교를 못 가, {긍게}.<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긍게로 부 [대응어] 그러니까.

☞그렁게로. ¶오늘은 핵교 개학날이라고 허지 않냐. {긍게로} 너도 언능 책가방 챙겨라.

지역 완주.

-기- 【선어말어미】 [대응어] -시-.

화자가 문장의 주체를 상위자로 대접하여 이르는 선어말 어미. ¶"아이, 사람 간단디 내다보도 안 헌당가?" "조심해서 {가기요}."<최명희, 혼불> ¶아부지 지금 {오겨요}?<최전승 외(1992)> ¶아부지 {나가겨요}?<이태영(1992)> ¶지금 {오겨요}?<이태영(1992)>

지역 고창.

해설 이 '-기-'에 과거나 완료를 뜻하는 선어말어미 '-었-'이 연결되어 줄어든 '-겼-'도 다수 관찰된다. 또한 음운론적 이형태로 보이는 '-겻-'이나 '-견-' 따위도 보인다.

기가 조 [대응어] 에게.

(사람 체언 뒤에 붙어) 어떤 행동이 미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딱 드러눴어. 딱 드러눴은게 누가 말리겄어요. 드러눴은게 거지반(거의) 타서 {사람기가} 불 붙을라고 헌게로 무지개가 쌍 무지개가, 그때 무지개가<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전북.

해설 '이가, 에가, 기가, 로가, 을가'의 '가'는 동사 '가-'의 문법화에 의해 특수 조사로 쓰이며, 주제화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기가 맥히다 【관용표현】

어떤 일이 놀랍거나 언짢아서 어이없다. 또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하다. ¶하도 {기가 맥힝게} 눈물도 안 나와요.<최명희, 혼불> ¶저놈들이 저래봬도 맛이 아주 {기가 맥힌단} 말요.<채만식, 스님과새장사>

지역 전북.

해설 '기'(氣)는 "숨 쉴 때에 나오는 기운"이다. 일반적으로 '기'가 막히면 죽거나 큰 상처를 입는다. 놀라면 '기가 막히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 표현이 의미 변화를 일으켜 "대단하다"의 의미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기게홀태 명 [대응어] 탈곡기.

벼, 보리 따위의 이삭에서 낟알을 떨어내는 농기

계. ¶보리 추수하면 {기게홀태로} 탈곡하지.
지역 고창.

기겟국수 명 [대응어] 기계국수.
기계를 사용하여 뽑은 국수.
지역 임실.

기구망칙하다 (崎嶇罔測하다) 형 [발음] [기구망치가다/기구망치카다]
세상살이가 순탄하지 못하고 가탈이 많다. ¶"그 나이에 노환은 무신! 아직도 정정하실 나이에 울화증으로 돌아가셨을 터지. 허기사 울화증이 나실 만도 허지. 그만침 {기구망칙허니} 팔자를 타고 난 냥반도 흔치는 않을 티니께."<윤흥길, 낫>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기구망칙하다'는 '기구하다'와 '망측(罔測)하다'를 합쳐서 만든 말이다. 이와 비슷한 말로 윤흥길의 소설에 '기구절창하다'가 나온다. '망측하다'의 전라 방언으로 '망칙하다'가 쓰인다.

기구절창하다 (崎嶇절창하다) 형 [대응어] 기구하다.
세상살이가 순탄하지 못하고 가탈이 많다. ¶평생 내가 겪었던 {기구절창한} 인생 체험을 소설로 쓴다면 아마 몇 권짜리 대하소설이 되고도 남을 거야.<윤흥길, 소라단 가는 길>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기구절창하다'는 윤흥길의 개인어로 '기구하다'와 '절창하다'를 합쳐서 만든 말이다. 이와 비슷한 말로 윤흥길의 소설에 '기구망칙하다'가 나온다.

기구허다 형
뛰어나지 못하다. ¶서울서 {기구헌} 대학을 가.
지역 전북.

기기국수 명 [대응어] 기계국수.
☞기게국수.
지역 무주.

기다 조 [대응어] 에게다.
어떤 행동이 미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안주를 하나 집어먹고 그러고서는 잔에다가 떡 허니 잔을 갖다 {신랑기다} 권허더니마는 술을 철철철철 따러.<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부부간인디 내기(나에게) 속 있는 말 당신기다 않고 당신 속있는 말 {내기다} 안허믄 그것이 부부간이라고 헐 뭐 것 있소.<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술먹고 {사람기다} 찌끄리고<이태영(1983)>
지역 전북.

기다레지다 동 [대응어] 기다려지다.
어떤 사람이나 때가 오기를 바라게 되다. ¶그리 좋으니 {기다레지기도} 하겠소. ¶삼촌이 억세게 {기다레졌어}.
지역 전북.

기도 놓치고 구럭한질라 잃다 【관용표현】
☞게도 놓치고 구럭마저 잃다.
지역 전북.

기둘리다 동 [대응어] 기다리다.
어떤 사람이나 때가 오기를 바라다. ¶갈라므는 다만 서너 달이라도 걸릴 거여. 그런게 나 오드락까장 {기둘리고} 있으라." 고 근게로 참 한 오십 리 이상<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변소에서는 두 줄로 서서 {기둘리는} 게 더 빠른 방법이야. ¶걸인이 편지를 읽는다는 것은 예사사람이 안같더라이거요. 그서 한참 {기둘리고} 있으니깐 다 편지를 읽어보드니 딱딱 접으면서 딱 안봉창(안주머니)으다 놓더니<구비문

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엄마가 곧 오실 것 같으니 조금만 {기둘리자}.
지역 전북.

기따 (←<일>geta) 명 [대응어] 나막신.
신의 하나. 나무를 파서 만든 것으로 앞뒤에 높은 굽이 있어 비가 오는 날이나 땅이 진 곳에서 신었다.
지역 전북.

기뚜라미 명 [대응어] 귀뚜라미. ¶서낭이 운다고. 우리 듣기도 막 {기뚜라미같이} 울어.<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19>
지역 전북.

기럭지 명 [대응어] 길이.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의 거리. ¶글고 날 먼저 차지허려고 서로 덤비고 매달리는 통에나 {폴기럭지만} 늘궈져부렀제.<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기려기 명 [대응어] 기러기.
지역 전북.

기로 조 [대응어] 에게로.
(사람 체언 뒤에 붙어) 어떤 행동이 미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아, 이것 내가 술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나기로} 헌 말이 있지 않느냐 말이여. 생각지 못허믄 나를 찾어오시요<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아 그러고 나넌게, 그렇게 히서 또 써서 보냈어. {원님기로} 또 상소를 혔어. "아, 이런? 괘씸헌 놈이다.아직 애린<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내가 이놈을 {성님기로} 보낼팅게<이태영(1983)>
지역 전북.

기루다[1] 동 [대응어] 기르다.
식물을 심어 관리하고 자라게 하다. ¶꽃을 {기루다}. ¶화초를 {기룬} 지 오년 남짓 되었지.[완주], -&
지역 군산, 완주, 무주, 장수.

기루다[2] 동 [대응어] 빼다.
논의 물을 빼다. ¶모 츅 나고 땅에 뿌리 박을 때는 물을 {기뤄}. 물이 많으먼 심이 없잖여.
지역 전북.

기름자 명 [대응어] 그림자.
물체가 빛을 가려서 그 물체의 뒷면에 드리워지는 검은 그늘. ¶그아 언젠가는 한번 시어머니가 변소가 매라서 나오넌간 갓 쓴, 갓 쓴 {기름자가} 뵈드래야. 그리서 이러고 쳐다보닝간 이상스럽게 생겼드래야.<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전북.

기리다 동 [대응어] 그리다(그림을).
연필, 붓 따위로 어떤 사물의 모양을 그와 닮게 선이나 색으로 나타내다. ¶내가 딴 건 몰라두 그림 하나는 기가 맥히게 잘 {기리지}.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부안, 순창, 완주, 임실, 장수, 정읍, 진안.

기림 명 [대응어] 그림.
선이나 색채를 써서 사물의 형상이나 이미지를 평면 위에 나타낸 것. ¶거그 시째가 {기림} 공부럴 해 갖고 출세럴 해 부렀단 말이요
지역 전북.

기림자 명 [대응어] 그림자.
물체가 빛을 가려서 그 물체의 뒷면에 드리워지는 검은 그늘.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나넌게 잼이 안와, 아 이러고 있는 판인디, 아 웬 놈이 달

ㄱ

{그림자에} 보닌게 대가리가 왔다갔다 허거든. 아 그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손고락으로 문구녁 뚫어 봤제<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기립다 형 [대응어] 그립다.

보고 싶거나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이곧에 정을 주고 내가 살랬더니 임 {기립고} 돈이 기루어 나는 못살것네/아헤에 헤헤야 에헤에 헤야/에헤기나 야양산도로다(남원 논매는 소리) <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남원.

기멍 명 [대응어] 설거지.

음식을 먹고 난 더러워진 그릇을 씻고 치우는 것. ¶재수씨 힘든데 니가 가서 {기멍} 좀 치워줘라<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전북.

기멍치다 동 [대응어] 설거지하다.

먹고 난 뒤의 그릇을 씻어 정리하다.

지역 전북.

기버큼 명 [대응어] 게거품.

☞게버큼. ¶밤새 그렇게 앓더니 아침에 일어나 본게 {기버큼}을 물고 죽어 있더래야 시상으.

지역 완주.

기서 조 [대응어] 에게서.

어떤 행동의 출발점이나 비롯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그이가 {내기서} 돈을 내갔어 <이태영(1983)> ¶그것은 {저사람기서} 나왔어 <이태영(1983)> ¶너그 {언니기서} 전화 왔다 <김옥화(2004)>

지역 전북.

기스 (←<일>kizu) 명 [대응어] 흠집.

흠이 생긴 자리나 흔적. ¶내가 아끼던 원목 책상으 어찌나 큰 {기스가} 났는지 엄청 속이 쓰리더만. ¶동생이 교차로에서 앞차를 들이받아 뒷범퍼에 {기스를} 내 수리해 줬다. ¶하루 점드락 구두를 딲어서 광을 내놓았는디 누가 {기스}를 내놨어. ¶장농에 {기스가} 나서 좀 왁스로 지워 보자구나.

지역 전북.

기시다 동 [대응어] 계시다.

높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어느 곳에 머물러 있다. ¶가다가 아부지(아버지) 산소가 가까와서 지내는(지나는)걸음에 할 수 없이 아버지한테 가서 생뫼(성묘)를 드리고 인사를 할라구 갔더니, 아버지가 뫼 앞에 와서 기시드라.<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근개 또 가온데딸 역시, "아, 저 막둥이동생한티 가서 많이 기시오. <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그 자네 아버지 {기시는가?" "예}, 기십니다."<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김제, 남원, 무주, 부안, 군산, 임실, 장수, 정읍.

기심매다 동 [대응어] 김매다.

논밭의 잡풀을 뽑아내다. ¶밭을 기심맨다.

지역 임실.

해설 '기심매다'는 15세기의 '기슴ᄆᆡ다'로 소급된다. /Δ/은 16세기에 중앙 방언에서 'ᄀᆞ술>가을', 'ᄆᆞ술>마을' 등과 같이 '/Δ/>/??/'의 변화를 겪었으나 전라 방언과 경상 방언 등에서는 'ᄀᆞ술>가실', 'ᄆᆞ술>마실' 등과 같이 '/Δ/>/ㅅ/'으로의 변화를 겪은 것이 일반적이다. '기심'은 '기슴>기슴>기심(치찰음 뒤 전설 모음화)'의 과정을 겪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기앙감 명 [대응어] 고욤.

☞괴옴.
지역 전북.

기얌허다 (←氣陷허다) 형 [대응어] 기함하다.
두려움, 놀람, 충격 따위로 한동안 정신을 잃다. ¶메겨야 쓰거써. {기얌허고들} 거식 허까 시퍼서, 진정제를 사서 중게, 어매도 츠메는 안 멍는다거더니 자꾸 중게 엄마는 머거요.(먹여야 쓰겠어. 기함하고들 그럴까 싶어서, 진정제를 사서 주니까 어머니도 첨에는 안 먹는다고 하더니 자꾸 즈니까 엄마는 먹어요.)<2008 전북 고창>
지역 고창.

기양 부 [대응어] 그냥.
더 이상의 변화 없이 그 상태 그대로. 또는 아무런 대가나 조건 또는 의미 따위가 없이. ¶그러케 왕골 방서근 {기양} 깔고 안는 거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근게 뭐락 허. {기양} 있지 게, 말허자먼 메칠 지낸게로 저녁으음석을 잘 히갖고 왔드라오.<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아, 내가 {기양} 주께 먹으쇼."<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놀러 가려도 돈이 없어서 {기양} 동네를 한바퀴 돌다 들어왔어. ¶되게 잡드리를 허자니, 너무 어리고 {기양} 두자니 큰일을 낼 것같고 이걸 어트케 히얀다냐.
지역 전북.
해설 '기양'은 '그냥'의 어두 음절 모음이 후행 음절 모음 /ja/의 전설성에 동화된 결과 전설 모음화한 것으로 보인다. '냥'이 '양'이 된 것은 /ja/의 구개모음 /j/의 영향으로 치조음 /ㄴ/가 구개음 /ㄴ/가 된 후, 즉[ɲja]가 된 후 구개음의 연속을 피하기 위해 /ㄴ/가 탈락한 결과이다. 19세기에 '그양'과 함께 쓰고 있다. '그양'이 /ㅡ/가 /ㅣ/로 바뀌는 고모음화하여 '기양'이 된 것으로 보인다. '기양'이 축약되면 '걍'이 된다.

기어나가다 동
다른 이들의 기대와 달리 굳이 무리를 해서 밖으로 나가다. ¶함께 살다가 중국어 갈친다고 남한(남원)으로 {기어나가서} 같이 학원생 남자를 사겨쌌다나 어쩄다나.
지역 전북.

기어니 부 [대응어] 기어이, 기어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끝내. ¶허지 말라도 {기어니} 절을 혀.
지역 전북.

기엉씨 부 [대응어] 기어이.
☞기엉코. ¶참말로, 고깃덜 잽히기만 허먼 나 손으로 {기엉씨} 오살육시럴 허고 말 것이여."<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기엉코 부 [대응어] 기어이, 기어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끝내. ¶"어쩌끄나, {기엉코} 그리 되았구나!" 필녀는 발로 땅을 굴렀다. <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형 '기엉코'는 '기연시'와 '기어코'가 혼태된 형태로 보인다. 주로 조정래의 작품에서 나타난다.

기역시럽다 형 [대응어] 힘들다(아주).
힘이 쓰이는 면이 있다. ¶옛날에는 지금보다 더 {기역시러웠제}. 지금은 일도 없어.
지역 전북.

기연시 (期然시) 부 [대응어] 기연히.
기필코 꼭 그렇게. ¶"저 개차반, {기연시} 또 고질병이 도졌구만!"<윤흥길, 소라단가는길> ¶요시 동니 놈덜 모다 버릇없이 돼가는 작태는 나가 {기연시} 고쳐 놓을팅게 그리 알고 각오덜을

단단히 허라 일러라.<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해설 표준어 '기연히(期然-)'의 전북 방언 '기연시'는 '/ㅎ/>/ㅅ/'로 구개음화한 것으로 보이고, '기연이'는 '기연히'에서 /ㅎ/의 발음이 약화된 것이다.

기연씨 (←期然씨) 부 [대응어] 기연히.
☞기연시. ¶앞으로 더 열렬허니 투쟁허서 지도 {기연씨} 대장님맹키로 될라능마요.<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기연이 (←期然이) 부 [대응어] 기연히.
☞기연시. ¶{기연이} 도독놈을 찾어내서 쥑에 놓지 살려 놓겄어?<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기염 명 [대응어] 고욤.
☞괴욤.
지역 전북.

기영기영 부 [대응어] 그럭저럭.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로. ¶{기영기영} 끄니 낄여먹고 살아.
지역 전북.

기우 부 [대응어] 겨우.
☞제우.
지역 전북.

기을배기 명 [대응어] 게으름뱅이.
☞게을배기.
지역 전북.

기지개 명 [대응어] 귀이개.
가늘고 작게 숟가락 모양으로 만들어서 귀지를 파내는데 쓰는 물건. ¶귓밥을 살살 긁어내는 디는 {기지개가} 최고여.
지역 전북.

기집아 명 [대응어] 계집애
☞기집애. ¶"그 들은게 중놈은 헌다 소라가 '너허고 나허고 보는 날 저녁은 오늘 저녁뿐이다.' 근게 {기집아} 말이 큰애기 말이 '아 그 뭔 말씀을 그렇게 허요. 왜 그리라오.' 근게 '너는 내일 너 디리 갈 사람이 와.<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사람두 주 사침 한 방으루 살려내구, 다아 참, 재주들이 조옴 용허우? 안해 암만 용해두, 사람 뱃속에 생긴 {기집아일} 사내루 만들어놓든 안 직 못헌답니다! 영계 우리 소리. 노파 온 저것 보게!<채만식, 영계>
지역 전북.

기집애 명 [대응어] 계집애
시집가지 않은 어린 여자 아이. ¶영의정허는 그 마가의 거시기는 마랑이라고서 사내 랑자, 사내 랑자, 그 아들 하나를 두었고, 또 작가의 작 조각가의 그 딸은 {기집애} 하나 외동딸을 ?쩹?작낭이라고 계집 낭자 작낭이라고 이름 졌다 이거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그 딱 이애기 중지허고, "가만 있으라." 고. {기집애들을} 불러, "에 손님 술 한잔 갖다 드리라고. 술 한잔 먹고 허자." 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기차 화통 삶아묵다 【관용표현】 [대응어] 기차 화통을 삶아먹다.
소리가 큰 사람이나 큰 소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워메, 사람 간 떨어지겄소. 워쨌다고 {기차 화통 삶아묵은} 소리럴 질르요.<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해설 증기로 가는 기차의 화통에서는 아주 큰 소리가 났다. 그래서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이나 그 큰 소리에 대해 '기차 화통을 삶아묵다'는 표현을 쓰곤 하였다.

기함허다 (氣陷허다) 동 [대응어] 기함하다.
두려움, 놀람, 충격 따위로 한동안 정신을 잃다. ¶말도 크게 못 허고 {기암혀} 버렀대여. 죽어 버렀지.
지역 전북.

길루다 동 [대응어] 기르다.
동식물을 보살펴 자라게 하다. ¶방안 아랫목에 검정 이불을 덮어 콩나물을 {길루면} 맛있어.
지역 남원.
해설 '길루다'는 '기르다'의 제1 음절에 /ㄹ/가 덧난 결과이다.

길르다 동 [대응어] 기르다.
동식물을 보살펴 자라게 하다. ¶집집마다 텃밭에 채소 몇 포기라도 {길르고} 있제.
지역 군산, 무주, 장수.

길쭘하다 형 [대응어] 길쭉하다.
물건이 좀 길다. ¶어쨌든 우리 외할머니는 완두만 한번 붙잡으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저 묵묵히 손을 놀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연둣빛 무늬의 {길쭘한} 자실과 함께 대바구니 속에다 흘러나오는 긴 한숨을 가끔 담곤 했다.<윤흥길, 장마>
지역 전북.

김치가 미쳤다 【관용표현】
김치가 익은 상태도 아니고 생것도 아닌 중간 상태. 김치의 맛이 제일 없는 상태를 표현한 말이다. ¶김치를 바로 김치냉장고에 넣으면 {김치가 미쳐} 맛이 안 나.
지역 전북, 전주, 완주.

김치죽 명 [대응어] 갱죽.
시래기 따위의 채소류를 넣고 멀겋게 끓인 죽. 또는 배추 통김치를 물에 담가 우렸다가 잘게 썰어 넣고 쑨 죽. ¶먹을 것이 없어 {김치죽을} 만들어 먹는다.
지역 고창, 남원.

깁히 (←急히) 부 [대응어] 급(急)히.
매우 서두르거나 빠르게. ¶일을 {깁히} 하다 보면 실수하기 마련이다
지역 전북.

깃구넝 명 [대응어] 귓구멍.
귀의 밖에서 귀청까지 통한 구멍. ¶{깃구넝이} 먹었다나, 인자 대문 열게!
지역 전북.

깊수룸하다 형 [대응어] 깊다.
겉에서 속까지의 거리가 조금 멀다. 또는 은근히 깊다. ¶성미 급한 친구는 발서 서울아씨가 대복이한테 {깊수룸한} 향의가 있는 것이거니 지레짐작을 할지도 몰으겠습니다.<채만식, 천하태평춘>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깊수룸하다'는 형용사 어간 '깊-'에 형용사 파생 접미사 '-으스름하-'가 연결된 것이다.

깊시기 명 [대응어] 짚신.
☞짚세기.
지역 무주.

끄ᇙ다 동 [발음] [끌따] [활용형] 끄ᇙ고[끌꼬], 끄ᇙ어[끄러] [대응어] 끌다.
바닥에 댄 채로 움직이게 하다. 또는 시간을 고

ㄱ

의로 지연시키다. 또는 같이 가면서 뒤따르게 하다. ¶신발 {끌꼬} 댕기는 놈치고 바른 놈 못 봤어. ¶소를 내가 {끌꼬} 올라고 허닝게 그 인민군드리 머라고 허는고 허니, 이 소 또 가야한다 이거여 일허러.<2007 전북 군산>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부안, 순창, 임실, 정읍, 진안, 군산.

까그막 명 [대응어] 가풀막.

☞깔크막. ¶이르 이르 이르케 생긴 {까그막}. 얘. 올라가가지고 모션는데. 어머니도 그 미테다 자바노셀써요. 아버님 자바노신(이렇게 생긴 가풀막. 음. 올라가지고 모셨는데 어머니도 그 밑에다가 잡아 놓으셨어요)<지역어 자료 총서, 무주>

지역 무주.

까까까 부 [대응어] 뻐꾹뻐꾹.

뻐꾸기가 잇따라 우는 소리. ¶뻐꾸기가 {까까까} 울면서 있으면 마음이 좀 그래.

지역 무주.

까꾸랭이 명 [대응어] 도리깨꼭지.

도리깨 자루 끝의 구멍에 끼워 도리깻열을 매는 데 쓰는 나무로 된 긴 못. ¶{까꾸랭이를} 끼우다

지역 무주.

까꿀로 부 [대응어] 거꾸로.

☞꺼꿀로. ¶{까꿀로} 가든 바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되지머. 왜 잔소리가 많아.

지역 무주.

까꿀막 명 [대응어] 가풀막.

몹시 가파르게 비탈진 곳. ¶{까꿀막진} 내리막길이 아주 미끄러워 조심스러웠어. ¶할아버지 혼자서 {까꿀막을} 올라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 내가 뒤에서 밀어주니 쉽게 올라갔다.

지역 전북.

까끔 명

나무하러 다니는 산. ¶한 골 매고 두 골 매고 까끔 것치 짓는 밭은({까끔은} 솔밭) 한 합 매고 두 합 매고 어여 매고 집에 가자 어여 매고 집에 가서 어린 애기 젖을 주고 한참 매고 반참 메다 보니<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그 가서 그 집터를 가본개, 담장 무너졌지, 집이 썩어서 내려 앉았지, 아 기맥히거든. 그래서 금싸라기 세 도가지를 파서 돈을 만들어 가지고 저 {까끔}으로 벌목(伐木)하고, 대목(大木, 木手)을 여나무(열남짓) 시켜서 베다 놓으라고 하고, 몇은 져다 나르라고 하고<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남원.

해설 전북 방언에서 '까끔'은 '산'을 일컫기 때문에 "나무하러 다니는 산" 정도의 의미로 해석된다.<지역어 자료 총서, 고창>

까끔살이 명 [대응어] 소꿉놀이.

아이들이 살림살이의 흉내를 내며 노는 장난. ¶어렸을 적엔 맨나 모여서 {까끔살이를} 허고 놀았제. 사금파리 줏고 풀 뜯어서 먹는 시늉히감서. ¶아이들이 풀과 돌멩이를 가지고 {까끔살이}하는 모습을 보면 어릴 때가 생각난다. ¶영이와 철수는 둘이 담장아래에서 다정하게 {까끔살이를} 하면서 놀고 있다.

지역 전북.

까끔새기 명 [대응어] 소꿉놀이.

☞까끔살이. ¶봄날이면 양지꺹에서 {까끔새기} 놀이를 허면서 놀던 시절이 생각나네.

지역 완주.

까네미 명 [대응어] 골뱅이. ¶요 앞바다에서 예전에는 {까네미가} 많이 났어. ¶{까네미는} 된장국

을 곯일 때 넣기도 하는데 보통은 쌂어서 오이랑 다마네기랑 넣고 무쳐 먹어.
지역 고창.

-까니 【접미사】 [대응어] -끼리.
`그 부류만이 서로 함께`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즈그까니} 그렇게 타협을 히 가지고.
지역 전북.

까다랍다 형 [활용형] 까다라워/까다라와 [대응어] 까다롭다.
☞깨다랍다. ¶큰 언니는 왜 그렇게 {까다라운지} 몰라.
지역 군산.

까닥허먼 부 [발음] [까따거먼/까따커먼] [대응어] 까딱하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또는 습관처럼 자주. ¶"안 죽이고 털 수 없소?" 헌개, "그럼 안죽이면 니가 날 알 것 아니냐?" {까닥허먼} 죽게 생겼어. 그런개, 아 그런디 칼을 댈랑개, "아, 여보 잠깐!"<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내 좆질이, 내 좆질이." 요것을 잘 혀. 그리갖고 이것이 강 입이가 올라갖고 {까닥허먼} 얼른허먼'내 좆질이, 내 좆질이'입으가 붙어 버렸단 말여. 올라 버렸는디 인자 아들을 여울 챔인디, 아들을 여울 텐디 장개갈 아들이 생각 허본게<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까득하다 형 [발음] [까드가다/까드카다] [대응어] 가득하다.
분량이나 수효 따위가 어떤 범위나 한도에 꽤나 꽉 차 있다. 또는 빈 데가 하나도 없다. ¶여기 오닌께 시원한 물도 {까득하고} 시원한 바람도 불고 한여름에 이만한 명당이 없구만. ¶어머니, 그만 줘요. 폿을 이렇게 {까득하게} 넣어주면 무거워서라도 다 못 가져간게.
지역 전북.

까딱스럽다 형 [대응어] 까다롭다.
☞까딱시롭다. ¶나중에는 그놈하고 길동무를 해 가지고 서울로 가. 아 이놈의 과거보는게 이렇게 {까딱스러운지} 기러기를 나는디, 공중으로 기러기는 공중으로 날으는디, 저 기러기를 맞춰서 떨어지는 사람이 장원이다." 그런다고 그런데.<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부안.

까딱시롭다 형 [대응어] 까탈스럽다.
성미나 취향 따위가 원만하지 않고 별스러워 맞춰 주기에 어려운 데가 있다. ¶그놈의 성격 참 {까딱시롭네}. 그리 {까딱시로운} 성격으로 어찌 장가간다요?
지역 전북.

까딱허다 동 [발음] [까따거다/까따커다] [대응어] 까딱하다.
움직이거나 변동되어서는 안 될 것이 조금이라도 움직이거나 잘못 변동되다. ¶{까딱허다} 저세상 갈 뻔했다.
지역 전북.

까딱허믄 부 [발음] [까따거믄/까따커믄] [대응어] 까딱하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또는 습관처럼. ¶아, 전날 자다 보닌게 또 와서 선몽을 허네그려. "너 명심허냐? 너 {까딱허믄} 큰일 나. 근게 너 명심히라." 허고서 또 선몽을 허고 가. 그러자마자 와서 인자 대문을 뚜디려(두드려),<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그 인자 하다 하다 못 히서 인자 아들님이락 허고 {까딱허믄} 강 맞을 껄로 알고 벌벌벌 떨어. 걍 어머니도 떨고 아버지도 떨고 그려. 친구가 그 친구가 왔어.<구비문

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인자 그 거시기 그 원을 풀어 줬으먼 가 인자 과거도 잘 허고 이 거식헐 판인디 이거 {까딱허믄} 큰 마해라 그 말여. 이 남자가 생각히 볼 적으, 선부가. 그 나이나 별 수 없이 이거 인자 당헌 일인게<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까딱허믄} 전화가 오닝게 귀찮아 죽겄어. 아들램인데도 곰살맞아 가지고.

지역 전북.

까딱후먼 뿌 [발음] [까따구먼/까따쿠먼] [대응어] 까딱하면.

☞까딱허먼.

지역 전북.

까딱흐먼 뿌 [발음] [까따그먼/까따크먼] [대응어] 까딱하면.

☞까딱허먼.

지역 전북.

까라진눈 명 [대응어] 거적눈.

윗눈시울이 축 늘어진 눈. ¶그놈이 {까라진눈으로} 날 쳐다봉게 나도 마음이 짠허드만.

지역 임실.

까락까락 뿌 [대응어] 가닥가닥.

하나하나 남김 없이 모두. ¶그래. 물어 바라, 물어 바. 머? 멀 물어 본당 거이여? 어디 {까락까락} 물어 바아.<최명희, 혼불> ¶뭐가 그리 잘났다고 {까락까락} 따지고 드냐? ¶대관절 무신 용처에다 쓸라고 과부 사정은 객광시럽게 {까락까락} 따지고 뎀벼?<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까락지 명 [대응어] 가락지.

주로 여자가 장식으로 손가락에 끼는 두 짝의 고리. ¶돈이 아쉬어 {까락지}를 팔어먹었더니 손가락이 허전혀.

지역 고창, 군산, 임실.

까랑비 명 [대응어] 가랑비.

가늘게 내리는 비. 이슬비보다는 좀 굵다. ¶{까랑비가} 까랑까랑 오고 있으니 옷이 젖지 않도록 하거라.

지역 전북.

까루 명 [대응어] 가루.

☞가리.

지역 전북.

까룸밥 명 [대응어] 누룽지.

솥 바닥에 눌어붙은 밥.

지역 남원.

까막깐치 명 [대응어] 까막까치.

까마귀와 까치를 아울러 이르는 말. ¶다 {까막깐치가} 다 이 온갖 짐승이 먹을 놈인디 그놈을 우리가 먹으면 짐승이 다 죽소.<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전북.

까막사리 명 [대응어] 도깨비바늘. ¶{까막사리가} 옷에 붙어 잘 떨어지지 않아.

지역 무주, 순창, 임실.

까막허다 형 [발음] [까마거다/까마커다] [대응어] 까마득하다.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다. ¶옛날에 아조 {까막헌} 옛날인디 장개를 갈라먼은 아조 힘드는 때요. 양반 상놈이 분명히 있는 때라 양반이 상놈한티 장개 못가고 상놈이 양반한티 장개 못 시집 못오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정읍.

까부르다 동 [대응어] 까불다.
손 따위를 위아래로 흔들다. 또는 그렇게 하다. ¶가서, 아들을 낳은 뒤에는 자기 아들을 밤낮 뽀동꼬(보듬고) 다니면서 {까부르고} 상당히 이뻐한단 말이여. 그 어머니가 그걸 보고는, “네<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치로 {까부르면} 검불은 다 날라가 버리고 치속으는 알곡만 남는거여.
지역 군산, 완주.

까불이 명
공기놀이 중의 한 가지 방법으로 처음에는 손바닥에 쥐고 있다 손등으로 뒤집어 보낸 다음 앞으로 잡는 것. ¶{까불이는} 다섯 개를 다 좃은 다음에 뒤로 착 넘겨서 다 받는 것여.
지역 전북.

까새 명 [대응어] 가위.
☞가새.
지역 남원.

까스리기 명 [대응어] 가시랭이.
풀이나 나무의 가시 부스러기. ¶풀 비었드니 {까스리기}가 옷에 많이 붙었네.
지역 전북.

까스쟁이 명
가스를 배달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 ¶까스 떨어졌다고 까스 부른게 {까스쟁이가} '아직 까스 있고만이라오.' 그려. 까스쟁이가 까스통 흔들어서 쓴게 떡 찌고 고기 삶고 허고도 남었어.
지역 전북.

까시나무 명 [대응어] 가시나무.
가시가 있는 나무를 통틀어 이르는 말. ¶사이사이 두고 {까시나무를} 그먼 여기다 놔.<지역어 자료 총서, 무주> ¶{까시나무가} 덤풀졌따 <2007 전북 군산> ¶아버지는 숲속을 다니시다가 {까시나무에} 많이 찔렸다.
지역 전북.

까시낭구 명 [대응어] 가시나무.
가시가 있는 나무를 통틀어 이르는 말. ¶그 하루는 나무를 해다가 장에 가서 팔고 어 식량을 좀 팔어다 놓고 그래 인자 또 땔 놈을 {까시낭구조차} 해서 짊어지고 오는데 거 냇갈이 있거든. <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까시넝쿨 명 [대응어] 가시넝쿨.
가시나무의 넝쿨. ¶산 두릅을 꺾으려면 험한 {까시넝쿨} 속을 헤치고 나가야 된다. ¶{까시넝쿨} 속을 그렇게 헤비고 댕깅게 상처가 그 모냥이지 {완주}. ¶숲속 {까시넝쿨을} 헤치고 다녔더니 온 몸이 상처투성이구나.
지역 전북.

까시덤풀 명 [대응어] 가시덤불.
가시나무의 넝쿨이 어수선하게 엉클어진 수풀. ¶어느 {가시덤풀} 쑥굴헝에 뇌일지라도 우리는 <서정주, 시집> ¶{까시덤풀을} 헤메였더니 팔에 상처가 많이 났다.
지역 전북.
해설 ‘까시덤풀’은 ‘가시덤불’의 음운론적 이형태로, 어두 경음화로 인하여 ‘가시’가 ‘까시’가 되었다. ‘덤불’이 ‘덤풀’이 된 것은 ‘넝쿨’의 /ㅋ/가 가진 유기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까시덩굴 명 [대응어] 가시덩굴.
가시나무의 덩굴. ¶{까시덩굴}이 우거져 있던디.
지역 전북.

까시덩쿨 명 [대응어] 가시덩굴.

가시나무의 덩굴. ¶저 산에 올라 가는디 그 참 주인허고 지관허고 말타고 올라 가는디 그 골짜기 가넌게, 아 {까시덩쿨서} 이쁜 큰애기가 베를 짜거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산속 {까시덩쿨을} 헤치고 다녔더니 온몸이 상처투성이구나.

지역 전북.

까시덤풀 명 [대응어] 가시덤불.

☞까시덤풀.

지역 전북.

까시버시 명 [대응어] 가시버시.

☞까시보시.

지역 전북.

까시보시 명 [대응어] 가시버시.

'부부'를 낮잡아 이르는 말. ¶저 사람덜 {까시보시}가 맞는가 모르겄네.

지역 전북.

-까이 【종결어미】 [대응어] -ㄹ까.

해할 자리에 쓰여, 어떤 일에 대한 의문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말. ¶얼매나 {좋으까이}? 연지 곤지에다.<최명희, 혼불> ¶"그런디 돈 많고 전답 많은 새서방님이 머에다 쓸라고 넘으 돈을 훔쳐 {냈이까이}?<최명희, 혼불> ¶주지 안 {주까이}?<이윤구(2001)>

지역 남원, 장수, 무주.

-까장[1] 【접미사】 [대응어] -끼리.

'그 부류만이 서로 함께'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저그까장} 상이했나 부드라(저희끼리 상의했나 보더라)<김옥화(2001, 2003)> ¶{아들까지} 좋아허(아이들끼리 좋아해)<김옥화(2001, 2003)>

지역 부안.

까장[2] 조 [대응어] 까지.

어떤 일이나 상태 따위에 관련되는 범위의 끝임을 나타내는 보조사. 또는 이미 있는 것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보름날부터서 스무날까장 놀고<이태영(1986)> ¶볼일이 있어 삼례까장 가따 온게.<이태영(1986)> ¶잘 파는 사람은 삼백원까장 받았어.<이태영(1986)> ¶성주 명령으로 한 번 내리먼 그걸로서 처단인디 새끼 죽이고 {마느래까장} 뺏기게 생겼응게 어물어물 허니 뒷걸음질히서 가는 종도(줄도) 모르게 도망갔더라<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전북.

까재 명 [대응어] 가재. ¶또 게실기(거시랭이, 지렁이)허고 가재허고는 또 그 설명을 해 줄께. {까재가}, 말하자면 까재는 게실레기고, 게실레가 까재가 되었었는디.<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전북.

까죽 명 [대응어] 가죽.

사람이나 동물의 겉을 싸고 있는 질긴 부분. ¶새를 {까죽을} 베껴서, 솜씨가 얌전헌개 인자 두루매기를, 새까죽으로 두루매기를 딱 만들어서, 어서 대려서 놓고서, 제일 방밑에다가 딱 그놈을 놓고서, 넣어놓고는 집을 나갔어.<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내가 알어? 왜놈 군대 멕일라고 괴기국 낄이고, {까죽은} 벳게서 그놈덜 구둔가 장환가 맨들어 신는다고 허대.<최명희, 혼불>

지역 남원, 정읍.

까지 명 [대응어] 가지. ¶아니라오. 진장 뭐 아씨 씬 만헌 도시락으다 서방님 좆만헌 {까지} 장아치 배끼는 못 먹었어라오.<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몰라서 물어 시방? 그년들은 자

빠져도 {까지} 발으서 자빠지는디 우리야 어디서 자빠지겄능가? 모라내야 머, 독자갈 말고 어디 더 있어?<이병철, 모래내 모래톱>

지역 고창, 군산,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임실, 장수, 정읍.

해설 '가지'는 중국어 '茄子'의 차용어인데 16세기 문헌에서부터 이미 '茄'의 훈을 '가지 가'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국어화된 지 오래인 것으로 추정된다.<출처: 한민족 언어 정보화> 전북 지역에서는 '가지'와 '까지' 두 가지로 불리고 있다. '까지'는 '가지'를 어두 경음화하여 발음하는 형태이다.

까지김치 명 [대응어] 가지김치.

가지를 여러 갈래로 쪼개 그 사이에 양념을 넣어 담근 김치. ¶까지를 지드란허게 칼로 두 번 쪼개 갖고 오이지맨치로 고칫가리 양념을 무쳐서 {까지김치럴} 맨들어.

지역 전북.

까지꼬시래기 명 [대응어] 가지말랭이.

가지를 썰어서 말린 반찬감. ¶요새 까지 참 싸도만. 조깨 있다가 {까지꼬시래기} 좀 내들어야겄꼬만.

지역 전주.

까지너물 명 [대응어] 가지나물.

가지를 찌거나 말려서 양념에 무친 나물. ¶여름으넌 가지꼬시래기 있잖아, 까지 말린 거, 그거 갖다가 무쳐서 먹으믄 맛나, {까지너물이지}, 말허자먼. ¶어릴 때 많이 먹었던 {까지너물은} 밥솥 위에 얹어 찐 다음 꺼내 무쳤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다.

지역 고창.

까지몰림 명 [대응어] 가지말랭이.

가지를 썰어서 말린 반찬감. ¶{까지몰림} 불려서 무쳐 먹고 그래.

지역 남원.

까지적 명 [대응어] 가지전.

☞까지전. ¶아빠가 까지를 많이 가져완쓩게 {까지적이라도} 부쳐 먹자꾸나. ¶날 더울 때는 말여, 까지 하나만 있어도 너물도 무쳐 먹지, {까지적도} 히 먹지, 뭐 상어다 올릴 것이 많어.

지역 고창, 부안, 군산, 김제.

해설 이 지역에서는 '전'과 '적'을 구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까지전 명 [대응어] 가지전.

가지를 넣어 부친 전. ¶{까지전은} 막 부쳐 갖고 바로 먹어야 맛이 좋아. 식어 버리믄 제 맛이 안 나.

지역 전북.

까치독사 (까치毒蛇) 명 [대응어] 살무사. ¶산에 돌 많은 곳에 {까치독사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는 많이 잡으러 댕겼지. {까치독사는} 참 지독한 뱀이여, 지 에미를 잡아 먹은게로.<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전북.

까치설 명 [대응어] 작은설.

설의 하루 전인 섣달 그믐날. ¶{까치설은} 어저께고 오널이 우리 설이제. ¶{까치설에} 일찍 자면 눈썹이 하애진대.

지역 남원.

까탈시럽다 형 [대응어] 까탈스럽다.

성미나 취향 따위가 원만하지 않고 별스러워 맞춰 주기에 어려운 데가 있다. ¶지집애가 {까탈시럽기는}. 첫날밤부터 신랑한티 신바람이나 시키고. 내가 다 민망혀 죽겄구만.

지역 임실.

까파르다 형 [대응어] 가파르다.

땅이 심하게 비탈지다. ¶인자 {까파르기도} 오사게 {까팔른} 땅을 인자 밭 맹근다고 일구 갔지.

지역 전북.

까파치다 동 [대응어] 바꾸다.

안과 겉, 위와 밑, 차례, 승부 따위를 바꾸다. 또는 일을 뒤집어 틀어지게 만들다. 또는 조용하던 것을 소란하고 어지럽게 하다. ¶옷도 {까파쳐} 입고 댕기고 도대처가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뭐냐? ¶순서를 {까파쳐서} 내가 먼저여. ¶그 일을 {까파치기만} 하면 우리는 이익인데 말이죠. 어떻게 물밑 작업을 허죠? ¶갸가 울기 시작허면 암도 못말리는고만. 온 동네가 {까파친게}.

지역 전북.

까팍지다 형 [대응어] 가파르다.

땅이 심하게 비탈지다. ¶그짝은 너무 {까팍져서} 올라가기 힘들어. 긍게 이쪽으로 와. 여긴 괜찬헝게.

지역 전북.

깍다분허다 형 [대응어] 깍듯하다.

예의범절을 갖추는 태도가 분명하다. ¶모다 깍다분허게 안 했어. 모다 반거지로 허고.

지역 전북.

깍쟁기 명 [대응어] 극젱이.

땅을 가는 데 쓰는 농기구. ¶얘, 첫뻐냐 인재 갈라굴 써그는 {깍쟁기로} 가라요.(예, 첫번에 이제 갈려고 할 적에는 극젱이로 갈아요.)<2009 전북 임실>

지역 순창, 임실, 장수, 정읍.

깍쟁이 명 [대응어] 종지.

간장이나 고추장 따위를 담아 상에 놓는 작은 그릇. ¶윷놀이 할 때는 제대로 놀라면 윷 {깍쟁이} 갖고 해야 혀. 그래야 기술을 부릴 수가 있은게. 초상집에 가면 전부 윷 {깍쟁이로} 하잖여.<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전북.

깍정이[1] 명 [대응어] 깍지(콩).

콩 따위의 꼬투리에서 알맹이를 까낸 껍질. ¶{깍정이만한} 도자 술잔의 푸르스름한 광택이 얼굴의 검은 빛을 더욱 검어 보이게 한다. 그들은 오랜만에 이렇게 서로 마주앉아 있는 것이다.<최명희, 혼불> ¶동굴 속의 그나는 장님이었지만 새 신자석의 그니는 난데없는 호통소리에 기겁하리만큼 놀란 나머지 두 눈을 {깍정이} 크기로 홉뜨고 있었다.<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깍정이[2] 명 [대응어] 깍쟁이.

자기 이익만 생각해서 남에게 자기의 것을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야박한 사람. ¶그렇지만 도통(손가락 두 개를 세워보며)요것밖에 없어. 거리의 여자(눈을 흘기며) 요런 어대서 {깍정이가}! 그러지 말고 요것만(손가락 네 개를 세워 보이며) 예산해요. 그래야 둘은 음식값으로 치고 둘은 내가 먹지. 어떤<채만식, 영웅모집> ¶오복 응? 왁돌이? 그놈이 아주 {깍정이야}. 그놈이 장사를 해서 하루에 돈이 삼십팔전씩 이나 남는다는데 술만 사먹구, 담배만 사먹구, 그리구는 주정만 허구 아주 {깍정이} 짓만 허는 놈이야, 아이들을 마구 때리구.<채만식, 야생 소년군> ¶더욱 좋은 것은, 여느 극장 같으면 하등인 맨 앞자리는 고놈 {깍정이} 같은 조무래기패가 옴닥옴닥 들어박혀 윤직원 영감의 육중한 체구가 처억 그 틈에 끼여 있을라치면, 들이 놀림감이 되고, 그래 좀 창피했는데,<채만식, 태평천하>

지역 전북.

깍젱이 명 [대응어] 종지.

간장이나 고추장 따위를 담아 상에 놓는 작은 그릇. ¶밥상을 차릴 때 제일 가운데 놓는 게 간장 {깍젱이란다}.

지역 남원, 완주, 진안, 군산, 부안, 임실, 정읍.

깎으다 동 [대응어] 끊다(손톱을).

풀이나 털 따위를 잘라 내다. ¶손톱을 {깎으고} 몸을 단정히 하다.

지역 남원.

깐닥하면 부 [발음] [깐다가면/깐다카면] [대응어] 까딱하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또는 습관처럼 자주. ¶약초를 캘라고 내려갔지만 {깐닥하면} 베랑길 아래로 굴러버리는 판이라 발도 마음도 떨렸다. ¶너 임마 {깐닥하면} 죽을뻔 혔어. ¶{깐닥하면} 기차 놓친게 얼른 준비허고 나서라 ¶내 친구는 {깐닥하면} 거짓말을 혀서 인자는 갸를 잘 못 믿겄어. ¶이렇게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날 밤엔 {깐닥하면} 정전이 되었다.

지역 전북.

깐데깐데 부

이곳저곳. ¶느그 시아버지는 보따리 짊어진 하인 하나허고 {깐데깐데} 댕긴다고 허고, 우리 시아부지는 어디 가실라믄 관행차 타고 '어라차' 허고 가신다고.<구비문학대계 전북 고창군편>

지역 전북.

깐딱하다 동 [발음] [깐따가다/깐따카다] [대응어] 까딱하다.

조금 벗어나다. 또는 조금 잘못되다. ¶나도 {깐딱했더라면} 잽히는 것인데, 밤똥 누는 버릇 땀새 살았소.<송기숙, 녹두장군>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의 의태 부사 '깐딱'은 표준어 '까딱'에 대응되는 어휘이다. 여기에 동사 파생 접미사 '-하-'가 연결되어 '깐딱하다'로 쓰이면 표준어 '까딱하다'의 의미와 거의 같다. '깐딱하다'는 '깐딱하면, 깐딱하다가는' 따위의 꼴로 쓰인다.

깐딱허먼 부 [발음] [깐따거먼/깐따커먼] [대응어] 까딱하면.

☞깐닥하면

지역 전북.

깐밥 명 [대응어] 누룽지.

☞깜밥. ¶눌은밥을 딱딱딱딱 훑은게로 {깐밥} 훑은게,<한국구비문학대계, 전북정주시·정읍군편>

지역 전북.

깐보다 동 [대응어] 깔보다.

얕잡아 보다 ¶이 애비 무식허다고 {깐보능겨}?"<조정래, 아리랑> ¶증말 화딱지나게 {깐보어} 싼네!<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깐치 명 [대응어] 까치.

☞간치. ¶{깐치란} 놈은 집을 잘 지어 목수감으로 돌려라/똥그랑 땡 똥그랑 땡 얼사 절싸 잘 넘어간다(고창 똥그랑 땡)<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 민요해설집>

지역 전북.

깔꾸막 명 [대응어] 가풀막.

몹시 가파르게 비탈진 곳.

지역 전북.

깔끄막 명 [대응어] 가풀막.

몹시 가파르게 비탈진 곳. ¶{깔끄막에서} 굴러갖고 크게 다쳤다.

지역 전북.

깔끄막지다 [동] [대응어] 가풀막지다
땅바닥이 가파르게 비탈져 있다. ¶명님이는 좋아라고 가방을 들고 앞을 서서, {깔끄막진} 언덕길을 내려간다.<채만식, 탁류>
지역 전북.

깔끄막지다 [형] [대응어] 가풀막지다.
땅바닥이 가파르게 비탈져 있다. ¶명님이는 좋아라고 가방을 들고 앞을 서서, {깔끄막진} 언덕길을 내려간다.<채만식, 탁류> ¶순창에서 동계로 넘어가는 산길은 {깔그막지면서도} 구불구불 엄청 길었다. ¶그 산은 너무 {깔끄막져서} 올라가기 참 힘들더라.
지역 군산, 임실.

깔딴살이 [명] [대응어] 꼴머슴.
깔을 비어주던 머슴. 주로 어려운 집 어린아이들이 입을 덜기 위해 먹고 자는 것만 해결하는 조건으로 들어간다. ¶한 달 먹었든가 두 달 먹었든가 하릿적으는 새복(새벽)으 {깔딴살이가} 썩 들어드라요. … 가는디 왼산을 점드락 돌아댕기다가 깔딴살이가 서른 당신 거가 내리시요.
지역 전북.

깔막 [명] [대응어] 벼랑.
낭떠러지의 험하고 가파른 언덕. ¶{깔막으로} 굴러 뻔졌네. ¶저 언덕은 매우 {깔막이} 진 곳이라 조심해서 내려가야 할거야.
지역 완주, 장수, 진안.

깔목 [명] [대응어] 굄목.
나락 가마니 따위의 물건을 괴는 데 쓰는 나무. ¶{깔목} 깔고 나락 놓고.
지역 전북.

깔뿌리 [명] [대응어] 갈고리.
끝이 뾰족하고 꼬부라져서 물건을 걸고 끌어당기는 데 쓰는 물건. ¶{깔뿌리로} 잡아당길라고 헌다고 그기 잘 되겄어?
지역 전북.

깔쟁기 [명] [대응어] 극젱이.
땅을 가는 데 쓰는 농기구. ¶{깔쟁기로} 밭을 갈아야 쓰겄는디, 누가 가져가 버렸어.
지역 남원, 부안, 완주.

깔짱 [명] [대응어] 팔짱.
나란히 있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옆 사람의 팔에 자신의 팔을 끼는 일. ¶나도 장에 가면 {깔짱} 찌고 그려. 우리 메누리가. ¶우리 메누리는 장에 가도 꼭 내 {깔짱} 찌고 나가.
지역 전북.

깔코리 [명] [대응어] 갈고리.
☞깔쿠리.
지역 전북.

깔쿠 [명] [대응어] 가풀막.
☞갈키.
지역 전북.

깔쿠리 [명] [대응어] 갈고리.
끝이 뾰족하고 꼬부라져서 물건을 걸고 끌어당기는 데 쓰는 물건. ¶이제 그 솔잎이라고, 저 솔잎개비 이 단풍이 들면 땅에가 널어지잖아요. 땅에가 너러지먼, ' {깔쿠리라고} 이캐 쇠로 이르캐 맨드릉게 인씨요.<지역어 자료 총서, 무주>
지역 전북.

깔크막 [명] [대응어] 가풀막.
몹시 가파르게 비탈진 곳. ¶{깔크막이} 깔크막졌다 그러제. ¶그 집 뒤를 산 능서늘 타고서나 올라가는데, 그양 나도 모르게 {깔끄마게서} 막 그

양 떠러져 버렌써요.(그 집 뒤를 산능선을 타고 서 올라갔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가풀막에서 막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지역어 자료 총서, 군산> ¶자전거을 끌고 {깔크막을} 올라가니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있다. ¶천반산은 원체 {깔끄막이라} 자유롭게 올라가기가 어려울 거야.
지역 완주, 고창.

깔키 명 [대응어] 가풀막.
☞갈키.
지역 남원.

깔키나무 명 [대응어] 갈퀴나무.
☞갈키나무.
지역 장수

깜 의명 [대응어] 감.
'자격을 갖춘 사람'의 뜻을 나타내는 말. ¶그 사람이 그럴 {깜이} 되간디? ¶대통령도 할 {깜이긴} 한디, 그리도 우리가 밀어줘야 되제.
지역 전북.

깜기다 동 [대응어] 감기다(머리가, 被動).
다른 사람의 머리를 물로 씻기다. ¶어머니는 여동생 머리를 {깜겨} 주셨다. ¶동생 머리를 {깜기고} 깨끗히 닷가 줘라.
지역 고창.

깜다 동 [대응어] 감다(머리를).
머리를 물로 씻다. ¶"저 나가서 목욕 싹 하고 머리도 싹 감고 거시기(깨끗이란 뜻) 하고 들어 오라." 고. 그래서 대체 목욕물 데워 놓은 걸 싹 하고, 가을인개 머리 {깜아서}, 과수 방으로 들어간개 과수가 딱 달라 들어 가지고 머리를 딱 빗겨서 비녀 낭자를 시키네.<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네가 머리를 안 {깜으니까} 친구들이 냄새난다고 안 놀지[고창. 부안], = & ¶여름철 동네 냇갈은 모욕 {깜는} 꼬마들이 차있는 자연 수영장이었다. ¶머리를 {깜지} 않아서 냄새가 난다.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깜밥 명 [대응어] 누룽지.
솥 바닥에 눌어붙은 밥. 또는 그 밥을 수저로 훑은 밥. ¶깨진 그릇에 보리 {깜밥을} 먹으면 어떻고, 헐벗은 몸에 다 떨어진 누더기 옷을 입으면 또 어떠하냐.<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해설 누룽지가 시커멓기 때문에 "까만 밥"이란 의미로 '깜밥'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깡밥'이라고도 한다.

깜빡 부 [대응어] 깜빡.
눈이 잠깐 감겼다 뜨이는 모양. 기억이나 의식 따위가 잠깐 흐려지는 모양. ¶즈덜 말고도 서울소리만 귓구녁에 스쳤다 허면, 고닥새 {깜빡} 죽어나자빠짐서 주둥이로다 표준말을 절로 따라 허부리는 앵무새인간덜이 쌔고 쌘 판인디.<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깜솨서 【연결어미】
현재의 정해지지 않은 일에 대한 추측을 이유로 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돌아댕기기는 헌디 쪼끔 암만히도 다리 한짝을 쪼금씩 끄서, 끄서. 근게 시방도 으디 나가다 안 오면은 {넘어지깜솨서} 그게 걱정되아서 만날 휴대폰 갖고 댕인게 전화를 내가 집이서 허지. ¶여름에는 무사(무서워).(음식이) 가다 {변할깜솨서}.
지역 전북.

-깜시 【연결어미】 [대응어] -을까 봐.
해할 자리에 쓰여, 뒤에 오는 행위에 대하여 어

떤 의심을 근거로 제시하는 연결 어미. ¶인자 중 학교럴 마치고, 그 학교에서 어! 에기서 인자 시골 학교니까 딴디로 {가깜시} 멘빤 나보고 오라게서 여따 지나걸 시키쑈 시키쑈.<전북지역어, 남원>

지역 남원, 고창.

깜아지다 동 [대응어] 감아지다.

머리나 몸이 물로 씻어지다. ¶머리다 {깜아지다}. ¶빨래비누가 그리도 머리는 제일 잘 {깜아지는}개벼.

지역 고창, 무주, 부안, 군산, 완주, 익산.

깝깝하다 형 [발음] [깝까바다/깝까파다] [대응어] 갑갑하다.

공간이나 생각 따위가 형통하거나 열린 상태가 아니어서 제약 때문에 불편한 느낌이 있다. ¶머엇이 {깝깝해서} 그리싸아?<최명희, 혼불> ¶양말짝맨치로 맴보따리를 홀렁 까뒤집어서 되야디릴 수도 없는 일이고, 참말로 {깝깝한} 노릇입니다요.<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허허, 참말로 깝깝해도 영판 {깝깝하시요잉}.<송기숙, 녹두장군> ¶장가를 오랫만에 갔는디, 각시를 데리고 들 밖에 구경을 가야겄는디, {깝깝하고} 그런디, 각시를 못 떨어져 각시를 데리고 나갔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까깝허다'는 '갑갑하다'가 된소리로 발음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전북 방언 '까깝하다'는 '갑갑하다'와 '답답하다'에 대응되는 의미를 둘 다 가지고 사용된다.

깝북 부 [대응어] 가뜩.

분량이나 수요 따위가 어떤 범위나 한도에 꽉 찬 모양. ¶똥통 속에 {깝북} 잠겨 가쁜 숨을 헐떡이며 숨어 있는 당숙모의 꼬락서니만이 눈앞에 가득할 뿐이었다.<윤흥길,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

지역 전북.

깟난애기 명 [대응어] 갓난아기.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를 귀엽게 이르는 말. ¶이 영갬이 술을 먹고 술이 취해 뒤적뒤적하다 {깐난애기에다} 다리로 목을 건드려 뻗었던가 애가가 죽어 버렸어.<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고창, 김제,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진안.

깡깡하다 형 [대응어] 단단하다.

☞깡깡하다. ¶왜 말이 없이? 그 {깡깡한} 덩어리를 누구 그것이 무신 괴기라고 회쳐 묵을 것이여, 호박이라도 삶아묵을 것이여?<송기숙, 자랏골의비가>

지역 전북.

깡내이 명 [대응어] 수수깡.

수수의 줄기. ¶{깡내이럴} 비어다가 이퍼리를 딴다. ¶{깡내이럴} 묶어갖고 비 안 맞는 데다 잘 뒀다가 쓴다.

지역 군산.

깡냉이 명 [대응어] 옥수수.

'옥수수'의 열매. ¶그 {깡냉이} 가튼거또 반주위로 쭉허니 심엇씨 원 바다게는 심지를 안해썻씨요.(그 옥수수 같은 것도 밭 주위로 쭉 하니 심었지. 원 바닥에는 심지를 안했었어요.)<2007 전북 군산> ¶올해는 {깡냉이가} 잘 여물어 토실토실하다. ¶여름에 {깡냉이} 삶아 먹는 맛은 정말 일품이야.

지역 군산, 김제, 부안, 완주, 임실, 장수, 무주.

깡냉잇대 명 [대응어] 옥수숫대.

옥수수의 줄기 부분을 이르는 말. ¶{깡냉이대를}

베어 내다 ¶소 여물 줄란디 {깡냉이대}는 어따 가 두었냐?
지역 전북.

깡밥 명 [대응어] 누룽지.
☞깜밥. ¶{깡밥을} 해갖고 딱 훑어 가부러.<한국구비문학대계, 전남해남군편>
지역 전북.

깡아리 명 [대응어] 광주리.
☞꽝아리 ¶독 지고 오는 놈 그러고 있은게 음석을 맨들어서 {깡아리다} 여자들이 이고 하인들이 짊어지고 주욱허니 와가지고는<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인자 돌꼬시다 둘러씨 갇꼬 {깡아리} 하나 이마넌 거<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지역 김제, 완주, 임실, 정읍.

깡치 명
옥수수 알갱이를 먹거나 떨고 나면 남는 가볍고 딱딱한 대. ¶왜 깡냉이 {깡치를} 구정물에다 늤냐? 소가 먹으면 어찔라고. ¶깡냉이 깡치는 소 주지 마.
지역 고창.

깡탱이 명 [대응어] 수수깡.
수수의 줄기. ¶{깡탱이럴} 비어다가 이퍼리를 딴다. ¶{깡탱이럴} 묶어갖고 비 안 맞는 데다 잘 뒀다가 쓴다.
지역 임실.

깟신 명 [대응어] 갖신.
가죽으로 만든 신. ¶세월이 마않이 가고는, 지 말대로 깟신쟁이가 되야 갖꼬 이 마을 저 마을로 떠돌아 댕김서, 부잣집으 {깟신도} 지어 주고, 신이 이뿌다고 대접을 잘허먼 그 집 행랑으서 잠도 자고 그럼서 사는디.<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깨고락지 명 [대응어] 개구리.
☞개구락지.
지역 부안.

깨고래기 명 [대응어] 개구리.
☞개구래기.
지역 정읍.

깨고리 명 [대응어] 개구리.
☞개고리.
지역 전북.

깨골깨골 부 [대응어] 개굴개굴.
개구리가 우는 소리. ¶오래 전 여름 밤에는 논두렁에 개구리가 {깨골깨골} 많이 울었어. ¶농촌에 와보니까 날마다 개구리가 {깨골깨골} 울어대니까 꽤 시끄럽네. ¶깨골이가 밤에 {깨꼴깨꼴} 울어댄다.
지역 장수, 부안.

깨골창 명 [대응어] 개골창.
수채 물이 흐르는 작은 도랑. ¶나 같은 년은 머마느래도 아니고 소실도 아닝게, 가다가 엎어지든 {깨골창에} 자빠지든 상관없겄지맹." "왜 또 그러시요." "사람 그러능 거 아니여어, 참말로. 오뉴월 젓불도 쬐다 말먼 서운허드라고<최명희, 혼불> ¶무신 진사 급제 알성시(謁聖試) 과거를 볼랑가 이 꾀 저 꾀 삼중(三重) 꾀를 짜내서는, 오랏줄로 칭칭 뭉꺼 {깨골창에} 패대기를 쳐도 시언찮을 시앗년을<최명희, 혼불> ¶가서보니까 {깨골창에} 조카가 발을 헛디더 옷을 다 버렸지 뭐예요.
지역 전북.

깨골창물 명 [대응어] 개울물.

☞깨굴창물.

지역 전북.

깨구락지 명 [대응어] 개구리.

☞개구락지. ¶{깨구락지} 고놈이 폴딱 뛰고 있는데 비얌이 와서 칵 물어 버리는게<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전북.

깨구래기 명 [대응어] 개구리.

☞개구래기.

지역 고창.

깨구리 명 [대응어] 개구리.

☞개고리.

지역 무주, 장수, 진안.

깨굴깨굴 부 [대응어] 개굴개굴.

개구리가 우는 소리. ¶개구리가 {깨굴깨굴} 울어댄다 ¶비가 올랑가 논으서 깨구리들이 {깨굴깨굴} 난리가 났네. ¶비가 오면 {깨굴깨굴} 우는 개구리 소리에 귀가 따갑다.

지역 전북.

깨굴창 명 [대응어] 개골창.

☞깨골창.

지역 전북.

깨굴창물 명 [대응어] 개울물.

개울에 흐르는 물. ¶비가 한 바탕 쏟아지더니 {깨굴창물이} 엄청 많이 흐른구나. ¶{깨굴창물에} 빠지다. ¶비가 한 바탕 쏟아지더니 {깨굴창물이} 엄청 많이 흐른구나.

지역 전북.

깨그마리 명 [대응어] 꾀꼬리.

☞께그마리.

지역 전북.

깨금 명 [대응어] 개암.

개암나무의 열매. ¶{깨금} 열매 줏으로 댕기진 않았제.

지역 고창, 남원, 부안, 순창, 장수, 정읍, 진안, 무주, 임실, 김제, 군산, 완주, 익산.

깨까더랍다 형 [대응어] 까다롭다.

조건 따위가 복잡하거나 엄격하여 다루기에 순탄하지 않다. ¶성미가 음청 {깨까더랍구만}.

지역 전북.

깨깟이 부 [대응어] 깨끗이.

사물이 더럽지 않게 가지런히 잘 정돈되게. 또는 마음씨나 행동 따위가 허물이 없이 떳떳하고 올바르게. ¶이런 자리를 써주었어. 그런디 아 3년만에 요놈이 쑥대밭 됐니라 하고, 묘를 찾어가 보넌개, 아 예전보다 더 벌초도 {깨까시} 허고, 더 키워놓고 석축도 쌓고 아, 잘해 놨거든. “아, 이 묘가 무서서 벌초할 놈이 없을 줄 알았더니, 이상하다.”<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아무것두 없는느무 집구석에서 그 메누리가 시아바니 생각해서, “내가 시암에 가서 우물에 가서 물이라두 지러다가 {깨까시} 해서<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내일이나 모레나 내일간에 근게 으뜸게 이 아랫마을에 가서 품돈이라도 내서 괴기근이라도 사고 뭣이냐 술병이라도 받고 짠 반찬이라도 몇마리 사서 {깨까시} 뭣이냐 거시기 해서 내가 그 노인양반들 데리다가 같이 술이라도 한잔 먹고 놀어야겄다. 어쩌면 좋냐?”<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설겆이 통에 있는 그릇을 {깨까시} 좀 씻어놓거라.

지역 김제, 완주, 임실, 장수, 정읍.

깨깟하다 형 [발음] [깨까다다/깨까타다] [대응어] 깨끗하다.

☞깨깟하다. ¶시장에 가서,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되 값도 깍지말고 음식을 {깨깟하게} 장만을 해서 오도대(?)에 가서 거기가서 석상을 차려가 지고 가 있으면 무엇인가 좋은 게 있을 것이다.<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그래 나가면 좋은 열매라던지 좋은 짐생이라던지 잡아가지고는 와서 {깨깟하게} 해서 그 먹을 만큼 해 해 준단 말이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고창, 무주, 군산, 남원, 부안, 순창, 익산, 임실, 진안, 장수, 김제, 완주.

깨깟허다 형 [발음] [깨까더다/깨까터다] [대응어] 깨끗하다.
어떤 대상에 좋지 않은 이물질이 들어 있지 않다. ¶참 자리 하나 {깨깟헌} 놈 하나 사갖고 오라고 그렸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나는 참 잘 얻어먹고 왔네, {깨깟허게} 히줘서 잘 얻어먹고 왔네.<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그 방석 그 깔고앉은 방석을 {깨깟허게} 싯쳐서 싸서나 줌서, "이놈 갖고가서 서울장안이 가서나 팔어갖고 오시요." <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아 신 삼는 뱅이(방이) 얼마나 {깨깟헐} 것여.<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고창, 김제, 군산, 정읍, 진안.

깨끄름하다 형 [대응어] 께끄름하다.
께적지근하고 꺼림하여 마음이 내키지 않다. ¶"머시가 {깨끄름허요}?" 공허는 눈치빠르게 손판석의 말꼬리가 흐려지는 것을 잡아챘다.<조정래, 아리랑>
지역 김제.

깨끼 명 [대응어] 새끼손가락.
다섯 손가락 가운데 다섯째 손가락. ¶{깨끼에} 반지를 끼워 줬어.
지역 전북.

깨끼발구락 명
다섯 발가락 가운데 다섯째 발가락.
지역 전북.

깨끼손가락 명 [대응어] 새끼손가락.
다섯 손가락 가운데 다섯째 손가락. ¶나는 침을 얻다(어디다) 놨느냐 하면 그 동상 {깨끼손가락} 것따가(거기에다가) 침을 놓고 왔어.<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부안.

깨끼손구락 명 [대응어] 새끼손가락.
☞깨끼손가락.
지역 김제, 완주.

깨끼손꾸락 명 [대응어] 새끼손가락.
☞깨끼손가락.
지역 임실.

깨끼셍꾸락 명 [대응어] 새끼손가락.
☞깨끼손가락.
지역 남원.

깨끼안손구락 명 [대응어] 약손가락.
다섯 손가락 가운데 네 번째 손가락. ¶{깨끼안손구락에다} 반지를 끼워 주며 겔혼하자 그러데.
지역 전북.

깨다랍다 형 [대응어] 까다롭다.
성미나 취향 따위가 원만하지 않고 별스럽게 까탈이 많다.
지역 전북.

깨댕이 명 [대응어] 알몸.
아무것도 입지 않은 몸. ¶{깨댕이로} 물에 들어

갔어.
지역 전북.

깨딱하면 부 [발음] {깨따가면/깨따카면} [대응어] 까딱하면.
☞까딱허면. ¶"예, 제가 말을 했읍니다." "아, 그러면 그렇지. {깨딱하면} 중헌(所重한) 며느리 보낼뻔 했구나 도로 가자." 그래서 도로 자기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서<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완주.

깨딱허다 동 [발음] {깨따거다/깨따커다} [대응어] 까딱하다.
움직이거나 변동되어서는 안 될 것이 조금이라도 움직이거나 잘못 변동되다. ¶떠나감서나 즈집을 돌아보면, {깨딱허다가} 돌부처로 변헌다아.<이병철, 모래내 모래톱>
지역 전북.

깨딱허면 부 [발음] {깨따거면/깨따커면} [대응어] 까딱하면.
☞까딱허면. ¶떠나감서나 즈집을 돌아보면, {깨딱허다가} 돌부처로 변헌다아.<이병철, 모래내 모래톱>
지역 완주.

깨똥불 명 [대응어] 반딧불.
☞개똥불.
지역 전북.

깨를 벗다 【관용표현】 [대응어] 바지를 벗다. 또는 발가벗다.
☞꾀를 벗다. ¶헌디 그걸 비다가 인자 보시고는 쫓아가가지고는 {깨를 벗고} 그놈들 한테다가 빤듯이 들어누워 오즘을 싸심서<한국구비문학대계, 전남보성군편>
지역 전북.

깨미 명 [대응어] 개미.
주로 연싸움을 위하여 연줄에 바르는 고운 유리 물질. ¶{개미를} 먹인 연줄이 튼튼하다 ¶연싸움에서 이기려면 여러 가지를 잘 히야혀. 연도 튼튼하게 만들어야 허고, 실도 질겨야혀. 글고 실에 {깨미를} 잘 먹여야 혀. 알간?
지역 전북.

-깨미 【연결어미】
어떤 일에 대한 추정을 이유로 들 때 사용하는 연결 어미. ¶머시매드러고 {놀깨미도}(놀까 봐서도) 조심시기고<전북지역어, 임실> ¶사밀, 사밀 후에 가는 거슨 부모 도리로 머 짐생이나 행이나 손대고 {그릴깨미} 사밀 읻따가 가지요.(삼일, 삼일 후에 가는 것은 부모 도리로 뭐 짐승이나 행여나 손대고 그럴까 봐서 삼일 있다가 가지요.)<전북지역어, 임실> ¶주위에서 무를 막 어만디로 {날라갈깨미} 막 군데군데 이제 지러다가 놔두고는 폭: 타머는 재가 푸연노미 기양 검나. 그러먼.(주위에서 물을 막 다른 데로 날라갈까봐 막 군데군데 길어다가 놓아두고는 폭 타면은 재가 뿌연한 것이 그냥 겁나. 그러면.)<전북지역어, 임실>
지역 임실.

깨벗다 동 [대응어] 발가벗다.
☞꾀벗다. ¶정신이 읎어서 안직 몰르는갑는디 나도 {깨벗고} 있다는 것이나 알아두더라고.<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깨병 명 [대응어] 꾀병.
아픔이나 괴로움, 어려움 따위를 거짓으로 꾸미거나 실제보다 부풀려서 나타내는 태도. ¶얘가 학교가 가기 싫은지 {깨병을} 피운대요.

지역 완주, 임실, 장수, 군산.

깨빵이 명 [대응어] 고삐.
소나 염소를 말뚝에 매어 놓을 때 짐승과 말뚝을 연결하는 줄. ¶깨빵이만 만져도 냄새나제.
지역 전북.

깨암 명 [대응어] 개암.
개암나무의 열매. ¶{깨암}이 맛이 어쩐고?
지역 전북.

깨오락지 명 [대응어] 개구리. ¶{깨오락지} 한 번 잡을라면 한 바가치는 잡을 수 있었지.
지역 전북.

깨온하다 형 [대응어] 개운하다.
기분이나 몸이 상쾌하고 가뜬하다. ¶산에 올라가믄은, 맴이 {깨온해지구} 그런다구. ¶목욕탕으서 오랜만에 묵은 때를 비껴낭게 왼 몸이 {깨온해지는고만}. ¶땀으로 젖은 온몸을 샤워를 하고 나니 온 몸이 {깨온하다}.
지역 전북.

깨우레기 명 [대응어] 개구리. ¶저 개굴개굴 우는 놈이 {깨우레기여}.
지역 전북.

깨울창 명 [대응어] 개골창.
☞개울창.
지역 전북.

깨이 명 [발음] [깨~이] [대응어] 괭이.
자루가 길고 쇠로 된 날이 ㄱ자 모양으로 되어서 땅을 파거나 흙을 고르는 데 쓰는 농기구. ¶군은 땅을 허천나게 {깨이로} 파 젖혔어.
지역 전북.

깨잘 명 [대응어] 과자.
밀가루나 쌀가루 등에 설탕, 우유 따위를 섞어 굽거나 기름에 튀겨서 만든 주전부리.
지역 전북.

깨지 조 [대응어] 까지.
어떤 일이나 상태 따위에 관련되는 범위의 끝임을 나타내는 보조사. 또는 이미 있는 것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거그깨지만} 허고 오늘은 이만 허자. ¶날도 우중충헌디 {너깨지} 왜 그러냐.
지역 남원.

깨평 명 [대응어] 개평.
노름이나 내기 따위에서 남이 가지게 된 몫에서 조금 얻어 가지는 공것. ¶{깨평} 얼매씩 주고 낭게 남는 것도 없고만.
지역 전북.

깩광스럽다 (客광스럽다) 형 [대응어] 객스럽다.
쓸데없고 실없는 느낌이 있다. ¶먼길을 떠나는 하나의 눈물이 다른 또하나의 눈물을 불러 어거지로 길동무를 삼으려 했다. 멀쩡하던 콧잔들이 {객광스럽게도} 갑자기 시큰해지는 바람에 그는 한동안 몹시 당황했다.<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허어 참, 오래 살다보니깨 베라벨 {객광시런} 소리를 다 듣네!" 그 순간 거의 동시에 출발한 종술의 시선과 부월의 시선이 중간에서 딱 맞부딪쳤다.<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깩깩 부 [대응어] 꿀꿀.
돼지 따위가 내는 소리를 흉내내는 말. ¶돼지가 {깩깩} 소리를 내면서 울어, 여그서는.
지역 고창.

꺢이다 동 [대응어] 깎이다.

깎아지다. ¶옌필이 잘 {꺢이는가}? ¶곧 추석명절도 돌아오는디 애들 머리도 {꺢이고} 목욕탕에도 한번 댕겨와야겄네.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해설 '깎이다'의 제1 음절 모음이 전설모음 /ㅣ/의 영향을 받아 움라우트 현상을 겪어서 '꺢이다'가 된 것으로 보인다.

깬새기 명 [대응어] 꽹과리.

풍물놀이와 무악 따위에 사용하는 타악기의 하나. 놋쇠로 만들어 채로 쳐서 소리를 내는 악기로, 징보다 작으며 주로 풍물놀이에서 상쇠가 치고 북과 함께 굿에도 쓴다. ¶{깬새기를} 치다.

지역 정읍, 고창, 남원.

깬시기 명 [대응어] 꽹과리.

풍물놀이와 무악 따위에 사용하는 타악기의 하나. 놋쇠로 만들어 채로 쳐서 소리를 내는 악기로, 징보다 작으며 주로 풍물놀이에서 상쇠가 치고 북과 함께 굿에도 쓴다. ¶징 이써야 되고? 그다메 또, 또 머가인찌? 소구, {깬시기}, 징, 장:: 구가튼.<지역어 자료 총서, 고창>

지역 고창, 남원.

깬재깬재 감 [대응어] 곤지곤지.

젖먹이에게 왼손 손바닥에 오른손 집게손가락을 댔다 뗐다 하라는 뜻으로 내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 또는 젖먹이가 왼손 손바닥에 오른손 집게손가락을 댔다 뗐다 하는 동작.

지역 남원.

깰탕 명 [대응어] 맨몸.

아무것도 입지 아니한 몸.

지역 전북.

깻목 명 [대응어] 깻묵.

깨에서 기름을 짜내고 남은 찌꺼기. ¶꼭꼭 그 체이나 쳐가꼬 그 {깻목을} 다 체이다 쳐요.<2007 전북 군산> ¶{깻목} 덩어리를 사용하려면 흙과 혼합한지 일주일이 지난 후에 파종해야 한다. ¶배도 고픈짐에 {깻목} 한 쪼각을 입에 넣고 씹어봉게 꺼끄라서 도저히 목구녁에 넘어가덜 안더라고.

지역 군산.

깻잎지 명 [대응어] 깻잎 김치.

깻잎으로 담근 김치. ¶깬닙을 깨깟이 시쳐가꼬, 버무린 양념을 발라서 담으면 그거이 {깬닙지여}.

지역 전북.

해설 '깻잎'에 김치를 나타내는 전북 방언 '지'가 연결된 합성어이다. 표준어로는 '깻잎 김치'라고 한다. 전북 방언에서는 '깻잎지'를 '깻잎짐치'라고도 한다.

깻잎짐치 명 [대응어] 깻잎 김치.

☞깻잎지.

지역 전북.

깽께지다 동 [대응어] 감아지다.

머리나 몸이 물로 씻어지다. ¶머리가 잘 {깽께지는가}?

지역 남원.

깽끼 명 [대응어] 새끼손가락.

다섯 손가락 가운데 다섯째 손가락.

지역 전북.

깽끼손가락 명 [대응어] 새끼손가락.

다섯 손가락 가운데 다섯째 손가락. ¶{깽끼손가락에} 반지 낑기고 댕기는 사람도 있도만.

지역 익산, 장수, 정읍, 남원, 군산, 진안, 완주.

깽끼손고락 명 [대응어] 새끼손가락.
☞깽끼손가락.
지역 정읍.

깽끼손구락 명 [대응어] 새끼손가락.
☞깽끼손가락.
지역 남원, 군산, 진안.

깽끼송까락 명 [대응어] 새끼손가락.
☞깽끼손가락. ¶{깽끼송까락이라고} 하고 새끼손 꾸락이라고도 하고.
지역 완주.

깽뚱하다 형 [대응어] 엉뚱하다.
지끔까지의 일이나 상식과 생판 다르다. ¶만두가 맛있다 보니 별 {깽뚱한} 생각까지 볼가진다고 그는 혀를 찼다.<이정환, 샛강>
지역 전북.

깽마기 명 [대응어] 꽹과리.
☞꽹매기.
지역 전북.

깽매기 명 [대응어] 꽹과리.
☞꽹매기. ¶그러니 {깽매기같이} 가볍고 야박스런 그 시어머니와 성갈부터 맞지 안혔을건 오히려 지당한 노릇일겝니다.<채만식, 천하태평춘>
지역 전북.

깽맹이 명 [대응어] 꽹과리.
풍물놀이와 무악 따위에 사용하는 타악기의 하나. 놋쇠로 만들어 채로 쳐서 소리를 내는 악기로, 징보다 작으며 주로 풍물놀이에서 상쇠가 치고 북과 함께 굿에도 쓴다.
지역 전북.

깽메기 명 [대응어] 꽹과리.
☞꽹매기.
지역 군산, 익산, 장수.

깽쇠 명 [대응어] 꽹과리.
풍물놀이와 무악 따위에 사용하는 타악기의 하나. 놋쇠로 만들어 채로 쳐서 소리를 내는 악기로, 징보다 작으며 주로 풍물놀이에서 상쇠가 치고 북과 함께 굿에도 쓴다. ¶자네 {깽쇠} 칠랑가?
지역 전북.

깽이[1] 명 [대응어] 괭이.
☞깨이. ¶집 옆에 밭 귀퉁이에 가서 그것보고 파락 항께, {깽이로} 언 땅얼 파 껏이요. 일곱살 먹은 것이? 못 파제. 고놈얼<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20>
지역 전북.

-깽이[2] 【접미사】
((수를 나타내는 말과 결합하여))그즈음을 낮잡아 이르게 만드는 접미사. ¶내가 {팔십깽이} 다 된게.
지역 전북.

꺼꿀로 부 [대응어] 거꾸로.
방향, 순서 등이 반대로 되게. ¶자는디 아랫방에서는 그 주막쟁이 이쁜 여자가 아랫방에서자아. 자넌개, 웃방에서 자넌개 이놈이 {꺼꿀로} 자아. 대가빡(머리)를 아래방에다 두르고 여자 자는 엿을 들을라고. 자던개비여.<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돌이는 친구가 부르자마자 빨리 나오느라 옷을 {꺼꿀로} 입은 것도 모르는 바보래요. ¶한놈이 올라가서 본게 아 {꺼꿀로} 갖다 집어넣은게 발이 뵐 건 사실 아닙니까.<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태극기가 {꺼꿀로} 달린 것을 모르는 체 졸업식이 시작되었다. ¶철

봉에서 {꺼꿀로} 매달려 있어 보아라.
지역 군산, 남원, 부안, 정읍.

꺼꿀이 명 [대응어] 역아.
출산할 때, 머리부터 나오는 정상의 경우와는 달리 다리부터 나온 아이. ¶아이고야, 말도 말아라. 너가 {꺼꿀이여서} 내가 널 낳는다고 얼매나 고생혔는 줄 아냐? 넌 내헌태 잘 히야 한다잉. ¶쟈는 {꺼꿀이}로 태어났는지 뭘히도 청개구리 같이 반대만 허고, 허는 일마다 어긋장 나는 소리만 헌당게.
지역 전북.

꺼끔하다 형 [대응어] 뜸하다.
잠시 뜨음하다. 또는 좀 뜨음하다. ¶헌단 말도 못 허고 안 헌단 말도 않고 걍 {꺼끔허고} 가만히 있은게<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
지역 전북.

꺼끔해지다 동 [대응어] 뜸해지다.
자주 있던 왕래나 소식 따위가 한동안 없어지다. ¶잠시 {꺼끔해지는} 빗소리를 대신하여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짬을 메우고 있었다.<한국소설문학대계, 윤흥길, 장마, 35>
지역 전북.

꺼니 명 [대응어] 끼니.
아침, 점심, 저녁과 같이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먹는 밥이나 행위. 또는 밥을 먹는 횟수를 세는 단위. ¶{꺼니}를 걸르고 하는 게 일상다반사여. ¶밥 한 {꺼니} 먹고 가기시요?
지역 전북.

꺼떡하면 부 [발음] {꺼떠가면/꺼떠카면} [대응어] 까딱하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또는 습관처럼 자주. ¶궁게 언제까장 이 지랄발광헐 거여 궁게 궁게 북한이 외국이여 {꺼떡하면} 4천만 동포, 동포 허는디<김용택, 섬진강> ¶그들은 하나같이 경제 안정에다 통일 어쩌고 저쩌고 {꺼떡하면} 전후세대는, 젊은이들은<전쟁을 겪지 않아 뭘 모른다느니 도덕이 마비되었다느니<김용택, 섬진강> ¶누가, 어느 누가 그 향기로운 도덕을 마비시켰는지는 숫제 뺑긋도 안하면서 {꺼떡하면} 맨맞한 백성들만 나무라며 헌다는 소리들이 우리도 이제 이만큼 살면 조금만 더 참으면<김용택, 섬진강>
지역 전북.

꺼떡허면 부 [발음] {꺼떠거면/꺼떠커면} [대응어] 까딱하면.
☞꺼떡하면. ¶그저 조께만 비우에 틀어지면 그렇게, {꺼떡허먼} 잡어다가 덕석에 몰아서 치는 거이 일임서도, 매안 양반들 쌀 떨어지고 돈 쓸 일 갑재기 생기먼,<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꺼뜩허면 부 [발음] {꺼뜨거면/꺼뜨커면} [대응어] 까딱하면.
☞끄덕허면. ¶"자는 {꺼뜩허면} 삐치고 지랄여".
지역 완주.

꺼뜻하다 형 [발음] {꺼뜨다다/꺼뜨타다}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 동네 사람들은 기질이 괄괄하고 {꺼뜻하게} 큰소리를 잘 지르는디, 이것은 바댓가가 시끄럽고 배사람들의 성질이 거칠고 막돼먹어서 그려.
지역 김제.

꺼뜻하먼 부 [발음] {꺼뜨다먼/꺼뜨타먼} [대응어] 까딱하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또는 습관처럼 자주. ¶{꺼뜻하먼} 이제꺼정 쌓아왔던 일들이 다 망가져 버리겄어. ¶요즘 엄마는 {꺼뜻하먼} 화를 내고

{꺼뜻하먼} 울고.
지역 전북.

꺼랭이 명 [대응어] 삼태기.
☞거랭이.
지역 남원, 임실.

꺼렁탱이 명 [대응어] 삼태기.
흙이나 쓰레기, 거름 따위를 담아 나르는 데 쓰는 기구. ¶삼태기는 꺼렁탱이라고 마니 쓰제
지역 임실.

꺼림직하다 형 [발음] {꺼림지가다/꺼림지카다} [대응어] 꺼림칙하다.
마음에 걸려서 언짢은 느낌이 매우 크다. ¶영주는 {꺼림직한} 생각을 억지로 접어놓고 행여 빛다른 눈치를 보일세라 끔찍 조심해서 대하는 것이다.<채만식, 明日>
지역 전북.
해설 표준어에 '꺼림하다'가 있는 걸로 보아 '꺼림'은 의태어로 보인다. 표준어 '꺼림칙하다'는 '꺼림'에 형용사 파생 접미사 '-칙하-'가 연결된 것이다. 전북 방언 '꺼림직하다'는 '꺼림'에 형용사파생접미사인 '-직하-'가 연결된 것이다.

꺼마리 명 [대응어] 거머리
☞거마리.
지역 전북.

꺼망 명 [대응어] 숯.
나무를 숯가마에 넣어 구워 낸 검은 덩어리의 연료. ¶{꺼망을} 태우다
지역 전북.

꺼머다 형 [대응어] 꺼멓다.
물체의 빛깔이 진하게 검다. ¶{꺼머서} 뵈기 실타.<2011년 중국 무주촌 보고서-최종>
지역 전북.

꺼머리 명 [대응어] 거머리
☞거마리. ¶{꺼:머리}<한국방언어휘자료집_전북편>
지역 장수.

꺼먹동자 (←꺼먹瞳子) 명 [대응어] 검은자위.
눈알의 검은 부분. ¶{꺼먹동자가} 흐리멍텅하네.
지역 무주.

꺼먹솟 명 [대응어] 가마솥.
아주 크고 우묵한 솥. ¶(양은솥) 저게 솟이가니? 꺼먹솟. 큰 놈. 옛날 꺼먹솟이지.
지역 전북.

꺼먹창 명 [대응어] 검은자위
☞거멍창
지역 무주

꺼멍솟 명 [대응어] 가마솥.
아주 크고 우묵한 솥. ¶가마솥이 크고 씨꺼멍개 {꺼멍솟이라구} 그러지. ¶{꺼멍솟에} 소죽을 끓여 놓아라. ¶많은 가족에게 줄 밥을 할려면 {꺼멍솟에서} 한꺼번에 하여 나누어 먹었다.
지역 임실.

꺼멍창 명 [대응어] 검은자위
☞거멍창
지역 김제, 남원, 임실, 무주.

꺼뻑 부 [대응어] 깜빡.
눈이 잠깐 감겼다 뜨이는 모양. 기억이나 의식 따위가 잠깐 흐려지는 모양. ¶잠이 {꺼뻑} 들었어. {꺼뻑} 들었는데, 잔디에서 불이 댈구 타 들어오는데 그 개가 보닝게는, 주인은 깨울 용기두 없구, 그래서 불이가 이렇게 타오는 대로 그 또

랑이 가참던가 물에가 빠져가지구서는 잔디밭에가 굴르구 또 빠져가지구서는 잔디밭에가 굴르구.<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전북.

꺼생이 명 [대응어] 지렁이. ¶옛적에는 {꺼생이는} 눈이 있어서 세상을 훤히 볼 수 있었다.<구비문학대계 진안군> ¶{꺼생이는} 지 눈을 가재한티 주고 가재는 금띠를 받어서 목에다 둘렀다.<구비문학대계 진안군> ¶{꺼생이는} 눈하고 금띠하고 바꾼 것이 원통해서 비가 올때는 땅속에서 아또르르르 하고 운다고 한다.<구비문학대계 진안군>
지역 진안.

꺼시름 명 [대응어] 그을음.
어떤 물질이 불에 탈 때에 연기에 섞여 나오는 먼지 모양의 검은 가루. ¶{꺼시름}, 꺼시름 쪘다고.<2008 전북 고창> ¶타고 있는 촛불에서는 {꺼시름이} 많이 나온다.
지역 고창.

꺼실다 동 [대응어] 그슬리다.
☞끄실르다.
지역 고창.

꺼적 명 [대응어] 거적.
짚을 두툼하게 엮거나, 새끼로 날을 하여 짚으로 쳐서 자리처럼 만든 물건. ¶21618 거적 꺼적, {꺼적} 친다고, 꺼저걸<2008 전북 고창> ¶"이만저만 허는디 기양 나무도 갖다 주고 헌 사람이 저러는디 여그서 기양 {꺼적을} 덮어 놓고 잤으니 어떻게 헐거냐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인제 마지막 죽을 챔인게. 인제 먹으라고 근게 먹지도 안허고 {꺼적으다} 이케 몰아서 그전이는 작두로 죽였어. 꺼적으다 몰아서는 죽일라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고창.

꺼적눈 명 [대응어] 거적눈.
윗눈시울이 축 늘어진 눈. ¶처진 {거정눈을} 깜빡이는디 불쌍히 죽겠드만.
지역 전북.

꺼적때기 명 [대응어] 거적.
☞꺼적. ¶{꺼적때기} 하나라도 있으면 춥지는 않겄는디.
지역 무주, 완주.

꺼직 명 [대응어] 거적.
짚을 두툼하게 엮거나, 새끼로 날을 하여 짚으로 쳐서 자리처럼 만든 물건.
지역 전북.

꺼직이 명 [대응어] 거적.
짚을 두툼하게 엮거나, 새끼로 날을 하여 짚으로 쳐서 자리처럼 만든 물건. ¶{꺼지기를} 깔고 자는 사람도 있고 그러제.
지역 전북.

껀덕지 명 [대응어] 건더기.
☞건덕지.
지역 전북.

껀디기 명 [대응어] 건더기.
국이나 찌개 따위의 국물이 있는 음식 속에 들어 있는 국물 이외의 것. ¶라면 {껀디기}를 다 건져먹구서는 멀국에 밥을 말아서 먹었지. ¶국물 속에 {껀디기도} 있으니 휘 저어 껀디기 좀 건져 먹거라.
지역 무주.

껀떡하먼 부 [발음] [껀떠가먼/껀떠카먼] [대응어] 까

딱하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또는 습관처럼 자주. ¶{꺼떡하면} 큰일이 생기는 벱이여. ¶{꺼떡하면} 신경질을 있는 대로 내닌께 옆에 사람이 없지.
지역 전북.

껀뜩하먼 부 [발음] [껀뜨가먼/껀뜨카먼] [대응어] 까딱하면.
☞껀떡하먼.
지역 전북.

껀뜻하면 부 [발음] [껀뜨다면/껀뜨타면] [대응어] 걸핏하면.
☞건듯하면.
지역 전북.

껂기다 동 [대응어] 끊기다.
끊어지다. ¶기차가 {껂겨서} 집에도 못 간다.
지역 완주.

껄매다 동 [대응어] 꿰매다.
옷 따위의 해지거나 뚫어진 데를 바늘로 깁거나 얽어매다. ¶어디 새옷이 있간디? 다 헌옷 {껄매} 입었제. ¶니가 무슨 바느질을 혀. 내가 {껄맬랑게} 거그 놔 둬.
지역 전북.

껄쩍지근하다 형 [대응어] 꺼림칙하다.
일이 잘 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않아 마음에 걸리는 느낌이 있다. ¶"그 중헌걸 빼묵고 지내가면 맘이 {껄쩍지근히서} 담 이얘기가 귀에 안 들어옹게 그러제."<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해설 의태어 '껄쩍'에 형용사 파생 접미사 '-지근하-'가 연결되어 만들어진 어휘로 보인다.

껌다 동
손이나 옷 따위에 때가 껴 더러워지다. ¶옷 {껌었으먼} 빨게 내놔. ¶손 {껌은게} 만지지 말고 냅둬.
지역 전북.

껌대기 명 [발음] [껌때기] [대응어] 껍질.
☞껍데기.
지역 군산, 정읍.

껌장 명 [대응어] 검댕.
그을음이나 연기가 엉겨 생기는, 검은 물질. ¶부엌 천장에 {껌장이} 많이 붙어있다.
지역 군산, 정읍.

껍닥 명 [대응어] 껍데기.
물체의 겉을 싸고 있는 물질. ¶나무 {껍닥} 벳게 먹고, 풀뿌랭이 캐 먹고, 또랑물 퍼 마시고 살어야제잉……. <최명희, 혼불> ¶이, 도적년아. 말 {껍닥을} 벗겨 3년을 말렸는디 어서 말이 뛰쳐나가?<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응, 응 총각보고. 그래서 삼년만에 새 {껍닥을} 벳겨서 그놈을 두루마기를 해입고 서울 장안에 들어간개로 인제, 그 큰애기는 임금 마누래가 되아부렀는디,<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호두{껍닥은} 단단하여 뻰찌나 돌멩이로 깨야지.
지역 고창, 남원, 순창, 임실, 부안.
해설 표준어에서 '껍데기'는 "단단한 물질"을 뜻하고 '껍질'은 "단단하지 않은 물질"을 뜻한다. 하지만 전북 방언의 '껍닥'은 표준어의 '껍데기'와 '껍질'을 모두 아우르는 뜻을 가지고 있다.

껍덕 명 [대응어] 껍질.
☞껍닥. ¶계란 껍덕<한국방언어휘자료집_전북편> ¶보자 악에 바처 날뛴 것을 포수가 잡았대요. 그래 {껍덕은} 뱃겨서, 그전에도 서울로 보내는 법이 있던가<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탈메신은 비시리 {껍덕을} 밑에다 대는가

요?<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남원, 진안.

껍디기 명 [대응어] 껍데기.
물체의 겉을 싸고 있는 물질. ¶열분 백분 맞는 말이요. 그눔얼 요분 참에 단단허게 몰아쳐서 비얌 {껍디기} 빗기대끼 군복을 홀랑 벗게서 다시는 못 걸치게 맹글어야 허요.<조정래, 태백산맥> ¶게{껍디기} 하나면 밥 한그릇 뚝딱 먹을 수 있지.
지역 무주, 장수, 진안.
해설 표준어에서는 '껍데기'는 "단단한 물질"을 뜻하고 '껍질'은 "단단하지 않은 물질"을 뜻한다. 하지만 전북 방언의 '껍디기'는 표준어의 '껍데기'와 '껍질'을 모두 아우르는 뜻을 가지고 있다.

껍벅거리다 동 [대응어] 끔벅거리다.
빛 따위가 자꾸 갑자기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하다. 눈을 잠깐씩 감았다 떴다 하다. ¶전등이 껍벅거린다. ¶눈을 껍벅거린다. ¶보람이는 가끔 눈을 껍벅 {껍벅 거렸다}.
지역 전북.

껍보리 명 [대응어] 겉보리.
☞껕보리. ¶없는 살림에 으디서 {껍보리} 스 말만 생겨도 요게 웬 홍자(횡재)나, 허고는 대번에 기생첩 얻을 궁리부텀 먼첨 헐 인간이라니깨<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고창, 군산.

껍적 명 [대응어] 껍데기.
☞껍닥. ¶그 조개가 {껍적이} 딱딱히서 잘 까지지도 않어.
지역 정읍.

껍줄 명 [대응어] 껍질.
물체의 겉을 싸고 있는 단단하지 않은 물질. ¶{껍줄을} 벳겨가지고 먹어야지. ¶늙은호박 수제로 긁어. 그 전이는 멍청히서 그런가. {껍줄} 없이.
지역 고창, 김제, 무주,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 군산, 남원.

껑끄다 명 [대응어] 자르다.
토막을 내거나 끊어 내다. ¶매급시 꽃을 {껑끄지} 마라.
지역 남원.

껑크다 동 [대응어] 꺾다(삭정이를).
나뭇가지 등을 구부려 끊다. ¶삭정이를 {껑크다}
지역 전북.

껄까리 명 [대응어] 겉가루.
밀을 확에 갈 때 처음에 나오는 껄끄럽고 빨간 질이 낮은 가루.
지역 전북.

껕보리 명 [대응어] 겉보리.
탈곡을 할 때 겉껍질이 벗겨지지 아니하는 보리. ¶이 {껕보리} 숭년에 피죽 한 그륵도 없이.<최명희, 혼불> ¶엄마는 작은 함박으로 {껕보리를} 퍼 담아 아랫마을 부안댁에게 가져갔다. ¶{껕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갓집 신세 안진다는디 처가살이가 벌써 삼년이네. ¶{껕보리허고} 쌀보리허고 밀허고 세가지 헬씨요.<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껕보리는} 그 맥주용으로 마니 드러가죠.<2007 전북 군산>
지역 전북.

껕불제 명 [대응어] 왕겨.
벼에서 처음 벗긴 굵은 겉겨. ¶{껕불제를} 벗기다.
지역 전북.

껕입 명 [대응어] 겉잎.

☞껕입. ¶지충개야 지충개야/마사산천 지충개야/{껕입} 겉은 우리 어머니/속잎 같은 나를 두고/싫은 덕시 가셨는가/시수물언 쑥물로 허시고/뗏장 이불 둘렀는가(지칭개야 지칭개야/만산산천 지칭개야 우리 겉잎 같은 우리어머니/속잎 같은 나를 두고/싫은 듯이 가셨는가/세수물은 쑥물로 하시고/뗏장이불 둘렀는가)<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임실 신세타령 - "지충개야 지충개야")

지역 임실.

-께 【종결어미】 [대응어] -을게.

해할 자리에 쓰여, 어떤 행동에 대한 약속이나 의지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 ¶밥 먹고 {가께}.<김중진(1984b)> ¶지비 {잇스께}.<김중진(1984b)> ¶공부 잘 {허께}.<김중진(1976)> ¶밥 {머그께}.<김중진(1976)>

지역 전북.

해설 표준어형의 '-을게[을께]'나 '-ㄹ게[ㄹ께]'와 비교하면 '-ㄹ'이 없다는 점이 다르다.

께그마리 명 [대응어] 꾀꼬리.

꾀꼬릿과의 새. ¶{께그마리} 우는 소리가 들린다.

지역 전북.

께끼발꾸락 명 [대응어] 새끼발가락.

☞깨끼발구락.

지역 전북.

께다 동 [대응어] 꿰다(실을).

실이나 끈 따위를 구멍이나 틈의 한쪽에 넣어 다른 쪽으로 내다. ¶먼저 바늘에다가 실을 {껜다구}. 고 다음에 실 끄트머리를 쨈매.

지역 전북.

-께라우 【종결어미】 [대응어] -ㄹ게요.

해요할 자리에 쓰여, 어떤 행동에 대한 약속이나 의지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 ¶예 국밥만 주는디 저 거시기, 저 돈은 내일 {드리께라우}.<채만식, 停車場近處> ¶{했당께라우}.<정주환(1981)>

지역 고창, 부안, 정읍.

께름직하다 형 [대응어] 꺼림칙하다.

☞꺼림직하다. ¶정재규는 아내의 서릿발 선 이 말이 영 {께름직하게} 달라붙어 활기를 낼 수가 없었다.<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꼒이다 동 [대응어] 꺾이다(被動).

물체가 구부러져서 다시 펴지지 않게 되거나 끊어지다. ¶큰 나무는 바람에도 {꼒이지} 않는다 피부가 깎여 상처가 생기다 꼒이다[완주]. ¶술 먹고 자빠졌다더니 얼굴이 많이 {꼒였네}. ¶긴 장대는 구부리면 {꼒인다}.

지역 완주, 진안, 김제, 임실, 장수, 순창, 남원.

껠딱벗다 동 [대응어] 발가벗다.

알몸이 되도록 입은 옷을 모두 벗다. ¶개울가에서 {껠딱벗은} 아이들이 물장구를 치고 논다. ¶옛 으런들 말이 봉동 사람들은 {껠딱벗고도} 삼십리는 도망갈 수 있다고 혔어.

지역 전북.

꼬개이 명 [대응어] 곡괭이.

☞꼭괭이.

지역 전북.

꼬구리다 동 [대응어] 고부리다.

한쪽으로 고붓하게 굽히다. ¶그 양반 인자 허리도 못 {꼬구려}.

지역 전북.

꼬그작꼬그작히 부 [대응어] 쪼글쪼글.
쪼글쪼글하게. ¶{꼬그작꼬그작히} 주름이 안 많여?
지역 전북.

꼬깔 명 [대응어] 고깔.
승려나 무당 또는 농악대들이 머리에 쓰는, 위 끝이 뾰족하게 생긴 모자. ¶옷과 새경만 해도 그렇지만, 머슴이 먹는 양식도 수월치 않아서, 삼시 세 끼 끼니마다 단지만한 밥 사발에 {꼬깔} 봉우리를 한 고봉밥을 담고, 샛거리 먹을 것을 고프지 않게 주어야 하는데<최명희, 혼불> ¶문구녁을 뚫고 본게, 여자는 꼬, 저 수건으로 {꼬깔을} 메고 쓰고, 남자는 장구치고, 상 하나 놓고 노인은 울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나가서 보니께 그 채서(저승차사, 差使)여. 요 머리다 이자 {꼬깔매를} 쓰고서 날날이 형체를 붙였단 말이여.<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완주, 임실, 정읍.
해설 '고깔'에 어두 경음화가 반영된 형태이다.

꼬꼽하다 형 [발음] {꼬꼬바다/꼬꼬파다} [대응어] 꼼꼼하다, 인색하다.
☞꼽꼽허다. ¶그 잘 사는 영감 하나는 잘 살고 한나는 못 산디, 잘 사는 영감이 {꼬꼽허갖고} 뭣을 안 줘.<한국구비문학대계, 전북정주시·정읍군편>
지역 전북.

꼬꼽허다 형 [발음] {꼬꼬버다/꼬꼬퍼다} [대응어] 꼼꼼하다, 인색하다.
☞꼽꼽허다. ¶{꼬꼬버게} 물 자불때 보텀 볼바가꼬, 꼬꼬비서 보텀 뚜둘기 시작허머는, 다 말르드락 고놈얼 펄렁거리서 개고 또 펄렁거리서 개고, 또 한번 뚜두러서 또 펄렁거리서 개고, 하레 점드락 그거, 고놈만 가꼬 싸와야혀.<2005 전북 남원>
지역 남원.

꼬꼽히다 형 [발음] {꼬꼬비다} [대응어] 꼼꼼하다, 인색하다.
☞꼽꼽허다. ¶꼬꼬버게 물 자불때 보텀 볼바가꼬, {꼬꼬비서} 보텀 뚜둘기 시작허머는, 다 말르드락 고놈얼 펄렁거리서 개고 또 펄렁거리서 개고, 또 한번 뚜두러서 또 펄렁거리서 개고, 하레 점드락 그거, 고놈만 가꼬 싸와야혀.<2005 전북 남원>
지역 남원.

꼬내 명 [대응어] 고양이.
☞꼬네.
지역 전북.

꼬네 명 [대응어] 고양이. ¶저그 마루 밑으가 들어가서 {꼬네} 한 마리가 나오도 들가도 안혀.
지역 전북.

꼬니 명 [대응어] 고양이.
☞꼬네.
지역 전북.

꼬다[1] 동 [대응어] 꾀다.
남을 속이다. ¶그 손톱들 밑에서도 초생달이 이쁘게 떠오르는 속눈썹도 아조 긴 처녀 여신 하나를 {꼬아왔지만}<서정주, 바람> ¶일본이 청나라 마지막 황제의 피붙이 하나를 {꼬아다} 등극시키고 그들의 괴뢰정권으로 억지로 세운 이 아득한 땅에서<서정주, 바람> ¶저것을 어떻게 {꼬아가지고} 오늘 저녁으 꼭 데리고 자야 씨겄는디<한국구비문학대계, 전북정주시*정읍군편>
지역 전북.
해설 표준어형 '꼬이다', '꾀다'는 전북 방언에서는 '꼬다'로 실현된다. 그리하여 '꼬아서, 꼬아가

지고, 꼬아다가' 따위로 활용된다.

꼬다[2] 동 [대응어] 고다(엿).

졸아서 진하게 엉기도록 끓이다. ¶엿 {꼬면} 동네 사람들한티 다 돌리고 그렸어. ¶{꼰} 엿 좀 읃어먹을라고 한참을 지달려 한나라도 받으면 아껴먹었제.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꼬대꼬대 감 [대응어] 섬마섬마.

어린아이가 따로 서는 법을 익힐 때, 어른이 아이의 의욕을 돋우기 위해 내는 소리. ¶{꼬대꼬대}, 오오 한 발짝 걸었네잉. 우리 아가 수고 혔다. 수고혔어.

지역 전북.

꼬돌빼기 명 [대응어] 고들빼기.

☞꼬들빼기.

지역 전북.

꼬두름 명 [대응어] 고드름.

☞고도롬.

지역 전북.

꼬두배기 명 [대응어] 고들빼기.

☞꼬들빼기.

지역 남원, 순창.

꼬들빼기 명 [대응어] 고들빼기. ¶{꼬들빼기로} 김치를 담그면 어른들은 밥맛 좋다는데, 애들은 쓴 맛 난다고 잘 안 먹는다.

지역 전북.

꼬들빼기지 명 [대응어] 고들빼기김치.

고들빼기로 담근 김치. ¶꼬들빼기로 짐치를 담을라먼, 물에 당가서 씬맛을 빼고 짐치를 당가야 {꼬들빼기지가} 되는 거여.

지역 전북.

해설 표준어 '고들빼기'는 전북 방언에서는 '꼬들빼기'로 발음한다. '꼬들빼기'에 '김치'를 뜻하는 전북 방언 '지'가 연결된 합성어이다. 전북방언에서는 '꼬들빼기짐치'라고도 말한다.

꼬들빼기짐치 명 [대응어] 고들빼기김치.

고들빼기로 담근 김치.

지역 전북.

꼬들삐기 명 [대응어] 고들빼기.

☞꼬들빼기.

지역 전북.

꼬등에 명 [대응어] 고등어. ¶{꼬등에는} 성질이 급해서 얼른 죽어 버려. 긍게로 {꼬등에} 회는 엄청시리 귀헌 거여.

지역 전북.

꼬라지[1] 명 [대응어] 성깔.

분노나 불만 따위를 이기지 못하고 내는 화. ¶아시아버이도 원 그렇게 말해야 하고, 시어머이도 그렇게 해야하고, 신랑도 와서 {꼬라지를} 내야 하는디, 그렇게 말하더니 새끼를 낳는데, 참 크게 될 자식을 낳아서 만석천자(萬石天子) 노릇을 하더라네.<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시집을 가라고 허면 {꼬라지}부터 내서 입도 못 벌린당게. 사람의 모습이나 행색을 속되게 이르는 말 ¶집나간 놈이 한 달도 못되서 돌아왔는디 생긴 {꼬라지}가 거지나 다름없었다

지역 전북.

꼬라지[2] 명 [대응어] 꼬락서니.

사람의 모습이나 행색을 낮잡아 이르는 말. ¶나원 별 드러운 {꼬라지허고는}.<조봉래, 풀벨골> ¶오늘따라 {꼬라지를} 부린다.

지역 전북.

꼬라지내다 동 [대응어] 성내다.
분노나 불만 따위를 이기지 못하고 화를 내다. ¶하이고, 저 포로록 {꼬라지내는} 것 잠 보소.
지역 전북.

꼬랑 명 [대응어] 도랑.
매우 좁고 작은 개울. ¶"당신 아들 하나 잘 뒀읍니다. 이게 이 앞 못 본 사람 지팽이를 부지러버리고 {꼬랑이다} 미크러 버리고 도망혔다고. 그놈 자식 고따우로 아들 교육시키냐?" 고 막 호통줄을 내여 갖.<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두 손으로 눈을 가리는 시늉을 하며], 그 호랭이가 찾어왔던 말여. 또. "저그, 저 그 {꼬랑창으로} 쪽 가면 맑은 옹달시암(옹달샘)이 있은 개 가서 그 물을 요렇게<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작은 물이 흐르는 {꼬랑에도} 작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었다.
지역 전북.

꼬랑내 명 [대응어] 고린내.
썩은 풀이나 썩은 달걀 따위에서 나는 냄새와 같이 고약한 냄새.
지역 전북.

꼬랑댕이 명 [대응어] 꽁무니, 꼬랑이.
동물의 꼬리나 물체의 끝부분을 낮잡아 이르는 말. ¶돼지 {꼬랑댕이는} 꼬부라져 있다 ¶{소꼬랑댕이가} 흔들 흔들 거린다. ¶고추 {꼬랑댕이까지} 먹었어. ¶무수(무) {꼬랑댕이라도} 있어야 저녁밥을 허지. ¶그년 {머리꼬랑댕이를} 심껏 잡아댕겨버려.
지역 전북.

꼬래비 명 [대응어] 꼴찌.
등수의 차례에서 맨 끝. ¶고 투표용지 맨 {꼬래비에다가요}, 후보자거부란을 만들어 넣자는 겁니다요.<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꼬랭이 명 [대응어] 꼬랑이.
동물의 꼬리를 낮잡아 이르는 말. ¶여우가 돼서. 백여시가 돼서, 그 {꼬랭이가} 아흔아홉 개가 있더래.<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인자 불댕이 줏어먹어서 죽게 생겼지, {꼬랭이가} 거가 빠져서 얼어서 일어나도 못허지<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소 {꼬랭이가} 흔들흔들 거린다.
지역 군산, 남원, 정읍, 임실, 무주.

꼬록 명 [대응어] 꼴뚜기. ¶{꼬록을} 잡아다가 꼬록젓을 담았어.
지역 전북.

꼬록젓 명 [대응어] 꼴뚜기젓.
꼴뚜기를 소금에 짜게 절여서 삭힌 음식. ¶꼬록을 잡아다가 {꼬록젓을} 담았어. ¶혼차 살먼 {꼬록젓} 한 종발만 있어도 반찬걱정 안허는디. ¶옛날부터 과일망신은 모과가 허고 생선 망신은 꼴뚜기가 헌다고 했지만 그것 다 헛말이여. 언제 한번 꼴뚜기로 담은 {꼬록젓} 한번 먹어봐. 마시기막히다고.
지역 전북.

꼬룬내 명 [대응어] 고린내.
☞꼬린내. ¶{꼬룬내가} 나서 죽겄네.
지역 남원, 장수, 순창.

꼬린내 명 [대응어] 고린내.
썩은 풀이나 썩은 달걀 따위에서 나는 냄새와 같이 고약한 냄새. ¶붕알 밑에 고개 처박고 찝찌름허고 시큼털털헌<아리랑3, 326> {꼬린내} 맡고 산 아전놈에 새끼가 나럴 보부상 자석이라고

항시 눈아래로<조정래, 아리랑> ¶지놈이 내 붕알 {꼬린내} 맡어야 될 것잉게."<조정래, 아리랑> ¶아들이 게을러 발을 씻지 않았는지 {꼬린내가} 나서 못 살겠네. ¶발을 얼마나 안씻었는지 발에서 {꼬린내가} 난다.

지역 전북.

해설 국어사 자료에서 '고린내'가 소급하는 최초의 형태는 19세기의 '고린?'이다. 이 '고린?'의 '?'는 '냄새'라는 뜻의 15세기 어형 '내(臭)'로 소급된다. 18세기에 어두 음절의 /ㆍ/가 /ㅏ/로 바뀜에 따라 '?'가 /ㅐ/로 바뀌고 이어 /ㅐ/가 현대어와 같은 단순모음으로 바뀐 결과, '내'가 '?'로 표기된 것이다. '고린내'의 제3 음절이 명사 '내'에 소급되므로, '고린'은 '형용사 어간+관형사형 어미'이 분석되어야 하는데, 국어사 자료에서는 '구리-'라는 용언만 나타난다(예: 온 몸이 구리고 즌믈어<1608두창언, 上, 36b>). 이 '구리-'의 관형사형에 '내'가 결합한 '구린내'는 17세기 초부터 20세기까지의 문헌에서 나타난다. 이처럼 '구리-'라는 어간이 실제로 나타난다는 점과, 출현 시대의 폭이 넓다는 점에서 '구린내'의 제1 음절의 모음만 교체되어 '고린내'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고린내'의 용언 부분이 '곯-+-?'으로 분석된다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 이러한 견해는 '골?>고?>고른>고린' 정도의 변화 과정을 상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고른>고린'의 변화 과정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꼬린네 명 [대응어] 고린내.

☞꼬린내.

지역 전북.

꼬마둥 명 [대응어] 꼬마둥이.

☞꼬마딩이.

지역 전북.

꼬마딩기 명 [대응어] 꼬마둥이.

☞꼬마딩이. ¶그 {꼬마딩기가} 간 개 포수가 왔어.<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부안.

꼬마딩이 명 [대응어] 꼬마둥이.

어린 아이를 귀엽게 이르는 말. ¶한 사람이 논에를 와 가지고, 그 총각이 {꼬마딩이가} 앉어 우니께, "아가, 아가, 너는 어디서 왔간디 장 이렇게 와서 우나?"<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그 호랭이를 잡아줘여야 헌단 노인이. "아무개야" 부른게 안에서 {꼬마딩이가} 하나 나와.<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대나무집 {꼬마딩이는} 지금쯤 어디서 잘 살고 있을까? ¶동동구리무 장사가 동네에 나타났다 하면 {꼬마딩이} 들은 신나게 뒤를 쫓아 댕겼다. ¶{꼬마딩이} 너희들은 운동장에 가서 놀아라.

지역 전북.

꼬매다 동 [대응어] 꿰매다(바늘로).

옷 따위의 해지거나 뚫어진 데를 바늘로 깁거나 얽어매다. ¶"너 총질 잘 헌다니 한 방에다 냇을 깨트려 봐라." "너 {꼬맨다니} 꼬매라."<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맷방석만한 놈이 뱃장 안에가 떨어지면서 배가 바싹 부서진개, 그 꼬매기 잘 하는 사람이 일번(바로) 줏어 {꼬맸단}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나는 브라우스 단추가 떨어져 {꼬매} 입었다. ¶밤이되면 등잔불 앞에서 구멍난 양말을 {꼬매는} 일이 어머니들의 저녁 일과였다.

지역 전북.

꼬미다 동 [대응어] 꿰다(실을).

실이나 끈 따위를 구멍이나 틈의 한쪽에 넣어 다른 쪽으로 내다. ¶봉창에다가 엽전을 넌 게 그거이 빵꾸가 났은개로 돈이 밑으로 떨어질 거 아녀. 그러니까는 인제 각시가 그것을 {꼬민다

고} 하다가 남편 허벅지를 바늘로 쿡쿡 찔렀던 개벼.

지역 고창.

꼬부댕댕하다 형 [대응어] 꼬부장하다.

매우 고부라져 있다. 또는 마음이 조금 틀어져 있다. ¶허리가 {꼬부댕댕하네}. ¶일전에 다툰 일로 아직까지 마음이 {꼬부댕댕하다} ¶그 할매 {꼬부댕댕허서} 어디 가겄냐. 다른 사람 차자봐.

지역 전북.

꼬부댕허다 형 [대응어] 꼬부장하다.

매우 고부라져 있다. 또는 마음이 조금 틀어져 있다. ¶{꼬부댕하게} 있지 말고 허리를 쭉 펴라 ¶언제까지 삐쳐서 {꼬부댕하게} 있을 것인가

지역 전북.

꼬부레허다 형 [대응어] 굽다.

한쪽으로 휘어져 있다. ¶산에 가서 나무 {꼬부레헌} 거 비어다 깔꾸리 허고.

지역 전북.

꼬부작꼬부작 부

구김살이 생기게 자꾸 함부로 구기는 모양을 이르는 말. ¶돈을 {꼬부작꼬부작} 만지싸면 지대로 남아나겄어? 돈을 소중히 다뤄야제.

지역 전북.

꼬불탱허다 형 [대응어] 꼬불탕하다.

느슨하게 고부라져 있다. ¶{꼬불탱헌} 길을 한참 동안 걸었다 ¶시골길이 꼬불탱 {꼬불탱하다}.

지역 전북.

꼬빡지다 형 [대응어] 비탈지다.

땅이 경사가 급하게 기울어져 있다. ¶바닥이 {꼬빡지다}

지역 전북.

꼬빼이 명 [대응어] 고삐.

말이나 소를 몰거나 부리려고 재갈이나 코뚜레, 굴레에 잡아매는 줄. ¶댕기는 {꼬빼이라고}<지역어 자료 총서, 무주>

지역 무주, 완주, 익산, 진안, 군산.

해설 가축 '소'나 '말'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나 '말'과 합성된 상태로 널리 쓰이고 있다. 그러나 전북 지역은 평야 지역이기 때문에 '소'가 친숙한 가축이고, '말'은 흔했던 가축이 아니어서 '소+꼬빼이', '쇠+꼬빼이' 형태로 쓰이는 것만 조사되었다.

꼬뿔 명 [대응어] 감기.

주로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걸리는 호흡기 계통의 병. 보통 코가 막히고 열이 나며 머리가 아프다. ¶봄에 맬치젓 반 동우만 남아도 있는 꼬치에 꼬치젓 담아서 꾹꾹 눌러노면 감기 {꼬뿔이래도} 걸려서 밥맛 없을 적에 오죽이나 좋간디라우<송기숙, 녹두장군> ¶"감기 {꼬뿔인지} 멋인지 속이 씨릿씨릿하고 한속이 들어서 통 갱신을 못하겄소예. 오늘 저녁에는 물레방에 못 오겄그만이라." 예동댁은 얼굴까지 찡그려 보이며 엄살을 부렸다.<송기숙, 녹두장군>

지역 전북.

해설 '감기'를 옛날에는 '고뿔'이라고 했다. '고뿔 들었다'고 해서 감기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로 흔히 사용되었다. 국어사 자료에서 '고뿔'이 소급하는 최초의 형태는 16세기에 나타나는 '곳블'이다. 이것이 '곳불'로 원순 모음화 되었다가 뒤의 음절 초성이 앞 음절의 /ㅅ/ 때문에 된소리로 되어 오늘날 '고뿔'이 된 것이다. '고뿔'은 곧 '고(鼻)+ㅅ(속격)+블(火)'의 구성으로 된 단어로 감기가 들면 코에서 불이 나는 것처럼 더운 김이 나온다고 하여 감기를 고뿔이라 불렀다고 한다. 전북 방언에서는 여전히 '강기'와 함께 '고뿔'이 감기의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고뿔'에서 어두 경음화가 일어난 '꼬뿔'이 일부 지

역에서 사용되기도 한다.

고삐 명 [대응어] 고삐.

말이나 소를 몰거나 부리려고 재갈이나 코뚜레나 굴레에 잡아매는 줄. ¶송아진 줄 알고 보닌게 꾀삐(고삐)가 떨어졌은게 송아치 맨 {꼬삐를} 목아지를 덜썩 얼어(얽어) 가지고서 묶어가지고선 끄집어 잡어 댕긴게<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전북.

해설 '고삐'의 어원은 분명하지 않다. '고삐'의 어원을 '고ㅎ[鼻], '와 '비[繩], '의 결합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바곳비'를 고려할 때, '비'가 과연 '줄'의 뜻을 가지는지 분명하지 않다. 다만, '곳비'가 '사이시옷'이 끼어 있는 두 단어의 합성형일 가능성은 있다고 하겠다. '고삐'는 17세기에 처음 나타나는데 '곳비'의 꼴이다. 19세기까지는 '곳비'가 나타나는데, 19세기에는 '곱비'가 나타난다. '곱비'는 '곳비'의 /ㅅ/가 음절 말에서 실제로 발음되는 /ㄷ/ 소리가 다음 음절의 /ㅂ/에 동화되어 /ㅂ/로 소리나는 것이다. 즉, '곳비'는 실제로 [곧삐]처럼 소리가 날 것인데, 이 형태가 [곱삐]처럼 동화되는 것이다. 20세기에 들어서야 '곱비'는 '고삐'로 나타나게 된다. 이는 '곱비'가 실제 발음에서는 [곱삐]처럼 소리가 나므로 [고삐]라는 발음과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원래 형태가 '고삐'였던 것으로 오분석을 일으키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삐'류의 단어가 가리키는 대상은 처음 나타난 17세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축 '소'와 '말'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와 '말'이 합성된 상태로 널리 쓰이고 있다.

꼬사리 명 [대응어] 고사리. ¶사재빠번 이제 된장허고, {꼬사리나} 조깨 쌀마노코, 소금너코 밥 서너그럭 헤노코 일곱 접씨 또 접씨는. 사잣밥은 이제 된장하고, 고사리나 조금 삶아 놓고, 소금 넣고<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꼬사리너물}<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지역 전북.

꼬세다 동 [대응어] 꼬드기다.

그럴듯한 말이나 행동으로 남을 속이거나 부추겨서 자기 생각대로 끌다. ¶공부해야 하니 놀자고 {꼬세지} 말아라

지역 전북.

꼬소롬하다 형 [대응어] 고소하다.

볶은 깨, 참기름 따위에서 나는 맛이나 냄새와 같다. 또는 미운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속이 시원하고 재미있다. ¶"억울허든 {꼬소롬허든} 왜 늬가 나서냐고?"<이병천, 모래내 모래톱> ¶그걸로 죽을 쑤면/색깔이 포로소롬하고 맛이 {꼬소롬하다}<김용택, 푸른나무> ¶"억울허든 {꼬소롬허든} 왜 늬가 나서냐고?"<이병천, 모래내모래톱>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꼬로솜하다'는 '고소롬하다'가 된소리로 변한 것이다. 이 어휘는 중세 국어인 '고ᄉᆞ다'에서 변한 '고소다'에 형용사 파생 접미사인 '-(으)롬하-'가 연결되어 생성된 어휘이다.

꼬소롬허다 형 [대응어] 고소하다.

☞꼬소롬하다. ¶볶아노먼 꼬소롬허니 맛있어. ¶짝은 삼춘은 가족들이 뫼일 때마다 {꼬소롬헌} 얘기를 잘 헌게 다 들 좋아허지. ¶저놈의 자슥, 꼬추농사를 망쳤다는디 왜 내 속이 {꼬소롬허지}?

지역 전북.

꼬숨 명 [대응어] 미끄럼.

((흔히 '지치다', '타다' 따위와 함께 쓰여)) 미끄러운 곳에서 미끄러지는 일. 또는 그런 놀이. ¶얼음판에서도 {꼬숨} 탈 수 있제.

지역 전북.

꼬숩다 형 [활용형] 꼬수워/꼬수와 [대응어] 고소하다.
☞고숩다. ¶토방에서 한 바퀴 빙그르르 돌고는 다시 누마루에 내려놓았다. “{꼬숩지요} ?” “응.” “한양 보겼어요?”<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꼬숭ㅜㆆ다 형 [발음] [꼬수따] [활용형] 꼬숭ㅜㆆ고[꼬수꼬], 꼬숭ㅜㆆ으니[꼬수니] [대응어] 고소하다.
볶은 깨, 참기름 따위에서 나는 맛이나 냄새와 같다. 또는 미운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속이 시원하고 재미있다.
지역 임실.

꼬스름하다 형 [대응어] 고소하다.
☞꼬소롬하다. ¶부부 일신으로 따라서 절을 떡 하니까 아이 어떻굼 되면 이것 {꼬스름하기도} 하고 어떻굼 되면 우습기도 하단 말이여<한국구비문학대계, 전남해남군편>
지역 전북.

꼬스름허다 형 [대응어] 고소하다.
☞꼬소롬하다. ¶부엌에서 {꼬스름헌} 냄새가 솔솔 올라오는구만. ¶{꼬스름헌} 이야기를 들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겄네. ¶고것 참 {꼬스름허다}. ¶얄미운 동생이 아빠한테 혼나니 {꼬스름허다}.
지역 전북.

꼬습다 형 [대응어] 고소하다.
볶은 깨, 참기름 따위에서 나는 맛이나 냄새와 같다. 또는 미운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속이 시원하고 재미있다.
지역 전북.

꼬시다[1] 동 [대응어] 꾀다.
☞꼬다.
지역 전북.

꼬시다[2] 형 [대응어] 고소하다.
볶은 깨, 참기름 따위에서 나는 맛이나 냄새와 같다. 또는 미운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속이 시원하고 재미있다. ¶어디서 {꼬신} 냄새가 나는 것 같은디. ¶아따 고놈 입담 한번 참으로 {꼬시다}. ¶그것 참 {꼬시다}.
지역 전북.

꼬시락머리 명 [대응어] 고수머리.
☞고시랑머리.
지역 전북.

꼬시랑머리 명 [대응어] 고수머리.
고불고불하게 말려 있는 머리털. 또는 그런 머리털을 가진 사람. ¶{꼬시랑머리} 너 언제 커서 내 낭군 될래.
지역 완주.

꼬시래 명 [대응어] 고수레.
☞꼬시레.
지역 전북.

꼬시래기 명 [대응어] 고수머리.
고불고불하게 말려 있는 머리털. 또는 그런 머리털을 가진 사람. ¶내 머리는 본래 {꼬시래기여}. 비오면 더 그려.
지역 임실.

꼬시레 명 [대응어] 고수레.
민간 신앙에서, 산이나 들에서 음식을 먹을 때나 무당이 굿을 할 때, 귀신에게 먼저 바친다는 뜻으로 음식을 조금 떼어 던지는 일. ¶소변이 매련데에, 방죽에다 꼭 밥을 한 술씩 떠서 “ {꼬시레!”} 했드래. 방죽에 넣고 그 자리에 와 소변을

보고 그러고는<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군산, 남원, 임실.
해설 국어사 자료에서는 '고수레'가 소급하는 형태는 19세기에 유일하게 나타날 뿐이다. 현대어의 '고수레'는 '고스레'의 제2 음절 모음 /ㅡ/가 제 1음절 /ㅗ/의 영향으로 /ㅜ/가 된 것으로 보인다. '고수레'는 '고시(高矢)+-네'로 분석되며, '고시'는 옛날 불을 얻는 방법과 농사짓고 수확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는 사람의 이름이라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으나, /ㅅ/ 뒤에서 '/ㅜ/>/ㅡ/'의 변화, 그리고 '네>레'의 변화가 일어난 이유에 대한 설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꼬시름하다 형 [대응어] 고소하다.
☞꼬소롬하다. ¶{꼬시름한} 게 으디 참지름뿐이겄어?
지역 전북.

꼬실르다 동 [대응어] 태우다.
불씨나 높은 열로 불을 붙어 번지게 하거나 불꽃이 일어나 형체가 없어지게 하다. ¶개팽이떡(가평댁) 아그들은 집이만 오믄 뭐시고 다 꼬실른게. ¶다 꼬실르고 살아야 집이 깨깟혀, 깨깟허긴.
지역 전북.

꼬십다 형 [대응어] 고소하다.
볶은 깨, 참기름 따위에서 나는 맛이나 냄새와 같다. 또는 미운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속이 시원하고 재미있다.
지역 무주.

꼬아먹다 동 [대응어] 속이다.
의도적으로 남을 속여 이익을 취하다. ¶그도 고지야 듣건 말건 한 이십살 {꼬아먹고} 쉬흔살로 댔다면 또 몰라요.<채만식, 천하태평춘>
지역 전북.
해설 표준어 '꾀다', '꼬이다'를 전라 방언에서는 '꼬다'로 발음한다. 표준어 '속이다'의 방언형 '꼬아먹다'는 "의도적으로 남을 속이다"라는 뜻을 가진다. 이 방언에서 많이 쓰는 '돌라먹다'와 의미가 매우 유사하다.

꼬아바치다 동 [대응어] 고해바치다.
어떤 사실을 윗사람에게 말하여 알게 하다. ¶"아니 당신네 수령이 시킨 대로만 해주면 그만 아니요? 듣잖으면 내일 다 {꼬아바칠} 테요." "흥! {꼬아바친다면} 누가 무서워하나?" 이렇게 큰소리는 하였어도 그는 방문을 열고 들어섰다.<채만식, 염마>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꼬아바치다'는 '告하다'가 기본형으로 '고하여 바치다'의 구성에서 '고해 바치다'로 바뀌고 '고해바치다'로 한 단어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방언에서는 '고아바치다'가 되고 된소리로 변하여 '꼬아바치다'가 되었다.

꼬아부치다 동 [대응어] 고해바치다.
☞꼬아바치다.
지역 전북.

꼬양중의 명 [대응어] 고쟁이.
☞꼬장중우.
지역 무주.

꼬오다 동 [대응어] 꾀다.
☞꼬다.
지역 전북.

꼬와먹다 동 [대응어] 속이다.
☞꼬아먹다.
지역 전북.

꼬이다 동 [대응어] 꾀다.

☞꼬다.
지역 전북.

꼬자이 명 [대응어] 고쟁이.
☞꼬쟁이.
지역 전북.

꼬장물 명 [대응어] 고장물.
땀과 먼지가 범벅이 되어 흐르는 물. ¶영주는 아이를 마루로 데리고 와서 땀이 까만 {꼬장물} 되어 흐르는 얼굴과 목을 씻어주며 달랜다.<채만식, 明日>
지역 전북.
해설 표준어형 '구정물'은 '더러워진 물'이란 뜻인데, '구정물'의 작은말이 바로 '고장물'이다. 전북 방언 '꼬장물'은 '고장물'을 된소리로 표현한 것이다. 주로 "더러운 땀"을 이를 때 쓴다.

꼬장주우 명 [대응어] 고쟁이.
☞꼬장중우.
지역 전북.

꼬장중우 명 [대응어] 고쟁이.
한복에 입는 여자 속옷의 하나. 속속곳 위, 단속곳 밑에 입는 아래 속곳으로, 통이 넓지만 발목 부분으로 내려가면서 좁아지고 밑을 여미도록 되어 있다. ¶{꼬장중우를} 입어라잉.
지역 전북, 무주.

꼬재이 명 [대응어] 고쟁이.
☞꼬쟁이.
지역 전북.

꼬쟁이 (←袴쟁이) 명 [대응어] 고쟁이.
한복에 입는 여자 속옷의 하나. 속속곳 위, 단속곳 밑에 입는 아래 속곳으로, 통이 넓지만 발목 부분으로 내려가면서 좁아지고 밑을 여미도록 되어 있다. ¶꼬장중의를 모를 거여, 이 가운데 타진 꼬장중의 있어.[조사자: {꼬쟁이요.},} 응, 꼬쟁이. 잉, 고놈을 벗어냈다 이거여. 고놈을 훔쳐다가<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할머니는 {꼬쟁이} 앞에 주머니를 만들어 그 속에다 돈을 넣고 다녔다.
지역 전북.
해설 속옷의 한 종류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고의'나 '바지'를 대신하여 '袴子'의 한자음인 '고자, 고자'에 '-앙이'를 결합시킨 '고장이'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세기에 들어서의 일이다. 19세기에 들어 접미사 '-앙이'를 사용하여 이루어진 의복 명칭으로는 '잠방이'(窮袴)<1810몽유편, 상, 10a>가 보인다. 다만, '고장이'의 형성이 접미사 '-앙이'보다는 새로운 복식형태의 출현에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도 짙다. 여기서는 이같은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한다. '고장이'의 형성을 '고의, 바지'가 뒤섞여 이루어진 '고지'에 접미사 '-앙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능성은 '고지'처럼 나타나는 어형을 찾기 어렵다는 점, "바지 모양의 하의"를 뜻하는 한자어에 '袴子'가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고장이'는 '/ㅣ/ 모음 역행 동화'가 적용되어 '고쟁이'로 표현될 수 있었으며, 이 '고쟁이'가 규범 어휘로 정착하여 현대에 이르게 된다. '고쟁이'가 널리 쓰이게 된 것은 20세기에 들어서이다.

꼬쟁중우 명 [대응어] 고쟁이.
☞꼬장중우.
지역 전북.

꼬창 (←고추醬) 명 [대응어] 고추장.
쌀이나 보리 따위로 질게 지은 밥이나 떡가루 또는 되게 쑨 죽에, 메줏가루나 고춧가루나 소금을 넣어 섞어서 만든 붉은 빛깔의 매운 장. ¶우선 밥을 고실고실허게 히갖고 밥으다 콩너물 쌂

은 것을 넣고, 찹쌀 {꼬창을} 넣고 찬지름을 느서 볶아요.<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꼬창을} 쓰덜 안허고 맨드는 비임밥도 있었지만 지금은 {꼬창을} 꼭 씁니다.<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꼬창} 허먼 순창 {꼬창이} 제일이지라이. 순창 {꼬창은} 일 년 내동 놓아두어도 변허들 안허라우.<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전북.

꼬초 명 [대응어] 고추.
☞꼬추.
지역 전북.

꼬추 명 [대응어] 고추. ¶인자 마느래를 나오라고고는 전부 나오라고는 참 숯불을 일워놓고 거그다 {꼬추를} 한주먹 갖다노니 그놈의 매운내가 오직 날 것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배불를 수는 없는 벱이여. 인자 게우 마수걸이를 혔을 뿐이여. {꼬추농사} 한 번에 다 거두는 꼬 봤어?<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매운 {꼬추를} 먹으면 입안이 얼얼하다. ¶작은 {꼬추가} 맵다는 말도 있듯이 환희는 키는 작지만 야무지단말이야.
지역 전북.
해설 15세기부터 17, 18세기에까지 '고쵸'가 계속 쓰이다가, 19세기에 나타난 '고초'는 '초'와 '쵸'의 발음 차이가 없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표기이다. 그리고 20세기에 나타나는 '고추'는 '고초'가 비어두 음절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난 '/ㅗ/>/ㅜ/' 변화를 경험한 것이며, '꼬추'는 '고추'가 어두경음화를 경험한 예이다.

꼬춧가루 명 [대응어] 고춧가루.
☞꼬춧가리.
지역 전북.

꼬춧가리 명 [대응어] 고춧가루.
붉게 익은 고추를 말려서 빻은 가루. ¶칼칼허게 먹게 {꼬춧가리} 좀 팍팍 옇어 봐. ¶김치를 담굴 때는 {꼬춧가리가} 많이 들어가야 맛이 있다.
지역 전북.

꼬치 명 [대응어] 고추. ¶아 동네서 그렇게 인심을 주고 밭도 갔다가 얻어서 {꼬치도} 갈으라, 골배기 논도 줘서 농사도 지어 멕여라, 새끼도 나가면 느이 할머이한테 할아버이한테 느이 어머이가 잘하니 느이가 예쁘다.<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전북.

꼬치부전 명 [대응어] 부전.???
고추 모양의 부전.???
지역 전북.

꼬치장 명 [대응어] 고추장.
쌀·보리 따위로 질게 지은 밥이나 떡가루 또는 되게 쑨 죽에, 메줏가루·고춧가루·소금을 넣어 섞어서 만든 붉은 빛깔의 매운 장. ¶꿀보다 더 단 건 일본 사탕 초보다 더 신 건 유면장네 {꼬치장} 독물보다 더 검은건 옥배장네 밥일레라<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뭐가 저리 많소?" "야아, 고구마도 찾아내고, 된장, {꼬치장도} 아까바서 퍼답고 그랬구만이라." "횡재했소. 그만 갑시다."<조정래, 태백산맥> ¶옹기도, 옹기도 죽 중: 너노코, 인자 그기다가 머 저 {꼬치장}, 된 된장, 꼬치장 머, 장:물 머 이렁거 점:부거기다<지역어 자료 총서, 무주> ¶오이를 썰어 {꼬치장을} 찍어먹으면 참으로 맛있지.
지역 고창, 남원, 무주, 완주, 임실.

꼬칫가루 명 [대응어] 고춧가루.
☞꼬춧가리.
지역 전북.

꼬칫가리 명 [대응어] 고춧가루.
지역 전북.

꼬칫잎짐치 명 [대응어] 고춧잎김치.
☞고춧잎짐치.
지역 전북.

꼬투래기 명 [대응어] 꼭지.
열매 또는 잎을 나무에 이어주는 짧은 줄기. ¶{꼬투래기가} 마른 수박은 맛이 없다. ¶{포도꼬투래기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다.
지역 고창.

꼬팍신 명 [대응어] 꽃신.
옛날 고무신의 앞 부리에 꽃 모양을 새겨 예쁘게 꾸민 신발. ¶아그들은 꼬팍신 신고 한복 입으면 이쁘제.
지역 전북.

꼬피 명 [대응어] 고삐.
☞꼬삐. ¶그래 인자 말 {꼬피} 잡은 놈보고 이제 집에까지 모셔다 데리고 오라고
지역 군산.

꼭갱이 명 [대응어] 곡괭이.
☞꼭괭이.
지역 남원, 완주, 임실.

꼭괭이 명 [대응어] 곡괭이.
쇠로 황새의 부리처럼 양쪽으로 길게 날을 내고 가운데 구멍에 긴 자루를 박은 괭이. 주로 단단한 땅을 파는 데 쓴다. ¶나는 눈 없소오. 봉사맹이로 부복허고 있을라면, {꼭괭이} 낫을 갈어서 꺼꾸로 치키들게 천불이 나도 열두 번만 나겄능가잉?<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꼭깨이 명 [대응어] 곡괭이.
☞꼭괭이.
지역 전북.

꼭깽이 명 [대응어] 곡괭이.
☞꼭괭이.
지역 전북.

꼭껭이 명 [대응어] 곡괭이.
☞꼭괭이.
지역 전북.

꼭꽤이 명 [대응어] 곡괭이.
☞꼭괭이.
지역 전북.

꼭꽹이 명 [대응어] 곡괭이.
☞꼭괭이. ¶당장 그놈들부터 목을 달아맵시다." "옳소! 당장 달아매요." " {꼭꽹이로} 찍어 죽입시다." 중구난방으로 악다구니가 쏟아졌다.<송기숙, 녹두장군>
지역 전북.

꼭꾕이 명 [대응어] 곡괭이.
☞꼭괭이.
지역 전북.

꼭대기 명 [대응어] 꼭지.
열매 또는 잎을 나무에 이어주는 짧은 줄기. ¶사과의 {꼭대기가} 상하지 않게 조심히 따야 한다 ¶무신 근거인지는 몰라도 수박은 {꼭대기가} 없으면 못 팔어 먹는다. ¶더웁고 다리도 아픈디 언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간다냐. ¶어서 와서 {꼬추} 꼭대기 좀 따자. ¶내가 니 {머리꼭대기에} 앉아 있승게 어문짓 하지 말고 하던 일이나 잘혀. 알겄쟈?

지역 전북.

꼭맞다 형 [대응어] 마침맞다.

어떤 조건이나 경우에 아주 꼭 알맞다. ¶새로 산 신발이 발에 {꼭맞어}. ¶글안히도 막 일어서는 참인디 {꼭맞게} 잘 왔다. ¶형이 입던 옷인데 동생이 입으니까 {꼭맞네}.

지역 군산.

꼰두박질 명 [대응어] 곤두박질.

몸을 뒤집히면서 갑자기 거꾸로 내리박히는 일. ¶저짝 산꼭대기으서 무엇인가가 {꼰두박질을} 치면서 엄청난 소리를 내서 여깄는 사람들 다 깜짝 놀랐지 뭐.

지역 전북.

꼰보 명 [대응어] 삐죽이.

사소한 일에 쉽게 토라지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얼굴에 불만이 또 한가득이고만. 쟈가 시상 제일 {삐죽이여}.

지역 전북.

꼰자리 명 [대응어] 송사리. ¶{꼰자리를} 잡으러 댕기곤 했어.

지역 전북.

꼰작스럽다 형

마음이 좁고 옹졸한 데가 있다. ¶대처나 으째 시상이 요러코 살기 {꼰작스럽게} 돼부렀데야!<조봉래, 풀뻴골>

지역 전북.

꼰지발 명 [대응어] 발돋움.

키를 돋우려고 발밑을 괴고 서거나 발끝만 디디고 섬. ¶마당에서, 마루에까지 들어찬 사람들의 머리 너머로 {꼰지발을} 딛고 넘겨다보던 콩심이네가 입을 반쯤 벌린 채 탄복한다.<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꼰지발스다 동 [대응어] 발돋움하다.

키를 돋우려고 발밑을 괴고 서거나 발끝만 디디고 서다. ¶{꼰지발스고} 채로 키 재면 되가니?

지역 전북.

꼰지스다 동 [대응어] 발돋움하다.

키를 돋우려고 발밑을 괴고 서거나 발끝만 디디고 서다. ¶키가 작아서 {꼰지스는} 모습이 우습다.

지역 전북.

꼴갑 명 [대응어] 꼴값.

격에 맞지 아니하는 아니꼬운 행동. ¶지는 잘못헌 거 없는 거 맹이로 외려 역성을 냄서 {꼴갑을} 떨고 자빠졌네.

지역 전북.

꼴갑하다 동 [발음] [꼴가바다/꼴가파다] [대응어] 꼴값하다.

격에 맞지 아니하는 아니꼬운 행동을 하다. ¶가만히 있으믄 중간은 가니께 {꼴갑하지} 말어라.

지역 전북.

꼴망태 명 [대응어] 멱둥구미.

주로 대나무나 칡덩굴로 만들어서, 소나 말이 먹을 꼴을 베어 담는 도구. ¶나는 {꼴망태} 하나 짊어지고 거그다 낫 한 자리 터억 꼽고 대문 배깥으로 나서먼, 머심살이 찌그러져도 속이 티이고, 내 세상이야 싶으드라.<최명희, 혼불> ¶마당에 깔담살이 새끼 머슴이 {꼴망태에} 낫을 찔러 메고, 바쁜 걸음을 치며 중문을 나서는 것이 보인다.<최명희, 혼불> ¶하루는 그 최 보따리양반이 머슴들 {꼴망태만} 한 보따리를 지고 늘 찾아댕기는 교도집을 들어갔그만이라.<송기숙,

녹두장군>
지역 남원.

꼴모꾸리 명 [대응어] 멱둥구미.
☞꼴미꾸리.
지역 임실.

꼴목꼬리 명 [대응어] 멱서리.
짚으로 날을 촘촘히 결어서 만든 그릇의 하나. ¶{꼴목꼬리라는} 것은 짚이로 저런 식으로 맹글아가지고 요런 거맹이로 똥고롬허게 맹글어서 써는(쓰는) 것보고 인자 {꼴목꼬리라고} 허는디 지금은 그런 거는 없어, 다 썩고 그러니까. ¶사람이 인자 손이로 갖고 댕길 만허게 한 십 키로나 한 십오 키로 그 정도, 한 이십 키로짜리 그 정도 무게를 담어가지고 들고 댕기는 것보고 {꼴목꼬리라고} 그려. ¶곡식 담어 놓고 씰어놓고 멕다리, {꼴목꼬리라고}. ¶{꼴목꼬리는} 짚으로 맹근 거이라 오래 되면 썩어, 비 맞고 바래져가지고.
지역 진안.

꼴목따리 명 [대응어] 멱둥구미.
☞꼴미꾸리.
지역 임실.

꼴미꾸리 명 [대응어] 멱둥구미.
짚으로 둥글고 울이 깊게 결어 만든 그릇. 주로 곡식이나 채소 따위를 담는 데에 쓰인다. ¶멱둥구미 21617 {꼴미꾸리}, 꼴망태라고<2005 전북 남원> ¶집씬도삼꼬(짚신도 삼고). {꼴미꾸리} 가틍 거 머 저런 걷또 맨들고.(꼴미꾸리 같은 것도 뭐 저런 것도 만들고.)<2005전북남원>
지역 남원, 임실.

꼴보 명 [대응어] 삐죽이.
잘 삐치는 사람. 보통 아이들을 가리킬 때 쓰인다. ¶저 꼴보 또 삐쳤네.
지역 전북.

꼴짱물 명 [대응어] 도랑물.
매우 좁고 작은 개울에서 흐르거나 고여 있는 물. ¶{꼴짱물에} 빠져 옷 몽치면 혼나. ¶산골에서 흐르는 물이모인 {꼴짱물이지만}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이 살고 있어요.
지역 전북.

꼴착 명 [대응어] 밭고랑.
☞밭골.
지역 순창.

꼴착지다 형 [대응어] 궁벽지다.
산이나 골짜기가 깊고 으슥하다. ¶이 {꼴착진} 디를 온다고 어찌나 고생을 했는가 몰러.
지역 전북.

꼴창 명 [대응어] 도랑.
수채 물이 흐르는 작은 도랑. 매우 좁고 작은 개울. ¶퇴끼가 저 가제 {꼴창으} 호작호작호작 허고 댕긴게 가제를 잡어먹을라고. 호작호작호작 허고 댕긴게 호랭이란 놈은 저—높은 산중으서 그 퇴끼를 잡어먹을라고 또 아장아장 내론다고.<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갖고 오라 해갖고 멍석에다 송장을 똘똘 몰아서 옛사 밤에, “이놈을 지고 가서 아무개 {꼴창에} 가서 인적기가 있으면 미고 오고 인적기가 없으면 거기다 묻고 오라.” 고 그러고는 그냥 앞성질러서 홍걸놈이 앞성질러서 가서 몰래몰래.<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꼴창물 명 [대응어] 도랑물.
매우 좁고 작은 개울에서 흐르거나 고여 있는 물. ¶옛날으는 아이들이 노는 디가 따로 있었간

디 걍 동네 {꼴창물으서} 놀고, 뒷산에 가서 놀고 그랬지 뭐.

지역 전북.

꿇다 동 [대응어] 잃다(돈을).

노름 따위에서 돈을 잃다. ¶있는 돈을 다 {꿇았다} ¶상가집에서 돈을 {꿇응게} 문제였지. 집이 가서는 마느래하고 대판거리로 싸우더라고.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꼼꾐하다 형 [대응어] 꼼꼼하다.

빈틈이 없이 차분하고 조심스럽다.

지역 전북.

꼼꾐히 부 [대응어] 찬찬히.

성질이나 솜씨, 행동 따위가 꼼꼼하고 자상하게. ¶승질이 꾐꾐혀서 뭐든 {꼼꾐히} 잘 살펴.

지역 무주.

꼼보 명 [대응어] 곰보.

얼굴이 얽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우리 담임 선생이 {꼼보} 선생이야. ¶종식이라구 잘 하는 사람 하나 있었어. 이 종식이라구 그이는 {꼼보야}. 그런데 참 잘했지. 죽었지. 문에 들어가는 철물만 죄 맨들었지.

지역 전북.

꼼삐 명 [대응어] 고삐.

☞꼬삐.

지역 전북.

꼼지다 형 [대응어] 꼼꼼하다.

빈틈이 없이 차분하고 조심스럽다. ¶{꼼져} 갖고 뭐든 그냥 그냥 안 혀. 야무져.

지역 전북.

꼽꼽시롭다 형 [대응어] 꼼꼼하다.

빈틈이 없이 차분하고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 ¶그집이는 {꼽꼽시롭기로} 소문이 나 갖고 돈 한 번 띠인 적이 없어.

지역 전북.

꼽꼽쟁이 명 [대응어] 구두쇠.

돈이나 재물 따위를 쓰는 데에 몹시 인색한 사람. ¶말도 말소. 그 {꼽꼽쟁이더러} 술 한 잔 사라고 혔다가 어트케 술 먹고 괴함을 질르고 그리서 내가 내고 나와버렀당게.<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전북.

꼽꼽하다 형 [발음] [꼽꼬바다/꼽꼬파다] [대응어] 꼼꼼하다, 인색하다.

어떤 일에 성실하거나 꼼꼼하다. 또는 베푸는 일에 지나치게 박하다. ¶{꼽꼽하게 물 잡을 때부터 밟아가지고, {꼽꼽해서부터} 두드리기 시작하면, 다 마를 때까지 그놈을 펄렁거려서 개고, 또 펄렁거려서 개고, 또 한번 두드려서 또 펄렁거려서 개고, 하루 저물도록 그거, 그놈만 가지고 싸워야해.<2005 전북 남원> ¶{꼽꼽하고} 착실하고 고정하고 그러고도 사람이 재치가 있고, 이래서 윤직원 영감의 눈에 들었습니다.<채만식, 태평천하>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꼽꼽하다'는 "꼼꼼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고, "인색하다"라는 뜻으로도 쓰고 있다.

꼽꼽허다[1] 형 [발음] [꼽꼬버다/꼽꼬퍼다] [대응어] 꼬들꼬들하다.

속은 무르고 겉은 조금 굳어 있다. '고들고들하다'보다 센 느낌을 준다. ¶풀 멕이고 볕이다 널어논디 다 안 마리고 풀기 있을 때 {꼽꼽허잖여}.

지역 전북.

꼽꼽허다[2] 형 [발음] {꼽꼬버다/꼽꼬퍼다} [대응어] 꼼꼼하다, 인색하다.

어떤 일에 성실하거나 꼼꼼하다. 또는 베푸는 일에 지나치게 박하다. ¶그 때는 참말로 암시랑토 안했는디요잉. 마님 산소는 더더욱이나 이놈이 {꼽꼽허게} 잘 살펴뵈었는디…….<최명희, 혼불> ¶{꼬꼬버게} 물 자불때 보텀 볼바가꼬, 꼬꼬비서 보텀 뚜둘기 시작허머는, 다 말르드락 고놈얼 펄렁거리서 개고 또 펄렁거리서 개고, 또 한번 뚜두러서 또 펄렁거리서 개고, 하레 점드락 그거, 고놈만 가꼬 싸와야혀.{꼼꼼하게 물 잡을 때부터 밟아가지고, 꼼꼼해서부터 두드리기 시작하면, 다 마를 때까지 그놈을 펄렁거려서 개고, 또 펄렁거려서 개고, 또 한번 두드려서 또 펄렁거려서 개고, 하루 저물도록 그거, 그놈만 가지고 싸워야해.<2005 전북 남원>

지역 군산, 남원, 정읍.

해설 전북 방언 '꼽꼽허다'는 "꼼꼼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고, "인색하다"라는 뜻으로도 쓰고 있다.

꼽꼽히 부 [발음] {꼽꼬비} [대응어] 찬찬히.

성질이나 솜씨, 행동 따위가 꼼꼼하고 자상하게. ¶바느질을 {꼽꼽히} 잘해. ¶넌 먼 일이던지 {꼽꼽히} 허지않고 대충대충 넘어가는게 문제여.

지역 고창, 부안, 순창, 장수.

꼽다 동 [대응어] 꽂다.

물체의 안쪽으로 박아 세우거나 끼우다. ¶저난지 테리비 보닝께 발꾸락 사이다가 연필을 딱 {꼽고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나왔는디 참말로 잘 그리더만.

지역 남원, 무주, 순창, 군산, 임실, 장수, 진안.

꼽발 명 [대응어] 발돋움.

☞꼰지발.

지역 전북.

꼽뱅이 명 [대응어] 고삐.

☞꼬삥이.

지역 전북.

꼽송그러지다 동 [대응어] 오그라지다.

사람이나 물체가 안쪽으로 오목하게 움츠러져 작게 되다. 물체의 거죽이 오글쪼글하게 주름이 잡히며 줄어지다. ¶찌그러지고 {꼽송그러진} 저 깡통들을 모아다 고물상에 갖다 주믄 저것도 돈이 된당게. ¶책상 우에 {꼽송그러진} 종이쪼가리가 한 무더기 있던데 좀 치우고 살아라. ¶추워서 근가 내몸이 다 {꼽송그러지네}.

지역 전북.

꼽슬머리 명 [대응어] 고수머리.

고불고불하게 말려 있는 머리털. 또는 그런 머리털을 가진 사람. ¶저 대가리가 {꼽슬머리니까}, ¶{꼽슬머리} 아저씨가 바로 우리 삼촌이야.

지역 전북.

해설 "털이나 실 따위가 고부라지게 말려 있다"는 뜻을 가진 형용사의 어근 '곱슬'과 '머리'가 더해진 형태로 볼 수 있다. 어두 경음화되어 나타난 형태로 '꼽슬머리', '꼽실머리', '꼽쓸머리', '꼽씰머리' 따위가 있으며, 두 번째 음절이 /ㅂ/의 영향을 받아 된소리화되어 표현된 형태가 실현되기도 한다. 그 예로는 '곱쓸머리', '꼽쓸머리', '꼽씰머리' 따위가 있다.

꼽슬배기 명 [대응어] 고수머리.

☞곱슬배기. ¶어린 시절에 {꼽쓸배기들은} 놀림감이 되기도 혔지만 시방은 제멋에 사는 개성시대라 그런 일이 없지.

지역 전북.

꼽실머리 명 [대응어] 고수머리.
☞꼽슬머리.
지역 무주.

꼽쓸머리 명 [대응어] 고수머리.
☞꼽슬머리.
지역 전북.

꼽장허다 형 [대응어] 꾸부정하다.
매우 구부러져 있다. ¶등이 {꼽장허다}
지역 전북.

꼽쳐먹다 동 [대응어] 꼬불치다.
몰래 감추다. ¶마치 남의 속에 들어갔다 나오기라도 한 듯 혼자서 은밀히 {꼽쳐먹었던} 두 가지 꿍꿍이셈을 상대방이 차례로 정확히 짚어내는 바람에 조술은 목덜미까지 시뻘겋게 물들 지경으로 심히 무렴해졌다.<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의 동사 '꼽치다'는 표준어 '숨기다'에 대응하는 어휘이다. 이 '꼽치다'와 '먹다'가 합성 동사를 이루었다. 대체로 '먹다'가 연결되면 부정적인 뜻이 더해진다.

꼽치다 동 [대응어] 꼬불치다
몰래 감추다. ¶얻어먹으러 달려드는 사람들은 서로 먼저 얻어먹으려고 난장판이고 감영과 부 이속과 관노들은 죽 쑤는 식량 {꼽치느라} 난장판이었다.<송기숙, 녹두장군> ¶영희는 엄마가 준 용돈을 나만이 알고 있는 책꽂이에 살짝 {꼽쳐} 놓았다. ¶어릴 때 용돈이 생기면 몰리 {꼽쳐} 두고 쬐꼼씩 빼서 쓰고 댕겼어.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의 동사 '꼽치다'는 표준어 '숨기다'에 대응하는 어휘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은 '꼬불치다'는 말을 많이 쓴다. 표준어에도 '꼽치다'가 있는데 이는 "반으로 접어 한데 합치다"라는 뜻이다. 방언에서는 이 뜻으로 '꼬불치다'가 쓰여 "허리를 구부리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꼽히다 동 [대응어] 꽂히다.
꼽히어지다. ¶우리 그 양반은 몸띵이에 바늘이 {꼽혀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양반여. ¶호랭이 머리에 어매꺼 비네가 딱 {꼽히} 가지고 있응게 저것이 우리 어맨갑다 허고 깜막 속았어.
지역 남원, 무주, 임실, 장수, 정읍, 진안.

꽁댕이 명 [대응어] 꽁무니, 꼬랑이.
동물의 꼬리를 낮잡아 이르는 말. ¶근디 거가 그 시루골 불여수락 허는디 그 호랭이는 꽁대기가 히었대야. {꽁댕이가} 흰 여순디, 그놈을 잡을래도 잡을 수가 없어.<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2.어떤 것의 끝부분. ¶치마 {꽁댕이로} 주산을 쓸어버린개 소가지가 났단 말이여, 소가지가 난개 "아 함부로 여자가 이러나?" 제까장(깜냥)으로는 성질이 돋았제.<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병 걸린 닭의 {꽁댕이가} 다 빠져 볼품없다.
지역 군산, 김제, 남원, 완주, 정읍.

꽁딩이 명 [대응어] 꽁무니.
짐승이나 새의 등마루를 이루는 뼈의 끝부분. 또는 사람의 엉덩이를 중심으로 한 뒷부분. 또는 맨 뒤나 맨 끝. ¶호랑이 {꽁딩이에} 누구 방울을 달 것이여? ¶그는 엎드려 {꽁딩이를} 쳐들어 봐. ¶무슨 속셈인지 슬금슬금 {꽁딩이}를 빼더니 순식간에 없어져 버렸더라고. ¶김밥은 {꽁딩이가} 맛있다. ¶입학 헐 때는 {꽁딩이}이로 달랑 붙었지만 갈수록 성적이 올랐다니 얼매나 장헌 일인가.
지역 전북.

꽁자리 명 [대응어] 송사리.

☞꼰자리.
지역 전북.

꽂감 명 [대응어] 곶감.
☞꽂갬. ¶떠꺼머리가 맘만 먹으면 엎어질 예펜네 공으로 챙게 두고, 솔레솔레 {꽂감} 꼭지 빼먹는 것도 복이라먼 복인디,<최명희, 혼불>
지역 군산, 정읍.

꽂갬 명 [대응어] 곶감.
껍질을 벗기고 꼬챙이에 꿰어서 말린 감. ¶둥구 마침 {꽂갬인가}/하고일심 알뱀인가 /청산부하는 대추씬가/날라가는 학선인가(무주 아이 어르는 소리-"둥 둥 둥개야"-무주군 안성면 덕산리 덕곡)<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내가 온다고 허도 울고, 여시가 온다고도, 귀신이 온다고도 우는디 {꽂갬이} 어치게 생겼간디 대체 {꽂갬이} 얼매나 무선 것 이냐?'<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무주, 정읍.

꽂각시 명 [대응어] 새색시.
갓 결혼한 여자. ¶갓 시집온 새각시 고운 자태 {꽂각시라} 부르며, 이팔을 지나 물오른 나이를 두고는 꽃다운 나이라 하지만,<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의 '꽂각시'는 '꽂+각시'의 구성을 가지는 합성 명사이다. 표준어로 '새색시'에 해당한다. '새 각시'라고도 표현한다.

꽂결 명 [대응어] 살결.
꽂과 같이 부드럽고 고운 살결. ¶"바느질만 한 손이라 사부가의 부녀자 섬섬옥수 부럽잖게 곱구나. 손만 보면야 네가 어디 종이라 하겠느냐. {꽂결} 같다."<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해설 최명희의 소설 '혼불'에 나오는 '꽂결'은 '꽂'과 '결'을 합성한 것으로 "꽂과 같이 부드럽고 고운 살결"을 의미한다. 명사 '결'은 '비단결, 살결'에서도 쓰고 있는데, 이러한 단어에서 유추하여 '꽂결'을 만든 것이다.

꽂기 명 [대응어] 꽃게. ¶여름에넌 인제 {꽂기가} 알이 차니깨는 금어기 전에 기장도 담거 먹고 무젓도 무처 먹고 그러먼은 좋지. ¶봄에 잡힌 {꽂기는} 암놈이 맛있어.
지역 전북.

꽂대미 명 [대응어] 색대님.
고운 색과 무늬가 있는 천으로 만든 대님. ¶{꽂대미} 풀어 고운님한티 줘.
지역 전북.

꽂동 명 [대응어] 색동.
여러 색의 옷감을 잇대거나 여러 색으로 염색하여 만든, 아이들의 저고리나 두루마기의 소맷감. ¶{꽂동} 치마저고리
지역 전북.

꽂동저고리 명 [대응어] 색동저고리.
색동으로 소매를 대서 만든 어린아이의 저고리. ¶{꽂동저고리를} 입다
지역 전북.

꽂동조고리 명 [대응어] 색동저고리.
☞꽂동저고리.
지역 전북.

꽂망우리 명 [대응어] 꽃봉오리.
아직 피지 않은 꽃의 망울. ¶{꽂망우리가} 떨어지다
지역 무주.

꽂박신 명 [대응어] 꽃신.

옛날 고무신의 앞 부리에 꽃 모양을 새겨 예쁘게 꾸민 신발. ¶{꽃박신은} 얼른 몽칠 수 있은게 조심해서 신어야 해.
지역 전북.

꽃받다 동
맨 아래 세 명의 장정들이 어깨동무를 해서 동그랗게 모이고 그 위에 한 사람이 올라탄 다음 다시 어린아이가 두 번째 사람의 무등을 타다. ¶이거는 {꽃받었네}. 여그 이렇게 꽃받어.
지역 전북.

꽃밥 명
꽃잎으로 만든 밥. ¶어린 날, 살구꽃잎으로 {꽃밥을} 차려 주던 강실이에게, 강모는 여린 버들가지를 잘라 버들피리를 만들어<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의 '꽃밥'은 '꽃+밥'의 합성어로 아이들이 소꿉장난을 할 때 사용하는 어휘이다. 표준어에는 없는 말이지만, 전북에서는 어린이들이 놀 때 많이 사용하는 말이다.

꽃방맹이 명
방망이에 꽃이 핀 것 같은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를 때 쓰는 말. ¶메뚜기가 나락에 꽃방맹이만치로 붙어 있어. {꽃방맹이} 같어. 많이 붙었다 소리제.
지역 전북.

꽃봉다리 명 [대응어] 꽃봉오리.
아직 피지 않은 꽃의 망울. ¶{꽃봉다리를} 꺾으면 쓰겄는가? ¶산에서 꺾어온 {꽃봉다리를} 꽃병에 정리하여 꽂았다.
지역 진안.

꽃봉새이 명 [대응어] 꽃봉오리.
☞꽃봉생이.
지역 전북.

꽃봉생이 명 [대응어] 꽃봉오리.
아직 피지 않은 꽃의 망울. ¶{꽃봉생이가} 피다
지역 전북.

꽃봉오리밥 명 [대응어] 고봉밥.
그릇 위로 수북하게 높이 담은 밥. ¶그럭 위로 수북허니 담어서 주제. 그게 {꽃봉오리밥여}.
지역 전북.

꽃봉우리 명 [대응어] 꽃봉오리.
아직 피지 않은 꽃의 망울. ¶{꽃봉우리가} 맺히다 ¶장독대 사이로 올라온 상사화가 {꽃봉우리를} 터.
지역 진안.

꽃봉지 명 [대응어] 꽃봉오리.
아직 피지 않은 꽃의 망울. ¶어허둥둥 내사랑아 얼음구녁에 수달피인가 네모반듯 뚜부모인가 눈뫼산에 {꽃봉지나} 하고영상 알밤인가 어허둥둥 내사랑 어디를갔다가 이제왔나<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진안, 완주.

꽃봉튕이 명 [대응어] 꽃봉오리.
아직 피지 않은 꽃의 망울. ¶{꽃봉튕이가} 터졌어.
지역 고창.

꽃빛 명
꽃이 보여주는 빛깔. 또는 꽃과 같이 붉은 얼굴빛. ¶백일홍꽃 망울만한 백일홍 {꽃빛} 구름이 하늘에 가 열려 있는 것을 본 일이<서정주, 귀촉도> ¶발그레 두 뺨이 {꽃빛으로} 물들어 바라보기 미어지게 어여쁜 부처, 스치는 미소를 자욱이 머금어<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의 '꽃빛'이나 '꽃빗'은 '꽃+빛/빗'의 합성어이다. 일차적으로 "꽃이 가진 빛깔"을 말한다. 작품에서 쓰이는 '꽃빛'은 대체로 은유적인 표현으로 "꽃과 같이 곱고 예쁜 얼굴빛"을 나타내고 있다.

꽃소오리 명 [대응어] 꽃송이.
☞꽃송오리.
지역 전북.

꽃송오리 명 [대응어] 꽃송이.
아직 피지 않은 꽃의 망울. ¶{꽃송오리가} 올라오다
지역 전북.

꽃쇵이 명 [대응어] 꽃송이.
아직 피지 않은 꽃의 망울. ¶여러 신명님들한테는 수수만만 {꽃쇵이} 중에 하나겄지만, 지는 이 꽃 한 쇵이가 지 전부요. 내 한세상으 전부요. 저한테 주시기라우.<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꽃수오리 명 [대응어] 꽃송이.
☞꽃숭오리.
지역 전북.

꽃술 명 [대응어] 진달래술.
진달래꽃을 넣어 빚은 술. ¶봄에 진달래꽃이 피면 {꽃술을} 담근다.
지역 무주, 부안, 임실, 진안.

꽃숭오리 명 [대응어] 꽃송이.
아직 피지 않은 꽃의 망울. ¶{꽃숭오리가} 몽글몽글 맺히다
지역 전북.

꽃시울 명
꽃의 약간 굽거나 휜 가장자리. ¶제 물에 겨운 봉숭아, 맨드라미의 꽃시울 이 한낮의 정적 속에 자지러지는데<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해설 '꽃+시울'의 합성어이다. '시울'은 "약간 굽거나 휜 부분의 가장자리"를 의미하는 말이다. '꽃시울'은 '눈시울'에서 유추하여 만들어 낸 말로서 "꽃의 굽거나 휜 가장자리"를 표현한 말이다.

꽃심 명
꽃의 가운데 부분. 또는 '꽃과 같이 귀품이 있는 힘이나 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 ¶당황한 그네가 손에서 떨어뜨린 종이 꽃은, 한가운데 수술 박은 {꽃심이} 뭉툭 빠져 나가면서 그만 매맞은 것처럼 꽃부리가 산산이 흩어져<최명희, 혼불> ¶세월이 가도 결코 버릴 수 없는 꿈의 {꽃심을} 지닌 땅.<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해설 '꽃+심'의 합성어이다. '심'은 "심지"의 뜻을 갖는데 기본적으로 꽃의 중심 부분을 말한다. 작품에서는 "꽃의 힘", "꽃의 마음"의 의미로 표현되고 있다.

꽃패 명
두꺼운 종이 위에 그림을 그려 점선을 따라 동그랗게 오려 가지고 놀 수 있게 만든 장난감. 주로 만화 영화를 주제로 해서 만든다. ¶아이들은 {꽃패} 따먹기를 하고 놀고 있다.
지역 전북.

꽇다 동 [대응어] 고다(엿).
☞꼬다. ¶설이 되면 엿도 {꽇고} 식혜도 끓이고 그랬어.
지역 무주.

꽈루 명 [대응어] 꽈리. ¶{꽈루가} 빨갛게 맺혔다.
지역 전북.

꽈루불다 동
꽈리의 열매를 제거하고 입으로 불어 소리를 내다. ¶꽈리 따서 {꽈루불면서} 학교 댕기고 했어.
지역 익산.

꽈리불다 동 [대응어] 꽈리불다.
꽈리의 열매를 제거하고 입으로 불어 소리를 내다. ¶{꽈리불고} 있으면 친구들이 와서 허는 소리가 "너 무하나"였어.
지역 무주, 군산, 익산.

꽈먹다 동 [대응어] 속이다.
☞꼬아먹다. ¶"흥! 쌀 한 섬에서 반 섬씩이나 {꽈먹는} 건 좀 과한걸!"<채만식, 늙은極東選手>
지역 전북.

꽈아리 명 [대응어] 광주리.
☞광아리.
지역 전북.

꽈자 (>菓子)) 명 [대응어] 과자.
밀가루나 쌀가루에 설탕, 우유 따위를 섞어 굽거나 기름에 튀겨서 만든 음식. ¶"야아, 아저씨다아!" 삼봉이가 반색을 하며 소리쳤다. "이, 그려. 아자씨가 {꽈자} 사왔다." 서무룡은 정다운 웃음을 환히 지으며 뛰어오는 아이 앞에 봉지를 쑥 내밀었다.<조정래, 아리랑> ¶엄마가 준 용돈을 {꽈자를} 사 먹었다.
지역 전북.

꽝깡허다 형 [대응어] 단단하다.
☞꽝꽝하다. ¶전이는 시한이 많이 추웠응게, 강이 {꽝깡허니} 얼먼은 아떨이 다 나와서 강타고 그랬지. ¶엄마 어렸을 적엔 전주천이 {꽝깡허게} 얼어붙어서 썰매 타는 어린이들이 많았지.
지역 전북.

꽝꽝하다 형 [대응어] 단단하다.
어떤 힘을 받아도 쉽게 그 모양이 변하거나 부서지지 아니하는 상태에 있다. ¶여기는 어쩌면 지극히 {꽝꽝하고} 못견디게 새파란 바위ㅅ속일 것이다.<서정주, 無題> 제호를 따라 마주 일어섰던 형보는 벌써 결과를 다 거니를 채고서, {꽝꽝하던} 낯꽃이 금시로 풀어진다.<채만식, 탁류>
지역 전북.
해설 '꽝꽝'이란 부사는 표준어에서 "물체가 매우 단단하게 굳어지는 모양"이란 뜻을 가진다. 이 부사성 어근에 '-하-'가 연결되어 형용사가 된 것이다.

꽝아리 명 [대응어] 광주리.
대, 싸리, 버들 따위를 재료로 하여 바닥은 둥글고 촘촘하게, 전은 성기게 엮어 만든 그릇. 일반적으로 바닥보다 위쪽이 더 벌어졌다. ¶뭐가요?], 삼, 삼.[조사자: 뭐가요, 똥구녁에 대라고요?], {꽝아리}, 저 광아리, 요거, 요거,[벽에 걸린 광주리를 가르키며], <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사과를 따서 {꽝아리} 안에 담아 놓았으니 가져 오렴. ¶이 메추리란 놈이 가만히 있은게 여자가 고개다가 밥을 한 {꽝아리를} 반찬조차 한 고개 이고 땀을 폿죽같은 땀을 흘리고 오거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그거 다 그날부텀 고생인 거이여. 고생 덩어리 {꽝아리에다} 이고, 지게에다 지고, 서로 만나서 고생으로 자식 키우는 게<최명희, 혼불> ¶{꽝아리에} 홍시가 가득 담겨 있다.
지역 고창, 남원, 순창, 완주, 임실, 진안, 무주.

꽝우리 명 [대응어] 광주리.

☞꽝아리. ¶무엇이냐? 너, 잘 허넝 건 대체 무엇이여? 어디 입이 {꽝우리} 구녁 같거던 말 좀 히여 부아라? 말 좀 히여<채만식, 태평천하> ¶ "넉살두 좋으이. 날 같으믄 입이 {꽝우리} 구멍이래두 헐 말 없겠네.<채만식, 맹순사>
지역 전북.

꽝재리 명 [대응어] 광주리.
☞꽝지리.
지역 완주.

꽝저리 명 [대응어] 광주리.
☞꽝지리.
지역 전북.

꽝지리 명 [대응어] 광주리.
대, 싸리, 버들 따위를 재료로 하여 바닥은 둥글고 촘촘하게, 전은 성기게 엮어 만든 그릇. ¶무엇이냐? 너, 잘 허넝 건 대체 무엇이여? 어디 입이 {꽝지리} 구녁 같거던 말 좀 히여 부아라? 말 좀 히여<채만식, 태평천하>
지역 전북.

꽤벗다 동 [대응어] 발가벗다.
☞꾀벗다.
지역 전북.

꽤복쟁이 명 [대응어] 벌거숭이.
☞꾀복쟁이. ¶"그려, 고맙다. 근디 니가 꼭 {꽤복쟁이} 친구같이 느껴지는디!"<이병천, 모래내모래톱>
지역 전북.

꽤손님 명 [대응어] 열꽃.
홍역이나 수두 따위를 앓을 때, 열이 나면서 살갗의 여기저기에 돋아나는 붉은 점. ¶아픈 아이의 몸에 {꽤손님이} 붉게 돋았어.
지역 부안.

꽤이 명 [대응어] 괭이.
☞깨이.
지역 전북.

꽨새기 명 [대응어] 꽹과리.
풍물놀이와 무악 따위에 사용하는 타악기의 하나. 놋쇠로 만들어 채로 쳐서 소리를 내는 악기로, 징보다 작으며 주로 풍물놀이에서 상쇠가 치고 북과 함께 굿에도 쓴다. ¶{꽨새기를} 치다.
지역 남원, 순창, 임실.

꽴목 명 [대응어] 깻묵.
☞깻목. ¶아침 잡수머는 옌날 그 {꽴목} 학또기다 빵궈가꼬 그니께 꼭꼭 우겨 낙씨빱, 그 체이다 처가지고, 꼭꼭 뭉쳐가꼬, 그거 허가꼬 딱 도시락, 나더러 싸달라고 안혀.(아침 잡수면 옛날 그 깻목 돌확에다 빻아서 꼭꼭 낚싯밥, 체에다 쳐가지고, 꼭꼭 뭉쳐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딱 도시락, 나더러 싸달라고 안 해)<지역어 자료총서, 군산>
지역 군산.

꽹가리 명 [대응어] 꽹과리.
풍물놀이와 무악 따위에 사용하는 타악기의 하나. 놋쇠로 만들어 채로 쳐서 소리를 내는 악기로, 징보다 작으며 주로 풍물놀이에서 상쇠가 치고 북과 함께 굿에도 쓴다. ¶상쇠 {꽹가리} 소리에 중쇠도 덩달어서 흥을 돋궈 처대는디 분위기가 확 베뀌더라고.
지역 전북.

꽹매기 명 [대응어] 꽹과리.
풍물놀이와 무악 따위에 사용하는 타악기의 하나. 놋쇠로 만들어 채로 쳐서 소리를 내는 악기로, 징보다 작으며 주로 풍물놀이에서 상쇠가 치

고 북과 함께 굿에도 쓴다. ¶상모를 태극 무늬 물결무늬 휘돌리며, 북 치고, 장구 치고, {쨍매기}, 징소리 한바탕 흐드러지게 어울어, 하늘에 정성껏 고사 지내고, 넘치는 기쁨을 부둥켜 안았다.<최명희, 혼불> ¶그 술 먹꼬 하루전날 놀고 장구 치고 {쨍매기} 치고 춤 추고, 업꼬.<2007 전북 군산>

지역 전북.

해설 '쨍'은 "쨍과리나 징 따위를 치는 소리"를 말하고, '매기'는 '소리를 메기다'에서 "두 편이 노래를 주고받고 할 때 한편이 먼저 부르다"의 뜻을 가지고 쓰는 '메기다'의 명사형으로 해석된다.

쨍메기 명 [대응어] 쨍과리.

☞쨍매기. ¶{쨍메기를} 치다.

지역 고창, 김제, 무주, 부안, 완주, 임실, 진안, 군산.

쨍이 명 [대응어] 고양이.

☞괭이.

지역 전북.

꾀기적거리다 동 [발음] [꾀기적꺼리다/꿰기적꺼리다] [대응어] 구기다.

종이나 천 따위의 얇은 물체 구김살이 생기게 계속 만지작거리다. 또는 일 처리나 사람을 구김살 있게 대하다. ¶일주일도 넘은 신문을 {꾀기적거리며} 머라고 구시렁구시렁허더랑개. ¶그 벤호사 양반은 {꾀기적거린} 데 없이 겁나게 당당하더구만. ¶{꾀기적거린} 데 없이 자라서 그런가 애가 언제나 해맑아.

지역 무주.

꾀깔 명 [대응어] 고깔.

승려나 무당 또는 농악대들이 머리에 쓰는, 위 끝이 뾰족하게 생긴 모자. ¶인제는 자기가 중이 돼 가지구서 {꾀깔}을 쓰구 남편을 찾어 나섰어.

지역 군산.

꾀꼴새 명 [대응어] 꾀꼬리. ¶아따 고 집 지집아가 노래를 얼매나 잘하든가 {꾀꼴새맹키로}.

지역 전북.

꾀꽝시럽다 형 [대응어] 당황스럽다.

놀라거나 다급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데가 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 {꾀꽝시럽다} ¶그애는 허는 짓마다 왜 {꾀꽝시런} 짓만 골라서 허고 댕긴다냐.

지역 전북.

꾀대기벗다 동 [대응어] 벌거벗다.

아주 알몸이 되도록 입은 옷을 모두 벗다. ¶냇가에서 아들이 {꾀대기벗고} 놀아.

지역 전북.

꾀대기빗기다 동 [대응어] 벌거벗기다.

아주 알몸이 되도록 입은 옷을 모두 벗기다. ¶아이를 {꾀대기빗겨} 씻긴다.

지역 전북.

해설 '꾀대기빗기다'는 '꾀대기벗다'의 사동사로, '꾀대기+벗-+-기-+-다'로 분석된다. '벗기다'가 '빗기다'가 된 것은 사동 접미사 '-기-'의 모음 /ㅣ/ 때문에 움라우트가 일어나 '벳기다'가 된 후 다시 '/ㅔ/>/ㅣ/'의 고모음화가 적용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꾀댕이벗다 동 [대응어] 벌거벗다.

☞꾀대기벗다.

지역 전북.

꾀댕이빗기다 동 [대응어] 벌거벗기다.

☞꾀대기빗기다.

지역 전북.

꾀때기 명 [대응어] 호드기.
봄철에 물오른 버드나무 가지의 껍질을 고루 비틀어 뽑은 껍질이나 짤막한 밀짚 토막 따위로 만든 피리. ¶{꾀때기} 시끄럽게 들려.
지역 전북.

꾀뚫다 동 [대응어] 꿰뚫다.
이쪽에서 저쪽까지 꿰어서 뚫다. 어떤 일의 내용이나 본질을 잘 알다. ¶내가 머뭇거리고 있은게로 스님이 딱 내 속을 {꾀뚫고는} 한 마디 허는 거야.
지역 전북.

꾀매다 동 [대응어] 꿰매다(바늘로).
☞꿰매다.
지역 전북.

꾀미 명 [대응어] 꾸미.
☞꿔미.
지역 무주.

꾀벅다 동 [대응어] 벌거벗다.
☞꾀벗다.
지역 전북.

꾀벗다 동 [대응어] 발가벗다.
알몸이 되도록 입은 옷을 모두 벗다. ¶세상 물정이라고는 귀털만큼도 모르는 내 새끼. 대명천지에 {꾀벗고} 맨발로 거꾸로 매달려 어떤 꼴을 당하면서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아이고, 불쌍헌 것.<최명희, 혼불> ¶냇가에서 꾀벗은 아이들이 놀고 있다. ¶얼른 {꾀벗고} 들어와야 목욕을 할 수 있지.
지역 전북.
해설 '바지'를 의미하는 '고의'는 '괴'로 줄고, 다시 '꾀'로 발음이 난다. 그래서 '꾀'와 '벗다'가 합해져 합성어가 된 것이다. '꾀'는 '꽤, 께/깨'로 발음이 난다. '꾀'는 사전에 없는 말로 전북 방언으로 이해된다. '꾀를 벗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참고하면 '꾀'는 "옷"을 가리키는 표현일 가능성도 있고, 혹은 "남자의 여름 홑바지"인 '고의'에서 온 것일 가능성도 있다.

꾀복쟁이 명 [대응어] 벌거숭이.
옷을 죄다 벗은 알몸뚱이. 또는 어릴 적에 꾀를 벗고 놀던 친구. ¶"어렸을 적부터 부자지 맞잡고 {꾀복쟁이} 친구로 자라면서 키운 우정만큼은 계속 변함이 없었지."<윤흥길, 낫>
지역 전북.
해설 '꾀벗-'에 접미사 '-쟁이'가 연결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꾀빗기다 동 [대응어] 벌거벗기다.
알몸이 되도록 입은 옷을 모두 벗기다. ¶아이 {꾀빗겨} 으디 보낼라구라요. ¶저렇게 말 안 듣는 놈은 홀딱 {꾀빗겨서} 베깥으로 내 쫓아버려.
지역 전북.
해설 '꾀벗다'의 사동사로, '꾀+벗-+-기-+-다'로 분석된다. '벗기다'가 '빗기다'가 된 것은 사동 접미사 '-기-'의 모음 /ㅣ/ 때문에 움라우트가 일어나 '벳기다'가 된 후 다시 '/ㅔ/>/ㅣ/'의 고모음화가 적용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꾀삐 명 [대응어] 고삐.
☞꼬삐. ¶송아진 줄 알고 보닌게 {꾀삐가} 떨어졌은게 송아치 맨 꼬삐를 목아지를 덜썩 얻어 가지고서 묶어가지고선<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고창, 김제.

꾀피 명 [대응어] 고삐.
☞꼬삐. ¶아 양반의 집이서 그럴 수도 없고, 이것을 꼭 {꾀피를} 잡어야 친가로 보낸다던지 허

는디, 언제 그럴 수도 없고 그런게<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꾑히다 동 [대응어] 꼽히다.
어떤 범위나 순위 안에 들다. 또는 뽑혀서 지목되다. ¶마을에서는 머리좋은 수재로 {꾑히며} 어른들의 기대를 모았었지. ¶니가 담박질 선수로 {꾑힝게} 내가 다 샘난다야.
지역 전북.

꾕이 명 [대응어] 괭이.
☞깨이.
지역 전북.

꾸거지다 동 [대응어] 구겨지다.
☞꾸게지다.
지역 장수.

꾸걱지다 동 [대응어] 구겨지다.
종이나 천 따위의 엷은 물체가 비벼지거나 접혀져서 잔금이 생기다. 또는 일 처리가 꼬이거나 사람 대함에 앙금이 생기다. ¶휴지쪼각을 갖다가 괴비춤에다가 {꾸걱져} 넣어 버리갖고 쓸래야 쓸 수가 없어. ¶일이 잘 되가는 줄 알았는디 아니었던게벼. 일이 다 {꾸걱졌다네}. ¶오해를 풀었은게 너도 좀 {꾸걱진} 맴도 풀어졌음 혀.
지역 임실.

꾸게다 동 [대응어] 구기다.
☞꾸기다.
지역 전북.

꾸게지다 동 [대응어] 구겨지다.
종이나 천 따위의 엷은 물체가 비벼지거나 접혀져서 잔금이 생기다. 또는 일 처리가 꼬이거나 사람 대함에 앙금이 생기다. ¶그래 한 피기를 뽑아 왔다. 뽑아 오니까, "너희 그거 {꾸게지} 말고 말이지, 소매 안에 잡아넣어 봐라." ¶영자는 왜 오늘따라 옷을 {꾸게지게} 놓았디야? ¶꾸게진 자존심을 회복할라믄 얼매나 성가신 일이 많겄어?
지역 진안, 장수.

꾸구러지다 동 [대응어] 구겨지다.
구김살이 잡히다. ¶마지막 종잇장까지도 {꾸구러져} 있는 책은 몹시 볼품없었다. ¶그 집 참 애기가 안 되었당게. 그 애기는 {꾸구러진} 눈가 주름살도 처연하당게.
지역 남원, 임실, 장수.
해설 '꾸굴-'이라는 어간에 피동을 나타내는 '-어지다'가 더해진 형태이다.

꾸구리다 동 [대응어] 구기다.
종이나 천 따위의 얇은 물체에 잔금이 생기게 하다. 또는 일의 진행을 꼬이게 하다. 또는 마음이 언짢아지게 하다. ¶아무것도 몰르는 어린 동생이 니 숙제장 좀 {꾸구려} 놓았다고 그렇게 승질을 내면 어쩐다냐, 다 물건을 제대로 간수 못 허는 니 잘못이지. ¶종이쪼가리를 야물딱지게 {꾸구려서} 휴지통으다가 버려부렀어. ¶그렇게 순조롭기만 허더니 어째서 이렇게 일이 {꾸구린다냐}? ¶니가 고런 소리를 하니께 {꾸구렸던} 맴이 쪼께 풀리는구만.
지역 전북.

꾸구미지다 동 [대응어] 구겨지다.
종이나 천 따위의 엷은 물체가 비벼지거나 접혀져서 잔금이 생기다. 또는 일 처리가 꼬이거나 사람 대함에 앙금이 생기다. ¶같이 가서 딱 보닌게 아 요놈이 신년인데 말여. 표정이 {꾸구미진} 채로 앉아 있는디, 그걸 보닌게 화가 워떡게 나야지.
지역 남원.

꾸구적거리다 동 [대응어] 구기적거리다.
구김살이 생기게 자꾸 구기다. 또는 일의 진행을 꼬이게 하다. 또는 마음이 언짢아지게 하다. ¶갱아지새끼가 곰방 온 신문을 {꾸구적거리면서} 왼 방을 휘젓고 다니면서 신났네. 신났어.
지역 전북.

꾸구적그리다 동 [대응어] 구기적거리다.
구김살이 생기게 자꾸 구기다. 또는 일의 진행을 꼬이게 하다. 또는 마음이 언짢아지게 하다. ¶뭔 소리를 들었능가 오만상을 {꾸그적그리고} 들오는 아부지가 걱정이 되었다. ¶{꾸구적그리던} 일이 이제야 술술 풀리는노만. ¶너 때문에 내 맴이 {꾸구적그릴} 날이 허다허겄어.
지역 전북.

꾸구적기리다 동 [대응어] 구기적거리다.
☞꾸구적그리다.
지역 남원.

꾸굴지다 동 [대응어] 구겨지다.
종이나 천 따위의 얇은 물체가 비벼지거나 접혀져서 잔금이 생기다. 또는 일 처리가 꼬이거나 사람 대함에 앙금이 생기다. ¶껌을 입속으로 {꾸굴져} 놓고능 안 씹는 딧기 허고 있는디 아주 여수방맹이가 따로 없당개. ¶일이 {꾸굴질} 대로 {꾸굴져서} 복귀가 불가능허겄어. ¶{꾸굴진} 마음 달개러 저그 해변가에나 가자.
지역 전북.

꾸굴치다 동 [대응어] 구기다.
종이나 천 따위의 얇은 물체에 잔금이 생기게 하다. 또는 일의 진행을 꼬이게 하다. 또는 마음이 언짢아지게 하다. ¶한군데다가 {꾸굴치이} 갖고 잘 모아 놔라잉.
지역 전북.

꾸굼지다 동 [대응어] 구기다.
☞꾸굴치다.
지역 순창.

꾸그적거리다 동 [대응어] 구기적거리다.
구김살이 생기게 자꾸 구기다. ¶전대에서 쏟아놓은 돈, 동전?백동전?은전 1원짜리 {꾸그적거린} 것들을 세고 앉았는 노파. ¶입은 양복은 천은 좋으나 함부로 굴어 {꾸그적거리고} 술 흘린 자국이 지저분하게 묻었다 ¶아부지는 내 통신표를 받아들자마자 확 {꾸그적거리더니} 방바닥에 팽개쳐 버렸다.
지역 군산, 무주.
해설 '꾸구적-'이라는 어간에 접미사 '-거리-'가 붙어 파생된 형태이다. "구김살이 잡힌 상태"가 접미사 '-거리-'의 의미가 더해져 "그 상태가 계속 된다"는 의미가 실현되고 있다.

꾸기다 동 [대응어] 구기다.
종이나 천 따위의 얇은 물체에 잔금이 생기게 하다. 또는 일의 진행을 꼬이게 하다. 또는 마음이 언짢아지게 하다. ¶"너희 그거 {꾸기지} 말고 말이지, 소매 안에 잡아넣어 봐라." ¶그 한 대를 꺼내 물고, 빈 갑을 신경질적으로 {꾸겨서} 의자 옆의 휴지통에 던져 버린 후, 문 담배에 불을 붙인다.<최창학, 창> ¶그래 상은 쪽지를 아까 담뱃갑을 {꾸기듯이} 신경질적으로 {꾸긴다}.<최창학, 창> ¶그 일이 {꾸기는} 때도 생각을 히야지. ¶너의 {꾸겼던} 마음 어째 잘 풀었나?
지역 전북.

꾸꾸적거리다 동 [대응어] 구기적거리다.
☞꾸그적거리다.
지역 무주.

꾸꿈지다 동 [대응어] 구겨지다.

종이나 천 따위의 얇은 물체가 비벼지거나 접혀져서 잔금이 생기다. 또는 일 처리가 꼬이거나 사람 대함에 앙금이 생기다. ¶{꾸꿈진} 주름살이 많아진 만큼 세월도 흘른 거겄지. ¶근게 내가 지금 기분이 {꾸꿈질} 대로 {꾸꿈져} 그리오.
지역 순창.

꾸다 동 [대응어] 굽다(燒).
불에 익히다. 또는 나무를 태워 숯을 만들다. 또는 흙으로 빚은 벽돌, 도자기, 옹기 따위가 굳도록 열을 가하다. ¶철판에다 돼지고기를 {꾸어서} 먹으니 참 맛있었다. ¶예. 그거또 인재 가서 {꾸어서} 멍는 거또 보리타자기고 그래요.<2009 전북 임실> ¶꼬사리너물, 무시너물, 숙쩨, 뚜부 지지고 머 생선가튼 거 지저노코 굴비는 {꿔} 노코.<2009 전북 임실> ¶벌어야 묵은깨 혼차 몸뚱이라도 나무를 가서 숯 {꿉고} 인자 올 때는 나무 한 짐씩 해가지고 와서 팔고 그러고 산디.<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아, 갖고가서 숯을 {꿉는디} 집이서는 요순식이던 게비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삐득삐득 헐 때 유약얼 칠하지라우. 광명단 칠해 {꾸워} 파는 데서는 몰르기가 바쁘게 칠허고 라우.<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7>
지역 남원, 완주, 임실, 장수, 정읍.

꾸댕이 명
오줌을 오줌장군에 담아 밭에 낼 때 쓰는 그릇. ¶꾸댕이로 오줌 퍼다 장군이다 담잖아. 머심들이.
지역 전북.

꾸둑살 명 [대응어] 굳은살.
잦은 마찰로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생긴 두껍고 단단한 살. ¶지난 수십 년간 가족 위해서 희생한 남편의 {꾸둑살을} 보믄 맴이 찢어지는 것 같어.
지역 전북.

꾸뚜래미 명 [대응어] 귀뚜라미. ¶"그러면 그것을 어트게 알았소?" "아, 우리 토담 {꾸뚜래미는} 놈이 우는디 저녁 나절이 안울드라. 니가 주저앉었으니 울 것이냐?
지역 전북.

꾸뚝살 명 [대응어] 굳은살.
☞꾸둑살.
지역 전북.

꾸레미 명 [대응어] 꾸러미.
꾸리어 싼 물건. 또는 꾸리어 싼 물건을 세는 단위. ¶달걀 한 {꾸레미는} 10개입니다. ¶요새나 말허믄 {꾸레미를} 내논디, 본게 떡도 가져 왔을 것이고 뭣도 가죠고 여러가지 것 가져 왔어요.<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공부하는 분이라 주경야독 여념이 없는 줄을 알지만요, 야독하시구요, 주경으로다가 편지 대필, 대독, 소포 {꾸레미에} 주소 써 주는 일 같은 것을 좀."<최명희, 혼불> ¶어저끄까지 낳은 달걀을 전부 모태면 한 {꾸레미}는 될거여. ¶이번 장에는 계란이나 두어{꾸레미} 내 갈까.".
지역 군산, 정읍.

꾸루룩 부 [대응어] 개굴개굴.
개구리가 우는 소리. ¶개구리가 {꾸루룩} 울고 있다
지역 완주.

꾸룩꾸룩 부 [대응어] 꿀꿀.
돼지가 내는 소리를 흉내내는 말. ¶돼지가 {꾸룩꾸룩} 소리를 낸다. ¶뒤애지가 배가 고픈가 {꾸룩꾸룩} 울어쌌는디 밥돌라는 게비다.
지역 완주.

꾸룬내 명 [대응어] 구린내.
☞구룬내.

지역 전북.

꾸룸지다 동 [대응어] 구겨지다.
구김살이 잡히다. ¶그것도 하나 못히서 휴지처럼 {꾸룸져} 있는 내가 한심혔다.
지역 전북.

꾸르다 형 [대응어] 구리다(방귀 냄새가).
☞꾸리다.
지역 임실.

꾸른내 명 [대응어] 고린내.
☞꼬린내. ¶똥이 삐칠삐칠하며 {꾸른내가} 팍 난 단 말이야.
지역 무주.

꾸릉내 명 [대응어] 구린내.
☞구룬내. ¶빼스를 타고 가는디 갑자기 {꾸릉내}가 나서 봉게 등에 업은 우리 애기가 똥을 싼거여.
지역 전북.

꾸리 명 [대응어] 자새.
실 따위를 감았다 풀었다 할 수 있도록 만든 작은 얼레. ¶자새 실패가 읻꼬, {꾸리} 감띠끼 <2008 전북 고창>
지역 고창.

꾸리꾸리허다 형 [대응어] 낯부끄럽다.
염치가 없어 얼굴을 보이기가 부끄럽다. ¶어찌 백주대낮에 저런 행동을 헌다니? 진짜 {꾸리꾸리 헌지} 모르는 게벼.
지역 전북.

꾸리다 형 [대응어] 구리다(방귀 냄새가).
똥이나 방귀 냄새와 같다. ¶어디서 {꾸린} 냄새가 나는 것 같은디.
지역 남원, 무주, 완주, 임실.

꾸린내 명 [대응어] 구린내.
☞구룬내. ¶깨니깨 신랑이, 새신랑이 흠흠[코로 냄새맡는 시늉], "어디서 {꾸린내가} 난다. 아이구 꾸린내 나아. 자네 똥 쌌구만. 똥 쌌어.<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전북.

꾸매다 동 [대응어] 깁다.
떨어지거나 해어진 곳에 다른 조각을 대거나 또는 그대로 꿰매다. ¶튿어진 곳을 꾸맨다. ¶어부는 고기 잡다가 해지고 찔어진 그물을 {꾸맨다}. ¶밤이먼 등잔불 밑이서 가족들 양말 {꾸매는} 일이 어머니들의 저녁 일과여.
지역 무주, 부안, 순창, 익산, 임실, 진안.
해설 전북 방언에서 '꾸매다'는 '깁다'의 뜻으로 쓰인다. '꾸매다'는 '꿰매다'의 제1 음절 모음이 단순 모음으로 실현된 결과이다.

꾸메다 동 [대응어] 꿰매다(바늘로).
☞꼬매다. ¶*꾸멨다 {정문연}<전북>[무주, 부안], <한국방언어휘자료집_전북편>
지역 무주, 부안.

꾸무락지 명 [대응어] 거머리
☞거머락지.
지역 전북.

꾸불치다 동
어떤 물체를 접거나 구겨서 부피를 작게 만들다. ¶비 온게 얼렁 포장 꾸불쳐서 이짝에다 느라.
지역 전북.

꾸불퉁하다 형 [대응어] 꾸불텅하다.
느슨하게 구부러져 있다. ¶{꾸불퉁한} 길을 걸어가. ¶논길이 {꾸불퉁하네}.

지역 전북.

꾸수하다 형 [대응어] 구수하다.
보리차, 숭늉, 된장국 따위에서 나는 맛이나 냄새와 같다. ¶숭늉이 참말로 {꾸수허니} 좋다.
지역 전북.

꾸ㅇ다 동 [발음] [꾸따] [활용형] ㄲㅜㆆ고[꾸꼬], ㄲㅜㆆ으니[꾸니] [대응어] 꿇다.
무릎을 구부려 바닥에 대다. ¶무릎 {꾸꼬} 앉아 있네.
지역 정읍.

꾸적거리지다 동 [대응어] 꾸기적거려지다.
구김살이 잡히다. ¶알포롬한 미간을 {꾸적거리지는} 그의 모습은 마치 도적놈 같았다.
지역 전북, 무주.

꾸적꾸적허다 형 [대응어] 꼬깃꼬깃하다.
구김살이 심하게 져 있다. ¶풀 멕여 놓고 탈탈 안 털먼 빨래가 꾸적꾸적혀.
지역 전북.

꾸적이다 동 [대응어] 구기다.
☞꾸지다.
지역 고창.

꾸정끼리다 형 [대응어] 흐리다(기억/판단력이).
기억력이나 판단력 따위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기억이 {꾸정끼리} 갖고 자신이 없네.
지역 전북.

꾸정물 명 [대응어] 구정물.
음식 그릇을 씻을 때 쓰는 물. 무엇을 씻거나 빨거나 하여 더러워진 물. ¶삼생(三生)에 누구랑 웬 수진 일 있으기요오, 왜 이런 설움에 {꾸정물} 잡숫고, 나 이러요<최명희, 혼불> ¶아, 접때 주장에서 내가 퍼메긴 술은 술이아니라 {꾸정물입더}? 예? 마셔봉게 술이 아니라 {꾸정물이더냥게로}? 말씸 한번 혀보더라고! … <이병철, 모래내 모래톱> ¶한 개만 재쳐 주면(익혀 주면), 성도 묵고 나도 묵제 {꾸정물이} 나오더래도 성님네 소를 주지 내 소를 준가<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완주, 임실, 군산, 무주, 고창, 남원.

꾸정크리다 동 [대응어] 휘정거리다.
☞구정키리다. ¶우에서 물을 {꾸정크링게} 바닥이 뒤어야 대수리를 잡지.
지역 전북.

꾸정키리다 동 [대응어] 휘정거리다.
☞구정키리다. ¶고놈덜이 바로 깨끔헌 둠벙물 {꾸정키리는} 느자구없는 미꾸랑지새끼덜이라서 그런 것 아니겄어!<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꾸정하다 형 [대응어] 탁하다.
액체나 공기 따위에 다른 물질이 섞여 흐리다. ¶날씨가 몹시 {꾸정하네}. ¶우에서 뚝방 공사를 허는지 물이 {꾸정허서} 빨래허기는 다 틀렸다.
지역 전북.

꾸져지다 동 [대응어] 구겨지다.
구김살이 잡히다. ¶그리가꼬 그 꾸지렁을 먹꼬 그 야단 허느냐고 그렁개, 후딱 {꾸져진} 편지 하나를 꺼내도만 내헌티 던지고서 지 방으로 뛰쳐들어가더랑개.
지역 고창.

꾸종물 명 [대응어] 구정물.
무엇을 씻거나 빨거나 하여 더러워진 물. ¶손이 어찌나 드러운지 맷국물 흘러서 금방 {꾸종물이} 되얐네. ¶빨래를 빨고 난 {꾸종물을} 내다

버려라.
지역 전북.

꾸중물 명 [대응어] 구정물.
☞꾸종물.
지역 전북.

꾸지다 동 [대응어] 구기다.
종이나 천 따위의 얇은 물체에 잔금이 생기게 하다. 또는 일의 진행을 꼬이게 하다. 또는 마음이 언짢아지게 하다. ¶그 남자는 있는 심것 이마를 {꾸지고} 꼬라지를 내는디, 오메, 무섭드랑게. ¶허던 일이 {꾸진게} 자존감이 팍팍 떨어지는 것 같어. ¶{꾸진} 맴을 어떻게 허면 잘 풀었다 할 것인지 몰르겄네.
지역 고창.

꾸척시럽다 형 [대응어] 새삼스럽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느껴지는 감정이 갑자기 새로운 데가 있다. 또는 하지 않던 일을 이제 와서 하는 것이 보기에 두드러진 데가 있다. ¶우리 논발에 우리가 농새 지묵으면 됐제 멀라고 {꾸척시럽게} 적어내고 말고 헌다요?<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해설 『전남방언사전』에 '구척시럽다'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구척시럽다>꾸척시럽다'의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구척>꾸척'에 형용사 파생 접미사 '-시럽-'이 연결된 것이다.

꾹적거리다 동 [대응어] 구겨지다.
구김살이 생기게 자꾸 구기다.
지역 무주.

꾼내 명 [대응어] 구린내.
똥이나 방귀 냄새와 같이 고약한 냄새. ¶{꾼내} 나는 걸 보니 누가 방귀를 뀐게 확실허고만. ¶가을에 은행나무에서 떨어진 은행을 밟지 않아도 지나가려면 {꾼내를} 풍겨 코를 막아야 한다.
지역 전북.

꿀꿀 부 [대응어] 꿀꿀.
돼지가 내는 소리를 흉내내는 말. ¶아, 돼지란 것이 첨에 {꿀꿀} 헐 때는, 밥이 없어서 그놈이 배고파서 {꿀꿀} 하는 줄 알고 주인이 밥을 줄 것이 아니냐? 그런개 잘먹을 것은 사실이고.<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김제, 남원, 부안, 순창, 군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꿀꿀꿀 부 [대응어] 오래오래.
돼지를 부르는 소리. ¶돼지를 {꿀꿀꿀} 하고 부르면 와.
지역 남원.

꿀다 동 [대응어] 꿇다.
무릎을 구부려 바닥에 대다. ¶무릎을 {꿀어라} ¶두 해를 {꿀고} 핵교를 들어갔더니 내가 반에서 나이가 제일 많았지.
지역 순창.

꿀뚝 명 [대응어] 굴뚝.
☞굴뚝.
지역 전북.

꿀앉치다 동 [대응어] 꿀어앉히다.
무릎을 구부려 바닥에 대고 앉게 하다. ¶나를 바닥에 꿀앉치고 한참을 잔소리를 혔어. ¶선생님은 세수를 안하고 온 애덜을 앞으다[꿀앉히고는], 일장 연설을 시작혔다. ¶나쁜 짓을 한 철수를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꿀앉쳤다}. ¶학생을 바닥에 {꿀앉치고} 혼을 낸다. ¶훈장님께서 학동을 바닥에 {꿀앉치고} 혼내셨다
지역 전북.

꿀치다 동 [대응어] 꿇리다.
무릎을 구부려 바닥에 대게 하다. ¶그냥 엎어다 {꿀처} 놓고 볼기를 치고는 바랑서 그냥 쇠짐을 하나 넣고는 가라고<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 편>
지역 전북.

꿇고앉다 동 [대응어] 꿇어앉다.
무릎을 구부려서 바닥에 대고 앉다. ¶다소곳이 바닥에 {꿇고앉았다}.
지역 전북.

꿇우다 동 [대응어] 꿇다.
무릎을 구부려 바닥에 대다. ¶무릎을 {꿀우고} 앉아서 다리가 아프다
지역 남원, 장수.

꿇다 동 [발음] [꿀따] [활용형] 꿇고[꿀꼬], 꿇으니 [꾸르니] [대응어] 꿇다.
무릎을 구부려 바닥에 대다. ¶{꿀꼬} 안는다.(꿇어 앉는다.)<2005 전북 남원>
지역 남원, 군산, 장수, 정읍, 진안.

꿈꿔다 동 [대응어] 꿈꾸다.
꿈을 꾸는 상태에 있다. 또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거나 뜻을 세우다. ¶자면서 웃는 것이 {꿈꿔는} 모양이다. ¶다시 만나기를 {꿈꿔고} 있다.
지역 전북.

꿈매다 동 [대응어] 꿰매다(바늘로).
옷 따위의 해지거나 뚫어진 데를 바늘로 깁거나 얽어매다. ¶바짓가랭이가 아주 날근날근헌 것을 다 {꿈맸다구} ¶팔꿈치가 헤졌으니 {꿈매} 입자구나.
지역 장수.

꿈직거리다 동 [대응어] 꿈지럭거리다.
몸이 천천히 굼뜨게 계속 움직이다. 또는 몸을 게으르고 천천히 계속 움직이다. ¶그렇게 {꿈직거리다가} 기차를 놓치겠다. ¶방이 좁아 몸을 {꿈직거리기도} 힘들다.
지역 전북.

꿉다 동 [대응어] 굽다.
한쪽으로 휘다. ¶팔은 다 안으로 {꿉는} 법잉께 우리 편얼 들겄지.
지역 진안.

꿋다 동 [발음] [꾸따] [활용형] ㄲㅜㆆ고[꾸꼬], ㄲㅜㆆ어[꾸어] [대응어] 굽다(燒).
☞꾸다.
지역 남원, 임실.

꿍겨놓다 동 [대응어] 숨기다.
감추어 보이지 않게 하다. ¶가슴 속에 {꿍겨놓았던} 말을 후련하게 털어놓았을 때의 개운한 기분이었고,<송기숙, 자랏골의 비가>
지역 전북.
해설 표준어형 '숨기다'의 뜻으로 '-기-'는 사동 접미사이다. 같은 뜻으로 합성 동사 '꿍겨놓다, 꿍겨박다' 따위가 쓰인다.

꿍겨박다 동 [대응어] 숨기다.
감추어 보이지 않게 하다. ¶필순이는 아버지의 등짝에 얼굴을 {꿍겨박은} 채 눈짓 손짓 한번 없이 가버렸다.<송기숙, 자랏골의비가>
지역 전북.
해설 표준어형 '숨기다'의 뜻으로 '-기-'는 사동 접미사이다. 같은 뜻으로 합성 동사 '꿍겨놓다, 꿍겨박다' 등이 쓰이고 있다.

꿍기다 동 [대응어] 숨기다.

감추어 보이지 않게 하다. ¶"내가 너무 {꿍기고} 있어서는 못쓰겠구만. 실은 말이야, 자기 딸을 자네한테 주겠다고 했네. 거그다가 논까지 10마지기나 얹겠다고 하더구만.<송기숙, 녹두장군>

지역 전북.

꿍지다 동 [대응어] 꿍지다.

돈이나 어떤 물건을 깊은 곳에 꼭꼭 숨겨 놓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에 큰당숙이 돌아오는 장에 나가 배메기로 내놓을 송아지를 사려고 안방 벽장 속에다 {꿍져} 둔 돈을 훔쳐 달아나 버렸다.<윤흥길,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

지역 전북.

꿩새끼 명 [대응어] 꿩병아리.

꿩의 새끼. ¶사내새끼라 그런지 얼매나 기운이 씬가 몰러, 처기 언덕빼기 올라가서 뭐더는가 봤드니만 {꿩새끼를} 몰고 안졌네. ¶어미 꿩을 따라 {꿩새끼}들이 나들이 간다. ¶그것도 목숨이 있는 짐승인디 어찌 {꿩새끼}를 줏어 왔단 말이냐. 사람 손 타기 전에 언능 가서 돌려주고 오니라[완주]

지역 전북.

꿩새키 명 [대응어] 꿩병아리.

☞꿩새끼.

지역 전북.

꿰다 동 [대응어] 꾸다(夢, 꿈을).

자면서 꿈을 보다. ¶밤에 무서운 꿈은 {꿰서} 기분이 좋지 않고.

지역 고창, 남원, 무주, 부안,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꿰이 명 [대응어] 괭이.

☞깨이.

지역 전북.

꿰채다 동

어떤 사정이나 형편을 재빨리 파악하다. ¶저 사람은 뭘 {꿰채} 보는 눈이 있어.

지역 전북.

뀌게지다 동 [대응어] 구겨지다.

구김살이 잡히다. ¶요즘 들어 {뀌게진} 주름 땜시 걱정이 많어.

지역 김제, 부안, 군산, 완주, 정읍.

뀌구적기리다 동 [대응어] 구기적거리다.

☞꾸구적거리다.

지역 전북.

뀌기다 동 [대응어] 구기다.

☞꾸기다.

지역 김제, 군산, 완주, 익산, 정읍, 진안.

뀌기적거리다 동 [대응어] 구기적거리다.

구김살이 생기게 자꾸 구기다. ¶전대에서 쏟아놓은 돈, 동전, 백동전, 은전 1원짜리 {뀌기적거린} 것들을 세고 앉았는 노파. ¶입은 양복은 천은 좋으나 함부로 굴어 {뀌기적거리고} 술 흘린 자국이 지저분하게 묻었다.

지역 전북.

뀌기지다 동 [대응어] 구겨지다.

☞뀌게지다.

지역 완주, 정읍.

뀌다[1] 동 [대응어] 꾸다(夢, 꿈을).

자면서 꿈을 보다. ¶어즈끄는 내가 이상시런 꿈을 다 {뀌었소}. 꿈이가 돌아가신 시아버님이 나와 갖고 "아가" 허고 불르는디 내가 얼매나 놀랬는가 몰르요. ¶좋은 꿈을 {뀌었을} 때는 진득허니 있어야지 자발맞게 지껄이고 댕기면 꿈의 효

힘이 다 날라가 버리는거여.

지역 고창, 군산,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뀌다[2] 동 [대응어] 빌리다(借).

곡식이나 돈 등을 나중에 돌려주기로 하고 일정 기간 동안 쓰다. ¶먹을 것이 없어서 옆집에서 쌀을 {뀌었다} ¶“돈을 {뀌여} 준지가 언지라고 갚을 생각을 안혀. ¶큰 일 치를란디 어디 돈이 있간디? 가서 돈 좀 {뀌어} 주라고 히야제.

지역 고창.

뀌다[3] 동 [대응어] 꿰다(실을).

실이나 끈 따위를 구멍이나 틈의 한쪽에 넣어 다른 쪽으로 내다. ¶바늘에다가 실을 {뀐다고} 그러지.

지역 전북.

뀌매다 동 [대응어] 꿰매다(바늘로).

옷 따위의 해지거나 뚫어진 데를 바늘로 깁거나 얽어매다. ¶그러먼 그놈 {뀌매} 놓고 오십시오.<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아가넌게 신을 뒤치고 앉어서 신을 {뀌매요}.<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고창, 정읍.

뀌미 명 [대응어] 꾸미.

국이나 찌개에 넣는 고기붙이. ¶{꾸미를} 넣다. ¶뒷집으서 물괴기 한{뀌미} 얻어 왔는디 매운탕이나 잘 끓여놔.

지역 무주, 진안.

뀌미개 명 [대응어] 꾸미.

국이나 찌개에 넣는 고기붙이. ¶{뀌미개}를 넣다

지역 익산.

뀌미다[1] 동 [대응어] 꾸미다.

어떤 용도에 맞게 시설을 갖추거나 건물을 짓다. 또는 논을 평평하고 가지런하게 고르다. ¶논을 다 {뀌밌으니} 고만 허고/ 허 허라 어허 햇가/모를 모두 잘들 심세/허 허라 어허 햇가(김제 논고르는 소리-논꾸미는 소리)<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저그다 {뀌미고} 장사혀. ¶병원 뀌몄대.

지역 전북.

뀌미다[2] 동 [대응어] 꿰매다(바늘로).

☞뀌매다.

지역 정읍.

뀌양이 명 [대응어] 고양이.

☞고앵이.

지역 전북.

뀌엄지 명 [대응어] 꿰미.

물건을 꿰는 데 쓰는 끈이나 꼬챙이 따위. 또는 거기에 무엇을 꿴 것. ¶{뀌엄지}에 꿰다 ¶고기 한 {뀌엄지}

지역 전북.

뀌역뀌역 부 [대응어] 꾸역꾸역.

음식 따위를 한꺼번에 입에 많이 넣고 잇따라 씹는 모양. 또는 한군데로 잇따라 많은 사람이나 사물이 몰려가거나 들어오는 모양. ¶배때지가 불러도 밥얼 남기먼 안 된다구 그럼서 {뀌역뀌역} 밀어넣는 거여. ¶허연 벌거지가 {뀌역뀌역} 나오드라구. ¶판을 벌려놓았더니 공것으로 주는 것도 아넌디 그리도 사람들이 뀌역뀌역}, 뫼야 들더라고.

지역 전북.

해설 ‘꾸역꾸역’에서 움라우트를 겪어 ‘뀌역뀌역’이 되었다. 움라우트 현상은 전북 방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음운 현상이다.

뀌염지 명 [대응어] 꿰미.

물건을 꿰는 데 쓰는 끈이나 꼬챙이 따위. 또는 거기에 무엇을 꿴 것.

지역 전북.

뀡기다 동 [대응어] 끼우다.

벌어진 사이에 무엇을 넣고 죄어서 빠지지 않게 하다. ¶단추를 구멍에 {뀡긴다}. ¶좁은 틈새에 {뀡겨} 앉았다.

지역 고창.

-끄나 【종결어미】 [대응어] -ㄹ거나.

해할 자리에 쓰여, 자신의 어떤 의사에 대하여 자문(自問)하거나 상대편의 의견을 물어볼 때에 쓰는 종결 어미. ¶그런디 토요일날 허믄 어찌끄나고 허드란게. ¶내가 여그서 씨러지면 {어찌끄나}, 죽으면 되지만 추접 떨겄다. ¶얼굴 다 실켜서 {어찌끄나}? 학교 어찧게 {가끄나}? 안티푸람 바르고 가야 하끄나 말아야끄나, 어찌끄나? ¶학교 가는 것은 어찧게 학교 {가끄나} 그러지마는.

지역 전북.

끄난풀 명 [대응어] 끄나풀.

①길지 아니한 끈의 나부랭이.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꾐에 넘어가 그들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왜놈 {끄난풀} 했던 놈 아니여?

지역 전북.

끄니 명 [대응어] 끼니.

아침, 점심, 저녁과 같이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먹는 밥. 또는 그렇게 먹는 일. 또는 그런 일의 횟수를 세는 단위. ¶인저 보리허고 싸래기허고 그누머고 써꺼서. 그리도 그거시라도 {끄니는} 안 거르고 바븐 머궁게.<2008 전북 고창> ¶아, 이 피랭이란 놈은 뱁 국 {끄니도} 아적으도 못 먹그서 숟그락 끝으다 묻혀서 쪼까썩 준게 그런게 빌어 먹어도 한가지 뵉(福)이 들어 빌어 먹는다 소리가 그 소리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팽상에 나뭇꾼으로, 살아 지신 어머니 {끄니조차} 지대로 챙기기 에러울 거이고, 돌아가신 아부지 맹당에 뫼시기는 아예<최명희, 혼불> ¶그렇게 열심히 벌고 애껴도 아직도 {끄니} 갈망을 못 허고 있으니 팔자도 참 기구허요. ¶그러니 당신님 밥 한 {끄니} 대접헌 것은 별 문제이오나, 내가 죽는 마당으 당신이 강싸잽이로 개평으로 죽으면 안되아.<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빼빠지게 일혈 필요도 없고 굶어도 당최 죽을 염려가 없는 천국 백성들이 얼매나 허기지고 얼매나 아수워서 삼시시 {끄니} 걱정에다 일삼어 먹는 타령이겄소? <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고창, 군산, 김제, 남원, 무주, 완주, 임실, 정읍.

끄덕끄덕허다 동 [발음] [끄덕끄더거다/끄덕끄더커다] [대응어] 끄덕그덕하다.

고개 따위를 아래위로 거볍게 계속 움직이다. ¶그 기억이 나냐고 허넌게 고개만 {끄덕끄덕허고} 울고만 앉았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고로케 혀갖고는 가만히 듣는 덧기허고 있고 어쩌고 저쩌고 고개를 {끄덕끄덕허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끄덕허다 동 [발음] [끄더거다/끄더커다] [대응어] 까딱하다.

움직이거나 변동되어서는 안 될 것이 조금이라도 움직이거나 잘못 변동되다. ¶근개 한 삼경이나 됐든가, 삼경이라구 하면 요새 12시, 시간으로 말하믄 그 정도여. 밤중 쯤 됐는디, 잠이 와 {끄덕허믄} 찔끔해서 깨지고 깨지고 혀.<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전북.

끄덕허면 부 [발음] {끄더거면/끄더커면} [대응어] 까딱하면.

작은 일이라도 있기만 하면 바로. ¶넌 {끄떡허면} 운다잉. ¶니들은 끄덕하면 싸우고 {토라진다냐}? ¶{끄덕허면} 나 그냥 가버릴랑게 알어서 혀. ¶이 아이는 {끄덕허면} 울곤한다.

지역 전북.

끄데이 명 [대응어] 끄덩이.

☞끄뎅이.

지역 전북.

끄뎅 명 [대응어] 끄덩이.

머리털이나 실 따위의 뭉친 끝. ¶선생님 말 {끄뎅은} 내가 잡고, 퀸은 또 말을 타는디.

지역 전북.

끄뎅이 명 [대응어] 끄덩이.

머리털이나 실 따위의 뭉친 끄트머리. ¶뱃속으다 애기 담고 어디로 비접을 간당가? 어뜬 사람은 애기 날 때 즈그 서방 상투 {끄뎅이} 안 잡으면 끝끝내 못 낳는다등만.<최명희, 혼불> ¶남원댁이 알면 {끄뎅이} 잡혀 혼날거다. ¶"반분이나마 풀리게코롬 엄니, 내 머리 {끄뎅이를} 와락와락 쥐어뜯으시오. 내 살점을 찝어가꼬 내 낯판대기를 실컨 할퀴시요."<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두 아주머니가 {머리끄뎅이를} 잡고 싸우는데 어찌나 무섭던지.

지역 전북.

끄떡하면 부 [발음] {끄떠가면/끄떡카면} [대응어] 까딱하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또는 습관처럼 자주. ¶그런 말은 {끄떡하면} 오해 받을 수 있으니께 매사에 조심해야 허. ¶{끄떡하면} 놀러만 나가자고 허고 일은 언제 하려나 모르겄네.

지역 전북.

끄떡허다 동 [발음] {끄떠거다/끄떠커다} [대응어] 까딱하다.

움직이거나 변동되어서는 안 될 것이 조금이라도 움직이거나 잘못 변동되다. ¶아 긍게 인자 장난헐라므는 그놈을 방가운데다 놓고 어머니 뺨 때려라, 아버지 쉬염 잡어 드려라, 이것이 행습이 되야버렸어. 아 이놈이 걍 장난히도 걍 {끄떡헌 다치믄} 아버지 쉬염 잡고 잡어댕기버리고, 어머니 뺨도 걍 덜컥 때리버리고 그려.<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끄뜩허먼 부 [발음] {끄뜨거먼/끄뜨커먼} [대응어] 까딱하면.

☞끄떡하면.

지역 전북.

-끄라우 【종결어미】 [대응어] -을까요

해요할 자리에 쓰여, 의문이나 추측을 나타내거나 상대편의 의사를 묻는 종결 어미. ¶지가 {가끄라우}.<김중진(1976)> ¶묻지도 말고 얼릉 가씨요. 가서 멋을 어뜨케 {허끄라우}? 얼릉 가서 제사지내고 허리 풀어 디리시요. 허리를 풀어요? 가 보면 앙게 얼릉 가시요.<최명희, 혼불>

지역 고창.

끄러지다 동 [대응어] 끌러지다.

매거나 잠가둔 것이 풀어져 그렇지 않은 상태로 되다. ¶운동화끈이 자꾸 {끄러져} 있네.

지역 김제.

끄렁나무 명 [대응어] 그루터기(땔감).

풀, 나무, 곡식 따위를 베어 낸 뒤에 남은 밑동.

지역 전북.

끄름 명 [대응어] 그을음.
어떤 물질이 불에 탈 때에 연기에 섞여 나오는 먼지 모양의 검은 가루. ¶근디 한 방을 가보닌게 걍 사람도 들랑거리도 않고 그런 방인디 {끄름이} 꽉 쩌갖고 있고 벽장이 있어서 그 방으 청소를 허는디 벽장도 말헐 수 없을 것 아녀? 방이 그렇게 생있은게.<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부엌은 천장이며 베랑빡이 {끄름때미} 새캄했다. ¶부엌에서 나뭇가지로 아궁이에 불을 때면 {끄름이} 많아 매워서 눈물을 흘렸어. ¶나무가 마르지 않아서 그런지 {끄름을} 많이 내면서 타는구나.
지역 부안, 완주, 익산, 군산, 정읍.

끄리끄리허다 형 [대응어] 대단하다.
출중하게 뛰어나다. ¶송 선상이 잽혀가기넌 혔어도 양반인디다가 문중이 원체로 {끄리끄리헝게} 주재소놈덜도 담날 안 풀어줄 수가 없었구만. <조정래, 아리랑> ¶마당에 {끄리끄리헌} 놈들이 몰리와서 당장 꿔간 돈을 내노라는디 내가 돈이 있는가 심이 있는가. ¶우리 삼촌이 워낙 {끄리끄리허니까} 아무도 건들지 않았어. ¶5남매가 모이니 {끄리끄리} 하구나.
지역 전북.
해설 전라 방언에 보이는 '끄리끄리하다'는 의태어 '끄리끄리'에서 파생한 어휘로 보인다. '끄리끄리', '끄릿끄릿'은 "여러 사람이 떼를 지어 모여 있는 모습"을 말하는데 여기서 여러 의미가 파생한 것으로 보인다.

끄리다 동 [대응어] 끄르다.
맺은 것이나 맨 것을 풀다. ¶허리띠를 {끄리고} 밥을 먹는다.
지역 고창, 임실, 장수, 남원, 부안, 진안.

끄릿끄릿하다 형 [대응어] 대단하다.
☞끄리끄리하다. ¶{끄릿끄릿한} 장정들이 모여서 일을 한다.
지역 전북.

끄스다 동 [대응어] 끌다.
☞끄시다.
지역 전북.

끄슥다 동 [대응어] 끌다.
바닥에 댄 채로 움직이게 하다. 또는 시간을 고의로 지연시키다. 또는 같이 가면서 뒤따르게 하다. ¶자전차를 {끄슥고} 학교에 간다.
지역 전북.

끄슥어내리다 동 [대응어] 끌어내리다.
직위 따위를 박탈하거나 높은 지위에서 격하시키다. ¶일을 못한다고 이장 자리에서 {끄슥어내렸어}.
지역 전북.

끄슥어들이다 동 [대응어] 끌어들이다.
남을 권하거나 꾀어서 자기편이 되도록 하다. ¶나는 그 일에 {끄슥어들이지} 마라.
지역 전북.

끄슥어올리다 동 [대응어] 끌어올리다.
지위나 수준을 위로 올려 주다. ¶수준을 좀 {끄슥어올려} 봐라.
지역 전북.

끄슬러지다 동 [대응어] 그을리다, 그슬리다.
햇볕이나 불, 연기 따위를 오래 쬐어 검게 되어지다.
지역 전북.

끄시다 동 [대응어] 끌다.
바닥에 댄 채로 움직이게 하다. 또는 시간을 고의로 지연시키다. 또는 같이 가면서 뒤따르게 하

다. ¶소아치(송아지)를 {끄시고서} 팔러 장으를 갔어요. 손자 나간 뒤에 그 소를 {끄시고} 가는데 한 반절쯤이나 가닝가, "할아버지, 할아버지." 부르는 소리가 나는디 돌아다본게 손자가 두 손을 갈러쥐고 쫓아오거든요.<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무주, 완주, 익산, 장수, 진안, 남원.

해설 '쓰스다>끄스다>끄시다'의 변화를 겪은 결과로 보인다. 표준어형 '끌다'는 17세기에 나타난 형태로 '쓰을다>끌다>끌다'의 변화를 겪었다.

끄시랑이 명 [대응어] 지렁이. ¶아 비만 오먼 어이서 나오는지 {끄시랑이들이} 겁나게 돌아댕겼는디, 시방은 볼래야 볼 수가 없다고.<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끄시랑이들이} 나오먼 닭들이 쪼사가꼬 잡아먹고 그랬당게.<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전북.

끄시럼 명 [대응어] 그을음.

어떤 물질이 불에 탈 때에 연기에 섞여 나오는 먼지 모양의 검은 가루. ¶한 심지에 붙은 불이, 왜 어뜬 것은 화안허고 고운 불꽃으로 타고, 또 왜 어뜬 것은 저런 시커먼 {끄시럼이} 되능고.<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해설 16세기 문헌에 '그스름'이 나타나는데 이후 '그으름'으로 변한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오래 된 '그스름'이 된소리가 되어 '끄시름, 끄시럼' 등으로 쓰인다.

끄시르다 동 [대응어] 그을리다.

☞끄실르다. ¶그것 쪼금만 {끄시르면} 돼. 한번 {끄실러봐}. ¶오목아 오목아 니 생알때 가닝개로 /떡 한 쪼각 밥 한 {숟그락} 안 주더라/내 생알 때 와 봐라<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정읍 "반아 반아 국시반아"-정읍군 북면 복흥리 탑성)

지역 김제, 남원,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장수, 진안.

끄시름 명 [대응어] 그을음.

어떤 물질이 불에 탈 때에 연기에 섞여 나오는 먼지 모양의 검은 가루. ¶{끄시름} 안나 그건 <완주_지역어_텍스트> ¶{끄시름}, 끄시름 쪘다고, 꺼시름, 꺼시름 쪘다고<2008 전북 고창> ¶등잔의 심지를 그렇게 질게 올리면 {끄시름}이 올라옹게 좀 쭐여라.

지역 고창, 김제, 남원, 완주, 정읍, 진안.

끄식개신 명 [대응어] 베틀신.

베틀신대 끝에 줄을 달고 그 끝에 동인 외짝 신.

지역 전북.

끄식기다 동 [대응어] 끌리다.

기울거나 쏠리게 되다. 또는 붙잡혀 억지로 움직여지다. 또는 바닥에 닿은 채 잡아당겨지다. ¶마음이 {끄식기는구만}. ¶순사들에게 {끄식겨} 갔다구 하던만. ¶바짓가랑이 {끄식기면서} 가는디 뵈기 좋겄어?

지역 전북.

끄식다 동 [대응어] 끌다.

바닥에 댄 채로 움직이게 하다. 또는 시간을 고의로 지연시키다. 또는 같이 가면서 뒤따르게 하다. ¶그게 쇠꼬리막대기여. 쇠꼬리막대기, 끈으로 이렇게 잡아 댕기는 것. 그런개 그 목을 내갖고 막대기로 그렇게 {끄식어} 당긴개.<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나라에서 평란을 말할 적에 겸암은 사흘이면 평란하겠다고 하고, 사흘이면 평란하겠다고 했거든. 그래도 안 썼다 이거여, 안 쓰고 그대로 하다가 8년을 {끄식어} 버렸어. <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전북.

끄식어내다 동 [대응어] 끌어내다.
강제로 당겨서 밖으로 나오게 하다. ¶그놈 좀 {끄식어내}.
지역 전북.

끄식어내리다 동 [대응어] 끌어내리다.
☞끄슥어내리다.
지역 전북.

끄식어들이다 동 [대응어] 끌어들이다.
☞끄슥어들이다.
지역 전북.

끄식어올리다 동 [대응어] 끌어올리다.
☞끄슥어올리다.
지역 전북.

끄실끼 명 [대응어] 활대.
활의 몸체를 이루는 대. ¶{끄실끼가} 빳빳하구만.
지역 남원.

끄실다 동 [대응어] 그을다(그을음이).
☞끄실르다.
지역 고창, 정읍.

끄실러지다 동 [대응어] 그을리다, 그슬리다.
햇볕이나 불, 연기 따위를 오래 쬐어 검게 되어지다. ¶암것도 안쓰고 다니면 얼굴이 말도 아니게 {끄실러져}
지역 군산.

끄실르다 동 [대응어] 그을리다, 그슬리다.
불에 겉만 약간 타게 되다. 또는 햇볕이나 불, 연기 따위를 오래 쬐어 검게 하다. ¶해수욕장서 오래 {끄실르다} 봉게 완전 꺼먹둥이가 되었네. ¶집이다 불을 질러. 화딱 {끄실러} 버리믄 또 새로 지으믄 또 기냥 {끄실르고} 그놈으 살림살이가 다 망해쁘리지 있을 것이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그래 인제 구렁이를 {끄실러} 갖고 묶고는 어깨에 메고 '어하 어하' 하는디, 이놈은 지팽이를 짚고는 '아이고 아이고' 하고 운다 그 말이여.<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왼 종일 밭에서 일하고 오더니 온 몸을 {끄실렀구나}. ¶닭을 잡아 털을 뽑고 살짝 불에 {끄실러서} 잡으면 맛이 좋지.
지역 김제, 완주, 고창, 남원, 정읍.

끄실리다 동 [대응어] 그을리다, 그슬리다.
불에 겉만 약간 타게 되다. 또는 햇볕이나 불, 연기 따위를 오래 쬐어 검게 하다. ¶"이 싦아, 그것이야 당연지사 아니라고. 무주 산골서 농새짐서 낮 {끄실리고} 살다가 여그 창고 안이서 땡볕피허고 생바람 피허고 헝게 본래 낯색이 나는 것 아니겄어?" 서너 달이 지나서 손판석이가 답답하다는 듯 한 말이었다.<조정래, 아리랑>
지역 남원, 무주, 임실.

끄실먹 명 [대응어] 그을음.
☞끄실목.
지역 남원, 임실.

끄실목 명 [대응어] 그을음.
어떤 물질이 불에 탈 때에 연기에 섞여 나오는 먼지 모양의 검은 가루. ¶아궁지에 {끄실목이} 한 가득이고만.
지역 남원, 임실, 장수.

끄실쿠 명
큰 소를 데리고 길로 나갈 때 소를 길들이기 위해 소에 매단 무거운 돌. 소가 무거운 돌을 끌어야 하므로 날뛰지 않는다. 또는 베를 날 때 마당

에 불을 피우고 실을 말리는데 뭉치로 묶어 놓은 실이 반대편 도토마리에 감길 때 한번에 따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달아 놓은 돌. ¶소질 들이는 끄실쿠. 독 달아 놓잖여. 또 베 매는 끄실쿠. 어떤 끄실쿤지 알아?
지역 전북.

끄ㅇ다 동 [발음] {끄따} [활용형] ㄲㅡㆆ고[끄꼬], ㄲㅡㆆ으니[끄니] [대응어] 끌다.
바닥에 댄 채로 움직이게 하다. 또는 시간을 고의로 지연시키다. 또는 같이 가면서 뒤따르게 하다. ¶치마가 머 그리 길게 허갖고 땅을 {끄꼬} 다닌다요? ¶구루마 {끄찌} 마쇼. 허리도 안 좋은 양반이. ¶쪼무래기들 {끄꼬} 다닐라면 힘들겄소.
지역 남원.

끄으른내 명 [대응어] 내(煙氣).
물건이 불에 탈 때에 일어나는 부옇고 매운 기운. ¶끄으른냄새지, {끄으른내져}<2007 전북 군산> ¶남포불의 석유가 잘 타지 않아서 {끄으른내가} 많이 나는구나.
지역 군산.

끄으름 명 [대응어] 그을음.
어떤 물질이 불에 탈 때에 연기에 섞여 나오는 먼지 모양의 검은 가루. ¶그 앞의 그 집진 자리 집은 없어지고 거기다가 불 땐 {끄으름이} 이렇게 바우로 올라갔는디 바우에 가면 인형마냥으로 이렇게 그려놨어요. 근디 그런 이 배꼽 거기 가서 문이 있었어요.<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이렇게 쳐다본게 참말 사람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무섭거든. 머리 풀어서 그냥 막 몸뚱이가 {끄을음이} 묻어가지고서 이렇게 생겼으니 어떻게 되겄어.<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솔가지를 끄너와 아궁이에 불을 부찌면 {끄으름이} 많이 났지.
지역 군산, 정읍.

끄을목 명 [대응어] 그을음.
어떤 물질이 불에 탈 때에 연기에 섞여 나오는 먼지 모양의 검은 가루. ¶불을 때면서 {끄을목을} 뒤집어써 버렸나 보네.
지역 무주.

끄을음 명 [대응어] 그을음.
어떤 물질이 불에 탈 때에 연기에 섞여 나오는 먼지 모양의 검은 가루. ¶그 앞의 그 집진 자리 집은 없어지고 거기다가 불 땐 {끄을음이} 이렇게 바우로 올라갔는디 바우에 가면 인형마냥으로 이렇게 그려놨어요.<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끄저내다 동 [대응어] 끌어내다.
강제로 당겨서 밖으로 나오게 하다. ¶안방에 척 허고 누운 놈 {끄저내서} 다신 못 들오게 히라.
지역 전북.

끄저내리다 동 [대응어] 끌어내리다.
직위 따위를 박탈하거나 높은 지위에서 격하시키다. ¶{끄저내린다고} 내려질 사람이간디?
지역 전북.

끄저들이다 동 [대응어] 끌어들이다.
남을 권하거나 꾀어서 자기편이 되도록 하다. ¶나는 그 일에 {끄저들이지} 마라. ¶매급시 그딴 놈을 {끄저들여서} 우리 모임에 분란만 커졌당게.
지역 전북.

끄저올리다 동 [대응어] 끌어올리다.
지위나 수준을 위로 올려 주다. ¶니가 {끄저올린다고} 올려질 일이 아니다.
지역 전북.

끄적 명 [대응어] 거적.

☞꺼적. ¶이슬은 안맞고 괜찮으나 이왱이먼 저 뜰 밑이 가서 말캉 밑이 가서, 섶(짚 섶) {끄적이라도} 덮고자면 따땃하겄거든.<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부안.

끄져내다 동 [대응어] 끄집어내다.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서 밖으로 내다. ¶윈 동네 사람들이 와서 막 {끄져내}. ¶놓으 있는 것 다 {그져내서} 말짓허고.

지역 전북.

끄지 조 [대응어] 까지.

어떤 일이나 상태 따위에 관련되는 범위의 끝임을 나타내는 보조사. ¶인자{끄지} 합격을 못했으믄 가망이 없는 거 아닌가? ¶개학날이 낼모래인디 인자{끄지} 숙제를 한나도 안헌 것이 걱정도 안되는게벼. ¶숙제가 얼마나 된다고 인자{끄지} 하고 있다냐.

지역 전북.

-끄지 조 [대응어] 까지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그렁개 거기 그 인재, 상두군드리 {거끄지} 갇따노머는 알광 판디끄지 갇따노먼, 알광이 는는 거선, 는는 거슨 인재 거: 상두군 가깐 지바니라등가 이캐 이런 사람더리 인재 그런 사람드리 너요, 거그다가.(그러니까 거기 그 이제, 상구꾼들이 거기까지 가져다 놓으면 알광 판 데까지 가져다 놓으면, 알광에 넣는 것은, 넣는 것은 이제 그 상두꾼 가까운 집안이라든가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넣어요, 거기다가.)<전북지역어, 남원시>

지역 전북.

끄지다 동 [대응어] 끌다.

☞끄집다.

지역 순창.

끄직다 동 [대응어] 끌다.

바닥에 댄 채로 잡아당기다. ¶신발을 끄직고 걷는다. ¶즈 아부지가 질질 {끄직고} 갔응게 당분간은 동네가 죄용 헐 거여. ¶긴 장대를 {끄직고} 다니는고만.

지역 전북.

끄집다 동 [대응어] 끌다.

바닥에 댄 채로 움직이게 하다. 또는 시간을 고의로 지연시키다. 또는 같이 가면서 뒤따르게 하다. ¶신발 {끄집고} 다니는 저 뻔새 한번 보소.

지역 임실, 순창.

끄집어가다 동 [대응어] 끌어가다.

사람을 강제로 데리고 가거나 붙잡아 가다. ¶나이 먹은 처녀들은 다 {끄집어간게}. 왜정 때.

지역 전북.

끄짓다 동 [대응어] 끌다.

☞끄직다.

지역 순창.

끄치다 동 [대응어] 그치다.

☞근치다. ¶그런디 내가 그놈을 {끄치야는디} 허다가 대번에 또 다른 걸 생각허다가 깜빡 혔네.<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정읍.

끄터리 명 [대응어] 가장자리.

둘레나 끝에 해당되는 부분. ¶그런데 자 마루 {끄터리} 저 마룽 끄트리 떠들어 놓먼 단지 하나가 있읍니다. 단지가 있는디 고 안이가 금이 하나(가득) 들었어요.<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반지가 열두 개 있응개, 큰 놈을 도라고 허면 안 되고, 저짝 {끄터리에} 제일 작은 반지를 도라고 그러시오. 뭐 금은보화를 준다고 해도 마다하고 그 반지만 도라고 허시오." 그러고 시키드랴.<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뭣이냐? 좀 보자." 허닌게 손을 대처 띠고 보니까 이런 댐배 {끄터리} 댐배 끄터리 내번진 놈을 전부 줏어서 담어가지고는 집이 가서 까서 그 담배를 인자 노인 양반들기다 팔어가지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김제, 남원, 순창, 완주, 임실.

끄턴머리 명 [대응어] 끄트머리.
☞끄틈머리.
지역 전북.

끄털 명 [대응어] 그루터기(벼).
풀, 나무, 곡식 따위를 베어 낸 뒤에 남은 밑동.
지역 무주.

끄트리 명 [대응어] 가(邊).
경계에 가까운 바깥쪽 부분. 또는 어떤 중심이 되는 곳에서 가까운 부분이나 주변부를 이르는 말.시간, 공간, 사물 따위에서 마지막 한계가 되는 곳. ¶가운데치를 떡허니 열어본게 그양 누런 그양 황금이 그양 한티가 담뿍 있어. 또 요짝 {끄트리치를} 열어 본게 그양 금싸락 은싸락이는 것이가 하나가 담뿍 있거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그 이튿날 아침이는 그 상감님 참, 문을 열고 떡 하니 내다본게 새 한 마리가 마루 {끄트리가} 앉었다가 풀썩 날라가 버리거든.<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전북.

끄틈머리 명 [대응어] 끄트머리.
맨 끝 부분. ¶아덜래미가 키가 쪠끄만허서 바지가 자꾸 훌렁훌렁 벗겨질라 그런개 허릿춤 {끄틈머리를} 짬매줬지. ¶밤마실 때 제일 {끄틈머리}에서 따라가는디 뒤에서 뭐가 머리끄뎅이를 잡아땡기는 것 같더라고. ¶꼴배기 시르니까 다신 우덜 앞에 보이지 말라고, 머리털 {끄틈머리라도} 보였다간 내 손에 뒤질 줄 알어. ¶사건의 {끄트머리를} 잡다.
지역 전북.

끅기다 동 [대응어] 끌리다.
바닥에 닿은 채로 잡아당겨지다. 또는 관심 따위가 쏠리다. 또는 이끌려 따라가게 되다. ¶마음이 {끅기는} 데로 혀. ¶왜정 때 순사들한티 질질 {끅겨} 갔다는고만. ¶옷이 바닥에 {끅기는데} 좀 짤라 입지. 왜 고 모양이여.
지역 장수.

끅젱이 명 [대응어] 극젱이.
땅을 가는 데 쓰는 농기구. 쟁기와 비슷하나 쟁깃술이 곧게 내려가고 보습 끝이 무디다. 보통 소 한 마리로 끄는데, 소가 들어가기 힘든 곳에서는 사람이 끌기도 한다. 쟁기로 갈아 놓은 논밭에 골을 타거나, 흙이 얕은 논밭을 가는 데 쓴다.
지역 전북.

끈나풀 명 [대응어] 끄나풀.
길지 아니한 끈의 나부랭이.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꾐에 넘어가 그들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긴 {끄나풀을} 끌고 댕겨. ¶그러니깨 개가 꼬리치고 나오드랴. 나온 깨로 개에다 빗자루를 딱 씰어 놓고는 산내끼(새끼)로 쨍쨍 감어갖고, {끈나풀로} 감어 갖고 인자.<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형은 억새 끝에 달린 {끈나풀을} 잡아채어 감고 또 감아 축구공을 만들어 줬다.{남원}. ¶사람 {끈나풀}이 돼 갖고 허는 짓마다 원성을 샀어. ¶그녀석을 그리 안봤더니 사장님 {끈나풀} 이었대야.

지역 남원.

-끈내 【접미사】 [대응어] -께.
'그때 또는 장소에서 가까운 범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가다 보면 어디{끈내} 가가꼬 가다본게 거가 뭇이 있드라
지역 고창.

끈내기 명 [대응어] 끈.
물건을 매거나 꿰거나 하는 데 쓰는 가늘고 긴 물건. ¶"거시기 밖에서 노 {끈내기를} 매끄럽게 꽈서 초를 메게(먹여) 가지고 방으로 들려달라."<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부안.

끈내키 명 [대응어] 끈.
물건을 매거나 꿰거나 하는 데 쓰는 가늘고 긴 물건. 또는 사람을 이어 주는 특별한 관계. ¶저 {끈내키는} 인제 지게꼬리라고 지게꼬리라고 엔나레 지게에다가 인재 이저.<지역어 자료 총서, 무주> ¶너저분한 쓰레기를 모두 모아서 이 {끈내키}로 잘좀 묶어놔. ¶우리같이 힘없고 돈없는 사람이 어디에다 잇어 볼 {끄내키}가 있어야 취직을 허지.". ¶당신과 내가 천길을 떨어져 있었어도 부부라는 {끈내키} 하나로 지금껏 버텨 온 거여."
지역 전북.
해설 '끈내키'는 '끄나풀'의 방언형인 '끄나팔'의 '끈'과 '사내키'의 '내키'가 혼태된 것으로 보인다.

끈내풀 명 [대응어] 끄나풀.
길지 아니한 끈의 나부랭이.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꾐에 넘어가 그들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지역 전북.

끈덕 부 [대응어] 까닥
고개 따위를 아래위로 가볍게 한 번 움직이는 모양. 움직이거나 변동되어서는 안 될 것이 조금이라도 움직이거나 잘못 변동되는 모양. ¶우리 순철이는 {끈덕도} 없다, {끈덕도} 없어.<윤흥길, 장마> ¶장안 열녀라고 다 데려다 뽑아봐도 이 활촉이 {끈덕} 안혀. 그 장안 열녀를 다 갖다가 실험을 봐도.<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전북.

끈떡 부 [대응어] 까딱.
고개 따위를 아래위로 가볍게 한 번 움직이는 모양. 움직이거나 변동되어서는 안 될 것이 조금이라도 움직이거나 잘못 변동되는 모양. '끈덕'보다 센 느낌을 준다. ¶사방서 다 데려다가 뽑아도 {끈떡도} 안혔는디 이 여자가 헌개 뿌드득허며 반절이나 빠졌다가 콱 물고 <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활촉이 끈덕도 안하고, 시골에 있는 열녀까지 다 데려다가 빼도 {끈떡도} 안하는디,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닝까 누님 정절이 어쩐가 해서 <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전북.

끈치다 동 [대응어] 그치다.
☞근치다. ¶"싸게 울음을 {끈치고} 일어 나시오."<송기숙, 녹두장군>
지역 전북.

끈치르다 동 [대응어] 부러뜨리다.
단단한 물체를 꺾어서 부러지게 하다. ¶나뭇가지를 {끈치르면} 쓴다요.
지역 전북.

끈칠다 동 [대응어] 부러뜨리다.
☞끈치르다.
지역 전북.

끈ㆆ다 동 [발음] {끈따} [활용형] 끈ㆆ고[끈꼬], 끈ㆆ어[끄너] [대응어] 자르다.
토막을 내거나 끊어 내다. ¶섭 끈따와 긴 {끈따가} 무슨 말이요?<2005 전북 남원>
지역 남원, 순창.
해설 '끊ㅇ다'는 '끊다'의 이형태로, '끊다[끈타]'와 달리 [끈따]로 발음된다. 이는 어간 말의 /ㅎ/ 대신 후두 파열음 /ㆆ/ 때문으로, 이 때문에 유기음화 대신 경음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끊다 동 [대응어] 깎다.
풀이나 털 따위를 잘라 내다. ¶손톱을 끊는다.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해설 표준어형의 '끊다'는 "실, 줄, 끈 따위의 이어진 것을 잘라 따로 떨어지게 하다"라는 의미이다. 전북 방언에서는 "깎다"의 의미로 '끊다'가 통용된다.

끊으다 동 [대응어] 끊다(차표를).
돈을 내고 발급을 받다. ¶버스표를 {끊으다}.
지역 순창.

끌다 동 [대응어] 끄르다.
맺은 것이나 맨 것을 풀다. ¶* {끌었다} {정문연}<전북>[부안], <한국방언어휘자료집_전북편> ¶자꾸 문을 {끌어} 달라고 했어. 문을 끌러주니 딸이 들어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 왜 그렇게 상심하고 계십니까?"<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할머니 오셨다, 대문을 {끌어} 주렴.
지역 고창, 김제, 무주, 부안, 군산, 임실.

끌러지다 동 [대응어] 끌러지다.
매거나 잠가둔 것이 풀어져 그렇지 않은 상태로 되다. ¶그 이튿날 인자 오던 길로 도로 와가지고서 그 열쇠점에 가서 인자 쇳대를 맞춰갖고 쇳대를 딱 찔른게로 {끌러져}.<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그런 도중에 강진사가 어디를 갔다 오넌게로 논문서 든 궤짝이 쇳대 {끌러져} 버렸어. 깜짝 놀래갖고 아 메누리보고 인자 물으넌게 며누리가, "거 이진사허고 장기두러 갔대라오." 큰일났거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고창, 남원, 부안,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

끌레가다 동 [대응어] 끌려가다.
남에 의해 억지로 딸려 가다. ¶어찌 도살장에 {끌레가는} 소 얼굴을 하고 있나?
지역 전북.

끌르다 동 [대응어] 열다.
닫히거나 잠긴 것을 트거나 벗기다. ¶그리더 마음이 쏠린다 그말여. 그리서 하인을 시켜서는, "저 사람 보따리 한번 {끌러보라}." 근게. 아 가서 그 보따리를 {끌러보넌게} 아니나다를까 그 보따리 속으가 그것이 들었네. 그서 가서 맞춰보넌게 딱 맞어.<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대문을 열래야 열 대문을 열 수가 있나? 어쩔 수가 있나. 어떤 놈이, 한 놈이 들어가서 인자 대문을 {끌러} 봐야, 싹 열어봐야 아무도 없다.<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그러구서는 소금 짐을 지구 갔구먼. 소금 짐을 지구 그 잔치집으루 갔어. 가서는 그 끈을 {끌러서} 지게 목발에다 쫌매(묶어) 놓았어. 그런개 거기서 잡아댕겨도 따라 가것어? 그러구 잔치집에 들어가서는 술이니 밥이니 잘 봅?먹었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오양간 문단속을 단단히 허 놓았는디도 그녀르 소가 어트케 {끌르고} 내뺐는지 모르겄네.
지역 부안, 진안.

끌목 명 [대응어] 그을음, 검댕.

어떤 물질이 불에 탈 때에 연기에 섞여 나오는 먼지 모양의 검은 가루. ¶벽에 묻은 {끌목을} 씻어내야지 그냥 두면 되겄어?
지역 무주.

끌미 명 [대응어] 그을음.
어떤 물질이 불에 탈 때에 연기에 섞여 나오는 먼지 모양의 검은 가루. ¶머 땀시 {끌미가} 여그저그 붙어 있당가?
지역 무주.

끌어지다 동 [대응어] 따지다.
닫히거나 잠긴 것이 열어지다. ¶쇠때가 저절로 {끌어지는} 일도 있당가?
지역 김제.

끌텅 명 [대응어] 그루터기.
풀, 나무, 곡식 따위를 베어 낸 뒤에 남은 밑동. ¶친구 만나서 둘이 앉아서 나무 {끌텅을} 뚜두럼서 말이여, 진작 그 말을 하지야고. 그런개 하앙(응) 그러냐고.<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고창, 부안, 순창, 정읍.

끍히다 동 [대응어] 긁히다.
뾰족한 물체에 의해서 피부 따위의 표면에 흠이 생기다. ¶산속에서 멋을 힀가니 왼 몸을 이렇게 {끍히} 왔냐.
지역 완주.

끓으다 동 [대응어] 끓다.
액체가 뜨거워져 소리를 내면서 거품이 솟아오르다. ¶물 {끓으고} 라면 넣는 거 아닌가?
지역 남원.

끔 (<영어>←gum) 명 [대응어] 껌.
씹을 수 있도록 고무에 설탕과 박하 따위의 향료를 섞어서 만든 먹을거리. ¶일헐 때도 {끔을} 짝짝 씹고 있다. ¶집이 오는디 {끔이} 신발에 붙었다.
지역 전북.

끔갑 명 [발음] [끔깝] [대응어] 껌값.
하찮고 적은 액수의 돈을 홀하게 이르는 말. ¶넘들이 보면 {끔갑인지} 몰라도 나헌테는 큰 돈이여.
지역 전북.

끕끕수 명 [대응어] 골탕.
사람을 갑갑하게 하는 짓이나 방법. ¶"정녕 그놈들이 나를 {끕끕수를} 주자고 저희끼리 짜고서 이 거조를 낸 것이 아니냐?"<채만식, 許生傳>
지역 전북.
해설 '끕끕허다'의 어근 '끕끕'과 명사 '수'가 결합하여 '끕끕수'를 이루어 '끕끕수를 주다', '끕끕수를 먹이다', '끕끕수를 받다'와 같은 구성으로 주로 사용된다.

끗게댕기다 동 [대응어] 끌려다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끌려 줏대 없이 왔다 갔다 하다. ¶이리저리 {끗게댕기지} 말고 소신껏 해라.
지역 전북.

끗다 동 [대응어] 끌다.
☞끄시다.
지역 전북.

끙뎅이 명 [대응어] 끄덩이.
머리털이나 실 따위의 뭉친 끝. ¶구산 나가는디 말 {끙뎅이는} 내가 잡소.
지역 전북.

끙짜 명 [대응어] 강짜.
짜증을 내며 고집을 부림. ¶사실 제호가 살림이고 돈이고 언제든지 이렇게 {끙짜} 한마디 없이

아끼잖고 사다 주고 내놓고 하는 것을 받을 때만은 그가 고마왔고, 고마운만큼 더 미덥기도 했었다.<채만식, 탁류>

지역 전북.

해설 표준어형으로는 '강짜를 부리다', '강짜가 심하다'와 같은 표현이 사용된다. 전북 방언에서는 '끙짜를 하다', '끙짜를 놓다'와 같은 표현이 일반적이다.

끝돈 명 [대응어] 우수리.

물건 값을 빼고 거슬러 받는 잔돈. ¶만 원 내고 {끝돈으로} 100원을 받었어. ¶구멍가게에서 공책과 연필을 사고 {끝돈을} 안 받아서 다시 가게에 가려고. 일정한 수나 수량을 제하고 남는 수나 수량. ¶허는 거 보고 잘허믄 {끝전을} 얹어 줄게.

지역 고창.

끝동 명 [대응어] 끝동.

소매 끝에 색이 다른 천으로 이어서 댄 부분. ¶보라 {끝동이} 뵈기가 안 좋나? ¶소매 끝으다 {끝동을} 댄 저구리는 보통 겔혼을 헌 여자들이 입는 거여.

지역 전북.

끝에아들 명 [대응어] 막내아들.

여러 형제, 자매 중에서 맨 나중에 낳은 아들. ¶{끝에아들은} 인천 소래산에 가 살었는디 영정을 묘소에다 모시고 있어.<정읍시 소성면>

지역 정읍.

끝전 명 [대응어] 우수리.

물건 값을 빼고 거슬러 받는 잔돈. 또는 일정한 수나 수량을 제하고 남는 수나 수량. ¶만 원 내고 {끝전으로} 100원얼 받었어. ¶"왜 아니겄어. 일허는 걸 봐서 성과가 있으면은 그 우에다 {끝전을} 더 얹어 줄 수도 있디야."<윤흥길, 빛가운데로걸어가면> ¶{끝전은} 받지 않을 테니 물건이나 좋은 것으로 주세요.

지역 군산.

끼끗내 부 [대응어] 끝끝내.

'끝내'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고 어린 놈의 새끼가 {끼끝내} 반말을 헌다 이런 얘기여. ¶뭐래두 한 가지럴 {끼끝내} 밀구 나가믄 해결되는 거여. 중간에 간 뒤 버리믄 되간디. ¶철수가 힘이 더 세다고 {끼끝내} 고집을 부리고 있다.

지역 전북.

끼끼다 동 [대응어] 끌리다.

몸이나 마음 따위가 의도와 달리 움직여지다. ¶저 얼굴 보고 맴이 안 {끼낄}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구 혀.

지역 남원, 부안, 순창, 정읍.

끼다 동 [대응어] 꿰다(실을).

실이나 끈 따위를 구멍이나 틈의 한쪽에 넣어 다른 쪽으로 내다. ¶이 바느질을 할라므는(하려면), 이 뭐냐 바늘에다 실을 {끼야} 허니까는, 실을 {낄라믄} 으레, 이렇게 입으로 물어 당겨가지고 비벼서,<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여동생은 목걸이를 만들려고 감꽃을 주워다 실에 {끼고} 있었다.

지역 부안, 군산, 임실, 정읍.

끼대다 동 [대응어] 끄지르다.

주책없이 싸다니다. ¶"이놈 어디 {끼대갔소}." "잘 모르겄구만요, 낮에 집에 있간디요."<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해설 '오다', '가다' 앞에 '끼대'가 연결되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원래 '끄대다'가 "주책없이 싸다니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끼리다 동

곁에 두거나 가까이 두다. ¶우리 문건은 내가 늘 {끼리고} 대녔지. ¶할아버지가 손자만 {끼리고} 계실라고만 헌게.

지역 전북.

끼실리다 동 [대응어] 그을리다.

☞끄실리다.

지역 고창.

낃게가다 동 [대응어] 끌려가다.

남에 의해 억지로 딸려 가다. ¶개같이 {낏게가는} 거 보고 그 일 하고 싶은 사람 나와 보라 하소.

지역 전북.

낃기다 동 [대응어] 끌리다.

몸이나 마음 따위가 의도와 달리 움직여지다. ¶땅에 {낃끼는} 게 깨깟한 게 정상이요?

지역 전북.

끓이다 동

메주를 만들기 위해 메주콩을 솥에 푹 삶다. ¶집이는 메주 {끓였어}? 아직 안 {끓였어}?

지역 전북.

낑귀다 동 [대응어] 끼우다.

☞찡기다.

지역 전북.



▲-ㄴ개 【연결어미】 [대응어] -ㄴ가

((‘-ㄴ개 비다’와 같은 구성으로 쓰여)) 자기 스스로에게 묻는 물음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보조적 연결 어미. ¶“어라 내가 너한테 이러고 있겠는냐?” 고 행방을 끊어 버리고 나가는 일이 있다는 것이 거짓말이 {아닌개비여}. 이전 전라도 사람이 살림살이는 대단찮은디 마누라가 죽어 번졌단 말이여,<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연속으로 말해 준 뒤에 쉬지 않고 흥미있게 들려 준 것이다. * 아랫녘에서 어떤 놈 하나가 부모 덕택으로 글자나 {배웠던개비데}. 배웠는디, 육갑, 육갑을 잘혀.<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고창, 김제, 무주, 부안, 완주, 정읍, 남원, 순창, 군산, 임실, 장수, 진안.

해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관련 표준어형인 '-는가'를 ‘-는가 하다’, ‘-는가 싶다’, ‘-는가 보다’ 따위로 쓰이는 종결 어미로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 방언에서는 종결 어미로 쓰이는 것과 형태를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중시하여 이곳에서는 보조적 연결 어미로 처리한다.

▲-ㄴ구나 【종결어미】 [대응어] -는구나.

해라할 자리나 혼잣말에 쓰여, 화자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주목함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본구나}.<최태영(1973)> ¶{막으신구나}.<최태영(1973)> ¶보고 {계신구나}.<최태영(1973)>

지역 남원 동남부.

▲-ㄴ나 【종결어미】 [대응어] -어라.

((‘오다’나 ‘오다’로 끝나는 동사 어간 뒤에 붙어)) 해라할 자리에 쓰여, 명령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잘 갔다 {온나}.<이윤구(2001)>

지역 무주.

▲-ㄴ다네 【축약형】 [대응어] -ㄴ다고 하네

표준어형 ‘-ㄴ다구 허네’가 줄어든 말.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알고 있는 사실을 상대에게 옮겨 전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이다. ¶큰 가뭄이 들 때면 어김없이 {나타난다네요}. 예언처럼.<최명희, 혼불> ¶자네 시숙부님 성품이 본디 무던허고 구순허셨지만, 이번 일 당한 뒤에 아조 딴 사람이 되어서는, 끝내 저렇게 노여움을 안 {푸신다네}. 같이 앉어 있기도 무서워.<최명희, 혼불> ¶놋그륵 숟구락이 문제가 아니라, 제기(祭器)도 다 걷어 {간다네}.<최명희, 혼불> ¶인자는 조선사람한티는, 일년 양식으로 한 사람 앞에 쌀 서 말 여덜 되 여덜 홉만 냉겨 놓고, 나머지는 다 {공출헌다네}.<최명희, 혼불> ¶그, 타박타박 걸어가던

뒷모습이며, 물끄러미 바라보며 손을 흔들던 모습이 그렇게……이날까지도 {사무친다네}……순리대로라면야 지금쯤이나 서로 나누어야 할 작별 인사를……참 일찍도 서둘러서 했던 셈이지.<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ㄴ담서 【종결어미】 [대응어] -ㄴ다고 하면서.

방언형 '-ㄴ다구 함서'가 줄어들어 굳은 말. 해할 자리에 쓰여, 들어서 아는 사실을 확인하여 물을 때 쓰는 종결 어미. ¶장개 {간담서}?<장은주(2004)> ¶영웅 호걸은 열 손구락 첩 갖꼬는 {모지랜담서}?<최명희, 혼불> ¶방 {덜인담서} 딴 말은. 기운 나야 방도 덜이제. 허새비가 심쓰겄어?<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ㄴ당개 【축약형】 [대응어] -ㄴ다니까.

'-ㄴ다고 하니까'의 방언형 '-ㄴ다구 항개'가 줄어든 말. ¶"그렇드래두 어디 가서 태산을 떠오는 일 아니구, 거저 모른 체하시구 내버려 두시면, 다아 해요!" "내가 모른 체허구 내빼리두어 부아라! 농사허며 집안 살림살이며 죽이 되던지 밥이 되던지 {몰른당개}!"<채만식, 강선달>

지역 부안.

▲-ㄴ디 【연결어미】 [대응어] -는데.

뒤 절의 말을 끌어내기 위하여 관련될 만한 사실을 먼저 제시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한번 만내고 {시푼디}(싶은데) 몬 만나네.<백은아(2016)> ¶우리 이러케 전세방 어더 갇꼬 {산디}(사는데) 서울 이종 시아재가 와서<백은아(2016)> ¶두말 더 헐 거 없이 도치로 뿌랭이를 찍어 {냈는디}, 그 도치를 어깨에다 메고, 저엉(저녁) 때가 다 되야사 집으로 돌아옹게, 그 아푸다고, 나 죽는다고, 몇 삼 년씩 누워 있든 그 사램이, 뒷짐을 지고 마당을 왔다갔다 험서, 아이고오, 꽃도 참 좋다, 그런디 어디 갔다 오냐고 묻드라네.<최명희, 혼불> ¶하관을 헐 때는 분멩히 반듯허게 {모셌는디}, 요상허게 나중으 가서 이장을 해 디릴라고 보먼 시신이 엎어졌거나 우아래 상하가 바뀌는 수도 있다대.<최명희, 혼불>

지역 남원.

▲-나 【종결어미】 [대응어] -냐.

해라할 자리에 쓰여,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저가 {느그집이나}?(저기가 너희 집이냐?)<소강춘(1983)> ¶거가 {차부나}?(거기가 버스 정류장이냐?)<소강춘(1983)> ¶어디 {가나}? ¶그 집 {조터나}? ¶기기 {무어시나}? ¶자네, 음악을 공부해 보지 {않겠나}?<최명희, 혼불> ¶만주에 {왔나}?<최명희, 혼불> ¶부녀자까지도 이렇다는데야 장정들은 {오죽하겠나}?<최명희, 혼불>

지역 남원.

▲나끄 명 [대응어] 나중.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 또는 다른 일을 먼저 한 뒤의 차례. 또는 순서상이나 시간상의 맨 끝. ¶{나끄에} 후회하지 말아라. ¶이걸 먼저 하고 그건 {나끄에} 해라. ¶가만 내버려두니 {나끄에는} 못하는 말이 없구나.

지역 전북.

▲나꾸다 동 [대응어] 잡아채다.

손에 걸리거나 잡힌 것을 세게 당기다. ¶머리꽁지를 확[나꾸어], 잡아채드만요. 그대로 끌려갔댔지요.<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의 동사 '나꾸다'는 동사 '낚다'에 접미사 '-우-'가 첨가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낚다'의 의미보다 거센 느낌을 준다.

▲나노다 동 [대응어] 나누다.
☞나누다. ¶저도 시장허지마는 또 그것을 저 혼자 먹을 수가 없다 이말여. 근게 그놈을 또 같이, 근게 시 끼를 {나놔} 먹었어. 저녁 아침 낮은 인자 점심때 거그서 저는 굶어버리고 남자가….<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부안, 완주, 임실, 정읍.

▲나느다 동 [대응어] 나누다.
하나를 둘 이상으로 가르다. ¶10232 으른덜 그 모글 다 싸야자나. 다 싸서 하나포 다 허서 다히서 다 {나너서} 다 히서, 그 지슬 다 {나너주양께}. 그도 허넌디도 인자.(어른들 그 몫을 다 싸야잖아. 다 싸서 하나 앞에 다 해서 다 해서, 다 나눠서 다 해서, 그 깃을 다 나눠주워야 하넌까.)<2007 전북 군산>
지역 군산, 무주, 익산, 장수, 정읍.

▲나다 동 [대응어] 낫다.
병이나 상처 따위가 고쳐져 본래대로 되다. ¶그 병이 기적처럼 {난게} 세상이 다 감사하드래야.
지역 무주.

▲나댕기다 동 [대응어] 나다니다.
밖으로 나가 여기저기 다니다. ¶나댕기느라 밥도 못 먹었다. ¶다 큰 처녀가 밤늦게까지 {나댕기지} 마라. ¶여자가 밤에 {나댕기다}가 바람나는 벱이다 조심히라. ¶영호야 어지간히 {나댕기고} 집에 좀 얌전히 있거라.
지역 전북.

▲나락 명 [대응어] 벼, 쌀.
벼. 또는 벼의 열매. ¶아, 한나절이 지냈네. 다 못 풀었어. 끝을 못 봤어. {나락잎} 끝을 못 봤어. "에이 배가 고픈개 밥을 먹어야 한다." 하고서 인제 먹었어. 먹고 나서 배가 부른개, 또 풀어, 또 풀어. 또<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그런디 요놈이 가을 인자 {나락을} 비게 되는디 나락을 비어 깔었어. 깔고 이놈이 못을 팍 집어넣었어. 그러니 물이 인자 벙벙헌디 대감한티 쫓아갔다 그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나락이} 잘 되어 풍년이 들어야 순이 시집 갈 미천을 마련할 텐데. ¶그 다 이름을 적어다 주니까, 그 사람들 보고, "아무날까지 {나락} 한 말 씩을 가죠라고 해라." 그서 인자 나락 가죠는 날 그 골 원이 인자 소를 잡어서 강 술을 한 잔씩 잘 맥여서 나락 한 말 씩을 받어 놨는디.<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고창, 군산,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나락가리 명 [대응어] 낟가리.
낟알이 붙은 곡식을 그대로 쌓은 더미. 또는 나무, 풀, 짚 따위를 쌓은 더미. ¶늦가을에 들판에는 {나락가리들이} 수북이 쌓여있다. ¶마당으로 저다가 막 나락가래를 집채덩이맹이로, {나락가리도} 또 흔 사라미 인써. 아무라도 몯 혀. 빵 똥고롬흐게 쟁이노코는 인자 또 홀태로 훌터야지요. 홀테가 인써 또.<2009 전북 임실> ¶겨우내 땔감으로 쓸 {나락가리를} 창고로 날랐다.
지역 군산, 고창, 무주, 익산, 임실, 장수.

▲나락꼿 명
자주색의 꽃이 떨기 모양으로 피는 꽃. 그 꽃의 모양이 나락 이삭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잡초의 일종이다. ¶나락꽂이 이쁘게 폈드라. 우리 마당에. ¶나락꽂이라고 허는디. 안 나락 같이 생겼냔? 꽃이 오래 간다이. ¶나

락꽃이제 나락풀이 머여?
지역 고창.

▲나락다발 명 [대응어] 볏단.
벼를 베어 묶은 단. ¶나락다발을 쌓아 놓는다. ¶이 {나락다발은} 사내끼로 꽁꽁 묶어야 한다.
지역 고창, 군산, 김제, 남원, 부안, 순창, 완주, 임실, 장수, 정읍, 진안.

▲나락단 명 [대응어] 볏단.
벼를 베어 묶은 단. ¶나락단을 쌓아 놓는다. ¶{나락단을} 보니 참 마음도 부자구나.
지역 남원, 무주.

▲나락모가지 명 [대응어] 벼이삭.
벼에서 꽃이 피고 꽃대 끝에 열매가 수북하게 많이 열리는 부분. ¶나락모가지가 패기 시작한다. ¶가을이 되니 누렇게 익은 {나락모가지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 ¶{나락모가지} 나올 때면 물이 필요할 때인디 가뭄이 심혀서 까딱허먼 올핸 실농허겄다.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장수.

▲나락모갱이 명 [대응어] 벼이삭.
벼에서 꽃이 피고 꽃대 끝에 열매가 수북하게 많이 열리는 부분. ¶나락모갱이가 패기 시작한다. ¶가을이 되니 들판의 {나락모갱이가} 쑥쑥 올라오는 구먼.
지역 김제.

▲나락뭇 명 [대응어] 볏단.
벼를 베어 묶은 단. ¶나락뭇이 쌓여 있다.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나락바심 명 [대응어] 볏단.
벼를 베어 묶은 단. ¶나락바심이 쌓여 있다.
지역 군산.

▲나락베늘 명 [대응어] 볏가리.
벼를 베어서 가려 놓거나 볏단을 차곡차곡 쌓은 더미. ¶벼 베기를 끝낸 논에 여기저기 나락베늘이 쌓여 있다.
지역 남원.

▲나락베다 동 [대응어] 추수하다.
가을에 익은 곡식을 거두어들이다. ¶{나락벤다구}, 벼 있잖여 벼, 나락을 벤다 이 말이여. ¶가을이 되어 누렇게 익은 나락을 우리 가족 모두가 나서서 {나락을 베었다}.
지역 군산, 임실, 무주.

▲나락벼널 명 [대응어] 볏가리.
☞나락베늘.
지역 남원.

▲나락비다 동 [대응어] 추수하다.
☞나락베다.
지역 무주.

▲나락이삭 명 [대응어] 벼이삭.
벼에서 꽃이 피고 꽃대 끝에 열매가 수북하게 많이 열리는 부분. ¶나락이삭이 패기를 기다린다.
지역 진안.

▲나락이시락 명 [대응어] 벼이삭.
☞나락이삭.
지역 정읍.

▲나락종자 명 [대응어] 볍씨.
못자리에 뿌리는 벼의 씨. ¶나락종자를 뿌린다. ¶{나락종자는} 한 열흘 물에 담가 놓으면 싹이 올라온단다.

지역 고창, 남원, 부안, 군산, 완주, 임실, 정읍, 진안.

해설 '나락종자'는 '나락+종자'로 분석된다. '나락'은 '벼'의 방언형이다.

▲나락주먹 명 [대응어] 볏단.
벼를 베어 묶은 단. ¶나락주먹이 쌓여 있다.
지역 남원.

▲나락줄가리 명 [대응어] 볏가리.
벼를 베어서 가려 놓거나 볏단을 차곡차곡 쌓은 더미. ¶벼 베기를 끝낸 논에 여기저기 나락줄가리가 쌓여 있다.
지역 전북.

▲나락홰기 명 [대응어] 새꽤기.
짚의 껍질을 벗긴 줄기. ¶{나락홰기를} 뽑다
지역 남원.

▲나르지근하다 형 [대응어] 나른하다.
맥이 풀리거나 고단하여 기운이 없다. ¶그런데 그 짓 한 번 했다고 이렇게 몸이 {나르지근해지는} 판이니 그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었다. <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나르지근하다'는 '나른하다'의 어근에 접미사 '-지근하-'가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나르지근허다 형 [대응어] 날짝지근하다.
몹시 나른하다. ¶숨이 막혀올라 도저히 더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어제부터 등줄기에 으시시 찬바람이 돌았고, 낮에는 더 자주 찬바람이 일어나며 전신이 {나르지근하게} 맥이 풀려나갔다. 그러면서 자꾸만 잠이 왔다. 몸살이 오는가 생각하며 이겨내려고 했다. 꼭 감기 기운과 함께 오는 몸살기 같았다.<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나르터 명 [대응어] 나루터.
나룻배가 닿고 떠나는 일정한 곳. ¶{나르터}에 도착하다
지역 전북.

▲나륵 명 [대응어] 벼.
☞나락.
지역 전북.

▲나리다 동 [대응어] 나르다.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다. ¶짐 좀 저기로 나리자.
지역 전북.

▲나막개 명 [대응어] 나막신.
나무를 파서 만든 것으로 앞뒤에 높은 굽이 있어 비가 오는 날이나 땅이 진 곳에서 신었던 신발.
지역 고창.

▲나막개신 명 [대응어] 나막신.
나무를 파서 만든 것으로 앞뒤에 높은 굽이 있어 비가 오는 날이나 땅이 진 곳에서 신었던 신발. ¶{나마깨신} 가틍거<2008 전북 고창>
지역 고창.

▲나매 명 [대응어] 남자.
성인 남성을 이르는 말. ¶하졸을 타고 왔더니 {나매가} 인자 댁네를 이겨먹지 질 수가 있소.<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나맥개 명 [대응어] 나막신.

나무를 파서 만든 것으로 앞뒤에 높은 굽이 있어 비가 오는 날이나 땅이 진 곳에서 신었던 신발. ¶{나맥개}를 신다

지역 고창.

▲나맥게 명 [대응어] 나막신.
나무를 파서 만든 것으로 앞뒤에 높은 굽이 있어 비가 오는 날이나 땅이 진 곳에서 신었던 신발.

지역 전북.

▲나머짓돈 명 [대응어] 거스름돈.
거슬러 주거나 받는 돈. ¶{나머짓돈을} 잘 챙겨라.

지역 완주.

▲나멘 (←<일>ramen) 명 [대응어] 라면.
국수를 증기로 익히고 기름에 튀겨서 말린 즉석식품. 면과 가루수프 따위로 구성된다. ¶[나멘이], 처음에 나왔을 적에는 그거이 귀한 음석이었어.

지역 남원, 무주, 임실, 진안.

▲나멩 (←<일>ramen) 명 [대응어] 라면.
국수를 증기로 익히고 기름에 튀겨서 말린 즉석식품. 면과 가루수프 따위로 구성된다. ¶그때는 {나멩이} 최고로 맛난 음석이도만.

지역 정읍.

▲나면 (←<일>ramen) 명 [대응어] 라면.
국수를 증기로 익히고 기름에 튀겨서 말린 즉석식품. 면과 가루수프 따위로 구성된다. ¶물을 몽땅 붓고 끓여서 {나면} 한 개로 여러 명이 먹고 그랬어.

지역 고창, 김제,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장수.

▲나모 명 [대응어] 나무.
줄기와 가지가 단단한 목질로 된 여러해살이 식물. ¶갈키 {나모를} 긁어서 수북히 모아 놨는디, 곰이란 놈이 포수한테 쫓겨서 그리 와갖고는, "아이고, 총각 나좀 여그다 감춰 주쇼."<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이 약자 글자 해석 히 볼적으 초도변이다 그러니께 가운데 흰 백자가 있고 양쪽으로는 실 사자가 있는 것이다가 {나모} 목자다 이 말이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정읍.

▲나목신 명 [대응어] 나막신.
나무를 파서 만든 것으로 앞뒤에 높은 굽이 있어 비가 오는 날이나 땅이 진 곳에서 신었던 신발. ¶그걸 뽀고 나막씨니라고 그려 {나목씬}<완주 지역어 텍스트>

지역 완주.

▲나무 명 [대응어] 남짓.
☞나므.

지역 남원.

▲나무겟대 명 [대응어] 나막신.
뒤축 없이 엄지발가락만 꿰게 되어 있는 신. ¶겟대. 나무겟대. 겟대신이닥 혀. 여그 발 꿔고 댕기는 신. 이케 한 개 꿔고 댕기는 건.

지역 전북.

▲나무때기 명 [대응어] 막대기.
가늘고 기다란 나무나 대나무의 토막. ¶아:! 좀 얄분데가? {아! 좀 얇은 데가}? 10331 애. 얄분데가 이씽개 이케 자바갖꼬는 이러케 {나무때기로} 코를 뚤텅만. {예, 얇은 데가 있으니까 이렇게 잡아가지고는 이렇게 잡아가지고는 이렇게 나무로 코를 뚫더구먼}.<지역어 자

료 총서, 임실>쌩 {나무때기도} 혹시 때지만 인재 말러 쌩노멀 인재 가따가 인재 어따가 지비다 노커나 이노멀 빠짱<지역어 자료 총서, 무주>이르캐 문 다는데 이러케 나무때기 양쪼게 세워야 되자나요 이러케, 요걸 문설쭈. {이제, 저 문 이렇게 이렇게 문 다는데 이렇게 {나무때기} 양쪽에 세워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것을 문설주}.<지역어 자료 총서, 무주>21646 막대기 나묻때기 21646 막대기 {나무때기<2009 전북 임실>거그다 여 우에다 부수먼, 졸졸졸졸 내려감선 인재, 이러케 {나무때기로} 요로케 요로케 요로케 소니로 돌리먼 고고시 돌아감선 부체저.<2005 전북 남원>

지역 임실.

▲나무뚜껑 명 [대응어] 솥뚜껑(나무).
나무로 만든 솥뚜껑. ¶{나무뚜껑을} 덮다
지역 고창, 완주.

▲나무생개 명 [대응어] 새우(민물, 小).
강이나 호수 따위의 염분이 없는 물에서 사는 작은 새우. ¶{나무생개는} 찌로나 쓰야지, 자잘히갖고 쓰잘데가 잘 없어.
지역 김제.

▲나무소당깨 명 [대응어] 솥뚜껑(나무).
나무로 만든 솥뚜껑. ¶{나무소당깨를} 열다
지역 정읍.

▲나무소두방 명 [대응어] 솥뚜껑(나무).
나무로 만든 솥뚜껑. ¶{나무소두방을} 닫다
지역 남원, 무주, 임실, 진안.

▲나무주걱 명 [대응어] 밥주걱.
밥을 푸는 도구. 나무, 놋쇠, 스테인리스강, 플라스틱 따위로 만들며 숟가락과 모양이 비슷하나 더 크다. ¶"그 안마쟁이 목사 빝구녁 떠받치고 있느면 {나무주걱이} 하루 아침에 놋주걱으로 둔갑허기라도 헌다냐?"<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고창.

▲나무주벅 명
밥을 푸는 도구. 나무, 놋쇠, 스테인리스강, 플라스틱 따위로 만들며 숟가락과 모양이 비슷하나 더 크다.
지역 남원, 임실.

▲나무지 명 [대응어] 나머지.
어떤 한도에 차고 남은 부분. ¶{나무지를} 갖다
지역 무주.

▲나묵괘 명 [대응어] 나막신.
나무를 파서 만든 것으로 앞뒤에 높은 굽이 있어 비가 오는 날이나 땅이 진 곳에서 신었던 신발.
지역 임실.

▲나묵신 명 [대응어] 나막신.
나무를 파서 만든 것으로 앞뒤에 높은 굽이 있어 비가 오는 날이나 땅이 진 곳에서 신었던 신발. ¶{나묵신}을 신다
지역 남원, 부안, 순창, 완주, 임실, 고창.

▲나므 명 [대응어] 남짓.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어떤 수량에 차고 조금 남는 정도임을 나타내는 말. ¶있다가 한 열흘 근 열흘을 {나므} 된게는 알 것 다 알아버린게 오래 있을 필요가 없은게 왔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정읍, 임실, 군산.

▲**나믈** 명 [대응어] 나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풀이나 나뭇잎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또는 그것을 삶거나 볶거나 또는 날것으로 양념하여 무친 음식.

지역 군산.

▲**나박김치** 명 [대응어] 나박김치.

무를 얄팍하고 네모지게 썰어 절인 다음, 고추·파·마늘·미나리 따위를 넣고 국물을 부어 담근 김치. ¶{나박김치}를 담그다

지역 남원.

▲**나박물짐치** 명 [대응어] 나박김치.

☞나박지.

지역 전북.

▲**나박지** 명 [대응어] 나박김치.

무를 두툼하고 큼직하게 나박나박 썰어 담근 김치. 또는 무를 작고 얇게 납작납작 썰어서 담근 물김치. ¶무시를 나박나박 썰어서 담응게 {나박지여}.

지역 전북.

해설 '나박지'는 표준어로 '나박김치'이다. 전북에서는 '나박지, 나박짐치, 나박물짐치'라고 한다. '나박'은 의태어인 '나박나박'의 어근이다. 여기에 '김치'를 나타내는 전북 방언 '지'가 연결된 합성어이다. 국어사전에서는 "물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전북 방언에서는 "그냥 담근 김치"와 "물김치" 둘 다를 의미하고 있다.

▲**나박짐치** 명 [대응어] 나박김치.

☞나박지.

지역 전북.

▲**나부** 명 [대응어] 나비, 나방.

나비와 나방을 아울러 이르는 말. ¶제비 제비 초록 제비/{나부} {나부} {푸등나부야}/능금 한 쌍 물어다가/처매 끝에 집을 지어/그 집 짓던 삼 년만에/울어마니 피양감사/울오랍씨 전라댁이/우리 둘이 남았는데/나 세상 어쩌란가/나 죽걸랑/저 건네 연방죽 안에/넣어나 주소(임실 신세타령-"제비 제비 초록 제비")<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제비제비 초록제비 {나부} {나부} 붉은 {나부} 아리금살(빛나는 빛금) 꾀꼬리는 뉘간장을 녹이려고 저리곱게 생겼는고 연밥에다 밥을싸고 풀잎에다 진게싸고(반찬싸고) 앞냇강에 넉기질가니 여기서저기서 뛰는잉어 못다잡고 해가졌네<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나부야} 청산을가자 {호랑나부야} 너도나가세 가다가 저믈거든 꽃에나 자고나가세 꽃은 졌으면은 잎에나 자고나가세<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어디만큼 가넌게 큰 {호랑 나부가} 펄렁 허드니만 그 날개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 총각이.<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누에나방을 {나부라고도} 허지. 그 {나부가} 영양이 대단히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

지역 군산, 남원, 부안, 순창, 임실, 진안, 무주.

▲**나부래기** 명 [대응어] 나부랭이.

종이나 헝겊 따위의 자질구레한 오라기. 또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나 물건을 낮잡아 이르는 말. ¶삼베 수의라고 나부래기 꺼내서 태와 보드라고. 나일론인가 삼벤가 보라고. 타는 거 보면 알거든.

지역 전북.

▲**나부잠** 명 [대응어] 나비잠.

갓난아이가 두 팔을 머리 위로 벌리고 자는 잠. ¶무단한 사람 오래다 놓고 문만 걸고서 {나부잠을} 자는구나/ 하야 스리롱 웅덩설 노다 간다 스리롱(순창 모심는 소리-상사소리)<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순창.

▲**나분대다** 동 [대응어] 나부대다.
얌전히 있지 못하고 철없이 촐랑거리다. ¶긍게. 콱 무질러서 언감생심 {나분대들} 못허게 해야제.<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해설 '나분거리다'가 북한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나분대다'와 '나분거리다'는 어원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비** 명 [대응어] 누에나방.
누에나방과의 곤충. ¶밥맛 없을 때는 누에를 먹으믄 돼. 그 {나비를} 잡어다가 먹으믄 힘이 생긴당게.
지역 고창, 김제, 무주, 군산, 완주, 익산, 장수, 정읍.

▲**나수** 부 [대응어] 나우.
조금 많이. 또는 정도가 조금 낫게. ¶이따가 시장허잖게 {나수} 먹어라.<채만식, 생명의 유희>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의 부사 '나수'는 형용사 '낫다'에 부사 파생 접미사 '-우'가 연결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표준어 '나우'는 형용사 어간 '낫(勝)-'에 접미사 '-우'가 결합된 '*나ㅿㅜ'에서 변화한 형태이다.

▲**나숭개** 명 [대응어] 냉이.
십자화과의 두해살이풀. 주로 봄철에 나물을 무쳐 먹는 데 사용한다. ¶싸리나물 간짓대나물 돌나물 머슴둘레 박조갈레 콩박나물 양판쟁이 달롱개 광대살이 쑥부쟁이 한가꾸 {나숭개 꼬치뱅이} 옥동나물 머위나물 밤지나물 걸럭지나물 까시랑코 포도쟁이 개미취 원추리 고들빼기<김용택, 꽃산 가는 길>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무주.

▲**나승개** 명 [대응어] 냉이.
☞나숭개.
지역 무주.

▲**나싱개** 명 [대응어] 냉이.
☞나숭개.
지역 무주, 완주, 진안.

▲**나이타** (←[영],) lighter 명 [대응어] 라이터.
주로 담배를 피울 때에 불을 일으키는 점화 기구. 점화 방식이나 사용하는 연료에 따라 가스라이터, 전자 라이터, 기름 라이터 따위가 있다. ¶근디 담배럴 끄니면서 그때 단 사람언 {나이타럴} 드러어 내비리고, 피:던 담뻬럴 그냥 뿌서버리고 내:이리고 아조 그릳따넌디 나넌 절때 그레겁 업써.(그런데 담배를 끊으면서 그때 다른 사람은 라이터를 들어 내버리고, 피던 담배를 그냥 부셔버리고 내버리고, 아주 그랬다는데 나는 절대 그런 거 없어)<2008 전북 고창> ¶아버지는 새로 사 오신 {나이타를} 보물단지처럼 여기셨다.
지역 고창.

▲**나조** (radio) 명 [대응어] 라디오.
방송국에서 음성이나 음악 따위를 전파로 방송하는 일. 또는 그런 방송 내용. 또는 그런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전파를 수신하여 재생하여 주는 기계 장치. ¶그때는 테레비전이 없었응게 {나조를} 많이 들었어.
지역 고창, 순창, 임실, 정읍.

▲**나중보다** 동 [대응어] 엿보다.
남이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 숨거나 남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여 대상을 살펴보다. 또는 잘 드러나지 아니하는 마음이나 생각을 알아내려

고 살피다. 또는 무엇을 이루고자 온 마음을 쏟아서 눈여겨보다. ¶창문으로다가 방안을 {나중보니께} 내 아내가 그 방 안으 떡허니 있더라니께. ¶내가 허구헌날 아들래미 맘이나 {나중보고} 살아야겄냐? ¶기회를 {나중봐서} 다시 한 번 시도혀 봐.

지역 전북.

▲나지맥히 부 [발음] [나지매기/나지매키] [대응어] 나즈막이.

소리가 꽤 나직하게. ¶오밤중에 암도 안 다니는 산길을 혼자 갈랑께 무섭잖여, 그르니까는 인자 {나지맥이}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가는디, 쩌 앞에 누가 서 있어. ¶그는 자신의 고민을 나에게 {나지맥이} 속삭이며 말했다. ¶우리 고향 마을은 산자락 아래 {나즈맥이} 둘러앉은 김가들 집성촌여, ¶어디서 상여소리가 {나지맥이} 들리는디 또 누가 죽었는갑다. 이런 좋은 세상 놔두고… ¶미란이는 가끔 혼자 길을 걸어가면서 {나지맥이하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가곤한다.

지역 전북.

▲나지오 (radio) 명 [대응어] 라디오.

방송국에서 음성이나 음악 따위를 전파로 방송하는 일. 또는 그런 방송 내용. 또는 그런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전파를 수신하여 재생하여 주는 기계 장치. ¶"아,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으루 올라앉으셨다구, {나지오루} 곧장 방송두 하구, 신문사선 호월 들입다 박아 돌리구 했는데, 여태들 모르구 기셨어? 알뜰두 하시지들."<채만식, 낙조> ¶예전이는 {나지오가} 있나 기상대가 무얼 알기를 허나?<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10>

지역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장수, 진안.

▲나차막하다 형 [발음] [나차마가다/나차마카다] [대응어] 나지막하다.

위치가 꽤 나직하다. ¶산이라기보다도 {나차막한} 구릉(丘陵)이요, 경사가 완만하여 별로 험한 길이랄 것도 없다.<채만식, 敗北者의 무덤> ¶정자나무 아래다가 대궐 집 하나가 있어. 근디 후원 담이 {나차막하게} 처졌는디, 여자가 소의소복(素衣素服)을 허고 여름에 마파람(南風)덕에 누워서 잠을 자던개벼.<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대문이 {나차막해서} 고개를 낮춰서 들어가야 한다. ¶언덕이 {나차막하여} 걷을만 하구나.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나찹다'에 형용사 파생 접미사 '-으막하-'가 붙어 '나차막하다'가 만들어진 것이다.

▲나참막허다 형 [발음] [나참마거다/나참마커다] [대응어] 나지막하다.

위치가 꽤 나직하다. ¶{나참막한} 곳에 외딴 집이 있었다

지역 전북.

▲나찹다 형 [활용형] 나차워/나차와 [대응어] 낮다.

아래에서 위까지의 높이가 보통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영호 남매는 그렇게, 너부스름한 얼굴이 복판이 조금 죽고, 코가 {나찹고} 그래서 유순해 보이기는 하여도<채만식, 소년은자란다> ¶요고만치 쫌 {나차쑤도}<지역어 자료 총서, 무주> ¶어른들은 이렇게 방을 뜯어보면, 방을 뜯어보며는}. ¶나차와요. {나차와서나} 바로바로 미여. {낮아요. 낮아서 바로바로 메어}. 근디,<지역어 자료 총서, 무주> ¶우리집은 천장이 너무 {나차서} 자꾸 머리가 닿는 당게, ¶젊은놈이 {나찬디} 만 쳐다봉게 발전이 없지 높은 꿈을 갖고 공

부를 히야는 거여.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에서는 '깊다'에 상대하는 '얕다'에 대하여 '야찹다'라고 하고, '높다'에 상대하는 '낮다'에 대하여 '나찹다'라고 한다. 유사한 어휘에서 서로 혼태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나추다 형 [대응어] 얕다.
겉에서 속, 또는 밑에서 위까지의 길이가 짧다. ¶담장이 {나춘게} 곰방 넘어 나갈 수 있어, 기다려 봐봐, 나 그쪽으로 넘어 간다잉. ¶시렁이 높아서 불편했는데 좀 {나춰} 달아 놓은게 쓰기가 훨씬 수월해 졌네.

지역 무주.

▲나춥다 형 [대응어] 낮다.
아래에서 위까지의 높이가 기준이 되는 대상이나 보통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지역 무주.

▲나침막허다 형 [발음] [나침마거다/나침마커다] [대응어] 나지막하다.
위치가 꽤 나직하다. ¶산이 {나침막허다} ¶거울을 좀 {나참막허니} 달어놔야 막내도 볼거 아니오.

지역 전북.

▲나틀 명 [대응어] 자새.
실 따위를 감았다 풀었다 할 수 있도록 만든 작은 얼레. ¶옷이 걸리 갖고 찢어졌다. 바늘이랑 {나틀을} 좀 가져다다오.

지역 무주.

▲나팔나팔 부 [대응어] 납작납작.
가벼운 느낌이 나도록 납작하게. ¶무시 나팔나팔 쓸어서 적 부치면 맛있어.

지역 전북.

▲나훌나훌 부 [대응어] 나풀나풀.
얇은 물체가 바람에 날리어 자꾸 가볍게 움직이는 모양. ¶노랑나비 호랑나비 흰나비들이 {나훌나훌} 아지랑이 속으로 날아오르는 때. <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나흐레 명 [대응어] 나흗날.
넷째 날. ¶{나흐레가} 되다 ¶"단식투쟁을 헌다고 그동안 잘도 버티는가 싶더만 {나흐레}째 되던 날 병원으로 실려갔다네. 워너니 쉬운 일이 아녀.

지역 전북.

▲낙수물 (落水물) 명 [대응어] 낙숫물.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 ¶썰렁한 빈 밥상 내려다보다 처마 밑 {낙수물} 떨어지는 것 바라보고<김용택, 꽃산 가는 길>

지역 고창.

▲낙신 부 [대응어] 늘씬.
(('때리다', '맞다' 따위와 함께 쓰여)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엎어쳐 놓고 그냥 {낙신} 쳤네. 볼기짝을 그냥 죽게 맞았어.<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군산.

▲낚밥 명 [대응어] 낚싯밥.
낚시 끝에 꿰는 물고기의 먹이. 주로 지렁이, 새우, 밥알 따위를 사용한다. ¶"저 고연놈이 있는가. 아 내가 어저그 넋 다 치고 {낚밥} 주어놨놈 저놈이 헌다."<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군산.

▲낚수 명 [대응어] 낚시.

미끼를 꿰어 물고기를 잡는 데 쓰는 작은 쇠갈고리. 혹은 쇠갈고리가 달린 물고기 잡는 도구 ¶그래 가지고, 낮에는 나무를 해다 팔아서 갖고 오고, 저녁에는 {낚수를} 갖다 방죽에다 너놓고, 방죽에다. 며칠을 가도 안물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근게 걍 쫓아가서 걍 {낚수를} 걍 죄다 부지러 버리고 그 낚수질 안 혔다는 이런 전설이 있소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아 그리서 그놈 딸라고 헌 것이 딸깍 걸려서 나와 버렸어. {낚수에} 걸려서 나왔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그 인제 당신님 장질 영의정 조카가 인제 보니까 뭔 괘에서 질길드란헌 줄을 이케 쭉 피서 {낚수처럼} 바다에서 훌쩍 집어 던진단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굶어 죽제 살 수가 없은게 자기 마누래가 하래는 가서 낚시질 헌디를 가만히 망을 보고 있은게 {낚수} 꼿꼿헌 {낚수에다가} 밥만 꽂아서 딱 찡기고 있으믄 고기가 딱 따 묵어 버리먼 도로 오고 도로 오고 허다 해가 지믄 와 부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정읍, 완주.

해설 '낚수'는 '낛'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형태인 '낚시'의 두 번째 음절이 변화한 형태이다. '낛'은 15, 16세기에 많이 쓰였는데, '신', '신다' 등과 같이 명사 '낛'이 동사로 파생된 것이다. 동사 '낛다'를 '한글 맞춤법 통일안'부터 '낚다'으로 표기하게 되어 '낚수'도 동일하게 표기하였다.

▲낚수질 명 [대응어] 낚시질.

낚시로 물고기를 낚는 일. ¶오래 산게, 나와서 집이 가만히 있으니 뭐 친구가 있어, 뭐 말벗이 있어, 하도 심심허서 낚수대를 사 가지고서는 {낚수질이나} 히본다고 {낚수질을} 날마다 댕긴단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인자 {낚수질} 낚시질 안 가고 누워서 낮잠을 잠서 꿈을 뀌었는디.<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우리님은 {낚수질} 갔는데 나는 나루감서 나루하지다루(나룻가에서 하루를 기다려)<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정읍, 완주.

▲낚수질허다 동 [대응어] 낚시질하다.

낚시로 물고기를 낚다. ¶그래 인자, "암디서 {낚수질허자}." 고 인자 방죽으로 나갔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그 먼야 강가에서 {낚수질허든} 그 영감님의 내력을 한번 가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보통 할아부지가 아녀.<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근게, {낚수질허다} 어이서 들리는 소리가 '여오쇼.'헌다 얘기요.<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정읍.

▲낚숫대 명 [대응어] 낚싯대.

가늘고 긴 대에 낚시줄을 매달아 물고기를 잡는 도구. 혹은 그 대. ¶나뭇꾼 한놈이 턱 {낚숫대를} 추켜들고 본게 곧은 낚시여. ¶그려갖고 인자 오래 산게, 나와서 집이 가만히 있으니 뭐 친구가 있어, 뭐 말벗이 있어, 하도 심심허서 {낚숫대를} 사 가지고서는 낚수질이나 히본다고 낚수질을 날마다 댕긴단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요즘 같은 {낚숫대}가 어디 있다냐 그냥 대막가지 하나 꺾어들고 냇깔로 나가는거지.

지역 정읍, 완주.

▲낚숫밥 명 [대응어] 미끼.

낚시 끝에 꿰는 물고기의 먹이.

지역 순창, 임실, 정읍.

▲낚이질 명 [대응어] 낚시질.
☞낵이질.
지역 고창.

▲낚잇대 명 [대응어] 낚싯대.
가늘고 긴 대에 낚시줄을 매달아 물고기를 잡는 도구. 혹은 그 대. ¶미끼를 찌어서 이렇게 {낚잇대럴} 담궜다 괴기가 따먹으믄 또 빼갖고 또 뀌어서 이렇게 그 낚이질을 허고 있어.
지역 고창.

▲난냉구 (←running) 명 [대응어] 러닝.
운동 선수들이 입는 소매 없는 셔츠 모양의 속옷. ¶나는 그 사람들한테가 인자 그러케 모디주고, 바느질 히주고, 수 노와주고, 이 {난냉구} 가튼거.(나는 그 사람들에게 인제 그렇게 못 해주고, 바느질 해주고, 수 놓아주고, 이 런닝 같은 거)<2005 전북 남원> ¶{난냉구} 바람으로 싸돌아다니면 고뿔든다. ¶여름에는 더우니까 {난냉구만} 입고 산다. ¶니그 아버지 지금 욕실에 있응게 그 문 앞이다가 이 {난냉구허고} 빤스 좀 갔다 놓아라잉.
지역 군산, 남원.

▲난닝구 명 [대응어] 러닝.
☞난냉구. ¶얼매나 오래 입은 {난닝군지} 때꼬장물이 흘렀다.
지역 완주.

▲난장이 명 [대응어] 난쟁이.
보통 키보다 아주 작은 사람. ¶그래 장가 들구 보니까 아주 썩 예쁜 색시가—본시 얼굴은 아주 보잘것 없이 생기구 키는 {난장이처럼} 작았지만 그땐 어찌 그리두 곱게 보였던지! <채만식, 과도기>
지역 전북.
해설 '난장이'는 중부 방언의 '난쟁이'보다 더 일찍 등장하는 어형이다. '난'과 접사 '-장이'로 분석할 수 있다. '난'은 '낮다'와 관련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형성 과정이 명확하지 않다.

▲난장허다 형 [대응어] 낭창거리다, 낭창낭창하다.
촉촉하고 말랑말랑하다. ¶떡이 난장허고 맛있고만. 잘 쪘네.
지역 전북.

▲난재이 명 [대응어] 난쟁이.
☞난장이.
지역 전북.

▲난중 명 [대응어] 나중.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 또는 다른 일을 먼저 한 뒤의 차례. 또는 순서상이나 시간상의 맨 끝. ¶{난중에} 후회하지 말아라. ¶넌 아직 나이가 어린 게로 성아부터 사 주고 넌 {난중}에 차차 사 줄께 그리 알어. ¶이걸 먼저 하고 그건 {난중에} 해라. ¶지금은 그 사람을 만나보는 일이 더 시급헌게 언능 갈 준비를 허고 오늘 콩 싱구는 일은 {난중}에 허자. ¶어이 여자가 마다고 헌디 어찌 이렇게 부자 맨들아 놓고 {난중에} 거지허고 살란다군게,<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난참 명 [대응어] 나중.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 또는 다른 일을 먼저 한 뒤의 차례. 또는 순서상이나 시간상의 맨 끝. ¶{난참에} 후회하지 말아라. ¶이걸 먼저 하고 그건 {나끄에} 해라. ¶자꼬 흔들어 봐도 안 깨아. {난참에는} 이불을 획 걷어서 발로 차부렀지.

지역 전북.

▲날감지 명 [대응어] 날개.
새나 곤충이 날기 위해 사용하는 한 쌍 혹은 두 쌍의 기관. 새는 유선형의 날개를 펄럭여 날고 곤충은 날개를 진동시켜 난다. ¶가까이 다가간게 놀라서 {날감지를} 퍼드덕거린다.
지역 군산.

▲날개 명 [대응어] 이엉.
초가집의 지붕이나 담을 이기 위하여 짚이나 새 따위로 엮은 물건. ¶추수를 다 해서 싹 들여 놓고, 기와집을 진 사람도 있지만 그 전에는 전부, 초가집에 짚으로 집을 이은개, 머슴이 힘들여서 나락({날개} 집이엉) 엮어서 집 이을 라고 저녁밥을 먹고서, 놉 얻을라고(일군 구하려고) 집 빡으로 나온개로,<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그니까 지붕 올릴 때는 업꼬.(그러니까 지붕 올릴 때는 없고.) 10340 응, 날개 영끌 쩌그 지봉 올라갈라고 {날개} 영짜네요?(응, 이엉 엮을 적에 지붕 올라가려고 이엉 엮잖아요?)<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초가집 지붕갈이는 지푸락으로 {날개}를 엮어서 올린다음 지붕꼭대기에 용마름을 얹힌 후 사내끼로 지붕을 둘러 묶으면 끝난다.
지역 고창, 남원, 무주, 순창, 완주, 임실, 진안, 군산, 김제, 부안, 익산, 정읍.

▲날개미 명 [대응어] 아가미.
물속에서 사는 동물, 특히 어류에 발달한 호흡 기관. ¶횟집은 워뜨케 보믄 징그럽고 무서운 디여. 광어고 우럭이고 쇠꼬챙이에 {날개미} 찍히 갖고 팔딱팔딱대는 거 보믄 말여.
지역 고창.

▲날개짱 명 [대응어] 이엉.
초가집의 지붕이나 담을 이기 위하여 짚이나 새 따위로 엮은 물건. ¶말 고삐를 잡고 댕기던 꼬마둥이가 여산 송씨 말을 안 잡고, 이 영감 말을 잡았어. 근디 이 사람은 가면서 말여 {날개짱을} 뽑아서 개시를 꽜드라네. 꽈갖고는 뒤 코 뭣을 짚세기를 꽉 쨈맸어. 가다가 사이로 도망갈라고.[일동 : 웃음], 그 인자 간단 말여. 가는디,<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10325 ¶유:지개미? {유지개미}? 10325 유지뱅이라고 지벌. {유지뱅이라고 짚을}. 10325 ¶얘. {예}. 10325 {날개짱으로} 영거까꼬 홱: 둘러서 따:숩께 허라고, 그 지비 따숩때요. {날개로 엮어서 홱 둘러서 따뜻하게 하려고, 그 짚이 따뜻하대요}. 10325<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지역 임실.

▲날갯죽 명 [대응어] 날갯죽지.
날개가 몸에 붙어 있는 부분. 혹은 날개. ¶"파리는 앞발로 고개를 씨다듬은 것이 파리고, 포리라는 것은 뒷발로 뒤 {날개쭉을} 씨담은 것이 뒷발로 그런 것이 포리여."<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애기들 {날갯죽}을 그렇게 들어 올리면 큰일나는 거여.
지역 부안.

▲날갯죽대기 명 [대응어] 날갯죽지.
날개가 몸에 붙어 있는 부분 혹은 날개. ¶날갯죽때기를 쥐고 못 널러가게 잡아두었다. ¶닭의 {날갯쭉대기를} 먹으면 바람낭께 할아버지가 먹어야 하니 이리 건네주렴. ¶독수리가 {날갯죽때기를} 움직여 잘도 날아간다.
지역 전북.

▲날내다 동 [대응어] 벼리다.
무디어진 연장의 날을 불에 달구어 두드려서 날카롭게 만들다. ¶식칼을 날내 달라고 대장간을 찾았다.

지역 정읍.
해설 '날내다'는 '날+내-+-다'로 형태소 분석할 수 있다. '빛을 내다', '윤을 내다'와 같은 쓰임으로 만들어진 구성이라 할 수 있다.

▲날떠들다 동 [대응어] 해나다.
날씨가 흐리지 아니하고 개다. ¶{날떠들먼} 빨래 좀 널어야 쓰겄다.
지역 전북.

▲날뚱 명 [대응어] 산등성이.
산의 등줄기. ¶{날뚱이} 뻗다
지역 전북.

▲날라가다 명 [대응어] 날아가다.
공중으로 날면서 가다. 또는 가지고 있거나 붙어 있던 것이 허망하게 없어지거나 떨어지다. ¶머슴애가 동생이 연을 뜨다가는 연이 {날라가} 버린 것이 어디 만큼 인자 간 것이 저그성 여울라고 그 성수될 집이로 감나무가 ?혔던 갑디다.<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저, 저. 오다 금방내 새 한 마리가 {날라가다가} 똥을 쌌는디 그 찾느라고 그래요."<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구들을 파헤치고 다시 방의 꼴을 갖추는 데 며칠간의 북새통은 물론이고 수월찮은 돈이 {날라가} 버렸다. 그것뿐이 아니었다.<양귀자,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이장이먼 동네사람덜 편도 잠 들어보라 그것이오. 우리가 다 굶어죽어불먼 이장자리도 {날라가분게라."} "나 이장 못해묵는 것 걱정혈라 말고 따질 것이 있으면 자네가 가서 따지소."<조정래, 아리랑> ¶"아이고, 이 난리에 손해 안 볼라는 것이야 장마비에 몸 안 적실라고 허는 것 아니겄는게라우. 지도 배터지게 있는 전답 반이넘게 {날라가게} 생겼응게 앞날이 막막허구만요."<조정래, 아리랑>

지역 남원, 군산, 부안, 완주, 정읍.

▲날람거리다 동 [대응어] 날름거리다.
혀, 손 따위를 자꾸 날쌔게 내밀었다 들였다 하다. 또는 남의 것을 탐내어 자꾸 고개를 좀 내밀고 엿보다. ¶아니 동생이 비얍 셋바닥 맹이로 셋바닥을 {날람거리면서} 약을 올링께 내가 쥐어박았지, 아무 이유 없이 쥐어 박았겄어? ¶뭘 그렇게 보고 있는지 모가지를 {날람거리면서} 미동도 않고 빤히 쳐다보드랑게.
지역 전북.

▲날람날람 부 [대응어] 날름날름.
혀, 손 따위를 날쌔게 자꾸 내밀었다 들였다 하는 모양. ¶비얍이 쎗바닥을 {날람날람} 허는 것얼 본게로 오금이 다 재리는 거여. ¶그 동안 우리는 큰아부지 덕으로 그저 주시면 주시는 대로 {날람날람} 받어먹고 살어왔는디 인자는 모르겄다 허시니 어찌야 헌다냐.
지역 전북.

▲날랑거리다 동 [대응어] 까불다.
말이 많고 가볍게 행동하다. ¶리포터, 오사게 날랑거린다. 잘 씨워린다.
지역 전북.

▲날마늘 명 [대응어] 생마늘.
익히거나 가공하지 않은 마늘. ¶얼기설기 수인사가 오락가락하면서 술 한 병에 보리고추장에다가 {날마늘 을} 곁들인 안주를 중심으로 비잉 둘러앉는다.<채만식, 정자나무 있는 揷畵> ¶구운 고기에 {날마늘을} 올려서 같이 먹다 ¶{날마늘로} 먹으면 냄새가 많이 나니. 구어서 먹어보자.
지역 전북.
해설 '날마늘'은 접두사로 쓰는 고유어 계열의 '날-'에 명사 '마늘'이 연결된 것이다. 오늘날

은 한자어 계열의 접두사 '生-'을 써서 '생마늘'을 더 많이 쓰고 있다.

▲날망 명 [대응어] 산마루.
산등성이의 가장 높은 곳. ¶그날 오후도 장대 같은 벼락불이 건지산 {날망으로} 푹푹 꽂히는 험한 날씨였는데, 마루 끝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외할머니가 별안간 무서운 저주의 말을 퍼붓기 시작한 것이다.<윤흥길, 장마> ¶달맞이에 일의 성패를 건 미친 사람처럼 단걸음에 내달아, 누구보다 먼저 동산 위의 {날망에} 올라선 심정이야.<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날맥주 명 [대응어] 생맥주.
살균하기 위해서 열처리를 하지 아니한, 양조한 그대로의 맥주. ¶상문은 저와 순범 몫으로 {날맥주(生麥酒)를}, 봉아의 청으로 아이스크림을 세 사람의 저녁밥과 한가지로 부탁했다.<채만식, 金의 情熱>
지역 전북.
해설 '날맥주'는 접두사로 쓰는 고유어 계열의 '날-'에 명사 '맥주'가 연결된 것이다. 오늘날은 한자어 계열의 접두사 '生-'을 써서 '생맥주'를 더 많이 쓰고 있다.

▲날맹이 명 [대응어] 산마루.
산등성이의 가장 높은 곳. ¶여기는 한 백 년 만이면 여기에서 신선이 내려옵니다. 저 {날맹이에서} 신선이 내려와서 신선이 술을 먹고 바둑을 두고 하는데.<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전북.

▲날버러지 명 [대응어] 날벌레.
날아다니는 벌레. ¶거 방충망얼 잘 닫어야지, {날버러지덜} 들어온당게.
지역 남원, 순창, 임실, 진안.

▲날버럭지 명 [대응어] 날벌레.
☞날버러지. ¶종술의 입이 바작만하게 벌어졌다. 그리고 한번 벌어진 입은 좀처럼 닫힐 줄을 못랐다. " {날버럭지} 들어가겄네. 입 쪼깨 오무려."<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날버레기 명 [대응어] 날벌레.
☞날버러지.
지역 정읍.

▲날벌거지 명 [대응어] 날벌레.
☞날버러지.
지역 무주, 장수.

▲날봉사 명 [대응어] 당달봉사.
겉보기에는 멀쩡하나 앞을 못 보는 사람. ¶사람이 와도 모르는 척 날봉사 행세를 한다. ¶어릴 때 눈을 앓아서 날봉사가 되었다.
지역 군산.
해설 '봉사'에 "맨 그대로 있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날-'이 붙어 만들어진 말이다.

▲날비 명 [대응어] 아가미.
물속에서 사는 동물, 특히 어류에 발달한 호흡기관. ¶어항 속 금붕어를 가만히 바라보믄 물을 들이 마실 때마다 {날비도} 움직이는디 고것이 나는 속이 편허지는 광경이더라고.
지역 장수.

▲날싸다 형 [대응어] 날쌔다.
동작이 날래고 재빠르다. ¶그 사램이 하는 행동머리가 워낙 {날싼게} 사램인지 귀신인지 구분을 못허겄드래야.
지역 전북.

▲날아나다 동 [대응어] 바래다(색이).
볕이나 습기를 받아 색이 옅어지다.
지역 전북.

▲날장 명
죽은 사람을 땅에 묻어 장사 지내는 일. 불에 살라 장사를 지내는 화장과 대조된다. ¶동네 앞인게 못써. 그리도 날장 아닌게 괜찮여.
지역 고창.

▲날짐생 명 [대응어] 날짐승.
짐승을 나는 것과 날지 못하는 것으로 나누고 그 중 날아다니는 짐승을 이르는 말. ¶어이를 갈거나 어이를 갈거나 심산 험로를 어이를 갈거나 {날짐생도} 쉬어 넘고 구름도 쉬어 넘는 북망 산천을 어이 갈꼬 춘초는 연년록인디 왕손은 귀불귀네 그려 어와<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날치다 동 [대응어] 떨어지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지다. ¶각시가 고 낭떠러지에 {날쳐서} 죽어서 절개를 지켰다는 거지요.
지역 전북.

▲날캄하다 형 [대응어] 날카롭다.
끝이 뾰족하거나 날이 서 있다. ¶웅보는 빗방울이 굵어질수록 {날캄한} 송곳이 쿡쿡 쑤시듯 가슴이 아팠다.<송기숙, 자랏골의 비가>
지역 전북.
해설 표준어 '날카롭다'의 15세기 단어는 'ㄴㆍㄹ캅다'이다. 전북 방언의 '날캄하다'는 '날캅-'에 형용사를 만드는 파생 접미사 '-음하-'가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날커랍다 형 [활용형] 날커라워/날커라와 [대응어] 날카롭다.
끝이 뾰족하거나 날이 서 있다. 또는 생각하는 힘이 빠르고 정확하다. 또는 모양이나 형세가 매섭다. ¶그 칼날이 너무나 {날커라워서} 횟감이 부드럽게 잘 썰리드만. ¶갸는 다른 것은 다 지대로 허는 것이 없는디, 뭐슬 관찰허고 보고 하는 능력은 {날커라운} 모양이여. ¶아따, TV에 나오는 정치인들끼리 이러네 저러네 말허는디, 의견들이 쟁쟁허니 {날커랍게} 대립하더만.
지역 전북.

▲날키다 동 [대응어] 날리다.
날게 하다 ¶北으로 北으로 울고 간다 기러기/南方 대숲 밑을 뉘 후여 {날켰느뇨}<김영랑, 행군>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날키다'는 '날다'의 사동사로 사동 접미사 '-쿠-, -키-'와 결합하여 '날키다'가 생성된 것이다.

▲날타리 명 [대응어] 날벌레.
날아다니는 벌레. ¶거 여름에 수박이나 포도 같언 거 먹구 내싸두먼 {날타리가} 우글우글 해진게, 바로바로 갖다가 버리야 혀. ¶여름에 음식찌거기엔 {날타리}가 금세 생기니 빨리 버려야 한다. ¶여름밤에는 {날타리가} 많아 함부로 바깥 바람쐬기가 두렵구나.
지역 김제, 부안, 군산, 익산, 정읍.

▲날파람나다 형 [대응어] 날파람스럽다.
날파람이 일 정도로 행동이 매우 빠르고 민첩하다.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줄을 섰다. 논바닥에서는 이엉을 엮는다, 대를 쪼갠다, 울목을 박는다, 거개가 농사짓다 온 사람들이라 일판이 손발 맞는 도둑놈들처럼 {날파람나게} 돌아갔다. 너댓 마지기 넓이를 싸잡아 울목을 박았다. 삽시간에 둥근 울타리가 쳐졌다.<송기

숙, 녹두장군> ¶뒷수습을 벌써 말끔히 하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쌀을 사들이는 일이며 돈을 놓는 일 등이 멈췄던 물렛살 돌아가듯 {날파람나게} 돌아가고 있었다.<송기숙, 녹두장군> ¶남의 집 종살이를 할 때도 이렇게 몸을 아끼지 않고 일을 하던 사람이라 이제 제 살림을 차리게 되었으니 손에 {날파람이} 날 밖에 없었다. 이런 산골논은 들녘논에 비해 일은 두 배나 많았지만, 소출은 그 절반 요량 밖에 되지 않았다.<송기숙, 녹두장군>
지역 전북.

▲날품 명 [대응어] 놉.
하루하루 품삯과 음식을 받고 일을 하는 품팔이 일꾼. 또는 그 일꾼을 부리는 일. ¶바느질품을 팔고 남의 집이 가서 {날품을} 팔고, 남의 식은 밥이나 얻어먹고 사는 처지여. 애들은 서넛이나 되고. 그<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십장이란 사람들 둘레에서 조를 짜 움직였다. 그 속에 끼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날품을} 팔려고 일거리를 찾아 이리저리 떠돌았다. 그 지게 진 날품팔이들이<조정래, 아리랑>
지역 임실.

▲남기 명 [대응어] 나무.
☞낭구. ¶서울이라 {남기} 없어 고사리로 대궐을 짔네/아래 웃집 처녀들아 대궐 짓는 구경가세/서울이라 {남기} 없어 원추리로 대문을 다네/아래웃집 처녀들아 대문 다는 구경가세<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무주.

▲남동상 명 [대응어] 남동생.
남자 동생. ¶아들 하나고, {남동상}, 아들은 하나고 여자는 다섯이요.<2009 전북 임실>
지역 익산.

▲남동새 명 [대응어] 남동생.
☞남동상.
지역 전북.

▲남물 명 [대응어] 나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풀이나 나뭇잎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또는 그것을 삶거나 볶거나 또는 날것으로 양념하여 무친 음식. ¶{남물}을 캐다 ¶{남물}을 무치다
지역 전북.

▲남배기 명 [대응어] 냄비.
음식을 끓이거나 삶는 데 쓰는, 뚜껑과 손잡이가 있는 그릇. ¶남배기에 국을 끓인다.
지역 전북.

▲남봉 명 [대응어] 혹.
머리의 혹. ¶애들이 마룽에서 놀다가 토방으로 떨어져서 머리에 {남봉이} 나기도 했지.<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전북.

▲남새 명 [대응어] 냄새.
코로 맡을 수 있는 온갖 기운. ¶{남새가} 나드라도 너무 섭섭타 생각 말고, 집안일일랑 아모 걱정 말고<윤흥길, 장마> ¶집 안에 고기 굽는 {남새가} 군침을 흐르게 하는구나. ¶그놈이 안했다고 발뺌을 허지만 아무리도 수상헌 {남새}가 나더라고. ¶어디서 고약한 {남새가} 나는지 모르겠다.
지역 군산, 남원, 완주, 임실.

▲남새오 명 [대응어] 새우(민물, 小).
강이나 호수 따위의 염분이 없는 물에서 사는 작은 새우. ¶호수이 사는 찌깐한 새우가 {남

새오여}.
지역 김제.

▲남싸다 형 [대응어] 날래다.
사람이나 동물의 움직임이 나는 듯이 빠르다. ¶내가 받은 설움에다 이자 쳐서 {남싸게} 갚어 줄랑게. 두고 바라.<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남싸다'에서 '싸다'는 "빠르다"의 의미인데 '남'의 의미는 정확하지 않다.

▲남언돈 명 [대응어] 거스름돈.
☞나믄돈.
지역 전북.

▲남은돈 명 [대응어] 거스름돈.
거슬러 주거나 받는 돈. ¶21222 {나믄돈},<2005 전북 남원> ¶21217 낭거지, {나믄돈}, 거시렴또니라고, 거시림똔보당<2005 전북 남원> ¶{나믄돈을} 잘 챙겨라.
지역 남원.

▲남재기 명 [대응어] 나머지.
일하고 남은 것. 또는 무엇의 나머지. ¶밭이도 배추 남재기가 시방도 겁나. 어제까지 허대고 댕겼어도 다 못 혔어.
지역 전북.

▲남저지 명 [대응어] 나머지.
☞남치기. ¶"웬걸이야. 우선 일 원 오십 전만 주고 {남저지는} 내일 저녁때 가져온단다."<채만식, 생명의 유희>
지역 전북.

▲남제기 명 [대응어] 거스름돈.
☞남제깃돈.
지역 김제, 임실.

▲남제깃돈 명 [대응어] 거스름돈.
거슬러 주거나 받는 돈. ¶{남제기돈을} 잘 받아와라.
지역 남원, 완주, 김제, 임실.

▲남지기 명 [대응어] 나머지.
어떤 수량에서 일부를 빼고 남은 부분. ¶글고 {남지기} 영감태기덜도 죄 일로 뫼라 허고.<조봉래, 풀벨골> ¶그래 가지고 논 삼백 석이라는 것은 자기 내외 몫으로 딱 떼 내놓고, 아들이 얼매가 있든지 간에 하나 앞에 볏적거리 줄 사람 이렇게 다 줘 놓고는, {남지기}) 있는 것은 모다 전부 공동 사업으로, 공공 사업 사회 사업으로 전부 내 놓드랴.<구비문학, 남원> ¶그래 외삼촌네 집에 가 있는데 외삼촌은 좋고, 외숙모는 사납고 그려. 날마다 쓸어 놔. 방으로 가면 방에서 씰고, 바깥에 가면 바깥을 씰고 그랴. 밥을 준다는 것이 식은 밥만 주고 {남지기} 밥만 주고 고기를 사오면 쌩괴기(생고기)만 줘,<한국구비문학대계, 전주>
지역 전북.

▲남진 명 [대응어] 남짓.
크기, 수효, 부피 따위가 어느 한도에 차고 조금 남는 정도임을 나타내는 말. ¶딱 짜고 있는디, 아니랄까 날 새고 조반 때 {남진이} 된 개 그 분네가 찾아왔더래.<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부안.

▲남짓허다 동 [발음] [남지더다/남지터다] [대응어] 남짓하다.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어떤 수량에 차고 조금 남는 정도이다. ¶집이를 간게나 불과 한번 한 달 쪼금 {남짓허서} 들어간게 마

누라가 깜짝 놀라면서, "여보 당신이 그렇게 결심이 없소."<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군산.

▲**남치기** 명 [대응어] 나머지.
어떤 한도에 차고 남은 부분. 남아 있는 적은 것. ¶셋이나 되는 딸에 눈 딱 감고 한나 내놓고 {남치기} 식구 배불리 살면 좀 좋을 것이여.<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에서 표준어 '나머지'에 해당하는 말의 대표적인 형태는 '남어치'와 '남지기'이다. '나머지'는 형용사 어간 '남-[餘]'에 접미사 '-어지-'가 결합된 형태이다. '남치기'는 '남어치'와 '남지기'가 혼태되어 '남치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남칙** 명
무엇을 해 본 가량. 헤아릴 줄 아는 눈대중. ¶나도 못 배우고 시골서 농사만 졌지만 해 본 남칙이여.
지역 전북.

▲**남팍** 명 [대응어] 쇠죽바가지.
쇠죽을 푸는 데 쓰는 바가지. ¶남팍으로 소죽을 구유에 퍼붓다.
지역 김제, 부안, 군산.

▲**남펜** 명 [대응어] 남편.
☞냄편. ¶근디 그 이머니되는 사람이 {남팬은} 일찍 이별하고 손(자손)이 없었던겨.<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부안.

▲**납대기** 명 [대응어] 모되.
곡식이나 기름을 잴 때 쓰는 도구로 두 되를 담는 나무 그릇이나 또는 그 양. ¶그 길로 싸전에 들러 쌀과 좁쌀을 한 {납대기 씩} 팔고 나머지에서 십오 전을 선 자리에 갖다 주었다.<채만식, 明日>
지역 전북.

▲**납대기병** (甁) 명 [대응어] 석유통.
목에 끈이 달린 한 되들이 소주병. 석유를 사러 다닐 때 쓰던 병. ¶섹유지름 살라면 {납대기병} 들고 섹유집까정 가야 했제. 섹유배달이 어딨어.<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전북.

▲**납뛰다** 동 [대응어] 날뛰다.
날 듯이 껑충껑충 뛰다. 또는 함부로 덤비거나 거칠게 행동하다. 또는 어떤 일에 골몰하여 몸시 바쁘게 돌아다니다. ¶이 감장을 하여가자면 자연 그만큼이나 부지런히 {납뛰지} 아니하고는 뒤를 대는 도리가 없었다.<채만식, 심봉사>
지역 전북.
해설 '날뛰다'가 직접 소급하는 최초의 형태는 18세기의 'ᄂᆞᆲᄯᅱ다'이다.

▲**납작다리** 명 [대응어] 넓적다리.
☞넙쩍따리.
지역 전북.

▲**납작허다** 형 [발음] [납짜거다/납짜커다] [대응어] 납작하다.
판판하고 얇으면서 좀 넓다. ¶이캐 머냐 놔노면 이제 구두리라고 납짝 {납짜건} 독.<지역어 자료 총서, 무주> ¶산내키로 {납짜:거니} 그끄 자버댕기면 인자 오까, 안 얼그면 그냥 막 억씨당개.<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지역 옥구.

▲**납조리** 명 [대응어] 가자미. ¶냇가에서 {납조리를} 잡다
지역 전북.

▲**납주래기** 명 [대응어] 가자미. ¶{납주래기를} 잡아 놓다.
지역 전북.

▲**낫바닥** 명 [대응어] 얼굴.
사람의 얼굴을 속되게 이르는 말. ¶아들래미가 누구한티 쥐어터졌는가 {낫바닥이} 퉁퉁 부어 갖고 들어오는데 속이 안 뒤집어지겄냐 이거여.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니더니 어떻게 {낫바닥을} 들고 다닌다요?
지역 김제.

▲**낫바대기** 명 [대응어] 낯바닥.
눈, 코, 입 따위가 있는 얼굴의 바닥. 또는 남을 대할 만한 체면. ¶"이 돈도 있는데." 하면서 오유끼가 미안하다는 {낯바대기로} 남 앞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몸뻬 고의춤을 헤집어 꺼낸 것은, 명주 수건에 싸인 삼백 원이었다.<최명희, 혼불> ¶그런 {낯바대기로} 꼴갑하고 자빠졌네.
지역 전북.

▲**낫반대기** 명 [대응어] 낯.
얼굴의 앞쪽 면. ¶제기럴, 듣자니 사나녀석 {나빤대기} 근지러 못 듣겄네!<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낫반데기** 명 [대응어] 얼굴.
사람의 얼굴을 속되게 이르는 말. ¶놀부놈이 얼매나 처먹었는가 아주 {낫반데기가} 반지르르 해서는 나오는 거여. ¶염치도 모르는게벼 {낫반데기} 빳빳이 들고 댕기는 것 본게. ¶저 년은 {낫반데기}가 붉으스름한 게 서방 잡아먹을 상이여. ¶거짓말을 하고도 어쩌면 저렇게도 {낫반데기가} 두터울까?
지역 순창, 임실, 진안.

ㄴ

▲**낫반디기** 명 [대응어] 얼굴.
☞낫반데기.
지역 전북.

▲**낫부닥** 명 [대응어] 낯바닥.
눈, 코, 입 따위가 있는 얼굴의 바닥. ¶메누리가 어떻게 베락맞게 얽고 찢어지고 혔던지 {낯부닥이} 코할라 찢어져갖고 베락맞게 생겼는디
지역 전북.

▲**낫살 깨나 먹다** 【관용표현】
☞낫살을 처먹다.
지역 전북.

▲**낫살 먹다** 【관용표현】
☞낫살깨나 훔치다.
지역 전북.

▲**낫살깨나 훔치다** 【관용표현】
나이가 제법 들었음을 낮잡아 표현하는 말이다. ¶이 사람아, {낫살깨나 훔친} 처지에 말끝마다 그렇게 놈짜를 함부로 놓아 버릇해서야 어디 쓰겠는가.<윤흥길, 낫>
지역 전북.
해설 표준어 '나잇살'은 "지긋한 나이를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나잇살'은 전북 방언에서는 '낫살'로 발음된다. '낫살을 먹다, 낫살을 훔치다'는 "나이가 제법 들었음을 낮잡아 표현하는 말"이다.

▲**낫살을 처먹다** 【관용표현】

나이가 제법 들었음을 아주 낮잡아 표현하는 말이다. ¶내가 {낫살이나 처먹은} 놈이 언지 너헌티 고지를 먹었다고 술을 사 인마, 사기는 …!<이병천, 모래내모래톱> ¶{나잇살이나 처먹은} 것이 늙어도 더럽게 늙었구만.<송기숙, 녹두장군>

지역 전북.

해설 표준어 '나잇살'은 "지긋한 나이를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나잇살'은 전북 방언에서는 '낫살'로 발음된다. '낫살을 처먹다'는 "나이가 제법 들었음을 아주 낮잡아 표현하는 말"이다.

▲낫우다 동 [대응어] 고치다.

병을 낫게 하다. ¶아뭏든 다행이다 싶고, 장차는 완전히 그것이 {나수어질} 수도 없지 않으리라 하여 더욱 다행스러웠다.<채만식, 아름다운 새벽>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나수다'는 '낫다'에 사동 접미사 '-우-'가 연결되어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따라서 이 어휘는 "병을 낫게 하다"의 의미를 가진다.

▲낫짝 명 [대응어] 낯.

사람의 얼굴을 속되게 이르는 말. ¶전에도 더러 본 적이 있는 {낯짝이었다}. 알만한 위인이었다. 근처에서 오랫동안 복덕방을 해왔다는 이씨였다.<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내가 저런 남편을 거절을 하고 이런 짓을 했으니 얼굴 떠들 {낯짝이} 없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어찌면 그리도 {낯짝이} 두거울까.

지역 완주.

▲낭가시 명 [대응어] 가시나무.

넝쿨이 우거지고 가시가 사나운 나무. ¶여그 질갓으로 다 낭가시였제. 낭가시는 낫으로 비도 못허. 사나.

지역 전북.

▲낭거지 명 [대응어] 거스름돈.

거슬러 주거나 받는 돈. ¶21217 거스름돈 {낭거지}, 나믄돈, 거시렴또니라고, 거시렴뜬보당 <2005 전북 남원> ¶{낭거지를} 잘 챙겨라.

지역 남원.

▲낭구 명 [대응어] 나무.

줄기와 가지가 단단한 목질로 된 여러해살이 식물. ¶비사리 골목, 그것이 왜 그런고니 허면 비사리란 {낭구가} 본래 그 이렇게 무성한 {낭구가} 아닙니다.<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그먼 인자 오레 그 나무 {낭구} 다 때먼 인자 어트게 헤 인자.(그러면 이제 올해 그 나무 나무 다 때면 이제 어떻게 해 이제.)<2011년 중국 무주촌 보고서-최종> ¶흘러가는 물 우에다 {낭구를} 심는대도 이보다 더 허망허고 부질없는 세상이리.<최명희, 혼불> ¶도치로 {낭구를} 넘어뜨린 후 톱으로 썰어 놓아라. ¶당골네 말대로 얼릉 그 산소로 갔드라네. 그런디 산소 옆으 전으는 못 보든 {낭구} 하나가 지둥맹이로 섰드란 말이여.<최명희, 혼불>

지역 군산, 정읍, 남원, 완주, 고창.

해설 '나무'의 최초의 형태는 15세기의 'ㄴㅏㅁㄱ~나모'이다. '낭구'는 모음 앞 형태였던 'ㄴㅏㅁㄱ'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다.

▲낭구뿌링이 명 [대응어] 나무뿌리.

땅속에 묻힌 부분으로 영양분을 빨아 올리고 나무가 쓰러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나무의 아래 부위. ¶일굴 때넌 낭구뿌링이 캐고 독 골라내고 하지.

지역 전북.

ㄴ

▲낭기 명 [대응어] 나무.

☞낭구. ¶{낭기} 업써도 그놈 때면 낭기가 남쪠 머.(나무 없어도 그놈 때면 나무가 남지 뭐.)<지역어 자료 총서, 중국 무주촌>

지역 전북.

▲낭끄텡이 명 [대응어] 낭떠러지.

깎아지른 듯한 언덕. ¶저그가 {낭끄텡이인데} 저그서 왜놈을 껴안고 떨어져 죽었디야.

지역 전북.

▲낭떠리 명 [대응어] 낭떠러지.

깎아지른 듯한 언덕. ¶저짝에 보이는 {낭떠리에} 옛날부텀 천년묵은 여수가 산다고 그러는 소리가 있어.

지역 전북.

▲낭떨배기 명 [대응어] 벼랑.

☞낭떠리. ¶잘못허다간 떨어져 죽응게 {낭떨배기}쪽으는 가지 말거라.

지역 완주.

▲낭와 명 [대응어] 팥칼국수.

팥을 갈아 만든 국물에 찹쌀을 넣고 밀가루 반죽을 방망이로 얇게 밀어서 칼로 가늘게 썰어 만든 국수. 또는 그것을 익힌 음식. ¶팥 갈아서 먹으면 낭와. 흐건 건 칼국수, 팥 느서 허믄 낭와. 수제비도 많이 히 먹고 낭와도 많이 히 먹고.

지역 전북.

▲낭제 부 [대응어] 나중에.

다른 일을 먼저 한 뒤에. ¶잠을라큰 {낭제} 자고 어린 새끼 젖버텀 주세(장수 계내면)<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장수.

▲낭쿨 명 [대응어] 넝쿨.

길게 뻗어 나가면서 다른 물건을 감기도 하고 땅바닥에 퍼지기도 하는 식물의 줄기. ¶수박 {낭쿨} 하나가 뻗어 나가버렸네.

지역 전북.

▲낮도채비 명 [대응어] 낮도깨비.

체면 없이 마구 행동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나, {낮도채비덜} 아닌개벼. 조봉래 ¶배꼽 밑엣 사정은 밤구신도 {낮도채비도} 몰른답디다. 혹시 누가 알어요, 미리감치 요럴 겡우에 대비허서 으디로 실무시 빼돌린 처자석들이 있을지?<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낮차보다 동 [대응어] 내려다보다.

위에서 아래를 향하여 보다. 또는 자기보다 한 층 낮추어 보다. ¶소내기가 쏟아졌어. 쏟아진게 그 동굴밑이 들어갔던 겝디다. 소내기를 안 맞을라고. 응 동굴밑이 들어가서 가만히 산우여서 자그 집 {낮차본게}로 아 자그 마느래가 마당으서 머리풀고 대성통곡을 허고 있거든. ¶비슷비슷한 사람허고 살아야 사람얼 안 {낮차보고} 잘 사능겨.

지역 전북.

▲낮참하다 형 [대응어] 야트막하다.

조금 얕은 듯하다. ¶사과상자보다는 낮참하니 만들어서 것다(거기다) 붓어.

지역 전북.

▲낮다 형 [대응어] 낮다.

아래에서 위까지의 높이가 기준이 되는 대상이나 보통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또는 높낮이로 잴 수 있는 수치나 정도가 기

준이 되는 대상이나 보통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또는 품위, 능력, 품질 따위가 바라는 기준보다 못하거나 보통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온도가 {나츤게} 따뜻허게 입고 가라. ¶교육 수준이 {낮다}.
지역 무주.

▲낳다 동 [대응어] 낫다.
병이나 상처 따위가 고쳐져 본래대로 되다. ¶그 아픔이 다 {나코} 보니께 어뜬 자식이 참 자식인지 인자 눈에 보이드랑게.
지역 무주.

▲내굼새 명 [대응어] 냄새.
코로 맡을 수 있는 온갖 기운. ¶부엌에서 밥 짓는 내굼새가 난다.
지역 무주.

▲내금 명 [대응어] 연기.
불이 탈 때 나오는 눈에 보이는 기체 혹은 흐릿한 기운. ¶바람은 불씨락 내금만 나리고 아들은 볼씨락 사랑만 나네(진안 발매는 소리) <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진안.

▲내김새 명 [대응어] 냄새.
☞내굼새.
지역 전북.

▲내나해야 부 [대응어] 기껏해야.
아무리 한다고 해야. 또는 ((수를 나타내는 말 앞에 쓰여)) 아무리 높거나 많게 잡아도. 또는 최대한도로 하여도 ¶그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해봤자 {내나해야} 라면, 물뿐이 아니냐, 지진으로 잃은 내 집은 어떡혀. ¶{내나해야} 열심히 청소하고 맞이하는 것이 다였다. 그 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자괴감이 든다. ¶"나는 처자식 없이는 {내나해야} 사흘도 못 사는디 중들은 어띠기 호래비로 사는고?" ¶넘들 앞으서는 늘쌍 유식헌체 큰소리를 치지만 {내나해야} 초등핵교 졸업이 전부여.
지역 전북.

▲내내야 부 [대응어] 기껏해야.
아무리 한다고 해야. 또는 ((수를 나타내는 말 앞에 쓰여)) 아무리 높거나 많게 잡아도. 또는 최대한도로 하여도 ¶점심 때부텀 모를 심기 시작허서 저녁 때까정 {내내야} 두어줄백이 안 심어놓구서는 해지기만얼 기다리는디 얼매나 꼴보기 싫든지. ¶설날이라고 하지만 {내내야} 양말 한 컬레 뿐이었어. ¶우리 엄마는 {내내야} 우리가 즐겁게 해드려야 한다.
지역 전북.

▲내동 부 [대응어] 지금껏.
어떤 상황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내동} 암말도 않고 소맹이로 일만 잘 허드니. ¶자슥이 {내동} 가만 있다가 보채긴… 니놈덜 그 얼레발치는 꼬라질 은젠가는 나가 콱 죽여 놓아야 쓸 텐디.<조봉래, 풀벨골> ¶조개 {내동} 가만 있다가는 항시 막판에 나서갖고 설랑은 해설이나 해대고.<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내둘내둘 부
이리저리 자꾸 흔드는 모양. ¶또 호랭이가 앞에 와서 퍼덕거리거든. 꼬랑지를 내둘내둘 그려.
지역 전북.

▲내둘르다 동 [대응어] 내두르다.
이리저리 휘휘 흔들다. ¶.포수가. 총을 여 추켜 들고는 서서는 손 {내둘고} 가거라.<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개를 다

주드래야. 그린게 쳐다본게 저그 올라가니라고 꼬리를 이렇게 {내둘르고} 올라가드라노만. <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다른 사람도 그런디 어떤가는 몰라도 여자 얼굴에다 불칼을 막 {내둘러요}. 그래 무서워서 못있겠응게 도망갔어.<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내가 손을 {내두름서} 아는치를 혀도 그냥 가 버리더라고.

지역 고창, 군산, 부안, 익산, 정읍.

▲내롱이다 동 [대응어] 메롱이다.

주로 어린아이들이 혀를 쏙 내밀며 상대방을 놀리는 흉내를 내다. ¶함부로 섯바닥 {내롱이면} 다 말인 중 알어?<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내리다보다 동 [대응어] 내려다보다.

☞네리다보다. ¶인자 돈 슥 냥이나 쓰고 남지기 몇푼을 주고 올라가라고, 보내놓고 잿배기에 올라가 저 밑이가 자그 동넨디 {내리다}본게 어뜬놈이 지그집을 싹 씰어버리고 고래등같은 지와집을 싹 다 지어놓고 하인들이 왔다갔다 허는디<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고창, 순창.

▲내립다[1] 형 [대응어] 냅다(연기가).

연기의 기운으로 눈이나 목구멍이 쓰라린 느낌이 있다. ¶연탄 가스가 올라오나벼. 왜 이렇게나 눈도 코도 목도 {내럽디야}?

지역 전북.

▲내립다[2] 부 [대응어] 냅다.

몹시 세차고 빠르게. ¶그놈이 그 구멍으로 해서 좇아나와 {내립다} 사람을 물어 죽인다든지 잡아 먹는다든지 하고……<채만식, 정자나무 있는 揷畵>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내립다'는 '냅다'와 '들입다'가 혼태를 일으켜서 '내립다'가 된 것으로 보인다.

▲내먹다[1] 동 [대응어] 팔아먹다.

값을 받고 어떤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다.

지역 전북.

▲내먹다[2] 동 [대응어] 수확하다.

익거나 다 자란 농수산물을 거두어들이다. ¶잘됐지. 세 가마니나 {내먹었어}. 하야니 노란 콩.

지역 전북.

▲내멩년 (←來明年) 명 [대응어] 내후년.

후년의 바로 다음 해. ¶올해 농사는 흉년인 것 같어, 올해가 일케 더운 게 내년도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내멩년이나} 기대를 해봐얄랑가.

지역 김제, 완주, 고창.

▲내발기다 동 [대응어] 내발리다.

생각, 태도, 신체, 말 따위가 겉으로 드러나 보이다. 또는 그렇게 하다. ¶오기창이는 유배걸이 이름까지 {내발기며} 변모없이 토파하고 나오자 대번에 비위짱이 상한 것 같았다.<송기숙, 녹두장군 9>

지역 전북.

해설 표준어 '발리다'는 "껍질 따위를 열어 젖혀서 속의 것을 드러내다"는 의미이고, '발기다'는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도록 헤쳐 발리다"란 뜻이다. 전북 방언의 '내발기다'는 '내다'와 '발기다'의 합성어이다. 표준어형은 '내발리다'이다.

▲**내번지다** 동 [대응어] 내버리다.
가지거나 지니고 있을 필요가 없는 물건을 내던지거나 쏟거나 하다. ¶손을 대처 띠고 보니까 이런 댐배 끄터리 댐배 끄터리 {내번진} 놈을 전부 줏어서 담어가지고는<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부안.

▲**내벌다** 동 [대응어] 내버리다.
☞내베리다.
지역 정읍, 고창, 순창, 장수.

▲**내베리다** 동 [대응어] 내버리다.
가지거나 지니고 있을 필요가 없는 물건을 내던지거나 쏟거나 하다. ¶씨레기를 암데나 내베리면 안 되지.
지역 고창, 진안.
해설 '내베리다'는 '내버리다'의 제2 음절 모음이 후행하는 모음 /ㅣ/의 전설성에 영향을 받아 움라우트된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움라우트, 즉 /ㅣ/ 모음 역행 동화는 개재 자음이 /ㄴ, ㄷ, ㄹ, ㅈ/ 등과 같이 [+coronal] 자질을 가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이 경우는 개재 자음의 제약을 받지 않았다.

▲**내뵉** 명 [대응어] 내의.
겉옷의 안쪽에 몸에 직접 닿게 입는 옷.
지역 임실.

▲**내부치다** 동 [대응어] 떨어뜨리다.
가지고 있던 물건을 빠뜨려 흘리다. ¶맷돌을 들어갖고는 그 잔치허는디다가 걍 디럽다 {내부친게} 드르르 구른게, "아 자자자… 앗다 이거 생베락 내린다!" 고 다 도망가 버리네.<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세놋대야를 갖다가 아예 지집아에 다 탁 {내부친개로} 지집아가 그냥 맞아서 직사를 해 부렀드랴.<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전북.

▲**내비두다** 동 [대응어] 내버려두다.
관심을 갖지 않고 방치해 두다. ¶가난은 나랏님도 못 구허신다는디, 이런 난세에, {내비두어도} 물이 없어 말라 죽어가는 물괴기 조께 건져 먹었다고 설마 호통이야 치겄어? 안 그리여?<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내비두다'는 '내버리다'에 조동사 '두다'가 연결된 구조로 아주 많이 쓰는 어형이다. 어간 재구조화가 된 '내버려 두다'가 '내비두다'가 되고, 더 줄어든 '냅두다'도 쓰인다.

▲**내비리다** 동 [대응어] 버리다.
☞내베리다.
지역 고창.

▲**내뻐리다** 동 [대응어] 버리다.
☞내베리다. ¶어려울적 조강지처를 {내뻐리고} 새각시를 얻은놈이 잘 되겄냐.
지역 완주.

▲**내뻘다** 동 [대응어] 버리다.
☞내베리다.
지역 고창, 순창.

▲**내뿐지다** 동 [대응어] 버리다.
☞내번지다.
지역 남원.

▲**내사촌** 명 [대응어] 내종사촌.
☞내사춘.
지역 군산.

▲내사춘 (←內四寸) 명 [대응어] 내종사촌.

아버지의 자매의 자녀. ¶시고모 아들이여. 긍개 인자 우리 거시기지, 우리 아저씨 {내사춘} 형이지<2007 전북 군산> ¶느덜은 넘도 아닌 {내사춘} 지간인디 그렇게 맨날 쌈질이냐.

지역 군산.

▲내싸두다 동 [대응어] 내버려두다.

☞내쏴두다. ¶좋은 소리 다 {내싸두고} 즘잖게 생긴 냥반이 많이 배운 주뎅이로 으찌 그리 끔찍시런 말씸을 놓허시오?<윤흥길, 낫>

지역 전북.

▲내쏘다 동 [대응어] 버리다.

가지거나 지니고 있을 필요가 없는 물건을 내던지거나 쏟거나 하다. 또는 직접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과의 사이를 끊고 돌보지 아니하다. ¶살다가 갈 적에는 만것을 다 {내쏘고} 가자 그것이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어떻게 히서 젊은 아내를 여그다 혼자 {내쏘고설랑} 행실이 자기 아내를 믿은게 거그다 두지 그럴 수가 있냐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그 버릇을 언능 {내쏘지} 않으면 장차 큰 화근이 될거여.

지역 김제, 완주, 익산, 임실.

▲내쏴두다 동 [대응어] 내버려두다.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돌보지 아니하다. ¶그 뒤에 황씨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는디, 자기 달이 헌 노릇이라 그냥 {내쏴두었다고} 헌다.<구비문학대계 임실군편> ¶인자, 근게 들어가가지고서는, 들어가는디 줄을 깐닥거리드라느만, 그 {내쏴둬} 버렸어. 작것, 디져(죽어) 버리라고,<한국구비문학대계, 전북군산시·옥구군편>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내쏴두다'는 '내쏘다'에 조동사 '두다'가 연결되어 '내쏘아 두다'가 되고 이것이 한 단어로 굳어지면서 '내쏴두다'가 된 것이다.

▲내알 명 [대응어] 내일.

☞내일.

지역 무주, 장수.

▲내얌새 명 [대응어] 냄새.

☞내음새. ¶"으따와, 곡식 내얌새 맡은 지가 을매다냐. 회가 다 동허네웨."<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내오간 명 [대응어] 내외간.

부부 사이. ¶네 살림을 전부 바닥 싹 다 긁어서 내오간에 안오믄 이 땅을 못써. 귀신이다 그게.<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전북.

▲내옵다 형 [대응어] 냅다(연기가).

☞냅다.

지역 옥구.

▲내웁다 형 [대응어] 냅다(연기가).

☞냅다.

지역 고창, 김제.

▲내음새 명 [대응어] 냄새.

코로 맡을 수 있는 온갖 기운. 또는 어떤 사물이나 분위기 따위에서 느껴지는 특이한 성질이나 낌새. ¶淡淡히도 오래가는 내음새 를 풍기우며, 머슴둘레 꽃포기가 발길에 채일뿐 <서정주, 무슨 꽃으로>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내음새'는 '내음(臭)+-새'로 구성된 어휘이다.

▲내의 명 [발음] [내으/내이] [대응어] 내의.
겉옷의 안쪽에 몸에 직접 닿게 입는 옷. ¶첫 월급 타믄 뭐니뭐니혀도 빨간 {내이를} 사야 맛이지.
지역 군산, 남원, 완주.

▲내처 명 [대응어] 내처.
한결같이. ¶임마, 으떠코 된 셈판인가를 귀뜸혀 주어야제 고냥 {내처} 달아나면 으떡허겄단 거여.<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내치 (內-) 명 [대응어] 안뒷간.
집 울타리 안에 있는 변소. 집 안에 대소변을 보도록 만들어 놓은 곳. ¶{내치를} 들어가서 똥 누고 왔지.
지역 전북.

▲내친짐 명 [대응어] 내친김.
이미 길을 나서거나 일을 시작한 김 ¶{내친짐}에 마저 끝장을 봐야 사내자식이지.
지역 전북.

▲내훗년 명 [대응어] 내후년.
후년의 바로 다음 해. ¶꽃 피었으니 내년에도 꽃 피어나겠지요 내년에도 꽃 피면 {내후년}, 내내후년에도 꽃 피어 만발할 테니 거기 그 자리 꽃 피면<김용택, 연애시집>
지역 고창, 군산, 무주, 임실, 남원.

▲낚이줄 명 [대응어] 낚싯줄.
물고기를 낚는 데 쓰는 줄. ¶도야지 볶은 괴기로다 {낙끼줄로} 잡어와 부리자.<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낚이질 명 [대응어] 낚시질.
낚시로 물고기를 낚는 일 ¶저 영감은 밤나 {낚이질} 히야 괴기 잡는 꼴을 못 봐. ¶연밥에다 밥을싸고 풀잎에다 진게싸고(반찬싸고) 앞냇강에 {낙기질} 가니 여기서저기서 뛰는잉어 못다잡고 해가졌네<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임실, 정읍.

▲낚잇대 명 [대응어] 낚싯대.
☞낚잇대. ¶{낚잇대} 한 개만 들고 나가면 운암저수지는 물반 괴기 반이었어.
지역 임실.

▲낸내 명 [대응어] 내(煙氣).
물건이 불에 탈 때에 일어나는 부옇고 매운 기운. ¶촌에서는 인제 검불 거튼 거나 볏짚 거튼 거슬 태우니까능, {낸내} 난다구 그러지. ¶모깃불 피는디 가까이서 연기를 쐬었더니 옷에 {낸내}가 베었는 갑다. ¶순희야, {낸내} 나는 곳에 있지 말고 저쪽으로 가렴.
지역 고창, 무주.

▲낼룽그리다 동 [대응어] 날름거리다.
혀, 손 따위를 자꾸 날쌔게 내밀었다 들였다 하다. ¶너의 할아버지가 이브를 꼬여내든 達辯의 혓바닥이 소리 잃은 채 {낼룽그리는} 붉은 아가리로 푸른 하늘이다. …물어뜯어라. 원통히 무러뜯어<서정주, 花蛇>
지역 전북.
해설 표준어 '날름거리다'의 '날름'은 "잽싸게 움직이는 모양"을 나타내는 의태어이다. 이 '날름'은 전북 방언에서는 '낼룽'으로 쓰인다. 따라서 '낼룽거리다'가 쓰이는데 서정주의 작품에서는 '낼룽그리다'로 나타나고 있다.

▲낼름낼름 부 [대응어] 날름날름.

허, 손 따위를 날쌔게 자꾸 내밀었다 들였다 하는 모양. ¶그러나 그때까지 부러운 눈으로 기죽어 있었던 주인집 아이는 혀를 {낼름낼름 하며} 깡충거렸다.<조정래, 아리랑> ¶그러고 망했던 시상천지가 도로 살어나서 날 보고 {낼름낼름} 섯바닥 내둘르는 꼴도 내 눈으로 여러 번 봤다.<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냄기다 동 [대응어] 남기다.

다 쓰지 않거나 정해진 수준에 이르지 않게 하여 나머지를 만들다. 또는 들인 밑천이나 제 값어치보다 얻는 것을 많게 하여 이익을 만들어 내다. 또는 잊혀지지 않도록 뒤에까지 전하다. ¶"야는 수많은 날 다 잡수는 때도 있고 {냄기는} 때도 있지 일생을 다 먹는 것이냐고." 그러고 했단 말이여.<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아, 홍시를 어떻게 놔서 그리 상하지 않고 {냄겨} 두었읍니까?" 그러고. "땅에다 파묻었오? 어떻게 했오? 어떻게 했오?"<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점심밥 먹다 좀 {냄기고}, 저녁 먹다 좀 {냄기고}, 즈어머니를 갖다 줘 저녁이는. 여그서 말허먼 저 산밑에 사는디.<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금세 표가 나고 의심 살 것 아니냔 말이시." "장사꾼덜이야 비싼 물건 팔아 묵어이문 크게 {냄기먼} 됐제 그렇게꺼정 머리가 돌란가?"<조정래, 아리랑> ¶하도 배고파서 붙들고 울은게로, 청국나라 공잭(공작)이는 낮거무 하나쓱(하나씩)도 먹고 사는디 산입으 거무줄 칠라냐고 그 말 한 마디 {냄기놨다." 고} 그?어. 인자 그대로 가 고(告)를 했어.<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전주, 부안, 군산, 정읍.

▲냄편 (←男便) 명 [대응어] 남편.

결혼한 남자를, 그 아내를 기준으로 일컫는 말. ¶"당신이 하도 아름답고 고운 얼굴이걸래 당신을 한생전 데럭고 사는 {냄편도} 있을틴디 하도 욕심이 나서 나 입을 한번 맞췄던 것이라."고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아 이만저만허서 영감님께 손님 하나가 외기서 너를 쫓아 내야 너그 {냄편을} 본다고 헌다."<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이 여자가 가만히 생각한게, 아 세상에, 동삼 한 뿌리, 여의주 한 개, 금방석 두 개를 짊어진 {냄편을} 구헐라니 구할 도리가 있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냄편} 밥은 누워 먹고 딸 밥은 서서 먹는다는 옛말이 있다. ¶"사나 대장부가 어련허니 다 알어서 허는 짓인디 예펜네가 시건방구지게 으디서 갬히 {냄편} 직장일에 끼여들어서 기운을 써라 말어라 따따부따냐!"<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정읍, 완주, 남원, 군산, 부안.

▲냅대 부 [대응어] 냅다.

몹시 빠르고 세찬 모양. ¶걍 이놈을 냅대 치네. 이놈을 이놈이 죽게 맞고 인자 그 날 저녁부터 눈구녁을 쥐어 뜯고 옥을 지키고 있는디.

지역 전북.

▲냅두다 동 [대응어] 내버려두다.

관심을 갖지 않고 방치해 두다. ¶인자 밥도 심바람 {냅두라고} 허고 지가 심바람을 다 허가서.<한국구비문학대계, 전북정주시·정읍군편>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내비두다'는 '내버리다'에 조동사 '두다'가 연결된 구조로 아주 많이 쓰는 어형이다. '내버려 두다'가 줄어서 '내비두다'로 굳어지고, 이것이 또 줄어서 '냅두다'로도 쓰인다.

▲냇가상 명 [대응어] 냇가.
냇물의 가장자리. 혹은 냇물과 닿아있는 땅의 부분. ¶그러케 세상이 조아저버렸씨. 그런개 지그믄 머 시앙 모신다고 히야 조깨씨 히가꼬 가서 기양 {냇가상으로} 누가 살믄 그다 싹 부서줘불고 석짝 채 부서줘불고.(그렇게 세상이 좋아져버렸어. 그러니까 지금은 뭐 시제 모신다고 해야 조금씩 해가지고 가서 그냥 냇가에 누가 살면 거기다 싹 부어줘버리고 석짝 채 부어줘버리고)<2009 전북 임실> ¶넋이대 하나 들고 {냇가상}에 앉어 있으면 괴기야 잽히든 말든 맘이 편안해진게 가는 거여.
지역 임실.

▲냇가창 명 [대응어] 내.
시내보다는 크지만 강보다는 작은 물줄기. ¶{냇가창에서} 멱을 감다.
지역 전북.

▲냇갈 명 [대응어] 개울.
골짜기나 들에 흐르는 작은 물줄기. 또는 냇물의 가장자리. ¶* {냇갈} {정문연}<전북>[익산], <한국방언어휘자료집_전북편> ¶한 짐 허갖구 내려옴서, 꼭 점심 먹는 냇깔(냇물)이 있어. {냇갈이} 있는디<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냇갈}을 건너면 지름길이 나와요.
지역 군산, 완주, 익산, 정읍, 고창.

▲냇갓물 명 [대응어] 개울물.
개울에 흐르는 물. ¶* {냇갓물} {정문연}<전북>[고창], <한국방언어휘자료집_전북편> ¶{냇갓물에} 손을 씻다.
지역 고창.

▲냇걸 명 [대응어] 내.
시내보다는 크지만 강보다는 작은 물줄기. ¶{냇걸에서} 아낙들이 빨래를 한다.
지역 전북.

▲냉갈 명 [대응어] 연기.
무엇이 불에 탈 때에 생겨나는 흐릿한 기체나 기운. ¶방바닥으서 연탄 {냉갈이} 새나 여간 쾌쾌헌 것이 아니고만. 빨리 환기 좀 시키자.
지역 전북.

▲냉겨먹다 동 [대응어] 남기다.
(다소 부정적으로) 이익이 생기게 하거나 남은 이익을 챙기다. ¶이런, 제기할 것. 철도국 친구들은 {냉겨먹을} 줄만 알지 써비슨 할 줄 모른담?<채만식, 탁류>
지역 전북.
해설 표준어형 '남기다'가 전북 방언에서는 /ㅣ/ 모음 역행 동화을 겪어 '냄기다>냉기다'의 음운 변화를 겪는다. '냉기다'에 '먹다'가 연결되어 합성 동사가 되면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냉면잡채 명 [대응어] 잡채.
냉면 면발로 만든 잡채. ¶거 버섯 늫고 우리도 냉면잡채 헜난? 여러가지 는게 잡채제. 버섯도 늫고 파도 늫고 뭇도 늫고 양파도 늫고. ¶근게 콩너물잡채, 냉면잡채. ¶잡채다고 히도 그리도 콩너물잡채 냉면잡채 그러제.
지역 고창.

▲냉칼하다 형 [대응어] 냉혹하다.
차갑고 혹독하다. ¶{냉칼한} 현실 속에 좌절하기를 수백번이여. 이제 좌절할 것도 없으니 또 한 번 해 보는 거지 뭐.
지역 전북.

▲냏다 동 [대응어] 내다.
돈이나 물건 따위를 주거나 바치다. ¶영화를 볼라머는 돈얼 {냏고} 표를 {끊고} 들으가야

지, 누가 개구멍으로 실금실금 들어와!
지역 전북.

▲-냐거먼 【축약형】
'-냐고 하면'이 하나로 줄어든 말. ¶장사더리 물까믈 가꼬먼, 물깜 {가꽌냐거먼} 가꽈따거먼 이매는 봉다리다 싸가꼬, 뭐 가루가치 생인느 물, 이케 무를 헬렐레이 좀 푸먼 거그다 그양 오슬 느먼 남누믄 남색 뙤고 노랑누믄 노랑놈 되고.(장사들이 물감을 갖고 오면, 물감 갖고 왔느냐고 하면 갖고 왔다고 하면 이만한 봉지에다 싸갖고, 뭐 가루같이 생긴 것을, 이렇게 물을 헬렐레 좀 풀면 거기다 그냥 옷을 넣으면 남놈은 남색 되고, 노랑놈은 노랑놈 되고.)<전북지역어, 임실>
지역 전북.

▲-냥게 【축약형】 [대응어] -나고 하니까.
방언형 '-으나고 항게'가 줄어든 말. ¶우리도 잣대 들고 비단 지고 장사 댕게 보지마는, 내 잣대로 내가 눈금 재서 띠여 준 비단도 같들 않당게로? 내 손도 틀리는디, 넘의 손에 왜 나를 {재냥게} 그러네이, 꼭.<최명희, 혼불> ¶내가 누구먼 멋 헐라고 그리여? 내가 누가 되얐든지 간에 왜 권도 없는 넘의 집에, 웬 사램이 왔다갔다 {허냥게}?<최명희, 혼불> ¶어디 {가냥게}, 또?<최명희, 혼불> ¶이 단칸방에 뫼시고 와서 어쩔 {작정이냥게에}?<최명희, 혼불> ¶누가 {오냥게}<이윤구(2001)>
지역 무주, 남원, 임실, 고창.

▲냥냥거리다 동 [대응어] 냠냠거리다.
음식을 맛있게 먹는 소리를 자꾸 내다. ¶저녁을 먹는디 기양 {냥냥거리니께} 어찌나 거슬리던지 어른들 앞에서 민망시러 혼났어.
지역 전북.

▲너갱이 명 [대응어] 넋.
정신이나 마음. ¶정치는 무신 {너갱이} 빠진 놈의 미친 정치여!<조봉래, 풀벨골> ¶{너깽이빠진} 놈의 소린 허덜 마!<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너그 대 [대응어] 너희.
말하는 이가 자기와 비슷하거나 아래인 사람들을 친밀하게 가리키는 말. ¶{너가부지} 어디 가겠냐?<최전승 외(1992)> ¶{너그} 집이 가서 하룻밤 자고 갈그나?<최전승 외(1992)>
지역 전북.
해설 표준어 '너희'는 전북 방언에서는 '너그'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너그덜(너희들), 너그 집(너희 집)'과 같이 쓰인다. 전북의 일부 지역에서는 '너그' 대신에 '느'가 쓰여 '너희들'의 방언형으로 '느덜, 느이덜, 니덜' 따위가 나타난다.

▲너그들 대 [대응어] 너희.
☞너그. ¶야덜아, {너그덜} 중에 나럴 이 방 배깥으로 나가게 헌 아헌티넌<최전승 외(1992)>
지역 고창, 남원, 군산.

▲너기 대 [대응어] 너희.
말하는 이가 자기와 비슷하거나 아래인 사람들을 친밀하게 가리키는 말. ¶{너기} 야 담어왔지야<김옥화(2004)> ¶(김장을) 너기야 우리야 알 개리고 서로 품앗이로 혀. 근게 쉽제. 빨리 허고.
지역 전북.

▲너까짓 관 [대응어] 네까짓.
'겨우 너만 한 정도의'라는 뜻으로, 상대편을 낮잡아 이를 때 쓰는 말. ¶"이놈 홀애아들놈의

새끼다고 말여. 느들 다 키운 저 죽은 뒤 홀 어머니가 느그들 키울라고 얼매나 욕을 봤냐? 근디 서울가 구경간디 용돈을 안줘 이 새끼야! {너까짓} 놈허고 절대 말도 안혀 이 새끼야."<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야 이놈아, {너까짓} 놈이 남의 소 맥이는 디 가서 소나 거천허고 허는 놈이 뭔 전라 감찰사 허냐?"<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너까짓} 게 뭘 안다고 깝죽대냐?
지역 군산, 정읍.

▲너꾸리 명 [대응어] 너구리.
☞너구리.
지역 전북.

▲너다 동 [대응어] 넣다.
한정된 공간 속으로 들게 하다. 또는 다른 것에 섞거나 타다. ¶내가 주는 용돈인게 사양허지 말고 보께트에 {너} 둬 ¶찧으면 그냥 시루떡이 여기 팥떡이 되고, 백설기도 그렇게 찧어서 찧고 그래. 그며는 그걸 패끼 {너은} 걸 패끼떠기라구레?(그러면은 그것을 팥 넣은 걸 팥떡이라고 그래?)<지역어 자료 총서, 중국 무주촌> ¶삼얼 {너} 가지고,(삼을 넣어 가지고,)<지역어 자료 총서, 무주>
지역 무주.

▲너럽다 형 [대응어] 너르다.
☞널룹다.
지역 무주.

▲너루 명 [대응어] 노루.
☞노리.
지역 전북.

▲너루다 형 [대응어] 넓다(마당 넓이가).
면이나 바닥 따위의 면적이 크다. ¶마당이 {너루다}
지역 남원, 정읍.

▲너룬장허다 형 [대응어] 널찍하다.
꽤 너르다. ¶방이 {너룬장허다}
지역 전북.

▲너룹다 형 [대응어] 너르다.
☞널룹다.
지역 남원, 완주, 정읍.

▲너릅다 형 [대응어] 넓다(마당 넓이가).
면이나 바닥 따위의 면적이 크다. ¶하루는 어쩌는가 볼라고 대청마룽, 대청이라는 데는 마루포가 관판보다도 더 {너릅더래요}. 그런 놈으로 마루를 놓았는디.<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정읍, 완주.

▲너머나 부 [대응어] 너무나.
'너무'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오밤중에 사램을 놀래키믄 얼매나 놀래겄어. 내가 그때 {너머나} 놀래가지구 잠을 못 잤어. ¶우리들은 {너머나} 많은 시간을 공부에 매달리고 있다.
지역 전북.

▲너머다 부 [대응어] 너무나.
'너무'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사는 것이 {너머다} 힘들다. ¶어지가 대목 장이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너머다} 많어서 사람이 볿힐 지경어었당게.
지역 전북.

▲너메 명 [대응어] 너머.
높이나 경계로 가로막은 사물의 저쪽. 또는 그 공간. ¶일락서산 해 떨어지고 월출동령 달 돋아온데/ 아리씨구나 아헤 에헤이 이히이/에허

야 아헤 헤에이 말이요/저 산 {너메} 소첩을 두고 밤질 걸기 내 난감허네/아리씨구나 아헤 에헤이 이히이/에허야 아헤 헤에이 말이요(임실 논매는 소리 ? 문이가)<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저 산 {너메} 헤이에 소첩을 이히이 두고/ 밤길 걸 걸키가 난감허네(순창 논매는 소리 - 문열개)<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달 떠 온다 달 떠 온다 히여 에이여/저 산 {너메서} 달이 솟아온다/ 허허하 어러이 아리나씨고나 좋네<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순창 장원질소리 - 노향방초) ¶팔랑 파할랑 수헤 수갑사 댕기/에헤야 어허 이이루 /마헤야 헝개로세/어깨 {너메} 나헤 나를 속여대네/에헤야 어허 이이루/마헤야 헝개로세/저 산 {너메} 소헤 소첩을 두고/ 에헤야 어허 이이루 / 마헤야 헝개로세/밤질 걸기 나헤 난감허네(순창 장원질소리 - 방개타령)<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임실, 순창.

▲**너벅다리** 명 [대응어] 넓적다리.
다리에서 무릎 관절의 윗부분. ¶보따리를 너벅따리 사이에 끼고 섰다.
지역 군산.

▲**너벅지** 명 [대응어] 넓이.
☞널벅지.
지역 전북.

▲**너벙바우** 명 [대응어] 너럭바위.
넓적하고 판판한 바위. ¶너벙바우. 너벙바우서 앉어서 쉬어.
지역 전북.

▲**너브덕덕하다** 형 [발음] [너브덕떠가다/너브덕떠카다] [대응어] 너부죽하다.
조금 넓고 평평한 듯하다. ¶얼굴이 {너브덕덕하다} ¶저 널벅지 {너브덕덕해서} 쓸모있것다.
지역 전북.

▲**너브데데하다** 형 [대응어] 너부죽하다.
☞너브덕덕하다. ¶얼굴이 {너브데데허다}고 애덜이 넙쭉이라고 놀린단 말여.
지역 완주.

▲**너우리** 명 [대응어] 너구리.
여우보다 작고 주둥이가 뾰족하며 꼬리가 뭉툭한 갯과의 포유동물. ¶막 그 개가 쫓아 가갖고는, 큰 {너우리} 같은 말하자면 {너우리} 같은 놈을 잡아 갖고 왔드래.<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남원.
해설 '너구리'는 15세기 『훈민정음해례』에 '러ㅇㅜㄹ'로 나온다. 16세기에는 'ㄴㅓㆁ우리'와 '너구리'가 함께 보이는데, 전북 방언형인 '너우리'는 'ㄴㅓㆁ우리'에서 첫 음절의 종성 /ㆁ/이 탈락한 형태이다. 너구리는 우리 나라 전국에 분포하며, 예부터 우리의 일상생활에 자주 등장하는 동물이다. 너구리는 행동이 민첩하지 않으며, 다소 둔해 보이는 외모 때문에 의뭉스럽고 미련한 동물로 인식되어 "의뭉스럽거나 능청스러운 사람"에 비유된다.

▲**너이덜** 대 [대응어] 너희.
☞너그.
지역 고창, 남원, 군산.

▲**너푸데허다** 형 [대응어] 너부데데하다.
좀 넓은 듯하다. ¶애기가 얼굴이 너푸데허니 이뻐야. 떡두꺼비 같이 이뻐야.
지역 전북.

▲**너훌너훌** 부 [대응어] 너풀너풀
엷은 물체가 바람에 날리어 거볍게 계속 움직

이는 모양. '나훌나훌'보다 큰 느낌을 준다.
지역 전북.

▲넉넉히 부 [발음] [넝너기/넝너키] [대응어] 넉넉히.
☞넉넥이. ¶아, 문간 걸어서 싸논 것이 참 나락 섬이나 {넉넉이} 싸놨던개비여.<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고창, 군산, 임실, 부안.

▲넉넥히 부 [발음] [넝네기/넝네키] [대응어] 넉넉히.
크기나 수량 따위가 기준에 차고도 남음이 있게. ¶{넉넥이} 준비하다
지역 김제, 남원, 부안, 순창,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무주, 완주.

▲넉더리 명 [대응어] 넋두리.
자신의 사정이나 불만을 길게 늘어놓으며 하소연하는 말.
지역 전북.
해설 '넋두리'는 '넋'과 '두리'로 분석되는데 '두리'의 어원은 분명하지 않다. "둘러대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동사 '두르다'에 접사 '-이'가 붙어 만들어진 말일 가능성이 있다. 무당이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내면 죽은 사람이 생시에 품었던 생각이나 불평을 무당의 입을 통해 마구 쏟아내는 것을 뜻하던 말이 "스스로 품고 있는 한이나 불평을 길게 풀어내는 것을 뜻하는 말"로 확대되어 쓰이고 있다.

▲넉동가다 동 [대응어] 막가다.
위아래를 따지거나 앞뒤를 가리지 않고 막되게 행동하다. ¶이렇게 된 거 {넉동가는} 수밖에 없다.
지역 남원, 장수, 진안.

▲넉동사니 명 [대응어] 넉동.
윷놀이에서, 말이 첫 밭에서 끝 밭을 거쳐 나가는 네 번째 차례. 또는 네 번째 나는 말. 윷놀이에 쓰는 네 개의 말.
지역 남원.

▲-넌- 【선어말어미】 [대응어] -는-.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어떤 과정이나 동작이 현재 일어남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예. 시방 닭을 {잡넌다} 무얼 헌다 야단이 나구, 옥례넌 입이 귀밑까지 째져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허구. 그러구 선보러 온 이덜두 좋아서 야단이던디라우.<채만식, 보리방아> ¶지가 {팔어먹넌다닝개} 중간으서 소개하여 주구, 구문 {따먹넌디} 그게 웨 못써?<채만식, 집> ¶느넌 속내평얼 모르닝개 그런 소리럴 {허넝가} 부다만, 그 느 형수라 넌 아씨 때미내가 속이 지러 {썩넌다}!<채만식, 강선달> ¶엮넌다<김옥화(2000)> ¶놓넌다<김옥화(2000)>
지역 전북.

▲넌들넌들허다 동
밥 따위가 윤기가 있다. ¶뿔껑거린 놈은 밥이 안 좋아서 못 먹겄다고 허고 보리쌀 단도리를 미리서 잘 히야여. 글먼 꼽쌀미가 짝 퍼지고 흐거니 넌들넌들허니 차지고 좋아. 넌들넌들헌 것이 밥이 쌀밥만이로 좋아.
지역 전북.

▲넌풀 명 [대응어] 넝쿨.
길게 뻗어 나가면서 다른 물건을 감기도 하고 땅바닥에 퍼지기도 하는 식물의 줄기. ¶칡은 {넌풀이} 단단혀서 배를 만들어도 허.
지역 전북.

▲널개 명 [대응어] 날개.

새나 곤충이 날기 위해 사용하는 한 쌍 혹은 두 쌍의 기관. 새는 유선형의 날개를 펄럭여 날고 곤충은 날개를 진동시켜 난다. ¶쥔네가 온게 좋아서 그냥 {널개를} 치고 몸뗑이를 문지르고 그런다.
지역 전북.

▲널널허다 형 [대응어] 한가하다.
겨를이 생겨 여유가 있다. ¶아니, 괜찬혀. 나는 {널널헌게}.
지역 순창.

▲널따란하다 형 [대응어] 널따랗다.
꽤 넓다. ¶{널따란한} 거실
지역 전북.

▲널러가다 동 [대응어] 날라가다.
공중으로 날면서 가다. ¶올라왔는디, 인자 올라와가지고 그 학 더러 참 고맙다고 인사라도 허고 그러고서는 학은 학대로 {널러가고서는} 어디 방향을 알어야 찾으러 가지.<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그러자 내리왔는디 응 그러자 정문을 했다는고. 그 산게. 아 정문을 것다가 참 호로로 {널러가게} 정문을 지어갖고서는, 그가만히 허서 지사를 데릭고 와서 가만히 본게 참 분화지지(粉華之地)란 말여. 거가.<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널러가는} 학상아/구름 밑이 신선아/들 가온데 증아도/가지밭이 명왓대(익산 아이 어르는 소리 "떵기 떵기 떵산아")<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익산군 용동면 흥왕리 돈다산)
지역 군산, 부안, 완주, 정읍, 익산.

▲널러다 형 [대응어] 너르다.
☞널루다
지역 전북.

▲널러댕이다 동 [대응어] 날아다니다.
날아서 이리저리 다니다. ¶내가 이런 것도 널러댕이는 것도 못 보고이? 나는 개완헌게 좋아.
지역 고창.

▲널럽다 형 [대응어] 너르다.
☞널룹다
지역 부안.

▲널루다 형 [대응어] 너르다.
공간이 두루 다 넓다. ¶구뎅이를 깊게 팔라면 애초부터 팔 곳을 {널루게} 잡아 시작을 히야 일이 편헌거여.
지역 장수.

▲널룹다 형 [대응어] 너르다.
공간이 두루 다 넓다. ¶마당이 {널루다}
지역 김제, 남원, 무주, 순창, 임실, 군산.

▲널르다 형 [대응어] 너르다.
공간이 두루 다 넓다.
지역 전북.

▲널릅다 형 [대응어] 너르다.
공간이 두루 다 넓다. ¶강이 {널릅다}
지역 고창, 군산, 김제, 남원, 부안,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진안, 정읍, 무주.

▲널리다 형 [대응어] 너르다.
☞널루다
지역 군산.

▲널립다 형 [대응어] 넓다(마당 넓이가).
면이나 바닥 따위의 면적이 크다. ¶마당이 {널립다}.

지역 완주.

▲널벅지[1] 명 [대응어] 넓이.
일정한 평면에 걸쳐 있는 공간이나 범위의 크기. ¶그는 흡사히 {널벅지들} 틈에 낀 간장종지로 왜소해 가지고는<윤홍길,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지역 전북.

▲널벅지[2] 명 [대응어] 소래기, 자배기
운두가 조금 높고 굽이 없는 접시 모양으로 생긴 넓은 질그릇. 또는 굽이 없는 접시 모양으로 생긴 넓은 질그릇. ¶'널릅다'가 사용된다. 따라서 '널릅따랗다'가 설정될 수 있다. 널배기라고928)928) '자배기'의 방언형으로 '널배기, 널베기'로 실현된다. 전북 방언에서는 주로 '{널벅지'로} 실현된다. 하고. {동그스름하게 춤이 높은 것은 동이라고 하고, 나지막하게 널따란 것은 자배기라고 하고}.<지역어 자료 총서, 무주> ¶모두들 걷어붙이고 벗어제친 몸들이 무척이나 탐스럽고 강인해 보였는데, 그 중에서 유독 한 사내가 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흡사히 {널벅지들} 틈에 낀 간장종지로 왜소해 가지고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간신히 옮기는 것이었으며, 그토록 험한 일을 하면서 놀랍게도 완연한 사무원 복장이었다.<윤홍길,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도토리 가루를 {널벅지}에 담가 우리면 쓴 물이 울궈 나오는디 그걸 메칠 동안 허야 맛난 묵을 맨들수가 있었다. ¶담근 김치를 {널벅지에} 담아 놓자구나. ¶옛날에는 널벅지다 시방은 고무다라라도 있지.
지역 전북.

▲널베기 명 [대응어] 너비.
평면이나 넓은 물체를 가로로 건너지른 거리. ¶도로의 널베기가 좁다.
지역 정읍.

▲널부 명 [대응어] 너비.
평면이나 넓은 물체를 가로로 건너지른 거리. ¶도로의 널부가 좁다.
지역 정읍.

▲널빤대기 명 [대응어] 널빤지.
☞널빤때기.
지역 전북.

▲널빤때기 명 [대응어] 널빤지.
판판하고 넓게 켠 나뭇조각. ¶널반때기를 깔고 앉다. ¶널뛰기 할 때 필요한 {널반때기를} 구해오너라.
지역 전북.

▲널어지다 동 [대응어] 내려지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또는 위에서 아래로 옮겨지다. ¶위에서 쿵 널어지면 놀라잖여.
지역 전북.

▲널추다 동 [대응어] 떨어뜨리다.
위에 있던 것을 아래로 내려가게 하다. ¶이 사람이 기양 눈물만 뚝뚝 {널추고} 간단 말이여.
지역 전북.

▲널치다 동 [대응어] 떨어뜨리다.
☞널추다. ¶훨훨 날아서 이놈에 가시내가 쭉가 갖고는 그 뭐인가를 {널쳐버렸네}. 바다에 시퍼런데다 {널쳐 버렸어}.<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남원.

▲널쿠다 동 [대응어] 넓히다.
'넓다'의 사동사. ¶집을 {널쿠다}

지역 장수.

▲널판지 명 [대응어] 널빤지.
판판하고 넓게 켠 나뭇조각. ¶바람맥이로 처둔 {널판지}마저 바람에 날러가고 없었다.
지역 완주.

▲넓이 부 [대응어] 널리(소문이).
범위가 넓게. ¶{널비} 퍼지다
지역 남원.

▲넓이다 동 [대응어] 넓히다.
'넓다'의 사동사. ¶길을 {넓이면} 쓰제 불편허게 다니야 쓰겄어?
지역 군산, 익산.

▲넘새 명 [대응어] 나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풀이나 나뭇잎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고사리, 도라지, 두릅, 냉이 따위가 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풀이나 나뭇잎 따위를 삶거나 볶거나 또는 날것으로 양념하여 무친 음식. ¶봄에는 동네 처녀들이 바구니를 들고 {넘새} 뜯으러 다녔어요. ¶{넘새}를 캐다 ¶"고 인제 지사 모실 때는 멈 머슬 준비를 해요?" "그냥 머 실과 머 배, 사과, 꼬깜 그렁걸 다 허고 인자 {넘새도}."<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지역 김제, 순창, 임실, 장수.

▲넘세스럽다 형 [대응어] 남우세스럽다.
놀림과 비웃음을 받을 만큼 창피한 데가 있다. ¶이게 으디서 요딴 버르장모리를? {넘세스럽게}!<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넙덕다리 명 [대응어] 넓적다리.
다리에서 무릎 관절 위의 부분.
지역 무주.

▲넙덕방아 명 [대응어] 엉덩방아.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주저앉아서 엉덩이로 바닥을 쾅 구르는 짓. ¶{넙덕방아}럴 찧고 벌렁 자빠졌지.
지역 군산.

▲넙덕지 명 [대응어] 궁둥이.
볼기의 아랫부분. 앉으면 바닥에 닿는, 근육이 많은 부분이다. ¶이 큰애기가 오요요. 또또오. {넙덕지를} 활딱 까놓고는 이 타닥 타닥 때리먼서.<구비문학대계 전남 진도편> ¶참 그 속된 말로 {넙덕지가} 찢어지게 인자 참 곤란허게 되아 부렀어요.<구비문학대계 전남 함평군편>
지역 고창, 김제, 남원, 순창, 군산, 익산, 임실, 정읍.

▲넙적다리 명 [대응어] 넓적다리.
다리에서 무릎 관절의 위쪽 부분. ¶보따리를 넙쩍따리 사이에 끼고 섰다. ¶순이는 의자에 부딪혀 {넙쩍따리에} 시퍼런 멍이 들었다. ¶철호의 {넓적따리가} 매우 넓구나.
지역 전북.

▲넙적지 명 [대응어] 넓적다리.
다리에서 무릎 관절의 윗부분. ¶보따리를 넙쩍지 사이에 끼고 섰다. ¶다 큰 처자가 {넙쩍지}를 훤히 내 놓고 댕기는디 좋게 보이겄소. ¶그의 왼쪽 {넙쩍지와} 오른쪽 넙쩍지가 다른 이유는 근육을 다쳤기 때문이다.
지역 임실.

▲넙턱지 명 [대응어] 엉덩이.
볼기의 윗부분. ¶펑퍼짐한 {넙턱지}
지역 임실.

▲**넙턱치** 명 [대응어] 넓적다리.
☞넙쩍지.
지역 임실.

▲**넙히다** 동 [대응어] 넓히다.
면이나 바닥 따위의 면적을 크게 하다. ¶집을 {넙히다}
지역 익산.

▲**넝창넝창** 부 [대응어] 시름시름.
병세가 더 심해지지도 않고 나아지지도 않으면서 오래 끄는 모양. ¶약방으서 약을 지어 멕여도 나아지지 않고 {넝창넝창} 지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시내에 큰 병원에 데리고 간게 아 수술을 히야된다고 하잖아. 내가 멍청했지. 뭣 헌다고 약만 사서 멕였냐고 멕이길.야가 그간 얼마나 아팠을꼬.
지역 전북.

▲**네레찌다** 동 [대응어] 떨어지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지다. ¶난데없는 거무 하나가 세숫물에 딱 {네레찌드라} 이거여.
지역 전북.

▲**네려보다** 동 [대응어] 노려보다(사람을).
미운 감정으로 어떠한 대상을 매섭게 계속 바라보다. ¶{네려보는} 눈빛
지역 전북.

▲**네리다보다** 동 [대응어] 내려다보다.
위에서 아래를 향하여 보다. ¶비행기서 {네리본게} 집들이 장난감맹이로 생겨서 아주 아기자기 하더만. ¶경민이는 닭이봉에서 채석강을 {네리다보았다}. ¶사람이 겸손해야지 되나캐나 상대를 {네리다보면} 안되는 거여. 그러다 뒷통수 깨징게 조심혀.
지역 김제, 무주, 부안, 군산, 완주, 고창, 순창.

▲**네리다지** 명 [대응어] 두렁이.
어린아이의 배와 아랫도리를 둘러서 가리는 치마같이 만든 옷. 겹으로 만들거나 솜을 두어 만든다.
지역 남원.

▲**네리치다** 동 [대응어] 떨어지다.
☞네레찌다. ¶고뿌를 씻다가 {네리쳐서} 깨먹었는디 언능 치우고 모른치 혔지.
지역 완주.

▲**네채손구락** 명 [대응어] 약손가락.
다섯 손가락 가운데 네 번째 손가락. ¶{네채손꾸락에다} 반지를 끼워 주며 겔혼하자 그러데.
지역 군산, 완주.

▲**넥잇밥** 명 [대응어] 미끼.
낚시 끝에 꿰는 물고기의 먹이. 주로 지렁이, 새우, 밥알 따위를 사용한다. ¶냇깃밥을 바늘에 꿰어 수면 위로 던진다.
지역 전북.
해설 '넷깃밥'은 '넷기+밥'의 결합에 사이시옷이 첨가된 합성어이다. '넷기'는 '냇기'로도 실현되는데, '넷기'는 '낚-'의 중세 국어형 'ㄴㅏㅺ-'에 명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한 것으로 보인다. 모음 /ㅐ/와 /ㅔ/의 혼동으로 '냇기'가 '넷기'로도 나타난 것이 '넷깃밥'이다.

▲**넴과불다** 동 [대응어] 넘어뜨리다.
바로 선 것을 넘어지게 하다. 또는 남이 차지한 지위나 권세를 꺾다. ¶의자를 바닥으로 {넴과불었어}. ¶아따 덩치가 산만헌 아를 우리 막둥이가 확 {넴과부는디} 속이 단번에 쑥 내려가더만. 역시 우리 막둥이가 공부는 좀 그

리도 씨름하나는 잘 헌당게. ¶독재정권을 {넴과분} 사람들이 바로 우리덜이여.

지역 전북.

▲넴기다 동 [대응어] 삼키다.

☞넹기다. ¶책장만 {넴겼지} 머리속에 들어가는게 있어야지.

지역 정읍, 완주.

▲넷이레 명

아이가 태어난 후 스물여덟 날 동안. 또는 스물여덟째 되는 날. 이레가 네 번 지났음을 뜻한다. ¶애기 난 지 세이레 벌써 지났어. 넷이레 되겄다.

지역 전북.

▲넷채손구락 명 [대응어] 약손가락.

☞네채손구락.

지역 전북.

▲넹게다보다 동 [대응어] 넘겨다보다.

고개를 들어 가리어진 물건 위로 건너 쪽을 보다. 또는 어떤 것을 욕심내어 마음에 두다. ¶암 말도 안허고 {넹게다봤제}.<최명희, 혼불> ¶무단히 넘의 것을 {넹게다보고} 택도 없는 입맛을 다시능 거이 누군디?<최명희, 혼불> ¶철수는 고개를 들어 이웃집 담을 {넹게다 보았다}.

지역 전북.

▲넹기다[1] 동 [대응어] 넘기다.

권리나 책임이나 소유권 따위를 내어주다. ¶저기다 {넹기면} 착실히 나무값이라도 가져오겄다.<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덕석몰이고 조리고 회술레고 다 안 무선디, 쬐께나는 것도 인자는 안 무선디, 나를 주재소로 {넹기면} 어쩌꼬잉.<최명희, 혼불> ¶이발소 {넹겼대지}?<채만식, 금의 정열> ¶보따리채 몽땅다 {넹겨줄} 티니깨 예수 찰떡같이 잘 믿는 집사님이나 그 맛갈시런 기회 쬐쩌 먹든가 회쳐 먹든가 좋을 대로 허시요!<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임실.

▲넹기다[2] 동 [대응어] 넘기다.

일정한 시간, 시기, 범위 따위를 벗어나 지나게 하다. ¶그전에 한 마을이서 참, 글 공부를 많이 허신 노인 한 분이 있는디, 밤나 책만 옆으다 펴 놓고서 세월을 {넹겨},<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젊은 자네들이 벌떼맨치로 한목에 들고 일어나서 마침맞게 부조를 허준 덕분에 나 임종술이가 한 고팽이 또 아실아실헌 대목을 무사허니 {넹길 수가} 있어서 참말로 다행이구만.<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물만 꿀떡꿀떡 목구멍으로 넹기고 섰다. ¶그거라도 마중물 삼어 열심히 살어보라고 논 한 필지 {넹기놓고} 왔는디 잘 헐른지 모르지.

지역 임실.

▲-녀 【종결어미】 [대응어] -어.

해할 자리에 쓰여, 어떤 사실을 묻는 의문형 종결 어미.

지역 전북.

▲노골노골허다 형 [대응어] 노글노글하다.

푹 익어서 매우 무르다. ¶호박이 노골노골헐 때까지 푹 때.

지역 전북.

▲노그라지다 동 [대응어] 흐물흐물해지다.

강한 열이나 산에 녹아서 형체가 흐물흐물해지거나 깨지다. ¶(깨강정이) 오래 내놔서 다 노그라졌어(과자의 마름모꼴 모양이 뭉뚱해지

거나 서로 엉겨 붙어 덩어리진 상태를 보고 이르는 말). ¶식초를 많이 쳐서 홍어가 다 노그라졌어.

지역 전북.

▲노끄내기 명 [대응어] 노끈.

실, 삼, 종이 따위를 가늘게 비비거나 꼬아서 만든 끈. ¶{노끄내기를} 묶다

지역 전북.

▲노끈내기 명 [대응어] 노끈.

☞노끄내기. ¶처녀가 뭐라고 하는고 하니, "거시기 밖에서 {노끈내기를} 매끄럽게 꽈서 초를 메계(먹여) 가지고 방으로 들려달라." 그려.<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부안.

▲노끈내끼 명 [대응어] 노끈.

☞노끄내기. ¶"내 상투 끝에다 {노끈내끼} 쨈매 줄 것이니 그 놈 끗고 댕기면서 밥을 히라."<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정읍.

▲노끈내키 명 [대응어] 노끈.

☞노끄내기.

지역 전북.

▲노나끈 명 [대응어] 노끈.

실, 삼, 종이 따위를 가늘게 비비거나 꼬아서 만든 끈. ¶" {노나끈} 꼬는 거 좀 배울려구 그랬어요."<채만식, 금의 정열>

지역 무주, 임실, 남원, 완주.

▲노내기 명 [대응어] 노래기.

벌레의 한 가지. 마디발동물 중 다리가 가장 많고 몸에서는 노린내가 난다. 햇볕을 싫어하고 주로 습기가 많은 낙엽 밑이나, 초가지붕에 많이 산다. ¶이렇게 하면 집안에 {노래기가} 없어지고 그 콩이 볶이는 것처럼 금년 농사에 모든 병충해가 다 볶이어 없어진다.<최명희, 혼불> ¶발 없는 {노래기는} 봤어도 다리 안 달린 소문은 못 봤네.<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밑바닥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니는 워낙 {노래기} 회쳐먹게 타고난 비위 차례를 하느라고 여간해서 기도 안 죽었다.<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무주, 군산, 완주.

해설 '노래기'가 소급하는 최초의 형태는 '놀여기'인데, 그후 '놀여기>노랴이>노라기>노래기'의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모음이 교체된 '노랴이'가 나타나고 2음절의 /j/가 탈락한 '노라기' 형태가 나온다. '노라기'의 2음절이 3음절의 영향으로 움라우트되어 '노래기' 형태가 나타났다. 전북 지역에서는 표준어형과 같은 '노래기'와 2음절의 /ㄹ/이 비음화된 '노내기'가 함께 쓰이며, 완주 지역에서는 3음절의 /ㄱ/이 비음화된 '노랭이'도 쓰인다. '노래기 회쳐 먹을 놈'이란 말은 "지나치게 비위(脾胃)가 좋은 사람을 편잔하며 쓰는 말"이다.

▲노누다 동 [대응어] 나누다, 가르다

하나를 둘 이상으로 가르다. ¶때려 죽여버리고 그럼 우리 둘이 {노누면} 많지.<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전북.

▲노느다 동 [대응어] 나누다.

하나를 둘 이상으로 가르다. 또는 여러 가지가 섞인 것을 구분하여 분류하다. 또는 몫을 분배하다. ¶"궤짝은 하난데 둘이 무슨 재주로 {노나} 갖소?" "임자네 그 큰 톱이 있지 않은가?" "있지요!"<채만식, 배비장> ¶순이야, 나랑 사과를 노느어 먹자구나. ¶추수를 허면 나락이 같이 들어가있단 말여 옛날에는. 그러면은 인제 대청 밑에 안저서 나락은 나락대로 버리고

쌀은 쌀대로 잘 {노나서} 쌀독이다가 담어. ¶“.그 양반네들 재산 타령 해 봤자 머엇에다 쓴당가. 내 땅, 내 논도 아닌디 말이여. 계산 잘허먼 누가 {노나} 준대?” “참말로……손바닥 반절만헌 논빼미 한 마지기 땅이라도 내 거이라고 이름붙여 보고 죽으먼 얼매나 좋으까…….”<최명희, 혼불>

지역 무주.

▲노닥질하다 동 [대응어] 노닥거리다.
조금 수다스럽게 재미있는 말을 자꾸 늘어놓다. ¶햇볕 좋은 날 {노닥질하는} 여대생들을 보니 참 좋은 시절이다 싶더구만.

지역 전북.

▲노따리 명 [대응어] 늙은이.
늙은 사람을 비속하게 이르는 말. ¶누가 이러고 안졌어(앉아 있어)? 우리 같은 놋다리들이나 놀고 있제.

지역 전북.

▲노라다 형 [대응어] 노랗다.
☞노러다.

지역 완주, 익산, 정읍, 진안.

▲노란자사 명 [대응어] 노른자위.
알에서 흰자위에 둘러싸인 동글고 노란 부분. ¶달갈 노란자사에 영양이 많지.

지역 무주.

▲노란젓 명 [대응어] 노른자위.
☞노란좃.

지역 전북.

▲노란좃 명 [대응어] 노른자위.
알에서 흰자위에 둘러싸인 동글고 노란 부분. ¶달걀 노란좃에 영양이 많지.

지역 완주.

▲노란허다 형 [대응어] 노랗다.
벼나 음식 등이 익어서 색이 진하게 노르다 ¶그며는 그걷 그 만, 그 만투는 {노란허건네}?<지역어 자료 총서, 중국 무주촌> ¶장닭 한 마리 삶아 논게 노란허니 기름이 둥둥 떠.

지역 전북.

▲노랑노랑허다 형 [대응어] 노르스름하다.
조금 노르다. ¶보리가 노랑노랑헐 때 손으로 목아지 탁탁 따. 아예 파랗지도 않고 다 익은 것도 아닌 놈.

지역 전북.

▲노랑자사 명 [대응어] 노른자위.
알에서 흰자위에 둘러싸인 동글고 노란 부분. ¶달걀 노랑자사에 영양이 많지.

지역 무주.

▲노랑자시 명 [대응어] 노른자위.
☞노랑자사.

지역 전북.

▲노랑자위 명 [대응어] 노른자위.
☞노랑자사.

지역 전북.

▲노랑재 명 [대응어] 노른자위.
☞노랑자사.

지역 전북.

▲노랑젓 명 [대응어] 노른자위.
☞노랑좃.

지역 전북.

▲노랑제란 명 [대응어] 노른자위.

알에서 흰자위에 둘러싸인 둥글고 노란 부분. ¶달걀 노랑제란에 영양이 많지.
지역 전북.

▲노랑좃 명 [대응어] 노른자위.
알에서 흰자위에 둘러싸인 둥글고 노란 부분. ¶달걀 노랑좃에 영양이 많지.
지역 완주, 정읍.

▲노랑창 명 [대응어] 노른자위.
알에서 흰자위에 둘러싸인 둥글고 노란 부분. ¶달걀 노랑창에 영양이 많지.
지역 완주, 익산, 김제, 순창, 군산, 장수.

▲노래기 명 [대응어] 노래기.
☞노내기.
지역 익산, 무주, 군산, 완주.

▲노래다 형 [대응어] 노랗다.
☞노러다.
지역 고창, 무주, 순창.

▲노랭이 명 [대응어] 노래기.
☞노내기.
지역 완주.

▲노러다 형 [대응어] 노랗다(黃).
병아리나 개나리꽃과 같이 밝고 선명하게 노르다. ¶인자 고놈을 헐어갖고 보먼 인자, {노러니} 대가 익어.<2005 전북 남원> ¶노로제, {노러드라}, 노라트라<2005 전북 남원> ¶지자물이 안 들이먼 흐여고, 지자물 들이먼 {노러니} 좋고<2009 전북 임실> ¶병아리 색이 {노러니} 참 귀엽다.
지역 김제, 무주, 완주, 익산, 정읍, 진안, 남원, 부안, 장수, 순창.

▲노로꼬롬하다 형 [대응어] 노랗다.
☞노르끄름허다.
지역 전북.

▲노로꼬롬허다 형 [대응어] 노르스름하다.
조금 노르다. ¶보리가 노로꼬롬허니 익을 때.
지역 전북.

▲노로다 형 [대응어] 노랗다.
☞노러다.
지역 순창.

▲노루다 형 [대응어] 노랗다(黃).
☞노러다.
지역 남원.

▲노르께하다 형 [대응어] 노랗다.
☞누리끼하다. ¶얼굴빛이 {노르께한데다가} 도무지 살이 오르지 않는 이기채는 이미 그때부터도 깐깐한 성격을 감추지 못했다. 청암부인은 이기채의<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노르꼬름허다 형 [대응어] 노르스름하다.
조금 노르다. ¶나락이 노르꼬름헐 때 또 비어다 올기쌀 히 먹고.
지역 전북.

▲노르끄름허다 형 [대응어] 노랗다.
엷게 노르다 ¶새근 약깐 {노르끄름헌} 색이 있이야, 인는 거시 조은거고이~?<2005 전북 남원> ¶명주 수건은 {노르끄름히} 청암부인의 체취를 머금은 채, 마치 이 서러운 삼백 원을 품에 안아 감싼 듯<최명희, 혼불>
지역 남원.

▲노르맹허다 형 [대응어] 노랗다.

밝고 옅게 노르다 ¶아랫묵으다 놓고는 이 놈을 몽침으로 대고 대접 놓고 짜니 이놈으 꾸꿀은 뭣이냐 {노르맹허니} 조청같이 나오는디 <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정읍.

▲노리 명 [대응어] 노루. ¶"아, 느닷없이 산에서 독뎅이가 굴러서 내려온개 {노리가} 한마리 죽었다!"<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건져 내놓고 있으니까 또 한참 있으니까 {노리가} 떠내려 오더래<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고창, 남원, 부안, 순창, 정읍.

▲노리끼리하다 형 [대응어] 노랗다.
곱지 않고 옅게 노르다 ¶약병이 너절하게 널려 있는 사이로 커다란 조갑지도 대 여섯 개 있었는데 그 조갑지에는 각기 {노리끼리한} 약이 담겨 있었다.<최일남, 숙부는 늑대> ¶흰 사쓰가 오래된게 {노리끼리}해서 고만 내쏴야겄다.
지역 전북.

▲노리다 형 [대응어] 노랗다(黃).
☞노러다. ¶{노리서} 예쁘다<2009 전북 임실>
지역 고창,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정읍, 진안.

▲노리발 명 [대응어] 노루발.
한쪽은 뭉뚝하여 못을 박는 데 쓰고, 다른 한쪽은 넓적하고 둘로 갈라져 있어 못을 빼는 데 쓰는 연장. ¶노리발로 못을 뽑는다.
지역 남원, 무주, 임실.

▲노망구 (老망구) 명 [대응어] 할망구(비칭).
나이 든 아내나 늙은 여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 ¶젊은 사람들이 {노망구가} 허는 말을 귀담아 들가니. 말혀도 소용읎어.
지역 정읍.

▲노적봉 동
높은 산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집 앞이[애비], 노적봉이 있어. 이런 산이 이렇게 높이 솟아 있어야지 안 그러면 망히버러.
지역 전북.

▲노큰애기 명 [대응어] 노처녀.
혼인할 시기를 넘긴 나이 많은 여자. ¶그때는 열아홉이 노큰애기여.
지역 전북.

▲노타리치다 (←rotary치다) 동 [대응어] 갈다.
모내기를 하기 위해 논의 흙을 갈아 엎고 논에 물을 채우고 난 뒤 경운기로 그 흙을 곱게 갈다.
지역 전북.

▲녹후다 동 [대응어] 녹이다(使動).
☞녹히다. ¶말고 그거슨 아무라도 알아둘 쏘리요. {노쿠지} 말고 그냥 언대로 언대로 밤찌드끼 다시 찌면 푸극푸극 푸극 그대로 돼야.<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지역 무주, 순창.

▲녹히다 동 [대응어] 녹이다(使動).
고체가 열기나 습기로 말미암아 제 모습을 갖고 있지 못하고 물러지거나 액체가 되게 하다. 또는 감정이 누그러지게 하다. 또는 모습이 없어지게 만들다. ¶오다가 엿을 조깨 사갖고 {녹혀서} 나뭇잎에다 묻혀갖고, 어떻게 떡갖고 올래도 혼자서는 못 떠가지고 왔다고, 그놈을 장인한테 갖다 주넌개,<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완산칠봉 팔각정아래 생수

솟는 그물아래 빨래빠는 저처녀야 뉘구간장을 {녹히랴고} 저리나곱게도 생겼느냐 은을주랴 돈을주랴 은도돈도 나싫어요<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년이 홀짝홀짝 울어가믄서, 온갖 여호짓 다 부려가믄서, 정비장 나리 애를 마주막 {녹혀드리는} 판이거든입쇼!" "건 어째?"채만식, 배비장> ¶농새 지묵든 사람덜언 농새 지묵고 살어야제 저 억지기운 써감서 등짐질히서 은제꺼정 살 것잉가. 저것이 다 지살 {녹혀묵는} 골병드는 짓거리제." 한 사람이 상기된 얼굴로 말했다.<조정래, 아리랑>
지역 부안, 임실, 무주, 순창.

▲논나끈 명 [대응어] 노끈.
☞노나끈.
지역 임실.

▲논내끈 명 [대응어] 노끈.
☞노나끈.
지역 남원, 완주.

▲논두락 명 [대응어] 논둑.
논의 가장자리에 높고 길게 쌓아 올린 방죽.
지역 고창.

▲논두럭 명 [대응어] 논두렁.
논의 가장자리에 높고 길게 쌓아 올린 방죽. ¶가(그아이)가 이만큼 큰께 {논두럭에} 앉어서 때가 되면 밥을 얻어 먹구 논두럭에 앉어서 일쑤<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그때로 말허자먼 이전이라서 아이 참말로 그 {논두럭으} 모두 콩들 심궜든 모양여, 논두럭 가상에.<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아이고 대고 허고 손을 씼고 {논두럭에서} 인나시오 어찌고 헌게로 인나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고창, 완주.

▲논두렉 명 [대응어] 논두렁.
물이 괴어 있도록 논의 가장자리를 흙으로 둘러막은 두둑. ¶불 붙이고 댕게, / 댕게: 다녀 / 밭두렉이나 /두렉: 두럭. 두렁 / {논 두렉이나}.<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12>
지역 임실.

▲논두룩 명 [대응어] 논둑.
논의 가장자리에 높고 길게 쌓아 올린 방죽.
지역 남원, 고창.

▲논매다 동 [대응어] 김매다.
논밭의 잡풀을 뽑아내다. ¶초벌 매고, 노늘 이러케 매노코는. {논 매러 가자고 그래. {논매러}. 논매러 가자고 하고, 두벌 매고, 노늘 이렇게 매놓고는}<2009 전북 임실> ¶{논매려면} 반드시 호미가 있어야 되는 거야.
지역 남원, 무주.

▲놀놀 부 [대응어] 노릇노릇.
군데군데 노르스름한 모양. ¶{놀놀} 익다 ¶"껍딱이 {놀놀}허니 맛있게 잘 익었네.".
지역 전북.

▲놀래다 동 [대응어] 놀라다.
뜻밖의 일을 당하여 무서움을 느끼거나 당황하고 긴장하다. 또는 신기하거나 대단한 것을 보고 매우 감동하다. 또는 생각하지 못한 말을 듣거나 예상 밖의 상황을 만나 관심을 기울이다. ¶"큰 소리로 호통치듯 네 이년!" 그렀단 말여. 그런게 깜짝 {놀랬지}.<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두 번째 들어간 사람도 가서 문을 열을란개 송장이 눈을 부릅뜨고 구석쟁이 가서 있은개 오죽이 {놀랬을} 거여? 사람 살리라고, 아 방구석쟁이가 죽은 놈

의 송장이 서 있은개, 아 그놈을 자빠뜨릴 장사가 없네.<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그때, 닭이 홰치는 소리가 깜짝 놀랄 만큼 갑작스럽게 들렸다. "아이고 형님, 별 소리에 다 {놀래겄네요}." "저것들도 무슨 {놀랠} 일 있었는가 보네."<최명희, 혼불> ¶"그럼 진즉에 그리 말해야지. 큰집에 가서는 네가 없어서 {놀래고}, 집에 와서는 네가 아퍼서 {놀래고……} 하룻밤 새 몇 번 근심이냐 이게. 이리 좀 누워라. 그렇게 체헌 데는 손으로 눌러주면 좀 가라앉니라."<최명희, 혼불> ¶어떻게나 열심히 배우고도 총명헌지, 선생이 하나를 갈치면 둘을 알고 둘을 갈치면 열을 미리 짚어 부러서 선생도 그 재주에 깜짝 {놀랬드리야}.<최명희, 혼불> ¶"아앗따아……겁나데에, 참말로오. 그날 대실서 온 음석들 보고 안 {놀랜} 사램이 있었이까아? 지체 있는 집안은 달르데잉."<최명희, 혼불> ¶"날 보소. 자네독 노족허고 우리 나락 노족허고 바꾸까?" 근게 아 그냥 느닷없는 소리를 헌게, 깜짝 맘이 그냥 {놀래진다} 말여. "뭔 말씀이라우?"<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그러는고, 인제. "당장 와서 말을 허고 간 백성으 잃어버렸다는 돈을 찾을 방도가 있는데 어찌 그러십니까?" 헌게 원님이 {놀래서}, "거 어떠케 허믄 찾것느냐?"<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놀래다 동 [대응어] 놀래다.

남에게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게 하여 남이 무서움 혹은 긴장감을 느끼다. 또는 놀라게 하다. ¶괴얀씨 가만 앉어 있는 사람을 놀래 주었다.

지역 고창, 남원.

▲놀먹다 동

놀고 먹으며 편하게 지내다. ¶여그서 놀먹고 한 달 있다 가. 여그 따순게.

지역 전북.

▲놀짝지근허다 형 [대응어] 노랗다.

잘 익거나 물들어 노란 빛이 흡족하게 짙다 ¶고놈을 고롷게 허먼 놀짝찌근 그 얼마나 당거놓는거여?<2005 전북 남원> ¶그 {놀짝찌근헌} 색을 내는 것이 쌀쩌로 내는 거여?<2005 전북 남원>

지역 남원.

해설 '달짝지근하다', '빽적지근하다' 등의 접사 '-적지근'이 '노르-'의 축약형 '놀'과 결합하여 생선된 파생어이다.

▲놀짱허다 형 [대응어] 노랗다.

잘 익거나 물들어 노란 빛이 짙다 ¶그럼자 엿새채 되머는 뉘여가 {놀짱:히져요}. 익으머 올라갈라고.<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인자 익으먼, {놀짱:허머는} 이으능갑따 허고, 따서 먹기도 허고, 팔기도 허고,<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지역 임실.

▲놀짱흐다 형 [대응어] 노랗다.

☞놀짱허다. ¶매물물 끓이갖고 지자물을 그다가 너서 {놀짱흐게},<2009 전북 임실>

지역 임실.

▲놀하다 형 [대응어] 노랗다.

색이 선연하게 노르다. ¶외라는 것은 익으먼 {놀허다} 그게.<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사람이나 일 따위가 잘될 가망이 보이지 않고 형편없다 ¶쬐깐 것이 벌써부터 싹수가 {놀허고만}.

지역 무주, 정읍.

▲놀허다 형 [대응어] 노랗다(黃).
☞놀하다. ¶외라는 것은 익으면 {놀허다} 그게.<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정읍.

▲놈생이 명 [대응어] 놈팡이.
사내를 얕잡아 이르는 말. 또는 직업이 없이 노는 남자를 얕잡아 이르는 말. ¶아무 {놈생이나} 골라 결혼이나 해라. ¶집에서 잠만 자는 {놈생이를} 남편으로 두었다. ¶저 {놈생이}는 언제 철이 들꼬?
지역 전북.

▲놈씨 명 [대응어] 놈.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 ¶고로케 베묵도록 이쁘단디 여직 {놈씨덜이} 없을까요?<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놈타다 동 [대응어] 낯가리다.
친하고 친하지 아니함에 따라 달리 대우하거나 어색하게 대하다.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인디 {놈타지도} 않고 성격이 괜찮드만. 쌩글쌩글허니. ¶우리 아기는 모른 사람만 보면 서먹서먹 {놈타서} 울어버린다.
지역 전북.

▲놈팽이 명 [대응어] 놈팡이.
사내를 얕잡아 이르는 말. 또는 직업이 없이 노는 남자를 얕잡아 이르는 말. ¶그래서 빨래질을 종허고 같이 내보냈어. 내보내서 가서 인자 시내 갱변에 나가서 시냇물이서 빨래를 씻고 있는디 어떤 {놈팽이} 놈 하나가 옴성옴성 오고 있어. 그래서 빨래를 허다 이렇게 처다본게 옛날에 자기집서 사는 종이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이모부는 하는 일 없이 놈팽이처럼 빈둥거리며 살다 돌아가셨다. ¶허구헌날 {놈팽이맨시롬} 집구석에 눠만 있지 말고 좀 나가라.
지역 군산, 정읍.

▲놋대양 명 [대응어] 세숫대야.
세숫물을 담는 둥글넓적한 그릇. ¶{놋때양}은 돈 푼이나 있는 사람들이 쓰던 귀한 물건이었지. ¶저기 {놋때양에} 손을 씻고 오너라.
지역 남원, 임실.

▲놋밥그럭 명 [대응어] 주발 뚜껑.
놋쇠로 만든 밥그릇. ¶놋 밥그럭에 밥을 푸다 ¶{놋밥그럭}은 왜놈덜이 군수물짜로 다 뺏어갔대야. ¶옛날에는 {놋밥그럭에} 담아서 먹었다.
지역 남원.

▲농구 (農具) 명 [대응어] 농기구.
농사짓는 데 쓰이는 도구나 기계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농사일을 하는 아낙네들이 머리에 수건을 두르는 것은 들일이나 밭일을 나가면서 {농구를} 챙기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오뉴월 땡볕 아래서 농사일을 할 때 그것은 직사광선을 막는 모자였고, 팥죽땀을 닦아내는 수건이었고,<조정래, 태백산맥> ¶{농구를} 챙겨 밭일을 나가다.
지역 김제, 진안.

▲농그라지다 동 [대응어] 뭉그러지다.
썩거나 지나치게 물러서 본모양이 없어지게 되다. ¶팥을(팟을) 농그라지게 쌂아가꼬.
지역 전북.

▲농방 (農방) 명 [대응어] 농번기.
농사일이 매우 바쁜 시기. 모낼 때, 논맬 때, 추수할 때 따위가 이에 속한다. ¶"대처 니가 소를 가져가믄 {농방} 때 {농방} 때 소 가져

가버리믄 농사를 지어 먹을 수가 있나?<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여이 여 여허 여루 상사뒤여 아나 농부야 말들어라 우리 농부님네 말듣소 이때는 어느땐고 허니 오뉴월 {농방} 시절이라 억주창생 만민들이 맷밥 맥주를 거니먹고 모두 안나선것이 여이} 여 여허 어류 상사뒤여 아나<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산천 초목 젊어온디/두룸바허 우여 우여 우여 노세/우리 인생 늙어오네/두룸바허 우여 우여 우여 노세/이거 이거 어느 땐가/두룸바허 우여 우여 우여 노세/남방 유월 {농방} 땔세/두룸바허 우여 우여 우여 노세(순창 장원질소리-두음박 깨는 소리)<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순창, 정읍.

▲**농새** 명 [대응어] 농사.

곡류, 과채류 따위의 씨나 모종을 심어 기르고 거두는 따위의 일. ¶집에 있음서 {농새나} 짓고 그러다가 장개를 가서 이 에미한티 니 속에서 난 새끼들도 조깨 안어 보게 허고 그러면 얼매나 좋겄냐?<윤흥길, 장마> ¶그보담 더 중헌 것이 이웃간에 서로서로 화목허니 살자, 궂은일 좋은 일에 서로가 심얼 합치자, 동네사람 전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한덩어리 되야 {농새럴} 잘 짓자, 요런 맘얼 얽고 엮자고 동네굿판 푸지게 벌리고 남녀노소없이 얼크러지고 설크러져 돌아가는 것 아니겄어.<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농새꾼** 명 [대응어] 농사꾼.

농사짓는 일꾼이라는 뜻으로, '농부'를 달리 이르는 말. ¶배불르고 식자 들었다는 유식헌 사람덜이야 우리 겉은 가난헌 {농새꾼} 알기럴 바보 멍텅구리로 알제만, 시상살이 쓰고 짜운 맛이나, 시상이 순리로 돌아야 헐 이치나 우리만치 세세히 아는 사람덜이 워디 있겄어.<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농중** 명 [대응어] 혼수.

시집갈 때 신부가 해 가는 신부 옷. 보통 정해진 양이 있었으나 형편에 따라 적게 하거나 많이 한다. 신부는 이 옷으로 시집 생활을 한다. ¶친정에서 {농중이라고} 히줘. 철철이 열개씩 히와. 치매도 히 오고.

지역 전북.

▲**농지기**[1] 명 [대응어] 농담.

실없이 놀리거나 장난으로 하는 말. ¶농지기로 헌 말을 고깝게 듣고는 그려 시방.

지역 전북.

▲**농지기**[2] 명 [대응어] 혼수.

함에 들어 가는 옷감. ¶동네 사람들은 계란 한 줄도 주고, 쌀 몇 되도 주고 그러는디 일가붙이들은 농지기로 주제. 잘 살믄 치매로 떠주고 좀 못 살믄 저고리감으로 떠주고. 농지기도 가지가지여.

지역 전북.

▲**농판** 명

성질이 순하고 자기 뜻과 안 맞아도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또는 낮추어 부르는 말. ¶내가 농판이라 부모가 시집가라는 디로만 갈 종만 알았지 안 간 다는 소리를 안혔어. 내 친구는 수리잡이가 빠져 죽는다고 히서 사성 보내고 딴 디로 시집갔는디.

지역 전북.

▲**높우다** 형 [대응어] 높다.

☞높으다. ¶우리 집이 서 있는디가 {높우지만} 볕 잘들고 바람 잘 통헌게 사람 살기는 좋아.

지역 전북.

▲높으다 형 [대응어] 높다.
아래에서 위까지의 길이가 길다. 또는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나이, 값, 비율, 온도, 습도, 압력 따위가 기준치보다 위에 있다. ¶그래서 그 면에에서도 그 본 몬당(꼭대기)을 올라가보는, 올라간 사람이 많지 않고, 산이 어찌 {높으던지} 노인은 다리 아파서 거기를 구경을 못 허고, 세상을 뜨는 노인도 허다(許多)하니 많습니다.<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그런데 광화문 같은 것은 상당히 {높으지만}, 유자광이가 한참 갈 때면 슬쩍 뛰어 넘어 갔다, 이짝으로 뛰어 넘어오게 한깨, 아 비호보다 더 빠르거든.<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이렇게 저 것이 요렇게 짚프고 요렇게 봉분이 {높으고} 독아리 독사가 활개를 이렇게 칩니다.<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벌어진 사이가 크다. ¶본래 원두막이란 {높으게} 짓는거라, 위로 올라 가니 밑이서 대가리부텀 전부다 디민단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거그서 똥얼 누먼 1년 뒤에 쩌어 아래서 찰팍 허는 소리가 난다능마요. 뒷간에 어칫게나 {높으든지} 말이어라."<조정래, 아리랑> ¶그래갖고 수레어머니는, 나이가 수레아버지 나이를 비해보니 즈그(자기)보다 {높으거든}. <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품질, 수준, 능력, 지위, 신분, 가치 따위가 보통보다 위에 있다. ¶대감마님 허디끼 면장님 마님이 어쩌겄냐. 아니시 아니여, 더 {높으게} 떠받드는 말이 있구마.<조정래, 아리랑> ¶"어데, 내가 잘 아는 분인데, 학식이 {높으고} 세상 이치를 점쟁이맹크로 뚫어보시는 분이라요."<조정래, 아리랑> ¶즌도사허고 슨교사허고 둘 중에 어느 편이 더 {높으고} 나찬지도 몰르는 순무식쟁이 예펜네구만요,<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고창, 김제,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익산, 임실, 진안.

▲높으단허다 형 [대응어] 높다.
☞높으담하다. ¶논두렁이 양쪽에 논이 붙어 있는 흔헌 논두렁이 아니고 한쪽으로는 {높으단} 허니 밭이 시작되는, 굴파기에 아조 존 그런 논두렁이었제라. 글고<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높으담하다 형 [대응어] 높다.
약간 높다 ¶콧마루가 긴 {높으담한} 코가 어떤 품위를 지녔으면서도 남자다운 의지를 드러내고 있었고, 유난히<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높으댄하다 형 [대응어] 높다.
무던히 높다. ¶염천에 갈비짝이 썩어나게 쌓아 놓고, 나락섬은 노적봉 꼭대기보돔 더 {높으댄히} 절벽맹이로 꼬깔을 지어 놓고. 죄로 가제, 죄로 가아.<최명희, 혼불> ¶마당 가운데다가 지드란헌 장대를 {높으댄허게} 세워 놓고이, 그 꼭대기다가 이 체를 딱 둘러씌워 놓는<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높으뎅허다 형 [대응어] 높다.
☞높으댄하다. ¶쩌어그 저, 질로 {높으뎅헌} 불빛이 바로 보루대구만이라.<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높으막허다 형 [발음] {노프마거다/노프마커다} [대응어] 높다.
어떤 물체의 높이가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위치보다 높은 듯하다. ¶근게 인자 그 동상한테

와서 이케 몽침을 들고 퇴침을 {높으막허게} 베고 인자 잠을 얼프시 시드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정읍.

▲놓다 동 [대응어] 갈다(볍씨).

농작물의 씨앗을 심어 가꾸다. ¶콩을 {놓아} 먹다

지역 고창, 김제, 무주, 부안, 완주, 임실, 장수, 정읍, 진안.

▲뇌란하다 형 [대응어] 노랗다.

☞뇌란허다. ¶"네, 옛날에 하던 실역(實力)을 못허서 얼굴이 {뇌란합니다."<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완주.

▲뇌란허다 형 [대응어] 노랗다.

색이 탁하고 진하게 누르다 ¶여자를 가서 보라고 허서 가서 보닌게로 머리는 {뇌란허지} 키는 쪼그만 허지<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얼굴이 뇌란혀. "왜 그렇게 너는 얼굴이 뇌란허냐" "네, 옛날에 하던 실역(實力)을 못허서 얼굴이 {뇌란합니다."<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얼매나 놀랬는지 얼굴이[뇌란해져], 들어와 숨만 헐떡거리더라고.

지역 군산, 완주.

▲뇌랗다 형 [대응어] 노랗다.

노른자위나 금빛과 같이 밝게 노르다 ¶조청같이 나오는디 이놈으 뙤 뭣이냐 셈?나오는디 {뇌란} 셈?나오거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뇌래진개} 시어매 시아버지가 오직이 애터질 것이여.<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남원, 정읍.

▲뇌러다 형 [대응어] 노랗다.

☞뇌랗다. ¶'장이야' 소리 한번 허먼은 발짱쪼그러트러 앙거서 얼굴만 {뇌러지} 바워나들 못허. 벌벌 떨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정읍.

▲뇌렇다 형 [대응어] 노랗다.

익은 벼와 같이 다소 탁하고 어둡게 누르다. ¶"금서나 팔자탄식만 허고 부지땡이로 이렇게 힜더니 그 아궁지께서나 {뉘런} 것이 나와서 어머니더러 이얘기히가지고 와서 캐본게 생금뎅이가 나왔다고.<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옥구.

▲뇌리다 동 [대응어] 노리다.

눈에 독기를 품고 모질게 쏘아보다. ¶날이먼 날마다 어금니가 으스러질 정도로 입을 앙다물고 시상 사납게 {뇌려} 보는 여펀네를 누가 좋아하겄어? 누가?

지역 김제, 남원, 부안, 군산, 장수, 정읍.

▲뇌작거리다 동 [대응어] 노닥거리다.

조금 수다스럽게 말하다. ¶함부로 {뇌작거리지} 말란 말여.<조봉래, 풀벨골> ¶나는 안해를 시켜 전당을 잡히러 보내놓고 속으로 시간을 계산하여 보았다. 가기에 십 분 누더기니까 {뇌작거리느라고} 오 분, 아차 단번 들어가는 데서는 안될 것이고 몇 군데 다니느라면 그것이 한 십오 분, 쌀을 팔아가지고 오느라면 십오 분, 그래서 삼십오 분. 삼십오 분! 삼십오 분이 나에게는 서른닷새나 되는 것같이 아득하였다.<채만식, 산적>

지역 전북.

▲뇍이다 동 [대응어] 녹이다(使動).

고체가 열기나 습기로 말미암아 제 모습을 갖고 있지 못하고 물러지거나 액체가 되게 하다. 또는 감정이 누그러지게 하다. 또는 추워서 굳어진 몸이나 신체 부위가 풀리게 하다. ¶"철은 갖다가 {뇍여서} 비행기 맨들고, 놋그릇, 숟구락, 제기는 갖다가 뇍여서 총알 탄피를 맨든다대.<최명희, 혼불> ¶관공서고 건물이고 간에 쇠난간 있으면 미친 듯이 뜯어 내고, 학교에 쇠울타리를 다 뽑아 내서 불에 {뇍이고}, 질가에 전봇대고 머이고 눈구녁에 쇠라고 비치기만 허먼 선불 맞은 멧돼야지맹이로 달라들어서 뽑아 간다더라."<최명희, 혼불> ¶그렁게 굿을 헐 때도, 느그 어머이 바라, 뫼경허고 사설허고 끝없이 말로 안 비냐? 빌어서 {뇍이는} 거이그덩. 귀신을. 그 옆으서 반주허는 잽이도 마찬가지라.<최명희, 혼불> ¶하지만 그 둘은 허물이 없다. "갠찮히여. 나 발 조께만 {뇍이고} 갈라고오.<최명희, 혼불> ¶내, 얼릉 나가서 술 한 상 봐 오리다. 둘이 앉어서 이얘기허겨. 손도 {뇍이고} 요리, 요리 와." 술청으로 어미가 나가자 진의원은 비로소 입을 열었다.<최명희, 혼불>

지역 고창, 김제, 무주,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남원.

▲뇍히다 동 [대응어] 녹이다(使動).

☞뇍이다. ¶날도 추운디 눈 치니라 애썼다, 어서 뵉짝에서 손좀{뇍히고} 쉬어라.

지역 전북.

▲뇔짱하다 형 [대응어] 노랗다.

☞놀짱허다. ¶인자 근디 경상도 저 상주 사는 사람 하나가 넘의집 머슴만 살고 머리가 {뇔짱하니} 쫑쫑 따간 한 설흔살 먹은 총각넘이 그걸 그 소리를 들었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정읍.

▲높다 형 [대응어] 높다.

☞높으다.

지역 김제.

▲높이 명 [대응어] 높이.

아래에서 위까지의 거리 ¶{높이가} 20m쯤 되는 굴이 있다. ¶우리방은 천장 {높이가} 낮어서 형은 머리를 수그리고 댕겨야혀.[부사], 높게

지역 김제, 남원, 완주, 장수, 정읍, 진안.

해설 '높이'의 움라우트형인 '높이'와 표준어형인 '높이'가 모두 쓰인다.

▲누덕때기 명 [대응어] 누더기.

누덕누덕 기운 헌 옷.

지역 전북.

▲누덕지 명 [대응어] 누더기.

누덕누덕 기운 헌 옷. ¶어린아이들은 주르르 많은디, 옆집이서 떡을 헌다 뭣을 헌다 아이들은 좋아허는디, 혼(헌) {누덕지} 감발 허 발감게 또는 발감개를 한 차림새.<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전북.

▲누덩누덩 부 [대응어] 누덕누덕.

해지고 찢어진 곳을 여기저기 너저분하게 깁거나 덧붙인 모양. ¶{누덩누덩} 깁다

지역 완주.

▲누데기 명 [대응어] 누더기.

누덕누덕 기운 헌 옷. ¶낭자도 머리 빗지 말고 멋대로 틀고, 얼굴에 검댕이도 좀 칠하고, 옷도 {누데기를} 입어 그놈들 눈에 정내미 떨어지게 허고 있는 수밖에 없을 것 같구먼,<조

정래, 태백산맥> ¶다니느라구 첫새벽에 나가구 저물어서 들어가구 헐 텐데 조석은 누가 끓여 주구 {누데기나마} 옷가지는 누가……? 사람이 하두 범연해서 떠다 주잖구 있을라치믄 밥순갈을 놓두룩 숭늉<채만식, 무장삼동>
지역 김제, 군산, 익산, 완주.

▲누디기 명 [대응어] 누더기.
누덕누덕 기운 헌 옷.
지역 전북.

▲누런허다 형 [대응어] 노랗다.
색이 탁하고 진하게 누르다. ¶아 그 새서방이라는 이 자가 무 마루 밑으로 들어가더니 뭣을 {누런헌} 것을 가지고 와서 늘이다 담어놓고 또 들어가서 또 갖다 담고 이런단 말여. <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아 그 새서방이라는 이 자가 무 마루 밑으로 들어가더니 뭣을 {누런헌} 것을 가지고 와서 늘이다 담어놓고 또 들어가서 또 갖다 담고 이런단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불이 인난다고 까장은 맞혔는데 오늘 일진과 날과 그 맞혔는데 불이라는 것은 처음에 인날 적으는 {누런헌게} 먼저 불꽃이 먼저 인나는 것이지.<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하이고, 나가 밥상 안 채려맥여서 자기가 시방 {누런허니} 부황이 났어, 아구아구 생돌이라도 뜯어먹고 싶드락 허천이 들렸어?<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에이 아서라 아무개네 논이 암디가 있는디 그 나락이 {누런히} 익었드라.<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그래서 이상스럽게도 유자광이 태어나고는 대(竹)가 전부 푸르던 대가 {누런히} 황색이 되었다 이거지.<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네 얼굴이 어째 {누런} 허다냐.
지역 군산, 정읍, 남원.

▲누렇다 형 [대응어] 노랗다.
☞누르다. ¶그 다음에 인자 노랑 열매를 좀 저 파랑 열매를 먹으니 좀 {누래져. 이저} 파랑, 이저 노랑 열매를 먹응게 눈이 완전히 나사버려<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남원.

▲누루꾸룸허다 형 [대응어] 노랗다.
☞노르끄름허다. ¶큰 구렝이가 그양 꺼무튀튀 누루꾸르::먼 구렝이가 그양 이케 나무 미티, 그 당산나무 미티가 빠:때고 이써요.<2009 전북 임실>
지역 임실.

▲누룩치나무 명 [대응어] 느릅나무. ¶{누룩치나무가} 자라다
지역 전북.

▲누룬재기 명 [대응어] 송사리. ¶냇가에 {누룬재기가} 많다
지역 전북.

▲누룸밥 명 [대응어] 눌은밥.
☞눈밥.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진안, 군산, 군산.

▲누룽기 명 [대응어] 누룽지.
솥 바닥에 눌어붙은 밥.
지역 정읍.

▲누르끄름하다 형 [대응어] 노랗다.
☞노르끄름허다. ¶그런 들이, 그 저쪽 검푸른 산이 높아 더 못 넘어가고, 나무 한 그루 없이, {누르끄름히} 펼쳐져 있다.<박상륭, 죽음의 한 연구>
지역 전북.

▲누르끼리하다 형 [대응어] 노랗다.

☞노리끼리하다. ¶{누르끼리하게} 궁상기 들었던 얼굴은 간곳이 없고 두 턱이 되도록 살이 찐 혈색 좋은 얼굴에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고 있었다.<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누르다 형 [대응어] 노랗다(黃).

익은 벼와 같이 다소 탁하고 어둡게 누르다. ¶"보리밭에 {누른} 빛도 밤 사이에 났겄구마는."<최명희, 혼불>(영양부족이나 병으로) 피기가 없고 누르칙칙하다. ¶쓸쓸히 뇌던 어머니 남평댁의 {누른} 얼굴이 덮치듯 떠올라, 황서방댁은 모골이 송연했다.<최명희, 혼불> ¶"더 스핑크스 위드아웃 어 시크레트란 단편소설인데 주인공이 어느 착잡한 거리에서 {누른} 칠을 한 마차를 타고 있는 썩 눈에 드는 여자 하나를 발견했단 말이야.<채만식, 염마 ¶그 말을 할 때 이기채의 낯빛은, 극추생마포 거친 삼베로 얽은 상복보다 더 {누르고} 썽클하였다.<최명희, 혼불>

지역 정읍.

▲누르붉다 형

빛깔이 누렇고 붉다. ¶화덕 옆으로 가서 사발에 김이 무럭무럭 오르는 {누르붉은} 밥을 푼다<채만식, 밥>

지역 전북.

해설 '누르붉다'는 '누렇다'와 붉다'를 결합하여 합성어를 만든 것이다. 작가들이 만든 말로 보인다.

▲누르칙칙하다 형 [대응어] 노랗다.

곱지 않고 어두운 빛깔로 누르다. ¶그 {누르칙칙한} 휘장은 햇살을 모두 잡아먹고 해마저 빈혈 앓는 모습으로 만들어놓았다. 해는 날마다 생기 잃은 커다란<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누르텡텡하다 형 [대응어] 노랗다.

곱지 않고 엷게 노르다. ¶피곤과 궁핍이 얼룩진 {누르텡텡한} 얼굴들에서는 아직도 어떤 희망 같은 걸 찾아내기 힘들었으나 적어도 그들의 눈에서는 지금까지 달고 다니던 초조함이나 공포는 사라져 있었다.<최일남, 서울의 초상>

지역 전북.

▲누르퉁퉁하다 형 [대응어] 노랗다.

☞누르텡텡하다. ¶몸 여기저기에 잡힌 멍자국들은 처음의 검푸르칙칙한 색깔에서 {누르퉁퉁하고} 푸르죽죽하게 변색되어 있었다.<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누릇누릇하다 형 [대응어] 노랗다.

군데군데 꽤 누르스름하다. ¶맨살로 드러난 소화의 등에 푸릇푸릇하기도 {누릇누릇하기도} 한 멍자국. 그건 고문을 당한 상처의 흔적이었다.<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누리 명 [대응어] 우박.

☞느레.

지역 무주.

▲누리끼하다 형 [대응어] 노랗다.

색이 선명하지 않고 약간 누르다. ¶들판이 {누르끼해지고} 소먹이를 나온 아이들이 콩서리를 하느라 여기저기서 종일 연기가 끊일 새 없이 피어오르기 시작하자 이내 가을 기운이 완연해졌다.<최창학, 심야의 정담>

지역 전북.

▲**누릿누릿하다** 형 [대응어] 노랗다.
☞누릇누릇하다. ¶쑥빛보다 진한 색깔로 포구의 양쪽을 덮고 있던 갈숲도 {누릿누릿하게} 변하고 있었다.<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누바꿈** 명
오빠보다 여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일. ¶누바꿈은 예부터 허는 거여. 암실안혀.
지역 전북.

▲**누어고초** 명 [대응어] 고치.
☞뉘어꼬초.
지역 진안.

▲**누예** 명 [대응어] 누에.
☞뉘어. ¶굳이 잠긴 재ㅅ빛의 문을 열고 나와서 하눌ㅅ가에 머무른 꽃봉오리ㄹ 보아라 한없는 {누예실의} 올과 날로 짜 느린 채일을물은듯, 아늑한 하눌ㅅ가에 뺨 부비며 열려있는 꽃봉오리ㄹ 보아라<서정주, 시집>
지역 전북.

▲**눈 빼먹는 세상** 【관용표현】
쳐다보고 있는 눈을 빼먹을 정도로 무서운 사람의 인심을 비유적으로 말함. ¶서울이란 디 갈 것 같으먼은 좌우간 {눈 빼먹는 세상이라} 근게 조심하고 각별히 조심해라.<한국구비문학대계, 전북정주시·정읍군편> ¶아는 질두 물어서 가랬다네. 눈 뜨구서 남의 {눈 빼먹넌 세상인} 줄 자네두 알면서 그러넝가?<채만식, 천하태평춘>
지역 전북.
해설 사람의 눈을 빼먹는 일은 없다. 그러나 인심이 매우 사나운 지역이나, 그러한 시대를 비유적으로 '눈을 빼먹는 세상'이라고 표현한다.

▲**눈가상으주름** 명 [대응어] 눈주름.
눈가에 잡힌 주름. ¶{눈가상으주름이} 자글자글하다
지역 임실.

▲**눈가상주름** 명 [대응어] 눈주름.
눈가에 잡힌 주름. ¶{눈가상주름이} 자글자글하다
지역 전북.

▲**눈가시** 명 [대응어] 눈자위.
☞눈갓.
지역 전북.

▲**눈가죽** 명 [대응어] 눈두덩.
눈언저리의 두두룩한 곳. ¶여자가 {눈가죽을} 요래 들씨이디이 날름 파내.<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8>
지역 고창, 순창, 장수.

▲**눈갓** 명 [대응어] 눈자위.
눈알의 언저리. ¶눈물이 괴었다. 괸 눈물이 인하여 넘치어 흘렀다. 나도 {눈갓이} 뜨거웠다.<채만식, 민족의 죄인>
지역 고창.

▲**눈곱재가리** 명 [대응어] 눈곱자기.
'눈곱'을 속되게 이르는 말. ¶눈곱재가리나 좀 떼고 말해라.
지역 전북.

▲**눈곱쟁이** 명 [대응어] 눈곱자기.
'눈곱'을 속되게 이르는 말. ¶아니 세수를 헌거여 만거여. {눈곱쟁이가} 고대로 있구먼. ¶너는 뭐가 바빠서 {눈곱쟁이}도 안 떼고 학교에

왔냐, 그러다 눈곱쟁이 떨어지면 발등 깨겄다. ¶그렇게 {눈꼽쟁이}만하게 주면 어떻게 해?
지역 전북.

▲**눈구녕** 명 [대응어] 눈구멍.
'눈'을 속되게 이르는 말. ¶자네도 고 독오른 {눈구녕} 봤제? 독새 눈깔이 그럴라등가, 도깨비 외눈깔이 그럴라등가.<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눈까풀이** 명 [대응어] 눈까풀.
눈알을 덮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살갗. ¶큰딸 시어매 눈까풀이 수술을 히도.
지역 전북.

▲**눈깜땡깜** 부 [대응어] 얼렁뚱땅.
정확한 근거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대략적으로 계산하는 모양. ¶둘 중에 하나를 {눈깜땡감허는} 식으로다 골라야 허는디.<조봉래, 풀벨골> ¶{눈깜땡깜} 대충대충하는 습관을고쳐야 한다.
지역 전북.

▲**눈껍데기** 명 [대응어] 눈꺼풀.
눈알을 덮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살갗. ¶졸려서 눈껍데기가 안 들어진다.
지역 남원.

▲**눈껍따기** 명 [대응어] 눈꺼풀.
☞눈껍데기.
지역 남원.

▲**눈껍질** 명 [대응어] 눈꺼풀.
눈알을 덮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살갗. ¶눈껍질이 감긴다.
지역 전북.

▲**눈꼽재가리** 명 [대응어] 눈곱자기
'눈곱'을 속되게 이르는 말. ¶지가 빙신 팔푼이라 지 맘얼 지도 어찌 못혀서 그리됐제 {눈꼽째가리 만치도} 시님얼 무시허서 그런 것이 아니구만이라우.<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눈꼽째가리'는 '눈꼽재기'에 접미사 '-아리'가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전북 방언에서는 '눈꼽쟁이', '눈꼽재기'가 사용되고 있는데, '눈곱'은 '눈꼽'으로 발음되며, 거기에 접미사 '-쟁이, -재기, -재가리' 따위가 연결되어 만들어진 파생어이다.

▲**눈꼽재기** 명 [대응어] 눈곱자기.
'눈곱'을 속되게 이르는 말. ¶그래도 다행이지만, 저것이 {눈꼽재기만해지다가} 그대로 툭, 떨어져 버리면, 매안<최명희, 혼불> ¶얼마나 바빴는지 밥은 고사허고 {눈꼽재기} 뗄 시간도 없이 학교로 달렸다.
지역 김제, 남원, 순창, 장수, 정읍, 무주, 부안, 군산, 진안.

▲**눈꽁댕이** 명 [대응어] 관자놀이.
귀와 눈 사이, 즉 눈의 꽁지에 가까운 부분으로 맥박이 뛰는 곳. ¶{눈꽁댕이부텀} 식은땀이 줄줄줄 흘러내릴 정도로 어찌케나 긴장이 되야 말이지. ¶저 사람 승질났는가베. {눈꽁댕이가} 실룩벌룩하잖아.
지역 임실.

▲**눈꼽재기** 명 [대응어] 눈곱자기
☞눈꼽재기.
지역 무주, 부안, 군산, 진안.

▲**눈대죽** 명 [대응어] 눈대중.
눈으로 보아 크기, 수량, 무게 등을 대강 짐작함. ¶눈대죽으로 대충 산다.

지역 전북.

▲**눈두덕** 명 [대응어] 눈두덩.
눈언저리의 두두룩한 곳. ¶눈두덕이 부어서 앞이 흐리다.
지역 김제, 남원.

▲**눈등** 명 [대응어] 눈두덩.
눈언저리의 두두룩한 곳. ¶눈등이 푹 꺼졌다.
지역 고창.

▲**눈딱지** 명 [대응어] 눈두덩.
눈언저리의 두두룩한 곳. ¶눈딱지가 퍼렇다.
지역 익산.

▲**눈떠그리** 명 [대응어] 눈두덩.
눈언저리의 두두룩한 곳. ¶눈떠그리가 부었다.
지역 무주.

▲**눈떠버리** 명 [대응어] 눈두덩.
☞눈떠그리.
지역 무주.

▲**눈떠불** 명 [대응어] 눈꺼풀.
눈알을 덮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살갗. ¶졸려서 눈떠불이 천근만근이다.
지역 무주.

▲**눈떠풀** 명 [대응어] 눈꺼풀.
☞눈떠불.
지역 무주.

▲**눈뚜껑** 명 [대응어] 눈꺼풀.
눈알을 덮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살갗. ¶"인자사 게우 {눈뚜껑이} 벌어져서 뭣이 뭣인지 사방이 쪼깨<윤홍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소넌 상과니 엄는디 뿌리 이러케 아벌 요로케 수거갇꼬 눈뚜껭이 덤는 소넌 가비 업떼요. <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지역 완주, 임실.

▲**눈뚜껭** 명 [대응어] 눈꺼풀.
☞눈뚜껑.
지역 완주, 임실.

▲**눈뚜덕** 명 [대응어] 눈두덩.
☞눈두덕.
지역 남원, 김제.

▲**눈머륵때기** 명 [대응어] 소경.
'시각 장애인'을 낮잡아 이르는 말. ¶눈이 안 뵈가지구 지팽이 짚구, 그러먼은 {눈머륵대기라구} 그러지.
지역 진안.

▲**눈밥** 명 [대응어] 눌은밥.
솥 바닥에 눌어붙은 밥에 물을 부어 불려서 긁은 밥. ¶눈밥이나 긁어 묵어야겠다.
지역 전북.

▲**눈애피** 명 [대응어] 눈병.
눈에 생기는 병. ¶개썹쟁이랑 어울려 댕깅께 {눈애피가} 나지. ¶베깥에 나갔다 오먼 손을 잘 씻쳐야 {눈애피}가 안 올르지. ¶{눈애피}에 걸린 애랑 노니까 눈애피가 나지. ¶눈에 걸린 {눈애피는} 전염 될 수 있으니 수건을 함께 쓰지 말아야 한다.
지역 전북.

▲**눈윗음** 명 [대응어] 눈웃음.
소리 없이 눈으로만 가만히 웃는 웃음. ¶{눈윗음을} 짓다
지역 전북.

▲**눈을 빼먹는 시상** 【관용표현】
☞눈 빼먹는 세상.
지역 전북.

▲**눈잇임** 명 [대응어] 눈웃음.
☞눈윗음.
지역 전북.

▲**눈자새** 명 [대응어] 눈자위.
눈알의 언저리. ¶눈물이 흘러 눈자새가 뜨겁다.
지역 남원, 임실.
해설 '눈자새'는 16세기의 '눈ᄌᆞᅀᆡ'로 소급되며, '눈ᄌᆞᅀᆞ+-이(파생 접사)'로 분석된다. 중앙방언에서 /ㅿ/은 16세기에 음가가 소멸되는 변화를 겪어 현대 국어에서 '눈ᄌᆞᅀᅵ>눈ᄌᆞ의>눈자의>눈자위'로 변화하였는데, '눈자새'는 전라, 경상 방언에서 일반적인 '/ㅿ/>/ㅅ/'의 변화를 겪은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눈자시** 명 [대응어] 눈자위.
☞눈자새.
지역 임실.

▲**눈잔재레기** 명 [대응어] 눈.
사람들의 눈길. ¶이맨하게 나. {눈잔재레기겉이} 나. 꼬추모가 나.
지역 전북.

▲**눈재기** 명 [대응어] 송사리. ¶강에서 {눈재기를} 많이 잡다
지역 전북.

▲**눈주룸** 명 [대응어] 눈주름.
눈가에 잡힌 주름. ¶{눈주룸이} 자글자글하다
지역 진안.

▲**눈주룸살** 명 [대응어] 눈주름.
눈가에 잡힌 주름. ¶{눈주룸살이} 자글자글하다
지역 남원, 정읍.

▲**눈찌리** 명 [대응어] 눈초리.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눈에 나타나는 표정. ¶매서운 {눈찌리}
지역 전북.

▲**눈창** 명 [대응어] 검은자위.
눈알의 검은 부분. ¶덕수, 고개를 뒤로 젖히고 {눈창을} 희번득희번득, 입을 움질움질, 끼룩거리는 모가지를 손으로 쥐어뜯으면서 비틀비틀 일어선다.<채만식, 무장삼동> ¶21804 검은 자위 {눈창}<2009 전북 임실>
지역 임실.

▲**눈챙이** 명 [대응어] 송사리.
☞는쟁이.
지역 전북.

▲**눈초리주룸** 명 [대응어] 눈주름.
눈가에 잡힌 주름. ¶{눈초리주룸이} 자글자글하다
지역 김제.

▲**눈치싸다** 형 [대응어] 약삭빠르다.
눈치가 빠르거나, 자기 잇속에 맞게 행동하는 데 재빠르다. ¶아내 박씨가 고까워하며 아들을 편역들고 나섰다. "아, 왜놈 왜놈 허덜 말어!" 이동만은 버럭 소리를 지르고는 "사정이 그렁게로더 {눈치싸게} 피허고 내빼고 헐지 알어야 된다 그말 아넌날 말이여." 그는 말을 걸고 드는 아내를 마땅찮게 노려보았다. "아니, 어찌<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의 '눈치싸다'는 '눈치가 싸다'에서 온 것이다. "눈치가 빠르다"의 뜻이다. 전북 방언에서 '싸다'는 "빠르다"의 뜻을 가진다.

▲눈탱이 명 [대응어] 눈두덩.
눈언저리의 두두룩한 곳. ¶눈탱이가 부었다.
지역 정읍.

▲눍다 형 [대응어] 묽다.
반죽 따위의 물기가 많다. 또는 물의 비중이 높아 원료의 농도가 옅다. 또는 사람이 야무지거나 맺힌 데가 없이 무르다. ¶{눍은} 죽을 끓여 먹다. ¶밀가루 반죽이 {눍으니} 밀가루를 더 가져와 넣어라. ¶{눍게} 물감을 풀다. ¶체질이 {눍다}.
지역 고창, 남원, 순창, 임실, 장수, 정읍.

▲눼꼬치 명 [대응어] 고치.
☞뉘어꼬초.
지역 전북.

▲뉘고치 명 [대응어] 고치.
☞뉘어꼬초.
지역 순창, 장수.

▲뉘꼬추 명 [대응어] 고치.
☞뉘어꼬초.
지역 전북.

▲뉘꼬치 명 [대응어] 고치.
☞뉘어꼬초.
지역 장수.

▲뉘나다 동 [대응어] 물리다.
다시 대하기 싫을 만큼 몹시 싫증이 나다. ¶세 끼 꼬박 라면만 먹었더니 이젠 뉘나서 못 먹겠다.
지역 전북.
해설 '뉘나다'는 '뉘+나-+-다'로 분석할 수 있다. '뉘'는 "싫증"을 뜻하는 전라 방언으로, 담양, 곡성, 나주, 보성, 고흥 등지의 전남 방언에서도 이러한 표현이 사용된다.

▲뉘나부 명 [대응어] 누에나방.
☞나부.
지역 순창, 장수.

▲뉘나비 명 [대응어] 누에나방.
☞나비.
지역 무주, 장수.

▲뉘런허다 형 [대응어] 누렇다.
☞누런허다.
지역 전북.

▲뉘렇다 형 [대응어] 누렇다.
☞뇌랗다. ¶"금서나 팔자탄식만 허고 부지땡이로 이렇게 했더니 그 아궁지께서나 {뉘런} 것이 나와서 어머니더러 이얘기히가지고 와서 캐본게 생금뎅이가 나왔다고.<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군산.

▲뉘릿뉘릿 부 [대응어] 노릇노릇.
군데군데 노르스름한 모양. ¶{뉘릿뉘릿} 익다
지역 전북.

▲뉘비 명 [대응어] 누비이불.
솜을 두고 누벼서 만든 이불. ¶쩌그 이불장서 {뉘비} 내려다가 덮고 자거라잉. 추운게.
지역 무주.

▲뉘비다 동 [대응어] 누비다.

두 겹의 천을 포갠 사이에 솜을 넣어 줄이 죽 죽 지게 박다. ¶시한에 시집까먼, 장개가머는 그 놈을 다 소캐를 놓지요, 거그다가.소캐럴 놔서 다: {뉘비서} 바지 맨들고, 저구리 맨들고.(겨울에 시집가면 장가가면은 그 놈을 다 솜을 놓치요, 거기에다가 솜을 놓아서 바지 만들고, 저고리 만들고)<2009 전북 임실> ¶그가 한 겨울에는 엄마가 {뉘비어} 준 솜바지를 입고 다녔다.

지역 무주, 익산, 정읍, 임실, 완주, 남원, 군산.

해설 '뉘비다'의 어형은 중앙 방언 '누비다'의 어형에서 역행 동화를 겪은 것이다. '누비' 등이 최초로 나타나는 형태는 "누벼서 만든 물건"을 뜻하는 명사 '누비'이며 15세기의 문헌에서 볼 수 있다. 동사 '누비다'가 나타나는 시기는 17세기부터이다. '신'에서 '신다'라는 동사가 생긴 것과 같이 '누비'라는 명사 자체가 동사의 어간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뉘비이불 명 [대응어] 누비이불.

솜을 두고 누벼서 만든 이불. ¶뉘비이불을 끌어다가 덮었다. ¶옌날에는 인자 이롷게 {뉘비이불} 여름 니불은, 그러곤자 소캐 놔서 허고, 뭐 샘배로 또, 샘배 난 놈 빨아서 샘배이불 여름엔 그롷게 히서 다 히갖고 왔는디.(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누비이불 여름이불은, 그러고 이제 솜 놓아서 하고, 뭐 삼베로 또, 삼베 난 것 빨아서 삼베이불 여름에는 그렇게 해서 다 해가지고 왔는데 하이고}<2009 전북 임실> ¶겨울에는 솜을 넣어 만든 {뉘비이불이} 최고 따뜻하다.

지역 전북.

▲뉘비저고리 명 [대응어] 누비저고리.

솜을 두고 누벼서 만든 저고리. ¶근디 그전이 그 저 돌 때 해주는 저고리가 있어. {뉘비저고리가} 있는디, 거그다가선 뭐 이 아무 때 이러저래 해가지고서 말이지.<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그서 인제 거가 있는디 저녁으 모다 거 {뉘비저고리} 글때는(그때는) 누비저고리 안 판이였소? {뉘비 저고리를} 하나 허더니, "따라 갈라면 어서 이리 따라 오소." 그드래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군산, 정읍.

▲뉘비포대기 명 [대응어] 누비포대기.

속에 솜을 얇게 넣고 누벼서 만든 포대기. ¶갓난아이를 {뉘비포대기로} 감싸 안다. ¶외삼촌이 아들 낳았다고 {뉘비포대기}를 선물했다.

지역 전북.

▲뉘애기 이름 【관용표현】 [대응어] 누구 아기의 이름.

함부로 쉽게 부르는 이름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표현. ¶아 이 사람아 돈 오십 전이 {뉘애기 이름인} 종(이름인 줄) 아닝가?<채만식, 천하태평춘>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의 '뉘애기'는 "누구 아기" 또는 "누구네 집 아기"로 볼 수 있다. 아기 이름은 남의 집 아기라 하더라도 쉽게 부를 수 있다. 따라서 '뉘애기 이름'은 "함부로 쉽게 부르는 이름"을 말한다.

▲뉘어 명 [대응어] 누에.

누에나방의 애벌레. ¶뽕잎사구 자꾸 먹으면 {뉘어} 된다니께 고만 자셔.

지역 고창, 김제, 부안,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진안.

▲뉘어고초 명 [대응어] 누에고치.

누에가 번데기로 변할 때에 실을 토하여 제 몸을 둘러싸서 만든 둥글고 길쭉한 모양의 집. ¶옛날으 정읍서 뉘어를 많이 키워서 뉘어고초

받이었당게
지역 전북.

▲**뉘어꼬초** 명 [대응어] 누에고치.
누에가 번데기로 변할 때에 실을 토하여 제 몸을 둘러싸서 만든 둥글고 길쭉한 모양의 집. 명주실을 뽑아내는 원료가 된다. ¶{뉘어꼬초으서} 명주실을 뽑지.
지역 완주, 익산, 진안, 김제.

▲**뉘어꼬치** 명 [대응어] 누에고치.
☞뉘어꼬초.
지역 옥구.

▲**뉘어나부** 명 [대응어] 누에나방.
☞나부.
지역 부안, 진안.

▲**뉘어나비** 명 [대응어] 누에나방.
☞나비.
지역 고창, 완주.

▲**뉘에** 명 [대응어] 누에.
☞뉘어.
지역 김제, 남원, 정읍.

▲**뉘에꼬초** 명 [대응어] 누에고치.
☞뉘어꼬초.
지역 김제.

▲**뉘에꼬치** 명 [대응어] 누에고치.
☞뉘어고초. ¶부잣집 애기여." 그냥 옛날에는 설명자로고 있어요. 설명자, 설명자가, 명주배나서 누에 못다쓴 것을 설명자라고 그래요, {누애꼬추} 버린 것갖고, 그놈갖고 실을 빼지 않아?<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전북.

▲**뉘에나부** 명 [대응어] 누에나방.
☞나부.
지역 남원.

▲**뉘에나비** 명 [대응어] 누에나방.
☞나비.
지역 정읍.

▲**뉘여** 명 [대응어] 누에.
☞뉘어. ¶고 명지베는 뭘로 해능 거예요?(그 명주베는 뭘로 하는 거예요?) {뉘여}. {뉘여} 키워가꼬, 뽕나무 뜨더머근 {뉘여}.(누에. 누에 키워갖고, 뽕나무 뜯어먹은 누에.)<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지역 전북.

▲**뉘여꼬추** 명 [대응어] 누에고치.
☞뉘어꼬초.
지역 전북.

▲**뉘여나부** 명 [대응어] 누에나방.
☞나부.
지역 전북.

▲**뉘여나비** 명 [대응어] 누에나방.
☞나비.
지역 전북.

▲**뉘예** 명 [대응어] 누에.
☞뉘어.
지역 김제, 남원, 정읍.

▲**뉘예나부** 명 [대응어] 누에나방.
☞나부.
지역 전북.

▲뉘예나비 명 [대응어] 누에나방.
☞나비.
지역 전북.

▲뉘집애기 이름 【관용표현】 [대응어] 누구 아기의 이름.
함부로 쉽게 부르는 이름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표현.
지역 전북.

▲느그 대 [대응어] 너희.
☞너그. ¶불른다는 노래 안 불르고 {느그들} 시방 뭣 허고 자빠졌냐?<윤흥길, 소라단 가는 길>
지역 전북.

▲느글느글허다 형 [대응어] 느글느글하다.
먹은 것이 내려가지 아니하여 곧 게울 듯이 속이 매우 메스껍고 느끼하다. ¶쌂으면 느글느글허니 좋지.
지역 전북.

▲느닷읎이 부 [대응어] 느닷없이.
☞느닷없이. ¶"게, 밥은 남같이 하루에 시 그릇씩 먹으면서, 그래, 어떻기 사람이 멍청허먼, 날마당 나오던 소리를 {느닷읎이} 못 나오게 헌담 말잉가?" 이러한 무정지책에 대복이는 유구무언, 머리만 긁적긁적합니다.<채만식, 태평천하>
지역 전북.

▲느더기 명 [대응어] 누더기.
누덕누덕 기운 헌 옷.
지역 군산.

▲느데기 명 [대응어] 누더기.
누덕누덕 기운 헌 옷.
지역 군산.

▲느래 명 [대응어] 우박.
☞느레.
지역 전북.

▲느러테허다 형 [대응어] 느리다.
느어떤 동작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 ¶애기가 움직이도 않고 서대도 않고 느러테헌게.
지역 전북.

▲느레 명 [대응어] 우박.
큰 물방울들이 공중에서 갑자기 찬 기운을 만나 얼어 떨어지는 얼음덩어리. ¶하늘에서 {느레가} 떨어지다
지역 남원, 임실, 진안, 순창, 장수.

▲느른니 명 [대응어] 늙은이.
☞늙은이.
지역 전북.

▲느리 명 [대응어] 우박.
☞느레.
지역 순창, 장수.

▲느리지근하다 형 [대응어] 느리다.
행동이나 성질이 느리고 답답하다. ¶개덜이 밥처묵고 {늘이지근허게} 자빠져 있을 적에 들이쳐뿝시다.<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느리차분하다 형
어떤 동작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조용하다. ¶{느리차분하게} 열손가락을 맥없이 놀리는 모양은 딱지나 여남은 장씩 주어서 나가 놀라면 뛰고 날고 할 듯하였다.<채만식, 병조와

영복이>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느리차분하다'는 '느리다'와 '차분하다'를 결합한 합성어이다. 고유어를 이용하여 합성어를 만든 것으로 행동이 느리고 차분한 것을 한꺼번에 표현한 어휘이다.

▲-느만 【종결어미】 [대응어] -는구먼.
해할 자리나 혼잣말에 쓰여, 화자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주목함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흔히 감탄의 뜻이나 따지는 뜻이 수반된다. ¶집에 그냥 있겄다고 {허느만요}.<최명희, 혼불> ¶단단히 아펴 가지고는요. 무단히 몸 아픈 것이 장 담는데 어른거리면 어쩔라는가 싶어서. 아예 일 끝날 때쯤 {오느만요}.<최명희, 혼불> ¶그런데 오마인 글세 자꾸만 절더러 경비댈 고만두구 조르구 성활 {대시느만요}.<채만식, 낙조> ¶저리 돌려요 술내 {나느만}!<채만식, 행랑 들창에서 들리는 소리> ¶오늘은 잠을 늦게 {자느만}.<김옥화(2001)> ¶잘 {멍느만}(먹구먼).<백은아(2016)> ¶내 그걸 아라, {아느만}.(알구먼)<백은아(2016)>
지역 부안, 군산, 전주.

▲느시렁느시렁 부 [대응어] 느릿느릿.
동작이 재지 못하고 매우 느린 모양. ¶사엣춰 구락부서 축새 경진대회라도 열리면은 맡어놓고 금메다루 딸 성님이 으짠 일로 요참에는 앞자리를 양보허고는 {느시렁느시렁} 맨 꼬래비로 나타나서 그 잘난 화상 인자사 귀경시키는 것이 쪼깨 요상허드라, 그런 말이 지라우<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해설 표준어 '느실거리다, 느실대다'의 어근은 '느실'이다. 이 '느실'에 접미사 '-앙/-엉'이 붙어 '느시랑/느시렁'이 된다.

▲느이 대 [대응어] 너희.
말하는 이가 자기와 비슷하거나 아래인 사람들을 친밀하게 가리키는 말. ¶느그덜(너희들)아 {느이} 실쩡이 그러쿄<백은아(2016)>
지역 무주.

▲느자구 명 [대응어] 싹수.
어떤 일이나 사람이 앞으로 잘될 것 같은 낌새나 징조. ¶저런 싹수 머리 없고 {느자구} 없는 년얼 나가 어찌서 뺏골 빠지게 일혀서 믹에 살리냔 말이요.<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느자구'는 표준어 '싹수'에 해당하는 말이다. '버릇 없다'에서 '버릇'에 해당하는 말이다. 주로 '느자구 없다'와 같은 표현으로 사용된다.

▲느적지근하다 형 [대응어] 느리다.
☞느리지근하다. ¶그러면서도 뭐랄까 조금은 {느적지근하고} 사람의 목덜미를 간지럽히는 고급스런 냄새가 났다. 함부로 막걸리 냄새를 풍긴다든가, 도나캐나 쇠똥말똥 밟은 흙발로<최일남, 서울의 초상>
지역 전북.

▲느클느클허다 형 [대응어] 뭉클뭉클.
덩이진 물건이 물렁물렁하고 몹시 미끄러운 모양. ¶참 좋아. 느클느클혀. 언지 먹을지 모른게. 느클느클혀. 쌂으면 느글느글허니 좋지.
지역 전북.

▲늑동 명 [대응어] 넉동.
윷놀이에서, 말이 첫 밭에서 끝 밭을 거쳐 나가는 네 번째 차례. 또는 네 번째 나는 말. 윷놀이에 쓰는 네 개의 말.
지역 고창.

▲**늑밭** 명 [대응어] 늘그막.
늙어가는 무렵. ¶아, 늑밭에 자식한테 나중으는 맞어 죽겄어.
지역 전북.

▲**늑신** 부 [대응어] 늘씬.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또는 과일의 익은 정도가 아주 심하게. ¶"……이년 인제 보아라. 등줄기에서 노린내가 나게시리 {늑신} 두들겨 줄테니……사람 못된 년 같으라구!" <채만식, 탁류> ¶{늑신} 익어 단물이 솟는 듯이 사근사근하여 보이는 새빨간 속에 까만 씨가 홱홱 돌아 돌아 소복소복 박힌 것이 그야말로 침이 넘어갈 듯하였다.<채만식, 세 길로> ¶"그자슥, 맨날 만화방만 댕긴다고 즈 아부지한터 {늑신}나게 얻어 맞고 인자 속 챙겼을꺼여.".
지역 전북.

▲**늑신하다** 형 [대응어] 늘씬하다.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축 늘어져 있다. ¶그냥 건둥건둥 따라나섰던 사람들은 잡혀서 {늑신하게} 얻어터지기만 하고 그대로 눌러 살고.<송기숙, 녹두장군>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늑신하다'는 '늑신허니, 늑신허게'와 같이 부사형으로 주로 쓰인다.

▲**-는감만** 【축약형】 [대응어] -는가 보구만.
'-는가 보구만'이 줄어든 말. ¶{막는감만요}. <최태영(1973)> ¶탈곡기가 우리~, 나. 한, 이십, 이십대, 대 나와씽개. 지금 한 오십년 {넘는감만}, 탈곡끼가.(지금 한 오십년 넘넌 것 같아, 탈곡기가.)<전북지역어, 남원> ¶아! 위에서 외때기를 영는다고 해서 외영는다고 {허는감만요}?(아! 위에서 욋가지를 역는다고 해서 외 역는다고 하는 가보네요?)<전북지역어, 남원>
지역 남원 동남부.

▲**-는고나** 【종결어미】 [대응어] -는구나.
해라할 자리나 혼잣말에 쓰여, 화자가 말하는 그때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주목함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흔히 감탄의 뜻이 수반된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 어둠에다 몸을 묻고 눈빛으로만 강실이 오는 기척을 살피던 황아장수 아낙의 눈에 희끗희끗 옷자락이 비쳐 들었다. {오시는고나}.<최명희, 혼불>
지역 남원.

▲**-는고니** 【축약형】
'-는고 하니'가 하나로 줄어든 말. ¶이 논이 얼매나 {되는고니}<이태영(1983)> ¶아니 내가 왜 그런 말을 {허능고니}, 그래도 달금이네는 칼일 헝게로 머 꼭 챙게 먹자고 앙 그려도, 아 팔고 남은 부시레기만 줏어 먹어도 다 못 먹잖이여, 빽다구는 고아 먹고, 껍데기는 쫄여 먹고, 저 뱃속으 답북 들었는 그 창시는 다 멋 히여?<최명희, 혼불> ¶그래서 인자 그 자리를 자알 겨냥해 갖꼬는, 어디다 뫼를 써 {쥤능고니}.<최명희, 혼불> ¶무슨 니리 인쓰셨써요, 그때 왜 중퇴를 하싱거요? 으, {어떠헨능고니}.(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그때 왜 중퇴를 하신 것이에요? 응, 어떠했는가 하니.) <전북지역어, 남원> ¶어, 분주소까지 드르강개 발써 그때 분주소 소장이 {머라공고니}, 아 아무개 드르오냐고 마리여이?(어, 분주소까지 들어가니까 벌써 그때 분주소 소장이 뭐라고 하는가하니, 아 아무개 들어오냐고 말이야이?)<전북지역어, 남원>
지역 전북.

▲**-는기요** 【종결어미】 [대응어] -는가요.
해요할 자리에 쓰여, 현재의 사실에 대한 물음

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으디 {가시능기요}?<김중진(1976)> ¶식사 {허셧능기요}?<김중진(1976)> ¶신바리 {짜근기요}? ¶지씨 몸살 풀리고로 그 목도소리 한바탕 허는기 {우짜겄는기요}?"<조정래, 아리랑> ¶보소, 잠이 안 {오는기요}?<조정래, 아리랑> ¶치마에다가 손을 딲으고 나감서, "아 뭘 할라고 {불렀는기요}?"<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고창.

▲-는당가 【종결어미】 [대응어] -는가.
하게할 자리에 쓰여, 현재의 사실에 대한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어허어 참, 말이 씨된다고 어쩌서 그런 소리를 자꼬 {해쌓는당가}. 어서 들으가 한 숨이라도 더 자제.<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는디 【연결어미】 [대응어] -는데.
뒤 절에서 어떤 일을 설명하거나 묻거나 시키거나 제안하기 위하여 그 대상과 상관되는 상황을 미리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 ¶살아볼라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디도} 이런 가난배기 신세를 못 면허고 있으니 내 무신 팔자가 시어서 그런지 모르겄다.
지역 전북.

▲-는디 【연결어미】 [대응어] -는데.
뒤 절의 내용 상관되는 상황을 미리 제시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 ¶관촌 {까는디}(가는데)<백은아(2016)> ¶먼 집까지는 앙 {가는디}(가는데)<백은아(2016)> ¶욕썸 마너 가꼬 돈도 벌고 {허는디}(하는데)<백은아(2016)> ¶여보 농부덜 얼른 잠깐 들어가서 우리가 모를 쩌야 {하는디} 그리야 술을 먹응게<전북대 국문과(1983)> ¶내 다리는 아푸고 자새는 돌아가라고 {허는디}<전북대 국문과(1983)>

지역 임실, 완주, 군산, 고창.

▲-는만 【종결어미】 [대응어] -는구먼.
방언형 '-는구만'이 줄어들어 굳은 말. 해할 자리나 혼잣말에 쓰여, 화자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주목함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흔히 감탄의 뜻이나 따지는 뜻을 수반한다. ¶근게 신송리 이장이 와서 자갈 깔아주고 {가는만}. ¶근디 인자 전주다고는 헀는디, 지금은 몰랐어. 그렀든, 인자 까빠뚱(마을 이름) {사는만}.
지역 고창.

▲는쟁이 명 [대응어] 송사리. ¶{는쟁이를} 잡으러 냇가에 가다
지역 임실.

▲늘구다 동 [대응어] 늘리다.
본디보다 더 크게 하거나 더 많게 하다. ¶사람이 역사를 안 보고는 이렇게 못 꾸미네. 뭣이든지 요만큼 엄지손가락을 내밀면서 있어야 {늘구지}, 아무것도 없으면 못 {늘구네}.<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조새 치는 기 머인가먼. 조, 이롷게 물이 쫄어들고, 어쩔 때 콱 {늘구고} 온담 말이요.(조수 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조, 이렇게 물이 줄어들고, 어쩔 때 콱 늘리고 온단 말이요.)<2011년 중국 무주촌 보고서-최종> ¶아부지가 써빠지게 재산을 {늘궈} 놓으면 아덜 놈은 한 해가 멀다고 까먹고 온당게.
지역 완주.

▲늘먹다 동
음식 따위를 분량이 본디보다 많아지게 하여 입을 통하여 배속에 들여보내다. ¶그놈 인자 늘먹을라먼 마구 잽이 풀태죽 쒀 먹는단게. ¶그런게 늘먹을라먼 호박 쑒고.
지역 전북.

▲**늘이지근하다** 형 [대응어] 늘어지다.
팔팔한 맛이 없고 느리다. ¶"개덜이 밥처묵고 {늘이지근허게} 자빠져 있을 적에 들이쳐뿝시다."<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늘이지근하다'는 형용사 '느리다'에 접미사 '-지근하-'가 연결된 파생어이다.

▲**늘적지근허다** 형 [대응어] 느리다.
☞느리지근하다. ¶가서 본게로 그렇게 허고 나서 이 {늘적지근허니} 그때까장 쉬고 있은게 잠깐 그렇게 가서 말헌게 와본게 쉬고 있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정읍.

▲**늘쿠다** 동 [대응어] 늘리다.
☞늘구다. ¶그리 오래지도 않은 과거를 얘기하면서 꿈만 같다는 말로 시간의 단위를 한없이 {늘궈} 잡는 버릇이 생겼으며, 말끝마다 '이게 어떻게 장만한 집인데……' 하면서 혀를 차곤 했다.<윤흥길,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지역 전북.

▲**늘키다** 동 [대응어] 늘리다.
☞늘구다. ¶그래 이놈의 이 밭의 경계 말뚝을 빼다가 저기다 갖다 놓고, 이놈도 빼다가 저기다 갖다 놓고 자꾸(밭을) {늘켰네}.<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남원.

▲**늘편하다** 형 [대응어] 질편하다.
☞늘펀하다. ¶하필에 오도 가도 서도 못하고 / {늘편히} 자빠져서 배를 깐 구름.<서정주, 어느날午後>
지역 전북.

▲**늘핀하다** 형 [대응어] 질펀하다.
땅이 넓고 평평하게 펼쳐져 있다. 또는 물건 따위가 즐비하게 널려 있다. ¶어떤 사람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답답헐 일이제. 순창 쌈터에 총 맞어 숨 끊긴 사람들이 {늘핀혔다는디}."<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늘핀하다'는 표준어 '질펀하다'가 가지고 있는 "물건 따위가 즐비하게 널려 있다"라는 뜻을 갖는다. 의태어 '늘핀'에 형용사 파생 접미사 '-하-'가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늘핀허다** 형 [대응어] 질펀하다.
땅이 넓고 평평하게 펼쳐져 있다. ¶서쪽으로 {늘펀한} 평야가 펼쳐지고 있었다
지역 전북.

▲**늙으면 잠도 없다** 【관용표현】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잠까지도 쉽게 들지 못한다는 뜻이다. ¶아 {늙으면 잠도 없다는디} 신새복에 인나 앉어서 촛대맹이로 우두거니 멋헐라요?<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해설 노인들은 여러 가지로 힘이 든다. 나이가 들면서 일찍 일어나기 때문에 잠조차도 제대로 잘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늙은 이빨로 도토리묵 다루기** 【관용표현】
아주 쉬운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완연한 중년의 나이로 들어섰다곤 하지만 왕년의 뚝심과 독기만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 있어 젊은 녀석들 네댓 마리쯤 데리고 놀기는 {늙

은 이빨로 도토리묵 다루기요}. 식은죽 가장자리 둘러먹기로 손쉬운 노릇이었다.<윤흥길, 빛가운데로걸어가면>

지역 전북.

해설 도토리묵은 이가 없어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다. 늙은 노인의 이로도 도토리묵을 쉽게 먹을 수 있다. 따라서 '늙은 이빨로 도토리묵 다루기'는 "아주 쉬운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능가 【종결어미】 [대응어] -는가.

하게할 자리에 쓰여, 현재의 사실에 대한 물음을 나타내는 의문형 종결 어미. ¶살기는 어느 절에 {사능가}?<전북대 국문과(1983)> ¶나도 가치 {가능가}? ¶거기 사라미 {마능가}? ¶시방 한티 {인능가}? ¶그거시 {머시건능가}?

지역 고창.

▲-능가만 【종결어미】 [대응어] -는구먼.

해할 자리나 혼잣말에 쓰여, 화자가 말하는 그때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주목함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흔히 감탄의 뜻이나 따지는 뜻을 수반한다. ¶낮이 안 잤능가만(낮에 안 잤는가 보구먼)<김옥화(2001)>

지역 부안.

▲-능가미 【연결어미】 [대응어] -는가 봐.

추정을 이유나 근거로 나타내는 연결 어미. ¶먹을 꺼라도 {인능가미} 계속 찾아 봤다.

지역 무주.

▲-능갑네 【축약형】 [대응어] -는가 보네

방언형 '-능가 보네'가 줄어든 말. ¶옛말도 안 {있능갑네}.<최명희, 혼불> ¶무신 노무 팔짜가 어디를 봉게로 그렇게도 좋당가? 그 양반 사정을 몰라서 그런 소리 {허능갑네}.<최명희, 혼불> ¶아니 이 예펜네, 오늘은 간뎅이가 퉁퉁 {부섰능갑네이}?<최명희, 혼불> ¶어칭기 {아능갑네}.(어떻게 아는가 보네)<김옥화(2008)>

지역 부안.

▲-능갑다 【축약형】 [대응어] -는가 보다.

'-는가 보다'가 줄어든 말.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를 추측한다. ¶기양 놔두머는 껍따그인자 이그먼, 놀짱어머는 {이근능갑따}.(익었는가보다)<백은아(2016)>

지역 임실.

▲-능갑데 【축약형】 [대응어] -는가 보데.

방언형 '-능가 보더이'가 줄어든 말. ¶주산 정미소는 그양 막 저이로(겨로) 바로 {빼능갑데}.(빼는가 보데)<김옥화(2008)> ¶표시를 안 나게 헐라고 {그러능갑데}.(표시 나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가 보데)<김옥화(2008)>

지역 부안.

▲-능갑만 【축약형】 [대응어] -는가 보고만.

방언형 '-능가 보구만'이 줄어든 방언형.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를 추측할 때 쓴다. ¶바둑 {뒤능갑만}(바둑을 두는가 보구먼)<김옥화(2008)> ¶귀양살이 {갔능갑만}<김옥화(2008)>

지역 부안.

▲-능개미 【연결어미】 [대응어] -는가 봐.

추정을 이유나 근거로 나타내는 연결 어미. ¶머글꺼라도 {있능개미} 그랴?

지역 전북.

▲-능게 【선어말어미】 [대응어] -는가.

하게할 자리에 쓰여, 현재의 사실에 대한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콧대만 잔뜩 높여갖고 지럴 대장으로 모시고 일얼 꾸미라는 것

아니겼 {능게라우}. 그것도 다 존디, 허겼다는 일이 양반덜 보선발 문대고 앉었는 <조정래, 아리랑> ¶작년에 보살님이 새북마동 탑돌이 럴 안허셨 {능게라}.<조정래, 아리랑> ¶"아 자씨, 발써 우체국에 가시 {능게라우}?"<조정래, 아리랑> ¶찾(으시)겐능게라오(우)?<김중진(1984a)> ¶보안능게오?<김중진(1984a)>

지역 고창, 정읍.

▲-능게미 【종결어미】 [대응어] -을까 봐, -ㄹ까 봐.

해할 자리에 쓰여, 어떤 사실을 묻는 의문형 종결 어미. 발화한 표면의 내용과는 달리 그 반대의 사실이라는 것을 뒤집어 표현하는 뜻이 있다. ¶느그가 {이기능게미}?(너희들이 이길까 봐서 그러느냐?)<이윤구(1985)> ¶도니 {엄능게미}?(돈이 없으까 봐서 그러느냐?)<이윤구(1985)> ¶너도 {가능게미}?(너도 갈까 봐서 그러느냐?)<이윤구(1985)> ¶내가 {지미반능게미}?(내가재미를 보았으까 봐서 그러느냐?)

지역 무주.

▲-능겨 【종결어미】 [대응어] -는 것이야.

해할 자리에 쓰여, 현재의 사실에 대한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나도 가치 {가능겨}?<이윤구(1985)> ¶시방 {가능겨}?<이윤구(1985)> ¶그 사람 시방 어디 {인능겨}?<이윤구(1985)>

지역 무주.

▲-능고 【종결어미】 [대응어] -는고.

해라할 자리에 쓰여, 상대에게 어떤 내용을 점잖게 묻거나 꾸짖어 묻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주로 옛 말투에 쓰인다. ¶머 {하능고}?<이윤구(1985)> ¶누가 {인능고}?<이윤구(1985)> ¶속으다 담어 놓고 있을랑게 나도 못 전디겼길래 자개한테만 {말허능고만}.<최명희, 혼불> ¶대실서방님은 임종도 못 보고, 시방 어디 가 {지시능고}.<최명희, 혼불> ¶그 손자가 없는 디서 어뜨케 눈을 {감으겼능고}, 원통허고 그리워서 어뜨케 떠나실랑고잉.<최명희, 혼불> ¶그럴라먼 먹지도 말어야지. 이빨로 도구질을 어뜨케 {허능고}? 귀찮허고 천해서.<최명희, 혼불> ¶아니 내가 왜 그런 말을 {허능고니}, 그래도 달금이네는 칼일헝게로 머 꼭 챙게 먹자고 앙 그려도, 아 팔고 남은 부시레기만 줏어 먹어도 다 못 먹잖이여,<최명희, 혼불> ¶울 아부지는 어뜨케 {생겠능고}.<최명희, 혼불> ¶아이고, 저 땡감 먹은 손, 옷에 딲지 말어, 물들어. 옷 {베리능고만}.<최명희, 혼불> ¶말을 허먼 어디로 {들능고오}.<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능고마 【종결어미】 [대응어] -는구먼.

해할 자리나 혼잣말에 쓰여, 화자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주목함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흔히 감탄의 뜻이나 따지는 뜻을 수반한다.

지역 부안.

▲-능교 【종결어미】 [대응어] -는가요.

해요할 자리에 쓰여, 현재의 사실에 대한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으디 {가시능교}?<김중진(1976)> ¶식사 {허셨능교}?<김중진(1976)>

지역 고창.

▲능글능글허다 형 [대응어] 능글능글하다.

굳세지 않고 잘 휘어지다. ¶대가 능글능글허게 생겨서 얼마나 버티겄냐.

지역 전북.

▲-능기요 【종결어미】 [대응어] -는가요.

해요할 자리에 쓰여, 어떤 일에 대한 물음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허능기요}.<송순강(1986)> ¶으디 {가는기요}? ¶신바리 {짜근기요}?
지역 서부(군산, 김제, 부안, 고창).

▲늦구다 동 [대응어] 늦추다.
바싹 하지 아니하고 느슨하게 하다. 또는 긴장을 조금 풀다. ¶처음 생각 같아서는 여남은 그릇을 먹을 것 같더니 두 그릇째 먹고 나니 속이 얼떨떨하고 배가 불룩 일어나 허리띠를 {느꾸었다}.<채만식, 停車場近處> ¶그러니 인제는 아무리 더 욕을 하고 옥신각신해도 소용이 없고 나머지나 받아 쥐는 수밖에 없다고 그는 할 수 없이 속을 {느꾸었다}.<채만식, 停車場近處>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에서 '늦다'의 사동 접미사로 '-구-'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늦-'에 접미사 '-구-'가 연결되어 '늦구다>느꾸다'가 생성된 것이다.

▲늦뒹이 명 [대응어] 늦둥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낳은 자식. ¶{늦뒹이를} 얻다
지역 전북.

▲늦잡도리하다 동 [대응어] 늦잡죄다.
느지막이 다잡거나 독촉하다. ¶작년 여름까지도 멀쩡하던 눈이 아프다는 것을 늦잡도리해서 필경 멀고 말았으니 가난한 탓이오<채만식, 얼어 죽은 모나리자>
지역 전북.
해설 표준어 '늦잡죄다'를 '늦다'와 '잡죄다'가 결합한 것으로 볼 때, 전북 방언 '늦잡도리하다'의 경우도 '늦잡죄다'와 같은 구성으로 보인다.

▲-니 【연결어미】 [대응어] -게.
앞말이 부사어 구실을 하게 만드는 연결 어미. ¶{깨까더니} ¶{매끄로머니}
지역 전북.

▲니 똥이 굵다 【관용표현】
상대방이 뛰어나다는 표현을 들어서 역설적으로 비아냥거릴 때 쓰는 말. ¶"오냐, 진원이 너 참말로 잘났다! 오냐, {니 똥 굵은지} 다 안다!<윤흥길, 소라단가는길>
지역 전북.
해설 '똥'은 대체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다. '니 똥이 굵다'는 상대방이 잘났다는 뜻을 비아냥거릴 때 쓰는 표현이다.

▲니기럴 감 [대응어] 제기랄.
언짢을 때에 불평스러워 욕으로 하는 말. ¶"{니기럴}, 사랑이라는 것이 먼지."<조정래, 태백산맥> ¶"{니기럴}, 무신 붕알 밑에 붙붙을 일이 생겨 저 지랄인고. 오늘 재수 참말로 똥 밟고 엎어진 재수시, 염병 허고."<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니까진 관 [대응어] 네까짓.
'겨우 너만 한 정도의'라는 뜻으로, 상대편을 낮잡아 이를 때 쓰는 말. ¶"왜, 난 안 뵈지요?" "아, 그럴 것이다. {니까진} 놈이 뵐 것이냐?"<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니가 치맷자락을 펄렁이며 댕기지만 {니까진} 것한티 내가 꿀릴 것 같냐? 나도 오기가 있는 년여. ¶{니까진} 놈이 감히 나한테 까불어?
지역 전북.

▲-니깨 【연결어미】 [대응어] -니까.
앞말이 뒷말의 원인이나 근거가 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닷 {돈쭝이니깨느루}, 금값은

72환50전이구……공전을 3환만 없을라치면……가만 있자……70……75환 50전이지요니까?<채만식, 金의情熱> ¶그 이트날 인자 산에서나 어디 나가들 {모허니깨요}. 그당시에는. 인제 보닝게 저 아페 저 무지개 아파트 저 여페 큰 도로에서 구르마 위에 사라미 탄는데 인자 사람이 오고 이써요.<전북지역어, 남원> ¶그래 인제 가가 인제 {시험볼라니깨}, 임문게를 인제 댕기야 대학시험 볼라믄 거시기 한데.(그래 이제 가가 이제 시험을 보려고 하니까, 인문계를 인제 다녀야 대학 시험 보려면 거시기 한데.)<전북지역어, 남원> ¶무리 {자그니깨}(작으니까) 점부 또랑물 드러다가 저무부다 인제 먹꼬<백은아(2016)> ¶메거리는 크게 {맨드니깨}(만드니까) 인제<백은아(2016)>

지역 무주, 완주.

▲니깨잇 관 [대응어] 네까짓.

'겨우 너만 한 정도의'라는 뜻으로, 상대편을 낮잡아 이를 때 쓰는 말. ¶{니깨잇} 거시 뭐라고. ¶까불고 있어 {니깨잇} 것은 내 한 주먹 깜도 안되야.

지역 전북.

▲-니께로 【연결어미】 [대응어] -니까.

앞말이 뒷말의 원인이나 근거가 됨을 강조하여 나타내는 연결 어미.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라, 주상은 시방 크게 수를 {잡으셨으니께로} 말씀인데. 자아, 그럼 아주 이 김봉식이 살리는 셈 치시구 삼만 원만 주시오, 삼만 원.<채만식, 金의情熱> ¶{못하니께로}<권병로(1987)>

지역 무주.

▲니꾸사꾸 (←<일본어>Ryukkusakku(←<독>Rücksack)) 명 [대응어] 룩색.

물건을 넣어서 등에 질 수 있도록 헝겊이나 가죽 따위로 만든 가방. ¶소풍때면 나는 벤또 밥을 책보에다 싸서 매고 가는디 {니꾸사꾸}를 매고 온 애들을 보면 그냥 부럽기만 했지 {완주}. ¶원이는 {니꾸사꾸에} 먹을 것을 잔뜩 넣어 등에 지고 산에 올라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착한 친구다.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임실, 장수, 정읍, 진안, 무주, 익산.

▲니끼다 동 [대응어] 느끼다.

감각 기관을 통하여 어떤 자극을 깨닫다.

지역 전북.

▲니나다 동 [대응어] 물리다.

☞늬나다.

지역 전북.

▲-니라 【종결어미】 [대응어] -느니라

해라할 자리에 쓰여, 당연하게 여길 만한 사실을 단정적으로 말해주는 종결 어미. 주로 옛 말투에 쓰인다. ¶아픈 것 참는다고 좋을 거 하나도 {없니라}.<최명희, 혼불> ¶그렇게 체헌 데는 손으로 눌러 주면 좀 {가라앉니라}.<최명희, 혼불> ¶하루 종일 닦아내도 닭 발자욱이 부옇게 찍히니. 강실아. 거 간짓대 이리 가져 {오니라}. 아주 들고 앉어 있어야겄다.<최명희, 혼불> ¶가가 멧 살 {먹었니라}.(개가 몇 살 먹었다마는)<김옥화(2001)>

지역 전북.

▲-니라고 【연결어미】 [대응어] -느라고.

앞 절이 뒤 절의 목적이나 원인임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무단히 아는 시늉 {허니라고}, 넘으 조상 뫼를 잘못 써 놓으면 그런 재앙이 없잖응게비?<최명희, 혼불> ¶아니 무신 놈으 시상이, 감나무도 해갈이를 {허니라고} 한 해 많이 열면 한 해는 멫 개 안 열고 그러능 거

인디 말여.<최명희, 혼불> ¶벨 것 없으께미 나 걸음 애껴 {주니라고}, 나 생각해 주니라고 오지 말라 그러능고만잉. 아이고, 고마워라.<최명희, 혼불> ¶그양 끈[만드니라고],(만드느라고[만들+니라고],) 욕 뽀제.<백은아(2016)>
지역 남원, 부안, 고창.

▲니리다 형 [대응어] 느리다.
어떤 동작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
지역 남원, 장수.

▲니야까 (←rear car) 명 [대응어] 리어카.
자전거 뒤에 달거나 사람이 끄는, 바퀴가 둘 달린 작은 수레. ¶그 골목 말이에요, 그걸 새끼골목이라 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도 가난해서 할 게 없으니까 새끼 꼬아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불러요. 새끼 꼬아서 {니야까에다} 둥치둥치 서려 가지군 팔러 다니지요.<최명희, 혼불> ¶그래서 어려워두 날마다 댕겼지 뭐야. 마누라는 이구 나는 끓어지구 이러구 댕겼지. {니야까} 겉은 거 있으면 좋게.<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2>
지역 군산, 익산, 완주, 진안, 무주, 김제, 정읍, 임실, 장수, 고창, 순창, 남원.

▲니약니약허다 형 [발음] [니양니야거다/니양니야커다]
너무 여유를 부리다. ¶자는 니약니약허서 먼 일을 못 시킨당게.
지역 전북.

▲니얼 ←내일 명 [대응어] 내일.
오늘의 바로 다음날. ¶그 어사같은 마패처럼 한 쨱이 한 커리가 있는디 그놈 한 짝을 빼와 버렸어. 인자 전라감사는 인자 나라에서 오늘 불르고 {니얼} 불르거나 불러서 병부가 없시면은 죽는 판이거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그고 인자 저녕내:: 그리 한 이틀::런 조깨 그러더니 인자 {니얼}<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지역 남원, 순창, 임실, 무주, 완주, 익산.

▲닌장맞을 감 [대응어] 넨장맞을.
난장(亂杖)을 맞을 만하다는 뜻으로, 못마땅할 때 욕으로 하는 말. ¶"{닌장맞을}, 심야삼경에 돌아댕김서 큰소리넌. 달마 시님이 잠귀 어둔 것도 몰르는갑?"<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닌장맞을'은 감탄사와 관형사로 쓰인다.

▲닐이다 동 [대응어] 늘이다.
본디보다 더 길어지게 하다. ¶물레장 파랑장/자구내 설대 궁글통/올로 졸로 {니린} 가락/석수쟁이 마친 가락/개고동에 걸린 가락/소리도 좋다 정가락(임실 물레질소리-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천담)<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임실.

▲닛치손구락 명 [대응어] 약손가락.
☞네채손구락.
지역 전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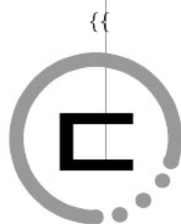
▲-닝가니 【연결어미】 [대응어] -니까.
앞 절이 뒤 절의 원인이나 이유가 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양반이 글 읽으러 가서 {있으닝가니}, 인제 중놈들을 공갈을 치니까 지금 문자로 말하면, 사실 그 양반이 돌아가셨는디,<구비문학, 완주군> ¶아 그리서 인자 아주근주근 술을 먹다가 날이 {저무닝가니} 거그서 지금 잘라고 이부자리를 깔아 놓고 활랑 벗고 막 드러 누울라고 허는 찰나에,<구비문

ㄴ

학, 정읍시> ¶하도 내가 장사가 안 되아서 천냥짜리 점이 있대. 아 그리서 점을 히본 결과 자니하고 나허고 갈리야 헌대여. 어 {그러닝가니} 그리야 내가 재수가 있고 그러넌게 우리 둘이 갈리세.<구비문학, 정읍시>
지역 완주.

▲닝기다 동 [대응어] 삼키다.
☞넹기다. ¶밥을 {닝기구는} 물명주를 내갖구 찬물에다 흔들흔들 해서는 넵다 시아제 낯바닥에다 배락을 쳤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완주.

{{



-다고느만 【축약형】

"-다고 하는구먼"이 줄어든 말. ¶오빠허고 얘기 좀 {헐란다고느만}<김옥화(2004)> ¶시방 살어가기는 남편이 살었을 때 다니던 데서 불쌍하다고 한 달에 돈 십 원씩 {준다고느만요}.<채만식, 인형의 집>

지역 전북.

-다고드만 【축약형】

"-다고 하더구먼"의 방언형인 '-고 하드만'이 줄어든 말. 과거 어느 때에 직접 경험하여 새로이 알게 된 사실을 현재의 말하는 장면에 그대로 옮겨 와서 인용의 뜻으로 전달한다. ¶안 {갔다고드만}<김옥화(2004)> ¶에이 이넌, 게 참지름이 다냐 뭔 지름을 끓여가지고는 배이다 붓으믄 {죽는다고드만} 소리도 못 허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때려 잡어갖고 또 사람 죽여 놓고 뭐 어쩍고 저쩌고 {혔다고드만}. 또 떡나무허고 꿀강아지까지 돌라고 허?<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다곱디다 【축약형】

'-다/라고 합디다'가 줄어든 말. 과거 어느 때에 들은 사실을 인용하여 현재 말할 때 쓴다. ¶작년이가 {야든여섯이다곱디다}.<김옥화(2004)> ¶"아 꼭꼭 어뜨게 생는가 봐야 헌다고디야?" "{근다곱디다}. 가라고도 안 허고, 아침부텀 와서 이 지경이요."<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허는 말이, "아, 상주님 엊저녁에 잡순 그 요리값 {달라곱디다}."<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나는 몰라라오. 우리 집이서 기약서 써갖고 {오라곱디다}. 그서 써다 줬어요. 갔다 줬어라오.<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다구질 명 [대응어] 달구질.

달구로 집터나 땅을 단단히 다지는 일. ¶집을 잘 지려면 첫째로 {다구질이} 중요허지. 아니면 건물이 올라가덜 못혀.

지역 전북.

-다능가 【축약형】 [대응어] -다는가

방언형 '-다구 하능가'가 줄어든 말. 하게할 자리에 쓰여, 남의 말을 인용하면서 확인하는 질문을 나타낸다. ¶기성이는 어지 {간다능가}.<이윤구(00)>

지역 전북.

다담이 명 [대응어] 다듬이.

☞다듬이.

지역 전북.

다담잇독 명 [대응어] 다듬잇돌.
☞다듬이독.
지역 전북.

다둠독 명 [대응어] 다듬잇돌.
☞다듬독.
지역 전북.

다둠이 명 [대응어] 다듬이.
옷이나 옷감 따위를 방망이로 두드려 반드럽게 하는 일. 또는 방망이로 두들겨지는 옷이나 옷감. ¶빨래가 말랐으니께 이제는 {다둠이} 좀 해 볼까? ¶{다둠이} 뚜드리는 거 갖다 놓고 방맹이 하나 준비혀.
지역 전북.

다둠이방맹이 명 [대응어] 다듬잇방망이.
☞다딤이방맹이.
지역 전북.

-다드만 【축약형】 [대응어] -다고 하더구먼
방언형 '-다구 하드만'이 줄어든 말. 과거 어느 때에 직접 경험하여 새로이 알게 된 사실을 인용하면서 확인하기 위하여 질문할 때 쓰인다. ¶서울 {갔다드만}. ¶지비 {크다드만}. ¶부처가 성불을 해도 성질은 {남는다드만}.<최명희, 혼불> ¶웬수는 외나무다리서 {만낸다드만} 우리가 똑그 짝이구만.<조정래, 태백산맥> ¶문중서도 실없이 산다고 {욕묵는다드만이라.<조정래, 아리랑> ¶풀 상투허지 백호치는 법이 {없다드만}<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아, 이 서구씨 {온다드만} 오도 않는다.<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이집에 부자 만들어 주고는 따라 간개로. 또 어떻게 {했다드만}, 이렇게 통, 부지런히 헐란개 참 그런네.<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아 나랫님 자제가 병이 {유중허다드만} 어쩌냐?<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전북.

다듬독 명 [발음] [다듬똑] [대응어] 다듬잇돌.
다듬이질을 할 때 밑에 받치는 돌. ¶서방님 멩지 옷 뚜드린 놈을 {다듬독에다} 딱 밀어 놓고는 그냥 농문을 열고는 옷을 줏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엄마는 머리고기를 푹 삶아 건져 보에 쌓아 기름을 빼려고 할 때마다 {다듬독을} 올려놓으셨다. ¶{다듬독으로} 옷을 두드리곤 하였지.
지역 전북.
해설 '다듬이'는 7세기 문헌에 '다ᄃᆞᆷ이'로 처음 나타난다. '다ᄃᆞᆷ이'는 동사 어간 'ᄃᆞᆷ-'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파생어이다. '다듬독'은 접미사 '-이'가 없이 바로 '독'과 결합한 것이다.

다듬방맹이 명 [발음] [다듬빵맹이] [대응어] 다듬잇방망이.
다듬이질을 할 때 쓰는 방망이. 두 개가 한 쌍이 되도록 나무로 만든다. ¶다듬방맹이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퍼진다.
지역 전북.
해설 '다듬방맹이'는 '다듬-+방맹이'의 합성어로 분석된다. '다듬이'는 7세기 문헌에 '다ᄃᆞᆷ이'로 처음 나타난다. '다돔이'는 동사 어간 '다돔-'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형태로, 6세기 후기 비어두 음절에서 발생한 '/ㆍ/>/ㅡ/' 변화에 의하여 '다듬이'가 되었다.

다듬방맹이질 명 [대응어] 다듬이질.
옷이나 옷감 따위를 방망이로 두드려 매끄럽게 하는 일.
지역 전북.

다듬잇독 명 [대응어] 다듬잇돌.

다듬이질을 할 때 밑에 받치는 돌. ¶다듬이독도 없은개, "우리 {다듬이독} 하게 지고가요."<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전북.

해설 '다듬이'는 7세기 문헌에 '다돔이'로 처음 나타난다. '다돔이'는 동사 어간 '다돔-'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형태이다. '다듬이독'은 '다듬이+독'의 합성어로 분석된다.

다딤돌 명 [발음] [다딤똘] [대응어] 다듬잇돌.

다듬이질을 할 때 밑에 받치는 돌. ¶마음이 꿋꿋해서 산전(山田) 밭을 일군개 {다듬돌만} 한 독 하나가 나오더란다.<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전북.

해설 '다듬이'는 7세기 문헌에 '다돔이'로 처음 나타난다. '다돔이'는 동사 어간 '다돔-'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파생어이다. '다듬돌'은 접미사 '-이'가 없이 바로 '돌'과 결합한 것이다.

다딤이방맹이 명 [대응어] 다듬잇방망이.

다듬이질을 할 때 쓰는 방망이. 두 개가 한 쌍이 되도록 나무로 만든다. ¶다딤이방맹이로 옷을 두드린다. ¶이불호청에 풀을 멕여 {다딤이방맹이로} 두드리면 그 서그럭거리는 소리를 엄마는 참 좋아하셨지.

지역 전북.

해설 '다딤이방맹이'는 '다딤이+방맹이'의 합성어로 분석된다. 중앙 방언의 '다듬이'는 7세기 문헌에 '다돔이'로 처음 나타난다. '다돔이'는 동사 어간 '다돔-'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형태로, 6세기 후기 비어두 음절에서 발생한 '/ㆍ/>/ㅡ/' 변화에 의하여 '다듬이'가 되었다. '다딤이'는 '/ㅡ/>/ㅣ/' 전설 모음화에 의한 결과로, '드, 르' 등이 '디, 리'가 되는 것은 '드럽다~디럽다', '모르다~모리다' 등에서도 볼 수 있다.

다딤이질 명 [대응어] 다듬이질.

☞대듬이질.

지역 고창, 군산, 김제, 무주, 부안, 완주, 익산, 임실, 정읍, 진안, 남원.

다라시 명 [대응어] 다래끼.

속눈썹의 뿌리에 균이 들어가 눈시울이 발갛게 붓고 곪아서 생기는 작은 부스럼. ¶뭐, 쌍 {다라시다가} 안질이다가 그렇게 나서 죽으나마는 방가운데가 니(네) 활개를 쩍 벌리고 죽었어.<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전북.

다란니 명 [대응어] 다라이.

금속이나 경질 비닐 따위로 만든, 아가리가 넓게 벌어진 둥글넓적한 그릇.

지역 전북.

다랏 명 [대응어] 다래끼.

☞다라시.

지역 고창.

다래께 명 [대응어] 다래끼.

속눈썹의 뿌리에 균이 들어가 눈시울이 발갛게 붓고 곪아서 생기는 작은 부스럼.

지역 전북.

다랙 명 [대응어] 다락.

주로 부엌 위에 이 층처럼 만들어서 물건을 넣어 두는 곳. 보통 출입구는 방 쪽에 있다. ¶꿀단지를 {다랙에} 숨겨 놓다.

지역 전북.

해설 '다랙'은 '다락'의 음운론적 이형태이다. 일반적으로 '/ㅏ/>/ㅐ/'의 움라우트는 후행 음절에 동화주 '/ㅣ/, 반모음 /j/'가 있을 경우에 일어나지만 '다랙'은 동화주가 없음에도 '/ㅏ/>/ㅐ/'의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경우 '다락+이(주격 조

사)→다래기'에서 '다랙+이'를 재분석하여 '다랙'을 단독형으로도 쓰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램이 명 [대응어] 다람쥐. ¶다래미처럼 재빠르게 도망치다.

지역 무주, 완주, 장수, 정읍.

해설 '다람쥐'는 'ᄃᆞ라미'에 소급된다. '다래미'의 형성은 'ᄃᆞ라미>다라미>다래미(움라우트)'로 변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다랭이 명, 의명 [대응어] 다랑이; 마지기.

산골짜기의 비탈진 곳 따위에 있는 계단식으로 된 좁고 긴 논배미. 또는 논밭 넓이의 단위. 한 마지기는 볍씨 한 말의 모 또는 씨앗을 심을 만한 넓이로, 지방마다 다르나 논은 약 150~300평, 밭은 약 100평 정도이다. ¶제기랄. 여근 삼쇠어른네 묵은 논 {다랭이지}? 여그는 동환이양반네 논두렁길 아녀. 불빛이 보이는구나. 산 아래 아득한 불빛이.<김용택, 강같은 세월> ¶나중에는 그 {다랭이} 논 한 마지기만 남었드라네.<최명희, 혼불> ¶여그 오자먼 왜 아랫몰 모퉁이에 {다랭이} 있잖드라고? 손바닥만헌 논 말이여.<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다럼쥐 명 [대응어] 다람쥐.

지역 부안.

다루 명 [대응어] 다리.

예전에, 여자들의 머리숱이 많아 보이라고 덧넣었던 딴머리. ¶{다루를} 달아 머리크락이 많아 보이게 했어.

지역 전북.

다리몽생이 명 [대응어] 다리몽둥이.

'다리'를 속되게 이르는 말. ¶매급시 천방지축 팔랑거리고 댕기다가, {다리몽생이} 분질러질 중 알어라."<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에 나타나는 '다리몽생이'는 표준어 '다리몽둥이'에 대응하는 어휘로, '다리'를 속되게 표현하는 어휘이다.

다리몽셍이 명 [대응어] 다리몽둥이.

☞다리몽생이. ¶{다리몽셍이를} 작신 분질러부려야! ¶반항허면 {다리몽셍이를} 콱 분질러갖고나개 끄시듯 끄시고 오란 말여!<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다린 관 [대응어] 다른.

당장 문제 되거나 해당되는 것 이외의. ¶여보쇼, 글쎄 사우 삼은다고 그래달라고 허쇼. 지내가니 {다린} 사람 시집 못, 단디로 시집 못 가면 뭣할 것이요.<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고창, 정읍.

다마내기 (←<일본어>tamanegi) 명 [대응어] 양파.

¶올해는 가물어서 {다마내기} 농사가 행펜이 없네. ¶짜장면을 시키면 다꽝허고 {다마내기는} 기본으로 나오지. ¶{다마내기를} 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멋진 반찬이 된다.

지역 전북.

다먼 부 [대응어] 다만.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살림이 째고 가용(家用) 아쉬워지면 {다먼} 몇 푼이라도 받고 팔어먹는 게 당연허지 무슨 충성 보자고 비싼 곡석 귀헌 잡곡 멕여가며 늙히겄나?<이문구, 오자룡> ¶너야 백번도 더 믿을수 있지만 {다먼} 만에 하나 일이 틀어졌을 때는 모든 걸 각오 히야 혀.

지역 전북.

다멀다 동 [대응어] 다물다.

입술이나 그처럼 두 쪽으로 마주 보는 물건을

꼭 맞대다.
지역 고창.

다무락 명 [대응어] 담.
집의 둘레나 일정한 공간을 둘러막기 위하여 흙, 돌, 벽돌 따위로 쌓아 올린 것. ¶{다무락이} 무너졌다.
지역 고창,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정읍.

다므락 명 [대응어] 담.
☞다무락.
지역 무주.

다사리 명 [대응어] 다슬기. ¶예전에는 저 바다에서 {다사리가} 많이 났지. 요새는 {다사리를} 통 볼 수가 없어. ¶예전에는 {다사리} 고동을 줏어서 거울도 맨들고 집도 맨들고 했는데, 요새는 그렇게 허는 사람이 없데.
지역 고창.

다석판 명 [대응어] 다식판.
다식을 박아 내는 틀. 주로 나무로 만들며 길쭉하고 단단한 널조각에 위아래 짝으로 된 것과 단단한 조각에 동글납작한 구멍을 파낸 것이 있으며, 모양은 원형·사각형·육각형 따위로 다양하다. ¶반죽한 것을 {다석판에} 눌러 담아 예쁜 연꽃무늬 다식을 찍어 낸다.
지역 무주.
해설 '다석판'은 '다식판'의 '식'을 '슥'으로, '슥'을 다시 '석'으로 과도 교정한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 19세기 국어에서 '스, 즈, 츠'가 '시, 지, 치'로 전설 모음화하였고, 그 전인 17세기에는 '/ㅓ/>/ㅡ/'의 고모음화가 발생하였다.

다시매 명 [대응어] 다시마. ¶{다시매를} 쌂아 물을 내서 국시장물로도 삼고 했어.
지역 전북.

다실개 명 [대응어] 다슬기. ¶냇가에서 {다실개를} 잡아다 삶아 먹는다.
지역 전북.

다실기 명 [대응어] 다슬기.
☞다실개.
지역 전북.

다쌔 부 [대응어] 다시.
하던 것을 되풀이해서. ¶{다쎄} 시도혀 봐.
지역 전북.

다씨 부 [대응어] 다시.
☞다쌔.
지역 전북.

-다요1 【종결어미】 [대응어] -대요.
방언형 '-다구 해요'가 줄어든 말. 해요할 자리에 쓰여, 과거에 경험했던 사실이나 말을 인용하면서 전달할 때 쓰인다. ¶몰랐는디 그 사람들 {이혼했다요}.
지역 전북.

-다요2 【축약형】 [대응어] -대요.
방언형 '-다구 해요'가 줄어든 말. 해요할 자리에 쓰여, 이미 있었던 말을 인용하면서 확인하는 질문을 나타낸다. ¶그런디 지가 맡어서 헐 일은 {뭣이다요}?<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난리는 먼 놈의 난리가 {난다요}?<최명희, 혼불> ¶거멍굴에 엎어져 삼서 무신 햇빛 볼 날이 {있다요}?<최명희, 혼불> ¶이께잇 거 흙인디 머엇을 그렇게 {운다요}? 내가 금방 새로 맹글어 주께 울지 마시요.<최명희, 혼불> ¶그만치 참고 살았으먼 원 쇠심줄 창사라도 썩어 부리고, 그 창사가 구리라도 녹아 부렀겄소. 무신 노무 한 시상을 참을라고 {산다요}?<최명희, 혼불>

¶아재가 몰라서 그렇제, 우리가 머이 그 사람들 허고 {달르다요}?<최명희, 혼불> ¶누가 반가워 한다요?<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다우 【종결어미】 [대응어] -다오.

하오할 자리에 쓰여, 과거에 경험했던 사실이나 말을 전달할 때 쓰이는 종결 어미. ¶금방 {갓다우}.<김중진(1984b)> ¶펠쎄 {가겻다우}.<김중진(1984b)> ¶오죽허면 내외 지어 자식 달고 빌어먹으러 다니는 동냥치를 다 내가 {부러워했다우}. 너는 복이 많은 사람이다, 허고.<최명희, 혼불> ¶아주 죽을 고생 고생을 다 해서 {만났다우}.<최명희, 혼불> ¶그래서 내 오늘 저녁은 일부러 색다른 반찬을 좀 {장만했다우}.<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다우락 명 [대응어] 담.

☞담우락.

지역 고창.

-다카데 【축약형】 [대응어] -다데.

방언형 '-다구 하더이'가 줄어든 말. 해할 자리에 쓰여, 과거에 경험했던 사실이나 말을 인용하면서 전달할 때 쓰인다. ¶언지 간다카데?<이윤구(00)> ¶그 방이 얼릉 안 따십다데?<이윤구(00)>

지역 무주.

해설 경상도 방언과 접촉 지역인 무주 일부 지역에서 쓰인다.

다클다 동 [대응어] 당기다.

물건 따위를 힘을 주어 자기 쪽이나 일정한 방향으로 가까이 오게 하다. ¶전부선대 같은/어어기 야아하/요내 폴로/어어기 야아하/미클었다 {다클었다}/어어기 야아하/어기야 우리 지심을/어어기 야아하/다 둘러냈네/어어기 야아하(고창 논매는 소리-잘룬소리)<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고창.

닥가리 명 [대응어] 닭의어리.

나뭇가지나 싸리 따위로 엮어 닭을 넣어 두는 물건. 우산을 반쯤 펴 놓은 것같이 만든 것도 있고 등우리처럼 만든 것도 있다. ¶닥을 키울라치면 {닥가리라도} 만들어 놔야제.

지역 김제, 순창, 군산, 완주, 임실.

해설 강원, 경남, 전남, 함남 방언 등에서 '달구오가리, 달기가레, 달기가리, 갈구가래' 등이 쓰이는 것을 참고하면 '닥가리'는 '닭'의 말음 /ㄺ/의 /ㄹ/이 탈락한 후 '가리'와 결합한 형태로 분석할 수 있다.

닥개비질 명 [대응어] 술래잡기.

아이들 놀이의 하나. 여럿 가운데서 한 아이가 술래가 되어 숨은 사람을 찾아내는 것인데, 술래에게 들킨 아이가 다음 술래가 된다. ¶{닭개비질을} 하다 ¶동네 꼬맹이들이 앞마당, 뒷마당을 뛰어댕기며 {닭개비질을} 허는디 정신을 쏙 빼가더라고.

지역 전북.

닥똥 명 [대응어] 닭똥.

닭이 배설한 똥. 질소나 인산이 많아 거름으로 쓰인다. ¶닭장에 {닥똥} 냄새가 진동한다. ¶{닥똥을} 감나무 밑에 묻으면 거름이 되어 내년에 맛있는 감이 주렁주렁 열린다. ¶그놈 심바람좀 시킬라고 혔더니 어디 갔다나. {닥똥도} 약에 쓸라면 없다드니 참 내. ¶{닥똥은} 거름으로는 최고야.

지역 고창, 김제, 부안, 군산, 완주.

닥알 명 [대응어] 달걀.

닭이 낳은 알. ¶예전만큼 {닥알이} 귀하지 않다.
지역 전북.

닥쟁이 명 [대응어] 딱정벌레.
☞닥젱이.
지역 전북.

닥젱이 명 [대응어] 딱정벌레. ¶요놈을 {닥젱이라고} 허요.
지역 전북.

닥집 명 [대응어] 닭장.
닭을 가두어 두는 장. ¶{닥집} 안으로 닭 모이를 넣어 준다.
지역 무주.
해설 '닥집'은 '닭'과 '집'이 결합한 단어로, '닭'의 겹받침 중 /ㄱ/만 실현된 결과를 반영한 형태이다.

닥퉁어리 명 [대응어] 닭의어리.
나뭇가지나 싸리 따위로 엮어 닭을 넣어 두는 물건. 우산을 반쯤 펴 놓은 것같이 만든 것도 있고 둥우리처럼 만든 것도 있다. ¶{닥퉁어리를} 만들어 놨더니 닥이 거깄다 닥알을 낳네.
지역 익산.
해설 '닥퉁어리'는 '닥+퉁어리'로 분석된다. '퉁어리'는 '둥우리'의 방언형으로, '둥'이 유기음화한 결과 '퉁'으로, 제2 음절의 /ㅜ/가 제1 음절 '둥'의 원순모음 /ㅜ/에 이화한 결과 /ㅓ/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닥혀 【축약형】 [대응어] -다고 해.
방언형 '-다구 허'가 줄어든 말. ¶그 형들은 다 아 아버지 덕으로 먹고 산다는디 저런 괘씸헌 년이 저 지 복으로 먹고 {산닥혀}.<구비문학, 정주시> ¶"야가 그럼 이보단 더 좋은 자리도 있어야? 아이 참 여그 좋네. 근게 여그 쓰먼 참 존게 여그 씨자!" 헌게 흙을 본게 진털밭이고 그런게 {마닥혀}.<구비문학, 정주시> ¶애기 보고 {이뿌닥혀'}<김옥화(2004)>
지역 정읍, 부안.

닦이다 동 [대응어] 시달리다.
괴로움이나 성가심을 당하다. ¶딸 공출허라고 우리 어머니가 얼매나 {닦이었대야}. 학교로 몇 번 불려가고.
지역 전북.

단가 명
가마나 상여를 들 수 있도록 밑에 받친 나무. ¶가매는 두 사람이 {단가를} 들제. 상이(상여)도 글잖여.
지역 전북.

단껍에 부 [대응어] 단번에.
단 한번에. 또는 한꺼번에. ¶지체하지 말고 {단껍에} 해결해.
지역 전북.

단무시 명 [대응어] 단무지.
무를 시들시들하게 말리거나 소금에 절인 다음 물기를 빼고 소금과 쌀겨를 섞은 데에 파묻어 만드는 일본식 짠지. ¶{단무시} 허는 긴 놈, 그 놈으로 {단무시} 맹글아.
지역 전북.

단박에 부 [대응어] 단번에, 대번에.
서슴지 않고 단숨에. 또는 그 자리에서 당장. ¶너 꾸물대다가는 재한테 진다이. 시작자마자 {단박에} 넘어뜨려야혀. 알아들었냐?
지역 고창, 김제, 부안, 정읍.

단밥 명 [대응어] 감주.
우리나라 전통 음료의 하나. 엿기름을 우린 웃물

에 쌀밥을 말아 독에 넣어 더운 방에 삭히면 밥알이 뜨는데, 거기에 설탕을 넣고 끓여 차게 식혀 먹는다. ¶생과일 놓구, 밤, 대추 놓구, 고 뒤루 서쪽에는 포를 놓구, 동쪽 끝에는 {단밥을} 놓구, 단밥허구 포 사이에는 김치, 깍두기, 나물, 구이 그런 거 놓구

지역 남원, 순창.

해설 '단밥'은 형용사 '달다'의 어간 '달-'과 명사 '밥'이 결합한 합성 명사이다. 어간 '달-'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ㄹ/이 탈락하여 '단'이 된다. 이 '단'과 '밥'이 결합한 것이 '단밥'이다. 전북 지역에서는 '단술'과 '단밥'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단배기 명 [대응어] 단번.
단 한 번. ¶그이의 도전은 {단배기로} 끝나지 않어.
지역 전북.

단새나다 동 [대응어] 불티나다.
물건이 내놓기가 무섭게 빨리 팔리거나 없어지다. ¶{단새나게} 팔리다
지역 전북.

단속곳 명 [대응어] 고쟁이.
☞속곳. ¶여러 가지로 해 본께 참 훌륭한 사람여 그신랑이. 그런게 {단속곳을} 착 벗어 놓으면서 여기다가 시를 한 수 지어 달라고<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군산, 임실.

단손꼿 명 [대응어] 고쟁이.
☞속곳.
지역 전북.

단수숫대 명 [대응어] 단수수.
☞단수싯대.
지역 전북.

단수시 명 [대응어] 단수수.
빗자루를 만드는 볏과의 식물.
지역 전북.

단수싯대 명 [대응어] 단수수. ¶그서 {단수싯대가} 호랭이피가 묻었다 그 말여. 웃음 그것도 이얘기여. 그리서 호랭이피가 먹어서 {단수싯대가} 한 도막 두 도막을 못 먹고 있는 벱여.<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옛날에 {단수싯대를} 심어놨드리야. {단수싯대를} 심어놨는디 이것을 비어 먹을란게 못 비어 먹겄드라느만. 못 비어 먹겄드리야.<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전북.

단순발 명 [대응어] 버선발, 맨발.
신발을 신지 않은 발. ¶그 말을 듣고는 신도 못 신고는 바로, 강 신도 안 신고는 강, 맨발을 신었든지 버선을 신었든지 강, {단순발로} 막, 간다 그 말여.
지역 전북.

단스 (←<일>dansu) 명 [대응어] 장롱, 찬합.
의류나 음식 따위를 층층이 넣어 보관하는 장. ¶{단스에} 음식을 차곡차곡 넣어 나들이를 간다. ¶인자 결혼을 할랑게, {단스도} 사야허고, 이불도 사야허고 그랬지.
지역 고창.

단쒸시 명 [대응어] 단쒸시.
빗자루를 만드는 볏과의 식물.
지역 전북.

단쒸싯대 명 [대응어] 단수수의 줄기. ¶{단쒸싯대가} 왜 붉으족족한 줄 아능가? ¶가을에 나오는

{단쉬싯대를} 벗겨 씹으면 달작지근하단다.
지역 전북.

단중우 명 [대응어] 단속곳.
여자 속옷의 하나. 양 가랑이가 넓고 밑이 막혀 있으며 흔히 속바지 위에 덧입고 그 위에 치마를 입는다. ¶치마 아래에다 {단중우를} 받쳐 입는다.
지역 전북.

단짐에 부 [대응어] 단김에.
좋은 기회가 지나기 전에. ¶"맞었어. 쇠뿔도 {단짐에} 뽑는 벱이여."<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뭔 나쁜 소리를 들었는지 그동안 외상값을 {단짐에} 갚어 버리더라고.
지역 전북.

달갈껍닥 명 [대응어] 계란껍질.
달걀의 노른자와 흰자를 겉에서 싸고 있는 단단한 물질. ¶달갈을 쌂어서 {달갈껍닥을} 잘 깔라먼 쌂고 바로 찬물에다 놓아야 해.
지역 고창, 김제, 부안, 진안.

달갈껍덕 명 [대응어] 계란껍질.
☞달갈껍닥. ¶{달갈껍덕}<한국방언어휘자료집_전북편>
지역 진안.

달갈껍데기 명 [대응어] 계란껍질.
달걀의 노른자와 흰자를 겉에서 싸고 있는 단단한 물질. ¶달갈은 조심히 다뤄야지. {달갈껍데기가} 워낙 잘 깨지잖어.
지역 김제, 부안.

달갈껍질 명 [대응어] 계란껍질.
달걀의 노른자와 흰자를 겉에서 싸고 있는 단단한 물질. ¶오리알 껍질은 좀 허연디 {달갈껍질은} 좀 누런해.
지역 정읍.

달강달강 부 [대응어] 부라부라.
☞달깡달깡.
지역 무주.

달개다 동 [대응어] 달래다.
슬퍼하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흥분한 감정이나 사람 따위를 가라앉히다. 좋고 옳은 말로 잘 이끌어 꾀다. ¶저 총각 저그 앉은 총각 {달개야지} 글 않으먼 클난다.<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아무리 뛰드려도 안 들은개 뛰드러서 안 들은 건 그리 {달개야} 듣는 거라네.<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속상헌 마음은 고만 {달개고} 차분허니 앞으로 살길을 찾어 봐야지. ¶그놈이 아배는 양반이고 어매는 종이라, 속에 불이 많어 놔서 살살 {달개} 감서 부리먼 쓸 만헐 거이여.<최명희, 혼불> ¶"아, 밤까지 더 가다가 쉽시다." 해서 살살 {달개} 감서 밤질을 간단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김제, 남원, 무주,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부안.

달걀꾸러미 명 [대응어] 계란꾸러미.
달걀 열 개를 묶어 세는 단위 또는 그 묶음.
지역 완주.

달게알 명 [대응어] 달걀.
닭이 낳은 알. ¶{닭에알로} 부침개를 만들어 먹는다.
지역 전북.

달괄 명 [대응어] 달걀.
닭이 낳은 알. ¶아이, 전에 들으먼요이, 맹사[名師], 들은 {달괄을} 갖고 댕긴다등마는, 그거 멋

헐라고 그런당가요?<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달구가리 명 [대응어] 닭의어리.
나뭇가지나 싸리 따위로 엮어 닭을 넣어 두는 물건. 우산을 반쯤 펴 놓은 것같이 만든 것도 있고 둥우리처럼 만든 것도 있다. ¶{달구가리에다가} 닥을 넣어라. 안 글면 배추 입싹 다 뜯어먹는다.
지역 남원, 장수, 부안, 정읍, 진안.
해설 '달구가리'는 '닭+의+가리' 구성의 합성어인 것으로 보인다. 강원, 경남, 전남, 함남 방언 등에서 '달구오가리, 달기가레, 달기가리, 갈구가래' 따위가 쓰이는 것을 참고하면 '가리'는 표준어형 '닭의어리'의 '어리'에 직접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달구똥 명 [대응어] 닭똥.
닭이 배설한 똥. 질소나 인산이 많아 거름으로 쓰인다. ¶{달구똥은} 그냥 버리지 않고 거름으로 쓴다.
지역 남원, 순창, 장수.
해설 표준어에서 '닭똥'은 '닭의똥'과 복수 표준어이다. '달구똥'은 '닭의똥'에서 제2 음절의 /j/가 탈락한 후 어말의 원순 모음 '/ㅗ/'의 영향을 받아 '/ㅡ/>/ㅜ/'의 원순 모음화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달구통 명 [대응어] 닭장.
닭을 가두어 두는 장. ¶{달구통에서} 닭들이 나온다. 문 장궈라.
지역 순창.
해설 '달구통'은 '닭+의+통' 구성의 합성어로 분석된다. '의'의 반모음 /j/가 탈락한 후 원순 모음화를 겪은 형태이다.

달그가리 명 [대응어] 닭의어리.
☞달구가리.
지역 부안.

달기똥 명 [대응어] 닭똥.
☞닭구똥.
지역 무주, 익산, 임실, 정읍, 진안.

달기장 명 [대응어] 닭장.
닭을 가두어 두는 장. ¶그만두구 나와서는 집에서 심심세월루 연장 겉은 거나 맨들구 그런 {달기장이나} 짰구, 이제 그러다가 왜놈하구두 일허러 댕겼지.<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
지역 진안.
해설 '달기장'은 '닭+의+장'으로 분석된다. '닭의'를 [달기]로 발음한 것을 반영한 형태이다.

달기장태 명 [대응어] 닭장.
닭을 가두어 두는 장. ¶{달기장테에} 가서 시암탉 좀 잡아오거라.
지역 부안, 임실.
해설 '달기장태'는 '닭+의+장태'로 분석된다. '달기'는 '닭의'를 [달기]로 발음한 것을 반영한 형태이고, '장태'는 전북과 전남 등지에서 쓰이는 '장'의 다른 말이다.

달기통 명 [대응어] 닭의어리.
나뭇가지나 싸리 따위로 엮어 닭을 넣어 두는 물건. 우산을 반쯤 펴 놓은 것같이 만든 것도 있고 둥우리처럼 만든 것도 있다. ¶{달기통이} 많이 뿌서졌어. ¶이런 으지짢헌 닭들 같으니 {달기통으다} 알을 낳야지 여그저그 암디나 까놓고 댕기니.
지역 무주.
해설 '달기통'은 '닭+의+통'으로 분석된다.

달기통아리 명 [대응어] 닭장.
닭을 가두어 두는 장. ¶{달기통아리가} 오래돼

많이 부서져 있네.
지역 진안.

달기퉁어리 명 [대응어] 닭장.
닭을 가두어 두는 장. ¶우리 집에는 닭은 많은디 {달기퉁어리가} 한나밖에 없어 닭들이 힘들가벼.
지역 익산.
해설 '달기퉁어리'는 '닭+의+퉁어리'로 분석된다. '달기'는 '닭의'를 [달기]로 발음한 것을 반영한 형태이다. '퉁어리'는 '둥우리'의 방언형으로, '둥'이 유기음화한 결과 '퉁'으로, 제2 음절의 /ㅜ/가 제1 음절 '둥'의 원순 모음 /ㅜ/에 이화한 결과 /ㅓ/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모음 조화에 의한 '퉁아리'도 쓰인다.

달깡달깡 부 [대응어] 부라부라.
어린 아기를 세워 놓고 몸을 좌우로 흔드는 놀이를 할 때 내는 소리. 양발이 번갈아가며 떨어진다. ¶{달깡달깡} 잘한다
지역 고창, 김제, 남원, 순창, 완주, 임실, 장수, 진안.

달달봉사 명 [대응어] 당달봉사.
☞당알봉사.
지역 전북.

달뎅이 명 [대응어] 달덩이.
둥근 달을 이르는 말. 또는 둥글고 환하게 생긴 사람의 얼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달뎅이 같이} 훠언헌디. 머엇이 어쩐다고들 그래쌌당가아." "근디 {달뎅이가} 너무 무거서 동산에 떠오르다가 가라앉겄는디?"<최명희, 혼불> ¶소래기를 질러 싸닝개 어떤 각시가 하나 나오는디 {달뎅이} 같은 각씨가 나와서 목화를 한 되빡 떼다가 저만큼 놓고 들어가 버렸단 말이여.<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전북.

달랑무 명 [대응어] 총각무.
무에 달린 무청과 함께 김치를 담그는, 뿌리가 자잘한 무. ¶달랑달랑 달렸다고 히서 {달랑무여}.
지역 전북.
해설 의태어 부사 '달랑달랑'의 어근 '달랑'과 '무'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총각무보다는 조금 더 작은 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달래달래 부 [대응어] 탈탈.
먼지 따위를 털기 위하여 잇따라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 또는 그 모양. ¶이불을 빨랫줄에 걸어서 {달래달래} 털어 놔라.
지역 전북.

달레이 명 [대응어] 달래. ¶봄이 되면 {달레이} 캐로 가자.
지역 전북.

달례다 동 [대응어] 매달리다.
줄이나 끈, 실 따위에 잡아매여서 달리다. ¶개의 목에 목줄이 {달례} 있다
지역 남원.

달롱개 명 [대응어] 달래.
☞달룽개.
지역 전북.

달루께 명 [대응어] 달래. ¶{달루께로} 장을 만들어 밥에 슥슥 비벼 먹었다.
지역 전북.
해설 '달루께'는 '달롱개'에서 종성 /ㅇ/이 탈락한 형태이다. 경상, 전라, 충청 방언에서 '달롱개, 다롱개, 다룬갱이, 달랑개, 달랑개이, 달랑갱이, 달렁개'의 형태가 쓰이는 것으로 보아 어근 '달~달르'에 '-옹/-옹개, -앙/-엉개' 따위의 접미

사가 결합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달룽개 명 [대응어] 달래. ¶{달룽개} 이꼬.(달래 있고.) {달룽개도} 이꼬. {달룽개라구려} 인저.(달래도 있고. 달래라고 그려.)<2005 전북 남원> ¶아 조깨 봄이고 헌게 시장으 가가꼬 입맛 나는 {달룽개나} 나숭개 좀 사오면 얼마나 좋으까이.
지역 전북.
해설 '달룽개'는 '달롱개', '달롱게', '달룽게' 등의 음운론적 이형태가 발견된다. '달룽개'에서 제2 음절 종성 /ㅇ/이 탈락한 '달루깨'도 있다. 경상, 전라, 충청 방언에서 '달롱개, 다롱개, 다룬갱이, 달랑개, 달랑개이, 달랑갱이, 달렁개'의 형태가 쓰이는 것으로 보아 어근 '달~달ㄹ'에 '-옹/-웅개, -앙/-엉개' 따위의 접미사가 결합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달머리 명 [대응어] 달무리.
달 언저리에 둥그렇게 생기는 구름 같은 허연 테. ¶{달머리:} 져불믄 또 날이 신찬허제.<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9>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해설 '달머리'는 '달무리'의 제2 음절 /ㅜ/ 모음이 양순 자음 /ㅁ/에 의해 /ㅓ/로 이화된 결과이다. /ㅁ/이 가진 원순성과 /ㅜ/가 가진 원순성이 충돌하여 원순 모음 /ㅜ/가 비원순 모음인 /ㅓ/로 바뀐 것이다.

달모리 명 [대응어] 달무리.
☞달머리.
지역 진안.

달무니 명 [대응어] 달무리.
달 언저리에 둥그렇게 생기는 구름 같은 허연 테. ¶{달무니가} 지는 걸 보니 비가 오겠다.
지역 전북.

달무다 동 [대응어] 닮다.
사람 또는 사물이 서로 비슷한 생김새나 성질을 지니다.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익산, 임실, 장수, 진안.

달보드라허다 형 [대응어] 달보드레하다.
약간 달큼하다. ¶국물이 {달보드라허네} ¶설탕을 약간 뿌리니 더 {달보드라허구만}.
지역 전북.

달보드롬허다 형 [대응어] 달보드레하다.
약간 달큼하다. ¶아 근게 글안히도 술 그 먼야 먹던 놈을 아 그 어명 저 정승이 거식허서 못먹고 허는 터에 술이라고 헌게로 {달보드름허거든}. "주어 보라." 아 그런게 이놈이 독주를 히놨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오미자차는 새콤하면서도 {달보드롬해} 먹기 좋아.
지역 전북.

달부다 형 [대응어] 다르다.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 ¶여쭤보기가 쫌 그러타만, 또 사라미 도라가시면 장례를 치러야 되자나요. 근데 그건 또 마을마다 좀 다르고 지반마다 좀 다르고 그러치요? — {달부지요}<지역어 자료 총서, 고창>
지역 군산, 익산, 완주, 김제, 정읍.
해설 전북 방언권의 서부 지역인 군산, 부안, 고창 등에서 '달부다'는 '다르다'와 거의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다. 고창에서는 '틀리다'와 '달부다'가 혼태된 '틀부다'도 사용되고 있다.

달브다 형 [대응어] 다르다.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 ¶예전에 시골에서 벌어를 먹다가, 벌어 먹어. 얻어

먹는다는 소리가 빌어먹는디, 그것이 옛날 얘기여 인자. 시방 신식하고 {달브지}.<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여전히 같은디, 사방을 다 봐도 그전과 같단 말이여. 그래 물 나는 데를, 물가에 가서 본개 물이 {달버}. 물색이 {달브단} 말이여.<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전북.

달애매다 [동] [대응어] 매달다.
☞달어매다.
[지역] 군산, 김제.

달어매다 [동] [대응어] 매달다.
줄이나 끈, 실 따위로 잡아매어서 달려 있게 하다. ¶하늘까장 안 올르고도 초승달에다 그넷줄 {달어매는} 기가 맥힌 방도를 나가 일찌거니 다 알아놨으니깨.<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옴치매서 이렇게 들치미고서 저그 솔나무 꼭대기다 말여, 그 밑이는 말여 시퍼런 방죽인디 거그서 {달어매} 놓고 가버려.<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마늘이랑 양파랑 {달어매} 두어야 썩지 않아 오래 보관할 수 있어.
[지역] 김제, 군산, 익산, 진안, 고창, 남원, 무주, 완주, 장수.

달음박글 [명] [대응어] 달음박질.
급히 뛰어 달려감. ¶핵교에 늦으면 {달음박글로} 갔어.
[지역] 전북.

달음방하다 [동] [대응어] 달음박질치다.
급히 뛰어 달려가다. ¶머심(머슴)도 살고 근근히 산다는 말을 듣고, 달음방 {달음방해서} 찾아갔어.<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부안.

달이매다 [동] [대응어] 매달다.
☞달어매다.
[지역] 부안.

달챙이 [명] [대응어] 모지랑숟가락.
끝이 다 닳아서 무디어진 숟가락. ¶아무도 없는가 싶은데, 바깥으로 닫은 방 문고리에 놋숟가락 닳아진 {달챙이가} 거꾸로 꽂혀 있어 이상해 보인다.<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달챙이'는 동사 '닳다'와 관련이 있다. '잔챙이, 올챙이'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챙이'는 "작은 것"을 가리키는 명사로 보인다. 따라서 '닳-'과 '챙이'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달치근하다 [형] [대응어] 달차근하다.
약간 달콤한 맛이 있다. 또는 흡족하여 기분이 좋은 데가 있다. ¶그들은 어둠속에서 {달치근한} 향기가 코끝을 스치는 것을 느꼈다.<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달치근하다'는 표준어 '달착지근하다'의 준말인 '달차근하다'의 방언이다. 표준어 '달짝지근하다'라는 말도 흔히 쓰인다.

달케 [부] [대응어] 다르게.
서로 같지 않게. ¶현대 괴육이라는 건 좀 {달케} 생각혀서 비유허자면, 야웅이 목아지에 워낭 채우겄다는 찍찍이덜 꾀부림이시 그려?<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달코롬하다 [형] [대응어] 달콤하다.
감칠맛이 있게 달다. 또는 흥미가 나게 아기자기하거나 간드러진 느낌이 있다. 또는 편안하고 포근하다. ¶배 꽁무니에 물결만 남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갈매기로 더불어 운다는 여인네의 그런

슬퍼도 {달코롬한} 이야기는 못된다.<채만식, 탁류>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달코롬하다'는 표준어 '달콤하다'의 어근 '달콤'에 형용사 파생 접미사 '-으롬하-'를 연결하여 형용사를 만든 것이다.

달파이 명 [대응어] 달팽이.
☞달광이.
지역 순창, 임실.

달팍 부 [대응어] 덜컥.
왈칵 쏟아지거나 엎어지는 모양. ¶만일 변변한 저항 한번 못해보고 석주 앞에 간단히 무릎을 꿇는다면, 앞으로 내 반장 노릇은 떡 쪄놓고 시루 {달팍} 엎은 꼴이 될 것이었다.<윤흥길, 소라단 가는 길>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달팍'은 "대체로 멀쩡하게 자리하던 것이 갑자기 넘어지거나 쏟아지는 모습"을 나타내는 의태어이다.

달판이 명 [대응어] 달팽이. ¶다음 생엔 {달파니로} 태어나고 싶다.
지역 전북.
해설 '달팽이'는 15세기의 '돌파니'로 소급된다. 이 시기 '돌ㅍㅏㆁ이'도 함께 확인된다. 표준어의 '달팽이'는 '돌ㅍㅏㆁ이'를 계승하여 '돌ㅍㅏㆁ이>달팡이>달팽이(움라우트)'의 변화를 겪은 결과이고, '달파니'는 '돌파니>달파니'로 고어형이 그대로 보존된 경우라 할 수 있다.

달팡이 명 [대응어] 달팽이. ¶{달팡이는} 지 집이라도 있지.
지역 전북.
해설 '달팽이'는 5세기의 '돌파니'로 소급된다. 이 시기 '돌ㅍㅏㆁ이'도 함께 확인된다. '달팡이'는 고어형을 그대로 유지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돌ㅍㅏㆁ이>달팡이'의 변화는 18세기에 발생한 '/·/>/ㅏ/'의 변화를 입은 결과로, 일반적으로 '/·/>/ㅏ/'의 변화는 어두 위치에서 일어났지만 이 경우는 비어두 위치에서도 그 변화가 적용되었다. 한편 현대 표준어의 '달팽이'는 '돌ㅍㅏㆁ이'를 계승하여 '돌ㅍㅏㆁ이>달팡이>달팽이(움라우트)'의 변화를 겪은 결과이고, '달파니'는 고어형이 그대로 보존된 경우라 할 수 있다.

담구다 동 [대응어] 담그다(술을).
어떤 대상을 액체 속에 넣다. ¶발목을 빈 데는 우선 찬물에 {담구고} 주무르는 게 젤인데.<조정래, 아리랑> ¶못헐 말로, 구데기 무서바 장 못 {담구는} 것 아니겄능가요.<조정래, 아리랑>
지역 김제, 무주, 군산, 익산, 정읍, 진안, 고창, 남원, 순창, 임실, 장수.

담박질 명 [대응어] 달음박질.
급히 뛰어 달려감. ¶살 길은 삼십육계이다. 도망허믄 그만이다 혔어. 막 걍 싸게 {담박질을} 히요.<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간 뒤에 인자 가만히 그 이튿날 또 {담박질을} 하고 와 갖고는, 가마를 타고 담박질을 하고<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손꾸락 푹푹 쑤심서 열불나게 우그리고 앉어서 그것 기양 덤벙덤벙 {담박질로} 건너뛰도 못허고 한 올 한 올. 나<최명희, 혼불> ¶뒤집어 지고 {담박질을} 하여 서울을 들어 간게 그때 지금 시각으로 열시쯤 됐겄지.<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전북.

담박질치다 동 [대응어] 달음박질치다.
급히 뛰어 달려가다. ¶그 돈 챙길라고 사방으 돌아 댕김서 챙기다가 말캉으다 홀떡 준게 그 돈 석 석냥을 꽁둥이다 차드만 기양 막 {담박질친단}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

편> ¶개가 달려들자 나는 죽어라고 {담박질쳐} 달아났다. ¶철수는 아침마다 운동장에서 {담박질을} 쳤다.
지역 정읍.

담방담방 부 [대응어] 아장아장.
키가 작은 사람이나 짐승이 찬찬히 걷는 모양. ¶아기가 {담방담방} 걸음마를 한다.
지역 고창.

담배기 명 [발음] [담빼기] [대응어] 담벼락.
담이나 벽의 표면. 또는 담이나 벽 따위를 통틀어 일컫는 말. ¶이렇게 저 울타리도 모두 담으로 쌓고. 나 시집 와서만 히도 이 {담빼기가} 업써써요.<지역어자료총서 임실>
지역 임실.

담배락 명 [발음] [담빼락] [대응어] 벽.
☞담베락. ¶술 먹고 넘으집 {담배락으다} 오좀을 쌌단 말이지?
지역 완주.

담배쌈지 명 [대응어] 담배쌈지.
☞댐배쌈지. ¶골통대와 {담배쌈지} 말고도 으레 껀 궐련을 따로 넣고 다니는 한생원이, 졸리다 못해<채만식, 젊은날의 한 구절>
지역 고창, 군산.

담배지갑 명 [대응어] 담배쌈지.
살담배나 잎담배를 넣고 다니는 주머니. 종이, 헝겊, 가죽 따위로 만든다. ¶{담배지갑으다} 담배 넣고 필요할 때 피고.
지역 무주.

담백 명 [발음] [담빽] [대응어] 벽.
☞담벡 ¶담백에 기댄다.
지역 고창.

해설 '담빽'은 '담+빽'의 합성어이다. '빽'은 '벽'이 '/ㅕ/>/ㅔ/'의 단순 모음화를 겪은 '벡'이 '담' 뒤에 오면서 경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담벽'은 '담'과 '벽'이 결합한 합성어이나 전북 방언에서는 '벽'과 구별 없이 사용되기도 한다.

담뱃대꽂인통 명 [대응어] 담배쌈지.
살담배나 잎담배를 넣고 다니는 주머니. 종이, 헝겊, 가죽 따위로 만든다. ¶{담배대꽂인통에다} 담배를 넣지.
지역 남원.
해설 '담배+대+꽂+인+통'으로 분석된다. '인'은 관형형 어미 '-은'이 '꽂-'과 결합한 '꼬즌'이 '꼬진'으로 전설 모음화한 결과이다. /ㅅ, ㅈ, ㅊ/ 뒤에서 /ㅡ/가 /ㅣ/가 되는 전설 모음화는 19세기 말 발생한 음운 변화이다. 동사 어간 뒤에서 과거형이 아님에도 관형형 어미가 '는'이 아닌 '은'이 쓰인 것은 전북 방언의 특징 중 하나이다.

담베락 명 [발음] [담뻬락] [대응어] 담벼락.
담이나 벽의 표면. 또는 담이나 벽 따위를 통틀어 일컫는 말. ¶으슥한 골목의 {담베락에는} 오줌 자국으로 도벽이 되어 있었다. ¶{담베락이란} {담베락에는} 죄 벽보가 붙어 있었다. ¶하도 부애가 나서 그집 {담베락으다} 별명을 써 놓고 도망왔지.
지역 군산.
해설 '담베락'은 '담벼락'의 제2 음절의 /ㅕ/가 단모음화된 형태이다. /ㅕ/>/ㅔ/의 단모음화 현상은 전북 방언에서 흔히 일어나는 음운 현상이다. '담벡'은 '베락'이 줄어든 형태이다.

담벡 명 [발음] [담뻭] [대응어] 담벼락.
☞담베락.
지역 정읍.

담보있다 형 [대응어] 대담하다.

행동이나 성격이 겁이 없고 용감하다. ¶{담보있게} 행동하다

지역 전북.

담부 (←tabaco) 명 [대응어] 담배.

담뱃잎을 말려서 가공한 기호품. ¶통인 방자 물여주고 취흥이 도도하야 {담부} 푸여 입으다 물고 일이 져리 거닐 제<완판본 열여춘향수절가上> ¶한참 이리 할 제 한 농부 썩 나셔며 {담부} 먹니<완판본 열여춘향수절가下>

지역 전북.

해설 현대 국어 '담배'의 고어인 '담비'는 18세기에 나타난다. 포르투갈어 'tabaco'가 일본에 들어가 'tabako'가 되었는데, 이것이 수용되어 변화되면서 '담비'로 나타난 것이다. 전북 방언에서는 '담부'로 변화하였다.

담살이 명 [대응어] 머슴살이.

남의 집에서 농사일이나 잡일을 해 주면서 숙식을 해결하는 행위. 또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 ¶안서방네가, {담살이} 붙들이를 데리고 바우네와 더불어 내온 새참 광주리 주변에<최명희, 혼불> ¶인자 당혼(當婚)헌 딸이 있는디 {담살이를} {담살이를} 하나 들였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나는 부잣집에서 담사리로 넘집을 산 사람이요.<구비문학대계전북남원군편> ¶그 두 내우가 안팎 {담사리를} 한디, 하도 공부를 하고 싶어서 공부를 해 갖고 과거시험을 보러 갔어.<구비문학대계전북남원군편>

지역 고창, 남원, 정읍, 임실.

해설 '담살이'는 '머슴살이'에 비해 "남의 집에 사는 행위"의 의미가 강하다. 이것은 '담-살이'가 "담장 안에 사는 행위"에서 비롯된 합성어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담서 【축약형】

방언형 '-다구 하면서'가 줄어든 말. 해할 자리에 쓰여, 들어서 아는 사실을 확인하여 물을 때 쓴다. ¶거그는 방애를 소가 {돌린담서}?<최전승 외(1991)> ¶연탄소독이 {소독이담서}?<최전승 외(1991)> ¶꼬랑지를 잡아 {돌린담서}?<이태영(1991)> ¶우리 엄니한티 들으니께 임종술이 내쫓은 뒤로 널금저수지서 벨로 재미 못 {봤담서요}?<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근디 아느실 애기씨가 {외겼담서요}?<최명희, 혼불> ¶새서방님은 아직도 재양을 안 {가셨담서}?<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담싸허다 형 [대응어] 담사하다.

기준에 차고도 남음이 있다. 모자라지 않게 여유가 있다. ¶그러믄 내가 약값이는 후히 주마 약속을 딱 히 놓고는 … 그 화약값을 {담싸허게} 주마고 했는디 그냥 가 버렸다 그 말여.

지역 전북.

담쑥 부

손으로 탐스럽게 쥐거나 팔로 탐스럽게 안는 모양. ¶"아무개 양반이 막손이네 뒤안에서 우례 허리를 {담쑥} 감어 보듬고, 그 집에 아랫간으로."<최명희, 혼불> ¶"온 이런 염칠 보았나!……" 할머니는 {담쑥} 두 팔로 손자를 그러안고는, 뚝뚜욱 볼기짝을 두드린다.<채만식, 젊은날의 한 구절> ¶여전히 하염없는 음성으로 가만가만 병순이를 {담쑥} 안고, 그 보드라운 머리에다가 볼을 기대고 가만가만 몸을 흔들면서……<채만식, 젊은날의 한 구절> ¶춘향 가은 허리을 {담숙} 안고 나상을 버셔라<완판본 열여춘향수절가上>

지역 전북.

담유 명 [대응어] 담요.

순수한 털이나 털에 솜을 섞은 것을 굵게 짜든가 두껍게 눌러서 만든 요.

지역 익산.

담자이 명 [대응어] 담쟁이. ¶벽에 {담자이가} 많은 집이 좀 멋있지.
지역 전북.

담저이 명 [대응어] 담쟁이.
☞담자이.
지역 전북.

답신 부 [대응어] 가뜩.
분량이나 수요 따위가 어떤 범위나 한도에 꽉 찬 모양. ¶눈에 {답신} 고이두룩 보비위를 해 줄 필요가 그래서 단단히 생겻든 것입니다.<채만식, 천하태평춘>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깝북'은 표준어로는 '가뜩, 가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표준어 '가뜩'의 전북 방언형 '까뜩'과 전북 방언의 '담빡' 또는 '답신~답씬'이 뒤섞여 쓰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답치다 동 [대응어] 다그치다.
일이나 행동 따위를 빨리 끝내려고 몰아치다. ¶"그러니까 어서 군자금을 내놓으란 말이오." 얼굴 좁은 남자가 {답쳤다}.<조정래, 아리랑> ¶"어허, 진작진작 해뒀단가 딱 밥상 받게 헐 것이제. 배고픈 것이야 나랏상감도 못 참는 법인디. 얼렁 허라, 얼렁." 대목댁은 손까지 저어가며 뒤늦게 {답치고} 들었다.<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닷 【어미】 [대응어] -라는. ¶인용되는 말에 붙어서 관형어 구실을 하게 하는 관형사형 어미.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이나 행위가 현재 일어남을 나타낸다. ¶{깨끗허닷} 소리지(=깨끗하다는 말이지)<김옥화(2004)> ¶습기 {찬닷} 소리여(=습기 찬다는 말이야)<김옥화(2004)>
지역 전북.
해설 표준어에서 '-다고 하는'의 준말인 '-다는'에 해당한다. 동사 어간 뒤에서는 선어말어미 '-ㄴ-'이 붙은 '-ㄴ닷'의 형태가 쓰인다.

닷님 명 [대응어] 대님.
☞댓님.
지역 순창, 진안.

닷되지기 명
볍씨 한 말의 모 또는 씨앗을 심을 만한 넓이. ¶도지 갖고 시비가 붙었그만이라. 서되지기 백이 안 되는 올벼논을 정 참봉이 {닷되지기라고} 우기등마는, 그 서되지기를 지멋대로 {닷되지기로} 쳐서 마당쓰레기 두어말을 한 섬으로 쳐 갖고 저 사람 몫으로 앵겨부렀소그랴.<송기숙, 녹두장군>
지역 완주.

-당가 【종결어미】 [대응어] -대.
'-다구 하능가'가 줄어들어 굳은 말. 해할 자리에 쓰여, 어떤 사실을 주어진 것으로 치고 그 사실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놀라거나 못마땅하게 여기는 뜻이 섞여 있다. ¶대사! 상놈이라고 성이 {없당가}?<전북대 국문과(1983)> ¶본 것허고 본 거이나 진배 없는 것허고는 천앵지판인디 어쩔라고 그렇게 겁도 없이 주뎅이를 {나불거린당가}?<최명희, 혼불> ¶날 궂을라면 바람이 먼저 불고, 비 온 담에는 나뭇가지 풀 잎사구가 젖는 것을, 머 누가 갈쳐 줘서 {안당가}?<최명희, 혼불> ¶멋 헐라고 집 두고 텃밭끄장 나와서 그런당가?<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당갈 명 [대응어] 달걀.
닭이 낳은 알. ¶{당갈} 값이 많이 올라부렀네.
지역 고창.

-당개 【종결어미】 [대응어] -다니까.

해할 자리나 혼잣말에 쓰여, 앞서 말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여 말할 때에 쓰는 종결 어미. ¶저 당신은 날만 보면 노래를 못 시켜서 밤낮 {저런 당개로}!<채만식, 金의 情熱> ¶대체 무슨 일이여! …… 웨, 고이 댕기던 순검이나 댕겨먹덜랑 않구서 어쩌자구 으실렁으실렁 도루 와? 오기를…… 내 참, 폭폭헐 노릇두 다 {보겄당개}! <채만식, 巡公있는 日曜日> ¶울 어매(우리 어머니)는 꼭 울 아빠(우리 아버지) 생각만 허구 {있당개}!<채만식, 言約> ¶내가 모른 체허구 내빼리 두어 부아라! 농사허며 집안 살림살이며 죽이 되던지 볩이 되던지 {몰른당개}!<채만식, 강선달> ¶먼저보단 더 {헌당개},(지난번보다 더 한다니까)<김옥화(2008)> ¶여그도 {따숩당개}(여기도 따뜻하다니까)<김옥화(2008)> ¶미끄라짐서 {주저앉었당개}(주저앉았다니까)<김옥화(2008)> ¶막말이 아니라 내 눈으로 {봤당게}, 이 눈으로.<최명희, 혼불> ¶차라리 나 같은 상년은 팔짜대로 천대받고 팔짜대로 막 살응게 거짓말은 안허지, 즈그들은 헐 짓 다 해 처먹고도 누릴 것은 다아 {누린당게}. 에이, 던지러라.<최명희, 혼불> ¶내가 되로 주고 말로 받제. 무신 이문을 봐? 저 주뎅이서 먼 말 나올지 암서도 꼭 {이런당게}.<최명희, 혼불> ¶어디 댈 것도 없이 한 말을 {주겠당게}<전북대 국문과(1983)>

지역 전북.

당개다 동 [대응어] 당기다.

☞댕기다.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진안.

당갬기 명 [대응어] 당감이.

미투리나 짚신의 총에 꿰어 줄이고 늘이는 끈. ¶{당갬기를} 단단히 매고 대녀.

지역 전북.

-당게 【축약형】 [대응어] -다니까

방언형 '-다구 하니까'가 줄어든 말.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근거로 들 때 쓴다. ¶이리 와서 보랑게 그러네요. 이것 봐요. 내가 새로 맹글어 {준당게요}. 이께잇 거 천지에 쌔고 쌨는 거이 흙뎅인디. 흙무데기가 무신 황금단지 간디요오…….<최명희, 혼불> ¶본 거이나 진배 {없당게} 그러네.<최명희, 혼불> ¶옛날부텀도 그런 일은 많이 {있었당게} 기양 비첩을 삼을랑가. 종이라도 이뿌먼 데꼬 살잖이여 왜.<최명희, 혼불> ¶니가 {좋당게} 헐 말은 없다만. 나는 꼴망태 하나 짊어지고 거그다 낫 한 자리 터억 꼽고 대문 배깥으로 나서먼, 머심살이 찌그러져도 속이 티이고, 내 세상이야 싶으드라.<최명희, 혼불> ¶진짜 {낫군당게}<이윤구(00)> ¶국민해꾜 일련 {선배랑게}<이윤구(00)>

지역 무주.

-당게로 【종결어미】 [대응어] -다니까.

해할 자리나 혼잣말에 쓰여, 답답하다는 투로, 앞서 말한 내용을 재차 확인하여 말할 때에 쓰는 종결 어미. ¶저 당신은 날만 보면 노래를 못 시켜서 밤낮 {저런당개로}!<채만식, 金의 情熱>

지역 전북.

당고다 동 [대응어] 담그다(술을).

☞담구다.

지역 고창, 남원, 순창, 임실, 장수.

당골 명 [대응어] 무당.

귀신을 섬겨 길흉을 점치고 굿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 ¶아 그 {당골이} 와서 갑재기 굿을 허는디, 허고 나닌게 우리 자슥놈이 단박으 효과가 있다.<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 편>

지역 고창, 군산.

당골네 명 [대응어] 무당.

귀신을 섬겨 길흉을 점치고 굿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 ¶그녀는 일찍부터 보성, 고흥 일대를 발판으로 삼고 있는, 가락 좋고 춤사위 좋기로 그 이름을 떨친 {당골네였다}.<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군산, 완주.

당골애비 명 [대응어] 박수.

남자 무당을 이르는 말. ¶무당을 보고서는 {당고래비라구} 그리써요.

지역 완주.

당골에미 명 [대응어] 무당.

귀신을 섬겨 길흉을 점치고 굿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 ¶신내림을 받아 {당골에미가} 되다

지역 완주.

당골이 명 [대응어] 무당.

귀신을 섬겨 길흉을 점치고 굿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 ¶{당고리를} 불러 굿판을 벌인다.

지역 완주.

당군 명 [대응어] 상여꾼.

상여를 메고 묘지까지 나르는 사람. ¶잘도나 헌다 잘도나 헌다 우리 {당군들} 잘도나 헌다/헤헤이 오 호 호 호 오오오 행(김제 상여소리-오행소리/김제군 백산면 하서리 궁지)<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김제.

당그래 명 [대응어] 고무래.

곡식을 그러모으고 펴거나, 밭의 흙을 고르거나 아궁이의 재를 긁어모으는 데에 쓰는 'T' 자 모양의 기구. 장방형이나 반달형 또는 사다리꼴의 널조각에 긴 자루를 박아 만든다. ¶우구려라 우구려라 우루려라/우굴 우굴 우굴 우굴 우굴 우굴 우구려라아아아 허어허어어/열이 열두 포구럴 한 낫질로 걸구서/{당그래} 낫질로만 우구려라아어/어디 허고!(옥구 버베는 소리/산아)<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고마운 말일세. 아니 그런데 왜 밤중에 {당그래는} 들고?""아, 예에, 이거요? 저그 저 어서방이 부석에 재 긁어 내다가 즈그 {당그래} 모가지가 매급시 툭 빠져 부렀다고, 어뜨케 조께 잘 박어서 고쳐 써 볼 수 있으끄냐고 아까 갖꼬 왔길래, 저엉 때요,<최명희, 혼불>

지역 군산, 남원, 고창, 임실, 완주.

당그래부전 명 [대응어] 부전.

당그래 모양으로 만든 부전. 방안의 못 같은 것을 덮거나 술을 달아 장신구로 매달아 놓기도 하였다.

지역 전북.

해설 예전에는 벽 양쪽에 두 개의 못을 박고 액자를 걸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양쪽에 나온 못을 '당그래부전'으로 장식해서 날카로움이 드러나지 않게 하였다. 대표적으로 '당그래부전'과 고추 모양의 '부전'이 있다.

당꼴내 명 [대응어] 무당.

☞당골네.

지역 군산.

당나구 (唐나귀) 명 [대응어] 당나귀. ¶아 거기서 그양 만장일치로 그양 박수를 치고, "하 그 용천마 그것 그렇게 그것이 이길 줄 알았더만 비루먹은 {당나구} 저것이 눈꼽째기가 따닥따닥 찐 것이 저것이 이기다니 참 그것참 이상헌 일이라."고 그러거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저는 아무것도 그만두고 저 비리묵은 {당나구허고} 귀생이만 주시요.<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군산, 남원, 정읍, 김제.

당나기 (唐나귀) 명 [대응어] 당나귀. ¶{당나기} 등에 짐을 싣다

지역 전북.

당내귀 (唐나귀) 명 [대응어] 당나귀. ¶인자 아부지가 아덜을 {당내귀어따} 태우구 길을 나성게 사람덜이 다덜 쑥덕쑥더허는 거여, 아들놈이 싸가지 없다고.

지역 전북.

당달봉사 명

사물은 잘 보나 글자를 모르는 사람. ¶보문장만 피면 공부 하기가 싫어. 그리서 내가 지금은 {당달봉사여}. 눈이 있어도 글자를 못 읽어.

지역 전북.

당달이봉사 명 [대응어] 청맹과니.

겉으로 보기에는 눈이 멀쩡하나 앞을 보지 못하는 눈. 또는 그런 사람.

지역 전북.

당막질 명 [대응어] 달음박질.

급히 뛰어 달려감. ¶{당막질} 치느라 주변을 살피지도 못했다.

지역 전북.

당부데이 명 [대응어] 몸소.

자기 몸으로 직접. 또는 높은 사람이나 존경하는 사람이 직접. ¶배운 것을 {당부데이} 실천하다. ¶황제가 {당부데이} 출정을 나가다.

지역 전북.

당시랗다 형 [대응어] 야무지다.

사람의 성질이나 행동, 생김새 따위가 빈틈이 없이 꽤 옹골차고 굳세다. ¶정주사는 시방 미두장(米豆場) 앞 큰길 한복판에서, 다 같은 '하바꾼(節치기꾼)이로되, 나이 배젊은 애송이한테 멱살을 {당시랗게} 따잡혀 ¶우리집은 앞으로 삼 년이 못 하여, 토지는 물론이요 집도 터도 없는 철빈이 되고 말 번연한 운명의 선 위에 {당시랗게} 놓여 있는 것이었었다. 일반 가용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아버지는 당신의 모든 씀씀이를 줄이고 갈기었다.<채만식, 낙조>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당시랗다'는 주로 '당시랗게'로 쓰고 있다. '당시랗게'는 사람의 행위를 표현하는 말로 "야무지게, 암팡지게"의 의미를 띤다.

당알봉사 명 [대응어] 당달봉사.

겉보기에는 멀쩡하나 앞을 못 보는 사람. ¶눈먼 {당알봉사가} 눈뜬 여시도 잡는 이치라는 것이다. ¶사람이 와도 모르는 척 {당알봉사} 행세를 한다. ¶어릴 때 눈을 앓아서 {당알봉사가} 되었다.

지역 고창.

대가리솟 명

쇠죽이나 물을 끓이는 솥. 부뚜막에 걸게 옆으로 얇게 나 있는 것이 아니라 발로 받쳐 쓰게 되어 있다.

지역 전북.

대가빡 명 [대응어] 대갈빡.

☞대그박.

지역 부안.

대간하다 형 [대응어] 대근하다.

☞재근하다. ¶메기는 소리가 너무 {대간해서} <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무주 논매

는 소리-방아타령)
지역 무주.

대갈배기 명 [대응어] 대갈빼기.
머리를 속되게 이르는 말. ¶화살이 날아와 갖고, 말 {대갈배기에} 꽂힌단 말이여!<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전북.
해설 '대가리'에서 끝 모음 /ㅣ/가 줄어든 '대갈'과 '-배기'가 합해져 만들어진 어형으로 '대갈배기'와 '대갈빼기'가 모두 쓰이고 있으며, '대갈빼이'도 나타난다.

대갈보 명 [대응어] 대갈장군.
머리가 큰 사람을 놀려 이르는 말.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얘들이 {대갈보라고} 놀려.
지역 전북.

대갈빡 명 [대응어] 대갈빼기.
☞대그박. ¶아이고, 그 {대갈빡으로} 대학교를 간다고? ¶열어본게스니 몸뚱이는 하나고 {대갈빡은} 둘이네.<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전북.

대갈빼기 명 [대응어] 대갈빼기.
☞대갈배기.
지역 전북.

대갈빼이 명 [대응어] 대갈빼기.
☞대갈배기.
지역 전북.

대갈패기 명 [대응어] 대갈빼기.
☞대갈배기.
지역 전북.

대갱이 명 [대응어] 대가리.
머리를 속되게 이르는 말 ¶{대갱이에} 안직 피도 안 몰른 자석이.<조정래, 태백산맥> ¶빨갱이 새끼덜 즈그덜만 {대갱이} 잘 돌리고, 우리 경찰이나 청년 방위대넌 돌대그빡으로 알었든갑제?<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해설 '대그'에 접사 '-앙이'가 붙어 만들어진 어형이다. 접사 '-앙이'에 움라우트 현상이 적용되어 '-앵이'로 나타났다.

대골통 명 [대응어] 대갈통.
머리를 속되게 이르는 말 ¶니가 남자였으면 당장 {대골통이} 깨졌을 것이고, 니가 딴 년이었으면 그냥 낯짝이 뭉크러졌을 것이여.<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해설 '대가리'에서 끝 모음 /ㅣ/가 줄어든 '대갈'과 '통'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대갈통'과 함께, 음절 모음이 원순 모음화된 '대골통'도 쓰이고 있다.

대골패기 명 [대응어] 대갈빼기.
☞대갈배기.
지역 전북.

대광주리 명 [대응어] 광주리.
☞꽝지리.
지역 전북.

대구통 명 [대응어] 대갈통.
☞대골통. ¶물목작대기로 그냥 {대구통을} 때린다는 것이 뭣이냐 그 어깨쭉을 닥 때렸단 말여.
지역 전북.

대그박 명 [대응어] 대갈빡.
머리를 속되게 이르는 말 ¶사람이 나갔이면 {대

그박} 바사져서 안 죽겄는가?<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나 허라는 대로만 허고 {대그박만} 내놓고서 구경만 허시요.<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가만히 본게 이 여수란 놈이 말여 {대그박을} 말여. 닥 닥 긁더래야.<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대가빡], ¶웃방에서 자넌개 이놈이 꺼꿀로 자아. {대가빡을} 아래방에다 두르고 여자 자는 엿을 들을라고. 자던개비여.<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군산, 정읍.

해설 '대가리'가 줄어든 '대갈'과 '박'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사잇소리가 개재된 '대갈빡'과 사잇소리가 개재되지 않은 '대갈박'이 모두 쓰이고 있다. '대갈빡'에서 /ㄹ/이 탈락된 '대가빡'과 음절이 고모음화된 '대그빡'도 나타난다.

대근하다 형 [대응어] 고단하다.

일이 몹시 피곤할 정도로 힘들다. ¶그 전 일은 {대근해}. 참 {대근하지}. 어깨도 아프고 피곤하다고.

지역 전북.

대까닥 부 [대응어] 당장.

일이 일어난 바로 직후의 빠른 시간. ¶"큰아가, 내 똥구녁에 광아리 갖다 대라." 싹 {대까닥} 먹어 버리드랴.<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전북.

대깽이 부 [대응어] 대체.

다른 말은 그만두고 요점만 말하자면. ¶막 사랑으서 자고 대문소리가 난게 누구요 헌게 {대깽이} 저요 헌병이 들옵서. ¶마롱짝을 뚜드리고 걍 그 야단을 내고 애를 타고 댕이다 허다 허다 못 허서 {대꼭대기로} 문고리를 딱 걸어갖고 잡어 댕이봤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대꼭대기 명 [대응어] 담배설대.

담배통과 물부리 사이에 끼워 맞추는 가느다란 대. ¶{대꼭대기가} 기다랗다. ¶마롱짝을 뚜드리고 걍 그 야단을 내고 애를 타고 댕이다 허다 허다 못 허서 {대꼭대기로} 문고리를 딱 걸어갖고 잡어 댕이봤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무주, 완주.

대꼭지 명 [대응어] 대통.

담배대의 담배를 담는 부분. ¶그런개로 {대꼭지로} 나무그르텅을 탁 뚜드리면서 자기 앉은 걸상 이제 이를테면, 모진심 주어서 한단 말이<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군산, 익산.

대끼 감 [대응어] 에끼.

갑자기 무서운 것을 보거나 놀랐을 때 내는 소리. 또는 못마땅하거나 무엇에 싫증이 나서 그만둘 때 내는 소리. ¶{대끼}! 그런 일 허믄 못 써.

지역 전북.

대끼다 동 [대응어] 당기다.

물건 따위를 힘을 주어 자기 쪽이나 일정한 방향으로 가까이 오게 하다. ¶조만씩 {대껴}. 성님이 저쪽으로 좀 {대껴}.

지역 전북.

대끼순 감 [대응어] 에끼.

갑자기 무서운 것을 보거나 놀랐을 때 내는 소리. 또는 못마땅하거나 무엇에 싫증이 나서 그만둘 때 내는 소리. ¶{대끼순}! 이거시 뭐여. ¶{대끼순}! 그라믄 못써.

지역 전북.

대나개나 부 [대응어] 함부로.

조심하거나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마구. ¶방값 왜 그새 줘? 산 지 메칠이나 됐가디 방값을 줘? 주지마 좀. 한 달 되면 줘. {대나개나} 들어갔다고 방값을 그새 갖다 준다 그래? 열흘도 안 됐고만. ¶대나개나, 함부로, 함부로라고.
지역 장수.

대나무소코리 명 [대응어] 대소쿠리.
대나 싸리로 엮어 테가 있게 만든 그릇. ¶{대나무소코리}에 너물을 담뿍 담었다.
지역 무주.

대니다 동 [대응어] 다니다.
☞다니다. ¶시종 몸종, 몸종인디 그 인자 연못 가운데 삼정승 딸이 인제 초당으서 공부를 허는디 연신 댕임서 밥도 갖다 주고 인자 심바람도 허주고 청소도 허주고 이러고 {대니는} 처녀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정읍.

대다보다 동 [대응어] 들여다보다.
밖에서 안을 보다. 또는 가까이서 자세히 살피다. 또는 어디에 들러서 보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마 문 열고 {대다봐}.
지역 전북.

대돋 (大돋) 명 [대응어] 대돗.
큰 돼지. ¶또 혼인잔치에 쓸라고 키우던 큰 {대돋도} 없어지고 말었다.<구비문학대계 고창편>
지역 고창.

대듬이질 명 [대응어] 다듬이질.
옷이나 옷감 따위를 방망이로 두드려 매끄럽게 하는 일. ¶{대듬이질} 대신에 발로 밟아서 빨래를 편다.
지역 전북.

대똥 명 [대응어] 담배설대.
담배통과 물부리 사이에 끼워 맞추는 가느다란 대. ¶대똥이 기다랗다.
지역 완주, 익산, 임실, 진안.
해설 '대똥'은 '대+똥'의 합성어로, '똥'은 '통'의 음운론적 이형태이다.

대로이 명 [대응어] 도롱이.
짚, 띠 따위로 엮어 허리나 어깨에 걸쳐 두르는 비옷. 예전에 주로 농촌에서 일할 때 비가 오면 사용하던 것으로 안쪽은 엮고 겉은 줄거리로 드리워 끝이 너털너털하게 만든다. ¶요즘은 비 올 때 {대로이를} 쓰는 사람이 으덦겄어. 다 우산 쓰제.
지역 전북.

대롱개타다 동 [대응어] 매달리다.
줄이나 끈, 실 따위에 잡아매여서 달리다. ¶낚싯대 끝에 물고기가 {대롱개타고} 있네.
지역 전북.

대롱구타다 동 [대응어] 매달리다.
☞대롱개타다.
지역 전북.

대롱꼿 명 [대응어] 대롱꽃.
꽃잎이 서로 달라붙어 대롱 모양으로 생기고 끝만 조금 갈라진 작은 꽃. 백일홍, 국화 따위이다. ¶{대롱꼿이} 피어 지천에 널려 있어.
지역 전북.

대룽개타다 동 [대응어] 매달리다.
☞대롱개타다.
지역 전북.

대리미 명 [대응어] 다리미.

옷이나 천 따위의 주름이나 구김을 펴고 줄을 세우는 데 쓰는 도구. ¶{대리미} 전에 윤디라고 있어요. 화루(화로)다 꽂고 옷을 대리는 것<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다리미 손 때리미로, {대리미로} 요로케<2008 전북 고창>

지역 고창, 군산, 김제, 남원, 부안,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정읍, 진안.

해설 '대리미'는 '다리미'의 움라우트 형태로, '다리미'는 15세기 '다리우리'로 소급된다. 어근 '다리'에 '우리'가 결합한 형태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존재는 정확하지 않으나, '다리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다리우리'의 '우'의 기원이 'ㅸㅡ'였을 가능성이 높다.

대리미질 명 [대응어] 다림질.

☞대림질. ¶{대리미질} 헌다고도 그러고<완주_지역어_텍스트> ¶다리미지리라고, {대리미지리라고도}<2005 전북 남원> ¶다림질 {대리미질} 헌다고<2009 전북 임실>

지역 완주, 군산, 남원, 임실, 고창.

대리비 명 [대응어] 다리미.

☞대리미.

지역 남원, 장수.

대림질 명 [대응어] 다림질.

다리미로 옷이나 천 따위를 다리는 일. ¶아이고, 성님은 더워 죽겄는디 {대림질끄장} 허니라고 그러시요잉.<최명희, 혼불>

지역 고창, 군산, 남원, 임실.

해설 '대림질'은 '다리미질'의 준말인 '다림질'이 다시 움라우트를 겪은 형태이다.

대막가지 명 [대응어] 대막대기.

대나무로 된 막대기. ¶{대막가지로} 빨랫줄을 올린다. ¶{대막가지는} 농사일 뿐 아니라 생활도구 재료로 쓸모가 많았어.

지역 임실.

대맹이 명 [대응어] 구렁이. ¶{대맹이가} 꿩을 잡아 먹을라고 그려.

지역 전북.

대목쟁이 명 [대응어] 목수.

나무를 다루어 집을 짓거나 물건을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대목쟁이가} 나무를 다뤄 책상을 만든다. ¶전국을 {대목쟁이로} 돌아 댕김서 넘으 집을 지은 것만 히도 암만인디 정작 제 집 한 채 못 지은 게 한이라더니. ¶마을 모정을 {대목쟁이가} 오셔서 멋있게 지어 주셨다.

지역 전북.

대물통 명 [대응어] 자물쇠.

문 따위처럼 여닫는 물건을 잠그는 장치. ¶{대물통으로} 문을 잠궈라.

지역 무주.

대바고리 명 [대응어] 대바구니.

☞바구리.

지역 고창, 남원.

대바구리 명 [대응어] 소쿠리.

대나 싸리로 엮어 테가 있게 만든 그릇. ¶{대바구리로} 요로케 소쿠리를 요로케 질게, 요로케 똥고로머~이 요만허게 히가꼬.<2005 전북 남원> ¶{대바구리를} 절어서 장안이가 팔어야 한 놈도 어떤 놈이 사가는 놈이 없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고창, 군산, 남원, 정읍.

대박에 부 [대응어] 대번에.

서슴지 않고 단숨에. 또는 그 자리에서 당장. ¶아따 뜸뜨잘 게 따로 있제, 애써 귀 터놓게 {대박에} 입 봉허는 건 또 언나라 풍속서 따온 놀

보 심보여?<조봉래, 풀벨골> ¶그면 특종이다험서 {대박에} 떠들 거인디.<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대봇둑 (大洑둑) 명 [대응어] 물둑, 제방, 둑.
하천이나 호수의 물, 바닷물의 범람을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흙이나 콘크리트 따위로 만든 구축물. ¶그니는 어느새 고향 마을 이곡리 뒤편 널금저수지의 {대봇둑} 근처에 가 있음이 분명했다.<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대봇둑'은 "큰 물둑"의 의미를 갖는 한자어 '대보(大洑)'에 같은 뜻의 '둑'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전라 방언에서 많이 사용하는 어휘로 "저수지의 둑"을 가리킨다.

대부됨 (←大不等) 명 [대응어] 대부등.
아름드리의 매우 굵은 나무. 또는 그런 재목. ¶제비원에다 솔씨를 받아/소평 대평에 던졌더니/그 솔이 점점 자라나/소부됨이 되었구나/{대부됨이} 되었구나/ 황장목이 되었네/청장목이 되었네/(무주 성주굿-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삼공)<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무주.

대빗지락 명 [대응어] 빗자루.
☞빗자락. ¶아 하인이 마당 {대빗지락} 갖고 마당을 싹싹 씰것 생각헝게<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아 하인이 마당 {대비찌락} 갖고 마당을 싹싹 씰것 생각헝게<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군산, 정읍.

대빵에 부 [대응어] 대번에.
서슴지 않고 단숨에. 또는 그 자리에서 당장. ¶{대빵에} 알아보다 ¶꾸물거리지말고 {대빵에} 질러버려라잉.
지역 전북.

대사리 명 [대응어] 다슬기.
☞대수리.
지역 남원, 정읍.

대새비 (大새비) 명 [대응어] 새우(바다, 大).
바다에서 사는 큰 새우. ¶요즘이 한창 철이라서 {대새비} 잡느라 바다 위가 분주하지. 바빠.
지역 남원.

대소매 명 [대응어] 대소변.
대변과 소변을 아울러 이르는 말. ¶우리 시어머니는 년을 누워 지셨어. {대소매} 다 받아내고 밥히주고 나는 그랬는디.
지역 전북.

대소코리 명 [대응어] 대바구니.
대나 싸리로 엮어 테가 있게 만든 그릇. ¶{대소코리나} 절어갖고 장안으다 갖다 팔어 보라. ¶{대바고리럴} 머리에 이고 다니드만요.
지역 전북.

대수 (大水) 명 [대응어] 홍수.
비가 많이 와서 강이나 개천에 갑자기 크게 불은 물. ¶이백면(二白面) 잣골(尺洞) 우에 서당골이란 데가 있었어, 서당에 가서 서당 아들 글을 가르치고 있었어 즈그 성이. 거기를 갔어. 막 {대수가} 져 갖고, 큰 높은 물이 나간디, 노디(징검다리)로 건너가들 못한디,<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순창, 진안.

대수기 명 [대응어] 등.
어깨와 허리 사이의 등 부분. ¶오메, {대수기} 아픈 것!<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전북.

대수리 명 [대응어] 다슬기. ¶냇가에서 {대수리를} 잡아다 삶아 먹는다. ¶{대수리를} 삶으면 바늘이나 탱자나무 가시로 살을 빼먹었지.
지역 남원, 순창, 임실, 장수, 진안.

대싹 부 [대응어] 털썩.
크고 두툼한 물건이 갑자기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또는 그 모양. ¶근디 {대싹} 큰 사람들은 떤진게 오다가 중간에 떨어져 버리고 둘 다 그랬는디,
지역 전북.

대야 명 [대응어] 세숫대야.
세숫물을 담는 둥글넓적한 그릇. ¶빗방울이 {대야에} 뚝뚝 떨어지고 있구나.
지역 무주.

-대야 【축약형】 [대응어] -대.
'-다고 해야'가 줄어든 말. ¶변소를 새로 허다가 {떨어졌대야}.<최전승 외(1991)> ¶최서방 메칠만 더 참어 주십시요. 농사라고 {지었대야} 남은 것이라고는 배고픈 것하고 빚밖에는 없습니다.<채만식, 富村> ¶또 그 시비를 {가린대야} 그게 그다지 효험도 내지는 못하겠지만.<채만식, 탁류> ¶비록 낡은 새 흉이 {드러났대야} 그것은 제호가 다 눈감아주고 탈을 않겠거니 하면 안심이 되기는 하나,<채만식, 탁류> ¶물론 천언만언 변명을 {한대야} 제호의 배짱 토라진 내력이 따로 있는 이상 아무 효험도 없을 것이고, 그런즉 이 경우에 초봉이가 잠자코 변명을 않기 때문에,<채만식, 탁류> ¶형보가 저렇게 살아 있는 이상, 가령 내가 죽고 {없어진대야} 죽은 나는 편할지 몰라도, 뒤에 남은 계봉이와 송희가 형보에게 환을 보게 될 테니 그건 내 고생을 애먼 그애들한테다 전장시키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다.<채만식, 탁류> ¶이게 {기대야}?(이것이 그것이래?)<김옥화(2008)> ¶변소를 새로 허다가 {떨어졌대야}.<이태영(1991)>
지역 전북.

대양 명 [대응어] 대야.
물을 담아서 무엇을 씻을 때 쓰는 둥글넓적한 그릇. ¶건너가서 보니깨, 열칠팔 살 먹은 가시내가 큰 이런 {대양에다가}, 찬물을 한 대야 딱 떠다 놓고.<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전북.

대이다 동 [대응어] 다니다.
☞댕이다. ¶명산 대천/어어기 야아하/불공을 말고/어어기 야아하/나 {대이는} 디 괄세 말어라/어어기 야아하(고창 그물당기는 소리-"어기야하")<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고창.

대작거리다 동 [대응어] 되작거리다.
물건들을 요리조리 들추며 자꾸 뒤지다. ¶짐승은 죽으면 {대작거리기나} 허지. 사람은 더럽다고 보도 안 혀.
지역 전북.

대장자이 명 [대응어] 대장장이.
☞대장쟁이.
지역 전북.

대장쟁이 명 [대응어] 대장장이.
쇠를 달궈서 온갖 연장과 기구를 만드는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 ¶{대장쟁이가} 낫이나 맹그고 괭이나 맹그라서 땅이나 파묵제 별수 있는교."<조정래, 아리랑> ¶"헹, 갖바치보고 솜씨없다고 히서 눈구멍 찔리고, {대장쟁이보고} 망치질 서툴다고히서 골통 깨지는 것 몰라서허는 소리여!"<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ㄷ

해설 '-장이'의 제1 음절 모음 /ㅏ/가 움라우트된 '-잿이'는 다른 방언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형태이다. 이 외에도 모음이 상승되어 나타난 '대정정이', 음절 말의 /ㅇ/이 탈락되고 비모음화된 '대장자이' 등의 어형이 쓰이고 있다.

대정 명 [대응어] 대장장이.
쇠를 달궈서 온갖 연장과 기구를 만드는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 ¶{대정} 낫이나 맹그고 괭이나 맹글지요.
지역 무주.

대정간 명 [발음] [대정깐] [대응어] 대장간.
쇠를 달구어 온갖 연장을 만드는 곳. ¶{대정간이} 풀무질 소리로 시끄럽다. ¶{대정간에} 가서 칼, 식칼을 잘 들게 하나 쳐가지고 왔다. ¶{대정간으로} 칼 벼리러 갔다.
지역 김제, 무주,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고창, 군산.
해설 '대장간'에서 모음 상승이 일어난 '대정간'과, '대장간'이 모두 쓰이고 있다.

대정정이 명 [대응어] 대장장이.
☞대장쟁이. ¶그서 {대정정이} 석수(石手)를 데려다가 한 달을 팠다.<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완주.

대질허다 (←) 大吉허다 형 [대응어] 대길하다.
운이 매우 좋다. 또는 일이 매우 상서롭다. ¶{대질허다} 명당이다 진안에 팔명당에 제일 가는 대명당을/어화농 어화농 어나리 농차 어화농/어화농 어화농 어나리 농차 어화농/이 자리를 안장허여 만수청령에 잘 살고 보자 어화농 어화농(진안 상여소리 ?산오르는 소리-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원평지)<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진안.

대집 명 [대응어] 대접.
주둥이 부분이 넓적하고 높이가 낮으며 뚜껑이 없는 그릇. 또는 국이나 물 따위를 '대접'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 ¶음석을 {대집에} 담어 갖고 내어 놨어. ¶막걸리 한 {대집}
지역 전북.

대차 부 [대응어] 과연.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 주로 생각과 실제가 같음을 확인할 때에 쓴다. ¶이불 쓰고 눌러 있으니까, {대차} 해장에 찔렁이면서 와.<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전북.

대차나 부 [대응어] 과연.
☞대처나. ¶"듣고 본게 {대차나} 그 소리가 옳은 말씀 같소."<송기숙, 녹두장군>
지역 전북.

대처나 부 [대응어] 과연.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 주로 생각과 실제가 같음을 확인할 때에 쓴다. ¶근게 돈도 많고 헌게 큰 개를 푹신 삶고 {대처나} 살진 놈 삶고 허술을 좋 놈을 가죄서나 먹으라고<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보리밥을 비벼 먹으니 {대처나} 맛있구만. ¶그집으로 시집 못가면 죽어버린다더니 {대처나} 가긴 갔고만. ¶네 말을 듣고 보니 {대처나} 네 말이 맞긴 맞구나.
지역 전북.

대태시릅다 형 [대응어] 까다롭다.
일의 상황이나 정도가 심하다. ¶나는 애기도 선하게 스고 애기도 선하게 낳고. 아무것도 먹고 싶도 않고 애기도 넘들같이 {대태시릅게} 낳도 안 하고. ¶{대태시릅게} 서들 안 한다 그러지. 애기를 선하게 슨게 넘들은 막 밥도 못 먹고 막

그러잖아, 난 그러보들 안 했단게. ¶{대태시롭다고} 그러제. 내나 그 말이 그 말이여.
지역 장수.

대태시리 부
일이나 정도가 심하게. ¶애기를 선하게 슨게, 넘들은 막 밥도 못 먹고 막 그러잖아, 난 그러보들 안 했단게. {대태시리} 안 슨다 그랬더니. ¶아주 너머나 심하게 하먼 그런 소리하제, 심허게 뭐시고, 아조 심하게 허면 너머 별쭉나다고. {대태시리} 슨다고 그러지. ¶{대태시리}, {대태시리} 그렇다고.
지역 장수.

대통 명 [대응어] 담배설대.
☞대똥.
지역 고창, 남원, 부안, 순창, 군산, 임실, 정읍.

대통대 명 [대응어] 담뱃대.
담배를 피우는 데 쓰는 기구. 담배통, 담배설대, 물부리로 이루어져 있다. ¶기다란 {대통대를} 입에 물고 있다.
지역 전북.

대투리 명 [대응어] 도토리.
☞도토리.
지역 전북.

대학상 명 [대응어] 대학생.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 ¶금년 시월 시무야드렛날 시상천지가 폭삭 절딴나뿐담시나 우리 정옥이를 서울로 존학시켜서 {대학상} 맨들겄다는 소리는 또 으떻게 된 노릇이라냐?<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대화[1] (←桂花) 명 [대응어] 계화.
☞제화. ¶여보소 농부님네 이내 말을 들어보소/패랭이 꼭지여다 {대화를} 꽂고서 마후라기춤이나 너울너울 추어 보세/여어 여어 어 여허 여어루 상 사아 뒤이여<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정읍 모심는 소리/상사소리/정읍군 입암면 연월리 반월)
지역 정읍.

대화[2] (←大蝦) 명 [대응어] 새우(바다, 大).
바다에서 사는 큰 새우. ¶옛날으 {대화는} 임금님 진상품이었어. 그만큼 맛있고 귀헌 음식이여.
지역 김제, 고창,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임실, 정읍.

댄반에 부 [대응어] 대번에.
서슴지 않고 단숨에. 또는 그 자리에서 당장. ¶문제를 {댄반에} 해결하다 ¶한참 말다툼을 하던 철호는 {대반에} 훈이의 멱살을 잡아버렸다.
지역 전북.

댄써리 명 [대응어] 된서리.
늦가을에 몹시 되게 내리는 서리. 또는 모진 변고나 타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댄써리가} 내렸다. ¶어젯밤에 {댄써리가} 와서 모든 고구마순이 다 죽었다.
지역 전북.

댄장 명 [대응어] 된장.
메주로 간장을 담근 뒤에 장물을 떠내고 남은 건더기. ¶아떨 집이 오면 {댄장이고} 꼬치장이고 다 싸 주니라 바쁘지.
지역 전북.

댄추 명 [대응어] 단추.
옷 따위의 두 폭이나 두 짝을 한데 붙였다 떼었다 하는, 옷고름이나 끈 대신으로 쓰는 물건. ¶언제꺼정두 조고리에다 적삼해 입으믄 {댄추}

매서 달았었거든.<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8>
지역 전북.
해설 '단추>댄추'의 '/ㅏ/>/ㅐ/' 변화에서는 동화주 /j/, /ㅣ/가 없음에도 /ㅏ/가 전설 모음화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비슷한 예로 '만날>맨날' 따위가 있다.

댈구 부 [대응어] 자꾸.
잇달아서 여러 번 계속하여. ¶잔디에서 불이 {댈구} 타 들어오는데 그 개가 보닝게는, 주인은 깨울 용기두 없구, 그래서 불이가 이렇게 타오는 대로 그 또랑이 가찹던가 물에가 빠져가지구서는 잔디밭에가 굴르구 또 빠져가지구서는 잔디밭에가 굴르구 그래가지구, 나중에 주인이 실컷 자구서 일어나 보니까 개가 팡져서 그냥 죽었드리야.<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전북.

댈롱댈롱 부 [대응어] 대롱대롱.
작은 물건이 매달려 가볍게 잇따라 흔들리는 모양. ¶잘못 때리믄 옹기짝이 부서지게 생는디. 안널러가소서 {댈롱댈롱},<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아, 근디 안널러가고 {댈롱댈롱} 치다보고 있어.<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전북.

댈롱댈롱허다 동 [대응어] 대롱대롱하다.
작은 물건이 매달려 가볍게 잇따라 흔들리다. ¶풍깅이(풍경이) 바람에 {댈롱댈롱허믄서} 소리를 내.
지역 전북.

댈룽댈룽 부 [대응어] 대롱대롱.
☞댈롱댈롱.
지역 전북.

댈룽댈룽허다 동 [대응어] 대롱대롱하다.
☞댈롱댈롱허다.
지역 전북.

댈이다 동 [대응어] 달이다.
액체 따위를 끓여서 진하게 만들다. 또는 약재 따위에 물을 부어 우러나도록 끓이다. ¶그렇게 남편을 섬기는디 하룻저녁 역시 남편이 술 먹고 왔기 때미 차를 {댈이고} 있는디 때는 어느 때나 되았던지 달로서는 얘기헐 수가 없는디 음력으로 보름찜 되았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온 동네 간장냄새를 풍기며 장 {댈이는} 모습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놈으 동네 간다치먼은 그 장자가 사는디 장자 딸이 빼빼 말라갖고 중국서 의원이 나와갖고 병을 고칠래도 못 고친다. 그런디 이런 이런 삼짐을 지고 가니 이런 삼이나 {댈이} 먹으믄 낫을란가.<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댐방 부 [대응어] 대번에.
그 자리에서 바로. ¶시집온게 시부모에다, 시아제에다, 시할매, 시한아씨에다 하이고. 시아버지는 풍으로 누워 있고 시할매도 그러제. 시방 사람은 {댐방} 나가제.
지역 전북.

댐배 명 [대응어] 담배. ¶그 {댐배를} 먹은게 잼이 옵디다.<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식사가 끝나기를 기다려 {댐배를} 권해 드리고 채록을 시작했다.<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우리 여기서 좀 쉬면서 {댐배} 한 대 피우고 가자구나.
지역 고창.
해설 '댐배'는 '담배'의 음운론적 이형태로, '담'이 '댐'이 된 것은 후행 음절의 /ㅐ/가 전설 모음인 것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댐배꼭대기 명 [대응어] 담배통.
담배설대 아래에 맞추어 담배를 담는 통. ¶{댐배꼭대기에다} 담배를 눌러 담다.
지역 장수.

댐배꼭지 명 [대응어] 담배통.
담배설대 아래에 맞추어 담배를 담는 통. ¶{댐배꼭지에} 담배를 꾹꾹 눌러 담는다.
지역 군산, 익산.

댐배쌈지 명 [대응어] 담배쌈지.
살담배나 잎담배를 넣고 다니는 주머니. 종이, 헝겊, 가죽 따위로 만든다. ¶{댐배쌈지에} 담배가 남지 않았다. ¶옛날 할아버지는 {댐배쌈지에서} 담배를 보관하였다.
지역 전북.

댐배통 명 [대응어] 담배통.
담배설대 아래에 맞추어 담배를 담는 통. ¶{댐배통에} 담배가 다 떨어져 가네.
지역 고창, 김제, 남원, 완주, 진안.

댐뱃대 명 [대응어] 담배설대.
☞담뱃대.
지역 고창, 김제, 남원, 순창, 군산, 완주, 임실, 장수, 정읍.

댓궂다 형 [대응어] 짓궂다
장난스럽게 남을 괴롭고 귀찮게 하여 달갑지 아니하다.
지역 전북.

댓님 명 [대응어] 대님.
한복에서 남자들이 바지를 입을 때 가랑이 끝쪽을 가든하게 졸라매는 끈을 말한다. ¶지금만이로 양복을 입고 댕길 때가 아닌게 더워 죽어도 {댓님} 채야되고 옛날 사람들은 여그댕는 저고리를 입어야 되니까.<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요기다 {댓님을} 요렇게 해서 딱 치거든.<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어떻게 쫍던지(좁던지) 요만하게 손가락을 가르키며 {댓님짝만} 해 갖고.<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여근자 가느른 거슨 아래 양말런는디 쨈민 거시 {댓님}.<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지역 전북.
해설 역사적으로 '다님'이었던 것이 /ㅣ/ 모음 역행 동화로 인해 '대님'으로 굳어진 형태인데, 전북에서는 '댓님'[댄님]이 더 활발하게 쓰인다. 본디 '대님'은 하나의 형태소이므로 /ㄴ/ 첨가가 일어날 환경은 아니나 접사 '-님'의 쓰임에 이끌려 오분석 결과 /ㄴ/이 첨가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역에서 '다님'에 /ㄴ/ 첨가가 일어난 '닷님'도 나타나고 있다. '매다'보다는 '치다'와 흔히 어울려 '댓님을 치다'의 형태로 많이 쓰인다.

댕기다[1] 동 [대응어] 다니다.
여기저기나 일정한 곳으로 왔다갔다 하다. 또는 볼일이 있어 어떠한 곳을 한번 들르다. ¶"아니 샌님은 어디를 그렇게 {댕기십니까?"} "글쎄 어디 좋은 데가 있는가?<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밥을 얻어 먹으러 {댕긴개}, 새를 잘 잡아 먹어.<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나는 과거에부텀 순전 등짐장수로만 {댕겨서} 내가 이얘기가 뭣인지를 모르요. 그런게 나는 제쳐놓고 다른 양반들만 허시요."<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뻐쓰도 두문 두문 {댕게쩨}, 그때는.(버스도 드문 드문 다니었지, 그때는.)<2005 전북 남원> ¶자식까지 이렇게, 이렇게 낳고 히서 설마 도망가리야 허구서는 문을 열어놓고 {댕겨}.(자식까지 이렇게 낳고 했으니까 설마 도망가겠느냐 하고는 문을 열어놓고 다녀.)<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그 즈그 어매가 그 말을 듣고, "야야, 니가 그 주막에 그 계집한테 밤낮 {댕겨} 싸면 못 쓴다!"

그런깨, 그 뒤로 거기를 안 가는디, 어디 갔다 옴성 갔다온개.(그 제 어미가 그 말을 듣고 "얘야, 네가 그 주막에 그 계집한테 밤낮 다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뒤로 거기를 안 가는데, 어디 갔다 오면서 갔다오니까)<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그 주막을 {댕기고} 노름판이 쫓아댕기고 저그 부인은 바느질 품팔어다 히먹고 살고 기가 맥히게 가난헌디.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그 권선생이란 양반이 시방으로 허믄 핵교(학교), 그전에 이름은 서당을 {댕겨}.<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어이 김교수, 우리 농림핵교라니? 고것이 시방 무슨 뜻이여? 김교수가 은제 농림핵교를 {댕겼었든가}?"<윤흥길, 소라단 가는 길> ¶"우리도 잣대 들고 비단 지고 장사 {댕게} 보지마는, 내 잣대로 내가 눈금 재서 띠여 준 비단도 같들 않당게로? 내 손도 틀리는디, 넘의 손에 왜 나를 재냥게 그러네이, "<최명희, 혼불> ¶그리서 인자 붙잡고, 겨우 머덜때넌 다 이불만헤서 인자 건너오고 일을 {댕겠는디}, 그때 다 전주서 다니면서 걸어서 무장까지 댕게 걸어 가지고.<2008 전북 고창> ¶옛적에 친한 친구 청년들 둘이 유랑을 {댕겨}. 그전말로 팔도강산 유람을 {댕긴단}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그런깨로 어쩐 꾀를 내었는고 허니, 그 친구허고 없이 사넌개, 둘이 요세로 말하면 산나무를 {댕겨}. 부안으로 말하면 저 밥싸갖고 저 변산으로 나무를 {댕겨}.<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며칠 감옥에다가 재워라. 연놈을 그리고 저 장수(長水)라던지 어디를 {댕겨서} 이제 진안으로 올 테니, 그 총각놈이랑은 잘 먹이고, 부자년 잘 먹었을 텐개 아무렇게나 먹여라."<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나와설랑은 있는디, " 아이구, 총각 {댕겨서} 오냐."<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군산, 완주, 고창, 임실, 남원, 정읍, 무주, 부안.

해설 '다니다'는 15세기 문헌에 'ᄃᆞ니다', '돋니다'로 나타나는데, "달리다"의 뜻인 '돋다'[走]의 어간 '돋-'과, "다니다"의 의미인 '니다'[行]의 어간 '니-'가 합성된 동사이다. '댕기다'와 가장 비슷한 어형은 17세기 문헌에서 발견되는 '돋기다'이다. 어형 '댕기다'는 첫 음절이 둘째 음절의 영향으로 움라우트되고 첫음절의 종성이 조음 위치 동화되어 형성된 것이다.

댕기다[2] 동 [대응어] 당기다.

물건 따위를 힘을 주어 자기 쪽이나 일정한 방향으로 가까이 오게 하다. ¶이쪽으서 놓치면 큰 일 난게 너무 시게 잡어{댕기지} 말어. ¶또 조금 돌아가더니만은 이제 옷을 또 물구 잡아 {댕겨서} 또 돌아가더니만은 지둥(기둥)을 여기 박구 여기 박구 니(四) 군데 박으라는 발목으루 파면서 기둥 자리를 그 노루가 응해주더라.<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산내키로 납짜거니 그꼬 자버댕기면 인자 오까, 안 얼그먼 그냥 막 억씨당개. 막 떠바다 사라멀. {새끼로 납작하게 그래가지고 {잡아당기면} 이제 올까, 안 얽으면 그냥 막 억세다니까. 막 떠받아 사람을}.<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의자를 좀 {댕겨} 앉으시죠? ¶철수를 내편으로 {댕기기} 위해 안간 힘을 다 썼다.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진안.

댕기판 명

댕기 끝에 금박으로 수 놓은 부분. 또는 그 수 놓은 금박. ¶{댕기판이} 있어. 금색으로 돼가꼬 꽃그림 그려 있고. 댕기 존 놈은 그 {댕기판이} 이뻐. 댕기 안 존 놈은 그런 것이 없어. {댕기판이} 없어.

지역 전북.

댕깡 명

빈칸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두 편으로 나눈 다

음 마지막 칸을 짚고 처음 시작한 칸으로 돌아오는 놀이. ¶어렀을 적으는 {댕깡} 그려서 놀고, 댓긋게 놀았어.
지역 전북.

댕깡살이 명
빈칸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두 편으로 나눈 다음 마지막 칸을 짚고 처음 시작한 칸으로 돌아오는 놀이. ¶어렀을 적으는 댕깡 그려서 놀고, 댓긋게 놀았어. {댕깡살이} 헌다고 혀.
지역 전북.

댕연허다 (←當然하다) 형 [대응어] 당연하다.
일의 앞뒤 사정을 놓고 볼 때 마땅히 그러하다. ¶그 머 {댕연헌} 소리여.
지역 전북.

댕이다 동 [대응어] 다니다.
☞댕기다. ¶"당신같은 심은 그런 심을 가지고는 {댕이지} 말라."<한국구비문학대계, 전북정주시·정읍군편>
지역 전북.
해설 '댕이다'는 전북 방언의 다른 어형인 '댕기다'에서 /ㄱ/이 탈락되어 형성된 어형이다. '댕기다'보다 적게 쓰이며 의미 영역이 좁다.

-댜[1] 【종결어미】 [대응어] -더냐
방언형 '-디아'가 줄어든 말. 해라할 자리에 쓰여,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묻는 종결 어미. ¶저런 게 뭣을 {알라댜}?<최전승 외(1991)> ¶낮으사 {줄을랍댜}?<최전승 외(1991)> ¶너 데려다 주는디 그 눔이 한 말 {없댜}?<최전승 외(1991)>
지역 부안, 무주.

-댜[2] 【축약형】 [대응어] -대.
'-다고 해'가 줄어든 말. ¶돈 더 주야 내 {논는댜}.<이윤구(00)> ¶대근하 {죽것댜}.<이윤구(00)> ¶집이 {업댜}.<이윤구(00)> ¶어메메, 저걸 {어쩐댜}.<조정래, 아리랑> ¶그놈허고 무신 웬수럴 {졌댜}?<조정래, 아리랑> ¶아이고메, 이놈이 밤새도록 이러다 날이 새면 {어쩐댜}.<조정래, 아리랑> ¶우리 용수가 왜 {이런댜}, 응? 에미야 야가 시방 왜 이려어!<이병천, 모래내모래톱> ¶약방으서 금상 댕겨가기는 혔는디··· 보먼 {머헌댜아}! 간밤으 열을 냄서나 하도 곤허니 자서 약 멕이고 재웠더니 흑흑! 새복에 벌씨 몸이 식었는디 …….<이병천, 모래내모래톱> ¶용수맞능개빈디··· 벌세 싸돌아댕겨도 {된댜아}?<이병천, 모래내모래톱> ¶아나, 콩이다! 사람덜이 {믿어준댜아}?<이병천, 모래내모래톱>
지역 무주.

더갱이 명 [대응어] 덩이.
작게 뭉쳐서 이루어진 것. 또는 그것을 세는 단위. ¶안 그러고 새알을 느먼 {더갱이가} 져.
지역 전북.

-더구마 【종결어미】 [대응어] -더구먼.
☞더구만. ¶장이 {파장이더구마}.<이윤구(00)>
지역 무주.

-더구만 【종결어미】 [대응어] -더구먼.
해할 자리나 혼잣말에 쓰여, 과거에 경험하여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회상하여 말하는 종결 어미. ¶이건 여기 봉천에 있는 성광(聖光) 기독교 전문학교의 선교사, 자네들도 혹시 아는지, 빌립이라는 목사가 쓴 글을 내가 한번 교정해 본 것인데……. 엊그저께 초안을 잡아 가지고 {왔더구만}.<최명희, 혼불> ¶매일 매일 나의 언행, 일거수 일투족을 일기 쓰듯이 관찰해서 누적시켜 {놓았더구만}.<최명희, 혼불> ¶그 공책 덩어리를 책상 위에 텅, 하고 갖다 놓는 순간부터, 취조 방식이 {달라지더구만}.<최명희, 혼불> ¶그

집 아드리 다 {이뿌더구만}.<이윤구(00)> 가꼰 제 고노믈 여그서 누여 키우고 인자 씨누여 헌다고, 특빼리 씨누여 헌, 키운 사라미 {인떠구만}.(그래갖고 이제 그것을 여기서 누에 키우고, 이제 씨누에 한다고, 특별이 씨누에 한, 키운 사람이 있더구만.)<전북지역어, 임실>
지역 전북.

더꺼머리 명 [대응어] 떠꺼머리.
☞떠꺼머리. ¶가만히 앉어서 쉬어 앉어서 본게 그러거든. 그런게 그 인제 그 사람은 지관, 이 사람은 나매동이 찾는 사람, 아 그런디 {더꺼머리} 총객이 말여 그 밀대로 말허자먼은 꺼꺽쌈을 히갖고는 지게다 떡 짊어지고 올라 오거던. <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정읍.

더끄다 동 [대응어] 찌다(찬밥을, 蒸), 데우다.
찬 것을 덥게 만들다. ¶아랫묵이가 보먼은 괴기 쬐께 볶아 논 것이 있응게 그거 {더꺼} 갖고 밥이랑 먹어라잉. ¶감닢새기를 솥이다 {더끄면} 영양좋은 감닢차가 되는 거여.
지역 장수, 남원.

-더니라 【종결어미】
해라할 자리에 쓰여, 과거에 듣고 겪은 사실을 회상하여 말해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주로 옛 말투에 쓰인다. ¶내, 어느 날은 곰곰이 생각을 좀 해 보았는데, 암만해도 너희 내외 남수여화(男水女火)로 만난 것이 아닌가 {싶었더니라}. <최명희, 혼불> ¶……고맙구나……내 그렇잖어도 애호박죽이나 좀 먹었으면 {했더니라……} 네가 내 맘을 잘 보았다……어디 이리 가지고 와 보아…….<최명희, 혼불> ¶그래서 내 몫이 된 놈을 호제한테 맡겨서 길러 달라고 {했더니라}.<최명희, 혼불> ¶젖도 떼기 전에 큰집으로 너를 보내 놓고, 아무도 모르게 돌아앉아 눈물짓곤 하다가, 아니다,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다, 마음을 다잡아 먹곤 {했었더니라}.<최명희, 혼불> ¶초라니패라구 {있더니라}. 홍동지 박첨지가 탈바가지 쓴 대가리를 내놓구서, 서루 찧구 까불구, 꼭 너치름 방정맞게 촐랑거리구, 지랄을 허구 그러다니라.<채만식, 태평천하> ¶허! 서울언 물까장 다 사먹넌다구 소문이사 {들었더니라만} 원, 물 한 지게여 돈이 두 돈 오 푼이라니? 응?<채만식, 강선달> ¶한번 {갔더니라}(한번 갔었다)<김옥화(2001)>
지역 전북.

더덕더덕 부 [대응어] 누덕누덕.
해지고 찢어진 곳을 여기저기 너저분하게 깁거나 덧붙인 모양. ¶{더덕더덕} 꼬매 입은 옷이 참 보기 처량하구만.
지역 군산.

더덕머리 명 [대응어] 더벅머리.
☞더벅머리. ¶자기 면으로 왔는디 머슴놈을 하나 뒀는디 아 당최 이놈이 홀엄씨 집이 가서 넘의 집이 가서 산게 {더덕머리} 총각이 넘의 집을 사는디.<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정읍.

더도다 동 [대응어] 더디다.
어떤 움직임이나 일에 걸리는 시간이 오래다. ¶바느질허기가 {더돠}.
지역 전북.

더듬바리 명 [대응어] 말더듬이.
말을 자연스럽게 하지 못하고 더듬는 사람. ¶말을 더듬는다고 {더듬바리가} 그러지
지역 김제.
해설 '더듬바리'는 '더듬다'의 어간 '더듬-'에 접미사 '-바리'가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전북 방언에서 사용되는 접미사 '-바리'는 "어떤

특성이 지나친 사람"의 의미로 사용된다.

-더락 【연결어미】 [대응어] -도록.

앞의 내용이 뒤 절의 일에 대한 결과, 방식, 정도 따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내가 참 이 나이가 {되더락} 참 남의 금두 많이 도둑질히여 먹기는 했소마는, 영감 금에다가는 참말이지 단 한 번이라두 손을 댔으며는 내가 울아버지 자식이 아니오!<채만식, 金의 情熱> ¶그러먼자 여그서 인자 여 부른 땅 여그다간자 피워노코 항강데 그대로 불 하래 {점더락} 씨는거여. 막 수시고 머시고 마니 히가꼬 피워놓개.(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여 불은 땅 여기에다가 이제 피워놓고 한 곳에 그대로, 불 하루 저물도록 쓰는 거야.)<전북지역어, 남원> ¶{밤세더락} 거기서 인제 처량이라고, 인자 거기서.(밤새도록 거기서 이제 철야라고, 이제 거기서.)<전북지역어, 남원> ¶{밤새더락} 뚜뜨리야 되는데. 그때만 히도 질쌈허먼서 다 오슬 입꼬 사러야하넌까,<전북지역어, 남원> ¶그러케 해서 인자 지향을 모시지. 글먼 애더리 늗따고 히싸. 뭐더러 여란시, 열뚜시 {되더락} 어머니 그러나구히싸.(그렇게 해서 이제 제향을 모시지. 그러면 애들이 늦다고 해. 뭐하러 열한 시, 열두 시 되도록 어머니 그러느냐고 해.)<전북지역어, 남원> ¶나서 아옵쌀 {먹떠락}(먹도록)<백은아(2016)> ¶그먼 기양 하레 {저물더락}(저물도록) 끼양 차일 기양<백은아(2016)>

지역 전북.

더러다 형 [대응어] 더럽다(醜).

때나 찌꺼기 따위가 있어 지저분하다. ¶"쬐끄만한 것이 {더럽게나} 허고 댕긴다고. 새 하나 먹은 것이 그렇게 크나?"<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흥, {더러우니} 어쨌단 말씀이신구, 말씀이.<채만식, 낙조> ¶하도 {더러서} 우습지도 안해. ¶지금 생각허먼 참 {더러서도} 몯쌀지만.<2005 전북 남원>

지역 고창, 남원, 무주, 순창, 임실, 장수, 진안.

해설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는 어간이 '더럽-'으로 단일하게 나타나지만, '/ㄴ/, /ㅁ/'이나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는 /ㅂ/이 반모음 /w/로 교체되는 형태와 /ㅂ/이 탈락되는 형태가 혼재되어 나타난다.

더러지다 동 [대응어] 더럽히다(옷을).

깨끗하지 않게 되다. ¶위신이고 뭐고 몸이 다 {더러지는} 것 같더구만.

지역 익산, 임실, 장수.

-더만 【종결어미】 [대응어] -더구먼.

방언형 '-더구만'이 줄어든 형태. 해라할 자리나 혼잣말에 쓰여, 지난 일을 회상하여 말하는 종결어미. ¶보링그 청부를 시작해 보구 싶은 {개비더만……}<채만식, 金의 情熱> ¶체! 원 그보담 더헌 자작농 창정두 모다들 남의 이름으로 히였다가 지가가 오르닝개 팔어서 돈을 {냉겨먹더만}! 그까짓 나락 두 섬이야 어떨라구?<채만식, 보리방아> ¶당하여 보닝개, 못 {댕기겄더만이요}!<채만식, 巡公있는 日曜日> ¶그 사람 노네서 {일하더만}<이윤구(00)>

지역 전북.

더문더문 부 [대응어] 드문드문.

물건과 물건 사이의 공간이 많이 있는 모양. ¶나무들이 {더문더문} 서 있다

지역 전북.

더벅 명 [대응어] 더덕. ¶허나 쑥대강이 우거진 {더벅} 수풀 뒤범벅인 정신 가진 사람 보고는 '미쳤다' 하고, 앞뒤 문짝 비그러져 빈 바람이 허술하게 드나드는 사람을 보고는 '정신 나갔다'고 하고.<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ㄷ

더부렁거리다 동 [대응어] 거드럭거리다.

거만스럽게 거릴낄 것이 없는 듯이 굴다. ¶학창으 푸른 솔은 산신님으 놀음이라/오뉴월이 당도허니 우리 농부들 시절이로다/패랭이 꼭지에 계화를 꽂고서/장화 숩으로만 {더부렁거리세}/여 여 허 여 여루 상 사 뒤이혀(완주 모심는 소리-상사소리)<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완주.

더우 명 [대응어] 더위.

여름철의 더운 기운. ¶이 {더우에} 시언허게 둬두어두 이틀이 못가 착 쉴 텐데, 오빠 손에 가 떨어지자믄 한 달이 걸릴지 얼마가 걸릴지 모르는<채만식, 여인전기>

지역 전북.

해설 표준어 '더위'는 전북 방언에서는 '더우'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ㅟ/[uj]에서 /j/가 탈락하여 /ㅜ/로 된 것이다.

더우 먹다 【관용표현】

여름철의 더운 기운 때문에 몸에 이상이 생기다. ¶"아이고, 저런 망혈 놈, 야 이놈아. 니 동생이 {더우 먹어서} 헐떡거리고 댕기면 머이 그렇게 좋겄냐?<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에서 관용어로 쓰이는 '더우 먹다'는 실제로 '더우먹다, 더위먹다'와 같이 합성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더우락 명 [대응어] 덤불.

어수선하게 엉클어진 수풀. ¶{더우락을} 헤치다

지역 전북.

더웁다 형 [대응어] 덥다.

몸의 체온이 높아져서 불쾌하다. ¶아, 그 가마 떰고(떠메고) 가는 조군들이 날도 요때나 되었든가, {더웁든가}, "아이, 자 여그서 술 한잔쓱 우리 먹고 가먼 쓰겄다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학대는 무슨 학대야고, 여 저 그 방은 좁아 뵈고 시방 {더웁기는} 허고 히서 바깥이 가 자라고 혔다.<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아이고 오늘은 {더우여}. 냉수를 많이 먹었더니 탈이 났는가, 배가 아프다.<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이야기 도중 날씨가 {더워서} 계속 부채질을 하면서 구연했다.<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그려서는 {더워서} 죽겄어 활활 벗어 버리고 호미 들고 그늘 밑이가 늑사 자로 나자빠져서 그르고 있은게로 고것이 뻔허니 나왔든게벼.<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하루는 길을 가다가 {더우니께} 나무 밑에서 쉬는디 참외 짐을 받쳐놓고 참외 파는 이가 있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추나 {더우나}. 나무 장사를 해서 먹고 사넌개.<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전북.

해설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는 '더웁-'의 형태가 잘 나타난다. 그런데 매개 모음을 포함하여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는 자리에서는 대개 '덥-'의 불규칙형이 나타난다.

더읍다 형 [대응어] 덥다.

☞더웁다.

지역 전북.

더충머리 명 [대응어] 더벅머리.

장가갈 나이가 된 총각의 덥수룩한 머리. 혹은 그 머리를 한 총각. ¶근게 잠을 자 자다 보닌게 새복으 마당으서 뭣이 쿵 소리가 나더니 떨떨 털고 문을 열고 들어 오는디 기양 {더충머리} 총각놈이거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정읍.

더트다 동 [대응어] 뒤지다.

무엇을 찾으려고 샅샅이 들추거나 헤치다. ¶발바닥이 닳도록 전라도와 경상도를 다 {더터} 충청도, 경기도까지 헤매면서, 사천왕 모신 절의 천왕문을 찾아 친견하러 다닐 적에<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더트다'는 "더듬다"의 의미를 가지는 중세 국어의 '덛다'에서 기원한 것이다.

더풀 명 [대응어] 덤불.

어수선하게 엉클어진 수풀.

지역 전북.

덕가리 명 [대응어] 닭의어리.

☞닥가리.

지역 임실.

덕네 명 [대응어] 댁네.

남의 아내를 예사로 이르는 말. ¶{덕네} 몇 명이 모이 앉어 갖고는 수군수군 말들을 허고 있었다.

지역 전북.

덕발 명

송장을 올려 놓기 위하여 가로지른 나무토막. ¶그런디 어디만침 뒤어오다가 느닷없이 쏘내기를 만나서 애장터로 가서 {덕발} 새에가 쪼그리고 앉어 있었어요.<구비문학대계 임실군편> ¶옛날에는 아가 죽으면 그 시체를 망태다 싸서 {덕발} 우그다 싸 두는 디다 있는디 이것이 있는 디가 애장터라 헙니다.<구비문학대계 임실군편>

지역 임실.

덕석 명 [대응어] 멍석.

짚을 두툼하게 엮거나, 새끼로 날을 하여 짚으로 쳐서 자리처럼 만든 물건. 허드레로 자리처럼 쓰기도 하며, 한데에 쌓은 물건을 덮기도 한다. ¶어차피 내가 안 죽이면, 문중이 들고 나서서 온 동네 조리 돌리고 {덕석에} 말겄지.<최명희, 혼불> ¶소리가 나고 산악이 무너지는 소리가나더니, 큰 대호(大虎)란 놈이 좁쌀 {덕석} 앞에 가 딱 쪼그리고 앉아<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우로 끌어 올려라." 헌게 새다리를 이층, 삼층으로 허고 {덕석을} 깔고 잡아 댕기고 밑으로(위)로 끌어 올렸다.<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덕썩도} 맨들고, 집씬.{덕석도 만들고, 짚신}. ¶{덕써가고} 방서가고는 가터요?(덕석하고 방석하고는 같아요?) 아이 똑까치 지부로 맨긍거야 똑가터.(아, 똑같이 짚으로 만든 것이야 똑같아).<2005 전북 남원>

지역 전북.

해설 '덕석'은 '덕석말이'라고 하여 형벌을 주거나, 시체를 내다 버리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덕석말이 명 [대응어] 멍석말이.

죄인을 멍석으로 말아 체형을 주는 형벌. ¶육시처참을 해도 분이 다 안 풀릴 투장을 하고는 {덕석말이} 체형을 당하여, 그 자리에서 대가리 빠개져 죽어도 할 수 없고, 안 죽었으면 죽지 않은 것만 천만다행 감지덕지<최명희, 혼불> ¶몰골이야 어찌 됐든 간에 양반을 무시하고 들었으니, {덕석말이를} 돌리면 당할 수밖에 없었고 물볼기를 치면 맞을 도리밖에 없는 일이었다.<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해설 비슷한 말로 '멍석말이'도 쓰이는데 '덕석말이'가 더 일반적이다.

덕석멀이 명 [대응어] 멍석말이.

죄인을 멍석으로 말아 체형을 주는 형벌. ¶그래서 불문곡직(不問曲直)허고 매창(梅窓)을 잡어들여 {덕석멀이를} 히서 작두로 썰어 죽일라고 했어.<구비문학대계 임실군편>

지역 임실.

덕석몰이 명 [대응어] 멍석말이.

죄인을 멍석으로 말아 체형을 주는 형벌. ¶니께 잇 거 참말로, 직사허게 내 대신 {덕석몰이로} 뚜드러 패중게 외나 그 냥반들이 미운 게 아니라 곱드라.<최명희, 혼불> ¶인제 원에 집을 떡 가보닌게 하, 경장허거든. 저그 아부지 {덕석몰이를} 딱 시켜 놓고 앉었고, 이거 살어나올래 살아나올 기가 없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던 【연결어미】 [대응어] -지는(않(못)).

((‘않다’, ‘못하다’, ‘말다’ 앞에 쓰이며)) 연결 어미 '-지'와 보조사 '는'이 결합하여 줄어든 말. ¶네모 {빤뜻허던} 않제.(네모 반듯하지는 않지)<김옥화(2001)>

지역 부안.

-던게비 【축약형】 [대응어] -던가 보다

방언형 '-던게 비다'의 활용형 '-던게 벼'가 줄어든 말. ¶그래 당산으로 남녀간에 쏵 나온께 여자는 여자대로 세우고 남자는 남자대로 세워 갖고는 콧짐 신 사람이 ‘흥’ 허고 불어 버린께 그날 삼태씨를 짓덧기 그냥 막 그 자리에 가서 꼼짝을 안허고 그 자리에 {쓰러지던게비대}. ¶그러고는 뿔깡 들어서 확 공중으로 그나지나 쏴버링께 얼마큼 {올라갔던게비여}. 올라 갔든가. <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범인만 못잡었어요. 징거는 있는디. 칼은 그때까장 목으가 {찔렀던게비}.<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정읍.

-던만 【종결어미】 [대응어] -더구먼.

☞-더만. ¶그 사람 노네서 {일하던만}.<이윤구(00)>

지역 무주.

-덜[1] 【접미사】 [대응어] -들.

‘복수(複數)’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우리덜} 쌍놈이 머 언지는 성씨 갖꼬 이름 갖꼬 살었간디요?<최명희, 혼불> ¶그 {우리덜} 할쩌게넌 저걸 요만치 쫌 노푸게 햇씨, 노푸게요.<지역어 자료 총서, 무주>

지역 전북.

-덜[2] 【축약형】 [대응어] -지를.

((‘않다’, ‘못하다’, ‘말다’ 앞에 쓰이며)) 연결 어미 '-지'와 보조사 '를'이 결합하여 줄어든 말. ¶돈읎쓰니까 {사오덜} 모당깨 어떠카나요?(돈 없으니까 사오들 못 하니까 어떻게 하나요?)<전북지역어, 남원> ¶몬나와요 구러고 {나오덜} 모더.(못 나와요 그리고 나오지를 못해.)<전북지역어, 임실> ¶멋얼 {먹덜} 못 헌당개(무엇을 먹지를 못 한다니까)<김옥화(2001)> ¶옷이 {떨어지덜} 안 허(옷이 닳지를 않아)<김옥화(2001)>

지역 전북.

덜다 동 [대응어] 들이다.

어떤 일에 시간이나, 노력 물자 따위를 쓰다. ¶영감아 꽂감아 개떡 묵게/봄보리 방아 품 {덜어} 개떡 했네/개떡이나 쪘으만 작게나 쪘나/서 마지기 밥솥으로 하나 쪘네(무주군 무풍면 지성리) <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무주.

덜썩 부 [대응어] 훌쩍.

보통의 경우보다 눈에 띄게 더 크거나 커진 모양. ¶누구여, 하고 내다본께 웬 {덜썩} 큰 놈이 밖에 서 있자녀. ¶나이로 보나 덩치로 보나 그 머이매보담 두 배는 되게 생긴 놈이 {덜썩} 커갖꼬 쬐깐허니 에린 것 점심밥을 얻어먹을랑게 그 총중에도 낮바닥이 뜨뜻헐 일이지마는 그렁걸

챙길 겨를이 없는 처지여,<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덜씬 부 [대응어] 훌쩍.
보통보다는 크거나 우람한 모양. ¶"덩치는 {덜씬} 커가지구……." 재봉이는 승재가 언제나 마찬가지로 입은 다문 채 코를 벌씬하고 눈으로만 웃는 것을 마구 대고 놀려먹는다.<채만식, 탁류, 987, 65>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덜씬'은 의태어 부사로 '덜씬 크다, 덜썩 크다'의 표현으로 주로 쓰인다. "보통보다 크거나 우람한 모양"을 나타낸다.

덜판 명 [대응어] 들판.
☞들판.
지역 전북.

덜퍽 부 [대응어] 덜퍼덕, 덥석.
갑자기 힘없이 주저앉거나 뒤집히는 모양. 또는 왈칵 달려들어 닁큼 물거나 움켜잡는 모양. ¶조딱부리는 땅바닥에 {덜퍽} 주질러 앉았다.<송기숙, 녹두장군> ¶욕심 많은 비암이 지 아가리 큰 것만 믿었제 몸통 작은 것언 몰르고 쪽제비 뒷다리 {덜퍽} 물었다가 됩데 지가 잡아믹히는 꼴이나 같제라.<조정래, 아리랑> ¶소파로 달려가 박 장로의 발 앞에 {덜퍽} 엎으러지며 부월은 끈끈한 목소리로 치하의 말들을 늘어놓기 시작했다.<윤흥길, 빛가운데로걸어가면>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덜퍽'은 표준어 '덜퍼덕'에 대응하는 부사이다. 이 부사는 의태어로 "힘없이 주저앉거나 눕는 모양"을 나타낸다. 이 '덜퍽'은 "갑자기"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덤문 명 [대응어] 덧문.
문짝 바깥쪽에 덧다는 문.
지역 완주.

덤버지 명 [대응어] 덩어리.
크게 뭉쳐서 이루어진 것. ¶{덤버지가} 지다
지역 전북.

덤벅 부 [대응어] 덥석.
왈칵 달려들어 닁큼 물거나 움켜잡는 모양. ¶손목을 그만 {덤벅} 쥐다가 깜짝 놀라 탁, 놓으며 "어디 그것 다루겄냐, 살이 아니고 우무로다. 저런 것 한창 좋을제, 잔뜩 안고 채긋시면<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덤벵이 명 [대응어] 뭇, 덩어리.
한데 수북이 쌓였거나 뭉쳐 있는 더미나 무리. 또는 그것을 세는 단위. ¶아 또 마당에 서서 '호덕아' 헌개로 방에서 '예' 하더만, 들어서 본개 똥이 한 {덤벵이가} 짝 벌어져갖고 있어. 또 방에서 부르면 정지서 대답을 혀. 가보면 똥만 짝 벌어지고, 아 정지서 또 부르면 뒤안에서 대답허고,<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부안, 임실.

덤부락 명 [대응어] 덤불.
어수선하게 엉클어진 수풀.
지역 전북.

덤부리기 명 [대응어] 덤불.
어수선하게 엉클어진 수풀.
지역 전북.

덤뿔 명 [대응어] 덤불.
어수선하게 엉클어진 수풀. ¶산질을 관리를 안 해서 {덤뿔이} 있는 곳이 많아.
지역 전북.

덤성거리다 동 [대응어] 덤벙거리다.

바쁘게 왔다갔다 하다. ¶무슨 일이 깍 찼는가 발이로 저리로 맨나 {덤성거리고} 돌아댕겨.

지역 전북.

덥배 부 [대응어] 돕지.

갑옷이나 마고자 따위의 섶. 앞을 여미지 아니하고 두 쪽이 나란히 맞닿도록 만든 것이다. ¶{덥배를} 추실러 입었어.

지역 전북.

덧보신 명 [대응어] 덧버선.

양말이나 버선 위에 덧신는, 목 없는 버선. ¶큼직한 {덧보신} ¶{덧보신을} 신다

지역 고창, 부안, 순창.

덧붙이기 명 [대응어] 덧붙이.

사람이 군더더기로 딸려 있는 일. ¶살림허는 사람은(요양원에) 못 있어. {덧붙이기로} 있어야 거가 편하제.

지역 전북.

덩가리 명 [대응어] 덩어리.

크게 뭉쳐서 이루어진 것. ¶{덩가리가} 크게 져서 잘 빠숴야겄어.

지역 전북.

-덩가베 【종결어미】 [대응어] -던가 봐.

해할 자리에 쓰여, 어떤 사실을 묻는 종결 어미. ¶성하믈 어떠케 {알덩가베?}, <이윤구(1985)> ¶그 지비 엉가니 {크덩가베}?<이윤구(1985)> ¶진보기가 방주게 놀고 {인설떵가베}? ¶그거시 {토기덩가베}?

지역 전북.

덩걸 명 [대응어] 터.

집이나 건물을 지었거나 지을 자리. ¶전북대 {덩걸이} 다 우리 이씨 조상이 세웠대.

지역 전북.

덩게 명 [대응어] 등겨.

벗겨 놓은 벼의 껍질. ¶베 찧구나면 보드라운 {덩게가} 나오지.

지역 전북.

덩덕개비 명

덩달아 날뛰는 사람. ¶"너는 개 × 에 {덩덕개비여}! 아직 가만 있다가 싸움이 얼리거든 날 때리기나 히여!"<채만식, 정자나무 있는 揷畵>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덩덕개비'는 '덩더꿍'의 '덩덕'에 사람을 나타내는 접미사 '-개비'가 결합하여 형성된 파생어이다.

덩부렝이 명 [대응어] 덤불.

어수선하게 엉클어진 수풀. ¶{덩부렝이를} 헤쳐 어렵게 질가로 나왔어.

지역 전북.

덩클덩클 부 [대응어] 덩이덩이.

덩어리가 완전히 풀리지 아니하고 약간씩 뭉쳐 남아 있는 모양. ¶덕석 벳겨 내는디 봉게로 살점이 기양 덕석에가 {덩클덩클} 묻었등만.<최명희, 혼불> ¶이빨 박힌 팔에서 선지피가 {덩클덩클} 흘렀다.<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덩풀 명 [대응어] 덤불.

어수선하게 엉클어진 수풀. ¶{덩풀을} 헤치다

지역 전북.

덮장 명 [대응어] 두벌.

흙이나 시멘트 따위를 개어 벽에 한번 더 바르는 일. ¶여그다 새로 시방 {덮장을} 허. 또 한번

발러. ¶이건 초벌이고 이건 {덮장} 아녀? 두 번, 두 번 허는 놈. 근디 안 혔어.
지역 전북.

데글데글허다 형 [대응어] 덕지덕지하다.
때나 먼지 따위가 아주 많이 끼어 있다. 또는 어지럽게 덧붙거나 겹쳐 있다. ¶흙이 {데글데글허게} 붙어 있네.
지역 전북.

데꼬가다 동 [대응어] 데려가다.
함께 거느리고 가다. ¶근디 인자 {데꼬가도} 멋을 헐 종을 모린게. ¶넘으 일 가먼 애기 {데꼬가서} 밥 더 맥일라고. ¶인제 그럼 사랑방으 가먼 우리가 심부름도 많이 해주고 그라지. 그란게 인제 귀엽다고, 우리를 {데꼬가고} 그랬는디. ¶여그 집에 오먼은 옆에 대반 앉은 사람이 인자, 배깥이 바람도 쐬게 {데꼬가고} 소변 보러도 {데꼬가고} 그랬지. ¶그럼 항꼬 가야제. {데꼬가라} 그러제.
지역 전북.

데꼬다 동 [대응어] 데려오다.
'데려오다'의 준말. 함께 거느리고 오다. ¶겔혼 상대 {데꼰다고}. 아, 그려, {데꽜는디} 그냥 좋드라네, 맘에 쏙 들더라네. ¶가진 사람은 다 한님이 따라와. 옛날에 다 가잖에. 거그서 보내제. 한 명이 오고 {데꽈서} 절 시겨.
지역 전북.

데다 동 [대응어] 데우다.
☞디다.
지역 남원.

데따 부 [대응어] 도리어.
예상이나 기대 또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반대되거나 다르게. ¶잘못은 지가 했으면서 {데따} 성내대.
지역 전북.

데떼 부 [대응어] 도리어.
예상이나 기대 또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반대되거나 다르게. ¶지가 {데떼} 성내는 이유를 모르겠네.
지역 전북.

데라다보다 동 [대응어] 들여다보다(방안을).
밖에서 안을 보다. ¶방 안을 함부로 {데라다보먼} 안되지라.
지역 전북.

데레다보다 동 [대응어] 들여다보다(방안을).
밖에서 안을 보다. ¶방 안을 {데레다보다}
지역 진안.

데렌님 명 [대응어] 도련님(호칭).
☞대린님.
지역 전북.

데루다 동 [대응어] 데리다(데리고).
아랫사람이나 동물 따위를 자기 몸 가까이 있게 하다. ¶니가 가고잡은 데로 {데루고} 가거라.
지역 고창, 군산, 남원, 부안, 완주, 익산, 임실, 정읍.

데리사우 명 [대응어] 데릴사위.
☞데릿사우.
지역 전북.

데린님 명 [대응어] 도련님(호칭).
결혼하지 않은 시동생을 높여서 이르거나 부르는 말. ¶자식으로 딜이고 말 거이란 이얘기여. 새터 서방님 대신으로 미우나 고우나. 내 피 받었잉게." "관옥 같은 {데린님들이} 지신디요……."

"아 손자 달코 아들 달체. 숟구락허고 젓구락이 한 밥상 한 자리에 나란히 뇌인다고 씨이능 것도 같응가?<최명희, 혼불> ¶"대실서방님이 못 오먼 그집이도 아들이 없잉게, 손자 하나 조막만 헌 거 클라먼 한참 아닝가이? 봉출이는 철재{데린님보둠} 열 살이나 더 먹었고. 아니, 열한 살 더 먹었능가아,<최명희, 혼불>
지역 부안, 군산, 임실, 정읍, 진안.

데릿사우 명 [대응어] 데릴사위.
결혼 후 처가에 들어가서 사는 남자. ¶결혼 후 몇 년간 {데릿사우로} 처가에서 지내다
지역 전북.

데링다 동 [발음] [데리따] "[활용형] 데링고[데리꼬], 데링어[데려] " [대응어] 데리다(데리고).
아랫사람이나 동물 따위를 자기 몸 가까이 있게 하다. ¶쪼금 등으다 젊어지고 이고 보따리 우그다 애기 없어서 시(셋) 새끼를 {데리꼬} 다섯 식구가 떠나는 것여.<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용케 쥐기든 앙코 여기서 한 서넏스:싱가 델꾸가서넌 인자 {데레다가} 지서에다 또 유치럴 시키제이?<2008 전북 고창> ¶머심 두얼 데꾸 살고 {데레다} 살먼 그정도열 찌.<2008 전북 고창>
지역 고창, 순창, 임실, 정읍, 진안.

데미 명 [대응어] 더미.
많은 물건이 한데 쌓인 큰 무더기. ¶가만히 앉어서도 산 {데미} 같은 노적가리가 지 발로 걸어오는 운수도 있능 거이고, 쇠시랑 갈고리로 찍어 붙들어도 임자가 따로 있는 운수가 있능게……<최명희, 혼불> ¶이, 윤샌집 헛간서 나무고 짚북 {데미고} 오만 잡동사니럴 싸올레갖고 담허고 새에 눌 자리럴 맹글어 피해 있었는디,<조정래, 태백산맥> ¶저그 장작 {데미가} 있다.<조정래, 아리랑> ¶철모르는 에린것들은 쓰레깃{데미를} 놀이터로 삼고 놀아도 밤이면 무지개 꿈을 꾸고, 저만 아는 비밀시런 추억거리들을 소중허게 간직험시나 커나가게 마련이지.<윤흥길, 소라단 가는 길>
지역 전북.
해설 '더미'가 움라우트의 적용을 받아 '데미'로 나타난다.

데붓두덕 명 [대응어] 둑.
높은 길을 내려고 쌓은 언덕. ¶데부두덕을 쌓다.
지역 전북.

데붓둑 명 [대응어] 둑.
높은 길을 내려고 쌓은 언덕. ¶아스팔트 새 길을 낸다고 {데붓둑을} 쌓는디 생각보다 오래 거리도만. ¶{데붓둑}에 매어둔 송아지를 몰고 올 때면 저녁놀에 물든 코스모스며 달맞이꽃이 한 폭의 그림이었지.
지역 전북.

-데야 【종결어미】 [대응어] -대
방언형 '-다구 허야'가 줄어들어 굳은 말. 해할 자리에 쓰여, 들어서 알게 된 내용을 확인하여 묻는 종결 어미. ¶대처 머땀세고 {난리데야}?<조봉래, 풀벨골> ¶핑계 읎넌 무덤 하나나 {있데야?……}<채만식, 태평천하> ¶야야, 그런 소리 마라! 세상으 에누리 없넌 흥정이 어디 {있다데야}? 나넌 나라에 바치넌 세전(納稅)두 에누리를 허넌 사람이다!<채만식, 태평천하> ¶안 {드러왔데야}?<채만식, 정거장근처> ¶두부장수 불러들여서 을메 허는 건 알어 무엇 헐라구?……으젓잔헌 것이 짓마닷 어디서!……. 왜 두부장수 서방허구 {싶데야}?<채만식, 정거장근처> ¶"몰라. 시방 즈이 집에 왔다구 나더러 가보자구." "옥례네는 {산다데야?"} "안 산대여."<채만식, 보리방아>
지역 전북.

-데이 【종결어미】 [대응어] -더라.
해라할 자리에 쓰여, 이전에 새로이 알게 된 일을 확인하듯이 묻는 종결 어미. ¶주니 서울 {가데이}?<김중진(1984b)> ¶실랑 키 {크데이}? <김중진(1984b)>
지역 고창.

덴장 명 [대응어] 된장.
메주로 간장을 담근 뒤에 장물을 떠내고 남은 건더기. ¶덴장을 담그다. ¶{덴장} 끓이게 뚝배기 하나 가져와라. ¶오늘 아침 반찬은 {덴장국을} 끓여야겠다.
지역 고창, 무주.

델꼬가다 동 [대응어] 데려가다.
함께 거느리고 가다. ¶난생 처음 타보는 고급 승용차 였다. "즈이를 시방 으디로 {델꼬} 가실 작정이다요?" 연삽한 소리를 내면서 미끄러지듯 차가 조용히 구르기 시작하자 부월은 잔뜩 주눅이 든 소리로 조심스레 물었다.<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즈그 발등에 떨어진 불똥도 못 꺼 환장헐 판인디 우리 겉은 것덜얼 일본으로 {델꼬가야}?<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델꼬다 동 [대응어] 데려오다.
지역 전북.

델다 동 [대응어] 데리다(데리고).
아랫사람이나 동물 따위를 자기 몸 가까이 있게 하다. ¶"문을 열으라!"고 소리를 질르거든. 나가 본게 남편이 왔어. 밖으 밖으 가서 본게, 어 그 놈을 {델고} 잔단 그 말이거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그래서 시아버지라는 사람이 며느리를 {델고서는}, 응, 사돈네 집으로 인저 가.<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얘를 크게 성공을 시킬라믄 날 주시오. 내가 {델고} 나갈라우."<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가난한 아이를 {델다가} 식모로 쓴다니 불쌍하다. ¶서당도 어트게 방학을 했는지 어쨌는지, 맴소를 {델고} 십리 바깥으로 끌고 나갔어.<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힘들었지마는 그냥 {델고} 왔으니 망정이지 글안했으면 큰 일 날뻔 힜어.
지역 전북, 정읍, 진안.

델다보다 동 [대응어] 들여다보다(방안을).
☞델이다보다.
지역 전북.

델이다보다 동 [대응어] 들여다보다(방안을).
밖에서 안을 보다. ¶안을 {델이다봤는가}?
지역 김제.

뎁다 부 [대응어] 도리어.
일반적인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그려서 기막힌 성님이 먼 짓덜이냐고 헝게, 아 요것덜이 {뎁다} 욕을 허고 자빠졌더래.<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뎁데 부 [대응어] 도리어.
일반적인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도적놈이 {뎁데} 매렬 들어도 분수가 있제.<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뎁데고깔 명 [대응어] 도리어 오히려.
일반적인 생각이나 기준과는 전혀 반대되거나 다르게, 오히려. ¶고연시리 울털마냥 뒷전에서 시상을 비관혀봤자 {뎁데고깔로} 능력없는놈이 되기 똑 알맞제야.<조봉래, 풀벨골> ¶{뎁데고깔로} 큰 소리를 질러요.
지역 전북.

뎁세 뿌 [대응어] 도리어.
예상이나 기대 또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반대되거나 다르게. ¶화가 난 건 난디, {뎁세} 딴말을 하대.
지역 전북.

뎅이 명 [대응어] 덩이.
작게 뭉쳐서 이루어진 것. 또는 그것을 세는 단위. ¶자가 큰소리를 치는 것 봉게 간{뎅이가} 붓었는게벼. ¶흑 두 {뎅이}
지역 전북.

ㄷㅔㆆ다 동 [발음] [데따] [활용형] ㄷㅔㆆ고[데꼬] [대응어] 데리다(데리고).
아랫사람이나 동물 따위를 자기 몸 가까이 있게 하다. ¶데리다/동/ *데리고 {정문연}<전북>[군산, 완주, 무주, 김제, 부안], *데리꼬 {정문연}<전북>[진안, 정읍, 임실, 고창, 순창], *데꼬 {정문연}<전북>[장수, 남원], * 데루구 {정문연}<전북>[익산], *들꼬 {정문연}<전북>[순창], *데리로 {정문연}<전북>[군산], *델로 {정문연}<전북>[진안, 무주, 부안, 정읍, 임실, 장수. 순창, 남원], *델러 {정문연}<전북>[익산, 완주, 무주. 김제, 고창], <한국방언어휘자료집_전북편> ¶아이고, 감기가 걸래서 집이서 자라고 지가 억지로 {데꼬} 갔제.<송기숙, 녹두장군>
지역 남원, 장수.

도가 명 [대응어] 독.
☞도가지.
지역 완주.

도가니 명 [대응어] 독.
간장, 술, 김치 따위를 담가 두는 데에 쓰는 큰 오지그릇이나 질그릇. ¶가마~이 짠 노메다 가마니다 너서.(가마니 짠 놈에다 가마니에다 넣어서.)마:느면 인자 가마니다 넡코, 쪼그만썩긍건 {도가니다} 너코.(많으면 이제 가마니에다 붓고, 조금만씩 한 것은 독에 넣고.)<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지역 군산, 임실.

도가지 명 [대응어] 독.
간장, 술, 김치 따위를 담가 두는 데에 쓰는 큰 오지그릇이나 질그릇. ¶손을 딲으고 나감서, "아뭘 할라고 불렀는기요?" "너 이리와 마룽(마루)에 좀 앉아. 앉음서, 저기 저 담장 밑에 금 {도가지} 세 {도가지를} 묻어났어.<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쇠로 만든 엽전. 돈을 어디 많이 묻었느냐고 물은게, "아, 우리 집안에 참 많이 돈 {도가지를} 많이 묻었읍니다."<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옹기 {도가지} 옹기로 인제 거기다 그노믈 너코서, 인제 물, 무를 막 거기다 인자 붇꾸서<지역어 자료 총서, 무주> ¶{도가지에} 담궈 둔 김장김치를 꺼내오너라.
지역 남원, 무주, 완주, 임실.

도가지 속에 갇힌 시앙쥐 【관용표현】
궁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처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니놈은 {도가지 속에 갇힌 시앙쥐} 신세다. 거그 숨어서 암만 빼둥지랄을 쳐봤자 말짱 헛일이다.<윤흥길, 낫>
지역 전북.
해설 "궁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처지"를 일반적으로 '독 안에 든 쥐'로 표현한다. 윤흥길의 작품에서는 '도가지 속에 갇힌 시앙쥐'라고 표현하여 "갇힌 신세의 매우 처량함"을 표현하고 있다.

도곳대 명 [대응어] 절굿공이.
절구에 곡식 따위를 빻거나 찧거나 할 때에 쓰는 공이. 나무, 돌, 쇠 따위로 만든다. ¶그 있는디, 지금은 인자 정미소에 가서 나락을 찧어다 먹는디 그전이는 그러들 못 허고 {도곳대로} 찧

어서 먹쟎요.<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 편>
지역 전북.

도곳대질 명 [대응어] 절구질.
절구에 곡식 따위를 넣고 빻거나 찧는 일. ¶큰메느리허고 짝은 메느리가 쌍{도곳대질} 허듯이 즈 시에미 숭을 보는디 귀가 간지러서 혼났당게.
지역 전북.

도구방애 명 [대응어] 엉덩방아.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주저앉아서 엉덩이로 바닥을 쾅 구르는 짓. ¶{도구방애럴} 찧고 자빠졌는디.
지역 전북.

도구질 명 [대응어] 절구질.
절구에 곡식 따위를 넣고 빻거나 찧는 일. ¶암, 도구통으다 {도구질로} 히찌. {도구지를} 마니 해쩨.<2008 전북 고창> ¶{도구질}, 도구통에다 {도구질도} 허고.<2005 전북 남원>
지역 남원, 임실, 완주, 고창.

도구통 (搗臼桶) 명 [대응어] 방아확.
방앗공이로 찧을 수 있게 돌절구 모양으로 우묵하게 판 돌. 방앗공이가 떨어지는 곳에 묻어 그 속에 곡식을 넣고 찧거나 빻는다. ¶{도구통에서} 깨소금을 빻았다. ¶그 쑤수망생 헌다는게 보통 이리 아녀. 그 시방은 방애깐에 가서 쑤수 물론 팔기도 하고, 찌키도 허고, 인자 거시기허면 팔기도 허는디, 그때만 해도 다 지비서 {도구통으로다} 찌야자나, 그거. 찌쿠 대끼구 다, 그거 히서 그거 히야자나 그거. 그게 보통일 아녀. 쑤수망생이 헌다는 거시.<2007 전북 군산> ¶도구질, {도구통에다} 도구질도 허고.<2005 전북 남원> ¶동 벤 보리 목 뚝뚝 따다 솥에다 푹푹 찌고 볶으면 파짝파짝 마른단다 그걸 {도구통에} 콩콩 찧으면 보릿잎 보릿대 패지 않은 보리가 한꺼번에 찧어졌단다<김용택, 강같은 세월>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도굿대 (搗臼-) 명 [대응어] 방앗공이.
방아확 속에 든 물건을 찧는 데 쓰도록 만든 길쭉한 몽둥이. ¶고 이 나무:로 이러케 찐는 요곧 뽀고는 이르미 뭐라구레요? 거 저 {도굳때}, 드들방애 {도구때}.<2009 전북 임실> ¶정성을 흠향하고 몸소 둘러보러 오신 선령(先靈)의 밝은 마음이 제상 모양을 가리실까. {도굿대} 끝에다 그림을 그려 매달아도 인신(人神)이 통할 만큼만 참으로 진정을 다헌다면, 굳이 제수 안 올려도 아실 것인즉.<최명희, 혼불> ¶{도굿대에} 보리를 찧어서 먹었다.
지역 고창, 군산,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도긋대 명 [대응어] 방앗공이.
☞도굿대.
지역 군산, 익산.

도깨비풀 명 [대응어] 도깨비바늘. ¶{도깨비풀이} 자라다
지역 전북.

도꼬마리 명 [대응어] 도깨비바늘.
☞도꾸머리.
지역 군산, 고창, 남원, 임실.

도꾸마리 명 [대응어] 도깨비바늘.
☞도꾸머리.
지역 남원.

도꾸머리 명 [대응어] 도깨비바늘. ¶{도꾸머리가} 자라다

지역 고창.

도내기시암 명 [대응어] 샘(泉).
물이 땅에서 솟아 나오는 곳. 또는 그 물. ¶나주 영산에 도 {도내기시암은}/구름 씨 씨어도 생수가 난다/어리히 이히헤 에헤야노 마 마헤 헤이어리히/아리나 씨고나 좋네<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남원.

도독 명 [대응어] 도둑.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따위의 나쁜 짓. 또는 그런 짓을 하는 사람. ¶바늘 {도도기} 소 {도독} 된다<2009 전북 임실> ¶{도독이}, 게 도독놈 얘기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임실, 정읍.

도독괭이 명 [대응어] 도둑고양이.
사람이 기르거나 돌보지 않는 고양이. ¶{도독괭이가} 울다
지역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임실, 장수, 정읍, 고창, 군산, 완주, 익산, 진안.

도독귀앵이 명 [대응어] 도둑고양이.
사람이 기르거나 돌보지 않는 고양이. ¶{도독귀앵이가} 울다
지역 김제.

도독귀양이 명 [대응어] 도둑고양이.
사람이 기르거나 돌보지 않는 고양이. ¶{도독귀양이가} 울다
지역 전북.

도독놈 명 [대응어] 도깨비바늘. ¶{도독놈이} 자라다
지역 무주, 순창, 임실, 정읍.

도독놈풀 명 [대응어] 도깨비바늘. ¶{도독놈풀이} 자라다
지역 남원, 장수, 진안, 완주.

도둑괭이 명 [대응어] 도둑고양이.
☞도독괭이. ¶ 퍼렇게 독이 오른, 송곳같이 뾰족한 두 눈으로 남포등 불빛이 노랗게 묻어난 창호지에 숭숭 구멍을 뚫어가며 할머니는 암상떠는 {도둑괭이와도} 같이 연방 가르랑거렸다.
지역 고창, 군산, 완주, 익산, 진안.

도둑까시 명 [대응어] 도깨비바늘.
지역 전북.

도둑놈까시 명 [대응어] 도깨비바늘.
지역 전북.

도둑놈풀 명 [대응어] 도깨비바늘.
☞도독놈풀.
지역 완주.

도디다 동 [대응어] 돋우다.
밑을 괴거나 쌓아 올려 도드라지거나 높아지게 하다. ¶원앙침에 잣베개는/둘이 벨듯이 {도디} 놓고/새벨 겉은 요강 대양/ 발질만치 {도디나} 놨네(남원 시집살이노래-"시누가 깬 옥동우를") <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남원.

도랑 명 [대응어] 둘레.
사물의 테두리나 바깥 언저리. ¶기웅은 못줄을 옮겨 꽂으며, 논의 {도랑을} 치고 물길을 내야겠다고 생각한다.<최명희, 혼불> ¶마당 {도랑을} 살살 댕기고, 말을 거기다 딱 나두고,<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전북.

도래멍석 명 [대응어] 짚멍석.
흔히 사람이 앉거나 곡식을 너는 데 쓰는, 짚으로 엮어 만든 큰 자리. ¶할멈 마당도 깨끗이 씰코(쓸고) 집에 황토 놓고 금토허고 저 {도래멍석} 갖다 깔고는 짚을 삼발나게 놓고 거그서 상을 갖다 놓고 샘이 가서 낯을 씻고<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군산, 익산.

도래이 명 [대응어] 도롱이.
☞도랭이.
지역 전북.

도랜지 명 [대응어] 굽도리지.
☞도련지.
지역 전북.

도랭이 명 [대응어] 도롱이.
짚, 띠 따위로 엮어 허리나 어깨에 걸쳐 두르는 비옷. 예전에 주로 농촌에서 일할 때 비가 오면 사용하던 것으로 안쪽은 엮고 겉은 줄거리로 드리워 끝이 너털너털하게 만든다. ¶그전이는 우비가 있다고? {도랭이고} 삿갓이지. {도랭이허고} 삿갓이고 인자 씨고 생이를 갖다 마당으다 맞차 놓고 비가 와도 인자 헐 예산을 잡고 인자 가시체를 띠미다가 갖다 딱 갖다 생이 우다 올랴 논게.<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그서 산말랭이를 이렇게 폴딱 넘어서 쪼금 내리가니깐 농군들이 그전이 {도랭이} 있죠. 비올 때 입는 도랭이를 전부 준비허갖고 와서 그 다락논 쪼그만, 쪼그만 논, 이런 논가시다 이렇게 엎어 놓고서는 거그서 김을 매고 있어.<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군산, 완주, 임실, 부안, 정읍.

도런지 명 [대응어] 굽도리지.
☞도련지.
지역 전북.

도레도레 부
작은 것들이 한 자리에 둘러 있는 모양. ¶보잘것없는 황토 흙집에 바람벽은 갈라지고, 방바닥은 다 떨어진 부들자리 거칠지마는, 그래도 질화로 하나 있어 {도레도레} 둘러앉을 수 있으니.<최명희, 혼불> ¶모양이나 좌향이야 어떠하든, 그들은 상전의 집 주위 코 닿는 곳에 {도래도래} 모여, 주인이 마당에서 “아무개야아.” 부르면 하시라도 달려가 대령하고, 만일에 무슨 위험한 일이 있을 때는 주인 댁을 보호하는 방패막이가 되면서 상전의 집을 에워싸고 있었는데.<최명희, 혼불> ¶풍경이 문득 출렁 높아지는가 싶은 무산(巫山) 봉우리 아래 자리잡은 거멍굴은, 소쿠리 하나 안에 들만치 {도래도래} 모여 앉은 납작한 초가집들의 마을이다.<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도렌님 명 [대응어] 도련님(호칭).
☞대린님.
지역 김제, 남원, 순창.

도련지 (←도련紙) 명 [대응어] 굽도리지.
방 안 벽의 아랫도리에 바르는 종이. ¶{도련지를} 대야 도배가 좀 깨끗하게 돼. 울퉁불퉁한 것도 없어지고.
지역 김제, 임실.

도렴직하다 형 [발음] [도렴지가다/도렴지카다] [대응어] 도람직하다.
동글납작한 얼굴에 키가 자그마하고 몸매가 얌전하다. ¶두드러지게 어여쁜 구석은 없어도 {도렴직하니} 귀염성 있고 번화한 얼굴이었다.<채만식, 처자> ¶그것은 행화가 얼굴이 {도렴직하니} 코언저리로 기미가 살풋 앉은 것까지도 귀인성이

있고,<채만식, 탁류> ¶남편이란 사람은 나이 근 사십이나 되었으되 색시는 겨우 이십이 될까 말까 {도렴직한} 볼때기에 애티가 아작 남아 있어 귀염성스러웠다.<채만식, 明日>

지역 전북.

도로깨 명 [대응어] 도리깨.

곡식의 낟알을 떠는 데 쓰는 농기구. 긴 장대 끝에 구멍을 뚫어 꼭지를 가로 박고, 그 꼭지 끝에 서너 개의 회초리를 매어 달아 돌게 한다. ¶개상이라고는 허도만 {도로깨로} 투드리는 거뽀고.(개상이라고는 하더구먼, 도리깨로 두드리는 것 더러.)<완주_지역어_텍스트> ¶{도로깨로} 콩타작을 하였다.

지역 완주, 익산, 정읍, 군산, 임실, 진안.

도로깨어시 명 [대응어] 도리깻장부.

도리깨의 자루로 쓰는 긴 막대기. ¶{도리깨어시를} 바꾸다

지역 고창.

도로캐 명 [대응어] 도리깨.

곡식의 낟알을 떠는 데 쓰는 농기구. 긴 장대 끝에 구멍을 뚫어 꼭지를 가로 박고, 그 꼭지 끝에 서너 개의 회초리를 매어 달아 돌게 한다. ¶{도로캐로} 깨를 떨었다

지역 무주.

도로캐깡치 명 [대응어] 도리깻장부.

도리깨의 자루로 쓰는 긴 막대기. ¶{도로캐깡치를} 잡다

지역 무주.

도로캐열 명 [대응어] 도리깻열.

도리깨의 한 부분. 곧고 가느다란 나뭇가지 두세 개로 만들며, 이 부분을 위아래로 돌리어 곡식을 두드려 낟알을 떤다. ¶{도로캐열을} 휘두르다

지역 무주.

도로캣열 명 [대응어] 도리깻열.

☞도로캐열.

지역 무주.

도롱태 명 [대응어] 굴렁쇠.

☞동글태. ¶{도롱태는} 자전거 바쿠로 만들면 돼.

지역 고창, 군산, 김제, 부안, 완주, 익산, 정읍.

도루깨날 명 [대응어] 도리깻열.

도리깨의 한 부분. 곧고 가느다란 나뭇가지 두세 개로 만들며, 이 부분을 위아래로 돌리어 곡식을 두드려 낟알을 떤다. ¶{도루깨날을} 하려고 가는 나무를 끊다

지역 전북.

도루돌돌돌 부 [대응어] 오래오래.

돼지를 부르는 소리를 흉내내는 말. ¶돼지를 {도루돌돌돌} 하고 부른다.

지역 전북.

도르래도르래 부 [대응어] 오래오래.

돼지를 부르는 소리를 흉내내는 말. ¶돼지를 {도르래도르래} 하고 부른다

지역 고창.

도르르돌돌 부 [대응어] 오래오래.

돼지를 부르는 소리를 흉내내는 말. ¶돼지를 {도르르돌돌} 하고 부른다

지역 전북.

도리[1] 명 [대응어] 도롱이.

짚, 띠 따위로 엮어 허리나 어깨에 걸쳐 두르는 비옷. 예전에 주로 농촌에서 일할 때 비가 오면 사용하던 것으로 안쪽은 엮고 겉은 줄거리로 드

리워 끝이 너털너털하게 만든다. ¶되로이라고도 하고 {도리라고도} 해요.
지역 전북.

도리² 의명
누에를 살 때 세는 단위. ¶(누에) 열 {도리가} 반 매여.
지역 전북.

도리깨귀 명 [대응어] 도리깨꼭지.
도리깨 자루 끝의 구멍에 끼워 도리깻열을 매는 데 쓰는 나무로 된 비녀못. 도리깻열을 위아래로 돌릴 때 축의 구실을 한다. ¶{도리깨귀를} 다시 꽂다
지역 완주.

도리깨꼭지 명 [대응어] 도리깨꼭지.
도리깨 자루 끝의 구멍에 끼워 도리깻열을 매는 데 쓰는 나무로 된 비녀못. 도리깻열을 위아래로 돌릴 때 축의 구실을 한다. ¶{도리깨꼭지를} 고정하여 돌리다
지역 완주, 고창.

도리깨대 명 [대응어] 도리깻장부.
도리깨의 자루로 쓰는 긴 막대기. ¶{도리깨대를} 갈아 끼웠어.
지역 완주.

도리깨어시 명 [대응어] 도리깨꼭지.
도리깨 자루 끝의 구멍에 끼워 도리깻열을 매는 데 쓰는 나무로 된 비녀못. 도리깻열을 위아래로 돌릴 때 축의 구실을 한다. ¶{도리깨어시를} 박다
지역 고창.

도리깨열 명 [대응어] 도리깻열.
도리깨의 한 부분. 곧고 가느다란 나뭇가지 두세 개로 만들며, 이 부분을 위아래로 돌리어 곡식을 두드려 낟알을 떤다. ¶{도리깨열을} 돌리다
지역 완주, 임실.

도리깨이을 명 [대응어] 도리깻열.
도리깨의 한 부분. 곧고 가느다란 나뭇가지 두세 개로 만들며, 이 부분을 위아래로 돌리어 곡식을 두드려 낟알을 떤다. ¶{도리깨이을이} 돌아간다
지역 고창.

도리깨입삭 명 [대응어] 도리깻열.
도리깨의 한 부분. 곧고 가느다란 나뭇가지 두세 개로 만들며, 이 부분을 위아래로 돌리어 곡식을 두드려 낟알을 떤다. ¶{도리깨입삭이} 돌아가는 소리가 난다
지역 남원.

도리깨장치 명 [대응어] 도리깻장부.
도리깨의 자루로 쓰는 긴 막대기. ¶{도리깨장치를} 잡다
지역 전북.

도리깻열가락지 명 [대응어] 도리깨꼭지.
도리깨 자루 끝의 구멍에 끼워 도리깻열을 매는 데 쓰는 나무로 된 비녀못. 도리깻열을 위아래로 돌릴 때 축의 구실을 한다. ¶{도리깻열가락지를} 갈다
지역 임실.

도리끼 명 [대응어] 도리깨.
곡식의 낟알을 떠는 데 쓰는 농기구. 긴 장대 끝에 구멍을 뚫어 꼭지를 가로 박고, 그 꼭지 끝에 서너 개의 회초리를 매어 달아 돌게 한다. ¶{도리끼를} 휘두르다 ¶마당에 콩을 널려 말린후 {도리끼로} 털고 보니 잘 털혔다.
지역 전북.

도리마 (←) 도루麻 명 [대응어] 도루마.
여름 옷감으로 쓰는 중국에서 나는 베의 한 종류. ¶삼승포 오승포/고릉 종산에 고흔 베/길주 명천에 가는 베/가는 모시 굵은 모시/한산 세모시 생저/마포 광포 화포 광대포/{도리마} 도리사(진안 고사풀이)<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진안.

도리뱅치다 동
같은 일이나 행동을 반복함. ¶조 폴을 들고 {도리뱅치는} 거이 쪼매 흠일 뿐이제.<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도리채 명 [대응어] 도리깨.
곡식의 낟알을 떠는 데 쓰는 농기구. 긴 장대 끝에 구멍을 뚫어 꼭지를 가로 박고, 그 꼭지 끝에 서너 개의 회초리를 매어 달아 돌게 한다. ¶보리딴을 그 절구통 가튼 거 뉘어노코 거그다가 막 패가지고 떠러지는거또 이꼬 또 홀테로 가따 훌터가지고 애 그거슬 그 이사글 모가지로만 떠러지는데, 그거슬 {도리채로} 바숩니다.(보릿단을 그 절구통 같은 것에 눕혀 놓고 거기에다 막 때려서 떨어지는 것도 있고, 또 홀테로 훑어서 그것을, 이삭모가지만 떨어지는데, 그것을 도리깨로 부숩니다.)<2007 전북 군산>
지역 군산, 부안, 정읍.

도리채고리 명 [대응어] 도리깨꼭지.
도리깨 자루 끝의 구멍에 끼워 도리깻열을 매는 데 쓰는 나무로 된 비녀못. 도리깻열을 위아래로 돌릴 때 축의 구실을 한다. ¶{도리채고리를} 꽂다
지역 군산.

도리채자루 명 [대응어] 도리깻장부.
도리깨의 자루로 쓰는 긴 막대기. ¶{도리채자루를} 들다 ¶{도리채자루는} 대나무를 쓰지만 도리채 열(아들)은 닥나무나 물푸레나무로 맨드는 것이 보통이었지.
지역 군산.

도리캐 명 [대응어] 도리깨.
곡식의 낟알을 떠는 데 쓰는 농기구. 긴 장대 끝에 구멍을 뚫어 꼭지를 가로 박고, 그 꼭지 끝에 서너 개의 회초리를 매어 달아 돌게 한다. ¶{도리캐로} 콩을 타작하다
지역 무주.

도마리허다 동 [대응어] 도맡다. ¶긍게 지놈 혼자서 착헌 일을 {도마리헌} 것맹이로 설쳐쌌는디.<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도마배얌 명 [대응어] 도마뱀. ¶내가 동남아시아를 다 돌고 왔는디 거그는 집 안으도 {도마배얌이} 막 기어댕기고 그러드랑게. ¶밭길을 걸어가는데 앞에서 {도마배얌이} 쉭 하고 지나갔다.
지역 전북.

도마비암 명 [대응어] 도마뱀.
☞도마배얌. ¶어릴적에는 {도마비암이} 꼬랑지 끊고 도망가는 것이 신기허기만 했지.
지역 전북.

도마재비 명 [대응어] 버마재비.
☞버마자비.
지역 부안.

도막비얌 명 [대응어] 도마뱀.
☞도마배얌.
지역 전북.

도막이야기 명

다른 것에 비해 아주 짤막한 이야기. ¶자꾸 {도막이야기라도} 하겠다고 제보자가 말하자, 옆에서 듣고 있던 청중이 월사 이야기나 하나 하라고 했다.<구비문학대계 전북 고창군편>

지역 전북.

-도만 【종결어미】 [대응어] -더군.

해할 자리나 혼잣말에 쓰여, 과거 어느 때에 직접 경험하여 새로이 알게 된 사실을 현재의 말하는 장면에 그대로 옮겨 와서 전달하며, 그 알게 된 사실에 주목함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흔히 감탄의 뜻이 수반된다. ¶찍소리도 못 내케코롬 달어당장 부자지부텀 냅다 걷어차뿌렀지. 혔더니 숨도 지대로 못 쉬고 {캑캑거리도만}.<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말만 그냥 뻰지르허니 잘헐 뿐이지 예수 안 믿는 우리네 같은 잡탕들한티 본이 되게코롬 지대로 되야먹은 예수꾼은 눈깔을 까뒤집고 봐도 못 {찾겄도만요}.<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알고 보니깨 시한부 종말론이란 것도 단벌이 아니고 여러 벌이 {있도만}.<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자기허고 떨어져 지내도 나는 암시랑토 {않도만}. 됩데 혼차 자니깨 신간 펜허고 한갓지기만 허데.<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거그는 밧을 갈서도 소 두 마리를 {채우도만}.<이태영(1991)>

지역 전북.

도매비얌 명 [대응어] 도마뱀.

☞도마배얌.

지역 전북.

도방구리 명 [대응어] 바구니.

대나 싸리 따위를 쪼개어 둥글게 결어 속이 깊숙하게 만든 그릇. 테두리에 대나무를 서너 겹 둘러 손잡이가 달린 형태로도 쓸 수 있다. ¶{도방구리를} 머리에 이다

지역 무주.

도복 (道服) 명 [대응어] 도포.

예전에 통상 예복으로 입던 남자의 겉옷. ¶게 그놈을 가지고 옛날은 {도복} 입은게 콩소매 속으다 놓단 말여, 괴앵이가 쪼깐헌 것 아녀? 느갖고서는 즈 집이 가난게 그대로 잔치를 허고 있네.<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나 송대를 잡으러 왔어. "아, 이런 역적놈이 있나?" 참 객사를 잘 지었거든. 요리조리 보고 다니댕기면서 본개로 {도복끈이} 나와 있어. 그래서 잡았다고 그러거든.<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그 먼야 그런게 그냥 가버렸어. 구렁덩덩 시신배가 가부림서 평풍뒤에 용남자 언제나 그러믄 그놈을 그리도 속좋게 에 {도복}자락을 거머 잡음서, "언제나 오실라나?" 고 헌게로,<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군산, 남원, 정읍.

도시랙 명 [대응어] 도시락.

밥을 담는 작은 그릇. 또는 밥을 담는 작은 그릇에 반찬을 곁들여 담는 밥 ¶찬장으서 {도시랙} 꺼내 와라. 너네 소풍 보낼랑게 겁나게 정신 사납네잉. ¶소풍 가서 {도시랙} 맛나게 먹고 와라잉

지역 임실.

도애배암 명 [대응어] 도마뱀.

☞도마배얌.

지역 전북.

도애비암 명 [대응어] 도마뱀.

☞도마배얌.

지역 전북.

도야지 명 [대응어] 돼지.

몹시 미련하거나 탐욕스러운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또는 몹시 뚱뚱한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때로는 {도야지} 멱따는 소리 같기도 했다.<윤흥길, 소라단 가는 길> ¶도매(도마) 허구 칼 허구 사가지고 가서는 방 가운데다 도매 놓고, {도야지} 다리 삶은 것 놓고, 술 받은 것 딱 놓고.<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난 그러니깐, 그런 개 {도야지만} 못한 것들이 숙청이 되기 전엔, 건국사업이구 무엇이구 나서구 싶질 않아. 도저히 그런 더러운 무리들과 동석은 할 생각이 없어."<채만식, 민족의 죄인> ¶그러나 이쁘지도 아니하고 {도야지} 같고 그렇기는 하면서도 덕쇠는 자세히 안해를 뜯어보고 섰느라니까 전에는 없던 이상스럽게 정다운 생각이 솟아났다.<채만식, 정차장 근처>

지역 순창, 임실, 정읍, 부안.

도야지 멱따는 소리 【관용표현】

들기 싫게 꽥꽥 지르는 소리. 멱따는 소리 ¶때로는 {도야지 멱따는 소리} 같기도 했다.<윤흥길, 소라단가는길> ¶첨에는 {돼아지 멱따는 소리를} 듣고 있제 못 듣겄등마는<송기숙, 녹두장군>

지역 전북.

도웁다 동 [대응어] 돕다(助).

남의 처지가 더욱 좋아지도록 이로움을 주다. ¶돕다(助)/동/ *돕:고 {정문연}<전북>[김제, 부안, 정읍, 고창, 남원], *돕:구 {정문연}<전북>[군산, 완주], * {도웁고} {정문연}<전북>[임실, 장수, 순창], *도우고 {정문연}<전북>[진안], *도웁구 {정문연}<전북>[익산, 무주], *도우니깨 {정문연}<전북>[무주, 김제, 장수], *도우니개 {정문연}<전북>[진안, 임실], *도웅개 {정문연}<전북>[군산, 익산, 완주, 정읍, 고창, 순창], <한국방언어휘자료집_전북편> ¶조선 사람 문인들이 모여서 문학으루 나라일을 {도웁자는} 것입니다.<채만식, 민족의 죄인>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해설 '돕다'에 /ㅡ/가 삽입되어 재구조화된 형태이다. 대체로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한다.

도장 명 [대응어] 곳간.

물건을 간직하여 두는 곳. ¶곤히 들었을 거 아녀. 아 새 방으 들어가서 그 {도장방} 고리 들으가는디 도장문을 열고는 거그다 채곡채곡 오쟁이다 하나 땀묵<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다시 더 나아가면 층계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뒤 울안에 지은 {도장으로} 통한다. 이 도장은 한편이 광이요, 그 다음이, 도장이요,<채만식, 염마> ¶벗어놓은 신을 집어다 신고 부엌으로 해서 뒤 울안으로 나가 {도장}, 광, 목욕실 모조리 둘러보았다.<채만식, 염마> ¶본디 안채란, 가운데 넓은 대청을 두고 오른쪽에 큰 정지와 {도장방이} 딸린 넓은 안방, 왼쪽에 그보다 작은 건넌방이 있을 뿐이었으니,<최명희, 혼불>

지역 남원, 무주.

도장문 명

곳간에 달린 문. ¶아 새 방으 들어가서 그 도장방 고리 들으가는디 {도장문을} 열고는 거그다 채곡채곡 오쟁이다 하나 땀묵 담었단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도장방 명 [대응어] 곳간.

물건을 간직하여 두는 곳. ¶본디 안채란, 가운데 넓은 대청을 두고 오른쪽에 큰 정지와 {도장방이} 딸린 넓은 안방, 왼쪽에 그보다 작은 건넌방이 있을 뿐이었으니, 고부 양대 거처밖에는 할 수가 없는 곳이었다.<최명희, 혼불> ¶아 새 방으 들어가서 그 {도장방} 고리 들으가는디 도장문을 열고는 거그다 채곡채곡 오쟁이다 하나 땀묵 담었단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

읍군편>
지역 전북.

도지 명 [대응어] 도끼.
나무를 찍거나 패는 연장의 하나. 쐐기 모양의 큰 쇠 날의 머리 부분에 구멍을 뚫어 단단한 나무 자루를 박아 만든다. ¶{도지로} 찍다
지역 전북.

도쪼고 명 [대응어] 돌쩌귀.
문짝을 문설주에 달아 여닫는 데 쓰는 두 개의 쇠붙이. 암짝은 문설주에, 수짝은 문짝에 박아 맞추어 꽂는다. ¶{도쪼고가} 떨어지다
지역 전북.

도채비 명 [대응어] 도깨비.
동물이나 사람의 형상을 한 잡된 귀신의 하나. 비상한 힘과 재주를 가지고 있어 사람을 홀리기도 하고 짓궂은 장난이나 심술궂은 짓을 많이 한다고 한다. ¶말피 말을 한 마리 사갖고는 말피를 잡아갖고는 사방에다 칠히 논게로 말피를 칠혀 논게 {도채비란} 놈이 빽빽 돌아 댕김서 무숴서 못 들오드래야.<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사램같이 도깨비도 사램같이 있는디, {도채비를} 넙혀(눕혀) 번졌어. 눕혀놓고 그 질갱포라는 풀로가 꽉꽉 쫌메서(묶어서) 놨어.<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백정 것에 당골네에 수악헌 상놈들만 사는 디로, 저도 참 이게 무신 {도채비한테} 홀린 일잉가 머리가 휘둘려 갖꼬요.<최명희, 혼불>
지역 고창, 부안, 정읍.

도치 명 [대응어] 도끼.
나무를 찍거나 패는 연장의 하나. 쐐기 모양의 큰 쇠 날의 머리 부분에 구멍을 뚫어 단단한 나무 자루를 박아 만든다. ¶"내가 뭐라고디야(뭐라고 하더냐). 허다 못혀 뭣을 허든지 허라고 내가 혔지. 아 이렇게 있으머는 안된다고 안티야고. 그러니 요시(요사이)는 농한기고 헌게, 가실(가을)이고 헌게로, 내일은 {도치허고} 낫허고 갈아 짊어지고 산이 가 나무라도 한 짐 히오라고, 그까짓 나무 비어서 짊어지고 오는것 못허겄냐?"<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인제 한 밤중쯤 된개 이놈의 동생이 {도치를} 넙대 들고 왔드래. 그 지그성 목아지를 쳐 버릴라고.<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엄마, 엄마. 저 집에 가 {도치} 갖다 꾹꾹 찍구 올라왔지롱."<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옛날허고도 아조 옛적에 으떤 맴시 착헌 나무꾼이 짚은 산중으로 나무를 허러 갔다가 {도치를} 잃어뿔고는 엉엉 울고 앉었는디, 느닷없이 머리 흐연허고 쉬염도 흐연헌 산신령님이 나타나서는, 왜 우냐고 묻는 거여.<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고창, 남원, 무주, 순창, 완주, 임실, 장수, 진안, 군산, 정읍.

도치기 명 [대응어] 도깨비.
동물이나 사람의 형상을 한 잡된 귀신의 하나. 비상한 힘과 재주를 가지고 있어 사람을 홀리기도 하고 짓궂은 장난이나 심술궂은 짓을 많이 한다고 한다. ¶{도치기에} 홀리다
지역 전북.

도키 명 [대응어] 도끼.
나무를 찍거나 패는 연장의 하나. 쐐기 모양의 큰 쇠 날의 머리 부분에 구멍을 뚫어 단단한 나무 자루를 박아 만든다. ¶{도키로} 찍다
지역 완주, 익산.

도토리감 명 [대응어] 고욤.
고욤나무의 열매. 감보다 작고 맛이 달면서 좀 떫다. ¶시장을 보러가서 홍시감을 좋은 놈을 사고 또 {도토리감도} 한 접시 샀다.
지역 전북.

도토마리 명 [대응어] 도투마리.

베를 짤 때 날실을 감는 틀. ¶{도토마리} 뛰어넘는 소리는<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고창, 군산, 무주, 완주, 남원, 임실.

도투리 명 [대응어] 도토리.

지역 군산.

독간 명

죽은 사람을 땅에 묻을 때 널이나 시체가 들어갈 정도의 크기로 땅에 만들어 놓은 벽이 있는 네모난 틀. 식물의 뿌리나 다른 방해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시방은 늘도(널도) 안 허고 존 놈 늘 히가꼬 다 때버리고 {독간} 허잖여. ¶{독간도} 다, 늘만 히가꼬 가기만 허제, 다 빼서, 이룽게 사람 빼서 느. ¶늘어다 담어서 가가꼬 늘 사가꼬 늘어다 담어서 가가꼬 묻을 때는 {독간} 인자 문 나무뿌리 같은 거 못 들어가게 딱 거그다 가서 맞차놔. 사람, 죽은 사람 내서 거그다 느. ¶돈이 많이 들지. 늘 살라 {독간} 살라. 그 전이는 늘만 사먼 그놈만 있이먼 갖다 느버린디, ¶늘은 썩으먼은 다 사람이 이리저리 다 거식히부른게 썩어부리제. 근디 시방 독은 언제까지 있잖여. 늘만 허게 다 맨들어 놔. 사와. 다 사와. {독간도} 다 사와.

지역 고창.

독다무락 명 [대응어] 돌담.

돌로 쌓은 담. ¶{독다무락} 밑에 꽃이 피다 ¶이 지역은 돌이 많응게 긴 {독다무락을} 쌓는 것이 가능헌 일이었지.

지역 전북.

독뎅이 명 [대응어] 돌덩이.

돌멩이보다 크고 바위보다 작은 돌. ¶수박을 쪼갤랑가, 왜 {독뎅이맹인} 주먹은 치키들고잉? <최명희, 혼불> ¶뒷등매에 등산을 갔는디 느닷없이 산 우게서 독이 궁글어 내려오더니만, 동무 하나가 금방 앞에서 {독뎅이에} 치여서 죽었단 말이여.<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전북.

독도구 명 [대응어] 돌절구.

돌의 가운데 부분을 오목하게 파서 만든 절구. ¶{독도구에} 보리를 넣고 찧다

지역 전북.

독독하다 형 [발음] [독또가다/독또카다] [대응어] 똑똑하다.

또렷하고 분명하다. 사리에 밝고 총명하다. ¶그 사람은 머리도 독독하고 발음도 독독해서 영민해 보여요. ¶머리가 독독하다. ¶계산이 독독하다.

지역 전북.

독때기 명 [대응어] 돌덩이.

돌멩이보다 크고 바위보다 작은 돌. ¶{독때기를} 던지다 ¶{독때기} 맽게만 실어가자.

지역 전북.

독막 명 [대응어] 돌막.

돌로 쌓아 지은 막. ¶{독막을} 짓다

지역 전북.

독매 명 [대응어] 돌매, 맷돌.

곡식을 가는 데 쓰는 기구. 둥글넓적한 돌 두 짝을 포개고 윗돌 아가리에 갈 곡식을 넣으면서 손잡이를 돌려서 간다. ¶{독매로} /베락 주어 <구비문학대계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해설 '돌'의 전북 방언은 '독'이다. '돌매'의 전북 방언은 '독매'이다. '독매'는 '독ㅁㅣ>독매'의 변천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이다.

독바늘 명 [대응어] 돗바늘.

매우 크고 굵은 바늘. 돗자리, 구두, 가죽 따위의 단단한 것이나 이불처럼 두꺼운 것을 꿰매는 데 쓴다. ¶"아니, 이거 다슬기 아녜요?"……"많아요, 여긴." "삶아서 {독바늘로} 속살을 콕콕 파먹는 거죠? 국을 끓여도 맛있고."<최일남, 힘을 먹는 다슬기> ¶"아이고, 저놈의 주댕이, 누가 {독바늘로} 칵 쪼깨 안 꼬매분가."<송기숙, 녹두장군> ¶목도리를 짤라먼 {독바늘이} 있어야는디 실 뭉치에 꽂아 둔 것이 어디로 갔다냐.

지역 전북.

독바우 명 [대응어] 바위.

부피가 매우 큰 돌. ¶어떤 짚은 산으로 들어갔는디, 그곳 {독바우이랄지} 동굴같은 데가 있어서 그곳을 들어가 보았어요.<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부안.

독받기 명 [대응어] 공기(놀이).

밤톨만 한 돌 다섯 개 또는 여러 개를 땅바닥에 놓고, 일정한 규칙에 따라 집고 받는 아이들의 놀이. 또는 그 돌들. ¶{독받기} 하믄서 놀고 있어.

지역 장수, 군산, 임실.

독방아 명 [대응어] 연자방아.

매의 하나. 둥글고 넓적한 돌판 위에 그보다 작고 둥근 돌을 세로로 세워서 이를 말이나 소 따위로 하여금 끌어 돌리게 하여 곡식을 찧는다. ¶이제 곡식을 다 추수를 해가지고 이제 방아를 찧잖아요? 그 방아는 뭐가 있어요? 방아} 방아는 인자 엔나레는 {독빵아}, 드들빵아, 그런는디 지그문 그른 걷또 다:: 업써저버리고. {방아는 이제 옛날에는 연자방아, 디딜방아,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다 없어져버리고}.<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지역 임실.

독배 명 [대응어] 돌배.

돌배나무의 열매. ¶{독배가} 열리다 ¶우리 배곯던 시절으는 {독배도} 맛나게 먹었다네.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독배암 (毒배암) 명 [대응어] 독뱀.

독이 있는 뱀. ¶산에 가믄 긴 양말 신고 댕겨. {독배암} 조심허야지.

지역 전북.

독뱉기 명 [대응어] 공기(놀이).

☞독받기.

지역 군산, 임실.

독뵈기 명 [대응어] 돋보기.

작은 글자나 물체를 또렷하게 보이게 하는 볼록렌즈. 또는 그런 렌즈로 만든 안경. ¶{독뵈기를} 쓰다 ¶나이를 먹응게 인자 {독뵈기라도} 써야지 그냥은 앙껬도 안비여. ¶{독뵈기를} 대다

지역 임실.

독부체 명 [대응어] 돌부처.

돌로 만든 부처. ¶어느 해 어떤 이인인지 멋인지 이상헌 사람이 지내감서 여그 있는 {독부체} 코에서 피가 나면 여그는 쏘가 된다고 말했답니다.<구비문학대계 정읍군> ¶그런디 영감은 그 말을 믿었던지 날마다 {독부체를} 아침 저녁으로 덜이다 봤십니다.<구비문학대계 정읍군> ¶이 바람에 황 장군은 한 손에 호무를 들고 입에는 담뱃대를 물은 채 {독부체가} 되버렸다.<구비문학대계 정읍군>

지역 정읍.

독사리 명 [대응어] 공기(놀이).
☞독받기.
지역 전북.

독새기 명 [대응어] 둑새풀. ¶언청 먹을 것이 없은 게 논으 독새기 뜯어다 볶아 먹고 그렸을 것여.
지역 전북.

독쇄기풀 명 [대응어] 둑새풀. ¶독쇄기풀을 뜯어다가 소 여물로 준다. ¶봄에 논에는 {독쇄기풀이} 많이 난다.
지역 전북.

독아지 속에 갇힌 시앙쥐 【관용표현】
☞도가지 속에 갇힌 시앙쥐. 속에 갇힌 시앙쥐
지역 전북.

독자갈 명 [대응어] 자갈.
강이나 바다의 바닥에서 오랜 시간 갈리고 물에 씻겨 반질반질하게 된 잔돌. 또는 잘고 아무렇게나 생긴 돌멩이. ¶자취를 감춘 뒤 말라붙은 여울바닥에는 {독자갈들이} 드러나고 그 우에 늙은 巫堂이 또 포개어 앉아 바른 손바닥의 금을 펴어 보고 있었다.<서정주, 시집> ¶인자 뭐 {독자갈} 집어 던지면 재주를 볼딱 넘고, 요짝으서 하나 던지면 저짝으서 볼딱 넘고, 아 그것이 일군이 일도가 다 알았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밭에 {독자갈이} 많아서 골라내다보니 허리가 아프구만.
지역 전북.

독작 명 [대응어] 자갈.
강이나 바다의 바닥에서 오랜 시간 갈리고 물에 씻겨 반질반질하게 된 잔돌. 또는 잘고 아무렇게나 생긴 돌멩이. ¶비님이 안 내린게 여울바닥 우에 {독작들이} 다 드러났지. ¶에릴 땐 할 게 없응게 냇가에 {독작이나} 집어 던지면서 놀았어. ¶지난 홍수에 뚝방이 터져갖고 우리 논으가 맨 {독작여}.
지역 전북.

독재이 명 [대응어] 돌장이.
돌을 다루어 물건을 만드는 사람. ¶{독재이가} 돌을 잘 다룬다.
지역 전북.

독잽기 명 [대응어] 공기(놀이).
☞독받기.
지역 전북.

독줏기 명 [대응어] 공기(놀이).
☞독받기.
지역 전북.

독줏어묵기 명 [대응어] 공기(놀이).
☞독받기.
지역 전북.

독지기 명 [대응어] 공기(놀이).
☞독받기.
지역 고창.

독지께 명 [대응어] 공기(놀이).
☞독받기.
지역 전북.

독집 명 [대응어] 돌집.
돌로 지은 집. ¶독으로 싼 집이 {독집}. 흙집도 짓고이.
지역 전북.

독치기 명 [대응어] 공기놀이.
동그랗고 작은 돌을 주워다가 여러 개 깔아 놓고 하나는 위로 던지면서 바닥에 깔린 세 개 이

상의 돌을 한꺼번에 집어서 누가 더 많이 가지는가 하는 놀이. 어린 여자들이 한다. ¶{독치기는} 시 개 이상씩 먹어야 허는 것여. 멀리 있는 놈이라도 시 개만 되면 집어먹을 수 있고 헐 수 있으면 다섯 개도 먹고.
지역 전북.

독팡구 명 [대응어] 돌멩이.
돌덩이보다 작은 돌. ¶{독팡구를} 던지다
지역 전북.

돈냏기 명 [대응어] 돈내기.
돈을 걸고 하는 내기. ¶{돈냏기를} 해서 다 잃었다 ¶어린놈들이 벌써부터 {돈냏기를} 했당게 한심헌 일이지. ¶써짝으로 가면 돈놓고 {돈냏기} 하는 곳이 있응게 재미사마 귀경이나 좀 허고 가드라구.
지역 전북.

돋배기 명 [대응어] 돋보기.
작은 글자나 물체를 또렷하게 보이게 하는 볼록렌즈. 또는 그런 렌즈로 만든 안경. ¶명함을 보여주자 {돋배기를} 꺼내 쓰고 글을 읽었다. ¶뒷문 바투 앉아서 {돋배기} 너머로 바느질을 하느라고 고부라졌다.
지역 남원.

돋베기 명 [대응어] 돋보기.
☞돋배기.
지역 전북.

돋뵈기 명 [대응어] 돋보기.
작은 글자나 물체를 또렷하게 보이게 하는 볼록렌즈. 또는 그런 렌즈로 만든 안경. ¶{돋뵈기} 너머로 매섭게 쏘아부쳤다. ¶미호야, 신문 좀 보고 싶으니 {돋뵈기} 좀 가져오너라. ¶"우리 하목사님으로 말헐 것 같으면은 위선 타고난 승격부텀 화끈허셔. 통이 원판 대통인 디다가 그럭이 커서 {돋뵈기를} 대고 딜여자봐도 쩨쩨헌 구석이라곤 당최 집어낼 수가 없는 양반이란 말여" <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고창, 무주, 완주.

돌가지 명 [대응어] 도라지. ¶살림살 적에 너를 주마 초가 삼칸 집을 짓고 알뜰이 살뜰이 너를 주마 장닭같이 쪼슬(쪼을) 놈아 {돌가지} 같이 찢을 놈아 내 주머니 내 주머니 돈 있으면 그 댕기 아니라도 또 있단다.<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삼배(三杯)를 괸개 삼배 딱 받아 먹고서나 좋은 안주를 먹으며 왔다 간다 하고는, 뭐 말이, 고사리 {돌가지} 저 새깽이(새끼)를 집 삼발로, 제사 지내면 그놈을 타고 그리 올라서 간다는 것이여,<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임실.

돌기 명 [대응어] 돌게. ¶{돌기는} 잡어서 튀겨먹기도 하고, 젓담거서 먹기도 하제. 예전이는 많이 잡으로 댕겼제.
지역 고창.

돌너설 명 [대응어] 바위너설.
바위들이 삐죽 나와 위험한 곳. ¶무너진 사랑탑 맹이 와그르르 사태난 {돌너설이니께}.<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돌다 동, 보동 [대응어] 달다(용돈을).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어떤 것을 주도록 요구하다. 또는 ((동사 뒤에서 '-어 달라', '-어 다오' 구성으로 쓰여))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해 주라고 요구하다. ¶암디 이런 장자네 집이를 가면은 스슥 한 말만 {돌라고} 허십시요. 한 말만 {돌라고} 히다가서 스슥을 그놈을 재껴가지고 밥을 허가지고서 그

못이다 갖다 느십시요.<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그 새두루매기를 임금이 {돌라고} 히서 입었어.<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아, 도적놈이 다 {돌라고지} 냉기고 주마고 가지고 가라고 허겄어요.<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지가 살아서 나를 살아서 왕을 되게 하라고 했으면 되는데, 나 죽어서 왕이 되게 해 {돌라고} 했으니 안 때릴 일을 때렸당게.<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물에 빠져 허비적거림시나 살려 {돌라고} 지아모리 애걸복걸허도 요게 웬 귀경거리냐, 허고 히득히득 웃기만 허는 시상이니깨.<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전주.

돌뎅이 명 [대응어] 돌덩이.

돌멩이보다 크고 바위보다 작은 돌. ¶저 등짐 속에 든 것이 {돌뎅이가} 아닌디 돈없단 말 못헐 것이고. 보부상 색질이 노소귀천얼 안 개리넌 것이야 시상이 다 아는 것인디 그리 말허면 날아가든 새가 웃소.<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돌돌돌 부 [대응어] 오래오래.

돼지를 부르는 소리. ¶돼지를 {돌돌돌} 하고 부른다

지역 김제, 무주, 부안, 임실, 정읍.

돌라가다 동 [대응어] 훔치다(물건을).

남의 음식이나 물건 따위를 주인 몰래 가져가서 자기 것으로 하다. ¶저 놈이 지미 먼야도 와서 우리 보자 방망이 {돌라갔다}. 저 놈 죽이자.<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낼와 갖꼬 살째기 사람 사는 집이로 들으가서, 토방에 널려 있는 이 신 저 신 신어 보고, 저한테 맞는 놈을 {돌라간다고} 안 그리여? 옛날부텀.<최명희, 혼불> ¶쟁반 {돌라간} 놈 그 누구냐? 거기 앉아라.<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남원, 정읍.

돌라까지다 동 [대응어] 되바라지다.

어린 나이에 어수룩한 데가 없이 얄밉도록 똑똑하다. ¶언뜻 생각할 때 반지빨라 보이고 그러면서 어딘지 모르게 {돌라까진} 계집애다운 인상도 사실은 전반적으로 꾀죄죄한 윤곽과는 동떨어지게 생기를 머금은 그 음성에서 비롯되는 것이었다.<윤흥길,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지역 전북.

돌라먹다 동 [대응어] 알겨먹다.

남의 물건을 속여서 빼돌리거나 남을 속여 먹다. ¶그런게 인자 시골서 가면, 서울이 인자 {돌라먹는} 사람이 많다 그말이지. "서울이 여기가 눈 빼먹는 데다." 그러니께 진평국이가 영인이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아 근게 천석군이 받는 놈이 '아 이놈들 내 소작헌 놈이 나를 전부 {돌라먹었구나.'} 쇠고기쇠다리 좀 갖다 주고 닭 잡아오고 꿀 가조고 허더니 요놈들이 고렇게 돌라서 나를 저그가 잘 사는구나.<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동학이란 것이 그 본지가 남의 것 {돌라묵자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들어묵자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 " "여보시오, 지금 무슨 변설을 풀고 있는 거여?" 손달문이는 이주언의 말을 채뜨리며 악을 썼다.<송기숙, 녹두장군> ¶어이 와, 태주야, 이 에미는 여잔께 니가 정신 똑똑허니 채리고 두 눈에 호랭이불 켜야 쓴다. 느그 아부지 밑에서도 이눔이고 저눔이고 언뜻 허면 {돌라묵을} 궁리만 혔다.<조정래, 태백산맥>돌르다(훔치다)? ¶그 전에는 떡 시루를 많이 {돌라먹었다}, 그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돌라 먹다가} 동네 사람만 디게(되게) 욕을 했는디, 허, 멧밥을 채려놓고 제사를 거지반 지내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선비들이 자는 방에 가서 방을 방을 쓸란개, 떡고물이 메

깨(몇개) 떨어졌그든.<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 편> ¶철수는 가끔 동생을 {돌라먹었다}.

지역 정읍, 완주.

해설 전북 방언 '돌라먹다'는 사동사 '돌리다'와 '먹다'가 결합되어 형성된 합성어이다. 사동사 '속이다'보다 더 센 의미를 띤다.

돌라묵다 동 [대응어] 알겨먹다.

☞돌라먹다. ¶"뿌리럴 뽑는 것이야 존디, 돈 {돌라묵은} 놈덜언 따로 있는디 어찌서 죄없는 김회장님얼 그 꼴 맨그냔 말이여."<조정래, 아리랑> ¶동학이란 것이 그 본지가 남의 것 {돌라묵자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들어묵자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 " "여보시오, 지금 무슨 변설을 풀고 있는 거여?" 손달문이는 이주언의 말을 채뜨리며 악을 썼다.<송기숙, 녹두장군> ¶어이 와, 태주야, 이 에미는 여잔께 니가 정신 똑똑허니 채리고 두 눈에 호랭이불 켜야 쓴다. 느그 아부지 밑에서도 이눔이고 저눔이고 언뜻 허먼 {돌라묵을} 궁리만 혔다.<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돌랑 명 [대응어] 품앗이.

힘드는 일을 서로 거들어 주면서 돌아가면서 품을 지고 갚고 하는 일. ¶옛날 그적으는 동네서 {돌랑으로} 혔제. 농사일 안 그러면 힘 부쳐서 못 혀.

지역 전북.

돌루다 명 [대응어] 홀리다.

유혹에 넘어가 마음을 빼앗겨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 또는 유혹하여 마음을 빼앗아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다. ¶도깨비에게 {돌뤄서} 한동안 정신을 잃어분졌다네. ¶도깨비가 사람을 {돌루기만} 하간디?

지역 익산.

돌리다 동 [대응어] 굴리다(굴렁쇠를).

바퀴처럼 돌면서 옮겨 가게 하다. ¶굴렁쇠를 돌리다. ¶그때만 히도 궁글패를 {돌리며} 동네속을 뛰댕기는 꼬마딩이들이 흔했지.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돌미나리 명 [대응어] 미나리. ¶돌미나리를 캐어다가 장에 판다.

지역 전북.

돌받기 명 [대응어] 공기(놀이).

☞돌뱉기.

지역 전북.

돌뱉기 명 [대응어] 공기(놀이).

밤톨만 한 돌 다섯 개 또는 여러 개를 땅바닥에 놓고, 일정한 규칙에 따라 집고 받는 아이들의 놀이. 또는 그 돌들. ¶옛날으 여자 애들은 {돌뱉기가} 최고 놀이였지.

지역 임실.

돌심반 명 [발음] [돌씸반]

한 바퀴 돌아 제 자리로 오는 시간. 또는 그 모양을 가리키는 말. ¶{돌심반으로} 물을 갈아줘. 오늘 아홉 시에 갈았으면 내일 아홉 시에 또 갈고 또 갈고 사흘을 혀.

지역 전북.

돌아가다 동 [대응어] 지나가다.

시간이 흘러가서 그 시기에서 벗어나다. ¶저번에 백일 {돌아갔다고} 그러드라고.

지역 전북.

돌쩌구 명 [대응어] 돌쩌귀.

문짝을 문설주에 달아 여닫는 데 쓰는 두 개의 쇠붙이. 암짝은 문설주에, 수짝은 문짝에 박아

맞추어 꽂는다. ¶{돌써구도} 암수 짝이 맞어야 쓸모가 있는 벱이여!<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요번 장에는 대장간에서 {돌써구} 한 벌 사다가 창고 문짝 좀 고치야겄다.
지역 전북.

돌쪼구 명 [대응어] 돌쩌귀.
문짝을 문설주에 달아 여닫는 데 쓰는 두 개의 쇠붙이. 암짝은 문설주에, 수짝은 문짝에 박아 맞추어 꽂는다. ¶{돌쪼구} {돌쪼구럴} 이 문설쭈에다 박꼬, 무니다 박꼬, {돌쪼구가}.<지역어 자료 총서, 무주>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돌쭉 명 [대응어] 돌쩌귀.
문짝을 문설주에 달아 여닫는 데 쓰는 두 개의 쇠붙이. 암짝은 문설주에, 수짝은 문짝에 박아 맞추어 꽂는다.
지역 전북.

돌추 명 [대응어] 돌쩌귀.
문짝을 문설주에 달아 여닫는 데 쓰는 두 개의 쇠붙이. 암짝은 문설주에, 수짝은 문짝에 박아 맞추어 꽂는다. ¶{돌추가} 떨어졌네.
지역 군산.

돌치 명 [대응어] 도끼.
나무를 찍거나 패는 연장의 하나. 쐐기 모양의 큰 쇠 날의 머리 부분에 구멍을 뚫어 단단한 나무 자루를 박아 만든다. ¶이놈의 것 그냥 호랭이를 그냥 이놈을 인제 {돌치를} 갖고 인제 꽁댕이를 탁 찍어 버렸어요. 근게 톡 떨어져 버렸단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근게 남편을 에룬게(어려우니까) 허는 것이지, 결국은 근디 그렇게 허지 말라고 이얘기 안들어도 그저 가기만 가면 그냥 잠만 자고 있다 때 되면 은 밥이나 먹으로 그냥 올 수 없은게로 그 {돌치로} V개썩 찍어서 돌치 밥 V개(씩)만 갖고고 들오고 그러는디.<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김제, 부안, 군산, 완주, 정읍.

돌캐 명 [대응어] 도리깨.
곡식의 낟알을 떠는 데 쓰는 농기구. 긴 장대 끝에 구멍을 뚫어 꼭지를 가로 박고, 그 꼭지 끝에 서너 개의 회초리를 매어 달아 돌게 한다. ¶{돌캐로} 처야 타작이 쉽다
지역 무주.

돌팍 명 [대응어] 돌멩이.
돌덩이보다 작은 돌. ¶밭 가에 있는 {돌팍을} 들어서 멀리 날려 보냈다. ¶누가 나에게 {돌팍을} 던지나고?<김용택, 강같은 세월> ¶깻잎 짱아찌 담글 대 눌러 놀 둥근 {돌팍} 하나 가져 와라. ¶고꾸라진 자리에 꼬챙이 없으면 그저 일진 사나운 것을 탓하며 손바닥이나 쓰라리게 씻기고 말 일이지만, {돌팍에} 걸려 앞으로 어푸러진 그 자리에 불행히도 칼끝이 거꾸로 박혀 있어, 찔린 살이 벌어지고 붉은 피 선지로 엉기며, 멍든 가슴을 깊이 버힌다면.<최명희, 혼불> ¶내가 도망하리라고 산에 올라가더니 {돌팍을} 궁글리기 시작하는데, 아 그 바울 갖다가 소에다 갖다 놔두는데, 아 이놈이 저렇게 놓다가는 곧 얼마 안 있으면 저놈이 건너와 갖고는 나를 해치겠다 생각하고는, 그래도 내가 죽으면 죽지, 살면 살고, 가만히 있응게 결국 바우를 놔들어 가다가 아 이놈이 제워갖고는(지쳐서) 놀수가 있어야지.<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어머니, 어디를 가간 낮이는 안비어요(안 보입니까)?" "낮이는 숯 구러 가고 저녁으는 밤만 들온다." "아가, 가보지마." "아뇨, 가서 구경허야 겄어요." 그드니(그러더니) 가서 본께 숯굽는 {돌팍이} 참 금여.<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거그자는 머리나 좋지 나 같은 {돌팍이} 대학

교는 언감생심 택도 없는 일여."
지역 김제.

돌폴매질 명 [대응어] 돌팔매질.
무엇을 맞히려고 돌멩이를 던지는 짓. ¶{돌폴매질을} 당하다
지역 전북.

돔방거리다 동 [대응어] 돔방거리다.
손발을 움직이며 여기저기 걸어다니며 움직이다. ¶애기들 클 적에 애기가 {돔방거리고} 나오려고 혀. 따박따박 걷고 댕길 때 {돔방거리고} 이뻐야.
지역 전북.

돔방이 명 [대응어] 동강이.
일정한 부피를 가진 긴 물건의, 짤막하게 잘라진 부분이나 쓰고 남아 짤막하게 된 부분. ¶나무 {돔방이}
지역 전북.

돔뱅이 명 [대응어] 동옷.
남자가 입는 저고리. ¶{돔뱅이를} 입다
지역 전북.

돕뵈기 명 [대응어] 돋보기.
작은 글자나 물체를 또렷하게 보이게 하는 볼록 렌즈. 또는 그런 렌즈로 만든 안경. ¶어릴적으는 {돕뵈기} 안경을 를 쓴 사람은 다 늙은 노인들 인종만 알았지.
지역 완주.

돗나물물짐치 명
☞돗나물싱건지.
지역 전북.

돗나물싱건지 명
돌나물로 담근 물김치. ¶봄으 나는 돈너물로 흐옇게 싱건지를 담으먼 그거이 {돈너물싱건지여}.
지역 전북.
해설 표준어 '돌나물'의 전북 방언은 '돗나물, 돗너물'이다. 표준어 '물김치'의 전북 방언은 '싱건지'이다. '돗나물싱건지'는 '돗나물'과 '싱건지'가 합쳐진 합성어이다. 요즘은 '싱건지' 대신에 '물김치'가 많이 쓰이므로 전북에서도 '돗나물물짐치'로 많이 쓰인다.

돗나물지 명 [대응어] 돌나물김치.
돌나물로 담근 김치. ¶봄으 지천으 널린 돗너물을 뜯어다가 깨깟이 시쳐가꼬 {돗너물지를} 담으면 좋당게.
지역 전북.
해설 표준어 '돌나물'의 전북 방언은 '돗나물, 돗너물'이다. '김치'의 전북 방언은 '지'이다. '돗나물지'는 '돗나물'과 '지'가 합쳐진 합성어이다. 요즘은 전북에서도 '돗나물짐치'가 더 흔히 쓰인다.

돗나물짐치 명 [대응어] 돌나물김치.
☞돗나물지.
지역 전북.

돗내기 명 [대응어] 도급.
일거리를 일정한 돈을 받고 일정한 기간 동안에 마치기로 하고 한꺼번에 맡거나 맡김. 또는 그렇게 맡거나 맡긴 일. ¶{돗내기를} 주어 일을 하다
지역 전북.

돗너물물짐치 명
☞돗나물싱건지.
지역 전북.

돗너물싱건지 명
☞돗나물싱건지.

지역 전북.

돗너물지 명 [대응어] 돌나물김치.
☞돗나물지.
지역 전북.

돗너물짐치 명 [대응어] 돌나물김치.
☞돗나물지.
지역 전북.

동갈 명 [대응어] 동강.
일정한 부피를 가진 긴 물건의, 짤막하게 잘라진 부분이나 쓰고 남아 짤막하게 된 부분. ¶나무 {동갈}
지역 전북.

동갈이 명 [대응어] 동강이.
일정한 부피를 가진 긴 물건의, 짤막하게 잘라진 부분이나 쓰고 남아 짤막하게 된 부분. ¶나무 {동갈이} ¶이런 쬐깐 나무 {동갈이는} 쏘시개로나 쓰게 개려서 한쪽으다 모태 놓아라.
지역 전북.

동갑걸림 명 [대응어] 동갑.
육십갑자가 같다는 뜻으로, 같은 나이를 이르는 말. 또는 나이가 같은 사람. ¶옆집 아이와 나는 {동갑걸림이다}
지역 전북.

동고릿대 (銅고리대) 명 [대응어] 담뱃대.
대통과 물부리를 구리로 만든 담뱃대. ¶팔모깎이 우산대/은소복으 연변대/주석대 백통대/파른 받침 구리 {동고리대}/소상간죽으 별간죽/금사오죽에 양철간죽을/마치 맞게 잘 맞촤/네 구석으 세워두니/방안치레가 훌륭하네(진안 고사풀이)<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진안.

동구 (←同氣) 명 [대응어] 동기.
형제, 자매, 남매를 통틀어 이르는 말. ¶잘도 잔다 잘도 잔다/동네 가운테 화수뎅이/나라님께 충신뎅이 /부모 {동구간한테} 화수뎅이(무주군 무풍면 지성리)<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부모한테는 소자뎅이/이웃간에 화목뎅이/{동구간에} 우애뎅이/나라님게는 충신뎅이(무주군 안성면)<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무주.

동군상 명 [대응어] 개다리소반.
☞뚱고란상. ¶개다리소반 {동군상}<2009 전북 임실>
지역 임실.

동굴태 명 [대응어] 굴렁쇠.
☞동글태.
지역 전북.

동그람하다 형 [대응어] 동그랗다.
또렷하게 동글다. ¶공배네는 옹구네의 도톰하고 {동그람한} 낯반대기가 떠오르자 콱 무지르듯 머리 속에서 쫓아내 버리며.<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동그랍다 형 [대응어] 동그랗다.
또렷하게 동글다. ¶눈이 크고 {동그랍다}. ¶너는 눈을 {동그랍게} 뜨고 날 바라보니?
지역 전북.

동그러다 형 [대응어] 동그랗다.
☞동그랍다. ¶아 서히 쓴게 뭐 비문할깡 딱 씌놓고는 {동그러게} 장독은 여짝에다 저짝에다 내 놨거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정읍.

동글방석 (동글方席) 명 [대응어] 짚멍석.

흔히 사람이 앉거나 곡식을 너는 데 쓰는, 짚으로 엮어 만든 큰 자리. ¶{동글방석을} 펼쳐 곡식을 널었다.

지역 고창.

동글주머니 명 [대응어] 두루주머니.

허리에 차는 작은 주머니의 하나. 아가리에 주름을 잡고 끈 두 개를 좌우로 꿰어서 홀치며, 위는 모가 지고 아래는 둥글다. ¶그게는 주머니, {동글주머니}. {동글주머니거든}.

지역 전북.

동글태 명 [대응어] 굴렁쇠.

어린아이 장난감의 하나. 쇠붙이나 대나무 따위로 만든 둥근 테로서, 굴렁대로 굴리며 논다. ¶{동글테를} 굴리며 해맑게 노는 아이들을 보니 나까지 기분이 좋아진다.

지역 고창.

동글테 명 [대응어] 굴렁쇠.

☞동글태.

지역 전북.

동나그치 명 [대응어] 동냥아치.

동냥하러 다니는 사람. ¶{동나그치가} 되야서 고향에 다시 찾아왔드만.

지역 전북.

동나치 명 [대응어] 동냥아치.

동냥하러 다니는 사람. ¶{동나치가} 되다 ¶청바지 무릎을 다 찢어서 입고 댕기는디 엔날엔 {동나치도} 그런건 안 입고 댕겼어.

지역 전북.

동낭아치 명 [대응어] 거지.

남에게 빌어먹고 사는 사람. 동냥하러 다니는 사람. ¶{동낭아치라고} 그루지<완주_지역어_텍스트> ¶그래 조금 있은게 밥을 얻어 가지고 {동낭아치} 내외간이 들온단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동낭아치라고} 무시하면 큰 코 다친다네. ¶옛날에는 하루에도 {동낭아치가} 서너명은 다녀가기도 했지.

지역 완주, 임실, 남원, 군산, 무주.

동네뵈기 명

밀을 수확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밀을 수확했다는 사실도 알리고 맛도 보이기 위해, 수확한 밀로 국수를 만들어 동네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일. ¶{동네뵈기를} 혀. {동네뵈기} 허고도 시안내 먹어. 그만큼 많이 헌게.

지역 전북.

동니 명 [대응어] 동네.

사람들이 생활하는 여러 집이 모여 있는 곳. ¶해마다 거그 와서 옹기 짐을 풀어 놓고 {동니} 사람한테 팔그든? 근게 여러 해를 여그서 옹기를 팔아 갔다<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그런디 마침 그러자 그 {동니} 근처에 있는 지관 하나가 있어. 땅을 잘 봐.<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배가 안 연다고 모다 그냥 {동니} 사람이 서드레 공론이 났어.<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무주, 정읍.

해설 전북방언에서는 '동네'의 /ㅔ/가 /ㅣ/로 고모음화를 겪은 형태인 '동니'가 사용되고 있다.

동니깨 명 [대응어] 소꿉질.

아이들이 장난감 그릇 따위를 가지고 살림살이 흉내를 내며 노는 짓. ¶소꿉질/명/ *동니깨 {정문연}<전북>[장수], <한국방언어휘자료집_전북편> ¶아이들이 {동니깨를} 하고 논다.

지역 장수.

동대 명
산에 있는 죽은 나무. 이런 나무를 베어다 땔감으로 썼는데 장에 내다 팔 때는 죽은 지 1년 정도 되었으면 좋은 값을 받고 3년 정도 되었으면 더 싼 값을 받았다. ¶동대는 죽은 나무. 삭동가지는 가지가 죽은 거고 동대는 나무가 아예 다 죽은 나무.
지역 전북.

동발거리다 동
손발을 움직이며 여기저기 걸어다니며 움직이다. ¶애기들 클 적에 애기가 {동발거리고} 나오려고 혀. 따박따박 걷고 댕길 때 {동발거리고} 이뻐야.
지역 전북.

동상 명 [대응어] 동생.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이거나 일가친척 가운데 항렬이 같은 사이에서 손윗사람이 손아랫사람을 부르는 말. ¶{동상은} 나무 줏어다가 뉘님 솥이나 제 솥이나 똑같이 불을 때코.<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성은 남만 도와주지 말고 {동상} 생각이나 좀 해 주쇼. ¶이 분이 바로 제 둘째 {동상입니다}.
지역 고창, 남원, 부안, 익산, 장수.

동상리 명 [대응어] 동상례.
신부 동네 사람들이 신랑을 다룰 때 음식이나 술을 대접하는 일. ¶{동상리를} 낸닥히야 풀어줘. {동상리} 얻어먹을라고 신랑을 다롸.
지역 전북.

동상으댁 명 [대응어] 올케.
남동생의 아내를 일컫는 말. ¶올케는 인자 {동상으대기라거고} {동상으대기고}<2009 전북 임실>
지역 익산, 완주, 김제, 임실.

동상으덕 명 [대응어] 올케.
☞동상으댁.
지역 고창, 정읍, 임실.

동생떡 명 [대응어] 올케.
☞동상으댁.
지역 남원.

동생보다 동 [대응어] 아우보다.
지역 군산, 정읍.

동세 명 [대응어] 동서.
남편의 남자 형제의 아내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또는 아내의 여자 형제의 남편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 ¶동세랑 같이 사는디.
지역 전북.

동싱 명 [대응어] 동생.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이거나 일가친척 가운데 항렬이 같은 사이에서 손윗사람이 손아랫사람을 부르는 말. ¶{동싱안티} {정문연}<전북>[완주], <한국방언어휘자료집_전북편>
지역 완주.

동수간 명 [대응어] 뒷간.
☞동숫간.
지역 전북.

동수리짐 명
많이 나는 김. ¶실 걸고 불 때면 동수리짐이 나. 짐 많이 나는 걸 동수리짐이라고 그려.
지역 전북.

동숫간 명 [대응어] 뒷간.
'뒷간'을 완곡하게 이르는 말. ¶{동숫간이} 어디

에 있는가요?
지역 전북.

동시 (←同壻) 명 [대응어] 동서.
남편의 남자 형제의 아내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또는 아내의 여자 형제의 남편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 ¶{동시하고} 같은 동네에 살다
지역 전북.

동시간 명 [대응어] 뒷간.
☞동싯간.
지역 전북.

동싯간 명 [대응어] 뒷간.
'뒷간'을 완곡하게 이르는 말. ¶급헌 사람들은 얼른[동싯간이], 갔다 와.
지역 전북.

동아 명 [대응어] 동아줄.
굵고 튼튼하게 꼰 줄. ¶{동아로} 이삿짐을 꽉 묶다.
지역 군산, 임실.

동아떼기 명
두 사람이 어깨 너비로 떨어져 양 손을 마주 잡고 머리 높이로 올린 상태에서, 앞 사람의 허리를 잡고 여러 사람이 한 줄로 늘어서 그 사이를 통과하는 놀이. 이때 두 사람 사이를 통과하는 사람들은 '문 열어라 문 열어라' 노래를 부르고 팔을 올리고 있는 두 사람은 '열쇠 없어 못 열겠다'라고 화답을 한다. 꽁지의 마지막 사람을 두 사람이 팔을 내리면서 못 지나가게 잡으면 잡힌 사람은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뒤에 가서 선다. 이 과정을 반복한다. ¶문 열어라, 문 열어라 험서 {동아떼기도} 허고. 두 사람이 팔로 잡어서 꽁지 띠어먹어. 잡힌 사람은 여 뒤어 서고.
지역 전북.

동아뱀 명 [대응어] 도마뱀. ¶요즘 애덜은 집이서 {동아뱀} 같은 것들도 막 키우고 그러드만, 안 징그러운가 모르겄어.
지역 전북.

동아비얌 명 [대응어] 도마뱀.
☞동아뱀.
지역 전북.

동알비얌 명 [대응어] 도마뱀.
☞동아뱀.
지역 전북.

동애배암 명 [대응어] 도마뱀.
☞동아뱀.
지역 전북.

동애비얌 명 [대응어] 도마뱀.
☞동아뱀.
지역 전북.

동앳줄 명 [대응어] 동아줄.
굵고 튼튼하게 꼰 줄. ¶잡어 댕기믄 떨어질 만큼 맨들어 놨어. 그러고는 두번채 가서 또 저 버리거든. 근게 저짝으로 돌아가서 장 {동애줄을} 쭉 잡어댕기 버렀어. 잡아다니는 시늉 근게 그 장산게. 칡이 장 툭 떨어짐서 장 사람이 싹 씨러져 버리거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이제 하느님에가 비는거여. 비는 소리여. "하느님, 하느님. 저를 살려줄라면 새 {동애줄을} 내려주시고, 저를 죽여 주시려면 흔 동애줄을 내려 주시라."구.<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전북.

동우 명 [대응어] 동이.

물을 긷거나 담아 두는 데 쓰는 동이. 또는 물 따위를 '동이'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 ¶가만히 보다가는 가지고 간 괭이로 탁 찍응개, 거짓말 아이라 {동우만} 하고 {동우만} 하더래요. 몽뚱이가. 구렁이지<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아, 이놈의 자식. 네 복에 먹을 것이 죽천 {동우밖에} 없는데 그 동우를 누구보고 처치하라고 시방 네가 죽을라고<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고창, 남원, 부안, 임실.

동우배암 명 [대응어] 도마뱀.
☞동아뱀.
지역 전북.

동자 명 [대응어] 눈자위.
눈알의 언저리. ¶눈가버리지 않여- 거그서 일을 다 치렀어. 그 살인자를 잡을라먼, {동자}, 죽은 사람 눈동자에다 사진을 박어보라구. 눈동자에다 사진을 박어보먼은 그<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무주.

동전 명 [대응어] 동정.
한복의 저고리 깃 위에 조금 좁은 듯하게 덧대는 하얗고 긴 헝겊 조각. ¶{동정에} 풀을 먹이다 ¶저구리 {동전} 끝이 딱 맞는 걸 보니 바느질 솜씨가 많이 늘었구나. ¶한복은 {동전이} 깨끗해야 하는 맵시가 나는 벱이여.
지역 고창, 군산, 임실.

동태 (←動土) 명 [대응어] 동티.
땅, 돌, 나무 따위를 잘못 건드려 지신(地神)을 화나게 하여 재앙을 받는 일. 또는 그 재앙. ¶새각시가 지사 지내 준 놈 그 놈을 먹고 {동태가} 났던가, 어찌게 아퍼.
지역 전북.

동펑 명 [대응어] 동풍(東風).
동쪽에서 부는 바람. ¶{동펑이} 불어온다.
지역 김제, 남원, 무주, 순창, 군산, 완주, 임실, 장수, 정읍, 진안.

동헌에서 곤장 맞고 집구석에 돌아와 계집 패듯 하다 【관용표현】
자기가 당한 일을 가지고 엉뚱한 사람에게 화풀이를 한다는 뜻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말. ¶{동헌에서 곤장 맞고 집구석에 돌아와 계집 패듯} 종술은 애꿎은 마누라를 상대로 사정없이 화풀이를 시작했다.<윤흥길, 빛가운데로걸어가면>
지역 전북.
해설 "엉뚱한 사람에게 화풀이 한다"의 의미로는 '종로에서 빰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라는 속담이 대표적이다. 국어사전에는 '영에서 빰 맞고 집에 와서 계집 찬다'는 속담이 나와 있다. 전북 방언에서는 이를 '동헌에서 곤장 맞고 집구석에 돌아와 계집 패듯 하다'로 표현하고 있다.

돼아지 멱따는 소리 【관용표현】
☞도야지 멱따는 소리. 멱따는 소리
지역 전북.

돼지마구 명 [대응어] 돼지우리.
돼지를 가두어 기르는 곳.
지역 장수, 무주, 군산.

돼지막 명 [대응어] 돼지우리.
돼지를 가두어 기르는 곳. ¶두게, 이간질) 하겠다 어떻게든?' 꾀를 부려갖고 제 어미 어디갈 때 {돼지막에} 떤져 버렸다요. 돼지막에다 떤져 버렸으나 돼지가 먹으란개 안 먹으니깨, 또 인자, <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정월에 굿소리를 안 냈더니 텅텅 빈 소막 {돼지막} 헛청 여기저기 귀신들이, 오만 잡귀들이 득실거린다며<김

용택, 섬진강>
지역 무주, 군산.

돼짓간 명 [대응어] 돼지우리.
돼지를 가두어 기르는 곳. ¶헌청. {행랑 중에 행랑에 {돼지간}, 외양간, 헛청}. 그라구 자 도장이라구<지역어 자료 총서, 무주>
지역 익산.

됀장 명 [대응어] 된장.
메주로 간장을 담근 뒤에 장물을 떠내고 남은 건더기. ¶됀장을 담그다. ¶여름철 입맛 없을 땐 보리밥에 열무 넣고 양념 {됀장으로} 비벼 먹으면 맛있어.
지역 전북.

되나무때나 부 [대응어] 아무렇게나.
아무렇게나. ¶그것도 다 허는 방법이 있어. {되나무때나} 치는 거 아녀.
지역 전북.

되는양 부 [대응어] 되는대로.
아무렇게나 함부로. 또는 사정이나 형편에 따라. 또는 가능한 한 최대로. ¶{되는양} 살고 있다. ¶먹을 게 없어 {되는양} 해서 먹는다. ¶{되는양} 많이 챙겨 놓는다. ¶지가 무슨 대장이라도 {되는양} 거들먹거리며 돌아 댕겼다.
지역 전북.

되되하다 형 [대응어] 도도하다.
잘난 체하여 주제넘게 거만하다. ¶신기록 세웠다고 {되되허게} 거덜먹거리는 유월이 백몇십 년 만에 도도허게 갈아치운 높은 온도 속에 시방은 지영 때 여섯시를 갈킨다.
지역 전북.

되련지 명 [대응어] 굽도리지.
☞도련지.
지역 전북.

되로이 명 [대응어] 도롱이.
짚, 띠 따위로 엮어 허리나 어깨에 걸쳐 두르는 비옷. 예전에 주로 농촌에서 일할 때 비가 오면 사용하던 것으로 안쪽은 엮고 겉은 줄거리로 드리워 끝이 너털너털하게 만든다. ¶비 오는 날에는 {되로이를} 쓰고 일을 혔지. 지금은 안 써.
지역 전북.

되리다 동 [대응어] 도리다(칼로).
둥글게 빙 돌려서 베거나 파다. ¶종기를 약도 칼로 {되려서} 낼라고 하는디 참 기가 막히도만.
지역 김제, 부안, 완주, 장수, 진안.
해설 '도리다'의 움라우트형이다.

되린님 명 [대응어] 도련님(호칭).
☞대린님. ¶"뉘댁 자손인지 몰라도 참말로 영특허니 잘도 생겼다. {되린님}, 멫 살?" 부월은 장로댁 손자들 가운데서 제일 큰 놈을 골라잡아 미친척하고 뒤통수를 쓰다듬었다.<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무주, 완주.

되미 명 [대응어] 도미.
지역 전북.

되배 명 [대응어] 도배.
☞되비.
지역 무주.

되백 명
새로 시집가는 여자를 낮추어 이르는 말. ¶새로 시집가는 사람은 {되백이라고} 그려, {되백}.
지역 전북.

되비 (←塗褙) 명 [대응어] 도배.
종이로 벽이나 반자, 장지 따위를 바르는 일. ¶거그를 썩 들어갔는디 안주인이 썩 보드만, "저짝 저 뒷방으로 가시요." 그 방으로 가 본게, 방이 정소허게 깨끗하게 {되비} 종이로 벽·반자·장지 같은 것을 바르는 일도 잘 허고 좋거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이사 가기 전에 먼저 {되비를} 깨끗이 하면 새집 같아 좋단다. ¶건넛방에 누가 이사 온다는디 {되비라도} 말끔허게 해놔야 허잖겄냐. ¶우리 집 작은방의 벽이 너무 더러워서 {되비를} 좀 해야겠다. ¶집을 잠꽌 짓는다/집을 잠꽌 짓는다/몸채는 칠 칸인디/사개 와사서 기와집/내외 중문은 소실문/전후좌우 연담 치고/능화 {되비} 장판 지천/부벽사를 붙여주고(진안 고사풀이-진안군 마령면 계서리 서산)<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군산, 남원, 완주, 임실, 진안.

되수기 명 [대응어] 뒷덜미.
목덜미 아래의 양 어깻죽지 사이. ¶어찌나 화가 나던지 아들놈의 {되수기를} 잡아챘어. ¶아무 말도 못 허고 {되쉬기를}, 잡힌 채로 끌려 왔어.
지역 임실.

되시레 명 [대응어] 고수레.
민간 신앙에서, 산이나 들에서 음식을 먹을 때나 무당이 굿을 할 때, 귀신에게 먼저 바친다는 뜻으로 음식을 조금 떼어 던지는 일. ¶{되시레}! 하고 무당은 밥을 펴서 던졌다.
지역 전북.

되씨다 동 [대응어] 뒤집다.
안과 겉 또는 위와 밑을 바꾸거나 차례를 바꾸다. ¶이불도 {되씨고} 얼른 얼른 정리하라고. ¶마지막 공 하나가 이렇게 승부를 {되씨네}. ¶너랑 나랑 분명히 헌 약속을 이렇게 {되씨면} 뭐가 좋다고 이러냐? ¶나라 전체를 {되써} 놓네.
지역 전북.

되아지 명 [대응어] 돼지.
멧돼짓과의 포유류. 또는 몹시 미련하거나 탐욕스러운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그려그려! {되아지도} 낯짝 보고 잡는다더니, 하이튼지 자네 두고 헌 말이네 그려."<이병철, 모래내 모래톱> ¶"그래 그러냐? 응, 그러므는 낼 아칙에 저 막에 있는 {되아지} 큰 놈 한마리 잡아라!"<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외양간에 우리 소 자야 해라우." "허다 못허면 {되아지} 우리라도 가 조깨 잡시다."<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우리 집에는 {되아지를} 세 마리 기릅니다. ¶"이것도 몰라? 아이고 {되야지} 같은 놈덜.". ¶"일은 안허고 밤낮 처먹고 노닝게 {되야지처럼} 돼 버린거여."<완주>.
지역 고창, 임실, 정읍, 김제, 남원, 완주, 진안, 부안.

되아지굴 명 [대응어] 돼지우리.
돼지를 가두어 기르는 곳.
지역 고창.

되아지막 명 [대응어] 돼지우리.
돼지를 가두어 기르는 곳.
지역 순창, 정읍, 남원.

되아지울청 명 [대응어] 돼지우리.
돼지를 가두어 기르는 곳.
지역 전북.

되아지울청막 명 [대응어] 돼지우리.
돼지를 가두어 기르는 곳.
지역 전북.

되아지집 명 [대응어] 돼지우리.
돼지를 가두어 기르는 곳.

지역 전북.

되아지청 명 [대응어] 돼지우리.
돼지를 가두어 기르는 곳.
지역 전북.

되안마당 명 [대응어] 뒤꼍.
집 뒤에 있는 뜰이나 마당. ¶집 {되안마당에는} 장독대가 있다. ¶너희들은 {되안마당에} 가서 놀거라.
지역 전북.

되짐바라지다 동 [대응어] 뒤집히다. 앞뒤 또는 위아래가 바뀌다.
앞뒤 또는 위아래가 바뀌다. ¶치마가 {되짐바라졌다}. ¶{되짐바라진} 배에서 아무도 살려내지 못했다.
지역 전북.

되채비 명 [대응어] 도깨비.
동물이나 사람의 형상을 한 잡된 귀신의 하나. 비상한 힘과 재주를 가지고 있어 사람을 홀리기도 하고 짓궂은 장난이나 심술궂은 짓을 많이 한다고 한다. ¶{되채비에} 홀딱 홀렸나 보네.
지역 전북.

되체비 명 [대응어] 도깨비.
☞되채비. ¶귀신 이야기 하나 하지. 먼 디를 갖다 오니깨. 밤에 내려온깨, 하, 요 산에 공동산에서 {되체비띠가} 막 불을 잡고, 그 막, 막 와 ~ 와<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남원.

되경 명 [대응어] 독경.
불경을 소리 내어 읽거나 욈. ¶{되경} 소리가 들린다. ¶그런 사람헌티 잔소리를 하느니 차라리 쇠귀에 {되경을} 읽지.
지역 전북.

된감 명 [대응어] 고욤.
고욤나무의 열매. 감보다 작고 맛이 달면서 좀 떫다. ¶{된감이} 열렸네.
지역 전북.

된짐 명 [대응어] 된김.
압력이 높아 세게 나는 김. ¶밥솥에서 {된짐이} 난다. 결과가 드러난 상황이나 다른 일을 기대할 수 없을 때 ¶오늘밤 여그서 묵게 {된 짐에} 며칠 더 푹 쉬었다 가더라고.
지역 전북.

됩베기 명 [대응어] 돋보기.
작은 글자나 물체를 또렷하게 보이도록 볼록 렌즈로 만든 안경. 흔히 노인들이 쓴다. ¶{됩베기를} 쓰다 ¶{됩베기를} 대다
지역 전북.

됩뵈기 명 [대응어] 돋보기.
작은 글자나 물체를 또렷하게 보이도록 볼록 렌즈로 만든 안경. 흔히 노인들이 쓴다. ¶{됩뵈기를} 쓰다 ¶{됩뵈기를} 대다
지역 무주.

됨됨허다 형
사람으로서의 품격과 덕을 갖추다. ¶지역에 상관없고 어찌든지 사람 하나가 {됨됨허먼} 첫째여.
지역 전북.

됩대 부 [대응어] 도리어.
예상이나 기대 또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반대되거나 다르게. ¶하이고오. 똥뀐 놈이 썽낸다드니, 날도적놈이 {됩대} 꼬깔을 씌우능구만 그리여.<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됩대'는 '됩대로'와 함께 많이 사용된다. 표준어 규정에 따르면 '도리어'가 '되레더'에 비해 널리 쓰이므로 '도리어'를 표준어로 삼고 있다.

됩대로 부 [대응어] 도리어.
☞됩대. ¶{됩대로} 내가 무신 들킬 일이라도 있는 것맹이로, 두근두근, 왜 이렇게 정신이 없능가 모리겄네<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됩더 부 [대응어] 도리어.
예상이나 기대 또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반대되거나 다르게. ¶{됩더} 내가 얼굴이 다 빨개지드만.
지역 전북.

됩데 부 [대응어] 도리어.
예상이나 기대 또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반대되거나 다르게. ¶{됩데} 성내다 ¶방구는 지가 뀌고 {됩데} 승질을 내네?
지역 전북.

됩디 부 [대응어] 도리어.
예상이나 기대 또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반대되거나 다르게. ¶{됩디} 성내다
지역 전북.

됩시 부 [대응어] 도리어.
예상이나 기대 또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반대되거나 다르게. ¶{됩시} 성내다
지역 전북.

됫마루 명 [대응어] 툇마루.
방과 마당 사이에 있는 좁은 마루. ¶{됫마루에} 해가 길게 들어온다.
지역 남원.

-됭이 【접미사】 [대응어] -둥이.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러한 성질이 있거나 그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부모한테는 {소자됭이/} 이웃간에 {화목됭이/} 동구간에 {우애됭이/} 나라님게는 충신됭이<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무주.

됭이내 명
들기름, 참기름이 오래 되면 나는 기름 냄새. ¶들지름 짜오먼 한번 솥이다 늙고 끓여야 {됭이내가} 안 나. 오래 두고 먹어도 {됭이내가} 안 나드라고.
지역 전북.

두꺼 명 [대응어] 두께.
두꺼운 정도. ¶{두꺼가} 두껍다고 좋은 것은 아니여.
지역 전북.

두꺼다 형 [대응어] 두껍다.
두께의 정도가 보통보다 크다. ¶오늘부터 날씨가 풀린데다 장막 벽을 {두껍게} 쳐 놔서 외풍도 없었다.<송기숙, 녹두장군> ¶아이고매, 저 년놈들 낯빤대기 {두껀} 것 좀 바.<최명희, 혼불> ¶필요한 널빤지보다 가져온 널빤지가 더 {두꺼서} 좋은디.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임실, 장수, 정읍, 진안.

두껑 명 [대응어] 뚜껑.
그릇, 상자 같은 것의 아가리를 덮는 물건. ¶"솥{두껑} 동무……" 손승호는 허리를 굽히며 감싸잡고 있던 솥뚜껑의 손을 자기의 이마에 댔다.<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부안, 군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해설 '두껑'은 19세기의 '둣겅, 둑겅[두껑]'의 형

태가 그대로 이어진 것이다. 중앙 방언의 '뚜껑'은 '두껑'의 첫음절이 된소리화된 것이다. 19세기의 '두껑'은 '둪게'에 접미사 '-엉'이 결합된 것으로 보인다. '둪게'는 '둡게'에서 온 것인데, "덮다"의 의미인 '둪-'[蓋]에 도구를 나타내는 명사 파생 접미사 '-게'가 결합한 것이다.

두께비 명 [대응어] 두꺼비.
¶그러고서는 인자 퇴끼가 {두께비한티} 졌다 말여. 또 업음질을 혔다고. 업음질을 허는디 {두께비가} 퇴끼를 업고서는, "가만히 하늘만 처다봐라."<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에이, 작것 나도 {두께비를} 한 번 불러볼 수배낀 없다' 고 말여. 근디 그 {두께비} 이름이<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김제, 남원, 무주, 순창, 군산, 완주, 임실, 장수, 진안.

두꽁 명 [대응어] 뚜껑.
☞두껑.
지역 익산.

두껍다 형 [대응어] 두껍다.
☞두꺼다
지역 군산.

두끄 명 [대응어] 두께.
두꺼운 정도.
지역 부안.

두끼 명 [대응어] 두께.
두꺼운 정도.
지역 김제, 완주.

두끼비 명 [대응어] 두꺼비.
지역 익산.

두더쥐 명 [대응어] 두더지. ¶"어쩌긴. 귀한 손님 휴가 첫밤을 같이 보내 드리구 밝기 전에 {두더쥐처럼} 기어 들어가야지." "불과 몇 시간 땜에 그 피를 흘리다니 고맙기커녕<최창학, 심야의 정담> ¶하룻밤이면 성벽을 만 리나 쌓는 시간인데." "아니, 난 그보다두 기어오는 {두더쥐를} 발견한 다혈질의 참호병이 엘에므지(경기관총)를 갈겨 대면 어쩌나 해서 그래." "설마<최창학, 심야의 정담>
지역 전북.

두덕두덕 부 [대응어] 누덕누덕.
해지고 찢어진 곳을 여기저기 너저분하게 깁거나 덧붙인 모양. ¶옛날 중들은 옷을 {두덕두덕} 꼬매 입었어.
지역 고창, 김제, 부안, 순창, 완주, 임실, 장수, 정읍, 진안.

두덕바지 명 [대응어] 누더기.
누덕누덕 기운 헌 옷. ¶하루는 더벅머리 총각놈이 하나 다 떨어진 두덕바지, {두덕바지라} 하믄 솜바지여 잉, 솜바지, 고 놈을 입고는 터실터실허고 와. 오더니,<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고창, 김제, 정읍, 진안.

두덕저구리 명
누덕누덕 기운 저고리. ¶{두덕저구리를} 입고 거지새끼처럼 오네.
지역 전북.

두덕지 명 [대응어] 누더기.
누덕누덕 기운 헌 옷.
지역 김제, 정읍, 진안.

두덩 명 [대응어] 밭두둑.
☞밭두럭.
지역 김제.

두데기 명 [대응어] 누더기.
누덕누덕 기운 헌 옷. ¶원 집 좋은 거는 원서동 집이 좋지 골롱동 집은 주로 {두데기} 헌 집이야. 이렇게<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8>
지역 남원, 부안, 순창, 임실, 장수, 무주.

두동 명 [대응어] 두동무니.
윷놀이에서, 두 동이 한데 포개어져 가는 말. ¶{두동} 간다고 구러지 두동사니고<완주_지역어_텍스트> ¶두동무니 {두동간다}, 둑난다, 두동세이다<2008 전북 고창>
지역 고창, 임실, 장수, 진안.

두동사니 명 [대응어] 두동무니.
윷놀이에서, 두 동이 한데 포개어져 가는 말. ¶두동 간다고 구러지 {두동사니고} 석똥 세개가 가면 석똥사니고 완주_지역어_텍스트>
지역 김제, 남원, 군산, 군산, 순창, 익산, 정읍.

두동산 명 [대응어] 두동무니.
☞두동사니.
지역 군산, 순창, 익산, 정읍.

두동새니 명 [대응어] 두동무니.
☞두동사니.
지역 고창, 부안.

두동세이 명 [대응어] 두동무니.
☞두동사니.
지역 고창.

두두럭 명 [대응어] 두드러기.
약이나 음식을 잘못 먹거나 또는 환경의 변화로 인해 생기는 피부병의 하나. 피부가 붉게 부르트며 몹시 가렵다. ¶약을 잘못 먹어도 {두두럭} 나고 그러드만.
지역 김제.

두두레기 명 [대응어] 두드러기.
약이나 음식을 잘못 먹거나 또는 환경의 변화로 인해 생기는 피부병의 하나. 피부가 붉게 부르트며 몹시 가렵다.
지역 남원, 진안, 익산.

두두리숭숭허다 형 [대응어] 뒤숭숭하다.
느낌이나 마음 따위가 어수선하고 불안하다. 일 또는 물건이 어수선하게 뒤섞이거나 흩어져 있다. ¶꿈자리가 {두두리숭숭혔어}. ¶짐이 {두두리숭숭허게} 어질러져 있어서 도독이 든지 알았지.
지역 전북.

두둑 명 [대응어] 밭두둑.
밭의 가장자리를 흙으로 둘러막은 두둑. 또는 밭과 밭 사이의 경계를 이루고 있거나 밭가에 둘려 있는 둑. ¶{두둑을} 만들다
지역 전북.

두둑바지 명 [대응어] 누더기.
누덕누덕 기운 헌 옷.
지역 고창.

두뒤기 명 [대응어] 누더기.
누덕누덕 기운 헌 옷.
지역 무주.

두드럭 명 [대응어] 두드러기.
약이나 음식을 잘못 먹거나 또는 환경의 변화로 인해 생기는 피부병의 하나. 피부가 붉게 부르트며 몹시 가렵다. ¶{두드럭도} 뻘겋게 올라오고 숨은 못 쉬겠고 해서 응급실로 갔어.
지역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정읍, 김제.

두드레기 명 [대응어] 두드러기.

약이나 음식을 잘못 먹거나 또는 환경의 변화로 인해 생기는 피부병의 하나. 피부가 붉게 부르트며 몹시 가렵다. ¶{두드레기} 나는 것 보고 식중독인가 했어.

지역 전북.

두드룩 명 [대응어] 두드러기.

약이나 음식을 잘못 먹거나 또는 환경의 변화로 인해 생기는 피부병의 하나. 피부가 붉게 부르트며 몹시 가렵다.

지역 임실.

두드리기 명 [대응어] 두드러기.

약이나 음식을 잘못 먹거나 또는 환경의 변화로 인해 생기는 피부병의 하나. 피부가 붉게 부르트며 몹시 가렵다.

지역 익산, 장수.

두디기 명 [대응어] 누더기.

누덕누덕 기운 헌 옷.

지역 무주.

두디레기 명 [대응어] 두드러기.

약이나 음식을 잘못 먹거나 또는 환경의 변화로 인해 생기는 피부병의 하나. 피부가 붉게 부르트며 몹시 가렵다.

지역 무주.

두디리기 명 [대응어] 두드러기.

약이나 음식을 잘못 먹거나 또는 환경의 변화로 인해 생기는 피부병의 하나. 피부가 붉게 부르트며 몹시 가렵다.

지역 전북.

두랑 명 [대응어] 두락, 마지기.

논밭 넓이의 단위. 한 마지기는 볍씨 한 말의 모 또는 씨앗을 심을 만한 넓이로, 지방마다 다르나 논은 약 50~00평, 밭은 약 00평 정도이다.

지역 전북.

두러이 명 [대응어] 도롱이.

짚, 띠 따위로 엮어 허리나 어깨에 걸쳐 두르는 비옷. 예전에 주로 농촌에서 일할 때 비가 오면 사용하던 것으로 안쪽은 엮고 겉은 줄거리로 드리워 끝이 너털너털하게 만든다. ¶비가 오니까 {두러이를} 써라

지역 전북.

두럭 명 [대응어] 밭두둑.

☞밭두럭.

지역 김제,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임실, 정읍, 고창, 남원.

두렁 명 [대응어] 밭이랑.

밭의 고랑 사이에 흙을 높게 올려서 만든 두둑한 곳. ¶못줄을 잡은 사람은 논의 이쪽과 저쪽 {두렁에} 서서 손을 높이 흔들며 소리를 질러 서로 신호한다.<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두렁치 명 [대응어] 도포.

예전에 통상 예복으로 입던 남자의 겉옷. ¶거시기헌게 아 거그서 어떤 동자들이 둘이 나와서 말여, 뭔 옷 하나를 가지고서 말여, 옷 하나, 쌔카먼(새까만) 옷을 하나를 가지고서 {두렁치} 하나를 가지고 나와서는 서로 쌈을 히쌌드리아. <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군산군편>

지역 군산, 김제, 남원, 부안, 순창, 익산, 임실.

두렁치매 명 [대응어] 두렁이.

어린아이의 배와 아랫도리를 둘러서 가리는 치마 같이 만든 옷. 겹으로 만들거나 솜을 두어 만든다.

지역 고창.

두레바가지 명 [대응어] 쇠죽바가지.

쇠죽을 푸는 데 쓰는 바가지. ¶{두레바가지로} 소죽을 구유에 퍼부었다. ¶쇠죽을 떠오라니까 그 뜨거운 솥에 {두레바가지를} 빠뜨리면 어쩐다냐?

지역 군산.

두렝이 명 [대응어] 도포.

예전에 통상 예복으로 입던 남자의 겉옷 ¶뭔 옷 하나를 가지고서 말여, 옷 하나, 쎄카먼(새까만) 옷을 하나를 가지고서 두렝이} 하나를 가지고 나와서는 서로 쌈을 히쌌드리아. "아, 너그덜(너희들) 뭣갖고 쌈을 허냐?" 헌게, "이것은 내얀디(내 것인데) 야가<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군산군편> ¶{두렝이} 걸치고 나와. 밖이 꽤 쌀쌀허니께.

지역 무주, 군산, 완주, 임실, 정읍, 진안.

두루래기 명 [대응어] 두루마기.

우리나라 고유의 웃옷. 주로 외출할 때 입는다. 옷자락이 무릎까지 내려오며, 소매·무·섶·깃 따위로 이루어져 있다.

지역 고창.

두루마리 명 [대응어] 두루미.

지역 전북.

두루막 명 [대응어] 두레박.

줄을 길게 달아 우물물을 퍼 올리는 데 쓰는 도구. 바가지나 판자 또는 양철 따위로 만든다.

지역 고창.

두루매기 명 [대응어] 두루마기.

우리나라 고유의 웃옷. 주로 외출할 때 입는다. 옷자락이 무릎까지 내려오며, 소매·무·섶·깃 따위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게 그때는 막 걍 여자가 깔깔깔깔 웃었어. 그런게 임금이, "새 {두루매기가} 그렇게 좋냐?"고. "하, 이 보라고, 저 새두루매기가 어디가 있겄냐고. 귀물(貴物)<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군산군편> ¶"야, 너 어떻게 해서 무명 한 필로 {두루매기가} 되고 바지 저고리가 되냐?" 하니께, "야, 선생님,<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진안, 부안.

두루박 명 [대응어] 두레박.

줄을 길게 달아 우물물을 퍼 올리는 데 쓰는 도구. 바가지나 판자 또는 양철 따위로 만든다. ¶나간 뒤에 마누래는 일어나서 수건 쓰고 시암(샘)에 가서 {두루박으로} 물 떠서 동서남북으로 찌틀고(끼얹고) 물 한 동우 질어(길어) 갖구와서 지푸락(짚) 깔구<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하면서 먹는단 말이여. 그 여자가 옆에서 가만히 먹는 모습을 보니께 아, {두루박} 같은 눈물이 뚝, 뚝, 뚝, 뚝 떨어진단 말이여. 그래 가만히 본게<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전북.

두룩 명 [대응어] 밭두둑.

☞두둑.

지역 고창.

두룸 의명 [대응어] 두름.

☞둘금.

지역 고창, 군산,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임실, 장수, 정읍, 진안, 익산.

두룸박샘 명 [대응어] 두레박우물.

두레박으로 물을 긷는 우물.

지역 고창.

두룸박세앰 명 [대응어] 두레박우물.

두레박으로 물을 긷는 우물.

지역 김제.

두룸박시암 명 [대응어] 두레박우물.

두레박으로 물을 긷는 우물. ¶집::찌비 인제 또 이르케 인저 시아멀 지비서 파:가꼬, 두룸바그로 {두룸박시암의} 인저 지러 먹떠니 인제,<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두룸박시암이서} 물 퍼다 글로 밥허고.

지역 남원, 부안, 순창, 군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두룸박질 명 [대응어] 두레박질.

두레박질. ¶여그는 그냥 저렇게 놓고 먹었어. 그리야 {두룸박질을} 허제, 이렇게 노깡. 아그들 무순게. ¶여그는 온게 {두룸박질을} 허드라고. 시암으서. 속으다 두룸박 느서 떠가꼬

지역 전북.

두룸박질허다 동 [대응어] 두레박질하다.

두레박질하다. ¶우리 시집 와서 들시암, 눈보라 치고 걍 그리도 거가서 빨래히다가 거그 가서 걍 눈보라치는 디 가서 양 들시암이 가서양 {두룸박질히서} 그놈 빨래히서, ¶똥그람히 있어. 그놈을 멫 개 놓아. 짚이 파가꼬. 그놈 품어서 쪽박, {두룸박질혀}. ¶한 질이나 넘어야 원 {두룸박질허든지} 말든지 허지.

지역 전북.

두룸샘 명 [대응어] 두레박우물.

두레박으로 물을 긷는 우물.

지역 무주.

두룹 의명 [대응어] 두름.

☞둘금.

지역 남원.

두룽박 명 [대응어] 두레박.

줄을 길게 달아 우물물을 퍼 올리는 데 쓰는 도구. 바가지나 판자 또는 양철 따위로 만든다.

지역 무주, 임실.

두룽치 명 [대응어] 두렁이.

어린아이의 배와 아랫도리를 둘러서 가리는 치마 같이 만든 옷. 겹으로 만들거나 솜을 두어 만든다.

지역 정읍.

두르매기 명 [대응어] 두루마기.

우리나라 고유의 웃옷. 주로 외출할 때 입는다. 옷자락이 무릎까지 내려오며, 소매·무·섶·깃 따위로 이루어져 있다. ¶딴 놈 입고 넘으 모자 좀 잠 꿔서 씨고 두르매기도 넘으 {두르매기를} 꿔 입고 이놈을 떡 씨고 그 집이를 갔다 그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우리 하라버지 {두르매기나} 헐래바 주꺼씨.(우리 할아버지 두루마기나 하려고 해봐 죽겠지).<지역어 자료 총서, 군산> ¶<지역어 자료 총서, 군산>

지역 부안.

두름 의명 [대응어] 두름.

☞둘금.

지역 고창, 완주, 익산.

두름박 명 [대응어] 두레박.

줄을 길게 달아 우물물을 퍼 올리는 데 쓰는 도구. 바가지나 판자 또는 양철 따위로 만든다. ¶돌아가먼 좋은 시앰이 있으먼인디, 하늘서 선니(선녀)가 두름박 갖고 내려 온 놈 {두름박을} 타고 올라가라.” 고. 올라 간 것이 아니라, 느르(내려)와서 꽉 잡었디야.<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오더니 나오더니로, “요 모퉁이를 돌아가먼 좋은 시앰이 있으먼인디, 하늘서 선니(선녀)가 {두름박} 갖고 내려 온 놈 두름박을 타

고 올라가라." 고. 올라 간<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두릉 명 [대응어] 밭두둑.
☞두둑.
지역 무주.

두리 명
납작하지 않고 몸통이 항아리처럼 볼록한 감. 홍시로 먹기도 하지만 곶감으로 많이 깎는다. 전북 완주 지역의 특산물이다. ¶여기는 경천면 요 근방 고산서 양촌까지 이렇게 거기는 {두리라고} 그 감을 질로 많이 깎제. ¶{두리라는} 것이 감 종자 중에서 꽂감 중에 질 낫다고 평은. ¶꽂감 사 먹을라믄 {두리} 꽂감을 사야 맛있지.
지역 완주.

두리감 명 [대응어] 둥주리감.
납작하지 않고 동글동글한 감. 홍시로도 먹지만 주로 곶감 깎는 데 쓴다. ¶꽂감은 {두리감이} 질이지.
지역 전북.

두리감 명
모양이 둥실둥실한 감. 보통 곶감을 만드는 데 이용한다. ¶고동시로도 꽂감 깎기도 허는디, 여그서는 {두리감으로} 깎지.
지역 전북.

두리미 명 [대응어] 두루미.
지역 전북.

두링이 명 [대응어] 두렁이.
어린아이의 배와 아랫도리를 둘러서 가리는 치마 같이 만든 옷. 겹으로 만들거나 솜을 두어 만든다.
지역 무주, 장수.

두물다 형 [대응어] 드물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일이 잦지 아니하다. ¶고론 일은 {두물어서} 잘 본 적도 없어.
지역 전북.

두비지다 동 [대응어] 뒤집히다.
앞뒤 또는 위아래가 바뀌다. ¶누구 속 {두비져} 죽는 꼴 볼라고 그라요? ¶배가 {두비지다}.
지역 전북.

두세두세 부 [대응어] 두런두런.
여럿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서로 조용히 이야기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호성암 중들이 촛불을 써 놓고 {두세두세} 둘러앉어서 저울로 떡을 달고 있드라네.<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해설 '두세두세'는 국어사전에서 규범 표기 '두런두런'을 쓰도록 안내하고 있다. "여러 사람이 모여 내는 작은 소리나 그 모습"을 나타내는 부사이다.

두세두세하다 동 [대응어] 두런두런하다.
여럿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서로 조용히 이야기하다. ¶큰일 앞에 놓고 맘들만 바빠 {두세두세하다} 보면 빠치는 것이 더러 있는 법이요.<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해설 전라 방언 '두세두세하다'는 표준어의 '두런두런하다'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두아지 명 [대응어] 돼지. ¶{두아지를} 잡다
지역 전북.

두애지 명 [대응어] 돼지. ¶{두애지를} 잡다
지역 전북.

두우리 명 [대응어] 둥우리.

닭이 알을 낳거나 품을 수 있도록 짚이나 댑싸리 따위로 만든 그릇 모양의 물건. ¶닭이 어찌 {두우리에다가}, 알을 안 낳고, 엉뚱헌 디다가 낳는당가?

지역 전북.

두제 명 [대응어] 뒤주.

쌀 따위의 곡식을 담아 두는 세간의 하나. 나무로 궤짝같이 만드는데, 네 기둥과 짧은 발이 있으며 뚜껑의 절반 앞쪽이 문이 된다. ¶음, 고, 고구마 {두제를} 만드라갇꼬요,<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지역 완주, 임실.

두제기 명 [대응어] 누더기.

누덕누덕 기운 헌 옷.

지역 부안, 완주.

두쥐기 명 [대응어] 두더지.

지역 순창.

두지 명 [대응어] 곳간.

물건을 간직하여 두는 곳. ¶옛날에 촌가에 간다면 나락 {두지} 거 있지. 거그다 인자 구멍을 여만치 뚫어놓고 삼시 주먹밥을<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나주 근방을 향해서. 근디 {두지} 속으서는 벌써 애기를 났네 인자. 애기를 난 것이 아들을<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나무로 막아 놓구 감자랑 그런 거 넣어 놓는 거는 {두지라} 그래. 송판을<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6> ¶가마니로? ¶이제 큰 이런 뭐}? {두지}?(뒤주?)<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예. {예}. 0 <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쌀두지가 차 있으면 안 먹어도 배가 불렀당게 {두지에} 쌀떨어지는 것이 살면서 제일 서러운 일이었응게.

지역 무주, 완주, 임실.

두지기 명 [대응어] 두더지.

지역 완주, 임실.

두집어쓰다 동 [대응어] 뒤집어쓰다.

책임을 넘겨서 지다. 또는 액체나 가루 등을 위에서부터 덮어 쓰거나 이불 따위로 전체가 가려지도록 덮다. ¶억울하게도 죄를 {두집어썼어}. ¶주동자란 이유로 모든 책음을 {두집어썼지만} 어디다 대고 벤명의 여지도 없었다. ¶철호는 동생이 저지른 일을 혼자서 {두집어쓰고} 말았다. ¶먼지를 {두집어쓰면서} 청소를 했어. ¶과거 졸업식장에서는 밀가루를 {두집어쓰고}, 다니며 졸업을 즐기는 일부 학생들도 있었다 ¶뭐가 서러서 그렇게 이불을 {두집어쓰고} 운다냐. 그만 허고 언능 나와 밥이나 먹어.

지역 전북.

두집어씌우다 동 [대응어] 뒤집어씌우다.

책임을 넘겨서 지게 하다. 또는 액체나 가루 등을 위에서부터 온몸으로 떨어지게 하거나 이불 따위로 전체가 가려지도록 덮게 하다.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한테 으떻게 죄를 {두집어씌울라} 그란다요? ¶흙을 온몸에 다 {두집어씌워} 번졌어. ¶보재기로 얼굴을 {두집어씌워서} 델고 왔어.

지역 전북.

두째소까락 명 [대응어] 집게손가락.

☞두채손구락.

지역 무주.

두째손거락 명 [대응어] 집게손가락.

☞두채손구락.

지역 군산.

ㄷ

두채손구락 명 [대응어] 검지손가락.
다섯 손가락 가운데 두 번째 손가락. ¶{두채손구락으로} 앞을 가리킨다.
지역 남원, 무주, 군산, 완주, 임실.

두채손그락 명 [대응어] 검지손가락.
☞두채손구락.
지역 임실.

두체손구락 명 [대응어] 집게손가락.
다섯 손가락 가운데 둘째 손가락. ¶빙판에서 자빠졌는디 글씨 해필이면은 {두체손구락이} 뿐질라져서 솔찬히 고생혔지.
지역 전북.

두텁다 형 [대응어] 두껍다.
두께의 정도가 보통보다 크다. ¶거의 말로 표현된 적이 없는 시아버지의 정은 언제나 {두텁고} 따스했다.<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김제, 부안, 완주, 익산.

둑수리 명 [대응어] 솔개. ¶{둑수리가} 날다
지역 고창, 순창, 장수.

둔갑 (←遁甲) 명 [대응어] 둔갑.
술법을 써서 자기 몸을 감추거나 다른 것으로 바꿈. ¶결국 가서 처녀로 {둔갑이} 되아 가지고 <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오래 묵으먼 그게 {둔갑이} 된다도만. 둔갑헐 수가 있디야. <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전북.

둔누다 동 [대응어] 드러눕다.
드러눕다. ¶나는 {둔누면} 잔게 알아서 혀.
지역 전북.

둔전거리다 동 [대응어] 머무적거리다, 서성거리다.
말이나 행동 따위를 선뜻 결단하여 행하지 못하고 자꾸 망설이다. ¶자꾸만 이렇게 {둔전거리다 가는} 촌뜨기 처접을 타지 싶어 얼핏 제호를 따라 올라갔다.<채만식, 탁류>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의 부사 '둔전'은 '둔전둔전하다'가 쓰이는 것으로 보아, 의태어 부사로 보인다. "일을 하지 않고 뭉그적거리는 모습"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다. '둔전거리다'는 '둔전'에 동사 파생 접미사 '-거리다'가 연결된 것이다.

둔전기리다 동 [대응어] 머무적거리다, 서성거리다.
☞둔전거리다. ¶긍께로 나 같은 것이야 반봉사로 그냥 {둔전기리고} 댕기는 것이제라<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둘굼 의명 [대응어] 두름.
☞둘금.
지역 익산.

둘금[1] 의명 [대응어] 두름.
조기 따위의 물고기를 짚으로 한 줄에 열 마리씩 두 줄로 엮은 것을 세는 단위. ¶'여섯 일곱 여덜 아홉 열,' 제일 시는(세는) 자가 한 {둘금씩} 먹기로 허자.<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그아 쏘내기 한 {둘금만} 오면 사태나서 걍 베리뻔지게 생겼는디 거그다 봉토를 허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둘금[2] 의명 [대응어] 켜.
포개어진 물건의 하나하나의 층. ¶그리 놓고 거그다 한 {둘금} 싹 허쳐 두북::허니. ¶그 이튿날 난디없는 비가 한 {둘금} 오더니만<한국구비문학대계, 전북군산시·옥구군편>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둘금'은 '켜'의 방언형으로도 쓰이고, '두름'의 방언형으로도 쓰이고 있다. 주로 수관형사가 앞에 오는 단위성 의존 명사로 쓰인다.

둘금둘금 부
두루두루 빼놓지 아니하고. 여기저기 빠짐없이 골고루. ¶시루에다 고물을 {둘금둘금} 둘러.
지역 전북.

둘러오다 동 [대응어] 거쳐 오다.
도중에 어디를 지나거나 들러 오다. ¶어디로 {둘러와}?
지역 전북.

둠벙 명 [대응어] 웅덩이.
움푹 파여 물이 괴어 있는 곳. 웅덩이보다 크고 방죽보다 작다. ¶그런개 그 물에다가 놓고 짜그만한 {둠벙에다가} 넣고 놓으면서, 그냥 좋아서 이 야단을 치고 댕겨. 이것을 갖다가 목숨을 끊을 수가 없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영수가 장난치고 도망치다가 그만 {둠벙에} 빠져 옷을 다 버렸다. ¶이 멧돼지를 시방 '혼이 이 {둠벙으가} 미꾸라지가 기다'고 허드라고.<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군산, 남원, 완주, 정읍, 고창, 김제.

둥개 명 [대응어] 물방개. ¶{둥개가} 돌아다니다
지역 전북.

둥개둥개 부 [대응어] 부라부라.
어린 아기를 위아래로 흔드는 놀이를 할 때 내는 소리. ¶아가 아가 울지 마라 아가 아가 울지 마라 {둥개둥개} 동천아 버들잎에 남천아 구름 속에 신선아 달 가운데 옥선아 벼랑빡에 문지(먼지) 생각 얼음 구녁(구멍)애 수달피 생각 자장자장 자장자장 우리 아기 울지 마라<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아가 아가 우리 아가 {둥개둥개} 잘도 논다.
지역 고창, 진안, 남원.

둥게 명 [대응어] 둥우리.
닭이 알을 낳거나 품을 수 있도록 짚이나 댑싸리 따위로 만든 그릇 모양의 물건. ¶닭이 많아졌응게 {둥게를}, 새로 더 맨들어야겄어.
지역 전북.

둥게미 명
잔잔한 싸리로 만든 둥글고 큰 그릇. 대로 만든 소쿠리와 비교한다. ¶빨래를 {둥게미다} 담어 놨어.
지역 전북.

둥구리 명 [대응어] 둥우리.
닭이 알을 낳거나 품을 수 있도록 짚이나 댑싸리 따위로 만든 그릇 모양의 물건. ¶{둥구리에다가} 속을 넣었더니 알이 아직도 따뜻혀.
지역 전북.

둥구지 명 [대응어] 도롱이.
짚, 띠 따위로 엮어 허리나 어깨에 걸쳐 두르는 비옷. 예전에 주로 농촌에서 일할 때 비가 오면 사용하던 것으로 안쪽은 엮고 겉은 줄거리로 드리워 끝이 너털너털하게 만든다. ¶{둥구지를} 써서 비를 피하곤 했지.
지역 고창.

둥그럽다 형 [대응어] 둥그렇다.
뚜렷하게 둥글다. ¶평범하고 또 자비하고 원대하고 {둥그럽고} 그런 것이, 그렇게 노래하는 것이 우졸세.<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5>
지역 전북.

ㄷ

둥그마치 㫗 [대응어] 동글.

둥그스름한 모양. ¶떵그 떵그 떵산인가/ {둥그마치} 곶갬인가/어렁 끙끙 호달피/니모 빤듯 뚜부몬가(정읍 아이 어르는 소리-“떵그 떵그 떵산인가”)<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정읍.

둥글다 㫖 [대응어] 뒹굴다.

누워서 이러저리 구르다. ¶하루쳉일 방바닥으가 {둥굴지} 말고 밧이라도 가 봐라.

지역 전북.

둥글쟁이 㫘

둥우리를 만들어 파는 사람. ¶전에는 맨 모도 {둥글쟁이덜이} 대나무를 엮어서 여러 가지 용기를 만들어 장에 내다 팔아<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

지역 전북.

둥글테 㫘 [대응어] 굴렁쇠.

☞동글태.

지역 전북.

둥글페 㫘 [대응어] 굴렁쇠.

☞동글태. ¶어린애가 있는 집에는 {둥글페가} 한 나씩은 다 있었지.

지역 전북.

둥둥기 㫘 [대응어] 방게.

바위겟과에 속한 게. ¶{둥둥기를} 잡다.

지역 전북.

둥치 㫘 [대응어] 덩이, 덩어리.

뭉쳐진 이루어진 것. ¶나락 낱을 각자로 내널어서 싸는데, 이놈의 한 개에다가 종이를 몇 번을 둘러서 싸닝개, 저 그냥 {둥치가} 이렇지.(손을 위 아래로 해서 밥 한공기 크기의 동작을 보이면서 구술.)네. {둥치를} 이렇게 해서 배에다가 싸서 인제 간단 말이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하도 가난해서 할 게 없으니까 새끼 꼬아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불러요. 새끼 꼬아서 니야까에다 {둥치} {둥치} 서려 가지군 팔러 다니지요.<최명희, 혼불>

지역 완주.

둥쿠리 㫘 [대응어] 도롱이.

짚, 띠 따위로 엮어 허리나 어깨에 걸쳐 두르는 비옷. 예전에 주로 농촌에서 일할 때 비가 오면 사용하던 것으로 안쪽은 엮고 겉은 줄거리로 드리워 끝이 너털너털하게 만든다. ¶비가 오는 날은 {둥쿠리가} 필요하다.

지역 고창.

뒈니 㫘 [대응어] 뒤꼍.

집 뒤에 있는 뜰이나 마당. ¶옛날이는 이 집 {뒈니에} 커다란 감나무가 있었어.

지역 무주.

뒈따 㫗 [대응어] 도리어.

☞데따.

지역 전북.

뒈떼 㫗 [대응어] 도리어.

☞데떼.

지역 전북.

뒈비 㫗 [대응어] 도리어.

예상이나 기대 또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반대되거나 다르게. ¶{뒈비} 성내다

지역 전북.

뒛마롱 㫘 [대응어] 툇마루.

방과 마당 사이에 있는 좁은 마루. ¶{뒛마롱에} 앉아 바람을 쐰다.

지역 무주.

뒤구땡이 명 [대응어] 뒷덜미.
목덜미 아래의 양 어깻죽지 사이.
지역 무주.

뒤꼭때기 명 [대응어] 뒤통수.
머리의 뒷부분. ¶어찌나 화가 나던지[뒤꼭때기를], 한 때 때렸드리야.
지역 무주.

뒤꼭지 명 [대응어] 뒤통수.
머리의 뒷부분. ¶부월은 뒤도 안 돌아다보고 황망히 멀어지는 사내의 {뒤꼭지를} 향해 갈고랑이가 달린 험악한 시선을 걸면서 부걱부걱 입에 게거품을 물었다.<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여보, 나이어린 후배가 경험이 없어서 실수를 허면은 딱 앉혀놓고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헌 것이라고 갈쳐준 것이 옳체, 사람들 뒤돌려 보내놓고 {뒤꼭지다} 대고 웃어?<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전북.

뒤꼼치 명 [대응어] 뒤꿈치.
발의 뒤쪽 발바닥과 발목 사이의 불룩한 부분. ¶바를 이러케 {뒤꼼치서부텀} 차고 막 올라가고.<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지역 임실.

뒤꾹찌 명 [대응어] 뒤통수.
머리의 뒷부분. ¶가시나가 {뒤꾹찌가} 툭 튀어나와서 뵈기가 싫어야.
지역 완주.

뒤끔치 명 [대응어] 뒤꿈치.
발의 뒤쪽 발바닥과 발목 사이의 불룩한 부분. ¶{뒤끔치가} 아프다. ¶운동화 {뒤끔치를} 꾸부려 신고 댕기는 것이 멋져 보이는 때가 있었지.
지역 전북.
해설 '뒤끔치'는 제2 음절 모음 /ㅜ/의 원순성이 후행하는 /ㅁ/의 양순성과 성질이 비슷하여, 이를 피하기 위하여 비원순 모음 /ㅡ/로 바뀐 형태이다.

뒤다[2] 동 [대응어] 두다.
바둑이나 장기 따위의 놀이를 하다. 또는 그 알을 놓거나 말을 쓰다. ¶그 삼천 년이나 묵은 놈이 중이 되어가지고서 나하고 장기를 한 수 {뒤다가} 돌려보내고, 돌려서 돌려보내고 내가 쫓겨서 내려온 길입니다.<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바둑을 한참 {뒤다간} 한량이 허허 웃거든.<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전북.

뒤다 동 [대응어] 뒤지다.
무엇을 찾으려고 샅샅이 들추거나 헤치다. 또는 책 따위를 한 장씩 들추어 넘기거나 한 권씩 살피다. ¶영감은 담배를 자그 손수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단다." 그런개 전매청에서 담배를 뒤러(뒤지러) 오는디, 그 집을 목적허고 올때, 옆집 두어집을 {뒤고} 그 집을 온다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아침에 동네서, 그전에 도둑맞으먼 징 치구 뒤 들어오잖여? 아침에는 징을 치구 동네서 나서서 막 {뒤기} 시작허네. 딴 집에는 데검데검(대충대충) {뒤고} 그 집으로 갈 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그쪽이 가서. 아, "약을 지어 돌라." 고 허고는 돈을 고뿌속을 {뒤고} 조마니를 {뒤여} 보니까 돈이 한 푼도 없다. '호오 내가 돈 한푼도 없이 내 약방으로 쫓아왔구나.<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학창 시절에 보던 책을 암만 {뒤여} 봐도 모르겄네. ¶산비탈 {뒤여} 갖고 지금의 내가 이렇게 큰 부자가 됐네.
지역 전북.

뒤데기 명 [대응어] 누더기.

누덕누덕 기운 헌 옷.

지역 임실.

뒤마렵다 형 [대응어] 똥마렵다.

대변이 나오려는 느낌이 있다. ¶아따, 자네거튼 똑똑사니나 시상 일에 참견허지, 방죽물애 때 베끼려다가 때없이 {뒤마련허는}, 저거튼 새깽이덜이 뭘 어쩌겠나.<조봉래, 풀벨골> ¶또 불현듯 한 대 굽고 싶은 그 간절한 욕구를 참을 수가 없어 마치 {뒤마려운} 강아지 꼴로 방 안을 끊임없이 바장이며 장로 댁 식구들 눈치를 살필 필요도 없게 되었다.<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뒤미 명 [대응어] 바구미.

쌀을 갉아 먹는 벌레. ¶{뒤미가} 글씨 시커멓게 꼬였드라고. ¶쌀통에 {뒤미가} 생겼능가.

지역 전북.

뒤비지다 동

위가 밑이 되고 밑이 위가 되다. ¶옛날 산 역사를 어떻게 말혀? 속 {뒤비져야} 되제.

지역 전북.

뒤쎄다 동 [대응어] 뒤집다.

안과 겉, 위와 밑, 차례, 승부 따위를 바꾸다. 또는 일을 뒤집어 틀어지게 만들다. 또는 조용하던 것을 소란하고 어지럽게 하다. ¶손바닥 {뒤쎄기}. ¶내가 바빠서 근디 오늘 허기로 헌거 내가 다음에 하고픈데, 차례 좀 {뒤쎄} 주라. ¶지금이라도 그 계획을 {뒤쎄} 버리면 없던 일 되니께 잘 생각 허봐 ¶그 소문이 퍼지면 온 나라가 {뒤쎌} 거여.

지역 전북.

뒤쎄쓰다 동 [대응어] 뒤집어쓰다.

책임을 넘겨서 지다. 또는 액체나 가루나 모자나 이불 따위를 머리가 안 보일 정도로 위에서부터 덮어 쓰다. ¶니가 {뒤쎄쓴} 거가 죄가 아니여. ¶온 지푸라기를 다 {뒤쎄썼냐}? ¶이불을 {뒤쎄쓰고} 소리 질른다고 안 들리는 거 아녀. ¶모자를 푹 {뒤쎄쓰다}.

지역 전북.

뒤아지 명 [대응어] 돼지.

멧돼지과의 포유류. 또는 몹시 뚱뚱한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또는 몹시 미련하거나 탐욕스러운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기양, 매급씨 갇따가 곡썽만 넘덜 줘씨. 몬 머근다고 모르게 {뒤아지} 갇따 줘부러.<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다른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장난을 허니라고 게다가 {뒤아지} 피를 갓다 묻혔다요. 그러니 그것을 뭔 그런 말씸을 허시냐."<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김제, 남원, 완주, 진안, 임실, 군산.

뒤아지막 명 [대응어] 돼지우리.

돼지를 가두어 기르는 곳.

지역 남원.

뒤아지우리 명 [대응어] 돼지우리.

돼지를 가두어 기르는 곳.

지역 부안.

뒤안 명 [대응어] 뒤꼍.

집 뒤에 있는 뜰이나 마당. ¶머시매가 방으로 가서 똥 싸고, 정지 가 똥 싸고, 모퉁이가 똥싸고, {뒤안에} 가 똥 싸고, 마당에 가 똥 싸놓고는 지붕에까지 가 똥을 한방울 싸놨어.<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참, 이 저 변방이가 할망구집이 하나 있어. 망구 기어들고 기어나는 초막이 하나 있는디, 아 그 집일 가서 {뒤안을} 뒤진게

이 짚덤 속으가 딱 숨었다 그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전북.

뒤앙간 명 [대응어] 뒤꼍.
집 뒤에 있는 뜰이나 마당. ¶이 집은 장독대가 {뒤앙간에} 있네요.
지역 군산.

뒤애지 명 [대응어] 돼지.
멧돼지과의 포유류. 또는 몹시 뚱뚱한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또는 몹시 미련하거나 탐욕스러운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뒤애지} 큰 놈 잡으라."<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그런게, 이 사람들은 혹이나 군수 거동이니께, {뒤애지} 고기나 얻어먹으까 허고서, "예 있읍니다." "그럼 {뒤애지} 두 마리만 사오니라." {뒤애지} 두 마리 사다놨단 말여, 즈그가 먹을 욕심으로.<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아이고 저런 {뒤애지} 같은 놈들. 이걸 일이라고 허 놓았냐. ¶그만 좀 먹어 이놈아 그렇게 처먹기만 헝게 {뒤애지같이} 살만 쪘지.
지역 김제, 완주, 임실, 정읍, 군산.

뒤애지막 명 [대응어] 돼지우리.
돼지를 가두어 기르는 곳.
지역 임실, 진안.

뒤애지우리 명 [대응어] 돼지우리.
돼지를 가두어 기르는 곳.
지역 김제.

뒤애짓간 명 [대응어] 돼지우리.
돼지를 가두어 기르는 곳.
지역 전북.

뒤야지 명 [대응어] 돼지.
멧돼지과의 포유류. 또는 몹시 뚱뚱한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또는 몹시 미련하거나 탐욕스러운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인절미허고 떠거고 적 뿌치고, 뭐 과일 사고 {뒤야지} 자바서 한 다리썩 느코 수러고 막 그리서 가꽈.<2009 전북 임실> ¶아, 이놈으 영갬이 과거의 {뒤야지} 잡은 행세를 해버렸어.<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임실, 남원.

뒤에터 명 [대응어] 뒤꼍.
집 뒤에 있는 뜰이나 마당. ¶애기가 어째 {뒤에터에서} 혼자 놀고 있으까.
지역 임실.

뒤엄 명 [대응어] 두엄.
풀, 짚 또는 가축의 배설물 따위를 썩힌 거름. ¶{두엄을} 잘 허면 뭘 심어도 맛나.
지역 임실.

뒤음 명 [대응어] 두엄.
풀, 짚 또는 가축의 배설물 따위를 썩힌 거름. ¶저그 밭이다가는 {뒤음을}, 얼마나 히야 하능가요?
지역 정읍.

뒤장 명 [대응어] 굽도리.
☞지장.
지역 고창.

뒤제기 명 [대응어] 두더지.
지역 고창, 김제, 군산, 진안.

뒤주기 명 [대응어] 뒤주.
쌀 따위의 곡식을 담아 두는 세간의 하나. 나무로 궤짝같이 만드는데, 네 기둥과 짧은 발이 있으며 뚜껑의 절반 앞쪽이 문이 된다. ¶{뒤주기

에} 쌀이 그득하면 맴이 좋지.
지역 전북.

뒤죽 명 [대응어] 뒤주.
☞뒤주기.
지역 전북.

뒤지개 명 [대응어] 두더지.
지역 전북.

뒤지기 명 [대응어] 두더지.
지역 김제, 남원, 무주, 익산, 장수, 정읍.

뒤통 명 [대응어] 뒤통수.
머리의 뒷부분. ¶화가 많이 났능가 {뒤통을} 노려보더만.
지역 전북.

뒤통세기 명 [대응어] 뒤통수.
머리의 뒷부분. ¶어찌나 얄밉던가 {뒤통세기를}, 한 때 때려주고 싶더만.
지역 전북.

뒤퉁수 명 [대응어] 뒤통수.
☞뒤통수.
지역 전북.

뒨정뒨정하다 동 [대응어] 머뭇머뭇하다.
말이나 행동 따위를 결정하여 선뜻 행하지 못하고 자꾸 망설이다. ¶{뒨정뒨정하지} 않고 결정했어. ¶거 참, 뒤에서만 {뒨정뒨정하지} 말고 언능 앞으로들 나와요. ¶함께 하기로 했으면 빨리 해야지 왜 {뒨정뒨정하는} 거야.
지역 전북.

뒴마당 명 [대응어] 뒤꼍.
집 뒤에 있는 뜰이나 마당. ¶이 집은 {뒴마당이}, 솔찬히 넓어요.
지역 전북.

뒷간 명 [대응어] 변소.
대소변을 보도록 만들어 놓은 곳. ¶저녁으 잠을 자다가 저 잠은 안오고 뒤가 마려서 {뒷간에를} 가니라고 가넌게,<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어렸을 적, 시골에 가면 변소가 아니라 퇴비를 모아 둔 {뒷간에} 가서 볼일을 봐야 하는 게 제일 싫었어. ¶{뒷간에는} 거름도 있고 대소변도 볼 수 있지.
지역 군산, 김제, 무주, 완주, 익산, 진안.

뒷구녕 명 [대응어] 뒷구멍.
뒤쪽에 있는 구멍. 드러내지 않고 넌지시 행동할 만한 방법. ¶권세로 돈으로 {뒷구녕으로} 빼돌리고, 그리 안돼 군대에 나가드라도 총 맞어 죽지 않을 안전헌디로 빼돌리니 무신 근심 걱정이 있겄소.<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뒷구머리 명 [대응어] 발꿈치.
발의 뒤쪽 발바닥과 발목 사이의 불룩한 부분. ¶{뒷구머리를} 들고 섰다.
지역 전북.

뒷그늘 명
불행이나 근심이 드리운 어두운 표정을 비유적으로 이른 말. ¶변한 것은 외양뿐만 아니라, 그다지 까불고 술심 망나니고 하던(실상은 명랑했던) 대신 사람이 몹시 {뒷그늘이} 져 보이고 입도 무거워졌고 해서, 우선 남과 붙임성이 없었다. <채만식, 정자나무 있는 揷畵>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뒷그늘'은 '뒤'와 '그늘'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두 어휘의 뜻이 합쳐져 "드러나지 않은 어두운 표정"을 의미하게 된 것이다.

뒷동 명
집이나 마을 뒤에 있는 작은 산이나 논. ¶어머니 {뒷동} 밭이 있어라우.
지역 전북.

뒷되안 명 [대응어] 뒤꼍.
집 뒤에 있는 뜰이나 마당. ¶{뒷되안에는} 장독대가 있다.
지역 전북.

뒷등매 명 [대응어] 뒷동산.
집이나 마을 뒤에 있는 동산. ¶{뒷등매에} 등산을 갔는디 느닷없이 산 우게서 독이 궁글어 내려오더니만, 동무하나가 금방 앞에서 독뎅이에 치여서 죽었단 말이여.<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전북.

뒷마롱 명 [대응어] 툇마루.
☞뒷마룽.
지역 전북.

뒷마루 명 [대응어] 툇마루.
방과 마당 사이의 툇간에 있는 마루. ¶지붕이 낡아빠진 오막살이. 우수에는 뼈만 남은 울타리와 조그마한 터전을 지나 집이 놓여 있는데, 헛간 사랑방이 보이고 앞으로는 좁은 {뒷마루가} 있다.<채만식, 사라지는 그림자>
지역 군산.

뒷마룽 명 [대응어] 툇마루.
방과 마당 사이의 툇간에 있는 마루. ¶잘 디가 없으니께 {뒷마루에서} 잤등만 아침에 허리가 뻿뻿허서 죽을 뻔했어.
지역 임실.

뒷마리 명 [대응어] 툇마루.
방과 마당 사이의 툇간에 있는 마루. ¶꾀벗고 {뒷마리에} 누워 있응게 날 더운 것도 모르겄어.
지역 무주.

뒷말컹 명 [대응어] 툇마루.
방과 마당 사이의 툇간에 있는 마루. ¶{뒷말컹에} 앉아 바람을 쐰다.
지역 전북.

뒷모가지 명 [대응어] 뒷덜미.
목덜미 아래의 양 어깻죽지 사이. ¶내가 그 놈헌티 {뒷모가지를} 잡히겄어?
지역 남원.

뒷목 명 [대응어] 뒷덜미.
목덜미 아래의 양 어깻죽지 사이. ¶수그린 고개의 {뒷목이} 깊이 파이고, 앞쪽의 깃은 가슴의 흰 살이 거의 드러나보일 만큼 아래까지 내려와 있었다.<최명희, 혼불> ¶{뒷목의} 뻐근함을 어느 정도 가라앉히고 나면 어김없이 콧등이 스멀스멀 가렵기 시작하고, 그 다음엔 두 다리의 힘줄이 왠지 힘주이는 듯 조금씩 땡겨 오곤 했다.<양귀자, 녹>
지역 남원.

뒷목덜미 명 [대응어] 뒷덜미.
목덜미 아래의 양 어깻죽지 사이. ¶그것 때문에라도 그는 오래도록 손을 뒤로 돌려 굳어 가는 {뒷목덜미를} 자근자근 주무르며 시간을 지체시키고 있었다.<양귀자, 녹>
지역 군산.

뒷봉 명 [대응어] 뒤통수.
머리의 뒷부분. ¶[뒷봉이], 납작헌게 쪽진 머리가 이쁘더만.
지역 전북.

-드- 【선어말어미】 [대응어] -더-.
과거 어느 때에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현재의 말하는 장면에 그대로 옮겨 와서 전달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참, 이 마을엔 대가 {많드구만요}.<최명희, 혼불> ¶밤새 {안녕허시난다드니}, 강모야말로 밤새 어른이 되어 버렸네에.<최명희, 혼불>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봤는디 상집이라는 친구는 있었어도 상준이라고 하는 놈은 없었다고 {허시드라}.<이병천, 모래내모래톱> ¶겁네기 복잡허게 {살드라고들}<장승익(008)> ¶삼추니 서울 {가드라}.<김중진(1984b)> ¶{흘르드라}<김옥화(2000)> ¶{알드라}<김옥화(2000)>
지역 전북.

드글거리다 동 [대응어] 득시글거리다.
사람이나 동물 따위가 떼로 모여 자꾸 어수선하게 들끓다. ¶불법으로 국경선을 넘어온데다가 블라디보스톡에는 일본주둔군이 {드글거리고} 있었던 것이다.<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드글거리다'는 '드글대다'로도 쓰인다. 부사 '드글'에 동사 파생 접미사 '-거리다, -대다'가 연결된 것이다.

드글대다 동 [대응어] 득시글거리다.
☞드글거리다. ¶"그건 성질이 아니라 일본놈 장교 그대롭니다. 관동군에서 독립군 등에 총질이나 하던 저런 놈들이 장교라고 {드글대며} 판을 치고 있으니 원."<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드글드글 부 [대응어] 득시글득시글.
사람이나 동물 따위가 떼로 모여 어수선하게 자꾸 들끓는 모양. ¶십 년씩 신성하게 여겨 온 물고기들도, 물바닥에 새까맣게 몰려 {드글드글} 뒤재비를 치며 흰 배를 뒤집을 수도 있는 일이리라.<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해설 부사 '드글드글'은 부사 '드글'이 반복된 반복 부사이다.

드글드글하다 형 [대응어] 득시글하다.
사람이나 동물 따위가 떼로 모여 어수선하고 수선스럽다. ¶방죽 바닥에 물괴기가 기양 막 {드글드글헙디다}.<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의 '드글드글하다'는 "사람이나 동물 등이 많이 모여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말이다. 부사 '드글드글'에 동사 파생 접미사 '-하다'가 연결된 것이다.

드끄럽다 형 [대응어] 듣그럽다, 시끄럽다.
듣기 싫게 떠들썩하다. ¶"{드끄러워요}! 아이가 잠들려구 하는데 자꾸만 앉아서……' "하아, 이런 놈의!" 제호는 지천을 먹고 끄먹끄먹 앉았다가 담배를 피워 문다.<채만식, 탁류, 987, 98>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드끄럽다'는 표준어 '듣그럽다'를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것이다. 요즘은 주로 '시끄럽다'로 대체되고 있어서 '드끄럽다'는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

-드끼 【연결어미】 [대응어] -듯이.
뒤 절의 내용이 앞 절의 내용과 거의 같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우리 화토 {노르마드끼(노름하듯이)}<백은아(2016)> ¶헤헤, 나 참, 세상으 났다가 벨 일 다아 보겄네!…… 아니 글씨, 안 받어두 졸 {드키} 처분대로 허라던 사람이, 인제넌 마구 그냥 일 원을 달래여?<채만식, 태평천하>
지역 부안, 완주.

-드냐 【종결어미】 [대응어] -더냐.

해라할 자리에 쓰여, 과거에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에 대해 묻는 종결 어미. ¶너 인월(引月) 아짐댁에 세배 {갔었드냐}?<최명희, 혼불> ¶강태는 같이 안 {왔드냐}?<최명희, 혼불> ¶그저 여자란 땅이라 하지 {않드냐}. 무슨 씨앗이든지 뿌리면 싹이 나고, 천지만물을 다 그 속에 품어 주는 다수운 것이 여자라야 헌다.<최명희, 혼불> ¶{보드냐}.<최태영(1973)> ¶{보시드냐}.<최태영(1973)> ¶할머니 {가시드냐}?<김중진(1984b)>

지역 전북.

드들방아 명 [발음] [드들빵아] [대응어] 디딜방아.

발로 디디어 곡식을 찧거나 빻게 된 방아. 굵은 나무 한 끝에 공이를 박고 다른 끝을 두 갈래가 나게 하여 발로 디딜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공이 아래에 방아확을 파 놓았다. ¶강 모두 웃고 그러는디 이렇게 인자 부인들이 {드들방아를} 발로 밟아 찧는디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남원, 군산, 고창.

드들방애 명 [발음] [드들빵애] [대응어] 디딜방아.

발로 디디어 곡식을 찧거나 빻게 된 방아. 굵은 나무 한 끝에 공이를 박고 다른 끝을 두 갈래가 나게 하여 발로 디딜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공이 아래에 방아확을 파 놓았다. ¶그러니 인자 허명태명 시골 내로는디 인자 촌을 내로닌게 그 촌에서 그전에는 {드들방애라고} 있어가지고 메주 방아도 거그다 찧고 그렇게 하는 방아도 있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고창, 남원, 익산, 임실, 무주, 완주.

드딜방아 명 [발음] [드딜빵아] [대응어] 디딜방아.

발로 디디어 곡식을 찧거나 빻게 된 방아. 굵은 나무 한 끝에 공이를 박고 다른 끝을 두 갈래가 나게 하여 발로 디딜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공이 아래에 방아확을 파 놓았다. ¶{드딜빵아는} 사람드리 발로 드더서, 드더서 찟는 거시 드들빵애고.<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지역 군산.

드딜방애 명 [발음] [드딜빵애] [대응어] 디딜방아.

발로 디디어 곡식을 찧거나 빻게 된 방아. 굵은 나무 한 끝에 공이를 박고 다른 끝을 두 갈래가 나게 하여 발로 디딜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공이 아래에 방아확을 파 놓았다. ¶{드딜방애를} 찜서 힘이 든게 노래를 불렀제.

지역 김제, 남원, 부안, 순창, 완주, 임실, 정읍, 진안.

-드라 【종결어미】 [대응어] -더라.

해라할 자리에 쓰여, 화자가 과거에 직접 경험하여 새로이 알게 된 사실을 그대로 옮겨 와 전달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보고 {있드라}.<최태영(1973)> ¶{보드라야}.<최태영(1973)> ¶{보시드라야}.<최태영(1973)> ¶{조트라}.<김중진(1984b)> ¶금방 {가드라}!<김중진(1984b)> ¶지비 {잇드라}!<김중진(1984b)> ¶어머이 고창 {가시드라}.<김중진(1976)> ¶복시기 지비 {잇드라}.<김중진(1976)> ¶영진이 밥 {먹드라}.<김중진(1976)>

지역 전북.

-드라고 【종결어미】 [대응어] -더라고

해라할 자리에 쓰여, 화자가 과거에 직접 경험하여 새로이 알게 된 사실을 그대로 옮겨 와 확인하듯이 전달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내가 다 신바람이 나고, 우리 손자 본 것 {같드라고}.<최명희, 혼불> ¶얌전헌 강아지 부뚜막에 {올라앉드라고}. 옛말 그른 디 하나도 없당게.<최명희, 혼불> ¶어깨가 동그스름허고 곱닥헌 거이, 그 깡깜헌 중에도 눈에 {들어오드라고}.

<최명희, 혼불> ¶쎄기쎄기 {가드라고}.<이윤구(00)>
지역 전북.

-드락 【연결어미】 [대응어] -도록.
앞의 내용이 뒤에서 가리키는 사태의 목적이나 결과, 방식, 정도 따위가 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공으로 뺏어가다시피 해 놓고는, 그나마도 철을 넹기고 자식을 얼려 {쥑이드락} 돈을 안 주먼 어쩔 거이냐, 어쩔 거이여?<최명희, 혼불> ¶소복 입고 시집와서 저 큰 재산을 다 {모우드락} 오직이나 넘 못헐 일 많이 시켰겄능가잉.<최명희, 혼불> ¶놀다 가세 놀다를 가세 이 해 {지드락만} 놀다를 가세.<최명희, 혼불> ¶{졈드락} 머허는 거여?<이태영(1991)>
지역 전북.

-드람서 【축약형】 [대응어] -더라고 하면서
방언형 '-드라고 함서'가 줄어든 말. 해라할 자리에 쓰여, 과거에 누군가에게 들어서 아는 사실을 확인하여 물을 때 쓰이는 말. 흔히 다짐을 받거나 빈정거리는 뜻이 섞여 있다. ¶친정으다 땅을 많이 {칬드람서}? 데꼬 올 직에.<최명희, 혼불> ¶하루 이틀 개법게 댕게오실 행장이 {아니드람서}? 보따리도 묵직허고.<최명희, 혼불> ¶항아장시 둥덩산 봇짐보돔 더 크먼 컸제 작든 {않겄드람서}?<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드랑개 【종결어미】 [대응어] -더라니까.
해할 자리나 혼잣말에 쓰여, 이미 굳어진 평판을 다시 확인하여 말할 때 쓰이는 종결 어미. 화자가 어떤 일을 보거나 들으면서 그 일이 원인이 되어 마땅히 어떠어떠한 결과가 따르리라고 예측했는데, 그 예측대로 되었음을 나타낸다. ¶그 즌(전)에 많이 있당개, 지금은 {없어졌드랑개}. 옛날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구비문학, 남원군>
지역 전북.

-드래도 【연결어미】 [대응어] -더라도
가정이나 양보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어도'보다 그 뜻이 강하다. ¶노비 자식인 자광이허고는 애당초 지체가 다릉게로, 거그다 대고 '성님' 소리를 못히여. 아무리 아부지가 {같드래도}. 헐 말이 있을 때는 '되렌님' 그리얀단 말이여.<구비문학, 남원군> ¶긍게 무신 일을 {허드래도} 나를 살살 달개감서 히여.<최명희, 혼불> ¶굳이 도리를 안 {찾드래도} 그러고 싶은 거이 내 마음이다.<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드래여 【종결어미】 [대응어] -더래.
방언형 '-드라구 해여'가 줄어든 말. 해요할 자리에 쓰여, 과거에 누군가가 회상하면서 들려 준 사실을 또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 쓰는 말. ¶그런디 그 곡성은 사흘 밤얼 내리 울럼서 자꼬 {커지드래여}.<조정래, 아리랑> ¶큰성이 그때는 조산서 산 칭구 하나허고 삼판허로 댕겐는디, 그 칭구가 {그러드래여}.<전북지역어, 남원> ¶그러구선 쬐그만헌 담뱃대 물고 대니든 놈이 어디서 구했는지 지다란 담뱃대를 꺼내 물고는 맞담배질을 {허드래여}. 현감허구 같이 거그 앉어서 말여. ¶그 사램이 차 갖고 {나왔드래여}.<김옥화(2004)>
지역 전북.

드러다 형 [대응어] 더럽다(醜).
어떤 물건이나 상황이 깨끗하지 못해 보기에 좋지 않다. ¶"똥이 어디 겁나서 피허냐? {드럽고} 남새 고약허니깨 피허지."<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아이고 구렁덩덩 시선비도 {드럽게도} 놔놨다"<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나는 긍개 내놔버린개 {드런} 놈만 멍는디.<2009 전북 임실> ¶이 옷 빨아서 리다 걸력

지(걸레)를 하더라도 새해를 맞이할라믄 {드런게} 빨아서 깨까더개(깨끗하게) 하세.<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나래장 빼다가 밥을 히여서나 내가 {드러서} 못먹고서는 니 애비나 붙어먹어라 그러고서나 왔네.<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그런디 그깟녀르 것도 정치라고 일단 그 속에 발을 딜여놓고보니깨 돌아가는 판세가 참말로 {드러워서} 못 참겄데.<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고창, 김제, 부안, 군산, 완주, 익산, 정읍.

드럽다 형 [대응어] 더럽다.
때나 찌꺼기 따위가 있어 지저분하다. 또는 언행이 순수하지 못하거나 인색하다. 또는 못마땅하거나 불쾌하다. ¶"똥이 어디 겁나서 피허냐? {드럽고} 남새 고약허니깨 피허지."<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아무리 역말이라고 물 한 바가지 갖고 인심 한 번 {드럽네}."<송기숙, 녹두장군> ¶여고 퇴학맞은 김부월 여사 예펜네로 뫼시고 살기 참말로 {드럽게도} 심드네!<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돈 좀 가지고 있다고 으스대는 꼴을 보려니 {드럽고} 아니꼬아서 못 살겠네.
지역 고창, 김제, 부안, 군산, 완주, 익산.

드럽헤지다 동 [대응어] 더럽히다(옷을).
☞드럽혀지다. ¶옷이 많이 {드럽헤졌구만}. 빨아야 쓰겄소.
지역 익산, 임실, 장수, 남원.

드럽혀지다 동 [대응어] 더럽히다(옷을).
깨끗하지 않게 되다. ¶{드럽혀진} 옷은 빨리 빨아야 해. 안 글면 얼룩이 안 져.
지역 전북.

드럽히다 동 [대응어] 더럽히다(옷을).
깨끗하지 않게 만들다. ¶자리를 {드럽히고} 간 놈들이 다시 와서 청소해야지.
지역 군산.

드럽히지다 동 [대응어] 더럽히다(옷을).
☞드럽혀지다. ¶{드럽히진} 디는 가고잡지 않어요.
지역 전북.

드렙헤지다 동 [대응어] 더럽히다(옷을).
깨끗하지 않게 되다. ¶내 마음도 완전히 {드렙헤졌어요}.
지역 익산, 임실, 장수, 남원.

드렙히다 동 [대응어] 더럽히다(옷을).
☞드럽히다. ¶{드렙히고} 욕하고 인간 말종이여.
지역 익산, 임실, 장수.

드릴사우 명 [대응어] 데릴사위.
결혼 후 처가에 들어가서 사는 남자. ¶옆집 {드릴사우가} 일을 잘한다
지역 전북.

드링이 명 [대응어] 두렁이.
어린아이의 배와 아랫도리를 둘러서 가리는 치마 같이 만든 옷. 겹으로 만들거나 솜을 두어 만든다.
지역 장수.

-드만 【종결어미】 [대응어] -더만
해할 자리나 혼잣말에 쓰여, 과거 어느 때에 직접 경험하여 새로이 알게 된 사실을 현재의 말하는 장면에 그대로 옮겨 와서 전달하며, 그 알게 된 사실에 주목함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흔히 따지는 뜻이나 감탄의 뜻이 수반된다. ¶반가우요. 어지께보톰 어째 좀 달부다 {싶드만이라}.<조정래, 아리랑> ¶알고 보니깨 장로님 간판도 벨것이 {아니드만}.<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보도 말짱 손을 봐서 {쓰겄드만}. <송기숙, 녹두장군> ¶문을 열구 들어가서는 내 아들, 그 사람 이름더러 무어라 {하드만}. 머심 이름도 있어요.<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이집에 부자 만들어 주고는 따라 간개로. 또 어떻게 {했다드만}.<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여보, 여보." 부른게 밑이 이렇게 {처다보드만}.<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그 사람은 진짜 일을 잘 {하더만}.

지역 전북

드믄드믄 부 [대응어] 드문드문.

시간적으로 잦지 않고 드문 모양. 또는 공간적으로 배지 않고 사이가 드문 모양. ¶너무 뵈게 심지 말고 {드믄드믄} 심어. 그래야 잘 크고 열매도 실헌꺼여.

지역 고창, 군산, 김제, 부안, 완주, 익산, 정읍.

드어리 명 [대응어] 등.

사람이나 동물의 몸통에서 가슴과 배의 반대쪽 부분. ¶큰 손으로 {드어리를} 냅다 후려 갈겼어.

지역 전북.

득신거리다 동 [대응어] 욱신거리다.

머리나 상처 따위가 자꾸 쑤시는 듯이 아파 오다. ¶허리가 {득신거려서} 잠을 잘 수 없다

지역 전북.

-든가 【종결어미】 [대응어] -던가.

하게할 자리에 쓰여, 과거의 사실에 대한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봄바람은 차별없이 천지에 가득 불어오지만 살아 있는 가지라야 눈을 뜬다, 고 {안허든가요}.<최명희, 혼불> ¶그러니까 꿈에 미리 현몽을 {하셨든가}?<최명희, 혼불> ¶청암마님 근력은 {어떠시든가}?<최명희, 혼불> ¶{막든가요}?<최태영(1973)> ¶미자 고창 {가등가}?<김중진(1976)> ¶영이 지비 {잇둥가}?<김중진(1976)>

지역 남원, 고창.

-든디[1] 【종결어미】 [대응어] -던데.

해할 자리에 쓰여, 과거의 어떤 일을 감탄하는 뜻을 넣어 서술함으로써 그에 대한 청자의 반응을 기다리는 태도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 ¶토지가 미친년 볼기짝만한 것이 하나 {있나부든디…}<채만식, 金의 情熱> ¶말로는, {만석꾼이라든디}?<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든디[2] 【연결어미】 [대응어] -던데.

뒤 절에서 어떤 일을 설명하거나 묻거나 시키거나 제안하기 위하여, 그와 상관있는 과거 사실을 회상하여 미리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 ¶갱호 실장 눈에는 비서로 있는 그 미쓰 강허고 슨지 잔지 나발인지허고 암만 봐도 그렇고 그런 관계 같어 {뵈든디}, 김부월 슨교사님은 여적지 아무 눈치도 못 챘다냐?<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부모 임종을 못허먼 천천지 {불효라든디}, 아무리 손자라고는 허지만, 그거이 어뜬 손자여? 아들보다 더헌 손잔디.<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든지럽다 형 [대응어] 더럽다.

때나 찌꺼기 따위가 있어 지저분하다. 언행이 순수하지 못하거나 인색하다. 못마땅하거나 불쾌하다. ¶옷이 든지럽다. ¶행실이 {든지럽구만}. ¶{든지럽고} 치사해서 못해 먹겠다.

지역 전북.

든지르다 동 [대응어] 들이지르다.

들이닥치며 세게 지르다. 또는 닥치는 대로 흉하게 많이 먹다. 또는 큰 소리를 마구 내다. ¶고 행실 나쁜 놈을 발로 {든질러} 버렸어. ¶얼매나 보고픈지 {든지르게} 밥을 먹도만. ¶소리를 {든

지르다}
지역 전북.

든질르다 동 [대응어] 들이지르다.
들이닥치며 세게 지르다. 또는 닥치는 대로 흉하게 많이 먹다. 또는 큰 소리를 마구 내다. ¶“허허, 내 별꼴 다 보니. 괜시리 술잔 {든질렀거들랑}, 고히 삭히진 아녀구서<채만식, 논 이야기> ¶죽을 쓸 일이지 무슨 터수에 허연 쌀밥만 쳐 {든질라구} 이렇게 밥을 히여노아!<채만식, 정차장 근처> ¶덕수 “누구헌테 막걸릿잔이나 얻어 {든질렀을} 테지, 매양……<채만식, 무장삼동>
지역 전북.

들가다 동 [대응어] 들어가다. ¶그 여자를 생각해서 그래서 그냥 새를 쫓으면서 그걸 같이 해가면서 새를 봤어. 아 근게 새가 거 오는게, 새가 그럴 알구선 일쪽 들어갔거든. 새는 해가 지믄 다 {들가는거여}. 그래서 새가 들어가구 거기를 간게 참 으리으리한 좋은 집인데, 참 주인을 찾을 수도 없고, 자기가 무슨 권리로 무엇을 찾을 수가 없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전북.

들고 부 [대응어] 마구.
매우 심하게. ¶{들고} 연락을 취허라고 허놓고 왔긴 했는디.<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들광지리 명 [대응어] 광주리.
☞광지리.
지역 전북.

들깡달깡 부 [대응어] 부라부라.
어린 아기를 세워 놓고 몸을 좌우로 흔드는 놀이를 할 때 내는 소리. 양발이 번갈아가며 떨어진다. ¶{들깡달깡} 재밌다 ¶{들깡 달깡}, 우리 아기 잘도 흔든다.
지역 김제, 군산, 익산, 정읍.

들깡들깡 부 [대응어] 부라부라.
☞들깡달깡.
지역 부안.

들꽤 동 [대응어] 들깨. ¶{들꽤로} 들지름을 짰는지 냄새가 아주 꼬숩고만. ¶웃밭에 {들꽤를} 심었는디 너무 가물아서 영 망조여. ¶{들꽤를} 볶다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진안.

들랑거리다 동 [대응어] 들락거리다.
자꾸 들어왔다 나갔다 하다. ¶상투꼽은 머리를 풀어 산발해가지고서 물속으 들어가 한번 풍덩 들어갔다 나와가지고서는, 그 고래구녁 일곱구녁을, 막 고래가 일곱구녁이면 다 {들랑거렸어}.<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옛날 여수(여우)가……구것이 워디 사느냐 하면은 굴이 하나 질굴 산모퉁이 낭떠러지가 있어가지구 거기서 살고 있었넌디, 거기서 살면서 {들랑거렸는디}, 그때 당시 그 부락에서 가장 담대하고 완력좋고 그런 분이 인저 그 기맥을 알어가지고, 저녁에 말을 타고 거기를 지났어.<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그 할아버지가 가만히 손자한테 손을 잡혀갖고, 변소에 설사가 나 가지고 몇 번 {들랑거리다가} 가만히 앉아 들은개로, 이 짝 방에서 들기는 소리가, 꼭 자기가 두구 쓰던 그 머심 소리, 목성 소리가 나드래요.<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니알 떠나고 나면은 또 십년 후에나 돌아올 작정이냐?” “그럴 리가요. 꽉 맥혔던 구녁이 요번참에 뻥 뚫렸으니께 인자부텀 고향 문턱이 닳드락 자주 {들랑거림시나} 교장선상님도 자주 찾어뵈어야지요.”<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ㄷ

들마시 명
무거운 물건을 어깨에 매는 일. ¶여자들은 {들마시를} 못 헌게. 옛날 농사는 죄다 들마시 아녀? ¶논농사는 {들마시를} 히야 되는디 복분자는 그런 걸 안 히도 된게.
지역 전북.

들마시허다 동
무거운 물건을 어깨에 메다. ¶나락가마니 같은 것은 {들마시허고}.
지역 전북.

들물 명 [대응어] 밀물.
조수의 간만으로 해면이 상승하는 현상. 또는 그 바닷물.
지역 전북.

들물허다 동 [대응어] 밀물지다.
밀물이 밀려들어 오다. ¶월미도 앞바다 가면 {들물헐} 때 가마구들이 물벌레를 잡아먹고 있단 말여.
지역 전북.

들뭇들뭇 부 [대응어] 우뚝우뚝.
군데군데 아주 두드러지게 높이 솟아 있는 모양. ¶좌우와 건너편이 모두 {들뭇들뭇} 여러 층짜리 벽돌집에다가 훤칠한 근대식 점포들이 즐비한 상가의 번화한 한복판이 되고 보니<채만식, 懷>
지역 전북.

들뭇들뭇하다 형 [발음] [들묻뜰무다다/들묻뜰무타다] [대응어] 우뚝우뚝하다.
군데군데 아주 두드러지게 높이 솟아 있는 상태이다. ¶근처라야 무슨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나 {들뭇들뭇한} 집들이 있는바 아니요, 촌락 80여 호가 거진 다 고 또래로 올망졸망한 오막살이 판이지만,<채만식, 집>
지역 전북.
해설 의태어 부사 '들뭇'이 반복된 '들뭇들뭇'에 형용사 파생 접미사 '-하다'가 연결된 것이다.

들뭇하다 형 [발음] [들무다다/들무타다] [대응어] 덩그렇다.
홀로 우뚝 드러나 있다. 또는 넓은 공간이 텅 비어 쓸쓸하다. ¶나란히 놓인 양복장과 삼층장의 으리으리한 윤택, 머릿장, 머릿장 위에 {들뭇하게} 놓인 금침 꾸러미, 축음기 등속 모두가 눈에 생소한 것이면서,<채만식, 탁류>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들뭇하다'는 의태어 부사 '들뭇'에 형용사 파생 접미사 '-하다'가 결합된 것이다.

들뭇허다 형 [발음] [들무더다/들무터다] [대응어] 덩그렇다.
홀로 우뚝 드러나 있다. 또는 넓은 공간이 텅 비어 쓸쓸하다. ¶언덕에 정자 하나만 {들뭇허다}. ¶교실이 {들뭇허니} 비어 있다.
지역 전북.

들박 명 [발음] [들빡] [대응어] 두레박.
줄을 길게 달아 우물물을 퍼 올리는 데 쓰는 도구. 바가지나 판자 또는 양철 따위로 만든다.
지역 전북.

들볶애다 동 [대응어] 들볶이다(아이들한테).
까다롭게 굴거나 잔소리를 하는 이에게 괴롭힘을 당하다. ¶아이들에게 {들볶애서} 죽겄소. 힘도 들고.
지역 전북.

들볶에다 동 [대응어] 들볶이다(아이들한테).
☞들볶애다.
지역 전북.

들뷲이다 동 [대응어] 들볶이다(아이들한테).
까다롭게 굴거나 잔소리를 하는 이에게 괴롭힘을 당하다. ¶남펜한티 {들뷲이고} 사는 것도 지옥이여.
지역 순창.

들시암 명 [발음] [들씨암]
들에 있는 샘. ¶{들시암서} 빨래를 허면 손이 짝짝 깨져. 우물물은 안 그러제.
지역 전북.

들싸 부 [대응어] 몹시.
더할 수 없이 심하게. ¶삼월 한시 사월 한시 불과 같이 나는 볕에/싸게 가자 도디 간다 백락같이 후다리네(빨리 가자 더디 간다 벽력같이 휘두르네)/목이 {들싸} 마리는데 입망일랑 씌었구나(목이 몹시 마르는데 입망일랑 씌웠구나)(고창 소타령)<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고창.

들쎅이다 동 [대응어] 들썩이다.
묵직한 물건이 떠들렀다 가라앉았다 하다. 또는 그렇게 되게 하다. ¶풍물 소리를 들은게로 몸이 {들쎅이구만요}.
지역 전북.

들어다보다 동 [대응어] 들여다보다(방안을).
☞들에다보다. ¶이 문구녁을 손구락으로 딱 뚫고 {들어다본게} 그 말여, 그 선생님은 헐 일 없은게 문살만 시고 있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정읍.

들에다보다 동 [대응어] 들여다보다(방안을).
밖에서 안을 보다. ¶창고 안을 {들에다봤어}
지역 고창, 남원,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정읍.

들오다 동 [대응어] 들어오다. ¶얼마끔 있다 보닌게 인자 머리 한질나 깎어서 전부 다 팔아 갖 조저대고 중 되아 갖고는 겉봉수를 쓰고는 바가치다 밥 얻어갖고 춘디 달달달달 떨고 {들오드락만}.<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아 들어가서 느닷없이 저 거시기 지축이 새서 문을 활짝 열은게 깜짝 놀랠 것 아뇨? 그냥 막 눈을 장성같이 쌓였는디, 세상서 사람은 {들오지} 못하게 생겼는디, 가서 자 인사를 딱하고 그 사실 얘기를 죽 한게로 무릎박을 탁 치면서 이게 무슨 수가 있는 것 아니냐고 게 그놈을 따가지고 나온게 호랭이가 거기 있드래여.<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전북.

들으다 동 [대응어] 듣다(聽).
사람이나 동물이 소리를 감각 기관을 통해 알아차리다. 또는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여 그렇게 하다. ¶음악을 {들으니께로} 기분이 좋고만 ¶애기가 말을 참 잘 {들으고} 그런게 이뿌네잉.
지역 군산, 익산.

들으시다 동 [대응어] 드시다.
'먹다'의 높임말. ¶진지를 어서 {들으시고} 나설채비를 허셔요.
지역 고창, 익산.

들이다보다 동 [대응어] 들여다보다.
☞들에다보다. ¶어치게 용납할 수가 있어야지. 근게 한 간디를 떡 가니까 집이 크고 건장한데 대문을 쩍 벌어지게 열어 놨거든? 근게 이렇게 {들이다보고} 섰이니까, 아 그 안에서 어떤 이쁜, 이쁜 그 머느리가 좇아 나오드만,<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나가는 길손이면 가던 길이나 갈 거이지 뭣 땜시 넘으 집 담넘어르 {들이다보는} 거요. ¶가가 겉은 실떡벌떡

허도 가만히 속을 {들이다보먼} 심지가 굳은 애여.
지역 무주, 장수.

들이당장 부 [대응어] 갑자기.
☞들이당짱에. ¶지성소라 불리는 선지자 전용 기도실 문을 벌컥 열어젖히면서 {들이당장} 질러대는 종술의 과장스런 목소리에 놀라 하 목사는 바닥에 꿇었던 자신의 무릎을 잽싸게 폈다.<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들이당장에 부 [대응어] 갑자기.
☞들이당짱에. ¶10만 원이나 되는 전셋돈을 {들이당장에} 빼달라는 요구가 얼마나 무리한 것인가를 그 호루라기 소리들이 내게 차갑게 일깨워준 셈이었다.<윤흥길, 직선과 곡선>
지역 전북.

들이당짱에 부 [대응어] 갑자기.
미처 생각할 겨를도 없이 급히. ¶기양 {들이당짱에} 혹 무신 망발이나 나먼 어쩌까 허고요. 지가 이런 말씀 디림서도 당최 송구시러와서.<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해설 '들이당짱에'에서 '당장(當場)에'는 "현재 이 시간에"란 뜻인데, "갑자기"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인 '들이-'가 결합하여 생성된 어휘이다.

들지럼 명 [대응어] 들기름.
들깨로 짠 기름. 등잔에 쓰는 것과 물건을 결는 데에 쓰는 것은 볶지 않고 짜며, 먹는 데에 쓰는 것은 볶아서 짠다. ¶아픈 사람한티 {들지럼을} 처서 죽을 끓여 멕있어.
지역 전북.

들지름 명 [대응어] 들기름.
들깨로 짠 기름. 등잔에 쓰는 것과 물건을 결는 데에 쓰는 것은 볶지 않고 짜며, 먹는 데에 쓰는 것은 볶아서 짠다. ¶"그렇게 가서 그놈을 백사금치 해가지고 {들지름이다가} 그놈을 개서 복문을 질것 같으머는 못 판다."<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인제 그렇게 보다가는 큰애기를 둘러업고 가서 인자 {들지름을} 쳐서 죽을 쑤어서 맥인게 인자 살아나드래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장수, 정읍, 진안.

들쳐내다 동 [대응어] 들추어내다.
덮어질 만한 일이나 문제나 모습들을 파헤쳐서 드러나게 하다. ¶너무 속마음을 {들쳐내는} 일 맘처럼 쉽간디요. ¶실수를 {들쳐내다} ¶에이, 시끄럽다. 다 지내간 일 갖고는. 거그다가 여울라고는 당초에 맘도 안 먹었든 일을, 먹고 헐 것이 없어서 {들쳐내} 헛심을 빼능가잉?<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들타주 명 [대응어] 타작.
뜻곡식의 이삭을 떨어 낟알을 거두는 일. ¶요즘은 콤바인으로 {들타주를} 허지 일일이 사램이 안 혀.
지역 고창.

들통시 명 [대응어] 변소.
밑에는 돼지는 키우고 위에서는 볼일을 보게 만든 변소.
지역 전북.

듥다 동 [발음] [들따] [활용형] 듥고[들꼬], 듥어[드러] [대응어] 데리다(데리고).
아랫사람이나 동물 따위를 자기 몸 가까이 있게 하다. ¶요즘 노인들 일이 손주를 {들꼬} 핵교 데

리다 주는 거여.
지역 순창.

-등가비 【축약형】 [대응어] -던가 보다
방언형 '-든가 보다'의 활용형 '-든가 비'가 줄어든 말.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를 회상하여 추측하는 말. ¶그로근(그렇게 하고는) 즈그 집이 가서 가족끼리 앉어서 그런 이얘기를 {했등가비데}. ¶근게로, 한문은 {무식하등가비여} 근게. ¶근게 그 영감님한티 {물었등가비여}.
지역 전북.

등거리 명 [대응어] 등.
사람이나 동물의 몸통에서 가슴과 배의 반대쪽 부분. ¶주뎅이는 빼족히도/모든 청으/말 한 마두 못 히보고/{등거리는} 넙적해도/뒷동산에 성 쌓는디/성 한 짐을 못 져보고/발이 발이 육 발이라도/육십 리 한 번을 못 가보고/먹통 한 짐은 짊어졌어도/편지 한 장을 못 써보네(정읍 수수께끼 노래/줌치새끼)<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개미야 개미야 왕개미야/니 발바닥으 독경 나고/{등걸이에} 등창 나고/똥구녁으 치질 나고/눈구녁으 안절 얻고/콧구녁으 충수 질고/목구녁으 타라 질고/그래도양 아니 죽데잉/기침에 단독으 넘어간다(고창 개미타령)<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정읍, 고창.

등걸 명 [발음] [등껄] [대응어] 그루터기.
풀, 나무, 곡식 따위를 베어 낸 뒤에 남은 밑동. ¶것도 같이 이 골 저 골로 돌아다니다가는 이 소나무 {등걸에} 걸터앉아서 평소에 정한 시간보다 삼십 분이나 더 보내고,<채만식, 염마>
지역 김제, 군산, 완주.

-등마 【종결어미】 [대응어] -더구먼.
☞-던만. ¶그먼 이건 뭐 베랑 대소가 아니거만 {그러등마뇨}.(그러면 이것은 뭐 별로 대소가 아니것만 그러던만요.)<전북지역어, 임실>
지역 임실.

등막 명 [대응어] 등목.
팔다리를 뻗고 엎드린 사람의 허리 위에서부터 목까지를 물로 씻겨 주는 일.
지역 임실, 정읍.
해설 '등+막'으로 분석할 수 있다. '등'은 "신체 상반신의 뒷부분"을 의미하고, '막'은 '목'이 변형된 형태로, "목욕"의 의미이다. 즉, "등을 목욕하는 것"이 바로 '등막'인 것이다.

등맥 명 [대응어] 등목.
팔다리를 뻗고 엎드린 사람의 허리 위에서부터 목까지를 물로 씻겨 주는 일. ¶일터에서 돌아오신 아버지는 {등맥을} 하고 나서야 집안으로 들어오셨다.
지역 전북.

등메 명 [대응어] 등목.
팔다리를 뻗고 엎드린 사람의 허리 위에서부터 목까지를 물로 씻겨 주는 일. ¶더운 여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등메를} 허지.
지역 전북.

등메기 명 [대응어] 등목.
팔다리를 뻗고 엎드린 사람의 허리 위에서부터 목까지를 물로 씻겨 주는 일. ¶아무리 더워도 {등메기} 한번 하고나면 땀이 가셨지.
지역 진안, 군산.

등멕 명 [대응어] 등목.
팔다리를 뻗고 엎드린 사람의 허리 위에서부터 목까지를 물로 씻겨 주는 일. ¶이런 삼복더우에 {등멕} 한번 허고나면 시언허니 더 이상 바랄게 없지.

지역 전북.

해설 '등+멕'으로 분석할 수 있다. '등'은 "신체 상반신의 뒷부분"을 의미하고, '멕'은 "목욕"의 의미로 이 방언에서 쓰이는 '멱'이 '멱>멕'과 같이 단순 모음화한 형태이다. 즉 "등을 목욕하는 것"이 바로 '등멕'인 것이다. '등메'도 나타나는데, 이것은 '등멕'의 음절 종성이 탈락한 형태이다.

등묵 명 [대응어] 등목.
☞등막.
지역 군산, 익산.

등물 명 [대응어] 등목.
팔다리를 뻗고 엎드린 사람의 허리 위에서부터 목까지를 물로 씻겨 주는 일. ¶더우면 기양 잠벵이도 척척 걷어붙이고 누가 보든지 말든지 웃통 홀딱 벗고는 {등물} 한번 씨여언허게 허면 오직이나 좋겄등만,<최명희, 혼불>
지역 고창, 남원.
해설 '등+물'으로 분석할 수 있다. "등에 물을 뿌리는 행위"를 '등물'이라 하는 것이다.

등발 명 [대응어] 등목.
팔다리를 뻗고 엎드린 사람의 허리 위에서부터 목까지를 물로 씻겨 주는 일.
지역 장수.

등서이 명 [대응어] 산등성이.
산의 등줄기. ¶큰 산등서이 한나를 넘으면 또 {등서이가} 나와
지역 전북.

등셍이 명 [대응어] 등성이.
산이나 언덕, 파도 등의 두두룩하게 높은 부분. ¶"지끔부텀 중대별로 여그럴 뚫고 나가기로 허겄소. 나가 왼편짝 {등셍이럴} 뚫으면 개덜이 그짝으로 몰리는 새에 다른 중대덜언 그 양쪽으로 튀씨요."<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등저 명 [대응어] 등겨.
벗겨 놓은 벼의 껍질. ¶{등저도} 안 버리고 다 쓰는 디가 있어.
지역 전북.

등짝 명 [대응어] 등.
사람이나 동물의 몸통에서 가슴과 배의 반대쪽 부분. ¶황새 {등짝} 올라타고서는 가는디, 꾹 허면 인자 미꾸래미 하나 느주고 입으다 그러고 한참 얼매든지 가다가 또 꾹허면 느주고 근디.<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왈패들은 몽둥이로 사정없이 {등짝을} 갈겼다.<송기숙, 녹두장군>
지역 남원.

등커지 명 [대응어] 그루터기.
풀, 나무, 곡식 따위를 베어 낸 뒤에 남은 밑동. ¶백복령은 소나무 {등커지에} 피다는디 말여.
지역 남원.

등크럭 명 [대응어] 그루터기.
풀, 나무, 곡식 따위를 베어 낸 뒤에 남은 밑동. ¶내가 그 집이 가서, 주인한티 {둥크럭} 가차이에다가 묘를 쓰믄 안 된다고 일러줬응게.
지역 익산.

-디 【종결어미】 [대응어] -데.
해할 자리에 쓰여, 과거 어느 때에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현재의 말하는 장면에 그대로 옮겨 와서 말함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그 구봉선생이 너보고 뭔 말을 {묻디}?<이태영(1996)> ¶거기다가 지금 네 당혜 앞부리까지도 분홍 매화문을 수놓지 {않았디}?<최명희, 혼

불>
지역 전북.

디게 부 [대응어] 되게.
아주 몹시. ¶그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돌라먹다가 동네 사람만 {디게} 욕을 했는디, 허, 멧밥을 채려놓고 제사를 거지반 지내고<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전북.

디꼬오다 동 [대응어] 데려오다.
함께 거느리고 오다. ¶친구를 {디꼬오다} ¶"여러분! 다음 주일날에는 우리 에비당에 친구들도 꼭 {디꼬오세요}, 알겄죠?"
지역 전북.

디다 동 [대응어] 찌다(찬밥을, 蒸), 데우다.
찬 것을 덥게 만들다. ¶아, 물을 따뜻하게 {디어} 오든지 하지 어째 썰렁하다.<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정신없이 내롸서 걍 풀러가지고 여그 와서 내가 코를 빨고 물을 {디어} 대고 모다 히서 낫었소.<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살강에 찬밥 있는 것 {디어서} 한 술이라도 떠먹고 가거라.
지역 고창, 김제, 무주, 부안, 완주, 익산, 정읍, 진안, 남원.
해설 '데우다'에서 /ㅜ/가 탈락한 '데다'가 '디다'로 바뀐 것이다. 전북 방언에는 이와 같이 모음 /ㅔ/가 /ㅣ/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

디다보다 동 [대응어] 들여다보다(방안을).
밖에서 안을 보다. ¶옛날 부잣집 마룽(마루)은 아. 구멍을 이렇게 싹 막아 정지(부엌)서 이렇게 {디다보믄} 보인다그만.<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통장을 {디다보고} 그런대야.
지역 전북

디다주다 동 [대응어] 데려다주다.
일정한 곳까지 함께 거느리고 가 주다. ¶오늘 사촌 동생을 역까지 {디다주고} 가는 길에 이것얼 팔길래 사가지고 오는 것이여.
지역 전북.

디들방애 명 [대응어] 디딜방아.
발로 디디어 곡식을 찧거나 빻게 된 방아. 굵은 나무 한 끝에 공이를 박고 다른 끝을 두 갈래가 나게 하여 발로 디딜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공이 아래에 방아확을 파 놓았다. ¶방애 찧이다 묵어도, 매일마동 놉 부리고 날마동 그렁께, 여 {디들방애덜} 한나썩 놓고, 일팡 아침으로먼 그놈으로 찧제.<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 ¶거지 다 들이, 서이 찧는 {디들방애제}, 외다리방애는 벨로 읎제.<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
지역 전북.

디듬독 명 [발음] [디듬똑] [대응어] 디딤돌.
디디고 다닐 수 있게 드문드문 놓은 평평한 돌. 또는 마루 아래 같은 데에 놓아서 디디고 오르내릴 수 있게 한 돌. 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바탕이 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어려서는 다리가 짧은게 {디듬독에} 올라서야 마루에 올라갈 수 있었어.
지역 전북.

디듬돌 명 [발음] [디듬똘] [대응어] 디딤돌.
디디고 다닐 수 있게 드문드문 놓은 평평한 돌. 또는 마루 아래 같은 데에 놓아서 디디고 오르내릴 수 있게 한 돌. 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바탕이 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디듬돌} 위에 신발을 벗어 놓았다.
지역 전북.

디딜방애 명 [대응어] 디딜방아.
발로 디디어 곡식을 찧거나 빻게 된 방아. 굵은

나무 한 끝에 공이를 박고 다른 끝을 두 갈래가 나게 하여 발로 디딜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공이 아래에 방아확을 파 놓았다. ¶쪼금 지체히갖고 있은게 대처 잼이 들었든지 안 들었든지 가서 맞춤 {디딜방애} 발로 딛는 디를 그냥 콱 디더가지고는 질끈 놓아 버렀단 말여. 그<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또 옛날에 {디딜방애} 다리때기 깔구 앉지 못허게 하잖아, 헤충이 낳는다구. 참 많았지, 가리는 것두.<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6>

지역 전북.

디롱디롱허다 동 [대응어] 대롱대롱하다.

작은 물건이 매달려 가볍게 잇따라 흔들리다. ¶여그다가 새내끼를 걸어서 개를 {디롱디롱허게} 목매어 달아놨어, 죽일라고.

지역 전북.

디링기다 동 [대응어] 달라붙다.

끈기 있게 찰싹 붙다. ¶거마리가 막 {디링기네}.

지역 전북.

-디아 【종결어미】 [대응어] -더냐.

해라할 자리에 쓰여, 과거에 직접 경험하여 새로이 알게 된 사실에 대한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으디 {가디아}?<김중진(1984b)> ¶그 오시 {조티아}?<김중진(1984b)> ¶그 사라미 {쥔이디아}?<김중진(1984b)> ¶누가 {가디아}? ¶삼시기 지비 {잇디아}? ¶저거시 그 사람 {지비디아}?

지역 고창, 무주.

디양 명 [대응어] 대야.

물을 담아서 무엇을 씻을 때 쓰는 둥글넓적한 그릇. ¶{디양에} 물을 받아 놔.

지역 전북.

-디여 【종결어미】 [대응어] -더냐.

해라할 자리에 쓰여, 과거에 직접 경험하여 새로이 알게 된 사실에 대한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화)번호도 {틀렸디여}.(틀렸대)<김옥화(2008)> ¶먼 잠을 새로 {잔디여}.(무슨 잠을 새로 자)?<김옥화(2008)> ¶아 이런 말이나 {될라디여}?<이태영(0)>

지역 전북.

디장 명 [대응어] 굽도리.

☞지장.

지역 전북.

디주 명 [대응어] 뒤주.

쌀 따위의 곡식을 담아 두는 세간의 하나. 나무로 궤짝같이 만드는데, 네 기둥과 짧은 발이 있으며 뚜껑의 절반 앞쪽이 문이 된다. ¶쌀 한 가마 반, 두 가마 이룽게 들어가는 {디주거든}.<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8>

지역 전북.

디지 명 [대응어] 굽도리.

☞띠지.

지역 전북.

디퉁시 명 [대응어] 뒤통수.

머리의 뒷부분. ¶[디퉁시에도], 눈이 달렸는가비네.

지역 전북.

딛다 동 [대응어] 듣다(聽).

사람이나 물이 소리를 감각 기관을 통해 알아차리다. 또는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여 그렇게 하다. ¶안에 따순디서는 인자 머심들이 자는디, 소금장시가 가만히 자니라고 가만히 들어봉게 안에서 정을 읽는디 정 읽는다는 놈으 소리가 뭐라고 소리가 {딛기는고니}, "덩덩무." 허더만은,

"양호장 일을 생각허먼 가심이 벌렁벌렁 덩다꾸 덩다꾸, 덩다꾸 덩다꾸."<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아 이놈의 건 자꾸 그 소리 또 한게, 아이 {딛기} 싫어 환장허겄네.<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왜 말을 안 {딛고} 그런다냐?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순창, 군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딜에다보다 동 [대응어] 들여다보다(방안을).

밖에서 안을 보다. ¶너무 집 {딜에다보는} 놈들은 문 맘으로 그런가 몰라.

지역 고창, 남원, 순창, 완주, 익산.

딜이다[1] 동 [대응어] 들이다.

물건을 안으로 가져오다. 또는 어떤 일에 돈, 시간, 노력, 물자 따위를 쓰다. 또는 물감, 색깔, 물기, 소금기 따위를 스미거나 배게 하다. 또는 어떤 사람이나 물건 따위에 욕심을 내다. ¶인자 그 전이는 부엌이 정지이다 나무를 {딜이} 놓고 이렇게 때는디, 이 촌(村)이 다 그렇잖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저녀르깃, 맨날 고장나서 말썽이더니 인자 새것으로 {딜이다} 놓았응게 괜찮것지? ¶그것도 다 시간 {딜여서} 맨든 것인게 애껴서 써. ¶산에 가서 공딜이고 물에 가서 공딜이고, 공 많이 {딜이야여어}.<최명희, 혼불> ¶아 근게 거그다 공 {디리던가} 비드만. 공 {디린게} 그것이 와서 중 되아갖고 와서 은인이 됐다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 정성을 다 {딜이고} 접객을 그렇게 허고 있었어. 인자 만났다 그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여름이면 손톱에 봉숭아물도 허천나게 {딜이고, 겨울이면 비갯모에 밤새는 줄 모르고 수도 놓고.<조정래, 태백산맥> ¶낭중에는 욕심나는 재물에 눈독을 {딜이고} 눈만 살짝 흘겨도 그 재물이 제절로 박 장로 차지가 될 지경으로 사업이 번창혔디야.<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딜이다[2] 동

짚으로 꼰 새끼 아홉 개로 엮은 두꺼운 줄 하나 혹은 두 개를 당산 나무에 갖다 감다. ¶근디 신기는 그렇게 큰 놈을 두 개 헌대. 근디 귀찮허다고 한 해는 하나만 히서 갖다 {딜이고} 헌게 이 동덕네 불 나서 집 싹 타버리고.

지역 전북.

딜이다보다 동 [대응어] 들여다보다(방안을).

밖에서 안을 보다. ¶문구녁으로 {딜이다본게로} 두 사람이 뭔 짓을 하고 있드만.

지역 부안.

딜입다 부 [대응어] 들입다.

☞딜입대. ¶양식도 없는디 손님 대여섯이 {딜입다} 닥치는디 반감서도 눈앞이 깜깜혔지.

지역 완주.

딜입대 부 [대응어] 들입다.

세차게 마구. ¶공을 {딜입대} 차 버렸어.

지역 전북.

딧간 명 [대응어] 뒷간.

'변소(便所)'를 완곡하게 이르는 말. ¶{딧간이} 간 사람이 죽었는가 왜 이리 안 오냐?

지역 전북.

딧기 의명 [대응어] 듯이.

((((어미 '-은', '-는', '-을' 뒤에 쓰여)) 유사하거나 같은 정도의 뜻을 나타내는 말. 또는 짐작이나 추측의 뜻을 나타내는 말. ¶이때꺼지 암시랑토 않던 하늘이 벨안간 먹장 같어서 퍼붓인 것처름 캉캄허게 되고 소내기 퍼붓고 천지가 뒤엎

어질 {딪기} 히서 사람덜언 놀래서 그만두고 모도 다 집이로 가 버링께 그렁께 날언 도로 개고 해도 났어.<구비문학대계 김제군>
지역 김제.

ㄸㅜㅀ다 동 [발음] {뚤따} [대응어] 뚫다.
구멍을 내다. ¶손가락으다 침 발러 갖고 문구녕을 살짹 {ㄸㅜㅀ고} 구다봤어.
지역 전북.

따가리 명 [대응어] 딱지.
헌데나 상처에서 피, 고름, 진물 따위가 나와 말라붙어 생긴 껍질. ¶{따가리를} 그렇게 만지면 다시 덧나는디.
지역 전북.

따갈따갈하다 형 [대응어] 여물다.
속이 꽉차서 여물다. ¶아따! 그 양파 쓰것더라. {따갈따갈한} 것이 괜찮네.<전라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전북.

따그랑이 명 [대응어] 딱지.
☞따그랭이. ¶인자 낫을라고 {따그랑이가} 간질간질허다.
지역 전북.

따그랭이 명 [대응어] 딱지.
헌데나 상처에서 피, 고름, 진물 따위가 나와 말라붙어 생긴 껍질. ¶"재수에 옴 {따그랭이} 앉은 사람은 니놈이 아니라 바로 나다, 이놈아! 요상시런 종자는 나가 아니라 바로 니놈이다, 이놈아!"<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매사는 불여튼튼이랬다고, 바로 고런 때를 대비허서 양다리를 걸쳐야 된다고 나가 귓구녁에 {따그랭이가} 앉드락 신칙허잖든가?<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감람나무 쪽 청년들이 떼뭉쳐 몰려와서는 빼돌린 즈그 식구 당장 내놓으라고 {따그랭이를} 띠고 생야단을 치는 거여.<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따그랭이'는 표준어 '딱지'에 대응하는 어휘이다. 전북 방언에서는 '따가리, 따그리'가 쓰이는데 여기에 접미사 '-앙이'가 결합한 것이다.

따까웁다 형 [대응어] 딱하다.
사정이나 처지가 애처롭고 가엾다. 또는 일을 처리하기가 난처하다. ¶{따까운} 사정을 들으니 마음이 아프다. ¶내가 나서기는 조금 {따까웁다}. ¶아카시아 나무 가시에 찔리니 참 {따가웁다}.
지역 전북.

따끄다 동 [대응어] 쓿다(쌀을).
곡식 따위의 껍질을 벗겨 깨끗하게 하다. ¶보통 나락을 {딲어서} 먹지 그냥은 못 먹어요.
지역 익산, 장수.

따끄레미 명
모를 심고 난 논에 이끼처럼 바닥에 검게 끼는 것. 날이 가물 때 생기고 작은 모는 이것 때문에 죽기도 한다. 비가 오면 없어진다. ¶{따끄레미} 생기면 작은 모는 다 죽어.
지역 전북.

따니로 부 [대응어] 따로.
무엇과 동떨어지게 구별하여. ¶썩은 놈은 따니로 놓아야제. 썩은 놈은 {따니로} 담어.
지역 전북.

따다 동 [대응어] 가르다(배를).
종기 또는 살갗을 째거나 찔러 터뜨리다. ¶깨구리가 노랑노랑 한 놈이 오물오물하고 있어. 그리서 인자 밥을 딱 해놓고는 깨구리 이놈을 잡어

다 배를 {땄네}. 배를 따갖고는<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엄마는 생선의 배를 {따고} 내장을 꺼내 씻으셨다. ¶고기 배에서 구실이 나오닝개로, 보통으로 안 보이거든. 구실을 딱 가지고 가서, "아부지, 아 괴기 배를 {따닝개} 구실이 하나 나온디, 아버지 갖고 오신 구실 색깔이 어떻며 얼마나 크신 것이요?" 하고 물었단 말이여.<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손꾸락에 까시가 백혔는지 따끔따끔 헌디 눈 밝은 자네가 바늘로 좀 {따봐}.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따담다 동

공부를 하면서 여러 지식을 머리에 넣다. 또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익을 받아 챙기다. ¶자청해 주는 것을 {따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쉰 때면 그럴싸한 사람을 찾아가서 "수히 갚을 테니 백 원만……" 하고 가져다 쓰기도 여러 번이었다.<채만식, 孟巡査>

지역 전북.

해설 '따다'와 '담다'가 결합된 합성 동사이지만, "따서 담다"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띤다.

따듬돌 명 [발음] [따듬똘] [대응어] 다듬잇돌.

다듬이질을 할 때 밑에 받치는 돌. ¶그 꼬마둥이가 생각해본게 그 {다딤돌} 같은 것이, 돌이 좋은 놈이 나온게 이것 사랑방으다<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무주.

따듬따듬 부 [대응어] 다듬다듬.

잘 알지 못하는 길을 이리저리 짐작하여 찾는 모양. ¶실끝으리를 찾어서 연해 {따듬따듬} 따러 간게 군산 뒤에 바우가 있는디 그 바우는 아무리 벨사람이라도 못 올라가게 되야.

지역 전북.

따듬방맹이 명 [발음] [따듬빵맹이] [대응어] 다듬잇방망이.

☞다듬방맹이.

지역 임실.

따듬방맹이질 명 [발음] [따듬빵맹이질] [대응어] 다듬이질.

옷이나 옷감 따위를 방망이로 두드려 매끄럽게 하는 일. ¶빨래를 하고 {따듬방맹이질을} 하니 속이 풀리는 것 같다.

지역 전북.

따로다 동 [대응어] 따르다(遂).

☞따리다.

지역 남원, 무주.

따로따로 감 [대응어] 따로따로.

어린아이가 따로 서는 법을 익힐 때, 어른이 붙들었던 손을 떼면서 내는 소리.

지역 임실, 무주.

따루다 동 [대응어] 따르다(遂).

☞따리다.

지역 완주, 정읍, 진안.

따루따루 감 [대응어] 따로따로.

☞따로따로.

지역 무주.

따리다 동 [대응어] 따르다(遂).

어떤 대상을 좇아서 따라하거나 함께 하다. ¶어뗳게 이쁘든지 시장을 가믄 사람이 뒤여 죽죽 {따리여}. 얼굴을 쳐다볼라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그 사람 재주는 내가 {따릴} 수 없는 재주 ¶선생님을 잘 {따르다} ¶명령을 {따르다}

지역 고창, 무주, 부안, 순창,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따박따박 부 [대응어] 아장아장.
키가 작은 사람이나 짐승이 찬찬히 걷는 모양. ¶보듬고 앉어서 젖을 멕임서 또 닥거리서 히는디 {따박따박} 걸어댕이거던.<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아기가 {따박따박} 걷는 모습이 귀엽기만 하다.
지역 전북.

따발 명 [대응어] 다발.
꽃이나 푸성귀, 돈 따위의 묶음. 또는 그것을 세는 단위. ¶지폐를 {따발로} 받을 때가 가장 기분이 좋지요. ¶장미 한 {따발}
지역 전북.

따배기 명 [대응어] 모루.
대장간에서 불린 쇠를 올려놓고 두드릴 때 받침으로 쓰는 쇳덩이. ¶{따배기} 때리는 노믄 망치고<완주_지역어_텍스트>
지역 완주.

따뱅이 명 [대응어] 똬리.
짐을 머리에 일 때 머리에 받치는 고리 모양의 물건. 또는 둥글게 빙빙 틀어 놓은 것. ¶{따뱅이에다가}, 고리를 달어서 쓰기도 했어.
지역 무주.

따복따복 부 [대응어] 차곡차곡, 차근차근.
물건을 가지런히 겹쳐 쌓거나 포개는 모양. 또는 말이나 행동 따위를 아주 찬찬하게 순서에 따라 조리 있게 하는 모양. ¶이야기의 진행에 따라 차츰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 귀수는 일부러 느린 말씨로 {따복따복} 낱말들을 골라서 공손히 주워섬겼다.<윤흥길, 낫> ¶창고에 나락을 쟁일 때 어영부영 쟁이지 말고 {따복따복} 쌓아야 허물어지지 않지요.<전라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따복따복'은 '따복'이 중첩된 부사이다. 주로 "일을 천천히 하는 행동"에 많이 쓰인다.

따북따북 부 [대응어] 차곡차곡, 차근차근.
☞따복따복. ¶형보의 눈 하나 깜짝 않고 딱 버티고 앉아서 {따북따북} 말을 뱉어놓다가 필경 '……요렇게 훑으려 쥐고 칵……' 찔러 죽인다는, 손짓 눈짓 몸짓을 다 겹친 마지막 대목에 가서는 그만 아이구머니<채만식, 탁류>
지역 전북.

따빠더리 명 [대응어] 땅벌. ¶{따빠더리헌티} 쏘였다가는 까딱허면 죽어.
지역 전북.

따뿍 부 [대응어] 담뿍.
넘칠 정도로 가득하거나 소복한 모양. ¶글안해도 건전주름헌 성님 눈에 잠이 {따뿍} 찼소. 허도, 금세 출발명령 떨어질 것잉께 잠잘 생각이야 허덜 마씨요."<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따순밥 명 [대응어] 더운밥.
갓 지어 따뜻한 밥. ¶됐다고 저그 남편을 {따순밥을} 히서 잘 멕이고는 논을 가.<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오늘 고모님이 오셨으니 {따순밥을} 해 먹어야겠다.
지역 군산, 김제, 남원, 완주, 임실.

따순뱁 명 [대응어] 더운밥.
☞따순밥.
지역 임실.

따숨밥 명 [대응어] 더운밥.

☞따순밥. ¶점심에 찬밥이라도 한덩이 있으면 감지덕지지 무슨 {따숨밥} 타령이여.

지역 완주.

따숩다 형 [대응어] 포근하다.

도톰한 물건이나 자리 따위가 보드랍고 따뜻하다. 또는 날씨가 춥지 않고 따뜻하다. ¶날 따라 오시오. {따수운} 방도 있고 좋은 데도 있응게로. ¶"엊저녁으 어떻고 주무셨어요?" "아이 어제는 {따숩게} 잘 잤다."<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그저 서로 오며가며 한평생 오순도순 밥 먹었냐 잘 잤느냐 {따숩게} 또닥이면, 부모 없고 자식 없는 설움 덜고 의지하며 그에서 더 바랄 나위가 없겠길래, 문서같이 겁나고 거창한 것은 아예 꾸밀 생각조차 못했었다.<최명희, 혼불>

지역 무주, 임실.

따시다 형 [대응어] 포근하다.

도톰한 물건이나 자리 따위가 보드랍고 따뜻하다. 또는 날씨가 춥지 않고 따뜻하다. 또는 삶에 큰 문제 없이 편안하다. ¶하레빰 자고 이러낭개 그냥, 그 이튿나른 그냥, 대가리가 버꺼지게 {따시네}, 나리.(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그냥, 그 이튿날은 그냥, 대가리가 벗어지게 따뜻하네, 날이.)<2005 전북 남원> ¶여자 토끼띠는 잘사는데 요상하게 우리 나이 토끼띠 남자들은 신수가 고단트라 이 말씀입니다. 헌데 사장님은 용케 {따시게} 사시니 복이 많으십니다.<양귀자,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하레빰 자고 이러낭개 그냥, 그 이튼나른 그냥, 대가리가 버꺼지게 {따시네}, 나리.(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그냥, 그 이튿날은 그냥, 대가리가 벗어지게 따뜻하네, 날이.)<2005 전북 남원>

지역 전북.

따올 명 [대응어] 딸기. ¶쟈는 {따올을} 참 좋아허.

지역 전북.

따올기 명 [대응어] 딸기. ¶이따가 오면서 {따올기라도} 따다 주마.

지역 전북.

따왈 명 [대응어] 딸기. ¶{따왈이} 그거이 시큼허기만 허고 맛도 없도만그려.

지역 장수.

따우 의명 [대응어] 따위.

두 개 이상의 사물을 연이어 말할 때, 그 마지막 명사 뒤에 쓰는 말. ¶넌, 고 {따우} 씨나락 까묵는 소릴랑, 앞으로는 허덜 마. 조봉래48<조봉래, 풀벨골> ¶그 {따우} 돈 한 사오 전 버는 금점판에는 다녀 무얼 해! 나처럼 한꺼번에 백 원을 벌지.<채만식, 停車場近處> ¶제 {따우가} 우리 이쁜이 같은 각시가 있나 머.<채만식, 停車場近處> ¶사주팔자 따져서 길일길시 맞춰 죽을 배도 아님시나 시간 {따우는} 알어서 얻다가 쓸라고……<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물에 빠져 허비적거림시나 살려돌라고 지아모리 애걸복걸혀도 요게 웬 귀경거리냐, 허고 히득히득 웃기만 허는 시상이니깨 고런 {따우} 씨잘디없는 염렬랑은 애시당초 허들말어.<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따울 명 [대응어] 딸기.

☞따올.

지역 전북.

따지다 동 [대응어] 끌러지다.

매거나 잠가둔 것이 풀어져 그렇지 않은 상태로 되다. ¶거기 가닌개 잠물통을 가재같은 놈 채웠는디 덜커덕 {따져}, 잠궈도 열쇠가 가닌개, 그

런개 무거도 개변寫隔?자꾸 짊어져. "무겁냐? 개볍냐? 무겁냐? 개볍냐?"<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전북.

딱 부러지다 【관용표현】 [대응어] 확실하다.
아주 단호하다. 부러지다 ¶헐 말만 {딱 부러지게} 허라고 누차 말허니께.<조봉래, 풀벨골> ¶그 사람은 일 하나는 {딱 부러지게} 잘 한다.
지역 전북.

딱따가리 명 [대응어] 딱따구리. ¶{딱따가리가} 벌레를 잡아먹을라고 나무를 그렇게 파는 거거든.
지역 순창.

딱땍이 명 [대응어] 짝짝이.
원래 자기 짝이 아닌 것끼리 합하여 이루어진 것. ¶양말을 대충 주서 신고 나왔더니 {딱땍이로} 신은 줄도 모르고 나왔지 뭐여.
지역 진안.

딱쟁이 명 [대응어] 딱정벌레.
☞닥젱이. ¶등짝에 {딱쟁이} 한 마리가 붙었다.
지역 전북.

딱지랭이 명 [대응어] 딱지.
헌데나 상처에서 피, 고름, 진물 따위가 나와 말라붙어 생긴 껍질. ¶부숙물 {딱찌랭이같이} ¶나란히 무릅(릎)을 꿇코 앉어서 바닥에 초칠을 허고 마른걸레로 {딲다가} 병으로 문질러대는 것이 교실청소 방법이었다. ¶부뚜막에 놓인 가마솥 안을 {딲아} 놓으려무나.
지역 전북.

딲다 동 [대응어] 닦다.
때, 먼지 녹 따위의 더러운 것을 없애거나 윤기를 내려고 거죽을 문지르다. ¶아 진물이 자꼬자꼬 나서 {딲어도} 소용이 없네요잉. 저러다 덧나먼 어쩌까아.<최명희, 혼불> ¶니가 지대로 일어나서 걸어댕길 때끄장 불 때 주고, 밥 해 주고, 피 {딲어} 주고, 똥오짐도 다 내가 받어내 주고 헐 거이다.<최명희, 혼불> ¶이골이 나먼 엥간히 얻어터진 자리는 손으로 쓱쓱 {딲어} 불먼, 딱지 앉고 깨깟이 낫어 불틴디 머.<최명희, 혼불> ¶방바닥을 깨끗이 좀 {딱아라}.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군산.

딸광 명 [대응어] 꽈리. ¶{딸광이} 붉은 빛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역 익산.

딸구다 동 [대응어] 따르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힘입어 그대로 실행하다. ¶힘이라께 다른 것이요? 나라 백성이 {딸구}, 일을 할 때면 백성이 뒤를 받쳐주구 하는 게 힘일테죠.<채만식, 옥랑사> ¶늙어 히말테기가 없고, 시상 형편에 {딸구지} 못허는 게 큰 죄인겨.<조봉래, 풀벨골> ¶눈탱이가 어질허도록 핑핑 돌아가는 요시 시상의 형편에 재빨리 {딸굴} 맨치 똑똑허지가 못허단 말이시.<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딸다 동 [대응어] 따르다(注, 물을).
그릇을 기울여 안에 들어 있는 물 따위의 액체를 밖으로 흐르게 하다. ¶무렁 부서서 휘휘 저서 노머는 인자 또 가라안지먼 또 {딸고} {딸고} 허먼 인자 심무리 가라안져.<2005 전북 남원> ¶자칭 올라가셔서 술 한 잔을 걍 탁 주전자를 {딸어서} '쿨쿨쿨쿨쿨' {딸어서} 큰 잔으로 '마침 목마른 차지 이거 잘 앤겼다.' 허고는 걍 '벌떡벌떡' 한바탕 딱 마셨다 이런 얘기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빈잔 만 놓고 있는 사람이 제일 불쌍헌 사람여 누가 술을 {딸

어} 주어야 먹지.

지역 고창, 김제, 남원, 순창, 익산, 임실, 정읍.

딸쌕이다 동 [대응어] 딸싹이다.

가벼운 물건이 떠들렸다 가라앉았다 하다. 또는 그렇게 되게 하다. '달싹이다'보다 센 느낌을 준다. ¶입을 {딸쌕이면서} 머라 허는디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제. 먼 말인지 모르겄어.

지역 전북.

딸오다 동 [대응어] 따라오다.

다른 사람이나 동물이 어떤 사람의 뒤에서 그가 가는 대로 가다. ¶"이리 {딸오니라}. 나락 조깨 갖다 느그가 방애를 찧던지 이것 치자."<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집이를 가넌게 아 그 낮이 그 영감이 물른 영감이 따러와서 해필 자기를 {딸와서는} 자자고 청헌단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딸쿠다 동 [대응어] 따르다.

그릇을 기울여 안에 들어 있는 액체를 밖으로 조금씩 흐르게 하다. ¶웃물은 {딸쿠고} {딸쿠고}. 아랫물만 써.

지역 전북.

땀때기 명 [대응어] 땀띠.

땀으로 피부가 자극되어 생기는 발진. 좁쌀 크기의 붉은색 또는 무색 발진이 오밀조밀하게 돋아 가렵고 따가운데, 특히 살과 살이 맞닿는 부위에 땀이 고여 있을 때 많이 생긴다. ¶또 집에 오이 더운데 갔다와서 더우를 먹고 왕 {땀때기가} 돋아서 매련 없었어.<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8>

지역 고창,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완주.

땀떼기 명 [대응어] 땀띠.

☞땀때기.

지역 완주.

땀띠기 명 [대응어] 땀띠.

땀으로 피부가 자극되어 생기는 발진. 좁쌀 크기의 붉은색 또는 무색 발진이 오밀조밀하게 돋아 가렵고 따가운데, 특히 살과 살이 맞닿는 부위에 땀이 고여 있을 때 많이 생긴다. ¶아이고, {땀띠기가} 많이도 났네.

지역 김제, 익산.

땀새 의명 [대응어] 때문에.

((체언 뒤에 쓰여)) 앞에 오는 말이 뒤에 오는 일의 까닭이나 원인임을 나타내는 말. ¶이께잇 거흙인디 멋 {땀새} 그렇게 우요? 내가 아까맹이로 새로 맹글어 주면 되잖어요오, 예에?<최명희, 혼불> ¶시상에도 웬수엣녀르 가뭄 {땀새}, 딸자석 하나 있능 거 보리쌀에 팔어 먹게 생겠길래, 딸년을 팔어 먹느니 논을 팔자, 허고, 내가, 자식을 파는 심정으로 팔었든 논이다, 그 논이…… <최명희, 혼불> ¶무단히 아부지 {땀새} 효도 헐라다가 몸만 망치고.<최명희, 혼불> ¶저년이 시방 저리 콧대 세우고 뻗대는 것도 지년 기술이 넘보담 낫고, 나가 지년헌티 빠진 것얼 알기 {땀새여}.<조정래, 아리랑> ¶아 알겄네, 알겄어. 그놈의 곰방대 {땀새} 이얘기가 헛길로 샜네. 어서 자네가 헐라든 이얘기나 허소.<조정래, 아리랑> ¶머땀시 그려라, 머 {땀새} 지헌티 성질을 부리고 야속허게 허요?<조봉래, 풀벨골> ¶대처 {머땀세} 고 난리데야?<조봉래, 풀벨골>

지역 남원.

해설 표준어 '때문에'에 해당한다. 부사격 조사가 융합되어 있는 형태라는 점에서 '대로' 등과 같은 부사성 의존 명사와 유사하다.

땀시 의명 [대응어] 때문에.

☞땀새. ¶머 {땀시} 그려라, 머땀세 지헌티 성질을 부리고 야속허게 허요?<조봉래, 풀벨골>
지역 남원.
해설 표준어형 '때문에'에 해당한다. 부사격 조사가 융합되어 있는 형태라는 점에서 '대로' 등과 같은 부사성 의존 명사와 유사하다.

땅갑 명 [대응어] 땅값. ¶울 돌네넌 독뎅이도 많고 땅심도 안 좋아서 {땅갑이} 젤로 싼 디여.
지역 전북.

땅개미[1] 명 [발음] [땅깨미] [대응어] 땅거미.
☞땅게미.
지역 고창, 장수.

땅개미[2] 명 [발음] [땅깨미] [대응어] 메뚜기. ¶가실 추수할 적으 {땅개미들이} 논에 뛰댕겨.
지역 전북.

땅개미[3] 명 [발음] [땅깨미] [대응어] 방아깨비.
☞왕땅개비.
지역 전북.

땅개비 명 [발음] [땅깨비] [대응어] 메뚜기. ¶메뚜기 {땅개비} 풀밭에 놀구 까마구 까치는 남귀서 논다, 인력거 자전차 신작로 놀고 자동차화차는 빼갈로 논다.<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땅개비는}방애찧고배때기(메뚜기)는애기보고후리기는빨래가고딸딸이는나무가고절실히(的實히)딱안맞았어?그런것도다일을한다고깐닥깐닥헌개방애<구비문학대계전북남원군편> ¶방아깨비(암컷)/명/*땅:개비{정문연}<전북>[부안, 고창], *땅:개비암놈{정문연}<전북>[정읍], *{땅개미}{정문연}<전북>[장수], *땅개비{정문연}<전북>[무주], *방아땅구{정문연}<전북>[완주], *방애땅개{정문연}<전북>[익산], *방애땅개비{정문연}<전북>[진안], *왕:땅개비{정문연}<전북>[임실], *왕:치{정문연}<전북>[군산, 김제, 남원], *왕땅개비{정문연}<전북>[순창], 방아깨비/명/*땅:개미{정문연}<전북>[장수, 고창], <한국방언어휘자료집_전북편>
지역 고창, 김제, 무주, 부안, 군산, 익산, 정읍, 진안.

땅개비숫놈 명 [발음] [땅깨비순놈] [대응어] 방아깨비(수컷).
☞수땅개비.
지역 장수, 정읍.

땅개비암놈 명 [발음] [땅깨비암놈] [대응어] 방아깨비(암컷).
방아깨비의 암컷.
지역 전북.

땅검 명 [대응어] 땅값.
지역 전북.

땅검 명 [발음] [땅껌] [대응어] 땅거미.
해가 진 뒤 어스레한 상태. 또는 그런 때. ¶{땅검} 질 때가 된게 애들이 집으로 돌아왔어.
지역 임실.

땅게미 명 [발음] [땅께미] [대응어] 땅거미.
해가 진 뒤 어스레한 상태. 또는 그런 때. ¶{땅게미가} 지는 것 봉게 곧 어두워지겄네.
지역 고창, 김제, 부안, 군산, 완주, 임실, 정읍, 장수.

땅게비 명 [발음] [땅께비] [대응어] 방아깨비.
☞왕땅개비.
지역 전북.

땅구 명 [대응어] 메뚜기. ¶메띠기라구도 허는디 나락 {땅구라구그려} 이거 뽀고 나락{땅구} 이게

나락땅구구먼<완주_지역어_텍스트>

지역 전북.

해설 메뚜기와 방아깨비를 관련지어서 "메뚜기"를 '땅구', "방아깨비"를 '방아땅구'라 부르기도 한다.

땅그미 명 [발음] [땅끄미] [대응어] 땅거미.
☞땅기미. ¶{땅그미} 든다고 구러지<완주_지역어_텍스트>
지역 완주.

땅금 명 [대응어] 땅값. ¶옛날으따 대면 지금은 {땅금이} 금갑이여. ¶아이가? 땅금만 주면 되제. 멋을 더 돌란가?
지역 전북.

땅금 명 [발음] [땅끔] [대응어] 땅거미.
해가 진 뒤 어스레한 상태. 또는 그런 때. ¶{땅금} 지는 때 넘의 집이 놀러가는 사람도 다 있다냐.
지역 남원, 무주, 순창, 장수, 진안.

땅기미 명 [발음] [땅끼미] [대응어] 땅거미.
해가 진 뒤 어스레한 상태. 또는 그런 때. ¶{땅기미가} 져서 어두컴컴헌 게 누군지 잘 모르겄어.
지역 익산, 정읍.

땅깔 명 [대응어] 땅.
땅을 낮춰 이르는 말. ¶근다고 나를 {땅깔로} 봐야?<전라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전북.

땅나다 동 [대응어] 따로나다.
가족의 일부가 딴살림을 차려 나가다. ¶살림을 완전 {땅나} 부렸네.
지역 전북.

땅뎅이 명 [대응어] 땅덩이.
땅의 덩이. 흔히 지구, 대륙, 국토 따위를 이른다. ¶내가 발바닥 붙이고 섰는 이 {땅뎅이도} 언지 홀까닥 뒤집힐랑가 모르는 판인디, 누가 아요?<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땅뜀하다 동 [대응어] 어림짐작하다.
대강 헤아려 짐작하다. ¶서울이라도 {땅뜀하기가} 에로운디 평양이란께 더 땅뜀이 안 되는만이라.
지역 전북.

땅잡다 동 [대응어] 땡잡다.
(속되게) 뜻밖에 큰 행운이 생기다. ¶{땅잡았네} 그려.
지역 전북.

때개칼 명 [대응어] 접칼.
조그마한 접는 칼. ¶옛적으 어떤 아가 장개가게 되었넌디 장개가면 첫날밤에 각시럴 벳긴다는 말얼 들었기 땜시로 {때개칼얼} 하나 지니고 갔어.<구비문학대계 진안군> ¶대례럴 다 치르고 신방얼 채리고 각시가 들어옹께 이 신랑언 {때개칼로} 각시 껍대기럴 벳기기 시작혔어.<구비문학대계 진안군>
지역 진안.

때기치다 동 [대응어] 팽개치다.
물건 따위를 내던지거나 내버리다. ¶근게, 도둑놈들이 몽땅 {때기치고} 도망가부렀어.
지역 전북.

때까오 명 [대응어] 거위. ¶거그가 연못인지 자그마하게 물이 고여있은개로 {때까오들이} 자주 날라오더라고.

지역 전북, 김제.

때까오리 명 [대응어] 거위. ¶{때까오리가} 연못을 헤엄친다.
지역 전북.

때까우 명 [대응어] 거위.
☞때까오.
지역 부안, 정읍.

때까우리 명 [대응어] 거위.
☞때까오리.
지역 전북.

때깔 명 [대응어] 꽈리.
☞때꽐.
지역 군산, 정읍.

때깡물 명 [대응어] 땟국물.
꾀죄죄하게 묻은 때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때깡물이} 질질 흐르는 것이 드러서 눈 뜨고는 못 보겄더라고.
지역 전북.

때깨중 명 [대응어] 땡땡이중, 동자승.
마을로 다니며 시주를 구하러 다니는 중. 또는 나이가 어린 중. ¶동냥을 안 주고 그런개 하루는, 운주에 화운사라고 절이 있는데, 그 절의 {때깨중이} 시주를 하라고 동냥을 왔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때깨중이} 아무리 동냥을 못 해와도 쌀되나 동냥을 해오는디, 빈손으로 병신이 돼서 돌아왔거든.<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얘들아, {때깨중을} 놀리면 벌 받는다. ¶그래 그 {때깨중은} 동냥한 놈을 뺏겼은개, 그놈을 찾아갖구 갈려구 옥신각신 시비가 벌어졌던 모양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아침부터 어떤 {때깨중} 하나가 들어서더니 목탁을 뚜디림서 시주를 허라는디 줄것이 어디 있다냐 우리도 얻으러 댕길 헹펜인디{완주}.
지역 완주.

때께우 명 [대응어] 거위.
☞때까오.
지역 완주.

때꼐우 명 [대응어] 거위.
☞때까오.
지역 김제.

때꽐 명 [대응어] 꽈리. ¶{때꽐이} 붉게 익었다.
지역 고창, 순창, 완주, 장수, 진안, 군산, 정읍.

때끼다 동 [대응어] 삶다.
보리쌀을 삶을 때 세 번째 삶다. ¶보리 {때낄} 때는 그 우게다 반찬도 올려놓고 익후고.
지역 전북.

때끼벌 명 [대응어] 땅벌. ¶{때끼벌이} 콧등일 탁 쏘고 가드랑게.
지역 남원, 순창, 임실.

때끼중 명 [대응어] 땡땡이중, 동자승.
☞때깨중.
지역 고창.

때때 명 [대응어] 방아깨비(수컷).
방아깨비의 수컷. ¶{때때는} 암놈이 아니여.
지역 남원.

때때기 명 [대응어] 방아깨비(수컷).
☞때때.
지역 김제, 무주, 부안, 완주, 익산.

때때시 명 [대응어] 방아깨비(수컷).
☞때때.
지역 순창.

때레가두다 동
단단히 가두다. ¶죄인을 {때레가뒀는디} 다시 도망갔나 보구만.
지역 전북.

때레붓다 동 [대응어] 퍼붓다.
비나 눈 따위가 억세게 마구 쏟아지다. ¶소낙비가 억수로 {때레붓어서} 밖을 나갈 수가 없구만.
지역 전북.

때레뿌수다 동 [대응어] 처부수다.
세차게 때려 부수다. ¶그 놈으 것덜 다 {때레뿌수거라}. ¶사탕 맨드는 왜놈얼 몰아내든지, 왜놈 사탕 팔고 앉었는 가게덜얼 다 {때레뿌시든지} 양단간에 한나는 해야제 요것 안되겄구만. ¶새 개집을 지어 놓고는 헌 개집을 사정없이 {때레뿌수어} 버렸다.
지역 전북.

때레뿌식다 동 [대응어] 처부수다.
세차게 때려 부수다. ¶와따메, 아짐씨넌 걱정도 팔자요. 미국은 일본맹키로 공산주의다 빨갱이다 허는 것에는 딱 정떨어져 허는 나란께로 좌익 못자리판인 치안대 {때레뿌식어} 뿔고 경찰을 새로 맹금시로 우리럴 불러들이는 것 아니겄소.<조정래, 태백산맥> ¶"참말로 요거 속에서 천불이 솟아 더는 못 참을 일이시. 요런 미꼬미끖는 눔에 시상을 인자 워째야 쓰까?" "싹 {때레뿌식어} 뿔고 엎어뿌러야제 워째.<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때레잠구다 동
단단히 잠그다. ¶문을 {때레잠구다} ¶집이 한참 빌텐디 방문 잘 {때레잠구고} 베깥이도 잘 둘러 봐라.
지역 전북.

때레치우다 동 [대응어] 때려치우다.
(속되게) 하던 일을 아주 그만두다. ¶글먼, 머시고 다 {때레치울} 맘이구만이라? ¶느그덜 참말로 굶어 죽기 전에 어서 엿장시 {때레치워야} 헐 것이다.<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때롱 명 [대응어] 대롱.
가느스름한 통대의 토막. 또는 물레의 가락에 끼우고 실을 감는 가는 통대의 토막.
지역 전북.

때미 의명 [대응어] 때문에.
((체언 뒤에 쓰여)) 앞에 오는 말이 뒤에 오는 일의 까닭이나 원인임을 나타내는 말. ¶"아까 아침 나절에 와서 이얘기허던 그 조건 {때미} 그러지? 응?"<채만식, 천하태평춘>
지역 전북.
해설 표준어 '때문에'에 해당한다. 부사격 조사가 융합되어 있는 형태라는 점에서 '대로' 등과 같은 부사성 의존 명사와 유사하다. '때미'는 전북 방언에서 주로 쓰이고, '땜시'는 전남 방언에서 주로 쓰인다.

때빼고 광 내다 【관용표현】
외출을 하거나,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한껏 멋을 내다. ¶{때빼고 광내고} 어디로 행차허쇼?<윤흥길, 완장>
지역 전북.
해설 '때'는 "옷이나 몸 따위에 묻은 더러운 먼지 따위의 물질"을 말하는데, '때를 빼다'는 "더러운 것을 깨끗이 하다"의 의미이다. '광을 내다'

는 “얼굴이나 구두에 화장품이나 약을 발라서 예쁘게 꾸미다”의 의미이다. 따라서 전북 방언의 ‘때빼고 광내다’는 “한껏 멋을 내다”의 의미를 갖는다.

때왈 명 [대응어] 꽈리. ¶누가 오락히서 따러가서 본게 물 속을 들어가서 본게 {때왈이} 존 놈 피었단 말여? 물 속으가. 아 그리서 그놈 딸라고 헌 것이 딸깍 걸려서 나와 버렸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내가 지금 강천사 절 뒤쪽으로 요리 돌아오느라고 보닝개로 강천사 뒤, 절 뒤쪽 절벽에 가서 지금 {때왈이} 벌건히 매달려 가지고 있읍디다.<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빨갛게 익은 {때왈이} 참 맛있게 생겼다.

지역 김제, 남원, 부안, 순창, 임실, 정읍.

때우다 동

모를 심고 난 후 미처 빼먹은 곳이나 빠진 곳에 모를 심어 메꾸다. ¶기계로 심고 나먼 또 빼 먹은 자리는 손으로 다 때워야 혀.

지역 전북.

때울르다 동 [대응어] 때우다.

뚫리거나 깨진 곳에 다른 조각을 대어 막다. ¶솟 떨어진 데는 놋쇠로 {때울르먼} 돼.

지역 전북.

때이다 동 [대응어] 날리다(돈을).

지녔던 돈을 헛되게 잃어버리거나 없애다. ¶믿었던 놈인디 나타나지도 않아. 알고 본게 도망간 것이여. 일도 안 해 주고 돈만 {때였당게}. ¶노름방으서 장사밑천 다 {때이고} 무신 낯짝으로 집에 들어간다냐.

지역 장수, 정읍.

땍대구리 명 [대응어] 딱따구리. ¶인자 시관들이 허넌게, 그 사램이 봉이라 소리는 못허고, {땍때구리요}.<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남원, 완주, 임실, 장수, 진안.

땜시 【축약형】 [대응어] 때문에.

((체언 뒤에 쓰여)) 앞에 오는 말이 뒤에 오는 일의 까닭이나 원인임을 나타내는 말. ¶먼촌 일가붙이들 빼고는 가까운 친척들 대부분이 서울 쪽으로 일찌가니 생활 근거를 윙겼기 {땜시} 고향 동네허고는 연고다운 연고가 거반 끊기다시피 헌 심이지.<윤흥길, 소라단가는길, 00, >

지역 전북.

해설 표준어 ‘때문에’에 해당한다. 부사격 조사가 융합되어 있는 형태라는 점에서 ‘대로’ 등과 같은 부사성 의존 명사와 유사하다. ‘때미’는 전북 방언에서 주로 쓰이고, ‘땜시’는 전남 방언에서 주로 쓰인다.

땟거리 명 [대응어] 곁두리.

농사꾼이나 일꾼들이 끼니 외에 시장할 만할 때 먹는 음식. ¶두레꾼 {땟거리} 장만할라먼 고것도 일이랑게.

지역 정읍.

땟구정물 명 [대응어] 땟국물.

꾀죄죄하게 묻은 때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땟구정물이} 질질 흐르는 걸 봉게 밥맛이 싹 떨어지데.

지역 전북.

땟땟하다 형 [발음] [땓때다다/땓때타다] [대응어] 따끔따끔하다.

따가울 정도로 몹시 덥다. 또는 마음에 큰 자극을 받아 잇따라 따가운 느낌이 있다. ¶날씨가 좋은게로 햇볕이 {땟땟하니} 좋구만. ¶말을 듣고 있자니 내 맴이 {땟땟하요}. ¶살이 벳게진게 거가 {땟땟하네요}.

지역 전북.

땡감 명 [대응어] 맹감.
청미래덩굴의 열매. ¶산에 올라가니 {땡감이} 빨갛게 익었구나.
지역 전북.

땡기벌 명 [대응어] 땅벌.
땅속에 집을 짓고 사는 벌. ¶아침에 조회(朝會) 보로 들어오넌디 질갓이서 진둥개 한 마리가 잔득 뜯어먹고 배가 띵띵 불러갖고 그대로 있다가는 죽게 돼서 지내가넌 {땡기벌} 보고 지 똥구녁얼 좀 쏴서 똥 좀 나오게 히돌라고 헝께<구비문학대계 임실군편>
지역 임실.

땡때하다 형 [대응어] 딴딴하다.
어떤 힘을 받아도 쉽게 그 모양이 변하거나 부서지지 않는 상태에 있다. ¶돌처럼 {땡때하다}. ¶근육이 땡때하다. ¶명태알이 땡때하다. ¶운동화끈을 {땡때하게} 묶었네.
지역 전북.

땡중 명 [대응어] 땡땡이중.
시주를 다니거나 중답지 못한 중을 낮잡아 이르는 말. ¶그런 말 할 자격있냐, 이 땡중아. ¶{땡중이} 허는 염불도 효엄은 있는볍여.
지역 전북.
해설 '땡중'은 '땡땡이중'에서 온 말이다. '땡땡이'란 꽹과리 소리를 따서 붙인 이름으로 시주를 받으러 다닐 때 꽹과리를 두드렸기 때문에 시주승을 '땡땡이중'이라고 불렀다. 이러한 의미에 비하의 의미가 더해지며 "교리에 어둡거나 중답지 못한 중"을 일컫는 말이 되었다.

떠꺼머리 명
장가나 시집갈 나이가 된 총각이나 처녀가 땋아 늘인 머리. 또는 장가갈 나이가 된 총각의 덥수룩한 머리. 또는 결혼하지 않은 총각. ¶"귀찮시러서." 한 날은 미련없이 {떠꺼머리를} 잘라 버리고 나서 "야 야, 너 꼭 벌초 안헌 뫼동맹이다이? 대가리가. 수건으로라도 짬매든지<최명희, 혼불> ¶담배를 재던 {떠꺼머리} 걱실걱실한 장정이 붙들이를 보고 지나가는 말처럼, 이런 것은 우스갯소리라는 듯 한 마디 던진다.<최명희, 혼불> ¶이제 겨우 일곱 살짜리가, 사실은 그보다야 많지만 왜 나이 많은 {떠꺼머리} 총각들하고만 어울리는지 이상하겠지만 그것은 결코 내 책임이 아니었다. 단짝인 소라를 비롯하여 몇 명의 친구들이<양귀자, 원미동 시인> ¶농막에 혼자 살고 있는 춘복이는, 부모도 없고, 형제나 일가붙이 하나도 없는 {떠꺼머리였다}. 그러나 말이 {떠꺼머리지} 나이 서른의 턱에 걸려, 걱실걱실한 생김새에 번듯한 인물을 가지고, 무엇이 모자라 장가를 못 가는가<최명희, 혼불> ¶그나저나 {떠꺼머리를} 못 면허고 죽으면 몽달귀신이 될 거인디, 이 노릇을 어쩌끄나.<최명희, 혼불> ¶울도 없고 담도 없응게 그렇게 허구한 날 넘의 {떠꺼머리} 방으로 밤마실 댕기는가?<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해설 '떠꺼머리'는 본디 "혼인할 나이가 넘은 처녀 총각이 땋아 늘인 긴 머리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이 단어가 혼기가 꽉찬 처녀와 총각을 가리키게 되면서, "결혼하지 않은 남자의 덥수룩한 머리"를 가리키기도 한다.

떠꿍 명 [대응어] 뚜껑.
☞두껑.
지역 군산.

떠널러가다 동 [대응어] 떠내려가다.
물 위에 떠서 물결을 따라 옮겨 가다. ¶배를 올라타고 막 떠널러가.
지역 전북.

떠도름시롭다 동 [대응어] 떠들썩하다.
여러 사람이 큰 소리로 시끄럽게 떠들다. ¶약장사가 와서 마을이 왼통 {떠도름시롭네}.
지역 전북.

떠들다[1] 동 [대응어] 개다.
흐리거나 궂은 날씨가 맑아지다. 또는 언짢거나 우울한 마음이 개운하고 홀가분해지다. ¶비가 오도만 인자 날이 {떠들기} 시작했네. ¶온통 마음이 좋지 않았는디 좋은 소릴 듣고 다시 {떠들어}.
지역 전북.

떠들다[2] 형 [대응어] 떠들다.
날씨가 건조하고 덥다. 주로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기 전에 햇빛이 강할 때 쓴다. ¶뭔 놈의 날이 이렇게 {떠드는고}? 비 올라고 이렇게 날이 {떠들어}.
지역 전북.

떠들르다 동 [대응어] 떠들다.
가리거나 덮인 물건의 한 부분을 걷어 젖히거나 쳐들다. ¶아 이놈아, 고만 좀 {떠들러라}. ¶가만 때기를 살째기 {떠들러봉게} 즈그 삼촌이더래야.
지역 전북.

떠들씨다 동 [대응어] 떠들다.
가리거나 덮인 물건의 한 부분을 걷어 젖히거나 쳐들다. ¶시방 {떠들씨는} 놈덜 누구여!
지역 전북.

떠마트다 동 [대응어] 떠맡다.
일이나 책임 따위를 모두 맡다. ¶뒷감당은 나가 {떠마틀라니깨} 아무 걱정 말고 나만 꽉 믿어. ¶한번 두 번 일을 {떠마트다} 보면 앞으로는 질이 나서 맨맞헌 너만 시키는거여.
지역 전북.

떠매다 동 [대응어] 꿰매다.
옷 따위의 해지거나 뚫어진 데를 바늘로 깁거나 얽어매다. ¶차광막도 안 날라가게 {떠매야} 혀.
지역 전북.

떠벌레다 동 [대응어] 떠벌리다.
이야기를 과장하여 늘어놓다. ¶술이 거나하게 들어갔다 하믄 월남 갔다온 이얘기를 한바탕썩 {떠벌렜다}.
지역 전북.

떠벌이다 동 [대응어] 떠벌리다.
약간 큰 소리로 떠들썩하게 이야기하다. ¶그는 민족정기니 사회개혁이니를 {떠벌여} 대는, 김범우와 다를 게 없는 불순분자였다.<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김제.

떠부세하다 동 [대응어] 떠들썩하다.
술 먹고 큰소리 치고 시끄럽게 하다. ¶저 양반은 술만 먹으면 저렇게 맨날 {떠부세하고} 댕겨.
지역 전북.

떡 쪄놓고 시루 엎다 【관용표현】
이미 글렀음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말. ¶환갑 전에 철들기는 일찌감치 {떡 쪄놓고 시루 엎은} 것 같소.<윤흥길, 빛가운데로걸어가면> ¶올 농사도 진즉 {떡 쩌먹고 시루 엎었어}.<김용택, 마당은>
지역 전북.
해설 떡을 다 쪄 놓고 떡을 찐 시루를 엎어 버리면 떡을 먹을 수 없게 된다. 앞에서 한 이야기 내용이 이미 글렀음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이런 관용 표현을 사용한다.

떡 쪄먹고 시루 엎다 【관용표현】

☞떡 쪄놓고 시루 엎다. 쪄먹고 시루 엎다

지역 전북.

떡가람나무 명 [대응어] 떡갈나무. ¶{떡가람나무는} 그 열매로 묵을 맨들어 먹으면 맛나.

지역 부안, 순창.

떡가랑나무 명 [대응어] 떡갈나무.

☞떡가람나무.

지역 부안, 순창.

떡가래 명 [대응어] 가래떡.

가는 원통형으로 길게 뽑은 흰떡. ¶갈색 머리에 인형처럼 크고 파란 눈, 거기다가 백설기같이 하얗고, 방앗간에서 금방 뺀 흰 {떡가래} 모양 꼬들꼬들한 피부가 앙증스러울 만큼 귀여웠습니다.<최일남, 춘자의 사계> ¶쌀로 몽굴게 {떡까래} 맨들라고 가루 맨들 쪄그는 도구통으다 찐꼬<2009 전북 임실> ¶정월에는 집집마다 {떡가래를} 만들어 먹었어. ¶추석 대목에 방앳간에 가면 {떡가래} 뽑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떨었지.

지역 남원, 완주, 익산, 임실.

떡국떡 명 [대응어] 가래떡. ¶가래흰떡얼 잘 펴서 꼬득꼬득허게 말린 담에 이쁘게 얍실하게 썰으면은 그것이 {떡국떡이지}.

지역 전북.

떡굴밤 명 [대응어] 상수리.

상수리나무의 열매. ¶친구들과 {떡굴밤을} 줏으로 마니 돌아댕겼지.

지역 무주.

떡굴밤나무 명 [대응어] 상수리나무. ¶{떡굴밤나무} 언덕 아래 오두막집 한 채가 순이네 집이다.

지역 무주.

떡귀 명 [대응어] 떡국.

가래떡을 어슷썰기로 얇게 썰어 맑은장국에 넣고 끓인 음식.

지역 김제, 남원, 순창, 완주, 임실, 장수, 정읍, 진안.

떡사레 명 [대응어] 떡살.

☞떡사리.

지역 임실.

떡사리 명 [대응어] 떡살.

떡을 눌러 무늬를 찍어 내는 판. 또는 그것으로 찍어 나타나는 무늬. ¶흰떡을 {떡사리에} 찍어낸다.

지역 전북.

떡사실 명 [대응어] 가래떡.

가는 원통형으로 길게 뽑은 흰떡. ¶햅쌀얼 가지구 {떡사실을} 뽑아와서는 떡국도 히먹고 다 히먹지. ¶설에는 {떡사실을} 썰어서 떡국을 끓여 먹기도 한다.

지역 고창.

떡애기 명 [대응어] 갓난아이.

난 지 얼마 안되는 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강보의 {떡애기가} 무엇을 알랴마는, 낯이 설어 그랬던가, 품이 달라 그랬던가, 그보다는,<최명희, 혼불> ¶어린아이 어리내는 조금, 어리내기고, 간난애기, {떡애기제}, 간난이는, 애기 경기(驚氣)하다 정끼, 정끼 이쓰먼은<2008 전북 고창>

지역 진안.

떡자 명 [대응어] 떡살.

떡을 눌러 무늬를 찍어 내는 판. 또는 그것으로 찍어 나타나는 무늬. ¶지름칠해서 {떡자를} 꽉 눌러갖고 내야.

지역 완주.

떨그덕거리다 동 [대응어] 덜거덕거리다.
크고 단단한 물건이 맞부딪치는 소리가 자꾸 나다. 또는 그런 소리를 자꾸 내다. ¶그릇을 {떨그덕거리며} 씻는다.
지역 전북.

떨다[1] 동 [대응어] 깎다.
풀이나 털 따위를 잘라 내다. ¶털을 {떨어} 버린게로 깔끔해졌어.
지역 김제, 남원, 부안,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떨다[2] 형 [대응어] 떫다.
☞듧다. ¶{떨어도} 먹을거여<2009 전북 임실>
지역 고창, 순창, 임실.

떨리다 동
듣거나 보거나 느껴서 알 수 있는 것들을 지나쳐 보내다. ¶쇠로 갓 맨드라서 쓰고 오는 사람만 찾는디 솥뚜껑 쓰고 온게 알간? 근게 {떨려} 버렸지.
지역 전북.

떨추다 동 [대응어] 놓치다
잡거나 타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지 못하다. ¶시버스 {떨췄은게} 한 시간 인자 지달라야 혀.
지역 전북.

떨쿠다[1] 동 [대응어] 놓치다.
잡거나 타야 할 것을 놓치다. ¶사람이 가서 지달려야제, 버스는 안 기다린게. 까딱허면 버스 {떨쿼}.
지역 전북.

떨쿠다[2] 동 [대응어] 떨치다.
세게 흔들어서 떨어지게 하다. ¶그눔이 시키는대로 쟈릴 델꼬갔다가는 그 비얌눈구녕 헌 독헌눔이 쟈릴 복날 개패디끼 허서 필경 그리 에룹게 받은 씨릴 {떨콰} 뿔 것이요.<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떨키다 동 [대응어] 놓치다.
잡거나 타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지 못하다. ¶근게 활로 쏘아서 잡은 것이 한 마리는 잡고 한 마리는 {떨켰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저 남자 {떨키먼} 안된게 우리 여그서 못가게 허고 있다가 날짜 받어가지고 걍 예를 올리자.<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전북.

떫드림허다 형 [대응어] 떫다.
떫다. ¶모싯잎은 소 안 줘. 안 먹드라고. {떫드림헌가}.
지역 전북.

떰뱅이 명 [대응어] 뭉치.
한데 뭉치거나 덩치가 큰 물건. ¶방으 들어가서 이불 {떰뱅이} 머 싹 다 집어내삐리고 당장 친정으로 가라고.
지역 전북.

떵기떵기 감 [대응어] 섬마섬마.
어린아이가 따로 서는 법을 익힐 때, 어른이 붙들었던 손을 떼면서 내는 소리. ¶걸음마 한 번 해 보까? 연습혀 보자. {떵기떵기}
지역 무주.

떼끼다 동 [대응어] 뜯기다.
재물 따위를 졸려서 주거나 억지로 빼앗기다. ¶가지고 있던 돈을 {떼끼었네}. ¶장보러 갔다가

떼끼꾼한티 돈을 {떼끼고} 오더니 먼산 보고 한 숨만 쉬고 있다네.
지역 전북.

떼메다 동 [대응어] 떠메다.
무거운 짐 따위를 쳐들어서 어깨에 걸치거나 올려놓다. ¶"가마 한, 하나허고 그 가마 {떼메는} 사람 그 사람 느이허고 말 한 필 허고만 주시요."<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조사자: 조군은 뭐예요?], 가마 {떼메고} 다니는 사람.<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군산, 남원.

떼밧 명 [대응어] 뙈기밭.
얼마 되지 아니하는 조그마한 밭. ¶조카는 뭣을 췄는고니 논 좋은 논은 다 딸기다가 전작을 허고 참 황토흙지, 시방으로 말허먼 {떼발} 일운 놈, 여남마지기 그것 제우(겨우) 췄던 모냥이여. 조카놈기다가는.<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콩조지는 쇠 호맹이를 주고, 모래밭을 주고, 나는 막대기 호맹이를 주고 {떼발} 풀이 빽빽히 난 밭을 주는디 막대기가 뿌려져서 울어요."<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그 아들 하나허고 단 둘이 산중으서 사는디 참, 먹고살 길도 없고 허넌게서나 그 참 {떼밭을} 일우고 참, 논에 가서나 그 뭐 갈대밭이나 일우고 해서 화전이나 부쳐서 하나나 열으먼 인자 따다가 찧어서 먹고 살고 이러는디.<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정읍, 완주, 부안, 군산.

떼안다 동 [대응어] 떠안다.
일이나 책임 따위를 온통 맡다. ¶일을 {떼안아서} 많이 힘들어요.
지역 전북.

떼전 (←떼田) 명 [대응어] 뙈기밭.
얼마 되지 아니하는 조그마한 밭. ¶결국은 못 살게 되니까 친구 신세지기도 미안허고 그러넌게 산중으로 들어 가서 {떼전을} 일워서 인자 스슥 같은 것 잡곡을 심어서 먹고 근근히 자생을 허는 것이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임실.

떼지 명 [대응어] 굽도리.
☞떠지. ¶{떼지} 발른다고 해요 {떼지}<2009 전북 임실>
지역 임실.

또가리 명 [대응어] 또아리.
물건을 일 때 머리우에 얹어서 받치던 물건. 또는 둥글게 빙빙 말아 놓은 것. ¶물동이를 내려놓았던 여자가 {또가리로} 우물가를 치며 싸움을 결듯 하는 기세로 몰아댔다. ¶요새나 말허믄 메타 수로 한 삼 메터쯤 판게 구랭이가 이런 놈이 {또가리를} 해 두르고 자.<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구렁이가 {또가리를} 쪄가지고 있어.<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임실, 정읍.

또개미 명 [대응어] 또아리.
☞또가리.
지역 남원.

또닥방맹이 명 [대응어] 도깨비방망이.
☞또드락방맹이.
지역 전북.

또드락방맹이 명 [대응어] 도깨비방망이.
도깨비가 가지고 다닌다는 방망이. 또는 소원을 이루게 해 주는 것. ¶싹싹 씻어줌서 본게 큰 괴기를 하나 물고왔어. "이것이나 지져먹을라네.

우리 개도 욕보고 했은게 지져먹는다.” 거를(거기를) 탄게 아 그 {또드락방맹이} 거그 들었네 그려.<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군산.

또드락장단 명 [대응어] 도드리장단.
‘다시 돌아서 들어간다’는 뜻으로, 보통 빠르기의 6박 장단으로 구성된 국악 장단의 하나. 또는 그 장단에 맞추어 만든 악곡이나 춤. ¶{또드락장단을} 맞추어 노래를 불른다.
지역 전북.

또랑[1] 명 [대응어] 개울.
골짜기나 들에 흐르는 작은 물줄기. 매우 좁고 작은 개울. ¶심든 거슨 인제 그 삼 재 무쳐가꼬 저 {또랑으가} 빠는 거시 심들지.<2009 전북 임실> ¶참 인자. 각시가 시집을 가는디, 그 {또랑을} 건너서 쉬드라요 아 가매(가마)를 쉬는디 <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마을 앞 {또랑에는} 온통 피라미밖에 없어요. ¶소나기가 한 바탕 쏟아지더니 {또랑물이} 엄청 많아졌다.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진안.

또랑[2] 명 [대응어] 밭고랑.
밭작물이 늘어서 있는 줄과 줄 사이의 고랑을 통틀어 이르는 말. ¶{또랑을} 파다 ¶비가 와서 {또랑물이} 제법 많이 흐른구나.
지역 전북.

또랑가상 명 [발음] [또랑까상] [대응어] 개울가.
도랑과 땅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나 그 근처. ¶아근께 그 물을 건너와야 하것는데 그 물을 못 건너오고, {또랑가상에가} 앉았은개 비암이 떠내려 가드레.<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아들아, {또랑가상에} 넓적한 돌 있으면 깻잎 장아찌 누르게 주워 오렴.
지역 남원.

또매 명 [대응어] 도마.
요리 재료를 칼로 썰 때 아래에 받치는 물건. ¶{또매를} 씻다 ¶우리 집 칼 {또매도} 오래 됭게 가운데가 푹 패었네.
지역 전북.

또바리 명 [대응어] 또아리.
☞또가리.
지역 장수.

또박또박 부 [대응어] 찬찬히.
성질이나 솜씨, 행동 따위가 꼼꼼하고 자상하게. ¶한나한나 {또박또박} 찾아봐.
지역 정읍.

똑딱지 명 [대응어] 똑딱김치.
무를 똑딱똑딱 썰어 담근 김치. ¶무시를 똑딱똑딱 썰어서 담그먼 {똑딱지라고} 혀.
지역 전북.
해설 도마 위에 무를 놓고 썰 때 나는 소리가 ‘똑딱똑딱’이다. 따라서 무를 썰어서 담근 김치를 ‘똑딱지’라고 한다.

똑똑사니 명 [대응어] 똑똑이.
무엇이든지 다 안다고 참견하는 사람. ¶아따, 자네거튼 {똑똑사니나} 시상 일에 참견허지.<조봉래, 풀벨골> ¶그 여자는 {똑똑사니로} 벨호가 났어.
지역 전북.

똑똑새 명 [대응어] 똑똑이.
☞똑똑사니. ¶어릴 적부터 {똑똑새란} 별명이 붙을 정도로 영리하고 독한 구석이 잇는 누나는 공부를 그만두느니 차라리 굶어죽겠다며 자리보전한 채 사흘을 물 한모금 안 마시고 버티며 악

착을 떤 끝에 마침내 졸업 후에 취직해서 동생들 학업을 돕는다는 조건으로 여고 진학을 허락받는 데 성공했다.<윤홍길, 소라단 가는 길>
지역 전북.

똑맞다 형 [대응어] 마침맞다.
어떤 조건이나 경우에 아주 꼭 알맞다. ¶아니 인물로 보나 인품으로 보나 우리집 아저씨가 멘장이 되는 것이 {똑맞지}. 안 그려? ¶평소에 똑똑하고 친절한 철호가 우리반 반장에 {똑맞다}.
지역 전북.

똑바라지다 형 [대응어] 똑바르다.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고 곧다. 말이나 생각, 행동 따위가 이치나 규범에서 벗어남이 없이 옳고 바르다. ¶"이놈아! 다리빙신맨치로 그리 삐닥허니 스덜 말고 {똑바라지게} 서!"<조정래, 아리랑> ¶말이야 있는 그대로 {똑바라지게} 헌 것잉게 공연시 감고 들지 맙시다.<조정래, 아리랑> ¶환희는 수학공부 하나는 {똑바라지게} 잘한다.
지역 전북.
해설 '똑바라지다'는 '똑바르다'의 어간 '똑바르-'에 '-어지다'가 연결되어 '똑바라지다'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똑별나다 (←獨別나다) 형 [대응어] 독별나다.
홀로 유별나다. 또는 특히 우수하다. ¶"아, 의병이 따로 있능가. 바로 그 양반이 {똑별난} 의병대장 아니라고."<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해설 표준어 '독별나다'는 한자어 '獨別'에 '나다'가 결합하여 형성되었는데, 전북 방언에서는 된소리화된 '똑별나다' 형태가 나타난다.

똘감 명 "[발음] [똘감/똘깜] " [대응어] 고욤.
고욤나무의 열매. 또는 가꾸거나 심지 않았는데 자연적으로 자라서 감나무에 열린 작은 감. 또는 아주 작은 감. ¶집가상이나 산속에서 구박받고 사는 {똘감}나무도 가을철 된서리를 몇 번 맞고 나면 제법 대접을 받는다 그 맛은 쩍쩍들어 붙는 개엿맛이다. ¶가지가지에 {똘감이} 다닥다닥 달려 있더라. ¶길남이는 눈물을 참아내려고 하늘을 쳐다보았다. 맑은 하늘 귀퉁이로 {똘감}나무 잔가지들이 박혀 있었다. 가지에는 잎이 하나도 붙어 있지 않았다.<조정래, 태백산맥> ¶키를 넘게 우거져 나를 위압한다 어느 {똘감}나무 밑에는 땡감들이 떨어진다<저문산길, , 7> 땡감 떨어지는 소리에<김용택, 누이야 날이 저문다>
지역 정읍, 김제, 군산.

똘똘똘 부 [대응어] 오래오래.
☞돌돌돌.
지역 정읍.

똘방지다 형 [대응어] 총명하다.
건장하면서 영리하고 재주도 있다. ¶그 놈 참 {똘방지네}. ¶어린아그들 {똘망똘망해} 보이면 고놈참 참 볼강허게 생겼다고 칭찬허고 그러제.
지역 전북.

똘배[1] 명 [대응어] 돌배.
돌배나무의 열매. ¶{똘배가} 열리다 ¶푸대접 받던 {똘배도} 요즘엔 건강식품으로 신분상승이 되었어. ¶동생이 {똘배를} 따 가지고 누나에게 먹어보라 했지만 누나는 맛없다며 싫다고 말했다.
지역 전북.

똘배[2] 명
꾀 부리거나 쉽게 무슨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생기는 안 좋은 마음. ¶나는 죽자고 일허는디 저 사람은 일도 안 허고 똑같이 돈 받으면 {똘배} 나제.

지역 전북.

똘뱅하다 형 [대응어] 둥그스름하다.
약간 둥글다. ¶얼굴이 {똘뱅하구만}.
지역 전북.

똘뽕나무 명 [대응어] 돌뽕나무.
지역 전북.

똘잔체 명 [대응어] 돌잔치.
첫돌이 되는 날에 베푸는 잔치. ¶엊그지 {똘잔체에} 갔다 왔어.
지역 전북.

똠박 명 [대응어] 토막.
크게 덩어리가 진 도막. 또는 아주 짤막한 내용이나 물건. 또는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덩어리가 진 도막 또는 말, 글, 시간 따위에서 잘리거나 떼어 낸 한 부분을 세는 단위. ¶생선을 썪어 {똠박을} 낸다. ¶{똠박} 연필로 글을 쓴다. ¶매급시 나헌티 화를 내길래 나도 욕을 한 {똠박} 늘어놓았지.
지역 전북.

똠박허다 형 [발음] [똠바거다/똠바커다] [대응어] 뭉툭하다.
끝이 짧고 굵으면서 짤막하다. ¶발톱을 그렇게 {똠박허게} 짤르면은 보기에 안 이쁘다 이거여. ¶머리를 그렇게 {똠박허게} 짤릉게 훨씬 이쁘다야. 역시 너는 단발머리로 댕겨야혀. ¶국어 선생님의 바지가 {똠박허니} 키가 더 작게 보인다. ¶키는 작고 몸이 좀 뚱뚱하여 {똠박허게} 생겼다.
지역 전북.

똥 묻은 개가 저 묻은 개 나무란다 【속담】
자기는 더 큰 흉이 있으면서 도리어 남의 작은 흉을 본다는 말. ¶{똥 묻은 개가 저(겨) 묻은 개 나무래지}!<채만식, 태평천하>
지역 전북.
해설 표준어 '겨'는 "곡식을 찧어 벗겨 낸 껍질"을 말한다. 이 '겨'는 전북 방언에서는 구개음화가 되어 '저, 져'로 나타난다.

똥 싸놓고 매화타령 하다 【관용표현】
제 허물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비위 좋게 날뛴다는 말. ¶그런데도 눈치가 발바닥 밑같이 깜깜하고 둔한 종술은 여전히 {똥 싸놓고 매화타령이었다}.<윤흥길, 빛가운데로걸어가면>
지역 전북.
해설 사람이 똥을 싸놓고 노래를 한다는 말은 "자기가 잘못을 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날뛴다"는 의미를 갖는다.

똥 싼 주제에 매화타령 하다 【관용표현】
☞똥 싸놓고 매화타령 하다. 싼 주제에 매화타령하다 ¶허허, {똥싼 주제에 매화타령하고} 자빠졌네.<송기숙, 녹두장군>
지역 전북.

똥 친 막대기 【관용표현】
아무짝에도 못 쓰게 된 물건이나 버림받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똥 친 막대기맨치로} 망신당허는 냄편 귀경허기가 으떠셔?<윤흥길, 빛가운데로걸어가면>
지역 전북.
해설 '똥을 친 막대기'는 어디에도 쓸 수가 없다. 그러므로 "못 쓰게 된 물건, 또는 버림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똥 친 작대기 【관용표현】
☞똥 친 막대기. 친 작대기 ¶가래를 내뱉었지만 백종두는 자신이 {똥 친 작대기가} 되었다는 생각을 떼칠 수가 없었다.<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똥가래 명 [발음] [똥까래] [대응어] 다리샅.

넓적다리의 안쪽. ¶{똥가래를} 짝 찢어불까보다.

지역 전북.

똥가래가 찢어지다 【관용표현】

지독히 가난함을 비유하는 말. ¶{똥가래가 찢어지게} 집안이 가난해서 일찌감치 대학을 포기하고 도내 수재들이 모인다는 사범학교로 진학했었지.<윤홍길, 소라단가는길>

지역 전북.

해설 '가랑이'는 "바지 따위에서 다리가 들어가도록 된 부분"을 말한다. 그러나 전북 방언의 '똥가래'는 '똥 가랑이' 즉 '항문'을 말한다. "항문이 찢어지도록 못 먹고 살 정도로 지독히 가난하다"는 의미를 갖는다.

똥가리 명 [대응어] 토막.

크게 덩어리가 진 도막. 또는 아주 짤막한 내용이나 물건. 또는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덩어리가 진 도막 또는 말, 글, 시간 따위에서 잘리거나 떼어 낸 한 부분을 세는 단위. ¶생선을 썪어 {똥가리를} 낸다. ¶연필 {똥가리} ¶매급시 나헌티 화를 내길래 나도 욕을 한 {똥가리} 늘어놓았지.

지역 전북.

똥개새깽이 명 [대응어] 똥개 새끼.

똥개의 어린 새끼. ¶치리부장을 먼저 보내고 나서 종술은 눈앞에 없는 하 목사를 상대로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렸다. "워리워리 허고 불르면은 꼬랑지 살살 흔들고 뛰여오는 {똥개새깽인지} 아는 모냥인디, 앞으로는 어림도 없다! 임 실장 부조 없이는 슨지자 노릇도 헛심 팽겨서 휴거때까장 못 버틸 것이다."<윤홍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똥고란상 명 [대응어] 개다리소반.

상다리 모양이 개의 다리처럼 휜 둥근 소반. ¶{똥고란상에} 음식을 차린다. ¶영희야, 다과를 {똥고란상에} 올려 내오렴.

지역 무주, 임실.

똥골똥골하다 형 [대응어] 동글동글하다.

여럿이 다 둥글다. 또는 매우 동글다. ¶가래떡, 가래떡, {똥골똥골하게} 쓴 이른 업써, 눌러야제.<2005 전북 남원> ¶요로케 내리먼자 {똥골똥골하게} 요로케 잉,<2005 전북 남원> ¶팥죽을 쑬라먼 새알시미를 {똥골똥골하게} 빚어야 보기도 좋고 맛도 있어. ¶하늘에 뜬 보름달이 {똥골똥골하다}.

지역 전북.

똥구녕 명 [대응어] 똥구멍.

'항문'을 속되게 이르는 말. ¶즈그가 우뭉떨어도 즈그 {똥구녕꺼지} 다 딜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써.<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똥구른내 명 [대응어] 구린내.

☞구룬내.

지역 전북.

똥구먹[2] 명 [대응어] 똥구멍.

'항문'을 속되게 이르는 말. ¶호랭이가 들어 오면 앞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똥구먹부텀} 들어온다.<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똥구먹 명 [대응어] 그루터기(벼).

풀, 나무, 곡식 따위를 베어 낸 뒤에 남은 밑동. ¶안 듣고 그러면은 너허고 나허고 내기를 하자. 나는 삼(麻) {똥구먹을} 뽑아서 그 삼쩌가면서,

똥구먹을 뽑아서 쪼개 가지고." 그전에는<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장수.

똥구먹방애 명 [대응어] 엉덩방아.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주저앉아서 엉덩이로 바닥을 쾅 구르는 짓. ¶{똥구먹방애를} 쾅 허고 찧었단 말여.
지역 부안.

똥그람하다 형 [대응어] 동그랗다.
또렷하게 동글다. '동그랗다'보다 센 느낌을 준다. ¶'오빼미'란, 눈이 {똥그람하고} 손이 굼뜬, 수천양반 기표네 가내 노비로, 늘 목이 쉬어 있어 말을 할 때면 그억그억 소리가 걸려 나왔다.<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똥그람히 부
똥그랗게.
지역 전북.

똥그랍다 형 [대응어] 똥그랗다.
아주 둥글다. ¶고 가시나는 나이도 어린 년이 아주 내가 한 마디 할 때마담 눈을 {똥그랍게} 뜨고 치다보드라고?
지역 전북.

똥그럽다 형 [대응어] 동그랗다.
☞똥그랍다.
지역 전북.

똥글배기 명 [대응어] 동그라미.
동그랗게 생긴 모양. ¶{똥글배기를} 그려 봐. ¶니 시험지는 왜 {똥글배기보다} 짝대기가 더 많다냐. ¶울 할머니는 동그라미를 {똥글배기라} 부르셨다. ¶너, {똥글배기} 몇 개 맞었냐? 나는 아홉 개 맞었다.
지역 전북.

똥꾼내 명 [대응어] 구린내.
☞꾼내. ¶아이고 냄새야. {똥꾼내가} 난다. 누가 똥쌌냐?
지역 전북.

똥냥아치 명 [대응어] 동냥아치.
동냥하러 다니는 사람. ¶{똥냥아치가} 돼 갖고 아조 불쌍히 됐어. ¶{똥냥아치들이} 떼를 지어 초상집 앞에 우르르 서서 구걸한다. ¶옛날 없이 살 때는 식량이 없어 밥 좀 얻어먹기 위해 {똥냥아치가} 많이 있었단다.
지역 전북.

똥독 명 [발음] [똥똑] [대응어] 변소.
대소변을 보도록 만들어 놓은 곳. ¶{똥똑에다} 싸야지. ¶{똥똑에} 가서 똥을 누워라.
지역 무주.

똥돗간 명 [대응어] 뒷간.
'변소(便所)'를 완곡하게 이르는 말. ¶옛날에는 {똥돗간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었어.
지역 전북.

똥둑간 명 [대응어] 뒷간.
☞똥돗간.
지역 전북.

똥때뼈 명 [대응어] 엉치등뼈.
척추의 아래 끝 부분에 있는 이등변 삼각형의 뼈. 외측면의 우묵한 곳에서 대퇴골과 연결된다. ¶파싹 자빠져서 {똥때뼈가} 금이 가버렸어.
지역 전북.

똥버럭지 명 [대응어] 구더기.

파리의 알에서 깨어 나와 똥 위에서 기어다니는 애벌레.
지역 전북.
지역 전북.

똥벌거지 명 [대응어] 구더기.
파리의 알에서 깨어 나와 똥 위에서 기어다니는 애벌레. ¶촌에 지금도 재래식 변소에 가면 {똥벌거지} 많아요, 파리가 안 죽고 살고 있는디.
지역 전북.

똥새 명 [대응어] 뒷간.
'변소(便所)'를 완곡하게 이르는 말. ¶오막살이는 무슨 사람 발 뻗고 눕지도 못하게 막들 지어서 살아 놓으니 모두 변소간이 그 옆에 있어 놔서 {똥새}, 파리가 막 오고. 봉개동뿐 아니고 어느 마을이든지 재건하는 덴 다 그렇게 했어.<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4>
지역 전북.

똥소매 명 [대응어] 똥오줌.
똥과 오줌을 아울러 이르는 말. ¶근게 다 그놈을 또 히서는 행기 준게는, "저그 저 {똥소매} 내는 나매(남자)보고 가서 물어 봐라." 그서는 간게는 나매가 인자 보리밭에다가 소매를 내드래아.<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정신을 놓은 우리 팔순 시에미. {똥소매} 받어낸지가 인자 삼년 되었소. ¶착한 며느리는 치매 걸린 시어머니가 싼 {똥소매를} 받아내며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다.
지역 정읍.

똥아리 명 [대응어] 또아리.
☞또가리. ¶근디 막내가 가끔 가보면 부엌 굴뚝 그넝 밑이서나 {똥아리} 이렇게 틀고 있어.<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군산, 고창.

똥줄이 타다 【관용표현】
몹시 힘이 들거나 마음을 졸이다. ¶좌우당간 이승만이야 {똥줄이 타든} 붕알에서 요령 소리가 쉴 날이 읎든 간에 우런 살판났응께로 지화자 얼씨구나다!<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해설 표준어 '똥줄'은 "배알, 특히 큰창자 부분을 낮잡는 말"이다. 이 창자가 탈 정도로 "마음을 졸인다"는 뜻이다. '애가 타다'와 유사한 의미이다.

똥차 명 [대응어] 손수레.
바퀴가 한 개 달린 손수레. 양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앞으로 밀어서 이동한다. 주로 시골에서 밭으로 이동할 때 농기구를 실어 나르거나 거름을 낼 때 이용한다. 짐을 운반할 때도 사용한다. 짐칸을 뒤로 한 채 앞으로 끄는 손수레보다 크기가 작다. 보통의 손수레가 짐칸이 네모반듯한 데 비해 이것은 밑바닥이 좁고 위로 올라올수록 폭이 더 넓다. ¶시금치 뽑아서 {똥차다} 싣고 왔은게 내려서 따듬어.
지역 전북.

똥칙간 명 [대응어] 측간.
사람의 대소변을 배설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 ¶한참 자구 있는디 배가 슬슬 아퍼. 근디 인제 오밤중인개로 {똥칙간을} 갈랑개 무섭잖여. 근개로 옆에 자고 있는 신랑을 깨와가지구 같이 가자구 그렸지.
지역 전북.

똥통 명 [대응어] 똥장군.
똥을 담아 나르는 오지나 나무로 된 그릇. ¶그때서야 빈대코 김봉구는 {똥통에서} 기어나오느라고 낑낑대고 있었다.<조정래, 아리랑> ¶똥통에 빠지더라도 십 년이나 곰삭은 {똥통에} 빠지고,

물에 빠지더라도 시궁창처럼 썩어 물고기도 안 사는 강물에 풍덩 빠져서 흔적도 없어지거라. <최일남, 춘자의 사계>
지역 전북.

뙤갱이밧 명 [대응어] 뙈기밭.
얼마 되지 아니하는 조그마한 밭. ¶{뙤갱이밭이라도} 일궈서 먹고 살아야제.
지역 전북.

뙤기치다 동 [대응어] 후려치다.
주먹이나 채찍 따위를 휘둘러 세게 갈기다. ¶내 고년의 낯짝을 한번 {뙤기쳤어야} 하는데.
지역 전북.

뙤꼬마리 명 [대응어] 도깨비바늘. ¶{뙤꼬마리가} 자라다
지역 김제.

뙤똥허다 형 [대응어] 별나다.
보통과는 다르게 특별하거나 이상하다. ¶그 인자 거그다 거 관이다. 인자 송장을 넣고는 생이를 띠미고 가. 간디 하루종일 가다가는 해변가이다 되았든가 어쨌든가 바우가 이러코 {뙤똥헌} 디가 있는디 거그다 봉토를 허고 묏을 써라 그것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오날 밥중이여. 자정예배가 끝난 연후에 한 시간쯤 지달렸다가 아이구찌를 춤고 살째기 본부로 나오란 말여." "본부로 나가지만 허면은 무신 {뙤똥헌} 수라도 생기냐?" " 좋은 말로 허서 안 들을 적에는 우리가 매운 맛을 뵈아줘야써. 현장을 엎치는 거여?" "현장이라니?"<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오날 밤 안으로 꼭 기별 보내지 않으면 안 될 지경으로 {뙤똥허니} 중요헌 사연 아니걸랑 고만 끊자. " {뙤똥헌} 정도가 아니라 백두산맨치나 우뚝 솟을 정도로 우리 식구들한티 중요헌 소식이란 말이요.<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저 {뙤똥헌} 놈 봐라, 또 사고치고 있구나. ¶아무리 찾어봐도 없더니만 사람들 틈에 {뙤똥허니} 튀어나온 사내가 바로 그 놈이었어.
지역 정읍.

뙤뙤 명 [대응어] 방아깨비. ¶{뙤뙤를} 잡다
지역 전북.

뙤밧 명 [대응어] 뙈기밭.
☞떼밧. ¶아 옛놈이 {뙤밭에} 가서 일하듬서 늙은 놈이 {뙤밭을} 일하듬서, "아이고 이렇게 {뙤밭} 쳐서 누구허고 먹고 살끄나?" 그런게로, "나허고 먹고 살제 누구허고 먹고 살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아 옛놈이 {뙤밭에} 가서 일하듬서 늙은 놈이 {뙤밭을} 일하듬서, "아이고 이렇게 {뙤밭} 쳐서 누구허고 먹고 살끄나?" 그런게로, "나허고 먹고 살제 누구허고 먹고 살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뙤약허다 형 [발음] [뙤야거다/뙤야커다] [대응어] 따갑다.
살갗이 따끔거릴 만큼 볕이 몹시 뜨겁다. ¶{뙤약헌} 볕이서 있응게 타죽을거 같도만 금새 먹구름이 찌더니 비가 막 온게 살것도만.
지역 전북.

뙤얏뙤얏허다 형 [발음] [뙤얀뙤야더다/뙤얀뙤야터다] [대응어] 따끔따끔하다.
따가울 정도로 몹시 덥다. 또는 자극을 받아 잇따라 따가운 느낌이 있다. ¶햇볕이 {뙤얏뙤얏허구만}.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마음이 {뙤얏뙤얏허다}. ¶살갗이 벗겨져 {뙤얏뙤얏허다}.
지역 전북.

뙤전 명 [대응어] 뙈기밭.

☞떼전. ¶그리고 이 사람은 거그서 그 {뙤전의} 밭을 벌어 먹고 그때까지 그러고 있는 거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정읍.

뙷장 명 [대응어] 세수.
☞뗏장.
지역 정읍.

뚜경 명 [대응어] 뚜껑.
☞두껑.
지역 전북.

뚜깨 명 [대응어] 뚜껑.
그릇이나 상자 따위의 아가리를 덮는 물건. ¶밥 {뚜깨} 있잖여. 그걸로 덮어놔. 식지 말라고.
지역 전북.

뚜깽 명 [대응어] 뚜껑.
그릇이나 상자 따위의 아가리를 덮는 물건.
지역 전북.

뚜껍다 형 [대응어] 두껍다.
두께가 보통의 정도보다 크다. ¶밴 몸이라고 상길이 나배가 얼매나 맴얼 쓰든지 솜기저구럴 곱절은 {뚜껍게} 히서 차니라고 참말로 답답허고 몰뚝잖해서 혼이 났구만그려.<조정래, 아리랑> ¶헌 말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어찌 또 난리판굿이여. 뻔뻔허니 낯 {뚜껍기가} 곰발바닥이랑게.<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뚜께리 명 [대응어] 뚜껑.
그릇, 상자 같은 것의 아가리를 덮는 물건. ¶{뚜께리를} 꼭 덮어야 한다.
지역 전북.

뚜꼉 명 [대응어] 뚜껑.
☞두껑.
지역 남원, 장수.

뚜꾸람 명 [대응어] 미끄럼.
눈이 쌓인 곳이나 얼음 언 곳에서 미끄러지며 노는 일. ¶시안내 저 깔끄막 올라가서 {뚜꾸람} 타고 노는 일이 일여.
지역 전북.

뚜끙 명 [대응어] 뚜껑.
그릇이나 상자 따위의 아가리를 덮는 물건.
지역 전북.

뚜끼비 명 [대응어] 두꺼비.
지역 전북.

뚜대기다 동 [대응어] 두들기다.
소리가 나도록 잇따라 치거나 때리다. ¶옛날에는 장개를 가면 동상례를 내라고 발바닥을 방맹이로 막 {뚜대겨}.
지역 전북.

뚜댈기다 동 [대응어] 두들기다.
소리가 나도록 잇따라 치거나 때리다.
지역 전북.

뚜덕뚜덕 부 [대응어] 누덕누덕.
해지고 찢어진 곳을 여기저기 너저분하게 깁거나 덧붙인 모양. ¶{뚜덕뚜덕} 꼬맸다.
지역 남원.

뚜데허다 형 [대응어] 뾰로통하다
못마땅하여 얼굴에 성난 빛이 나타나 있다. ¶아무리 언니가 같이 안 놀아주기로서니 아까부텀 이러고 {뚜데허고} 앉아 있나.
지역 전북.

뚜두럭 명 [대응어] 두드러기.
약이나 음식을 잘못 먹거나 또는 환경의 변화로 인해 생기는 피부병의 하나. 피부가 붉게 부르트며 몹시 가렵다.
지역 고창.

뚜두레기 명 [대응어] 두드러기.
약이나 음식을 잘못 먹거나 또는 환경의 변화로 인해 생기는 피부병의 하나. 피부가 붉게 부르트며 몹시 가렵다. ¶몸에 {뚜두레기가} 나니까 밖에 나갈 수가 없네.
지역 전북.

뚜두리다 동 [대응어] 두드리다(문을).
소리가 나도록 잇따라 치거나 때리다. ¶아 그런개 즈그 압지(아버지)가 그냥 뜰방에 올라 앉아서 담뱃대로 똑똑 {뚜두리면서}, "아 야야, 그만 일어 나거라! 나오이라(나오너라).<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그러고 인자 돈 삼천 냥을 떡 짊어지고 거글 찾아 갔어. 가 들어 가서 문을 '통통' {뚜두린게} 누구냐고 들오라고 그러드리야.<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까끔에가 불이 붙은 개, 물을 몸에다가, 그 밑에 가면 물이 있어, 물을 그 냇물에다가 물을 적셔 가지고 와서 땅을 {뚜두리고} 뚜드리고 진해가 지고. 사람이 술이 취해 갖고 깨가지고 보닝개는, 사람이 깨나서 본개는 개가 죽어버렀더래.<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고창, 김제, 남원, 순창, 익산, 임실, 장수, 무주, 부안, 정읍, 진안.

뚜두지 명 [대응어] 두더지.
지역 전북.

뚜드륵 명 [대응어] 두드러기.
약이나 음식을 잘못 먹거나 또는 환경의 변화로 인해 생기는 피부병의 하나. 피부가 붉게 부르트며 몹시 가렵다.
지역 전북.

뚜드리다 동 [대응어] 두드리다.
소리가 나도록 잇달아 치거나 때리다. ¶그렇게 하면 적손한테 {뚜드려} 맞아.<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그런게 그 조를 짜가지고서 다듬이 {뚜드리는} 거 갖다놓고 방맹이로 뚜드려서 거 판판하게 맨드는 것여.<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튼튼한 돌다리도 {뚜드려} 보고 건너야한다.
지역 전북.

뚜들기다 동 [대응어] 두들기다.
소리가 나도록 잇따라 치거나 때리다. ¶정작 당해뿔먼 워쩔 것이여. 홧김에 사람 멫 방 치고, 집구석 {뚜들겨} 뿌식어 봤자 남는 것은 철창신세 아니겄어?<조정래, 태백산맥> ¶사람 죽일 일이거든. 이 뭐 심문을 허고 뭣을 받는 것이 아니라 {뚜들기만} 혀 무조건.<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전북.

뚜들다 동 [대응어] 두들기다.
소리가 나도록 잇따라 치거나 때리다. ¶종이라면 직사허게 매타작이나 당헐 거이고, 중로 상놈 같으면 괘씸허다고 트재기잡어서 {뚜들고} 소작도 뺏어 부릴 거인디.<최명희, 혼불> ¶아, 여 뭣이냐 엎어쳐 뻗드려 놓고서 그냥 직사허게 {뚜들고는} 떡허니 가뒀어.<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전북.

뚜디리다 동 [대응어] 두드리다.
☞뚜드리다. ¶그러자마자 와서 인자 대문을 {뚜디려} 와서. 그 인제 홀애비가 와서 대문을 {뚜

디려}.<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애덜을 {뚜디리는} 것만이 갈치는 것이 아녀, 아 좋은 말 어디다 두었가니.

지역 군산, 완주.

뚜딜기다 동 [대응어] 두들기다.

소리가 나도록 잇따라 치거나 때리다. ¶"자네덜, 자다가 봉창 {뚜딜기는} 소리덜 그만혀. 즈그 땅에 즈그덜 식구 디려다 살리겄다는 것인디 무신 실답잖은 말덜이 그리많혀."<조정래, 아리랑> ¶나가 요래뵈야도 성령을 받은 뫔인디 옛날맨치로 저따우 인간한티 질래 {뚜딜겨} 맞고 지낼 성불르요?<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뚜딜다 동 [대응어] 두드리다(문을).

소리가 나도록 잇따라 치거나 때리다. ¶"근디, 자네 논이 마지기나 남었능가?" "아니 무신 자다가 봉창 {뚜딜기넌} 소리여?<조정래, 아리랑> ¶어깨 좀 {뚜딜어} 봐라.

지역 전북.

뚜떼허다 형 [대응어] 뾰로통하다.

못마땅하여 얼굴에 성난 빛이 나타나 있다. ¶지도 별로 맘에 안 들었는가 {뚜떼허니} 입만 삐죽이고 있더라고.

지역 전북.

뚜룽 명 [대응어] 댓돌.

집채의 낙숫물이 떨어지는 안쪽으로 마당보다 높게 돌려 가며 놓은 돌. ¶{뚜룽} 딛꼬 올라가<2009 전북 임실> ¶{뚜룽} 맨드란따고 헌디<2009 전북 임실> ¶집 집씨랑 미테, 치알 미테서, 유산, 실랑언 유산 바치주고, 나는 {뚜룽에서} 절허고, 고러케 헤가꼬 행리럴 지낸써.(집 처마 밑에서, 차일 밑에서, 우산, 신랑은 우산 받쳐주고, 나는 댓돌에서 절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행례를 지냈어)<2005 전북 남원>

지역 완주, 임실, 남원.

뚜물 명 [대응어] 뜨물.

곡식을 씻어 내 부옇게 된 물. ¶쌀 씻을 때 {뚜물을} 너무 씻처내 버려도 밥이 맛이 없어.

지역 전북.

뚜부 (←豆腐) 명 [대응어] 두부.

콩으로 만든 식품의 하나. 물에 불린 콩을 갈아서 짜낸 콩 물을 끓인 다음 간수를 넣어 엉기게 하여 만든다. ¶"어이, 삼봉이, 장수 아재 존 이약도 들었고 헌께 {뚜부에} 막걸리내기 화투나 한판 놀세."<조정래, 태백산맥> ¶{뚜부} 지지고 머 생선가튼 거 지저노코 굴비는 꿔노코,<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지역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임실, 장수, 정읍, 고창.

뚜아미 명 [대응어] 똬리.

짐을 머리에 일 때 머리에 받치는 고리 모양의 물건. 또는 둥글게 빙빙 틀어 놓은 것. ¶무건 것을 머리에 일라면 {뚜아미가} 있어야 허.

지역 전북.

뚝다리 명 [대응어] 불량품.

질이 좋지 않아 쓰지 못할 것. ¶삼을 떠다 중께 이것은 {뚝따리}, 저것도 {뚝따리} 못 쓰겠다고 울 너머로 내버렸어.<구비문학대계 정읍군> ¶큰마누래는 장롱을 열고 옷을 하나하나 내놈서 이것은 자네가 {뚝따리라고} 내버린 것으로 맹근 옷이라 못 쓰겄고 험서 옷 자랑만 허고 도로 장롱에 다 너놨어.<구비문학대계 정읍군>

지역 정읍.

뚝살 명 [대응어] 굳은살.

잦은 마찰로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생긴 두껍고

단단한 살이나 곪으려고 딴딴하게 된 살. ¶어찌케 걸어댕겼는가 발바닥에 {뚝살이} 베겨 버렸고만.
지역 무주.

뚝성질 명 [대응어] 불뚝성.
갑자기 욱하고 성을 내는 마음. ¶허제만 유섬이, 고것 성질도 베로 조체도 않은 {뚝성질인디}, 고걸 혼자 지내게 놔두었으니.<조봉래, 풀벨골> ¶{뚝성질이} 있으니 성질을 죽이세요. ¶주위사람들과 충돌이 자주 생기고 {뚝성질} 욱하는 성질 때문에 많은 손해와 실패가 따르니 맘을 다스리고 지내라.
지역 전북.

뜬물 명 [대응어] 뜨물.
☞뚬물.
지역 임실.

뜬발지다 형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 행동을 민첩하다. ¶그집 아그들은 다 뜬발진디 가가 더 그려. 버스 안에서도 동네 사람들 심바람을 {뜬발지게} 잘허드랑께.
지역 전북.

뚤럼하다 형 [대응어] 어리둥절하다.
무슨 영문인지 잘 몰라서 얼떨떨하다. ¶조망태는 {뚤럼한} 눈으로 서원과 양찬오를 번갈아 보며 시르죽은 소리로 뇌었다.<송기숙, 녹두장군>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뚤럼하다'는 의태어 부사 '뚤럼'에 형용사 파생 접미사 '-하다'가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뚤레뚤레 부 [대응어] 둘레둘레.
사방을 이리저리 살피는 모양. ¶가만히 두면은 주인이 불에 타 죽어 버려 주인이. 그런데 그 개가 따라 당겨. 그 개란 놈이 {뚤레뚤레} 보아.<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전북.

뚤레뚤레 부 [대응어] 둘레둘레.
사방을 이리저리 살피는 모양. ¶가만히 두면은 주인이 불에 타 죽어 버려 주인이. 그런데 그 개가 따라 당겨. 그 개란 놈이 {뚤레뚤레} 보아. 그런개 개가 허고서. 자기가 살고서 보니 이랬다는 말이지.<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그때 두어냥씩 갖고 인자 가는디, 아 어디를 가다 보니깨 한 오후 때가 됐는디. 아, 술 생각도 나고 하이깨 상쟁이가 앞서서 {뚤레뚤레} 하더니, "아, 저 집에 가면 오늘 술이 생기겄다."<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얻어들은 지식으로도 멀거니 서 있거나 사방을 {뚤레뚤레} 훑다가는 영락없는 촌놈으로 치부되어 괜한 곤욕을 치르기 알맞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려니와 <최일남, 서울의 초상>
지역 남원, 부안.

뚤방 명 [대응어] 뜰.
집 안의 앞뒤나 좌우로 가까이 딸려 있는 빈터. 화초나 나무를 가꾸기도 하고, 푸성귀 따위를 심기도 한다. ¶마룽 인는 사람 마룽, 마룽 엄는 사라믄 {뚤방으다} 벽짜그다 인제 맨드라간꼬<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그래서 싹 씰어내고 대체 {뚤방} 밑을 판개로 금덩이가 이렇게[앞치마를 벌리는 동작을 하며], 그런개 그놈 가지고 또 부자가 됐지.<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장수, 남원, 완주.

뚤부다 동 [대응어] 뚫다.
어떤 대상의 일정한 면적을 파서 구멍을 내다. ¶"당장에 갑시다, 하늘에 빵구 {뚤부러}.<조정래, 태백산맥> ¶하늘에 구녕 {뚤불} 만헌 수는

수시.<조정래, 태백산맥> ¶구멍 뭉꾸녀글 {뜰부테지},<0년 중국 무주촌 보고서-최종>
지역 무주.

뜰팡 명 [대응어] 뜰.
집 안의 앞뒤나 좌우로 가까이 딸려 있는 빈터. 화초나 나무를 가꾸기도 하고, 푸성귀 따위를 심기도 한다. ¶어렸을 때는 {뜰팡에서} 언니랑 소꿉놀이도 많이 허고 그랬어.
지역 전북.

뚧어지다 동 [대응어] 뚫리다.
구멍 따위가 파이거나 생기다. ¶그래 그 중국 의 사들이 하늘을 바라다 보닝게, 구름이 뺑 돌아가며 끼구, 천자의 병마냥 그렇게 구녁 구름 가운데가 빵 {뚧어져} 있더란 거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장수, 무주, 완주.

뚫부다 동 [대응어] 뚫다.
구멍을 내다. 또는 장애물을 헤치다. ¶당장에 갑시다, 하늘에 빵구 뚫부러.<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동사 '뚫부다'는 표준어 '뚫다'에 대응한다. 기본형으로 '뚧다'를 설정하고, 여기서 어간이 재구조화되어 '뚤부다'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뜸물 명 [대응어] 뜨물.
곡식을 씻어 내 부옇게 된 물. ¶눌은밥 끓일 때 {뜸물을} 넣고 끓이면 더 구수허지.
지역 전북.

뜸믈 명 [대응어] 뜨물.
☞뜸물.
지역 전북.

뜸박 명 [대응어] 두레박.
줄을 길게 달아 우물물을 퍼 올리는 데 쓰는 도구. 바가지나 판자 또는 양철 따위로 만든다.
지역 전북.

뜸버기 명 [대응어] 뜸부기. ¶자네는 {뜸버기가} 우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가?
지역 전북.

뜸벅새 명 [대응어] 뜸부기. ¶그냥 뜸벅뜸벅 운다고 {뜸벅새라고} 그랬지.
지역 전북.

뜸벙 명 [대응어] 웅덩이.
☞둠벙.
지역 전북.

뜸베기 명 [대응어] 뜸부기.
☞뜸베기.
지역 진안.

뜸뵈기 명 [대응어] 뜸부기. ¶[뜸뵈기가], 여그다가 알을 낳았는가 부네.
지역 전북.

뜸부기 명 [대응어] 뜸부기. ¶우리 어렸을 적에는 {뜸부기가} 많이 있었는디 요새는 한 마리도 안 뵈야.
지역 전북.

뜹다 동 [활용형] 뜹어 [대응어] 뚫다.
☞뚤부다. ¶둥근 낭구도 뚫는디 우리집이 서방님은 뚫어진 구먹도 못 {뜹네}.<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남원.

뚱굴다 형 [대응어] 둥글다.

원이나 공과 모양이 같거나 비슷하다. ¶얼굴이 {뚱굴게} 생겼다. ¶하늘의 보름달이 {뚱글게} 생겼다.
지역 전북.

뚱굴빵굴허다 형 [대응어] 동글동글하다.
여럿이 다 동글다. 또는 매우 동글다. ¶얼굴이 {뚱굴빵굴히야} 혀.
지역 전북.

뚱굴패 명 [대응어] 굴렁쇠.
☞동글태.
지역 전북.

뚱그러다 형 [대응어] 둥그렇다.
뚜렷하게 둥글다. ¶보니까 {뚱그런} 기계가 섰더라구.<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0>
지역 전북.

뚱그럽다 형 [활용형] 뚱그럽고, 뚱그러우니 [대응어] 뚱그렇다.
아주 뚜렷하게 둥글다. ¶한가우라고 인제 달을 구경허자 허고 나왔는데, 시상에 보름달이 얼매나 {뚱그럽고} 이쁘든가 몰러. ¶방패연을 맨들 때는 가운데 방 구녁을 {뚱그럽게} 잘 뚤버야 제대로 날르는 거여. ¶보람이는 무엇에 놀랐는지 눈이 {뚱그럽게} 되어 말뚱말뚱하고 있다.
지역 전북.

뚱그레미 명 [대응어] 둥그러미.
둥그렇게 생긴 모양. 둥그렇게 생긴 물체. ¶{뚱그레미를} 그리다. ¶그 빨간 {뚱그레미는} 하늘의 해인가 보다.
지역 전북.

뚱글패 명 [대응어] 굴렁쇠.
☞동글태.
지역 전북.

뚱띵이 명 [대응어] 뚱뚱이.
살이 쪄서 뚱뚱한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그런다고 사람을 {뚱띵이라고} 놀리면 쓰나.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뚱띵이 명 [대응어] 뚱뚱이.
살이 쪄서 뚱뚱한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우리 성님이 {뚱띵이라서} 더위를 많이 타요.
지역 무주, 장수.

뚱실뚱실허다 형 [대응어] 뚱뚱하다.
살이 쪄서 몸이 옆으로 퍼진 듯하다. ¶그렁개 딸래미가 사우랍시고 웬 놈을 하나 데려왔는디 하이고야 얼매나 {뚱실뚱실허든가} 기양 내가 숨이 턱 맥히는 거여.
지역 전북.

뚱치 명 [대응어] 둥치.
큰 나무의 밑동.
지역 임실.

뛰꼉 명 [대응어] 뚜껑.
☞두껑.
지역 무주, 임실.

뛰꼭지 명 [대응어] 뒤통수.
머리의 뒷부분. ¶그렇게 노려보면 저 사람 {뛰꼭지가} 따갑겄네.
지역 전북.

뛰꿈치 명 [대응어] 뒤꿈치.
☞뒤꼼치.
지역 전북.

뛰나다 형 [대응어] 뛰어나다.

남보다 매우 훌륭하다. ¶그니께 너무 {뛰나게} 잘나도 삐끗허면 탈나는 거여.<조봉래, 풀벨골> ¶고 머리통이 {뛰나다고} 칭찬이 자자혔던 놈이 시방 읍내 장터서 야채장사허는 걸 몰라서 그딴 소리여?<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뛰메다 동 [대응어] 떠메다.

무거운 짐 따위를 쳐들어서 어깨에 걸치거나 올려놓다. ¶이 나이에 짐을 {뛰메고} 뛰기는 어려워.

지역 전북.

뛰엄박질하다 동 [대응어] 뜀박질하다.

뜀을 뛰다. 또는 급히 뛰어 달려가다. ¶아이가 {뛰엄박질하다} ¶다급히 {뛰엄박질해서} 가는디 {뛰엄박질하는} 모냥이 참 우수어.

지역 전북.

뛰지 명 [대응어] 굽도리.

☞띠지.

지역 부안.

뜨광하다 형 [대응어] 뜨악하다.

마음이 선뜻 내키지 않아 꺼림칙하고 싫다. 또는 마음이나 분위기가 맞지 않아 서먹하다. ¶성님, 나가 지끔 동냥질허는 것도 아닌디 워째 사람을 요로크름 {뜨광하고} 찬바람 나게 대헌다요?” <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뜨광하다’는 의태어 부사 ‘뜨광’에 형용사 파생 접미사 ‘-하다’가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뜨광허다 형 [대응어] 뜨악하다.

마음이 선뜻 내키지 않아 꺼림칙하고 싫다. 또는 마음이나 분위기가 맞지 않아 서먹하다. ¶“믿제라. 아니, 어쩌다가 맘이 {뜨광허니} 묵어져도 고런 맘 팍팍 처내 뿔고 믿을라고 애써야제라.”<조정래, 태백산맥> ¶“아니 성님, 나가 지끔 동냥질허는 것도 아닌디 워째 사람을 요로크름 {뜨광허고} 찬바람 나게 대헌다요?”<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뜨근밥 명 [대응어] 더운밥.

갓 지어 따뜻한 밥.

지역 고창.

뜨다 동

꿀을 채취하다. ¶5월에는 순전히 설탕 안 멕이고 꿀 {뜨고}.

지역 전북.

뜨뜻허다 형 [발음] [뜨뜨더다/뜨뜨터다] [대응어] 뜨뜻하다.

뜨겁지 않을 정도로 온도가 알맞게 높다. ¶여름이라 {뜨뜻허지}, 합바지는 짝 찢어졌지.<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가서 {뜨뜻헌} 물이나 떠와!<이병철, 모래내 모래톱>

지역 전북.

뜨렁 명 [대응어] 뜰.

집 안의 앞뒤나 좌우로 가까이 딸려 있는 빈터. 화초나 나무를 가꾸기도 하고, 푸성귀 따위를 심기도 한다. ¶{뜨렁에} 올라왔꼬 독 하나 놔가꼬 그냥 거그서 그냥 독 디디고 방으로 드러간 사람 인썬써요.<지역어 자료 총서, 무주> ¶도리까지 하먼 {뜨렁에} 다 비가 오고, 배까트로 인제 방으 비가 깔처서 안 되자나요.<지역어 자료 총서, 무주>

지역 전북.

뜨물 명 [대응어] 진딧물. ¶꽃이고 잎사구고 헐 거 없이 {뜨물이} 버글버글혀. ¶고추에 {뜨물이} 있어 약을 뿌려야겠다.
지역 고창, 부안, 진안.

뜨믈 명 [대응어] 뜨물.
☞뚜물.
지역 전북.

뜨부 명 [대응어] 두부.
☞뚜부.
지역 고창.

뜨시다 형 [대응어] 뜨듯하다.
뜨겁지 않을 정도로 온도가 알맞게 높다. ¶"이리 와아. 여기는 {뜨시다}." 강모는 아랫목으로 내려가 기응의 곁에 앉는다.<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뜨시다'는 표준어 '뜨듯하다'의 의미를 갖는다. 표준어 '뜨듯하다'는 '뜨뜻하다' 보다는 조금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단어이다.

뜨시하다 형 [대응어] 뜨듯하다.
뜨겁지 않을 정도로 온도가 알맞게 높다. ¶어머님이 끓여 주던 {뜨시한} 숭늉, 은근하고 구수하던 그 숭늉 냄새, 시월이라 상달되니 더 안 잊히네.<서정주, 시월이라 상달되니>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뜨시하다'는 표준어 '뜨듯하다' 의 의미를 갖는다. 표준어 '뜨듯하다'는 '뜨뜻하다'보다는 조금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단어이다. 따라서 뜨뜻함의 강도가 작은 것을 말한다. 이 어휘는 '뜨시다'에 형용사 파생 접미사 '-하다'가 연결된 것이다.

뜨신밥 명 [대응어] 더운밥.
갓 지어 따뜻한 밥. ¶지 급헌디 {뜨신밥} 새로 허겄능가.<조정래, 태백산맥> ¶아이고 기생년 팔자에 {뜨신밥} 찬밥 개릴 수 있드냐.<조정래, 아리랑> ¶{뜨신밥을} 해 먹어야 살로 가지.
지역 무주.

뜨십다 형 [활용형] 뜨십고, 뜨시우니 [대응어] 뜨듯하다.
도톰한 물건이나 자리 따위가 보드랍고 따뜻하다. ¶난로가 참 {뜨십네}.
지역 무주.

뜨자구뜯다 동 [대응어] 트집하다.
공연히 조그만 흠을 들추어내어 불평을 하거나 말썽을 부리다. ¶그거는 공연시리 {뜨자구뜯니라고} 허는 소리지.
지역 전북.

뜬금읎다 형 [대응어] 뜬금없다.
갑작스럽고도 엉뚱하다. ¶아니 이놈의 할배가 {뜬금읎게} 사랑타령이래? 오메 주책이여.
지역 전북.

뜬금읎이 부 [대응어] 뜬금없이.
상황에 맞지 않고 갑작스럽고 엉뚱하게. ¶{뜬금읎이} 뭔 소리랴? ¶한 많은 세상 영원히 하직하려는 절박한 마당에 {뜬금읎이} 마 선생이 생각나는 건 또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엊저녁에 꿈에 선몽을 한 두 서너번을 그러코롬 허자 생전 숯장사가 즈그 집이를 대니도 안허자 {뜬금없이} 이 숯장사가 식량 구허라 왔다고 아측으(아침에) 왔단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사람 참 {뜬금없이} 이빨 드러내긴.<조봉래, 풀벨골> ¶{뜬금없이} 뭔 소리랴?<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자다가 봉창 뜯는다드니만, 이 판국에 {뜬금없이} 뭔 사랑타령이라냐?<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뜬금없이} 왜 슨지자님을 부뤄헌다요?<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뜬뜬하다 형 [대응어] 단단하다.
간수를 많이 쳐 두부가 연하거나 무르지 않다. ¶(두부가) 약 많이 허먼 {뜬뜬해요}.
지역 전북.

뜬물 명 [대응어] 뜨물.
곡식을 씻어 내 부옇게 된 물. ¶얌마, 니 인생 아니라고 함부로 물 타서 틉틉헌 탁배가 같은 남에 인생 괘얀시 멀건 {뜬물} 맨들지 말아라. <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고창.

뜯어넌죽 명 [대응어] 수제비.
밀가루를 반죽하여 반죽을 손으로 적당한 크기로 떼어 끓는 물에 넣어 익히고 간장으로 간을 한 음식. ¶밀가리 있으면 {뜨더넌죽} 히 먹자.
지역 전북.

뜰광 명 [대응어] 뜰.
집 안의 앞뒤나 좌우로 가까이 딸려 있는 빈터. 화초나 나무를 가꾸기도 하고, 푸성귀 따위를 심기도 한다. ¶아, 꿇고 앉아서, 꿇고 엎디서 {뜰광} 밑이 거그. "니가 주인이냐?" "예, 과연 그렇습니다."<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뜰다 형 [대응어] 떫다.
☞뜳다.
지역 김제, 부안, 익산, 정읍.

뜰키다 동 [대응어] 놓치다.
잡거나 타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지 못하다. ¶요것이 분명 여시는 분명 여시로구나. 내가 어저끄 잡을라다가 {뜰킨놈으} 여시가 분명 각시가 되야갖고 이지랄 허고 사는구나.<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뜰통시 명 [대응어] 바깥 변소.
집 울타리 밖에 있는 변소. 집 밖에 대소변을 보도록 만들어 놓은 곳. ¶뒤가 마려서 {뜰통시를} 물어가지고 뒤를 본개.
지역 임실.

뜳다 형 [대응어] 떫다.
설익은 감의 맛처럼 거세고 텁텁한 맛이 있다. 또는 하는 말이나 행동이 덜되고 못마땅하다. ¶아무리 {뜳어도} 먹을거여. ¶시거들랑 {뜳으지나} 말고 얽빼기거들랑 껌지나 만단 말이지<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왜요, 내가 이장됐당게 {뜳으요}?
지역 고창, 무주, 군산, 완주, 익산, 김제, 부안, 정읍.

뜳어지다 동 [대응어] 뚫리다.
☞뜳어지다.
지역 무주.

뜸베기 명 [대응어] 뜸부기. ¶요즘에는[뜸베기가], 잘 안 보여요.
지역 김제, 무주, 부안, 완주, 정읍, 진안.

뜸벵이 명 [대응어] 뜸부기. ¶그런 때는 {뜸벵이가} 우는 소리가 구슬프게 들리더만.
지역 전북.

뜸뵈기 명 [대응어] 뜸부기.
☞뚬뵈기.
지역 전북.

뜸북새 명 [대응어] 뜸부기. ¶예전에는 {뜸북새가} 논에서 많이 보였었지.
지역 전북.

뜸비기 명 [대응어] 뜸부기. ¶밤에는 {뜸비기가} 우는 소리도 들렸어.
지역 익산.

뜸뻑새 명 [대응어] 뜸부기.
☞뜸북새.
지역 전북.

뜸쑥허다 형 [발음] [뜸쑤거다/뜸쑤커다] [대응어] 듬쑥하다.
분량이나 수효가 매우 넉넉하다. 또는 옷, 그릇 따위가 조금 큰 듯하면서 꼭 맞다. 또는 사람됨이 가볍지 아니하고 속이 깊다. ¶떡을 {뜸숙허게} 준비하다. ¶옷이 {뜸쑥허니} 잘 맞다. ¶됨됨이가 {뜸숙허다}.
지역 전북.

뜻뜻허다 형 [발음] [뜯뜨더다/뜯뜨터다] [대응어] 떳떳하다.
굽힐 것이 없이 당당하다. ¶내가 국민핵교라도 댕겼은게 어디 나가도 {뜻뜻허고} 활발허게 허는구나 싶어 감사허단게.
지역 전북.

뜽글 명
(김치에서) 무를 흰 뿌리 부분과 잎으로 나누었을 때 잎이 아닌 아삭아삭 씹히는 뿌리 부분. 보통 무라고 하는 하얀 뿌리 부분. ¶{뜽글만} 비어 먹고 잎사구는 그대로 내려 놔서 뜽글은 하나도 없어.8. 사용지역
지역 전북.

뜽글지 명
큰 무우를 반으로 가르거나 1.5 센티미터 내지 2 센티미터의 두께로 썰어서 담은 김치. 보통 무청은 한두 개 남기고 잘라내거나 달려 있지 않은 채로 담는다. ¶자는 배추지보다 {뜽글지를} 더 좋아헌게.
지역 전북.

뜽금없이 부 [대응어] 뜬금없이.
갑작스럽고 엉뚱하게. ¶"하이고오, 때 아는 냥반이 이렇게 때 아인 오밤중에 {뜽금없이} 여그 멋 헐라고 외겼다요? 나그네 객지 잠 잘라고 들렀능가아?"<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뜽컬 명 [대응어] 그루터기.
풀, 나무, 곡식 따위를 베어 낸 뒤에 남은 밑동. ¶"아자씨! 인자 {뜽컬} 나무 파라."고 하드라우. " {뜽컬만} 파면 아자씨 좋은 밥이 있다."고 그랑께는,<구비문학대계 전남 해남군편>
지역 김제, 익산, 임실, 진안, 완주.

띄다[1] 동 [대응어] 띄우다.
물이나 공중에서 가라앉거나 내려앉지 않고 위쪽으로 솟아오르게 하다. ¶연 잘 {띄네} 연 잘 {띄네}/서울이라 무학자들 서울이라 무학자들/연 잘 {띄네} 연 잘 {띈다}(정읍 논매는 소리/배꽃타령)<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정읍.

띄다[2] 동
모를 심을 때 못줄을 들어 새로 놓다. 모를 심을 때 모를 반듯하게 심도록 못줄을 대는데 심고 있는 줄을 다 심으면 못줄을 새로 심을 자리에 댄다. 줄을 너무 빨리 띄거나 늦게 띄면 모 심는 사람들의 원성을 듣는다. 줄잡이는 모 심는 사람들의 속도를 봐서 적당히 줄을 띄어야 한다. ¶다 심으면 줄 {띄고} 새로 심고. 손 맞차서 또 심

고. 줄 {띄자고} '줄~'허고 {띄고} 그려.
지역 전북.

띄우다 동
모를 심을 때 못줄을 들어 새로 놓다. 모를 심을 때 모를 반듯하게 심도록 못줄을 대는데 심고 있는 줄을 다 심으면 못줄을 새로 심을 자리에 댄다. 줄을 너무 빨리 띄거나 늦게 띄면 모 심는 사람들의 원성을 듣는다. 줄잡이는 모 심는 사람들의 속도를 봐서 적당히 줄을 띄어야 한다. ¶못줄을 {띄워야지}. 그리야 반듯허지.
지역 전북.

띠기다 동 [대응어] 뜯기다(풀을).
초식 동물에게 땅에 난 풀 따위를 떼어서 먹게 하다. ¶맴생이한티 풀을 {띠겨} 먹인다고.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띠끄락 명 [대응어] 티끌.
티와 먼지를 통틀어 이르는 말. ¶귀헌 손님이 온다고 {티끄락} 하나 없도록 쓸고 닦었어.
지역 전북.
해설 '티끄락'은 '티끌'에 지소사 '-악'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띠내다 동 [대응어] 떼어 내다.
붙어 있는 것을 떨어지게 하다. ¶(꺼마리가) 막 들어붙어서 {띠내} 버려야지.
지역 전북.
해설 표준어에서는 동사의 활용형 '떼어'와 보조용언 '내다'가 이어지는 구 구성이지만, 전북 방언에서는 어간 '띠-'와 '내-'가 결합된 합성어로 보인다.

띠다 동 [대응어] 끊다(切).
따로 떨어지게 하다. ¶한번은 어느 삼거리 길이 가서 자기 자식을 {띠어} 놓고 몸을 감췄어요. 그래 인자 울고 돌아댕기는디.<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부적을 갖다가 큰 대문 고간 안에 재물쇠 탁 채우고 거기다가 한가운데다가 딱 붙여 놓고 일 만에 그 부적을 {띠고} 자물쇠를 열어놓고 문을 여닌게로 거그서 난데없는 영갬이 하나 나오는시 고대감 허고 똑같은 영갬이 나오는디<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덜거나 갈라서 내다. ¶".먹어 봐 성, 나 먹고 싶어도 성허고 같이 나놔 먹을라고 안 먹었고만. 나 인자 조깨 먹어 봐야겄고만." 조깨 {띠어서} 주머는 자기는 배부른 사람이라 먹기 싫은게 문을 삐그시 열고 자꼬 집어 내쏘네.<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아 국수를 할려고 한깨 반죽이 없어 갖고는 할 수가 없응개 수제비를 {띠여} 줬다고 하더래.<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띠딜다 동 [대응어] 두드리다(문을).
소리가 나도록 잇따라 치거나 때리다. ¶문을 허천나게 {띠덜어} 봐라. 누가 나오는지. 거그는 진작에 이사를 가고 아무도 없당게.
지역 전북.

띠메다 동 [대응어] 떠메다.
들어서 어깨에 걸치거나 올려놓다. ¶어여 {띠메다가} 그늘에 뉘여!<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띠미다 동 [대응어] 떠메다.
무거운 짐 따위를 쳐들어서 어깨에 걸치거나 올려놓다. ¶그 인자 거그다 거 관이다 인자 송장을 넣고는 생이를 {띠미고} 가.<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띠빠 명 [대응어] 멜빵.
짐 따위를 어깨에 걸어 메는 끈. 또는 바지, 치마 따위가 흘러내니지 않도록 어깨에 걸치는 끈. ¶시방도 {띠빠} 달린 옷 입잖여.
지역 고창.

띠빵 명 [대응어] 밀삐.
지게에 매여 있는, 지게를 지는 끈. ¶지게 매는 끈, {띠빵} 있잖여.
지역 전북.

띠앗허다 형 [발음] [띠아더다/띠아터다] [대응어] 따끔하다.
찔리거나 꼬집히는 것처럼 아프다. ¶나도 언지 지네한티 물렸는디 징그랗게 {띠앗혀}. 띠앗띠앗, 거 쓰려. ¶징허게 {띠앗헌디}, 한참을 못 견딘디. 지네 쪠깐헌 것이 물어도 {띠앗헌디}. ¶징그랗게 {띠앗헌디} 거, 에린디. 나도 언지 목아지 물드라고.
지역 고창.

띠약거리다 동 [대응어] 따끔거리다.
찔리거나 꼬집히는 것처럼 아픈 느낌이 자꾸 들다. ¶여가 가룬 놈만치로 {띠약거려야}.
지역 전북.

띠자리 명
띠(삘기)로 엮은 자리. ¶띠 그놈 가꼬 자리도 짜고 그려. {띠자리}.
지역 전북.

띠지 명 [대응어] 굽도리.
방 안 벽의 밑부분. 또는 방 안 벽의 아랫도리에 바르는 종이. ¶{띠지라고}. 굽또리가.<2005 전북 남원>
지역 전북.

띠풀 명 [대응어] 띠.
볏과의 여러해살이풀. ¶지댄헌 {띠풀}. {띠풀로} 지붕 영끈 집은 부잣집이래야.
지역 전북.

띧다 동 [대응어] 뜯다.
털이나 모여 나는 풀 따위를 뽑거나 떼다. ¶석상에다가 상추를 심어 상추 {띧기} 난감하네(돌산에 상추를 심어 상추 뜯기 난감하네)<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남원.

띰다 동
무거운 것을 같이 들다. ¶혼자는 못 든게 같이 {띰게}.
지역 전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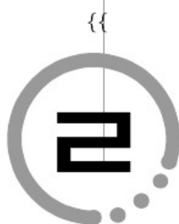
띳장 명 [대응어] 뗏장.
흙이 붙어 있는 상태로 뿌리째 떠낸 잔디의 조각. ¶지충개야 지충개야/마사산천 지충개야/겉잎 겉은 우리 어머니/속잎 같은 나를 두고/싫은 덕시 가셨는가/시수물언 쑥물로 허시고/{띳장} 이불 둘렀는가(지칭개야 지칭개야/만산산천 지칭개야 우리 겉잎 같은 우리어머니/속잎 같은 나를 두고/싫은 듯이 가셨는가/세수물은 쑥물로 하시고/뗏장이불 둘렀는가)(임실 신세타령-"지충개야 지충개야")<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임실.

띵기다 동 [대응어] 던지다.
손에 든 물건을 다른 곳에 떨어지게 팔과 손목을 움직여 공중으로 내보내다. ¶아 그려 인자 헐 수 없이 띠내 버리지 못하고서, 거머리 같으면 딱 띠서 다른 데로 {띵이갔는데}<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띵깡 (←<일>denkan(癲癎)) 명 [대응어] 생떼.

억지로 쓰는 떼. ¶동네서 내놨어. 그냥 부모네가 벌어다 주먼 처먹기나 허고 막 넘허고 쌈이나 할라고 시비나 불르고 댕기고 아주 그냥 {띵깡으로} 내논 사람여. 그런 젊은 사람이 하나 있어. 아 그리갖고 그냥 지금이나 그전이나 이도박은 있던게비대.<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시아버지가 다시 꽥 소리 못하고 그 며느리한테 {띵깡을}, 며느리한테가 못 혀. 그래갖고 시아버지 버릇장이를 가르쳐 갖고 잘 살드래요. 아 그 말도 그러지 않아요?<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아 생각을 헝게, 죽든 안 허고 얼굴만 밀긴히갖고 걍 심만 시여갖고 너는 저만큼 가라고 막 허니 큰일났거든. 저녁으 막 {띵깡을} 부?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ㄹ

-ㄹ까미 【연결어미】 [대응어] -을까봐.
☞-으까미. ¶지방에서, 행이나 또 딴데로 {보내까미}. 그 인자 고등학꾜럴 지낙 헨는디.(지방에서 행여나 또 다른 곳으로 보낼까봐. 그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 했는데.)<전북지역어, 남원>
지역 남원, 고창.

-ㄹ깜쇄 【연결어미】 [대응어] -ㄹ까 봐.
우려를 나타내는 앞 절의 내용이 뒤 절에 대하여 원인이나 이유가 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어저끄 이 놈도 다 뚜고, 농도 다 뚜고 혔는디, 아그들 오먼 추접스럽닥 {헐깜쇄}.
지역 완주.

-ㄹ깜슨게 【연결어미】 [대응어] -ㄹ까 보니까.
우려를 나타내는 앞 절의 내용이 뒤 절에 대하여 이유가 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자신에 내가 안 {올깜슨게} 그리를 모더(며느리가 안 올까봐 며느리에게 잔소리를 스스로 못한다는 말). 사는 것이 고마와서, 살아 주는 것만 히도 감사허제이. 일년에 두 번, 잘 허믄 설이나 보고, 팔에나(팔월에나) 보는디. ¶우리 아그들도 개운헌게 이렇게 꾼적꾼적허니 살닥(산다고) {헐깜슨게} 다 닦어야 허. 살아 생전이(생전에) 개완허게 허고 살아야지. ¶칼, 낟(낫), 멀금허니 갈아났은게 아그들 {손댈깜슨게} 쓰지 마라고. ¶지금은 그냥 널지만은 그때는 오늘 빨래 힜으면 오늘 저녁으당과, 그 솥이다가. 여자들 안 중우 깔고, 놋 {날깜슨게}. 꺼멍솥이라. ¶싫어라고 들는 디는 또 모더제(못하지). 서운허다고 {헐깜슨게}.
지역 고창.

-ㄹ깝새 【연결어미】 [대응어] -라도.
설사 그렇다고 가정하여도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관없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나는 되게 {헐깝새} 자식은 편허게.
지역 전북.

-ㄹ깽이 【연결어미】 [대응어] -을까 봐.
뒤에 오는 행위에 대하여 어떤 의심을 근거로 제시하는 연결 어미. ¶(결혼이) 행이나 깨져부러 {버릴깽이} 안 말도 안 허고.
지역 전북.

-ㄹ께라우 【종결어미】 [대응어] -ㄹ 게요.
해요할 자리에 쓰여, 어떤 행동에 대한 약속이나 의지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 ¶그리두 몰라라우…… 나 인제 잘 배갖구 {헐께라우}.<채만식, 停車場近處> ¶{할께라우}.<정주환(1981)>
지역 고창, 부안, 정읍.

-ㄹ께미 【연결어미】 [대응어] -을까 봐.
뒤에 오는 행위에 대하여 어떤 의심을 근거로 제시하는 연결 어미. ¶사람은 {맞을께미} 한비짝

구석에, 베랑빡 밑에가 엎졌어.(=그 사람은 맞을까 봐 한쪽 구석에, 벽 밑에 엎드렸어.)
지역 전북.

-ㄹ끄나 【종결어미】 [대응어] -ㄹ까.
어떤 일에 대한 의문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엇지 {할끄나}, 엇지 {할끄나}?<최전승(1990)> ¶{어쩔끄나} 어쩌를 {헐끄나} 이 노릇을 {어쩔끄나} 참으로 갔네 그려 보고 싶어 어찌 살꼬오.<최명희, 혼불> ¶가자 가자 어서 가자 황천 길로 어서 가자 인제 가면 언제나 {올끄나} 오실 날도 창망(蒼茫)없네.<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ㄹ라고 【종결어미】 [대응어] -려고.
어떤 행동을 할 의도나 욕망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버렁 머시기 안 허고 {갈칠라고(가르치려고), ¶{헐라고}(하려고)<백은아(2016)> ¶추먼 {너를라고}(널려고). 암 말르더라니까.<백은아(2016)> ¶이거 나 {줄라고}?<김중진> ¶머야 제일 처으메 그 발전헐 기회가 이쓸때가 언제냐면 군산대하기 제일 처으메 이 지여그로 {올라고} 그래써요.(무엇이냐 제일 처음에 그 발전할 기회가 있을 때가 언제냐 하면 군산대학이 제일 처음에 이 지역으로 오려고 그랬어요.)<전북지역어, 군산시> ¶딸이,(내가) 딸네집이가 산게, 지가 돈이 아순게 팔아 {쓸라고} 그러제. ¶한번은 우리 메느리가 막 뭇이 들온다고 고함을 질러서 일어나본게로 아파트 홀타리 베란다 거리 {들올라고} 발을 딱 대드라. ¶거짓말로 막 종우때기를 몰아너서 돈 봉투다고 들오게 {헐라고} 막 헌 사람도 있고 그러드만. ¶영감이 아프디야, 그리서 녹두죽 끓여 {줄라고} 해. ¶대학원 {갈라고} 근갑만? ¶그전으 무섭게 그리고 온 사람도 있었거든. {장난헐라고} 허는 짓이여.
지역 전북.

-ㄹ라고려 【축약형】 [대응어] -려고 해.
방언형 '-ㄹ라고 혀'가 줄어든 말. ¶인자사 나와 가꼬 어뜨케 {할라고려}?<이태영(1986)> ¶봐. 이 금방에 차담상을 먹는단게 뭣허러 {갈라고려}.(참고:"금방, 차담상으 고기반찬에 밥 들와. 근디 밥을 먹고가야지 어디 갈라고나?)<전북지역어, 군산> ¶아니 아버님. 그냥 집이 계시지 어디를 {가실라고려요}?<전북지역어, 군산> ¶가자고 거기다가 집을 인자 그 자리다가 인제 집을 움막만이로 처갖고 {살으라고려}.
지역 전북.

-ㄹ라다가 【축약형】 [대응어] -려고 하다가
방언형 '-ㄹ라고 하다가'가 줄어든 말. ¶양반의 맹당 {훔칠라다가} 저 집구석 누구 하나 옳게 죽어나갈 거이다,<최명희, 혼불> ¶긍게. 지가 놀래 갖꼬는 이거이 무신 일이다냐고 그렁게로, 애기씨가 개울을 {건널라다가} 기양 픽 씨러지시드라고, 그러드니 그 자리서 혼절을 허섰다고…….<최명희, 혼불> ¶"대그빡을 쥐어박어 {줄라다가}." "맹색이라도 즈그 부모가 있었으면 조께 낫었을랑가."<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ㄹ라먼 【연결어미】 [대응어] -려면.
'어떤 의사를 실현하려고 한다면'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고노믈 {뽀불라먼}(뽑으려면) 잘 안 뽀바저<백은아(2016)> ¶복숭아 나무를 {시물라먼} 바끼다만 시무라거고. 백은아(2016) ¶나가서 {놀라먼} 괜히 심쓰는 일은 허지 마이?<이병천, 모래내 모래톱> ¶{죽을라먼} 상감님 턱을 못 차?<최명희, 혼불>
지역 남원, 군산.

-ㄹ라문 【연결어미】 [대응어] -려면.
어떤 일을 달성하려고 할 때의 조건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이는 사람드른 인재, 어지간헌 사람

드른 그러캐도 하고, 그거또 저거또 인재, 다무라그도 그거또 {할라문} 인재 그, 일려기 마니 드러가자나요. 도니 마니 드러가야 되자나요.(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지간한 사람들은 그렇게도 하고, 그것도 저것도 이제, 담도 그것도 할려면 이제 그. 인력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전북지역어, 남원시> ¶당신은 나하는 대로 하라고, {살라문}.<구비문학, 완주군> ¶한자 {헐라문} 심들제.<김옥화(2004)>

지역 남원, 완주, 부안.

-ㄹ라요 【종결어미】 [대응어] -ㄹ래요.

방언형 '-ㄹ라 하요'가 줄어들어 굳은 말. 해요할 자리에 쓰여, 말하는 이의 의향을 나타내거나 상대방의 의지를 묻는 종결 어미. ¶나는 인자 갈라요. ¶또 인자 언지 올라요?

지역 전북.

-ㄹ라카능가 【축약형】 [대응어] -려고 하는가.

방언형 '-ㄹ라구 하능가'가 줄어든 말. ¶{혼자갈라카능가}?<이윤구(2001)>

지역 무주.

-ㄹ람니까 【축약형】 [대응어] -럽니까.

방언형 '-ㄹ라고 합니까'가 줄어든 말. ¶언지 {오실람니까}? ¶거기 {기실람니까}?

지역 무주.

-ㄹ랑가 【축약형】 [대응어] -려는가

방언형 '-ㄹ라고 하능가'가 줄어든 말. ¶얼매먼 멋 헐라고? 깨깟이 때 벳기고 사취로 {갈랑가}?<최명희, 혼불> ¶우리도 지아집 짓고 종부림서, 에얌, 허고 사는 날이 {올랑가아……}.<최명희, 혼불> ¶내가 발바닥 붙이고 섰는 이 땅뎅이도 언지 홀까닥 {뒤집힐랑가} 모르는 판인디, 누가 아요?<최명희, 혼불> ¶{갈랑가}?<김중진(1976)>

지역 고창.

-ㄹ랑개 【연결어미】 [대응어] -려고 하니까

방언형 '-ㄹ라고 하닝개'가 줄어든 말. 뒤 절에 대하여, 의도한 행위를 원인이나 이유로 앞 절에 제시할 때 사용하는 연결 어미. ¶나 암만해두 영 감허구 인연 끊어야 {헐랑개비요}!<채만식, 金의 情熱> ¶물이 암만해두 {수남헐랑개비다}!…… 암만해두 자리를 잘못 짒었어!<채만식, 金의 情熱> ¶나 그럼, 가서 한잔만 먹구 도루 {올랑개루}, 니 붙잡든 마라?<채만식, 金의 情熱> ¶말씀만 들어두 훨씬 맘이 뇌너만이라우!……솥단지를 팔어서라두, 히여보닌 디까장은 {히여볼랑개}, 그럼 강생원도, 부디 좀……<채만식, 병이 낫거든> ¶바느질 {헐랑개}(하려니까) 인자 인두두 이씨야고 화리도 이씨야고<백은아(2016)> ¶이부리사 인자 {더플랑개}(덮으려니까) 효도금 허고<백은아(2016)> ¶일꾼들 밤먹꼬 일 나간다고먼. 일찌감치써 또 머거야 이를 간개로 여써씨경으로 싹 {내보낼랑개} 머시미고 일꾼드리고 {내보낼랑개}. 하이구 옌날 시집싸리야 징그라.(일꾼들 밥 먹고 일 나가야 한다며. 일찍 먹어야 일을 가니까 여섯시 경으로 싹 보내야 하니까 머슴이고 일꾼이고 내보내야 하니까. 아이구, 옛날 시집살이야 징그러워.)<전북지역어, 임실>

지역 군산, 남원.

-ㄹ수락 【연결어미】 [대응어] -ㄹ수록.

어떤 일의 정도가 더하여 감에 따라 다른 일의 정도가 그에 비례하여 더하거나 덜하여 감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이름 있으먼 멋 허여, 불르기 조먼 대답 허기만 귀찮제. 상놈의 이름은 안 {불릴수락} 존 거이여. 멀 알도 못험서. 아조 없으먼 더 좋고. 왜 그런지 알어?<최명희, 혼불>

지역 장수, 남원.

-ㄹ쎄락 【연결어미】 [대응어] -ㄹ수록.

앞 절 일의 어떤 정도가 그렇게 더하여 가는 것이, 뒤 절 일의 어떤 정도가 더하거나 덜하게 되는 조건이 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아주 이리 업짜나요, 자꾸 {나갈쎄락}(나갈수록)<백은아(2016)>

지역 완주.

-ㄹ쑤락 【연결어미】 [대응어] -ㄹ수록.

앞 절 일의 어떤 정도가 그렇게 더하여 가는 것이, 뒤 절 일의 어떤 정도가 더하거나 덜하게 되는 조건이 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인자, 무리 빠지먼 {빠질쑤락} 이러케 채울라먼 도두고, 비가 마니오먼 인자, 수문만 나추먼 인자, 무리 넘처 나오지.(인제, 물이 빠지면 빠질수록 이렇게 채우려면 돋우고, 비가 많이 오면 인자, 수문만 낮추면 인제, 물이 넘쳐 나오지.)<전북지역어, 남원> ¶큰지비도 {갈쑤락} 조라지더만.(큰집도 갈수록 줄어들더라고.)<전북지역어, 남원> ¶노픈 자리 이쓸쑤락 사라미 지 모를 낟촤, {될쑤락} 고개를 수긴거여.<전북지역어, 남원> ¶미영이 {나쁠쑤락}(나쁠수록) 시리 국께 나오고 미영이 {조을쑤락}(좋을수록) 가늘게 나와<백은아(2016)> ¶도늘 {벌쑤락}(벌수록) 마니 써.<백은아(2016)>

지역 고창, 남원, 완주.

-ㄹ텨 【종결어미】 [대응어] -ㄹ 테야.

해할 자리에 쓰여 상대방의 의향을 묻는 종결 어미. ¶언지 {갈텨}?<이윤구(1985)> ¶여그 {인슬텨}?<이윤구(1985)>

지역 무주.

-라고끄나 【종결어미】

"-라고 할까나"를 뜻하는 '-라고 할끄나'가 줄어들어 굳어진 말. 해할 자리에 쓰여 본인의 의도를 내비치면서 상대방의 의향을 묻는 종결 어미. ¶저닉 때 {오라고끄나}<김옥화(2004)>

지역 전북.

-라구능가 【축약형】 [대응어] 라는가

방언형 '-라구 하는가'가 줄어든 말. 하게할 자리에 쓰여, 이미 있었던 말을 인용하면서 확인하는 질문을 나타낸다. ¶{머라구능가}?<이윤구(00)>

지역 무주.

-라궈 【종결어미】 [대응어] -라고.

해할 자리에 쓰여, 듣는 이가 했던 말을 인용해 가며 따지거나 확인하듯이 묻는 종결 어미. ¶너 {머라궈}?(네가 무엇이라고 하느냐?)<이윤구(1985)> ¶응, {머라궈}?(응,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 사라미 {머라궈}?(그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느냐?)<이윤구(1985)>

지역 무주.

-라사 조 [대응어] -라야.

어떤 것을 들어 말하면서 꼭 그것임을 지정하여 말함을 나타내는 보조사. ¶그놈을 가지고 와야 그놈 고내서 댕기를 따먼은, 부자 댕기라사 이렇게 찰랑찰랑혀.

지역 고창.

-라우 조

((체언이나 부사어, 연결 어미, 종결 어미 따위의 뒤에 붙어))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어머니도 {봤지라우}.<김규남(1998)> ¶{내가라우, 어지께라우, 서울 갔는디라우, 거그서라우, 친구를 만났어라우}.(내가요, 어제요, 서울 갔는데요, 거기서요, 친구를, 만났어요)<이기갑(1998)> ¶예, {있지라우}.<전북대 국문과(1983)> ¶우리 엄마가 일명암, 월명암 두 절에서 {살었지라우}.<전북대 국문과(1983)> ¶가서 멋을 어뜨케 {허끄라우}?<이태영(2004 ㄷ)> ¶논 안 매먼 땀또 안 {나지라우}?<이태영(2004

ㄷ)> ¶그께잇 거이 머언 약이 {되야라우}?<이태영(2004 ㄷ)> ¶찻나락 모판 멧 개 싫고 {나갔어라우}.(찰벼 모판 몇 개 싣고 나갔어요)<김옥화(2001)>
지역 부안, 서남(호남), 고창.

-란다우 【축약형】 [대응어] -란다오
'-라고 한다우'가 줄어든 말. ¶그이는 이 집 아저씨더러 {하등동물이란다우}.<채만식, 少妄>
지역 부안.

-람서 【축약형】 [대응어] -라면서.
방언형 '-으라구 함서'나 '-라고 했으면서'가 줄어든 말. 그렇게 말한 데 대하여 따져 묻는 뜻이 들어 있다. ¶암만 그렇다고 소위 {의원이람서} 사람의 낯가죽을 쓰고 그럴 수가 있어?<최명희, 혼불> ¶내가 자리 찾는 것도 아니고 지달렀다가 넘의 자리 옆구리 따고 {들어갈람서} 발싸심만 헌다고 되간디? 그런 일이?<최명희, 혼불>
지역 부안.

-람선 【축약형】 [대응어] -라고 하면서는
'-라고 하면서는'이 줄어든 말.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사실을 상대에게 다시 확인하여 물을 때 쓴다. ¶백냥? 자네한테? 진장 남의 것 가져 가면, 한 번 가지 가면 {그만이람선}, 돈 백 냥 못 혀.<구비문학, 정주시> ¶이거 나 {하람선}.<이윤구(2001)>
지역 무주.

-랑게 【종결어미】 [대응어] -라니까.
해라할 자리에 쓰여, 가볍게 꾸짖으면서 거듭 명령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나 {주랑게}.<김중진(1984b)> ¶얼렁 {머그랑게}.<김중진(1984b)> ¶얼릉 {오랑게}.<이윤구(2001)>
지역 고창, 무주.

-랑게로 【종결어미】 [대응어] -라니까는
해라할 자리에 쓰여,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투로 꾸짖으면서 거듭 명령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지역 전북.

-래야 조 [대응어] -라야.
어떤 것을 들어 말하면서 꼭 그것임을 지정하여 말함을 나타내는 보조사. ¶내 {손자래야} 좋제.
지역 전북.

-로 【연결어미】 [대응어] -러.
이동을 뜻하는 동작의 목적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소렬 {팔로}(팔러) 가머는 그 노무 소장이 그케 늘께꺼지 서요.<백은아(2016)>
지역 남원.

로가서 조 [대응어] 로.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나 방식 따위를 강조하여 나타내는 격 조사. ¶내가 조리로가서 쌀을 이는디<이태영(1992)> ¶내가 조리로가서 쌀을 이는디<이태영-문법적(2011)>
지역 전북.

로다가 조 [대응어] 로.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나 방식 따위를 지정하여 나타내는 격 조사. ¶인자 들온다치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신체를 갖고 들오면, 막 {뭉치로다가} 처맞을라고 그냥. 그 인자 그 날 그 시가 된게<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방향이나 경로를 나타내는 격 조사.
지역 전북.
해설 '로다가'는 격 조사 '로'에 의미를 더 뚜렷하게 하는 보조사인 '다가'가 결합한 형태이다.

-롬하 【접미사】 [대응어] -스름하-.
((빛깔이나 형상을 나타내는 어근 뒤에 붙어)) '빛

깔이 옅거나 그 형상과 비슷하다'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얄포롬한} 그네의 입술에도 푸른 비늘빛이 돋는다. "네가 원망이 많구나."<최명희, 혼불> ¶남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갈매기로 더불어 운다는 여인네의 그런 슬퍼도 {달코롬한} 이야기는 못된다.<채만식, 탁류>
지역 완주, 남원.

@{{



ㅁ

-ㅁ사 【연결어미】 [대응어] -면야

앞 절이 뒤 절의 가정이나 조건임을 강조하여 연결할 때 쓰는 연결 어미. ¶쭉쟁이, 콩쭉쟁이. 아이고 못 써, 이거.(닭) 주먼, {줌사} 좋지, 방애 쪄다가 싸래기 있은게.

지역 완주.

해설 조건이나 가정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면'에 강조를 나타내는 보조사 '사'가 결합하여 줄어든 말이다. 보조사 '사'는 표준어형으로는 '야'에 해당하는 말이다.

-ㅁ서 【연결어미】 [대응어] -면서.

두 가지 이상의 움직임이나 사태 따위가 동시에 겸하여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나 열니살 무거서 인자, 이사릴 나머느로 와가꼬, 나먼서 인자 {삼서}.(나 열네 살 먹어서 인제, 이사를 남원으로 와가지고, 남원에서 인제 살면서.)<지역어, 남원> ¶냄비 하나 머 쌀조깨 싸서 인자, {옴선} 끄리무글라고 고놈 내가 이고, 고로케 살:얼 거러서 나머늘 가땅개.(냄비 하나 뭐 쌀 조금 싸서, 인제, 오면서 끓여 먹으려고, 그놈 내가 이고, 그렇게 사흘을 걸어서 남원을 갔다니까.) <지역어, 남원> ¶그래가꼬 {대림서} 헌다는 소리가 머라고 헌고이니는.(그래가지고 다리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하는고니.)<지역어, 남원>

지역 전북.

-ㅁ성 【연결어미】 [대응어] -면서.

두 가지 이상이 동시에 겸하거나 맞서고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이르케 이, 이 막때기가 이르케 두 개가 도라가. 이케 돌리먼 그러먼 거그다 너노먼 인자 여그서 인자 이르케 {도라감성} 그 트르근 미트로 빠지고 그 씨만 우로 쏙 쏙 빠져.(이렇게 이 이 막대기가 이렇게 두 개가 돌아가. 이렇게 돌리면 그러면 거기다 넣어놓으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털은 밑으로 빠지고 그 씨만 위로 쏙쏙 빠져.)<전북지역어, 남원>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면성'이 줄어든 말이다.

-ㅁ시로 【연결어미】 [대응어] -면서.

두 가지 이상이 동시에 겸하거나 맞서고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강미를 {내놈시로} 강을 해 주락 해사제 공짜로 해 주라고라?<송기숙, 녹두장군>

지역 전북.

-ㅁ시로나 【연결어미】 [대응어] -면서나

두 가지의 동시에 겸하고 있어야 하는 것 중에서 선결되어야 할 하나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그랑게 저가 돈을 조께 벌어 자가용도 사고 뭣도 사고 {허감시로나} 여행이다 외식이다 허며

팔도 유람을 모시고 다니겄다 허등만<조봉래 229>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의 '-ㅁ시로'에 보조사 '나'가 결합하여 특별한 연결 관계를 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ㅁ시롱 【연결어미】 [대응어] -면서.
두 가지 이상이 동시에 맞서고 있음을 친근하게 나타내는 연결 어미. ¶그 으르신네 성미를 잘 {암시롱} 왜 그려싸, 재수없이.<조봉래, 풀벨골 시비주의> 나가 찌렁찌렁허니 소리질르는 것 {들음시롱도} 그리 멍청한 소리허고 자빠졌냐.<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ㅁ허- 접 【접미사】 [대응어] -스름하-.
((빛깔이나 형상을 나타내는 어근 뒤에 붙어)) '빛깔이 옅거나 그 형상과 비슷하다'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너 어찌 와서 그러나?" 근게 생기기도 인자 건달인게 {매끄름허게} 생응게로, "아, 지가 심부름을 히줄티니 월급도 안받고 공짜로<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산을 어 어디로다 그리 드래여. 그더니 한가운데가 {똥그름허게} 이렇게 똥그래미 쳐놓드라만 쳐놓더니 가더러,<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전북.

마구지 명
배불리 먹어 통통한 거머리. ¶논에 {마구지가} 꿈적꿈적 오면 무사서 못 들어갔어. 거마리가 배불르게 먹어서 통통헌 놈. 안 홀쭉허고.
지역 전북.

마냥 조 [대응어] 처럼.
모양이 서로 비슷하거나 같음을 나타내는 격 조사. ¶{지금마냥으로} 이런 시상이 없었어요<홍윤표(1978)> ¶송장이 {무수꾸덩이마냥으로} 들었데요<홍윤표(1978)> ¶어린 {애기마냥으로} 키웠잉게<홍윤표(1978)> ¶옛날이는 {시방마냥} 사서 입는 옷이 있가디?<김옥화(2004)> ¶호덕허먼은 뽈곳뽈곳허니 {깨마냥으로} 솟아<김옥화(2004)>
지역 전북.

마널 명 [대응어] 마늘. ¶단오 {마널을} 약마늘이라고도 해.
지역 임실.

마누래 명 [대응어] 마누라.
아내를 허물없이 이르는 말. ¶즈그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닝개, "하, 어머니도 잘못한 것 없고, {마누래도} 잘못한 것 없고,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 다 잘못 없소. 아, 내가 자작을 조그막케 패 놓으면 될 것을 그랬읍니다."<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마누래가} 닭 한 마리 사 오란다고 전하랬어요.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본게 사람이라는 것이 욕심이라는 것이 한정이 없는 것이여. 한정이 없는 것이 뭐인고니는 속담으 종사먼 말 사고 싶드라고, 아 처음으는 만석 재복구혈 욕심만 냈는디, 아 그 꽃같은 {마누래}를 얻고 그렇게 재산을 인자 받어 놓고 본게, 뒤여가서 아우(臥牛)가 있는디 말허자면 소명당, 아우가 있는디 낯짝이 딱 나와 있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옛날에 저 충청도 단양서 난 얘긴디, 아 인제 참 고독헌 집안에서 남편이 고독허고 이런 집안에서 인자 장개를 가가지고 {마누래허고} 인자 둘이 살림을 사는디 아, 첫 애기를 딱 배놓고는 그냥 {마누래가} 죽어부렀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군산, 남원, 부안, 정읍.

마눌 명 [대응어] 마늘.
☞마널. ¶밤이 깊으면 淑아 너를 생각한다. 달래

{마눌같이} 쬐그만 淑아 너의 全身을. 낭자언저리, 눈언저리, 코언저리, 허리언저리, 키와 머리털과 목아지의 기럭시를 유난히도 가늘든 그 목아지의 기럭시를 그속에서 울려나오는<서정주, 시집>

지역 전북.

마늘쫑지기 명 [대응어] 마늘종.

흔히 음식의 재료로 쓰이는 마늘의 꽃줄기. ¶음력 시월에 마늘이 나오믄 {마늘쫑지기루} 장아찌 담거 놓구 그렇지. 여름 반찬으루 미리서 해놓는 거여.

지역 전북.

마늘콩 명

마늘 캐 내고 심는 콩. 이르게 심는 올콩이며 메주콩 색깔과 같으나 크기는 메주콩보다 잘다. ¶{마늘콩은} 얼마나 혔어?

지역 전북.

마니로 조 [대응어] 처럼.

모양이 서로 비슷하거나 같음을 나타내는 격 조사. ¶{너마니로} 좋아허던 안 허<김옥화(2004)> ¶{너마니로} 좋아허<최명옥, 김옥화(2001)>

지역 전북.

마다 형 [대응어] 싫다.

마음에 들지 아니하다.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마다'는 형용사로 '싫다'의 옛말이다.

마닥 조 [대응어] 마다.

'낱낱이 모두'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네 그 여자가 시릉게 칼을 섞고서는, "그놈을 칼 {임자마닥} 다 와서 하나씩 줏어가라. 니 칼을 찾어가거라." 다<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2」((주로 시간을 나타내는 말 뒤에 붙어)) '앞말이 가리키는 시기에 한 번씩'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너 거좀 잘 봐라." 아 근게 아 이놈이 {날마닥} 가서는 지왓장으 새 못 안게 '어이 어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마담부리기 명

음식을 더 안 먹는다고 했다가 막상 음식을 권하면 받아 먹는 일. ¶아이구, {마담부리기} 허네.

지역 전북.

마당터 명 [대응어] 뜰.

집 안의 앞뒤나 좌우로 가까이 딸려 있어 여러 용도로 사용하는 빈터. ¶우리 엄머니가 꽃을 좋아허셔서 {마당터에다가} 왼갖 꽃을 많이 심으셨어.

지역 임실.

마대다 동 [대응어] 거절하다.

상대편의 요구, 제안, 선물, 부탁 따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치다. ¶구렁이가 그리서 인자 군두렁을 헌게 마부청 그날 저녁이 해가, 그 집이를 들어 가 갖고 동냥을 허러 왔단디 다른 것 다 줘도 {마대고} 깨를 달래야. <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마도 조 [대응어] 마다.

'일일이 모두'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시방은 {집집마도} 하나씩 다 있어.<이태영(1986)> ¶일혈 {때마도} 히양게.<이태영(1986)>

지역 전북.

마동 조 [대응어] 마다.

'일일이 모두'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사람마동} 팔짜 도망은 못헌다는디, 나라고 나를 어쩌

ㅁ

겄냐……나도 나를 어쩌들 못히여.<최명희, 혼불> ¶매상(買上) 받아 논 것이 {곳간마동} 꽉 찼거덩.<이혁화(2005)> ¶저그 아부지 강 데려간 종은 모르고 {날마동} 방탕으로만 몇살 먹도 안 헌 것이 그 알뜰허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마두 명 [대응어] 마디.

말, 글, 노래 따위의 한 도막. ¶주뎅이는 빼족히도/모든 청으/말 한 {마두} 못 히보고/등거리는 넙적해도/뒷동산에 성 쌓는디/성 한 짐을 못 져보고/발이 발이 육 발이라도/육십 리 한 번을 못 가보고/먹통 한 짐은 짊어졌어도/펜지 한 장을 못 써보네(정읍 수수께끼노래)<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정읍.

마뜨다 동 [대응어] 맡다.

어떤 일이나 물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담당하다. ¶올해부터 회장을 {마뜨다} ¶소중한 물건을 {마떠서} 보관하다

지역 고창, 남원, 순창, 군산, 완주, 임실, 장수, 정읍.

마라다 형 [대응어] 마렵다.

대소변을 누고 싶은 느낌이 있다. 또는 입이나 목에 물기가 없어 물을 마시고 싶은 느낌이 있다. ¶니가 밤중에 오줌이 {마라서} 오줌을 싸로 나올거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가시다가 본개 똥이 {마라}. 똥이 {마라서} 할머니가 꼬부랑 똥을 싸.<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전북.

마람 명 [대응어] 마름.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부안, 군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해설 현대 국어 '마름'의 옛말인 '말왐'은 5세기 문헌에서부터 나타난다. 7세기에는 제2음절의 모음 'ㅗ'가 탈락한 '말암'과 '말암'이 연철 표기된 '마람'이 등장하였다. 8세기에는 제2음절의 모음 'ㅏ'가 'ㅡ'로 바뀌어 현대 국어에서는 '마름'으로 사용되지만 전북 방언에서는 7세기의 '마람'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마랍다 형 [대응어] 마렵다.

대소변을 누고 싶은 느낌이 있다. 또는 입이나 목에 물기가 없어 물을 마시고 싶은 느낌이 있다. ¶첫날밤에 인자 신랑 신부가 자는디, 자다가 본께 그때는 오좀이 {마란} 것이 아니라 똥이 마라. 이 자식이 갈수록 땅이라고 똥이 {마랍단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계모를 얻어서 아빠가 사는디 애기가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해. 열심히 하는디 한 밤중 쯤 되먼은 뒤가 막— 괴롭혀. 변소가 {마랍고}. 괴롭히고 그러는디, 워트게(어떻게) 이 놈의 애기를 공부 시간에 괴롭히는지, 애기가 어트게 야워.<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노인이 밭을 메러 산골짜기로 간게 목이 {마랍드래라우}.<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그 애 성님 다른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업고 어디. 재를 넘은게 목이 {마랍다겨서} 비는 쪼게 오는디 진톨밭이 물이 괸지를 알고 쫓아갔더니 이 박적이 물이 괴았습니다."<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돌아 대니다 산뽕댕이 쯤 어디 인자 걸어 댕기다가 오뉴월 날씨에 더웁기는 허고 목은 {마랍던게벼}.<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김제, 부안, 순창, 익산, 정읍.

마루꽝 명 [대응어] 마루.

☞마루캉. ¶닥새끼들이 돌아다녀서 {말캉이} 드럽다. 걸레로 빡빡 닥그라.

지역 전북.

마루쇠 명 [대응어] 모루.

대장간에서 불린 쇠를 올려놓고 두드릴 때 받침으로 쓰는 쇳덩이.

지역 완주, 임실, 진안, 장수.

마루캉 명 [대응어] 마루.

집채 안에 바닥과 사이를 띄우고 깐 널빤지. 또는 그 널빤지를 깔아 놓은 곳. ¶"아 이 사람아 원 내가 와도 소 소리가 없는가?" {마루캉으} 턱 올라 갔어. 문을 열어 본게로 총각놈이, 꽉 즈 각시를 보듬고 잔단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아니, 그런거 안된다고, 초면에 외상을 먹을 수가 있나." 고 웃으면서 벗어 가지고 그 {마루캉으다} 걸려놓고 여 와 버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내가 그놈 상복 입은 채 그냥 방립 쓴 채 그냥 그 상중 막대기로 {마루캉짝을} 막 뚜드림서, '개같은 넌, 이넌. 새서방 둘라고 이년이 새서방허고 오늘 저녁이 잠 잠 펴잘라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들어가서 벗어 놨으면 헐 챔인디 {마루캉으다} 벗어 놓고 들어가요.<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그 비단은 인자 갖다가 인자 자그 지게 우그다 딱 놓고는 이놈이 상중 막대기로 그양 {마루캉으다가} 딱 뚜드린다.<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그 상복을 방으 들어가서 이놈을 벗어 놓고, 들어가 방으 가서 벗어놨으면 좋을 챔인디 들어감서 {마루캉으다가} 떡허니 벗어놓고 들어 갔던 모양이라.<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재채기를 허고 나올 것이여. 문을 열고 나오는 놈 냅디 기양 기양 그대로 치뻐린게 기양 {마루캉} 밑으로 떨어진디 흐근 백여시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메누리가 물을 한 동을 이어다가 {마루캉으다} 놨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어떤 영감님이, 그 전이 {마루캉으가} 걸터 앉거서 담배를 피운단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마룽 명 [대응어] 마루.

집채 안에 바닥과 사이를 띄우고 깐 널빤지. 또는 그 널빤지를 깔아 놓은 곳. ¶문을 열어 본개 무엇이 등어리에다가 잔뜩 질머졌어. {마룽에다가} 척 불고, 그것이 무엇이냐고 그런개 저건너 박서방이 집에 갖다드리라고<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아 뭘 할라고 불렀는기요?" "너 이리와 {마룽에} 좀 앉아. 앉음서, 저기 저 담장 밑에 금도가지 세<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떡하니 앉었는디 가덜(가지를) 안혀. 하루가 지내도 안가고 그냥 문악으가, {마룽으가} 앉았어. 아, 그 작것이 먹어야 살턴디 짐승이라도 굶고서는 살<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과연 햇살이 참 지붕말랭이서 차차로 내리오네. 그저 상기둥을 비쳐서 {마룽끄터리까지} 왔어. <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마룽을} 떠들고서 보닝게 쪼그만한 항아리가 있어.<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김제, 남원,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무주.

마른누룸밥 명 [대응어] 누룽지.

솥 바닥에 눌어붙은 밥.

지역 무주.

마른밥 명

비비거나 양념을 하지 않은 밥. 또는 쌀을 안쳐 그대로 푼 밥. ¶이거 비빈 것도 먹어봐. {마른밥도} 먹을라믄 먹고.

지역 전북.

마른버듬 명 [대응어] 마른버짐.

진물이 나지 않고 까슬까슬하게 번지는 흰버짐을 이르는 말. 흔히 얼굴 같은데 생긴다. ¶버듬이 난다 버듬 올른다 버듬 올라따고 그러지, {마른

버듬이라고도} 허대요<완주_지역어_텍스트>
지역 김제, 무주,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진안.
해설 '버짐'은 흔히 얼굴에 생기는 피부병을 말하는데 크게 살갗이 까슬까슬하게 벗겨지는 마른버짐과 진물이 나는 진버짐으로 나눌 수 있다. 전북방언에서 마른버짐은 '마른버듬'으로 진버짐은 '진버듬, 물버듬'으로 나타난다. 현대국어에서는 '버짐이 피다, 버짐이 생기다'를 일반적으로 사용하지만, 전북방언에서는 '버짐이 나다, 버짐이 오르다'를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마리 명 [대응어] 마루.
집채 안에 바닥과 사이를 띄우고 깐 널빤지. 또는 그 널빤지를 깔아 놓은 곳. ¶마루럴 {마리라고} 그러제 마리서 논다고 하제<2008 전북 고창>
지역 고창,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마린버짐 명 [대응어] 마른버짐.
진물이 나지 않고 까슬까슬하게 번지는 흰버짐을 이르는 말. 흔히 얼굴 같은데 생긴다
지역 부안, 장수, 정읍.
해설 '버짐'은 흔히 얼굴에 생기는 피부병을 말하는데 크게 살갗이 까슬까슬하게 벗겨지는 마른버짐과 진물이 나는 진버짐으로 나눌 수 있다. 전북방언에서 마른버짐은 '마른버듬'으로 진버짐은 '진버듬, 물버듬'으로 나타난다. 현대국어에서는 '버짐이 피다, 버짐이 생기다'를 일반적으로 사용하지만, 전북방언에서는 '버짐이 나다, 버짐이 오르다'를 일반적으로 사용한다.'버짐'은 '버즘'에서 음운 변화를 거쳐 나타난 형태이다. '버즘'이 '버짐'으로 변화한 것은 9세기인데, 9세기에 'ㅅ, ㅈ, ㅊ' 아래에서 'ㅡ'가 'ㅣ'로 변화하는 현상은 여러 단어에서 나타난다. 예) 슬컷>실컷, 아츰>아침, 즘승>짐승, 즛>짓 등.

마린신 명 [대응어] 마른신.
마른 땅에서 신는 가죽신. 기름이 배도록 하여 만든 진땅에서 신는 가죽신과 대비하여 일컫는 말. ¶{마린신} 진신 궁혜 응혜 /반결음 구슬은/어간자청으 늘여놓고(진안군 마령면 계서리)<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진안.

마릿돌 명 [대응어] 모루.
대장간에서 불린 쇠를 올려놓고 두드릴 때 받침으로 쓰는 쇳덩이.
지역 김제, 익산.

마릿동 명 [대응어] 모루.
☞마릿돌.
지역 김제.

마무리지심 명 [대응어] 만물, 만도리, 세벌매기.
벼를 심은 논에 마지막으로 하는 김매기.
지역 임실.

마뱅 (←馬房) 명 [대응어] 마방.
말을 가두어 기르는 곳. ¶사랑이 팔 칸이요/바깥 사랑이 팔 칸이요/{마뱅이} 칠 칸이요/외양간이 칠 칸이요/광채가 십오 칸/문칸채가 오 칸이요(진안 고사풀이-진안군 마령면 계서리 서산)<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진안.

마붓간 (←馬廐間) 명 [대응어] 마구간.
마소를 가두어 기르는 곳. ¶여가 여가 인썼써요, 군인덜이 인썼써. 이 집 뒤에도 {마붇뜨깐} 인썼꼬. 그렇지요.그 길 여기 샛길에 그 밑으로가 우리 차 놓은 데 샛길로 이리해서 상하를 갔었거든.<지역어 자료 총서, 고창>
지역 전북.
해설 이 지역에서 '마구간'을 '마부+간'으로도

사용하고 있다. '마붇뜨깐'은 '{마부깐'의} 잘못 된 발화형이다.

마시 조 [대응어] 만큼.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복분자는 냅두면 막 질어. 새순이 {손가락 마시} 올라오지.

지역 전북.

마실 명 [대응어] 마을.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 또는 이웃에 놀러 다니는 일. ¶하루는 와서 본개 어린아가 없더래. 어디 갔냐고, 어디 {마실갔는지} 여쩐지 안들어온다고, 집을 샅샅이 다 뒤졌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그런 옛날 얘기를 그냥 막 하구 놀았는디, 어디 {마실을} 못가게 하구, 부모네들이, 그렇게 놀았는디 이렇게 빼먹어서 얘기를 못혀.<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남자는 책상말림으루서(學者로써) {마실} 밖에 못가. 요새루 말하믄 사랑방에 가서 놀다오는 것<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건너서 가넌게 강둑으로 막 올라선게, 아 즈 어매가 이웃간 {마실을} 가번져<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해설 '모실'은 '마을'의 전북 방언형이다. 통시적으로 중앙어에서는 'ㅁ·ㅿ·ㄹ>ㅁ·ㅇ·ㄹ>ㅁ·을>마을'로 변화되었지만 전북 방언권에서는 'ㅁ·ㅿ·ㄹ>ㅁ·실>모실~마실'로 변화되어, 공시적으로 '마실~모실'로 교체되어 실현된다. '마실 간다'는 '이웃집에 놀러간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마실가다 동

이웃에 놀러 다니다 ¶우리는 맨날 웃동네로 {마실가고} 그랬어요 ¶밤이면 동네 지지배들이 모여 읍내로 {마실가는} 일이 유일한 일탈이었지. ¶애기 가만 있으라구, 애들이 업구 {마실갔는} 개비라구,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버지가 죽였다구 <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고창, 김제, 무주, 완주, 익산, 장수, 군산, 남원.

마엄 명 [대응어] 마음.

☞맘.

지역 전북.

마음고상 명 [대응어] 마음고생.

마음속으로 겪는 고생. ¶냄편이 공산당 허는 바람에 {마음고상}, 몸고상, 안허는 고상이 읎다본께 빨갱이라먼 치럴 떨제라.<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마이로 조 [대응어] 처럼.

모양이 서로 비슷하거나 같음을 나타내는 격 조사. ¶그렇게 소 키고, 고놈 나락 열 썸짜리 계느코, 고놈 타서 인자 또 {부자마이로} 인자 그때는 인자 열써므로 인자 세꺼리를 놔요.(그러니까 소 키우고, 그놈 나락 열 섬 짜리 계 넣고, 그놈 타서 이제 또 부자처럼 이제 그 때는 이제 열 섬으로 이제 이자쌀을 놓아요.)<전북 지역어, 고창군>

지역 전북.

마정 의명 [대응어] 마장

약, 200미터의 거리를 이르는 단위. ¶사가리라넌 마을에서 북쪽으로 한 시 {마정찜} 가면 오른쪽 산중턱에 큰 바우가 있넌디 이 바우럴 가리바우라고 허(정읍시 소성면 춘수리). / 순창 읍내서 한 삼 {마정쯤} 되넌 디 오른편에 산이 있넌디 이 산 우그에 산성이 있어.(순창군 순창읍)

지역 정읍, 순창.

마차기 명 [대응어] 망차기, 돌차기

바닥에 선을 그려 놓고 납작하고 작은 돌을 던지고 한 발로 뛰며 노는 놀이. ¶고무당 겉은 거, 막, 열십자로 요렇게 기려놓고 이 칸칸이, {마차기}. ¶우리 멋 할끄나 {마차기} 할끄나 그럼서 그런 것을 하지. ¶마차기 뛰 공개 뻗기, 머 줄넘기, 비석치기.

지역 장수.

마천가지 부 [대응어] 마찬가지.

어떤 두 가지가 서로 다를 바가 없음. ¶밥얼 먹고 국얼 먹으나 국얼 먹고 밥얼 먹으나 내나 뱃속으 들어가면 {마천가지} 아니냐 이거여. ¶네 생각이나 내 생각이나 문제 푸는 방법은 {마천가지여}.

지역 전북.

마치[1] 명

다른 것과 대어 맞출 수 있는 사물의 끝 부분. ¶팔모깎이 우산대/은소복으 연변대/주석대 백통대/파른 받침 구리 동고리대/소상간죽으 별간죽/금사오죽에 양철간죽을/{마치} 맞게 잘 맞촤/네 구석으 세워두니/방안치레가 훌륭하네(진안 고사풀이)<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진안.

마치[2] 조 [대응어] 만치, 만큼.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씨기는 {그전마치} 덜 써도<이태영(1986)> ¶우리는 바다에서 사는 {사람만치} 모르닝게 <이태영(1986)> ¶씨기는 {그전마치} 덜 써도. <이태영(1986)>

지역 전북.

마치맞다 형 [대응어] 마침맞다.

어떤 경우나 기회에 꼭 알맞다. ¶내가 손에 쥔 돈허고 점빵의 담뱃값허고 {마치맞더랑게}. ¶나는 그 집의 다른 식구들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마치맞게} 집에 있었구나! 나랑 함께 가자!" "어디 가는디?" "서리 가자. 과수원으로 … 누구헌티 말허지 말고!"<이병철, 모래내 모래톱> ¶글안히도 내가 느그집에 가볼라고 했는디 {마치맞게} 잘 왔다.

지역 완주.

마캉 명 [대응어] 마루.

집채 안에 바닥과 사이를 띄우고 깐 널빤지. 또는 그 널빤지를 깔아 놓은 곳. ¶밥도 도라고 안 허고, 물도 도라고 안 헐란게, {마캉} 밑이라도 자고 갈라오.

지역 전북.

마캥이 명 [대응어] 외골수.

한쪽 방향으로만 파고들어 생각하는 사람. ¶{마캥이} 같은 성격이고만.

지역 전북.

마향 명 [대응어] 매형.

☞매향. ¶그냥. {마향} 거그 귀경(구경)가자. 화초 귀경가자.<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군산.

마후라기 명

☞매호래기. ¶여보소 농부님네 이내 말을 들어보소/패랭이 꼭지여다 대화를 꽂고서 {마후라기} 춤이나 너울너울 추어 보세/여어 여어 어 여허 여어루 상 사아 뒤이여(정읍 모심는 소리/상사소리)<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정읍.

막가대기 명 [대응어] 막대기.

가늘고 기다란 나뭇가지. ¶마당으 나락 {막가대기} 하나 들고 닭 쫓아라이.

지역 전북.

막가지 명 [대응어] 막대기.
가늘고 기다란, 나무나 대나무의 토막. ¶야위다 못해 {막가지처럼} 뻿뻿하게 뻗어난 손가락들이 징그럽다.<최일남, 쑥 이야기> ¶"에이, 너 땜시 베려버렸다!" "벨 수 읎지. {막가지로} 촐삭거려 보자."<이병철, 모래내 모래톱> ¶그 나가서 {막가지} 해온게, 아 이놈의 것이 누가 해논 것이, 그 산중 물푸레 나무라고 있네. 손꾸락만 헌 것이 아, 요만헌 것이 하나 있그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고창, 군산, 김제, 남원, 무주,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진안.

막간 명 [대응어] 마구간.
마소를 가두어 기르는 곳. ¶막간에서 말도 질르고 소도 질르고 그랬지 ¶너 밥 먹은 후 {막간에} 소죽 좀 갖다 줘라. ¶{막간에} 가서 소를 몰고 나오너라.
지역 진안.

막걸리빵 명
밀가루에 막걸리를 넣어 발효시킨 후 반죽을 넓은 쟁반에 담은 후 찜통에 쪄 낸 빵. ¶일할 때는 새참으로 {막걸리빵이} 든든허제.
지역 전북.

막냉이 명 [대응어] 막내.
여러 형제, 자매 중에서 맨 나중에 난 사람. ¶"언제 들었냐, 내 맘대로다." 또 {막냉이} 때려 놓고 타이르고 그래도 소용 없어.<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5>
지역 전북.
해설 '막내'는 8세기 문헌에 '막나이'로 나온다. 이 '막나이'가 줄어들어 '막내'가 된 것이다. '막나이'는 '만생자(晩生者)'라는 한자어와 대응되어 있다. 이 '만생자(晩生者)'를 고려하면 '막'은 "마지막"의 뜻으로 이해된다. '막둥이', '막바지', '막장', '막판' 등에 보이는 '막'과 같은 의미이다. '나이'는 '나히'로 소급하는 것이라 추정된다. '나히'는 '낳-[産], '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형태로 이해되어 '낳은 아이'로 해석된다. 이렇게 보면 '막나히' 즉 '막나이'는 "마지막으로 낳은 아이"라는 어원적 의미를 갖는다. 일설에는 '나이'의 '나'를 '출(出)'의 '나-'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의미는 다르지만 '낳이'(피륙을 짬)라는 명사가 쓰이기도 하므로 '막나이'의 '나이'는 '낳이[産], '에서 변형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8세기의 '막나이'는 9세기 말의<한불자전>(880)에도 '막나이'로 나온다. 20세기 초의 <조선어사전>(1938)에는 '막나이'는 보이지 않고 '막내'가 나온다.

막동 명 [대응어] 넉동.
윷놀이에서, 말이 첫 밭에서 끝 밭을 거쳐 나가는 네 번째 차례. 또는 네 번째 나는 말.
지역 전북.

막동가다 동 [대응어] 막가다.
위아래를 따지거나 앞뒤를 가리지 않고 막되게 행동하다. ¶젊은 놈이 위아래 안 따지고 너무 {막동간다}.
지역 김제.

막두릉 명 [대응어] 밭두둑.
☞두둑.
지역 무주.

막두이 명 [대응어] 막내.
여러 형제, 자매 중에서 맨 나중에 난 사람. ¶머리 수대로 돈얼 주데. 우리 {막두이} 아들이 그래 학교 대닐 제이여.<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9>

지역 전북.

막보기 명 [대응어] 얕보기.

얕보아 마구 대함. ¶작것이 인자 {막보기로} 놀라고 허네.<조봉래, 풀벨골> ¶아하! 나허고 {막보기로} 나스겄다 그것인디, ¶{막보기로} 허겄다면 워디 한분 붙어봅씨다.

지역 전북.

막심 명

마지막 남은 힘. ¶난중에는 두꺼비가 막 짐을 봉수네 집으로 갸, 막, 막심을 쓰고 두께비가 그제는 막심을 쓰고, 그제는 막 쉰게 지네가 갸 뚝 떨어지드래여

지역 전북.

막암허다 동 [대응어] 액막이하다.

가정이나 개인에게 닥칠 액을 미리 막다. ¶{막암허}. 막암. 아들이 어느 달에 일년 열두 달에, 어느 달에 신수가 안 좋요, 뭇이 어찌고 어찌고 허요. 그러믄 멋 히주시요 허믄 막암, 막암히준다고 그려, 막암. ¶{막암히줘서} 참 크게 다칠 놈 째깨 다치고 하이고 아무개는 막암히줘도 다 그런 일 생기드라고 또 그런 사람도 있고. ¶{막암히줬더니} 크게 다칠 놈 째깨 다치고, 그런다고 어찐다고 허제. 죽을 고피 넘었다고.

지역 고창.

막음하다 동 [대응어] 끝나다, 끝내다.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다. 또는 일이 다 끝이 나다. ¶"좋소, 거래 {막음헙시다}." 고개를 바로 세우며 방태수가 한 말이었다.<조정래, 아리랑> ¶나도 인자 존 시절 {막음헌} 모냥이요.<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막음하다'는 '막음'에 동사파생 접미사 '-하다'가 연결된 것으로, '끝나다'와 '끝내다'의 의미를 둘 다 가지고 쓰인다.

막자치기 명 [대응어] 우격다짐.

억지로 우겨서 남을 굴복시킴. 또는 그런 행위. ¶그렇게 {막자치기로는} 일이 해결될 수 없다

지역 전북.

만단간 (萬端間) 명, 부 [대응어] 만일.

만 가운데 하나 정도로 아주 적은 양. 또는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뜻밖의 경우에. ¶{만단간을} 대비해야지. ¶{만단간} 거짓을 고하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지역 전북.

만도리 명 [대응어] 만물, 만도리, 세벌매기.

☞만두리.

지역 남원, 무주.

만두레 명 [대응어] 만물, 만도리, 세벌매기.

벼를 심은 논에 마지막으로 하는 김매기. ¶초벌하고 재벌은 그리고 {만두레는} 제일 마지막에 손으로 그 풀을 다 움켜서 없애는 것 그 내.<지역어 자료 총서, 군산> ¶그러니까 초벌, 재벌, 그 {만두레라고} 아까 했지 않았어. 그러니까 초벌과 재벌은 호미로 갖다가 풀을 갖다가 그냥 같이 막 긁어서나 엎어버려요. 초벌하고 재벌은 그리고 {만두레는} 제일 마지막에 손으로 그 풀을 다 움켜서 없애는 것<2007 전북 군산> ¶영감아 영감으으/칠월 콩밭 {만두레} 때/뫼뚜기한티 채아 죽은 영감아(옥구 산아)<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전북.

해설 전북방언에서 '만두레'는 벼를 심은 논에 마지막으로 하는 김매기의 의미로도 사용이 되고 '세 벌 김매기를 마치고 벼가 가장 잘된 집의 머슴을 소나 사다리 위에 태워 농악을 울리며 즐기는 놀이'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만두리 명 [대응어] 만물, 만도리, 세벌매기.
벼를 심은 논에 마지막으로 하는 김매기. ¶그 다음에 김도 초벌 있고, 재벌 있고, {만두리가} 있고 그랬어요. 순 손으로, 호미로 다 인자 김매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인자 그것이 다 인자 끝난 다음에는 이제 추수 때를 기다려가지고 추수를 했고<2007 전북 군산> ¶초볼, 두:볼, 세볼 인자 {만두리럴} 허지요. {초벌, 두벌, 세벌, 이제 만두리를 하지요}.<2009 전북 임실> ¶세골 네골 자버가지고 쭉허니 그냥 파고 또 나중에 세번째 가서는 소느로 인자 {만두리라고} 해가지고 푸를 다 홈쳐내요. 옌날에는 그래써요. 지그믄 다 기계가 허기 때무네 머{그 세 골 네 골 잡아가지고 쭉 하니 그냥 파고 또 나중에 세번째 가서는 손으로 인자 {만두리라고} 해가지고 풀을 다 훔쳐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다 기계가 하기 때문에 뭐}<2007 전북 군산>
지역 김제.
해설 '만두리'는 논의 김을 초벌, 두벌, 세벌 매고 마지막으로 매는 표준어의 '만물'에 해당하는 방언형이다.

만드레 명 [대응어] 만물, 만도리, 세벌매기.
☞만두레.
지역 전북.

만드리 명 [대응어] 만물, 만도리, 세벌매기.
☞만두리.
지역 남원.

많이다 형 [대응어] 많다.
수효나 분량, 정도 따위가 일정한 기준을 넘다. ¶몇해를 그양 산떵이같이 개똥을 집에다 모아놨단 말이여. 아, 유지사람이 가만본게 저 사람이 농사도 쬐께 짓고 그런디 개똥이 저렇게 {많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아 선생님, 왜 그러세요? 좀 더 배워야겠읍니다." "그만 배우라니께 무슨 잔말이 그리 {많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김제, 군산, 완주, 정읍.

말간 (말間) 명 [대응어] 말간.
마소를 가두어 기르는 곳. ¶떡시루는 담너머에다 떤져 버리고는 고놈을 꽁꽁 매 갖고는, {말간에서} 말을 매고는 그놈을 척 없여 놓고는 서울 방면으로 행해 버렸다 말이여.<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그런게 아닌게 아니라 그말 일르고서 {말간도} 금으로 입히고 말캉도 금으로 입히고 방도 힜어. 고만헌게 여전히 돋아나고.<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내가 가다가 일럭이 저물어서 집이 {말간이} 둘라고 왔다," 고. "아, 그러라고. 갖다 매라." 고, <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익산, 남원, 군산.

말강물 명 [대응어] 청수(淸水)
맑고 깨끗한 물. 또는 비 때문에 더러워진 흙탕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맑게 변한 물. ¶이 설운 세상 무거운 눈물 다 씻어 헹기시고, 개버운 혼 말강물로 개완허게 극락왕생을 하옵소사.<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말강물'은 형용사 '말갛-'와 '물'이 '말간 물'이 되었다가 복합어로 변한 것이다.

말고롬허다 형 [대응어] 맑스그레하다.
조금 맑은 듯하다. ¶갈앙쳐가꼬 말고롬헌 놈만 따라 버리고.
지역 전북.

말구시 명 [대응어] 구유.
☞구시.

지역 전북.

말국 명 [대응어] 국물.

국, 찌개 따위의 음식에서 건더기를 제외한 물. ¶뜨끈한 {말국에} 허연 밥 말아 먹고 시프네. ¶국 {말국이} 시원하려면 무를 숭덩숭덩 썰어 넣어야 한다.[부안. ¶환희는 밥을 {말국에} 말아서 먹는데 참 맛있게 먹고 있구나.

지역 부안, 임실, 장수, 고창, 무주, 완주, 진안, 남원, 순창, 익산.

말금하다 형 [대응어] 말끔하다.

뭐가 낀 것 없이 맑거나 깨끗하다. ¶펴 놨다가는 메조까리 칠월에 장만헌 놈 고놈을 말허자면, 한 가마니 담으먼 서 말을 느서 이겨 놔먼 아칙에 보면 {말금헌} 물이어. 그놈으로 꼬치가리를 넣어서 되게 담어 놔.<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전북.

말금히 부 [대응어] 말끔히.

뭐가 낀 것 없이 맑거나 깨끗하게. ¶장아치, 무수장아치. 근디 말거니 썰어서, 채 썰어서, 썰어서 저, 깨소금 늫고 기름 치고 마늘 늫고 무치먼 그케 맛있어. 말금히. 삼삼허니. ¶물 없이 그렇게 주물러, 그믄 말금히 맛있단게 삼삼허니. 삼삼허니 맛있어.

지역 순창.

말기다 동 [대응어] 말리다.

다른 사람이 하려는 행동을 못하도록 막다. ¶서로 이것을 의견다툼허고 싸와. 그러는디 이거 이 놈은 이 통머리 지서리만 팽팽 허고 댕이지. 게 '저것을 어떻게 쌈을 {말길꼬}. 정승이 골치여. <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싸움 {말긴다}<완주_지역어_텍스트> ¶싸우믈 {말긴다고지}<2007 전북 군산> ¶저 놈은 고집이 세서 사업을 {말긴다고} 안 할 놈이 아녀.

지역 군산, 고창, 김제, 부안, 순창, 익산, 임실, 장수, 정읍.

말띵이 명 [대응어] 모루.

대장간에서 불린 쇠를 올려놓고 두드릴 때 받침으로 쓰는 쇳덩이.

지역 전북.

말레이 명 [대응어] 마루.

집채 안에 바닥과 사이를 띄우고 깐 널빤지. 또는 그 널빤지를 깔아 놓은 곳.

지역 전북.

말로 명 [대응어] 마루.

집채 안에 바닥과 사이를 띄우고 깐 널빤지. 또는 그 널빤지를 깔아 놓은 곳.

지역 전북.

말르다 형 [대응어] 마르다(물이).

물기가 다 날아가서 없어지다. 또는 갈증이 나다. ¶"호랭이 물어갈 노무 예펜네들. 저수지 바닥 {말르능} 거는 걱정도 안되고, 괴기 건져 먹을 일만 그렇게 신바람이 난당가?<최명희, 혼불> ¶이놈이. 아 근게 산신령이 가만히 생각히 본게, 이 산 호랭이를 막 이놈이 잡는디 본게로 가만 놔뒀다는 산 호랭이가 씨가 {말르게} 생겼어. 그 놈 허는 행동이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참견하고 나섰다. "슨지자님 말씀도 못 들어봤소? 죽음도 없고 아픔도 수고도 없는 영원한 생명에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고 입에 춤이 {말르드락} 안 그럽디여? 그렇다 허이면 대답은 뭐 뻔헐 뻔짜잖소? 빼빠지게 일헐 필요도 없고 굶어도 당최 죽을 염려가 없는 천국 백성들이<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고창, 김제, 부안,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말름개질 명 [대응어] 마름질.

옷감이나 재목 따위를 일정한 치수로 마르는 일 ¶옷 다 지어 가는데 인자 {말름개질만} 남았어.

지역 고창, 임실.

해설 '마름개질'은 "옷감이나 재목 따위의 재료를 치수에 맞게 자르다"의 의미를 가진 '마르다[裁斷], '의 어간 '마르-'에 명사형 어미 '-ㅁ'이 결합하였고, 여기에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개'와 '그것을 가지고 하는 일' 또는 '그것과 관계된 일'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질'이 결합하였다. 고창, 임실 등의 지역에서는 '마름개질'의 음절 종성에 ㄹ이 첨가된 '말름개질'이 사용되고 있다.

말바가치 명

서너 되 들어가는 큰 바가지.

지역 전북.

말바치 명 [대응어] 말발.

듣는 이로 하여금 그 말을 따르게 할 수 있는 말의 힘. ¶여자라도 {말바치가} 세고 그려. {말바치가} 어찌나 씬지.

지역 전북.

말새끼 명 [대응어] 망아지.

성숙하지 않은 말의 새끼. ¶말새끼라고, 망아지가,<2005 전북 남원> ¶이개새끼, 소새끼, 돼지새끼, {말새끼}, 곰새끼, 여우새끼야.

지역 고창, 무주, 완주, 익산, 장수.

해설 '새끼'라는 말에 이끌려 욕으로 쓰이기도 한다.

말섀끼 명 [대응어] 망아지.

☞말새끼.

지역 남원, 장수.

말쌈 명 [대응어] 말씀.

남의 말을 높여 이르는 말. 또는 자기의 말을 낮추어 이르는 말. ¶여러 가지로 생각하야 보앗습니다만 조흔 생각이 나지 안엇습니다. 그리하든 중, 어느 때 선생님께 어느 학교 생도들이 매일 아침 일즉 니러나, 신사(神社)에 가서 황군의 무운장구(武運長久)를 기도한다는 {말쌈을} 드럿습니다.<최명희, 혼불> ¶고금 천지간 세상에 일 죄인 죄첩은 이 몸의 일천 가지 근심과 일만 가지 한 되는 회포를 가져, 감히 당돌히 시아자바님 두 분 전에 이 한 {말쌈을} 아뢰오니, 엎디어 비옵건대 슬피 불쌍히 여기시고 자세히 살피시압소서.<최명희, 혼불>

지역 군산, 부안, 정읍.

말어지다 동 [대응어] 말리다(둥글게).

☞몰아지다.

지역 완주, 익산.

말자치 명 [대응어] 막내.

여러 형제, 자매 중에서 맨 나중에 난 사람. ¶오빠가 아들얼 셋 낳았는디 다 죽어 부리고 {말자치로} 아들 한나가 있었어. 네 살 묵어서 즈 아배가 그런 일 당해 부렀어.<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9>

지역 전북.

말짓 명 [발음] [말찓]

하지 말아야 할 못된 짓. ¶"용수 너도 야달 살이 아니냐? 인자는 {말짓만} 허고 댕기면 안된다이!" 내가 수저를 놓고 일어서려고 하자 어머니는 한 번 더 오금을 박아둔다.<이병천, 모래내 모래톱> ¶"오늘 {말짓을} 허다가는 우리 식구덜 모다 모래내 다리 아래로 이사가야 헐텡게 조심허야 허!" 어머니는 다시 내 귀에 대해서 말씀하신다.<이병철, 모래내 모래톱>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서 뿔난다더니 너는 왜 꺼특허면 {말짓

만} 허고 댕김서 아부지 얼굴에 똥칠을 허냐.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말짓'은 '심한 장난'을 뜻하므로 '짓궂게 하는 못된 짓.'을 말한다. '말짓'의 정확한 어원을 확인하기 어려운데 '말다'의 '말-'과 관련된 복합어가 아닌가 생각한다.

말짓허다 동 [발음] [말찌더다/말찌터다]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을 하다. ¶가만히 있제, 왜 {말짓허고} 돌아댕겨.
지역 전북.

말짱허다 형 [대응어] 말짱하다.
지저분한 것이 없고 깨끗하다. ¶멀국이 {말짱허지}. 탑탑허들 안 허고.
지역 전북.

말캉 명 [대응어] 툇마루.
집채 안에 바닥과 사이를 띄우고 깐 널빤지. 또는 그 널빤지를 깔아 놓은 곳. ¶떡 들어가서 보닌개 하, 광대를 뫼다놓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허는디, 하 그 안이 {말캉에} 가서 그 집 큰애기, 작은 집 큰애기, 옆집 큰애기, 앞집 큰애기 양 빡빡하게 들어서서<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아, 뭐 나같은 천덕꾸러기가 내외분 벌할 일 있소?" 저 {말캉} 한 쪽에다 상을 갖다 줬단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저녁으 인자 술을 잔뜩 먹고는 인자 외삼춘네 집을 갔어. 외삼춘은 외삼춘은 가고는 서히 인자 {말캉} 밑에 가서 숨어서 엿을 들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바쁜디 뭐 방으 들어가요 그냥 {말캉}으서 한술 떠먹고 가겄오.
지역 고창, 김제, 부안, 완주.

말쿠지 명 [대응어] 말코지.
물건을 걸기 위하여 벽 따위에 달아 두는 나무 갈고리. ¶아이구 차차 잊었구야/정저님네 씨든 호뭉이도 내어 놓소/아이구 너그 성 씨든 호뭉이 정지 {말쿠지에} 걸렸다 내다 놔라(임실 밭매는 소리-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천담)<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임실.

맘고상 명 [대응어] 마음고생.
마음속으로 겪는 고생. ¶"무주댁도 {맘고상} 몸고상이 끝도 없구만이라."<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맘보자기 명 [발음] [맘뽀자기] [대응어] 마음보, 심보.
마음을 쓰는 속 바탕. ¶함부로 툭툭 내뱉는 상스런 말버릇도 그대로요 온갖 못된 생각들로 득시글거리는 그 {맘보자기} 또한 깔축없이 그대로였다.<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맘보자기'는 표준어 '마음보'에 해당한다. '마음보'의 접미사 '-보'는 '그것이 쌓여 모인 것'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이 '보'를 '보(褓)'로 오인하여 '보자기'로 잘못 분석한 결과 '맘보자기'가 만들어진 것이다.

맘보재기 명 [발음] [맘뽀재기] [대응어] 마음보.
☞맘보자기. ¶"성깔은 저래도 {맘보재기} 하나는 제대로 두른 사람이지." 밥상을 받아 안으로 들인 다음 최 교장이 넌지시 하는 말이었다.<윤흥길, 낫>
지역 전북.

맘씨기다 동 [대응어] 내키다.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다. ¶그것이 억지로 되간디? {맘씨겨도} 될까말까인게 지가 알아서 하게 냅둬.
지역 전북.

맘죽 명 [대응어] 미음.
입쌀이나 좁쌀에 물을 충분히 붓고 푹 끓여 체에 걸러 낸 걸쭉한 음식. ¶5개월이 된 아기에게 맘죽을 끓여 먹였다. ¶애기들 이유식으로 {맘죽을} 멕이지만 소화가 잘돼서 환자식으로도 적당하다네.
지역 전북.

맛탱이 명 [대응어] 맛.
'맛'을 낮잡아 이르는 말. ¶에이구 저것 보구랴. 꼬추도 저리 {맛탱이} 하나 없게 어슷어슷 안 쓸었소이.<신경숙, 풍금이 있던 자리>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에서는 '맛'의 비속어로 '맛탱이, 맛대가리'를 쓴다. '맛탱이'는 '맛'에 접미사 '-탱이'가 연결된 것이다.

망개 명 [대응어] 청미래덩굴. ¶여기는 싸리가 귀해자네요. 그 열매를 {망개? 망개 망개}.<지역어 자료 총서, 무주> ¶아:! {망개가} 그나뭉갑따. 그게 {망갱갑따}. 망개나무 까시, 망개나무 까시다 그 삼짜개요.(청미래덩굴 청미래덩굴 가시, 청미래덩굴 가시에다 그 사립짝해요.)<지역어 자료 총서, 무주>
지역 무주.

망개나무 명 [대응어] 청미래덩굴. ¶아:! 망개가 그 나뭉갑따. 그게 망갱갑따. {망개나무} 까시, {망개나무} 까시다 그 삼짜개요.(청미래덩굴 청미래덩굴 가시, 청미래덩굴 가시에다 그 사립짝해요.)<지역어 자료 총서, 무주>
지역 무주.

망개쟁이 명 [대응어] 청미래덩굴. ¶우리기는 사니, {망개쟁이} {망개쟁이} 아능가요, 맹개쟁이 {망개쟁이}? {망개쟁이} 까시라고 까시가 도첸는디, 그기 넝축뽀고 이르케 키가 이러캐 커요.(우리에게는 산에, 청미래덩굴 청미래덩굴 아는가요, 청미래덩굴 청미래덩굴? 청미래덩굴 가시라고 가시가 돋쳤는데 그것의 덩굴을 보고 이렇게 키가 이렇게 커요.)<지역어 자료 총서, 무주>
지역 무주.

망깡 명 [대응어] 마루.
집채 안에 바닥과 사이를 띄우고 깐 널빤지. 또는 그 널빤지를 깔아 놓은 곳.
지역 전북.

망대 명 [대응어] 망태기.
물건을 담아 들거나 어깨에 메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든 그릇. 주로 가는 새끼나 노 따위로 엮거나 그물처럼 떠서 성기게 만든다. ¶망태기 {망대;} 망대구럭; 구러기라고<2007 전북 군산>
지역 군산.

망올 명 [대응어] 망월.
☞망월.
지역 임실.

망올망올 부 [대응어] 망울망울.
우유나 풀 따위 속에 망울이 여기저기 잘고 동글게 엉겨 있는 모양. 망울망울보다 작은 말. ¶그놈 반죽 {망올망올} 히가꼬.
지역 전북.

망우리 명 [대응어] 망월.
달을 보는 행위. 흔히 민속놀이의 일종으로 행해진다.
지역 전북.

망우리 명 [대응어] 멍울.
아직 피지 아니한 어린 꽃봉오리. ¶3월말인게 꽃나무에서 {망우리가} 한나둘씩 생기는구만.
지역 무주.

망월이 (望月이) 명 [대응어] 망월.
달을 보는 행위. ¶달 보는 것은 {망월이}.<지역어 자료 총서, 고창>
지역 완주, 임실.

망인 명 [대응어] 소경.
시각에 이상이 있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지역 정읍.

망자 명 [대응어] 검은자위.
눈알의 검은 부분. ¶2804 검은자위 {망자라} 그러제<2008 전북 고창>
지역 고창, 김제, 순창, 완주.

망팅이 명 [대응어] 망태기.
물건을 담아 들거나 어깨에 메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든 그릇. 주로 가는 새끼나 노 따위로 엮거나 그물처럼 떠서 성기게 만든다. ¶이 대사님은 혼자 자 잠을 안자고 새내끼를 꼬더만은 {망팅이를} 한 뎃말 정도 들만하게 망팅이를 하나 맨들어 놓고는.<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맞다치다 동 [대응어] 맞닥치다.
서로 마주 다다르다. 또는 서로 함께 다다르다. ¶불량배와 {맞닫치다}. ¶웬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너니 그 놈의 빚쟁이를 골목으서 딱 {맞닫쳤는디} 벤명도 못허고 도망도 못가고 그날 아주 혼꾸녕이 났지. ¶큰형과 작은형이 동시에 우리집으로 {맞닫쳤다}. ¶철수와 영호는 한바탕 싸울 듯이 {맞닫치고} 있다.
지역 전북.

맞도고질 명 [대응어] 맞방아.
두 사람이 마주 서서 번갈아 찧는 절구질.
지역 전북.

맞도고질허다 동 [대응어] 맞방아하다.
두 사람이 마주 서서 절구질을 하다. ¶혼자 하는 거보다는 둘이 {맞도고질허는} 것이 훨씬 수월하제. 내가 올라간 도막 저짝이서 내리친게. 나는 쉬잖여.
지역 전북.

맞초다 동 [대응어] 맞추다.
서로 떨어져 있는 부분을 맞게 대어 붙이다. ¶가만히 생각히 본게 이 큰일났거든. 총각한티 젖통을 만치고 코를 빨고 입을 {맞촸으니} 이것 어뜧게 헐 도리가 있냐.<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김제, 남원, 순창, 임실, 정읍.

맞치다 동 [대응어] 맞추다.
둘 이상의 대상들을 서로 견주어 보거나 알맞게 하다. 또는 어떤 조건에 알맞게 하다. ¶깨진 조각을 {맞치다}. ¶장롱을 잘 {맞치지} 않으면 문이 삐걱거리고 고장이 난다. ¶문제가 어려워서 답을 {맞친} 사람이 별로 없대여. ¶우리가 잘 말을 {맞쳐야지} 될 일이 되지 글않으면 될 일도 안 돼야. ¶시간에 {맞쳐} 거 가 봤냐?
지역 순창.

매가지 명 [대응어] 모가지, 멱살.
'목'을 속되게 이르는 말. ¶가도 않고 개를 갔다는게 개란 놈이 울음소리를 듣고 귀를 쫑긋허니 들더니 우르르 쫓아가서나 {매가지를} 잡어서 그냥 물어서 흔들으니까 흐연헌 백여수여.<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이 따러간 사람이 대변을 보란게 산창 이케 남진디서 대변을 보는디 칼로 {매가지를} 질렀어요. {매가지} 질러서 죽이가지고 거그다 피 흘렸놈을 걍 그 밑이다 걍 떨어트림서는 흙으로 덮어놓고 왔단 말

여.<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두 아저씨가 한참 목소리가 크더니 어느새 {매가지를} 잡고 싸울 태세였다.
지역 군산.

매급시 부 [대응어] 맥없이.
아무 까닭이나 실속이 없게. ¶농사철 당해서 {매급시} 맘 들뜨지 말고 두렛일 소홀허게 말그라. 잉?<최명희, 혼불> ¶엊저녁으도 못 지무셌능게 빈디. 어쩌까아. 내가 {매급시} 그런 말씀을 디렸으까? 봉출이가 머라고 허드래도 기양 나만 알고 있을 것을. 음마, 그래도 나는 들은 대로 다 욍기든 안했는디?<최명희, 혼불> ¶내 얼굴에 뭐가 묻었니? 왜 갑자기 {매급시} 웃고 그래? ¶오늘 장날도 아닌디 {매급시} 왔는게벼. ¶영호는 {매급시} 나만 보면 손을 툭툭 치곤 한다.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매급시'는 표준어 '맥없이'가 달리 발음된 것이다. '맥(脈)'은 '기운이나 힘'을 뜻하는 말인데 '맥없이'는 '기운 없이, 힘없이'의 의미에서 '아무 까닭도 없이.'로 그 의미가 변한 것이다.

매기 명 [대응어] 액막이.
가정이나 개인에게 닥칠 액을 미리 막는 일. ¶{매기}. {매기라고} 그려. 올 일년 신수 {매기헌다고} 히야제. ¶주장멕이는 다르고 인자, 여그 {매기는} 정월 보름에 매기허고.
지역 순창.

매기허다 동 [대응어] 액막이하다.
가정이나 개인에게 닥칠 액을 미리 막다. ¶올 일년 신수 매기헌다고 히야제. ¶주장멕이는 다르고 인자, 여그 매기는 정월 보름에 {매기허고}, ¶아파서 돈 것은 주장방애, 재수 있으라고 {매기허고}. ¶그리고 정월 보름날은 대보름 인자 {매기허고}.
지역 순창.

매꼬롬하다 형 [대응어] 매끈하다.
흠이나 거친 데가 없이 부드럽고 반드러운 느낌이 있다.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매꼬롬하다'는 '매끌다'에 형용사파생접미사 '-으롬하-'가 연결되어 '매꼬롬하다'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매꼬롬허다 형 [대응어] 매끈하다.
흠이나 거친 데가 없이 부드럽고 반드러운 느낌이 있다. ¶생긴 것은 {매꼬롬헌디}, 허는 짓거리를 보면 틀리 먹었어. ¶{매꼬롬한} 피부 ¶그렁게 기수를보다도 인자 고거시 사미, 고거꼬 껍떼기가 야꼬 {매꼬롬허니} 존 노믄 가늘게 쪼개져도 쪽쪽 잘 나가고, 인자 사미 조께 막 울툭불툭허니 안존 노믄, 막 껍따기 두꿉꼬<2005 전북 남원> ¶대패로 얼마나 밀었던지 {매꼬롬허구나}.
지역 전북.

매꼬롬히 부 [대응어] 매끈히.
흠이나 거친 데가 없이 부드럽고 반드럽게. ¶망헐 년, 색기 허고는. 너도 참 주막각시 팔짜로 천상 타고났다. 팔짜 도망은 시상 없어도 못헌다등만. 낯반대기가 저렇게 핥어논 것맹이로 {매꼬롬히} 생겠이니. 니 팔짜가 순탄허겄냐.<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매꼼매꼼 부 [대응어] 매끈매끈.
생김새 따위가 매끈하고 깨끗하게. 또는 흠이나 거친 데가 없이 부드럽고 반드럽게. ¶그래서 당골네 자식들은 너나없이 모다 곱상허니 생김새 {매꼼매꼼} 허잖이여?<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ㅁ

해설 전북 방언의 형용사 '매꼼하다'의 어근 '매꼼'은 어원을 파악하기 어렵다. '매꼼'이 두 번 반복되어 '매꼼매꼼'이란 복합어로 쓰이고 있다.

매꼼하다 형 [대응어] 매끈하다, 깔끔하다.
생김새 따위가 매끈하고 깨끗하다. 또는 흠이나 거친 데가 없이 부드럽고 반드럽다. ¶말 딛기로는 즈그 아배를 탁에서(닮아서), {매꼼허고} 내노라 허는 할량이라든디.<최명희, 혼불> ¶가만히 문을 열고 머리를 더듬어 보닝개 {매꼼하단} 말이여, {매꼼하닝개}<한국구비문학대계, 전북전주시·완주군편>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의 형용사 '매꼼하다'의 어근 '매꼼'은 어원을 파악하기 어렵다. '매끈하다'와 '깔끔하다'의 혼태형으로 이해된다.

매누리 명 [대응어] 며느리(婦).
☞메누리. ¶아덜, {매누리}, 시어머니, 그러고 서이 가요.<지역어 자료 총서, 고창> ¶아들 있으면 {매누리} 삼었으면 똑 좋겄네.<송기숙, 녹두장군> ¶옛날이 그 어느 노인허고 {매누리허고} 밥을 먹는디<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전북.

매다 동
책이 더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달력이나 헌 종이로 책을 싸다. ¶새책 타오면 책부터 {매}. 넘 줄라면 책 {맨} 놈 까우는 벳겨버리고 깨깟헌 놈 주제.
지역 전북.

매다굽시 부 [대응어] 공연히.
아무런 까닭이나 실속이 없게. ¶{매다굽시} 화를 내네.
지역 전북.

매달레다 동 [대응어] 매달리다.
'매달다'의 피동사. ¶등이 나무 꽁댕이에 {매달레} 있고만.
지역 순창.

매달르다 동 [대응어] 매달리다.
줄이나 끈, 실 따위에 잡아매여서 달리다. ¶문에 열쇠통이 {매달러} 있네여.
지역 임실.

매답 명 [대응어] 매듭.
노, 실, 끈 따위를 잡아매어 마디를 이룬 것. ¶요로코롬 {매답을} 매야지 안 클려져.
지역 군산.

매댕이 명 [대응어] 매끼.
곡식 섬이나 곡식 단 따위를 묶을 때 쓰는 새끼나 끈. 또는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곡식 섬이나 곡식 단 따위를 묶을 때 쓰는 새끼나 끈을 세는 단위.
지역 전북.

매디 명 [대응어] 마디.
☞모디.
지역 고창, 김제, 정읍.

매딸다 동 [대응어] 매달다.
줄이나 끈, 실 따위로 잡아매어서 달려 있게 하다. ¶메주를 기둥에 {매딸아} 놓으면 메주 만드는 일은 이제 모두 끝나.
지역 무주.

매라다 형 [대응어] 마렵다.
대소변을 누고 싶은 느낌이 있다. 또는 입이나 목에 물기가 없어 물을 마시고 싶은 느낌이 있다. ¶그아 언젠가는 한번 시어머니가 변소가 {매

라서} 나오닌간 갓 쓴, 갓 쓴 기름자가 뵈드래야. 그리서 이러고 쳐다보닝간 이상스럽게 생겼드래야.<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전북.

매랍다 형 [대응어] 마렵다.
대소변을 누고 싶은 느낌이 있다. 또는 입이나 목에 물기가 없어 물을 마시고 싶은 느낌이 있다. ¶.그 어느 산고개를 넘어오다가 거그서 인자 대변이 {매랍다고} 그러거든. 이 따러간 사람이 대변을 보란게 산창 이케 남진 디서 대변을 보는디.<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전북.

매렵다 형 [대응어] 마렵다.
대소변을 누고 싶은 느낌이 있다. 또는 입이나 목에 물기가 없어 물을 마시고 싶은 느낌이 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못해서 소변보러 나간다구 허구서 도망을 칠 예정으로 소변이 {매렵다} 나갈라구 하니까, 소변통 여기있다 내주는 것이, 방에서 나가두 못허게 혀.<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방금 내가 황소 한 마리를 팔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오다가 대변이 {매렵길레} 보고서는 나 볼 일만 보고서 그놈의 것을 집어 내쏘고 그냥 가다가.<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전북.

매방석 (매方席) 명 [대응어] 맷방석.
주로 매통이나 맷돌 아래 깔아 곡식을 담거나 방석으로 쓰는 짚으로 만든 물건. 멍석보다 작고 둥글며 전이 있다. ¶추수를 하먼은 마당에다가 {매방석얼} 좌악 깔아놓고 그 우에다가 벼니 콩이니 좁쌀이니 널어놓구 그러지.
지역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임실, 정읍, 진안.

매시랍다 형 [대응어] 야주지다.
일 솜씨가 야무지고 뛰어나다. ¶그러나 집안에 연을 날릴 소년이 없는 기응은, 남달리 {매시라운} 손끝으로 장구도 잘 쳤지만, 연 만드는 솜씨도 그에 못지않아, 큰집 작은집의 두 조카들을 주려고 공들여 고운 연을 만들곤 하였다.<최명희, 혼불> ¶금메 니넌 몸땡이 크게 타고나고 손끝 {매시라운께} 그놈에 성질만 죽임사 일등가는 질쌈 선수가 된다니께.<조정래, 태백산맥> ¶보름이 저사람 손끝도 {매시랍고}, 이문도 톡톡허다고 허든디.<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매운때 명 [대응어] 냉이. ¶봄에 {매운때} 내음을 맡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지.
지역 전북.

매차리 명 [대응어] 회초리.
때릴 때에 쓰는 가는 나뭇가지. 어린아이를 벌줄 때나 마소를 부릴 때 쓴다. ¶아들이 말을 안 들으면 {매차리를} 들곤 했지.
지역 전북.

매칼없이 부 [대응어] 공연히.
아무런 까닭이나 실속이 없이. ¶나도 먼 놈의 뺄소릴 내동 {매칼없이} 시부렸능가 당최 가물거리는 것은 마찬가지시!<조봉래, 풀벨골> ¶아이고, 속 터져어. 속 터져. 내 쇡어여어. 담배씨로 꽁꽁 찧어를 보끄나아, 솜방맹이로 쾅쾅 뚜드려를 보끄나아, 기가 맥혜 말이 안 나오네. 아니, {매칼없이} 기양 무신 사단만 났대도 내가 눈구녁 튀어나올 판인디, 머이 어쩌고 어쩌? 애기를 배야?<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매칼없이'는 '맥아리없이'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매커랍시 부 [대응어] 공연히.
아무런 까닭이나 실속이 없이. ¶{매커랍시} 화를 내고 그런다냐.
지역 전북.

매품장이 명 [대응어] 매품.
예전에, 관가에 가서 남을 대신하여 매를 맞고 그 대가를 받는 일을 이르던 말. 또는 그 대가를 이르던 말. ¶나가 동니서 젤로 맨맛헌 {매품장이제}.<조봉래, 풀벨골> ¶옛날에 어떤 선부 한분이 집이 가난해지고 참 {매품장이도} 못허고 참 아사 지경에 처했는데,<한국구비문학대계, 정읍시>
지역 전북.

매항 명 [대응어] 매형.
☞매향. ¶가는 우리 고모의, 우리 친 고모의 손진디. 어려서 아버지가 도라가셨써요. 이 중학꾜를 다니냐 몯 따니냐 그 판구게 노연는디, 즈그 {매항이} 어츠께던지 너는 내가 서두러서라도 중학꾜를 보내지, 그래가지구 해리중학꾜를 나왇써요.{이 중학교를 다니냐 못 다니냐 그 판국에 놓였는데, 그 매형이 어떻게하던지 너는 내가 도와서라도 중학교를 보내지, 그래 가지고 해리중학교를 나왔어요}.<지역어 자료 총서, 고창>
지역 고창.

매행 명 [대응어] 매형.
☞매향.
지역 전북.

매향 명 [대응어] 매형.
손위 누이의 남편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 ¶{매향네} 집이를 가서 본게 암도 없는디 에린 아들만 있어. 근게 갖다가 그놈을 놓고 {매양} 오기를 기두리는디 저 {매향} 새끼들저 생질 새끼들이 허는 얘기가 뭐락헌고니, "얼래 얼래 하나씨 목구녁 저 모가지가 피 나오덧기 헌다."고 허네. <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익산.

매헹 (妹兄) 명 [대응어] 매형.
☞매향 ¶{매헹이} 오셨나보구만.
지역 완주, 무주, 순창, 남원.
해설 '매항'은 '매형'의 전북 방언형이다. 전북 방언에서는 '매형'은 '자형' 우세하다. 그런데 '매형'이 사용될 경우에는 '매양~매영~매형' 등으로 실현된다.

매호래기 명
갓의 한 종류. ¶패랭이 꼭지다 제화를 달고 {매호래기} 춤이나 추어를 보세/헤 헤 헤 야하하 헤헤헤헤 헤 헤헤헤 야하허루 상 사아 뒤여(익산 모심는 소리/상사소리/자진 상사소리)<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익산.

매화라기 명
☞매호래기. ¶남훈전 달 밝은디 순임금의 놀음이요/학창의 푸른 도술이 산신님의 놀음이요/오뉴월이 당도허니 우리 농군 시절이로다/패랭이 꼭지에다 계화를 꼽고서/{매화라기} 춤이나 추어보세/어어이 여어허 여허어 여루우 사아앙 사아아 뒤이여(익산 모심는 소리/상사소리)<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익산.

맥살[2] 명 [대응어] 맥.
어떤 일을 할 기운이나 의욕. ¶"이런 일에 빠진 사람이 있어노먼 내는 사람도 {맥살이} 풀리잖겄어?"<송기숙, 녹두장군>
지역 전북.

맥살 명 [대응어] 멱살.

☞맥살. ¶그놈얼 {맥살을} 잡아서 마당에다 패대기럴 쳐 뿐 것이여.
지역 전북.

맥살없이 부 [대응어] 맥없이.
기운 없이. 또는 힘 없이. ¶달주도 {맥살없이} 따라 웃었다.<송기숙, 녹두장군> ¶조망태는 {맥살없이} 물러 나오고 말았다.<송기숙, 녹두장군 3, 989, 58>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맥살'은 표준어 '맥(脈)'에 해당하는 어휘이다. '맥살없다'는 '맥살이 없다.'의 구성이 굳어져 쓰이고 있다. 그래서 '맥없이, 맥살없이'로 쓰이면서 '아무 까닭이 없이, 아무 기운이 없이'의 의미를 갖는다.

맥아리 명 [대응어] 맥.
기운이나 힘. ¶"강서방, 대답이 어찌 그리 {맥아리가} 없소, 저녁밥 안 묵었소." 장칠문이 쏴질렀다.<조정래, 아리랑> ¶젊은 놈이 어찌 노상 {맥아리가} 그렇게 없냐?<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의 접미사 중에서 '-아리'는 대체로 낮잡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속창아리, 창아리, 주둥아리' 등에서 볼 수 있다. '맥아리'도 표준어 '맥'을 낮잡는 어휘로 쓰고 있다.

맥히다 동 [대응어] 막히다.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되거나 중단되다. 또는 앞이 트이지 않게 쌓이거나 둘러싸이다. ¶그래도 이불을 못 벳겨. 김도령이 안 벗어. 캄캄헌 이불속으서 똑 숨이 {맥혀} 죽겄는디 지침도 못허고, 메주 띄우디끼 진득허게 몸뗑이를 띄움서 참고 있능 거이라.<최명희, 혼불> ¶거그다가 시방 경색(梗塞)이 되야 부렀는디. 사방이 {맥헤} 갖고 숨통조차 안 열링만, 어서 어디로든 들으가 바늘로 좀 손구락 발구락 같은 디를 따야 안허겄소?<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맨글다 동 [대응어] 만들다.
☞맹글다. ¶살어가지고는 '요놈 원수 풀이를 어찧게 갚으꼬' 허고 또 다시 그 다음에는 백삼치기를 깨끄러가지고 엽전같이 {맨글아} 가지고 전대를 차고 또 그 집에를 갔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꼬시고 고소롬헌 말얼 다 들다봉게 그거시 모다 귀 간질간질허게 {맨글고} 간 사리살짝 녹게 {맨글고}<조정래, 아리랑>
지역 정읍.

맨나 부 [대응어] 만날.
매일 같이 계속하여서. ¶앞으로 {맨나} 먹는 콩너물이나 배추나 무수 같은 디다가 농약을 허는 사람들은 지발 부탁인디 그러들 마러요!<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어찌서 씨라구국 안 끓이고 {맨나} 괴깃국만 먹는지 몰로겄어.<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니 말로는 사람이 많다고는 허드라만, 허밨자 {맨나} 남정네들뿐일 틴디 끄니때마동 밥이랑 국이랑은 누가 끼리나?<윤흥길, 장마>
지역 전북.

맨날 부 [대응어] 만날.
매일같이 계속하여서. ¶그러니깨 그 여자가, "아니 {맨날} 돈 갖다가 그 그것을 만족이 되나?" 고. "아 그렇다." 고.<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응, 구녁으로 나가게 그 공부를 허. {맨날} 그놈의 공부만 허.<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그런개 그 사람은 그냥 {맨날} 죽을라는 데루만 들어가구 더 매를 맞었쌓구 그려.<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군산, 부안, 전주, 정읍.

해설 '날마다'를 뜻하는 부사로서의 쓰임이 많다.

맨드롬하다 형 [대응어] 밋밋하다.

생김새가 미끈하게 곧고 길다. ¶저 사람은 {맨드롬히} 참 이쁘게 생겼네잉. ¶근디 모갭이 이 사램이 깎어 논 것은 달르드라고. {맨드로옴허니} 태가 나서 아조 이뻤제잉.<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맨드롬하다'는 의태어 부사 '맨들'에 형용사파생접미사 '-옴하-'가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맨들맨들하다'와 관련이 있다.

맨들다 동 [대응어] 만들다.

노력 따위를 들여서 목적하는 사물, 상태, 시간, 집단 따위를 이루다. ¶거기 여그로 갈 것 같으면 연방죽골이라고 그전 방죽이였었는디 시방 밭으로 있거든요. 거가 밭으로 {맨들어가지고} 있는디,<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그런게 야 요것 죽여버리머는 내 살림이 완전허겄다 그리고서, 밤이 알도살도 못헐 때 자그 혼자 문서를 {맨들어} 돈도 한푼도 안가죤걸로 하고 세경도 어느 달이 얼매 가지가고 어느 때 얼마 가지가고 얼마 가지가고<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그 양반은 요즘 독립영화를 맨드는 데 전념하고 있대. ¶함흥차가 오라고먼. 그전 뭣이도 있고 그 그런 그런 분인디, 그때 인제 그 이성계에 그분을 왕위로 {맨들라고} 노력 헌 양반여, 우리 하나버지가 청민굉이, 그리서 인자 충민공 시호도 나중으 났고 그때에 노건이 다 있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청국두 그놈의 사회주의라냐, 그 부랑당 속을 {맨들어……}? 그게 무어니무어니 하여두 이 사람아, 알구 보넹개루 바루 부랑당 속이지 별것이 아니데그려……? 자네는 모르리마넌 옛날 죄선두 활빈당(活貧黨)이라녕<채만식, 태평천하> ¶등록금을 {맨들다} ¶기회를 {맨들다}. ¶흠집을 {맨들다}. ¶화근을 {맨들다}.

지역 군산, 정읍, 완주, 부안, 남원.

맨만허다 형 [대응어] 만만하다.

부담스럽거나 무서울 것이 없어 쉽게 다루거나 대할 만하다. ¶{맨만허게} 대할 사람이 없다 ¶왜 나한티만 그런거여, 내가 {맨만허냐}? ¶동생은 내가 {맨만한가} 나 한테만 까분다.

지역 전북.

맨맛이 부 [대응어] 만만히.

연하고 보드랍게. 또는 부담스럽거나 무서울 것이 없어 쉽게 다루거나 대할 만하게. ¶{맨맛이} 만들다 ¶반찬이 너무 싱거워서 {맨맛이야}. ¶{맨맛이} 다루다 ¶니가 사람이 좋응게 {맨맛이} 보고 너한티만 달라드는 거여.

지역 전북.

맨맛하다 형 [발음] [맨마다다/맨마타다] [대응어] 만만하다.

쉽게 다루거나 대할 만하다. ¶"아, 아니, 그렇다 허이면 그 빌어먹을 예펜네가 {맨맛헌} 교회 핑계대고 시방 따른 엉뚱헌 동네에 가 있다, 요런 말쌈이지요?"<윤흥길, 빛가운데로걸어가면>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맨맛하다'의 어근 '맨맛'은 어원을 파악하기 어렵다. 표준어 '만만하다'에 해당한다.

맨맛허다 형 [발음] [맨마더다/맨마터다] [대응어] 만만하다.

쉽게 다루거나 대할 만하다. ¶나가 고러케 {맨맛허} 보이데?<조봉래, 풀벨골> ¶아, 아니, 그렇다 허이면 그 빌어먹을 예펜네가 {맨맛헌} 교회 핑계대고 시방 따른 엉뚱헌 동네에 가 있다, 요런 말쌈지요?<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오냐, 조오타! 사성촌자 죽일 것이 그렇게도 궁허서 심없고 죄없는 즈그 마느래나 {맨맛허니} 쌔려죽일 궁리 허는 잘난 냄편 그 주먹맛 쪼깨

보자! 쳐라, 쳐, 이놈아! 어서 죽여라, 죽여, 이놈아!<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아 그러고, 상놈이 지미 정승허고 혼사를 혔단다고 헌게, 뭐 대벌 양반 버리고. 어떤 놈이 {맨맛으게} 뭐 말 한 자리 허는 놈 없고, 참 고만허게 지내는디.<구비문학대계, 정읍시>

지역 전북.

맨맛허먼 홍에좆이다 【관용표현】

쉽게 다루거나 대하는 하찮은 존재이다. ¶{맨맛허먼 홍에좆이라고} 왜 우리같은 불쌍헌 사람덜을 괴롭히냐고?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의 형용사 '맨맛하다'는, 표준어로는 '만만하다'인데 '쉽게 다루거나 대할 만하다.'의 뜻을 가진다. '홍어좆'은 가장 쓸모없는 존재라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여기서는 '쉽게 다루거나 대하는 하찮은 존재'라는 뜻을 갖는다.

맨사댕이 명

아무것도 입지 않거나 걸치지 아니하여 드러난 살이나 몸. ¶애기를 저렇게 {맨사댕이로} 두냐? 춘디.

지역 전북.

맨씨로 조 [대응어] 처럼.

☞맹이로.

지역 전북.

맨치 조 [대응어] 만큼.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사람이 없는 경우에 {쪼고맨치} 찔라면 여그다 쩌<이태영(1986)>

지역 전북.

맨키로 조 [대응어] 처럼.

☞맹키로.

지역 전북.

맬거하다 형 [대응어] 말끔하다.

티 없이 맑고 환하게 깨끗하다. ¶{맬거하게} 차려 입고 길을 나서다

지역 전북.

맬금하다 형 [대응어] 맑스그레하다.

조금 맑은 듯하다. ¶{맬금한} 물을 따라뿌리제.

지역 전북.

맬캉 부 [대응어] 말끔.

조금도 남김없이 모두 다. ¶{맬캉} 모았네.

지역 전북.

맴벅 (맴壁) 명 [대응어] 흙벽.

흙을 재료로 하여 만든 벽. ¶{맴벅을} 세워서 담벼락을 만들었어.

지역 남원.

맴보따리 (마음褓따리) 명 [대응어] 마음보.

마음을 쓰는 속 바탕. ¶장로를 그런 식으로 대한다는 건 한 줌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는 사람으로서 차마 해서는 안 될 짓거리였다. "양말짝맨치로 {맴보따리를} 홀렁 까뒤집어서 되야디릴 수도 없는 일이고, 참말로 깝깝한 노릇입니다요. 멫 번이나 말씸디려야 알어들으시겄습니까요?"<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니가 {맴보따리}를 그 따오로 씅게 미운소리를 듣지.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맴보따리'는 표준어 '마음보'에 해당한다. '마음보'의 접미사 '-보'는 '그것이 쌓여 모인 것'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이 '보'를 '보(褓)'로 오인하여 '보자기, 보따리'로 잘못 분석한 결과 '맘보자기, 맴보따리'가 만들어진 것이다.

맴보재기 (마음褓자기) 명 [대응어] 마음보.

마음을 쓰는 속 바탕. ¶죽이 대가리를 내밀 적에 답삭 붙들어야지, 안 그러고 꼬랑지 붙들라 허다가는 결국 기회를 놓치고 마는 벱이여. 슨지자님 {맴보재기} 곤쳐먹기 전에 싸게 일어나서 전꽈 칠범짜리 그 잘난 낯짝 쪼깨 귀경시켜주잔 말여."<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애비 너 그러면 못쓰는 벱이다. 회사 돈은 돈 아니냐? 사람이 {맴보재기를} 바로 가져야지, 니 쌈짓돈 축내는 것 아니라고 비싼 존화질 함부로 허서야 되겄냐?<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인정머리라고는 눈곱맨치도 없는 그 고약시런 {맴보재기} 덮어쓰고 천당 가기는 애저녁에 글러먹었다, 이 예펜네야.<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체 준수허니 잘 빠진 신랑 한나 달칵 물어서는 밤이면 밤마닥 스 말 닷 되썩 깨소곰 쏟아지게 살 지 알었는디, {맴보재기가} 칠산바다 맨치나 널룬 사나 품에 처억허니 앵겨서는 껌은머리 파뿌리 되드락 백년 해로험시나 호강팔자 누리고 살어볼라고 혔는디, 요게 시방 뭣이다냐.<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맴생이 명 [대응어] 염소.

☞맹생이. ¶그 큰사람이 사방 하인을 시기서는 짐승 간을 천 개를 귀별혔어. 저 {맴생이} 간, 소 간, 개 간, 그렇게 간을 천 개를 귀별히서는 딱 허니 괴짝으다 너놓고서는<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전북.

맴소 명 [대응어] 염소.

☞멈소. ¶서당을 갔다오면 뭣을 취미로 허냐믄 {맴소를} 사가지고 {맴소}, 염소, 그걸 띠끼기도 취미를 부쳤어.<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부안.

맵상허다 형

용모가 깔끔하고 단정해서 예쁘다. ¶귀영머리 땋고 댕기 대리고 헌게 {맵상허니} 이쁘거든.

지역 전북.

맵재 명 [대응어] 왕겨.

벼를 찧은 맨 겉껍데기. ¶풀무를 부석작에서 쓸 때는 {맵재} 땔 때 썼는디 풀무질을 허다가 불이 잘 안 일어난다고 아궁이에 고개 처박고 물팍 쭈그려트리고 볼라치면 화악 시뻘건 불이 무더기로 얼굴을 덮처 얼굴을 디기도 허고, 앞머리카락 꼬부꼬불 타버리기도 했지라우.

지역 전북.

맵저 명 [대응어] 겨.

벼의 겉겨.

지역 고창, 김제, 부안, 군산, 완주, 익산, 정읍.

맵제 명 [대응어] 왕겨.

벼에서 처음 벗긴 굵은 겉겨. ¶{맵제를} 갖다가 밥하는 디 불도 때고 그렸어.

지역 장수, 군산.

맵지 명 [대응어] 왕겨.

☞맵제.

지역 장수.

맷돌씹 명 [대응어] 암쇠(맷돌, 위).

맷돌 위짝 가운데에 박힌, 구멍이 뚫린 쇠.

지역 전북.

맹간허다 형 [대응어] 맹근하다.

☞밍근하다. ¶어젯밤 불기운이 남었는지 아직까지 아랫묵이 {맹간허다}.

지역 임실.

맹감 명 [대응어] 청미래덩굴. ¶애비 무덤 자리를

영념허고 기억해 둘 처지도 아니었고, 상것들 무덤에 비석이 있습니까 표지가 있습니까, 세월 가면 잡초더미에 {맹감} 넝쿨이나 우거지지 구분도 어려워서, 찾고자 해도 제 애비 뼈다귀는 찾을 길 없게 마련이지요.<최명희, 혼불>
지역 군산, 고창, 부안, 정읍, 김제, 남원, 완주, 임실, 장수, 진안.

맹개쟁이 명 [대응어] 청미래덩굴.
☞망개쟁이. ¶우리기는 사니, 망개쟁이 망개쟁이 아능가요, {맹개쟁이} 망개쟁이? 망개쟁이 까시라고 까시가 도첸는디, 그기 넝축뽀고 이르케 키가 이러캐 커요.(우리에게는 산에, 청미래덩굴 청미래덩굴 아는가요, 청미래덩굴 청미래덩굴? 청미래덩굴 가시라고 가시가 돋쳤는데 그것의 덩굴을 보고 이렇게 키가 이렇게 커요.)<지역어 자료 총서, 무주>
지역 무주.

맹건허다 형 [대응어] 맹근하다.
☞밍건허다.
지역 전북.

맹것 형
맛이 보통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약한, 음식의 간이나 맛. 또는 야무지지 못한, 행동이나 말. ¶국물맛이 순 {맹것이여}. ¶그 댁 도련님은 행동이 순 {맹것이랑게}.
지역 남원.

맹경 (←明鏡) 명 [대응어] 명경.
매우 맑은 거울. ¶방안 등물이 나올 제/{맹경}체경 경대 탁자/ 의결이 들렁영 자개함농으/퇴침 안석 보육/사방으 침일산(진안 고사풀이-진안군 마령면 계서리 서산)<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진안.

맹글다 동 [대응어] 만들다.
노력 따위를 들여서 목적하는 사물, 상태, 시간, 집단 따위를 이루다. ¶시루를 도둑질 히다가 바우(바위) 트매기(틈)에다가 두께비란 놈 보고 불때라고 허고 이것을 어찌케 어찌케 히서 떡을 우물쭈물 {맹글어} 놓고서 보니, 그놈 스이 나눠 먹어도 충분히 먹을 것이로되,<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추석에는 송편을 {맹글어} 차례를 지냈어. ¶버릴 수가 없으닌게 그 제자들이 예법을 나중으 맹글음서 예법을 {맹글음서} 장개갈 적으 초례청으 신고 들어가는 술회자가 그리서 말허자믄 율곡선생으 따님, 독재 사모님이 맨든 것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아이, 그 용이 용꿈을 꾸었는디 이 구름이 없어 못 올라간게 대양으다 물을 떠나 놓고 그 연기로 구름을 맹글어서 올라가게 {맹글었다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그래 흥무왕이 그 도둑놈들을 싹 다 잡아 갖고는 그 군사를 {맹글었어}. 군사를 맹글어 갖고, 아 인자 고구려, 백제, 그래 갖고 세 나라를, 두 나라로 평정을 시키고,<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그렇게 쓸디 없는 일을 {맹글어서} 허는걸 본게 헐일이 드럽게 없는게빈디 논에 짐이나 메러 가자. ¶내가 지금은 먹고 사니라고 고향을 가는게 힘들지만 차차 시간 {맹글어서} 찾아봐야지. ¶너는 멀쩡한 팔뚝을 왜 긁어서 부스럼을 {맹그냐}.
지역 남원, 순창, 정읍, 진안, 군산.

맹기 조 [대응어] 처럼.
모양이 서로 비슷하거나 같음을 나타내는 격 조사. ¶기양 {편지맹기} 요로케 딱 여그다 이름, 성명 써서.<백은아(2016)>
지역 남원.

맹길다 동 [대응어] 만들다.

☞맹글다. ¶“어이 보소, 고 동무, 아덜얼 딱허니 맹길 자신이 있는겨, 읎는겨?”<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맹깽깽이 명 [대응어] 빈털털이.
가진 게 없는 사람을 이르는 말. ¶주책없는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었다. “이놈아, 네 형편에 대학물만 먹어도 어디냐. 서울? 아아나 서울. 돈도 없이 {맹깽깽이로} 서울 가면 누가 널더러 아이구 총각 잘 왔소, 기다리고 있던 참이오, 이럴 줄 아냐. 서울놈들이 어떤 놈덜인디.<최일남, 서울의 초상>
지역 전북.

맹깽깽이다 형 [대응어] 싱겁다.
음식의 간이나 맛이 보통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약하다. 또는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말, 글 따위가 야무지지 못하다. ¶김치가 이렇게 {맹깽깽이} 맛이라 소금을 조금 더 넣어야겠구나. ¶2060 {맹깽깽이제}, 싱겁쩨<2005 전북 남원> ¶우리 집 장손이 딴디가서 {맹깽깽이}짓이나 허먼 집안 우세여. ¶배추에 소금이 안 들어갔는지 {맹깽깽이다}.
지역 남원.

맹무식 (無識) 명 [대응어] 일자무식, 판무식, 전무식.
글자를 한 자도 모를 정도로 무식함. ¶그뿐만 아니라 논까지 한 마지기 가지고 있는 것에 더 놀랐고 틀림없이 {맹무식 일} 줄 알았던 오빠가 글을 줄줄 읽고 쓰는 것에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맹무식’은 한자어 ‘盲無識(맹무식)’으로 보인다. 무식한 정도가 아주 심하다는 뜻으로 ‘맹’을 접두사로 사용하였다.

맹생이 명 [대응어] 염소. ¶거그 가 본게 {맹생이} 울음소리가 들렸어.
지역 김제, 완주, 임실, 익산.

맹애기 명 [대응어] 명매기. ¶{맹애기가} 날아가네.
지역 전북.

맹연 명 [대응어] 망인.
☞맹인. ¶어허어허 불쌍허네 불쌍허네/돌아가신 {맹연이} 불쌍허네 보살(순창 상여소리)<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순창.

맹으로 조 [대응어] 처럼.
☞맹이로.
지역 전북.

맹이 조 [대응어] 처럼.
모양이 서로 비슷하거나 같음을 나타내는 격 조사. ¶양반은 다 {신선맹이라도} 넘 모르게 속 썩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여.<최전승 외(1992)> ¶무신 꿈 뀐 {것맹이였겄네요}.<최전승 외(1992)> ¶어찌케 너허고 앉었는 거이 똑 {나맹이냐}?<최전승 외(1992)>
지역 전북.

맹이로 조 [대응어] 처럼.
모양이 서로 비슷하거나 같음을 나타내는 격 조사. ¶산이다가 {목장맹이로} 키야지<이태영(1986)> ¶여그가 {콩알맹이로} 톡 불키드래야.<이태영(1986)> ¶여그는자 비어 가꼬 이르케 {가새맹이로}(가위처럼[가새+맹이로],) 그르케 빈 거시<백은아(2016)> ¶새참이라고 어디 애들 {장난맹이로} 한숟구락씩 엥게주먼<이태영(2004ㄴ)> ¶내동 암 말도 않고 {소맹이로} 일만 잘 허드니<이태영(2004 ㄴ)> ¶밥 한 그륵 갖꼬

{가이내들맹이로} 이러고 저러고 허니 속이 좋겄소?<이태영(2004 ㄴ)> ¶{씨앗맹이로} 생겼어요.<최명옥, 김옥화(2001)> ¶그러헌 속에서 자식이 나와 노먼(놓으면), 우리도 {당신맹이로} 압박을 곧 받어.<최전승 외, 992> ¶하루는 {생인(商人)맹이로} 행색을 허고서 그 집을 찾어갔어.<최전승 외, 992>

지역 임실, 완주, 부안, 고창.

맹인 (←亡人) 명 [대응어] 망인.

죽은 사람. ¶호생일레 호생일레 돌아가신 {맹인이} 호생일레/어리가리 허허노오 어허화 허허노<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순창 상여소리) ¶마지막으로 떠나는 {맹인} 존 곳이로 가시라고/동네양반들 염불이나 하여 주세(진안 상여소리-발인소리)<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순창, 진안.

맹키로 조 [대응어] 처럼.

모양이 서로 비슷하거나 같음을 나타내는 격 조사. ¶인자 깨끄더니 인자 {보리쌀맹키로(보리쌀처럼)}<백은아(2016)>

지역 전북.

맽기다 동 [대응어] 맡기다.

어떤 일이나 물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담당하게 하다. ¶"아, 생각혀 보라고 살림을 우리기다 {맽기고} 늙은 아버지를 언제 어디 가신다믄 돈이 없으믄 취허라도(빌려서라도) 줄 일이지 돈 없다고 그냥 가서 도란게 오백원짜리 주어. 당신허고 살믄 꼭 당신같은 자식 낳게 생겼은게 나는 가는 사람이라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춘복이가 왜 그렁 거 못허께미?" "허지. 허기야. {맽겨만} 노먼 못헐 것도 없겄지맹.<최명희, 혼불>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머거죽 명 [대응어] 바보, 밥통.

제구실을 못하는 사람. ¶{머거죽이} 따로 없다등만 구정물에 밥말어 처묵고 트림헐 작자덜 같으니!<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머거죽이 명 [대응어] 바보, 밥통.

어리석고 멍청하거나 못난 사람을 욕하거나 비난하여 이르는 말. 밥만 축내고 제구실도 못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요, {머거주기 야}! 넌 숨바꼭질도 못하니?"<이병천, 모래내 모래톱> ¶{'머거주기'는} 바보, 또는 '밥통'이라고 우리가 흔히 쓰는 욕 대신 은영이 누나가 아주 잘 쓰는 말이다.<이병철, 모래내 모래톱> ¶넘한티 얻어 맞고나 댕기다니 아이고 이 {머거주기} 같은 놈을 어디다 쓴다냐.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머거주기'는 '먹어죽-+-이'의 구성으로 이해된다. 접미사 '-이'는 사람을 나타내는 접미사이다. 이 말은 '바보'나 '밥통'을 의미하는 말이다.

머구리 명 [대응어] 개구리. ¶멋 헐라고 아그들은 논바닥에 {머구리} 새끼들맹이로 와글와글 나놓고<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머금 의명 [대응어] 모금.

물이나 담배 연기 따위를 한 번 입에 머금는 분량을 세는 단위를 나타내는 말. ¶물 한 {머금} 마시고 다시 시작해도 될랑가요?

지역 전북.

-머는 【연결어미】 [대응어] -면.

불확실하거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가정

하여 말할 때 쓰는 연결 어미. ¶여푸로 두러눌떤지 포리라도 요로케 오그렌따던지 {허머는}(옆으로 드러누웠든지 팔이라도 이렇게 오그렸다든지 하면)<백은아(2016)> ¶그저니는 여그서 부럴 {때머는}<백은아(2016)> ¶바블 {다무머는} 아부지는 쪼끔 잡쏴도 이해를 헝게<백은아(2016)>

지역 남원, 무주, 고창.

머더다 【축약형】 [대응어] 무엇 하다

방언형 '무엇 허다'가 줄어든 말. ¶거그 시방 {머덜라고리여}? 머슬 그르케 히싸. 조깨 쉬서 일도 히야지. 그르케 쉬도 못허고<전라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전북.

머리가매 명 [대응어] 가마(旋毛).

사람의 머리나 일부 짐승의 대가리에 털이 한곳을 중심으로 빙 돌아 난 부분. ¶영감이 머리가 빠질랑개 해필 {머리가매부텀} 빠지가지구 영 보기가 안 좋아.

지역 남원.

머리끗 명 [대응어] 뒷덜미.

목덜미 아래의 양 어깻죽지 사이. ¶머리가 아퍼서 {머리끗에}, 손을 대고 하늘을 올려다봤지.

지역 고창.

머리커락 명 [대응어] 머리카락.

☞멀카락

지역 김제.

머리터럭 명 [대응어] 머리카락.

머리에 난 털의 낱개 또는 전체 ¶저 뱃속에서 시방 눈 새파랗고, {머리터럭} 노랗고, 코 오똑하고 한 것이, 수만리 태평양 저편짝을 향수(鄕愁)하면서 꼼틀거리고 있거니<채만식, 낙조> ¶이기채가 해마다 그 {머리터럭} 뭉치를 들고 사랑 마당으로 나가 공손히 태울 때<최명희, 혼불> ¶어느 고마우신 납치범님 내 생전에 만나뵐 수만 있다면은 {머리터럭} 뽑아서 신발이라도 삼어 신겨야지.<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자, 제군들이여, 지금 이 순간, 자기의 {머리터럭과} 얼굴, 가슴, 그리고 손이며 손톱들을 한번 스스로 만져 보라.<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해설 옛말에서 '머리털'에 접사 '-억'이 붙어서 이루어진 말로 보인다. '머리털'에 비해서 대개 팍팍하거나 하찮다는 느낌을 준다.

머릿-독 명 [대응어] 모루.

대장간에서 불린 쇠를 올려놓고 두드릴 때 받침으로 쓰는 쇳덩이.

지역 고창, 김제.

머릿돌 명 [대응어] 모루.

☞마릿돌.

지역 익산.

머릿딩이 명 [대응어] 모루.

대장간에서 불린 쇠를 올려놓고 두드릴 때 받침으로 쓰는 쇳덩이.

지역 무주.

머섬 명 [대응어] 머슴.

☞머심. ¶인자 그 집서 {머섬을} 살게 된 거여.<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무주.

머스마 명 [대응어] 남자아이.

남자아이를 낮잡아 이르는 말. ¶살리미 줄자, 우리 크나덜이 인재 대핵교 가지, 야 인자 고등핵교 가지, 또 인제 저 시챔 {머스마} 중핵교 가지.<지역어 자료 총서, 무주> ¶어떻게 어떻게

해서 애기를 낳는데, {머스마를} 낳았어. 첫 아들을.<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할아버지는 {머스마}를 좋아했고 딸은 천덕꾸러기로 알았어. ¶그리도 {머스마}라고 우리 여자들 뱃보 허고는 틀리드만. 아따, 시게 나오드랑게. ¶{머스마들은} 험한 놀이를 많이 하니까 항상 조심해야한다.

지역 무주, 군산, 완주, 임실, 정읍.

머스마그 명 [대응어] 남자아이.

남자아이를 낮잡아 이르는 말. ¶"여, 우리집 {머스마그}가 여태 십 오 세가 되드락 말도 않는 사람인디, 느닷없이 나를 불러요. '어머니.' 부르면서 그 인자 하도 반가서 '뭣 땜이그러냐?'했지.

지역 전북.

머스매 명 [대응어] 남자아이.

☞머스마. ¶해필 당산나무에가 무다너니 막뗑이 {머스매가} 몽매다라 죽어버렸씨.<2009 전북 임실>

지역 임실, 진안.

머시 감 [대응어] 무엇이.

'무엇이'가 줄어들어 굳은 말. 말하는 도중에 말할 내용이 얼른 떠오르지 않거나 또는 그것을 밝혀 말하기 곤란할 때 하는 말. ¶{머시} 어쩌고 어쩌?<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머시냐 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생각나지 않을 때 쓸데없이 덧붙이는 말. ¶엉? 이게 0원이여?……아니, {머시냐}, 7원 50전짜리 산다더니, 0원짜리를 골르냐?<채만식, 태평천하> ¶{머시냐} 참, 즌기루다 깨는 병아린 암컨 없대드군?<채만식, 영계> ¶긍게 {머시냐}, 지주 어런이 꿀얼 퇴험서 안된다고, 물러가라고 호령이 드만이라. 그려서 지가 헐 수 있는 일언 무신 일이고 다 헐 것잉게 소작만 부치게 히도라고 통사정얼 혔구만이라.<조정래, 아리랑> ¶{머시냐}, 딴 이얘기덜 허니라고 그럴 새가 없어서.<조정래, 아리랑> ¶음마, 아니랑게라. 저어 {머시냐}, 나가 무신 잘못헌 것이라도 있다요?<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머시다냐 【축약형】 [대응어] 무엇이라고 하냐

방언형 '무엇이라구 헌다냐'가 줄어든 말. ¶이것이 {머시다냐}?<이태영(1992)> ¶용수 너, 그게 {머시다냐아이}?<이병천, 모래내 모래톱>

지역 전북.

해설 의문형이라기보다는 놀람, 어이없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머시매 명 [대응어] 남자아이.

남자아이를 낮잡아 이르는 말. ¶딸도 업씨 {머시매만} 서시열꺼든뇨. 주근 사라미, 아들만 서신디.<2008 전북 고창> ¶할머니는 손녀딸은 쳐다보지도 않고 {머시매만} 반겨했어. ¶"옴매옴매, 저 총각 얼굴 뻘개지는 것 조깨 보소이! 진짜 {머시매가} 맞는가 보게 어디 한번 아랫두리를 벳겨봐야 되겄다."<윤흥길, 소라단 가는 길>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완주, 익산.

머신고니 【축약형】 [대응어] 무엇인고 하니

'무엇인고 하니'가 줄어든 말. ¶먼고니. 그것이 {머신고니}, 사과여.

지역 전북.

머심 명 [대응어] 머슴.

살림이 좋은 집에 고용되어 농사일이나 잡일을 해 주면서 대가를 받거나 숙식을 해결하던 사내. ¶인자 긴력(근력)은 시고(세고) 그러넌게 머심을 서로 들라고 그런데 {머심을} 살어 그 동네 가서.<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아

느그 양반들은 종도 많고 {머심도} 많고 호제도 많드라?<최명희, 혼불>

지역 고창, 남원, 무주, 임실, 군산.

해설 이 어휘는 본디의 뜻이 사회 변화에 따라서 사라져 가고 있다.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대개 '사내'나 '막일꾼', '부하' 정도로 변용되어 쓰이는 경우이다. 표준어형의 '머슴'은 방언에서 '머섬'으로 발음되기도 한다. 모음 '으'와 모음 '어'는 전북 방언에서 바뀌어 쓰일 수 있다. 그리고 전북 방언에서는 '머슴'이 주로 '머심'으로 나타나는데 이때의 '머슴'과 '머심'은 구개모음화라는 말소리 변화 현상으로 관련 지을 수 있다.

머심달래 명 [대응어] 민들레.

☞머심둘레.

지역 전북.

머심둘레 명 [대응어] 민들레. ¶{머심둘레가} 지천에 노랗다.

지역 전북.

해설 '머심둘레'는 직접적으로는 '머슴들레'에서 'ㅅ>시'의 전설모음화를 겪은 형태로 보인다. 그러나 전라, 경상, 함경, 평안, 황해 방언 등에서 '머슴들레, 모슴들레, 무순둘레, 무순들레, 무슨들레, 무운둘레, 문들레' 등 다양한 이형태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정확한 어원을 알기는 어렵다.

머심밥상 명 [대응어] 개다리소반.

상다리 모양이 개의 다리처럼 휜 막치 소반. ¶{머심밥상을} 차려놓고 밥을 먹는다.

지역 남원.

머심살이 명 [대응어] 머슴살이.

남의 집에서 농사일이나 잡일을 해 주면서 숙식을 해결하는 행위. ¶남으집 {머심살이를} 살었는지 어쨌는지 허는디, 전히 내리오는 말이지.<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해필 {머심살이로} 시집을 올라고 허든겨. 머심 사는 놈은 사우도 안 삼을 것이고. 아, 이거 소용 없오.<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그런디 이 김도령이, 나이 스물이 넘고 서른이 넘어도 당최 장개 갈 생각도 안 허고 어디 다른 디로 가도 안 허고, 기양 한 집이서 한 십 년을 변통 없이 {머심살이를} 히여.<최명희, 혼불>

지역 김제, 남원, 완주, 정읍.

해설 남의 집에 몸이 매여서 사는 경우와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자발적으로 사는 경우를 모두 뜻한다.

머여 감 [대응어] 무엇이야.

방언 '무엇이여'가 줄어든 말. 어떤 생각이나 말이 얼른 잘 떠오르지 아니할 때 쓰는 말. ¶긍게 아버지도 인제 상처가 이끼 때문에 인자 마 즈도 {므여} 알기 때무네 {머여} 동원도 모시키도 이꼬, 그 아네서 참 대소변 다 거그 아네서 이꼬 뭐허고 인는데,(그러니까 아버지도 인제 상처가 있기때 문에 인자 마 자기들도 알기 때문에 뭐야 동원도 못시키고 있고, 그 안에서 참 대소변 다 거기 안에서 있고 무엇하고 있는데,)<전북 지역어, 남원시> ¶그래 인자 차츰차츰 인자 살다낭개로 응 여그는 추운 지방이라 그러케 털모자를 쓰고 댕기는구나 또 어른들도 그러케 마를 하고, 여그는 추웅개 그러케 쩌기 {머여} 털모자를 쓰고 댕긴다고 그런단 마리여.(그리 이제 차츰차츰 이제 살다나니까 응 여기는 추운 지방이라 그렇게 털모자를 쓰고 다니는 구나 또 어든들도 그렇게 말을 하고, 어기는 추우넌까 그렇게 저기 뭐야 털모자를 쓰고 다닌다고 그런단 말이여.) ¶그런디 그러케 겨론허고나서 사망되고는, 아 어찌개써 또 쩌기 {머여} 이리 이사를 와쓰면 조커쩨 여그 옫뿌라기 이쓸 때.(그런데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 사망되고는, 아 어찌하겠어 또 저기 뭐야 이리 이사를 왔으면 좋겠지 여기 윗부락에 있을 때.) ¶삼 부렁 해노코 부레다가 저기 {머여} 그렁걸 아 사물 찌지아내, 사멀.(삼

불을 해놓고 불에다가 저기 뭐여 그런 것을 아삼을 찌지 않아, 삼을.) ¶그래가지고는 그놈 저기 {머여} 또 그런 이런 이런 지다만 그런 그런디 읻써.(그래가지고는 그놈 저기 뭐야 또 그런 이런 이런 기다란 그런 그런데 있어.) ¶그럼 저기 {머여} 꼬쟁이로 이캐 빼서 먹찌머.(그럼 저기 뭐야 꼬챙이로 이렇게 빼서 먹지 뭐.)
지역 전북.

머이매 명 [대응어] 남자아이.
성별이 남자인 아이. ¶가이내는 없고 {머이매만} 둘인디.
지역 전북.

머이매 명 [대응어] 남자아이.
☞머시매. ¶뒷집에는 가난허게 사는디, 거기는 아들이 꼬묵한디, 앞집에 영감더러, "우리 {머이매} 하나 데리다 키우시요. 데리다 키우시오." 그런개, 아이 얼른 못 드려오고. 가만히 어떤 놈이 안 그래?<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장수.

머카락 명 [대응어] 머리카락.
☞멀카락.
지역 장수.

머크락 명 [대응어] 머리카락.
☞멀카락.
지역 전북.

머퉁사니 명 [대응어] 꾸지람.
아랫사람의 잘못을 꾸짖는 말. ¶"에에끼 이 사람덜아, 어리아헌티 무신 말버릇잉가!" 누군가의 제지로 어른들의 {머퉁사니가} 겨우 중단된다. 나는 서러워서 금방이라도 울고 싶어진다.<이병철, 모래내 모래톱>
지역 전북.

머퉁이 명 [대응어] 꾸지람, 핀잔.
아랫사람의 잘못을 꾸짖는 말. 또는 불편한 마음을 좀 드러내는 짓이나 모습. ¶얽어배기 백가가 제각기 한마디씩 {머퉁이를} 해주면서, 그 새 벌써 앞장을 서서 들어가고 있는 기사 윤의 뒤를 따른다.<채만식, 金의 情熱>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머퉁이'는 그 어원을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머퉁이, 머퉁사니'로 쓰는 것으로 보아 '머퉁+-이', '머퉁+-사니'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먹고대학생 명 [대응어] 백수건달.
돈 한 푼 없이 빈둥거리며 놀고먹는 건달. ¶손발 하나 까딱 않고 만사태평으로 신간 편하게 지내는 {먹고대학생} 노릇도 하루이틀이었다.<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해설 복합어인 '먹고대학생'은 960년대 말과 70년대 초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워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직을 하지 못하고 놀고 있던 사람들을 일컫던 유행어이다.

먹구렝이 명 [대응어] 먹구렁이. ¶또 얼마를 가니까 구렁이가, 새카만 먹구렁이가 사리고 있는데 허를 널름널름하네.<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완주.

먹딸 명 [대응어] 멍석딸기.
농익어 빛깔이 검붉은 딸기.
지역 고창, 완주.

먹딸광 명 [대응어] 멍석딸기.
농익어 빛깔이 검붉은 딸기.
지역 익산.

먹딸기 명 [대응어] 멍석딸기.
농익어 빛깔이 검붉은 딸기.
지역 진안.

먹때깔 명 [대응어] 멍석딸기.
농익어 빛깔이 검붉은 딸기.
지역 군산.

먹매 명 [대응어] 액땜.
앞으로 닥쳐올 액을 다른 가벼운 곤란으로 미리 겪음으로써 무사히 넘김. ¶아들이 어느 때에 가면 죽을 고비를 당혈 것인게 죽게 될 것인게 그때 당시에는 이 밭을 팔아라 그랬어. 팔아서 {먹매를} 해라 그 말여.
지역 전북.

먹어대다 동 [대응어] 헐뜯다.
남을 해치려고 헐거나 해쳐서 말하다. ¶그 동네가 나쁜 동네든가 {먹어댔어}.<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조정암이 그려가지고 중종한테 말허자면 그 모략해서 죽인 놈이 정광필이허고 두 놈이, 아 조정암이 오래 산다치면 저그가 꼼짝을 못혀. 아 그려가지고 중종한테 {먹어대가지고} 말허자면 조정암을 사약을 먹여서 죽였단만.<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여기두 인민위원회가 들어와 앉은 게로군요? 내무서원두 옵디까?" "인민위원회는 저 웃동네에 앉았읍죠마는 그눔의 쌈질 등쌀에…." 평소의 사혐으로 서로 {먹어대고} 으르렁대는 통에 예서 제서 피를 흘리고 지랄들을 버르져 송구스워서 못견딜 지경이라는 것이다.<염상섭, 취우> ¶너이 년눔을 허루이 다스린다구 간관들이 {먹어대서} 남대장께서 벼슬이 떨어지섯다<홍명희, 임거정>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엄청 많이 {먹어대는구나}.
지역 부안, 정읍.

먹장 명 [대응어] 멍.
충격 때문에 살갗 속에 퍼렇게 맺힌 피의 색깔이 살갗의 드러난 것 또는 마음에 맺힌 상처. 또는 까만 먹을 뿌려 놓은 것 같은 형상. ¶엄니 돌아가신 일로 가슴에 {먹장이} 들어 읎어지지 않는당게. ¶책상 모퉁이에 찧었드만 팔 여그에 이렇게 {먹장이} 들었네.
지역 부안.

먹중 명 [대응어] 멍청이.
아둔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먹중이라} 그러고 살았제. 멍청인게.
지역 전북.

-먼 【연결어미】 [대응어] -면.
불확실하거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가정하여 말할 때 쓰는 연결 어미. ¶지그무로(지금으로) {허자먼} 지서제 지서.<백은아(2016)> ¶요로케 {이쓰먼}(있으면) 요노믈 잡꼬 요 끄터리를 잡꼬<백은아(2016)> ¶시리떠근 시리에다 써서, 탁 부서서 이러케 {썰먼}(썰면) 되고<백은아(2016)> ¶비가 마니 {오먼}(오면) 인자, 수문만 {낟추먼}(낮추면) 인자<백은아(2016)> ¶암소넌(암소는) 한 이년 {되먼} 새끼가 배고<백은아(2016)>
지역 고창, 남원, 임실.

먼고니 【축약형】 [대응어] 무엇인고 하니
'무엇인고 하니'가 줄어든 말. ¶그것이 {뭔고니}, 사과여.<이태영(2001)>
지역 전북.

먼낫다고 부 [대응어] 괜히.
별 볼일도 없이. ¶아따, 알면 지가 {먼낫다고} 새똥빠지게 묻겄어라?<조봉래, 풀벨골> ¶{먼낫다고} 숙구락만 던지면 갱번으로 내뻰가 몰르거

것다.
지역 전북.

-먼서 【연결어미】 [대응어] -면서.
두 가지 이상의 움직임이나 일이 동시에 일어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어머니, 나 시암(우물)에 가서 시언헌 찬물 떠오까?” “{오먼서} 먹구 왔다. 느 아버지는 아직 안 오셨냐?”<채만식, 童話> ¶신이란건 좀 낙낙히여야지, 더군다나 새신을 신구서 정거장까지 십리길이나 {갈라먼서} 너머 째머는 발 부릍는다.<채만식, 童話> ¶아이, 업순어머니두, 번연히 속 다 {알먼서} 그러시네! 내가 괜시리 그러간디라우?<채만식, 童話> ¶그리떠니 아잉게 아니라 {사르먼서}(살면서) 봉게 생화려기 엄는 거야<백은아(2016)>
지역 군산.

먼야 早 [대응어] 먼저.
시간적으로나 순서상으로 앞서서. ¶그리서 내가 크내기때도 내가 {머나} 주거야지 어트게 나:매가 모냐 주거 헝개, 사주가 그런단다.<2009 전북 임실> ¶그 {먼야} 허던 평양감사 재정을 냉기(남겨)놔야 그 재정을 더이서 천 냥을 내어 걸러(긁어) 뫼겄냐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나가서 인제 손님들 보다 {먼야} 들으라고 헌께, “어디 그럴 수가 있냐고 뭣이냐 당신네들이 모냐 들으라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김제, 진안, 군산, 임실, 정읍.

먼염 早 [대응어] 먼저.
시간적으로나 순서상으로 앞서서. ¶{먼염} 나가서 지달려지라.
지역 고창, 군산.

먼영 早 [대응어] 먼저.
☞먼염.
지역 고창, 군산.

먼예 早 [대응어] 먼저.
시간적으로나 순서상으로 앞서서. ¶{먼예} 나가시오. 난 뒤따라 갈랑게요.
지역 임실.

먼제 早 [대응어] 먼저.
시간적으로나 순서상으로 앞서서. ¶잎보다 {먼제} 피는 꽃<김용택, 맑은 날>
지역 무주, 임실.

먼지 早 [대응어] 먼저.
시간적으로나 순서상으로 앞서서. ¶“너 {먼지} 가거라. 니가 기운이 신게 {먼지} 가.”<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인자 오곡빠벌 헤서 노코, 헤서 가따 주머넌, 인자 소가 무슨 {먼지} 멍넌거시 인자 그해넌 풍녀니다, 잘되넌 거시라 그마리여.<지역어 자료 총서, 고창>
지역 완주, 고창, 군산.

먼차 早 [대응어] 먼저.
시간적으로나 순서상으로 앞서서. ¶생각은 당최 허덜 않고 짐칫국부텀 {먼차} 마시는 꼴이네, 그거이 바로.<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먼처 早 [대응어] 먼저.
☞먼첨. ¶즈그들찌리 서로 성님 {먼처}, 동상 {먼처}, 허감시나 의초롭게 일당도 노놔서 알뜰허니 챙기고<윤흥길, 빛가운데로걸어가면>
지역 전북.

먼첨 早 [대응어] 먼저.
시간적으로나 순서상으로 앞서서. ¶그만 속이 지레 터질 것 같어 냅다 욕이 {먼첨} 쏟아져 나옵니다.<채만식, 천하태평춘>

지역 전북.

멀건하다 형 [대응어] 멀겋다.
국물 따위가 진하지 아니하고 매우 묽다. 또는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가 하얗다. ¶밥은 없고, 밥을 새로 지어야 할 테니 조금 기다리쇼. 아, 죽을 좀 쑤라고, 밥하는 애들 보고 죽을 쑤는디 {멀건하게} 쑤는디, 아무 맛탱이도 없이 쑤고 거기다가 모래를 한 주먹 집어 넣서 한그릇 푸라구. 그렇게 했어.<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소고기 국물에 소고기는 없고 국물이 {멀건하다}. ¶얼굴이 {멀건하니} 아픈 기색이다.
지역 전북.

멀건허다 형 [대응어] 멀겋다.
☞멀건하다. ¶너무 {멀건허다}. 시라구를 더 넣고 된장이랑, 고추장이랑 더 넣어라.
지역 고창, 군산, 김제, 부안.

멀국 명 [대응어] 국물.
☞말국. ¶오랫만에 맛보는 괴기국인디 건디기는 없고 맨 {멀국뿐이네}.
지역 고창, 김제, 무주, 완주, 진안.

멀궉 명 [대응어] 국물.
☞말국.
지역 완주.

멀금허다 형 [대응어] 날카롭다.
무엇을 자를 정도로 뾰족하거나 날이 서 있다. ¶책상 모서리 같은 것이 은근히 {멀금허서} 갓난아기 있는 집은 웬만하믄 가구가 없는 것이 좋아. ¶생각이 {멀금허고} 그렁게 꽤 괜찮은 사람이지. ¶그 사람이 생긴 거는 {멀금허니} 잘 생겼어.
지역 전북.

멀끄락 명 [대응어] 머리카락.
☞멀카락.
지역 김제, 고창, 남원, 임실, 정읍.

멀등허다 형
팔팔 끓다. ¶팥죽을 {멀등허니} 끓여야 혀.
지역 전북.

멀주거니 부 [대응어] 우두커니.
☞멀주커니. ¶사람을 만났으먼 아는치를 히야지 그리 {멀주거니} 쳐다만 보고 있으먼 쓰겄는가.
지역 완주.

멀주커니 부 [대응어] 우두커니.
넋 나간 듯이 한 자리에 가만히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모양. ¶히마리 없이 {멀주커니} 먼 산만 바라보고 앉었어.
지역 전북.

멀카락 명 [대응어] 머리카락.
머리에 난 털의 낱개 또는 전체.
지역 정읍.

멀크락 명 [대응어] 머리카락.
☞멀카락.
지역 고창, 김제, 남원, 임실, 정읍.

멈치다 동 [대응어] 멈추다.
사물의 움직임이나 동작이 그치거나 그치게 하다. ¶차가 갑재기 {멈쳤다}. ¶잠시 {멈치고} 벤소 좀 다녀 옵시다. ¶잠깐 {멈치} 보시오. 거 겁나게 힘들고만.
지역 전북.

멋덜어지다 형 [대응어] 멋들어지다.
아주 멋있다. ¶지가 오야붕 노릇 {멋떨어지게} 허겄다고 돈얼 턱 내논 거이제?<조정래, 아리

랑>
지역 전북.

멋들어지다 형 [대응어] 멋들어지다.
아주 멋있다. ¶그것으로 전투는 무두 끝이다. 얼마나 시원시원하고 또 얼마나 {멋들어진} 싸움의 방법인가.<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높다란 '유지저리' 꼭대기에서 긴 상모가 {멋들어지게} 나부낀다.<채만식, 아름다운 새벽> ¶고러코롬 {멋들어진} 사나놈이 뭣이 아숩다고 싹수있는 지집 다 제쳐두고 해필이면 한물간 화냥년 지둥서방 노릇 떠맡을 작정으로 번호표 달고 줄 서서 지달리고 이겄냐."<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산 중턱에서 등걸나무 캐는 초동들이 {멋들어지게} 육자배기를 부른다.<채만식, 인형의 집>
지역 전북.

멋테기 명
멋을 낮잡아 이르는 말. ¶집이라곤 {멋테기} 하나도 없네.
지역 전북.

멍감 명 [대응어] 청미래덩굴. ¶{멍감} 가시에 찔렸다.
지역 고창, 김제, 익산, 군산, 순창.

멍덕따올 명 [대응어] 멍석딸기.
지역 무주, 장수.

멍덕딸 명 [대응어] 멍석딸기.
☞멍덕따올.
지역 무주.

멍덕때왈 명 [대응어] 멍석딸기.
지역 순창.

멍성 명 [대응어] 멍석.
짚으로 새끼 날을 만들어 네모지게 결어 만든 큰 깔개. 흔히 곡식을 널어 말리는 데 쓰나, 시골에서는 큰일이 있을 때 마당에 깔아 놓고 손님을 모시기도 했다. ¶{멍성을} 깐다, 이불 요를 편다, 시방으로 말하면 전기가 있지마는 전에는 기름불, 초를 댕겨다 불을 단다,<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몇해를 머심을 살었던가. 하루는 소낙비가 디리 쏟아지는디, 아 그 어떤 집이서 피를 훑어다가, 피를 훑어다, 피를 {멍성으다} 널고서아, 있응게 소낙비가 온단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남원.
해설 '멍석말이'라고 하여 형벌을 주거나 시체를 내다 버리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멍앳줄 명 [대응어] 굴레.
말이나 소 따위를 부리기 위하여 머리와 목에서 고삐에 걸쳐 얽어매는 줄. ¶소가 {멍앳줄을} 매면 얼마나 답답하겠냐? 그냥 끌고 가자.
지역 남원.

멍치다 동 [대응어] 적시다.
물 따위의 액체를 묻혀 젖게 하다. ¶꾸정물에 손 {멍치지} 말고 그냥 있어.
지역 전북.

메가지 명 [대응어] 모가지.
'목'을 속되게 이르는 말. 또는 '해고'나 '면직'을 속되게 이르는 말. ¶요리저리 뭣이를 보더만은 아 그양 확 달려들어서 그냥 그 영감놈 물 {메가지를} 잡고 내흔든게 그냥 큰 백쥐가 그양 나자빠져 버리네.<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그런게 엽전 그 권, 찾은 그놈이 {메가지를} 잡고서, "이럴 것 없소."고 선비를 메가지를 끌고서는 어거지로 동헌까장 끌고 갔단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도

둑놈 오먼 서방 즈그 각시도둑질허러 {오께미} 오먼은 그냥 이 물인디 멕아지까지 차먼 곧 빠진게로 놀래지<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완주.

메강냉이 명 [대응어] 메옥수수.

찰기가 없는 옥수수. 주로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기 위해 심는다. ¶찰강냉이만 시무먼 안되야. 짐승 미길랑개 {메강냉이도} 시머야제, {메강냉이도}, 짐승을 미길랑개.<지역어 자료 총서, 중국 무주촌> ¶메옥수수메강냉이<2009전북임실>

지역 남원, 무주, 임실.

메갱이 명 [대응어] 메공이.

떡을 치는 데 쓰는 자루가 달린 도구. 직경이 30cm 정도 되는 둥근 나무토막에 구멍을 뚫고 자루를 박아 만든 도구이다. ¶익산 벼방아 찧는 소리-메갱이질소리(제목)<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 민요해설집>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자꼬 그렇게 험서 {메갱이만} 들었다 놓았다 험서 찧는단 말여. 아 저 저녁 샛밥 때만 헌게 그냥 하얀헌 백석(백미)가 되야버렀어, 삼천석이.<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준게서 딱 채려놓고서는 {메갱이를} 들고서 어깨를 이렇게 이렇게 혀. 방애를 찧노만. 아허로 방애로다 어야라 방애로다 단단이는 삼천석 어야라 방애로다<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익산, 군산.

메구리 명 [대응어] 개구리.

☞머구리.

지역 전북.

메기 명 [대응어] 액막이.

정월 보름에 일년 동안의 재앙을 막기 위해 치는 굿. 또는 그런 일. ¶{메기}. {메기라고} 그려. 올 일년 신수 메기헌다고 히야제. 옛날에는. ¶주장멕이는 다르고 인자, 여그 {메기는} 정월 보름에 메기허고, 주장멕이는 아픈 거 빵빵 돔선 주장멕이허고.

지역 순창.

메기허다 동 [대응어] 액막이하다.

정월 보름에 일년 동안의 재앙을 물리치기 위해 굿을 치다. ¶주장멕이는 다르고 인자, 여그 매기는 정월 보름에 {매기허고}, 주장멕이는 아픈 거 빵빵 돔선 주장멕이허고. ¶주장방애, 아파서 돈 것은 주장방애, 재수 있으라고 {메기허고}. ¶그리고 정월 보름날은 대보름 인자 메기허고.

지역 순창.

메나리 명 [대응어] 미나리. ¶전주하고 금구 사이에 메나리밭이 많어서 겨울에 {메나리} 캐는 일이 많어.

지역 완주.

해설 '메나리'는 '미나리'의 음운론적 이형태로, 'ㅔ'가 'ㅣ'로 고모음화하는 음운 현상을 지나치게 의식한 결과 원래의 'ㅣ'를 'ㅔ'로 과도교정한 결과이다.

메누리 명 [대응어] 며느리(婦).

아들의 아내를 이르는 말. ¶근게 내오간이 인자 안이서는, 서로 저 이얘기가 안맞은게, {메누리 갬이} 마땅치 않다고 나오고 바깥영감은 그도 자그 친구를 생각허서 그 메누리 삼으라고 이렇게 허다가 결국으 사주의례를 힜어, 바깥남자가. 인자 영갬이 사주의례를 힜어.<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그러자먼 옹구 장개도 보내고 {메누리도} 덜이고, 그럼서 손자도 보고.<최명희, 혼불> ¶저두 그래, {메누리} 자식을 둘썩이나 은어다 놓고, 손자 자식이 쉬염이 나게 생겼으먼서, 그래, 그게 잘허넌 짓이여?<채만식, 태평천하>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정읍, 진안.

메누릿심 명 [대응어] 학질.
☞메느리심.
지역 전북.

메눌아기 명 [대응어] 며느리(婦).
☞며늘애기.
지역 정읍, 장수.

메느리 명 [대응어] 며느리(婦).
☞메누리.
지역 남원, 무주, 임실.

메느리심 명 [대응어] 학질.
지역 전북.

메느릿심 명 [대응어] 매일 앓는 학질.
☞메느리심.
지역 전북.

메니리 명 [대응어] 며느리(婦).
☞메누리.
지역 진안.

메다박다 동 [대응어] 메다꽂다, 메어꽂다.
어깨 너머로 둘러메어 힘껏 내던져서 거꾸로 박히게 하다. 상대방을 무안하게 하거나 마음에 타격을 주다. ¶숨이 막혀 끊어지는 강실이를 여지없이 방바닥에 {메다박았다}.<최명희, 혼불> ¶춘복이는 {메다박는} 소리로 말을 자른다.<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메다박다'는 '메다'와 '박다'의 복합어이다. 그 구성은 '메-'에 연결어미 '-다(가)'가 연결되어 '박다'와 복합어가 된 것이다.

메뎅이치다 동 [대응어] 메치다.
어깨 너머로 둘러메어 마구 내던지다. ¶화가 나서 손에 잡히는 대로 {메뎅이쳤어}.
지역 전북.

메때기 명 [대응어] 메뚜기.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군산, 완주, 임실, 장수, 정읍.

메떼기 명 [대응어] 메뚜기.
☞메때기.
지역 무주.

메뙤기 명 [대응어] 메뚜기.
☞메때기.
지역 남원, 김제, 부안, 군산, 정읍.

메뛰기 명 [대응어] 메뚜기.
☞메때기.
지역 김제, 부안, 군산, 정읍.

메띠기 명 [대응어] 메뚜기.
☞메때기.
지역 완주.

메물 명 [대응어] 메밀. ¶그러먼은 내가 {메물} 석 섬을 줄티니 그 메물 석 섬을 갖다가 그렇게 허라.<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적떡히야 명당 쓴다네. 근게 뭔 {메물} 가리든지 밀가리 좀 있으믄 적떡 좀 히가지고 지관한티 갈라네.<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아 동네 가갖고 인제 일해 주마고 허고는 {메물을} 좀 구했어. 그 사람들 먹을 만큼만 {메물} 말이나 구해갖고는<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서생원 허고 불른개로, 하 이제 그냥 {메물} 껍데기로 탕건 아 관을 해서 쓰고,

ㅁ

<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고창, 군산, 남원, 무주, 완주, 임실.
해설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메물묵'이나 '메물풀'을 쑬 때 사용하기도 하고 떡을 만드는 데 사용하기도 한다.

메물콩 명 [대응어] 메주콩.
메주 쑤는 콩. ¶올해는 순전 {메물콩이} 안 됐어.
지역 전북.

메밥 명 [대응어] 메.
제사 때 신위(神位) 앞에 놓는 밥. ¶혼인날은 찰밥 짓고 {메밥} 짓구 두 가지 밥을 지어
지역 군산.
해설 '뫼밥'은 제사지낼 때 신위 앞에 놓는 밥인 '메'의 전북 방언형이다. 주로 '메빱'으로 실현된다.

메보리 명 [대응어] 쌀보리. ¶예, 보리에도 {메보리가} 이꼬, 찰보리가 이꼬, 껍보리가 이꼬 그래요.(예, 보리에도 메보리가 있고, 찰보리가 있고, 겉보리가 있고 그래요.)<지역어 자료 총서, 군산>
지역 군산.

메서숙 명 [대응어] 메조.
찰기가 없는 조. 알이 굵고 빛이 노르며 끈기가 적다.
지역 고창, 군산, 김제, 남원, 완주, 임실, 정읍.

메수수 명 [대응어] 메수수.
찰기가 없는 수수. 술을 만들 때 사용하거나 사료로 사용한다. ¶찰쑤시가 있고 {메수수가} 있고 그러지.
지역 무주, 고창, 군산, 남원.

메스숙 명 [대응어] 메조.
☞메서숙.
지역 김제, 완주, 임실, 군산.

메스슥 명 [대응어] 메조.
☞메서숙.
지역 군산.

메쑤시 명 [대응어] 메수수.
☞메쑤수.
지역 임실.

메아지 명 [대응어] 망아지.
☞망아지.
지역 남원.

메옥수수 명 [대응어] 메옥수수.
찰기가 없는 옥수수. 주로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기 위해 심는다. ¶{메옥수수} 메옥쑤수<2007 전북 군산> ¶{메옥수수} 메강냉이<2009전북임실>
지역 군산, 완주.

메워지다 동 [대응어] 메워지다.
뚫려 있거나 비어 있는 곳이 막히거나 채워지다. ¶그리고 다시 그 무덤이 {메워지는} 것도, 다 한 눈에 보면서, 숨소리 하나도 내지 않았다.<최명희, 혼불> ¶제 한 몸을 다 헐어서 메워도 {메워지지} 않는 둠벙은 늪이 되어, 한 사람의 한세상을 능히 삼키고<최명희, 혼불>
지역 무주, 진안.

메이다 동 [대응어] 메다.
뚫려 있거나 비어 있는 곳이 막히거나 채워지다. ¶생각하면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굳세인 집착과 목이 {메인} 무상의 비애를 아니 느낄 수가 없어요.<채만식, 가죽버선>

지역 남원, 임실.

메질 명 [대응어] 개상.
볏단을 메어쳐서 이삭을 떨어내는 데 쓰던 농기구. 굵은 서까래 같은 통나무 네댓 개를 가로로 대어 엮고 다리 네 개를 박아 만든다. ¶개상 {메질}헌다구<2009 전북 임실> ¶{메질을} 해서 이삭을 떨어내지.
지역 임실.

메추래기 명 [대응어] 메추라기. ¶괜, 기, 타, …… 괜, 찬, 타, …… 괜, 찬, 타, …… 괜, 찬, 타, …… 수부룩이 내려오는 눈발속에서는 까투리 {매추래기} 새끼들도 깃들이어 오는 소리. …… 괜찬타, ……괜찬타, ……괜찬타, ……괜찬타, …… 폭으은히 내려오는 눈발속에서는 낯이 붉은 處女아이들도 깃들이어 오는 소리, ……<서정주, 시집> ¶{매추래기} 알은 달걀보다 아주 작다.
지역 전북.

메칠 명 [대응어] 며칠.
얼마동안의 날. 또는 그 달의 몇째 되는 날. ¶나무를 비다가 인재 미티다가 인자 부를 막 때요, 부를 때야 마를꺼 아니여, {메칠} 때요(이런 놈의 나무를 베다가 이제 밑에다가 불을 막 때요. 불을 때야 마를 거 아니야. 며칠 때요.)<지역어 자료 총서, 무주> ¶어치케 살고 있는지는 자시 몰르지만 {메칠을} 굶은 사람마냥 눈꾸녁이 쑥 들어가갖고 마치 애편쟁이 같이 생겼드랑게. ¶우리가 만나기로 한 날이 {메칠이지요}? ¶"아이고 마님, 오늘이 {메칠잉기요}?" 소리조차 차마 하지 못하고, 연신 송구스러운 몸짓으로 두 손만 비비고 있었다.<최명희, 혼불> ¶시방 인재 단서기로, 엔나레 단기로 썬찌만, 서기 멘년, 메뒬, {메칠}, 멘씨 멘씨에 상냥, 이러케 써노치요.(지금 이제 단 서기로, 옛날에 단기로 썼지만, 서기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시에 상냥. 이렇게 써놓지요.)<지역어 자료 총서, 무주> ¶우리들 모임이 {메칠}이라고 했지?
지역 군산, 남원, 무주, 부안, 완주, 임실, 정읍.

메칠날 명 [대응어] 며칟날.
그 달의 몇째 날. ¶두 모녀, 모자가 살아. 잉. 이라구 사는디, 그러자 왜놈이 안동에다 딱 묘를 잡아 놓고 몟월 {메칠날} 그 묘를 갖다 써야 하겠다는 걸 날짜까지 싹 잡아 놨는디, 자기 어머이가 병이 나부렀어.<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아, 날자를 잡네. 아, 그리가지고서 떡허니 둘이 기약혀. 마주 앉아서 기약을 혔어. {메칠날} 결혼식을 허기로 약속을 허고,<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영미 어머니 생일날이 {메칠날이라요}?
지역 군산, 남원, 정읍.

메쿠다 동 [대응어] 메우다.
뚫려 있거나 비어 있는 곳을 막거나 채우다. ¶구덩이를 {메쿠라}. ¶논의 허궁을 흙으로 {메쿠어} 보자.
지역 장수.

메쿼지다 동 [대응어] 메워지다.
뚫려 있거나 비어 있는 곳이 막히거나 채워지다. ¶구멍이 다 {메쿼졌나} 봐.
지역 장수.

메터리 명 [대응어] 미투리.
☞메투리.
지역 남원.

메투리 명 [대응어] 미투리.
삼이나 노 따위로 짚신처럼 삼은 신. 흔히 날을 여섯 개로 한다. ¶{메투리가} 오래되어 앞부리가 다 떨어져 분졌어.

지역 완주, 임실, 장수, 진안, 남원.

해설 '메투리'는 '미투리'의 음운론적 이형태이다. '제발~지발', '베다~비다'처럼 'ㅔ>ㅣ'의 고모음화가 일어나는 것은 흔한 일인데 이 경우 그 반대로 변화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ㅔ>ㅣ' 음운 현상을 의식한 결과 과도하게 음운 현상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멕다리 명 [대응어] 멱둥구미.

짚으로 둥글고 울이 깊게 결어 만든 그릇. 주로 곡식이나 채소 따위를 담는 데에 쓰인다.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임실, 장수, 진안.

멕동가지 명 [대응어] 멱살.

사람의 멱이 닿는 부분의 옷깃. ¶한번은 {멕동가지를} 잡은게 숨이 탁 막혀.

지역 전북.

멕사리 명 [대응어] 멱살.

사람의 목 앞쪽이 닿는 옷깃 부분. 멱 부분이 아닌 전체 여기저기 잡는 것도 말함. ¶우락시런 놈은 {멕사리} 잡고 끌고 가고 그러제.

지역 전북.

멕살 명 [대응어] 멱살.

사람 목의 앞쪽 부위 또는 그 부위에 있는 살이나 옷. ¶휴거될 적에 서로 상대방 머리끄뎅이 잡고 {멕살} 잡은 채로 공중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마중헐 작정이냐고<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대장이 그 종손을 딱 {멕살을} 잡고, 너 고얀놈 내가 너를 사전에 말을 안혔드래도<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고창, 군산, 김제, 남원, 무주, 완주, 임실.

멕이다 동 [대응어] 기르다.

동식물을 보살펴 자라게 하다. ¶소를 {멕인다}. ¶말 못허는 짐승을 {멕이다} 본게 하루도 집을 비울 수 가 없다네.

지역 완주.

해설 '멕이다'는 '기르다'의 방언형으로, 먹이를 먹이는 행위가 동물을 기르게 하는 대표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의미의 확장이 일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멕칠하다 동 [대응어] 먹칠하다.

검게 칠하거나 더러운 것을 뒤짚어 쓰다. ¶"당신들 무엇을 그렇게 생각허고 있소? 그걸 짝을 그렇게 못 채요? 내가 채거라오?" 근게 아 흙으로 {멕칠허고} 뭐. "그래 니 어떻게 내라."<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생긴 것도 그렇고 배운 것도 없응게 돈이라도 {멕칠히서} 보낼 수 벡이.

지역 전북.

멕히다 동 [대응어] 먹히다.

음식 따위가 입을 통하여 배 속에 들여보내지다. 또는 말이나 행위가 상대편에게 잘 받아들여지다. 또는 어떤 마음이나 감정이 품어지다. ¶정신 채려라아. 잉. 정신 채려어. 여시한테 홀리면 우선은 좋겄지만 종당에는 혼 다 뺏기고 간 다 {멕히고}, 죽능 거이여. 죽어어. 이놈아. 아이고, 내 속이여어. 폭폭허고 속상해서 꼭 내가 너보둠 몬야 죽을랑게비다.<최명희, 혼불> ¶"퀜세 있는 장로 말발도 안 {멕히니깨} 인자는 목사까장 팔소매 걷어붙이고 나서서 단체로 뎀벼들 작정이구만!"<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런 맘이 {멕히고} 말여. 그런게 인자, 그러고 있으니까 세월가는 지를 몰랐지.<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멘도 (←面刀) 명 [대응어] 면도.

얼굴의 잔털과 수염 따위를 미는 것. ¶시상에 손녀 딸래미 여우는디 수염을 그로코롬 질르고 간다는 양반이 어디가 있어요. 내 그냥 영감 잘 때 몰래 {멘도를} 하든가 해야지. ¶오늘은 뭔 일이 있간디 그렇게 깨꼬롬허게 {멘도}를 다허고 나타났데야. 해가 서쪽으서 뜨겄네. ¶우리 아빠는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시기전에 {멘도로} 수염을 깎고 출근하셨다.

지역 전북.

-멘서 【연결어미】 [대응어] -면서.

두 가지 이상의 움직임이나 일이 동시에 일어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내가 이르케 어디 {가멘서}(가면서) 이르케 보먼<백은아(2016)> ¶인자 경차레 {이씨멘서}(있으면서) 주민등로걸 가지고 댕게따 그 마리여<백은아(2016)>

지역 군산, 고창.

멘장 (←面長) 명 [대응어] 면장.

면의 행정을 주관하는 우두머리. ¶인자 그 우리 영개미 배운 고시 이써 가꼬 지그므로 히서는 {멘장질도} 아깝 정도로 필써기나 머 배운 거시나 점자는 거시나 그래요.(이제 그 우리 영감이 배운 것이 있어가지고 지금 같으면 면장도 아까울 정도로 필적이나 뭐 배운 것이나 점잖은 것이나 그래요.)<2009 전북 임실> ¶우리 면 {멘장님은} 오늘도 멘민들을 만나 좌담회를 하고 가셨다.

지역 전북.

멜따구 명 [대응어] 멸치.

지역 남원, 순창.

멜치 명 [대응어] 멸치. ¶그린써도 어디 미역 한가당, {멜치} 한 주먹, 지름 한 방울얼 몯 어더 묵어받당개.{그랬어도 어디 미역 한 가닥, 멸치 한 주먹, 기름 한 방울을 못 얻어 먹어보았다니까}.<2005 전북 남원> ¶그린써도 어디 미역 한가당, {멜치} 한 주먹, 지름 한 방울얼 몯 어더 묵어받당개.<2005 전북 남원> ¶술도 주머는 인지 멸치여다가 쇠주 준게. {멜치여다}, 이렇게는 안 먹어라오. 숭 낼라오.<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같은 집, 대궐에서 살거든. 그런개요, "{멜치} 사시오!" 웨침서 갈볼 적에 그런개로<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헌개 총각이 애가 타서 {멜치를} 지고 갔어 거기를. {멜치요}? 암, 멸치를 멜치장사를 허러 갔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멤생이 명 [대응어] 염소.

☞맹생이.

지역 김제, 완주, 임실.

멤소 명 [대응어] 염소.

☞멤소.

지역 고창, 김제, 부안, 정읍.

멥겨 명 [대응어] 왕겨.

☞맵제.

지역 군산.

멥쌀 명 [대응어] 맵쌀.

메벼를 찧은 쌀. ¶생전에 은혜를 입었거나 정리를 서로 나누던 사람의 마지막 성의로 슬픔을 담아, 그들은 찹쌀이나 {멥쌀을} 부조하기도 하고, 술을 빚은 동이나 떡시루, 또는 팥죽 함지를 이고 오기도 했으며<최명희, 혼불> ¶백일 때는 {멥쌀가루로} 백설기를 만들어 나눠 먹곤 했지. ¶찰쌀보다는 {멥쌀이} 덜 차지구나.

지역 고창, 군산, 남원, 무주, 완주, 임실.

멥재 명 [대응어] 왕겨.

☞맵제.
지역 전북.

멧되아지 명 [대응어] 멧돼지. ¶그러먼 멧되아지는 죽어서 무엇이 되았냐? 저 숯 굽는 산골짝으 숯 장사가 되았단 말여. 아 그렇게 되았는디 그저는 언제 이가 {멧되아지를} 소금장사를 뜯어 먹고 다 크고 또 나중으는 소금장사가 내버린게 멧되애지를 뜯어 먹고 일생을 마쳤단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멧되야지 명 [대응어] 멧돼지. ¶게 심통을 딱 히놓고 본게 자기는 소금장사 죽은 넋이, 여자는 이 죽은 넋이, 그 숯 굽는 사람은 {멧되야지} 죽은 넋이, 그런게 이가 소금장사를 뜯어 먹고 장성히서 소금장사가 떼내 버린게 멧돼지를 뜯어 먹고 일생을 마쳤단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인제 띠서 인제 산이다 내버린게 윈 산천이를 헤매고 댕기다 {멧되야지란} 놈 자는 멧되야지란 놈기다 앵단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그 묘를 썰 챔인디 한참 쓰다 본게 되야지가 그냥 {멧되야지가} 한 마리 와서 그냥 그리가 씨러져 버린게 어서(어째서) 그런고 <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멧뒤지 명 [대응어] 멧돼지. ¶어이 뭐야 씨름이나 한번 해보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 {멧뒤지를} 뭐야 지고서나 뭐야 지치지도 않는다는 그놈이 막 내가 해야겠다고 하고서나 덤벼요.<2007 전북 군산> ¶그놈을 죽인게로 {멧뒤지가} 거꾸러져 부렀어.
지역 전북.

멧방석 (멧方席) 명 [대응어] 짚방석.
짚을 엮어 만든 방석. ¶사리반댁은 {멧방석} 같은 주춧돌보다 차라리 저 거칠 것 없이 푸르게 트인 바닷가의 모래알이 나으리라 말하고 있었다.<최명희, 혼불>
지역 남원, 무주.

멧서숙 명 [대응어] 메조.
지역 임실.

멧수수 명 [대응어] 메수수.
찰기가 없는 수수. ¶메수수 204-4} 매쑤수 2042<2005 전북 남원>
지역 고창, 군산, 남원, 무주, 완주, 임실.

멧조금 명 [대응어] 몇 조금.
아주 짧은 동안. ¶"어디 {멫조금이나} 더 가는가 봅시다. 달랑 족박 찰 날 코앞잉게."<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멫조금'은 관형사 '몇'과 명사 '조금'이 복합된 구성이다. '조금'이 '짧은 동안'을 나타내는 명사인데 '멫조금'은 '아주 짧은 동안'을 나타내는 명사로 사용되고 있다.

멩감 명 [대응어] 청미래덩굴.
☞맹감.
지역 김제, 남원, 군산, 완주, 임실, 장수, 진안.

멩경 (←明鏡) 명 [대응어] 명경.
☞맹경.
지역 진안.

멩주베 명 [대응어] 명주.
명주실로 무늬 없이 짠 천. ¶그건 맹지베. 누에 키워서 난 건 {멩주베라} 그려. ¶미영베 잣아서 미영베 낳고, 누에 키워서 또 {멩주베} 낳고, 누에도 키워서 또 멩지베도 낳고 어디 또 비단 물 딜이서.

지역 임실.

멩주실 명 [대응어] 명주실.
명주실로 무늬 없이 짠 천. ¶{멩주실} 한 꾸리 풀어 갖꼬는 밑바닥으 못 닿겄네잉?<최명희, 혼불>
지역 고창, 군산, 남원, 무주, 완주, 임실.

멩지 명 [대응어] 명주.
☞명주. ¶얘. {멩지를} 해가꾼자 그눔 풀 살짝 메기가꼬 기양, 그 멩지 또글또글허니<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지역 임실.

멩지베 명 [대응어] 명주.
명주실로 무늬 없이 짠 천. ¶여그는 모시는 어쩌다 한 집썩 허고 {멩지베를} 마니 히써요. {여기는 모시는 어쩌다 한 집씩 하고 명주베를 많이 했어요}.<2009 전북 임실> ¶샘:배, 샘:배 질쌈, 미영질쌈, {멩지베} 길쌈, 질싸믄 잘히써.(삼베, 삼베길쌈, 무명길쌈, 명주베길쌈, 길쌈은 잘 했어.) <2009 전북 임실> ¶그 {멩지베는} 누여만 키워노먼 천하 쉬워.(그 명주베는 누에만 키워놓으면 천하 쉬워.)<2009 전북 임실> ¶들어가서 {멩지베거튼} 거 뭐 중국에서 나온 공단거튼 거 뭐 전부 훔쳐갖고는<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고창, 남원, 무주, 임실.

멩지비 (←明紬비) 명 [대응어] 명주베.
명주실로 무늬 없이 짠 천. ¶기상첩을 옆에 놓고/권줄개를 하는구나/집이나 통통 돌아와서/장농 속으/{멩지비} 석 자를 내어갖고/목을 메어 죽었구나/어이 하라고 죽었는가(완주 시집살이노래-"빨래질 가자 빨래질 가자")<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완주.

멩지실 명 [대응어] 명주실.
☞멩주실.
지역 완주, 임실.

며누리 명 [대응어] 며느리(婦).
☞메누리. ¶"옳다! 참 잘 헌다! 참 잘 히여. 워너니 그게 명색 {며누리} 체것이 시애비더러 허넌 소리구만? 저두 그래, {메누리} 자식을 둘썩이나 읃어다 놓고, 손자자식이 쉬옘이 나게 생겼으면서, 그래, 그게 잘 허넌 짓이여?"<채만식, 태평천하>
지역 전북.

며느릿시미 명 [대응어] 학질. ¶{며느릿시미를} 앓았나 보구만.
지역 무주.

며늘애기 명 [대응어] 며느리(婦).
아들의 아내를 자식을 대하듯 다정하게 이르는 말. ¶우리 큰 {며늘애기허고} 친하게 지내는 여집사 한 분이 시골 다녀오는 길에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는 거야.<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정읍, 장수.
해설 모음을 앞쪽으로 바꿔서 발음하는(흔히 '움라우트'라 함.) '애기'와 같은 예와 뒤쪽에서 발음하는 '아기'와 같은 예가 혼재하고 있다.

며수수 명 [대응어] 메수수.
☞메수수.
지역 군산.

멱다리 명 [대응어] 멱둥구미.
☞맥다리.
지역 김제, 부안.

ㅁ

멱동가지 명 [대응어] 멱.

목의 앞쪽. ¶{멱동가지를} 잡다. ¶그놈이 또 나쁜 짓을 힛다니 이번으는 {멱동가지}를 잡고 동네 한바꾸를 돌아 댕기며 버릇을 고치야 쓰것고만. ¶훈이와 큰별이는 곧 싸울 듯이 서로 {멱동가지를} 잡고 있다.

지역 전북.

멱둥갱이 명 [대응어] 멱.

목의 앞쪽. ¶{멱둥갱이를} 잡고 한참을 노려보드라고. 노려보면 지가 어쩔 것이여.

지역 전북.

멱사리 명 [대응어] 멱둥구미.

☞맥다리.

지역 군산.

면상 (面上) 명 [대응어] 얼굴의 생김새.

사람의 얼굴을 낮잡아 이르는 말. ¶행복사진관의 밝은 불빛 앞에서 몽달 씨가 울부짖으며 사내에게 잡힌 머리통을 흔들어 대다가 녀석의 구둣발에 {면상을} 짓밟히기 시작하였다.<양귀자, 원미동 시인> ¶강모의 머리 속에는 입술이 두툼하고 번질거리는 남자의 천박한 {면상이} 떠올랐다.<최명희, 혼불> ¶환희는 {면상이} 잘 생겨서 커서 한 자리 해 먹을거야.

지역 전북.

멤생이 명 [대응어] 염소.

☞맹생이.

지역 익산.

멤셍이 명 [대응어] 염소.

☞맹생이.

지역 전북.

멤소 명 [대응어] 염소.

지역 순창, 완주, 고창, 김제, 부안, 정읍.

멥쌀 명 [대응어] 멥쌀.

☞멥쌀. ¶멥쌀 닷 말

지역 군산.

명감 명 [대응어] 청미래덩굴.

☞명감. ¶아, 그도 인자 걍 즈그 어메 목 마랍다고 허넌게 무엇으로 이렇게 모다 그 {명감} 나무 잎사귀만 뜯어다가 손으로 인자 조롱박마냥 맨들어서 떠다가 디리고 디리고. 그러고 한바탕 먹고나서, "하아, 이제 살겄다."<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익산, 정읍.

명구 (名狗) 명 [대응어] 개.

크고 강한 아주 좋은 개. ¶사람이 나드래도/공자 맹자 안자 주자/와룡 같은 현인 나고/소가 나도 억댕이/말이 나도 용총마요/개가 나도 {명구} 나고/닭이 나도 봉댁이라(순창 고사풀이)<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순창.

명다래 명 [대응어] 다래(목화).

아직 피지 아니한 목화의 열매. ¶{명다래가} 많이 달린 것 본게로 올해 목훼 풍년이겄구만.

지역 장수, 무주.

해설 `목화`의 방언형인 `미엉`이 축약의 과정을 거쳐 `명`이 되고, 여기에 `다래`가 결합한 합성어이다.하위 방언형 `명따래`는 `명`과 `다래` 사이에 사이시옷이 개재되어 후행하는 `다래`가 경음화된 것으로 보인다.

명따래 명 [대응어] 다래(목화).

☞명다래.

지역 무주.

명뵈 명 [대응어] 무명.
목화솜으로 만든 실로 짠 천. ¶{명뵈로} 옷을 만들어 봐.
지역 군산, 무주.

명실 명 [대응어] 무명실.
솜을 자아 만든 실. ¶{명실을} 뽑아 무명천을 만들어.
지역 군산, 무주.

명월 명 [대응어] 명절.
해마다 일정하게 지키어 즐기거나 기념하는 때. ¶{명월} 때. 신정, 구정, 대보름에 풍장 치고 놀지.
지역 전북.

명주베 명 [대응어] 명주.
☞멩지베. ¶그 메누리가 그 {명주베} 한 필 갖다 준 그 새각시가 시집온 지 일곱 달 만에 아들을 났다 그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정읍.

명지 명 [대응어] 명주.
☞명주. ¶가지고 사업을 했어. 근대는(그때는) {명지} 바지저고리 입고, 새로 두루매기에다가 기또 구스라고 있거든. 말궁둥이 가죽으로다 구두 맨드는 기또구두.<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정읍.

명지베 명 [대응어] 명주.
☞멩지베.
지역 고창, 무주.

명지실 명 [대응어] 명주실.
☞멩주실. ¶있거든. 그 재주를 뷜라고 맥을 인제 못간게 진맥을 헌다고 {명지실} 있으면 그 산모 기다가 폴뚝이다가 쩸미라고 실을.<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정읍.

명화대 명 [대응어] 명아주. ¶{명화대를} 넣어 죽을 쑤어 먹다. ¶오랫만에 밭에 가보니 웬 {명화대로} 꽉 차 버렸네.
지역 전북.

멩감 명 [대응어] 청미래덩굴.
☞맹감.
지역 군산.

모가 명 [대응어] 모과. ¶창경원을 나와서는 소진과 남수만 따로 떨어졌다. 두식이며 다른 둘이가 군이 권을 하며 향긋한, {모가라도} 한잔 마실 겸 같이들 본정으로 둘러서 가자고 해쌓는 것을<채만식, 젊은날의 한 구절>
지역 전북.

모강뎅이 명 [대응어] 모가지.
'목'을 속되게 이르는 말. ¶오냐, 정 못 나오겄으면 인자부텀 나가 찾어내겄다. 찾기만 허먼 아조 {모강뎅이럴} 삐틀어뿔 거이다.<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모개[2] 명 [대응어] 모과.
☞모가. ¶과실 망신은 {모개가} 시킨다고 혔지만 요짐은 모개효험이 벍혀지면서 귀헌 대접을 히주드라고.
지역 완주.

모개 명 [대응어] 벼 이삭.
벼에서 꽃이 피고 꽃대 끝에 열매가 수북하게 많이 열리는 부분. ¶{모개가} 피였구만요.

지역 고창.

모고 명 [대응어] 모기.
☞모구.
지역 전북.

모곰 의명 [대응어] 모금.
물이나 담배 연기 따위를 한 번 입에 머금는 분량을 세는 단위를 나타내는 말. ¶물 한 {모곰도} 주지 마라. ¶더운디서 일허니라 욕봤다. 목 매랄틴디 급허게 먹지 말고 찬찬히 한 {모곰썩} 마시거라.
지역 전북.

모구 명 [대응어] 모기.
모깃과의 곤충을 통틀어 이르는 말. ¶둥구나무 가서 {모구} 한 마리 잡았으면 열두 반상기(飯床器) 채리고도 또 한 다리가 남고남고 느그 삼동세(三同壻)끼리 훌륭한 잔치를 열겠구나<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요 싸가지 없는 {모구} 새깽이가 으니를 갬히!"<윤흥길, 빛가운데로 걸어가면> ¶"들으가서 주무시요. {모구가} 다 뜯어 먹겄소. 그나마 한 방울이나 되까 마까 허는 노무 피."<최명희, 혼불>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모내기허다 동 [대응어] 모내기하다.
모를 못자리에서 논으로 옮겨 심다. ¶{모내기헐} 때 푸마시허먼 인자 오널 가서 모럴 싱구제.(모내기할 때 품앗이하면 이제 오늘 가서 모를 심지.)<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지역 임실.

모냥 명 [대응어] 모양.
겉으로 나타나는 생김새. ¶암치께도 큰일일 공산이 큰 {모냥여}, 먼 일이든가.<조봉래, 풀벨골> ¶그 시계는 요 시계허고 {모냥이} 달부다. 이승재
지역 전북.

모냥다리 (←模樣다리) 명 [대응어] 모양새.
겉으로 보이는 모양. ¶요런 {모냥다리로}, 고 산만헌 정신을 갖고서나 먼 놈의 땅을 일궈!<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모다 부 [대응어] 모두.
하나도 빠짐이 없이. ¶그 근방 선비들을 {모다} 불러다가 좋은 좋은 방줘서 요리를 먹임서 인자 거그서 참 글도 짓고 인자 시조도 허고, 인자 기생 불러다가 어찔 때는 생일 때는 놀기도 하고 그러게 호화시럽게 놀아.<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사람을 시켜서 절 중놈, 뭐 심바람 하는 놈까지 뭣 헐 것 없이. {모다} 쓸어 묶어 버렸어. 뭐 한개도 없이 싹묶어 버렸어. 뭐 예편네고 심바람하는 놈이고 뭐 해야지. 아, 감사가 중놈 묶으라는디 안묶을 수 있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우리 {모다} 냇가에 가자.
지역 고창, 김제, 군산, 부안, 완주, 정읍.

모다지다 동 [대응어] 모이다.
한데 합쳐지다. ¶사람들이 한데 {모다졌네}.
지역 전북.

모더락불 명 [대응어] 모닥불.
장작이나 나뭇가지 등을 쌓아 놓고 피우는 불. ¶마당에서 {모다락불을} 피웠어.
지역 전북.

모데기 명 [대응어] 무더기.
한데 수북이 쌓였거나 뭉쳐 있는 더미나 무리. ¶빨래 {모데기}

지역 남원, 임실, 완주, 장수.

모뎅이 명 [대응어] 무더기.
한데 수북이 쌓였거나 뭉쳐 있는 더미나 무리. 또는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한데 수북이 쌓였거나 뭉쳐 있는 더미나 무리를 세는 단위. ¶돌 {모뎅이} ¶돌 한 {모뎅이}
지역 전북.

모도 부 [대응어] 모두.
하나도 빠짐이 없이. ¶이 동네에서 부인들이 {모도} 뫼아가지고, "우리 서울 구경하는 계를 모으자." "그럼 그러자." 그려갖고 서울가는 계를 모았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짐승을 잡아먹고, 가죽이라던지 그 뼉다구던지 한 쪽에다가 쌓아 놓은 것을 보닝개, 어마어마하게 쌓아놓았더랍니다. 자기 심(힘)에 만만한 짐승을 잡아다가 {모도} 뜯어먹고서 가죽과 뼉다구를 그리 해 뒀더랍니다.<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이때꺼지 암시랑토 않던 하늘이 벨안간 먹장 같어서 퍼붓인 것처롬 캄캄허게 되고 소내기 퍼붓고 천지가 뒤엎어질 딧기 히서 사람덜언 놀래서 그만두고 {모도} 다 집이로 가버링께 그렁께 날언 도로 개고 해도 났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 김제, 군산, 익산.

모드레기 명 [대응어] 무더기.
한데 수북이 쌓였거나 뭉쳐 있는 더미나 무리. 또는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한데 수북이 쌓였거나 뭉쳐 있는 더미나 무리를 세는 단위. ¶장작 한 {모드레기를} 쌓다
지역 정읍, 순창.

모들치다 동 [대응어] 모으다.
한데 합치다. ¶일주일 동안 빨래를 모들쳐서 주말에 한꺼번에 한다. ¶그동안 벌려논 외상갑을 명절 전으는 {모들쳐} 갚는다고 큰소리는 쳤는디.
지역 전북.

모듬머리 명 [대응어] 모두머리.
이마, 귀밑 부분 등의 머리를 모두 딴 머리. ¶{모듬머리로} 다 따서 댕기 딜여서 다니면 이뻤어. 그때는 머리가 이쁘먼 이쁜 큰애기였어.
지역 전북.

모디 명 [대응어] 마디. ¶울어머니 날 실 적에/왕대 죽신을 자셨던가/{모디} {모디} 골만 맺히네(우리 어머니 나를 뱄을 적에/왕대 죽순을 드셨던가/마디마디 골만 맺히네)<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 민요해설집>(남원 시집살이노래- "울 어머니 날 실 적에"남원군 덕과면 고정리 고정)
지역 남원, 순창, 임실, 장수.

모띠이 명 [대응어] 모퉁이.
구부러지거나 꺾어져 돌아간 자리. 또는 변두리나 구석진 곳. ¶{모띠이가} 보이면 오른쪽으로 가라 ¶도서관 한 {모띠이에} 박혀 책만 보다
지역 전북.

모람 명 [대응어] 마름.
☞마람.
지역 고창.

모랭이 명 [대응어] 모퉁이.
모가 지게 구부러지거나 꺾어져 돌아간 자리. ¶독부처에 코구녁? 응. 계화도에 독부처가? 독부처가 있었다등만, 모퉁이에. 그 바우 밑에 산 {모랭이로} 돌아가면.<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한 {모랭이} 돌아감서 중아얗고 부링게로 산이울려 대답허고 두 {모랭이} 돌아감서 중아얗고 부리닝게 산짐승이 대답허고 세 {모랭

이} 돌아감서 시집을 살면서<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군산, 남원, 부안, 완주, 정읍.

모렝이 명 [대응어] 마루.

집채 안에 바닥과 사이를 띄우고 깐 널빤지. 또는 그 널빤지를 깔아 놓은 곳.

지역 진안.

모롱이 명 [대응어] 산마루;모퉁이, 모롱이.

산의 불룩 솟은 부분. 또는 구부러지거나 꺾어져 돌아간 자리. ¶한 {모롱이} 넘어 가니/ 까막 까치 진동하고/ 두 {모롱이} 썩 돌아서니/여우새끼 진동하고(무주군 무풍면 지성리 율오)<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아니나다를까, 언덕너머 남바웃동네 {모롱이} 후미진 철길을 지나는 야간 열차의 기적이 길게 울렸다. 그<윤흥길, 양> ¶아이들은 진달래를 쥐어뜯어 먹고, 산 {모롱이} 아무 데서나 너부러져 용개질을 하면서도 성이 차지 않은 양<최일남, 숙부는 늑대> ¶길도 또한 평탄치만은 않아서, 냇물도 건너며, 고개 넘어, 산 {모롱이} 길게 휘돌아 지루하게 멀리 걷기도 할 것이다. 십<최명희, 혼불> ¶그쪽으로는 감히 허리 들고 지나갈 엄두조차 못 내고는 산 {모롱이} 하나를 꺾어서 한참이나 내려와 돌아앉은 이곳에 자리를 잡은 것이리라.<최명희, 혼불> ¶검은 바위에 벌겋게 널린 고기 무더기는, 작은 산 {모롱이} 하나를 돌고도 얼마를 더 들어가야 하는 매안에서야 보일 리가<최명희, 혼불>

지역 무주.

모루쇠 명 [대응어] 모루.

☞마루쇠.

지역 장수.

모룬버짐 명 [대응어] 마른버짐.

☞마런버짐.

지역 남원.

모룻독쇠 명 [대응어] 모루.

대장간에서 불린 쇠를 올려놓고 두드릴 때 받침으로 쓰는 쇳덩이.

지역 순창.

모룽이 명 [대응어] 모롱이.

산모퉁이의 휘어 돌아간 곳. ¶어매가 {모롱이를} 돌 때마다 뒤를 돌아보는디 아가 자꾸 따라 오는 거여. 즈그 어매 눈치를 슬금슬금 보면서 인제 쫓아가는 것이지.

지역 전북.

모리 명 [대응어] 모루.

대장간에서 불린 쇠를 올려놓고 두드릴 때 받침으로 쓰는 쇳덩이.

지역 임실.

모리게 부 [대응어] 살짝.

표가 나지 않게 넌지시. ¶그럼 {모리게} 그양 어따 감촤노코 익쩨.<2009 전북 임실> ¶저그 오더니 통 속으다 참 쌀을 세 말을 {모리게} 인자 하나 퍼갖고 왔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완주.

해설 '모리게'는 '모르게'의 제2 음절 모음이 /ㅣ/로 전설모음화한 결과이다.

모리쇠 명 [대응어] 모루.

☞마루쇠.

지역 임실.

모링이 명 [대응어] 마루.

☞모렝이.

지역 전북.

모새 명 [대응어] 모래.

자연히 잘게 부스러진 돌 부스러기. ¶모래 모래지 머 그거 모래 {모새라고도} 허고 그려.<2009 전북 임실> ¶모래 {모새}, 모새를, 모래라 만히 혀<2008 전북 고창>

지역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임실, 장수, 진안.

모숨 명

한 줌 안에 들어올 만한 분량의 길고 가느다란 물건 또는 그 물건을 세는 단위. ¶모숨 한주머글 간따, 한주먹, 함모스미라,<2008 전북 고창> ¶빙글빙글 돌리듯 대거리로 홀태에다 벼를 훑어 냈다. 다른 사람들이 한 {모숨을} 두 손으로 쥐고 훑는데 만득이는 한 손에 한 모숨씩 쥐고<송기숙, 녹두장군> ¶{모숨을} 적게 잡고 손가락에 감아 잡아챘다.<송기숙, 녹두장군>

지역 고창, 군산, 남원.

모숭테이 명 [대응어] 모퉁이.

구부러지거나 꺾어져 돌아간 자리. 또는 변두리나 구석진 곳. ¶저 {모숭테이} 가게에서 내일 보자 ¶운동장 한 {모숭테이에서} 홀로 연습하다

지역 전북.

모스숙 명 [대응어] 메조.

☞메서숙.

지역 고창, 정읍.

모시 명 [대응어] 모이.

닭이나 날짐승의 먹이. ¶모시를 줘 갖고 키워놓개, 아 그놈이 암탉인지 아 이웃이 장탉하고 인제 교배가 되어 가지고, 알을 낳아 갖고 새끼를 까.<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모시를 주서머꼬 인따.<완주_지역어_텍스트> ¶모이 닥모시<한국방언어휘자료집_전북편> "

지역 고창, 남원, 순창, 완주, 임실.

모시베 명 [대응어] 모시.

모시풀 껍질의 섬유로 짠 피륙. 또는 베보다 곱고 빛깔이 희며 여름 옷감으로 많이 쓰인다. ¶옛날에 안성유기라고, 유기장사가 깨끗허고, 모시장사, {모시베} 장사, 깨끗헌 사람, 돈 있는 사람이 장사혀. ¶풀 쒀서 쌀풀을 허든지 밀가리풀을 허든지, {모시베는} 콩가루 빠사가꼬 콩으로 콩을 쑤어서 매야. 그리가꼬는 인자 칠해서 다 풀 멕여서 인자 마린 놈을 도토마리다 막가지 늡서 다 감어. ¶미영베는 쌀풀, 밀가리나. 그러고 {모시베는} 콩가루, 생콩, 생콩가루 빠솨서. ¶베 짤라고 할매가 다 {모시베} 미영베 다 꿔어난 놈도 안 허고 다 팔아먹어부렀어.

지역 고창.

모실 명 [대응어] 마을.

☞마실. ¶근게 자기 딸이 어디 {모실을} 갔다가 저그 집이를 와서 본게로 저그 어메가 강 죽는다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모실가다 동

☞마실가다.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부안,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

모실배기 명 [대응어] 모서리.

물체나 평면의 모가 진 가장자리. ¶책상 {모실배기에} 찧지 않게 조심해라.

지역 무주.

모싯입 명

모시의 잎. 쑥처럼 떡을 할 때 넣어 먹는다. 쑥색깔과 같은 빛깔의 떡 색깔을 낸다. ¶또 한번이

랑 헐라믄 쑥 뜯어얀디, 쑥이 더 좋아. 모싯잎 쪼깨 느먼 좋대. ¶모싯잎도 다 뜯어가버리는가 벼. 봉댕이 다 뜯어가버러. ¶모싯잎 뜯어다 떡허게.

지역 고창.

모쑤시 명 [대응어] 메수수.

☞멧수수. ¶메수수 {모쑤시가} 읻끄 그러지.<2008 전북 고창>

지역 고창.

모욕 (←沐浴) 명 [대응어] 목욕.

머리를 감으며 온몸을 씻는 일. ¶물 빨빨 끓이서 {모욕} 싹 시켜서 존 비단입성 다 착 챙겨서 입혀가지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해설 표준어 `목욕`의 음절 종성 `ㄱ`이 탈락한 형태이다.

모우다 동 [대응어] 모으다.

한데 합치다. ¶소복 입고 시집와서 저 큰 재산을 다 {모우드락} 오직이나 넘 못헐 일 많이 시켰겄능가잉.<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모자리 명 [대응어] 못자리.

☞못자리. ¶지대로 치 읻따가 인재, {모자리도} 하 {모자리라도} 하기는 하지, {모자리를} 하기 하기는 해도 인자,(제대로 쳐졌다가 이제, 못자리도 하 못자리도 하기는 하지, 못자리를 하기 하기는 해도, 이제)<지역어 자료 총서, 무주>

지역 무주.

모자리판 명 [대응어] 못자리판.

들어가서 손질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못자리 사이를 떼어 직사각형으로 다듬어 놓은 구역.

지역 무주.

모자리하다 동 [대응어] 못자리하다.

논에 볍씨를 뿌리다. ¶{씬나라기라고 인재 그 {모자리하기} 저네.(볍씨라고 이제 그 못자리하기 전에.)<지역어 자료 총서, 무주> ¶{모자리하기} 저네 한, {모자리하기} 한 이:시빌 저니 씬나라글 당과요, 지비다가 당과노차나요.(못자리하기 전에 한, 못자리하기 한 이십일 전에 볍씨를 담궈요, 집에다가 담궈놓잖아요.)<지역어 자료 총서, 무주>

지역 무주.

모작스레 부 [대응어] 무작스레.

형상이나 성질이 보기에 무지하고 우악한 데가 있게. ¶때렸어라, 증말 {모작스레} 때렸어라? <조봉래, 풀벨골> ¶{모작스레} 팼어?<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모조 명 [대응어] 메조.

찰기가 없는 조. ¶{모조} 갈아서 밥 허면 허천나. 차조 말고 {모조} 있어.

지역 전북.

모조밥 명

메조로 지은 밥. ¶쌀밥이 머여? {모조밥} 히먹고 살았어.

지역 전북.

모지락시럽다 형 [대응어] 모지락스럽다.

인정이 없이 마음씨가 독하다. 또는 행동이나 기세가 매섭고 단호하다. 또는 괴로움이나 아픔을 견디는 태도가 단단하다. ¶성령을 받으면 김부월 자매처럼 다들 {모지락스럽게} 변하는 법이냐고, 만일 그 지경으로 사람을 버려 놓는 거의 성령이라면 차라리 지옥행을 도모하는 편이 낫겠다

고.<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소름끼치는 낫춤과 {모지락스런} 구둣발에 의하여 이제 곧 확실한 현금이 될 인삼밭은 삽시에 결딴이 나고 말았다.<윤흥길, 비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미는 내 손을 {모지락스럽게} 처뜨려 버린 그는 앙화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다.<윤흥길, 직선과 곡선> ¶치리부장이 두 번째 전갈을 가지고 왔다. 그것마저도 하 목사는 {모지락스럽게} 거절해버렸다. "안 된다면 안 돼!"<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옛날에 옛날에 삼촌 숙모 밑에서, 그리 {모지락스럽게} 두 내우(내외)가 안안팎 담사리(내외가 남의 집을 사는 것)를 살고, 아버지, 여물간, 여물간이 방이고, 문턱이 베개고, 두 내우가 그렇게 살았대,<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남원.

모지랍시럽다 형 [대응어] 모지락스럽다.
☞모지락시럽다. ¶그러먼 불쌍히서 쥔네 마음씨 존 사람언 다믄 쌀 댄말이라도 주고 {모지랍시럽께} 독흔 걷뜰은 몸떼~이만 나가.(그러면 불쌍해서 주인네 마음씨 좋은 사람은 다만 쌀 댓말이라도 주고 모지락스럽게 독한 것들은 몸뚱이만 나가.)<2009 전북 임실>
지역 임실.

모질병 명 [대응어] 악질.
고치기 힘든 병. ¶{모질병이} 걸려가꼬.
지역 전북.

모집 명 [대응어] 설기.
싸리채나 버들 채 따위로 엮어서 만든 네모꼴의 상자. 대나무로 만들기도 하고 동그랗게 생겼다. ¶왕골속으로 딱 짬매. 껍딱은 자리 짜고 속은 또 써. 뒤집어서 동그래미 히논 디다 놓아. 딴 디다 놓고 이런 {모집이다}.
지역 전북.

모집짝 명
대로 엮은 바구니의 일종. 이바지할 때 떡을 담는다. ¶석짝은 잘족허고 {모집짝은} 동그랗지.
지역 전북.

모착 명 [대응어] 몫.
여럿으로 나누어 가지는 각 부분. ¶{모착을} 나누다
지역 전북.

모초럼 부 [대응어] 모처럼.
벼르고 별러서 처음으로. ¶{모초럼} 시간을 내다 일껏 오래간만에. ¶{모초럼} 하늘이 맑구마이.
지역 전북.

모초롬 부 [대응어] 모처럼.
벼르고 별러서 처음으로. ¶{모초롬} 장에 나왔더니 사갖고 갈 것이 겁나네. 일껏 오래간만에. ¶{모초롬} 산에 올라갔더니 마음이 참 시원하구나.
지역 전북.

모침 (-枕) 명 [대응어] 목침.
나무토막으로 만든 베개. ¶아자씨는 {모침을} 비고 누워 갖고 잠이나 자고.
지역 전북.

모코리 명 [대응어] 바구니.
대나 싸리 따위를 쪼개어 둥글게 결어 속이 깊숙하게 만든 그릇. 테두리에 대나무를 서너 겹 둘러 손잡이가 달린 형태로도 쓸 수 있다. ¶부억의 잇넌 물건 흔 동의 한? 방아의 흔 농 한? ?러진 {모코리} ?담 한작 무다 판덜 오전이나 뉘가 쥬며.<효녀실긔심청(박순호소장본)>
지역 무주.

ㅁ

모타래 명 [대응어] 모춤.

모를 심기 편하게 적당한 갯수씩 묶어놓은 볏모나 모종의 단. ¶모쟁아 모쟁아 {모타래} 가져온나/에 에헤에로 사하 뒤여/모는 떠서는 아니되고/에 에헤에로 상사 뒤여(고창 모심는 소리-상사소리)<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고창.

모타리 명 [대응어] 무더기.

한데 수북이 쌓였거나 뭉쳐 있는 더미나 무리. 또는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한데 수북이 쌓였거나 뭉쳐 있는 더미나 무리를 세는 단위. ¶눈 {모타리} ¶한 {모타리썩} 가지가면 됩니다여.

지역 전북.

모태다 동 [대응어] 모으다.

한데 합치다. ¶보아허니 어디 식량은 {모태} 둔디가 없는디<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아 이놈으 돈으 뀐기다 {모태} 놓고 있는디 나무를 가서 하리 히갖고 오닌께<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세뱃돈 {모태} 논것 애껴 섰는디도 보름도 안되어 거덜났어.

지역 전북.

모테이 명 [발음] [모테~이] [대응어] 모퉁이.

☞모텡이. ¶내가 여비나 조금 줄테니 요놈 가지고 올라와서 종로 그 팥죽집 모퉁의, 팥죽집 {모테이서} 만납시다.<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고창.

모텡이 명 [대응어] 모퉁이.

구부러지거나 꺾어져 돌아간 자리. 또는 변두리나 구석진 곳. ¶{모텡이를} 돌다 ¶창고 한 {모퉁이에서} 쪽잠을 자다

지역 완주, 익산, 고창.

모통아리 명 [대응어] 모퉁이.

구부러지거나 꺾어져 돌아간 자리. 또는 변두리나 구석진 곳. ¶{모통아리를} 돌면 보인다 ¶교실 {모통아리에서} 몰래 자다

지역 고창, 정읍.

모퇑이 명 [대응어] 모퉁이.

구부러지거나 꺾어져 돌아간 자리. 또는 변두리나 구석진 곳. ¶그 한쪽 {모퇑이} 가 가지고 보리 이삭 짤러다가 밀이삭 짤러다가 콩도 거둬다가 인자 불 펴놓고 인자 그거슬 자 익훠 가지고 <지역어 자료 총서, 군산>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부안, 완주, 임실, 장수, 정읍, 군산, 순창.

모투이 명 [대응어] 모퉁이.

구부러지거나 꺾어져 돌아간 자리. 또는 변두리나 구석진 곳. ¶저그 {모투이를} 돌아서 가 봐. ¶누네 집 {모투이에서} 숨어 있었냐?

지역 전북.

모퉁 명 [대응어] 모퉁이.

구부러지거나 꺾어져 돌아간 자리. 또는 변두리나 구석진 곳. ¶종술이 사무실 {모퉁} 그늘진 곳을 가리켰다.<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모퉁아리 명 [대응어] 모퉁이.

☞모통아리. ¶삥아리들이 {모퉁아리에} 모여 있더구나.

지역 부안, 김제.

모퉁이 명 [대응어] 모퉁이.

☞모투이.

지역 고창.

모팅이 명 [대응어] 모퉁이.

구부러지거나 꺾어져 돌아간 자리. 또는 변두리나 구석진 곳. ¶좁은 {모팅이}를 돌아가다 서로 부딪혀서 저리 되었다지? ¶아니 나가 아부지다, 달래고 인자 저 {모팅이서} 손을 까불까불 혔는 개벼<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순이야, {모팅이를} 돌아가면 싸리비 있으니까 가져오렴.

지역 남원, 임실, 무주.

목 마른 놈이 샘을 파다 【관용표현】

☞목 매란 놈이 시암 판다. ¶{목마른 놈이 샘 파더라고} 다급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일은 오래 안 걸릴 겁니다.<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목 매란 놈이 시암 판다 【관용표현】

아쉬운 사람이 먼저 일을 한다는 뜻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급헐 것 한나도 없어. {목매란 놈이 시암 파드라고}, 깝깝허면 그 순지잔지 뭔지가 지 발로 걸어서 찾어오겄지.<윤흥길, 빛가운데로걸어가면>

지역 전북.

해설 표준어 '마르다'는 전북 방언에서 '매랍다'로 실현된다. 따라서 '목이 마르다'는 '목이 매랍다, 목매랍다'로 쓰인다. '목 매란 놈이 시암 판다.'는 표현은 아쉬운 사람이 먼저 일을 한다는 뜻이다.

목간 명 [대응어] 목욕.

머리를 감으며 온몸을 씻는 일. ¶그때부텀 목간통이, 그때부텀 나왔다만. {목간을} 딱 시기고서는 인자 옷을 좋놈 한 벌 내다가 입히고<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목간을} 하면 시원한데 왜 안 하려고 울고불고 야단이여!

지역 무주, 익산.

목구녁으서 당그래질을 친다 【관용표현】

☞목구녁으서 당그래질을 허다.

지역 전북.

목구녁으서 당그래질을 허다 【관용표현】

좋아하는 음식을 빨리 먹고 싶은 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 ¶인사 치렀응게 얼렁 마셔, 얼렁. 술 어서 들오라고 다덜 {목구녁서 당그래질허고} 난리시 시방.<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당그래'는 표준어로 '고무래'라고 한다. 따라서 '당그래질'은 곡식 같은 것을 펴거나 모으는 도구이다. 맛있는 음식을 보고 빨리 먹고 싶은 마음을 '목구멍 안에서 당그래가 음식을 끓어당긴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목구녁의 때를 벳기다 【관용표현】 [대응어] 목구멍의 때를 벗기다.

평소 먹지 못하던 고기와 같은 좋은 음식을 배부르게 먹다. ¶인재넌 오래간만에 {목구녁의 때를 벳기넝개비다}!<채만식, 천하태평춘>

지역 전북.

해설 평소 기름진 음식을 먹지 못하여 목구멍에 때가 끼었다고 생각하는데, 오랜만에 고기와 같은 좋은 음식을 먹으면 때가 벗겨진다고 생각한 데서 온 비유적인 말이다.

목구녕 명 [대응어] 목구멍.

식도와 기도로 통하는 입 안의 깊숙한 곳. ¶무신 짓얼 히서라도 {목구녕에} 풀칠해 나감스로 5년 아니라 10년이 걸려도 땅얼 찾어야제 왜놈덜헌티 이기는 것이제.<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목단꼿 명 [대응어] 모란꽃.

모란에 피는 꽃. ¶치마는 여전히 큼직한 {목단꽃} 무늬의 그 치마였지만 맨발은 아니었다. 머

ㅁ

리도 적당히는 간추려서 아까의 탱탱한 긴장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모습이었다.<양귀자, 숨은 꽃> ¶우리 집 마당에 탐스러운 {목단꽃이} 필 때면 괜스레 가슴이 설렌다. ¶놋그릇도 양재기도 이 도도한 합금속의 차갑고 견고한 광택을 따라올 수는 없었다. {목단꽃보다} 더 이쁘쟈. 어머니는 그것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하곤 했었다.<양귀자, 녹>
지역 전북.

목대불 명 [대응어] 모닥불.
장작이나 나뭇가지 등을 쌓아 놓고 피우는 불. ¶{목대불을} 피워 고구마를 구워 먹다.
지역 전북.

목덜메기 명 [대응어] 목덜미.
목의 뒷부분과 그 아래 근처. ¶아부지한테 {목덜메기를} 잡혔어.
지역 전북.

목델미 명 [대응어] 목덜미.
목의 뒷부분과 그 아래 근처. ¶일으켜 앉히려 어깨 밑으로 손을 들이밀자 {목델미에서} 끈적한 선혈이 배어났다.
지역 장수.

목마히다 동 [대응어] 메다.
감정이 북받쳐 목소리가 잘 나지 않다. ¶그 양 슬픈 소리를 {목맞힌} 소리를 허거든, 딸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 아들을 잃자 {목맞히어} 버렸다.
지역 전북.

목모룸 명 [대응어] 목말.
남의 어깨 위에 두 다리를 벌리고 올라타는 일. ¶아가 어린게로 {목모룸을} 타는 시늉도 해.
지역 남원.

목발 명 [대응어] 목말.
남의 어깨 위에 두 다리를 벌리고 올라타는 일. ¶{목발을} 탔어. ¶{목발은} 줄로 잡고 사람이 허지.
지역 전북.

목새 명 [대응어] 모래.
☞모새. ¶{목새가} 꼭 백미같이 생겼어요.<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부안.

목수새 명 [대응어] 딱따구리. ¶저거이 {목수새}, 소리 아녀?
지역 전북.

목시 명 [대응어] 몫.
여럿으로 나누어 가지는 각 부분. ¶내 {목시가} 적어질 수백이 없잔여.
지역 남원, 부안, 군산.

목심 명 [대응어] 목숨.
사람이나 동물이 숨을 쉬며 살아 있는 힘. 생명. ¶죽은 나무를 꺼꿀로 타고서/어어기 야아하/{목심을} 걸고/어어기 야아하/수중으 가네/어어기 야아하(고창 그물당기는 소리-"어기야하")<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그런게 그냥 부자이기는 허고 자기 집안들은 있고 허닌게 서울로 구명운동을 나섰어 구명운동, {목심만} 살려달라고 그럴 거 아녀. 거그도 인자 자그끼리(끼리) 또 손 닿는디는 손 닿는데로 히가지고 {목심을} 살릴라고 구명운동을 나섰어.<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그니 가만이 옥중이서 생각헌게 한 번 자기가 사주팔자를 본 일이 있는디, 거기여는 급허게 아주 {목심이} 위험헐 정도로 급헌 때에 그 사주 책을 보면 거그서 살을 방비가 나온다 해서 자기 집으로 연락을 히서,<구비

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고창, 군산, 부안, 남원, 완주, 정읍.

목영치다 동 [대응어] 목메다.
기쁨이나 설움 따위의 감정이 북받쳐 솟아올라 그 기운이 목에 엉기어 막히다. ¶그놈이 {목영친} 목소리로 엄매를 서럽게 부르도만.
지역 전북.

목젓 명 [대응어] 목젖.
목구멍의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민 둥그스름한 살. ¶감기에 걸려 {목젓이} 부었다.
지역 전북.

목지다 형 [대응어] 값지다.
물건 따위가 값이 많이 나갈 만한 가치가 있다. ¶{목진} 물건을 선물로 받았어. ¶오늘 캔 더덕 중으서 요놈이 제일 {목지게} 생겼네. ¶재작년에 중국에 갔을 때 사왔던 그 그림 인자나. 내가 알아보니까 굉장히 {목진} 것이라더군.
지역 전북.

목케밧 명 [대응어] 목화밭. ¶근디 오뉴월 그때가 어느 때나믄 칠팔월달이 목케밭(목화밭) 지심을, 부인들이 짐을 메는 땐디 해는 거운거운 넘으가 석양이 되았는디<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전북.

목하 명 [대응어] 목화. ¶절에서 {목하} 때가 되면 온 중이 {목하를} 따.
지역 고창, 군산, 김제, 남원, 무주, 완주, 완주, 익산.

목하다래 명 [대응어] 다래.
아직 피지 아니한 목화의 열매. ¶태풍이 오닌께로 {목하다래가} 다 떨어져분졌어. ¶올해는 {목하다래가} 주렁주렁 열렸네.
지역 무주, 고창, 완주, 정읍, 군산.
해설 `목화`의 2음절에서 반모음 /w/가 탈락한 형태인 `목하`에 `다래`가 결합한 합성어이다.하위 방언형 `목하따래`는 `목하`와 `다래` 사이에 사이시옷이 개재되어 후행하는 `다래`가 경음화된 것으로 보인다.

목하쉥이 명 [대응어] 목화.
지역 김제.

목하씨 명 [대응어] 목화씨.
목화의 씨. ¶그때 보리밭에 {목하씨를} 넣고 오는지 소쿠리를 옆에 끼고 오던 산매 처녀 하나가 덤불 속에서 통통한 찔레순을 하나 꺾어 들며 자랑을 했다.
지역 무주, 군산, 완주, 익산.

목하열마 명 [대응어] 다래.
아직 피지 아니한 목화의 열매. ¶{목하열마가} 많이 떨어져 부렀네.
지역 무주.

목핫다래 명 [대응어] 다래.
☞목하다래.
지역 고창.

목해 명 [대응어] 목화.
☞목회. ¶작년에 딴 {목해로} 이불 한 채 맹글기는 너무 짝어.
지역 김제, 완주, 익산.

목해다래 명 [대응어] 다래.
☞목하다래.
지역 완주, 정읍.

목해쉥이 명 [대응어] 다래.

아직 피지 아니한 목화의 열매. ¶올해 {목해쉥이는} 좀 작구만.
지역 익산.

목해씨 명 [대응어] 목화씨.
☞목하씨.
지역 익산.

목회 명 [대응어] 목화. ¶언지쯤 {목회를} 딸라요?
지역 무주.

몪다 동 [대응어] 치다.
가루가 덩어리 질 정도로 물을 조금 치다. ¶바실바실허니 물 몪아야 그놈 멋을, 죽을 쒀 먹는다든지 뭇을 헌다든지 콩고물도 물을 {몪아} 갖고 이롷게 내릴라먼 인자 얼맹이로 내리고 설기떡도 헐라믄 쌀 빵군 놈 물 {몪아} 갖고 인자 얼맹이로 물 치고 히서 내린다든지, 바실바실히야제 질먼 나오겄는가?
지역 전북.

몬생이 명 [대응어] 못난이.
못나고 어리석은 사람. ¶정신차려, 이 {몬생아}!<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몬야 부 [대응어] 먼저.
시간적으로나 순서상으로 앞서서. ¶아 인자 큰 상주, 인자 차례차례 사부로 떠서 시삽썩 떠서 관 너노코, 홍(흙) {몬야} 너차나.<2005 전북 남원> ¶마자요. {몬야} 저러케 시비년, 심늉녀니나 모냐 죽꼬 나는 시방까지 살고.<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나가서 인제 손님들 보다 {몬야} 들으라고 헌께, “어디 그럴 수가 있냐고 뭣이냐 당신네들이 {몬야} 들으라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남원, 순창, 임실, 정읍.

몬자 부 [대응어] 먼저.
시간적으로나 순서상으로 앞서서. ¶사나들 속이란 게 다 그렇지 머. 지 목구녁으 풀칠도 못헐 때는 헐 수 없지만 살림만 피여 바. 맨 {몬자} 얻는 것이 첩이여, 첩.<최명희, 혼불> ¶“여그는 하숙비를 {몬자} 주야요, 돈을 주야요.”<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몬자} 가랑거슨<2005 전북 남원>
지역 남원, 정읍.

몬짐 부 [대응어] 먼저.
시간적으로나 순서상으로 앞서서. ¶누가 {몬짐} 죽을란가.
지역 고창.

몬춤 부 [대응어] 먼저.
시간적으로나 순서상으로 앞서서. ¶{몬춤} 나가시오. 난 뒤따라 갈랑게.
지역 순창.

몬딸 명 [대응어] 맏딸.
맏이가 되는 딸. ¶내가 {몬딸이고} 6년 새로 남동생 하나, 그 밑이 또 남동생.
지역 전북.

몰국 명 [대응어] 국물.
☞말국.
지역 남원, 순창, 익산, 장수.

몰다 동 [대응어] 말다(둥글게).
넓적한 물건을 돌돌 감아 원통형으로 겹치거나 감아 싸다. ¶금 인자 그놈 품이다 품고 나간게 이놈들이 탁 채갖고는 꺼적데기다 뚤뚤뚤뚤 {몰아서} 질끈 묶어갖고는 걍 개 짊어 지고 가듯 짊어 지고 가네.<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어지께 하던 식으로 밀어다 붙이면 다

시 들어가고, 밀어다 붙이면 다시 들어가고 그려. 귀찮은게 또 멍석에다 {몰아서} 주리를 틀으라고 그려

지역 고창, 김제, 무주, 군산, 완주, 익산, 정읍.

몰뚝자다 형 [대응어] 못마땅하다.

불편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아 좋지 않다. ¶{몰뚝짠} 표정

지역 전북.

몰뚝잔하다 형 [대응어] 불편하다, 못마땅하다.

☞몰뚝잖다. ¶"아이고, 나넌 애 밴 몸이라고 상길이 나배가 얼메나 맴얼 쓰든지 솜기저구럴 곱절은 뚜껍게 히서 차니라고 참말로 답답허고 {몰뚝잔해서} 혼이 났구만그려."<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몰뚝잖다 형 [대응어] 불편하다, 못마땅하다.

어떤 것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거북하거나 괴롭다. 또는 몸이나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괴롭다. 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따위가 편하지 않다. ¶"우리가 시방 기분이 {몰뚝잖은} 것이 그까징 것 퇴학당허고, 안 당허고 땀세요, 워디?"<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의 '몰뚝잖다'는 '기분이 몰뚝잖다, 걷기가 몰뚝잖다, 기저귀를 차니 답답하고 몰뚝잖다.'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몸이나 기분이 불편하다.'의 뜻을 기본적으로 가진다. 어간재구조화된 '몰뚝잖하다'로도 쓰인다.

몰루다 형 [대응어] 모르다.

사람이나 사물이나 사실에 대한 지식, 경험 따위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지 못하다. 또는 (('…밖에' 뒤에 쓰여)) 어떤 것 외에 다른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다. ¶그러체 부고 {몰룬} 사람언 몯 오제, 아는 알아야 오제.(그렇지 부고 모른 사람은 못 오지, 아는 알아야 오지.)<2005 전북 남원> ¶씨어매 될 사람이 긍개, 친 딸인지만 알았써, {몰루고}. 아 긍개 서몬지 {몰루고} 항거요?(시어머니 될 사람이 그러니까. 친 딸인지만 알았어, 모르고. 아 그러니까 서모인지 모르고 한 것이요?)<2005 전북 남원> ¶널, 널 {몰루}?(널, 널 모르오?)<지역어 자료 총서, 중국 무주촌> ¶가꼬는 인자, 왜 이렁가 시푸고, 대체 뭐 아무꺼도 {몰룽} 것이 열여덜쌀 묵응 것이 멋을 안대.(그래 가지고 이제, 왜 이런가 싶고, 대체 뭐 아무것도 모른 것이, 열여덟 살 먹은 것이 무엇을 안대)<2005 전북 남원> ¶참 어티개 그파게 어터갈랑가도 모른디. 그파그 주그먼 저건뜰 멘짜리 어따 쓸쑬도 {몰루고} 그래 내가 자리 자바놔타시퍼서 내가.(사람이 참 어떻게 급하게 어떻게 가려는지도 모르는데. 급하게 죽으면 저것들이 묫자리 어디다 쓸 줄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자리 잡아놨다 싶어서 내가.)<지역어 자료 총서, 무주> ¶근디 나는 아에 질쌈언 모리고 살아불었잉개 그건 {몰루고}.(그런데 나는 아에 길쌈은 모르고 살았으니까 그건 모르고.)<2005 전북 남원> ¶울 어머니는 참 자식배끼 {몰루는} 사람여. ¶따러온 사람들은 걸어왔는가 {몰루겄어}.

지역 익산, 장수, 남원, 군산, 무주, 임실.

몰르다 동 [대응어] 마르다(물이).

☞말르다. ¶그 피땀이 {몰르지만} 안했음사 땅이 척척허니 젖었겄제. 무신 말인고 허먼, 그 밭뙈기덜언 넘덜 눈에넌 보잘것이 없드라도 이 시애비 피고 살인 심이여.<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몰리 부 [대응어] 살짝.

표가 나지 않게 넌지시. ¶시아버니 {몰리} 가만히라도 허서 알려주세요.<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몰리} 자그 남편이 들랑달랑 헌게<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전북.

몰리우다 동 [대응어] 말리다(빨래를).
물이나 물기가 다 날아가 없어지게 하다. ¶젖은 빨래를 {몰리웠나}?
지역 전북.

몰링개 명 [대응어] 올가미.
새끼나 노 따위로 옭아서 고를 내어 짐승을 잡는 장치. ¶{몰링개를} 걸어 놔서 잡았어.
지역 순창.

몰미 명 [대응어] 멀미.
차, 배, 비행기 따위의 흔들림을 받아 메스껍고 어지러워짐. 또는 그런 증세. ¶집으로 돌아오는 내동 {멀미} 때미 고생고생을 혔다.
지역 전북.

몰밤 명 [대응어] 마름.
☞물밤.
지역 전북.

몰아때다 동
한 사람이 여러 일을 도맡아 하다. ¶사람들 다 나가고 동네 사람이 없은게, 한 동네서 하나가 다 {몰아때서} 다 짓잖아. 농사를.
지역 전북.

몰아지다 동 [대응어] 말아지다.
넓적한 물건이 돌돌 감기어 원통형으로 겹쳐지다. ¶종이가 빳빳헌개로 돌돌 {몰아지질} 않네. ¶멍석이 돌돌돌 {몰아져서} 제자리에 있는 걸 본게 누가 왔다 갔나 보구만.
지역 고창, 남원, 부안, 순창, 장수, 진안, 완주, 익산.

몰악시럽다 형 [대응어] 모지락스럽다.
보기에 억세고 모질다. 또는 인정이나 붙임성이 없이 아주 쌀쌀하다. ¶"아이고 잘허셨소. 나가 나서서 패대기럴 칠 수 없응게 엄니가 {몰악시럽게} 내쳐서 정떠게 허씨요."<조정래, 아리랑, 995, 3, 66>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몰악시럽다'는 '모지락스럽다'에서 '지'가 탈락되면서 '모락스럽다, 몰악시럽다'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몰창몰창 부
무엇을 자꾸 주무르거나 만지는 모양. ¶반죽만 {몰창몰창} 주물락거리지만 말고 이렇게 보고 맨들어 봐.
지역 전북.

몰창몰창허다 동
무엇을 자꾸 주무르거나 만지작거리다. ¶거울을 고친다고 {몰창몰창허다가} 일부러 내리쳐서 바싹 깨끄라 버렸어.
지역 전북.

몰캉히 부
잘 익어 물크러지거나 잘 씹힐 정도로 부드럽게. ¶그놈으로 물 끲여 노먼 {몰캉히} 달고 좋대.
지역 전북.

몸고상 명 [발음] [몸꼬상] [대응어] 몸 고생.
어렵고 고된 일이나 생활 때문에 육체적으로 겪는 고생. ¶거그서 맘고상허는 것보담이야 요 {몸고상이} 훨씬 편허고 좋소.<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몸뎅이 명 [대응어] 몸뎅이.
'몸'을 속되게 이르는 말. ¶어뜨케나 그 기척이 반가운지 기양 왈칵 끌어안고 그 큰 {몸뎅이를} 꾸부린 채 뚝 뚝, 눈물을 떨굼서 울었다고 헙디

다.<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몸뚱아리 명 [대응어] 몸뚱이.
`몸`을 속되게 이르는 말. ¶또 자는디 대가리는 지져갖고서는 손님을 줘. 그러고 {몸뚱아리} 세 개는 그날 저녁으 주고 그 이튿날 조반 디리고 점심 주고 이렇게 떠억 허는디<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전북.

몸띠 명 [대응어] 몸뚱이.
☞몸띵이.
지역 전북.

몸띵이 명 [대응어] 몸뚱이.
`몸`을 속되게 이르는 말. ¶그날부터 시아버니에게 뭘 먹이는고 허니 용, 삼, 개괴기, 쇠괴기, 돼지괴기 늘 멕여서, 그냥 {몸띵이를} 호박농짝만 허게 맹길었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죽으면 썩을 {몸띵이를} 그리 아껴서 뭐 할래? ¶열심이 하는 것은 좋은데 네 {몸띵이} 좀 아껴라.
지역 전북.
해설 `몸뚱이>몸뛩이>몸띵이`와 같이 움라우트 및 활음 탈락이 일어난 형태이다.

몸치나다 동 [대응어] 몸살 나다.
팔다리가 쑤시고 오한이 나는 병증이 생기다. ¶과로를 했는지 {몸치나서} 드러누웠다. ¶요즘 멫일 모내기 푸마시를 댕겼더만 {몸치났는지} 대수기도 아프고 사지가 쑤셔서 허리를 못 피겄다 오늘은 좀 쉬야겄다. ¶{몸치났을} 땐 따뜻한 생강차를 마시면 나아. ¶엄마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시더니 {몸치가} 나신 것 같다.
지역 전북.

못씨다 동 [대응어] 못쓰다.
옳지 않다. 또는 바람직한 상태가 아니다. ¶"에이 나쁜 놈 {못씨겄다}."<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너 이놈들 당최(당초) 큰 소리하면 {못씨니}.<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응어리 두먼 못쓴다. {못씨고} 말고.<최명희, 혼불>
지역 군산, 완주, 정읍.

못잘 명 [대응어] 못자리.
볍씨를 뿌리어 모를 기르는 곳. 또는 논에 볍씨를 뿌리는 일. ¶논에 {못잘} 보러 갔는 갑네.
지역 고창.

못허다 보동 [발음] [모더다/모터다] [대응어] 못하다.
((동사 뒤에서 '-지 못하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에 대하여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것을 이룰 능력이 없음을 나타내는 말. ¶한분 떠난 사람언 영영 못 돌아온다는 소문 들어보도 {못허고} 사는감?"<조정래, 아리랑> ¶그놈이 인자 내리오도 못허고 그냥 땅으 떨어지도 {못허고} 뱅뱅 돌고만 있는디 이 사람은 떡허니 용상으가 올라 앉었어.<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근디 그 사람이 그나마 나만이로 참 넉넉치 {못허고}. 넉넉치 못허고 하리 이틀을 지대로 시들 잘 못허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배움이 있어서 가르키는 대로 제가 그걸 써보고 있었는데 지필묵을 사지 {못허고}, 그리서 숯으로써 가랑잎에다가 글자를 그려본 것이다."고.<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무주, 군산, 고창, 김제, 남원, 부안,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몽강저 명 [대응어] 등겨.
벗겨 놓은 벼의 껍질. ¶베를 찧고 {몽강저가} 나오면 안 버리고 따로 뫼아놓았어.

지역 완주, 임실.

몽곤저 명 [대응어] 등겨.
☞몽군저.
지역 익산, 장수.

몽곤지 명 [대응어] 등겨.
벗겨 놓은 벼의 껍질. ¶베를 찧으면 {몽군딩기가} 날라다니기도 혀.
지역 장수.

몽골다 형 [대응어] 찬찬하다.
성질이나 솜씨, 행동 따위가 꼼꼼하고 차분하다. ¶하나하나 {몽골게} 따져 봐.
지역 전북.

몽구레지다 동 [대응어] 뭉그러지다.
높이 쌓인 물건이 무너져서 주저앉다. 또는 썩거나 지나치게 물러서 본모양이 없어지게 되다. ¶쌓아 올린 연탄이 무너져 {몽구레졌다}. ¶배추가 추위에 얼어 {몽구레졌다}.
지역 전북.
해설 '몽구레지다'는 '뭉그러지다'의 제2 음절 모음의 원순모음화와 제3 음절 모음의 ㅣ모음 역행 동화로 설명된다. 제2 음절 모음은 어두 음절 모음 /ㅗ/의 영향으로 후행하는 비원순모음 /ㅡ/가 /ㅜ/로 원순모음화하였으며, 제3 음절 모음은 후행하는 전설모음 /ㅣ/에 동화되어 후설모음 /ㅓ/가 /ㅔ/로 전설모음화한 것이다.

몽군딩기 명 [대응어] 등겨.
벗겨 놓은 벼의 껍질. ¶옛날에 없던 시절에는 {몽군딩기도} 먹고 그랬지.
지역 진안, 장수.

몽군저 명 [대응어] 등겨.
벗겨 놓은 벼의 껍질. ¶베를 찧고나면 {몽군저가} 고소하게 냄새가 나.
지역 고창, 순창, 완주, 진안, 익산, 장수, 김제, 군산.

몽근딩기 명 [대응어] 등겨.
☞몽군딩기.
지역 장수.

몽근저 명 [대응어] 등겨.
☞몽군저.
지역 김제, 군산, 완주.

몽근체 명 [대응어] 고운체.
올이 가늘고 구멍이 잔 체. ¶오래 둘수록 조홍물이 우러나니 길게는 두어 달 가까이 담가 두었다가 그 꽃물을 {몽근체}나 무명 겹주머니에 밭쳐.
지역 완주.
해설 가루 따위가 미세하고 곱다는 뜻의 형용사의 어간 '몽글-'에 '-ㄴ(관형사형 어미)'에 '체'가 더해진 형태로 파악이 가능하다.

몽낭구 명 [대응어] 몽둥이.
조금 굵고 기다란 막대기. ¶땅으다 굴을 팠는디, 굴을 파고서 이런 막 {몽낭구를} 갖다가 울타리 히가지고 히놓고 기양 쇠를 벌컥 끌르더니 걍 그속으다 푹 집어서<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말 안 들으면 {몽낭구로} 매 맞을겨? ¶투덜이가 {몽낭구로} 사정없이 조지기 시작했데라.<조봉래, 풀벨골>
지역 완주, 군산.
해설 `몽낭구`의 `낭구`는 중세국어 `나모`의 이형태 `남ㄱ`으로 소급된다.

몽당치 명 [대응어] 두렁이.
어린아이의 배와 아랫도리를 둘러서 가리는 치마 같이 만든 옷. 겹으로 만들거나 솜을 두어 만든

다.
지역 순창.

몽뒹이 명 [대응어] 몽둥이.
조금 굵고 기다란 막대기. ¶장정들 서넛이 {몽뒹이} 하나씩 들고 산으로 올라갔어. 그놈덜 잡는다고.
지역 전북.
해설 `몽둥이>몽뒹이`와 같이 움라우트가 실현된 형태이다.

몽딩이 명 [대응어] 몽둥이.
☞몽뒹이. ¶그래서 식구들이 안 되겠다고 {몽둥이를} 들고 와서 그 구랭이를 치니 그 구렁이가 꺽꾸러지더래요.<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군산, 남원.

몽똥거리다 동 [대응어] 뭉뚱그리다.
☞몽똥그리다. ¶쌀은 사기도 어려웠거니와, 내가 {몽똥거려} 가지고 내려간 삼천 원의 돈으로 쌀을 사서 먹자면<채만식, 민족의 죄인>
지역 전북.

몽똥그리다 동 [대응어] 뭉뚱그리다.
되는대로 대강 뭉처 싸다. 또는 여러 사실을 하나로 포괄하다. ¶이 짓을 하여 그동안 벌써 만금을 {몽똥그려} 두었고.<채만식, 심봉사>
지역 전북.
해설 '몽똥그리다'는 '뭉뚱그리다'의 어근 '뭉뚱'의 모음이 모음조화에 의해 양성모음 /ㅗ/로 대치된 결과이다.

몽매 명 [대응어] 올가미.
새끼나 노 따위로 옭아서 고를 내어 짐승을 잡는 장치.
지역 임실, 장수.

몽오리 명 [대응어] 멍울.
작고 동글동글하게 뭉쳐진 것. ¶가래톳 가래 선 따고, 가린때를 {몽오리여}.<2008 전북 고창> ¶오조믈 자주 싼다고 매 마즐 써그 엉뎅이라고 궁데~이 먹 쩌따고 {몽오리가} 생게따고 그러지.<완주_지역어_텍스트> "
지역 고창, 군산, 남원, 완주.

몽울 명 [대응어] 멍울.
☞몽오리.
지역 고창.

몽창 부 [대응어] 몽땅.
있는 것을 빠짐없이 모두. ¶대체 천만이면 천만, 이천만이면 시방 돈으로 인제 {몽창} 불렀든게 벼, 아 근게 불른게로 주야지 안불고는 전디게 생간디? 그놈 대금을 딱 찾어서 찾어다가 집 한 채 사서<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하이 막 호랭이가 득실 득실 혀. 그 불 내노먼 안오고 그려. 나무를 {몽창} 히다놨어. 그 말을 듣고, 그서나(그래서) 안끄질만허게 쪼매썩(조금씩) 놓고 있어.<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마당에 있는 고구마 자루 {몽창} 가져가거라.
지역 군산, 정읍.

몽창허다 형 [대응어] 몽뚝하다.
몽뚝하다. ¶빗지락 닳으먼 {몽창허잖여}.
지역 전북.

몽치다 동 [대응어] 메다.
어떤 감정이 북받쳐 목소리가 잘 나지 않다. ¶목이 {몽처} 말을 못한다.
지역 전북.

몽침 (←木枕) 명 [대응어] 목침.
나무토막으로 만든 베개. ¶강아진디 방으다 논게

로 똘랑똘랑 허고 댕겨. {몽침을} 그양 두 개를 놓고는 대접을 이렇게 떡허니 놓고는 몽침으로 양쪽 배를 꼭꼭 눌른게<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외뜬집이라 정지에서 부지땡이를 갖고 왔더니, {몽침} 우그 올라 서라고 허갖고 그냥 머그를 때려<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고창, 부안, 정읍.

뫼다 동 [대응어] 모이다.

흩어져 있는 것들이 한곳으로 가까이 합쳐지다. ¶글고 남지기 영감태기덜도 죄 일로 {뫼라} 허고. 조봉래 ¶뺵다구는 줏어서 한 간디다가 잘 {뫼아} 놔.<최명희, 혼불> ¶언제 한번도 한소리로 소리내 보도 못헌 놈의 벌거지 같은 인생살이, 인제라도 한소리로 {뫼야서} 창사가 터지게 울읍시다.<최명희, 혼불> ¶게다가 한푼이라두 더 못 {뫼아서} 아등아등허구. 허니, 원 내가 이게 무슨 놈의 청승이며, 무슨 놈의 지랄짓잉고? 이런 생객이 가끔, 그 뒤버틈은 들더람 말이네그려!<채만식, 태평천하>

지역 전북.

뫼똥아지 명 [대응어] 뫼.

사람의 무덤을 낮잡아 이르는 말. ¶풀 나먼 {뫼똥아지} 풀 다 뽑고.

지역 전북.

뫼뚜기 명 [대응어] 메뚜기. ¶영감아 영감으으/칠월 콩밭 만두레 때/{뫼뚜기한티} 채아 죽은 영감아(옥구 산아)<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군산.

뫼밥 명 [대응어] 메.

☞메밥. ¶왜냐머는 우리 친정이는 이르케 음시글 부치구 다 허기는 혀. 다 인자 {뫼밥}, 이르케 국 끄리고 밥 허는 건 다 똑까튼데. 우리 친정이는 그러케 기양 이르케 막 부치개 가튼 거또 마니 안 해.<2007 전북 군산>

지역 군산.

뫼시다 동 [대응어] 모시다.

웃어른이나 존경하는 이를 가까이에서 받들다. '데리다'의 높임말. ¶땅굴을 파가지고 거그다가 편안허니 {뫼시고} 음식같은 걸 잘 히서 잘 보양을 시기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말로는, 늘 오는 때 가늠해서 {뫼시러} 오마고 허등마는."<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뫼앉다 동 [대응어] 모이어 앉다.

함께 모여 앉다. ¶"요놈으 못된 주딩이덜이 {뫼앉아} 무신 숭덜 봤능고?"<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의 '뫼앉다'는 '모이어'의 '모이'가 '뫼'로 축약되고, '-어'가 생략되면서 복합동사 '뫼앉다'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뫼옥 명 [대응어] 목욕.

머리를 감으며 온몸을 씻는 일. ¶깨끗이 {뫼옥을} 하고 옷을 입다 ¶겨울에는 부엌으서 {뫼옥} 깜는 일이 여간 힘든 일이 아녀.

지역 남원.

묍쌀 명 [대응어] 멥쌀.

☞멥쌀. ¶{묍쌀} 닷 말

지역 전북.

묏동 명 [대응어] 묏등, 묘.

무덤의 윗부분이나 전체. ¶얼마간 자다가 일어나즈그 엄마 시킨 대로 {묏동} 산너머 가니께 죽슨이 후하.<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죽어서 {묏동에} 파묻힌 망자도 살어 생전에마냥 종 부리고 머심 부리고 호제 부리먼

안 좋겄냐?<최명희, 혼불> ¶삐비는 {묏동} 가상에 많이 나 있어서 동네 꼬마들이 댕기는 단골 묏동이 따로 있었지. ¶울 아버지 {묏동에} 갈 때마다 무서운 건 왜 그럴 까? ¶우리 할아버지 {뫼동에} 가서 절 하고 오자구나.
지역 남원, 부안, 임실, 장수, 익산, 정읍.

묏둥 명 [대응어] 묏등, 묘.
☞묏동.
지역 익산.

묫동 (<한자>墓동) 명 [대응어] 묏등, 묘.
무덤의 윗부분이나 전체. ¶아 그려. 큰 묫이 하나 있는디 아 덮어놓고 그 {묫동을} 가만히 이러코 만져보니 시상에 자기도 묫을 많이 구경했어도 그렇게 존 묫이 첨이란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아 당신이 뭐 묏이냐 아부지 어머니가 있는디 {묫동에다} 묫이나 허고 아무개 아무개 모신 양반은 부자가 다 되], 가지고 지관 대복이니 그 하나 히도 도라도 L어요."<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할아버지의 {묫동을} 바라보면 마음이 푸근해지는 건 왜일까? ¶이 고개를 넘으려면 {묫동을} 지나야한다.
지역 전북.

묫자리 명 [대응어] 묏자리.
묘를 쓸 자리. 또는 쓴 자리. ¶{묫자리란} 것이 그 용미가 있어. 그전이는 용미라고 뒤 용미를 잘못 놓으먼은 또 망헐 수가 있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묫자리를} 잘 써야 집안이 흥하게 된다. ¶이자리는 {묫자리로} 최고인데?
지역 진안.

무강 명
씨앗으로 쓰려는 고구마 ¶못난 고구마 좀 골라봐라잉. {무강으로} 써 버리게. 그래야 담해에도 고구마가 나고, 그러고 우린 그놈을 먹어얀게.
지역 전북.

무개나무 명 [대응어] 무궁화. ¶마당에는 {무개나무가} 있어.
지역 전북.

무거리밥 명
아직 덜 익은 보리를 빻아 체로 치고 남은 찌꺼기로 한 밥. ¶무거리는 밥히 먹어. {무거리밥이다고}.
지역 전북.

무계나무 명 [대응어] 무궁화나무. ¶금서 {무계나무} 한 다발 끊어다가 다 뚜드러도 장개만 안 간다고 그러거든.<구비문학대계 정읍군> ¶"아 선상님도 댕기풀이 헌다고 {무계나무} 한 다발 다 부지드락까지 나를 이거 몸땡이 조깨 보라."<구비문학대계 정읍군>
지역 정읍.

무공자리 명 [대응어] 장다리무.
씨를 받기 위하여, 장다리꽃이 피게 가꾼 무. ¶씨를 받기 위해 {무공자리를} 남겨 두다
지역 완주, 김제, 부안, 군산, 진안.

무궁화살이 명
놀이의 일종. 여러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원을 네 개를 그리는데 네 개의 원은 크기가 조금씩 작아진다. 그 네 개의 원을 연결하는 어깨 넓이 정도의 폭으로 길을 그려 처음 큰 원에서 세 개의 원을 거쳐 본래의 큰 원으로 무사히 돌아와야 이긴다.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해 이긴 사람이 원 안에서 시작하고 진 사람이 원 밖에서 선 안의 사람을 밀거나 잡아당긴다. 선 밖으로 나가면 탈락된다. ¶{무궁화살이} 하다가 옷이 찢어졌

다.
지역 전북.

무너나다 동 [대응어] 물러서다.
뒤나 옆으로 비켜서다. ¶대처나 집안 것이 울어 쌓면 서까래가 {무너난다고}, 지집년이 허라는 즈 집구석 살림살이를 놔뚜고 넘일에 무신 놈의 아가리를 놀려대싸?<조봉래, 풀벨골> ¶약간 아까, 고씨와 싸우던 그따위 풍파가 아니고, 온통 집이 한귀퉁이 {무너나게끔} 벼락이 내릴 판&이니까요.<채만식, 태평천하> ¶근게 이넘이 막 혼자 파서 쏘먼 한 삽 파먼 두어 삽씩 서너 삽씩 {무너나고} {무너나고} 그리도 그냥, 뭐 밤중인지 뭣인지를 모르고 막 파고 있어. 가만히 즈 작은아부지가 가서 살망살망 가서 보니까 참 기탄없이 파고 있어.<구비문학대계, 옥구군>
지역 전북.

무너미 명 [대응어] 문지방.
출입문 밑의, 두 문설주 사이에 마루보다 조금 높게 가로로 댄 나무. ¶{무너미를} 밟으면 복이 달아난다
지역 전북.
해설 `문`과 `넘다`의 파생 명사형 `넘이`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무네 명 [대응어] 무늬.
물건의 거죽에 여러 가지 빛깔의 점이나 줄 따위가 나타난 어떤 모양. ¶나무의 본래 {무네가} 살아있다
지역 무주, 익산.

무네지다 동 [대응어] 무너지다.
☞무너지다.
지역 전북.

무녀지다 동 [대응어] 무너지다.
☞무너지다. ¶수국이는 그대로 요 위에 {무녀져} 내렸다.<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무누 명 [대응어] 무늬.
물건의 거죽에 여러 가지 빛깔의 점이나 줄 따위가 나타난 어떤 모양. ¶옷에 화려한 {무누가} 새겨져 있다
지역 고창, 군산, 부안,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

무다 동 [대응어] 묻다.
☞물다.
지역 김제.

무단스레 부 [대응어] 공연스레, 괜히.
☞무담시.
지역 전북.

무단시 부 [대응어] 공연스레, 괜히.
☞무담시. ¶인자, 어머니 여기 속쌍한 일도 업꼬 {무단시} 내 매:미 그양 요상시러서 좀 나쁜 지슬 헐꺼시다고, 그르케 유서를 써놔뜨랴.(이제, 어머니 여기 속상한 일도 없고 이유없이 내 마음이 그냥 요상스러워서 좀 나쁜 짓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유서를 써 놨더래.)<전북지역어, 임실군> ¶나 듣는 연에나 말허까, {무단시} 비얌맹이로 그 방정맞은 셋바닥 조께 날룽거리지 말란 말이여.<최명희, 혼불> ¶한 번 나올지말지헌 기맥힌 귀경감이 될 판인디 우리가 {무단시} 왜 저 작것들한티 꽁짜로 눈요구를 시켜줘야 되야?<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아 총각놈이 {무단시} 보타(살이 안 찌고 말라가다). 병이나. 즈그 엄매가, "왜 그러냐?<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임실.

무단시리 뿐 [대응어] 공연스레, 괜히.

까닭이나 실속이 없게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무단시리} 들어서, 그것을 멸시를 하고 비방을 하고<채만식, 젊은날의 한 구절> ¶이 사람아, 자넨 {무단시리} 치어죽구 싶은가?<채만식, 金의 情熱>

지역 전북.

무단씨 뿐 [대응어] 공연스레, 괜히.

☞무단시리.

지역 전북.

무단이 뿐 [대응어] 공연스레, 괜히.

☞무담시. ¶죽음에 이른 것이 방백 수령이 탐학무도하고 세력 있는 토호의 {무단이} 한이 없어 도탄의 지경을 이루었기 때문이다.<송기숙, 녹두장군>

지역 전북.

무담시 뿐 [대응어] 공연스레, 괜히.

까닭이나 실속이 없게 ¶글면, 서방이 {무담시} 구박허는디 암말도 안 허고 살어라?<조봉래, 풀벨골> ¶지눔이 뿔갱이 사상을 가졌응게 그 좋은 군정청 통역자리럴 마다혔제 {무담시} 그렸을 리가 있었겄어?<조정래, 태백산맥> ¶김범우는 아내가 가져온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다. "{무담시} 당신이 고상허시게 생겼구만요."<조정래, 태백산맥> ¶"그래도 참어!" "허허, {무담시} 와가지고 사람 미치겄네.<송기숙, 녹두장군>

지역 전북.

무댕 명 [대응어] 무당.

귀신을 섬겨 길흉을 점치고 굿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 ¶인자 뭐 {무댕이} 하나 사는디, 거그를 지낸게 거 안에서 어 대성을 허그던? 말허자면 그전 같으면 손님허는 디 말여, 그 대성을 헌단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마음 약한 사람이 {무댕을} 불러 굿을 한단다.

지역 무주, 정읍.

무데기 명 [대응어] 무더기.

한데 수북이 쌓였거나 뭉쳐 있는 더미나 무리. 또는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한데 수북이 쌓였거나 뭉쳐 있는 더미나 무리를 세는 단위. ¶이께잇 거 천지에 쌔고 쌨는 거이 흙뎅인디. 흙 {무데기가} 무신 황금단지간디요오.<최명희, 혼불> ¶씨라구 한 {무데기를} 널어 놓고 인자 놀로 가는 거여.

지역 전북.

해설 `무더기>무데기`와 같이 움라우트가 일어난 형태이다.

무둠실음 명 [대응어] 부장품.

장사 지낼 때, 시체와 함께 묻는 물건을 통틀어 이르는 말. ¶나갖고 그냥 죽었단 말이여. 죽었어. 죽었는데, 그 처녀를 여울라고 그 화장품이야 모든 금물품이든지 여러가지 것을 다 해놨는디, 하이것을 {무둠실음을} 다 줘야 쓰겄다 싶어서 금까락지라든지 은시계라든지 뭐이 여러가지 것 목걸이라든지 딱 해갖고 널이다가 딱 옇어줬단 말이지.<구비문학대계 전남 고흥군편>

지역 전북.

무드레기 명 [대응어] 무더기.

☞모드레기.

지역 순창.

무디기 명 [대응어] 무더기.

☞무데기. ¶눈이 많이 옹게 그 지푸락 쌓아논 {무디기가} 어개졌어. ¶씨라구 한 {무디기를} 널어 놓고 인자 놀로 가는 거여.

지역 전북.

해설 `무더기>무데기>무디기`와 같이 움라우트

및 고모음화가 일어난 형태이다.

무떡 명 [대응어] 메떡.
멥쌀 따위의 메진 곡식으로 만든 떡. ¶우리 구렁 덩덩 우리 오빠 장개갈 때 찰떡 치고 무떡 치고 헐란게 그만 까먹고 널러가거 우여.
지역 전북.

무랍 명 [대응어] 고수레.
민간 신앙에서, 산이나 들에서 음식을 먹을 때나 무당이 굿을 할 때, 귀신에게 먼저 바친다는 뜻으로 음식을 조금 떼어 던지는 일. ¶마지막으로 {무랍을} 하더랑게.
지역 고창.

무럼시럽다 형
부끄럽거나 창피해서 볼 낯이 없다. ¶옆에서들 다들 웃은게 아 인자 술차니 {무럼시럽제}.
지역 전북.

무럽 명 [대응어] 무렵.
대략 어떤 시기와 일치하는 즈음. ¶모르긴 몰라도, 밤늦은 시각으로 미루어 아마 초저녁 {무럽부터} 벌이기 시작한 축사 적업일 것이었다.<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무룹 명 [대응어] 무릎.
☞무릅.
지역 고창, 군산, 익산.

무르팍 명 [대응어] 무릎.
☞무름팍.
지역 무주.

무름팍 명 [대응어] 무릎.
넙다리와 정강이의 사이에 앞쪽으로 둥글게 튀어나온 부분. ¶그 말을 가만히 듣드니 사또가 {무름팍을} 탁 치문서 "니놈 말이 옳다." 이러드리야.
지역 무주.

무릅 명 [대응어] 무릎.
넙다리와 정강이의 사이에 앞쪽으로 둥글게 튀어나온 부분. ¶인제 나이가 드니께 {무릅이} 유효기간이 다 되았는가 고장이 났어. 맨날 아퍼.
지역 고창, 무주, 임실, 군산, 익산.

무멩지 명 [대응어] 약손가락.
다섯 손가락 가운데 네 번째 손가락. ¶{무멩지에다} 반지를 끼워 주며 겔혼하자 그러데.
지역 김제, 남원, 정읍, 고창, 부안, 완주.

무멩지손고락 명 [대응어] 약손가락.
다섯 손가락 가운데 네 번째 손가락. ¶{무멩지손고락이} 뿌러진 것 같어. ¶반지는 {무멩지손고락에} 끼제.
지역 정읍.

무멩지손구락 명 [대응어] 약손가락.
☞무멩지손고락.
지역 고창.

무멩지손그락 명 [대응어] 약손가락.
☞무멩지손고락.
지역 부안.

무사구이팔 명 [대응어] 무청.
무의 잎과 줄기. ¶{무사구이팔로} 시레기를 만들어.
지역 군산.

무서다 형 [대응어] 무섭다.
어떤 대상에 대하여 꺼려지거나 무슨 일이 일어

날까 겁나는 데가 있다. ¶밤에 귀신이 나올까 싶어 {무서서} 한숨도 못 잤다.

지역 전북.

무서리 명

산짐승이 집짐승을 물어가거나 큰짐승이 작은 짐승을 물어가는 일. ¶아 인자 범 같은 것은 지금 {무서리를} 안 헌게.

지역 고창.

무서무서하다 동 [대응어] 무서워하다.

몹시 무섭게 여기다. ¶몇 사람이 멀찍이 서서 {무서무서하고} 있는 데다 대고 선용은 커다랗게 호통을 하고는 가까운 사람을 향하여 휭하니 가버린다.<채만식, 옥랑사, 987, 63>

지역 전북.

해설 표준어 '무서워하다'는 전북 방언에서는 '무서하다'로 발음한다. 전북 방언의 '무서무서하다'는 표준어 '무서워하다'를 두 번 중복하여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무서하다 동 [대응어] 무서워하다.

무섭게 여기다. ¶"죄끔두 {무서할} 것 없네!" <채만식, 裵裨將>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무서하다'는 형용사 '무섭다'에 동사를 파생시키는 접미사 '-어하-'가 연결된 것이다. 표준어로는 '무서워하다'이지만 전북 방언에서는 '워'가 탈락되어 '무서하다'로 쓰인다.

무섬정 명 [발음] [무섬쩡] [대응어] 무섬증.

무서움을 느끼는 증상. ¶요즘 밤만 되믄 {무섬증이} 들어서 잠을 못 자겄어.

지역 전북.

무세 명 [대응어] 무쇠.

일정량 이상의 탄소를 함유하는 철의 합금. ¶나는 팔다리가 {무세와} 같아서 문제 읎당게.

지역 전북.

무수 명 [대응어] 무. ¶참 이제 갈 판인디, 가다가 보니께 신작로 옆에 무수밭이 있단 말여. 나무가 자꾸 들어 갈라고 혀. 그래서 자기 친구가 놔 줬어. 그런께 {무수를} 홀딱 뜯어먹는단 말여. 뜯어 먹은 뒤에는 그냥 홀딱 벗어져 사람이 돼 버려.<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에미야, 목이 칼칼하구나, {무수} 국 좀 끓여라. ¶인자 그 저는 어디 가는지 모르지 날새갔고 아, 가다본게 말여 어느만치 간게 막 산으가 무수밭이 있는다 아, {무수가} 막 늘피여(많이 있어). {무수가} 밑들었 놈이. 하이 그 본게 참 막 먹음직시런게. 막 그놈 하나캐서 막 썹어먹고서는 아, 그 놈 먹은게 막 그냥 기운이 날듯날듯 허네. <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전북.

무수고시래기 명 [대응어] 무말랭이.

무를 반찬거리로 쓰려고 썰어 말린 것. ¶{무수고시래기} 무쳐 먹을라고 무수 말리는 사람이 많아.

지역 전북.

무수꼬시래기 명 [대응어] 무말랭이.

무를 반찬거리로 쓰려고 썰어 말린 것. ¶요짐이 {무수꼬시래기} 허기 좋을 때고만.

지역 익산.

무수우거리 명 [대응어] 무말랭이.

무를 반찬거리로 쓰려고 썰어 말린 것.

지역 무주, 남원, 임실.

무수이파리 명 [대응어] 무청.

무의 잎과 줄기.

지역 완주, 군산.

무수이팔 명 [대응어] 무청.
☞무수이파리.
지역 군산.

무수입 명 [대응어] 무청.
무의 잎과 줄기. ¶{무수입을} 말려서 반찬해야 혀.
지역 임실, 완주, 정읍.

무수입사구 명 [대응어] 무청.
무의 잎과 줄기. ¶{무수잎사구에} 영양분이 많아. ¶닭덜은 풀을 잘먹는디 {무수입사구} 좀 떤져 주어보까?
지역 전북.

무수입삭 명 [대응어] 무청.
☞무수입사구.
지역 고창.

무수입새 명 [대응어] 무청.
무의 잎과 줄기.
지역 전북.

무수죽 명 [대응어] 갱죽.
시래기 따위의 채소류를 넣고 멀겋게 끓인 죽. 멥쌀로 쑨 죽에 무를 채로 썰어 넣거나, 약간 삶은 무를 콩알만큼씩 잘게 썰어 넣어 쑨 죽. ¶먹을 것이 없어 {무수죽을} 만들어 먹는다.
지역 전북.

무수지 명 [대응어] 무김치.
☞무시지.
지역 전북.

무숫입 명 [대응어] 무청.
☞무수입.
지역 완주, 정읍.

무시 명 [대응어] 무. ¶암만허먼 달고 연헌 배가 맛나지 매운 {무시가} 맛나까? 배 고픈디 빈 속에 먹으먼 속이나 할키고.<최명희, 혼불> ¶아이야, 매운 {무시} 먹으면 배알이 한다.
지역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장수.

무시공자리 명 [대응어] 장다리무.
☞무공자리.
지역 전북.

무시나박지 명 [대응어] 나박김치.
무를 납작하고 네모지게 썰어서 담근 김치. ¶짐장헐 쩍으, 배추짐치 속으다가 {무시나박지를} 넣어서 담기도 허지. ¶태임이는 드난꾼들이 깽새라 가만가만 잽싸게 편수를 삶아 알맞게 익은 {나박지와} 함께 상을 봐왔다.<박완서, 미망>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무시나박지'는 '나박지, 나박짐치'라고도 말한다. '무시나박지'는 그 무 자체만으로 김치를 담기도 하지만, 김장 때 배추김치 속에 한 켜씩 넣어서 담기도 한다.

무시빠감지 명
무청 달린 잔 무에 칼집을 넣어 담근 무김치 ¶물 말어서 무시청이 달린 {무시빠감지} 손으로 쪽 찢어가꼬 먹어봐. ¶빠감지를 무시로 담는다고 히서 {무시빠감지라고} 혀.
지역 전북.
해설 '무시빠감지'는 김치를 버무린 후 세네 개를 똬리를 틀어 하나로 만들어 항아리에 차곡차곡 넣는다.

무시빠금지 명
☞무시빠감지.
지역 전북.

무시뿌랭이 명 [대응어] 무.
'무'를 친근하게 이르는 말.
지역 전북.

무시오가리 명 [대응어] 무말랭이.
☞무수우거리.
지역 남원.

무시우거지 명 [대응어] 무말랭이.
무를 반찬거리로 쓰려고 썰어 말린 것. ¶{무시우거지} 말린써.(무말랭이 말렸어.)<2009 전북 임실> ¶{무시우거지로} 반찬 만들어 먹으면 최고지.
지역 임실.

무시이파리 명 [대응어] 무청.
무의 잎과 줄기. ¶{무시이파리를} 다듬다 ¶{무우이파리를} 말려 겨울에 국 끌여 먹으면 맛있단다.
지역 장수, 무주.

무시이퍼리 명 [대응어] 무청.
☞무시이파리.
지역 무주.

무시입 명 [대응어] 무청.
무의 잎과 줄기.
지역 전북.

무시입삭 명 [대응어] 무청.
☞무시잎사구.
지역 부안.

무시잎사구 명 [대응어] 무청.
무의 잎과 줄기. ¶{무시 잎사구} 늫고 시한이 지져 먹으믄 맛나. 맛이 좋아. ¶{무시잎사구를} 말려서 겨울에 국 끌여 먹으면 좋단다.
지역 순창, 장수, 부안, 김제.

무시적 명
무우를 둥글게 썰어 데친 다음 밀가루 반죽에 묻혀 기름에 부친 음식. ¶무시적 부치면 맛나. 무시 디쳐서.
지역 전북.

무시지 명 [대응어] 무김치.
무를 주재료로 하여 담근 김치를 통틀어 이르는 말. ¶김장헐 썩으는 주로 배추지허고 {무시지를} 담지.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에서 '지'는 김치를 의미한다. 전북 방언에서 '무'는 '무수, 무시'로 발음한다. 따라서 무로 담근 김치를 통칭하는 경우에는 '무수지, 무시지'로 쓴다.

무시짐치 명 [대응어] 무김치.
☞무시지.
지역 전북.

무시학대기 명
무를 납작하게 썰어 고추장이나 고춧가루를 넣고 지진 반찬. ¶무시 갖고 가서 무시학대기 지져 먹어.
지역 전북.

무심날 (←無市날) 명 [대응어] 무싯날.
정기적으로 장이 서는 곳에서, 장이 서지 않는 날. ¶오늘 {무심날도} 아닌디 웰케 조용하다냐
지역 전북.

무싯입 명 [대응어] 무청.
☞무시입.
지역 남원, 고창.

무우 명 [대응어] 무. ¶그게 이를테면 시방 {무우를} 캐먹다가 들키고는 무렴에 지쳐(얼굴이 빨개지는 게 아니라 들입다) 억지를 쓰느라고, 어허 그 {무우} 맛 좋다면서 한참 느물거리는 푼수것다.<채만식, 젊은날의 한 구절> ¶그가 말한 포탄은 바위 위에 얌전히 올려져 있다. 그것은 꼭 이제 막 밭에서 캐낸 아주 큰 {무우} 같다. 마른 나뭇가지를 헤치고 내려오는 햇빛이 포탄의 몸체에 닿아서 폭발하듯 잘게 부서지고 있는 게 보인다.<이병철, 모래내 모래톱>
지역 남원.

무우말랭이 명 [대응어] 무말랭이.
무를 반찬거리로 쓰려고 썰어 말린 것. ¶잡곡밥에 시래기국, 김치가 고작이었다. 한 가지 반찬이 더 오르는 경우 동치미나 {무우말랭이} 무침 정도였다.<조정래, 태백산맥> ¶{무우말랭이로} 차를 끓여 마시면 감기에 안 걸린다.
지역 군산.

무이파리 명 [대응어] 무청.
무의 잎과 줄기. ¶무 다듬고 남은 {무이파리로} 시레기 만들려고 잘 말려 놔요.
지역 완주.

무이팔 명 [대응어] 무청.
☞무이파리.
지역 군산.

무입 명 [대응어] 무청.
무의 잎과 줄기. ¶{무입을} 다듬어서 잘 말려 놔야 반찬 없을 때 시레기라도 허지.
지역 군산.

무잠뱅이 명 [대응어] 잠방이.
가랑이가 무릎까지 내려오는 홑바지. ¶날이 더운게 {무잠뱅이만} 입고 일을 허지.
지역 전북.
해설 '무잠뱅이'는 '물잠방이'와 관계있다. '잠뱅이'는 '잠방이'의 제2 음절의 후설모음 'ㅏ'가 후행하는 'ㅣ' 때문에 움라우트되어 전설모음 'ㅐ'로 바뀐 것이고, '물+잠뱅이'의 합성어에서 '물'의 'ㄹ'이 'ㅈ' 앞에서 탈락한 것이 '무잠뱅이'이다.

무지 명 [대응어] 무김치.
☞무시지.
지역 전북.

무지게 명 [대응어] 물지게.
물을 길어 나르는 데 쓰는 지게. ¶새복부텀 다덜 {무지게럴} 지고 날르고 댕겠지요.
지역 고창.

무짐치 명 [대응어] 무김치.
☞무시지.
지역 전북.

무채 명 [대응어] 생채.
무를 가늘고 얇게 썰어서 만든 김치. ¶{무채를} 넣고 비벼 먹어 봐. 그만이어.
지역 고창.

무초리 명 [대응어] 물부리.
☞무추리.
지역 완주.

무추리 명 [대응어] 물부리.
담배를 끼워서 빠는 물건. ¶{무추리에} 담배를 끼워 피는가?
지역 김제, 완주.

무춧거리다 동 [대응어] 멈칫거리다.

하던 일이나 동작을 갑자기 멈추는 행동을 자꾸 하다. 또는 그런 행동을 자꾸 하게 하다. 또는 어떤 일을 자꾸 망설이다. ¶걸음을 {무춧거리면서} 걷는 것 본게로 먼 일이 있기는 있는가 봐. ¶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무춧거린다.
지역 전북.

무한량 명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면서 잘 놀지 못하는 사람. 또는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 ¶나는 술만 조깨 마시지 원체 무한량이라. 놀 줄도 모르고.
지역 전북.

묵다 동 [대응어] 먹다(食).
음식 따위를 입을 통하여 배 속에 들여보내다. ¶그 영락없이 아측으 그 부자집이 가서 밥을 {묵었은께} 좋은 상에다 상반이에다가 참 좋은 반찬에다가 그러코롬 허서 인자 밥을 떡 먹고는, 근께 그 분 두 분들이 물팍을 탁 침시로, "보라고 말여." 그러코롬허서.<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영감이 가만히 있다가, "아, 아라 아라, 너도 잘못한 것 없고, 어머이도 잘못한 것 없고, 느그 마누래도 잘못한 것 없고, 그 모두가 내 잘못이다. 그 감자가 {묵고} 싶더래도 내가 그런 소리를 안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니, 이것이 모두가 내 잘못이다. 이거 내가 말 안 했으면 이런 일이 났겠느냐?"<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남원, 무주, 순창, 임실, 장수, 정읍.

묵어대다 동 [대응어] 헐뜯다.
남을 해치려고 헐거나 헤쳐서 말하다. ¶저렇게 유별시리 남들을 {묵어댕게} 옆이 사람이 없는 것이여.
지역 전북.

묵은지 명
담근 지 한 해 두 해 지나 시큼한 맛과 냄새가 나는 김장 김치. ¶입맛 없어서 묵은지다 밥 말아 먹었네. ¶시방도 집집마동 {묵은지가} 겁나지.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묵은지'는 '묵다'의 관형형 '묵은'과 '지'가 복합된 복합명사이다. '묵은 짐치'라고도 쓴다. 주로 돼지고기나 생선을 넣고 김치찌개 등을 끓이는 데 이용된다.

묵지 명 [대응어] 검불.
가느다란 마른 나뭇가지, 마른 풀, 낙엽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2035 검불 {묵찌}<2008 전북 고창> ¶{묵찌를} 모아서 모닥불을 피우다.
지역 전북.

묵후다 동 [대응어] 묵히다.
☞묵히다. ¶장원에 돌고 그 기가 맥히게 인자 그 김정승 집이 가서 인제 외딸인게 사우가 사랑해서 보내질 않고는 걍 달을 거그다 {묵후는디}, 이 과게허러 온 놈들은 초시 하나도 못 잡고 전부 다 낙방되아갖고는 갔단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무주, 장수, 진안.

묶단 명 [대응어] 볏단.
벼를 베어 묶은 단. ¶{묶단을} 쌓아 놓는다.
지역 무주.

묶우다 동 [대응어] 묶다.
☞묶으다.
지역 고창, 부안, 완주.

묶음 의명 [대응어] 묶음.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물건을 묶어 세는 단위. ¶장작 두 {묶음을} 사다
지역 완주, 임실, 무주.

묶으다 동 [대응어] 묶다.
끈, 줄 따위를 매듭으로 만들다. ¶널어놓으면 이제 나락이 마르면 가서 이만씩 하게 한 다발씩 {묶으지요}. 0302} ¶그냥 바로 {묶으간디}?<2008 전북 고창> ¶저기에 가득 쌓여 있는 볏단을 끈으로 잘 {묶으렴}.
지역 정읍, 고창, 부안, 완주, 남원, 임실, 장수.
해설 '묶으다'는 '묶다'의 어간이 '묶으-'로 재구조화된 것이다. 본디 어미 '-으면, -으니, -은' 등과 결합할 때에 출현하는 매개모음 '-으-'가 어간 말음으로 재분석된 결과 어간이 '묶으-'로 재구조화되어 모든 활용형에서 '묶으-'가 사용되는 것이다.

묶이지다 동 [대응어] 묶이다.
끈, 줄 따위가 매듭으로 만들어지다. ¶손발이 {묶이지서} 도망 못 간다.
지역 진안.
해설 '묶이지다'는 '묶-+-이-(사동 접미사)+-어지다'로 분석된다. '묶다'의 이중 피동 형태인 '묶여지다'가 '묶이지다'로 실현된 것이다. 전북 방언에서는 보조적 연결 어미 '-어'가 '히서(爲)', '기서[匍], '와 같이 실현되지 않는 일이 있다.

문고려 (門고려) 명 [대응어] 문고리.
문을 걸어 잠그거나 여닫는 손잡이로 쓰기 위하여 문에 다는 고리. ¶담 넘어 갈 적에는 큰 마음을 먹었는데 {문고려} 잡고서 바리 발발 떠는구나/허야 스리롱 웅덩설 노다 간다 스리롱(순창 모심는 소리-상사소리)<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순창.

문구녁 명 [대응어] 문구멍.
문에 뚫린 구멍. ¶아 웬 놈이 달 그림자에 보넌게 대가리가 왔다갔다 허거든. 아 그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손고락으로 {문구녁} 뚫어 봤제<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아 여자가 우리 아들들이 왔나 안 왔나 싶은게 이 {문구녁을} 손구락으로 딱 뚫고 들어다본게 그 말여, 그 선생님은 헐 일 없은게 문살만 시고 있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손구락이다 침을 발러갖고 {문구녁에다} 딱 뚫고 보니까 선배 하나가 글을 읽는디 아주 지금 동문성십이라고먼 아주 낫차운 글입니다.<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그 아부지가 밤에 꿈을 꿍게, 달이, 아니 해가 훤허니 뜨더니 {문구녁으로} 후르르 들어온단 말이여.<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문구녕 명 [대응어] 문구멍.
문에 뚫린 구멍. ¶{문구녕을} 쳐다본게 반가운게 장모된 이가 인제 보았드개비드만.<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문넹기 명 [대응어] 무넘기.
논에 물이 알맞게 고이고 남은 물이 흘러넘쳐 빠질 수 있도록 만든 둑. ¶논에 {문넹기를} 만든다.
지역 전북.

문더이 명 [대응어] 문둥이.
'나환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
지역 전북.

문데이 명 [대응어] 문둥이.
'나환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
지역 전북.

문두방 명 [대응어] 문지방.
출입문 밑의, 두 문설주 사이에 마루보다 조금

높게 가로로 댄 나무. ¶방을 들어갈라믄 {문두방을} 넘어서 가야지.
지역 무주.

문두이 명 [대응어] 문둥이.
'나환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 ¶비 올 적에넌 그 짝 동네로는 가들 말라고렸어. {문두이가} 거시거니께.
지역 전북.

문딩이 명 [대응어] 문둥이.
'나환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 ¶"이런 도둑놈의 새끼들이 멀쩡헌 놈을 멀쩡한 놈의 새끼들! {문딩이} 이놈 혼인했다."<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뽈다구에 올라간개 올라갈 때는 {문딩이가} 된다.<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야 이놈아, {문딩이} 콧구녁으서 마늘씨를 빼먹어라.
지역 정읍, 남원.

문베기 (門베기) 명 [대응어] 돌쩌귀.
문짝을 문설주에 달아 여닫는 데 쓰는 두 개의 쇠붙이. 암짝은 문설주에, 수짝은 문짝에 박아 맞추어 꽂는다. ¶{문베기가} 떨어져뿐졌구만.
지역 전북.

문새 명 [대응어] 틈.
벌어져 사이가 난 자리. ¶행여라도 {문새로} 내다보지 말고 방에 꼭 붙어 있어야 헌다잉.
지역 임실.

문악 명
문이 향하고 있는 쪽이나 곳. ¶앞 {문악으} 누웠어.
지역 전북.

문제비 (門제비) 명 [대응어] 돌쩌귀.
문짝을 문설주에 달아 여닫는 데 쓰는 두 개의 쇠붙이. 암짝은 문설주에, 수짝은 문짝에 박아 맞추어 꽂는다.
지역 전북.

문청거리다 동 [대응어] 만지작거리다.
가볍게 주무르듯이 자꾸 만지다. ¶귓볼을 {문청거린} 거 보면 두 사람이 서로 친한게벼.
지역 전북.

문칸채 (←門間채) 명 [대응어] 문간채.
대문간 곁에 있는 집채. ¶사랑이 팔 칸이요/바깥 사랑이 팔 칸이요/마뱅이 칠 칸이요/외양간이 칠 칸이요/광채가 십오 칸/{문칸채가} 오 칸이요(진안 고사풀이-진안군 마령면 계서리 서산)<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진안.

문태다 동 [대응어] 문지르다.
무엇을 서로 눌러 대고 이리저리 밀거나 비비다. ¶그러넌게 부랴 오더니 뭔 지팽이를 갖고 와서 가마를 싹싹 {문태고} 가넌게 안 새더래요.<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개랍다고 그렇게 {문태싸먼} 피가 안나겄냐.
지역 전북.

문텍 명 [대응어] 문지방.
출입문 밑의, 두 문설주 사이에 마루보다 조금 높게 가로로 댄 나무. ¶헌게스니 참 문악으 이렇게 {문텍으가} 앉어갖고서, "느그들 봐라. 내가 바깥이로 나가겄냐? 방으로 들오겄냐?" ¶웃방으로 아랫방으로 이렇게 댕기다가 말여. 쭉 미끄러져서 가운데 {문텍으다} 대갈박을 탁 때려 가지고 강 거그서 죽어 뻐렸어요.
지역 고창, 군산, 남원, 완주, 임실, 정읍.

문특 부 [대응어] 문득.

생각이나 느낌 따위가 갑자기 떠오르는 모양. 또는 어떤 행위가 갑자기 이루어지는 모양. ¶대답을 못 하겄어요. 먼가 {문특} 떠오르질 않어요.
지역 전북.

물가상 명 [발음] [물까상] [대응어] 물가.
바다, 강, 못 따위와 같이 물이 있는 곳의 가장자리. ¶세상으로 나는 지네의 허물을 입히고, 우리 오라버니 되는 사람은 다시 벗지 못할만헌 이무기의 구렝이 허물을 입혀 가지고 다리 그 {물가상을} 지키라고 둘 다 거그서 내쳤는데…, 당신헌티 적선(積善)히서 좋은 일을 허고 난 뒤여(뒤에) 적선을 허며는 나는 개분(가벼운) 거시기라 갔다 오고<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혼자 쫓아가서 {물가상에} 앉어서 신발을 딱 벗고 물로 빠질라고 생각을 해본게, 아무리 히야 기가 맥히갖고 물에 빠질 수가 없어요. 빠질 수가 없어서<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그러자 가다가 참 중간에 가서 {물가상에} 가가지고는 괴짝문 탁 끌러가지고, "큰 애기 나오라." 고. 딱 히놓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이미 {물가상에는} 갈대가 나풀나풀 거리고 있었다. ¶너는 올해 신수가 사납단다. 아예 {물가상에는} 갈 생각을 허지 마라. ¶{물가상에서} 함부로 놀지 말거라 잘못하면 물에 빠질 수 있다.
지역 전북.

물각세기 명 [대응어] 물방개.
지역 전북.

물강구 명 [대응어] 물방개. ¶"옛날엔 저수지나 냇가에 그 흔허던 {물강구}, 가 지금은 다 어디로 간거여.".
지역 부안, 군산, 익산, 임실, 진안.

물강생이 명 [대응어] 물방개.
물방갯과의 곤충을 통틀어 이르는 말.
지역 전북.

물겔 명 [대응어] 물결.
☞물결.
지역 김제, 무주, 순창.

물고기밥 명 [대응어] 미끼.
낚시 끝에 꿰는 물고기의 먹이. ¶{물고기밥이} 없이 물고기를 어찌 낚나.
지역 전북.

물고동 명 [대응어] 다슬기.
☞고동.
지역 부안.

물곳 명 [대응어] 무릇. ¶여자들은 앉어서 {물곳을} 캐고 있고 남자들은 칡을 캐고 있네.
지역 전북.

물광구 명 [대응어] 물방개.
☞물강구.
지역 전북.

물괴기 명 [대응어] 고기(魚).
물에서 사는 지느러미와 아가미가 있는 척추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인자 놈팽이는 일만 날마닥 가아. 가보머는 마당 물단지, 마당으다 물 질어논디 가보먼 {물괴기} 지져서 밥을 해놓고<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아빠는 시간만 나면 {물괴기} 잡으러 방죽에 간다. ¶넴시질도 안 히본 사람이 {물괴기를} 잡었당게 아마 눈 먼 놈들만 잡었 겄지.
지역 김제, 무주, 완주, 익산.

물귀 명 [대응어] 물꼬.
논에 물이 넘어 들어오거나 나가게 하기 위하여

만든 좁은 통로
지역 전북.

물그름하다 형 [대응어] 묽다.
보통 정도에 비하여 물기가 많아 묽은 데가 있다. ¶엿질금을 물에다 섞어서 쑤어. 쑤으머는 엿질금이 삭어갖고 {물그름한} 물이 되야요.<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전북.

물길배미 명 [발음] [물길빼미] [대응어] 논두렁.
물이 괴어 있도록 논의 가장자리를 흙으로 둘러막은 두둑. ¶비가 엄청 오든디 {물길배미는} 괜찮든가 부네.
지역 전북.

물깡구 명 [대응어] 물방개.
☞물강구.
지역 전북.

물꼬추 명 [대응어] 물고추.
마른 통고추를 물에 불려 갈은 물기 있는 고추. ¶학독으다 갈은 {물고추에다가} 꼬칫가루, 파, 마늘, 생강, 양파를 넣고 한 번 더 갈어주면 그것이 양념이 되아.
지역 전북.
해설 표준어 '물고추'는 '마르지 않은 붉은 고추.'로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전북 방언의 '물고추'는 '마른 통고추를 물에 불려 물기 있게 간 고추.'를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학독'에다가 물고추를 갈아서 김치를 담근다.

물꽝구 명 [대응어] 물방개.
☞물강구.
지역 전북.

물농울 명 [대응어] 너울.
바다의 크고 사나운 물결. ¶?전의 나셔보니 수쇄? 푸린 물은 월러렁 콸넝 뒤둥구리 {물농울}쳐 벅금은 북젹?듸란듸 심청이 기가 ?키여<완판본 심청전下>
지역 전북.

물다 동 [대응어] 묻다.
무엇을 밝히거나 알아내기 위하여 상대편의 대답이나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말하다. ¶그런 건 나한테 {물지} 마라.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해설 '물다'는 '묻다'의 ㄷ 불규칙 활용 형태인 '물-'이 모음 어미뿐 아니라 자음 어미에도 사용되는 것을 보여 준다. 어간 '묻-'이 '물-'로 재구조화되어 규칙 활용을 하게 된 것이다.

물당애 명 [대응어] 물동이.
물을 긷거나 담아 두는 데 쓰는 동이. ¶함박 박아지 조리 주벅/{물당애} 불가래 당그래/수세미를 곁들여 노니/정제 세간이 넉넉허게 되었구나(진안 고사풀이-진안군 마령면 계서리 서산)<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진안.

물독아지 명 [대응어] 물독.
물을 담아 두는 독. ¶바가지로 퍼 마셨다. 생각 같아서는 {물독아지를} 그대로 기울여 들이켜고 싶은 심정이었다.<최명희, 혼불> ¶옛날에는 물을 {물독아지에} 담아 놓고 사용했단다.
지역 무주.

물동오 명 [대응어] 물동이.
☞물동우.
지역 무주, 완주.

물동우 명 [대응어] 물동이.

물을 긷거나 담아 두는 데 쓰는 동이. ¶{물동우를} 옆으 끼고 인자 물을 질으로 나오는 판이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예쁜 그녀가 {물동우를} 머리에 이고 간다. ¶물 깃는 아낙내가 머리에 {물동우를} 머리에 이고 걸어가고 있다.
지역 고창, 무주, 완주, 정읍.

물똘 명 [대응어] 개울.
☞똘.
지역 익산.

물량나다 형 [대응어] 형편없다.
실망스러우리만큼 심하게 못 생겼거나 질이 나쁘다. ¶원 감자라고는 {물량나게} 생겼네.
지역 전북.

물러내다 동 [대응어] 물리치다.
적이나 잡귀, 동물 따위를 물러가게 하다. ¶개, 선생이 진땀을 빼지. 그 선생이 그 잡귀를 {물러내고}, 호랭이도 {물러내는} 기술이 있어.<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부안.

물레방아실 명 [대응어] 물레방앗간.
물레방앗간. ¶{물레방아실에서} 방애 찧고.
지역 전북.

물레방애 명 [대응어] 물레방아.
떨어지는 물의 힘으로 바퀴를 돌려 곡식을 찧거나 빻는 기구. ¶{물레방애가} 돌아간다
지역 무주.

물레뱅아 명 [대응어] 물레방아.
떨어지는 물의 힘으로 바퀴를 돌려 곡식을 찧거나 빻는 기구. ¶{물레뱅아를} 돌리다
지역 완주.

물르다 형 [대응어] 모르다.
☞몰르다. ¶아버지, 그런 꾀도 {물르요}?<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남원.

물마금 명
말이나 소문의 근원. ¶그놈의 일을 무단시 떨먹거려 갖고 {물마금이나} 대 싸코 아짐들헌티 숭잽힐일 있다요? ¶어저께는 우게 일과 앙끗도 아닌 일로 {물마금까장} 댐서 한 따까리 히댓쏘이~. ¶안 헐말 맹글어 갖고 그럼서 그래 갖고 철딱사니도 드럽게 업씨 그 말 새씰로 꼬랑지 잽혀 갖고 {물마금까장} 댐서.
지역 고창.

물미나리 명 [대응어] 미나리. ¶매운탕 위에다 {물미나리를} 얹으면 향긋한 냄새가 난다.
지역 전북.

물반대기 명 [대응어] 물동이.
물을 긷거나 담아 두는 데 쓰는 동이. ¶{물반대기에} 물을 넣어 보관히라.
지역 고창.

물반두 명 [대응어] 물방개.
지역 고창.

물받개 명
모춤을 지게에 얹어 논으로 나를 때 물이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바작 밑에 대는 것. 주로 비료 부대를 사용한다. ¶모쟁이는 사람 메골이 아니제. 근게 {물받개라고} 있어. 그놈 안 대면 물이 질질 새.
지역 전북.

물밤 명 [대응어] 마름.

늪 같은데에 절로 나서 자라는 풀의 한 가지 또는 그 열매. 잎은 세모지고 여름에 흰 꽃이 핀다. 진흙 속에 뿌리를 박고, 줄기는 물속에서 가늘고 길게 자라 물 위로 나오며 깃털 모양의 물뿌리가 있다.
지역 전북.

물방댕이 명 [대응어] 무릎.
넙다리와 정강이의 사이에 앞쪽으로 둥글게 튀어나온 부분. ¶넘어져서 {물방댕이를} 다쳤다구만. ¶"이번 장날엔 소 {물방댕이라도} 하나 사다가 몸 보신을 히야겄네. ¶소의 {물방댕이를} 고아 먹으면 아픈 무릎이 낫는다.
지역 전북.

물방맹이 명 [대응어] 빨랫방망이.
☞빨래방맹이.
지역 무주.

물방아 명 [대응어] 물레방아.
떨어지는 물의 힘으로 바퀴를 돌려 곡식을 찧거나 빻는 기구. ¶찬물방이라고, 이전에 {물방아라고} 큰 것이 있거든, {물방아라고}. 쉽게 말하자면 크다 이것이야.<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물방아} 돌아가는 물방앗간에서 우리 만나자.
지역 고창, 남원.

물복송 명 [대응어] 물복숭아.
껍질이 얇고 살과 물이 많으며 맛이 단 복숭아. ¶{물복송이} 달고 맛나네.
지역 전북.

물부리개 명 [대응어] 담뱃대.
담배를 피우는 데 쓰는 기구. 담배통, 담배설대, 물부리로 이루어져 있다. ¶생각을 혀 보소. {물부리개를} 입에 물고 말을 허면 말소리가 잘 나겄소?
지역 전북.

물빵개 명 [대응어] 물방개.
물방갯과의 곤충을 통틀어 이르는 말.
지역 남원.

물뿌리 명 [대응어] 물부리.
담배를 끼워서 빠는 물건. ¶그 놈을 쬐어서 불을 댕겨서, 담배를 잘하고, 앞서보다 {물뿌리를} 잘 닦아서 준단 말이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군산, 완주, 임실.

물섬 명
식물이 자라기에 흙에 물기가 많아 흥건한 상태. 또는 식물이 물기를 많이 먹는 일. ¶복분자도 습있으면 {물섬} 받어서 죽어.
지역 전북.

물소 명 [대응어] 물장군.
지역 전북.

물오이 명 [대응어] 오이(瓜).
'오이'의 열매. 단단하고 시원한 맛이 있으며 김치를 담그기도 한다. ¶{물오이로} 오이소박이를 담근다.
지역 군산,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임실, 장수.

물올르다 형 [대응어] 물오르다.
봄철에 나무에 물기가 스며 생기가 돌다. 또는 사람이나 동물의 능력이나 형편, 상태가 좋아지다. ¶{물오른} 버드나무. ¶날 풀려서 나무에 {물올르기} 시작허면 엉떡이 무너나기 쉬웅게 그런디 댕길때는 항상 조심허라. ¶지금 생선이 한창 {물올른} 때이다. ¶그 사람 신수가 훤헌 게 허고

댕기는 것 봉게 서울서 허는 사업에 {물올르고} 있느가베. ¶저 닭은 {물올라} 잡아먹으면 맛있겠다.

지역 전북.

물외 명 [대응어] 오이(瓜).

'오이'의 열매. 단단하고 시원한 맛이 있으며 김치를 담그기도 한다. ¶허리를 구부리고 빼다귀조각을 살피고 있던 붙들이가 {물외} 마른 것 같은 낯을 치켜들고 물었다.<최명희, 혼불>

지역 고창, 군산,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임실, 장수.

물외소곰지 명 [대응어] 오이지.

물외를 독이나 항아리에 담고, 끓여서 식힌 소금물을 부어서 익힌 반찬. ¶짭짤한 {물외소곰지를} 밥이랑 먹으믄 꿀맛이여.

지역 전북.

물외소곰치 명 [대응어] 오이지.

☞물외소곰지.

지역 전북.

물외장아치 명 [대응어] 오이소박이.

물외의 허리를 서너 갈래로 갈라 속에 파, 마늘, 생강, 고춧가루 등을 섞은 소를 넣어 담근 김치. ¶입맛 없을 때도 {물외장아치만} 있으믄 밥 한 그륵 뚝딱이지. ¶군산은 {물외장아치를} 잘 담아 먹는 고장이다.

지역 군산, 무주.

물외짐치 명 [대응어] 오이소박이.

물외의 허리를 서너 갈래로 갈라 속에 파, 마늘, 생강, 고춧가루 등을 섞은 소를 넣어 담근 김치. ¶입맛 없을 때도 {물외짐치만} 있으믄 밥 한 그륵 뚝딱이지.

지역 임실, 장수.

물외짱아치 명 [대응어] 오이소박이.

☞물외장아치. ¶물외농사 끝물에 노각을 나수 따왔응게 {물외짱아치}나 담거야겄다.

지역 완주.

물우다 동 [대응어] 물다.

윗니나 아랫니 또는 양 입술 사이 또는 입 안에 끼운 상태로 떨어지거나 빠져나가지 않도록 다소 세게 누르다. 또는 벌레 따위가 주둥이 끝으로 살을 찌르다. ¶어미 고양이가 먹이를 {물우고} 지나갔다. ¶개가 사람을 {물우지} 않게 해야 한다. ¶모기가 {물우고} 지나간 곳이 가렵다. ¶입에 물을 {물운} 채로 기다렸다.

지역 완주, 익산.

물자마리 명 [대응어] 소금쟁이.

소금쟁잇과의 곤충. 못, 개천 또는 소금기가 많은 물에 무리 지어 산다. ¶개천에 {물자마리가} 떠 다녀.

지역 고창.

물잠뱅이 명 [대응어] 잠방이.

☞무잠뱅이.

지역 전북.

물장구 명 [대응어] 물장군.

지역 전북.

물장화 명 [대응어] 장화.

목이 길게 올라오는 신. 주로 물을 댄 논에 들어갈 때 신는다.

지역 전북.

물조롱 명 [대응어] 담뱃대.

담배를 피우는 데 쓰는 기구. 담배통, 담배설대, 물부리로 이루어져 있다. ¶담배를 꾹꾹 눌러 담

은 {물조롱을} 입에 물었다.
지역 전북.

물조리개[1] 명 [대응어] 조리.
화초 따위에 물을 주거나 뿌리는 데에 쓰는 기구. ¶별 나면 {물조리개로} 고추 모종 물 줘라이.
지역 전북.

물조리개[2] 명 [대응어] 담뱃대.
담배를 피우는 데 쓰는 기구. 담배통, 담배설대, 물부리로 이루어져 있다. ¶{물조리개가} 있어야 담배를 필틴디.
지역 전북.

물주개 명 [대응어] 담뱃대.
담배를 피우는 데 쓰는 기구. 담배통, 담배설대, 물부리로 이루어져 있다. ¶깜짝 놀라 {물주개를} 입에서 떨어뜨렸다.
지역 전북.

물주리 명 [대응어] 물부리.
담배를 끼워서 빠는 물건.
지역 무주, 부안, 군산, 완주, 진안.

물지기 명 [대응어] 물지게.
☞무지게.
지역 임실.

물짐치 명 [대응어] 물김치.
김칫국물을 흥건하게 부어 담근 김치. ¶밥 먹을 쩍으 {물짐치를} 조깨 떠먹어야 밥이 넘어가지.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의 '물짐치'는 '열무 잎이나 배추, 무 따위를 넣어 국물이 많게 담근 김치.'를 말한다.

물징게미 명 [대응어] 소금쟁이. ¶또랑에 {물징게미들이} 이리저리 떠 댕기고 있드만.
지역 진안.

물짜다 (←末짜다) 형 [대응어] 나쁘다, 형편없다.
물건이나 말의 내용과 질이 형편없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 ¶제사상에 차린 생선인데 {물짠} 걸 사오면 어쩌냐? ¶그는 "얘기를 {물짜게} 헌데다 알던 이야기도 다 까먹었다면서 더듬거렸다.<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글고 니헌티넌 인자 왜놈덜이 느그 아부지 엄니 웬수만이 아니다 잉! 니 동상얼 망친 웬수여. 그런디도 {물짠} 소리만 허고 앉었을 것이냐?<조정래, 아리랑, 995, 9, 59>
지역 전북.
해설 현대국어의 '말째'는 '말'(末)과 '자히>째'의 결합형이다. 전북 방언 '물짜'이는 '말째'의 변이형으로 보인다. 함경남도에서는 '말재다, 말째다'가 '나쁘다'의 방언으로 쓰이고 있다.

물처리 명 [대응어] 물부리.
담배를 끼워서 빠는 물건. ¶{물처리에} 담배를 꽂아 빨어.
지역 김제.

물추리 명 [대응어] 물부리.
담배를 끼워서 빠는 물건.
지역 장수, 김제.

물캐지다 동 [대응어] 물크러지다, 물커지다.
너무 무르거나 풀려서 본 모양이 없어지도록 헤어지다. ¶그 솥뚜껑이 시방 크고 작고 간에 모조리 잿바가지 삼태기처럼 되어 버리고 말았으니, 모든 것이 심란하였다. 부뚜막도 {물캐져} 버렸다.<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물캐지다'는 표준어 '물크러지

다, 물커지다'에 대응된다. '물크러지다'의 준말인 '물커지다'가 '물케지다'로 발음된 것으로 보인다. '묽히-+-어+지다'의 구조를 갖는다.

물토롱 명 [대응어] 물통.
물을 담아 두는 통. ¶저짝에 있는 {물토롱에서} 물 한 바가지 펴와라.
지역 전북.

물통 명 [대응어] 물독.
물을 담아 두는 독. ¶겨 속으로 들어가니께 자 {물통을} 채나. 아 남자가 들어오더너 술을 건춰하니 먹고서는,<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완주.

물팍 명 [대응어] 무릎.
넙다리와 정강이의 사이에 앞쪽으로 둥글게 튀어나온 부분. ¶"네 이놈, 너 큰소리치지만 절했담서야?" "제가 절 했가디요? 그냥 손이 {물팍에} 꾸부러져서…"<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시안의 놀다가 자빠져갖고 진바지 {물팍} 미여지믄 엄니한티 디지게 쥐여터지고. ¶아따, {물팍허고} 삭신 쑤시는 것을 봉게 가실 쏘나기라도 한둘금 퍼부슬랑갑따~. ¶할머니는 날씨가 추워지면 {물팍} 시렵다고 문을 닫으라 하셨어.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물푸리 명 [대응어] 물부리.
☞물뿌리.
지역 임실.

물황 명 [대응어] 물독.
물을 담아 두는 독. ¶빨개이들 볼깜시 정지 {물황으} 숨어 있고 그랬어.
지역 임실, 남원.

물황아리 명 [대응어] 물독.
☞물황.
지역 남원.

뭃다 동 [활용형] 뭃고[물코], 뭃으니[무르니] [대응어] 묻다.
☞물다.
지역 순창, 정읍.

뭃다 동 [발음] [물따] [활용형] 뭃고[물꼬], 뭃어서[무러서] [대응어] 묻다.
☞물다.
지역 고창, 남원, 순창, 임실, 진안.

뭉게다 동 [대응어] 뭉기다.
엉겨서 무더기를 이루다. ¶이리 {뭉게} 저리 뭉겐 기원 바램 속에 허벅지게 우스며 쎄릴 것만 가튼 비.
지역 전북.

뭉고리 명 [발음] [뭉꼬리] [대응어] 문고리.
문을 걸어 잠그거나 여닫는 손잡이로 쓰기 위하여 문에 다는 고리.
지역 남원.

뭉글다 동 [대응어] 비비다.
낟알을 까끄라기나 허섭스레기를 털어 내기 위해 손으로 비비다. ¶보리를 꺼럭 있는 놈을 {뭉글어야} 보드랍고 얼른 마리제.
지역 전북.

뭉꺼지다 동 [대응어] 묶이다.
끈, 줄 따위가 매듭으로 만들어지다. ¶줄이 짧아 하나로 안 {뭉꺼진다}.
지역 순창, 장수.
해설 전북 방언에서 '뭉꾸다'와 '묶으다'가 사용

되는 것을 참고하면 '뭉꺼지다'는 '뭉ㄲ-+-어지다' 정도로 분석할 수 있다. '묶으다'가 매개모음 '-으-'가 어간 말음으로 재구조화된 것임을 참고하면 '뭉꾸다'의 어간말 모음 역시 매개모음 '-으-'임을 알 수 있다. '뭉꾸다'는 '뭉끄다'의 어간 말 모음 /ㅡ/가 어두 음절의 원순모음 /ㅜ/에 동화된 것이다.

뭉께지다 동 [대응어] 묶이다.
☞뭉꺼지다.
지역 전북.

뭉꾸다 동 [대응어] 묶다.
☞묶으다.
지역 남원, 임실, 장수.

뭉끄다 동 [대응어] 묶다.
끈, 줄 따위를 매듭으로 만들다. ¶양쪽으서 막 {뭉꺼} 갖고 갔제.
지역 전북.

뭉끼다 동 [대응어] 묶이다.
☞뮊이다.
지역 남원, 순창, 임실.

뭉치밥 명 [대응어] 주먹밥.
주먹처럼 둥글게 뭉친 밥덩이. ¶쑥 뜯으러 갈라믄 보리를 쑥하고 섞어서 {뭉치밥을} 만들어. 그놈 싸가꼬 쌍치까지 가.
지역 전북.

뭉퉁 의명 [대응어] 뭉텅이.
한데 뭉치어 이룬 덩이를 세는 단위. ¶머리카락 한 {뭉퉁이} 빠졌다. ¶형편도 곤란허다는디 한 {뭉퉁}이 집어다 줘.
지역 부안.

뭉팅이 의명 [대응어] 두름.
조기 따위의 물고기를 짚으로 한 줄에 열 마리씩 두 줄로 엮은 것을 세는 단위. ¶굴비 안 뭉팅이를 사다. ¶굴비 한 {뭉팅이를} 사서 열 마리는 시댁에 열 마리는 친정에 보냈다. ¶삼춘이 메칠을 달라붙어서 조르더니 인자 안 뵈는 것 봉게 또 아부지가 돈 {뭉팅이나} 한다발 집어 주었겄지.
지역 무주.

뭐시기스럽다 형
바로 말하기 어렵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데가 있다. ¶팔랑 폴랑 한 장 냉긴 달력 봉게 어쩌나 심난헌 기분은 {뭐시기스럽기} 할냥 없따.
지역 전북.

뮉히다 동 [대응어] 먹히다.
음식 따위가 입을 통하여 배 속에 들여보내지다. ¶사슴이 호랑이에게 잡혀 {뮉히다}
지역 고창, 김제, 남원, 익산.

뮊이다 동 [대응어] 묶이다.
끈, 줄 따위가 매듭으로 만들어지다. ¶줄이 짧아 안 {뮊인다}.
지역 김제, 부안, 군산, 임실, 장수, 진안, 남원.
해설 '뮊이다'는 '묶이다'의 어두 음절 모음 /ㅜ/가 후행 음절 모음 /이/의 영향을 받아 움라우트되어 전설모음 /ㅟ/로 바뀐 것이다.

뮝끼다 동 [대응어] 묶이다.
☞뮊이다.
지역 남원.

므시기 대, 감 [대응어] 거시기.
이름이 얼른 생각나지 않거나 바로 말하기 곤란한 사람 또는 사물을 가리키는 대명사. 또는 하려는 말이 얼름 생각나지 않거나 바로 말하기가

ㅁ

거북할 때 쓰는 군소리. ¶아따, 눈구녁 뻰히 띠어노코 졸지에 당해 부렀소 다 알었는디 {므시기가} 씨어 댓능게비라우. ¶말이 났응게 말이지만 말여 거, {머시기냐} 동학 때나 시방이나 우리가 달라진 게 뭐여<김용택, 섬진강> ¶추곡수매도 그냥저냥 끝냈다. 말로는 전량수매다 우리덜을 위하야 거, {머시기냐} 곡간가 뭣인가 현실화되얐다고(나도 인자 유식혀졌쟈) 난리덜을 치더라만<김용택, 꽃산 가는 길>
지역 전북.

므여 감 [대응어] 무엇이야
☞머여.
지역 남원.

미구라지 명 [대응어] 미꾸라지.
☞미꼬라지.
지역 전북.

미기 명 [대응어] 메기. ¶아이 자네 아버니가 내기다 꿈으 선몽을 허는디 {미기를} 이만헌 놈을 잡어다가 끓여서 지사를 지내서 내가 잘 먹고 간다고 내가 그러네.<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군산, 정읍.

미까랑댕이 명 [대응어] 미꾸라지.
'미꾸라지'를 낮잡아 이르는 말. ¶{미까랑댕이가} 손에 잘 안 잡힌다.
지역 전북.

미꺼럼타기 명
썰매를 끌고 타고 하는 일. ¶온 동네 꼬맹이들 겨울 추미는 {미꺼럼타기가} 아니겠능가? 허구헌 날 썰매 끌고 언덕빼기 찾아 댕기기 바쁜게.
지역 전북.

미꼬라미 명 [대응어] 미꾸라지.
☞미꾸라미.
지역 전북.

미꼬라지 명 [대응어] 미꾸라지. ¶참깨들깨 노는디 아주까리는 못놀아. 잉에승에 노는디 {미꼬라지는} 못놀아. 꾸정물통으 호박씨놀듯 둥던둥던 놀아보자. 젊은자네들만 놀란가 늙은이 배기 싫어도 놀아야지.<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미꼬라지로} 추어탕을 끓여 먹어보자구나.
지역 고창, 부안, 익산, 정읍, 김제, 남원, 순창, 군산, 완주, 임실, 장수.

미꼬랭이 명 [대응어] 미꾸라지.
☞미꾸랭이.
지역 전북.

미꼬미 명
될 만하거나 가능성이 있는 희망. ¶{미꼬미} 읎는 세상 더 살아 봐야 뭣 허겄어?
지역 전북.

미꾸다 동 [대응어] 메꾸다.
모자라거나 부족한 것을 채우다. ¶부족한 돈을 {미꿔서} 갖다 줬어. ¶살강 밑으로 난 쥐구멍을 {미꾸었더니} 이번엔 문틈새기를 뚫버놨네.
지역 전북.

미꾸라미 명 [대응어] 미꾸라지. ¶추어탕은 {미꾸라미를} 넣고 끓여.
지역 무주, 진안.

미꾸락지 명 [대응어] 미꾸라지.
☞미꾸람지. ¶{미꾸락지} 잡으로 댕기면서 옷 많이 몽쳤었제.
지역 전북.

해설 '미꾸락지'는 '개구락지'와 같은 계열의 파생어로 보인다.

미꾸람지 명 [대응어] 미꾸라지. ¶논두렁에서 {미꾸람지를} 잡는다.
지역 전북.

미꾸랑지 명 [대응어] 미꾸라지.
☞미꾸람지.
지역 전북.

미꾸래미 명 [대응어] 미꾸라지.
☞미꾸라미. ¶그러고서 인자 {미꾸래미} 아홉 개를, 열 개야 거그 올라간다는디 아홉 개를 잡어 가지고서는 인자 열 개 잡었다고 허고서는 걍 거그를 올라갔어. 황새 등짝 올라타고서는 가는디, 꾹 허먼 인자 {미꾸래미} 하나 느주고 입으다 그러고 한참 얼매든지 가다가 또 꾹허먼 느주고 근디. 마지막 꾹 허는디 손고락을 짤러서 걍 느줘 버렸어.<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무주, 진안, 군산.

미꾸래지 명 [대응어] 미꾸라지. ¶{미꾸래지처럼} 도망쳐 다니는 것 좀 보소. ¶{미꾸래지} 같은 녀석을 만나면 재수 없다.
지역 김제.
해설 '미꾸래지'는 '미꾸라지'의 움라우트형으로, 제3 음절 모음 /ㅏ/가 어말의 'ㅣ'의 전설성에 동화되어 전설모음 /ㅐ/로 변한 결과이다.

미꾸랭이 명 [대응어] 미꾸라지. ¶{미꾸랭이처럼} 요리조리 잘도 빠져나간다.
지역 남원.
해설 '미꾸랭이'는 '미꾸리'의 어말 모음이 탈락한 '미꿀'에 접미사 '-앵이'가 결합한 것으로 분석된다. '-앵이'는 지소 접미사 '-앙이'가 움라우트된 형태인 것으로 보인다.

미꾸리 명 [대응어] 미꾸라지. ¶{미꾸리를} 넣고 추어탕을 끓인다.
지역 전북.
해설 '미꾸리'는 6세기 문헌에서 '믯구리'로 처음 나타난다. '믯구리'는 8세기에 '밋구리'로 첫 음절이 'ㅢ>ㅣ'로 단모음화되었다가, /미꾸리/로 발음되는 것이 표기에도 반영된 결과 지금의 형태가 된 것으로 보인다.

미끄럼판 명 [대응어] 썰매.
아이들이 얼음판이나 눈 위에서 미끄럼을 타고 노는 기구. ¶눈이 두툼히 쌓인 곳에서 {미끄럼판을} 대고, 그 우에 내 몸을 싣고 내려오는 기분은 쪼매 무서우면서도 신나기도 허지.
지역 김제.

미끄름 명 [대응어] 미끄럼.
미끄러운 곳에서 미끄러지는 일. 또는 그런 놀이. ¶{미끄름을} 타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얼음 위에서 {미끄름을} 타 보자.
지역 전북.
해설 '미끄름'은 '미끄럼'의 'ㅓ'가 고모음화하여 'ㅡ'로 바뀐 것이다. 'ㅓ>ㅡ' 고모음화는 '더럽다~드럽다', '어른~으른' 등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미끄름판 명 [대응어] 썰매.
☞미끄럼판. ¶겨울에 냇가가 꽁꽁 얼었을 때는 비닐로 된 비료 푸대 위에 앉아 {미끄름판을} 신나게 타고 돌아다녔어.
지역 김제.

미끈덕거리다 동 [대응어] 미끈거리다, 미끈둥거리다.
미끄럽고 번드러워서 자꾸 밀리어 나가다. ¶물을

실컷 들이켠 그는 낯을 씻었다. 낯이 {미끈덕거렸다}. 땀이 많이 내밴 탓이었다.<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미끈덕거리다'는 의태어 부사 '미끈덕'에 동사파생접미사 '-거리-'가 연결된 것이다. 부사 '미끈덕'은 '미끈덩, 미끈둥'으로 또는 '미끈덕미끈덕'으로도 쓰고 있다. 전북 방언에서는 '미끈덕거리다, 미끈덕하다'가 사용되고 있다.

미끈덕하다 형 [발음] [미끈더가다/미끈더카다] [대응어] 미끈둥하다.

부드러우며 미끄럽다. ¶"체, 자네도 이놈에 경성서 수돗물잉가 쇠대롱물잉가 묵등마 말솜씨가 아조 {미끈덕허니} 잘도 넘어가네, 이.<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미끈덕하다'는 의태어 부사 '미끈덕'에 형용사파생접미사 '-하다'가 연결된 것이다.

미끌치다 동 [대응어] 미끄러뜨리다.

미끄러지게 하다. ¶등에 지고 있던 가방을 땅에다 {미끌치고} 허리를 쭉 폈다.

지역 전북.

해설 '미끌치다'는 '미끌-+-치-+-다'로 분석된다. 어근 '미끌-'에 사동 접미사 '-치-'가 결합되었다.

미끔하다 형 [대응어] 미끈하다.

흠이나 거친 데가 없이 부드럽고 번드럽다. 또는 보기에 훤칠하고 번듯하다. ¶{미끔하게}/위야 호호/뒤 돌아보고/위야 호호/앞 돌아보고/위야 호호/밋꿈하게/위야 호호/잘들 매게/위야 호호(무주 논매는 소리-무주군 무주읍 오산리)<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쪼께 히가지고 인제 보내는디, 가는 질 초에가 청실 배나무가 {미끔헌} 놈이 있는디 높아.<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정읍, 무주.

미나리싱건지 명 [대응어] 미나리 물김치.

썬 미나리에 무, 파, 마늘 따위를 채 썰어 넣고 국물이 많게 담근 김치. ¶미나리 썰어서 늫고 무시, 파, 마늘을 채 썰어서 버무리다가 물을 부어놓고 익히먼 그것이 {미나리싱건지여}.

지역 전북.

해설 '싱건지'는 표준어 '국물김치'의 전북 방언이다. '국물김치'는 '열무 잎이나 배추, 무 따위를 절여서 국물이 많게 담근 김치.'를 말하는데 이때 재료를 미나리로 담근 것을 '미나리싱건지'라고 한다.

미나리지 명 [대응어] 미나리 김치.

일반 김치를 담는 것처럼 미나리로 담근 김치. ¶봄으 나는 미나리다가 꼬치 같은 양념으로 버무리먼 그거이 미나리지여.

지역 전북.

해설 미나리를 재료로 하여 빨갛게 양념을 무쳐서 버무린 김치를 '미나리김치'라고 한다.'김치'의 전북 방언이 '지'이므로 '미나리지'라고 말한다.

미나리짐치 명 [대응어] 미나리 김치.

일반 김치를 담는 것처럼 미나리로 담근 김치. ¶미나리로 배추짐치 담득기 {미나리짐치를} 담으먼 짤굿짤굿허니 얼매나 맛있다고.

지역 전북.

해설 미나리를 재료로 하여 빨갛게 양념을 무쳐서 버무린 김치를 '미나리김치'라고 한다.'김치'의 전북 방언이 '짐치'이므로 '미나리짐치'라고 말한다.

미너리 명 [대응어] 며느리(婦).

☞메누리.
지역 순창.

미누리 명 [대응어] 며느리.
아들의 아내를 이르는 말. ¶영감이 가만히 관상을 본개로 자식을 낳게 생겼드래, 종의 딸이. 그런개 양반 영감이 그놈을 욕심내서 미누리로 시켜 얻을라고 욕심을 내. 막 인자 그런개 인자 영감은 본디가 있어서(관상을 잘 보아서), 그 {미누리로} 복있게 생기고 아주 큰 아들 낳게 생겨서 쌍놈을 며느리로 얻을라고 허는디, 억지로 했어. 억지로 결혼만 싹 해놓고.(양반 아들이) 안 볼라고 해.<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전북.

미느리 명 [대응어] 며느리(婦).
☞메누리.
지역 전북.

미다[1] 동 [대응어] 메우다.
뚫려 있거나 비어 있는 곳을 채우다. ¶우야 소리가 나거든/우 야 어 허/양 쪽 벼루가 입을 맞추고/우 야 어 허/우야소리가 나거들랑/우 야 어 허/높은 데 찍어다 짚은 데 {미고}(완주 논매는 소리)<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완주.

미다[2] 명 [대응어] 매다(김을).
논밭의 잡풀을 뽑아내다. ¶이 배미를 {미고서} 저 배미를 {미고} 저 아랫배미로 내려를 가세/아리씨구나 아 아하 하 아 모오 뒤이여(정읍 논매는 소리/들소리<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이 논바미도 다 {미었구나}/어 함 어 함/빨리 빨리 에엄을 싸세/어 함 어 함(정읍 논매는 소리-호무질소리)<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정읍.

미다[3] 동 [대응어] 메다.
어떤 감정이 북받쳐 목소리가 잘 나지 않다. ¶결차마 발길을 떼지 못하고 흐느끼어 몸부림치며 통곡하다가, 그래도 돌아서기 {미어지게} 애통하여<최명희, 혼불> ¶할아버지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에 목이 {미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지역 고창, 김제,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정읍, 진안.

미럭둥이 명 [대응어] 미련퉁이.
미련하거나 어리석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지가 {미럭둥이라서} 미런시럽게 요렇게 농사만 고집한다우.
지역 전북.

미련곰탱이 명 [대응어] 미련퉁이.
아주 미련하거나 어리석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저런 {미련곰탱이} 같은 놈. ¶정미는 세월이 흐를수록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미련곰탱이가} 돼 가니 무슨 일이라냐?
지역 전북.

미로 명 [대응어] 모루채.
대장간에서, 달군 쇠를 모루 위에 놓고 메어칠 때 쓰는 것. 묵직하고 둥그스름한 쇠토막에 자루를 박아 무엇을 치거나 박을 수 있게 만들어진 물건.
지역 순창.

미리탕 명 [대응어] 미닫이.
문이나 창 따위를 옆으로 밀어서 열고 닫는 방식. 또는 그런 방식의 문이나 창을 통틀어 이르는 말. ¶{미리탕을} 열어 놓고 잠을 잔다.
지역 남원.

미스껍다 형 [대응어] 메스껍다.

먹은 것이 되넘어 올 것같이 속이 몹시 울렁거리는 느낌이 있다. 또는 태도나 행동 따위가 비위에 거슬리게 몹시 아니꼽다. ¶그런 짓을 보고 나닌게로 속이 다 {미스껍네그려}.
지역 전북.

미슥미슥 부 [대응어] 메슥메슥.
☞미식미식. ¶그러더니, 금방 속이 어지러워진다. {미슥미슥} 하면서 토하고 싶은 것이 서체(暑滯)인가도 싶다.<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미시껍다 형 [대응어] 메스껍다.
☞미스껍다.
지역 전북.

미시끕다 형 [대응어] 메스껍다.
☞미스껍다.
지역 전북.

미식거리다 동 [대응어] 메슥거리다.
먹은 것이 되넘어 올 것같이 속이 자꾸 울렁거리다. ¶"나도 애를 밴 모양이지라우. 요상해라우. 미식미식 구역질이 날 것처럼 {미식거리고} 숨이 차면서 가끔 기침도 나와라우."<최창학, 동물과 그들의 시간> ¶촌놈이 오랜만에 버스를 탔더니 속이 {미식거려서} 혼났당게. ¶저녁 먹은 것이 소화가 안되어 뱃속이 {미식거리다}.
지역 전북.

미식미식 부 [대응어] 메슥메슥.
먹은 것이 되넘어 올 것같이 속이 자꾸 울렁거리는 모양. ¶{미식미식} 구역질이 날 것처럼 미식거리고 숨이 차면서 가끔 기침도 나와라우." 금방 토할 것처럼 울상을 지으니 이번에는 정순례가 놀려 대었다.<최창학, 동물과 그들의 시간> ¶마셔고 불사약 그놈 시 마리를 먹고 난게 속도 {미식미식} 헌디 걍 이렇게 있은게 시상이 빙빙빙 혀.<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미숫가루 명 [대응어] 미숫가루.
☞미숫가리.
지역 군산.

미숫가리 명 [대응어] 미숫가루.
찹쌀이나 멥쌀 또는 보리쌀 따위를 찌거나 볶아서 가루로 만든 식품. ¶여름엔 {미숫가리로} 대충 때울 때가 많다. ¶여름에 시원한 물에 {미숫가루를} 타 먹으면 일품이지.
지역 남원.
해설 '미숫가루'는 '미시'와 '가루[粉], '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중국 연변에서는 지금도 찹쌀, 멥쌀, 보리쌀 등을 볶아서 만든 가루를 설탕물이나 꿀물에 탄 음료를 '미시'라 하고, 미시를 만드는 데 타는 가루를 '미시가루'라고 한다. '미시'는 5세기 문헌에서부터 보인다.<훈몽자회>에 이 어형이 나타나므로 이 단어는 여진어에서 차용되었을 가능성이 있고(女眞譯語 musin), 몽고어에도 'musi'가 있으므로 몽고어의 차용일 가능성도 있다. 20세기부터 나타나는 '미숫가루'는 '미싯가루'에서 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싯'이 '숫'이 된 것은 9세기에 발생한 '스, 즈, 츠>시, 지, 치'의 치찰음화를 의식하여 원래의 '시'를 '스'로 과도교정한 후 다시 '미'와 '루'의 원순성에 의한 이화를 겪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미숫가리'는 이후 다시 '수'가 '쑤'로 경음화를 겪은 것이다. '가리'는 중세 국어의 'ᄀᆞᄅᆞ'가 6세기에 발생한 비어두에서의 'ㆍ>ㅡ'의 결과로 'ㄱㆍ르'로 변한 후 다시 '르>리'의 전설모음화를 거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모르다~모리다'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미어지다 동 [대응어] 메다.
뚫려 있거나 비어 있는 곳이 막히거나 채워지다. ¶오밤중에도 잠 못 이루고 있는 강실이의 숨죽인 폐장에 {미어지는} 연기가 자욱이 차 올랐다.<최명희, 혼불>
지역 고창, 김제, 부안, 순창, 익산, 임실.

미엄 명 [대응어] 미음.
입쌀이나 좁쌀에 물을 충분히 붓고 푹 끓여 체에 걸러 낸 걸쭉한 음식. 흔히 환자나 어린아이들이 먹는다. ¶고뿔 걸려 암것도 못 먹는 사람한티는 {미엄이라도} 끓여 먹여.
지역 무주.
해설 '미엄'은 '미음'의 음운론적 이형태이다. '어른~으른', '더럽다~드럽다'처럼 'ㅓ>ㅡ'의 고모음화가 일어나는 것은 흔한 일이나 이 경우는 고모음화를 지나치게 의식한 결과 원래의 'ㅡ'까지 'ㅓ'로 바뀐 것이다.

미엉 명 [대응어] 목화. ¶2살에 결혼했는디 그 안에 9살부터 품앗이를 다녔어. 삼품앗이를 {미영} 잣고.<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전북.

미엉다래 명 [대응어] 다래.
아직 피지 아니한 목화의 열매. ¶목하가 다 안 열리고 {미엉다래가} 열리기 시작하네.
지역 장수, 임실, 고창, 김제, 남원, 부안, 순창, 정읍, 진안.
해설 `목화`의 방언형인 `미엉`에 `다래`가 결합한 합성어이다.하위 방언형 `미영다래`, `미영따래`의 `미영`은 음절의 모음 /ㅣ/에 의해 2음절에 반모음 /j/가 개제된 것이다.하위 방언형 `미엉따래`, `미영따래`는 `미엉(미영)`과 `다래` 사이에 사이시옷이 개재되어 후행하는 `다래`가 경음화된 것으로 보인다.

미엉따래 명 [대응어] 다래.
☞미엉다래.
지역 임실.

미역뿌역 부 [대응어] 꾸역꾸역.
음식 따위를 한꺼번에 입에 많이 넣고 잇따라 씹는 모양. 또는 한군데로 잇따라 많은 사람이나 사물이 몰려가거나 들어오는 모양. ¶모욕탕이 많은게로 {미역뿌역} 메와(모여).
지역 전북.

미영 명 [대응어] 목화 ¶모:카도, 모카럴 미영이라고 그러제, 미영.<2008 전북 고창> ¶인자 반농사가 업써서 {미영} 농사를 모던 사라믄 인자 소케를 인자, 소믈, {미영을}<2005 전북 남원> ¶보리, 콩, 팥, 서속, 수수 모두 골고루 샀다. {미영과} 삼베를 각각 수천 필씩 끊어들였다.<채만식, 심봉사>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부안, 순창, 완주, 임실, 장수, 정읍, 진안.

미영꼿 명 [대응어] 목화꽃
목화의 꽃
지역 전북.

미영다래 명 [대응어] 다래.
☞미엉다래.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부안, 순창, 임실, 정읍, 진안.

미영따래 명 [대응어] 다래.
☞미엉다래.
지역 고창, 남원.

미영베 명 [대응어] 무명.
목화솜으로 만든 실로 짠 천. ¶그러고 {미영베} 두 필을 내준게 그놈 펄러 갔어. 그서 가서 미영

베 두 필을 풀아서 솥 사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부러 인자 그 {미영베} 갖다가 풀 빳빳허게 히가지고서 말허자먼 엉덩허게 입고서는 그 밑이 들어가가지고서는 그 발 띠는 대로 띠고<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고창, 남원, 군산, 임실, 완주, 정읍.

미영뵈 명 [대응어] 무명.

☞미영베.

지역 완주.

미영송이 명 [대응어] 목화송이

목화가 익어 피어난 송이.

지역 부안, 임실, 장수.

미영숭어리 명 [대응어] 목화송이

목화가 익어 피어난 송이.

지역 순창.

미영숭이 명 [대응어] 목화송이

☞미영-숭이.

지역 장수.

미영실 명 [대응어] 무명실.

목화솜을 자아 만든 실. ¶목화에서 {미영실이} 나오고 미영실이 있어야 미영베를 짜는거여. ¶{미영실로} 베를 짰어.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부안, 완주, 임실.

미영씨 명 [대응어] 목화씨.

목화의 씨. ¶안:자 {미영씨를} 바테 갈지. 숭거. {아 이제 목화씨를 밭에 갈지. 심어}.<2005 전북 남원> ¶그 소리에 놀란 {미영씨} 기름 등잔의 심지가 펄럭하는데, 춘복이가 얼핏 눈을 뜨는 것처럼 보였다.<최명희, 혼불> ¶무명실 {미영씨}<2008전북고창>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부안,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

미영옷 명 [대응어] 솜옷.

안에 목화솜을 두어 만든 옷. ¶겨울에는 미영베 나서 미영옷 해 입고 여름에는 삼베 나서 삼베옷 해 입고. ¶삼 심어서 여름에 삼베옷 입고 겨울에는 미영 심거서 미영베 나서 {미영옷} 입고 또 시집가고 장가갈 때는 누에 키워가꼬 명지 바지 저구리에다가 두루매기 입고 장개가고.

지역 임실.

미영텡이 명

목화를 낮잡아 이르는 말. ¶{미영텡이가} 벙얼벙얼 올라와. 막 크게 퍼져.

지역 전북.

미우 명 [대응어] 아가미.

물속에서 사는 동물, 특히 어류에 발달한 호흡기관. ¶생선이 상태가 좋지 못헌가 {미우가} 거무죽죽허니 색깔이 변해 부렀네.

지역 순창.

미우다 동 [대응어] 메우다.

뚫려 있거나 비어 있는 곳을 막거나 채우다. ¶구덩이를 {미워라}.

지역 무주, 진안.

미웁다 형 [대응어] 밉다.

모양, 생김새, 행동거지 따위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눈에 거슬리는 느낌이 있다. ¶그런게 인자 그 공자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그 오른쪽 아 저, "서쪽에 있는 각시는 {미웁고} 동쪽에 있는 각시는 이쁘다." 이렇게 인자 그 제자들한티 그렇게 이얘길 허닌게<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부홰가 난단 말여. 척하니 그 다음날은 이 상전이 {미웁기는} 한이 없어서, "그

래도 또 정신 못차리고 또 저지랄하니 내 혼을 내야겠다고."<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동생이 미운 짓 할 때는 {미웁지만} 예쁜 짓 할 때는 귀엽다. ¶그렇게 즈그 동생을 거디다 여웠거든. 하믄. 어떻게 {미웁고} 해서 인자 뭔 망태를 하나 딱 갖고는, 밑에다 큰 소(沼)가 있는디, (한 두어<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그 사람 허는 짓 보면 {미웁기야} {미웁지}. 근다고 헤어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민호는 하는 짓마다 말썽만 피워 정말 {미웁기만} 하다.
지역 군산, 남원, 부안, 임실, 정읍.

미이다 동 [대응어] 메다.
뚫려 있거나 비어 있는 곳이 막히거나 채워지다. ¶급하게 먹느라 목이 미이다.
지역 고창, 순창.

미자이 명 [대응어] 미장이.
건축 공사에서 벽이나 천장, 바닥 따위에 흙, 회, 시멘트 따위를 바르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우리 아버지가 {미자이여}.
지역 전북.

미주 명 [대응어] 메주.
콩을 삶아서 찧은 다음, 덩이를 지어서 띄워 말린 것. 간장, 된장, 고추장 따위를 담그는 원료로 쓴다. ¶미주 쑤는 콩이 따로 있는디 그것을 사다가 불려서 {미주를} 쑤지. 내일 쑬려면 저녁에 미리 씻어놔야제
지역 남원.

미척미척 부 [대응어] 미적미적.
무거운 것을 조금씩 앞으로 자꾸 내미는 모양. 또는 해야 할 일이나 날짜 따위를 미루어 자꾸 시간을 끄는 모양. ¶달구지를 {미척미척} 밀고 가네. ¶{미척미척} 일을 미뤘어. ¶더우도 거진 끝났응게 {미척미척} 허지 말고 서둘러서 일을 시작헙시다. 자꾸 꾸물대거나 망설이는 모양.
지역 전북.

미척미척하다 동 [대응어] 미적미적하다.
자꾸 꾸물대거나 망설이다. ¶인자 야가 갈라고는 않고 인제 {미척미척허고} 그런게.
지역 전북.

미척이다 동 [대응어] 미적거리다.
무거운 것을 조금씩 앞으로 밀다. 또는 할 일이나 날짜 따위를 자꾸 미루어 시간을 끌다. 또는 꾸물대거나 망설이다. ¶무거운 가방을 {미적이고} 있네. ¶일을 {미적이다} 보니 어느새 내일이 마감이다. ¶얼른 대답을 못하고 잠시 {미적이며} 눈치를 살폈다.
지역 전북.

미추갱이 명 [대응어] 미치광이.
정신에 이상이 생겨 말과 행동이 보통 사람과 다른 사람. 또는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미추갱이가} 되야서 병원에 들어갔다도만. ¶어떤 {미추갱이가} 그런 소릴 고지 듣겄소?
지역 전북.

미춘강이 명 [대응어] 미치광이.
☞미추갱이.
지역 전북.

미치다[1] 동
설익다. ¶고구마가 설등멀등허니 {미쳤어}. 물 닳아지드락 더 때야 혀.
지역 전북.

미치다[2] 동 [대응어] 웃자라다.
쓸데없이 보통 이상으로 많이 자라 연약하게 되다. ¶건 디다(마른 땅에다) 허먼 콩이 {미쳐}. 콩

은 논두럭으다 심어야 혀.
지역 전북.

미치적거리다 동 [대응어] 미적거리다.
꾸물대거나 망설이다. ¶박승치가 다시 악을 쓰자 그 때까지 {미치적거리고} 있던 김남호가 후닥닥 튀었다.<송기숙, 녹두장군>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미치적거리다'는 의태어 부사 '미치적'에 동사파생접미사 '-거리다'가 연결된 것이다.

미친년 널뛰다 【관용표현】 [대응어] 미친년이 널뛰다.
아무 것도 모르고 미친 듯이 행동하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여그 징게 맹갱 들얼 {미친년 널뛰딧기} 험서 마구잽이로 사덜이는 왜놈덜 중에 요시다라는 놈이 있는디<조정래, 아리랑> ¶요게 다 임씨 가문을 위혀서 장래를 내다보고 {미친년 널 뛰딧기} 나분대는 거여.<윤흥길, 빛가운데로걸어가면>
지역 전북.
해설 '널뛰다'는 '널뛰기를 하다.'는 뜻이다. '미친년 널뛰다.'는 미친 사람이 널을 뛸 때 정신없이 뛴다는 의미를 갖는다.

미칀날 명 [대응어] 며칟날.
그 달의 몇째 날. ¶갸 혼인이 {미칀날이라구} 그렸는디. ¶겔혼식 날을 잡었다고 들었는디 {미칀날인지} 생각이 안 나네.
지역 전북.

미칠 명 [대응어] 며칠.
그달의 몇째 되는 날. 또는 몇 날.
지역 전북.

미칠날 명 [대응어] 며칟날.
그달의 몇째 되는 날.
지역 전북.

미커리 명 [대응어] 미투리.
삼이나 노 따위로 짚신처럼 삼은 신. 흔히 날을 여섯 개로 한다. ¶머리카락으로 {미커리를} 삼는다.
지역 전북.

미클다 동 [대응어] 밀다.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반대쪽에서 힘을 가하다. ¶전부선대 같은/어어기 야아하/요내 폴로/어어기 야아하/{미클었다} 다클었다/어어기 야아하/어기야 우리 지심을/어어기 야아하/다 둘러냈네/어어기 야아하(고창 논매는 소리-잘룬소리)<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이로코 떨어지는 폭포수. 그려서 거그 와갖고는 둘이 똑같이 죽자고 허는디 영갬이 마느래만 그냥 툭 {미클어} 버렸네. 근게 폭포수에 가서 둥글둥글 둥그려 내려와 지금.<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고창, 김제, 정읍.

믹실다 동
밀어 넘어뜨리다. ¶숨이 팍 맥힌게 손을 딱 내린게 뒤로 주저앉드만. 그런게 이 년이 나를 막 {믹실어} 갖고 넘어졌다고, 벌떡 드러눴다고 그려.
지역 전북.

믹해지다 동 [대응어] 막히다.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되거나 중단되다. 또는 앞이 트이지 않게 쌓이거나 둘러싸이다. ¶하수구 배관이 {믹해졌어}. 뚤버야 쓰겄는디. ¶사방이 벽으로 {믹해져} 있네.
지역 전북.

믹히다 동 [대응어] 먹히다.
☞맥히다.
지역 순창.

민경 (←面鏡) 명 [대응어] 면경.
얼굴을 비추어 보는 작은 거울. ¶그 시아버지가 생각하기를 치 오직이 가난히야 {민경} 하나도 못 사갖고 왔는고?<한국구비문학대계, 고창군편>
지역 전북.
해설 전북에서는 한자어 '면경(面鏡)'은 '면경>멘갱, 멘경>멘겡, 멘경>민겡, 민경>밍경'과 같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주로 '민경'이 많이 보인다.

민도 명 [대응어] 면도.
☞멘도.
지역 전북.

민도칼 명 [대응어] 면도칼.
얼굴의 수염이나 잔털 따위를 미는 데에 쓰는 칼. ¶호랭이 대그빡에다가 {민도칼로} 쌔까씩 살살 베께 낸 후참에 끄트머리 잡고 똥구녕 팍 차 갖고 내질러불먼 영낙없이 배깨져 불잖이여 고로코롬 않허믄 어림 택도 없어 불제이. ¶시방은 은그 {민도칼이} 있지만은, 그전엔 그전 민도칼이 없었제
지역 정읍.

민두룸하다 형 [대응어] 밋밋하다.
두드러지거나 튀어나온 곳 없이 평평하거나 평범하다. ¶그러나, 덮어놓고 첫꼭대기에다가 불쑥, 사랑하는……이라니 너무 멀쩡한 것 같아서 그녁 자는 뭉그려버린다. "소진씨……" {민두룸해서} 싱거웠다.<채만식, 젊은날의 한 구절> ¶뒷밭이 쪼꼼 높기는 허지만 산자락이 {민두룸허게} 생겨서 농사 짓는디 크게 애상 바치는 일은 없지.
지역 전북.

민두름하다 형 [대응어] 밋밋하다.
하는 일 없는 상태로 지내다. 또는 특징이나 개성이 없다. 또는 태도나 기색이 예사롭고 천연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른 척하고 그대로 {민두름히} 있는대서야 너무도 농통스럽고 범연한 짓이었다.<채만식, 邂逅>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민두름하다'는 의태어 부사 '맨들, 민들'에 형용사파생접미사 '-음하-'가 연결된 후에 음이 변화한 것으로 이해된다.

민둥머리 명 [대응어] 대머리.
머리털이 많이 빠져서 벗어진 머리. 또는 그런 사람 ¶혹시 중이라는 것이 드러날까 봐서 일을 나설 때는 언제나 {민둥머리가} 다 가려지도록 수건을 둘렀다.<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해설 풀이나 털이 없어 매끈한 상태를 뜻하는 어근 '민둥-'에 '머리'가 붙어 만들어진 단어이다.

민둥이 명 [대응어] 대머리.
머리털이 많이 빠져서 벗어진 머리. 또는 그런 사람 ¶수족 같은 예펜네 몇이서 작당을 해 갖꼬는, 불문곡직 달라들어 질질질 끄집어다 비오리 꾀를 활씬 벳겨서, 터럭이라고는 다 쥐어뜯고 뺍아내 {민둥이를} 맹길었다대.<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해설 풀이나 털이 없어 매끈한 상태를 뜻하는 어근 '민둥-'에 접사 '-이'가 붙어 파생된 단어이다.

민들리 명 [대응어] 민들레. ¶{민들리를} 캐어다가 나물을 무쳐 먹는다.

지역 전북.

해설 '민들리'는 '민들레'의 '레'가 고모음화한 결과이다. '민들레'는 '면들레'나 '맨들래'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ㅕ'가 'ㅔ'로, 'ㅔ'가 'ㅣ'로 바뀌는 것은 '결혼~겔혼', '제발~지발'처럼 흔한 일이다.

민문지 명 [대응어] 부침개.

기름에 부쳐서 만드는 빈대떡.

지역 전북.

민물게기 명 [대응어] 민물고기.

민물에서 사는 물고기. ¶{민물게기는} 비려서 못 먹겠다.

지역 사용 지역 확인.

해설 '민물게기'는 '민물고기'의 움라우트형인 '민물괴기'에서 다시 'ㅚ>ㅔ'의 비원순모음화를 겪은 결과이다.

민물괴기 명 [대응어] 민물고기.

민물에서 사는 물고기. ¶민물괴기를 잡아 매운탕 끓여 먹자.

지역 김제, 남원, 무주,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고창, 부안, 순창.

해설 '민물괴기'는 '민물고기'의 '고'가 '기'의 전설모음 'ㅣ'에 동화되어 전설모음 '괴'로 변한 결과이다. '괴기'의 '괴'는 원순성을 잃고 '게'로 실현되기도 한다.

민물짱어 (←민물長魚) 명 [대응어] 뱀장어. ¶{민물짱어는} 고창이 알아 주지. ¶고창에나 가야 복분자에 {민물짱어} 맛을 지대로 즐기지.

지역 전북.

민장 명 [대응어] 면장.

☞멘장. ¶닭 모가지 먹다가 {민장} 모가지 날아갔다는 전설같은 소문이 많었었지.

지역 전북.

민핀허다 형 [대응어] 반반하다.

구김살이나 울퉁불퉁한 데가 없이 고르고 반듯하다. 또는 생김새가 얌전하고 예쁘장하다. 또는 물건 따위가 말끔하여 보기도 괜찮고 쓸 만하다. ¶땅을 {민핀허게} 골라야 농사가 잘 되지. ¶얼굴이 {민핀허니} 뽀얘갖고 예쁘장 혀. ¶내가 부모이긴 허도 {민핀헌} 옷 한 벌 못 사 입히고.

지역 전북.

밀가리 명 [대응어] 밀가루.

밀을 빻아 만든 가루. ¶밀가리로 수제비 끓여 먹자. ¶{밀가리} 장시 조까 허믄 태풍 와 불고, 소금장시 조까 헐라고 헝게 장마에 비까장 온다고 안 허요~. ¶{밀가리를} 반죽하여 빵을 쪄 먹었다. ¶오늘 낮에 식구들이 국수를 해먹고는 {밀가리} 반죽이 조께 남었는디, <최명희,혼불,1996,4,214> 마침 남은 <최명희, 혼불> ¶적떡히야 명당 쓴다네. 근게 뭔 메물가리든지 {밀가리} 좀 있으믄 적떡 좀 히가지고 지관한티 갈라네.<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남원, 고창, 군산, 정읍, 무주, 완주, 임실.

해설 '밀가리'는 '밀가루'의 음운론적 이형태이다. '가루'는 5세기에 'ᄀᆞᄅᆞ'로 나타나는데, 6세기 말에 발생한 비어두 음절에서의 'ㆍ>ㅡ'의 변화로 'ᄀᆞ르'의 변화를 겪었다가 이후 '르>리'의 변화를 겪은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ㅡ>ㅣ'의 전설모음화는 9세기에 치찰음 뒤에서 일어났으나 전라, 경상, 강원 등의 방언에서 보이는 '모르다~모리다'처럼 'ㄹ' 뒤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종종 보인다.

밀건허다 형 [대응어] 멀겋다.

☞멀건하다. ¶이런 {밀건헌}, 풀떼죽을 시애비 밥이라고 내놓았냐.

지역 완주.

밀금하다 형 [대응어] 멀겋다.

깨끗하게 맑지 아니하고 약간 흐린 듯하다. ¶요런 웬수녀러 새끼덜아, {밀금한} 죽 한 그럭썩 처묵은 것이 얹힐 성 불러 그리 뛰고 발광이냐.<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밀금하다'는 형용사 '묽-'에 형용사파생접미사 '-음하다'가 연결되어 '물금하다>밀금하다'의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밀긴허다 형 [대응어] 멀겋다.

☞멀건하다. ¶도이서까장 인자 알어서 아 도이서까장 인자 효부상을 둘을 떡허니 타다 놓고 아 생각을 헝게, 죽든 안 허고 얼굴만 {밀긴히} 갖고 걍 심만 시여갖고 너는 저만큼 가라고 막 허니 큰일났거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정읍.

밀껍닥 명 [대응어] 밀기울.

밀을 빻아 체로 쳐서 남은 찌꺼기. ¶먹을거시라곤 {밀껍딱으로} 끓인 죽밖에 없었다. ¶밀을 빻아 만든 {밀껍닥은} 거름으로 사용해도좋다.

지역 임실.

밀대질 명 [대응어] 고자질.

남의 잘못이나 비밀을 일러바치는 짓. ¶누가 {밀대질을} 히서 잡혀 갔다고.

지역 전북.

밀대질하다 동 [대응어] 고자질하다.

남의 잘못이나 비밀을 일러바치다. ¶{밀대질한} 것은 탈영을 하고 집이가 식구 다 죽게 생겼은게.

지역 전북.

밀따구 명 [대응어] 멸치.

☞멜따구. ¶멸치.

지역 순창.

밀어부치다 동 [대응어] 밀치다.

힘껏 밀다. ¶문을 밀어붙이다. ¶사람들이 서로 싼 물건을 사려고 {밀어붙이는구나}. ¶일을 한번 시작허면 곁이서 {밀어부치는} 사람이 있어야 미래가 있는거여. ¶문이 빡빡하니 힘을 주어 {밀어부쳐} 보아라.

지역 무주.

해설 '밀어부치다'는 '한쪽으로 세게 밀다'의 의미이나 전북 방언에서는 '밀치다'와 구별되지 않고 사용된다.

밀주을 명 [대응어] 밀기울.

☞밀지울.

지역 남원.

밀지울 명 [대응어] 밀기울.

밀을 빻아 체로 쳐서 남은 찌꺼기. ¶"허허어. 니가 머엇을 잘못 들었능게비다." "잘못 딛기는, 머 나는 헐 짓 없어서 {밀지울} 처먹고 헛심 팽기게 헛소리허고 자빠졌간디요?"<최명희, 혼불> ¶옹구네는 평순네에게 다그친다. "무신 짓은 무신 지잇? 넘으 상관 말으시고 어서 들으가서 {밀지울이나} 싯쳐 갖꼬 한 숟구락 잡술 일이제. 아까 막새는 바쁜 소리 혼자 다 허등마는, 왜 가는 사람을 붙들고 찐드기맹이로 놓들 안히여?" "하이고오, 오밤중에 어디 가서 가물치를 잡어 올 거이여어? 누가 그 속을 몰르께미, 넘 {밀지울} 먹는 것을 약올리고 자빠졌당가?"<최명희, 혼불> ¶아이가, 얼릉 풀어 가랑게. 나도 후딱 집이 들으가서 {밀지울이라도} 싯쳐 갖꼬 한 숟구락 먹어야제잉.<최명희, 혼불> ¶"난리는 먼 놈의 난리가 난다요? 사램이 날이 날마동 {밀지울만} 먹고 똥구녁이 찢어지는디다가 날까지 가물어놓

게 오장육부가 다 말러 비틀어지는 판국에, 임자 없는 괴기 조께 건져다 먹는다는디 누가 무신 소리를 헐 거이여?" 춘복이가 퉁명스럽게 대꾸한다.<최명희, 혼불> ¶아홉 말씩 쳐서 냉게 놀 때도, 그거이 어디 사람 먹는 거이었간디. {밀지울} 섞어 먹고, 깻묵 섞어 먹고, 똥이 안 빠져서 똥구녁 찢어진 놈이 어디 한둘이었가니?<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해설 '기울'은 밀이나 귀리를 까부르고 남은 속 껍질로서 5세기에서 현재까지 형태 변화 없이 쓰이고 있으나 근대 국어 시기에는 '기올'로도 쓰였다. '밀기울'도 근대 국어 시기에는 '밀기올'로 쓰이기도 하였다.

밀창 명 [대응어] 미닫이창

옆으로 밀어서 열고 닫게 되어 있는 창. ¶영호는 {밀창을} 열었다.<채만식, 염마>

지역 남원.

해설 '밀창'은 '밀-'과 '창(窓)'이 결합한 단어이다.

밀챙 명 [대응어] 미닫이.

☞밀창.

지역 임실.

밀치 명 [대응어] 멸치.

☞멜치.

지역 순창.

밈소 명 [대응어] 염소.

☞멤소.

지역 전북.

밋감 명 [대응어] 미끼.

☞밋갑. ¶괴기를 잡을러면 {밋감이} 있어야 허. 그래야 괴기들이 모여들거든. 알았냐?

지역 전북.

밋갑 명 [대응어] 미끼.

낚시 끝에 꿰는 물고기의 먹이. 주로 지렁이, 새우, 밥알 따위를 사용한다. ¶밋갑을 던져야 괴기가 모여들제.

지역 전북.

해설 '밋갑'은 '밑밥'의 음운론적 이형태로 볼 수 있다. '밋'은 '밑'과 마찬가지로 /믿/으로 실현되는 것을 표기한 것이고, '갑'은 '밑밥'에 양순성을 가진 'ㅁ, ㅂ' 등에 영향을 받아 '밥'의 초성 'ㅂ'이 양순성 대신 양순성과 거리가 가장 먼 연구개음 'ㄱ'으로 이화된 것이다.

밋꿈하다 형 [대응어] 미끈하다.

☞미끔하다. ¶미끔하게/위야 호호/뒤 돌아보고/위야 호호/앞 돌아보고/위야 호호/{밋꿈하게}/위야 호호/잘듵 매게/위야 호호/(무주 논매는 소리-무주군 무주읍 오산리)<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무주.

밋둑 명 [대응어] 무덤.

흙으로 둥글게 봉우리를 만들어 표시하여 송장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놓은 곳 ¶별다른 이유없이 {밋둑을} 파면 큰 벌 받는디야.

지역 전북.

밋자리 명 [대응어] 묏자리.

묘를 쓸 자리. 또는 쓴 자리. ¶{밋자리를} 잘 써야 한다.

지역 장수.

밍간허다 형 [대응어] 미지근하다.

☞밍건허다.

지역 전북.

밍감 명 [대응어] 청미래덩굴. ¶{밍감이나} 찔레는 가시가 많다.
지역 순창.

밍건허다 형 [대응어] 미지근하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다. 보통 느낌상 그다지 좋지 않은 온도를 말할 때 쓴다. ¶머리 감을라는디 물이 {밍건허}.
지역 전북.

밍경 명 [대응어] 명경.
매우 맑은 거울.
지역 고창, 군산, 김제, 부안, 순창, 익산.

밍근하다 형 [대응어] 맹근하다.
완전히 식지 않아 약간 따뜻한 기운이 있다. ¶한 가지 취할 점이 있다면, 나는 누구처럼 기름 빼고 뺵다귀 빼고 난 {밍근한} 국물처럼 비단 같은 말만 늘어놓지 않고<최일남, 춘자의 사계> ¶그것은 방 가운데 놓인 질화로의 {밍근한} 잿불 기척만이나 하다 할까.<최명희, 혼불> ¶나는 자꾸만 입안으로 흘러드는 코피를 힘겹게 삼켰다. 코피가 목젖을 타넘는 순간, {밍근하고} 비릿한 그 피맛이 그동안 참고 참았던 내 설움과 분노를 복받쳐올렸다.<윤흥길, 소라단 가는 길>
지역 전북.

밍지털 명 [대응어] 솜털.
솜에서 일어나는 잔털. ¶{밍지털처럼} 가볍다 ¶아직 {밍지털도} 안 빠진 것이 까불고 있네.
지역 전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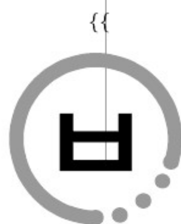
밍짝 명 [대응어] 매짝.
맷돌의 짝.
지역 전북.

밍태 명 [대응어] 명태. ¶밥쪼구 인써, 밥쪼구 마신써. 모룬 {밍태가치} 생긴는디, 강가네 이러케 쪽 쪽 찌저서 머그먼 마신써.(밥조기 있어, 밥조기 맛있어. 마른 명태 같이 생겼는데, 간간해 이렇게 쭉 쭉 찢어서 먹으면 맛있어.)<2005 전북 남원> ¶가(그애)가 생긴 것은 마른 {밍태같이} 빼싹 말러갖고 풍신나게 생겼지만 공부는 반으서 최고래야.
지역 남원.

밑가다 명 [대응어] 손해보다.
손해가 생기다. ¶근디, {밑가} 버려 갖고 쫄딱허믄 어쩐다요?
지역 전북.

밑구녕 명 [대응어] 밑구멍.
물건의 아랫부분이나 아래쪽에 뚫린 구멍. 또는 항문이나 여자의 음부를 속되게 이르는 말 ¶들어가든 못하구, 이렇게 위루가서는 딱 깔구앉구, 한 마리는 밑이 가서 {밑구녕을} 들구파구, 그 사람이 그 속에서 가만히 생각허닝게. 인자 죽지 살들(살지는) 못허겄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거기서 싹허니 그냥 그 밑으로 넘어져 떨어져 버렸어. 아 떨어닝게, {밑구녕에서} 파던 놈은 그걸 보닝게 그 에비가 분명허거든. 그래 이제 파다말구 한 마리가 내뺐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허 참, 소가 다 웃을 일이시웨." "금메 말이요, 있는 즈그놈덜이나 설얼 두 분도 쇠고 세 분도 쇨 쌀이 있겄제, {밑구녕} 째지게 가난헌 우리들이야 워디 설얼 두 분썩 쇠라고 혀도 쇨 수가 있어야 말이제."<조정래, 태백산맥> ¶자식이란 제 {밑구녕으로} 낳은 것이 자식이지 그까짓 남의 자시기이 무슨 소용있나?
지역 완주.

{{



-ㅂ니겨 【종결어미】 [대응어] -ㅂ니까.

하십시오할 자리에 쓰여, 어떤 사실을 정중하게 묻는 종결 어미. ¶생원님이 이런 먼데 산을 어떻게 이렇게 걸어오십니까? {안령하십니겨}?<구비문학, 전주시> ¶아, 생원님 그것이 {뭣입니겨}?<구비문학, 전주시> ¶그걸 어디다가 쓰는 {것입니겨}?<구비문학, 전주시> ¶새원님, 참말로 {그렇습니겨}?<구비문학, 전주시> ¶선생님 {기십니겨}?<이태영(1996)>

지역 고창.

-ㅂ니어 【종결어미】 [대응어] -ㅂ니까.

하십시오할 자리에 쓰여, 어떤 사실을 정중하게 묻는 종결 어미. ¶{가십니어}?<이태영(1996)>

지역 김제.

-ㅂ다 【종결어미】

해할 자리에 쓰여, 추측한 바를 확신하고 묻는 종결 어미. ¶낮으사 {죽을랍댜}?<이태영(20)>

지역 부안.

-ㅂ뎌 【종결어미】 [대응어] -ㅂ디까.

해할 자리에 쓰여, 추측한 바를 확신하고 묻는 종결 어미. ¶뭐 죄로 갈랍뎌?<이태영(20)> ¶아까 그거 고부 차 아닙뎌?

지역 부안.

-ㅂ등거 【종결어미】 [대응어] -ㅂ디까.

하오할 자리에 쓰여, 상대편이 보거나 듣거나 겪은 사실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장의 무시 {쌉등거}?<이태영(1996)>

지역 전북.

-ㅂ디껴 【종결어미】 [대응어] -ㅂ디까.

하오할 자리에 쓰여, 상대편이 보거나 듣거나 겪은 사실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아이 별과 {본답디껴}?<이태영(1996)> ¶아 내일 별과 {뵌답디겨}?<이태영(1996)>

지역 고창.

-ㅂ디여 【종결어미】 [대응어] -ㅂ디까.

하오할 자리에 쓰여, 상대편이 보거나 듣거나 겪은 사실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장으 무시 {쌉디여}?(시장의 무가 쌉니까?)<이태영(1996)>

지역 전북.

-ㅂ딩겨 【종결어미】 [대응어] -ㅂ디까.

하오할 자리에 쓰여, 상대편이 보거나 듣거나 겪은 사실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장으 무시 {쌉딩겨}?<이태영(1996)> ¶설마 나를 때리기사 {헐랍딩겨}?<이태영(1996)> ¶시방 세상에 그만한 욕심두 없는, 어느 도둑년이 {있을랍딩겨}?<채만식, 金의 情熱> ¶거그럴 하필 내

가 안 {걸렸습딩겨}?
지역 부안.

-ㅂ쇼 【종결어미】 [대응어] -ㅂ시오.
합쇼할 자리에 쓰여, 명령이나 질문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덜 익은 처녀의 풋비린내는 말씀입지요, 봉창(封窓)을 철벽같이 해 놔도 그게 묘한 거예요, 저절로 공중에 퍼지는 {걸입쇼}.<최명희, 혼불> ¶{어서옵쇼}.<채만식, 명일> ¶"네 {어느겁쇼}?" 하고 점원은 진열창의 유리문을 열면서 내어다본다.<채만식, 명일> ¶그런 무책임한 말씀 {마십쇼}, 선교사님 주무르는 것도 요령있게 주물러야지 아무렇게나 무대포로 폭력을 썼다간 나중에 우리 공동체 입장이 난처해질 염려가 있습니다.<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고창.

바가치 명 [대응어] 바가지.
박을 두 쪽으로 쪼개거나 또는 나무나 플라스틱으로 그와 비슷하게 만들어 물을 푸거나 물건을 담는 데 쓰는 그릇. ¶나도 양반으로 났이면, {바가치} 하나 달랑 들고 나서도 고루거각을 지을 재주 있을 거인디." "양반도 나름이여." "양반 양반 허지 마시겨, 대대손손 영화 누린 양반이면 멋 헌다냐.<최명희, 혼불> ¶'아서라 금방 물 괴았은게 울 어머니 드리먼은 어쩔라디야.'허고 '돌아가시진 안 헐티지.' 그양 박적 그놈을 들고 가서는, "어머니 물 잡수쇼." 드렸단 말여. "아이 시원허고 좋다." 그놈을 먹고는 {바가치를} 내버리고, 또 업고는 한참 가는 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가마솥 뚜껑을 열고 물한 {바가치만} 부어라. ¶부엌으서 물 한 {바가치} 퍼 준 것을 가지고 큰 인심이나 쓴 양 생색을 냈다.
지역 고창, 남원, 순창, 임실, 장수, 군산, 김제, 무주, 완주, 익산, 진안.

바게미 명 [대응어] 바구미. ¶{바게미이구만}.<완주 지역어 텍스트> ¶여름철에는 쌀독에 {바게미가} 많이 생기는디 날이 끕끕헌게 그려.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부안, 순창, 임실, 장수, 정읍, 무주, 익산.

바구니 명 [대응어] 바구미. ¶쌀통에서 {바구니}가 막 기어나오드라.
지역 전북.

바구리 명 [대응어] 바구니.
대나 싸리 따위를 쪼개어 둥글게 결어 속이 깊숙하게 만든 그릇. 테두리에 대나무를 서너 겹 둘러 손잡이가 달린 형태로도 쓸 수 있다. ¶결국은 산 중턱이까장 오다 떡은 싹 빠져 버리고서 빈 {바구리만} 데걸데걸 궁그러 내려왔드라 이거여.<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바구리에다} 너서 노:머넌 인자 까막까치드리 와서 먹꼬. 이런 풍스비 인써.<2008 전북 고창>
지역 고창, 군산,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바귀미 명 [대응어] 바구미. ¶쌀통에서 {바귀미가} 막 기어나오드라. ¶쌀에 {바귀미가} 많이도 생겼구나.
지역 군산, 완주.

바기미 명 [대응어] 바구미.
☞바게미.
지역 무주, 익산.

바김 명 [대응어] 바구미. ¶집에 {바김이} 자꼬 나오드라구요.
지역 진안.

바까마리 명 [대응어] 소꿉질.

아이들이 장난감 그릇 따위를 가지고 살림살이 흉내를 내며 노는 짓. ¶아이들이 {바까마리를} 하고 논다.
지역 군산.

바깟 명 [대응어] 바깥.
밖이 되는 곳. ¶{바까시라고} 그러지 바깥.<2008 전북 고창> ¶{바까시} 어둡따.<2009 전북 임실>
지역 고창, 임실.

바깥변소 명 [대응어] 바깥 변소.
집 울타리 밖에 있는 변소. 집 밖에 대소변을 보도록 만들어 놓은 곳. ¶뒤가 마려서 {바깥변소를} 물어가지고 뒤를 본개.
지역 무주.

바깥칙간 명 [대응어] 바깥 변소.
집 울타리 밖에 있는 변소. 집 밖에 대소변을 보도록 만들어 놓은 곳. ¶아들놈이 {바깥칙간에} 갔는간만. ¶{바깥칙간에} 가서 대변 좀 보고 오너라.
지역 군산.

바꼬다 동 [대응어] 바꾸다.
원래 있던 것을 없애고 다른 것으로 채워 넣거나 대신하게 하다. ¶은행에서 헌 돈을 새 돈으로 바꼈다. ¶어릴 때는 빈병과 빵꾸난 양은냄비로 엿을 {바꼬어} 먹곤 했어.
지역 전북.
해설 '바꾸다'는 5세기의 '밧고다'로 소급한다. '밧고다'는 '밧ᄭ다>밧쑤다>바꾸다'의 변화 과정을 거쳤는데, 전북 방언의 '바꼬다'는 'ㅗ>ㅜ' 고모음화가 적용되지 않은 옛 어형이라 할 수 있다.

바꼬매기 명 [대응어] 소꿉질.
아이들이 장난감 그릇 따위를 가지고 살림살이 흉내를 내며 노는 짓. ¶아이들이 {바꼬매기를} 하고 논다.
지역 완주, 진안.

바꼼새기 명 [대응어] 소꿉질.
☞바꼼새기.
지역 전북.

바꽈치기하다 동 [대응어] 바꿔치기하다.
원래의 물건이나 사람 따위를 다른 물건이나 사람 따위로 몰래 바꾸다. ¶"머, 총독부? 공산주의허는 놈덜이 책껍데기 다른 책으로 {바꽈치기혀서} 눈속임허능 것 몰르는지 알어?"<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바꾸[1] 명 [대응어] 바구니.
대나 싸리 따위를 쪼개어 둥글게 결어 속이 깊숙하게 만든 그릇. 테두리에 대나무를 서너 겹 둘러 손잡이가 달린 형태로도 쓸 수 있다. ¶{바꾸가} 넘칠 정도로 떡을 싸줘.
지역 전북.

바꾸[2] 명 [대응어] 바퀴.
돌리거나 굴리려고 테 모양으로 둥글게 만든 물건. 또는 어떤 둘레를 빙 돌아서 제자리까지 돌아오는 횟수를 세는 단위. ¶차가 돌질을 가다 본게 차 {바꾸에} 빵꾸가 나 번졌어. ¶아 서너 {바꾸} 떡 돌은개 아, 이 기맥힌 것을 보고 노는 것을<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고창, 남원, 순창, 완주, 임실, 정읍, 진안, 군산, 부안.

바꾸매기 명 [대응어] 소꿉질.
☞바꼬매기.
지역 진안.

바꿈사리 명 [대응어] 소꿉질.
아이들이 장난감 그릇 따위를 가지고 살림살이 흉내를 내며 노는 짓. ¶에렜을 때 {바꿈사리} 한 해 본 놈 있가디?
지역 군산, 고창, 익산, 김제, 부안.

바꿈새기 명 [대응어] 소꿉질.
아이들이 장난감 그릇 따위를 가지고 살림살이 흉내를 내며 노는 짓. ¶소꿉놀이 {바꿈새기}, 빠꿈새기라고 핸써<2008 전북 고창>
지역 순창.

바꿈애기 명 [대응어] 소꿉질.
☞바꼬매기. ¶그 정승네 아가 빌어먹게 생겼더란 말이여. 그래 하는 짓마다, 그 아들 안 노요?(안 놉니까?) 바꿈애기} 살고. 모다(모두) 짓마다 빌어먹을 짓을 한다 이거여. 아 그래서 아,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키운디,<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남원.

바꿔치기하다 동 [대응어] 바꾸다.
원래 있던 것을 없애고 다른 것으로 채워 넣거나 대신하게 하다. ¶번지수만 살짝 {바꿔치기했을} 뿐 이야기 자체는 어김없는 사실이었다.<윤홍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바꿔치기하다'는 '바꿔치기를 하다.'가 하나의 어휘로 굳어진 것이다. 현재에도 '바꿔치기하다, 바꿔치기를 하다.' 등을 다 쓰고 있다.

바꿔 명 [대응어] 바퀴.
☞바꾸.
지역 군산.

바끄다 동 [대응어] 바꾸다.
☞바끄다.
지역 무주, 장수.

바끔 명 [대응어] 소꿉질.
아이들이 장난감 그릇 따위를 가지고 살림살이 흉내를 내며 노는 짓. ¶아이들이 {바끔} 하고 논다.
지역 무주.

바끔사리 명 [대응어] 소꿉질.
☞바꿈사리.
지역 군산, 김제, 부안.

바너질 명 [대응어] 바느질.
바늘에 실을 꿰어 옷 따위를 짓거나 꿰매는 일. ¶{바너질을} 하다 ¶우리 엄마는 {바너질을} 잘 하신다.
지역 고창, 남원.

바너질아치 명 [대응어] 바느질.
바늘에 실을 꿰어 옷 따위를 짓거나 꿰매는 일. ¶{바너질아치}, 바느질아치라고<2008 전북 고창>
지역 고창.

바널 명 [대응어] 바늘.
가늘고 뾰족한 물건 또는 어떤 것을 꿰매는 데 쓰는 물건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실과 {바널}
지역 고창, 군산, 임실.

바누지광지 명 [대응어] 반짇고리.
☞바느질꽝우리.
지역 전북.

바누질 명 [대응어] 바느질.

☞바너질.
지역 전북.

바눌 명 [대응어] 바늘.
☞바널.
지역 무주.

바느장거리 명 [대응어] 반회장저고리.
깃, 고름, 끝동에 다른 색의 천을 대어 지은 여자의 저고리. ¶{바느장거리} 있잖여. 여기 소매가 빨건 놈, 꽃자지색, 노런 놈. 이렇게.
지역 전북.

바느직그릇 명 [대응어] 반짇고리.
☞반짇그륵.
지역 군산.

바느질그럭 명 [대응어] 반짇고리.
☞반짇그륵.
지역 전북.

바느질꽝우리 명 [대응어] 반짇고리.
바늘, 실, 골무, 헝겊 따위의 바느질 도구를 담는 그릇. ¶{바느질꽝우리를} 열면 바느질할 때 쓸 것들이 다 있어. 모다 거그다가 너논게.
지역 전북.

바느질아치 명 [대응어] 바느질.
☞바너질아치. ¶바너질아치, {바느질아치라고}<2008 전북 고창>
지역 고창.

바늘 명 [대응어] 바늘.
☞바널.
지역 고창, 남원, 완주, 무주, 군산, 임실.

바늘구녕 명 [대응어] 바늘구멍.
바늘로 뚫은 작은 구멍. 또는 아주 작은 구멍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두고두고 나뭇짐이 실해야 요 박복헌 년 운이 {바늘구녕맨치라도} 틔든지 뚫리든지 헐 것인디, 사람 맘 워찌크름 알 것이요." "옛끼 순 못된 사람!" 하대치가 느닷없이 소리치며 밥상을 내리쳤다. 그때 막 문지방을 넘어서고 있던 지필구의 입에서 '하' 소리가 <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바늘쌈지 명 [대응어] 반짇고리.
바늘, 실, 골무, 헝겊 따위의 바느질 도구를 담는 그릇.
지역 고창.

바늘쌍재 명 [대응어] 반짇고리.
☞바늘쌈지.
지역 고창.

바닷괴기 명 [대응어] 바닷고기.
바다에 사는 물고기. ¶강에서 나면 강괴기, 민물괴기라고 하고, 바다에서 나면 {바닷괴기지}. ¶버스가 안 다니던 두메 산골에서는 {바닷괴기를} 맛보려면 제삿날까지 기다려야 했지.
지역 완주, 임실, 진안, 순창.

바닷물괴기 명 [대응어] 바닷고기.
바다에 사는 물고기.
지역 김제, 무주.

바대고기 명 [대응어] 바닷고기.
☞바닷괴기.
지역 순창.

바돌 명 [대응어] 바둑.
두 사람이 흰 돌과 검은 돌을 바둑판 위에 번갈아 놓아 만든 집의 크기로 승부를 겨루는 놀이

또는 경기. ¶그 논 임자허고 김 대감허고는 친절한 사이였던 모양이제. 그래서 말하자며는 김 대감한테 가 가지고서, 이자 {바돌을} 뒤고, 이자 심심하다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해 봤다 그 말이라.<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부안 변산가(에) 청학동이 있다고 안혀? 홍수가 지먼은 치마가 떠내려오고 어쩌고 헌다고 안 혀? 신선 사는 디가 금방 {바돌} 한 판 두고 내리오머는 그 뭐냐 돌치자루가 썩었다고 안 혀?<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시방 논으가 헐 일이 태산인디 니가 무신 한량이라고 {바돌이나} 두고 자빠졌냐. ¶좀 즘잔헌 사람은 {바돌을} 두고 글안헌 사람은 장기를 두는 거라고?

지역 군산, 남원.

바둘 명 [대응어] 바둑.

☞바돌.

지역 전북.

바둠기다 동 [대응어] 안기다, 품기다.

☞보둠기다.

지역 익산.

바듬다 동 [발음] [바듬따] [대응어] 안다, 보듬다, 품다.

☞보둠다. ¶거그를 갔어. 대체 어떻게 된 여잔지…, 다만 간단히 만났는디, 가서 본게 그 여자가 나왔어. 나와서는 어린애를 하나 {바듬고} 와.<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정읍.

바라구 명 [대응어] 바랭이. ¶어지 뜯는 {바라구}/어지 뜯고 그지 뜯었시믄/하마나 다 뜯은 결/아이구 차차 잊었구야(임실 밭매는 소리-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천담)<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임실.

바라지짝 명

부엌문을 낮잡아 이르는 말. ¶글 안흐먼 나락 가매니 그냥 노먼 못 써. {바라지짝} 그런 거 놓고 나무 각귀목 나무 비어다 이렇게 놓고 놓았거든? 근디 탁탁 짜진 놈 갖다 놓고 헌게 시상 좋아. ¶막가지를 이롷게 다 놓았어 이롷게. 다 비어다 이롷게 지드란히 이롷게 놓고. 나락 가마니 영거놔야 공기가 들어가서 좋아. {바라지짝} 놓고 놓으면 좋거든.

지역 고창.

바락 명 [대응어] 벼락.

☞베락.

지역 전북.

바람뚝 명 [대응어] 바람벽.

방이나 칸살의 옆을 둘러막은 둘레의 벽. ¶아적은 성급한 초가실 색바람 {바람뚝에} 가만히 안자 잇씁게.

지역 전북.

바래 (←罷漏) 명 [대응어] 파루.

조선 시대에, 서울에서 통행금지를 해제하기 위하여 종각의 종을 서른세 번 치던 일. 오경 삼점(五更三點)에 쳤다. ¶남문 열고 바래 치니 계명산 산천이 바알 밝아를 온다/에헤 에헐싸 좋다 궁다쿵에 기화자 좋을씨고(임실 논매는 소리-방아타령)<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임실.

바래지 명

(마당에서) 부엌으로 들어가는 문이나 부엌에서 뒤꼍으로 나가는 문. ¶가만히 나가서는 정지 {바래지를} 열고는 들어가서, 들어간게 정지문이 대처 가만히 열려.

지역 전북.

바램 명 [대응어] 바람.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 ¶이리 뭉게 저리 뭉겐 기원 {바램} 속에 허벅지게 우스며 쌔릴 것만 가튼 비. ¶또 긍게 고놈 지발 자빠지기 {바램은} 또 싹없는 맘으로 요동쳐 감서. ¶아, 이태조의 간절한 {바램에} 두 노인이 승락하고서 이태조를 제자로 삼고서 가르치기 시작했던겨. 그러서 인저 두 노인이 성계골에 머물러 가면서 이성계를 가르쳤던거지 잉.<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군산, 부안, 정읍.

바랭 명 [대응어] 바랑.

물건을 넣어서 등에 질 수 있도록 헝겊이나 가죽 따위로 만든 가방. ¶문간에서 인자 중이 {바랭이다가} 받어놓고 그 동자 상을 봐.<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진안, 정읍.

바러다보다 동 [대응어] 바라다보다.

얼굴을 바로 향하고 쳐다보다. ¶어린 놈의 새끼가 아주 싸가지도 없이 고개럴 꼿꼿이 들고 나럴 {바러다보는} 거여.

지역 익산.

바로다 동 [대응어] 바루다.

비뚤어지거나 구부러지지 않도록 바르게 하다. ¶옷깃을 {바로고} 조용히 밖으로 나가.

지역 남원.

바루 부 [대응어] 곧바로.

바로 그 즉시에. 멀지 아니한 바로 가까이에. ¶그 우리 막내따른, 야튼 가들 나쿠는 내가 {바루} 나와서 밥또 허먹꼬 내가 다 허써, 기양.<2007 전북 군산> ¶그 처녀가, 처녀가 와서 그날 저녁에 꿈 꿔닝게, {바루} 고 근방이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무주.

해설 '바루'는 '바로'의 제2 음절 모음이 'ㅗ>ㅜ'로 고모음화한 결과이다. '곧바로'는 '곧+바로'의 합성어인데 전북 방언에서는 '바로'와 '곧바로'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바른손잽이 명 [대응어] 오른손잡이.

한 손으로 일을 할 때에, 주로 오른손을 사용하는 사람. 또는 왼손보다 오른손을 더 잘 쓰는 사람. ¶외약손 잡음서도 {바른손잽이인} 척허야 할 무니한티 안 혼났어.

지역 전북.

바리 의명 [대응어] 마리.

짐승이나 물고기, 벌레 등을 세는 단위. ¶그르케 그르케 인자 생활을 하다가 봉개, 논도 사지고, 고 게 탕개, 나락께 탕개. 그러치! – 논도 사지고, 소도 또 멘 {빠리} 사 들이고'<지역어 자료총서, 고창>

지역 고창, 김제, 무주, 완주, 익산, 진안.

해설 '바리'는 짐승을 세는 단위인 '마리'의 전북 방언형이다. '몇 바리→멷바리→멷빠리→멘빠리'와 같이 중화와 경음화가 순서적으로 일어났고, 'ㅕ→ㅔ'로의 단모음화가 일어났다. '짐 한 바리'처럼 실은 짐의 단위로도 사용되기도 한다.

바리다 동 [대응어] 바르다.

풀칠한 종이나 헝겊 따위를 다른 물건의 표면에 고루 붙이다. ¶풀을 {바리고} 만져 가매 하는데, 잘못하믄 고만에 두 오리, 시 오리<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6>

지역 고창, 군산, 남원, 완주.

해설 '바리다'는 '바르다'의 어간말 모음이 'ㅡ>ㅣ' 전설모음화한 결과이다. 'ㅡ>ㅣ' 전설모음화는 9세기 후기 치찰음 'ㅅ, ㅈ, ㅊ' 뒤에서 발생

하였으나 전북 방언에서는 '바르다~바리다', '모르다~모리다'와 같이 'ㄹ' 뒤에서도 그러한 변화가 관찰된다.

바리솟 명
가마솥보다 작은 솥. 크기는 작은 것, 큰 것이 있고 크기에 따라 용도가 달라진다. 전이 있어 부뚜막에 걸게 되어 있다.
지역 전북.

바뿌다 형 [대응어] 바쁘다.
일이 많거나 또는 서둘러서 해야 할 일로 인하여 딴 겨를이 없다. 또는 행동이 몹시 급하다. ¶{바뿌야} 사래미 머 생전 너꼬 사라야, {바뿌야지} 볼꺼시 인찌(바빠야 사람이 뭐 생전 넓고 살아야, 바빠야지 볼 것이 있지)<지역어 자료 총서, 무주> ¶시간이 많이 흘러 옷입어야지, 밥 먹어야지, 책 챙겨야지, {바뿌다} {바뻐}. ¶일이 많어서 모두 {바뿌게} 히야 오늘 해 안으로 끝마치겄다. ¶부엌에 물 질어다 놓기 {바뿌게} 또 소 깔을 비어 오라히도 벨 말이 없이 나섰다.
지역 군산,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바소쿠리 명 [대응어] 발채.
짐을 싣기 위하여 지게에 얹는 소쿠리 모양의 물건. 싸리나 대오리로 둥글넓적하게 조개 모양으로 결어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끈으로 두 개의 고리를 달아서 얹을 때 지겟가지에 끼운다.
지역 무주.

바시다 형 [대응어] 부시다.
빛이나 색채가 강렬하여 마주 보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다. ¶아침에 일어낭게 햇빛이 집안으로 쭉 들와서 눈이 어찌나 {바시던지}, 그려도 햇살 좋은 집에 사니께 좋고만.
지역 남원, 순창, 임실, 장수.

바실바실허다 형
물기가 없어 팍팍하다. ¶물이 잘캌헌 놈이라야 맛있제 {바실바실허면} 팍팍히서 못 써.
지역 전북.

바아개비 명 [대응어] 방아깨비.
☞바아깨비.
지역 전북.

바아깨비 명 [대응어] 방아깨비.
지역 전북.

바애 명 [대응어] 방아.
☞방애.
지역 전북.

바오 명 [대응어] 바위.
☞바우. ¶이 점친 이 글귀가 그것 참 풍파 만나 가지고서 {바오가} 산이 무너져 가지고서 거그서 피난을 혔는디.<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무주, 완주, 익산, 군산.

바우 명 [대응어] 바위.
부피가 매우 큰 돌. ¶제치먼 이캐 {바우가} 와요, {바우} {바우}.<지역어 자료 총서, 무주> ¶장신포 앞에 가 보면 갯바닥에 {바우가} 이렇게 있어. 그 {바우로} 들어갔다는 말은 그런 전설이 있기는 있는디 그것이 확실치는 못혀.<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저 뒷동산이 높은데 {바우가} 요렇게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나무때기 하나가 꽂혔는데.<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당갈로 {바우} 치기지라우.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부안, 순창, 군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무주, 완주, 익산.

바우다 동 [대응어] 감당하다.
능히 견디어 내다. ¶근디 이 산신한티는 못 {바우겄어}. 그놈을 {바울라머는} 자기도 시아버니 이상으 공을 드리야 허고,<한국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옥구군편>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바우다'는 '소화해서 상대하다, 견디다, 감당하다'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전북에서는 대체로 '바워내다'의 복합어로 쓰고 있다.

바우손 명 [대응어] 이끼.
습기가 많은 곳에 있는 바위나 나무에서 서식하는 선태 식물. ¶그늘막져 그런가 바우에 {바우손이} 시퍼렇게 끼어 있네.
지역 순창, 부안, 김제, 정읍, 임실.

바우순 명 [대응어] 이끼.
☞바우손.
지역 부안.

바우옷 명 [대응어] 이끼.
습기가 많은 곳에 있는 바위나 나무에서 서식하는 선태 식물. ¶{바우옷이} 끼어 있어.
지역 무주, 순창, 군산, 장수.

바이 명 [대응어] 바위.
☞바우.
지역 전북.

바작 명 [대응어] 발채.
짐을 싣기 위하여 지게에 얹는 소쿠리 모양의 물건. 싸리나 대오리로 둥글넓적하게 조개 모양으로 결어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끝으로 두 개의 고리를 달아서 얹을 때 지겟가지에 끼운다.
지역 고창, 군산, 김제, 부안, 완주, 익산, 임실, 정읍, 진안.

바잭 명 [대응어] 발채.
☞바작.
지역 임실.

바지개 명 [대응어] 발채.
☞바작.
지역 무주, 장수, 순창.

바지기 명 [대응어] 발채.
☞바작.
지역 순창.

바지라이 명 [대응어] 바지랑대.
빨랫줄을 받치는 긴 막대기. 또는 장대. ¶{바지라이로} 빨랫줄을 받쳐 놓으면 빨래가 저 공중으로 날아가는 것 같어.
지역 전북.

바직 명 [대응어] 발채.
☞바작.
지역 전북.

바탕꾀 명
배워서 얻은 것이 아니라 천성적으로 타고난 꾀. ¶형님은 글을 잘 허고 동생은 무식헌디 동생이 무식헌 깐에는 {바탕꾀가} 있어.
지역 전북.

박고랑 명 [대응어] 밭고랑.
밭작물이 늘어서 있는 줄과 줄 사이의 고랑을 통틀어 이르는 말.
지역 완주.

박꼿 명 [대응어] 박꽃.
박의 꽃. ¶{박꼿이} 피었다. ¶해질녘에 피었다가

해가 뜨면 오므라드는 {박꽃은} 기다림의 꽃이요 그리움의 꽃이랍니다.
지역 전북.

박작 명 [대응어] 바가지.
☞박적.
지역 전북.

박적 명 [대응어] 바가지.
박을 두 쪽으로 쪼개거나 또는 나무나 플라스틱으로 그와 비슷하게 만들어 물을 푸거나 물건을 담는 데 쓰는 그릇. ¶'아서라 금방 물 괴았은게 울 어머니 드리먼은 어쩔라디야.'허고 '돌아가시진 안 헐티지.' 그양 {박적} 그놈을 들고 가서는, "어머니 물 잡수소." 드렸단 말여. "아이 시원허고 좋다." 그놈을 먹고는 바가치를 내버리고, 또 업고는 한참 가는 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쥐약 퍼먹었으먼 꾸정물이나 한 {박적} 퍼 맥여 버리씨요. ¶소망에 가서 소매 한 {박적} 퍼다가 확 찌끄러 버리기 전에 후딱 인나라이. ¶거지들이 {박적을} 가지고 이집 저집 돌아다니면서 찬밥을 얻어먹기도 했지요. ¶우물에 가서 한 {박적} 떠오너라.
지역 김제, 부안, 완주, 정읍.

박적시암 명 [대응어] 박우물.
바가지로 물을 뜰 수 있는 작은 우물. ¶{박적시암에선} 박적으로 물을 뜰 수 있을 맹키로 짚지 않어. ¶저 {박적시암은} 박적으로 떠야 하니 박적을 가져가야 할꺼야.
지역 김제, 부안, 군산, 정읍.

박죽 명 [대응어] 밥주걱.
☞밥죽.
지역 전북.

반갱일 (←半空日) 명 [대응어] 반공일.
오전만 일을 하고 오후에는 쉬는 날. ¶쬐깐헐때 어매가 나한테 오늘은 {반갱일잉게} 핵교 파하는 대로 얼릉 와서 애기 바야 헌다.
지역 전북.

반거지 명 [대응어] 반말.
손아랫사람이나 동년배나 친밀한 사람에 쓰는 높이지 아니하는 말. ¶그런 사람은 깍듯허게 안 혔어. {반거지로} 허고.
지역 전북.

반거챙이 명 [대응어] 반거충이.
배우던 것을 중간에 그만두어 다 이루지 못한 사람. ¶내가 어려서 서당을 다니다가 학교를 다니고, 서당에도 제대로 못다니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 그래 {반거챙이가} 됐어. 그래서 집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디, 들은 소리는 많은디, <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집이서 허는 일없이 빈둥빈둥 {반거챙이같이} 있으니 이 일을 어쩐다냐. ¶기정이 아저씨는 집일은 많은데 일은 않고 싸돌아다니니 완전히 {반거챙이야}.
지역 완주.

반거충이 (半거충이) 명 [대응어] 반거충이.
배움을 중도에 멈춰 다 이루지 못한 사람. ¶괜시리 시건방진 {반거충이가} 돼부런다 허데. 반똑똑이가 더 골치여.<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반굉일 명 [대응어] 반공일.
오전만 일을 하고 오후에는 쉬는 날. ¶지난번 {반굉일날} 서울서 조카 여우는디 댕겨옴시로 한속기에 배통아지가 오그라짐서. ¶저 참 {반굉일에도} 얻어터짐서 약속까장 헌 놈이 안 봐도 비디오요 이~ㅎ.
지역 전북.

반농판이 (半弄판이) 명 [대응어] 멍충이.

어리석고 사리 분별력이 모자란 사람. ¶일틀면 시상살이 눈뜨고 비관허다가 괜시리 자기만 {반농판이} 돼부린 셈이제.<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반다시 부 [대응어] 반드시.

틀림없이 꼭. ¶"한번 이리 된 이상에 이 여자허고 당신허고 사촌간이 아니다면 내가 {반다시} 문을 열어 주겄소. 허되 사춘간인디 어떻게 그럴 수, 근게 부질없는 생각말고 그 남자를 잘 섬기고 살으라." 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아, 대체 생각헌게 {반다시}, 거시기 나라에서 상을 탈, 효자여. 그런 효자가 있을 거야. 그 전에.<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남원, 정읍.

반대기[1] 명 [대응어] 소래기.

김칫독이나 장독 항아리의 뚜껑. 또는 둘레의 높이가 조금 높고 굽이 없는 접시 모양으로 생긴 넓은 질그릇. ¶며칠 전에도 조금 꺾기는 했으나 한 재기가 못 되어 취나물 속에 섞어 버렸는데 오늘은 두 {반대기가} 실했다.<송기숙, 녹두장군>

지역 전북.

반대기[2] 명

가루를 반죽한 것이나 삶은 푸성귀 따위를 평평하고 둥글넓적하게 만든 조각. ¶징허게 강치를 헝게 수도가 얼어 갖고 포도씨 마당꺼만 녹애 갖고 {반대기로} 질러다 쓸랑게 차말로 옹삭허고만.

지역 전북.

반뎃불 명 [대응어] 반딧불.

반딧불이의 꽁무니에서 나오는 빛. 또는 반딧불이.

지역 전북.

반도롬히 부 [대응어] 평평히.

바닥이 고르고 판판하게. ¶(밭을) 반도롬히 허. 트랙터로.

지역 순창.

반봉오리 명 [대응어] 말더듬이.

말을 자연스럽게 하지 못하고 더듬는 사람.

지역 익산.

반절 (半절) 명 [대응어] 괄시.

업신여겨 하찮게 대함. ¶이팔 청춘 소년들아/백발 보고서 {반절을} 마라/백 발 보오오 보오오 보고서 반절 반절을 마소(순창 논매는 소리-그물타령)<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순창.

반접체 명

바닥의 구멍이 중간인 체. 보통 어레미 구멍보다 작다. ¶구녁 큰 놈은 얼멍체, 그보다 작은 놈은 {반접체}, 촘촘헌 놈은 밴체.

지역 전북.

반지 명

포기배추에 붉은 김칫국물을 잘박하게 부어 담근 김치. ¶꼬추까루를 조금만 늫고 물을 짜박짜박허니 잡는다고 히서 {반지}라고 그리어.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반지'는 겨울 김장 때 담가 먹는 김치로, 배·사과 등을 갈아서 국물을 넣은 김치이다. 고춧가루를 평소보다 조금만 넣어 만든다.

반지그럭 명 [대응어] 반짇고리.

☞반짇그릇.

지역 전북.

반지락 명 [대응어] 바지락.
바지락으로 담근 젓. ¶{반지락을} 삭혀가지구 젓갈을 담그믄 그거이 반지락젓이지. 고칫가리 넣고 빨겋게 양념해서 먹기두 하구 기양 먹기두 하구.
지역 전북.

반지락젓 명 [대응어] 바지락젓.
바지락으로 담근 젓. ¶반지락을 삭혀가지구 젓갈을 담그믄 그거이 {반지락젓이지}. 고칫가리 넣고 빨겋게 양념해서 먹기두 하구 기양 먹기두 하구. ¶밥에 물 말아서 {반지락젓}을 놓아먹으면 다른 반찬 필요 없당게. ¶{반지락젓}은 역시 곰소치가 최고지. 안 그려?
지역 전북.

반지럭 명 [대응어] 반짇고리.
반짇고리. ¶이렇게 베 이만썩헌 놈 귀텡이 남은 놈 {반지럭으다} 담어.
지역 전북.

반지레기 명 [대응어] 소래기.
운두가 조금 높고 굽이 없는 접시 모양으로 생긴 넓은 질그릇. ¶마당으 장독대에 가봐, 김칫독 {반지레기} 하나를 엎어 놨응게 그 독으서 김치를 꺼내 오면 되아.
지역 전북.

반지름하다 형 [대응어] 반듯하다.
겉모양이 울퉁불퉁하거나 비뚤어지지 않고 가지런하고 반듯하다. ¶모폭은 다듬고 풀은 뽑아서/어어 화화 두울 레에/꽉 꽉 묶어서 {반지름허게}/어어 화화 두울 레에/저 건네 큰애기 젖가슴 보소/어어 화화 두울 레에/오동열매와 같이 생겼네/어어 화화 두울 레에(고창 모심는 소리-어화둘레)<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고창.

반지손가락 명 [대응어] 약손가락.
다섯 손가락 가운데 네 번째 손가락. ¶{반지손가락에다} 반지를 끼워 주며 겔혼하자 그러데.
지역 장수.

반짇구리 명 [대응어] 반짇고리.
☞반짇그륵.
지역 전북.

반짇그럭 명 [대응어] 반짇고리.
☞반짇그륵.
지역 무주, 임실, 진안.

반짇그륵 명 [대응어] 반짇고리.
바늘, 실, 골무, 헝겊 따위의 바느질 도구를 담는 그릇. ¶{반짇그륵에서} 바늘 좀 가져오너라.
지역 전북.

반짇상자그릇 명 [대응어] 반짇고리.
☞반짇상잣그륵.
지역 전북.

반짇상잣그륵 (반짇箱子그륵) 명 [대응어] 반짇고리.
바늘, 실, 골무, 헝겊 따위의 바느질 도구를 담는 그릇. ¶{반짇상잣그륵을} 열다
지역 전북.

반질광지리 명 [대응어] 반짇고리.
☞바느질광우리.
지역 군산.

반팽이 명 [대응어] 반편이.
☞반펭이.

지역 전북.

반펭이 (半偏이) 명 [대응어] 반편이.
지능이 보통 사람보다 모자라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저런 {반펭이도} 못 되는 놈 같으니라구. ¶"객지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아주 {반펭이}가 다 되어서 돌아왔당게.".
지역 전북.

반호장 명 [대응어] 반회장.
여자 저고리의 깃이나 끝동니나 고름 따위를 자줏빛이나 남빛의 헝겊으로 대어 꾸민 회장. ¶저고리 {반호장} 걸어서 입으면 이쁘제.
지역 전북.

받을손 명 [대응어] 흙받기.
흙손질할 때에, 이긴 흙이나 시멘트를 받쳐 드는 연장. 네모난 널조각으로 만들며 한복판의 밑에는 받쳐 드는 손잡이가 달려 있다. ¶{받을손으로} 흙을 받는다.
지역 완주.

받침개 명 [대응어] 받침.
다른 물건의 밑에 대는 데 쓰게 만든 물건. ¶{받침개} 만들고 양. 다 이놈 헐 판여. 다 깎고 반들반들 다 만들 판여.
지역 전북.

받침집 명 [발음] [받침찝] [대응어] 나무집.
나무로 지은 집. ¶{받침집은} 나무로 지은 집인디, 담집보다는 낫제.
지역 전북.

발가먹다 동 [대응어] 알겨먹다.
남의 재물 따위를 좀스러운 말과 행동으로 꾀어 빼앗아 가지다. ¶갖은 꼼수로 그 사람 가진 것 다 {발가먹고} 인자 사람까지 상허게 허다니 수악헌 사람 같으니라고.
지역 전북.

발개 명 [대응어] 가부좌.
부처의 좌법(坐法)으로, 좌선할 때 양발을 각각 반대편 넓적다리 위에 얹어 놓고 앉는 자세. ¶{발개를} 치고 앉아 있는다.
지역 군산, 완주.

발겨먹다 동 [대응어] 알겨먹다.
☞발가먹다. ¶그만큼 {발겨먹었으면} 됐다. 이제 그만 좀 {발겨먹어라}.
지역 부안.

발고락 명 [대응어] 발가락.
발끝의 다섯 개로 갈라진 부분. 또는 그것 하나하나. ¶그리가지고 뭐 문자던지 손으로 씰 것이 아니라 {발고락} 새이다가 붓을 찔르고 발로만 내둘내둘히도 참 신필이란 말을 듣는단 말여. <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대령한 개 또 깨우니개 {발고락에} 찡구라고(끼우라고) 붓을, 발고락에 찡긴개 딱허니 이렇게 잡고 있어.<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발고락에서} 냄새가 나니 발 좀 씻고 오너라.
지역 고창, 무주, 완주, 군산, 임실, 남원, 부안, 정읍.

발구락 명 [대응어] 발가락.
☞발고락.
지역 임실.

발그락 명 [대응어] 발가락.
☞발고락.
지역 남원.

발그란하다 형 [대응어] 발갛다.
밝고 엷게 붉다. ¶저 도시 차 타고 댕기다 보면

은 어디는 그 밭이 {발그란하고} 그러잖여, 밭이 되가꼬 그렇드라고. 그런 디서 퍼다 쓰는 흙이 진짜로 귀하고 좋은 거여. 그 인제 말하자면 황토라고 그라지. 빨간 황토.
지역 장수.

발그랗다 형 [대응어] 발갛다.
밝고 엷게 붉다. ¶발그라니 좋아. ¶발가니 그냥 온 산천이 다 {발그란} 맹이로 참 좋아. 아주 그냥 꽃밭이 벌겋게 그때는 참말로 좋아. ¶아조 흙도 몽그랗고 모래 같은 거 하나 섞이도 안 하고 좋은 거야, 그양 {발그랗고}. 보믄 알제.
지역 장수.

발깡 부 [대응어] 불끈, 얼른.
☞빨깡. ¶아직도 학교 안가고 뭣 헌다냐. {발깡} 인나서 안갈래?
지역 완주.

발꼼치 명 [대응어] 발꿈치.
발의 뒤쪽 발바닥과 발목 사이의 불룩한 부분. ¶{발꼼치를} 들어서 서니께로 키가 더 커졌네.
지역 전북.

발꽁치 명 [대응어] 발꿈치.
☞발꼼치.
지역 전북.

발뒤꼬모리 명 [대응어] 발뒤꿈치.
발의 뒤쪽 발바닥과 발목 사이의 불룩한 부분.
지역 전북.

발뒤꼭지 명 [대응어] 발뒤꿈치.
☞발뒤꼼치.
지역 전북.

발뒤꼼치 명 [대응어] 발뒤꿈치.
발의 뒤쪽 발바닥과 발목 사이의 불룩한 부분. ¶{발뒤꼼치가} 단단하네.
지역 전북.

발뒤꽁치 명 [대응어] 발뒤꿈치.
☞발뒤꼼치.
지역 전북.

발뒤꿍치 명 [대응어] 발뒤꿈치.
☞발뒤꼼치.
지역 전북.

발뒤끔치 명 [대응어] 발뒤꿈치.
☞발뒤꼼치.
지역 전북.

발때 명 [대응어] 발채.
짐을 싣기 위하여 지게에 얹는 소쿠리 모양의 물건. 싸리나 대오리로 둥글넓적하게 조개 모양으로 결어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끈으로 두 개의 고리를 달아서 얹을 때 지겟가지에 끼운다.
지역 남원.

발람발람하다 동 [대응어] 발름발름하다.
탄력 있는 물체가 부드럽고 조금 넓게 자꾸 바라졌다 오므라졌다 하다. ¶코가 {발람발람하는} 것 보니 고기 냄새를 맡았구만. 쟈는 고기 귀신이여.
지역 전북.

발르다 동 [대응어] 바르다.
☞바리다.
지역 무주.

발모감지 명 [대응어] 발모가지.
'발' 또는 '발목'을 속되게 이르는 말. ¶{발모감지

가} 가는 사람은 오래 산대여. ¶또 싸질러 나갔다가는 {발모감지} 뿐질러 놀팅게 알아서 허.
지역 전북.

발목데기 명 [대응어] 발모가지.
☞발목땡이.
지역 전북.

발목뎅이 명 [대응어] 발모가지.
☞발목땡이.
지역 전북.

발목때기 명 [대응어] 발모가지.
☞발목땡이.
지역 전북.

발목땡이 명 [대응어] 발모가지.
'발' 또는 '발목'을 속되게 이르는 말. ¶{발목땡이를} 삐어 갖고 제대로 걷기나 허겄냐고. ¶"또 밤늦게 돌아 댕겼다가는 {발목땡이}가 분지러지는 줄 알어.". ¶{발목댕이가} 아파요.
지역 전북.

발묵 명 [대응어] 발목.
다리와 발이 잇닿는 부분. ¶{발묵이} 가늘다
지역 전북.

발버등 명 [대응어] 발버둥.
주저앉거나 누워서 두 다리를 번갈아 내뻗었다 오므렸다 하면서 몸부림을 하는 일. ¶넌, 인자 디졌다 이~ {발버등} 쳐 봤자 오도 가고 못허고.
지역 전북.

발심발심 부 [대응어] 발름발름.
탄력 있는 물체가 조금 넓고 부드럽게 자꾸 바라졌다 오므라졌다 하는 모양. ¶양 볼티기가 옴옥옴옥 코궁기가 {발심발심} 연기가 훌훌 나게 푸여 물고 나셔니<완판본 열여춘향수절가下>
지역 전북.

발심발심하다 동 [대응어] 발름발름하다.
탄력 있는 물체가 조금 넓고 부드럽게 자꾸 바라졌다 오므라졌다 하다. ¶눈을 간잔조롬하게 쓰고 둔셥이 꼭꼿하여지면셔 코가 {발심발심ᄒᆞ며} 이를 뽀도독 뽀도독 갈며<완판본 열여춘향수절가上>
지역 전북.

발쌍개 명 [대응어] 감발.
발에 둘러 감는 천. 양말이나 버선 대신 사용한다. ¶{발쌍개도} 신지 않고 눈길을 다니다
지역 완주.

발쏘시개 명 [대응어] 감발.
발에 둘러 감는 천. 양말이나 버선 대신 사용한다. ¶이전 겨울이는 {발쏘시개} 하고 댕기는 게 일이여.
지역 임실.

발자꾸 명 [대응어] 발자국.
발로 밟은 자리에 남은 모양. ¶논이 {발자꾸} 난 디만 물이 있어.
지역 전북.

발통 명 [대응어] 바퀴.
돌리거나 굴리려고 테 모양으로 둥글게 만든 물건. ¶철길이야 조선사람덜이 골빠지고 새빠지게 일혀서 왜놈덜 발에 {발통} 달아준 것이제.<조정래, 아리랑> ¶자전거에는 두 개의 {발통이} 있다.
지역 고창, 군산, 김제, 무주, 부안, 완주, 익산, 임실, 장수.

발통태 명
앞에서 지나간 발자국. ¶{발통태가} 읎어져불고 으매 역이고 돌고 끄이고 죽다 살았소. ¶앞도 안 비고 내래가는 금인지 올라가는 금인지 앞이 가는 {발통태만} 따라가는디도.
지역 전북.

발톱 명 [대응어] 발톱.
발가락의 끝을 덮어 보호하고 있는, 뿔같이 단단한 물질. ¶얼구른 인재 손톱 깍꼬 {발톱} 깍꼬, 그래갖꼬 인자, 향:물 골로 얼구를 깨:까시 시끼등마뇨.<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지역 남원, 군산, 무주, 고창, 임실.

발특 명 [대응어] 발톱.
☞발톱.
지역 완주.

발틉 명 [대응어] 발톱.
☞발톱.
지역 고창, 임실.

발판 명 [대응어] 밑싣개.
두 발을 디디거나 앉을 수 있게 그넷줄의 맨 아래에 걸쳐 있는 물건. ¶발판을 놓다 ¶아이들은 더 멀리 오르기 위해 {발판을} 구르며 그네를 타지.
지역 김제, 부안, 완주, 임실, 장수, 정읍.

밝어지다 동 [대응어] 밝아지다.
밝게 되다. ¶그런데 오는데 날은 {밝어지는데}, 사람은 간 곳이 없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조상님네 가시는디한번 나미타불 허먼 어둔질 {밝어지고}<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고창, 부안, 군산, 익산, 정읍, 진안, 완주.

밝헤다 동 [대응어] 밝히다.
불빛 따위로 어두운 곳을 환하게 하다.
지역 전북.

밤낫 명 [대응어] 밤낮.
밤과 낮을 아울러 이르는 말. ¶{밤나스로} 때면 인자 재무친 노미 기양 도릉개 물컹혀. 만치보먼.(밤낮으로 때면 이제 재 묻힌 것이 그냥 독하니까 물컹해. 만져보면.)<2009 전북 임실>
지역 임실.

밤낭구 명 [대응어] 밤나무. ¶쩌그 저 {밤낭구에} 밤이 서너 개넌 더 달릴 것잉마. 그것 따묵소.<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밤보따리 명
남의 눈을 피해 밤에 도주하기 위하여 꾸리는 짐. 또는 남의 눈을 피하여 밤에 도주하는 행위. ¶생각해 봐. 내가 그 여자한테 새 장가를 들 것도 아니고, 그 여자하고 {밤보따리를} 싸서 도망갈 사람도 아닌데 당신이 그 여자한테 쫓아가서 어쩌겠다는 거야.<양귀자, 찻집 여자>
지역 전북.

밤봇짐 명
남의 눈을 피해 밤에 도주하기 위하여 꾸리는 짐. ¶우리 동네는 전에 동네서 나갔던 사람들이 두 사람이나 들어 와서 손을 댔다가 세미가 나오는 바람에 폴새 {밤봇짐을} 싸부렀소.<송기숙, 녹두장군> ¶그때까지도 동학당을 잡아죽이는 판국이라 남편 돌아온 것을 쉬쉬해 가며 {밤봇짐을} 싸면서도 생기가 났었다.<조정래, 아리랑> ¶제대로 짝을 지어 살기 어려운 남녀, 여기 와서 산다는 달주 동네 사람들처럼 세금이나 환자 또는 남의 빚에 몰려 {밤봇짐을} 싼 사람, 하여간 거개가 평지에서 볕바르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일

겝니다.<송기숙, 녹두장군> ¶하여간 이런저런 일로 남의 눈을 크게 기어야 할 사람들이 {밤봇짐을} 싸짊어지고 몰려 들던 것인데<송기숙, 녹두장군>

지역 전북.

밤쇙이 명 [대응어] 밤송이.

밤알을 싸고 있는 두꺼운 겉껍데기. ¶나 겯음 애껴 주니라고, 나 생각해 주니라고 오지 말라 그러능고만잉. 아이고, 고마워라. 고슴도치 {밤쇙이로} 주딩이를 문대 주겄네. 드디어 약이 바짝 오른 옹구네가, 일이 심상치 않은 것을 눈치채고는<최명희, 혼불> ¶부엌짝에 서생원들이 귀찮게 허먼 쥐구녁으다 {밤쇙이}를 팍팍 쑤셔 밀어너봐. 아마 효엄이 있을 걸. ¶{밤쇙이에서} 떨어지는 알밤을 주워 삶아 먹으니 참으로 맛이 최고구나.

지역 전북.

밤쉬이 명 [대응어] 밤송이.

☞밤쇙이.

지역 전북.

밤읏 명 [대응어] 밤윷.

밤을 쪼갠 크기로 작게 만든 윷짝. ¶{밤윷을} 가지고 놀다.

지역 무주.

밤퉁이 명 [대응어] 알밤.

알밤을 속되게 이르는 말. ¶{밤퉁이를} 까 먹는다.

지역 전북.

밤팅이 명 [대응어] 알밤.

☞밤퉁이. ¶눈팅이가 {밤팅이} 되었네.

지역 완주.

밥고리 명 [대응어] 바구니.

주로 밥을 담아 두는 데 쓰는 바구니.

지역 전북.

밥누렁가지 명 [대응어] 눌은밥.

솥 바닥에 눌어붙은 밥에 물을 부어 불려서 긁은 밥. ¶점심 때 먹을라고 {밥누렁가지는} 따로 챙겨 뒀어.

지역 전북.

밥바구리 명 [대응어] 바구니.

주로 밥을 담아 두는 데 쓰는 바구니. ¶인자 거식 헌게로 {밥바구리를} 살짜기 내놓고는, 근게 어떤 놈이 된똥을 싼 놈을 놓았든가.<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며느리는 밭일을 하러 갈 때도 {밥바구리} 머리에 이고 꼭 큰놈은 앞세우고 작은놈 뒤세워서 데리고 나갔거든.<최명희, 혼불>

지역 정읍.

밥상귀 명 [대응어] 모서리.

물체나 평면의 모가 진 가장자리. ¶{밥쌍귀라고}<2009 전북 임실>

지역 임실.

밥소쿠리 명 [대응어] 바구니.

주로 밥을 담아 두는 데 쓰는 바구니. ¶밥함지박이며 {밥소쿠리를} 이고 진 인근 마을의 동포들이었다.<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밥주개 명 [대응어] 밥주걱.

밥을 푸기 위하여 나무나 쇠붙이로 만든, 넓은 숟가락 모양의 도구. ¶{밥주개로} 밥을 푼다.

지역 전북.

밥주벅 명 [대응어] 밥주걱.

밥을 푸기 위하여 나무나 쇠붙이로 만든, 넓은 숟가락 모양의 도구. ¶어이, 흥부처럼 {밥주벅으로} 한 대 맞아 볼랑가?

지역 완주, 남원, 무주,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

밥주법 명 [대응어] 밥주걱.

밥을 푸기 위하여 나무나 쇠붙이로 만든, 넓은 숟가락 모양의 도구.

지역 전북.

밥죽 명 [대응어] 밥주걱.

밥을 푸기 위하여 나무나 쇠붙이로 만든, 넓은 숟가락 모양의 도구.

지역 전북.

밥태기 명 [대응어] 밥알.

밥 하나하나의 알. ¶볼태기에 {밥태기는} 무덜라고 인드까 부쳐 갖고 댕긴다요? ¶동네사람 눈이 떴가베 이놈은 저 밥허고 찬허고 갖다주먼 그 앉어서 밥 먹으믄 암만해도 흘린단 말여. 그 {밥태기} 줏어갖고는 맨작맨작 해서 요롷기(이렇게 하기)를 수개월허고 보니께 그것이 솔찬히 크단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밥태기} 뭉쳐논 것이 그걸 가지고 이 쥐새끼처럼 이렇게 네발 돋치고 꽁댕이 돋치는 것을 맨들었어.<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군산.

밥하다 동 [발음] [바바다/바파다]

화투를 칠 때 돈을 딴 사람이 다음 번 패를 돌리다. ¶내가 돈을 땄은게 {밥해야} 하거든. 패 돌리라고 글잖여. 안 허고 나왔다고.

지역 전북.

밥허다 동 [발음] [바버다/바퍼다]

밥을 짓다.

지역 고창, 남원, 무주, 부안, 순창.

밧살피 명

밭의 경계. ¶{밧살피를} 물린다.

지역 전북.

방골 (房골) 명 [대응어] 방고래.

방의 구들장 밑으로 나 있는, 불길과 연기가 통하여 나가는 길. ¶{방골이} 있다

지역 전북.

방구 명 [대응어] 방귀.

음식물이 배 속에서 발효되는 과정에서 생기어 항문으로 나오는 구린내 나는 무색의 기체. ¶요렇게 냄새 똥구녁 대고 냄새를 맡은게 이놈이 {방구} 나온걸 참았다가 그때서 맡을 적에 소리 안 나게 가만 뀐게 아 구린내가 나거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큰 애기가 시집을 갔는디, 그렇게 {방구를} 잘 뀌네, 얼굴이 뇌란혀.<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아 이놈의 배가 느닷없이 살살 틀리덴니 {방구가} 살살 나올려구 해서 전딜(견딜) 수가 있는가?<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옛날에 큰 애기 하나가 어쩌케게 {방구를} 잘 뀌던지, 중신 애기가 안 오더래.<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마포 빤쓰에 {방구} 세듯이 잘도 빠져나가네 이~. ¶아따, {방구} 뀌고 승질내는 것은 미안헝게.

지역 남원, 부안, 완주, 정읍.

방구 씨게 뀐 놈이 물똥 싸는 법이다 【관용표현】

무슨 일이나 소문이 잦으면 실현되기 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방구 씨게 뀐 놈이 물똥 싸는 법인디}.<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방구'는 표준어로는 '방귀'이다.

방귀가 잦으면 똥이 마려운 증상이고, 방귀를 세게 뀌면 똥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이다. 이 관용표현은 무슨 일이나 소문이 잦으면 실현되기가 쉽다는 의미를 갖는다.

방뎅이 명 [대응어] 궁둥이.
☞방뎅이. ¶"지달리소. 터럭 뽑구 나서 진짜 처녀 {방뎅이마냥} 허옇게 나타나먼 만져 볼랑게로!"<이병철, 모래내 모래톱>
지역 전북.

방독 (房독) 명 [발음] [방똑] [대응어] 구들.
방바닥 밑에 불길이나 연기가 통하는 통로를 두고 돌로 덮어서, 난방을 하는 구조물 ¶아 내고 마즈막 아 이 독을 줏어내고 본게로 {방독} 같은 것이 이렇게 있어서 내 심껏 한번 떠들어 본게 이렇게<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이 돌은 넓어서 {방독으로} 사용하면 좋겠다.
지역 완주, 임실.

방돌 (房돌) 명 [발음] [방똘] [대응어] 구들.
방바닥 밑에 불길이나 연기가 통하는 통로를 두고 돌로 덮어서, 난방을 하는 구조물 ¶[청중 : 웃음], 엉겁질에 뜯은 것이 방 두 짝, {방돌} 두 짝을 뜯었어. "더도 필요없어. 이놈 두 개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군산, 완주.

방둥이 명 [대응어] 엉덩이.
볼기의 윗부분. ¶소 사러오면 {방둥이} 있는데, 꼬리 있는데 만져보더구먼요.<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머리를 늘쩡늘쩡 땋아내려, 자주댕기를 들인 머리채가 {방둥이에서} 유난히 치렁치렁합니다.<채만식, 태평천하> ¶농부는 말없이 고삐 끝으로 소 {방둥이를} 다시 때렸다.<황순원, 신들의 주사위> ¶나이도 열 다섯이니 그럼직도 하지만 날로 {방둥이가} 팡파짐해 가는 것이 인제 제법 처녀티가 나는 것이다.<이무영, 농민>
지역 군산, 임실.

방뒹이 명 [대응어] 궁둥이.
볼기의 아랫부분. 앉으면 바닥에 닿는, 근육이 많은 부분이다. ¶뻬가 만치바서 어디 머 {방뒹이} 뻬를 만치보면 안대요.<2009 전북 임실> ¶소 사러오면 {방뒹이} 인는디. 꼬리인는디 만치바싸텅마뇨.<2009 전북 임실> ¶인자 아는 사람 소장씨드른 딱 이러케 와서 {방뒹이} 요그를 만치더라고.<2009 전북 임실>
지역 임실, 장수.

방마이 명 [대응어] 방망이.
무엇을 치거나 두드리거나 다듬는 데 쓰기 위하여 둥그스름하고 길게 깎아 만든 도구. ¶가슴을 부둥켜안꼬 주저안젓는 과부 여페 {방마이가} 떨어저 잇는 것을 보고.<홍명희, 임거정>
지역 전북.

방마치 명 [대응어] 방망이.
무엇을 치거나 두드리거나 다듬는 데 쓰기 위하여 둥그스름하고 길게 깎아 만든 도구. ¶밍경아 새재야 박달나무/홍두깨 {방마치} 다 나가네(무주군 무풍면 지성리 율오)<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무주.

방망치 명 [대응어] 방망이.
무엇을 치거나 두드리거나 다듬는 데 쓰기 위하여 둥그스름하고 길게 깎아 만든 도구. ¶방망치로 뚜드러.
지역 전북.

방매 명 [대응어] 방망이.
☞방매.

지역 전북.

방매이 명 [대응어] 방망이.
☞방매.
지역 전북.

방맹이 명
무엇을 치거나 두드리거나 다듬는 데 쓰기 위하여 둥그스름하고 길게 깎아 만든 도구.
지역 전북.

방몽치 명 [대응어] 방망이.
무엇을 치거나 두드리거나 다듬는 데 쓰기 위하여 둥그스름하고 길게 깎아 만든 도구. ¶{방몽치로} 두드리다
지역 전북.

방석 (方席) 명 [대응어] 멍석.
무엇을 덮거나 널어 말리기 위하여 만든 물건. ¶그래 저녁판에 오더니, 아(작은) 며느리가 이 꽃 앞 {방석에다} 딱 나락을 담고는, 남거든.<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군산, 남원, 완주, 임실, 장수.

방아고 명 [대응어] 방앗공이.
☞방앗고.
지역 남원.

방아땅개 명 [대응어] 방아깨비.
☞왕땅개비.
지역 익산.

방아땅구 명 [대응어] 방아깨비.
☞왕땅개비.
지역 완주.

방앗고 명 [대응어] 방앗공이.
방아확 속에 든 물건을 찧는 데 쓰도록 만든 길쭉한 몽둥이. ¶{방앗고로} 방아를 찧는다.
지역 고창, 남원, 진안.

방애 명 [대응어] 방아.
곡식 따위를 찧거나 빻는 기구나 설비를 통틀어 이르는 말. 물방아, 디딜방아, 물레방아, 연자방아, 기계 방아, 쌍방아 따위가 있다. ¶{방애} 이러케 드덜빵애에다도 찌어 먹끼도 허고.<2005 전북 남원> ¶그래 행랑간에서 {방애를} 찧는디 도고 때로 찐게 쌀이 많이 헛쳐지거든요.<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점드락(하루 종일) 가서 {방애를} 찌머는, 방애를 찌머는 아싸래기 두어 되씩은 준단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남원, 무주, 완주, 임실, 고창, 군산, 정읍.

방애고 명 [대응어] 방앗공이.
☞방앗고.
지역 순창, 완주, 정읍.

방애괴 명 [대응어] 방앗공이.
☞방앗고.
지역 전북.

방애땅개 명 [대응어] 방아깨비.
☞왕땅개비.
지역 익산.

방애땅개비 명 [대응어] 방아깨비.
☞왕땅개비.
지역 진안.

방애코 명 [대응어] 방앗공이.
☞방앗고.
지역 완주.

방앳고 명 [대응어] 방앗공이.
☞방앗고.
지역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완주, 정읍, 순창.

방으고 명 [대응어] 방앗공이.
☞방앗고.
지역 진안.

방장 (房場) 명 [발음] [방짱] [대응어] 장판지.
방바닥을 바르는 데 쓰는 마감용 종이. 예전에는 기름을 먹여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비닐이나 합성수지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든다. ¶좀 있다가 깔대자리 방석에, 요렇게 {방장을} 요렇게[떠도는 동작], 떠 들고 내놓고 본개 지렁이거든.<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뭔 고긴가 볼라고, 너 오면 준다고 내가 이렇게 넣었는데 {방장} 밑을 넣어 놨다." 그래 내서 요리 보니깨,<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고창, 남원.

방주깨미 명 [대응어] 소꿉질.
아이들이 장난감 그릇 따위를 가지고 살림살이 흉내를 내며 노는 짓. ¶아이들이 {방주깨미를} 하고 논다.
지역 전북.

방죽 명 [대응어] 웅덩이.
움푹 파여 물이 괴어 있는 곳. 둠벙보다 크고 저수지보다 작다. ¶이윽고 동산 위에 멧방석보다, {방죽보다}, 청호 저수지보다 더 크고 싯누런 달이 붉으스레 붉덕물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떠오를 때.<최명희, 혼불> ¶인제 죽기는 일반이거든. 이상시럽게 막소리를 허고 헌게 말여. 시방 호랭이가 막 와서 아 그걸 먹갔다고 펄떡 뛰면 말여, 그 {방죽} 가서 빠져.<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방죽에} 빠졌던 소달구지를 여러 명이 들어내느라 무척 힘들었다. ¶{방죽에는} 물고기가 많이 있을 거야.
지역 군산, 김제, 남원, 완주, 익산, 정읍.

방천 명 [대응어] 논둑.
논의 가장자리에 높고 길게 쌓아 올린 방축. ¶가고, 어떤 노인이 와서 그라드라요. 근디 그 자기 노인 노 {방천에다가} 조그마하니, 이렇게 지금 같으면 텐트지만은 옛날에는 막(幕)을 처놨어. 빵빵<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에, 왜정 말엽에, 이, 고산, 아페(앞에) 죽-허니 돌아가면서 천변(川邊) {방천을} 하느라고 독을, 경칫돌을 떠오는 데, 거리도 멀고 허닝게, 그,<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남원, 완주, 임실.

방천나다 동 [대응어] 둑이 터지다.
하천이나 호수의 물, 바닷물의 범람을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흙이나 콘크리트 따위로 만든 구축물이 무너지다. ¶방천나기 전에 안전헌 디로 피히야 써. ¶이번 장마에 논에 {방천이} 나서 고치러 가야 한다. ¶작년 홍수로 {방천난} 뒤로 웃논은 자갈밭이 되어버렸어.
지역 전북.

방추 명 [대응어] 방망이.
무엇을 치거나 두드리거나 다듬는 데 쓰기 위하여 둥그스름하고 길게 깎아 만든 도구.
지역 전북.

방치 명 [대응어] 방망이.
☞방추.
지역 전북.

방하 명 [대응어] 방아.
곡식 따위를 찧거나 빻는 기구나 설비를 통틀어 이르는 말. 물방아, 디딜방아, 물레방아, 연자방아, 기계 방아, 쌍방아 따위가 있다. ¶{방하찌

러}<2007 전북 군산>
지역 군산.

밭고랑 명 [대응어] 밭고랑.
☞고랑.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군산, 익산, 임실, 정읍, 완주, 군산, 부안, 진안.

밭골 명 [대응어] 밭고랑.
밭작물이 늘어서 있는 줄과 줄 사이의 고랑을 통틀어 이르는 말.
지역 장수, 고창, 군산, 완주, 임실.

밭꼬랑 명 [대응어] 밭이랑.
밭의 고랑 사이에 흙을 높게 올려서 만든 두둑한 곳. ¶{받꼬랑을} 진는다<2007 전북 군산> ¶밭이 크니 {밭꼬랑} 수가 많구나.
지역 군산.

밭두덕 명 [대응어] 밭두둑.
☞밭두럭.
지역 전북.

밭두둑 명 [대응어] 밭두둑.
☞두둑.
지역 무주.

밭두득 명 [대응어] 밭두둑.
☞두둑.
지역 전북.

밭두럭 명 [대응어] 밭두렁, 밭두둑.
밭의 가장자리를 흙으로 둘러막은 두둑. ¶논두렁에 노두렁 콩 {밭두럭에} 호박 덜렁<김용택, 맑은 날> ¶금년에는 {밭두럭에} 콩을 심어 보고 싶구나.
지역 고창, 남원, 부안, 순창, 완주, 임실, 정읍, 진안.

밭두렁 명 [대응어] 밭두렁.
밭의 가장자리를 흙으로 둘러막은 두둑. ¶상여는 강길을 벗어나 논두렁 밭두렁을 넘고 넘어 산으로 산으로 험한 산으로 올라챘읍니다. 논 {밭두렁을} 넘고 가시덤불을 헤쳐 넘을 때마다 상여꾼들이 떼를 쓰면 상주들은 새끼줄에 돈을 걸었읍니다.<김용택, 맑은 날> ¶붉은 꽃이 핀 닭이 장풀의 달개비 같은 꽃잎사귀, {밭두렁에} 줄기를 뻗고 있는 참비름의 연두꽃, 습지에 눅눅하게 핀 자귀풀의 황색꽃.<최명희, 혼불>
지역 군산, 무주, 순창.

밭두렉 명 [대응어] 밭두렁, 밭두둑.
☞밭두럭.
지역 완주, 임실.

밭두렝 명 [대응어] 밭두렁.
☞밭두렁.
지역 군산.

밭두룩 명 [대응어] 밭두렁, 밭두둑.
☞밭두럭.
지역 고창, 남원, 임실.

밭두룽 명 [대응어] 밭두렁.
☞밭두렁.
지역 무주.

밭드럭 명 [대응어] 밭두렁, 밭두둑.
☞밭두럭.
지역 전북.

밭드렁 명 [대응어] 밭두렁.
☞밭두렁.
지역 무주.

밭매다 동 [대응어] 김매다.
논밭의 잡풀을 뽑아내다. ¶일이있어? 세상 우수어서 못보거든. 아 물을 먹은둥 만둥 하고 {밭매러} 가서 큰 동서를 불렀어. "형님, 형님." "어이?"<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공기 좋은 시골에서 {밭매며} 속 편하게 지내고 싶다. ¶새터댁 오늘 우리 집 {밭매러} 와 줘요
지역 무주.

밭살피 명 [대응어] 밭두렁, 밭두둑.
밭의 가장자리를 흙으로 둘러막은 두둑. 또는 밭과 밭 사이의 경계를 이루고 있거나 밭가에 둘려 있는 둑. ¶{밭살피를} 만들어 놨다.
지역 무주.

밭쟁기 명 [대응어] 극젱이.
땅을 가는 데 쓰는 농기구. 쟁기와 비슷하나 쟁깃술이 곧게 내려가고 보습 끝이 무디다. 보통 소 한 마리로 끄는데, 소가 들어가기 힘든 곳에서는 사람이 끌기도 한다. 쟁기로 갈아 놓은 논밭에 골을 타거나, 흙이 얕은 논밭을 가는 데 쓴다. ¶밭은 {밭쟁기로} 갈아야제.
지역 군산.

배가림 명 [대응어] 두렁이.
어린아이의 배와 아랫도리를 둘러서 가리는 치마 같이 만든 옷. 겹으로 만들거나 솜을 두어 만든다.
지역 고창.

배게 명 [대응어] 비지.
두부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 ¶뚜부 맨들고 남은 {배게다가} 꼬칫가리 넣고 김치 넣고 끓이믄 그거 말고 딴 반찬이 더 필요 있나.
지역 전북.

배고 명 [대응어] 배코.
상투를 앉히려고 머리털을 깎아 낸 자리.
지역 전북.

배고마 명 [대응어] 배꼽.
탯줄이 떨어지면서 배의 한가운데에 생긴 자리. ¶배보다 {배고마가} 크다고 하자녀.
지역 전북.

배깟 명 [대응어] 바깥.
밖이 되는 곳. 사방, 상하를 덮거나 가리지 아니한 곳. ¶벤소는 {배깟이가} 있어요.
지역 남원, 임실.

배깟애 명 [대응어] 바깥애.
여자 하인이 자기 남편을 웃어른에게 이르거나, 웃어른이 여자 하인에 대하여 그 남편을 이를 때에 쓰는 말. ¶머슴년의 {배깟애가} 혼자 도망을 갔다네.
지역 전북.

배깥 명 [대응어] 바깥.
☞배깟.
지역 남원.

배깥양반 (배깥兩班) 명 [대응어] 바깥양반.
집안의 남자 주인을 높이거나 스스럼없이 이르는 말. ¶"내 미안허지만은 안에 들어가서 뭣이냐 {배깥양반} 조께 내가 조께 좀 찾는다고 그 말만 조께 허서."<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정읍.

배깥칙간 명 [대응어] 바깥 변소.
☞바깥칙간.
지역 전북.

배께다 동 [대응어] 바꿔다.
☞배끼다.
지역 전북.

배꼬 명
밥이 들어갈 수 있는 배의 크기. ¶애기가 {배꼬가} 작으면 밥을 쬐깐썩배끼 못 먹어.
지역 전북.

배꼭지 명 [대응어] 배꼽.
탯줄이 떨어지면서 배의 한가운데에 생긴 자리. ¶정월 대보름날 이 댁에 와서 피런허고 비애지가 찢어지게 먹었네./그러고, 피런허고 {배꼭지가} 요강꼭지가 되드락 솟아버렸어.(진안 성주풀이-진안군 성수면 도통리 중평)<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진안.

배꾸라지 명 [대응어] 배꼽.
탯줄이 떨어지면서 배의 한가운데에 생긴 자리. ¶배보다 {배꾸라지가} 크다고 안 허냐.
지역 전북.

배꾸리 명 [대응어] 배꼽.
☞배꾸라지.
지역 전북.

배꿉 명 [대응어] 배꼽.
탯줄이 떨어지면서 배의 한가운데에 생긴 자리. ¶배보다 {배꿉이} 크다고 허자녀.
지역 군산,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배끼다 동 [대응어] 바꿔다.
원래 있던 것이 없어지고 다른 것으로 채워지거나 대신하게 되다. ¶세상이 {배끼고} 있거등.<최명희, 혼불> ¶동네 사랑방에 놀러갔다가 새고무신인디 {배끼갖고} 왔담서.
지역 전북.
해설 '배끼다'는 '바꿔다>바끼다>배끼다'의 음운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자음+반모음 w'의 연쇄에서 반모음 w가 탈락하여 'ㅟ>ㅣ'가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ㅣ가 움라우트의 동화주가 되어 '바끼->배끼-'가 만들어진 것이다.

배다 동 [대응어] 배우다.
지식이나 기술 따위를 새롭게 얻다. ¶"참 대련님은 말여 용수 찰밥을 꼬쟁이로 파냈어. 아 거가 앉어서 공부허고 잘 먹고 그럴틴디 아 글을 안 {배고} 걍 집이로 도로 가니"<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대감집 아덜덜이 공부만 허는 것이 아니라 소리도 {배고} 장구도 {배고} 춤도 {배고} 허는디 이놈이 그것도 잘혀.<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김제, 완주, 임실, 정읍, 군산.

배대기 명 [대응어] 배때기.
☞배대지. ¶낚시질을 가서, 바닷가루 낚시질을 갔는데 낚시가, 낚시질을 허닝게 고기가 전부 물어서 낚시질을 하구 앉았는데, 한참 저녁때 판에 가닝게, 자래(자라) 한 마리가 물려 나와. 그래 자래가 물려 나오는데, 그 자래 {배대기에다가} 임금 왕자(王字)를 쓰구 나왔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완주.

배대지 명 [대응어] 배때기.
'배'를 속되게 이르는 말. ¶아 개덜이 와서 먹을게 별반 없은 게로 그냥 초벌 찐 걸 개란 늠이 퍼먹는단 말여. 싫건 주어 처먹고 {배대지가} 절구통만해갖꾸는 여기다 똥 싸고 저기다 똥싸고 야단이다.<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강아지가 {배대지를} 보이고 누워 재롱을 부린다.

지역 완주.

배득배득 부 [대응어] 부둑부둑.
물기가 있는 물건의 거죽이 거의 말라 약간 뻣뻣하게 굳어진 모양. ¶젓가락 같은 초 여러 자루와 {배득배득} 마른 조기, 그리고 그만그만한 과일 몇 가지며 바가지에 담아 놓은 대추만씩이나 한 밤이 그네의 눈에 들어왔다.<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배따지 명 [대응어] 배때기.
'배'를 속되게 이르는 말. ¶여그저그 허천나게 부지런 떰서 도라댕기면 {배따지} 꿂든 않겄지라우.
지역 전북.

배때아지 명 [대응어] 배때기.
'배'를 속되게 이르는 말. ¶으메, 인자 {배때아지가} 온수 보일라 틀어 노았능가 따땃헝가 비요이~.
지역 전북.

배물콩 명
밥 위에 얹어 먹는 콩. 까만색으로 주로 콩자반의 재료로 쓰인다. ¶올해는 깐치가 다 물어가서 {배물콩이} 순전 안 되얐단게.
지역 전북.

배부른 강아지 시래기 다루듯 하다 【관용표현】
음식이 별로 내키지 않아 먹을까 말까 망설이는 모습을 표현한 말. ¶애꿎은 음식맛에 혐의를 씌우면서 종술은 {배부른 강아지 시래기 다루듯} 남은 녹두전 반쪽을 에멜무지로 들었다 놓았다 했다.<윤흥길, 빛가운데로걸어가면> ¶{배부른 강아지 시래기나물 다루듯} 깨지락깨지락 수저만 공연히 들었다 놓았다 해가며 이야기에 고부라져 있었다.<윤흥길, 빛가운데로걸어가면>
지역 전북.

배뿌쟁이 명 [대응어] 질경이. ¶{배뿌쟁이는} 약으로두 먹구 반찬으로두 먹어요.
지역 김제, 군산.

배숫도랑 (<한자>排水도랑) 명
물을 다른 곳으로 내보내기 위해 만든 도랑 ¶물을 {배숫도랑으로} 내 보내믄 그만이여.
지역 전북.

배썩 명 [대응어] 나루터.
나룻배가 닿고 떠나는 일정한 곳.
지역 전북.

배아재비 명 [대응어] 버마재비.
☞버마자비.
지역 전북.

배아지 명 [대응어] 배.
☞배때지, 뱃대지, 배아지. ¶글면 지놈덜은 뉘 {배아지서} 나왔간디?<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배암 명 [대응어] 뱀.
☞비얌.
지역 전북.

배암딸 명 [대응어] 뱀딸기.
☞비암딸.
지역 전북.

배암때왈 명 [대응어] 뱀딸기. ¶{배암때왈을} 따다
지역 부안, 순창.

배암자어 명 [대응어] 뱀장어.

☞배얌장어.

지역 전북.

배암장어 명 [대응어] 뱀장어.

☞배얌장어.

지역 전북.

배얄때기 명 [대응어] 배때기.

'배'를 속되게 이르는 말. ¶물이 아래짝으로 빠지기 시작흐믄 {배얄때기가} 부릉가 즈그들끼리 모태서 서로 보듬고 낫바닥을 할타감서 아이고 작것들이 넘부꾸란지도 모리고 대나지 그리야 쓰겄냐고

지역 전북.

배얌 명 [대응어] 뱀.

☞비얌.

지역 전북.

배얌딸 명 [대응어] 뱀딸기.

☞비암딸.

지역 전북.

배얌때왈 명 [대응어] 뱀딸기.

☞배암때왈.

지역 전북.

배얌띠 명 [대응어] 뱀띠.

뱀해에 태어난 사람의 띠. ¶용띠 다음이 {배암띠고}, 배암띠 다음이 말띠고, 또 말띠 다음이 양띠야. ¶나는 용띠인데 너는? 나는 {배얌띠인데}.

지역 전북.

배얌장어 (←배암長魚) 명 [대응어] 뱀장어. ¶요즘은 {배얌장어를} 다 양식한다도만. 중국에서 수입도 허고.

지역 전북.

배어리다 형 [대응어] 배젊다.

(나이가) 아주 어리다. ¶한 이십 남짓했을까말까, {배어린} 사람이다.<채만식, 上京半折記>

지역 전북.

해설 '배'는 옛말에 쓰인 부사로서 '아주, 매우'의 의미를 가진다. 형용사 '어리다'와 함께 복합어가 되었다. 표준어 '배젊다'는 '나이가 아주 젊다.'의 뜻을 가지는 것으로 보면, '배어리다'도 일반적으로 쓰인 어휘로 추정된다.

배오다 동 [대응어] 배우다.

지식이나 기술 따위를 새롭게 얻다. ¶그"그렇지마는 글은 {배왔은게} 패철 글자는 알 것 아니요?"<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못 {배와} 먹은 것도 무신 자랑이냐? 입주뎅이를 꾹 다물고 얌전허니 있으면은 중질이라도 가지, 슨지자님 앞에서 역부러 무식헌 티를 내니라고 묻고 자빠졌는 거여, 뭐여, 시방?"<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기술을 잘 {배와} 가지고 와서, 병이 나도 좋은 약을 써가지고 잘 낫게 허구, 농사도 잘 짓게 허고, 좋은 법을 배와가지고 올 테니 당최 느그들 나 죽었다고 말허지 말고 발상허지 말아라."<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고약한 놈 같으니라고. 그런 소소한 그런 재주 있다고, 야비한 재주를 {배와} 가지고 써먹고 …… 야 이놈아! 잉어값 갖다 주어라!"<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고창, 남원, 무주, 순창, 임실, 장수, 부안, 군산, 익산, 정읍, 진안, 완주.

배쟁이 명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배가 남산만한 임산부를 낮추거나 친근하게 이르는 말. ¶그 집 애기 엄마는 {배쟁이가} 얼마나 맛있는 것을 히 줄라고 오라고 그런대?

지역 전북.

배차 명 [대응어] 배추. ¶긍게 뚝 속 덜찬 {배차맹이} 생겨처묵었다네.<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배추속 명 [대응어] 고갱이.
배추의 한가운데에 있는 연한 심. ¶고갱이 {배추속}<2007 전북 군산> ¶"요것, 잣죽에다가 갈치속젓으로 무친 {배추속이구만이라}. 묵을 만허든디, 죽 식기 전에 얼렁 잠 드시씨요."<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군산, 남원, 임실.

배추속깡 명 [대응어] 고갱이.
배추의 한가운데에 있는 연한 심. ¶우리 아부지가 {배추속깡을}을 참말로 잘 잡수셨어. 배추 안쪽에 노오랗고 연한 부분만 골라다가 놓구, 쌈장 딱 찍어가지구, 쐬주랑 먹으면 안주가 필요없지. ¶밥맛 없어 {배추속깡에} 된장을 찍어 먹었더니 입맛이 절로 돌아오는구만.
지역 고창, 군산, 익산, 완주.

배추알 명 [대응어] 고갱이.
배추의 한가운데에 있는 연한 심. ¶김장헐라고 배추를 뽑았는디 {배추알}이 꽉 찬 것이 실해.
지역 무주.

배추지 명 [대응어] 배추김치.
배추로 담근 김치. ¶{배추지가} 익어서 맛있다 ¶어제 담은 {배추지는} 안 매웅게 애들도 맛나게 잘 먹네. ¶어떠케 다만는지 그집 {배추지} 참 마신구먼. ¶{배추지하고} 밥을 먹으니 참 맛있다.
지역 전북.
해설 '김치'의 옛말과 전북 방언이 '지'이므로, '배추김치'를 '배추지'라고 말한다.

배추짐치 명 [대응어] 배추김치.
배추로 담근 김치. ¶전라도서는 배추김치를 배추지라고도 허고, {배추짐치라고도} 헌당게.
지역 전북.
해설 '김치'의 전북 방언은 '짐치'이다. 따라서 '배추김치'는 '배추짐치'로 발음한다.

배추헌틀지 명
배추의 머리를 잘라 배추 가닥들이 흐트러지게 담근 김치 ¶먹기 쉽게 헐라고 {배추헌틀지}를 담지.
지역 전북.
해설 표준어 '흩다'는 '한데 모였던 것을 따로따로 떨어지게 하다.'는 뜻으로 전북 방언으로는 '헌틀다'이다. '김치'의 옛말과 전북 방언이 '지'이므로 '헌틀-'에 '지'가 연결되어 '헌틀지'가 된 것이다.

배치 명 [대응어] 배추. ¶{배치로} 김치를 담그다
지역 전북.

배터 명 [대응어] 나루터.
나룻배가 닿고 떠나는 일정한 곳.
지역 전북.

배통아지 명 [대응어] 배때기.
'배'를 속되게 이르는 말. ¶아따 디지게도 퍼먹네이~ 잘허믄 {배통아지} 빵구 나겄네 이~. ¶오메, 허천났구만 그러다 등짝 터지고 {배통아지} 터지겄소.
지역 전북.

백대기 (白대기) 명
하얀 가죽신. ¶각시는 암말 않고 …… 웃방에 가서 좋은 옷 한 벌을 갖다가 입혀 주드랴. 그러고는 {백대기} 한 컬레를 갖다가 문 있는 쪽으로 돌려놓더랴. 이것을 신고 나가라넌 거지.<구비문학대계 임실군편>

지역 임실.

백솟 명 [대응어] 양은솥.
양은으로 만든 솥. ¶{백솟이다} 허는 것보다 꺼멍솟이 낫제.
지역 전북.

백시리 명 [대응어] 백설기.
시루떡의 하나. 멥쌀가루를 켜를 얇게 잡아 켜마다 고물 대신 흰 종이를 깔고, 물 또는 설탕물을 내려서 시루에 안쳐 깨끗하게 쪄 낸다. 어린아이의 삼칠일, 백일, 돌이나 고사(告祀) 따위에 쓴다.
지역 전북.

백시리떡 (白시리떡) 명 [대응어] 백설기.
시루떡의 하나. 멥쌀가루를 켜를 얇게 잡아 켜마다 고물 대신 흰 종이를 깔고, 물 또는 설탕물을 내려서 시루에 안쳐 깨끗하게 쪄 낸다. 어린아이의 삼칠일, 백일, 돌이나 고사(告祀) 따위에 쓴다. ¶{백시리떡을} 돌릴라고 만들었어.
지역 고창.

백여구 (白여구) 명 [대응어] 백여우.
흰색 털을 가진 여우. 또는 요사스러운 여자를 속되게 욕하여 이르는 말. ¶{백여구} 같은 여자
지역 전북.

백이다 동 [대응어] 박히다.
어떤 사물이나 표면이나 집단의 사이로 들여 넣어져서 고정되다. ¶속이 꽉 {백여야제}. ¶사람 뱃속이랑 거이 요 손이나 발허고 똑같애서, 일을 해야 굉이 {백이고} 굳은살 볼가져서 심도 생기는 거인디잉, 저렇게 보드란 것마안 보드란 것만 챙어 먹으니, 나 암만해도 율촌샌님 얼매 못 가제 싶우대?"<최명희, 혼불> ¶어디 우리 부모 백골 유해헐 디 한 간디 좀 봐주시오." "아, 그려. 저 가면, 거 가면 심말이 그대로 {백여} 있은게 고대로 모셔 그먼 괜찮을터니 모셔."<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전북.

백지[1] (白지) 명 [대응어] 백김치.
고춧가루를 쓰지 않고 하얗게 담근 김치. ¶꼬추까루를 싫어허먼 {백지를} 먹으먼 되아.
지역 전북.
해설 '김치'의 옛말과 전북 방언은 '지'이다. 따라서 고춧가루를 넣지 않고 하얗게 담근 김치를 '백지'라고 한다.

백지[2] (白지) 명 [대응어] 백설기.
☞백지떡.
지역 임실.

백지떡 명 [대응어] 백설기.
시루떡의 하나. 멥쌀가루를 켜를 얇게 잡아 켜마다 고물 대신 흰 종이를 깔고, 물 또는 설탕물을 내려서 시루에 안쳐 깨끗하게 쪄 낸다. 어린아이의 삼칠일, 백일, 돌이나 고사(告祀) 따위에 쓴다. ¶돌이어서 {백지떡을} 좀 만들어 봤구만요.
지역 임실.

백짐치 (白짐치) 명 [대응어] 백김치.
고춧가루를 쓰지 않고 하얗게 담근 김치. ¶여그 시언헌 {백짐치를} 조깨 내놓으시오.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백짐치'는 표준어 '백김치'에 해당한다. 그러나 의미차이가 존재한다. 표준어 '백김치'는 고춧가루를 안 넣거나 조금 넣는 경우를 말하는데 비하여 전북 방언의 '백김치'는 고춧가루를 전혀 넣지 않은 김치를 말한다.

백히다 동 [대응어] 박히다.
어떤 사물이나 표면이나 집단의 사이로 들여 넣어지다. ¶아따, 돈한티 눈깔이 {백혔능가} 뭇이

고 다 허고 댕기요. ¶급헌 걸음 허다가 무단히 개골창이나 논바닥에 거꾸로 {백히지} 말고, 싸드락 싸드락 이얘기도 해 감서 갑시다아.<최명희, 혼불> ¶그 살인자를 잡을라먼, 눈동자, 죽은 사람 눈동자에다 사진을 박어보라구. 눈동자에다 사진을 박어보먼은 그 죽인 사람은, 그 칼을 져눠 죽인 사람이 눈이가 {백히는} 것인개 사진을 박어 보라구 그랬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정읍, 완주.

백에 조 [대응어] 밖에.

((주로 체언이나 명사형 어미 뒤에 붙어))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 '기꺼이 받아들이는', '피할 수 없는'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주로 뒤에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 따른다. ¶이 방안에 {너백에} 없었는디 봉투가 온디간디 없이 없어졌잉게 니 소행 아니겄어? ¶시집 강게 어찌 서방허고 자슥 {색갱이백에} 안 빕디다.

지역 전북.

백이 조 [대응어] 밖에.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 '기꺼이 받아들이는', '피할 수 없는'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주로 뒤에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 따른다. ¶"아서라, 내가 재산을 다 없애 오늘 저녁으 죽을 {수백이는} 없다."<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기진 맥지 해서 내가 의원 행세하고 밥 얻어먹은 {죄백이는} 없으니 나 잡아 먹어라. 잡아 먹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아 이런게 아차 그런게 {그렇게백이} 헐 수가 없다. 문을 열고 칼을 빌커니(날카롭게) 갈어가지고 문을<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밴드레기 명 [대응어] 소래기.

운두가 조금 높고 굽이 없는 접시 모양으로 생긴 넓은 질그릇. ¶간장 독에 비 들어 가겄다. 독우에 {벤드레기들} 좀 다 덮어 놓거라잉.

지역 전북.

밴조고름하다 형 [대응어] 반주그레하다.

얼굴이나 겉모습이 매우 반반하고 아름답다. ¶"말은 못하나?…… 계집애가 {밴조고름하게} 생겼으니깐 음충맞게 딴 배짱이 있어가지구설랑……"<채만식, 탁류>

지역 전북.

해설 표준어 '늙수그레하다, 붉으스레하다'와 같은 형용사는 전북 방언에서는 '늙으스름하다, 붉으스름하다'로 표현된다. 표준어 '반주그레하다'에 대응되는 전북 방언 '밴조고름하다'는 '밴조고르-'에 '-음하다'가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밴조고름허다 형 [대응어] 반주그레하다.

물건 따위가 말끔하여 보기도 괜찮고 쓸 만하다. ¶중고 가게에 가도 {밴조고름헌} 물건이 꽤 있당게.

지역 전북.

밴체 명 [대응어] 고운체.

올이 가늘고 구멍이 잔 체. ¶구녁 큰 놈은 얼멍체, 그보다 작은 놈은 반접체, 촘촘헌 놈은 {밴체}.

지역 남원, 임실, 완주.

해설 물건의 사이가 비좁거나 촘촘하다는 뜻을 가진 형용사 '배다'의 어간 ' 배-'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ㄴ'이 결합한 형태 '밴'에 명사 '체'가 합성된 것으로 보인다.

밴체입 명 [대응어] 고운체.

☞밴체.

지역 고창.

뱀댕이 명 [대응어] 뱀장어. ¶{뱀댕이를} 잡다

지역 전북.

뱀때왈 명 [대응어] 뱀딸기.
☞배암때왈.
지역 전북.

뱀장우 명 [대응어] 뱀장어.
☞배얌장어.
지역 전북.

뱁쟁이 명 [대응어] 질경이.
☞배뿌쟁이.
지역 완주, 익산.

뱃대끼끈 명 [대응어] 뱃대끈.
여자의 치마나 바지허리 위에 매는 끈. ¶{뱃대끈을} 졸라매서 입어야. 옷 내리간다.
지역 전북.

뱃동무 명 [대응어] 뱃사람.
배를 이용하여 일하는 사람. ¶{뱃동무로} 평생 바다에서 살았다.
지역 전북.

뱃마당 명 [대응어] 나루터.
나룻배가 닿고 떠나는 일정한 곳. ¶아버지의 아버지, 그의 아버지들이 대대로 힘써 살았던 땅, 논과 밭과 온갖 과일나무들, 뒷산 몇백 년 묵은 귀목나무, 강 건너 평밭, 꽃밭등, 절골, {뱃마당에} 두루바위, 벼락바위, 눈주면 언제나 눈에 익어 거기 정답게 있던, 우리들이 자라며 나무하고 고기 잡고 놀아주었던 몸에 익은 정든 이름들이 구로동 성남 신길동 명동<김용택, 섬진강>
지역 전북.

뱃보 (腹보) 명 [대응어] 배짱.
마음속으로 다져 먹은 생각이나 태도. 또는 조금도 굽히지 아니하고 버티어 나가는 성품이나 태도. ¶"극락? 참 생김대로 비우짱도 좋고 {뱃보도} 존 중놈이시." 순사보는 픽 웃었다.<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뱃보'는 표준어 '배짱'의 의미에 가깝다. 주로 '뱃보가 크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는 '마음이나 태도가 크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배+ㅅ+-보'의 구성으로 보면 '배(腹)'와 '보'가 복합된 복합어로 볼 수 있다.

뱃자리 명 [대응어] 나루터.
나룻배가 닿고 떠나는 일정한 곳.
지역 전북.

뱅애 명 [대응어] 고수레.
민간 신앙에서, 산이나 들에서 음식을 먹을 때나 무당이 굿을 할 때, 귀신에게 먼저 바친다는 뜻으로 음식을 조금 떼어 던지는 일. ¶무당 생활허면서 {뱅애는} 꼭 히야지. ¶기어이 사단이 났구먼. {뱅애라도} 해야지 그만 두었다가는 큰일 나겠네. ¶무당은 마지막 순서로 밥을 퍼서 강물에다 {뱅애를} 했다.
지역 무주.

뱅에 명 [대응어] 고수레.
☞뱅애.
지역 무주.

뱜장애 명 [대응어] 뱀장어.
☞배얌장어.
지역 전북.

버나벌판 명 [대응어] 벌판.
사방으로 펼쳐진 넓고 평평한 땅.
지역 전북.

버눌가리 명 [대응어] 볏가리.
☞베눌가리.
지역 전북.

버들나무 명 [대응어] 버드나무. ¶그런게는 인자 여거시기 치매 안자락을 한 조각을 짝 찢어갖고 {버들나무} 가지를 꺾꺼가지고 그 {버들나무} 가지갖고 편지를 써가지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그래서 그 방죽 가상에 조그마한 {버들나무가} 있다 그 말이여. 능수버들 나무가 {버들나무} 저테서(곁에서) 이자 부애가(화가) 나서 그냥 거그서 앉아서 있다가 그만 잼(잠)이 들었다 그 말이야.<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남원, 정읍.

버러지 명 [대응어] 벌레.
곤충을 비롯하여 기생충과 같은 하등 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여기저기서 잔뜩 겁에 질려 콧물을 훌쩍이며 흐느끼는 소리들이 폭음과 폭음 사이를 헤집고 구덩이 속을 {버러지들처럼} 꼬물꼬물 기어다니고 있었다.<윤흥길, 소라단 가는 길> ¶{버러지} 먹은 콩은 버리고 좋은 콩만 푸대에 담아라. ¶공기랑건(공기라는 것은) 공가니라능게 생기면 그라구 고 소그서(속에서) 인제 사래미 인재 사리고 머고 쎙기머는(썩으며는) 그 공 공가니 생기면 {버러지라등가} 머가 생기가 마려니래요.<지역어 자료 총서, 무주> ¶긍게, {버러지} 깨문 쌍잉게비요 이~. ¶사람이 되어 이런 짓을 하다지 {버러지} 만도 못한 놈.
지역 고창, 남원, 순창, 임실, 장수, 진안, 무주.

버럭지 명 [대응어] 벌레.
곤충을 비롯하여 기생충과 같은 하등 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호강팔자는 고사허고 펭생을 {버럭지맨치로}, 음지 안에 갇혀서 썩은 흙만 꼬작고작 파먹다가는 천수도 못다 누리고 한강 물구신이 될라고 허는 판국이니, 대처나 요 폭폭헌 노릇을 으찌허야 룧다냐.<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아서라, 너같은 것을 죽이는 내가, 뭣이냐, 질 가에다가 {버럭지} 하나 죽이는 폭도 못되고 내나 너를 죽이면 내가 가치가 없겠다.”<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사람을 함부로 죽이다니 {버럭지} 만도 못한놈이구나.
지역 김제, 부안, 완주.

버릿 명 [대응어] 버릇.
오랫동안 자꾸 반복하여 몸에 익어 버린 행동. 또는 윗사람에 대하여 지켜야 할 예의. ¶{버릿을} 고치야 할틴디. ¶{버릿이} 없네.
지역 순창,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정읍, 진안.

버레기 명 [대응어] 벌레.
곤충을 비롯하여 기생충과 같은 하등 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지역 정읍.

버르쟁머리 명 [대응어] 버르장머리.
((흔히 ‘없다’와 함께 쓰여))‘버릇’을 속되게 이르는 말. ¶“제 여자가 {버르쟁머리가} 없어가지고 오늘 저녁에 아주 결말을 질려고 했읍니다.”<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그런개 우에서 글방의 선비들이 쑥덕쑥덕하지요. 고현놈이라고 패씸헌놈이라고 배우지 못한 쌍놈이라고. 수학한(험악한) 상놈이라고, 그냥 보내서는 못쓰겠다고 혼을 내주자고요? {버르쟁머리를} 고쳐줘야겠다고 벼르고 있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저렇게 {버르쟁머리} 없는 놈은 처음 보았어.
지역 부안.

버리 명 [대응어] 보리.
지역 무주, 완주, 장수, 진안.

해설 ‘버리’는 ‘보리’의 음절 초 모음 /ㅗ/가 초성 /ㅂ/의 양순성과 충돌하여 비원순모음인 /ㅓ/로 이화된 결과이다. 이러한 예로 ‘보션>버선’, ‘몬져>먼저’ 등이 있다.

버리곤딩기 명 [대응어] 보릿겨.
☞버리몽곤지.
지역 전북.

버리몽곤지 명 [대응어] 보릿겨.
보리에서 보리쌀을 꺼내고 남은 속겨. ¶{버리몽곤지는} 짐승이나 멕이지 얻다 쓸데가 없다.
지역 무주, 장수.

버리쌀 명 [대응어] 보리쌀.
☞쌀보리.
지역 무주.

버릿 명 [대응어] 버릇.
☞버릇.
지역 진안.

버릿딩이 명 [대응어] 보릿겨.
보리에서 보리쌀을 꺼내고 남은 속겨. ¶{버릿딩이는} 짐승이나 멕이지 어따 쓸데가 없제.
지역 전북.

버마자비 명 [대응어] 버마재비.
‘사마귀’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버마자비를} 잡아서 손에 난 사마구 먹여 봐. 금방 사마구가 없어져.
지역 고창, 남원, 부안, 순창, 익산, 임실, 진안.

버무땅개비 명 [대응어] 버마재비.
‘사마귀’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지역 무주.

버무르다 동 [대응어] 버무리다.
☞버물다.
지역 완주.

버물다 동 [대응어] 버무리다.
여러 가지를 한테 뒤섞다. ¶양념 양념 느코, 양념 버무리다 {버물고} 버섯 버섣또 -이 버서시 만타<2008 전북 고창> ¶점예 꼬딕여서 갈치속젓에 {버물러} 큰 독아지로 잔뜩 허서 묻어놨응께로 배터지게 잡숫씨요.<조정래, 태백산맥> ¶맨손으로 김치를 {버물다} 보면 손이 아려오곤 했다.
지역 고창.
해설 ‘버물다’는 ‘버무리다’의 제3 음절 모음이 탈락한 결과이다. ‘버물-’을 어간으로 하면 ‘버물어’로 활용할 것이 예상되나 실제로는 ‘버물러’로 실현된다.

버버리 명 [대응어] 벙어리.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요인으로 청각이나 발음 기관에 탈이 생기거나, 처음부터 말을 배우지 못하여 말을 할 수 없는 사람. ¶꽃니아배가 곧 생불(生佛)이여, 생불. 생불이 따로 있잖에. “터억허니 눈 내리뜨고 {버버리맹이로} 입 꾸욱 다물고, 논으로 갔다아 밭으로 갔다가 허청(虛廳 : 헛간)으로 갔다아 허능 걸 바아. 저 속에 머이 들었이꼬오.” “그만 허시요예.”<최명희, 혼불> ¶“칠띠기에다 쾌까닥 돌기까장 한 산송장 냄편 싫다고 단봇짐을 싸서 떠난 {버버리} 샥시가 그런다고 시엄씨 뒤를 곱게 따라나설까?” 말짱 다 쓰잘데 없는 짓거리라며 아버지는 풋밤을 씹은 듯 떫은 표정을 지었다.<윤흥길, 소라단 가는 길>
지역 남원, 무주, 순창, 장수.
해설 현대 국어 ‘벙어리’의 옛말인 ‘버워리’는 5세기 문헌에서부터 나타난다. ‘버워리’는 “벙어리가 되다”의 의미를 지닌 동사 ‘버우-’에 접미사 ‘-어리’가 결합한 것이다. 6세기에는 ‘버워리’에

서 제2음절의 모음 'ㅜ'가 탈락하고 제음절 종성에 'ㆁ'[ŋ], 이 첨가된 '?어리'가 나타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버신 명 [대응어] 버선.
☞보선.
지역 전북.

버신데기 명 [대응어] 버선.
천으로 발 모양과 비슷하게 만들어 종아리 아래까지 발에 신는 물건. 흔히 무명, 광목 따위 천으로 만드는데 솜을 두기도 하고 겹으로 만들기도 한다. ¶{버신데기를} 신는다고 이 추우에 발이 안 시럽겄소?
지역 전북.

버심 명
그에 맞는 정도나 수준. ¶그 집이로 장개를 가서 어쩌고 공부를 조께 해갑고 또 어사 {버심이나} 쪼께 했던 모양여.
지역 전북.

버쎄 부 [대응어] 벌써.
예상보다 빠르게. 또는 이미 오래전에. ¶{버쎄} 오다 ¶{버쎄} 갔다
지역 전북.

버아재비 명 [대응어] 버마재비.
☞버마자비.
지역 전북.

버큼 명 [대응어] 거품.
액체가 기체를 머금고 부풀어서 생긴, 속이 빈 방울. 또는 입가에 내뿜어진, 속이 빈 침방울. ¶지푸래기가 두 간디서 한티로 이케(이렇게) 합방쳐 가지고 그 물이 한티로 양쪽으서 흘러 내리 가지고 쏟아지는디 {버큼이} 뽁짝뽁짝 흘른다 말이요.<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물고기가 {버큼을} 내품으면서 숨을 쉬고 있다. ¶"천만에! 반공교육을 그만침 많이 받었으니깨 이 정도지, 만일 그나마도 안 받었드라면 아매 입에 기 {버큼을} 물고 피를 토험시나 연좌제를 비판혔을 거여."<윤흥길, 소라단 가는 길> ¶그렇게 비싸요? 값에 {버큼이} 많이 낀 거 같소.
지역 전북.

버텀 조 [대응어] 부터.
어떤 일이나 상태 따위에 관련된 범위의 시작임을 나타내는 보조사. ¶"제약회사야 제약회사. 이거 봐요, 내가 몇 해 {전버텀두} 그걸 하나 해볼 양으루 별렀단 말이야.<채만식, 탁류> ¶"느이 애비가 죽을 임시에도 나는 사날 {전버텀} 알고 있었다.<윤흥길, 장마>
지역 전북.

버텅 조 [대응어] 부터.
어떤 일이나 상태 따위에 관련된 범위의 시작임을 나타내는 보조사. ¶옌:나레 {으른덜버텅} 그리때요. 저네 생길라헐써기.<2009 전북 임실>
지역 전북.

버틈개 명 [대응어] 버팀목.
물건이 쓰러지지 않게 받치어 세우는 나무. ¶바람만 불먼 문짝이 저절로 열리는디 {버틈개로} 받쳐 놔라.
지역 전북.

버팅기다 동 [대응어] 버티다.
어려운 일이나 외부의 힘에 따라 변하지 않고 참고 견디다. 또는 지탱하다. ¶보름이는 몸을 {버팅기며} 울상이 되었다. 보름이는 어서 아들을 보고 싶을 뿐이었다.<조정래, 아리랑> ¶일본심이 떡 {버팅기고} 있응께 그놈덜이 지아무리 꺼들대봤자 아무 소양이 없다 그런 말이오,<조

정래, 아리랑> ¶더는 못 살겄다고 두 달을 못 {버팅기고} 도로 니려왔다.<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담이 큰 두 남자가 팔다리를 {버팅기며} 아래로 내려갔다. 그리고 새끼줄을 네 겹으로 다시 꼬아 아래로<조정래, 태백산맥> ¶문화를, 인간을 {버팅기는} 문화의 두께를 그는 대릉원의 깊은 정적 속에서 마음으로 만져<양귀자, 천마총 가는 길> ¶철다리 한가운디서 기차가 코악에 닥칠 때꺼정 {버팅기다가} 아래 갱물로 뛰어내린 배짱을 가졌응께로 왈패 오야붕도 해묵고<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버팅기다'는 '버티다'와 '튕기다'가 혼태된 것으로 이해된다.

벅때왈 명 [대응어] 멍석딸기.

농익어 빛깔이 검붉은 딸기.

지역 남원.

벅성 명 [대응어] 복숭아.

☞복상.

지역 전북.

벅송 명 [대응어] 복숭아.

☞복상.

지역 전북.

벅짝 명 [대응어] 아궁이.

방이나 솥 따위에 불을 때기 위하여 만든 구멍.

지역 전북.

벅짝 명 [대응어] 쪽박.

박으로 만든 작은 바가지. ¶결혼헐 때 우리집이 다 부주헌 동네 사람한티는 {벅짝으다} 떡 담어서 줘.

지역 전북.

번다허다 (煩多허다) 형 [대응어] 번다하다.

번거롭게 많다. ¶만나면 으레 허는 말이 넘우 신경 건드리기 똑 알맞은 흉하적뿐이고, 넘우 말에 발뒤축걸어 초고추장을 치는 개거튼 겨우가 {번다허니} 발생허고 있으니.<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번덕거리다 동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여그 공사헌다고 며칠 동안 면에서 안 {번덕거렸어}.

지역 전북.

번덕지 명 [대응어] 비탈.

☞뻔덕지.

지역 전북.

번보다 동 [대응어] 본받다.

본보기로 하여 그대로 따라 하다. ¶긍게 저이가 지사상을 지대로 차린게, 저이가 차린 지사상을 {번보고} 인자 배우면 되지. 뭘 그렇게 울어싸. 담부텀 잘혀.

지역 군산.

번성허다 동 [대응어] 번성하다.

말이 퍼져 사람들 말에 오르내리다. ¶그 사람이 말을 안 했으면 조용헐텐디 그 사람이 말을 히서 시끄라, {번성허고} 시끄럽다.

지역 전북.

벌거지 명 [대응어] 벌레.

곤충을 비롯하여 기생충과 같은 하등 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벌거지가} 꾸역꾸역 고자리맹이로 그냥 고자리가 하얀 놈이 막 나온다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이게 뭔나무냥게 계수나무 {벌거지라고}. 달 가운데 있는 계수나무.<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매일 싸움만 일삼는 {벌거지} 같은

놈을 낳고 미역국은 먹었나 모르것다. ¶복숭씨, 살구씨, 수박씨, 호박씨들 모조리 다 {벌거지가} 파묵어 불고, 천하 명주(名酒) 이강주(梨薑酒)라도 시어 터져서 개도 안 먹게 되야 부러.<최명희, 혼불> ¶복상 {벌거지}는 먹어도 괜찮대야 먹으면 이뻐진다고 글잔혀.

지역 김제, 남원, 무주, 장수, 진안, 군산, 정읍.

벌그렇다 형 [대응어] 벌겋다.

어둡고 엷게 붉다.

지역 전북.

벌기 명 [대응어] 벌레.

곤충을 비롯하여 기생충과 같은 하등 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지역 군산.

벌로 부

잘 모르고 대충. ¶그냥 맨들었지. 그냥 {벌로} 했어. 잘 하는 언니들이 하면 배웠지. ¶어째서 저것은 날이 갈수록 졸아드는지 모르겠다. 여태까지는 {벌로} 보았는데 오늘 밤에 보니 여간 안된 것이 아니구나.<최명희, 혼불> ¶총질험스로 머리 써서 허는 진짜배기 쌈잉께 나가 허는 말얼 {벌로} 듣지 말고 중놈 염불 외디끼, 동냥아치덜 장타령 읊디끼<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벌시암 명 [대응어] 벌샘.

보통 동네 가운데 있으며 온 동네 사람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샘. ¶{벌시암은} 동네 가운데 있고, 그 위로 웃것, 아랫것 나놔.

지역 전북.

벌씸 부 [대응어] 벌름.

탄력 있는 물체가 부드럽고 넓게 벌어졌다 우므러졌다 하는 모양. ¶여자는 눈이 동그래, 파고들듯 묻다가, 그제야 대영이 {벌씸} 웃는 것을 보고는, "……가지뿌렁!"<채만식, 냉동어> ¶윤직원 영감은 윤직원 영감대로 또 속이 있어서, 입이 {벌씸} 벌어집니다.<채만식, 태평천하>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벌씸'은 의태어 부사이다. '벌씸'은 동사파생접미사 '-하다, 거리다'가 연결되어 '벌씸하다, 벌씸거리다'로 사용된다.

벌씸거리다 동 [대응어] 벌름거리다.

탄력 있는 물체가 부드럽고 넓게 자꾸 벌어졌다 우므러졌다 하다. 또는 그렇게 되게 하다. ¶덕수의 살기 등등한 얼굴, {벌씸거리는} 코, 부라리는 충혈된 눈.<채만식, 무장삼동> ¶한참 만에 돌아온 혜경이의 얼굴은 벌겋게 상기가 되고 코를 {벌씸거린다}.<채만식, 인형의 집>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벌씸거리다'는 의태어 부사 '벌씸'에 동사파생접미사 '-거리다'가 연결된 것이다.

벌씸벌씸 부 [대응어] 발름발름.

☞발심발심. ¶시방 두볼이 아무튼 상말로 오뉴월 무엇처럼 추욱 처저가지고는, 숨길이 시익새액, 코가 {벌심벌심}, 입이 삐죽삐죽, 깍지손으로 무르팍을 안었다 놓았다,<채만식, 천하태평춘>

지역 전북.

벌씸벌씸하다 동 [대응어] 벌름벌름하다.

탄력 있는 물체가 넓고 부드럽게 자꾸 벌어졌다 우므러졌다 하다. 또는 그렇게 되게 하다. ¶왼편으로 삼십도는 넉넉 삐뚤어진 코를 {벌씸벌씸해} 가면서 그래 쌓는 것이었었다.<채만식, 예수나 안 믿었더면>

지역 전북.

벌씸하다 동, 형 [대응어] 벌름하다.

탄력 있는 물체가 넓고 부드럽게 벌어졌다 우므러졌다 하다. 또는 탄력 있는 물체가 우므러져 있지 않고 조금 벌어져 있다. ¶그래도 곁눈으로는 그 여학생을 바라보며 코를 {벌씸하였다}. <채만식, 심봉사> ¶M이 그러잖아도 벌씸한 코를 한번 더 {벌씸하고} 사이 벌어진 앞니를 내어 보이며 싱끗 웃는다.<채만식, 레디메이드 인생> ¶응, 마누라 코는 {벌씸헌} 게 사람이 무척 좋아 보이구.<채만식, 예수나 안믿었더면> ¶바라보노라니까 그 널찍한 이마며 {벌씸한} 코, 입은 꾹 다물고 눈만 웃는 입과 눈 커다란 얼굴, 커다란 몸과 키,<채만식, 인형의 집>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벌씸하다'는 형용사와 동사로 쓰인다. '벌씸하다'가 형용사로 쓰일 때는 '넓다'의 의미가 있고, 동사로 쓰일 때는 '벌름하다'의 의미로 쓰인다.

벌어묵다 동 [대응어] 벌어먹다.

벌이를 하여 먹고살다. ¶소작을 번 것이 아니라 내 자작논 닷 마지기를 {벌어묵고} 살았소.<송기숙, 녹두장군>

지역 전북.

벌태기 명 [대응어] 볼때기.

뺨의 가운데를 이루고 있는 살집을 속되게 이르는 말. ¶산비탈이서 무한 앉어 있으닝깨네 {벌테기가} 참 앵두알 같은 물찬 제비같은 처녀가 저 옆이 가더니 오줌을 싸구 오거던.

지역 익산.

범아구지 명 [대응어] 범아귀.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의 사이. ¶여자는 범아구지가 도도록히야 허.

지역 전북.

범파니 명 [대응어] 반편이.

☞반펭이.

지역 전북.

법사 (法師) 명 [대응어] 박수.

남자 무당을 이르는 말. ¶이 동네에 {법사가} 많어. {법사가} 뭔고니 남자 무당을 법사라구 그래.

지역 무주, 임실.

벗거지 명 [대응어] 대머리.

머리털이 많이 빠져서 머리가 벗어진 사람. ¶모자 아래로 {벗거지} 머리가 언뜻 드러났다.

지역 전북.

해설 동사 '벗-'에 접미사 '-거지'가 연결된 것이다. 이 '벗거지, 벅거지, 버꺼지' 등은 경상도에서도 많이 쓰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벗도랑 (←洑도랑) 명 [대응어] 봇도랑.

논이나 밭에 봇물을 대거나 빼게 만든 도랑. ¶{벗도랑얼} 맨들었다. ¶{벗도랑얼} 치고 물길을 냈다. ¶{벗도랑으로} 물을 댄다.

지역 완주, 고창, 김제, 남원, 무주, 순창, 익산, 장수, 진안.

벗어배기 명 [대응어] 대머리.

머리털이 많이 빠져서 머리가 벗어진 머리, 또는 그런 사람. ¶박 장로가 {벗어배기}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웃음을 참지 못했다.<윤흥길, 빛가운데로걸어가면> ¶아닌 게 아니라 불빛에 번들거리는 {벗어배기} 박 장로의 머리통이 언뜻 보였다.<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무신 소리! 이왕지사 장도칼 뽑아든 짐에 상투라도 짤러 보낼까 허다가 {벗어배기라서} 참었구만."<윤흥길, 빛가운데로걸어가면>

지역 완주, 임실.

해설 '벗어배기'는 동사 '벗다'의 활용형 '벗어'에 사람을 나타내는 앞말의 특성을 지닌 대상을

나타내는 접미사 '-배기'가 연결되어 파생된 어휘이다. '벗어지다'가 '대머리가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에서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벙갯불 명 [대응어] 반딧불. ¶밤이면 {벙갯불이} 풀풀 날라다녔어. ¶{벙갯불이} 반짝거리다
지역 전북.

벙글어지다 동 [대응어] 벌어지다.
식물의 꽃, 사람의 입, 대문 등이 조금 열리다. ¶문은 닫기었으나 더얼 닫았음인지 이가 맞지 않는지 방긋이 조금 틈이 {벙그러졌다}.<채만식, 아름다운 새벽>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벙글어지다'는 동사 '벙글다'의 활용형에 피동을 나타내는 '지다'가 연결된 것이다.

벙을벙을허다 동 [대응어] 버글버글하다.
작은 벌레나 짐승 또는 사람 따위가 한곳에 많이 모여 잇따라 움직이다. ¶문 것 조깨 봐. 여봐, 큰 일 났네. {벙을벙을혀}. 자디잔 것이. 여봐 여. 막 달라들어. 여 봐. 아이고 지랄. 안 키워. 돼지 안 킨디. 여가 모기 오게 안 생겼는게벼.
지역 전북.

벙태 명 [대응어] 바보.
☞벙탱이.
지역 전북.

벙탱이 명 [대응어] 바보.
지능이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또는 어리석고 멍청하거나 못난 사람을 욕하거나 비난하여 이르는 말. ¶여그는 {벙탱이들만} 있는 개벼.
지역 전북.

벙퉁이 명 [대응어] 바보.
☞벙탱이.
지역 전북.

베가리 명 [대응어] 낟가리.
낟알이 붙은 곡식을 그대로 쌓은 더미. 또는 나무, 풀, 짚 따위를 쌓은 더미. ¶들에 묶인 {베가리들이} 많다. ¶늦가을에 들판에는 {베가리들이} 널려 있다. ¶겨우내 땔감으로 쓸 {베가리를} 창고로 날랐다.
지역 전북.

베갯모서리 명 [대응어] 베갯모.
베개의 양쪽 마구리에 대는 꾸밈새. 조그마한 널 조각에 수를 놓은 헝겊으로 덮어 끼우는데, 남자의 것은 네모지고 여자의 것은 둥글다. ¶{베갯모서리에} 수를 놓으면 예쁘제. 요즘은 베개가 {베갯모서리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어.
지역 전북.

베갯이 명 [발음] [베갠니] [대응어] 베갯잇.
베개의 겉을 덧씌워 시치는 헝겊.
지역 남원.

베누 명 [대응어] 비누.
때를 씻어 낼 때 쓰는 물건. ¶양잿물얼 가지고 {베누럴} 맨들었지. ¶세탁 {베누로} 머리를 감으면 개운하지.
지역 전북.

베눈가리 명 [대응어] 낟가리.
낟알이 붙은 곡식을 그대로 쌓은 더미. 또는 나무, 풀, 짚 따위를 쌓은 더미. ¶가을 들판에 {베눈가리가} 묶여 있다. ¶겨우내 땔감으로 쓸 {베눈가리를} 창고로 날랐다.
지역 전북.

베눌 명 [대응어] 낟가리.

낟알이 붙은 곡식을 그대로 쌓은 더미. 또는 나무, 풀, 짚 따위를 쌓은 더미. ¶들에서 {베눌을} 묶다. ¶겨우내 땔감으로 쓸 {베눌을} 창고로 날랐다.

지역 고창, 김제, 부안, 군산, 정읍.

베눌가리 명 [발음] [베눌까리] [대응어] 볏가리.

벼를 베어서 가려 놓거나 볏단을 차곡차곡 쌓은 더미. ¶벼 베기를 끝낸 논에 여기저기 {베눌가리가} 쌓여 있다.

지역 장수.

베늘가리 명 [대응어] 볏가리.

☞베눌가리.

지역 전북.

베다 동 [대응어] 끊다(손톱을).

따로 떨어지도록 잘라 가르다. ¶천 년 묵은, 천 년 묵은 괴양이란 말여. 그래서 거 괴를 가져왔어. 아니, 그전이는 숫날 때는 손톱을 {베서} 갖다 재에다 물었는디 쥐란 놈이 먹으면 똑같으디야. 그래서 그 괴양이를 가지고 가서 본게<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남원, 장수.

베락 명 [대응어] 벼락.

공중의 전기와 땅 위의 물체에 흐르는 전기 사이에 방전 작용으로 일어나는 자연 현상. ¶베락이 친다. ¶오줌 {베락을} 맞등가 똥 천둥을 맞등가 에이 모르겄다 억수로 오는 잠 어쩌겄소. ¶그게 사람이 헐 도리여? {베락}맞을 놈들! ¶하룻밤 {베락}치기 공부로 넘어가야지 뻴수 있나. ¶이렇게 말을 안들으니 {베락} 맞을 놈.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해설 '베락'은 '벼락'이 'ㅕ>ㅔ'의 변화를 겪은 결과이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 '뼈~뻬', '결혼~겔혼' 등을 들 수 있다.

베락박 명 [대응어] 벽.

☞베람박.

지역 진안.

베람박 명 [발음] [베람빡] [대응어] 벽.

집이나 방 따위의 둘레를 막은 수직 건조물. ¶{베람박에} 기대고 서 있다. ¶누가 {베람박으다} 크레용으로 꾸적끄려 놓았나. ¶영미는 {베람박에} 낙서를 하여 혼났다. ¶{베람박에} 기대고 있었지. ¶영미는 {베람박에} 낙서를 하여 혼났다. ¶동생이 {베람박에} 낙서를 해 놔서 속상하구나.

지역 군산, 고창, 남원.

해설 '베람빡'은 '바람벽'의 음운론적 이형태이다. '바람벽'이 '베람박'이 된 것은 제 음절 모음과 제3 음절 모음이 도치된 결과로 보인다. 'ㅕ>ㅔ' 음운 변화는 7세기 이후 발생한 변화로, '뼈~뻬', '결혼~겔혼'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변화이다. 제3 음절 모음의 도치 후에 '박'은 선행 음절 말음 때문에 경음화가 일어나 '빡'이 되었다. 한편, '바람벽'은 '방이나 칸살의 옆을 둘러막은 둘레의 벽'을 의미하나 전북 방언에서는 '벽'과 통용되기도 한다.

베랑 명 [대응어] 벼랑.

낭떠러지의 험하고 가파른 언덕. ¶{베랑으로} 떨어진다.

지역 전북.

해설 '베랑'은 '벼랑'이 'ㅕ>ㅔ'의 음운 변화를 겪은 결과이다. 'ㅕ>ㅔ'의 변화를 겪은 어형에는 '뼈~뻬', '결혼~겔혼' 등이 있다. '베랑'의 제 음절 모음이 'ㅔ>ㅣ'의 고모음화를 겪은 '비랑'도 쓰인다.

베랑박 명 [발음] [베랑빡] [대응어] 바람벽.

☞베람박. ¶누가 {베랑박에다가} 먼 낙서를 그러케 핸나/ 지저분허게. ¶한 이쁜 여자가 {베랑박에} 서서 울고 있는데 왜 우냐고 해도 말을 안 해.<구비문학대계 정읍군> ¶{베랑박에도} 귀때기가 달려 있응게 주둥아리도 봐서 놀리. ¶{베랑박} 걸쳐 있는 달력 봉게 구월이도 한 주 남었다. ¶아따, 지비는 그렇게도 열심이 이마박에 땀까장 흘려 감서 운동헝게 {베랑박에} 똥 볼라 감서 겁나게 오래 살겄소 이~. ¶차라리 {베랑박에다} 나발거리능게 훨썩 낫겄소!

지역 고창, 부안, 완주, 익산, 진안.

베루[1] 명 [대응어] 벼루.

☞비루.

지역 남원, 무주, 완주, 임실.

베루[2] 명

한 줄로 서서 논을 매나갈 때에 그 줄의 기준이 되는 가장자리에 있는 일꾼. ¶양 쪽 {베루는} 당겨를 매소/우이 야아 어 우이/ 다 되야가네 다 되야가네/우이 야아 어 우이(고창 논매는 소리)<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앞둑 {베루는} 뒷둑을 보고/ 어휘싸오/뒷둑 {베루는} 앞둑을 보고/어휘싸오/휘휘 둘러서 쌈들을 싸세/어휘싸오(임실 논매는 소리)<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고창, 임실.

해설 '베루'는 '벼리'에서 온 말이다. '벼리'는 그물의 위쪽 코를 꿰어 놓은 줄로 잡아당겨서 그물을 오므렸다 폈다 할 수 있게 되어있는 줄을 말한다. '베루잡이', '베루' 등은 논을 맬 때 한 줄로 서서 논을 매 나가는 일꾼들의 모습이 마치 고기 그물의 벼리를 당기는 모습과 같아서 붙은 이름이다.

베루[3] 명 [대응어] 벼랑.

낭떠러지의 험하고 가파른 언덕. ¶농창 농창 {베루} 끝에 시누 올키 빠졌다네/나도나 죽어 후승가서 우련 님을 셈길라네(무주 모심는 소리-모노래-무주군 안성면 덕산리 덕곡)<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무주.

베루잡 명

☞베루잽이. ¶{베루잡아}/ 위야 호호/이리 오니라/위야 호호/저리 가고/위야 호호(돌아간다!)<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무주 논매는 소리-무주군 무주읍 오산리)

지역 무주.

베루잽이 명

한 줄로 서서 논을 매나갈 때에 그 줄의 기준이 되는 가장자리에 있는 일꾼. ¶{베루잽이야}/ 위야 호호/어서 오니라/ 위야 호호/어서 어서/위야 호호/논을 매자/ 위야 호호<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무주 논매는 소리-무주군 무주읍 오산리)

지역 무주.

해설 '벼리'는 본디 그물의 위쪽 코를 꿰어 놓은 줄로 잡아당겨서 그물을 오므렸다 폈다 할 수 있게 되어있는 줄을 말한다. 여기서는 논을 맬 때 한 줄로 서서 논을 매나가는 일꾼들의 모습이 마치 고기 그물의 벼리를 당기는 모습과 같아서 붙은 이름이다.

베룩 명 [대응어] 벼룩. ¶이불에 {베룩이} 들끓는다. ¶{베룩도} 낯짝이 있다는디 사람이 왜 그리 뻔뻔허냐.

지역 전북.

해설 '베룩'은 '벼룩>베룩'의 음운 변화 과정을 겪었다. 'ㅕ>ㅔ'는 '뼈~뻬', '결혼~겔혼' 등과 같이 흔히 볼 수 있는 음운 변화이다.

베룩이도 낯짝이 있다 【관용표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체면이 있어야 함을 강조한 표현. ¶{베룩이도 낯짝이 있고} 빈대도 콧잔등이 있는 벱이여. 황차 사람이 만좌중에 그 우세통 다 뒤집어쓰고 무신 염치로 행세를 허겄나.<윤흥길, 빛가운데로걸어가면> ¶{베룩이도 낯짝이 있다고는} 허지만, 낯짝을 신주단지맹이로 뫼시고 사는 매안 냥반 서슬 푸른 기호성에, 이런 일 저질러져 어디다 낯 들고나 매안 이가요오, 헐 수가 없게 체면이 쑥발 된 마당에,<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해설 '낯짝'은 '낯'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작은 생물인 '벼룩'도 낯짝이 있는데 어찌 하물며 사람이 체면이 없으면 되겠는가 하고 사람 사이의 체면을 강조한 관용표현이다.

베룸박 명 [발음] [베룸빡] [대응어] 벽.

☞베람박.

지역 무주, 진안.

베르다 동 [대응어] 버리다.

☞베리다.

지역 진안.

베릉박 명 [발음] [베릉박] [대응어] 벽.

☞베람박.

지역 무주.

베리다 동 [대응어] 버리다.

가지거나 지니고 있을 필요가 없는 물건을 내던지거나 쏟거나 하다. 직접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과의 사이를 끊고 돌보지 아니하다. ¶"엄마가 나갖고[바꿔서], 줏어온 애기를 키워야 옳냐? {베리야} 옳냐?"<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각시를 {베리고서} 나 부잣집으로 장가 한번 가 갖고 호강 한번 해야지.<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빗지락이 닳었다고 {베리더니} 뭣 허로 다시 찾고 댕기요?

지역 고창, 김제, 남원,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진안.

해설 '베리다'는 '버리다'의 어두 음절 모음이 후행하는 모음 ㅣ의 전설성에 영향을 받아 움라우트된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움라우트, 즉 ㅣ모음 역행 동화는 개재자음이 /ㄴ, ㄷ, ㄹ, ㅈ/ 등과 같이[+coronal], 자질을 가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이 경우는 개재자음에 제약을 받지 않았다.

베문히 부 [대응어] 어련히.

따로 걱정하지 아니하여도 잘될 것이 명백하거나 뚜렷하게. ¶병원에서 두 달이나 있다 나왔는디 {베문히} 아펐겄냐고.

지역 전북.

베뿌젱이 명 [대응어] 질경이.

☞배뿌쟁이.

지역 전북.

베실 명 [대응어] 벼슬.

관아에 나가 나랏일을 맡아 다스리는 자리. 또는 그런 일. ¶저 사람네 조상은 높은 {베실} 살았다고 하도만. 저 사람은 조상 덕을 잘 못 봤나 영 그릇이 아니여.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해설 '베실'은 '벼슬>베슬>베실'의 음운 변화 과정을 겪었다. 'ㅕ>ㅔ'는 7세기 이후 발생한 음운 변화로, '뼈~뻬', '결혼~겔혼' 등에서도 볼 수 있으며, 'ㅡ>ㅣ'의 전설모음화는 /ㅅ, ㅈ, ㅊ/ 치찰음 뒤에서 9세기 말부터 발생하였다.

베암때왈 명 [대응어] 뱀딸기.

☞배암때왈.
지역 전북.

베이다 동 [대응어] 보이다.
눈으로 대상의 존재나 형태적 특징을 알게 되다. ¶글씨 한지나 쪼깬혀 갖고 내가 그거시 {베이겄나고}. 하나도 안 {베인게} 걍 니가 읽어라잉. ¶저기 언덕에 제일 큰 오동나무 {베이지}, 저 나무를 우리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심으셨대. ¶다들 큰 도시로 나가서 돈을 번다는디 농삿일이 눈에 {베일} 택이 없지.
지역 남원.

베이삭 명 [대응어] 벼이삭.
벼에서 꽃이 피고 꽃대 끝에 열매가 수북하게 많이 열리는 부분.
지역 군산, 완주.
해설 '베이삭'은 '벼이삭'의 음운론적 이형태이다. '벼>베'에서 보이는 'ㅕ>ㅔ' 변화는 7세기 이후부터 발생한 음운 변화로, '뼈~뻬', '결혼~겔혼' 등에서도 볼 수 있다.

베작베작 부
무엇을 조금씩 하는 모양. 또는 꾸깃한 것을 조금씩 펴 나가는 모양. ¶{베작베작} 허서 언지 다 할까잉. 참.
지역 전북.

베제 명 [대응어] 비지.
☞배게.
지역 전북.

베짜이 명 [대응어] 베짱이.
지역 전북.

벡돌 명 [대응어] 벽돌.
벽을 쌓기 위하여 흙이나 시멘트 따위로 만든 직육면체의 토막. ¶{벡돌로} 벡을 차곡차곡 쌓아라.
지역 전북.
해설 '벡돌'은 '벽돌'의 제 음절 모음이 'ㅕ>ㅔ' 음운 변화를 겪은 결과이다. 이러한 음운 변화는 '뼈~뻬', '결혼~겔혼' 등에서도 볼 수 있다. 한편 'ㅔ>ㅣ' 고모음화를 겪은 '빅돌' 형도 쓰인다.

벡돌담 명 [대응어] 벽돌담.
벽돌로 쌓은 담. ¶{벡똘땀에} 담우그 인따<2009 전북 임실> ¶그나마 밥술이라도 먹고 산게 {벡돌담}도 치고 지붕으 지와도 새로 얹었지. ¶{벡돌담으로} 담장을 치니 참 튼튼하구나.
지역 전북.
해설 '벡돌담'은 '벡돌+담'의 합성어로, '벡돌'은 '벽돌'의 제 음절 모음이 'ㅕ>ㅔ' 음운 변화를 겪은 결과이다. 이러한 음운 변화는 '뼈~뻬', '결혼~겔혼' 등에서도 볼 수 있다.

벡장 명 [대응어] 벽장.
벽을 뚫어 작은 문을 내고 그 안에 물건을 넣어두도록 만든 장(欌). ¶{벡장에다가} 넣어 둬라. ¶안방으 {벡장} 속에는 집안의 귀한 물건이 있어서 할아부지 열쇠 없이는 클를 수가 없었다.
지역 전북.
해설 '벡장'은 '벽장'의 제 음절 모음이 'ㅕ>ㅔ' 음운 변화를 겪은 결과이다. 이러한 음운 변화는 '뼈~뻬', '결혼~겔혼' 등에서도 볼 수 있다. 'ㅔ>ㅣ' 고모음화를 겪은 '빅장'도 있다.

벡지 명 [대응어] 벽지.
벽에 바르는 종이. ¶깨깟하게 {벡지만} 해도 새 집 같으고 좋당게. ¶이런 흙베랑빡은 {벡지}를 바르기 전에 먼저 피지를 바르고 그 우에다 되비를 허는 거여.
지역 전북.

벤또 (←<일>bentô[辨當]) 명 [대응어] 도시락.

밥을 담는 작은 그릇. 또는 그런 그릇에 반찬을 곁들여 담은 밥. ¶날 따술 때는 그대로 괜찮은디 겨울에 참 추웠었어. 밥 먹고 {벤또} 고놈얼 짊어지고 모퉁이럴 내려가면 아, 얼음은 그냥 디굴디굴 허지,<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7> ¶나오던 길로 기다렸고, 지금도 기다린다. 아침을 못 해먹었으니, 그새라도 혹시 양식이 생겨서 밥을 해먹었으면, 알뜰한 모친이라 점심을 내오는 체하고 {벤또에다가} 밥을 담아다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껏 소식이 없는 것을 보면, 그대로 굶고 있기가 십상이다. 초봉이 제 한 입이야<채만식, 탁류> ¶그래 이래서는 안 되겄다 허서 여그서 아침밥 먹고 {벤또럴} 싸서 짊어지고 혼자 내려가지라우.<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7> ¶글먼, 거그 가서 지까심 허고, 아그들 {벤또} 싸 줄랑게 마른 새비 조까 사옴서 날도 더웅게 냉콩국시랑 사 먹고 오게 이~ 고거슨 나가 개운허게 쏠랑게~. ¶겨울이면 선생님이 조개탄 난로 우에다 {벤또}밥을 디어 주시던 일을 잊을 수 없지.

지역 군산, 무주, 완주, 임실.

벤소 명 [대응어] 변소.

대소변을 보도록 만들어 놓은 곳. ¶배가 아파서 {벤소에} 간다. ¶{벤소마다} 반드시 달갈귀신 하나씩은 살고 있었다.

지역 남원, 완주, 임실, 정읍, 고창, 군산, 김제, 무주, 부안, 순창, 익산, 진안.

해설 '벤소'는 '변소'의 제 음절 모음이 'ㅕ>ㅔ' 변화를 겪은 결과이다. 이와 같은 변화를 겪은 형태로 '뼈~뻬', '결혼~겔혼' 등이 있다.

벤솟간 명 [대응어] 변소.

대소변을 보도록 만들어 놓은 곳. ¶배가 아파 {벤솟간을} 들락거렸다.

지역 전북.

해설 '벤솟간'은 '벤소+ㅅ(사이시옷)+-간(장소를 나타내는 접미사)'으로 분석된다. '벤소'는 '변소'의 제 음절 모음이 'ㅕ>ㅔ' 변화를 겪은 결과이다. 이와 같은 변화를 겪은 형태로 '뼈~뻬', '결혼~겔혼' 등이 있다.

벤전 명 [대응어] 이자(利子).

남에게 돈을 빌려 쓴 대가로 치르는 일정한 비율의 돈. ¶{벤전을} 얹어 주다

지역 무주.

벨꼴 명 [대응어] 별꼴.

별나게 이상하거나 아니꼬워 눈에 거슬리는 꼬락서니. ¶참말로 {벨꼴이} 반쪽이네. 여그서는 귀가 멍멍허니 잘만 들기는디 으째 그짝서는 귀먹쟁이 숭내로 엉뚱깽뚱헌 대답만 근너온다요?<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벨라 부 [대응어] 별로.

((부정을 뜻하는 말과 함께 쓰여)) 이렇다 하게 따로. 또는 그다지 다르게. ¶사다 먹지. 근게 {벨라} 안 먹지. 먹고 싶으면 사다 먹고 그려. 이 토질이 그란게로 이 동네는 과일 나무가 잘 안 뒤야. ¶그때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흰옷만 많이 입었다고 힌옷. 껌은 옷이라고 {벨라} 몰랐어. ¶밥이나 해먹고 떡이나 어쩌다 해먹지만 그건 많이 {벨라} 안 씨니까. ¶그 전에는 튼튼헌 사람을 알아줬는디 지금은 튼튼헌 사람이 {벨라여}. ¶색이 {벨라} 거시기가, 그 추석사과가.

지역 장수.

벨로 부 [대응어] 별로.

((부정을 뜻하는 말과 함께 쓰여)) 이렇다 하게 따로. 또는 그다지 다르게. ¶고생 마니힌쩨 농작도 {벨로} 읎꼬, 그때 이, 마저가지고 그냥.<지

역어 자료 총서, 고창> ¶부락: 사람들 전체저그로 나와 가지고 허는 거슨 그 {벨로} 업썬써요. {부락 사람들 전체적으로 나와<지역어 자료 총서, 군산> ¶전설, 머시냐 {벨로} 나, 그 잘 모르거띠요.<완주 지역어 텍스트> ¶"너나 많이 먹어어! 으런들은 {벨로} 좋아들 안헝게로……."<이병철, 모래내 모래톱>
지역 고창, 군산, 완주.

벨르다 동 [대응어] 버리다.
☞벨리다.
지역 무주, 부안, 임실.

벨리다 동 [대응어] 버리다.
무디어진 연장의 날을 불에 달구어 두드려서 날카롭게 만들다. ¶식칼을 {벨려} 달라고 대장간을 찾았다.
지역 부안, 임실.
해설 '벨리다'는 'ㅕ>ㅔ' 단순모음화가 적용된 '베리다'에 어두 음절 말음의 'ㄹ 첨가'로 인하여 '벨리다'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ㅕ>ㅔ' 단순모음화는 7세기 이후 발생한 음운 변화로 '뼈~뻬', '결혼~겔혼' 등에서도 볼 수 있고, 'ㄹ 첨가' 역시 '부르다~불르다', '다르다~달르다'와 같이 후행하는 음절의 초성이 /ㄹ/일 때 흔히 볼 수 있다.

벨시럽다 (←別시럽다) 형 [대응어] 별스럽다.
보기에 보통과는 다른 데가 있다. ¶{벨시러운} 꼴을 다 보네 ¶아따, 오래 살다 봉게 {벨시런} 일이 다 있고만 이~. ¶이 촌사람들은, "서울사람들은 {벨시럽게} 뒤애지를 잡어먹고 불질러서 잡어먹는다." 고 이런단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전북.

벨일 명 [대응어] 별일.
드물고 이상한 일. 또는 특별히 다른 일. ¶그런데 뜻밖에 아들 채워준 칼이 원이 차고 있거든. 참 {벨일이지}.<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전북.

벨일 (←別일) 명 [대응어] 별일.
드물고 이상하거나 다른 일. ¶아따, 차말로 오래 살다 봉게 {벨일을} 다 보요. ¶암시랑 않은 일 갖고 {벨일이나} 있는 거같이 자발떨믄서 징허게 설치고 댕기는구만 이~. ¶워따, {벨일이시}. ¶{벨일을} 다 해 보다 ¶{벨일} 없어.
지역 전북.

벨짜 명 [대응어] 별놈.
생김새, 성질, 언행 등이 별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세상에는 참 {벨짜도} 많다.
지역 전북.

벨쫑맞다 형 [대응어] 별나다.
보통과는 다르게 특별하거나 이상하다. ¶그이는 {벨쫑맞아서} 옆으가 붙어 있는 친구 한 명이 없당게. ¶암도 안헌다는 일을 기언시 허겄다고 고집을 부리니 {벨쫑맞은} 놈 다 보겄네.
지역 전북.

벨축스럽다 형 [대응어] 별나다.
보통과는 다르게 특별하거나 이상하다. ¶나는 내가 {벨축스럽지} 않고 그냥 평범헌 사람 같은디.
지역 전북.

벳가리 명 [대응어] 낟가리.
☞베가리.
지역 익산.

벳게지다 동 [대응어] 벗겨지다.
덮이거나 씌워진 물건이 외부의 힘에 의하여 떼어지거나 떨어지다. ¶호랭이 대그빡에다가 민도

칼로 째까씩 살살 벳게 낸 후참에 끄트머리 잡고 똥구녕 팍 차 갖고 내질러불먼 영낙없이 {벳게져} 불잖이여 고로코롬 않허믄 어림 택도 없어 불제이.

지역 전북.

벳기다 동 [대응어] 벗기다.

덮고 있던 것을 제거하다. 또는 누명이나 혐의 등에서 벗어나게 하다. ¶중놈이 겁탈을 히야겄는디 말여. 본게스니 옷을 원체 많이 입어서 말여. 이것을 어떻게 {벳길} 수가 있어야지.<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절이 있던 사람이 무심코 모자를 {베겼는디} 그전까지 대머리라는 것을 암도 몰랐지. ¶딸을 시켜서 밥을 안허구 지가 밥을 하는디, 쥐가 쏙 나온개 부시댕이로 때려 잡아 가지고 껍데기를 홀랑 {벳겨} 가지구 종놈을 시켜서 가만히 자는데다 속곳 밑에다 놔.<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동생이 옷에 오줌을 저려 {벳기니} 창피한지 고추를 손으로 가려 웃음이 나왔다. ¶붕어 비늘을 {벳기내야} 매운탕을 끓이지 배만 딴다고 되는 줄 알았간디{완주}. ¶호랭이 대그빡에다가 민도칼로 째까씩 살살 {벳게} 낸 후참에 끄트머리 잡고 똥구녕 팍 차 갖고 내질러불먼 영낙없이 배깨져 불잖이여 고로코롬 않허믄 어림 택도 없어 불제이. ¶아까참에 부석작에 고구마 느놨는디 다 타버렸것다 얼릉 가 갖고 끄집어내서 껍데기 {벳게} 먹어라. ¶이놈(주인 남자)이 잘라고 드러오거든, 과수 데려다 논 줄 알고 인자 드러 온개로, 와서 이불을 {벳길라고} 한개로, 이불을 꽉 쥐고 안 논개로 {벳길라고} 해 봤자 {벳길} 수가 있는가?<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벨다른 빼쪽헌 수는 없고 비밀을 {벳기야만} 내막을 알 수 있응게 인자 일의 행방을 잡어 보드라고.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옥구,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벳누리 명 [대응어] 낟가리.

낟알이 붙은 곡식을 그대로 쌓은 더미. 또는 나무, 풀, 짚 따위를 쌓은 더미. ¶가을 들판에 {벳누리가} 쌓여 있다. ¶겨우내 땔감으로 쓸 {벳누리를} 창고로 날랐다.

지역 전북.

벳다발 명 [대응어] 볏단.

벼를 베어 묶은 단. ¶{벳다발을} 쌓아 놓는다.

지역 익산.

해설 '벳다발'은 '베+ㅅ(사이시옷)+다발'의 결합으로 분석된다. '베'는 '벼'의 제 음절 모음이 'ㅕ>ㅔ'로 변화한 결과이다. 이러한 음운 변화는 7세기 이후 발생한 음운 변화로, '뼈~뻬', '결혼~겔혼' 등에서도 볼 수 있다.

벳단 명 [대응어] 볏단.

벼를 베어 묶은 단. ¶농사가 잘 됐나 {벳단이} 하늘만큼 싸 놨네. ¶올 농사는 잘 되어 {벳단이} 참 멋있게 쌓여 있구나.

지역 무주, 옥구, 완주, 남원.

해설 '벳단'은 '볏단'의 제 음절 모음이 'ㅕ>ㅔ'로 단순모음화한 결과이다. 이러한 음운 변화는 7세기 이후 발생한 음운 변화로, '뼈~뻬', '결혼~겔혼' 등에서도 볼 수 있다.

벳도랑 명 [대응어] 봇도랑.

☞벗도랑.

지역 전북.

벳모가지 명 [대응어] 벼이삭.

벼에서 꽃이 피고 꽃대 끝에 열매가 수북하게 많이 열리는 부분. ¶{벳모가지가} 패고 있다. ¶올 가을 {벳모가지가} 참 튼튼하구나.

지역 익산.

벳뭇 명 [대응어] 볏단.

벼를 베어 묶은 단.

지역 익산.

해설 '벳뭇'은 '베+ㅅ(사이시옷)+뭇'의 결합으로 분석된다. '베'는 '벼'의 제 음절 모음이 'ㅕ>ㅔ'로 변화한 결과이다. 이러한 음운 변화는 7세기 이후 발생한 음운 변화로, '뼈~뻬', '결혼~겔혼' 등에서도 볼 수 있다.

벳집 명 [대응어] 볏짚.

벼의 낟알을 떨어낸 줄기. ¶마당에 {벳집을} 쌓아 두었다.

지역 완주,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옥구,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해설 '벳집'은 '베+ㅅ(사이시옷)+집'으로 분석된다. '베'는 '벼'가 'ㅕ>ㅔ'의 단순모음화를 겪은 결과로, 이러한 변화는 '뼈~뻬', '결혼~겔혼' 등에서도 볼 수 있다. '집'은 '짚'의 어간 말음 /ㅍ/이 음절말 위치에서 /ㅂ/으로 불파한 형태로 어간이 재구조화한 결과이다.

벵개 (←甁개) 명 [대응어] 병.

주로 액체나 가루를 담는 데에 쓰는 목과 아가리가 좁은 그릇. ¶{벵개가} 와장창 깨졌다.

지역 전북.

벵마개 명 [대응어] 병마개.

병의 아가리를 막는 마개. ¶{벵마개} 잘 닫어야 짐이 안 빠지지.

지역 전북.

해설 '벵마개'는 '벵+마개'로 분석된다. '벵'은 '병'이 'ㅕ>ㅔ' 단순모음화를 겪은 결과이다. 이러한 음운 변화는 7세기 이후부터 발생하였으며, '뼈~뻬', '결혼~겔혼' 등에서도 볼 수 있다.

벵아리 명 [대응어] 병아리.

☞빙아리.

지역 무주, 익산.

벵치 명 [대응어] 병어. ¶그 꿈이 무신 꿈인지 알 수가 없어서 {벵치한티} 점 치러 갔어.<구비문학대계 정읍군> ¶{벵치는} 메기 주둥이가 갑자기 크게 찢어지는 것이 하도 우수워서 히히 허고 입을 오무려서 웃었어.<구비문학대계 정읍군>

지역 정읍.

벼개 명 [대응어] 베개.

잠을 자거나 누울 때에 머리를 괴는 물건. ¶두루메기 치마를 갔다 걸치고서 그걸 {벼개를} 삼아 가지고 하는 안방이 되고 하나는 웃방이 되는거여. 그렇게 지내는겨.<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군산, 완주.

벼널 명 [대응어] 낟가리.

☞벼늘.

지역 남원.

벼눌가리 명 [대응어] 낟가리.

낟알이 붙은 곡식을 그대로 쌓은 더미. 또는 나무, 풀, 짚 따위를 쌓은 더미. ¶쌀 나오라면 쌀 나오고 이런 방맹인디 주었어. 그놈이 말여, 인자 부자 딱허니 되고서는 말여, 아니 그냥 {벼눌가릿처럼} 나락을 막 죽허니 싸놓고 말여 포장 치놓고 떡허니 히놨는디. 아 방맹이 가져와야지.<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겨우내 땔감으로 쓸 {벼눌가리를} 창고로 날랐다.

지역 군산.

벼늘 명 [대응어] 낟가리.

낟알이 붙은 곡식을 그대로 쌓은 더미. 또는 나무, 풀, 짚 따위를 쌓은 더미. ¶겨우내 땔감으로 쓸 {벼늘을} 쌓았다.

지역 군산, 고창, 김제, 부안, 정읍, 남원, 순창,

임실.

벼락박 명 [대응어] 벽.
☞베람박.
지역 군산.

벼람박 명 [대응어] 바람벽.
방이나 칸살의 옆을 둘러막은 둘레의 벽. ¶돈 업는 놈 술집 {벼람박의} 술갑 긋듯 긋여 노니 한 일 ?가 되야?나<완판본 열여춘향수절가下>
지역 전북.

벼실 명 [대응어] 벼슬.
☞베실. ¶이놈아 반장도 아니고 분단장에 뽑힌게 무신 큰 {벼실이라고} 히죽거림서 댕기냐. ¶그래 인제 아 수궁에 가서 큰 {벼실} 준다고 근게 그런지 알고 딱 올라탔네.<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벼실} 자리보다도 문학을 많이 젊은 선비들을 잘 가르치자는 것이지요.<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상소를 하항서(항복 문서)를 최명길이가 제일 추측을 혔어. 최명길이가 그때 {벼실} 해 갖고 주죽(주장)을 혔는디, 그때 서낭각씨가 일러준 말을 듣고는<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참봉 {벼실} 험서 그 근방서는 진참봉, 진찬봉여. 돈도 많고 대농(大農)허고 근게<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전북.

변솟간 명 [대응어] 변소.
☞벤솟간. ¶{변솟간}에는 변소각시가 살고 있는데 측간을 관장하는 가신이다.
지역 전북.

별시리 (別시리) 부 [대응어] 별스레.
보기에 보통과는 다르게 ¶올 가을은 {별시리} 춥네잉. 벌써 얼음도 얼고. ¶지가 제일이라고 큰 소리를 치고 댕기지만 알고 봉게 {별시리} 잘 허는것도 없는 놈이 허풍이 심헌 게벼.
지역 전북.

별쭉나다 형 [대응어] 유별나다.
일의 상황이나 정도가 아주 심하다. ¶아주 너머나 심하게 하면 그런 소리하제, 심허게 뭐시고, 아조 심하게 허면 너머 {별쭉나다고}.
지역 장수.

볏뭇 명 [대응어] 볏단.
☞벳뭇.
지역 익산.

볏집 명 [대응어] 볏짚.
☞벳집. ¶예전에는 집집마다 {볏집으로} 지붕을 씌웠어.
지역 고창.

병개 명 [대응어] 병.
☞벵개.
지역 전북.

병박 명 [발음] [병빡] [대응어] 벽.
☞베람박.
지역 전북.

병출시럽다 형
일의 상황이나 정도가 아주 심하다. ¶병출, {병출시럽게}, {병출시럽게라고} 그러지, {병출시럽게}. ¶옛날 말로 {병출시럽게}. 그것이 옛날에 허는 소리여. 참 너는 어찧게 병출시럽게도 다 그래쌌냐? 넌 참 {병출시럽다}.
지역 장수.

보갚다 (報갚다) 동 [대응어] 앙갚음하다.
남이 저에게 해를 준 대로 저도 그에게 해를 주

다. ¶그래갖고는 {보갚을라고} 인자 지리산으로 갈라고 연습을 잘 했던 겁니다.<한국구비문학대계, 전남 해남군편>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보갚다'는 '보를 갚다.'에서 온 복합어이다. 여기서 '보'는 한자어 '報'이다.

보갚움 명 [대응어] 앙갚음.

남이 저에게 해를 준 대로 저도 그에게 해를 줌. ¶팔짜가 기구히여서 이런 징글징글헌 집으루 시집 온 죄 배끼는 아무 죄두 읎서라우 왜 걸신허면 날 못잡어먹어서 응을거리여 삼십년두구 종질히여준 {보갚움으루} 그런대여?<채만식, 천하태평춘>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보갚움'은 '보를 갚다'에서 온 복합어 '보갚음'의 변이형이다.

보갚이 명 [대응어] 앙갚음.

해를 준 대상에게 그만큼의 해를 돌려주는 것. ¶세상을 살다가 참 이런 꼴을 당허지 말어야는 것이여. 자식 키워서 이런 {보갚이를} 받어야 헌다면 어느 놈이 자식을 낳겄는가.<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보갚다'에 접미사 '-이'가 붙어 만들어진 명사이다.

보고리[1] 명 [대응어] 바구니.

☞바구리.

지역 무주.

보고리[2] 명

약 올리는 사람. 또는 그 행위. ¶시방 손이 발이 되드락 요러콤 사정사정허는디도 끄니 나 몰라라 {보고리만} 채시기요? 이장님 요짝으로 근너오신다. 요만 끊자.<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보고리'는 '화'를 의미하는 '보골'에 접미사 '-이'가 붙어 만들어진 어휘이다.

보고리 채다 【관용표현】 [대응어] 약을 올리다.

¶계집은 살냄새 끼치며 암상스럽게 제 잠자리 투정을 저처럼 앙앙불락 억하심정으로 {보고리 채우며} 모질게 하니.<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보고리'는 '약을 올리는 사람이나 행위'를 싸잡아서 이르는 말로 쓰인다. '보고리(를) 채다.'는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사람을 약을 올리다.'라는 뜻을 갖는다. '보고리 채우다'로도 사용한다.

보관히다 동 [대응어] 맡기다.

물건을 맡아서 간직하고 관리하다. ¶맡긴 물건을 {보관히} 두다

지역 임실.

보깨떡 명 [대응어] 달떡.

달 모양으로 둥글게 만든 흰 떡. ¶찹쌀가루에다 쑥을 여갖고 반죽을 히서 {보깨떡을} 만들면 그리 맛있디야. 긍게로 겔혼식 끝나고 직장 사람들헌티 그 떡을 돌리면 쓰겄어.

지역 전북.

보꾸다 동 [대응어] 볶다.

음식이나 음식의 재료를 물기가 거의 없거나 적은 상태로 열을 가하여 이리저리 자주 저으면서 익히다. ¶새우이다 간장이다 하얀 쌀밥을 옇어갖고 살살 {보꿔} 먹으면 겁나게 맛있당게. 히먹어 봐. ¶야좀 봐라잉, 깨를 {보꾸는} 일이 쉬운 줄 아는게벼. 쪼깨만 잘못허면 씨꺼멓게 타버리는 거여. ¶들깨를 {보꾸어야} 반찬에 넣어 먹을 수 있단다.

지역 전북.

보닥타라지다 동 [대응어] 부서지다.

단단한 물체가 깨어져 여러 조각이 나다. ¶병이 {보탁타라졌다}.

지역 전북.

보단 조 [대응어] 보다.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을 비교하는 경우, 비교의 대상이 되는 말에 붙어 '~에 비해서'의 뜻을 나타내는 격 조사. ¶저것이 서가 잘뤄갖고 학이라 고얀디 빽이라고 혔다. 그런디 그때 그 {임금보단도} 우리도 저사람을 꼭 생각히갖고 저 사람을 도와 주어야겄다 이렇게<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이 시방 요새 지관들이 뭐 헌다고도 지리라는 것은 이런 {글보단도} 애룹고(어렵고), 이 구학문보다도 애룹고, 신학문 보다도 애러.<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사람을 덜어먹을 수 없는. 근디 이놈이, 그러나 이놈이 어떻게 {나보단} 더 도적질을 잘 허는 놈 어디 있는가 염탐하는 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전북.

보담 조 [대응어] 보다.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을 비교하는 경우, 비교의 대상이 되는 말에 붙어 '~에 비해서'의 뜻을 나타내는 격 조사. ¶뽕 따는 여인네들도 낭군 생각은 모두다 일반이라 {딸보담도} 좋은 팔자 옥문 밖을 못 나가니 연을 캐냐<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이렇게 귀찮게 성가시럽게 구냐?" 고 험서나 나오드라느만, 나오더니 {그때보담도} 몸이 더 나가지고서 잘 처먹고 참 그러고 나자 신게<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전북.

보대끼다 동 [대응어] 들볶이다(아이들한테).

까다롭게 굴거나 잔소리를 하는 이에게 괴롭힘을 당하다. ¶어찌 아니야? 무슨 일이 있어?" "그저 요새 조끔 {보대낀다} 싶드니마는……괜찮습니다."<최명희, 혼불> ¶똑 가문 날 외꽃맹이로 시들어져 갖꼬 밥도 못 먹고 {보대끼능} 것 보면 서너 달 안되얐이까?"<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보도시 부 [대응어] 간신히.

겨우 또는 가까스로. ¶사램이 땅바닥에 금뎅이 떨어진 걸 바도, 아이고 저것 줏어야지, 험서 한 나잘이나 꾸부려 갖꼬 {보도시} 줏을 거이여잉. 누가 그때끄장 내비두간디?<최명희, 혼불> ¶저 넉으도 신랑 혼신이 안 올라고오 안 올라고 버티능 것을 {보도시} 끄집어 왔당만 그리여.<최명희, 혼불> ¶외상술도 안 주고 그 술 석잔 값을 {보도시} 장만히 갖고 개와(주머니) 속으다 딱 넣고 갔다 그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남원, 정읍.

해설 표준어 부사 '바듯이'는 형용사 '바듯하다'에서 파생된 것인데, '바듯하다'는 '어떤 한도에 차거나 꼭 맞아서 빈틈이 없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보도씨 부 [대응어] 간신히.

☞보도시.

지역 전북.

보독시 부 [대응어] 간신히.

겨우 또는 가까스로. ¶그리고 한 사람, 그 중에서도 공부는 제일 잘 했더라는 것이여, 근디 그 사람 보고는, "너는 {보독시} 시골 원은 갈 거이다.", 시골 원으로 살거라 그래.<구비문학 남원>

지역 전북.

보독시리다 동 [대응어] 부리다, 넘어뜨리다.

☞보독씨리다. ¶아매 저 정자나무 아래 어디 {보독시리고} 있을 거이요, 그런디 작은아씨가 먼저 졌소?<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보독씨리다 동 [대응어] 부리다, 넘어뜨리다.

사람의 등에 지거나 자동차나 배 따위에 실었던 것을 내려놓다. 또는 바로 선 것을 잡아서 넘어지게 하다. ¶이불끄장 두르르 말어 부르드니, 그대로 둘러메고 달어난단 말이여. 그러더니 김도령 머심 사는 집이다가 {보독씨려} 놔.<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의 '보독씨리다, 보독시리다'는 표준어의 '부리다, 넘어뜨리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보독씨려 버렸다'라고 표현한다.

보돔기다 동 [대응어] 안기다, 품기다.

☞보둠기다.

지역 김제, 진안.

보돔다 동 [대응어] 보듬다.

사람이나 동물을 가슴에 붙도록 안다. ¶두깨비란 놈이 어띠게 홀짝 뛰서는 치마에 치마폭으가서 딱 쌔인단 말이여. 근게 {보돔아} 갖고 인자 타고 갔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그리서는 가만가만 두께비를 딱 {보돔아서} 가서는 앙거서 어떻게 생있냐 허고 내리다 본게 인자 흑허니 소의소복을 허고 인제 촛불 써놓고 방으 딱 소복허고 방 가운데 앙겄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그럭저럭 살어봤던들 여자도 한참 동헌 기운 있이먼은 지둥낭구를 다 {보돔고} 돈다는 거인디.<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할아버지는 귀여운 손주를 {보돔아} 주었다.

지역 완주, 임실, 정읍, 진안, 고창, 순창, 군산, 익산, 장수, 김제, 무주, 부안.

보둠기다 동 [대응어] 안기다, 품기다.

가슴에 대어 안기다. ¶근디 원제꺼정 {보둠기고} 있어야 헐랑가 몰르겄네. 이해룡이 말대로 해동이 됨스로는 참말로 일이 풀렸으면 쓰겄는디……<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고창, 남원, 부안, 순창, 군산, 김제, 진안, 익산.

보둥키다 동 [대응어] 부둥키다.

두 팔로 힘써 안거나 두 손으로 힘껏 붙잡다. ¶어린 것들이 춥기는 허고 의지할 데는 지들뿐이고 서로 {보둥켜} 안고 울기밖에 더 허겄냐고. 그것을 우연히 보고는 어찌나 안쓰럽던가 집에 델고 와서 뜨뜻한 국물에 밥 멕이고 재우고 보냈당게. 어떻게 살랑가 걱정이여. ¶68년만에 만난 남북이산가족이 보자마자 {보둥키고} 울었다.

지역 전북.

보드랍다 형 [활용형] 보드라워/보드라와 [대응어] 부드럽다(柔).

닿거나 스치는 느낌이 거칠거나 빳빳하지 아니하다. 또는 성질이나 태도가 억세지 아니하고 매우 따뜻하다. ¶형식은 달구경은 그만두어 버리고 취한 듯이 문자의 얼굴과 흰떡으로 빚은 듯이 {보드랍고} 하늑하늑한 젖가슴을, 벌린 입을 다물 줄 모르고 바라보았다.<채만식, 과도기> ¶소복소복 자란 보리밭은 우단결같이 {보드랍다}. 텃논에 가득 잡힌 봄물이 둔덕을 넘친다. 여인네가 두엇 하얀 빨래를 빨고 있다.<채만식, 인형의 집> ¶점원은 더욱 유심히 영호를 바라보다가 우선 태도를 {보드랍게} 고쳐가지고…… 아마 형사로 알았던 모양이다. "네, 여자 손님입니다." "어떻게 생겼어요?"<채만식, 염마> ¶"그런 씰닥쟁이 없는 소리는 딛기도 싫고." "그러먼 머언 {보드란} 소리를 해 디리까요잉? 요렇게 마실이랑

오셨는디, 손님 대접 헐 것도 마땅찮고." "머? 손니임?<최명희, 혼불> ¶다저가꼬 이? 다제 여야제.(다져가지고 이? 다져 넣어야지.) 그레야 {보드랍째}.(그래야 부드럽지.) 그러케 해가꼬, 또 마눌 여코, 파이 여코, 그레서 꿍꿍 여치머.<지역어 자료 총서, 중국 무주촌>
지역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장수, 정읍.

보듬허다 형 [대응어] 넉넉하다.
크기나 수량 따위가 기준에 차고도 남음이 있다. ¶재산이 {보듬헌게로} 돈 쓸 때 고민을 안 허드만.
지역 전북.

보디집비녀 명 [대응어] 바디집비녀.
바디집 두 짝의 머리를 잡아 꿰는 쇠나 나무.
지역 전북.

보딩끼다 동 [대응어] 부둥키다.
☞보둥키다.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보딩끼며} 살어야지 혼차만 잘 살라고 허면 어찌 사람의 도린가?
지역 전북.

보래기풀 명
논밭에 나는 풀의 한 종류. 길쭉한 여러 줄기에 초록색의 길쭉한 잎들이 달려 있다. ¶{보래기풀도} 있고 왕골지심도 있고 피도 있고.
지역 전북.

보래색 명 [대응어] 보라색.
파랑과 빨강의 중간색. 또는 그런 색의 물감. ¶벽을 {보래색으로} 칠했다. ¶너는 {보래색} 옷이 잘 어울리는 구나.
지역 전북.

보럼 명 [대응어] 보름.
☞보롬.
지역 고창.

보로[1] 부 [대응어] 벌써.
예상보다 빠르게. 또는 이미 오래전에 ¶{보로} 오다 ¶{보로} 갔다 왔구만.
지역 전북.

보로[2] 조 [대응어] 보고.
어떤 행동이 미치는 대상을 나타내는 격 조사. ¶뭔 허실 말씀이 있으면 {매누리보로} 이 자리서 말씀이랑 히라고.
지역 전북.

보롬 명 [대응어] 보름.
음력으로 그 달의 열닷새째 되는 날. ¶인자 나제는 아니지만 저녁, 아척, 그러고 인자 {보롬} 도라오먼<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쌀 한말로 우리 식구가 {보롬을} 넴길 수 있을까.
지역 군산, 남원, 무주, 완주, 임실, 고창.
해설 '보롬'은 '보름'의 제2 음절 모음이 종성 /ㅁ/의 양순성에 동화되어 원순모음화한 결과이다.

보루바꾸 (←<일본어>bo-rubako) 명
두꺼운 종이로 만든 박스. ¶엿장시 맘대로 가새치는 대로 지름병도 받고, {보루바꾸} 상지도 받고요.
지역 전북.

보룻저 명 [대응어] 보릿겨.
☞보릿저.
지역 임실.

보르다 동 [대응어] 바르다.
껍질을 벗기어 속에 들어 있는 알맹이를 집어내다. ¶이렇게 높은게 하나도 못 먹은게. 그런게

씨만 {볼라}. 씨만 {볼라} 가꼬 한 열흘 줏제.
지역 전북.

보름삭망 (--朔望) 명 [대응어] 삭망.
음력 초하룻날과 보름날을 아울러 이르는 말.
지역 무주.

보름식망 명 [대응어] 삭망.
☞보름삭망.
지역 완주.

보리껍디기 명 [대응어] 보릿겨.
보리에서 보리쌀을 꺼내고 남은 속겨. ¶{보리껍디기는} 짐승이나 멕이지 얻다 쓸데가 없다.
지역 무주.

보리배필 (보리配匹) 명 [대응어] 천생배필.
하늘에서 미리 정하여 준 배필. ¶자기허고 나허고는 참말로 천생연분에 {보리배필이여}.<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보리뱅이 명 [대응어] 민들레. ¶봄이 되면 들판에 {보리뱅이가} 노랗게 피어난다.
지역 전북.

보리볿기 명 [대응어] 보리밟기.
겨울 동안 들뜬 겉흙을 눌러 주고, 보리의 뿌리가 잘 내리도록 이른 봄에 보리 싹의 그루터기를 밟아 주는 일.
지역 남원, 완주.

보릿저 명 [대응어] 보릿겨.
보리에서 보리쌀을 꺼내고 남은 속겨. ¶{보리쩌는} 쌉쌀허고 마시 인써요?<2009 전북 임실> ¶지금 미까루 반죽 허디끼 반주글 해갇꼬 납짝흐게 이만썽 개:떠글 쩌서 머그먼 {보리쩌는} 쌉싸리도 안 도컨디, 나락쩌는 도케서 몸 머거. 씨고 참 도케요.<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보릿저], 로 만든 개떡이 전엔 없어서 못 먹었지만 지금은 꿀이나 찍어야 먹을 란가. ¶{보릿저로} 돼지 먹이를 주면 돼지가 좋아한다.
지역 고창, 김제,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정읍, 남원.

보릿제 명 [대응어] 보릿겨.
☞보릿저.
지역 남원.

보문장 명 [발음] [보문장]
자음 ㄱ, ㄴ과 모음 ㅏ, ㅑ 등이 어울려 가, 갸 등이 나오는 것을 따라서 연습할 수 있도록 만든, 예전 한글 학습장. 큰 종이 한 장으로 되어 있다. ¶{보문장으로} 글씨를 배왔어.
지역 전북.

보배우다 동
보고 배우다. ¶"느그가 요리 {보배운} 것 없이 기생질 해묵다가넌 쪽박 찰 날이 낼모레라는 것얼 알어야 헐 거이다."<조정래, 아리랑> ¶"그려, 같은 말얼 허도 그리 예절 챙겨감서 조단조단 의논지게 혀야제, 삼수 저놈 허는 짓거리는 머여, {보배운} 디 읎이." 허출세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그래도 체면은 유지시키려고 했다.<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의 '보배우다'는 '보고 배우다.'라는 뜻의 복합동사인데 이런 유형은 중세국어에서 아주 생산성을 가진 규칙이었다.

보살 명 [대응어] 무당.
귀신을 섬겨 길흉을 점치고 굿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 ¶앞날을 알기 위해 {보살을} 찾아가다 ¶서학동 애기 {보살} 허는 얘기가 올해

쪼끔만 전디면 내년 신수는 훤허대야.
지역 임실.

보선 명 [대응어] 버선.
천으로 발 모양과 비슷하게 만들어 종아리 아래까지 발에 신는 물건. 흔히 무명, 광목 따위 천으로 만드는데 솜을 두기도 하고 겹으로 만들기도 한다. ¶신던 {보선} 볼 걸어 놓고/총각 낭군을 낭군을 기다린다/어리씨고나 야야 저리씨고나 야야/저리나 존가 좋은가보더라아하 엉저리싸 저리씨고<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남원, 군산, 진안, 고창, 부안, 순창.

보세기 명 [대응어] 보시기.
사발형의 낮고 작은 반찬 그릇. 속이 깊고 주둥이보다 배가 약간 더 부른 형태의 굽이 있다. 주로 김치 등의 반찬을 담는 그릇이지만, 찌개나 국물이 많은 음식을 담기도 한다. ¶호박나물에 가지 쪄서 {보세기에} 놓고, 풋고추 숭숭 썰어 양념한 간장으로 보리밥 한 그릇을 뚝딱 먹어 치웠다. ¶아침에 좁쌀죽 한 {보세기} 먹었을 뿐이여.
지역 고창, 군산, 남원, 무주.

보소롬허다 형 [대응어] 보얗다.
보얗다. ¶짓국이 말짱허들 않고 {보소롬허니}.
지역 전북.

보손 명 [대응어] 버선.
☞보선.
지역 남원.

보솝 명 [대응어] 보습.
☞보십.
지역 전북.

보숩 명 [대응어] 보습.
☞보십.
지역 전북.

보순 명 [대응어] 버선.
☞보선.
지역 전북.

보슴 명 [대응어] 보습.
☞보십.
지역 남원.

보십 명 [대응어] 보습.
쟁기나 극쟁이의 끝에 달아서 땅을 갈아 흙덩이를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쇳조각. ¶억세게 뒤엉켜서 {보십을} 대면 나무 뿌리에 걸려 뚝뚝 부러져 나갔다.
지역 고창, 군산, 김제, 남원, 부안,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보싱 명 [대응어] 버선.
☞보선.
지역 전북.

보우리 명 [대응어] 봉우리.
☞봉우리.
지역 전북.

보재기 (褓재기) 명 [대응어] 보자기.
물건을 쌀 수 있도록 만든 네모난 천. ¶{보재기에다가} 싸가지고 다닌는데 파라가지고 온단 마른 가서 사가지고 온단 마린디<완주_지역어_텍스트> ¶큰놈 하나가 나오더니 애기를 따둑 따둑 재우고는 들여다 보넌께 인정기(사람기척)가 있은개 {보재기} 속으루 쏙 들어가더래여.<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그 사람이 욕을 볼라고 형이 나올 {보재기를} 동생이 거머쥐고 있었어.<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자그 남편

보고 그 금싸래기를 주믄선, 한 요깐한 {보재기를} 주믄선, “천석집 부자보고 가서 요것허고 그집 살림허고 바꾸자면 휘딱 바꿀 거요. 가서 바꿔 갖고 오시오.” 그랬단 말이야.<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고창, 군산, 남원, 무주, 완주, 임실.
해설 ‘보재기’는 ‘보자기’의 둘째음절이 변화한 것이다.

보제기 명 [대응어] 보조개.
말하거나 웃을 때에 볼에 오목하게 들어가는 자국. ¶볼에 {보제기가} 들어가 있다. ¶보람이는 웃을 때마다 {보제기가} 나와 참 귀엽다.
지역 남원, 부안, 완주.

보족 명 [대응어] 쐐기.
물건의 틈에 박아서 사개가 물러나지 못하게 하거나 물건들의 사이를 벌리는 데 쓰는 물건. ¶문틈 새가 오사게도 삐걱거린게 어떻게 잘 맞춰서 {보족을} 좀 박아 봐봐. ¶오메오메오메!! 홈런이구만. 9회말이서 만루 홈런을 때렸응게 승부에 {보족을} 박은 거구만. 잘했네, 잘 했어.
지역 무주.

보지개 명 [대응어] 보조개.
말하거나 웃을 때에 볼에 오목하게 들어가는 자국. ¶개롬한 볼에 {보지개가} 살짝 파였다.
지역 고창, 임실.

보직 명 [대응어] 쐐기.
☞보족.
지역 군산.

보초대가리 명 [대응어] 싹수.
어떤 일이나 사람이 앞으로 잘될 것 같은 낌새나 징조. ¶저 {보초대가리} 없는 놈. 앞으로는 사람 취급 안 할 것이여.

지역 전북.

보쿰보쿰 부
살짝살짝 자주 저어 가며 볶는 모양. ¶버섯은 잘게 찢어가꼬 {보쿰보쿰} 볶아서 먹으면 돼.
지역 전북.

보타다 동 [대응어] 마르다.
물기가 없는 상태로 되다. ¶{보타는} 날씨에 쓰잘데없이 섯바닥 놀려 그슬리지 마. ¶오뉴월 땡볕에 논바닥이 {보타고} 히서 농사를 질 수 읎당게.
지역 전북.

보트다 동 [대응어] 밭다.
액체가 바싹 졸아서 말라붙다. 또는 살이 빠져서 여위다. ¶양이 {보타} 버렸나. 요새는 얼매 먹들 모더. ¶근디 아 총각놈이 무단시(괜히) {보타}. 병이나. 즈그 엄매가,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닝개로, 사실을 가르쳐 주거든.<구비문학, 남원시> ¶젖이 {보타} 젖이 없어 애를 먹는다. ¶그일을 생각흐면 마음이 {보타} 죽겄어.
지역 전북.

보풀떨이 명 [대응어] 앙칼.
제힘에 겨운 일에 몹시 악을 쓰고 덤비는 짓. ¶“그걸 어떡허라구 내놓으세요? 거스를 돈 없어요!” 여차장은 고만 소갈머리가 나서 {보풀떨이를} 합니다.<채만식, 태평천하>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보풀떨이’는 ‘보풀+-떨이’의 구조를 가진다. ‘보풀떨이’는 표준어 ‘앙칼’에 해당한다. 다만 표준어는 ‘앙칼을 떨다’의 표현으로 주로 쓰이고, ‘보풀떨이’는 ‘보풀떨이를 하다’의 표현으로 쓰인다.

보풀스럽다 형 [대응어] 앙칼스럽다.

보기에 제힘에 겨운 일에 악을 쓰고 덤비는 데가 있다. ¶"왜 그래 글쎄!" 하면서, {보풀스럽게} 톡 쏘아 부딪는 것까지두 여전해요.<채만식, 少妄> ¶(아궁이 옆으로 궁상스럽게 쪼그리고 앉으면서) 그럼 두부라두 좀 사까? 두부장수 지나갔어? 응?" 내순이: {보풀스럽게} "드끄러워! 그놈의 두부라믄 사뭇 이가 갈리느만!" 덕수 "머? 두부가 왜 이가 갈려? 잡것이네!<채만식, 무장삼동> ¶고단하긴 매양 같지, 별수 있는가……? 다 같이 부잣집 이름 좋은 종이요 하인이지…… 대체 이 집은……." 안존하던 박씨의 음성은 더럭 {보풀스러워지면서}, 아직 고운 때가 안 가신 눈이 샐룩 까라집니다.<채만식, 태평천하>

지역 전북.

해설 '보풀'은 '앙칼'의 의미를 갖는 듯하다. '보풀스럽다'는 '보풀'에 형용사파생접미사 '-스럽다'가 연결되었다. 이 어휘는 표준어의 '앙칼스럽다, 앙칼지다'에 대응되는 어휘이다.

보풀증 (보풀症) 명 [발음] [보풀쯩] [대응어] 앙칼.

제힘에 겨운 일에 몹시 악을 쓰고 덤비는 증상. ¶그럴수록이 준호는 보아란 듯이 딸꼭 죽어져 버렸으면 정말 고소하고 시원하겠는데 답답이 하나도 죽는 것 같은 기미는 없고 하여 사뭇 딩굴고 싶게 {보풀증이} 났다.<채만식, 女子의一生>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보풀증'은 '보풀+증(症)'의 구조를 가진다. '보풀'이 표준어 '앙칼'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보풀증'은 '제힘에 겨운 일에 몹시 악을 쓰고 덤비는 증상.'으로 해석된다.

복더우 (伏더우) 명 [대응어] 복더위.

삼복 기간의 몹시 심한 더위. ¶시 밤만 지나면 중복잉게 {복더우} 체면 살릴라고 더우 지랄허는 게비다. ¶그저 오뉴월 {복더우에} 개쎗바닥 늘어져도 요렇게 찬 시암물에다가 보리밥 뚝뚝 깨서 말어 먹으면 그거이 살로 가제, 그거이 살로 가. 죽이 다 머이여. 죽이. 하이고오, 기운 없어라.<최명희, 혼불> ¶{복더우에} 바누질이 얼매나 속 터징가잉. 땀은 뚝뚝 떨어지제, 바늘은 뿌드렁뿌드렁 들으가도 나가도 안허제<최명희, 혼불> ¶"하이튼간에 이 {복더우} 가문 날에 물 걱정만 않는 팔짜라도 나는 부러 뵈능 것을 어쩔 거이여? 그나저나 저수지 물도 인자 바닥이 뵌다데잉. 조개바우가 집채뎅이맹이로 시커멓게 솟아났다든디."<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복뎅이 (←福덩이) 명 [대응어] 복덩이.

매우 귀중한 사람이나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아 그게 {복뎅이란께} 가져 갔는디 이 친정 그새 거라시가 되버렸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없는 살림에 혹뎅이가 붙은지 알었등마 {복뎅이가} 굴러 들어온 것이랑께.<조정래, 아리랑> ¶보름이가 바로 우리집 {복뎅이야}!

지역 정읍.

복돈 명 [대응어] 세뱃돈.

세뱃값으로 주는 돈. ¶{복돈} 줄라고 모여 있고만.

지역 전북.

복상 명 [대응어] 복숭아. ¶{복상} 나무가지를 져다가 여기를 나 시 번만 때리라.<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복상} 속에서 나오는 버럭지를 먹으면 이뻐진다고 허니 먹어도 갠찮혀.

지역 김제, 군산, 완주, 익산, 고창,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

복상뼈 명 [대응어] 복사뼈.

☞복송뼤. ¶우리들 몸에서 남자덜 젖꼭지가 쓸디없는 것이라면 {복상뼈}도 아무짝에 쓸디가 없어.

지역 전북.

복상씨[1] 명 [대응어] 복숭아씨
☞복송씨[1].
지역 김제, 무주, 군산, 완주, 익산, 진안, 고창, 남원.

복상씨[2] 명 [대응어] 복사뼈
☞복송씨[2].
지역 김제, 무주, 군산, 완주, 익산, 진안, 고창, 남원.

복성 명 [대응어] 복숭아.
☞복상.
지역 고창.

복성씨[1] 명 [대응어] 복숭아씨.
☞복송씨[1].
지역 고창, 남원.

복성씨[2] 명 [대응어] 복사뼈.
☞복송씨[2].
지역 남원.

복송 명 [대응어] 복숭아.
☞복상. ¶{복쏭은} 나무가 막 저러게 커::게 기양 크먼 열매가 열먼 싸주데요, 종우때기로<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지역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

복송뻬 명 [대응어] 복사뼈.
발목에 안팎으로 둥글게 내민 뼈. ¶왼쪽 {복송뻬가} 욱신욱신 아프다.
지역 남원, 무주.

복송씨[1] 명 [대응어] 복숭아씨.
복숭아 속에 있는 딱딱한 씨. ¶아조 요때다 싶을 때를 놓치먼 안되제 암먼. 앙 그래 봐라, 어치케 되능가. {복송씨}, 살구씨, 수박씨, 호박씨들 모조리 다 벌거지가 파묵어 불고, 천하 명주(名酒) 이강주(梨薑酒)라도 시어 터져서 개도 안 먹게 되야 부러.<최명희, 혼불> ¶천하 없는 {복송씨} 껍데기도 땅 속에 묻어 노먼 삭고 썩어서 싹이 나고, 밀봉을 헌 술독아지 뚜껑도 술을 익힐 만치 익힌 뒤에는 홰딱 뜯어내 부리는 거이 세상 이치여.<최명희, 혼불>
지역 고창,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

복송씨[2] 명 [대응어] 복사뼈.
발목에 안팎으로 둥글게 내민 뼈. ¶왼쪽 {복송씨가} 욱신욱신 아프다.
지역 고창,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

복송아 명 [대응어] 복숭아. ¶{복송아를} 껍질도 안 벗기고 씹어 먹었다. ¶여름에 원두막에서 먹는 {복송아} 맛은 최고야.
지역 정읍, 부안, 군산, 완주.

복숭 명 [대응어] 복숭아.
☞복상. ¶또랑 또랑 또랑가에/임으 {복숭} 등져놓고/밑이로는 뿌리가 뻗어/ 우에로는 가지가 뻗어/가지 한 쌍으 꽃이 피었는디/꽃 한 쉥이를 꺾어다가/임으 방에 걸어 놓고/임이 좋까 꽃이 좋까/꽃이 좋제 임이 좋까<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정읍 시집살이노래-"또랑 또랑 또랑가에"정읍군 북면 복흥리 탑성)
지역 전북.

복숭빼 명 [대응어] 복사뼈.
☞복송뻬.
지역 전북.

복실강아지 명 [대응어] 복슬강아지.
털이 복슬복슬하고 탐스럽게 생긴 강아지. ¶지나간 밤은 뭐나께가 되어 버리고 진범으로 둔갑헌 꿈속녀 양심은 뒷결음치는 {복실강아지} 몬양으로 돌출 주댕이 허고 삐쳐 있는 각시 외출 따독여 서둘러 도와준다.
지역 전북.

복쟁이 명 [대응어] 복어. ¶시장히서 긍가, 시방와서 봉게 장뚝 우게 널어논 {복쟁이} 땜시 그런 것 같다.
지역 전북.

복주 명 [대응어] 박쥐.
☞빡쥐.
지역 전북.

복쥐 명 [대응어] 박쥐.
☞빡쥐.
지역 전북.

복지뚱 명 [대응어] 복지깨.
주발의 뚜껑. ¶깜밥도 긁어서 {복지뚱으로} 덮어 놓았다고 주고.
지역 전북.

복포시 (←復報讐) 명 [대응어] 복보수.
어떠한 해를 입은 것에 대해 복수하기 위해 상대편에게 그만큼의 해를 입히는 것. ¶중한티 쌀을 한 말쯤 주고 명씨(明氏)한티 늘 놀림을 받는디 이를 어떻게 허면 {복포시가} 되느냐고 물었다.<구비문학대계 완주군>
지역 완주.

복포시하다 (←復報讐하다) 동 [대응어] 복보수하다.
어떠한 해를 입은 것에 대해 복수하기 위해 상대편에게 그만큼의 해를 입히다. ¶안씨는 중으 이얘기를 듣고 그제야 속이 시원히서 명씨보고 중으 새끼가 머라고 야단이냐 험서 명씨한티 평시 당하던 놀림을 {복포시하게} 됐다고 헌다.<구비문학대계 완주군>
지역 완주.

볶아지다 동 [대응어] 볶이다.
음식이나 음식의 재료가 물기가 거의 없거나 적은 상태로 열이 가해져 이리저리 자주 저어지면서 익게 되다. ¶날콩의 비린내쯤 익숙해진 지가 이미 오래였다. 뱀도 날것으로 먹어치우는 비위에 날콩이야 없어서 못 먹는 영양식이었다. 콩이 덜 {볶아져} 비린내가 난다고 한입 가득 씹던 인절미를 뱉어냈던 일이 꿈만 같았다. 그게 장가를 들고나서 한 짓이었다.<조정래, 아리랑> ¶참깨를 씻어 후라이펜에 놓아 불을 가해 계속 젓다보면 {볶아지거든} 절구통에 넣어 빻아야 깨소금이 만들어지는 게야.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정읍.

볶에다 동 [대응어] 볶이다.
음식이나 음식의 재료가 물기가 거의 없거나 적은 상태로 열이 가해져 이리저리 자주 저어지면서 익게 되다. 또는 괴롭힘을 당하다. ¶"위디서 타는 냄새 안 나요?" "워매, 내 정신 좀 봐, 콩을 {볶엘라고} 불 위에 올려 논 걸 까먹어 부렀네." ¶"오라면이야 가기넌 갈밖에 읎는 일인디, 고 오살헐 강가눔 땀세 {볶에} 못살겄네. 그눔으 새끼가 워디로 내뺐는지, 눈앞에 있으면 가쟁이럴 짝짝 찢어놨으면 속이 씨언허겄다."<조정래, 태백산맥> ¶이지숙은 평상에서 일어서면서 눈인사만 했다. "농새들은 어떤고?" 신씨는 인사삼아 물었다. "날이 요리 땡글땡글허니 더운께 사람이야 {볶에도} 나락이야 아조 쑥쑥 잘알 크는구만이라." 방 서방이 사람 좋아 보이는 웃음을 얼굴에 가득 담으며 대답했다. "<조정래, 태백산맥> ¶돈이 없어서 근다고 히도 기어니 중핵교는 가야

다고 어짓밤 어찌나 {볶앴는지} 지금도 머리가 쑤시네.
지역 전북.

볶이다 동 [대응어] 볶이다.
음식이나 음식의 재료가 물기가 거의 없거나 적은 상태로 열이 가해져 이리저리 자주 저어지면서 익게 되다. ¶방자 이면의 {복기여} 광한누로 도라와 도령임계 엿자오니<완판본 열여춘향수절가上>
지역 전북.

본등만등 부 [대응어] 본체만체.
☞본등본등. ¶오랜만에 사람을 봤으면 아는체를 허야지 그렇게 {본등만등} 허면 어디 쓰겄오.?“.
지역 완주.

본등본등 부 [대응어] 본체만체.
보고도 아니 본 듯이. ¶저 썩을놈이 {본등본등} 지나가 버리네. ¶오랜만 본 고모를 보고 {본등본등만} 허고 있네.
지역 전북.

본보다 동 [대응어] 본뜨다.
☞뽄보다.
지역 군산.

본사 명 [대응어] 소경.
☞봉사.
지역 순창.

본얼 뜨다 【관용표현】 [대응어] 본받다.
☞뽄얼 뜨다.
지역 장수.

본을 추다 【관용표현】 [대응어] 본전을 추리다.
자기가 낸 밑전을 다시 챙기다. ¶오천을 다아 잃고 백짜리가 한개피 달랑 남었으니까 이 패로 올라가면 사천이 들어와서 거진 {본을 추겠지만} 만약 딴집에서 예순일백스물로만 올라가도 박아지를 쓸 판입니다.<채만식, 천하태평춘>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본을 추다.'의 '본(本)'은 '본전(本錢)'과 같은 의미이고, '추다'는 '추리다'의 의미로 '챙기다'와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주로 노름을 할 때, 잃었던 돈을 다시 회복하게 되면 이 표현을 많이 쓴다.

본토쟁이 명 [대응어] 고향, 본토박이.
태어난 곳. 또는 대대로 그 땅에서 나서 오래도록 살아 내려오는 사람. ¶집이 {본토쟁이가} 어디여 자오지간?(당신 고향이 어디여 좌오지간?)
지역 고창.

볼가지다 동 [대응어] 불거지다.
물체의 거죽으로 둥글게 툭 비어져 나오다. 또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두드러지게 커지거나 갑자기 생겨나다. ¶“자고로 수캐는 앉었다 허면 뭣부텀 쏙 {볼가지고} 약장시는 어딜 가나 입만 벌어졌다 허면 약 선전에 고부라지는 벱이지.”<윤흥길, 소라단 가는 길> ¶앙끗도 모릉 거시 권대가리 없이 꼭 {볼가진당게}. ¶“잠깐 스도뿌!” 난데없이 쏙 {볼가지는} 앙칼진 목소리에 어리둥절한 나머지 양족 진영의 움직임이 일시에 멈추어졌다.<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볼그짝 명 [대응어] 궁둥이.
☞볼기짝.
지역 부안.

볼따구 명 [대응어] 볼따구니.
양쪽 눈 아래에서 턱에 이르는 얼굴의 부분을 속되게 이르는 말. ¶{볼따구가} 벌게졌다. ¶{볼

따구가} 가끔 벌게지곤 한다.

지역 전북.

볼따귀 명 [대응어] 볼따구니.

☞볼따구. ¶애꽃은 곰방대만 빨아대는 그의 {볼따귀가} 어둠 속이라 더욱 우묵해 보이고 까칠하다.<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볼버리 명 [대응어] 봄보리.

☞봄보리.

지역 진안.

볼부다 동 [대응어] 밟다.

발을 들었다 놓으면서 어떤 대상 위에 대고 누르다. 또는 어떤 일을 위하여 순서나 절차를 거쳐 나가다. ¶홀태가 업써지고 나서는 호롱기, 발로 이리키 이리키 발로 {볼부머는} 막 이리키 이리키 허먼 떠러징 건. 그거시 호롱기.<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지역 전북.

볼부시 명 [대응어] 볼거리.

귀밑샘에 염증이 일어나 볼이 부어오르는 돌림병. 주로 어린아이들이 많이 앓는 병이다. ¶그 집 애가 {볼부시럴} 앓어서 안절부절하고 있으요.

지역 남원, 순창, 임실, 장수.

볼쌔 부 [대응어] 벌써.

예상보다 빠르게. 또는 이미 오래전에. ¶아이 {볼쌔} 끈나따~이, {볼쌔} 끈나꾸나<2005 전북 남원> ¶바로 요로케, 나 열여덜쌀 머거서 게론헤찌마는, 아 열다서쌀 열니살 무궁개 {볼쌔} 여울라고 내놔써, 중신애비.<2005 전북 남원> ¶{볼쌔} 떠났다.

지역 남원.

볼쎄 부 [대응어] 벌써.

이미 오래전에. ¶미리 알았어. {볼쎄} 따라 올 것을 분명히 안 거라.<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전북.

볼쎄로 부 [대응어] 벌써.

☞볼씨.

지역 전북.

볼씨 부 [대응어] 벌써.

예상보다 빠르게. 또는 이미 오래전에. ¶평소때 같으면 그 통인이 그 영감보고 이야기도 안 헐 사람이여. 하도 더러워서 우습지도 안해서, 그게 산신(山神)이라, 신령(神靈). 그래서 다알았어. 신령을 통해 버렸단개 {볼씨}.<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전북.

볼태기 명 [대응어] 볼(顴).

뺨의 가운데를 이루고 있는 살집을 속되게 이르는 말. ¶아, 이놈의 영갬이 궁글어가지고, 다치고, 막 {볼태기도} 찢어지고, 까지고, 긁히고, 그래 가지고 뻑뻑 기어서 즈그 집을 갔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그냥 얼른 웃방으로 들어와서 입성 입고서 넘어오면서 노인네 얼굴을, {볼태기를} 이렇게 긁고 넘어왔어. 얼굴 {볼태기를} 긁고 인저 넘어왔는디<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고창, 군산, 김제, 부안, 순창, 완주, 임실, 장수, 정읍, 진안.

볼탱이 의명 [대응어] 번.

차례, 횟수, 수량 등을 세는 단위. ¶일단 괴기부터 한 {볼탱이} 먹고 시작허자. ¶장으 가서 무시를 한 {볼탱이} 사 갖고 왔다.

지역 전북.

볼토가지 명 [대응어] 볼(顴).

빰의 가운데를 이루고 있는 살집을 속되게 이르는 말. ¶양쪽 {볼토가지기가} 미어져라 밥을 밀어넣었다.

지역 전북.

볼퉁이 명 [대응어] 볼(顴).

빰의 가운데를 이루고 있는 살집을 속되게 이르거나 친근하게 이르는 말. ¶생각하면 밉기도 하고 미운 깐으로는 {볼퉁이라도} 칵 쥐어질러 주고 싶습니다.<채만식, 태평천하> ¶옆에 있던 절도범이 혼자말처럼, "그럼 내가 먹을까." 하고 슬며시 집어 가더니 {볼퉁이가} 미어지도록 퍼넣는 것이었었다.<채만식, 민족의 죄인>

지역 전북.

볼팅이 명 [대응어] 볼(顴).

☞볼퉁이. ¶부엌으서 어영부영허다가 욕 한 {볼팅이} 얻어먹고 나왔지.

지역 완주.

볿다 동 [대응어] 밟다.

발을 들었다 놓으면서 어떤 대상 위에 대고 누르다. 또는 어떤 일을 위하여 순서나 절차를 거쳐 나가다. ¶"이눔아, 엎어진 눔 등짝 {볿기냐}! 드런 놈에 씸뽀시."<조정래, 태백산맥> ¶아따, 자빠진 놈을 거그다 {볿아} 버링만 이~ 긍게, 조까 서대지 마랑게~. ¶나가 저눔 뒤럴 {볿아} 서울로 치고올라가 뿌러?<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남원, 부안, 순창, 임실, 장수, 정읍.

볿히다 동 [대응어] 밟히다.

발에 닿아 눌리다. 또는 어떤 이에게 몰래 뒤를 따라잡히다. ¶"어디가 {볿혀} 죽으면 어쩌라고 거 내보내라고 허야?"<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자빠징게 등걸짝 {볿히고}, 외약쪽 낮판대기 댕게 오른짝 빰싸대기 엎어터지고 오늘은 솔차니 듣지런 날이고만 이~. ¶긍게, 싸가지 없는 짓거리도 질게 허믄 꼬랑지가 {볿히등가}, 잽피등가 헝게~ 내비 둬야 허는디.

지역 남원.

봄버리 명 [대응어] 봄보리.

이른 봄에 씨를 뿌려 여름에 거두는 보리. ¶패서 추수헐 쩍으는 인제 가을에 싱군 뇜이나 {봄버리나} 똑가치 비어요.(피어서 추수할 때는 이제 가을에 심은 놈이나 봄버리나 똑같이 베요.)<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다음에 허는 것은 가을보리로 허고, 또 봄에 그 논에는 {봄버리를} 잘 안 갈어요. 봄 그 밭에는 {봄버리를} 갈안는데 옌날레는 {봄버리도} 갈았언는데 이 근래 와서는 봄버리를 갈지 안꼬 있어요. 가을보리 봄버리는 있어요.<2007 전북 군산>

지역 무주, 완주, 장수, 진안.

봄콩 명 [대응어] 강낭콩. ¶크고? 그게 봄콩. 봄에 심어서 모 심구고 나먼 먹은게. 봄콩.

지역 고창.

봇돌 (←도랑)) 명 [대응어] 봇도랑.

논이나 밭에 봇물을 대거나 빼게 만든 도랑. ¶{봇돌로} 물을 댄다.

지역 김제, 부안, 군산, 임실.

봉댁 (鳳댁) 명 [발음] [봉땍] [대응어] 봉황.

예로부터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상서로움을 상징하는 상상의 새. ¶사람이 나드래도/공자 맹자 안자 주자/와룡 같은 현인 나고/소가 나도 억댕이/말이 나도 용총마요/개가 나도 명구 나고/닭이 나도 {봉댁이라}(순창 고사풀이/순창군 팔덕면 월곡리)<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순창.

봉댕이 명 [대응어] 꼭대기
사물이나 산 따위의 가장 높은 부분. ¶{봉댕이치는} 전지로 안 단게 나무 잡고 흔들어 버렸지 뭐.
지역 전북.

봉도리 명 [대응어] 봉우리.
산에서 뾰족하게 높이 솟은 부분. ¶저가 {봉도리가} 삐죽 솟았제.
지역 전북.

봉사꼿 명 [대응어] 봉숭아. ¶이름만이라도 수목은 커녕 몇 포기의 채송화며 {봉사꼿인들} 어디 한 귀퉁이 비집고 가꾸잘 여유조차 없어, 도시에 계절의 신선한 감각을 식물에게서 구할 계제는 물론 아니었으나마, 다뭇 높이 우러러보이는 창공과 들여비치는 일광만은 조촐한대로 아쉴 것이 없었다.<채만식, 젊은날의 한 구절>
지역 김제, 부안, 순창, 완주, 익산, 임실.

봉사살이 명 [대응어] 숨바꼭질.
아이들 놀이의 하나. 여럿 가운데서 한 아이가 술래가 되어 숨은 사람을 찾아내는 것인데, 술래에게 들킨 아이가 다음 술래가 된다. ¶{봉사살이를} 하고 놀지. 숨바꼭질 말이여.
지역 부안, 정읍.

봉송 명 [발음] [봉쏭] [대응어] 복숭아.
☞복상.
지역 전북.

봉송아 명 [대응어] 봉숭아. ¶{봉송아로} 손톱에 빨간 물을 들였다. ¶손톱에 {봉송아} 물을 들이니 너무 귀엽다.
지역 정읍, 고창, 남원, 군산, 임실, 장수, 진안.

봉송아리 명
끝물이 되어 더 이상 크지 않고 먹을 가치가 없을 정도의 상태로 영근 오이, 가지 등의 열매를 이르는 말. ¶인자 {봉송아리} 져 버리고 없고만. 여 봐 여. 까지가 인제까 따 먹었드만 {봉송아리} 잎삭 싹 뜯어버리고 인자. 이케 늘씬히얀디. 인자 안 좋아. 이케 {봉숭아리} 져서.
지역 전북.

봉숭와 명 [대응어] 봉숭아.
☞봉송아.
지역 전북.

봉아리 명 [대응어] 봉우리.
☞봉우리. ¶그리고 또 변산에 의상봉이라고 하는 산이 가장 높은 산여. 산 이름이 {봉아리} 이름이 의상봉이라고 그려. 거기에는 의상대사라고 중이 거기서 살았어. 그래서 그 의상대사의 이름을 따서 의상봉이라고 그려.<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부안.

봉오리[1] 명 [대응어] 봉우리.
산에서 뾰족하게 높이 솟은 부분. ¶그 금강산 산 구경을 말하는 것시여. 곧고 곧고 또 뾰죽하고 뾰죽하고, 기특 기특하고 {봉오리마다} 다 얼굴이 다르다 한디, 청산인불(天仙人佛) 충난지라(重難知) 하늘 신선인지 인간의 부처인지 다 알 수가 없어.<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부안.

봉오리[2] 명 [대응어] 벙어리.
☞벙어리.
지역 전북.

봉창 명 [대응어] 주머니.
자질구레한 물품 따위를 넣어 두거나 넣어 가지

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든 물건. 또는 돈이나 소지품 따위를 넣도록 만든 옷의 부분. ¶가다가 얼마나 멀었던가 쥔을 정하고 잘 거 아녀? 가만히 보면 {봉창에서} 뭐 싼 것을 꺼내서 보고 "히히히히- 히히히히-" 하더래. 또 한숨 지나고서 "히히히히" 웃고 웃고 그러더래.<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시간이 당신이 갈 시간이 된 개, 혼신은, 닭다리를 하나 쭉 찢어 {봉창에다} 넣어주면서, "나와 같이 왔다 갔다는 표시나 하라." 고,<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콩 한 개 두 개 세어서 {봉창에다가} 넣었어. 그래 인자 할아버지가 인제 콩을 한 개 두 개 {봉창에다가} 넣고서는 그걸 막 집어 먹었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뒤여. 그 생각을 혔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그것만 찾어. 찾다가 인자 나온게 고놈을 {봉창에다} 딱 때리잠궈 넣어. 넣고서는 임금한티 와서는, "인자 갈란다고." 허닌게, "아, 그 새 책을 다 박았냐?"<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내가지고서 깨깟이 빨어가지고 {봉창으다} 느갖고서 그놈을 한짐을 짊어지고 왔어.<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김제, 무주, 군산, 완주, 익산, 장수, 진안.

봉채이 명 [대응어] 주머니.

☞봉창.

지역 전북.

봉토 (←封套) 명 [대응어] 봉투.

편지나 서류 같은 것을 넣어 봉할 수 있게 종이로 만든 주머니. ¶주로 머 {봉토에다} 돈 너가꼬 오제.<2005 전북 남원> ¶자식 칭구덜, 영감 칭구더리 마::니 오먼, {봉토가} 막 보통 멘빽썩 두루와요.<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지역 남원, 완주, 임실.

봉하다 동

부모나 조부모와 같은 웃어른을 받들어 모시다. ¶이 사람은 본게 즈그 어메, 아버지를 가만히 모셔 놓고는 늘 갖다가 뭣이더니 구해다가 부모 {봉키만} 혀.

지역 전북.

봉학 (←鳳凰) 명 [대응어] 봉황.

예로부터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상서로움을 상징하는 상상의 새. ¶이 터 명당 둘러보니/좌청룡우백호요/남주작 북현무로구나/사램이 나면 문쟁이 나고/말을 기르면 용마가 되고/소를 기르면 억대가 되고/개를 기르믄 사지개되고/닭을 기르면 {봉학이} 될 것이니/어찌 아니가 좋을소냐/섬겨들이자 고사로다(진안 고사풀이-진안군 마령면 계서리 서산)<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진안.

봍은기침 명 [대응어] 밭은기침.

병이나 버릇으로 소리도 크지 아니하고 힘도 그다지 들이지 않으며 자주 하는 기침. ¶{봍은기침을} 자주 뱉아야 좀 나아질 거여.

지역 전북.

봍은소리 명 [대응어] 밭은소리.

숨이 차거나 기침 따위가 나서 잇따라 말하지 못하고 자주 짧게 끊어지는 소리. ¶아픈가 {봍은소리를} 계속 내네.

지역 전북.

볶이다 동 [대응어] 볶이다.

음식이나 음식의 재료를 물기가 거의 없거나 적은 상태로 열을 가하여 자주 저으면서 익힌 상태가 되다. 또는 괴롭힘을 당하다. ¶깨가 다 {볶인게} 엄청 꼬순내가 나네잉, 이 깨 좋은 넘인개벼. ¶그래서 그 사람하고 그냥 살았어. 집에 와봐야 {볶여} 죽어. 그런게 그 사람하고 사는디,

팥조지가, 저 콩조지가 붉어서(부러워서) 죽어. <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무주, 임실, 장수, 진안.

뵌치 명 [대응어] 고운체.
☞밴체.
지역 완주.

부껭이 명 [대응어] 부침개.
기름에 부쳐서 만드는 빈대떡, 저냐, 누름적, 전병(煎餠) 따위의 음식. ¶{부껭이} 부친다고<완주_지역어_텍스트> ¶명절으는 역시 {부껭이} 부치는 냄새가 퓡겨나야 명절답지.
지역 완주.

부끄룹다 형 [대응어] 부끄럽다.
스스러움을 느끼어 매우 수줍다. 또는 일을 잘못하거나 양심에 거리끼어 볼 낯이 없거나 매우 떳떳하지 못하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할랑게 어찌나 {부끄루운지} 얼굴이 홍당무가 된 거 맹이로 생겼더랑게. ¶어매한테 거짓말을 하고 난게 옆에서 말똥한 눈으로 서 있는 동생에게 {낯부끄루워} 혼났네.
지역 전북.

부낭 명 [대응어] 똥장군.
똥을 담아 나르는 오지나 나무로 된 그릇. ¶옛날에는 {부낭}, 메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
지역 임실.

부다 동 [대응어] 보다.
☞보다. ¶종시 우두커니 한눈을 팔고 앉았다가, 갑자기 긴한 낯으로 고개를 내밀면서 ".자네, 사람 죽었을 대 염(殮)하낭 것 {부았넝가?"} 하고 묻습니다.<채만식, 태평천하>
지역 군산, 완주, 진안.

부닥씨리다 동 [대응어] 부서뜨리다.
단단한 물체를 깨어서 여러 조각이 나게 하다. ¶바우를 {부닥씨린게로} 더 이상 바우가 아니구만.
지역 전북.

부담시럽다 형 [대응어] 부담스럽다.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져야 할 듯한 느낌이 있다. ¶아따, 보자 마자 사삭을 떨며 죽은 지 애비 본 것마냥 오사허게 서대는 것 땜시 {부담시럽고} 애성받혀 혼이 났다.
지역 전북.

부대쌈 명 [대응어] 보쌈.
가난하여 혼기를 놓친 총각이 과부를 밤에 몰래 보에 싸서 데려와 부인으로 삼던 일. ¶친정 사람들이 저그가 모이를 힛어. 부대쌈을 히버리라 그러니 인자 누구 사람을 시기서 부대쌈을 히버릿어.
지역 전북.

부둘막 명 [대응어] 아랫목.
온돌방에서 아궁이 가까운 쪽의 방바닥. ¶오늘 밖으서 일헌다고 으슬으슬 많이 떨었응게 {부둘막으다} 요 깔고 머리 끝까정 덮고 자니라.
지역 전북.

부드랍다 형 [활용형] 부드라워/부드라와 [대응어] 부드럽다(柔).
☞보드랍다.
지역 진안, 고창, 순창, 군산, 익산, 임실, 정읍.

부등카래 명 [대응어] 부삽.
아궁이나 화로의 재를 치거나, 숯불이나 불을 담아 옮기는 데 쓰는 조그마한 삽. 쇠붙이 따위로 네모가 지거나 둥글게 만들었는데, 바닥이 좀 우긋하고 자루가 달려 있다. ¶{부등카래로} 불씨를

퍼내 옮긴다.
지역 전북.

부또막 명 [대응어] 부뚜막.
부엌 아궁이 위에 흙과 돌을 섞어 쌓아서 솥을 걸어 놓은 부분. 또는 그 언저리의 평평한 자리. ¶찬밥덩이를 {부또막에다} 놓고 물을 질어가고 와서 보닌개 개가 싹 쓸어먹고 갔네. ¶누나는 가끔 {부또막에} 앉아 밥을 먹곤 했다.
지역 김제, 무주, 부안,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부뚜맥 명 [대응어] 부뚜막.
☞부또막.
지역 완주.

부뚱 명 [대응어] 부뚜막.
부엌 아궁이 위에 흙과 돌을 섞어 쌓아서 솥을 걸어 놓은 부분. 또는 그 언저리의 평평한 자리. ¶불 때서 밥 히머근 {부뚱} 안자서 밥 한 수까락 떠 머거야지, 상:으서, 어디 상으서를 머거?<2009 전북 임실>
지역 남원, 순창, 임실.

부뜽 명 [대응어] 부뚜막.
☞부뚱.
지역 남원.

부랑이치다 동 [대응어] 법석대다.
소란스럽게 자꾸 떠들다. ¶좀 전까지 {부랑이치던} 아이들이 내가 들어서자 조용해졌다.
지역 전북.

부랙 (←部落) 명 [대응어] 마을.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 ¶저 산안래 있는 안정 부락이라고 하는 데는 외지에 나간 부니 독지가 하나 이써가지고 {부래글} 막 살리고 이써요, 지금.<지역어 자료 총서, 군산> ¶송동면 세전이란 곳은 여러 {부랙이여}. 동네가 동네는 한 동네라도 {부랙은} 세 데미로 갈라져 갖고, 옛날부터 당산제도 세 간데(세 군데)서 지내.<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군산.
해설 전북방언에서는 마을의 의미로 마실, 모실 등과 함께 한자어로 구성된 부락(部落)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 마을, 마실, 모실은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이라는 차적인 의미와 함께 '마을 간다', '마실~모실 간다'로 사용되는 경우 이웃집에 놀러간다는 의미도 있다. 하지만 부락(部落)의 경우는 마을, 마실, 모실의 차적인 의미로만 사용된다.

부러 부 [대응어] 일부러.
어떤 목적이나 생각을 가지고. 또는 마음을 내어 굳이. 또는 알면서도 마음을 숨기고. ¶하루가 멀다고 길목을 지키며 나를 괴롭히곤 했다. 별수없이 나는 보육원근처를 지나는 지름길을 버리고 {부러} 전북공대 울타리를 따라 먼 길을 에돌아 학교를 오가기 시작했다.<윤흥길, 소라단 가는 길> ¶그러려면 학교에서 집으로 향할 때 {부러} 가까운 길을 두고 시내 쪽으로 먼길을 에돌아가는 수고를 감수해야만 했다.<윤흥길, 소라단 가는 길> ¶굳은 반석에 파여져 형성된 둘레가 십 미터는 넘어 보이는 구룡연 바닥의 물빛이 검게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아쉬운 마음을 {부러} 감추지 않으면서 일어섰다.<이병천, 백두산> ¶나가 더우 식히려고 {부러} 뱉은 농짓거리어라, 웃음엣소리를.<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부로 부 [대응어] 일부러.
어떤 목적이나 생각을 가지고. 또는 마음을 내어 굳이. 또는 알면서도 마음을 숨기고. ¶목사와 장로로 하여금 그토록 묵중히 버틸수 있게끔 {부로} 해주는 힘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는 대충 짐

작하고 있었다.<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부러} 못 알아들은 체를 하다. ¶우리가 같이 가야는 것이 뻔헌 사실인줄 알먼서도 내가 {부로} 못간다고 히본거여 ¶네가 {부러} 올 필요없다. ¶미친 놈같이 소리를 질러대며 여그저기를 쏘 댕기는디 아마 {부로} 그러는 것 같혀 그렇게라도 히야 갸 속이 가라앉지 어디 지정신으로 살겄어?

지역 전북.

부룸뜨다 동 [대응어] 부릅뜨다.

☞부릅뜨다.

지역 전북.

부릅뜨다 동 [대응어] 부릅뜨다.

무섭고 사납게 눈을 크게 뜨다.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다

지역 전북.

부리 명 [대응어] 보리.

☞버리.

지역 전북.

부리다 보동 [대응어] 버리다.

((동사 뒤에서 '-어 버리다'의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나타내는 행동이 이미 끝났음을 나타내는 말. 그 행동이 이루어진 결과, 말하는 이가 아쉬운 감정을 갖게 되었거나 또는 반대로 부담을 덜게 되었음을 나타낼 때 쓴다. ¶지 소가지가 부글거리자머언, 시도 때도 없이 터져 {부리기도} 헐 거인디,<최명희, 혼불> ¶그만치 참고 살았으면 원 쇠심줄 창사라도 썩어 부리고, 그 창사가 구리라도 녹아 {부렀겄소}.<최명희, 혼불> ¶그데 양 그 질로 가 {부렀땅개}.(그러더니 그 길로 가 버렸다니까)<백은아(2016)>

지역 전북.

부벽사 (付壁紗) 명 [대응어] 비단.

벽에 바르는 푸른 비단. ¶집을 잠꽌 짓는다/집을 잠꽌 짓는다/몸채는 칠 칸인디/사개 와사서 기와집/내외 중문은 소실문/전후좌우 연담 치고/능화되비 장판 지천/{부벽사를} 붙여주고(진안 고사풀이-진안군 마령면 계서리 서산)<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진안.

부산나게 부 [대응어] 부산스레.

☞부산나케. ¶그때 인자 빨리 와 갖고 집이서 {부산나게} 밥을 지어요.<한국구비문학대계, 전북군산시·옥구군편>

지역 전북.

부산나다 형 [대응어] 부산하다.

급하게 서두르거나 시끄럽게 떠들어 어수선하다.

지역 전북.

부산나케 부 [대응어] 부산스레.

급하게 서두르거나 시끄럽게 떠들어 어수선하게. ¶가만히 생각해 본개 참 허망하지. 돈 삼천냥을 그냥 준 거지. 그래서 {부산나케} 인제 배를 몰고 가닝개, 인자 으레이 그 바우 밑에 가서 쉬어가.<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그그 영감을 작별허고 이 젊은 사람 서쪽으로 인자 {부산나케} 그 젊은 놈 가는 디로 이 젊은 놈이 가. "아 젊은 사람 보라."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초봉이가 어멈을 불러대면서 부산나케 서두는 것을 제호는 다시금 시계를 꺼내 보다가 "아니, 가만 있으라구……" 하면서 그대로 마당으로 내려선다.<채만식, 탁류>

지역 부안, 완주, 정읍.

해설 '부산'은 '급하게 서두르거나 시끄럽게 떠들어 어수선함'이란 뜻이다. '부산나다'는 '부산'과 동사 '나다'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어휘로 보인다. '부산나다'의 부사형으로 '부산나게, 부산

나케'가 쓰인다.

부석 명 [대응어] 부시.

부싯돌을 쳐서 불이 일어나게 하는 쇳조각.

지역 남원, 무주, 장수.

부석돌 명 [대응어] 부싯돌.

부시로 쳐서 불을 일으키는 데 쓰는 석영(石英)의 하나. 아주 단단하고 회색, 갈색, 검은색 따위를 띤다.

지역 무주.

부석삽 명 [대응어] 부삽.

아궁이나 화로의 재를 치거나, 숯불이나 불을 담아 옮기는 데 쓰는 조그마한 삽. 쇠붙이 따위로 네모가 지거나 둥글게 만들었는데, 바닥이 좀 우긋하고 자루가 달려 있다. ¶{부석삽으로} 불을 퍼낸다.

지역 장수.

부석짝 명 [대응어] 부엌.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놓고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는 등 식사에 관련된 일을 하는 곳. ¶아까참에 {부석짝에} 고구마 느놨는디 다 타버렸것다 얼릉 가 갖고 끄집어내서 껍데기 베께먹어라. ¶쏘시개 갖고 {부석짝으로} 들어가는 꼴이구만 이~ 어찌, 그리도 운대가리가 없다요? ¶그래라우, 웬쑤가 따로 업당게 차말로 정지깐 {부석짝} 당그래로 거그를 확 히벌고 시퍼도…… 인자는 시들어질 나이도 되었는디. ¶마파람도 앵간치 불어오고 {부석짝} 욱에 같이 후덕지근험서 등걸짝 난닝구 척척해 가는디. ¶결혼을 허고 첫날 저녁으 잠을 자고 구랭이가 그 허물을 마느래 이 속것 속으다 쨈매줬어이. 쨈매주고 서울로 과게를 감서, "이놈이 {부석짝으로} 들어가면은 내가 노랑내가 나서 생전 시골을 못온다. 그런게 이 잘, 나 오드락 잘 강전허고 누가 오든지 문을 끌러주지 마라." 그러고 갔는디<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아이고 저네는 말도 모디써. 시뱅잉게로 이르케 상으서 바블 머꼬 어쩌고 허지, 생:이 머여, 똑 정지 {부석짝} 안저서 한 수까락썩 먹꼬. {아이고 전에는 말도 못했어. 지금이니까 이렇게 상에서 밥을 먹고 어쩌고 하지, 상이 뭐여, 꼭 부엌 부뚜막 앉아서 한 숟가락씩 먹고}.<2009 전북 임실>

지역 임실, 무주, 고창, 정읍.

부세다 동 [대응어] 부수다.

단단한 물체를 여러 조각이 나게 두드려 깨뜨리다. ¶아무리 화가 난다고 허도 그렇지 집안에 있는 온갖 물건을 때리고 {부세고}, 인간 말종이여. 말종.

지역 고창.

부세부세허다 형 [대응어] 부석부석하다.

피부나 살가죽이 부은 듯한 상태에 있다. ¶나는 애기 나고 저렇게 {부세부세허길래}. ¶애기 나면 {부세부세허}. 눈이랑 손이랑 발이랑 다 붓어.

지역 전북.

부수개 명 [대응어] 유과.

꿀과 기름을 섞은 밀가루 반죽을 판에 박아서 모양을 낸 후 기름에 지진 과자. ¶푸짐하게 차려진 잔칫상에는 자고로 달달하고 윤기 좔좔 흐르는 {부수개는} 꼭꼭 있어야 한다잉.

지역 김제, 순창, 진안, 완주.

부수땡이 명 [대응어] 부지깽이.

☞부지땅이.

지역 전북.

부수목 명 [대응어] 부스럼.

☞부시먹.

지역 남원.

부수살 명
앓은 후 살이 부어 찐 살. ¶나랑 동갭인디 살이 통통히 쪘드라고. 거 {부수살이여}. 아파서.
지역 전북.

부수쌔미 명 [대응어] 담배쌈지.
살담배나 잎담배를 넣고 다니는 주머니. 종이, 헝겊, 가죽 따위로 만든다. ¶{부수쌔미에} 담배가 몇 개비 남지 않았다.
지역 무주.

부순목 명 [대응어] 부스럼.
☞부시먹.
지역 전북.

부술목 명 [대응어] 부스럼.
☞부시먹.
지역 완주, 장수.

부술묵 명 [대응어] 부스럼.
☞부시먹.
지역 완주, 장수.

부숫돌 명 [대응어] 부싯돌.
☞부싯독.
지역 무주, 임실, 장수, 순창.

부스렘 명 [대응어] 부스럼.
피부에 나는 종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
지역 전북.

부스짝 명 [대응어] 부엌.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놓고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는 등 식사에 관련된 일을 하는 곳. ¶애랫을 저그 동네 앞 시암 가서 물지개로 질러다 {부스짝} 한 삐짝으다가 묻어 논 항아리다가 붓어 놓고 한 쪼박씩 떠다가 쓰든 생각이 간절흐넹.
지역 전북.

부슬 명 [대응어] 부삽.
아궁이나 화로의 재를 치거나, 숯불이나 불을 담아 옮기는 데 쓰는 조그마한 삽. 쇠붙이 따위로 네모가 지거나 둥글게 만들었는데, 바닥이 좀 우긋하고 자루가 달려 있다.
지역 전북.

부슬먹 명 [대응어] 부스럼.
☞부시먹.
지역 전북.

부슬멕 명 [대응어] 부스럼.
☞부시먹.
지역 전북.

부승무 명 [대응어] 부스럼.
피부에 나는 종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
지역 전북.

부시개 명 [대응어] 유과.
☞부수개. ¶사진을 보면 어른들 잔치상에는 {부시개가} 꼭 올라와 있었지.
지역 완주.

부시땅 명 [대응어] 부지깽이.
☞부지땅이.
지역 전북.

부시럼 명 [대응어] 부스럼.
☞부시룸. ¶기냥, 놓아 두제 매급시 긁어 갖고 {부시럼} 맹글어 놨네 이~.
지역 고창.

부시레기 명 [대응어] 부스럼.
피부에 나는 종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 ¶아이 몸에 {부시레기가} 나서 병원 다녀와야겠다.
지역 전북.

부시룸 명 [대응어] 부스럼.
☞부스렘.
지역 부안, 고창.

부시름 명 [대응어] 부스럼.
☞부스렘.
지역 고창.

부시먹 명 [대응어] 부스럼.
피부에 나는 종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 ¶{부스먹} 생긴다고<완주_지역어_텍스트>
지역 진안, 무주, 순창, 군산, 정읍, 익산.

부시탱이 명 [대응어] 부지깽이.
☞부지땅이.
지역 전북.

부실먹 명 [대응어] 부스럼.
☞부시먹.
지역 진안.

부실목 명 [대응어] 부스럼.
☞부시먹.
지역 무주, 순창, 군산, 정읍.

부실묵 명 [대응어] 부스럼.
☞부시먹.
지역 익산.

부싯독 명 [대응어] 부싯돌.
부시로 쳐서 불을 일으키는 데 쓰는 석영(石英)의 하나. 아주 단단하고 회색, 갈색, 검은색 따위를 띤다. ¶담배를 피울라면 {부싯독으로} 불을 붙였제.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부안, 군산, 익산, 정읍.

부싸개 명 [대응어] 불쏘시개.
불을 때거나 피울 적에 불이 쉽게 옮겨붙게 하기 위하여 먼저 태우는 물건. 잎나무, 관솔, 종이 따위이다.
지역 전북.

부아받이 명
부아를 받아 주는 일이나 사람. ¶예정에도 없이 성깔 고약한 남편의 {부아받이} 노릇만 착실히 해주고 돌아서는 기분은 더욱 더 무참했다.<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부아받이'는 표준어에는 해당 어휘가 없다. 이 어휘는 '부아'에 대체로 사람을 나타내는 접미사 '-받이'가 연결된 것이다. '부아받이'는 '부아를 받아주는 일' 또는 '부아를 받아주는 사람'을 말한다.

부아풀이 명 [대응어] 화풀이.
노엽거나 분한 마음을 풀려고 하는 일. ¶한바탕 {부아풀이를} 하고 나서 최 교장은 제풀에 지쳐 풀석 주저앉았다.<윤흥길, 낫>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부아풀이'는 표준어로는 '화풀이'이다. '부아풀이'는 '부아를 풀다.'에서 생긴 '부아풀-'에 접미사 '-이'가 연결된 것이다. 표준어 '화풀이'와 똑같은 파생구조를 가지고 있다.

부애풀이 명 [대응어] 화풀이.
☞부아풀이. ¶"오후 시시찜이면은 나한티서 봉변당허고 그 질로 그냥 욜로 쳐들어와서 {부애풀이를} 헌 모냥이구만." 종술이 간장종지만하게 눈을 한껏 키웠다.<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

면>
지역 전북.

부앳짐 명 [대응어] 부앗김.
노엽고 분한 마음이 일어난 기회나 계기. ¶부부쌈이 벌어져서 나가 바가지를 쪼깨 긁었드니만 저 냥반이 {부앳짐에} 아무 말이나 막 내뱉누만요.<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해설 표준어 '부아'의 전북 방언은 '부애'이고, '김'은 구개음화되어 '짐'으로 발음한다. 여기에 사이시옷이 들어가서 복합어 '부앳짐'이 된다.

부앳짐에 부 [대응어] 홧김에.
☞부얏짐이. ¶"부부쌈이 벌어져서 나가 바가지를 쪼깨 긁었드니만 저 냥반이 {부앳짐에} 아무 말이나 막 내뱉누만요."<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부얏짐에 부 [대응어] 홧김에.
화가 와락 난 마음에. ¶증말 승질나 죽것네. {부얏짐에} 확 불질러부려?
지역 고창, 군산, 김제, 부안, 익산, 정읍.

부얏짐이 부 [대응어] 홧김에.
화가 와락 난 김에 ¶그서 내 {부얏짐이} 돈 닷냥 있는 놈을 기냥 쑥 빼놈서, 돈 있응게 쌀 팔고 그리서 산모 구완을 허란게 영감이 고집불통이라 당초 안받읍디다.<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군산.

부어잡다 동 [대응어] 부여잡다.
두 손으로 힘껏 붙들어 잡다. ¶바짓가랭이 {부어잡고} 울면서 못 가게 했어.
지역 전북.

부어지 명 [대응어] 뱀장어.
지역 전북.

부억 명 [대응어] 부엌.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놓고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는 등 식사에 관련된 일을 하는 곳. ¶이런 것으로 바람 못 들어오게 대고서 그냥. {부어글} 그러캐가꾸서나 산 사라미 읻써요. {부엌을 그렇게 해가지고서나 산 사람이 있어요.<지역어 자료 총서, 무주> ¶부어그로 오니라<2009 전북 임실> ¶저 엔나레는 저 배까테가 정녕 여기는 방이고 저 배까티가 {부어기자나}. {저 옛날에는 저 바깥에가 정녕 여기는 방이고 저 바깥에가 부엌이잖아}.<지역어 자료 총서, 무주> ¶사발 그릇은 {부억에} 가면 선반 위에 있으니 가져와라.
지역 전북.

부억장이 명
남의 집에서 부엌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 ¶들어가서 {부억장이} 노릇을 혀. {부억장이} 노릇을 허는디.
지역 전북.

부웍 명 [대응어] 부엌.
☞부억.
지역 전북.

부저붐 명 [대응어] 부젓가락.
화로에 꽂아 두고 불덩이를 집거나 불을 헤치는 데 쓰는 쇠로 만든 젓가락.
지역 진안, 김제, 부안, 순창.

부주 명 [대응어] 부조.
잔칫집이나 상가(喪家) 따위에 돈이나 물건을 보내어 도와줌. 또는 돈이나 물건.

지역 전북.

부주땡이 명 [대응어] 부지깽이.
☞부지땅이.
지역 무주, 임실, 진안.

부주허다 동 [대응어] 부조하다.
잔칫집이나 상가(喪家) 따위에 돈이나 물건을 보내어 도와주다. ¶우리가 그때 한 앞에 백 원 낸 사람, 이백 원 낸 사람, 저 변씨비 {부주} 허자고 남원 유림이 작정을 할라고 한개 전주 이씨가 앞에 나서야지.<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전북.

부좃돈 명 [대응어] 부좃돈
부조로 내는 돈. ¶절실한 친구의 제삿날이 돌아왔더라 이거여. 그래 자기 아들한테 {부좃돈을} 타야 만이 제사를 갈 것인디.<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전북.

부지개이 명 [발음] {부지개~이} [대응어] 부젓가락.
화로에 꽂아 두고 불덩이를 집거나 불을 헤치는 데 쓰는 쇠로 만든 젓가락.
지역 고창.

부지땅이 명 [대응어] 부지깽이.
아궁이 따위에 불을 땔 때에, 불을 헤치거나 끌어내거나 거두어 넣거나 하는 데 쓰는 가느스름한 막대기. ¶세려 술만 서 너잔 자시더니, 아 글을 글귀 이얘기를 허고 글을 잘못 지었다고 매를 히갖고 오라고 헌게 정지가서 지 {부지땅이를} 갖고 간게 어떻게 되게 때린가 아이고 아야 아이고 아야 허고 막 뛰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부지땅이를} 아궁이에 꽂아 두면 안 된다. ¶타고 있는 불을 {부지땅이로} 자꾸만 휘저으면 꺼진단다.
지역 고창, 군산, 김제, 남원, 무주, 순창, 완주, 익산, 장수.
해설 현대 국어 '부짓깽이'의 옛말인 '부짓대'는 8세기 문헌에서부터 나타난다. 이 단어는 '부짓'가 '깽이'의 복합어인데 '부짓'의 'ㅅ'은 단어의 일부분일 가능성도 있고 '깡이'의 어두 경음의 일부분을 표기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8세기에 보이는 '부짓대/부지ㅅ대'를 보면 'ㅅ'은 소격 조사이며 '부지'는 '불'과 관련되는 단어일 가능성이 크다.

부지땡이 명 [대응어] 부지깽이.
☞부지땅이. ¶그말을 듣고서는 뿔끈 일어나서 정지를 나가갖고, 회초리는 없고 그 불태던 말이여. 지금은 연탄도 때지마는 불 때는 {부지땡이가} 있단 말이어. 부지땅을 이놈을 쑥허니 갖고 와서는, "이놈, 고약헌 년이라." 고 멫번 때?지. 때리고서는 제 정신을 챙겼지.<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군산, 김제, 남원, 무주, 순창, 완주, 익산, 장수.

부지르다 동 [대응어] 분지르다.
단단한 물체를 꺾어서 부러지게 하다. ¶이게 이 앞 못 본 사람 지팽이를 {부지러} 버리고 꼬랑이다 미크러 버리고 도망했다고. 그놈 자식 고따우로 아들 교육시키냐?<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부질르다 동 [대응어] 분지르다.
단단한 물체를 꺾어서 부러지게 하다. 또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 데 냉정하고 단호하게 자르다. ¶"그 새끼 다리몽댕이를 {부질러서} 질질 끗고 오제 지 발로 걸려와?"<송기숙, 녹두장군> ¶"내가 사랑에 사랑방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넘의

애기를 허길레 말을 {부질러} 놓았더니, 잔동이 값을 받으러 온다고 허니, 돈이 있어야 주지." <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남원.

부쩌지 부 [대응어] 안절부절.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여 어찌 할 바를 모르는 모양. ¶당하는 달주보다 만득이가 더 {부쩌지를} 못하고 똥 마려운 놈처럼 오만상을 찌푸리고 있었다.<송기숙, 녹두장군>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부쩌지'는 '붙접'에서 온 말로 해석하고 있는데 주로 '가까이하거나 붙따라 기대는 일.'을 말한다. '부쩌지를 못하다.'의 구성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다.

부채초민 (←부채體面) 명

부채로 낯을 가리어 외면하는 행동. 부채 체면. ¶가살일레 가살일레/시누 남편 가살일레/ 요내 문전 지내감성/{부채초민} 하고 가리(임실 밭매는 소리)<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임실.

부초 명 [대응어] 부추. ¶{부초하고} 다마네기를 송송 썰어 넣고 지짐이 좀 노릇노릇하게 부쳐라.

지역 전북.

부치 명 [대응어] 부싯돌.

부시로 쳐서 불을 일으키는 데 쓰는 석영(石英)의 하나. 아주 단단하고 회색, 갈색, 검은색 따위를 띤다.

지역 임실.

부치가래 명 [대응어] 부치가래.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서 변을 보고 그 변을 재로 덮어 한쪽으로 모아 두었는데 이때 재를 밀치던 도구. 바닥에 판을 두 개 놓고 그 사이에 앉아 변을 보고 재를 덮어 한쪽으로 모아 두었다가 거름으로 냈다. 통을 묻거나 밑으로 떨어지게 만든 화장실이 아니므로 이런 식으로 변을 처리하였다. ¶똥 싸고 {부치가래로} 재 덮어서 한쪽으로 치워놔.

지역 전북.

부치개 명 [대응어] 부침개.

기름에 부쳐서 만드는 빈대떡, 저냐, 누름적, 전병(煎餠) 따위의 음식. ¶그리고 명태 {부치개} 마니 허고, 상어도 이케 포 떠서 부치고. {그리고 명태 부침개 많이 하고, 상어도 이렇게 포 떠서 부치고}.<지역어 자료 총서, 군산> ¶그러며는 그러케 동네잔치가 되고 그러며는 인제, 뭐 뭐야, 이케 {부치개도} 하고 머, 나물도 무치고. {그러면은 그렇게 동네잔치가 되고 그러면은 이제, 뭐 뭐야, 이렇게 부침개도 하고 뭐, 나물도 무치고}.<지역어 자료 총서, 군산> ¶여보, 술 한잔 하게 묵은 김치 썰어 넣고 {부치개} 좀 만들어 주소. ¶또 전 같은 것도, {부치개} 같은 거. 다 잔칫상에 쓴 것은 다 놓는 것이니까.<2008 전북 고창>.

지역 군산, 남원, 무주, 임실.

부치기 명 [대응어] 부침개.

☞부치개. ¶{부치기} 가튼 거. 다 잔치쌍에 쓰는 거슨 다 논는 거싱게. 제일 큰 택 칭게.(또 전 같은 것도, 부치개 같은 거. 다 잔칫상에 쓴 것은 다 놓는 것이니까)<2008 전북 고창>.

지역 전북.

부칙간 명 [대응어] 변소.

대소변을 보도록 만들어 놓은 곳. ¶부칙간에서 똥 냄새가 진동한다.

지역 임실.

부칭개 명 [대응어] 부침개.

☞부치개.
지역 남원, 무주, 임실.

부테 명 [대응어] 부티.
베를 짤 때, 베틀의 말코 두 끝에 끈을 매어 허리에 두르는 넓은 띠. 나무나 가죽 또는 베붙이 따위로 만든다.
지역 완주, 임실.

부푸다 형 [대응어] 부프다.
무게는 나가지 아니하지만 부피가 크다. ¶풍선이 {부푼게로} 뻥 터지지.
지역 전북.

부풀다 동 [대응어] 붐비다.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나 자동차 따위가 들끓다. ¶사람이 {부풀면} 복잡시럽고 참 거시기해.
지역 전북.

부황부황하다 (浮黃浮黃하다) 형 [대응어] 허황하다.
매우 헛되고 황당하며 미덥지 못하다. ¶다만 그처럼 {부황부황한} 이야기를 그가 멋대로 꾸며서 지껄이지 않은 것만은 확실할 것이었다.<한국소설문학대계, 윤흥길, 비늘, 436>
지역 전북.
해설 '부황'은 한자어 '부황(浮黃)'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인다. 이 뜻은 '오래 굶주려서 살가죽이 들떠서 붓고 누렇게 되는 병.'을 말하는데 주로 '부황이 나다, 부황이 들다.'의 표현으로 쓰이면서 '부황나다, 부황들다'로도 쓰인다. 여기서 '부황'이 '허황'의 의미로 쓰이면서 '부황하다'로 쓰고 있다. 강조의 표현으로 '부황부황하다'가 쓰인다.

부황하다 (浮黃하다) 형 [대응어] 허황하다.
헛되고 황당하며 미덥지 못하다. ¶더욱이 천하 {부황한} 투기사업 금광노름이다. 잡무하고도 그러므로 가장 속스런(形而下的인) 잡무다.<채만식, 近日>
지역 전북.
해설 '부황'은 한자어 '부황(浮黃)'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인다. 이 뜻은 '오래 굶주려서 살가죽이 들떠서 붓고 누렇게 되는 병.'을 말하는데 주로 '부황이 나다, 부황이 들다.'의 표현으로 쓰이면서 '부황나다, 부황들다'로도 쓰인다. 여기서 '부황'이 '허황'의 의미로 쓰이면서 '부황하다'로 쓰고 있다.

북간 (北間) 명 [대응어] 뒷간.
'변소(便所)'를 완곡하게 이르는 말. ¶뒤가 마려워서 {북간에} 가고 싶은디도 부끄러워서 말도 못 혔어. ¶{북간을} 들어가서 똥 누고 왔지.
지역 전북.

북감자 (北감자) 명 [대응어] 감자.
지역 전북.
해설 감자의 원산지는 재배역사가 오랜 남미(南美)의 칠레 부근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조선 순조 24년(824)에 만주의 간도지방으로부터 두만강을 건너 도입되었는데 북방에서 도입되었다는 이유로 '북감자'라고 하기도 하며 함경도 지방에서는 '양감자'라고도 하여 외래 작물임을 알려 주고 있다.

북다 형 [대응어] 부럽다.
남의 좋은 일이나 물건을 보고 자기도 그런 일을 이루거나 그런 물건을 가졌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다. ¶이제는 시상에 {북을} 것이 없어.
지역 진안.

북새 명 [대응어] 노을.
해가 뜨거나 질 무렵에, 하늘이 햇빛에 물들어 벌겋게 보이는 현상. ¶저녁 {북새}가 지넌께 하

늘이 뻘겋고 노랗고 예쁘다. 예쁘네.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북선 명 [대응어] 북한.
남북으로 분단된 대한민국의 휴전선 북쪽 지역을 가리키는 말. ¶신랑은 {북선으로} 군인 가 버리고.
지역 전북.

북쇠 명 [대응어] 노을.
☞북새.
지역 전북.

북쉐 명 [대응어] 노을.
☞북새.
지역 전북.

분멩하다 형 [대응어] 분명하다.
어떤 사실이 틀림이 없이 확실하다. ¶거참, 요상도 허네. 안먀쟁이맨치로 씨커먼 라이방 덮어쓴 수상시런 사나가 {분멩허니} 서 있었는디.<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분멩히 부 [대응어] 분명히.
어떤 사실이 틀림이 없이 확실하게. ¶그것은 {분멩히} 공짜배기 술에 이것 저것 죄다 주서 퍼먹은 뒤 꿔어댄 도독방구 틀림 없겄다. ¶"그런 일도 있기는 있능갑대. 하관을 헐 때는 {분멩히} 반듯허게 모셨는디, 요상허게 나중으 가서 이장을 해 디릴라고 보먼 시신이 엎어졌거나 우아래 상하가 바뀌는 수도 있다대."<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분봉하다 동 [대응어] 봉분하다.
흙을 둥그렇게 쌓아서 무덤을 만들다. ¶괘등이란 디가 명당자리니 것다 뫼를 씨라고 험서 얕이 씨고 {분봉허라고} 했어.<구비문학대계 정읍군>
지역 정읍.

분없다 형 [대응어] 분별없다.
세상 물정에 대하여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만한 능력이 없다. ¶우리 어매가 그랬어. 여그 가서 퍼주고 저그 가서 퍼주고, 손이 커도 너무 커. 한마디로 우리 어매가 {분없어}, 시상 물정 모르고 그렇게 다 퍼주고 살았어.
지역 전북.

분질다 동 [대응어] 분지르다.
부러뜨리다. ¶호랑이는 소리를 지르며 대문을 넘어뛰어 안으로 들어오려고 높이 뛰다가는 뜰앞 나무에 걸려서 나뭇가지만 {분질고} 떨어지고 하기를 여러 번 하더니<구비문학대계 임실군편>
지역 임실.

불거다 형 [대응어] 부럽다.
남의 좋은 일이나 물건을 보고 자기도 그런 일을 이루거나 그런 물건을 가졌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다. ¶{불거운} 마음이 들다
지역 고창, 순창, 군산, 완주, 장수, 정읍, 진안.

불겁다 형 [대응어] 부럽다.
남의 좋은 일이나 물건을 보고 자기도 그런 일을 이루거나 그런 물건을 가졌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다. ¶산뻑대기를 떡 허니 올라가서, "[판소리조로], 후유 한숨 길게 쉬고 팔을 비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가 요만허며는 넉넉허지 어떤 사람 {불걸소냐} 우리 옹기장사 {불걸소냐}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가 V 해가 되는디 도무지 소식조차 없고, 또 어떤 사람은 저렇

게 헤가지고서 그 고을 반장으로 내리와. 내리오넌게 하, 이 {불거버서}<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시방은 옆짝꿍 계란 반찬이 {불거워} 뵈겄지만 우리도 아부지만 성공허면 계란반찬 뿐이것냐? 닭도 한 마리 잡자.
지역 고창,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장수, 정읍, 진안.

불구다 동 [대응어] 불리다.
물에 적시어 부피가 커지게 하다. ¶말라붙어 갖고는 다라이다 {불궈} 갖고 그때는 장갭이 있어머 있어.
지역 전북.

불그딕디그리하다 형 [대응어] 불그죽죽하다.
칙칙한 붉은 빛이 고르지 않게 어리어 있다. ¶그 눔이 그 짓거리 허먼 글안해도 뻘건 물이 {불그딕디그리허게} 든 저 아랫것들이 워쩌고 나대겄냐 그것이여.<조정래, 태백산맥> ¶백남일은 더욱 색정이 는적거리는 얼굴로 {불그딕디그리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조정래, 아리랑> ¶"그눔에 집구석이 옛적부텀 삐까닥혔소. 김범우란 눔도 한때 빨갱이 사상을 가졌고, 지끔도 허는 행투 보먼 뿕근 물이 {붉으딕디그리헌디}, 법이란 것이 틀려묵었소. 빨갱이러 잡자 혔으면 고런 눔덜부텀 타작마당 검불 쓸데끼 싹싹 잡어다가 처박어야 헌다 그말이요.<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불그롬하다 형 [대응어] 불그레하다.
붉은 빛이 밝게 스며 있다. ¶공배네는 손을 들어 조심스럽게 시꺼먼 동산 기슭을 가리킨다. 외짝 지게문이 {불그롬한} 불빛을 머금고 있는 것이, 꼭 눈에 피 벌겋게 돋은 눈구녁을 뜨고 있는 것 같은 집이다. 그 집을 눈여겨<최명희, 혼불> ¶침 너머가. 그 허허허 {불그::롬허니} 무리 그러체 소고기 쌀무머는. 침 넘어가네.(침 넘어가 그 허허허 불그레 하니 물이 그렇지 소고기 삶으면)<20년 중국 무주촌 보고서-최종>
지역 전북.

불그족족하다 형 [발음] [불그족조가다/불그족조카다] [대응어] 불그스름하다, 불그죽죽하다.
☞붉으딕딕하다. ¶갸름한 얼굴에 비하여 두툼해 보이는 {불그족족한} 입술이 그의 가슴을 아리고 저리게 만들었다.<한승원, 해일>
지역 전북.

불그테테허다 형 [대응어] 불그대대하다.
탁하게 붉다. ¶삼 똥 붙고 {불그테테헌} 놈. 물짠 놈 그런 놈 시방 같이 비누나 좋간디? 빨아도 깨끗허도 안 혀. 바래야 좀 흐커지.
지역 전북.

불나케 부 [대응어] 부리나케.
서둘러서 아주 급하게. ¶일 끝나는대로 {불나케} 갔는디 막차가 떠나버렸어. ¶어둡기 전에 {불나케} 서둘어라.
지역 전북.

불내 명 [대응어] 내(煙氣).
물건이 탈 때에 나는 냄새. ¶할매 품에 안기먼 아궁이 {불내}가 은근허게 난단 말여.
지역 전북.

불다 보동 [대응어] 버리다.
((동사 뒤에서 '-어 버리다'의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나타내는 행동이 이미 끝났음을 나타내는 말. 그 행동이 이루어진 결과, 말하는 이가 아쉬운 감정을 갖게 되었거나 또는 반대로 부담을 덜게 되었음을 나타낼 때 쓴다. ¶종이 상전보고 웃어 {불먼} 상전은 상전 노릇 다헌 거이다.<최명희, 혼불> ¶참말로 개 멋 같은 노무 세상. 칵 엎어 {불먼} 뒤집히는 꼴 좀 한번 보겄는디.<최

명희, 혼불> ¶그대로 앉은뱅이맹이가 되야 갖꼬 디져 {불고} 말 거인디<이태영(2004 ㄴ)>
지역 전북.

불뎅이 명 [대응어] 불덩이.
불에 타고 있는 물체의 덩어리. 또는 몹시 뜨겁게 열이 나는 몸이나 뜨겁게 된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몸이 {불뎅이} 같구 입술이 새까맣게 타서…… 성할 때는 그렇게 팔팔하든 아이가 꼼짝 아니하고 눈을 딱 감고 누웠겠지……<채만식, 인형의 집>
지역 전북.

불독 명 [대응어] 부싯돌.
부시로 쳐서 불을 일으키는 데 쓰는 석영(石英)의 하나. 아주 단단하고 회색, 갈색, 검은색 따위를 띤다.
지역 남원.

불뚝스럽다 형 [대응어] 불퉁스럽다.
☞불뚱스럽다.
지역 전북.

불뚱스럽다 형 [대응어] 불퉁스럽다.
보기에 퉁명스럽게 말을 불쑥불쑥 내던지는 데가 있다. ¶"성언 나 나이도 몰르능가…… 발써 열일곱 살 아니여." 효남이는 금방 볼이 부어오르며 {불뚱스럽게} 말했다.<조정래, 아리랑> ¶좌판에 다다른 염상구가 {불뚝스럽게} 내질렀다.<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불뚱스럽다'는 표준어로는 '불퉁스럽다'이다. '불뚱'에 '-스럽다'가 연결되면 형용사가 된다.

불레쉬염 명 [대응어] 구레나룻.
밑에서 턱까지 잇따라 난 수염. ¶이발 좀 허고 오니라. {불레쉬염도} 좀 정리허고.
지역 군산.

불무 명 [대응어] 풀무.
불을 피울 때 바람을 일으키는 기구. ¶솥을 때우는 사람 따라다니면서 {불무를} 불어 주는 직업입니다.<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추진 솔가리나 나뭇잎을 땔 때는 연기만 나옹게 {불무}질을 살살 험서 때야 불이 잘 일어나지. ¶{불무를} 잘못 사용했는지 헛바람만 일고 아궁이에 불이 붙지 않아 물을 끓일 수가 없구나.
지역 고창, 군산,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불무불무 부 [대응어] 부라부라.
어린 아기를 세워 놓고 몸을 앞뒤로 흔드는 놀이를 할 때 내는 소리. ¶{불무불무} 우리 아기 잘한다.
지역 김제, 무주, 익산, 진안.

불무불무대불무 부 [대응어] 부라부라.
어린 아기를 세워 놓고 몸을 앞뒤로 흔드는 놀이를 할 때 내는 소리. ¶{불무불무대불무}, 우리 아기 잘도 흔든다.
지역 정읍.

불무야불무야 부 [대응어] 부라부라.
어린 아기를 세워 놓고 몸을 앞뒤로 흔드는 놀이를 할 때 내는 소리.
지역 남원,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임실, 장수.

불무질 명 [대응어] 풀무질.
풀무로 바람을 일으켜 불을 피우거나 더 크게 키우는 일. 또는 흥분된 감정이나 싸움을 더욱 부추기는 짓. ¶춘복이가 강실이를 남모르게 꿈꾸고 있을 때나, 그 일을 발설했을 때 치받던 심정

하고는 비교도 안되게 무서운 질투로 옹구네는, 훅, 훅, {불무질을} 하는 속을 화덕같이 끓이며 열화를 가누지 못하곤 하였다.<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해설 불을 피울 때 바람을 일으키는 도구를 뜻하는 '불무'와 '-질'로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풀무의 고어형인 '불무'에서 파생된 '불무질'과 '풀무질'이 함께 쓰이고 있다.? 불난 집에 불무질헌다.

불무치 명 [대응어] 풀무치. ¶들 가온데 증아도/가지밭이 명왓대/더풀 밑이 {불무치}/애기머리 진질새/큰애기머리 서광새(익산 아이 어르는 소리 "떵기 떵기 떵산아")<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전북.

불뭇간 명 [대응어] 대장간.
쇠를 달구어 온갖 연장을 만드는 곳. ¶대장간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누구는 {'불무간'이라고도} 했다.<최명희, 혼불> ¶{불뭇간에} 가서 칼, 식칼을 잘 들게 하나 쳐가지고 왔다. ¶{불뭇간으로} 칼 버리러 갔다.
지역 김제, 무주,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고창, 군산.
해설 '불무/풀무'는 현대어에서 "불을 피울 때 바람을 일으키는 기구."의 의미만 가지고 있지만 8세기 이전에는 '쇠를 녹이는 것' 즉, '용광로'의 뜻도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 불뭇간은 이 의미가 합성어에 그대로 살아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세기 형태는 '불무'의 형태였던 것이 8세기부터 '풀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났는데 전북방언에서는 '풀뭇간', '풀무질'과 함께 옛어형인 '불뭇간'과 '불무질'이 같이 쓰이고 있다. '풀무가~'는 말음 'ㄴ'의 영향으로 'ㅏ'가 비음화되고 'ㄴ'이 탈락된 형태이다.

불미재이 명 [대응어] 대장장이.
쇠를 달궈서 온갖 연장과 기구를 만드는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 ¶{불미재이가} 낫이나 맹그고 괭이나 맹글지요.
지역 전북.

불버다 형 [대응어] 부럽다,
☞불법다
지역 남원, 무주.

불버지다 동 [대응어] 부러워지다.
부러운 마음이 생기다. ¶힘이 센 사람이 {불버지지}.
지역 남원.

불법다 형 [대응어] 부럽다.
남의 좋은 일이나 물건을 보고 자기도 그런 일을 이루거나 그런 물건을 가졌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다.
지역 남원, 무주.

불삼 명 [대응어] 부젓가락.
화로에 꽂아 두고 불덩이를 집거나 불을 헤치는 데 쓰는 쇠로 만든 젓가락.
지역 장수.

불삽 명 [대응어] 부삽.
아궁이나 화로의 재를 치거나, 숯불이나 불을 담아 옮기는 데 쓰는 조그마한 삽. 쇠붙이 따위로 네모가 지거나 둥글게 만들었는데, 바닥이 좀 우긋하고 자루가 달려 있다. ¶{불삽으로} 아궁이 재 좀 퍼내라. ¶모양으로, 흰 종이를 두껍게 발라서 네모 반듯하게 하고 네 귀가 쫑긋하게 만든 판에 그림을 그려 놓은 것이다. 이 중에 구름의 무늬를 그린 것은 운삽이요, '亞(아)'자를 가득차게 그린 것은 ' {불삽}이라 하는 아삽이다. <최명희, 혼불>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군산, 완주, 진안.

불섭돌 명 [대응어] 부싯돌.
부시로 쳐서 불을 일으키는 데 쓰는 석영(石英)의 하나. 아주 단단하고 회색, 갈색, 검은색 따위를 띤다.
지역 남원.

불손 명 [대응어] 부삽.
아궁이나 화로의 재를 치거나, 숯불이나 불을 담아 옮기는 데 쓰는 조그마한 삽. 쇠붙이 따위로 네모가 지거나 둥글게 만들었는데, 바닥이 좀 우긋하고 자루가 달려 있다.
지역 고창, 남원, 완주, 진안.

불숟갈 명 [대응어] 부손.
화로에 꽂아 두고 쓰는 작은 부삽. 모양이 숟가락 비슷하나 좀 더 크고 납작하다.
지역 무주, 남원.
해설 현대 국어 '부손'은 9세기부터 용례가 확인된다. '부손'은 '불'과 '손'의 합성어인데 '불'의 'ㄹ'이 탈락한 것이다.

불숟구락 명 [대응어] 부손.
☞불숟갈. ¶{불숟꾸락}, 불숟꾸락, 불숟꾸라기고 <2005 전북 남원>
지역 남원.

불쑥 명 [대응어] 부싯깃.
부시를 칠 때 불똥이 박혀서 불이 붙게 부싯돌에 대는 물건. 수리취, 쑥 잎 따위를 불에 볶아 곱게 비벼서 만들기도 하고, 흰 종이나 솜 따위에 잿물을 여러 번 묻혀서 만들기도 한다. ¶돌이는 부싯돌을 쳐, 불을 일으킨 뒤에 불붙은 {불쑥을} 화로에 넣었다.
지역 남원.

불여수 명 [대응어] 불여우.
몹시 변덕스럽고 못된, 꾀가 많은 여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날 홀여먹난 {불여수냐}<완판본 열여춘향수절가上> ¶"내가 거그서 당했다. 그런 일 당했는디 거그가 그 저 {불여수라는} 여수가 산다." 그라드려 여수가. {불여수}. {불여수가}<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옛날에 그게 거 시루골이라고 있는디 {불여수가} 있답니다. 부, {불여수란} 것이 말이지<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전북.
해설 '여우'에 '몹시 심한'이란 뜻을 가진 접두사 '불-'이 연결되어 '불여우'가 된다. '불여우'의 전북 방언은 '불여수, 불여시' 등이다.

불이 들다 【관용표현】 [대응어] 가뭄 들다.
오랫동안 계속하여 비가 내리지 않아 메마르게 되다. ¶콩밭에는 콩이나 좋아도 새삼 들어서 못 먹겄네/팥밭에는 팥이나 좋아도 {불이 들어서} 못 먹겄네(고창 밭매는 소리-"콩밭에는 콩이나 좋아도")<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고창.

불잉그락 명 [대응어] 불잉걸.
불이 이글이글하게 핀 숯덩이. ¶아궁이에서 {불잉그락을} 꺼냈다.
지역 전북.

불잘개 명 [대응어] 불쏘시개.
불을 때거나 피울 적에 불이 쉽게 옮겨붙게 하기 위하여 먼저 태우는 물건. 잎나무, 관솔, 종이 따위이다.
지역 무주.

불저범 명 [대응어] 부젓가락.
☞부저붐.

지역 진안.

불저분 명 [대응어] 부젓가락.
☞부저붐.
지역 김제.

불저붐 명 [대응어] 부젓가락.
☞부저붐.
지역 부안, 순창.

불적가락 명 [대응어] 부젓가락.
☞불젓가락.
지역 남원.

불젓가락 명 [대응어] 부젓가락.
화로에 꽂아 두고 불덩이를 집거나 불을 헤치는 데 쓰는 쇠로 만든 젓가락.
지역 군산, 무주, 완주, 익산, 남원, 임실, 고창, 정읍.

불젓고락 명 [대응어] 부젓가락.
☞불젓가락.
지역 임실.

불젓구락 명 [대응어] 부젓가락.
☞불젓가락.
지역 임실.

불젓그락 명 [대응어] 부젓가락.
☞불젓가락.
지역 고창, 남원, 군산, 정읍.

불주걱 명 [대응어] 부삽.
아궁이나 화로의 재를 치거나, 숯불이나 불을 담아 옮기는 데 쓰는 조그마한 삽. 쇠붙이 따위로 네모가 지거나 둥글게 만들었는데, 바닥이 좀 우긋하고 자루가 달려 있다.

지역 고창, 군산, 익산, 정읍.

불지개 명 [대응어] 부젓가락.
화로에 꽂아 두고 불덩이를 집거나 불을 헤치는 데 쓰는 쇠로 만든 젓가락.
지역 고창, 군산.

불지깨 명 [대응어] 부젓가락.
☞불지개.
지역 군산.

불짓가락 명 [대응어] 부젓가락.
☞불젓가락.
지역 무주.

불퉁시럽다 형 [대응어] 퉁명스럽다.
못마땅하거나 시답지 아니하여 불쑥 하는 말이나 태도에 무뚝뚝한 기색이 있다. ¶왜 대답을 {불퉁시럽게} 하냐.
지역 전북.

붉으딕딕하다 형 [발음] [불그딕띠가다/불그딕띠카다] [대응어] 불그스름하다, 불그죽죽하다.
조금 붉다. ¶지주들 재산을 무조건 갈라묵자는 생각을 품고 있는 작인놈덜은 모두 빨갱이 사상에 {붉으딕딕허게} 물이 든 반빨갱이들이요.<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에서는 색을 표현하는 형용사가 매우 다양하게 표현된다. '불그딕딕하다, 불그족족하다, 검의족족하다, 푸르족족하다, 푸르딩딩하다' 등에서 다양한 접미사가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붏다 동 [대응어] 붇다.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다. 또는 분량이나 수효가 많아지다. 또는 살이 찌다. ¶물에 {붏고} 마

르고 하면 크기가 작어져.
지역 전북.

붑다 형 [대응어] 부럽다.
남의 좋은 일이나 물건을 보고 자기도 그런 일을 이루거나 그런 물건을 가졌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다. ¶아니, 이 동네랑 저 동네랑 몇 리 길 차이도 없어, 환경도 다 거그서 거그고. 근디 저 동네는 뭐시든지 넘쳐나고 잘 살아. 이 동네는 저 동네만 못허고. 긍게 {붑고} {붑지}.
지역 무주.

붓감자 명 [대응어] 감자.
☞북감자.
지역 전북.

붓독 명 [대응어] 좀돌.
확 속에 든 곡식이나 채소를 갈 때 사용하는 작은 돌. ¶그믄 인자 아적으 새북으 일어나서 핫독으다 보리쌀 갈아 막, 또 {붓독으로}. 이것은 인자 물 붓고 갈어.
지역 고창.

붓뚜벙 명 [대응어] 붓두껍.
붓을 사용하지 않을 때 촉을 보호하기 위해 씌워 두는 뚜껑. ¶붓에 씌울 {붓뚜벙을} 사오너라.
지역 전북.

붕알 명 [대응어] 불알.
고환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아주 그냥 쌍놈의 새끼여, {붕알을} 빼서 공기놀이를 허도 션찮을 놈의 새끼. ¶남자는 {붕알을} 잘 간수하여야 장가를 갈 수 있는거야.
지역 전북.

붙이다 동
모를 심기 전에 논두렁을 튼튼하게 하기 위하여 잘 다듬고 안쪽에 흙을 붙여 바르다. ¶하루 종일 논두렁 {붙였드만} 어깨 아프다이.
지역 전북.

붙잽다 동 [대응어] 붙잡다.
손이나 말 따위를 사용하여 어떤 것이 바뀌지 못하게 하다. 또는 시작하려고 손을 대다. 또는 사람이나 기회 따위를 취하다. ¶손잡이를 꼭 {붙잽고} 있어야 한다. ¶끝까지 그를 {붙잽고} 싶었다. ¶집에 가려는 나를 {붙잽고} 그가 말했다. ¶좋은 직장을 {붙잽었으면} 한턱 쏴라. ¶내가 힘들 때 나를 {붙잽어} 줘. ¶그를 {붙잽어서} 결혼까지 했다.
지역 김제, 남원, 군산, 정읍.

브스룸 명 [대응어] 부스럼.
☞부스렘.
지역 전북.

비개 명 [대응어] 베개.
잠을 자거나 누울 때에 머리를 괴는 물건. ¶{비개를} 비고서는 곤히서 자야겄다고 척허니 들어눕는다 이거여.<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비개가} 높으면 건강에 해로와. ¶{비개를} 잘 베고 자거라.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군산.

비개속 명 [대응어] 베갯속.
☞비갯속.
지역 무주, 순창, 군산, 진안, 남원.

비개창 명 [대응어] 베갯잇.
베개의 겉을 덧씌워 시치는 헝겊. ¶{비개창을} 씨어야지 비개가 안 드러워지지.
지역 고창.

비개호창 명 [대응어] 베갯잇.
베개의 겉을 덧씌워 시치는 헝겊. ¶{비개호창}을 빨어서 풀 멕이놨응게 걷어다 꼭꼭 좀 밟어라.
지역 고창, 무주, 김제, 남원, 순창, 임실, 진안, 부안, 완주, 정읍.

비개호청 명 [대응어] 베갯잇.
☞비개호창.
지역 무주.

비개홋 명 [대응어] 베갯잇.
베개의 겉을 덧씌워 시치는 헝겊. ¶{비개홋을} 빨았다.
지역 장수, 무주.

비개홋이 명 [대응어] 베갯잇.
베개의 겉을 덧씌워 시치는 헝겊. ¶{비개홋이를} 갈았어.
지역 전북.

비개홋이불 명 [대응어] 베갯잇.
☞비개홋이.
지역 무주.

비갯속 명 [대응어] 베갯속.
헝겊으로 만든 베개를 통통하게 만들기 위하여 속에 넣는 재료. 왕겨, 메밀 겉껍질, 조, 새털 따위를 주로 많이 쓴다. ¶{비갯속을} 적당히 넣어라. ¶곧 태어날 손주를 위해 {비갯속엔} 좁쌀을 넣고 비겟잇은 보드라운 수건으로 씌웠다.
지역 익산, 완주, 김제, 부안, 정읍, 임실, 장수, 고창.

비갯예 명 [발음] [비갠네] [대응어] 베갯잇.
☞비갯요.
지역 순창.

비갯요 명 [발음] [비갠뇨] [대응어] 베갯잇.
베개의 겉을 덧씌워 시치는 헝겊. ¶{비갯요를} 벗겨라.
지역 익산, 순창.

비갯이 명 [발음] [비갠니] [대응어] 베갯잇.
베개의 겉을 덧씌워 시치는 헝겊. ¶{비갯이를} 자주 벗겨 빨아야 깊은 잠을 잘 수 있단다.
지역 고창, 군산, 김제, 부안, 군산, 완주, 임실, 정읍, 진안.

비갯입 명 [발음] [비갠닙] [대응어] 베갯잇.
베개의 겉을 덧씌워 시치는 헝겊. ¶{비갯입을} 씌우고 써야 깨끗허니 쓰제.
지역 전북

비게 명 [대응어] 비지.
☞배게.
지역 전북.

비글비글허다 형 [대응어] 비실비실하다.
흐느적흐느적 힘없이 자꾸 비틀거리다. ¶(처음 열여덜에 시집 왔을 때는) 째깐히서 애기맹키로 {비글비글히} 갖고 안것도 못 혔어.
지역 전북.

비김 명 [대응어] 비듬.
살가죽, 특히 두피에 생기는 회백색의 잔 비늘. ¶머리에가 {비김이} 얼매나 꼈는가, 허연 것이 더덕더덕혀.
지역 부안.

비깜 명
밖에 사람이 있음을 알리는 소리에 안에서 얼굴을 내보이는 것. ¶고깃덜이 으쩐지 {비깜도} 안 허더라니!<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비깜을 않다 【관용표현】

나타나지 않다, 보이지 않다. ¶여그는, 당최. {빗감도 안히여}. 소식도 없고. 아매 영 인자 안 올랑게비여.<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에서는 '빗감을 않다.'가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주로 '빗감도 않다'로 많이 쓰이는데 '보이지 않다.'의 의미를 가진다.

비끌리다 동 [대응어] 엇갈리다.

서로 어긋나서 만나지 못하다. ¶나는 요리 오란지 알고 갔는디 늑아버지는 저리 오라고 혔든가벼. 근게 {비끌렸제}.

지역 전북.

비끌어지다[1] 동 [대응어] 비꾸러지다.

사실 따위가 그러게 되거나 어긋나다. ¶길을 갈 차줄라먼 올인 길을 갈차줘야제, {비끌어지게} 갈차 주면 못 써.

지역 전북.

비끌어지다[2] 형 [대응어] 비틀어지다.

물체가 곧바르지 아니하게 어느 한쪽으로 쏠리거나 꼬이거나 돌려지다. 일이나 마음 따위가 어그러지다. ¶저 나뭇가지가 {비끌어졌구만}. ¶백방으로 알어보고 천지 사방으로 사람을 놓아서 찾어도 어찌어찌 될 듯 될 듯하다가 {비끌어지고} {비끌어지고} 했었대.<최명희, 혼불 ¶그 예펜네 한번 {비끌어징게} 영 돌아올 생각을 안 허네.".

지역 전북.

비널 명 [대응어] 보늬.

밤이나 도토리 따위의 속껍질. ¶밤은 {비널을} 벗겨 먹어야지 안 그럼 밤이 써.

지역 무주, 고창, 김제, 군산, 완주, 임실, 장수, 정읍, 진안, 부안.

비네 명 [대응어] 비녀.

여자가 머리를 쪽을 찔 때, 말아 올린 머리카락을 옆으로 꽂아 흘러내리지 않게 하는 장신구. ¶조선시대에는 결혼한 여자들은 {비네를} 꽂아 쓰지. ¶머리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 은으로 맨든 {비네}, 금비네를 꽂기도 했지.

지역 고창, 남원, 무주, 임실.

비녹 명 [대응어] 비누.

때를 씻어 낼 때 쓰는 물건. ¶옛날이 삼푸가 어딨간디. 우리 때는 다 {비녹으로} 씻쳤지.

지역 전북.

비누룩 명 [대응어] 비듬.

살가죽, 특히 두피에 생기는 회백색의 잔 비늘. ¶젊은 것이 잘 씻치지도 않는개벼. 머리에 {비누룩} 보면 드러워 죽었어.

지역 완주, 익산.

비눌 명 [대응어] 보늬.

☞비널.

지역 고창, 김제, 군산, 완주, 임실, 장수, 정읍, 진안.

비늘 명 [대응어] 낟가리.

낟알이 붙은 곡식을 그대로 쌓은 더미. 또는 나무, 풀, 짚 따위를 쌓은 더미. ¶나락 {비늘} 히, 히놔따가 인자, 홀태럴 인자 하레 멫씨글 어가꼬 홀타야제.(나락 벼늘 해놓았다가 인제, 홀태를 인제 하루 몇씩을 얻어가지고 훑어야지.)<2005 전북 남원> ¶추수철에는 논마다 {비늘이} 곳곳에 솟는다.

지역 남원, 순창, 임실, 정읍.

비늘가리 명 [대응어] 낟가리.

☞벼눌가리.

지역 군산.

비닐 명 [대응어] 보늬.
☞비널.
지역 김제, 부안.

비다[1] 동 [대응어] 자르다.
동강을 내거나 끊어 내다. ¶두부를 칼로 네모지게 {비어}. 묵도 {비고}.
지역 전북.

비다[2] 동 [대응어] 베다.
날이 있는 물건으로 상처리 내다. 또는 이로 음식 따위를 끊거나 자르다. ¶으메, 쨰까씩 쨰까씩 곡간 쥐새끼 소금 {비어} 먹듯이 쪼그라지네이~. ¶멘도칼로 {빈} 것 같은 통증으로 사람을 쥐어짬서 잡들이 허는디~.
지역 고창.

비다[3] 동 [대응어] 보이다.
눈으로 대상의 존재나 형태적 특징을 알게 되다. ¶어찌서 지비 껏은 므시고 조케만 비고 크게만 {빈다요}. ¶그놈 낯바닥 쌍판데기조차 {비기} 싫은 상열의 새깽이헌티 그나지나 그날 그토록 용케도 욕 봐겠소.
지역 고창.

비다[4] 보동 [대응어] 보다
((‘-ㄴ 개 비다’와 같은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를 추측하거나 어렴풋이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 ¶중놈 하나가 툭 터서 도망갔는디 그 무슨 쪼가리가 {있는 개비다} 가만가만 인자 가본게 그 저 초당이 있드래야. 그 전이 옛날 초당은 이렇게 시악시가 혼자 가서 자거든. 자는데 아마 요게 거시기가<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어라 내가 너한테 이러고 있겠는냐?” 고 행방을 끊어 버리고 나가는 일이 있다는 것이 거짓말이 {아닌개비여}. 이 전 전라도 사람이 살림살이는 대단찮은디 마누라가 죽어 번졌단 말이여,<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연속으로 말해 준 뒤에 쉬지 않고 흥미있게 들려 준 것이다. * 아랫녘에서 어떤 놈 하나가 부모 덕택으로 글자나 {배웠던 개비데}. 배웠는디, 육갑, 육갑을 잘혀.<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고창, 김제, 무주, 부안, 완주, 정읍, 남원, 순창, 군산, 임실, 장수, 진안.

비달기 명 [대응어] 비둘기. ¶배깥에 나가보면 {비달기} 천지여. 크기는 닭만 해가지구.
지역 전북.

비덜기 명 [대응어] 비둘기.
☞비달기.
지역 전북.

비들구 명 [대응어] 비둘기. ¶옛날인 데이트라고 해봤자 공원가서 {비들구} 모이나 주구 그랬지 뭐.
지역 전북.

비들키 명 [대응어] 비둘기.
☞삐둘기. ¶예전에는 공원이나 가정집에서도 {비들키}를 키우는 일이 많었지.
지역 완주.

비등나무 명 [대응어] 떡갈나무. ¶{비등나무도} 꺾어다가 불도 때고 그랬어.
지역 순창.

비랑[1] 명 [대응어] 벼랑.
☞베랑.
지역 전북.

비랑[2] 부 [대응어] 별로.

((부정을 뜻하는 말과 함께 쓰여)) 이렇다 하게 따로. 또는 그다지 다르게. ¶글코롬 하면 손히볼 일도 {비랑} 없겄는디.
지역 전북

비루 명 [대응어] 벼루.
먹을 가는 데에 쓰는 문방구. ¶비루에다 먹을 갈아서 글을 쓴다. ¶그는 {비루에} 먹을 갈아 정성껏 붓글씨 연습을 하였다.
지역 고창, 남원, 무주, 완주, 익산, 임실, 장수, 군산.
해설 '비루'는 '벼루>베루>비루'의 음운 변화 과정을 겪었다. 'ㅕ>ㅔ'는 '뼈~뻬', '결혼~겔혼' 등에서도 볼 수 있는 음운 변화이다. 'ㅔ>ㅣ' 고모음화 역시 '세다~시다', '베다~비다' 등에서 볼 수 있다.

비류 명 [대응어] 비료(肥料).
토지의 생산력을 높이고 식물이 잘 자라도록 땅이나 흙에 뿌려 주는 영양 물질. ¶파는 {비류는} 비싸서 잘 안 쓰고 직접 만들어 뿌리제.
지역 진안.

비름입 명 [대응어] 비름. ¶그냥, 보통 거시기가 마니 나지요. {비름},<2009 전북 임실> ¶우리 어머니 날 설적에 {비름} 나물을 잡수셨나 빌어먹게도 매였구나.<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늦은 봄이 되면 {비름} 잎을 따서 너물을 무치 먹으먼 그 맛 또한 일품이다.
지역 완주, 남원, 임실, 고창, 무주.

비문하다 형 [대응어] 어련하다.
따로 걱정하지 아니하여도 잘될 것이 명백하거나 뚜렷하다. ¶"그려, 즘생덜도 즈그 죽을 날 다 안다든디 영물인 사람이야 {비문허겄어}? "<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비문하다'는 표준어 '어련하다'와 같이 주로 의문형이나 반어법에서 사용되고, '비문히'의 형태로 부사로 쓰고 있다.

비비갈갈 명 [대응어] 비대발괄.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하면서 간절히 청하여 빎. ¶{비비갈갈} 손이 발이 되게 빈다.
지역 전북.

비수름허다 형 [대응어] 비스름하다.
거의 비슷하다. ¶즈그 형이나 저나 내가 보기엔 모든 민에서 {비수름허}. 근디 자는 지 형을 못 이겨 먹어서 안달여. 형한티 이겨묵은 게 없다고 생각히서 그런가. 암튼간에 바둥바둥댄단게. 지혼자. ¶저 쌍둥이들은 생긴 것이 너무 {비스름히} 가꼬 도저히 구분할 수가 없어.
지역 전북.

비스무리하다 형 [대응어] 비슷하다.
두 개의 대상이 크기, 모양, 상태, 성질 따위가 똑같지는 아니하지만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점이 많은 상태에 있다. ¶그 악기가 겁나게 크게 생겼더만. 생기기는 바이올린인가 뭐신가 그거랑 {비스무리하게} 생겼는데 이름이 뭔지를 모르겄어. 서양악기가 이름이 어렵더랑게.
지역 전북.

비슥하다 형 [발음] [비스가다/비스카다] [대응어] 비슷하다.
☞비슷허다.
지역 장수.

비슷허다 형 [발음] [비스더다/비스터다] [대응어] 비슷하다.
두 개의 대상이 똑같지는 아니하지만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점이 많은 상태에 있다. ¶애가 착실허고 또 참 인물도 저기 아들이나 참

거운 {비슷헌} 이런 하나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땀으서 더욱 혼자 고독허니<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우리가 왜놈 보면 그놈이 그놈이대끼 왜놈덜도 우리 보면 다 어슷 {비슷헐} 거싱게.<조정래, 아리랑> ¶그 집에 가서 참 그 채앙꾼 {비슷허니} 그 어런 젊은 자기 그 독신둔 그 아들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김제, 부안, 군산, 임실, 정읍.

비슷히다 형 [발음] [비스디다] [대응어] 비슷하다.
☞비슷허다.
지역 임실, 정읍.

비시하다 형 [대응어] 비슷하다.
☞비싯하다.
지역 전북.

비싯하다 형 [발음] [비시다다/비시타다] [대응어] 비슷하다.
두 개의 대상이 똑같지는 아니하지만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점이 많은 상태에 있다. ¶저 냥반은 뭔 말투가 저런다냐. 듣고 있으믄 기분이 정말 묘혀. 욕이 아닌 것은 분명한데 욕 {비싯하게} 들리고. 암튼 기분이 참 그렇네에.
지역 고창.

비쓱하다 형 [발음] [비쓰가다/비쓰카다] [대응어] 비슷하다.
두 개의 대상이 똑같지는 아니하지만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점이 많은 상태에 있다. ¶요즘이는 무알콜 맥주다 디카페인 커피다 히갖고 진짜 맥주 진짜 커피 {비쓱하게} 못 마셔도 먹을 수 있게 맹글었다나벼. 시상 참 못허는게 없어.
지역 순창.

비씩허다 형 [발음] [비씨거다/비씨커다] [대응어] 비슷하다.
☞비쓱하다. ¶나는 내색 {비씩헌} 것도 안 했는디 어찌 알았디야?
지역 전북.

비아 명 [대응어] 부아.
분하거나 화난 마음을 강조한 말.
지역 전북.

비아나다 동 [대응어] 화나다.
분하거나 화가 나다. ¶이놈은 자꾸 지가 맞췄다고 달라들고. 그저는 하도 {비아난게로} 또 상을 그 요리사를 또 불렀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비아리 명 [대응어] 병아리.
☞빙아리.
지역 김제.

비암 명 [대응어] 뱀. ¶긍게 인자 비만 보면 {비암같이} 징허지라우.
지역 고창.

비암따왈 명 [대응어] 뱀딸기.
☞배암때왈.
지역 장수.

비암딸 명 [대응어] 뱀딸기. ¶{비암딸을} 따다
지역 고창, 무주, 완주, 진안.

비암때왈 명 [대응어] 뱀딸기.
☞배암때왈.
지역 남원, 임실, 정읍, 장수.

비암자어 명 [대응어] 뱀장어.

☞배얀장어.
지역 전북.

비암장애 명 [대응어] 뱀장어.
☞배얌장어.
지역 전북.

비암장어 명 [대응어] 뱀장어.
☞배얌장어.
지역 전북.

비애지 명 [대응어] 배.
'배'를 속되게 일컫는 말. 많이 먹어 한껏 부른 배를 나타낼 때 쓴다. ¶정월 대보름날 이 댁에 와서 피런허고 {비애지가} 찢어지게 먹었네./그러고, 피런허고 배꼭지가 요강꼭지가 되드락 솟아버렸어.(진안 성주풀이-진안군 성수면 도통리 중평)<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진안.

비앰 명 [대응어] 뱀. ¶아이고 애기 머 달라드런능가 조깨 가바야걷따 그러고 가서 보면 막 저런 데가 {비애미} 도라댕겨.<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그 사람을 {비앰이} 인자 또 되야 갖고, 그 사람을 잡어 먹을라고 헌게로, 어떤 짚은 산으가 들어가서, 거그가 인자 이렇게 짚은 산에를 들어 간게로 불이 써졌길래.<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깨구락지 고놈이 폴딱 뛰고 있는데 {비앰이} 와서 칵 물어 버리는게 죽어 버리잖여?<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독이 있는 {비앰은} 바로 독사니 조심해야한다.
지역 남원, 정읍, 임실.

비얌 명 [대응어] 뱀.
☞비앰.
지역 전북.

비얌딸 명 [대응어] 뱀딸기.
☞비암딸.
지역 전북.

비얌때왈 명 [대응어] 뱀딸기.
☞배암때왈.
지역 전북.

비얌장애 명 [대응어] 뱀장어.
☞배얌장어.
지역 전북.

비얌장어 명 [대응어] 뱀장어.
☞배얌장어.
지역 전북.

비얌장에 명 [대응어] 뱀장어.
☞배얌장어.
지역 전북.

비얏다 동 [대응어] 뱉다.
입속에 있는 것을 입 밖으로 내보내다. ¶고년이 서빠닥은 짤뤄도 침은 멀리 {비얏넌다더니}, 이년아 늬가 적벽가 새타령을 허머넌 나넌 하눌서 빌을 따오겄다.<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전북.

비앰 명 [대응어] 뱀.
☞비앰.
지역 전북.

비억 명 [대응어] 부엌.
☞부억.
지역 전북.

비얼 명 [대응어] 별.
☞벨.

지역 전북.

비우 명 [대응어] 비위.
어떤 것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성미. ¶글고, {비우} 허믄 나가 뚜꺼운 철판 깔었지라.
지역 고창.

비우때기 명 [대응어] 비위.
'비위'를 낮잡아 이르는 말. ¶비우때기가 삭아서 혼차 온다고.
지역 전북.

비우짱 (←脾胃짱) 명 [대응어] 비위짱.
어떤 음식물이나 일을 삭여 내거나 상대하여 내는 성미. ¶무시허는 것도 아니고 불쌍해허는 것도 아니고, 그 위에서 밑얼 내래다보는 것 겉은 거만헌 태도가 아조 {비우짱} 상해.<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비우짱'은 '비우'보다 강한 표현이다. 따라서 예문에서 보는 것처럼 '비우짱 상하다, 비우짱 긁다, 비우짱 틀어지다.'와 같이 심리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주로 쓰고 있다.

비위댕이 (脾胃댕이) 명 [대응어] 비위.
어떤 것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성미. ¶지가 무신 놈의 훈장이고 도사라고 {비위댕이} 사납게 울덜을 뺀나 갈치러 헌단 말이시.<조봉래, 풀벨 골>
지역 전북.

비육소 (肥肉소) 명
주로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잘 먹여서 크고 살이 찌게 만드는 소.
지역 전북.

비임밥 명 [대응어] 비빔밥.
고기나 나물 따위와 여러 가지 양념을 넣어 비빈 밥. ¶{비임밥을} 여그가 젤 잘헌담서요?<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비임밥은} 전주가 젤 유명허제.<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비임밥을} 만드는 디 무신 재료를 쓰는가요?<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비임밥} 맨드는 순서를 조깨 일러주시죠.<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전북.

비젓이 부 [대응어] 비슷이.
서 있거나 세워진 모습이 바르지 아니하고 한쪽으로 약간 기울어지게. ¶저그 산에 올라가닝께 집들이 똑바른 것이 하나도 없어. 하나같이 다 {비젓이} 서 있응게 아슬아슬해 뵈고
지역 전북.

비젓하다 형 [발음] [비저다다/비저타다] [대응어] 비슷하다.
두 개의 대상이 크기, 모양, 상태, 성질 따위가 똑같지는 아니하지만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점이 많은 상태에 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너는 쌍놈이 아니냐? 벼슬을 줄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 아마 지금으로 보면 역적 {비젓한} 일을 많이 했답니다.<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몸뗑이는 진짜허고 거지반 {비젓허니} 생기고 꼬랑지만 살짝 틀리는 가짜배기가 바로 이단이란 말여, 이 친구야!"<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익산.

비젓허다 형 [발음] [비저더다/비저터다] [대응어] 비슷하다.
☞비젓하다.
지역 익산.

비지떽 명 [대응어] 비지떡.
비지에 쌀가루나 밀가루를 넣고 반죽하여 둥글넓적하게 부친 떡으로 보잘것없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비지떼기라고} 그러지<2008 전북 고창>
지역 고창.

비짐 명 [대응어] 비듬.
살가죽, 특히 두피에 생기는 회백색의 잔 비늘. ¶어깨가 그냥 {비짐이} 떨어져갖고 허연해. ¶머리에 {비짐이} 생기 전에 자주 감아야 한다.
지역 남원.

비짓죽 명 [대응어] 비지죽.
비지에 쌀을 섞어서 쑨 죽. ¶비지떡 {비짇쭉}(떡을 해먹지는 않음)<2009 전북 임실> ¶싼 것이 {비짓죽이라} 그러지.
지역 임실.

비탈 명 [대응어] 비탈.
☞삐탈.
지역 전북.

비트리잠뱅이 명
잠방이의 일종. ¶소키잠뱅이는 반잠뱅이, 무릎까지 오는 놈이고, 또 {비트리잠뱅이도} 있제.
지역 전북.

비항기 명 [대응어] 비행기.
하늘을 떠서 날아다니는 운송 수단. ¶사방팔방에 막 {비양기가} 총탄얼 퍼붓는 거야. 총알이 막 사방군데 쏟아지고. ¶엊그저끄는 {비양기}에서 삐라를 뿌리는디 불꽃놀이 마냥 아주 볼 만 힜어.
지역 전북.

비향기 명 [대응어] 비행기.
☞비양기. ¶당신을 데려가먼은, 요새야말로 {비향기를} 타고 제주 뭐 하여튼 신혼여행도 가고, 이쪽 집이다 호의호식이다<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부안.

비흥기 명 [대응어] 비행기.
☞비향기.
지역 전북.

빅돌 명 [대응어] 벽돌.
☞벽돌.
지역 전북.

빅장 명 [대응어] 벽장.
☞벽장.
지역 남원.

빈깡 명 [대응어] 쭉정이.
껍질만 있고 속에 알맹이가 들지 않은 곡식이나 과일 따위의 열매. 또는 쓸모없게 되어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금년이는 벼농사럴 망쳐부러가지구 죄 {빈깡이랑게}. ¶그거이 바지사장이드라고. 다 헛거여. {빈깡이여}.
지역 완주.

빈깡태기 명 [대응어] 쭉정이.
껍질만 있고 속에 알맹이가 들지 않은 곡식이나 과일 따위의 열매를 낮잡아 이르는 말. 또는 쓸모없게 되어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땅콩이 까는 족족 아주 속이 {빈깡태기드랑게}. ¶쥐들이 땅콩 실헌 놈은 다 까먹고 {빈깡태기}만 남었다. ¶저거 저 사럼 구실도 못허는 {빈깡태기} 같언 놈을 봤나.
지역 완주.

빈나발통 명 [대응어] 나발.
함부로 떠들어 대는 입. ¶헌게 네 별호가 {빈나발통이제}.<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빈닥 명 [대응어] 비탈.
산이나 언덕 따위가 기울어진 상태나 정도. 또는 그렇게 기울어진 곳. ¶{빈닥을} 올라가다가 미끄러졌다.
지역 전북.

빈대머리 명 [대응어] 대머리.
머리털이 많이 빠져서 머리가 벗어진 머리, 또는 그런 사람. ¶훌렁 벗어진 {빈대머리가} 불빛에 번들거렸다.
지역 전북.

빈대짓 명
지나칠 정도로 신세를 지는 짓. ¶지둥 뿌리 다 뽑히겄따아~ 인자는 {빈대짓} 그만 작파허고 엥간허믄 지비 드러가라이~.
지역 고창.

빈댕이속 명 [대응어] 밴댕이속.
마음이 좁아 너그럽지 못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맘이 쪼잔하고 {빈댕이속이라} 그렁가?
지역 고창.

빈덕시럽다 형 [대응어] 변덕스럽다.
이랬다저랬다 하는, 변하기 쉬운 태도나 성질이 있다. ¶아이고, {빈덕시런} 새깽이.
지역 고창.

빈장 명 [대응어] 빙장.
다른 사람의 장인(丈人)을 이르는 말. ¶장인 장: 인, {빈장씨라} 장인(호칭) 장인어른 장인어른 그랬제<2008 전북 고창> ¶아내와 {빈장을} 뵙고 왔다. ¶우리 {빈장} 어른 술 잘 허시지라잉. 어디 가셔도 안 빠지오.
지역 고창.

빈정사납다 형
은근히 비웃는 태도가 거슬려 기분이 몹시 언짢다. ¶시방 먼 놈의 {빈정사난} 소리여?<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빈정스럽다 형
☞빈정사다.
지역 전북.

빈탄지다 형 [대응어] 비탈지다.
땅이 경사가 급하게 기울어져 있다. ¶{빈탄져서}<2007 전북 군산>
지역 군산.

빈탈 명 [대응어] 모퉁이(산의).
모가 지게 구부러지거나 꺾어져 돌아간 자리. ¶{빈탈을} 쭉 돌아가면 초가집이 보인다.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부안,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정읍.

빈통머리 명 [대응어] 변통머리.
일의 형편에 따라 막힘없이 알맞게 처리하는 능력. ¶일은 {빈통머리} 있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
지역 전북.
해설 '빈통머리'는 '변통머리'의 제 음절 모음이 'ㅕ>ㅔ>ㅣ'의 변화를 겪은 결과이다. 'ㅕ>ㅔ' 음운 변화는 7세기 이후부터 나타나는 음운 변화로, '뼈~뻬', '결혼~겔혼' 등에서도 볼 수 있으며, 'ㅔ>ㅣ'의 고모음화 역시 '베다~비다', '세다~시다'처럼 흔히 볼 수 있다.

빈하다 (貧하다) 형 [대응어] 가난하다.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하여 몸과 마음이 괴로운 상태에 있다. ¶시상살이가 {빈해도} 겁나게 {빈했응게} 인자는 고러케 살믄 안 되지라우.

지역 전북.

빌그렇다 형 [대응어] 발갛다.

밝고 엷게 붉다. ¶얼굴이 빌그러니.

지역 전북.

빌똥 명 [대응어] 별똥별.

'유성'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빌똥을} 빌며 소원을 빈다.

지역 전북.

해설 '빌똥'은 '별똥'이 'ㅕ>ㅔ>ㅣ'의 음운 변화를 겪은 결과이다. 'ㅕ>ㅔ' 음운 변화는 7세기 이후부터 나타나는 음운 변화로, '뼈~뻬', '결혼~겔혼' 등에서도 볼 수 있으며, 'ㅔ>ㅣ'의 고모음화 역시 '베다~비다', '세다~시다'처럼 흔히 볼 수 있다.

빌레다 동 [대응어] 빌리다(借).

곡식이나 돈 등을 나중에 돌려주기로 하고 일정 기간 동안 쓰다. ¶친구가 돈을 {빌레} 달라고 찾아왔다

지역 남원, 순창, 군산, 장수.

빌로 부 [대응어] 별로.

((부정을 뜻하는 말과 함께 쓰여)) 이렇다 하게 따로. 또는 그다지 다르게. ¶시방 가진 것도 {빌로} 없이니 우선 이놈 가지고 쌀말이나 팔아 묵어라.

지역 전북.

빔서다 동 [대응어] 비켜서다.

한쪽으로 피하여 옮겨 서다. ¶비가 내려 처마 밑으로 {빔서서} 비 그치길 기다렸지.

지역 전북.

빗가래 명

비스듬히 언덕진 곳. ¶예전에 땅 귀헐 때는 {빗가래다도} 콩 심고 머 심고 그랬제.

지역 전북.

빗기다 동 [대응어] 벗기다.

☞벳기다. ¶"그 다들 보소. 이 해골박적을 씌고 이것이 여시가 둔갑을 헌 것이요. 그런게 이 가죽을 {빗겨서} 팔읍시다."<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정읍.

빗자락 명 [대응어] 빗자루.

먼지나 쓰레기를 쓸어 내는 기구. ¶그러니 눈이 수북하게 쌓였는디, 어떻게 올까 걱정이 되어. 그런게 {빗자락을} 딱 들고는 길을 쓸고 마중을 나가는 판이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즈이 장인은 {빗자락을} 들으락하고 장모는 치를 들고 그라고 가다가서는, 가서는 거그 가서 인저,<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아침마다 {빗자락}을 가지고 마당을 쓸면 복이 들어온단다. ¶부엌으서 쓰는 {빗자락}은 대개 닳고 떨어진 몽당빗지락인디 겔국 아궁이속으로 던져져 알뜰헌 생을 끝내지.

지역 완주, 군산.

빗자리 명 [대응어] 빗자루.

먼지나 쓰레기를 쓸어 내는 기구. ¶자네 빗자루로 눈을 씰어야 쓸텐게 묘를 {빗자리허고} 연장하고만 들고 오소. 내가 지고 감세.<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빗자루 {빋짜리}<2009 전북 임실>

지역 무주, 임실.

빗지락질 명 [대응어] 비질.

비로 바닥 따위를 쓰는 일. ¶먼저 {빗지락질}을

허고 나서 걸레질을 혀야지. ¶청소 헌다고 문지만 풍기고 댕기니 나이가 멫인디 아직도 {빗지락질}을 못헌다냐. ¶더러워진 마당을 {빗지락질} 좀 해서 깨끗이 좀 청소하여라.

지역 전북.

빙아리 명 [대응어] 병아리.

아직 다 자라지 아니한 어린 닭. 닭의 새끼를 이른다. ¶암탉이 노란 {빙아리들을} 거느리고 간다. ¶그믄(그러면) {빙아리가}, 달걀이 벵아리가 되갔구 털이 났응게, 누가 그겄을 파냐.<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군산, 완주, 무주, 익산, 김제.

해설 '빙아리'는 '병아리>벵아리>빙아리'의 변화를 거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7세기 이후 'ㅕ>ㅔ'의 단순모음화가 발생하였으며 이 변화는 '뼈~뻬', '결혼~겔혼' 등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벵아리>빙아리'의 변화는 'ㅔ>ㅣ'의 고모음화로 설명된다.

빙원 (病院) 명 [대응어] 병원.

병자(病者)를 진찰,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 놓은 곳. ¶째까는 일이지만, 재수 대가리가 옴붙었능가 시 달에 한 번 잡어논 짓날이 해필 {빙원} 검진날허고 접쳤응게 탈탈 굴머야제 어쩌겄쏘. ¶그리서 {빙원에서} 닝게루를 맞는디, 오사허게 싸게 드러가서 그렁가 폴뚝이 끊어지게 아픈 거시 빽쩍지근 옹삭시러워서 죽을 뻔 봤당게요~.

지역 고창.

빙충이 명 [대응어] 병신.

똘똘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 ¶그려서, 고 {빙충이가} 으떤 말을 허데?<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빠감지 명

무청 달린 잔 무에 칼집을 넣어 담근 무김치. ¶무시에다가 빠감빠감 해서 담는 지가 {빠감지여}.

지역 전북.

해설 김장김치의 하나로, 무를 '빠감빠감 해서(빠개서)' 담았다고 '빠감지'라고 한다. '무시빠감지'라고도 한다.

빠금지 명

☞빠감지. ¶빠감지를 발음헐 쩍으 {빠금지라고도} 허.

지역 전북.

빠깨미 명 [대응어] 바구미. ¶집에 {빠깨미가} 자꼬 나오드라구요.

지역 전북.

빠꾸 (←<일>panku) 명

차량 같은 것을 뒤로 물러가게 함. 또는 물건을 받지 않고 되돌려 보냄. ¶거 좁디 좁은 시골길을 가는디 앞에서 차가 오니까는 크락숀을 울리고 "{빠꾸! 빠꾸}!"하는 거이지. 뒤로 가라고 인자, 나는 차를 뺄 수가 없응게. ¶우리집이 어느 집안인디 고작 그런 청탁을 받겄어. 기냥 바로 {빠꾸} 시켜부렀지.

지역 군산, 김제, 남원, 부안,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빠꼼하다 형

작은 틈이나 구멍이 깊고 매우 또렷하게 벌어져 있다. ¶방성구는 눈과 코만 {빠꼼하게} 남겨논 채 얼굴을 덮어 버렸다.<송기숙, 암태도>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의 형용사 '빠꼼하다'는 의태어 '빠꼼'에 형용사파생접미사 '-하-'가 연결되어 파생된 단어이다. '빠꼼하다'를 북한어로 처리하고 있으나 이는 빨리 시정되어야 한다.

빠꼼허니 부

☞빠꼼히. ¶문 틈새로 시방 {빠꼼허니} 내다뵈는 저그 저 화상이 바로 죄 많은 사마리아 예펜네가 얻은 다섯 번째 냄편입니다요.<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빠꼼히 부

작은 틈이나 구멍이 깊고 매우 또렷하게 벌어져 있는 상태로. ¶긴 복도의 중간 통로에서/{빠꼼히} 내다보는 눈동자<이운용, 바람>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의 부사 '빠꼼히'는 의태어에서 파생한 형용사 '빠꼼하-'에 부사파생접미사 '-이'가 연결되어 파생된 단어이다. '빠꼼히'를 북한어로 처리하고 있으나 이는 빨리 시정되어야 한다.

빠꾸미 명 [대응어] 바구미. ¶쌀에서 {빠꾸미가} 자꼬 나오드라구요.

지역 전북.

빠꿈살이 명 [대응어] 소꿉장난.

아이들이 살림살이의 흉내를 내며 노는 장난. ¶아이들이 {빠꿈살이를} 하고 논다.

지역 전북.

빠꿈새기 명 [대응어] 소꿉질.

☞바꿈새기.

지역 고창.

빠끔새기 명 [대응어] 소꿉질.

☞바꿈새기.

지역 임실.

빠마대기 명 [대응어] 뺨따귀.

'뺨'을 비속하게 이르는 말. ¶유기오 때 무러베즈그 친척긴디 인저 피난 가다가는 술 먹고, 아멜겁씨, 그 안 되는 이리제. 이런 거시 뭔 느므미러기여, 이런 거시 뭔 사라미여. 그러고는 가서 미렁님 기양 {빠마대기를} 부쳤때요.(육이오 때 무렵에 저희 친척인데 이제 피난 가다가는 술 먹고, 아 맥없이, 그 안 되는 일이지. 이런 것이 뭔 미륵이여, 이런 것이 뭔 사람이여. 그러고는 가서 미륵님 그냥 뺨을 때렸대요.)<전북지역어, 고창군> ¶이 그 도, 도글, 돌 미릉니믈 이 짝 빰 때리고 저 짝 빰 때리고. 그 동미릉님 {빠마대기를} 부쳐댄는디, 자기가 요로코 부서버러씨. 요로코 버를 바더서.(이 그 도, 돌을, 돌 미륵님을 이 쪽 뺨 때리고 저 쪽 뺨 때리고. 그 돌미륵님 뺨을 부쳐댔는데, 자기가 요렇게 부어버렸어. 요렇게, 벌을 받아서.)<전북지역어, 고창군>

지역 전북.

빠뿌리 명 [대응어] 물부리.

담배를 끼워서 빠는 물건. ¶{빠뿌리에} 담배를 끼워 물고 피워. ¶"{빠뿌리}는 대뿌리로 맨든 것이 최고지만 가는 대나 시누대로 맨들기도 하지.". ¶할아버지는 {빠뿌리에} 담배를 꽂아 연거푸 피우셨다.

지역 남원.

빠뿌쟁이 명 [대응어] 질경이. ¶싸랑부리도 이꼬, {빠뿌쟁이도} 이꼬, 미나리도 이꼬.(씀바귀도 있고, 질경이도 있고, 미나리도 있고.)<2005 전북 남원> ¶아 사네 나가먼 인자 들까튼데 가먼 마씬너물, 머 {빠뿌쟁이} 멍는 거시 쌰씨.{아 산에 나가면 이제 들 같은 데 가면 마 씀바귀, 뭐 질경이, 먹는 것이 많지}.<2005 전북 남원>

지역 남원, 순창, 임실, 장수.

빠뿌제이 명 [대응어] 질경이.

☞빠뿌쟁이.

지역 전북.

빠뿌젱이 명 [대응어] 질경이.
☞빠뿌쟁이.
지역 전북.

빠수다 동 [대응어] 빻다.
굵은 알갱이를 부스러뜨려서 가루로 만들다. ¶방앗간에 가서 찹쌀을 {빠수어} 오면 인절미를 만들어 줄게. ¶도토리를 절구통에다 여러번 {빠수어야} 가루가 몽글게 나오지. ¶불에 볶은 참깨를 잘게 {빠쉈다}.
지역 무주, 완주.

빠시다 동 [대응어] 빻다.
굵은 알갱이를 부스러뜨려서 가루로 만들다. ¶아 백썰기야 글씨 이러케 쌀 당과따가 {빠시서} 그검만 찐담 마리여 그건.(아 백설기야 글쎄 이렇게 쌀 담궜다가 빻아서 그것만 찐단 말이여 그것은.)<지역어 자료 총서, 중국 무주촌> ¶참깨 좀 {빠셔라}.
지역 무주, 진안.

빠쓰 명 [대응어] 버스.
☞뻐쓰.
지역 정읍.

빠이뿌 명 [대응어] 담뱃대.
담배를 피우는 데 쓰는 기구. 담배통, 담배설대, 물부리로 이루어져 있다. ¶{빠이뿌를} 물고 있으면 조까 멋있기는 허지.
지역 전북.

빠이뿌리 명 [대응어] 물부리.
☞빠뿌리.
지역 남원.

빠이쁘 (←pipe) 명 [대응어] 파이프.
물이나 공기, 가스 따위를 수송하는 데 쓰는 관(管). ¶고로 요샌 쎗{빠이쁘로} 수도관을 히얀디 나이롱 {빠이쁘로} 흐다 봉게 해빙길 못 씀.
지역 고창.

빠치다 동 [대응어] 빠뜨리다.
물이나 움푹 파인 구덩이나 또는 어떤 깊숙한 곳에 빠지게 하다. 또는 부주의로 물건을 흘리어 잃어버리다. ¶큰일 앞에 놓고 맘들만 바빠 두세두세허다 보면 {빠치는} 것이 더러 있는 법이요.<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빡빡 부 [대응어] 개굴개굴.
개구리가 우는 소리를 흉내내는 말. ¶깨구리가 {빡빡} 운게로 비가 올랑가 보네. ¶밤이 되면 깨구리들이 어찌나 {빡빡} 울어대는지 시끄러서 잠을 잘 수가 없어.
지역 고창.

빡주 명 [대응어] 박쥐.
☞빡쥐.
지역 전북.

빡중머리 명
정수리 부분의 머리. ¶댕기 딜여서 머리 땋고. {빡중머리도} 땋고. 여 꼭대기. {빡중머리서부텀} 뒤로 따.
지역 전북.

빡쥐 명 [대응어] 박쥐. ¶밤만 되면 {빡쥐} 새끼들이 막 돌아댕겨.
지역 전북.

빡지 명 [대응어] 박쥐.
☞빡쥐.
지역 전북.

빠닥거리다 동 [대응어] 반짝거리다.

불빛이 잇따라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다. ¶불이 {빠닥거리네}. 미용실 같은 디.

지역 전북.

빠닥빠닥하다 형 [발음] [빠닥빠다가다/빠닥빠다카다] [대응어] 반짝반짝하다.

작은 빛이 잇따라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며 빛나는 상태에 있다. ¶산골서 불이 {빠닥빠닥헌단} 말여, 그 거그를 갔어. 갔더니 아니나다를까 봉창에 침을 발러서 뚫고 본게 니 놈이 앉어 노름을 허.<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깜깜허긴 헌데 인가(人家)가 있어. 끝으로 인가가 있는디, 불이 {빠닥빠닥해서} 들어갔다 그 말이라. 들어가닝게 그, 결국 가서 노친 양반을 찾으닝게, 젊은 부인만 나와, 나오면서, "웬 양반이냐?"고.<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아 가서 보닌게 일력은 저물고 캄캄헌디 어디 갈 디가 없어서 그 건네다 보닌게 저그서 불이 {빠닥빠닥허}. 거그를 인제 질도 없는디 터덕터덕 찾어가서 저물었단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슬을 쇨라면 먼처 집안의 모든 놋그륵을 딲어서 {빠닥빠닥허게} 맨들어 놓았지. ¶엄마가 방을 얼마나 닦았는지 방바닥이 {빠닥빠닥하구나}.

지역 군산, 남원, 정읍.

빠듯이 부 [대응어] 반듯이.

물체나 생각이나 행동 따위가 비뚤어지거나 기울거나 굽지 아니하고 바르게. ¶아파서 인자 시늠 시늠 허다가, 정당 도라가실 무러게는, 어쩌 인자 도라가시머는 인자, 네 사주걸(네 사족을) 싹 어디가 인자 참 여푸로 두러눠떤지(옆으로 드러누웠든지) 포리라도 요로케 오그레따던지 허머는 (팔이라도 이렇게 오그렸다든지 하면), 숨질라고 허머는, 싹: {빤드시} 피어서 {빤드시} 누피노체에(눕혀놓지).<2005 전북 남원> ¶얼굴은 {빤듯이} 생긴 것이 얼굴값도 못하면 욕 먹는다. ¶글씨를 좀 {빤듯이} 써야지 끄시랑 기어가는 것 같이 쓰면 누가 이것을 알어먹겄냐. ¶할아버지가 어떻게든 {빤듯이} 살라고 노력을 했응게로 사람들이 높으게 우러러 보는거여. ¶일생을 {빤듯이} 살아 가야지. ¶누그던지 즈그 헐 일을 {빤듯이만} 허믄 누가 숭 볼 일이 없지라우~. ¶아믄, {빤듯이} 용케도 히 놨응게 그러제 이~. ¶으찌허는 일마다 헛빵잉게 삼재 드렀능게비요 아야, 서대지 말고 {빤듯이} 앙거 있어야, 너 안 중게.

지역 전북.

빤뜻허다 형 [발음] [빤드더다/빤드터다] [대응어] 반듯하다.

물체, 또는 생각이나 행동 따위가 비뚤어지거나 기울거나 굽지 아니하고 바르다. ¶싸서 오가리솥에 쌀 그놈 짊어지고, 쌀 그놈 갖고 나오는디 갈 때는 질이 요리 {빤뜻허니} 이 질로 갔는디 사람들이 요리 돌아서 오그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물론 저울질을 맡은 장덕풍의 말이었다. "아니여, 그 손꾸락 치워. 손꾸락 치우고 저울만 빤듯허게 들어, {빤뜻허게."} 저울을 노려본 채 김봉구가 다급하게 소리치고 있었다. 그가 외치는 말은 완전한 반말이었다. "어허, 그런 저울질이 어딨소,<조정래, 아리랑> ¶배우먼 다 니껏 되고, 넘들이 너보고 {빤뜻허다고} 칭송허제. 그러고 바느질 잘 배우고." 우례한테 바느질을 가르쳐 준 침모는 그렇게 말했었다.<최명희, 혼불> ¶얼굴은 {빤뜻허게} 생긴 놈이 하는 꼬라지는 미련퉁이처럼 하고 다니니 어찌할 거나? ¶아부지가 되어갖고 애들헌티 {빤뜻헌} 말 한마디 해준 것 없이 맨날 술타령여. ¶학생들이 줄을 섰는데 제법 {빤뜻허게} 섰구려.

지역 전북.

빤쓰 (←pants) 명 [대응어] 팬티.

다리 부분은 거의 없고 허리에 꼭 붙는 속옷. ¶

궁게, 나도 한 승질 헝게 매급씨 서대다가 비 마짐서 해찰 험서 난닝구 사쓰와 속 {빤쓰} 까장 싹 멍쳐버렸당게요. ¶궁게, 고무줄 없는 {빤쓰} 되아 부렀네. ¶새아그야, 바깥이 감낭구 빨래줄에 난닝구 {빤쓰랑} 후딱 걷어서 고실고실허게 개아 노아라. ¶마포 {빤쓰에} 방구 세듯이 잘도 빠져나가네 이~.

지역 고창.

빨글허다 형 [대응어] 빨갛다.

☞뻘그렇다.

지역 전북.

빨깡 부 [대응어] 불끈, 얼른.

물체 따위가 두드러지게 치밀거나 솟아오르거나 떠오르는 모양. 또는 시간을 끌지 아니하고 바로. ¶주머니가 있어갖고 그놈을 내가지고는 올롱개를 히가지고 붕알을 {빨깡} 올가가지고는 잡어댕겨. “아야, 아야, ” 헌게, 거봐라, 꽂갬이 한티 안 죽나 너 꽂갬이 한티 안 죽나?”<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걍 벌써 걍 싹 걍 백장이고 다 뜯어번졌고나. 아 그러고 내갖고나. 아 내 까딱허믄 눈까장 뺏긴게 눈이나 묻으고 있자.’ {빨깡} 쪼그리고 앉었어. 뫼벗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빨뜨리다 동 [대응어] 빠뜨리다.

물이나 움푹 파인 구덩이나 또는 어떤 깊숙한 곳에 빠지게 하다. ¶도끼를 물에 {빨뜨려서} 인자 신령이 도끼를 들고 나타나는디.

지역 전북.

빨랑 부 [대응어] 빨리.

걸리는 시간이 짧게. ¶어여 시암 물 떠오고. 청심환은, 누가 후딱 울집에 가서 도라고 허갖고와, 퍼떡! 어서 {빨랑} 움직이라니께!<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빨래방마치 명 [대응어] 빨랫방망이.

☞빨래방망치.

지역 장수.

빨래방망치 명 [대응어] 빨랫방망이.

빨랫감을 두드려서 빠는 데 쓰는 방망이. 넓적하고 기름한 나무로 만든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소리가 입 밖으로 터져나오면서 부지깽이로 부엌바닥을 치거나 숟가락으로 설거지통을 치거나 {빨래방망치}로 빨랫돌을 치거나 호미로 밭이랑을 찍어대며 장단을 맞추는 것이었다. ¶{빨래방망치}를 여그다 넚어. 서서 한참 이놈이 허고, 저놈이 허고는, 여그서 내서 때리라는 거여. 시간이 자꾸 촉박허다고.

지역 남원, 장수.

빨래방맹이 명 [대응어] 빨랫방망이.

빨랫감을 두드려서 빠는 데 쓰는 방망이. 넓적하고 기름한 나무로 만든다. ¶제수씨가 새암(샘) 가에서 빨래를 허고 있어. 아, 근개 지침 탁 험서, “아, 동생 어디 갔소?” 헌개 제수씨가 {빨래방맹이} 들고 서서, “시숙 오시나” 고 인사 한 마디 허더니, 들어가자는 말도 안 허고 그대로 거기서 빨래를 하고<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아이고 이놈아! 빨래터에서 방맹이를 가꼬 오라면 {빨래방맹이를} 갖고와야지 다딤이방맹이를 갖고왔나? ¶어머니들이 {빨래방맹이로} 빨래를 내리쳐 힘차게 빨았다.

지역 순창, 고창, 무주, 남원, 완주, 군산, 김제, 부안, 익산, 임실, 정읍, 진안.

빨래샘 명 [대응어] 빨래터.

시내나 샘터에서 빨래할 수 있게 마련한 일정한 장소. ¶아까막새 빨랫감 가지고 {빨래샘에} 갔는

디?

지역 고창.

빨래줄 명 [대응어] 빨랫줄.

빨래를 널어 말리려고 다는 줄. ¶“여보시요, 내 등떵어리(등어리) 뭣 나왔소?” “나올라고 허요.” 또 한바탕 문지르고서나, “아, 내 등떵어리 {빨래줄} 같은 것 나왔소.” 아 그서(그래서) 얼매를 문질러 갖고는 지 몸땡이까지 갈어 죽겄드라네. 갈어 죽고는 몰라. 각시는 죽었나 살었나<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내돈슥냥 갚어라 돌안장까지만 참으쇼. 내창자를 빼어서 {빨래줄로} 팔으믄 네 돈 슥냥을 갚으마.<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여적지 마음에 끼고 계신단 말씀이오? 내 꽁무니에 방귀는 나가는 밑구멍밖에 없소. 농이래도 그런 말씀은 마시오.” “그작자 양반 떠세가 {빨래줄} 같등마는, 알고 본께 두루 싱거운 작자였구만 …… ”<송기숙, 녹두장군>

지역 남원.

빨랫독 명 [대응어] 빨래터.

시내나 샘터에서 빨래할 수 있게 마련한 일정한 장소 ¶이 노래는 사람 없는 {빨랫독에서} 홍얼거리던 노래였다. ¶맑은 물이 넘쳐나던 {빨랫독이었던} 냇가가 이제는 냄새마저 쾨쾨하네. 빨래를 문지르거나 방망이로 두드려 빨 수 있도록 밑에 받치는 넓적한 돌(요즘의 빨래판) ¶빨래터에 늦게 가면 {빨래독을} 차지하기 어려웅게 아침 먹고 언능 가서 히야겄어. ¶낮만 되면 아낙네들이 {빨랫독에} 모여 빨래를 빨았다.

지역 고창, 군산, 남원, 부안,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빨랫방마이 명 [대응어] 빨랫방망이.

☞빨래방맹이.

지역 남원.

빨랫방매이 명 [발음] [빨랩빵매~이] [대응어] 빨랫방망이.

☞빨래방맹이.

지역 완주.

빨랫방맹이 명 [대응어] 빨랫방망이.

☞빨래방맹이.

지역 고창, 군산, 김제, 무주, 부안, 완주, 익산, 임실, 정읍, 진안.

빨리다 동 [대응어] 빨다.

옷 따위의 물건을 물에 넣고 주물러서 때를 없애다. ¶옷을 {빨려야} 깨끗이 입지

지역 김제, 순창, 임실, 진안.

빨뿌리 명 [대응어] 물부리.

담배를 끼워서 빠는 물건. ¶마고라고 이런 담배그기 있었어요. 그 안에 {빨뿌리가} 들었지요. <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3>

지역 무주, 부안, 익산, 정읍.

빨뿌리기 명 [대응어] 물부리.

담배를 끼워서 빠는 물건. ¶{빨뿌리기에} 댐배를 끼우면 댐배를 피울 수 있지.

지역 무주.

빨쭈 명 [대응어] 물부리.

담배를 끼워서 빠는 물건. ¶{빨쭈에} 담배를 꽂아서 담배를 피워.

지역 고창.

빨찌 명 [대응어] 물부리.

담배를 끼워서 빠는 물건.

지역 고창.

빨치다 동 [대응어] 빠뜨리다.

물이나 움푹 파인 구덩이나 또는 어떤 깊숙한 곳에 빠지게 하다. ¶물에 신발을 {빨쳐서} 젖은 신발을 신고 댕기는 수밖에 없었지.
지역 전북.

빨침 [명] [대응어] 빨부리.
담배를 끼워서 빠는 물건. ¶어찌나 당황했는지 {빨침으로} 침이 새는지도 모르게 입이 딱 벌어졌다니까.
지역 전북.

빰 [명] [대응어] 뺨.
얼굴의 양쪽 관자놀이에서 턱 위까지의 살이 많은 부분. ¶가서 아버지 {빰} 한 대 때려라. 아버지 {빰} 한 대 때려라."<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빰마대기 [명] [대응어] 뺨.
얼굴의 양쪽 관자놀이에서 턱 위까지의 살이 많은 부분. ¶{빰마대기으다가} 앵두같은 입술을 딱 갖다 대는 순간에 내 심장이 어찌나 벌렁벌렁 하던지. 내 생에 가장 떨리고 행복한 순간이었지. ¶엄마는 추운 겨울 바깥에서 놀고온 보람이의 {빰마대기를} 어루만저주었다.
지역 완주.

빰뿌리 [명] [대응어] 물부리.
담배를 끼워서 빠는 물건.
지역 순창.

빰싸대기 [명] [대응어] 뺨따귀.
'빰'을 속되게 이르거나 강하게 이르는 말 ¶자빠징게 등걸짝 볿히고, 외약쪽 낯판대기 댕게 오른짝 {빰싸대기} 얻어터지고 오늘은 솔차니 든지런 날이고만 이~.
지역 고창.

빵고다 [동] [대응어] 빻다.
☞빵구다.
지역 고창, 완주, 임실, 장수.

빵구 [명] [대응어] 방귀.
☞방구.
지역 전북.

빵구다 [동] [대응어] 빻다.
굵은 알갱이를 부스러뜨려서 가루로 만들다. ¶베럼박 고놈 할 만치 베럼박을 냉겼다가, 어늬 틈에 그것을 다 {빵궈} 가지구서, 저녁에 그 베럼박을 다 했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옴마가 방앗간으서 찹쌀을 {빵궈} 오는 대로 시루에 앉히자. ¶방앗간에 가서 쌀을 몽글몽글하게 {빵구어} 오너라. ¶콩가루로 {빵구어서} 먹자.
지역 고창, 김제,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빵긋이 [부] [대응어] 방긋이.
닫혀 있던 입이나 문 따위가 소리 없이 살그머니 열리는 상태로. ¶시금시금 시아바니/제 방문을 {빵긋이} 열더니/어제 온 메눌아가/손발 씻고 들오니라/시금시금 시어마니/ 정지문을 {빵긋이} 열더니/어제 온 메눌아기/손발 씻고 들오니라/뒤안문을 {빵긋이} 열더니/어제 오신 새 성님께/손발 씻고 들오시오<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완주 시집살이노래-"강남 땅땅 강냅이는")
지역 완주.

빵꾸 (←<일>panku) [명]
구멍이 뚫리는 일. ¶아따 디지게도 퍼먹네 이~ 잘허믄 배통아지 {빵구} 나겄네 이~.
지역 고창.

빵애 명 [대응어] 방아.

곡식 따위를 찧거나 빻는 기구나 설비를 통틀어 이르는 말. 물방아, 디딜방아, 물레방아, 연자방아, 기계 방아, 쌍방아 따위가 있다. ¶{빵애를} 찧다

지역 전북.

빼꼼빼꼼 부 [대응어] 빠끔빠끔.

작은 구멍이나 틈 따위가 여기저기 깊고 또렷하게 나 있는 모양. ¶똥구녁으서 똥이 {빼꼼빼꼼} 곧 나올려고 허.근디 죽어도 안 나와. 왜 근가 모르겄네.

지역 전북.

빼꼼하다 형

☞빠꼼하다.

지역 전북.

빼끔히 부 [대응어] 빠끔히.

작은 구멍이나 틈 따위가 깊고 또렷하게 나 있는 모양. ¶무조건 그 집으로 들어갔어, 들어가서 방에는 불을 {빼끔히} 써놨는디 무조건 내려버렸어, 죽을라구 바리작바리작 하는 놈을 얹어갖구 간게 다시 죽어버렸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머리를 {빼끔히} 내놓더만 나를 보고 언능 숨어 버리는디 통 영문을 모르겄네.

지역 전북.

빼다리 명 [대응어] 서랍.

☞빼드리. ¶그 앨범 책상 {빼다리} 속에 있승게 각고 와 봐.

지역 고창, 정읍, 임실, 장수, 진안, 완주, 남원.

빼다박다 동 [대응어] 빼닮다, 빼쏘다

생김새나 성품 따위를 그대로 닮다. ¶바로 저놈이 낫질이 자석이라고? 미상불 즈그애비놈 영락없이 {빼다박은} 낯짝이구만.<윤흥길, 낫>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휘 '빼다박다'는 표준어 '빼닮다, 빼쏘다'에 대응하는 동사이다. '빼다박다'로 쓰는 경우가 있고, '빼다 박다.'로 쓰는 경우도 있다. 원래 '빼다 박다.'에서 왔기 때문이다. 동사 '빼-'에

빼닫이 명 [발음] [빼다지] [대응어] 서랍.

책상, 장롱, 화장대, 문갑 따위에 끼웠다 빼었다 하게 만든 뚜껑이 없는 상자. ¶{빼다지} 서라비네<완주_지역어_텍스트> ¶귀중한 물건은 {빼닫이에} 넣어두어라.

지역 군산, 김제, 남원, 무주, 순창, 완주, 익산, 임실.

빼달캉 명 [대응어] 서랍.

책상, 장롱, 화장대, 문갑 따위에 끼웠다 빼었다 하게 만든 뚜껑이 없는 상자. ¶{빼달캉에} 잘 넣어 두어라.

지역 부안.

빼닷간 명 [대응어] 서랍.

책상, 장롱, 화장대, 문갑 따위에 끼웠다 빼었다 하게 만든 뚜껑이 없는 상자. ¶{빼닷갓} 안에 잘 넣어 두어라.

지역 전북.

빼더리 명 [대응어] 서랍.

☞빼드리.

지역 전북.

빼도리 명 [대응어] 서랍.

☞빼드리.

지역 임실, 장수, 진안.

빼도지 명 [대응어] 서랍.

☞빼다지.
지역 임실.

빼돌르다 동 [대응어] 빼돌리다.
사람 또는 물건을 슬쩍 빼내어 다른 곳으로 보내거나 남이 모르는 곳에 감추어 두다. ¶친헌 치키 험서 내 살전 다 {빼돌라} 갖고 으딘가로 토껴버렸써라우.
지역 고창.

빼두리 명 [대응어] 서랍.
☞빼드리.
지역 완주.

빼드리 명 [대응어] 서랍.
책상, 장롱, 화장대, 문갑 따위에 끼웠다 빼었다 하게 만든 뚜껑이 없는 상자. ¶빼드리제, {빼드리라고}, 서랍또, 빼다지라고<2005 전북 남원>
지역 남원.

빼미 명 [대응어] 팽이.
둥글고 짧은 나무의 한쪽 끝을 뾰족하게 깎아서 쇠구슬 따위의 심을 박아 만든 아이들의 장난감. 주로 채로 치거나 끈을 몸통에 감았다가 끈을 잡아당겨 돌린다. ¶머스마들이 겨울에 뭐 하겄어. 그땐 겨울이 추워 얼음이 잘 언게로 얼음 위에서 {빼미} 치기를 많이 했지.
지역 정읍.

빼미시 부 [대응어] 빠끔히.
작은 구멍이나 틈 따위가 깊고 또렷하게 나 있는 모양. ¶아 거기가 구경거리가 많은가 사람들이 자래(자라) 모가지매이로 목울 쭉 빼고 문틈새로, 담장너머로, 모인 사람들 틈으로 {빼미시} 내다 보고 있네.
지역 전북.

빼비작이다 동 [대응어] 비비적거리다.
원치 않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 계속 버티다. ¶그 일은 뭣이 개운하덜 못해서 안 할라고 {빼비작이고} 있었는디, 모다덜 한다니께 나도 허게 되앗지.
지역 전북.

빼뿌쟁이 명 [대응어] 질경이. ¶{빼뿌쟁이라고} 허는 것이 있는디 그건 약으로 많이 썼어.
지역 고창, 부안, 정읍, 진안.

빼수니허다 동 [대응어] 빼돌리다.
사람 또는 물건을 슬쩍 빼내어 다른 곳으로 보내거나 남이 모르는 곳에 감추어 두다. ¶우리 마느래를 {빼순이허고} 지금 나보고 덮어씌우는겨?
지역 전북.

빼오리 명 [대응어] 팽이.
둥글고 짧은 나무의 한쪽 끝을 뾰족하게 깎아서 쇠구슬 따위의 심을 박아 만든 아이들의 장난감. 주로 채로 치거나 끈을 몸통에 감았다가 끈을 잡아당겨 돌린다.
지역 전북.

빼이다 동 [대응어] 삐다(팔이).
몸의 어느 부분이 접질리거나 비틀려서 뼈마디가 어긋나다. ¶넘어져서 팔이 {빼이인게로} 저분질도 못 해.
지역 전북.

빼족허다 형 [발음] [빼조거다/빼조커다] [대응어] 뾰족하다.
☞빼쪽하다. ¶주뎅이는 {빼족히도} /모든 청으/말 한 마두 못 히보고/등거리는 넙적해도/뒷동산에 성 쌓는디/성 한 짐을 못 져보고/발이 발이 육 발이라도/육십 리 한 번을 못 가보고/먹통 한 짐은 짊어졌어도/펜지 한 장을 못 써보네<한국

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정읍 수수께끼노래)
지역 정읍.

빼지다 동 [대응어] 빠지다.
박힌 물건이 제자리에서 나오다. ¶나사가 {빼진게로} 헐렁헐렁해. ¶손꼬락에 벡힌 까시가 빨라먼 바늘로 깊게 팍팍 쑤셔야지 살살 허먼 까시도 안 {빼지고} 아프기만 헌거여.
지역 전북.

빼쪽하다 형 [발음] [빼쪼가다/빼쪼카다] [대응어] 뾰족하다.
물체의 끝이 점차 가늘어져서 날카롭다. ¶그먼자고노믈 고리 히가꼬 빼쪼거니, {빼쪽허먼자} 요로케 너먼 요짜기서 받꼬 요로케 너먼 요짜기서 받꼬, 또 요로케 너먼 요짜기서 받꼬.<2005 전북 남원>
지역 남원.

빼쪽허다 형 [발음] [빼쪼거다/빼쪼커다] [대응어] 뾰족하다.
☞빼쪽하다. ¶요로케 이써. 끄터리가 이르케 {빼쪼거게} 요러케 양쪼게 이르케 생기머는 인자 이르케 가마가꼰자 이 소게다 느서 요짜긴자 이르케 여그여여여 솔로, 그또 어트게 만드라.<2005 전북 남원>
지역 남원.

빽여꾸 (←白여꾸) 명 [대응어] 백여우.
흰색 털을 가진 여우. 또는 행동이나 성품이 간사한 여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
지역 전북.

빽허다 동 [발음] [빼거다/빼커다] [대응어] 성교하다.
남녀가 성기(性器)를 결합하여 육체적 관계를 맺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이다. 용수하고 길자하고 {빽했다}! 나는 순식간에 얼굴이 뜨거워진다.<이병철, 모래내 모래톱>
지역 전북.

빽이 조 [대응어] 밖에.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 '기꺼이 받아들이는', '피할 수 없는'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주로 뒤에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 따른다. ¶쭉젱이가 돼갇꼬. 쭉 쭉정이가 돼가지고. 맨: {쭉젱이빼끼다고}. {모두 쭉정이밖에 없다고}.<2009 전북 임실> ¶갑옷으로 갛 전부 옷을 싸고, 나온 것이란 것은 입허고 {눈알빼끼는} 없다. 그러니 내가 그놈을 쐬서 죅일래도 저놈으 목구먹을 쐬야<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부안, 군산, 완주, 군산.

뺀국수 명 [대응어] 기계국수.
기계를 사용하여 뽑은 국수. ¶칼국시도 맛있지만 {뺀국수도} 맛이 있다.
지역 남원.

뺀나 부 [대응어] 맨날.
매일같이 계속하여서. ¶온 나라가 {뺀나} 시끌벅적허니, 으떤 놈이 증말 옳고 그른지 통 알 수가 없게 돼부렀제.<조봉래, 풀벨골> ¶워낙이 버릇든 말이 되서나요, 고친다 허니 험서도 요로코 {뺀나}, 고쳐야 쓰겄긴 허겄는디.<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뺀날 명 [대응어] 맨날.
매일같이 계속하여서. ¶속창아리 읏다가 두엇능가 {뺀날}, 지 유리헝 것만 추레 갖고 잔머리만 실실 굴린당게.
지역 전북.

뺀조롬허다 형 [대응어] 반주그레하다.

☞밴조고름허다. ¶저 것이 얼굴은 {빽조롬허게} 생겼는디 손버르장머리가 나빠서 흠이여.
지역 완주.

빽질거리다 동 [대응어] 빤질거리다.
거죽이 매끄럽고 윤기가 많이 흐르다. 또는 맡은 일을 잘하지 않고 자꾸 게으름을 부리다. ¶구두가 {빽질거릴} 때까지 닦다. ¶어쩐지 유난히 {빽질거리더라니}. 녀석은 처음부터 내 약점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처럼 마음놓고 빈정거릴 수가 있었던 것이다.<윤흥길, 직선과 곡선>
지역 전북.

빽질빽질하다 동 [대응어] 빤질빤질하다.
게으름을 피우며 맡은 일을 잘 하지 아니하다. ¶다만 사장 비서라는 젊은 녀석이 여간만 {빽질빽질해} 보이지 않는 게 좀 마음에 걸렸다. "오 선생, 미안하지만 내 저고리 주머니에서 수첩 좀 꺼내 주시겠소?"<윤흥길, 직선과 곡선>
지역 전북.

빽허다 형 [대응어] 번하다.
어두운 가운데 밝은 빛이 비치어 훤하다. ¶오두막이 {빽허니} 불이 있어. 근게 과거 보러 가다가 그리 들어갔어.
지역 전북.

빽갛다 형 [대응어] 빨갛다.
피나 익은 고추와 같이 밝고 짙게 붉다. ¶산중에서 날이 저물었어. 그런데 인제, 첨이(처음) 같이, 참, 이 불이 {빽가니} 집이 비쳐. '저기두 인가 살테니께, 저기 가 하룻밤 좀 자고 가야것다.' 허구,<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모쭐. 모쭈를 이만큼 띠워노면 요만침썩 요만침썩 페르리 나써요. {빽간} 페를 표해논 디다가 다 한 포기씩 찔르지요.(못줄. 못줄을 이만큼 띠워놓으면 이만큼씩 이만큼씩표를 했어요. 빨간 표를, 표해놓은 데에다가 한 포기씩 지르지요)<2009 전북 임실> ¶"땅이 벌(빨간)허더나? 검었냐?" 선생님 말이 그렇게 물어. "땅이 {빽갑디다."}<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근개 소가 검은 소가 한 마리 있고 {빽간 소가}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딱 들어 누웠어.<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완주, 무주, 임실, 남원.

빽갱이 명 [대응어] 빨갱이.
'공산주의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 ¶비로소 책방 주인이 아닌 문기수의 얼굴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톨스토이의<인생독본>을 빼가지고 돌아섰다. "장사는 잘 되시나요?" "말도 마씨요. {빽갱이} 등쌀에 장사고 머고, 굶어죽게 생겼소." 주인은 책을 싸며 대꾸했다. 그 거침없는 말이 이지숙의 신경줄을 퉁겼다.<조정래, 태백산맥> ¶"아니, 이 꼴이 뭐야 이거! 칼질을 당한 게 한두 군데가 아니잖냐 말야. 이래가지구두 살아난 게 기맥히다야. 요런 {빽갱이놈에} 새끼들! 다 찢어죽여야 돼! 너, 선생질 당장 때려치우라우.<조정래, 태백산맥> ¶우리 동네에 {빽갱이} 놈들이 쳐들어와서 대창으로 사람들을 찔러 죽였당께.
지역 전북.

빽겋다 형 [대응어] 빨겋다.
어둡고 짙게 붉다. ¶아, 근데 어두워서 집을 찾아서는 재기는(빨리) 가나, 거 산밑이 가서는 불이 {빽거니} 있단 말이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의 눈이 아마 이런가 보다고 생각될 정도로 재룡이의 눈은 번들거리고 {빽겋고} 그래서 잔인해 보였다.<김승옥, 동두천>
지역 완주.

빽따구 명 [대응어] 빰따귀.

'빰'을 비속하게 이르는 말. ¶사정없이 {빰다구}를 때려버링게 어안이 벙벙해서 어쩔 도리가 있어야제.

지역 전북.

빰때구 명 [대응어] 빰따귀.

☞빰따구.

지역 전북.

빰때기 명 [대응어] 빰따귀.

☞빰따구.

지역 전북.

빰싸다구 명 [대응어] 빰따귀.

'빰'을 속되게 이르거나 강하게 이르는 말. ¶존일헐라다가 {빰싸다구} 맞은게 어찌 기분이 쌔허요 이~.

지역 고창.

빰싸닥 명 [대응어] 빰따귀.

☞빰싸대기. ¶공부는 안허고 만화방만 댕기다가 즈아부지 한티 {빰싸닥} 좀 맞고 정신을 채렸는게벼.

지역 완주.

빰싸대기 명 [대응어] 빰따귀.

'빰'을 속되게 이르거나 강하게 이르는 말. ¶그렇거들랑 그 녀석들을 머, 약간 {빰사대기}만 때릴게 아니라, 반죽음을 시켜서, 다실랑 그런 못 된 본을 못 보게시리 늑신 두들겨 주어야지, 늑신……<채만식, 태평천하> ¶저런 버릇이 없는 놈은 {빰싸대기감이야}.

지역 전북.

빱쟁이 명 [대응어] 질경이.

들이나 길가에 흔히 나는 다년초로, 잎은 달걀 모양이고 작은 꽃이 무리를 지어 이삭 모양으로 피며, 잎은 나물로 먹고, 씨는 변비약의 재료가 되는 풀. ¶{빱쟁이} 안 먹어 본 사람은 그 맛을 몰라. 국을 끄리 먹어도 맛있고, {빱쟁이로} 나물도 해 먹지. ¶오늘 저녁에는 {빱쟁이} 국이나 끓여 먹자.<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전북.

뺑끼 (<영어>←paint) 명 [대응어] 페인트.

안료를 전색제(展色劑)와 섞어서 만든 도료를 통틀어 이르는 말. ¶긍게로 그저께는 한질가 신작로에 {뺑끼로} 줄도 새썰로 긋고 댕기고. ¶토욜지영때부텀 어지끄 하래(하루) 안개비 땜시 쉬엇다가 오늘 시먼(지명) 바닷가로 새복 일찍이 나갔다 작업장 9키로를 점검허고 일꾼들흐고 일을 흐는디 도락꾸가 울타리망 {뺑끼} 치릉 것을 실코 왔다고 기별이 왔다.

지역 고창.

뺑오리 명 [대응어] 팽이.

둥글고 짧은 나무의 한쪽 끝을 뾰족하게 깎아서 쇠구슬 따위의 심을 박아 만든 아이들의 장난감. 주로 채로 치거나 끈을 몸통에 감았다가 끈을 잡아당겨 돌린다.

지역 고창, 남원, 순창.

뺑오리채 명 [대응어] 팽이채.

팽이를 돌리는 채. 가는 나무 끝에 끈을 매달아 만들며, 끈의 끝부분으로 팽이의 몸통을 쳐서 돌린다. ¶이렇게 탁탁 때리는 거. 거 믄(무슨) 나무 껍딱. 딱주 껍딱? 그 껍딱이 더 잘 되아. 나무 껍딱으로도 허고 {뺑오리채}.

지역 고창.

뺑이 명 [대응어] 팽이.

둥글고 짧은 나무의 한쪽 끝을 뾰족하게 깎아서 쇠구슬 따위의 심을 박아 만든 아이들의 장난감. 주로 채로 치거나 끈을 몸통에 감았다가 끈을

잡아당겨 돌린다. ¶{뺑이를} 치다 ¶{뺑이}는 암디서나 치는 것이 아녀 공고리 바닥이나 판판헌 땅에서 잘 도는 거여.

지역 김제, 무주, 부안,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진안.

빰딱지 명 [대응어] 빰따귀.
'빰'을 비속하게 이르는 말. ¶니가 {빰딱지를}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지역 전북.

빰싸구 명 [대응어] 빰따귀.
'빰'을 비속하게 이르는 말. ¶{빰싸구럴} 한 대 얻어 맞고 나서야 정신이 좀 들드랑게.

지역 전북.

빰싸대기 명 [대응어] 빰따귀.
얼굴의 양쪽 관자놀이에서 턱 위까지의 살이 많은 부분. ¶"못 잡었어!? 그럼…… 누구 {빰싸대기라두} 때려보았넝가?"<채만식, 巡公 있는 日曜日> ¶"아 선생님, 선생님. 대추 열만 주라구 했는데 아 송장이 더 달라구 벌떡 일어나서 더 달래서 내가 {빰싸대기}를 탁 때린게 '이놈 하나만 먹지 죽은 놈이 둘이나 먹나구 선생님이 주란대루 있지.' 그리구 빰을 때리구 왔네요."<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빰싸대기'는 '귀싸대기, 낯싸대기'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소의 빰에 붙은 고기'를 말하는 '빰살'에 비하하는 뜻을 가진 접미사 '-대기'가 붙은 것으로 해석된다.

뻐그럭거리다 동 [대응어] 살캉거리다.
설익은 곡식이나 열매 따위가 가볍게 씹히는 소리가 자꾸 나다. ¶(콩이) 잘 안 쌂으면 {뻐그럭거려}.

지역 전북.

뻐꺼지 명 [대응어] 대머리.
☞벗거지. ¶공것을 그렇게 좋아헌게 {뻐꺼지가} 되었지, 안 긍가?

지역 완주.

뻐드러지다 동 [대응어] 죽다.
생명이 없어지거나 끊어지다. ¶숨통이 끊어져 {뻐드러졌다}.

지역 전북.

해설 '뻐드러지다'는 표준어에서는 '끝이 밖으로 벌어져 나오다.', '굳어서 뻣뻣하게 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전북 방언에서의 쓰임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뻐등니 명 [대응어] 뻐드렁니.
밖으로 벋은 앞니. ¶뻐드렁니 난 거, 으 {뻐등니}.

지역 전북.

뻐리적뻐리적하다 동 [대응어] 뻐르적뻐르적하다.
고통스러운 일이나 어려운 고비를 벗어나려고 팔다리를 내저으며 자꾸 몸을 움직이다. ¶배때지에 총알이 박혔는디도 {뻐리적뻐리적하믄서} 안 뒤지드만.

지역 전북.

뻐시다 형 [대응어] 뻐세다.
뻣뻣하고 거세다. ¶"와따, 인물값 허니라고 긍가 어쩐가 성질머리 한번 깔깔허고 뻐시지."<조정래, 아리랑> ¶아짐씨, 참말로 말 안 들을라요? 정 그리 {뻐시게} 나가먼 우리가 완력을 써서 그까징 손도장 하나 못 눌르게 헐 성불르요?<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뻐쓰 (←bus) 명 [대응어] 버스.

많은 사람이 함께 타는 대형 자동차. 보통은 운임을 받고 정해진 길을 따라 운행하며, 시내버스, 시외버스, 관광버스, 고속버스 따위가 있다. ¶{빠쓰도} 두문 두문 댕게쩨, 그때는. 인자 자꼬 인자. 이러게 발전됨성 {빠쓰가} 인자 자주 이썽개.<2005 전북 남원> ¶시방 요 관광 {빠쓰에} 타고 있는 우리 동창들만 허드라도 저마다 다 심들고 에룹게, 그러면서도 열심히 자기 인생 자기가 손수 운전허고 살어온 친구들이여.<윤흥길, 소라단 가는 길>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임실, 진안, 정읍.

빠치다 형 [대응어] 피곤하다.

몸이나 마음이 지치어 고달프다. ¶하루 쟁일 힘들게 일했드니 온몸이 {빠치네}.

지역 전북.

뻔 명 [대응어] 본(本).

어떤 사실을 설명하거나 증명하기 위하여 내세워 보이는 대표적인 것. 또는 버선이나 옷 따위를 만들 때에 쓰기 위하여 본보기로 만든 실물 크기의 물건.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하나씨기다 저렇고 허는고나. 그러믄 {뻔을} 받으야는디, 아들들이 '저렇곰 허는 것이로고나. 그러고 허는 것이고나' 그러고 있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뻔 따르다 【관용표현】 [대응어] 본받다.

본보기로 하여 그대로 따라 하다. ¶옹기 생긴 것이 모두 한 뻔이여. 근디 옛날에는 그렇지럴 않았어라우. 경기도식은 옹기가 배가 부르지 않고 꼿꼿허니 키가 컸지라우. 요놈 {뻔 따서} 광명단 바르기 시작헐 적부터 옹기럴 더 꼿꼿허게 맨들어. 고놈은 굴에 넣어 꾸어도 파가 더 적고 이익이 더 좋아징께<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7>

지역 정읍.

뻔덕거리다 형 [대응어] 뻔뜩거리다.

물체 따위에 반사된 큰 빛이나 사람이 잠깐씩 자꾸 나타나다. ¶인자 저그 한쪽으 가서 가만히 체다 봉게 아 쩌만침 아래서 불이 {뻔덕거리그든}. ¶염치도 없이 먹는디서 그렇게 {뻔덕거리고} 댕기면 못쓰는 거여.

지역 전북.

뻔덕뻔덕 부 [대응어] 뻔득뻔득.

물체 따위에 반사된 큰 빛이 잠깐씩 자꾸 나타나는 모양. ¶아따, 대그빡이 {뻔덕뻔덕} 빛나요이~.

지역 고창.

뻔덕지[1] 명 [대응어] 비탈.

산이나 언덕 따위가 기울어진 상태나 정도. 또는 그렇게 기울어진 곳. ¶{뻔덕지는} 머더러 가다가 미끄러진당가?

지역 전북.

뻔덕지[2] 명

빛을 받으면 반짝이는 물건. 보통 비닐을 말함. ¶고구마 2키로씩 담고 {뻔덕지} 붙여서 상자로 내.

지역 전북.

뻔따다 동 [대응어] 본뜨다.

무엇을 본보기로 삼아 그대로 좇아 하다. 또는 이미 있는 대상을 본으로 삼아 그대로 좇아 만들다. ¶워디 할끼 없어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넘이 담배 태우는 걸 {뻔따}, {뻔딸} 것도 없네. 기가 막혀서. ¶동생은 형이 하는 것을 {뻔따서} 그대로 흉내는 낸다. ¶이 조각은 석고로 그 사람얼 고대로 {뻔따서} 만든 거래야.

지역 정읍, 무주.

뻔뜩하먼 🅟 [대응어] 걸핏하면.

작은 일이라도 있기만 하면 바로. ¶그는 {뻔뜩하먼} 잔다 ¶집 나가는 것이 버릇이 되었는지 {뻔뜩허먼} 없어져버려. ¶저 사람 {뻔득하면} 승질 내버린당게로. 그것만 고치면 괜찬은디. 승질머리치고는 내 참.

지역 전북.

뻔말다 보형 [대응어] 뻔하다.

((동사 뒤에서 '-을 뻔하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상황이 실제 일어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을 나타내는 말. ¶아이고야, 하마트면 뒤로 자빠질 {뻔말았네}.

지역 전북.

뻔얼 따다 【관용표현】 [대응어] 본받다.

본보기로 하여 그대로 따라 하다. ¶미국 사람 {뻔얼 따서} 나도 빵으다가 야채도 옇고, 고기도 옇고 히서 코피랑 같이 먹어 보야 쓰겄네.

지역 전북.

뻔얼 받다 【관용표현】 [대응어] 본받다.

☞뻔받다. ¶너는 누구 {뻔얼 받아서} 술만 먹으면 쌈질이냐 지발 속 좀 챙겨라잉.

지역 완주.

뻘갱이 명 [대응어] 빨갱이.

☞빨갱이.

지역 전북.

뻘그렇다 형 [대응어] 빨갛다.

☞뻘그렇다. ¶쥐뿔이나 가진 거이 있어야 재주를 넘든 용을 쓰든 달러지제, 아 손바닥 {뻘그런디}, 쥔 것 없는 맨손바닥에, 하대 받고 살든 그 자리서, 하루아칙에 달러지면 대관절 머이 달러진당 거이여? 안 달러져. 그대로여.<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뻘때충이 명 [대응어] 뻘때추니.

어려워함이 없이 제멋대로 짤짤거리며 쏘다니는 계집아이. ¶너는 {뻘때충이} 맹이로 어딜 발발 쏘다니는겨?

지역 전북.

뻘떡기 명 [대응어] 꽃게.

꽃게 중에 알이 밴 암컷. ¶봄에는 {뻘떡기가} 제일 인기가 있제. {뻘떡기들은} 알이 많이 있어서 먹을 것도 많거든.<고창군 해리면>

지역 고창.

뻘소리 명 [대응어] 허튼소리.

실속없이 함부로 지껄이는 말. ¶고런 {뻘소리} 시끄럽고!<조봉래, 풀벨골> ¶비싼 밥 먹고 무슨 {뻘소리여}? 그런 소리 헐라거든 아예 여길 오지 마.

지역 전북.

뻘짝거리다 동 [대응어] 들락거리다.

자꾸 들어왔다 나갔다 하다. ¶그래도 어떻게 정승이라도 되야 볼라면 서울로 {뻘작거려야} 헐란가 보다고 무턱대고 서울 나오드락.

지역 전북.

뻘치다 동 [대응어] 뻗다.

굽혀 있는 것을 곧게 펴다. ¶폴뚝을 {뻘칠라고} 했드니 맘대로 안 되네.

지역 전북.

뻙어지다 동 [대응어] 붉어지다.

☞붉어지다.

지역 고창.

뺏대 명 [대응어] 절름발이.

한쪽 다리가 짧거나 다치거나 하여 걷거나 뛸 때에 몸이 한쪽으로 자꾸 거볍게 기우뚱거리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절뚝절뚝거리는 사람을 보고 인제 {뺏대라구} 했거든.

지역 전북.

뺏시다 형 [대응어] 뺏세다.

뺏뺏하고 거세다. ¶거 뭣이냐, 젊은 사람이 너무 그러콤 {뺏시게} 나오면은 자기 신상에 해로운 볍이여.<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조 동무가 안직 펄펄허게 젊어서 그러기도 헐 것인디, 그리 대꼬챙이맹키로 {뺏시기만} 허갖고는 조직 생활이 에로와.<조정래, 태백산맥> ¶그분이 홍덕의 면장으로 갔을 때 질을 곱게 냈는디 그저는 어떻게 홍덕이 {뺏시든지} 질을 곱게 못 냈어.

지역 전북.

뻬다 동 [대응어] 삐다(팔이).

몸의 어느 부분이 접질리거나 비틀려서 뼈마디가 어긋나다. ¶뛰박질하다가 발을 {뻬더니} 인제 걸을 수도 없게 돼 버렸네.

지역 장수.

뻬물다 동 [대응어] 빼물다.

안에 있는 것을 꺼내어 물다. ¶레지가 다녀가자 기철이가 허를 {뻬물며} 말했다. 그의 말투에는 이미 그럴 만한 곳까지 다녀온 몸인데 섣불리 알지 말라는 허세가 담겨 있는 듯이도 보였다.<최일남, 서울의 초상> ¶권 서장은 별로 즐기지 않는 담배를 {뻬물었다}. 아무리 전시라고 하지만 나라 돌아가는 꼴이 엉망진창이라고 생각했다. 국민방위군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 십육일이고, 공포된 것이 이십일이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벌써 십칠일부터 방위군을 경상도로 보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법의 공포라는 것이 <조정래, 태백산맥> ¶부월이 비아냥을 한입 그득 {뻬물었다}. 그러나 말투와는 달리 그니는 남편의 어깨에 몸을 더욱 바싹 붙여왔다.<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뻰지리허다 형 [대응어] 뻰지르르하다.

거죽에 기름기나 물기 따위가 묻어서 윤이 나고 미끄럽다. ¶마룻바닥을 아조 {뻰지리허게} 닦아놨드라만. ¶머리에 기름을 얼마나 많이 발랐는지 머리가 {뻰지르르허고만요}.

지역 전북.

뻰질그리다 형 [대응어] 뻰질거리다.

거죽이 매우 미끄럽게 윤기가 흐르다. ¶머리에는 포마드를 발랐는가 솔찬히 {뻰질그리더라고}. 요리조리 빼면서 일에 협조하지 않고 눈치만 살피는 행동 {뻰질 그리다} ¶"어디를 가나 사람 뫼인 디에는 뒤구녁으서 {뻰질그리는} 사람이 한 둘은 꼭 있는 법여".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참으로 {뻰질거리네}.

지역 전북.

뻴겋다 형 [대응어] 뻘겋다.

☞뻘겋다.

지역 전북.

뻴다구 명 [발음] [뻴따구] [대응어] 뼈.

☞뻑다구.

지역 정읍.

뼁아리 명 [대응어] 병아리.

☞빙아리.

지역 무주.

뼉다구 명 [대응어] 뼈다귀.

'뼈'를 낮잡아 이르는 말. ¶함부로 까불다가는

{뼉다구도} 못추릴줄 알아라. ¶아 그서, 가서 인자 빈소를 떠들고서 해골 {뼉다구} 가존게, “여다 노라.” 고드라만,<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그런디 시방 니가 천민의 {뼉다구라고} 그렇게, 명부에 지셔야 헐 망제 유골을 백주 대낮에 꾀 벳겨 파내 들고,<최명희, 혼불> ¶“맞네, 그런 놈언 오살육시럴 히서 {뼉다구럴} 따로 추릴 놈이시. 그 돈으로 노름을 허면 손꾸락이 썩어들 것이고, 그 돈으로 술타령을 허면 목구녕이 맥힐 것이고,<조정래, 아리랑>

지역 익산, 장수, 김제, 부안, 임실, 정읍.

뼁아리 명 [대응어] 병아리.

☞빙아리.

지역 부안, 무주, 고창, 김제, 남원, 순창, 임실, 장수, 진안.

뻬다 동 [대응어] 삐다(팔이).

몸의 어느 부분이 접질리거나 비틀려서 뼈마디가 어긋나다. ¶손목을 {뻬니께로} 어디 저분질도 힘들어 밥도 못 먹겠구만.

지역 장수.

뽀각기 명 [대응어] 금게 ¶저 기는 거품을 뽀각뽀각 낸다고 해서 {뽀각기라고} 해. ¶옛날에는 {뽀각기} 많이 잡으러 댕겼지.<고창군 해리면>

지역 고창.

해설 거품을 뽀각뽀각 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뽀개다 동 [대응어] 쪼개다.

둘 이상으로 나누다. ¶겁나 망신에 우세상게로, 잘 봐 갖고 {뽀개라} 이~.

지역 고창.

뽀개지다 동 [대응어] 빠개지다.

작고 단단한 물건이 두 쪽으로 갈라지다. ¶지 박치기 한 방이면 그 놈의 새끼 대갈통은 {뽀개져도} 여러 쪼각으로 영판 볼 만하게 뽀개질 것이오.<송기숙, 녹두장군> ¶도끼로 돼지 대갈통을 두 쪽으로 {뽀개지게} 만들어라.[정읍], = ¶근게 그놈은 죽겄다고 물을 퍼서 끼논게로 박쩍(바가지)이 딱 {뽀개지네}. “아이고 울아버지가 밥 빌어 먹으라는 박적인디 쪼개 버렸으니 나는 뭐를 먹고 사나?”<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정읍.

뽀꿈 명 [대응어] 거품.

액체가 기체를 머금고 부풀어서 생긴, 속이 빈 방울. 또는 입가에 내뿜어진, 속이 빈 침방울. 어떤 현상 따위가 일시적으로 생겨 겉만 번지르르하고 실속은 없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비누 {뽀꿈이} 눈에 들어가다. ¶{뽀꿈을} 물고 쓰러지다. ¶왜 그리 비싸다요? 값에 {뽀꿈이} 많이 낀 것 아녀?

지역 전북.

뽀닷하다 형 [발음] [뽀다다다/뽀다타다] [대응어] 빠듯하다.

어떤 정도나 한도에 겨우 미치는 상태에 있다. 또는 한도에 꽉 차거나 꼭 맞아서 여유나 빈틈이 없다. ¶낼 돈이 그 정돈디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뽀닷하게} 맞네. ¶돈이 {뽀닷해서} 놀로 갈라먼 돈 좀 모아야 돼.

지역 전북.

뽀도시 부 [대응어] 겨우.

어렵게 힘들여. 또는 기껏해야 고작. ¶근게 {뽀도시} 인자 새새끼 숨을 쉼서 인자 들어 가서<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엄마는 동생을 {뽀도시} 달래서 울음을 그치게 했다. ¶마당에 풀이 너무 많아 {뽀도시} 뽑아냈다.

지역 전북.

뽀독시 閉 [대응어] 빠듯이.
어떤 한도에 차거나 꼭 맞아서 빈틈이 없이. ¶오늘 지을 농사일이 {뽀독시} 있은게 놀 생각허지 말고 새참거리로라도 막걸리는 금물이여. 일 좀 제때 허자. ¶철수는 이번 수학시험에서 {뽀독시} 90점을 넘겼다.
지역 전북.

뽀땃하다 형 [발음] [뽀따다다/뽀따타다] [대응어] 오붓하다.
포근하고 따뜻하다. 또는 홀가분하면서 아늑하고 정답다. ¶{뽀땃한} 정을 주지도 않고 그타고 정 나지도 아니게 그냥 그렇게 살았지라. 뭔 작정이나 어디 있었남요.<신경숙, 풍금이 있던 자리>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뽀땃하다'는 표준어 '오붓하다'에 대응하는 어휘다. 사람의 정이나 마음을 표현할 때 쓰고, 음식을 먹을 때, 사람들이 다정하게 모이는 모습을 묘사할 때 주로 쓰인다.

뽀르르니 閉 [대응어] 뽀르르.
자그마한 사람이나 짐승이 부리나케 달려가거나 쫓아가는 모양. ¶택시를 잡을라고 서열을 죽 섰단 말여. 근디 일차에 여자여. 이차으 남자가 {뽀르르니} 달려가 탄단 말여.
지역 전북.

뽀뿌레나무 (←poplar나무) 명 [대응어] 백양나무.
¶{뽀뿌레나무가} 길 옆에 많이 있는디, 봄이면 {뽀뿌레나무} 잎사구서 솜 같은 것이 나와서 날라다녀.
지역 전북.

뽀속하다 형 [발음] [뽀소가다/뽀소카다] [대응어] 볼록하다, 뽈록하다.
물체의 거죽이 조금 도드라지거나 쏙 내밀려 있다. ¶"그럴란지도 몰르제. 그나저나 뱃속에 든 것이 안됐구마. 배가 {뽀속하니} 불른 것 봉게로 예닐곱 달언 됐든디."<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뽀속허다 형 [발음] [뽀소거다/뽀소커다] [대응어] 볼록하다.
물체의 거죽이 조금 도드라지거나 쏙 내밀려 있다. ¶"그까? 서방이 이리 불러 딜여간 것아닐랑가?" "그럴란지도 몰르제. 그나저나 뱃속에 든 것이 안됐구마. 배가 {뽀속허니} 불른 것 봉게로 예닐곱 달언 됐든디." "예닐곱 달이먼 차서방 씨인 것이야 영축없는디,<조정래, 아리랑> ¶남녀 빨치산들은 다투어 모여들었다. "워쩐 쌀가마니여?" "아니, 땅에 묻힌 것 아니라고? 근디 워째 여그만 물이 젓어갖고 써가마니가 {뽀속허니} 코빼기럴 내밀고 있는고?"<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뽀수다 동 [대응어] 빻다.
굵은 알갱이를 부스러뜨려서 가루로 만들다. ¶그렇게로 토방 밑을 파가지고 개를 꼭꼭 {뽀솨서} 헛세혀 뻐리먼 인자사가 되아갖고 나간다.<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고추를 잘게 {뽀수냐} 곱게 {뽀수냐에} 따라 고추가 달라져.
지역 정읍, 고창.

뽀시락장난 명 [대응어] 보스락장난.
행동이나 소리가 크지 아니하면서 조심스럽게 하는 장난. ¶고 자슥 지그 애비 타겨 갖고 아구똥허네 이~ {뽀시락장난도} 잘허고.
지역 전북.

뽀시락장난하다 동 [대응어] 보스락장난하다.
행동이나 소리가 크지 아니하면서 조심스럽게 장난을 하다. ¶궁민핵교 댕길 때는 솔차니 시망시러 갖고 {뽀시락장난허고} 신천 빠진 해찰 땜시

공부는 쪼까 그랬지라우~ 긍게, 그거시 아페서 말고 뒤에서 일 이등은 내껏 이엇당게요.
지역 전북.

뽀시레기 명 [대응어] 부스러기.
잘게 부스러진 물건. 또는 하찮은 사람이나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나무 {뽀시레기를} 긁어모아서 여기에 놓아라. ¶잘게 부순 {뽀시레기까지} 모두 담아오너라.
지역 전북.

뽀수 명 [대응어] 버스.
☞뻐쓰.
지역 익산, 장수.

뽀쓰 명 [대응어] 버스.
☞뻐쓰.
지역 군산, 완주, 익산, 장수.

뽀우리 명 [대응어] 봉우리.
☞봉오리.
지역 전북.

뽀짝 부 [대응어] 바짝.
매우 가까이 달라붙거나 세게 죄는 모양. ¶오늘 따라 바람도 허천나게 불고 시먼(지명) 근방 사는 사람 말 드릉게 바닷물이 만삭이라나 으쨓다나 방천(지명) {뽀짝까지} 물이 들온디 그를 적 마다 잡녀르 때까우 시끼들 물쌀으 떠밀러오는 새비랑 그시락이랑 퍼묵을라고 난리법석을 피다가. ¶언능 {뽀짝} 와 보랑게 헐 말이 믄 말이여? ¶운동장 {뽀짝} 몽고루 천막도 솔차니 잇고, 운동장안의 잔디풀도 매좃 개운허게 깍아 놓고. ¶하하, 고것 참. 너 어디 담 넘어 이우제로 갈래? 어머니 못 잊혀서? 그렇게 {뽀짝} 곁으로 시집 가면 나도 좋지.<최명희, 혼불> ¶생솔가지나 볏짚 안 때고 {뽀짝} 마른 삭쟁이럴 때먼 연기가 안 나는디요.<조정래, 태백산맥> ¶동무덜, 지끔부텀 정신 {뽀짝} 채리씨요. 우리덜 코밑이 초손께. 짜아, 내레갑시다.<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고창.
해설 전북 방언 '뽀짝'은 표준어 '바싹, 바짝'의 방언이다. 최명희의 소설에서 '뽀짝'은 '아주 가까이 달라붙거나 죄는 모양'을 나타내는 부사로 쓰고 있다. 조정래의 소설에서 '뽀짝'은 '말라 버린 모양'과 '긴장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부사로 쓰고 있다.

뽀짝거리다 동
매우 가까이 달라붙다. ¶기냥, 내싸두랑게~ 매급씨 {뽀짝거렸다가} 코빡, 대그빡 다칭게 앙거 있어야. ¶인자, 고만 {뽀짝거리고} 쩌만치 가등가 허고, 안 갈러먼 치나야 치나!
지역 고창.

뾱대기 명 [대응어] 꼭대기.
높이가 있는 사물의 맨 위쪽. ¶저 {뾱대기에서} "나 좀 살리 줘. 나 좀 살리 줘." 그런게 나무 잘 탄 사람들이 올라 가갖고는 내리서 역시로 사람을 살리야 헌다고 그리갖고는 업어갖고는 내리왔다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근장산 {뾱대기} 신 안개 놀고 이 논배미서 지심을 매세/에 헤야 아아 허어 허허야 나 허어 허엉걸 오호오야<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옥구 논매는 소리)
지역 전북.

뾱주 명 [대응어] 박쥐.
☞빡쥐.
지역 전북.

뾱쥐 명 [대응어] 박쥐.
☞빡쥐.
지역 남원, 순창, 임실, 장수.

뽁지 명 [대응어] 박쥐.
☞빡쥐.
지역 전북.

뽄 명 [대응어] 본(本).
어떤 사실을 설명하거나 증명하기 위하여 내세워 보이는 대표적인 것. 또는 버선이나 옷 따위를 만들 때에 쓰기 위하여 본보기로 만든 실물 크기의 물건. ¶흉중이 어즈러와 이만 난필을 총총 접으나 너는 어미 {뽄을} 보지 말고 다만 두어 자씩이라도 편지 자조 하여라.<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뽄따다 동 [대응어] 본보다.
무엇을 본보기로 삼아 그대로 좇아 하다. 또는 이미 있는 대상을 본으로 삼아 그대로 좇아 만들다.
지역 전북.

뽄때 (←本때) 명 [대응어] 본때.
본보기가 될 만한 것. ¶아무렴 고리허야 증말 {본때있게} 일헐 사람을 뽑제.<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뽄받다 동 [대응어] 본받다.
본보기로 하여 그대로 따라 하다. ¶니 형 공부만 길게 히 갖고 취직도 못허는데 {뽄받을} 거 없다. ¶공부 잘하는 친구를 {뽄받아} 너도 공부를 잘 하면 선물 사 주마. ¶보미야 언니 하는 것을 {뽄받아} 공부좀 하거라.
지역 김제, 남원, 부안, 군산, 임실.

뽄보다[2] 동 [대응어] 본받다.
본보기로 하여 그대로 따라 하다. ¶지 형이 저그 장이 선날에 나가서 쌀을 다 팔고 왔드리야. 인자 그걸 보고 즈그 아버지가 칭찬을 한게로 동생넘도 {뽄봐서} 다음 장날에 소를 끌고 나왔드리야. 근데 쌀 파는 거허고 소 파는 거허고 같가니, 안 팔리제.
지역 익산.

뽄보다 동 [대응어] 본뜨다.
무엇을 본보기로 삼아 그대로 좇아 하다. 또는 이미 있는 대상을 본으로 삼아 그대로 좇아 만들다. ¶야가 글씨 지 아부지가 허구헌날 책이며 신문이며 들여다 보닝께 그것얼 {뽄봐서} 그런가 갸도 징글징글헌 책벌레여. ¶그 손 모양 트로피는 우리 아덜들이 나 고생했다고 내 손은 {뽄봐다가} 고대로 만든 트로피여.
지역 김제, 부안, 완주, 임실, 고창.

뽄새 (←本새) 명 [대응어] 본새.
어떤 행동의 됨됨이. ¶고녀러 미꾸리네 허고댕기는 {뽄새로} 봐서는 말이시, 암치께도.<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뽄얼 받다 【관용표현】 [대응어] 본받다.
☞뽄받다.
지역 고창, 순창, 진안.

뽈딱 부 [대응어] 빨딱.
눕거나 앉아 있다가 날랜 동작으로 갑자기 일어나는 모양. ¶싸나웠든 비바람으로 세수허고 곱단장허며 진 밤에서 아직질(아침)로 {뽈딱} 넘어온 조신헌 아침여인은 넘 좋게 째지는 기분으로 실성한 안무를 깨끗치 정리험서 콧노래 꾀꼴 꾀꼴.
지역 전북.

뽈딱쟁이 명
동작이 날래고 야무진 사람. ¶고놈 참 {뽈딱쟁이 같이} 잽싸네.
지역 전북.

뿔리다[1] 동 [대응어] 빨리다.

입 속으로 당겨져 들어가게 되다. 또는 어떤 대상이나 물질이 끌어 들이는 힘이 작용하는 쪽으로 이끌리다. ¶소작질로 살고 몸땡이 팔아 사는 가난헌 조선사람덜언 이중삼중으로 피 {뽈림서} 살기가 지옥이구만요.<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뽈리다'는 전남과 전북의 접촉 지역에서 쓰는 어휘이다. 전북에서는 '팥, 파리'를 '폳, 포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아래아'가 '오'로 변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중세국어 '뽈다'를 '뽈다'로 발음하고, 역시 '빨다'의 피동사인 '빨리다'를 '뽈리다'로 발음하는 것이다.

뽈리다[2] 동 [대응어] 잃다(돈을).

노름 따위에서 돈을 잃다. ¶투전판에서 있는 돈 없는 돈 모두 {뽈렸다}.

지역 고창, 장수.

뽈속허다 형 [발음] [뽈쏘거다/뽈쏘커다] [대응어] 불룩하다.

물체의 거죽이 조금 도드라지거나 쏙 내밀려 있다. ¶골침은 이렇게 6개 골을 내가꼬 그놈을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히야 {뽈속허니} 올라와. {뽈속허니} 올라오게 헐라믄 얼매나 박어야 허는지 아는가?

지역 전북.

뽈아내다 동 [대응어] 빨아내다.

속에 있는 것을 빨아서 밖으로 나오게 하다. 또는 남의 노력, 재산, 돈 따위를 여러 가지 수단을 써서 빼앗아 내다. ¶이눔에 철도가 조선땅 근기 다 뽈고 조선사람 피 다 {뽈아내는} 홈통 될끼니.<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뽈아묵다 동 [대응어] 빨아먹다.

남의 것을 우려내어 제 것으로 만들다. ¶쌀금이 이리 솟았을 적에 살얼 풀어불고 그 대신으로 석유지름얼 쟁에노먼 식유지름도 날로 달로 올르겄다, 석유지름 {뽈아묵는} 쥐새끼덜이야 없겄다, 더우가 와도 석유지름이야 습해지덜 안컸다, 그리되면 손해보는 것 하나도 없이 이 문이 쏙 빠지덜 안컸는게라우?<조정래, 아리랑> ¶사내자식이 하도 시언찮어서 그 지집이 쪽 {뽈아묵을} 때까지 앙것도 몰랐당게.

지역 전북.

뽐뽀리나무 명 [대응어] 백양나무.

☞뽀뿌레나무.

지역 전북.

뽐뿌샘 (←pump샘) 명 [대응어] 펌프.

수도 시설이 없는 곳에서, 사람이 손잡이를 상하로 되풀이하여 움직임으로써 그 압력에 의하여 땅속에 수직으로 박혀 있는 관을 통하여 지하수가 땅 위로 나오도록 하는 기구. ¶{뽐뿌샘에} 물을 넣고 뽐뿌질을 하면 물이 나오게 돼. 요짐은 그 물을 마중물이라고 하데.

지역 무주.

뽑아지다 동 [대응어] 뽑히다(被動).

박힌 것이 잡아당겨져 빼내지다. ¶임군한은 작대기를 내던지고 상투를 잡아 고개를 뒤로 제꼈다. 한손으로 상투를 잡고 수염을 뽑기 시작했다. 쉽게 {뽑아지지} 않았다. 모숨을 적게 잡고 손가락에 감아 잡아챘다.<송기숙, 녹두장군> ¶정자나무가 {뽑아진게} 그 놈을 짊어 지고 또랑으로 갔어. 그, 가 물도 먹고 까제도 잡어 먹고 헐라고, 아 여 한참 싸우다 본게 정자나무도 없이 뽑아갖고 어디로 가버렸거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순창, 정읍.

뽕나무 명 [대응어] 뽕나무. ¶{뽕나무에} 앉아서 뽕을 따지, 처녀가.<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오늘 손님 누구 안 왔디야?" "왔습디다. 암디 아무개 양반이 왔습디다." "그 머라고 혔냐?" "인자 {뽕나무} 심궜다고 혔읍니다. 뽕나무 키워서 활을 맨들아 주기로 혔읍니다."<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전주와 교통이 편리하므로 상업성을 띤 농업이 많이 발달한 곳이다. {뽕나무를} 많이 심어 양잠을 하며 담배, 고추 등 수익성이 높은 작물을 재배하고, 묘목장이 많아서 생활은 넉넉한 편이다.<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뽕나무}는 원체 자연갱신이 잘 되는 나무라 마구 짤라도 봄되면 싹이 수북허니 또 올라 온다고.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뽕닥지 명 [발음] [뽕닥찌/뽕딱찌] [대응어] 꼭대기
사물이나 산 따위의 가장 높은 부분. ¶쬐깐헐 때는 간두깨 {뽕닥지에다} 까마치 대가리를 창창 묶어갖고 포리가 씨실거리지 말라고 말리기도 했는디. ¶산 {뽕닥지까지} 누가 먼저 가는가 내기도 많이 혔는디.

지역 전북.

뽕대기 명 [발음] [뽕대기/뽕때기] [대응어] 꼭대기
사물이나 산 따위의 가장 높은 부분. ¶앞집 노족으서 금댕이가 놀거든. 금댕이가 놀아, 근게로 민중심천이라 한다더니 그 수가 여럿이고 근게로 독 생금댕이를 하나 줏어다 놨던 게벼. {뽕대기다가}.<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참 좋은 것이구나. 용케 똑 맥이 척 맞는다' 속으로 허시구설랑 어디서 근고 허고 가만히 둘러보니까 바로 우게서 높은 산의 {뽕대기서} 아주 훌릉한 곳에서 소리가 나.<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바짝 따라가는디 인자 산 {뽕대기} 올라가서는 이케 내려가든게벼.<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저기 {뽕대기}에 꽂힌 깃발까지는 가야 삼분지 일을 가는 거여.

지역 정읍.

뽕댕이 명 [대응어] 꼭대기.
☞봉댕이.

지역 전북.

뽕밧 명 [대응어] 뽕밭.
뽕나무를 심어 기르는 밭. ¶집 뒤의 {뽕바세}여런 잎을 따러 나갔는디, 거그서, {뽕바세서} 내가 그 남자를 봤당게. ¶뽕잎에 벌레가 달라들어도 {뽕밧에는}약을 안처. 그놈 먹고 누에가 다 죽어 버링게 그럴 수 백이.

지역 전북.

뽕아리 명 [대응어] 봉우리, 꼭대기.
산이나 나무의 꼭대기. ¶감, {뽕아리} 몇 개만 냉겨 놓고 다 땄고만.

지역 전북.

삐족하다 형 [발음] [삐조가다/삐조카다] [대응어] 뾰족하다.
☞삐쭉하다.

지역 군산.

삐죅이 부 [대응어] 뾰족이.
물체의 끝이 점차로 가늘어지며 날카롭게 내밀어진 모양. ¶싱구먼 인자 {삐죅이} 나먼언, 시나:부로 크먼 인자 그놈이 인자 멘까지가 돌리먼 두 가지만 두고 싹 뜯어버리등만.(심으면 이제 뾰족이 나면, 서서히 크면 이제 그 놈이 이제 몇 가지가 뻗으면 두 가지만 두고 싹 뜯어버리더구먼.)<2009 전북 임실>

지역 임실.

삐주리 명 [대응어] 고욤.
고욤나무의 열매. 감보다 작고 맛이 달면서 좀 떫다. ¶{삐주리} 맛은 귀똥차게 아네.
지역 전북.

삐쭉하다 형 [발음] [삐쪼가다/삐쪼카다] [대응어] 뾰족하다.
물체의 끝이 점차 가늘어져서 날카롭다. ¶요로케 요로케, 삐쪽 {삐쭉한} 인제 깍끄, 여그서 삐쭉 삐쭉 삐쭉 깍꺼든요.<지역어 자료 총서, 무주>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삐쭉허다 형 [발음] [삐쪼거다/삐조커다] [대응어] 뾰족하다.
☞삐쭉하다.
지역 전북.

삐쭉히다 형 [발음] [삐쪼기다/삐쪼키다] [대응어] 뾰족하다.
☞삐쭉하다.
지역 정읍.

삐쭛하다 형 [발음] [삐쪼다다/삐쪼타다] [대응어] 뾰족하다.
☞삐쭉하다.
지역 남원.

삡히다 동 [대응어] 뽑히다(被動).
박힌 것이 잡아당겨져 빼내지다. 또는 여럿 가운데에서 골라내지다. ¶"니가 반장으로 {삡혔다고} 느그 엄마는 지금 옆집으로 자랑하러 갔어".
지역 김제, 남원,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뽀쪽구두 명 [대응어] 뾰족구두.
뒷굽이 높고 뾰족한 여자 구두. ¶저 가스나 봐봐. {뽀쪽구두} 신고 엉덩이 흔들고. 신났구만 그려. ¶처음으로 {뽀쪽구두를} 신고 놀러 갔다가 발목을 삐끗해 버렸네. ¶{뽀쪽구두를} 신고 오는 저 아가씨는 누구일까요?
지역 전북.

뽀쪽허다 형 [발음] [뽀쪼거다/뽀쪼커다] [대응어] 뾰족하다.
물체의 끝이 점차 가늘어져서 날카롭다. ¶요쪼게 이러케 {뽀쪼게가끄} 구먹 뚜능거슨?<지역어 자료 총서, 무주>
지역 전북.

뿌꾹뿌꾹 부 [대응어] 뻐꾹뻐꾹.
뻐꾸기가 잇따라 우는 소리를 흉내내는 말. ¶뻐꾸기가 {뿌꾹뿌꾹} 울면 웬지 서글퍼지지.
지역 무주.

뿌꾹새 명 [대응어] 뻐꾸기. ¶{뿌꾹새} 우는 소리와 가을 정취가 잘 어울리는고만!
지역 무주.

뿌당구 명 [대응어] 뿌리.
식물의 밑동으로서 보통 땅속에 묻히거나 다른 물체에 박혀 수분과 양분을 빨아올리고 줄기를 지탱하는 작용을 하는 기관. 또는 사물이나 현상을 이루는 근본. ¶{뿌당구까정} 캐 내야 혀. ¶치아 {뿌당구째} 흔들리는디 어째야써요? ¶일제는 우리 민족의 {뿌당구를} 뽑아 버릴라고 혈안이 되야 있었어.
지역 전북.

뿌랑구 명 [대응어] 뿌리.
식물의 밑동으로서 보통 땅속에 묻히거나 다른 물체에 박혀 수분과 양분을 빨아올리고 줄기를

지탱하는 작용을 하는 기관. ¶지집년덜이 시상 물정을 모르고서나 함부로 날뛰려는 못된 꼬라지도 {뿌랑구를} 확 뽑아분져야 쓰겄고.<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뿌러뜨리다 동 [대응어] 부러뜨리다.

단단한 물체를 꺾어서 부러지게 하다. ¶인자, 나도 간댕이가 붓을 때로 붓었응게 배를 째등가, 다리 몽생이를 {뿌러뜨리등가} 맘대로 허시요.

지역 고창.

뿌럽다 형 [활용형] 뿌러버서 [대응어] 부끄럽다.

스스러움을 느끼어 매우 수줍다. ¶처음에 색시를 만날 때 얼굴도 못 들 정도로 {뿌러버서} 시간이 어띠케 어디로 지나갔는 줄도 몰랐어.

지역 전북.

뿌렁가지 명 [대응어] 뿌리.

☞뿌렁이.

지역 전북.

뿌렁이 명 [대응어] 뿌리.

식물의 밑동으로서 보통 땅속에 묻히거나 다른 물체에 박혀 수분과 양분을 빨아올리고 줄기를 지탱하는 작용을 하는 기관. ¶산에 가서 칙 {뿌렁이} 캐다가 끓여 먹으면 몸에 좋단다. ¶어찌나 큰 태풍이 왔는지 아름드리 나무가 {뿌렁이째} 뽑혔어. ¶무수 {뿌렁이를} 깎아 먹으면 얼마나 맛이 있다구 ¶어찌나 양치를 안 허는지 이가 {뿌렁이째로} 썩겄어.

지역 전북.

뿌렝이 명 [대응어] 뿌리.

'뿌리'를 낮잡아 이르는 말. ¶음, 자꾸 번치기만 혀, 자꾸 {뿌렝이가}. 아, 한 번 심으면은 그냥 그 자리가.<2009 전북 임실>

지역 김제, 남원, 무주, 완주, 진안.

뿌리 명 [대응어] 뿌리.

☞뿌렁이.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뿌리다 동 [대응어] 갈다(볍씨).

농작물의 씨앗을 심어 가꾸다. ¶봄에 {뿌려서} 가을에 걷는다. ¶가을에 김장하려고 입추가 되면 밭에 씨앗을 {뿌린다}.

지역 김제, 남원, 순창, 군산, 완주, 임실, 장수, 진안.

뿌사리 명 [대응어] 수소, 황소.

소의 수컷. ¶요짐은 농사를 짓는 사람도 {뿌사리} 잘 다루는 사람이 없어요. 깔끄막은 {뿌사리도} 겁나게 심든게 그런 종 아러라이, 긍게 느그들 내려서 밀어야 쓰것다.

지역 전북.

뿌석다 동 [대응어] 부수다.

☞뿌숙다.

지역 장수.

뿌소다 동 [대응어] 부수다.

☞뿌스다.

지역 순상.

뿌수다 동 [대응어] 부수다.

단단한 물체를 여러 조각이 나게 두드려 깨뜨리다. ¶인자 수라고는 이판사판 교도들이 처들어가서 옥문을 때러 {뿌수는} 수밲이는 수가 없소.<송기숙, 녹두장군> ¶그 놈도 나와서 둘이 도구통 붙잡고 막 웃어대니 도꾸통이 딱 {뿌숴져버렸네}.<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전북.

뿌수어지다 동 [대응어] 바서지다.
☞뿌식어지다. ¶니가 애써 만들어 준 것을 내 동생이 {뿌수어} 버렸다. 미안하다.
지역 고창, 군산, 김제, 부안, 익산, 정읍.

뿌숙다 동 [대응어] 부수다.
단단한 물체를 여러 조각이 나게 두드려 깨뜨리다. ¶빚쟁이들이 무섭더만. 시상에 그 큰집과 살림살이도 다 {뿌숙어} 버리더만. 그 {뿌숙어진} 큰집을 바라보면서 망연자실해 있는 모습 보닝께 또 안쓰럽더라고. 우리 못살게 굴 때는 저것도 당해봐야는디 이렇게 생각했는디도.
지역 남원, 임실, 장수.

뿌스다 동 [대응어] 부수다.
단단한 물체를 여러 조각이 나게 두드려 깨뜨리다. ¶그 냥반이 핑상시에는 참 어질고 참혀. 근디 불의를 보면 힘이 어디서 솟나 엄청 힘이 세. 지난번에는 도둑이 집에 들어온게로 그 도둑 팔뚝을 {뿌서} 버렸당게. ¶건물을 다시 짓기위해 포그레인이 헌 집을 {뿌스워} 버렸다.
지역 전북.

뿌시거지다 동 [대응어] 바서지다.
조금 단단한 물체가 깨어져 여러 조각이 나다. ¶"와따 걸상 {뿌시거져} 뿔갰네."<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뿌시다 동 [대응어] 부수다.
☞뿌스다. ¶앞에 나서야지. 유림이 나서서 어떻게 헐 거여. 그래 개뿔 나서질 않혀 쌓거든. 불러 놓고 가덜 못 했지. 그 비는 {뿌시지} 못하고 여적 그대로 서갖고 있구만."<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전북.

뿌시래기 명 [대응어] 부스러기.
하찮은 사람이나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쩌- 먼디 있는 일가 {뿌시래기는} 믄 소양 잇간디?
지역 고창.

뿌시레기 명 [대응어] 바스라기.
잘게 바스러진 물건. 혹은 하찮은 사람이나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권력 중에서도 아무 실속 없이 넘들이 흘린 {뿌시레기나} 줏어먹는 핫질 중에 핫질이 바로 완장인 게여!<윤흥길, 완장>
지역 전북.

뿌식다 동 [대응어] 부수다.
단단한 물체를 여러 조각이 나게 두드려 깨뜨리다. ¶장터댁은 엉덩이를 벌떡 들었다가 놓았다. 그 바람에 의자가 신음소리를 냈다. "와따 걸상 {뿌식어져} 뿔갰네."<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뿌연허다 형 [대응어] 뿌옇다.
연기나 안개가 낀 것처럼 선명하지 못하고 다소 허옇다. ¶아, 대감님! 대문 열러 갔더니 어떤 초롬동이 하나가 등에 서리가 {뿌연허니} 맞은 채 꿇어 엎어져 있읍니다.<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인자 먹고서 딱 나오는디 나중으 인자 날이 {뿌연허게} 새면 또 나가야는디 거시기가 없어.<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나이를 먹응게 근가 앞이 침침허고 {뿌연허니} 잘 비어. ¶구름낀 하늘처럼 까만챙이가 {뿌연허니} 백내장인 갑다.[김제, 군산}.
지역 정읍, 군산.

뿌지러지다 동 [대응어] 부러지다.
단단한 물체가 꺾여서 둘로 겹쳐지거나 동강이

나다. ¶무단히 놀랜 짐에 한 소리 했다가 끄집헤 가서 작신 {뿌지러지게} 뚜드러 맞고는 꼼짝없이 죽을랑가 모른다고오.<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뿌질러지다 동 [대응어] 부러지다.
☞뿌지러지다.
지역 전북.

뿌질르다 동 [대응어] 분지르다.
단단한 물체를 꺾어서 부러지게 하다. ¶나뭇가지를 {뿌질러서} 불 핑구는 데 썼어.
지역 전북.

뿌허다 형 [대응어] 부옇다.
연기나 안개가 낀 것처럼 선명하지 못하고 조금 허옇다. ¶아침에 산중턱이를 넘어가는데 안개한지나 껴갖고 시야가 엄청나게 {뿌혀}. 그리가지고서 내가 오늘 운전하느라 고생을 쪼까 마니 했당게. ¶자네도 오십은 넹겼지? 인자 나도 나이를 먹응게 앞이 {뿌허니} 잘 안 비여.
지역 전북.

뿍주 명 [대응어] 박쥐.
☞빡쥐.
지역 전북.

뿍쥐 명 [대응어] 박쥐.
☞빡쥐.
지역 전북.

뿐이 조 [대응어] 밖에.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 '기꺼이 받아들이는', '피할 수 없는'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주로 뒤에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 따른다. ¶아침에두 여전히 찬물 한 그릇에 다 무수 시 {조각뿐이} 안 갖다 줘.<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겸암은 자기 집에서 {신뿐이} 안 삼았어. 40년간 버버리를 했단 말이여.<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부안.

뿐지르다 동 [대응어] 분지르다.
단단한 물체를 꺾어서 부러지게 하다. 또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 데 냉정하고 단호하게 자르다. ¶"옛날 옛적으도 수천양반맹인 사램이 있고, 우례맹인 사람도 있었등게비여. 아 그렇게 꽃모가지똑 {뿐질러} 놨으먼 내불지나 말어야제."<최명희, 혼불> ¶"이녀르 예펜네, 들어오기만 혀봐라! 다리몽생이를 작신 {뿐질러 뿌릴라!"}<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뿐질다 동 [대응어] 분지르다.
단단한 물체를 꺾어서 부러지게 하다. ¶한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다리 몽댕이를 작씬 {뿐질고} 말 것이여.
지역 전북.

뿔개이 명 [대응어] 곡괭이.
☞뿔갱이.
지역 전북.

뿔갱이 명 [대응어] 곡괭이.
쇠로 황새의 부리처럼 양쪽으로 길게 날을 내고 가운데 구멍에 긴 자루를 박은 괭이. 주로 단단한 땅을 파는 데 쓴다. ¶{뿔갱이로} 땅을 파 봐.
지역 전북.

뿔괭이 명 [대응어] 곡괭이.
☞뿔갱이.
지역 전북.

뿔구룸허다 형 [대응어] 뿔그름하다.

약간 붉다. ¶콧잔딩이를 모구가 물었는가 {뿔구룸히} 갖고 개럽다. ¶저녁노을이 {뿔구름헌} 것 봉게 내일은 날이 좋겄고만.
지역 남원.

뿔긓다 형 [대응어] 빨갛다.
☞빨갛다. ¶무슨 수단을 꿔몄는고니, 뒤여가서 감나무가 하나가 있는디 감나무다가 떡을 그양 골고루 골고루 맨들어서 붙여놨어. 뒤여 감나무다가 떡을 그냥 맨들어 {뿔근놈}, 노랑놈, 그양 색색으로 맨들어서 붙여 놓고는 또 강아지를 한 마리 장으서 사다가는 무슨 수를 허나 혔는고니.<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정읍.

뿔깨이 명 [대응어] 곡괭이.
☞뿔갱이.
지역 고창.

뿔껑거리다 동 [대응어] 살강거리다.
알갱이가 크고 거칠어 잘 씹히지 않다. ¶보리를 잘 싫어야제 안 그러먼 밥으로 먹을 때 입속으서 {뿔껑거려}.
지역 전북.

뿔껑뿔껑허다 동
알갱이가 크고 거칠어 계속 잘 씹히지 않다. ¶보리밥은 먹을 때 입속으서 {뿔껑뿔껑헌당게}.
지역 전북.

뿔따구 명 [대응어] 뿔.
'뿔'을 낮잡아 이르는 말. ¶뿔따구에 받히다. ¶동생이 소 {뿔따구에} 찔린 뒤로는 외양간 근처에 도 가지 않더라.
지역 전북.

뿔떡 부 [대응어] 뿔록.
물체의 면이 매끄럽지 아니하고 울퉁불퉁한 모양. ¶미영 바람이 빤듯 안 허고. 이리 {뿔떡} 저리 {뿔떡}. 가늘게 나얀디 잘 못헌게.
지역 전북.

뿔뚱허다 형 [대응어] 불퉁하다.
퉁명스럽고 무뚝뚝하다. 또는 툭 불거져 있다. ¶자한티는 말을 못 걸겄어. 좋은맴으로 가서 이야기를 허도 맨날 {뿔뚱허고} 궁게로 내가 무서서 말을 걸겄냐고. ¶여짝이 {뿔뚱허서} 잘 안 굴러가는개비.
지역 전북.

뿔쑥 부 [대응어] 불쑥.
갑자기 불룩하게 쑥 나오거나 내미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또는 갑자기 나서서 어떤 말을 함부로 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아니 오밤중에 뒷간을 갈라고 그런개 갑자기 저기서 희여멀건한 것이 {뿔쑥} 나오잖여. ¶내가 인제 메누리를 딱 앉혀놓구 얘기를 할라니까 아 옆에 앉아있던 아들이라는 놈이 {뿔쑥} 끼여들어가지구 지 마누라를 감싸는 거여.
지역 전북.

뿔쑥뿔쑥 부 [대응어] 불쑥불쑥.
갑자기 여기저기 자꾸 불룩하게 쑥 나오거나 내미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또는 갑자기 나서서 어떤 말을 함부로 자꾸 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그 아저씨는 우리 동네서는 아주 이골났어. 동네 아지매들 모인 곳마다 {뿔쑥뿔쑥} 나타가지고는 기양 헛소리를 했싸코 그러니까는. ¶인제 시어매랑 메누리랑 서로간이 옥신각신하고 있으니까내, 시누이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뿔쑥뿔쑥} 한 마디씩 거드는 거여. 그런개 메누리가 보니까는 시누이가 얼매나 얄밉간디.
지역 전북.

뿔주벅 명 [대응어] 밥주걱.
☞밥주벅.
지역 임실.

뿕다 형 [대응어] 붉다.
빛깔이 핏빛 또는 익은 고추의 빛과 같다.
지역 임실, 장수.

뿕어지다 동 [대응어] 붉어지다.
빛깔이 점점 붉게 되어 가다.
지역 임실, 장수.

뿜다 동 [대응어] 품다.
괴어 있는 물을 계속해서 많이 푸다. 또는 입이나 용기 속에 든 액체를 내뿜다. ¶내 논에 대던 물을 {뿜어} 줄테니까 가물었다고 넘 걱정하덜 말어. ¶찔꺽찔걱 헌 것도 있고 걍 사람똥도 있고 개똥도 있고 그런 쓰레기통 같은 데 가서, "'아 여그는 소가 물을 {뿜고} 일어나는 저기로구나!' 이렇게 말을 하라." 고 그래. 아 그런디 자기가 눈으로 본 뇌에 참말로 걍 뭐 암껏도 아녀.<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맨 처음 콩심이가 남도 말로 "워찌 고렇코롬 생겼다요?" 했을 때 안서방네는 손질하던 빨래 홑이불에 푸우, 물을 {뿜어} 내다 말고 웃음을 터뜨렸다.<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뿟다 동 [대응어] 부수다.
단단한 물체를 여러 조각이 나게 두드려 깨뜨리다. ¶돌을 {뿌스면} 돌가루가 되는 법이라. 긍게로 마음을 다잡고 이 마늘도 자잘자잘해질 때까지 {뿟고} 또 {뿟어라}.
지역 전북.

삐그럭 부 [대응어] 삐거덕.
문이나 의자 따위의 물건을 움직이다가 단단한 부분끼리 닿아서 비벼지거나 쓸릴 때 나는 소리를 흉내내는 말. ¶초봉이는 아궁이 앞에 앉아 지금 방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돼가는가 해서 궁금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삐그럭} 중문 소리에 연달아 뚜벅뚜벅 무거운 구두 소리가 들린다.<채만식, 탁류>
지역 전북.

삐기 명 [대응어] 삘기.
☞삐비 ¶산으 {삐기} 좃으러 가다가 발을 접질렀데야.
지역 김제, 군산, 익산.

삐까리 명 [대응어] 낟가리.
☞베가리.
지역 무주.

삐꾸다 동 [대응어] 삐치다.
성나거나 못마땅해서 마음이 토라지다. ¶그는 사소한 일에도 {삐꾸기} 일쑤다 ¶"동생이 다 먹었다고 그렇게 {삐꾸지} 말고 형님답게 굴어. ¶네가 동생에게 미운 짓을 잘하니까 동생이 자꾸 {삐꾸잖아}. ¶근다고 {삐꾸먼} 되가니? 맘 좋게 히야지.
지역 전북.

삐니 부 [대응어] 뻐꾹.
뻐꾸기가 우는 소리를 흉내내는 말.
지역 전북.

삐다 동 [대응어] 뿌리다(보리).
농작물의 씨앗 따위를 곳곳에 흩어지도록 던지거나 떨어지게 하다. ¶간간히 고를 타고 거기다가 뿌리는데 논보리는 지그믄 머야 널룬 두덕을 만드러요. 그리 그 위에다가 그 종자를 {삐고} 또 애: 흐글 좀 보토를 해야마니 되는데 좀 그게 머야 지그믄 원 바다게다 종자를 {삐고} 머야 노

타리로 허머는 흐기 자동저그로 튀어 너머서 보리를 더깨커럼 되이써요.(간간이 골을 타고 거기다가 뿌리는데 논보리는 지금은 뭐야 넓은 둔덕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위에 그 종자를 뿌리고 또, 에, 흙을 좀 채워 넣어야만이 되는데, 좀 그게 뭐야 지금은 원 바닥에 종자를 뿌리고 뭐야 로터리 경운으로 하면은 흙이 자동적으로 튀어 넘어서 보리를 덮게끔 되어 있어요.)<2007 전북 군산>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삐달구 명 [대응어] 비둘기. ¶요짐에는 {삐달구가} 하도 많이 먹어서 닭 같어.

지역 전북.

삐달쿠 명 [대응어] 비둘기.

☞삐달구.

지역 전북.

삐덜기 명 [대응어] 비둘기.

비둘깃과에 속한 새를 통틀어 이르는 말. ¶엣날이는 {삐덜기를} 집에서 기르기도 했어라우.

지역 전북.

삐덜쿠 명 [대응어] 비둘기.

☞삐달구.

지역 전북.

삐덜키 명 [대응어] 비둘기.

☞삐덜기.

지역 전북.

삐둘구 명 [대응어] 비둘기.

지역 전북.

삐둘기 명 [대응어] 비둘기. ¶광장에 {삐둘기가} 있은게로 아랑 많이 간당게로. {삐둘기} 밥도 줘야제. ¶요짐은 천대받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리도 한때는 {삐둘기가} 도시의 평화를 상징허는 새로 각광을 받은 때가 있었지.

지역 전북.

삐둘쿠 명 [대응어] 비둘기.

☞삐둘구.

지역 전북.

삐둘키 명 [대응어] 비둘기.

☞삐둘기.

지역 전북.

삐드기 명 [대응어] 삘기.

☞삐비.

지역 전북.

삐드덕 부 [대응어] 삐거덕.

☞삐그럭. ¶점심때가 겨워 좀 시장하다고 생각하면서, 서해랑 골목을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던 강화아씨는, 이윽고 길 왼편으로 있는 헙수룩한 대문을 {삐드덕} 밀치고 들어섰다.<채만식, 금의 정열>

지역 전북.

삐득하다 형 [발음] [삐드가다/삐드카다] [대응어] 삐딱하다.

생각이나 물건 등이 바르지 못하고 조금 비뚤어져 있다. 또는 일이 잘 못 되다. ¶그러다가 {삐득해서} 달리 크게 돈들 일이라도 생기는 날에는 그대로 타작마당에서 손을 털고 나서기가 십상이었다.<송기숙, 자랏골의 비가>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삐득하다'는 의태어 '삐득'에 형용사 파생접미사 '-하-'가 연결되어 만들어진 형용사이다. '삐득하다'는 '삐뜩하다'로도 쓰는데

주로 일이 잘 못 되는 경우를 말할 때 쓰거나, 발을 헛디디면서 발이 약간 틀어질 때 주로 사용한다.

삐득허다 형 [발음] {삐드거다/삐드커다} [대응어] 삐딱하다.
☞삐뜩허다. ¶그 사람이 자리에 {삐득헌} 자세로 앉았으나, 다른 사람은 아무 말이 없었다.
지역 전북.

삐들키 명 [대응어] 비둘기.
☞삐둘기.
지역 전북.

삐딱 명 [대응어] 비탈.
산이나 언덕 따위가 기울어진 상태나 정도. 또는 그렇게 기울어진 곳. ¶{삐딱을} 올라가다가 미끄러졌다. ¶사람이 {삐딱을} 올라갈 때는 몸을 좀 앞으로 굽히야 해. ¶저 산에 {삐딱이} 많아서 오르기가 무척 힘들겠다.
지역 무주, 진안.

삐딱구두 명 [대응어] 뾰족구두.
뒷굽이 높고 뾰족한 여자 구두. ¶오랜만에 {삐딱구두} 신응게 넘어지겄어. ¶도둑놈 발보다 더 큰 니가 {삐딱구두} 신었으니 구두가 전디(견디) 나겄냐.
지역 전북.

삐뜩하다 형 [발음] {삐뜨가다/삐뜨카다} [대응어] 삐딱하다.
☞삐득하다. ¶앞에 있던 길남이가 발을 {삐뜩하게} 짚고 서 있으니 사람들이 함부로 덤벼들지 못했다.
지역 전북.

삐뜩허다 형 [발음] {삐드거다/삐드커다} [대응어] 삐딱하다.
물체가 한쪽으로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다. ¶짝다리 짚고 {삐뜩허게} 서 있었지.
지역 전북.

삐리기 명 [대응어] 삘기.
☞삐비.
지역 전북.

삐리적삐리적 부 [대응어] 빠르적빠르적.
고통스러운 일이나 어려운 고비를 벗어나려고 팔다리를 내저으며 큰 몸을 자꾸 움직이는 모양.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아파서 쓰러져 있던 고놈이 {삐리적삐리적} 움직일 때마다 고통이 느껴졌다.
지역 전북.

삐리적삐리적허다 형 [발음] {삐리적삐리저거다/삐리적삐리저커다} [대응어] 빠르적빠르적하다.
고통스러운 일이나 어려운 고비를 벗어나려고 팔다리를 내저으며 자꾸 몸을 움직이다. ¶배때지에 총알이 박혔는디도 {삐리적삐리적하믄서} 안 뒤지드만.
지역 전북.

삐비 명 [대응어] 삘기.
띠의 어린 꽃이삭. ¶아지랑이를 헤치며 한사코 마을 뒷산으로 기어올랐다. 물오름이 한창인 산에는 그나마 생명의 불씨를 지켜줄 최소한의 먹이가 있었던 것이다. 아이들은 앞다투어 {삐비를} 뽑아먹었고, 솔가지를 꺾어 송기를 빨았으며, 솔순을 분질러 입에 몰아넣었다.<조정래, 태백산맥> ¶농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마저 끓일 것이 없어서 누르팅팅하게 부황이 들어가고 있었다. 아이들의 뼈마디 앙상한 삐적 마른 손에는 {삐비가} 한 움큼씩 들려 있었고, 어쩌다 보이는 개들도 굶주릴 대로 굶주려 꼬리를 축 늘어뜨린

채 고샅을 비실비실 걸었다.<조정래, 태백산맥> ¶비녀 느직하게 질렀으며, 매미 머리 나비 눈썹, 은근한 정을 담뿍 머금은 눈빛에, 연지 빰 앵두 입술, 박씨같이 고운 잇속, {삐비같이} 연한 손길, 버들같이 가는 허리에 곱게 수놓은 비단옷을 호리낭창 걸쳐 입고, 연꽃이 나부끼듯, 해당화 조으는 듯, 모란화 벙그는 듯,<최명희, 혼불> ¶달착지근헌 {삐비} 맛을 아는 것을 봉게 나이가 좀 들었는게벼.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부안, 순창, 완주, 임실, 장수, 정읍, 무주, 진안.

삐삐 명 [대응어] 삘기.
☞삐비.
지역 무주, 진안.

삐아리 명 [대응어] 병아리.
☞빙아리.
지역 정읍.

삐애리 명 [대응어] 병아리.
☞빙아리.
지역 전북.

삐야리 명 [대응어] 병아리.
☞빙아리.
지역 전북.

삐엄 의명 [대응어] 뼘.
길이를 세는 단위. 엄지손가락과 다른 손가락을 완전히 펴서 벌렸을 때에 두 끝 사이의 거리이다. ¶우리 손주녀석이 고새 한 {삐엄이} 자라부렀당게. 이뿨 죽겄어.
지역 임실, 남원.

삐염 의명 [대응어] 뼘.
☞삐엄.
지역 남원.

삐지 명 [대응어] 비지.
두부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 ¶거 찬 없을 때는 우거지에다 {삐지} 넣구 푹푹 끓이믄 땡이지.
지역 전북.

삐집다 동 [대응어] 비집다.
맞붙은 데를 벌리어 틈이 나게 하다. ¶말초신갱 겁나 자극헌 냄시에 멀크락이 빠질랑가 딸막딸막 시방 {삐집고} 나올려는 애옥질.
지역 고창.

삐짝 명 [대응어] 한쪽.
어느 한편. ¶애랫을 저그 동네 앞 시얌 가서 물지개로 질러다 부스짝 한 {삐짝으다가} 묻어 논 항아리다가 붓어 놓고 한 쪼박씩 떠다가 쓰든 생각이 간절흐넹.
지역 고창.

삐쭉거리다 동 [대응어] 삐쭉거리다.
비웃거나 언짢거나 울려고 할 때 소리 없이 입을 내밀고 실룩거리다. ¶그는 못마땅하다는 듯이 입을 {삐쭉거렸다} ¶"그런 농판이 이장으로 뽑혔다고 동네 여자들이 뫼기만 하면 입을 {삐쭉거린다고}.".
지역 전북.

삐쭉구두 명 [대응어] 뾰족구두.
☞뾰쪽구두.
지역 전북.

삐쭉하다 형 [발음] [삐쪼가다/삐쪼카다] [대응어] 뾰족하다.
물체의 끝이 점차 가늘어져서 날카롭다. ¶송곳 끝이 {삐쭉하게} 돼 있어 어디를 찌를 때 유용하다.

지역 전북.

빼쭈룸허다 형 [대응어] 삐주룩하다.
물체의 끝이 조금 길게 내밀려 있다. ¶옷장을 본게 머시매 양말이 {빼쭈룸허게} 나왔드라고.
지역 전북.

삐쭉흐다 형 [발음] [삐쭈그다/삐쭈크다] [대응어] 뾰족하다.
계책이나 생각, 성능 따위가 신통하다. ¶으디 가먼 밸 {삐쭉흔} 수 있간디요~ 다 거그서 거그 당게요.
지역 고창.

삐척삐척 부 [대응어] 비척비척.
몸을 바로 가누지 못하고 맥없는 걸음으로 잇달아 쓰러질 듯이 걷는 모양. ¶앉아서 절들 하고 그러잖여? 옥상에 앉아서 보면, 즈이 형이 헌누더기 감발을 하고 {삐척삐척} {삐척삐척}…굶어싼개. 그나저나 즈이 형이 그 사람을 죽이려해도 못 죽여, 큰 사람인디 죽여지간디. <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그래서 갖고 오는디 굶는 놈이, 아침에밥은 잘 먹었지만 상긋(항상) 굶주린 놈이 대근(고단)해서 {삐척삐척} 집에를 온개, 마누라가 기함(기절)을 해야. 도둑질해서 온 가미,(7) 배가 고파서.<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전북.

삐척삐척허다 동 [발음] [삐척삐처거다/삐척삐처커다] [대응어] 비척비척하다.
몸을 한쪽으로 약간 비틀거리거나 가볍게 절룩거리며 걷다. ¶다리를 {삐척삐척허면서} 걷는 것 보니까 어디 다리를 삐었나 보네요.
지역 전북.

삐칠삐칠하다 동
어떤 것이 삐져나오려고 하다. ¶똥이 삐칠삐칠하며 꾸른내가 팍 난단 말이야.
지역 전북.

삐탈 명 [대응어] 비탈.
산이나 언덕 따위가 기울어진 상태나 정도. 또는 그렇게 기울어진 곳. ¶{삐탈이} 매우 심해서 가팔르구만.
지역 군산.

삐틀다 동 [대응어] 비틀다.
힘 있게 바싹 꼬면서 틀다. ¶“얼렁얼렁 모가지 {삐틀드라고}, 다 잡어놓고 놓치는디. 한 사람 앞이 열 마리썩언 묵게 될랑가 어쩔랑가.” 임덕구가 신바람나게 외쳐대고 있었다.<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삐피 명 [대응어] 삘기.
☞삐비.
지역 전북.

삔닥 명 [대응어] 비탈.
☞빈닥.
지역 진안.

삔질거리다 동 [대응어] 빤질거리다.
거죽이 매끄럽고 윤기가 많이 흐르다. 또는 맡은 일을 잘하지 않고 자꾸 게으름을 부리다. ¶구두가 {삔질거릴} 때까지 닦다. ¶아버지의 구두를 {삔질거리게} 닦아 놓으면 용돈 타기가 쉬웠다. ¶동생은 {삔질거리는} 성격이다. ¶여러 사람들이 어울리서 일 헐 때 눈치나 봄서 {삔질거리는} 사람들이 한 두명은 꼭 있드라고. ¶심부름을 안 할려고 이리 삔질 저리 {삔질거리고} 있네.
지역 전북.

삔질삔질 부 [대응어] 빤질빤질.

거죽이 윤기가 흐르고 매우 매끄러운 모양. ¶어매는 고생을 징하게 힜는지 거무죽죽하고 허리도 못 피고 피죽 한그릇 못 먹은 것처럼 생겼도만 그 집 아들래미라는 녀석은 피둥피둥 살도 오르고 {삔질삔질} 윤기 오른 피부로 참 잘생겼어. 몹시 개으름을 피우며 맡은 일을 잘 하지 아니하는 모양 ¶사장 비서라는 사램이 젊은 총각인디 성실한 것 같지가 않고 {삔질삔질} 생긴 상이여. 그것이 쪼께 맴에 걸리더랑게 ¶회식이나 단합대회만 있으면 급한 볼일이 있다고 빠지는 {삔질삔질} 행동하는 위인이 있기 마련여.

지역 전북.

삔질이 명 [대응어] 빤질이.

몸을 요리조리 빼면서 일을 열심히 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주야장천 말은 뻔지르르하게 해 대고 직접 하는 것은 단 한 개도 없능 저 {삔질이} 땜시 내가 정말 못살겄어 ¶저 놈은 어찌나 {삔질인지} 뭘 믿고 시킬 수가 없어.

지역 전북.

삘건하다 형 [대응어] 빨갛다.

밝고 짙게 붉다. ¶{삘건하니} 익은 고추로는 고춧가루와 고추장을 만든다.<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전북.

삘겅 명 [대응어] 빨강.

빨건 빛깔이나 물감. ¶그 서만죽 부인이 으견(意見)이 참 명석허든지, {삘겅} 물감을 사다가 타서 묻어서 놓고, 솔나무가젱이를 하나 끊어다 딱 놓고 부란당이 들와서, 부란당이 지금으로는 절도다, 들와서 모다 털어가지고 나갈쩌그, 뒤서 그 {삘겅} 물을 실실 뿌려.<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완주.

삘겋다 형 [대응어] 멀겋다.

국물 따위가 진하지 아니하고 매우 묽다. ¶옛날 그것이 보리 풀떼죽이여요 그놈을 먹어, 건데기도 없이 멀국만 이르케 {삘:거니} 끓인 놈얼 먹고는 일을 헤요.<지역어 자료 총서, 고창>

지역 고창.

삘구 명 [대응어] 삘기.

☞삐비.

지역 전북.

삘그렇다 형 [대응어] 빨갛다.

피나 익은 고추와 같이 짙게 붉다. ¶점이 {삘그러케} 점이 생기면, 고고시 차꼬 퍼저 막 점점 더.(점이 빨간 점이 생기면, 그것이 계속 퍼져서 막 점점 더). 020<2005 전북 남원> ¶그거슨 저, 애기드른 깐치동온. 그건저 멩지베로 무를 디려야 혀. 노랑물, {삘그런} 물, 남물.(그것은 저 아기들은 색동옷. 그건 이제 명주베로 물을 들여야 해. 놀아물, 빨강물, 남물.)<2009 전북 임실>

지역 남원, 임실.

삘그릏다 형 [대응어] 빨갛다.

☞삘그렇다. ¶애. {예}. 0324 그먼 막:: 솔나무가 막 입쌔기 다 떠러저버려 {삘그르니}.(그러면 소나무가 막 잎이 다 떨어져버려 빨갛게.)<2009 전북 임실>

지역 임실.

삘궇다 형 [대응어] 뻘겋다.

어둡고 진하게 붉다. ¶도리 없지라우~ 똥구녁이 {삘근게} 빌어야제. ¶난나시 고런놈들은 똥구멍이 {삘글} 것이요.

지역 고창.

삘기 명 [대응어] 삘기.

☞삐기.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산과 들을 싸댔다. 산이나 들에 가면 당장 입매 거리가 있었다. 산에는 맹감이 있었도, 들에는 찔레순이며 {삘기가} 있었다.<송기숙, 녹두장군>

지역 군산, 익산.

삘기벗다 동 [대응어] 발가벗다.

알몸이 되도록 입은 옷을 다 벗다. ¶그때는 여름철이었넌디 이 집으 청상과부 메누리가 연못에서 목욕얼 허고 못가에 있넌 정자 안에 {삘기벗은} 채 누어 자고 있넌 것이 눈에 띄었어.<구비문학대계 임실군편> ¶들어가서 술도 묵고 밥도 묵고 한참 잘 놀다가 밤이 돼서 자게 됐넌디 각시는 오성보고 옷을 {삘기벗고} 자라고 허드랴.<구비문학대계 임실군편>

지역 임실.

삘다 동 [대응어] 갈다(볍씨).

농작물의 씨앗을 심어 가꾸다. ¶조금 그게 머야 지그먼 원 바다게다 종자럴 {삐고} 머야 노타리로 허며는 흐기 자동저그로 튀어 너머서 보리를 더깨커럼(조금 그게 뭐야, 지금은 원래 바탁에다 종자를 뿌리고 뭐야 로터리 경운을 하면은 흙이 자동적으로 튀어 넘어서 보리를 덮게끔)<지역어자료 총서, 군산>

지역 고창, 김제,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정읍.

삘삘 부 [대응어] 찔찔.

물줄기나 오줌 따위를 힘없이 흘리는 모양. ¶호랭이가 와서 가만히 보넌개, 겸북대기 속에서 뿌시럭 뿌시럭 하더니만 샛문을 열더니 오줌을 {삘삘} 싸더니, "아이구 춰라, 아이구 춰라, 이렇게 춘디 산신님은 얼마나 추우실꼬."<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완주.

삠뿌리 명 [대응어] 삘기.

띠의 어린 꽃이삭. ¶{삠뿌리} 마냥 여리디 여린 순이를 잊어번질 수가 없지.

지역 전북.

삣다 동 [대응어] 삐지다.

칼 따위로 물건을 얇고 비스듬하게 잘라 내다.

지역 전북.

삥아리 명 [대응어] 병아리.

아직 다 자라지 아니한 어린 닭. 닭의 새끼를 이른다. ¶호랭이도 지말 허믄 온다고 아까 참엔 {삥아리} 오짐맹큼 내리등만 금새 후딱도 먼 디로 퍼질러 갔능게비다. ¶그것도 비아난 맘 따독임서 {삥아리} 눈물 맹큼이나 손 업는 날로 짐장날 늦게 자버논 아짐들 허패 빠진날 되아 간다. ¶미테 사진 봉게로 때까우는 절대 아니고 왜가리, 학, 백로는 {삥아리} 눈물만치 째까 타겼는디-. ¶아니여, 당갈 갖고 알을 까서 {삥아리를} 맹글었응게로 닥이 먼첨이랑게.

지역 고창, 김제, 남원, 순창, 임실, 장수, 진안.





사 조 [대응어] 야
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응, 똑 그렇게 생긴 자리만 {같음사} 삼 년 안에 백 석은 허겄다.<최명희, 혼불> ¶증(정)으로 암만 좇으야 그 놈의 증이 받덜 않드래여. 지금 같{음사} 기계로 파믄 팔태지마는 그라고 해서 손이 펴졌어요. <구비문학, 군산시> ¶그리가지고서 각 정승급들 대감급들이 앉어서 그 골치를 싸매고 있어 그것 푸니라고. 글귀로 {혔음사} 그것 풀을 수가 있는디 아, 이것 백지 하나에다가 새금파리, 백새그마치 그 시개를 놨은게로 어떻게 알것어? <구비문학, 군산시> ¶아 가넌게 장성같은 대문을 탁 굳이 닫고 사는디 이 그 집 일로 {갔음사} 문 끌리라고 소리라도 허지만 내가 가서 아 쉬와서 갔은게, 주인이 암디라도 문 열고 나오드락 기다리고 있는 거여.<구비문학, 정읍시>
지역 전북.

사걸세 (←朔月貰) 명 [대응어] 사글세, 월세.
집이나 방을 다달이 빌려 쓰는 일. 또는 그 돈이나 방. ¶{사걸세} 내는 날인게 은행에 좀 들렀다 와요. ¶집이 세 칸이고 우리 내우간밖에 안 산게 두 칸은 이제 {사걸세로} 내놓는 것이 좋겄소.
지역 전북.

사그달 명 [대응어] 사발.
사기로 만든 국그릇이나 밥그릇. ¶{사그달에} 들어 있는 게 뭐요?
지역 전북.

사글사글허다 형 [대응어] 연하다.
재질이 무르고 부드럽다. ¶우리 야는 {사글사글허}.
지역 전북.

사기다 동 [대응어] 사귀다(친구를).
서로 얼굴을 익히고 친하게 지내다. ¶{사기는} 사람은 있는가?
지역 남원.

사꽤이 명 [대응어] 살쾡이.
지역 전북.

사꾸라 (←<일>sakura[櫻]) 명 [대응어] 벚꽃. ¶그리고 인자는 시방 날씨도 꾸므럭험서 비도 내리고 벚꽃 {사꾸라도} 함박눈 오드께 맥없이 떨어져 강게.
지역 고창.

사나끈 명 [대응어] 새끼(繩).
☞새나끈.
지역 전북.

사나다 형 [대응어] 사납다.

성질이나 행동이 모질고 억세다. ¶심술 {사난} 영감 할멈, 인자 자식도 없고 심술 {사난} 영감 할멈이 유재(이웃)서 살고 있는데<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사나해 명 [대응어] 사나이.

한창 혈기가 왕성할 때의 남자 ¶어떤 말끔한 {사나해가} 하나 들어서요. 들어심서 아 이놈이 내 딸과 결혼을 허겄다고 과일이랑 괴기랑을 내헌티 안기더랑게. 어찌나 당황스러워야지.

지역 전북.

사날 명 [대응어] 사나흘.

사흘이나 나흘. ¶즈그들 놀 저그 내가 숭봤어도 한 {사날} 안 봉게 궁금했능가.

지역 고창.

사낫놈 명 [대응어] 사내놈.

'사내'를 낮잡아 이르는 말. ¶가이내덜의 옷차림 허며 화장은 똑 술집 가이네덜이고요, {사낫놈덜} 중에는 칼 차고 주업을 받는 놈덜도 더러 있다 허니께.<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사내기 명 [대응어] 노래기. ¶{사내기는} 보기만 해도 온몸이 스멀스멀해지고 기분이 나쁘다.

지역 전북.

해설 사니기는 사내기의 2음절 모음이 고모음화된 것이며 싸내기는 사내기가 경음화된 것이다. 사내기의 어원은 찾을 수 없지만, 노래기의 어원이 '놀여기'로 파악되는데 고창 지역에서 사용되는 사녀기는 이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관련 복합어어 '사내기날', '사내기뱅이' 등을 들 수 있다. '사내기날'은 이월초하루로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노래기를 퇴치하는 날이다. 표준어로는 '노래기날'인데 전주에서는 사내기날로 부른다.(한국세시풍속사전) '사내기뱅이'는 전북 정읍에서 솔가지를 지붕에 던지는 풍습이 있는데 이 풍습을 이르는 말이다.(한국세시풍속사전).

사내끼 명 [대응어] 새끼(繩).

볏짚 따위로 꼬아 만든 줄. ¶집또 하면 업넌 사라면 사다가 씨기도 허고 그레쩨. {사내키도} 꽈다가 팔먼, 사다가 씨고.(짚도 아먼, 없는 사람은 사다가 쓰기도 하고, 그랬지. 새끼도 꼬아다 팔면, 사다가 쓰고.)<2005 전북 남원> ¶지프락 한 다발 떡 추겨갖고는 방으다 들으다 놓고는 인자 둘이 {사내키를} 꼰다 늙은이 허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눈이 내리는 밤이면 어른들이 모여 {사내끼를} 꼬며 시간을 보냈다.

지역 군산, 남원, 부안, 완주, 익산, 정읍, 진안.

사녀기 명 [대응어] 노래기.

☞사내기.

지역 고창.

사니기 명 [대응어] 노래기.

☞사내기.

지역 남원, 순창, 임실.

사드래 명 [대응어] 사다리.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을 오르내릴 때 디딜 수 있도록 만든 도구 ¶엄니가 {사드래를} 타고 지붕에 올라가는디 어찌나 불안하던지, 덜컹덜컹 소리에 내가 침을 꿀꺽꿀꺽 삼켰당게. 아부지가 없는 설움에, 울 엄니 안쓰러움에 환장허겄당게. ¶시렁에 마늘 매달아야 하니 얼른 {사드래} 가져오너라. ¶생강굴을 내려가는디 {사드래}가 뿐질어져서 병원을 쪼꼼 댕겼지. ¶지붕을 올라가야하니 {사드래를} 가져오너라.

지역 고창, 완주.

사또 뜬 뒤에 나발 불기 【관용표현】
제때 일을 안 하다가 뒤늦게 서두르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 ¶지 아모리 생각혀 봤자 {사또 뜬 뒤에 나발 불기고} 죽은 자석 붕알 만지기여.<윤흥길, 빛가운데로걸어가면> ¶{사또 뜬 뒤에야 나팔 불어봤자} 말짱 헛일이여. 막차라도 탈라면은 서둘러야 되야.<윤흥길, 빛가운데로걸어가면>
지역 전북.

사랑 명 [대응어] 살강.
그릇 따위를 얹어 놓기 위하여 부엌의 벽 중턱에 드린 선반. ¶찬장이 없은게로 그륵을 씻처 갖고 {사랑에} 차곡차곡 올려놓았지
지역 전북.

사랑부리 명 [대응어] 씀바귀. ¶봄에 밭으 가장자리나 풀밭에 가믄 널리고 널린 것이 {사랑부리여}.
지역 군산, 익산.

사랑칙간 (←사랑廁間) 명 [대응어] 바깥 변소.
집 밖에 대소변을 보도록 만들어 놓은 곳. ¶탈이 나서 밤새 {사랑칙간얼} 들락거렸어. ¶집안 사람들은 안에 있는 칙간에서 볼일을 보고 하인들이나 길 댕기는 사람들은 {사랑칙간에서} 볼일을 봤지.
지역 전북.

사램 명 [대응어] 사람. ¶그 자네가 어디 사는 {사램이고}, 승명(성명)이 뭣이간디 우리집 문전이 삼 년을 댕겨 어쩐 일인가?<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어떤 {사램}이 장개를 갔는디 옛날부터 그렇게 의심을 둬. 신방을 딱 채려줬는디, 아 각시가 골방 문 앞의 앉었고, 신랑이 문 앞이 앉었는디,<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아앗따아……겁나데에, 참말로오. 그날 대실서 온 음석들 보고 안 놀랜 {사램}이 있었이까아? 지체 있는 집안은 달르데잉.<최명희, 혼불>
지역 김제, 남원, 무주,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사리 명 [대응어] 놀이.
일정한 규칙 또는 방법에 따라 노는 일.
지역 전북.

사리다 동 [대응어] 사르다.
불에 태워 버리다. ¶오래된 사진을 불에 {사린게로} 마음이 많이 아프도만.
지역 남원, 부안, 완주, 익산, 임실.

사마구 명 [대응어] 버마재비.
사마귓과의 곤충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사마구를} 잡아서 손에 난 사마구를 먹게 허면 사마구가 없어진다구 혔어.
지역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고창, 군산.

사마기 명 [대응어] 사마귀.
피부 위에 낟알만 하게 도도록하게 돋은 반질반질한 군살. ¶손에 {사마기가} 나면 여간 불편하지 않아.
지역 고창.

사무 (←紗帽) 명 [대응어] 사모.
고려 말기에서 조선 시대에 걸쳐 벼슬아치들이 관복을 입을 때에 쓰던 모자. 검은 사(紗)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흔히 전통 혼례식에서 신랑이 쓴다. ¶{사무를} 쓰고 장가를 가는고만.
지역 무주.

사무지다 (四무지다) 형 [대응어] 네모지다.
네모 모양으로 되어 있다. ¶공책은 {사무졌지}.
지역 전북.

사발다랭이 명 [대응어] 마지기
벼씨 한 말의 모 또는 씨앗을 심을 만한 넓이.
지역 완주.

사분하다 형 [대응어] 짓궂다.
장난스럽게 남을 괴롭고 귀찮게 하는 데가 있다. ¶저 애가 하는 짓이 정말 {사분해서} 어치게나 밉상스런지 모르겠네
지역 전북.

사삭떨다 동
자잘하고 밉살스럽게 행동이나 말을 잇따라 하다. ¶난중에 알고 봉게 후배되는디, 알량헌 뭇조까 부탁을 헐라고 헌다 허며 또 {사삭떨며} 알롱거려.
지역 고창.

사시랑쥐 명 [대응어] 생쥐.
쥣과의 하나. ¶{사시랑쥐같이} 귀연 구석도 있고 마이.
지역 전북.

사심 명 [대응어] 사슴. ¶{사심}<2009 전북 임실> ¶나는 나는 나는 다른 짐생이 아니라 지하에서 가장 잃고 자식 잃고 혈혈단신이 이내 몸이 애진 복진 애타다가 주려 죽고 굶어 죽은 용녀 부인 죽은 넋이가 {사심이가} 되어왔소<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임실, 정읍.

사쓰 (←shirt) 명 [대응어] 셔츠.
서양식 윗옷. 양복저고리 안에 받쳐 입거나 겉옷으로 입기도 한다. ¶거그다 등짝이 척척 헝게 난닝구 {사쓰도} 속빤쓰도 땁으로 범벅 되어 솔차니 멍처 버렸당게요~. ¶긍게, 나도 한 승질 헝게 매급씨 서대다가 비 마짐서 해찰 험서 난닝구 {사쓰와} 속빤쓰까장 싹 멍처 버렸당게요.
지역 고창.

사양꾼 명 [대응어] 사냥꾼.
사냥하는 사람 또는 사냥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사냥을 잘 허고 싶으믄 저짝 집이 수염난 사람을 찾어가 봐. 그 냥반이 한 때 유명헌 {사양꾼이었댜}.
지역 전북.

사어 명 [대응어] 상어.
지역 전북.

사우 명 [대응어] 사위(지칭).
딸의 남편을 이르는 말. ¶절에를 올라가서 부처님한테 비는 말이, 그 딸을 키우면서 비는 말이, '내 딸을 어쩌던지 어사 {사우만} 얻게 해도라.' 고 밤낮 빈단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오늘은 기어코 가서 자네 아들 우리 {사우} 삼세, 우리 딸허고 집으 아들허고 내우간(內外間) 삼세.<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하먼, {사우} 사랑 장모님께.<조정래, 태백산맥> ¶우리 집 {사우는} 아들보다 더 잘혀.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 부안, 군산, 완주, 익산.

사운거리다 동 [대응어] 살랑거리다.
'풀벌레, 꽃, 대숲, 가랑비' 등이 작은 소리를 내며서 흔들리다. ¶빗방울에 싸여서 山茱萸에 내리면 山茱萸꽃 피여서 {사운거리고}<서정주, 내 그대를 사랑하는 마음은> ¶겨울바다로 뻗은 그 푸른 가지 솨…솨… 그 가지와 함께 {사운거리고서}<서정주, 雨中有題> ¶사르락사르락 댓잎을 갈며 들릴 듯 말 듯 {사운거리다가도}, 솨아 한쪽으로 몰리면서 물 소리를 내기도 하고,<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사운대다 동 [대응어] 살랑대다.

'풀벌레, 꽃, 대숲, 가랑비' 등이 작은 소리를 내며서 흔들리다. ¶철새 나는 하늘을 무서리 나려 풀버레 {사운대는} 밤은 정작 고요도 한저이고 <신석정, 秋夜長古調> ¶어느날 내가 산수유꽃 나무에 말한 비밀은 산수유 꽃속에 피어나 {사운대다가}… 흔들리다가… 落花하다가…<서정주, 시집>

지역 전북.

사운사운 부 [대응어] 살랑살랑.

바람이 가볍게 자꾸 불거나, 나뭇잎 등이 이리저리 자꾸 움직이는 모양. ¶막 산수유꽃들이 {사운사운} 노랗게 잎도 없는 마른 가지에서 피어날 무렵<최명희, 혼불> ¶궂은비로 추적추적 내리기도 했고, 가랑비로 {사운사운} 날리거나 이슬비로 가늘가늘 뿌리다가 느닷없이 천둥이 울리고 번개를 치며 폭우를 퍼부어 대기도 했다.<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사자맥이 (使者맥이) 명 [대응어] 사자막이.

병이 심한 사람에게 저승사자가 들러붙지 못하게 하는 굿. ¶{사자맥이를} 허야 오래 살지 않겄어?

지역 전북.

사재 (←獅子) 명 [대응어] 사자(獅子). ¶{사재랑} 호랭이랑 싸우먼 누가 이길까?

지역 전북.

사지개 명 [대응어] 삽살개.

털이 복슬복슬 많은 개 품종의 하나. 민요에서는 크고 강한 좋은 개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 터 명당 둘러보니/좌청룡 우백호요/남주작 북현무로구나/사램이 나면 문쟁이 나고/말을 기르면 용마가 되고/소를 기르면 억대가 되고/개를 기르믄 {사지개} 되고/닭을 기르면 봉학이 될 것이니/어찌 아니가 좋을소냐/섬겨들이자 고사로다(진안 고사풀이-진안군 마령면 계서리 서산)<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진안.

사진깍 명 [대응어] 액자.

그림, 글씨, 사진 따위를 끼우는 틀. ¶{사진깍으다} 느가꼬도 오고. 사진 놓는 각 있어. ¶시방 {사진깍} 사진 놓는 각구 없어? ¶사진 찍은 놈 거그다 하나 느서 {사진깍으로} 히 갖고 와.

지역 전북.

사창구 명 [대응어] 새끼(繩).

볏짚 따위로 꼬아 만든 줄. ¶겨울에는 {사창구} 꼬는 게 일이지.

지역 전북.

사챙구 명 [대응어] 새끼(繩).

☞사창구.

지역 전북.

사키 명 [대응어] 새끼(繩).

볏짚 따위로 꼬아 만든 줄. ¶멍석을 멀로 짜긴 {사키로} 짜지.

지역 순창.

사타구 명 [대응어] 사타구니.

두 다리의 사이. 표준어와 달리 비하의 의미로 쓰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게로 코를 갖다가 그양 거꾸로 그 사람 막 대가리를 {사타구다가} 집어넣고시는, 내 문지른게 아 그냥 숨이 막 허버렸네.<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산길을 많이 걸었었더니 {사타구가} 아프구나.

지역 남원, 무주, 정읍.

사타리 명 [대응어] 사타구니.

두 다리의 사이. 표준어와 달리 비하의 의미로 쓰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요즘에는 되려 중을 보고 몇 십번이라도 대강이를 숙여야만, 이 엄청난 강보리밥 한 덩어리라도 겨우 어더 먹을똥 말똥 하단 말야. 아주 처자 {사타리} 불알나게 변햇지.<김정한, 옥심이>
지역 전북.

사탄 명 [대응어] 샅.
두 다리의 사이. ¶{사탄을} 잘 시쳐 줘라.
지역 군산.

사태 명 [대응어] 사타구니.
두 다리의 사이. ¶그놈은 {사태를} 잡고 머 하는가 몰라.
지역 고창.

사태구니 명 [대응어] 사타구니.
☞사타구니.
지역 전북.

사태기 명 [대응어] 사타구니.
두 다리의 사이. 표준어와 달리 비하의 의미로 쓰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저걸 다 키워갖고 시집도 못 보내고 인자 영 병이 되었거든. {사태기서} 소리가 나니 누가 그걸 데리고 살 것이여. <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그러더니 딱 반드시 눕혀 놓고는 이놈이 덥쳐. 그래 {사태기를} 갖다가 밀어 넣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완주, 정읍.

사태이 명 [대응어] 사타구니.
☞사탱이.
지역 고창.

사탱이 명 [대응어] 사타구니.
두 다리의 사이. 표준어와 달리 비하의 의미로 쓰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손자놈이 앞으 따러 가다가는 살며시 할아버지 {사탱이} 밑으로 빠져 버려요.<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시애비란 놈은 걍 걍 메누리 저 {사탱이다} 그냥 대그박 처박고 걍 죽겼다고 그러고. <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임실, 군산, 정읍.

사토리 명 [대응어] 사투리.
어느 한 지방에서만 쓰는, 표준어가 아닌 말. ¶나는 {사토리} 잘 몰라요. ¶여그는 거진 {사토리} 쓰는 사람들이지.
지역 고창, 임실.

사파리 명 [대응어] 불가사리. ¶여기는 동해나 남해만큼 {사파리} 피해가 없어. ¶동해나 남해는 {사파리가} 많다고들 허는데, 바닷물에 밀려오는 {사파리를} 가끔이나 볼까, 안그러면 보기가 힘들어.
지역 고창.

사헐 명 [대응어] 사흘, 초사흘.
삼 일의 기간 또는 초사흗날.
지역 완주.

삭가지 명 [대응어] 삭정이.
살아 있는 나무에 붙어 있는, 말라 죽은 가지. ¶{삭가지는} 꺾어 줘야제 안 글면 나무가 뵈기도 싫고 안 좋아.
지역 전북.

삭다라지 명 [대응어] 삭정이.
살아 있는 나무에 붙어 있는, 말라 죽은 가지. ¶저, 저거 보이는 거가 {삭다라지지}.
지역 전북.

삭다리 명 [대응어] 삭정이.

살아 있는 나무에 붙어 있는, 말라 죽은 가지. ¶{삭다리라고도} 허고 삭가지라고도 혀.

지역 남원, 순창, 임실.

삭달가지 명 [대응어] 삭정이.

살아 있는 나무에 붙어 있는, 말라 죽은 가지.

지역 임실.

삭대기 명 [대응어] 삭정이.

살아 있는 나무에 붙어 있는, 말라 죽은 가지.

지역 진안, 무주.

삭동가지 명 [대응어] 삭정이.

살아 있는 나무에 붙어 있는, 말라 죽은 가지. ¶{삭동가지는} 가지만 죽은 거. 삭동가지 비어다 때코.

지역 고창, 부안.

삭되기 명 [대응어] 삭정이.

☞삭대기.

지역 진안.

삭두가지 명 [대응어] 삭정이.

살아 있는 나무에 붙어 있는, 말라 죽은 가지.

지역 장수.

삭디기 명 [대응어] 삭정이.

☞삭대기.

지역 무주.

삭정가지 명 [대응어] 삭정이.

☞삭젱이.

지역 익산.

삭젱이 명 [대응어] 삭정이.

살아 있는 나무에 붙어 있는, 말라 죽은 가지. ¶깡 마른 {삭젱이는} 불쏘시개로 좋아.

지역 군산, 완주, 익산.

삭후다 동 [대응어] 삭히다.

김치나 젓갈 따위의 음식물을 발효시켜 맛이 들게 하다. ¶젓갈을 {삭훴어}.

지역 고창, 김제, 군산,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임실, 장수, 정읍, 진안.

산괭이 (←山괭이) 명 [대응어] 도둑고양이.

사람이 기르거나 돌보지 않는 고양이. ¶{산괭이가} 울다

지역 무주.

산기슥 (山기슥) 명 [대응어] 산기슭.

산의 비탈이 끝나는 아랫부분. ¶{산기슥에} 도착하다

지역 전북.

산기슬 (山기슬) 명 [대응어] 산기슭.

산의 비탈이 끝나는 아랫부분. ¶{산기슬에} 도착하다

지역 전북.

산날망 (←山날망) 명 [대응어] 산마루.

산등성이의 가장 높게 도드라진 곳. ¶동네 {산날망에} 올라서면 시내 바닥이 훤히 보이지. ¶이 동네 동북쪽에 있는 복골이라는 {산날망에} 가보면 배를 맸던 자리가 있어요.<구비문학대계 정읍> ¶우리는 가쁜 숨을 쉬며 {산날망까지} 올라갔어. ¶{산날망에} 올라서니 바람이 참 시원하구나.

지역 전북.

산내키 명 [대응어] 새끼(繩).

볏짚 따위로 꼬아 만든 줄. ¶그노멀 쑤쑤때기럴 이르캐 핻쓰먼, {산내키}로 {산내키} 꽈가꼬 그

심싸리다가 인재 산내키럴 다라매가꼬.(그러면 이제, 그 놈을 수숫대기를 이렇게 했으면, 새끼로 새끼 꼬아가지고 그 힘살에다가 이제 새끼를 달아매가지고.)<지역어 자료 총서, 무주> ¶지블 요만치썩 끄너, 끄너 가꼬는 {산내키다가} 이르케, {산내키를} 이르케 두 개가 이르케 펴개져가꼬 꼬와쓰먼 인제 여기를 {산내키를} 버러지게 히가꼬 졸졸졸졸 허고 인자 저 낙꽁댕이로 끄터리다가 다라가꼬는 그짜그서 요로케 요로케 내두르면 이눔제 이 {산내키} 펴진누미 인제 꽈짐서 고시랭이라는 노미 봉올봉올하게 조다 이서져. <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가마니를 짤라면 {산내키}로 씨줄을 걸고 지푸래기로 날줄을 걸어 짜는디 쉽게 헐 수 있는 일은 아녀. ¶짚으로 {산내키를} 꼬아서 끈으로 사용하자.
지역 남원, 완주, 임실, 무주.

산대미 명 [대응어] 삼태기.
흙, 쓰레기, 거름 따위를 담아 나르는 데 쓰이는 새끼나 싸리 따위로 만든 기구.
지역 전북.

산되아지 (山되아지) 명 [대응어] 산돼지. ¶{산되아지를} 잡다
지역 정읍, 진안.

산뒤아지 (←山뒤아지) 명 [대응어] 산돼지.
☞산되아지.
지역 진안.

산등서이 (←山등서이) 명 [대응어] 산등성이.
☞등서이 ¶그때 그들이 쉬고 있는 골짜기의 입구와 {산등서이} 쪽에서도 총소리가 짜글짜글 골짝기를 흔들었다.<문순태, 피아골>
지역 전북.

산딸광 (←山딸광) 명 [대응어] 산딸기. ¶{산딸광을} 따 먹고 다니면 따로 밥을 먹을 필요가 읎어.
지역 익산.

산몬댕이 (山몽댕이) 명 [대응어] 산꼭대기.
산 위에 가장 높게 튀어나온 곳. ¶{산몬댕이} 넘어오는디.
지역 전북.

산봉오리 (山봉오리) 명 [대응어] 산봉우리.
산에서 뾰족하게 높이 솟은 부분. ¶저 산 하나 넘어가야 있는디, 섣달 그믐 날 저녁을 캄캄한 밤을 산을 넘어가는디, {산봉오리} 가서 여자 하나를 젊은 여자를 만났어.<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부안.

산빽대기 (山빽대기) 명 [대응어] 산꼭대기.
산의 맨 위. ¶들어가닌게 딱 허니 오그려서 짋어지고는 저 산이로 올라가드래. {산빽대기로}. <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저 새기허고 사는 제일 {산빽대기} 담장 잘 히놓고 그 장독으 가서 이 양반 임자라고. 거그가 들어갈 땡이라.<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산빽대기에} 올라 서 아래를 보니 정말로 경치가 아름답구나.
지역 군산, 정읍.

산뻥대기 (山뻥대기) 명 [대응어] 산꼭대기.
산의 맨 위. ¶속으로 허시구설랑 어디서 근고 허고 가만히 둘러 보니까 바로 우게서 높은 {산뻥대기서} 아주 훌륭한 곳에서 소리가 나.<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바짝 따라가는디 인자 {산뻥대기} 올라가서는 이케 내려가든게벼.<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그 참 어느 산이 되았든가 높직헌 {산뻥대기를} 올라가서는 앉어서 사방을 망재놓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목이 타 죽겄으

니까 어디가 물 쪼께 떠다도라." 이놈의 것 사방으로 돌아 댕기고 어디가 물도, {산뽕대기} 가서 무슨 물이 있어야 물을 찾지.<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정읍.

산쌈 명 [대응어] 쌈.
고기, 밥, 반찬 따위를 상추, 배추, 깻잎 따위에 싸서 먹는 음식. ¶푸성귀로 {산쌈도} 히 먹고 너물도 히 먹었지.
지역 남원.

산써르매 (山써르매) 명 [대응어] 눈썰매.
☞산썰매.
지역 전북.

산썰매 (山썰매) 명 [대응어] 눈썰매.
산비탈 따위의 눈 위에서 타는 썰매. ¶동네 아이들은 눈이 오닌께 신나서 {산썰매를} 끄시고 저쪽 언덕에 갔구만. 아마 신나게 타고 있을 것이여.
지역 전북.

산아래 (山아래) 명 [대응어] 산기슭.
산의 비탈이 끝나는 아랫부분. ¶저 {산아래} 문복쟁이가 영탑니다 문복쟁이나 찾어가 사주팔자에 자손이 있는가 없는가 문복이나 솟아봅시다<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정읍.

산자 명 [대응어] 탄저병. ¶비 와가꼬 꼬추가 다 {산자} 걸렸어.
지역 전북.

산자병 명 [대응어] 탄저병. ¶{산자병} 걸렸다고 그려. 꼬추가 이렇게. 근게 이렇게 다 짤라네.
지역 전북.

산중탈 (山中탈) 명 [대응어] 중턱.
☞산중툴.
지역 전북.

산중터리 (山中터리) 명 [대응어] 중턱.
산의 중간쯤 되는 곳. ¶{산중터리에} 삐죽한 바우 하나가 뵈지?
지역 전북.

산중툴 (山中툴) 명 [대응어] 중턱.
산의 중간쯤 되는 곳. ¶{산중투르다} 지블 전네(중턱에다 집을 지었네)<2009 전북 임실>
지역 임실.

산지락 (山지락) 명 [대응어] 산비탈.
산에 가파르게 기울어져 있는 곳. ¶옛날에는 하도 나무를 많이 헌게로 주변 산에는 나무가 없어. 그리서 먼 {산지락에} 가서 나무를 많이 했어.
지역 전북.

산지슬 (山지슬) 명 [대응어] 산기슭.
산의 비탈이 끝나는 아랫부분. ¶허리부테 두른 양은 절로 생긴 {산지슬에} 허리 안개 두른 것고 북 나드는 저 기상은 피징강도 건넌 기상 대동강도 건넌 기상<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남원.

산질 (山질) 명 [대응어] 산길.
산에 나 있는 길. ¶그러니 그 {산질을} 타고 약 십리를 걸어서 올라가면, 참 아주 첩첩 산중을 들어갈 수가 있다.<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아, 예전부터 지관이란 {산질을} 많이 탄 것이라 마구 가는디.<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나가 나이 예리다고 시퍼보는갑는

디, 여그서 나보담도 {산질} 잘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봇씨요!<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부안, 완주.

산짓돌 명 [대응어] 비석.
돌로 만든 비. 또는 비석 옆에 있는 비슷한 기능의 돌. ¶엄정승 묘가 있는디 난리가 나갖고 싹 덮어버렸어. 근게 자손들이 (그 묘를) 찾을라고 헌게 찾을 수가 없어. 근디 수백 년이 되얐는디, 중간이 비가 많이 와갖고 산태미가 났는디 엄정승 차짓돌이 거그서 나와버렸어. 저 같이 {산짓돌} 나와 갖고 같이 먹는 식수, 거그다가 놓았오. {산짓돌을} 놓고 씌요.
지역 전북.

산태 명 [대응어] 삼태기.
☞산태미[1].
지역 임실.

산태꺼랭이 명 [대응어] 삼태기.
☞산태미[1].
지역 임실.

산태미[1] 명 [대응어] 삼태기.
흙, 재, 거름 따위를 담아 나르는 데 쓰는 싸리나, 새끼 따위로 만든 기구. ¶자네도 {산태미} 들고 개똥을 줏고, 나도 {산태미} 들고 개똥을 줏고, 어머이도 {산태미} 들고 개똥을 아침마독 줏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밭에서 돌을 줏어 내는디는 {산태미가} 제일이지. ¶감자를 {산태미에} 담아서 옮겨라.
지역 고창, 군산, 남원, 무주, 군산, 완주, 임실, 장수, 진안, 순창, 익산, 정읍.

산태미[2] (山태미) 명 [대응어] 산사태.
폭우나 지진, 화산 따위로 산 중턱의 바윗돌이나 흙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현상. ¶중간이 비가 많이 와갖고 {산태미가} 났는디 엄정승 차짓돌이 거그서 나와버렸어.
지역 전북.

산토깽이 (山토깽이) 명 [대응어] 산토끼. ¶웃밭으 콩잎을 {산토깽이들이} 다 뜯어먹었어. ¶{산토깽이} 고기가 얼마나 맛있는지 아니?
지역 임실, 군산.

살가지 명 [대응어] 살쾡이. ¶밤마다 닭 한마리씩 없어지는디 {살가지} 소행이 분명허지.
지역 전북.

살곰이 부 [대응어] 살그미.
남이 알지 못하게 살며시. ¶{살곰이} 문을 열어 봤어. ¶밤 늦게 집에 들어갈 때는 {살곰이} 들어가야지.
지역 전북.

살과지 명 [대응어] 살쾡이.
☞살괘이.
지역 전북.

살괘이 명 [대응어] 살쾡이.
지역 전북.

살근이 부 [대응어] 살그미.
☞살금이. ¶한동안 숨어 지내며 야음을 틈타 밤손님처럼 {살근이} 집을 다녀가곤 하던 명주누나가 검정 치마 흰 저고리 차림에 붉은 완장을 왼팔에 두른 채 벌건 대낮에 동네 안에 당당히 모습을 드러냈다.
지역 전북.

살금이 부 [대응어] 살금이.
남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가만히. ¶한동안 잠적했던 명주누나가 야음을 틈타 밤도둑처럼 {살금

이} 집에 다녀가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 무렵이었다. ¶"아멘!" 아무래도 조마조마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어 부월은 {살금이} 실눈을 떠보았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 감람나무 선지자님 귓전에 대고 {살금이} 천기를 누설허신 말씸이니깨 성도들은 댕연허니 믿고 따러야지."
지역 전북.

살레 명 [대응어] 사레.
음식, 물 따위를 잘못 삼켜 기관(氣管) 쪽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갑자기 기침처럼 뿜어져 나오는 기운. ¶밥 먹다 너무 놀래가지고 {살레} 들릴 뻔했어.
지역 남원, 임실.

살르다 동 [대응어] 사르다.
불에 태워 버리다. ¶끌러 보인개 담배 뭉치여. 그 놈을 갖다 정지다 불 {살라} 버리고 잠을 자는 둥 마는둥 허.<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그 신 승상 아들을 화약 염초 힛, 불 {살라서} 쥑여 번졌다고 우리는 인정을 혔는디, 이것이 안 죽고 살아 왔으니 이거 어떻게 허나. <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김제, 부안, 남원, 정읍, 순창, 군산, 완주, 장수, 진안, 고창.

살망살망 부 [대응어] 살금살금.
긴 다리를 가볍게 들어 걷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앗따, 되얐다. 저 집이 가서 한번 물어 보자. 싶어서 이 나무꾼이 {살망살망} 다가가 봉게로 몬지가 케케이 찐 오두막 툇마루에 하얀 할마이가 하나 꼬부라지게 납짝 앉어 갖꼬는 머리를 싸악 싹 빗고 있드래요.<최명희, 혼불> ¶"하이 집안 오늘 저녁 제산가부다." 이놈으 떡시루를 {살망살망} 들고는 방으로 갖고 왔고 와 딱 놓고는, 홑이불을, 이불을, 혼이불을 싹 쥐 뜯어 버리고는 혼이불에다 덜퍽! 싸 놓고는,<구비문학, 남원시> ¶그래 자기 딸방에서 아파 죽는다고 고함소리가 나거든. 그러니께 {살망살망} 나와 봤어. 보니까 문을 열어 젖히고는 사위가 배아파 죽는다고 막 고함을 질러.<구비문학, 완주군> ¶{살망살망} 걸어대니면 발바닥에 티눈이 박혀 성가시다는 아여.<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살망이 부 [대응어] 살그미.
남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살며시. ¶장난혈 적에 {살망이} 가서 사람 많이 놀래주고는 했지
지역 전북.

살맞다 형
서로 생각이 같아 마음이 맞는 데가 있다. ¶친구로 사구려면 {살맞아야지} 그라잖음 못혀.
지역 전북.

살맹이 부 [대응어] 살며시.
남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가만히. ¶가만히 듣고 있다가는, 그집 정제에 가서 {살맹이} 식도를 하나 갖다 품에다 안고는, 아침밥을 잘해 준 놈을 먹고, 선생님허고 애들은 거기 있으라고 허고는, 지가 가서 칼을 탁 여자한데 들이대면서.<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빨랫줄으서 넘의 옷까지 몰르고 걷어 왔응게 어서 가서 {살맹이} 놓고 와라. 매급시 가슴이 똑딱거리네.
지역 남원.

살양발 명 [대응어] 스타킹.
신축성이 큰 나일론 따위로 만들어서 신으면 늘어나서 살이 비쳐 보이는 양말. ¶{살양발} 한 켤레 ¶살이 다 보인게 {살양발이라} 헌개비여.
지역 전북.

살점배기 명 [대응어] 살점.
큰 고깃덩어리에서 베어낸 살 조각, 몸에서 떨어

져 나간 살 조각. ¶사람이 기차라든가에 치면 {살점배기가} 여기 저기 묻어 있지. 그러면 차마 보들 못허요. ¶못 먹고 살 적으는 돼야지 {살점배기} 한 점 먹을라고 오만 지랄을 다 했는디.
지역 전북.

살쨱 부 [대응어] 살짝.
표가 나지 않게 넌지시. ¶도둑놈이 잠든 틈을 타서 이불을 살쨱 떠들러 봤는디 아 거그에 보화가 있드라는 말여.
지역 전북.

살쨱이 부 [대응어] 살짝.
표가 나지 않게 넌지시. ¶{살쨱이} 넘어가서 누고 오자. ¶{살쨱이} 일어날라고 몸살헐 때게 들어가서 영갬이 떠들어 주었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먼길 떠나는디 보태쓰라며 {살쨱이} 질러주신 할머니의 귀한 쌈지돈이 자꾸 맘에 걸렸다.
지역 김제, 남원, 부안, 순창, 완주, 정읍, 진안.

살쾌이 명 [대응어] 살쾡이.
☞살괘이.
지역 전북.

살페 명 [대응어] 밭둑.
밭과 밭 사이의 경계를 이루고 있거나 밭가에 둘려 있는 둑. ¶{살페}로 밭들을 구분하는디.
지역 임실.

살푸시 부 [대응어] 살짝, 살포시.
표가 나지 않게 살며시. ¶{살푸시}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엄마는 아기가 깰까봐 {살푸시} 일어나 밖으로 나가셨다.
지역 순창.

살풋하다 형 [발음] [살푸다다/살푸타다] [대응어] 설핏하다.
잠깐 나타나거나 떠오르는 듯하다. ¶소녀는 마타리꽃을 양산 받듯이 해 보인다. 약간 상기된 얼굴에 {살풋한} 보조개를 떠올리며. 다시 소년은 꽃 한 오큼을 꺾어 왔다.<황순원, 소나기>
지역 전북.

삵아지 명 [대응어] 살쾡이. ¶어젯밤에 {삵아지가} 와서 우리집 닭을 잡아갔다오.
지역 전북.

삶다 동 [대응어] 묶다.
윷놀이에서 다른 동과 함께 어울려 가도록 말을 묶다. ¶윷놀이 하다가 두 동 {삶아} 가다가 잡히면 지지. 여간해선 안 {삶지} 따로 따로 댕길라고 하지. 세 동은 사람들이 잘 안 {삶을라고} 해. 삶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녀.
지역 전북.

삶은 호박에 이빨도 안 들어 갈 소리 【관용표현】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마을 자체가 섬진강의 상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웬만큼 심한 홍수가 아니고는 {삶은 호박에 이빨도 안 들어갈 거짓말이라는} 것이었다.<윤흥길, 장마> ¶여드레 {삶은 호박에 이빨도 안 들어갈 소리} 마라.< 송기숙, 녹두장군>
지역 전북.
해설 삶아 놓아서 물렁물렁한 호박에 이빨이 안 들어갈 리가 없다는 사실에 비유하여 그만큼도 안 될 정도로 되지 않은 말을 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삼갈렛질 (三갈렛질) 명 [대응어] 삼거리.
세 갈래로 나누어진 길.
지역 전북.

삼거릿질 (三거릿질) 명 [대응어] 삼거리.
세 갈래로 나누어진 길. ¶한번은 어느 {삼거리질이} 가서 자기 자식을 띠어놓고 몸을 감췄어요.
지역 전북.

삼기다 동 [대응어] 생기다.
없던 것이 새로 있게 되다. ¶천지는 언제 {삼겼으며}/일월은 언제 {삼겼던고}/자시에 생천허니/하날이 {삼기시고}/축시에 생기허니/땅 {삼겨} 마련하고/인으 인생허니/사람이 {삼긴} 후으/집터 잡어 삼십삼천(순창 고사풀이)<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인연이 있고도 이리를 허든가 연분이 아니 될라고 이리를 허는가/천상자상 무삼 죄로 우리 둘이 {삼겨를} 나서/하이고 내 속이 답답허는 줄을 어느 뉘 알아줄 거나아 헤에(옥구 육자배기, 옥구군 개정면 아동리 동정)<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인연이 있고 이러드냐 연분이 못 되어 이러든가/천상차상 무삼 죄로 너고 나고 {삼겨서}/연분이 당털 못 허 이 지경이 웬일인 거나아 헤에(옥구 육자배기, 옥구군 개정면 아동리 동정)<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순창, 군산.

삼끈 명 [대응어] 참바.
삼의 껍질이나 칡 따위로 세 가닥을 지어 굵다랗게 드린 줄. ¶그네가 손에 움켜쥐고 있는 {삼끈과} 베끈이 후르르 떨리었다. 이제 곧 청암부인의 죽은 몸 시신을 묶으려고 하는 것이었다.<최명희, 혼불>
지역 남원.

삼노 명 [대응어] 노끈.
실, 삼, 종이 따위를 가늘게 비비거나 꼬아서 만든 끈. ¶효건(孝巾)을 쓴 위에 굴건을 쓰고, 거친 삼베로 재최복을 입은 그는, 삼대를 발라 낸 피삼을 왼새끼로 동아줄같이 꼰 {삼노로} 수질(首?)을 만들어 머리에 두르고 요질(腰?)을 만들어 허리에 두른 채<최명희, 혼불>
지역 김제.

삼노내끈 명 [대응어] 삼노끈.
삼 껍질로 꼰 노끈.
지역 전북.

삼놋내끈 명 [대응어] 삼노끈
삼 껍질로 꼰 노끈. ¶짐을 {삼놋내끈으로} 단단히 묶으라이.
지역 남원.

삼발 명 [대응어] 다리쇠.
☞삼발구.
지역 임실.

삼발구 명 [대응어] 삼발이.
발이 세 개 달린 받침대.
지역 전북.

삼베바지에 방귀 새듯 【관용표현】
빨리 흩어지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 ¶창고 건물 전체를 쩌렁쩌렁 울리는 그 짐승 같은 울부짖음에 기가 딱 질려 주민들은 {삼베바지에 방귀 새듯} 순식간에 자리를 피해 각자 자기네 처소 안으로 숨어버렸다.< 윤흥길, 소라단 가는길> ¶부월이의 만류도 뿌리치고 두 녀석은 {삼베바지에 방귀 새듯이} 허둥지둥 도망치는 걸음이었다.<윤흥길, 완장>
지역 전북.
해설 삼베는 삼실로 짠 천으로 천과 천 사이의 틈이 얼기설기한 직물이다. 그러므로 방귀가 쉽게 빠져나간다. 이 관용표현은 사람들이 빨리 흩어지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삼시랑 (←三神靈) 명 [대응어] 삼신(三神).

아기를 점지하고 산모와 산아(産兒)를 돌보는 세 신령. ¶바가지에 담긴 곡식은 봄 · 가을에 햇곡식으로 갈아 넣고, 묵은쌀로는 밥을 지어 온 식구가 함께 먹으면서 "{삼시랑} 할머니한테 감사 디려라." 하였다. 그것은 음복(飮福)이었다.<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삼신할매 (三神할매) 명 [대응어] 삼신할머니.

삼신이 할머니 모습을 하고 있음을 이르는 말. ¶김칠성은 말리다가 지쳤고 이웃여자들은 식초 못 먹어 환장한 {삼신할매가} 점지 한 애인 모양이라고 입들을 모았던 것이다.<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삼장 명

삼을 키우는 밭. ¶{삼장} 말뚝도 박고 실겅가래도 만들고.

지역 전북.

삼춘 (←三寸) 명 [대응어] 삼촌(호칭).

아버지의 형제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특히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이르거나 부른다. ¶{삼춘이} 젊었을 때는 나보다 힘이 세었다. ¶{삼춘}, 잠자리 좀 잡아줘요.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삽자리 명 [대응어] 삿자리.

갈대를 엮어서 만든 자리.

지역 전북.

상각 명 [대응어] 생각.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작용. ¶오동추야 달 밝은디 님으 {상각이} 절로 나네/ 헤 헤 헤 야하 하 헤 헤헤헤 헤 헤헤헤 야아허루 상 사아 뒤여(익산 모심는 소리/상사소리/자진 상사소리)<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오동추야/어야 라 차 하/달 밝은데/어야 라 차 하/임 {상각이}/어야 라 차 하/절로 난다/어야 라 차 하(익산 집터 다지는 소리/지경다지는 소리)<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익산.

상게 (←喪輿) 명 [대응어] 상여.

장사를 지낼 때 시체를 묘지까지 나르는 데 쓰는, 가마같이 꾸민 들것. ¶{상게} 맬 적에는 사람이 많으면 이짝 두 줄, 저짝 두 줄 매는데, 사람이 적으면 이짝 한 줄 저짝 한 줄 맸지. 요짐은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러분게로 {상게} 나가는 디가 없어.

지역 전북.

상내 (←香내) 명 [대응어] 향내.

향기로운 냄새. ¶사내놈들만 산게 {상내는커녕} 구린내만 진동한다.

지역 전북.

해설 '상내'는 '향내'의 전북 방언형으로, '상'은 '향'의 어두음 /ㅎ/이 후행하는 /ㅑ/의 /j/에 의해 구개음화된 결과이다. 이러한 'ㅎ 구개음화'는 '형>성', '힘>심' 등 전라 방언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상단이 명 [대응어] 향단이. ¶츄천을 ᄒᆞ랴ᄒᆞ고 {상단이} 압세우고 나리올 제<완판본 열여춘향수절가上> ¶{상단아} 주반 등본 하엿난냐<완판본 열여춘향수절가上>

지역 전북.

상대강 (상大綱) 명 [대응어] 대강.

자세하지 않은, 기본적인 부분만을 따 낸 줄거리. ¶헐 얘기를 다 안 허고 시간 없은게 상대강만 허. 자세허니 끝까지 못허는 말은 우선 상대강만

허느만.
지역 전북.

상두꾼 (喪두꾼) 명 [대응어] 상여꾼.
상여를 메는 사람. ¶방상시 뒤를 따르는 곡비(哭婢) 두 사람이 서럽게 목을 놓아 하는 곡이, 얼어붙어 투명한 겨울 하늘에 사무치는데, {상두꾼들의} 상여 소리는 명정(銘旌)·공포(功布)를 홍건하게 적시며 솟을대문을 빠져 나가 물결을 이루면서 고샅으로 내려간다. ¶{상두꾼들의} 상여 소리는, 뒤에 남아 배웅하는 산 사람들이나, 마을의 지붕들과 나뭇가지까지도 한 물결에 띄워서 멀리멀리 데리고 갔다.<최명희, 혼불> ¶상여 앞에서 소리를 매기는 선소리꾼이 높은 하늘을 바라보며 요령을 흔들고, {상두꾼들은} 목소리를 맞추어 구슬픈 후렴을 부르면서 대문 쪽으로 움직였다.<최명희, 혼불> ¶발인제(發靷祭)를 마친 뒤, 사람들은, 이승을 하직하고 저승의 머나 먼 길로 영영 가는 청암부인의 마지막 모습을 보려고 마당에 웅긋중긋 서 있는데, 무정한 {상두꾼들은} 어깨에 올려 멘 상여를 천천히 흔든다.<최명희, 혼불>
지역 무주.

상부르다 보동 [대응어] 성싶다.
((용언의 관형사형 어미 '-ㄴ/-은/-는, -ㄹ/-을'의 뒤에 쓰여)) 짐작을 나타내는 말. ¶대개 하늘을 보면 비가 올 {상부른가를} 알 수 있지. ¶이번에는 꼭 이길 {상부르다}.
지역 전북.

상소리 명 [대응어] 상수리. ¶상소리를 겁나게 주워서 왔지. ¶아이들이 떼를 지어 {상소리를} 줍기에 바빴지. ¶가을이 되어 산에 있는 {상소리를} 모아 묵을 만들어 먹었다.
지역 고창, 부안, 순창, 임실, 정읍, 김제, 남원, 군산, 완주, 익산, 진안.

상소리나무 명 [대응어] 상수리나무.
지역 부안, 정읍.

상식 명
못줄을 안 대고 심는 모. ¶헌튼모라고 허. {상식}.
지역 전북.

상에 명 [대응어] 상어.
지역 전북.

상지 명 [대응어] 상자.
물건을 넣어 두기 위하여 나무, 대나무, 두꺼운 종이 같은 것으로 만든 네모난 그릇. ¶엿장시 맘대로 가새 치는 대로 지름병도 받고, 보루바꾸 {상지도} 받고요.
지역 고창.

상지깍 명 [대응어] 상자.
물건을 넣어 두기 위하여 나무, 대나무, 두꺼운 종이 같은 것으로 만든 네모난 그릇. ¶그리가꼬 열두 가지 이만헌 {상지깍으다} 딱 히서 느서 팔거든.
지역 전북.

상쪼가리 명 [대응어] 삭정이.
살아 있는 나무에 붙어 있는, 말라 죽은 가지. ¶{상쪼가리를} 꺾으면 나무게도 좋다는디.
지역 김제.

상초 명 [대응어] 상추. ¶그 사랑 마당에 {상초를} 소꾸로 강개.{그 사랑 마당에 상추를 솎으러 가니까}.
지역 순창.

상추밭에 똥 싼 강아지 잡도리하듯 【관용표

현】

사람을 아주 요란스럽게 닦달하거나 족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 ¶부월은 {상추밭에 똥 싼 강아지 잡도리하듯} 남편에게 마구 종주먹을 질러대다시피 했다.<윤흥길, 빛가운데로걸어가면>

지역 전북.

해설 사람이 가꾸는 상추밭에 강아지가 들어가서 똥을 싸놓으면 좋아할 리가 없다. 그래서 그 어린 강아지를 잡도리를 하게 된다는 표현이다.

상추밭에 똥 싼 개 잡도리하듯 【관용표현】

☞상추밭에 똥 싼 강아지 잡도리하듯.

지역 전북.

상추절이 명 [대응어] 겉절이.

상추를 절여서 곧바로 무쳐 먹는 반찬. ¶생절이 허는디 {상추절이도} 히서 먹고.

지역 전북.

상포 (←床褓) 명 [대응어] 상보(床褓).

차려 놓은 음식에 먼지나 파리 따위가 앉지 않도록 상을 덮는 데에 쓰는 보자기. ¶채반 우에 {상포} 좀 덮어라. ¶자방침 저녁으 비어줘. 저녁으 우리는 {상포도} 새이고 걍 별 거 다 허지.

지역 고창.

샅싸기 명 [대응어] 두렁이.

어린아이의 배와 아랫도리를 둘러서 가리는 치마 같이 만든 옷. 겹으로 만들거나 솜을 두어 만든다.

지역 남원.

샇날 명 [발음] [산날] [대응어] 사흗날.

셋째 날. ¶아이, 오늘 저녀그 사월 초이튼나린디 또 올 열 {산날} 인찌?(아이, 오늘 저녁이 사월 초이튿날인데 또 올 열사흗날 있지?)<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지역 고창,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장수, 정읍, 진안, 임실.

새각시 명 [대응어] 새색시.

갓 결혼한 여자를 이르는 말. ¶집안만이 아니라 삼동네 안에서는 저렇게 이쁜 {새각시} 없을 것이그만.<최명희, 혼불> ¶"새 아가? 새 아가?" 새 방으 가서 인자 {새각시를} 부르는 겨. "잠깐 나와서 정지 좀 보고 들으가거라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새각시는} 과년이 차서 덜썩허고 하니까, 한밤중이 되어도 인기척이 없으니께 그야말로서 옛날로 말하면 중놈. 그 머릿놈(바릿대 중)이 들어오더랴.<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아이 안에서 이제까지 다소곳이 앉었던 {새각시가} 문을 덜컥 열으면서, "아이고 인자 오시냐고. 어서 들오시라."고 헌다 그말여.<한국구비문학대계, 전북군산시·옥구군편>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부안, 순창, 군산, 임실, 정읍, 완주.

새금박질 명 [대응어] 소꿉장난.

아이들이 작은 살림살이나 그릇 모양의 장난감을 가지고 어른들의 흉내를 내며 노는 장난. ¶옛날에는 애들 장난이 {새금박질이었어}. 많이 했어요. ¶{새금박질은} 기집애 머스마가 있어야 하지. ¶요즘 아들은 {새금박질} 안 하지. 그거 안 해도 놀 것이 많은게.

지역 전북.

새금치 명 [대응어] 사금파리.

사기그릇의 깨어진 작은 조각 ¶우리 모두 맹세허자. 맹세는 여그 {새금치으다} 새겨.

지역 익산.

새금파리 명 [대응어] 사금파리.

사기그릇의 깨어진 작은 조각 ¶"니 소원 있으면 소원대로 이얘기를 히 봐라." 그런게 그때사 그 비결을 내놨어. 내놔야 글씨가 뵈야 분간을 허지. 백지다 {새금파리} 시(세) 알인디 그것이 해결을 헐 수가 있어야지.<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아, 이것 백지 하나에다가 {새금파리}, 백새그마치 그 시개를 놨은게로 어떻게 알 것어?<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그런개 인자 그 도둑놈들이 그렇게 갖다가, 그 도둑놈들이 {새금파리}, 이 거시기 한, 두꺼비 갖다 가둔 그 도둑놈이 돌라 갔어, 옥새를.<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땅따먹기 놀이는 {새금파리}를 둥글게 쪼아 말을 만들어서 허는 놀이라 그릇조각도 잘 챙겨두곤 했지.

지역 고창, 남원, 무주, 군산, 완주, 장수, 진안.

새금팔 명 [대응어] 사금파리.

☞새금파리. ¶그러나 내가 가시에 찔려 앞어헐때는, 네名의少女는 내곁에 와 서는것이었다. 내가 찔레ㅅ가시나 {새금팔}에 베혀 앞어헐때는, 어머니와같은 손까락으로 나를 나시우러 오는것이였다. 손까락 끝에 나의 어린 피ㅅ방울을 적시우며, 한名의少女가 걱정을 하면<서정주, 시집>

지역 고창, 김제, 부안, 순창, 정읍.

새금피 명 [대응어] 사금파리.

☞새금파리. ¶새금파, 새금파, 두꺼비는 너딴시, 저 {새금피} 너딴시, 두꺼비 나 죽겠다.<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순창, 임실.

새기다 동

헝겊 조각 색깔을 맞추어 상보를 만들다. 보통 빨강과 파랑 천을 세모로 만들어 서로 맞대어 네모 한 칸을 만들고 계속 같은 방법으로 이어 나간다. ¶저녁으 자방침 비어준게 상포 {새기고}. 두 쪼각으로 빡 뽀겨. 귀대로 붙여. 빨강 놈 파랑 놈. 그믄 인자 파랑 놈으다는 한쪽으다는 빼련 놈허고. 뺄경 놈 여그다 대여. 그리가꼬 또 박어. 그리가꼬 줄 이만큼 덮으면 얼매나 이쁘다고. 알록달록.

지역 전북.

새깨미 명 [대응어] 고양이. ¶저짝에 길 잃은 {새깨미가} 어찌나 구슬프게 야옹야옹거리던지.

지역 전북.

새깨이 명 [대응어] 새끼(繩).

볏짚 따위로 꼬아 만든 줄. ¶지푸라기로 {새끼이라도} 엮으야 먼가를 하지 그냥 놔두먼 불 때는 디밖에 못 쓰지 않을란가이.

지역 전북.

새깽이 명 [대응어] 새끼.

낮잡아 이를 만한 사람을 가리치는 말. 속되게 이를 때뿐만 아니라 귀엽게 이를 때도 쓰인다. ¶고 {새깽이가} 원넌이 동니에 붙어 있겄다, 폴쎄 달어났제.<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새꼬롬허다 형

날이 쌀쌀하고 흐릿하다. ¶출란가 밖에 나가먼. 추워 {새꼬롬허니} 날이.

지역 전북.

새꽤미 명 [대응어] 살쾡이.

지역 전북.

새꿈박질 명 [대응어] 소꿉질.

아이들이 장난감 그릇 따위를 가지고 살림살이 흉내를 내며 노는 짓. ¶아이들이 {새꿈박질을} 하고 논다.

지역 전북.

새끼말 명 [대응어] 망아지.
성숙하지 않은 말의 새끼
지역 진안.

새끼망아지 명 [대응어] 망아지.
성숙하지 않은 말의 새끼
지역 순창.

새끼발구락 명
☞깨끼발구락.
지역 전북.

새끼벌거지 명 [대응어] 새끼벌레, 애벌레.
알에서 나온 후 아직 다 자라지 아니한 벌레. ¶미얌의 {새끼벌거지}는 거짐 다 얼어죽는다고 허요. ¶장도가지럴 들어다 보니께 {새끼벌거지}가 드글드글허더라고.
지역 전북.

새끼손고락 명 [대응어] 새끼손가락.
☞새끼손구락.
지역 전북.

새끼손구락 명 [대응어] 새끼손가락. ¶다섯 손가락 가운데 다섯째의 가장 작은 손가락.
지역 고창, 김제, 순창.

새끼손그락 명 [대응어] 새끼손구락.
☞새끼손가락.
지역 부안, 임실.

새끼손틉 명 [대응어] 새끼손톱.
새끼손가락의 손톱. ¶{새끼손틉이} 짧은게로 콧구녁도 못 후비파지.
지역 전북.

새끼썽구락 명 [대응어] 새끼손가락.
☞새끼손구락.
지역 남원.

새끼자 명
자치기를 할 때 쓰는 두 개의 막대기 중 크기가 작은 막대기. ¶{새끼자럴} 긴 자로 치믄 튀어오르는 거여.
지역 순창.

새끼중 명 [대응어] 동자승.
나이가 어린 중. ¶아 이번에는 아 지가 동냥이나 댕기면 허린만 아 송낭을 쓴 바랑맨 놈의 중놈 한 놈이 아 쬐깐헌 젊은 중여. {새끼중}.<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아 이 젊은 놈의 어린 {새끼중} 송낭 쓴 바랑 맨 놈이 한바탕 바랑이 덜렁덜렁 팔둑을 내두르다 기왓장을 내두르다 선비가 지나간게<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정읍.

새끼쥐 명 [대응어] 생쥐.
쥣과의 하나.
지역 전북.

새끼탐 명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외부를 경계하는 태도. ¶누렁이가 {새끼탐을} 허는디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도만.
지역 전북.

새나끈 명 [대응어] 새끼(繩).
볏짚 따위로 꼬아 만든 줄.
지역 고창.

새나큰 명 [대응어] 새끼(繩).
☞새나끈.
지역 고창.

새내끼 명 [대응어] 새끼(繩).
벗짚 따위로 꼬아 만든 줄. ¶사내키, {새내키} 꼴 때나 가마니 짤 때나 인자 그걸 싹 글거내고 매꼼허게 이제.{새끼, 새끼 꼴 때나 가마니 짤 때나 이제 그것을 싹 긁어내고 매꼼하게 이제}.<2005 전북 남원> ¶집터메 지벌 한텀썩 가따노코 {새내키럴} 꽈라.<지역어 자료 총서, 고창> ¶{새내끼를} 잘 꼬아야 가마니를 짤 때 부스러지지 않지.
지역 고창, 김제, 무주, 남원, 정읍.

새내키 명 [대응어] 새끼.
벗짚 따위로 꼬아 만든 줄. ¶글고, 쩌그다 노아둔 가맹이허고 {새내키} 봐겼소~? ¶울모그 앙거서 {새내키} 꼬든 시절 징헌 노무 새네키.
지역 전북.

새년 (새年) 명 [대응어] 신년.
새로 시작되는 해. ¶또 항개의 {새년이} 뽀짝뽀짝 다가오네.
지역 고창.

새다리 명 [대응어] 사다리.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을 오르내릴 때 디딜 수 있도록 만든 도구. ¶큰 소야. “소 갖다 지붕에 우로 끌어 올려라.” 헌게 {새다리를} 이층, 삼층으로 허고 덕석(멍석)을 깔고 잡아 댕기고 밑으로(위)로 끌어 올렸다.<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사람 길이만큼 긴 놈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얘 사다리처럼 {새다리처럼}.<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지역 김제, 무주, 부안, 완주, 임실, 장수, 정읍, 진안, 남원, 순창.

새닥다리 명 [대응어] 사닥다리.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을 오르내릴 때 디딜 수 있도록 만든 도구 ¶{새닥다리} 오르내리기 놀이에 열중한 채 내가 불러대는 소리는 들은 척도 안 허고 있으니 복장이 터지지.
지역 전북.

새더리 명 [대응어] 사다리.
☞새다리.
지역 남원, 순창.

새때기 명 [대응어] 억새. ¶여기서 불이 빤닥빤닥 혀. 그냥 저가 인간이 사나 허고 거그를 찾을라고 갔어. 가닌게로 참말로 {새때기} 집 하나가 있거든. 집 하나가 있는디 쥔을 찾은게 흐런 노인이 미영을 잡다 나와.<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새똥불 명 [대응어] 반딧불.
☞쇠똥불.
지역 전북.

새똥빠지다 형 [대응어] 새삼스럽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갑자기 새로운 감정이 느껴지다. ¶국민핵교 동창 친구한티 {새똥빠지게} 자기소개를 허는 내 꼴이 우습긴 허지만, 허기사 한집에서 삼년을 같이 산 시에미 성도 몰르는 수가 있는 벱이지.<윤흥길, 소라단 가는 길> ¶시방이 으떤 시상인디 {새똥빠지게} 남녀가 칠세에 부동석이냔 말여, 내 말은!<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세월이 흘러 잊은 일을 {새똥빠지게} 다시 묻는 이유가 뭐냐?{순창, 고창}. ¶영미는 가끔 {새똥빠진} 소리를 하여 어리둥절 할때가 있다. ¶“난리 통에 낙칠이네 집안은 씨가 바싹 말렀는디 인자 와서 {새똥빠지게} 요게 뭔 소리다냐…….”<윤흥길, 낫> ¶{새똥빠지게} 벨걸 다 묻네.<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새똥빠지다'는 '새똥이 빠지다.'의 구문이 단어로 발전한 것이다. 표준어 '새삼스럽다'보다 의미가 강하다. '새똥빠진 소리'라는 표현은 '새삼스런 소리' 또는 '헛된 소리, 엉뚱한 소리'의 의미로 사용한다.

새렙 명 [대응어] 사립.

사립짝을 달아서 만든 문. ¶{새렙이} 오래된게 다 무너져 버릴라고 해.

지역 전북.

새롭 명 [대응어] 사립.

사립짝을 달아서 만든 문. ¶메칠 동안이나 {새롭을} 맹그는디 힘만 들었구만.

지역 전북.

새반가리 명 [대응어] 가리.

곡식이나 장작 따위를 단으로 묶어 차곡차곡 쌓은 더미. ¶{새반가리를} 묶어 나르다.

지역 전북.

새벅 명 [대응어] 새벽.

먼동이 트려 할 무렵. ¶우리가 서해아네(서해안에) 가가지고 섬:도 구경을 몯해꼬, 머야 구남도(군함도) 구경을 몯해꺼든요. 음. 그래서 아치메 {새버게} 가라고 해서 이러케 따커니 올라서는데 서미 막 여그저그 막 보이능거요.<지역어 자료 총서, 군산> ¶그리더니 초이렌날 내가 {새버게} 가를 나써. 게 기양, 가 배가꼬 이케 일만 허서 그랜는가, 애가 쬐깐허더라고. 애가 지깐허더라고.<2007 전북 군산> ¶그러니까 꼭 {새벅} 네 시 되먼 이러나서 바블 혀, 쌀머야돼, 보리싸를.<2007 전북 군산>

지역 익산, 완주, 진안,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임실, 정읍, 장수.

새벅밥 명 [대응어] 새벽밥.

날이 샐 무렵에 일찍 짓는 밥. ¶{새벅밥} 먹고 일 나가는디 참 짠혀 죽겄드만.

지역 익산,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임실, 정읍, 진안, 장수.

새벅별 명 [대응어] 샛별.

금성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또는 장래성이 큰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새벅별이} 밝으네. ¶니가 우리 집안에서 떠오르는 {새벅별이} 되아야 허.

지역 전북.

새복 명 [대응어] 새벽.

먼동이 트려 할 무렵. ¶토욜 지영때부텀 어지끄하래 안개비 땜시 쉬엇다가 오늘 시먼 바닷가로 {새복} 일찍이 나갔다 작업장 9키로를 점검허고 일꾼들흐고 일을 흐는디 도락꾸가 울타리망 빼끼치릉 것을 실코 왔다고 기별이 왔다. ¶그나지나 오늘 지녁도 솔채니 춯게 끄렁불 애끼지 말고 때고 고래구녕으로 쌩솔까지 서너 개 쪼셔 눟고 자믄 {새복까징은} 따닷흘 거쇼. ¶글고, {새복에는} 강치까장 허드랑게라우.

지역 고창.

새복동자 명 [대응어] 새벽동자.

날이 샐 무렵에 밥을 짓는 일. ¶{새복동자를} 히서 아들 학교를 보냈어.

지역 전북.

새복밥 명 [대응어] 새벽밥.

날이 샐 무렵에 밥을 지음. 또는 그 밥. ¶퐘나 {새복밥} 먹고 일허로 갔다가 또 저녁으는 핵교 간다고 고상 고상을 다혔어.

지역 전북.

새북동자 명 [대응어] 새벽동자.

☞새복동자.
지역 전북.

새붕개 명 [대응어] 새우(민물, 小).
강이나 호수 따위의 염분이 없는 물에서 사는 작은 새우. ¶{새붕개를} 잡아다가 국물 내면 그래도 꽤 시원혀.
지역 무주.

새비 명 [대응어] 새우. ¶참 며칠을 헛걸음으로 하루 인자 며칠 간을 그러고 댕기다가, 하루는 한 간데(곳)를 가서 보니깨 {새비}, {새비를} 한간데(새우 모양을 한 곳) 가 있는디,<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이 사람이 걱정말으라고. 배가 움직이지 않을 적에는 여기에다가 그물을 치라고 그런 것인개 여기다가 치자 헌개, "무슨 말씀, 여기가 {새비} 새끼 하나도 안 걸리지요."<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옛날에 어떤 사램이 음, 새비젓 장사를 히여. {새비젓} 장사를 허갖고는 돈을 많이 벌었는디<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임실, 장수, 정읍, 진안.

새비등 명 [대응어] 새우등
새우의 등. 또는 새우의 등처럼 구부러진 사람의 등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새비등에} 있는 껍질을 다 벳기고 먹어야지 안 그럼 사례 든다. ¶{새비등} 하고 자면 등이 안 아픈가? 쟈는 맨날 저러고 자드라잉.
지역 남원, 순창, 임실.

새비젓 명 [대응어] 새우젓.
새우로 담근 젓. ¶내려와서 그 참 없는 친구한테 가서 사정을 헌개, 그때. {새비젓} 한 통 값을 주어,<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아, 너 그 {새비젓} 장시 이얘기 몰르냐? 머 얼매 되도 안헌 이얘기다, 그게.<최명희, 혼불> ¶"아앗따아, 체신? 그 점잖은 체신에 {새비젓은} 어뜨케 먹능고?<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새비틀 명
새우를 잡는 그물틀. ¶젓새비를 잡을 때는 네모난 틀로 만든 그물을 쓰는디, 그 그물을 {새비틀이라고} 혀.
지역 고창.

새빨거다 형 [대응어] 새빨갛다.
매우 빨갛다. ¶사과가 {새빨거니} 참말로 먹음직시럽네.
지역 전북.

새살까다[1] 동 [대응어] 재롱떨다.
귀여운 짓을 하거나 귀엽게 놀다. ¶친구들 앞에서 어린 아이처럼 {새살까고} 있네.
지역 전북.

새살까다[2] 동 [대응어] 새살거리다, 놀소리하다.
다른 사람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어떤 사정을 길게 늘어놓다. ¶이놈아, 활동사진이란 것언 그냥 움직기리는 사진이나 보고 변사놈이 {새살까는} 소리나 듣는 것이 아니여. 그리 봐서넌 백 개럴 봐도 돈만 없애제 아무 이문이 없는 것이여.<조정래, 아리랑> ¶방 서방이 밝은 표정을 지었고, "잉, 인자 우리가 나서덜 말고 예편네덜보고 허라고 허면 그 {새살까기} 좋아허는 입으로 요러타께 일얼 맹글어낼 상싶구만이라." 노 서방이 눈을 빛내며 말했다.<조정래, 태백산맥> ¶"야 이년아, 주딩이 찢어지기 전에 {새살까지} 말어. 그 인종은 박용만 선생얼 요해대고 국민군단얼 없앨라고 허는 못된 종자여."<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해설 국어사전에서는 명사 '새살'을 방언으로 처

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어떤 사정을 길게 늘어놓는 일'로 풀이하고 있다. 채만식의 소설을 보면 '새살'을 명사로 사용하여 '새살을 하다, 새살을 내다.'와 같은 표현을 쓰고 있다. '새살까다'는 '새살을 까다.'는 관용적 표현에서 '새살까다'로 굳어진 것이다. '젖먹이가 누워 놀면서 입으로 내는 군소리'를 표준어로 '놀소리'라 하는데 이 또한 방언으로는 '새살'이다.

새살떨다[1] 동 [대응어] 재롱떨다.
귀여운 짓을 하거나 귀엽게 놀다. ¶고양이가 방울을 흔들며 {새살떨고} 있다.
지역 전북.

새살떨다[2] 동 [대응어] 새살거리다, 놀소리하다.
다른 사람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어떤 사정을 길게 늘어놓다. ¶"잘 알었는디, {새살떨지} 말고 살째기 지키로 섰어어서, 대문악에."<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해설 '젖먹이가 누워 놀면서 입으로 내는 군소리'를 표준어로 '놀소리'라 하는데 방언으로는 '새살'이다. 이 의미가 변하여 '다른 사람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어떤 사정을 길게 늘어놓는 일'로도 쓰인다. 채만식의 소설에서는 '새살을 하다, 새살을 내다.'와 같은 표현을 쓰고 있다. '새살떨다'는 '새살을 떨다.'는 관용적 표현에서 '새살떨다'로 굳어진 것이다.

새살허다[1] 동 [대응어] 재롱떨다.
귀여운 짓을 하거나 귀엽게 놀다. ¶{새살허면서} 노는 아 보는 기 을마나 행복한 일이여?
지역 전북.

새살허다[2] 동
다른 사람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어떤 사정을 길게 늘어놓다. ¶저참엔 이사람, 이참엔 저 사람이 허는 식으로다 항시 쌈박질 투성이니 으떤 쓸개 빠진 놈이 무신 재미로 요기조기 쥐뿔나게 찾어 대님서 함께 {새살허겄능가} 말이시.<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새새끼 명 [대응어] 새끼(䋲).
볏짚 따위로 꼬아 만든 줄. ¶겨우내 머 하고 지낼 거여. {새새끼라도} 꽈서 돈을 벌었지.
지역 김제.

새새키 명 [대응어] 새끼(䋲).
☞새새끼.
지역 김제.

새샥시 명 [대응어] 새색시.
갓 결혼한 여자를 이르는 말. ¶{새샥시를} 맞이해서 살드만 인자 그 {새샥시가} 안 보여. 어디 갔능가 몰라.
지역 남원, 장수.

새수빠지다 형 [대응어] 엉뚱하다.
말이나 행동이 상식이나 짐작과 달리 지나치거나 모자란 데가 있다. ¶"내가 어째서 흥부야? ……여편네가 {새수빠진} 소리만 하구 있네!"<채만식, 탁류> ¶입 싸고 {새수빠지고} 속 얕고 속없고 조심성 없고 체통머리 없고……<채만식, 이런 처지> ¶그걸 인자 알었냐? {새수빠지게}.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새수빠지다'는 채만식의 작품에서 주로 발견된다. 이 말은 '새똥빠지다'와 의미가 같다. '새수가 빠지다.'의 표현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새시로 부 [대응어] 새로.
전과 달리 새롭게. 또는 새것으로. ¶D지구가 잇

는디 D지구 울타리라서 그짝으로 오락 흐고 가는디 {새시로} 논 다리똥 낭간으서 잡녀르 때까우가 외롭게 앙거서 내가 강게로 모가지를 꼬아 감서 눙깡을 깜박그리며 외롭게 처다보능 거시다.

지역 고창.

새시악시 명 [대응어] 새색시.

☞새샥시.

지역 남원, 장수.

새실로 부 [대응어] 새로.

전과 달리 새롭게. 또는 새것으로. ¶한번 망쳤으면 새실로 다시 헐 생각을 혀야지, 한번 망쳤다고 포기허면 쓰겄는가? 안 그렁가?

지역 고창.

새싸래기 명 [대응어] 물알.

새 따위가 먹어서 영글지 못하고 잘거나 속이 빈 벼 알맹이. 또는 그 알맹이가 달린 벼 이삭.

지역 전북.

해설 벼 알맹이가 생길 무렵 이 알맹이를 새가 먹으면 벼가 잘 영글지 않고 잘게 크거나 속이 비게 된다.

새씰로 부 [대응어] 새로.

☞새실로 ¶글먼 {새씰로} 말 허자먼 헛간디 보다가 아니 어믄 간디 보다가 그랬단 말이오. ¶{새씰로} 말허자먼 우게 정부 대가리가 잘 히어야 서민이 잘 살지라우. ¶나가 미치고 달쳤간디, 거그를 믄 낫다고 {새씰로} 가겄소? ¶긍게로 그 저께는 한질가 신작로에 빵끼로 줄도 {새씰로} 긋고 댕기고. ¶안 헐말 맹글어 갖고 그럼서 그래 갖고 철딱사니도 드럽게 업씨 그 말 {새씰로} 꼬랑지 잽혀 갖고 물마금까장 댐서.

지역 고창.

새아그 명 [대응어] 새아기.

시부모가 새 며느리를 친근하게 이르거나 부르는 말. ¶{새아그야}, 바깥이 감낭구 빨래줄에 난닝구 빤쓰랑 후딱 걷어서 고실고실허게 개아 노아라.

지역 고창.

새아치 명 [대응어] 송아지.

어린 소. ¶{새아치를} 낳다

지역 전북.

새알수지비 명 [대응어] 새알심.

팥죽 따위에 넣어 먹는 새알만 한 덩이. 보통 찹쌀가루나 수수 가루로 동글동글하게 만든다. ¶여그선 동짓날에 {새알수지비} 먹어.

지역 무주.

새알시미 명 [대응어] 새알심.

팥죽 따위에 넣어 먹는 새알만 한 덩이. 보통 찹쌀가루나 수수 가루로 동글동글하게 만든다. ¶{새알시미} 너코 동지죽 끄려<2009 전북 임실>

지역 임실.

새알지다 형 [대응어] 야무지다.

사람의 성질이나 행동, 생김새 따위가 꽉 찬 듯이 튼실하다. ¶태희보다 {새알지네}. ¶애기 {새알지다는} 것은 애기가 일트르먼은 시안이 났는디 양 시 살 먹었게 비고 크고 {새알지먼} {새알지다고} 그러제. ¶같은 동갑이라도 더 숙성허니 크고 {새알진} 놈 있고 어릿헌, 어리헌 놈.

지역 고창.

새앙[1] 명 [대응어] 생강. ¶한 군데를 간게 새양장사 총각 하나가 그때는 {새앙} 장사라} 사십살을 먹었거니 오십살을 먹었거니 머리 지드란허니 땋고 총각으로 {새앙} 장사를 했단 말여. 그 총각

은 생기가 띠었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나보고 물어 보지 말고 전주 암디 골목으 간다치먼은 그저 {새앙} 장사 있은게 새앙장사보고 물어 보라."고 허고는 어디 온디 간디 없이 가버?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고창, 완주, 정읍, 남원.

새앙[2] (←時享) 명 [대응어] 시향.

음력 10월에 5대 이상의 조상 무덤에 지내는 제사. ¶{새앙} 지내는 상이고이? ¶{새앙} 지내러 서울서도 다 오고.

지역 고창.

새애기 명 [대응어] 새아기.

새로 들인 아들의 아내를 자식을 대하듯 다정하게 부르거나 이르는 말. ¶{새애기야}. 너 시방 그게 온정신으로 허는 소리냐?<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새애기} 너도 잘 지냈지야? 예, 어머님. 염려지덕에 벨고 없이 잘 있구만요.<윤흥길, 빛가운데로걸어가면>

지역 순창.

해설 모음을 앞쪽으로 바꿔서 발음하는(흔히 '움라우트'라 함.) '새애기'와 여전히 뒤쪽에서 발음하는 '새아기'를 혼재하여 사용하고 있다.

새양답 명

문중의 제사나 큰일에 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문중에서 관리하는 논. 보통 문중의 한 사람이나 동네 사람이 약속한 대가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짓는다. ¶거그서 {새양답을} 짓고 살아.

지역 전북.

새오 명 [대응어] 새우.

지역 김제, 무주, 군산, 익산.

새오등 명 [대응어] 새우등

새우의 등. 또는 새우의 등처럼 구부러진 사람의 등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나이 먹은게로 {새오등마냥} 구부러져 허리를 못 펴.

지역 김제, 부안, 군산, 완주, 익산.

새옹개 명 [대응어] 새우(민물, 大).

강이나 호수 따위의 염분이 없는 물에서 사는 큰 새우. ¶내에 나가서 {새옹개나} 잡고 놀아라잉. 여그서 정신 사납게 하지 말고.

지역 군산, 완주, 익산, 김제.

새와젓 명 [대응어] 새우젓.

새우로 담근 젓. ¶{새와젓} 좀 먹어 봐. 간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 한 번 먹어 봐.

지역 전북.

새운 명 [대응어] 새옹.

놋쇠로 만든 작은 솥. ¶정제 세간이 나올 제/ 대솥 중솥 소솥 가매솥/소도솥 {새운} 냄비/무쇠뚜껑으 은동우 놋동우/…… /정제 세간이 넉넉허게 되었구나(진안 고사풀이-진안군 마령면 계서리 서산)<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진안.

새웅개 명 [대응어] 새우(민물, 大).

☞새옹개.

지역 김제.

새이 명 [대응어] 사이.

시간이나 장소나 사람 따위가 서로 맺는 여러 관계 ¶응, 여단이문, 여단이문을 딱 해놨는데, 그 문틈 {새이로} 이렇게 쳐다 보닝게, 드러누워 쳐다보닝게.<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자기 마누라가 인자 그 정부(情夫)가 있었던 모(모양)이지? 다른 남자를 보았던 모냥여. 나간 {새이}.<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그런디 그거이 어디 그렇게 쉬운 일이당가? 성님

동상 {새이라도} 이 집 저 집이 문서가 달른디, 아나 너 가져라, 호락호락 줄랑가.<최명희, 혼불>
[지역] 무주, 완주, 임실, 고창, 남원, 군산.

새이때 [명] [대응어] 새참.
일을 하다가 잠깐 쉬면서 먹는 음식. ¶된일 헐 때는 {새이때를} 꼭 먹어야제 일이 돼.
[지역] 전북.

새잽이 [명] [대응어] 새잡이.
새로 처음부터 시작하는 일. ¶형님, 저한테는 기표가 큰놈이에요. 기채 낳을 때 어쨌는지는 생각도 안나고, 시방은 {새잽이로} 서툴러요.<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새짐성 [명] [대응어] 날짐승.
☞새짐승.
[지역] 전북.

새짐승 [명] [대응어] 날짐승.
새를 통틀어 이르는 말. ¶두번 나미타불허면 좁은질이 널뤄지고 세번 나미타불허면 까막까치 {새짐승도} 인도환생 허여가되 나무애미타불<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새짐승이} 자웅을 후리려고 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총각은 거기 어디 촌 처녀색시더러 들으란 노래고, 기생은 또 저대로 제 정랑(情郎)더러 들으란 노래고.<채만식, 태평천하> ¶부르고 기뻐도 노래를 부르고, 또 춤을 추기도 하고 하기는 하지만, 그 중의 한 가지 마음 싱숭거릴 때에 부르는 노래는 {새짐승이} 자웅을 찾느라고 묘한 소리로 우는 것과 가장 공통된, 동물의 한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나 인간은 그 동물적인 본능을<채만식, 태평천하>
[지역] 군산.

새채비 [명] [대응어] 새잡이.
새로 처음부터 시작하는 일. ¶이렇게 해 노먼 {새채비로} 다시 묶어야 혀.
[지역] 전북.

새챙이 [명] [대응어] 새끼줄.
새끼로 만든 줄.
[지역] 전북.

새치로 [부] [대응어] 새로, 다시.
☞새칠로 ¶야, 가위바위보 {새치로} 한 번만 더 혀. ¶다시 점검 해가꼬 보탬이 되면 {새치로} 갈케 드릴께요
[지역] 전북.

새칠로 [부] [대응어] 새로, 다시.
하던 것이나 있던 것을 새로이 되풀이해서 ¶이장을 {새칠로} 뽑든가 혀야지 이건 뭐 제대로다 이장 일을 허는 게 있어야제.<조봉래, 풀벨골> ¶오날날 그 자석놈 손에 이차로 똑같은 변을 당헌다 허도 낭중에 {새칠로} 또 세우면 고만이니께 한나도 겁날 것 없다!<윤흥길, 낫> ¶"유식헌 말로 허니깨 당최 알아먹들 못허겄는 모냥인디, {새칠로} 쉽게 말혀서 오야붕이 누구냐, 그 말여."<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새칠로} 한 시
[지역] 전북.
[해설] 전라 방언의 '새칠로'는 '새+칠로'의 구성을 갖는데 '칠로'는 조사 '처럼'의 이형태로 보인다. '처럼'의 '텨로>쳐로'의 변화가 다소 다르게 적용되어 전라방언에서는 '치로, 칠로, 철로' 등으로 나타난다.

새캄하다 [부] [대응어] 새까맣다.
매우 까맣다. ¶요놈이 {새캄헌} 강아지가 쥔네가 들온게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한국구비문학

대계, 전북정주시·정읍군편>

지역 전북.

해설 표준어 '새까맣다'는 '까맣다'에 접두사 '새-'가 연결된 것이다. 이 '새까맣다'가 어간재구조화를 일으켜 전북에서는 '새캄하다'로 쓰인다.

새캄허다 형 [대응어] 새카맣다.

매우 까맣다. ¶요놈이 {새캄헌} 강아지가 쥔네가 들온게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동갑내기 내 친구지만 학교로는 {새캄헌} 후배여. 긍게 나보고 형님이라고 불러야 허.

지역 정읍.

새코롬허다 형 [대응어] 새콤하다.

조금 신 맛이 있다. '새곰하다'보다 거센 느낌을 준다. ¶싱건지가 {새코롬허게} 잘 익었구만.

지역 전북.

새키 명 [대응어] 새끼.

어떤 사람을 욕하여 이르는 말. ¶그 놈의 {새키를} 가만 안 둔다.

지역 전북.

새타구니 명 [대응어] 사타구니.

두 다리의 사이. 표준어와 달리 비하의 의미로 쓰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새타구니} 부여잡고 뭐 허는 짓이여?

지역 전북.

새팔새팔 부 [대응어] 파릇파릇.

군데군데 파르스름한 모양. ¶풀이 {새팔새팔} 하나씩 나잖여.

지역 전북.

새풀 명 [대응어] 억새. ¶{새풀을} 엮꺼서 지붕 이고.

지역 전북.

색거리 명

남에게 빌린 나락. ¶옛날에는 나락 얻을라믄 새꺼리라고 혔어. ¶{색거리나} 빗이나, 똑같어. ¶{색거리} 내야 먹어야제. {색거리도} 신용 있어야 얻어. 글안흐믄 얻도 모더. ¶또 {색거리나} 히서 먹기도 허고 그렀어. {색거리라고} 넘한티 빌리먼은 인자 삼할 오할 준다드니 그렇게 줘가꼬 그것보고 색교라고.

지역 고창.

색경 (←石鏡) 명 [대응어] 석경(石鏡).

☞색경 ¶간다고 헌지 은젠디 아직까지 {색경만} 딜에다보고 있당가? 참 폭폭하구마이.

지역 임실.

색경 (←石鏡) 명 [대응어] 석경(石鏡).

유리로 만든 거울. ¶"보소, 왜놈덜이 그런 눈치 {색경} 덜에다보디끼 다 알고 거그 일얼 몰악시럽게 막아낸 것 아니겄능가."<조정래, 아리랑> ¶그나저나 요리 이쁘고 암팡진 {색경이} 어디서 났드라요?<조정래, 아리랑> ¶어머니 방에 있는 {색경에} 먼지가 끼어서 잘 안보이니 좀 닦아야 겠다.

지역 무주, 진안, 임실, 장수.

해설 '석경(石鏡)'은 '유리로 만든 거울'을 말하는데 전라도에서는 '색경, 섹경'이라고 발음한다. '석경'도 반모음의 영향으로 '섹경, 세꼉, 시꼉' 등으로 발음이 되었다. 다시 앞에 나오는 '이'모음의 영향으로 '시껭'으로 발음이 되었다.

색그리 (色그리) 명 [대응어] 색갈이.

봄에 양식이 귀할 때 묵은 곡식을 꾸어 주었다가 가을에 햇곡식이 나면 그것으로 바꾸어 받는 일. 또는 그 곡식. ¶{색그리를} 내서 나중에 받을란게 필요허믄 야기하소.

지역 전북.

색색이실 (色色이실) 명 [대응어] 색실.
여러가지 물을 들인 실. ¶시방은 그 {색색이실} 있잖여. 근디 그 전이는 곶감실이다고. 곶감만이로 돌돌 몰아논 놈 열두 가지가 있어, 색깔이. 그놈 사다가 색색이 쩔어.
지역 전북.

색이다 명 [대응어] 삭이다(음식을).
☞색히다.
지역 군산, 익산.

색히다 명 [대응어] 삭히다.
김치나 젓갈 따위의 음식물을 발효시켜 맛이 들게 하다. ¶{색히야} 젓갈이 되지. 바로 당군 걸 젓갈이라 한당가?
지역 남원, 부안, 군산, 익산.

샘동저고리 명 [대응어] 색동저고리.
색동으로 소매를 대서 만든 어린아이의 저고리.
지역 군산.

샘일손 (←三日손) 명
아기가 태어난 지 삼일 만에 신에게 비는 일. ¶엊그저끄 우리 아덜이 앞으로 잘 살게 히 달라고 {샘일손을} 했지.
지역 전북.

샘키다 동 [대응어] 삼키다.
음식물, 침 따위를 목구멍으로 넘어가게 하다. ¶솥 속으다가 흰밥을 됐더니 그 놈의 밥을 조께 넣었더니, "{샘킨다}." {샘킨다고} 밥을 좀 이놈을 {샘켜}. 아 그리서 그양 '그놈이 알고 근게비다.'<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군산, 고창, 정읍, 남원, 무주, 완주, 임실.

샛갓 명 [대응어] 고깔. ¶비나 햇볕을 막기 위하여 대오리나 갈대로 거칠게 엮어서 만든 갓. ¶아 아나 농부님 말 들어보아/저 건너 갈미봉으 비가 묻어 들어온다/허리으 우장을 입고 머리 우여 {샛갓을} 쓰소<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옥구 모심는 소리/상사소리1991. 1. 30 / 옥구군 회현면 금광리 금광)
지역 군산.

샛거리 명 [대응어] 새참, 곁두리.
일을 하다가 잠깐 쉬면서 먹는 음식. ¶아 그러콤 딱 히놓고서는 저녁으로 오면은 시한이는 {샛거리도} 저녁 샛거리도 갖다주고 갈 때는 안녕히 가시라고 허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응, 그래 형 되는 이는 훨씬 여유가 있어서 잘살지만은 동생은 가난한개 남의 집에서, {샛거리라고} 있거든, 있어요. 그 {샛거리를} 내다가 세월을 보내야. 근데 {샛거리내다} 먹으면 그해 인제 가을에 나갈 것 같으면 갚아 주는 것이제.<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헌디 그 새때쯤 되면 {샛거리라고} 안주는 게벼? 잉. 새참을 준다. 그말이라. 새참을 주는데 그 기가 맥히게 맛있게 해 준다 그말이여.<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부안, 순창,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진안.

샛그리 명 [대응어] 새참, 곁두리.
☞샛거리.
지역 순창.

샛밥 명 [대응어] 곁두리.
일을 하다가 잠깐 쉬면서 먹는 밥 따위의 음식.
지역 군산, 김제, 부안, 진안.

생각허다 동 [발음] [생가가다/생가커다] [대응어] 생각하다.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다.
지역 김제, 장수.

생개 명 [대응어] 새우(민물, 大).
강이나 호수 따위의 염분이 없는 물에서 사는 큰 새우. ¶내에서 잡은 {생개} 넣고 국물을 우리면 시원하고 맛있어.
지역 김제.

생것 명 [대응어] 생선.
먹기 위해 잡은 신선한 물고기. ¶아 등짐장사가 아 생전 이얘기가 뭣인지 저는 어린 새끼들 먹여 살릴라고 밤나 뭣이냐 소금도 짊어지고 팔었다 {생것도} 짊어지고 대님서 팔었다 밤나 이지랄만 허고 뭐 이얘기를 알어야지.<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생견 (←生前) 명 [대응어] 생전.
살아 있는 동안. ¶같이 젊어서부터 같이 늙은게 {생견} 그런 일 없는디.
지역 전북.

생괴기 (←生괴기) 명 [대응어] 생고기.
말리거나 익히거나 가공하지 아니한 고기. ¶이 식당은 국내산 {생괴기만} 사용한다 ¶{생괴기로} 먹으면 위험하니 삶아서 먹거라.
지역 전북.

생끼손가락 명 [대응어] 새끼손가락.
다섯 손가락 가운데 다섯째 손가락. ¶{생끼손가락에} 고름이 잡혔고마.
지역 진안, 무주.

생끼손그락 명 [대응어] 새끼손가락.
☞생끼손가락.
지역 진안.

생끼송고락 명 [대응어] 새끼손가락.
☞생끼손가락.
지역 무주.

생놈 (生놈) 명 [대응어] 생것.
아직 익지 않은 것. ¶보리 생놈을 뭉글어. 보리 덜 익은 거. 그렇게 히서 청맥죽을 쒀먹었어.
지역 전북.

생땅 (生땅) 명
수확하고 아무것도 없는 땅. ¶여그는 배차 심었었는디 인자 지금은 거두고 {생땅이제}.
지역 전북.

생묵다 (生묵다) 동 [대응어] 생먹다.
일부러 모르는 체하다. ¶넘우 말에 귀질기고 {생묵는} 것보담사 월등허니 낫다고 허야 허지 안허겄소?<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생바닥 (生바닥) 명 [대응어] 생땅.
파헤친 적인 없는 원래대로의 굳은 땅. ¶{생바닥} 쟁기질히서 모 심어.
지역 전북.

생새우 명 [대응어] 새우(바다, 小).
바다에서 사는 작은 새우. ¶그물을 바다에 쳐 놓았다가 올려 놓은게 {생새우가} 떼로 잡혔고만.
지역 무주.

생손 명 [대응어] 생인손.
손가락 끝에 종기가 나서 곪는 병. ¶나는 잠을 자고 있었는데 너는 깨어 나를 보고 있는 것일까. 무슨 {생손} 아리듯이 손가락 끄트머리 손톱 밑에서도 네 이름이 앓고 있다.<최명희, 혼불> ¶손가락 끝에 {생손이} 생겨 매우 아프구나.

지역 무주, 완주.

생손가락 명 [대응어] 생인손.
손가락 끝에 종기가 나서 곪는 병. ¶아가 까시가 백혀 {생손가락을} 앓은게로 병원에 데리갔지.
지역 고창.

생숫구녁 (>生水구녁) 명 [대응어] 샘(泉).
물이 땅에서 솟아 나오는 곳. ¶물이 여그저그가 다 말랐응게 다른디서 {생숫구녁을} 찾아서 파내야지.
지역 완주.

생쌀밥 (生쌀밥) 명
밥물이 적어 아주 설익은 쌀밥. ¶둘이 다같이 군산 있을 적에 계봉이가 승재를 찾아와서 밥을 지어 준다는 게 {생쌀밥을} 해놓고, 그래도 그 밥이 맛이 있다구 다꾸앙쪽을 반찬삼아 달게 먹곤 하던 그 뒤로는 반년 넘겨 오늘 밤 처음이다.<채만식, 탁류>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생쌀밥'은 '생쌀로 된 밥'이 아니라 '설익은 밥'을 말한다. 따라서 '생(生)-+쌀밥'의 구조를 가진 어휘이다. 이때 '생-'은 '익지 아니한'을 뜻하는 접두사이다.

생에 (←喪輿) 명 [대응어] 상여(喪輿).
사람의 시체를 실어서 묘지까지 나르는 도구. ¶인자 거시거지. 생인들 허고 인사헌다고 거시기 허자나. 메기자나, 그 {생에} 메기는 사래미 허지.{이제 거시기하자. 상인(喪人)들 하고 인사한다고 거시기 하잖아. 메기잖아. 그 상여 메기는 사람이 하지}.<2007 전북 군산> ¶지사는 안 지내. 인저 상복쩨 지내먼 인자 나가는 거여. 그리서는 {생에} 나가기는 생복쩨를 지내먼 그게 인자 {생에가} 나가는 거여. 생에 나갈 때 상복쩨를 지내자나.{아, 안 지내. 이제 상복제 지내면 이제 나가는 거여. 그래서는 상여 나가기는 상복제를 지내면 그게 이제 상여가 나가는 거야. 상여 나갈 때 상복제를 지내잖아}.<2007 전북 군산> ¶너 어제밤에 {생에} 나가는 꿈을 꾸었담서 좋은 소식 없냐.
지역 완주, 군산, 남원, 무주, 임실.

생에소리 명 [대응어] 상엿소리.
상여꾼들이 상여를 메고 가면서 부르는 구슬픈 소리. ¶상두꾼들의 {생에소리가} 마음 아프고만. ¶우리 할머니의 {생에소리가} 참으로 슬퍼.
지역 전북.

생이 명 [대응어] 상여(喪輿).
☞생에. ¶저기 저기 웬 {생이가} 우려 집으로 휘어든다/풀어 줘라 풀어 줘라/석 자 머리를 풀어 줘라/걸어 줘라 걸어 줘라/아홉 새라 물명지 적삼/ {생이} 끝에다 걸쳐 줘라/가락같이 오던 {생이}/불꽃같이도 날아가네<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남원, 무주, 임실.

-생이 【접미사】
동물 또는 그 새끼를 가리킬 때 쓰는 접미사. ¶염생이, 맴생이, 강생이, 망생이 등.
지역 전북.
해설 '좀생이'[쫌생이]에서 '-생이'는 사람을 가리키며 비하의 의미를 갖는다.

생이다 동 [대응어] 생기다.
없던 것이 새로 있게 되다. ¶돈 {생이면} 줄 텡게로 좀 빌리줘 봐.
지역 전북.

생인 (←喪人) 명 [대응어] 상인(喪人)
부모나 조부모가 세상을 떠나서 거상 중에 있는 사람. ¶임줄 쳐 놔. 궂인 사람 못 오게. {생인}

같은 사람 못 들오게.

지역 전북.

생지 (生지) 명 [대응어] 생김치.

막 담근 겉절이. 또는 아직 익지 아니한 김치. ¶막 담은 {생지를} 손으로 집어서 밥 웃으다 올려 놓고 먹으면 달당게.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생지'는 '생(生)+지'의 복합어로, 표준어로는 '날김치, 생김치'에 해당한다. '김치'의 옛말이 '지'이기 때문에 전북 방언에서는 '김치'를 주로 '지'로 쓴다.

생지랄 (生지랄) 명 [대응어] 지랄, 개지랄.

마구 법석을 떨며 분별없이 하는 행동을 속되게 이르는 말. 표준어와 달리 친근감을 표현하는 용도로 쓰일 때가 많다. ¶그놈의 수행지 급살인지 때민에 도지(賭租)를 감히여 달라고 {생지랄덜을} 허넌디!<채만식, 태평천하> ¶쫓아댕김서 이사를 못허게 감시를 허고, 조를 짜고, {생지랄을} 다헙디다.<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해설 '지랄'에 접두사 '생(生)-'을 연결하여 '생지랄'이라고 쓰면 '지랄'의 의미가 강화된 것이다. 표준어에는 '개지랄'만 등재되어 있고 '생지랄'은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전북 지역에서는 '개지랄'과 함께 많이 쓴다.

생차 명 [대응어] 생채.

무를 가늘고 얇게 썰어서 만든 김치. ¶무수로 {생차를} 만들어 먹고 국도 끓이고 하니께로 유용해.

지역 고창.

해설 표준어 '생채'는 '익히지 아니하고 날로 무친 나물.'로 뜻풀이를 하고 있지만, 전북 방언의 '생채'는 대체로 '무를 채를 썰고 고춧가루와 양념을 넣어 무친 음식.'을 말한다.

생채지 (生菜지) 명

무를 채 썰어 양념을 한 후, 바로 먹을 수 있도록 한 김치. ¶김장헐 쩍으 바로 먹을라고 무시를 채가서서 담는 것이 {생채지여}.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의 '생채'는 대체로 '무를 채를 썰고 고춧가루와 양념을 넣어 무친 음식.'을 말한다. 전북 방언에서는 이 '생채'에 '김치'의 옛말인 '지'가 연결되어 '생채지'가 된다.

생클하다 형 [대응어] 냉랭하다.

온도가 몹시 낮아서 차다. 또는 태도가 정답지 않고 매우 차다. ¶날씨가 {생클하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나비네. ¶뭔일이 있길래 이렇게 말도 안 허고 분위기가 이렇게 {생클혀}?

지역 전북.

생키 (←松肌) 명 [대응어] 송기.

소나무의 속껍질. ¶방장산으 고사리 꺾으러 가서 물대신 소나무껍질 벗겨 {생키로} 속을 채우곤 했지라. ¶자랄 적에 {생키를} 먹어서 그런지 지금도 건강합니다.

지역 고창.

생키다 동 [대응어] 삼키다.

무엇을 입에 넣어서 목구멍으로 넘기다. ¶어쩐지, 아까참에 봉게 빳빳헌 괴기 음석을 깨물도 않고 꾸역꾸역 고대로 {생킨게} 댐박에 언처 버리제이~.

지역 고창.

생태 (生태) 명 [대응어] 생솔.

벤 지 얼마 안 되어 채 마르지 아니한 소나무. ¶{생태라} 잘 안 탄게 불무질을 혀.

지역 전북.

샤다 동 [대응어] 새다(물이).
기체, 액체 따위가 틈이나 구멍으로 조금씩 빠져 나가거나 나오다. ¶빗물이 {새서} 온 집안이 난리가 났제.
지역 장수.

샤복밥 명 [대응어] 새벽밥.
☞새벽밥.
지역 장수.

샤살 명 [대응어] 재롱
귀엽고 재미있게 노는 행동. ¶참 미친 놈. {샤살을} 떨어라 떨어.
지역 남원.

샤우등 명 [대응어] 새우등(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새우의 등. 또는 새우의 등처럼 구부러진 사람의 등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지역 장수.

색경 명 [대응어] 거울.
☞색경.
지역 장수.

샛거리 명 [대응어] 곁두리.
☞샛거리.
지역 장수.

서거리 명 [대응어] 석동.
윷놀이에서, 말이 첫 밭에서 끝 밭을 거쳐 나가는 세 번째 차례. 또는 세 번째 나는 말.<우리> ¶{서거리} 났어.
지역 전북.

서걱이다 동 [대응어] 서걱거리다, 서걱대다.
갈대나 풀 먹인 천 따위의 얇고 빳빳한 물체가 스치는 소리가 자꾸 나다. ¶대수풀이 바람에 {서걱이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우리들 귀엔 - "비밀입니까/비밀이라니요/내게 무슨 비밀이 있겠읍니까/내 비밀은 떨리는 가슴을 통해서 당신의 觸覺으로 들어갔습니다.<서정주, 竹窓>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서걱이다'는 의성어 어근 '서걱'에 동사파생접미사 '-이-'가 연결되어 동사가 된 것이다.

서글새 명 [대응어] 서까래.
마룻대에서 도리 또는 보에 걸쳐 지른 나무. ¶{서글새가} 썩어분졌구마이.
지역 전북.

서깔 명 [대응어] 서까래.
마룻대에서 도리 또는 보에 걸쳐 지른 나무. ¶{서깔이} 썩어 무너질라 하는고만.
지역 전북.

서껄 명 [대응어] 서까래.
☞서깔.
지역 순창.

서끄 명 [대응어] 서까래.
☞서깔.
지역 고창.

서끌 명 [대응어] 서까래.
☞서깔.
지역 고창, 무주.

서나서나 부 [대응어] 천천히.
동작이나 태도가 급하지 아니하고 느리게. ¶아, 일이라는 것은 {서나서나} 히야지. 고로코롬 후딱허면 일이 되간디?<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자, 앉어갖고 {서나서나} 이야기헙시

다.<이병천, 모래내모래톱>
지역 전북.

서답 명 [대응어] 빨래.
더러운 옷이나 천 따위를 물이나 세탁기에 빠는 일이나 더러운 옷이나 천 따위, 즉 빨아야 할 옷이나 천빨아진 옷이나 천 따위 ¶사람은 안채, 그 안 마당을 들어가도 잘 못허게 생겼어. 그렇게 구조를 꾸며 갖고 사는디. 여자는 안이서 빨래 같은 것, {서답을} 해주게 되고, 남자는 배깥 사랑에서 농삿일을 보게 되고 그렇게 살어.<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김제,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임실.

서답비누 명 [대응어] 빨랫비누.
빨래할 때 쓰는 비누 ¶여보 서답을 해얀게 {서답비누} 쫌 사다 주믄 안될까나?
지역 장수.

서답줄 명 [대응어] 빨랫줄.
빨래를 널어 말리려고 다는 줄 ¶그때 마침 작년 가을에 강남으로 날아갔던 제비 한 쌍이 날아와서 묵은 {서답줄에} 나란히 앉아 “아이구 저런. 아기씨, 도련님. 그동안 많이도 자랐구려. 어머닌 어델 가셨소?”<채만식, 과도기>
지역 진안.

서대기 명 [대응어] 서캐.
이의 알. ¶갈강아 갈강아/{서대기} 데리고 잘 있거라/석석바오 난간에 빨래질 가다/마빠우 만나믄 나는 죽는다(진안 이타령-진안군 성수면 중길리 오암)<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진안.

서대다 동 [대응어] 설치다.
마구 날뛰거나 조급하게 행동하다. ¶아따, 보자마자 사삭을 떨며 죽은 지애비 본 것마냥 오사허게 {서대는} 것땜시 부담시럽고 애성받혀 혼이 났다. ¶아, 으악새 슬피 크게 웅게 가실잉가 했등만 기냥 해찰 {서대다} 지영 술참까장 낮잠오수 펴자고 낭게 시방도 삼복 더우 속이다. ¶그날 오기만 언능 후딱 학수고대 지두리고 있다 {서대다} 연속 {서대다가} 모가지만 질게 늘어나고. ¶담우락 우타리 없이 일 년을 서대다가 소캐(솜)에 물 탄 듯이 때낀 몸땡이만 천만 근 되아 갖고 ¶긍게, 나도 한 승질 헝게 매급씨 {서대다가} 비 마짐서 해찰 험서 난닝구 사쓰와 속빤쓰까장 싹 멍처 버렸당게요
지역 고창.

서되지기 명 [대응어] 마지기
볍씨 한 말의 모 또는 씨앗을 심을 만한 넓이. ¶내가 땅이 많기는 뭐, 끽혀야 {서되지기나} 되나?
지역 완주.

서뜨하다 형 [대응어] 서먹하다.
낯이 설거나 친하지 아니하여 어색하다. ¶고런 자리는 영 분위기가 {서뜨해서} 싫드라고.
지역 전북.

-서라오 【종결어미】 [대응어] -습니다.
☞-겨라우.
지역 군산, 김제, 부안, 고창.

-서라우 【종결어미】 [대응어] -습니다.
☞-겨라우.
지역 군산, 김제, 부안, 고창.

서러다 형 [대응어] 서럽다.
원통하고 슬프다. ¶여자가 머리를 깎아서 그렇게 곡식을 구해다 어머니 환갑잔치를 한개 {서러서} 운다.” 고 그러드래.<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이 자식아 죽을 놈이 왜 우

냐?" "아이고 내 죽는 것은 죽는 것은 안 {서러도} 아이구, 우리 굴에 괴기 석동 있는 것이 썩은게 그것이 아까서 내가 우요."<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어어허어노 어어허어노 못 가아갔네 못 가아갔네 차마 {서러서} 내 못 가겄네에 구슬픈 후렴에 가슴을 에이게 하는 선소리꾼의 상여 소리가 매안의 고샅과 지붕과 나무 위에 넘친다.<최명희, 혼불>

지역 남원, 부안, 순창, 군산, 임실, 장수, 진안.

해설 현대 국어 '서럽다'의 옛말인 '셟다'는 15세기 문헌에서부터 나타난다. 이 단어는 19세기까지 형태 변화 없이 쓰이는 한편 'ㅂ'이 탈락하고 단모음화 된 형태가 19세기에도 나타난다. '서럽다'는 '셟>셜>설'의 형태로 변화한 '설'에 형용사 파생 접미사 '-업-'이 다시 결합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서루 부 [대응어] 서로.

관계를 이루는 둘 이상의 대상 사이에서, 각각 그 상대에 대하여. 또는 쌍방이 번갈아서. ¶그러닝게 당신허구 나하구는 한 십 년간 {서루} 떨어져서 살아보자." 구. 그래서 남자가 가만히 생각하닝게, 그 여자 말 안들을 수두 없구, 그래 나갔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그러닌개 적인 사람의 집에 가서, 경찰서에 갇혀서 거식하구있던 사람하구 밤나 {서루} 친절미있게 얘기하라구 그려유. 즈이스모네 집에는 뭐 별루 가구자프겠슈?<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내야 그 밑천 가지구 어덜 가면 그 벌이 못하겠쉉가마는, {서루} 다아 아는 처지구 하길래 공심부름하는 셈 잡구서 팔아 드릴랬더니……내야 내 물건 뺏기는 게 아니구……"<채만식, 금의 정열>

지역 전북.

서르매 명 [대응어] 썰매.

☞썰매.

지역 전북.

서리떡 명 [대응어] 백설기.

불린 멥쌀 가루로 고명 없이 시루에 찐 흰 시루떡. ¶서리떡은 무당 들이 굿헐 때 많이 했고, 설때도 많이 먹었지요. 지금은 색색 넣어서 {서리떡} 만든디 그때는 색을 널 수 없었은게 그냥 희게 먹었지.<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전북.

서방을 잡아먹다 【관용표현】

남편을 죽게 한 원인이 부인에게 있다는 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 ¶네가 소갈머리가 고따우루 생겼으닝개루, 저 나이에 {서방을 잡어 먹었지}!<채만식, 태평천하>

지역 전북.

해설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을 수는 없다. 이 관용표현은 일반적으로 부인과 살다가 남편이 일찍 죽었을 때 그 부인을 흉보기 위하여 쓰던 표현이다. 남편을 죽게 한 원인이 부인에게 있다는 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서빠지게 부

진이 빠질 정도로 몹시 힘을 들여. ¶긍게, 무덜라고 싼놈 사 갖고, {서빠지게} 고상허능가 모르겄네 이~.

지역 고창.

서새원 명 [대응어] 서생원.

'쥐'를 의인화하여 부르는 말. ¶밤마다 {서새원이} 날뛰는 소리를 들어 봐. 잠이 오나.

지역 전북.

서숙 명 [대응어] 메조. ¶{서숙을} 저분으로 그놈을 줏어담고 앙겄은게 서방님이 과거갔다 저 베슬했은게 인자 어디 갔다 옴서, "저그 저 달은 휘영청청 밝어서 우리 마느라를 보건만은 나는 어째 못 보나" 고 험서 노래를 달보고 신세 한탄허고

오드라네.<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서숙}, 조밥을 먹던가 보드만. 그서숙밥을 인제 대천히서 잘 먹었다 이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정주시정읍군편>
지역 고창, 남원, 무주, 순창, 임실, 장수, 진안.

서숙떡 명 [대응어] 좁쌀떡.
조를 넣어서 만든 떡. ¶벅짝에다 {서숙떡} 담어서 나놔 줘. 우리집이다 계란으로 부주허고 쌀로 부주헌 동네 사람들한티는.
지역 전북.

서숙모가지 명 [대응어] 조 이삭.
조의 이삭.
지역 임실, 장수, 무주, 고창, 김제, 남원, 부안, 순창, 완주, 익산, 정읍, 진안, 군산.

서숙밥 명 [대응어] 조밥.
맨 좁쌀로 짓거나 입쌀에 좁쌀을 많이 두어서 지은 밥. ¶서숙, 조밥을 먹던가보드만. 그 {서숙밥을} 인제 대천 히서 잘 먹었다 이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서숙밥은} 정월 대보름에 많이 먹었지. ¶정월 보름날 {서숙밥을} 해 먹었다.
지역 남원, 순창, 임실, 장수, 진안, 정읍.

서숙뱁 명 [대응어] 조밥.
☞서숙밥.
지역 임실.

서숙알 명 [대응어] 좁쌀.
조의 열매를 찧은 쌀. ¶좁쌀 {서숙아리라고}<2005 전북 남원> ¶임마, 괘대기도 이마빡이 있고 {서숙알만한} 배룩도 낯빤대기가 있어!<송기숙, 녹두장군>
지역 남원, 고창.

서슥 명 [대응어] 조. ¶여기서는 {서스기라는} 마를 마니 쓰세요, 조라고 마니 하세요? {서:스기라고} 스숙.<2008 전북 고창> ¶아 이 총각이 있는디 인자 겁이 나서 선 빼들고 온게. 그리갖고는 대접헐 것도 없고 헌게 아무것이라도 좋다고. {서슥}, 조밥을 먹던가보드만. 그 서숙밥을 인제 대천 히서 잘 먹었다 이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고창, 정읍.

서중 명
가물어서 논에 물이 없을 때, 비가 조금 와서 물이 좀 괴면 물 괸 자리만 호미로 파서 모를 심는 일. 또는 그렇게 모를 심었던 논. ¶그때는 {서중으로} 모도 심고. 비 쪼까 오면 호맹이로 파서 모 싱구고. 그런 정도로 그것했는디 지금은.
지역 전북.

서크래 명 [대응어] 서캐.
이의 알.
지역 순창.

서패 명 [대응어] 허파. ¶{서패에} 바람든 지집맨치로 무단시 왜 웃어쌓소?<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서패'는 표준어 '허파'에 해당한다. '허파'는 '폐'를 나타나기 때문에 전라방언으로 '허페'로 발음한다. 구개음화현상을 거치면서 '서패'로 발음한다.

서패에 바람 들다 【관용표현】
지나치게 웃어 대다. 또는 마음이 들떠서 행동이 실없다. ¶{서패에 바람든} 지집맨치로 무단시 왜 웃어쌓소?<윤흥길, 빛가운데로걸어가면>
지역 전북.

서패에 바람이 갑북 들다 【관용표현】 [대응어] 허파에 바람 들다.
☞서패에 바람 들다. ¶시한부 종말론 믿고 {서패에 바람이 깝북 들어서} 너는 시방 하늘이 돈짝만허게 뵈는 모냥인디<윤흥길, 빛가운데로걸어가면>
지역 전북.

석고 (石고) 명 [대응어] 석유. ¶{석고} 지름 가지고 간 것이 다 떨어질 거 아니여 일년을 내내 켰응게.
지역 전북.

석동 명 [대응어] 석동(나다).
윷놀이에서, 말이 첫 밭에서 끝 밭을 거쳐 나가는 세 번째 차례. 또는 세 번째 나는 말. ¶{석동이} 났은게로 인자 몇 동 남았나?
지역 김제, 남원,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임실, 장수, 진안.

석동사니 명 [대응어] 석동.
윷놀이에서, 말이 첫 밭에서 끝 밭을 거쳐 나가는 세 번째 차례. 또는 세 번째 나는 말.
지역 김제, 남원, 군산, 익산, 고창, 부안.

석동산 명 [대응어] 석동무니.
윷놀이에서, 세 동이 한데 포개어져 가는 말.
지역 군산, 순창.

석동새니 명 [대응어] 석동.
☞석동사니.
지역 고창, 부안.

석동세 명 [대응어] 석동무니.
윷놀이에서, 세 동이 한데 포개어져 가는 말.
지역 고창.

석수쟁이 (石手쟁이) 명 [대응어] 석수장이.
'석수'를 낮잡아 이르는 말. ¶순갑이, 덕수를 놀리느라고 얼굴을 껍죽껍죽, 다리를 우줄우줄. {석수쟁이} 거동 봐 {석수쟁이} 거동 봐, 쇠방망치 둘러메고 눈만 헤번덕거린다<채만식, 무장삼동> ¶절의 예쁜 돌들은 바로 {석수쟁이가} 다듬은 것이다.
지역 전북.

석자이 (石자이) 명 [대응어] 석수장이.
'석수'를 낮잡아 이르는 말. ¶돌을 구해 갖고 왔는데 그걸 {석자이를} 들여서 마당서 연자매를 해 놨더라고.
지역 전북.

석지마지 명 [대응어] 석동무니.
윷놀이에서, 세 동이 한데 포개어져 가는 말.
지역 완주.

석짝 명 [대응어] 함지.
나무로 네모지게 짜서 만든 그릇. ¶날을 받아가지고 가서 많이 음식을 해가지고 그냥 몇 {석짝을} 가지고 가서 시제를 모셔}.<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지역 고창, 임실.

선낯하다 동 [발음] [선나다다/선나타다] [대응어] 낯가리다.
친하고 친하지 아니함에 따라 달리 대우하거나 어색하게 대하다. ¶처음 만났을 때 볼 불그스름허니 입을 삐쭉삐쭉하고, 두손을 앞으로 모아 맞잡고 몸을 베베 꼬면서 {선낯한드끼} 행동하는 모습에 반했제. 워찌나 귀엽고 여성시럽던지.
지역 전북.

선몽하다 (←現夢하다) 동
죽은 사람이나 신령 따위가 꿈에 나타나서 지시

하다. ¶그런디 하룻밤에는 선주(船主)한티 신령님이 나타나서 {선몽허기를} 청지와 석장을 오룡묘(五龍廟)에다 바치면 갈 수가 있다고 혔다.<구비문학대계 김제군>

지역 김제.

선불 맞다 [관용표현]

어설픈 타격을 받다. ¶말만헌 가이네덜이 꾀댕이를 벗어부리고는 {선불 맞은} 암소아치맹이로 요리 조리 험서나 비틀고 흔들며.<조봉래, 풀벨골> ¶질가에 전봇대고 머이고 눈구녁에 쇠라고 비치기만 허먼 {선불 맞은} 멧돼야지맹이로 달라들어서 뽑아 간다더라.<최명희, 혼불> ¶그 덤버드는 위세의 맹렬함이란 하릴없이 {선불을 맞은} 멧돼지다.<채만식, 탁류> ¶무엇이든지 앞에 다들리는 것이면, 산이든 바위든 때려부술 것 같았다. {선불 맞은} 멧도야지처럼 향도 없이 씽씽 걷기만 하였다.<채만식, 옥랑사>

지역 전북.

선상 명 [대응어] 선생.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또는 성이나 직함 따위에 붙여 남을 높여 이르는 말. ¶{선상이}, 그렇게 말을 허는디 가만히 저놈을 혼을 낼라다가 이놈의 의견을 들어봐야것어. 대백이 혼내면 못쓰겄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있는 놈들 중에서도 우리 벗어배기 영감은 말허자면 예수를 {선상으로} 뫼신 학상이나 마찬가지란 말여. 그러니 신세가 고단헐 것은 당연지사지. 싫어도 벨수없이 예수 선상님이 내준 숙제를 푸는 숭내라도 내니라고 따른 부자들 않는 짓을 자기 혼차 도맡어서 헐라니깨.<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선상님 (←先生님) 명 [대응어] 선생님.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선상님} 땜시 웃기도 했고 {선상님} 땜시 울기도 했다.

지역 전북.

선상질 (←先生질) 명 [대응어] 선생질.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낮잡아 이르는 말. ¶인자는 {선상질} 허기가 겁나게 폭폭허당게요.

지역 전북.

선상질허다 동 [대응어] 선생질하다.

(낮잡는 뜻으로) 학생을 가르치다. ¶정신이 삐딱허니 돌았거나 빨갱이 사상을 거졌거나 둘 중에 하날 것이다 그런 말인디, {선상질허는} 양반이 정신이 삐딱헐 리는 없고, 남은 길은 뻔헌 것 아니겄어?<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섣달그뭄날 명 [대응어] 섣달 그믐날.

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날. $ ¶동생의 생일은 {섣달그뭄날이라} 생일 챙기기가 쉽지 않았어.

지역 고창, 완주.

설거짓물 명 [발음] [설거진물] [대응어] 개숫물.

음식 그릇을 씻을 때 쓰는 물. ¶{설거지물에} 그릇을 씾어서 잘 올려 놔라.

지역 군산.

설대 명 [대응어] 괴머리기둥.

물레의 괴머리에 박혀 가락고동을 끼우도록 만든 두 개의 나무. ¶물레장 파랑장/자구내 {설대} 궁글통/올로 졸로 니린 가락/석수쟁이 마친 가락/개고동에 걸린 가락/소리도 좋다 정가락(임실 물레질소리)<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임실.

설등멀등허다 동

설익어 살강거리다. ¶고구마가 {설등멀등허니} 미쳤어. 물 닳아지드락 더 때야 허.

지역 전북.

설뚝멀뚝하다 형 [발음] [설뚝멀뚜가다/설뚝멀뚜카다] [대응어] 서름서름하다.
사이가 자연스럽지 못하고 매우 서먹서먹하다. ¶만난 지 한참 되아도 {설뚝멀뚝하고} 어색스럽고 고런 사이가 있어.
지역 전북.

-설랑 조
앞절의 동작이 완료된 상태가 뒤의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 지속됨을 강조하는 보조사. ¶어따, 그냥 웃자고 한번 뱉어본 소리를 {갖고설랑} 뭘 그리 낯꽃까장 붉히소 야단이시오?<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저 불쌍하고 어리석은 죄인이 마귀 사탄한티 달팍 {씌워설랑은} 요 김부월 성도가 간증을 못 허게코롬 쌍지팽이 짚고 나서서 앞질을 떠억허니 가로막잖겄소.<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래 그렇게 소리없이 안으루 {들어가설랑은} 거저 두말없이 거저, 안방문을 열어제치십시요. 그러면 다아 아실 겝니다.<채만식, 탁류> ¶가령 도적이 들기로 한다면 가게로 들 것이지 안방이 무슨 상관이며, 하기야 안방에도 마누라의 패물이야 돈냥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면 안방을 앉아서 지키랄 것이지, 생판 아무도 모르게 숨어 {들어와설랑은} 열한점에 안방문을 열어젖히라니, 이건 바로 샛서방을 잡는 수작이란 말인가?<채만식, 탁류> ¶은행돈을 수우수천 원을 범포를 냈지요. 남의 소절수를 위조해 {가지구설랑} …<채만식, 탁류> ¶한쪽으로는 참으면 덕이 된다고 소리가 나오고, 한쪽에는 부애난 놈이 더 속으로 {성하고설랑}, 그래 문을 덜컥 열었어. 지침(기침)을 했지.<구비문학, 남원시> ¶이참으로다 우리, 돈을 {거둬설랑} 하나 때려치우끄나?<조봉래, 풀벨골> ¶조개 내동 가만 있다가는 항시 막판에 나서 {갖고설랑은} 해설이나 해대고.<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설비다 동 [대응어] 설치다.
행동을 거칠게 하면서 몹시 날뛰다. ¶멀 믿고 그렇게 {설벼} 대는지, 나 원 참.
지역 전북.

설소하다 형 [대응어] 생소하다.
어떤 대상이 친숙하지 못하고 낯이 설다. ¶자네 얼골이 {설소한디} 어디 사람인가?
지역 전북.

설크러지다 동 [대응어] 얼크러지다.
일이나 물건 따위가 서로 얽히다. ¶줄기는 대나무처럼 곧게 뻗어 있었다. 그런 사탕수수는 혼자서 있는 것이 아니었다. 긴 잎들이 서로 얼크러지고 {설크러지며} 촘촘하게 밀집되어 있었다. 길고 억센 잎들이 어찌나 무성하게 얽혀 있는지 몇걸음도 헤집고 들어갈 수 없을 지경이었다.<조정래, 아리랑> ¶얼굴을 고약하게 일그러뜨리며 백종두는 내쏘았다. "되면 되고 말면 말제 머시가 또 엉클어지고 {설크러지고} 헌다요?" "아, 시끄럿! 집구석에서 새끼럴 어찌 단속히서요 꼬라지가 되게 맨글었어."<조정래, 아리랑> ¶막상 '장모님' 소리를 듣게 되자 송씨의 마음은 이상스럽게 헝클어졌다. 저것이 딸년까지 욕심내서 그렇지 한동안은 밤새는 것이 아깝다 하고 얼크러지고 {설크러진} 사이였다.<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설크러지다'는 대체로 '얼크러지고 설크러지다.'의 표현으로 나온다. 전북에서는 '일이 얼키고 설켜 잘 풀리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때 '얼키고설켜'는 '얽다, 얽히다'와 '섥다, 섥히다'를 그 어원으로 두고 있다. 따라서 '섥다'의 피동사 '섥히다'에 동사파생 접미사 '-으러지다'가 연결된 것이다.

섬반 명 [대응어] 선반.

물건을 얹어 두기 위하여 까치발을 받쳐서 벽에 달아 놓은 긴 널빤지. ¶보따리를 죄다 {섬반} 우에 올려놓고는 좀 앉으려고 하는디 {섬반} 위에서 칼리 딱 떨어지더래요

지역 고창, 남원, 부안,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섭깍대기 명 [대응어] 콩깍지.

콩을 까 내고 남은 껍질. ¶콩을 털고 난 {섭깍대기가} 수북허게 쌓였제.

지역 임실.

섭바닥 명 [대응어] 혀.

혀의 윗면. ¶음식이 {섭바닥에서} 살살 녹는다

지역 순창, 남원, 무주.

섯바늘 명 [대응어] 혓바늘.

혓바닥에 좁쌀알같이 돋아 오르는 붉은 살.

지역 고창, 김제, 부안, 순창, 완주, 정읍, 군산, 익산.

섯바닥 명 [대응어] 혀. ¶날이면 날마닥 요러콤 배깥으로만 나돔시나 가래톳이 솟드락 뛰여댕기고 {섯바닥이} 부르트드락 말품 팔고 댕기는 것이니깨.<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오매, 이 남자가 얻다 대고 함부로 도끼눈을 꽝꽝 지릅뜨고 칼 {섯바닥을} 슴뻑슴뻑 휘둘른다냐?<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저런 {섯바닥을} 빼 눔이… 아, 대양을 썼으면 마룽 밑으다가 처박어둬야 헐 것 아녀, 이 육시럴……." 사태를 벌써 알아차린 아버지가 욕부터 하신다.<이병철, 모래내 모래톱>

지역 고창, 군산, 김제, 부안, 완주, 익산, 정읍, 임실.

섯바닥은 짤뤄두 침은 멀리 비얏넌다 【관용표현】

부족한 것이 많지만 잘 하는 것도 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 ¶하아따! 고년이 {서빠닥을 짤뤄두 침은 멀리 비얕넌다더니}, 이년아 늬가 적벽가 새타령을 허머넌 나는 하늘서 빌을 따오겄다!<채만식, 태평천하>

지역 전북.

해설 이 관용표현에서 '혓바닥은 짧다.'는 부족함이 많다는 의미를 갖는다. '침은 멀리 뱉는다.'는 표현은 무엇인가를 잘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관용표현은 비록 부족함이 많긴 하지만 잘 하는 것도 있다는 의미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성낭곽 명 [대응어] 성냥갑.

성냥개비를 넣는 갑. ¶그는 {성낭곽에서} 성냥개비 하나를 꺼냈다. ¶옛날엔 부뚜막 우에 {성낭곽} 한통씩은 필수적으로 놓여 있었지. ¶촛불을 켜야하니 {성낭곽을} 가져오너라.

지역 전북.

성냥간 명 [대응어] 대장간.

쇠를 달구어 온갖 연장을 만드는 곳. ¶집안에 대장장이가 느닷없이 날 리도 없어서, 집 옆에다 조그맣게 {성냥간을} 하나 만들어 그들은 제 필요한 것은 제가 손질하고 또 만들어 썼다.<최명희, 혼불> ¶쇳덩어리를 두드려대며, 시뻘겋게 이글이글한 불 속에 쇠를 달구었다가, 또 물속에 푸지지지 요란스럽게 집어 넣고, 또 다시 내려치는 금생이의 {성냥간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최명희, 혼불> ¶이놈들이 갖다오머는 참 애지간헌 큰 {성냥간} 불 만치나 불던게비여.<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고창, 부안, 순창, 완주, 김제, 남원, 임실.

해설 무딘 쇠 연장을 불에 불리어 재생하거나 연장을 만든다는 의미의 '성냥'과 '간(間)'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2음절 모음이 상승한 '성녕간'과 1음절 모음이 상승한 '승냥간', 1음절, 2

음절 모음이 모두 상승한 '승냥간' 등의 어형이 나타난다.

성냥쟁이 명 [대응어] 대장장이.
쇠를 달궈서 온갖 연장과 기구를 만드는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 ¶성냥쟁이가 낫이나 맹그고 괭이나 맹글지요." ¶저 성냥쟁이한티 가서 창 서너개만 쳐 오너라. ¶낫이 잘 안들으니 {성냥쟁이} 한테 가서 손 봐서 와야겠다.
지역 고창, 완주, 임실.
해설 '성냥쟁이'는 무딘 쇠 연장을 불에 불리어 재생하거나 연장을 만든다는 의미의 '성냥'과 접사 '-장이'으로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장이'가 '쟁이'가 되는 움라우트 현상은 많은 방언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성냥'의 2음절이 모음상승된 형태인 '성녕쟁이'와 무엇을 다루는 사람을 뜻하는 접사 '-잡이'가 움라우트된 형태인 '-재비'가 붙어 파생된 '성녕재비'도 나타난다.

성녕간 명 [대응어] 대장간.
☞성냥간.
지역 고창, 김제, 남원, 순창, 임실.

성녕잽이 명 [대응어] 대장장이.
☞성냥쟁이.
지역 남원.

성녕쟁이 명 [대응어] 대장장이.
☞성냥쟁이.
지역 임실.

성님 (←兄님) 명 [대응어] 형님.
'형'을 높여 이르는 말. ¶물아래 {성님}, 엥간허믄 단도리 잘험서 당케당케 살기라우. ¶긍게로 {성님} 별호가 바람 좋아헝게 바람보담 훨씩 쎈 김태풍이지라우. ¶지비 {성님} 드러오는 기척이낭게 후딱 끊으시요. ¶그나저나 지비 {성님땜시} 비아낭게 원정 조까 청 헐라고 전화 했제이. ¶{성님이} 그 병 또 돋았소?
지역 고창.

성지간 (←兄弟間) 명 [대응어] 형제간.
형과 아우 사이. ¶그가꼬 그양:바넌 기양 두목짜로 어디로 가:버리고 기양, {성지가니다고} 대신 긍개 큰:지비<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어머니도 안 지시고, 부모 {성지간} 암도 없고, 일가 친척 하나 없고, 아는 사람 머리크락도 안 뵈이는 심심산골 절간으 암자로 들으가시면, 인자 살어서는 못 오실라요오.<최명희, 혼불> ¶이런 말은 피가 같고 살이 같은 {성지간에도} 털어놓기 쉽잖을 거인디, 나를 언지부텀 어찌 보고 이런 궁리 저런 궁리를 내 일맹이로 허고 있었이까? 자개 일도 아닌디.<최명희, 혼불> ¶"큰집 작은 집 {성지간} 새이에 니 밥 내 밥이 어딨당가. 말을 허자먼."<최명희, 혼불> ¶한 사람이 우아랫집이 사는디 {성지간} 같이 친허게 지내아.<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임실, 군산.

성하다 형 [대응어] 싱싱하다.
시들거나 상하지 않고 생기가 있다. ¶홍어는 흑산도에서 잡자마자 {성한} 놈 먹는 게 좋지요. 삭쿤 놈은 코가 시큰해서 어디 먹겠습디여.<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전북.

세내 명 [대응어] 시내.
골짜기나 평지에서 흐르는 자그마한 내. ¶집이 저그 {세내} 앞에 있어.
지역 전북.

세리다 동 [대응어] 서리다.
국수, 새끼, 실 따위를 헝클어지지 아니하도록 둥그렇게 포개어 감다. ¶{세려} 보세 {세려를}

보세 에용 줄을 {세려} 보세(부안 줄메고 가는 소리/에용소리)<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부안.

세벌 명 [대응어] 세벌매기, 만도리, 만물.

벼를 심은 논에 마지막으로 하는 김매기. ¶두레는 16세부터 55세까지 손발에 찬물 묻혀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들어와 모내기부터 {세벌} 논매기 까지의 동네 농사일 전부를 맡아 해버리는 농촌의 작업 공동체였다.<송기숙, 녹두장군>

지역 전북.

세벌 마무리 지심 【관용표현】 [대응어] 세벌매기, 만도리, 만물.

벼를 심은 논에 마지막으로 하는 김매기.

지역 임실.

세벌가리 명

베어낸 벼 이삭이 어느 정도 마른 뒤에 쌓아둔 더미. ¶음, 줄가리는 제일 처으메 애 나라글 벼가지고 다늘 진 다으메 한줄로 쭉허니 논뚝에다가 세우는 거슬 줄가리, {세벌가리는} 이사기 어느정도 말려쓴, 마르며는 그거슬 그 접츠레 가지고 미뿌분이 여패로 다: 나오게 {세벌가리를} 험니다.(음, 줄가리는 제일 처음에 예 나락을 베어가지고 단을 진 다음에 한 줄로 쭉 하니 논둑에다가 세우는 것을 줄가리, 세벌가리는 이삭이 어느 정도 말렸은, 마르면 그것을 그 겹으로 쌓아가지고 밑 부분이 옆으로 다 나오게 세벌가리를 합니다.)<2007 전북 군산>

지역 군산.

세분허다 동 [대응어] 빨래하다.

더러운 의류 따위를 물에 빨다. ¶베 짠 놈 빨래혀. 빨래허는 것이 {세분허는} 것여.

지역 전북.

세안 명 [대응어] 겨울.

☞시한. ¶작년 {세안} 동짓달에 콩심이란년이 숨넘어가게 말해 준 것이 가슴에 얹혀 생병을 앓고 있는 효원이,<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세지기 명 [대응어] 삼일열.

열원충이 적혈구 내에서 48시간 동안 분화되어 열이 오르는 말라리아.

지역 전북.

세캐 명 [대응어] 서캐.

이의 알.

지역 무주.

세파리 명 [대응어] 쇠파리. ¶똥에는 {세파리가} 꼬여. 드러운 사람한티도 {세파리} 같은 놈들이 꼬인당께.

지역 전북.

섹경 (←石鏡) 명 [대응어] 석경.

☞섹겡.

지역 전북.

섹겡 (←石鏡) 명 [대응어] 석경.

유리로 된 거울. ¶{섹겡이} 깨져분져서 안 좋은 일이 생길랑갑네.

지역 전북.

섹경 (←石鏡) 명 [대응어] 거울.

☞색경.

지역 진안.

섹양 (夕陽) 명 [대응어] 석양.

저녁때의 햇빛. 또는 저녁때의 저무는 해. ¶마당

에 핀 매화가 {섹양에} 더욱 이삐게 보이네. ¶{섹양이} 다 되어서 인자 어두워진게 쓸쓸 돌아댕기는데 문을 연 가게가 있어야제.
지역 전북.

섹양판 (夕陽판) 명 [대응어] 석양판.
해 질 무렵. 또는 석양빛이 비치는 곳. ¶어디만큼 따러간게 {섹양판이} 돼 갖고는, "쉬어 갑시다." 허드라고.
지역 정읍.

섹오 (←石油) 명 [대응어] 석유.
☞섹유. ¶{섹오}지름 한 병이면 한달도 넘게 쓰는디 무슨 전기를 놓아 쓸디없이 돈을 디린다냐.
지역 익산.

섹오지름 명 [대응어] 석유. ¶시한이는 {섹오지름} 한 도람 받어 봤자 얼매 가도 못혀.
지역 전북.

섹우 (←石油) 명 [대응어] 석유.
☞섹유.
지역 정읍, 임실.

섹우지름 (←石油지름) 명 [대응어] 석유.
☞섹유. ¶다아 요런 때 쓸라고 비싼 {섹우지름} 애껴 놓았지.<윤흥길, 장마>
지역 전북.

섹유 (←石油) 명 [대응어] 석유.
땅속에서 천연으로 나는, 탄화수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연성 기름. ¶요 앞에 가서 {섹유} 좀 사가지고 오너라.
지역 전북.

센찬허다 형 [대응어] 시원찮다.
기대, 희망, 욕구에 충분할 만큼 만족스럽지 않거나 건강이 좋지 못하다. ¶그 일은 돈벌이가 {센찬허다}. ¶건강이 {센찬허구만}. ¶저 머슴이 밥을 저렇게 못먹는 것을 보니 {센찬해} 보인다. ¶어찌 처음부터 {센찬허다} 혔는디 매급시 그 놈을 시키갖고 일이 복잡허게 생겼네.
지역 전북.

셀마 부 [대응어] 설마.
부정적인 추측을 강조하여 나타낼 때 쓰는 말.
지역 순창.

셋바닥 명 [대응어] 혀.
입 안 아래쪽에 있는 길고 둥근 살덩어리. ¶{셋바닥이} 왜 이렇게 하얗니? ¶"모르겄소. 나도 늙어 꼬부라지면 아재맹이로, 붙들이란 놈 오그려 앉혀 놓고, 참어라, 참어야능 거이여, 헐랑가 모르겄지마는, 아직은 {셋바닥에} 힘이 뻗쳐서 그렁갑소."<최명희, 혼불> ¶무단시 비얌맹이로 그 방정맞은 {셋바닥} 조께 날룽거리지 말란 말이여.<최명희, 혼불> ¶"몸땡이에 달린 것 중에서 지일 무선 거이 {셋바닥잉게}." "알겄소. 알겄어. {셋바닥이} 칼날잉게 조심허그라.<최명희, 혼불> ¶불을 씨고, 아 새끼 난 암소 조께 봇시요, 그저 그노무 송아치를 기양 이뻐서 이뻐서어 지 {셋바닥으로} 귀때기 꼭대기부텀 꼬랑지 끄터리 끄장 다아 핥어 주잖능게비.<최명희, 혼불>
지역 무주, 임실, 진안, 장수.

셋이레 명 [대응어] 세이레.
아이가 태어난 후 스무하루 동안. 또는 스무하루가 되는 날.
지역 전북.

셋째중부 (셋째仲父) 명
아버지의 셋째 형을 이르는 말. ¶아부지가 자기 {셋째중부} 댁에 가서 꼬치 말려 논 거 쪼매 얻어 오라는디, 갔다 올텨?

지역 전북.

셋채큰아부지 명

아버지의 셋째 형을 이르는 말. ¶오메오메, 뭔 넘의 용돈을 이리 많이 주셨대야. {셋채큰아부지께} 고맙다고 인사는 허고 왔냐?

지역 전북.

셍기다 동 [대응어] 섬기다.

윗사람이나 어른을 잘 받들고 모시다. ¶충신으 자식이 글을 배워서 이씨를 {셍길} 수가 읎서. <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에레서 부텀도 부모라먼 지극 봉양을 허고 {셍기는디}, 하룻날은 즈그 아부지가 득병을 해서 얼마 있다 기양 죽어 번졌네.<최명희, 혼불> ¶술상 받고 각말 마소/ 밥상 받고 짜증내지 마소/임도 종종 날 {셍기면}/나도 종종 임 셍기리(정읍 신세타령 -"임아 임아 서방님아")<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 민요해설집>

지역 김제, 무주, 군산, 완주, 익산, 진안, 부안, 임실, 고창, 남원, 순창, 장수, 정읍.

셍님 명 [대응어] 형님. ¶{셍님이라고} 인자 동생이 데리다 대접을 허는디, 본게 막 걸판시럽게 채렸네. 고량진미로, 진수성찬여.<한국구비문학대계, 전북군산시·옥구군편>

지역 전북.

셍핀 명 [대응어] 송편.

☞쉥편.

지역 무주.

셔 명 [대응어] 혀.

동물의 입 안 아래쪽에 있는 길고 둥근 살덩어리. 맛을 느끼며 소리를 내는 구실을 한다. ¶비암 한 마리가 들와서 {셔를} 낼름낼름 그러드라는 거여.

지역 남원.

셔나셔나 부 [대응어] 서서히, 천천히.

동작이나 태도, 상태가 급하지 아니하고 느리게. ¶구추 단풍 입 진 다시 {셔나셔나} 떨어지고 ? 벽 하날 별 진 다시 삼오삼오 시러진니<완판본 열여춘향수절가下>

지역 전북.

션하다 형 [대응어] 시원하다.

더운 기운이나 마음의 거리낌 따위가 가셔서 기분이 좋다. 가뿐하고 후련하다. 또는 담백하고 산뜻하거나 속이 후련하도록 뜨겁고 얼큰하다. ¶강에서 멱을 감으니 {션하다}. ¶올 여름 그렇게 찌더만 가을 바람 불어옹게 {션하니} 인자 살만허다. ¶나를 때리면 속이 {션해지니}? ¶{션한} 북엇국으로 속을 달랬어. ¶길이 {션하게} 뚫렸지. ¶손주가 등을 긁어주니 {션하네}. ¶{션하게} 대답 좀 해봐라.

지역 전북.

셧바닥 명 [대응어] 혓바닥.

혀의 윗면. ¶정치헌다 허는 것덜이 시방 으디 사람새끼간, 다 {셧바닥} 날강도덜이제.<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셱우 (←石油) 명 [대응어] 석유.

☞섹유.

지역 장수.

-소 【종결어미】 [대응어] -게.

하게할 자리에 쓰여, 무엇을 시키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자네가 노네 {가보소}. ¶오늘 장에 {가소}. ¶할머니가 {주소}. ¶어머니가 {먹소}. ¶어서 {오소}.(어서 오게)<이기갑(1998)>

지역 고창.

해설 중앙어에서는 '-소'가 물음을 나타내는 어미로 쓰이나 전북방언에서는 시키는 뜻의 어미로 쓰인다. 명령형 어미 '-소'는 16세기 경에 나타나고, 18세기 이후에 중앙어에서 널리 쓰이는 '-게'가 출현하였다. 오늘날 중앙어에서 '-소'는 사용되지 않고 '-게'만 사용되지만 전북방언에서는 노년층에서 사용한다.

소개자 (紹介者) 명 [대응어] 거간꾼.
사고파는 사람 사이에서 흥정을 붙이는 일을 하는 사람. ¶물건을 떼어다가 직접 거래를 하니 {소개자가} 할 일이 없다.
지역 군산, 남원.

소게기 명 [대응어] 소고기.
음식으로 먹는 소의 고기. ¶옛날이는 {소게기를} 어찌 먹어. 비싸서 못 먹구. 인제 생일날이나 누구네 집이서 소를 잡았다 허는 날에만 겨우 맛보구 그러는 거지. ¶올히 어머니 생신 때는 {소게기라도} 한 근 띠어다가 국 한그륵 따끈허게 끓여 디립시다.
지역 전북.

소곰 명 [대응어] 소금.
짠맛이 나는 백색 조미료. ¶{소곰이다가} 그리 한티다 버물러가지고 다마노먼 지절로 마시 드들지 머.<무주촌> ¶고등어에 {소곰을} 많이 뿌리면 짜서 못 먹어. ¶무수는 인자 뚝뚝 써러서 고놈도 인자 {소곰} 조께 너코 고추까루 좀 너코, 고로케 해서 다마, 무수도.<2005 전북 남원> ¶새해 년초부터 무신 저런 작것이 찾어와서 집구석을 뒤집어 논다냐 재수없이. 야 마당으다 {소곰} 뿌려라. ¶김치 맛이 싱겁구나, {소곰을} 좀 더 넣어야겠다.
지역 군산, 남원, 무주, 임실.

소곰장사 명 [대응어] 소금장수
소금을 파는 장사꾼. ¶소곰이 따 떨어져 가는데 {소곰장사는} 언제 온다냐. 빨리 와야 할틴디.
지역 부안, 익산.

소곰장시 명 [대응어] 소금장수.
☞소곰장사.
지역 장수.

소곰쟁이 명 [대응어] 소금쟁이. ¶꼬랑에 {소곰쟁이가} 떠댕겨.
지역 김제, 무주, 진안, 완주.

소괴기 명 [대응어] 쇠고기.
음식으로 먹는 소의 고기. ¶{소괴기를} 넣고 국을 끓이다 ¶할머니 어렸을 적엔 명정에나 {소괴기} 국을 먹을 수 있었지. ¶돼지괴기도 좋지만 잔칟날이니께 {소괴기가} 더 낫지 안켔어.
지역 무주, 순창, 완주, 장수, 정읍, 진안, 김제, 군산, 익산.

소구시 명 [대응어] 소죽통.
소죽을 담는 통. ¶겨울에 사랑방에 대개 큰 솟을 걸어서 여물, 콩대 고론 것 넣서 끓이는디, 끓여서 {소구시에다} 너 주면 소가 잘 먹제.<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전북.

소굼 명 [대응어] 소금.
☞소곰. ¶간쪼구는 인자 생선가치 생긷찌마넌 인자, {소구메다} 가널 헝개, 똑가튼 조구지마넌 짜고.<2005 전북 남원>
지역 남원.

소굼쟁이 명 [대응어] 소금쟁이.
지역 진안.

소굽 명 [대응어] 쇠발톱.

소의 발톱. ¶{소굽도} 일 년에 한두 번은 깎아 줍니다.
지역 고창.

소금바우 명 [대응어] 소금쟁이. ¶난 다리도 실맹이로 가늘고 긴 {소금바우가} 좀 징그럽대요.
지역 완주.

소금장수 명 [대응어] 소금쟁이.
지역 군산.

소금장시 명
소금을 파는 장사꾼. ¶밀가리 장시 조까 허믄 태풍 와 불고, {소금장시} 조까 헐라고 헝게 장마에 비까장 온다고 안 허요~.
지역 고창.

소깽 명 [대응어] 솔가리.
땅에 떨어져 마른 솔잎. ¶가실에는 솔나무 밑에 {소깽이} 쌓여. 그럼 그걸 긁으러 댕겨. 불 땔려고.
지역 전북.

소꼬랑지 명 [대응어] 쇠꼬리.
소의 꼬리. ¶{쇠꼬랑지를} 푹 고아 먹어 봐. ¶소가 머가 좋다고 {소꼬랑지를} 흔들흔들 흔들어 댄당가?
지역 고창.

소꼼산 명
물이 얼어서 가운데가 볼록 올라온 모양을 이르는 말. ¶밤이면 물이 오강물이 {소꼼산만이로} 얼고 물그럭이 {소꼼산만이로} 얼어.
지역 전북.

소꼽장난 명 [대응어] 소꿉장난.
아이들이 살림살이의 흉내를 내며 노는 장난. ¶아덜이 {소꼽장난을} 하는 걸 봉게로 어릴 적 생각이 나는구만.
지역 전북.

소꽁지 명 [대응어] 쇠꼬리.
소의 꼬리. ¶{소꽁지를}가 어쩐 일로 저르게 짧당가?
지역 장수.

소꾸리 명 [대응어] 소쿠리.
☞소코리 ¶{소꾸리}럴 맹글고 새끼를 꽈. ¶대나무로 만든 {소꾸리는} 참 튼튼하죠.
지역 전북.

소끈 명 [대응어] 고삐.
말이나 소를 몰거나 부리려고 재갈이나 코뚜레나 굴레에 잡아매는 줄. ¶{소끈을} 놓치면 안 되야. 꼭 붙자고 댕겨.
지역 고창.

소낙비 명 [대응어] 소나기.
갑자기 쏟아지다가 곧 그치는 비. ¶소금장시 하나가 또 {소낙비를} 만나가지구서는 그 비를 피할라고, 긍개 거기 굴이 하나가 있거든.<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그런디 어디만큼 가다 보니께, 여름이 돼서 인자 어디로 간게, 비가 그냥 {소낙비가} 떨어진게 어디가 우지(의지=비 피할 곳)할 데도 없고 해서 그 비를 다 맞고 지금 가는 길이라.<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소낙비}가 내릴 때는 남의 집 처마 밑에라도 잠시 쉬었다가 비 그치면 오너라.
지역 군산, 남원, 부안, 정읍.

소내기 명 [대응어] 소나기.
☞쏘내기. ¶아 근게 가을날이 아무리 좋다고 히도 느닷없이 저녁으 가을비는 호랭이도 무서허드라고 느닷없이 {소내기가} 쏟아져 버렸단 말여.

그 잘 말린 나락이 걍 전부 물속으로 처 백혔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군산, 부안, 정읍.

소당깨 명 [대응어] 솥뚜껑.
솥의 열린 부분을 덮는 물건. ¶{소당깨를} 덮어 둬야 짐이 안 나가제.
지역 군산, 김제, 정읍.

소대가리 명 [대응어] 쇠대가리.
소의 머리. ¶그 덕분에 상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정육점의 쇼우윈도우에 걸린 {소대가리}, 돼지다리, 내장이나 살코기, 간, 콩팥, 허파 같은 것들을 보면서<최창학, 창> ¶잔치 집에 가면 {소대가리로} 만든 편육을 맛볼 수 있어 좋다. ¶{소대가리가} 하늘을 보고 울고 있다.
지역 남원, 군산, 장수.

소대그빡 명 [대응어] 쇠대가리.
☞소대가리 ¶올 여름에는 꼭 {소대그빡이나} 살마서 머거야 쓰겄따. ¶이런 큰 일에 고사를 지내는디 {소대그빡} 하나는 올려놔야 어울리지.
지역 고창, 군산, 김제, 부안, 익산, 정읍.

소도방 명 [대응어] 솥뚜껑.
☞소두방.
지역 완주, 익산, 장수.

소도방개 명 [대응어] 솥뚜껑.
솥의 열린 부분을 덮는 물건. ¶{소도방개를} 열어야제. 그리야 밥을 푸등가 말등가 할 거 아녀?
지역 전북.

소뚱뚜겅 명 [대응어] 솥뚜껑.
솥의 열린 부분을 덮는 물건. ¶{소뚱뚜겅은} 무걸 수록 좋지.
지역 순창.

소두광뚜껑 명 [대응어] 솥뚜껑.
솥의 열린 부분을 덮는 물건. ¶{소두광뚜껑} 열어 봐.
지역 순창.

소두랑 명 [대응어] 솥뚜껑.
솥의 열린 부분을 덮는 물건. ¶{소두랑} 닫으면서 먼 생각을 그리 허싸.
지역 고창.

소두방 명 [대응어] 솥뚜껑.
솥의 열린 부분을 덮는 물건. ¶솥뚜껑, {소두방이라도}, 솥뚜껑이라고<2005 전북 남원> ¶하! 요런 {소두방} 꼭 같은 뚜꺼비 하나가 이제 엉금엉금 오더니<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공부를 안하면 {소두방} 운전수 밖에 못 된다. ¶의젓잖은 예펜네 {소두방} 소리만 요란허다고, 온 동네 흉잡히는 사람도 있니라.<최명희, 혼불> ¶옛날으는 밥허는 사람을 {소두방} 운전수라고 했는디 요즘은 전기밥솥이 다 허준게 여자덜이 헐 일이 없지. ¶물이 넘친다. {소두방을} 빨리 열어라.
지역 전북.

소두방개 명 [대응어] 솥뚜껑.
솥의 열린 부분을 덮는 물건. ¶부엌에서 {소두방개} 여닫는 소리가 들린다.
지역 전북.

소두방뚜껑 명 [대응어] 솥뚜껑.
솥의 열린 부분을 덮는 물건. ¶"느집 베짝으 가서 {소도방뚜껑을} 열어봐! 허다 못 허서 숭님이라도 있을 거 아녀 인마." 나는 두 손을 고릴라처럼 내려뜨린 채 비척거리며 우리 집 쪽으로 간다.<이병철, 모래내 모래톱> ¶{소두방뚜껑을} 열면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는 맛있는 꽁당보리

밥이 가득 있었지. ¶우리 어머니가 우리집 {소두방뚜껑} 주인이야.
지역 임실.

소드랑개 명 [대응어] 솥뚜껑.
솥의 열린 부분을 덮는 물건. ¶부엌에서 {소드랑개} 여닫는 소리가 들린다. ¶그 냥반 심이 장사여 장사, 손바닥 하나가 {소등랑개만이나} 혀 갖고 이겨 먹을 사람이 조선팔도에는 없을 거여.
지역 전북.

소드랑깨 명 [대응어] 솥뚜껑.
솥의 열린 부분을 덮는 물건. ¶{소드랑깨} 열고 선 숭님 찾냐?
지역 부안.

소드랑뚜겅 명 [대응어] 솥뚜껑.
솥의 열린 부분을 덮는 물건. ¶{소드랑뚜겅을} 열였다가 닫으면 김 다 나가 뜸도 안들어.
지역 고창.

소딱새 명 [대응어] 소쩍새.
주로 초여름 밤에 소쩍 소쩍 하고 울며, 몸이 검은 갈색인, 작은 부엉이같이 생긴 새. ¶{소딱새는} 쥐랑 벌레, 나방이 같은 것잡아 먹는다. ¶{소딱새하고} 뻐꾸기는 틀려요. ¶{소딱새가} 우는 소리가 우리덜 귀에는 소딱 소딱 그래요.<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전북.

소땅개 명 [대응어] 솥뚜껑.
솥의 열린 부분을 덮는 물건. ¶{소땅개} 여닫는 소리가 시끄러워.
지역 전북.

소라기 명 [대응어] 소래기.
운두가 조금 높고 굽이 없는 접시 모양으로 생긴 넓은 질그릇. ¶자배기보담 {소라기가} 장독뚜겅으로는 더 좋지.
지역 전북.

소락대기 명 [대응어] 큰소리, 소래기.
목청을 돋구어 꾸짖고 을러메며 욕을 하거나 신경질적으로 말하는 소리. ¶그 놈들이 활에 맞으면 제대로 맞은 놈은 {소락대기를} 지르잖겄소?<송기숙, 녹두장군>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소락대기'는 표준어 '큰소리, 소래기'의 방언이다. 일반적인 '소리'보다 악을 쓰면서 하는 소리를 의미한다. 전북 방언에서 '악대기를 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때 '악대기'는 큰소리나 고집을 말한다. 따라서 '소락때기'는 '소리'와 '악때기'가 복합된 어휘로 보인다.

소락댕이 명 [대응어] 큰소리, 소래기
목청을 돋구어 꾸짖고 을러메며 욕을 하거나 신경질적으로 말하는 소리. ¶겉으로만 뻰지르히 갖고 큰 {소락댕이} 침서 까딱까딱 허는 놈 믿지 마시요 이~.
지역 고창.

소락배기 명 [대응어] 큰소리, 소래기.
☞소락대기. ¶"쩌 안에서 따른 사람들이랑 같이 얼싸덜싸 춤추고 미친 덧기 {소락배기} 빽빽 처질를 적에는 도통 몰랐는디,<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아부지가 {소락배기} 한번 지릉게 방안은 또다시 쥐용히졌다. ¶아무리 화가 나도 {소락배기} 좀 지르지 말거라. ¶여러사람 앞으서 {소락배기}를 쳤는디 인자와서 안 헌다고도 못 허고 큰일이네. ¶니가 멀 잘혔다고 그렇게 {소락배기}를 질르냐.
지역 전북.

소래 명 [대응어] 소라. ¶누가 논지는 모르고 먹기

는 먹어. 하루는 본게 들켰어. 밥을 히주고 인자 물 항으로 들어가다가 들켜서 인자 물항을 본게 {소래} 우렁이거든. {소래} 우렁인디 내놓고 본게 참 이쁜 각시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그리서 {소래} 우렁이 밥을 히줘서 먹고는 그 {소래} 우렁허고 결혼을 허고 인자 아들 딸을 낳고 잘 살었드래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소랫질 (小路질) 명 [대응어] 소로.

작고 매우 좁다란 길. ¶산중으는 거의다가 {소랫질}이지, 뭔 널따란 길이 있간디.

지역 전북.

소롬 명 [대응어] 소름.

춥거나 무섭거나 징그러울 때 살갗이 오그라들며 겉에 좁쌀 같은 것이 도돌도돌하게 돋는 것. ¶한밤중에 잠에서 깨갖고 눈을 떴는디, 갑자기 뿌헌 것이 내 눈 앞이 딱 있는데 {소롬이} 팍 돋더라니께. 정말 무서웠어.

지역 전북.

-소롬하 【접미사】 [대응어] -스름하-.

(빛깔이나 형상을 나타내는 어근 뒤에 붙어) '빛깔이 옅거나 그 형상과 비슷하다'의 뜻을 더하면서 형용사를 만들어 주는 접미사. ¶그걸로 죽을 쑤면 색깔이 {포로소롬하고} 맛이 {꼬소롬하다}<김용택, 강같은 세월> ¶정수는 아무 대답도 아니하고 반쯤 벌린 입과 {간소롬한} 눈초리에는 이상스러운 웃음을 띠고 문자를 끄윽 바라보았다.<채만식, 과도기>

지역 전북.

소롯 명 [대응어] 송곳.

작은 구멍을 뚫는 데 쓰는 도구. ¶{소롯으로} 구멍 뚫어 봐.

지역 고창.

소룸 명 [대응어] 소름.

☞소롬. ¶아따 무섭고만 야는 자꾸 {소룸} 끼치는 소리만 헌다냐.

지역 전북.

소리개 명 [대응어] 솔개. ¶그러다가 나비는 {소리개가} 된다. 불에서 멀리 있던 손이 등잔불 가까이로 다가들자, {소리개는} 주황의 하늘을 다 뒤덮을 듯이 아주 천천히 날개를 세우며 돈다.<최명희, 혼불> ¶날마다 풍마우설에 비맞고 뭣허고 이놈이 다 인자 그것이 썩었단 말여. 소상강으 가서 떨어졌어. 그래갖고 그 원귀가 되아서 그것이 {소리개가} 되았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소리개가 삥아리 채딧기 【관용표현】

아주 날쌘 동작을 표현하는 말. ¶만에 일이라도 오날 있었던 일을 누구 귓구녁에다 노총질르는 날이면은 {소리개가 삥아리 채딧기} 삼대 독신 호식이를 데려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뿔란다고 오금을 콱 박어 놨으니께 아모 염려 말어.<윤흥길, 빛가운데로걸어가면> ¶두 젊은이는 멸치 장수를 {소리개 병아리 채듯} 낚아 그들이 나왔던 골목으로 끌고 갔다.<송기숙, 녹두장군>

지역 전북.

해설 '소리개'는 표준어 '솔개'의 전북 방언이며 '삥아리'는 '병아리'의 전북 방언이다. 솔개가 병아리를 채가는 아주 빠른 동작을 비유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다.

소리갱이 명 [대응어] 솔개. ¶{소리갱이가} 집짐승을 얼마나 잡았나 몰라.

지역 전북.

소리질 (←小路질) 명 [대응어] 소로.

☞소랫질.

지역 전북.

소릭 명 [대응어] 솔개. ¶{소릭이} 마당 우에 떠 있다고 생각혀 봐. 동물들이 안 무서 하겠어?

지역 전북.

소막 명 [대응어] 외양간.

소를 가두어 기르는 곳. ¶정월에 굿소리를 안 냈더니 텅텅 빈 {소막} 돼지막 헛청 여기저기 귀신들이, 오만 잡귀들이 득실거린다며.<김용택, 섬진강> ¶그 전에는 말이지. 소를 키우며는 {소막} 위에 가서 짚도 쟁여놓고 헌 디가 있어.<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전북.

소막 (소幕) 명 [대응어] 외양간.

소를 가두어 기르는 곳. ¶아, 저, 말하자면, 소, 그 전에는 말이지. 소를 키우며는 {소막} 위에 가서 짚도 쟁여놓고 헌 디가 있어. 거그로 올라가 갖지고는 망을 봤어.<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영수야, {소막에} 가서 소 먹을 물 좀 가져다 줘라. ¶얘야, 장구 좀 가져오너라 정월에 굿소리를 안 냈더니 텅텅 빈 {소막} 돼지막 헛청 여기저기 귀신들이, 오만 잡귀들이 득실거린다며 손자라고는 너 하나밖에 없고 니가 제일 좋다며 너는 서울 가지 말라시며 어쩌다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만 해도 오늘은 누가 또 서울로 간다냐<김용택, 섬진강> ¶{소막에서} 소를 몰고 나와서 밭일 좀 하러 가자구나.

지역 무주, 임실, 남원.

해설 돼지우리나 외양간과 같이 동물을 치기 위한 공간에 대한 각각의 명칭을 사용하기보다 '돼지막, 소막'처럼 '막(幕)'을 붙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말 명 [대응어] 마소.

소와 말을 아울러 이르는 말. ¶"나 장개가서 잘 되면 나 잊지나 마시오." 했는디, 생각이 나거든. 쌀 한 댓말 가지오라히서, {소말} 달려서 그 여자 장사 집으로 갔어. 간개 인자 오시랴고급 히뛰어나옴서 오실 줄 알었다구.<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부안.

소망 명 [대응어] 변소.

사람이 똥이나 오줌을 눌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곳. ¶도둑놈이 담을 넘어서 도망치다가 {소망에} 푹 빠져서 주인헌티 잡힌 적도 있는디. ¶{소망} 풀 때는 똥 지게 짊어지고 가는 사람 옆에는 안 갔어요.<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전북.

소망버러지 명 [대응어] 구더기.

파리의 애벌레. ¶뒷간 똥통에 {소망버러지가} 생겼드랑게.

지역 전북.

소망벌거지 명 [대응어] 구더기.

☞소망버러지.

지역 전북.

소망치[1] 명 [대응어] 소말뚝.

소를 묶어 두는 말뚝. ¶{소망치차} 다 뽑아버리고 도망갔네.

지역 전북.

소망치[2] 명 [대응어] 송아지.

어린 소. ¶어떻게 히서 인자 남편 몰래 착실헌 사람기다 {소망치} 한 마리를 사주었든가비여.

지역 전북.

소매 명 [대응어] 소마, 소변. ¶박문수가 어디 바깥

이가 있은게 {소매를} 보고 올라고 허닌게 쌈허거든.<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그서는 간게는 나매가 인자 보리밭에다가 {소매를} 내드래아.(그래서 가니까 남자가 보리밭에다가 소변을 누더래)<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착실허게 뵐라고 요강을 그전이는 쇠요강이라 찬게로 가만히 거시기다가 이불 속으다 넣고는 이불 속으다 너두었다가 {소매} 마라먼 인나먼, "여그 요강 여그 있읍니다." 허그 뜨뜻허니 아조 오줌 싸기가 좋거던.<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촌에 모두 {소매} 받을라고 {소매}. 근게 역시로 {소매} 거름 없을 때 {소매} 받을라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소망에 가서 {소매} 한 박작 퍼다가 확 찌끄러 버리기 전에 후딱 인나라이.

지역 고창, 군산, 정읍, 남원, 군산.

소매보다 동 [대응어] 소마보다, 소변보다.

오줌을 누다. ¶거 화장시런 {소매볼라먼} 여기야, 화장실 여 가서 바도 되고.<2008 전북 고창>

지역 고창.

소매통 명 [대응어] 똥장군.

똥을 담아 나르는 오지나 나무로 된 그릇. ¶내마침 소피를 하러 마당 귀퉁이 {소매통} 옆으로 나왔던 산지기 박달이는, 괴춤을 추켜올리다 말고 흠칫 놀라, 지금 막 저희집 수숫대 울바자를 스쳐 지나가는 시커먼 장정을 돌아보았다.<최명희, 혼불>

지역 고창.

해설 '소매'는 '오줌'의 전라도 방언이다.

소맷귀댕이 명 [대응어] 소마항아리.

오줌을 누거나 받아서 모아 두는 독. ¶그 전에 크나큰 {소맷귀댕이}가 없다고 허갖고 여자들은 볼일 보기가 사나웠제.

지역 전북.

소맷단지 명 [대응어] 소마항아리.

오줌을 누거나 받아서 모아 두는 독. ¶"나 오줌 마려. 오줌 마려." 웃음 지집애는 그런개. "{소맷단지}에다 눠. 내 {소맷단지} 갖다 주께."<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넘새밭에 줄 거름이 없다. 오줌이 매라도 좀 참었다가 우리 집 {소맷단지}에다 누어라.

지역 전북.

소맷동우 명 [대응어] 소마항아리.

오줌을 누거나 받아서 모아 두는 독. ¶새복에 {소맷동우}가 차서 인자 요강을 빌라고 인자 나간게 바람이 이렇게 불면 요렇게 돌아오고 요렇게 불면 요렇게 돌아오고. ¶{소맷동우}는 시한에도 얼어터지는 갱우가 없는디 왜 금이 가서 질질 샌다냐. ¶오줌은 {소맷동우에} 가서 싸고 오너라.

지역 전북.

소머리 명 [대응어] 쇠대가리.

소의 머리. ¶{소머리를} 제상에 올리는 겡우도 있다요?

지역 순창, 장수, 진안, 고창, 김제, 남원, 부안, 완주, 익산, 임실.

소반 명 [대응어] 개다리소반.

상다리 모양이 개의 다리처럼 휜 막치 소반. 또는 자그마한 밥상. ¶조성댁이 다 낡은 {소반에} 물사발 네 개와 조그만 소쿠리 하나를 올려 가지고 들어왔다.<조정래, 태백산맥> ¶{소반} 갖다 놓고 찬물 한그릇 소반 가운데다 놓고는<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고창, 군산.

소발굽 명 [대응어] 쇠발굽.

소의 발톱. ¶{소발굽이} 말발굽 같가디?
지역 익산.

소발톱 명 [대응어] 쇠발굽.
소의 발톱.
지역 김제, 무주, 부안, 임실, 정읍, 진안, 완주, 남원, 순창, 장수, 군산.

소발툽 명 [대응어] 쇠발굽.
☞쇠발톱.
지역 남원, 순창, 장수.

소발틉 명 [대응어] 쇠발굽.
☞쇠발톱.
지역 전북.

소벤 명 [대응어] 소변.
오줌 ¶임신을 헌게로 꺼뜩하면 {소벤}이 너무 자주 매럽지? 그거 근디 참으믄 큰일 나 그때그때 {소벤} 봐야헌다잉. ¶이 깝깝헌 아야, {소벤}이 매랍다고 말을 혀야 선생님이 보내주든가 말든가 허지 그냥 옷이다 싸버렸냐.
지역 전북.

소부 (←孝婦) 명 [대응어] 효부.
시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 ¶아덜 메누리가 모두 소자고 {소부지}, 그러니 이 노인은 아무 걱정없이 편안히 지내지요.<구비문학대계 정읍군>
지역 정읍.

소부됨 (←小不等) 명 [대응어] 소부등.
☞소부됭. ¶제비원에다 솔씨를 받아/소평 대평에 던졌더니/그 솔이 점점 자라나/{소부됨이} 되었구나/대부됨이 되었구나/황장뫽이 되었네/청장뫽이 되었네(무주 성주굿-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삼공)<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무주.

소부됭 (←小不等) 명 [대응어] 소부등.
조그마하고 그리 굵지 않은 둥근 나무. ¶제비원으 솔씨를 받아/공동산에 던졌더니/그 솔이 점점 자라나서/{소부됭이} 되얏구나/ 대장목이 되얏구나(진안 성주풀이-진안군 성수면 도통리 중평)<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진안.

소붐 명
사물의 이치나 도리를 분별하는 능력. ¶{소붐이} 없어.내 {소붐에} 그런 것이제.
지역 전북.

소상간죽 (瀟湘簡竹) 명 [대응어] 담뱃대.
중국 소상지방에서 생산되는 아롱진 무늬가 있는 대나무로 만든 담배 설대. ¶팔모깎이 우산대/은소복으 연변대/주석대 백통대/파른 받침 구리 동고리대/{소상간죽으} 별간죽/금사오죽에 양철간죽을/마치 맞게 잘 맞촤/네 구석으 세워두니/방안 치레가 훌룽하네(진안 고사풀이)<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진안.

소새 명 [대응어] 딱따구리. ¶나는 {소새는} 소리만 들었지 보든 못 혔어.
지역 익산.

소소리바람 명 [대응어] 회오리바람.
지면에서부터 깔대기 모양으로 불어올라가는 바람. ¶“아 날으시고 말고요. 지가 옷 입혀 드리께 날으시오.” 딱 입혀 놨단 말여. 앗다 뭣 {소소리바람으} 종오때기 날 딧기 막 허늘로 올라가 버린단 말여. 그러니 이것을 내려올 종을 알어야지.<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말굽으가 푸대가 딱 걸려갖고 탈탈 털어버린게

{소소리바람이} 일어나갖고 확 날려가버?어. 빈 푸대만 탈탈 털어갖고 갖고 왔는디, 갖고 온게, 갖고 옴서 인자 기분이 나뻐서 들온게<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그래 밤중이나 되닌개 막 소리가 나더니 배깥에서 두세두세두세 소리가 나더래. 그냥 {소소리바람이나} 막 불면서 대문이 열치락 닫치락허고 그러더니, 배깥에서 두세두세두세 소리가 나고 그러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발을 디려놓더니.<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아 그냥 난데없이 {소소리바람이} 획 불더니만 배깥(바깥)담에 가서 그냥 팔두산같이 큰 놈이 하나 벌떡 스거든(서거던).<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순창, 익산, 임실, 장수, 진안, 완주.

소수리바람 명 [대응어] 회오리바람.

☞소소리바람. ¶그러자 아침 먹고 한 아홉시 경이나 됐는디, 느닷없이 {소수리바람(이} 나드래여. 소소리바람이요? 응. {소수리바람이} 나는디, 마당이서. 아, 나는디 버들잎 하나가 저 공중에 날라갔다가 뚝 - 떨어진다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완주, 부안.

소스락 명 [대응어] 쇠스랑.

☞소스랑 ¶땅이 단단하고 차지기 때미네 쓰래지를 몬해요. 다 밀려버려요. 그래서 {소스락으로} 그 두덕진거슬 다 분세허면서 골라요. 골라가지고 거그다가 모를 심꼬<2007 전북 군산>

지역 전북.

소스랑 명 [대응어] 쇠스랑.

땅을 파헤쳐 고르거나 두엄, 풀 무덤 따위를 쳐내는 데 쓰는 쇠갈퀴 모양의 농기구. ¶아, 그렇게 저 {소스랑은} 대개 땅 골르는데 파고,<지역어 자료 총서, 군산> ¶그거슬 애 산중에는 써:래지리라고 허지만 여게는 {소스랑으로} 다: 분쇠를 헤:서 머야 잘 고른 다으메 파늘 만드러요.<지역어 자료 총서, 군산> ¶창고에 가서 네 발을 가진 {소스랑} 좀 꺼내 오너라.

지역 군산.

소실 (←小說) 명 [대응어] 소설.

사실 또는 작가의 상상력에 바탕을 두고 만들어 낸 허구적인 이야기. ¶아이고매, 너는 어찌 입만 열었다하믄 거짓말이냐. 그 재능으로 차라리 {소실을} 써라. {소실}을 써.

지역 전북.

소실문 (소실門) 명 [대응어] 솟을대문.

행랑채의 지붕보다 높이 솟게 지은 대문. ¶집을 잠꽌 짓는다/집을 잠꽌 짓는다/몸채는 칠 칸인디/사개 와사서 기와집/내외 중문은 {소실문}/전후좌우 연담 치고/능화 되비 장판 지천/부벽사를 붙여주고(진안 고사풀이-진안군 마령면 계서리 서산)<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진안.

소아리 명 [대응어] 송사리.

☞송아리.

지역 전북.

소앙치 명 [대응어] 송아지.

어린 소. ¶인자 그지비서 {소앙치} 한 마리를 중게, 소 새끼 한 마리를 중게, 그노믈 가따 키워써요.(이제 그 집에서 송아지 한 마리를 주니까, 소 새끼 한 마리를 주니까, 그놈을 가져다가 키웠어요.)<2008 전북 고창>

지역 고창.

소양 (←所用) 명 [대응어] 소용.

쓸 곳. 또는 쓰이는 바. ¶나헌터는 {소양} 읎어도 지비헌테는 썩어몽그라져도 못 준당게요.

지역 고창.

소옴 명 [대응어] 솜. ¶이 옷은 {소옴을} 놓서 뉘빈 거여.
지역 군산.

소입막애 명 [대응어] 소입막이.
소의 입을 막는 도구. ¶소가 밭 갈려고 데리구 갈 때는 {소입막애}를 꼭 챙겨 가거라잉. 풀 뜯어 먹으며 쉴 때 빼고는 {소입막애} 해얀게. ¶{소입막애를} 소 코빼기 따수라고 채우는게 아녀, 풀 뜯어먹니라고 쟁기질은 않고 해찰만 허싼게 그런거지.
지역 완주.

소자뎅이 (←孝子동이) 명 [대응어] 효자.
부모를 잘 섬기는 자식. ¶부모한테는 {소자뎅이}/이웃간에 화목뎅이/동구간에 우애뎅이/나라님게는 충신뎅이(무주 아이 어르는 소리-“둥 둥 둥개야”)<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무주.

소주걱 명 [대응어] 쇠죽바가지.
쇠죽을 푸는 데 쓰는 바가지. ¶소주걱으로 소죽을 구유에 퍼붓다.
지역 고창.

소죽 명 [대응어] 쇠죽.
소에게 먹이려고 짚, 콩, 풀 따위를 넣어 끓인 죽. ¶그 {소죽} 쑨 디 그리 떡 달라들어 떡 달라들더니 떡 들오더니<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소죽도} 끓여 주고, 밥을 얻어 먹고 있다가, 나무를 이렇게 해<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아버지는 매일 {소죽을} 쑤어 여물통에 넣어 주었다.
지역 고창, 군산, 남원, 익산.

소죽바가치 명 [대응어] 쇠죽바가지.
쇠죽을 푸는 데 쓰는 바가지. ¶{소죽바가치로} 소죽을 퍼줬어. ¶{소죽바가치만치로} 큰 바가치로 물을 푼께로 빨리 퍼지드만.
지역 남원.

소죽쪽박 명 [대응어] 쇠죽바가지.
쇠죽을 푸는 데 쓰는 바가지.
지역 고창.

소죽통 명 [대응어] 구유.
소나 말 따위의 가축들에게 먹이를 담아 주는 크고 길쭉한 그릇. ¶{소죽통에다} 지푸라기 좀 쑤어다 놓자. ¶{소죽통에} 담겨 있는 소 먹이를 소가 눈을 끔벅끔벅 거리며 잘 먹고 있다.
지역 군산, 익산, 무주.

소지 명 [대응어] 소제.
더럽거나 어지러운 것을 쓸고 닦아서 깨끗하게 함. ¶술을 먹고서는 그 마룽을 인자 그 옛날은 그 집을 지믄 한쪽 마루를 못을 안박습니다. 떠들고 밑이 {소지를} 헐라고. 마룽을 떠들고서 보닝게 쪼그만한 항아리가 있어. 그서 그걸 떠들고 본게 금이 하나 들었어.<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니 방구석은 이게 뭐냐, 지발 {소지} 좀 험서 살어라. 되아지가 사둔 삼자고 허겄다.
지역 전북.

소짝새 명 [대응어] 소쩍새. ¶우리 동네 {소짝새가} 살어서 돌아온 것만 같으네!<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소짝새} 우는 소리, 맞지?<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소짝새가} 밤에 슬피 울고 있구나.
지역 전북.

소짝재기 명 [대응어] 소쩍새. ¶소짝재기 울음소리

가 구슬프다.
지역 전북.

소캐 명 [대응어] 솜.
식물성, 동물성, 광물성의 섬유나 화학 섬유의 뭉치. ¶“그러고 산말랭이라니께 말이 하절이지 밤중에는 엄동이나 진배없을 틴디 아랫두리 개릴 이불 한쪽이나 지대로 천신허냐?” “그럼요.” “{소캐도} 들을 만큼 들고?”<윤흥길, 장마> ¶예, 옌나레는 인자 이르케 뉘비이불 여름니부른, 그러곤자 {소캐} 놔서 허고, 뭐 샘배로 또, 샘배 난 놈 빠라서 샘배이불 여르멘.(예.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누비이불 여름이불은, 그러고 이제 솜 놓아서 하고, 뭐 삼베로 또, 삼베 난 것 빨아서 삼베이불<2009 전북 임실> ¶속에 {소캐가} 들어간 이불이라 참 따뜻하구나.
지역 군산, 김제, 남원, 부안,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소캐이불 명 [대응어] 솜이불.
안에 솜을 넣어 만든 이불. ¶날이 추워져서 {소캐이불을} 꺼냈다 ¶느그 짝은누나 시집갈 때는 못히도 {소캐이불} 다섯채는 만들어야 할턴디.
지역 남원, 부안.

소코리 명 [대응어] 소쿠리.
대나 싸리를 엮어 테를 둘러 만든 그릇. ¶{소코리가튼} 거 납짜근 놈 인짜내요?<2009 전북 임실> ¶“아이고, 그렁게 {소코리나} 조리에 쌀 일어서 두먼 물 떨어지능 거이나 같은 거이지요?<최명희, 혼불> ¶미숙아, 나물 캐러 갈 때 {소코리를} 챙겨 가렴. ¶아이고 넘부끄럽게 {소코리} 비행기 고만 태워. ¶방금 딴 고추를 {소코리에} 담아 오너라.
지역 무주.

소쿠리때기 명 [대응어] 소쿠리.
대나 싸리를 엮어 테를 둘러 만든 그릇. ¶{소쿠리때기에} 찬밥을 담아 둬.
지역 전북.
해설 ‘소쿠리때기’는 ‘소쿠리+-때기’로 분석된다. ‘-때기’는 ‘비하’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배때기’, ‘볼때기’, ‘귀때기’ 등이 이러한 예에 해당한다.

소키잠뱅이 명
무릎까지 오는 잠방이. ¶{소키잠뱅이는} 무릎 여기까지 오는 반잠뱅이여.
지역 전북.

소팅이 명 [대응어] 쇠털.
소의 털. ¶{소팅이같이} 많은 날 중 하필 오늘이냐.
지역 전북.

소포리 명 [대응어] 쇠파리.
☞세파리. ¶{소포리가} 많이 꼬이겠구만.
지역 전북.

소핑겡이 명 [대응어] 쇠풍경.
소의 턱 밑에 다는 풍경 모양의 방울. ¶소{핑겡이} 소리는 생각을 맑게 해.
지역 전북.

속 시끄럽다 【관용표현】 [대응어] 속 시끄럽다.
걱정되어 마음이 불편하다. ¶여그서 자꾸 {속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어여 사라져!<조봉래, 풀뻘골>
지역 전북.

속 앗이다 【관용표현】 [대응어] 속 보이다.
속셈이 빤히 보이다. ¶다 {속 앗일} 짓이기는 하지만, 다급한 판이니 옹색한 대로 둘러댈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채만식, 태평천하>

ㅅ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의 관용표현 '속 앗이다.'는 '속을 앗이다.'의 구성이다. '앗이다'는 '빼앗다'의 의미를 가지는 '앗다'의 피동형인 '앗기다'의 전북 방언형이다. 따라서 '속을 앗이다.'는 말 그대로는 '속을 빼앗기다.'의 의미를 갖는다.

속가리 명

밀을 확에 갈 때 나오는 보얗고 부드러운 가루.

지역 전북.

해설 보통 겉에서 나오는 가루가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가루라고 하여 '속 가루'의 뜻으로 붙은 이름이다. 밀가루 중에서도 고급으로 쳐 남이나 집안 어른을 대접하는 데 쓴다.

속깡 명 [대응어] 고갱이.

배추 안에 들어 있는 부드럽고 연한 것. ¶배추 겉잎삭은 다 떠어 버리고 {속깡만} 골라. 꼬창 찍어 먹게.

지역 전북.

속눈쎕 명 [대응어] 속눈썹.

눈시울에 난 털. ¶어찌케 그리 {속눈쎕만} 파르르 떨릴 수 있당가요?

지역 완주.

속댁이다 동 [대응어] 속삭이다.

남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다. ¶깊은 속이사 알겄는가마는, {속댁이는} 가락이 꼭 도적놈들 모사 속 같더만<송기숙, 녹두장군>

지역 전북.

속동 명

동네 가운데. 동네 안쪽. ¶여 {속동} 벌안 가면 넓은 터가 있어.

지역 전북.

속박다 동 [대응어] 버무리다.

여러 가지를 한데 뒤섞다. ¶데친 나물을 된장으로 속박는다. ¶오이소박이를 만들려면 여러 가지 야채를 고춧가루와 섞어 {속박으면} 된다.

지역 임실.

속배추 명 [대응어] 배추속대.

배추의 안쪽에 있는 노랗고 연한 잎. ¶{속배추를} 된장에 찍어 먹다 ¶"저 노란 {속배추는} 쌈으로 먹어야 제격이지.".

지역 전북.

속백이 명 [대응어] 오이소박이.

오이의 허리를 서너 갈래로 갈라 속에 파, 마늘, 생강, 고춧가루 등을 섞은 소를 넣어 담근 김치. ¶입맛 없을 때도 {속빼기만} 있으믄 밥 한 그륵 뚝딱이지. ¶여름 반찬으로 마땅치 않을 때는 {속빼기를} 내 놓아라.

지역 무주.

속볼퉁이 명 [대응어] 속앓이.

속으로 걱정하거나 괴로워하는 일. ¶쫌 있음 절로 알어질 일잉게, 고때 가서 괜시리 애퉁허다고 움서 {속볼퉁이} 앓지 말고.<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속빤쓰 명 [대응어] 팬티.

다리 부분은 거의 없고 허리부터 샅을 감싸 주는 속옷. ¶거그다 등짝이 척척 헝게 난닝구 사쓰도 {속빤쓰도} 땀으로 범벅 되어 솔차니 멍처버렸당게요~.

지역 고창.

속새로 부 [대응어] 몰래.

남이 모르게. 또는 비밀리에. ¶윤장의 영감은 체무자의 재산을 가차압을 해놓고 기한이 지난 뒤

에 경매를 하게 되면 {속새로} 그놈을 사가지고 그놈에서 다시 이문을 봅니다.<채만식, 천하태평춘> ¶읍내보다는 시골의 잘 사는 집에, {속새로} 숨겨 놓은 쌀이 있다는 것은 암암리에 소문이 번지기 마련이어서,<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속새팔 명

속이 파란 검정콩. ¶그 콩은 {속새팔}. {속새팔이} 두 되만 있으면 도라고 허드만.

지역 전북.

속애피 명 [대응어] 속병.

몸속의 병을 통틀어 이르는 말. ¶내가 너 땜시 {속애피를} 얻어 가지고 이렇게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긍게로 지발 나를 찾아 오지 마라.

지역 전북.

속옷고름 명 [대응어] 안옷고름.

옷의 안깃을 여미어 매는 옷고름. ¶내가 쪼매날 때는 우리 엄니가 {속옷고름부텀} 저고리고름까정 손수 쨈매주셨어.

지역 전북.

속창시 명 [대응어] 창자. 소갈머리.

뱃속에 있는 창자. 또는 마음보. ¶그 질기고 깊은 이빨에 찢긴 오장, 부드러운 {속창시도} 다 발겨먹고, 피 묻은 아가리를 통째로 벌리어 마지막 남은 정신도 넋도 한입에 삼키려 한다. 마음속 생각. ¶이 {속창시} 빼묵을 여편네야, 뫼라는 쇠터럭지 어른의 전갈이여.<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속창아리 명 [대응어] 소갈머리, 소갈딱지.

마음이나 속생각을 낮잡아 이르는 말. ¶장사해 묵자면 {속창아리럴} 다 빼놔야 헌다는 말도 있제만 그려도 농사꾼덜언 배곯코 살아도 장사꾼덜언 다 하로 세 끄니 찾아묵고 사는 법 아니여.<조정래, 아리랑> ¶{속창아리} 읏다가 두엇능가 뺀날, 지 유리헝 것만 추례 갖고 잔머리만 실실 굴린당게.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속창아리'는 표준어 '소갈머리'에 대응한다. '창아리'는 '창자'를 의미하는 방언으로, '속'과 결합하여 '속창아리'라는 복합어를 만들었다. '속창아리가 없다, 속창아리가 빠졌다.'와 같이 표현한다.

손검 명 [대응어] 손금.

손바닥의 살갗에 줄무늬를 이룬 금. ¶손에 {손검이} 많은 건 본게 고상을 많이 했나 보구만.

지역 전북.

손고락 명 [대응어] 손가락.

☞손구락. ¶아 웬 놈이 달그림자에 보넌게 대가리가 왔다갔다 허거든. 아 그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손고락으로} 문구녁 뚫고 보넌게, 아 이놈이 시퍼런 칼을 가지고서 달빛이 날이 섰는가 안 섰는가 되착되척헌게 날이 뻔득뻔득 헐 것 아녀,<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김제, 정읍, 군산, 남원.

손구락 명 [대응어] 손가락.

손끝에 달려 있는 다섯 개로 갈라진 가락. 또는 그것 하나하나. ¶{손구락이다} 침을 발러갖고 문구녁에다 딱 뚫고 보니까 선배 하나가 글을 읽는디 아주 지금 동문성십이라고먼 아주 낮차운 글입니다.<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아, 이거 당체 내가 이렇게 홀렸구나." 근개, 뭣이 죄나하믄 사램(사람)이 부엌으서 칼질허구 피가 났지. {손구락에} 피가 났어. 피가 나서 인자, 피가 묻으믄은 이 도채비가 된다고 이런 말을 내가 들었어.<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깍 물어 부러." "멀?" " {손구락을}." "아야." <최명희, 혼불>
지역 남원, 군산, 완주, 진안, 김제, 정읍, 부안, 순창.

손국수 명 [대응어] 칼국수.
밀가루 반죽을 방망이로 얇게 밀어서 칼로 가늘게 썰어 만든 국수. 또는 그것을 익힌 음식. ¶저짝의 허름한 국수집이 {손국수가} 그렇게 맛나다허니 한 번 들어가 봅시다.
지역 무주.

손굼 명 [대응어] 손금.
☞손검.
지역 전북.

손그락 명 [대응어] 손가락.
☞손구락. ¶애기란 놈이 나오다가 탯줄을 잡었어 손으로, 탯줄을 감어 쥐었어. 근디 무명지 {손그락으다가} 침을 놨응게 지가 아픈게 놓을 거 아니냐 이거여.<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부안, 순창, 군산, 정읍.

손녜 (←孫女) 명 [대응어] 손녀.
아들의 딸. 또는 딸의 딸. ¶그럼, 또 하나 홀딱 떨어져 놓으은개, "아이구 이놈은 우리 {손녜} 갖다 주어야 겠다." 또 하나 혹 놓은개, "우리 자슥(자식) 주고."<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무남독녀 외딸이 아니라 외손녜를, 인자 외손녜를 하나 두었어요, 아들은 앞에 죽어버리고 없고, 과부며느리하고 그 {손녜하고} 그렇게 살아. 그런데 인자 {손녜를} 여워야겠는데, 자긴 눈으로 봐갖고 관상을 봐갖고 손서깜(孫)을 얻을라고 사방 돌아다니다가<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군산, 익산.

손뇨 (←孫女) 명 [대응어] 손녀.
☞손녜.
지역 완주.

손등거리 명 [대응어] 손등.
손의 바깥쪽. ¶대나지 그리야 쓰겄냐고 매급씨 누네 띠여 갖고 채다보다가 망치로 {손등거리를} 때래 부러갖고 으미 아~ 소리도 모드고 잡녀르 때까우시끼 낼도 그르기만 혀봐 주둥팽이를 쥐여 뜯어 불랑게로.
지역 고창.

손마들가지 명 [대응어] 손목.
손과 팔이 잇닿은 부분. ¶{손마들가지를} 붙잡힌 게로 팔을 못 움직이겄드만.
지역 무주.

손목때기 명 [대응어] 손모가지.
'손', 또는 '손목'을 낮잡아 이르는 말. ¶심봉사 등쳐 먹은 년에 뺑덕이네가 있다드니, 니가 꼭 그짝 났구나잉? 저렇게 되야 부린 사람 약값을 다 훔치다니. 그 {손목때기가} 온전헐 성싶으냐? 잉?<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손빌다 동 [대응어] 비손하다.
손을 모아 비비면서 원하는 바를 빌다. ¶매일 아침 물을 떠 놓고 {손빌면서} 자식 잘 되길 빌었어.
지역 전북.

손서감 (孫壻감) 명
손녀사위로 삼을 만한 사람. ¶손녀는 잘 자라서 시집갈 나이가 돼서 신 판서는 좋은 {손서감을} 구허니라고 각지로 돌아다녔다.<구비문학대계 임실군편>
지역 임실.

손수껏 부 [대응어] 손수.
남의 힘을 빌리지 아니하고 제 손으로 직접. ¶{손수껏} 농사를 짓다.
지역 전북.

손시 부 [대응어] 손수.
남의 힘을 빌리지 아니하고 제 손으로 직접. ¶우리 할마이가 나 혼인할 때 이불같언 것얼 {손시} 맨들어 주셨어.
지역 전북.

손씸 명 [대응어] 아귀힘, 손힘.
손아귀에 잡아 쥐는 힘. ¶내가 이래봬두 {손씸이} 쎄그든. 사과거튼 것두 잘 짜개구, 호두거튼 것도 거뜬혀.
지역 남원.

손아구니 명 [대응어] 손아귀.
엄지손가락과 다른 네 손가락과의 사이. 또는 세력이 미치는 범위. 또는 손으로 쥐는 힘. ¶사과를 {손아구니에} 쥐고 뿌셔버렸어. ¶한번 잽히면 그 사람 {손아구니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지역 고창.

손아구지 명 [대응어] 손아귀.
엄지손가락과 다른 네 손가락과의 사이. 또는 세력이 미치는 범위. 또는 손으로 쥐는 힘. ¶{손아구지가} 먼 그렇게 쎈지 악수 한번 하면 손이 너무 아퍼.
지역 임실.

손아기 명 [대응어] 손아귀.
☞손아구지.
지역 남원.

손앓이 명 [대응어] 생손앓이.
손가락 끝에 종기가 나서 곪는 병. ¶나서 을매 안 돼 {손앓이를} 앓았어.
지역 전북.

손우 명 [대응어] 손위.
자기보다 나이나 항렬, 지위가 위인 사람. ¶{손우에} 다 씨누들은 잘 헸써.<전북지역어, 남원시> ¶이것아, 글도 난, 느그 시댁의 {손우로}, 십이촌 시뉘뻘 되는 사람이다.<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손이불 명 [대응어] 솜이불.
☞솜이블.
지역 전북.

손잽이 명 [대응어] 손잡이.
손으로 어떤 것을 열거나 들거나 붙잡을 수 있도록 덧붙여 놓은 부분. ¶빼스에서는 {손잽이를} 꽉 잡고 있으야 된다.
지역 전북.

손지놈 (孫지놈) 명 [대응어] 손주.
'손주'를 낮추어 이르는 말. ¶아따, 구여운 {손지놈} 아까참에 까장은 곤허게도 자등만 인자 일어낭게 꼬치가 꼿꼿허네 이~.
지역 고창.

손지딸 (孫지딸) 명 [대응어] 손녀딸.
아들의 딸. 또는 딸의 딸. ¶생각 짧게 제가 심청이 되겠다고 나서면 큰일이었던 것이다. "나갔시요, 당장 나가! 넘 새끼 갖고 그러덜 말고 봉산댁 {손지딸년이나} 어서 키워 줄줄이 첩년으로 팔아묵어 호의호식허고 살랑게라. 나가란 말이오, 당장"<조정래, 아리랑> ¶그러는디, 거그 미릉님, 미륵 그 주인 하라버지 {손지딸허고} 저허고 칭구에요.<2008 전북 고창> ¶당장 나가! 넘 새끼 갖고 그러덜 말고 봉산댁 {손지딸년이나} 어

서 키워 줄줄이 첩년으로 팔아묵어 호의호식허고 살랑게라.<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손톱 명 [대응어] 손톱.

손가락 끝에 붙어 있는 딱딱하고 얇은 조각. ¶{손톱을} 깎았냐? ¶누굴 잡아 묵을라고 그리 {손톱을} 기르니?

지역 남원, 임실.

손특 명 [대응어] 손톱.

손가락 끝에 붙어 있는 딱딱하고 얇은 조각. ¶{손특} 깎는다고 하지.

지역 완주.

손틉깩이 명 [대응어] 손톱깎이.

손톱을 깎는 기구. ¶{손틉깩이로} 손톱을 깎다 ¶{손틉깩이}를 썼으먼 한곳이다 잘 둬야지 쓸 때마다 찾게 허먼 어떻게 혀.

지역 전북.

손홀목 명 [대응어] 손목.

손과 팔이 잇닿은 부분. ¶{손홀목이} 그로코롬 가늘다요.

지역 임실.

솔 명 [대응어] 부추. ¶여그서는 {솔이라고} 혀. 딴 디는 정구지라고 하는가 보더만.

지역 전북.

솔가루 명 [대응어] 솔가리.

땅에 떨어져 마른 솔잎. ¶아궁이의 마른 {솔가루} 가리나무에 옮겨 붙는 불길이 버르르 소리를 내며 기세 좋게 타오른다.<최명희, 혼불> ¶겨울에 군불 때려고 {솔가루를} 많이 주워다 놓았다.

지역 김제, 무주, 군산, 완주, 익산, 남원.

솔갈비 명 [대응어] 솔가리.

땅에 떨어져 마른 솔잎. ¶{솔갈비를} 긁어다 모아 둬.

지역 무주.

솔개미 명 [대응어] 솔개. ¶무거운 침묵에 잠긴 대궐 뒤곁에서는 아침거리를 찾는 {솔개미가} 한 마리 삐뺘로로 울면서 공중을 두루 날고 있다.<채만식, 염마> ¶아 정 급한개 {솔개미가} 돼 가지고 떴네, 인자. {솔개미가} 돼 가지고 떠버렸어. 할 도리가 있는가?<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남원.

솔갱이[1] 명 [대응어] 솔개. ¶매보단 {솔갱이가} 무섭따.<2009 전북 임실>

지역 고창, 무주,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

솔갱이[2] 명 [대응어] 솔가지.

땔감으로 쓰려고 꺾어서 말린 소나무 가지. ¶"동무들, 내가 많이 나서는 안될 것잉께 솥은 숯가마 안에다 걸고, 나무는 뽀짝 몰른 {솔갱이럴} 때도록 허씨요." 하대치가 식사당번조에게 지시하고 있었다.<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솔거울 명 [대응어] 솔가리.

땅에 떨어져 마른 솔잎. ¶삼질날 제비는 날아 들고 머슴은 점심 먹고 가슴은 아푸지만 머슴은 지게 우에 산(山)을 지고 {솔거울을} 지고<서정주, 시집>

지역 고창.

솔깨미 명 [대응어] 소리개. ¶{솔깨미}가 빙빙 돌믄서 매선 눈으로 뭐 먹을 거 없나 허고 내려다보는 것 맹이로 처다본게 나는 눈을 못 마주치

겠더라고. 잘못헌것도 없는디. ¶앞 마당에 놀고 있던 병아리를 {솔깨미가} 채가버렸다.
지역 전북.

솔깽이 명 [대응어] 솔가지.
☞솔갱이[2]. ¶불한질나 {솔깽이로} 피서 참 내한질나 캄캄헌디서 그 통중으 책을 보고 있거든. 하도 참 가궁히서 들어갔어.<한국구비문학대계> ¶전북정주시·정읍군편> ¶보름에 솔깽이로 달집지어서 태와.
지역 전북.

솔쨍이 명 [대응어] 관솔.
송진이 많이 엉긴, 소나무의 가지나 옹이. ¶송진이 잔뜩 묻힌 {솔쨍이가} 불이 더 잘 붙어.
지역 전북.

솔꾕이 명 [대응어] 솔개.
☞솔갱이[2].
지역 전북.

솔낭구 명 [대응어] 소나무. ¶목깐험서 대그빡 깜으면 {솔낭구} 솔잎사구 쉬아 내듯 멀크락도 솔차니 빠징게.
지역 고창.

솔녀 (←孫女) 명 [대응어] 손녀.
아들의 딸. 또는 딸의 딸. ¶우리 {솔녀가} 이듬해에 결혼을 헌다는디 뭣을 해 줘야 할랑가 모르겄네. 요즘 애들은 뭘 받아야 좋아헐랑가.
지역 전북.

솔다방 명 [대응어] 다복솔.
가지가 탐스럽고 소복하게 많이 퍼진 어린 소나무. ¶묘 양쪽으다 {솔다방을} 많이 심었지. 지금 {솔다방} 큰 것은 큰 돈 될 거여<구비문학대계 정읍군>
지역 정읍.

솔레솔레 부 [대응어] 야금야금.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조금씩. ¶{솔레솔레} 꽂감 꼭지 빼먹는 것도 복이라면 복인디,<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솔레솔레 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떠꺼머리가 맘만 먹으면 엎어질 예펜네 공으로 챙게 두고, {솔레솔레} 꽂감 꼭지 빼먹는 것도 복이라면 복인디. <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솔려 (←孫女) 명 [대응어] 손녀.
☞솔녀.
지역 고창, 김제, 남원, 정읍, 진안.

솔빠시 부 [대응어] 몽땅.
있는 것을 빠짐없이 모두. ¶재산을 {솔빠시} 도둑맞아뿐졌네.
지역 전북.

솔아들다 동 [대응어] 좁아지다.
좁게 되다 ¶길이 {솔아들어} 걷기가 힘들다.
지역 전북.

솔잎사구 명 [대응어] 솔잎.
소나무의 잎. ¶목깐험서 대그빡 깜으면 솔낭구 {솔잎사구} 쉬아 내듯 멀크락도 솔차니 빠징게.
지역 고창.

솔지 명 [대응어] 부추김치.
부추를 재료로 고춧가루와 양념을 넣고 담근 김치의 한 종류. ¶봄철으는 {솔지를} 담아 먹어야 몸에 좋대야.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솔'은 표준어 '부추'에 해당한다. 이 '솔'을 이용하여 김치를 담근 것을 전북 방언에서는 '솔지'라고 한다. 표준어 '부추김치'와 의미가 다르다. 전북에서는 생것을 그냥 김치로 담근다.

솔짐치 명 [대응어] 부추김치.

부추를 재료로 고춧가루와 양념을 넣고 담근 김치의 한 종류. ¶부추로 담는 것을 {솔짐치라고} 허지.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솔'은 표준어 '부추'에 해당한다. 이 '솔'을 이용하여 김치를 담근 것을 전북 방언에서는 '솔짐치'라고 한다. 표준어 '부추김치'와 의미가 다르다. 전북에서는 생것을 그냥 김치로 담근다.

솔찬하다 형

꽤 많다. ¶실은 나도 알고 보믄 {솔찬하게} 까시랍당게요. ¶긍게, 아짐 드리 {솔찬해서} 욕 보고 애통도 터졌당게요. ¶목깐헙서 대그빡 깜으먼 솔낭구 솔잎사구 쏙아 내듯 멀크락도 빠진 것도 {솔찬항게}.

지역 전북.

솔찬히 부 [대응어] 상당히.

꽤 많이. 또는 제법 잘. ¶"오늘은 잔칫집이 많어서 {솔찮이} 걱정했는디 말여. 꺼먹동이가 마추와줘서 시름 덜어버렸네이?"<이병천, 모래내 모래톱> ¶수개월허고 보니께 그것이 {솔찬히} 크단 말여. 밥태기 뭉쳐논 것이 그걸 가지고 이 쥐새끼처럼 이렇게 네발 돋치고 꽁댕이 돋치는 것을 맨들었어.<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윤 재덕이라고. 그 영감이 나이고 나허고 엇비슥허고 허는 일이 유기 일이고 나는 옹기일 아니여. 긍께 우리 둘이는 {솔찬히} 친허게 지내는 처지지라우. 늘 서로 왔다 갔다 놀러도 댕기고.<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7> ¶여기 아궁이는높이가 {솔찬히} 높구만. ¶천근 무게였지만 집을 나서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햇살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풀잎에 맺힌 이슬들이 걷혀가고 있었다. "오늘도 {솔찬히} 찔랑갑는디, 싸게 모판부텀 뜨드라고." 한 여자가 말하며 머릿수건을 고쳐맸다. "잉, 일손이 딸린께로 진 해도 짧지 않드라고.<조정래, 태백산맥> ¶둘이서 이야기 하면서 걷다보니 {솔찬히} 많이 걸었구나.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에는 '꽤 많다'의 의미로 형용사 '솔찬하다'가 쓰인다. 전북 방언의 대표적인 어휘인 '솔찬히'는 '솔찬하다'의 부사형이다.

솔챈히 부 [대응어] 상당히.

☞솔찬히. ¶그나지나 오늘 지녁도 {솔챈히} 충게 끄렁불 애끼지 말고 때고 고래구녕으로 쌩솔까지 서너 개 쪼셔 눟고 자믄 새복까징은 따닷흘 거쇼.

지역 고창.

솔캥이 명 [대응어] 새꽤기.

갈대, 띠, 억새, 짚 따위의 껍질을 벗긴 줄기. ¶{솔캥이에} 손을 비서 피가 철철 났어.

지역 군산.

솔콩이 명 [대응어] 옹이.

나무의 몸에 박힌 가지의 밑부분. 또는 굳은살이나 가슴의 응어리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나뭇결에 {솔콩이가} 박혀 있어. ¶발에 {솔콩이가} 있어서 좀 걷기가 힘들당게.

지역 전북.

솜이블 명 [발음] [소미블] [대응어] 솜이불.

안에 솜을 넣어 만든 이불. ¶{솜이블이} 따뜻해.

지역 완주.

솟 명 [대응어] 솥.

밥을 짓거나 국 따위를 끓이는 그릇. ¶나는 {솟을} 짊어지고, 동생은 쌀 짊어지고 길을 떠났지. ¶닥 멫 마리를 {솟으다} 놓고 물 붓고 푹 삶으면 인자 다 달라들어서 먹기 시작허는 거여.

지역 전북.

솟기다 동 [대응어] 솟다.

어떤 느낌이나 기운 따위가 강하게 생기다. ¶민기홍은 다시 짜증이 {솟기는} 것을 느끼며 투덜거리듯 혼잣말을 했다.<조정래, 태백산맥> ¶방영근은 슬픔이 왈칵 {솟기는} 것을 느꼈다. 그런 감정이 솟기기는 남용석도 마찬가지였다.<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해설 '솟-'은 15세기부터 '솟-'으로 나타나 현대국어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솟-'은 국어사 자료에서 대부분 '샘, 눈물' 등 액체가 위로 움직이거나 뿜어지는 것을 표현하는 데 쓰이고 있으나 현대 국어에서 '솟-'은 추상적인 대상에까지 그 쓰임이 방대하다. '샘, 눈물'은 물론이고, '비행기, 식물의 싹' 등 구체적 사물에서 '물가, 성적, 의욕, 힘' 등 추상적인 대상에까지 '솟다'가 쓰인다. 전북 방언 '솟기다'는 표준어 '솟다'와 거의 같은 의미이다. 역사적으로 '솟고다'가 '솟구다'로 쓰이게 되는데, 이 어휘에 유추되어 '솟다'를 '솟기다'로 발음한 것으로 보인다.

솟단지 명 [대응어] 솥단지.

밥을 짓거나 국 따위를 끓이는 항아리 모양의 그릇. ¶{솟단지에} 밥을 해 먹었어. 지금은 전기밥솥 쓰고. ¶밥을 해 먹을려면 {솟단지를} 걸어야겠지?

지역 전북.

솟뚜껑 명 [대응어] 솥뚜껑.

솥의 열린 부분을 덮는 물건. ¶{솟뚜껑으로} 덮었어.

지역 고창, 군산, 완주, 남원.

솟뚜겅 명 [대응어] 솥뚜껑.

☞솟뚜껑.

지역 남원.

송다리 명 [대응어] 송아리.

꽃이나 열매 따위가 잘게 모여 달려 있는 덩어리. ¶꽃 {송다리}

지역 전북.

송도리 부 [대응어] 송두리.

있는 전부. ¶아주 그냥 {송도리} 훔쳐가부렀어. 싹 다 기양.

지역 고창.

송도리시 명 [대응어] 다래끼.

바구니 비슷하게 만든 그릇. ¶옛적에 메기 한 마리가 칠십 년을 살어도 꿈 한 번 안 꿔더니 하루 저녁에는 꿈을 꿔게 되었는디, 열 놈이 잡어서 {송도리시에} 담은 듯, 도매에 오른 듯, 은장도에 썬 듯, 붉은 고개로 넘어가서 노적관을 써비는 듯, 터럭관을 써 비는 듯하는 꿈을 꾸었어.<구비문학대계 정읍군> ¶{송도리시에} 담긴 듯헌 것은 다래끼에다 넣은 것이고, 도매에 오른 듯헌 것은 도매 우그에다 놓은 것이고.<구비문학대계 정읍군>

지역 정읍.

송도리채 부 [대응어] 송두리째.

있는 전부를 모조리. ¶긍게 그때 장질부산가 뭔가가 돌아가지구 그 마을 사람덜이 {송도리채} 죽었나갔단 말여. ¶일본놈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

을 {송도리채} 잡아가서 태평양전쟁에 투입을 했단다.
지역 남원, 순창, 군산, 익산, 임실, 장수, 진안, 김제.

송두리조차 뿐 [대응어] 송두리째.
있는 전부를 모조리. ¶그 양반이 도박을 했더랬나, 그래가지구 집 재산을 {송두리조차} 다 날려뺀지구 인제 마누라하구두 헤어지고 그랬지.
지역 정읍.

송두리차 뿐 [대응어] 송두리째.
☞송도리채.
지역 부안.

송두리채 뿐 [대응어] 송두리째.
☞송도리채. ¶인자 니가 헌 일을 {송두리채} 다 터 놔봐 아무리 쉉길라고 혀도 안되닌게.
지역 김제.

송아리 명 [대응어] 송사리. ¶{송아리는} 짝어서 잡기 힘들어. ¶앞 냇깔에는 {송아리}떼만 겁나지 큰괴기가 없어.
지역 김제, 부안, 군산, 완주, 익산, 진안.

송아치 명 [대응어] 송아지.
어린 소. ¶그 소가 커갇꼬 {송아치를} 나차나요?(그 소가 커가지고 송아지를 낳잖아요?)<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송아치가} 크먼, 소가 크먼, 에미 되먼, 날마둥 어따가 쟁기질히서 버러서 머거도 상과니 업꼬.(송아지가 크면, 소가 크면, 어미가 되면, 날마다 어디에 쟁기질해서 벌어 먹어도 상관이 없고.)<2009 전북 임실> ¶시골 부잣집에서는 머슴을 들이먼 {송아치} 한 마리 키우라 히서 고놈이 크먼 팔어 갖고 새경을 주었지.
지역 김제, 부안, 순창, 익산, 임실, 정읍, 진안, 군산, 남원.

송안치 명 [대응어] 송아지.
어린 소. ¶{송안치} 한 마리도 없다
지역 남원.

송앙치 명 [대응어] 송아지.
어린 소. ¶아, {송앙치요}? 좋구만이라우.
지역 전북.

송추목 명 [대응어] 삭정이.
살아 있는 소나무에 붙은 채 말라 죽은 작은 나뭇가지. ¶어렸을 때만 해도 지게 지고 {송추목} 해다가 많이 땠지. 송추목이 잘 타잖여요. 소나무 마른 가지를 {송추목이라고} 허지 다른 나뭇가지는 {송추목이라고} 안혀요.<구비문학대계 정읍군>
지역 정읍.

송추이 명 [대응어] 송충이.
솔나방의 애벌레. ¶{송추이가} 꼭 목에 기어댕기는 것 같어.
지역 전북.

송치 명 [대응어] 송충이.
솔나방의 애벌레. ¶아문, {송치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제.
지역 전북.

송치이 명 [대응어] 송충이.
솔나방의 애벌레. ¶저 {송치이} 새끼마냥 사람이나 긁어먹고 남헌티 한개도 도움이 안 돼.
지역 전북.

솥검당 명 [대응어] 솥검정. ¶솥에 그을음이나 연기가 엉겨 생기는, 검은 물질. ¶{솥검당이} 얼굴에 묻다 ¶검은 사마귀와 주근깨 없애는데는 {솥검

당이} 명약이라는디 내 말만 믿고 한번 허보랑게.
지역 전북.

솥글경이 명 [대응어] 눌은밥.
☞솥글겡이. ¶{솥글경이와} 밥티가 쌀밥인 채로 수채구멍으로 흘러나갈 일을 생각하면, 그야 소중하고 아깝기도 했을 겝니다.<채만식, 태평천하>
지역 전북.

솥글겡이 명 [대응어] 눌은밥.
솥바닥에 눌어 붙은 밥찌끼에 물을 부어 불려서 긁은 밥. ¶아깝게 버리는 쌀뜨물이며 겨하며 {솥글겡이며} 흘린 곡식하며가 노상 없는 바 아니니, 개돼지와 닭 같은 것을 응당 쳤어야 오히려 촌가답게 섭섭치 않았을 것이다.<채만식, 龍洞宅>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솥글겡이'는 '글겡이밥'으로도 쓰고 있다. '글겡이'는 '긁-+-엉이'의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솥글겡이'는 '솥에 누른 것을 수저로 긁은 밥'을 말하는 것이다.

솥단지걸기 명
공기놀이를 할 때 공기돌 세 개를 모아 놓고 그 위에 공깃돌 하나를 올리는 일. ¶세 개 이렇게 모아 놓고 하나는 그 위에 올려, 그게 {솥단지걸기}.
지역 전북.

솥뚜경 명 [대응어] 솥뚜껑. ¶솥의 열린 부분을 덮는 물건. ¶발은 도적놈처럼 크고 손도 {솥경만} 허구만.
지역 고창, 완주.

쇄끼 명 [대응어] 새끼(짐승의).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짐승. ¶마루 밑에서 누렁이의 {쇄끼가} 잠을 자고 있다
지역 군산.

쇄앙쥐 명 [대응어] 생쥐. ¶저저저. {쇄앙쥐} 한 마리가 도망간다.
지역 전북.

쇅경 (←石鏡) 명 [대응어] 석경.
☞섹겡.
지역 전북.

쇙겡 (←石鏡) 명 [대응어] 석경.
☞섹겡.
지역 전북.

쇠경 명 [대응어] 소경.
'시각 장애인'을 낮잡아 이르는 말. ¶"그 참, 어떤 분인가 고마운 일 많이 헌다…." 고. {쇠경이} 그러드래야, 그러나 뵈든 않는디, "근디 당신 맘씨는 좋은디 명이 단명허겄소." 그러드라느만.<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아이고 이놈아 그만치 자시 알켜줬으면 {쇠경도} 눈을 떴것다.
지역 군산, 완주, 익산.

쇠괴기 명 [대응어] 쇠고기.
음식으로 먹는 소의 고기. ¶닭을 잡든지 {쇠괴기를} 사오든지 뭣하던지 히갖고, 요리를 잘 장만허고 술도 존놈으로 해갖고, 자고난다 치먼은 그걸 맥여라.<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아 그날 장날인개 괴기국 끓여 놓은 것은 있고, {쇠괴기를} 사다 놓은 것도 있고 그런디,<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쇠 말려가지고서는 그놈으로 그냥 거그다 {쇠괴기까지} 다 느서 말여, 말려서 느가지고서는<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군산, 김제, 남원, 무주, 완주, 익산, 정읍.

쇠구시 명 [대응어] 구유.
☞구시.
지역 무주.

쇠귀엄 명 [대응어] 쇠두엄.
외양간에서 쳐낸 두엄. ¶쇠귀엄 썩는 냄새가 진동한다.
지역 전북.

쇠까꾸랭이 명 [대응어] 갈고리.
무언가를 걸 수 있게 쇠로 뾰족하고 꼬부라지게 만든 도구. ¶{쇠까꾸랭이로} 지붕을 마구 내려 찍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지역 무주.

쇠깔 명 [대응어] 쇠꼴.
소에게 먹이기 위하여 베는 풀. ¶술을 흠뻑이 먹고 들어오면서 저 아버지 보고, {쇠깔} 안 베온다고 얼굴을 찡그리고 들어가.<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쇠깔} 좀 베어다 놓고 놀거라.
지역 남원.

쇠꼬라지 명 [대응어] 쇠꼬리.
소의 꼬리. ¶{쇠꼬라지를} 푹 고아 먹어.
지역 익산.

쇠꼬랭이 명 [대응어] 쇠꼬리.
소의 꼬리. ¶{쇠꼬랭이} 구해 먹여야 하는디. ¶사람이 크려면 닭대가리보다는 {쇠꼬랭이}가 더 낫지.
지역 무주.

쇠꽁지 명 [대응어] 쇠꼬리.
소의 꼬리. ¶무시허들 마시요. {쇠꽁지도} 비싸요.
지역 김제, 군산.

쇠다 동 [대응어] 쉬다(목이).
목청에 탈이 나서 목소리가 거칠고 맑지 않게 되다. ¶그러자 한 열시경 되니깐 정말로 구름이, 먹구름이 써오는디 그쩍이는 목이 {쇠어서} 소리가 안나와요. 그냥 입안에서만 자기 아들 이름을 불르는 거요.<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그러니깐 자기 어머니가 그쩍으사, “아이고 내아들 온다.” 고. 막 뛰쳐나왔는디 목이 꽉 {쇄} 가지고 말을 못히요.<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군산.

쇠더이 명 [대응어] 쇳덩이.
쇳덩어리가 뭉쳐진 덩어리. ¶아무것도 아니던 녹슨 헌 {쇠더이가} 요짐엔 돈이 다 된당게로.
지역 전북.

쇠두염 명 [대응어] 쇠두엄.
소 외양간에서 쳐낸 두엄. ¶{쇠두염} 썩는 냄새가 진동한다.
지역 전북.

쇠똥불 명 [대응어] 반딧불.
반딧불잇과의 딱정벌레. 또는 반딧불이의 꽁무니에서 나오는 빛. ¶저그 빤짝빤짝 한 것이 {쇠똥불인가벼}. ¶{쇠똥불이} 반짝거리다
지역 전북.

쇠멍 명 [대응어] 소입막이.
소의 입을 막는 도구. ¶허구헌날 먹고 또 먹고 소새끼도 아니고, 쟈는 왜그런가 모르겄네. 진짜 저 입을 {쇠멍으로} 틀어막을 수도 없고. 걱정이 구만요.
지역 남원.

쇠메 명 [대응어] 모루채.
대장간에서, 달군 쇠를 모루 위에 놓고 메어칠 때 쓰는 것. ¶불간으로 {쇠메로} 칼 맹글라고 뚜들기는디 몇 번 뚜들기는지 안당가요?
지역 김제, 부안, 군산, 완주, 정읍.

쇠물 명 [대응어] 쇠죽.
소에게 먹이려고 짚, 콩, 풀 따위를 넣어 끓인 죽. ¶소 먹일 {쇠물} 끓인다.
지역 전북.

쇠물남팍 명 [대응어] 쇠죽바가지.
쇠죽을 푸는 데 쓰는 바가지. ¶{소죽남팍으로} 소죽을 구시에 퍼붓는디.
지역 익산.

쇠물바가지 명 [대응어] 쇠죽바가지.
쇠죽을 푸는 데 쓰는 바가지. ¶{소물바가지로는} 소죽 푸지.
지역 고창, 완주, 진안.

쇠물솟 명 [대응어] 쇠죽솥.
쇠죽을 끓일 수 있을 만큼 아주 커서 여러 용도로 쓰는 솥. ¶{쇠물솟이다} 밥을 허면 육칠솥이다 헌 밥보다 안 맛있어.
지역 전북.

쇠물젓이 명 [대응어] 쇠죽바가지.
쇠죽을 푸는 데 쓰는 바가지. ¶{쇠물젓이를} 소죽 젓는디도 쓰고 그래.
지역 임실.
해설 '쇠물젓이'는 '쇠물+젓-+-이'로 분석된다. '쇠물'은 '쇠죽'의 방언형이고, '쇠물젓이'는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쇠물을 젓는 데 쓰는 물건'이라는 뜻이다.

쇠물팍 명 [대응어] 도깨비바늘. ¶{쇠물팍} 뿌렝이를 먹으면 좋대.
지역 부안.

쇠발톱 명 [대응어] 쇠발굽.
소의 발톱. ¶그러니까 포탄소리에 소가 놀라가지고 튀는 바람에 그 뭐야 달구지 {쇠발톱이라고} 했잖아요.<2007 전북 군산>
지역 완주.

쇠발통 명 [대응어] 바퀴.
☞발통.
지역 완주.

쇠발툽 명 [대응어] 쇠발굽
☞쇠발톱.
지역 군산.

쇠발톱 명 [대응어] 쇠발굽
☞소발톱.
지역 전북.

쇠비럼 명 [대응어] 쇠비름. ¶{쇠비럼은} 약으로도 써요.
지역 전북.

쇠비림 명 [대응어] 쇠비름.
☞쇠비럼.
지역 전북.

쇠선 명 [대응어] 흙손.
흙일을 할 때에, 이긴 흙이나 시멘트 따위를 떠서 바르고 그 겉 표면을 반반하게 하는 연장. ¶{쇠선으로} 쎄멘트 발러.
지역 군산.

쇠손 명 [대응어] 흙손.
흙일을 할 때에, 이긴 흙이나 시멘트 따위를 떠

서 바르고 그 겉 표면을 반반하게 하는 연장. ¶장이라면 {쇠손과} 쇠받기를 가지고 있느냐?[김제, 부안]

지역 고창, 군산, 김제, 남원, 부안, 순창, 완주, 임실, 정읍, 진안.

쇠수리바람 명 [대응어] 회오리바람.

☞소소리바람.

지역 부안.

쇠순 명 [대응어] 흙손.

흙일을 할 때에, 이긴 흙이나 시멘트 따위를 떠서 바르고 그 겉 표면을 반반하게 하는 연장. ¶{쇠순이} 있어야 흙을 바르든 쎄멘을 발르든 하지.

지역 익산.

쇠시랑 명 [대응어] 쇠스랑.

☞소스랑. ¶{쇠시랑} 자루 뿐지러 진지가 언지라고 여때껏 안고쳤다냐.

지역 완주.

쇠실바람 명 [대응어] 소슬바람.

가을에, 외롭고 쓸쓸한 느낌을 주며 부는 으스스한 바람. ¶가을 분위기 흠뻑 느끼고 싶어서 동네 뒷산으 올라선게 {쇠실바람} 불어대고, 가을 달밤이 차갑게 다가 오니께 더 쓸쓸하기만 하네. 괜히 올라왔는 개벼.

지역 전북.

쇠악 명 [대응어] 쐐기.

물건의 틈에 박아서 사개가 물러나지 못하게 하거나 물건들의 사이를 벌리는 데 쓰는 물건. ¶저그 나무랑 나무 이은 디 거그 벌어지게 {쇠악을} 좀 박아. ¶두말 없게 {쇠악을} 박아버려. 저런 놈들이 또 딴소리 헌게 뭐 계약서 같은 것을 쓰덩가.

지역 고창, 김제,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정읍, 남원.

쇠앙지 명 [대응어] 송아지.

어린 소. ¶우리 소가 이번에 {쇠앙지를} 두 마리나 났어. 기특허게도.

지역 전북.

쇠양판 명

쇠로 만든 양푼. ¶나무 양판이 {쇠양판} 안 뒝게 그 쌍판데기에 화장품을 도배허고 자빠졌네이.

지역 고창.

쇠주 명 [대응어] 소주.

곡식으로 만든 술을 끓여 얻는 증류주. ¶술 담는다고 그러지. 이거슨 인자 막걸리고, 소주 내린다고 {쇠주라고} 그리써 그리써 그저니는.<완주_지역어_텍스트> ¶"아 오늘 또…." "야들은 맥없이 오머는 나 성가시게. 술이나 먹고 가거라." 술도 주머는 인지 멸치여다가 {쇠주} 준게. 멜치여다,<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할아버지는 {쇠주를} 대두병으로 한 병씩 마셨어도 아흔살까지 사셨지. ¶우리 오랜만에 만났으니 {쇠주} 한잔 하자구나.

지역 남원, 완주, 임실, 정읍.

쇠주걱 명 [대응어] 밥주걱.

쇠로 만든 주걱. ¶{쇠주걱도} 있는 거고 나무주걱도 있는 거지.

지역 고창.

쇠주래기 명 [대응어] 소주.

곡식으로 만든 술을 끓여 얻는 증류주. ¶{쇠주래기를} 한잔 마셔야겄어.

지역 전북.

쇠주벅 명 [대응어] 밥주걱.

쇠로 만든 주걱 ¶{쇠주벅으로} 밥 푸믄 나무주벅보다는 밥때기가 덜 붙어.
지역 남원, 임실.

쇠죽바가치 명 [대응어] 쇠죽바가지.
☞소죽바가치.
지역 남원.

쇠죽젓이 명 [대응어] 쇠죽바가지.
쇠죽을 푸거나 젓는 데 쓰는 바가지. ¶{쇠죽젓이로} 소죽을 푸면 힘이 좀 덜 들어. 많이 풀 수 있은게로.
지역 임실.

쇠쪽박 명 [대응어] 쇠죽바가지.
쇠죽을 푸거나 젓는 데 쓰는 바가지. ¶{쇠쪽박} 깨지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지역 고창

쇠치 명 [대응어] 송아지.
어린 소. ¶전번에 {쇠치를} 내다 팔아버렸어.
지역 전북.

쇠코뚤개 명 [대응어] 쇠코뚜레.
소의 코청을 꿰뚫어 끼는 나무 고리. 좀 자란 송아지 때부터 고삐를 매는 데 쓴다.<우리> ¶아직 {쇠코뚤개도} 안 헌 송아치맨치로 놀고 자빠졌네.
지역 전북.

쇠통 명 [대응어] 자물쇠.
문 따위처럼 여닫는 물건을 잠그는 장치. ¶"참, 슈퍼 아줌마가 변소 좀 깨끗이 쓰래요. 안 그러면 변소에 {쇠통} 채우겠다고 신경질을 박박 내던데." 박군의 말이었다.<양귀자, 지하생활자> ¶어느 한 구석 벌어진 틈 없이 사면을 철갑한 채, 문고리에는 무거운 {쇠통을} 물고 있었다. 그 {쇠통은} 광보다 더 무거운 것이었다. 절거덕, 절거덕.<최명희, 혼불> ¶할머니께서 곳간의 {쇠통}을 철거덕거리며 여셨다. ¶집을 비울 때는 꼭 문에 {쇠통을} 채우고 가거라.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부안, 순창, 완주, 임실, 장수, 정읍, 진안.

쇠포리 명 [대응어] 쇠파리.
☞세파리.
지역 전북.

쇠피보다 (←所避보다) 동 [대응어] 소피 보다.
오줌을 누다. ¶다시금 일주일간 기구하고 목욕재배하고 이제 까탈스럽지요. {쇠피보러} 갈 적에도 신을 갈아신고 의복을 갈아입고. 이 젯상을 가져온디 머리카락 큰 놈이 하나가 놓였다라요 그런게 죄를 입은 거지.<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남원.

쇠홀태 명 [대응어] 그네
벼 이삭을 넣고 벼의 알을 훑는 쇠로 만든 농기구. ¶꼭 얼레빗처럼 생긴 {쇠홀태는} 사오년 전부터 일본에서 들어오기 시작한 농기구였다.<조정래, 아리랑>
지역 무주.

쇡경 (←石鏡) 명 [대응어] 거울.
☞색경.
지역 군산, 완주.

쇡다 동 [대응어] 속다.
☞속다. ¶우리가 네깐 놈 수작에 쇡아 넘어갈 줄 아냐?
지역 김제, 남원, 완주, 임실, 진안.

쇡위 (←石油) 명 [대응어] 석유.

☞섹유.
지역 무주.

쇡이 (←石油) 명 [대응어] 석유.
☞섹유.
지역 무주.

쇳경 (←石鏡) 명 [대응어] 거울. ¶최치원은 얼매큼 커서 {쇳경을} 고치는 일을 혔는디 세상 사람들은 이 아를 파경노(破鏡奴)라고 불렀어.<구비문학대계 정읍군> ¶최치원이가 어떤 정승으 딸이 하도 이쁘고 글 잘허고 얌전허게 생겼단 말얼 듣고 그 처자럴 한번 봐야겄다 허고 그 집 문 앞이서 '허언 {쇳경} 고치시오, 헌 {쇳경} 고치시오' 허고 외침서 왔다갔다 허넌디<구비문학대계 정읍군>
지역 정읍.

쇳괴삐 명 [대응어] 쇠고삐.
소를 부리기 위해 코뚜레나 굴레에 매는 줄. ¶{쇳괴삐를} 단단히 쥐고 가. 소 도망할라.
지역 남원.

쇳대 명 [대응어] 열쇠.
자물쇠를 열거나 잠글 때 사용하는 물건. ¶그러인제 {쇳대} 가지가서 곳간문 열고 쌀을 인저 식구대로 먹을 만큼 히다가선 쌀을 씻는디, 여가 여가 방이고, 정지서<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그 이튿날 인자 오던 길로 도로 와 가지고서 그 열쇠점에 가서 인자 쇳대를 맞춰갖고 {쇳대를} 딱 찔른게로 끌러져.<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어디서 자전기 {쇳대를} 잊어번졌는지 알 수 가 없어. ¶배깥에 나갈 때는 꼭 {쇳대를} 잠그고 나가거라.
지역 군산,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해설 전북 방언 '쇳대'는 표준어로는 '열쇠'이다. 따라서 '쇳대'는 '자물쇠'의 의미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옛날 자물쇠는 '쇠로 된 긴 막대'를 이용하여 열게 되어 있다. 이때 열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쇳대'이다. '쇳대'는 '쇠+ㅅ+대'로 이루어진다.

쇳더어리 명 [대응어] 쇳덩어리
쇠붙이가 뭉쳐져서 된 덩어리. ¶{쇳더어리가} 묵직하구만.
지역 전북.

쇳덩거리 명 [대응어] 쇳덩어리
쇠붙이가 뭉쳐져서 된 덩어리. ¶{쇳덩거리가} 엄청 무거워 함께 들자구나.
지역 전북.

쇳돼 명 [대응어] 열쇠.
☞쇳대.
지역 전북.

쇵기다 동 [대응어] 섬기다.
☞생기다.
지역 정읍.

쇵앙치 명 [대응어] 송아지.
☞소앙치.
지역 전북.

쇵이 명 [대응어] 송이.
꽃, 열매, 눈 따위가 따로따로 다른 꼭지에 달린 한 덩이. 또는 그것들을 세는 단위. ¶여러 신명님들한테는 수수만만 꽃쉥이 중에 하나겄지만, 지는 이 꽃 한 {쉥이가} 지 전부요. 내 한세상으 전부요. 저한테 주시기라우.<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쇵편 명 [대응어] 송편.

☞쇵편.
지역 전북.

쇵편 명 [대응어] 송편.
쌀가루를 반죽하여 반달 모양으로 만든 후 솔잎을 갈고 찐 떡. ¶옌나레는 즐편 요러케 딱 미티다 이르케 올리고 위에다 {쇵편} 이르케 멷깨 온지고 그리써써.(옛날에는 절편 요렇게 딱 밑에다 이렇게 올리고 위에다 송편 이렇게 몇 개 얹고 그랬었어.)<2007 전북 군산> ¶추석 차례상에는 시루떡 대신 {쇵편을} 놓는거여. ¶추석의 대표 음식은 그래도 {쇵편이지}.
지역 전북.

쇵핀 명 [대응어] 송편.
☞쇵편.
지역 전북.

수꾸막질 명 [대응어] 숨바꼭질.
아이들 놀이의 하나. 여럿 가운데서 한 아이가 술래가 되어 숨은 사람을 찾아내는 것인데, 술래에게 들킨 아이가 다음 술래가 된다. ¶밤에 {수꾸막질} 하면 찾기도 힘들어. 긍게 술래가 힘들제.
지역 순창.

수꾸재미 명 [대응어] 쑥부쟁이. ¶{쑤꾸재미는} 올해에도 남보라 빛을 뽐내며 피었네.
지역 전북.

수꾹수꾹 부 [대응어] 뻐꾹뻐꾹.
뻐꾸기가 잇따라 우는 소리. ¶뻐꾸기가 {수꾹수꾹} 울다
지역 정읍.

수당깨 명 [대응어] 솥뚜껑.
가마솥의 뚜껑. ¶그 전이는 또 {수당깨로} 쓸었네. {수당깨로} 쑥. ¶수당깨가 머시냐먼 그 전 꺼멍솥. 시커먼 놈. 솥단지 {수당깨} 그놈으로 쭉 쓸면 잘 쓸어져. 그런게 그놈으로 이렇게 둥글처. ¶작은 놈 있고 큰놈 있고 그러잖아, {수당깨로}, 칼로 헌 놈보다 쉬워. 그놈으로 쭉 밀면은 쭉 나가버려. 접시로도 허고 칼로도 허고 그려, 지금은.
지역 고창.

수더럭하다 형 [발음] [수더러가다/수더러카다] [대응어] 수두룩하다.
매우 많고 흔하다. ¶곡간이 {수더럭하드락만} 하나 내 주지를 않고
지역 전북.

수두럭벅적하다 형 [발음] [수두럭뻑쩌가다/수두럭뻑쩌카다] [대응어] 수두룩하다.
매우 많고 흔하다. ¶문 사람이 저로코롬 {수두럭벅적하다요}?
지역 전북.

수두룩벅적 부 [대응어] 벅적.
많은 사람이 큰 소리로 떠들거나 움직이는 모양. ¶"그런디 세상에 {수두룩벅적} 쌔고쌘 석새삼베 같은 것들 돌뵈기만도 심이 부칠 목사 낭반이 뭣 땜시 펄씨 비단으로 개비헌 김부월 자매를 붙잡고 신방인가 심방인가를 못 꾸며서 안달이났다요?"<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의 부사 '수두룩벅적'은 의미상 표준어 '벅적'에 대응하는 말이다. 그러나 형태상으로는 '수두룩'과 '벅적'이란 부사가 복합된 복합어이다.

수두룩벅적하다 형 [발음] [수두룩뻑쩌가다/수두룩뻑쩌카다] [대응어] 수두룩하다, 벅적하다.
매우 많고 흔하다. 또는 많은 사람이 넓은 곳에

모여 매우 어수선하게 자꾸 움직이다. ¶최씨 집안이 벌쭉헌 가세를 자랑허도 대처에 나가 타관살이험시나 일 년 열두 달 가야 선영에다 얼골 한 번 안 비치는 자손들이 {수두룩벅적허다네}.<윤흥길, 낫>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의 형용사 '수두룩벅적허다'는 표준어 '수두룩하다, 벅적하다'에 대응하는 말이다. 이 두 어휘가 복합되어 '수두룩벅적하다'라는 형용사로도 쓰이고 있다.

수두룩벅적허다 형 [발음] [수두룩뻑쩌거다/수두룩뻑쩌커다] [대응어] 수두룩하다, 벅적하다.
☞수두럭벅적하다. ¶이놈아, 그만헌 색시는 우리 동네에도 {수두륵뻑적허다} 뭐가 아수워서 쫓아댕기쌌냐.

지역 전북.

수둑수둑하다 형 [발음] [수둑쑤두가다/수둑쑤두카다] [대응어] 수북수북하다, 수북하다.
쌓이거나 담긴 물건이 여럿이 다 불룩하게 많다. ¶진짜로 고칠이 {수둑수둑하게} 쌓여 있고만.

지역 전북.

수등 (秀等) 명 [대응어] 상등.
등급을 상・하 또는 상・중・하로 나눈 것의 가장 위 등급.

지역 전북.

수땅개비 명 [대응어] 방아깨비(수컷).
방아깨비의 수컷.

지역 임실, 장수, 정읍.

수락 의명
논을 세는 단위. ¶살림은 여유가 있어 유여하게 사는디 논은 한 어딘가는 몰라도 두서너 {수락씩} 가지고 있는 처사여.

지역 전북.

수래미 (←<일>surume(するめ)) 명 [대응어] 오징어.
☞수루미.

지역 전북.

수루매 (←<일>surume(するめ)) 명 [대응어] 오징어.
☞수루미.

지역 전북.

수루미 (←<일>surume(するめ)) 명 [대응어] 오징어.

지역 전북.

수리미 (←<일>surume(するめ)) 명 [대응어] 오징어.
☞수루미.

지역 전북.

수리잡 명
물이 차 있는 논. ¶저그 {수리잡이} 있어. {수리잡은} 손으로 지어 먹어야제 기계로는 농사 못져. 빠진게.

지역 전북.

수므깍질 명 [대응어] 숨바꼭질.
아이들 놀이의 하나. 여럿 가운데서 한 아이가 술래가 되어 숨은 사람을 찾아내는 것인데, 술래에게 들킨 아이가 다음 술래가 된다. ¶"동네 앗들이 모여 허는 일이란게 제우(겨우) {수므깍질이나} 말뚝빼기 정도였지." ¶"저놈으 쥐새깽이들이 {수므깍질을} 허는가 쥐구먹으서 지랄들을 허고 있네.".

지역 익산.

수바라지 명 [대응어] 수발.

신변 가까이에서 여러 가지 시중을 듦. 수발보다 좀 낮게 이르는 말. ¶(자식들이) {수바라지를} 안 히 준게(요양원으로) 가야제.

지역 전북.

수뻐 명 [대응어] 수풀.

나무들이 무성하게 우거지거나 꽉 들어찬 것. ¶산이 나무가 많으면 {수뻐가} 돼.

지역 전북.

수수꺼끼 명 [대응어] 수수께끼.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빗대어 말하여 짤막한 물음을 내놓고 답을 알아맞히는 놀이 혹은 그 물음. ¶둘이 앉어서 {수수꺼끼를} 한다. ¶{수수꺼끼를} 맞히면 돈 천 냥을 준다고 헌다. ¶그 천고의 {수수꺼끼야}!(안해를 보고) 아직도 철을 모르고 고생을 덜 해서 그렇소. 그런 센티멘탈을 그만 청산해 바리구려.<채만식, 그의 가정풍경> ¶"그러니…… 그러니 말일세…… 대관절 그게 모다 어떻게 된 {수수꺼끼며} 나는 또 어떤 입장을 취하면 좋겠나?"<채만식, 염마>

지역 군산, 무주, 완주, 임실.

수수때기 명 [대응어] 수숫대, 수수깡.

수수의 줄기. ¶그래서 흔 동아줄을 타구 올라가다가 왜 수수밭에 빨간하지 왜 그리 내리쪄서(떨어져서) 똥구멍을 꿰서 {수수때기가} 빨간하. <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쌍금쌍그음 쌍가락지, {수수때기이} 밀가락지, 어디 원니임 주시던가. 전주 원니임 주십시다."<채만식, 젊은날의 한 구절> ¶{수수때기로} 안경을 만들어 놀 수도 있단다.

지역 완주.

수수때이 명 [대응어] 수숫대, 수수깡.

☞수수때기.

지역 전북.

수수땡이 명 [대응어] 수숫대, 수수깡.

☞수수때기. ¶고 고걸 이르물 뭐라고 그래요? {수수땡이로} 이러케 고구마 여제, 고구마 뚜지.(그 그것을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수수깡으로 이렇게 고구마 넣지, 고구마 뒤주.)<2009 전북 임실>

지역 임실.

수수망생이 명 [대응어] 수수경단.

수수 가루로 반죽을 해서 경단처럼 동그랗게 만들어 물에 익혀서 팥고물을 묻힌 떡. ¶돌떡으로는 인저 대개 인절미 허구, 인저 {수수망생이를} 혀. 수수를 인저 당궈따 빵궈서 저 팍꼬명, 팍꼬명 이께, 시방은 그 뭐시라허까, 계단이라고 허까.(돌떡으로는 이제 대개 인절미 하고, 이제 수수망생이를 해. 수수를 담갔다가 빻아서 팥고명, 팥고명 이렇게, 지금은 그 뭐라고 할까 경단이라고 할까)<2007 전북 군산> ¶{수수망생이를} 인저 가리 이롷게 만들어갖고 물 팔팔 끌른 디다 느. 느먼 그게 익자나요? 익으먼 인자 그 팍꼬명이다 무치지. 그게 인자 {수수망생이야}.(수수망생이를 이제 가루 이렇게 만들어갖고 물 팔팔 끓는 데다 넣어. 넣으면 그게 익잖아요? 익으면 이제 그 팥고명에다 무치지. 그게 이제 수수망생이야.)<2007 전북 군산>

지역 군산.

해설 수수망생이는 백일상이나 돌상에 빠지지 않는 음식으로, 붉은 팥고물을 묻혀 내어 아이의 액운을 막고 건강하게 자라게 해준다는 의미가 있다.

수수밥 명 [대응어] 수수밥.

☞쑤시밥.

지역 고창.

수수풀 명 [대응어] 강아지풀. ¶그건 {수수풀}. 그게 강아지풀이대? 수수풀이제. ¶우그로 안 수수모개 나오냔? 근게 {수수풀여}. ¶{수수풀을} 멀라고(무엇을 하려고) 뜯어왔어?
지역 고창.

수숙 명 [대응어] 메조.
☞서숙.
지역 무주.

수숙모가지 명 [대응어] 조이삭.
☞서숙모가지
지역 무주.

수숙밥 명 [대응어] 조밥.
맨 좁쌀로 짓거나 입쌀에 좁쌀을 많이 두어서 지은 밥.
지역 고창, 무주.

수숙쌀 명 [대응어] 좁쌀.
조의 열매를 찧은 쌀.
지역 무주, 완주.

수슥모가지 명 [대응어] 조이삭.
☞서숙모가지
지역 무주.

수슥밥 명 [대응어] 조밥.
☞스숙밥
지역 무주.

수시감 명
크고 뾰족한 감. 겨울에 홍시로 차게 해서 먹곤 한다. ¶수시감은 이렇게 큰 거드만. 크고 막 시장이랑 나잖여. 큰 거. 이렇게 뻬쭉허고. 그거더러 {수시감이라고} 허대. ¶억시도 있고 워리감도 있고 또 거시기 메명감도 있고 {수시감도} 있고 그려. ¶영치감도 있고 머 {수시감도} 있고, 배시감도 있고 머, 그러대 모두.
지역 완주.

수시미 명 [대응어] 수세미.
☞쑤세미.
지역 전북.

수실감 명 [대응어] 둥주리감.
납작하고 네 개의 얕은 홈이 있는 감으로 여름에 다 익어도 파랗고 물이 많다. 떫은 감은 소금물에 우려 떫은 맛을 없애고 먹는다. ¶올해는 {수실감이} 통 안 열었고만.
지역 전북.

수악하다 (←凶惡하다.) 형 [발음] [수아가다/수아카다] [대응어] 흉악하다.
☞숭악하다. ¶왜 그랬는지 그네는 강실이가 아주 가련하게도 집에서 내쫓기어 {수악한} 머슴한테로 시집을 간다면, 누구한테로 가며, 어떻게 될까,<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수저부 명 [대응어] 수제비.
밀가루를 반죽하여 맑은장국이나 미역국 따위에 적당한 크기로 떼어 넣어 익힌 음식.
지역 전북.

수중 명 [대응어] 시늉.
어떤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 내어 꾸미는 짓. ¶애기가 꼭 개 {수중을} 헌게. 입 자과돼가꼬 팔, 다리 꼭 개 {수중을} 혀.
지역 전북.

수지다 형 [대응어] 숱하다.
아주 많다. ¶옛날에는 장사가 {수졌는데}, 지금은 형편없어<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전북.

수지비 명 [대응어] 수제비.
밀가루를 반죽하여 맑은장국이나 미역국 따위에 적당한 크기로 떼어 넣어 익힌 음식.
지역 남원, 무주, 순창, 군산, 익산, 장수.

수채벌기 명 [대응어] 장구벌레. ¶{수채벌기가} 난중에 모구가 되잖여.
지역 군산.

수챗고랑 명 [대응어] 수채.
집 안에서 버린 물이 집 밖으로 흘러 나가도록 만든 시설. ¶{수챗고랑이} 막혀서 기멍도 못 치고 있구만. ¶{수챗고랑}에 밥풀 한개라도 안버려지게 조심히야 헌다.
지역 전북.

수쾡이 명 [대응어] 수고양이.
고양이의 수컷. ¶{수쾡이가} 마당에서 졸고 있어. ¶집에 쥐가 많아서 잡으려고 {수쾡이를} 한 마리 샀어.
지역 고창, 무주, 완주, 익산.

수탱이 명 [대응어] 독.
간장, 술, 김치 따위를 담가 두는 데에 쓰는 큰 오지그릇이나 질그릇. ¶{수탱이에} 든 꼬추장이 빨갛게 익어 간다. ¶엄마는 {수탱이} 속에 마른 시래기를 넣어 두었다가 요리할 때 꺼내 쓰곤 하였다.
지역 전북.

수튕이 명 [대응어] 독.
간장, 술, 김치 따위를 담가 두는 데에 쓰는 큰 오지그릇이나 질그릇. ¶머글로믄 기냥 멕따리로 기양 {수퉝이다}<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수텡이다가, 수텡이는 뭐요?(수텡이다다가, 수텡이가 뭐예요?) {수퉝이} 도가지. {수퉝이} 독.<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수퉝이에} 쌀을 부어 놓고 마늘을 넣어 두면 벌레가 생기지 않아요.
지역 완주, 임실.

수퉁 명 [대응어] 수통.
더러운 물이 빠져나가도록 만들어 놓은 물길. 또는 그런 장치. ¶기명물 빠지라고 {수퉁을} 내.
지역 전북.

수퉁다리 명 [대응어] 수종다리.
수종다리. ¶가다가 쉬고 보따리를 여다 놓고는 다리가 수퉁다리만이로 붓고 발등이 이렇게 붓어. 소복허니.
지역 전북.

수퉁아리[1] 명 [대응어] 독.
☞수퉝이. ¶물길이 먼 우리집에서는 부엌 {수퉁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 있으면 부잣집이 된 것마냥 마음이 든든했어.
지역 전북.

수퉁아리[2] 명 [대응어] 대독
아주 크고 가운데가 볼록한 장독. ¶수퉁아리 이렇게 큰 놈 수퉁아리라고. ¶배 펑펑허니 {수퉁아리}. 그것은 {수퉁아리라고} 그러고 이것은 단지. ¶큰 거는 싱건지 담고. 시안이먼 그놈 밥히 먹고 그리가꼬 참 맛나고 좋아. 그 전이 곤란 때 지나가고 수퉁으로 수퉁아리다 하나 담었다가.
지역 전북.

수퉁이 명 [대응어] 독.
☞수탱이. ¶{수퉁이에} 까뜩 물을 질어다 놔야 헌다.
지역 완주.

수퉝이 명 [대응어] 독.

간장, 술, 김치 따위를 담가 두는 데에 쓰는 큰 오지그릇이나 질그릇. ¶그 전이는 지가 겁나게 담어서 깍 찼어. {수튕이가}. ¶이렇게 쨰깐헌 건 단지. 저거 저 큰 것은 {수튕이} 그런 것이지.
지역 전북.

수팅 명 [대응어] 물독.
물을 담아 두는 독.
지역 무주.

수파 명 [대응어] 홍수.
비가 많이 와서 강이나 개천에 갑자기 크게 불은 물. ¶{수파가} 몰고 간 자리는 아무 것도 남지 않아서 막막혀 죽겄네.
지역 남원.

숙임막하다 동 [발음] [수김마가다/수김마카다] [대응어] 숙이다.
고개나 몸을 앞으로나 한쪽으로 기울이다. ¶공허는 나이를 가늠해 보며 {숙임막한} 여자의 얼굴을 유심히 지켜보았다.<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휘 '숙임막하다'는 '숙다'의 사동사 '숙이다'에 형용사 파생 접미사 '-ㅁ막하-'가 연결된 어휘이다.

순더기 명 [대응어] 순둥이.
순한 사람을 귀엽게 이르는 말. ¶{순더기가} 따로 없다
지역 전북.

순레 명 [대응어] 수레.
바퀴를 달아서 굴러 가게 만든 운반 기구.
지역 전북.

순전 (純全) 부 [대응어] 순전히.
순수하고 완전하게. ¶순전 공으로 먹고 살라고만 혀.
지역 전북.

숟구락 명 [대응어] 숟가락.
밥이나 국물 따위를 떠먹는 도구. ¶결국엔 {숟구락} 놓았구만 이~.
지역 고창.

숟구락도독놈 명 [대응어] 버마재비.
'사마귀'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숟구락도독놈을} 잡아서 다리를 떠고 놀았어.
지역 군산.

숟구락몽댕이 명 [대응어] 숟가락.
숟가락을 낮잡아 이르는 말. ¶농사 지로 들로 나감서도 문을 열어놓고 댕겼는디, 그러다 봉게로 요짐은 어뜬 썩은 놈덜이 와서 {숟구락몽댕이까지} 다 줏어 가고 그러는디.<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전북.

숟그락 명 [대응어] 숟가락.
☞숟구락
지역 정읍.

숟기락 명 [대응어] 숟가락.
밥이나 국물 따위를 떠먹는 기구. 또는 밥이나 국물 따위의 분량 세는 단위. ¶{숟기락} 놓으면 그냥 가는 거제. 죽는 거. ¶밥 한 {숟기락}
지역 전북.

술독 명 [대응어] 숫돌.
칼이나 낫 따위의 연장을 갈아 날을 세우는 데 쓰는 돌.
지역 군산.

술둑 명 [대응어] 숫돌.

칼이나 낫 따위의 연장을 갈아 날을 세우는 데 쓰는 돌.
지역 전북.

술둘 명 [대응어] 숫돌.
칼이나 낫 따위의 연장을 갈아 날을 세우는 데 쓰는 돌.
지역 전북.

술목 명 [대응어] 숫돌.
칼이나 낫 따위의 연장을 갈아 날을 세우는 데 쓰는 돌.
지역 전북.

술뒤기 명 [대응어] 호미씻이.
음력 7월 15일에 김매기를 끝내고 음식과 술을 나누어 먹으며 즐기는 놀이나 축제. ¶지심 매기가 끝나면 인자 마음 편하게 {술뒤기} 하고 놀았어.
지역 남원, 부안, 순창, 군산, 장수, 완주, 익산.

술바람 명 [대응어] 술기운.
술기운. ¶이 사람은 술이 거나하게 비쩍비쩍 팔자 걸음으로 올라오는디 기가 맥히게 받아들이드래. {술바람에} 인자 막 반갑다고 그 여자를 막 어깨동무를 하고는 ¶하 그래서 거그서 인제 방으 들어가겄고는 {술바람에} 여자가 자자가 해가지고, 둘이 쪼란히 드러눴었던개벼. ¶구르마 소 궁뎅이 구르마에 딱 올라타가꼬는 회차리 요만한 놈 하나 들고선 소 궁뎅이만 탁탁 때림선 이랴 이랴 하고 구르마에 올라타고 혼자 {술바람에} 올라오는디. ¶그라믄 내 뒤에 여그 타라고 인제 {술바람에} 그 여자들보고 뒤에 여리 타라고. ¶거그만큼 온게로 여그서 구르마 좀 쉬어 돌라고 그러드래야. 아무리 {술바람이지만} 저것을 본게 이상하드라네. 그때는 없어지고 암것도 없드래야.

지역 장수.

술빵 명
밀가루에 막걸리를 넣어 발효시킨 후 반죽을 넓은 쟁반에 담은 후 찜통에 쪄 낸 빵. ¶애들이 뭐 먹고 잡다고 허면 바쁘게 {술빵이나} 한번씩 히서 멕였제.
지역 전북.

술속 명 [대응어] 술버릇.
술을 마시면 나타나는 나쁜 버릇. ¶{술속} 사납고, 싸움 잘하기로 호가 난 줄도 잘 알고…… <채만식, 탁류>
지역 전북.
해설 표준어의 '술버릇'에 비하여 전북 방언 '술속'은 대체로 부정적인 뜻을 가진다.

술주정배이 (술酒酊배이) 명 [대응어] 술주정뱅이.
술을 마시면 술주정을 심하게 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술주정배이가} 따로 없다
지역 전북.

술찬거리 명 [대응어] 곁두리.
농사꾼이나 일꾼들이 끼니 외에 참참이 먹는 음식. ¶바쁠 땐 {술찬거리} 장만허는 일도 일이여.
지역 고창.

술참 명 [대응어] 곁두리.
농사꾼이나 일꾼들이 끼니 외에 참참이 먹는 음식. ¶아, 으악새 슬피 크게 웅게 가실잉가 햇등만 기냥 해찰 서대다 지영 {술참까장} 낮잠 오수 펴 자고 낭게 시방도 삼복 더우 속이다. ¶아침 {술참} 때나 되었겠지. 요새로 허면 한 열 시나 되제.
지역 전북.

숨고다 명 [대응어] 심다.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식물의 뿌리나 씨앗을 흙 속에 묻다. ¶방실방실 웃는 임은 못 다 보고 해 다 지네/오늘 날로만 못 다나 보면 새는 날로만 다시나 보세/제와가네 제워나 가네 담배 참수가 늦어가네/얼른 잠꽌 {숨과나} 놓고 우는 애기를 젖을 주세(장수군 계북면 어전리)<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장수.

숨괭이 명 [대응어] 수고양이.

고양이의 수컷. ¶{숨괭이가} 바닷괴기 먹을라고 어슬렁거린다.

지역 김제, 군산, 진안.

숨구다 동 [대응어] 심다.

☞숭구다. ¶나무 {숨구고} 하민서 그런 골동품도 모았지.<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17>

지역 전북.

숨구잽기 명 [대응어] 숨바꼭질.

아이들 놀이의 하나. 여럿 가운데서 한 아이가 술래가 되어 숨은 사람을 찾아내는 것인데, 술래에게 들킨 아이가 다음 술래가 된다. ¶핵교 댕겨오면 {숨구잽기만} 하고 논 때도 있었고.

지역 무주.

숨기새기 명 [대응어] 숨바꼭질.

아이들 놀이의 하나. 여럿 가운데서 한 아이가 술래가 되어 숨은 사람을 찾아내는 것인데, 술래에게 들킨 아이가 다음 술래가 된다.

지역 전북.

숨꾸내기 명 [대응어] 숨바꼭질.

아이들 놀이의 하나. 여럿 가운데서 한 아이가 술래가 되어 숨은 사람을 찾아내는 것인데, 술래에게 들킨 아이가 다음 술래가 된다.

지역 전북.

숨다 동 [대응어] 심다.

농작물의 씨앗을 심어 가꾸다. ¶좁은 땅에 이것저것 {숨어} 먹는다

지역 고창, 임실.

숨닥 명 [대응어] 수탉.

닭의 수컷.

지역 김제, 군산.

숨돌쪼구 명 [대응어] 수톨쩌귀.

문짝에 박아서 문설주에 있는 암톨쩌귀에 꽂게 되어 있는, 뾰족한 촉이 달린 돌쩌귀. ¶요고 요고이 게 도랑헝게(동그란 것이) 요곤 암놈, 요고이 나머지 숨놈, 암돌쪼구 {숨돌쪼구}.<지역어 자료 총서, 무주>

지역 김제, 군산, 임실.

숨바깍질 명 [대응어] 숨바꼭질.

아이들 놀이의 하나. 여럿 가운데서 한 아이가 술래가 되어 숨은 사람을 찾아내는 것인데, 술래에게 들킨 아이가 다음 술래가 된다.

지역 고창, 김제, 군산, 완주, 임실, 진안, 정읍.

숨소 명 [대응어] 수소, 황소.

소의 수컷. ¶집채만 헌 {숨소가} 힘이 얼마나 씬디 이기덜 못허지.

지역 군산.

숨캐 명 [대응어] 수캐.

개의 수컷.

지역 김제, 군산.

숨키다 동 [대응어] 숨기다.

어떤 사물이나 사실 따위를 드러나지 않게 감추다. ¶“골빠지게 진 농새 절반이나 뺏기는 판에 드럽게 나락 몇단 {숨키는} 쫌팽이넌 아니로구

만."<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숨키다'는 표준어 '숨기다'에 대응하는 동사로 '숨다'의 사동사이다.

숨탁 명 [대응어] 수탉.

닭의 수컷.

지역 군산.

숨트다 동 [대응어] 호다.

헝겊을 겹쳐 바늘땀을 성기게 꿰매다. ¶적삼 짓을라고먼 먼차 {숨터} 모양을 만들고 다시 바능질 해야지.

지역 전북.

숩고양이 명 [대응어] 수고양이.

고양이의 수컷.

지역 순창, 정읍.

숩기와 명 [대응어] 수키와.

두 암키와 사이를 엎어 잇는 기와. 속이 빈 원기둥을 세로로 반을 쪼갠 모양이다.

지역 완주.

숩꿩 명 [대응어] 수꿩.

꿩의 수컷.

지역 남원.

숩닥 명 [대응어] 수탉.

닭의 수컷.

지역 남원, 정읍, 진안.

숩돌 명 [대응어] 수톨쩌귀.

문짝에 박아서 문설주에 있는 암톨쩌귀에 꽂게 되어 있는, 뾰족한 촉이 달린 돌쩌귀. ¶{숩돌을} 꽂아서 문 잘 여닫히게 만들어 놔.

지역 정읍.

숩돌쪼구 명 [대응어] 수톨쩌귀.

문짝에 박아서 문설주에 있는 암톨쩌귀에 꽂게 되어 있는, 뾰족한 촉이 달린 돌쩌귀.

지역 남원, 무주, 완주, 익산, 진안.

숩돌쪽 명 [대응어] 수톨쩌귀.

문짝에 박아서 문설주에 있는 암톨쩌귀에 꽂게 되어 있는, 뾰족한 촉이 달린 돌쩌귀.

지역 진안.

숩돌쭈귀 명 [대응어] 수톨쩌귀.

☞숩돌쪼구.

지역 익산.

숩소 명 [대응어] 수소, 황소.

소의 수컷. ¶암소는 잡아묵고 {숩소는} 일을 시키제.

지역 남원, 부안, 순창, 정읍, 진안.

숩캐 명 [대응어] 수캐.

개의 수컷. ¶{숩캐가} 종자가 좋아야 개시끼도 잘 나와.

지역 남원, 순창, 진안.

숫개 명 [대응어] 수캐.

개의 수컷. ¶찰란히 티워오는 어느 아침에도 이마우에 언친 詩의 이슬에는 멫방울의 피가 언제나 서꺼있어 볕이거나 그늘이거나 혓바닥 느러트린 병든 {숫개만양} 헐덕어리며 나는 왔다.<서정주, 시집> ¶뒷집 암캐가 발정을 헌게 동네 {숫개}들이 난리여.

지역 고창.

숫검당 명 [대응어] 숯검정.

숯에서 묻은 그을음. ¶아궁지 고치다 보면 {숫검당이} 온 손에 다 묻어.

지역 전북.

숫검장 명 [대응어] 숯검정.
숯에서 묻은 그을음. ¶{숫검장으로} 먹을 맨드는가?
지역 전북.

숫고앵이 명 [대응어] 수고양이.
고양이의 수컷. ¶어디서 주인 없는 {숫고앵이} 한 마리가 집에 들어왔다.
지역 부안, 남원.

숫귀엥이 명 [대응어] 수고양이.
고양이의 수컷.
지역 전북.

숫기와 명 [대응어] 수키와.
두 암키와 사이를 엎어 잇는 기와. 속이 빈 원기둥을 세로로 반을 쪼갠 모양이다. ¶{숫기와랑} 암기와랑 잘 맞아야 비가 안 샌다.
지역 고창, 군산.

숫놈 명 [대응어] 수놈.
짐승의 수컷. ¶놈이 뒤로 가서는 그 귀목나무 속을 이렇게 깔구 앉었는데, {숫놈이던가} 불둥게가 이렇게 척 늘어지드라는거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댕기고 아, 이 그런디 산뒤 모퉁이를 돌아가는디 꿩이 장끼, {숫놈} 말이지, 이놈이 날르려다 못 날르고 날르려다 못 날르고 헌다<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예. 그서 그때 그 뫼를 파닝게 그냥 여순디 암놈 {숫놈이드라}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무주.

숫닥 명 [대응어] 수탉.
닭의 수컷.
지역 부안.

숫닥껑 명 [대응어] 수꿩.
꿩의 수꿩. ¶{숫닥껑} 고기가 좀 질기지. 냉면 육수 맨드는 데 써.
지역 전북.

숫독 명 [대응어] 숫돌.
칼이나 낫 따위의 연장을 갈아 날을 세우는 데 쓰는 돌. ¶꺼먹동이가 {숫독에} 날카롭게 갈던 칼을 마부에게 건네준다.<이병천, 모래내 모래톱>
지역 전북.

숫두 명 [대응어] 숫돌.
칼이나 낫 따위의 연장을 갈아 날을 세우는 데 쓰는 돌. ¶칼 갈 때 {숫두에} 갈어.
지역 임실.

숫두룸하다 형 [대응어] 어수룩하다.
말이나 행동이 약삭빠르지 않고 순박하다. ¶말소리가 영남 사투리로 구수한 것도 마음에 들지만, 다른 기생들처럼 생김새나 하는 짓이나가 빤질거리지 않고 {숫두룸한} 게 실없이 좋았다.<채만식, 탁류>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숫두룸하다'는 형용사 '숫하다'에 접미사 '-으룸하-'가 붙어서 파생된 말이다.

숫둑 명 [대응어] 숫돌.
칼이나 낫 따위의 연장을 갈아 날을 세우는 데 쓰는 돌.
지역 전북.

숫지와 명 [대응어] 수키와.
두 암키와 사이를 엎어 잇는 기와. 속이 빈 원기둥을 세로로 반을 쪼갠 모양이다. ¶{숫지와를}

굽다 ¶지붕에 얹혀 있는 지와는 {수지와} 암지와가 있다.
지역 임실.

숭개 명 [대응어] 흉터.
상처가 아물고 남은 자국. ¶{숭개가} 남다 ¶"크게 다친 자리는 나중으 커서도 {숭개}가 남더라고".
지역 전북.

숭게지다 동 [대응어] 흉터 지다.
흉터가 생기다. ¶차꼬 긁지 마라. {숭게질라} <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전북.

숭구다 동 [대응어] 심다.
농작물의 씨앗을 심어 가꾸다. ¶농사꾼이 농사지어 논 거 없이 가실 당헌 것허고 똑같제. 아, 모 {숭구고}, 지심 매고, 뙤약볕에 대그빡 벗거짐서, 비가 오먼 와서 걱정, 안 오먼 안 와서 걱정, 자다가도 바람 소리에 멫 번씩 일어나 앉는 그런 날을 지내야 나락을 비제.<최명희, 혼불> ¶올히도 콩을 넉넉허게 {숭궈} 놓았응게 메주 걱정은 안 히도 되야. ¶비가 와서 땅이 몰랑몰랑하니 얼른 밭에 가서 고추모 좀 {숭구고} 오자구나.
지역 남원, 순창, 장수, 무주.

숭기다 동 [대응어] 감추다.
어떤 사물이나 감정이 남에게 드러나지 않게 하다. ¶숨길 사람은 {숭기고} 다 그리 갖고, 인자 전쟁이 나고 다급허고 헝께<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12> ¶세배돈으로 받은 돈을 남 모르는 곳에 {숭기었다}. ¶그 놈이 겔혼헌 것을 {숭기고} 총각행시를 허고 댕겼당게.
지역 남원, 부안, 정읍, 진안.

숭낭물 명 [대응어] 숭늉.
밥을 지은 솥에서 밥을 푼 뒤에 물을 붓고 데운 물. ¶{숭낭물을} 마시다
지역 무주.

숭내 명 [대응어] 흉내.
남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그대로 옮기는 짓. ¶왜 느그덜은 꼭 나만 다러서 {숭내를} 내쌌냐?<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전북.

숭내다 동 [대응어] 흉내질하다.
(낮잡는 의미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그대로 잘 옮기다. ¶고것이 영감 말씨를 기가 맥히게 {숭내더라} 이거여. ¶애덜이 장난으로 {숭낸} 거를 가지고 어른이 그렇게 홰를 내먼 쓰겄오?
지역 전북.

숭냉 명 [대응어] 숭늉.
밥을 지은 솥에서 밥을 푼 뒤에 물을 붓고 데운 물. ¶{숭냉} 한 사발 ¶아침을 먹고 {숭냉을} 마시니 속이 시원하다.
지역 남원, 임실.

숭넝 명 [대응어] 숭늉.
밥을 지은 솥에서 밥을 푼 뒤에 물을 붓고 데운 물.
지역 전북.

숭년 (←凶年) 동 [대응어] 흉년.
농작물이 예년에 비하여 잘되지 아니하여 굶주리게 된 해. ¶그러자마자 마침 {숭년이} 들었던 개벼. 비가 안오던 개벼.<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그래 {숭년이} 들어 가지고서, 사람이 아사(餓死) 지경에 이르게 돼 놓으닝개로 사방으로 풍지박산이 돼서.<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한국은 풍년이 들고 미국은 {숭년이} 들었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

편> ¶자발없는 사람 땜시로 그후부터는 연해 {숭년이} 들고 논밭 곡식도 잘 안되게 되고 살값이 비싸지게 되았다고 혀.<구비문학대계 정읍군> ¶올으 나락농사가 {숭년이고만}.<전라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남원, 무주, 완주, 임실, 군산, 부안, 정읍.

숭님 명 [대응어] 숭늉.

밥을 지은 솥에서 밥을 푼 뒤에 물을 붓고 데운 물. ¶"느집 베짝으 가서 소도방 뚜껑을 열어봐! 허다 못 허서 {숭님이라도} 있을 거 아녀 인마."<이병천, 모래내 모래톱> ¶밥을 먹고 나면 따뜻한 {숭님으로} 입가심을 해야 소화가 잘 되는 거 같다. ¶"저녁밥 잘 처먹고 {숭님을} 못 마셔서 시방 속이 달달 보깨는 모냥인디, 천하 악질 요 성님이 니놈 뱃속에다 널금저수지 물을 빵빵허니 담어줘야 쓰겄다!"<윤홍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고창, 군산,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숭다 동 [발음] [숭따] [대응어] 심다.

초목의 뿌리나 씨앗 따위를 흙 속에 묻다. ¶뒷삼밭에 마늘 {숭꼬} 앞 삼밭에 꼬치숭어 꼬치마늘 맵다해도 시누같이 매울손가<구비문학대계 전남 함평군편>

지역 전북.

숭마 명 [대응어] 미투리.

삼이나 노 따위로 짚신처럼 삼은 신. ¶꽃신은커녕 {숭마도} 없다.

지역 순창.

숭물 명 [대응어] 엄살.

아픔이나 괴로움, 어려움 따위를 거짓으로 꾸미거나 실제보다 부풀려서 나타내는 태도. ¶문을 열고 보니 확 뚝아 먹어버렸네. 밥을 하하하. "하 저것이 등신이 아니라 {숭물} 쓰는구나(거짓 행동을 한 것 이구나)! "이것을 알았단 말이여. <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무주, 남원.

숭보다 동 [대응어] 흉보다.

남의 결점을 들어 말하다. ¶즈그들 놀 저그 내가 {숭봐어도} 한 사날 안 봉게 궁금힛능가. ¶"시방 두 분이 절 {숭보시구서} 웃으셨죠?"<채만식, 金의 情熱>

지역 전북.

해설 '허물'의 뜻을 가진 '흉'은 전라북도에서는 구개음화를 일으켜 '숭'으로 발음된다. '숭보다'는 '숭을 보다.'의 구성에서 '숭보다'로 굳어져서 동사가 된 것이다.

숭시럽다 (←凶시럽다) 형 [대응어] 흉측스럽다.

남 보기에 흉하다. ¶남자 여자 만나갖고 밭이서 둘이 껴안고 있으면 {숭시러웠제}. ¶그렇게 {숭시런} 짓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지. ¶{숭시럽지만} 사랑한다는디 어쩌겄어.<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전북.

숭실숭실 부 [대응어] 스멀스멀.

살갗에 벌레가 자꾸 기어가는 것처럼 근질근질한 느낌. ¶무선 생각이 {숭실숭실} 생겨나는디 그때가 진짜로 무선거요.

지역 전북.

숭실숭실허다 형 [대응어] 스멀스멀하다.

살갗에 벌레가 기어가는 것처럼 자꾸 근질근질하다.

지역 전북.

숭악하다 (←凶惡하다) 형 [발음] [숭아가다/숭아카다] [대응어] 흉악하다.

성질이 악하고 모질다. 또는 모습이 없잖을 만큼 고약하다. ¶너는 이놈 이혼을 아니해 준다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 {숭악한} 폭담을 다 했지…… 내게도 그랬지.<채만식, 인형의 집> ¶"{숭악한} 보리밥에다가!……그렇잖으면 빵이라드냐 그 알량한……"<채만식, 四號一段>

지역 전북.

해설 표준어 '흉악하다'는 전라북도에서는 구개음화를 일으켜 '숭악하다'로 발음된다. '숭악하다'는 일반적으로는 사람의 성질을 나타낼 때 쓰지만, '숭악한 보리밥'과 같이 거친 사물의 모습을 말하기도 한다.

숭악허다 형 [발음] [숭아거다/숭아커다] [대응어] 흉악하다.

성질이 악하고 모질다. 또는 모습이 없잖을 만큼 고약하다. ¶으메, 불 지옥 갈놈 보소 {숭악허네}이~.

지역 전북.

숭양 명 [대응어] 숭늉.

밥을 지은 솥에서 밥을 푼 뒤에 물을 붓고 데운 물.

지역 전북.

숭없다 (←凶없다) 형 [대응어] 흉하다.

보기에 나쁘다. ¶얼매 있다가 이 집 대감이 주렁얼 짚고 집 안을 순행허다가 여그꺼지 와서 메누리가 {숭없게} 허고 자고 있어서 그 옆에 벗어논 옷얼 주렁막대기로 들어서 메누리 몸에다 걸쳐 놨어.<구비문학대계 임실군편>

지역 임실.

숭치다 동 [대응어] 홀치다.

두 개의 감을 바느질해서 하나로 만들다. ¶골미를 이렇게 {숭쳐}.

지역 전북.

숭칙하다 (←凶測하다) 형 [발음] [숭치가다/숭치카다] [대응어] 흉측하다.

몹시 흉하고 혐오스럽다. 보기 싫다. ¶명씨(明氏)는 안씨(安氏) 친구보고 여자가 갓을 썼이니 그런 {숭칙헌} 게 어디 있냐고 놀렸어.<구비문학대계 진안군> ¶소승(小僧)은 성자(姓字)도 {숭칙허지만} 본래가 중놈으 자식이라 이렇게 중 노릇이나 허고 지냅니다.<구비문학대계 진안군>

지역 진안.

숭캐 명 [대응어] 수캐.

☞숨캐.

지역 김제.

숭키다 동 [대응어] 감추다.

☞숭기다. ¶"단단허니 벌얼 받았구만그랴. 그렁게 멋났다고 학상놈얼 {숭켜} 주고 그려." 서무룡은 화를 내듯 이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조정래, 아리랑>

지역 진안.

숭포 (←凶暴) 명 [대응어] 내숭.

속마음과 다르게 겉으로 순한 척을 함. ¶" 숭포고만 떨고 가자면 얌전허니 가는 거여, 이년아!"<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 냥반은 꼭 말문만 맥혔다 허이면 날 잡어잡수, 험시나 자는 치끼 {숭포를} 떨드라!"<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고것이 갖은 {숭포를} 다 떨더만 시집은 제일 먼저 갔어.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숭포'는 '흉포(凶暴)'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원래는 '흉악하고 포악함'이란 뜻이었을 것이다. 현재는 표준어 '내숭'과 대응하는 어휘이다. 표준어 '내숭'은 '내흉(內凶)'에서 온 것이다.

숭포스럽다 (←凶暴스럽다) 형 [대응어] 내숭스럽다.
겉으로는 순해 보이나 속으로는 엉큼한 데가 있다. ¶'저 저 {숭포스런} 것이 !……시방 누가 알세라 들을세라 사풋사풋 신발 소리 안 내고 걷느라고 앨 쓰는 거동 보래도 ! 에잉 천하 요사스런 것<채만식, 女子의一生> ¶꼭 말문만 맥혔다 허이면 날 잡어잡수, 험시나 자는 치끼 {숭포를} 떨드라!"<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숭포} 고만 떨고 가자면 얌전허니 가는 거여, 이년아!"<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아이고, {숭포스럽게}. 그러지 말장께.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숭포'는 '흉포(凶暴)'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숭포스럽다'는 '숭포'에 형용사파생접미사 '-스럽-'이 연결된 것이다. 표준어 '내숭스럽다'와 대응하는 어휘이다.

숯구덕 명 [대응어] 숯가마.
숯을 구워 내는 가마. ¶참나무를 {숯구덕에} 쟁여 놓고 불 때 가지고 숯 만들고 했지만, 인자는 그런 곳 찾기 힘들제.<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전북.

숯구동이 명 [대응어] 숯가마(窯).
숯을 구워 내는 가마.
지역 진안.

숯구뎅이 명 [대응어] 숯가마(窯).
☞숯구동이 ¶{숯구뎅이에} 구었어.
지역 정읍, 진안, 무주.

숯구딩이 명 [대응어] 숯가마(窯).
☞숯구동이 ¶"거기서 내려서 {숯구딩이} 있는데로 가라. 너 먹을 것 거기 있다."<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무주, 완주.

숯무지 명 [대응어] 숯가마(窯).
숯을 구워 내는 가마.
지역 완주.

숱허다 형 [대응어] 많다.
아주 많다. ¶농삿일 말고도 헐일이 {숱허게} 널렀는디.<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쉐다 동 [대응어] 쉬다.
음식 따위가 상하여 맛이 시금하게 변하다. ¶밥이 {쉐서} 못 먹는다.
지역 장수.

쉐자 명 [대응어] 나막신.
나무를 파서 만든 것으로 앞뒤에 높은 굽이 있어 비가 오는 날이나 땅이 진 곳에서 신는 신발.
지역 전북.

쉬깔리다 동 [대응어] 쉬슬다.
파리 따위가 여기저기 알을 낳다. ¶뚜껑 그렇게 열어노면 금방 파리가 {쉬깔려} 번진다고 혼나.
지역 남원, 임실, 장수.

쉬실다 동 [대응어] 쉬슬다.
파리 따위가 여기저기 알을 낳다. ¶고새 버럭지가 쉬실어놨다. ¶장독우에 널은 생선으가 {쉬를 실어서} 흐연헌디 인자 어쩐다냐{완주}.
지역 고창, 남원, 부안, 순창, 완주, 정읍, 진안.

쉬실르다 동 [대응어] 쉬슬다.
파리 따위가 여기저기 알을 낳다. ¶된장 단지 열어노면 금방 파리가 쉬실른다.
지역 고창, 김제, 무주, 군산, 익산, 장수.

쉬악 명 [대응어] 쐐기.

☞쇠악.
지역 남원.

쉬앙쥐 명 [대응어] 생쥐.
☞쇄앙쥐. ¶동네에 {쉬앙쥐} 같은 애가 하나 있어서 갖은 말 짓은 다허고 댕겨.
지역 완주.

쉬야기 명 [대응어] 쐐기.
어떤 물건의 틈에 박아서 그 물건을 고정시키거나 벌리는 데 쓰는 물건. 또는 뒤탈이 없도록 미리 단단히 다짐을 두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대문 틈 좀 벌려봐라잉. 거그다가 내가 뭣을 좀 낑겨 넣어야 겄은게 {쉬야기로} 거그를 집중적으로 좀 벌려 봐. ¶저놈의 지지베가 학교를 설렁설렁 댕기네. 어뜨케야 쟈가 학교를 잘 나오고 군말 없게 {쉬야기를} 박을랑가 모르겄네. 뭐 좋은 생각 없냐?
지역 남원.

쉬엄 (←鬚髥) 명 [대응어] 수염.
성숙한 남자의 입 주변이나 턱 또는 뺨에 나는 털. ¶그 일헌 사램이 그양 {쉬엄도} 안깎고, 그양 이렇게 생긴 사램이 그 더펙머리 져 가지고 손이 그냥 이렇게 생드래.<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에린 놈이 벌써 {쉬엄}이 꺼뭇꺼뭇허네.".
지역 고창, 김제, 부안,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쉬여자 명 [대응어] 나막신.
나무를 파서 만든 것으로 앞뒤에 높은 굽이 있어 비가 오는 날이나 땅이 진 곳에서 신는 신발.
지역 전북.

쉬옴 (←鬚髥) 명 [대응어] 수염.
성숙한 남자나 동물의 입 근처에 나는 털. 또는 보리나 밀이나 옥수수 따위의 낟알 끝에 가늘고 길게 난 것.
지역 임실, 장수.

쉬퍼리 명 [대응어] 쉬파리. ¶{쉬퍼리가} 뉘 실른다구 그려<완주 지역어 텍스트> ¶"장기판을 갖다 노먼 언제고 같이 막 될적으 큰 {쉬퍼리} 한 마리가 그 장기판이 와서 여그 앉고 저기 앉고 허걸랑 그 쉬파리 앉는디다만 장기를 노먼 당신이 이긴다."<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군산, 완주.

쉬포리 명 [대응어] 쉬파리. ¶그 시체덜얼 까마구가 파묵고, 여우가 뜯어묵고, {쉬포리가} 쉬 깔기고, 그렁시로 썩어가는디, 요 골짝이 썩는 내로 진동혔소.<조정래, 태백산맥> ¶"그나저나 오뉴월 갈치 창새기에 {쉬포리덜} 몰리디끼 왜놈덜이 어찌 저리 몰아닥치는지 몰르겄네. 자네 혹여 무신 소문 못 들었능가?"<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숙이다 동 [대응어] 숙이다.
고개나 허리 따위를 앞으로 기울어지게 하다. ¶오밤중에 자다가라도 양반이 행차허신다아 허먼 줄줄날날이 모도 우리들은 눈 비빔서 고샅으로 나가서 등불 잡고 질 밝히여 읍허고 서 있어야 잖여? 고개 {숙이고}. 발밑에 어두우시께미.<최명희, 혼불> ¶"너 그러고 서 있어야 무슨 일 허도 못허겄다. 어서 들어가래도. 고집 {숙이고}. 이따가 일헐 때 나와. 아이?"<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쉰뎅이 명 [대응어] 쉰둥이.
나이가 쉰이 넘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 ¶아가 안 생기더만 결국 {쉰뎅이를} 낳았대. ¶"{쉰뎅이로} 제우 얻은 아들인디 안 귀허겄냐?".
지역 전북.

쉴참 명 [대응어] 곁두리.

일을 하다가 잠깐 쉴 때 또는 그때 먹는 음식. ¶{쉴참의} 샛밥 대용인 듯 그네들은 벼를 베다 말고 낫으로 무엇인가를 깎아 먹었다.<윤흥길, 양> ¶{쉴참이면} 캐어놓은 나무뿌리나 캐다 만 돌에 기대 앉아<김용택, 그리운꽃편지>

지역 전북.

쉼구다 동 [대응어] 심다.

☞숭구다.

지역 전북.

쉿돌 명 [대응어] 숫돌.

칼이나 낫 따위의 연장을 갈아 날을 세우는 데 쓰는 돌.

지역 고창.

쉿돌 명 [대응어] 숫돌.

☞쉿돌

지역 고창.

쉥기다 동 [대응어] 숨기다.

어떤 사물이나 사실 따위를 드러나지 않게 감추다. ¶"무신 죄를 졌어?" 허고 물응께 각시는 이러이러헌 일 있었다고 하나도 {쉥기지} 않고 다 말허드랴.<구비문학대계 임실군편> ¶우숩네. 우수워. 상놈, 상놈, 허지마는 우리 같은 상것들은 머 뽄낼 것도 {쉥길} 것도 없어 생긴 대로 상게는 즈그 볼 때는 천허다고 허겄지만, 우리는 그래도 거짓꼴은 안허제.<최명희, 혼불>

지역 고창, 김제, 무주,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쉥끼잽기 명 [대응어] 숨바꼭질.

아이들 놀이의 하나. 여럿 가운데서 한 아이가 술래가 되어 숨은 사람을 찾아내는 것인데, 술래에게 들킨 아이가 다음 술래가 된다. ¶{쉥끼잽기럴} 허고 댕기면 난중에 어매가 찾으러 댕겨.

지역 남원, 장수.

쉥키다 동 [대응어] 숨기다.

☞숨키다. ¶"신이나 안 뵈이게 허든지. 헤기는 머이 무서서 신을 {쉥키겄능가잉}."<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스그러지다 동 [대응어] 수그러지다.

안으로 굽어 들거나 기울어지다. ¶멀찌감치 갔응게 암치께도 더딜 것이고, 볕이 {스그러져야}, 허니 안 그렇겄어라요.<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스께또 (←<영>skate) 명 [대응어] 썰매.

아이들이 얼음판이나 눈 위에서 미끄럼을 타고 노는 기구. ¶동네 꼬맹이들 다 저그 냇가 얼은데 거그 가 있어. 지금 살 판 났어. 다들 거그서 {스께토를} 탄다고. 긍게 거그서 찾아봐. ¶겨울이 되면 아부지는 {스께토를} 맨들어 주시지만 옴마는 짚은디 빠진다고 못가게 혔어. ¶강의 보를 막은 곳에 얼음이 얼면 그 곳에서 {스께또를} 만들어 타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지역 정읍, 부안, 장수, 무주, 완주, 익산, 남원, 순창, 김제.

스께트 (←<영>skate) 명 [대응어] 썰매.

☞스께또.

지역 부안.

스럽다 형 [대응어] 서럽다, 섧다.

☞서러다. ¶"오냐, 너 참말로 잘났다. 니 낯바데기 한번 총천연색 칠십미리 씨네마스코푸다. 고등핵교 물도 못 먹어본 나 같은 무식쟁이는 어디 {스러워서} 살것냐?<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

어가면>
지역 김제, 무주, 완주, 정읍.

스롭다 형 [대응어] 서럽다, 섧다.
☞서러다.
지역 정읍.

스르라니 부 [대응어] 스르르.
눈이 슬며시 감기거나 뜨이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아이구, 눈이 {스르라니} 감기네.
지역 전북.

스숙 명 [대응어] 메조. ¶지금도 서수기라는 마를(말을) 마니 쓰시능가요, 조라고 하는 마를 더러 쓰시능가요, 요즈메? ¶쪼끔 변경되아서 한:: 보통 여자들 {스:수기라고} 마니 허제이.<2008 전북 고창>
지역 전북.

스숙모가지 명 [대응어] 조이삭.
☞서숙모가지.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정읍, 진안.

스숙모개 명 [대응어] 조이삭.
조의 이삭. ¶{스숙모개를} 줍다
지역 고창, 정읍.

스숙밥 명 [대응어] 조밥.
맨 좁쌀로 짓거나 입쌀에 좁쌀을 많이 두어서 지은 밥. ¶{스숙밥을} 짓다
지역 고창, 김제, 부안, 완주, 익산, 정읍, 무주.

스숙쌀 명 [대응어] 좁쌀.
조의 열매를 찧은 쌀. ¶{스숙쌀로} 밥을 짓다
지역 고창, 김제, 부안, 완주, 익산, 정읍, 군산, 무주.

스숙알 명 [대응어] 좁쌀.
☞서숙알.
지역 고창.

스슥 명 [대응어] 메조. ¶그런디 강원도는 {스슥밥 보고} 조뱁이라고 허고 {스슥} 모가지보고는 좃모가지라고 혀. 좃 모가지라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금은. 그 중간서 사는 사람이 나무를 팔어가지고서는 그저 {스슥쌀이나} 그저 여러 거 한 되씩 팔어다가서 자그 어머니하고 연명을 하고 사는디<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고창, 군산.

스슥모가지 명 [대응어] 조이삭.
조의 이삭.
지역 군산.

스슥밥 명 [대응어] 조밥.
맨 좁쌀로 짓거나 입쌀에 좁쌀을 많이 두어서 지은 밥. ¶워메, {스슥밥} 히서 쳐먹고 왔능가 오사허게 조잘대네 이~.
지역 고창.

스슥쌀 명 [대응어] 좁쌀.
☞스숙쌀.
지역 군산, 무주.

스싯대 명 [대응어] 수숫대, 수수깡.
☞쑤숫대.
지역 전북.

슨상 명 [대응어] 선생.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젊을 때는 동네 학원서 {슨상으로} 인기도 좀 끌었제.
지역 전북.

손상님 명 [대응어] 선생님.
'손상'을 높여 이르는 말. ¶우리 {손상님이} 최고여, 젤 잘 갈쳐.
지역 전북.

손상질 명 [대응어] 선생질.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낮잡아 이르는 말. ¶언지까지 {손상질만} 히 먹고 살 수는 없는 노릇 아녀?
지역 전북.

손상질하다 동 [대응어] 선생질하다.
(낮잡는 뜻으로) 학생을 가르치다. ¶저 사람은 이런 디서 {손상질허고} 있기 아깐 사람이여.
지역 전북.

슨달그믐 명 [대응어] 섣달그믐.
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날. ¶한달간 아무래도 {슨딸그믐날} 지부로 드르왔쓰니까. {한달간 아무래도 섣달 그믐날 집으로 들어왔으니까}.<2008 전북 고창>
지역 무주, 고창.
해설 전북방언에서 '섣달'은 '섣딸~ 슨딸'과 같이 '어~으' 교체가 일어난다.

슬거시 부 [대응어] 슬며시.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게 넌지시. ¶그라길래 {슬거시} 그양 확답얼 해 줬제.<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9>
지역 전북.

슬그시 부 [대응어] 슬며시.
☞슬거시.
지역 전북.

슬그자이 부 [대응어] 슬며시.
사태나 행동 등을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은근하고 천천히. ¶못 이길성 싶응께 {슬그자이} 말아 부렀지.<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9>
지역 전북.

슬머시 부 [대응어] 슬며시.
사태나 행동 등을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은근하고 천천히. ¶그라길래 {슬머시} 그양 확답얼 해 줬제.<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9> ¶못 이길성 싶응께 {슬머시} 말아 부렀지.<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9>
지역 전북.

슬멍슬멍 부 [대응어] 어슬렁어슬렁, 슬렁슬렁.
사람이나 짐승이 매우 느리게 움직이는 모양. ¶금방 왔던 길을 다시 거미가 미끄러지듯 {슬멍슬멍} 내달았다.<송기숙, 녹두장군>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슬멍슬멍'은 의태어로 '사람이나 짐승이 천천히 움직이는 모양'을 나타내는 부사이다. 따라서 표준어 '어슬렁어슬렁, 슬렁슬렁'과 매우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

슬므시 부 [대응어] 슬며시.
☞슬머시. ¶잠이 깨넌게 그저는 눈을 가만히 {슬므시} 떠본게 아 호랭이 놈이 머리 우그가 앉어서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슬픗 부 [대응어] 설핏.
티가 잘 나지 않게 살짝. ¶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놈의 교군차가 빨리 가거든? 막 따랐어. 따라서 얼매쯤 가는디, 인제 해가 {슬픗} 허니 요만쯤 된께 쥔을 정허서 여관을 들어 가거든? 앞집이 요리집이 하나 있고, 거 여관집이 있그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저 사람이 어디서 본 것 같은디, 저 사람이랑 이야

기까지 나눈 것이 {슬픗} 기억이 나는디 정확하게를 모르겄네. ¶{슬픗} 단잠에 빠졌는디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들어와서 잠을 다 깨놓는디야?
지역 전북.

슬픗허다 형 [발음] [슬프더다/슬프터다] [대응어] 설핏하다.
☞살풋하다.
지역 전북.

슴바깍질 명 [대응어] 숨바꼭질.
☞숨바깍질.
지역 정읍.

슴슴하다 형 [대응어] 싱겁다.
음식의 간이나 맛이 보통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약하다. 또는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말, 글 따위가 야무지지 못하다. ¶"..깜박 잊었어 !. 잡수시죠?" "배만 부르구 {슴슴해서} !." "한목 많이 잡숫죠! 그리구 나두 좀 먹구요, 네?"<채만식, 냉동어> ¶소금물얼 {슴슴하게} 타 가지구 곰팽이 난 부분을 살살살살 닦어야 혀.
지역 전북.

-습디여 【종결어미】 [대응어] -습디까.
하십시오할 자리에 쓰여, 상대편이 겪은 사실에 대해 묻는 종결 어미. ¶맥 짚어 봉게로 애기 {섰습디여}?<이태영(2004 ㄷ)> ¶그래, 맥 짚어 봉게로 애기 {섰습디여}? 얼매나 되얐등가요?<최명희, 혼불> ¶정도 줄라먼 한 간디다 주랬다고, 여그 저그다 흘리고 댕기먼 목마를 때 떠먹을 물 한 바적이라도 괴이간디? 아, 그런 말도 안 {있습디여}?<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슷달그뭄날 명 [대응어] 작은설.
설의 하루 앞 날. ¶{슷달그뭄날에} 잠을 자믄 눈썹이 허옇게 신다는 말이 있제.
지역 군산.

승건김추 명 [대응어] 싱건김치.
소금물에 삼삼하게 담근 무김치. ¶짐장헐 때 {승건김추랑} 담거 먹어.
지역 전북.

승냥간 명 [대응어] 대장간.
☞성냥간.
지역 고창, 무주, 군산, 진안.

승녕간 명 [대응어] 대장간.
☞성냥간.
지역 진안.

승질 명 [대응어] 성질.
사람이 지닌 마음의 본바탕. ¶급헌 {승질} 다음 달 시월이 단풍 가실 속 진득허게 파묻혀 탁걸리 쉰 목소리 텅김서. ¶긍게, 나도 한 {승질} 헝게 매급씨 서대다가 비 마짐서 해찰 험서 난닝구 사쓰와 속 빤쓰 까장 싹 멍쳐버렸당게요. ¶앵간허믄 님들도 {승질} 조까 잘 모타 갖고 책보에 이쁘게 싸 놓으시요 이~. ¶나, {승질} 돋구지 말고 싸그싸그 언능, 후딱 인나먼 봐 줄랑게.
지역 고창.

승질내다 동 [대응어] 성질부리다.
분노나 불만 따위를 이기지 못하고 몹시 화를 내다. ¶아따, 방구 뀌고 {승질내는} 것은 미안헝게. ¶결국 나만 {승질냉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디다.
지역 전북.

승질머리 명 [대응어] 성깔.
거친 성질을 부리는 버릇이나 태도 ¶그 놈으 {승질머리} 허고는 오사허게 급허기는. ¶아따,

징상시럽고만 이~ {승질머리도} 개차반인디. ¶믄 노무 {승질머리라요}, 지지리 잘 히노코서는~.

지역 전북.

싄창 명 [대응어] 흰자위(눈).

눈알의 흰 부분. ¶그 사람이 술은 먹은게 무섭더구만요. 눈알이 {싄창만} 뵐 정도 뒤집혀가지고는 침을 튀겨가믄서 말허는디 험청 무섭더라고요.

지역 군산.

-시[1] 【종결어미】 [대응어] -ㄹ세.

하게할 자리에 쓰여, 자신의 생각을 상대에게 알리는 종결 어미.??? ¶{허시}! 나가 고년을 상사병 앓게 맹그러 부릴랑게.<조봉래 59>

지역 전북.

-시[2] 【종결어미】. [대응어] 이야.

해할 자리에 쓰여, 어떤 사실을 서술할 때 쓰는 종결 어미. ¶그년 못쓸 년이시<최전승(1996)> ¶서방질할 년이시<최전승(1996)>

지역 남원.

시건방구지다 형 [대응어] 시건방지다.

시큰둥하게 건방지다. ¶"네 이놈! 어느 안전이라고 그런 {시건방구진} 소리럴 허고 자빠졌냐. 인자 보니 니놈이 나럴 안전이라고 고런 {시건방구진} 소리럴 허고 자빠졌냐."<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건방구지다'는 표준어 '건방지다'에 해당한다. '건방궂다'에서 어간재구조화가 일어나 '건방구지다'가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접두사 '시-'가 연결된 것이다.

시게 부 [대응어] 되게, 매우.

아주 몹시. ¶{시게} 춥다.

지역 전북.

시게또 (←<영>skate) 명 [대응어] 썰매.

☞스께또.

지역 장수.

시경 (←石鏡) 명 [대응어] 석경.

유리로 된 거울. ¶{시경이} 깨져 불었어.

지역 전북.

시구랑 명 [대응어] 시궁창.

①시궁의 바닥. 또는 그 속. ¶{시구랑에} 빠졌능가? 냄새가 이만저만 아니고만. ¶이놈의 {시구랑} 신세

지역 전북.

시구렁 명 [대응어] 시궁창.

☞시구랑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만 {시구렁에} 빠지고 말았다.

지역 전북.

시구창 명 [대응어] 시궁창.

더러운 물이 잘 빠지지 않고 썩어서 질척질척하게 된 도랑 속. 또는 몹시 더럽거나 썩어 빠진 환경이나 처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시구창에} 빠진게로 심이 쪽 빠져 나올 수가 없었당게로. ¶{시구창} 신세

지역 전북.

시금창 명 [대응어] 시궁창.

더러운 물이 잘 빠지지 않고 썩어서 질척질척하게 된 도랑 속. 또는 몹시 더럽거나 썩어 빠진 환경이나 처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시금창} 냄새가 나는가? ¶"잃어버린 금가락지는 {시금창} 속까지 다 뒤져봤지만 찾을길이 없었다.". ¶"이런 {시금창}같은 내속을 어찌 알겄냐.".

지역 전북.

시금창버러지 명 [대응어] 장구벌레. ¶요좀 못에 가믄 {시금창버러지가} 솔찬히 보인다.
지역 고창.

시금추 명 [대응어] 시금치. ¶하 옌나레는 머 김치고, 된장, 꼬추장, 끈자 저런 {시금추} 가튼거, 아욱 가튼거 저기허먼 국끼리고,<2005 전북 남원>
지역 남원.

시금치너물 명 [대응어] 시금치나물.
끓는 물에 시금치를 데쳐서 무친 나물. ¶{시금치너물을} 만들다 ¶오늘 점심 반찬은 바로 {시금치너물이다}. ¶"아까 무친 {시금치너물}이 어저끄 무친 것보다 짜지 않냐?". ¶얘야, {시금치너물을} 많이 먹어야 뽀빠이처럼 힘이 세어 진단다.
지역 전북.

시기 (←時計) 명 [대응어] 시계.
시간을 재거나 시각을 나타내는 기계나 장치를 통틀어 이르는 말. ¶값나가는 {시기} 차고 자랑허고 댕기는 거 좀 보소.
지역 전북.

시껭굿 명 [대응어] 씻김굿.
죽은 이의 영혼을 깨끗이 씻어 주어 이승에서 맺힌 원한을 풀고 극락왕생하기를 비는 굿. ¶{시껭굿얼} 해야 돼야서 장으 좀 가야 혀. 장으 가서 굿판에 올릴 것들을 좀 푸지게 사야헌게.
지역 전북.

시끄랍다 형 [대응어] 시끄럽다.
소리가 지나치게 커서 듣기 싫다. ¶아이들아 {시끄랍다}, 좀 조용히 하거라.
지역 전북.

시끌덤벙 부 [대응어] 시끌시끌.
몹시 시끄러운 모양. ¶새끼내 사람들이 모두 돌아와 밤에 집집마다 불이 켜지고, 아이들 우는 소리며 {시끌덤벙} 고샅을 쾌흔드는 싸움하고 욕하는 소리, 컹컹 개 짖는 소리가 그치지 않자<송기숙, 자랏골의 비가>
지역 전북.
해설 '시끌'과 '덤벙'의 합성어이다.

시끌덤벙하다 형 [대응어] 시끌시끌하다.
몹시 시끄럽고 어수선하다. ¶자기 집이 눈에 보이매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생각에 마치 못 먹을 것을 먹은 것처럼 마음이 꺼림직하고 두서없는 계책이 {시끌덤벙하게} 머리속으로 드나들었다.<채만식, 생명의 유희>
지역 전북.
해설 '시끌시끌하다'의 어근 '시끌'과 '덤벙거리다, 덤벙대다'의 어근 '덤벙'의 합성어이다.

시끌버끌 부 [대응어] 시끌시끌.
몹시 시끄럽고 어수선한 모양. ¶명절을 맞응게 시장 속이 {시끌버끌} 난리가 났도만.
지역 전북.
해설 표준어의 합성 부사 '시끌시끌'과 달리 뒤에 나오는 어간의 첫음절이 음상을 바꾸어 '시끌버끌'이 된 것으로 보인다.

시끌버끌하다 형 [대응어] 시끌시끌하다.
몹시 시끄럽고 어수선하다. ¶그러나 그걸로도 목구멍에 풀칠을 하지 못하게 되어 필경은 매춘부의 무리가 {시끌버끌한} 속에 들어가 그들과 한가지로 얼굴과 웃음을 팔게 되었소.<채만식, 인형의집>
지역 전북.
해설 부사로 합성된 '시끌시끌'이 음상을 달리하여 '시끌버끌'이 되고, 여기에 접미사 '-하-'가

결합되어 '시끌버끌하-'가 된 것으로 보인다.

시끌사끌허다 형 [대응어] 시끌시끌하다.
몹시 시끄럽고 어수선하다. ¶배깥이는 {시끌사끌허고}.
지역 전북.

시끌짝 부 [대응어] 시끌벅적.
많은 사람들이 어수선하게 떠들어 시끄러운 모양. ¶서방님 좀 이리 나오라고 그러라 처남들 허고 정 서방허고 장난들 허니라고 시끌짝헌디 하인 가서 어떤 손님이 저소리고 쓸디 없고 {시끌짝} 장난만 혀 한식경 있다가 또 그랬어<한국구비문학대계, 고창군편>
지역 전북.

시끌짝짝하다 형 [발음] [시끌짝짜가다/시끌짝짜카다] [대응어] 시끌벅적하다.
많은 사람들이 어수선하게 떠들어 시끄럽다. ¶낙향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참 나룻터에서 배를 지달리라고 허는 사람도 있고 장사꾼들도 많은디 거기에서 한간디를 가서 치다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아갖고 {시끌짝짝허다} 이말이여. <한국구비문학대계, 전북정주시·정읍군편>
지역 전북.
해설 어근 '시끌'에 의성어 '짝짝'이 합성되고, 여기에 다시 파생접미사 '-하-'가 연결되어 '시끌짝짝하-'가 된 것으로 보인다.

시끌짝하다 형 [발음] [시끌짜가다/시끌짜카다] [대응어] 시끌벅적하다.
많은 사람들이 어수선하게 떠들어 시끄럽다. ¶제일면점 잡화 점방 안이 전에 없이 우글버글 사람들로 {시끌짝하다}.<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시끔장 명 [대응어] 그을음.
어떤 물질이 불에 탈 때에 연기에 섞여 나오는 먼지 모양의 검은 가루. ¶중방쟁이는 부수짝 {시끔장} 바르고 와. ¶{시끔장} 바르면 피가 멈춘대.
지역 전북.

시끼 명 [대응어] 새끼.
'자식'을 낮잡아 이르는 말. 또는 (속되게) 어떤 사람을 욕하여 이르는 말. ¶오늘따라 바람도 허천나게 불고 시먼(지명) 근방 사는 사람 말 드릉게 바닷물이 만삭이라나 으쩧다나 방천(지명) 뽀짝까지 물이 들온디 그를 적마다 잡녀르 때까우 {시끼들} 물쌀으 떠밀러오는 새비랑 그시락이랑 퍼묵을라고 난리법석을 피다가.
지역 고창.

시누대 명 [대응어] 신의대.
매끈하고 가늘게 생긴 대나무의 일종. ¶뒤안에 우거져 있는 대밭이나, 고샅에 저절로 커 오르는 {시누대}, 그리고 마을을 에워싸고 있는 왕댓잎의 대바람 소리는<최명희, 혼불> ¶활을 딱허니 미어서 본게 좋거든. 활이 하나가. 그 또 {시누대를} 하나 깎어서 화살을 떡허니 맨들어갖고 <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붓을 맨들 때 붓대는 해변가에서 자라는 {시누대}나 오죽을 사용헌다.
지역 정읍.

시다[1] 형 [대응어] 냅다(연기가).
연기의 기운으로 눈이나 목구멍이 쓰라린 느낌이 있다. ¶금으로 놓고 그 막 서기로 히서 눈 {시어서} 댕기도 못헌다.'고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아, 근게 막 가다 미끄러져서 자빠지고 걍 눈이 {시어서} 잘 안뷘게, 참 쟁인양반 어리드리야. 말캉으로 올라가도 미끄러지고<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마냥 유세하고 자세하는 그 몸쓸 버릇이 차마 눈꼴

{시어} 못 보겠어서 낮은말이라도 한마디 불쑥 내뱉을라치면 단박에 도끼눈을 부릅떠<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고창, 김제,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시다[2] 동 [대응어] 세다.
사물의 수효를 헤아리거나 꼽다. ¶돈 관계는 부자(父子)간에도 외수 읎어야 허고, 주고 받을 때는 잘 {시어야} 허요.
지역 고창.

시대부대 부 [대응어] 실없이.
특별한 이유 없이. ¶{시대부대} 웃기만 허고 있다.
지역 전북.

시대부대하다 형 [대응어] 실없다.
말이나 하는 짓이 실답지 못하다. ¶아츰 밥상머리서부터 {시대부대헌} 소리 말구 밥이나 처먹어라.
지역 전북.

시덥잖다 형 [대응어] 시답잖다.
볼품이 없어 만족스럽지 못하다. ¶장가만 들먼 다 으런인 중 아나 보제. {시덥잖은} 쥐새끼덜허고는!<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시데부데하다 형 [대응어] 실없다.
☞시대부대하다.
지역 전북.

시동산 명 [대응어] 석동무니.
윷놀이에서, 세 동이 한데 포개어져 가는 말. ¶{시동산이} 났다.
지역 정읍.

시동상 (←媤동생) 명 [대응어] 시동생(지칭).
남편의 남동생을 이르는 말. ¶울 {시동상은} 언제 철이 들련지 몰라. ¶이분이 바로 제 {시동상입니다}.
지역 장수, 고창.

시드른병 명 [대응어] 시들병.
사람의 몸이나 농작물이 시들어 버리는 병. ¶{시드른병은} 이런 식물들이 시들어서 죽어.
지역 전북.

시래미 명 [대응어] 그리마. ¶밤에 {시래미가} 벼람박에 돌아다니가 얼굴에 와서 오줌 싸면 얼굴이 붓어 버려.<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정읍.

시럽다 형 [활용형] 시러와. [대응어] 아리다.
상처나 살갗 따위가 찌르는 듯이 아프다. ¶(혓바늘이 돋아) 쎄가 시럽다고. {시러와}.
지역 전북.

시렁가리 명 [대응어] 시렁.
물건을 얹어 놓기 위하여 방이나 마루 벽에 두 개의 긴 나무를 가로질러 놓은 것. ¶{시렁가리랑} 선반은 다르제. {시렁가리는} 나무 두 개로 히 논 거고, 선반은 판자때기로 히 논 거.
지역 전북.

시레기 명 [대응어] 쓰레기.
못 쓰게 되어 내다 버리는 물건. 또는 그러한 값어치를 가지는 사람이나 물건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저그 {시레기를} 모아 놨어. 다 종이 {시레기인} 게 태워 버려라. ¶{시레기를} 아무데나 마구 버리면 주위가 지저분하니 모아 놓아라.
지역 장수.

ㅅ

-시롭- 【접미사】 [대응어] -스럽다.

'그러한 성질이 있음'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금메…… 고상을 너무 허고, {위험시롭고} 헌께 걱정인 것이제. 아부지가 장허고 훌륭헌 것이야 누가 몰르간디."<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시르르 부 [대응어] 슬쩍.

심하지 않게 약간. ¶미나리를 {시르르} 데쳐가꼬

지역 전북.

시마자구 명 [대응어] 힘.

동물이 스스로 움직이거나 다른 물건을 움직이게 하는 힘살의 작용. ¶{시마자구} 하나 없이 저렇게 축 쳐져서 있는 거 안씨러워 죽겠네.

지역 전북.

시말타구 명 [대응어] 힘.

동물이 스스로 움직이거나 다른 물건을 움직이게 하는 힘살의 작용. ¶갸는 볼 때마다 피죽도 못 먹은 것 맹이로 {시말타구} 없이 허구헌날 그러고 있더라고. ¶이제 막 자고나서 그런지 {시말타구가} 하나도 없이 보이네.

지역 전북.

시망시럽다 형

몹시 짓궂은 데가 있다. ¶" 긍가밍가 {시망시럽게도} 물어 보네 이~". ¶궁민핵교 댕길 때는 솔차니 {시망시러} 갖고 뽀시락 장난허고 신천 빠진 해찰 땜시 공부는 쪼까 그랬지라우~ 긍게, 그거시 아페서 말고 뒤에서 일 이등은 내껏 이엇당게요.

지역 고창.

시모살이 (←侍墓살이) 명 [대응어] 시묘.

부모의 거상 중에 3년간 그 무덤 옆에서 움막을 짓고 삶. ¶내가 오늘 저녁부텀 {시모살이를} 해 갖고 섣달 그믐날 저녁에 열두 시까장 시모살면서.

지역 전북.

시무날 명 [대응어] 스무날.

초하룻날부터 스무 번째 되는 날. ¶지금 시월 {시무날}. 지내가꺼그만, 사종중 묘사.<2005 전북 남원> ¶오늘이 바로 {시무날이구려}.

지역 남원.

시무다 동 [대응어] 심다.

☞숨다.

지역 무주.

시벌 명 [대응어] 만물, 만도리, 세벌-매기.

☞세벌.

지역 남원.

시붕시붕 부 [대응어] 시부렁시부렁.

주책없이 쓸데없는 말을 함부로 자꾸 지껄이는 모양. ¶실컷 일허고 기대가 큰 맴으로다가 돈을 덥썩 받아 들었는디 생각보다 덜 묵직하니께 고자리에서 {시붕시붕} 옹알거리게 되더라니께.

지역 전북.

시쁘듬하다 형 [대응어] 시쁘둥하다.

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아주 시들한 기색이 있다. ¶"……너를 장가나 딜여서 맘을 잡게 해야 할까부다! 아무래두." "장가? 흥! 장가아!" 태수는 {시쁘듬하게} 제 자신더러 하는 듯 이런 조소를 하다가 다시, "……혹시 우리 초봉이라면!" "건 안될 말이다!"<채만식, 탁류> ¶"그래, 할 말이라는 게 겨우 그거더냐?" 초봉이는 {시쁘듬하게} 형보를 내려다본다.<채만식, 탁류>

지역 전북.

해설 '시쁘다'의 어간에 접미사 '-듬하-'가 연결되어 형용사가 된 것으로 보인다.

시삐보다 동 [대응어] 깔보다, 얕보다.
☞시퍼보다. ¶옛날맨치로 날 {시삐보고} 함부로 상대허다가는 집사님도 큰코다칠 날 반다시 있을 거요."<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시산노 명 [대응어] 참바.
삼의 껍질이나 칡 따위로 세 가닥을 지어 굵다랗게 드린 줄. ¶옛날이는 머 묶을 때 {시산노를} 썼어. 단단히서 잘 묶어졌어.
지역 무주.

시살 명 [대응어] 새살.
다른 사람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어떤 사정을 길게 늘어놓는 일. ¶아주 {시살을} 늘어놓네.
지역 순창.

시살떨다 동 [대응어] 재롱떨다.
귀여운 짓을 하거나 귀엽게 놀다. ¶저 좀 보소. {시살떨고} 앉았네그려.
지역 전북.

시상 (←世上) 명 [대응어] 세상.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사회를 통틀어 이르는 말. ¶그거슨 먹을 거시 풍부 헝게 그러고 {시상} 살기가 좋아져서 그러제 이~. ¶아따, 나 배때지 부릉게 {시상} 천지가 다 내 껏 같구만. ¶생각흐믄 흘수락 추억이 되야 갖고 시방같이 살기존 {시상이} 으디가 잇긌능가 모리긌소. ¶시상에나 시상에나 시방이 믄 놈우 {시상이라고} 나를 고렇게도 모질게 깔본다요?
지역 고창.

시상살이 (←世上살이) 명 [대응어] 세상살이.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 ¶{시상살이가} 빈해도 겁나게 빈했웅게 인자는 고러케 살믄 안 되지라우.
지역 고창.

시상에 (←世上에) 감 [대응어] 세상에.
뜻밖의 일이 생겨서 놀랐을 때 하는 말. ¶{시상에} 믿을 놈 한나도 없당게라우. ¶{시상에나} {시상에나} 시방이 믄 놈우 시상이라고 나를 고렇게도 모질게 깔본다요?
지역 고창.

시상으 (←世上으) 감 [대응어] 세상에.
뜻밖의 일이 생겨서 놀랐을 때 하는 말. ¶포도시 회사다가 차 입고 흐고 유모차 끌고 오는디 {시상으} 굴찌고라당 너머승게 질갓이 개안흔 거 잇지롸우 시서그롭디다.
지역 고창.

시상일 (←世上일) 명 [대응어] 세상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시상일} 야지랑 깜서 정칫일 말 팽맹이질 험서 창문 밖 모양성 철쭉 유혹에 굴풋 삼겹살 냄시 꼬심 속에 낯같 이름조차 까먹은 무심함에 건성나발 옹삭하게 해찰허면서.
지역 고창.

시수 (←洗手) 명 [대응어] 세수(洗手).
손이나 얼굴을 씻음. ¶지충개야 지충개야/마사산천 지충개야/겉잎 같은 우리 어머니/속잎 같은 나를 두고/싫은 덕시 가셨는가/{시수물언} 쑥물로 허시고/떳장이불 둘렀는가(지칭개야 지칭개야/만산산천 지칭개야 우리 겉잎 같은 우리어머니/속잎 같은 나를 두고/싫은 듯이 가셨는가/세수물은 쑥물로 하시고/뗏장이불 둘렀는가)(임실 신세타령-"지충개야 지충개야")<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임실.

시시껍적하다 형 [발음] [시시껍쩌가다/시시껍쩌카다] [대응어] 시시껄렁하다.
신통한 데가 없이 하찮고 꼴답잖다. ¶하루 중에서 우리가 {시시껍적한} 동림산업—아 실례했습니다. 시시껍적이란 말은 취소하겠습니다.<윤흥길, 날개 또는 수갑>
지역 전북.

시시부지 부 [대응어] 흐지부지.
확실하게 끝맺지 못하고 흐리멍덩하게 넘기는 모양. ¶여그서 저말허고 저그서 이말허고 허닝께 결론이 나는 거 없이 맨날 {시시부지} 끝나 버리는 거 아녀
지역 전북.

시시부진 부 [대응어] 흐지부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부자가 되야 갖고 그리 가지고 먹었는디 아 이글년에는 {시시부진} 재산이 자꾸 나가 가지고는.
지역 전북.

시아바니 명 [대응어] 시아버지.
남편의 아버지를 이르는 말. ¶인자 저녁때가 되았거나 저녁이 되았거나 그집을 갔어. {시아바니는} 신을 삼고, 시아제는 일을 댕기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메누리가 보니께 너무도 안타까워 내가 어떻게 하면 글읽는 {시아바니를} 좀더 멕여 드릴 수 있는가?<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어 그러나 가만히 친정으가서 붙잡히게 생는디, 늙은 {시아바니}, 비꾸어서 혼자 사는 {시아바니를} 어떻게 뗄 수가 없어.<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전북.

시아버니 명 [대응어] 시아버지.
남편의 아버지를 이르는 말. ¶그날부터 {시아버니에게} 뭘 먹이는고 허니 용, 삼, 개 괴기, 쇠괴기, 돼지괴기 늘 멕여서, 그냥 몸띵이를 호박농짝만허게 맹길었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그래 어디만치 가니깐 {시아버니가} 저 뒤여서, 산말랭이를 이렇게 고갯길을 올라가다 보니깐 저 뒤여서 쫓아오는데 결국에는 {시아버니한티} 여자라 잡히게 생다 이거여.<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시아버니} 몰리 가만히라도 혀서 알려주세요.<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그놈을 바울라머는 자기도 {시아버니} 이상으 공을 드리야 허고, <한국구비문학대계 전북군산시·옥구군편>
지역 전북.

시아버이 명 [대응어] 시아버지.
남편의 아버지를 이르는 말. ¶아 {시아버이도} 원 그렇게 말해야 하고, 시어머이도 그렇게 해야 하고, 신랑도 와서 꼬라지를 내야 하는디, 그렇게 말하더니 새끼를 낳는데, 참 크게 될 자식을 낳아서 만석천자 노릇을 하더라네.<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전북.

시아심 (시아心) 명 [대응어] 새알심.
팥죽 따위에 넣어 먹는 새알만 한 덩이. 보통 찹쌀가루나 수수 가루로 동글동글하게 만든다. ¶{시아시미}<2007 전북 군산> ¶폿죽 쑬 때 {시아심} 빚어 여.
지역 군산.

시아자 명 [대응어] 서방님.
손아래 시누이의 남편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 ¶아, 자기 {시아자를} 인자 목욕 시기서 옷 깨깟이 입히서 아, 상을 보닌게로<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그집 {시아자는} 돈을

많이 번다면서 왜 장개를 안간대?
지역 김제, 부안, 군산, 완주, 익산, 정읍, 남원, 임실, 진안.

시아재 명 [대응어] 서방님.
☞시아자. ¶발모가지 시누애기나 주고지고 찍기 벌긴 눈구녁은 {시아재나} 주고지고.<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남원, 완주, 임실, 진안.

시아재님 명 [대응어] 서방님.
손아래 시누이의 남편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 ¶아, {시아재님}, 아무 때 쇠때를 가지고 갔는디, 친정에서 쇠때를 가져 오라고<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진안.

시아제 명 [대응어] 시아주버니.
☞시아재. ¶{시아제는} 좋겄소. 동서가 영판 잘 해 중게.
지역 고창.

시아좀 명 [대응어] 서방님.
손아래 시누이의 남편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 ¶{시아좀과} 단둘이 있으니 불편하다.
지역 군산.

시악배기 (恃惡배기) 명 [대응어] 시악.
모질고 악한 성미가 있는 사람. ¶{시악배기는}! 이것아, 아니면 아니다고 조용조용허니 허제, 유제덜 다 깨겄다.<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시악질 (恃惡질) 명 [대응어] 시악.
모질고 악한 성미를 부리는 습성. ¶너거틈사 난리가 났제. 온 동니가 너 {시악질로} 굉장혔을 거여.<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시안님 명 [대응어] 샌님.
'생원님'이 변한 말.
지역 전북.

시알수지비 명 [대응어] 새알심.
팥죽 따위에 넣어 먹는 새알만 한 덩이. ¶{시알수지비} 비저서 폴죽 쒀 먹고.
지역 무주.

시알시미 명 [대응어] 새알심.
☞시알심.
지역 전북.

시알심 명 [대응어] 새알심.
팥죽 따위에 넣어 먹는 새알만 한 덩이.
지역 남원, 익산, 장수, 정읍.

시암거리 명 [대응어] 샘.
샘. 또는 샘이 있는 곳. ¶{시암거리도} 솔찮이 멀어. {시암거리} 거기서 우리집 올라믄, ¶시암거리서 여까지 왔잖아.
지역 고창.

시암물 명 [대응어] 샘물.
샘에서 나오는 물. ¶다시 맛아본게 구룬네가 안 난게, {시암물로} 정스럽게 씻어서 밥을 지었읍니다.<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올라 온디 본게로 아 처녀, 이쁜 처녀가 거그가 {시암물이} 있거던. 거그가 사발 깨깟이 거시기 히놓고는 그놈을 정화수를 막 갖다 놓고 빌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다시는 안 먹겄다고 시암에 다 춤 뱉고 떠난 놈이 무신 염치로 도로 와서 요 {시암물} 또 먹겄습니까요.<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시앗[1] 명 [대응어] 씨앗.

곡식이나 채소 따위의 씨. 또는 어떤 일의 시발점. 또는 자식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봉선화 {시앗을} 뿌리고 꽃 피기만을 기다렸제. 손에 물들이고 잡펴서. ¶아직 포기하기 일러, 뭔놈의 젊은 놈이 이르케 희망이 없냐? 희망의 {시앗을} 품고 살아야 앞으로가 있는 것이여. ¶저놈의 지아부지 {시앗이라} 징허게 말을 안 듣는 게벼.

지역 전북.

시앗[2] 명 [대응어] 씨아.

목화의 씨를 빼는 기구. ¶옛날 문익점이라는 사람이 목화 씨를 들이 와 갖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고 있었는디 어떤 승려가 와서는 {시앗으로} 목화 씨 빼는 법을 갈처 줬다고 하대.

지역 군산.

시앙 (←生薑) 명 [대응어] 생강. ¶{시앙}금(생강 가격)이 싸서 4박스나 묻어놨어. 저게 {시앙여}.

지역 전북.

시앙수 (시앙水) 명 [대응어] 샘(泉).

물이 땅에서 솟아 나오는 곳. 또는 그 물. ¶{시앙수를} 파서 여그서 물 질러 먹어.

지역 임실.

시앙지 명 [대응어] 생쥐. ¶고놈 참 {시앙지처럼} 빠르네.

지역 전북.

시야 명

두부를 만들 때 콩물을 짜거나 받히는 데 쓰는 천. 색깔은 하얗고 옷감은 스카프와 같다. ¶(두부) 판에다 {시야를} 깔아. ¶콩물을 {시야다} 붓고 말깡 짜.

지역 전북.

시얌 명 [대응어] 샘(泉).

물이 땅에서 솟아 나오는 곳. 또는 그 물. ¶아, 그래 그 놈을 다 싸 짊어졌어. 그러구 와설랑은 처음에 여자 만난데를 떡 오닝게, 그 여자가 여전히 또 {시얌을} 나왔어. 나와설랑은 있는디, "아이구, 총각 댕겨서 오냐." 구 반갑게 인사를 헌단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묶어 앉치노코서는 파라는디로 시암을 팡게, 을마 안파 물이 펑펑 나와. 지금도 그 {시얌} 물이 있다.<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꼭 내가 내 입으로 말을 해야겄어?" "헤기 싫으면 내비두시요오. 나는 까깝헐 거 하나도 없소. 아쉬운 사램이 {시얌} 파드라고, 머." "자네 이러기여?" "아 긓게 머얼 이러기냐고요오. 하 참. 나는 모르겄다는디이.<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시양 명 [대응어] 생강. ¶돼지고기든 닭고기든 잡냄새를 없애고자프면 {시양을} 가루 내서 같이 넣어서 요리하믄 좋아.

지역 군산, 남원, 임실.

시어머이 명 [대응어] 시어머니.

남편의 어머니를 이르는 말. ¶아 시아버이도 원 그렇게 말해야 하고, {시어머이도} 그렇게 해야 하고, 신랑도 와서 꼬라지를 내야 하는디, 그렇게 말하더니 새끼를 낳는데, 참 크게 될 자식을 낳아서 만석천자 노릇을 하더라네.<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전북.

시어지다 동 [대응어] 세다.

머리카락이나 털이 희어지다. ¶시커먼 머리가 몰라보기 {시어져} 버렸네.<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전북.

시언찮다 형 [대응어] 시원찮다.
마음에 흡족하지 아니하다. ¶아따, {시언찮게} 봤도만 솔찮허고만 이~ 딴 생각 조까 히 보시요 이~.
지역 고창.

시언하다 형 [대응어] 시원하다.
더운 기운이나 마음의 거리낌 따위가 가셔서 기분이 좋다. 가뿐하고 후련하다. 또는 담백하고 산뜻하거나 속이 후련하도록 뜨겁고 얼큰하다. ¶"아버니 아 술을 얻을래야 얻을 수가 없어라오. 그러고 그서 오다가 물을 한 병을 너가지고 왔어요. {시언헌} 물이요. 잡수시요."<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돈 구경하고…… 구경하고 나서 그놈으로 한잔 먹고…… 한잔 말이 났으니 말이지 요즘 같으면 술이나 실컷 먹고 주정이라도 했으면 속이 {시언하겠네}.<채만식, 레디메이드 인식> ¶그동안 속만 쎅이던 우리 집 노처녀 시집보내 놓게 속이 시언허다. ¶한 입 베어 문 공배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것 한 번 먹어 보라고 손짓을 한다. "아이고, {시언하다}. 매옴허니. 속이 다 내리가네 기양. 끄어억. 무시 맛은 그저 동지 섣달 엄동 설한에 눈은 쌩이는디 밤은 짊우고, 모다 둘러앉어서."<최명희, 혼불> ¶비가 {시언하게} 내린다. ¶아픈 무릎을 {시언하게} 주물렀다. ¶그는 대답을 {시언하게} 한다.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순창, 진안.

시엄[1] (←鬚髥) 명 [대응어] 턱수염.
아래턱에 나는 수염. ¶말은 안 허고 {시엄을} 맨지작맨지작 쓰다듬고 있었어.
지역 군산.

시엄[2] 명 [대응어] 헤엄.
사람이나 물고기 등이 물속에서 나아가기 위하여 팔다리나 지느러미를 움직이는 일. ¶물에서 송장 {시험을} 치면 얼매든지 오래 뜰 수 있어.
지역 전북.

시에미 (媤에미) 명 [대응어] 시어미.
남편의 어머니를 이르는 말. ¶악아 너는 손끝터리에 물 안묻히고 신랑이 다 히준다고 자랑허고 댕기지만 그게 바로 느 서방허고 {시에미를} 욕허고 댕기는거나 똑 같단 말여. ¶{시에미의} 잔소리는 적을수록 좋다.
지역 전북.

시연허다 형 [대응어] 시원하다.
☞시언하다. ¶깝깝허게 앙거 있지만 말고 속 {시연허게} 말 조까 히 보그라.
지역 고창.

시영부모 (←收養父母) 명 [대응어] 수양부모.
자기를 낳지 않았으나 데려다 길러 준 부모. ¶그 사람은 조실부모해서 {시영부모가} 길뤄 줬대.
지역 전북.

시영아들 (←收養아들) 명 [대응어] 수양아들.
남의 자식을 데려다가 제 자식처럼 기른 아들. ¶아들 델꼬 와서 {시영아들로} 삼았다나 뭐했다나.
지역 전북.

시우다 동 [대응어] 세우다.
어떤 물체 따위를 땅 위에 수직의 상태로 서게 하다. 또는 어떤 위치에 있게 하거나 놓다. ¶그거는 나락 {시운다고} 히야제.(그것은 나락 세운다고 해야지)<2005 전북 남원> ¶전부 가령 군내에서는 전부 비를 세웠다 이말여. 비를 {시우니} 나라도 다 알 것 아녀?<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학고 속이다. 느서 학고 속이다 딱 놓고 밖어서 달싹 못허게 히서는 저짝이다 {시워} 놓고는 가서 점심들 먹고 오라고 싹 다 내보내.<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거그서 질 비리먹은 망아지 하나 있은게 그놈을 탈란다 허고, 말끄덩은 누구를 잡히고 갈라냐 그러믄 나를 앉을 {시워라}. 나를 앉을 {시우고} 갈란다고 그러고 말을 허라.<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남원, 완주, 정읍, 부안, 군산.

시월 (←歲月) 명 [대응어] 세월.

흘러가는 시간이나 기간. 또는 살아가는 세상. ¶늙어강게 {시월} 더 빨르게 가는 거 같어. ¶지금은 우리집 헹편이 어쩔 수 없응게 {시월이} 좀 나아지면 그때 가서 헙시다.

지역 전북.

시장스럽다 형 [대응어] 시들하다.

마음에 차지 않아 내키지 않다. ¶노라는 보기에도 {시장스러운} 달랑 남은 돈 이십 원을 품에 품고 인력거를 탔다.<채만식, 인형의 집>

지역 전북.

시청독 명

못 먹어서 얼굴이 창백해지는 병. ¶얼굴이 흐거다, 못 먹어서. 시충독 걸린다. 시방은 시충독 걸린다고 못 먹어서. 못 먹어서 시청독 걸리냐. 못 먹어서 시청독 걸려. ¶시청독 들라고 많이 먹냐? 째까썩 먹어라.

지역 고창.

시춤하다 형 [대응어] 시들하다.

마음이 처져 조용히 있다. 또는 마음에 차지 않아 내키지 않다. ¶"어머닌 가끔 그렇게 {시춤허구} 있는 거 난 싫드라!"<채만식, 여인전기> ¶"보이소 고주사, 예?" 돌아앉아서 단장을 하던 행화가, 태수가 너무 말이 없이 {시춤하고만} 있으니까,<채만식, 탁류>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시춤하다'는 채만식의 작품에만 보이고 있다. <채만식 어휘사전>에서는 '시춤하다'를 '시치름하다'로 보고 '짐짓 꽤 태연한 기색이 있다.'로 해석하고 있으나 예문을 검토해 보면 전혀 뜻이 다르다. 채만식의 작품에서도 '시침하다'와 '시춤하다'는 구별되어 사용되고 있다.

시치다 동 [대응어] 빨다.

옷 따위의 물건을 물에 넣고 주물러서 때를 없애다. ¶"너 이년! 나가서 시내 갱변에 가서 빨래질이나 해갖고 오라고. 인자 빨래를 {시쳐갖고} 오라."<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이꼴 보는 며늘아는 흰 빨래를 희게나 빨고 검은 빨래는 검게 {시쳐} 집에라고 돌아오니.<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남원, 순창, 정읍.

시침대 명 [대응어] 사침대.

베틀 비경이의 옆에서 날의 사이를 띄어 주는 두 개의 나무나 대.

지역 전북.

시컴시컴 부

부분적으로 검은 모양. ¶그거이 머이겄능교. 그거이 다 흠절 아닝교. {시컴시컴} 얼룩배기 달속도 무단히 그렁 거는 아닐 거이요.<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해설 표준어 '시커멓다'의 전북 방언은 '시컴하다'이다. '시컴하다'의 어근 '시컴'을 두 번 반복하여 합성하였다.

시컴하다 형 [대응어] 시꺼멓다.

매우 꺼멓다. ¶한 놈이 인자 {시컴하게} 수염이,

가닥 수염이 나고 그런 놈인디.<한국구비문학대계, 전북정주시·정읍군편>

지역 전북.

해설 표준어 '시꺼멓다'는 '꺼멓다'에 접두사 '시-'가 연결된 것이다. 이 '시꺼멓다'가 어간재구조화를 일으켜 전북에서는 '시컴하다'로 쓰인다.

시키 명 [대응어] 새끼.

어떤 사람을 욕하여 이르는 말. ¶이 {시키를} 내가 잡기만 혀 봐.

지역 전북.

시퍼보다 동 [대응어] 깔보다, 얕보다.

얕잡아 보다. ¶"어찌 그리 놀래고 긍가? 자네도 우리 집안얼 {시퍼본} 모양이제?" 장칠문이 눈꼬리를 고약하게 세우며 양치성을 노려보았다.<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시퍼보다'는 표준어로는 부사 '시뻐'와 동사 '보다'가 연결되어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표준어의 부사 '시뻐'는 '별로 대수롭지 않는 듯하게.'란 뜻을 가지고 사용되고 있다. 대체로 '시뻐 보다, 시뻐 보이다, 시뻐 여기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전북 방언 '시퍼보다'는 '시퍼'의 단어로서의 자격이 의심스러우므로 하나의 단어로 보는 것이 좋다.

시푸다[1] 형 [대응어] 헤프다.

물건이 쉽게 닳거나 없어지는 기간이 짧다. 또는 물건이나 돈, 말이나 행동 따위를 아끼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 화장품은 가격이 좀 비싸지만 {시푸지} 않아서 좋다. ¶그러니까 그거 따두마 내고 나먼 머 {시퍼서} 아이 지우지 머. {그러니까 그것 다듬어 내고 나면 뭐 헤퍼서 아니 지우지 뭐}.<무주촌> ¶저 웃음이 {시픈} 사람이 또 웃음보가 터졌구나.

지역 전북.

시푸다[2] 보형 [대응어] 싶다.

((동사 뒤에서 '-고 시푸다' 구성으로 쓰여)) 어떤 행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욕구를 갖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 ¶기얌허고들 거식 허까 {시퍼서}, 진정제를 사서 중게, 어매도 츠메는 안 멍는다거더니 자꾸 중게<2008 전북 고창> ¶마니허고 {시푸먼} 마니허고, 자식떠리 그노멀, 맹인이 마러자먼 지사도라오고 뭐 도라와따고 히서 <2005 전북 남원>

지역 고창, 남원.

시한 (←歲寒) 명 [대응어] 세한.

매우 심한 한겨울의 추위. ¶"어이구 추워라! 시방부터 이렇게 추운디 올 {시한으는} 얼매나 오그라붙게 헐랑가 모르겄다아!"<이병천, 모래내 모래톱>

지역 전북.

시해나다 동 [대응어] 샘나다.

샘하는 마음이 생기다. ¶고집 자식들이 다 잘 되니께 {시해나서} 그랬제.

지역 전북.

시해내다 동 [대응어] 샘내다.

샘하는 마음을 먹다. 또는 샘을 부리다. ¶남도 지방의 여인네들이 텃밭농사에 아주 신경 쓰고 {시해내는} 농사가 있었는디 고것이 바로 삼농사였다.

지역 전북.

식경 (←石鏡) 명 [대응어] 거울.

빛의 반사를 이용하여 물체의 모양을 비추어 보는 물건. ¶{식경} 끄내 봐. 나도 한번 보게.

지역 전북.

식경 (←夕景) 명 [대응어] 거울.

☞색경.
지역 남원, 순창, 임실.

식은 죽 가장자리 둘러먹기 【관용표현】
'아주 쉬운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완연한 중년의 나이로 들어섰다곤 하지만 왕년의 뚝심과 독기만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 있어 젊은 녀석들 네댓 마리쯤 데리고 놀기는 늙은 이빨로 도토리묵 다루기요. {식은죽 가장자리 둘러먹기로} 손쉬운 노릇이었다.<윤흥길, 빛가운데로걸어가면>
지역 전북.
해설 '식은 죽 먹기'는 아주 쉬운 일을 말할 때 쓰는 속담이다. 따라서 '식은 죽 가장자리 돌려먹기'는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운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식혜 명 [대응어] 식혜, 감주.
쌀밥과 엿기름 따위로 만든 우리나라 전통 음료의 하나. ¶어떤 사람은 장개를 가서 각시가 {식혜를} 떠다 준다. 준게는 먹고는 지가 식혜를 뜨러갔어. 그릇이 있어야지. 양병이여. 그리게 손을 놓는디, 손을 쥐고 나올란게 나올 수가 있어야지. ¶열찌름으로 {식혜도} 해먹고 그랬제, 아조 달다랑께 단맛으로다가 먹었제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진안, 장수, 정읍.

식호다 동 [대응어] 식히다.
☞식후다.
지역 전북.

식후다[1] 동 [대응어] 식히다.
더운 기가 없어지게 하다. ¶물이 뜨거우니 {식훠서} 드십시오. ¶또약볕에 일만 하지 말고 잠시 물마시며 땀을 {식후라}.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식후다[2] 동 [대응어] 삭히다.
김치나 젓갈 따위의 음식물을 발효시켜 맛이 들게 하다. ¶긍게 찹쌀을 두어 말 담거놨다가 엿질금허고 쑤어갖고 {식쿼다가} 섞으머는 거기에서 인자 단맛이 나와 부러. 맛난 맛이 나와 부러. <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전북.

식히 (←食醯) 명 [대응어] 식혜.
☞식혜 ¶우리집 아저씨하구 시째 아덜이 {식히를} 좋아해가꼬 자주 맨들어 먹었는디 인자는 맨들어 주간디? ¶{식히라도} 한 모금 잡수고 가라니께 그냥 가 버리리더랴
지역 고창, 무주, 장수, 정읍.
해설 '식히'는 '식혜'에서 'ㅔ → ㅣ'로의 고모음화가 일어난 형태이다. 전북방언에서 고모음화는 아주 생산적인 현상이다.

싞다 동 [대응어] 씻다.
때나 더러운 것, 누명이나 죄, 원한 따위를 없게 하다. ¶얼굴을 {씪어라}. ¶죄를 {씪으면} 용서해줄팅게. ¶{씪지} 못할 원한이 맺혔다.
지역 임실, 장수, 진안.

신갱 (←神經) 명 [대응어] 신경(神經).
어떤 일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인자, 제목도 쪼까 바꺄 갖고 {신갱} 쓰께라우~. ¶긍게, 딴디 다가 {신갱} 쓰고 있었고만 이~.
지역 고창.

신너멀 명 [대응어] 씀바귀.
☞씬너멀. ¶{신너멀을} 무쳐 먹어보니 생각보다 쓰지 않구려.
지역 임실.

신무리 명 [대응어] 백설기.
☞흰머리.
지역 전북.

신무리떡 명 [대응어] 백설기.
멥쌀가루로 하얗게 만든 시루떡. 어린아이의 삼칠일, 백일, 돌이나 고사(告祀) 따위에 쓴다.
지역 군산.

신바람 명 [대응어] 심부름.
☞심바람.
지역 임실.

신방독 명 [대응어] 댓돌.
집채의 낙숫물이 떨어지는 안쪽으로 마당보다 높게 돌려 가며 놓은 돌. ¶{신방독에} 내려서서 신발 벗어.
지역 무주, 전주, 남원.

신부름 명 [대응어] 심부름.
남이 시키는 일을 하여 주는 일.
지역 고창.

신찬허다 형 [대응어] 시원찮다.
☞센찬허다.
지역 전북.

신찮다 형 [대응어] 시원찮다.
기대, 희망, 욕구에 충분할 만큼 만족스럽지 않다. ¶그 친구는 하는 일마다 다 {신찮다}. ¶거동이 {신찮다}.
지역 전북.

신천 명 [대응어] 정신.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며 판단하는 능력. 또는 그런 작용. ¶하도 언청, 요센 날씨 잡것드리 {신천이} 도매끔으로 빠져갖고 지름 퍼먹은 강아지 되앗써요. ¶{신천} 도가리체 빠졌능게비요.
지역 고창.

신천빠지다 동
앞뒤를 생각하거나 사리를 분별할 만한 지각이 없다. ¶궁민핵교 댕길 때는 솔차니 시망시러 갖고 뽀시락 장난허고 {신천빠진} 해찰 땜시 공부는 쪼까 그랫지라우~ 긍게, 그거시 아페서 말고 뒤에서 일 이등은 내껏 이엇당게요. ¶지지리 잘 쳐 묵고 인자사 {신천빠진} 소리 허고 자빠졌네. ¶{신천빠졌능가비네} 솔차니 웃겨부네 이~. ¶요른 말 히싸면 {신천빠지고} 할망 빠졌다고 헐지도 모른디 가난헌 것도 선상님이랑게요. ¶으따, {신천빠졌는게비요} 이~ 고놈의 정신머리가 외국으로 출장 갔소?
지역 고창.

신초리 명 [대응어] 신출내기.
어떤 일에 처음이거나 잘 알지 못하는 사람. 또는 이전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에 익숙한 사람. ¶누가 가서 유심허니 이야기해 줄 사람이 없어. 자상스럽게. 옛날에 고담스런 소리, 맨 {신초리고}, {신초리라} 누가 얘기를 자상스럽게, ¶누가 모다 {신초리들은}. 신식 사람들은.
지역 전북.

신트럼 명 [대응어] 신트림.
☞신트름.
지역 전북.

신하다 형 [대응어] 시원하다.
더운 기운이나 마음의 거리낌 따위가 가셔서 기분이 좋다. 가뿐하고 후련하다. 또는 담백하고 산뜻하거나 속이 후련하도록 뜨겁고 얼큰하다. ¶바람이 {신하니} 좋네. ¶멀카락 짤르니께로 기분이 {신하네}.
지역 전북.

실가릿국 명 [대응어] 시래깃국.

시래기를 넣어 끓인 된장국. ¶아침 해장국으로는 {실가리국만한} 것도 없지. ¶아침 해장국으론 {실가리국이} 최고여. ¶{실가리국에} 밥을 말아 먹으니 참 맛있구나.

지역 전북.

실거리 명 [대응어] 실랑이.

서로 자기주장을 고집하여 옥신각신하는 일. ¶옥신각신 {실거리를} 허고 자빠졌드만.

지역 전북.

실거생이 명 [대응어] 장구벌레.

☞실거시랑.

지역 장수, 임실.

실거시랑 명 [대응어] 장구벌레. ¶요좀 못에 가믄 {실거시랑이} 솔찬히 보인다.

지역 임실.

실경 명 [대응어] 시렁.

물건을 얹어 놓기 위하여 방이나 마루 벽에 두 개의 긴 나무를 가로질러 선반처럼 만든 것. ¶이불을 개서 {실경} 우에 얹어 놓거라. ¶이 상자는 {실경에} 얹어 놓거라.

지역 전북.

실겡이 명 [대응어] 선반.

물건을 얹어 두기 위하여 까치발을 받쳐서 벽에 달아 놓은 긴 널빤지.

지역 완주.

실과 (實果) 명 [대응어] 과일.

나무 따위를 가꾸어 얻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열매. ¶거기 대니면서. 아주 쇠머리를 사고 되야지 머리를 허고 삼 {실과} 사고. 그래 갖고 차려서 놓고.[조사자: 삼실과는 무엇인가요?], <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인자 울아버니 지양을 모실 판인디 말도 없고, 거 제사 {실과} 사로도 가시얄 판인디 말도 없고 헌게로,<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이걸 채려노코, 삼 {실과} 채려노코.<지역어 자료 총서, 고창>

지역 김제, 완주.

실금주름살 명 [대응어] 눈주름.

눈가에 잡힌 주름. ¶{실금주름살이} 아조 자글자글혀.

지역 무주.

실내끼 명 [대응어] 노끈.

실, 삼, 종이 따위를 가늘게 비비거나 꼬아서 만든 끈.

지역 전북.

실답잖다 형 [대응어] 시답잖다.

볼품이 없어 불만족스럽거나 못 미덥다. ¶{실답잖은} 소리 말고, 우리 동네에도 왜놈덜 앞잽이가 다 백혔을 것잉게 맘놓덜 말드라고.<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실떡벌떡 부 [대응어] 실떡실떡.

실없이 웃으며 쓸데없이 ¶"보아허니 {실떡벌떡} 장난삼어서 사람을 갖고 노는 싱거운 분은 아닌 성불른디, 뭣 땜시 즈이 같은 핫질 인간을 도와줄 맴을 잡숫게 되았다요?"<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해설 표준어 '실떡실떡'에 해당하는 의태어이다. 이 어휘는 동일한 어간이 반복될 때 반복되는 첫음절의 첫소리를 바꾸는 조어방식에 따라 '실떡벌떡'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실랑질 명 [대응어] 실랑이.

서로 자기주장을 고집하여 옥신각신하는 일. ¶물건값을 두고 {실랑질을} 벌이다 쌈 나.

지역 전북.

실래기 명 [대응어] 실랑이.

서로 자기주장을 고집하여 옥신각신하는 일. ¶{실래기} 잘헌 사람이랑은 얘기도 허기 싫어.

지역 전북.

실렁 (←設令) 부

가정해서 말하여. ¶너, 이 석함 속의 든 물건 알 것냐? 알고 말고라오. 실렁 그러거든.

지역 전북.

실리다 동 [대응어] 끼다(기미가).

어떤 대상에 때나 먼지, 기미 따위가 엉겨서 덮다. ¶애를 놓고 나면 {실린} 기미들이 다 없어진다고 하더만 나는 어째 그대로여. 글서 걱정이 쪼께 되네잉.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장수, 정읍, 진안.

실먹다 동 [대응어] 가는귀먹다.

작은 소리를 잘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귀가 잘 안 들리다. ¶귓구녁이 {실먹었냐}? 을매나 크게 말해야 알아듣겄냐?

지역 전북.

실벤 명 [대응어] 실랑이.

서로 자기주장을 고집하여 옥신각신하는 일. ¶{신벤} 벌이다 진짜 쌈 났어.

지역 전북.

실변 명 [대응어] 실랑이.

☞실벤.

지역 전북.

실뿌랭이 명 [대응어] 실뿌리.

뿌리줄기에서 수염처럼 많이 뻗어 나온 뿌리. ¶삼 같은 것은 캘 때 {실뿌랭이를} 살살살 흔들어감서 캐야 안 다친당게. ¶녹차나무는 {실뿌랭이가} 없어서 어릴적으 옮기면 쉬 살덜 못허고 죽드라고. ¶크나큰 파를 보니 {실뿌랭이가} 엄청 많이 나 있구나.

지역 전북.

실실 부 [대응어] 슬슬.

남이 모르게 슬그머니 행동하는 모양. ¶속창아리 읏다가 두엇능가 뺀날, 지 유리헝 것만 추레 갖고 잔머리만 {실실} 굴린당게.

지역 고창.

실쓰다 동 [대응어] 실켜다.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아내다. ¶갸가 뉘에꼬치로 {실써서} 멩지 베를 짰다 안 허요?

지역 전북.

실컨 부 [대응어] 실컷.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그건 놔두었다가 후제 시엄씨 되면 {실컨} 써묵고.<조봉래, 풀벨골> ¶곤충 채집허구, 수영허구, 등산허구 {실컨} 놀다가 도루 오지, 무슨 걱정이우?<채만식, 태평천하> ¶아따 봉우씨나 {실컨} 영순씨한테 그러지 마세요. 그것이 모두 못된 짓이니까.<채만식, 과도기> ¶인자 보름도 메칠 안 남었는디, 그 동안에 {실컨} 날리시오.<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실키다 동 [대응어] 긁히다.

뾰족하거나 거친 것에 긁혀 상처가 나거나 피가 나다. ¶애기 데리꼬 오고 호랭이 잡어 놓고 나중의, 호랭이 잡었다고 허니 얼굴이 걍 전부 바우에 {실켜서} 얼굴이 빡빡 얽어버렸어.

지역 전북.

실태바리 명
말의 허리 양쪽에 달아 물건을 넣어 싣고 다니게 만든 가마니.
지역 전북.

실패 명 [대응어] 자새.
실 따위를 감았다 풀었다 할 수 있도록 만든 작은 얼레. ¶{실패가} 연자새여.
지역 완주.

실푸레기 명 [대응어] 실밥.
실의 부스러기. ¶다 큰 어른이 칠칠맞게 이것이 뭐시여. {실푸레기를} 다 묻히고 댕기고.
지역 전북.

싫다 동 [대응어] 쓿다.
문질러서 닳게 하다. ¶보리를 싫어 가꼬 싫어야 벳겨지제. 도고통으다 {싫어} 가꼬.
지역 전북.

싫다 동 [발음] {실타} [활용형] 싫으니[시르니] [대응어] 싣다.
물체나 사람을 옮기기 위하여 탈것, 수레, 짐승의 등 따위에 올리다. ¶인자 그 사람더리 와서 인자 널 새로 갇꼬 오고, 외올배 떠깐꼬 와서 그 그 송장을 갇꼬 가서 영구차에다 {실코} 태운디로 가얀대요,<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그라믄 내가 싹을 넉넉히 줄터니 날 {실코} 거그다 가겄냐?<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전북.

심구다 동 [대응어] 심다.
☞숨다.
지역 고창, 김제, 무주, 부안, 완주, 익산, 정읍, 진안, 임실.

심껏 부 [대응어] 힘껏.
있는 힘을 다하여. 또는 힘이 닿는 데까지. ¶나가 뒤에서 {심껏} 부조헐 티니깨 두 눈 질끈 깜고 어서 뛰여들어.<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내가 방으서 목을 걸어 준 것이니 배깥에서 {심껏} 잡아 댕기라.<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심끗 부 [대응어] 힘껏.
있는 힘을 다하여. 또는 힘이 닿는 데까지. ¶아이가 나올라고 헌께 어여 {심끗} 힘을 줘봐.
지역 전북.

심들다 형 [대응어] 힘들다.
어렵거나 곤란하다. ¶요새는 찾아보기도 {심들고} 눈깔 찢고 봐도 업당게요 추아징게 군불 지필라고요.
지역 고창.

심메마니 명 [대응어] 심마니.
☞심뫼마니.
지역 전북.

심뫼마니 명 [대응어] 심마니.
산삼을 캐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 ¶삼 캐러 댕기는 사람덜을 {심뫼마니라구} 하는디, 심봤다 하는 사람덜이 그 사람덜이여.
지역 전북.

심무리떡 명 [대응어] 백설기.
불린 멥쌀 가루로 고명 없이 시루에 찐 흰 시루떡.
지역 군산.

심바람 명 [대응어] 심부름.

남이 시키는 일을 하여 주는 일. ¶"우리가 비지나 얻어먹으러 가냐, 임마! 우리덜은 시방 {심바람} 가잖여?"<이병천, 모래내 모래톱> ¶애기를 심바람을} 시킨디, 밤중간대(밤중에) 재너머, 전에는 솔밭에 왜 그 이만한 질(길)이<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그양 뭣이냐 그대로 그양 폿죽장시네 집서 {심바람만} 허고 폿죽 한 그륵썩만 얻어먹고 참 있는다 그말이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해설 표준어 '심부름'이 문헌에서 나타나는 가장 오래된 형태는 '심부림'이다. 다른 사람이 시키는 일을 '심부름'이라 하는데, '부름'은 '부리다(使)'에 기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심'의 기원은 '힘'에서 온 것으로 보고 있다. '힘바람'이 전국적으로 쓰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심방꾼 명 [대응어] 심부름꾼.

심부름하는 사람. ¶나이든 사람 놀러가는디 젊은 사람 가면 {심방꾼배끼} 더 혀?

지역 전북.

심방독 명 [대응어] 댓돌.

☞신방독.

지역 남원.

심버럼꾼 명 [대응어] 심부름꾼.

심부름을 하는 사람. ¶내나 넘의 집 일이나 봐주구, 그거이 딱 {심버럼꾼이지}.

지역 전북.

심빵독 명 [대응어] 댓돌.

☞신방독. ¶그렁깨 그렁 걸 안하고 그냥 {심빵독이라고} 방문 젙이다가 돌 큰 놈얼 갇다놓고, 돌 큰놈얼 그냥, 거그서 올라서먼 방, 고 밑이는 멀로 가나먼, 에 집이로 이케 맨드람허제<지역어 자료 총서, 무주>

지역 무주.

심술곱다 형 [대응어] 심술궂다.

남을 성가시게 하는 것을 좋아하거나 남이 잘못되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매우 많다. ¶팽덕어멈인지 빵덕어멈인지, 고 심봉사네 여편네같언 사람얼 보구 {심술곱다구} 그르지.

지역 전북.

심숭삼숭하다 형 [대응어] 싱숭생숭하다.

마음이 들떠서 갈팡질팡하고 어수선하다. ¶배깥에 나갔다가 도로 들왔다가 아주 편히 안졌지를 못하는 거여. 맴이 {심숭삼숭한게로}.

지역 전북.

심으다 동 [대응어] 심다, 갈다.

초목의 뿌리나 씨앗 따위를 흙 속에 묻다. ¶서울같이 땅이 귀하고 부족한 이 복판에다가 그 승거운 탑을 고적이라고 세워놓고 나무를 {심으고……} 그래서 게으름뱅이들의 소굴을 만들으니 그런 손복할 일이 어대 있겠나?<채만식, 영웅모집> ¶점잖은 사람 그렇다면 주지…… 모 {심으고} 초벌 두벌 세벌 매이고 소매거지 베이기 등짐(運搬)까지 일곱 벌에 일 원 칠십오 전씩. 농군 점심하고 술하고 담배는 댁에서 주시고……<채만식, 조그마한 기업가>저녁에 찬 방에서 자고, 그 이듬해 숭년(흉년) 들어서 모도 못 {심으고}, 뻔한 들판에 피만 있고 근개 밥그릇 갔다가 피를 훌터서 삶아서 그 눔을 찌어서 연명허구 살어.<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부안.

심지다 형 [대응어] 힘차다.

힘이 가득 있다. ¶하여튼지 간에 광조 아부지는 장허고, 죽산댁도 헛고상허는 것이 아닝께 {심지게} 살어야 쓰요.<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심차다 형 [대응어] 힘차다.
힘이 가득 있다. ¶{심차게} 달려 봐.
지역 전북.

싯겜굿 명 [대응어] 씻김굿.
죽은 이의 영혼을 깨끗이 씻어 주어 이승에서 맺힌 원한을 풀고 극락왕생하기를 비는 굿. ¶{싯겜굿을}하려면 먼저 죽은 사람으 신체를 맨들어야 한다더만.
지역 전북.

싯그다 동 [대응어] 쓿다(쌀을).
물이나 휴지 따위로 더러운 것을 없애다. ¶쌀을 {싯거} 먹다
지역 장수.

싯기다 동 [대응어] 씻기다.
물이나 수건 따위로 더러운 것이 없게 만들어 주다. ¶인자 그 더운물을 디여서 다 몸을 {싯기고} 인자 옷도 좋은 놈 한벌을 내서 입히고<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그 방 인자 데리다 인자 목욕물 {싯겨} 목간시켜서<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남원, 부안,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진안.

싯다 동 [대응어] 씻다.
물이나 휴지 따위로 더러운 것을 없애다. 또는 누명이나 원한 따위를 없애다. ¶밖에 나갔다 왔으니 손 좀 {싯고} 오너라. ¶또랑물에 가서 발이나 {싯고} 흘러가는 물에다가 풀어 부러얀다. <최명희, 혼불> ¶{싯지} 못할 원한이 맺혔다.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싯방 (←貰房) 명 [대응어] 셋방.
일정한 세를 내고 남에게 빌려 쓰는 방. ¶아들을 서울로 가서 월급쟁이를 허든게비여. 월급쟁이를 허는디. 즈그 아버지는 시골 살고 즈이 가서 월급쟁이를 헌께, 거그가 저기 {싯방을} 얻어 갖고 사는디. 이 시골 사는 즈그 아버지보다 자꼬 '아버지가 올라 오시오, 올라 오시오' 힜싼게<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이 눈치 저 눈치 {싯방살이} 설움이 못 된 시에미 시집살이보다 더 헌거여.
지역 정읍.

싯채큰아부지 명
☞셋채큰아부지. ¶막둥이 겔혼식에 강원도 {시채큰아부지}도 내려 오신다는디 그 냥반 연세도 솔찬허시지?
지역 전북.

싱간 (←身幹) 명 [대응어] 신간.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서 머리, 팔, 다리, 날개, 꼬리 등 딸린 것들을 제외한 가슴과 배 부분. ¶자석 새깽이덜이 솔찬허다 봉게, {싱간} 편헌 날이 없구만이라우. ¶아따, 묵을 때나 팬히 처묵게나 두씨요 {싱간이나} 팬허게.
지역 고창.

싱강 명 [대응어] 생강.
☞생강.
지역 전북.

싱거다 형 [대응어] 싱겁다.
음식의 간이나 맛이 보통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약하다. 또는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말, 글 따위가 야무지지 못하다. ¶머거보면 쪼끔 {싱거먼}, 간장 쪼금 떨구머는 색까리 조치머.<2011년 중국 무주촌 보고서-최종> ¶짜면 물 타 자시고, {싱거면} 장 타 자시고<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무주.

싱게맹게허다 형
맛이 싱겁고 밍밍하다. ¶국이 {싱게맹게허고만}.
지역 전북.

싱구다 동 [대응어] 심다, 갈다(볍씨).
☞숭구다. ¶노니나 바틀 갈면 싱구로 간따, 모 {싱구자}, 모싱구로 갔씨, 그저 그러지 머.(논이나 밭이나 갈면 모 심으러 갔다, 모 심자, 모 심으러 갔어, 그러 그렇지 뭐.)<지역어 자료 총서, 중국 무주촌>
지역 익산.

싱하다 형 [대응어] 싱싱하다.
시들거나 상하지 아니하고 생기가 있다. ¶우리넌 딱 보면 알지. 배추가 힘아리가 없고 너덜너덜허니 {싱허덜} 않여.
지역 전북.

싳다 동 [대응어] 씻다.
때나 더러운 것, 누명이나 죄, 원한 따위를 없게 하다. ¶깨깟이 {싳응게} 기분도 개안하고 좋고만.
지역 전북.

싳어지다 동 [대응어] 씻기다.
오물 따위가 물 따위에 의하여 씻어지다. ¶그런 건 물을 많이 해야 잘 {싳어져}.
지역 남원, 순창, 군산, 익산.

싶으다 보형 [대응어] 싶다.
((동사 뒤에서 '-고 싶으다'의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욕구를 갖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 ¶갱이 그 옷을 입고 한번 날러보는디 나도 한 번 올라가고 {싶으다고}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근디 저렇게 착헌 것이 저런 짓을 혔으까 {싶으다}.<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어채피 서울로 가는 일은 틀렸응게 여그서라도 공부를 계속혔으면 {싶으다만} 니 생각은 어쩠냐.
지역 고창, 군산, 남원, 정읍.

싸게 부 [대응어] 급(急)히.
매우 서두르거나 빠르게. ¶박문수가 조금 {싸게} 가면 그대로 가지고, 더디 가면 더디간 대로 가지고, 그 재를 넘어가는데 재를 그대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박문수가 물었어요.<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조끔 있응게 기냥 밑이서 즈 큰아버지가 소리를 막 배락같이 질름서, "어서 {싸게} 올라오라고 하관(下棺) 시간 다 간다." 고 본게로 그냥 언덕 찜에 올라오고 역사꾼이 여남 명이 올라와.<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밥을 {싸게} 먹더니 토하고 난리구나. ¶우리 {싸게} 싸게 서둘러서 갑시다.
지역 김제, 남원, 무주, 부안,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싸그싸그 부 [대응어] 빨리빨리.
걸리는 시간이 아주 짧게. ¶글고, 또 맘만 급히 {싸그싸그} 그럼서 앞서는디 으쩌먼 좋다우? ¶{싸그싸그} 후딱 조까 인나야 해가 중천에 떴다이. ¶나, 승질 돋구지 말고 {싸그싸그} 언능, 후딱 인나먼 봐 줄랑게.
지역 고창.

싸남배기 명 [대응어] 싸납쟁이.
☞싸납빼기.
지역 전북.

싸납다 형 [활용형] 싸나워/싸나와/싸나 [대응어] 사납다.
성질이나 행동이 모질고 억세다. ¶에이, 내가 간다고 말이여 내가 간다고. 그까지것 지가 {싸나

우면} 얼마나 싸나우리라고. 내가 간다.<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그러니께 밥먹으면서 그런다고, 즈 외숙모가 {싸나우니께}.<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우리 범준이 성님은 지리산 호랭이맨치로 날래고 {싸나운께} 폴세 지리산 천왕봉 넘고 금강산 지내 백두산꺼정 갔을 것이다.<조정래, 태백산맥> ¶뒷집개는 어찌나 {싸난지} 그집으는 암도 못가. ¶우리 엄마는 이세상에서 가장 {싸나울거야}.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순창, 익산, 임실, 진안, 완주.

싸납빼기 명 [대응어] 싸납쟁이.
성미가 매우 독하고 사나운 사람. ¶넘한테 죽어도 안질려고 코피 질질 흘리면서 달겨드는 {싸납빼기한테} 한 번 걸리면 골치 아파요.<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영남이네 어머니는 {싸납빼기로} 소문이 났다
지역 전북.

싸납쟁이 명 [대응어] 싸납쟁이.
성미가 매우 독하고 사나운 사람. ¶승질 부리는 것이 아주 {싸납쟁이가} 따로 없구먼.
지역 전북.

싸내기 명 [대응어] 노래기.
☞사내기.
지역 전북.

싸눕다 형 [대응어] 사납다.
☞싸납다.
지역 전북.

싸다구 명 [대응어] 빰따귀.
'빰'을 비속하게 이르는 말. ¶{싸다구} 맞은 링컨 타긴 국어쌤을 생각허면서.
지역 고창.

싸대기 명 [대응어] 빰따귀.
'빰'을 비속하게 이르는 말. ¶찌륵찌륵 건들지 마라이~ {싸대기} 확, 볼라버릴랑게 이!
지역 고창.

싸댕기다 동 [대응어] 싸다니다.
여기저기를 채신없이 분주히 돌아다니다. ¶집에 가걸랑 에미보고 씨잘디없이 여그저그 {싸댕길라} 말고 집에 들앉어서 윤봉이 구완이나 잘 허라고 허드라고 단단히 일러라.<윤흥길, 양> ¶발탄 강생이맨치로 이 오밤중에 또 어느 고샅을 짤짤 {싸댕기다가} 도둑놈 뽄새로 실무시 담 넘어 기어드냐?<윤흥길, 소라단 가는 길> ¶지는 참말이지 머리터럭 나질 때까장 발바닥에 물집이 잽히고 허벅지에 가래톳이 솟드락 온 시상을 깔깔 {싸댕겨봤자} 손에 쥐는 것이라곤 잔전 몇 푼이 전부였어라우.<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아, 그년은 글씨 무엇 하러 밤낮 그렇기 {싸댕긴다냐}?<채만식, 태평천하> ¶보름이는 시간나면 무조건 {싸댕긴다=} &
지역 전북.

싸드락싸드락 부 [대응어] 시위적시위적.
일을 힘들여 하지 아니하고 되는대로 천천히 하는 모양. ¶급한 걸음 허다가 무단히 개골창이나 논바닥에 거꾸로 백히지 말고, {싸드락싸드락} 이얘기도 해 감서 갑시다아.<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싸득싸득 부 [대응어] 찬찬히.
동작이나 태도가 급하지 않고 느릿하게. ¶일은 급허게 허지 말고 {싸득싸득} 혀.<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전북.

싸랑부리 명 [대응어] 고들빼기. ¶나싱개는 뿌리채

뽑고 {싸랑부리} 씸배나물 씀바귀는 잘 뜯어다 아빠 밥상에 올려주자<이상권, 꽃지고새울면>
지역 고창, 부안, 완주, 임실, 정읍, 진안.

싸래기 명 [대응어] 싸라기.
부스러진 쌀알. ¶쌀을 줄 참인디 안 줘. 미워서 또 {싸래기를} 줘. 그 중이 와서 기달리구 서 있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저 놈은 {싸래기} 밥만 먹었나, 주둥이로 반말만 하는 것 좀 봐라. ¶소반이다 놓고 개려(가려). 큰 쌀은 쌀 대로 개려놓고, 그 중 {싸래기는} 중쌀대로 개려놓고, 소싸래기는 개려서 내가 먹고, <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하앙. 피넌 나랑 모가지 앙가트고 그게 키도 클뿐 아니라, {싸래기맹이여}. 피 모가지가.(하앙. 피는 나락 모가지 안 같고 그게 키도 클 뿐 아니라 싸라기만해.)<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옛날으는 싸래기죽도 못 먹었는디 요짐은 {싸래기를} 닭모시로 쓰는 세월이 되얐어. ¶나락을 방앗간에 가서 찧었는데 잘 여물지 않아서 {싸래기가} 너무 많이 나왔구나.
지역 군산, 부안, 완주, 정읍, 고창, 임실.

싸래기눈 명 [대응어] 싸라기눈.
빗방울이 갑자기 찬 바람을 만나 얼어 떨어지는 쌀알 같은 눈. ¶아따, 인자는 지영 때만 되믄 쎄코롬헝 거시 으실으실 추아지네 이~ {싸래기눈이라도} 올랑가?
지역 고창.

싸레기 명 [대응어] 쓰레기.
못 쓰게 되어 내다 버리는 물건. 또는 그러한 값어치를 가지는 사람이나 물건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지역 전북.

싸름문 (싸름門) 명 [대응어] 사립문.
사립짝을 달아서 만든 문.
지역 완주.

싸리막 명 [대응어] 골목.
집 앞 골목. ¶우체국 절에 {싸리막으} 있어. 바로 그 집여.
지역 전북.

싸리문 명 [대응어] 사립문.
☞싸립문. ¶삽짝기라고도 하고 {싸리무니라고도} 하구 여그 그래요.<지역어 자료 총서, 무주>
지역 남원, 임실, 무주.

싸림문 명 [대응어] 사립문.
☞싸립문. ¶이제 양쪼게다 나무를 세워야 되자나요, {싸림문} 무늘 만들라먼.<지역어 자료 총서, 무주>
지역 군산, 완주, 임실, 무주.

싸립문 (싸립門) 명 [대응어] 사립문.
나뭇가지를 엮어서 만든 문. ¶자박자박 걸어 {싸립문} 나섰네 세상 환히 열렸네.<김용택, 꽃산 가는 길> ¶어 아 거기를 와서 안들어 갈라고 혔더니, 여자가 문앞으가 요러고 허서 {싸립문} 솔채를 잡고 섰으니, "그양 갈라오?"<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저녁을 먹구 밤중이나 되넌개 새 {싸립문을} 열구 나온개 종년이 귀는 밝던가.<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옆집 할머니가 {싸립문} 밖에 서서 손자를 기다리신다.
지역 군산, 완주, 임실, 남원, 정읍.

싸립짝 명 [대응어] 사립짝.
나뭇가지를 엮어서 만든 문짝. ¶{싸립짝} 달아서 문 맹글었어.
지역 전북.

싸릿문 명 [대응어] 싸리문.

싸리 따위의 나뭇가지를 엮어서 만든 문. ¶들오는디 친구가 어디가 있어. 근게 돌아서서 {싸릿문} 배깥이 나가서 가만히 생각해 본게 친구가 있으면<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군산.

싸목싸목 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어야, 거시기는 구신도 모릉게, {싸목싸목} 차근차근이 조까 알켜 주랑게, 지발 서대지 말고 이~. ¶서대지 말고 찬찬히 {싸목싸목} 좀 허랑게. ¶아따 - 으그댐서 찬찬이 {싸목싸목} 처묵으랑게 선전포고까장 험서 지랄허고 있네이.

지역 고창.

싸묵싸묵 부 [대응어] 천천히.

☞싸목싸목 ¶나야 {싸묵싸묵} 따러간게 머 힘들가니?

지역 전북.

싸문 (싸門) 명 [대응어] 사립문.

나뭇가지를 엮어서 만든 문.

지역 전북.

싸박허다 형 [발음] [싸바거다/싸바커다] [대응어] 수북하다.

수북하다. ¶쑥이 {싸박허니} 났어.

지역 전북.

싸불르다 동 [대응어] 싸지르다.

함부로 불을 지르다. ¶성냥을 갖고 이놈 집구석으다 불을 {싸불른다고} 험서 막 짚이다 불을 붙인게

지역 전북.

싸아하다 형 [대응어] 싸하다.

입 안, 목구멍, 코, 눈 안 등이 자극을 받아 아린 듯한 느낌이 있다. ¶"장한 노릇이루군!……" 더욱 감격하다 못해 필경 눈이 {싸아하고} 눈물이 배는 것을, 그러거나 말거나 앉아서 중얼거리듯 탄식을 하던 것이다.<채만식, 탁류> ¶손을 담그자마자 차게 느껴지던 그 물이 상엽의 입 안을 따라 내려가면서 뱃속까지 {싸아하게} 적셨다.<이병천, 모래내 모래톱>

지역 전북.

싸오다 동 [대응어] 싸우다.

말, 힘, 무기 따위를 가지고 서로 이기려고 다투다. ¶어떤 여자하고 남자하고 둘이 서로 밀치락달치락해서 어째서 저 여자가 남자하고 저렇게 {싸오는가}, 아 그러고 난 인자, 바쁘닝깨 어서 장안으로 들어갔는디, 아 그 돌멩이를 팔아 갖고 돈을 지니고 온깨 그때까지 싸우드라 그거여.

지역 고창, 남원, 순창, 임실, 장수, 김제, 무주, 부안, 군산, 완주, 익산, 정읍, 진안.

싸지르다 동 [대응어] 싸지르다.

함부로 행동을 하다. ¶씨잘데없는 새살일랑 인자 고만 {싸지르고}…<조봉래, 풀벨골> ¶방구쟁이너, 뒷간 닮은 그 주둥아리로 구린 소리만 골라서 {싸지르던} 못된 버르장머리는 옛날이나 오날날이나 여전허구나?<윤흥길, 소라단 가는 길> ¶인민군이 버리고 떠난 창고에다 미군이 불을 {싸지른다}.<윤흥길, 소라단 가는 길> ¶마구간 앞에 다시 서보니 좀전과는 달리 이상한 냄새가 풍긴다. 녀석이 아무렇게나 {싸지른} 말똥 냄새는 아니다.<이병천, 모래내 모래톱>

지역 전북.

싹 명 [대응어] 삯.

일한 데 대한 품값으로 주는 돈이나 물건. 또는 어떤 물건이나 시설을 이용하고 주는 돈. ¶그날그날 {싹} 더 쳐주는 디 있으믄 거기 가서 일허

지. ¶비행기 혼자 탈 {싹이믄} 배로 몇 멩이 갈 수 있는지 아나?
지역 전북.

싹꾼 명 [대응어] 놉.
하루하루 품삯과 음식을 받고 일을 하는 품팔이 일꾼. ¶인자 임부 사서, 품팔이헌 사람한테 임부 사서 갇따가 개이니 {싹꾼} 사서 허는, 그런거시 읍썼써, 게랑거슨 읍썼써. 푸마시도 안허셌써요?<지역어 자료 총서, 고창>
지역 남원, 임실.

싹동머리 명 [대응어] 싹수.
어떤 일이나 사람이 앞으로 잘될 것 같은 낌새나 징조. ¶지가 말을 {싹동머리} 없이 찌클어 버링게 그러지라우.
지역 고창.

싹품 명 [대응어] 품삯.
품을 판 대가로 받거나, 품을 산 대가로 주는 돈이나 물건. ¶아니, 일을 힜으면 당연히 {싹품을} 받아 갖고 와야지, 왜 빈손이여? ¶요즈음 농촌 하루 {싹품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역 무주, 완주.

쌀가지 명 [대응어] 살쾡이.
지역 고창, 남원, 순창, 장수.

쌀고라지 명 [대응어] 쌀벌레.
쌀을 갉아 먹는 벌레. ¶{쌀고라지}가 시커멓게 꼬였드라고.
지역 김제.

쌀궤짝 명 [대응어] 쌀뒤주.
쌀 따위의 곡식을 담아 두기 위해서 나무로 만든 궤. ¶[쌀궤짝이]], 어찌나 큰지 쌀 두 가매도 더 들어가겄네.
지역 무주.

쌀귀짝 명 [대응어] 쌀뒤주.
☞쌀궤짝.
지역 무주.

쌀도가지 명 [대응어] 쌀독.
쌀을 담아 두는 오지그릇이나 질그릇. 아래위가 좁고 배가 불룩하게 나왔다. ¶{쌀도가지에} 쌀이 그득그득 들어 맘이 편해. ¶{쌀도가지에는} 쌀이 꽉 차 있어야 마음이 부자인거야.
지역 완주.

쌀두지 명 [대응어] 쌀뒤주.
쌀 따위의 곡식을 담아 두기 위해서 나무로 만든 궤. ¶그래 인자. 정지(부엌)에 와서 바가치를 가지고 쌀을 내려가서, 인제 {쌀두지에} 쌀을 내려가서 보니 영산주(산가지, 옛날에 수효를 셈치는데 쓰는 물건)를 놓고 앉았단 말이여.<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무주.

쌀뒤지 명 [대응어] 쌀뒤주.
☞쌀두지
지역 남원.

쌀바게미 명 [대응어] 쌀벌레.
쌀을 갉아 먹는 벌레. ¶부엌에서 {쌀바게미}가 자꼬 나오드라구요. ¶여름에 쌀독에 {쌀바게미가} 생겨 체를 쳐서 날려 버렸다. ¶여름철에 쌀을 오래 보관하면 {쌀바게미}가 생기기 마련인데 우선 습기가 제일 큰 원인이다. ¶쌀을 팔아온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 {쌀바게미가} 생겼네.
지역 진안.

쌀밥나무 명 [대응어] 오랑캐꽃.

'제비꽃'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보라색 {쌀밥 나무가} 피었다.

지역 전북.

쌀뱁 명 [대응어] 쌀밥.

잡곡을 섞지 않고 쌀로 지은 하얀 밥. ¶두 끄니 대접 헐 예산을 허고 노놔서(나누어서) 밥을 히 갖고 온게로 자기 남편허고 점상(겸상)을 히서 갖다 주니까 집이서 {쌀뱁도} 왔다 그것여. 그러니까 손님 자시라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김제, 남원, 무주, 순창, 완주, 임실, 장수, 정읍, 진안, 고창, 군산, 부안, 익산.

쌀버러지 명 [대응어] 쌀벌레.

쌀을 갉아 먹는 벌레. ¶쌀을 오래 묵혔더니 {쌀버러지}가 생겼다.

지역 남원, 순창, 군산, 임실, 정읍.

쌀버럭지 명 [대응어] 쌀벌레.

☞쌀버러지. ¶{쌀버럭지}가 많어서 밥을 못 먹겄어.

지역 김제, 부안, 완주, 익산.

쌀버레기 명 [대응어] 쌀벌레.

☞쌀버러지. ¶{쌀버레기}가 시커멓게 꼬였드라고.

지역 정읍.

쌀버리 명 [대응어] 쌀보리. ¶저짝으다가 {쌀버리를} 심어 놨응게 한 번 가 보든가.

지역 무주.

쌀벌가지 명 [대응어] 쌀벌레.

☞쌀버러지.

지역 전북.

쌀벌거지 명 [대응어] 쌀벌레.

☞쌀버러지. ¶부엌에서 {쌀벌거지}가 자꼬 나오드라구요.

지역 무주, 정읍.

쌀쌀 부 [대응어] 살살.

배가 조금씩 쓰리며 아픈 모양. 또는 머리를 천천히 살래살래 흔드는 모양. 또는 작은 벌레 따위가 가볍게 기어가는 모양. ¶으레 아랫배가 {쌀쌀} 뒤틀리는 통증 때문에 한밤중에 잠에서 깨곤 하는 것이었다.<윤흥길,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 ¶소리를 지르며 와락 방으로 뛰어들어 옥순이의 바른편 팔을 물고 {쌀쌀} 흔들었다.<채만식, 인형의 집> ¶이불 속으서 벌떡 인나믄 쪽지비가 돼서 방으 {쌀쌀} 기어댕기는 것여,<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전북.

쌀제 명 [대응어] 쌀겨.

☞쌀겨. ¶{쌀제를} 무레다 푸러가꼬 거그다 당구머는 새기 나.(색 나라고. 쌀겨를 물에다 풀어갖고 거기다 담그면은 색이 나.)<2005 전북 남원>

지역 남원.

쌀져 명 [대응어] 쌀겨.

☞쌀겨. ¶평쇠에 {쌀져랑} 마찬가지제. 짐승 메기져 뭐. 어따 쓸떼가 업쩨.(평소에 쌀겨랑 마찬가지지. 짐승 먹이지 뭐. 어디에 쓸 데가 없지.)<2008 전북 고창>

지역 고창.

쌀쩨 명 [대응어] 쌀겨.

☞쌀겨. ¶아니 이, {쌀쩨}, {쌀쩨}. 방애 찐 {쌀쩨}. 고노믈 고로케 허먼 놀짝찌근.(아니 이, 쌀겨, 쌀겨, 방아 찐 쌀겨. 고놈을 고렇게 하면 놀작지근.)<2005 전북 남원>

지역 남원.

쌀통 명 [대응어] 쌀뒤주.
쌀 따위의 곡식을 담아 두기 위해서 나무로 만든 궤. ¶그라이 받더마는, 고걸 가주고 {쌀통을} 샀어.<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6> ¶방한화를 신은 채 저벅저벅 집 안팎을 드나들던 인부가 부엌 앞에 내놓은 {쌀통을} 들고 갔다.<양귀자, 멀고 아름다운 동네>
지역 완주.

쌈박쌈박 부
동작이나 태도가 급하지 않고 여유있고 지속적인 모양을 흉내내는 말. ¶{쌈박쌈박} 걸어가면 나올 티제.
지역 전북.

쌈박질 명 [대응어] 싸움박질.
싸우는 짓. ¶저참엔 이사람, 이참엔 저 사람이 허는 식으로다 항시 {쌈박질} 투성이니 으떤 쓸개빠진 놈이 무신 재미로 요기조기 쥐뿔나게 찾어대님서 함께 새살허겄능가 말이시.<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쌈빡하다 형 [발음] [쌈빠가다/쌈빠카다] [대응어] 산뜻하다.
기분이나 느낌이 깨끗하고 시원하다. ¶공동묘지에다 저승사자니 깜둥이 애기 시체니, 허는 고따우 먹장구름 같은 소렬랑은 인제 고만 집어치고, 뭔가 {쌈빡헌} 애기 쪼깨 없으까?<윤흥길, 소라단 가는 길>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의 형용사 '쌈빡하다'는 표준어 '산뜻하다, 시원하다'에 대응하는 어휘이다. 사람이 하는 말이 시원한 느낌을 줄 때, 인물이나 모습이 깨끗하고 단정할 때, 일이 시원하게 매듭지어질 때, 음식의 맛이 깔끔할 때 주로 쓴다.

쌈지 명 [대응어] 담배쌈지.
잎사귀째의 담배를 넣고 다니는 주머니. ¶쌈지 안에서 궐련을 꺼낸다.
지역 군산, 무주, 임실, 진안.

쌉가래 명 [대응어] 삽가래.
삽자루 목의 양쪽에 두 개의 줄을 맨 삽. 한 사람은 자루를 쥐고 두 사람은 줄을 당겨서 힘을 합친다. ¶시방은 가래가 {쌉가래지만은}, 이전에 우리 조선법으로는 가래거든<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전북.

쌉쌉하다 형 [발음] [쌉싸바다/쌉싸파다] [대응어] 삽삽하다, 싹싹하다, 상냥하다.
태도나 마음 씀씀이가 마음에 들게 부드럽고 사근사근하다. 또는 눈치가 빠르고 사근사근하다. ¶외팔이는 마치 오래 기다리던 친척이라도 맞이한 듯 {쌉쌉하게} 굴며 문길이 차표까지 끊어 차에 올랐다.<송기숙, 자랏골의 비가>
지역 전북.
해설 표준어 '삽삽하다, 싹싹하다'와 대응하는 어휘이다. '삽삽하다'를 된소리로 발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삽삽하다'와 '싹싹하다'가 혼태된 어휘로 볼 수도 있다.

쌉쏘롬하다 형 [대응어] 쌉싸름하다.
조금 쓴 맛이 있는 듯하다. ¶종지를 덮은 상추잎을 걷어내며 말했다. "항, 깻잎쌈도 {쌉쏘롬하고} 고소롬허니 맛나제. 근디, 고것은 머시여?"<조정래, 태백산맥> ¶고들배기로 김치를 담가 먹으니 좀 {쌉쏘롬하구나}.
지역 전북.

쌉작 명 [대응어] 사립짝.

나뭇가지를 엮어서 만든 문짝.
지역 무주.

쌍그라다 형 [대응어] 사납다.
☞쌍그랍다.
지역 무주.

쌍그랍다 형 [대응어] 사납다.
성질이나 행동이 모질고 억세다. ¶낼 집에 손님 오는디 바둑이가 하도 {쌍그라워서} 걱정시러.
지역 무주.

쌍그럽다 형 [대응어] 사납다.
☞쌍그랍다. ¶콩나물국밥은 특히 눈 오는 겨울철이나 {쌍그러운} 날씨의 늦가을과 초봄철엔 더욱 맛이 돋아요.
지역 무주.

쌍닫이문 (雙닫이문) 명 [대응어] 여닫이문.
밀거나 당겨서 열고 닫는 문. ¶고것이 어디다 놓았냐믄 대청마루으서 안방에 들가는 {쌍닫이문} 앞으다가 놓았응게 대문 열면 바로 보일 것이네. ¶할아버지는 방안에서 연신 헛기침만 허시다가 드디어 {쌍닫이문을} 밀어 재끼더니 나오셨다. ¶바람이 세게 들어오니 {쌍닫이문을} 닫고 오너라.
지역 남원, 고창, 정읍.

쌍대이 (雙대이) 명 [대응어] 쌍둥이.
한 어머니에게 한꺼번에 태어난 두 아이. 또는 똑같이 생겨 짝을 이루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저그 보이는 저짝 집이 {쌍대이} 남매 집이여. 남자, 여자가 {쌍대이라니께}.
지역 전북.

쌍댕이 (雙댕이) 명 [대응어] 쌍둥이.
☞쌍대이.
지역 전북.

쌍도이 (雙도이) 명 [대응어] 쌍둥이.
한 어머니에게 한꺼번에 태어난 두 아이. 또는 똑같이 생겨 짝을 이루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짜란히(나란히) 둘이 {쌍도이} 같이 그르고 댕긴단 말여.
지역 전북.

쌍두이 (雙두이) 명 [대응어] 쌍둥이.
☞쌍도이.
지역 전북.

쌍바라지문 (雙바라지門) 명 [대응어] 여닫이문.
☞쌍닫이문. ¶이재, 여기는 보편쩌그로 첨:부 그러캐 나무로 그러캐 {쌍바라지문} 송문 던문 그라고. {이제, 여기는 보편적으로 전부 그렇게 나무로 그렇게 쌍닫이문 속문 덧문 그리고}.<지역어 자료 총서, 무주>
지역 김제.

쌍창문 (雙窓門) 명 [대응어] 여닫이창.
밀거나 당겨서 열고 닫는 창. ¶"콩심아." 효원은 강실이를 부르는 대신 {쌍창문을} 열고 마당을 내다본다.<최명희, 혼불>
지역 고창, 정읍.

쌍탱이 (←相탱이) 명 [대응어] 상판대기.
'얼굴'을 속되게 이르는 말.
지역 전북.

쌍통 (←相통) 명 [대응어] 얼굴.
눈, 코, 입이 있는 머리의 앞면. 또는 어떤 집단이나 사물 따위를 대표하는 표상. ¶조 {쌍통에} 조 우거지 인상으론 으림도 없제.<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쌍판때기 (←相판때기) 명 [대응어] 상판대기.
'얼굴'을 속되게 이르는 말. ¶누가 낯반대기 {쌍판때기} 하나 비출 줄 아씨요. ¶아따, {쌍판때기는} 반반허고 수척, 으멍시럽게 안 생겼는디 속은 구랭이가 솔찬히 들어 있는개비요. ¶나무 양판이 쇠양판 안 됭게 그 {쌍판때기에} 화장품을 도배허고 자빠졌네이. ¶그놈 낯바닥 {쌍판때기조차} 비기 싫은 상열의 새깽이헌터 그나지나 그 날 그토록 용케도 욕 봐겠소. ¶취한 잠 때리고 차먼서 주름 접처진 {쌍판때기에} 식습관처럼 민경을 대 본다.
지역 고창.

쌔기다 동 [대응어] 버티다.
어떤 외부의 힘에 대항하여 견디다. ¶장개가먼 처가집 가먼 인자 그 친구들이 집안들이 술 뺏어 먹는다고 술 내라고 뚜드러. 얼매치 낼라냐고 후딱 낸다고, 만원에치 낼라믄 얼른 내얀디 {쌔기고} 안 내.
지역 전북.

쌔까만히 형
매우 까맣게. ¶아이, 육절포를 맨들어 갖고는 나무때기 깎아서 이케 맨드라갖고는 인자 솥 껌정 밑에서 껌정을 긁어갖고는 물을 {쌔까만히} 인제 덜있단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정읍.

쌔깨미 명 [대응어] 고양이.
☞새깨미.
지역 전북.

쌔깨이 명 [대응어] 새끼(繩).
☞새깨이.
지역 전북.

쌔끼미 명 [대응어] 고양이.
☞새깨미.
지역 전북.

쌔다 형
쌓일 만큼 퍽 흔하고 많이 있다. ¶오늘 지사에도 구신 다녀간 자최가 남었다고 허등만… 참 벨일도 {쌨지이}!<이병천, 모래내 모래톱> ¶"이, 나가 입산혀서 달라진 것이 먼지 아요? 달라진 것이야 {쌔고} 쌨제만, 나가 알게 딱 표나게 달라진 것이 세 가지가 있소. <조정래, 태백산맥> ¶소작 얻을라고 허는 사람이 {쌔고} 쌘 판에 동척에서넌 우리럴 소작에서도 떠내불란지도 모를 일이오.<조정래, 아리랑> ¶아무놈이나 갖고 와야 헛거요. 좋은 놈 {쌨으닝게} 아무놈이나 갖고 와야 헛것인게.<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가만히 본게 아 그냥 눈이 혼동허고 죽을 지경여. 돈이 {쌨어}.<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우리 뒷동산이 갖은 화초가 존 것이 {쌨다}.<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쌨다'는 '쌓다'와 관련이 있다. '쌓이어 있다.'가 줄어서 '쌨다'가 된 것이다. '쌓이고 쌓이어 있다.'가 줄면 '쌔고 쌨다.'가 된다.

쌔뜩허다 형 [발음] [쌔뜨거다/새뜨커다] [대응어] 새뜻하다.
☞쌔뜻허다. ¶아 밤이먼은 어서(어디서) 날러 들오는가 남진일색이 그옷 우아래 {쌔뜩허게} 입고, 그런 선비가 밤 이식허먼(이슥하면) 찾어 들어와.<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군산.

쌔뜻허다 형 [발음] [쌔뜨더다/쌔뜨터다] [대응어] 새뜻하다.
새롭고 산뜻하다. ¶요번 기회에 {쌔뜻헌} 옷 한

벌 장만혔어.

지역 전북.

쌔레죽이다 동 [대응어] 때려죽이다.

인정사정없이 무자비하게 죽이다. ¶얼마나 팼든가 아조 사람을 {쌔레죽여} 부렀구만.

지역 전북.

쌔리다 동 [대응어] 때리다.

손이나 손에 든 물건 따위로 아프게 치다. ¶아 열락헌 이리 읍따고 마리여 헝개, 귀퉁머리 한번 {쌔리드만} 그짐말헌다고 마리여.<2008 전북 고창> ¶뺌을 그냥 {쌔리네}.<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도리깨 가지고 내리 후리 {쌔리니께} 잔득 맞고는 도망함서.<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그냥 아 하인 부르드만, "저놈 내 {쌔리라고}. 엎어놓고 내 {쌔리라}." 고. 아 뚜들어 팬단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아 이놈이 가서 즈 아버지 뺨을 탁 {쌔려}.<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회차리로 종아리를 사정없이 {쌔리는디} 그리도 분이 안 풀리는게벼.

지역 고창, 군산, 부안, 완주, 정읍.

쌔비다 동 [대응어] 훔치다.

남의 물건을 남몰래 슬쩍 가져다가 자기 것으로 하다. ¶멀 {쌔비} 가는 놈이 있드랑게.

지역 전북.

쌔빠이쁘 (←새pipe) 명 [대응어] 쇠 파이프.

쇠로 된 파이프. ¶고로 요샌 {쌔빠이쁘로} 수도관을 히얀디 나이롱 빠이쁘로 흐다 봉게 해빙길 못 씀.

지역 고창.

쌔와리다 동 [대응어] 씨부리다.

주책없이 함부로 실없는 말을 하다. ¶춘심이가 단숨에 {쌔와리면서} 얼굴 앞에 바루 주저 앉는 것을 윤장의영감은 멀거니 바라다봅니다.<채만식, 천하태평춘>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쌔와리다'는 표준어 '씨부리다'와 의미가 매우 유사하다. 표준어 '씨부리다'는 '씨불씨불'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어원을 '씨불+-이-+-다'로 볼 수 있으나, 전북 방언 '쌔와리다'는 '쌔왈대왈'이 있는 것으로 보아 '쌔왈+-이-+-다'로 보아야 할 것이다.

쌔왈거리다 동 [대응어] 씨불거리다.

실없는 말을 주책없이 함부로 자꾸 하다. ¶어디다가 고개를 치키들고 되빤댁임서 되잖은 소리 {쌔왈대능} 거여 시방?<최명희, 혼불> ¶가서 또 {쌔왈거리구} 까부느라구 그러지, 그년이……<채만식, 탁류>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쌔왈거리다'는 표준어 '씨불거리다'와 의미가 매우 유사하다. 표준어 '씨불거리다'는 '씨불씨불'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어원을 '씨불+-거리-+-다'로 볼 수 있으나, 전북 방언 '쌔와거리다'는 '쌔왈대왈'이 있는 것으로 보아 '쌔왈+-거리-+-다'로 보아야 할 것이다.

쌔왈대왈 부 [대응어] 씨부렁씨부렁.

주책없이 쓸데없는 말을 자꾸 지껄이는 모양. ¶춘심이는 또 춘심이대로 반지를 끼고 권번이며 제 동무들한테며 자랑을 할 일이 좋아서, 연신 {쌔왈대왈}, 우동이야 탕수육이야 볼이 미어지게 쓸어넣었습니다.<채만식, 태평천하>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쌔왈대왈'은 반복 합성어 '쌔왈쌔왈'에서 두 번째 '쌔왈'의 첫음절 자음을 바꾼 말이다.

쌔왈이다 동 [대응어] 씨불이다.

실없는 말을 주책없이 함부로 하다. ¶듣는 사람도 없는데 혼자서 {쎄왈인다}.
지역 전북.

쌔집 명
억새로 지붕을 이은 집. ¶{쌔집은} 십 년 동안 멀쩡혀. 초가집은 금방 허는디.
지역 전북.

쌔코롬하다 형 [대응어] 새무룩하다, 시무룩하다.
날이 흐려서 그늘지거나 어둡고 쌀쌀하다. 또는 마음에 못마땅하여 별로 말이 없고 얼굴에 언짢은 기색이 있다. ¶"야아, 날이 {쌔코롬하니} 추운디 어르신네가 또 손수 걸음을 허셨드만요." 김범우는 미적미적 일어섰다.<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해설 '새코롬하다'를 강조하는 뜻을 나타낸다. 표준어 '새콤하다'는 '조금 신 맛이 있다.'라는 뜻인데 이 말이 의미 변화를 일으켜 심리적, 환경적 분위기를 표현하는 말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쌔코롬허다 형 [대응어] 새무룩하다.
날이 흐려서 그늘지거나 어둡고 쌀쌀하다. 또는 마음에 못마땅하여 별로 말이 없고 얼굴에 언짢은 기색이 있다. ¶먼일이 있었는가 얼골이 아조 {쎄코롬허니} 안 좋더라고. ¶뭇 조까 올랑가 {쌔코롬험서} 으실으실 추아징게 생각이나요. ¶글고, 아적부텀 날씨도 {쌔코롬험서} 썬득썬득헝게 감기도 조심허겨 이~. ¶비가 내리려는지 날씨가 {쌔코롬허구나}.
지역 전북.

쌔허다 형 [대응어] 싸하다.
마음이나 코에 자극을 받아 아린 듯한 느낌이 있다. ¶존일 헐라다가 뻼싸다구 맞은게 어찌 기분이 {쎄허요} 이~.
지역 고창.

쌧가리 명 [대응어] 쇳가루.
돈을 속되게 이르는 말. ¶어쨌든 {쌧가리가} 좋긴 존가 봅디다~ 구신도 돈이먼 환장 헐팅게로.
지역 고창.

쌩깔 (←性깔) 명 [대응어] 사양.
겸손하여 받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함. 또는 남에게 양보함. ¶{쌩깔을} 하다
지역 전북.

쌩내기 (←生내기) 명 [대응어] 생무지.
어떤 일에 익숙하지 못하고 서투른 사람. ¶암것도 몰르는 {쌩내기구만요}.
지역 전북.

쌩담배 (←生담배) 명 [대응어] 생담배.
빨지 아니하고 공연히 태우거나 저절로 타는 담배. ¶주인 없는 {쌩담배만} 타 들어가고 있다 ¶"담배를 피우던가 말던가 히야지 그렇게 {쌩담배}를 태우면 옆 사람이 더매운거여.".
지역 전북.

쌩뎅이 (←生뎅이) 명 [대응어] 생무지.
어떤 일에 익숙하지 못하고 서투른 사람. ¶이 일을 {쌩뎅이} 한 명이서는 할 수 없다. ¶" 입사헌지 메칠 안된 {쌩뎅이}인디 일을 열심히 참 잘허네 ".
지역 전북.

쌩뚱허다 형 [대응어] 생뚱하다.
하는 행동이나 말이 상황에 맞지 아니하고 엉뚱하다. ¶어떤 때는 건망증까지 곁들여서 누군가가 그의 지난번 이야기를 거론하며 이의를 내세우거나 바로잡으려 들면 이미 지난 일은 기억도 하

지 못해 열을 올리며 떠들던 때와는 달리 {쌩뚱한} 눈으로 어리어리하는 것도 우습지 뭐.<이영치, 흐린 날 황야에서>
지역 전북.

쌩머리 (←生머리) 명 [대응어] 생머리.
자연 그대로의 머리. ¶{쌩머리를} 질끈 묶다 ¶애기씨는 {쌩머리}가 더 훨씬 더 이뻐요. ¶70년대엔 어린아이들이 {쌩머리를} 길게 길르고 다니면 넝마주이들이 잡아다 {쌩머리를} 잘라다가 돈벌이를 했다. ¶나는 파마머리보다는 {쌩머리가} 더 예쁜데?
지역 전북.

쌩솔깽이 (生솔깽이) 명 [대응어] 생소나무.
벤 지 별로 안 되어 마르지 않은 소나무 가지. ¶{쌩솔깽이를} 바짝 말려야 잘 탄다 ¶{쌩솔깽이}를 태우먼 연기만 나지 불담(화력)은 별로없어.
지역 전북.

쌩짜로 (←生짜로) 부
지금까지 갖추어지거나 이루어진 것이 없이 새로. ¶{쌩짜로} 넹택없이 헐라고 헝게 겁나게도 욕보요 이~.
지역 고창.

쌩칼 명 [대응어] 사양.
☞쌩깔.
지역 전북.

쌩코롬하다 형 [대응어] 쌀쌀하다.
사람의 성질이나 태도가 정다운 맛이 없고 차갑다. ¶저녀러 가스나가 오래비를 몇 달만에 보면서두 아주 {쌩코롬허게} 대허는 거여.
지역 전북.

쌯이다 동 [대응어] 쌓이다.
어떤 물건 따위가 쌓아지다. 또는 어떤 감정이 많아지다. ¶무시 맛은 그저 동지 섣달 엄동 설한에 눈은 {쌯이는디} 밤은 짚우고, 모다 둘러앉어서 이애기허고 놀다가잉, 얼음뎅이맹이로 찬 요런 놈을 속 덜덜 떨어감서 먹어야 지 맛이여.<최명희, 혼불> ¶농사 다 지었는디, 내 앞에는 쭉쟁이만 노적가리맹이로 {쌯이고}, 손발 개고 앉었는 양반은 앉은 자리서 나락 섬을 주체 못허는디, 왜 입 두었다 말도 못헌다능 거이요?"<최명희, 혼불> ¶설움이 쌯이고 {쌯이다}가 드디어 터져 나온 거여. 근디 그 사람을 누가 탓허겄어.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임실, 장수, 정읍, 진안, 군산, 익산.

써걸 명 [대응어] 서까래.
☞서깔.
지역 전북.

써그럭써그럭 부 [대응어] 써걱써걱.
눈이 내리거나 눈 따위를 밟을 때 잇따라 나는 소리. '서걱서걱'보다 센 느낌을 준다. ¶왜 그러시느냐고 물을 수도 없는 아랫것 공배네는 저가는 걸음 놓는 곳이 밭둑인지 구덩인지를 모르고 허둥거리는데, 어둠을 밟는 발아래 {써그럭써그럭} 언 흙이 부스러진다.<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써그럭써그럭하다 형 [발음] [써그럭써그러가다/써그럭써그러카다] [대응어] 써걱써걱하다.
무언가를 베거나 과육을 씹는 소리, 혹은 눈을 밟는 소리가 나다. ¶저을철에 인제 마당으가 흙이 다 얼어가지구, 누가 올 때마담 {써그럭써그럭허는} 소리가 들리는 거여. ¶얼음이 뜬 동치미 말국을 한 입 먹는디 {써그럭써그럭허는} 소리가 곁이 있는 나도 먹고 싶게 허드랑게.

지역 전북.

써금발이 명 [대응어] 얼간이.
됨됨이가 변변치 못하고 좀 모자라는 사람. ¶제대로 헐 줄 아는 것이 없는 {써금발이헌티} 일을 시켜서 뭐덜라고.
지역 전북.

써까래 명 [대응어] 서까래.
마룻대에서 도리 또는 보에 걸쳐 지른 나무. ¶{써까래란} 마리 연자 보고 서까래라고지<완주_지역어_텍스트> ¶대갓집 {써까래가} 쓰러지면 그 집은 망한 집이여.
지역 전북.

써끌 명 [대응어] 서까래.
☞서깔.
지역 전북.

써다 동 [대응어] 켜다(기지개를).
(('기지개'와 함께 쓰여)) 팔다리를 쭉 뻗으며 몸을 펴다. ¶지지개를 늘어지게 {썼더니} 눈물이 그렁그렁허네.
지역 순창, 완주.

써대다 동 [대응어] 쏘대다, 쏘다니다.
아무 데나 마구 분주하게 돌아다니다. ¶나가서 금강산에를 그라나 전반을 {써대도} 아무 것도 없제. 저 옆에 질갓에, 저 우게 마지막 올라가는 길갓에 간께 어뜬 땔싹 큰 사람이 지게를 짊어지고 잠을 자 쌓거든.
지역 전북.

써레기 명 [대응어] 쓰레기.
못 쓰게 되어 내다 버리는 물건. 또는 그러한 값어치를 가지는 사람이나 물건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지역 전북.

써렛니 명 [대응어] 써렛발.
써레몽둥이에 박는, 끝이 뾰족한 나무. ¶논 고를 때 흙이 잘 안 뿌숴 지믄 {써렛니를} 다시 만들어서 갈아야 혀.
지역 전북.

써리 명 [대응어] 서리.
대기 중의 수증기가 지상의 물체 표면에 얼어붙은 것. ¶자고 일어낭게 {써리가} 호연허니 내려앉았네.
지역 전북.

써릿발 명 [대응어] 써레.
갈아 놓은 논의 바닥을 고르는 데 쓰는 농기구. ¶논바닥을 갈아 엎을라믄 {써릿발이} 필요허지. 고것으로 흙을 살살살 긁었다 두들겼다 하믄 되야. ¶모내기를 해야하니 논 바닥을 {써릿발로} 고르거라.
지역 임실.

써묵다 동 [대응어] 써먹다.
어떤 목적에 이용하다. ¶학교에서 배운 구구셈을 집에서 {써묵었다}.
지역 전북.

써벅써벅하다 형 [발음] [써벅써버가다/써벅써버카다] [대응어] 써걱써걱하다.
무언가를 베거나, 과육을 씹는 소리, 혹은 눈을 밟는 소리가 나다. ¶배추를 인자, 허연 대를 꾸부러뜨려서 {써벅써벅허잖아}. 그러먼은 더 절구야지. 들 절궈진 거여 그러먼.
지역 전북.

써빠지다 형 [대응어] 힘들다.
(주로 '써빠지게'로 쓰여)힘이 쓰이는 면이 있다.

¶고놈이 쓰잘디없는 짓거리만 허다가 고상만 {써빠지게} 했구만. ¶혼자서 논두렁에 {써빠지게} 물을 데 놨는데 엉뚱한 짓거리만 했다니 김이 팍 샜구만. ¶하루종일 {써바지게} 일해 보았자 월급은 쥐고리만 하구나.
지역 전북.

써숙 명 [대응어] 조. ¶{써수기} 노런허고 조가 {써수기여} 20406<완주 지역어 텍스트>
지역 완주.

써슥밥 명 [대응어] 조밥.
맨 좁쌀로 짓거나 입쌀에 좁쌀을 많이 두어서 지은 밥. ¶{써슥빱뽀고} 조바비라고 허지<완주 지역어 텍스트>
지역 완주.

써우레질 명 [대응어] 써레질.
써레질. ¶(개밥나무를) 볿아서 늫고 또 {써우레질} 히가꼬 인자 못자리 판 딱 맨들아서 밀어가꼬 나락 허쳤제. ¶소로 {써우레질} 힜제. 소로. 물 잡어 갖고.
지역 고창.

써우질 명 [대응어] 써레.
『농』 갈아 놓은 논의 바닥을 고르는 데 쓰는 농기구. ¶농사의 기본은 {써우질을} 잘 쓰는 거여. 그래야 논바닥이고 밭이고 판판해진게. 판판하게 땅을 골라야 농사가 시작되는 것이여.
지역 고창.

써으리 명 [대응어] 써레.
갈아 놓은 논의 바닥을 고르는 데 쓰는 농기구. ¶밭 갈아얀게 저그 세워 논 {써으리} 좀 갖꽈 봐라.
지역 전북.

써카래 명 [대응어] 서캐.
이의 알. ¶머리에 {써카래가} 허옇게 슬었다. ¶어디서 {써카래를} 옮아 가지고 왔니?
지역 전북.

써캐 명 [대응어] 서캐.
이의 알.
지역 임실, 진안, 장수.

-썩 【접미사】 [대응어] -씩.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붙어)) '그 수량이나 크기로 나뉘거나 되풀이됨'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그놈을 먹고 한 끄니여. 쌀 한 {개썩을} 먹고도 지내넌게 살림이 불 것 아녀. 살림이 불었단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그전에는 쬐깨 담아 줘도 냉긴 양반이 밥 한 {그릇썩만} 담아 줘서 짝다고 또 담고 또 담아 <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썩문둥이 명 [대응어] 문둥이.
'나환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
지역 전북.

썩서구 명 [대응어] 씀바귀.
국화과의 여러해살이풀. ¶{썩서구를} 가지고 무침을 히서 먹으믄 쌉싸래헌 것이 아주 좋아.
지역 전북.

썩을놈 명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 ¶{썩을놈}, 지지리 몬낫능가 헌다는 짓이 가시내들이랑 물마금이나 대고, 에이 쪼잔은 놈, 꼬치.
지역 고창.

썩음썩음하다 형

거의 썩은 상태이다. ¶나보고 {썩음썩음한} 복숭아를 그냥 먹으라고? ¶"울 옴마 시집 올 적에 가져온 농짝은 {썩음썩음하니} 변혔지만 아직도 안방을 턱허니 차지 허고 있다.
지역 전북.

썩호다 동 [대응어] 썩히다.
☞썩후다.
지역 순창.

썩후다 동 [대응어] 썩히다.
썩게 하다. ¶돌보지두 않을 걸 버리지두 않구 꽁꽁 묶어 가지구는, 쩌어 캄캄한 광에다가 턱 처박아 곰팽이 나게 {썩후는} 건 죄로 갈 짓이라구 그랬지요.<최명희, 혼불> ¶물에다 당과서 {써퀴야허}, 감자를<2005 전북 남원>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해설 전북 방언권에서 사동, 피동 접사 '-히-'는 '-후-'로 실현됨에 따라 '익히다, 식히다, 썩히다' 등이 '익후다, 식후다, 썩후다' 등으로 나타난다.

썬득썬득 부
갑자기 몹시 써늘한 느낌이 자꾸 드는 모양. ¶진땀은 배깃이 돋으면서 그대로 얼어, 이마가 {썬득썬득} 시리다.<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썬득썬득'에서 '썬득'은 갑자기 써늘해진 기운이 몸에 닿을 때 느끼는 몸의 느낌을 표현한 의태어이다. '썬득썬득'은 강조를 위해 두 번 반복된 복합어이다.

썬득썬득하다 형 [발음] [썬득썬드가다/썬득썬드카다] [대응어] 선득선득하다.
갑자기 서늘한 느낌이 잇따라 들다. ¶여름 목새 뿌려진 고실고실헌 날 가고 인자는 조석으로 가실 티 낼라고 그렁가 {썬득썬득헌} 날 되아 간다. ¶글고, 아적부텀 날씨도 쎄코롬험서 {썬득썬득헝게} 감기도 조심허겨 이~.
지역 고창.

썬득하다 형 [발음] [썬드가다/썬드카다] [대응어] 써늘하다.
갑자기 몹시 써늘한 느낌이 있다. ¶돌아눕기만 해도 이불자락이 떠들어져 등이 {썬득하게} 끼치는 외풍 때문에,<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썬득썬득'에서 '썬득'은 갑자기 써늘해진 기운이 몸에 닿을 때 느끼는 몸의 느낌을 표현한 의태어이다. 여기에 형용사를 파생시키는 '-하다'가 연결된 것이다.

썬들썬들 부 [대응어] 선들선들.
서늘한 바람이 가볍고 부드럽게 자꾸 부는 모양. ¶가을이 되얐는가 아침저녁으로다가 바람이 {썬들썬들} 부네.
지역 전북.

썻반 명 [대응어] 혓바늘.
혓바닥에 좁쌀알같이 돋아 오르는 붉은 살
지역 임실.

썽나다 동 [대응어] 성나다.
몹시 노엽거나 언짢은 기분이 일다. ¶카만이 나또야~ 매급시 긁어 갖고 {썽나먼} 씨끌만 더 생깅게.
지역 고창.

썽내다 동 [대응어] 성내다.
노여움을 나타내다. ¶똥뀐 놈이 {썽내딧기} 어른들 앞에서 너 그러면 못쓰는 벱이다.<윤흥길, 소라단 가는 길> ¶"하이고오, 똥뀐 놈이 {썽낸다드니}, 날도적놈이 됩대 꼬깔을 씌우능구만 그리여.<최명희, 혼불>

지역 남원.

썽썽하다 형 [대응어] 성하다, 멀쩡하다.
①꽤 성하다. 또는 아무 탈이 없다. ¶"백단이는 인자 여그저그 막 돌아댕기고 {썽썽허든디}. 만동이는 당최 얼룽 기운을 못 채리네에."<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썽썽하다'는 '성성하다'가 된소리로 발음되어 이루어진 어휘이다. 국어사전에서는 '성성하다'를 북한어로 처리하고 있으나 방언에서는 아주 많이 사용하는 어휘이다.

쎄 명 [대응어] 혀.
동물의 입 안 아래쪽에 있는 길고 둥근 살덩어리. 맛을 느끼며 소리를 내는 구실을 한다. ¶만약에 보쌈 부인이 용을 씨고 떠다 밀어붙이고는 달어나 부리든지, 분허고 독헌 마음에 {쎄를} 물고 죽어 불먼 큰일 아닝가.<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쎄까래 명 [대응어] 서까래.
☞써까래.
지역 남원.

쎄꺼리 명 [대응어] 서까래.
☞써까래.
지역 전북.

쎄껄 명 [대응어] 서까래.
☞서깔.
지역 전북.

쎄끌 명 [대응어] 서까래.
☞서깔.
지역 남원.

쎄낄 명 [대응어] 서까래.
☞서깔.
지역 전북.

쎄땡이 명 [대응어] 쇳덩이.
쇠붙이가 뭉쳐서 된 덩이. ¶{쎄땡이를} 불어 달궜다.
지역 전북.

쎄무레 명 [대응어] 시멘트. ¶뭇이 한 방울 툭 떨어지그래 {쎄무레} 신작로로 얼른 나와서 집으로 담박질혔은게 비 안 맞췄제. ¶거그도 {쎄무레} 바닥 헌 지 별로 안 돼.
지역 고창.

쎄비다 동 [대응어] 훔치다.
☞쌔비다.
지역 전북.

쎄빠지다 형 [대응어] 힘들다.
(주로 '써빠지게'로 쓰여}힘이 쓰이는 면이 있다. ¶보아라 보아라 눈 까뒤집고 또 보아라 일은 {쎄빠지게}, 등창이 터지게 혔어도 나는 빚더미 위에 올아앉았으니.<김용택, 꽃산 가는 길> ¶형씨도 참 깝깝허요. 소금 안 친 싱건 말이 되겄네만, 날이날마닥 {쎄빠지고} 좆빠지게 연습을 혔응께 그리 된 것 아니겄소.<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쎄시락허다 형 [발음] [쎄시라거다/쎄시라커다] [대응어] 시시하다.
대단한 데가 없고 보잘것없다. ¶선을 보러 나갔는디 남자가 영 {쎄시락허서} 기냥 나와부렀어.
지역 전북.

쎄우다 동 [대응어] 씌우다.
쓰게 하다. ¶게 그놈을 벳겨 입고 그 삿갓을 {쎄

워} 났응게 삿갓을 쓰고서는 오는디,<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일 좀 잘 허라고 동네 사람들이 감투를 {쎄워} 줬더니 일은 안 허고 잇속만 챙기고 댕겨.

지역 완주, 군산.

쎅경 (←石鏡) 명 [대응어] 석경.

☞섹겡.

지역 전북.

쎅히다 동 [대응어] 썩히다.

☞썩후다. ¶내 것 뺏기고 몰매 맞고, 벵신 되고 동냥치로 쬐껴나는 심정은, 죽어서도 {쎅히지} 말고, 살어서도 잊어 부리지 마시요.<최명희, 혼불>

지역 군산.

쎈찮다 형 [대응어] 시원찮다.

1.기대, 희망, 욕구에 충분할 만큼 만족스럽지 않다. ¶그 남자는 내 짝으로 {쎈찮다}. ¶거동이 {쎈찮아} 보인다.

지역 전북.

쎈하다 형 [대응어] 시원하다.

더운 기운이나 마음의 거리낌 따위가 가셔서 기분이 좋다. 가뿐하고 후련하다. 또는 담백하고 산뜻하거나 속이 후련하도록 뜨겁고 얼큰하다. ¶8월인데도 바람이 솔찬히 {쎈허네}. ¶그의 석방 소식을 들으니 속이 {쎈하다}. ¶여름김치가 맛이 {쎈허고} 좋다. ¶도로가 {쎈허게} 났다. ¶손주가 등을 긁어주니 {쎈허다}. ¶모름지기 남자라믄 성격이 {쎈허야지}.

지역 전북.

쎗바늘 명 [대응어] 혓바늘.

혓바닥에 좁쌀알같이 돋아 오르는 붉은 살. ¶{쎗바늘}이 서서 밥을 먹을 수 가 없네.

지역 남원, 무주, 임실, 진안.

쎗바닥 아프게 말하다 【관용표현】

아무 이유나 실속이 없는 말을 하다. ¶긍게 고런 것 {셧바닥 아프게 말허는} 입이 주책이제.<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쎠까래 명 [대응어] 서까래.

☞써까래.

지역 장수.

썬하다 형 [대응어] 시원하다.

☞쎈하다.

지역 전북.

쎼캐 명 [대응어] 서캐.

☞서캐.

지역 남원.

쎗바닥 명 [대응어] 혀.

☞셋바닥. ¶그사람 평소에도 {쎗바닥}을 잘 못 놀리더만 이번에 지서에 잽혀 갔대야. ¶{쎗바닥} 좀 내 보아라.

지역 장수.

쏘나기 명 [대응어] 소나기.

☞쏘내기.

지역 부안, 임실.

쏘낙비 명 [대응어] 소나기.

☞소낙비. ¶아, 효자문을 세우고 난개 그날 저녁에 아, 그냥 {쏘낙비가} 오고 뭣허고 그러더니 베락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처부수어 버리거든. 효자문을.<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군산, 김제, 부안.

쏘내기 명 [대응어] 소나기.

갑자기 쏟아지다가 곧 그치는 비. ¶아 이것 저녁으 느닷없이 비가 막 {쏘내기가} 막 쏟아지더니아 그 이튿날 아침이 자고나서 본게 걍 암것도 없이 싹 씨러나가 버렸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학교 끝나면 우산이 없던 나는 그 {쏘내기}에도 그냥 집으로 왔다. ¶하늘에 먹구름이 낀 것을 보니 곧 {쏘내기가} 쏟아질 것 같다. 빨리 들어가자구나.

지역 고창, 군산, 김제, 남원, 무주, 순창, 완주, 익산, 장수, 진안.

쏘다 동 [대응어] 쑤다.

곡식의 알이나 가루를 물에 끓여 익혀서 죽이나 메주 따위를 만들다. ¶메주 {쏜다고}. 메주 끓이고.

지역 전북.

쏘다댕기다 동 [대응어] 쏘대다, 쏘다니다.

아무 데나 마구 분주하게 돌아다니다. ¶고만좀 {쏘다댕기라}, 쏘다댕겨<2005 전북 남원> ¶너는 밤낮 {쏘다만댕기나}. 이제 그만 쏘다댕기고 공부나 좀 히라.

지역 남원, 정읍.

쏘댕기다 동 [대응어] 쏘다니다.

여기저기를 바쁘게 마구 돌아다니다. ¶어디를 그렇게 {쏘댕기다가} 인지사 온다아, 우리 갱아지 새끼가아?<이병철, 모래내 모래톱> ¶열시가 다 되드락 발탄 강생이맨치로 배깥시상 짤짤짤 {쏘댕김시나} 임자 있는 예펜네가 무신 잡짓을 혔냐?<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친구들허고 어울려 {쏘댕기다}가 나중으 후회헌다 조심허라. ¶어지간히 {쏘댕기고} 집에 좀 얌전히 있거라.

지역 전북.

해설 '댕기다'는 '다니다'의 전북 방언형이다.

쏘독하다 형 [발음] [쏘도가다/쏘도카다] [대응어] 소복하다.

쌓이거나 담긴 물건이 볼록하게 많다.

지역 전북.

쏘사악쏘삭허다 동 [발음] [쏘사악쏘사거다/쏘사악쏘사커다] [대응어] 쏘삭쏘삭하다.

☞쏘삭쏘삭허다. ¶고년 춘심이년이 방정맞게 와서넌 명창대회(名唱大會)지 급살인지 헌다구, {쏘사악쏘삭허기} 때미 그년의 디를 갔다가…….<채만식, 태평천하>

지역 전북.

쏘삭쏘삭하다 동 [발음] [쏘삭쏘사가다/쏘삭쏘사카다] [대응어] 쏘삭쏘삭하다.

☞쏘삭쏘삭허다. ¶아라사가 {쏘삭쏘삭해서} 지나의 장개석일 충동일 시켰대요.<채만식, 태평천하>

지역 전북.

쏘삭쏘삭허다 동 [발음] [쏘삭쏘사거다/쏘삭쏘사커다] [대응어] 쏘삭쏘삭하다.

가만히 있는 사람을 꾀거나 추겨서 마음이 움직이게 하다. 또는 가늘고 긴 물건으로 자꾸 들추거나 쑤시다. ¶그놈의 후처가 고씬디. 고씨한티 삼형제를 두었어. 아들 삼형제를 낳고 있었어. 본실한티 그 딸 하나만 낳고, 못 낳고 죽어 버리고. 아 근게 걍 차꼬 찰방기다 {쏘삭쏘삭헌게} 대처 죽이기로 약속이 딱 되았단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그러고는 조반을 떡 먹고는 저 보릿대 배눌 뒤에 가서 뜨뜻허니 앉어서 이빨만 {쏘삭쏘삭험서} 이 올 때 되아 가니까 올 때 되아 가는디, 대처 정오시가 딱 된게 그 호피도동에다 흐건 백마를 타고 그냥 덜렁덜렁 오거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0

지역 정읍.

쏘새기 명 [대응어] 쏘시개.
불을 때거나 피울 적에 불이 쉽게 옮겨 붙게 하기 위하여 먼저 태우는 물건. ¶불이 안 붙는다. 저그 밭에 나가서 {쏘새기} 할 만한 것들 좀 찾아와 봐.
지역 전북.

쏘색이다 동 [대응어] 속삭이다.
남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다. ¶귀에 가만이 {쏘색이면} 간질이는 것 같어. ¶아람이와 보름이는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둘이서 {쏘색거렸다}.
지역 전북.

쏘시개 명 [대응어] 불쏘시개.
불을 때거나 피울 적에 불이 쉽게 옮겨붙게 하기 위하여 먼저 태우는 물건. 잎나무, 관솔, 종이 따위이다. ¶장작을 패다보면 나무 쪼가리들이 생기는디 뫼아두면 {쏘시개}로 요긴허게 쓰이지[완주. ¶할머니가 화로에 {쏘시개로} 연기를 피우셨다.
지역 고창, 남원, 완주, 임실, 군산.

쏘시래기 명 [대응어] 쏘시개.
불을 때거나 피울 적에 불이 쉽게 옮겨 붙게 하기 위하여 먼저 태우는 물건. ¶옛날으 아궁이에 불 피 갖고 밥해 먹고 온돌 지지고 할 때는 창고에 마른 지푸라기 같은 거가 늘 있었구만. 그걸로 {쏘시래기} 하믄 요긴혔어. ¶불을 지펴야 하니 {쏘시래기} 좀 가져오너라.
지역 전북.

쏘주 명 [대응어] 소주.
곡식으로 만든 술을 끓여 얻는 증류주. ¶{쏘주를} 마니 머거따나 쪼꼼만 머거라고그리야지. <완주_지역어_텍스트>
지역 완주.

쏙닥거리다 동 [대응어] 속닥거리다.
남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작은 목소리로 은밀하게 자꾸 이야기하다.<조선> ¶이뇜이 벌써 보닌가 이뇜이 일찌감치 새복(새벽)에 나가가지고서 어머니보고 {쏙닥거리거든요}.<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군산.

쏙삭이다 동 [대응어] 속삭이다.
귓속말로 가만가만 말하다.<조선> ¶뒷전에서 옹구네가 귓속말로 {쏙싹였다}.<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쏙소리나무 명 [대응어] 상수리나무. ¶{쏙소리나무} 열매로 만든 도토리 묵이 감칠 맛으로는 제일여.
지역 장수.

쏙옷 명 [대응어] 고쟁이.
☞속곳.
지역 무주.

쏭사리 명 [대응어] 송사리. ¶{쏭사리를} 잡으러 댕겨. ¶{쏭사리를} 잡아 국을 끓이면 맛이 최고야.
지역 장수.

쐬질르다 동 [대응어] 내쏘다.
남의 감정을 찌르는 말로 쏘아붙이다. 또는 총, 화살 따위를 안에서 밖으로 향하여 쏘다. ¶"성님, 어쩌시라요? 맘 변해 부렀능게라?" "아, 있는 술이나 먼첨 마셔." 장덕풍이 {쐬질렀다}. "군산에 일본기생집이 좋다는 소문이 짜허든디, 성님언 가봤소?" "미쳤다나, 기둥뿌리 빠질라?"<조정래, 아리랑> ¶그려서 공격얼 삼개 조로 노놔서 허는 것인디, 정면에서 공격허는 조가 검은 개덜이

{쏴질르는} 기관총에 안 상헐 만치 멀찍허니 떨어져 총질얼 험스로 검은 개털 정신얼 뽑는 새에 오른손쪽?왼손쪽 조덜언 번갯불치대끼 방어선얼 돌파헌다<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쐐다 형 [대응어] 싸이다.

싸게 하다. ¶시골이는 요새같언 깨끔한 변소가 아닌게, 애기가 울먼 그냥 마당으다가 오좀을 {쐐는} 거여.

지역 전북.

쐐때기 명 [대응어] 새꽤기.

갈대, 띠, 억새, 짚 따위의 껍질을 벗긴 줄기. ¶고노믈 인자 무레다 당과따가 인자 또 가라게다가 인자, 그 {쐐때기} 가라게다 이르케 가마가꼬 거그다 가마서 고노몬자 또 자사.{그것을 이제 물에다 담갔다가 이제 또 가락에다가 이제, 그 갈대 가락에다 이렇게 감아갖고 거기에다 감아서 그것을 이제 또 잣아}.<2005 전북 남원> ¶{쐐때기를} 엮어서 지붕을 이었다.

지역 임실, 남원.

쐐베기 명 [대응어] 쐐기.

물건의 틈에 박아서 사개가 물러나지 못하게 하거나 물건들의 사이를 벌리는 데 쓰는 물건. 또는 뒤탈이 없도록 미리 단단히 다짐을 두다. ¶바위도 다 깨지기 마련이여. 어떻게 깨는고니 도구를 잘 써야지. 이럴 때는 {쐐베기를} 써서 돌을 깨트려 버리는 거여. ¶요즘으는 결혼헌 부부끼리도 종이쪽으다 뭘 그렇게 약속허고 쓰고 헌다 그러대. 난중에 문제 생기면 두말 안 생기게 법적으로다가 {쐐베기를} 박는다 하는 것 같어.

지역 군산.

쐐시 명 [대응어] 씨아.

목화의 씨를 빼는 기구. ¶거둬들인 목화송이들을 {쐐시에} 여 넣으믄 솜은 앞으로 튀어나오고 씨는 뒤로 나자빠져진당게.

지역 무주.

쐐악 명 [대응어] 쐐기.

☞쐬악.

지역 전북.

쐬나기 명 [대응어] 소나기.

갑자기 세차게 쏟아지다가 곧 그치는 비. ¶아따, 덥네, 더워, {쐬나기} 한둘금 퍼 붓었으면 좋겄네에.

지역 고창.

쐬악 명 [대응어] 쐐기.

물건의 틈에 박아서 사개가 물러나지 못하게 하거나 물건들의 사이를 벌리는 데 쓰는 물건. 또는 뒤탈이 없도록 미리 단단히 다짐을 두다. ¶{쐬악} 구멍으다가 {쐬악을} 넣어 갖고 망치 같은 걸로 두들기면 못 깨는 바우가 없어. 다 깨진당게. ¶"이것은 너랑 나만의 비밀이여. 만약에 이것이 딴디서 들리면 너랑 나는 끝이여. 약속혀." 이 말을 하던 그의 눈빛은 내가 비밀을 발설 못허도록 {쐬악을} 박는 느낌을 확 줬당게.

지역 임실, 장수, 진안, 남원.

쐬주 명 [대응어] 소주.

☞쇠주.

지역 전북.

쐬하다 형 [대응어] 싸하다.

혀나 목구멍 또는 코에 자극을 받아 아린 듯한 느낌이 있다. ¶저녁에 인자 막걸리 한사발 놓구삭힌 홍어럴 먹지, 그러먼은 코가 {쐬허니} 뻥 뚫린당게. ¶앙껏도 몰르고 그냥 들어갔는디 어찌 분위기가 {쐬허니} 이상허더라고. 아니나 달러? 그년이 디립다 발악을 허는디 언능 나와 버렸지.

지역 전북.

쐰하다 형 [대응어] 시원하다.
☞쎈하다.
지역 전북.

쑤기 명 [대응어] 통발.
가는 댓조각이나 싸리를 엮어서 통같이 만든 고기잡이 기구. ¶이건 {쑤기}. 송아리 잡는 {쑤기}. 물고기 위로 올라가는 놈 이리 잡어.
지역 전북.

쑤꾹쑤꾹 부 [대응어] 뻐꾹뻐꾹.
뻐꾸기가 잇따라 우는 소리. ¶뻐꾸기 우는 소리는 지역마다 달라. 여긴 {쑤꾹쑤꾹} 울어.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부안,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진안.

쑤다 동 [대응어] 키우다.
누에를 잘 키우다. ¶누에를 잘 {쑤어라}.
지역 전북.

쑤둑쑤둑 부 [대응어] 뻐꾹뻐꾹.
뻐꾸기가 잇따라 우는 소리. ¶뻐꾸기는 {쑤둑쑤둑} 울제.
지역 전북.

쑤래미 (←<일>surume(するめ)) 명 [대응어] 오징어.
☞수루미.
지역 전북.

쑤리미 (←<일>surume(するめ)) 명 [대응어] 오징어.
☞수루미.
지역 전북.

쑤석거리다 동 [대응어] 쏘삭거리다.
가만히 있는 사람을 자꾸 꾀거나 추겨서 마음이 움직이게 하다. ¶"한 달 동안 곰팡이가 핀 입을 이런 데서나 청소하지 어디 가서 나불거리겠니." 어쩌고 하면서 분위기를 {쑤석거려도} 쉽게 편승하지 않았다.<최일남, 무화과꽃은 언제 피는가>
지역 전북.

쑤세다 동 [대응어] 쑤시다.
가늘고 긴 꼬챙이 같은 것으로 다른 물체의 틈이나 구멍에 넣어 구멍을 뚫거나 속에 있는 물건을 밖으로 나오게 하다. ¶손님이 와서, 가서 도사님이 인자 오늘 아침에는 손님이 왔으니까 한 분 몫을 더 할 것인께 또 한 분 몫만 그 때에도 그냥 내려주었는가 화가 나서 그 구녕을 작대기로 콱 {쑤세} 분께로 그냥 그저저도 알 나와서 그 도사가 굶어 죽었드랍니다<구비문학대계 전남 보성군편> ¶그런께 이정승 아들이 허는 말이, "니 눈구녕을 팍 {쑤세} 불자. 한나 통기세를 맨드러불자. 그래야 못 찾는다고 그래야지. 만약에 나하고 자꾸 부르면 자꾸 우리가 불리댕기면 큰 일 아니냐?"<구비문학대계 전남 보성군편>
지역 전북.

쑤세미 명 [대응어] 수세미.
그릇을 설거지할 때 쓰는 도구. 예전에는 짚이나 수세미외의 열매 속 따위로 만들었으나 오늘날에는 재료와 상관없이 설거지할 때 그릇을 닦는 성긴 도구 모두를 말한다. ¶그륵을 {쑤세미로} 깨깟이 닦았다.
지역 고창, 무추촌.

쑤셱이다 동 [대응어] 쑤석이다.
함부로 자꾸 들추거나 뒤지거나 쑤시다. ¶이만한 대창을 가지고 와서는 홀타리를 막 {쑤세기고}

가네이.

지역 전북.

쑤수 명 [대응어] 수수.

☞수수. ¶그 시방은 방애깐에 가서 {쑤수} 물론 팔기도 하고, 찌키도 허고, 인자 거시기허먼 팔기도 허는디, 그때만 해도 다 지비서 도구통으로 다 찌야자나.<2007 전북 군산>

지역 무주, 군산, 남원, 임실.

쑤수대 명 [대응어] 수숫대, 수수깡.

☞쑤숫대. ¶"그 당넌 큰 {쑤수대를}, 그 당넌 큰 {쑤수대를} 네 소매에다가 넣어 봐라. 그래 꺾어다가 넣어 봐라-" 그랬다는 소리가 있제.<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완주.

쑤수때기 명 [대응어] 수숫대, 수수깡.

☞수수때기. ¶엔나레는 고구마로 모다 살궁개 마니 헐 때는 막 {쑤수때기로} 이러케 기양 영꺼갖꼬 막 이러케 두지.(옛날에는 고구마로 모두 살아가니까 많이 할 때는 막 수숫대로 이렇게 그냥 엮어가지고 막 이렇게 두지)<2009 전북 임실>

지역 임실.

쑤수망생이 명 [대응어] 수수경단.

☞수수망생이. ¶그릏게 해서 인자 애덜 삼, 거시기헌다고 긓게 살풀이 해준다고 긓게 {쑤수망생이를} 허거든. 긓게 돌 때.(그렇게 해서 이제 애들 삼, 거시기한다고 그렇게 살풀이 해준다고 그렇게 수수망생이를 하거든. 그러니까 돌 때.)<2007 전북 군산>

지역 군산.

쑤수모가지 명 [대응어] 조이삭.

조의 이삭.

지역 완주.

쑤숫대 명 [대응어] 수숫대, 수수깡.

수수의 줄기 ¶{쑤숫대를} 비다가 이퍼리를 딴다. ¶집을 지어야겄다 이런 맘이 있으면 {쑤숫대를} 이만허게 묶어갖고 저 비 안 맞는 데다 잘 둔다.

지역 남원, 무주, 완주.

쑤시 명 [대응어] 수수.

☞수수. ¶저 그때 칠월달에 {쑤시} 모가지 쳐다 가서는 쑤시재기 {쑤시} 그 뭣이냐 그 부쳐서 그려갖고는 걍 푸짐하게 갖다 놓고는 인자 칠월 술멕이를 허는디.<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군산, 남원, 정읍, 고창, 남원, 임실.

쑤시때기 명 [대응어] 수숫대, 수수깡.

☞수수때기. ¶줄을 내려준개, 호랑이도 줄을 타고 올라 가다가, 탁, 쑤시밭(수수밭)에 떨어져 가지고, {쑤시때기에}, 하하하, 몸이 떨려져서 피가 묻어서, 지금 그 수수대에 빨건헌 것이 지금 호랭이 피라고 그래.<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남원.

쑤시망생이 명 [대응어] 수수경단.

☞수수망생이. ¶우리 외할매는 지금도 내 생일이 되먼 {쑤시망생이로} 떡을 해 오신당게.

지역 완주.

쑤시미 명 [대응어] 수세미.

☞쑤세미.

지역 전북.

쑤시밥 명 [대응어] 수수밥.

찰수수로 지은 밥 혹은 수수를 섞어서 지은 밥. ¶대략 꼭 오곡밥얼 히야 하는 것인디. 재산니 시

월에서넌 인자 {쑤시밥}, 수수밥얼 헤 가지고 인자 어 멍넌디.(대략 꼭 오곡밥을 해야 하는 것인데. 재산이 시골에서는 이제 수수밥, 수수밥을 해가지고 이제 어 먹는데.)<2008 전북 고창> ¶{쑤시밥}은 목구녁이 꺼끄라서 잘 안넘어가는디 오늘 저녁도 쑤시밥이냐.

지역 고창.

쑤쑤깡 명 [대응어] 수수깡.

수수의 줄기 ¶{쑤쑤깡얼} 비어다가 이퍼리를 딴다.

지역 남원.

쑤씻대 명 [대응어] 수숫대, 수수깡.

☞쑤숫대. ¶이맨은 {쑤씨대}. 모가지 끊어부리고 그 끄터리(를 쓴다.)<2009 전북 임실>

지역 임실.

쑥덕이다 동 [대응어] 쑥덕이다.

☞쑥덱이다.

지역 전북.

쑥덱이다 동 [대응어] 쑥덕이다.

남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낮은 목소리로 자꾸 이야기하다. ¶큰일날 비밀 이얘기 대문간에 엉버티고 넘 다 들으라고 허는 사램이 어디 있간디? 안 들킬라고 넘 안 보는 디서 {쑥덱이제}.<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해설 '쑥덱이다'는 '덕'의 'ㅓ'가 후행하는 전설모음 'ㅣ'에 동화되어 전설모음 'ㅔ'로 바뀐 결과이다.

쑥떡베 명

검은 실과 흰 실을 섞어 짠 베를 이르는 말. ¶60~70년대 중고등학교 댕기던 사람들은 {쑥떡베} 바지를 안 입어본 사람이 없지.

지역 전북.

쑥버물 명 [대응어] 쑥버무리.

쌀가루와 쑥을 한데 버무려서 시루에 찐 떡. ¶임신을 허서 그런가 핑상시에는 생각도 없던 {쑥버물이} 머릿 속에서 내내 맴돌더랑게. 그리서 한참을 {쑥버물을} 먹고자퍼 먹고자퍼 노래를 부르니께 그 무뚝뚝하던 남편이 구해 오더랑게. ¶오전 간식으로 {쑥버물을} 만들어 먹자구나.

지역 전북.

쑥버물떡 명 [대응어] 쑥버무리.

쑥버무리. ¶설기떡같이 {쑥버물떡} 있어. 고렇게 히야 맛있어.

지역 고창.

쑥시롭다 형 [대응어] 쑥쓰럽다.

하는 짓이나 모양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우습고 싱거운 데가 있다. ¶그리서 하리는 하도 궁금증이 나서, "야, 너 뭣허냐?" 헌게, 이놈이 {쑥시로와서} 깡통을 딱허니 덮어쪄 내림서 말 안헌다 그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사람들도 많이 있는디 해필 그때 방구가 왜 나와 {쑥시롭기만} 허드라고?

지역 전북.

쑹악허다 (←凶惡하다) 형 [발음] [쑹아거다/쑹아커다] [대응어] 흉악하다.

일 따위가 아주 나쁘거나 궂다. ¶{쑹악한} 일을 당했다

지역 전북.

쒜꺼리 명 [대응어] 서까래.

☞써까래.

지역 남원.

쒜약 명 [대응어] 쐐기.

☞쐬악.
지역 남원.

쒯바닥 명 [대응어] 혀.
☞셋바닥.
지역 남원.

쒸세다 동 [대응어] 쑤시다.
☞쑤세다. ¶"이쪽 반수는 저 사람들 앞서 가고, 이쪽 반수는 뒤에 서서 따라와! 쪼깐만 수상한 눈치가 보이며 칵 {쒸세} 부러." 장진호가 독기를 피웠다.<송기숙, 녹두장군>
지역 전북.

쒸시개 명 [대응어] 쑤시개.
쑤시어 후비거나 닦아 내는 데에 쓰는 물건을 통틀어 이르는 말. ¶쟈도 인자 아저씨 다 되야 버렸네. 뭔놈의 이를 저렇게 {쒸시개로} 쉴새 없이 쑤신대야. 사람도 많고만.
지역 전북.

쒸싯대 명 [대응어] 수숫대, 수수깡.
☞쑤숫대.
지역 전북.

쒱키다 동 [대응어] 숨기다.
☞쉥기다.
지역 김제, 남원.

쓰깨 (←<영>skate) 명 [대응어] 썰매.
아이들이 얼음판이나 눈 위에서 미끄럼을 타고 노는 기구. ¶지금 눈이 펑펑 오니께 아그들이 다 {쓰깨} 하나씩 들고 저그 뒷산으로 가 버렸어.
지역 고창.

쓰께 (←<영>skate) 명 [대응어] 썰매.
☞쓰깨.
지역 전북.

쓰께토 (←<영>skate) 명 [대응어] 썰매.
☞스께또.
지역 무주, 완주, 익산.

쓰께트 (←<영>skate) 명 [대응어] 썰매.
☞스께또.
지역 남원.

쓰담다 동 [대응어] 쓰다듬다.
손으로 쓸어 어루만지다. ¶그저 咆哮하고 눈 감는 獅子. 또 만일에 이 時間이 四十五分만큼씩 {쓰담던} 그대 할아버지 텍수염이라면 나는 그저 막걸리를 마시리<서정주, 시집> ¶바람이 와 湖水 되어 고이면서… 우리 둘 사이의 산마루 {쓰담는걸} 쉬고 오늘은 그냥 와 湖水 되어 고이면서…<서정주, 시집> ¶이 사람은, "아 용자가 여기 나와 계시냐?"고 절을 하고 대가리를 살살 {쓰담아} 준개로 그만 물로 사르르 들어가 버려.<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전북.

쓰래미 (←<일>surume(するめ)) 명 [대응어] 오징어.
☞수루미.
지역 전북.

쓰레 명 [대응어] 써레.
『농』 갈아 놓은 논의 바닥을 고르는 데 쓰는 농기구. ¶마당으 돌 고르고 나서 펀펀하게 다질 때 {쓰레} 갖다가 써라.
지역 군산, 김제, 부안, 완주, 익산, 진안, 무주.
해설 해설.

쓰렝이 명 [대응어] 쓰레기.
못 쓰게 되어 내다 버리는 물건. 또는 그러한 값

어치를 가지는 사람이나 물건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집이 난리 속이고마잉. 집 속으가 {쓰렝이} 소굴이고만.
지역 고창.

쓰리 명 [대응어] 써레질.
논 바닥을 고르거나 흙덩이를 잘게 부수는 일. ¶논 갈고 {쓰리럴} 허는 거. 가다리. 가다리라고 혀.
지역 전북.

쓰리다 동 [대응어] 썰다.
어떤 물체에 칼이나 톱을 대고 아래로 누르면서 날을 앞뒤로 움직여서 잘라 내거나 토막이 나게 하다. ¶호박도 {쓰리서} 놓고, 고추도 멫 개 {쓰리} 느야 맛나.
지역 전북.

쓰리다 동 [대응어] 써리다.
써레질하다. ¶건살미라고 {쓰려} 놔. 건정건정 한번 쓰리로 {쓰린다고} 건살미.
지역 전북.

쓰봉 (←<일>jubon) 명 [대응어] 바지.
가랑이가 져 두 다리를 꿰어 입을 수 있게 되어 있는 아래옷. ¶저 예전이는 여자란 것은 {쓰봉이} 없었어요. 여자들은 밑이가 다 터진 옷만 입었지, 뭐. ¶이번 추석으 산 {쓰봉}은 너무 질어서 단을 좀 짤러야겄다. ¶네가 입고 있는 {쓰봉} 바지 길이가 너무 짧은 것 같다.
지역 무주.

쓰잘데기 명 [대응어] 쓰잘머리.
사람이나 사물의 쓸모 있는 면모나 유용한 면. ¶{쓰잘데기라곤} 한 티끼도 갖추잖은 것덜 허고는.<조봉래, 풀벨골> ¶{쓰잘데기가} 없이 찔벅찔벅 근디려봤자 자기만 손해여!<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쓰잘데기없다 형 [대응어] 쓸데없다.
아무런 쓸모나 득이 될 것이 없다. ¶{쓰잘데기없는} 이야기는 쓸데없이 남고<김용택, 섬진강> ¶{쓰잘데기없는} 짓 고만 허랑게.
지역 전북.
해설 '쓰잘-'은 '보잘-, 먹잘-'과 같이 변화한 것이고, '데기'는 '데, 것'의 방언형이라고 할 수 있다. '종오때기, 판자때기'에서 유추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표준어 '쓸데'의 전북 방언형은 명사 '쓰잘데, 쓰잘데기'가 되는 것이다.

쓰잘데없다 형 [대응어] 쓸데없다.
아무런 쓸모나 득이 될 것이 없다. ¶"왜, {쓰잘데없는} 장난을 하는 거야?"<채만식, 落照>
지역 전북.
해설 '쓰잘-'은 '보잘-, 먹잘-'과 같이 변화한 것이고, '데'는 형식명사이다. 따라서 표준어 '쓸데'의 전북 방언형은 명사 '쓰잘데, 쓰잘데기'가 되는 것이다.

쓰잘디없다 형 [대응어] 쓸데없다.
☞쓰잘데없다. ¶아버지를 비롯하여 집안의 여러 어른들이 칙간 주변을 포위하다시피 하고 있었다. "다아 {쓰잘디없는} 짓이요. 그러지 말고 어서 나오시요!" 큰당숙의 말에 작은당숙모는 아무런 기척도 나타내지 않았다. "끄니 저러다가 아하나만 더<윤흥길,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 ¶평소에 야무지고 속 짚다는 니가 어찌 {쓰잘디없는} 짓을 허갖고 웃음거리가 되었냐. ¶너는 왜 {쓰잘디없는} 말을 해서 영호와 철수가 싸우게 만드냐.
지역 전북.

쓰잘디읎다 형 [대응어] 쓸데없다.

☞쓰잘데없다. ¶실실 쌈 피해댕김서 아까운 밥이나 죽이고 자빠졌는디, 고런 짜잔헌 물건이 장군은 무신 눔에 장군이여. 아조 씨엉쿠 잘 죽어뿐 것잉께 {쓰잘디없는} 말덜 고만허고 인자 일이나 또 시작헙씨다.” 외서댁이 낫을 들고 일어섰다. 남자들이 머쓱해져서 서로를 쳐다보았다. 천점바구네<조정래, 태백산맥> ¶{쓰잘디없는} 말 좀 그만 하거라.

지역 고창.

쓰케트 (←<영>skate) 명 [대응어] 썰매.

☞스께또.

지역 전북.

쓸게 명 [대응어] 쓸개.

☞씰개.

지역 군산.

쓸다 동 [대응어] 썰다.

어떤 물체에 칼이나 톱을 대고 아래로 누르면서 날을 앞뒤로 움직여서 잘라 내거나 토막이 나게 하다. ¶안주는 돼지 고기를 칼로 이렇게 탁 {쓸어서} 칼 끝어머리다 되야지 고기를 찍어가지고 그 대줘. 아 그런게 푹 찔러 버릴 중 알지만은 그러지 않고 먹케크름 대 준단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가만히 본개 밥을 허는 모양여.근디 그 뭐, 스슥(수수) 쌀, 뭐 팥같은 거 뭐 이런 것이다가서 무수 {쓸어} 넣은 것 마냥, 뭔 뿌랭이(뿌리)를 쓸어 넣었어. 그래서 밥을 해다 줘.<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고창, 군산, 무주, 완주, 김제, 부안.

쓸매 명 [대응어] 썰매.

아이들이 얼음판이나 눈 위에서 미끄럼을 타고 노는 기구. 또는 얼음판이나 눈 위에서 사람이나 물건을 싣고 끄는 기구.

지역 무주, 임실, 군산, 진안.

쓸컹쓸컹허다 형 [대응어] 썰컹썰컹하다.

설익은 곡식이나 열매 다위가 자꾸 씹히는 느낌이 거세다. ¶불을 세게 때먼 안 무르고 콩이 {쓸컹쓸컹혀}.

지역 전북.

쓸키다 동 [대응어] 쓸리다.

평평한 곳에 살이 문질려 살갗이 벗어지다.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손등이 {쓸켰다} ¶나무까시에 {쓸켰는디} 그 상처가 오래가네.

지역 전북.

씀바구 명 [대응어] 씀바귀.

☞씀바뀌. ¶들판에 흔하게 널려있는 {씀바구}는 ‘싸랑부리’고도 허는디 봄너물로 인기가 높으다.

지역 완주.

씀바뀌 명 [대응어] 씀바귀. ¶{씀바뀌처럼} 좋은 풀떼기가 없어. 이 풀은 말여, 뿌리부텀 모두가 다 쓰잘디 있는 것이여.우리헌티 약도 되고. ¶흔하던 {씀바뀌가}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고 나서는 사람들이 모두 채취했는지 보기가 드물구나.

지역 전북.

씀바퀴 명 [대응어] 씀바귀.

☞씀바뀌.

지역 전북.

씀벅씀벅하다 동 [발음] [씀벅씀버가다/씀벅씀버카다]

생각 없이 말을 함부로 해대다. ¶“이눔아, 그냥 뚫린 주딩이라고 말 {씀벅씀벅하덜} 말고 장수 아재 말씸 명념허라.<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씀벅씀벅허다 동 [발음] {씀벅씀버거다/씀벅씀버커다}
☞씀벅씀벅하다. ¶"순사라고 아무 말이나 {씀벅씀벅허먼} 다 말인지 아시요?"<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씅내다 동 [대응어] 성내다.
☞썽내다.
지역 전북.

씌다 동 [대응어] 씌우다.
모자나 우산 따위를 쓰게 하다. ¶부르더니, "말세 필을 솔질을 히서 갓인 안장을 {씌어라}." <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고창, 김제, 부안, 군산, 익산, 장수, 정읍, 진안.

씨가리 명 [대응어] 서캐.
☞씨카래.
지역 전북.

씨가시 명 [대응어] 씨아.
목화의 씨를 빼는 기구. ¶그려 너도 먹고 살라믄 기술이란게 있으야지. 이를 테면 씨아질이라도 허야지. 그러려면 {씨가시도} 다룰 줄 알아야 허고. 그래야 과부여도 자슥새끼들 건사허고 살지 않겄어?
지역 전북.

씨겁다 형 [대응어] 쓰다.
혀로 느끼는 맛이 매우 쓰다. ¶아무도 없는 곳이기에 고이는 눈물이면 손아귀에 닿는대로 떱고 {씨거운} 山열매를 따먹으며 나는 함부로 줄다름질 친다.<서정주, 逆旅>
지역 전북.
해설 표준어 '쓰다'는 방언에서 '쓰다, 씨다'로 발음한다. 따라서 전북 방언 '씨겁다'는 '씨-'에 형용사를 파생시키는 접미사 '-겁-'이 연결되어 강조의 뜻이 더해진 '씨겁다'가 된 것이다.

씨께또 (←<영>skate) 명 [대응어] 썰매.
☞스께또.
지역 순창.

씨께이굿 명 [대응어] 씻김굿.
죽은 이의 영혼을 깨끗이 씻어 주어 이승에서 맺힌 원한을 풀고 극락왕생하기를 비는 굿. ¶망자가 가는 길이 원한이 없어얀게 하는 것이 바로 {씨께이굿이여}.
지역 전북.

씨끔 명 [대응어] 씻김굿.
죽은 이의 영혼을 깨끗이 씻어 주어 이승에서 맺힌 원한을 풀고 극락왕생하기를 비는 굿. ¶이 굿 이름이 왜 {씨끔인고} 허니 망자의 원한을 깨까시 씻겨준다 히서 {씨끔이} 아닌가 혀.
지역 전북.

씨끔굿 명 [대응어] 씻김굿.
☞씨끔.
지역 전북.

씨다[1] 동 [대응어] 쇠다(냉이가~).
채소가 너무 자라서 줄기나 잎이 뻣뻣하고 억세게 되다. ¶냉이가 {씨어서} 못 먹는다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순창, 군산,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씨다[2] 동 [대응어] 쓰다(모자를).
모자 따위를 머리에 얹어 덮다. ¶열눈이로 실쩍 보니/ 진주낭군이/ 하늘 같은 말을 타고/ 구름 같은 갓을 {씨고}/ 기생첩을 옆으 찌고/ 본치 만치 지내가데(완주 시집살이노래-"빨래질 가자 빨래

ㅅ

질 가자")<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완주.

씨다³ 동 [대응어] 세우다.

☞시우다. ¶종아리를 걷어놓고 매를 때리는 거여. 인자 돌려 {씨놓고} 매를 때린게 이때 자기 남편이 참 주색잡기를 허고 댕기다가, 어디서 놀음허고 앉았다가 돈이 떨어졌던가 즈그 집이 돈 가지러 왔던<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군산.

씨다4 동 [대응어] 세다.

사물의 수(數)가 몇 개나 되는지 헤아리다. ¶돈 실로 가자 돈 실로 가자/영광 법성으로 동 실로 가자/헤에 헤 헤헤야 헤헤헤 어 러리야 돈 {씨로} 가세 돈 {씨로} 가세/월순으 집으로 돈 {씨로} 가세/헤에 헤 헤헤야 헤헤헤 어 러리야<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남원 논매는 소리-이슬털이<그물가>)

지역 남원.

씨다듬다 동 [대응어] 쓰다듬다.

손으로 쓸어 어루만지다. ¶"무엇이 파리고 포리대여?" 그런개로, "파리는 앞발로 고개를 {씨다듬은} 것이 파리고, 포리라는 것은 뒷발로 뒤 날개쪽을 씨담은 것이 뒷발로 그런 것이 포리여." "그리여?" 주인도 생각해 보닌개, 잘 모른다 말이여.<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할아버지는 손주의 재롱이 너무 귀여워 손주의 머리를 {씨다듬어} 주었다.

지역 부안.

씨담다 동 [대응어] 쓰다듬다.

☞쓰담다. ¶"무엇이 파리고 포리대여?" 그런개로, "파리는 앞발로 고개를 씨다듬은 것이 파리고, 포리라는 것은 뒷발로 뒤 날개쭉을 {씨담은} 것이 뒷발로 그런 것이 포리여." "그리여?" 주인도 생각해 보닌개, 잘 모른다 말이여.<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부안.

씨라리다 동 [대응어] 쓰라리다.

상처가 쓰리고 아리다. 또는 마음이 몹시 괴롭다. ¶다친 곳이 {씨라리다} ¶상처에 자꾸 물을 묻힝게 {씨라리고} 아프지. ¶엇나가는 아들을 보며 부모의 마음은 몹시 {씨라렸다} ¶어찌나 모질게 잡드리를 하는지 당헌걸 생각하면 지금도 맘이 {씨라리고} 서럽당게.

지역 전북.

씨랍다 형 [대응어] 쓰리다.

쑤시는 것같이 아프다. ¶불에 디어서 살이 {씨랍고} 미치겄네. 숭지는 것 아니겄제.

지역 전북.

씨러지다 동 [대응어] 쓰러지다.

힘이 빠지거나 외부의 힘에 의하여 서 있던 상태에서 바닥에 눕는 상태가 되다. ¶그러는디 우리 동네 사람들 쏘가 되머는, 한나 이르케 때리먼 {씨러지고}, 한나 때리먼 씨러지고, 그러케 해서 그 쏘가 다 씨러져서 주그니 거 어치케 헐 이리나?<지역어 자료 총서, 고창> ¶근디 왜 개는 밥을 안 준대? 아까 택주 아재네 놀로 가서 봉게로 누렝이가 굶어 갖꼬는 픽 {씨러져서} 기운이 하나도 없데?<최명희, 혼불> ¶그냥 나락 한 말씩을 십 년만이 찾어가지감서 술을 크게 먹었든가. 걍 가면서 걍 막 자빠지는 놈도 있고 {씨러지는} 놈도 있고 그게 십 년만에 나락 한 말 씩 주어 가지고 사람, 그 사람 하나 살렸다는 그.<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군산, 부안, 완주, 정읍, 고창, 무주, 김제.

씨레밷기 명 [대응어] 쓰레받기.

비로 쓴 쓰레기를 받아 내는 기구. ¶저 직원이 일을 참 잘혀, 청소도 기가 맥혀. 저그 좀 봐. {씨레빋기에} 씰어 담는 솜씨가 한치 오차가 없어. 신기혀. 젊은 애가 어찌 저리 일을 잘 허는지. ¶방바닥에 있는 쓰레기를 {씨레빋기로} 담아 다 버려라.

지역 전북.

씨르라미 명 [대응어] 쓰르라미. ¶한여름 밤에 {씨르라미} 우는 소리가 참 시원허게 들리네.

지역 전북.

씨름씨름하다 형 [대응어] 쓰리다.

쑤시는 것같이 아프다. ¶속이 {씨름씨름허니까는} 밥이다 물얼 말아서 대충 먹구 눕었지.

지역 전북.

씨릅다 형 [대응어] 쓰리다.

☞씨랍다.

지역 전북.

씨리개 명 [대응어] 쓰레기.

비로 쓸어 내는 먼지나 내다 버릴 물건을 통틀어 이르는 말. ¶{씨리개들} 중에서 분리수거 헐 만헌 것들은 분별허서 버려야 혀. 그래야 자연도 살고, 우리도 살고.

지역 무주, 순창.

씨리기 명 [대응어] 쓰레기.

☞씨리개.

지역 순창.

씨리다 형 [대응어] 쓰리다.

쑤시는 것같이 아프다. ¶"요리 살점이 떨어져나가뿐 짚은 자리에 뿌리면 속살이 에리고 {씨려} 사람이 워쩌크름 살아진다요." 외서댁이 고개를 내저었다.<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씨림꾼 명 [대응어] 씨름꾼.

씨름을 잘하는 사람. ¶할아버지는 왕년에 황소를 몇 마리씩 상으로 타온 {씨림꾼이었다}.

지역 전북.

씨림판 명 [대응어] 씨름판.

씨름을 하는 자리나 판. ¶추석 때믄 {씨림판에서} 벌어지는 씨림 보는 것이 최고로 재미진 구경거리였는디, 요즘은 티비만 틀어도 볼것이 넘쳐나는구만.

지역 전북.

씨릿씨릿하다 형 [발음] [씨릳씨리다다/씨릳씨리타다] [대응어] 쓰리다.

몸이나 마음이 쑤시는 것같이 아프다. ¶"와따, 뒷돼지 잡을 만치 날쌔기도 날쌔시. 저 시악씨 속으로 찍은 것이 누군지는 몰라도 속이 {씨릿씨릿허겄다}."<조정래, 태백산맥> ¶"감기 꼬뿔인지 멋인지 속이 {씨릿씨릿하고} 한속이 들어서 통 갱신을 못하겄소예. 오늘 저녁에는 물레방에 못 오겄그만이라."<송기숙, 녹두장군>

지역 전북.

해설 전라 방언 '씨릿씨릿하다'는 표준어 '쓰리다'에 대응하는 어휘이다. '쓰리쓰리하다, 쓰릿쓰릿하다'가 전설고모음화하여 '씨릿씨릿하다'로 변한 것으로 보인다.

씨붕거리다 동 [대응어] 씨부렁거리다.

쓸데없는 말을 주책없이 함부로 자꾸 지껄이다. ¶뭘 그렇게 {씨붕거려} 쌌나.

지역 전북.

씨서리 명 [대응어] 설거지.

그릇을 씻어 정리하는 전반적인 일. ¶"먹기만 허고 {씨서리는} 안했으면 좋겄네."<최명희, 혼

불>
지역 전북.
해설 표준어의 설거지의 의미는 물론이고 물로 씻는 일을 통칭하는 말이다. '씨서리'는 '씻다'에 접미사 '-어리'가 연결된 것이다.

씨석거리다 동
자꾸 아무 일에나 함부로 손대거나 참견하다. ¶그러케, {씨석거림서} 웃음이 히풍게 짓독에 바람 들것따 이~. ¶긍게, 어쩐지 농담이 심헝게 쌈 나긌드랑게~ 나는 즈그들 {씨석거릴} 적부터 알어부럿소 벌써 감이 퍽 허니 옵디다.
지역 고창.

씨실거리다 동 [대응어] 달라붙다.
떨어지지 않고 좇아다니다. ¶쬐깐헐 때는 간두깨 뽕닥지에다 까마치 대가리를 창창 묶어갖고 포리가 {씨실거리지} 말라고 말리기도 했는디.<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전북.

씨아리 명 [대응어] 씨알.
종자나 열매나 곡식이나 생선 따위의 하나하나의 크기. ¶저 동네 거마리는 {씨아리가} 잘아. {씨아리} 잔 놈이 더 쏴.
지역 전북.

씨아시 명 [대응어] 씨아.
목화의 씨를 빼는 기구. ¶'이써, {씨아시가} 이써 가꼬 다 {씨아시다} 히서, 또 인저 화.렬 맨드라서 타. {무명길쌈은 이제<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씨아시다가} 인자 씨를 빼서, 활로 톡: 톡: 타먼, 이 뇌미 인자 붕얼붕얼허니 그리저요.<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지역 전북.

씨아재 명 [대응어] 서방님.
☞시아자.
지역 부안.

씨알데기 명 [대응어] 쓰잘머리.
사람이나 사물의 쓸모 있는 면모나 유용한 구석. ¶{씨알데기도} 없는 소링게 들은 둥 만 둥 했당게요~.
지역 고창.

씨알데기없다 형 [대응어] 쓸데없다.
아무런 쓸모나 득이 될 것이 없다. ¶세상만사 다 {씨알데기없는} 거이여. 죽으믄 땡이랑게. ¶비싼 밥 먹고 {씨알데기없는} 소리 그만 허고 잠이나 자.
지역 전북.

씨알데기없이 부 [대응어] 쓸데없이.
아무런 쓸모나 득이 될 것이 없이. ¶{씨알데기없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거라.
지역 전북.

씨알데없다 형 [대응어] 쓸데없다.
아무런 쓸모나 득이 될 것이 없다. ¶비싼 밥 처묵고 {씨알데없는} 소리 허덜 말고, 나가서 일이나 봐.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는 {씨알데없는} 말은 안 하는 것이 좋다.
지역 전북.

씨알데읎다 형 [대응어] 쓸데없다.
☞씨알데없다. ¶갸는 왜 밤낮 {씨알데읎는} 소리만 씨부리고 있는지 모르겄어.
지역 전북.

씨알디기 명 [대응어] 쓸데.
☞씨알데.
지역 전북.

씨알디기없다 형 [대응어] 쓸데없다.
☞씨알데기없다.
지역 전북.

씨알탱이 명 [대응어] 씨알머리.
남의 혈통을 속되게 이르는 말. ¶누구 새끼인지 드럽게 말 안 들어. 누가 지 애비 {씨알탱이} 아니랄까봐. 지 아빠랑 똑같혀. ¶망할 놈의 {씨알탱이를} 누가 받아들이겠어?
지역 전북.

씨언코 부 [대응어] 시원히.
덥거나 춥지 아니하고 알맞게 서늘하게. 또는 마음이 후련하게. ¶비가 {씨언코} 내렸으면 좋겠다. ¶궁금증을 {씨언코} 해결했다.
지역 전북.

씨언쿠 부 [대응어] 시원히.
☞씨언코.
지역 전북.

씨언하다 형 [대응어] 시원하다.
☞시언하다.
지역 전북.

씨엉쿠 부 [대응어] 시원히.
덥거나 춥지 아니하고 알맞게 서늘하게. 또는 마음이 후련하게. ¶"{씨엉쿠} 잘되았제 머시가 아까와. 왜놈덜 돈이 잿더미 된 것잉게 나야 오장육부가 다 씨어언허구마."<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해설 '씨엉코'는 '씨언하고, 씨언허구'에서 'ㅎ'과 'ㄱ'이 결합하여 'ㅋ'이 되면서 '씨언코, 씨언쿠'가 되고, 다시 이것이 '씨엉쿠'가 된 것으로 보인다.

씨연하다 형 [대응어] 시원하다.
☞씨언하다. ¶니 살 터질 때 내 살 아까워서 눈물이 다 씸빽 나기는 나드라만, 아조 삼 년 묵은 체증이 내리가디끼 속이 {씨연허고} 분이 풀린 것도 사실은 사실이제. 허 참, 손 안 대고 코 푼다드니, 아 이 옹구네 원한을 원뜸에 율촌샌님이 풀어<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씨월거리다 동 [대응어] 씨불거리다.
☞쌔왈거리다 ¶"……헤헤에이, 제밀헐 것! 괜스리는 {씨월거려} 쌌능구만 그리여. 가만히 그만 있지나 못허고……"<서정주, 단골 巫堂네 머슴아이> ¶어디서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를 {씨월거리고} 댕긴다나.
지역 전북.
해설 표준어 '씨부리다'는 '씨불씨불'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어원을 '씨불+-이-+-다'로 볼 수 있으나, 전북 방언 '씨월거리다'는 '씨월데월'이 있는 것으로 보아 '씨월+-거리-+-다'로 보아야 할 것이다.

씨월대다 동 [대응어] 씨불대다
주책없이 실없는 말을 하다. ¶아뿔싸! 내가 괜히 객적은 소리를 {씨월대는군}.<채만식, 이런 처지> ¶듣는 사람도 없는데 혼자서 {씨월댄다}.
지역 전북.
해설 표준어 '씨부리다'는 '씨불씨불'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어원을 '씨불+-이-+-다'로 볼 수 있으나, 전북 방언 '씨월대다'는 '씨월데월'이 있는 것으로 보아 '씨월+-대-+-다'로 보아야 할 것이다.

씨월데월 부 [대응어] 씨부렁씨부렁.
주책없이 쓸데없는 말을 자꾸 지껄이는 모양. ¶"…됐어 됐어!…. 왜 아까 그때 바루 그 생각을 못했으까? 어쩐 말이냐!" {씨월데월} 거드러거리고 나갑니다.<채만식, 천하태평춘>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씨월데월'은 '씨월씨월'과 같은 반복부사에서 두 번째 '씨월'의 첫음절 자음을 바꿔 음상의 차이를 내는 합성어이다. '씨월'은 '씨부렁'에서 온 듯하다.

씨웨시 명 [대응어] 씨아.
목화의 씨를 빼는 기구. ¶{씨웨시넌} 두 가지가 있어. 한 손으로 돌리믄서 씨 뽑아내는 거 허고, 양손으로 돌리서 씨 빼내는 거 요로케 두 종류가 있거덩.
지역 전북.

씨웻 명 [대응어] 씨아.
☞씨웨시.
지역 무주.

씨잘데기 명 [대응어] 쓰잘머리.
사람이나 사물의 쓸모 있는 면모나 유용한 구석. ¶인자는 {씨잘데기도} 없는 짓 기냥 내싸두었으면 좋겄구만 이~. ¶{씨잘데기라곤} 한나도 없는 선물 받었당게요.
지역 고창.

씨잘데기없다 형 [대응어] 쓸데없다.
☞쓰잘데기없다 ¶야 이 사람아! 그런 {씨잘데기없는} 서 꼬부라진 소리 허덜 말어. 어서 술 퍼먹고 와서 서를 놀리고 자빠졌어?<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그래서 이서구씨라면, 아주. 아, 내가 {씨잘데기없는} 얘기를 해서 미안허요. [조사자:아이구 아니요. 이런 얘기라면…], 하하하.<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그렇게, {씨잘데기 없는} 소리 해쌓지 말고 저리 가. 무단히 주둥팽이 까딱 잘못 놀리면 맞어 죽을 텡게."<최명희, 혼불>
지역 완주.

씨질디기 명 [대응어] 쓸데.
☞쓰잘디.
지역 전북.

씨치다 동 [대응어] 씻다.
☞씻치다. ¶또 한 번을, 세 번채 파닝개 아, 큰 주먹만한 우렁이 하나가 나오더래요. 그놈을 개천물에다가, 물에다가 {씨쳐서}, 전에는 말주먼치라고 그래요. 주먼치에다 넣고 참 저녁에 집으로 갔어요. "어머니 어머니 ! 이<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부안, 완주, 정읍.

씨케또 (←<영>skate) 명 [대응어] 썰매.
☞스께또.
지역 김제.

씩은밥 명 [대응어] 찬밥.
☞식은밥.
지역 남원, 임실.

씬거리 명 [대응어] 무청시래기.
무를 반찬거리로 쓰려고 썰어 말린 것. ¶{씬거리로} 만들 수 있는 찬거리는 쌔고 쨌지.
지역 전북.

씬나물 명 [대응어] 고들빼기.
☞씬너물. ¶{씬나물이나} 머슴둘레, 그런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머언 머언 고동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었다.<서정주, 시집>
지역 전북.

씬너멀 명 [대응어] 씀바귀. ¶네名의少女는 제마닥 한개ㅅ식의 바구니를 들고, 허리를 굽흐리고, 차라리 무슨 나물을 찾는것이아니라 절을하고 있는 것이었다. {씬나물이나} 머슴둘레, 그런것을 찾는것이아니라 머언 머언 고동소리에 귀를 기울이

고 있는것이었다.<서정주, 시집>

지역 고창, 남원, 무주, 순창, 완주, 장수, 정읍.

씬너물 명 [대응어] 고들빼기. ¶{씬너물이} 자줏빛을 띠믄서 그 나름의 장관을 이루고 있네.

지역 익산.

해설 형용사 '쓰다(苦)'+ 관형사형 전성어미 '-ㄴ'에 '나물'이 더해진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어두음인 '쓴>씬'의 변화는 고모음화라고 할 수 있고, '나물'이 '너물'이 된 것은 모음조화에 의한 변형이 아닐까 한다.

씬코 부 [대응어] 시원히.

덥거나 춥지 아니하고 알맞게 서늘하게. 또는 마음이 후련하게. ¶비가 {씬코} 내린다. ¶궁금증이 {씬코} 해결됐다.

지역 전북.

씬허다 형 [대응어] 시원하다.

☞신하다.

지역 전북.

씰개 명 [대응어] 쓸개.

간장에서 분비되는 쓸개즙을 일시적으로 저장·농축하는 주머니. 또는 자기의 처지나 생각을 꿋꿋이 지키고 내세우는 기질이나 기풍. ¶가가 그 짓을 허겄능가? 어림없제. 아 어뜬 {씰개} 빠진 농판이 금쪽 같은 새경 줌서, 저한테 늑대맹이로 으르릉거리는 머심을 쓰겄어, 쓰기를." "가도 맘만 잡으면 잘헐 거인디.<최명희, 혼불> ¶어디 귀텡이 떨어진 눈 먼 년, 중로 집안으서라도 데리가기 바래는 거이제? 앉은뱅이 꼽새등이라도 좋응게. 그리 장개가서, 벨도 {씰개도} 다 빼놓고 벵신 뒷바라지험서 살드라도 상놈 소리 안 듣고 싶은 거이제?" "핫따, 거 시끄럽소."<최명희, 혼불> ¶그놈한티 그렇게 당허고도 또 그집이 들어갔나 {씰개}도 없는 년.

지역 고창, 남원, 무주, 완주, 임실.

씰다 동 [대응어] 쓸다.

비로 쓰레기 따위를 밀어내거나 한데 모아서 버리다. ¶인자 그 진사 그 아들은 참 집도 이제는 참 형편이 없고 말이 아닌데, 가서 인자 그 조문, 원이 조문을 헌다고 그러니까 그려도 참 마당도 {씰고} 인자 마루도 좀 닦고 인자 어찌고 허서 인자 손질을 좀 혔을 것 아닙니까?<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전북.

씰닥쟁이 명 [대응어] 쓸데.

쓰일 자리. 또는 써야 할 곳. ¶예펜네가 머엇이 무서서 체면을 보겄소? 저러다가 무신 딱쟁이를 쓰고 달라들랑가. 납짝없이 자식 딸린 홀에미한테 뒤잽히게 생겠는디." "거 무신 {씰닥쟁이} 없는 소리를."<최명희, 혼불> ¶아그들은 그저 재통이나 저질르고 댕기제 무신 {씰닥쟁이가} 있간디 봉출이한테 그런 말은 허라고.<최명희, 혼불> ¶긍게 내가 뱃속으서부텀 입에 풀이 올라갖꼬 그렁가아?" "그런 {씰닥쟁이} 없는 소리는 딛기도 싫고."<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해설 일반적으로 쓰는 '쓰잘데기, 씨잘데기'와, 표준어에서 명사로 쓰는 '쓸데, 쓸모'와 같은 의미를 가진 것이다. '씰닥쟁이'는 '씰닥쟁이 없다.'의 표현으로도 쓰이고 있으며, '씰닥+-쟁이'로 구성된 파생어로 보인다.

씰데 명 [대응어] 쓸데.

쓰일 자리. 또는 써야 할 곳. ¶감쪽같이 묻기로 허고 대처 인자 돈을 인자 얼매를 줬단 말이여. "아, 얼매를 준다." 고 근게, "돈도 {씰데도} 없다고." "뭣이 그먼 필요허냐?" 고. 그 집 큰애기 하나 쓸만현 뵘이 있던 게비여. "저 큰애기를 나를<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여기

절문 사람드른 그러케 그런 소리야, 에이그 뭐 {씰떼기가} 읍써.<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네가 지금까지 한 말은 모두다 {씰데도} 없는 말이다.

지역 임실, 정읍.

씰데없다 형 [대응어] 쓸데없다.

아무런 쓸모나 값어치가 없다. ¶매칼읍시 {씰데없는} 소리는 하덜 말어. ¶일도 안허고 {씰데없게} 돌아만 댕기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속 챙겨 이년아.

지역 전북.

씰디 명 [대응어] 쓸데.

☞씰데. ¶좌우간 김 되야지한티 가서 배경을 씨자. 김 되아지한티 갔다 오면은 청포재기고 백포재기고 씰디없이 할딱 벗고는 저그집이 가서 '에함' 허고 앉었고 앉었고 허니, '돈 {씰디라고는} 거그 뿐이다.<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정읍.

씰디없다 형 [대응어] 쓸데없다.

☞씰데없다.

지역 전북.

씰모 명 [대응어] 쓸모.

쓸 만한 가치. ¶으뜸가는 평양 기생이. 여자라는 것은 어 20세가 넘은다치먼은 설 쉰 무시(무우) 라고 여자 나이 30이 넘으먼 설 쉰 무시라고 {씰모가} 없는 거이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그나 저나 자네 학자님 아들이길래 좀 점잖은 줄 알었더니 씰 {씰모가} 있는지 알었더니, 저거 아주 잡놈이로구나.<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정읍.

씰어안다 동 [대응어] 쓸어안다.

마구 부둥켜안다. ¶그나저나 종갓댁 마님이먼 멋허고 친정에다 펴다 주먼 멋 헐 거이냐. 이녁은 청상 과부 한가지로, 밤마등 시름만 서방님 대신 {씰어안고} 잘 거인디.<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씰어지다 동 [대응어] 쓸리다.

평평한 곳에 살이 문질려 살갗이 벗어지다. ¶자빠지믄서 바닥에 살이 완전히 {씰어졌어}.

지역 전북.

씸껏 부 [대응어] 힘껏.

있는 힘을 다하여. 또는 힘이 닿는 데까지. ¶그 줄을 있는 {씸껏} 댕겨봐. 짱짱허게.

지역 전북.

씸바구 명 [대응어] 씀바귀. ¶{씸바구}를 잘게 씰어 갖고 봄볕에 잘 피서 말리믄 쓸만한 약재가 될 것이여.

지역 군산.

씸바구리 명 [대응어] 씀바귀.

☞씸바구.

지역 김제.

씸벅씸벅허다 동 [발음] [씸벅씸버거다/씸벅씸버커다]

☞씀벅씀벅하다. ¶얼매나 당혈라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린디 말을 {씸벅씸벅허더랑게}.

지역 완주.

씸씸이 명 [대응어] 씀씀이.

돈이나 물건 혹은 마음 따위를 쓰는 형편. 또는 그런 정도나 수량. ¶그이가 {씸씸이가} 커서 그이 주변에는 항시 사람이 많아. 사람을 몰고 다니는 냥반이지.

지역 김제.

씹떡껍떡 부 [대응어] 실떡실떡.

줏대 없이 가벼이 노는 모양. ¶말도 체면 볼 것 읎이 {씹떡껍떡} 많이 해대는 놈이 결국 잘허게 되는 것 아니겄소?<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씹쓰름하다 형 [대응어] 씁쓰레하다.

조금 쓴 맛이 나는 듯하다. ¶옛날에는 먹잘 것이 없응게 풀을 뜯어 가지구, {씹쓰름한} 것을 먹었단 말여. 배가 고픈게로 먹지, 지금같으면 안 먹지. ¶꼬들빼기를 왜 먹간디. 그 {씹쓰름한} 맛 때미 먹는거 아녀?

지역 전북.

씹씨름허다 형 [대응어] 씁쓰레하다.

☞씹쓰름하다.

지역 전북.

씻나락 명 [대응어] 볍씨.

못자리에 뿌리는 벼의 씨. ¶{씻나락 도} 먹어 치우는 것들이 있으니, 그것들이 그리 살다 죽으면 鬼神도 그때는 {씻나락} 까먹는 소리를 낼 것이고,<서정주, 大凶年>

지역 전북.

해설 전북에서는 '벼'를 '나락'이라고 한다. 그래서 '볍씨'를 '씻나락'이라고 한다. '씨'와 '나락'이 합성되면서 그 사이에 'ㅅ'이 들어가서 '씻나락'이 되었다.

씻치다 동 [대응어] 씻다.

때나 더러운 것을 물로 없애 깨끗하게 하다. ¶사과랑 복숭은 그냥 {씻쳐서} 먹었는디 배는 깎아 먹었지.<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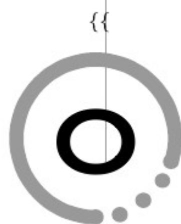
지역 전북.

씻허옇다 형 [대응어] 시허옇다.

매우 허옇다. ¶비나리는 港口의 어느 內外酒店에서, 사실은 내 髓神經의 한가운대에서, {씻허연} 두줄의잇발을내여노코 나를 부르는것.<서정주, 밤이 깊으면>

지역 전북.

해설 표준어에서 '시허옇다'의 접두사 '시-' 또는 '싯-'은 '매우'의 뜻을 갖는다. '시허옇다'는 전북에서는 된소리로 발음하면서 '씨허옇다' 또는 '씻허옇다'로 발음된다.





-ㅇ가 【종결어미】 [대응어] -ㄴ가.
하게할 자리에 쓰여, 현재의 사실에 대한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흔히 친구나 아래 사람에게 말을 함부로 낮추기가 곤란한 경우에 사용된다. ¶저 사람 {누궁가}?<이윤구(1985)> ¶바께 {추웅가}?<이윤구(1985)> ¶자네 어른 {기싱가}? ¶누가 {왼떵가}? ¶바께 {간떵가}?
지역 전북.

-ㅇ갑다 【축약형】 [대응어] -ㄴ가 보다.
방언형 '-ㅇ가 보다'가 줄어든 말. 주관적으로 미루어 짐작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하앗따아. 너인자 나중에 뚜부집으로 {시집갈랑갑다이}?<최명희, 혼불> ¶큼메누리가 어머이가 머 헤기 {시렁갑따}.(싫은가보다[싫+ㅇ갑따],)<백은아(2016)> ¶{장갑따}.(자는가보다[자+ㅇ갑따],) 조용언 거시.(백은아(2016)) ¶이레 갖고 술렁술렁 넘어갈 {참잉갑다}.(=이렇게 해서 슬슬 대충 넘어갈 참인가 보다.) 전남방언사전
지역 전북.

-ㅇ갑드라 【축약형】 [대응어] -ㄴ가 보더라.
방언형 '-ㅇ가 보더라'가 줄어든 말. ¶가는 인자 {갠찬헝갑더라}.(걔는 이제 괜찮은가 보더라)<김옥화(2008)> ¶그것도 정부이서 {주능갑드라}.(그것도 정부에서 주는가 보더라)<김옥화(2008)> ¶저 노인도 일칙이 {갔능갑드라}.(저 노인도 일찍 갔는가 보더라)<김옥화(2008)>
지역 부안.

-ㅇ개비네 【축약형】 [대응어] -ㄴ가 보네
방언형 '-ㅇ개 비네'가 줄어든 말. ¶바께 날씨가 갱장히 {충개비네}.<전북지역어, 남원시>
지역 부안.

-ㅇ게로 【연결어미】 [대응어] -니까.
앞 절이 뒤 절의 원인이나 이유가 됨을 강조하여 나타내는 연결 어미. ¶사람으로서 헌 닐이 {아닝게로}<홍윤표(1978)> ¶예펜네들 이렇게 시시닥거리는 것 {봉게로}<이태영(2004 ㄴ)>
지역 전북.

-ㅇ겨 【종결어미】 [대응어] -ㄴ 거야.
해할 자리에 쓰여, 현재의 사실에 대한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시방 {옹겨?/옹거여}?<이윤구(1985)> ¶이기 {킁겨?/킁거여}?<이윤구(1985)> ¶시방 {옹거여}? ¶이기 {킁거여}?
지역 무주.

-ㅇ고 【종결어미】 [대응어] -ㄴ고.
해라할 자리에 쓰여, 현재의 사실에 대한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어른이 아이에게 점잖음을 보이는 권위체로 오늘날은 드물게 사용한다. ¶이거 느그 {지빙고}?<이윤구(1985)> ¶얼씬네 무

나니 {어떠싱고}?<이윤구(1985)>
지역 전북.

-ㅇ기요 【종결어미】 [대응어] -는가요, -ㄴ가요.
해요할 자리에 쓰여, 현재의 사실에 대한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밤도 짚고 날도 찬디 시방 어디 갔다 {오싱기요}?<최명희, 혼불> ¶아이고오, 의원님. 입으로 허는 말만 {말잉기요}? 눈짓도 말이고, 낯색도 말이고, 목청도 말이고, 손짓? 발짓?몸짓에다 제절로 풍겨지는 탯거리도 다 말 아니요?<최명희, 혼불> ¶애기씨, 정신이 조께 {드싱기요}?<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ㅇ깨 【연결어미】 [대응어] -니까.
앞말이 뒷말의 이유가 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그 사람 {부쨍깨} 인재 땅 {마능깨}(많으니까)<백은아(2016)> ¶{도응깨}<송기창(1995)> ¶{상깨}<송기창(1995)> ¶{앙깨}<송기창(1995)>
지역 무주, 부안.

-ㅇ께로 【연결어미】 [대응어] -니까.
앞말이 뒷말의 이유가 됨을 지정하여 나타내는 연결 어미. ¶이런 운수 들오면 천하대장군도 쇠양없어요오. 지둥 뿌랭이 밑동부텀 흔들어 {부링께로}.<최명희, 혼불>
지역 무주.

아가지 명 [대응어] 아가미.
물속에서 사는 동물, 특히 어류에 발달한 호흡기관. ¶생선이 월매나 신선헌지를 볼라믄 {아가지를} 싹허고 들춰보믄 금방 판단나. ¶말을 함부로 하면 {아가지가} 찢어질 줄 알거라.
지역 익산.

아갈치 명 [대응어] 아가미.
☞아가지.
지역 익산.

아감지 명 [대응어] 아가미.
☞아가지.
지역 완주, 진안.

아개미 명 [대응어] 아가미.
물속에서 사는 동물, 특히 어류에 발달한 호흡기관. ¶생선 {아개미가} 붉으족족혀야 맛나. ¶명태 {아개미로} 젓갈을 만들어 먹어도 감칠맛이 난다.
지역 김제.

아거배 명 [대응어] 아그배.
아그배나무의 열매. 모양은 배와 비슷하나 아주 작고 맛이 시고 떫다.
지역 전북.

아골뎅이 명 [대응어] 아가미.
물속에서 사는 동물, 특히 어류에 발달한 호흡기관. ¶저짝의 광어가 아직도 {아골뎅이가} 벌렁벌렁허고 있으니께 저걸로 주시오.
지역 전북.

아구니 명 [대응어] 손아귀.
엄지손가락과 다른 네 손가락과의 사이. 또는 세력이 미치는 범위. 또는 손으로 쥐는 힘. ¶사과를 {아구니에} 쥐다. ¶그의 {아구니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아구니가} 억세다.
지역 고창.

아구똥하다 형 [대응어] 당돌하다.
꺼리거나 어려워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이 올차고 다부지다. ¶옛날에는 애들이 놀 거 없고 먹을 거 없었은게 동네에서 {아구똥한} 놈들이 좀 있었지.<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전북.

아구뚱허다 형 [대응어] 당돌하다.
☞아구뚱하다. ¶아따, 고 자슥 지그 애비 타겨 갖고 {아구뚱허네} 이~ 뽀시락 장난도 잘허고.
지역 고창.

아구배 명 [대응어] 아그배.
☞아그배.
지역 무주, 익산.

아구빨 명 [대응어] 입심.
쉬지 않고 기운차게 거침없이 말하는 힘. ¶이번 시장은 예전이는 경찰이어서 도둑놈 잡는 거나 잘하지 {아구빨은} 없어서 말은 못혀.<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전북.

아구심 명 [대응어] 아귀힘.
손아귀에 잡아 쥐는 힘. ¶아따 그 할아부지는 나이가 먹었어두 {아구심이} 장난이 아니더만.
지역 무주, 군산.

아구지 명 [대응어] 아가리.
'입'을 낮잡아 이르는 말. ¶긍게 골케만 계속혀 봐.[아구지에서], 짐일성 아바이가 쏟아질튼께! <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아구차다 형 [대응어] 아귀차다.
마음이 굳세어 남에게 잘 꺾이지 아니하다. ¶승이 최간디, 참 체신은 쪼깐해두 참 사람이 오기가 있어가지구, 솔찬히 {아구차당게}. ¶허는 짓이 이쁜디다가 일도 {아구차게} 잘 헌게 동네에서 일등 신부감으로 통허지. ¶키는 작지만 환희는 하는 일 마다 {아구차게} 해 낸다.
지역 전북.

아구탱이 명 [대응어] 아가리.
'입'을 속되게 이르는 말. ¶저 입 놀리는 거 좀 봐봐. 저 {아구탱이를} 좀 다물어 버렸으면 쓰겄네. ¶{아구탱이}는 바르게 달렸는디 왜 말은 바르게 못 허는지 모르겄어. ¶함부로 입을 놀리다가는 {아구탱이가} 돌아갈 줄 알아야.
지역 전북.

아구통 명 [대응어] 아가리.
'입'을 속되게 이르는 말. ¶옛날 선생님이 그런 말 많이 했지. 너 {아구통} 한 번 맞아 볼래? ¶옛날에는 학부모가 애들 때려서라도 갈쳐달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아구통} 많이 때렸는디, 지금은 때리면 경찰서 가지요.<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전북.

아굴지 명 [대응어] 아구지.
'입'을 속되게 이르는 말. ¶춘향이 홰를 ?여 여보 도련임 {아굴지} 보기 실소 그만 울고 ?력 말리나 ?오.<완판본 열여춘향수절가上>
지역 전북.
해설 '아가리'의 정확한 어원은 알 수 없으나, '아갈+-이'로 분석된다. 방언형에 '아굴, 아구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아갈, 아굴'이 어원인 것으로 보인다. 전북 방언 '아굴지'는 '아굴'에 접미사 '-지'가 연결된 것이다. 방언형 '아구지'는 '아굴지>아구지'의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아굿심 명 [대응어] 아귀힘.
손아귀에 잡아 쥐는 힘. ¶남자허믄{아굿심이제}.
지역 전북.

아궁지 명 [대응어] 아궁이.
방이나 솥 따위에 불을 때기 위하여 만든 구멍. ¶{아궁지에} 불을 지피거라.

지역 임실.

아그 명 [대응어] 아이.
나이가 적은 사람. ¶원판 말수가 적은 {아그라서} 겉으로 내색은 안 허도 간만에 즈그 아부지 엄니 만난 것이 에지간히 좋은갑드라.<윤흥길, 빛가운데로걸어가면> ¶{아그들} 들어 좋 거 한나도 없는 이얘기그만, 야야, 얼릉 자.<최명희, 혼불> ¶엥간허믄 {아그덜} 앞에서는 조심히야 쓰겄소. ¶글먼, 거그 가서 지까심 허고, {아그들} 밴또 싸 줄랑게 마른 새비 조까 사옴서 날도 더웅게 냉콩국시랑 사 먹고 오게 이~ 고거슨 나가 개운허게 쏠랑게~. ¶{아그들은} 정을 담거서 적당히 때려 갖고 키워야 헌당게, 옹야 옹야(오냐 오냐) 허지 말고. ¶{아그야}, 안 비는 거그서 두렁두렁 멋이라고 허지 말고 앞으로 나와서 떳떳허게 쪼사대뻐려라. ¶{아그야}, 넌 쪼까 빠지란 말이다.
지역 전북.

아그대다그대 부
열매가 많이 달리거나 열린 모양. ¶어찌 그리 소가지라고 꼭 심통불통 꼬부랑통인고, 앞남산 밤대추는 {아그대다그대} 열렸다드니. 옹구네 머리통 속에는 원(元:원뜸)에서 머이 어쩡고오 허는 생각만 아그대다그대 열렸제? 잉?<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아그작아그작 부 [대응어] 어기적어기적.
팔다리를 억지로 움직이며 부자연스럽게 느릿느릿 걷는 모양. ¶그러먼왜 걸음은 {아그작아그작} 걷는고 예~ 일저으 소시쩍으 대동한 짐을 짊어지고 강도강을 너머쓰다가 정잣때가 늘어져서 그럽니다<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정읍.

아그장아그장 부 [대응어] 아장아장.
키가 작은 사람이나 짐승이 찬찬히 걷는 모양. ¶아기가 {아그장아그장} 걸음마를 한다.
지역 전북.

아까막새 부 [대응어] 아까.
조금 전 무렵에. ¶"그러면 니가 이 세상을 거반 (6) 다 알겄구나." 근게로, "예, 알지요?"[일동: 웃음], "그러머는 너 {아까막세(조금} 전에) 왔던 그 어떤 여자 하나가 들오고 대가리 둘 돋힌 놈이 들오고 그?는디 그게 무엇이냐?"<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에이, 너 땜시 베려버렸다!" "벨 수 읎지. 막가지로 촐삭거려보자." "아자씨가 안 오까?" "아녀! {아까막새} 신사복 입고 나갔응게 밤 늦게사나 올 것이고만." 나는 혼자만 하기가 조금은 겁이 나기도 해서 거짓말을 한다.<이병철, 모래내 모래톱> ¶평순네에게 다그친다. "무신 짓은 무신 지잇? 넘으 상관 말으시고 어서 들으가서 밀지울이나 싯쳐 갖꼬 한 순구락 잡술 일이제. {아까막새는} 바쁜 소리 혼자 다 허등마는, 왜 가는 사람을 붙들고 찐드기맹이로 놓들 안히여?"<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아까막새'는 '아까+막+에'의 구성을 가진다. '막'은 "무렵"의 뜻을 가진 명사이고 '새'는 '에'의 이형태로 보인다. 따라서 "조금 전 무렵에"의 의미를 띤다.

아까막시 부 [대응어] 아까.
☞아까막새. ¶"{아까막시} 길수네 엄니가 길수란 놈 찾니라고 우리집에 댕겨갔다."<윤흥길, 소라단 가는 길>
지역 전북.

아까정께 부 [대응어] 아까.
조금 전에. ¶오마! 귀신이 곡헐 노릇이네. {아까정께} 여그 있었는디 어디로 갔디야. 발 달린 것

도 아닌디 어디로 갔지?
지역 전북.

아까지 부 [대응어] 아까.
조금 전에. ¶니가 하루종드락 찾던 사램이 {아까지} 저쪽으로 나가던디. 얼른 뛰어 가봐. 그럼 놓치지 않을 것 같은 게.
지역 전북.

아까참에 부 [대응어] 아까.
조금 전 무렵에. ¶{아까참에} 기표가 바늘끝 같은 눈으로 쏘아보며 “네 안한테 말을 잘 이르거라.” 했던,<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아까참에’는 ‘아까+참+에’의 구성으로 이루어졌다. ‘참’은 “무엇을 하는 경우나 때”를 의미하는 명사이고 거기에 처격 조사 ‘에’가 연결된 것이다.

아까침에 부 [대응어] 아까.
☞아까참에. ¶{아까침에} 머라고 혔드라?
지역 전북.

아깜새 부 [대응어] 아까.
조금 전에. ¶{아깜새} 홍분헌 것맹이로 나이로 따지자면 나잇살 더 묵은 위세를 부리는 게 바로 권위주의란 거이시. 조봉래90 ¶{아깜세도} 시시닥거림서 윗마슬 가데. 조봉래1715
지역 전북.

아나 감
‘여기 있다’를 이르는 말. ¶하토 좋아 허는 놈은, 깐난애기 어렸을 적에도 하토짝 줌서 {“아나}, 하토” 험서 손에다 쥐어 주먼 냉큼 울음을 뚝 끄처버렸당게요. ¶“니가 머 밥은 얼매나 잘허냐?” “나랏님 수랏상을 올릴란디?” “ {아나} 수랏상.” 안서방네는 키녜 턱밑에다 상 받쳐 밀어올리는 시늉으로 두 손을 후욱 치켜 들이댔다.<최명희, 혼불> “아자씨유! 입만 벌리믄….” “ {아나} 술 먹어라.” 입 막을라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아덜 명 [대응어] 아들.
남자로 태어난 자식. ¶한 오십 되드락 일곱 살 먹은 아들 하나만 있지 아무것도 없어요.[조사자 : 예.], 근디 그 동네서 머심사는 김서방이라는 사람 {아덜} 하나가 일곱 살 동갑인디.<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효자라는 분이 자기 아버지를 뫼시고 나라 임금을 뫼시고 길을 가게 되었는데, 느닷없는 홍수가 내밀어가지고서 물이 불어온다 이거여. 그래서 그 {아덜되는} 분이 자기 아버지를, 임금을 다 모시게 되면 떠내려가 죽게 생겼고,<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응. {응}. 궁개로 우리 {아덜리} 내가 노늘 조깨 사그라. 퇴지긴씽개 돈 두먼 몯 씽개 노널 조깨 사랑개,<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우리 {아덜을} 장가보내야겠는데 참한 아가씨 좀 구해 주소. ¶너무 아덜 아덜 허지마시오. 어디 {아덜} 없는 집은 설어버 살겄오.
지역 전북.

아따꼴 명 [대응어] 깍두기.
편을 갈라 놀이를 할 때 남는 한 사람. 사람 수가 맞지 않으면 양 편 어느 쪽으로도 끼어서 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보통 놀이를 아주 잘하거나 나이가 어려 잘 못하는 사람을 시킨다. ¶철수 동생은 아따꼴 시키자!
지역 전북.

아라내기 명 [대응어] 아름드리.
둘레가 한 아름이 넘는 것.
지역 전북.

아래이 명 [대응어] 아랑주.

소주를 고고 난 찌꺼기로 만든, 질이 낮고 독한 소주. ¶피곤헐 때는 {아래이} 한잔 허고 푹 자버리면 그것 만치 좋은 게 없어. 최고여.

지역 전북.

아래짝 명 [대응어] 아래쪽.

아래가 되는 쪽. ¶물이 {아래짝으로} 빠지기 시작흐믄 배얄때기가 부릉가 즈그들끼리 모태서 서로 보듬고 낫바닥을 할타감서 아이고 작것들이 넘부꾸란지도 모리고 대나지 그리야 쓰겄냐고

지역 고창.

아랫것 명 [대응어] 아랫마을.

한 마을의 아래쪽이나 지대가 낮은 곳에 있는 마을. ¶동네가 크먼 벌시암 위로 웃겉이, 벌시암 아래로 아랫겉이라고 혀.

지역 전북.

아랫눈썹 명 [대응어] 속눈썹.

눈시울에 난 털. ¶눈동자가 맑고 {아랫눈썹도} 길게 뻗으 가지고 눈이 참 매력적이여.

지역 남원, 무주, 순창, 완주, 익산.

아랫더리 명 [대응어] 아랫도리.

허리 아래의 부분. 또는 허리 아래 부분에 걸치는 옷. ¶옛날으 고시마기라고 있어. 고것이 뭐냐믄 일본 여자들이 {아랫더리에} 둘르는 치마 같은 것이여. ¶독사가 지나가는 것을 보니 {아랫더리가} 후들 후들 거린다. ¶매를 맞아야 쓴게 어서 {아랫더리를} 싸게 걷어라잉.

지역 전북.

아랫두리 명 [대응어] 아랫도리.

가랑이가 져 두 다리를 꿰어 입을 수 있게 되어 있는 아래옷. 또는 허리 아래 부분. 또는 사람의 생식기를 이르는 말. ¶"옴매옴매, 저 총각 얼굴 뻘개지는 것 조깨 보소이! 진짜 머시매가 맞는가 보게 어디 한번 {아랫두리를} 벳겨봐야 되겄다." 명주누나 말마따나 호말만한 '뿌르좌지 딸년들'이 멀쩡한 사람을 면전에 세워놓고<윤흥길, 소라단 가는 길> ¶서너살 꼬맹이들이야 {아랫두리}도 안 입고 동네 돌아 댕기는 것이 흔헌 일이었지. ¶여자의 {아랫두리를} 보닌게 흐건 박속같은 살결이 곱고 아릿따웁고 참 그 뭣이 동허냐 허믄 청동(충동, 衝動)이 동혀.<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그러고 산말랭이라니께 말이 하절이지 밤중에는 엄동이나 진배없을 틴디 {아랫두리} 개릴 이불 한쪽이나 지대로 천신허냐?" "그럽요."<윤흥길, 장마>

지역 정읍.

아랫불 명 [대응어] 반딧불.

반딧불잇과의 딱정벌레. 또는 반딧불이의 꽁무니에서 나오는 빛. ¶저그 빤짝빤짝 한 것이 {아랫불인가벼}. ¶{아랫불이} 반짝거리다

지역 전북.

아랫수염 명 [대응어] 턱수염.

아래턱에 나는 수염. ¶말없이 맨지작맨지작 {아랫수염을} 쓰다듬고만 있어.

지역 진안, 김제, 부안,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아랫쉬엄 명 [대응어] 턱수염.

☞아랫수염.

지역 김제, 부안, 순창, 완주, 익산.

아랫쉬옴 명 [대응어] 턱수염.

☞아랫수염.

지역 임실, 장수.

아랫시엄 명 [대응어] 턱수염.

☞아랫수염.

지역 정읍.

아랫입설 명 [대응어] 아랫입술.
아래쪽의 입술. ¶뭐신가 불안한 게 있는 게빈지 {아랫입설을} 잘근잘근 씹었쌌더라고. ¶루즈 바를 때 {아랫입설을} 두춤하게 바르고 윗입설은 얇게 발라야 섹시하게 보인다.
지역 고창, 김제,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정읍, 진안, 부안, 임실.

아랫입소리 명 [대응어] 아랫입술.
☞아랫입설.
지역 남원, 문주, 장수.

아랫터리 명 [대응어] 아랫도리.
허리 아래의 부분. ¶작대기로 짚고 아랫터리가 흥청흥청허니 메뚜기맨이로 생겼어. 얼매나 못 먹어서 말랐는가.
지역 전북.

아랭이 명 [대응어] 아랑주.
☞아래이.
지역 전북.

아레 명 [대응어] 그저께.
어제의 전날. ¶{아레부터} 오늘까지 아팠다
지역 남원, 무주, 장수.

아레께 명 [대응어] 그저께.
어제의 전날. ¶{아레께에는} 날씨가 좋았는데 어제부터 흐리다 ¶"{아레께} 옆집 짝은 아들이 서울서 내려 왔는디 돈을 많이 벌어왔대야". ¶윗집 할아버지가 {아레께} 돌아가셨대.
지역 무주, 남원.
해설 '아레', '아레께'는 "그저께"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3~4일 전의 가까운 과거"를 일컫기도 한다.

아르치다 동 [대응어] 가르치다.
지식이나 기능, 이치 따위를 깨닫게 하거나 익히게 하다. ¶아 고놈이 정답 좀 {아르쳐} 달라고 자꼬 구찮게 허더라고. ¶형이 동생에게 숟가락질을 하는 법을 {아르쳐} 주었다.
지역 전북.

아리춤 명 [대응어] 아랫마을.
아래쪽에 있는 마을. ¶내가 요그 {아리춤에} 가는디 나 잘 따라 댕기믄 물건이 잘 팔릴 거여. 긍게로 해찰하지 말고 잘 붙어 댕겨.
지역 전북.

아마구 명 [대응어] 방한모.
추위를 막기 위하여 쓰는 모자. ¶요새 {아마구} 같은 것을 장이 가서 하나 사다가는, 빌고 뒤에서 가만히 있다가 빌고 나가는디, 이놈을 딱 하니 통부처에다 씌어 놨단 말이여.<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부안.

아마트 부 [대응어] 아무튼.
의견이나 일의 성질, 형편, 상태 따위가 어떻게 되어 있든. ¶"그런데 이거시 언제까지라고 혔지?" 헌게 " 그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시작이라도 혀야지, {아마트}" 이러고 말대꾸를 헌게 민망시럽더라고.
지역 전북.

아매 부 [대응어] 아마.
단정할 수는 없지만 미루어 짐작하거나 생각하여 볼 때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 ¶삼일 지내도 인자 아무말이 없고 밥만 주어 그 눈치가 싹 닮어졌단 말여. "아하 너그가 무신 병이 걸렸는디 나를 {아매} 잡어 먹을란게비다." 용천배기(나병환자)가 사람 잡으먹는다 거든. 잡

어먹는다고서 한 열흘이나 지났는디, "총각, 총각." 불렀단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애기 헌게 저도 거기서 가서 노인들 이애기 허는 소리만 듣고 앉았어. 그러고 있응개, 노인 하나가 그려. "이참에 급제는 {아매} 경상도 아무개사는 이원보가 할 것이네." 그러거든 노인 하나가, 자기 말을 하거든.<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말로는 만 석이라고도 허고, 한 칠팔천 헌다고도 허고 말이여." "하이고, 그러면 이쪽허고는 대도 못허게 차가 지능 거이그만잉." " {아매}, 한 오천 석은 헝갑데." "아니여, 말로는, 만석꾼이라든디?"<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아무러믄 감 [대응어] 아무려면.

말할 것도 없이 그렇다는 뜻으로, 상대의 말에 강한 긍정을 보일 때 하는 말. ¶{아무러믄}, 당연히 그래야지.

지역 전북.

아무럼 감 [대응어] 아무럼.

말할 것도 없이 그렇다는 뜻으로, 상대의 말에 강한 긍정을 보일 때 하는 말. ¶"그러까아?" "{아무럼요}."<최명희, 혼불> ¶어려울 때 봐준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지요. {아무럼} 그러믄요,<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전북.

아무케 부 [대응어] 아무렇게.

되는대로 막 하는 상태에 있게. ¶한 대 딱 돌아앉어서 피고 앉었다가, '아 그렇게 {아무케나} 코 끄트리다가 한번 놔야겄다.' 코 끄트리 몰랑몰랑헌. 코 끝에다가<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들어 가거든 {아무케라도} 허라." 고. 그 마서방이 그 들었단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조심히여.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능게빈디, 찢어진 입이라고 나발나발 {아무케나} 좆어생기네? 나는 시방 작은아씨를 뫼시고 가능 거이여. 보면 몰라?"<최명희, 혼불> ¶공부하기 싫다고 {아무케나} 대답하면 안된다. ¶무슨 일을 혀도 신중허니 허야지 너처럼 {아무케나} 해 놓응게 이런 사달이 난단 말여. ¶너와 내가 친하다고 말을 {아무케나} 하면 안된다.

지역 전북.

아문 부 [대응어] 아무렴.

말할 나위 없이 그렇다는 뜻으로, 상대편의 말에 강한 긍정을 보일 때 하는 말. ¶{아문} 그려 자네 말이 옳아. ¶{아문}, {아문}, 그래야지<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그런데 이쟈 그제는 며칠날까지 그 돈을 안 된다 치면 인자, 이. 목숨을 바친다는 거여.[조사관 : 세금요?], {아문}. 그야 세금이지. 그야말로 군수지.<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부안, 남원.

아믄 감 [대응어] 아무렴.

말할 나위 없이 그렇다는 뜻으로, 상대편의 말에 강한 긍정을 보일 때 하는 말. ¶{아믄}, 빤듯이 용케도 히 놨응게 그러제 이~. ¶{아믄요}, 잘 찍어 갖고 잘 솎아 뽑아야 헌당게요.

지역 고창.

아부님 명 [대응어] 아버님.

남자인 어버이, 또는 자녀를 둔 남자를 자식에 대한 관계로 이르는 말, 또는 자녀의 이름 뒤에 붙여, 자기 남편을 높여서 이르거나 부를 때 쓰는 말. ¶헐라고 허는디 당초 유언을 않거든. 근게, " {아부님} 허실 말씀 있으면 허쇼, 허쇼." 헌게로 안혀.<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그전에 그 막둥이 딸을 부른게로, " {아부님} 지 맴인간디요? 아부님 맴이제." 그려.<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그거때 당시

에, 우리 조분니미나 너무나 간시미 주러떤 아부니미, '아부니미'의 ' {아부님'은} '아버님'의 전북 방언형이다. 주로 '아분님'으로 실현된다. 이 문장에서도 '아부님~아분님'<지역어 자료 총서, 고창> ¶{아부님}, 진지잡수십시요.
지역 전북.

아부씨 명 [대응어] 아버지.
남자인 어버이, 또는 자녀를 둔 남자를 자식에 대한 관계로 이르는 말, 또는 자녀의 이름 뒤에 붙여, 자기 남편을 대우하여 이르거나 부를 때 쓰는 말. ¶칠현이 {아부씨}, 갸를 잡지 말고, 나헌테 뭐라고 하쇼.
지역 전북.

아부지 명 [대응어] 아버지.
남자인 어버이, 또는 자녀를 둔 남자를 자식에 대한 관계로 이르는 말, 또는 자녀의 이름 뒤에 붙여, 자기 남편을 이르거나 부를 때 쓰는 말. ¶나허고 절친헌 친구여. 친구지만 친구가 친구 일을 히주야는디 자네 {아부지는} 명당으 못들어가. 절대로 들어가들 못허네.<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연구를 하기를 아들이, "에라, 어머니를 구라허 나서야겠다, 아니 {아부지를} 구하러 나서 봐야겠다!" 그래 사방을 다녀봤어. 그런데<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그날 죽을 면을 했지. 날이 희끄무레하게 새는디, 자그 {아부지가} 팥죽같은 땀을 흘리며 자그 아들 음성을 가지고 왔드래여. 그려서<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너 장개 가는 것은 보고 죽으야담서 눈을 감으신게 느그 아부지여. ¶우리 {아부지가} 면장 할 때 가로수에 심은 나무가 세월이 흐르자 울창하게 자라 동네의 명물이 되었구나.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임실, 장수, 정읍, 진안, 익산.

아삼삼 부 [대응어] 아슴푸레.
빛이 약하거나 멀어서 조금 어둑하고 희미한 모양. ¶저그 산중에 불빛이 {아삼삼} 보이네. 저그 가서 물이라도 얻어 먹을 수 있으믄 좋으련만.
지역 전북.

아새끼 명 [대응어] 애새끼.
아들과 딸을 비속하게 이르는 말. ¶임마, 어르신들께서 거시기로 밤송이를 까라시면 {아새끼는} 찍소리말고 후딱 거시기부텀 끄내들고 봐야지.<윤흥길, 소라단가는길> ¶글고 또 지놈덜은 {아새끼를} 안 낳는데?<조봉래, 풀벨골 시비주의> ¶저 이성계가 훈련을 나간 날 죽여 놨으니, 다 살아 갖고 즈그 집에 온다고 하면은 그 즈그 부모가 {아새끼를} 죽였으니, 이 애를 내버려둘 건가, 같이 죽여 버리지.<구비문학 남원>
지역 전북.

아수보다 동 [대응어] 아우보다.
☞아시보다.
지역 무주, 군산, 완주, 익산.

아수타다 동 [대응어] 아우보다.
☞아시타다.
지역 무주, 완주, 익산.

아숩다 형 [대응어] 아쉽다.
없거나 모자라서 답답하고 만족스럽지 못하다. ¶몰시상에 부뤄뵐 게 한나도 없는 그 냥반이 뭣이 {아수워서} 너 같은 화냥잡것을 질투헌다냐?<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쌀이 없어어, 돈이 없어? 옷이 없어어. 대관절 머이 {아숩다고} 있는 전답 다 팔어다 베실이라고 하나 얻드니, 무신 존 꼴을 보능고이? 어디 조께 봅시다.<최명희, 혼불> ¶그 가문에 그 재산에 그 학식에, 머이 {아숴서} 만주 벌판을 헤매고 댕김서 집을 두고 못 와아, 긍게. 다 지은 죄가 있잉

게 그러제.<최명희, 혼불> ¶장손이 대를 잇을 아들이 없는 것이 {아숩지만} 어쩐다냐. 맘대로 안되는다. ¶언제는 필요없다던 철수를 이제는 사람수가 모자라 {아숩게} 되니 다시 사정하여 참여하게 하였다.

지역 전북.

아숭개 명 [대응어] 냉이.

십자화과의 두해살이풀. 주로 봄철에 나물을 무쳐 먹는 데 사용한다. ¶봄들에 가보믄 천지가 다 {아숭개여}.

지역 순창.

아스므레하다 형 [대응어] 아슴푸레하다.

똑똑히 잘 보이거나 들리지 않고 흐리고 희미하다. ¶그러나 술시도 말쯤해서는, 아무리 고행으로 친다고 하더라도, 걷는 일에 발이 타듯이 아프고 졸리운데다 피곤해져, 목숨까지도 귀찮아져 버릴 정도였는데, {아스무레한} 시야가 어쩐지 달리 보여,<박상륭, 죽음의 한 연구>

지역 전북.

아슥지다 형 [대응어] 으슥하다.

무서움을 느낄 만큼 깊숙하고 후미지다. 아주 조용하다. ¶골목길이 아슥지다. ¶밤거리가 아슥지다.

지역 전북.

아슥하다 형 [발음] [아스가다/아스카다] [대응어] 아스라하다.

어떤 사물이나 장소의 거리가 까마득하게 멀다. 또는 먼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분명하지 않고 희미하다. ¶처 멀짝이서 {아슥허게} 무신 형체가 보인게로 구신인 줄 알고 놀라 자빠졌당게.

지역 전북.

아슨풀하다 형 [대응어] 아슴푸레하다.

빛이 약하거나 멀어서 약간 어둡고 희미하다. ¶내 어린날! 아슬한 하날에 뜬 연같이 바람에 깜박이는 연실같이 내어린날! {아슨풀하다}<김영랑, 연>

지역 전북.

해설 전라 방언 '아슨풀하다'는 표준어 '아슴푸레하다'에 대응하는 어휘로 "아스라하다", "까마득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슨풀하다'는 '아슴푸레하다'에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슴(아슨)'에 형용사 파생 접미사 '-푸레하다(풀하다)'가 연결된 것이다.

아슴찮다 형 [대응어] 고맙다.

다른 사람의 호의나 도움 따위에 대하여 마음이 흐뭇하고 즐겁다. ¶노라가 받아 펴보니 운동화다. 퍽 반가왔다. "아이구 {아슴찮애라}. 어쩌면 ……"<채만식, 인형의 집, >

지역 전북.

해설 '아슴하다'가 '아슴하지 않다'로 쓰이면서 '아슴치 않다'가 되고 다시 '아슴찮다'로 축약된 것으로 보인다.

아슴하다 형 [대응어] 아슴푸레하다.

빛이 약하거나 멀어서 조금 어둑하고 희미하다. 또는 기억이 똑똑히 떠오르지 않고 매우 흐릿하다. 또는 똑똑히 보이거나 들리지 않고 흐리고 희미하다. ¶그때, 어둠에 먹히어 그 모습은 보이지도 않는데, 대문에까지 와서 돌아본 오류골 작은집의 사립문에서는 {아슴한} 불빛이 비치고 있었지.<최명희, 혼불> ¶밭 갈고 씨 뿌리고 거친 손으로 고단하게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함인가. 아니면,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조차 {아슴한} 사람의 서늘한 그림자를 가슴에 드리우고, 한평생 외로이 사는 것을 말함이었던가. <최명희, 혼불> ¶그리고 저 아래 어디선가는 꽹매기 소구 치는 소리도 {아슴히} 들리고, 그에 섞여 간간이 사람들이 터뜨리는 웃음 소리도 함께 묻어 왔다.<최명희, 혼불> ¶구름 낀 하늘에

는 별들이 {아슴하게} 보인다.
지역 전북.
해설 전라 방언 '아슴하다'는 주로 조정래의 작품에서 발견된다. 부사로는 '아슴아슴'을 쓰고, 형용사로 '아슴아슴하다'가 사용되고 있다.

아시 명 [대응어] 애벌.
여러 차례 같은 일을 거듭하여야 할 때에 맨 처음 대강 하여 내는 차례. ¶장씨가 신축 빌딩의 2층에서 일하다가, {아시} 바(비계)가 무너앉은 바람에 한쪽 발에 골절상을 입었다는 것이었다. <최일남, 장씨의 수염>
지역 김제, 무주, 군산, 완주, 익산, 진안.

아시갈이 명
처음으로 하는 논갈이. ¶아시갈이는 생바닥 가는 거. 처음에 생바닥 갈아 물 대는디.
지역 전북.

아시무락하다 형 [발음] [아시무라가다/아시무라카다] [대응어] 아슴푸레하다, 아스라하다.
빛이 약하거나 멀어서 조금 어둑하고 희미하다. 또는 또렷하게 보이거나 들리지 아니하고 희미하고 흐릿하다. 또는 기억이나 의식이 분명하지 못하고 조금 희미하다. ¶사방의 끝이 {아시무락하고} 까마득한 벌판의 넓이도 광막하기 그지없었지만 하늘의 넓이는 그보다 훨씬 더 넓은 것 같았다.<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아시무락하다'는 "희미하다"라는 뜻을 가진 '아슴하다'의 어근 '아슴'에 형용사 파생 접미사 '-우락하-'가 연결된 것이다.

아시므레허다 형 [대응어] 아슴푸레하다, 아스라하다.
빛이 약하거나 멀어서 조금 어둑하고 희미하다. 또는 또렷하게 보이거나 들리지 아니하고 희미하고 흐릿하다. 또는 기억이나 의식이 분명하지 못하고 조금 희미하다. ¶그 때는 왜 그리 콧물도 많이 나왔는가 몰라. 웃드리에 콧수건을 달고 학교 댕기던 시절이 {아시므레허다}.
지역 전북.

아시보다 동 [대응어] 아우보다.
아우보다.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부안,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 무주, 군산, 완주, 익산.

아시타다 동 [대응어] 아우보다.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부안, 순창, 군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무주, 완주, 익산.

아식하다 형 [발음] [아시가다/아시카다] [대응어] 비슥하다.
한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다. ¶어깨가 삐뚜러졌능가 옷을 입으믄 매번 이렇게 옷이 한쪽으로 {아식허게} 흘러내려. 병원에 한번 가봐얄랑게벼.
지역 전북.

아실하다 형 [대응어] 이슥하다.
밤이 꽤 깊다. 또는 지난 시간이 얼마간 오래다. ¶밤이 아실하게 깊다. ¶아실한 시간이 흐르다.
지역 전북.

아심프레 부 [대응어] 아슴푸레.
빛이 약하거나 멀어서 조금 어둑하고 희미한 모양. 또는 기억이나 의식이 분명하지 못하고 조금 희미한 모양. ¶요즘은 별빛이 {아심프레} 보여. 미세먼지가 뭔가 때문인게벼. ¶지난 날으 첫사랑이 누구였는지 이름조차 선명하지 않게 {아심프레} 생각이 나는디도 그냥 좋으네.
지역 전북.

아씨럽다 형 [대응어] 안쓰럽다.
손아랫사람이나 약자의 딱한 형편이 마음에 언짢고 가없다. 또는 손아랫사람이나 약자에게 도움을 받거나 폐를 끼쳤을 때 마음에 미안하고 딱하다. ¶아들이 일찌감치 처량 사별혔어. 그래서 항시 나는 갸가 {아씨러워}. ¶아부지가 쉬실 나이가 되얐는디도 한창인 내가 이리 아파 누워 있은게 제 병수발도 히야 하고 돈도 벌러 나가야 되고.그래서 아부질 보면 겁나게 {아씨럽지요}.
지역 전북.

아아리 명 [대응어] 으아리.
미나리아재빗과의 낙엽 활엽 덩굴나무. 줄기는 높이가 2미터 정도이며, 잎은 마주나고 우상 복엽이다. ¶요내 머리 하 좋대여/삼단에다 전혔더니/몽당솔이 다 되었네/요내 얼굴 하 좋대여/{이아리꽃에} 전혔더니/시집 삼 년 살고낭게/헹펜없이 되얐구나(남원 시집살이노래-“중신 아바 망신아바”)<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남원.

아야 감 [대응어] 야.
손아랫사람이나 나이 어린 사람을 부르는 말. ¶{아야}, 거시기 간밤에 믄 일 있었냐? ¶으찌 허는 일마다 헛빵잉게 삼재 드렀능게비요 {아야}, 서대지 말고 빤듯이 앙거 있어야, 너 안 중게. ¶{아야}, 거시가 느그들 글라믄 딴디 가서 처묵으랑게.
지역 고창.

아오 명 [대응어] 아우.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이거나 일가 친척 가운데 항렬이 같은 남자들 사이에서 손아랫사람을 이르는 말. ¶“아 이러고 저러고 못간다고 헙디다요.” “그먼 두째 {아오가} 가보소.”
지역 순창, 군산, 익산, 임실, 진안.

아오님 명 [대응어] 아우님.
뜻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이거나 일가 친척 가운데 항렬이 같은 남자들 사이에서 손아랫사람을 높여서 이르는 말. ¶행님, {아오님} 해쌓는데 말처럼 우애가 깊어 뵈지는 않더랑게. 쏘 같어. 기냥. ¶{아오님}, 오늘 산에 가지 않을거야?
지역 전북.

아올라지다 동
밥이 윤기가 나고 부드럽다. ¶보리만 가꼬 밥허믄 안 아올라져. 쌀조깨 섞어서 밥히야 아올라지고 맛있제. 시간도 더 걸려.
지역 전북.

아으레 명 [대응어] 아흐레.
아홉 날. ¶중신을 보구 그 담달 {아으레에} 혼인을 혔어.
지역 정읍.

아이가[1] 감 [대응어] 어.
상대방 말을 부정하는 뜻으로 말을 시작하거나 상대방 말에 뜻밖이라는 의미로 하는 말. ¶아이가? 땅금(땅값)만 주면 되제.
지역 전북.

아이가[2] 감 [대응어] 아이고.
아프거나 힘들거나 놀라거나 원통하거나 기막힐 때 내는 소리.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탄식할 때 내는 소리. ¶{아이가}, 그만 허랑게요. 꽃니 저거이 먼 쉭이 있다요?<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아이갸 감 [대응어] 아이고.
아프거나 힘들거나 놀라거나 원통하거나 기막힐 때 내는 소리.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탄식할 때 내는 소리. ¶“어서 얼핏, 옷 갈아 입엇!” “{아이

갸)! 이리 급해서!"<채만식, 탁류> ¶{아이갸}! 내 차 타고 서울로 가서 한강철교에 자살로 할라 캤더니, 그럼 그 말만 꼬옥 믿고 그 만두오, 예?<채만식, 탁류> ¶{아이갸}, 얼릉 풀어 가랑게. 나도 후딱 집이 들으가서 밀지울이라도 싯쳐 갖꼬 한 숟구락 먹어야제잉.<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아이다 형 [대응어] 아니다.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 ¶그란데 젊은 놈이 한눈에 이상한 기라요. 눈째고 얼굴 생김이 산에서 산 사람이 {아이다} 싶드마요. 그래 슬쩍 몇 년이나 약초럴 캤나물으니께네 칠팔 년 됐다 안캅니꺼.<조정래, 아리랑> ¶긍개 그 양반도 장개갈 나이도 {아인디} 기양.<2009 전북 임실>

지역 전북.

해설 표준어와 같은 형태인 '아니다'도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아자씨 명 [대응어] 아저씨.

남남끼리에서 성인 남자를 예사롭게 이르거나 부르는 말. ¶깔따구 {아자씨}! 거그 말캉 미테 있는 끄나플 조까 주실랑가요?

지역 고창.

아장살이 명

오쟁이나 독에 담아 죽은 어린 아이를 산에 묻거나 나무에 매달아 놓는 일. 또는 그렇게 담은 오쟁이나 독. ¶아장살이 싸 논 거. 아장살이 동우다 묻어다 소나무다 매달아 놨드랑만. ¶애기 죽으면 오장치다 싸서 산에다 묻어 놔. 그게 아장살이여.

지역 전북.

아재 명 [대응어] 삼촌(호칭).

아버지의 형제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특히 결혼하지 않은 남자 형제를 이르거나 부른다. ¶그들은 {아재와} 조카 사이인 것 같았다.

지역 고창, 남원, 순창, 임실.

아적 명 [대응어] 아침.

날이 새면서 오전 반나절쯤까지의 동안. ¶꼼지락 두렁두렁 고시랑에 늦잠 퍼잔 오늘 {아적} 취한 잠 때리고 차면서 주름 접처진 쌍판때기에 식습관처럼 민경을 대 본다. ¶글고, {아적부텀} 날씨도 쎄코롬험서 썬득썬득헝게 감기도 조심허겨이~. ¶{아적은} 성급한 초가실 색바람 바람똑에 가만히 안자 잇응게.

지역 고창.

아적끼레 명

날이 새면서 오전 반나절쯤까지의 동안. ¶아적끼레 빨래 다 히놓고 장으 갔다 올라고.

지역 전북.

아적때 명 [대응어] 아침.

날이 새면서 오전 반나절쯤까지의 동안. 또는 아침밥. ¶{아적때부텀} 저녁 늦게꺼정 일허고 들왔는디 안 피곤허고 베겨? ¶밥허고 반찬허고 {아적때를} 든든히 챙겨야 하루젱일 고생을 안 하는 것이여. ¶일꾼이 {아적때} 굶고 왔으면 세경을 반만 주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배고파서 일할 기운이 딸리기 때문이란다.

지역 김제, 임실, 고창, 남원, 순창.

아적북새 명 [대응어] 아침노을.

아침 하늘이 햇살로 벌겋게 보이는 현상. ¶저녁으 노을도 이쁘지만 나넌 {아적북새가} 더 신비롭고 예쁘더랑게. 너넌 본 적 있나?

지역 전북.

아조 부 [대응어] 아주.

보통 정도보다 훨씬 더 넘어선 상태로. ¶{아조}

초랭이 방정 자발 떰서 지랄 임병허고 자빠졌네이. ¶아따, 잉골나무럿고만 이~ {아조}, 지 꼴리는 대로 댐박에 잘도 허요.

지역 고창.

아주가리 명 [대응어] 아주까리.

대극과의 한해살이풀. ¶옛날으는 {아주가리로} 기름을 짜서 여자들이 머리으다가 곱고 단정허게 발르고 다녔지.

지역 전북.

아주마니 명 [대응어] 아주머니.

남남끼리에서 결혼한 여자를 예사롭게 이르는 말. ¶그 {아주마니가} 내게는 은인이여. 정신도 못차리고 주저 앉었는 내헌티 {아주마니께서} 내오는 흰쌀밥에 씨래기 된장국 냄새가 나는 인자 잊히지가 않는당게

지역 전북.

아즘찮다 형 [대응어] 안심찮다.

남에게 폐를 끼쳐서 미안하다. ¶양반님네헌티 요런 대접 받아보는 것언 즈그덜 평상에 첨잉게요. 선상님, {아즘찮이} {아즘찮이} 또 아즈찮이구만이라우."<조정래, 아리랑> ¶그려, 그려, 니가 사람이다. 하먼, 느그 성인디. 그제서야 마음을 놓은 호산댁은 솟구치는 서러움을 눈물로 쏟아내고 있었다. 워메, 워메, {아즘찮은거}. 시동상이 인자 사람이시. 예상이 뒤집히자 죽산댁도 비로소 고마움과 서러움이 범벅된 눈물을 줄줄이 흘리고 있었다.<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아지라이 명 [대응어] 아지랑이.

봄날 햇빛이 강하게 쬘 때 공기가 공중에서 아른아른 움직이는 현상. ¶휘문학교 정원에 서 있는 포플라의 나무 끝에 제법 파릇파릇하다. 멀리 보이는 남산에는 엷은 {아지랑이가} 끼어 아른거린다.<채만식, 염마> ¶필닐리리 필릴리 필닐리리이 필릴리이 버들피리의 부드럽고 여린 음향은 강실이의 여린 목 언저리에서 머뭇거리다가 {아지랑이} 속으로 사라져 갔었다. 그 소리는 나훌나훌 흔들리는 것도 같았다.<최명희, 혼불> ¶萬里洞에 피어오르는 아지랑이는 萬里洞에 사는 이의 사랑의 모습. 順이네가 사는집 집웅우에선 順이네 {아지랑이} 피어 오르고 福童이가 사는 집 집웅우에선 福童이네 아지랑이 피어 오르고 누이야<서정주, 시집>

지역 전북.

아지래이 명 [대응어] 아지랭이.

☞아지랭이.

지역 전북.

아지미 명 [대응어] 아주머니.

☞아짐.

지역 고창.

아지버님 명 [대응어] 아주버님.

남편과 항렬이 같은 사람 가운데 남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높여서 이르는 말. ¶{아지버님이} 잘 되믄 우리집안 장남이 잘 되는 거싱게 시상만사 좋지. 장남이 잘 돼야 집안이 서는 법인게.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아지버님}이 보살펴 주신 덕이 어디라고 왜 그걸 모르겄오. 차차 우리 신세가 피면 갚어 드리야지요. ¶{아지버님}, 철호가 어디갔는지 아시는지요.

지역 전북.

아직때 명 [대응어] 아침나절.

아침밥을 먹은 뒤부터 점심밥을 먹기 전까지의 한나절. ¶{아직때가} 되니께 핵교 간다고, 일 나간다고 사람들이 요길로 많이 댕겨. 그런게 붐비지. ¶오늘 {아직때까지는} 모든 일을 다 끝내야 합니다.

지역 전북.

아직질 명 [대응어] 아침길.

아침에 나서는 길. ¶싸나웠든 비바람으로 세수허고 곱단장허며 진 밤에서 {아직질로} 뿔딱 넘어온 조신헌 아침여인은 넘 좋게 쩨지는 기분으로 실성한 안무를 깨끗치 정리험서 콧노래 꾀꼴 꾀꼴.

지역 고창.

아짐 명 [대응어] 아주머니.

남남끼리에서 결혼한 여자를 예사롭게 이르는 말. 또는 부모와 같은 항렬의 여자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또는 남자가 같은 항렬의 형뻘이 되는 남자의 아내를 이르는 말. ¶집이 가서 재도 내주고 저 집이 가서 흙일도 히주고 허먼은 다 삯 들온다." 고. 아 대처 이놈이 저 {아짐} 시긴 대로 히야지. 안허믄 고….[일동 : 웃음], 기 여자가 전부 집이서 살림을 가사히서 허는디 삼년 넘어가니 돈이 좀 앞시드래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아들 딸 낳았겄다 그러고 사는디, 과거 얘기해서 쓸 것 있소? 헌디, 사실은 내가 이러고 저러고 해서 이랬소." 즈그 {아짐이} 뿔딱 일어나더니 시아재 앞에 가서 절허드라고. "아, 시아재 그렇게 입이 무걸 수 없다."<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아짐께서는} 지금도 건강이 안 좋으신가 봐요. ¶에이 성수씨가 그놈 갖고 살림험서, 아버지도 잘못허믄 때리고 성님도 잘못허믄 때리고, 나도 잘못허믄 때리고 허락험서 딱 매를 맽기버리거든. 저그 {아짐}기다가. "그러라" 고. 매다발 딱 놓고는 매 시개를 빼서, 방바닥을 또닥또닥 험서, "아버니가 신 하리 한죽 삼는담서라오?"<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오래 살었네." "인제부터 좋은 세상도 보고 복록도 누리셔야지요. 아짐…… {아짐이} 이렇게 허망하게 가셔 버리면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으라고요……."<최명희, 혼불> ¶그때 들어간개 형님이 한다 소리가, "이놈아. 안자고 뭐드러 왔냐?" "아, 나 새 형수씨 보고자퍼서 왔소." 어릿광대짓 험서, 치매도 보침서 "오메, {아짐} 치매도 좋네요." 옛날, 법단 치매를 입었던가, 근개 새 {아짐이} 뭐랠 것여? 귀찮다고 손을 풀을 것여, 뭘 것이여?<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워낙 눈치 있고 솜씨 빠른 무네미 {아짐이라}, 없는 집에서 있는 집으로 간 티 안 내고 무난히 넘어가다가, 근친(覲親)을 오게 되얐네.<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아짐씨 명 [대응어] 아주머니.

남남끼리에서 결혼한 여자를 예사롭게 이르는 말. 또는 부모와 같은 항렬의 여자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또는 남자가 같은 항렬의 형뻘이 되는 남자의 아내를 이르는 말. ¶덕순이는 멈칫 서며, "아짐씨 오셨는게라." 하며 고개를 꾸벅했다. "워따 인사성도 볽다. 얼렁 요 떡 한 개 묵어봐라, {아짐씨가} 맹근 것잉께." 까끔댁이 떡을 집어 내밀었다.<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아짐찬허다 형 [대응어] 안심찮다.

남에게 폐를 끼쳐서 미안하다. ¶술이 서너 순배 돌았다. 쟁우댁이 뜨근한 술국을 새로 떠 왔다. "{아짐찬허요?"} "달식이 그 총각한테 그래도 너무 면박을 그렇게 주지 마시오."<송기숙, 녹두장군>

지역 전북.

아짐찮다 형 [대응어] 안심찮다.

☞아즘찮다. ¶"아짐씨, 지까징 것덜얼 요리 생각허주시는 은혜야 골백분 {아짐찮이고} 기맥힌 것인디라, 아짐씨넌 워찌 사실라고 우리헌테 있는 땅을 몽땅 주실라고 허시는 게라.<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아척 명 [대응어] 아침.

날이 새면서 오전 반나절쯤까지의 동안. 또는 아침밥. ¶나온 출처를 알라고 헐티니 기양(그냥) 사방으서 들은 돈이니 기민을 주어버리쇼." "그럼, 그렇게 허소." 그리가지고 그 이튿날 {아척으} 집이 와서 잠을 잤어. 아척 일찍 참, 등청을 히가지고 있으닌게 감사왈 머라고는고니, "천 냥 되아T는가?" "예. 되얐읍니다."<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그 보니 듣던 말과 거의 같아. 그래서 인자 거기서 그날 저녁 지나고, 이튿날 저녁도 지내고, 그 이튿날 {아척에} 문안을 간개, "오늘 아척(아침)애는 밥을 많이 좀 가져 오니라." 고 그래[일동: 웃음], 많이 가져 오니라고 그래.<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여자 마이산이 걸어갔다는 이야기는 뭔고하니, 그전에 마이산이 없을 적에, 없을 적에 마이산 옆에 사는 주민들이, {아척에} 여자가 인나(일어나) 보니까, 그것이 뭣이 뾰쪽하게 올라서더니 사정없이 크더라는 것이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이거, 반찬 사서 지져 놨구나!" 하고, 오가리 솥단지를 열어 보니개 해물(海物 바닷고기)을 사 가지고 저져 놨는디, "내일 {아척} 반찬은 괜찮을 거다." 그런디 안 좋아(반찬이 나빠) 아척이. 낮에도 안 좋아. 울화증이 났거든.<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전북.

아칙 명 [대응어] 아침.

☞아척. ¶아 보룸, 삼시 시때, 마러자먼 삼시 시때가 아니라 꼭 {아치건}, 아침 조서그로, 삼년 나제 정심만 안올리제, {아칙까지} 올려노코 곡허고, 저녁 올리고 곡허고.(아, 보름, 삼 시 세 때, 말하자면 삼 시 세 때가 아니라, 꼭 아침은 아침 조석으로 삼 년 나지 점심만 안 올리지, 아침까지 올려놓고 곡하고, 저녁 올리고 곡하고)<2005 전북 남원>

지역 남원.

아칙북새 명 [대응어] 아침노을.

아침 하늘이 햇살로 벌겋게 보이는 현상. ¶일출을 보기 전으 {아칙북새를} 볼 수가 있는디, 그것도 나름 절경이여. 새해으 일출보러 꼭 가 봐.

지역 전북.

아칙조반 (아칙朝飯) 명 [대응어] 아침밥.

아침 끼니로 먹는 밥. ¶일요일으는 자느라 바빠. 그러케 깨워싸도 안 일어나고 {아칙조반도} 못 묵고, 낮에 때나 돼야서 일어난당게.

지역 순창.

아침땟거리 명 [대응어] 아침곁두리.

농사꾼이나 일꾼들이 아침 시간대에 끼니 외에 시장할 만할 때 먹는 음식. ¶곁두리/명/ *새꺼리 {정문연}<전북>[군산, 익산, 완주, 진안, 김제, 부안, 임실, 남원], *새꺼리 {정문연}<전북>[장수], *새끄리 {정문연}<전북>[순창], *새 {정문연}<전북>[무주], *새밥 {정문연}<전북>[진안, 김제, 부안], *때꺼리 {정문연}<전북>[정읍], *아침 {때꺼리} {정문연}<전북>[정읍], *술창꺼리 {정문연}<전북>[고창], <한국방언어휘자료집_전북편>

지역 정읍.

아침뱁 명 [대응어] 아침밥.

아침 끼니로 먹는 밥. ¶모르지마는 천석 받는 디를 썼다. 그러니깐, 공이 지, 지극허다 그런 말여. 그 양반 공을. 인제 그 저녁으는 개떡을 쪄줬지만 {아침뱁은} 잎밥을 해주야 된단 말여. 게 잎밥이 없어 쌀이.

지역 정읍.

아침북새 명 [대응어] 아침노을.

아침 하늘이 햇살로 벌겋게 보이는 현상. ¶해가 뜨기 전으 푸르스름하던 하늘이 아칙때에 갑자기

오미잣물과 치잣물이 섞인듯헌 하늘이 될 때가 있어. 그 때가 바로 {아침북새가} 있는 때여.
지역 전북.

아침절 명 [대응어] 아침결.
아침 때. ¶{아침절에} 읍내에 나가는 걸 봤는디요. 암치께도 읍내에 있겄지라.<조봉래, 풀벨골> ¶그 이튿날 {아침절에} 첫날 인사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요새로 말하면 두시나 세 시쯤 새벽을 그리 나갔던 개비여.<구비문학대계, 완주군> ¶그서 {아침절이} 세수허라고 세숫물 떠 내놔, 여전히 뭐 산골 그런디가 생선이야 뭐 고기야 히서 반찬을 그렇게 채리와.<구비문학대계, 옥구군>
지역 전북.

아코 명 [대응어] 아퀴.
어수선한 일을 정돈하여 마무리하는 끝매듭. ¶일의 {아코가} 잘 지어지지 않다.
지역 무주.

악 명 [대응어] 앞.
((주로 '문' 뒤에서 쓰여))향하고 있는 쪽이나 곳.
지역 전북.

악씨다 동 [대응어] 악쓰다.
악을 내어 소리를 지르거나 행동하다. ¶쌈을 허는디, "저놈으 구렝이 보라!"고 소리를 질러도 배깥이 나오덜 안혀. 맘적으로는 그렇게 질른 것 같은디, 그제는 어떻게 {악씨고} 막 질른 것이 제우(겨우) 구렝이 귀여 들어갈 정도로 질렀드래야.<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전북.
해설 현대 국어 '악쓰다'의 옛말 '악ㅄㅡ다'는 18세기 문헌에서부터 나타난다. 명사 '악'과 동사 'ㅄㅡ다'의 합성어이다. 19세기 이후에는 어두 자음군 표기가 없어지고 '악쓰다'로 표기되는데 이전에 어두 자음군 'ㅄ'이 된소리화하였음을 보여 준다. 전북 지역에서 사용되는 '악씨다'는 치찰음 아래에서 '/ㅡ/>/ㅣ/'로의 고모음화가 일어난 결과이다.

안개비 명 [대응어] 는개.
안개비보다는 조금 굵고 이슬비보다는 가는 비. ¶해가 떠 있어도 그렇게 눈부신 법 없는데다, 우계에는 {안개비나} 조금 오다 그친다는 남녘 유리(?里)로도 모인다.<박상륭, 죽음의 한 연구>
지역 순창.

안견숙 명 [대응어] 안사람.
'아내'를 이르는 말. ¶우리 안견숙이 고생이 많았지.
지역 전북.

안그다[1] 동 [대응어] 앉다.
☞앙그다.
지역 고창, 순창, 완주.

안그다[2] 동 [대응어] 안기다.
두 팔을 벌린 가슴 쪽으로 끌어당겨지거나 그렇게 되어 품 안에 있게 되다. ¶손주가 할아버지 품에 {안그었다}.
지역 김제, 남원, 완주, 익산, 진안, 고창,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임실, 장수, 정읍.
해설 '앵기다'는 '안기다'의 움라우트형이다.

안끼다 동 [대응어] 안기다.
☞안그다.
지역 김제.

안다시 명
아는 체를 잘 하는 사람. ¶자는 {안다시여}. 몰르는 것이 없어. 몰르는 것이 없어서 {안다시} 짓도 잘 혀.<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전북.

안머심 명 [대응어] 안머슴.
집안 살림을 돌보는 여자 일꾼. ¶{안머슴을} 들이다.
지역 전북.

안뱅 명 [대응어] 안방.
집에 달린 방 중에서 중심이 되거나 어른이 거처하는 곳. ¶그렇게 해서 인자 {안뱅으} 가서 마느래가 자고 남자는 사랑으서 같이 자는디.
지역 전북.

안벤소 명 [대응어] 안뒷간.
집 울타리 안에 있는 변소. 집 안에 대소변을 보도록 만들어 놓은 곳. ¶뒤가 마려서 {안벤소} 좀 갔다와야 쓰겄다.
지역 정읍.

안벤솟간 명 [대응어] 안뒷간.
☞안벤소.
지역 장수.

안변소 명 [대응어] 안뒷간.
☞안벤소. ¶탈이 나서 밤새 {안변소}럴 들락거렸어.
지역 무주, 부안, 익산, 정읍, 고창, 임실.

안봉창 명 [대응어] 안주머니.
옷 따위의 안쪽에 달린 주머니. ¶그서 한참 기둘리고 있으니깐 다 편지를 읽어보드니 딱딱 접으면서 딱 {안봉창으다} 놓더니<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전북.

안살부리다 동 [대응어] 간살부리다.
간사스럽게 몹시 아양을 떨다. ¶아이고 저 요망한 것, {안살부리는} 것 좀 봐.
지역 전북.

안씨랍다 형 [대응어] 안쓰럽다.
딱한 형편이 마음이 아프고 가엽다. ¶시안의 놀다가 자빠져갖고 진바지 물팍 미여지믄 엄니한티 디지게 쥐여터지고 글도 {안씨랍다고} 자방침으로 뉘 배 주든 시절.
지역 고창.

안씨럽다 형 [대응어] 가엾다.
마음이 아플 정도로 안되고 처연하다. ¶덤썩덤썩 받아줘는 멍텅구리 인간들이 수두룩허단 말여. 그 무지몽매헌 시상이 {안씨럽고} 불쌍혀서 차마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으니깨 우리 어런<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넘으집 식모살이 가는 것이 {안씨럽지만} 집안 형편을 생각허면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 ¶부모와 떨어져 있는 모습이 정말로 {안씨럽기만} 하다.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부안,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안암팍 명 [대응어] 안팎.
안과 밖. 또는 부부 내외를 통틀어 이르는 말. ¶{안암팍 으로} 부대끼니라고 눈물 마를 날이 없습디다.<송기숙, 녹두장군> ¶내외 안암팍이 다 번게, 문 꺽정이 있어. ¶닭 두 마리가 안암팍으로 다 돌아다닌게.
지역 전북.
해설 전라 방언 '안암팎'은 안과 밖을 의미한다. 부부를 가리키기도 하고, 집안 식구의 집안 사정과 바깥 사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자어 '內外'를 의미하면서 '안'과 '안팎'을 겹쳐 쓴 결과 생성된 어휘이다.

안인사 명 [대응어] 문안인사.
혼인을 한 다음 신랑, 신부가 아침에 일어나 시

부모에게 올리는 인사. ¶뵈입시다 하고 말캉에서 인사를 혀. 큰절로 히야지.
지역 전북.
해설 보통 '보입시다'라고 하고 마루에서 방에 앉아 있는 시부모에게 큰절을 올린다. 시부모가 하지 말라고 할 때까지 하는데 보통 3일을 하고 나면 그만 하라고 한다.

안질 (眼質) 명 [대응어] 안력.
물체의 존재나 형상을 인식하는 눈의 능력. ¶그런데 서애(西涯) 선생은 {안질이} 좋은 사람이다.<구비문학대계 임실군편>
지역 임실.

-안칠라 조 [대응어] 까지.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옷안칠라 험상궂이 입고 나와서.
지역 전북.

안칫간 명 [대응어] 안뒷간.
집 울타리 안에 있는 변소. 집 안에 대소변을 보도록 만들어 놓은 곳. ¶탈이 나서 밤새 {안칙간} 얼 들락거렸어.
지역 전북.

안통시 명 [대응어] 안뒷간.
집 울타리 안에 있는 변소. 집 안에 대소변을 보도록 만들어 놓은 곳. ¶{안통시} 냄새가 고약허구만.
지역 전북.

앉을개 명 [대응어] 깔개.
앉을 수 있게 만든 물건. ¶池塘 앞에 {앉을개가} 둘이 있어서 네 옆에 가까이 내가 앉아 있긴 했어도<서정주, 四十>
지역 전북.
해설 전북 출신들 작가의 작품에 나오는 '앉을개'는 대체로 "앉을 수 있게 만든 물건"을 통칭하고 있다. 전북 방언으로 '안질개'로도 쓴다.

앉을방이 명 [대응어] 앉은뱅이.
☞앉을뱅이.
지역 전북.

앉을뱅이 명 [대응어] 앉은뱅이.
하반신 장애인 중에서 앉기는 하여도 서거나 걷지 못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저리 가서 저기서 산배댕이 밑에가 물이 있어. 근개 그리 물을 먹으러 가자." 인자 그 봉사보고 그랬어요. 근개 인자 그 {앉을뱅이는} 눈이 떴은개, 그 봉사보고 요리 가자 조리 가자 한개, 저리로 갔단 말이여.<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아 {앉을뱅이요}. 아 그런깨 지성이는 {앉을뱅이고} 감천이는 봉사예요. 봉산디…… 서로 인자 편지 내왕만 하고, 사람이 전달로만 해서 서로 편지로 안부를 하고 살았어요.<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남원.

앉일개[1] 명 [대응어] 밑신개.
두 발을 디디거나 앉을 수 있게 그넷줄의 맨 아래에 걸쳐 있는 물건. ¶[보안면 민요 2], 베틀가 월궁에 놀던선녀 인간에다 내려와서 할일이 전혀 없어 옥난간에 베틀놓고 가릿대장 괴아질러 {앉일개를} 도두놓고 그우구가(위에가) 앉은임아 <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전북.

앉일개[2] 명 [대응어] 얼음썰매.
얼음판 위에서 양손으로 막대를 짚으면서 타는 썰매. ¶가서 느이 조카 {앉일개} 좀 태와주고 오니라.
지역 전북.

알감씨 명 [대응어] 음핵.
여성 음부의 발기 부분으로 소음순의 앞쪽 끝에 솟은 작은 돌기.
지역 전북.

알감지 명 [대응어] 아가미.
☞아가지.
지역 무주.

알갸 명 [대응어] 달걀.
닭이 낳은 알. ¶알갸이 큼직하니 먹음직스럽다.
지역 전북.
해설 '알갸'은 '알'과 달걀의 '갸'이 결합된 형태로 보인다.

알고픔 【축약형】
'알고 싶으면'이 줄어든 말. ¶{알고픔}, 이때 가서 직접으로다 대면을 허갖고 물어보시. 조봉래 57
지역 전북.

알껍닥 명 [대응어] 계란껍질.
달걀의 노른자와 흰자를 겉에서 싸고 있는 단단한 물질. ¶{알껍닥}<한국방언어휘자료집_전북편>
지역 임실

알껍데기 명 [대응어] 계란껍질.
달걀의 노른자와 흰자를 겉에서 싸고 있는 단단한 물질. ¶{알껍데기}<한국방언어휘자료집_전북편>
지역 군산, 익산

알나락 명 [대응어] 나락.
훑어낸 벼 이삭. 또는 알이 들어 있는 벼 이삭. ¶홀태로 훑으면 {알나락이} 떨어져. 고것 말려 가지고 찌면 쌀 되지.
지역 전북.

알낳기 명
공기놀이의 한 가지로 공기돌을 하나씩 집어서 먹는 일. ¶그 놈 다 허면 알낳기라고 집어서 이렇게 내 놓고 이렇게 내 놓고 허.
지역 전북.

알랑방구 명 [대응어] 알랑방귀.
교묘한 말과 그럴듯한 행동으로 남의 비위를 맞추는 짓을 속되게 이르는 말. ¶오죽허면 하늘에 계신 님들한티 {알랑방구} 뀌어가는 속삭임으로 이 빽 저 빽 다 댐시롱 부탁도 히 보고.
지역 고창.

알랭이 명 [대응어] 이삭.
벼, 보리 따위 곡식에서, 꽃이 피고 꽃대의 끝에 열매가 더부룩하게 많이 열리는 부분. ¶떨어진 {알랭이를} 거두다
지역 전북.

알레미 명 [대응어] 알맹이.
물건의 껍데기나 껍질을 벗기고 남은 속 부분. ¶보리를 도고통으다 싫어. 싫으믄 알레미가 나와. 왼보리가 나와.
지역 전북.

알레지다 동 [대응어] 알려지다.
☞알리지다.
지역 군산.

알롱거리다 동 [대응어] 알랑거리다.
남의 비위를 맞추거나 환심을 사려고 다랍게 자꾸 아첨을 떨다. ¶난중에 알고 봉게 후배되는디, 알량헌 뭇조까 부탁을 헐라고 헌다 허며 또 사삭떨며 {알롱거린다}.

지역 전북.

알리지다 동 [대응어] 알려지다(이름이).
어떤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전해 듣고 알게 되다. ¶그래 그 피를 해 드렸다는 그런 것이 널리 {알리져} 갖고 이 근방에서 거 많이 구경을 와서 그 사람 효성허는 것을 보러온 사람도 많이 있었다고, 아마 이런 얘기가 있고.
지역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알마침 부 [대응어] 알맞게.
마침 때에 맞게. ¶{알맞침} 잘 왔네. 자네 이약하고 있었는디.<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전북.

알뱀 명 [대응어] 알밤.
밤송이에서 빠지거나 떨어진 밤톨. ¶둥구마침 꽂갬인가/하고일심 {알뱀인가} /청산부하는 대추씬가/날라가는 학선인가(무주 아이 어르는 소리-"둥둥 둥개야")<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그러고 우리 가정으서넌 쩌러케 {알:빼미} 인자 두루오거나 사거나 허먼 쌂마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는 저렇게 알밤이 이제 들어오거나 사거나 하면 삶아요}.<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알바믄 빨그러게 나오는 노~이 {알빼미고}<완주_지역어_텍스트>
지역 무주, 임실, 완주.

알초지 명 [대응어] 삭정이.
살아 있는 나무에 붙어 있는, 말라 죽은 가지. ¶{알초지를} 꺾다
지역 전북.

알캐하다 형 [대응어] 알싸하다.
매운맛이나 독한 냄새 따위로 코 속이나 혀끝이 알알하다. ¶해장꼬치는 그전이 부뚜막 욱으다 올려 놓고 국 끓일 쩍으 조깨씩 뿌셔서 늣던 것인디요, 참 {알캐하고} 얼큰한 맛을 내주던 거지요.<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전북.

알케내다 동 [대응어] 밝혀내다.
방법이나 수단을 써서 모르던 것을 알 수 있게 되다. ¶다 알케내는 거 보면 머 있기는 있는 가벼이.
지역 전북.

알쿠랭이 명 [대응어] 갈고랑이.
끝이 뾰족하고 꼬부라진 물건. 흔히 쇠로 만들어 물건을 걸고 끌어당기는 데 쓴다. ¶북두 알쿠랭이라고 그려. 이렇게 휘어져가꼬 북두 끝에 가서 달려 있어.
지역 전북.

알키다 동 [대응어] 알리다.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알게 하다. ¶어야, 거시기는 구신도 모릉게, 싸목싸목 차근차근이 조까 {알켜} 주랑게, 지발 서대지 말고 이~.
지역 고창.

알탕갈탕 부 [대응어] 애면글면.
몹시 힘에 겨운 일을 이루려고 갖은 애를 쓰는 모양. ¶"오매 오매 나 피모시 한 묶음만 또 구해다 주소." 해서 또 그것도 이리저리 {알탕갈탕} 구해다 주었더니 그결로는 가느스름하게 새끼줄을 길게 길게 꼬아 서리어 두고,<서정주, 金庾信風> ¶{알탕갈탕} 포도시 히 놓았도만 역시 건성나발이구만 이~.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알탕갈탕'은 어원을 알기 어려운 말이다. 애쓰는 모습을 나타내는 의태어로 보인다.

알투 명 [대응어] 아퀴.
일을 마무르는 끝매듭. ¶일의 {알투가} 엉성하다.
지역 장수.

암고앵이 명 [대응어] 암고양이.
고양이의 암컷. ¶한밤중에 {암고앵이} 울음소리가 들리다
지역 전북.

암고얭이 명 [대응어] 암고양이.
☞암고앵이.
지역 남원.

암괭이 명 [대응어] 암고양이.
고양이의 암컷. ¶{암괭이가} 새끼를 낳다
지역 고창, 김제, 무주, 순창, 군산, 임실, 장수.

암귀엥이 명 [대응어] 암고양이.
☞암고앵이.
지역 전북.

암기와 명 [발음] [암끼와] [대응어] 암키와.
☞암씨와.
지역 군산, 고창, 완주.

암끗 대 [대응어] 아무것.
대단하거나 특별한 어떤 것. ¶{암끗도} 모름서 건성으로 따라 댕김서 헌당게요. ¶거그다 개코도 {암끗도} 모르게 생긴 것이 아는 치께나 오사허게 험서 웃음 또한 내시 간신 웃음으로 꼴값을 떨어댐서 다가온다.
지역 고창.

암냥하다 동 [대응어] 겯들이다.
주된 일 이외에 다른 일을 겸하여 하다. ¶부월은 약속 시간에 맞추어 제때 돌아올 줄 모르는 남편의 몫까지 {암냥해서} 두 곱절이나 더 민만스런 시늉을 해보이느라 가외로 수고가 많았다. <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암냥하다'는 주로 '-을 암냥해서'의 구성으로 쓰인다.

암닭 명 [발음] [암딱] [대응어] 암탉.
닭의 암컷. ¶{암딹을} 잡아 손님을 대접하다 ¶{암딹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듣고 자랐다.
지역 김제, 남원, 무주, 완주, 임실, 장수, 정읍, 진안.

암도 대 [대응어] 아무도.
어느 누구도. ¶{암도} 손 못대게 지삿상 밑으다가 두었지라우.<이병천, 모래내모래톱> ¶염려 마시기라우. 그런 임무람사 우리 집 낭반 덮어먹을 장사가 시상천지 {암도} 없을 것이구만요. <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런디, 우리 공동체 의인들치고 몰르는 사람이 {암도} 없는 그 뻰하디뻰헌 이치를 해필이면 왜 나만 붙잡고 조석으로 읊어대는지, 참말로 알다가도 몰를 일이네요.<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래 내가 작심을 허고, 정월 대보름날 달 뜨면 나 혼자 {암도} 모리게 마님 산소 한번 챚아가서 꼭 절 한 자리 해야겄다, 올리야겄다, 그랬지라우. <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암돌 명 [대응어] 암쇠(맷돌, 위).
맷돌 위짝 가운데에 박힌, 구멍이 뚫린 쇠. ¶{암돌을} 박다
지역 남원, 정읍.

암돌쩌구 명 [발음] [암똘쩌구] [대응어] 암짝.
암수 두 짝 가운데 암이 되는 짝. ¶{암똘쩌구하

고} 수똘써구를 맞추다
지역 무주, 임실, 고창.

암돌쪼구 명 [대응어] 암쇠(맷돌, 위).
맷돌 위짝 가운데에 박힌, 구멍이 뚫린 쇠. ¶{암돌쪼구를} 박다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진안.

암돌쪽 명 [발음] [암똘쪽] [대응어] 암짝.
☞암똘써구.
지역 임실.

암돌추 명 [대응어] 암짝.
암수 두 짝 가운데 암이 되는 짝. ¶{암돌추를} 문설주에 박다
지역 군산.

암만 감 [대응어] 아무렴.
말할 것도 없이 그렇다는 뜻으로, 상대의 말에 강한 긍정을 보일 때 하는 말. ¶"술을 우리집이 와서 이러고저러고 히서 자시고 가고 자시고 가고…." "{암만}, 술값 디리야지."<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아, 허고 말고요. 그러믄요 {암만요} 허야죠.<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그럼, {암만} 그렇고 말고.
지역 전북.

암만허다 동 [대응어] 암만하다.
('암만허도', '암만히도' 따위의 방언형으로 쓰여) 이리저러 애를 쓰거나 노력을 들이다. ¶{암만허도} 안되겄다. 시월까장 지달릴 수 없으니께 임시변통으로 요번 토요일을 니 생일로 정하자.<윤흥길, 소라단 가는 길> ¶이런저런 처참시런 야그들을 하도 많이 들어놔서 {암만허도} 꿈자리가 뒤숭숭헐 것만 같다.<윤흥길, 소라단 가는 길> ¶아무리 바삐 살었어도 그렇지, 너도 참 에지간헌 사람이구나. 재경 동창들 모임에 안 나타난 건 그렇다 치고, 삼십년 동안 선영마저 안 찾아뵌 건 {암만허도} 너무 심헌 것 같다.<윤흥길, 소라단 가는 길> ¶{암만허도} 우리 풀벨골 개울물이 제로 차가.<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암만히다 동 [대응어] 암만하다.
☞암만허다. ¶그래? 나는 니 얼굴이 {암만히도} 기억나지 않는디?<이병천, 모래내모래톱> 날더러, 거그서 즈허구 항께 살자구 만류허데만, 쯧 네리왔네! 다아 편허구 좋데만 {암만히여두} 여그만 못헝 것 같덩만!<채만식, 강선달>
지역 전북.

암방 명 [대응어] 안방.
☞안뱅.
지역 고창, 군산, 남원.

암뱅 명 [대응어] 안방.
☞안뱅.
지역 김제, 정읍, 진안.

암벤소 명 [대응어] 안뒷간.
☞안벤소.
지역 고창, 임실.

암사랑토 않다 【관용표현】 [대응어] 아무렇지도 않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나 조건에 놓여 있지 않다. ¶{암사랑토 안해}! 세월이 약잉게 ~ 후딱 이저부러.
지역 고창.

암새 명 [대응어] 암쇠(맷돌, 위).
맷돌 위짝 가운데에 박힌, 구멍이 뚫린 쇠. ¶{암새와} 수새를 맞추다

지역 무주.

암소아치 명 [대응어] 암송아지.
송아지의 암컷. ¶말만헌 가이네덜이 꾀댕이를 벗어부리고는 선불맞은 {암소아치맹이로} 요리조리 험서나 비틀고 흔들며.<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암쇠 명 [대응어] 암소.
소의 암컷. ¶소 두 마리를 내려 보냈어. {암쇠} 두 마리를 내려 보내문서 머라고는고니, "한국서이 뭣이냐 새끼 에미를 분명히 어떤 놈이 기냐. 개려서 그걸 보내라. 그글다 허므는 그때 상을 준다." 그랬단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암쇠가} 송아지를 두 마리나 낳았다.
지역 고창, 군산, 김제, 무주, 부안, 완주, 익산, 장수, 정읍.

암스렁하다 형 [대응어] 아무렇다.
☞암시렁하다.
지역 전북.

암시랑 않다 【관용표현】 [대응어] 아무렇지 않다.
탈이나 문제, 걱정되거나 꺼릴 것이 없다. ¶"되았다. 용수야. 인자 이리 나와라!" "{암시랑토 않여어}?" "그려어???! 늬가 나오기 싫으면 그쪽으다 던져주끄나?"<이병천, 모래내 모래톱> ¶{암시랑 않은} 일 갖고 뱀일이나 있는 거같이 자발떨믄서 징허게 설치고 댕기는구만 이~. ¶아따, {암시랑토 않은} 일을 갖고, 튀밥 튀김서 말 허기는.
지역 전북.
해설 전라 방언에서는 '괜찮다'는 표현을 '암시랑 않다, 암시랑토 않다'라고 표현한다. 표준어 '아무렇다'에 해당하는 전라 방언 '암시랗다'에 '않다'가 연결된 구문이다. '암시랑토'는 '암시랗-+도'의 구성이다.

암실 부
(주로 '안 하다' 앞에서만 쓰여) 해롭거나 문제가 될 정도로. ¶암실 안 혀, 내가 머 아펐가디? ¶그것도 써도 암실 안 혀. ¶암실 안 혀. 지기서(자기한테서) 그것도 지기서 발효된 것이라 그 걷어내지 말고 먹으라그려. ¶망 속으 들었은게 암실 안허라우. 지사라 조구 사다 널어 놨어. 근게 귀앵이가 먹는다고 들이놨나고. ¶암실 안 혀. 여가 실이 물어서 그려. ¶얼지 히 놓으면 암실 안 혀. ¶암실 안 헐 때는 으른 노릇 허게 험서도 울 때는 저렇게. ¶한 잔만 더 먹으란게. 이것은 암실 안 혀.
지역 고창.

암재 명 [대응어] 암자.
도를 닦기 위하여 만든 자그마한 집. ¶${암재에} 머무르며 책을 보다
지역 전북.

암중쇠 명 [대응어] 암쇠(맷돌, 위).
맷돌 위짝 가운데에 박힌, 구멍이 뚫린 쇠.
지역 김제.

암지와 명 [발음] [암찌와] [대응어] 암키와.
지붕의 고랑이 되도록 젖혀 놓는 기와. ¶{암찌와와} 수키와의 골이 잘 맞아야 한다
지역 임실.

암치께도 부 [대응어] 아무래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또는 아무리 이리저리 하여 보아도. ¶{암치께도} 큰일일 공산이 큰 모냥여, 먼 일이든가.<조봉래, 풀벨골 시비주의> ¶{암치께도} 누가 나서야지, 헌디 암도, 그니께 어쩔 것이라요?<조봉래, 풀벨골 시비주의> ¶입때 노사랑서도 내다보덜, 그리 허니께 무한정허

고, {암치께도} 그려야 허겄고.<조봉래, 풀벨골 시비주의>
지역 전북.

암치케 부 [대응어] 아무렇게.
되는대로. 또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어떤 상태로. ¶{암치케라도} 떤져 뻔져라 이~ 그렇케 떤져도 너는 잉골나게 여지없응게로~. ¶함부로 허다가 {암치케나} 터쳐버리지 말고<이병철, 모래내 모래톱>
지역 전북.

암칡 명
살이 많아 먹기 좋은 칡. ¶{암칡은} 통통하게 알이 배서 씹는 데 좋고, 먹기 좋고 맛도 좋아. 될 수 있으면 {암칡을} 캐야지.<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전북.

암쾡이 명 [대응어] 암고양이.
☞암괭이.
지역 완주, 익산, 진안.

앙가심 (←가슴)) 명 [대응어] 앙심.
오기스러운 마음, 원한을 품은 마음. ¶옆집허고 쌈이 나면 당헌 사람들의 가슴에는 {앙가심이} 남아 있는 거죠. 언젠가는 갚을라고요.<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전북.

앙경 명 [대응어] 안경.
☞앤경.
지역 남원, 완주, 임실.

앙경집 (眼鏡집) 명 [발음] [앙경찝] [대응어] 안경집.
안경을 넣어 두는 갑. ¶인자 눈이 잘 안 뵌게, 뭣 좀 볼라치면 {앙경집부텀} 찾는 것이 일여, 일.
지역 군산, 완주, 임실, 고창, 남원, 무주.

앙그다 동 [대응어] 앉다.
엉덩이를 허리의 높이보다 낮은 물체나 바닥에 붙이고 윗몸을 세우다. ¶그리서는 가만가만 두께비를 딱 보돔서 가서는 {앙거서} 어떻게 생있냐 허고 내리다 본게 인자 흑허니 소의소복을 허고 인제 촛불 써놓고 방으 딱 소복허고 방 가운데 앙겄어. 그날 저녁으 저 죽을 일 생각헌게 잠이 올것여. {앙겄는디}<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아 이거 배울 때는 또 밥묵기가 바쁘게 물렛간에릴 들어 {앙그서} 뻗쳐야 허고 머 보통 헐듯 말듯 허고는 못 배워라우. 긍게 젊은 사람들도 안한당게라.<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7>
지역 고창, 순창.

앙당거리다 동 [대응어] 앙알거리다.
윗사람에 대하여 조금 원망스럽게 자꾸 입속말로 군소리를 하다. ¶그놈으 자식 드릅게 {앙당거려} 쌓네. ¶끝치지 않고 더럽게 {앙당거리네}.<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인자 지그 집에 가서, 서방님을 휘여 잡을라고 늘 {앙당거렸싸면}, "아이구, 첫날 저녁 똥싼 년 지랄허고 앉었네." 허면 그만 뚝, 앙알이다가(대들다가) 그쳐 버리고 그쳐 버리고<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남원.

앙당앙당 부 [대응어] 앙알앙알.
윗사람에 대하여 조금 원망스럽게 입속말로 자꾸 군소리를 하는 모양. ¶{앙당앙당} 떼를 쓰다.
지역 전북.

앙당앙당하다 동 [대응어] 앙알앙알하다.
상대방의 말에 대하여 조금 원망스럽게 자꾸 입속말로 군소리를 하다. ¶나는 여편네가 날 휘여

잡을라고 늘 {앙당앙당했싸면}, "아이구, 첫날 저녁 똥싼 년 지랄허고 앉었네." 허면 그만 뚝이랑게.

지역 전북.

앙아리 명 [대응어] 멍울.

몸의 일부가 뭉쳐져 생기는 둥글둥글한 덩이. ¶곰기다 앙아리 배긴따고 그러제<2008 전북 임실> ¶멍울 앙아리<2009 전북 임실>

지역 임실.

앙알봉알 부 [대응어] 앙알앙알.

이러니 저러니 간섭을 하거나 항변을 하는 모양. ¶므- 땜시, 또 {앙알봉알}, 두렁두렁, 고시랑거리냐?

지역 고창.

앙알이 명 [대응어] 말대꾸.

남의 말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제 의사를 나타냄. 또는 그 말. 또는 이래라 저래라 하는 잔소리. ¶막 앙알이 허먼 앙알이 헌다고 뚜대기고.

지역 전북.

앙알이다 동 [대응어] 앙알거리다.

상대방의 말에 대하여 조금 원망스럽게 자꾸 입속말로 군소리를 하다. ¶저녁 똥싼 년 지랄허고 앉었네." 허면 그만 뚝, {앙알이다가} 그쳐 버리고 그쳐 버리고 그러드러만.<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저 작것이 일러주면 일러주는대로 헐것이지 허는 말마다 {앙알이고} 있네.

지역 남원.

앙알이허다 동 [대응어] 말대꾸하다.

남의 말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제 의사를 나타내다. 또는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다.

지역 전북.

앙진뱅이 명 [대응어] 앉은뱅이.

하반신 장애인 중에서 앉기는 하여도 서거나 걷지 못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사고를 당해 {앙진뱅이가} 되다.

지역 전북.

앙치다 동 [대응어] 앉히다.

사람이나 동물이 윗몸을 바로 한 상태에서 엉덩이에 몸무게를 실어 다른 물건이나 바닥에 몸을 올려놓게 하다. ¶그 사람을 인자 그 거시기로 갖다가 건넌방으다 {앙치고} 인제 한 그냥 사십여 명을 역졸을 보냈어. ¶나를 거그다가 억지로 {앙쳐따고}<2005 전북 남원>

지역 순창.

악 명 [대응어] 앞.

((주로 '문' 뒤에서 쓰여))향하고 있는 쪽이나 곳. ¶이러어케 문 {악으로} 지내가시는 것만 뵈어도 기양 속이 박하 먹은 것맹이로 왜 화아허니.<최명희, 혼불> ¶그런 찰나에 이제 한 점심 때쯤 된게 문 {악으서} 뿡뿡 소리만 나먼 자가용타고 전부기 디리 밀리네.<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그러고서는 아 바깥으로 나가서 막 사립문 {악으가} 내빼는 거요.<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전북.

앞닫이[1] 명 [발음] [압따지] [대응어] 서랍.

책상, 장롱, 화장대, 문갑 따위에 끼웠다 빼었다 하게 만든 뚜껑이 없는 상자. ¶압따지에 잘 넣어 두어라.

지역 고창.

앞닫이[2] 명 [발음] [압따지] [대응어] 반닫이.

앞의 위쪽 절반이 문짝으로 되어 아래로 젖혀

여닫게 된, 궤 모양의 가구. ¶놔두먼 고물장시들이 막 가져간다이. 앞닫이도 가져가. 앞닫이가 옷이 겁나게 들어가.
지역 전북.

앞둥지르다 동 [대응어] 앞지르다.
남보다 빨리 가서 앞을 차지하거나 어떤 동작을 먼저 하다. ¶주인이 앞둥질렀어. 내가 당허도 당헐던게 앞둥질른게 앞에 온게 호랭이가 마중 나오드래여.
지역 전북.

앞성질르다 동 [대응어] 앞지르다.
남보다 빨리 가서 앞을 차지하거나 어떤 동작을 먼저 하다. ¶인자 허청에 가서 멍석을 갖고 오라 해갖고 멍석에다 송장을 똘똘 몰아서 옛사 밤에, "이놈을 지고 가서 아무개 꼴창에 가서 인적기가 있으면 미고 오고 인적기가 없으면 거기다 묻고 오라." 고 그러고는 그냥 {앞성질러서} 홍걸놈이 앞성질러서 가서 몰래몰래. 멋적은게 인적기가 있은게 못 묻고 오지.<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앞시기 명 [대응어] 홍역.
홍역 바이러스에 비말 감염되어 일어나는 급성 전염병. 온몸에 붉은 좁쌀같은 발진이 돋는다. ¶마을에 {압시기가} 돌았다.
지역 남원.

앞시기뒷시기 명 [대응어] 홍역.
홍역 바이러스가 비말 감염에 의하여 일으키는 급성 전염병. ¶{압씨기뒤씨기를} 앓다
지역 무주.

앞에 부 [대응어] 먼저.
시간적으로나 순서상으로 앞서서. ¶{아페} 빨리 가그라<2005 전북 남원>
지역 무주, 임실, 장수, 남원.

앞우 부 [대응어] 먼저.
시간적으로나 순서상으로 앞서서. ¶{앞우} 나가다
지역 김제, 부안, 진안, 무주, 순창, 익산.

앞으 부 [대응어] 먼저.
☞앞우.
지역 전북.

앞이 부 [대응어] 먼저.
☞앞우.
지역 무주, 순창, 익산.

앞이매 명 [대응어] 앞이마.
이마의 한가운데 부분. ¶{압이매가} 넓고 시원시원하다
지역 전북.

앞장갱이 명 [대응어] 앞정강이.
'정강이'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지역 진안, 무주, 임실, 장수, 순창, 남원.

앞치매 명 [대응어] 앞치마.
옷의 앞부분에 두르는 치마. 주로 부엌일을 할 때 쓴다. ¶{압치매를} 두르고 설거지하다 ¶소꿉놀이를 하는데 손주 딸은[앞치매], 까지 둘르고 나섰다. ¶새색씨는 부엌에 들어갈 때마다 {앞치매를} 둘렀다.
지역 전북.

애간장 (倭간醬) 명 [대응어] 왜간장.
일본식으로 만든 간장. 집에서 만든 재래식 간장에 대하여 양조장 등에서 만든 개량된 간장을 이르는 말로 흔히 쓴다. ¶설탕, 상품의 {왜간장},

옥 같은 입쌀밥, 생선, 고기, 맥주, 일본주, 나라 상감님이 구해 바치라고 하여도 구하기 어려운 물건만 마치 예사엣것처럼, 그리고 풍부히 있었다.<채만식, 낙조> ¶{왜간장으로} 간을 맞추어라.

지역 남원, 무주, 부안, 군산, 완주, 익산, 임실, 고창.

애기 명 [대응어] 아이.

☞아그. ¶{애기가} 잘 논다.

지역 전북.

애기담사리 명 [대응어] 애보개.

아이 돌보는 일을 맡아 하는 사람. ¶집도 없어 {애기담사리를} 하며 살고 있다.

지역 전북.

애꼬 명 [대응어] 애꾸.

눈이 한쪽 먼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사고로 애꼬가 되었다. ¶봉사가 {애꼬}칙량 허다가 문고리 한번 잡었네.

지역 고창, 남원,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김제, 부안.

애꼬눈 명 [대응어] 애꾸.

눈이 한쪽 먼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사고로 {애꼬눈이} 되었다. ¶그는 전쟁통에 파편을 맞아 {애꼬눈이} 되어버렸다. ¶{애꼬눈인데도} 앞을 잘 보고 있구나.

지역 진안.

애꼬쟁이 명 [대응어] 애꾸눈이.

눈이 한쪽 먼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사고로 {애꼬쟁이가} 되었다.

지역 전북.

애꾸쟁이 명 [대응어] 애꾸.

눈이 한쪽 먼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애꾸쟁이} 마누라가 와락 양복 뒷자락을 움켜쥐고 늘어진다.<채만식, 미스터 방> ¶어릴 때부터 한쪽 눈이 멀어 친구들로부터 {애꾸쟁이라고} 놀림을 받으며 살았다.

지역 김제.

애끼다 동 [대응어] 아끼다.

물건이나 돈, 시간 따위를 함부로 쓰지 아니하다. ¶그나지나 오늘 지녁도 솔채니 충게 끄렁불 {애끼지} 말고 때고 고래구녕으로 쨍솔까지 서너개 쪼셔 늫고 자믄 새복까징은 따닷흘 거쇼. ¶으따, 이녁 것이 나으 거싱게 {애끼지} 마랑게, 긍게 매 한가지랑게.

지역 고창.

애놈 명 [대응어] 왜놈.

'일본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애놈이} 도망가다

지역 고창, 완주.

애도롭다 형 [대응어] 애석하다.

☞애드릅다.

지역 전북.

애돌애돌 부 [대응어] 안타까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거나 보기에 딱하여 애타고 답답한 모양. ¶아까부텀 밥도 못 먹고 {애돌애돌} 허드라니. 아서라, 애초에 넘으 꺼이여.<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애돌애돌'은 '애ㄷㆍㄼ다>애돏다'에서 '애돌'이 어근으로 발전하여 부사가 된 것이다.

애돌오다 형 [대응어] 애달프다.

마음이 안타깝거나 쓰리다. ¶음양이 상합하련만.

네 안은 너 만나서 큰 덕을 보겠으나, 너는 네 안 만나 어찌 풀어 나갈는지. 아깝고, {애돌와라}. 아들아, 내 아들아. 금쪽 같은 내 새끼야. <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애돌하다 형 [대응어] 안타깝다.

뜻대로 되지 아니하거나 보기에 딱하여 애타고 답답하다. ¶그러나 때로는 엉뚱한 놈을 치기도 하여 두고두고 주인 속을 {애돌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최명희, 혼불> ¶두 번째 선본 남자를 놓친 걸 {애돌애돌해봐야} 버스 떠난 뒤 손드는 거여. ¶문제 하나를 잘못풀어 100점이 안 나와 {애돌하다}.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애돌하다'는 '애돌와서, 애돌와라'와 같이 활용되는 것으로 보아 중세 국어 '애ㄷㆍㄹ다'에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애둘애둘하다 형 [대응어] 안타깝다.

몹시 슬프고 아깝다. ¶기분이 {애둘애둘하다}

지역 전북.

애둥이 명 [대응어] 애송이.

어린 티가 나는 사람이나 물건. ¶{애둥이라고} 얕보다.

지역 전북.

애드릅다 형 [대응어] 애석하다.

슬프고 아깝고 서운하다 ¶그런개, "애 도르르르 애 도르르르." 이게 밤이면 우는 소리가, 지렁이 우는 소리가, " 애도르르르 애도르르르" 허는 소리가. {애드릅다고} 해서 그렇게 울었다요.

지역 전북.

애매미 명 [대응어] 아지랭이.

봄날 햇빛이 강하게 쬘 때 공기가 공중에서 아른아른 움직이는 현상. ¶느그 어머니가 젊었을 때 참 이뻤어. 내가 느그 어머니 처음 봤을 때 {애매미가} 피어 오르는 니낌처럼 오묘허고 황홀허고 그랬어.

지역 무주.

애무시 명

단무지를 만드는 길쭉한 무. ¶애무시 간 혔다가 그놈으로 반찬 담어. 길쭉헌 놈, 당꽝 만드는 무시.

지역 전북.

애무하다 형 [대응어] 애매하다.

아무 잘못 없이 꾸중을 듣거나 벌을 받아 억울하다 ¶오성이 가만히 생각히 봉께 지가 저지른 죄를 {애무헌} 대감이 뒤집어 씨고 죽게 되었이니 이런 큰 변이 어디 있냐 하고 궁리럴 혔어. <구비문학대계 임실군편> ¶아무개 대감(大監)언 {애무헌} 죄로 죽게 되넌가 싶습니다.<구비문학대계 임실군편> ¶그 대감이 {애무허게} 죄럴 뒤집어씬 거라고 허고 그 대감으 무죄럴 인정하고 살렸다고 헌다.<구비문학대계 임실군편>

지역 임실.

애물건지 명 [대응어] 애물단지.

몹시 애를 태우거나 성가시게 구는 물건이나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그놈의 것은 {애물건지네}. 아직 취직을 모더고.

지역 전북.

애믄 관 [대응어] 애먼.

☞애민. ¶글고, {애믄} 소리 같지만 져 주는 것이 이기는 것이요 이~. ¶그러케 근천까징 떨믄서 또 {애믄} 소리까장 들음서 속창시 디집어지게 허요~.

지역 고창.

애민 관 [대응어] 애먼.

일의 결과가 다른 데로 돌아가 억울하거나 엉뚱하게 느껴지는. ¶이런 놈 꼴이 어디가 있으끄나고.'기기 맥힌게…. 웃집(이웃집) 노파 하나가 쳐다보더니, '시애비놈이 메누리 겁탈 헐라다가 안 들은게 칼로 찔러 죽있네.'허고 {애민} 소리를 혀.<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옹구네 눈에는 그런 것 따위는 보이지도 않는다. "머? 나한테 아까 약값 훔쳤다고 {애민} 소리 팡팡 험서 삿대질허드니, 성님 시방 멋 허요? <최명희, 혼불> ¶말이 또 그만치 더 무섭다는 거인디, 아 옹구라도 속없이 무신 소리 어디 가서 욍기먼 옹구네 베락 맞고, 무단히 우리도 {애민놈} 저테 베락 맞능게에. 조심허여. 지발 덕분에 좀." 공배네는 그래도 그 말만은 옹구네한테 우겨박았다.<최명희, 혼불> ¶접시 깬 사람은 따로 있는디 {애민} 메느리헌테 승질을 내면 누가 시에미를 좋다고 허겄오.

지역 전북.

애비작애비작 부 [대응어] 어기적어기적.

☞아그작아그작.

지역 전북.

애살포오시 부 [대응어] 살포시.

포근하게 살며시. 드러나지 않게 살며시. ¶여긴 오지 마…… 여긴 오지 마… {애살포오시} 웃음 지우며, 水流와 같이 네 개의 水流와같이 차라리 흘러가는 것이였다.<서정주, 무슨 꽃으로>

지역 전북.

해설 '애살포오시'는 서정주의 시에서 보이는 어휘인데 '애살포시'의 장음 표기이다. '애살포시'는 접두사 '애-'에 부사 '살포시'가 연결된 것이다. 접두사 '애-'는 "여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애서럽다 형 [대응어] 열없다.

일이 너무 뜻밖이어서 기가 막히다. ¶내가 헐 말을 엳이서 허면 애서럽제. 안 그럴 것여?

지역 전북.

애성받치다 (哀聲받치다) 동

화가 나거나 슬픔에 잠겨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다. ¶아따, 보자 마자 사삭을 떨며 죽은 지 애비 본 것마냥 오사허게 서대는 것 땜시 부담시럽고 {애성받혀} 혼이 났다.

지역 고창.

애양스럽다 형 [대응어] 의뭉스럽다.

보기에 겉으로는 어리석어 보이나 속으로는 엉큼한 데가 있다. ¶애양스럽다, 의뭉허다. 저 사람은 알고도 안 알케주고. 헌 것도 안 했닥 허고 안 헌 것도 했닥 허고, 그런 사람이 그러제. ¶애양스러운 것은 인자 애양혀. 그짓말히놓고도 안 했다고 허고. 히놓고도 안 했닥 허고 안 허고도 했닥 허고, 그런 것이 애양허다고 그러제. ¶실척허다, 의뭉스럽다, 애양스럽다.

지역 고창.

애옥질 명 [대응어] 외욕질.

☞에욱질. ¶말초신갱 겁나 자극헌 냄시에 멀크락이 빠질랑가 딸막딸막 시방 삐집고 나올려는 {애옥질}.

지역 고창.

애장터 (兒葬-) 명 [대응어] 애장.

송장을 올려 놓기 위하여 가로지른 나무토막 위에 아기 시체를 망태에다 싸서 쌓아 두는 곳. ¶그런디 어디만침 뒤어오다가 느닷없이 쏘내기를 만나서 {애장터로} 가서 덕발 새에가 쪼그리고 앉어 있었어요.<구비문학대계 임실군편> ¶옛날에는 아가 죽으면 그 시체를 망태다 싸서 덕발 우그다 싸두는 디다 있는디 이것이 있는 디가 {애장터라} 헙니다.<구비문학대계 임실군편> ¶

어머니가 하도 보고 싶어서 집에 갔다가 어머니한티 매만 맞고 오다가 쏘내기가 와서 {애장터에서} 지내다가 이러이러헌 말을 듣고 왔다고 그 들은 이얘기를 다 했십니다.<구비문학대계 임실군편>
지역 임실.

애잦다 동 [대응어] 애타다.
몹시 답답하거나 안타까워 속이 끓는 듯하다. ¶그 사램 소식을 기다리다 기다리다 {애잦아} 죽어.
지역 전북.

애주가리 명 [대응어] 눈곱.
눈에서 나오는 진득진득한 액. 또는 그것이 말라 붙은 것. ¶동정심은 애주가리만치도 없다.
지역 전북.

애찹다 형 [대응어] 낮다.
☞야찹다.
지역 전북.

애처럽다 형 [대응어] 애처롭다.
가엾고 불쌍하여 마음이 슬프다. ¶여린 듯 부드럽고 {애처러운} 글씨체가 아직 병중(病中)인 기색을 머금고 있어, 울컥 눈물이 솟는다. 아아, 내 동기간.<최명희, 혼불> ¶걍 그 불구허고 사정을 허고 그 애끓는 말을 헌게로 여자끼리라 놔서 그 맘으 {애처런} 생객이 있다 그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순간의 실수로 소년원에 사는 어린 아이들은 보기에 {애처럽다}.
지역 전북.

애콩 명 [대응어] 완두콩.
완두의 열매. 초여름에 열리며 식용한다. ¶애콩도 건조장 속으서 보타. ¶애콩도 까서 찰밥 찔 때도 놓고 히얀디. 약밥 찔 때도 놓고 히얀디. ¶애콩, 거 시푸런 콩. 사다 찌깨 놨는디 어찌 나도 안 허고.
지역 고창.

애탄가탄 부 [대응어] 애면글면.
몹시 힘에 겨운 일을 이루려고 갖은 애를 쓰는 모양. ¶늙은 애미가 이렇게 {애탄가탄} 벌어맥이믄서 공부를 시키거들랑 그런 근경을 알아서, 이른 말두 잘 듣구 공부두 잘 해야지.<채만식, 탁류>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애탄가탄’은 “몹시 애를 쓰는 모양”을 나타내는 의태어이다. 전북 방언에서는 ‘알탕갈탕’도 더불어 쓰인다.

애탕애탕거리다 동 [대응어] 안절부절못하다.
자꾸 애를 태우다. ¶지 엄마 혹시라도 어찌 될까 봐 하도 애탕애탕거려서.
지역 전북.

애투 명 [대응어] 아퀴.
일을 마무르는 끝매듭. ¶일의 {애투를} 잘 지어라.
지역 진안.

앤경 (眼鏡) 명 [대응어] 안경.
시력이 나쁜 눈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하여나 바람, 먼지, 강한 햇빛 따위를 막기 위하여 눈에 쓰는 물건. ¶신문을 볼라도 {앤경이} 없으면 안 뒤여.
지역 고창, 군산, 남원, 완주, 임실, 무주.

앤기다 동 [대응어] 안기다.
☞안그다.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완주, 익산, 진안.

앤두리다 명

둘러 싸서 마무리 짓다. ¶이 논배미도 {앤두리고}/에헤루 사호 애들 썼소 애들 썼소/에헤루 사호 우리 농군들 애들 썼소/에헤루 사호<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남원 논매는 소리-이슬털이/사호소리, 남원군 대강면 평촌리 평촌)

지역 남원.

앤키다 동 [대응어] 안기다, 품기다.

☞안그다.

지역 부안.

앳드다 형 [대응어] 앳되다.

☞앳디다.

지역 고창, 부안, 장수.

앳디다 형 [대응어] 앳되다.

아이의 티가 남아 있어 어려 보이다. ¶누나라고? 나는 여동생인 줄 알았어. 누나가 엄청 {앳디다잉}. 어려 보여. ¶서른이 넘은 순이는 고생을 모르고 자란 때문인지 이십대 초반의 아가씨 같이 {앳디어} 보였다. ¶작것이 얼굴이 곱상허고 {앳디게} 생긴데다 끼도 있어서 남자 여럿 홀치 겄어. ¶나이가 스물이 다 되었는데도 저렇게 {앳디다니}.

지역 김제, 무주,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정읍, 진안.

앵간치 부 [대응어] 어지간히.

정도나 형편이 기준에 크게 벗어나지 아니한 상태로. ¶그렇게 술 조까 {앵간치} 퍼 마시제 꼭 즈그 선밴가 지랄잉가 허는 끄떠리 짜가 힌가 휭가 허는 작자가 우리 착헌 식일 불러 꼬셔갖고 인사불성 맹근거시 일 이번이 아니고만이. ¶마파람도 {앵간치} 불어오고 부석짝 욱에 같이 후덕지근험서 등걸짝 난닝구 척척해 가는디. ¶며칠전 질같이서(길가에서) 외모가 고구마 먹고 똥 싼 놈 같이 매쫏허고 {앵간치} 생긴 사람을 우연시럽게 만났다. ¶긍게 {앵간치} 허랑게~.

지역 고창.

앵간허다 형 [대응어] 어지간하다.

정도나 형편이 기준에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다. ¶할랑빠진 매누리 될랑가 걱정이 눈앞을 {앵간허게} 개린다. ¶{앵간허믄}, 울역히 갖고 올 가실에 여워버리제(귀에다 대고 으멍 떰서 징그럽게). ¶존 것이 좋은 것잉게 {앵간허믄} 당케당케 지내랑게~. ¶{앵간허믄} 넘들도 승질 조까 잘 모타 갖고 책보에 이쁘게 싸 놓으시요 이~. ¶지둥 뿌리 다 뽑히겄따아~ 인자는 빈대짓 그만 작파허고 {앵간허믄} 지비 드러가라이~. ¶물아래 성님, {앵간허믄} 단도리 잘험서 당케당케 살기라우.

지역 고창.

앵경 명 [대응어] 안경.

☞앤경.

지역 무주.

앵경집 명 [대응어] 안경집.

☞앙경집.

지역 무주.

앵글쎄보다 동 [대응어] 노려보다(사람을).

미운 감정으로 어떠한 대상을 매섭게 계속 바라보다. ¶무섭게 {앵글쎄보다}

지역 전북.

앵기다 동 [대응어] 안기다.

두 팔을 벌린 가슴 쪽으로 끌어당겨지거나 그렇게 되어 품 안에 있게 되다. ¶저넘덜 {앵기먼} 청년넘덜 {앵기먼} 직싸게 맞는다<지역어 자료총서, 임실> ¶그렁게, 찌럭찌럭 건등게 올라타고 {앵길라고} 허제.

지역 고창, 임실.

앵기레보다 동 [대응어] 노려보다(사람을).

미운 감정으로 어떠한 대상을 매섭게 계속 바라보다. ¶무섭게 {앵기레보다}

지역 전북.

앵기손고락 명 [대응어] 엄지손가락.

다섯 손가락 가운데 첫째 손가락. ¶{앵기손고락을} 치켜올리다.

지역 정읍.

앵길쎄보다 동 [대응어] 노려보다(사람을).

☞앵글쎄보다.

지역 전북.

앵당거리다 동 [대응어] 앙알거리다.

상대방의 말에 대하여 조금 원망스럽게 자꾸 입속말로 군소리를 하다. ¶동생이 하루쩽이 앉아가지고 지 선물 안 사왔다고 {앵당거리고} 있네.

지역 전북.

앵당앵당 부 [대응어] 앙알앙알.

윗사람에 대하여 조금 원망스럽게 입속말로 자꾸 군소리를 하는 모양. ¶{앵당앵당} 떼를 쓰다.

지역 전북.

앵당앵당하다 동 [대응어] 앙알앙알하다.

☞앙당앙당하다.

지역 전북.

앵돌아스다 동 [대응어] 앵돌아서다.

마음에 노여움이 있거나 토라져서 홱 돌아서다. ¶아버지헌테 눈을 흘기며 {앵돌아스는} 건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여.

지역 전북.

앵매기 명 [대응어] 명매기.

칼샛과의 새. ¶{앵매기가} 날아간다. ¶제비집허고는 좀 다르게 {앵매기} 집은 입구는 쫍고 안으는 널부덕허니 호리병같이 짓고 살더라고.

지역 전북.

앵병 명 [대응어] 양병.

목은 가늘고 길고 몸통은 동그란 술병. ¶앵병에다 술 담어서 손님한티 내.

지역 전북.

앵생하다 형 [대응어] 옹색하다.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여 필요한 것이 없거나 부족하다. 또는 집이나 방 따위가 비좁고 답답하다. 또는 생각이 막혀 답답하고 옹졸하다. 또는 변명할 여지나 어찌할 방법이 없어 난처하다. ¶벌이가 {앵생하지는} 않다. ¶두 사람이 눕기에도 {앵생할} 맹키로 방이 쫍다. ¶{앵생한} 변명을 늘어놓다. ¶다급허서 {앵생한} 대로 아무케나 둘러댔다.

지역 전북.

앵숙갓 명 [대응어] 앵속각.

양귀비 열매의 껍질을 한방에서 이르는 말. ¶앵숙갓을 달이다.

지역 전북.

야[1] 대 [대응어] 얘

방언형 '이 아'가 줄어들어 굳은 말. ¶{야가} 이담에 커서 순사가 될라고 그런다 어쩐다아? 하시면서 말이다.<이병천, 모래내모래톱> ¶하루 가고 이틀 가고, 한 달 가고 두 달 강게, 어느새 한 해 가고 두 해 가서, {야가} 인자 한 여나무 살 먹게 되얐능게비드라.<최명희, 혼불> ¶아, 그러다가 하루는 {야가} 더 못 참고 선생 앞에 물팍을 딱 꿇고 앉어서 토로를 했네.<최명희, 혼불> ¶{야갸} 참말로, 너 덕석말이 맞어 죽을라

고 환장을 했냐? 엉?<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야² 의명 [대응어] 것.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나 대명사 뒤에 쓰여))그 사람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말. ¶넘의 {야} 품앗이허러 갔단다<김옥화(2004)> ¶{내야는} 너머 즉다(내것은 너무 적다)<최명옥, 김옥화(2001)>
지역 전북.

-야 조 [대응어] -야.
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보드라야}.<최태영(1973)> ¶언청 옷이 {짝어야}.(워낙 옷이 작아)<김옥화(2001)>
지역 전북.
해설 표준어형에서는 문장 안의 성분 뒤에 결합되지만, 전북 방언에서는 보조사 '야'가 문장 안 성분뿐만 아니라 종결 어미 뒤에도 결합된다.

-야고 【연결어미】 [대응어] -냐고.
어미 '-야'에 간접 인용을 나타내는 격 조사 '고'가 결합하여 굳은 말. 앞 절이 간접 인용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누가 {머래야고}<최전승 외(1992)> ¶니 혼인허는 날인 거 알고 {왔지야고}<최전승 외(1992)> ¶돈 이놈 가지먼 {혼인시기시겄지야고}<최전승 외(1992)> ¶바깥주인 생각땜시 시방 밥을 그러코 {먹지야고}<최전승 외(1992)> ¶좋은 땅 멀라고 {놀리야고}, 거그 뫼 쓰라고.<최전승 외(1992)> ¶그리야고, 그런 죄를 짓고 느가 자식 키기를 {바래야고}.<최전승 외(1992)> ¶먼 이야그를 대신 {헌다야고}<최전승 외(1992)> ¶내가 왜 {신경써야고}<김옥화(2004)>
지역 전북.

야꼽쟁이 명 [대응어] 구두쇠.
☞쫌뿌생이. ¶너무 {야꼽쟁이짓} 하지마. 딴 사람들이 손꺼락질해. 알것냐?
지역 고창, 군산, 김제, 부안, 익산, 완주, 정읍.

야드레 명 [대응어] 여드레.
여덟 날. 또는 매달 초하룻날부터 헤아려 여덟째 되는 날. ¶그냥 거그서 날이 새자마자 그냥 거그서 질을 떴어. 질을 떠서 또 하루길을, 인자 그 적으 옛날 과거를 보러갈라면 일주일도 걷고 {야드레를} 걷고 그?거든. 그 서울까지 가니까 한 이틀을 걸었든가, 사흘을 걸었든가. 또 하룻밤을 어디로 들어가서 턱 자는디, 잘 띠가 없는디<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가서 사정을 하면 멀라고 사정을 할래? 우리 각시는 내가 대꼬 살란게 우리 각시한테 그런 맘 잡수지 마시오, 이랄래? 그런 {야드레} 삶은 호박에 도래 송곳도 안 들어 갈 소리 할 생각은 첨부터 하지 말고,<송기숙, 녹두장군>. ¶인민군들이 내려와 마을을 뒤집고 다니는 통에 {야드레} 동안을 굴속으서 숨어 지냈대야. ¶어제가 이레이고 오늘이 바로 {야드레야}.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임실, 장수, 정읍, 무주, 익산, 진안.

야롭다 형 [활용형] 야롭고, 야롭어서 [대응어] 얇다(공책이).
두께가 두껍지 아니하다. ¶판자때기가 {야로버서} 못 쓰겄는디, 좀 두툼허니 쓸만헌 것으로 골라와봐잉.
지역 전북.

야몽야몽 부 [대응어] 야금야금.
무엇을 입 안에 넣고 조금씩 먹어 들어가는 모양. ¶그 껍질 얇게 벗겨서는 {야몽야몽} 영감님 혼자만 잡수시는 그 기막힌 속살 맛으로요.<서정주, 사과하늘> ¶부처님이 그 떡을 참말로 {야몽야몽} 잡숫겄어? 결국은 중들 차지제잉.<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야물딱스럽다 형 [대응어] 야무지다.

사람의 성질이나 행동, 생김새 따위가 빈틈이 없이 꽤 단단하고 굳세다. ¶그애의 {야물딱스런} 각오에 이어 별이와 참솔이 자기들의 또래는 없는지 물었다.<이병천, 모래내 모래톱>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야물지다'는 표준어 '야무지다'이다. 그 '야물지다'에 '딱'이 첨가되어 '야물딱지다'가 만들어진 것이다. 전북 방언 '야물딱스럽다'는 '야물+딱'에 형용사 파생 접미사 '-스럽다'가 연결된 것이다.

야물딱시럽다 형 [대응어] 야무지다.

☞야물딱스럽다. ¶"종술이 자네, 부인 한번 방짜로 얻었구만, 앉으나스나 똑 소리만 내는 {야물딱시런} 부인 덕분에 자네는 굶어도 배가 불르겄네."<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야물딱지다 형 [대응어] 야무지다.

사람의 성질이나 행동, 생김새 따위가 빈틈이 없이 꽤 단단하고 굳세다. ¶스쳐 가는 바람결처럼 차마 눈 감을 수도 없거늘, 아아 하늘이여 피가 돌양면, 저어 {야물딱진} 민들레꽃을 피워내듯이 어서 숨을, 숨을 돌리게 하라.<신석정, 悲歌>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야물지다'는 표준어 '야무지다'이다. 그 '야물지다'에 '딱'이 첨가되어 '야물딱지다'가 만들어진 것이다. '야물딱스럽다'가 쓰이는 것으로 보아 '야물+딱'에 형용사 파생 접미사 '-지다'가 연결된 것으로 이해된다.

야물지다 형 [대응어] 야무지다.

☞야물딱지다. ¶그렇게 {야물지게} 생긴 값을 하느라고 아이가 까불지오.<채만식, 천하태평춘>

지역 전북.

야바구판 명 [대응어] 야바위판.

여러 사람이 모여 야바위를 치는 판. ¶돈 놓고 돈 먹는 {야바구판이} 따로 없네.

지역 전북.

야바우 명 [대응어] 야바위.

속임수로 돈을 따는 노름의 하나. ¶{야바우} 겉은 걸로 넘 등쳐 먹을 생각 말고, 헐 일이나 열심히 혀.

지역 전북.

야바우꾼 명 [대응어] 야바위꾼.

야바위 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야바우꾼이} 홀림서 정신을 나가게 허면 그때 돈을 빼가는 거여.

지역 전북.

야바우판 명 [대응어] 야바위판.

☞야바구판. ¶시한부 종말론이란 게 알고 보니깨 돈 놓고 돈 먹기 {야바우판이드라고}.<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야살피우다 형 [대응어] 야살스럽다.

얄밉고 밉살스러운 말씨나 태도를 보이다. ¶쪼매만 풀었다 허면, 발발이새끼 {야살피우며} 꼬랑지를 흔들어대디끼 겁대가리덜이 없어.<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야숭개 명 [대응어] 냉이.

☞아숭개.

지역 전북.

야시럽다 형 [대응어] 야하다.

행동이 깊숙하지 못하거나 정숙하지 못하다. ¶ "술 마시는 것 상시럽고 잠자리서 {야시러운} 것이 짐승 한가지요." "잠자리서 {야시러울수록} 재미가 존 것 아니드라고?" "아시럽기만 허면 머 헌다요.<조정래, 아리랑> ¶아버지 산소에 성묘 하러 가면서 {야시러운} 옷을 입을 수 없잖아요. ¶요즘 애들 하고 다니는 꼴이 얼마나 {야시러운 지}.<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전북.

야식하다 (←夜深하다) 형 [발음] [야시가다/야시카다] [대응어] 야심하다.
밤이 깊다. ¶그래 거기를 갔었는데 인제 오기를 기다리는 데 밤이 {야식한게}, "아무것이 아무것이." 자꾸 불러.<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남원.

야젓잖다 형
점잔하지 못하고 가볍다. ¶즈 부모가 오죽이나 {야젓잖으면} 조로코 나댕기게 막 놔뚜겄나.<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야차막하다 형 [발음] [야차마가다/야차마카다] [대응어] 야트막하다.
조금 얕은 듯하다. ¶괘등자리는 마치 등잔걸이같이 생긴 디라 괘등이라고 허는디, 등잔은 {야차막헌} 것인께, 명당이 될 데는 짚은 데가 아니고 얕은 데라는 것이여.<구비문학대계 정읍군>
지역 정읍.

야찹다 형 [대응어] 낮다.
물 따위의 깊이가 기준이 되는 대상이나 보통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또는 품위, 능력, 품질 따위가 바라는 기준보다 못하거나 보통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냇깔 물이 {야찹다고} 함부로 들어가면 큰 일 난게 조심허라. ¶쫌 나차쑤도1029)1029) '낮다'의 방언형. '나찹다'는 높이가 낮은 경우에 사용되고, ' {야찹다'는} 물이 얕은 경우에 사용된다.<지역어 자료 총서, 무주> ¶한라산은 백두산에 비하면 매우 {야찹다}. ¶예술적으로 봐서 아니다 그것이여. 이 동백 씨보다 수준이 {야차와요}.
지역 남원, 순창, 완주, 익산.

야춥다 형 [대응어] 얕다.
☞야칩다.
지역 전북.

야칩다 형 [대응어] 얕다.
겉에서 속, 또는 밑에서 위까지의 길이가 짧다. ¶너그 아들 저그 {야치운} 개울가에서 신나게 놀고 있더만.
지역 장수.

야코죽다 동 [대응어] 기죽다.
기세가 꺾여 약해지다. ¶누가 기죽어 말 막히는 꼬라지 볼 일 있나. 말허는 사람 {야코죽게}. <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야터다 형 [대응어] 얇다.
수면이 밑바닥에 가깝다. 또는 생각이나 지식 따위가 깊지 아니하다. 또는 빛깔이나 농도가 보통의 정도보다 흐릿하다.
지역 진안.

야트다 형 [대응어] 얕다
높이가 그다지 높지 아니하다. 또는 물, 생각이나 지식 따위가 깊지 아니하다. 또는 빛깔이나 농도가 보통의 정도보다 흐릿하다. ¶저 시방 굴뚝 또 굴뚝이 {얕아} 불이 내는가 해서, 또 저기 내 동무에게 굴뚝이 있다고 ¶여기가 썰매타기는 최고당게, 이 방죽은 아주 {야트단}말여. ¶굴뚝

이 너무 {야트막하여} 연기가 잘 빠지지를 않는구나.
지역 고창, 부안, 순창, 군산, 익산, 임실, 정읍.

야튼 뿌 [대응어] 하여튼.
여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든. ¶{야튼} 성 동생, 서로 크고 작고 헌 놈을 우리가 서로 남편을 삼자.<구비문학, 남원시> ¶인자 아주 남루허니, 그렇게 그지(거지)가 됐으니까. 밥을 얻어먹고 가만히 보니까, 그 집에서 그날부터 혼수감을 사들인다 막 그냥 바느질을 헌다 허는데, {야튼} 막 그냥 그 노란 것, 빨강 것, 곤색, 남색 헐 것 없이 인자 막 쓸 것 아닙니까. 옛날인게,<한국구비문학대계, 옥구군> ¶그런 것이 아니라 {야튼} 가보자.<한국구비문학대계, 옥구군> ¶이 팔도에 돌아댕김서 {야튼} 용헌 표수라는 표수, 일류 표수를 한 삼십 명만 전부 다 오늘 내로 귀혀 잡아디리라.<한국구비문학대계, 옥구군> ¶{야튼}, 죄 이리로 모여 보드란다고 혀.<조봉래, 풀벨골> ¶{야튼} 벨시러븐 난리인갑서.<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약꼬쟁이 명 [대응어] 약막대기.
달인 탕약을 짤 때, 약수건 양쪽에 걸쳐 대고 힘주어 비트는 데 쓰는 막대기. ¶{약꼬쟁이를} 단단히 붙잡고 짜야 한다. ¶탕약을 다려 약수건에 놓고 짤 때마다 {약꼬쟁이가} 필요했다.
지역 전북.

약손고락 명 [대응어] 약손가락.
다섯 손가락 가운데 네 번째 손가락.
지역 진안.

약손구락 명 [대응어] 약손가락.
☞약손고락.
지역 무주, 남원.

약손그락 명 [대응어] 약손가락.
☞약손고락.
지역 임실.

약송가락 명 [대응어] 약손가락.
☞약손고락.
지역 완주.

약약스럽다 형 [발음] [양냑쓰럽따] [대응어] 인색하다.
재물을 아끼는 태도가 몹시 지나치다. 또는 어떤 일을 하는 데 대하여 지나치게 박하다. ¶씀씀이가 약약스럽다. ¶박수가 너무 약약스럽다.
지역 전북.

약약시럽다 형 [대응어] 인색하다.
☞약약스럽다. ¶사람이 {약약시럽게} 그런 쬐깐 것까지 따지고 그러는가.
지역 양냑씨럽다.

약지송고랙 명 [대응어] 약손가락.
다섯 손가락 가운데 네 번째 손가락. ¶{약찌송꼬랙에다} 반지를 끼워 주며 겔혼하자 그러데.
지역 완주.

약허다 (弱허다) 형 [발음] [야거다/야커다] [대응어] 엷다.
빛깔이 진하지 아니하다. 또는 두께가 적다. 또는 밀도가 빽빽하지 아니하다. ¶화장 좀 {약허게} 허라. ¶이짝으 사과는 빨간헌디 저짝은 색이 {약헌} 것을 봉게 아무리도 햇빛 관리에 신경을 써야겄어. ¶이렇게 {약헌} 이불을 해오니께 아그가 허구헌날 감기를 달고 사는 거 아니냐? 목화솜으로다가 두텁게 이불 좀 해 오면 어디가 덧나냐? ¶안개가 {약허니까} 길이 아예 안 보이들 안 혀.

지역 장수.

얄랑궂다 형 [대응어] 알망궂다.
성질이나 태도가 괴상하고 까다로워 얄밉다. ¶씨부랄년아! 집구석에서 좆이나 뽈제 멀라고 입산허갖고 재수대가리 읎이 나스고 지랄이냐아!" 적진에서 들려온 소리였다. "허, 저눔이 {얄랑궂은} 소리 허네?" 외서댁이 헛웃음을 치며 대원들을 둘러보았다.<조정래, 태백산맥> ¶근디도 왕주댁이나 강진댁보고 심허다고 헐 수도 읎는 일 아니라고?" "긍께로 말이시. 다 지랄 같은 시국이 맹그는 {얄랑궂은} 굿판이시."<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해설 전라 방언 '얄랑궂다'는 표준어 '얄궂다'와 관련이 된다. '얄랑궂다'의 '얄랑'은 "야살스럽게 구는 짓"이란 의미를 가진 표준어 '얄'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얄부다 형 [대응어] 얇다(공책이).
두께가 두껍지 아니하다.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이렇게 손을 바로 잡으면 소가 있대요. 구멍이 뚫어질 데가. 아:! 좀 {얄분데가}?<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얘. {얄분데가} 이씽개 이케 자바 갇꼬는 이러케 나무때기로 코를 뚤텅만.(예, 얇은 데가 있으니까 이렇게 잡아가지고는 이렇게 잡아가지고는 이렇게 나무로 코를 뚫더만)<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그 막꼬서는 그다 보나 이르케 {얄분} 보 이르케 쪽 깔지 깔고 어, 그레 깔고서는 그다메<지역어 자료 총서, 중국 무주촌> ¶방바닥에 깐 요가 너무 {얄분게} 냉기가 그대로 올라오는 거여.
지역 임실.

얄붑다 형 [대응어] 얇다(공책이).
☞얄부다.
지역 전북.

얄브다 형 [대응어] 얇다(공책이).
☞얄부다.
지역 전북.

얄픗얄픗 부 [대응어] 얄팍얄팍.
여러 개가 모두 두께가 조금 얇은 모양. ¶무시도 얄픗얄픗 쓸어서 담고.
지역 전북.

얇시락하다 형 [발음] [얍씨라가다/얍씨라카다] [대응어] 얄브스름하다.
조금 얇은 듯하다. ¶자는 저 다리로 어뜨케 돌아다니나 모르겄네. 사람 다리가 어찌 저렇게 {얇시락하디야}? 새다리가 따로 없구마잉. ¶혼차만 편해 볼라고 여기저기 찌웃거리며 {얇시락헌} 처신을 허면 어디가나 사람대접을 못 받는다고.
지역 전북.

얇시럼하다 형 [대응어] 얄브스름하다.
조금 얇은 듯하다. ¶우리 딸이 대학엘 가는데 {얇시럼한} 책 하나 사는데 3만원이 넘어간다고 하는데, 이걸 믿어야 허 말아야 허?
지역 전북.

얇시롬하다 형 [대응어] 얄브스름하다.
☞얇시럼하다.
지역 전북.

얇시름하다 형 [대응어] 얄브스름하다.
☞얇시럼하다.
지역 전북.

얌마 【축약형】 [대응어] 야 인마.
방언형 '야 임마'가 줄어든 말. ¶{얌마}, 니 인생 아니라고 함부로 물 타서 튭튭헌 탁배가 같은 남에 인생 괘얀시 멀건 뜬물 맨들지 말아라.<윤

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얌마}, 사대육신 멀쩡헌 젊은 놈이 노상 헐 짓이 없어서 밤이나 낮이나 널금저수지 옆구리에 찌고 살음시나 한 끄니 매운탕감도 못 잡는 낚기질로 말어먹은 니놈 십 년은 안 아까운 세월이냐?<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얌마}! 그러먼 맨나맨나 나만 술래혔으면 좋겄냐?<이병천, 모래내모래톱> ¶{얌마}, 존 걸로 새로 사다 기르면 되제 먼 놈의 잔소리여.<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양간 명
두 냥쭘. ¶가 보니 참으로 가난하고 찬 방에서 늙은 어미와 어린 동생이 떨고 있어. 그래서 돈 {양간이나} 보태주면서 이것으로 나무를 사고 능소(陵所)의 나무는 베지 말라고 했어.<구비문학대계 임실군편>
지역 임실.

양근 명
볕에서 말린 고추. 기계로 말린 화근은 색이 검은데 양근은 붉고 투명하다. 화근보다 값이 더 나간다. ¶올해는 고추가 안 돼서 동네서 양근으로 사왔어.
지역 전북.

양글다 동, 형 [대응어] 야물다.
과실이나 곡식 따위가 알이 들어 단단하게 잘 익다. 또는 일 처리나 언행이 옹골차고 야무지다. ¶반찬그릇도 어찌 그리 너 모양으로 {양글어서}, 흰 대접 깨진 것을 아조 진주같이 보드랍고 광채나게 갈어 갖꼬 칠첩 반상기를 맨들어 놨대?<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양글다’는 동사와 형용사로 쓰는 어휘이다. 표준어 ‘야물다’와 의미가 거의 유사하다. ‘나락이 잘 양글었다’, ‘사람이 양글다’와 같이 쓴다.

양글양글 부
과실이나 곡식 따위가 알이 들어 단단하게 잘 익은 모양, 또는 일 처리나 언행이 옹골차고 야무진 모양. ¶귀 하나는 참말로 잠결으도 {양글양글} 허구만이!<이병천, 모래내 모래톱>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양글양글’은 의태어 부사이다. 전북 방언 ‘양글다’는 의태어 ‘양글’을 어근으로 하여 동사와 형용사로 쓰이고 있다.

양낭 명 [대응어] 염낭.
아랫부분은 둥글고 위는 모진 모양으로, 아가리에 잔주름을 잡고 두 개의 끈을 좌우로 꿰어서 여닫게 한 작은 주머니. ¶{양낭에서} 동전을 꺼내다.
지역 순창.

양냥이짓 명 [대응어] 입짓.
입을 놀리는 짓. 또는 상대에게 잘 보이기 위해 말하면서 애교를 부리는 행위. ¶혓바닥을 날름 코를 실룩 눈을 찌긋 오만 {양냥이짓 을} 다 합니다.<채만식, 천하태평춘>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에서는 ‘양냥이’를 ‘양냥개’, ‘야냥기’로 쓰면서 주로 ‘양냥개를 부리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고 있다. 표준어에서 ‘양냥양냥’이 “만족스럽지 못하여 짜증을 내며 종알거리는 모양”을 나타내는 부사로 쓰이는 것으로 보아, ‘양냥’은 의태어 어근으로 보인다.

양넴 명 [대응어] 양념.
☞양님. ¶김치 담글 때 {양넴} 좀 많이 넣거라.
지역 진안.

양넴 명 [대응어] 양념.

☞양님.
지역 전북.

양님 명 [대응어] 양념.
음식의 맛을 돋우기 위하여 쓰는 재료를 통틀어 이르는 말. ¶인자 무쳐. = 고기로만 - {양님해서} 무쳐. = {양님}헤가지고. - 회.<지역어 자료 총서, 고창> ¶엄마는 떡국에 {양님}으로 김가루와 달걀 부침을 얹으셨다. ¶모든 너물무침이 {양님}맛이라고 허는디 사실은 너물 본디의 맛을 살림서 양님을 치는 것이 바로 재주여.
지역 고창,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임실, 장수, 정읍, 군산, 김제, 익산, 진안.

양님딸 명 [대응어] 고명딸.
아들 많은 집의 외딸. ¶요즘은 시상이 많이 바뀌긴 했나벼. 아들을 낳아도 만족허지 않고 {양님딸이라도} 낳을라고 노력을 허는 부부들이 많도만.
지역 전북.

양님장 (양님醬) 명 [발음] [양님짱] [대응어] 양념장.
갖은양념을 한 장. ¶무수밥 우에 {양님장}을 뿌리고 착착 비비봐, 꿀맛이 따로 없어. ¶여기에 {양님장을} 좀 부어라.
지역 남원, 부안, 임실, 장수, 정읍.

양달이쪽 명 [대응어] 양달쪽.
볕이 잘 드는 쪽. ¶주인 뒤에 따러가더니 그 명당 잡으러 간다고. 근게 인자 양달이쪽이 땃땃헌디.
지역 전북.

양대받이 (兩대받이) 명
벼 포기 양쪽으로 호미질을 하는 일. ¶이 논배미는 지심맬 때/에헤로 방아호/지심들이 많으니/에헤로 방아호/양대받이로 훌쳐나 매소/에헤로 방아호(무주 논매는 소리?방아타령)<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무주.

양복대리미 명 [대응어] 다리미.
옷이나 천 따위의 주름이나 구김을 펴고 줄을 세우는 데 쓰는 도구 중에서, 쇠가 쟁기날처럼 생기고 손잡이가 몸체 위로 올라간 것.
지역 전북.

양지 명 [대응어] 약손가락.
☞약찌.
지역 고창.

양철간죽 (洋鐵簡竹) 명 [대응어] 담뱃대.
양철을 사용해 만든 담배 설대. ¶팔모깎이 우산대/은소복으 연변대/주석대 백통대/파른 반침 구리 동고리대/소상간죽으 별간죽/금사오죽에 {양철간죽을}/마치 맞게 잘 맞촤/네 구석으 세워두니/방안치레가 훌륭하네(진안 고사풀이)<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진안.

양피짝 명 [대응어] 양쪽.
두 쪽. ¶두레를 양피짝에서 잡고 물을 품어.
지역 전북.

얕추다 동 [대응어] 낮추다.
아래에서 위까지의 높이가 기준이 되는 대상이나 보통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 있게 만들다. ¶등을 {얏춰야} 야가 올라가서 업히기가 쉽지.
지역 익산, 장수.

얭이락 명 [대응어] 학질(매일). ¶얭이락을 앓다.
지역 김제, 임실, 진안.

어 조 [대응어] 에.

앞말이 처소, 시간 따위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주로 명사 '뒤'와 어울려 쓰인다. ¶그렇게 왜바람 불어서 솔 부러지고 헐 때 그 {뒤어로} 인자 해방 되았어, 칠월이. ¶인공 제끼고 갔제. 인공 제끼고 얼매나 있다 갔어. 인공 {뒤어} 얼매나 있다가 군인들 갔가디? ¶쥐가 그려. 천장이서. 저 {뒤어가} 작년에 눈이 와가꼬 아무래도 조립식이라 짱짱헌 맛이 없어. ¶곤란허지. 근게 그 {뒤어} 곤란혔지.
지역 고창.

어간자청 (어간자廳) 명 [대응어] 어간대청.
방과 방 사이에 있는 큰 마루. ¶마린신 진신 궁혜 웅혜 /반결음 구슬은/{어간자청으} 늘여놓고 (진안군 마령면 계서리)<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 민요해설집>
지역 진안.

어거지 명 [대응어] 억지.
안될 일을 무리하게 해내려는 고집. ¶고딴 {어거지} 소리 말고 어여 초롱이네나 옮기세.<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어게미 명 [대응어] 어레미.
☞얼게미.
지역 전북.

어구다 형 [대응어] 드세다.
힘이나 기세가 몹시 강하고 사납다. 또는 집터를 지키는 귀신이 사납다. ¶{어구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애들이 쟈들이랴. ¶"어떻게 집터가 {어구던지} 들어가는 사람마둥 못 살고 나온다." 고 그러드랴. "
지역 전북.

어구대다 동 [대응어] 어기대다.
순순히 따르지 아니하고 못마땅한 말이나 행동으로 버티거나 뻗대다. ¶쪼끄만 아가가 어찌나 악을 쓰고 울면서 {어구대던지} 엄마, 아빠 두 명이서 꼼짝도 못허구 진땀만 뻘뻘 흘리더랴.
지역 전북.

어구쎄다 형 [대응어] 어기차다.
한번 마음먹은 뜻을 굽히지 않고, 성질이 매우 굳세다. ¶그들은 굳은 의지를 힘찬 목소리에 담아 '대한민국 만세' 허고, {어기차게} 태극기를 흔들었다는디. 그게 그렇게 장관이었다.
지역 전북.

어구차다 형 [대응어] 어기차다.
한번 마음먹은 뜻을 굽히지 않고, 성질이 매우 굳세다. ¶저것은 암것도 아니여. 우리들은 겁나게 {어구차기도} 하니께 겁먹을 필요가 없어. 그냥 맴을 굳게 먹어.
지역 전북.

어군 명 [대응어] 짐작.
사정이나 형편 따위를 어림잡아 헤아림. ¶못줄 안 대고 심으면 어군 들여서 심어. 내 앞으로 이만치 이만치 떨어지게 히서 심어. 어군 들여서 심어.
지역 전북.

어그데데하다 형
몸집이나 목소리가 어른스럽다. ¶{어그데데한} 사람
지역 전북.

어그데하다 형
몸집이나 목소리가 어른스럽다. ¶{어그데한} 사람
지역 전북.

어그러지다 동

쌓이거나 짜이거나 지어져 있는 것이 헐려서 무너지다. 일이 틀어지다. ¶집이 오래된게 흙이 어그러진게 안 좋제. ¶약속이 어그러진게 화나제.

지역 전북.

어긋내다 동 [대응어] 망가뜨리다.

물건을 쓰지 못하도록 부수거나 찌그러뜨리다. 또는 사람을 지치고 쇠약하게 만들다. ¶장난감을 {어긋내다}. ¶정신을 {어긋내다}.

지역 전북.

어긋장부리다 동 [대응어] 어기대다.

순순히 따르지 아니하고 못마땅한 말이나 행동으로 버티거나 뻗대다. ¶어른이 무신 말을 허먼 그렇갑다 허제 꼭 저렇게 {어긋장부리제}.

지역 전북.

어기지기하다 형

몸집이 매우 크다. ¶덩치가 {어기지기하다}

지역 전북.

어까리 명 [대응어] 바구니.

대나 싸리 따위를 쪼개어 둥글게 결어 속이 깊숙하게 만든 그릇. 테두리에 대나무를 서너 겹 둘러 손잡이가 달린 형태로도 쓸 수 있다. ¶{어까리} 옆에 끼고 나물 캐러 가지.

지역 완주.

어너니 부 [대응어] 워낙.

☞워너니. ¶{어너니} 많다 ¶"그동안 공력을 겁나게 들였다고?[어너니], 자알~ 허겄다.". ¶{어너니} 니가 잘 혔겄냐? 내가 진작부터 알어봤어.

지역 전북.

어눠니 부 [대응어] 워낙.

☞워너니. ¶{어눠니} 많다

지역 전북.

어느새끼 부 [대응어] 어느새.

어느 틈에 벌써. ¶지금이 시방 몇 시여? 오매, {어느새끼} 저녁때가 다 되야 부렀네.

지역 전북.

어느젓 부 [대응어] 어느덧.

어느 사이인지도 모르는 동안에. ¶원래는 이 일을 잠깐 헐려고 혔는디 {어느젓} 7년이 다 가부렀네. ¶내가 한참 그년 승을 보고 있는디 {어느젓}에 왔는지 등뒤에서 듣고 있더랑게. 참 내.

지역 전북.

-어다 조 [대응어] -에다.

일정한 위치를 나타내는 격 조사. 주로 명사 '뒤'에서 쓰인다. ¶그때는 다 트럭 타고 장개 오고 그려. 그거 타고. 거그다 농 싫고 거그 뒤어다 사람 타고, 신랑 각시는 속으 운전사 타고. 상각도 거 우그서 타고.

지역 고창.

어덕 명 [대응어] 벼랑.

낭떠러지의 험하고 가파른 언덕. ¶어덕으로 구른다. 떼를 쓰다, 핑계를 대거나 책임을 미루다 ¶이제껏 혼자서 일을 다 벌리놓고 잘 안된게 {어덕}을 쓸려고 허는거여.

지역 고창, 남원, 무주, 군산, 익산, 장수, 정읍.

해설 '어덕'은 '언덕'의 제1 음절 말음이 탈락한 형태이다. '벼랑'은 "낭떠러지의 험하고 가파른 언덕"을 뜻하나, 전북 방언에서는 '벼랑'과 '언덕'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한다.

어덩덩하다 형 [대응어] 엇비슷하다.

큰 차이가 없이 서로 비슷비슷하다. ¶이 얘기는 사음보고서 그 그분 논 스마지기를 짓는 분이 있는디, 나이도 {어덩덩헌디}, 에, 말이자믄 세경

인디 그런디, 딸이 열 다섯 먹은 딸이 있어.<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전북.

어덱 명 [대응어] 밭둑.
밭과 밭 사이의 경계를 이루고 있거나 밭가에 둘려 있는 둑. ¶{어덱에} 앉다
지역 임실.

어둡다 형 [대응어] 어둡다.
☞어둡다/어두-.
지역 순창.

어두다 형 [대응어] 어둡다.
빛이 없어 컴컴하다. 또는 눈이 잘 보이지 않거나 귀가 잘 들리지 않다. 또는 분위기나 표정, 성격 따위가 침울하고 무겁다. ¶"이걸 가지고 가잡수시라." 고 그래. 해가 더 저물어가서 어둑발이 되었는디, 그 놈을 갖고가서 나서닌개 {어두워진단} 말이여. "아 이거 어두워져서 어떻게 하나?" "<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 우리가 밥을 한 그릇 지어놓고 복을 벗자." 고 그랬어. 점드락 가드니 {어둡드락} 안와, 신랑이 가. 각씨는 집을 다 뒤지더니 무수(무우) 나물 한 그릇을 해 놓고는 신랑 오기를 지다려도 신랑이 안 와. 그래<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그 여자허고 남자허고 {어둔} 밤이라 모르기는 히도 남녀분간은 허겄어. 남자 여자 말은 표가 있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말캉 틈새기로 단추가 굴러 들어 갔는디 {어두워서} 찾을 수가 없네[완주], =$ ¶부인이 눈이 {어둡단개}, 아 그때는 잘못했다고 자복을 하드랑만. 인제<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젊어서는 며칠씩 밤을 새워 이야기할 수 있는 총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귀가 약간 {어둡고} 이야기를 오래 하면 숨이 차오른다고 하였다.<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나이를 먹으먼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두우닝게 뭔 일이든 죄용허니 있는게 수여 누가 뭣을 허먼 허는갑다, 누가 지저구면 지저구는 갑다 험서 살어야지 콩이니 팥이니 아는 체를 혔다가는 늙은이 노망 들었다고 허닝게. ¶"그건 다행일세만…" 김덕호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어두운} 얼굴이었다.<송기숙, 녹두장군> ¶상갓집이라고 찾어봉게 {어두울} 줄 알았던 집안 분위기가 아니고 오히려 홀가분한 표정들 이었어.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순창.

어둑거리다 형 [대응어] 어스레하다.
빛이 조금 어둑하다. ¶몇 해만에 거기를 가닌개 {어둑거려지네}.<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아버님은 {어둑거려 징검다리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감을 져날랐다.<김용택, 섬진강>
지역 완주.

어둑발 명 [대응어] 땅거미.
해가 진 뒤 어스레한 상태. 또는 그런 때. ¶해가 더 저물어가서 {어둑발이} 되었는디, 그 놈을 갖고가서 나서닌개 어두워진단 말이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연회색 어스름이 진회색 {어둑발로} 변해 가고 있는 저 멀리로 들녘이 질펀하게 펼쳐져 있었다.<조정래, 아리랑>
지역 장수.

어둑스레 부 [대응어] 어스레.
조금 어둑하게. ¶나로서는 아무것도 서둘러야 할 까닭이 없었으므로 갑작스러이 풍류스럽게 된 나를 내가 가볍게 데불고, 달빛만 {어둑스레} 찬 마을을 밤새워 거닌들, 그것이 나쁠 턱이 없었다.<박상륭, 죽음의 한 연구>
지역 전북.

어둠발 명

해가 진 뒤 어두워진 상태나 기운. ¶해가 넘어가서 해가 설풋허니 {어둠발이} 들락헌게로 그 파랑새 두마리가 퐁 날러가.<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죽을라구 운수가 됐은개 그렇지, 잿배기를 넘어가닌개 {어둠발이} 들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뎅그만 눈구먹이 퀭하게 뚫린 두개골, 이름 모를 부위가 써금써금 삭은 기색 역연한 갈색 부스러기들이 어둑어둑 슬어 내리는 {어둠발을} 감고 있었으니. 아무도 그것에 선뜻 손을 내밀려 하지 않았다.<최명희, 혼불>

지역 완주, 정읍.

어등등하다 형 [대응어] 엇비슷하다.

☞어덩덩하다.

지역 전북.

어떠케 부 [대응어]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를 강조하는 표현. ¶저 사람이 {어떠케} 상스러운지 말도 못해.

지역 전북.

어떠코롬 부 [대응어] 어떻게.

어떤 방법이나 방식으로. 또는 수사 의문문에 쓰여, '도무지 그럴 수 없음'을 강조하여 이르는 말. ¶저짝으서는 뭣이냐 빙신이라도 큰 병신인께 쉽게 {어떻코롬} 작정을 헐라고.

지역 고창.

어떡해서 부 [발음] [어떠개서/어떠캐서] [대응어] 어쩌다가.

뜻밖에 우연히. ¶요놈이, 채집을 해 갖고 인자 싸서 넣고는 이 배만 보므는 육지로 나와야 겠는디 배가 안 보여. 저 {어떡해서} 하루는 고기배가 강에서 나와 사람 좀 살리라구 고함을 지른 거여.<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남원.

-어라고 【축약형】 [대응어] -으라고.

뒷말의 행위가 목표하는 바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맘에 {들어라고} 허드라<김옥화(2004)> ¶계집은 재미가 {있어라고} 깔깔 웃는다.<채만식, 金의 情熱>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둘이 수작하는 양을 {재미있어라고} 구경을 하고 있다가, 상문이 인사 소개를 하는 바람에 얼른 얼굴을 절잖이 해가지고 가까이 다가선다.<채만식, 金의 情熱> ¶그래 새서방더러 그렇게 했다가 내일 날이 들거든 오자고 달래니까, 그건 {죽어라고} 도리질을 한다.<채만식, 두 순정> ¶권만은 {죽어라고} 틀어잡고 내놓지 않던 책이요, 하루라도 신변에 없어서는 안될 책이었었다.<채만식, 집>

지역 전북.

해설 형태상으로는 명령형 어미 '-어라'에 간접 인용을 나타내는 격 조사 '고'가 결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뒤 말의 계기적인 특성만을 남긴 채 명령의 의미는 느껴지지 않는다.

-어라도 【연결어미】 [대응어] -어서라도.

앞 절의 사실을 양보하여 가정하나 그것이 뒤 절의 내용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내 한목숨만 같으면 {죽어라도} 바리겠지만 저 불쌍한 어린것들이 있어 죽지도 못허구…<채만식, 영웅 모집> ¶이리 생각하면 마구 껍질이 한벌 벗도록 부욱북 문질러 {씻어라도} 내보고 싶어진다.<채만식, 탁류> ¶어머니가 살어 계시는디 그전에는 {늙었어라도} 어머니가 살먼은 흰옷을 안 입어. 그전에는 소복을 안혀. 색복을 허지.<구비문학, 정읍> ¶{컸어라도} 옷언 그대로 입능구나(컸어도 옷은 그대로 입는구나)<김옥화(2001)>

지역 부안.

어러신 명 [대응어] 어르신.

남의 아버지나 그 이상의 어른을 높여 이르는 말. '어른'보다 높여 이르는 느낌을 준다. ¶"지가 자주자주 올라고 맘언 묵겄지마는 아부님 산소럴 잘 부탁허겄소." 보름이는 집을 떠나면서 몇번이고 다짐했던 말을 또 했다. "야아, 지 아부님이라 생각허고 잘 뫼시겄구만이라. 그 {어러신이} 생전에도 지헌티 잘해 주셨구만요." 시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잘해 주었는지 알 수는 없었다. 그러나 보름이는 김서방의 가식없고 얄팍하지 않은 눈빛을 보고 그 언약을 믿었다.<조정래, 아리랑> ¶"아이고 {어러신}, 어여 오시게라우." 장덕풍은 유리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어느 손님보다 반갑게 정재규를 맞이했다. 사실 5부 이자가 보통이고 밤중 같은때 노름판까지 갖다주게 되면 1할 이자가 되는 빚돈을 쓰는 정재규는 고객 중의 고객이 아닐 수 없었다.<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어러신네 명 [대응어] 어르신네.

남의 아버지나 그 이상의 어른을 높여 이르는 말. '어른'보다 높여 이르는 느낌을 준다. ¶{어러신네를} 뵙다 ¶느티나무 그늘에 {어러신네가} 많이 앉아계신다. ¶싸가지 없는 놈 {어러신네들} 지신 앞으서 담배질을 혀? ¶"그 보랑게, 아무것도 몰르는 놈이 시건방구지게 나대, 나대기럴. 이눔아! 고것이 무신 말이고 허먼 말이여, 장타령언 나 배고파 죽겄응게 밥 한술 보태주씨요 허는 뜻으로 부러대는 것이 아니고 말이여, 아이고 {어러신네들}, 심지게 농새짓고 애써서 버신 돈인디 지가 못 불르는 노래라도 한 자락 불러올릴 것잉께 쵀허지 마시고 들어주시고 귀헌 밥 한술 보태주시먼 고맙게 묵겄구만이라우, 요런 뜻이다 그것이여, 알겄어!"<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어러웁다 형 [대응어] 어렵다.

☞어려웁다.

지역 전북.

어런아기 명 [대응어] 애어른.

하는 짓이나 생각이 어른 같은 아이. ¶철부지인 줄 알았는데 어런아기이다.

지역 전북.

해설 '어런아기'는 '어런+아기'로 분석된다. '어런'은 '어른'의 제2 음절 모음이 '/ㅡ/>/ㅓ/'로 변한 것이다. 본래 '어른~으른', '거짓말~그짓말'처럼 '/ㅓ/>/ㅡ/'의 고모음화가 일반적이나 이 경우는 반대 방향으로 음운 변화가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럽다 형 [대응어] 어렵다.

하기에 까다로운 점이 많아 힘들거나 괴롭다. 또는 가난하여 생활이 고생스럽다. ¶몰라요. 인자 안 민는 사람들은 운이 안 마진 때 그룹게 집을 손대지 마라거고, 짇찌 마라고 현는디 지서서 마리 집 지꼬 삼 년 넘끼가 {어럽따는} 거시다, 그래따 그러는디, 그거 누가 알꺼애요. 모르지.(몰라요.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운이 안 맞은 때 그렇게 집을 손대지 말라고 짓지 말라고 했는데 지어서 말이 집 짓고 삼 년 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랬다 그러는데, 그거 누가 알 거예요. 모르지)<2008 전북 고창> ¶어쩌 {어러운} 일이 업써어.(어찌 어려운 일이 없어.)<2005 전북 남원> ¶내 오경 지내서 인제 고까짓 것 없애 번지고 다 당신허고 나허고 살먼 그만이고 나 당신 따러 가먼 그만이지 뭐 {어러울} 것 뭐 있냐." 고, 큰애기 말이 그러거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그 자리 함번 웂는 지버언: 자리가 함번 싸다문 싹 펠라문: {어러웠써요}.(그 자리 한번 없는 집은 자리가 한번 사다가 싹 펴려면 어려웠어요.)<지역어 자료 총서, 무주> ¶그 집으서 다 알어가지고는 부자가 돈과

양석(양식)과 보냈어. 집안이 {어렵다닌게}, 그 사람 그 본인 몰리 보내 줬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자식이 하나, 그 {어렵고} 살고 산전(山田) 부리고 살고 그런개 얼매나 귀여울 것이여?<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무주, 순창, 정읍, 임실, 부안, 남원, 고창.

어렙다 형 [대응어] 어렵다.
☞어렵다.
지역 임실, 남원.

어려웁다 형 [대응어] 어렵다.
하기에 까다로운 점이 많아 힘들거나 괴롭다. 또는 상대가 되는 사람이 거리감이 있어 행동하기가 조심스럽고 거북하다. ¶"그런데 정말 해괴한 일이 그 다음부터 벌어지고 있었으니." 나로서는 도무지 이 이야기 앞뒤를 맞추기가 {어려웁다}.<최명희, 혼불> ¶참, 정승이 집이고 그닌게 참 분벽사처럼, 분벽사가 사방으 붙어 있고, 참 맹호가 붙어 있어서 참 난듯허니 갬히(감히) 들어서기가 참 {어려웁거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아이, 허망헌 일을 보면 뭣이든지 허망헌 것 아니냐고." 남편보고 물어 봐도 모른다. 시부모한티까지 그 {어려웁게} 물어봤어. 물어 봤는디도 똑부러지게 몰라.<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높이 뜨고 또 한 마리는 천하 득도(得道) 못 잊어서 슬피 울고 가시는가 새가 울어도 눈물 뵈기 {어려웁고} 꽃이 웃어도 소리 듣기 어렬 것이네. 그리 안혀? 꽃이 웃어도 뭔 소리가 나며, 새가 암만<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차가지고 칠떡거리고 흉악스런 발을 그 좋은 안방으다 발을 들여놓기가 감히 못들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웁던} 자리다 이런 얘기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당신은 참 {어려웁디다}. 금방석 두 개, 여의주 한 개, 동삼 한 뿌리 짊어진 남편을 얻으면 영락없이 백 년 해로를 하구 산다구 합디다."<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정읍, 완주, 익산, 남원, 부안.

어루다 동 [대응어] 어르다.
몸을 움직여 주거나 또는 무엇을 보여 주거나 들려주어서, 어린아이를 달래거나 기쁘게 하여 주다. ¶사십에 공자를 낳아/칠칠 안에 품에 안고 {어룰} 적에/ 시면효덕하나니라/우리 애기 잘도 되라(부안 자장가"천지간 만물지중에")<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부안.

어루매기 명 [대응어] 시합.
재주를 겨루어 이기고 짐을 다투는 것. ¶당신은 나무깨(나막신)을 신고 한양(漢陽)까지 갔다 오기로, 서로 {어루매기을} 했어.<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남원.

어룹다 형 [대응어] 어렵다.
☞어렵다.
지역 부안.

어른아 명 [대응어] 어린애.
'어린아이'의 준말. 나이가 적은 아이. ¶"아이고 아무개덕은 참 뭣이냐 이 동네서 참말로 청춘과부로 뭣이냐 홀로 그렇게 산다고 다들 얌전났다고 혔더만은 속세로는 음험허니 응 뭣이냐 새서방질을 혀갖고 {어른아를} 배갖고 {어른아를} 났다네."<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 {어른아를} 나놓고 가머는 뭣을 맥이(먹여) 킬 거냐?"<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군산, 김제, 익산, 무주, 부안, 순창, 임실, 정읍.

어른애 명 [대응어] 어린애.
☞어른아. ¶그러고 저러고 한 이삼 년을 살어갖

고 인자 {어른애를} 하나 낳던개벼.<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김제, 익산, 정읍.

어리꽝질 명 [대응어] 어리광.
어른에게 귀염을 받거나 남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어린아이의 말씨나 태도로 버릇없이 굴거나 무엇을 흉내 내는 일. ¶{어리꽝질을} 부리다
지역 전북.

어리다 동 [대응어] 굳다.
액체 따위가 단단하게 된다. ¶간수 지르면 두부가 {어리제}.
지역 전북.

어리미 명 [대응어] 어레미.
바닥의 구멍이 굵은 체. 곡물을 걸러내거나 껍질과 알맹이를 분리할 때 쓴다. ¶흙이 많으면, {어리미로} 싹 처갖고 걸러.
지역 전북.

어리버리하다 형 [대응어] 어벙하다.
사람의 성질이 여무지지 못하고 멍청하다. ¶자기 일을 못하고 어치케 헐 줄 모르는 {어리버리헌} 애들이 좀 있었지.<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인제 식모가, 인자 원삼 쪽도리 입고 가서 인제 절을 올려 절을 올리고선 술을, "여봐라, 여그 술 부어라." 주전자로 술 붓더니 {어리버리하다간} 이년이 그양 아 헛부어가서는 술잔을 어크러 버렸네.<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정읍.

어리빗 명 [대응어] 얼레빗.
빗살이 굵고 성긴 큰 나무빗. ¶얼레빗/명/ * {어리빗} {정문연}<전북>[완주, 김제, 부안, 고창], <한국방언어휘자료집_전북편> ¶21735 얼레빗 {어리빋}<2009 전북 임실> ¶{어리빗으로} 머리를 빗다.
지역 고창, 김제, 부안, 완주, 임실.

어린양 명 [발음] [어린냥] [대응어] 어리광.
어른에게 귀염을 받거나 남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어린아이의 말씨나 태도로 버릇없이 굴거나 무엇을 흉내 내는 일. ¶어머니가 들릴락말락 나직하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애기할 때는 나는 거의 어김없이 {어린냥을} 부리고 싶어진다.<이병철, 모래내 모래톱> ¶동생은 태권도장에 가는 날 따라가려고 {어린냥을} 부린다. ¶네 나이가 몇인데 이제 {어린냥} 좀 고만하거라.
지역 전북.

어린양허다 동 [대응어] 어리광하다.
어른에게 귀여움을 받거나 남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어린아이의 말씨나 태도로 버릇없이 굴거나 무엇을 흉내 내다. ¶나이가 몇 살인디 저러고 기냥 {어린냥허니께} 지 나이 값이 못보고 사람들헌테 손꾸락질이나 받으며 살지. ¶니가 장손이라고 {어린냥}이나 험서 어영부영 히도 누가 눈치는 안 주겄지만 장차 다가올 세월을 걱정이나 히봤냐 이놈아.
지역 전북.

어립다 형 [대응어] 어렵다.
☞어렵다.
지역 김제.

어마무시하다 형 [대응어] 어마어마하다, 무시무시하다.
매우 놀랍게 엄청나고 굉장하여 무서운 느낌이 있다. ¶개미새깽이 한 마리 성전 근처에 얼씬도 못 허게코롬 잘만 막어준다면 장차 천국에서 삐까뻔쩍 요란허고 {어마무시허니} 큰 상금이 자네는 지달리고 있을 거여.<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해설 윤흥길의 소설에 나타나는 '어마무시하다'는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하다.'라는 말을 줄인 것으로 "매우 놀랍게 엄청나고 굉장하여 무섭게 느껴지다"라는 뜻을 가진다.

어마무시허다 형 [대응어] 어마어마하다.

매우 놀랍게 엄청나고 굉장하여 무서운 느낌이 있다. ¶서울서 방구깨나 뀌고 산다는 유식쟁이 교인들 한자리에 수백 명썩 뫼야놓고 간증허기를 식은죽 갓 둘러 먹딋기 아주 능갈지게 허는 {어마무시헌} 예펜네요.<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개미새깽이 한 마리 성전 근처에 얼씬도 못 허게코롬 잘만 막어준다면 장차 천국에서 삐까뻔쩍 요란허고 {어마무시허니} 큰 상금이 자네는 지달리고 있을 거여.<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성령님 은사 없이는 갬히 꿈도 못 꿀 {어마무시헌} 기적들이 그때부텀 벤두리 극장서 국산 영화를 이본 동시 상영허딋기 장로님 집안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혔다는 거여, 글씨."<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어만 관 [대응어] 애먼.

☞어먼. ¶"네 이놈! 가서 {어만} 재만이를 잡아 왔나. 얼른 내 보내라."<한국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완주군편>

지역 전북.

어매 명 [대응어] 엄마.

'어머니'를 정답게 이르거나 부르는 말. 또는 자녀 이름 뒤에 붙여, 아이가 딸린 여자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한 사람이 즈 {어매도} 없고 즈 아부지도 없고 참 넘의 집이가 살었어. 넘의 집이가 살었는디.<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아 처녀가 말을 안들어. 적 {어매} 말도 안 듣고. 적아버지 저, 오빠말도 안 듣고. 문을 딱 걸어 잠그고는 도저히 말을 안들은게,<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수영이 {어매는} 수박짜겁 간다고 간는디, 어쩽가 몰라, 워디가 인는지를 몰라.<2008 전북 고창>

지역 고창, 군산, 남원, 무주, 완주, 임실, 정읍.

어먼 관 [대응어] 애먼.

일의 결과가 다른 데로 돌아가 엉뚱하게 느껴지는. ¶자리를 갖다가 {어먼} 디를 짚은 게 아니여?<채만식, 金의 情熱> ¶할머이가 이러케 인자, 인자 {어먼} 씨어마니가 인자 미영 자사서, 배 놔서, 고놈 파라가꼬, 소다나 사고.(할머니가 이렇게 인제, 인제, 엄한 시어머니가 인제 무명 자아서, 배 놔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솥 하나 사고)<2005 전북 남원> ¶전에 어디 가다가는 하숙집이서 잠을 자는디, 조정암이 얼굴도 이쁘고 참 미남자요, 도학군자고. 근게 중종 때 정치를 조정암이가 핬거든. 근디 {어먼} 놈이 모략을 히가지고 사약을 먹었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남원, 정읍, 군산.

해설 전북 방언 '어먼'은 '어먼 것, 어먼 짓, 어먼 놈, 어먼 디(데)'와 같이 쓰인다. '어먼/어만'에는 "엉뚱하다"라는 뜻이 들어 있기 때문에 주로 '짓, 디(데), 놈' 따위의 말과 더불어 쓰인다.

어멍이 명 [대응어] 어머니.

자기를 낳아 준 여자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나의 {어멍이}

지역 전북.

어메메 감 [대응어] 어머머.

예상하지 못한 일로 깜짝 놀라거나 끔찍한 느낌이 들었을 때 내는 소리. ¶{어메메} 저 징헌 놈 보게, 어쩌믄 늘어빼서 으그대는 거시 지그 애비를 쏙 빼다 타겼으니 어쩌믄 쓰까이.

지역 고창.

어문간 관 [대응어] 애먼.
☞어먼. ¶그런게 암말도 안허고 핑 들어가 버리드래여. 그런게 그 여자는 어찌서 암말도 안허고 들어 갔는고니, 아 {어문간} 디다 술만 줬지, 에기아 씰 줄 아는 분네한티 술 한잔도 안 줬는디 써 준다곤게 미안허거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정읍.

어문뚱소리 명
이야기의 주제와 관련 없는 소리. ¶성님은 내내 얘기헌게 어문뚱소리 허고 앉었네.
지역 전북.

어믄 관 [대응어] 애먼.
☞어먼. ¶근게 그 정승이 자그 아버지 송장 쓴 놈이 그리가서 {어믄} 디가 있는걸 보닝게 기가 막히지.<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글먼 새씰로 말 허자먼 헛간디 보다가 아니 {어믄} 간디 보다가 그랬단 말이오. ¶나가 {어믄} 말 혔간디?
지역 고창.

어서리없다 형 [대응어] 어림없다, 어처구니없다.
일이 너무 뜻밖이어서 기가 막히다. ¶어서리없다고 그러제. 얼척없다고도 허고.
지역 전북.

어선망청허다 형
잠이 들 때 잠에 빠지면서 정신이 희미하다. ¶이런 비몽사몽간에 스르런 스르런 잠이 어선망청헌디
지역 전북.

어성찬히 부 [대응어] 어설피.
하는 일이 몸에 익지 아니하여서 엉성하고 거친 데가 있게. ¶{어성차니} 굴지 말고 똑바로 혀.
지역 전북.

어세다 형 [대응어] 억세다.
☞억시다.
지역 전북.

어세부세 부 [대응어] 부스스.
몸의 털 따위가 몹시 어지럽게 일어나거나 흐트러진 모양을 나타내는 말. 또는 미닫이나 장지문 따위를 슬그머니 여닫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 또는 그 모양을 나타내는 말. 또는 누워 있거나 앉아 있다가 슬그머니 일어나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자고 일어나 머리가 {어세부세} 하다. ¶뒷문이 {어세부세} 열리다. ¶그녀가 {어세부세} 일어섰다. ¶얼매나 잠을 잤는지[어세부세], 일어났더니만 다 가버리고 나 혼차만 있더랑게.
지역 전북.

어스륵허다 형 [발음] [어스르거다/어스르커다] [대응어] 어스름하다.
빛이 조금 어둑하다. ¶태백이 하루는 관에 들어가는디 어스륵헌디 한 놈이 쓱 나오더니 태백이 어디 가는가? 사또한티 놀러간다. 그런게.
지역 전북.

어슥비슥 부 [대응어] 어슷비슷.
큰 차이가 없이 서로 비슷비슷한 모양. ¶풀풀 ?난 숭어? 포도동 나는 ?초리탕의 동? 울산 ?전복 ?모 장도 드난 칼노 ?산군의 눈섭체로 {어슥비슥} 오려 노코<완판본 열여춘향수절가上>
지역 전북.

어슬력 명
일이 너무 뜻밖이어서 기가 막힘. ¶차말로 내가 다 오사허게 {어슬력이} 없구마 이~.

지역 고창.

어슬력없다 형

일이 너무 뜻밖이어서 어처구니없다. ¶뭇인가 껀덕지가 잇써야 무신가 허지요. 차말로 {어슬력없고만}.

지역 고창.

어습발 명 [대응어] 어둠발.

☞어심발. ¶초저녁 밥 먹은 뒤에 {어습발이} 된개 살째기 들어와 갖고 뒤안 말캉(마루) 밑이다 가마니때기 하나 피놓고는 잠복을 허고 있어. <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부안.

어시새끼 명 [대응어] 송아지.

소의 새끼. 또는 어린 소. ¶송아치제 뭐여? 어시새끼. ¶어시새끼, 송아치, 어시새끼 있냐고 그러고, 송아치닥 그러제.

지역 고창.

어식어식 부 [대응어] 어슥어슥.

여럿이 모두 한쪽으로 조금 비뚤어져 있는 모양. ¶풋고추를 {어식어식} 썰어 넣었다.

지역 전북.

해설 '어식어식'은 '어슥어슥'의 '스'가 '시'로 전설모음화한 것이다. /ㅅ, ㅈ, ㅊ/ 등의 치찰음 뒤에서 /ㅡ/가 /ㅣ/로 전설 모음화한 변화는 19세기 후반에 발생하였다.

어실가실 부 [대응어] 어슷비슷.

큰 차이 없이 서로 비슷비슷한 모양. ¶둘은 성제처럼 {어실가실} 닮었다.

지역 전북.

어실가실하다 형 [대응어] 어슷비슷하다.

큰 차이 없이 서로 비슷하다. ¶그래도 {어실가실해야} 만해야 벗을 하드라고 그래도 가서 한번 들러나 보시요.<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남원.

어심발 명 [대응어] 어둠발.

어두운 기미. ¶교자 태서 인자 {어심발이} 들으닌게 땅짐이 갖다가 인자 암디 산골짝으 걍 짚은 산골짝으다 갖다가 내리 놓고 쥑이든 못허고 갖다 숨겨 놓고 오니라." 허닌게<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정읍.

어심어심허다 형 [대응어] 어스레하다.

어슴푸레하게 조금 어둑하다. ¶인자 내가 막다른 골목으 다다랐응게 내가 이기먼 지먼 지고 자오간(좌우지간) 한 번 히보자 허고서 새복(새벽)으 {어심어심히서} 가게를 나갔어.<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그놈을 남지기를 그것 갚고나서도 반짐도 더 되아 이놈의 것이, 그놈을 짊어지고 아홉 구럭(구비)고라당을 보닌게 해가 {어심어심헌디}<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군산.

어야 감

상대편의 물음에 긍정적으로 대답하거나 부름에 응할 때 쓰는 말. ¶{어야}, 거시기는 구신도 모릉게, 싸목싸목 차근차근이 조까 알켜 주랑게, 지발 서대지 말고 이~. ¶호랭이도 지말 헝게 오네이~ {어야} ! ¶{어야} !언능 지영밥이라도 처알겨라 이~

지역 고창.

어여 부 [대응어] 어서.

일이나 행동을 빨리 하도록 재촉하는 말. ¶{어여} 일로 와보라니께요, 근다!<조봉래, 풀벨골> ¶원, 쓰잘데기 없는 얘기는…. {어여덜} 들어가

게나.<조봉래, 풀벨골> ¶아가, {어여} 가야지! <이병천, 모래내모래톱> ¶온, 그러신 줄은 몰랐지요! 좀 올라오십시요, {어여} 절러루 좀 올라가십시다<채만식, 탁류> ¶너 돈 가진 거 없건느이 각시더러 달래. 새각신 시집오믄서 으레껀 함에다 좀씩 돈 넣어가지구 오는 거래. {어여}가 달래!<채만식, 女子의 一生>

지역 전북.

어영구영 부 [대응어] 어영부영.

뚜렷하거나 적극적인 의지가 없이 되는대로 행동하는 모양. ¶취직 못해서 헐 일은 없고 {어영구영} 그냥 세월만 넘기는 사람들이 많지.<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이놈이 어성부성 험서 앞에 댕임서, "앗다 이것 참 크요. 이것 잘 크겄소. 뭣허겄소." {어영구영} 뒤댕이다가 이놈이 아 별안간 눈 아퍼 죽는다고 허네 눈에 티가 들었다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아 그리갖고서는 인자 저녁 밤새드락 잠못자고 어찌고 히갖고는 인자 {어영구영} 허다가 그냥 거그서 잠이 와갖고는 둘 다 자버렸어.<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군산, 정읍.

어입히다 동 [대응어] 업히다.

사람이나 동물 따위를 등에 대고 손으로 붙잡거나 무엇으로 동여매어 사람이나 동물 따위가 등에 붙게 되다. ¶지 등허리를 들이밀믄서 {어이피라는} 시늉을 허는디, 이것이 언지 이러케 컸나 싶고, 오만가지 감정이 들더라니께.

지역 군산.

어장나다 동 [대응어] 결딴나다.

생활, 사회, 사업 따위가 잘못되어 완전히 망하다. ¶저 사람 때미 그 집 {어장나} 버렸어.<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옛날에는 노름으로 어장난 집이 많았지. 지금도 강원도 태백 카지노 때미 {어장나는} 사람들이 많다매.<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그런게 성들이 들어가지고서는 이놈으 새끼 미친 놈으 새끼라고 험서 "어디가 그, 한삽 파먼 두자썩 {어장나고} {어장나고} 헌디 엇다(어디다) 거그를 파서 어떻게 아부님을 그리 모셔야. 산이로 모셔얀다." 고 험서 그냥 출상을 허버렸어.<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군산.

어저끄 명 [대응어] 어저께.

오늘의 바로 하루 전날. ¶{어저끄가} 생일이었다 [부], 오늘의 바로 하루 전에. ¶{어저끄} 비가 와서 그러제 기양.<2009 전북 임실> ¶"함아터면 아깐 사람 죽일 뻔 봤다. 내가 {어저끄} 그러찮아도 너를 사우삼을라고 그렸는디 어트게 들왔느냐?"<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야 이놈아 너 나오니라. 야 이놈아 너 나오니라. 야 이놈아, {어저끄} 내가 낚시질 헐라고 밑밥 준디가서 니가 죽을라고냐 죽을라고냐."<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어저끄} 친정으서 보낸 팥이라도 한 되 앵겨주면 괜찮을랑라 아……."<이병철, 모래내 모래톱> ¶어저께부텀 비가 내린다고 헝게 그그저께허고 그저께허고 트랙터 몰고 뙤갱이밭 갈다봉게 어깨, 목, 허리, 등이 찌뿌뚱허고 태옹나버러서 {어저끄} 오후부텀 드러누워 푹 자버러때이 인자사 쪼까 나서져끄마니라~. ¶{어저끄} 내릴라다가 늦잠 땜시 지각으로 인자 내리는갑다. ¶대설이 어저끈디 긍게로 {어저끄는} 대설 체맨 땜시 그 핑계 댐서 눈 대신 비가 쪼까 내렸다. ¶대설이 {어저끈디} 긍게로 어저끄는 대설 체맨 땜시 그 핑계 댐서 눈대신 비

지역 전북.

어정간하다 형 [대응어] 어중간하다.

이러기에도 덜 맞고 저러기에도 덜 맞다. ¶어정간하면 밥 사 먹고 오지. 국밥.

지역 전북.

어정나다 동 [대응어] 어긋나다.
무엇이 맞지 않고 틀리다. ¶자꼬 {어정나서} 노래가 안 되네.
지역 전북.

어제께 명, 부 [대응어] 어저께.
오늘의 바로 하루 전날. ¶아, 과거날이 {어제께 라던지} 지났다고 그래.<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부], 오늘의 바로 하루 전에. ¶아버지는 {어저께} 고주망태가 되어 들어왔어요.[부안], =$ ¶"흠, 그런게 말이지 그것 참. 오늘 만나고 {어제께} 본 것도 인자 옛날이고 이번에는 인자 귀면이 두번째 만나도 귀면이고 헌디 참 만났은게 말이지."<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부안, 정읍.

어주리 명 [대응어] 멍충이.
어리석고 사리 분별력이 모자란 사람. ¶에라 이 순 {어주리} 밥통덜허고는!<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어지께 명 [대응어] 어저께.
오늘의 바로 하루 전날. ¶{어지께} 밤에 믄 지랄 햇깐디, 저렇게 자올자올헌다냐? ¶글고 {어지께는} 삼대일에 삼대삼에 또 져버링게 비아나갖고 맨마든 쌍욕으로 사람들의 맘은 차말로 간사 헌거시다. ¶아따, {어지께는} 하루 점드락 오락가락험서 비가 두름박으로 퍼 붓듯게 모지락시럽게 오등만 시방은 쪼까 끄끔허요.
지역 전북.

어지끄 명 [대응어] 어저께.
오늘의 바로 하루 전날. ¶때까우야 {어지끄} 지영때 잠깐 낮바닥 비치고 오늘은 아지끼랫너 사방을 구다봐도 비든 안코. ¶토욜 지영때부텀 {어지끄} 하래(하루) 안개비 땜시 쉬엇다가 오늘 시먼(지명) 바닷가로 새복 일찍이 나갔다 작업장 9키로를 점검허고 일꾼들흐고 일을 흐는디 도락꾸가 울타리망 빵끼치릉 것을 실코 왔다고 기별이 왔다.
지역 전북.

어짓밤 명 [대응어] 어젯밤.
어제의 밤. ¶아따, {어짓밤} 열디아잉가 열대양잉가 땜시 한숨 못 잤도만 어질어질 죽것네이.
지역 고창.

어짜다 동 [대응어] 어쩌다.
☞어쩌다. ¶지가 안죽였다는데 노란 종이여다가 말 시 마리 그린 종오때기(종이쪽지)를 내놓고 그것만 해결하믄 알 수가 있는데 내가 죽이기는 안했읍니다 허니 {어짭니까}?<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군산.

어짜다가 부 [대응어] 어쩌다가.
뜻밖에 우연히. ¶그라먼 그놈을 인저 어떻게 잡는다는 소리제? 허허, 일을 헐라먼 야물딱지게 헌단 말이제 {어짜다가} 그 작자를 놓쳤으까? <송기숙, 녹두장군>
지역 전북.

어짜다가 부 [대응어] 어쩌다가.
뜻밖에 우연히. 또는 이따금 또는 가끔 가다가. 또는 간신히 어렵게. ¶꼭 지켜, 매화가 열머는 열매 따러 오깨미(올까봐) 지키다가 {어쩌다가} 하루는 잠깐 틈을 타서 말여 그 인자 안에 가서 뭔 볼일이 있어서 들어갔던 개벼.<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아 뒤여 따라오는 옹구장시가 아이 옹구, 앞으 가는 옹구짐을 이렇게 처다 {어쩌다가} 이렇게 처다본게 아 메추리란

놈이 뭣이냐 발발발발발발 떨고 있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이번에 과게(과거)는 하겠는데, 극히 점을 허술히 생각하지 말고 내가 유일한 점은 못하나 {어쩌다가} 점을 한수씩 하더라고 이 점을 도저히 허술히 생각히서는 안된다. 안되니 과게는 할 것이니 그렇게 하라." 고.<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내가 {어쩌다가} 침이라도 꿀꺽 삼키게 되면 그녀는 여간 실망을 하는 게 아니었다.<이병철, 모래내 모래톱> ¶논바닥에는 우북하니 개왕굴이야 억새 등 잡초가 우거졌을 뿐, {어쩌다가} 한 포기씩 섰는 벼포기는, 심은 모포기가 새끼도 치지 않고 키도 자라지 않고 그대로 익은 꼴이요, 벼이삭이라야 쭈그렁이 섞여 여남은 낟씩밖에 붙어 있지 않다.<채만식, 무장삼동> ¶"아이구나! 너를 한번 볼라고 날마다 너를 찾아댕겼는데 {어쩌다가} 만났구나."<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정읍, 남원, 임실, 무주, 군산.

어짜서 부 [대응어] 어째서. ¶{어짜서} 저것을 데리구 나오는고? 암상도 몰라서 가심배기가 서늘혀.

지역 전북.

어쩌 부 [대응어] 어찌.

어떠한 이유로.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만허믄 이 만자중으 다 봤지야." 고. "인자 남자를 벳기라" "여자도 벗었는디 {어쩌} 남자가 못 벗어야." 근게 헐 수 없이 벗었는디 자지가 없드라네 [일동 : 웃음], 자지가 없은게, 예도 못 지내고 그냥 가버?지.<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저그 저 달은 휘영청청 밝어서 우리 마느라를 보건만은 나는 {어쩌} 못 보냐" 고 험서 노래를 달보고 신세 한탄허고 오드라네.<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그 안을 이렇게 디리다 본게, 그 대청으서 아 지그 마느래가 좇아 나오드니만은, "아 어쩌서 "자네가 {어쩌} 여기 있는가?" "아이 이거 우리 집이라우. 아 서방님이 서울서 돈 벌어 보내서 이렇게 헐고 새로 지었소." '아뿔까!<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끌러놓고서는 인저 망태 속으다 꼭꼭 묶어서 달어 매놓고는 내리와가지고서는 그 유기짐을 짊어지고 가드래여. 아 쳐다본게는 유기짐을 짊어지고 가니 이놈 {어쩌} 내롤 수도 없고 꼼짝 못허고,<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정읍.

어쩌서 부 [대응어] 어째서.

어떠한 이유로. ¶그 쌍화탕 한 첩을 지어다가서 그 다리먹인게 곧 거뜬허게 낫었단 말요. "그 {어쩌서} 이런애가 병이 났오?" 그런게, "어쩌서 어린애를 쌍화탕 맥이락 했소?"<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나중이는 대사가 거그를 손대며, "여그는 어딘고?" 헌개, "꽃섬이랍니다." "거 {어쩌서} 꽃섬인고?" "대사가 독선을 타고 꽃섬을 찾어가는 덥니다."<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친구가 행복한 날에 {어쩌서} 너는 눈물을 흘리고 있어? ¶근게로 뭣 헐라냐고 고개를 끄덕걸드라우. "오늘 우리님을 잡어 잡순담서라우?" 근게 그런다고 끄덕글드라우. "그르믄 사람마다 시집을 {어쩌서} 가 간디야고. 못 먹고 살고 그런게로 서방님한테 벌어 도락히서 먹고 살라고 시집을 간디<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야가 팔빙신이 된거이 애초 {어쩌서} 그랬냐먼 깔크막서 굴른 뒤 바로 병원으 가야는디 돈이 있가니? 집이서 그냥 하루 이틀 허다가 아주 팔뚝이 굳어 '버린거여.

지역 고창, 부안.

어쩌코롬 부 [대응어] 어떻게.

어떤 방법이나 방식으로. 또는 수사 의문문에 쓰여, '도무지 그럴 수 없음'을 강조하여 이르는 말. ¶나보고 {워쩌코롬} 하람말이냐.

지역 전북.

어쩔갑시 [부]

어떻게 되더라도. ¶{어쩔갑시} 모르겠다 ¶그때 가서 {어쩔갑시} 그냥 먹고나 보자.

지역 전북.

어쩠든 [부] [대응어] 어쨌든.

사정이 어찌되었든. ¶그머는 그 {어쩌튼} 그래도 한 한 한 두쌍 세쌍은 돼 땅이?(그러면은 그 어쩧든 그래도 한 한 한 두 쌍 세 쌍은 돼 땅이?)<지역어 자료 총서, 중국 무주촌> ¶그먼 {어쩌튼} 겨로날라먼 도니 또 마니 드러갈 드러갈꺼 아니여?(그러면 어쨌든 결혼하려면 돈이 또 많이 들어갈 들어갈 것 아니야?)<지역어 자료 총서, 중국 무주촌> ¶{어쩌튼} 우리는 서로 마음이 안 맞는다고.

지역 임실.

어쯔다가 [부] [대응어] 어쩌다가.

☞어짜다가. ¶드들빵애서 마니 해찌요. 지비서 {어쯔다가} 찌코.(디딜방아에서 많이 했지요. 집에서 어쩌다가 찧고.)<2009 전북 임실>

지역 임실.

어찌게 [부] [대응어] 어떻게.

동작의 강도나 상태의 정도가 아주 대단하게.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뭐냐허먼 큰 병환으로서 욕을 보는디 어떤 사람이 그걸 나술(낫게 한)사람이 없어서 지금 의연을 못만나서 그런다고. 동생되는 이가 {어찌게} 재밌던지 그 집을 찾어가서 쥔(주인)을 찾으니<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이 이야기도 친정인 남원군 수지면 남창에서 어려서 시집오기 전에 친정 어머니로부터 들었다고 한다.* 옛날 큰애기 하나가 {어찌게} 싸납던지 장개 올 놈이 없드래. 아 그래 딸을 여울라다 여울라다 못 여운개로,<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어디로 다른 디라도 여웠냐 어찌냐 가본게 그대로 있는디 갸 지붕있는 디가 그전이는 마람으로 집을 엿는디 풀이 따닥따닥 나가지고 {어찌게} 가난허든지 그러고 있어. 그러고 있는디 인자 거기 가서 인사를 허고, "저그 아무개 이만저만 장개 온 사람입니다."<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도둑질도 못허고 에 이놈 분풀이나 헌다." 고 그 집이를 가서 밤에 불을 질렀어요. 그 인자 집이 답숙(몽땅) 타버린게 {어찌게} 또 근근히 집을 하나 일으켰는디, 아 이놈이 발꾸락만 처다보면 속이 상혀, 요놈이.<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가만히 숨이 인자 떨어질라고 헌게 아 이놈이 냅디 도망가드리야. 혼이 나가 시방. 나가는디 어디 어디 간게 말여 혼을 따러갔던게벼. {어찌게} 널러서(날아서)를 갔던가 어쨌는가 몰라도. 아 그런게 말 흘레(교미) 허는디 가서 떡 들어갈라고거든. 아 그거 말리면 쓰겄어.<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사주고 저녁으 이야그 이야그 허는디, "오늘 저녁 돈을 좀 벌세." 박문수 박어사보고서는, "돈을 {어찌게} 벌어라우?" "오늘 저녁에 본부가 있는디, 간부가 있어. 간부가 있는디 간부가 들어서 문을 열어 주믄 본부가 사람 둘 죽이네.<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임실.

어찌다[1] [부] [대응어] 어쩌다가.

뜻밖에 우연히. 또는 이따금. ¶어찌다 만냈쏘(어쩌다 만났소)<2011년 중국 무주촌 보고서-최종> ¶그러니깐 인자 말허자먼은 가끔 {어찌다} 한번씩 집이 오면 어떤 남자가 있거든?<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순창, 군산, 임실, 장수.

어찌다[2] [형] [대응어] 어떻다.

의견이나 일의 성질이나 상태 따위가 어찌 되어 있다. 대답을 요구하는 표현으로 쓰거나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이러저러 하다를 이를 때 쓰는 말. ¶"아, 그 며느래 본게 {어찝디여}?" "야,

이년아! 잔소리 마라.<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정읍.

어찌든 부 [대응어] 어쨌든.
☞어쩌튼. ¶그러며는 어디는 굴꼬 어디는 얄꼬 그러건네? {그러면은 어디는 굵고 어디는 얇고 그러겠네}? 긍게 {어찌든} 잘 짜사야여. 잘 모더면 기양 울퉁불퉁허게 굴꼬잘꼬 몬 씅게,<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지역 임실.

어채어채 부 [대응어] 어찌어찌.
이래저래 어떻게 하여. ¶느그 엄마를 만나서 {어채어채} 허다 보닝께, 지금 이러케 살림 차리고 너그들 낳고 잘 살고 있자녀.
지역 전북.

어채피 부 [대응어] 어차피.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또는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그러먼 어디 정그정 쪽으로 갈라요?" 물었다. 아낙은 그 대답 대신 쭈밋거리더니 "나 알어서 갈랑게 몬차 가드라고. 쉬엄쉬엄 가지 머. {어채피} 밤질이라 서둘르먼 돌팍에나 채이지, 축지법을 헐 것도 아니고"<최명희, 혼불> ¶"아이고, 그게 뭔 소리냐?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디 이놈아 그런 소리 말어." "아이, {어채피} 우리같은 놈은 생전 이렇게 천덕꾸레기 짓허고 괴기장사나 해먹고 사느니 작것, 죽을 폭 잡고 한 번 거그 히보야겄어요."<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군산.

어처다 형 [대응어] 어떻다.
☞어찌다. ¶"나, 너 따라 가서 한때 자고 가면 {어처겠냐}?" "아, 그럽시다." 그래 박문수 박어사를 데리고 갔어.<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남원.

어첳게 부 [대응어] 어떻게.
어떤 방법이나 방식으로, 어떤 이유로 ¶이놈의 가시내가 {어첳게} 했나 하더니 어떻게 해 갖고라도 물을 되퍼내래.<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전북.

어첳다 형 [대응어] 어떻다.
☞어찌다. ¶"질어다 붓은개 찼다." 고 그 소리밖이지. 찼다고 한개 이놈의 가시내가 {어처케} 했나 하더니 어떻게 해 갖고라도 물을 되퍼내래.<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남원.

어치[1] 명 [대응어] 언치.
말이나 소의 안장이나 길마 밑에 깔아 그 등을 덮어 주는 것. 짚으로 만든다. ¶이거는 어치. 소등어리가 {어치} 입혀 놔.
지역 전북.

어치[2] 부 [대응어] 어찌.
어떠한 방법으로. ¶서랴친 날 지 어치 가랴/해촌해촌 꺾어 가자(완주 강실도령-"강돌 강돌 강도령")<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완주.

어치게 부 [대응어] 어떻게.
어떤 방법이나 방식으로. 또는 수사 의문문에 쓰여, '도무지 그럴 수 없음'을 강조하여 이르는 말. 또는 감정이나 어떤 상태가 매우 지나치게. ¶아니, 도채비가 나하고, 가사(가령) 술을 먹고 간디, 어떤 사램(사람)이 섰어. 그러고 나 허고 씨름을 한번 하자고 허. 아, {어치게} 해야 이길랑가 하니, 다리를 감아 씨름을 할라믄, 다리를 감아야

디 감아야 하는데. 외약(왼쪽) 다리를 감나, 오른 다리를 감나에 있는디.<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어머니 걱정 너무 걱정 마이쇼. 저를 믿고 우리집서 같이 살읍시다." "그렇지만은 내 자식도 있고, 어치게 내 자식들할래 괄씨허는디 {어치게} 살어." "걱정말고 살라." 고, 그려 인자 참 맘을 놓고 그날 저녁 인제 잤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해남 옥천면이 있는디, 옥천면 윤진사네 집을 못 떨어 먹었어. {어치게} 못 떨어 먹었냐. 아 요렇게 보따리를 대 놓고는 높이 원장을 높에고 저녁 이게 해 넘어 갈만 허면 그냥 문을 꽉 잠과<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정읍, 남원, 부안, 임실, 고창, 군산.

어치기 부 [대응어] 어떻게.

어떤 방법이나 방식으로. 또는 수사 의문문에 쓰여, '도무지 그럴 수 없음'을 강조하여 이르는 말. 또는 감정이나 어떤 상태가 매우 지나치게. ¶"내가 최선을 다 해서 남편 공경허야겄다." {어치기} 착허고, 뭐 열녀신앙 같혀. 아 소도 언덕 있어야 비비더라구. 아 인제 논 섬지기 첫 농사가 두 식구면 큰 대농가(大農家)지,<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잘히고 본 집히고 살어라." 그렇게 했는디, 그 여자는 어찌서 그렇게 됐느냐, 생왕에서 안받아 줬느냐? 큰애기(처녀) 적으, 새끼를 하나 {어치기} 넘몰리(남 몰래) 그래갖고는 없애버렸어.[조사자 : 새끼요?], 아들(1) 그래서 그 죄로 생왕님이 안받어주고,<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많이 뭔 디(모인 데)서, "인제 여자를 하나 잡았으니 처치하라." 구 그래 가지구 나왔는디 당분간 볼 때는 이 여자를 {어치기} 때릴 수도 없고, 근디 이 사람은 짐작이 내가 죄를 질 뭇잡고 몽둥이로 이 여자를 치라구 했는디<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정읍.

어치다가 부 [대응어] 어쩌다가.

☞어쩌다가.

지역 정읍, 진안.

어치서 부 [대응어] 어째서.

☞어쩌서.

지역 부안.

어칳게 부 [대응어] 어떻게.

☞어치게. ¶당신 눈 아퍼도 한 눈은 괜찮은게 살살 올라 가면 큰 절이 있는디, 중들은 다 호랭이가 다 잡아먹고 빈 절만 있소. 호랭이가 {어치케} 억시게 많던지 절이 중이 살 수가 없고 빈 절만 있인게 그 호랭이 보지 않허게 어디 한쪽으로 기양 돌아서<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외진 길을 가는디 갑자기 휙 허니 뭐가 지나가는디 {어치케} 놀랬는지 그길로는 다시 안가기로 혔어.

지역 남원, 부안, 정읍, 고창.

어클다 동 [대응어] 엎지르다.

그릇에 담기어 있는 액체 따위를 뒤집어엎어 쏟아지게 하거나 흔들어 넘쳐 나가게 하다. ¶비호같이 방안으로 들이닥쳐 발을 구르고 호령을 했지만, 인자는 어쩌겄어? {어크러진} 물인디. 허기사 도적놈이 옳게 도적놈이제.<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어클다'의 어원은 정확하지 않다. '엎다'와 '엉클다, 헝클다'가 혼태를 일으킨 형태가 아닌가 생각한다.

어클어지다 동 [대응어] 엎질러지다.

담긴 그릇에서 액체 따위가 쏟아져 나오게 되다. ¶진작에 {어크러진} 물이랑게요.

지역 고창.

어ㅌㅓㅎ게 부 [발음] [어터께] [대응어] 어떻게.

감정이나 어떤 상태가 매우 지나치게. ¶성씨는?

― 김. 그리고, 여기 주소가 {어터께} 돼요? 여기 주소가? ― 여기 주소요? 예. ― 전북 고창군 무장면 양공니 미륵싸요.<지역어 자료 총서, 고창> ¶밤마니 암먹꼬, 늘긍거시 바비다 주머는 그양 이러케 가마이 되야도 안드러가면 {어터께} 머거요.(밥 많이 안 먹고, 늙은 것이 밥 해다 주며는 그냥 이렇게 가만히 되어도 안 들어가면 어떻게 먹어요.)<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그날밤 달이 {어터께} 밝든지 사방이 훤혔당게.

지역 남원, 장수, 임실, 고창.

어터게 뿐 [대응어] 어떻게.

감정이나 어떤 상태가 매우 지나치게. ¶앉아서 인자 얼매 있으니까, 저녁밥이 들오는디 아 이거 참말로 자기 생전에 그런 상은 처음 받아 봤어. {어터게} 좋게 채렸던지 어도 혼감스러 맛이 진하고도 냄새가 아름다워. 먹을 수가 없게 생겼어. "아 어 어머님 많이 잡수시요."<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삼년 동안을 먹고 그 불로초를 구허잔게로 일단간 농사를 지어서 먹어 감서 히야제 그 어치게 배고파서 구허지를 못헙니다." "그러면 {어터게} 해야 허느냐?" "예, 콩 종자도 좀 주야 허고, 보리도 좀 주야 허고, 나락도 조끔 주야 허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땡볕이 {어터게} 뜨거운지 걸어 다닐 수가 없구나.

지역 김제, 임실, 장수, 부안, 진안, 익산.

어턱해서 【축약형】 [발음] [어터개서/어터캐서]

'어떻게 해서'의 방언형이 줄어든 말. 어떠한 이유로. 또는 어떤한 방법으로. ¶너는 {어턱헤서} 이 어미말을 이리 콧등으로도 안 듣는 것이냐? 너만 보믄 나능 폭폭해서 죽겄다잉. ¶{어턱헤서} 그러코롬 빠르게 이 많은 일을 다 했냐? 재주가 신통허네잉. ¶유치원도 안 다닌 애가 그 글자를 {어떡헤서} 알겠니?

지역 전북.

어특해서 【축약형】 [발음] [어트개서/어트캐서]

[대응어] 어떻게 해서

방언형 '어퉁게 해서'가 줄어든 말. 어떠한 이유나 방법으로. ¶{어특에서} 그런 흉측헌 소문이 났능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니께. ¶남펜이라고 있는 것이 허구헌날 두들겨 패고, 욕해 쌓고 그러는디 {어특에서} 견디고 살겄소?

지역 부안.

어퉁게 뿐 [대응어] 어떻게.

☞어떠케.

지역 완주.

어티게 뿐 [대응어] 어떻게

감정이나 어떤 상태가 매우 지나치게. ¶"아, 참 잘 알으시는 어른입니다. 나도 내 자체로 여기를 오는게 아니라, 산신의 명령을 맡아서 여그를 왔는디 {어티게} 알으시고, 이렇게 내 뒤를 밟아서 왔소? 그럼 내가 도로 돌아가서, 가겄으니 걱정하지 말으시오." 허고 눈물을 흘리고 갈라고, 그런개 그 사람이<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응, 그거머 저 주걸 그냥 허면 마시업씨, 깝띠기채 {어티게} 머거, 어.(응, 그거 뭐 저 죽을 그냥 하면 맛이 없지, 껍질 채 어떻게 먹어, 응.)<2011년 중국 무주촌 보고서-최종> ¶아 댁도 그 콩밭에 콩 심그고 다 허지만 날 더운게 인자 콩밭을 메고 있은게, {어티게} 더울 것이여. 그서 활활 벗어 버리고 호므 든 채 갚 그늘 밑이가 넉 사자로 있은게로 아 고것이 나왔든가 보대.<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정읍, 부안, 무주, 남원, 고창.

어틯게 뿐 [대응어] 어떻게.

☞어티게. ¶그래 인제 그 애기가 웃으면 들어오고 울면 들어오지 말라고 했거든. 나랏님 애긴게, 그래서 그 애기가 {어티케} 울던지 얘기 할 정신도 없고 뭣할 정신도 없게 울어 그냥. 운게 그

사람이 중간만치 서서 애기가 안 울어어야 들어 가것는디,<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완주, 정읍, 임실.

어퍼지면 코달년의 디 【관용표현】

"엎어지면 코가 닿을 데"의 표현으로, 매우 가까운 거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고까지껏 {어퍼지면 코달년의 디를} 태여다 주구서 오십 전씩이나 달라구 허닝개 말이여!"<채만식, 천하태평춘>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의 관용 표현인 '어퍼지면 코달년의 디'는 소설에서 등장 인물을 비속하게 표현하는 말이다. '어퍼지면 코닿을 놈의 디'라고도 한다. 이는 "엎어지면 코가 닿을 데"를 의미한다.

억대 명 [대응어] 소.

덩치가 매우 크고 힘이 센 소. ¶이 터 명당 둘러보니/좌청룡 우백호요/남주작 북현무로구나/사램이 나면 문쟁이 나고/말을 기르면 용마가 되고/소를 기르면 {억대가} 되고/개를 기르믄 사지개 되고/닭을 기르면 봉학이 될 것이니/어찌 아니가 좋을소나/섬겨들이자 고사로다(진안 고사풀이-진안군 마령면 계서리 서산)<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진안.

억댕이 명 [대응어] 소.

☞억대. ¶사람이 나드래도/공자 맹자 안자 주자/와룡 같은 현인 나고/소가 나도 {억댕이}/말이 나도 용총마요/개가 나도 명구 나고/닭이 나도 봉댁이라<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순창 고사풀이)

지역 순창.

억배기 명 [대응어] 곰보.

얼굴이 얽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요즘은 피부과가 좋아서 그른가 {억배기가} 많이 읎어.

지역 전북.

억시다 형 [대응어] 억세다.

식물의 줄기, 잎이나 팔, 다리 골격 따위가 뻣뻣하고 세다. 또는 행동이나 성미가 굳고 세차다. ¶저 대 {억씽} 거는 이 인써 내가 차꼬 발바 댕기지만.<지역어 자료 총서, 중국 무주촌> ¶인자 암소넌 한 이년 되면 새끼가 배고, 인자 황소는 기냥 클씨락 {억씨디요}.<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기냥 지게에다가 기냥 이르케 이만썩 무끈 노믈 열따바를 지라고, 지구댕기야허고. 어! ─ 이리 그만치 더 {억쎠요}.<지역어 자료 총서, 고창> ¶원체 싸납고 {억씬께} 닥치는 대로 일허서 묵고 살제라.<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완주, 임실, 고창.

억시럽다 형 [대응어] 억척스럽다.

행동이나 성미가 굳고 세차다. ¶자기만 아는지 근디 그 김 되야지라는 분네가 계획이 있어요. 애초에는 저그 징조 하나씨 고조 하나씨가 굶어서 죽었어. 그런게 어찌게 {억시렀던지} 논을 사도 한자리를 넘어. 한섬을 지면을 한섬 두말이나 한말이나 더 받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정읍.

억실로 부 [대응어] 일부러.

☞역시로.

지역 전북.

언망 (怨望)) 명 [대응어] 원망.

못마땅하게 여기어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함. ¶다른 사람에게 {언망을} 사다

지역 고창, 정읍.

언지 부 [대응어] 언제.

☞은지. ¶아이, 아프담서 언지 벵원으 다녀왔대야?
지역 전북.

언청 명 [대응어] 엄청.
양이나 정도가 아주 지나친 상태. ¶하도 {언청}, 요센 날씨 잡것드리 신천이 도매끔으로 빠져갖고 지름 퍼먹은 강아지 되앗써요. ¶아따, 참꼬 참으먼서 앉자 있을라고 헝게 {언청} 주껐네이~.
지역 고창.

얹치다 동 [대응어] 얹다.
위에 올려놓다. ¶밥에 김치를 {얹처서} 먹으면 더 맛있지.<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 "어서 꾀를 벗으시오." 하고 옷을 나무 가지에 딱 걸어놓고 갓을 {얹쳐놨단} 이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부안.

얻다 동 [대응어] 꾸다(借).
뒤에 도로 갚기로 하고 남의 것을 얼마 동안 빌려 쓰다. ¶옆집에서 돈을 {얻어다가} 학비를 주다
지역 김제, 순창, 익산, 임실.

얻어멕이 명 [대응어] 거지.
남에게 구걸하여 먹고 사는 사람. ¶저 아가 이집에 올때까정은 {얻어멕이였대야}. ¶커서 {얻어멕이} 안 시킬라고 공부 많이 시켰제.<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전북.

얻어뱅이 명 [대응어] 거지.
남에게 빌어먹고 사는 사람. ¶{어더뱅이가} 구걸한다.
지역 전북.

얼개빗 명 [대응어] 얼레빗.
☞얼거빗. ¶참빗은 서까래 잡을라고 {얼개빗} 쓰고, 그냥 빗을 때는 {얼개빗} 썼어요.<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전북.

얼거빗 명 [대응어] 얼레빗.
빗살이 굵고 성긴 큰 나무빗. ¶얼레빗/명/ *얼거빗 {정문연}<전북>[군산], <한국방언어휘자료집_전북편> ¶{얼거빗으로} 머리를 빗다. ¶머리를 빗기 전에 먼저 {얼거빗으로} 빗고 그리고 참 빗으로 빗거라.
지역 남원, 군산, 무주,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얼게미 명 [대응어] 어레미.
바닥의 구멍이 굵은 체. 곡물을 걸러내거나 껍질과 알맹이를 분리할 때 쓴다. 실현된다. ¶긍개인자 {얼게미로} 싹 처가꼬, 까불라야제. 흐걸 싹 처불고. 콩도 그러케 하고.(그러니까 얼게미로 싹 처가지고, 까불러야지. 흙을 싹 처버리고. 콩도 그렇게 하고.)<2005 전북 남원> ¶콩과 깍쟁이를 골라낼려면 먼저 {얼게미로} 친 다음에 하면 쉽다.
지역 남원, 완주, 장수, 진안, 무주, 순창, 임실.

얼게미빗 명 [대응어] 얼레빗.
빗살이 굵고 성긴 큰 나무빗. ¶{얼게미빗으로} 머리를 빗다. ¶참빗으로 빗기 전에 먼저 {얼게미빗으로} 빗으면 훨씬 쉽게 빗을 수 있다.
지역 전북.

얼게빗 명 [대응어] 얼레빗.
☞얼거빗.
지역 남원.

얼골 명 [대응어] 얼굴.

☞얼굴. ¶“아이고, 우리 엄니 그 좋던 {얼골이} 인자는 폭삭 늙어뿌렀네.”<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정읍.

얼구다 동 [대응어] 얼리다.

액체나 물기가 있는 물체를 찬 기운으로 고체 상태로 굳도록 만들다. ‘얼다’의 사동사 ¶얼음을 {얼궈서} 커피에다 느으면 시원허니 맛있당게. ¶엄마는 남은 고기를 냉동실에 {얼구어} 보관했다. ¶가을홍시가 넘쳐날 때는 홍시를 {얼궈}두고 훗날 수시로 먹응게 맛나더라고.

지역 남원, 무주,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진안.

얼그다 동 [대응어] 얽다.

노끈이나 줄 따위로 이리저리 걸다. ¶인재, 그럼 하나씩 이르캐 댐서나 산내키 차꾸 {얼거}.(이제, 그럼 하나씩 이렇게 대면서 새끼 자꾸 얽어.) {얼그먼}, 족: 올라가요. 그래, 완저니.(얽으면, 죽 올라가요. 그래, 완전히.)<지역어 자료 총서, 무주> ¶산내키로 납짜:거니 그꼬 자버댕기먼 인자 오까, 안 {얼그먼} 그냥 막 억씨당개. 막 떠바다 사라멀.(새끼로 납작하게 그래가지고 잡아당기면 이제 올까, 안 얽으면 그냥 막 억세다니까. 막 떠받아 사람을.)<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지역 전북.

얼그빗 명 [대응어] 얼레빗.

☞얼기빗.

지역 전북.

얼근배기 명 [대응어] 곰보.

얼굴이 얽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쥔집 여자가 {얼근배기이긴} 헌데 똑부러져.

지역 남원.

얼금배기 명 [대응어] 곰보.

☞얼근배기.

지역 전북.

얼기미 명 [대응어] 어레미.

바닥의 구멍이 굵은 체. 곡물을 걸러내거나 껍질과 알맹이를 분리할 때 쓴다. ¶얼기미로 처가꼬 까불라 칭이로.(얼게미로} 처가지고 까불어 키로.<2005 전북 남원> ¶인자 미테가 인자 흐기 마너먼, 얼기미로 싹 처.(인제 밑에가 인제 흙이 많으면, 얼게미로 삭 쳐.)<2005 전북 남원> ¶체를 이러케 노코 얼기미 이케 무럴 이케 부어감서 이케 이케 소느로 이케 막 짜가지고 막껄리 이캐 걸르자나요.(체를 이렇게 놓고 어레미 이렇게 물을 이렇게 부어가면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막 짜 가지고 막걸리 이렇게 거르잖아요.)<지역어 자료 총서, 무주>

지역 무주, 순창, 임실, 장수.

얼기빗 명 [대응어] 얼레빗.

빗살이 굵고 성긴 큰 나무빗. ¶얼레빗/명/ *얼기빗 {정문연}<전북>[군산, 익산, 진안, 무주, 정읍, 임실, 장수, 순창], <한국방언어휘자료집_전북편> ¶{얼기빗으로} 머리를 빗다.

지역 군산, 남원, 무주,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얼낌덜낌 명 [대응어] 얼떨결.

뜻밖의 일을 갑자기 당하거나, 여러 가지 일이 너무 복잡하여 정신을 가다듬지 못하는 판. ¶{얼낌덜낌 에} 멱살잡이는 했지만 과거의 정리로 보아 늙다리 장로를 메어꽂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곱게 돌려보낼 수도 없어<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의 명사 ‘얼낌덜낌’은 표준어 ‘얼

떨결', '얼김'에 해당하는 어휘다. 주로 '얼낌덜낌에'와 같이 부사로 많이 쓰인다. 표준어 역시 '얼떨결에', '얼김에'의 형태가 주로 쓰인다.

얼라 감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초조하거나 다급할 때 나오는 소리. ¶{얼라, 얼라}, 우리 삼봉이 착허지. 우리 삼봉이가 과자럴 갈라묵어야제 만길이성도 삼봉이허고 재미있게 놀고 맛난 것도주고 그러제. 울지 말어, 어이 우리 삼봉이 장사다., 어이 이쁘고 착허다.<조정래, 아리랑> ¶[구연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는], {얼라 얼라} 똑같이 나와? 내가 오발혔는게비.<구비문학 정읍>
지역 전북.

얼럼 부 [대응어] 얼른.
시간을 끌지 아니하고 바로. ¶일이 끝났으면 {얼럼얼럼} 집으로 와야 걱정을 안허지. ¶시세 없는 다랑논은 임자 있을 때 {얼럼} 파시오. ¶날이 어두워진다 {얼럼} 서둘러라.
지역 고창, 장수, 정읍, 익산, 김제, 무주, 부안, 완주, 임실.

얼레발 명 [대응어] 설레발.
몹시 서두르며 부산하게 구는 행동. ¶쟈는 왜 저렇게 허구헌날 {얼레발을} 치는지 모르겄어. 정신 사나워 죽겠네.
지역 전북.

얼료다 동 [대응어] 얼리다.
액체나 물기가 있는 물체를 찬 기운으로 고체 상태로 굳도록 만들다. ¶동태는 명태를 {얼료} 먹는 거제.
지역 순창, 고창, 김제, 부안, 군산, 정읍.

얼룽개 명 [대응어] 올가미.
새끼나 노 따위로 옭아서 고를 내어 짐승을 잡는 장치. ¶{얼룽개를} 만들다
지역 부안, 정읍.

얼류다 동 [대응어] 얼리다.
☞얼료다.
지역 순창.

얼름 부 [대응어] 얼른.
시간을 오래 끌지 않고 바로. ¶쇠죽을 쓸라고 나오닌게 지집아도 밥을 헐라고 일찍 나왔단 말여. 근디 가만히 보닌게 치깐이로 가서 쏙 들어가. 부엌짝으서 {얼름} 재를 한 소쿠리를 뚝 담어가지고 치깐이로 가서 재를 붓고 나옴서 '씹' 그리고 나왔단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여보, 얼름(어서) 해졌으면 쓰겄소." "그려 내 말이나 당신 말이나 똑같소 말여. {얼름} 해다가먼 아새끼도 보는디 언지나(언제나) 간다요." 이렇게 허믄 어둠침침허니까 참 반가(반가와). 참 일헌 것보담 더 반가.<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 {얼름} 밥 먹고 학교 가거라.
지역 군산, 완주, 정읍.

얼릉 부 [대응어] 얼른.
시간을 끌지 않고 바로. ¶성님! {얼릉} 후딱 일로 내려오소 잉! ¶그 방이 {얼릉} 안 따싑다데?<조봉래, 풀벨골> ¶쬐깐헐때 어매가 나한테 오늘은 반갱일잉게 핵교 파하는 대로 {얼릉} 와서 애기 바야 헌다. ¶아까참에 부석작에 고구마 느놨는디 다 타버렸것다 {얼릉} 가 갖고 끄집어내서 껍데기 베께 먹어라.
지역 전북.

얼릉개 명 [대응어] 어레미.
바닥의 구멍이 굵은 체. 곡물을 걸러내거나 껍질과 알맹이를 분리할 때 쓴다. ¶흙이 많으면, 얼릉개로 싹 처갖고 걸러.

지역 전북.

얼매 뿌 [대응어] 얼마.
잘 모르거나 정해지지 않은 수량이나 정도. ¶우리 나이가 시방 오십줄이 들든지, 원 {얼매} 되았는디 여생이 얼매 남지 않았는 걸 그대로 살다 죽으먼, 너그는 내가 아냐, 알 택이 어디가 있냐.<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 "아무 말도 안 묻고 쌀금(쌀값) {얼매} 가냐고 묻등만요." "너를 그럼 뭣으로 봤냐?<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종이 와서, "대부님께서 시방 산고 기미가 있다." 그러거든. 그런게 암말도 안혀. 어쩌란 말도 않고 암말도 안혀. 암말도 않은디 {얼매} 있응게 아 쥥(중)이 오더니, "부인께서 순산을 했다." 그러거든. 애가 났다고려.<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고창, 군산,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얼멍체 명 [대응어] 굵은체.
올이 굵고 구멍이 큰 체 ¶양어깨로 올미어서 도리채로 매를 맞아 새파람의 디루어서 독매로 배락주어 얼멍체로 내둘러서<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구녁 큰 놈은 얼멍체, 그보다 작은 놈은 반접체, 촘촘헌 놈은 밴체.
지역 남원.

얼메이 명 [대응어] 어레미.
☞얼멩이. ¶흙이 많으먼, 얼메이로 싹 처갖고 걸러.
지역 전북.

얼멩이 명 [대응어] 굵은체.
올이 굵고 구멍이 큰 체. ¶멍석 멍석 어레미 사래 {얼멩이} 고운체<2007 전북 군산>
지역 고창, 군산, 김제, 부안, 정읍.

얼미기체 명 [대응어] 굵은체.
올이 굵고 구멍이 큰 체 ¶그러니까 그 이제 {얼미기체로} 쳐가지고 음, 인자 뵌놈치면 미테 몽근뇌미
지역 임실.

얼범부리다 동 [대응어] 얼버무리다.
말이나 행동을 불분명하게 대충 하다. 또는 여러 가지를 대충 뒤섞다. ¶그는 대답을 대충 {얼범부렸다}. ¶거짓쟁이 영호는 오늘 친구와 싸운 일을 왜 싸웠는지 {얼범부리기만} 했다. ¶김치 양념은 고춧가루 고추장 파 다진 마늘 이런 것들을 다 {얼범부려서} 만들면 되야.
지역 전북.

얼빵하다 형 [대응어] 어벙하다.
어리석고 정신이 흐릿하여, 일을 제대로 판단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없다. ¶저런 얼빵한 놈을 믿고 무슨 일을 같이 하나?
지역 전북.

얼싸 명 [대응어] 어리광.
귀여움을 받으려고 어리고 예쁜 태도로 버릇없이 구는 짓. ¶어머니는 정지서 저녁밥을 푸느라고 엎디리고 있어서 얼른 달려들어 어머니으 젖을 붙잡고 어머니 허고 {얼싸를} 부렸십니다.<구비문학대계 임실군편>
지역 임실.

얼쑥덜쑥허다 형 [발음] [얼쑥덜쑤거다/얼쑥덜쑤커다] [대응어] 얼룩덜룩하다.
여러 가지 어두운 빛깔의 점이나 줄 따위가 조금 성기고 고르지 아니하게 무늬를 이룬 상태이다. ¶새파란 놈 있고 껌은콩 있고 얼쑥덜쑥헌 놈 있고.
지역 고창.

얼외일 명 [대응어] 월요일(月曜日).
한 주(週)가 시작하는 기준이 되는 날. ¶{얼외일에} 친구를 만나다 ¶새로 입사한 회사 출근은 {얼외일}부터 헌다고 혔냐.
지역 정읍.

얼요구 명 [대응어] 얼요기.
충분하지 못한 요기. 또는 대충 하는 요기. ¶인자사 쌀 안쳤응게 우선 이 떡으로 {얼요구} 하구 있어.
지역 전북.

얼찐 부 [대응어] 얼른.
시간을 끌지 아니하고 바로. ¶{얼찐} 끝내버리야 개운허지. 일을 질질질 끌고 가는 사람들 속은 무슨 속인가 이해가 될라가도 안 되는 사람이여. 나는.
지역 전북.

얼칫얼칫 부 [대응어] 얼핏얼핏.
지나는 결에 잇따라 잠깐씩 나타나는 모양. ¶하 그런게 하 원님이 가만히 본게 뭣이 얼칫얼칫 허거든. 들판에서 눈 떨어진게 찬찬히 본게 아이 어떤 사람이 고개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허거든
지역 전북.

얽배기 명 [발음] [얼빼기] [대응어] 곰보.
☞억배기.
지역 전북.

얽어배기 명 [대응어] 곰보.
얼굴이 얽은 사람을 이르는 말. ¶{얽어배기} 백가도 뒤미처 연장을 집어들면서 내씹듯 이기죽거리는 말쩨로 고가의 말대꾸를 한다.<채만식, 金의情熱>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얽어배기'는 표준어 '곰보', '얼금뱅이'에 해당하는 어휘다. 동사 '얽다'의 활용형 '얽어'에 사람을 나타내는 접미사 '-배기'가 연결된 파생 명사이다.

엄니 명 [대응어] 어머니.
자기를 낳아 준 여자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엄니} 오늘만 봐 주먼 안 되꺼라우. ¶{엄니}! 이참에 선본 삼식이가 뭇이라고 헙디여? ¶{엄니}! 긍게, 무덜라고 나를 퍼질러 낳겼소? ¶글고 {엄니}, 대아지를 얼굴 보고 잡는다요? ¶시안의 놀다가 자빠져 갖고 진바지 물팍 미여지믄 {엄니한티} 디지게 쥐여터지고. ¶지녁마다 작은방으서는 {엄니허고} 할무니 허고 가매니를 짜든 시절. ¶윰병흐고 후딱흐든 동이나 마치고 {엄니헌티} 가 봐야 긋고만.
지역 고창.

엄지손거락 명 [대응어] 엄지손가락.
☞엄지손구락.
지역 군산.

엄지손고락 명 [대응어] 엄지손가락.
☞엄지손구락.
지역 김제, 장수.

엄지손구락 명 [대응어] 엄지손가락.
다섯 손가락 가운데 첫째 손가락. ¶느이 애비가 죽을 때만 허도 나는 사날 전에 벌써 알어채렸다. 이빨이 아니라 그때는 손구락이었지만. 꿈에 {엄지손구락이} 옴싹 빠져서 도망가 버리드라." 또 그놈의 꿈얘기. 물리지도 않나 보다.<윤흥길, 장마> ¶동생은 어찌나 {엄지손구락}을 빨았던지 손톱이 뭉그러졌다.
지역 고창, 남원, 완주, 진안, 익산, 김제, 장수, 임실, 군산, 무주.

엄지손그락 명 [대응어] 엄지손가락.
☞엄지손구락.
지역 임실.

엄지송가락 명 [대응어] 엄지손가락.
☞엄지손구락.
지역 완주.

엄지송고락 명 [대응어] 엄지손가락.
☞엄지손구락.
지역 무주.

엄지송구락 명 [대응어] 엄지손가락.
☞엄지손구락.
지역 남원.

없이다 동 [대응어] 없애다.
사람, 동물, 물체 따위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게 만들다. 또는 어떤 사실이나 현상이 현실로 존재하지 않게 만들다. 또는 어떤 일이나 현상이나 증상 따위가 생겨 나타나지 않게 만들다. ¶이거는 사람을 {없이는} 총칼맨치 무서운 것이여. ¶그걸 {없이겠습니다}." 그러니께, "아, 그러믄 경이 {없인다먼} {없이라}."고.<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범죄를 {없이려면} 왼 국민이 다들 힘을 합쳐야혀. ¶아부지 들어오시기 전에 방안에 우리가 놀던 모든 흔적을 {없이버려야지} 글안허면 우린 난리난다.
지역 고창, 무주, 부안, 순창, 익산, 임실, 정읍, 진안.

엇비식이 부 [대응어] 엇비슷이.
어지간히 거의 비슷하게. 또는 약간 비스듬하게.
지역 전북.

엇지녁 명 [대응어] 엊저녁.
어제의 저녁. ¶말캉 미테 나비란놈 자울자울 {엇지녁} 뭇험서 날 샜능가.
지역 고창.

엉거지침 명 [대응어] 엉거주춤.
앉지도 서지도 않고 몸을 반쯤 굽힌 자세로 머뭇거리는 모양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망설이는 모양새. ¶드러누웠인게 이놈이 올라가서, 배 우그를 올라가서 배꼽을 대는디 뒷다리를 {엉거지침허고} 배꼽을 대고 있이니 그것이 어드가 닿것냔 말이여. 그것이 어디가 닿겄어. 아, 말히봐.<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그러니 짬짬허고 있으면 우리가 거들 터이닝게.'[조사자: 짬짬하다는 게 뭐예요?], 뭔가 {엉거지침} 허다 이거지.<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정읍, 남원.

엉겁절 명 [대응어] 엉겁결.
미처 생각하지 못하거나 뜻하지 아니한 순간. ¶잠이 들어 잠을 자고 있은게, 참 산신이든가 도싱이든가는 몰라도 한 늙디 늙은 노인이 와서 온다 이말여. 깨와서 벌떡 얼어나서 본게. 거그서 {엉겁절이} 잠이 들은 것이 꿈이라 이것여. 꿈인디 그걸 가만히 본게 '이냥반이 어찌 찾는고.' 그때는 영감님이 말을 일러줘요.<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그런개 인자 자기 형 말을 듣고 송구봉이한테 갔더래요. 마음으로, 갈때 생각으로는 상놈 골려준다던지, 양반으로서 으시댈라고 갔는데. 그냥 {엉겁절에} 가서 절을 꾸벅 해버렸단 말이여.<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당신네는 그렇게 일가친척도 하나도 없느냐?"고. 그런게로 {엉겁절에} 나오드래야, "아, 우리 일가 박문수씨라고 하나 있다." 고. 근게 그냥 {엉겁절에} 헌 소리지. 그 박문수가 뭣인지도 몰랐지.<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군산, 김제, 부안, 정읍, 완주.

엉겁질 명 [대응어] 엉겁결.

미처 생각하지 못하거나 뜻하지 아니한 순간. ¶ 쥔이 가만히 앉거서 생각혀 보닌게, 담뱃대를 갖고 앉거서 생각히 본게 뭐 틀림없이 자그 딸 방이서 자고는 {엉겁질이} 나옴서 그놈 자그 딸 속곳을 입고 나와서 그런 성, 안 생각 허겄어? <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그러기 때민에 땅 속으다 안넣고 그렇게 자기 부모가 죽드락 그 퇴분으로 놔두는 거여 그게. 근디 그 퇴분 밑이로 들어갔드래야 {엉겁질에} 들어간 것이. 그렇게 죽을 판 살 판인디 뭐 무선 지를 (무서운 줄을) 알겄어. 뭣 허겄어?<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군산, 정읍.

엉겅쿠 명 [대응어] 엉겅퀴. ¶{엉겅쿠} 가시가 많다. ¶{엉겅쿠}는 씨앗, 이파리, 쭉대기, 뿌링이 모두 약으로 쓰임서 꽃도 이뻐서 내뻘것이 없는 귀헌 약초여.

지역 전북.

엉구 명 [대응어] 바보.

지능이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또는 어리석고 멍청하거나 못난 사람을 욕하거나 비난하여 이르는 말. ¶ 또 미련스런 소리 한다, {엉구야}.

지역 전북.

엉근체 명 [대응어] 굵은체.

올이 굵고 구멍이 큰 체. ¶체어넌 고운체하고 {엉근체가} 인써요.

지역 임실.

엉덕 명 [발음] [엉떡] [대응어] 벼랑.

☞어덕.

지역 순창, 임실, 고창, 남원, 무주, 군산, 익산, 장수, 정읍.

엉덩방애 명 [대응어] 엉덩방아.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주저앉아서 엉덩이로 바닥을 쾅 구르는 짓. ¶{엉덩방애를} 찧었단 말여. ¶아버지 심부름 다녀오면서 엉뚱한 생각을 하다가 헛발을 디뎌 {엉덩방애를} 찧고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

지역 임실, 장수, 순창.

엉뎅이 명 [대응어] 엉덩이.

볼기의 아랫부분. 앉으면 바닥에 닿는, 근육이 많은 부분이다. ¶걍 낫으로 딱 찍는다고 찍으니 구렝이 {엉뎅이를} 꽉 찍었어 찍어.<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최 부자의 뒤뚱거리는 {엉댕이} 두어발치 뒤로 옴지박만한 보퉁이를 꼬옥 품은 채 귀덕이가 종종 딸고 있었다. <천승세, 낙월도> ¶이놈이 좋아가지고서는 막 꼬리를 치고 {응뎅이를} 문대고 그러드래여.<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남원, 완주, 임실, 정읍, 진안, 고창, 김제, 부안, 익산.

엉둥방애 명 [대응어] 엉덩방아.

☞응뎅이방애.

지역 전북.

엉딩이 명 [대응어] 엉덩이.

볼기의 윗부분. ¶{엉딩이}부텀 쑥 디밀었다.

지역 순창, 무주.

엉딩이방애 명 [대응어] 엉덩방아.

☞응뎅이방애.

지역 전북.

엉떠러지 명 [대응어] 낭떠러지.

깎아지른 듯한 언덕. ¶낭떠러지지. 쉽게는 낭떠러지. 엉떠러지라고도 혀.

지역 전북.

엉떠러진데 명 [대응어] 낭떠러지.
깎아지른 듯한 언덕. ¶저 산이 올라가믄 진짜 아찔헌 {엉떠러진데가} 있어. 거그가 위험하긴 헌디, 경치가 겁나게 좋다고 사람들이 찾아들 가고 혀.
지역 전북.

엉떡 명 [대응어] 밭둑.
밭과 밭 사이의 경계를 이루고 있거나 밭가에 둘려 있는 둑. ¶{엉떡을} 사이에 두다 ¶"{엉떡}으다 심은 콩이 금년에도 잘 되았네.".
지역 전북.

엉뚱깽뚱하다 형 [대응어] 엉뚱하다.
생각하거나 짐작하는 것과 뜻밖으로 전혀 다르다. ¶{엉뚱깽뚱한} 북한의 조어를 들먹이자면 몇 시간이고 해댈 수가 있었으나 스스로 좀스럽다는 생각이 들어 참았다.<최일남, 꿈길과 말길> ¶만나고 보니 그 가수는 박충서네 누님이 아니었다네! 생판 모르는 {엉뚱깽뚱한} 경상도 여자였다네!<윤흥길, 소라단 가는 길> ¶네가 말한 정답은 {엉뚱깽뚱하다}.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엉뚱깽뚱하다'는 표준어 '엉뚱하다'에 대응하는 어휘이다. '엉뚱하다'와 '깽뚱하다'가 복합된 어휘로 보인다.

엉뚱깽뚱허다 형 [대응어] 엉뚱하다.
☞엉뚱깽뚱하다. ¶부자가 될지 안 될지도 몰르는 판국인디 {엉뚱깽뚱허니} 너는 소박맞을 걱정부텀 허고 자빠졌냐?<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엉바구 명 [대응어] 바위.
부피가 매우 큰 돌. ¶바닷가에 그 {엉바구} 있는 데로 가.
지역 전북.

엉박 명 [대응어] 큰 바위.
부피가 특별히 큰 바위. ¶이 뒷산으로 올라가믄 {엉박이} 딱 버티고 있제.
지역 전북.

엉부리다 동 [대응어] 대들다.
버릇없이 굴면서 대들다. ¶요시 아덜은 안 그려. 무조건 {엉부리고부텀} 혀. 제대로 고분고분헌 놈덜이 외려 극소수제.<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엉어리 명 [대응어] 응어리.
가슴속에 쌓여 있는 한이나 불만 따위의 감정. ¶마음 깊이 {응어리가} 맺히다 ¶그때 {엉어리}가 아직도 남았는지 지금도 나를 보면 고개를 돌리더라고.
지역 전북.

엉접질 명 [대응어] 엉겁결.
미처 생각하지 못하거나 뜻하지 아니한 순간. ¶도둑을 보고 {엉접질에} 몽둥이를 휘둘렀다.
지역 전북.

엉지손그락 명 [대응어] 엄지손가락.
☞엄지손구락.
지역 부안.

엉치짝 명 [대응어] 엉덩짝.
엉덩이의 좌우 두 짝을 이르는 말. 혹은 '엉덩이'를 속되게 이르는 말. ¶{엉치짝}을 찰싹 갈겼어.
지역 전북.

엊그저끄 명 [대응어] 엊그저께.

바로 며칠 전. ¶"중아 중아 {엊그저끄} 나 오라고 소매 치든 중은 어디 갔냐? 껌고도 푸른 중아 푸르고도 껌은 중아 어디 가고 아니 나오냐?" 그런게로,<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엊그저끄} 시장에서 우연히 그녀를 만났었다. ¶"시끄러. 찍히면 입맛이고 쿵허면 호박인 벱이여. 우리가 어디 {엊그저끄} 만나서 하루이틍 사귄 츠지냐?<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추석 때 신으라고 {엊끄저끄} 사온 운동화지만 아까서 못 신고 아직 흔놈을 신고 댕기지. 안신어도 맘은 흐뭇혀. ¶{엊그저끄에} 만났는데 오늘 또 만났구려.

지역 전북.

엎데리다 동 [대응어] 엎드리다.

배를 바닥에 붙이거나 팔다리를 짚고 몸 전체를 길게 뻗다. 또는 상반신을 아래로 매우 굽히거나 바닥에 대다. 한곳에만 오래 머물다. ¶아부지허고 아들허고 저러고 {엎데려} 누워 있어. ¶설마지가 나를 때리것냐고 하고, 매로 쎄릴라고? 앞으로 걸어간단 말이여. {엎데려} 놓고 앞정갱이를 어띠기 씨게(세게) 때리는지 정신이 바짝 난단 말이여. ¶공부헌다고 도서관에서만 {엎데려} 있당게

지역 전북.

엎디리다 동 [대응어] 엎드리다.

배를 바닥에 붙이거나 팔다리를 짚고 몸 전체를 길게 뻗다. 또는 상반신을 아래로 매우 굽히거나 바닥에 대다. 또는 한곳에만 오래 머물다. ¶하도 그런개, 전에 죽었던 지그 어매가 도께비(두꺼비)가 되어 갖고 와서 독(항아리) 가운데 {엎디려서}, "물을 질러다 붓어라." 그러드래,[청중: 웃음], [소원순: 딸을 위해서.], 그 딸을 위해서,[청중: 안<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미자는 방바닥에 {엎디려서} 책을 읽다가 아버지께 야단맞았다. ¶보따리 짊어졌는데 집에 와서 무신(무슨) 수가 닿을란고 몰라서, 문안에 닿았단 말이여. 집에 와 닿아서 아 이놈이, 아 이놈이 쪼그려 {엎디려} 가질라컨(엎드려 가지고)[큰소리로], 빽 빽 기어서 문 밖에서부터 기어 들어간다 인자!<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전주 이가가 양반이냐? 밀양 박가가 양반이냐?" 그 소리만 허고 한 종일 내비 둬. 아 이놈은 개와에 딱 {엎디려서} 있이면 또 뭔 말을 물어 봐야지. 해가 넘어 가서 깜박허먼, "가거라. 내일 또 오니라."<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엎지다 동 [대응어] 엎드리다.

한곳에 오래 머물다. ¶칠산바다 {엎졌다가}/어 낭 청 가 래 야/풍을 따라 이제 왔나/어 낭 청 가 래 야/어어어 가래란다/어 낭 청 가 래 야(부안 고기 퍼담는 소리-가래질소리/자진 가래질소리)<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부안.

엎히다 동 [대응어] 업히다.

☞엡히다. ¶거그 가서 물어 보라." 고 그려. "아, 그러라." 고 그?도만(그렇게 했더니), 그러고 헌게, "내 등허리 {엎히라." 고} 구렁이 등허리가 {엎힌게}, 쭉 밀은게 그 건니(건너)가 딱 다버려.<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군산, 완주, 익산.

에가 조 [대응어] 에.

앞말이 처소의 부사어임을 강조하여 나타내는 격조사. ¶그런개 19살 썩이나 먹어 놔서 이 큰애기가 과년이 차서 {머리말에가} 앉아서 이불을 떠들라고 함서, 온갖 소리를 다 함서,<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뱃사공한테 시켜 놓기를, "몇 시에 가는 사람 {몸에가} 구실이 하나 있응개로, 그 중간에 가다가 그 사람을 뒤집어 놓고서,<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그런게 인자 자기네 집을 가는 {도중에가} 주맥(주막)이

있어. 근게 인자 지사를 받어 먹으러 오시는디 주막으 가서,<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우리 {고향에가} 밤나무가 많다.<이기갑(1998)>

지역 전북.

에가서 조 [대응어] 에.

앞말이 처소의 부사어임을 강조하여 나타내는 격조사. ¶우리 {임실읍에가서} 지와집이 몇 채나 있었으까?<이태영(1984)> ¶옆으를 좆어냄서 또 본게로 또 암반짝만한 놈이 또 그 {옆에가서} 또 깔려있고 또 이짝을 본게 또 암반짝 만한 놈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저물어서 갈 곳이 없어요. 근디 산 오다가 보닌게 그 {우에가서} 묘한 자리가 좋은 묘가 있는디 참 봄에 좋아. 그<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도선의 공명자께서 저 섬 전라남도 어느 섬에서 살었는디 그 {섬에가서} 용이 둘이 살더래요.<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에구다 형 [대응어] 드세다.

☞어구다.

지역 전북.

에너리 명 [대응어] 에누리.

☞에느리.

지역 남원.

에노리 명 [대응어] 에누리.

☞에느리.

지역 장수.

에느리 명 [대응어] 에누리.

물건값을 받을 값보다 더 많이 부르거나 깎는 일. 또는 그 물건값.

지역 무주, 임실.

에등등하다 형 [대응어] 엇비슷하다.

☞어덩덩하다. ¶그런디 퇴계가 선부보고 묻는 말이나 선부가 퇴계보고 묻는 말이나 한 어디 {에등등하단} 말이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완주.

에렵다 형 [대응어] 어렵다.

하기가 까다로워 힘에 겹다. 또는 겪게 되는 곤란이나 시련이 많다. ¶사람 인옌이랑 거이 한 번 맺기가 {에렵지} 끊기가 쉽겄능가?<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어렵다'는 /ㅣ/ 모음 역행 동화로 인하여 /ㅓ/가 /ㅔ/로 발음되고, '렵'은 단모음화로 '럽'으로 발음되면서 '렵, 룹'으로도 발음한다. 표준어 '어렵다'는 전북 방언에서는 '에렵다, 에롭다, 에룹다' 등으로 발음한다.

에룹다 형 [대응어] 어렵다.

☞에렵다. ¶"박씨 영감님은 부자들 천당 가기가 낙타란 놈 바늘구녁 빠려나가기보담도 훼낀 {에룹고} 심들다는 예수님 말씸도 못 들어봤다요?"<윤흥길, 빛가운데로걸어가면>

지역 전북.

에리다 형 [대응어] 어리다.

나이가 적다. ¶신랑이 {에리단디} 신방이 멋인지나 알랑가?<최명희, 혼불> ¶그래 {에린} 것이 어띠기 왱이 되것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아 하루 저녁 핵교 순찰을 도는디, 아 도둑놈이 칼을 이렇게 대놓고 있거든. 아, 칼을 이렇게 들었는디, 아, 야도 {에려서부터} 보신용으로 칼을 각고(갖고)대니는디, 그전에 쪼그마한 장도 칼이라고 그런 것 하나 갖고 다니는디, 아 저 자식이 칼을 빼들었은개 은제 칼을.

<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모르지만 하이간이 그 살림 속을 꿰뚫고 지신 냥반이 수천샌님이신디, 종손도 어디로 가고, 아드님도 어디로 가고, 두 댁이 다 손자들은 {에리고}, 봉출이는 수천샌님 아들이 되고. 그러먼 그 담은 어치케 되겄능가잉?<최명희, 혼불> ¶오늘 수도가 얼어 봉게 느닷읎이 {에렜슬} 적 생각이 간절흐네. ¶{에렜을} 저그 동네 앞 시얌 가서 물지개로 질러다 부스짝 한 빼짝으다가 묻어 논 항아리다가 붓어 놓고 한 쪼박씩 떠다가 쓰든 생각이 간절흐넹.

지역 고창, 임실, 완주, 정읍, 부안.

에린애 명 [대응어] 어린애.

'어린아이'의 준말. 나이가 적은 아이. ¶{에린애가} 울다

지역 남원.

에멘 관 [대응어] 애먼.

☞애민.

지역 전북.

에멘땜 명 [대응어] 누명.

사실이 아닌 일로 이름을 더럽히는 억울한 평판. ¶{에멘땜을} 쓰고 옥살이를 하다. ¶나는 하마터면 억울한 {에멘땜}을 쓰고 파출소에 불려갈 뻔했다.

지역 전북.

에서롭다 형 [대응어] 부끄럽다.

스스러움을 느끼어 매우 수줍다. 또는 일을 잘 못하거나 양심에 거리끼어 볼 낯이 없거나 매우 떳떳하지 못하다. ¶사회에 나오믄 뭐든 좋을줄만 알았더니 회식자리가 그렇게 불편하더라잉. 특히 사람들 앞에서 뭔 노래를 하고 뭔 행동을 하고 뭔 이야기를 해얄지 모르겄어. 사람들이 다 나만 보는거 같으니께 {에서로워} 죽겄당게. ¶아니 그이는 입만 열었다면 그짓뿌렁이여. 왜 근디야? 그렇게 살면 {에서롭지} 않나?

지역 전북.

에설없다 형 [대응어] 어이없다.

일이 너무 뜻밖이어서 기가 막히다. ¶메기란 놈이 쿡 박으니 쬐깐한 송사리는 눈이 툭 불거져 튀어나왔다. 메기는 이것을 보고 {에설없잉게} 헤헤 허고 웃었어.<구비문학대계 정읍군>

지역 정읍.

에슬력없다 형

일이 너무 뜻밖이어서 어처구니없다. ¶믄 일이다여? 나참, {에슬력없네} 이~. ¶아따, 방구 뀌고 승질내는 것은 미안헝게. 글고, {에슬력없응게} 그라제 이~ 잘 암시롱.

지역 고창.

에엄 명

논의 조금 남은 부분을 빠른 동작으로 빙 둘러 싸면서 김매기를 마무리 짓는 일.<한국민요대전> ¶이 논바미도 다 미었구나/어 함 어 함/빨리 빨리 {에엄을} 싸세/어 함 어 함(정읍 논매는 소리-호무질소리)<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정읍.

에우다 동 [대응어] 여의다.

부모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이별하다. 또는 딸을 시집보내다. 또는 멀리 떠나보내다. ¶자신이 6세, 어머니 30 세 때 아버지를 {에우고} 동생과 함께 고생을 많이하며 살아왔다고 한다. ¶그 고모보고 저거 어따 에워야거따고214)214) '{에우다'는} '결혼을 시킨다.'는 뜻의 전북 방언형이다.<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임군한이가 숨을 씨근거리며 내다봤다. "예, 시레기죽도 책력보아감시로 {에우는} 집인디, 그 꼴을 당해논께

밥이라도 제대로 해먹이자고 고지를 내려<송기숙, 녹두장군>
지역 전북.

에욱질 명 [대응어] 구역질.
메스꺼워서 뱃속에 든 것을 밖으로 뱉어 내는 것. ¶뵈기 싫은 사람 보면 {에욱질} 날 때가 있지, 특히 알랑방구 뀌는 사람들 보면 그렇지<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전북.

에의 (禮儀) 명 [대응어] 예의.
사회생활이나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존경의 뜻을 표하기 위해서 예로써 나타내는 말투나 몸가짐. ¶{예이럴} 지켜얀다<2008 전북 고창> ¶인자 그 지방은 그러케 곱게 큰 여자들허고는 남자드리 이야기를 몯해써요. 그때 {예이가} 거게 참 엄해썬는데.<2007 전북 군산>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임실, 장수, 진안.

에함 감 [대응어] 어험.
짐짓 위엄을 내거나 기척을 나타내려고 내는 기침 소리. ¶좌우간 김 되야지한티 가서 배경을 씨자. 김 되아지한티 갔다 오먼은 청포재기고 백포재기고 씰디 없이 할딱 벗고는 저그집이 가서 '{에함'} 허고 앉었고 앉었고 허니, '돈 씰디라고는 거그 뿐이다.<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집구석에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 주제에 대학교 박사 나왔다고 방구석에서 {에함} 허고 앉었으면 쌀이 나오냐 죽이 나오냐.
지역 전북.

엔간치 부 [대응어] 어지간히.
보통에 가깝거나 그보다 약간 더 하게. ¶밥을 {엔간치} 좀 먹어야지 골코롬 먹으면 위가 견뎌나겠어?<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전북.

엔기 명 [대응어] 연기.
☞연기.
지역 전북.

엔기통 (←煙氣통) 명 [대응어] 굴뚝.
불을 땔 때에, 연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도록 만든 구조물. ¶초가집 {엔기통으서} 엔기가 나오믄 그렇게 정감 있고 엄마 밥상이 떠오르는건 왜일까? ¶{엔기통은} 흙으로 해도 되지만 큰 대나무가 있는 지방에서는 대나무로도 만들어.
지역 전북.

엔만찮다 형 [대응어] 엔만찮다.
정도나 형편이 표준에 가깝지 않다. 또는 허용되는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 ¶집이 험상시럽고 잘디도 엔만찮고 하 그리서 벨 수가 없이 쥔을 찾었어요.
지역 전북.

엡히다 동 [대응어] 업히다.
사람이나 동물 따위를 등에 대고 손으로 붙잡거나 무엇으로 동여매어 사람이나 동물 따위가 등에 붙게 되다. ¶요즘으는 손주가 내 등에 {엡혀} 갖고 파묻혀서 꼬물꼬물 대는 것을 느끼는 것이 내 낙이여. ¶지금은 힘들고 고생스럽지만 애들 {엡혀} 키우는 것도 잠깐여, 금방 유치원가고 금방 초등학교 들어 가는거여. ¶아기는 놀이터에서 아빠 등에 {엡히어} 왔다.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임실, 장수, 진안, 군산, 익산.

엣날 명 [대응어] 옛날.
지난 지 꽤 오래된 시기를 막연히 이르는 말. ¶{엣날} 어디 할머니 하나가 만날 방에 불을 넣어 줘도, 만날 방이 춥다고 그래, 만날 방이 춥

다고 그래.<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전북.

엣날얘기 명 [대응어] 옛날이야기.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옛날에 있었던 일. ¶인제는 명절이나 손주놈덜 내려오먼 앞에 델다놓구 {엣날얘기두} 해주구 그런 재미루다가 살지. ¶어느날언 영감이 할멈을 불러다놓구서는 그러는 거여. "우리도 이만치나 살었응게 {엣날 얘기나} 한 번 히보자."그런게 할멈이 뭐라고는고니.
지역 고창, 익산, 장수, 남원, 무주, 순창, 군산, 임실.

엣날이얘기 명 [대응어] 옛날이야기.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할아부지가 {엣날이얘기} 해주마 하고 무릎이다가 애덜 앉혀놓구서는 호랭이 댐배피던 시절까정 올라가는 거여. ¶우덜 처녀총각 때는 통금이 있었은게 지금같이 오밤중에 돌아나 댕길 수 있간디. 다 {엣날이얘기지만은}.
지역 부안, 진안, 김제.

엥간하다 형 [대응어] 엔간하다.
☞엥간허다. ¶앗다, 참말로. {엥간헌} 사램이 헌 말이면 내가 요러고 숨이 넘어가겄소?<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엥간하다'는 표준어로는 '어연간하다'의 준말 '엔간하다'에 해당한다. '엥간하다'는 '엥간허먼'의 형태로 많이 쓰이고, 부사로는 '엥간치, 엥간히'의 형태로 많이 사용된다.

엥간허다 형 [대응어] 엔간하다.
정도나 형편이 기준에 크게 벗어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 ¶앗다, 참말로. {엥간헌} 사램이 헌 말이면 내가 요러고 숨이 넘어가겄소?<최명희, 혼불> ¶총각 펴네서 인재 메친 날 날 바다따고 그쪼그 종우떼기만 오고, 그 다으메는 인자 게론 허머는 이부리야 놩이야, {엥간헝건} 그때는 다 힌는디, 지그믄 머 냉장고 머딛찌만, 그때는 베비 업씅개 크:게 인자 잘 히준 사라미 놓허고 이부러고.(총각 편에서 이제 며칠 날 날 받았다고 그쪽의 종이쪽지만 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결혼하면은 이불이야 놓이야, 어지간한 것은 그때는 다 했는데, 지금은 뭐 냉장고 뭐 있지만, 그때는 법이 없으니까 크게 이제 잘 해준 사람이 놓하고 이불하고.)<전북지역어, 임실군> ¶근디, 이모, 이모, 아부지를 어티케 왱기야 거써요, 그리서 아이야, 놔두라. {엥간흐먼}. 아니요, 왱기야요, 모씬대요. 가 눈빼기로 가 파보머는 머 지쟁이 이따고 그리요.<전북지역어, 임실군>
지역 전북.

엥간히 부 [대응어] 어지간히.
수준이 보통에 가깝거나 그보다 약간 더 하게. ¶그께잇 것 갖꼬. 천골에 상놈들이 머 매 좀 맞는다고 죽간디? 맞는 것도 한두 번이어야 아프제, 이골이 나먼 {엥간히} 얻어터진 자리는 손으로 쓱쓱 딲어 불먼, 딱지 앉고 깨깟이 낫어 불턴디 머.<최명희, 혼불> ¶그래도 놀랜 가심이 안직은 진정이 안되야서 가 보든 안했는디, 딱 십 년이나 지내고 봉게로 {엥간히} 안심이 되드래요.<최명희, 혼불> ¶그거이 막 나서도 비일 빌 했거등, 왜. 그런디, 요번 여름에 가뭄이 {엥간히} 극성시럽등가? 봄부터 부황난 놈을 멕일 거이 없어서 그 가뭄에 패싹 말려 놨이니. 에미 맴이 얼매나 씨리겄능가잉.<최명희, 혼불> ¶아이고, 살아 생전에 {엥간히} 모질게 했어야 말이제,<최명희, 혼불> ¶날이 {엥간히} 추운게비다.<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엥기 명 [대응어] 엄지손가락.
다섯 손가락 가운데 첫째 손가락. ¶{엥기로} 지

장을 찍다.
지역 고창, 무주.

여가 조 [대응어] 에.
앞말이 처소의 부사어나 비교의 대상임을 강조하여 나타내는 격 조사. ¶지금 여기도 이 {뒤여가} 기리 읍썬씨.<백은아(2016)> ¶사람 {하나여가} 말이 멧 가지가 된지 모린다고<김옥화(2004)>
지역 전북.

여그 대 [대응어] 여기.
말하는 이에게 가까운 곳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 ¶{여그}, 써국 조까 더 주시요 이~. ¶쪼끔만 침착허랑게 자발시럽게 방정 떨고 {여그} 저그 댕깅게 영양가도 읎고 결과는 개털이지야. ¶아따 찬물에도 우아래가 있고, 거그다가 {여그는} 동방예의지국인디. ¶기양이면 딴디허고 같은 조건이믄, 글면 {여그서} 거시기 유히야지요.
지역 고창.

여그저그 명 [대응어] 여기저기.
여러 장소를 통틀어 이르는 말. ¶{여그저그} 허천나게 부지런 떰서 도라댕기면 배따지 꿂든 않겄지라우.
지역 고창.

여꾸리 명 [대응어] 옆구리.
☞엽꾸리.
지역 고창, 남원, 무주, 완주.

여끄다 동 [대응어] 엮다.
노끈이나 새끼 따위의 여러 가닥을 얽거나 이리저리 어긋 매어서 어떤 물건을 만들다. 또는 여러 개의 물건을 끈이나 줄로 어긋 매어서 묶다. 또는 글이나 이야기 따위를 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소재를 일정한 순서와 체계에 맞추어 짜다. ¶그 짚방석에 끈으루 다 {엮꺼서} 올려 놓은 게, 가서 그것을 물에다 올려 놓은게. ¶할머니 노래를 다 듣고 나서 옆 집으로 갔더니 담배잎을 {엮끄고} 계시는 할머니가 있었다. ¶그 방도로 허면 될란지도 몰러. 밑에서보톰 차근차근 허니 심얼 {엮끄고} 짜나가는 것잉게. ¶이야기를 그렇게도 {엮끄네잉}. ¶일이 잘 풀리게 헐라면 니가 중헌 사람마냥 이야기를 {엮끄고} 우리는 뒤으서 추임새를 넣어 주면 너한티 시집을 온다고 허지 않을까.
지역 남원, 진안.

여나뭇 수 [대응어] 여남은.
열이 조금 넘는 수. 또는 그런 수의. ¶(소가 몇 마리나 되아?) 여나뭇 되아.
지역 전북.

여남 관 [대응어] 여남은.
열이 조금 넘는 수의. ¶이런 아이가 있는디. 상 사람이 사는디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모르는 이 시절인디, 하도 이놈이 멍청허닝가 지 아버지가 하루는 돈을 한 {여남} 냥 쥈던가 보죠. "장날 장에가서 뭣도 사먹고 뭣도 살 것 있으믄 사가지고 오너라."<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기양 대급을 놓고 그양 떨라다가 그양 한강 속으로 풍덩 빠져 들어가 버렸네. 아 이놈의 비루먹은 당나구 요것은 그양 기양 {여남} 번은 그양 왔다갔다 헌단 말여.[청중 : 웃음], [청중 : 인자 기운난게.], 그양 번개 튀 듯 왔다갔다 허그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남원, 완주.

여년히 부 [대응어] 어련히.
따로 걱정하지 아니하여도 잘될 것이 명백하게. ¶내비둬도 {어련히} 잘할 틴디 너무 머라 하지 말어. ¶{어련히} 잘하겠느냐만 글도 걱정이 되는구먼.

지역 전북.

여녕 부 [대응어] 아직.

어떤 일이나 상태 또는 어떻게 되기까지 시간이 더 지나야 함을 나타내거나, 어떤 일이나 상태가 끝나지 아니하고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 ¶여녕까지 혼자 있어. 질연이 있다고 허는디.

지역 전북.

여다 조 [대응어] 에다.

일정한 위치를 나타내는 조사. ¶{전대여다} 질머지고<최전승(2000)>

지역 정읍.

여다가 조 [대응어] 에다가.

일정한 위치를 나타내는 조사. ¶떡은 {시루여다가} 찌지<김옥화(2004)>

지역 전북.

여대치다 동 [대응어] 뺨치다.

(속된 표현으로) 비교 대상을 능가하다. ¶그저 백만금의 재물을 쌓아 놓고 자손 번창하겠다, 수명장수, 아직도 젊은 놈 {여대치게} 저엉정하겠다, 이런 천하에 드문 호팔자를 누리면서도, 근천이 질질 흐르게시리 밥을 굶네, 속이 상하네, 개 신세네, 하고 풀 죽은 기색으로 탄식을 하는 게. <채만식, 태평천하> ¶이십 년을 설운 청춘 한숨으로 보내고서 다 늦게야 송장 {여대치게} 생긴 그 양반을 그래도 남편이라고 모셔다가는 병수발 들랴, 먹고 살랴, 애자진하고 다니는 걸 보면 참말 가엾어요.<채만식, 치숙> ¶올해 일흔두 살입니다. 그러나 시삐 여기진 마시오. 심장비대증으로 천식(喘息)기가 좀 있어망정이지, 정정한 품이 서른 살 먹은 장정 {여대친답니다}. 무얼 가지고 겨루든지 말이지요.<채만식, 태평천하>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여대치다'는 채만식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어휘로 표준어의 '뺨치다', '능가하다'에 해당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덥달 명 [대응어] 바사기.

세상 물정을 아는 것이 없고 똑똑하지 못한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그는 세상 물정 모르는 {여덥달이다}.

지역 전북.

여러 명 [대응어] 여럿.

많은 수의 사람이나 물건. ¶가서 어디가 사용헐 줄을 알어야지 잠만 자고 있냐고 말여. 그 퉁수가 그것이 혼자 들으라면 혼자 알어듣고, 여러이 알어 들으라면 {여러이} 알어듣고, 그저 막 한 고을이 알어 들으라면 고을이 알어 듣고, 말대로 나오는 기 옥퉁수다.<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후닥닥 달라 들어서 저그 어마이가 상투를 잡고서 방맹이로 막 슬벅짝이랑 처돌려. 아 그러니 저그 어매를 하인 소시 아 모다 {여러} 있는디 떠다 붙일 수 없고, 그냥 그냥 맞는단 말여. "이놈! 상감마마도 눈이 어둡도다. 부모에 불효헌 놈을,<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완주, 진안.

여룹다 형 [대응어] 부끄럽다.

스스러움을 느끼어 매우 수줍다. 또는 일을 잘못하거나 양심에 거리끼어 볼 낯이 없거나 매우 떳떳하지 못하다. ¶남들 앞에 나서는 일 따위가 뭐시가 {여룹다고} 난리지? 걍 핑소에 하던 말하믄 되는 거 아니여? ¶나는 인간도 아니여, 어떠케 나보다 10살이나 어린 것이 내 신붓감이었음 하는지, 내 스스로가 {여뤄서} 못 살겄어.

지역 전북.

여리 부 [대응어] 이리.

이곳으로. 또는 이쪽으로.
지역 전북.

여마리허다 (←廉알이하다) 동 [대응어] 염알이하다.
남의 사정을 몰래 알아내다. ¶남의 사정이나 비밀을 몰래 살펴 알아내다. ¶나가 심퉁이보러 대신 {여마리혀} 오라고 시킬랑게. ¶글케 정히 궁금허면 누굴 {여마리시켜}.<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여만치 부 [대응어] 이만치.
이만한 정도로. ¶옛날에 촌가에 간다면 나락두지거 있지. 거그다 인자 구멍을 {여만치} 뚫어놓고 삼시 주먹밥을 주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정읍.

여물간 (間)) 명 [대응어] 여물광.
여물을 쟁여 두는 헛간. ¶옛날에 옛날에 삼촌 숙모 밑에서, 그리 모지락스럽게(모질게, 서럽게) 두 내우(內外)가 안안팎 담사리(내외가 남의 집을 사는 것)를 살고, 아버지, {여물간}[청중 최진호 씨: 음], {여물간이} 방이고, 문턱이 베개고, 두 내우가 그렇게 살았대,[조사자: 참 고생하네.]
지역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익산.

여물곳간 (庫間)) 명 [대응어] 여물광.
여물을 쟁여 두는 헛간. ¶{여물곳간에} 지푸라기 한 가득 있은게 거기로 가봐. ¶소 먹이는 모두 {여물곳간에} 보관 하여라.
지역 정읍.

여물섬 명 [대응어] 여물광.
여물을 쟁여 두는 헛간. ¶소 멕이기 편허게 {여물섬을} 마당으다 지으면 좋겄는디.
지역 김제, 완주, 익산.

여물청 (여물廳) 명 [대응어] 여물광.
여물을 쟁여 두는 헛간. ¶"아이고, 저 달은 우리 님을 볼튼디 나는 어찌 못보꼬." 둘이 서로 이렇게 반대적으로 이놈이 앉어서 그?어. 각시님을 볼라믄 {여물청으로} 오쇼 그?디야. 우리 각시님도 볼 텐디 그런게. 그러고 허닌게 아침이 일어나서 본게 뭐 구렁당당 신선빈지 뭣인지 알겄어.<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해가 저물었어. 좀 재워 달라고 한개, 잘 데가 없다고, 마루 밑에라도 재워달라고, 마루 밑에는 검둥이가 있은개 못잔다고, 어디 하다못해 {여물청이라도} 자고 가자고. 그래 여물청에서 자라고 했어. 그게 집이던개벼. 집이던가 봐. 선비 있는 집? 응.<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휜헌디 들어가서, "나무청으라도 잘라오." 헌게, "저네는 못잔다."고. "저런 거시기가 어찌게 자야."고. " {여물청으라도} 잘라오." "못잔다." 고. 달을, 달이 훤헌게 거 어디 있다가 못잔다고도 있다가 글을 줄—줄 읽는 소리가 나서는 기둥을 <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고창, 임실, 장수, 진안.

여물통 명 [대응어] 구유.
소나 말 따위의 가축들에게 먹이를 담아 주는 그릇. 흔히 큰 나무토막이나 큰 돌을 길쭉하게 파내어 만든다. ¶저 뒤에 나가 떨어졌던 놈도 일어났다. "이놈우 새끼들, {여물통을} 뒤꼭지로 홱 돌래 놀라다가 반만 돌리다가 말었은께 고맙다고 해라잉.<송기숙, 녹두장군> & ¶=게으른 아이들은 {여물통에} 가득히 여물을 주었다. ¶그니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세월이 약이라니깨. 시방은 저러코롬 지 {여물통} 지 발로 걷어차는 찌럭소맨치로 잔득 소가지를 부리다가도<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얼빠진 놈을 잡아다 앉힌 것이었다. "하! 개애자석, 지랄허고 {여물통} 돌리고 자빠졌네. 워따가 대고 지눔이 잘난 칙이여, 잘난 칙이.<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김제.

여서 조 [대응어] 에서.

앞말이 단체를 뜻하는 명사로서 주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옛날이는 서자자식을 채용을 안허, {정부여서}<최전승(2000)>

지역 정읍.

여시 명 [대응어] 여우.

갯과의 포유동물. 또는 매우 교호라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와서 보닌게 송아지를 끄시러 왔는디, 어린애가 하도 울어싸닌게 호랭이란 놈이 들으닌게 즈그(저희) 누나, 성들이 세상으 '너구리 온다, 곰 온다, {여시} 온다.' 벨시런 것 다- 와도 안들고 울아, 울어 싸. '호랭이 온다-.' 해도 울어,<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끝까지 날 좀 봐주쇼. 정지(부엌) 가서 후닥딱(빨리) 불좀 때주쇼. 부석자리에다." 정지가 불을 땐개 궐뚝(굴뚝)으로 {여시란} 놈 하나가 캥하고 나가더라든. 아, 그런개 여우가 시어머니 껍떼기를 쓰고…. 아, 그런개, 사램이 죽으면 굴뚝을 막는 원인이 뭔 짐승이<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여시} 같은 시누이 등쌀에 돌아서서 눈물이라 힝아 힝아 시집살이 어떻더노? 발가벗은 시동상의 바라지(뒷바라지)도 어렵더라.<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내가 너를 못 믿어서 미안하다." 나무도 좋으면 남이 욕심내고 귀하거든. 근게 이 여자를 남자가 {여시로} 봤어. 마치 죽을 판이여. 그놈 데려다 더펴씌여. 그럴 것 아닌가? 귀신 같어.<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저거이 나이를 먹어감서 허는 짓이 쪼꼼씩 {여시}가 되어 가는디 걱정이네.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부안, 순창, 완주, 임실, 장수, 정읍, 진안, 무주, 군산, 익산.

여시비 명 [대응어] 여우비.

볕이 나 있는 날 잠깐 오다가 그치는 비. ¶{여시비가} 내리다. ¶무더운 여름 날씨인데 {여시비가} 오는구나.

지역 전북.

여오 명 [대응어] 여우.

갯과의 포유동물. 또는 매우 교호라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지역 무주, 장수.

여우다 동 [대응어] 여의다.

☞에우다 ¶지난번 반굉일날 서울서 조카 {여우는디} 댕겨옴시로 한속기에 앵간허믄, 울역히 갖고 올 가실에 {여워} 버리제(귀에다 대고 으멍떰서 징그럽게).

지역 고창.

여적 부 [대응어] 여태.

지금까지. 또는 아직까지. 이미 끝났어야 함에도 그렇게 되지 않았음을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 쓴다. ¶썩을 것, {여적} 뭘하느라고 안 오는고! 잔뜩 화가 돋워진 목소리여서 잘못하다간 내가 부지깽이질을 당할 것 같아<신경숙, 풍금이 있던 자리>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여적'은 '여직'으로도 많이 쓰인다. '여적, 여직'은 '여태'와 "때"를 나타내는 '적'이 혼합된 것으로 이해된다. '여적지'로도 많이 쓰이는데 이것은 '여태까지'의 형태에서 유추하여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여적지 부 [대응어] 여때껏.

지금까지도. 또는 아직까지도. 이미 끝났어야 함에도 그렇게 되지 않았음을 아주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 쓴다. ¶손에다 쥐어줘도 여적지 못 알어채려?<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자기 높은 지만 알었지 넘들 높아진 지는 {여적지} 몰르고 있는 모냥인디, 누구 허가 맡고 말끝마닥 함부러 자네, 자네랴?<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

가면> ¶"그러나 무릉을 {여적지} 못잡어서 내가 못혔노라." 고 근게 옹용자 손도 안 대고 다 허드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 "아 당신이 일곱 살 먹어서 조실부모 해가지고 {여적지} 넘의 집만 살었고만."<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군산, 남원, 정읍.

여직 부 [대응어] 여태.
지금까지. 또는 아직까지. 이미 끝났어야 함에도 그렇게 되지 않았음을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 쓴다. ¶이장인가 된장인가 허는 작잔 대처 으디 처백혔간디 {여직} 코빼기도 안 비치는 거여?<조봉래, 풀벨골> ¶귀신은 여니 귀신허구 본판 달른 걸 {여직} 몰르구서, 괜헌 고생을 허구 다녔지!<채만식, 裵裨將> ¶니가 {여직} 뭘 몰라서 그렇지 우리 정옥이 갸, 애비 에미가 뭣인가도 몰르고 상업핵교 들어가드락 스럽게 살았지만서도 품행이 방정맞고 공부는 노상 일등이고 얼골은 거 뭣이라냐, 미쑤꼬랏감이기로 핵교 아난팎에서 일찌가니 소문이 둥둥 뜬 아다.<윤흥길, 빛가운데로 걸어가면> ¶역 구내 진입을 앞두고 하행열차는 속도를 점점 줄이는 반면 상행열차는 역 구내를 빠져나오기 무섭게 막무가내로 속도를 높인다는 크나큰 차이점이 있었다. 몸을 피할 수 있는 시간과 거리가 그만큼 짧아지기 때문에 실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모험이었다. 그래서 상행열차를 상대로 무모한 시합을 벌인 적이 {여직} 한번도 없었다.<윤흥길, 소라단 가는 길> 그래서 상행열차를 상대로 무모한 시합을 벌인 적이 {여직} 한번도 없었다.<윤흥길, 소라단가는길>
지역 전북.

여쿠대 명 [대응어] 여뀌. ¶{여쿠대를} 끊다
지역 전북.

여태깔로 부 [대응어] 여태껏.
지금까지도. 또는 아직까지도. 이미 끝났어야 함에도 그렇게 되지 않았음을 아주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 쓴다. ¶{여태깔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지역 전북.

여태끈 부 [대응어] 여태껏.
지금까지도. 또는 아직까지도. 이미 끝났어야 함에도 그렇게 되지 않았음을 아주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 쓴다. ¶{여태끈} 하루도 쉬지 않았다
지역 전북.

여태끔 부 [대응어] 여태껏.
지금까지도. 또는 아직까지도. 이미 끝났어야 함에도 그렇게 되지 않았음을 아주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 쓴다. ¶{여태끔} 몰랐다 ¶아침부터 시작한 일을 {여태끔} 하고 있다냐.
지역 전북.

여트다 형 [대응어] 얇다.
수면이 밑바닥에 가깝다. 또는 생각이나 지식 따위가 깊지 아니하다. 또는 빛깔이나 농도가 보통의 정도보다 흐릿하다.
지역 남원, 진안.

여호 명 [대응어] 여우.
갯과의 포유동물. 또는 매우 교호라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그 동물원에는 {여호도} 있고, 호랭이도 있고, 동물들이 아주 많이 있다더만. ¶"정비장 나리야 이별이 연연하시죠만, 월중매년은 딴속이 있거든입쇼!"<채만식, 裵裨將> "딴속이라니?" "년이 홀짝홀짝 울어가믄서, 온갖 {여호짓} 다 부려가믄서, 정비장 나리 애를 마주막 녹혀드리는 판이거든입쇼!"<채만식, 배비장>
지역 전북.

여후 명 [대응어] 여우.

☞여호.
지역 전북.

역불로 부 [대응어] 일부러.
마음먹고 일삼아. ¶오시는 낭반들 한티 투덜도 꼬라지도 몬내고 겉으로 {역불로} 웃어 줌서 열심히 수검을 도와 준당게요.
지역 고창.

역시러 부 [대응어] 일부러.
☞역시로.
지역 익산.

역시로 부 [대응어] 일부러.
마음먹고 일삼아. ¶그런게 나무 잘 탄 사람들이 올라 가갖고는 내리서 {역시로} 사람을 살리야 헌다고 그리갖고는 업어갖고는 내리왔다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그냥 사람이 뫼야서 모든 음석을 많이 장만했쌓드래야. 그래서 '암히 뭔 지사나 지내는가 뭣 흐는가 보자.' 그러고 인자 또 들어가서 {역시로} 저물게 만치 가가지고 그 날 저녁으 자는디, 며칠만에 와갖고 자는디 아직 그 동네 사람을 심바람꾼 와서 싹 남녀노소없이 그냥 전부다 오라고들 허드래야. <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고관으로 정승 판사까지를 지내다가 보니까, 말년(末年)에 심심허닝개, 그 춘향이 역사를 자세히 알기 위해서 남원부사를 {역시로} 해가지고 외관(外官)으로 남원부사를 왔더랍니다.<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전북.

역질로 부 [대응어] 억지로.
이치나 조건에 맞지 아니하게 강제로. ¶맴이 없어도 돈이 없은개로 {역질로} 팔려가드끼 시집을 가구 그렸어 그때는.
지역 전북.

연달없다 형 [대응어] 주책없다.
일정한 줏대 없이 이랬다저랬다 하여 몹시 실없다. ¶누가 그런 연달없는 소리를 하더냐?
지역 전북.

연덕 명 [대응어] 눈엣가시.
몹시 밉거나 싫어 늘 눈에 거슬리는 사람. ¶{연덕이} 따로 없다
지역 전북.

연목 명 [대응어] 서까래.
마룻대에서 도리 또는 보에 걸쳐 지른 나무. 그 위에 산자를 얹는다. ¶그 {연목이라고}, 연목이라는 것은 이제, 저 위에다 맨 위에다 이렇게 이렇게<지역어 자료 총서, 무주> ¶이렇게 {연목을} 빵 돌아가면서나.<지역어 자료 총서, 무주>
지역 옥구.

연목가래 명 [대응어] 서까래.
마룻대에서 도리 또는 보에 걸쳐 지른 나무. 그 위에 산자를 얹는다. ¶"그나. 간밤의 내가 꿈을 꿔었는디 {연목가래} 셋을 지고서 어디를 가다 가설랑은 꿈을 깼다."<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옥구.

연목가랭이 명 [대응어] 서까래.
마룻대에서 도리 또는 보에 걸쳐 지른 나무. 그 위에 산자를 얹는다. ¶어디를 갔는고니, 아 저녁의 꿈을 꾼게스니 이성계씨가 꿈을 꾼게스니, {연목가랭이} 셋을 짊어지고서…. 그 꿈을 꾸었다 그 말여. 연목가래? 응.<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옥구.

연에 명 [대응어] 연어.

못이나 개울의 깊은 곳에서 사는 물고기. ¶{연에는} 구워서 먹어도 맛있고 초밥으로 먹어도 맛나다 하더만.
지역 전북.

연연이 (年年이) 뿐 [대응어] 해마다.
그해 그해. ¶여그는 연연이 해 먹어.
지역 전북.

연자 명 [대응어] 서까래.
마룻대에서 도리 또는 보에 걸쳐 지른 나무. 그 위에 산자를 얹는다. ¶처마에서 안쪼그로 요로케 {연자가} 돼인는 그 부부는 그게 처마면, 그 부부는 뭐라구레요?<지역어 자료 총서, 무주>
지역 김제, 부안, 군산, 완주, 진안.

연자다 동 [대응어] 얹다.
위에 올려놓다. ¶으사 슨상님이 내 이마에 살며시 자기 손을 {연자고} 열을 짚으고 치료를 시작혔지.
지역 전북.

연자방애 명 [대응어] 연자방아.
연자매를 쓰는 방아. 둥글고 넓적한 돌판 위에 그보다 작고 둥근 돌을 세로로 세워서 이를 말이나 소 따위로 하여금 끌어 돌리게 하여 곡식을 찧는다. ¶또 저 연자방아도 인써꼬. — 그리고 어 그 나중에 인자 기게빵애가 이써 기게방애. 디딜빵애, 물레방애, {연자방애}, 기계방애? — 아니 또 그 마:니 드루와서, 제일 나중에 뭔 지쓰먼 인따면, 도구지리29)29) '도구질'은 '절구질'의 전북 방언형이다.<지역어 자료 총서, 고창>
지역 무주, 완주.

연자사 명 [발음] {연짜사} [대응어] 얼레.
연줄이나 낚싯줄 따위를 감는 데 쓰는 기구. ¶{연짜사를} 감다.
지역 무주, 고창, 김제, 남원, 순창, 완주, 익산, 진안.

연장 명 [대응어] 농기구.
농사짓는 데 쓰이는 도구나 기계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괭이 삽 호미 낫 띵깡띵깡 잘 다루니 농사 질 때 쓸 {연장이} 걱정 없더라.<김용택, 섬진강> ¶일도 혀 본 놈이 허는 거여. 일도 제대로 못 허는 화상이 {연장} 탓을 허기는, 참내. ¶언제 잠깐 손놓고 앉아 있을 틈이 없는 그는, 쟁기?가래?괭이?쇠스랑과 작두?호미?낫에서부터 쟁박에 오줌장군, 개똥 삼태기까지 몇 십 가지 농기구 {연장을} 제 살같이 다루고 손보면서, 정월이면 한 해 지을 농사를 계획한다.<최명희, 혼불> ¶그는 창고 한 쪽 벽에 {연장}을 보기 좋게 걸어 놓았다. ¶{연장이} 좋아야 일의 성과가 많이 난단다.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익산, 임실, 진안.

연지다 동 [대응어] 얹다.
☞연자다.
지역 전북.

연치 명 [대응어] 방아깨비. ¶{연치를} 잡다
지역 고창,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연필깍 명 [대응어] 필통.
붓이나 필기구 따위를 꽂아 두는 통이나 연필이나 볼펜, 지우개 따위를 넣어 가지고 다니는 작은 상자 모양의 물건. ¶저짝에 가방이 있은게 거 안에 한 번 들여다 봐봐. {연필깍이} 있능가, 없능가, 근디 넌 허구헌 날 정신머리를 어따 놓고 돌아댕기는 것이냐. ¶연필을 깎으면 {연필깍}으다 잘 너갖고 댕겨야 연필심이 안뿐지러지지.

지역 전북.

열꼿 명 [대응어] 열꽃.

홍역이나 수두 따위를 앓을 때, 피부의 여기저기에 돋아나는 붉은 점. ¶내 동생이 어렸을 적에 열병을 앓고 {열꼿이} 왼 몸에 퍼진 적이 있었지. 그게 남아서 아직도 울긋불긋 혀. ¶홍역이 걸린 동생 몸에 발긋발긋 {열꼿이} 돋아 얼마나 고생할 꼬? ¶애기가 밤새 울더니 기침도 심허고 얼굴에 {열꼿}이 올라서 언능 병원으 가봐야 쓰겄다.

지역 고창, 익산, 임실, 정읍, 진안.

열대 명 [발음] [열때] [대응어] 열쇠.

자물쇠를 열거나 잠글 때 사용하는 물건. ¶그렁깨나, 도장무는 항상 자물퉁이 인써서나, 인재: 그집 큰메느리 큰메느리가 인재 만날 인재 바블 허능깨나 큰메느리가 도장 열때를 차고.<지역어 자료 총서, 무주>

지역 무주.

열불나다 (熱불나다) 동 [대응어] 열불나다.

몹시 화가 나다. ¶작것아, 말혀! 열불나게 맹글지 말고 응? 먼 일이여?<조봉래, 풀벨골> ¶가는누비 같은 것을 맡기면, 그 누에씨보다도 작은 바늘 땀에, 촘촘히 박아가는 선이 한 땀이라도 어긋나면 안되는 누비 바느질, 그 중에도 가는누비를 무슨 재주로 해낼 것인가. 솜씨는 그만두고 속에서 {열불이 나} 못할 일이었다.<최명희, 혼불> ¶성보단 내가 낫제. 복더우에 바누질이 얼매나 속 터징가잉. 땀은 뚝뚝 떨어지제, 바늘은 뿌드렁뿌드렁 들으가도 나가도 안허제, 손꾸락 푹푹 쑤심서 {열불나게} 우그리고 앉어서 그것 기양 덤벙덤벙 담박질로 건너뛰도 못허고 한 올 한 올. 나, 여름에 성 보면 젤로 안되얏데.<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열새 명 [발음] [열쌔] [대응어] 열쇠.

☞열쇠.

지역 고창.

열적다 형 [대응어] 열없다.

좀 겸연쩍고 부끄럽다. ¶그는 형보 말대로 싸움을 말려 주고는 싶어도 형보가 방정맞게 여럿이 듣는 데서 그런 말을 씨월거려 놔서 차마 {열적어} 선뜻 내닫지 못하는 눈치다.<채만식, 탁류>

지역 전북.

열쪼시 명

여름철에 부화된 닭 ¶저기 있는 닭이 바로 한 여름에 태어나서 건강허게 자란 {열쪼시여}.

지역 전북.

염낭 명 [대응어] 두루주머니.

아랫부분은 둥글고 위는 모진 모양으로, 아가리에 잔주름을 잡고 두 개의 끈을 좌우로 꿰어서 여닫게 한 작은 주머니. ¶"그리라…… 그렇지만 이놈은 잘 두었다가 내일 사먹어라? 응?" "응." 윤직원 영감이 {염낭에서} 십 전박이 한 푼을 꺼내 주니까, 아이는 히히 하고 그의 독특한 기성을 지르면서 무릎으로부터 밥상 앞으로 내려앉습니다.<채만식, 태평천하> ¶은장도와 {염낭은} 아녀자가 으레 지닐 것이므로 그렇다 하더라도, 비녀에 이르면 가히 그네의 치장이 어떠했는지 알 수가 있었다.<최명희, 혼불>

지역 임실, 정읍, 진안, 완주.

염낭주머니 명 [대응어] 두루주머니.

☞염낭.

지역 완주.

염벵 명 [대응어] 염병.

'장티푸스'를 비롯하여 전염성을 가진 병들을 통

틀어 이르는 말. ¶에미야, 동네에 {염벵이} 발생했으니 아이들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지역 고창, 남원, 완주, 정읍.

염빙을 하다 (染病) 【관용표현】 [대응어] 염병을 하다.
(속된 표현으로) 무엇이 몹시 못마땅한 짓을 하다. ¶{염빙을} 하고 앉았네.
지역 전북.

염새이 명 [대응어] 염소.
☞염생이.
지역 전북.

염생이 명 [대응어] 염소.
포유류 솟과에 속한 동물. 면양과 비슷한데 속이 비고 뒤로 휜 뿔이 있으며 수컷에는 턱밑에 긴 수염이 있다. ¶으디까장이나 순사기꾼에 날강도 같은 그짓 슨지자들이 지여낸 부황부황헌 소리라고, {염생이가} 물개똥 쌌으면 쌌지 고 따우 말도 안 되는 기적은 절대적으로 안 일어날 모냥이니깨 걱정도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놈아, 거시기, 아, 어미가 있는 염생이가 새끼없는 {염생이가} 있다냐?" 본전이 있는데 이자가 없으랴. 기어이 다 찾아야 헌다고 그런개 어기어이 반대하고 삼천 냥만 가지고 나왔대<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남원, 진안, 부안.

염셍이 명 [대응어] 염소.
☞염생이.
지역 전북.

염장 명 [대응어] 꾸미.
국이나 찌개에 넣는 고기붙이. ¶{염장}을 넣다
지역 임실.

엿 멕이다 【관용표현】 [대응어] 엿 먹이다.
(속된 표현으로) 슬쩍 골려 주거나 속이다. ¶어영구영 험서 기언시 {엿 맥이는구만} 이~ 드럽게 으멍허당게요.
지역 고창.

엿드다 동 [대응어] 엿듣다.
남의 말을 몰래 가만히 듣다. ¶그 저녁으 {엿드는} 사람이 있더랑게. 긍게 조심혀. 항상. ¶뒤에 벌새 율곡 선생님은 오성 한음이 말캉 밑이서 {엿든} 종을 알어. 거 불러갖고 단단히 꾸짖어. ¶마음 같아서는 마루에 지키고 앉아 회의내용을 {엿드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지역 고창, 군산, 남원, 완주, 임실.

엿말 명 [대응어] 옛말.
옛날부터 전해 오는 말. 또는 지금은 있지 않은, 지나간 일에 대한 말. 또는 지금은 쓰이지 않는 옛날 말. ¶{엿말이} 하나도 그른 게 없다. ¶아들이 좋다는 건 다 {엿말이다}. ¶{엿말을} 찾아 사전을 뒤적이다.
지역 전북.

엿어보다 동 [대응어] 엿보다(기회를).
무엇을 이루고자 온 마음을 쏟아서 눈여겨보다. ¶친구들헌티 결혼헌다고 청첩장을 돌릴라고 혔는디 그 때 한 놈이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이거를 언제 줘야 괜찮나 기회만 {엿어보다가} 해 다 졌지 뭐.
지역 무주.

엿장시 명 [대응어] 엿장수.
엿을 파는 사람. ¶{엿장시} 맘대로 가새 치는 대로 지름병도 받고, 보루바꾸 상지도 받고요. ¶그렁게, {엿장시} 가새 맘대로 시 번 치등가, 니 번 치등가.

지역 고창.

엿지름 명 [대응어] 엿기름.
보리에 물을 부어 싹이 트게 한 다음에 말린 것. 식혜나 엿을 만드는 데에 쓰인다. ¶식혜를 맨들라먼 첼로 먼저 헐 것이 뭐냐먼 {엿지름얼} 뿔리야혀.
지역 고창, 군산, 김제, 부안, 완주, 익산, 임실, 정읍, 진안.

엿질굼 명 [대응어] 엿기름.
☞엿질금.
지역 무주, 순창, 장수.

엿질금 명 [대응어] 엿기름.
보리에 물을 부어 싹이 트게 한 다음에 말린 것. 식혜나 엿을 만드는 데에 쓰인다. ¶엣날이는 {엿질금으루} 감주두 맨들구 그랬지
지역 남원, 무주, 임실, 순창, 장수.

영감때기 명 [대응어] 영감태기.
☞영감태기.
지역 정읍.

영감쟁이 (令監쟁이) 명 [대응어] 영감쟁이.
나이 든 남편이나 늙은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 ¶수십 명의 아이들이 어우러져 돌아가는 춤판에 {영감쟁이} 하나가 낀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어색하기도 하고, 모처럼의 북가락이 그런 모양으로밖에는 선보일 수 없다는 데 대한, 엷은 적막감도 씻어 내기 힘들었다.<최일남, 흐르는 북> ¶결국 그는 당시 형편으로는 거금에 해당하는 20만 원을 변통해서 복덕방 {영감쟁이를} 통하여 철거민의 입주권리를 손에 넣었다.<윤흥길,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왜 이려? 이 여펜네가 넋빠진 {영감쟁이} 부뤄허다가 덩달어서 실성을 혔나, 갑째기 웬 행패여?"<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렇게 약속을 허고는 세어(헤어)졌단 말이여. 그래 인제 그 이튿날 아침밥을 먹고 나닝게 그 논 임자가 왔드란 거여, {영감쟁이가}. 담배 피면서 양양(이약이약, 여러 이야기) 허면서, "어 혼자 어떻게 살아?" 뭐 별별 소리 다 나올 거 아닌개비?<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남원.

영감태기 (令監태기) 명 [대응어] 영감태기.
나이 든 남편이나 늙은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 ¶문득 외할머니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에에끼, 수악헌 {영감태기} 같으니라구! 딸자식과 무신 웬수 척졌다고 인자는 외손지 하나 꼴도 못 보는겨?<이병천, 모래내 모래톱> ¶"오매, 오매, 저녀르 {영감태기가} 으쩌자고 뽀작뽀작 요짝으로 근너온다냐?"<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너같은 엉큼한 {영감태기가} 말이여, 돌려놓고 내게 시비를 헌다. 욕심내서 돌려놓고 나를 혼을 낼라고 헌디 그것을 믿을 어리석은 놈이 세상에 어디가 있냐?"<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옆집 {영감태기가} 나를 꼬드기려고 자꾸 추근대는구만. ¶저 {영감태기가} 우리만 보면 혼낸단 말이야.
지역 부안, 김제, 순창, 군산.

영그다 동 [대응어] 얹다.
위에 올려놓다. ¶손발 씻고 들어간게/비상 타서 {영거놓고}/간장 타서 덮어놓고/ 한 모금을 마서보니/머리야 간고로다<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완주 시집살이노래-"강남 땅땅 강냅이는")
지역 완주.

영글다 동 [대응어] 영글다.
단단하게 잘 익다. ¶그럼시로도 여태 암말도 허덜 안허고 꾹 참어온 것 좀 봐. 참말 {영글은}

여편네여!<조봉래, 풀벨골> ¶나두 허느니 말이네!…… 하누님두 원, 무슨 심청이람 말이여. 서리두 서리지만, 우선 늦베가 {영글이} 들 수가 있어야지! 그러잖이두 그놈의 수햇지 급살인지 때민에 도지(賭租)를 감히여 달라고 생지랄덜을 허넌디!<채만식, 태평천하> ¶잘 {영글어서} 낫을 댈 때까장 요번 농사를 아무한티도 발설허지 않을라고 나가 꽉 참고 지내니라 혼났는디……<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바:먼 인재 밤나무서 이 가을 도라오먼 인자 파럴딸 도라오먼 {영글머는} 그뇌미 이러케 짝: 바미 버러지먼 거그서 알빠미 빠지죠.(밤은 이제 밤나무에서 이 가을 돌아오면 이제 팔월 달 돌아오면 영글면 그 놈이 이렇게 짝 벌어지면 거기서 알밤이 빠지죠.)<전북지역어, 임실군>

지역 전북.

영금보다 동

어떠한 일로 좋지 않은 일을 당하다. ¶쌔깐허다고 무시허고 땅깔로 봤다간 {영금봐} 불고 겁나게 우세 살 것이요. ¶겁나게도 {영금바} 부렀는디 인자는 그 꼴목엔 얼씬 뽀작도 안해라우.

지역 고창.

영꿀 명 [대응어] 넝쿨.

길게 뻗어 나가면서 다른 물건을 감기도 하고 땅바닥에 퍼지기도 하는 식물의 줄기. ¶저그 건물에 식물 {영꿀이} 타고 올라가서 묘헌 매력이 있는 건물이 되었구만.

지역 전북.

영끄다 동 [대응어] 엮다.

노끈이나 새끼 따위의 여러 가닥을 얽거나 이리저리 어긋매어 어떤 물건을 만들다. ¶영꺼서, 영끄고

지역 전북.

영체살다 동 [대응어] 얹혀살다.

남에게 의지하여 붙어살다. ¶요즘으는 취업이 안된게로 나이가 다 차드락까지 부모헌티 {영체사는} 사램들이 많대여. 그런 사램들 보고 캥거루족이라고 헌다든가 그러던디. 신문으서.

지역 전북.

영쳐살다 동 [대응어] 얹혀살다.

☞영체살다.

지역 전북.

영판 부 [대응어] 아주.

보통 정도보다 훨씬 더 넘어선 상태로. ¶긍게, 지비는 차말로 {영판} 오지겄서 이~. ¶글고, 늦은 더우 먹었능가 근력 없어 갖고 몸땡이만 축쳐지는 거시 {영판} 죽겄어라우~. ¶니가 {영판} 진지리 꼬꼽쟁이 짓 헝게 칭구가 있겄냐? ¶아따, {영판} 죽것네 이~. ¶동서가 {영판} 잘해 중게". ¶열린 주댕이가 있어도 나는 벙어리 되아야 쓰겄소~ 고것이 {영판}, 남사시렁게요~.

지역 고창.

엮다 동 [대응어] 엮다.

노끈이나 새끼 따위의 여러 가닥을 얽거나 이리저리 어긋매어 어떤 물건을 만들다. ¶시안이믄 춥다고 지푸락으로 마람을 {엮어서} 지봉도 이고 단장도 둘르고 흐든 시절.

지역 고창.

옆굴창 명 [대응어] 옆구리.

가슴과 등 사이의 갈빗대가 있는 부분. ¶그런개로 내가 그놈우 시끼 {옆굴창얼} 기양 발로 걸어차삐렀지.

지역 전북.

옆굴탱이 명 [대응어] 옆구리.

가슴과 등 사이의 갈빗대가 있는 부분. ¶쌈헐 때

는 옆굴탱이 조심해야 혀. {옆굴탱이} 한 번 잘 못 맞으면 죽을 수 있어.<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전북.

옆네산보래기 명 [대응어] 사팔뜨기.

사팔눈을 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옆네산보래기처럼} 불안하다

지역 전북.

옆댕이 명 [대응어] 옆.

어떤 것의 왼쪽이나 오른쪽. ¶어떻게도 질겁을 해 놀랐는지, 얼른 비킨다는 게 하마터면 좁은 길 {옆댕이} 시궁창에다가 발을 빠질 뻔했으나, 마침 담벼락을 짚고서 겨우 몸을 가누었다.<채만식, 金의 情熱> ¶차 {옆댕이의} '미군전용차' 다섯 자는 누구의 서투른 분필 글씬지. 사람들은 그래도 행여 하는 생각에 이리 닫고 저리 닫고 앞뒤로 끼웃거리면서 그 옆을 분주히 맴돌이하기를 마지않는다.<채만식, 역로> ¶나가 시집올 적만 허도 자는 {옆댕이에다} 책보를 끼고 소학교 다녔다.<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옆불텡이 명 [대응어] 옆구리.

가슴과 등 사이의 갈빗대가 있는 부분. ¶{옆불텡이가} 쑤시다.

지역 전북.

옆사댕이 명 [대응어] 옆구리.

가슴과 등 사이의 갈빗대가 있는 부분. ¶{옆사댕이가} 쑤시다.

지역 전북.

옆죽거리 명 [대응어] 사팔뜨기.

사팔눈을 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옆죽거리처럼} 불안하다

지역 전북.

옆텡이 명 [대응어] 옆구리.

가슴과 등 사이의 갈빗대가 있는 부분. ¶이놈의 영강탱이가 죽었는가 살었는가 인제 걱정이 되니께로 {옆텡이럴} 발끝으로 슬슬 밀어보는 것이여.

지역 전북.

옇다 동 [대응어] 넣다.

한정된 공간 속으로 들게 하다. 또는 다른 것에 섞거나 타다. ¶이것은 짚신 앞굽이에 서너개 {옇고} 뒷고비에 서너 개 옇고, 절어서(신 삼아서) 탈메신(큰 짚신)으로서 신을 삼는 거여.<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유기장사 총객이 유기를 갖고 와서 저그 집이서 자는디, 죽여가지고 마판속으다 {옇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대포굴에는 구녁이 수가 많거등이라우, 구녁이 크고 그래. 요 접불 구녁에 장작얼 {옇고는} 머 흙으로 막아야 헐 것 아니요?<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7> ¶쌀이 콩도 {옇고}, 보리도 {여면} 밥이 꼬수워서 맛나지.

지역 전북.

예우다 동 [대응어] 여의다.

딸을 시집보내다. ¶그 예울라고 하다가 즈그 어매가 죽어서 못 {예우고}, 복(服) 벗고 예울라고 큰애기로 있단 말이여.<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혼삿말이 많이 들오는 판에 즈그 어머이가 죽어서 못 {예우고}, 인자 복(服) 벗으면 시집을 보내야지, 마음먹고 있는 딸이제.<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예펜네 명 [대응어] 여편네.

결혼한 여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 ¶아무 상관도 없는 넘의 {예펜네} 관상은 어느 저를에 고러코

롬 조목조목 뜯어서 봐뒀디야?<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니가 아는 바와 같이 저놈의 {예펜네가} 어 참 안예쁘냐?<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전북.

옌기 명 [대응어] 연기.

무엇이 불에 탈 때에 생겨나는 흐릿한 기체나 기운.

지역 임실.

옘병 명 [대응어] 염병.

'장티푸스'를 속되게 이르는 말. ¶그런데 이리 가는 길에 그 사춘동생 만나서 황등 집이 갔더니 시어머니가 {옘병을} 앓어. 거기서 이틀 밤인가 자구 나왔지.<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18> ¶아이가 {옘병을} 앓고 나더니 입맛을 잃어서 미음을 끓여 먹였어. ¶수악헌 짓만 허고 댕기다 잽혀갔다니 그 {옘병}헐 놈들, 인자 속이 다 시언허네. ¶그놈을 줘도, 주어도 먹고서는 또 막 안 히온다고 지랄허드리야. 그 옘병} 지랄허드리야. 그놈으 늙은이가.<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임종술이 아니라 김부월이가 바로 {옘병이요}.<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옛날얘기 명 [대응어] 옛날이야기.

☞옛날얘기. ¶예전에 시골에서 빌어를 먹다가, 빌어 먹어. 얻어 먹는다는 소리가 빌어먹는디, 그것이 {옛날 얘기여} 인자. 시방(지금) 신식하고 달브지(다르지).<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남원, 무주, 순창, 군산, 익산, 임실, 부안.

옛날이애기 명 [대응어] 옛날이야기.

☞옛날이얘기.

지역 진안.

옛날이얘기 명 [대응어] 옛날이야기.

☞옛날이얘기.

지역 김제.

옛얘기 명 [대응어] 옛날이야기.

옛날에 있었던 일. ¶"아냐, 두고 봐. 그때가 좋았다고 {옛얘기하면서} 살 날이 있을 테니까." "언제. 백 년 후에?" "어, 이게 사람을 막 무시하네. 너까지 날 무시하면 어떡하니, 엉?"<최일남, 타령> ¶어쩌다 내 암자 곁을 지나는 초부라도 하나 있다면, 그를 붙들어 토방에 앉혀 놓고, 내 헤맨 것 그냥 {옛얘기삼아} 들려 주고, 그러다저러다 눈감고 싶은 것이지.<박상륭, 죽음의 한 연구>

지역 완주, 정읍.

오갈들다 동

식물이 병들거나 말라 쪼글쪼글해지다. ¶콩밭이 {오갈이 들어} 콩수확은 걸렀다. 두려움에 기운을 펴지 못하다. ¶긍게 임마 영감님네께서 저리 오뉴월 땡볕에 보타진, 긍게 {오갈든} 논바닥맹이, 안 그시냐!<조봉래, 풀벨골> ¶하려던 말도 칵 막혀버리고 제호는 어름어름한다. 남의 웬만한 노염이나 흥분 같은 것은 짐짓 모른 체하고 제 할 노릇만 버어뗑하면서 해치우는 제호지만 이대도록 칼날이 선 이 자리의 초봉이 앞에서는 그러한 떡심도 별수 없고 {오갈이 들려고} 하던 것이다.<채만식, 탁류> ¶또 답지 않게 여자를 대하여 부끄러움을 탈 숫보기거나, 그래서 {오갈이 들거나} 해서 그런 것도 아니다.<채만식, 탁류> ¶박교원은(제 발이 저리더라고) 부교장이 저의 요새날 그렇듯이 열과 성의가 없는 직무태만의 실정을 알고서, 그러므로 보다 더 톡톡히 경고를 주려는 것인 줄 지레 겁을 집어먹고는 잔뜩 {오갈이 들어}, 연해 어물거리기만 한다. <채만식, 金의 情熱> ¶남이 볼까 싶은 대낮에 아무리 간을 내먹이게 잘해도, 저 어린것 속에

{오갈주눅 깊이 들} 일을 밤마다 쥐도 새도 모르게 하고 있었다면, 어디다 말도 못허고 저 혼자 병이 들었을 터인즉,<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오갈솟[1] 명 [대응어] 뚝배기.
찌개 따위를 끓이거나 설렁탕 따위를 담을 때 쓰는 오지그릇. ¶된장찌개는 {오갈솟에다가} 바글바글 끓여야 맛있어.
지역 전북.

오갈솟[2] 명 [대응어] 오가리솥.
'오가리솥'의 준말. 항아리 색처럼 갈색이며 바닥이 흙으로 된 작고 오목한 솥. 주로 국을 끓여 먹었으나 다용도로 쓰기도 한다. ¶그 전이는 꺼멍솥 국 끓이는 솥도 째깐헌 오갈솥 있어. 째깐허니 이롷게 오붓허니 혀. 주댕이가 짝어. 밑이는 넓고[넙꼬] 넓고도 주댕이가 째깐헌 것이 있어. 밥도 히먹고 별것 다 히먹어. ¶오갈솥은, 오가리 같은 솥이 있었어. 거시기 오가리 같은 거 그롷게 생겨가꼬 그릇이 저 항아리 그릇 같은 그런 그릇이로 솥단지가 있었어. 옛날에. 오갈솥. ¶오갈솥. 몰라 오갈솥인가[오갈소신가]. 인자 국도 끓여먹고 밥도 히먹고 그려. 그러고 인자 그 솥단지는 국 끓이싸먼은 거시기 나오잖아. 그 쇠 냄새 나고 안 좋아. 근게 국솥단지다고 그것을 사. 처 오갈 색 같어. ¶오갈솥은 오가리 같이 생긴 것이 아니라 거 바닥이 항아리 같은 그릇이 단게. 근게 깨져, 잘못허먼은.
지역 고창.

오강 명 [대응어] 요강.
방에서 오줌을 누는 데 사용하던 그릇. 주로 사기나 놋쇠 등으로 만들었다. ¶그 뭔 수가 있냐먼은 박정승 딸이 일곱살 때 일곱살 먹은 머심애를 하나 데리다가 거그서 몸종을 살어. 박정승 딸의 심부름꾼이 돼서 방안에 {오강도} 비고 방도 닦고 이런 심부름꾼 종놈을 두었는디, 서로 인자 차차 장성해갖고는 서로 음양을 알어갖고는 서로 응혀 연애가 됐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누가 있냐면 황정승아들이 일찍 죽어버리고 황정승 며느리가 과부여. 근디 윤도령이 거기 들어오면서 부터 황정승 며느리가 있으니께 일을 열심히 했다. 나중에는 사랑하면서 거시기하고, 문의 문답하고, 글짓고, 공부하고, 담배 심부름하고, {오강} 심부름 하는디, 틈을 탈내야 탈 수가 있어야지? 황정승 며느리가. 삼년이 지났어. 그렇게 해서 하루밤 황정승 꿈에 뭐라고 하는고 하니, 황 정승 아들, 죽은 아들이 왔어.<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순이야, 할머니 방에 있는 {오강을} 가져다 변소에 비워 깨끗이 씻어 오렴. ¶{오강단지의} 오줌 좀 비우고 오너라.
지역 전북.

오강단지 명 [발음] [오강딴지] [대응어] 요강.
방에서 오줌을 누는 데 사용하던 그릇. 주로 사기나 놋쇠 등으로 만들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할머니 {오강단지도} 비고 방도 한번씩 훔치고 그랬지.
지역 전북.

오게오게허다 동
솥에서 밥을 풀 때 밥이 가운데로 모이도록 주걱으로 살살 안으로 밀치다. ¶보리밥을 두벌 때고, 또 주걱으로 {오게오게허고} 또 푹 때.
지역 전북.

오괭 (五光) 명 [대응어] 오광(五光).
화투에서, 다섯 개의 광(光)을 모으면 되는 약. 솔, 벚꽃, 공산, 오동, 비의 스무 끗을 모두 모으는 것을 이른다. ¶광이 {오괭에}, 고도리, 구사, 청단에 홍단, 광박에 피박까정 하믄 십언짜리 백언짜리를 처두 한두푼이 아닝게 솔찬히 벌지.

지역 김제, 남원, 무주, 순창, 군산, 완주, 임실, 장수, 정읍, 진안.

오구 (傲氣) 명 [대응어] 오기.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마음. 또는 잘난 체하며 방자한 기운. ¶등걸짝 흐르는 땀땜시 뻴건 몽니 {오구} 냄서 드럽게 몽그라 대어도. ¶놀부 타긴 {오구} 겁난 놈은 갈켜준 일은 안 허고 허깐 디서 지랄허고 자빠져 있네이. ¶부아낭게 {오구나} 부릴라요. ¶아이고, 저 {오구} 많은 놀부 가튼 놈, 저 디져도 깍 안고 있을 놈이여라우. ¶그리도 여느 때 딴놈보단 {오구} 속 까시럼 들해 보여 고것이 이뻠으로 번져 버링게 한 번쯤 보듬아 주고도 싶다.

지역 고창.

오구감탕시럽다 형 [대응어] 만족스럽다.

매우 만족할 만한 데가 있다. ¶하는 일마다 {오구감탕시럽다}

지역 전북.

오구라지다 동 [대응어] 오그라지다.

물체가 안쪽으로 오목하게 휘어지다. 또는 물체의 거죽이 오글쪼글하게 주름이 잡히며 줄어지다. 또는 몸이 움츠러져 작게 되다. ¶주전자를 어찌나 던졌는가 다 {오구라졌네}. ¶{오구라진} 낙엽들을 보면 쓸쓸허고, 괜시리 눈물이 나고 그려. ¶그러나 아직도 많이 참는 눈치였다. "내가 만날 사람이 이 밤중에 누가 또 있겄냐." "증말?" "아아니, 이 {오구라질} 연석이!" 눈앞에 갑자기 캄캄해졌다.<윤흥길, 양> ¶죄 지은 사람들은 경찰 아저씨 앞에서는 왠지 {오구라진다}.

지역 전북.

오긋하다 형 [발음] [오구다다/오구타다] [대응어] 오긋하다.

안으로 조금 오그라진 느낌이 있다. ¶눈이 {오긋한} 매눈에 눈자가 몹시 표독스러워 보이는, 그 사람이 그러면<채만식, 탁류>

지역 전북.

오그당당하다 형 [대응어] 오긋하다.

☞오그당하다.

지역 전북.

오그당하다 형 [대응어] 오긋하다.

안으로 조금 오그라진 느낌이 있다. ¶두 손을 주먹 쥐는 시늉으로 오므리더니 검지손가락만을 {오그당히} 세워,<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오그당히 부 [대응어] 오긋이.

안으로 조금 오그라지게. ¶공배는 손에 들고 있던 무 조각을 입에 넣어 버리고, 두 손을 주먹 쥐는 시늉으로 오므리더니 검지손가락만을 {오그당히} 세워, 흰 터럭이 부숭숭한 머리빡 양쪽에 갖다 대니. 그가 등지고 앉은 허름한 바람벽에 영락없이 뿔 달린 형상으로 금방이라도 걸어 나올 것 같은 황소의 그림자가 커다랗게 드리워졌다. 그림자는 옷고름이 거꾸로 늘어진 저고리와 무명치마, 그리고 구깃구깃한 핫바지들이 섞여 걸린 대나무<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오그댕댕하다 형 [대응어] 오긋하다.

☞오그당하다.

지역 전북.

오그레다 동 [대응어] 오그리다.

물체를 안쪽으로 오목하게 휘어지게 하다. 또는 물체의 거죽을 오글쪼글하게 주름이 잡히며 줄어지게 하다. 또는 몸을 움츠려 작게 하다. ¶놈이, 나뭇꾼 세 놈이 가서 한놈이 턱 낚싯대를 추켜 들고 본게 곧은 낚시여. "이놈으 영감이 미쳤고

ㅇ

만! 아 이놈을 탁 {오그래가지고} 여 인우를 멕이갖고 여그다가 밑밥을 줘서 이렇게 히야 괴기가 건들믄, 탁 채믄 괴기를 잡는 것이지. 이놈으 영감 뭣을 헌대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뭐가 그리 불만인지 왼 얼굴을 {오그레면서} 인상을 쓰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르겄당게. ¶잔뜩 몸을 {오그렜다가} 활짝 피면 그렇게 개운탄게.

지역 전북.

오그작오그작 뿌 [대응어] 바짝바짝.

식물 따위가 좁은 공간에서 배게 심어져 있는 모양. ¶담배는 산비탈에 조금씩 {오그작오그작} 심어서 재배한다.<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전북.

오꼼하다 형 [대응어] 오뚝하다.

작은 물건이 도드라지게 높이 솟아 있다. ¶실험을 마치고 응접실로 돌아오니 김서방의 얼굴이 벌개가지고 {오꼼하니} 앉아 있었다.<채만식, 염마>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오꼼하다'는 표준어 '오뚝하다'에 대응하는 어휘이다. 부사 '오꼼'이 쓰이고 있는데 이는 "물건이나 신체의 부위가 오뚝 일어서는 모양"을 가리키는 어휘이다. 따라서 부사 '오꼼'에 형용사 파생 접미사 '-하-'가 결합한 것이다.

오끔하다 형 [대응어] 오긋하다.

안으로 조금 오그라진 듯하다. ¶다른 아이들처럼 골을 붉히고 있던 길례가 이내 눈을 {오끔하게} 뜨고 성삼이를 노려 봤다.<송기숙, 녹두장군>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오끔하다'는 표준어 '오긋하다', '옴팡하다'에 대응하는 어휘이다. 대체로 '눈을 오끔하게 뜨다'의 표현으로 사용한다.

오날 명 [대응어] 오늘.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날. ¶{오날은} 가다 여기서 놀고/{오날은} 가다 여기서 놀고/내일 날은 어디서 놀께/허 허 나허허허야/어야 뒤여 산이로고나<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남원 장원질소리-남원군 대강면 평촌리 평촌)> ¶{오날은} 칠산인데/어 낭 청 가 래 야/내일은 연평이로세/어 낭 청 가 래 야<부안 고기 퍼담는 소리-가래질소리/자진 가래질소리?

지역 남원, 부안.

오날날 명 [대응어] 오늘날.

지금의 시대. ¶그래, 바로 저 물건이 내 부친님이시다. {오날날} 내 신세를 요모양 요꼴로 조져 놓은 어른이시다. 너는 팔자가 좋아서 아버지를 잘 만나 높은 학교 나오고 가벼운 펜대 굴리지만 나는 팔자를<윤흥길, 무제> ¶"당신이 으떤 사람인가 알면 뭣헐 것이며 또 모르면 으쨜 것이요. 그런 것 몰르고도 {오날날까장} 뱃병 없이 잘만 살어왔소." "버리지 말고 그냥 넣어두십시오. 가지고 계시면 앞으로 그걸 사용하시게 될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오널낼 명 [대응어] 오늘 내일.

'오늘 내일'이 줄어든 말. ¶그 성님도 을마 못 사실 것 같네. {오널낼} 허고 계신가벼.<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오대기 명 [대응어] 요때기.

☞요대기.

지역 전북.

오도막 명 [대응어] 오두막.

사람이 겨우 들어가 살 정도로 작게 지은 막. 또는 작고 초라한 집. ¶그 인자 적어매 인자 그 가는 질목으다가 옛날은 부모가 죽으믄 삼년 시묘를 살었다거든. 묘 곁이다 {오도막을} 쳐 놓고 그러믄 못허나마 움막을 가는 질쪽으다 쳐놓고서는 거그서 인자 신을 삼어서는 팔어서 생명유지를 혀.<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아, 인자 저녁때 석양이 되았는디, 그 근방을 살살 댕기믄서 본게스니 참 저 안이 가서 산꼴짝으 가설랑 {오도막} 초가집 하나가 있는디, 찾은게스니 노파가 나와, "아, 어서(어디서) 오든 손님요?" 물어.<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군산, 남원.

오도막집 명 [대응어] 오두막집.

사람이 겨우 거처할 정도로 작고 초라한 집. ¶아 이놈이 산중놈이라 겅실겅실 잘 올라가거든. 게 강 이 처녀는 규중에 살던 처녀라 아조 따러갈라믄 기가 맥히게 오색헌디 따러갔어. 따라갔는디 산중에 {오도막집} 샛띠기로다 지붕을 허고, 이렇게 참 단간집에다가서 사는디 그 숯장사 노모가 있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거그서 부안읍내를 가자먼 좀체로 밤중으 걷게 되고, 오도막집 하나가 있어. 나룻가에. {오도막집이} 하나가 있는디, 거그서 배끼는 하릿저녁 자고 갈 배끼는 없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정읍.

오도방정 명 [대응어] 오두방정.

몹시 방정맞은 행동. ¶즘잔허게 참고 기달려야지 {오도방정}을 떨면 되던 일도 안되는거여. ¶{오도방정} 고만 떨고 얌전히 좀 있거라. ¶{오도방정} 떨지말고, 나대지 말고 카만이 자빠져 있으랑게.

지역 전북.

오돌 명 [대응어] 옴.

옴진드기가 기생하여 일으키는 전염 피부병. 몹시 가렵고 짓무른다. ¶{오돌이} 생겨 긁다.

지역 전북.

오두개미 부 [대응어] 우두커니.

넋이 나간 듯이 가만히 한자리에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모양. ¶오두개미 앉어 있으면 아퍼. 활동을 히야지.

지역 전북.

오두막살이 명 [대응어] 오막살이.

오두막처럼 작고 초라한 집. 또는 그런 집에서 사는 사람이나 살아가는 일. ¶그놈이 쓴 디는 어찌 살림이 자꾸 일어나 더. 그래 인자 한 10년 있다가 영갬이, "이제 그놈의 집구석 퐉 망해 갖고는 {오두막살이} 집 밖에 안 갈 거다" 허고 가서 본게 아, 3형제가 집을 거들먹허고 사는디 대궐모냥 져놓고 살거든,<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박문수 박어사가 인제 잠행을 댕겨. 잠행을 댕기는디 어느 동네, 한 동네를 간게 기양 {오두막살이} 뻔한 집이서 중은 춤을 추고, 여중인디. 영감은 뭔 상을 하나 간단히 놓고 앉겄고 근게 이상헌게 그걸 물어봤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완주, 임실, 남원, 무주, 정읍.

오둥어 명 [대응어] 오징어.

☞오징에.

지역 전북.

오드개 명 [대응어] 오디.

뽕나무의 열매. ¶{오드개를} 따서 술을 담다.

지역 부안, 임실, 장수, 고창, 김제, 남원, 무주, 순창, 정읍, 진안, 완주.

오드막집 명 [대응어] 오두막집.
☞오도막집.
지역 전북.

오라바니 명 [대응어] 오라버니.
여자가 손위의 남자 형제, 또는 남남의 손위의 남자를 가리키거나 부르는 말. ¶{오라바니라고} 그러지<완주_지역어_텍스트> ¶"나 배고파 죽겄은게 밥을 쪼깨 히도라." "히히 {오라바니} 도망헐라고?" 그드라오. 그서는, "내 상투 끝에다 노끈내끼 쨈매 줄 것이니 그 놈 끗고 댕기면서 밥을 히라."<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완주, 군산, 정읍, 익산.

오라바이 명 [대응어] 오라버니.
☞오라바니. ¶그저 그 여자가 뭐란고니는, "우는 시늉허면서 따라 오다가 우리 {오라바이들이} 호령을 허거던 못이긴띠끼 방으로 들어와서 뒷문, 뒤문을 차고 단장 후원 단장문을 열고 빨리 나가서 육지 가서 살으라고." 그 부탁을 했어. <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정읍.

오라부덕 명 [대응어] 올케.
오빠의 아내를 일컫는 말. ¶아 그게 복뎅이란께 가져 갔는디 이 친정 그새 거라시가 되버렸어. 거라시가 되버려갖고는 한 번 있은게로 저그 {오라부덕허고} 오빠허고 동냥을 허러 왔는디 시꺼먼 거지 되갖고 왔드래라우.<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첫번에는 인제 집이 오매가 먼저 오실 것이요. 두 번에는 집이 아버지가 오시고, 세 번째는 집이 {오라부덕이} 오고 니번째는 오빠가 오먼은 좇아 내먼은 내 주렁막대기 졸졸 끄신 대로만 오라." 고 허드라오. <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정읍.

오락실 명 [대응어] 오라기.
헝겊의 씨실, 날실을 가리키는 말. ¶오락실 시어서 수를 놓아. 하나, 둘, 싯 이렇게.
지역 전북.

오랍씨 명 [대응어] 오라비.
여자의 남자 형제를 두루 이르는 말. ¶제비 제비 초록 제비/나부 나부 푸등나부야/능금 한 쌍 물어다가/처매 끝에 집을 지어/그 집 짓던 삼 년만에/울어마니 피양감사/{울오랍씨} 전라댁이/우리 둘이 남았는데/나 세상 어쩌란가/나 죽걸랑/저 건네 연방죽 안에/넣어나 주소(임실 신세타령-"제비 제비 초록 제비")<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임실.

오래비 명 [대응어] 오라비.
여자가 손위의 남자 형제, 또는 남남의 손위의 남자를 가리키거나 부르는 말. ¶양반이라고 부럴 거 한나도 없다아. 집안으 누이동상 못 잊어서 상사벵으로 죽어간 놈 원한 풀어 주는 날 밤으, 큰집 작은집 {오래비} 누이가 또 붙어 먹었으니, 그거이 무신 양반이냐? 아이고 꼴 사납다. 빛 좋은 개살구지 머. 껍데기만 번지르르.<최명희, 혼불>
지역 정읍, 완주.

오랭이 명 [대응어] 호랑이. ¶{오랭이가} 콱 잡아묵을 놈들!
지역 전북.

오루오루 부 [대응어] 오래오래.
돼지를 부르는 소리를 흉내내는 말. ¶돼지를 {오루오루} 하고 부른다
지역 순창.

오룬손 명 [대응어] 오른손.

☞오른손.

지역 남원, 무주,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진안.

오룬쪽 명 [대응어] 오른쪽.

북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쪽에 위치하는 쪽. ¶문을 딱 열고 들어가먼은 {오룬쪽이가} 빨간 다라이가 있고,

지역 전북.

오르래오르래 부 [대응어] 오래오래.

돼지를 부르는 소리를 흉내내는 말. ¶돼지를 {오르래오르래} 하고 부른다

지역 군산.

오른폴 명 [대응어] 오른팔.

오른쪽의 팔. 또는 어떤 사람을 돕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하여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오른폴을} 다치다. ¶갸가 내 {오른폴이나} 다름없지.

지역 전북.

오린손 명 [대응어] 오른손.

오른쪽에 있는 손.

지역 고창, 김제, 남원, 순창, 정읍.

오린짝 명 [대응어] 오른짝.

두 편으로 갈랐을 때에, 오른쪽을 이르는 말. ¶밥 먹을 때는 {오린짝을} 쓰지. ¶{오린짝제비는} 수저나 젓가락을 잡을 때오린짝으로 잡아야 야무지게 잡을 수 있어요.

지역 고창.

오린쪽 명 [대응어] 오른쪽.

☞오룬쪽.

지역 고창, 순창, 정읍.

오마집 명 [대응어] 오두막집.

사람이 겨우 거처할 정도로 작고 초라한 집. ¶산속에 {오마집을} 지어 살다.

지역 전북.

오막살이집 명 [대응어] 오두막집.

사람이 겨우 거처할 정도로 작고 초라한 집. ¶근게 그 거렁뱅이가 드나드는 {오막살이집이} 있당게.

지역 고창.

오막집 명 [대응어] 오두막집.

사람이 겨우 거처할 정도로 작고 초라한 집. ¶인제 그 선비가 돈이 없응게 쪼마난 {오막집], 하나 져놓구 거기서 인제 먹구 자구 하는 거여.

지역 고창.

오매 명 [대응어] 엄마.

☞오메[1]. ¶우리 메누리부텀도 니열 즈그 친정, 직장니가 친정인디, 시방 이:리가 저그 지비인디 친정이 {오매가} 업써.(우리 며느리부터도 내일 자기 친정, 직장리가 친정인데, 지금 이리가 자기 집인데, 친정이 어머니가 없어.)<2009 전북 임실>

지역 군산, 임실, 정읍.

오메[1] 명 [대응어] 엄마.

'어머니'를 정답게 이르거나 부르는 말. 또는 자녀 이름 뒤에 붙여, 아이가 딸린 여자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오메}, 저랑 함께 가주세요. ¶"우리 {오메} 노릇을 허먼은 내가 참 일생을 편안히 모시겄은게 우리 어머니 노릇을 헙시다. 헙시다."<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순이 {오메}는 바느질을 잘해서 집집마다 서로 먼저 옷을 맞추려고 야단이래. ¶"야, 야. 아태조 저 사람을 이 동네서 떠보내지 말고 그 웃돌네

{오메} 허고 중신허서 의적장개를 보내자." 그서 그 여자여고(하고) 살게 됐어요.<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우리 {오메}들 삶이 어쨌는지 짐작이나 헐 수 있겄소. 그저 살 수 백이 없응게 살었을거이고 달리 무신 삐쭉헌 수가 없었지요.

지역 군산, 완주, 정읍.

오메[2] 감

뜻밖의 일에 깜짝 놀라며 하는 말. ¶지지리 몬나게 물러빠져 갖고 야물기는커녕, 허고헌 맨날 후드러쳐 맞고 댕깅게 속이 지랄 갓지라우~ {오메}, 호랭이도 지말 헝게 오네이. ¶{오메}, 허천났구만 그러다 등짝 터지고 배통아지 터지겄소. ¶{오메}, 우리 자석놈 능력도 존개비여? ¶{오메}, 꾸벅꾸벅 기도허고 앙거서 조는 것 좀 보게, 교회도 안 댕기는 거시.

지역 고창.

오모가리 명 [대응어] 뚝배기.

찌개 따위를 끓이거나 설렁탕 따위를 담을 때 쓰는 오지그릇. ¶찌개를 끓여서 {오모가리를} 상위에다 그냥 올려놓고 먹기도 허지.

지역 완주.

오목가슴 명 [대응어] 앙가슴, 명치.

두 젖 사이의 가운데. 또는 사람의 복장뼈 아래 한가운데의 오목하게 들어간 곳. ¶정주사는 밥을 보니 염체없는 배가 연신 꼬로록거리고, {오목가슴이} 잡아 훑듯이 쓰리다.<채만식, 탁류>

지역 전북.

해설 표준어 '명치'가 한자어인데 비하여 '오목가슴'은 순수한 우리말이다. "사람의 가슴뼈 아래 한가운데 오목하게 들어간 곳"이라고 해서 '오목'이란 말과 '가슴'이 합쳐진 합성어이다.

오목오목허다 형 [발음] [오모고모거다/오모고모커다] [대응어] 오목오목하다.

군데군데 동그스름하게 폭 패거나 들어가 있는 상태이다. ¶배차 오목오목헌 놈 뽑아서 씻어 놨단게.

지역 전북.

오물쎄다 동 [대응어] 오므리다.

물건의 가장자리 끝을 한곳으로 모으다. 또는 물체의 거죽을 안으로 오목하게 패어 들어가게 하다. ¶너 줄 담배 한 개피 싸서 딱 {오물쎄서}느 두었어. ¶입술을 단단히 {오물쎄고} 아무 말도 안 허니께 답답해 죽겄드라고.

지역 전북.

오미다 동 [대응어] 여미다.

벌어진 옷깃이나 장막 따위를 바로 합쳐 단정하게 하다. ¶저고리 섶을 {오미고} 옷 매무새를 가다듬었다. ¶멱살 사람의 멱 아래의 살 또는 목 아래에 {오민} 옷깃을 갔다 물어서 그냥 흔들어서 죽여놓고 본게스니 쥐네 그려.

지역 전북.

오발딱지 명 [대응어] 답답증.

가슴속이 갑갑하거나 안타깝거나 하여 죄어드는 듯한 느낌. ¶{오발딱지가} 나서 더 이상 들을 수 없다

지역 전북.

오부래기 부 [대응어] 고스란히.

☞오부룩이.

지역 전북.

오부루기 부 [대응어] 고스란히.

조금도 줄어들거나 변한 것 없이 원래의 상태 그대로. ¶엄중하고, 격식을 갖추어 사는 양반들은, 이렇게 남녀가 섞이어 상하?노소 {오부룩이} 앉아 허물없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정경을 무어

라 할 것인가.<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오불치다 동 [대응어] 오그라뜨리다.

물체를 안쪽으로 오목하게 휘어져 들어가게 하다. 또는 물체의 거죽을 오글쪼글하게 주름이 잡히며 줄어들게 하다. ¶그 큰 몸을 어떻게 저렇게 작게 {오불쳐서} 테니스 채 안으 다 들어갔다 나오냐 말이여? ¶뭐가 그리 열불이 났는지 갖고 있던 종이컵을 {오불치는} 것이여?

지역 전북.

오빠시 명 [대응어] 땅벌.

땅속에 집을 짓고 사는 벌. ¶열은게 그냥 {오빠시란} 놈이 진을 친 데에 확 풀어져 가지고서니, 전부 독을 질러가지고 쏘니 죽는 자가 태반이란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이것이 {오빠시여}. 이것이 {오빠신게} 만약에 이것을 열었다가는 큰일 난게(나니까), 여기다 불질러라."<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묘같은 가서 성묘할 때 {오빠시한테} 많이 쏘이지. 그거 쏘이면 큰일 나. 그래서 깡패들이 {오빠시} 떼처럼 많이 온다고 해.<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고창, 부안, 군산, 익산, 정읍, 완주.

오빠지 명 [대응어] 땅벌.

☞오빠시.

지역 완주.

오사게 부 [대응어] 굉장히, 지독하게.

느끼기에 정도가 매우 심하게. ¶그놈 며칠 굶었나, {오사게도} 퍼먹네. ¶{오사게} 말도 안듣네.<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전북.

오사고 부

어떤 것이 도를 넘거나 지나치게 많아 마음에 들지 않게. ¶{오사고} 암만 장마철이라고는 흐지만 지영때만되믄 찌럭찌럭 잡녀르 비가 왓쌋능가 모르긋다. ¶{오사고} 하래 점드락 찌럭찌럭 왓쌋능가 끄끕시랍고 끈적그리고 차말로 못살긌소.

지역 고창.

오사허게 부

어떤 것이 도를 넘거나 지나치게 많아 마음에 들지 않게. ¶{오사허게} 내리기 싫응 게비다. ¶거시깅가, 머시깅가 대크나 {오사허게} 크긴 크요 이~. ¶그리서 빙원에서 닝게루를 맞는디, {오사허게} 싸게 드러가서 그렁가 폴뚝이 끊어지게 아픈 거시 빽쩍지근 옹삭시러워서 죽을 뻔봣당게요~. ¶지비 시누는 {오사허게} 권대가리가 없도만이~ 여시알 보까 쳐먹은능가 드럽게 잘도 나섭디다 이~ 나서방같이~. ¶강게, 때까우가 {오사허게} 지서 대고, 노세가 눈깔질 험서 징그럽게도 방깁디다~

지역 고창.

오삼춘 명 [대응어] 외삼촌.

☞외삼춘.

지역 익산.

오삽 명 [대응어] 부삽.

아궁이나 화로의 재를 치거나, 숯불이나 불을 담아 옮기는 데 쓰는 조그마한 삽. 쇠붙이 따위로 네모가 지거나 둥글게 만들었는데, 바닥이 좀 우긋하고 자루가 달려 있다.

지역 임실.

오손적도손적 명 [대응어] 오순도순.

의좋게 지내거나 이야기하는 모양. ¶"시끄럽게 허서 미안시럽구만요. 인자부텀은 임써 성도님이랑 {오순적도순적으로} 금실 좋게 상의헐 모냥이니께 권사님은 안심 푹 놓으시기라우."<윤흥

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해설 표준어 '오순도순'은 전라방언에서는 '오손도손'으로 쓰인다. '오손적도손적으로'는 전북 방언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형태는 아니다. 작가가 개인적으로 쓰는 어휘이거나 만들어 낸 어휘일 가능성이 크다.

오순적도순적 명 [대응어] 오순도순.
☞오손적도손적. ¶"시끄럽게 혀서 미안시럽구만요. 인자부텀은 임씨 성도님이랑 {오순적도순적으로} 금실 좋게 상의헐 모냥이니깨 권사님은 안심 푹 놓으시기라우."<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오스라니 부 [대응어] 고스란히.
줄어들거나 변함이 없이 그대로 온전히. 또는 모두 다. ¶도둑놈이 왔는디, 집안 패물을 {오스라니} 다 가져갔네.<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심바람하고 돈 나머지기는 {오스라니} 다 가져 오니라.<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전북.

오슬하다 형 [대응어] 으슬으슬하다.
몸시 무섭거나 추워서 자꾸 몸이 움츠러들거나 소름이 끼치다. ¶사월 초파일 뻐꾹새 새로 울어 물든 청보리 깎인 水晶같이 마른 네 몸에 {오슬한} 비취의 그리메를 드리우더니 어느만큼 갔느냐, 굶주리어 간 아이.<서정주, 보릿고개>
지역 전북.
해설 표준어 '오슬오슬'은 '오슬오슬하다'로 쓰인다. '오슬'을 단독 부사로 쓰는 일은 없지만, 시인 서정주는 '오슬하다'를 형용사로 사용하고 있다.

오시락짝 명 [대응어] 오지랖.
웃옷이나 윗도리에 입는 겉옷의 앞자락. ¶{오시락짝을} 잘 여미다.
지역 전북.

오시래기 부 [대응어] 고스란히.
☞옴시레기.
지역 전북.

오약질 명 [대응어] 외욕질, 구역질.
속이 메스꺼워 자꾸 토하려고 하는 짓. ¶이빨 닦을 때는 꼭 저렇게 오약질을 허드랑게.
지역 전북.

오양간 명 [대응어] 외양간.
마소를 거두어 기르는 곳. ¶{오양간} 문단속을 단단히 혀 놓았는디도 그녀르 소가 어트케 끌르고 내뺐는지 모르겄네. ¶그런디 도둑놈은 {오양간} 옆에 가서 소 오양 있는디 가서 찡겨 앉구.<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전북.

오이김치 명 [대응어] 오이소박이.
물외의 허리를 서너 갈래로 갈라 속에 파, 마늘, 생강, 고춧가루 등을 섞은 소를 넣어 담근 김치. ¶입맛 없을 때도 {오이김치만} 있으믄 밥 한 그륵 뚝딱이지. ¶{오이김치는} 막 담았을 때가 더 맛있다.
지역 군산, 완주, 고창, 무주.

오이김치국 명 [대응어] 오이 김칫국.
오이를 넣어 만든 물김치의 국물. ¶입맛 없을 때도 {오이김치국만} 있으믄 밥 한 그륵 뚝딱이지.
지역 고창.

오이김치죽 명 [대응어] 오이 김칫국.
오이를 넣어 만든 물김치의 국물. ¶입맛 없을 때도 {오이김치죽만} 있으믄 밥 한 그륵 뚝딱이지.

지역 고창.

오이너물 명 [대응어] 오이지.

물외를 독이나 항아리에 담고, 끓여서 식힌 소금물을 부어서 익힌 반찬. ¶짭짤한 {오이너물을} 밥이랑 먹으믄 꿀맛이여. ¶여름에 입맛 없을 땐 {오이너물이} 최고여. ¶{오이너물을} 만들어 먹으면 맛이 최고야.

지역 고창.

오이장아치 명 [대응어] 오이지.

물외를 독이나 항아리에 담고, 끓여서 식힌 소금물을 부어서 익힌 반찬. ¶짭짤한 {오이장아치를} 밥이랑 먹으믄 꿀맛이여.

지역 완주, 고창, 군산, 남원, 무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부안.

오이짐치 명 [대응어] 오이소박이.

☞오이김치.

지역 고창, 무주.

오장치[1] 명 [대응어] 오이지.

☞오이장아치.

지역 무주.

오장치[2] 명 [대응어] 오쟁이.

짚으로 엮어 만든 작은 섬. ¶그래 뵈도 이 뫼이/정승 판서으 자제로/팔도 감사를 마다 하고/{오장치를} 짊어지고/이집 저집을 다니며/맥반 청탁으 되 된장도/괴리고나 괴랴도 좀 좋다/어허 품바 잘 헌다(부안 각설이타령-품바타령)<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부안.

오재미 명 [대응어] 오자미.

헝겊 주머니에 콩 따위를 넣고 봉하여서 공 모양으로 만든 주머니. ¶느그 언니들은 오재미로 잘 돌려. 오재미로 손에 들고 돌리면 손에 착착 앵긴게 잘 돌아가.

지역 전북.

오재미사리 명

오자미를 가지고 노는 일. 손으로 여러 개의 오자미를 돌리는 일이나 사람을 맞추는 일 모두 가리킨다. ¶오재미 만들어서 한 손으로 돌리는디 두 개도 돌리고 시 개도 돌리고. 그게 오재미살이여.

지역 전북.

오전스럽다 형 [대응어] 방정맞다.

말이나 행동이 찬찬하지 못하고 몹시 까불어서 경망스럽다. 또는 몹시 요망스럽게 보여서 불길하게 느끼거나 상서롭지 못하다. ¶{오전스럽게} 떠들지 말고 가만 있어라잉. ¶연락이 하도 안 되니께 사고가 났나 허는[오전스런], 생가이나 하고 앉았제.

지역 전북.

오좀 명 [대응어] 오줌.

혈액 속의 노폐물과 수분이 신장에서 걸러져서 방광 속에 괴어 있다가 요도를 통하여 몸 밖으로 배출되는 액체. ¶{오좀} 싸고 똥 싸고 그러지 <완주 지역어 텍스트> ¶첫날밤에 인자 신랑 신부가 자는디, 자다가 본께 그때는 {오좀이} 마란 것이 아니라 똥이 마라.<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갈라면 가제. 이러고 사능 것만 못허까? 첩이면 어쩌? 삼승 보손에 볼 받어 신고, 놋 요강에 떠르르르 {오좀} 눔서, 할랑할랑 부채질 허고 사는 세상, 첩이라도 나는 좋겄다."<최명희, 혼불> ¶나 {오좀} 싸고 올게 조금만 기다려.

지역 남원, 무주, 순창, 임실, 장수, 진안, 완주, 정읍.

오줌깨 명 [대응어] 오줌보.

'방광'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오줌깨가} 터지다 ¶"언능 나와, 내 {오줌깨} 터질라고 헌다".

지역 전북.

오즘 명 [대응어] 오줌.

혈액 속의 노폐물과 수분이 신장에서 걸러져서 방광 속에 괴어 있다가 요도를 통하여 몸 밖으로 배출되는 액체. 빛깔은 누렇고 지린내가 난다. ¶헌디 그걸 비다가 인자 보시고는 쫓아가가지고는 깨를 벗고 그놈들 한테다가 빤듯이 들어누워 {오즘을} 싸심서.<한국구비문학대계, 전남보성군편>

지역 전북.

오지락 명 [대응어] 오지랖.

웃옷이나 윗도리에 입는 겉옷의 앞자락. ¶아 글씨 이눔이 {오지락에} 밥을 몰래 넣어두구 선상님이 안 볼 때마담 슬쩍 끄내먹는거여.

지역 전북.

오지랍 명 [대응어] 오지랖

웃옷이나 윗도리에 입는 겉옷의 앞자락. 또는 쓸데없이 지나치게 아무 일에나 참견하는 것. ¶"너 부모네들이 여기를 보낼 적에 서울을 보낼 적에 무슨 최후로 할 말 없더냐?" 하니께, 그때 야가 깨달었어. "예." 하고 {오지랍} 속을 쑥 뜯더니 종이 한장을 턱 내놓는단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아, 누가 까깝허디야? 삼취댁 마님도 미인 박복이라, 청춘에 인생이 아까웅게 그러제에. 원 이런 상녀르 인생만도 못헝 것 같등만." "아이고매, {오지랍이} 삼천리네. 아깝기는 머어이 아깝당가? 암만 삼취라고도 해도 어엿헌 가문으 종부로 시집와아, 또 자기 한 몸 호강은 냅두고라도 친정 살림끄장 어깨 피게 해주어, 그만허먼 헐 노릇 다 헝 거이제 머."<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오지랍싹 명 [대응어] 오지랖.

웃옷이나 윗도리에 입는 겉옷의 앞자락. ¶{오지랍싹을} 잘 여미다.

지역 전북.

오지어 명 [대응어] 오징어.

☞오징에.

지역 전북.

오지에 명 [대응어] 오징어.

☞오징에.

지역 전북.

오직이 부 [대응어] 오죽이.

동작의 강도나 상태의 정도가 대단함을 나타내는 말. ¶아, 오직이 반갑겠다고, 자식이 없다가 이제 아들을 낳아서 귀국을 빈다고 헌게.

지역 전북.

오짐 명 [대응어] 오줌.

혈액 속의 노폐물과 수분이 신장에서 걸러져서 방광 속에 괴어 있다가 요도를 통하여 몸 밖으로 배출되는 액체. ¶아, 저놈의 것이 언제나 오줌을 저 넘세 밭에다 쌀라고 눈이 삼경을 떠갖고 만뜨갖고 그래서 댕기는디, 한 번 나오디마는 장독 뒤에서 뭐가 소쿠리 한 소쿠리 담아 놓고는 {오짐이} 마렵던가, 참 그 밭에 대고 오줌을 쪼로록 싸게지고 땅이 패여 내렸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니가 지대로 일어나서 걸어댕길 때끄장 불 때 주고, 밥 해 주고, 피 딲어 주고, 똥 {오짐도} 다 내가 받어내 주고 헐 거이다.<최명희, 혼불> ¶'앉어서 {오짐} 싸는 종자들은 역시 벨수가 없다니깨' 종술은 큰길로 나서자마자 방금 빠져나온 국밥집을 뒤돌아보며 한바탕 코웃음을 쳤다.<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

어가면>
지역 고창, 부안, 익산, 정읍.

오징어살이 명
놀이의 일종. 바닥에 오징어 모양의 선을 그려놓고 하는 놀이.
지역 전북.

오징에 명 [대응어] 오징어.
연체동물 두족강 오징엇과에 속한 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오징에를} 데쳐 먹다.
지역 전북.

오째서 부 [대응어] 어찌.
어떠한 이유로. ¶너는 {오째서} 방학만 하믄 외갓집을 못 가서 환장을 허냐. 거그다 뭐 꿀단지라도 숨겼났는 게비다.
지역 익산.

오쩌다가 부 [대응어] 어쩌다가.
☞어쩌다가.
지역 익산.

오찌 부 [대응어] 어찌.
((감탄 표현의 어미 '-ㄴ지', '-는지' 따위와 함께 쓰여)) 동작의 강도나 상태의 정도가 아주 대단하게.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피죽 한 그릇도 지때에 못 먹은 아그가 {오찌} 이리 튼튼헌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여. ¶{오찌} 공부해야 이렇게 공부를 잘헌디야?
지역 익산.

오트게 부 [대응어] 어찌.
☞어터게.
지역 익산.

옥구시 명 [대응어] 옥수수.
'옥수수'의 열매. ¶{옥구시를} 쪄 먹기도 혔지.
지역 전북.

옥배미 명 [대응어] 올빼미.
올빼밋과의 야행성 새.
지역 전북.

옥소꾸 명 [대응어] 옥수수.
'옥수수'의 열매. ¶{옥소꾸를} 빵궈서 가루를 내.
지역 전북.

옥수수튀밥 명 [대응어] 강냉이.
'옥수수'의 열매를 튀긴 것. ¶{옥수수튀밥을} 튀게서 노나 먹어.
지역 군산, 완주.

옥수시 명 [대응어] 옥수수.
'옥수수'의 열매. ¶"잉, {옥수시가} 꼬시고 맛나제." 이근술은 자루에 든 옥수수를 됫박에 부었다.<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완주, 익산.

옥수시튀밥 명 [대응어] 강냉이.
☞옥수수튀밥.
지역 완주.

옥수쑤 명 [대응어] 옥수수.
'옥수수'의 열매. ¶{옥수쑤를} 쪄 먹다 ¶밭 담장 사이에는 {옥수쑤를} 심어 놓자.
지역 무주.

온건히 부 [대응어] 고스란히.
건드리지 아니하여 조금도 축이 나거나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온전한 상태로. ¶근디 시방 온건히 사흘채 일을 모더네. 사흘치 혔으먼 솔찬히 혔을텐디.
지역 고창.

온굉일 (←온空日) 명 [대응어] 온공일.
하루를 온종일 쉬는 날이라는 뜻으로, '일요일'을 이르는 말. ¶우덜 어릴 때넌 {온굉일이라구} 그렸어. 토요일은 반굉일, 일요일은 {온굉일}.
지역 전북.

온뫔 명 [대응어] 온몸.
몸 전체. ¶아 그런데 이 양반이 그리고 참 부하를 데리고 가서 말하자면 왜구, 왜적을 칠라고 가가지고서, 이리 보닝개는 아주 저 {온뫔이} 철투구를 쓰고서 철갑을 했는디 철납? 철갑, 아, 철투구 철갑? 암, 그때는 활밖에 없었거든.
지역 김제, 남원, 무주, 순창, 정읍, 진안.

올개미 명 [대응어] 올가미.
새끼나 노 따위로 옭아서 고를 내어 짐승을 잡는 장치. ¶차라리 죽는 일이라면, 이런 몸뎅이 다 늙은 것 머이 아까워서 대신 못 죽어 디리리요. 열 번이라도 죽고 백 번이라도 죽으리다. 허나 대체 이 일을 어쩌면 좋으까요잉. {올개미} 둘러쓰고, 벗도 못헐 멍에 지고, 칼 쓴 죄인맹이로 하로 하로 생목심 깎어 바트는 세상을 혼자 살어얀디.<최명희, 혼불> ¶곰이란 놈이 도독놈 숨 맥히라고 콱 눌러놓고 다닌게 불알텡이가 쇠불알처럼 축 늘어졌더라 이거여. 웃음 그려! {올개미를} 히가지고 딱 올가(옭아) 가지고서는 똘똘 몰아 쥐고서는 '니가 죽나, 내가 죽나.' 잡어댕긴게 곰이란 놈이 저 고목나무 우그서 훌짝훌짝 뛰서 '나 죽는다, 나 죽는다.' 해놓으니, 호랭이란 놈은 막 도망가서,<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쥐를 잡으려면 {올개미를} 만들어 놓아라.
지역 장수, 고창.

올개이 명 [대응어] 올가미.
☞올개미.
지역 전북.

올기심리 명
그 해 첫 수확한 쌀로 밥을 해서 선영에 바치는 일. ¶일부러 허. 올기쌀을 만들아. 그리가꼬 올기심리다 허. ¶우리가 올해 농사를 지었잖여. 그믄 젤 첨믄에 나락 훑어다가 손으로 훑어다가 쪄서 말려가꼬 고것을 도고통으다 꼭꼭 찧어서 올기쌀이 되잖아요. 고것을 고놈으로 인자 추석날 올기심리 헌 날을 받어가지고 밥을 히서 선영으다 바쳐. 그것보러 올기심리라고 허. ¶인자, 올기심리를, 젤로 농사를 지어서 앞에 밥을 히놨다 선영들한터 알리느라고. 선영게다 농사를 지어가꼬 요로코 우리가 선영 대접을 헌다 허고 이롷게 올기심리를 힜어.
지역 순창.

올기쌀 명 [대응어] 조.
볏과의 한해살이풀. 오곡의 하나로 밥을 짓기도 하고 떡, 과자, 엿, 술 따위의 원료로 쓴다. ¶거그다가 봄이머는 화전 부치는 진달래 따다 담고, 가을에는 밤도 까서 담고, 홍시감도 담어 놓고 먹고, {올기쌀도} 소복허니 담어 놓고. 머리맡에 애장물(愛藏物)로 그만헌 거이 또 없제.<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올랭이 명 [대응어] 올가미.
새끼나 노 따위로 옭아서 고를 내어 짐승을 잡는 장치. ¶{올랭이로} 묶다
지역 고창.

올레보다 동 [대응어] 올려다보다.
아래에서 위를 향하여 보다. 또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남을 높이 받들고 우러르다. ¶그리고 {올래본개}, 아 어디서 강생이(강아지)가 한 마리 "깡깡" 짖네. ¶아내는 남편을 아래서 {올레다보며}

다그쳤다. ¶할 일도 없고 해서 하늘을 한번 {올레다보았다}. ¶내 아덜은 누가 뭐래도 남들이 {올레다보는} 사람이 돼야 겄어.
지역 전북.

올롱개 명 [대응어] 어레미.
☞얼릉개.
지역 전북.

올룽개 명 [대응어] 올가미.
☞홀룽개.
지역 전북.

올말 명 [대응어] 올가미.
새끼나 노 따위로 옭아서 고를 내어 짐승을 잡는 장치. ¶{올말에} 걸려 넘어지다
지역 무주.

올무개 명 [대응어] 올가미.
새끼나 노 따위로 옭아서 고를 내어 짐승을 잡는 장치. ¶{올무개를} 놓다
지역 진안.

올베차리 명
오례쌀로 지은 밥으로 지내는 차례. ¶올베로 인제 송편도 맨들구. 그르케 하는 것을 {올베차리라구려}.
지역 전북.

올삐미 명 [대응어] 올빼미. ¶아따 사람들이 밤마다 {올삐미마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잠도 못 자겄더만.
지역 전북.

올채이 명 [발음] [올채~이] [대응어] 올챙이.
☞올채이.
지역 남원.

옭매답 명 [대응어] 옭매듭.
고를 내지 않고 마구 옭아 맨 매듭. ¶{옭매답을} 매다
지역 전북.

옴기손구락 명 [대응어] 엄지손가락.
다섯 손가락 가운데 첫째 손가락. ¶아이가 {옴기손구락을} 빨다.
지역 군산, 무주.

옴마 명 [대응어] 엄마.
'어머니'를 정답게 이르거나 부르는 말. 또는 자녀 이름 뒤에 붙여, 아이가 딸린 여자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하루아침에 두 번씩이나 어머니로부터 머퉁사니 취급을 받기가 좀 뭐한 것이다. "오늘 {옴마는} 안집 일을 도와줘야 헝게로 치마폭만 붙들고 댕기먼 안되아잉?" <이병철, 모래내 모래톱> ¶객지로 돌아댕기며 여러 음식 먹어봤지만 울 {옴마}가 해준 것처럼 맛난 음식은 못 먹어봤지요. ¶그 이웃간 부인네가 부르는 말이, "아! 윗도리 {옴마}, 웃돌네 {옴마}, 이 비오니 이것 치시요." 근단 말여. 그런게 아태조가 저게 웃돌네 어메(어머니)구나! <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야 느그 {옴마}는 아직도 국수 공장에 댕기냐?
지역 장수, 진안, 군산.

옴망허다 형 [대응어] 오목하다.
가운데가 둥그스름하게 패여 있거나 들어가 있다. ¶송편 빚는 것처럼 가운데를 옴망허게 헌 다음에 여그다 엎어.
지역 전북.

옴박지 명 [대응어] 뚝배기.
찌개 따위를 끓이거나 설렁탕 따위를 담을 때 쓰는 오지그릇. ¶{옴박지에} 보리쌀 씻기는 소리

가 겨울철에 싸락눈을 밟고 가는 소리 같다. 나는 되도록 소리나지 않게 우물 반대편에 선다. <이병철, 모래내 모래톱> ¶그라고 난께 술 좀 {옴박지으다} 걸러 내놔라 그릉께 전부 걸러 내놓고 그라두마.<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9>

지역 고창, 군산, 부안, 순창.

해설 '옴박지'는 '뚝배기'보다는 훨씬 큰 그릇으로, 쌀, 채소 따위를 씻거나 물을 담는 용도로 사용한다.

옴배기 명 [대응어] 옹자배기.

둥글넓적하고 아가리가 쩍 벌어진 아주 작은 질그릇. ¶{옴배기} 그릇이 윤이 난다.

지역 전북.

옴부다 동 [대응어] 훔치다.

남의 물건을 남몰래 슬쩍 가져다가 자기 것으로 하다. ¶지갑을 {옴부다}

지역 전북.

옴빡 부 [대응어] 모두.

부분이 아니라 전체 다. ¶밤손님이 물겐을 {옴빡} 가져가 버렸어. 어쩌야 쓰까?<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그서 살림 재산을 전부 그 날부터서 좋은 집 지어서 호가사(14)로 집 지어 갖고 그 재산을 반분을 …. 더 {옴빡} 뺏뿔라고 허는디, "그럴 수가 있나고. 그리도 우리 부모 거시기가 있는디 그럴 수가 있나고. 우리 아부니가 허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정읍.

옴시레기 부 [대응어] 고스란히.

일정한 수효나 양을 빠짐없이 다. ¶조선 팔도 삼천리 고고샅샅 강토가 땅덩어리째 {옴시레기} 일본의 것이고,<최명희, 혼불> ¶근디 누구는 남원산성 그 거창헌 거이 입 안으로 {옴시레기} 들왔다고 허고이,<최명희, 혼불> ¶선생님은 거뒤들인 딱지를 {옴시레기} 불속에다 처 넣으셨다.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옴시레기'는 최명희의 소설에서 주로 발견된다. 전북에서는 대체로 '옴싹, 옴씨락'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표준어 '모두', '전부'와 유사한 어휘이다.

옴싸허다 형 [대응어] 옴팍하다.

가운데가 오목하게 들어가 있다. ¶바우 밑이 가서 옴싸허니 좋드래여. 비가 와도 그슬릴 만허고,

지역 전북.

옴싹 부 [대응어] 모두.

일정한 수효나 양을 빠짐없이 다. ¶상이군인이 고개를 홱 돌리자 그때껏 가려져 있던 오른쪽 얼굴이 {옴싹} 드러났다.<윤흥길, 소라단 가는 길>

지역 전북.

해설 전북에서는 표준어 '모두', '전부'의 의미로 '옴싹, 옴씨락'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어원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옴싹'의 '싹'은 "모두"의 의미를 갖는 부사로 보인다.

옴팍지다 형 [대응어] 오붓하다.

홀가분하면서 아늑하고 정답다. 또는 살림 따위가 옹골지고 포실하다. ¶가족이 {옴팍지게} 모였다. ¶잡녀르노무 때까우야 으디강겨 으디 {옴팍진} 디서 잇씨얀다. ¶으찌튼간에 때까우야 지발 {옴팍진} 디서 땃땃흐게 있어라. ¶살림이 {옴팍지게} 늘었다.

지역 전북.

옴팍하다 형 [발음] [옴파가다/옴파카다] [대응어] 오붓하다.

홀가분하면서 아늑하고 정답다. ¶때까우야 낼은 C 지구서 일홍게 그 근방 와서 충게 {옴팍한}

갈대바티서 삐삐치렴.
지역 고창.

읎다 형 [대응어] 없다.
☞없다. ¶김대감이 병들어서 죽게 생겼어. 세상 없는 그런 대감같은 집이서 말이지, 그 약이 {읎어}, 의연(의원)이 없어서 죽겄어.<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군산, 정읍, 진안.

옷거름 명 [대응어] 옷고름.
☞옷고롬.
지역 전북.

옷고롬 명 [대응어] 옷고름.
저고리나 두루마기의 옷깃을 여며매기 위하여 깃 끝과 그 맞은편에 하나씩 단 헝겊끈. ¶저고리에 뭉는 건 오르꼼, {오꼬롬}. 양반들 오슨 별라지만 여자들 오슨 {오꼬롬}, 여그 섭, 짓, 동전, 그르케 다 각까지 이썼써요.(저고리에 묶는 건 옷고름. 양반들 옷은 별나지만 여자들 옷은 {옷고름}, 여기 섶, 깃, 동정, 그렇게 다 갖가지 있었어요.)<2009 전북 임실> ¶{옷고롬} 좀 잘 좀 매고 다녀라.
지역 전북.

옷고룸 명 [대응어] 옷고름.
☞옷고롬. ¶"사램이 옷을 입는디, {옷고룸이나} 단초가 없으먼, 앞지락이 이렇게 벌어져 갖꼬 미친년이나 농판맹이로 요러고 안 댕기냐? 다 벗어지게. 그런 중도 모르고 헐레벌레 기양 댕기면 어뜨케 되야? 꽈 벗제잉. 망신허고, 동지 섣달에 그러고 댕기면 얼어 죽고, 그거이 먼 짓이겄냐. {옷고룸} 짬매고, 단초 장구고, 앞지락 못 벌어지게 붙들어 걸어야제.<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옷구룸 명 [대응어] 옷고름.
☞옷고롬.
지역 전북.

옷구룸짝 명 [대응어] 옷고름.
저고리나 두루마기의 옷깃을 여며매기 위하여 깃 끝과 그 맞은편에 하나씩 달아 짝을 이루는 한 쌍의 헝겊끈. 혹은 그 중 하나. ¶이제 목숨내기를 하고 무등산을 돌러갔는디, 누님은 도인(道人)이여. 도인이여. 다 짜가지고는, 올라면 멀었어. 그렇게 다 짜놓고 {옷고름짝} 하나를 안 달았어.<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아 여 {옷고름짝으} 뭣이 쨈매 있네."<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신랑 각시는 응 말허자면 인자 그 신랑이 인자 알고 인자 첫날 저녁이 자고는 그 이튿날 서울로 과게를 허러 가닝게 {옷고름짝에다가} 그 털을 벳겨서 쨈매줬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그렇게 구차한 의복에다, 몇 백 년을 두고 상민들에게는, 값비싼 주옥과 보패를 지니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복색에 있어서도 황?자?홍색을 금하였으니, {옷고름짝} 반토막 고운 빛이 없어 거멍굴이라고 불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을 것이다.<최명희, 혼불>
지역 정읍, 부안.

옷도독놈 명 [대응어] 도깨비바늘.
국화과의 한해살이풀. 갓털은 거꾸로 된 가시가 있어 다른 물체에 잘 붙는다. ¶{옷도독놈이} 자라다
지역 부안.

옷도둑놈까시 부 [대응어] 도깨비바늘.
국화과의 한해살이풀. 갓털은 거꾸로 된 가시가 있어 다른 물체에 잘 붙는다. ¶풀밭에 돌아다니면 {옷도둑놈가시가} 많이 묻잖여.<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그 풀밭에는 {옷도둑놈가

시} 천지다. 옷도둑놈가시 옷에 붙으면 떼기가 참 귀찮거든.<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전북.

옷물림 명
옷을 차례로 물려가며 입는 일. ¶옛날에는 가난해서 옷이 있었어요? 옷을 큰애 입고 그 다음에 입고 그렇게 {옷물림} 하는 거지.<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전북.

옷지랍 명 [대응어] 오지랖.
웃옷이나 윗도리에 입는 겉옷의 앞자락. ¶{오찌랍을} 잘 여며라.
지역 전북.

옷짓 명 [대응어] 옷깃.
윗옷에서 목에 둘러대어 앞에서 여밀 수 있도록 된 부분. ¶이 포수는 그 그놈 죽일 놈으로 인자 짐승 꿩을 잡었던가 비둘기를 잡었던가 허서 피를 묻혀다가는, "자 당신네 아들 이렇게 쥑여서 이 {옷짓이랑} 다 가져 왔은게 내 주쇼."<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아무개 어른! 우리 쥑일 실탄을 가지고 이 {옷짓을} 찢어 줄턴게 말여. 짐승을 잡어서 여그다 피를 묻혀갖고서 돈을 돌라고 허쇼. 그믄 우리는 이 질로 떠납니다. 얻어먹고 돌아댕일테니까 우리를 살려주믄 어떠요?"<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옹구 명 [대응어] 옹기.
질그릇과 오지그릇을 통틀어 이르는 말. ¶우리 고향집이가 뒷산에 옹구쟁이가 살었어. 큰 가매다가 {옹구럴} 굽구 그랬제.
지역 전북.

옹구그럭 명 [대응어] 옹기그릇.
☞옹구그릇.
지역 남원, 임실.

옹구그릇 명 [대응어] 옹기그릇.
질그릇과 오지그릇을 통틀어 이르는 말. ¶그릇 미티가 구녕이 난 것을 모르고 {옹구그릇이다가} 물을 채와넣는디 구녕땜시롱 물이 차간디?
지역 고창, 남원, 임실.

옹구데미 명 [대응어] 뚝배기.
찌개 따위를 끓이거나 설렁탕 따위를 담을 때 쓰는 오지그릇. ¶아버지는 {옹구데미에} 찌개를 끓여드려야 밥을 잡솼어.
지역 전북.

옹구동우 명
옹기로 만든 동이. ¶옹구동우다 시암서 물 질어다 먹었어. 시방이야 집집마다 물이 나오지만.
지역 전북.

옹구락데기 명 [대응어] 미꾸라지.
가늘고 길게 생기고 매우 미끄러우며 살은 맛이 좋고 영양이 많아 국으로 끓여 먹는 민물고기. ¶둠벙에 가서 멱감고 논 옆에서 {옹구락데기} 잡던 기억이 납니다.<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전북.

옹구락지다 형 [대응어] 옹골지다.
실속이 있게 속이 꽉 차 있다. ¶아따 오늘 벳이 옹구락지게 뜨급네. 벳이 옹구락지게 뜨가.
지역 전북.

옹구리다 동 [대응어] 오그리다.
몸을 움츠려 작게 하다. ¶괜찮여. 나는 항시 발 옹구리고 있은게.

지역 전북.

옹구쟁이 명 [대응어] 옹기장이.
옹기그릇을 만드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 ¶옹구그럭 맨드는 사람얼 {옹구쟁이라그려}.
지역 전북.

옹구전 명 [대응어] 옹기전.
옹기를 파는 가게. ¶인제 {옹기전으} 가서 인제 요것저것 사지. 항아리도 사고, 동우도 사고, 투가리도 사고
지역 전북.

옹글씨다 동 [대응어] 오그리다.
물체를 안쪽으로 오목하게 휘어지게 하다. 또는 물체의 거죽을 오글쪼글하게 주름이 잡히며 줄어지게 하다. 또는 몸을 움츠려 작게 하다. ¶다 먹은 우유팩은 {옹글써서} 버려라. ¶가뭄에 나뭇잎들이 죄다 {옹글써} 죽었어. ¶밖이 너무나 추워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왼 몸을 {옹글씨고} 이불속으로 들어가 꼬무댁대는 것이 내 낙이여.
지역 전북.

옹기거럭 명 [대응어] 옹기그릇.
☞옹구그릇. ¶게 어디가 무럴 게와도 길러와도 보펜저그로 이재 그 {옹기거럭}, 널베기나 동우. (그 어디가 물을 길어 와도 길어 와도 보편적으로 이제 그 옹기그릇, 자배기나 동이.)<지역어 자료 총서, 무주>
지역 무주.

옹기그럭 명 [대응어] 옹기그릇.
☞옹구그릇.
지역 남원, 완주, 무주.

옹기손구락 명 [대응어] 엄지손가락.
☞옴기손구락.

지역 군산.

옹기장구 명 [대응어] 똥장군.
똥을 담아 나르는 오지나 나무로 된 그릇. ¶나무로 된 것도 있고 {옹기장구도} 있고 그랬어.
지역 무주.

옹깔끄막 명 [대응어] 가풀막.
몹시 가파르게 비탈진 곳. ¶산을 {옹깔끄막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옹깔끄막에서 미끌어지면 크게 다친다. 긍게 조심해야지.<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전북.

옹다리시암 명 [대응어] 옹달샘, 샘.
물이 땅에서 솟아 나오는 곳. 또는 그 물. ¶그 동네가 {옹다리시암}이 그렇게 유명혀. 물이 맛나거든.
지역 정읍.

옹달시암 명 [대응어] 샘(泉).
물이 땅에서 솟아 나오는 곳. 또는 그 물. ¶와 본게스니 {옹달시암} 하나가 있는디 말여. 본게스니 괴기가 바글바글 있다 그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전북.

옹담새암 명 [대응어] 옹달샘, 샘.
☞옹다리시암.
지역 김제.

옹댕이 명 [대응어] 모퉁이.
구부러지거나 꺾어져 돌아간 자리. 변두리나 구석진 곳. ¶{옹뎅이를} 돌아 가다 ¶{옹댕이에도} 꽃이 피다
지역 전북.

ㅇ

옹동글씨다 동 [대응어] 옹동그리다.

몸 따위를 바짝 옴츠러들이다. ¶어찌나 겁을 먹었던지 몸을 한껏 {옹동글씨고} 바들바들 떨고 있더랑게.

지역 전북.

옹삭시럽다 형 [대응어] 옹색하다.

자리가 비좁고 답답하다. 또는 생각이 막혀서 답답하고 옹졸하다. ¶그리서 빙원에서 닝게루를 맞는디, 오사허게 싸게 드러가서 그렁가 폴뚝이 끊어지게 아픈 거시 빽쩍지근 {옹삭시러워서} 죽을 뻔 봣당게요~. ¶방그라대시 째깐은 아그처럼 잣대를 거그다가 들이대면서 {옹삭시런} 속마음 따독거린다.

지역 고창.

옹삭하다 형 [발음] [옹사가다/옹사카다] [대응어] 옹색하다.

넉넉하지 못하여 생활에 필요한 것이 없거나 자리가 비좁고 답답하다. 또는 생각이 막혀서 답답하고 옹졸하다. ¶시상일 야지랑 깜서 정칫일 말(言) 팽맹이질 험서 창문 밖 모양성 철쭉 유혹에 굴풋 삼겹살 냄시 꼬심 속에 이름조차 까먹은 무심함에 건성나발 {옹삭하게} 해찰허면서. ¶아이고, 지지리도 {옹삭하고} 못사는 놈이 큰 났다고 지와집만 짓은다고 지랄, 자발 떰성 난리방구다냐. ¶지비가 가난험서 {옹삭허고} 근천시러 보씨요. ¶징허게 강치를 헝게 수도가 얼어 갖고 포도씨 마당꺼만 녹애 갖고 반대기로 질러다 쓸랑게 차말로 {옹삭하고만}.

지역 고창.

옹야 감 [대응어] 오냐.

아랫사람의 물음이나 부탁에 대하여 긍정하여 대답할 때 하는 말. ¶아그들은 정을 담거서 적당히 때려 갖고 키워야 헌당게, {옹야} 옹야(오냐 오냐) 허지 말고.

지역 고창.

옹조리샘 명 [대응어] 옹달샘.

작고 오목한 샘. ¶산속에 {옹조리샘이} 있다.

지역 전북.

옹타리 명

다른 논의 귀퉁이나 사이에 있는 작은 논. ¶{옹타리에} 농사 짓다

지역 전북.

옹탱이[1] 명 [대응어] 오지그릇.

진흙으로 만들어서 말린 다음에 오지물을 입혀 구운 질그릇. ¶여든 살 먹은 할머니가 늙도록 죽지도 않고 있응께 아부지허고 어매는 할머니를 옹탱이에 담어갖고 지게다 지고 가드랍니다.<구비문학대계 완주군> ¶아버지허고 어매가 할머니를 고리장허고 {옹탱이와} 지게를 내버리고 올라고 헝께 아덜이 {옹탱이랑} 지게를 갖고 가자고 했십니다.<구비문학대계 완주군>

지역 완주.

옹탱이[2] 명 [대응어] 삼태기.

흙이나 쓰레기, 거름 따위를 담아 나르는 데 쓰는 기구. ¶토탄 그놈을 옹탱이다 여 날랐어. 그거 이는 것도 각시 때라 부끄라. ¶지푸락으로 맹근 그런 놈, 옹탱이다 여 날른단게.

지역 전북.

옹텡이 명 [대응어] 멱둥구미.

짚으로 둥글고 울이 깊게 결어 만든 그릇. 주로 곡식이나 채소 따위를 담는 데에 쓰인다. ¶망태 21617 옹텡이여<완주_지역어_텍스트>

지역 완주.

옹판지다 형 [대응어] 옹골지다.

실속 있게 속이 꽉 차 있다. ¶넘들이 못헌다고

손놓은 걸 {옹판지게} 해내 부렀다. ¶부잣집 잔치라 소문대로 아주 {옹판지게} 차렸더랑게.
지역 전북.

와과와과 부 [대응어] 개굴개굴.
개구리가 우는 소리를 흉내내는 말. ¶개구리는 {와과와과} 운다
지역 김제.

와따 감 [대응어] 아따.
무엇이 몹시 심하거나 하여 못마땅해서 빈정거릴 때 가볍게 내는 소리. ¶{와따}, 인자 비가 끝잉게 꼬치자마리가 으디서 겁나게도 날라 댕기네이~.
지역 고창.

왁달비 명 [대응어] 소낙비.
갑자기 쏟아지다가 곧 그치는 비. ¶{왁달비가} 쏟아지다.
지역 전북.

왁새 명 [대응어] 억새. ¶왁새로 지붕을 이어.
지역 전북.

완장 명 [대응어] 안장.
말의 등이나 자전거 따위의 탈것에 올려두어 사람이 타기에 편리하도록 만든 도구. ¶자전거의 {안장을} 올리다.
지역 전북.

왈기다 동 [대응어] 으르다.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이 겁을 먹게 위협하다. ¶“일본말 배우기가 쉽기야 허겄소. 그러니 {왈기지만} 말고 조단조단 알아듣게 말로 허시시요.”<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해설 표준어 ‘으르다’의 전라 방언이 ‘을르다’인데 여기서 ‘왈기다’까지의 변화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기르다, 늘리다’를 각각 ‘질구다, 늘구다’로 발음하는 것을 감안하면 ‘을구다, 을기다’에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왕가루 명 [대응어] 왕겨.
벼에서 처음 벗긴 굵은 겉겨. ¶{왕가루를} 벗기다.
지역 전북.

왕기 명 [대응어] 옹기.
질그릇과 오지그릇을 통틀어 이르는 말. ¶{왕기에} 음식을 담아 내다.
지역 전북.

왕땅개비 명 [대응어] 방아깨비. ¶{왕땅개비를} 잡다
지역 순창, 임실.

왕벨 명 [대응어] 샛별.
☞왕별.
지역 전북.

왕별 (王별) 명 [대응어] 샛별.
금성(金星)을 크게 보인다 하여 이르는 말. 장래에 큰 발전을 이룩할 만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저기 반짝이는 별이 바로 {왕별이여}. ¶전세계적으로다가 요즘 한국 가수들은 세계를 이끌어갈 {왕별들로} 생각이 된단 말여.
지역 전북.

왕새비 명 [대응어] 새우(민물, 大).
강이나 호수 따위의 염분이 없는 물에서 사는 큰 새우. ¶엄니, 제가 {왕새비를} 잡아 왔으요. 이걸로 매운탕이나 끓여 먹을까요?
지역 남원, 부안, 임실, 장수, 정읍.

ㅇ

왕새오 명 [대응어] 새우(바다, 大).

바다에서 사는 큰 새우. ¶우와, 바다 낚시에서 처음 잡힌 것이 바로 요 {왕새오네}. 어떻게 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지역 익산.

왕애기 명 [대응어] 어린애.

방언형 '왕아이'가 줄어든 말. 나이가 적은 아이. ¶{왕애기가} 울다 ¶유치원 다니는 {왕애기가} 엄마한테 업어달라고 하면 되나?

지역 남원, 정읍, 진안.

왕자마리 명 [대응어] 왕잠자리. ¶해지름 때가 됭게 옛날 생각이 포도시 나요. 시누대 끊어 갖고 꼬치자마리 실로 묶어서 무시밭 둠벙가에서 "야마 보" 소리침서 {왕자마리} 잡으로 댕기던 그때가 요~.

지역 고창.

왕저 명 [대응어] 왕겨.

☞왕겨.

지역 남원, 순창, 완주, 임실, 정읍.

왕제 명 [대응어] 왕겨.

☞왕겨. ¶응, {왕제제} {왕제}.(응, 왕제지, 왕제.) {왕제}, 소도 몸무거 처머냐 나옹거선.(왕제, 소도 못 먹어, 처음에 나온 것은.) {왕제는} 인자 거럼빼끼 모더고,(왕제는 인제, 거름밖에 못하고,)<2005 전북 남원>

지역 남원, 진안.

왕지 명 [대응어] 왕겨.

☞왕겨.

지역 장수.

왜귂 명 [대응어] 왜국(倭國).

'일본'을 낮잡아 이르는 말.

지역 무주.

왜뇜 명 [대응어] 왜놈.

'일본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왜뇜이} 쳐들어오다

지역 진안.

왜장 (倭醬) 명 [대응어] 왜간장.

일본식으로 만든 간장. 집에서 만든 재래식 간장에 대하여 양조장 등에서 만든 개량된 간장을 이르는 말로 흔히 쓴다. ¶조선간장으로 밥을 비벼먹으면 짜서 못 먹은깨 {왜장으로} 많이 비벼먹지. 요즘에는 왜장에 화학조미료가 많이 들어갔다고 해.<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어렸을 때는 {왜장} 주면 밥 다 먹었어요. 왜장이 달짝지근하잖아요.

지역 장수.

왜짱에치 명 [대응어] 오이지.

☞오이장아치.

지역 고창.

왜홀태 명 [대응어] 그네(홀태).

벼를 훑는 데 쓰던 농기구. 길고 두툼한 나무의 앞뒤에 네 개의 다리를 달아 떠받치게 하고 몸에 빗살처럼 날이 촘촘한 쇠틀을 끼운 것이다. ¶여 엔나레는 {왜홀태로} 훝꼬 그렸지.

지역 김제, 남원, 순창, 완주.

왱게 명 [대응어] 왕겨.

벼에서 처음 벗긴 굵은 겉겨. ¶{왱게를} 벗기다.

지역 무주, 진안.

왱겨 명 [대응어] 왕겨.

☞왱게.

지역 전북.

왱기 명 [대응어] 왕겨.
☞왱게.
지역 무주, 진안.

왱매기 명 [대응어] 명매기.
제빗과의 여름 철새. 제비보다 날개와 꽁지가 다소 길며 건물의 처마 밑이나 교각 밑에 둥지를 짓는다. ¶{왱매기가} 날아간다.
지역 전북.

왱이매다 동 [대응어] 옭매다.
사물 두 개를 서로 얽어 매다. ¶장대에다 낫을 왱이매서 날맹이에 있는 놈 가지 치고 그러제.
지역 전북.

외귁 (←外國) 명 [대응어] 외국.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외귁에} 여행을 가다
지역 무주.

외기다 동 [대응어] 옮기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자리를 바꾸다. ¶밥을 한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외겨 놓아.
지역 전북.

외김치 명 [대응어] 오이소박이.
물외의 허리를 서너 갈래로 갈라 속에 파, 마늘, 생강, 고춧가루 등을 섞은 소를 넣어 담근 김치. ¶입맛 없을 때도 {외김치만} 있으믄 밥 한 그륵 뚝딱이지. ¶여름 반찬이 마땅치 않으면 {외김치를} 담아 보렴.
지역 군산, 남원, 완주, 익산, 고창, 임실, 정읍.

외누리 명 [대응어] 에누리.
물건 값을 받을 값보다 더 많이 부르거나 값을 깎는 일. 또는 그 물건 값. ¶나는 정직허고 솔직헌 사램이라서 {외누리} 같은 거 헐줄도 몰라. 긍게로 딴 디 가믄 이 가격 주고는 절대 못 살 것이여요. ¶내 친구랑 시장으 같이 가믄 좋아. 갸가 {외누리의} 달인인게로 물건 값을 기가 멕히게 깎응게.
지역 고창.

외눈백이 명 [대응어] 애꾸.
눈이 한쪽 먼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그러먼 {외눈백이} 곰배팔이는 머이고?"<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외눈쟁이 명 [대응어] 애꾸눈이.
눈이 한쪽 먼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사고로 {외눈쟁이가} 되었다.
지역 전북.

외떤집 명 [대응어] 외딴집.
☞외똔집. ¶가는대로 가먼은 낼 하루종일 걸어가먼은 해가 저물머는 또 {외떤집이} 나와.<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정읍.

외똔집 명 [대응어] 외딴집.
홀로 따로 떨어져 있는 집. ¶어디만큼 갔던가, 여기서 말하먼 저 욋돈집이나 됐던개벼, 저 아래, 쬐그만 {욋돈집이} 하나 있어, 무조건 그 집으로 들어갔어, 들어가서 방에는 불을 빼끔히 써놨는디 무조건 내려버렸어, 죽을라구 바리작바리작 하는 놈을 얹어갖구 간게.<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동넌동 만동, 집 한가혼게 동넌동 만동, 사람이 산동 만동, 집인동 만동, {외똔집} 쪼그만헌게 집인동 만동, 그서 삼동천이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인자(이제) 늘 터-헌니 한 소금 자고 새복(새벽)으 가야겄다고 허고 자빠져 있는디, 거긋다대고(거기에 더해서) 도둑놈은 {외똔집이서} 송아치

한 마리 있는 것을 욕질헐라고 고 송아지를 또 끄시러 왔어.<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삼천원인디 그런 걸 갖고서 인자 땅거미져서 어두컴컴헐 때, 그 저 혼자 산 {외뜬집이서} 움막처럼 집을 지어놓고 사는디, 저그 집이를 가니라고 간게 어떤 사람이 서이(셋이) 쪼그만한 뒴막(뒤웅막)을 갖고서 잉애 한 마리를 잡았는디 쳐다본게.<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완주, 정읍, 군산.

외뜬집 명 [대응어] 외딴집.
☞외뜬집. ¶나와가지고서나 어디만씸을 간게 산이 {외뜬집이} 하나 있는디 거그를 들어갔어.<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군산.

외려 부 [대응어] 오히려.
일반적인 기준이나 예상, 짐작, 기대와는 전혀 반대가 되거나 다르게. ¶요시 아덜은 안 그려. 무조건 엉부리고부텀 혀. 제대로 고분고분헌 놈덜이 {외려} 극소수제.<조봉래, 풀벨골> ¶잘못 갈치긴 시방 훤놈덜도 마찬가지시. {외려} 자슥도시로 보냄서부텀 자슥덜에게 아부허는 놈덜이 쌨어.<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외리 명 [대응어] 오리. ¶{외리가} 새벽댓바람부텀 을매나 꽥꽥거리든가 시끄러서 깼어.
지역 전북.

외리다 동 [대응어] 오리다.
칼이나 가위 따위로 베어 내다. ¶도리다(칼로)/동/*도린다 {정문연}<전북>[완주, 진안, 김제], *{되린다} {정문연}<전북>[부안, 장수], *오린다 {정문연}<전북>[무주], *외린다 {정문연}<전북>[고창, 순창], *캔다 {정문연}<전북>[익산, 정읍, 임실, 남원], <한국방언어휘자료집_전북편>
지역 무주.
해설 '외리다'는 '오리다'의 움라우트형이다. 둘째 음절에 있는 /ㅣ/의 영향을 받아 첫째 음절의 '오'가 '외'가 된 것이다.

외막 명 [대응어] 원두막.
오이, 참외, 수박, 호박 따위를 심은 밭을 지키기 위하여 밭머리에 지은 막. ¶아 이 여자가 돈을 많이 가지고 왔어. 아 논도 사고 밭도 사고 인자 사방으 그러는디, 그 근방으 부자들이 맹당(명당) 쓸 사람들이 말여. "아, 어서 자네 거시기 맹당 쓰고 부자가 되았담서야?" 고 헌게, "아 이러고 이러고 내가 {외막으서} 있다가 걍 맹당 하나 씨라고 히서 여 {외막} 옆으다 썼드니, 아 자연 된다."고. "이렇게 아 그사람 좀 보게 히도라."고. "아 한번 갔는디 언지 올랑가 모르겄다." 고 그러다가 인자 한번 그사람이 거그를 지냈단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광주 사는 사람이, 아 인제 벌어 먹을래야 벌어 먹을 수가 없고 지관질을 나갔어. 아무 것도 모른 사람이 지관질을 나가가지고, 근디 {외막을} 들어갔단 말여. 여름으 외막을 들으가서 그 이얘기 이얘기 허다가 그 지리 이얘기가 나서, "묏을 쓰라냐?"고, "그 묏을 쓸란다." 고 그런게, "그 묏을 쓰면 당신 홀애비냐고? 마느래 있냐?"헌게, "마느래도 없고 홀애비로 산다." 헌게<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아흡살 먹는 놈이 아버지를 찾아야겠다고. 그래가지고 주인집이를 가서, 밭을 닷마지기인가, 서마지기를, "세를 얼마씩 줄 텐개 우리 모자가 지어 먹고 살게 몇년 지어 먹게 해주시요." 승락을 받았어. 고 밭때기 하나에다가, 외를 갈았어. 외장사를 시작했어. 여름에는 그놈이 {외막에} 앉아서, 외장사를 함서 지나가는 사람만 있으면은, "외 하나 자고 가시오." 공짜로 외를 줘.<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고창, 임실.

외비작거리다 동 [대응어] 오비작거리다.

좁은 틈이나 구멍 속을 자꾸 함부로 갉아 파내다. ¶한 남정네가 귓구녕을 손가락으로 {외비작거리며} 서 있다. ¶이 영감님이 만날 앉아서 코구녁으다 손가락 느 가지고 {외비자거링게} 코피가 나지, 저렇게. ¶수채구녁에 뭣이 씰려 들어갔는게빈디 짝대기로 {외비작거리면} 맥힌 구녁이 뚤릴 수도 있어.

지역 전북.

외사춘 (←外四寸) 명 [대응어] 외사촌.

어머니 형제, 즉 외삼촌의 자녀. ¶외사춘 형하고 같이 자랐어요.

지역 전북.

외삼춘 (←外三寸) 명 [대응어] 외삼촌.

어머니의 남자 형제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그런게로 저그 성들이 인자 군의를 혔으니까 가서 그냥 지그 동상을 혼내고 막 걍 지그 {외삼춘을} 업어다가 뉘고, 그러고는 그날 저녁으 인자 술을 잔뜩 먹고는 인자 {외삼춘네} 집을 갔어. <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외삼춘이} 아 생질들을 디럭고 땅을 잡아 준다고 만날(매일) 술만 먹고 술만 뜯어 먹고 땅을 안 잡아 줘.<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근게 박가로 허고 글을 배웠는디 하루는 즈 {외삼춘} 아들허고 쌈이 났어. 쌈이 났는디, 네놈이 지랄허나." 고 쌈이 난게,<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그런디 갈라믄 옷이라도 깨끗헌 놈 한 벌을 히주야는디 옷 한 벌 장만헐 계책이 없어. 근디 저 {외삼춘} 하나가 괜찮게 살어.<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외삼춘드리} 서:인디 기양 그때는 에링개 뭐 자상스럽께 무러보도 아너고.(외삼촌들이) 셋인데, 그냥 그때는 어려우니까 뭐 자상스럽게 물어보지도 안하고.)<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임실, 장수, 정읍, 진안.

외손지 명 [대응어] 외손자.

딸이 낳은 아들. ¶문득 외할머니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에에끼, 수악헌 영감태기 같으니라구! 딸자식과 무신 웬수 척졌다고 인자는 {외손지} 하나 꼴도 못 보는겨? 나는 문득 외할아버지의 표정을 살피기 위해 옆을 돌아본다.<이병철, 모래내 모래톱> ¶{외손지를} 귀여워 해봤자 아무 쓸모없는 물방앗고야. ¶할아버지가 {외손지}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

지역 정읍, 김제.

외손지딸 명 [대응어] 외손녀.

딸이 낳은 딸. ¶{외손지딸을} 돌보다

지역 임실.

외아들 명 [대응어] 외아들.

다른 자식이 없이 하나뿐인 아들. ¶외아들(서자 하나가 있기는 하니까 {외아들이랄} 수는 없지만 아무튼) 창식은 나이 근 오십 세요, 벌써 옛날에 시골서 아전집과 혼인을 했던 터이라 치지도외하고, 딸은 서울 어느 양반집으로 시집을 보냈읍니다.<채만식, 태평천하> ¶이기채는 홀로 우두커니 앉아 가슴이 패어 나가는 허전함을 담배로 메우려 한다. 그때마다 다친 곳처럼 욱신거리면서 떠오르는 얼굴은 {외아들} 강모였다.<최명희, 혼불> ¶이정승네 아들이 {외아들인갭드만}. {외아들이고} 아 그런게 둘이 인제 혼사질이 되아갖고 인제 연락이 되았단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아들을 하나 낳는디 참 {외아들로} 말년에 났어. 거 인자 그전에는 인자 오십동이도 있는디 그렇게 늦게 됐던 갑디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정읍, 군산, 남원, 부안.

ㅇ

외악쪽 명 [대응어] 왼쪽.

☞외약쪽.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외알때눈 명 [대응어] 애꾸.

눈이 한쪽 먼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사고로 {외알때눈이} 되었다.

지역 부안.

외알때백 명 [대응어] 애꾸.

눈이 한쪽 먼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사고로 {외알때백이} 되었다.

지역 부안.

외약눈 명 [대응어] 왼눈.

왼쪽 눈. ¶그런디 그게 무신 성국(형국, 形局)인고니 봉(鳳) 성국인디 그 옆으가서 매봉(一峯)이 있어, 매봉. 근게 매가, 아니 봉이 그 매를 뵈기(보기)싫은게, 그 우악한 짐승을 뵈기싫은게 이 오른눈 하나를 감고 있어. 이렇게 {외약눈만} 뜨고 있어. 그 성국으다 뫼(묘)를 썼어.<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근게 퉁두란이가 인자 핑을 날리고서는 이성계씨가 인자 쏘았어. 쏘아 갖고서는 좌(左), {외약눈을} 맞처서 떨어쳤다 그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전북.

외약대재 명 [대응어] 왼손잡이.

한 손으로 일을 할 때, 주로 왼손을 쓰는 사람. 또는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잘 쓰는 사람.

지역 전북.

외약대재이 명 [대응어] 왼손잡이.

한 손으로 일을 할 때, 주로 왼손을 쓰는 사람. 또는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잘 쓰는 사람.

지역 전북.

외약대쟁이 명 [대응어] 왼손잡이.

한 손으로 일을 할 때, 주로 왼손을 쓰는 사람. 또는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잘 쓰는 사람.

지역 전북.

외약발 명 [대응어] 왼발.

왼쪽 발. ¶가만히 봉게 {외약발이가} 티눈이 크게 하나 백혀 있드라고.

지역 전북.

외약빰 명 [대응어] 왼뺨.

왼쪽 뺨.

지역 전북.

외약사내끼 명 [대응어] 왼새끼.

볏짚을 왼쪽으로 꼬아 만든 줄. 볏짚 대궁이가 삐져나오게 꼬아서 가시가 돋힌 모양으로 만드는데 부정한 것이나 잡귀를 막는 의미가 있어 금줄로 쓰거나 의식에 사용한다. ¶정월 초 이튿날 당산제를 모시면 인자 그믐날 안날부터 기우(기우)를 허.궂은 것 안 먹고 문앞에다 금줄을 놓고 {외약사내끼를} 꽈서 금줄을 놔 놓고. 그래 가지고는 인자 음력 정월 초 이튿날 저녁에 당산제를 모셔.<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남원.

외약사내키 명 [대응어] 왼새끼.

왼쪽으로 꼰 새끼.

지역 전북.

외약손 명 [대응어] 왼손.

왼쪽 손. ¶{외약손} 잡음서도 바른손잽이인 척허야 할무니한티 안 혼났어. ¶남자가 주그머는 {외약소는} 앙 꺾고<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지역 전북.

외약손잽이 명 [대응어] 왼손잡이.

한 손으로 일을 할 때, 주로 왼손을 쓰는 사람. 또는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잘 쓰는 사람. ¶{외약손잽이가} 더 똑똑허다고도 허기도 했지.

지역 전북.

외약잽이 명 [대응어] 왼손잡이.

한 손으로 일을 할 때, 주로 왼손을 쓰는 사람. 또는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잘 쓰는 사람.

지역 전북.

외약짝 명 [대응어] 왼쪽.

☞외약쪽. ¶"오른짝이여, {외약짝이여}? 좋든 궂든 간에." "인자 들어 봇시요." 백단이가 오른쪽 그림을 우선 손가락으로 누르며 가리킨다.<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외약쪽 명 [대응어] 왼쪽.

북쪽을 향하였을 때의 서쪽과 같은 쪽. ¶싹 널쏘게다, 쌍너체. 오린쪽꺼선 오린쪼게다. {외약쪽꺼선} 외약쪼게다.(싹 널 속에다, 싹 넣지. 오른쪽 것은 오른쪽에다, 왼쪽 것은 왼쪽에다.)<2005 전북 남원> ¶"오백 명은 {외약쪽왼쪽으로} 스고 오백 명은 오른쪽으로 서라." 근게 오백 명씩 딱 갈러 섰어. 그 갈러 서갖고는 {외약쪽으로} 선놈은 {외약쪽} 젖을 짠게로 꿀떡꿀떡 넘어가지 오른쪽으로 선 오백 명은 오른쪽 젖을 짠게로 꿀떡꿀떡 넘어가지<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외약팔 명 [대응어] 왼팔.

왼쪽 팔. ¶종술은 고향땅에서 유난하게 놀던 시절을 이야기했다. 번쩍거리는 감시원 완장을 처억하니 {외약팔에다} 두른 채 저수지 안팎을 마냥 휘젓고 다니며 호랑이 아귓발보다도 더 겁나게 위세를 떨치던 빛나는 한때가 있었음을. <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외오치다 동 [대응어] 외치다.

큰 소리를 지르다. ¶그 하늘 속 천길 만길 깊은 속에서 소리 없는 소리로 외오쳐 오는 "어디 갔다 인제 오느냐?" {외오쳐} 오는, 피도 살도 다시 없는 님의 영혼 뿐!<서정주, 마지막 남은 것>

지역 전북.

해설 표준어 '외치다'는 "큰 소리를 지르다"라는 뜻을 갖는다. 전북 방언 '외오치다'는 '외치다'보다 강한 어감을 주는 어휘이다.

외옥질 명 [대응어] 구역질.

속이 메스꺼워 자꾸 토하려고 하는 짓. ¶속이 안 좋은지 아까부터 {외옥질이} 나온다.

지역 전북.

외장아치 명 [대응어] 오이지.

☞오이장아치.

지역 군산, 남원, 무주,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외장알치 명 [대응어] 오이지.

☞오이장아치.

지역 남원.

외지 명 [대응어] 오이소박이.

물외의 허리를 서너 갈래로 갈라 속에 파, 마늘, 생강, 고춧가루 등을 섞은 소를 넣어 담근 김치. ¶입맛 없을 때도 {외지만} 있으믄 밥 한 그륵 뚝딱이지.

지역 완주, 익산.

해설 '외지'는 오이소박이의 방언형으로, 또다른 전북 방언형 '외김치'와 관련이 있다. '지'는 전라도에서 '김치'의 방언형으로, 역사적으로 '디히'로 소급된다. '디히'는 《박통사(朴通事, 1510 추정)》에서 'ㅈㅑㆁ앳 디히'로 나타나는데 이는 현대 국어의 '장아찌'에 해당한다. '디히'는 어두의 구개음화와 어말의 /ㅎ/ 약화 및 모음 축약에 의해 현재의 '지'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

외짐치 명 [대응어] 오이소박이.
☞외김치.
지역 고창, 임실, 정읍.

외짱아치 명 [대응어] 오이지.
☞오이장아치.
지역 부안.

외통 명 [대응어] 외투.
☞외투.
지역 전북.

외통배기 명 [대응어] 애꾸.
눈이 한쪽 먼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한쪽 눈을 잃고 {외통배기가} 되었다.
지역 고창, 순창, 진안.

외통쟁이 명 [대응어] 애꾸.
눈이 한쪽 먼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사고로 {외통쟁이가} 되었다.
지역 무주, 완주, 정읍.

외한아씨 (外한아씨) 명 [대응어] 외할아버지.
어머니의 아버지. ¶"너 너그 {외하나씨가} 저 장으를 갖다가 소를 끅고 집에 오게 올 그 조수가 되먼, 니가 가서 칼을 갖고 가서 남바우를 쓰고 그 소를 뺏어라."<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그저는 서울로 자식기다가 인제 말허자먼 편지를 하나 써줬어. 큰놈기다가 떡 옷고름이다가 채줌서 그때는 선뵈는 놈 무상 출입이거던. 저그 하나씨가 {외하나씨가} 시관이 되든가 비드만. 시관. "암디 영으 가면 물어보믄 가먼은 그 거시기 불문시기고 가서 편지만 내 비어라."<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고창, 김제, 정읍.

외할매 (外할매) 명 [대응어] 외할머니.
어머니의 어머니. ¶아빠 왜 그래, 왜 그래, 헝게, 피가 너머오고 헝게 이상허다 허고, 아빠 아프다 헝게, 아그드리 처가찌비 여가 이씅게 저그 {외할매한테로} 기벼를 해써요. {아빠 왜 그래, 왜 그래, 하니까, 피가 넘어오고 하니까 이상하다 하고, 아빠 아프다 하니까 아이들이 처가집이 여기에 있으니까 저희 외할머니한테로 기별을 했어요}.<2008 전북 고창> ¶잘헌 일은 아니지만서도, 그런다고 이 {외할매만을} 탓허서는 못쓴다.<윤흥길, 장마>
지역 고창, 임실.

외할머이 (外할머이) 명 [대응어] 외할머니.
어머니의 어머니. ¶외할머이허고 우리 할머니허고 동생을 보러 오셨다.
지역 고창.

외할아부지 (外할아부지) 명 [대응어] 외할아버지.
어머니의 아버지. ¶우리 {외하라부지가} 사주도 보고 약또 지코, 하냑또 지코 그런 냥바니요.(우리 외할아버지가 사주도 보고 약도 짓고, 한약도 짓고 그런 양반이요.)<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지역 완주, 남원, 임실.

왹손 명 [대응어] 왼손.
왼쪽 손.
지역 무주.

왼- 【접두사】 [대응어] 온-.

((일부 명사 앞에 붙어)) '꽉 찬', '완전한' 따위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큰방의 쟁인 장모/{왼절은} 못 받어도/반 절이나 받읍소사/작은 방의 처남 남매/{왼절은} 못 받어도/반 절이나 받읍소사(완주 강실도령-"강돌 강돌 강도령")<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전북.

왼굉일 (←온空日) 명 [대응어] 온공일.

하루를 온종일 쉬는 날이라는 뜻으로, '일요일'을 이르는 말. ¶하루는 인자 친구덜이 집에를, {왼굉일이라구} 놀러를 왔어.

지역 전북.

왼몸 명 [대응어] 온몸.

몸 전체. ¶어느새인지 光化門앞에 다다렀다. 光化門은 차라리 한채의 소슬한 宗教. 조선 사람은 혼이 그 머리로부터 {왼몸에} 사무쳐 오는 빛을 마침내 보선코에서까지도 떠바뜰어야할 마련이지만, 왼하늘에 넘쳐흐르는 푸른 光明을 光化門 - 저같이 으젓이<서정주, 시집> ¶고 연못 물얼 마시먼 좋다구 그러니까능 낼름 한 바가지 퍼서 마셨지. 그랬드니만 참말로 {왼몸에} 기운이 나넌거여.

지역 고창, 군산, 완주, 장수.

왼뫔 명 [대응어] 온몸.

☞왼몸.

지역 완주, 장수.

왼보리 명

까스라기나 껍질을 벗기고 난 보리의 알맹이. ¶껍질을 벳겨야 왼보리가 나오제. 왼보리가 보리여. 그게 보리당게.

지역 전북.

왼사내끼 명 [대응어] 왼새끼.

볏짚을 왼쪽으로 꼬아 만든 줄. 볏짚 대궁이가 삐져나오게 꼬아서 가시가 돋힌 모양으로 만드는데 부정한 것이나 잡귀를 막는 의미가 있어 금줄로 쓰거나 의식에 사용한다. ¶"조상신을 잘 섬기는 것이 부녀자의 할 일이지. 그래서 위패 대신 정결한 단지를 가신으로 모시는데, 이것이 신체(神體)지. 신체. 그냥 단지가 아니라. 그 신의 몸 속에다가는 그해에 처음 나는 햇보리나 햅벼를 철 맞추어 가득 담어 놔야 해." 그리고 나서는 곡식 넣은 단지를 문종이로 봉하여 {왼새끼로} 둘러 묶고, 그 위에 널빤지를 얹어 놓았다. 오류골댁 웃목에도 수천댁 웃목에도, 또 누구네 웃목에도 집집마다 반들반들 윤이 나는 조상단지는 앉아 있었다.<최명희, 혼불>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유택(幽宅)으로 떠나는 망인의 마지막 모습을 배웅하려는 사람들이 상여 뒤쪽에 에워 서 있는데, 굴건(屈巾) 제복(祭服)의 이기채는 오동나무 상장(喪杖)을 짚은 채 창자를 훑어 내는 아픔으로 곡을 한다. 효건(孝巾)을 쓴 위에 굴건을 쓰고, 거친 삼베로 재최복을 입은 그는, 삼대를 발라 낸 피삼을 {왼새끼로} 동아줄같이 꼰 삼노로 수질(首?)을 만들어 머리에 두르고 요질(腰?)을 만들어 허리에 두른 채, 다리에는 삼베 행전을 치고, 흰 무명을 신총에 감은 짚신을 꺼칠하게 신고 있다.<최명희, 혼불> ¶철수는 왼손잡이라 {왼사내끼를} 꼰다.

지역 전북.

왼새끼 명 [대응어] 왼새끼.

☞왼사내끼.

지역 전북.

왼손지 명 [대응어] 친손자.

자기 아들의 아들. ¶내가 왼손지만 여섯이여. 외손지는 둘이고.

지역 전북.

왼집 명

자기 집에서 생활함. 또는 그렇게 사는 일. 곁방살이와 상대되는 말. ¶남으 집 곁방살이 허는디 문 보름을 쇠고 상을 차려 놓겄어? 선영도 없는디. {왼집} 살아야 찰밥이라도 허고 상이라도 차려 놓는디.

지역 전북.

왼짝 명 [대응어] 왼쪽.

☞왼쪽. ¶그래서 도둑질을 큰애기때부터 했어. 거미가 그때 양쪽 코구녁에 하나씩 들어야 허는디, 세 개가 되어 있어. {왼짝편에} 있어 가지고. 하나를 죽여버린개, 그래 갖고 그 뒤에는 도둑질을 안 하드래.<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전북.

욀베쌀 명 [대응어] 오례쌀.

올벼의 쌀. ¶{욀베쌀로} 송편을 빚다.

지역 전북.

왊기다 동 [대응어] 옮기다.

어떤 곳에서 다른 곳으로 움직여 자리를 바꾸거나 번지게 하다. 또는 사상이나, 버릇 따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거나 입히게 하다. ¶인제 무(無) 헌건 사실이여. 다시 {왊기던} 못허고.<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자다가 가만히 바느질 허는 부인네 한티로 요렇게 다리를 {왊겨서} 얹었더만은 가만히 들어서 이렇게 놔.<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아그럴 안에서 못 키우게 허먼 우리 친정에라고 {왊기면} 된께라." 들몰댁의 말이었다.<조정래, 태백산맥> ¶여러가지 생각을 허보고 결정을 히야지 수십년 살던 집을 {왊기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이냐. ¶불길이 삽시간에 {왊겨} 붙어서 뒷산까지 다 타버렸당게.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사상은 이 나라 여기저기에 {왊겨서} 좋은 영향을 미쳐야 혀.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욉두로 부 [대응어] 외따로.

홀로 따로. ¶{욉두로} 다니다

지역 전북.

욉디다 형 [대응어] 외지다.

외따로 떨어져 있어 구석지다. ¶골목이 {욉디고} 무섭다. ¶우리 집은 마을 {욉딘} 곳에 있응게 죄용허니 살기는 좋은디 대신 찾어 오는 사람이 즉지.

지역 전북.

욉딘집 명 [대응어] 외딴집/웨딴집.

☞외뜬집.

지역 전북.

욉히다 동 [대응어] 업히다.

☞왑히다.

지역 전북.

욍게 명

길마 양쪽에 매달아 곡식을 담아 나르던 짚으로 만든 가마니. ¶질매 욍게에다 곡석은 담아 오고

지역 전북.

욍기다 동 [대응어] 옮기다.

어떤 곳에서 다른 곳으로 움직여 자리를 바꾸거나 번지게 하다. 또는 사상이나, 버릇 따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거나 입히게 하다. ¶어디 딴 디 {욍기든} 말고 꼭 대실아씨만 알게 그 귀에다가만 말씸 디리그라, 그러드랑마요.<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욍기다'는 표준어 '옮다'의 사

동사인 '옮기다'에 대응하는 어휘이다. '옮기다'는 /ㅣ/ 모음 역행 동화가 일어나 '옮기다>윍기다>욍기다, 앵기다'의 과정을 거쳐 생성되었다.

-요 【종결어미】 [대응어] -어요.
해요할 자리에 쓰여, 설명·의문·명령·청유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상대에게는 잘 쓰지 않는다. ¶안 {오요}?<최전승 외(1992)> ¶언제 {오요}?<최전승 외(1992)> ¶{가보요}<최전승 외(1992)>
지역 무주.

요강단지 명 [발음] [요강딴지] [대응어] 요강.
방에서 오줌을 누는 데 사용하던 그릇. 주로 사기나 놋쇠 등으로 만들었다. ¶엿들 사, 개똥이도 쇠똥이도 다 나와서 엿들 사, 뭣이든지 다 갖고 와 엿들 사, 고무신짝 운동화짝 지까다비짝 떨어러러진 것, 내오간에 쌈허다가 {요강단지} 찌그르르러진 것, 고부간에 쌈허다가 머리끄뎅이 뜯으드드낀 것, 동세찌리 쌈허다가 인둣자락 뿌르르르러진 것, 시아바지 방구질에 모시바지 삼베바지 빵꾸꾸꾸꾸난 것.<윤흥길, 소라단 가는 길> ¶새벽에 {요강단지를} 차서 인자 요강을 빌라고 인자 나간게 바람이 이렇게 불면 요렇게 돌아오고 요렇게 불면 요렇게 돌아오고. 송장이 그러거든. {요강단지를} 홀딱 내쏘고는 왈칵 보듬아서 방으다 새끼들허고 떼다놓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할머니 방에 {요강단지} 가져다 비운 후 시암에 물 담아두렴.
지역 김제, 남원, 정읍.

요곳 대 [대응어] 요것.
'이것'을 낮잡아 이르거나 귀엽게 이르는 말. ¶{요곳이} 믄 글짜여 지랭이가 한잔 걸치고 춤춤서 문대고 갔고만이라우. 「2」 '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삼인칭 대명사. ¶워매, {요곳이} 뻰데기 면전에서 주름 잡을라고 허고, 도챠 앞으서 삽질허고 자빠졌네.
지역 고창.

요껍닥 명 [대응어] 요의.
방의 바닥면에 닿는 쪽의 요 껍데기. ¶{요껍닥을} 벗기다 ¶{요껍닥} 좀 벗겨서 빨아야 겠다.
지역 정읍.

요껍대기 명 [대응어] 요의.
☞요껍닥.
지역 익산, 무주.

요껍디기 명 [대응어] 요의.
☞요껍닥.
지역 무주.

요내기 명 [대응어] 노래기.
벌레의 한 가지. 마디발동물 중 다리가 가장 많고 몸에서는 노린내가 난다. 햇볕을 싫어하고 주로 습기가 많은 낙엽 밑이나, 초가지붕에 많이 산다. ¶이렇게 하면 집안에 요내기가 없어지고 그 콩이 볶이는 것처럼 금년 농사에 모든 병충해가 다 볶이어 없어진다. ¶발 없는 {요내기는} 봤어도 다리 안 달린 소문은 못 봤네. ¶밑바닥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니는 워낙 {요내기} 회쳐먹게 타고난 비위 차례를 하느라고 여간해서 기도 안 죽었다.
지역 전북.

요냉이 명 [대응어] 노래기.
☞요내기.
지역 전북.

요대구 명 [대응어] 요때기.
'요'를 속되게 이르는 말. ¶{요대구를} 깔다
지역 전북.

ㅇ

요대기 명 [대응어] 요때기.

'요'를 속되게 이르는 말. ¶궤짝 같은 소나무 반닫이 위에 얹힌 이부자리 {요대기를} 끌어내리던 황아장수는 내심으로 놀란 기색이 역력하였다.<최명희, 혼불> ¶가만히 동지 선달인디 암만 없는 집에서 옷을 빨아 입었어두 이가 겁나게 입고 온게, {요대기를} 주욱 깔아 준게, 이거 사둔네 {요대기에다} 이 한 마리라도 떨치은게 덜 좋으닝게, 이를 안 떨치기 위해서 옷을 싹 벗어다가 요쪽 사랑방 모퉁이다 넣어놓고는 잠을 잤드라 이거야.<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암탉이 알을 품을 수 있게 닭장 구석에 {요대기를} 깔아주련.

지역 남원, 부안, 정읍, 김제.

요대이 명 [대응어] 요때기.

'요'를 속되게 이르는 말. ¶{요대이를} 깔아 놓다

지역 전북.

요란뻑적지근하다 형 [대응어] 요란하다.

시끄럽고 떠들썩하다. 또는 정도가 지나쳐 어수선하고 야단스럽다. ¶뭔 놈에 연설이 고러콤 {요란뻑적지근허다냐} ?<윤흥길, 소라단 가는 길>

지역 전북.

해설 표준어 '요란하다'는 형용사로 "시끄럽고 떠들썩하다, 정도가 지나쳐 어수선하고 야단스럽다"의 뜻을 갖는다. 표준어 '벅적하다'는 "많은 사람이 매우 어수선하게 큰 소리로 떠들거나 움직이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 두 어휘가 복합되어 '요란뻑적하다'가 되고 거기에 형용사를 파생시키는 '-지근하-'가 연결된 것이다.

요랗고 부 [대응어] 요렇게.

요와 같이. 요런 모양으로. ¶아들이 나면(태어나면) {요라코} 좋은 일이 어디가 있어.<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전북.

요롷고 부 [대응어] 요렇게.

요와 같이. 요런 모양으로. ¶촌 어매 아부지들이 {요로코} 강치헐 저근 마지막 물꼭질 틀어놔얀디.

지역 전북.

요상시럽다 형 [대응어] 이상스럽다.

보기에 이상한 데가 있다. ¶오래 살다보니깨 참말로 벨 {요상시런} 사람을 다 만나네.<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보기에 이상한 데가 있다. ¶인제 웃집이도 아들 낳고 아랫집이도 아들 낳고 그런게 {요상시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밖이 소란스럽더니 {요상시럽게도} 조용해진 이유가 뭘까? ¶숙자네 엄마가 이런 말을 하다니 참 {요상시럽구먼}.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에서 쓰는 '요상하다'와 '요상시럽다'는 모두 형용사로 표준어 '이상하다, 이상스럽다'에 대응한다.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두 어휘가 교체되어 사용되고 있다. '요상시럽다'는 '요상스럽다'의 '-스럽-'이 '-시럽-'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스>시'의 전설모음화를 겪은 형태이다. '스, 즈, 츠>시, 지, 치'의 전설 모음화는 19세기 후기부터 시작되었다. 한편 '요기'가 '여기'보다 가리키는 범위가 좁은 느낌을 준다는 점을 참고하면 '요상시럽다' 역시 '이상스럽다'보다 작은 느낌을 준다고 할 수 있겠다.

요상하다 형 [대응어] 이상하다.

정상적인 상태와 다르다. ¶오매, 오래 살다 보니깨 참말로 벨 {요상헌} 일도 다 보겄네!<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요상하다'는 표준어 '이상하다'

에 대응된다. 국어사전에서 '요상하다'는 규범 표기를 '이상하다'로 제시하고 있고, 방언으로 처리하지 않고 있다.

요새 뭐 [대응어] 요즈음.

바로 얼마 전부터 이제까지의 짧은 동안. ¶"그런데, {요새는} 그 원두막 주인보다 더 부러운 사람이 있소."<송기숙, 녹두장군> ¶쫓아내고나믄 {요새는} 맞선보고 뭐 서로 개리고 허지만은 <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우리 엄마는 {요새} 가딱하면 성질을 내서.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정읍, 진안, 장수.

해설 '요새'는 표준어의 '요사이'의 준말이나 전북 방언에서는 '요즈음'과 구별되지 않는다.

요세 뭐 [대응어] 요즈음.

☞요새.

지역 장수.

요속 명 [대응어] 요의.

방의 바닥면에 닿는 쪽의 요 껍데기. ¶느그가 잃어버린 물건 잘 찾는다니, {요속에} 있는 것은 느그가 알아 맞추면 목숨을 살려 주고 만일에 안 알아 맞추면<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진안, 남원.

요시 명 [대응어] 요사이.

이제까지의 매우 짧은 동안. ¶{요시} 동니 놈덜 모다 버릇없이 돼가는 작태는 나가 기연시 고쳐 놓을팅게 그리 알고 각오덜을 단단히 허라 일러라.<조봉래, 풀벨골> ¶{요시} 생활이 어뜨냐? <구비문학, 정읍시> ¶{요시같이} 여움서 뭘 히서 주고 이렇게 재산을 주었으면 헐 챔인디 딸만 걍 주어 버릿단 말여.<구비문학, 정읍시> ¶방으로 들어 앉히고 참 좋은 밥 그 {요시로} 말허믄 그 쌀밥, 그놈을 이렇게 한 그릇을 주는디, 그런 거요. 집이서 잘 먹던 사람은 쌀밥을 한 그릇을 먹어도 탈이 안 나는디, 이 쌀밥이 참 독한 것입니다.<구비문학, 정읍시> ¶{요시는} 먼짓을 허고있는지 통 나빤대기를 볼 수가 없어.

지역 전북.

요안 명 [대응어] 요의.

방의 바닥면에 닿는 쪽의 요 껍데기. ¶{요안을} 빨다

지역 진안.

요좀 뭐 [대응어] 요즈음.

바로 얼마 전부터 이제까지의 짧은 동안. ¶{요좀} 뭐 헌다고 싸돌아댕기냐. ¶{요좀에} 통 비가 안와서 난리야.

지역 장수, 진안, 부안, 군산, 익산, 임실, 정읍, 고창, 김제.

해설 '요좀'은 '요즘'의 제2 음절 모음이 음절말 자음 /ㅁ/의 양순성에 동화된 결과 /ㅡ/가 /ㅗ/로 바뀐 것이다.

요지음 뭐 [대응어] 요즈음.

바로 얼마 전부터 이제까지의 짧은 동안. ¶{요지음} 벼 한섬에 칠 원 각수가 잽히니까 열두섬……<채만식, 조그마한 기업가> ¶원래가 김선달이란 것은 {요지음} 소리지, 뭐 꾸민 것 같습니다.<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순창.

요짐 뭐 [대응어] 요즈음.

☞요좀.

지역 고창, 김제.

요참번 명 [대응어] 요번.

이제 막 돌아왔거나 지나간 차례. ¶{요참번} 시험은 잘 볼 것이다 ¶허는 짓마다 마음에 꺼실렸는디 {요참번}에 아주 혼꾸녕을 내야겄네.

지역 전북.

요판 명 [대응어] 요의.
방의 바닥면에 닿는 쪽의 요 껍데기. ¶{요판을} 꿰매다
지역 군산.

요혼지 명 [대응어] 욧잇.
요의 몸에 닿는 쪽에 시치는 흰 헝겊. ¶{요혼지를} 벗기다
지역 장수.

요홍지 명 [대응어] 욧잇.
☞요혼지.
지역 장수.

요홑니 명 [대응어] 욧잇.
요의 몸에 닿는 쪽에 시치는 흰 헝겊. ¶{요홑니를} 뜯다
지역 전북.

요홑이불 명 [대응어] 요의.
방의 바닥면에 닿는 쪽의 요 껍데기. ¶${요홑이불을], 널다
지역 고창, 부안, 순창, 익산.

욕보 명 [대응어] 욕쟁이.
욕을 잘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저 욕보, 오늘은 욕 안 허고 그냥 지나가나 했다.
지역 전북.

욕잔소리 명
욕을 섞어 가며 하는 잔소리. ¶게다가 꾸므룩헌 날씨 봄서 오지 않는 비를 {욕잔소리} 히댐서는 점잔만 빼고 앙거 있는 방장산에게 멀크락 나고 첨으로 물어 본다.
지역 고창.

욜래통 명 [대응어] 방정.
찬찬하지 못하고 몹시 가볍고 점잖지 못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 ¶{욜래통을} 떨다
지역 전북.

욧이 명 [대응어] 욧잇.
요의 몸에 닿는 쪽에 시치는 흰 헝겊. ¶{욧이를} 빨다
지역 고창, 순창, 군산, 임실.

용대하다 동 [대응어] 꾸다(借).
뒤에 도로 갚기로 하고 남의 것을 얼마 동안 빌려 쓰다. ¶꿔달라고 허등가. 그러치. 빌려달라고도 허죠. {용대히} 달라고 허등가.<완주_지역어_텍스트>
지역 완주.

용도하다 동 [대응어] 꾸다(借).
뒤에 도로 갚기로 하고 남의 것을 얼마 동안 빌려 쓰다. ¶돈을 빌리는 것을 {용도한다고} 한다
지역 완주.

용두 동 [대응어] 수음.
손이나 다른 물건으로 자기의 성기를 자극하여 성적(性的) 쾌감을 얻는 행위를 낮잡아 이르는 말. ¶중 하나가 춘정(春情)을 이기지 못히서 뒷산으로 가서 사람이 안 보넌 바웃돌 우그 앉어서 {용두럴} 쳤어.<구비문학대계 진안군>
지역 진안.

용두마리 명 [대응어] 활대.
활등을 이루는 대. 활의 몸체를 이른다. ¶용두마리가 휘다.
지역 임실.

용두머리 명 [대응어] 활대.

☞용두마리.
지역 임실.

용마람 명 [대응어] 용마루.
지붕 가운데 부분에 있는 가장 높은 수평 마루. ¶예예. {예예}. 밀찌비로 인재 그 용마람 트러가 가꼬, 당허락1233)1233) '담'의 방언형. 일반적으로 전북 방언에서 '다무락'으로 실현되는데, 여기서는 '당허락'으로 실현되고 있다. 인재 비 암맏께 이르캐 인재 밀찌브로 {용마람} 트러 언져요. {밀짚으로 이제 그 용마름 틀어가지고, 담 이제 비 안 맞게 이렇게 이제 밀짚으로 용마름 틀어 얹어요}. ¶그면. {그러면}. 인는 사람드른 인재,<지역어 자료 총서, 무주> 다시 이제 한 번 또 싹 둘러야 돼요}. 싹 둘루고 맨: 위에다가 이러케 하능거, 용마람. {싹 두르고 맨 위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 용마름}.{용마람} 이르케 트르 가꼬서 인재. {용마름 이렇게 틀어가지고서 이제}.이 영이라능건 이르케 이르케 이르케 맏때자나 이르케. {이 이엉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맞대잖아 이렇게}. 인제<지역어 자료 총서, 무주>아 근게 탄관 씬놈이, "가만 있으요. 가만 있으요." "안잡어먹을틴게 느덜들 어찌게든지 갖고오기만 혀라." 그놈이 딱허니 인자 아 쥐란놈덜 죄다(전부) 오라고 혔어. "가서, 마룻대(1) 가서 {용마람부텀} 다 뱃기고, 다 조사서(갉아서) 뱃기고 그 대들보를 어찌게 흔들어라. 그러믄 거그, 인자 대들보 다 새기믄 부러질 것 아니냐. 부러지믄 저놈이 일어난게 그적으(그때에) 느그가 갖고 오니라." 아 이렇게 쥐란<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고창, 김제,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익산, 임실, 정읍, 진안, 완주.

용마름 명 [대응어] 용마루.
☞용마람. ¶그래 살짝살짝 발자취를 죽여 가지고서, 인정기도 없이 가만가만 가서 문구멍으로 들여다 본개 지네가, 저 {용마름} 같은 지네가 좌우간! 가만히 있어. 어찌 놀랬던지, 사람을 불러가지고, "야 이거 우리집에 큰일 났다. 이리 오너라!"<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완주, 남원.

용마리 명 [대응어] 용마름.
초가의 지붕마루에 덮는 'ㅅ' 자형으로 엮은 이엉. ¶{용마리에} 박꽃이 피다
지역 완주.

용모롬 명 [대응어] 용마름.
초가의 지붕마루에 덮는 'ㅅ' 자형으로 엮은 이엉. ¶인자 빵~ 요로케 동드로머니 이러케 덕썩가치 짠 노미 인씨먼 인자 거그다가 나라글 한나 다마노코 인자 지푸로 인자 우를 딱 히서 날개로, 날개로 땅~ 이지, 여서 땅 이지 우게다 {용모롬} 하나 딱 요로케 씨워노먼 인자, 거가 비가 안새고, 거가 고고이 나락 뒤지여.(인제 빵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덕석 같이 짠 놈이 있으면, 인제 거기에다가 나락을 가득 담아 놓고 이제 짚으로 이제 위를 딱 해서 날개로, 날개로 땅, 이제 여기에서 땅 이제 위에다 용마름을 하나 딱 이렇게 씌워 놓으면 이제, 거기가 비가 안 새고 거기가 그것이 벼 뒤주야.)<2005 전북 남원>
지역 남원, 장수, 임실.

용모룸 명 [대응어] 용마름.
☞용모롬.
지역 전북.

용찬 명 [대응어] 조기.
조기 반찬. ¶모 심다 참 먹을 때 오곡밥에 {용찬} 갖다 주고.
지역 전북.

용총배기 명 [대응어] 문둥이.

나병 환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 ¶우리 핵교 다닐 때만해도 {용총배기가} 봄에 보리밭에 숨었다가 나타나갖고 애들 잡아서 간을 먹는다고 했어요.<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전북.

우게 명 [대응어] 위.
어떤 기준보다 더 높은 쪽. 또는 사물의 중간 부분보다 더 높은 쪽. ¶니 {우게에} 형말고 또 누가 있냐, 형한티 잘허야 혀!
지역 순창, 부안, 김제, 완주, 익산, 정읍.

우게텍 명 [대응어] 위턱.
☞우그턱.
지역 전북.

우구리다 동 [대응어] 우그리다.
힘을 들여 물체 따위를 안쪽으로 줄어지게 하다. ¶{우구려라} {우구려라} 우루려라/우굴 우굴 우굴 우굴 우굴 우굴 {우구려라아아아} 허어허어어/열이 열두 포구럴 한 낫질로 걸구서/당그래 낫질로만 {우구려라아어}/어디 허고!(옥구 벼베는 소리)<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군산.

우굴치다 동 [대응어] 우그러뜨리다.
물체를 우글쭈글하게 주름이 잡히며 줄어들게 하다. 물체를 안쪽으로 우묵하게 휘어져 들어가게 하다. ¶티를 안 낼려고 허도 내가 젤로 시러허는 놈이 오니께 낯짝을 {우굴치면서} 서있게 되더랑게. ¶그런 것이 행편이 없었는지 도화지를 {우굴치며} 베깥으로 나가버렸다. ¶양철통을 {우굴처서} 바닥에 부득시려버렸제.
지역 전북.

우그턱 명 [대응어] 위턱.
턱의 위쪽 부분. ¶{우그턱보다} 아래턱이 더 나왔다
지역 전북.

우끈거리다 동 [대응어] 욱신거리다.
생각이나 감정 따위가 여럿이 한데 많이 뒤섞여 몹시 수선스럽게 들끓다. 또는 머리나 상처 따위가 자꾸 쑤시는 듯이 아파 오다. ¶효원만 생각하면 가시 박힌 손가락 끄트머리처럼 소스라쳐지면서 가슴이 {우끈거린다}. 효원의 기(氣)가 숨막히게 느껴진다.<최명희, 혼불> ¶갑자기 머리가 퉁 내려앉으며 {우끈거리기} 시작했다. 몹시 아팠다.
지역 전북.

우끈우끈 부 [대응어] 욱신욱신.
☞욱근욱근.
지역 전북.

우끈우끈하다 동 [대응어] 욱신욱신하다.
머리나 상처 따위가 자꾸 쑤시는 듯이 아픈 느낌이 들다. ¶가슴이 퉁 내려앉으며 {우끈우끈} 뛰기 시작했다.<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우대다 동 [대응어] 받들다.
공경하여 모시다. 또는 소중히 대하다. 또는 가르침이나 명령, 의도 따위를 소중히 여기고 마음속으로 따르다. 또는 물건의 밑을 받쳐 올려 들다.
지역 전북.
해설 '위대다'는 '위+대다'로 분석된다. '위(를) 대다'의 구 구성을 사용한 은유 표현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우댕이 명 [대응어] 꼭대기.
높이가 있는 사물의 맨 위쪽. ¶모시 {우댕이} 잡고 밑이는 싹 훑어. 그리가꼬 모시를 이렇게 껍

질을 벳겨. ¶모싯잎 송편 만들라면 {우댕이만} 뜯어서 쐶아서 먹어.
지역 전북.

우등 명 [대응어] 목말.
남의 어깨 위에 두 다리를 벌리고 올라타는 일. ¶{우등을} 타다
지역 부안, 임실.

-우러 【연결어미】 [대응어] -으러.
목적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피 {뽀부러}(뽑으러) 간다고 허고<백은아(2016)>
지역 남원.

우렁 명 [대응어] 우렁이. ¶그래 인제 하루는 지켰어. 지켰더니, 참 예쁜 각씨가 나와. 우렁 속에서 아, {우렁} 속의 미녀구나, 지금. 그 나와서 꽉 잡았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비암이 시방 {우렁을} 잡으러 간단 말이여, 깨구락지(개구리) 깨구락지를 잡으러가. 비암이 깨구락지를 잡으러 가는디, 비암이 깨구락지를 달칵 줏어먹어 버린단 말이여.<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논에 가서 {우렁을} 많이 잡을 수 있다는 것은 농약을 안 친 논이라는 거지.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우렁세이 명 [대응어] 우렁이. ¶냇가에 가서 {우렁세이를} 잡다
지역 전북.

우레내다 동 [대응어] 우려내다.
물체를 액체에 담가 성분, 맛, 빛깔 따위가 배어 들게 하다. 또는 생각이나 감정 따위를 끄집어내다. 또는 꾀거나 위협하거나 하여서 자신에게 필요한 돈이나 물품을 빼내다. ¶볶은 보리를 뜨건 물에 {우레내면} 찐헌 보리차가 되지. ¶농익은 김치찌개 냄새가 고향 생각을 {우레내는} 것 같아요. ¶추억을 {우레내려고} 옛 고향에 갔는디, 암것도 없도만. 다 변해서 추억헐 수가 없더라고. ¶시상이나, 독혀, 그 어린 넘을 갖다가 삼년 {우레내 먹드라고}.
지역 전북.

우레묵다 동 [대응어] 우려먹다.
음식 따위를 우려서 먹다. 또는 이미 썼던 내용을 다시 써먹다. ¶지난 번에 써먹은 농담을 다시 {우레묵다}.
지역 전북.

우로 조 [대응어] 으로.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 재료나 원료, 방법이나 방식 따위를 나타내는 격 조사. 또는 움직임의 방향이나 경로를 나타내는 격 조사. 또는 어떤 일의 원일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격 조사. ¶{몸우로}<이길재(1990)> ¶{치무로} 으어니 막 쪼사야 허(침으로 의원이 막 쪼아야 해)<백은아(2016)> ¶{여푸로} 두러뉠떤지 포리라도 요로케 오그렌따던지 허머는(옆으로 드러누웠든지 팔이라도 이렇게 오그렸다든지 하면)<백은아(2016)> ¶미영 고무를 {지부로} 가지고 왇써요(무명 고물을 집으로 가지고 왔어요)<백은아(2016)> ¶{지그무로}(지금으로) 허자면 지서제 지서.<백은아(2016)> ¶{지푸로}(짚으로) 산내끼를 꼬아 가꼬<백은아(2016)> ¶그 {사부로}, 흑(흙) 떠 갇꼬 세 번씩 하고.<백은아(2016)>
지역 남원, 고창, 완주.

-우름- 【접미사】 [대응어] -으레-
'빛깔이나 형상이 앞말과 비슷함'의 뜻을 더하여서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물구룸허다(물그레하다)<이기갑(1998)> ¶뿔구룸허다(불그레하다)<이기갑(1998)>
지역 전북.

우르 명 [대응어] 우리.
말하는 이가 자기와 듣는 이, 또는 자기와 듣는 이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 ¶저 달 뒤여는 빌이 종종 딸코 저 빌 뒤여는 {우르} 님이 딴다(저 달 뒤에는 별이 종종 따르고 저 별 뒤에는 우리 님이 따른다)/에야 뒤야에 헤 헤 헤야 에야 디여루 산어니로 구나(고창 산아지타령)<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바람아 강풍아 석 달 열흘만 불어라/{우르댁} 서방님 명태잽이를 갔노라(고창 너냥 나냥)<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고창.

우멍스럽다 형 [대응어] 의뭉스럽다.
보기에 겉으로는 어리석어 보이나 속으로는 엉큼한 데가 있다. ¶근디 늬 말대로 {우멍스럽기는} 혀도 여간히서 승질을 부리지는 않을 거다.<이병천, 모래내 모래톱>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우멍스럽다'는 '우멍하다'로도 쓰이는데, 표준어의 '의뭉스럽다'에 해당한다. '우멍+-스럽다'로 분석된다.

우멍자멍 명 [대응어] 비몽사몽.
완전히 잠이 들지도 잠에서 깨어나지도 않은 어렴풋한 상태. ¶아침에 일어나 {우멍자멍} 간에 밥을 먹는다.
지역 전북.

우멍하다 형 [대응어] 의뭉하다.
겉으로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면서 속으로는 엉큼하다. ¶저 치사하고 비열하고 {우멍하고} 쪼잔하고 한심하고 야비하고 비겁하고 멍청하고 유치하고 째째한 자들<김용택, 저자들은 애국자>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우멍하다'는 '우멍스럽다'로도 쓰이는데, 표준어의 '의뭉하다'에 해당한다. '우멍스럽다'가 쓰이는 것으로 보아 '우멍+-하다'로 분석된다.

우벙 명 [대응어] 우엉. ¶{우벙을} 캐다
지역 남원.

우뻿쭈뻿 부 [대응어] 쭈뼛쭈뼛.
물건의 끝이 삐죽삐죽하게 솟은 모양. ¶천지가 먹장같이 깜깜한 오밤중에 더 못 참고 할 수 없이 일어나 그곳으로 가자면 {우뻿쭈뻿} 방앗간에 매달린 기구들의 음산한 그림자에 까닭 없이 놀라고,<최명희, 혼불> ¶돌맹이들이 {우뻿쭈뻿} 나오기도 하고 구덩이가 패이기도 한 골목길을 대중없이 디디며 함부로 우벅주벅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한승원, 해일>
지역 전북.

우세 명
남에게 받는 비웃음과 놀림. ¶나서지 말고 가만이 있으랑게 {우세를} 도매금으로 시키고 댕기는 구만 이~. ¶쩌번에는 칠대일로 이기다가 느닷없이 져 갖고 기아를 도매금으로 {우세} 시키등만.
지역 고창.

우세 사다 【관용표현】
남에게 비웃음과 놀림을 받다. ¶째깐허다고 무시허고 땅깔로 봤다간 영금 봐 불고 겁나게 {우세 살} 것이요. ¶겁나 망신에 {우세 상게로}, 잘 봐 갖고 뽀개라 이~.
지역 고창.

우세두세 부 [대응어] 두런두런.
나직한 목소리로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는 모양. ¶조금 있다가 사랑방인 듯한 데서 {우세두세} 소리가 들리며 대문 소리가 들리더니 도로 조용

해진다.<채만식, 염마>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우세두세'는 표준어의 '두런두런'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여러 사람이 모여 내는 작은 소리나 그 모습"을 나타내는 부사이다.

우세두세하다 동 [대응어] 두런두런하다.
여럿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서로 조용히 이야기하다. ¶이윽고 {우세두세 하는} 기척들이 마당에서 일기 시작했다.<윤흥길, 낫>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우세두세하다'는 표준어의 '두런두런하다'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여러 사람이 모여 작은 소리를 내다"를 의미하는 동사이다.

우수 명 [대응어] 덤.
제 값어치 외에 거저로 조금 더 얹어 주는 일. 또는 그런 물건. ¶그 가수원 인심이 좋아 갖고 사고 보니께 {우수가} 더 많네.
지역 전북.

우수 주다 【관용표현】 [대응어] 끼워 주다.
끼워 주다. ¶좋은 사과를 많이 샀으니 저기 벌레 먹은 사과를 우수로 주시구려. ¶시골 장터에서 감자를 샀더니 {우수로} 더 주었다.
지역 전북.

우술 명 [대응어] 도깨비바늘. ¶{우술이} 자라다
지역 전북.

우술초 명 [대응어] 도깨비바늘. ¶{우술초가} 자라다
지역 전북.

우시꽝시롭다 형 [대응어] 우스꽝스럽다.
말이나 행동, 모습 따위가 특이하여 우습다. 매우 가소롭다. ¶그의 옷차림이 우시꽝시롭다. ¶별것도 없으면서 거드름 피우는 게 우시꽝시롭다.
지역 전북.
해설 '우시꽝시롭다'는 '우스꽝스럽다'에 두 가지 음운 현상이 적용된 결과이다. 우선 제2 음절 모음과 제4 음절 모음이 'ㅡ>ㅣ'로 전설 모음화하였으며, 제5 음절 모음은 음절말 자음 /ㅂ/의 양순성에 동화되어 비원순 모음 /ㅓ/가 원순 모음 /ㅗ/로 변화하였다.

우알로 부 [대응어] 위아래로.
위쪽과 아래쪽으로. 또는 위계에 따라. ¶요시 것덜은 {우알로} 예법도 없이 들입다 농짓거리를 허려 덤빈다 말여.<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우엄 명 [대응어] 수염.
성숙한 남자의 입 주변이나 턱 또는 뺨에 나는 털. ¶{우엄이} 나다
지역 무주.

우염 명 [대응어] 콧수염.
코 아래에 난 수염. ¶{우염을} 아주 멋지게 기르셨고만요.
지역 무주.

우왁스럽다 형 [대응어] 우악스럽다.
보기에 미련하고 험상궂은 데가 있거나 무지하고 포악하며 드센 데가 있다. ¶으따, 너므 {우왁스럽게} 조지지 마씨요.
지역 고창.

우우하다 형 [대응어] 무성하다.
풀이 우거져 성하다. ¶그때 거그는 갈대만 {우우허니} 자란 질펀인디 시대가 빈히서 지금은 정거장이 생기고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 됐어.<구

비문학대계 임실군편>
지역 임실.

우윙 명 [대응어] 우엉. ¶{우윙으로} 조림을 만들다
지역 군산.

우작시럽다 형 [대응어] 우악스럽다.
보기에 미련하고 험상궂은 데가 있다. 또는 보기에 무지하고 포악하며 드센 데가 있다. ¶성깔이 우작시럽다. ¶우작시럽게 때린다.
지역 전북.

우작허다 형 [발음] [우자거다/우자커다] [대응어] 우람하다.
기골이 장대하다. ¶우리 조카는 등치가 이만혀. 100키로대여. 그렇게 우작혀.
지역 전북.

우찌새 명 [대응어] 고명.
음식의 모양과 빛깔을 돋보이게 하고 음식의 맛을 더하기 위하여 음식 위에 얹거나 뿌리는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 ¶겨란으로 {우찌새릴} 만들어 국수에 넣어 봐.
지역 무주, 고창.

우찌시 명 [대응어] 고명.
☞우찌새.
지역 무주.

우찜 명 [대응어] 고명.
☞우찌새.
지역 고창.

우촘 명 [대응어] 윗동네.
위쪽에 있는 동네. ¶{우촘에} 가다
지역 전북.

우츰 명 [대응어] 윗동네.
☞우촘.
지역 임실.

우클하다 동 [대응어] 우글거리다.
벌레나 짐승, 사람 따위가 한곳에 빽빽하게 많이 모여 자꾸 움직이다. ¶그저 열 댓 살 먹은 놈, {우클흐던가} 한 이삼십명을 갈치는디,<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우태럽다 형 [대응어] 위태롭다.
어떤 형세가 마음을 놓을 수 없을 만큼 위험한 듯하다. ¶걸음걸이가 우태럽다.
지역 전북.

우티 명 [대응어] 옷.
몸을 싸서 가리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천 따위로 몸에 맞게 만들어 입는 것. ¶응, 던져 지붕 지붕에다가. 새타:양거, {우티가} 던져.(응, 던져 지붕 지붕에다가 새하얀 것, 옷을 던져.)<2011년 중국 무주촌 보고서-최종>
지역 전북.

우헝 명 [대응어] 우엉.
☞우윙.
지역 전북.

우황단지 (牛黃단지) 명 [대응어] 골칫덩이.
애를 먹이는 일이나 사람 ¶저 가운디가 있는 여자가 어찌나 애를 멕이는지 {우황단지여}. 저번에도 밤도망 가다가 내한테 딱 걸렸다니께. 긍게로 단속 잘 히라잉.
지역 전북.

우황덩어리 명 [대응어] 골칫덩이.
☞우황단지. ¶그 친구. 자식을 줄줄이 낳다보니

그 중에 {우황덩어리도} 있어 가슴에 품고 살더니만 그놈이 잘되어 각고 지금은 떵떵거리며 산다더구먼.
지역 고창, 부안, 김제, 익산.

-운 【전성어미】 [대응어] -은.
앞말이 관형어 구실을 하게 만드는 전성 어미. ¶아, 눈만 뜨먼 외왼종일 들루 나가서 살구 허던 사램이, 아 이 {좁운} 집안으서 밤이나 낮이나 우두커니 들앉어 있을랑개, 속으서 갑갑징이 나서 살 수가 읎구나!<채만식, 강선달> ¶그며는, 그 여페 그 널븐 들, 그: 뭐야. 시능빵주가고 중구개 방주게, 그 {널분} 들이 인쪼. 거기를 무슨 드리라구레?(그러며넌, 그 옆에 그 넓은 들, 그: 뭐냐, 신흥 방죽하고 중고개 방죽에, 그 넓은 들이 있지요?)<전북지역어, 남원> ¶이르캐 이르캐 뿌쭝 나온 디 인꺼든, 거거거 널부디 인꼬, 거시기 인꼬, {널분디} 거인꼬, 그러쟈녀.(이렇게 이렇게 삐쭉 나온 데 있거든, 그그그 넓은 데 있고, 거시기 있고, 넓은 데 그 있고, 그렇잖아.)<전북지역어, 남원> ¶{좁운} 것이<전광현(1977)>
지역 전북.

운지리 명 [대응어] 망둑어. ¶{운지리가} 얼매나 맛있다구요. 가을에 무수 넣고 지져 먹어도 맛있고 회 해 먹어도 맛있고, 말려가지고 고추장 버물러 찜해서 먹어도 맜있고.<고창군 해리면>
지역 고창.

울구다 동 [대응어] 우리다.
어떤 물건을 액체에 담가 맛이나 빛깔 따위의 성질이 액체 속으로 빠져나오게 하다. 또는 꾀거나 위협하거나 하여 물품 따위를 취하다. ¶쑥의 독기를 {울궈내고}, 쌀을 많이 섞지 못하는 떡을 보드랍게 하자면 서너 차례 물갈이를 하면서 이틀은 걸렸다.<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울구다'는 표준어 '우리다'에 대응한다. '우리다'는 '울다'에 사동 접미사 '-이-'가 연결된 것인데, 전북 방언에서는 사동 접미사 '-구-'가 연결되어 '울구다'가 쓰인다. '울구다'는 '울궈내다, 울궈먹다'의 표현으로 주로 쓰인다.

울덜 【축약형】 [대응어] 우리들.
방언형 '우리덜'이 줄어든 말. ¶화자가 자기 주변 사람들을 함께 가리키는 말. ¶{울덜이} 머 짐생인가? 조봉래 ¶이빠디 썩어 쪼글거리는 동물은 {울덜빼기} 없다제, 아마?<조봉래, 풀벨골> ¶{울덜이사} 밥을 천천히 묵어도 돼요.
지역 전북.

울리다 동
세력을 펴다. ¶왕궁면(王宮面) 장암리(長岩里)는 원래 우주(紆州) 황씨(黃氏)가 부자로 {울리고} 사던 곳이고 그 다음에는 진천(鎭川) 송씨(宋氏)가 삼백여 년 동안 {울리고} 살었고, 그 다음에는 전의(全義) 이씨(李氏)가 잘 살던 곳이다.<구비문학대계 완주군> ¶보고, 실밥 한 오래기만 빠져 나와도 패대기 치고, 나도 인자 이런 시상 신물나서 못 살겄다. 그렇게 떵떵 {울리고} 살든 대갓집도 망혈 운수 당허면 벨 수 없이 망해야지 어쩌겄냐고오.” 아까 참에 평순네에게 해붙였던 말끝의 기운이 아직도<최명희, 혼불>
지역 완주.

울막 명 [대응어] 움막.
땅을 파고 위에 거적 따위를 얹고 흙을 덮어 추위나 비바람만 가릴 정도로 임시로 지은 집. ¶아 그렁개 다시 두말도 헐 것 없이 그냥 한 동네에 있는 같이 이웃에서 산 머심을, 그 사람들한테 말해 가지고 저 산에 가서 나무를 몇 개 비여다가 인자 그 {울막만} 맹이로 쳤단 말이여. 쳐 놓

ㅇ

고 집을 하나 지어 가지고 제금을 났지. 따로 살게 되었단 말이여.<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아버지와 나는 소. 돼지를 키우면서 비바람을 막아 주려고 {울막을} 짓느라 힘들었다.
지역 남원.

울목 명 [대응어] 윗목.
온돌방의 바닥 중 아궁이에서 먼 쪽을 이르는 말. ¶대사님은 아랫묵으서 지무시고 나는 {울목서} 자먼 안 되았읍니까. 염려 말고 하룻 저녁 지무시고 가시시요.<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군산, 정읍.

울미하다 형 [대응어] 울창하다.
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지고 푸르다. ¶나무가 울미하다.
지역 전북.

울벵이 명 [대응어] 우렁이. ¶{울벵이를} 잡으러 내에 가다
지역 무주.

울비하다 형 [대응어] 울창하다.
☞울미하다.
지역 전북.

울안 명 [대응어] 뜰.
집 안의 앞뒤나 좌우로 가까이 딸려 있는 빈터. 화초나 나무를 가꾸기도 하고, 푸성귀 따위를 심기도 한다. ¶마당을 밟는 순간 그니는 잰걸음으로 달려와 이미 {울안} 그득히 진을 치고 있는 아침을 목격했다.<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웬일인가 하고 마루로 올라가서 건넌방 문을 열어보려고 막 문에 손을 대는데, 뒤 {울안으로} 난 마루의 판자문을 와락 열면서 "누구야?" 소리를 버럭 지르고 나서는 것이 그였다.<채만식, 염마>
지역 남원.

울청 명 [대응어] 돼지우리.
돼지를 가두어 기르는 곳. ¶가련헌지고! 보나마나 거지 거지 상거지가 되어 너를 안고 젖동냥 밥구걸 나다니다, 개 {울청에} 빠지긴들 얼마나 할 것이며, 사나운 개한테 쫓기고 넘어져, 다치긴들 얼마나 할<채만식, 심봉사>
지역 전북.

움보 명 [대응어] 울보.
걸핏하면 우는 아이.
지역 전북.

움적디다 동 [대응어] 움직대다.
몸이나 몸의 일부를 자꾸 움직이다. ¶일꾼들이 여기저기 수백 명 모여 서서 {움적디며} 일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디서도 쉴새없이 {움적디는} 꼬라지 봐라. 아이구야, 겁나게 산만하구마잉.
지역 전북.

움줘이다 동 [대응어] 움직이다.
멈추어 있던 자세나 자리가 바뀌다. 또는 자세나 자리를 바꾸다. ¶천천히 몸을 {움줘여} 보았다
지역 전북.

움즉거리다 동 [대응어] 움직거리다.
몸이나 몸의 일부가 자꾸 움직이다. 또는 몸이나 몸의 일부를 자꾸 움직이다. ¶돈 있어야 움즉거리제. ¶아직은 괜찮애. 움즉거리지도 모더먼 어찌라고.
지역 전북.

웂다 형 [대응어] 없다.
☞없다. ¶궁개 그글 지금 사용 안체 {웂씽개},

사용얼 안체 지금.<2008 전북 고창>
지역 부안, 군산, 완주, 익산, 남원, 정읍.

읎애다 동 [대응어] 없애다.
어떤 사실이나 현상, 사람이나 동물, 물체 따위를 현실로 존재하지 않게 만들다. ¶의지헐 디 읎는 판에 빨갱이 시상 되먼 지주 다 쳐 {읎애고} 그 전답 노놔준다는디 공산당 안헐 사람이 워디 있겄는가요.<조정래, 태백산맥> ¶"어허, 자네 양반이 머시여 양반이, 양반?쌍눔 차등 {읎애는} 것이 우리가 허는 혁명사업 중에 하나라고 그리 학습받았음스롱도<조정래, 태백산맥> ¶이 늙으 것 불쌍허니 생각허서 짜낸 젖 {읎애지} 말고 넘게주씨요." 호산댁은 밤골댁을 따라 종종걸음 치며 애원하고 있었다.<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군산, 완주, 김제, 익산, 무주.

읎이다 동 [대응어] 없애다.
☞읎애다.
지역 김제, 군산, 완주, 익산.

웃거티 명 [대응어] 윗마을.
위쪽에 있는 동네. ¶{우거티에} 가서 놀다 ¶반상회 때마다 {웃거티} 사람들은 늘 딴지를 거는데 불만이 뭔지나 좀 압시다.
지역 완주.

웃겉 명 [대응어] 윗마을.
한 마을의 위쪽이나 지대가 높은 곳에 있는 마을. ¶동네가 크먼 벌시암 위로 웃겉이, 벌시암 아래로 아랫겉이.
지역 전북.

웃눈썹 명 [대응어] 속눈썹.
눈시울에 난 털. ¶{웃눈썹이다가} 뭣을 저렇게 발랐간디 눈물이 저렇게 꺼먹 눈물이 나온다냐? 그만 울어라.
지역 남원, 무주, 장수.

웃동네 명 [대응어] 윗마을.
위쪽에 있는 동네. ¶앞서 그런데 하루는 작은 방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머누리가, 저물어서 밥을 달라고 하는데 시아버지 되는 사람은 출입할 수가 없지, 의복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여기서 {웃동네에} 부자로 사는 영감이 하나 있어. 그런데 그 영감 생일이 돌아왔던가, 여기서 그 영감이 사람을 보내서 청빙(請聘)을 혀.<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고창, 부안, 군산, 진안.

웃듬 명 [대응어] 윗마을.
위쪽에 있는 동네. ¶{웃듬에} 놀러 가다 ¶이런 큰 행사에는 {욷듬}, 아랫듬 헐 것 없이 모두 심을 합해 치러 나갔지.
지역 순창, 군산, 임실.

웃마실 명 [대응어] 윗마을.
☞웃마을.
지역 남원, 순창, 완주.

웃마을 명 [대응어] 윗마을.
위쪽에 있는 동네. ¶{웃마을에} 마실가다 ¶{웃마을에} 사는 큰집 할머니는 정이 많아 만나기만 하면 용돈을 주신다. ¶{웃마을과} 아랫 마을이 축구 시합을 가끔 한다.
지역 고창, 김제, 부안, 임실, 정읍, 진안, 남원, 순창, 완주, 익산.

웃목 명 [대응어] 윗목.
온돌방의 바닥 중 아궁이에서 먼 쪽을 이르는 말. ¶"그래서 인제 어른 앞이라, 이 강바람 자두(자지도) 못허구 {웃목에} 쪼그리구 앉았다가 그냥 날 새닝게 인사두 변변히 못허구, 갔단 말이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

금 서울 올라가는 도중이여. 도중 큰 태산 밑에 있는 주막 집에서. 그래 가지고 아 그리고 자다가 보니깨 자기도 {웃목에서} 잔개로 추운개, 사람이란 것이 추우면 자동 케이스로 아랫목으로 파고 들어가기 정상이지요.<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에미야! {윗목은} 추운게 아랫목에 할머니를 모시어라. ¶그서 인자 그 사람이 그 질로 가서나, 인자 원한티 고를 허닝가 거그서 인자 사령들 내보내가지고 그 집을 웨싸고서(에워싸고) 찾어보니 돈 망태기는 {웃목으다} 갖다놓고 잠을 자거든요.<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군산, 남원, 부안, 완주, 정읍, 김제, 고창, 무주, 임실.

웃버선 명 [대응어] 덧버선.
버선 위에 겹쳐 신는 큰 버선. 또는 양말 위에 덧신거나 맨발에 신는, 목 없는 버선. ¶큼직한 {웃버선} ¶{웃버선을} 신다
지역 정읍.

웃수염 명 [대응어] 콧수염.
코 아래에 난 수염. ¶그이는 {웃수염이} 다른 사람보담 잘 어울리는 것 같어.
지역 부안, 진안.

웃쉬엄 명 [대응어] 콧수염.
코 아래에 난 수염. ¶{웃쉬엄이} 너무 길어서 한번 정리를 히야겄고만.
지역 김제.

웃쉬옴 명 [대응어] 콧수염.
☞웃수염
지역 장수.

웃시엄 명 [대응어] 콧수염.
☞웃수염.
지역 군산, 정읍.

웃입설 명 [대응어] 윗입술.
☞웃입술.
지역 고창, 김제, 순창.

웃입솔 명 [대응어] 윗입술.
☞웃입술.
지역 남원, 무주, 장수, 정읍, 진안.

웃입술 명 [대응어] 윗입술.
위쪽의 입술. ¶후리후리한 몸에 차악 맞는 양복을 입고, 가름한 얼굴이 해맑고, 코가 준수하고, {웃입술을} 간드러지게 벌려 방긋 웃고, 그래서 무척 안길 성 있이 생기기는 생겼어도, 눈이 오긋한 매눈에 눈자가 몹시 표독스러워 보이는. <채만식, 탁류> ¶중학생이 되었다고 {윗입술에} 거뭇거뭇 수염이 났구나.
지역 부안, 군산, 임실, 남원, 무주, 장수, 정읍, 진안, 고창, 김제, 순창.

웃자리 명
깔고 앉는 자리 중에 제일 질이 좋은 자리. ¶부잣 사람이 그 전이는 왕골자리 깔았어. 웃자리라고 그 전이는 웃자리라고 앙골자리 하나 초석 하나 그렇게 갖고 갔다고. 시집감서. ¶그것이 있이먼 웃자리가 젤로 좋지. 결혼허먼 그거 히가꼬 가야 돼.
지역 임실.

웅그레기 명 [대응어] 미꾸라지. ¶논바닥에 웅그레기가 잔뜩 있다.
지역 전북.

웅뎅이 명 [대응어] 웅덩이.
움푹 파여 물이 괴어 있는 곳. ¶되아지 {웅뎅이에} 작대기 휘두르다가 생되아지 다 패 죽이고

말 것이다.<송기숙, 녹두장군> ¶이 사람들이 쏘낙비에 몰리다가 매사냥, 펑사냥을 갔다가 비가 원청 몰아들오닝게 큰 {웅뎅이}, 금 파고 허던 굴이 있는디 그 비를 그시기 위히서 그 굴속으로 모두 쑥 들어갔단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전북.

워낙이 뿐 [대응어] 워낙.

두드러지게 아주. ¶{워낙이} 버릇든 말이 되서나요, 고친다 허니 험서도 요로코 뺀나, 고쳐야 쓰겄긴 허겄는디.<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워너니 뿐 [대응어] 워낙.

두드러지게 아주. 또는 본디부터 원래. ¶옳다! 참 잘헌다! 참 잘히여. {워너니} 그게 명색 며누리 첫것이 시애비더러 허넌 소리구만?<채만식, 천하태평춘> ¶{워너니} 나두 짐작으 그런 것 같업디다! 그런 것 같이여!<채만식, 병이 낫거든>

지역 전북.

해설 전라 방언 '워너니'는 표준어 '워낙'의 의미로 쓰고 있다. 문두에 쓰이면 '그러면 그렇지'라는 화용적인 의미를 나타내는데, 주로 어떤 사실을 비아냥거릴 때 쓰인다.

워따 감 [대응어] 아따.

무엇이 몹시 심하거나 하여 못마땅해서 빈정거릴 때 가볍게 내는 소리. ¶{워따}, 저 자발시런놈, 지발, 출석 조까 부르면 나와야. ¶{워따}, 밸일이시.

지역 고창.

워떤 관 [대응어] 어떤.

대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물을 때 쓰는 말. 또는 여럿 가운데 대상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물을 때 쓰는 말. 또는 대상을 뚜렷이 밝히지 않고 이를 때 쓰는 말. ¶당췌 그 양반 머릿속에는 {워떤} 생각이 들었는가를 모르겄어. ¶{워떤} 놈으로 드리까? 오늘 아침에 들어온 놈이라 아주 싱싱허요. ¶어린아이들을 함부로 한 놈이 {워떤} 놈인지 얼굴 한번 보구싶구나. ¶지동무들 허는 이약 들어 보면, 고 시암 있다는 디다 절간을 세울라고도 헌다요. 그란디 다른 {워떤} 시님은 무신 바우 밑에다 절간을 세울란다고 허요이.<박상륭, 죽음의 한 연구>

지역 부안.

워뜷게 뿐 [대응어] 어떻게.

어떤 방법이나 방식으로. 또는 수사 의문문에 쓰여, '도무지 그럴 수 없음'을 강조하여 이르는 말. 또는 감정이나 어떤 상태가 매우 지나치게. ¶그리고 그 말을 듣고서는 어디가서 뉘 손을 짤라오겄어? 그 당시이(당신이) 당신 손을 짜구로 끄너가지고[아들:칼이 아니고 짜구요?], {워트케} 칼로 끊나? 눈 딱 감고서는 담박으 끊어야지, 두번도 못가는 거다. 아퍼서.<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완주, 무주.

워매 감

뜻밖의 일에 깜짝 놀라며 하는 말. ¶워매, {워매}, 워매 아따, 똥구녁 간지럽고, 간 떨리네 이~. ¶{워매} 허벌나게 바뿜갑쏘이. ¶{워매}, 인자는 다 배래 버렸네. ¶{워매}, 요고시 뻔데기 면전에서 주름 잡을라고 허고, 도자 앞으서 삽질허고 자빠졌네. ¶{워매}, 이트까 믄 지랄허고 인자사 끼댄다냐? ¶{워매}, 스슥밥 히서 처먹고 왔능가 오사허게 조잘대네 이~. ¶{워매}, 믄 멋이다고 시커먼 야밤에 나이방(색안경) 쓰고 댕긴다냐? ¶{워매}, 환장허것네이 나가 그 일을 뒤집어 쓰것네 눈뜨고 거시기 당헝게 시세 급프고 참말로 얼척이 없구만이라우. ¶신경 쓰덜 말고 가불드랑께 겁나게 괜찬응께 {워매} 참말로 괜찬아부러.

지역 고창.

워매메 감

뜻밖의 일에 깜짝 놀라며 하는 말. ¶{워매메} 언능 후딱 가씨요 글고 아따 지비 뒷퉁뱅이(대갈통, 대그빡, 마빡, 꼴통)가 솔차니 이뻐요.

지역 고창.

워짜다 【축약형】 [대응어] 어쩌다.

'어찌하다'가 줄어든 말. ¶"우리는 애펜(아편)쟁이라고도 허지라우, {워짜다} 보면 애펜을 피운개라우, 지얼(제일) 신용이 좋다고 힝만이요, 늘 달갼 한 개하고라우, 미숫가루 한 봉대기썩 중만이요.<박상륭, 죽음의 한 연구>

지역 전북.

워찌 부 [대응어] 어찌.

어떠한 이유로.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년, 이 댁으 청암마님이 어뜬 양반인지 알기나 허냐? 매급시 천방지축 팔랑거리고 댕기다가, 다리 몽생이 분질러질 중 알어라." "아앗따아, {워찌} 고렇코롬 무선 양반이다요?" "이년. 이 주둥팽이, 어른이 무신 말을 허는디 그렇게 비얌 셋바닥맹이로 날름 말을 받아먹냐?<최명희, 혼불> ¶내 생각을 말하지도 못하고 {어찌} 살라고? ¶전라남북도와 경상도, 삼도 접경 지역의 여러 고을 사투리 억양이 묘하게 섞이어 있었다. 맨 처음 콩심이가 남도 말로 " {워찌} 고렇코롬 생겼다요?" 했을 때 안서방네는 손질하던 빨래 홑이불에 푸우, 물을 뿜어 내다 말고 웃음을 터뜨렸다.<최명희, 혼불> ¶화이고 화이고. 그런 소리 마씨이요잉. 우리가 그런 어려운 말들을 {워찌} 알겄소. 화이고매 사람 환장허불겄네. 말이 나왔응게 이야그 혀보지만.<김용택, 그리운 꽃편지> ¶나 없이는 못 산다더니 {워찌} 사람 속을 알겼오. 어젯밤 몽땅 싸갖고 도망 가 버렸다는디. ¶잘못하여 이 나무를 잘라버렸으니 {워찌} 하면 좋은가요?

지역 전북.

워찌다 부 [대응어] 어쩌다.

뜻밖에 우연히. 또는 가끔가다가. ¶그래도 다른 시님들은 {워찌다} 한 번썩뱂이는 안 줘라우. <박상륭, 죽음의 한 연구>

지역 전북.

워칭게 부 [대응어] 어떻게.

어떤 방법이나 방식으로. 또는 수사 의문문에 쓰여, '도무지 그럴 수 없음'을 강조하여 이르는 말. 또는 감정이나 어떤 상태가 매우 지나치게. ¶말을 {워치케} 빙빙 돌리가믄서 하던지 내가 양그 야그 듣다가 폭폭히서 죽는 줄 알았고만. ¶또 지는 싹 다 농민헌테 준다, 농민언 나라의 퀀이다, 허고 떠든 눔덜이 그눔들이여. 근디 농지개혁은 {워치케} 혔냐 그것이여, 개잡녀러 새끼덜." "긍께 말이여. 그럼시로 또 농민얼 위허겄다는디, 순 도적눔덜이제 머시여."<조정래, 태백산맥> ¶"그렇제, 그 은혜 갚자먼 일정 때보담 더 열성으로 빨갱이럴 때레잡아야제." "봇씨요, 아무리 미국이 씨다고 혀도 시상이 원체 {워치케} 돌변헐란지 몰릉께 눈치 봐감서 인심 안 잃게 요령지게 허씨요."<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워트게 부 [대응어] 어떻게.

어떤 방법이나 방식으로. 또는 수사 의문문에 쓰여, '도무지 그럴 수 없음'을 강조하여 이르는 말. 또는 감정이나 어떤 상태가 매우 지나치게. ¶그 추남이 {워트게} 이쁜 아가씨를 꼬셨는가 몰러. ¶하이고, 메느리가, 장개비 이써, 뭐 이써, 메느리가 그거슬 보고 {워트게} 거식혀.(하이고, 며느리가, 장갑이 있어, 뭐 있어. 며느리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거시기 해.)<지역어 자료 총서, 군산> ¶애기가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해. 열심히 하

는디 한 밤중 쯤 되먼은 뒤가 막— 괴롭혀. 변소가 마랍고. 괴롭히고 그러는디, {워트게} 이 놈의 애기를 공부 시간에 괴롭히는지, 애기가 {어트게} 야워.<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무주, 군산, 부안.

워틓게 부 [대응어] 어떻게.

어떤 방법이나 방식으로. 또는 수사 의문문에 쓰여, '도무지 그럴 수 없음'을 강조하여 이르는 말. 또는 감정이나 어떤 상태가 매우 지나치게.

지역 전북.

원새이 명 [대응어] 원숭이.

☞원생이.

지역 전북.

원생이 명 [대응어] 원숭이. ¶체, {원생이가} 낭국에서 떨어졌구마. 그나저나 그만허기 다행이여.<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원성풀이 명 [대응어] 한풀이.

원망하는 마음을 푸는 일. ¶한 놈이 도망히 버린게 원성풀이 헐라고 갔던게벼.

지역 전북.

원수이 명 [대응어] 원숭이. ¶동물원에서 {원수이를} 구경하다

지역 전북.

원싱이 명 [대응어] 원숭이.

☞원수이.

지역 전북.

원제 대 [대응어] 언제.

잘 모르는 때를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 ¶건져 주게 건져 주게/도령 부채를 건져 주게/시 {원제나} 날 봤다고/도령 부채를 건져주까(무주 도령부채노래)<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인제 개면은 {원제} 올래/인제 개면은 {원제} 올래/오만 날을 일러나 주소/허 허 나허허허야/어야 뒤여 산이로고나(남원 장원질소리)<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할메, 엄니넌 {원제} 와?" "광조야아……" 덕순이가 동생에게 눈을 흘겼다. "금세 올 것잉께 쪼깐만 더 참어라."<조정래, 태백산맥> ¶해방이 되니께 더 날치다가 감옥살이허고 또 도망댕기고 허니라고 즈그 엄니헌테 뜨신 밥 한 그럭 올릴 돈벌이를 {원제} 했드랑가.<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무주, 남원.

원청 부 [대응어] 엄청.

양이나 정도가 아주 지나친 상태. ¶이 사람들이 쏘낙비에 몰리다가 매사냥, 꿩사냥을 갔다가 비가 {원청} 몰아들오닝게 큰 웅뎅이, 금 파고 허던 굴이 있는디 그 비를 그시기 위히서 그 굴속으로 모두 쑥 들어갔단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전북.

원팡 부 [대응어] 워낙.

두드러지게 몹시. ¶지는 술을 한나도, 전혀 안혔는디요. {원팡} 못혀 놔서.<조봉래, 풀벨골> ¶{원팡} 무식허다 보니께.<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월넝월넝 부 [대응어] 울렁울렁.

너무 놀라거나 두려워서 가슴이 자꾸 두근거리는 모양. ¶춘향이가 이 말을 듯고 가삼이 {월넝월넝} 속이 답답하야 북그렴을 못 이기여 문을 열고 나오더니<완판본 열여춘향수절가上> ¶어사? 밥상 밧고 ?각하니 분기 ?천하나 마음이 울젹 오장이 {월넝월넝} 셕반이 맛시 업셔 상단아 상물여라<완판본 열여춘향수절가下>

지역 전북.

월렁월렁 부 [대응어] 울렁울렁.
☞월넝월넝. ¶분허고 속이 상해서 열이 받쳐, {월렁월렁} 생병이 생길라 허고, 그놈 보고 사우라고 허기도 싫고,<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월오일 명 [대응어] 월요일(月曜日).
한 주(週)가 시작하는 기준이 되는 날. ¶{월오일에} 회의가 있다
지역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월욜날 명
한 주(週)가 시작하는 기준이 되는 날. ¶{월욜날} 전체 애국 조회 때 쌤들이 떼지어 학생들 오맹이 소지품 검사를 느닷없이 히 갖고 댐배 나오면 무조건 나온 놈들 강당 앞 치간으로 집합.
지역 전북.

웰로 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어전에 임김한테 들여보내라 이거여. 그려서 인제 참, 임금한티 품사를 히서, 도독놈이 금, {웰로} 금 웨려 훔쳐간 놈이 왔으니 나라에 입시 좀 해 달라고니 어쩌꺼여. “어, 들어오라고 해라.” 그러고 쓱 들어가더니 모가지 쓱 들어 가더니, 임금이 본게 대장감이 분명허.<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정읍.

위엄 (←鬚髥) 명 [대응어] 수염.
성숙한 남자의 입 주변이나 턱 또는 뺨에 나는 털. ¶{위엄이} 나다
지역 김제, 고창.

위염 (←鬚髥) 명 [대응어] 수염.
성숙한 남자의 입 주변이나 턱 또는 뺨에 나는 털. 또는 동물의 입언저리, 곡식의 낟알에 난 가늘고 긴 털.
지역 고창.

윗덤 명 [대응어] 윗마을.
☞웃듬.
지역 군산.

윗쉬엄 명 [대응어] 콧수염.
☞웃:쉬엄.
지역 완주, 익산.

윗입설 명 [대응어] 윗입술.
위쪽의 입술. ¶{윗입설이} 마르다
지역 완주, 익산.

유구장시 명 [대응어] 유기장사.
유기그릇을 파는 사람. ¶그 아들 셋은 원래 {유구장시} 하는 아이들인디 이 주막서 자다가 주막쟁이 내외한티 유구짐과 돈을 뺏겨버렸어.<구비문학대계 김제군> ¶그 망태 끈을 끊을라고 헌게, “애먼 {유기장시요}. 애먼 {유기장시요}.” 그리서 애먼 {유기장시란} 것이 거그서 난 거여. 그리서 인자 그놈은 살었단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김제, 정읍.

유대꾼 (留待꾼) 명 [대응어] 상여꾼.
상여를 메고 묘지까지 나르는 사람. ¶욕본 질에 지 욕보고 {유대군들} 욕들 보네/어화농 어화농 어나리 농차 너화농/북망산천이 멀다드니 근가지기 옆이 있네/유대질을 맹인이 들어가면 임시발복에 조충허고/그 두에는 진사 감역도 있으리(진안 상여소리-산오르는소리-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원평지)<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어허 어 서른두 명 {유대군들} 발만 맞추면 소리

도 맞느니/허 네에 허 네에 허 너 화 어 허네/어 노오 어 노오 어 허 화 어 허네(정읍 상여소리-관암소리)<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진안, 정읍.

유대질 (留待질) 명
상여를 메고 묘지까지 나르는 일. ¶욕본 질에 지 욕보고 유대군들 욕들 보네/어화농 어화농 어나리 농차 너화농/북망산천이 멀다드니 근가지기 옆이 있네/{유대질을} 맹인이 들어가면 임시발복에 조충허고/그 두에는 진사 감역도 있으리(진안 상여소리-산오르는소리)<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진안.

유박 명 [대응어] 유방.
포유동물의 가슴 또는 배의 좌우에 쌍을 이루고 있는 젖을 분비하기 위한 기관. ¶젖부리는 {유박}. {유박을} 젖부리라고 혀.
지역 전북.

유제 명 [대응어] 이웃.
가까이에 사는 집. ¶시악배기는! 이것아, 아니면 아니다고 조용조용허니 허제, {유제털} 다 깨겄다.<조봉래, 풀벨골> ¶{유제} 놀로가.<전북지역어, 남원시>
지역 전북.

유지 명
친척. ¶혼자 넘어져도 누가 알겄어? {유지도} 없고.
지역 전북.

유하다 (有하다) 형 [대응어] 있다.
어떠한 것이 존재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있다. ¶기양이면 딴디허고 같은 조건이믄, 글먼 여그서 거시기 {유해야지요}.
지역 고창.

육철 (肉鐵) 명
아주 크고 우묵한 솥. ¶가마솥이라구두 하구, {육철}이라구두 하구. 쐬로 맨들었응게.
지역 고창.

육철솟 명
가마솥과 비슷하나 주로 밥을 지을 때 쓰는 솥. ¶{육철솟} 밥이 맛있어.
지역 전북.

윤두 명 [대응어] 부젓가락.
화로에 꽂아 두고 불덩이를 집거나 불을 헤치는 데 쓰는 쇠로 만든 젓가락.
지역 남원, 무주, 순창, 완주, 임실, 진안.

윤디 명 [대응어] 인두.
불에 달구어 천의 구겨진 부분을 눌러 펴거나 솔기를 꺾어 누르는 데 쓰는 쇠로 된 기구. ¶윤디, {윤디가} 있었다가, 화루다 불을 일어 갖고 윤디가 쥐갖고 발바닥에 들적풀석 지져보면은 <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대리미, 전에 {윤디라고} 있어요. 화루다 꽂고 옷을 대리는 것 <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남원, 완주, 장수.

윰병하다 동 [대응어] 염병하다.
마음에 들지 않는 짓을 하다. 속된 표현이다. ¶{윰병흐고} 후딱 흐든동이나 마치고 엄니헌티가 봐야긋고만.
지역 고창.

윶짝 명 [대응어] 윷가락.
윷의 낱개. ¶{윶짝을} 던지다
지역 고창, 남원, 무주, 완주, 임실.

ㅇ

으[1] 조 [대응어] 의.
앞 체언이 관형어 구실을 하게 하는 격 조사. ¶{이마으 주룸이} 많다 ¶{이망에} 주룸살이 자글자글하다
지역 순창, 무주.

으[2] 조 [대응어] 에.
앞말이 처소나 시간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낼 {저녁으나} 데리다 달라고<김옥화(2004)> ¶{엔나르는} 삼년마이 보걸 번는데<백은아(2016)> ¶추울 {적으는}<김옥화(2004)> ¶다음 시상으 날 {적으는} 기연히 양반으로 나야겄다.<이태영(2004ㄴ)> ¶엔날엔 죽어서 {저승으를} 들어 강게로<홍윤표(1978)>
지역 전북.

-으[1] 【종결어미】 [대응어] -어.
해할 자리에 쓰여, 어떤 사실을 서술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만세 불러 {버렸으요}.<장승익(2008)> ¶{먹으}.<김옥화(2000)> ¶{왔으라우}.<김옥화(2000)>
지역 김제.

-으[2] 【연결어미】 [대응어] -어.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이어 주는 역할을 하는 연결 어미. ¶돈 {벌으} 놨어<김옥화(2000)> ¶{홅으} 너갖고<김옥화(2000)> ¶{웃으} 쌓드니<김옥화(2000)>
지역 전북.

으가 조 [대응어] 에.
앞말이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어짠 일이라나고 문을 열어본게, 아 딸이 상투를 쪼았는데 모가지가 {방바닥으가} 대가리가 둥그러 댕긴다 이 말여. 그난리가 날 것 아녀?<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의심난게로 그 콩똥을 가서 봤어. 아, 자, 그 콩똥 {속으가} 엽전이 걍 한 무더기 있네,<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방으가} 저러고 있으문<김옥화(2004)> ¶요 욱으가 대발이 쭉 깔렸어.
지역 전북.

으게 조 [대응어] 에게.
어떤 행동이 미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양반은 충효가 일반여, 충신이나 효자나 일반잉게 충효가 일반이라고, 나는 {부모으게} 효도나 허다가 세상을 떠야거라고.<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아 그래 {이눔으게} 꽁지를 쑥 내밀더니 여기 올라타라구 그러거든,<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전북.

으그대다 동 [대응어] 어기대다.
순순히 따르지 아니하고 못마땅한 말이나 행동으로 버티거나 뻗대다. ¶얼떨결에 싸다귀를 얻어맞은 옹구네는 감싸쥔 뺨이 얼얼하기도 하였지만, 누구라도 보란 듯이 처연하게 고개를 수그린 채 샘 바닥에 {으그대고} 앉아 있었다.<최명희, 혼불> 어울리지 아니하게 우쭐거리며 뽐내다. ¶으시 딱딱허게 몽그라 댐서 {으그대기} 시작허는디, 내가 다 디지는 종 알았당게요. ¶어매메 저 징헌 놈 보게, 어쩌믄 늘어빼서 {으그대는} 거시지그 애비를 쏙 빼다 타겼으니 어쩌믄 쓰까이. ¶아따 - {으그댐서} 찬찬이 싸목싸목 처묵으랑게 선전포고까장 험서 지랄허고 있네이. ¶든지락게도 안가는 시간 {으그댐서} 못가는 시간대에 뻘겁게 물든 노을 햇님은 오늘도 뭐냐께 처럼 철저히 지 헐일 책임 다 허고. ¶기냥, 내싸두시랑게요~ 지가 {으그
지역 전북.

-으까 【종결어미】 [대응어] -을까.
해할 자리에 쓰여, 어떤 일에 대한 물음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널룬디다 {잡수까}

<이윤구(2001)> ¶여기 {이스까}<이윤구(2001)> ¶저기 {지비까}<이윤구(2001)> ¶나 {머그까}?<김중진(1984b)> ¶내가 {가지까}?<김중진(1984b)> ¶우리 임실읍에 지와집이 맻 채나 {있었으까}?<이태영(1984)> ¶느덜 지베 {가까}? ¶사라미 {마느까}? ¶{읻스까}? ¶그기 {머시까}?

지역 전북.

-으까미 【연결어미】 [대응어] -을까 봐.

뒤에 오는 행위에 대하여 어떤 의심을 근거로 제시하는 연결 어미. ¶주지 안 {주까미}.<이윤구(2001)> ¶지비 {잇스까미} 그라<이윤구(2001)> ¶누가 {죽이까미} 그냐?(누가 죽일까봐 그러니?)<이기갑(1998)> ¶지방에서, 행이나 또 딴데로 {보내까미}.<전북지역어, 남원>

지역 무주.

으까이 【연결어미】 [대응어] -을까 봐.

☞-으까미. ¶머 이스까이?

지역 전북.

-으깨미 【연결어미】 [대응어] -을까 봐.

해할 자리에 쓰여, 뒤에 오는 행위에 대하여 어떤 의심을 근거로 제시하는 연결 어미. ¶비싼 놈 {사깨미} 그러지. ¶바느질 고리다 막 똘똘 막 헝겊대기다 싸서 인자 누가 {보깨미}(볼까봐)말여. 싸놓고 있는 거여.<한국구비문학5, 군산시> ¶매화가 열머는 열매 따러 {오깨미}(올까봐) 지키다가 어쩌다가, 하루는 잠깐 틈을 타서 말여.<한국구비문학5. 정읍시> ¶자 삼촌 {오깨미} 나 안 나갔어.(쟤 삼촌 올지 몰라서 내가 안 나갔어)<김옥화(2001)>

지역 전북.

-으깽이 【연결어미】 [대응어] -을까 봐.

해할 자리에 쓰여, 뒤에 오는 행위에 대하여 어떤 의심을 근거로 제시하는 연결 어미. ¶행여나 누가 봤으깽이?

지역 전북.

-으꼬 【종결어미】 [대응어] -을까.

해할 자리에 쓰여, 어떤 일에 대한 물음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이것이 {무어시꼬}?<이윤구(2001)> ¶그 대쪽으로 대관절 얼매나 상놈을 후려치고, 그 쇠꼬챙이로 또 얼매나 상놈들 인생을 찌르고 {못박었으꼬}.<최명희, 혼불> ¶이 은혜를 어뜨케 다 {갚으꼬}. 언제라도 요 근방 지내시그던 잊지 말고 꼭 들르시오.<최명희, 혼불> ¶아아, 어쩌야 {쓰꼬}.<최명희, 혼불> ¶그렇게 크고 엄청난 독이면 바웃덩어리만 허겄는디 그것을 어치케 혼자 들어다 다리를 {놨이꼬}?<최명희, 혼불> ¶헌데, 연 이마에 한번 부딪친 바람은 그냥 그 이마 위쪽으로 흘러가 버리는 것이라. 그럼 어떻게 {되꼬}?<최명희, 혼불> ¶저러다가 딴 디로 시집이나 가 부리먼 {어쩌꼬}.<최명희, 혼불> ¶덕석 몰이고 조리고 회술레고 다 안 무선디, 쬐께나는 것도 인자는 안 무선디, 나를 주재소로 넹기면 {어쩌꼬잉}. 그러먼 인자 {어쩌꼬잉}.<최명희, 혼불>

지역 무주.

으논 명 [대응어] 의논.

어떤 일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주고받음. ¶오랜 {으논} 끝에 결론을 내렸다 ¶혼차만 고집을 부리지만 경우로 봐서 {으논}꺼리가 안되는 일여.

지역 김제, 부안,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정읍.

-으니깨 【연결어미】 [대응어] -으니까.

앞 절이 뒤 절의 원인이나 이유가 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고백을 다 마치고 {나니깨} 그동안 내 인생을 짓누르던 바웃뎅이 같은 짐을 벗어던진 기분이여.<이태영(2006 ㄱ)>

지역 전북.

-으닝게 【연결어미】 [대응어] -으니까.
앞 절이 뒤 절의 원인이나 이유가 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우리 한아부니가 불러서 {가보닝게}<이태영(1983)>
지역 전북.

으다 조 [대응어] 에다.
격 조사 '에'에 보조사 '다가'의 준말 '다'가 결합하여 굳어진 말. 일정한 위치를 나타내는 격 조사. 또는 더해지는 대상을 나타내는 격 조사. ¶퉁(통)이 있어. 큰 집채만헌 통이 있단 말여. 근디 통 {속으다} 들어 가라고 그랬어. “그 안으로 들어가서 가서 울으쇼.<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당신 남편이 금방 죽은게, 금방 죽어. 그런게 저 {마당으다} 가서 짚 사갈래로 깔어놓고 동오여다 물 한 동오 떠다<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전북.

으다가 조 [대응어] 에다가.
격 조사 '에'에 보조사 '다가'가 결합하여 굳어진 말. 일정한 위치를 나타내는 격 조사. 또는 더해지는 대상을 나타내는 격 조사. ¶{독으다가}<한영균(1980)> ¶애 저 머시냐 딸 둘 아들 {둘으다가} 저 저대로 머꼬 살고<백은아(2016)> ¶{마당으다가} 지프락 놓고<홍윤표(1978)>
지역 전북.

으디 대 [대응어] 어디.
잘 모르는 어느 곳을 가리키거나 가리키는 곳을 굳이 밝혀서 말하지 아니할 때 쓰는 지시 대명사. ¶그런디, 그런디 나보다 더 쩨깐은 내 칭구놈은 {으디} 갔능가. ¶생각흐믄 흘수락 추억이 되야 갖고 시방 같이 살기 존 시상이 {으디가} 잇긊능가 모리긊소. ¶{으디} 가면 뱀 삐쭉은 수 있간디요~ 다 거그서 거그당게요. ¶잡녀르 놈으 때까우야 으디 강겨 {으디} 옴팍진 디서 잇씨얀다. ¶{으디다가} 써먹을 디가 한테기도 없는 잉간이랑게요.
지역 고창.

으따 감 [대응어] 어따.
무엇이 몹시 심하거나 하여 못마땅해서 빈정거릴 때 내는 소리. ¶{으따}, 징허게도 까탈시럽꾸만이~. ¶{으따}, 믄놈으 앙개가 이로코롬 겁나게 끼었다요. ¶{으따}, 이녁 껏이나 으꺼싱게 에끼지 마랑게, 긍게 매 한가지랑게. ¶{으따}, 그거시 매급시 그라겄소? ¶{으따}, 사내 새끼가 지조도 없이 이랬다 저랬다 허고 자빠졌네 영락업이 지그 삼춘 타겨 갖고. ¶{으따}, 신천빠졌는게비요 이~ 고놈의 정신머리가 외국으로 출장 갔쏘? ¶{으따}, 잘히버렸다 으메, 꼬숭 거.
지역 고창.

으따메 감 [대응어] 어따.
무엇이 몹시 심하거나 하여 못마땅해서 빈정거릴 때 내는 소리. ¶{으따메}, 저 잉간 술을 똥구녕으로 퍼 마셨능가비여. ¶{으따메}, 모다덜 우 허니 달라 들드라고 이~ 그러믄 훨썩 개벼울 텡게로~. ¶{으따메}, 날도 뜨거워지는디 다들 욕 봅디다. ¶괴기도 먹어 본 놈이 잘 먹는다고, {으따메} 능력이 보통이 아니네 아따, 저런 촉새 조까 보소 이.
지역 고창.

으떡허다 【축약형】 [발음] [으떠거다/으떠커다] [대응어] 어떡하다.
‘어떻게 하다’가 줄어든 말. ¶가만 아니 두믄 명색이 부몬걸 {으떡허우}?<채만식, 女子의 一生> ¶이 으런이 {으떡허자구} 이리셔어!<채만식, 女子의 一生> ¶너래두 좀 앉어얄 띠, {으떡허녀이}!<채만식, 車中에서> ¶괴기 {으떡허냐}?<구

비문학, 익산시>
지역 익산.

으떤 관 [대응어] 어떤.
대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물을 때 쓰는 말. 또는 여럿 가운데 대상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물을 때 쓰는 말. 또는 대상을 뚜렷이 밝히지 않고 이를 때 쓰는 말. ¶박충서는 학교에 다니는 동안 마치 시위라도 벌이듯 줄곧 행동으로 내게 일깨워주고 있었다. "그 소라단은 오날날 {으떤} 모냥으로 지내고 있는고?"<윤흥길, 소라단 가는 길> ¶도대처 {으떤} 일을 허고 사는지 똑똑허니 이야기를 히야 부모가 안심을 헐거 아니냐. ¶내 흉을 보고 다닌놈이 {으떤놈인지} 말해 보란 말야! ¶떡을 맨들라고 그러는디 {으떤} 것이 좋것소? ¶{으떤} 대학을 가도 갠찮치만 아부지는 니가 의사가 되는 것이 소원이었어. ¶"우리가 물에 빠져서 둥둥 떠내려가는 꼴을 보고 {으떤} 미친놈이 넝큼 뛰여들어서 도로 끄집어내뿔면 곤란허잖여!"<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객지 생활을 허다 보면 {으떤} 일이 생길지 모릉게 정신 바짝 챙겨.
지역 전북.

으떻게 부 [대응어] 어떻게.
어떤 방법이나 방식으로. 또는 수사 의문문에 쓰여, '도무지 그럴 수 없음'을 강조하여 이르는 말. 또는 감정이나 어떤 상태가 매우 지나치게. ¶얌마, 축구를 {으떠께} 찬나냐? ¶그놈의 주둥팽이 근질근질거려서 {으떻게} 참을랑가 것 같으나 속은 엉큼한 데가 있다.]
지역 고창.

-으라구냐 【축약형】 [대응어] -으라고 하냐.
방언형 '-으라구 하냐'가 줄어든 말. ¶나 {오라구냐}.<이윤구(2001)> ¶{머라구냐}.<이윤구(2001)>
지역 무주.

-으라구랴 【축약형】 [대응어] -으라고 그래.
방언형 '-으라고 그랴'가 줄어든 말. ¶아니 아부지! 처남이 뭔 나보고 펜 {뜨라구랴}?<구비문학, 정읍시> ¶헤다지라구려?(헤다지라고 그래요?) 애, 그거보고 {헤다지라구랴}. 헤다지라 그럼서 인재.(예, 그것 보고 헤다지라고 그래. 헤다지라 그러면서 이제.)<전북지역어, 남원시>
지역 무주, 남원.

-으라구지 【축약형】 [대응어] -으라고 하지.
방언형 '으라구 하지'가 줄어든 말. ¶{까시더부리라구지}.(검불)<전북지역어, 남원시> ¶{버서배기라구지}.(대머리라고 하지)<전북지역어, 임실> ¶{머라구지}.<이윤구(2001)> ¶왜 나보고 {가라구지}.<이윤구(2001)>
지역 무주, 임실, 남원.

-으라구카지 【축약형】 [대응어] -으라고 하지.
방언형 '-으라구 하지'가 줄어든 말.
지역 무주.

-으라카지 【축약형】 [대응어] -으라고 하지.
방언형 '-으라구 하지'가 줄어든 말. ¶그러이 무작정 {헌금하라카지} 말고 사람덜 맘얼 합허는 방책보톰 세와야 될기요.(경상도 출신 인물의 대화)<조정래, 아리랑>
지역 무주.

-으라캐 【축약형】 [대응어] -으라고 해.
방언형 '-으라구 해'가 줄어든 말. ¶우디 {가실라캐요}? 우리 집에 널찍하고 깨끗한 방 있어예! (울릉도 도동항 방언)<이병천, 삼가여국>
지역 무주.

-으라캬 【축약형】 [대응어] -으라고 해.

방언형 '-으라구 하'가 줄어든 말. ¶나 {오라캬}.<이윤구(2001)>
지역 무주.

-으란깨 【연결어미】 [대응어] -으라니까.
앞 절이 뒤 절의 원인이나 이유가 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자부란깨}, {자부란깨}, 이 술 한 잔 {자부란깨},<최전승(1990)> ¶술맛이사 어떳턴지 펄펄 넘게 쳐 {달란깨}<최전승(1990)> ¶그래 인자 중원서 나온 사람 보고 {맞추란깨}, 삼백 보 밖에 있는 걸 맞출 수가 있간디?<구비문학, 남원> ¶어사가 {오란깨} 개좃도 니미 안 올 놈이 있어? 전부 싹 나오니깨,<구비문학, 남원>
지역 전북.

-으래여 【축약형】 [대응어] -으래요.
방언형 '-으라구 해어'가 줄어든 말. ¶하하하…… 아, 글쎄 자갸는 제엔장 삼만오천 원이나 냉겨먹으면서 날더러는 본전만 {받으래여}?<채만식, 金의 情熱>
지역 부안.

-으로 【연결어미】 [대응어] -으러.
이동하는 동작의 목적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쑥 {뜨드로}(뜯으러) 마니 댕이써.<백은아(2016)>
지역 남원.

으로다 조 [대응어] 으로다.
격 조사 '으로'에 보조사 '다가'의 준말인 '다'가 결합하여 굳어진 말.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격 조사. ¶공부하는 분이라 주경야독 여념이 없는 줄을 알지만요, 야독하시구요, {주경으로다가} 편지 대필, 대독, 소포 꾸레미에 주소 써 주는 일 같은 것을 좀.<최명희, 혼불> ¶시방 오늘 저녁만 하더라도, 아까 쪽대문을 열어놓았다고 윤직원 영감이 군욕질을 했대서 그 {원혐으로다가} 기어코 한바탕 화룡도를 내고라야말 작정으로 그렇게 벼르고 있는 참입니다.<채만식, 태평천하> ¶다른 것은 제한테는 상관없는 조목이라 하나도 겁날 것이 없어도, 백성들끼리 사사로이 금을 팔고 사고 하지 못하도록 더욱 단속을 한다는 것과, 보발꾼에게 {상급으로다가} 몰수한 금을 내준다는 것과, 이 두 가지는 속이 적잖이 뜨악한 것 같았다.<채만식, 태평천하> ¶그렇다고 순범인들 상문 저로 하여금 오늘 이렇게 봉아가 있고 한 자리에서 논다니 계집의 전송을 받게 함으로써 거북스러운 무안을 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시 나아가서는 그걸로써 봉아와의 사이를 이간(離間)을 시키기 위하여 그러한 야비한 {목적으로다가} 설마한들 일부러 꾸며 놓은 연극이나 음모라고는 해석을 할 수가 없었다.<채만식, 金의 情熱> ¶{이참으로다} 우리, 돈을 거둬설랑 하나 때려치우끄나?<조봉래, 풀벨골> ¶알고픔, 이따 가서 {직접으로다} 대면을 허갖고 물어보시.<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으먼 【연결어미】 [대응어] -으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가정하여 말하는 연결 어미. ¶참말로…… 손바닥 반절만헌 논빼미 한 마지기 땅이라도 내 거이라고 이름붙여 보고 {죽으먼} 얼매나 좋으까…….<최명희, 혼불> ¶"나 {같으먼} 도망가 불겄다, 진작에. 사램이 멫 펭상을 산다고 한 세상을 그렇게 살고 만당가?<최명희, 혼불> ¶{껌으먼} 까마구<이태영(2004 ㄴ)> ¶{날이먼} 비둘키<이태영(2004 ㄴ)> ¶{희먼} 영감<이태영(2004 ㄴ)>
지역 장수.

으멍허다 형 [대응어] 의뭉하다.
겉보기에 어리석은 것 같으나 속은 엉큼하다. ¶몰고름허게 치다보는 쩍으 저 굉이 눈빛이 {으멍허기} 짝이 없구만이~. ¶어영구영 험서 기언

시 엿맥이는구만 이~ 드럽게 {으멍허당게요}. ¶{으멍헌놈들은} 큰 일을 못 허겄소?
지역 고창.

으메 감 [대응어] 어머나.
뜻밖의 일에 깜짝 놀라며 하는 말. 또는 당혹스럽거나 끔찍한 느낌이 들었을 때 내는 소리. ¶{으메}, 큰 놈우 횡재다요? ¶{으메}, 아까운거. ¶발통태가 읎어져 불고 {으메} 엮이고 돌고 끄이고 죽다 살았소. ¶{으메~} 아따, 겁나게도 타졌네이~. ¶{으메~} 느닷없시 뺨싸대기 맞었도만 눈구녁 빠지는 종 알았소이~. ¶{으메}, 환장망태기 둘러 쓰겄네이~ 몰국도 모릉갑네, 글먼 국물은 아시겄소? ¶{으메}, 째까씩 째까씩 곡간 쥐새끼 소금 비어 먹듯이 쪼그라지네이~.
지역 고창.

-으문 【연결어미】 [대응어] -으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가정하여 말하는 연결 어미. ¶한번 살아 보갔다고 {왔으문} 끝을 봐야지.<최명희, 혼불> ¶"에미 애비가 한평생 될 따라다니믄서, 다아 자식 뒷수발 들어주구 한다든?" "둔 {있으문} 젤이지, 공분 일없어요!" <채만식, 金의 情熱> ¶아라, 내사 모르겠다! 일도 앙하고 삯 {받아묵으문} 편치!…… 뭐, 내일가?<채만식, 金의 情熱>
지역 부안.

-으믄서 【연결어미】 [대응어] -으면서.
두 가지 이상의 움직임이나 일이 동시에 일어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수만 원씩 가지고 큰 장살 따루해, 한꺼번에 듬쑥듬쑥 이문을 냉겨, {하믄서} 무얼 이따윗 걸 벌여놓굴랑 우리 아주머니만 성가시게, 호호호호.<채만식, 金의 情熱> ¶방에다 적어놨는데요.뭐? {×동여관?이라시믄서}, 민씨라구.<채만식, 金의 情熱> ¶{생활하믄서}<장승익(2008)>
지역 김제.

으미 감 [대응어] 어머나.
뜻밖의 일에 깜짝 놀라며 하는 말. 또는 당혹스럽거나 끔찍한 느낌이 들었을 때 내는 소리. ¶매급씨 누네 띠여 갖고 채다보다가 망치로 손등거리를 때래 부러갖고 {으미} 아~ 소리도 모드고 잡녀르 때까우시끼 낼도 그르기만 허봐 주둥팽이를 쥐여 뜯어 불랑게로.
지역 고창.

으복 명 [대응어] 의복.
몸을 싸서 가리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천 따위로 만들어 입는 물건. ¶힘등께, 딸을 안 줄라고 허고, 줄라고(달라고)허고 기어코 데려다 간다고 허고, 참 딸을 참 부잣집에다 딸을 여워 놓고 친정아버지가, 친정에를 한번도 못 간게 친정, 딸네집에서 갈래니 {으복이} 없어서 못 가, 의복이. 의복이 없어서 못 가서 인자 헌옷을 빨아서 어떻게 입고 딸네집에 뜩 갔어.<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고창, 군산, 남원,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장수, 무주, 부안.

으상 명 [대응어] 의복.
몸을 싸서 가리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천 따위로 만들어 입는 물건. ¶중요한 일이 있어서 {으상에} 신경을 썼다
지역 완주.

으서 조 [대응어] 에서.
앞말이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또는 앞말이 시작이 되거나 발단이 되는 지점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속으서} 불이 나는디<이태영(1983)> ¶{남원땅으서}<한영균(1980)> ¶인제 그 {공장으서} 가꽁가 보데요.<백은아(2016)> ¶저기 쪼까 아래

ㅇ

{끄트서} 살다가<백은아(2016)> ¶{방으서(방에서)}<이승재(1987)> ¶{부엌짝으서} 때문은 귀뚝으서 내놔<김옥화(2004)> ¶나도 {친정으서는}<김옥화(2004)> ¶{산으서}<최전승(2000)> ¶{산속으서}<최전승(2000)> ¶{산중으서}<최전승(2000)> ¶{부엌짝으서}<최전승(2000)>

지역 전북. [관련어]서, 여서, 으서, 이서.

지역 전북.

-으서 【연결어미】 [대응어] -어서.

시간적 선후 관계 또는 이유나 근거,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윤식은 껑충 놀라면서, 아낙의 말을 중동 잘라 다급하게 묻는다. "……그래서?…… {찾으서}?……" "가져가신걸요, 머……"<채만식, 金의 情熱> ¶불에가 뻗어진다 그말여. 뻗어진다 꽁 {죽으서} 툭 튄디 배속으서 튄게 칼 낫돔백이 요만한 낫돔백이 나와.<구비문학, 군산시> ¶{걸으서}<김옥화(2000)> ¶{얼으서}<김옥화(2000)> ¶{섞으서}<김옥화(2000)>

지역 부안.

으서랑 조 [대응어] 에서랑.

어떤 행동이 앞말의 처소를 포함한 복수에서 일어남을 나타내는 격 조사. ¶{식당으서랑} 쓰는 놈언 꼬치가 안 좋아<김옥화(2004)>

지역 전북.

으스딱딱허다 형 [발음] [으스딱따거다/으스딱따커다] [대응어] 태연하다.

마땅히 머뭇거리거나 두려워할 상황에서 태도나 기색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예사롭다. ¶이년들 집 {처질르구서} 염치없은 개는 이지랄들 하구서 온다구, 아 영감이 살았구먼, 꿀 따먹을라구 대가리를 푹 처박었다가 대가리를 벌들이 다 뜯어먹었다구 하더니, 저놈이 그짓꿀을 해도 그렇게 으스딱딱하게 한다구. 꿀은 무슨 꿀을 따냐고, 어디 잿날맹이 올라가다가 이놈이 톱하구 도치하구 가져온다구 보냈더니, 그 지랄하구 왔다구, 다시는 그짓꿀도 말구, 일하지도 말구. <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전북.

으시딱딱하다 형 [발음] [으시딱따가다/으시딱따카다] [대응어] 태연하다.

마땅히 머뭇거리거나 두려워할 상황에서 태도나 기색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예사롭다. ¶그 난리를 치고도 암일도 없었다는 마냥 {으시딱딱하게} 잘도 회사를 댕기네.

지역 전북.

-으시지라우 【종결어미】 [대응어] -으시지요.

해요할 자리에 쓰여,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제안할 때 쓰는 종결 어미. ¶낭구 꼭대기에 가서 생선을 구허제. 저는 쌍놈이요, 가진 것도 없고 조상도 없는디, 원의 마님은 신분이 다르시고 궁량이 다르시고, 시상이 {다르시지라우잉}.<최명희, 혼불> ¶이따가 저녁때 {오시지라우}.<채만식, 보리방아> ¶그러실라 마시구서, 집을 하나 {사시지라우}?<채만식, 집> ¶{막으시지라우}<최태영(1973)> ¶{보시지라우}.<최태영(1973)>

지역 남원 동남부.

으식으식 부 [대응어] 으실으실.

추워서 몸이 떨리는 모양. ¶글을 주고 받고 익고 하다가 잠이 들어가지고 부지중 잠이 들었단 말이여. 새벽이 되니까 또 마찬가지여. {으식으식} 춥고, 별만 초랑초랑 하단 말이여.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옆에 뫼(墓)가 있는데, 뫼덩이! <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완주.

으실으실허다 형 [대응어] 으슬으슬하다.

몸이 좀 떨릴 정도로 춥다. ¶아 이놈이 얼매를

잤던가 자고 일어나닌게, 자, 신도 본게 팍 삭어 버렸지, 옷도 죄다 삭어 버렸지, 아 갓·망건도 삭어서 {으실으실허지}, 자, 신선 노는디 오믄 돌치자리가 썩는다는 말은 있었는디 내가 여그 온 지가 천년이 되았는가 만년이 되았는가 당초 알 수가 없단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강기가 들어올라고 허는가 {으실으실허니}몸이 안 좋다.

지역 정읍.

-으씨요 【종결어미】 [대응어] -셔요.

해요할 자리에 쓰여, 설명·의문·명령·요청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좀 살례 {줏씨요}, 제발 덕분에,<최명희, 혼불> ¶아이고메, 멀미 날라고 그러요. 얼렁 짐덜이나 벗고 {앉으씨요}.<조정래, 아리랑> ¶얼렁, 옷 {챙게입으씨요}.<조정래, 아리랑> ¶아이고, 얼매나 배고프시오? 욜로 {앉으씨요}, 욜로.<조정래, 아리랑> ¶일얼 시캐묵을라먼 주먹밥이라도 한 텡이씩 주고 {시캐묵으씨요}.<조정래, 아리랑> ¶자작으로 댈 돈 없으먼 그놈으 담배 {끊으씨요}!<조정래, 아리랑>

지역 부안.

으씩으씩 뿌 [대응어] 으실으실.

☞으식으식.

지역 전북.

으악새 명 [대응어] 억새. ¶{으악새} 슬피 우니 가을인가요 하는 노래가 있지.

지역 전북.

-으야 【연결어미】 [대응어] -어야.

앞 절의 일이 뒤 절 일의 조건이 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가난허고 참 바듯이 참 죽이나 먹고 이렇게 서당으 댕기고 그러닌게 가난허다고 딸을 안 줄라고 혀. 근게 그 선생님은 꼭 사오를 {삼으야만} 쓰게 생어.<구비문학, 옥구군> ¶인자 보글 {버스야}(벗어야) 게로늘 헌다고 히 갇꼬<백은아(2016)> ¶{먹으야}<김옥화(2000)> ¶{익으야}<김옥화(2000)> ¶{맑으야}<김옥화(2000)>

지역 무주, 군산.

-으요 【종결어미】 [대응어] -어요.

해요할 자리에 쓰여, 설명이나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그러콤 오래 떨어져 살어도 식구들 얼골 안 잊어먹을 자신 {있으요}?<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예수쟁이들 둘러먹기는 참말로 일도 아니드라고. 내 죄가 주홍보담도 {붉으요}, 허고 왜장만 처대면 주여, 주여, 험시나 깜빡깜빡 속아주드란 말여.<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나저나 우리 일이 어찌 되야 갈 것 {겉으요}?<조정래, 아리랑> ¶주변은 어떻소? 다른 집들이 옆으로 {많으요}?<조정래, 아리랑>

지역 부안.

-으우 【종결어미】 [대응어] -으오.

하오할 자리에 쓰여, 설명·의문·명령·청유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그래 당신이 가서 그놈을 당해낼 상 {싶으우}?<채만식, 쥐 들은 고양이> ¶느는 게 조음 {많으우}?……자아, 몸집이 늘지. 희떠운 거 늘지. 시끄런 거 늘지. 말 능란한 거 늘지. 따님 양개화(洋開化)늘지. 아마 그 마나님은, 한때 그 국회의원이라드나 하는 걸 선거하는 데 내세우구서, 누굴 추천하는 연설 같은 걸 시켰으면 아주 일등으루 잘 했을 거야.<채만식, 落照> ¶우리 집허구 터전을 다 팔면 얼마나 {받으우}?<채만식, 인형의 집> ¶게 {앉으우}.<채만식, 인형의 집> ¶회의실루 {가보시우}.<채만식, 인형의 집> ¶{가시우}.<김해정(1978)>

지역 익산.

으자 명 [대응어] 의자(椅子).

사람이 걸터앉는 데 쓰는 기구. ¶{으자에} 앉다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정읍, 진안.

으장 명 [대응어] 농기구.

농사짓는 데 쓰이는 도구나 기계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으장을} 챙겨 논일을 나가다.

지역 무주.

으젓잔하다 형 [대응어] 으젓하잖다.

말이나 행동 따위가 점잖지 않고 무게가 없다. 또는 모양이나 차림새 따위가 깔끔하지 않다. ¶ "두부장수 불러들여서 을메 허는 건 알어 무엇 헐라구? ……{으젓잔헌} 것이 짓마닷 어디서! ……왜 두부장수 서방허구 싶데야?"<채만식, 정거장 근처>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으젓잔하다'는 '으젓잖다'가 재구조화하여 이루어진 말이다. '으짓잖다, 으짓잔하다'로 많이 쓰인다.

으젓잖다 형 [대응어] 으젓하잖다.

말이나 행동 따위가 점잖지 않고 무게가 없다. 또는 모양이나 차림새 따위가 깔끔하지 않다. ¶"{으젓잖은} 놈들! 어쩌다가 놓친단 말이냐!" <채만식, 천하태평춘>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으젓잖다'는 '으젓하지 않다'의 축약이다. 이 어휘는 '으짓잖다, 으짓잔허다'로도 쓰는데 사람에게 쓸 경우에는 "말이나 행동 따위가 점잖지 않고 무게가 없다"라는 의미이고, '으짓잖은 짓, 으짓잖은 물건'과 같이 쓸 때는 "모양이 깔끔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으짓잖다 형 [대응어] 으젓하잖다.

말이나 행동 따위가 점잖지 않고 무게가 없다. 또는 모양이나 차림새 따위가 깔끔하지 않다. ¶ 요 아즉 덜늙은 거이 으찌허다 봉게 고만 {으지짠허니} 굴었습다.<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으짓하다 형 [발음] [으지다다/으지타다]

변변치 못하다. ¶아이고 답답 감장시야/외지 말고 감 팔아라 웬수년으 시누야 애기/감 돌라고 날 조르네 웬수년으 시오마니/쇳대 열대 차고나 갔네 에라 요년 요망헌 년/네가 얼매 {으짓허믄}/쇳대 열대 차고나 갔냐(남원 모심는 소리) <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남원.

해설 '으짓하다'는 본래 "흠이 없고 변변하다"의 의미였으나 '으짓지 않다'가 줄어진 형태인 '으짓잖다'가 더 많이 쓰이며, 의미도 "변변치 못하다"로 바뀌었다.

으짜다 부 [대응어] 어쩌다.

'으짜다가'의 준말. ¶살다 봉게 {으짜다} 여까지 굴러들어서 살고 있네잉.

지역 전북.

으짜다가 부 [대응어] 어쩌다가.

뜻밖에 우연히. ¶{으짜다가} 괜찮은 자리를 잡은 성 부르요마는, 이런 하찮은 장사가 자리 타고 멋 타고 할랍디여.<송기숙, 녹두장군>

지역 전북.

으째 부 [대응어] 어째.

어떠한 이유로. ¶아따, 후딱 언능 가불제마는 {으째}, 껄쩍지근허고만 똥 싸고 밑 안 딱은 놈 맹키로.

지역 고창.

으쩌먼 【축약형】 [대응어] 어쩌면.

'어찌하면'이 줄어든 말. ¶글고, 또 맘만 급히 싸

그싸그 그럼서 앞서는디 {으쩌먼} 좋다우?
지역 고창.

으찌 부 [대응어] 어찌.
어떠한 이유나 방법으로. ¶{으찌}? 나가 어믄 말 혔간디? ¶아짐, {으찌}? 성님이 그 병 또 돋았소? ¶심심허믄 간장이나 퍼먹제, {으찌} 후드러팬다요? ¶으메, 요걸 {으찌} 히야 쓰까이~ 오늘 또 개값 물어 주꺼나? ¶{으찌} 허는 일마다 헛빵잉게 삼재 드렀능게비요 아야, 서대지 말고 빤듯이 앙거 있어야, 너 안 중게. ¶남사시럽게 {으찌} 또 화살을 나헌티 쏜다요? ¶어따, 허는 일 없는디 {으찌} 바쁘다고 죽는 소리다요?
지역 고창.

으찌다 부 [대응어] 어쩌다.
뜻밖에 우연히. 또는 가끔가다가. ¶"아이 베락 맞을 년아, {으찌다} 해필 놓을 디도 쌔았는디 문 뒤여다 놔."<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정읍.

으찐 관 [대응어] 어떤.
대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물을 때 쓰는 말. 또는 여럿 가운데 대상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물을 때 쓰는 말. 또는 대상을 뚜렷이 밝히지 않고 이를 때 쓰는 말. ¶{으찐} 때는 나지때도 훽 허니 퍼붓고 먼 산너머로 기여저 도망가고 끄끕시랍고 꾼적그리고 차말로 오늘따라 바람도 허천나게 불고 시먼(지명) 근방 사는 사람 말 드릉게 바닷물이 만삭이라나 으찧다나 방천(지명) 뽀짝까지 물이 들온디 그를 적마다 잡녀르 때까우 시끼들 물쌀으 떠밀러오는 새비랑 그시락이랑 퍼묵을라고 난리법석을 피다가.
지역 고창.

-은 【관형사형어미】 [대응어] -은.
앞말을 관형어 구실을 하게 하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지금 떡 {묵은} 사람은 이따 밥 안 줄틴디<최전승 외(1992)> ¶저그 {간} 사람 너 아냐<최전승 외(1992)> ¶그 큰애기가 앞 못 {본} 맹인이라드만<최전승 외(1992)>
지역 전북.

-은개비다 【축약형】 [대응어] -은갑다.
'-은가 보다'의 방언형 '-은가 비다'가 줄어든 말. ¶서울이 좋긴 {좋은개빈디}, 나는 아직 안 가봤씽개 헐 말이 없소.<이승재(1980)> ¶살기가 지긋지긋해서 그렇게 도망질을 헤 {부렀는개비여}.<이승재(1980)> ¶여그가 내가 묻힐 땅은 {아인개비네}.<이승재(1980)>
지역 전북.

-은게 【연결어미】 [대응어] -으니까.
앞 절이 뒤 절의 원인이나 이유가 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어지께 소식 {들은게} 3월 1일 날 탑골공원에 나오지도 안했드람서?<조정래, 아리랑> ¶동상도 찾고 부모님 웬수도 갚을 일이 {많은게}, 가자.<조정래, 아리랑> ¶자네 처지럴 딱허니 생각히서 내놓는 것이제 무신 흑심이 있는 것 같지넌 {않은게} 받아도 괜찮헐 것 같구마. 그 사람이 본시 인정이 있는 사람이시.<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주.

-은다 【종결어미】 [대응어] -는다.
해라할 자리에 쓰여, 현재 사건이나 사실을 서술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나 지금 밥 {묵은다}.<최전승 외(1992)>
지역 전북.

-은대여 【축약형】
'-ㄴ다고 해요'의 방언형 '-ㄴ다구 해여'가 줄어든 말. ¶"옥례네는 산다데야?" "안 {산대여}." "그렇

지 머. 그 집두 제 땅마지기나 있다지만 무슨 수루 재봉틀을 사놓겄냐."<채만식, 보리방아> ¶어머니, 큰소 한 마리 얼마씩이나 {헌대여}?<채만식, 보리방아> ¶무얼 저렇게 미구 {온대여}?<채만식, 童話> ¶시방 거그다 {녹음헌대여}(지금 거기에다 녹음해?)<김옥화(2001)>

지역 부안.

-은디[1] 【종결어미】 [대응어] -은데.

뒤 절에서 어떤 일을 설명하거나 묻거나 시키거나 제안하기 위하여 그 대상과 상관되는 상황을 미리 말할 때에 쓰이는 연결 어미. ¶더군다나 수천샌님 성품 몰라? 송곳 같고 칼날 {같은디}.<최명희, 혼불> ¶경우가 안 그리여? 경우가. 말로 따지자먼. 도독질은 다 {똑같은디}.<최명희, 혼불> ¶장로님이 방금 우리 정옥이를 들멕인 것 {같은디요}?<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 신사 냥반은 너무 즘잖으신 분이라서 뒤염자리맨치로 드럽고 남새나는 우리 부부 쌈에 끌어딜이고 싶지가 {않은디}?<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은디[2] 【연결어미】 [대응어] -는데.

뒤 절에서 어떤 일을 설명하거나 묻거나 시키거나 제안하기 위하여 그 대상과 상관되는 상황을 미리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 현재를 나타내는 데 쓰인다. ¶아침밥을 {먹은디} 사람들이 싹 몰려와.

지역 전북.

은제 뿌 [대응어] 언제.

잘 모르는 때를 물을 때 쓰는 말. ¶댔다 허믄 아산 인냇강에 독자갈 떤지기고 큰 고무다라에 목새 떤지기니 해 볼 재간이 업구만이 {은제들} 속들 채릴랑가 아이고, 속터져.

지역 고창.

은지 뿌 [대응어] 언제.

잘 모르는 때를 물을 때 쓰는 말. ¶고창은 {은지쯤} 비가 오겄소? ¶갠 지가 {은진디} 시방도 자냐?

지역 고창.

-을가서 조

앞말이 목적어임을 강조하여 나타내는 격 조사. ¶내가 조리로 쌀을가서 이는디<이태영(1992)> ¶내가 조리로 쌀을가서 이는디<이태영-문법적(2011)>

지역 전북.

-을깜슨게 【연결어미】 [대응어] -을 것 같으니까

현재의 정해지지 않은 일에 대한 추측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아그들 모르고 먹을깜슨게 저리 내놔라. ¶요새는 환갑을 또 한대. 죽을깜슨게.

지역 고창.

-을라 【연결어미】 [대응어] -으려.

어떤 행동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이는 연결 어미. ¶도적놈은 겁을 줘서 멀찌가니 쫓는 것이 상책이여. 안 그러고 기연시 {쌔려잡을라} 허다가는 됩데 나만 더 다치는 수가 있고, 또 재수가 없을라면 개값을 물어주는 수도 생긴단 말여.<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빌어먹을 예펜네가 생사람 {잡을라} 그러네!<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불알 두 쪽만 덜렁 찬 놈이 무신 재주로 그 빚돈을 갚어라우? 먹고 {죽을라} 혀도 쥐약 살 돈이 없어서 못 죽는 불쌍헌 놈인 지 잘 알고 있음시나 장로님도 참말로 너무허십니다요.<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으떤 채림인지는 안 들어봐서 나도 잘 몰르겄는디, 좌우딘간 막 {빠져죽을라} 허는 바로 그 임시에 갑째기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디야.

<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부안.

-을라고 【연결어미】 [대응어] -으려고.
어떤 행동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이는 연결 어미. ¶내가 전생에 죄 많아서 여자로 나고, 그것도 모자라 무엇을 더 {갚을라고} 또 저렇게 달랑 딸 하나만을 낳고 말았을꼬.<최명희, 혼불> ¶지집 밑구녁으다 {처박을라고} 관공서에 공금을 훔쳐낸 거잉게 가막소를 가도 싸제잉. 하이간에 교옹장히 소란스렀능갑습디다. ¶무신 노무 한 시상을 {참을라고} 산다요?<최명희, 혼불> ¶근디 이 시님들이 욕심이 많어서 서로 한 볼테기라도 더 {먹을라고} 쌤이 난단 말이여.<최명희, 혼불> ¶훔칠라고 허다가<이태영(2011)>
지역 전북.

-을라곤다 【축약형】 [대응어] -으려고 한다.
방언형 '-을라고 한헌다'가 줄어든 말. ¶{갈라곤다}.<최전승 외(1992)> ¶먹을라곤다. ¶공부할라곤다. ¶긍개 동생이 인자 발써 나가문 중넌디 마리여 {갈라굴꺼시여} 인자,(그러니까 동생이 이제 벌써 나가면 죽는데 말이야, 가려고 할 것이야 이제,)<전북지역어, 고창>
지역 전북.

-을라나 【종결어미】 [대응어] -으려나
해할 자리나 혼잣말에 쓰여, 추측을 가볍게 묻는 데 쓰는 종결 어미. ¶지비 {갈라나}?<이윤구(2001)> ¶밥 {머글라나}? ¶누가 {인슬라나}? ¶{추울라나}?
지역 무주.

-을라냐고 【축약형】 [대응어] -으려고 하냐고
방언형 '-을라고 하냐고'가 줄어든 말. ¶밥 안 {먹을라냐고} 물어 바.<김옥화(2004)>
지역 정읍, 부안.

-을라네 【축약형】 [대응어] -으려고 하네.
방언형 '-을라구 하네'가 줄어든 말. ¶아니, 나 저 마루에 {앉었을라네}. 밥만 한 숟가락 먹고는 또 갈 데가 있어서.<최명희, 혼불> ¶{막을라네}.<최태영(1973)>
지역 남원 동남부.

-을라디야 【종결어미】 [대응어] -겠어.
미래의 일이나 추측한 사실이 옳다고 믿으면서 상대의 의향을 묻는 종결 머이. ¶눈이 질 맥히게 {왔을라디야}(눈이 길이 막힐 정도까지 오기야 했겠니)?<김옥화(2008)> ¶그새 {졸릴라디야}(그새 졸리겠니)?<김옥화(2008)> ¶너 지달르지, {갈라디야}?(너를 기다리지, 설마 가겠니)?<김옥화(2008)> ¶외국을 간다해도 니 맴이야 {변할라디야}?<이태영(2011)>
지역 부안.

-을라먼 【연결어미】 [대응어] -으려면.
어떤 일을 달성하려고 할 때의 조건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밥 {먹을라먼} 먹어라.<이태영-문법적(2011)>
지역 전북.

-을라요 【축약형】 [대응어] -으려오.
방언형 '-을라구 하요'가 줄어든 말. ¶엄니, 이러면 나 밥 안 {묵을라요}. 글 안해도 나 밥이 질로 많이 퍼졌구마는.<조정래, 아리랑> ¶나 째보선창에 가 {있을라요이}.<조정래, 아리랑> ¶그라고 말이요 이, 경성 귀경 갔다 와서 요놈에 빌어묵을 짓 때래 {엎을라요}.<조정래, 아리랑> ¶{막을라요}.<최태영(1973)>
지역 전북.

-을라우 【종결어미】 [대응어] -으려오.

방언형 '-을라구 하우'가 준 말. ¶여그(여기)서 이 호랭이 가져가믄 안놓치게 지키고 {있을라우}? <구비문학, 부안군> ¶그 형님이 그렇게 말씀허시먼 내가 그리 갈라우. 같이 가 {살을라우}. <구비문학, 정읍시> ¶나는 머, 이 길루 한강 철교루 나가서 풍덩 {빠져죽을라우}!<채만식, 金의 情熱>

지역 부안.

-을란다 【축약형】 [대응어] -으려고 한다.

방언형 '-ㄹ라구 한다'가 줄어든 말. ¶{막을란다}.<최태영(1973)> ¶참말로 나, 누가, 너 시집 안 가먼 나 {죽을란다고} 목을 매도, 누가 시집 가라먼 가지 말라고, 나는 도시락 싸들고 댕김서 말기고 싶어라우.<최명희, 혼불> ¶부디 이 할미의 당부를 저버리지 말아다오. 내 오늘 밤에는 문 앞에서 지키고 {앉었을란다}.<최명희, 혼불> ¶나는 이제, 너무 더운 날 삼복(三伏)이나, 너무 추워 얼어붙는 동지 섣달에는 안 {죽을란다}. 일허는 사람들이 고생헌다.<최명희, 혼불> ¶글쎄 그 걱정은 말래두, 잡것이 잔소리는 퍽 허구 있네! 그렇게 못 믿어허다가는 내가 도루 {팔아먹을란다}.<채만식, 停車場近處>

지역 남원 동남부.

-을랍니다 【축약형】 [대응어] -으려고 합니다.

방언형 '-을라구 합니다'가 줄어든 말. ¶{막을랍니다}.<최태영(1973)>

지역 남원 동남부.

-을랍디여 【축약형】 [대응어] -으려고 하데요.

방언형 '-을라구 합디여'가 줄어든 말. ¶아무러면 사람 사는 세상에 무슨 수가 있어도 있지 죽으란 법만 {있을랍디여}?<최명희, 혼불> ¶단 메칠 간인디 어디 가서 꼬부리고 자먼 잘 디 {없을랍디여}?<최명희, 혼불> ¶아 머언 일이 {있을랍디여}?<이태영(2004 ㄷ)>

지역 전북.

-을랑가 【축약형】 [대응어] -으려고 하려나.

방언형 '-을라구 할랑가'가 줄어든 말. ¶노네 {인슬랑가}? ¶나리 {추울랑가}?

지역 무주, 고창.

해설 모음 다음에는 '-랑가/-라능가'로, 자음 뒤에서는 '-(으)ㄹ랑가/-(으)ㄹ라능가'가 수의적으로 선택되는 자유 변이형이다. '언지 지비 갈랑가?/갈라능가?', '노네 인슬랑가?/인슬라능가?'는 청자의 의향을 묻는 의문문이다. '나리 추울랑가?/추울라능가?', '그기 싸릴랑가?/싸릴라능가?'는 추정의 의문문이다.

-을래도 【축약형】 [대응어] -으려고 해도

방언형 '-을라구 해도'가 줄어든 말. ¶말도 말어. 이런 년은, {먹을래도} 먹을 거이 없응게 못 먹지마는, 아 그런 부잣집이서 무신 마늘이 귀헐 거잉가?<최명희, 혼불> ¶전생에 은인이나 원수가 금생에 부부로 난다는데. 은혜를 {갚을래도}, 원수를 {갚을래도}, 멀리 있어서는 어려운 일이거든. 바로 지척 가까운 곳에 한 몸이나 다름없는 관계로 만나야, 선연(善緣)이든 악연(惡緣)이든 지은 대로 갚고 받을 것이 아닌가.<최명희, 혼불> ¶허나, 나는 나대로 부질없는 젖을 대접에 받아 장독대의 정(淨)한 곳에 흘려 부으며, {참을래도} {참을래도} 눈물이 북받쳐 흘러 무심한 대접을 적시었다.<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을래야 【축약형】 [대응어] -으려고 해야

방언형 '-을라구 해야'가 줄어든 말. ¶아 그렇게 십 년 결단 시간은 아직 일 년이나 남었지마는 공부가 차고 넘쳐서, 이 아들이 선생한테 멀 {물을래야} 더 물을 거이 없드래.<최명희, 혼불> ¶그것은 {참을래야} 참을 길이 없는 통분함이었고 설움이었다.<최명희, 혼불> ¶옹구네는 몸을

일으키며 치맛자락을 여미었다. 잘 {입을래야} 입을 것도 없는 동강산이 두루치 자락을 걷어 올리던 그네는 무심코 뒤를 돌아보았다.<최명희, 혼불> ¶어느덧 날은 저물어 땅거미가 져서 더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고, 소새는 마음만 한껏 초조하면서, 거듭 뉘우쳐싸면서 하릴없이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채만식, 왕치와 소새와 개미와> ¶한 삼 년 있었지요. 더 {있을래야} 밑천이 자라나요.<채만식, 인형의 집>

지역 전북.

을름장 명 [대응어] 으름장.

말과 행동으로 위협하는 짓. ¶{을름장을} 놓다

지역 전북.

을마 부 [대응어] 얼마.

잘 모르거나 정해지지 않은 수량이나 정도. ¶열 달을 뱃속으 느서 나가지고 칠년동안을 길르고 멕이고 입힌 그 공 그것은 잊지 말으얄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하루에 밥을 사먹이믄 {을마} 그땟 돈으로, 옷은 일년이 사입히믄 얼마이 들어가는 계산을 딱 해가지고<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군산.

을매나 부 [대응어] 얼마나.

동작의 강도나 상태의 정도가 대단함을 나타내는 말. ¶술을 똥꾸녁으로 {을매나} 퍼마셧간디, 오구허고 떵깡을 그러케 싸가지 없이 부린다냐? ¶으메, 부도 났어도 {을매나} 꼬불차 두엇능가 시방도 겁나게도 잘먹고 잘 입고 사는 것 보시요 이~. ¶낯짝이 {을매나} 뚜껀지, 인자는 그 말은 기냥 허덜 마씨요 이~. ¶{을매나} 옹삭흐등가 혼나부렀쏘. ¶{을매나} 곤허게 퍼 자등가 누가 띠머 가도 모른 당게라우.

지역 고창.

을방 (←歇方) 명 [대응어] 헐방.

비어 있는 방. 또는 빈 곳. ¶닭 잡고 술 먹자/에 헤야/여그도 치고 저그도 쳐소/에 헤야/을방 읎이 때려 주소/에 헤야(익산 벼타작소리/개상질소리) <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익산.

-을씨락 【연결어미】 [대응어] 을수록.

어떤 일의 정도가 더하여 감에 따라 다른 일의 정도가 그에 비례하여 더하거나 덜하여 감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지역 부안.

-을쳐 【종결어미】 [대응어] -을래.

해할 자리에 쓰여, 장차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스스로의 의사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 ¶나 집에 {갈쳐}.

지역 무주, 남원.

해설 '-을 터이어'의 축약형 '-을테'가 구개음화를 겪어 '-을처'가 된 것이다.

-을텨 【축약형】 [대응어] -을래.

해할 자리에 쓰여, 장차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스스로의 의사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 ¶양잿물로 한번만 더 빨아줘. 안 그러면 참말로 안 {입을텨}!<윤흥길, 소라단 가는 길>

지역 무주.

을푸다 동 [대응어] 읊다.

억양을 넣어서 소리를 내어 시를 읽거나 외다. ¶낭랑한 목소리로 한 구절 한 구절 {읊워} 내려갔다

지역 남원, 부안, 순창, 군산, 임실, 정읍.

을프다 동 [대응어] 읊다.

☞읊우다.

지역 임실.

ㅇ

음벅지 명 [대응어] 궁둥이.
볼기의 아랫부분. 앉으면 바닥에 닿는, 근육이 많은 부분이다. ¶{음벅찌제}.<2008 전북 고창>
지역 고창.

-음사 【축약형】 [대응어] -으면이야.
'-으면이야' 의미의 '-으면사'가 줄어들어 쓰이는 말. ¶아침밥 해먹고나면 더워견딜 수 없었는데 오늘만 {거듬사} 사람 살만하네요.
지역 전북.

음석 명 [대응어] 음식.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든, 밥이나 국 따위의 물건. ¶어쩐지, 아까참에 봉게 뻣뻣헌 괴기 {음석을} 깨물도 않고 꾸역꾸역 고대로 생킨게 댐박에 언쳐 버리제 이~. ¶아부지는 하나씨허고 {읍내} 장 보러 갔응게.
지역 고창.

음지손가락 명 [대응어] 엄지손가락.
☞엄지손구락.
지역 무주.

읎다 형 [대응어] 없다.
사람, 동물, 물체, 사실이나 현상 따위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헐 일들도 드럽게 {읎는} 모냥이네 이~. ¶쪼끔만 침착허랑게 자발시럽게 방정 떨고 여그 저그 댕깅게 영양가도 {읎고} 결과는 개털이지야. ¶또라이가 따로 {읎구만} 이~ 거그는 무덜라고 퍼질러 간디야? ¶그려, 나 헌티는 흠이 하나도 {읎는디}. ¶나헌티는 소양 {읎어도} 지비헌테는 썩어몽그라져도 못 준당게요. ¶아따, {읎어서} 못 묵지라우. ¶돈 관계는 부자(父子)간에도 외수 {읎어야} 허고, 주고 받을 때는 잘 시어야 허요.
지역 고창.

읎애다 동 [대응어] 없애다.
어떤 일이나 현상, 증상 따위를 사라지게 하다.
지역 김제, 무주.

읏다가 【축약형】 [대응어] 어디에다가
방언형 '으디에다가'가 줄어든 말. ¶속창아리 {읏다가} 두엇능가 빼날, 지 유리헝 것만 추례 갖고 잔머리만 실실 굴린당게.
지역 전북.

-읐- 【선어말어미】 [대응어] -었-.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이나 행위가 과거의 일이거나 이미 완료된 일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백제는 충청도 부여가서 있었고, 경상도에 가서 신라는 있었고,], 말하자믄 요새 말하자믄 평양 가서 고구려가 {있읐어}.<구비문학, 부안군> ¶{들읐는가}.<김옥화(2000)> ¶{깔읐거등}.<김옥화(2000)> ¶{살읐어}.<김옥화(2000)>
지역 부안.

-응갑드만 【축약형】 [대응어] -ㄴ가 보더만.
방언형 '-은가 보드만'이 줄어든 말. ¶저번에 봉숭 돌릴 때 봉게는 신부댁이서 채리기는 아조 딱 부러지게 때깔내서 걸판지게 {채렜능갑드만}.<최명희, 혼불> ¶조합으서도 그전보단 {더허능갑드만}(조합에서도 그전보다 더하는가 보더구먼)<김옥화(2008)> ¶집이가 {없능갑드만}(집에 없는가 보더구먼)<김옥화(2008)>
지역 부안.

-응갑디다 【축약형】 [대응어] -는가 봅디다.
방언형 '-능가 봅디다'가 줄어든 말. ¶선부(선비) 하나가 섬을 들어 {갔는갑디다}.<구비문학, 정읍시> ¶근게 섬놈은 그렇게 축을 {읽는갑디다}.<구비문학, 정읍시>

지역 부안.

응강 명 [대응어] 응달.

볕이 잘 들지 아니하는 그늘진 곳. ¶그래서 가보니께, 응 가보니께로 그 사람 눈에 뵈들 안 해. 그러나 그것 인자 {응강에} 이 더위를 개고 있으니께로, 또 비가 와.<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 군편>

지역 전북.

-응개 【연결어미】 [대응어] -니까.

앞 절이 뒤 절의 원인이나 이유가 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밭이 일 {나강개로} 안 되야.(밭에 일 나가니까 안 돼)<최명옥, 김옥화(2001)>

지역 전북.

-응개비구나 【축약형】 [대응어] -은가 보구나

방언형 '-응개 비구나'가 줄어든 말. ¶속이 안 {좋응개비구나}.<김옥화(2008)>

지역 부안.

-응고 【종결어미】 [대응어] -은고.

해라할 자리에 쓰여, 현재의 사실에 대한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성님은 애들맹이로 무신 궁금헌 일이 그렇게도 {많응고}?<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응구레기 명 [대응어] 미꾸라지.

☞웅그레기.

지역 전북.

응뎅이 명 [대응어] 엉덩이.

☞엉딩이. ¶뱀생이 마누라 술동우 이고 달발머리에 {응뎅이춤} 춘단다/에 에헤 에헤야 에 에헤 에헤야 에 에헤 에헤야(부안 배치기소리)<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부안.

응뎅이방애 명 [대응어] 엉덩방아.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주저앉아서 엉덩이로 바닥을 쾅 구르는 짓. ¶{응뎅이방애럴} 찧고 벌렁 자빠져부렀어.

지역 고창, 군산.

응등글씨다 동 [대응어] 응등그리다.

추운 상태나 겁이 난 상태로 몸을 움츠리다. 또는 이나 이빨 따위를 사납게 드러내다. ¶"추워도 몸 {응등글씨고} 참어야 쓰요. 내가 빨리 덮을 것 쪼께 구해야 할랑게. ¶어금니로 짓갈아 {응등글써} 물면서, 외마디 한숨을 토했다.

지역 전북.

응등물다 동 [대응어] 악물다.

단단히 결심하거나 무엇을 참아 견딜 때에 힘주어 이를 꼭 마주 물다. ¶입술을 {응등물고} 있는 방태수의 얼굴에서는 분이 끓고 있었다.<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해설 전라 방언 '응등물다'는 표준어 '악물다'에 대응하는 어휘이다. '응등'은 '앙당, 응덩'으로도 쓰는데 "얼굴을 찌푸리거나 입을 오그리는 모양"을 나타내는 의태어로 보인다.

응등방애 명 [대응어] 엉덩방아.

☞응뎅이방애.

지역 김제, 부안.

응등이 명 [대응어] 엉덩이.

☞엉딩이. ¶섯바닥을 쑥 빼갖구/{응등이} 다리다/덜렁거리고 차고 가니/이내 신세 어이 할꼬(고창 찡타령)<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고창.

응등이방아 명 [대응어] 엉덩방아.
☞응뎅이방애.
지역 군산.

응딩이 명 [대응어] 엉덩이.
☞엉딩이.
지역 무주.

응산 명 [대응어] 응달.
볕이 잘 들지 아니하는 그늘진 곳. ¶{응산에} 있으니 시원하다
지역 군산.

응애응애 부 [대응어] 개굴개굴.
개구리가 우는 소리를 흉내내는 말. ¶개구리가 우는 소리는 {응애응애이다}
지역 정읍.

응흐리다 동 [대응어] 으르렁거리다.
크고 사나운 짐승 따위가 자꾸 성내어 울부짖다. ¶살짝 소리가 나더니 호자가 왔단 말여. 그래갖고는 문짝을 긁고, 말쾅을 긁는디 응흐리면서 헌다는 말이
지역 전북.

의겐 명 [대응어] 의견.
어떤 대상에 대하여 가지는 생각. ¶나는 다른 {이겐을} 가지고 있다
지역 전북.

의뵉 명 [대응어] 의복.
몸을 싸서 가리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천 따위로 만들어 입는 물건. ¶{의복을} 갖춰 입다
지역 남원, 무주, 부안, 임실.

의존허다 형 [대응어] 멍하다.
정신이 나간 것처럼 자극에 대한 반응이 없다. 또는 몹시 놀라거나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얼떨떨하다. ¶아프고 난 뒤로는 어찌 의존허니 댕기드만. 정신이 멍허니.
지역 전북.

의짓잖다 형 [대응어] 의젓잖다.
말이나 행동 따위가 점잖지 못하고 가벼운 데가 있다. ¶근디 율곡선생님의 따님이 하나 기시는디 어떻게 {의짓짠허던지} 여워먹을 디가 없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어눌한 말투며 {의짓잖은} 행동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 아이로구나. ¶사지 멀쩡헌 놈이 밝으서 {으짓잖헌}짓만 허고 댕기니 애비가 어찌 고개를 들고 댕기겄냐.
지역 전북.
해설 '의짓잖다'는 '의젓잖다'의 제2 음절 모음이 '저>즈(고모음화)>지(치찰음의 전설모음화)'의 변화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전북 방언에서는 '의짓잖허다'로도 실현된다.

이[1] 조
화자의 진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동조하기를 바라거나, 강조, 다짐하는 뜻으로도 쓰이는 보조사. 친밀감이나 다정함을 나타내기도 한다. ¶여기서 서울 뻐스가 인꾸나이?<이윤구(1985)> ¶날씨가 검나기 덥따야이?<이윤구(1985)> ¶똑 그 사람 가치 생겼따이?<이윤구(1985)>
지역 전북.
해설 '-잉'으로도 많이 표현되는데, 서술형 뒤에서만 쓰이고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뒤에는 잘 결합되지 않는다.

이[2] 조 [대응어] 에.
앞말이 처소나 시간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조사. ¶{그전이는} 호무로 다 김을 맸어<김옥화(2004)> ¶우리 {밭이는}<홍윤표(1978)>
지역 전북.

이가[1] 조 [대응어] 이.

((받침 있는 체언 뒤에 붙어))어떤 상태를 보이는 대상이나 일정한 상태나 상황을 겪는 경험주 또는 일정한 동작의 주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값이가} 만이 나가<이태영(1984)> ¶아직 {철이가} 덜 들고<이태영(1984)> ¶{눈깔이가} 빠져서<이태영(1984)> ¶{값이가} 많이 나가<홍윤표(1978)>

지역 전북.

이가[2] 조 [대응어] 에.

앞말이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그렇게 나랏님기로 상서를 칬거든. 그런게 인자 나랏님은 {궁궐이가} 있응게 못 알어듣잖어. 인자 몰르지.<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대원 대감 몸에서 청의동자가 둘이 썩 나오더마는 아, {머리맡이가} 앉저서 운다<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전북.

이가서 조 [대응어] 이.

((받침 있는 체언 뒤에 붙어))어떤 상태를 보이는 대상이나 일정한 상태나 상황을 겪는 경험주 또는 일정한 동작의 주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총각이가서} 농사를 지로 들로 감서<이태영(1984)> ¶한번은 {아들이가서} 인제 논두렁을 컹컹 팜서<이태영(1984)> ¶이 {논이가서} 얼매나 되는 고니<이태영(1984)>

지역 전북.

-이까이 【종결어미】 [대응어] -을까.

해할 자리에 쓰여, 어떤 일에 대한 의문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말. ¶"그런디 돈 많고 전답 많은 새서방님이 머에다 쓸라고 넘으 돈을 훔쳐 {냈이까이}?<최명희, 혼불>

지역 남원, 장수, 무주.

이깨이 명 [대응어] 이끼.

습기가 많은 곳에 있는 바위나 나무에서 서식하는 선태 식물. ¶{이깨이가} 피다

지역 전북.

이나다 동 [대응어] 멀어지다.

사이가 서먹서먹하게 되다. ¶동서들끼리 {이나면} 안 좋지. 쌈만 나지. 큰메누리는 동서만 시킬라고 할 거 아녀. 그 싸움이 인자 형제간의 싸움이 돼. 그런께 제금살이를 시켜버리는 거여. 요즘은 근데 큰아들이 부모 안 모실라고 제금살이 먼저 할라고 그래.<정읍시 소성면>

지역 정읍.

이녁 대 [대응어] 당신.

자신의 아내 또는 상대방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 ¶으따, {이녁} 껏이 나으 꺼싱게 에끼지 마랑게, 긍게 매 한가지랑게. ¶{이녁} 죽고 나 죽고 헐랑게. ¶{이녁이} 이뽕게 믄 짓을 못 허겄쏘. ¶그런디, {이녁은} 지집질 허다 걸리먼 디질 줄 각오 허시요. ¶아따, {이녁을} 위한 쪽박은 빡빡 글거야 지라우~. ¶{이녁한티로} 후딱 가고 자퍼서 탐박질히갖고 갈라다가 독자갈에 되게 걸려 자빠징거시 해필이먼 소똥 싸 논디에 긍글어갖고 그날은 재수 옴 붙은 날이당게요.

지역 고창.

-이니 【연결어미】 [대응어] -니.

해라할 자리에 쓰여, 물음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올렸이니}<이길재(1990)>

지역 남원.

이다 조 [대응어] 에다.

((체언 뒤에 붙어))일정한 위치를 나타내는 조사. ¶차를 {문앞이다} 바치더라<백은아(2016)> ¶콩얼 {물이다} 당궜다가<김옥화(2004)> ¶{맷돌이

다} 같으야지<김옥화(2004)> ¶{솥이다} 떠봇어<김옥화(2004)> ¶{귀이다} 대드만<최전승(2000)>
지역 임실.

이다가 조 [대응어] 에다가.
일정한 위치를 나타내는 격 조사. ¶쌍바지문 {안이다가} 밀창문 이르케 해 다라요(쌍닫이문 안에다가 미닫이문 이렇게 해 달아요)<백은아(2016)> ¶{밭이다가}<이기동(1983)>
지역 전북.

-이다고 조 [대응어] -이라고.
서술하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인용하여 나타내는 말. ¶뒤아지 {삼시랭이다고}(삼신할머니라고[삼시랭+이다고]) 헌디<백은아(2016)> ¶산 {지앵이다고}(제사라고[지앵+이다고],), 사과, 배 그거를 참 골고루 허.<백은아(2016)>
지역 임실.

-이도 【연결어미】 [대응어] -어도.
가정이나 양보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글히도<김옥화(2000)> ¶합히도<김옥화(2000)> ¶암만히도<김옥화(2000)>
지역 전북.

이두룸 명 [대응어] 여드름.
주로 사춘기에, 얼굴에 도톨도톨하게 나는 검붉고 작은 종기. ¶저짝 집은 오누이가 사이가 좋아. 이도 잡아 주고, {이두름도} 아무 거리낌 없이 잡아주는 것 보믄. 한참 민감헐 나이들인데 신기허당게.
지역 고창, 김제, 무주, 부안, 순창, 익산, 장수, 남원, 완주, 임실, 군산, 정읍, 진안.

이드룸 명 [대응어] 여드름.
☞이두룸.
지역 남원, 완주, 임실.

이드름 명 [대응어] 여드름.
주로 사춘기에, 얼굴에 도톨도톨하게 나는 검붉고 작은 종기. ¶눈깔 조리개 속에 딱 걸려 잽힌 할망빠진 {이드름} 두개의 탄생은 여름 한나절 같은 한참 속에 그 범인과 원인을 찾게 맹근다.
지역 고창.

이따굼 부 [대응어] 이따금.
시간 간격을 조금 두어 가끔. ¶고향 동네 실비주점의 태인댁이 {이따금씩} 우스갯소리로 들먹이곤 하던 그 '우리앞수표'임에 틀림없었다.<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창선이 마주, 뜰아래 웃방 문턱에 가 걸터앉아서 {이따금씩} 고요히 담배연기를 피워올린다.<채만식, 젊은날의 한 구절> ¶꿈결인 듯 생시인 듯 나른한 속에서 무엇이 쿵쿵 벽에 부딪히는 소리를 {이따금} 들었다.<윤흥길, 양> ¶징검다리에서 자욱하게 죽고 사는 달빛, {이따금} 누님은 그 징검다리께로 눈을 주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했지요.<김용택, 섬진강>
지역 남원, 군산, 고창, 임실, 정읍, 완주.

이때끔 부 [대응어] 이때껏.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 아이야, 진작이라도 한번 가보지. 그렇지만 {이때끔} 무심허게 지내느냐!"<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영미가 오기를 {이때끔} 기다렸는데 끝내 오지 않는구려.
지역 남원.

이때끼 부 [대응어] 이때껏.
지금에 이르기까지. ¶"참말로 이날 {이때끼} 욕심 낸 거라고는 보리밥 한 사발허고 풋고추 된장 한 입뿐인디, 내가 늙마에 이거이 무신 마음고상잉가 모르겄네."<최명희, 혼불> ¶이제나 저제나 허고 지둘렀는디 막차도 끝나버렸당게 {이

때끼} 지둘른 보람도 없네.
지역 전북.

-이라고지 【축약형】 [대응어] -이라고 하지.
'-이라고 하지'가 줄어든 말. ¶{다듬뫽이라고지}.<김옥화(2004)> ¶[국수라고지.], <김옥화(2004)>
지역 전북.

이라사 조 [대응어] -이라야.
어떤 것을 들어 말하면서 꼭 그것임을 지정하여 말함을 나타내는 보조사. ¶내가 글 않든가? 어제께. 술허고 밥허고만 먹는다고. 이런 것도 안 먹어. 엄마는 이익 될 것은 안 먹고 꼭 못 씰 것만 골라 먹는다고. 그도 어쩌? 그놈이라사 둘러지고 먹어지는디. 안 좋아혀, 식히도 안 좋아허고. ¶인자 촛불은 특별한 사람이라사 씨고, 근게 그때는 호롱불 쓰다 촛불 쓰면 훤했는디, 인자는 전기 쓰다 촛불 쓰면 걍 캄캄혀. ¶국가 것이라 잘허는 것도 마찬가지, 못허는 것도 경제 수준이 떨어지지. 내 것이라사 허다 못해 소변이라도 갖다 주고 멋을 맨들어서라도.
지역 고창.

-이락 허드라 【축약형】 [대응어] -이라고 하더라.
방언형 '-이라구 허드다'가 줄어든 말. ¶{약숫물이락 허드라고}.<김옥화(2004)>
지역 부안.

이랑 명 [대응어] 밭이랑.
밭의 고랑 사이에 흙을 높게 올려서 만든 두둑한 곳. ¶고비에 다다른 혼란의 사이를 틈탄 구렁이는 아욱과 상추가 자라고 있는 텃밭 {이랑을} 지나 어느새 감나무에 올라앉아 있었다. 감나무 가지에 누런 몸뚱이를 둘둘 감고서는 철사처럼 가늘고 긴 혓바닥을 대고 날름거렸다.<윤흥길, 장마>
지역 고창, 군산,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이랭 명 [대응어] 밭이랑.
☞이랑.
지역 임실.

이렁수 명
정화수 떠 놓고 복을 빌 때 하는 말. ¶물 떠다 놓고 이렁수를 혀. 맘에 우러나는 대로 빌지.
지역 전북.

이레손 명
아기가 태어난 지 이레 만에 하는 비손 ¶애기가 태어난 지 일주일 되얐응게 인자 {이레손을} 히야지. 만수무강허라고 빌어야지.
지역 전북.

이로 조 [대응어] 으로.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 재료나 원료, 방법이나 방식 따위를 나타내는 격 조사. 또는 움직임의 방향이나 경로를 나타내는 격 조사. 또는 어떤 일의 원일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격 조사. ¶{수건이로} 딲어<김옥화(2001)> ¶곪으먼은 {멋이로} 따제(곪으면 무엇으로 따지)<김옥화(2001)> ¶{옷이로}<이길재(1990)> ¶{나시로}(낫으로) 베 가꼬 지비로 이케, 다니로 무꺼 가꾸서<백은아(2016)> ¶세 {카니로}(칸으로) 징 거슨 상칸찝<백은아(2016)> ¶보미 인제 그놈 {논바티로}(논밭으로[논밭+이로],) 인제 내 가꼬<백은아(2016)> ¶명주 {오시로}(옷으로) 마니 힌떠라고<백은아(2016)> ¶민들레가 {꼬치로만}(꽃으로만) 보제, 멍는 건 몰르건네<백은아(2016)> ¶천장 여기만 {흐기로}(흙으로) 찌 노코<백은아(2016)> ¶{집이로} 돈 부쳐<김옥화(2004)> ¶산중 {꼴착이로} 들어간개<최전승(2000)> ¶작것 그 {집이로} 머심이나 간다고

<최전승(2000)> ¶!나는 영과버리고 발로 볿아 버리고 나는 {집이로} 갔거든. ¶!비가 구먹 뚫어진 디로 {안이로} 들어가 버리면 꼬치가 썩제. ¶!먹을 것 없은게 {산이로} 막 댕임서 끊어 먹고. ¶!맨날 미역국만 줘 매운 거 먹으면 {젖이로} 가서 애기 안 좋고 똥구녕 헤진다고 하고. ¶!나는 상훈이네 {밭이로} 인자 포크레인이 가는 줄 알고 자네 못 봤으면 거식허라고 히 놓고 자네한티 올 판여. ¶!{폿이로} 그냥 타가꼬 껍질을 내버려가꼬 허고 그냥 쌂어가꼬 허는 것이 피고 물여. ¶!옷도 {마포옷이로} 옷드리 맨들아서 제복 입고 댕이고. ¶!{눈이로}, 눈사람 뭉쳐가꼬 만들제. ¶!지푸락으로 내나 저 쓰리빠 {식이로} 이렇게 발꾸락만 뀌게 이케 해서. ¶!주로 나는 밭이다 투자를 헌게 나 밥만 먹으면 밭이서 살아 깐댁깐댁 나이 먹은 {값이로} 내 힘 따라서 깐댁깐댁 조금씩 헌게로. ¶!그것은 낭중에 먹을 {것이로}, 저기서 먹었은게 그리서 그랬지 내가 거그서 몰랐가디? 인자 없어, 여 본게 먹을께비 이것은 낭중에 처도 된다고 그랬지. ¶!시방은 양은솥 {백솥이로} 다 걸어서 우리는 히먹었지만은 양은솥이 없은게 근가 꺼멍솥도 째깐 놈 있었어. ¶!방도 째깐디 저 웃집이 살 때 우리집으로 다 와 다 와 큰사람도 오고 작은 사람도 오고 {칭칭이로} 다 있은게. ¶!거시기 오가리 같은 거 그롷게 생겨가꼬 그릇이 저 항아리 그릇 같은 그런 {그릇이로} 솥단지가 있었어 옛날에 오갈솥. ¶!밤으로는 남자들은 별로 안 나가 인제 {낮이로만} 가서 놀고 저녁에 할 일 없는 사람들 {낮이로만} 가서 놀고. ¶!그란게로 논에마다 지켜앉았은게 {낮이로는} 지발 저 밑이 있는 사람들은 여 사람들 때미 물을 갖고들 모더 앗싸리 낮에는 논이 많으나 적으나 물 댈 생각을 안 허고.

지역 전북.

이로코롬 부 [대응어] 이러하게.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이와 같이. ¶으따, 믄노므 앙개가 {이로코롬} 겁나게 끼었다요.

지역 고창.

이르다 동 [대응어] 일다(쌀을).

불순물이 석인 곡식이나 사금 따위를 도구에 담아서 이리저리 흔들어서 분리하여 가려내다. ¶{일어} 둔 쌀이 깨깟한가 모르겄네. 다시 한 번 확인히 봐라. ¶어머니는 부엌에서 쌀을 {일으는} 모양이다.

지역 익산, 임실.

이른 관 [대응어] 이런.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이러한. ¶수도세가 나온다고 깍 장가 부른 바람에 {이른} 사태가 나능거심.

지역 고창.

이림 명 [대응어] 이름.

사람의 성 아래에 붙여 다른 사람과 구별하여 부르는 말. ¶그 사람의 {이림이} 무엇이냐?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이마빡 명 [대응어] 이마빼기.

'이마'를 속되게 이르는 말. ¶지비는 그렇게도 열심이 ___이마빡에___ 땀까장 흘려 감서 운동헝게 배랑빡에 똥 볼라 감서 겁나게 오래 살겄소이~. ¶고등학교땐 {이마빡}에 난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 많었지. ¶{이마빡이} 반짝 반짝 하구나.

지역 고창, 군산, 남원, 무주, 임실.

이마시 부 [대응어] 이만큼.

이만한 정도로. ¶이마시 컸었는디 지금은 다 짤라내고 째깐허지.

지역 전북.

이망[1] 명

날짜나 앞일의 이치를 따져 보는 일. ¶그렇게 꿈을 꿔고 난게 메누리가 임신혔다고 소식이 와. 그리서 이망을 히본게 아 아들이여.
지역 전북.

이망² 명 [대응어] 이마.
얼굴의 눈썹 위로부터 머리털이 난 아래까지의 부분. ¶{이망에} 주룸살이 자글자글하다
지역 장수.

이망빵 명 [대응어] 이마빼기.
'이마'를 속되게 이르는 말. ¶{이마빵이} 좁다
지역 전북.

이망쿠저망쿠 부 [대응어] 이만저만.
이만하고 저만한 정도로. ¶그 뒤에 율곡이 돌아와서 아들보고 송귀봉(宋龜峰)이 와서 어찌 햇냐고 물었다. 아들은 {이망쿠저망쿠} 했십니다 했다.<구비문학대계 임실군편>
지역 임실.

이매 명 [대응어] 이마.
얼굴의 눈썹 위로부터 머리털이 난 아래까지의 부분. ¶{이매} 살이 가득하다
지역 남원.

이맨치 부 [대응어] 이만치.
이만한 정도로. ¶이것이 보리쌀이 이만치 하던 것을 {이맨치} 되도락 문대도 그래도 구룬네가 나. 똥구멍으로 나온 것이라.<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완주.

이맨하다 형 [대응어] 이만하다.
상태, 모양, 성질 따위의 정도가 이러하다. ¶그려 그만해가꼬 구녁은 이맨하지.
지역 전북.

이맷독 명 [대응어] 이맛돌.
아궁이 위 앞에 가로로 걸쳐 놓은 긴 돌. ¶{이맷독을} 얹다
지역 전북.

이몽자몽 명 [대응어] 비몽사몽.
완전히 잠이 들지도 잠에서 깨어나지도 않은 어렴풋한 상태. ¶그 꿈을 시(세) 번을 그러코롬 슨몽(선몽)을 허그둥. 즈그 친정아버지가. 그서 꿈을 깨갖고 {이몽자몽} 허는 순간에 날이 샜다 그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정읍.

이무래기 명 [대응어] 이무기.
전설상의 동물로 뿔이 없는 용. 어떤 저주에 의하여 용이 되지 못하고 물속에 산다는, 여러 해 묵은 큰 구렁이를 이른다. ¶{이무기가} 용이 되어 승천하다
지역 전북.

이무럽다 (←任意럽다) 형 [대응어] 허물없다, 임의롭다.
서로 친하여 행동에 구애됨이 없다. ¶어려워 하지 말고. {이무럽게} 생각해.<최명희, 혼불> ¶굳이 마실이라고 할 것도 없이 이 공배네 오두막을 제 집처럼 {이무럽게} 여기어 드나드는 춘복이었으니, 며칠간 얼굴 안 보인 것이 외려 이상한 일이었다.<최명희, 혼불> ¶그러나 아무래도 백단이보다는 만동이가 주막에는 {이무러워}, 틈만 나면 그는 마치 일없이 막걸리나 한 사발 마시러 온 것처럼 혼연스럽게 평상에 앉아 있곤 하였다.<최명희, 혼불> ¶이 공배네 오두막을 제 집처럼 {이무럽게} 여기어 드나드는 춘복이었으니, 며칠간 얼굴 안 보인 것이 외려 이상한 일이었다.<최명희, 혼불> ¶성님을 아조 {이무럽게} 여기다 보니께 고만 말이 헛나왔어라.<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이무럽다'는 표준어로는 '허물없다, 임의롭다'가 해당한다. '이무런 사이'라고 하면 "친근한 사이"라는 의미이고, '이무럽게 생각하다'는 "부담이 없다", '이무런 일'은 "익숙한 일"의 의미이다.

이붓아부지 명 [대응어] 의붓아버지.

어머니가 재혼함으로써 생긴 아버지. ¶{이붓아부지} 밑에서 자라다

지역 전북.

이붓어매 명 [대응어] 의붓어미.

아버지가 재혼함으로써 생긴 어머니. ¶옛날에는 공진이 굿인디, 공진이 굿을, 공진이 굿을 보려 갈란디, {이붓어매가} 지그 딸은, 꽃조시는 덜고 가고, 콩조시는 안 덜고 가면서 삼을 한 꽈리를 내놓고.<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남원.

이붓엄마 명 [대응어] 의붓어미.

아빠가 재혼함으로써 생긴 엄마. ¶{이붓엄마} 밑에서 자라다

지역 전북.

이블 명 [대응어] 이불.

잘 때 몸을 덮기 위하여 피륙 같은 것으로 만든 침구의 하나. ¶{이블을} 덮고 자다

지역 고창.

이빠디 명 [대응어] 이빨.

치아를 낮잡아 이르는 말. ¶{이빠디}, 썩어 쪼글거리는 동물은 울덜빼기 없다제, 아마?<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이쁜짓하다 동 [발음] [이쁜지다다/이쁜지타다] [대응어] 재롱부리다.

어린아이나 애완동물이 귀여운 짓을 하다. ¶아들이 나서 {이쁜짓하면} 그것만큼 기쁜 것이 없지<정읍시 소성면>

지역 정읍.

이삐다 형 [대응어] 예쁘다.

생긴 모양이 아름다워 눈으로 보기에 좋다. ¶워매메 언능 후딱 가씨요 글고 아따 지비 뒷퉁뱅이가 솔차니 {이삐요}.

지역 고창.

이사 조 [대응어] 이야.

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술맛이사} 어떴턴지 펄펄 넘게 쳐 달란깨<최전승(1990)> ¶{우리덜이사} 머 이름만 넘으 꺼이간디.<이태영(2004 ㄷ)> ¶잡쑨는 {양반드리사}(양반들이야[양반들+이사],) 거시기여지만 뛰키서 허는 사라믄 죽꺼써.<백은아(2016)>

지역 군산.

이삭모가지 명 [대응어] 이삭.

벼, 보리 따위 곡식에서, 꽃이 피고 꽃대의 끝에 열매가 더부룩하게 많이 열리는 부분. ¶{이삭모가지를} 줍다 ¶가을이 되니 {벼이삭모가지가} 올라오고 있구나.

지역 무주, 군산, 임실.

이새 부 [대응어] 요즈음.

바로 얼마 전부터 이제까지의 짧은 동안. ¶그 사람 {이새} 어터케 지내는가?<완주_지역어_텍스트> ¶내가 {이새로} 말허먼 빽이 좋아.<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고창, 완주, 임실.

해설 '이새'는 '이사이'의 준말로, 전북 방언에서는 '요즈음'과 구별 없이 사용된다.

이서 조 [대응어] 에서.

앞말이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또는 앞말이 시작이 되거나 발단이 되는 지점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반지락은 {바다이서} 날캄헌 호맹이로 캔다고(바지락은 바다에서 날카로운 호미로 캔다고)<김옥화(2001)> ¶{뷔키서}(부엌에서[부엌+이서]) 허는 사라믄 죽껕써<백은아(2016)> ¶엔나레 {지비서}(집에서[집+이서],) 초상을 치룽게<백은아(2016)> ¶{논이서} 나는 풀이나?<김옥화(2004)> ¶뿡을 {나무이서} 따문<김옥화(2004)> ¶{산이서}<최전승(2000) ¶{부잣집이서} 무신 마늘이 귀헐 거잉가?<이태영(2004 ㄱ)> ¶{젙이서} 코를 구리먼 잠도 못 자(곁에서 코를 골면 잠도 못 자)<이혁화(2005)> ¶쌀은 그냥 {농협이서} 갖다 먹는가?(쌀은 그냥 농협에서 사 먹는가?)<이혁화(2005)>

지역 부안, 김제, 군산, 군산, 무주.

이서렁하다 형 [대응어] 비실비실하다.

힘없이 흐느적흐느적 자꾸 비틀거리는 모양. ¶술 처먹고 저렇게 {이서렁하고} 다니는 꼬락서니 꼴뵈기 싫어 죽겄네.

지역 전북.

-이쇠 【종결어미】

하게할 자리에서, 어떤 사실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글쎄 {말이쇠}. ¶아니란 {말이쇠}.

지역 전북.

이수다 동 [대응어] 잇다.

두 끝을 맞대어서 붙이다. ¶또 맬 때도 고런 거 붙일 때 조심해야 되고. 잘못 {잇우믄} 짤 때 다 고라야 되고.<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6> ¶고 {잇운} 부분을 아래로 꼬불쳐서 고 질이만큼 다시 비비는 거래.<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6>

지역 정읍.

이스락지 명 [대응어] 이슬비.

아주 가늘게 내리는 비. ¶{이스락지가} 내리다

지역 전북.

이스럭지 명 [대응어] 이슬비.

☞이스락지.

지역 전북.

이슷 명 [대응어] 남짓.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어떤 수량에 차고 조금 남는 정도임을 나타내는 말. ¶나이는 삼십 {이슷} 먹었다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정읍.

이시락지 명 [대응어] 이슬비.

☞이스락지.

지역 전북.

이시럭지 명 [대응어] 이슬비.

☞이스락지.

지역 전북.

이시매 명 [대응어] 매듭.

실이나 끈 따위를 엮어서 묶은 모양이나 마디. ¶매듭 {이시매}, 매:두 21421-1(매듭을) 맺다/짓다/엮다/묶다 매드벌지어라, 매드벌진다<2008 전북 고창>

지역 고창.

이실 명 [대응어] 이슬.

공기 중의 수증기가 기온이 내려가거나 찬 물체에 부딪힐 때 엉겨서 생기는 물방울. ¶밤사이 {이실이} 내렸다

지역 전북.

이실갱이 명 [대응어] 이슬비.
아주 가늘게 내리는 비. ¶{이실갱이를} 맞으며 걷다
지역 익산.

-이쏘 【종결어미】 [대응어] -세요.
해요할 자리에 쓰여, 요청이나 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진지 {삽수이쏘}.<김중진(1976)>
지역 고창.

이애기 명 [대응어] 이야기.
어떤 사물이나 사실, 현상에 대하여 일정한 줄거리를 가지고 하는 말이나 글. ¶손자에게 {이애기를} 들려주다 ¶그런 씰데없는 {이애기}는 그만허고 일이나 헙시다.
지역 남원, 진안, 김제, 부안, 완주, 임실, 장수, 정읍.

-이야지 【축약형】 [대응어] -어야 하지.
방언형 '-이야 하지'가 줄어든 말. 주로 혼잣말에 쓰인다. ¶씨앗을 {뿌리야지}.<김옥화(2004)>
지역 전북.

이양 (移讓) 명 [대응어] 모내기.
어느 정도 자란 모를 못자리에서 논으로 옮겨 심는 일. ¶20112 모내기 모심는데, 찌제, {이양}, 모심는다<2008 전북 고창>
지역 고창.

이얘기 명 [대응어] 이야기.
어떤 사물이나 사실, 현상에 대하여 일정한 줄거리를 가지고 하는 말이나 글. ¶점잖은 양, 점잖은 선비들이 서이 감서 술을 먹음서 그 애길헌게, 그렁게 그 선비 {이얘기를} 듣고서 마당으다 짚, 짚을 사갈래로 깔아놓고서.<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전북.

이웆 명 [대응어] 이웃.
나란히 또는 가까이 있는 것. 또는 가까이 사는 집이나 사람. ¶핵교가 {이웆인데도} 매일같이 지각이여. 가까이 사는 집. 또는 그런 사람. ¶힘들땐 {이웆끼리} 돕고 살어야지 너무 부담시러 하지 말어.
지역 고창, 무주, 완주.

이원 (離婚) 명 [대응어] 이혼.
부부가 법적으로나 사회 관습적으로 혼인 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일. ¶고로케 인자 {이원히} 부리고, 할머니, 하라버지한테 매끼노코, 자기는 자기대로 댕김선<2005 전북 남원>
지역 전북.

이은장 명 [대응어] 농기구.
☞연장.
지역 무주.

이자 (椅子) 명 [대응어] 의자(椅子).
사람이 걸터앉는 기구. ¶아이들을 의자에 안친다.
지역 고창, 군산, 남원, 완주, 임실, 장수.

이적지 부 [대응어] 이때껏.
이때에 이르기까지. ¶"어이, 자네보고 울아부지 명당 하나 헐라고 늘 부탁을 허도 자네가 참 {이적지} 한 자리도 거식 안히서 걍 내가 한군디 봐둔 디가 있네. 근게 메친날이나 울아부니 장례 모신게 올라믄 오소."<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나는 머심 그만 산다고, {이적지} 산 것이 우리 어머니 땜시 머심을 살었지 글 안히먼 나 벌써 머심을 안 살 사람이라." 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아버지허고 동거험서 아들을 샘형제나 났는디

나중으 죽인다고 허먼 자식이 나도 어머니라고 {이적지} 불러 왔는디 자식이 부모 죽있다고 평판이 나쁠 것이다고. 근게 걍 살려 주시면 좋겄다." 고. 그리서 대처 살려 줬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너는 누구간디 {이적지그} 가도 안 허고 그러고 있냐?"<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나도 연전부터 그런 생각이 있어서, 있어도 차마 그 다정한 사이에 자네가 어쩌케 생각할란가 몰라서 그런 말을 {이적지} 못허고 세상을 지냈네.<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뭣이냐 가야금을 뜯다가 어디서 노래소리가 나오는, 이상헌 소리가 나거든. 근게 백화도 역시나 기생인지라. 소리를 알고 여러 가지로 곡조를 아는디 {이적지} 들어보들 못헌 곡조를 불러서 소리를 허는디 기가 맥힌 곡조를 불러.<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군산, 부안, 정읍.

이쩍지 뿌 [대응어] 이때껏.

☞이적지. ¶그르더니 아닝가나, 이를 이날 {이쩍찌} 일로 늘거.(그러더니 아닌가나, 일을 이날 이때까지 일로 늙어.)<지역어 자료 총서, 중국 무주촌>

지역 전북.

이참저참하다 동 [대응어] 겸사겸사하다.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고자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려고 하다. ¶또 그새까지 먼발치로만 보고 지나치곤 하던 터라 이번 기회에 실지를 구경할 겸, {이참저참하여} 아침 일찍이 임곡역에서 일껏 도중하차를 해가지고 백산광엘 찾아왔던<채만식, 金의情熱>

지역 전북.

이첨저첨 뿌 [대응어] 겸사겸사.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할 겸 해서. ¶제 동무들이며 선생에게 실인심을 해, 그래 학교도 다닐 맛이 덜한 판인데, 계제에 월사금 밀린 것으로 창피를 당하곤 하니까, 이첨저첨 그 거조를 냈던 것이다.<채만식, 정자나무 있는 挿畵>

지역 전북.

이케 뿌 [대응어] 이러하게.

'이러하게'가 줄어들어 굳은 말.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이와 같이. ¶어떻게 돼서 {이케} 썼는디 어떻게 글케 되냐고.<구비문학대계, 정읍> ¶'에이 먹기는 먹는다만 이것 어트게 헐 것인고' 그걍 때리기 커녕 {이케} 주물러 줌서,<구비문학대계, 정읍> ¶그나저나 우리야 남정네덜찌리 만내면 이 얘기가 {이케} 풀리기나 헝게 살아지는디, 글안허고 그냥 농새만 지묵는 사람인덜 그리 이중삼중 볶게고 시달림서 어째 살아가는고.<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이트 뿌 [대응어] 여태.

지금까지. 또는 아직까지. 이미 끝났어야 함에도 그렇게 되지 않았음을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 쓴다. ¶너는 하루 점드락 믄 지랄허고 {이트까장} 방학 숙제 한테기도 안 힛냐 아~ 못 힛냐 아~. ¶그뒤로, 그 새깽이 만나 봉게 {이트까정} 소갈머리가 으찌나 쪼잔헝가 2등 가라고 허면 서럽다고 헐 놈입디다.

지역 고창.

이트까 뿌 [대응어] 여태껏.

지금까지도. 또는 아직까지도. 이미 끝났어야 함에도 그렇게 되지 않았음을 아주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 쓴다. ¶{이트까}, 참을 만큼 지두리다 참었응게로 인자, 고만 찌륵찌륵 건드시요 이~. ¶{이트까} 고런것도 모름서 나발나발거렸능게비네 이~ 내참 나도 고런 중도 모르고. ¶{이트까}

몰찼다가 인자사 검진 바드러 오싱게. ¶{이트까} 헌 일이 인자 봉게 넘의 존일만 히 주었당게라우 그러믄 고것도 참 봉산(奉仕)가? ¶워매, {이트까} 믄 지랄허고 인자사 끼댄다냐?

지역 고창.

이트르먼 부 [대응어] 이를테면.

가령 말로 하자면. ¶{이트르먼} 옌날 제사쌍 이짜녀, 다리 달린, 그런 상이야.(이를테면 옛날 제사상 있잖아, 다리 달린, 그런 상이야.)<지역어 자료 총서, 군산>

지역 군산.

이틑날 명 [대응어] 이튿날.

어떤 일이 있은 그다음의 날. ¶그 날 저녁으 자고 그 {이틑날} 인제 본 읍에 가서 잔치를 베풀었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이파랑구 명 [대응어] 이파리.

나무나 풀의 살아 있는 잎. ¶여름이 되닝께 {이파랑구가} 무성허니 보기 좋구먼. ¶요즈음 날씨가 좋아 {이파랑구가} 정말로 파랗구나.

지역 전북.

이퍼리 명 [대응어] 이파리.

나무나 풀의 살아 있는 잎. ¶깡탱이럴 비어다가 {이퍼리를} 딴다.

지역 전북.

인공허다 동

사람에게 은혜를 갚다. ¶(새가 종을 세 번 울려 선비를 살린 이야기에서) 까토리가 {인공허느라고}.

지역 전북.

인나다 동 [대응어] 일어나다.

누웠다가 앉거나 앉았다가 서다. ¶어여 {인나} 봐.<조봉래, 풀벨골> ¶아 늙으먼 잠도 없다는디 신새복에 {인나} 앉어서 촛대맹이로 우두거니 멋 헐라요? 그 말이나 생각허제. 되작되작.<최명희, 혼불> ¶긍게 내가 자다가도 {인나} 앉겄다고 안 그럽디여?<최명희, 혼불> ¶{인나} 이 쥐새끼야! 이판에는 아주 배때기를 질러버릴팅게! <이병천, 모래내 모래톱> ¶인자 고만 {인나야지}! 아부지 오시면 소리 들을라…….<이병천, 모래내 모래톱> 소망에 가서 소매 한 박작 퍼다가 확 찌끄러 버리기 전에 후딱 {인나라이}.<고창방언> 나, 승질 돋구지 말고 싸그싸그 언능, 후딱 {인나먼} 봐 줄랑게.<고창방언> 싸그싸그 후딱 조까 {인나야} 해가 중천에 떴다이. ¶앙것다 {인난다} 흘라믄 사르마는 갱갯쌌고.<고창방언>

지역 전북.

인나부리 명 [대응어] 아가미.

물속에서 사는 동물, 특히 어류에 발달한 호흡 기관. ¶생선 손질헐 때 창자를 떼고 {인나부리도} 다 떼 버리고 흘르는 물 속에 씻꺼 줘.

지역 장수.

인내키다 동 [대응어] 일으키다.

☞일내키다. ¶저번 때 태풍으로 자빠진 벼를 {인내켜} 세우고 있는디 아직도 서마지기가 남었어.

지역 전북.

인드까 명 [대응어] 여태껏.

지금까지도. 또는 아직까지도. 이미 끝났어야 함에도 그렇게 되지 않았음을 아주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 쓴다. ¶볼태기에 밥태기는 무덜라고 {인드까} 부쳐 갖고 댕긴다요?

지역 고창.

인사옷 명 [대응어] 예단.

결혼하기 전에 신부가 신랑 친척들에게 해 보내는 옷. ¶인사옷을 얼매나 많이 허냐 보고 혼수 잘 히온다고 혔어.
지역 전북.

인자 뿐 [대응어] 이제.
바로 이때. ¶{인자} 고만 뽀짝꺼리고 쩌만치 가등가 허고, 안 갈러먼 치나야 치나! ¶{인자} 비아나서 야구 보능 것도 작파히야(때려치우다) 쓸랑게비요. ¶이트까, 참을 만큼 지두리다 참었응게로 {인자} 고만 찌륵찌륵 건드시요 이~. ¶{인자} 제목도 쪼까 바까 갖고 신갱 쓰께라우~. ¶{인자} 대그빡이 커졌응게 내싸두기라우~ 꼬치장을 끓이등가, 맹태국을 지지등가. ¶{인자} 속좀 채리제 낮바닥이 성헌 디가 항개도 읎꾸만 이~. ¶{인자} 나도 간댕
지역 고창.

인자까 뿐 [대응어] 이제껏.
이제까지 내내. ¶{인자까} 뭐하고 이제야 시작하느냐 ¶{인자까} 네가 뭐라고 말했느냐
지역 전북.

인자깨[1] 명 [대응어] 이제껏.
☞인자까.
지역 전북.

인자깨[2] 뿐 [대응어] 아차.
본의 아니게 어떤 일이 어긋나는 모양. ¶{인자깨} 하다가는 사고가 난다.
지역 전북.

인적지 뿐 [대응어] 이제껏.
이제까지 내내. ¶저게 뭣이다냐? {인적지} 본 적이 없는디. ¶밥 먹기 전까지 구구셈을 열 번 쓰라고 혔는디 그 동안에 뭣허고 {인적지} 시번백이 못썼냐?
지역 전북.

인절미 명 [대응어] 새알심.
팥죽 따위에 넣어 먹는 새알만 한 덩이. 보통 찹쌀가루나 수수 가루로 동글동글하게 만든다. ¶{인절미를} 빚다
지역 익산.

인제껏 뿐 [대응어] 이제껏.
"이제까지"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인제껏} 한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
지역 전북.

인지까 뿐 [대응어] 이제껏.
이제까지 내내. ¶자징개 타고 오먼 싸게 후딱도 올것인디, {인지까} 안 오는 거슬 봉게 하루 점드락 걸리겄다.
지역 고창.

인침 명 [대응어] 인적.
사람의 발자취. 또는 사람의 왕래. ¶거기는 사람이 인침을 안 히서 쑥이 수북혀.
지역 전북.

일그럭 명 [발음] [일끄럭] [대응어] 반짇고리.
바늘, 실, 골무, 헝겊 따위의 바느질 도구를 담는 그릇. ¶{일그럭을} 열다
지역 남원.

일글짝 명 [발음] [일끌짝] [대응어] 반짇고리.
☞일그럭.
지역 전북.

일꾼 명 [대응어] 놉.
하루하루 품삯과 음식을 받고 일을 하는 품팔이 일꾼. 또는 그 일꾼을 부리는 일. ¶농부 아주머니가 인자 밥을 히갖고 자기 남편네가 인자 자

기네 논이 인자 {일꾼을} 얻어서 모를 심으러 가서 모를 심는디. 그때 인자 밥을 허서 꽝주리(광주리)다<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싹 벗어다가 요쪽 사랑방 모퉁이다 넣어놓고는 잠을 잤드라 이거야. 그집으 {일꾼이} 겨울이면 촌에서 이, 새벽 쇠죽을 많이 끓여, 새벽 쇠죽을[조사자: 쇠죽이요?], <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군산, 무주, 군산, 완주, 익산, 정읍, 진안.

일내끼다 동 [대응어] 일으키다.
사람이나 사물 따위를 서게 하다. ¶몸을 {일내끼다} ¶철수는 넘어진 미호를 {일내껴} 주었다.
지역 전북.

일내키다 동 [대응어] 일으키다.
어떤 일을 벌이거나 생기게 하다. 또는 사람이나 사물 따위를 서게 하다. ¶애기가 인제 인날라고 힘을 쓰그든. 그러먼은 그거를 {일내켜서} 세워주는 거여. ¶그니까는 일번이 전쟁얼 {일내킨} 거지. 미국 땅도 지들이 다 먹을라고.
지역 전북.

일다 동 [대응어] 끼다(진딧물이).
때나 먼지 따위가 엉겨 붙다. ¶하이고 야, 말도 말아라잉. 화분을 키운다고 몽땅 갖다 놓더니만 원간 데가 진딧물이 {일어} 가지고 다 갖다 버려 버렸당게.
지역 고창,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장수, 진안.

일로 부 [대응어] 이리로.
'이리'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긍게 {일로} 와서 한번 봐바 임마!<이병천, 모래내모래톱> ¶글고 남지기 영감태기덜도 죄 {일로} 뫼라 허고.<조봉래, 풀벨골 시비주의> ¶둘이 혹시 어디로 가기로 했능가 싶어서 여끄장 업고 왔제. 앙 그러먼 멋 헐라고 {일로} 와아? 원뜸에로 가제.<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일로치면 부 [대응어] 이를테면.
가령 말하자면. ¶사람들이 망둥어라고 하잖어 망둥어는 {일로치면} 여기 말로 운지리여.<고창군 해리면>
지역 고창.

일룽일룽하다 동 [대응어] 일렁일렁하다.
크고 긴 물건 따위가 자꾸 이리저리 크게 흔들리다. 또는 촛불 따위가 이리저리 자꾸 흔들리다. 또는 마음에 자꾸 동요가 생기다. ¶신발이 냇물에 일렁일렁하며 떠내려간다. ¶벽에 그림자가 일렁일렁한다. ¶그를 보면 마음이 일렁일렁한다.
지역 전북.

일부로 부 [대응어] 일부러.
마음먹고 일삼아. ¶비오리어미 말에 "머 {일부로} 고리배미 솔밭 삼거리, 누구 볼라고 오매불망 오셨으께미? 무단히 짐칫국 몬야 딜이마시다 급체허제." 비오리가 진의원 들으란 듯 어미를 편잔한다.<최명희, 혼불> ¶오오, 그래서 아까 봉출이랑 꽃니랑 있는디도 개념 않고 이런 말 저런 말 다 들으라고 {일부로} 그렇게 이얘기를 했등갑다. 아그들보고 욍기라고.<최명희, 혼불> ¶새 술막에다 일단 말을 흘리면, 주막이란 디가 양반 상놈 헐 것 없이 아무나 오고 가는 디고, 또 귓구녁 철벽허고 {일부로} 안 들을라면 몰라도 여그 저그서 허는 이얘기 자연히 들게 되는 디가 주막이여.<최명희, 혼불> ¶네가 보고 싶어서 {일부로} 왔단다.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군산.

일쇠 명 [대응어] 열쇠.
☞열쇠.

지역 무주.

일어내끼다 동 [대응어] 일으키다.

일어나게 하다. ¶몸을 {일어내끼다} ¶"어린 것이 자빠졌으면 언능 {일어내껴야지} 어찌 채다만 보고있냐?[완주], ". ¶이장님의 노력이 이지역을 부자마을로 {일어내끼는데} 밑거름이 된거지. ¶겨울철이면 철새가 조류독감을 {일어내끼고} 댕긴다는디 참말여? ¶좀 얌전허니 학교를 댕기는갑다 혔는디 또 사고를 {일어내끼고} 말았고만. ¶아기가 마구 달리다가 넘어지자 엄마가 얼른 달려가 {일어내껴} 주었다.

지역 전북.

일어시다 동 [대응어] 일어서다.

누웠다가 앉거나 앉았다가 서다. ¶자리에서 {일어시면서} 그를 보았다

지역 김제, 남원, 완주, 익산, 장수.

일으씨다 동 [대응어] 일으키다.

일어나게 하다. ¶몸을 {일으씨다}

지역 전북.

일케 부 [대응어] 이러하게.

'이러하게'가 줄어들어 굳은 말.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이와 같이.

지역 전북.

일트락 부 [대응어] 이토록.

이러한 정도로까지. ¶{일트락} 너를 사랑허는디 어찌 너는 눈길 한 번 안 주는 것이냐?

지역 전북.

일트레면 부 [대응어] 이를테면.

가령 말로 하자면. ¶"첨에는 몰랐는디, 시한부 종말론이란 게 알고 보니깨 돈 놓고 돈 먹기 야바우판이드라고. {일트레면} 솔찮이 벌이가 잘 되는 신종 사업인 심이여."<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일트레면} 자네허고 나는 한 배를 타고 있는 심이여.<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꿈에도 슨지자님을 배반허고 자시고 헐 생심을 못 허는, {일트레면은} 돌대가리 종자에 똥멍청이 인간입니다요.<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내 말이 그렇다는 데 아니라 {일트레면} 시상에는 고따우 잡소리나 씨월거리는 잡년들도 더러 있다드라, 그런 말이지라우.<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일트레면은} 대주주 한 마리에 소주주 몇 마리가 넘들 다 자는 오밤중에 본부에 뫼야 앉어서는 날마닥 주주총회를 벌리는 심이여.<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러니깨 시방 장로님 말씸은 김부월 성도가 {일트레면은} 바람나서 서방질허러 수상헌 동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허고 꼬랑지가 쪼깨 달른 이단 동네 찾어간 것뿐이다, 요런 뜻이 아니겄어라우?"<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일트레면'은 표준어 '이를테면'에 대응하는 어휘이다. 전북 방언 화자들이 자주 쓰는 이 어휘는 '이를테면'과 그 준말인 '일테면'이 혼태되었거나, '이를테면'이 음운 도치를 일으켜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일트르먼 부 [대응어] 이를테면.

☞일트레면. ¶그는디 한번은 내오간이 {일트으믄} 각시랑 아들이랑 메누리랑 인자 일을 허러 갔어. 일을 허고 온게,<구비문학, 옥구군> ¶{일트르먼} 내일 미릉니믈 파루 올 날짠디, 오늘 바메 그르케 꾸믈 꿔워써요. 그 냥반이.(이를테면 내일 미륵님을 파러 올 날자인데, 오늘 밤에 그렇게 꿈을 꿨어요. 그 양반이)<2008 전북 고창>

지역 전북.

일트름 부 [대응어] 이를테면.

가령 말로 하자면. ¶이 녀늘 키우씽게 그 사라믈

주:야고, 그 사라믈 중게 그 사라미 또 인자 소앙치를 한 마리 또 주어써요. 그렁게 {일트름} 사 년마네 소가 두어, 두 마리 돼쪼. 소가.<2008 전북 고창>
지역 고창.

일틀면 뿌 [대응어] 이를테면.
가령 말로 하자면. ¶{일틀면} 개 호리는 도적놈이 되자고 허는 소린디.<조봉래, 풀벨골> ¶모두 우리가 다녀왔는데 그 내력은 에 자기 남편이 에 여기 시방 은씨라고 계셨는디 그 은씨가 아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에 이 6.25 사변을 기해서 에 {일틀으면은} 우익단체 있었지. 지금으로 말허먼은 그래가지고는 에 그 그 촉진대라고 있었어.<구비문학, 정읍시> ¶근디 인자 촉진대장을 하면서 에 좀 그 폭력도 가혈 때는 가허고 좀 그 {일틀으면은} 민심을 아무리 해도 좀 그 포악허게 헌 것만은 사실이지 않겄소?<구비문학, 정읍시>
지역 전북.

잃어번지다 동 [발음] [이러뻔지다] [대응어] 잃어버리다.
가지고 있던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이 그만 사라져 버리게 되다. ¶그려서 그 박건달이 건달이라고 허면은 그만큼 다 요령이 있어 가지고서 결국은 {잃어번졌던} 재산도 다 찾일 수 있는 그런 수완이 있는 건달이 돼야 헌다 그것이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그 사건으로 친구를 {잃어번졌다}. ¶시력을 {잃어번지다}. ¶이성을 {잃어번지다}. ¶매력을 {잃어번지다}. ¶산에서 길을 {잃어번지다}. ¶산으서 길을 {잃어번지고} 헤메던 일을 생각허먼 지금도 간이 떨린다네. ¶아이를 {잃어번지다}. ¶살 의의를 {잃어번지다}.
지역 군산, 완주, 정읍.

잃어분지다 동 [발음] [이러뿐지다] [대응어] 잃어버리다.
☞잃어번지다.
지역 남원.

임뱅허다 (←染病허다) 동 [대응어] 염병하다.
마음에 들지 않는 짓을 하다. 속된 표현이다. ¶오사고 하래점드락 찌럭찌럭 왓쌋능가 끄끕시랍고 꾼적그리고 차말로 못살긋쏘 {임뱅허고} 관동 아프 내깔(냇가)으다가 보를 앙첫는디 기계실을 싫고 방천을 가는디.
지역 고창.

임병 명 [대응어] 염병.
☞염빙. ¶아이구 자껏들 {임병}을 허고 있네.
지역 전북.

임병허다 (←染病허다) 동 [대응어] 염병하다.
마음에 들지 않는 짓을 하다. 속된 표현이다. ¶아조 초랭이 방정 자발 떰서 지랄 {임병허고} 자빠졌네이. ¶허허 {임병허등갑따} 치깐 드러 갈 때는 오만쌍 찡그리고 가등만 나올 때는 영 딴 판이네이.
지역 고창.

임재 명 [대응어] 임자.
물건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 사람. ¶인제 거, 땅 {님재}보고 엔나레 지주라구덩<지역어 자료 총서, 무주> ¶어. 그른게 그 일반민 말 {임재를} 찾어가지고 잡었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임줄 명 [대응어] 금줄.
아이를 낳았을 때, 삼칠일 동안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걸어놓은 줄. ¶아기를 나면 새끼줄에 숯과 꼬추를 꽂아 놓고 {임줄을} 대문 위에 걸

어놨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만들 수는 없고 주위에서 삼칠일 안에 출입을 삼가는 편이지요.<정읍시 소성면>

지역 정읍.

입갑 명 [대응어] 미끼.

☞입밥.

지역 김제, 부안, 군산, 장수.

입더물 명 [대응어] 잇몸.

☞입드물.

지역 전북.

입덮치기 명

시집갈 때 신부가 가져간 옷이나 이불 등을 시집에서 내놓으면 동네 사람들이 구경을 하는데 이때 동네 사람들에게 주는 떡. 또는 그 떡을 주는 일.

지역 전북.

해설 보통 새색시에 대해 이런 말 저런 말을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떡을 대접한다. 나중에는 이 떡이 엿으로 바뀌었고 현재는 전통 결혼식이 아닌 일반 결혼식에서도 폐백할 때 상에 엿을 놓고 시누이에게 먹도록 하는데 이는 입덮치기가 그대로 전해 오는 것이다.

입드물 명 [대응어] 잇몸.

이뿌리를 둘러서 감싸고 있는 살. ¶요좀 무리를 좀 혔더니 {입드물이} 붓고 피도 난다.

지역 전북.

입망 명 [대응어] 부리망.

논밭을 갈 때 소가 곡식이나 풀을 뜯어먹지 못하게 하려고 소의 주둥이에 씌우는 물건. 아주 가는 새끼로 그물 같이 얽어서 만든다. ¶삼월 한시 사월 한시 불과 같이 나는 볕에/싸게 가자 도디 간다 백락같이 후다리네(빨리 가자 더디 간다 벽력같이 휘두르네)/목이 들싸 마리는데 입망일랑 씌었구나(목이 몹시 마르는데 입망일랑 씌웠구나)(고창 소타령)<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고창.

입밥 명 [대응어] 미끼.

낚시 끝에 꿰는 물고기의 먹이. 주로 지렁이, 새우, 밥알 따위를 사용한다. ¶입밥이 부실해서 고기가 안 잡힌다.

지역 고창.

입서리 명 [대응어] 입술.

포유류의 입 가장자리 위아래로 도도록하게 붙어 있는 얇고 부드러운 살. ¶{입서리가} 도톰히야 복시럽다 그려.

지역 전북.

입설 명 [대응어] 입술.

포유류의 입 가장자리 위아래로 도도록하게 붙어 있는 얇고 부드러운 살. ¶소란한 호소의 정오 천심에 다붙은 내 {입설의} 피묻은 입마춤과 무한 욕망의 그윽한 이전율을… 아- 어찌 참을 것이냐!<서정주, 시집> ¶엿을 볼제 입에다가 넣는 듯 {입설에다} 바른 듯<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군산, 부안.

입성 명 [대응어] 의복.

몸을 싸서 가리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천 따위로 만들어 입는 물건. ¶{입성이} 낡어서 속곳자락이 다 닳아빠지면은 구녁으로 궁뎅이살이 삐죽삐죽 내비치기 십상인 볩이여.<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성은 꾀를 벗고 있는데, 동생은 {입성을} 입고 있는 게 뭐요?<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죽어버리고 이 사람은 인저 그 유기

짐을 짊어지고 가서 그 놈을 살짝 팔어서 이 세상이 없는 참 {입성} 같은 것도 어서 그 입성감을 기별했던가 잘 해서 입고서는 참말로 자기 인자 꿘내기로 왔어.<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군산, 남원, 임실, 진안, 부안, 김제, 완주, 고창, 무주.

입셔리 명 [대응어] 입술.

입 가장자리 위아래에 도도록이 붙어 있는 얇고 부드러운 살 ¶{입셔리도} ?? ?면셔 주홍 갓턴 셔을 물고<완판본 열여춘향수절가上>

지역 전북.

해설 '입술'의 중세국어는 '입시울'이다. 『한불자전』(1880)에는 '입셜 脣 입시율 脣'로 나타난다. 이때 '입셜'이 전북 방언에서는 '입셔리'로 나타나고 있다.

입소리 명 [대응어] 입술.

☞입서리.

지역 전북.

입솔 명 [대응어] 입술.

☞입설.

지역 남원, 무주, 임실, 장수, 정읍, 진안.

입이 주책이다 【관용표현】

말을 함부로 하여 줏대가 없이 이랬다저랬다 하다. ¶긍게 고런 것 셧바닥 아프게 말허는 {입이 주책이제}.<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입잣 명 [대응어] 입길, 입방아.

이러쿵저러쿵 남의 흉을 보는 입의 놀림. ¶윤직원 영감의 걸찍한 {입잣 대로} 하면, 오두가 나는 것도 그러므로 무리가 아닐 겝니다.<채만식, 태평천하>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입잣'은 표준어 '입길'에 대응되는 어휘이다. '입길'은 흔히 '입질'로 잘못 쓰는 경우가 많다.

입주댕이 명 [대응어] 주둥아리.

사람의 입을 속되게 이르는 말. ¶무신 보짱으로 그러콤 겁도 없이 {입주뎅이를} 험허게 놀렸다냐!<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한매디만 더 들었다간 욱허니 토악질이 나올지도 몰르니께 고만 {입주뎅이} 다물고 자빠졌어! 알겄냐? 나불대는 그 {입주뎅이에다} 자꾸 꽉 채우고 얌전허니 잠이나 퍼자란 말여, 이 웬수같은 예펜네야!"<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죽었는가 살었는가 한번 굽어다도 안 보던 무심헌 애비가 어느 날 느닷없이 나타나서 새삼시럽게 벤명을 늘어놓는다고 그 벤명이 너한티 통하겄냐. {입주뎅이가} 광주리로 한나 그득이라도 이 아부지는 너한티 아무 헐말이 없는 몸이니라.<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방구석에 틀어백혀서 콩팔칠팔 시비 개려봤자 밤새드락 두 {입주뎅이만} 부르틀 티니께 한강 고수부지 같은 널룬 마당으로 나가서 니가 죽든가 나가 돌아가시든가 양단간에 오날 중으로 결판을 내잔 말여!"<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말을 함부로 하면 {입주댕이를} 찢어버린다.

지역 전북.

입주둥이 명 [대응어] 주둥아리.

☞입주댕이. ¶그런데 그게 적을 때면 우리는 그냥 그 애들의 {입주둥이나} 구경하다가 돌아와야 하는 것이다.<이병철, 모래내 모래톱>

지역 전북.

입주딩이 명 [대응어] 주둥아리.

☞입주댕이. ¶짐치쪼가리 하나라도 손대는 날이면 {입주딩이를} 짝짝 찢어 놀라니께 그리 알어

라. 어머니의 당부 아닌 당부를 마음으로 되새기면서 나는 바구니 위에 덮씌운 보자기를 벗겼다.<윤홍길, 양>
지역 전북.

잇날 명 [대응어] 옛날.
지난 지 꽤 오래된 시기를 막연히 이르는 말. ¶{잇날에} 삼강오륜이 반듯하기가 대쪽 같은 양반이 살었지 않겄어.
지역 전북.

잇음매 명 [대응어] 이음매.
두 물체를 이은 자리. ¶{이음매에서} 물이 새다 ¶{잇음매} 자리가 풀어지지 않게 잘 묶어서 지고 가라.
지역 전북.

잉 조 [대응어] 응.
주로 문장 끝에서 친밀감이나 다정함을 덧붙여서 나타내는 보조사. ¶거그는 {갠찬헝갑네잉}.(거기는 괜찮은가 보네)<김옥화(2001)> ¶어제는 점드락 {비왔다잉}.(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왔다)<김옥화(2001)> ¶그런 종 {알소잉}.(그런 줄 알게)<김옥화(2001)>
지역 전북.

잉계 (←軟鷄) 명 [대응어] 연계.
병아리보다 조금 큰 닭. ¶쑥떡을 치고 메떡을 치고 /{잉계} 자 잡아서 옻칠해 놓자/ 아이고나 담담 설움이야(순창 논매는 소리?호요타령)<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순창.

잉골나다 동
아주 길이 들어서 버릇이 몸에 푹 배었다. ¶암치케라도 떤져 뻰져라 이~ 그렇케 떤져도 너는 {잉골나게} 여지없응게로~. ¶아따, {잉골나부렀고만} 이~ 아조, 지 꼴리는 대로 댐박에 잘도 허요.
지역 고창.

잉그락 명 [대응어] 잉걸.
☞잉그륵. ¶모닥불은 나무가 거의 다 타 {잉그락만} 남아 이글거렸습니다.<김용택, 맑은 날>
지역 전북.

잉그락불 명 [대응어] 잉걸불.
☞잉그럭불. ¶그 {잉그락뿔} 불땐 막 장작뿔 잉글잉그런놈 인써.<2009 전북 임실>
지역 임실.

잉그럭불 명 [대응어] 잉걸불.
불이 이글이글하게 핀 숯덩이. 또는 다 타지 아니한 장작불. ¶{잉그럭불}을 화로에 담다. ¶날새드락 타고 화로에 남은 {잉그럭불을} 후후 불어다시 살렸지.
지역 전북.

잉그륵 명 [대응어] 잉걸.
불이 이글이글하게 핀 숯덩이. ¶날새드락 피워둔 화로에 {잉그륵도} 없이 재만 남았다.
지역 전북.

잉글거리다 동 [대응어] 이글거리다.
불이 발갛게 피어 불꽃이 어른어른 피어오르다. 또는 정열이나 분노, 정기 따위가 왕성하게 일어나다. 또는 얼굴이나 살이 벌그레하게 자꾸 상기되거나 뜨거워지다. ¶장작불이 잉글거리며 타고 있다. ¶눈빛이 잉글거린다. ¶얼굴이 햇빛에 익어 붉게 잉글거렸다.
지역 전북.

잉글불 명 [대응어] 잉걸불.
불이 이글이글하게 핀 숯덩이. 또는 다 타지 아

니한 장작불. ¶화로에 넣을 {잉글불을} 가져오니라. ¶아궁이에 여적 {잉글불이} 남아 있은 게 조심혀.

지역 전북.

잉글잉글하다 동 [대응어] 이글이글하다.

불이 발갛게 피어 불꽃이 어른어른 피어오르다. 또는 정열이나 분노, 정기 따위가 왕성하게 일어나다. 또는 얼굴이나 살이 벌그레하게 자꾸 상기되거나 뜨거워지다. ¶장작불이 잉글잉글하며 타고 있다. ¶눈빛이 잉글잉글한다. ¶얼굴이 햇빛에 익어 붉게 잉글잉글했다.

지역 전북.

잉까리다 동 [대응어] 으깨다.

굳은 물건이나 덩이로 된 물건을 눌러 부스러뜨리다. ¶풀태죽이다고 그렇게 히서 호박 이렇게 잉깔르거든. 푹푹 이렇게 잉까리고.

지역 전북.

잉깔라지다 동 [대응어] 짓이겨지다.

눌러 부스러지게 되다. ¶딸기 씻다가 이거 완전히 {잉깔라졌는걸요}. ¶바닥에 떨어져 {잉깔라진} 고구마를 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무개집 아들 발 위로 소 달구지가 지나가서 발이 {잉깔라져버렸다네}.<정읍군 소성면>

지역 정읍.

잉깨다 동 [대응어] 으깨다.

굳은 물건이나 덩이로 된 물건을 눌러 부스러뜨리다. 또는 억센 물건을 부드럽게 만들다. ¶여럿이 나설 것 있겄냐? 대갈통 근지런 놈 있으면 나서봐라. {잉깨주께}."<송기숙, 녹두장군> ¶"느그덜 대그빡이 이 몽댕이보담 단단하면 그 때 댐배사 대그빡이 안 {잉깨진다}. 내 말 알아묵겄냐?"<송기숙, 녹두장군> ¶감 홍시를 {잉깨어} 감식초를 만들어 먹다.

지역 전북.

잉깨지다 동 [대응어] 으깨지다.

굳은 물건이나 덩이로 된 물건이 눌리어 부스러지다. ¶"어디서 굴러온 누군지 그것이나 알고 뼈를 묻어도 묻자." "아야, 나는 말씀이다잉, 어지께도 느그 쫄다구덜한테 말했다마는 너맨키로 쥐딩이만 까진 새끼는 텩주가리부텀 {잉깨뿌는} 성질이 있다. 쥐딩이 {잉깨지기} 전에 너부텀 이름이나 뱉어놔라. 그래사 내가 뉘 쥐딩이를 잉깨뿌렀는지 아껏 아니겄냐?" 순간, 저 쪽에서 확 몸을 날려왔다. 너뎃 간의 거리를 비호같이 튕겨온 것이다. 막동이가 날렵하게 몸을 피했다.<송기숙, 녹두장군>

지역 전북.

잉껭이 명 [대응어] 이끼.

☞이깨이.

지역 전북.

잉끄리다 동 [대응어] 으깨다.

굳은 물건이나 덩이로 된 물건을 눌러 부스러뜨리다. ¶김칠성이 꽁초를 {잉끄리며} 역정을 냈다.<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해설 표준어 '으깨다'는 전라 방언에서 '잉깨다'로 발음한다. '잉깨다'와 '우그리다'가 혼태되어 '잉끄리다'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잉끼 명 [대응어] 이끼.

습기가 많은 곳에 있는 바위나 나무에서 서식하는 선태 식물. ¶{잉끼가} 앉다

지역 고창, 정읍, 군산.

잉끼미 명 [대응어] 이끼.

습기가 많은 곳에 있는 바위나 나무에서 서식하는 선태 식물. ¶{잉끼미가} 끼다

지역 전북.

잉끼손구락 명 [대응어] 엄지손가락.
다섯 손가락 가운데 첫째 손가락. ¶아이가 {잉끼손구락을} 빨다.
지역 순창.

잉애 명 [대응어] 잉앗대.
베틀에서, 위로는 눈썹줄에 대고 아래로는 잉아를 걸어 놓은 나무. ¶잉애때라고지 {잉애라고도} 허고 그러던디<완주_지역어_텍스트>
지역 고창, 남원, 무주, 완주, 임실.

잉앳대 명 [대응어] 잉앗대.
베틀에서, 위로는 눈썹줄에 대고 아래로는 잉아를 걸어 놓은 나무. ¶{잉애때라고지} 잉애라고도 허고 그러던디<완주_지역어_텍스트> ¶생과부 가슴에 도둑손 넣대끼 날받은 큰애기 수땀 뜨대끼 {잉애대} 밑에 북통 놀대끼<송기숙, 녹두장군>
지역 무주.

잊어버르다 동 [대응어] 잃어버리다.
☞잊어버리다.
지역 고창.

잊어버리다 동 [발음] [이저뻐리다] [대응어] 잃어버리다.
가지고 있던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이 그만 사라져 버리게 되다. ¶학교에서 신발 {잊어삐리고} 새 것 산지가 언지라고 또 잊어삐렸다고?
지역 무주.

잊어번지다 동 [발음] [이저뻔지다] [대응어] 잃어버리다.
가지고 있던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이 그만 사라져 버리게 되다. ¶돈을 {잊어번지다}. ¶주민증을 {잊어번진지가} 얼매나 되었는지 알 수도 없어. ¶그 사건으로 친구를 {잊어번졌다}. ¶피난길에 아부지 {잊어번지고} 이곳이서 자리잡고 산지가 벌써 60년이 넘었어. ¶시력을 {잊어번지다}. ¶교통사고로 다리 {잊어번지고} 쩔뚝거리고 산다는 것이 참말로 기가 맥힌 일여. ¶이성을 {잊어번지다}. ¶그간 속상했던 일은 언능 {잊어번지고} 새 일을 시작히야지 맨날 그렇게 살수는 없는거 아녀? ¶매력을 {잊어번지다}. ¶가난에 찌들리다 봉게 곱던 얼굴 다 {잊어번지고} 병색이 가득 허네. ¶아 올라가는디 옛날에는 짓찻길(기찻길)도 읎고(없고), 대로(大路)도 읎고, 소로(小路) 길로 올라가는디, 아 서울 올라가다 보닌개 질(길)도 {잊어번졌지}, 나중엔 해가 저물어서 오디가(어디가서) 잘 디(곳)도 읎지, 아 날저물어 으디가 하룻저녁 자고가야 할턴디.<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아이를 {잊어번지다}. ¶장마당에서 술에 취해 있다봉게 친구들 다 {잊어번지고} 해거름판에 혼차서 집에 왔대야. ¶살 의미를 {잊어번지다}.
지역 김제, 부안.

잊어베리다 동 [대응어] 잊어버리다.
☞잊어삐리다.
지역 진안.

잊어부르다 동 [발음] [이저뿌르다] [대응어] 잃어버리다.
☞잊어뿌리다.
지역 순창.

잊어부리다 동 [발음] [이저뿌리다] [대응어] 잃어버리다.
가지고 있던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이 그만 사라져 버리게 되다. ¶지갑을 {잊어뿌리다}. ¶그 사건으로 친구를 {잊어뿌렸다}. ¶친한 친구도 멀리 떠나 있으면 {잊어뿌리게} 되어있다. ¶시력을

{잊어뿌리다}. ¶이성을 {잊어뿌리다}. ¶매력을 {잊어뿌리다}. ¶산에서 길을 {잊어뿌리다}. ¶아이를 {잊어뿌렀다}. ¶내가 사는 의의를 {잊어뿌렸다}.

지역 장수, 순창, 남원.

잊어분지다 동 [발음] [이저뿐지다] [대응어] 잊어버리다.

알았던 것을 모두 기억하지 못하거나 전혀 기억하여 내지 못하다. ¶하하. 하도 안해서 {잊어뿐졌네}.<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초등학때 전학 간 친구는 다 {잊어뿐지다}.

지역 남원, 완주.

잎사구 명 [대응어] 잎사귀.

낱낱의 잎. ¶그 오동나무 {잎사구를} 갖고와서 본개로 거기서 떨어진 오동나무 잎사구허고 똑 같애.<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비 온 담에는 나뭇가지 풀 {잎사구가} 젖는 것을, 머 누가 갈쳐 줘서 안당가?<최명희, 혼불> ¶예전에 단옷날에는 창포 {잎사구를} 달고 돌아다녔어. ¶날씨가 좋아 {잎사구가} 싱싱하구나.

지역 전북.

잎삭 명 [대응어] 잎사귀.

☞잎사구. ¶아까시 나무 {잎삭}으로 하루 재수점을 치기도 했지. 재수있다, 재수없다로 시작혀서 제일 마지막 띠어지는 잎삭이 그날 재수여.

지역 완주.

잎새기 명 [대응어] 잎사귀.

☞잎사구. ¶날이 가물라면은 새암 한 가운데가 널룬디 풀 {잎새기가} 났는디. 그 풀잎새기가 잘 크먼 풍년이 들고 크다가 오그라지면은 숭년이 들고 그러지.<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ㅈ

{



자각시럽다 형 [대응어] 꼼꼼하다.

빈틈이 없이 차분하고 조심스럽다.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 ¶우리 둘째딸이 {자각시러워} 그 딸이 다 준비히서 야무지게 혔어. 너무 {자각시러워}. 사람이 빈틈이 없고.

지역 전북.

자개 대 [대응어] 자기.

특히 부부나 연인 사이에서, 상대편을 높여 부르는 이인칭 대명사.

지역 전북.

자곽되다 동

입이 꽉 다물어지다. ¶입이 {자곽되가꼬} 개 수중 마냥 이러고 뻗어 있당게.

지역 전북.

-자구 【종결어미】 [대응어] -자고.

해할 자리에 쓰여,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청자에게 강조하여 일러 주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인자 고만 {가자구}<이윤구(00)>

지역 무주.

자그 대 [대응어] 자기.

특히 부부나 연인 사이에서, 상대편을 높여 부르는 이인칭 대명사.

지역 고창, 부안, 정읍.

자그만허다 형 [대응어] 자그마하다.

조금 작다. 또는 그리 대단하지 않은 듯하다. ¶먼길을 갈 때에 {자그만허게} 보자기에 싸서 <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자그만헌} 사고니 너무 걱정 마라. ¶나무바가지는 {자그만헌게} 쓸모가 많다.

지역 전북.

자깡자깡 감, 명 [대응어] 곤지곤지.

젖먹이에게 왼손 손바닥에 오른손 집게손가락을 댔다 뗐다 하라는 뜻으로 내는 소리. 또는 젖먹이가 왼손 손바닥에 오른손 집게손가락을 댔다 뗐다 하는 동작. ¶아이가 {자깡자깡} 한다.

지역 완주, 진안, 김제, 무주, 군산, 익산.

자꼬 부 [대응어] 자꾸.

잇달아서 여러 번 계속하여. ¶아 숯을 지니고 오닌게 그 질 밑이가 옹달샘이 있는디 어떤 여자가 낮이 와서 옷을 시친 옷을 입고 와서 절을 {자꼬} 혔사. 그 숯짐을 딱 바쳐놓고, “날 보오. 당신 뭔 정성을 여그다가 드리오?”<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그렇게 미련헌 놈이라도 틀린게 인자 영리헌가 미련헌가 볼라고 뭔 말을 {자꼬} 물어보면 {자꼬} 미련헌 소리만 해. {자꼬} 미련헌 소리만 허고 있고 허고 있고 그래.<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울

엄니 얼골이 {자꼬만} 눈에 밟혀." 부월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군산, 김제, 남원, 무주, 임실.

자끄 뿐 [대응어] 자꾸.

☞자꼬. ¶샛 때, 저녁 때 샛 때, 저녁으 꼭 잘 때쯤 허넌게 늙은이가 그 부틀이 나. 부틀이 나고 아 댕임서 {자끄} 아들 추앙을 히싼게….<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정읍.

자끼샘 명 [대응어] 펌프.

수도 시설이 없는 곳에서, 사람이 손잡이를 상하로 되풀이하여 움직임으로써 그 압력에 의하여 땅속에 수직으로 박혀 있는 관을 통하여 지하수가 땅 위로 나오도록 하는 기구. ¶{자끼샘으로} 물을 푼다

지역 무주, 진안.

자끼샴 명 [대응어] 펌프.

☞자끼샘.

지역 전북.

-자녀 【축약형】 [대응어] -지 않아.

방언형 '-지 아니하여'가 줄어든 말. 해할 자리에 쓰여, 전에 듣거나 경험한 것을 확인하려고 묻는 말. ¶돈도 되고, 좀 살리미 거시거고 그렁개 행시리 쫌 다른디럴 {반초니라구자녀}?(돈도 되고, 좀 살림이 거시기하고 그러니까 행실이 좀 다른 데를 반촌이라고 하잖아?)<전북지역어, 남원시>

지역 전북.

자다 보형 [대응어] 싶다.

((동사 뒤에서 '-고 싶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욕구를 갖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 ¶니네 형이 보고 {자서} 왔니라<이태영(0)> ¶니성을 보고 {자서} 내가 왔다<이태영(0)>

지역 전북.

자드라지다 동 [대응어] 자지러지다.

장단이나 웃음소리, 울음소리가 빠르고 잦게 숨이 넘어갈 정도가 되다. ¶그 이야그가 재밌어서 {자드라지게} 웃었어.<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전북.

자락치마 명

넓게 펴져 둘러서 입는 치마. 보통 한복 치마가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 여며 있게 되어 있음. ¶통으로 된 놈은 통치매고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입는 치마는 {자락치매여}.

지역 전북.

자래 명 [대응어] 자라. ¶이 근처의 하천을 다 얼음을 깨고 {자래를} 찾았지요.<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붕애는 못잡고 {자래} 한 마리 잡아왔이요."<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전북.

자래눈 명 [대응어] 자라눈.

젖먹이의 엉덩이 양쪽으로 동그스름하게 패인 자리. ¶애기 궁뎅이에 {자래눈이} 오목허다.

지역 전북.

자러나다 동 [대응어] 자라나다.

생물이 생장하거나 성숙하여지다. ¶태어난 고향 따로 있고 {자러난} 고향 따로 있었다. ¶고추 모종은 드문드문 심어야 햇빛을 잘 받아 쭉쭉 {자러난다}. ¶그런 환경에서 {자러나서} 그런지 성격이 좀 도도하고 양반 티가 몸에 배어 있었다.

지역 남원, 무주, 익산.

해설 표준어에서 '자라나다'는 "자라서 크게 되다"의 뜻으로 '자라다'와 별개의 뜻을 갖지만 전북 방언에서는 '자라다'와 구별 없이 사용된다.

자롬하다 형 [대응어] 갸름하다.
보기 좋을 정도로 조금 가늘고 긴 듯하다. ¶허리가 {자롬헌} 게 아가씬 줄 알고 얼굴을 딱 보니까는 남자여 남자.
지역 전북, 군산.

자롬허다 형 [대응어] 갸름하다.
☞자롬하다.
지역 전북.

자르허다 형 [대응어] 갸름하다.
☞자롬하다.
지역 전북.

자름하다 형 [대응어] 갸름하다.
☞자롬하다.
지역 전북.

자리[1] 명 [대응어] 자루.
손으로 다루게 되어 있는 연장이나 기구 따위의 끝에 달린 손잡이. {자리가} 빠져서 다시 끼우다.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임실, 정읍.

자리[2] 의명 [대응어] 번.
절(拜)을 몇 번 했는지 세는 단위. ¶절 한 {자리} 해 봐라. ¶산 사람한테는 절을 한 {자리} 하고 돌아가신 분한테는 두 자리 하지. ¶인저 드러가쬬. 인저 방으로 드러가서 에, 그, 인저, 너쟁이니 될 어르니니까 인사를 드리라. 절만 한 {자리} 허고 그~양, 뭐 벨말 허도 안허고 나와 버렸씨.<완주_지역어_텍스트> ¶영감님보고 절을 한 {자리를} 험서, "제가 죄를 졌읍니다." "아, 뭔 죄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자리다 명 [대응어] 자르다.
토막을 내거나 끊어 내다. ¶머리를 짤룹게 {자리고} 싶다.
지역 정읍.
해설 '자리다'는 '자르다'의 제2 음절 모음이 /ㄹ/ 뒤에서 '/ㅡ/>/ㅣ/'로 전설 모음화한 것이다. 19세기 후기에 '스, 즈, 츠>시, 지, 치' 등 치찰음 뒤에서 전설 모음화가 발생하였으나, 이와 함께 전북 방언에서는 '자르다>자리다', '모르다>모리다' 등과 같이 /ㄹ/ 뒤에서도 전설 모음화가 나타났다.

자마리 명 [대응어] 잠자리. ¶비가 그치고 날이 선선해지니께 {자마리가} 날아댕기는구먼.
지역 전북.

자무러지다 동 [대응어] 까무러치다.
잠깐 동안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되다. ¶깜짝 놀라서 {자무러질} 뻔했다
지역 전북.

자물씨다 동 [대응어] 까무러지다.
정신이 가물가물하여지다. ¶몽둥이로 이뜨크롬 무자비하게 패는지 두 번이나 {자물씨다가} 깨났구만이라우.
지역 전북.

자발맞다 형 [대응어] 자발없다, 방정맞다.
말이나 행동이 찬찬하지 못하고 몹시 까불어서 경망스럽다. ¶"다시는 벙끗도 못 허게코롬 나이롱실로 땀땀이 버느질허기 전에 그 {자발맞은} 조당머리 씨억 못 닥치겄냐, 이놈아!"<윤흥길,

낫> ¶대처나 저 {자발맞은} 주뎅이를 무신 재주로 틀어막는다냐.<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남자 애가 {자발맞으면} 친구하기 싫어. ¶막내가 {자발맞게} 그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산통이 깨진거여.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자발맞다'는 표준어 '방정맞다, 자발없다'에 대응하는 어휘이다. '자발'은 명사로 보이는데 '방정'과 같은 의미인 "찬찬하지 못하고 몹시 경망스럽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의미한다. 주로 '자발맞은 소리, 자발맞은 행동, 자발맞은 사람' 등의 표현에서 사용한다.

자발시럽다 형 [대응어] 자발스럽다.

보기에 행동이 가볍고 방정맞다. ¶워따, 저 {자발시러운} 놈, 지발, 출석 조까 부르면 나와야. ¶쪼끔만 침착허랑게 {자발시럽게} 방정 떨고 여그 저그 댕깅게 영양가도 읎고 결과는 개털이지야.

지역 고창.

자방침[1] 명 [대응어] 목침.

나무토막으로 만든 베개. ¶시안의 놀다가 자빠져갖고 진바지 물팍 미여지믄 엄니한티 디지게 쥐여터지고 글도 안씨랍다고 {자방침으로} 뉘 배주든 시절.

지역 고창.

자방침[2] (←裁縫침) 명 [대응어] 재봉틀.

☞재봉침. ¶{자방침} 바늘이 오느락 내리락 허면서 버선을 지는디.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정읍.

자방틀 (←裁縫틀) 명 [대응어] 재봉틀.

바느질을 하는 기계. ¶그래 자다보면 그때 인제 혼채(혼자), 그 젯 저 틀 {자방틀} {자방틀} 그먼 인제, 책쌍 사마 쓰능기라.<지역어 자료 총서, 무주>

지역 군산, 장수, 무주.

자봉 (←裁縫) 명 [대응어] 바느질.

바늘에 실을 꿰어 옷 따위를 짓거나 꿰매는 일. ¶{자봉을} 하다

지역 완주.

자봉침 (←裁縫침) 명 [대응어] 재봉틀.

바느질을 하는 기계.

지역 김제, 남원, 무주, 완주, 진안.

자부동 (←<일본어>jabuton) 명 [대응어] 방석.

앉을 때 밑에 까는 작은 깔개. 네모지거나 둥글며, 주로 밑이 배기거나 바닥이 찰 때 쓴다. ¶아, 가서 본게 그서 앉었는디, 인제 시방으로 말허믄 자, {자부동이라고지만} {자부동을} 죽-인자 깔어놨는디.<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잘 허던 짓도 {자부동} 깔아주먼 안 한다더니 지가 허고 싶어야 허지.

지역 고창, 남원, 무주, 임실, 군산.

자불통 명 [대응어] 자물쇠.

문 따위처럼 여닫는 물건을 잠그는 장치. ¶밖에서 장군 {자불통은} 그대로 잠가져 있었는디. ¶할머니 집에 가면 곳간에 늘 {자불통이} 채워져 있었다. ¶겨 속으로 들어가니께 {자불통을} 채나(체와 놓아). ¶이번 슬(설) 전에 나락 멫가마니 찧어 놔야 헐턴디 창고 {자불통} 클르고 나락좀 내 놓자.

지역 고창, 무주, 완주, 익산, 군산.

자붐자붐 부 [대응어] 자밤자밤.

나물이나 양념 따위를 손가락 끝으로 집을 만한 정도의 분량만큼 잇따라 집는 모양. ¶엄마가 {자붐자붐} 반찬을 집어서 내 밥그릇에 올려 주던

때가 그럽구만.
지역 전북.

자빠치다 동 [대응어] 자빠뜨리다.
자빠지게 하다. ¶독그륵 속에가 들었는디 이 독 그륵을 {자빠쳐야} 먹을 것이 나오겄는디 어떠코롬 허서 {자빠칠} 것이냐.<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자빨치다 동 [대응어] 넘어뜨리다.
자빠지게 하다. ¶느그 애비가 매똥 여푸 보리밭에서 순허디 순헌 나를 {자빨치고} 꼰자 갖고…….
지역 고창.
해설 현대 국어 '자빠지다'에 대응하는 5세기 어형은 '젓바디다'이다. 이 어휘의 형태 변천 과정은 '젓바디다>젓바지다>*젓바지다>잣바지다>자빠지다'로 정리할 수 있다.

자산히 (←仔細/子細히) 부 [대응어] 자세히.
사소한 부분까지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히. ¶인제으으 가아이면 언제나 오시랴오/아 헤에 어어 어어 허 어 허이 에헤야아/언제에 올 줄으으을 내가 {자산히} 모르것네/아 헤에 어어 어어 허 어허이 에헤야아/도련님은 올라가시면으흔 귀가문으 장개들어/ 헤에 어어 어어 허 어 허이 에헤야아(옥구 벼등짐소리/등짐소리)<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군산.

자새 명 [대응어] 얼레.
연줄이나 낚싯줄 따위를 감는 데 쓰는 기구. ¶고놈저 싸악 따가꾸 요마넌 투가리로 소슬 거러노코 인저 물레 여그다 노코 {자새} 노코 가꾼저이케 보글보글보글 끄림성 자새 이 구머그가 또 이르케 졸졸졸졸 나오는 구머글 뚜러노머는 인저고 소그서,<2009 전북 임실> ¶이제, 사기가루를 부레풀에 개어 {자새에} 감긴 명주실에다 칠하면 된다.<최명희, 혼불>
지역 고창, 군산, 남원, 부안,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정읍, 장수.

자새 명 [대응어] 얼레.
☞자새.
지역 남원, 장수.

자석 명 [대응어] 자식.
부모가 낳은 아이를, 그 부모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자석} 새깽이덜이 솔찬허다 봉게, 싱간 핀헌 날이 없구만이라우. ¶오메, 우리 {자석놈} 능력도 존개비여?
지역 전북.

자석새깽이 (←子息새깽이) 명 [대응어] 자식새끼.
아들과 딸을 속되게 이르는 말. ¶똥구멍 찌져지게 못사는 흥부네 집구석 가치 {자석새깽이들까정} 겁낭게, 어쩌믄 쓰까이 차말로 폭폭허요.
지역 전북.

자세 명 [대응어] 얼레.
☞자새.
지역 완주.

자수성사 (←自手成家) 명 [대응어] 자수성가.
물려받은 재산이 없이 자기 혼자의 힘으로 집안을 일으키고 재산을 모음. ¶인덕이라고는 이만치도 없어. {자수성사를} 히서 독불장군으로 혼자 먹고 사는.
지역 전북.

자슥 (←子息) 명 [대응어] 자식.
어린아이를 낮잡아 이르거나 친근하게 이르는 말. ¶아따, 고 {자슥} 지그 애비 타겨 갖고 아구

똥허네 이~ 뽄시락 장난도 잘허고. ¶시집 강게 어찌 서방허고 {자슥} 새깽이 백에 안 빕디다.
지역 전북.

자시 (←仔細이) 부 [대응어] 자세히.
사소한 부분까지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히. ¶내가 어찌 자시 아냐면.
지역 전북.

자신물 명 [대응어] 개숫물.
음식 그릇을 씻을 때 쓰는 물. ¶{자신물에} 그릇을 씻다.
지역 무주.

자연시 (自然시) 부 [대응어] 자연히.
억지 없이 저절로. ¶글면 얌전히 기다리시. 쪼까 있음 {자연시} 알게 될겅게.<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자오로다 동 [대응어] 졸다.
☞자오르다. ¶추접쌀 마리지만 화장실 가 부치까네 가 안자서 조깨 한 소곰썩 {자오로고} 오먼 나사.<2009 전북 임실>
지역 임실.

자오루다 동 [대응어] 졸다.
☞자오르다.
지역 고창, 군산, 남원, 무주, 완주.

자오르다 동 [대응어] 졸다.
잠을 자려고 하지 않으나 저절로 잠이 드는 상태로 자꾸 접어들다. ¶일은 안 허고 {자오르고} 있디야. ¶점심 먹고 나면 자오름이 쏟아지지. {자오를} 때 코나 안 골고 자면 다행이게.<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김제, 무주.

자오름 명 [대응어] 졸음.
자려고 하지 않는데도 저절로 오는 잠. ¶점심 먹고 나면 {자오름이} 쏟아지지. 자오를 때 코나 안 골고 자면 다행이게.<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임실.

자오지간 명 [대응어] 좌우지간.
이렇든 저렇든 어떻든 간.
지역 전북.

자올다 동 [대응어] 졸다.
잠을 자려고 하지 않으나 저절로 잠이 드는 상태로 자꾸 접어들다. ¶별 좋은 곳에서 자올고 있다. ¶저 생각해서 공부하라니까 책상에 앉아 {자올고} 있구나.
지역 전북, 진안.
해설 '자올다'는 '졸다'의 방언형으로, 현대 국어의 '졸다'는 5세기의 'ᄌᆞ올다'로 소급된다. 'ᄌᆞ올다'는 16세기에 들어서면서 첫 음절의 /ㆍ/가 둘째 음절의 /ㅗ/에 동화되어 '조올다'로 형태 변화를 겪게 되고 '조올다'가 '졸다'로 축약되었다. 전북 방언의 '자올다'는 어두의 /ㆍ/가 /ㅏ/로 합류한 결과이다.

자올라지다 동 [대응어] 갸울어지다.
비스듬하게 한쪽이 낮아지거나 비뚤어지게 되다. ¶한쪽으로 {자올라진게} 잘 받쳐야제.
지역 전북.

자올르다 동 [대응어] 졸다.
☞자오르다. ¶열뚜시, 지그므로 히서는 열뚜 시다 기양 넘넌더락, 넘떠락 사물 사무먼 그양 아이구, {자올르기도} 허고 어찌 재미 와서, 추접쌀 마리지만 화장실 가 부치까네 가 안자서 조깨 한 소곰썩 자오로고 오먼 나사.<2009 전북 임실>

지역 임실.

자올리다 동 [대응어] 졸리다.

자고 싶은 느낌이 들다. ¶다 기양 넘넌더락, 넘떠락 사물 사무먼 그양 아이구, {자올리기도} 허고 어::찌 재미 와서, 추접쌀 마리지만 화장실 가부치까네<2009 전북 임실>

지역 임실.

자올자올허다 동

계속 꾸벅꾸벅 졸다. ¶어지께 밤에 므 지랄 햇깐디, 저렇게 {자올자올헌다냐}?

지역 고창.

자옹 (←雌雄) 명 [대응어] 자웅.

암컷과 수컷을 아울러 이르는 말. 또는 둘씩 짝을 이룬 것. ¶하물며 짚신도 한 {자옹을} 이루는디 너라고 못하겄냐? 니 운명은 어딘가에 있을 거여. 걱정 마.

지역 무주, 임실, 김제, 군산.

자우뚱하다 동 [대응어] 갸우뚱하다.

☞짜우뚱하다.

지역 전북.

자우용 (←紫雲英) 명 [대응어] 자운영. ¶봄에는 {자우용을} 뜯어다 먹어. 뜯어다 무쳐서 먹으면 미나리 마냥 맛있어.

지역 전북.

자우튼 (←左右튼) 부 [대응어] 좌우간.

이러하든 저러하든 어떠하든 간에. ¶그려 아 이거 내가 캔 것인디 고기로 가는 선물이여. {자우튼} 내가 대원 대감 한티로 갖고 갤 밖이 없다.' 고

지역 전북.

자우튼간 "(←左右튼間) " 명 [대응어] 좌우간.

이러하든 저러하든 어떠하든 간에. ¶자우튼간 오늘은 이만 들어가세. ¶당신은 동네 일이라면 자다가도 나서는 위인 아니오. {자우튼간} 팔자요 팔자.

지역 전북.

자웃이 부 [대응어] 갸웃이.

고개나 몸이 기울어지게. ¶궁금한 그는 고개를 {자웃이} 기울였다 ¶미안헌가 고개를 {자웃이} 숙이고 드러오네.

지역 전북.

자자일촌 (←自作一村) 명 [대응어] 일가.

성(姓)과 본이 같은 겨레붙이. ¶우리 동네는 다 {자자일촌으로} 살았어. 일허러 온 사람 타성 몇 있고.

지역 전북.

자장가리 명 [대응어] 삭정이.

살아 있는 나무에 붙어 있는, 말라 죽은 가지. ¶{자장가리를} 꺾어서 불을 놨어.

지역 전북.

자장개비 명 [대응어] 삭정이.

살아 있는 나무에 붙어 있는, 말라 죽은 가지. ¶{자장개비를} 꺾다

지역 전북.

자정시럽다 형 [대응어] 꼼꼼하다.

빈틈이 없이 차분하고 조심스럽다. ¶너무나 빈틈없고. 자각시런 거여. {자정시럽게} 머 그런 거.

지역 전북.

자지근허다 형 [대응어] 뭉근하다.

세지 않은 불기운이 끊이지 않고 꾸준하다. ¶불이 {자지근허게} 때야지 너무 세면 콩 졸아져.

지역 전북.

자진고비 명 [대응어] 자린고비.

돈이나 재물 따위를 쓰는 데에 몹시 인색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큰 부자가 살았는데 이 영감이, 옛날 부자가 대개 독단적이고[효산스님 : {자진고비} 있지.], {자진고비에} 있어서도, 그래 인자 인심을 못 얻었지.<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군산.

자진기 (自轉車) 명 [대응어] 자전거.

사람이 타고 앉아 두 다리의 힘으로 바퀴를 돌려서 움직이는 탈것. ¶기냥 지가 매급씨 중풍으로 떠러질라다가 낟꼬 또 저거 누나가 {자진기} 타고가다 확 교통사고 나서 주거버리고,<2009 전북 임실>

지역 전북.

자징게 (←自轉車) 명 [대응어] 자전거.

☞자진기. ¶{자징게} 타고 오먼 싸게 후딱도 올 것인디, 인지까 안 오는 거슬 봉게 하루 점드락 걸리겄다. ¶아따, 쩌그 조까 봐바라이 저 냥반이 솔차니 웃겨분다 갓 쓰고 {자징게까장} 타붕게. ¶넉 놓코 해찰 조까 허다가 {자징게를} 박아 삐렀당게요.

지역 고창.

자징기 (←自轉車) 명 [대응어] 자전거.

☞자진기. ¶짐빠리 {자징기} 한 대만 있으먼 막걸리 서너통개는 문지없이 실코 댕겼지.

지역 완주.

자치 명

속사정을 아는 무리. 또는 한 동네. ¶{자치가} {자치} 잡는다고, 동네 사람이 더 무사. 모르는 사람은 안 그려. 동네서 더 잡아먹을라고 혀.

지역 전북.

자치레기 명 [대응어] 자투리.

자로 재어 팔거나 재단하고 남은 천의 조각. 또는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할 만큼 작거나 적은 조각. ¶{자치레기} 천으로 손수건을 맨들었다. ¶{자치레기} 땅으다 상추를 숭거 키운다.

지역 전북.

자케지다 동 [대응어] 잦혀지다.

뒤로 기울어지다. 또는 물건의 안쪽이나 아래쪽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다. ¶고개가 뒤로 {자케졌다}. ¶뚜껑이 {자케졌다}.

지역 전북.

자프다 보형 [대응어] 싶다.

☞잪다. ¶나내가 우리 부모두 보구 {자프고} 동기간두 보구 잡허구 허닝게, 우리 부모헌테 가 댕겨 와야 할꺼 아니냐?

지역 전북.

작것[1] (←雜것) 명 [대응어] 잡것.

잡스럽거나 좋지 못한 사람을 비속하게 이르는 말. ¶{작것} 그 집이로 머심이나 간다고.<최전승 외, 99> ¶{작것이} 인자 막보기로 놀라고 허네.<조봉래, 풀벨골> ¶{작것}, 재수 없네! <채만식, 왕치와 소새와 개미> ¶으이고, 요 {작것을} 그냥.<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새 매칠을 안 봤다고 {작것이} 내가 일흐는 근방 다리똥까지 와서 외롭게 나를 지둘링 거시었능가비다. ¶물이 아래짝으로 빠지기 시작흐믄 배얄때기가 부릉가 즈그들끼리 모태서 서로 보듬고 낫바닥을 할타감서 아이고 {작것들이} 넘부꾸란지도 모리고 대나지 그리야 쓰겄냐고

지역 전북.

작것[2] (←雜것) 감 [대응어] 잡것.

못마땅하거나 무엇인가를 포기할 때 내는 말. ¶에라 {작것} 놀아보세. 에라 {작것} 취해보세. <김용택, 해와 달>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작것'은 표준어로는 '잡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명사, 대명사, 감탄사로 쓰인다. 명사일 때는 "잡스러운 물건"을 의미하고, 대명사일 때는 "점잖치 못하고 잡스러운 사람"을 일컫는다. 감탄사로 쓸 때는 단독으로도 쓰지만 '에라, 아따'와 같은 감탄사와 함께 쓰면서 "그냥, 아무 생각없이"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

작기시암 명 [대응어] 펌프.

수도 시설이 없는 곳에서, 사람이 손잡이를 상하로 되풀이하여 움직임으로써 그 압력에 의하여 땅속에 수직으로 박혀 있는 관을 통하여 지하수가 땅 위로 나오도록 하는 기구.

지역 진안.

작기장 (←雜記帳) 명 [대응어] 잡기장.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을 적는 공책. ¶몰름 병신되는 때니께 나가 말헌 것을 {작기장에} 적어 두고서나 항시 외우고 댕기시, 알겄나.<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작도샴 명 [대응어] 펌프.

수도 시설이 없는 곳에서, 사람이 손잡이를 상하로 되풀이하여 움직임으로써 그 압력에 의하여 땅속에 수직으로 박혀 있는 관을 통하여 지하수가 땅 위로 나오도록 하는 기구. 또는 그런 기구가 있는 샘. ¶{작도샴으로} 물을 퍼댕기면 물이 콸콸 나왔지. ¶{작도샴에서} 물을 물을 많이 푸면 난중에는 진짜로 시원한 물이 나와.

지역 전북, 고창, 남원,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작두샘 명 [대응어] 펌프.

수도 시설이 없는 곳에서, 사람이 손잡이를 상하로 되풀이하여 움직임으로써 그 압력에 의하여 땅속에 수직으로 박혀 있는 관을 통하여 지하수가 땅 위로 나오도록 하는 기구. 또는 그런 기구가 있는 샘. ¶{작두샘에서} 물을 물을 많이 푸면 난중에는 진짜로 시원한 물이 나와.

지역 고창.

작두샴 명 [대응어] 펌프.

수도 시설이 없는 곳에서, 사람이 손잡이를 상하로 되풀이하여 움직임으로써 그 압력에 의하여 땅속에 수직으로 박혀 있는 관을 통하여 지하수가 땅 위로 나오도록 하는 기구. 또는 그런 기구가 있는 샘.

지역 전북.

작두시암 명 [대응어] 펌프.

수도 시설이 없는 곳에서, 사람이 손잡이를 상하로 되풀이하여 움직임으로써 그 압력에 의하여 땅속에 수직으로 박혀 있는 관을 통하여 지하수가 땅 위로 나오도록 하는 기구. 또는 그런 기구가 있는 샘. ¶집::찌비 인제 또 이르케 인저 시아멀(샘을) 지비서 파:가꼬, 두룸바그로 인저 지러 먹떠니 인제, 조깨 또 한쪼게서 {작뚜시아멀} 박떠니, 또 작뚜시야 허더니, 작뚜새미 업써징개 수도로 와 히버려.<2009 전북 임실> ¶그때만히도 쬐꼼 사는 집이나 {작두시암을} 박고 거짐다 두룸박 시암에서 질어다 먹었지. 집::찌비 인제 또 이르케 인저 시아멀(샘을) 지비서 파:가꼬, 두룸바그로 인저 지러 먹떠니 인제, 조깨 또 한쪼게서 {작뚜시아멀} 박떠니, 또 작뚜시야 허더니, 작뚜새미 업써징개 수도로 와 히버려.<2009 전북 임실>

지역 남원,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작두우물 명 [대응어] 펌프.

수도 시설이 없는 곳에서, 사람이 손잡이를 상하로 되풀이하여 움직임으로써 그 압력에 의하여 땅속에 수직으로 박혀 있는 관을 통하여 지하수가 땅 위로 나오도록 하는 기구. 또는 그런 기구가 있는 샘. ¶마중물이 있어야 {작두우물에서} 물을 풀 수가 있어.<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전북.

작신 명 [대응어] 작신.

갑자기 세게 부러지거나 깨지는 모양. ¶다리몽생이를 {작신} 분질러부려야!<조봉래, 풀벨골> ¶영자 아 글쎄 쌀을 어떻게 일어서 밥을 했길래 영감님이 진지를 잡숫다가 어금니가 둘이 {작신} 부러지셨어.<채만식, 다섯 귀머거리> ¶무단히 놀랜 짐에 한 소리 했다가 끄집혜 가서 {작신} 뿌지러지게 뚜드러 맞고는 꼼짝없이 죽을랑가 모른다고오.<최명희, 혼불> ¶그 일만 생가헐라치면 시방도 칵 죽어뿔고 싶어져. 당장 쎗바닥이라도 {작신} 깨물고는 자진했으면 좋겄어.<윤흥길, 소라단 가는 길>

지역 전북.

작신맞다 동 [대응어] 흠씬맞다.

매 따위를 심하게 맞다. ¶또 {작신맞어야} 조용허질 터, 요 작것아?<조봉래, 풀벨골> ¶뭇 연놈들의 멸시와 천대 속에서 차마 못 당할 꼴을 당하고 뭇매까지 {작신맞아가며} 목숨을 걸고 육탄으로 백병전을 치러낸 끝에 어렵사리 벌어들인, 말 그대로 피눈물나는 재산이었다.<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작엄마 명 [대응어] 작은어머니.

아버지 동생의 아내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조카가 {작엄마} 심바람얼 왔디야.

지역 전북.

작으매 명 [대응어] 작은어머니.

아버지 동생의 아내를 이르는 말. ¶조카가 {작으매} 심바람얼 왔디야. ¶느덜 군입정꺼리를 챙겨주는 사람은 느그 {작으매벢이} 없어.

지역 전북.

작은마 명 [대응어] 작은어머니.

☞작엄마. ¶지난 겨울에 {작은마가} 짜준 목도리여 애껴서 써.

지역 전북.

작은막대기 명

자치기를 할 때 쓰는 두 개의 막대기 중 크기가 작은 막대기. ¶{작은막대기를} 긴 막대기로 치믄 튀어오르는 거여.

지역 남원.

작은매 명 [대응어] 작은어머니.

아버지 동생의 아내를 이르는 말. ¶{작은매} 혼자만 늦게 왔대야.

지역 전북.

작은엄니 명 [대응어] 작은어머니.

아버지 동생의 아내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작은엄니는} 어디 가셨냐. ¶{작은 엄니는} 나를 예뻐해 주셨다.

지역 전북.

작은옴마 명 [대응어] 작은어머니.

아버지 동생의 아내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조카가 {작은옴마} 심바람얼 왔디야.

지역 전북.

잔것 명 [대응어] 잔챙이.

여럿 가운데 가장 작고 성질과 바탕이 낮은 것.

¶귀헌 분 드릴 건게 {잔것은} 냅두고 크고 좋은 놈으로만 주소.
지역 전북.

잔내미 명 [대응어] 원숭이.
☞잔내비.
지역 전북.

잔내비 명 [대응어] 원숭이. ¶{잔내비가} 나무에서 떨어지다 ¶{잔내비}띠와 궁합이 가장 잘 맞는 띠가 용띠라는디. 너 그사람 허고 맞선 한번 볼래? ¶우리 집에는 재주가 많다는 {잔내비} 띠가 할머니, 엄마, 나 명이나 된다.
지역 전북.

잔새비 명 [대응어] 새우(바다, 小).
바다에서 사는 작은 새우. ¶{잔새비로} 새비젓갈 담가가지고 김장도 허고 그러믄서 일년 잘 써먹어야지.
지역 정읍.

-잔히여 【축약형】
방언형 '-지 아니하여'가 줄어든 말. 해할 자리에 쓰여, 전에 듣거나 경험한 것을 확인하려고 묻는 말. ¶{그렇잔히여두} 그럴라구 다아 그렇게 저렇게 마련을.<채만식, 태평천하> ¶인제 보소마넌, 그런 놈덜은 손복을 히여서, {오래잔히여} 박적을 차구 빌어먹으러 댕길 티닝개루, 두구 보소! <채만식, 태평천하> ¶내가 {말했잔히여}?<이기갑(1998)>
지역 서남(호남).

-잖애 【축약형】
방언형 '-지 않해'가 줄어든 말. 해할 자리에 쓰여, 전에 듣거나 경험한 것을 확인하려고 묻는 말. ¶거그 옆으다 또 집 짓{잖애}.
지역 전북.

잘구 명 [대응어] 자루(袋).
속에 물건 따위를 담을 수 있도록 헝겊 따위로 길고 크게 만든 주머니. ¶{잘구에다} 담어서 써어그 어따 갖다 내부러도 머 어째 볼 방도가<최명희, 혼불> ¶그래서 인자 금덩이를 그 {잘구} 하나를 들고 와서,<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엄마는 보리가 담긴 {잘구를} 광으로 옮겼다. ¶산에서 밤 한{잘구} 줏어오면 가을철내 잘 먹어.
지역 임실, 정읍.

잘급하다 동 [대응어] 질겁하다.
갑자기 심하게 놀라거나 겁에 질리다. ¶엊지녁에 밤길 가는디 뭐가 푹 나와서 {잘급할} 뻔 했어.<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모르긴 왜 몰라요! 다아 조상 얼굴 볼려구 그리는데, 히히…… 척 연앨……" "저 애가!" 초봉이는 {잘급해} 소리를 지르는데, 얼굴은 절로서 화틋 단다.<채만식, 탁류>
지역 군산.

잘기 명 [대응어] 자루(袋).
속에 물건 따위를 담을 수 있도록 헝겊 따위로 길고 크게 만든 주머니. ¶이 쌀을 {잘기에다} 옴싹 담어라. ¶엄마는 찬장에 놓인 미숫가루 {잘기를} 풀어 겁에 담았다.
지역 남원, 순창, 임실.

잘레 명 [대응어] 자루(袋).
속에 물건 따위를 담을 수 있도록 헝겊 따위로 길고 크게 만든 주머니. ¶깨를 볶을라고 {잘레에} 담아 방앗간에 갔드만 문을 닫아 부렀어.
지역 김제.

잘루 명 [대응어] 자루(袋).
속에 물건 따위를 담을 수 있도록 헝겊 따위로

길고 크게 만든 주머니. ¶깨 한 복지개를 갖다 주더래. 그래서 그놈을 밑없는 {잘루로다가} 받은 것이 밑으로 조루루 새번졌어.<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부안.

잘룹다 형 [활용형] 잘뤄, 잘루니 [대응어] 짧다.
☞짜룹다.
지역 고창.

잘르다 명 [대응어] 자르다.
토막을 내거나 끊어 내다. ¶"그런 뒤에 목아지를 딱 {잘르믄서} 너는 이 방바닥에 엎쳐라." 했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고깃집에서 칼로 기름을 발라내고 고기만 {잘라} 봉지에 담아주었다. ¶그냥 뿔을 딱 집어서 딱 갖고서는 걍 한도막 딱 {잘르더니} 갖다가 가운데 중자를 가운데 중(中)자를 딱 써 놓고는<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군산, 김제, 완주, 정읍.
해설 '잘르-'는 '자르-'가 '르' 불규칙 활용을 하여 '자르-+-아'가 '잘라'가 된 것을 '잘르-+-아'로 오분석한 데서 비롯한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빨르다, 골르다, 달르다' 등 '르'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잘므락하다 형 [발음] {잘므라가다/잘므라카다} [대응어] 자잘하다.
여럿이 다 가늘거나 작다. 또는 여러 가지 물건이나 일, 또는 여러 생각이나 행동 따위가 다 작고 소소하다. ¶글씨가 {잘므락하네}. ¶자잘한 일상 이야기를 한다.
지역 전북.

잘심거리다 동 [발음] {잘씸거리다} [대응어] 절룩거리다.
걸을 때에 자꾸 다리를 몹시 절다. ¶다리를 다쳐서 {잘심거리면서} 걷는다.
지역 전북.

잘심잘심 부 [발음] {잘씸잘씸} [대응어] 절룩절룩.
걸을 때에 잇따라 다리를 저는 모양. ¶사고로 누워 지내등만 이제 겨우 {잘심잘심} 걷는다.
지역 전북.

잘심잘심하다 동 [발음] {잘씸잘씨마다} [대응어] 절룩절룩하다.
걸을 때에 잇따라 다리를 몹시 절다. ¶노인은 다리가 아픈지 {잘심잘심하며} 걸었다.
지역 전북.

잘심하다 형 [발음] {잘씨마다} [대응어] 짤막하다.
조금 짧은 듯하다. ¶묻는 말에 {잘심하게} 대답하다 ¶석짝은 {잘쪽하니} 이러고 생겼어.
지역 전북.

잘쪽하다 형 [발음] {잘쪼가다/잘쪼카다} [대응어] 갸름하다.
보기 좋을 정도로 조금 가늘고 긴 듯하다. ¶버선코가 아주 {잘쪽허게} 빠졌드라고. ¶오이가 {잘쪽허도} 맛은 있어. ¶저짝 끄터리부터 솔나무 있는디 까지 {잘쪽허니} 생긴 것이 우리 콩밭여.
지역 남원, 임실, 완주, 무주.

잘쭉하다 형 [발음] {잘쭈가다/잘쭈카다} [대응어] 잘쏙하다.
긴 물건의 한 부분이 오목하게 쏙 들어가 있다. ¶유리병의 허리가 {잘쭉하다}. ¶가지가 {잘쭉하게} 자라서 먹음직스럽구나.
지역 전북.

잘칵허다 형 [발음] {잘카거다/잘카커다} [대응어] 잘칵하다.
물기가 충분히 있다. ¶물이 {잘칵헌} 놈이라야

맛있제 바실바실허면 팍팍히서 못 써.
지역 전북.

잘컨 부 [대응어] 실컷.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한껏. ¶그전에는 밀주도 강 해 놓고 먹고 어찌고 그러닌게 술을 {잘컨} 먹어버렸어요. {잘컨} 먹어 갖고는 그전에는, 지금은 신작로가 되았지만 그전에는 똘뚝으로 대녔어.
지역 전북.

잠고래 명 [발음] [잠꼬래] [대응어] 잠보(잠꾸러기).
잠이 몹시 많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잠고래가} 무신 일로 일찍 일어났디야.
지역 전북.

잠구다 동 [대응어] 잠그다(문을).
여닫는 물건을 열지 못하도록 자물쇠를 채우거나 빗장을 걸거나 하다. ¶그래서 그 놈이 문에 와서 문고리를 흔들자 안에서 문을 {잠궜은개}, 문이 열릴 것이라고? "문 열어. 문 열어." 그런개<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도둑들지 모르니 잠들기 전에 문을 꼭꼭 {잠궈야} 한다. ¶하기사 이 사람은 내뺐지만서도 이 사람도 문을 저리 {잠구지} 않았다믄 이런 사고를 낼 리도 만무할 꺼고<최창학, 동물과 그들의 시간>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잠꽌 부 [대응어] 잠깐.
☞장꽌.
지역 진안.

잠꾸레기 명 [대응어] 잠보(잠꾸러기).
잠이 몹시 많은 사람을 친근하게 이르는 말. ¶늘 재미 마는 사라믈 {잠꾸레기라고} 그러<완주_지역어_텍스트> ¶철수는 {잠꾸레기라} 아침마다 늦게 일어난다.
지역 남원, 무주, 진안.

잠떡 명
시집갈 때 가마가 중간에서 쉴 때 가마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에게 주는 떡. 새색시의 잠을 가마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가져가라는 의미에서 잠떡이라고 하였다. 새색시는 시집가면 밥 짓고 베 낳고 할 일이 많으므로 잠이 많지 않아야 했다. 보통은 지나가는 아낙네들이 가마 안을 들여다본다. ¶한 뭉테기 어머니가 싸줘. {잠떡이라고}. 가마 안에다 넣어 주지.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들여다보먼 그놈 내 주고.
지역 전북.

잠마리 명 [대응어] 잠자리.
☞자마리. ¶{잠마리} 잡는다고 넘으 남새밭이나 밟고 댕기고 혼날 짓 많이혔지.
지역 전북.

잠방구 명 [대응어] 잠방이.
가랑이가 무릎까지 오는 짧은 남자 홑바지. ¶그동안 홀랑 벗은 놈이 거 {잠방구도} 하나 못 차고 홀랑 벗은 놈이 그 속으서 말개꺼내거리고 이래가지고 대그박이 다 찧어갖고 마빡(이마) 이 막통통 불거지고 이 지경이 됐단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정읍.

잠뱅 명 [대응어] 잠방이.
가랑이가 무릎까지 내려오는 홑바지. ¶날이 더운께 웃통을 홀닥 벗고 {잠뱅만} 걸쳐입었다.
지역 군산, 김제, 완주, 임실, 고창.

잠뱅이 명 [대응어] 잠방이.
가랑이가 무릎까지 내려오는 홑바지. ¶내일은 저집의 놉으로 일하는 공배는, 걷어부친 베 {잠뱅

이에} 소매 없는 등거리를 걸치고, 다른 일꾼들 틈에 어울려들어,<최명희, 혼불> ¶태수가 곰방대를 입에 물고 상수로 등장. 베둥거리와 {잠뱅이를} 입었다.<채만식, 흘러간 고향> ¶무더위에 감물을 들인 {잠뱅이를} 입으면 바람이 솔솔 들어와 시원해.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부안,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진안.

해설 '잠뱅이'는 '잠방이'의 제1 음절의 후설 모음 /ㅏ/가 후행하는 /ㅣ/ 때문에 움라우트되어 전설 모음 /ㅐ/로 바뀐 것이다.

잠벵이 명 [대응어] 잠방이.

☞잠방이. ¶더우먼 기양 {잠벵이도} 척척 걷어붙이고 누가 보든지 말든지 웃통 훌딱 벗고는 등물 한번 씨여언허게 허먼 오직이나 좋겄등만,<최명희, 혼불>

지역 고창.

잠뿍 부 [대응어] 담뿍.

넘칠 정도로 가득하거나 소복한 모양. ¶여보세요 농부님네 이내 한 말 들어보소/아나 농부들 말좀 듣소/저 건네 갈미봉으 비가 {잠뿍} 묻어온다/우장을 허리 두르고 삿갓을 쓰세/여 여 허 여 여루 상 사 뒤이혀(완주 모심는 소리-상사소리)<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완주.

-잠서 【축약형】 [대응어] -자고 했으면서, -자고 하면서.

방언형 '-자구 했음서' 또는 '-자구 함서'가 줄어든 말.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이 말과 행동을 달리했을 때, 그 말과 행동을 연결하여 따질 때 쓰는 말. ¶그래 그것얼 따진게 왜놈 허는 말이, 그런 말이 따로 없었든 것은 으당 그리계산헌다는 약조라고 험서, 억울허먼 법으로 {따지잠서} 더 만내주지도 않드랑마.<조정래, 아리랑> ¶피차 원수 {되잠서} 멀라고 붙드요?<조정래, 아리랑>

지역 부안.

잠에랍다 형 [활용형] 잠에라워/잠에라와 [대응어] 졸리다.

자고 싶은 느낌이 있다. ¶자도 자도 {잠에랍다}.

지역 전북.

잠정신 명 [대응어] 잠결.

의식이 흐릿할 정도로 잠이 어렴풋이 들거나 깬 상태. ¶어제 내가 그 말을 했어? 그 말은 내가 {잠정신에} 헌 말인가 보구만.<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전북.

잠질 명 [발음] [잠찔] [대응어] 잠결.

의식이 흐릿할 정도로 잠이 어렴풋이 들거나 깬 상태. ¶물 틀어논다고 혔드만 잔소리헌다고 그러네. {잠질에} 그런가.

지역 전북.

잠추이 (←잠蟲이) 명 [대응어] 잠보.

잠이 아주 많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잠추이가} 무신 일로 일찍 일어났디야.

지역 전북.

잠충 (잠蟲) 명 [대응어] 잠보.

잠이 아주 많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잠충을} 깨우지도 않았는디 무신 일로 일찍 일어났디야. ¶아침마다 늦게 일어나니께 {잠충도} 그런 {잠충이} 없어.

지역 정읍, 김제, 무주, 고창, 남원,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잠충이 (蟲)+-이) 명 [대응어] 잠보.

잠이 아주 많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치

이, 큰시님언 맨날 밥충이 {잠충이} 멈충이라고 야단이신디요?"<조정래, 아리랑, 995, , 06> 달주는 여전히 벼락소리에 깨어난 {잠충이처럼} 그냥 눈만 껌벅거리며 강쇠네를 건너다보고 있었다.<송기숙, 녹두장군>
지역 전북.
해설 전라 방언 '잠충이'는 표준어 '잠보, 잠꾸러기'에 해당하는 어휘다. '잠충이'는 '잠+충(蟲)+-이'의 구성으로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을 벌레(蟲)에 비유하여 일컫는 말"이다.

잠칭이 명 [대응어] 잠꾸러기.
잠이 아주 많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잠칭이가} 잠을 마다할 때가 다 있냐?
지역 전북.

잠푹하다 형 [발음] [잠푸가다/잠푸카다] [대응어] 잠포록하다.
날이 흐리고 바람기가 없다. ¶텃밭의 남새들은 {잠푹한} 안개발에 잠겨 있었다.<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해설 전라 방언 '잠푹하다'는 표준어에서는 대응어를 찾기가 어렵다. "잔잔한 바람"을 뜻하는 '잔풍(殘風)'에 형용사 파생 접미사 '-하-'가 연결되어 '잔풍하다'가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 '잔풍하다'는 『조선말대사전』에서 '잠풍하다'로 나타난다.

잡나랙 (雜나랙) 명 [대응어] 잡초.
가꾸지 않아도 저절로 나서 자라는 여러 가지 풀. ¶정조나락을 모를 부어 {잡나랙이} 반치 되네/성안 성내다 소첩을 두니 첩우 자식 반치로다 한강에다 모를 부어 모 쩌내기 난감허네/이 논에다 모를 부어 {잡나랙이} 난제로세(남원 모찌는 소리)<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남원.

잡녀러 관
(속된 말로) 잡스럽고 몹쓸. ¶근디도 고 {잡녀러} 미꾸라지 땜시 요 모냥 요 꼴이 머냔 말이시.<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잡녀르 관
(속된 말로) 잡스럽고 몹쓸. ¶오사고 암만 장마철이라고는 흐지만 지영때만되믄 찌럭찌럭 {잡녀르} 비가 왓쌋능가 모르긋다. ¶아따, {잡녀르} 새끼! ¶D지구가 잇는디 D지구 울타리라서 그짝으로 오락 흐고 가는디 새시로 논 다리똥 낭간으서 {잡녀르} 때까우가 외롭게 앙거서 내가 강게로 모가지를 꼬아감서 눙깡을 깜박그리머 외롭게 처다보능 거시다. ¶차말로 {잡녀르} 때까우락 힛도만 인자 봉게 정도 많은 때까우다.
지역 전북.

잡다 보형 [활용형] 자와, 자우니까 [대응어] 싶다.
☞잪다. ¶근게 그서, "손님이 꼭 알고 {잡으먼} 내가 얘기를 히드리다. 저건 내게 대한 얘기라고."<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전북.

잡아띠다 동 [대응어] 잡아떼다.
아는 것을 모른다고 하거나 한 것을 아니 하였다고 하다. ¶밥허고 술이나 고이 팔아묵고 살 일이제 부모없는 불쌍한 아그덜 꾀다가 팔아묵는 천하에 못된 짓얼 어디서 배와묵었냐. 그러고도 당자가 눈앞에 있는디 몰른다고 {잡아띠요}. 에라 이 잡것!<조정래, 아리랑> ¶이번이 마지막 부탁이라며 사정을 허는디 딱 {잡아띠기도} 애롭더라고.
지역 전북.

잡으다 동 [대응어] 바루다.

비뚤어지거나 구부러지지 않도록 바르게 하다. ¶옷깃을 {잡으고} 조용히 밖으로 나간다.
지역 순창.
해설 '잡으다'는 '잡다'의 어간이 '잡으-'로 재구조화된 결과로 보인다. '잡으니, 잡은' 등의 활용형을 '잡으-+-니', '잡으-+-ㄴ' 등으로 재분석하여 어간을 '잡으-'로 재구조화한 것이다.

잡으땡기다 동 [대응어] 잡아당기다.
잡아서 자기 있는 쪽으로 끌어당기다. ¶하 그놈우 새끼. 왜 이렇게 넘의 옷을 {잡으땡기는지} 몰르겄네. ¶사람을 못 가게 {잡으땡기먼} 어쩐대야. 싫어서 가는 것 지맘대로 히야지.
지역 전북.

잣대치기 명 [대응어] 자치기.
정하여진 순서에 따라 짤막한 나무토막을 긴 막대기로 쳐서 날아간 거리를 재어 승부를 정하는 놀이. ¶에릴 때는 {잣대치기를} 자주 허믄서 놀았어.
지역 고창.

잣아올리다 동 [대응어] 자아올리다.
기계의 힘으로 물 따위를 빨아올리다. ¶옛날에는 수도가 어딨가니. 죄 우물에 가서 두레박얼 내려가지구 인제, 물을 자슨다구. {잣아올린다구래}.
지역 전북.

-장 【종결어미】 [대응어] -지.
해할 자리에 쓰여, 아는 바를 확인하기 위하여 묻을 때 쓰는 종결 어미. ¶너 샛밥이랑 다 해{갓섯짱}?<이윤구(00)> ¶너 오후에 해꾜에 {가장}?<이윤구(00)> ¶나도 {가장}?<이윤구(1985)> ¶이거 느 {채기장}?<이윤구(1985)> ¶재미 {조창}?<이윤구(1985)>
지역 무주.

장개 명 [대응어] 장가.
사내가 아내를 맞는 일. ¶그러나 금지옥엽 같이 키운 자식을 때려 가르칠 수도 없고 어찌할 수도 없고, 그래 엄벙덤벙 키운 것이 나이를 열 일곱 살을 먹었어. 그 {장갤} 들였단 말여. {장개를} 들였는디 즈그 처자를 데그다 놓고 그리게 산디 즈그 까장 좋게 살아.<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장개를} 오머는 고놈 비끼고(벗기고), 고고설 이펴.<2005 전북 남원> ¶집에 있음서 농새나 짓고 그러다가 {장개를} 가서 이 에미한티 니 속에서 난 새끼들도 조깨 안어<윤흥길, 장마> ¶촌으는 {장개} 못간 노총각들이 솔찬히 많지.
지역 군산, 김제, 남원, 부안, 완주, 정읍, 임실.

장개미 명 [대응어] 쟁개비.
무쇠나 양은으로 만든 작은 냄비. ¶정제 세간이 나올 제/ 대솥 중솥 소솥 가매솥/소도솥 새운 냄비/무쇠뚜껑으 은동우 놋동우/세 발 가진 {장개미/} 아래쇠 받쳐 곁들이고/함박 박아지 조리 주벅/물당애 불가래 당그래/수세미를 곁들여 노니/정제 세간이 넉넉허게 되었구나(진안군 마령면) <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진안.

장갱이뻬 명 [대응어] 정강뼈.
종아리 안쪽에 있는 뼈. 종아리 앞쪽에서 날카로운 모서리가 만져진다. ¶{장갱이뻬라거대요}<2009 전북 임실>
지역 임실.

-장게 【종결어미】 [대응어] -자니까.
해할 자리에 쓰여, 거듭 강력히 청유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가치 {가장게}<이윤구(00)> ¶지브로 {가장게}<이윤구(00)>
지역 무주.

-장게나 【종결어미】 [대응어] -자니까는
해할 자리에 쓰여, 따지듯이 거듭 강력히 청유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내가 그러케 {하장게나}<이윤구(00)> ¶쌔기 {가장게나}<이윤구(00)>
지역 무주.

장고 명 [대응어] 장구.
국악에서 쓰는 타악기의 하나. ¶음 그러먼 이 기맹기(기명기):: 소게는 징: 머 {장고::}<지역어 자료 총서, 고창> ¶무당 서방은 헐 지 아능 거이 없네이. 피리 불고 {장고} 치고 잽이 노릇허는 것배끼는. 아이고 참, 또 있기는 있그만.<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장고다 동 [대응어] 잠그다(문을).
☞장구다.
지역 고창, 남원, 무주, 순창, 임실, 장수.

장골배기 명 [대응어] 정수리.
머리 위의 숫구멍이 있는 자리. 또는 사물의 제일 꼭대기 부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장골배기를} 만지다 ¶산의 {장골배기}
지역 무주.

장광 (醬-) 명 [발음] [장꽝] [대응어] 장독대.
장독 따위를 놓아 두려고 뜰 안에 좀 높직하게 만들어 놓은 곳. ¶{장광에} 가서 간장 좀 펴 오너라. ¶아이 이거 꿔, 양쪽으서 뀐게 도고통이 공중으서 왔다 갔다, 아 나중으 쉬어서 그냥 말었더니 넘의 {장광으가} 떨어져 장 항아리를 뿌셔 먹었거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그런게 연구가 자그 먹기도 그케 곤란찮헌게 자그 정지에서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저그 {장광} 거끼가서 이렇게 배가 높아.<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동짓날 우리는 뺄건 폿으로 폿죽을 쑤어먹고 또 폿죽을 정지랑 {장광이랑} 뒤뜰안이랑 벽이랑 대문간이랑 집 안 사방에다 뿌리는디.<구비문학대계 정읍군> ¶뒤란으 {장광에} 가서 된장 좀 퍼오니라.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장구네 명 [대응어] 똥장군.
똥을 담아 나르는 오지나 나무로 된 그릇. ¶그거이 {장구네다가} 똥 퍼서 날르는 사람이지.
지역 남원.

장구다 동 [대응어] 잠그다(문을).
여닫는 물건을 열지 못하도록 자물쇠를 채우거나 빗장을 걸거나 하다. ¶망신허고, 동지 섣달에 그러고 댕기먼 얼어 죽고, 그거이 먼 짓이겄냐. 옷고름 짬매고, 단추 {장구고}, 앞지락 못 벌어지게 붙들어 걸어야제.<최명희, 혼불> ¶쇠통얼 {장군다}<2008 전북 고창> ¶지난번에 나락 멫 가마니 없어졌는디 이번으는 절대 못 클르게 단단히 {장궈라}.
지역 고창, 김제, 부안, 군산, 완주, 익산, 정읍, 진안.

장구바미 명 [대응어] 장구배미.
장구와 같이 가운데가 잘록하게 생긴 논배미. ¶이 배미를 어헐른 심고서/{장구바미로} 올라를 가세/여 여 여허 여어루 상 사아 뒤이허(김제 모심는 소리)<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힘제.

장구버럭지 명 [대응어] 장구벌레.
☞장구벌거지.
지역 전북.

장구벌거지 명 [대응어] 장구벌레. ¶여그 {장구벌거지가} 엄청 많네.

지역 전북.

장구아비 명 [대응어] 장구벌레.
☞짱구애비.
지역 전북.

장구애비 명 [대응어] 장구벌레.
☞짱구애비.
지역 전북.

장구잠마리 명 [대응어] 왕잠자리. ¶잠마린디 {장구잠마리라구} 그려 이거슨<완주_지역어_텍스트>
지역 완주.

장구통 (장구桶) 명 [대응어] 똥장군.
똥을 담아 나르는 오지나 나무로 된 그릇. ¶{장구통을} 메고 대니면서 똥도 퍼 주고 그랬어.
지역 군산.

장그다 동 [활용형] 장거서/장가서, 장그니까 [대응어] 잠그다(문을).
여닫는 물건을 열지 못하도록 자물쇠를 채우거나 빗장을 걸거나 하다. ¶오늘 저녁 아, 그 천석군이 올 것이다. 샛서방이 올 것이여. 그런게 문을 딱 {장그고} 방맹이를 딱 치면서 어떤 늠이 우리 서방 왔는디 왔냐고 딱치면는 나갈 것이다. <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아랫 바지 단추 좀 {장거라}.
지역 전북.

장깍지 명 [대응어] 간장종지.
간장을 담아 상에 놓는 작은 그릇. ¶{장깍지} {정문연}<전북>[고창], <한국방언어휘자료집_전북편> ¶동네 어른들한테도 {장깍지로} 한잔 밖에 안 드렸제.
지역 고창.

장깐 부 [대응어] 잠깐.
매우 짧은 시간 동안. ¶그냥, 항:시. 놀 {장깐} 놀먼 그냥. 이 납따건 헝겁쪼가리 이씨먼. 그냥 삽 끙꺼서 되련헤보기. 진 다라보기. 그냥. 항:시 고렁거.{놀, 잠깐 놀면 그냥, 이 납짝한 헝겊조각이 있으면, 그냥 삽 끊어서 도련해보기, 깃 달아보기, 그냥},<2005 전북 남원> ¶농사는 천하지 대본이라 해서 예전부터서 보내기를 허면서 상사소리를 헙니다. 잘 허든 못 허나마 내가 아는 대로 {장깐} 상사소리 헐 것인개로 그대로 들어주시요.<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남원, 고창, 임실.

장꾸실 명
간장 항아리 속에 가라앉아 엉긴 소금. ¶{장꾸실만} 따로 두다
지역 전북.

장꿩 명 [대응어] 장끼.
꿩의 수컷. ¶암꿩은 뒤를세우고 {장꿩은} 앞을 세우고 한골두골 세어가니 아홉새끼 거나리고 한골두고 세어가니<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임실.

장다래 명 [대응어] 장다리무.
☞장다리.
지역 임실.

장다리 명 [대응어] 장다리무.
씨를 받기 위하여, 장다리꽃이 피게 가꾼 무. ¶{장다리에서} 씨를 받다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익산, 임실, 정읍.

장다리무수 명 [대응어] 장다리무.
☞장다리무시.

지역 군산.

장다리무시 명 [대응어] 장다리무.

씨를 받기 위하여, 장다리꽃이 피게 가꾼 무. ¶{장다리무시는} 남겨 둬서 잘 자라게 해야 해.

지역 순창, 군산.

장단 부 [대응어] 좌우간.

이렇든 저렇든 어떻든 간. ¶{장단} 조만간 결말이 날 거닝게 지달려 봐.

지역 전북.

장대미소쿠리 명 [대응어] 바구니.

대나 싸리 따위를 쪼개어 둥글게 결어 속이 깊숙하게 만든 그릇. 테두리에 대나무를 서너 겹 둘러 손잡이가 달린 형태로도 쓸 수 있다. ¶아가, 가서 {장대미소쿠리} 좀 가저 온나.

지역 무주.

장두리 명 [대응어] 장도리.

한쪽은 뭉뚝하여 못을 박는 데 쓰고, 다른 한쪽은 넓적하고 둘로 갈라져 있어 못을 빼는 데 쓰는 연장. ¶{장두리는} 못 빼는 거 아녀. 박는 거제.

지역 전북.

장등이 명 [대응어] 등성이.

산이나 언덕, 파도 등의 두두룩하게 높은 부분. ¶그래서 거기 나와 가지고서 웃선지(地名) 뒤로 왔어. 상입석리라는 데를 왔는디, 와서 산디, {장등이가} 있는디, 거기는 넘어스면은 자기 집을 못보게 생겼어.<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부안.

장메누리 (←며느리)) 명 [대응어] 맏며느리, 큰며느리.

맏아들의 아내. ¶무신 말이냐 허니게 자기는 이집 {장메누린디} 시집온 지 여덟달 만에 아를 낳기 대문에 남으 아를 났다고 소박을 맞았이니 이런 억울한 일이 있소?<구비문학대계 임실군편> ¶사실은 우리 {장메누리가} 팔삭 만에 아들 난 것을 남으 아들 났다고 소박을 주었는디 팔삭 만에 아들 난 것은 산소 탓인데 그랬소.<구비문학대계 임실군편> ¶그 담부터는 {장메누리를} 백자천손(百子千孫)허고 부귀영화(富貴榮華)를 누리게 했다고 기뻐허고 세상에 없는 메누리로 알게 됐어.<구비문학대계 임실군편>

지역 임실.

장배기 명 [대응어] 정수리.

머리 위의 숫구멍이 있는 자리. 또는 사물의 제일 꼭대기 부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장배기를} 만진다. ¶산 {장배기}

지역 완주.

장시 명 [대응어] 장사.

이득을 얻으려고 물건을 파는 일. 또는 이득을 얻으려고 물건을 파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 ¶"조상 공덕이 그거뿐이라 우리 조상은 대대로 소만 잡고 괴기 {장시만} 했는디 자손한티다가 멀 물려줄 거이 있겄능가.<최명희, 혼불> ¶"장사 헐란게 돈이 있간디?" 근게, "내가 돈도 얻어다 주마." 고. "생선 {장시를} 히보라." 고. 또, "우케 생선 담는 그릇.가 있고 지게가 있어야지." "내가 우케랑 지게랑 다 히주마."<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너도 가자미 {장시} 갔디야? 아이고 나는 가자미 장시 갔다가 맞아 죽을 뻔 힜다. 너도 그?구나." 개구리보고? 응. 인자 그러고는 인자 그<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그런게 그 금돌팍 {장시} 헐 헐 적으 그 놈으로 먹고 살었어도, 한 되 퍼내먼 도로 한 되나 생겨나고 복있는 사람이라.<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내가 고리배미 솔발 삼거리 주막에 앉었다가 운봉(雲峰) 권포리 덧멀[加里], 서 산다는 {붓장시를} 만났는디, 그

사람은 그러등만. 그 아부지가 밤에 꿈을 꿍게, 달이, 아니 해가 훤허니 뜨더니 문구녁으로 후르르 들어온단 말이여.<최명희, 혼불> ¶새비이저엇, 맹라안저엇, 어리굴저엇 있어요오, 허고는 {젓장시들은} 외고 댕기지 왜.<최명희, 혼불> ¶그래서 창고 아이들은 낮결이면 봉자 뒤를 그악스레 좇아다니며, {과자장시} 똥구녁은 바삭바삭, {뚜부장시} 똥구녁은 물컹물컹, {지름장시} 똥구녁은 미끌미끌, {엿장시} 똥구녁은 찐득찐득, 하고 입을 모아 놀려대다가도 저녁때만 되면 봉자에게 좀더 잘 보이려고 서로<윤흥길, 소라단 가는 길> ¶고무가 옌나레 {댐배장시를} 허고 댕긴는디, 그 고모보고 저거 어따 예워야거따고 헝개, 아이고 존 자리 이씽개 그럼 예우세,<2009 전북 임실>
지역 김제, 남원, 군산, 고창, 임실, 부안, 완주, 정읍.

장아치 명 [대응어] 장아찌.
오이, 무, 마늘 따위의 채소를 간장이나 소금물에 담가 놓거나 된장, 고추장에 박았다가 조금씩 꺼내 양념하여서 오래 두고 먹는 음식.
지역 전북.

장오 명 [대응어] 쌍.
둘씩 짝을 이룬 것. ¶이번 모임은 남녀가 {장오를} 이뤄서 와야 벌금을 안 문다는디, 어쩐디야?
지역 장수.

장운 명 [대응어] 쌍.
☞장오.
지역 부안, 정읍.

장원리 명
그 해 농사를 잘 지은 집에서 술을 한 동 내는 일. 또는 그런 술이나 음식. ¶{장원리라고} 동네 농사 잘 진 집이서 술이나 한 동 내고.
지역 전북.

장종구래기 명 [대응어] 간장종지.
간장을 담아 상에 놓는 작은 그릇. ¶고 언덕배기가 꼭 {종구래기} 엎어놓은 거 맨치 생겼다고. ¶{장종구래기} {정문연}<한국방언어휘자료집_전북편>
지역 순창.

장질부사 명 [대응어] 장티푸스.
티푸스균이 창자에 들어가 일으키는 급성 법정 전염병. ¶그런디 무럭무럭 자라다가 네 살인가 다섯살인가 먹어서 요새로 말하면 홍역계통 {장질부사} 계통이던개비여. 그 병에 걸렸어. 그래 약을 안 쓴 것은 아니겠지만은, “너는 아무리 그런 병 걸려봐야 죽을<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고창, 군산, 김제, 부안, 완주.

장척 명 [대응어] 저울.
물건의 무게를 다는 데 쓰는 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 ¶{장척에} 무게를 달아 봤어.
지역 고창.

장치 명 [대응어] 자루.
손으로 다루게 되어 있는 연장이나 기구 따위의 끝에 달린 손잡이. ¶다 망가져서 {장치를} 바꿨어.
지역 무주.

장태 명 [대응어] 닭장.
닭을 가두어 두는 장. ¶{장태라는} 거 아십니까? {장태라는} 것이 뭔고 하니 닭을 키우는 둥저린데요. 대로 만들어 가지고 길쭉하니 그 속에다가 인자 나무를 가로질러 가지고,<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김제, 익산, 임실, 정읍.

장테 명 [대응어] 닭장.
☞장태. ¶{장태라는} 거 아십니까? {장태라는} 것이 뭔고 하니 닭을 키우는 둥저린데요. 대로 만들어 가지고 길쭉하니 그 속에다가 인자 나무를 가로질러 가지고,<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전북.

장판때기 (壯版때기) 명 [대응어] 장판.
'장판'을 속되게 이르는 말. ¶{장판때기럴} 새로 깔응게 새집이랑 진배없구먼. ¶아랫목이 뜨끈하니깨로 그짝 {장판때기가} 유독 검누렇게 그을렀당게.
지역 고창, 군산, 남원, 무주, 완주, 임실.

잪다 보형 [대응어] 싶다.
((동사 뒤에서 '-고 잪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욕구를 갖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 ¶그려그려! 우리 새끼가 제일이네 그려. 할마니도 그러고 {잪아서} 병날 판이여 시방.<이병철, 모래내 모래톱> ¶인자, "내가 그 집이서 밥을 히줘서 먹고 이 집이 쉬러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정승이여. 정승인디, 당신 딸을 우리 메누리를 삼고 {잪아서} 그런다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하루는 장안에 가고 {잪아서} 시장엘 가고 {잪아서}, 시장엘 가니까, 웬 부인 하나가 강아질 갖고 나왔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자꾸 쪼르지 마라. 엄마가 느덜 먹고 {잪은} 것 왜 안 맥이고 이러고 있겄냐.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재개 명 [대응어] 대개.
대부분. ¶{재개가} 돌아가실 때까지 알고.
지역 전북.

재근하다 형 [대응어] 대근하다.
견디기가 어지간히 힘들고 만만하지 않다. ¶배가 고파 못하겄소/에헤로 방아호/사람은 작아도 소리는 많네/에헤로 방아호/어허 우겨라 방애호/에헤로 방아호/논매기가 {재근하면}/에헤 루 방아호/말초 한 대 피워보세(무주 논매는 소리?방아타령-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삼공)<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무주.

재깡재깡 감, 명 [대응어] 곤지곤지.
☞자깡자깡.
지역 진안.

재끼다 동 [대응어] 제치다.
☞제끼다.
지역 전북.

재끼재끼 부 [대응어] 켜켜이.
여러 켜마다. ¶먼지가 {재끼재끼} 쌓여 있다.
지역 전북.

재다 동 [대응어] 쌓다.
☞쟁기다.
지역 김제, 완주, 정읍.

재롱 명 [대응어] 재롱(떨다).
어린아이의 재미있는 말과 귀여운 행동. ¶지그먼 테레비가 있찌마넌 그때 시저런, 잉, 두살, 시살, 네살 머그머는 고놈 {재롱이} 테레비에 어디, 테레비가 머여?<2005 전북 남원> ¶아무렇게나 대꾸하면서 도식은 마구 엉겨붙는 두 아이의 {재롱과} 응석을 양쪽 무릎에 각각 나누어 수용했다.<윤흥길, 날개 또는 수갑>
지역 김제, 무주, 부안, 임실, 남원.

재롱하다 동 [대응어] 재롱떨다.

귀여운 짓을 하거나 귀엽게 놀다. ¶{재롱하는} 아이

지역 전북.

재리다 동 [대응어] 저리다(손이).

☞제리다. ¶아이구 허리야 오만육신 사대삭신 육천매디 쑤시고 {재리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정읍.

재민허다 동 [대응어] 제면하다.

남의 남녀 사이에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지 않고 피하다. ¶옛날에는 어디 얼굴이라도 지대로 쳐다봤가디. 이러고 {재민허고} 다녔어.

지역 전북.

재벌 (再벌) 명 [대응어] 두벌.

초벌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일. 또는 두 번 하는 일. ¶그런데 초벌 죽은 종술의 야코를 {재벌} 죽이는 거나 다름없는 하 목사의 잔인한 설교가 곧바로 이어졌다.<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렇게 {재벌} 뒤지는 법도 있소?"<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소 물방댕이를 고을 때 초벌 보다 {재벌이} 더 진한 맛이 우러나오는 법이여.

지역 전북.

재봉침 (裁縫-) 명 [대응어] 재봉틀.

바느질을 하는 기계. ¶{재봉침까지, {재봉치무로}<2008 전북 고창> ¶우리집으는 앉은뱅이 {재봉침이} 있었는대 옴마는 발틀을 원허셨어.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완주, 진안, 부안, 순창, 군산, 익산, 임실, 정읍.

재산내끼 명

불에 타고 남은 재로 꼰 새끼. ¶"나를 조정에 보내주시요." "그래라. 그럼 {재산내끼는} 어떻게 할라냐? " {재산내끼는} 되게 꽈서 큰 독에다가 딱 놓고는 그대로 처질렀단 말이여.<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전북.

재살맞다 형 [대응어] 짓궂다.

장난스럽게 남을 괴롭고 귀찮게 하여 달갑지 아니하다. ¶{재살맞은} 장난은 그만 좀 쳐라

지역 전북.

재소때암 명 [대응어] 액땜.

앞으로 닥쳐올 액을 다른 가벼운 곤란으로 미리 겪음으로써 무사히 넘김. ¶{재소때암한} 셈치고 이번 일은 그냥 넘기자.

지역 전북.

재소코리 명 [대응어] 삼태기.

흙이나 쓰레기, 거름 따위를 담아 나르는 데 쓰는 기구. 가는 싸리나 대오리, 칡, 짚, 새끼 따위로 만드는데 앞은 벌어지고 뒤는 우긋하며 좌우 양편은 울이 지게 엮어서 만든다. ¶밥만 퍼먹고 있을 것이 있을 수가 없어서 내가 산에 올라가서 싸릿대를 비갖고 {재소코리를} 맹글어갖고 이렇게 돌을 주서내기 때미 이런 보물을 찾은 것이지

지역 고창.

재수땜 명 [대응어] 액땜.

앞으로 닥쳐올 액을 다른 가벼운 곤란으로 미리 겪음으로써 무사히 넘김. ¶{재수땜을} 한 셈치고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자.

지역 전북.

재오다 동 [대응어] 재우다.

'자다'의 사동사. 잠을 자게 하다. ¶그 기와집, 기와집 지니고 사는 집이면 참 밥술이나 먹고 사

는 사람이 아닙니까? 촌에서. 그 집을 찾아 들어 갔어. 그래서 하룻저녁 {재와} 달라고 그렇게 해서 밤 새게 되었는데<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저기 허청도 좋고 마굿간도 좋은 개, {재와} 달라."고. 서방님을 조깨 만나 볼란개, 그렇게 밑없는 자루에다가 받아 갖고, 흘려 갖고, 그걸 좃어서,<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그럼 그너믈 기양 {재와} 인자 또 잠자, 한 자미자요. {그럼 그 놈을 그냥 재워, 이제 또 잠자, 한 잠이 자요}.<2009 전북 임실>

지역 고창, 임실.

재이다 동 [대응어] 쌓다.

☞쟁기다. ¶싸래기는 푸대에 담아 닭 모이로 쓰게 {재이라}.

지역 남원, 무주, 순창, 장수.

재장긏다 형 [대응어] 얄궂다.

야릇하고 짓궂다. ¶저런 {재장긏은} 놈, 이건 뭐 헐라 여그다 갖다 놔.

지역 전북.

재치개 명 [대응어] 재채기.

코 안의 신경이 자극을 받아 갑자기 코로 숨을 내뿜는 일. ¶{재치개를} 하다

지역 부안.

재침 명 [대응어] 재채기.

코 안의 신경이 자극을 받아 갑자기 코로 숨을 내뿜는 일. ¶인자 신방에 신랑신부가 들어가 있응게 동네사럼덜 다 방앞에 모이갖고 숨을 죽이고 있는디 아 그냥 옆사럼이 {재침을} 글씨 '엣취!'하고 해버린 거여.

지역 고창, 남원.

잰나비 명 [대응어] 원숭이. ¶{잰나비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지역 전북.

잴금거리다 동 [대응어] 잘금거리다.

액체 따위가 조금씩 자꾸 새어 흐르거나 나왔다 그쳤다 하다. ¶밤에 인자 혼자 산을 돌아갈랑개 얼매나 무선가 오좀이 다 {잴금거리넌} 거여.

지역 전북.

잴금잴금하다 동 [대응어] 잘금잘금하다.

적은 양의 액체 따위가 자꾸 조금씩 새어 흐르거나 나왔다 그쳤다 하다. 또는 그렇게 되게 하다. ¶소변이 {잴금잴금한다}. ¶비가 {잴금잴금하니} 답답하다.

지역 전북.

잼기다 동 [대응어] 메다.

감정이 북받쳐 목소리가 잘 나지 않다. ¶너무 기뻐 목이 {잼긴다}.

지역 군산.

-잽이 【접미사】 [대응어] -잡이.

((일부 명사 뒤에 붙어)) '무엇을 잡는 일'이나 '무엇을 다루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줄잽이}<장승익(008)>

지역 전북.

잽히다 동 [대응어] 잡히다.

붙들리다. ¶옛날에는 돗자리 치느라 노끈 꼬느라고 못을 박아뒀거든. 나오느라고 나오넌게 상투가 거기가 콱 {잽혀} 버렸어. 잡아 채다니 상투가 빠지겠지,<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안 {잽히면} 역적이라고 한께, 헐 수 없이 임금의 명을 못 거역해. 그래 {잽혀} 갔단 말이여, 잽혀 가서 인자 죽일려고 한께, 총을 놔도 안 죽지, 칼로 찔러도 안 죽지.<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큰일 났다고, 인자 다 우리 느이는 다 죽었다." 고 허드리야. 그 인자 그냥

{잽혔어}, 도망가다가. "어디를 가냐?" 글더라느만, "아이 바앙(배웅), 이 오빠들 바양허로 간다." 고 헌게로,<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금은 앞섰지만 자는 뒷심이 약히서 마지막 바쿠에 가서는 따라 {잽힐} 거여.

지역 고창, 군산,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잿간 명 [대응어] 헛간.

여러 가지 물건을 쌓아 두는 광. ¶한밤중에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더니만 작은당숙모가 느닷없이 베개를 품안에 꽉 끌어안고는 마당을 가로질러 {잿간과} 변소를 겸한 칙간 속으로 뛰어들어가서는 아무리 괜찮다고 어서 나오라고 밖에서 사정을 해도 막무가내로 버티며 나오지 않더라는 이야기였다. 남편과 자식들이 불에 타 죽던 날 밤에 당숙모는 칙간 속에 있었다는 것이었다. <윤흥길,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 ¶불티 안 날리게 허라 {잿간} 꼬실라먹지 말고. ¶{잿간에는} 온갖 농기구가 다 있는 곳이다.

지역 고창, 완주, 정읍, 부안.

잿날맹이 명 [대응어] 산마루.

산등성이의 가장 높은 곳. ¶꿀은 무슨 꿀을 따냐고, 어디 {잿날맹이} 올라가다가 이놈이 톱하구 도치하구 가져온다구 보냈더니, 그 지랄하구 왔다구, 다시는 그짓꿀도 말구, 일하지도 말구. <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전북.

잿님 명 [대응어] 대님.

한복에서 남자들이 바지를 입을 때 가랑이 끝쪽을 가든하게 졸라매는 끈. ¶바지저고리 입고 {잿님} 치고 그냥 앉었다.(만든 예)

지역 전북.

해설 '잿님'은 '댓님의 /ㄷ/이 /ㅈ/으로 변한 형태로 충청 방언에서 많이 쓰이며 접촉 방언으로 접경 지역에서 쓰인다.

잿변소 명

한쪽에 재를 같이 쌓아 두면서, 대소변을 보도록 만들어 놓은 곳. ¶칫간, 잿간, {잿변소} 그려. 요즘은 화장실이다고 허지만.

지역 전북.

잿소쿠리 명 [대응어] 삼태기.

☞재소코리.

지역 군산.

쟁갱이 명 [대응어] 정강이.

무릎 아래에서 앞 뼈가 있는 부분.

지역 전북.

쟁궈지다 동 [대응어] 잠기다.

자물쇠가 채워지거나 빗장이 걸려 여닫는 물건이 열리지 않다. ¶문이 안 {쟁궈진다}. ¶바람에 덜컹거리던 문이 안으로 {쟁궈졌구나}.

지역 부안.

쟁기 명 [대응어] 장끼.

☞쟁끼. ¶삼삼양지 잔풀 속으/무거리 {쟁기가} 날아든다/허 허이구나 좀 좋나/어허 품바 잘 헌다(부안 각설이타령-품바타령)<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부안.

쟁기다 동 [대응어] 쌓다.

물건을 차곡차곡 포개어 쌓아 두다. ¶상진이가 힘이 드니깐 한곳에 {쟁겨} 놓아서 찾은 것이지, 만약 쫄개들이 많아 그 쌀을 각단지게 가난헌 사람들 집에 풀었드라면 무슨 수로 도로 찾았겠어요. 그<조정래, 태백산맥> ¶한달 허면은 한굴때기, 한판 맨들어지라우. 그럼 싹 {쟁겨} 놓고 굽고 또 거식허서 허고. 그적에는 옹기가 인자

시세가 없어서 소줏독얼 맨들어 달라고 주문이 들어오고 히갖고 소줏독얼 맨들었어라우.<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7>

지역 김제, 남원, 무주, 순창, 군산, 완주, 임실, 진안.

쟁기지다 동 [대응어] 잠기다.

물속에 물체가 넣어지거나 가라앉게 되다. ¶마을이 물에 {쟁겨졌다}

지역 고창.

쟁깃보십 명 [대응어] 볏.

보습 위에 비스듬하게 덧댄 쇳조각. 보습으로 갈아 넘기는 흙을 받아 한쪽으로 떨어지게 한다. ¶그것을 갖다가 {쟁깃보십이라고} 안 그래?

지역 임실.

해설 '쟁깃보습'은 '쟁기+ㅅ(사이시옷)+보십'으로 분석된다. '보십'은 '보습'이 전설 모음화를 겪은 결과이다. 19세기 말 '스, 즈, 츠>시, 지, 치'와 같이 치찰음 뒤에서 전설 모음화가 발생하였다.

쟁끼 명 [대응어] 장끼.

꿩의 수컷. ¶순노믄 {쟁끼라고} 허는디<완주 지역어 텍스트>

지역 김제, 남원, 무주,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장수, 진안.

쟁이다 동 [대응어] 쌓다.

곡식이나 장작 따위의 단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 더미를 짓다. ¶나락뚜 {쟁인다구려} 기양<2009 전북 임실> ¶나락을 곳간에 {쟁여} 노아라. ¶넘들에게 나눠 줄지도 알어야지 그렇게 {쟁이만} 두먼 똥 되는 거여. ¶장작더미를 높이 {쟁이다}.

지역 고창, 남원, 무주, 순창, 임실, 장수.

쟁키 명 [대응어] 장끼.

☞쟁끼.

지역 김제.

쟁피 명 [대응어] 강피.

주로 진펄에 심는 꺼끄러기가 없고 색이 붉은 피. ¶징게 망게 너른 들에 {쟁피} 훑는 저 마누라/날 마다고 가시더니 강피자루 못 면했네(무주 모심는 소리)<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무주.

저가부지 【축약형】 [대응어] 자기 아버지.

방언형 '저그 아부지'가 줄어든 말. ¶이 아가 커감서 철이 나게 뙹게 저그매보고 {저가부지가} 누구며 어디 사느냐고 물었넌ㄷ 저그매도 아부지가 누구며 어디 사넌지도 모르지.<구비문학대계 임실군편> ¶신세 타령얼 늘어놓넌디 들어 봉께 그 여자넌 {저가부지가} 상관히서 저럴 난 어머니란 것얼 알게 되었어.(순창군 순창면 은행정리)

지역 전북.

저구리 명 [대응어] 저고리.

한복 윗옷의 하나. 또는 '재킷'을 달리 이르는 말. ¶소캐를(솜을) 놔서 다 뉘비서 바지 맨들고, {저구리} 맨들고.<2009 전북 임실> ¶으르신네드리 만응게, 우리 하라버지는 꼭 겨으레는 꼭 맹지, 이케 바지 {저구리다가} 덛써구리도 명지로 허씨.<2007 전북 군산> ¶그때넌 다 함보그로 두루매기까지. 두루매기까지 히준 사람도 이꼬, 그라너먼 바지, {저구리}, 조끼까지 고로케 히서, 다 그러케 관대보끄멀 히주거든.<2005 전북 남원> ¶그러고 비단 치마에 비단 {저구리를} 입혀. 과수 옷으로. 그래서 누가 얼른 모르고 보먼 영락없이 과수로 알게 꾸메 났어.<최명희, 혼불> ¶{저구리를} 입다 ¶치마와 {저구리를} 입으니 참 예쁘구나.

지역 남원, 무주, 임실, 군산.

저그 대 [대응어] 자기.

앞에서 이미 말하였거나 나온 바 있는 사람을 도로 가리키는 삼인칭 대명사. ¶아들은 {저그} 집이 가 있어<최전승 외(1991)> ¶허니 어린애들이 {저그} 아버지를 운반허겄냐 어찌겄냐.<임실 "설장구잽이" 신기남의 한평생, 뿌리깊은 나무> ¶근게 딸 하나 있는 것 찾을라고 {저그} 어매가 그러고 찾으러 댕겼던 것이지.<임실 "설장구잽이" 신기남의 한평생, 뿌리깊은 나무> ¶너무식구 댈 꺼시 업써요. {저그끼리} 다 해버려요.(남의 식구 댈 것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다 해버려요.)<전북지역어, 고창군> ¶큰방으 가서 인제 {저그들} 먹는 디를 가만히 가 들여다 본게 냄비 소리가 나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그라고 {저그는} 또 그냥 들어가드래여 가매 안이.<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전북.

저그매 【축약형】 [대응어] 자기 어머니.

방언형 '저그 어매'가 줄어든 말. ¶이 아가 커감서 철이 나게 됭게 {저그매보고} 저가부자기 누구며 어디 사느냐고 물었넌디 {저그매도} 아부지가 누구며 어디 사넌지도 모르지.<구비문학대계 임실군편> ¶{저그매가} 아 {저그매가} 죽은게 이놈들이 지고 거그서 강원도서 여까장 올수도 없고, 거그다 묻으야지 또 그 옆으다가 딱 셋을 묻어서<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아, 큰애기가? 응, 큰애기가 그랬는가 {저그매가} 그랬는가 그런개로, "쬐그마한 박넝쿨 하나가 윈지붕 다 안 덮냐?" 고, 작다고 헐 일 못허냐?고,<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임실, 부안, 정읍.

저내후년 (저來後年) 명 [대응어] 내후년.

☞내후년.

지역 무주.

저넉밥 명 [대응어] 저녁밥.

저녁에 끼니로 먹는 밥. ¶{저넉밥} 먹고 술 한잔 하자이.

지역 김제, 익산, 정읍, 진안.

저드랑 명 [대응어] 겨드랑.

양편 팔 밑의 오목한 곳. ¶아, 그 선녀가 와서는 양쪽으 와서 {저드랑을} 이렇게 게고 응 모신다 그런 말요.<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그래 써 놓구서, {저드랑} 밑에 어디를 비늘을 떠구서 치니까, 죽드래야.<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겨드랑/명/*{저드랑}{정문연}<전북>[군산, 익산, 완주, 진안, 무주, 김제, 부안, 정읍, 임실, 고창, 순창], *저트랑{정문연}<전북>[장수, 남원], <한국방언어휘자료집_전북편>

지역 고창, 남원, 임실, 장수.

해설 접사 '-이'가 결합한 '겨드랑이, 저드랑이'보다 '겨드랑, 저드랑'이 더 흔히 쓰인다.

저드랑이 명 [대응어] 겨드랑.

양편 팔 밑의 오목한 곳. ¶그래서 나무에다 패말에다가 해서 금으로, "만고충신 김덕령" 이라 써 놓으니깨 이렇게 {저드랑이} 밑에서 비늘을 떼더라네. 비늘을 큰놈을 떼고는 죽었어.<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김덕령'이라구 써라." 그래 써 놓구서, {겨드랑} 밑에 어디를 비늘을 띠(떼)구서 치니까, 죽드래야(죽더래).<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완주.

해설 표준어와 같은 방식으로 '저드랑'에 명사를 만드는 접사 '-이'가 결합하여 형성된 파생어이다.

저드래이 명 [발음] {저드래~이} [대응어] 겨드랑.
☞저드랑이. ¶어깨로 미렁따 활개 친다는 마른 저드랑 {저드래~이} 등이라도 허고<완주_지역어_텍스트>
지역 완주.

저드렁 명 [대응어] 겨드랑.
☞저드랑.
지역 고창.

저랴 감 [대응어] 이랴.
소나 말을 몰 때 내는 소리. ¶{저랴}! 어서 달려라.
지역 전북.

저마침 부 [대응어] 저만큼.
저만한 정도로. ¶{저마침}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없다 ¶여기는 바쁘고 복잡헌게 {저마침} 좀 가 있으시오. ¶날씨가 더우니 {저마침} 좀 떨어져라.
지역 전북.

저마큼 부 [대응어] 저만큼.
저만한 정도로. ¶나무가 어느새 {저마큼} 컸다
지역 전북.

저만때 부 [대응어] 저맘때.
저만큼 된 때. ¶{저만때가} 제일 좋은 시절이다 ¶나도 {저만때는}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뎀볐지.
지역 전북.

저매 【축약형】 [대응어] 자기 엄마
방언형 '저그 어매'가 줄어든 말. ¶애기는 {저매가} 키야 돼.
지역 전북.

저물저물허다 형 [대응어] 가물가물하다.
해가 질 무렵 빛이 가물가물하다. ¶그서 간게로 인자 해가 {저물저물허대}.
지역 전북.

저번 명 [대응어] 젓가락.
음식을 집어 먹거나 물건을 집는 데 쓰는, 길쭉한 한 쌍의 기구. ¶수저, {저번도} 없어져 버리고 수저도 없어져 버려.<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임실.

저분 명 [대응어] 젓가락.
음식을 집어 먹거나 물건을 집는 데 쓰는, 길쭉한 한 쌍의 기구. 또는 그 기구로 집어 분량을 세는 단위. ¶그런게로 {저분을} 하나 도라네. 깨를 {저분으로} 줏을라고. 깨를 {저분으로} 줏을라고 도라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인제 그릇에다 물 한 그릇하구 {저분을} 갖다 주닝게 저분에다 묻혀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줘.<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방으다 밥상을 놓고 게 방으 밥상을 인제 수저나 {저분은} 안먹지.<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한 {저분}
지역 전북.

저붐 명 [대응어] 젓가락.
음식을 집어 먹거나 물건을 집는 데 쓰는, 길쭉한 한 쌍의 기구. 또는 그 기구로 집어 분량을 세는 단위. ¶{저붐그러제}<2008 전북 고창> ¶한 {저붐}
지역 고창, 군산, 남원, 완주.

저슬 명 [대응어] 겨울.
☞저싥.
지역 전북.

저승가매 명 [대응어] 상여(喪輿).
사람의 시체를 실어서 묘지까지 나르는 도구.
지역 전북.

저실 명 [대응어] 겨울.
한 해의 네 철 가운데 넷째 철. 가을과 봄 사이이며, 낮이 짧고 추운 계절로, 달로는 12월에서 2월, 절기(節氣)로는 입동부터 입춘 전까지를 이른다. ¶*저싦 {정문연}<전북>[순창], <한국방언어휘자료집_전북편> ¶"숯입니다." "아 숯이라. 아 그게 뭐냐? 시안, {저실이나} 가실이나 봄이나 언제든지 그걸 씻고 있냐?" 그런개, "아 이걸 오래 씩으면은<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순창.

저아레 명 [대응어] 그끄저께.
그저께의 전날. ¶참 메느리를, 아주 아들 나이가 많이 먹었는디 며느리를 봤더라네, {저아레} 며느리를 봤는디, 시사아 아무것도 먹을 것이 뭣도 없는 집이드라네.
지역 무주, 장수.

저을 명 [대응어] 겨울.
☞겨을.
지역 남원, 정읍.

저지르다 동 [대응어] 나누다.
하나를 둘 이상으로 가르다. 또는 여러 가지가 섞인 것을 구분하여 분류하다. ¶한꺼번에 다 안 허고 세 번 {저지러서} 놔나.
지역 전북.

저트랑 명 [대응어] 겨드랑.
☞저드랑. ¶누가 {저트랑} 밑이다 손을 넣고 간지럼을 태우는디.
지역 남원, 임실, 장수.

적것 명 [대응어] 겹옷.
☞접것.
지역 군산, 남원, 완주.

적반 명 [대응어] 부침개.
기름에 부쳐서 만드는 빈대떡, 저냐, 누름적, 전병(煎餠) 따위의 음식. ¶거그다 {적반도} 담어다 갖고 가고.
지역 전북.

적사 명 [대응어] 석쇠.
☞적새.
지역 무주.

적새 명 [대응어] 석쇠.
고기나 굳은 떡 조각 따위를 굽는 기구. 네모지거나 둥근 쇠 테두리에 철사나 구리 선 따위로 잘게 그물처럼 엮어 만든다. ¶{적새에} 많이 구워서 먹었지.
지역 전북.

적세 명 [대응어] 석쇠.
☞적새.
지역 고창, 남원.

적쇠 명 [대응어] 석쇠.
☞적새.
지역 고창, 임실.

적저금 부 [대응어] 제각기.
저마다 따로따로. ¶곧은 나무는 기둥감, 굽은 나무는 안장감, 다 {적저금} 형편 따라서 할 일이 있는 것이여.<송기숙, 녹두장군> ¶아무리 사람이 여럿이래도 이런 일에는 다 {적저금} 할 일이 있는 것이여.<송기숙, 녹두장군>
지역 전북.

적다 동 [대응어] 겪다.
어렵거나 경험될 만한 일을 당하여 치르다. ¶지도 들은 적이 있는디, 고때 죽을 고비를 펵도 {적으셨담서요}.<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전디다 동 [대응어] 견디다.
사람이나 생물이 일정한 기간 동안 어려운 환경에 굴복하거나 죽지 않고 계속해서 버티면서 살아 나가는 상태가 되다. ¶시방은 살기 폭폭허겄지만 후참엔 존일 있을 겄잉게, 꾹 참고 {전딤서} 맹심허고, 지발 야물어져라 이~.
지역 전북.

전막 명 [대응어] 넉동.
윷놀이에서, 말이 첫 밭에서 끝 밭을 거쳐 나가는 네 번째 차례. 또는 네 번째 나는 말.
지역 부안.

전막가다 동 [대응어] 막가다.
위아래를 따지거나 앞뒤를 가리지 않고 막되게 행동하다. ¶벌써부터 인생을 {전막가면} 안 된다.
지역 부안.

전상 명 [대응어] 전생.
삼생(三生)의 하나.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의 생애를 이른다. ¶니가 {전상에} 지은 복이 그거 뿐이고, 그런 부모 태를 빌려서 이 시상으 나왔으먼 벨 수 없지 어쩌겄냐.<최명희, 혼불> ¶요새 연애를 걸고 중신 결혼을 혀도 그 부부간 그 {전상에} 은연이래야 부부간이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전차전차 부
조금씩 조금씩. 또는 천천히. ¶{전차전차} 그 뒤를 따라가.
지역 전북.

전허다 동 [대응어] 비하다.
사물 따위를 다른 것에 대어 질(質)이나 양(量), 모양을 견주거나 비유하다. ¶요내 머리 하 좋대여/삼단에다 {전혔더니}/몽당솔이 다 되었네/요내 얼굴 하 좋대여/이아리꽃에 {전혔더니}/시집 삼년 살고낭게/헹펜없이 되얐구나(남원 시집살이노래-"중신 아바 망신 아바")<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남원.

절 명 [대응어] 결.
'때', '사이', '짬'의 뜻을 나타내는 말. ¶그렇게 히 갖고 어느 {절에} 다 끝낼라고나?
지역 전북.

-절 접 [대응어] -절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지나가는 사이', '도중'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라디오서 나오는 노래를 {무심절에} 따러 불르고 있드랑게. ¶운봉 영감 아들이 그 소리, 허는 소리를 전라감사가 얼프시 {잠절에} 들으닌게, 저놈이 이견이 저그 아들보다 낫거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가만히 기다려도 가만히 있어, 그래 한 반 시간쯤 된 연후에 또 {잠절에} 하는 척하고 또 갖다 없었단 말여, 또 그대로 가만히 있어. 아시번째 {잠절에} 하는 척하고 순간을 반시간쯤 넘겼다가 거시기 한께, 음 요망스럽게 행동 그 팔도강산 재명을… 요런 버르장머리… 뻘덕 일어나라고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전북.

절구다 동 [대응어] 절이다.
푸성귀나 생선 따위에 소금기나 식초, 설탕 따위

가 배어들게 하다. ¶야 소금처서 이케 {절궈} 농걸 짬반차니라 허제.(야 소금 쳐서 이렇게 절어 놓은 것을 짠반찬이라 하지.)<0년 중국 무주촌 보고서-최종>

지역 무주.

절굿대 명 [대응어] 절굿공이.

절구에 곡식 따위를 빻거나 찧거나 할 때에 쓰는 공이. 나무, 돌, 쇠 따위로 만든다. ¶부엌을 다녀와서는 서슴지 않고 곧 {절굿대를} 집어들고 메주방아를 찧기 시작한다.<채만식, 아름다운 새벽>

지역 남원.

절뚝발이 명 [대응어] 절름발이.

☞쩔뚝발이. ¶그 꼬락서니 보기 싫은 {절뚝발이} 예수쟁이놈 서민영이가 진정서를 만든 것이 화근이기도 했지만, 아무리 진정서<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절룩발이 명 [대응어] 절름발이.

한쪽 다리가 짧거나 다치거나 하여 걷거나 뛸 때에 몸이 한쪽으로 자꾸 거볍게 기우뚱거리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절름발이 {절룩빠리}, 짤룩빠리<2008 전북 고창>

지역 고창.

절름뱅이 명 [대응어] 절름발이.

한쪽 다리가 짧거나 다치거나 하여 걷거나 뛸 때에 몸이 한쪽으로 자꾸 거볍게 기우뚱거리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저짝에서 {절름뱅이가} 하나 걸어 온다 이 말여. ¶소아마비 병을 고치지 못해 {절름뱅이가} 된 불쌍한 사람이여.

지역 전북.

절심절심 부 [대응어] 절룩절룩.

걸을 때에 잇따라 다리를 저는 모양. '잘심잘심'보다 크고 무거운 느낌을 준다. ¶사고로 누워 지내등만 이제 겨우 {절심절심} 걷는다. ¶어떻게 투드러 패던지, 뚜두러 팼던지 내가 다리를 {절심절심하고} 내가 죽겠다." 그러드랑만.<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전북.

젊어가다 명 [대응어] 젊어지다.

나이가 제 나이보다 더 어리게 되거나 그렇게 보이게 변하다. ¶산천 초목 저 {젊어간디}/우리 청춘 늙어만 가네/에헤에야아 하하아(임실 논매는 소리 ? 방개타령)<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임실.

점드락 부

날이 저물도록. 또는 하루 종일. ¶가실 내내 하루 {점드락} 일만 험서 지내다 시한(겨울) 뒹게 일꺼리 줄어 드러. ¶자징개 타고 오먼 싸게 후딱도 올것인디, 인지까 안 오는 거슬 봉게 하루 {점드락} 걸리겄다. ¶아따, 어지께는 하루 {점드락} 오락가락험서 비가 두름박으로 퍼 붓듯게 모지락시럽게 오등만 시방은 쪼까 끄끔허요. ¶너는 하루 {점드락} 믄 지랄허고 이트까장 방학숙제 한테기도 안 힛냐 아~ 못 힛냐 아~. ¶오사고 하래 {점드락} 찌럭찌럭 왓쌋능가 끄끕시랍고 꾼

지역 전북.

점배기 명 [대응어] 정수리.

머리 위의 숫구멍이 있는 자리. 또는 사물의 제일 꼭대기 부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점배기를} 만진게로 문 냄시가 그리 심하다요. ¶산 {점배기는} 산꼭대기여.

지역 임실.

점섬 명 [대응어] 점심.
☞정심. ¶{점섬} 때는 제워져 에이고 골곤 손질 춤을 추네(점심때는 겨워 가고 에이고 골골 손질 춤을 추네)(남원 논매는 소리 - 느름지기)<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남원.

점재이 (占--) 명 [대응어] 점쟁이.
점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점재이를} 찾아서 점이라도 쳐 봐야 허나.
지역 고창.

접것 명 [대응어] 겹옷.
솜을 두지 않고 거죽과 안을 맞붙여 지은 옷. ¶이리 추우면 {접것이라도} 입어야 허지 않겄소.
지역 고창, 군산, 남원, 부안,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진안.

접두루매기 명 [대응어] 겹두루마기.
안감을 넣어 겹으로 만든 두루마기. ¶좋은 디 갈라고 {접두루매기도} 입고 버선도 신고 혔지.
지역 전북.

접문 (-門) 명 [대응어] 덧문.
문짝 바깥쪽에 덧다는 문. ¶{접문을} 달아서 겨울에 좀 따땃허다.
지역 전북.

접바지 명 [대응어] 겹바지.
솜을 두지 않고 거죽과 안을 맞추어 겹으로 만든 바지. ¶접두루매기에 {접바지를} 입었다.
지역 전북.

접시폭 명
남자 바지의 오른쪽 부분에 있는 부분. 바지 한 폭의 절반 크기로 무릎까지의 길이로 있다. 원 바지와 따로 구별되어 있는 부분이다. ¶남자 바지, {접시폭이} 여가 있으면 그 놈 돌라 꼬매면 뜯어서 다시 히야 혀.
지역 전북.

접어지다 동 [대응어] 접히다.
천이나 종이 따위가 꺾여 겹쳐지다. 또는 지속적으로 하던 일이나 행위 따위를 그만두게 되다. ¶{접어진} 쪽지 하나가 상이 보는 원고 위로 던져져 온 건 바로 이때다. 툭 떨어지자 상은 고개를 번쩍 든다.<최창학, 창> ¶한 때 자금이 부족하다는 소리가 들린 뒤로 그 일은 없었던듯이 {접어지고} 말었지.
지역 고창, 부안, 완주, 익산.

접옷 명 [대응어] 겹옷.
솜을 두지 않고 거죽과 안을 맞붙여 지은 옷. ¶두루매기 {접옷을} 입어야제.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완주, 임실, 장수, 정읍.

접이불 명 [대응어] 겹이불.
솜을 두지 않고 거죽과 안을 맞대어 만든 이불. ¶날이 추워서 {접이불을} 꺼냈다. ¶풀을 먹여서 옥양목으로 {접이불을} 만들어 덮었더니 따뜻했어.
지역 고창, 군산,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접이울 명 [대응어] 겹이불.
☞접이불.
지역 전북.

접치다 동 [대응어] 겹치다.
여러 사물이나 내용 따위가 서로 덧놓이거나 포개어지다. ¶째까는 일이지만, 재수 대가리가 옴붙었능가 시 달에 한 번 잡어논 짓날이 해필 빙원 검진날허고 {접쳤응게} 탈탈 굴머야제 어쩌

겄쏘.
지역 고창.

젓것 명 [대응어] 겹옷.
☞접것. ¶겹옷/명/ * {접것} {정문연}<전북>[부안, 순창, 군산, 익산, 진안], *접옷 {정문연}<전북>[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완주, 임실, 장수, 정읍], *핫옷 {정문연}<전북>[고창], <한국방언어휘자료집_전북편> ¶봄에는 {젓것} 맨들어야제, 겨울에는 핫것 맨들어야제.아이구 징그라.
지역 임실.

젓동우 명 [대응어] 젓동이.
젓을 담아 놓은 동이. ¶아따, 으찌나 피곤헝가 {젓동우} 속에 항송아리젓 되엇씨라우~.
지역 고창.

젓방살이 명 [대응어] 곁방살이.
남의 집 곁방을 빌려서 생활함. 또는 그런 일. ¶당장 갈 곳이 없어 {젓방살이라도} 해야 한다. ¶우리는 결혼한 후 5년 만에 남의 집 {젓방살이를} 면할 수 있었다. ¶셋방살이 {젓방살이} 고초 당초보다도 더 맵더라.
지역 전북.

젓새비 명 [대응어] 젓새우.
젓을 담는 데 쓰이는 새우. ¶{젓새비를} 잡을 때는 네모난 틀로 만든 그물을 쓰는디, 그 그물을 새비틀이라고 허.
지역 고창.

정개나무 (←亭子나무) 명 [대응어] 정자나무.
집 근처나 길가에 있는 큰 나무. 가지가 많고 잎이 무성하여 그 그늘 밑에서 사람들이 모여 놀거나 쉰다. ¶{정개나무가} 우거져 있네.
지역 전북.

정거정 (←停車場) 명 [대응어] 정거장.
버스나 열차가 일정하게 머무르도록 정하여진 장소. 승객이 타고 내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곳이다. ¶{정저정에} 도착해 보니 이미 뻐스는 떠나버렸구먼.
지역 전북.

정구다 동 [대응어] 잠그다.
사람의 신체를 물속에 넣거나 가라앉게 하다. ¶그러고 얼음 백힌 디는 까짓대가 질이다. 까짓대를 푹 쌂어서 그 물에다가 한참썩 수족을 {정구고} 나면 고닥 풀리느니라.<윤흥길, 장마> ¶{정구고} "절이-(鹽)-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정귄따 77-0-<2008 전북 고창> ¶까짓대를 푹 쌂어서 그 물에다가 한참썩 수족을 {정구고} 나면 고닥 풀리느니라.<윤흥길, 장마>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정구다'는 신체나 어떤 물건을 물에 넣을 때만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 '정구다'는 전라 방언에서 아주 많이 쓰는 어휘로 '잠그다'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 '담그다'가 '당구다'로 나타나는 것처럼, '잠그다'에서 '장구다, 정구다'로 변화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정구지 명 [대응어] 부추. ¶부추 솔:, {정구지라고도} 하고, 소:리라구 하지<0년 중국 무주촌 보고서-최종> ¶부추 솔, {정구지}, 부:추라구려 <2008 전북 고창> ¶솔, {정구지라구 057 상추 057 상추},<2005 전북 남원> ¶엄마는 비가 내리는 날엔 {정구지와} 돼지고기를 넣어 전을 부쳐 주셨다. ¶{정구지를} 무쳐 먹으면 반찬으로는 최고야.
지역 고창, 남원, 무주, 장수.

정그정 (←停車場) 명 [대응어] 정거장.
버스나 열차가 일정하게 머무르도록 정하여진 장

소. 승객이 타고 내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곳이다. ¶버스를 타기 위해 {정그정에} 갔다. ¶대실아씨 신신당부 말씀도 있고 해서 어쩌든지 꼭 무사히 대실 안행사끄장 배행을 잘 헐라고 딱 마음먹고는, 저어그 {정그정} 앞에요, 거그 둥구나무 밑에서 만나기로 허겠잖에요?<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정기나무 (←亭子나무) 명 [대응어] 정자나무.

집 근처나 길가에 있는 큰 나무. 가지가 많고 잎이 무성하여 그 그늘 밑에서 사람들이 모여 놀거나 쉰다. ¶웬놈이 장개를 갔다 와서, 저녁 걸음을 밟는디, 아 {정기나무에가} 구렁이가 하나 딱 올라 앉었는디, 밑에서 불이 길게 타 올라 가거든, 두루매기를 딱 벗어서 갖고 물을 적셔서 불 빡, 잘 못 했네.<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한 간디를 갔더니 큰— 동네 가운데 갔더니 {정기나무가} 하나 있는디 말여 아, 숨을 쉬는대로 {정기나무가} 걍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막.<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군산, 남원.

정기낭 명 [대응어] 정자나무.

집 근처나 길가에 있는 큰 나무.

지역 전북.

정박지 (頂박지) 명 [대응어] 정수리.

머리 위의 숫구멍이 있는 자리. 또는 사물의 제일 꼭대기 부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정박지가} 훤하요. ¶산 {정박지까지} 갔다 오는디 한 시 시간 걸릴랑가?

지역 남원.

정배기 명 [대응어] 정수리.

머리 위의 숫구멍이 있는 자리. 또는 사물의 제일 꼭대기 부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지역 임실.

정심 (←點心) 명 [대응어] 점심.

하루 중에 해가 가장 높이 떠 있는, 정오부터 반나절쯤까지의 동안. 또는 점심에 끼니로 먹는 음식. 또는 점심에 끼니를 먹는 일. ¶글쵸. {정심} 아네 도차커죠.(그렇죠. 점심 안에 도착하죠.)<2007 전북 군산> ¶아 보룸, 삼시 시때, 마러자먼 삼시 시때가 아니라 꼭 아치건, 아침 조서그로, 삼년 나제 {정심만} 안올리제, 아칙까지 올려노코 곡허고, 저녁 올리고 곡허고.(아, 보름, 삼 시 세 때, 말하자면 삼 시 세 때가 아니라, 꼭 아침은 아침 조석으로 삼 년 나지 점심만 안 올리지, 아침까지 올려놓고 곡하고, 저녁 올리고 곡하고)<2005 전북 남원> ¶그먼 인자, 또 드러가서 인자 {정심} 조깨 인자 중거 먹고 또 나와.(그러면 인제, 또 들어가서 인제 점심 조금 인제 준 것 먹고 또 나와.)<2005 전북 남원>

지역 남원, 군산, 정읍.

정심밥 (←點心밥) 명 [대응어] 점심밥.

정오 즈음에 끼니로 먹는 밥. ¶아나 농부야 말들어 여보소 농부님네 이내 말을 들어 보소/배가 고프면 {정심밥을} 줄 것이고 목이 마리면 술을 줌세(정읍 모심는 소리/상사소리)<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남원, 군산, 정읍.

정심참수 (←點心참수) 【관용표현】 [대응어] 점심참.

점심을 먹을 시간. ¶늦어 가네 늦어나 가네 {정심 참수} 늦어 가네/질과 같은 쌀독에서 쌀 퍼다가 늦었다네(무주 모찌는 소리)<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무주.

정얼 (←正月) 명 [대응어] 정월.
음력으로 한 해의 첫째 달. ¶{정얼이} 얼마 안 남았소.
지역 전북.

정제 명 [대응어] 부엌.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놓고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는 등 식사에 관련된 일을 하는 곳. ¶그런데로는 머 애기를 세개나 나터락 {정제서} 바벌 머거찌, 방으로 모돠버렌써. {그런 뒤로는 뭐 애기를 셋이나 낳도록 부엌에서 밥을 먹었지, 방으로 못 와버렸어}.<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정제에} 가서 바구니를 가져오렴. ¶엄마는 {정제서} 음식을 장만하였다.
지역 무주, 임실, 장수.
해설 전북의 남부 지역에서는 '정제'가 흔히 쓰인다.

정제가시나 명 [대응어] 식모.
남의 집에서 부엌일을 맡아 하는 여자. ¶고 아래 감나무집 {정제가시나가} 허벌나게 이쁘다고 소문이 나갖고 동네 총각덜이 기양 다 그집 대문 앞이 줄을 섰던 거여. ¶새벽부터 정제에서 밥을 하는 {정제가시나가} 참 부지런도 하지.
지역 전북.

정제가시내 명 [대응어] 식모.
☞정제가시나.
지역 전북.

정제가이내 명 [대응어] 식모.
☞정제가시나.
지역 전북.

정제꾼 명 [대응어] 식모.
☞정지꾼. ¶애, 저 그 어런덜 인는 지번 초단쌔 너머야 안저요, 정제꾸니<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지역 임실.

정제년 명 [대응어] 식모.
남의 집에서 부엌일을 맡아 하는 여자. ¶아, 주인이, 그 전에는 딸이 일찍 일어나 가지고 기동을 하고, {정제년들} 막 시켜서 밥도 하고 막 그래 쌓는디, 아 이거 통 안 나오거든.<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남원.

정젯벡장 명 [대응어] 다락.
주로 부엌 위에 이 층처럼 만들어서 물건을 넣어 두는 곳. 보통 출입구는 방 쪽에 있다. ¶식은 밥을 {정젯벡장에} 올려 두었다.
지역 임실.

정지 명 [대응어] 부엌.
☞정제. ¶엔나레 {정지넌} 기냥 공중위 인짜나 그냥 이르케, 공중위. {천장은 예 부엌 옛날에 부엌은 그냥 공중에 있잖아 그냥 이렇게, 공중에}.<지역어 자료 총서, 무주> ¶그런게 인자 그 밥을 먹고 그 과부는 {정지서} 밥을 먹고 그르고 정지서 보고 있은게<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가만히 새복녘에 {정지에서} 지켜보니까는 우렁 속에서 예쁜 각씨가 나오더니만<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정지에} 와서 솥을 빨라고 솥을 빨라다가 엉겁절에 방귀가 뽕허고 뀌었어.<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깨진 바기치(바가지)다가 양식을 내준개, {정지에다가} 딱 갖다 놓고, 깨진 옹배기(항아리) 갖고 깨진 바가치를 갖고<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그러자 이 곽백이라는 메누리는 때가 되야서 참 {정지로} 나가서 인자 이렇게 밥을 짓는 판이요.<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무주.

정지가시나 명 [대응어] 식모.

☞정제가시나. ¶그래서 인제 택일해서 장개를 왔는디, 그 처녀가 {정지가시나허고} 짰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정읍.

정지꾼 명 [대응어] 식모.

남의 집에서 부엌일을 맡아 하는 사람. ¶"내가, 장에 있는 주막에서 기양 심바람도 허고, {정지꾼맹이로} 불도 때고, 그륵도 싯고, 빨래도 허고, 그러고 있는디, 늑 아부지를 만났제. 그 주막에를 늘 댕겠잉게."<최명희, 혼불> ¶근게 개가 인자 정제서 {정지꾼이} 밥헌게로 이쁜 각시가 정제 와 섰거든. 섰은게로 밥은 안 허고 그냥 부지땅 갖고 그놈을 때리먼은<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우리 어렸을 땐 가난한 아이를 {정지꾼으로} 데리고 살았어.

지역 정읍.

정지나무 명 [대응어] 정자나무.

집 근처나 길가에 있는 큰 나무. 가지가 많고 잎이 무성하여 그 그늘 밑에서 사람들이 모여 놀거나 쉰다. ¶어디만치 간게 {정지나무가}, 큰 {정지나무가} 있는디.

지역 전북.

정지낭 명 [대응어] 정자나무.

집 근처나 길가에 있는 큰 나무.

지역 전북.

정지배기 명 [대응어] 정수리.

머리 위의 숫구멍이 있는 자리. 또는 사물의 제일 꼭대기 부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정지배기를} 만지다가 냄시를 맡아 봤어. ¶산의 {정지배기}

지역 임실.

정짓간 명 [대응어] 부엌.

부엌으로 쓰는 칸. ¶그래라우, 웬쑤가 따로 업당게 차말로 {정짓간} 부석짝 당그래로 거그를 확 히벌고 시퍼도…… 인자는 시들어질 나이도 되었는디.

지역 고창.

절눈질 명 [대응어] 곁눈질.

곁눈으로 보는 일. 또는 곁눈으로 무슨 뜻을 알리는 일. ¶바로 보지 못하고 {절눈질로} 계속 흘끔거린다. ¶{절눈질로} 자꾸 신호를 준다. ¶사람이 한번 결심을 하면 어떤 고생이 있더라도 {절눈질} 허지 말고 끝까지 히야는 거여.

지역 전북.

절입 명 [대응어] 곁잎.

풀이나 나무 우듬지의 속잎 곁에 붙은 잎. ¶차도나 영산 참샘이 물에 배차 씻는 저 처녀야/곁에여 {절잎} 다 젖혀놓고 속에 속잎 나를 주게(무주 모심는 소리-모노래-무주군 안성면 덕산리 덕곡)<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전북.

-제 【종결어미】 [대응어] -지.

해할 자리에 쓰여, 어떤 사실을 긍정적으로 서술하는 종결 어미. ¶못 알아 {듣제}<김규남(1998)> ¶{막제}<최태영(1973)> ¶{보제}<최태영(1973)> ¶금방 {갓제}<김중진(1984b)> ¶전에 {주엇제}<김중진(1984b)> ¶뉘라고 {그러제}<김해정(1982)> ¶개생이라고 {글제}<김해정(1982)> ¶베시라고 {허제}<김해정(1982)> ¶매 그걷뽀고 매공이라고 {허제}<백은아(2016)> ¶그런디가 {읻쩨}<백은아(2016)> ¶그게 평여(어차피) 오늘 새보기나(새벽이나[새복+이나],) {마창가지제}(마찬가지지).<백은아(2016)> ¶긍개 장개나 가야 그런 진 히 {보제}<백은아

(2016)> ¶그러치. 대게 {힘들제}.<백은아(2016)> ¶똥까랭이가 찌저지게 그르케 {살제}<백은아(2016)> ¶{키야제}<김옥화(2000)> ¶{치야제}<김옥화(2000)> ¶{이야제}<김옥화(2000)> ¶부석 앞에 불때고 앉었는 내가 {낫제}.<이태영(2004 ㄴ)> ¶아무 짝에도 쓸 디 {없제}<이태영(2004 ㄴ)>

지역 부안, 남원 동남부, 임실, 고창, 남원.

제게 명 [대응어] 제기(놀이).

엽전이나 그와 비슷한 것을 종이나 헝겊에 싼 다음 나머지 부분을 먼지떨이처럼 여러 갈래로 늘여 발로 차고 노는 장난감. 발로 받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많이 차는 사람이 이긴다. 셈제기, 사방제기, 종로제기 따위가 있다. ¶{제게를} 차봐.

지역 고창, 군산.

제금 부 [대응어] 제가끔.

한데 섞이거나 함께 살지 아니하고 따로 떨어져서. ¶사과랑 대추랑 다 {제금} 놔.

지역 전북.

제금나다 동 [대응어] 분가하다.

가족의 한 구성원이 주로 결혼 따위로 살림을 차려 따로 나가다. ¶"나중에 네 살림 {제금나면} 저 솥을 가지고 가라."<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해설 '제금'은 국어 사전에 '딴살림'의 방언으로 처리하고 있다. '제금을 내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제금'은 명사이다. '제금'은 중세국어의 '제여곰'에서 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원래 '제금'은 "각자"를 의미하다가 "분가(分家)"의 의미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제금나다'는 '제금이 나다'가 단어로 굳어진 것이다.

제금살이 명 [대응어] 딴살림.

본래 살던 집에서 떨어져 나와 따로 사는 살림. ¶아들들이 여럿이면 큰 아들은 부모 모시고, 나머지기 아들은 결혼하면 {제금살이} 나야지. ¶여자들 때미 쌈나갖고 이나서 {제금살이} 하는 경우도 있지.

지역 정읍.

제금제금 부 [대응어] 따로따로.

한데 섞이거나 함께 있지 않고 여럿이 다 각각 떨어져서. ¶짓상에다는 {제금제금} 놔얀 것여.

지역 전북.

제기판 명 [대응어] 노름판.

여럿이 모여 노름을 하는 자리. ¶처 화상은 하루 점드락 {제기판에서} 노름만 하다 오는 개벼.

지역 전북.

제끼 명 [대응어] 제기(놀이).

엽전이나 그와 비슷한 것을 종이나 헝겊에 싼 다음 나머지 부분을 먼지떨이처럼 여러 갈래로 늘여 발로 차고 노는 장난감. 발로 받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많이 차는 사람이 이긴다. 셈제기, 사방제기, 종로제기 따위가 있다. ¶남자가 {제끼를} 차지.

지역 김제, 임실, 정읍.

제끼다 동 [대응어] 제치다.

거치적거리지 않게 처리하다. 또는 일정한 대상이나 범위에서 빼다. 또는 일을 미루다. ¶그 때 만약 도인들이 접주들을 {제끼고} 그대로 전주로 몰려갔더라면 일이 어떻게 됐겠소?<송기숙, 녹두장군> ¶자기는 이렇게 스스로를 마모시키면서 언제까지 하루하루를 {제끼며} 살 것인가에 대한 뉘우침이 스멀스멀 가슴속에 파고들었다.<최일남, 장씨의 수염> ¶숙제를 {제끼고} 드러누웠다.

지역 전북.

제냥떨다 동 [대응어] 말썽질하다.

자주 트집이나 시비를 거는 행동을 하다. ¶아이들이 {제냥떨고} 어른 속을 상하게 하는 짓을 많이 하지.

지역 전북.

제냥치다 동 [대응어] 말썽질하다.

자주 트집이나 시비를 거는 행동을 하다. ¶고놈 암것도 아닌 것 갖고 왜 그렇게 {제냥치는지} 몰르겄소.

지역 전북.

제랍다 동 [대응어] 저리다.

근육이나 뼈마디가 오래 눌려서 피가 잘 통하지 않아 남의 살처럼 감각이 둔하고 아리며 움직이기가 거북하다. ¶왜 이렇게 손이 {제랍다냐}. <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다리가 {제랄} 적에는 코에다 침을 세 번 발르면 좀 괜찮아져.<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나이 먹으면 손발이 많이 제랍디다. 나도 자다가 손발이 {제라워서} 욕먹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 <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전북.

제리다 형, 동 [대응어] 저리다(손이).

뼈마디나 몸의 일부가 오래 눌려서 피가 잘 통하지 못하여 감각이 둔하고 아리다. 또는 뼈마디나 몸의 일부가 오래 눌려서 피가 잘 통하지 못하다. ¶9 엽꾸리가 {제린다고} 그러지<완주_지역어_텍스트> ¶도독놈이 지 발 {제린다고} 저 혼자 그렇게 그 말이 무서서 여그를 못 오고……마님이 덜컥 돌아가세 부렀어요.<최명희, 혼불> ¶지사 지낼 때는 무릎을 오래 꿇고 있응게 발 {제리는건} 당연허지.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제만 【연결어미】 [대응어] -지만.

앞의 말을 인정하면서 그와 상반되는 사실이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아, 말이사 바로 {말이제만}, 나는 그렇게 못 살어도, 같은 처지에 남이 그렇게 살어 줬다면 그것도 속이 티이는 일 아니여?<최명희, 혼불> ¶압록강이고 두만강 넘나드는 사람들 중에서 왜놈 앞잽이에 밀정도 {많제만} 나라 찾겄다고 나슨 사람덜도 수두룩헝게요.<조정래, 아리랑> ¶장사해 묵자면 속창아리럴 다 빼놔야 헌다는 말도 {있제만} 그려도 농사꾼덜언 배곯코 살아도 장사꾼덜언 다 하로 세 끄니 찾아묵고 사는 법 아니여.<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제미다 동 [대응어] 저미다.

여러 개의 작은 조각으로 얇게 베어 내거나 깎아 내다. ¶동태를 얇게 {제며서} 밀가리 입히고 겨란물 입히면은 그것이 동태전이지. 칼로 베어 내듯이, 매우 괴롭고 아프게 하다. ¶자슥새끼 먼처 보낸 부모 맴이 어떻겄어. 가심이 {제미는} 심정이지.

지역 전북.

제비촐 명 [대응어] 제비초리.

뒤통수나 앞이마의 한가운데에 골을 따라 아래로 뾰족하게 내민 머리털. ¶{제비촐이다} 꽃자지 댕기 매고 나가면 머시매들이 놀자고.

지역 전북.

제앙 명 [대응어] 제사.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냄. 또는 그런 의식.

지역 전북.

제양떨다 동 [대응어] 말썽질하다.

☞제낭떨다.
지역 전북.

제양치다 동 [대응어] 말썽질하다.
☞제냥치다.
지역 전북.

제와 부 [대응어] 겨우.
어렵게 힘들여. ¶방실방실 웃는 임은 못 다 보고 해 다 지네/오늘 날로만 못 다나 보면 새는 날로만 다시나 보세/{제와} 가네 제워나 가네 담배 참수가 늦어가네/얼른 잠판 숨과나 놓고 우는 애기를 젖을 주세(장수군 계북면 어전리)<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장수.

제우 부 [대응어] 겨우.
어렵게 힘들여. 또는 기껏해야 고작. ¶지금 암디 주막으가 거시기 히놓고 미음을 끓이고 약을 히서나 {제우} 목심 건져 놨는디<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제우} 밥 얻어 먹는 거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아침부터 하루 정일 해놓았다는 일이 {제우} 이것이냐.
지역 전북.
해설 '제우'는 '겨우>져우>제우'로 변화 과정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겨우>져우'는 초성 /ㄱ/이 구개음화를 겪은 것이며, 이후 '/ㅕ/>/ㅔ/'의 단순 모음화를 거쳐 지금과 같은 형태가 형성된 것이다. '/ㅕ/>/ㅔ/' 변화는 '뼈>뻬', '결혼>겔혼' 등의 어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제워나 부 [대응어] 겨우.
☞제와. ¶방실방실 웃는 임은 못 다 보고 해 다 지네/오늘 날로만 못 다나 보면 새는 날로만 다시나 보세/제와 가네 {제워나} 가네 담배 참수가 늦어가네/얼른 잠판 숨과나 놓고 우는 애기를 젖을 주세(장수군 계북면 어전리)<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장수.

-제이 【종결어미】 [대응어] -지.
해할 자리에 쓰여, 어떤 사실을 긍정적으로 서술하는 종결 어미. ¶지브가(집에서) 놀고 히서 나이가 좀 마니 머근 {편니제이}.<백은아(2016)>
지역 고창.

제집 명 [대응어] 계집.
'여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 ¶글매 제 지집도 아닌 {제집헌티} 대놓고서나, 글씨 고것이 무신 지랄이끄라우이?<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지역 전북.

제집아 명 [대응어] 계집아이.
시집가지 않은 어린 여자 아이를 낮잡아 이르는 말. ¶그냥 너무 많이 보낸다고 멍청허다고 혔는디 더 갖고 오라는 것이 수상허단 말여? 그리서 가만히 하루는 망을 본게로 남자 하나허고 {제집아} 싯허고 이렇게 느이 앉어 놀고 있드라느만. 말을 혔어.<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장수.

제집에 명 [대응어] 계집아이.
시집가지 않은 어린 여자 아이를 낮잡아 이르는 말.
지역 장수.

제화 (←桂花) 명 [대응어] 계화.
계수나무의 꽃. ¶남훈전 달 밝은데 순임금의 놀음이요/학창의 푸른 대솔은 산신님의 놀음이로다/오뉴월이 당도허니 우리 농군 시절이로다/피랭이 꼭지다 {제화를} 꽂고서/마후라기 춤이나 추어 보세(순창 모심는 소리 - 상사소리)<한국민요대

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패랭이 꼭지다 {제화를} 달고 매호래기 춤이나 추어를 보세/헤 헤 헤야하하 헤 헤헤헤 헤 헤헤헤 야하허루 상 사아뒤여(익산 모심는 소리/상사소리/자진 상사소리) <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순창, 익산.

젝다 동 [대응어] 겪다.
어렵거나 경험될 만한 일을 당하여 치르다. 또는 사람을 사귀어 지내다. ¶그간 {젝은} 일 좀 얘기해 봐라. ¶그 사람을 한 삼 년 {젝어} 봤지만 아직도 속을 모르겄다.
지역 전북.

젠두리 명 [대응어] 굽도리.
방 안 벽의 밑부분. 또는 방 안 벽의 아랫도리에 바르는 종이. ¶{젠두리럴} 발르는 거여.
지역 김제, 완주, 정읍.

젠장맞을 감, 관 [대응어] 넨장맞을, 넨장칠.
☞넌장맞을. ¶"그러니 우리 집안은 자손 보기는 영 글렀지!…… {젠장맞을}, 여편네 혼자서 아이 낳는 재주 없나!" 김씨는 해쭉 웃고, 태수도 같이서 빙긋이 웃는다.<채만식, 탁류, 987, 04>
지역 전북.

젠장칠 감, 관 [대응어] 넨장맞을, 넨장칠.
☞넌장맞을. ¶넌장맞을. {젠장칠} 것, 해도 저렇게 많이 남았겠다, 기왕 여그까지 온 김에 정읍까지 몰려가서 한바탕 휩쓸고 오면 어쩌?"<송기숙, 녹두장군 7, 989, 5>
지역 전북.

젤로 부 [대응어] 제일로.
여럿 가운데서 으뜸으로. ¶병 중에는 속병이 {젤로} 무선 거인디, 왜 사람 속으다 못을 박을라고 그런디야, 시방?<최명희, 혼불> ¶{젤로} 불쌍허게 된 것은 큰애기네. 무단히 아부지 땀새 효도헐라다가 몸만 망치고.<최명희, 혼불> ¶이 세상으 기운 중에 {젤로} 무섭고 독헌 거이 사람 기운인디. 그런 만큼 또, 천지 신명 우주 공간에 사람의 기운으로 비는 것만치 간절허고 정확헌 거이 없는 거여.<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젭다 명 [대응어] 겹다(설움에).
감정이나 정서가 거세게 일어나 누를 수 없다. 매우 힘에 겹고 지치다. ¶임아 종종 날 셈겨주소 나도 종종 임 셈겨줌세/아이고 담담 내 설움 {제워서} 내 못 살것네/요내 발골 얼른 매고 임의 발골을 거들러 줌세/아이고 담담 내 설움 {제워서} 내 못 살것네(임실 밭매는 소리-풀뜯는 소리)<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실면이 나면 발명도 나고/어 여 뒤 야/우리 농군 다 {제웠네}/어 여 뒤 야/서산으 지는 해 어서 지고/어 여 뒤 야/우리 농군 다 {제웠네}/어 여 뒤 야(고창 논매는 소리-몰아주는 소리)<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점섬때는 {제워져} 에이고 골곧 손질 춤을 추네(점심때는 겨워 가고 에이고 골골 손질 춤을 추네)(남원 논매는 소리 - 느름지기)<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임실, 고창, 남원.

젭헤지다 동 [대응어] 접히다.
☞젭히다.
지역 남원.

젭히다 동 [대응어] 접히다.
천이나 종이 따위가 꺾여 겹쳐지다. 또는 지속적으로 하던 일이나 행위 따위를 그만두게 되다. ¶우산 살이 {젭혀서} 펼쳐지지 않는다.
지역 전북.

져워 부 [대응어] 거의.

어느 한도에 매우 가까운 정도로. ¶해가 서산이 {져워} 가니 모를 자주 자주 심이야만/장작매기를 두당거리며 거드렁거리고 놀것다(옥구 모심는 소리/상사소리)<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군산.

조개비 명 [대응어] 조가비.

조개의 껍데기. ¶{조개비를} 줍다

지역 전북.

조구 명 [대응어] 조기. ¶엔나레는 인제 지:미이라도 한톨사고 뭐 {조구라도} 머 한 멘마리 사다준다덩가.<지역어 자료 총서, 무주> ¶{조구는} {조군디} 먹들 못 허는 {조구} 뭐요?<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고지를 뎃목을 내다가 참 저가 큰아버지가 사란 대로 삼 실과 사고 뭣이냐 {조구} 사고 가조구내 뭣이네 큰아버지가 허라는 대로 죄다 샀어요.<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조구} 아니 갈치를 묵으라고 놓아주면은, 물항아리에다가 넣어.<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맛있는 {조구는} 영광에서 잡힌 게 최고여!

지역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정읍.

조구짝 명

이판사판으로 내는 결딴. ¶가서 니 애비 데로니라. 오늘 {조구짝} 내야겄다.

지역 전북.

조까 부 [대응어] 조금.

정도나 분량이 적게. ¶대아지막 절에 때까우도 자울자울 알량헌 짓 {조까} 힛도만 포리약 핑겻능가 나도 자울자울. ¶근디, 거시기는 구신도 모릉게 잘 {조까} 갈차 주시요이~. ¶인자라도 지발 정신 {조까} 차려라이~. ¶뭇 {조까} 올랑가 쌔코롬 험서 으실으실 추아징게 생각이 나요. ¶지 몸땡이 생각히서 댐배 {조까} 끊으라고 혔도만 새깽이가 뒤안에 가서 눈깔질에 주댕이. 「」 짧은 동안. ¶넉놓코 해찰 {조까} 허다가 자징게를 박아 뻐렷당게요.

지역 고창.

조끼말 명

조끼 형식의 저고리와 치마가 하나로 붙은 치마나 속치마. ¶한복 입을 때 {조끼말} 속으다 입잖여.

지역 전북.

조단조단 부 [대응어] 조근조근.

이야기를 서두르지 않고 조리있게 하는 모양. ¶"이 무식헌 것이 무신 말인지 못 알아묵겄구만요. {조단조단} 말씀해 주셔야제라."<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해설 전라 방언 '조단조단'은 주로 조정래, 송기숙의 소설에서 발견되는데 표준어 '조근조근'에 대응된다.

조댕이 명 [대응어] 조동이.

사람의 입을 속되게 이르는 말. ¶그놈 먹으면 죽어 버리게. 하 인제 더 좋아서 한 동우 술을 가져왔어. 비상 섞은 술을. 딱 쪼그려 앉어서 인자 {조댕이로} 들어가. 들고 한 동오를 쪽 마시고 쫄꽁 주저 앉어서, 앗따 천자가 본게 겁도 안나네.<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너는 항상 조심해서 {조댕이를} 잘 놀리거라.

지역 정읍.

조동아리 명 [대응어] 조동아리.

사람의 입을 속되게 이르는 말. ¶그런데 근질거리는 {조동아리를} 도무지 참을 줄 모르는 그 자발머리없는 녀석이 넋이야 신이야 하고 마구잡이로 나불거리고 다닌 결과였다. 박충서는 실어

증에<윤흥길, 소라단 가는 길> ¶총망중에 치명적인 실수를 범한 내 {조동아리를} 내 주먹으로 단단히 벌하고 싶은 심정이었다.<윤흥길, 소라단 가는 길>
지역 전북.

조동자식 명
오냐 오냐 귀하게 키워 버릇이 없는 자식. ¶{조동자식이라고} 안 혀? 오냐 오냐 허고 키우먼 본디가 없잖아. 오냐 오냐 키운 놈. 외동자식이 그러지.
지역 전북.

조둥아리 명 [대응어] 조동아리.
☞조동아리. ¶네 요년. 요년. 뉘게다가 대구 놀리는 {조둥아리냐} 요년.<채만식, 예수나 안믿었더면>
지역 전북.

조랑배 명 [대응어] 조각배.
작은 배. ¶{조랑배라고}<완주 지역어 텍스트>
지역 완주.

조래이 명 [대응어] 조리.
☞조랭이.
지역 전북.

조랭이 명 [대응어] 물뿌리개.
물을 뿌리는 데 쓰는 도구. ¶{조랭이다} 물 담어서 모종 가시로 쪼르르 물 줘라이.
지역 전북.

조레이 명 [대응어] 조리.
☞조렝이.
지역 전북.

조렝이 명 [대응어] 조리.
쌀을 이는 데에 쓰는 기구. ¶{조렝이로} 쌀을 일다 ¶뒷산으 조릿대를 비다가 {조렝이를} 만들어 장에 파는게 벌이의 전부였다.
지역 전북.

조롱 명 [대응어] 담뱃대.
담배를 피우는 데 쓰는 기구. 담배통, 담배설대, 물부리로 이루어져 있다. ¶담배를 눌러 담은 {조롱을} 입에 물었다.
지역 전북.

조롱대다 동 [대응어] 조롱하다.
비웃거나 깔보면서 놀리다. ¶동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저 영감이 미쳤다고 {조롱대기만} 헀어.<구비문학대계 정읍군>
지역 정읍.

조롱바가지 명 [대응어] 표주박.
조롱박이나 둥근 박을 반으로 쪼개어 만든 작은 바가지. ¶{조롱바가지로} 물을 떠서 남정네에게 넘겨 줬어요.
지역 전북.

조롱바가치 명 [대응어] 표주박.
☞조롱바가지.
지역 남원.

조르다 동 [대응어] 졸다.
잠을 자려고 하지 않으나 저절로 잠이 드는 상태로 자꾸 접어들다. ¶별이 따숭개 꾸벅꾸벅 {조르고} 있제.
지역 전북.

조를리다 형 [대응어] 졸리다.
자고 싶은 느낌이 있다. ¶{조를린} 눈을 뜨다.
지역 고창.

조마니 명 [대응어] 주머니.

아랫부분은 둥글고 위는 모진 모양으로, 아가리에 잔주름을 잡고 두 개의 끈을 좌우로 꿰어서 여닫게 한 작은 주머니. ¶신부지베로 가찌. 써가지고서 머시냐, {조마니} 요만헝거, 사주 넌넌 그 봉토가 이써요.(신부집으로 갔지. 써가지고서 뭣이냐, 주머니 이만한 것, 사주 넣는 그 봉투가 있어요.)<완주_지역어_텍스트> ¶손톱, 발톱 따 짤라서, 조만치, 요만썩헌 {조마니} 다 인짜나. 거기다 쌍 녀서.(손톱, 발톱 다 짤라서, 주머니, 이만씩한 주머니니 다 있지 않아. 거기다 싹 넣어서.)<2005 전북 남원> ¶인자 변통이 되얐던 게벼. 그쪽이 가서. 아, "약을 지어 돌라." 고 허고는 돈을 고뿌속을 뒤고 {조마니를} 뒤여보니까 돈이 한 푼도 없다. '호오 내가 돈 한푼도 없이 내 약방으로 쫓아왔구나. 내 정신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갔던게벼.<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정읍, 남원, 완주.

조매 부 [대응어] 좀처럼.

여간하여서는. ¶화가 {조매} 풀리지 않는다.

지역 전북.

조몰조몰 부 [대응어] 조몰락조몰락.

물건 따위를 작은 동작으로 잇달아 주무르는 모양. ¶챔기름 쪼곰 넣고 콩너물을 {조몰조몰} 무친다.

지역 전북.

조몰조몰하다 동 [대응어] 조몰락조몰락하다.

작은 동작으로 연한 물건을 자꾸 주무르다. ¶계봉이가 저라서 승재의 손을 끌어다가 두 손으로 꽈악 쥐고 {조몰조몰한다}.<채만식, 탁류>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의 부사 '조몰조몰, 조물조물'은 "손으로 연한 물건을 주무르는 모양"을 표현하는 의태어이다. 여기에 동사 파생 접미사 '-하-'가 연결되면 '조몰조몰하다, 조물조물하다'가 되어 동사로 쓰인다.

조몰조몰허다 동 [대응어] 조몰락조몰락하다.

☞조몰조몰하다. ¶여름철에는 까지(가지) 너물을 {조몰조몰허서} 무쳐 놓으면 먹을 만 허지.

지역 전북.

조선꽤 명 [대응어] 참깨.

참깻과의 한해살이풀. ¶이 고장 미식가들은 토종 {조선꽤로} 기름을 짜야만 맛을 제대로 낸다고 한다.<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전북.

조선대리미 명 [대응어] 다리미.

예전에 옷이나 천 따위의 주름이나 구김을 펴고 줄을 세우는 데 썼던 도구.

지역 전북.

해설 한복을 다릴 때 많이 썼으므로 '조선한복대리미'라고도 한다. 오늘날 볼 수 있는, 날이 쟁기날처럼 생기고 손잡이가 몸체 위로 올라간 다리미는 '양복대리미'라고 한다.

조선솟 명

양은으로 만든 솥이 아닌 검은 솥. 보통 가마솥과 같은 재질과 생김새를 말한다.

지역 전북.

조선장 (朝鮮醬) 명 [대응어] 조선간장.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든 간장. 흔히 우리의 재래식 간장을,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드는 일본식 간장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조선장을} 떠와서 국솟에 넣었다. ¶"에미야, 미역국 끓일 때는 {조선장을} 쳐야헌다.". ¶미역국은 역시 {조선장으로} 끓여야 제맛이 난다.

지역 전북.

조세받기 명
공기놀이 중의 한 가지 방법. 처음에는 손바닥에 쥐고 있다 손등으로 뒤집어 보낸 다음 앞으로 잡는 것. ¶{조세받기는} 다섯 개를 다 줏은 다음에 뒤로 착 넘겨서 다 받는 것여.
지역 전북.

조아바치다 동 [대응어] 고자질하다.
남의 잘못이나 비밀을 일러바치다. ¶(며느리가 헌 일을) 시어머니가(아들에게) {조아바처}. 근게 신랑이 때리고.
지역 전북.

조우떼기 명 [대응어] 종이쪽.
☞종우때기.
지역 전북.

조으름 명 [대응어] 졸음.
☞졸음.
지역 전북.

조읃다 동 [대응어] 졸다.
잠을 자려고 하지 않으나 저절로 잠이 드는 상태로 자꾸 접어들다. ¶별이 좋은게 저그서 {조읃고} 있더라구.
지역 고창.

조잘조잘하다 형 [대응어] 자잘하다.
여럿이 다 가늘거나 작다. 또는 여러 가지 물건이나 일, 또는 여러 생각이나 행동 따위가 다 작고 소소하다. ¶글씨가 {조잘조잘하다}. ¶{조잘조잘한} 일상 이야기를 한다.
지역 전북.

조참조참 부 [대응어] 주춤주춤.
행동이나 걸음 따위를 망설이며 자꾸 머뭇거리는 모양. ¶대감마님이 화가 나가지구 인제 불르니께, 그댁 머슴이 {조참조참} 하면서 간 것이지.
지역 전북.

조체로 부 [대응어] 좀처럼.
여간하여서는. ¶화가 {조체로} 풀리지 않는다.
지역 전북.

조총 (←造淸) 명 [대응어] 조청.
묽게 고아서 꿀처럼 만든 엿. ¶일본 대판에 {조총} 엿 동래 부산의 찹쌀엿 지림이 잘잘 흐른다 요리 오시오<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정읍.

졸개졸개 부
귀담아 듣는 모양. ¶이장이랑 허는 소리를 {졸개졸개} 들은게로 그 소리드만.
지역 전북.

졸남생이 명 [대응어] 줄남생이.
줄줄이 따라다니는 아이들이나 아랫사람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할머니 {졸남생이들은} 어따 두고 혼자 오겼소?
지역 전북.

졸움 명 [대응어] 졸음.
잠이 오는 느낌이나 상태. ¶밥을 먹은 후에 {졸움이} 몰려온다
지역 김제, 익산, 임실, 고창, 부안, 군산, 진안.

졸임 명 [대응어] 졸음.
☞졸움.
지역 전북.

좀도리쌀 명 [대응어] 절미(節米).
밥할 때마다 한줌씩 덜어내어 모은 쌀. ¶이게 역

사적으로 {좀도리쌀이} 꽤 오래됐어요. 고려 때부터 어려운 사람 도와줄라고 그때부터 {좀도리쌀을} 모았다고 하는디. 지금도 교회 성금 낼 때 좀도리쌀 모아요.

지역 전북.

좀방애 명 [대응어] 디딜방아.

발로 디디어 곡식을 찧거나 빻게 된 방아. 굵은 나무 한 끝에 공이를 박고 다른 끝을 두 갈래가 나게 하여 발로 디딜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공이 아래에 방아확을 파 놓았다. ¶그때는 {좀방애가} 한 동네에 두서너 개씩 있었어.

지역 무주, 장수.

좀방애고 명 [대응어] 방앗공이.

☞방앗고.

지역 무주.

좀치로 부 [대응어] 좀처럼.

여간하여서는. ¶혼자서는 {좀치로} 모더.

지역 전북.

좁쌀방정 명

됨됨이가 좀스럽고 경망스러운 사람. 또는 그런 행동. ¶{좁쌀방정} 떨지 말고 좀 차분해져 봐. <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그놈의 {좁쌀방정은} 언지나 안 떨 거여?<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전북.

좁장하다 형 [대응어] 조붓하다.

조금 좁은 듯하다. ¶그의 {좁장한} 얼굴에는 땀이 번들거렸다.<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좃다 동 [대응어] 쪼다.

뾰족한 끝으로 쳐서 찍다. ¶아, 어떻게 눈알 하나를 그냥 뭘로 {좃아} 버리드랴, 그서 하나를 멀게 허드라네. 절규가 눈을 하나를 멀게 했드랴.<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고창, 김제, 순창, 정읍, 진안, 군산.

종가랑나무 명 [대응어] 떡갈나무. ¶나뭇잎이 떨어지고 나면 {종가랑나무가} 이건지 저건지 몰러.

지역 순창.

종고래기 명 [대응어] 표주박.

조롱박이나 둥근 박을 반으로 쪼개어 만든 작은 바가지. ¶{종고래기가} 깨져 버렸네. ¶쌀독 안으다 넣어둔 {종고래기는} 요즘 말로 계량컵 같은 구실을 혔지.

지역 무주.

종구라기 명 [대응어] 종구라기.

☞종그래기. ¶손잡이가 끝나고 {종구라기} 모양의 몸통이 시작되는 부분은 노상 이것저것 잡다한 종류의 가게가 문을 열었다가는 슬그머니 사라지고 또 누군가가 새로운 가게를 열었다가는 이내 문을 닫곤 하는, 말하자면 원미동 통의 사각지대였다.<양귀자, 찻집 여자> ¶손잡이가 끝나고 {종구라기} 모양의 몸통이 시작되는 부분은 노상 이것저것 잡다한 종류의 가게가 문을 열었다가는 슬그머니 사라지고 또 누군가가 새로운 가게를 열었다가는 이내 문을 닫곤 하는, 말하자면 원미동 통의 사각지대였다.<양귀자, 찻집 여자>

지역 전북.

종구래기 명 [대응어] 종구라기.

☞종그래기.

지역 전북.

종그래기[1] 명 [대응어] 종구라기.

조그마한 바가지. ¶팔이 걸었던 담주는 뚝뚝 떼

어서 되는대로 다 내던지고 손으 들었던 목탁빡 짜개 들고보니 장 {종그래기} 좋을시고<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큰목탁은 뜯어서 함박 {종그래기} 만들고 작은 목탁 뜯어서 장 {종그래기} 만들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집나가는 년이 쌀독의 {종그래기까지} 다 챙겨갖고 가버렸네. ¶{종그래기에} 간장 좀 퍼오너라.

지역 군산, 정읍.

종그래기[2] 명 [대응어] 종지.

간장이나 고추장 따위를 담아 상에 놓는 작은 그릇. ¶간장은 간장 {종그래기에다} 너서 내와야지 맛이 나 보여. 안 그러면 짜게 보여서 먹기가 힘들어.<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군산, 정읍.

종도리새 명 [대응어] 종다리.

갈색 등에 검은 가로무늬가 있으며 뒷머리 깃이 긴 작은 텃새. 논밭이나 풀밭에 살고 봄철에 공중으로 날아오르면서 고운 소리로 운다. ¶시내 강변 {종도리새는} 천 질 만 질 구만 질 떴네 <한국민요대전- 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전북.

종아 명

어떤 일에 대처할 방법이나 계획. ¶곤게 아무 {종아가} 없은게 기냥 흙 주무르든 놈 고놈 걍 밥허고 쭈무른 놈 고놈을 걍 그 어째쭉지 애린디다가 붙여줬어요.

지역 전북.

종우 명 [대응어] 종이.

주로 식물성 섬유를 원료로 하여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만든, 넓적하고 아주 얇은 판 모양의 물건. ¶전부, 먹판을 뿌려버려 {종우} 우에다. "당신, 자기에게 사무친 원한을 맺혀두고 가고 과거되기를 바라냐?" 고 또 방해를 놓는거여.<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그러니깨 막 거기 사람들이 돈을 많이 주고 사드라요. 그 {종우를} 사서 그 놈을 그러고 온개로, 어떤 사람이 미꾸라지를 잡더라요.<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근게 가서나, 그 팔만대장경이 {종우로} 된 것이 아니고 전부 나무로<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집은 요로케, 머 판자때기나 그런 머 막때기 대서 지어갖꼬 거다가 {종우} 발라서, 지어노코 상 여그다 놔두먼 여그 가서 인자 팜나 머 서서.<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임실, 장수, 정읍, 진안.

종우때기 명 [대응어] 종이쪽.

종이 조각. 종이를 흔한 것으로 낮잡아 이르는 말. ¶고노믈 인제 뉘여럴 아럴 가꽈서 인자 한 지비다가 따따:던디다가 이케 {종우때기로} 더퍼노먼 새:카망게 알 쏘그서 나와요.(그놈을 이제 누에를 알을 갖고 와서 이제 한 집에다가 따뜻한 데다가 이렇게 종이로 덮어<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애. {예}. 08 그리갇꼬 닫냥 줄따그려, 오매가. 오매, 거 닫냥이 머여? 너그는 몰라. 행. 머 {종우때기} 도니 아니고 납짜::건 이러케 생긴 쇠 돈니더만. 가운데 구먹 뚜러지고. {그래가지고 닷 냥 줬다고 그래, 어머니가. 어머니가, 그 닷<2009 전북 임실> ¶그러먼 인자자, 인자 새까지 올렬써요. 대개 벼름빠게 그먼 여기다가 종 {종우때기} 발랄써요?(그러면 이제자, 이제 새까지 올렸어요. 대개 바람벽에 그러면 여기다가 종 종이 발랐지요?)<지역어 자료 총서, 무주>

지역 임실, 무주.

종우때이 명 [발음] [종우때~이] [대응어] 종이쪽.

☞종우때기.

지역 고창.

종으 명 [대응어] 종이.

☞종우. ¶그러고는 죽었다는디, 자리 한 닢허고 {종으} 한 문 사가지고 가서 소조(소지) 올리고는 자기가 싸가지고 가 뫼를 갖다가 파묻, 파묻어 버리고는, 뫼 쓰고는 원(원님)한티 가서 얘기를 혔어요.<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군산.

종재기 명 [대응어] 종지.

간장, 고추장 따위를 담는 종발보다 작은 그릇. ¶대관절 양반의 새복 정신이 머이간디, 어뜬 놈은 꼭두새복 넘 다 자는 시간에 짠내 쩌들은 젓통 짊어지고 한 {종재기라도} 더 팔아 보겄다고 목이 쉬게 외장을 침서 휘청걸음을 걷는디, 어뜬 놈은 책상다리 점잖허게 개고 앉아서 발부닥 씰어 감서 공자왈 맹자왈 씻나락 까먹는 소리로 노래를 부름서, 글이요, 정신이요, 허능 거이여?<최명희, 혼불> ¶근게 여자가 장 {종재기를} 그 장독으다가 딱 놓고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 들어가넌게. 자기 아는 자란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해 달라고 하자 다 외워본 후에 {종재기까지} 접시 그릇은 모두 부르는 말이 있는데 다는 못 부른다고 안타까와했다.<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무주, 완주, 정읍.

종조리새 명 [대응어] 종다리.

갈색 등에 검은 가로무늬가 있으며 뒷머리 깃이 긴 작은 텃새. 논밭이나 풀밭에 살고 봄철에 공중으로 날아오르면서 고운 소리로 운다. ¶시내 갱변에 {종조리새} 천장 만장 구만장 떴네/어리가리 어허노 어어화 어허노<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떴다 보아라 {종조리새} 는/ 어럴 럴럴 상사 두야/ 천 질 만 장 구만 장 떴다 / 어럴 럴럴 상사 두야<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김제 터다지는 소리"어럴럴럴 상사두야"김제군 백산면 하서리 궁지)

지역 순창, 김제.

좌당간 (左-間) 명 [대응어] 좌우간.

이렇든 저렇든 어떻든 간. ¶{좌당간에} 사연인즉, 머란가?<조봉래, 풀벨골 시비주의>

지역 전북.

좌우당간 (左右-間) 명 [대응어] 좌우간.

이렇든지 저렇든지 간. ¶니가 하기 싫든 좋든 {좌우당간} 너 그거 해야 해.<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절대로 자기 복안만 채우지 넘기(남에게) 좋다는 일은 한나 안허고 댕기고 사랑방 채사가 와서도, " {좌우당간} 내말 들어. 자네가 여그서 밥먹고 살지 글 안허먹 밥 못먹고 사네." 헌게, 꼭 그 말만 듣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정읍.

죄끄맣다 형 [대응어] 쪼그맣다.

☞쬐그맣다. ¶{쬐끄만헌} 아들들 허고 나허고 있은게 우리 집이서 못 자고 가요.<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죄는 개천 도체비란 놈이 짓고 베락은 앰헌 고목낭구가 맞는다 【속담】

가만히 있는 사람 또는 짐승에게나 물건 따위에, 전혀 관계없는 일이 발생하다. ¶그 급살 배급 맡으신 분이 바로 내 빽인디 죄인 임종술이가 맞을 급살을 무단시 왜 슨교사 김부월이가 맞는다나? 허기사{죄는 개천 도체비란 놈이 짓고 베락은 앰헌 고목낭구가 맞는다는} 옛말도 없지는 않드라마는……"<윤흥길, 빛가운데로걸어가면>

지역 전북.

해설 죄는 세상에서 제멋대로 날뛰는 사람들이 짓는데, 그 죄에 대한 벼락은 가만히 있는 엄한 고목나무가 맞는다는 뜻이다.

죄책 명
일이 어그러지거나 방해되는 일이 생기는 것. ¶서로 사주가 안 조먼 무슨 {죄책이} 나. 무신 일을 히도 그렇게 죄책이 나드라고.
지역 전북.

주걱[1] 명 [대응어] 밥주걱.
☞나무주걱.
지역 전북.

주걱[2] 명 [대응어] 구둣주걱.
구두를 신을 때, 발이 잘 들어가도록 뒤축에 대는 기구. ¶남편이 아침에 집을 나갈 때, 구두에 발을 꿰고 뒤꿈치에 {주걱을} 갖다 대면서, 꼭 구두를 신는 일만큼이나 대수롭지 않은 어투로 <최일남, 무화과꽃은 언제 피는가> ¶구두를 신을 땐 {주걱을} 쓰면 잘 들어간다.
지역 고창, 군산, 김제, 무주, 부안, 완주, 익산.

주건깨 명 [대응어] 주근깨.
☞주군깨.
지역 고창, 순창, 익산.

주겁 명 [대응어] 밥주걱.
밥을 푸는 도구. 나무, 놋쇠, 스테인리스강, 플라스틱 따위로 만들며 숟가락과 모양이 비슷하나 더 크다. ¶{주겁으로} 밥을 퍼.
지역 전북.

주겅깨 명 [대응어] 주근깨.
☞주군깨.
지역 군산, 임실.

주구멍 명 [대응어] 쥐구멍.
☞쥐구먹.
지역 군산.

주군깨 명 [대응어] 주근깨.
눈 주변에서 뺨에 이르는 얼굴 부위에 주로 생기는 황갈색의 자잘한 점. ¶얼굴에 {주군깨가} 다닥다닥 하다.
지역 김제, 남원, 무주, 완주, 임실, 장수, 정읍, 진안, 부안, 군산, 고창, 순창, 익산.

주궁깨 명 [대응어] 주근깨.
☞주군깨.
지역 남원.

주근끼 명 [대응어] 주근깨.
☞주군깨.
지역 고창.

주댕이 명 [대응어] 주둥이.
사람의 입을 속되게 이르는 말. ¶지 몸땡이 생각히서 댐배 조까 끊으라고 혔도만 새깽이가 뒤안에 가서 눈깔질에 {주댕이}. ¶{주댕이} 잘 놀려대야제 깐딱허믄 신세 조징게 관리 잘 허겨. ¶지나간 밤은 뭐나께가 되어 버리고 진범으로 둔갑헌 꿈속녀 양심은 뒷걸음치는 복실강아지 몬양으로 돌출 {주댕이} 허고 삐쳐 있는 각시 외출 따독여 서둘러 도와준다. ¶열린 {주댕이가} 있어도 나는 벙어리 되아야 쓰겄소~ 고것이 영판, 남사시렁게요~. ¶“아까도 기양 사리반서방님이 그으살갑게 주고 가신 돈을, 눈 깜작 새 잡어채 갖꼬는 어따가 쉥켔능가 날름 줏어생케 불고, 어디 {주댕이} 씻은 자리도 없드랑게요. 매꼼허니.” <최명희, 혼불>
지역 고창.

주데이[1] 명 [대응어] 주둥이.

☞주둥이.

지역 고창.

주데이² 명 [대응어] 노루발.

한쪽은 뭉뚝하여 못을 박는 데 쓰고, 다른 한쪽은 넓적하고 둘로 갈라져 있어 못을 빼는 데 쓰는 연장. ¶{주데이로} 못을 뽑는다.

지역 고창.

주뎅이 명 [대응어] 주둥이.

사람의 입을 속되게 이르는 말. ¶{주뎅이} 고만 나불거리란 뜻이여. 정보를 얻을 만침 얻었으니께 인자는 실실 우리 영업이나 시작허자, 그런 말이여.<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장기를 놀 줄 모르니게 나둬라. 그러면 놔줄 거 아니냐. 어디 어떻게 두라면 가지고간, 그래놓고는 살째기, 주먼치, 주머니 그, {주뎅이}, 입만 열어놓아라.<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전북.

주동아리 명 [대응어] 주둥아리.

사람의 입을 속되게 이르는 말. ¶조, 못된 {주동아리를}!⋯⋯ 그저 똥을 한 바가지 조 {주동아리다가} 뜨뿍⋯⋯<채만식, 젊은날의 한 구절> ¶저 년이 뒤어지고 싶어서 또 저 따우로 {주동아리를} 놀려! 저년이!<채만식, 인형의 집> ¶“요놈으 {주둥아리} 가만히 덮어 두고 있제 왜 그러냐?” 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주둥배기 명 [대응어] 주둥이.

☞주둥빼기.

지역 완주.

주둥빼기 명 [대응어] 주둥이.

사람이나 짐승의 입을 속되게 이르는 말. 또는 병이나 일부 그릇 따위에서, 좁고 길쭉하게 나온, 담긴 물질을 밖으로 나오게 하는 부분. ¶“그놈으 {주둥빼기} 안 오무릴래!” 정적은 차라리 소란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고문이었다.<윤흥길, 장마> ¶원정(투정)을 하기를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좋은 입쌈풀 먹어두, 먹고 내놔야 하는디, 똥 싸는 구먹이 없어. 그러니, 니뾰쪽헌 {주둥빼기도} 내 똥 싸게 구녁이나 좀 뚫어다고.’ 소새가 있다한다 말이, ‘야 이놈아, 그런 말 말어라.<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주둥빼기를} 함부로 놀리지 말거라.

지역 부안.

주둥치 명 [대응어] 주둥이.

사람의 입을 속되게 이르는 말. ¶귀때기는 비어서 송편전에다 팔어서 친구은혜를 갚으꺼나 눈구녁은 빼어서 다마전에다 팔어서 친구 은혜를 갚으꺼나 콧구녁은 비어서 피리전에다 팔어서 친구 은혜를 갚으꺼나 {주둥치는} 비어서 나팔전이다 팔아서 친구 은혜를 갚을까 뱃가죽은 벳겨서 소구전에다 팔어서 친구 은혜를 갚으까<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정읍.

주둥패기 명 [대응어] 주둥이.

☞주둥빼기. ¶처음에 쏟아지는 놈은. 와르르 해가지고 쌈서 인자 볼기 짝으로 요강 구찌(입구)를 말이여, 요강 {주둥패기를} 딱 막아버리면 쇠 요강속에서 소리가, “오롱오롱오롱오롱” 그러거든.<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아따, {주둥패기에} 쳇대 장것냐?

지역 부안.

주둥팽이 명 [대응어] 주둥이.

사람의 입을 속되게 이르는 말. ¶{주둥팽이} 찢어지겄네 이~. ¶그놈의 {주둥팽이} 근질근질거려서 으떻게 참을랑가 모르겄소! ¶으미 아~ 소리도 모드고 잡녀르 때까우시끼 낼도 그르기만

허봐 {주둥팽이를} 쥐여 뜯어 불랑게로.
지역 고창.

주뒹이 명 [대응어] 주둥이.
☞주둥이. ¶"{주뒹이} 석 자 꽁지가 대 자되는 새를 찾을라먼 여 이 잔등 어 넘어 가서 또 사람 만나먼 물으라." 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주등이 명 [대응어] 주둥이.
☞주둥이. ¶빵 돌아감서 큰애기를 옹위허고 근디 가만히 본게, 두꺼비 짐이 새파란 짐이 폭폭 올라 가. 이렇게 배 불룩 시먼(쉬먼) {주등이서} 짐이 나가지고 천장으로 올라 가.<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정읍.

주딩 명 [대응어] 주둥이.
사람의 입을 속되게 이르는 말. ¶{주딩} 딱 다물고 있을랑께.
지역 고창.

주딩이 명 [대응어] 주둥이.
사람의 입을 속되게 이르는 말. ¶나가 꼴배기 싫어서 간다 헌담서 {주딩이} 꽉 물고 밥 못 처묵을 때까지 안 올랑께.
지역 전북.

주렁막대기 명 [대응어] 지팡이.
걸을 때에 도움을 얻기 위하여 짚는 막대기. ¶얼매 있다가 이 집 대감이 주렁얼 짚고 집 안을 순행허다가 여그꺼지 와서 메누리가 숭없게 허고 자고 있어서 그 옆에 벗어논 옷얼 {주렁막대기로} 들어서 메누리 몸에다 걸쳐 놨어.<구비문학대계 임실군편>
지역 임실.

주룬히 부 [대응어] 가지런히.
여럿이 층이 나지 않고 고르게. ¶이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좌우간 살덤벵어리인개 고놈을 칼로 쪽쪽 포떠서 집에서 말려서 주룬히 뒀어.<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전북.

주룸살 명 [대응어] 주름살.
얼굴 피부가 노화하여 생긴 잔줄. ¶이마 {주룸살이} 많아지다 ¶우리 할머니 이마에는 이마 {주룸살이} 참 많이 있어요.
지역 군산, 익산, 임실, 정읍.

주먹 명 [대응어] 모숨.
한 줌 안에 들어올 만한 분량의 물건 또는 그 물건을 세는 단위. ¶파서 베를 깔고서는 흙을 {한 주먹썩} 두 {주먹썩} 파서 거그다 정허게 놓고서 한방울 안떨어지게 허고서는 담어다가 집어내쏘고 또 하룻저녁 가서 파고 그냥 메칠 저녁을 팠어.<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이러케 쭈커니 노코, 그 사내키에다가 요러케 지블 이러케 한 {주먹썩}, 요러케 이쁘게, 고노믈 인자 다 거시기 빼버리고 이쁘게 존:노모로 <2005 전북 남원>
지역 전북

주먼지 명 [대응어] 주머니.
☞주먼치.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천자 만자 {주먼지끈}/똘똘 말아 항두칼/지비 딱딱 빼건중/아야 경사 호로 땡!<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익산 다리세기노래"이거리 저거리 각거리"익산군 용동면 흥왕리 돈다산)
지역 익산.

주먼치 명 [대응어] 주머니.
자질구레한 물품 따위를 넣어 두거나 넣어 가지

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든 물건. 또는 돈이나 소지품 따위를 넣도록 만든 옷의 부분. ¶장만히서 인자 오머는, 애기 인자. {주먼치를} 채이등가 괴비가 이뜽가 허머는 거기다가 그냥, 너주고 가아.(장만해서 오면, 아기 인제. 주머니를 채우든가 주머니가 있든가 하면 거기에다가 그냥, 넣어주고 가.)<2005 전북 남원> ¶가르쳐 준 예가 있으게 지청 앞으로 가서 저 생인들은 상정막대기 짚고 곡소리 나기를 지다리지. 곡은 안허고 뿌시럭 뿌시럭 허다만, {주먼치서} 뭔 나무때기를 하나 내드래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그놈을 개천물에다가, 물에다가 씨쳐서, 전에는 말주먼치라고 그래요. {주먼치에다} 넣고 참 저녁에 집으로 갔어요. "어머니, 어머니! 이 우렁을 얻다 당구끼라우?"(그것(우렁)을 개천물에다, 물에다가 씻어서 전에는 '말주먼치'라고 그래요. 주머니에다 넣고 참 저녁에 집으로 갔어요. "어머니 어머니! 이 우렁을 어디다 담글까요?")<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장기를 놀 줄 모르니게 나둬라. 그러면 놔줄 거 아니냐. 어디 어떻게 두라면 가지고간, 그래놓고는 살째기, {주먼치}, 주머니 그, 주뎅이, 입만 열어 놓아라." 그랬어.<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서울 갔떤 님의 중의 적삼을 베고 난개 줌치 한 점이 남았드라요. 중의 적삼 베고난개 {주먼치를} 지었드라요.(서울 갔던 님의 중의 적삼을 베고 나니까 주머니 한 점이 남았어요. 중의적삼 베고 나니까 주머니를 지었드래요)<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그런디 아버지가 잘못이요!" 하고, 즈그 아버지를 보고 그런개로, 아, 술을 받아 마시고 가만히 생각하더니, 쇠때(열쇠)를 {주먼치에서} 주섬주섬 꺼내서 즈그 딸한테 앞에다 훅 던짐서, "아나(옛다)! 너 아무나(아무렇게나) 해라!" 하고<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남원, 정읍, 완주.

주모치 명 [대응어] 주머니.

☞주먼치.

지역 남원.

주벅 명 [대응어] 밥주걱.

☞밥주벅.

지역 남원, 무주, 순창, 완주, 임실, 장수, 정읍, 진안.

주색잭기 (酒色잭기) 명 [대응어] 주색잡기.

술과 여자와 노름을 아울러 이르는 말.

지역 전북.

주석대 (朱錫대) 명 [대응어] 담뱃대.

대통과 물부리를 주석(朱錫)으로 만든 담뱃대. ¶팔모깎이 우산대/은소복으 연변대/{주석대} 백통대/파른 받침 구리 동고리대/소상간죽으 별간죽/금사오죽에 양철간죽을/마치 맞게 잘 맞촤/네 구석으 세워두니/방안치레가 훌륭하네(진안 고사풀이)<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진안.

주장멕이 명

동티가 난 사람을 마당에 눕혀 놓고 그 사람을 빙 둘러서서 여러 사람이 풍물 치고 한 사람이 쇠스랑으로 찍는 시늉을 내며 귀신을 쫓아내는 일. ¶뭇이(무엇이) 잘못 됐는가 배가 아퍼. 근디 {주장멕이를} 허고 난게 안 아퍼.

지역 전북.

주춧독 (柱礎독) 명 [대응어] 주춧돌.

기둥 밑에 기초로 받쳐 놓은 돌. ¶{주춧독얼} 논다. ¶{주춧독에다} 지둥을 이렇게 쾌야된다.

지역 고창, 김제, 부안, 익산, 임실, 진안, 남원, 무주, 순창, 완주.

해설 '주춧독'은 17세기의 '쥬추'(柱礎)와 '독'이 결합된 것이다. 근대 국어 시기에 '쥬'와 '주', '츄'와 '추'의 발음이 구별되지 않게 되면서 '주

주춧독’으로 나타났다.

주칫돌 명 [대응어] 주춧돌.
☞주춧독.
지역 고창, 군산.

죽기 명 [대응어] 등겨.
벗겨 놓은 벼의 껍질. ¶소여물에다가 {죽기를} 섞어 주기도 허고 그랬어.
지역 남원.

죽은 자석 붕알 만지기 【관용표현】
한번 손에서 떠난 일은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 ¶지아모리 생각혀봤자 사또 뜬 뒤에 나발 불기고 {죽은 자석 붕알 만지기여}.<윤흥길, 빛가운데로걸어가면> ¶한분 손탄 돈 찾을라는 것언 {죽은 자석 붕알 맨지기네}.<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해설 생명이 끊어진 자식의 고환을 만지는 것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의 표현이다. 이미 잃어버린 것, 이미 손해 본 것을 다시 찾기는 어려운 법이다. 이처럼 “이미 손에서 떠난 일은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죽제 명 [대응어] 겨.
벼, 보리, 조 따위의 곡식을 찧어 벗겨 낸 껍질을 통틀어 이르는 말. ¶방앗간 옆이 지날 때 {죽제} 가루가 이리저리 날린다.
지역 남원.

죽창문 명
창호지 바른 방문의 창호지를 네모나게 뜯고 유리 같은 걸 달아 밖을 내다볼 수 있게 만든 문. ¶누가 부르면 {죽창문으로} 내다보제.
지역 전북.

준추게끼 명 [대응어] 수수께끼.
☞준치새끼.
지역 고창.

준치새끼 명 [대응어] 수수께끼.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빗대어 말하여 짤막한 물음을 내놓고 답을 알아맞히는 놀이 혹은 그 물음. ¶아, 나라 임금이 회를 허고는 금댕이를 몽칭댕이만 헌 놈을 내놓고는 {준치새끼} 하나 허면 갈쳐내먼은 이 금딩이를 주마고 하니 그리서 내가 그것 하나 갈쳐내자고 집이를 와서 생각허본게 아무리 못 갈쳐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아, 세상으 사람 되야가지고 {준치새끼} 한 마디도 없다는게 뭣이요. 아 정 그러믄 내가 허께 들오보시요.<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그리요. 아이 여그서 만나서 거식헌게 심심헌게 우리 {준치새끼} 한 마디 헙시다. 당신이,[바꿔서], 내가 허서 당신이 못 일러내먼 거기 있는 그 시 가마니 내한티 뺏기고 당신이 허는 것 내가 못 일러내면 이 시약시허고 소허고 말허고 준다.“고.<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군산, 정읍, 완주.

줄거리 명 [대응어] 줄기. ¶그런 양반 눈밖에 나면 당장 우리는 짐치 {줄거리} 한나도 얻어 올 디가 없어라우. 내 말이 시방 먼 말인지 알어묵겄소?<송기숙, 녹두장군>
지역 전북.

줄겁다 형 [대응어] 즐겁다.
마음에 거슬리는 것이 없이 흐뭇하고 기쁘다. ¶나는 요즘 하루하루가 {줄겁다}.
지역 전북.

줄굿 명
정월 보름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 당산나무에 감

을 줄을 만들고 치는 풍물놀이. 그 줄을 가지고 풍물을 치며 마을을 한 바퀴 돌고, 집집마다 들어가 풍물을 쳐 잡귀를 내보낸다. ¶{줄긋} 볼라믄 보름날 와. 그때는 사람 많은게 {줄긋도} 볼만했는디 지금은 사람 없인게 서울서나 밑이 동네서 사람이 와야제 글안흐먼 못해.
지역 전북.

줄짝지 명 [대응어] 바지랑대.
빨랫줄을 받치는 긴 막대기. ¶{줄짝지로} 빨랫줄을 받치다.
지역 전북.

줌 명 [대응어] 주머니.
☞줌치. ¶돈 쏟아진다 돈이 쏟아진다/한량으 {줌이서} 돈 쏟아진다<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남원 논매는 소리-이슬털이/그물가/사호소리남원군 대강면 평촌리 평촌)
지역 남원.

줌치 명 [대응어] 주머니.
자질구레한 물품 따위를 넣어 두거나 넣어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든 물건. 혹은 돈이나 소지품 따위를 넣도록 만든 옷의 부분. ¶인제 엉간히(언간히) 배를 다 짰더래요 짠디 서울 갔던 임, 엉간히 짠개 도투마리가 넘어갈 거 아니여? 그럭저럭 짜고 난개 서울 갔떤 님의 중의 적삼을 베고 난개 {줌치} 한 점이 남았드라요. 중의 적삼 베고난개 주먼치를 지었드라요.<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돈 쏟아진다 돈이 쏟아진다/한량 {줌치서} 돈이 쏟아진다/한량 주우움 {줌치서} 도 헤헤헤 돈 쏟아지네<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남원, 순창, 임실.

줌치새끼 명 [대응어] 수수께끼.
☞준치새끼.

지역 정읍.

줍다 동 [대응어] 깁다.
떨어지거나 해어진 곳에 다른 조각을 대거나 또는 그대로 꿰매다. ¶틀어진 곳을 {줍는다}.
지역 김제, 무주, 완주, 익산, 정읍, 진안.

중당 명
중노인들이 노는 노인당. 또는 그런 곳. ¶여그는 {중당}. 우리 같은 중노인들이 노는 디. 저그 가면 완전 상노인.
지역 전북.

중대님 명 [대응어] 행전.
☞중댓님. ¶"아, 논에 가서 일할러면 허름한 옷을 입구 {중대님도} 매구 가야지<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완주.

중댓님 명 [대응어] 행전.
바짓가랑이를 좁혀 보행과 행동을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정강이에 감아 무릎 아래에 매는 물건. ¶이놈이 와서는 외약 사내끼를 꼬아서 {중댓님} 떡허니 치고, 퇴머리를 질끈 허고서<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군산.
해설 '중댓님'은 '중'과 '대님'이 결합한 합성어로 "행전"을 가리킨다. '큰댓님, 중댓님, 작은댓님'의 형태로 쓰여 각각 '허리끈, 행전, 대님'을 가리킨다.

중도리 명
솥이 부뚜막에 걸기 알맞도록 옆으로 납작하게 나온 부분. ¶솥이 해반닥 안 혀. 중도리 올라오기 전에. {중도리까지} 물을 붓든지 더 붓든지 하나 붓든지 알아서 히야제.
지역 전북.

중두리 명 [대응어] 굽도리.
방 안 벽의 밑부분. 또는 방 안 벽의 아랫도리에 바르는 종이. ¶{중두리를} 대서 도배를 잘 혔어.
지역 군산.

중방장 명
결혼할 때 함 지고 오는 사람. 첫아들 낳은 사람이 한다. ¶{중방장은} 함 지고 와서 있어.
지역 전북.

중신에미 (←어미)) 명 [대응어] 중신어미.
남의 혼인을 중매하는 여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 ¶중신허는 사람을 '중신애비', 남자가 했으면 중신애비, 여자가 했으면 {중신에미} 그렇게 천명을 주어버렸단개. 그래 가지고 오늘날까지 중신애비, 어미 애비를 단골애비 단골에미 찾듯기 애비 에미 소리를 넣어 버렸어.<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중신에미는} 정말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지역 부안.

중우 명 [대응어] 바지.
남자들이 입는 여름 홑바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영감님이 평상으서 이렇게 자고 있는디, 지금 같으먼 그런 일은 없지만 {중우} 가랭이를 입고 있는 것이 이것이 인자 골마리가 빠져갖고시는 이놈이 덜렁허니 나와갖고 잔다 이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근게 이놈들이 단속곳도 없든가 가래중우를 입고 행전을 요리 처논게 가래 {중우를} 입은지 좋은 옷을 입은지 모르지 시방.<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나는 이제껏 내 몸에 딱 맞는 {중우를} 입어본 적이 없어. 모두 성(형)아껏 쫄여 입응게.
지역 김제, 남원, 무주, 순창, 정읍.

중터리 (中터리) 명 [대응어] 중턱.
산이나 고개, 바위 따위의 중간쯤 되는 곳. ¶{중터리다} 집을 진다.(중턱에다 집을 짓는다) ¶상산땅 조자룡이 적태마를 비껴타고 진중에 들어가서 황홀허게 맞혔더라 부채허리 두른양은 구등산 {중터리여} 허리안개 둘렀는듯 앉일께를 돋어놓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공비들 잘 비라고 산 {중터리를} 나무를 모도 많이 비어버렸어. 나무를 많이 비었어, {중터리를}.
지역 전북

중테기 (中테기) 명 [대응어] 중고기. ¶산중턱에서 {중테기를} 잡았다.
지역 완주.

중트리 (中트리) 명 [대응어] 중턱.
☞중터리. ¶{중트리다} 지블 진다고(중턱에다 집을 짓는다고)<2009 전북 임실>
지역 임실.

중트막 (中트막) 명 [대응어] 중턱.
산의 중간쯤 되는 곳. ¶{중트막쯤} 올라간게 큰 바우가 있어. ¶"도복을 만들 테니깨, 너는, 저 거시기 새(억새)를 뜯어 엮어 갖고 광주 무등산을 이어라." 그런디 저 삼 똥구녁을 톱칼로 똑 파가지고 그놈을 이어서 도복을 만든단깨, 그놈으 것이 어떻게 시간이 걸리더라고. 그렇게 해서 도복을 대 맨들어서, 인제 이자 저 동정을 달면 아허는데 다 해놓고 광주 무등산을 처다 본깨 인자 아 {중트막}, {중트막} 이어 올라가. 새를 뜯어서 엮어가고, {중트막} 이어 가는디, 인제 그래 놓고는 냅다(내버려)두었지.<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금껏 잘해오다가 이렇게 {중트막에} 와서 고만헌다고 허먼 누구 속을 뒤집자는거여.
지역 남원.

중틀 (中틀) 명 [대응어] 중턱.

☞중터리. ¶나와 가지고 요새 같으면 수원쯤 수원 중틀에 와서 인자 어느 주막집으로 썩 당더힌단 말여. ¶"그려요. 이 내려오실라먼 이 질 대관령을 타고 대략 내려오시는디 오시다가 그 {중틀이} 묘 잘 쓴 것 보셨지요?" "예, 과연 봤읍니다." "그 묘가 어떠십디요?" "과연 좋습디다."<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줴기 명 [대응어] 제기(놀이).

엽전이나 그와 비슷한 것을 종이나 헝겊에 싼 다음 나머지 부분을 먼지떨이처럼 여러 갈래로 늘여 발로 차고 노는 장난감. 발로 받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많이 차는 사람이 이긴다. 셈제기, 사방제기, 종로제기 따위가 있다. ¶{줴기를} 차다

지역 남원.

쥐구녁 명 [대응어] 쥐구멍.

쥐가 드나드는 구멍. 또는 몸을 숨길 만한 최소한의 장소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쥐구녁} 뚫벋따고 한다. ¶김도령이 큰애기를 꽉 보듬고 누워서, 대답도 못허게 손으로 입을 솜방맹이 {쥐구녁} 틀어막디끼 막고 있는디, 무신 소리를 헐 수가 있간디?<최명희, 혼불> ¶"혼인허고 사흘 만에 신랑을 잡어먹었으먼, 원 하늘이 무섭고 세상이 부끄러서 고개도 못 들고, 어디 {쥐구녁} 없능가, 삿갓을 씨고 있어도 모지래겄그만.<최명희, 혼불> ¶그러더니 그양 그 권세가 어디로 드러가버리고, {쥐구녀기} 어디냐 허고 사라, 지금. 그 냥반도 시방 야든 너머써요.(그러더니 그냥 그 권세가 어디로 들어가버리고, 쥐구멍이 어디냐 하고 살아, 지금.그 양반도 시방 여든 넘었어요.)<2008 전북 고창> ¶거짓말이 들통나서 {쥐구녁이라도} 들어가고 싶다.

지역 김제, 고창, 무주, 완주, 임실.

쥐구녕 명 [대응어] 쥐구멍.

☞쥐구녁. ¶우리가 비록 {쥐구녕} 같은디서 살어도 너그덜이 착허고 공부 열심히 헌게 맘이 든든헌 거여.

지역 전북.

쥐구녘 명 [대응어] 쥐구멍.

☞쥐구녁. ¶잽사게 그냥 하, 하인을 불러가지고, "그 담밑이 가서 {쥐구녘을} 파 봐라." 그?어. {쥐구녘을} 파본게나 쥐라는 것은 언지든지 꽁댕이다 새끼를 달고 댕긴다. 털도 안났놈으 새끼두마리를 꽁댕이 밑이다 이렇게 달고서는 들어갔드래여.<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군산.

쥐구먹 명 [대응어] 쥐구멍.

쥐가 드나드는 구멍. 또는 몸을 숨길 만한 최소한의 장소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저 후타리서 뽀글뽀글 집시랑 물이 흘러. 뿌굴뿌굴뿌굴 나와. 후타리밑에서 {쥐구먹} 같은 데서 물이 나와.<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쥐구먹에라도 들어가고 싶다.

지역 전북.

쥐뒹이 명 [대응어] 주둥이.

사람의 입을 속되게 이르는 말. ¶"시잇. 참말로 시끄러 죽겄네에. {쥐딩이} 조께 오무리고 있드라고."<최명희, 혼불> ¶잘못 했으면 사과를 히야지 씰떼없이 벤명만 늘어놓는 {쥐딩이를} 쥐어박고 싶더랑게. ¶{쥐뒹이} 좀 조심해서 놀려라.

지역 전북.

쥐메이 명 [발음] [쥐메~이] [대응어] 주머니.

아랫부분은 둥글고 위는 모진 모양으로, 아가리에 잔주름을 잡고 두 개의 끈을 좌우로 꿰어서 여닫게 한 작은 주머니. ¶아이가 돈을 받아 {쥐

메이에} 넣었다.
지역 고창.

쥐새 명 [대응어] 박쥐. ¶뒷쏙새판 밤남게는 {쥐새가} 와 앉고 텃밭머리 울렁두 나무엔 참새가 조잘걸이게 되엿다.<닭이가리>
지역 전북.

쥐알태기 명
'쥐의 불알'이라는 뜻으로 아주 작은 것을 속되게 이르는 말. ¶나이도 {쥐알태기만큼} 찌큰놈 얻다 대고 반말을 찍찍 깔긴다냐?
지역 고창.

쥐어박치다 동 [대응어] 쥐어박다.
주먹으로 함부로 내지르듯 때리다. ¶바싹 갉아가꼬 양 보디 잘못 치면 다 뿌서져. 북 끝이다 잘못 느면 다 뿌서져 버려. 그놈 북으로 한번 {쥐어박쳐} 노면 그놈 인자 가닥가닥이 찾어서, 이케 풀쇠김 있어.
지역 전북.

쥑이다 동 [대응어] 죽이다.
생명을 없애거나 끊어지게 하다. ¶그는 벌레 한 마리 {쥑이지} 못한다.
지역 전북.
해설 '쥑이다'는 '죽이다'에 움라우트가 적용된 결과이다. 전설모음 /ㅣ/나 반모음 /j/가 후행할 때 선행하는 후설 모음 '/ㅏ/, /ㅓ/, /ㅗ/, /ㅜ/' 등은 '/ㅐ/, /ㅔ/, /ㅚ/, /ㅟ/' 등으로 전설 모음화한다.

쥡다 동 [대응어] 깁다.
☞줍다.
지역 완주.

즈그 대 [대응어] 자기.
앞에서 말한 사람을 다시 가리키는 말. ¶배가 일로 나와버리믄 {즈그가} 먹을 것이 즉어<장승익(008)> ¶{즈그} 엄니헌티 되게 지천 들은 거시, 맨마든 가시내 동상헌티 해풀이 허네. ¶빈말이라도 {즈그} 또래 젊은놈 하나 소개시켜 줄께 아짐도 같이 모닥불 질러 버리쇼 허며 농담이라도 헐 줄 안? ¶그렇게 술 조까 앵간치 퍼 마시제 꼭 {즈그} 선밴가 지랄잉가 허는 끄떠리 자가 힌가 휭가 허는 작자가 우리 착헌 식일 불러 꼬셔가꼬 인사불성 맹근거시 일 이번이 아니고만이. ¶{즈그} 성지간이 쌈으를 히 싸<김옥화(2004)> ¶누그던지 {즈그} 헐 일을 빤드시만 허믄 누가 숭 볼 일이 없지라우. ¶머시기 {즈그끼리} 고놈이 고놈잉게, 싹 다 해쳐묵으라고 해라이. ¶{즈그들} 놀 저그 내가 숭봤어도 한 사날 안 봉게 궁금힛능가. ¶긍게, 어쩐지 농담이 심헝게 쌈 나겄드랑게~ 나는 {즈그들} 씨썩거릴 적부터 알어부릿소 벌써 감이 팍 허니 옵디다. ¶물이 아래짝으로 빠지기 시작흐믄 배알때기가 부릉가 {즈그들끼리} 모태서 서로 보듬고 낫바닥을 할타감서 아이고 작것들이 넘부꾸란지도 모리고 대나지 그리야 쓰겄냐고.
지역 김제, 고창.

즈문밤 명
천 일 밤. 또는 아주 오래된 날들의 밤. ¶내 마음 속 우리님의 고은 눈섭을 {즈문밤의} 꿈으로 맑게 씻어서 하늘에다 옴기어 심어 놨더니 동지섣달 나르는 매서운 새가 그걸 알고 시늉하며 비끼어 가네<서정주, 冬天>
지역 전북.
해설 중세 국어에서 "백(百)"을 뜻하는 말은 '온'이고 "천(千)"을 나타내는 말은 '즈믄'이다. 이 어휘는 관형사이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명사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서정주의 시 '동천'에서는 '즈문밤'과 같이 한 단어로 쓰인다.

즈믄해 명 [대응어] 천 일.

아주 오랜 세월. ¶아버지. 아버지에게로도, 내 어린 것 弗居內에게로도, 숨은 弗居內의 애비에게로도, 또 먼 먼 {즈믄해} 뒤에 올 젊은 女人들에게로도, 生金 鑛脈을 하늘에 폅니다.<서정주, 娑蘇 두 번째의 편지 斷片>

지역 전북.

해설 중세 국어에서 "백(百)"을 나타내는 말은 '온'이고 "천(千)"을 나타내는 말은 '즈믄'이다. 이 어휘는 관형사이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명사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서정주의 시에서 '즈믄해'란 어휘가 등장한다.

즈봉 명 [대응어] 바지.

☞쓰봉. ¶남자는 발동되는 성욕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 견디고 견디다가 점심시간에 집으로 달려가서 {즈봉도} 벗지 않은 채 그 부분의 단추만을 끄르고 아내와 낮거리를 했다.<최창학, 창>

지역 전북.

-즉 【접미사】 [대응어] -적.

((일부 명사 또는 명사구 뒤에 붙어))'그 성격을 띠는', '그에 관계된', '그 상태로 된'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내가 이게 {경제즉으로} 우리 가정도 살리고<장승익(008)>

지역 김제.

즉꼴 명 [대응어] 즉시.

어떤 일이 행하여지는 바로 그때. ¶하나도 못 먹어. 다 떨어져버려. 물러. 노러니 몰러가꼬 꼭대기 쏙 빠져 버린게. 그 {즉꼴로} 강 익는 것여. 뜨근게 디어버리서.

지역 전북.

즌학 명 [대응어] 전학.

다니던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학적을 옮겨 가서 배움. ¶금년 시월 시무야드렛날 시상천지가 폭삭 절딴나뿐담시나 우리 정옥이를 서울로 {즌학} 시켜서 대학상 맨들겄다는 소리는 또 으떻게 된 노릇이라냐?<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즘방 명 [발음] [즘빵] [대응어] 점방.

작은 규모로 물건을 파는 집. 또는 길거리에 임시로 물건을 벌여 놓고 파는 곳. ¶가서 말허자면 그때도 {즘방이} 그때도 {즘방이} 있든가 송방으 가서 인제 글때는 옛날은 시방 함 여그다가 거시기를 지고 ¶국민핵교 아래 {즘방까지} 자전거럴 타고 심부름을 많이 했다고.

지역 김제, 무주, 부안.

즘생 명 [대응어] 짐승.

몸에 털이 난, 네 발을 가진 동물. ¶저 동물원에 있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루. 그 큰 {즘생이} 어떻게 바늘구멍으루 나갑니까?<채만식, 예수나 안 믿었더면> ¶" {즘생이} 아니고 인간이니께 그렇지. 선새경을 자그맨침 삼백썩이나 받어 처먹는 상머슴네 여펜네가 무신 염치로 해동갑을 허서 서둘러 빠져나올 수가 있겄어?"<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증개미 명 [대응어] 징거미.

징거미새웃과의 민물 새우. ¶냇가에서 {증개미를} 잡어 젓이라도 담궈야 하나?

지역 전북.

지검 명 [대응어] 비듬.

살가죽, 특히 두피에 생기는 회백색의 잔 비늘. ¶머리에 {지검이} 많다.

지역 진안.

지게 명 [대응어] 지개.

짐을 얹어 사람이 등에 지는 우리나라 고유의

운반 기구. 두 개의 가지 돋친 장나무를, 위는 좁고 아래는 벌어지게 나란히 세우고 그 사이를 세장으로 가로질러 맞추고 아래위로 밀삐를 건다. ¶자그 어머니하고 둘이 모친 둘이 살다 가서는 자그 어머니 죽은거 어떡하는겨. 자그 혼자 인자 손그적대기다 뚤뚤 말어서 {지게다} 짊어지고서 따땃한디만 찾어가서 눈은 있잉게 한간디 한 산모퉁이 돌아간게나 눈이 다 녹아버?어 녹아버려.<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목발 없는 {지게를} 지고 산골자기를 올라가서 뻑다구(줄기) 없는 배나무에 배가 배가 주렁주렁 열렸다네<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올라갔어도 왈깍 짊어져도(짊어지지도) 못허고 지게질을 히봐야 그도(그것도) 허는 것인디.짊어지도 못헐 뿐더러 헐 맛이 그냥 안나, 안히봐서. 근게 첩첩산중으 들어가서는 {지게} 딱 받혀 놓고는 귀경(구경)만 허는 것여.<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둘이 {지게를} 딱 벗어 내쏘고 둘이 작대기 하나를 들고서는 인자 와서 쌔리먼 홀짝 나가네.<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잠시 소란 밥을 딱 먹고나서는 그분이 뭐라곤고는 영감님이 갈람서 뭐라곤고는 아, 그 {지게} 깔고 앉었던 자리 것다가 자리를 마련해줘. 말을 해줘요.<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암것도(아무것도) 없고 {지게허고} 낫허고 도치만 거가(거기에) 있네, 그런게 호랭이가 물어갔다고(하는 것은) 사실이지, 근게 마느래는 울고 불고.<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전북.

지게미 명 [대응어] 비듬.

살가죽, 특히 두피에 생기는 회백색의 잔 비늘. ¶머리에 {지게미가} 많다. ¶검은 교복을 입은 등 뒤에는 머리{찌게미가} 흐옅게 떨어져 있지만 아무도 신경쓰지 않았다. ¶순이 머리카락엔 허연 {지게미가} 많아 더럽게 보인다. ¶머리에 {지게미가} 많이 있으니 머리를 좀 감거라.

지역 고창, 남원, 무주, 부안, 완주, 임실, 장수, 진안.

지겟동발 명 [대응어] 동발.

지겟다리. ¶산에서 내려올 때는 {지겟동발이} 걸린게. 뒤로 찬찬히 보고 내려와야제.

지역 전북.

지곽 (地廓) 명

땅을 파 놓은 묫자리. ¶그리고 그 묏자리를 파서 {지곽을} 만들어 놨다.<구비문학대계 임실군편> ¶{지곽} 안에 물이 흥근히 괴어 있어서 명당 자리가 못되는가 부다 허고 그 자리를 그만두고 딴 데다 뫼를 썼어.<구비문학대계 임실군편>

지역 임실.

지구먹 명 [대응어] 쥐구멍.

☞쥐구먹.

지역 임실.

지그[1] 대 [대응어] 자기.

앞에서 이미 말하였거나 나온 바 있는 사람을 도로 가리키는 삼인칭 대명사. ¶아따, 고 자슥 {지그} 애비 타겨 갖고 아구똥허네 이~ 뻔시락 장난도 잘허고. ¶으따, 사내 새끼가 지조도 없이 이랬다 저랬다 허고 자빠졌네 영락 업이 {지그} 삼춘 타겨 갖고. ¶어매메 저 징헌 놈 보게, 어쩌믄 늘어빼서 으그대는 거시 {지그} 애비를 쏙 빼다 타겼으니 어쩌믄 쓰까이.

지역 전북.

지그[2] 대 [대응어] 저희.

앞에서 이미 말하였거나 나온 바 있는 사람들을 도로 가리키는 삼인칭 대명사. ¶인자는 {지그덜이} 다 알아서 헝게 내싸 두겨~ 긍게, 지비 꺽정이나 허겨 이~.

지역 전북.

지기[1] 대 [대응어] 자기.
☞저그. ¶그뿐인가…… 내가 {지기를} 죽이려고 했다고?<채만식, 과도기>
지역 순창, 완주.

지기[2] 명 [대응어] 지게.
짐을 얹어 사람이 등에 지는 우리나라 고유의 운반 기구. ¶아 덕석을 {지기다} 짊어졌네. 아두 놈을 짊어지고 인제 까닥까닥 가넌게, 송곳이 나와.<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지기랄 감 [대응어] 제기랄.
언짢을 때에 불평스러워 욕으로 하는 말. ¶쏘내기라도 한둘금 오제마는 {지기랄}.
지역 전북.

지까심 명 [대응어] 김칫거리.
김치를 담글 재료. ¶글먼, 거그 가서 {지까심} 허고, 아그들 밴또 싸 줄랑게 마른 새비 조까 사 옴서 날도 더웅게 냉콩국시랑 사 먹고 오게 이~ 고거슨 나가 개운허게 쏠랑게~. ¶{지까심은} 똥값이고 꼬칫금 새비젓값은 금값잉게 짐치를 흐크게 당그도 못허고.
지역 고창.

지깔이다 동 [대응어] 지껄이다.
약간 큰 소리로 떠들썩하게 이야기하다. ¶{지깔이는} 소리
지역 무주, 남원, 군산,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지깡지깡 명, 감 [대응어] 곤지곤지.
☞자깡자깡.
지역 김제, 무주.

지껑지껑 명, 감 [대응어] 곤지곤지.
☞자깡자깡.
지역 김제, 군산, 익산.

지꿔다 동 [대응어] 지껄이다.
약간 큰 소리로 떠들썩하게 이야기하다. ¶{지꿔는} 소리
지역 무주.

지끄레기 명 [대응어] 찌꺼기.
☞찌끄래기.
지역 남원.

지끼돗 명 [대응어] 덫.
짐승을 꾀어 잡는 기구. ¶저 강아지가 {지끼돗에} 걸려갖고 깽깽거리네. 얼마나 아플꼬. 얼른 꺼내 주자.
지역 진안.

지낭 명 [대응어] 제랑.
언니가 여동생의 남편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 ¶{지낭} 있는디 와서 있고. 속이 없어. 설인게 즈그 큰집 가야제 동생네 집이 와 있고.
지역 전북.

지내가다 동 [대응어] 지나가다.
어디를 거치거나 통과하여 가다. ¶가살일레 가살일레/시누 남편 가살일레/ 요내 문전 {지내감성}/ 부채초민 하고 가리(임실 발매는 소리)<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전북.

지내다 동 [대응어] 지나다.
어디를 거치어 가거나 오거나 하다. ¶가살일레 가살일레 시누남편 가살일레/요내 문전 {지내고} 감서 줄부채로 낯을 가리네/아이고 담담 내 설움

제워서 내 못 살것네(임실 밭매는 소리-풀뜯는 소리)<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임실.

지녁 명 [대응어] 저녁.
해가 질 무렵부터 밤이 되기까지의 사이. ¶오늘 {지녁} 고창 양반 옹글진 밤 되야부씨요. ¶그나지나 오늘 {지녁도} 술채니 충게 끄렁불 애끼지 말고 때고 고래구녕으로 쌩솔까지 서너 개 쪼셔 늫고 자믄 새복까징은 따닷흘 거쇼. ¶{지녁마다} 작은방으서는 엄니허고 할무니허고 가매니를 짜든 시절.
지역 고창.

지녁때 명 [대응어] 저녁때.
저녁인 때. ¶{지녁때} 댕게 믄 놈우 눈이 허천나게 와 갖고 고창서 흥덕 간 징헙디다.
지역 고창.

지느래미 명 [대응어] 지느러미.
☞지느레미.
지역 남원.

지느레미 명 [대응어] 지느러미.
물고기 또는 물에 사는 포유류가 몸의 균형을 유지하거나 헤엄치는 데 쓰는 기관. ¶치렁치렁한 {지느레미가} 달렸다.
지역 전북.

지다[1] 동 [대응어] 깁다.
떨어지거나 해어진 곳에 다른 조각을 대거나 또는 그대로 꿰매다. ¶옷이 찢어져 갖고 지어 입었어. ¶그 나이를 먹었으먼 양말은 니가 {지어} 신어야지. ¶엄마는 동생의 단추 떨어진 와이셔츠를 {지었다}.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지다[2] 동 [대응어] 싶다.
((동사 뒤에서 방언형 '-고 지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욕구를 갖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 ¶느들은 느들 하고 {진대로} 하고. 어머니 하고 {진대로} 하라고.
지역 전북.

지다리다 동 [대응어] 기다리다.
☞지달리다.
지역 전북.

지다리지다 동 [대응어] 기다려지다.
☞지달러지다.
지역 전북.

지달라지다 동 [대응어] 기다려지다.
☞지달러지다.
지역 전북.

지달러지다 동 [대응어] 기다려지다.
어떤 사람이나 때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다. ¶보고싶은 마음에 자꼬 {지달러지기고} {지달러지고} 한다. ¶엄마가 오시지 않자 {지달러졌다}.
지역 전북.

지달리다 동 [대응어] 기다리다.
어떤 사람이나 때가 오기를 바라다. ¶여기서 지달리고 있어라. ¶성적표가 올 그날을 {지달리고} 있어. ¶엄마가 곧 오시니 조금만 {지달려} 보자.
지역 전북.
해설 '지달리다'는 '기다리다'에 /ㄱ/ 구개음화가 적용된 '지다리다'에 다시 /ㄹ/이 덧나서 생긴 단어이다.

지달리지다 동 [대응어] 기다려지다.

☞지달러지다.

지역 전북.

지대다 동 [대응어] 기대다.

몸이나 물건을 다른 것에 의지하여 비스듬히 대다. ¶고 아래로 인제 이치게 인나갔고 간게 안새고 나뭇짐을 인제 그 큰 지와집 말여 대문 단집이다가, 떡 가서 문악으다 대문악으다가 {지대고} 앉어서 인자 날새기만 기다리고 있던가 보드만.<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그전이는 말여. 지금은 놓이니 이렇게 하지만 그전 구여라고 있읍니다. 큰 구여, 구여를 짜가지고서 그 거그를 {지대} 앉아서 바느질을 하고 앉었어.<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넘어지기 전에 나한테 {지대거라}.

지역 김제, 정읍, 무주, 군산, 완주.

지대로 부 [대응어] 제대로. ¶임 종자 술자 서방님 무서워서 김부월이 같은 약질 예펜네는 으디 숨이나 {지대로} 쉬고 살겄드라고?<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지댄썩허다 형 [발음] [지댄써거다/지댄써커다] [대응어] 기다랗다.

매우 길거나 생각보다 길다. ¶고구마 {지댄썩헌} 것.

지역 전북.

지댄하다 형 [대응어] 기다랗다.

매우 길거나 생각보다 길다. ¶"홀에미다리라는 {지댄헌} 돌다리가 있제."<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지댄하다'는 표준어 '기다랗다'에 해당한다. 소설 『혼불』에서 '높으댄허다, 크댄허다'가 등장하는 것으로 미루어 '길다, 높다, 크다'에 접미사 '-댄허-'가 결합한 파생어로 보인다.

지두리다 동 [대응어] 기다리다.

어떤 사람이나 때가 오기를 바라다. ¶그려, 믄수가 잇쓸거싱게 {지두려} 보게 이~. ¶쎄빠닥 잘못 궁글리면 황천 가 벌 수가 있응게 조심 허시요 염라대왕도 {지두리고} 앙거 있소. ¶그날 오기만 언능 후딱 학수고대 {지두리고} 있다 서대다 연속 서대다가 모가지만 질게 늘어나고. ¶이트까, 참을 만큼 {지두리다} 참었응게로 인자, 고만 찌륵찌륵 건드시요 이~. ¶또 그렇게 모가지 늘어지게 {지두리며} 또 그 년(年)은 왔는디. ¶거시기시러운 나의 맘 {지두린} 거시 솔찬

지역 고창.

지둘러지다 동 [대응어] 기다려지다.

☞지달러지다.

지역 전북.

지둘르다 동 [대응어] 기다리다.

어떤 사람이나 때가 오기를 바라다. ¶인제 점심때까지 {지둘를} 새가 없어요.<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내가 부지런히 갈 테니 그 때까지 {지둘러}. ¶그러게 서둘르지 말고 {지둘러} 봅시다. ¶사람이 {지둘르고} 있는지 뻔히 암서로 왜 안온다냐 언능 올일이지.

지역 군산, 익산.

지둘리다 동 [대응어] 기다리다.

☞지두리다.

지역 정읍.

지둥 명 [대응어] 기둥.

어떤 물건을 밑에서 위로 곧게 받치거나 버티는 나무. ¶{지둥} 뿌리 다 뽑히겄따아~ 인자는 빈대짓 그만 작파허고 엥간허믄 지비 드러가라

이~.

지역 전북.

지드란하다 형 [대응어] 기다랗다.

매우 길거나 생각보다 길다. ¶마당 가운데다가 {지드란한} 장대를 높으댄허게 세워 놓고이, 그 꼭대기다가 이 체를 딱 둘러씌워 놓는 거여.<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지드란하다'는 표준어 '기다랗다'에 해당한다. 전북 방언에서 '커드란하다, 지드란하다'가 쓰이는 것으로 보아 '길다, 크다'에 접미사 '-드란하-'가 결합한 파생어로 보인다.

지드란허다 형 [대응어] 기다랗다.

매우 길거나 생각보다 길다. ¶그놈은 짤롸서 안 된다. {지드란헌} 놈으로 히야겄다.

지역 전북.

-지라오 【종결어미】 [대응어] -습니다.

☞-겨라우.

지역 군산, 김제, 부안, 고창.

-지라우 【종결어미】 [대응어] -지요.

해요할 자리에 쓰여, 어떤 사실을 긍정적으로 서술하거나 묻거나 제안하는 따위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허지라우}<송순강(1986)>

지역 서부(군산, 김제, 부안, 고창).

지랄허다 형

곡식이나 열매가 잘 영글지 않고 품질이 떨어지는 상태에 있다. ¶메누리가 와서 고구마 다 골라 담더니만 나중에 본게 {지랄헌} 것만 냉괐드라고. ¶깡넁이 {지랄헌} 것만 나 먹으라고 담어줘, 시어머니가.

지역 전북.

지렁내 명 [대응어] 지린내.

☞지른내.

지역 고창, 정읍.

지렝이 명 [대응어] 지렁이. ¶요곳이 믄 글짜여 {지렝이가} 한잔 걸치고 춤 춤서 문대고 갔고만이라우.

지역 고창.

지루다 동 [대응어] 기르다.

식물을 심어 관리하고 자라게 하다. ¶그 아버지 묘도 치자먼 말허자먼 큰아버지 묫이거던. 그런게 해마닥 댕겨. 이놈들이 벌초를 저그매 때미로. 그서 그 선영을 다 풀을 안 {지루고} 좋게 살더라오. 그런 자석들을 두어야 자식이라고 허는디 시방 놈으 자식들은 산 지미 지애비도 몰라.<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보람이네는 닭장에서 닭을 {지루고} 있다.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부안, 완주, 정읍, 진안.

지르다[1] 동 [대응어] 내다.

돈이나 물건 따위를 주거나 바치다. ¶그냥 받어주간디?(요양원에) 돈을 질러야 허.

지역 전북.

지르다[2] 동 [대응어] 뿌리다.

눈이나 비 따위가 날려서 떨어지다. 또는 그리 되게 하다. ¶간수 {질러서} 독으로 눌러 놔. 그럼 두부가 되아.

지역 전북.

지른내 명 [대응어] 지린내.

오줌에서 나는 것과 같은 냄새. ¶그냥 죽겄어 {지른내} 나구. 오줌을 싼개.

지역 남원, 완주.

지름 명 [대응어] 기름.

물보다 가볍고 불을 붙이면 잘 타는 액체. ¶긍게, 놀부 심보지라우~ 불난 디다 {지름} 찌끄러 버린 거시나 진배 없당게요. ¶하도 언청, 요센 날씨 잡것드리 신천이 도매금으로 빠져갖고 {지름} 퍼먹은 강아지 되앗써요.

지역 고창.

지름병 (지름瓶) 명 [대응어] 기름병.

기름을 담아 놓고 쓰는 병. ¶엿장시 맘대로 가새 치는 대로 {지름병도} 받고, 보루바꾸 상지도 받고요.

지역 고창.

지리허다 형 [대응어] 불투명하다.

맑지 못하고 흐릿하다. ¶설탕 느먼 짓국이 {지리허}. 말짱허들(맑들) 않고.

지역 전북.

지발 부 [대응어] 제발.

간절히 바라건대. ¶그 꽃닢에 서운헌 맴 미련 냉기지도 말고 확실허니 날려 보냄서 풀어 빼리시요 {지발}! ¶워따, 저 자발시런놈, {지발}, 출석 조까 부르먼 나와야. ¶{지발}, 속 좀 채려라 이~. ¶징허게 일도 앙굴고 차말로 옹삭흐고 까깝시랍고 {지발} 낼부텀 한사날 빤 해쓰믄 쓰긋다. ¶인자라도 {지발} 정신 조까 차려라 이~. ¶어야, 거시기는 구신도 모릉게, 싸목싸목 차근차근이 조까 알켜 주랑게, {지발} 서대지 말고 이~. ¶으찌튼간에 때까우

지역 고창.

지발덕덕 (悳悳)) 부 [대응어] 제발, 제발 덕분(에).

간절히 은혜나 도움 따위를 바라건대. ¶"{지발덕덕} 챙피헌 지나 쪼깨 아시요!"<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발덕덕} 무신 문제가 생겨돌라고 떡 쪄놓고 고사라도 지낼 작정인가?"<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월아, 적선허는 폭잡고 {지발덕덕} 내 말 쪼깨 들어봐라."<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지발덕덕'은 표준어 '제발 덕분'에 해당한다. 표준어 '제발'은 전북 방언에서 '지발'로 나타난다. 표준어 '덕분(悳分)'은 "베풀어 준 은혜나 도움"이란 뜻으로 '덕(悳)'으로도 쓴다. 따라서 '지발덕덕'은 '지발'과 '덕덕(悳悳)'이 결합된 합성어이다. "덕분"의 뜻으로 '덕덕'을 쓴 것이다.

지발덕분 (悳分)) 부 [대응어] 제발, 제발 덕분(에).

간절히 은혜나 도움 따위를 바라건대. ¶"어서 가씨오. {지발덕분에} 어서 가시오. 밸일이 있어도 오늘 저닉에는 안돼요."<송기숙, 녹두장군>

지역 전북.

해설 표준어 '제발'은 전북 방언에서 '지발'로 나타난다. 표준어 '덕분(悳分)'은 "베풀어 준 은혜나 도움"이란 뜻이다. '지발덕분, 지발덕분에'로 주로 사용된다.

지벙끄터리 명 [대응어] 처마.

벽면 밖으로 나와 있는 지붕의 부분. ¶{지벙끄터리에} 풍경을 달아 놨다.

지역 남원.

지봉 명 [대응어] 지붕.

눈비, 햇빛 따위를 막기 위하여 집의 위쪽을 덮어씌우는 덮개. ¶응, 날개 영끌 쩌그 {지봉} 올라갈라고 날개 영짜네요?(응, 이엉 엮을 적에 지붕 올라가려고 이엉 엮잖아요?)<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그래 한 번은 놈집을 그만 살고 나가랴. 나가라고 해서 그 우렁을 잡아다가 벽장에다 놓고 초가집 {지봉에서} 사는디, 아 우렁이를 잡아온 지 열흘이 됐던가 한 달이 됐던가 했는데 나갔다 오니께 밥을 싹 해 놨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가을이면 {지봉에}

박이 주렁주렁 매달린다.

지역 고창, 김제, 남원,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정읍.

지불지불하다 동 [대응어] 지껄이다.

약간 큰 소리로 떠들썩하게 이야기하다. ¶{지불지불하는} 소리

지역 전북.

지붕날맹이 명

지붕 등성이의 가장 높은 부분. ¶한 주먹씩 한 주먹씩 쭉 엮어서 이렇게 말아 놨다가 {지붕날맹이다} 올려가꼬 빵 돌아감서 덮어 자꼬. 빵빵 돌아.

지역 완주.

지붕말랭이 명 [대응어] 용마루.

지붕 가운데 부분에 있는 가장 높은 수평 마루. ¶들어가가지고 밤으 가서 사방으다가 00명씩 딱 허니 배치를 허놓고 중앙에다 00명을 배치혀 놓고는 어떻게 혔던지 허서 수로의 {지붕말랭이로} 올라갔어요.<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그런게 일번 나오더니마는 그 반장이 한다 소리가 말이지. “하 당신네 큰일났다. 저 송아지가 {지붕말랭이} 올라갔으니 이 큰일났다.” 고.<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군산, 정읍.

지붕처매물 명 [대응어] 낙숫물.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 ¶{지붕처매물이} 떨어진다.

지역 무주.

지비 명 [대응어] 제비. ¶그런디 널니리가락 그냥 지와집이 바깥 대문, 안 대문 해서 {지비도} 못 날아들게 생긴 집이 이웃이가 있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비란} 높은 모냥이 고와 기상으 깜으로 돌려라/ 똥그랑 땡 똥그랑 땡 얼싸 절싸 잘 넘어간다 똥그랑 땡 똥그랑 땡(고창 똥그랑 땡)<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완주.

지뼘 (指뼘) 의명 [대응어] 뼘.

길이의 단위. 한 뼘은 엄지손가락과 다른 손가락을 한껏 벌린 길이이다. ¶너 이것을 타고 싶으면 한 {지뼘은} 더 커야 혀. 내년에 여그 또 와서 그 때 타자.

지역 무주.

지사 명 [대응어] 제사.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냄. 또는 그런 의식. ¶“이 돈은 우리 아버지 {지사를} 지낼라고 내가 농예소를 팔어 가지고 오는 길이닝가 반절을 줄테니 반절을 가지고 가고, 반절은 내가 우리 아버지 {지사를} 지내얄 것이 아니냐.”<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하나는 할멈 {지사가} 돼서 {지사를} 지내는디, 아 며느리가 음식 장만을 해서 {지사상을} 딱 채려 놨어.<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그냥 이러캐 {지사를} 이캐 몯 자소니(자손이) 업써 {지사를} 모더더 먹꼬 저 떠도라 다니는 귀시니 읻띠야.<지역어 자료 총서, 무주> ¶“저 죽은 댐이 {지사} 지내 줄 놈 한나 없응게 남덜도 모다 그런 종 아는가 분디 …….”<윤흥길, 장마> ¶퍼묵을 것도 시원찮게 쪼잔허게 사는디 먼 놈우 {지사는} 뻔질나게 돌아온다냐.

지역 전북.

지새 명 [대응어] 박쥐.

☞쥐새.

지역 전북.

지수 (弟嫂) 명 [대응어] 제수.

남자 형제 사이에서 동생의 아내를 이르는 말. ¶'지사는 지 우리가 맡아서…, 큰집이서 지내는 것인디 우리가 맡아서… 모르겄다'고 야단방구를 쳐. {지수가}?, {지수가} 정지서 밥을 험서. 그 팔월 한 이십일끄나 되았는디 온다 간닷 말없이 일어나서 강 두루매기 들고 나와서 입고 강 집이를 와.<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고창, 정읍.

지수씨 명 [대응어] 제수씨.

동생이나 동생뻘 되는 남자의 아내를 높여 이르는 말. ¶막내 {지수씨가} 교장 승진이라오~.

지역 고창, 정읍.

지시다 동 [대응어] 계시다.

☞기시다. ¶사흘은 있다올틴게 사흘을 먹을 것을 다 준비혀서 놓고서는 사흘만 있다가 올터니 어머니 잘 {지시라고} 그러고서 인자 갔어.<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무주, 부안, 완주, 익산, 진안.

지시락물 명 [대응어] 기스락물.

☞지시랑물. ¶덕쇠 모자는 그래도 모서리 빠진 개다리소반이나마 {지시락물} 같은 간장 한 종지, 쓰디쓴 김치 한 사발은 놓고 앉아 맞상을 받고<채만식, 정차장 근처>

지역 고창, 익산.

지심매다 동 [대응어] 김매다.

논밭의 잡풀을 뽑아내다. ¶아주까리 기름을 바른 이가 {지심매던} 그 들이라도 보고 싶다<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해설 '기심'은 역사적으로 '기ㅿㅡㅁ, 기음'에서 발달한 것으로 한자어 '草'에 대한 우리말이었다. '기심'에서 '기>지'의 구개음화를 겪어 '지심'이 된 것이다. '지심매다'는 "풀을 뽑다"라는 뜻이다. '김을 매다'가 굳어져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작품에서는 '지심 매다'와 같이 띄어 쓰는 경우가 많다.

지아밟기 명

여러 사람이 허리를 굽힌 채 몸을 나란히 이어 놓으면 한 사람이 양쪽 두 사람의 부축을 받아 등을 밟고 지나가는 전통 놀이. 등을 밟힌 사람은 다시 맨 앞으로 가서 엎드린다. 추석이나 정월 보름에 여자들이 하였다. ¶{지아밟기} 허고 놀아.

지역 전북.

지안 명 [대응어] 겨울.

☞시안.

지역 전북.

지앙 명 [대응어] 제사.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냄. 또는 그런 의식. ¶"아, 그런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와 갖고 맷동에서 잔디, 엊지녁에 {지앙이라고} 내 날이라고 이야기 했다." <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저 어쩌녀그 {지앙} 모셴씨먼 {지앙} 모신네, 그러고 가따주지요.<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낮이 한번 {지앙이} 돌아와서 우리 자부는 참 온 샘일만에 울 아버니 {지앙이} 돌아와서, 우리 집이를 우리 큰집이를 {지앙을} 모시러 우리 마느래는 다 계속해 전부 거가서 음석 십정허러 인자 갔고, 인자 새로 온 메누리는 '집이 있거라'허고 내가 아랫방 사랑으 가서 있다가 잠 때가 되아서 내 거그를 밥을 먹으로 내 갔었소.<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임실, 남원, 정읍.

지앵 명 [대응어] 제사.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냄. 또는 그런 의식. ¶기양, 지양모시데끼(제사 모시듯이) 산 진 산: {지앵이다고}, 사과, 배 그거를 참 골고루 허.<2009 전북 임실> ¶기양, 지양모시데끼(제사 모시듯이) 산 진 산: {지앵이다고}, 사과, 배 그거를 참 골고루 허.<2009 전북 임실>
지역 전북.

-지야 【종결어미】 [대응어] -지.
해할 자리에 쓰여, 어떤 사실을 긍정적으로 서술하는 종결 어미. ¶너기 야 담어 {왔지야}.<김옥화(2004)>
지역 전북.

지양 명 [대응어] 조왕.
부엌에서 솥이 걸린 부뚜막이 있는 안방쪽의 벽. 혹은 그 부뚜막과 솥을 주관하는 신. ¶새각시가 시집오먼 먼저 {지양에다} 대고 절혀.
지역 전북.

지양깨미 명
구운 기와의 가루. ¶{지양깨미}, {지양깨미가} 내나 거시기여. 세멘가리맹이 그렇게 생겼었어. ¶옛날에 저 기와, 꾼 기와. 꾼 기와는 흑으로, 흙으로 모냥을 맨들어서 그 불에다 꾸는 것이거든. 꾸는 기와를 {지양깨미라고} 그랴.
지역 장수.

지양시럽다 형 [대응어] 부잡스럽다.
장난하는 태도가 있다. ¶반룽 양반은 나이를 잡솨도 {지양시러운게} 안 늙어 봬.
지역 전북.

지영 명 [대응어] 저녁.
해가 질 무렵부터 밤이 되기까지의 사이. ¶아따, 인자는 {지영} 때만 되믄 쎄코롬헝 거시 으실으실 추아지네 이~. ¶아, 으악새 슬피 크게 웅게 가실잉가 햇등만 기냥 해찰 서대다 {지영} 술참까장 낮잠 오수 퍼 자고 낭게 시방도 삼복 더우속이다.
지역 고창.

지영때 명 [대응어] 저녁때.
저녁인 때. 또는 저녁밥을 먹는 때. ¶신기록 세웠다고 되되허게 거덜먹거리는 유월(六月)이 백몇십 년만에 도도허게 갈아치운 높은 온도 속에 시방은 {지영때} 여섯시를 갈킨다. ¶때까우야 어지끄 {지영때} 잠깐 낮바닥 비치고 오늘은 아지끼랫너 사방을 구다봐도 비든 안코 ¶{지영때} 댕게 바람도 겁나게 불고 강치할라 흐드만. ¶오사고 암만 장마철이라고는 흐지만 {지영때만되믄} 찌럭찌럭 잡녀르 비가 왓쌋능가 모르긋다.
지역 고창.

지영밥 명 [대응어] 저녁밥.
저녁에 끼니로 먹는 밥. ¶언능, 후딱 쉬 허고 {지영밥} 맥여야제. ¶언능 {지영밥이라도} 쳐알겨라 이~.
지역 고창.

지와집 (지瓦집) 명 [대응어] 기와집.
지붕을 기와로 인 집. ¶아이고, 지지리도 옹삭허고 못사는 놈이 믄 났다고 {지와집만} 짓은다고 지랄, 자발 떰성 난리방구다냐.
지역 전북.

지우다 동 [대응어] 깁다.
떨어지거나 해어진 곳에 다른 조각을 대거나 또는 그대로 꿰매다. ¶찢어진 옷을 {지워} 입었다.
지역 장수.

지우제 명 [대응어] 기우제.
고려와 조선 시대에, 하지(夏至)가 지나도록 비가

오지 않을 때에 비 오기를 빌던 제사. 나라에서나 각 고을 또는 각 마을에서 행하였는데, 제주(祭主)는 왕 또는 지방 관원이나 마을의 장이 맡았다. ¶오지 않는 것은 뭇 때문이냐는 질문에 흑산도 홍어횟속에 맘 {지우제} 지내며 모지락시럽게 비가 오면 모지락스럽게 욕도 않을 턴디.
지역 고창.

지운옷 명 [대응어] 누더기.
누덕누덕 기운 헌 옷.
지역 임실.

지울다 동 [대응어] 기울다.
비스듬하게 한쪽이 낮아지거나 비뚤어지다. 또는 생각이 한쪽으로 쏠리다. ¶폴뚝이 안에로 지울제 바깥으로 {지울든} 안응게 알아서 허겨 이~. ¶폴뚝이 안에로 {지울제} 바깥으로 {지울든} 안응게 알아서 허겨 이~. 한쪽이 낮아지다. ¶뎃박얼 요롷게 {지울어야} 그 속잇 것이 떨어질 거 아니것어. ¶어느 쪽에도 {지울지} 않는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
지역 전북.

지웃거리다 동 [대응어] 기웃거리다.
무엇을 보기 위해서 자꾸 넘어다 보다. ¶남의 집에 자꾸 {지웃거리면} 못 쓴다
지역 전북.

지을 명 [대응어] 밀기울.
☞밀지울.
지역 무주.

지장 명 [대응어] 굽도리.
방 안 벽의 밑부분. 또는 방 안 벽의 아랫도리에 바르는 종이. ¶{지장얼} 발르는 거시여.
지역 무주, 장수.

지지개 명 [대응어] 기지개.
피곤할 때에 몸을 쭉 펴고 팔다리를 뻗는 것. ¶스쳐갈 때마다 풀이란 풀, 나무란 나무는 환성을 지르듯 푸른 {지지개를} 켜며 우쭐거려 일어서고, 골짜기를 흐르는 물소리는 차츰 맑고 크게 <조정래, 태백산맥> ¶얼매쯤 그러고 있는 순간인디 대처 인자 한소금 잤는가 {지지개를} 쓰고 불끈, 감히 그런데는 손을 못 대드만.<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딱 꿇고 앉아서 깨기만 지달러. 그래갖고 있는디, 얼만큼 있다가는 {지지개} 불끈 씀서, “아이쿠, 내가 어디로 잠을 자고 있는고.” <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한 쪽을 깍어놓고는 한숨을 쉬고 앉었어. 안깍은 쪽으로 오게. {지지개} 한 번 쓰고는 돌아눠줬어.<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전북.

지지개 명 [대응어] 기지개.
피곤할 때에 몸을 쭉 펴고 팔다리를 뻗는 것. ¶진드시 눌으며 {지지기} 쓰니<완판본 열여춘향수절가上>
지역 전북.

지지근허다 형 [대응어] 뭉근하다.
세지 않은 불기운이 끊이지 않고 꾸준하다. ¶{지지근허니} 쌂아야 허. 파싹 때 버리면 쾽이.
지역 전북.

지집 명 [대응어] 계집. ¶으떻든지 살어보겄다고 어거지로 울음 품팔이허는 {지집이} 불쌍치고 않나? 소질도 없는 눈물 품팔이허는 {지집이} 니 눈구녁에는 게우 배우로뿐이 안 뵈냐?<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멋에 지쳐서 거러지 서방을 얻는단 말도 있기는 허드라만, 그래 어디 {지집이} 없어서 그 얌전헌 시악시 다 마다허고, 기껏 골르고 골라서 자식 딸린 홀에미여어.<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지집아 (←기집兒) 명 [대응어] 계집아이.
시집가지 않은 어린 여자 아이를 낮잡아 이르는 말. ¶삼족구(三足狗)라고, 새 발 돋힌 괭이(고양이). 개도 세 발 돋힌 개가 있어. 삼족구나 그걸 귀별히서 손소매 속으 놓다가서,[바꿔서], 그것이 {지집아} 혼을 빼갖고서 대청이서 놀우. 노는디 그것 콩소매 속으다 그전이는 창옷이나 도포옷 입고 댕어.<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집아에} 다 탁 내부친개로 {지집아가} 그냥 맞아서 직사를 해 부렀드랴. 그래 몸종 지집이라 쨍쨍하고 부자인개로 남에 자식인개,<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아, 저그 아부지는 혔다고 허고 고놈은 안 했다고 주거니 받거니 허는디 {지집아는} 점심 쌀을 씻쳐 밥을 헐라고, 쌀을 씻다 들어본게 금방 아측으 헌 자식이 안 혔다고 잡어뗀게 부애가 난단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그런 뒤에 이 {지집아} 좋은 애기를 배서 열 달 만에 애기를 났넌디 아덜을 났어.<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사내아이는 질게 잘 배워야 허지만 {지집아들이} 배워서 어디다 쓴다냐. 매급시 돈만 축내지 말고 시기는대로 혀.
지역 무주, 부안, 순창, 고창, 김제, 군산, 익산, 진안.

지집질 명 [대응어] 계집질.
본처가 아닌 여자와 정을 통하는 일을 낮잡아 이르는 말. ¶이놈아, {지집질이고} 첩질이고 헐라먼 야물딱지게 헐 일이제 요것이 무신 꼬라지냔 말이여. 몸 상허고 망신 사고, 요것이 어디 나잇살이나 묵은 사내자석이 헐 일이냐.<조정래, 아리랑> ¶해 넘어가고 달 떠올르는지 몰를 지경으로 날이면 날마다 {지집질에다} 노름질에다 술질로 세월을 삼음시나 왼갖 개망나니 노릇을 왕년에 혼자서 도맡어서 죄다 허본 솜씨랴.<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지집질 명 [대응어] 계집질.
자기 아내가 아닌 여자와 정을 통하는 일을 낮잡아 이르는 말. ¶그런디, 이녁은 {지집질} 허다 걸리먼 디질 줄 각오 허시요.
지역 고창.

지집혼불 (지집魂불) 명 [대응어] 계집 혼불.
여자의 혼. 죽기 얼마 전에 몸에서 빠져나간다고 하는데, 크기는 종발만 하며 맑고 푸르스름한 빛을 띤다고 한다. 여자의 것은 둥글고 남자의 것은 장닭의 꼬리처럼 꼬리가 있으며 여자의 것보다 좀더 크다고 한다. ¶간밤에 동니서 {지집혼불이} 떼거리로 나간 거 아녀!<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지천꾸러기 (至賤꾸러기) 명 [대응어] 천덕꾸러기.
남에게 천대를 받는 사람이나 물건. ¶그런데 불행이 엎치고 덮쳐 가래가 찢어지게 어려운 처지인데다 대상이 다름아닌 우리집 {지천꾸러기} 막내였던 것이다.<윤흥길, 양> ¶우리집 {지천꾸러기} 워리란 놈이 전에 없이 사납고 우람찬 소리로 짖어 대기 시작했다.<윤흥길, 장마> ¶부월은 당연히 그래야만 될 것 같아서 하늘같이 섬기는 가장이라도 되는 양 {지천꾸러기} 남편을 깍듯이 높여 말했다.<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해설 '지천(至賤)'은 "더할 나위 없이 천함, 매우 흔함"의 뜻이다. '지천꾸러기'는 '지천'에 접미사 '-꾸러기'가 결합된 파생어이다. '-꾸러기'는 명사 뒤에 붙어 "그것이 심하거나 많은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지천꾸레기 (至賤꾸레기) 명 [대응어] 천덕꾸러기.
☞지천꾸러기. ¶그놈은 가는 디 마다 말 짓만 허

고 댕기는 아주 {지천꾸레기였어}.

지역 전북.

지천하다 (至賤하다) 동 [대응어] 지청구하다.

까닭 없이 남을 탓하고 원망하다. ¶누가 누구를 {지천하는가}

지역 전북.

지철 명 [대응어] 제철.

알맞은 시절. ¶{지철에} 난 가실을 깎아 먹어야 건강허제.

지역 전북.

지추 (←) 柱礎 명 [대응어] 주춧돌.

기둥 밑에 기초로 받쳐 놓은 돌. ¶{주추를} 놔야 한다. ¶{주추여다} 지둥을 괜다.

지역 무주.

지충개 명 [대응어] 지칭개. ¶{지충개야} {지충개야}/마사산천 {지충개야}/겉잎 같은 우리 어머니/속잎 같은 나를 두고/싫은 덕시 가셨는가/시수물언 쑥물로 허시고/떳장이불 둘렀는가(지칭개야 지칭개야/만산산천 지칭개야 우리 겉잎 같은 우리어머니/속잎 같은 나를 두고/싫은 듯이 가셨는가/세수물은 쑥물로 하시고/뗏장이불 둘렀는가) (임실 신세타령-"지충개야 지충개야")<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충개야} {지충개야}/만사지추 {지충개야/ 떡닢 같은 우리 어머니/반달 같은 나를 두고/어느 고여 잠이 들어/구왕문이 저승이면/옴서 감서 보련마는(정읍 신세타령-지충개타령)<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임실, 정읍.

지침 명 [대응어] 기침. ¶이것이 긴가민가허다 저것이 서모 밑이서 큼서 홈순발로 걸음도 못 걸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말 한 마디를 크게 못허고 {지침} 한번 크게 허기가 그렇다.<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근디, 이 눔이 또 꾀가 있는 눔이라 바로 문 앞이서 지침하고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변솟간에 감서 '에헤헴' {지침을} 허고 근개, "아, 시간은 넉넉허구나. 감출 시간은 넉넉허구나."<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캉캄헌 이불 속으서 똑 숨이 맥혀 죽겄는디 {지침도} 못허고, 메주 띄우디끼 진득허게 몸뗑이를 띄움서 참고 있능 거이라.<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지침하다 동 [대응어] 기침하다. ¶그 갱엿물을 서너 시간 간격으로 먹여 하루가 지나면 어진간한 기침감기는 떨어지게 마련이었다. "또 엿물을 맨들라고요. 종남이가 {지침헌} 지 메칠 되얐제라?" 언제 나왔는지 모르게 소화가 옆에 서 있었다. <조정래, 태백산맥> ¶그 나갈 시간이 되니깐 나와가서는 후원 별당 돌기는 관두고 거가서, "허험." 이렇게 {지침허넌게}, 아니나 다를까 술상이 나온다 그란 말여요.<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한 번은 어디 갔다 오다 곰곰 생각헌게 요것이 문악으서 {지침허고} 들오락 헐 때 이 산중으서 아마 외간 간부나 두고 있나 이런 생각이 났다 이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지파이 명 [대응어] 지팡이.

☞지팽이.

지역 전북.

지팽이 명 [대응어] 지팡이.

걷거나 설 때 몸을 지탱하기 위하여 짚는 막대기. ¶사명당이 괴이해서 스승한테 여쭤봤겄다. 그렁게는 원효대사 왈. "그것이 변동천하(變動天下)란 거이다, 이놈아." 허고는 {지팽이로} 딱,

소리가 나게 사명당 머리빡을 때려 부리네.<최명희, 혼불> ¶너 여 저 모퉁이서 쉬고서 한 백 메타 간다든지 한 이백 메타찜 가먼은 모퉁이 돌아가먼 봉사가 {지팽이} 짚고 더듬더듬 올 것이다.<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 "이때 이지발대란 놈이 이리 넘어와서 황산(荒山)이 어디냐고 물을 것이다. 물으면 노파가 나서서, '내가 쇠 {지팽이} 다 닳도록, 쇠나무깨가 다 닳도록 여기서 살아도 황산이란 것은 이름을 못 들었소' 이렇게만 말하라."<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아이 업은 부인이 장군의 배필로는 당치않고, 그 주변에는 다른 사람도 없었거든. 그러자 이 대사가 좀더 바싹 가찹게 {지팽이} 끝을 들이밀어 가리키는데, 아 이게 웬일이냐, 지팽이는 그 갓난애기를 똑바로 가리키고 있지 않어?"<최명희, 혼불>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임실, 군산, 부안, 완주, 정읍.

지푸다 형 [대응어] 깊다.

겉에서 속까지의 거리가 멀다. ¶다: 사람 융노로 사부로 파서 지개에다 저가꼬, 그양, 노푸고 {지푸고} 헝거 다 고룰라먼 사람 인려그로 헝개 얼매나 도니 마니<2005 전북 남원> ¶지리산으로 들어갈수록 골짜기가 {지푸다}. ¶이 우물은 너무 {지푸니}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거라.

지역 김제, 남원, 부안, 익산, 임실, 장수, 정읍, 고창, 무주, 순창, 군산, 완주, 진안.

지푸락[1] 명 [대응어] 지푸라기.

벼 등 곡식의 낟알을 떨어내고 남은 줄기 또는 부스러기. ¶"오늘은 사내끼라도 꽈라(꼬아라)." 밥을 갖고 저녁으 와본게 사내끼 스 발(세발)을 꽜어(꼬았어). "야, 이놈 자식아, {지푸락} 얻어다 준게 점드락(하루종일) 진진해여. 사내끼 스 발을 꽜느냐, 아! 이놈으 자식아! 그놈 갖고가서 생전(평생) 빌어 먹어라."<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정읍, 군산.

지푸락[2] 명 [대응어] 볏짚.

벼의 낟알을 떨어낸 줄기. ¶마당에 지푸락을 쌓아 두었다. ¶{지푸락을} 엮어 지붕을 이었고, {지푸락을} 잘라서 소여물도 주었지. ¶올으는 가뭄이 지독허더만 나락농사가 아니라 {지푸락} 농사만 지었네. ¶{지푸락을} 썰어 소 먹이를 하였다. ¶근게 방으로 들어서 앉혀 놓고는, "당신이 오늘 저녁으 가서 주인양반 보고 {지푸락} 한 다발만 돌라갖고 그 놈 {지푸락} 한 다발만 나를 갖다 주시라." 고. 그러거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고창, 군산, 남원, 부안, 임실, 정읍.

지푸래기 명 [대응어] 지푸라기.

벼 등 곡식의 낟알을 떨어내고 남은 줄기 또는 부스러기. ¶그거슬 그 자리에서 인제 그 홀트면 인제 그 {지푸래기는} {지푸래기로} 나오고 나라근 또 나락, 인자 나오고 그럴 꺼 아녀?<지역어 자료 총서, 고창> ¶저릅떼기에다 삼따발 이만치 뭉꺼갇꼬 삼따바르다 {지푸래기를} 요만썩 히갇꼬 쨈미놔.(겨릅대에다가 삼다발 이만큼 묶어갖고 삼다발에다 지푸라기를 이만큼씩 해갖고 묶어놔.)<2009 전북 임실> ¶하루는 비가 줄줄이 오는디 처맷물이 지붕이서 내려가지고 이 {지푸래기가} 두 간디서 한터로 이케(이렇게) 합방쳐 가지고 그 물이 한터로 양쪽으서 흘러 내리가지고 쏟아지는디 버큼(거품)이 뻑짝뻑짝 흘른다 말이요.<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김제, 고창, 임실, 군산.

진갈이 명

세 번째 논갈이.

지역 전북.

진광 명 [대응어] 광.
세간이나 그 밖의 여러 가지 물건을 넣어 두는 곳. ¶광을 {진광이라고} 그려. 그때는 쌀도 {진광에다} 감췄다가 내줘.
지역 전북.

진눙깨미 명 [대응어] 진눈깨비.
☞진는깨미.
지역 고창.

진는깨미 명 [대응어] 진눈깨비.
비가 섞여 내리는 눈. ¶"함박눈은커녕 {진눈깨비도} 안 오겠는걸." "두고 보십쇼. 제 몸뚱이 속에는 관상대가 몇 군데나 있습니다."<윤흥길, 비늘>
지역 전북.

진다래꼿 명 [대응어] 진달래꽃
진달래나무의 꽃. ¶애, 기냥 {진다래꼬슨} 따다 멍는디, 따다가 그노먼 인재 머 술도 당구고 머 헌디, 개진달래는 암 머거요.(예, 그냥 진달래꽃은 따다 먹는데, 따다가 그 놈은 이제 뭐 술도 담고 뭐 하는데, 개진다래는 안 먹어요.)<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지역 임실

진달레꼿술 명 [대응어] 진달래술.
진달래꽃을 넣어 빚은 술. ¶진달래꽃을 꺾어 와 {진달레꼿술을} 담근다.
지역 익산, 무주, 부안, 임실, 진안.

진달레술 명 [대응어] 진달래술.
진달래꽃을 넣어 빚은 술. ¶봄에 담가둔 {진달레술을} 여름에 마신다. ¶달착지근헌 {진달래술} 몇 잔 들어가면 두보가 아니더라도 시가 나오지. 안 그려? ¶봄에 진달레 따다가 {진달레술} 담으면 맛있다.
지역 김제, 순창, 완주, 익산, 군산, 진안.

진달리 명 [대응어] 진달래.
☞진달레. ¶사네넌 보미먼 {진달리꼳}.(산에는 봄이면 진달래꽃.)<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지역 부안, 익산, 임실.

진달리꼿 명 [대응어] 진달래꽃 ¶펄쌔 뒷산으가 {진달리꼿이} 핀 거 봉게 봄은 봄이네.
지역 전북.

진달리꼿술 명 [대응어] 진달래술.
☞진달레꼿술.
지역 부안, 정읍.

진더개 명 [대응어] 진드기.
¶{진더개를} 죽일라먼 인제 이불을 싹 다 걷어다가 햇볕에 빠삭빠삭하게 말려야 돼.
지역 순창.

진더게 명 [대응어] 진드기.
☞진더개.
지역 전북.

진도리 명
뛰어 달리는 놀이. 출발선 정해 놓고 목표 지점까지 달려 갔다 출발선으로 돌아오는 일. ¶저기까지 뛰어 갔다 오는 진도리. 나는 누구한테 지고는 못 살았네이. {진도리도} 등,
지역 전북.

진두깨비 명 [대응어] 진눈깨비.
비가 섞여 내리는 눈. ¶{진두깨비가} 내린다.
지역 고창.

진두리 명 [대응어] 굽도리.
☞젠두리.

지역 완주, 정읍.

진두배기 명 [대응어] 진드기. ¶{진두배기가} 사람이고 동물이고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거여.
지역 고창.

진두베기 명 [대응어] 진드기.
☞진두배기.
지역 전북.

진두차리 명 [대응어] 도깨비바늘. ¶요거시 {진두차리로고}<완주 지역어 텍스트>
지역 김제, 남원, 부안, 장수, 완주.

진둥개 명 [대응어] 진드기.
¶벗었다는 소리 안 들을 만큼만 부월은 아무거나 얼른 몸에 둘렀다. "아주까리에 {진둥개맨치로} 부부찌리 손발이 처어척 잘 도 맞어서 한참 기세 좋게 잘 나가는 판국인디 자발맞게 웬 뜬금없는 이혼타령이랴?"<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암디 오다가 하두 더웁긴허고 어디 그늘 밑이 쉬어가는디 소새허구 {진둥개허구} 둘이 앉어 토론헙디다. 진둥개라고 똥 못싸고, 쇠(牛) 등어리서 배차(배추) 잎 뜯어먹음서, 아주까리 같이 생긴 것이여.<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아침에 조회(朝會) 보로 들어오넌디 질갓이서 {진둥개} 한 마리가 잔득 뜯어먹고 배가 땡땡 불러갖고 그대로 있다가는 죽게 돼서 지내가넌 땡기벌 보고 지 똥구녁얼 좀 쏴서 똥 좀 나오게 히돌라고 헝께,<구비문학대계 임실군편> ¶어렸을 땐 {진둥개}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지.
지역 김제, 부안, 군산, 임실, 정읍, 진안, 완주, 익산, 장수.

진둥게 명 [대응어] 진드기.
☞진둥개.

지역 전북.

진드개 명 [대응어] 진드기.
¶얼매나 안 치고 안 씻고 사는가 집에 이불이가 {진드개가} 바글바글혀.
지역 남원.

진드깨비 명 [대응어] 진눈깨비.
☞진두깨비.
지역 군산.

진드미 명 [대응어] 진드기. ¶옛날에는 {진드미} 때문에 고생을 겁나게 했지.
지역 완주.

진듯이 부 [대응어] 진득이.
잘 끊어지지 아니할 정도로 눅진하고 차지게. ¶공불 할라면 {진듯이} 앉아서 해야지. 한 10분 공부하고 돌아대니면 무슨 공부가 되겄어요.
지역 전북.

진등개 명 [대응어] 진드기.
☞진둥개.
지역 완주, 익산, 장수, 임실.

진뜨물 명 [대응어] 진딧물. ¶화분에 {진뜨물이} 보이기 시작허면 금세 퍼진개로 바로 약을 치야돼. ¶고추닢에 {진뜨물이} 더덕더덕 붙었는디 언능 약좀 쳐야겄어 내비두면 한나도 못건져.
지역 김제, 군산.

진버짐 명 [대응어] 진버짐.
얼굴에 생기는 피부병. 그 부위를 터뜨리면 진물이 흐른다.
지역 남원, 부안, 순창, 정읍, 김제, 무주, 군산, 완주, 익산, 진안.

진역살이 명 [대응어] 징역살이.
징역형을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일. ¶글고, 으시 딱딱허게 넘을 잘도 둘려먹도만 결국은 {진역살이} 험서 사기꾼 되았을 꺼시고만.
지역 고창.

진저리꼽재기 명 [대응어] 구두쇠.
☞진지리꼽재기. ¶이악하대서 '살쾡이'라는 별명을 듣고 인색하대서 '{진저리꼽잭이}'라는 별명을 듣고 잔말이 많대서 '담배씨'라는 변명을 듣고 하든 시어머니 오씨<채만식, 천하태평춘>
지역 전북.

진저리꼽쟁이 명 [대응어] 구두쇠.
돈이나 재물 따위를 쓰는 데에 몹시 인색한 사람. ¶으휴, 저 {진저리꼽쟁이}!, 저 돈 다 이고지고 저승길에도 갈란개비다. ¶영호는 {진저리꼽쟁이라} 밥 얻어먹기는 틀렸어.
지역 전북.

진조한아씨 명 [대응어] 증조할아버지.
아버지의 할아버지. ¶{진조한아씨가} 할아버지의 아버지.
지역 고창.

진조할매 명 [대응어] 증조할머니.
아버지의 할머니. ¶뒷동 묘 있잖여, 거가 {진조할매} 묘잖여.
지역 고창.

진지꼽재기 명 [대응어] 구두쇠.
☞진저리꼽쟁이.
지역 고창, 남원.

진지리꼬꼽쟁이 명 [대응어] 구두쇠.
돈이나 재물 따위를 쓰는 데에 몹시 인색한 사람. ¶니가 영판 {진지리꼬꼽쟁이} 짓 헝게 칭구가 있겄냐?
지역 고창.

진지리꼽재기 명 [대응어] 구두쇠.
아주 인색한 사람을 이르는 말. ¶그 사람은 살쾡이요 {진지리꼽째기요}. 담배 한 개비 빌려준 적도 없다니께로.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에는 '구두쇠'란 말보다 '진지꼽짹이, 진지리꼽쟁이'란 말이 많이 쓰인다. 이 말은 채만식의 『태평천하』에도 등장한다. 90년대에도 '진지리꼽잭이'가 쓰인 것으로 보면 형성된 지 상당히 오래된 말인 듯하다. 개작된 『태평천하』에서는 '진지리꼽재기'로 표기되어 있다.

진태 명 [대응어] 진눈깨비.
비가 섞여 내리는 눈. ¶눈은 걍 {진태롤} 장설로 쏟아지는디 아이 큰 놈은 호화로운 시상이라 만나잔 약속을 깜박 잊어 버렸단 말여. 잊어 번져갖고 눈이 {진태로} 막 퍼붓는디 얼마끔 있다 생각헌게 삼경이가 됐는가.<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김제, 남원, 무주, 완주, 장수, 진안, 순창, 임실, 정읍.

진테 명 [대응어] 진눈깨비.
☞진태.
지역 순창, 임실, 정읍.

진테미 명 [대응어] 쓰레기.
비로 쓸어 내는 먼지나 내다 버릴 물건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이사허고 짐을 푼게 {진테미가} 한 더미고만. 얼렁얼렁 치우고 짜장면이나 시켜먹게. ¶다 들 실컷 쳐먹고 {진테미만} 남었고만.
지역 김제, 완주, 진안.

진티 명 [대응어] 진눈깨비.

☞진태.
지역 진안.

질가 명 [발음] [질까] [대응어] 길가.
길의 양쪽 가장자리. ¶거시기 약산에 참꽃 허벌라게 따다가 말림시롱 가는 {질가에} 뿌려줄랑께. ¶포도시 회사다가 차 입고 흐고 유모차 끌고 오는디 시상으 굴씨고라당 너머승게 {질가가} 개안흔 거 잇지롸우.
지역 전북.

질갓 명 [발음] [질깟] [대응어] 길가.
길의 양쪽 가장자리. ¶며칠전 {질갓이서} 외모가 고구마 먹고 똥 싼 놈 같이 매쫏허고 앵간치-생긴 사람을 우연시럽게 만났다.
지역 고창.

질갱이 명 [대응어] 질경이.
☞질겨이. ¶고향에 살지. 멈둘레 꽃 피는 고향에 살지. {질갱이} 풀 뜯어 신 삼어 신ㅅ고,<서정주, 시집>
지역 무주.

질겡이 명 [대응어] 질경이.
☞질겨이.
지역 임실.

질겨이 명 [대응어] 질경이. ¶{질겨이로} 나물을 해 먹는다.
지역 전북.

질구다 동 [대응어] 가꾸다(꽃을), 기르다.
식물을 심어 관리하고 자라게 하다. ¶밭에 채소를 {질구어} 먹자. ¶머리를 짧게 깎고 댕긴게 사람들이 너 보고 초랭이 같이 생겼다고 허잖냐. 그링게 너도 머리를 좀 {질궈서} 댕기봐라. ¶실내에서 화분을 {질구면} 손길이 많이 가야 잘 가꿀 수 있단다.
지역 고창, 남원, 무주,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진안.

질깥 명 [대응어] 길가.
길의 양쪽 가장자리. ¶먼 사람을 또 잡아온다요? 농민군들은 이라우, 여그저그 {질깥에} 대창만 들고 건성으로 섰제.<송기숙, 녹두장군>
지역 전북.

질다 형 [대응어] 길다.
두 지점 사이가 멀다. 또는 두 시간 사이가 오래다. ¶그런디 {질고} 짤룬 것은 대봐야 알지라우. 무신 소린고 허니 요 김부월이한티 대면 그 사마리아 예펜네 솜씨는 족탈불급이고 조족지혈이드라, 요런 뜻이라니깨요.<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밥 잘먹는 이갱필이[말], {질어서} 노래가 {질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긍게, 싸가지 없는 짓거리도 {질게} 허믄 꼬랑지가 볿히등가, 잽피등가 헝게~ 내비 둬야 허는디. ¶그날 오기만 언능 후딱 학수고대 지두리고 있다 서대다 연속 서대다가 모가지만 {질게} 늘어나고.
지역 전북.

질들이다 동 [대응어] 길들이다.
서투른 것을 익숙하게 하다. ¶물론 요새도 끼니 챙기덧기 쌈박질 참 부지런허니 잘들 허고 살긴 허지만, 아매 그것들이 다 그때 배운 쌈박질 솜씨고 그때 {질들인} 고질버릇 아니겄어?<윤흥길, 소라단 가는 길> ¶우리 집에서 {질들인} 송아지를 순이네 아빠가 사 가셨다.
지역 전북.

질래 부 [대응어] 끝내.
끝까지 내내. ¶그니께, 울덜이 서로 찡빠수고 으르릉댐서 처죽일 원수덜맹이로 그려쌓도 뉘 한나

{질래} 꽁허진 앙튼가베라. 서로 험담허고 욕해쌈서 이빨 드러내도, 당허는 이편 맘이 허퉁허덜 않고 밤새 속쓰려 약 먹지를 않음 다 풀어지게 돼부리는 거 아니겄소.<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질럼지 명 [대응어] 새우(민물, 大).

강이나 호수 따위의 염분이 없는 물에서 사는 큰 새우. ¶가끔가다 보믄 산속으 깊은 계곡 같은 데서도 사는 {질럼지가} 있더라고잉.

지역 완주.

질레미 명 [대응어] 새우(민물, 大).

☞질럼지.

지역 완주.

질루다 동 [대응어] 기르다.

☞질르다.

지역 군산, 무주.

질르다 동 [대응어] 지르다.

목청을 높여 소리를 크게 내다. ¶말도 말소. 그 꼽꼽쟁이더러 술 한 잔 사라고 했다가 어트케 술 먹고 괴함을 {질르고} 그리서 내가 내고 나와버렸당게.<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전북.

질르다 동 [대응어] 기르다.

동식물을 보살펴 자라게 하다. ¶개를 {질르고} 있다. ¶짐승을 {질른다먼서} 팜나 술이나 먹고 돌아댕긴게 알을 깠는지 새끼를 낳는지 알 택이 없지.

지역 전북.

해설 '질르다'는 '기르다'에 /ㄹ/이 덧난 형태인 '길르다'에 다시 구개음화가 적용된 결과 형성된 형태다.

질마 명 [대응어] 길마.

소나 말 따위의 등에 얹어 짐을 싣거나 수레를 끌게 하는 기구. ¶인자 정읍서 태인장 볼라고 장꾼이 말이다가 그때는 구루마가 없고 {질마여}. {질마여다가} 양쪽으로 부잠 실고 어물을 실고 오다가 아 말이란 놈이 오다가는 덜퍽 자빠져 버린단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그 장사헐라고 생각헌게 말도 안 일어나고 작것 {질마를} 끄리고 그 서너 네닷 끄니 댓 끄니 먹을 놈을 주었어. 주고 '이랴' 헌게 말이 뿔떡 일어나거든. 그러니 일어나서 가.<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군산, 무주, 완주, 임실, 정읍.

질마재 명 [대응어] 길마.

☞질마. ¶말을 떡 {질마재를} 대령했단 말여."저 괴를 짊어갖고 괴를 말야 저 실어라. 실어갖고 걸음 잘 걷는 놈 마부 하나 구해가지고 서울로 보내야 된다."<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정읍.

질매 명 [대응어] 길마.

☞질마. ¶말 {질매를} 매.

지역 전북.

질배이 명 [발음] [질~배이] [대응어] 거지.

남에게 빌어먹고 사는 사람. ¶{질배이가} 구걸한다.

지역 전북.

질연 (←結緣) 명 [대응어] 연분.

부부가 되는 인연. ¶여녕까지 혼자 있어. {질연이} 있다고 허는디.

지역 전북.

질쭉하다 형 [발음] [질쭈가다/질쭈카다] [대응어] 갸

름하다.
☞잘쪽하다. ¶사람이 서서 그러지면은 {질쭉으게} 서 있어야 허는디 한 일자는 옆으로 누웠으니<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완주.

질초 (질初) 명 [대응어] 길목.
마을로 들어가는 길의 입구. ¶우리 동네에 오는 {질초에} 괴무덤이라고 허넌 쬐그만헌 무덤이 있넌디 이 무덤에 대해서 이런 전설이 전히지고 있어요.<구비문학대계 정읍군> ¶높은 베실아치으 행차가 지나갈께 그 {질초에} 사는 사람들은 나와서 질을 닦고 있었어.<구비문학대계 정읍군> ¶놈을 갖고 가서 냇물가에 노디(징검다리)에가 앉아서 씻고 있제. 아 동방삭이가 그때, 그 동방삭이가 댕긴 {질초이라}.<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정읍, 남원.

질통 (질桶) 명 [대응어] 물통.
물을 긷는 데 쓰는 통. ¶{질통에} 물을 길어 나른다. ¶{질통으로} 물을 길어다가 물통을 가득 채워라.
지역 전북.

짐늘 명 [대응어] 낟가리.
낟알이 붙은 곡식을 그대로 쌓은 더미. 또는 나무, 풀, 짚 따위를 쌓은 더미. ¶곡식을 거두어 {짐늘을} 쌓았다. ¶겨우내 땔감으로 쓸 {짐늘을} 창고로 날랐다.
지역 군산.

짐성 명 [대응어] 짐승.
몸에 털이 난, 네 발을 가진 동물. ¶큰 {짐성은} 몯 가져가도 그런 자자는 {짐성은} 사랑꾼더리, 그때는 머시멀 마이 둥개,<2009 전북 임실> ¶저 나는 말뙤고 우리 권낭바는 거시기 소뙤라 큰 {짐성까지} 만나서 조코 잘 쌀기는 헌다는디 늘거서 영개미 머나 주껃따고데 그려.<2009 전북 임실> ¶사료값이 아무리 올랐다고는 허지만 산 {짐성을} 어치케 안 멕이고 굶겨. 죄로 받지. ¶{짐성도} 살아있는 동물인데 때기 되면 굶지 않도록 챙기거라.
지역 전북.

짐장 명 [대응어] 김장.
겨우내 먹기 위하여 김치를 한꺼번에 많이 담그는 일. 또는 그렇게 담근 김치. ¶그것도 비아난 맘 따독임서 삥아리 눈물 맹큼이나 손 업는 날로 {짐장} 날 늦게 잡어 논 아짐들 허패 빠진날 되아 간다. ¶글도 고창은 나지 때는 겁나게 푹헝게 {짐장도} 펄씨께 히 버렷당게요. ¶서울 냥반들 {짐장은} 다 들 허겼능가 모르것소.
지역 전북.

짐제 명 [대응어] 김제. ¶{짐제에는} 봉산이란 산허고 명양산이라넌 산이 있넌디 이 두 산은 옛적으는 가시부치라고 혔어.<구비문학대계 김제군>
지역 전북.

짐치 명 [대응어] 김치.
소금에 절인 배추나 무 따위를 고춧가루, 파, 마늘 따위의 양념에 버무린 뒤 발효를 시킨 음식. 재료와 조리 방법에 따라 많은 종류가 있다. ¶지까심은 똥값이고 꼬칫금 새비젓값은 금값잉게 {짐치를} 흐크게 당그도 못허고.
지역 전북.

짐치말국 명 [대응어] 김칫국물.
김치의 국물. ¶{짐치말국} 쪼깨 마심서나 묵으라.
지역 남원.

짐치몰국 명 [대응어] 국물(김치의).

김치의 국물. ¶어허, 잘 익은 짐치 넣고 끓인 게 아무것도 안 여어도 {짐치몰국} 맛 한분 기맥히는구마잉. ¶보람이는 {짐치몰국에} 밥 말아서 먹기를 참 좋아한다.
지역 익산.

집게가락 명 [대응어] 검지손가락.
다섯 손가락 가운데 두 번째 손가락. ¶{집게가락으로} 앞을 가리킨다.
지역 고창.

집게손그락 명 [대응어] 검지손가락.
☞집기손고락.
지역 전북.

집기손고락 명 [대응어] 검지손가락.
다섯 손가락 가운데 두 번째 손가락. ¶{집기손고락으로} 앞을 가리킨다. ¶너기 접시를 {집기손고락으로} 집어 오너라.
지역 부안.

집기손구락 명 [대응어] 집게손가락.
다섯 손가락 가운데 둘째 손가락. ¶바느질얼 할랑게 오린손 {집기손구락에} 탁 골무럴 낑구고 앉었지.
지역 전북.

집도리 명
놀이의 일종. ¶숨바깍질허고 {집도리} 허고 놀았제.
지역 전북.

집시락물 명 [대응어] 낙숫물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 ¶{집시락물이} 떨어진다.
지역 고창, 남원, 부안, 순창, 정읍, 완주, 임실.

집안간 명 [대응어] 일가.
성(姓)과 본이 같은 겨레붙이. ¶우리 {집안간이여}.
지역 전북.

집이 명 [대응어] 당신.
듣는 이를 가리키는 말. ¶긍게 {집이가} 날라리나 갖고 나를 땅깔로 보요? ¶{집이가} 가난험서 옹삭허고 근천시러 보씨요. ¶아이고, 지발 {집이나} 천신(처신) 잘 허겨? ¶긍게, {집이는} 차말로 영판 오지겄서 이~. ¶아따, {집이는} 그렇게도 열심이 이마빡에 땀까장 흘려 감서 운동헝게 배랑빡에 똥 볼라 감서 겁나게 오래 살겄소이~. ¶나헌티는 소양 읎어도 {집이헌테는} 썩어 몽그라져도 못 준당게요.
지역 전북.

집촐 명 [대응어] 제비초리.
뒤통수나 앞이마의 한가운데에 골을 따라 아래로 뾰족하게 내민 머리털. ¶{집촐이다} 꽃자지 댕기 매고 나가면 머시매들이 놀자고. {집촐} 댕기도 나는 빨간 놈으로 안 했어.
지역 전북.

짓가리 명 [대응어] 볏가리.
벼를 베어서 가려 놓거나 볏단을 차곡차곡 쌓은 더미. ¶벼 베기를 끝낸 논에 여기저기 {짓가리가} 쌓여 있다. ¶옛날에는 벼를 낫으로 베서 {짓가리를} 쌓아 놓았다가 타작을 했어.
지역 임실.

짓거리[2] 명 [대응어] 김칫거리.
김치를 담글 재료. ¶시장으 가서 {짓거리} 잠 사오니라.
지역 전북.

짓거리 명 [대응어] 짓.

몸을 움직이는 행동. ¶고 애린 놈이 볼써 고 {짓거리데}?<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짓거하다 동 [대응어] 기뻐하다.
마음에 기쁨을 느끼다. ¶사또 도련임 승벽 잇스믈 크게 {짓거ᄒᆞ야} 이리 오너라<완판본 열여춘향수절가上> ¶부원군이 더욱 {짓거ᄒᆞ며} 일변 조복을 갓초오고 예관을 ᄯᅡ라 별궁의 드러가 황후게 뵈온디<완판본 심청전下>
지역 전북.
해설 중세 국어의 동사 '깄다'에 '-어ᄒᆞ다'가 연결되어 '깄어하다'가 된다. 이 동사가 전북 방언에서 구개음화가 적용되어 '짓거하다'가 된 것이다.

짓국 명 [대응어] 김칫국.
김치를 넣어 끓인 국. ¶나는 밥상으 {짓국} 하나만 있으면 만사오케여. ¶밑반찬은 그때그때 조깨씩 바뀌지만은 토란탕허고, 깻잎허고, {짓국허고}, 깍때기허고, 꼬추 다진 것허고, 그르고는 꼭 콩나물국이 나오지요. ¶{짓국을} 훌훌 털이마신다. ¶겨울에 뜨끈뜨끈한 군고구마를 먹을 땐 맛있는 {짓국이} 생각난다.
지역 전북.

짓날 명 [대응어] 곗날.
계의 구성원들이 모이는 날. 또는 아는 사람들이 함께 모임을 하는 날. ¶째까는 일이지만, 재수대가리가 옴붙었능가 시 달에 한 번 잡어논 {짓날이} 해필 빙원 검진날허고 접쳤응게 탈탈 굴머야제 어쩌겄쏘.
지역 고창.

짓독 명 [대응어] 김칫독.
김치를 담아 두는 독. ¶그러케, 씨석거림서 웃음이 히풍게 {짓독에} 바람 들것따 이~.
지역 전북.

짓발 명 [대응어] 깃발.
깃대에 달린 천이나 종이로 된 부분. ¶전봇대 우게다 {짓발} 꼬자 노코, 겁나게도 부쳐논 핸수막은 온통 꼬부랑 글씨로 범벅 처져 있고.
지역 고창.

짓입죽 명 [대응어] 갱죽.
시래기 따위의 채소류를 넣고 멀겋게 끓인 죽. 진잎을 넣고 끓인 죽. ¶작자는 제가 무슨 감사라도 된 듯 {진잎죽} 먹고 잣죽 트림이 요란했다. 모두 듣고만 있었다.<송기숙, 녹두장군>
지역 무주.
해설 진잎은 "날 것이나 절인 푸성귀"를 뜻한다.

징검새오 명 [대응어] 새우(민물, 大).
강이나 호수 따위의 염분이 없는 물에서 사는 큰 새우. ¶민물으서 낚시헐 때는 찌로 {징검새우만한} 것이 없어.
지역 익산.

징게맹게 (←金堤萬頃) 명 [대응어] 김제 만경.
금만 평야의 너른 들을 가진 김제와 만경을 이르는 말. ¶김제하고 만경에 있는 넓은 들이 있거든. 그걸 {징게맹게}들이라고 하는디.<구비문학대계 김제군> ¶우리나라 {징게맹게에서} 쌀이 가장 많이 나올겨.<구비문학대계 김제군>
지역 김제.

징게멩겡 명
'김제'와 '만경'을 아울러 이르는 말.
지역 전북.

징게미 명 [대응어] 새우. ¶{징게미를} 넣고 국물을 우리면 시원허니 좋지.
지역 남원, 순창, 임실, 장수, 진안.

징기미 명 [대응어] 새우

☞징게미. ¶우리 지역으스서는 {징기미로} 튀김도 해 먹고 그라는디, 맛 한 번 보실텨?

지역 무주.

징상스럽다 형 [대응어] 증상스럽다.

생김새나 행동이 징그러울 정도로 밉살맞은 데가 있다. ¶하는 짓마다 하나 같이 {징상스럽다}

지역 전북.

징상시럽다 형 [대응어] 증상스럽다.

생김새나 행동이 징그러울 정도로 밉살맞은 데가 있다. ¶드럽게 말도 {징상시럽게} 안 타네. 아야, 거시가 ! 느그들 글라믄 딴디 가서 처묵으랑게. ¶아따, {징상시렵고만} 이~ 승질머리도 개차반인디.

지역 고창.

징상허다 형 [대응어] 증상맞다.

생김새나 행동이 징그러울 정도로 밉살맞다. ¶{징상하게} 굴지 말아라 ¶에미 속을 그렇게 썩이고도 아직도 모지래냐 참말로 {징상허다}.

지역 전북.

징하다 형 [대응어] 징그럽다.

보거나 만지기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흉하거나 끔찍하다. ¶어따 글고 이럴 쩍엔 {징하게} 후덕지근도 헝게. ¶{징하게} 일도 앙굴고 차말로 옹삭흐고 까깝시랍고 지발 낼부텀 한사날 뺀 해쓰믄 쓰긋다. ¶아따, 고집도 {징하게} 쎕디다. ¶{징하게} 까깝허네 이~. ¶암시랑 않은 일 갖고 뱰일이나 있는 거같이 자발떨믄서 {징하게} 설치고 댕기는구만 이~. ¶{징하게} 강치를 헝게 수도가 얼어 갖고 포도씨 마당꺼만 녹애 갖고 반대기로 질러다 쏠랑게 차말로 옹삭허고만. ¶입덧도 참말로 {징허게} 요란허네이.<최명희, 혼불>

지역 고창.

해설 전라 방언의 '징하다'는 표준어 '징그럽다'와 의미가 유사하다. 전라 방언의 '징상허다, 징상스럽다'의 의미와 거의 같다. '징하다'는 주로 "모양이 지나치게 크거나 괴상하여 보기에 흉하고 징그럽다"라는 의미와 "어떤 정도가 심하거나 지나치다"라는 의미로 쓰인다.

징허다 형

마음이 매우 앙칼지고 모질다. ¶그 놈을 혼자 다 짊어지고 건넜어? {징허네}. ¶속굴떡(-댁) 참 {징허네}. 그렇게 사정히도 한번을 안 봐 줘.

지역 전북.

짚눌 명 [대응어] 볏짚.

벼의 낟알을 떨어낸 줄기. ¶마당에 {짚눌이} 쌓여 있다.

지역 군산.

짚다 형 [대응어] 깊다.

겉에서 속까지의 거리가 멀다. ¶{짚은} 물속으로는 들어가지 마라. ¶꾀깐헌 것이 속은 {짚은}게벼.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진안.

해설 '짚다'는 '깊다'에 /ㄱ/ 구개음화가 적용된 결과이다. 구개 모음인 /ㅣ/의 영향을 받아 비구개 자음인 /ㄱ/이 구개 자음인 /ㅈ/으로 변화하였다.

짚다발 명 [대응어] 볏짚.

벼의 낟알을 떨어낸 줄기. ¶마당에 {짚다발이} 쌓여 있다. ¶비 안 맞게 마당에 {짚다발을} 쌓아 이어 놓았다. ¶초가집은 {짚다발로} 지붕을 덮었는데.

지역 전북.

짚베늘 명 [대응어] 낟가리.
낟알이 붙은 곡식을 그대로 쌓은 더미. 나무, 풀, 짚 따위를 쌓은 더미. ¶곡식을 거두어 {집베늘을} 쌓다. ¶겨우내 땔감으로 쓸 {집베늘을} 창고로 날랐다.
지역 전북.

짚북세미 명 [대응어] 밑씻개.
종이가 나오기 전에 밑을 닦는 데 썼던, 지푸라기 가운데 심지를 뺀 검불. ¶지푸락 가운데 뺏뺏헌 놈은 빼 버리고 검불, 그놈 {짚북세미}, 통시다(화장실에다) {짚북세미} 갖다 놓고 딲고.
지역 전북.

짚비늘 명 [대응어] 낟가리.
☞짚베늘.
지역 남원.

짚빗가리 명 [대응어] 볏가리.
벼를 베어서 가려 놓거나 볏단을 차곡차곡 쌓은 더미. ¶벼 베기를 끝낸 논에 여기저기 {짚빗가리가} 쌓여 있다. ¶예전에는 가을걷이를 할 때 벼를 낫으로 베서 널었다가, {짚빗가리를} 쌓았어.
지역 무주.

짚세기 명 [대응어] 짚신.
볏짚으로 만든 신. ¶나 보고말여, 여산 송씨네 집 가면 잘 먹고, 잘 사는디 왜 당신 {짚세기만} 신 삼고 있쇼. 가 보쇼 허기래 왔다.<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막 자그 이관(의관), 옷까지 전부 그 사람 주고 그사람 지게 신발 {짚세기} 감발헌거 허며 이 텟머리헌 수건까지 곰방대, 곰방대까지 전부 그냥 막 바꾸는 거여. 아 그놈은 생선장사는 홍자(鴻慈) 만났지.<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옛날 신발이 없던 시절에는 짚으로 {짚세기를} 삼아서 신고 다녔단다.
지역 전북.

짚소코리 명 [대응어] 삼태기.
☞재소코리.
지역 완주.

짚시기 명 [대응어] 짚신.
☞짚세기.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순창, 익산, 정읍.

짚이[1] 명 [대응어] 깊이.
위에서 밑바닥까지의 거리. 또는 겉에서 속까지의 거리. 또는 생각이나 사고 따위가 듬쑥하고 신중함. 또는 어떤 내용이 지니고 있는 충실성이나 무게. ¶고 물 {짚이는} 얼마나 되는가?
지역 고창.

짚이[2] 부 [대응어] 깊이.
겉에서 속까지의 거리가 멀게. 또는 생각이 듬쑥하고 신중하게. 수준이 높게. 또는 정도가 심하게. ¶인자라도 오면 더 없는 찬사 박수 속에 {짚이도} 타들어가 있는 우리네 농심을 함께 다 같이 모두 끄고만 싶어진다. ¶해필 오늘 그속 {짚이도} 치다 봉게 인정 당군 사랑 미소 크게도 보인다. 겉에서 속까지의 거리가 멀게. ¶그간 항께 고창말 소통헌 당신은 모든 이쁜 냥반들 되어 인자는 추억속 소쿠리에 {짚이} 다머 적렵해 노코 먼 그날을 보고잡허 헌다. ¶듬성듬성 {짚이} 박아둔 생각 가실 오면 히 보고 시픈 거슨 진 한숨 되어 여지없이 자빠진다.
지역 고창.

짚집 명 [대응어] 초가집.
짚이나 새, 갈대 따위로 지붕을 인 집. ¶아따 집이라고 참말 풍신나게 생겼드라고, 기양 {짚집이여}, 지푸래기로 맨든 집.

지역 무주.

짚촐갱이 명 [대응어] 새꽤기.
짚의 껍질을 벗긴 줄기. ¶{짚촐갱이를} 줏어서 뭐 할랑가?
지역 익산.

짚홰기 명 [대응어] 새꽤기.
짚의 껍질을 벗긴 줄기. ¶{짚홰기를} 벗겼다.
지역 무주.

짗다 동 [대응어] 깁다.
떨어지거나 해어진 곳에 다른 조각을 대거나 또는 그대로 꿰매다. ¶찢어진 옷을 {짗고} 있다.
지역 김제, 무주, 군산, 완주, 익산, 진안.

ㅉㅣㆆ다 동 [발음] [찌따] [대응어] 찧다.
곡은 알갱이를 부스러뜨려서 가루로 만들다. ¶달뎅이를 가만 보면 퇴끼가 방애를 {ㅉㅣㆆ고} 있디야.
지역 전북.

짜가리 명 [대응어] 짜증.
마음에 꼭 맞지 아니하여 발칵 역정을 내는 짓. 또는 그런 성미. ¶배고픈게 {짜가리} 내고 그러네.
지역 전북.

짜가치 명
질메 아래에 깔아주는 짚. 질메가 딱딱한 나무로 되어 있으므로 소 등이 아프지 않게 깔아준다. ¶질메만 매먼 아픈게 {짜가치를} 깔아줘.
지역 전북.

짜개다 동 [대응어] 패다(장작을).
도끼로 장작 따위를 쪼개다. ¶(아! 청미래덩굴 청미래덩굴)이 그 나무인가보다. 그것이 청미래덩굴인가보다.) 망개나무: 망개나무 까시, 망개나무 까시다 그 삼 {짜개요}.(청미래덩굴 청미래덩굴 가시, 청미래덩굴 가시에다 그 사립짝해요.)<지역어 자료 총서, 무주> ¶나무를 다 {짜갰으먼} 장작을 부엌으다 옮겨놓고 나가거라. ¶장작을 {짜개어} 장작더미에 쌓아놓자구나.
지역 군산, 익산.

짜구 명 [대응어] 장도리.
한쪽은 뭉뚝하여 못을 박는 데 쓰고, 다른 한쪽은 넓적하고 둘로 갈라져 있어 못을 빼는 데 쓰는 연장. ¶{짜구로} 못을 빼다
지역 고창.

짜구나다 동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나다. 개나 돼지에 생기는 병의 하나로,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붓고 발목이 굽으면서 일어서지 못한다. ¶요새 맹절 뒤끝에는 {짜구나는} 놈들 종자도 못 봤당게.
지역 고창.

짜긋대 명 [대응어] 자귀나무의 줄기.
논에 넣는 이런 저런 거름. 주로 자운영을 많이 하는데 일반적으로 들이나 산에서 나는 풀을 쓴다. ¶그때는 비료나 있었간디? 논에다 {짜긋대} 넣고 그랬제.
지역 전북.

짜란허다 형 [대응어] 나란하다.
여럿이 줄지어 늘어선 모양이 가지런하다. ¶세 사람이 {짜란허게} 서 있다 ¶둘이서 {짜란허니} 걸어가는걸 봉게 언지 화해를 혔능가 보네.
지역 전북.

짜란히 부 [대응어] 나란히.
가지런한 상태로. ¶너희들 참 {짜란히} 잘도 커간다.<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이 두 내오간이 말이여, 사흘밤을 안 잤으니 얼매나 잼

이 오겄냐 말이야. 냥 시상 모리고 자지. 근게 둘이 {짜란히} 잔디, 속 새에 딱 들아갖고는 요리 밍기 작 저리 밍기작 헌게, 잠결에 밀려나가.<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그날도 참 거그 가서 또 장안 사람만 알아 들으라 고서는 그 퉁수를 불은게로, 그 느이 좌우 짱 {짜란히} 인자 스이 가고 그 뒤따라 댕기고 허는 것이 틀림없이 그게 긴 것 같드래아, 즈 동생이랑.<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군산, 정읍.

짜룹다 형 [대응어] 짧다.

물건의 길이나 공간의 거리가 가깝다. ¶키가 훌쩍 커서 바지가 모두 {짜룹다}.

지역 남원, 무주, 정읍, 고창, 김제,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진안.

짜르다 동 [대응어] 자르다.

토막을 내거나 끊어 내다.

지역 전북.

짜르다 동 [대응어] 끊다(손톱을).

따로 떨어지도록 잘라 가르다. ¶손톱을 {짜르고} 잘 버려라. 쥐가 먹으면 안 된다.

지역 고창, 김제,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진안.

짜리다 동 [대응어] 깎다.

풀이나 털 따위를 잘라 내다. ¶손톱을 {짜린다}. ¶머리를 짤릅게 {짜린게} 훨씬 이쁘고만.

지역 고창, 김제, 부안, 익산, 임실, 진안, 남원, 무주, 순창, 완주.

해설 '짜리다'는 '자르다'의 음운론적 이형태로, 어두 경음화가 일어난 '짜르다'가 다시 '르~리'의 전설 모음화를 겪어 '짜리다'가 형성되었다. 전북 방언에서는 '깎다'의 의미로 '짜리다'가 통용된다.

짜마리 명 [대응어] 잠자리.

☞자마리.

지역 전북.

짜박짜박 부 [대응어] 아장아장.

키가 작은 사람이나 짐승이 찬찬히 걷는 모양. ¶이제야 핏덩어리, {짜박짜박} 걷는 애기에다 젖 먹는 갓난 것 형제 일도 보통 일이 아니네.<최명희, 혼불> ¶{짜박짜박} 걸으는 것이 아 인자는 무작 걸어가는 디로 한참 때같이 펑펑펑펑 걸거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그는 돌배기가 {짜박짜박} 걷는 모습을 보고 기뻐했다.

지역 김제, 익산, 임실.

짜부대나무 명 [대응어] 자귀나무. ¶봄에 꽃이 실같이 연분홍 꽃이 피는 {짜부대나무가} 요즘에는 정원수로도 많이 쓰도만.<정읍시> ¶짜부대나무 꽃이 참 예뻐요. 가로수로도 짜부대나무가 많이 있드만요.<정읍시>

지역 정읍.

짜시레기 명 [대응어] 자투리천.

자질구레한 조각. 또는 쓰고 남은 천 조각. ¶{짜시레기로는} 밥상포 만드는 데 쓰기 좋지.<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짜시레기를} 붙여서 비개 옆에 만들면 아주 멋있는 비개가 나오고 그랬어.<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전북.

짜실허다 형 [대응어] 자잘하다.

가늘거나 작다. ¶{짜실헌} 놈은 다 내버려.

지역 전북.

짜아 명 [대응어] 뱀장어. ¶{짜아를} 잡다

지역 전북.

짜오다 형 [대응어] 짜다.

소금과 같은 맛이 있다. 또는 (속되게) 인색하다. ¶뭔 나물이 이렇게 {짜오냐}? ¶그 사람은 어떻게 {짜온가} 온 동네방네 구두쇠라고 소문이 다 났당게.

지역 남원, 무주, 장수.

짜우뚱짜우뚱 부 [대응어] 갸우뚱갸우뚱.

물체가 이쪽저쪽으로 자꾸 갸울어지며 흔들리는 모양. ¶고개를 {짜우뚱짜우뚱} 근단 말여.<한국구비문학대계, 전북군산시·옥구군편>

지역 전북.

짜우뚱하다 동 [대응어] 갸우뚱하다.

물체가 한쪽으로 약간 갸울어지다. 또는 그렇게 하다. ¶비오리어미가 못 미더워 고개를 {짜우뚱하며} 옹구네를 바라보았다.<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의 의태어 부사 '짜우뚱'은 표준어로 '갸우뚱'이다. 이 부사 어근에 동사를 파생시키는 접미사 '-하다'가 결합되어 파생어인 '짜우뚱하다'가 된 것이다.

짜웁다 형 [대응어] 짜다.

소금과 같은 맛이 있다. 또는 (속되게) 인색하다. ¶이렇게 {짜웁고} 매운 걸 어뜷게 먹나? 물 좀 더 갖고 오니라. ¶요분에 야물딱지게 원수 갚음 혀야제. 그눔이고 한민당이고 우리 원순께." "하먼, 요분에 워디서나 우리 농민덜이 똘똘 뭉쳐갖고 한민당눔덜 다 떨어띠레뿔어 {짜운맛} 뵈고, 우리 농민덜이 빙신이 아니란 걸 갤차줘야 허네." "잉, 공자님 말씸이시. 최익승이가 요분참에 당선되기넌 애시당초 글러묵었네. 그 기호럴 보소.<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장수.

짜웃거리다 동 [대응어] 갸웃거리다.

무엇을 보려고 고개나 몸 따위를 이쪽저쪽으로 자꾸 기울이다. ¶이리저리 짜웃거리고 돌아다니다 본게 즈그 아버지가 용탁으가 앉었어.

지역 전북.

짜웃짜웃 부 [대응어] 기웃기웃.

무엇을 보려고 고개나 몸 따위를 이쪽저쪽으로 조금씩 자꾸 기울이는 모양.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으로 슬금슬금 자꾸 넘겨다보는 모양.

지역 전북.

짜짜구리 명 [대응어] 딱따구리. ¶뒷산에서 {짜짜구리} 소리가 시끄럽게 들려왔다.

지역 전북.

짝다 명 [대응어] 작다.

길이, 넓이, 부피 따위가 비교 대상이나 보통보다 덜하다. ¶괘얀시 짐만 되니깨 고따우 것들은 그냥 내비두고 {짝으면서도} 값나가는 것으로만 골라서 챙겨.<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작년엔 맞던 옷이 {짝아} 동생에게 입으라고 줬다. ¶그 다음이 쪼끔 작고, 그 다음이 쪼끔 {짝고} 해서 요렇게 요렇게[두 주먹을 쥐어 보이는 동작을 하며], <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무주, 익산, 임실, 장수, 진안.

짝대기 명 [대응어] 막대기.

가늘고 기다란 나무나 대나무의 토막. ¶{작대기} 막때기라고도 허고 장때<완주_지역어_텍스트> ¶{작때기} 막대기 나뭇때기 막대기 나무때기 <2009 전북 임실> ¶{작때기} 막대기 막때기 <2007 전북 군산> ¶작대기 {작때기}<2005 전북 남원> ¶지그먼 쬐깽개 이마넌 {작대기로} 뚜두러서 인자 뚜둘지만.{지금은 적으니까 이만한 작대기로 두드려서 인제 두드리지만}.<2005 전북 남원> ¶그전이 소금장시는 물목작대기라고

여케 지기 등그리다 이렇게 괴고 쉬는 {짝대기가} 있어요.<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한 댓새 치료헌게 낫은게 어그적, {짝대기} 가지고 어그적 어그적 걸을만 허단 말여. <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고창, 군산, 김제, 남원, 무주,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진안.

짝두샘 명 [대응어] 펌프.
☞작도샴. ¶시얌도 늦게 가믄 일찍 온 동네사람들이 싹 질러 가 갖고 짚은 디서 포도시 질러 갖고 그르다가 어느날잉가 {짝두샘을} 집집마다 파 갖고 참 패난했는디.
지역 고창.

짝은설 명 [대응어] 작은설.
설의 하루 전의 날. 섣달 그믐날을 설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짝은설에} 잠을 자믄 눈썹이 허옇게 신다는 말이 있제. ¶{짝은설에} 팥죽을 먹어야 나이 한 살을 더 먹는거여.
지역 진안.

짝짹이 명 [대응어] 짝짝이.
원래 자기 짝이 아닌 것끼리 합하여 이루어진 것. ¶양말을 {짝짹이로} 신고 갔다. ¶누가 그렇게 펴진 발로 수눅이랑 {짝짹이} 떠억 바꿔 신고.
지역 고창, 군산,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짠짠히 부 [대응어] 찬찬히.
성질이나 솜씨, 행동 따위가 꼼꼼하고 자상하게. ¶{짠짠히} 뜯어보다
지역 전북.

짠하다 형 [대응어] 가엾다.
마음이 아플 만큼 불쌍하다. ¶우는 걸 보니 마음이 {짠하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엽고 {짠한} 생각이 들었다. ¶부모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참 {짠하네}.
지역 순창.
해설 '짠하다'는 "안타깝게 뉘우쳐져 마음이 조금 언짢고 아프다"는 뜻의 형용사이나 전북 방언에서는 '가엾다'와 통용된다.

짤다 형 [대응어] 잘다.
어떤 물건이나 일 따위의 크기나 규모가 작거나 소소하다. ¶알약을 {짤게} 부수어서 먹는다. ¶무시를 {짤게} 썬다. ¶{짠} 일에 일일이 신경 쓸 거 없다. ¶소설을 {짤게} 분석한다. ¶그는 됨됨이가 {짤고} 경박스럽다. ¶사람이 그리 {짤어서} 어디다 쓴다냐.
지역 무주.

짤도막하다 형 [발음] {짤또마가다/짤또마카다} [대응어] 짤막하다.
조금 짧은 듯하다. ¶그것이 이얘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 {짤도막헌} 것 내가 이으라고 헌게 이었는디.
지역 전북.

짤룩바리 명 [대응어] 절름발이.
☞절룩발이.
지역 고창.

짤룸발 명 [대응어] 절름발.
걸을 때에 절름거리는 발. ¶오른발이 {짤룸발이다}.
지역 전북.

짤르다 동 [대응어] 자르다.
토막을 내거나 끊어 내다. ¶.은혜를 웬수로 갚는 못된 짓을 혔다고 사죄를 허면은, 비는 장수 모가지 못 {짤르는} 벱이라고, 애시당초 없었던 일

인 덧기 혼연허니 도로 받어주실 거여.<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묘소 옆에다가 이렇게 막을 치고, 손톱 이런 거 {짤르지} 않고, 밥도 장하고만 이렇게 먹고, 그렇게 해서 묘소를 주욱 지켜온 다음에 그가 인자 효자다.<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전북.

짤르다 동 [대응어] 끊다(손톱을).

☞짜르다.

지역 부안, 완주, 익산, 장수, 진안.

짬매다 동 [대응어] 잡매다.

흩어지지 않게 한데 매다. ¶그래 그만 딸허고 사우허고 짬매서 내쫓아 부렸네. 새경도 안 주고.<최명희, 혼불> ¶만약에 급허게 되머는 요 부작을 하나를 꽁지다 {짬매} 달어가지고 불을 그어대라 말이여.<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아 짚신을 손님 박생원 짚신만 사오는 것이 아니라 상주들도 다 사다가서는 전부 코등이를 {짬매서} 딱 허서 놓거든. 근게 이 양반이 조반 잡수고는 짚신 그놈을 신고 안 벗어지게 단단히 들어매고 나서요 그려<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주시히서 보닌게 사람은 혯바닥이 하난디 모시 째는디 본게 헷바닥이 둘여, 그 구렝이란 말여 본게. "소매(오줌) 매랍다." 고 허닌게, 목에 줄이 있어. "요놈 {짬매고} 나가라."고. 근게 축지법을 헌게 툭 뛰면 바로 뒤따네.<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고춧대는 단단히 {짬매야}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다. ¶책 뭉치를 좀 야무지게 {짬매거라}.

지역 전북.

해설 표준어 '잡아매다'의 준말은 '잡매다'이다. "매다", "묶다"를 의미한다. '잡아매다'는 15세기에 '자바ㅁㆍㅣ다'로 나타난다. '잡다'와 'ㅁㆍㅣ다'가 결합된 합성어인데, 줄어서 '잡매다'가 된 것이다. '짬매다'로도 나타난다.

짬짬이 부 [대응어] 짬짬이.

☞짬쨈이. ¶형은 초과된 중량의 원목을 싣고 군산으로 떠났다. 당연히 계측기에 걸렸던 모양, 형은 그대로 국도를 빠져 실컷 우회하면서 {짬짬이} 고속도로도 달리면서 외롭게 밤길을 지났을 것이다.<양귀자, 얼룩>

지역 전북.

짬쨈이 부 [대응어] 짬짬이.

짬이 나는 대로 그때그때. ¶쉴 때 {짬쨈이} 책을 읽어두는 것이 좋다. ¶그녀는 직장에 다니면서도 {짬쨈이} 불우이웃을 돌보고 있다.

지역 김제.

짭다 형 [활용형] 짜와, 짜우니 [대응어] 짜다.

소금의 맛이 있다. 또는 (비유적으로 쓰여) 혹독하고 인색하다. ¶당장 상부에 보고해서 그눔얼 처치혀. 그눔얼 갈치속젓 담대끼 {짭고} {짜운} 맛 뵈서 다시는 되살아나지 못허게 해야 써.<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무주, 장수.

짱구벌레 명 [대응어] 장구벌레.

☞장구벌거지.

지역 전북.

짱구애비 명 [대응어] 장구벌레.

모기의 애벌레. ¶요좀 못에 가믄 {짱구애비가} 솔찬히 보인다.

지역 전북.

짱그다 동 [대응어] 자르다.

토막을 내거나 끊어 내다. ¶머리를 짧게 {짱근다}.

지역 남원.

짱그르다 명 [대응어] 자르다.

토막을 내거나 끊어 내다. ¶머리를 {짱글라} 간다.

지역 남원.

짱짜란하다 형 [대응어] 나란하다.

여럿이 줄지어 늘어선 모양이 가지런하다. ¶거참, 공교롭기도 허다. 사십명 동창 중에 해필이면 또 인철이허고 {짱짜란하게} 앉어서 가게 되다니. <윤흥길, 소라단 가는 길>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짱짜란하다'는 표준어 '나란하다'에 해당한다. '나란하다'가 "여럿이 늘어선 모양"을 의미하는 것과 달리 '짱짜란하다'는 대체로 "둘이 늘어선 모양"을 의미한다. 주로 '짱짜란히, 짱짜란하니'와 같이 부사형으로 사용한다.

짱짜란허다 형 [대응어] 나란하다.

여럿이 줄지어 늘어선 모양이 가지런하다. ¶"수상헌 관계가 공동체 안에서 어디 미쓰 강 한 년 뿐이간디? 나맨치로 서방 손 잡고 내오간에 {짱짜란허니} 들어온 지집 빼놓고 그 남시기는 죄다 수상혀 뵈드라. 말로는 독신입네, 허고 광고 돌림시나 뒷전에 숨어서 똥구녁으로 호박씨 까는 인간인지 누가 알어?"<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김부월이라고, 바로 즈이 집사람인디요, 자고로 부부일신이라니깨 {짱짜란허니} 부부동반으로 니려오는 것이 댕연지사겄지요."<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자매들끼리 항상 {짱짜란허니} 댕기는 것이 참 좋아보이네.

지역 전북.

짱짱허다 형 [대응어] 튼튼하다.

무르거나 느슨하지 아니하고 몹시 야무지고 굳세다.

지역 전북.

째까 부 [대응어] 조금.

정도나 분량이 적게. ¶이~ 고창은 인자 {째까} 한가허요. ¶신간 팬허게 {째까} 먹고 째까만 쌀라요. ¶미테 사진 봉게로 때까우는 절대 아니고 왜가리, 학, 백로는 뺑아리 눈물만치 {째까} 타겼는디-. ¶으메, {째까씩} {째까씩} 곡간 쥐새끼 소금 비어 먹듯이 쪼그라지네 이~. ¶으메, 째까씩 {째까씩} 곡간 쥐새끼 소금 비어 먹듯이 쪼그라지네 이~. 「」 시간적으로 짧게. ¶어울리도 안 응게로 {째까} 있다가 출석 부르면 오덩가. ¶신간 팬허게 째까 먹고 {째까만} 쌀라요.

지역 전북.

째깐놈 명 [대응어] 작은놈.

'작은 아들'을 낮잡아 이르는 말. ¶장년 같이 또 나 보다 더 {째깐놈한티} 또 등 뺏겼다.

지역 고창.

째깐다 형 [대응어] 작다.

길이, 넓이, 부피 따위가 비교 대상이나 보통보다 덜하다. ¶{째깐은} 일이지만, 재수 대가리가 옴붙었능가 시 달에 한 번 잡어논 짓날이 해필 빙원 검진날허고 접쳤응게 탈탈 굴머야제 어쩌겄쏘. ¶방그라대시 {째깐은} 아그처럼 잣대를 거그다가 들이대면서 옹삭시런 속마음 따독거린다. ¶아따, {째깐은} 거시 오사허게 통은 큰갑네 이~. ¶{째깐은} 놈이 훨썩 야물딱지당게요~. ¶그런디, 그런디 나보다 더 {째깐은} 내 칭구놈은 으디 갔능가.

지역 고창.

째깐하다 형 [대응어] 작다.

길이, 넓이, 부피 따위가 비교 대상이나 보통보다 덜하다. ¶궁게, 체구는 {째깐해도} 야망과 포부가 크다는 것이지라우. ¶앙것이라도 주기만 히보시요 이~ 손이 {째깐애서} 못 받든 안응게요. ¶글고, {째깐하다고} 깔밧다가는 큰코 다칭게 잘

알아서 허씨요 이~ 고 놨다가 기냥 꼬장 부려 버릴랑게요 이~. ¶{째깐하다고} 무시허고 땅깔로 봤다간 영금 봐 불고 겁나게 우세 살 것이요. ¶또 한 가지는 가방끈이 짧고 {째깐해서} 긍가, 거그까지 한계를 느껴진당게요.

지역 고창.

째끄맣다 형 [대응어] 쪼그맣다.

☞쬐그맣다. ¶되야지 머리를 허고 삼실과 사고. 그래 갖고 차려서 놓고. 사과, 배. 거시기 과자나 뭐 {째끄만} 것. 그런지 인자 실과 당수 허고 그래 갖고 내<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남원.

째끔 부 [대응어] 조금.

☞쪼곰. ¶먼일이던지 댐비지 말고 {째끔씩} 찬찬허게 혀야 실수가 없어.

지역 전북.

째미다 동 [대응어] 매다.

끈이나 줄 따위의 두 끝을 엇걸고 잡아당기어 풀어지지 아니하게 마디를 만들다. ¶근디 공부를 이것을 시기야 겄는디 언청 기우히서 공부를 못 시키넌게 아 이것을 가르쳐야 겄는디 언청 기우히서 가르처먹을 수가 없어. 그서 고놈 궁둥이다가 실을 {째밌어요}. 여그다 실을 {째미} 가지고 그 문구녁으로 히서 이렇게 히서 인자 배깥으로 인자 뭣이라고 잘못 읽으면 잡어다려.<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부안, 정읍.

째작째작허다 동 [발음] [째작째자거다/째작째자커다]

새가 시끄럽지 않게 자꾸 울다. ¶한 때는 거그를 가니란게 그 담에서 까치 한 마리가 {째작째작허거든}. 근게 오성이 한음보고 너 저 깐치가 뭐라고 허는 종 아냐?

지역 전북.

쨈매다 동 [대응어] 잡아매다.

흩어지지 않게 한데 매다. ¶무슨 꾀를 내꼬 허갖고, 갱아지 새끼를 쪼깐 놈을 하나 사다가 인자 방에다 딱 놔두고는 갱아지 똥구녁에다 단지기를 하나 딱 {쨈매} 놨어. 그런께 그러고는 거긋다 꿀을 담아놨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삼 일 되는 날 저녁으는 부인을 잡아가 그서 당신 저 부인게다가 인자 손목으다 명주실꾸리를 {쨈맸어}. {쨈매고} 당신이 인자 가서 잔다 말이지. 그 자고 인나본게 이 현감 부인이 어디로 갔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그때 그 사람도 딱 정지나무 여다 창창 감어서 딱 {쨈매} 놓고는<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내가 헐 수 있는 집안일이란 멤생이를 방천뚝으다 {쨈매놓고} 학교에 가는 것이었다. ¶허리끈을 꽉 {쨈매거라}. 그때 가실인게로 콩똥이 콩을 이렇게 비어가지고 {쨈매서} 세워놓고는<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군산, 김제, 부안, 정읍, 남원, 무주.

해설 전북 방언에서 '쨈매다'는 '쫌매다', '짬매다' 따위로도 나타난다.

쨈미다 동 [대응어] 묶다.

끈, 줄 따위를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단단히 잡아매다. ¶또 백군 되어 대그빡에 끈 {쨈미고} 또 백 메타 탐박질 했다.

지역 고창.

쩌그 대 [대응어] 저기.

말하는 이나 듣는 이로부터 멀리 있는 곳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 ¶{쩌그} 있는 자는 뭇 헌다냐? ¶{쩌그} 지나가는 개새깽이가 다 웃어 불겄소~ 무신 놈에 헛소리를 헌다요? ¶아따, {쩌그} 조까 봐바라이 저 냥반이 술차니 웃겨분다 갓

쓰고 자징게까장 타붕게. ¶글고, {써그다} 노아 둔 가맹이허고 새내키 봐겼소~?

지역 고창.

쩌그자 대 [대응어] 저이.

말하는 이와 듣는 이로부터 멀리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 ¶{써그자헌티} 존소리 들을라면 넙덕지 터럭이나 나먼 들어 볼랑가 모르겄소.

지역 전북.

쩌리 부 [대응어] 저리.

저곳으로. 또는 저쪽으로. ¶"엄병헐 놈에 도구통이시. 인자 나 코에서넌 피냄새가 나네. {써리} 가소, {써리} 가." 하대치는 사정없이 여자를 뿌리쳤다.<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쩌입다 동 [대응어] 껴입다.

여러 벌의 옷을 겹쳐서 입다. ¶추울 때는 여러 겹을 {써입는} 것이 좋다 ¶춥다고 옷을 너무 {써입었더니} 인자 더워 죽겄네. ¶겨울 날씨가 몹시 추우니 옷을 많이 {써입어라}.

지역 고창, 군산, 김제, 남원, 무주, 완주, 임실.

쩍다 형 [대응어] 적다, 작다.

수효나 분량, 정도가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다. 또는 길이, 넓이, 부피 따위가 비교 대상이나 보통보다 덜하다. ¶우리 갈리자. 갈리는디 여그 서보톰 질이 두 갈랜디 너는 {쩍은게} 적은 질로 가고 나는 큰게 큰 질로 갈란다.<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게 김정승은 맘은 간절허나 이것 권세가 {쩍은게} 그놈한티 뺏겼다 말여. 인제 급제를 해가지고서 인자 응 박정승<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키가 {쩍은} 동생이 큰 옷을 입고 어정쩡하게 서서 웃는 모습이 서글프다. ¶올해는 농사가 잘 못 되어 쌀 소득이 {쩍다}.

지역 고창, 김제, 완주, 장수, 정읍.

쩍삼 명 [대응어] 적삼.

윗도리에 입는 홑옷. 모양은 저고리와 같다. ¶{쩍삼을} 입고 길을 나섰다.

지역 전북.

쩔다 동 [대응어] 뜨다.

실 따위로 코를 얽어서 무엇을 만들다. ¶겨울이면 털실로 목도리 같은 것 {쩔어서} 매고 다녔지.

지역 전북.

쩔뚝발 명 [대응어] 절름발.

걸을 때에 절름거리는 발. ¶오른발이 {쩔뚝발이다} ¶애들이 나보고 {쩔뚝발이라고} 놀린당게.

지역 전북.

쩔뚝발이 명 [대응어] 절름발이.

한쪽 다리가 짧거나 다치거나 하여 걷거나 뛸 때에 몸이 한쪽으로 자꾸 거볍게 기우뚱거리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동네에 {쩔뚝발이덜이} 많았어. 월남 가서 다리 짤린 사람이 한둘이 가니.

지역 전북.

쩔뚝배기 명 [대응어] 절름발이.

한쪽 다리가 짧거나 다치거나 하여 걷거나 뛸 때에 몸이 한쪽으로 자꾸 거볍게 기우뚱거리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그는 {쩔뚝배기다}

지역 전북.

쩔름뱅이 명 [대응어] 절름발이.

☞절름뱅이.

지역 전북.

쩔리다 동

마음에 죄스럽거나 두려운 마음이 생기다. ¶그 말을 듣고 어찌나 마음이, 기양 {쩔린다} 그 말여.

지역 전북.

쩜매다 동 [대응어] 잡아매다.

☞짬매다. ¶생여를 만들어 갖고 새새끼를 그 속에다 딱 넣놓고, {쩜매고는} 말이여, 쩜매고는 까꾸로 올라가.<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남원.

쩟국 명

국, 찌개 따위의 음식에서 건더기를 제외한 물. ¶김치 {쩟국으다} 밥 말아 먹어도 맛있었제잉. ¶갈치 자작자작 지져서 그 놈 {쩟국허고만} 밥 먹어도 맛있어. ¶난 맨 밑에 남은 {쩟국만} 먹으라고?

지역 전북.

쪠깐하다 형 [대응어] 조그맣다.

조금 작거나 적다. 또는 그리 대단하지 아니하다. ¶손이 {쪠깐하다}. ¶{쪠깐한} 사고니까 너무 걱정 마라.

지역 전북.

쪼각 명 [대응어] 조각.

한 물건에서 따로 떼어 내거나 떨어져 나온 작은 부분. 또는 그것을 세는 단위. ¶죽고 살고 엎어져서 논 매고 밭 매도 이년의 목구녁에는 보리죽이 닥상이고, 손톱 발톱 다 모지라지게 베를 짜도, 내 평생에 얻어입는 것은 요 사발만헌 두루치 한 {쪼각이여}.<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쪼각나다 동 [대응어] 조각나다

깨어지거나 갈라져서 여러 조각이 되다. ¶애지중지 애끼든 그륵얼 내부쳐서 {쪼각낭게} 아 불호령이 떨어진 거여.

지역 전북.

쪼게 부 [대응어] 조금.

☞쪼깨.

지역 전북.

쪼곰 부 [대응어] 조금.

양이나 정도가 적게. 또는 시간적으로 짧게. ¶국이 싱거운께 소금 {쪼곰} 넣어 다오. ¶나랑 {쪼곰} 저그 가서 얘기 좀 허지.

지역 전북.

해설 '쪼곰'은 '조금'이 어두 경음화로 인해 '쪼금'이 되고, 다시 제2 음절 모음 /ㅡ/가 후행하는 /ㅁ/의 양순성에 동화되어 형성된 형태이다.

쪼그대다 동 [대응어] 쪼그리다.

팔다리를 오그려 몸을 작게 옴츠리다. ¶그래 쪼그대고 {궁뎅이} 받치고 있던 모양이지.<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전북.

쪼까 부 [대응어] 조금.

적은 정도나 분량. ¶어저끄 오후부텀 드러누워 푹 자 버렸대 인자사 {쪼까} 나서졌그만이라~. ¶대설이 어저끈디 긍게로 어저끄는 대설 체맨 땜시 그 핑계 댐서 눈 대신 비가 {쪼까} 내렸다. ¶궁민핵교 댕길 때는 솔차니 시망시러 갖고 뽀시락장난 허고 신천빠진 해찰 땜시 공부는 {쪼까} 그랬지라우~.

지역 전북.

쪼깨 부 [대응어] 조금.

양이나 정도가 적게. 또는 시간적으로 짧게. ¶그 많은 감자를 너 혼자 먹지 말고 나도 {쪼깨만} 다오. ¶처모님 처모님, 나무를 하러 갈란개 찬밥

을 도시락에다 {쪼깨} 싸주쇼.<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그런게 지가 뭐 {쪼깨} 받은 것 뭣 헌 것 집이서 밤나 제것이지마는, 빼.<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암은. {쪼깨} 있으먼은 어떻게든 살리고 그런 단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아 {쪼깨} 있다 본깨 꺼멍 소가 펄떡 일어나거든.<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산딸기를 따려면 {쪼깨} 기다려야 해.

지역 전북.

쪼께 부 [대응어] 조금.

☞쪼깨. ¶아 근개 {쪼께} 더 찌야헌다 하대.<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전북.

쪼꼬매 부 [대응어] 조금.

양이나 정도가 적게. 또는 시간적으로 짧게. ¶도시락 {쪼꼬매} 싼다고 두 시간이나 걸렸다. ¶여그서 {쪼꼬매} 기다려라.

지역 전북.

쪼다되다 형 [대응어] 쪼다되다.

제구실을 못하는 좀 어리석고 모자라는 사람이 되다. ¶도덕이 무너진 시상이다 험서 {쪼다되고} 대니는 거제.<조봉래, 풀벨골> ¶도시서 핵교 대니고 직장 구혀 자립잡히면 자슥헌티 꼼짝 못허는 {쪼다덜이} 의외로 쌔부렀시.<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쪼딜리다 동 [대응어] 쪼들리다.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하여 어렵다. ¶허긴 울덜도 한테 어울려 심이 돼줘야 허는디 묵고 사니라 원체 {쪼들링게}.<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쪼브장하다 형 [대응어] 좁다, 좁다랗다.

너비나 공간이 매우 좁다. ¶시야가 {쪼브장하먼} 못 써. 두부가 다 새버리잖아.

지역 전북.

쪼츰쪼츰 부 [대응어] 조금씩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뒤쫓아가는 모양. ¶서울 장이 불을 다 껐는디 변두리 집이서 불이 하나 써갖고 있어. '저 집이는 기양 모시는가 비다.' 허고 {쪼츰쪼츰} 가서 본게 집을 삼 칸을 지었는디 잘 지었어.<구비문학대계 전북 고창군편>

지역 전북.

쪽니 명 [대응어] 덧니.

배냇니 곁에 포개어 난 이. ¶{쪽니가} 난다.

지역 임실.

쪽바가지 명 [대응어] 표주박.

조롱박이나 둥근 박을 반으로 쪼개어 만든 작은 바가지. ¶{쪽바가지를} 찼다.

지역 군산.

쪽박샘 명 [대응어] 우물.

바가지로 퍼서 먹는 샘. 두레박으로 길러 먹는 우물은 돌을 높이 쌓아 사람의 허리만큼 닿게 하는 데 반해 바가지로 퍼서 먹는 샘은 땅에서 10-20cm 정도만 올라오게 해서 경계를 짓는다. 그래서 앉아서 샘물을 바가지로 뜰 수 있게 하였다. ¶{쪽박샘에} 가서 물을 길어 와.

지역 고창.

쪽박시암 명

바가지로 퍼서 먹는 샘. 두레박으로 길러 먹는 우물은 돌을 높이 쌓아 사람의 허리만큼 닿게 하는 데 반해 바가지로 퍼서 먹는 샘은 땅에서 10-20cm 정도만 올라오게 해서 경계를 짓는다. 그래서 앉아서 샘물을 바가지로 뜰 수 있게 하

였다. ¶두룸박시암도 있고 {쪽박시암도} 있고 그렸는디. 우리는 동네가 두 개 다 있었어.
지역 전북.

쪽지 명 [대응어] 죽지.
☞쭉지. ¶그런디 둘 낳은 뒤에 (말)해 놓은개로 양쪽 어깨에, 날개에다가, 여기 {쪽지가} 겨드랑에다 끼고는 하늘로 올라가 버리드래.<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남원.

쪽지비 명 [대응어] 삵괭이. ¶저 {쪽지비} 눈 좀 봐라. 무섭게 생겼지?
지역 군산.

쪽집게 명 [대응어] 족집게.
주로 잔털이나 가시 따위를 집을 수 있도록 만든 쇠로 된 작은 도구. 또는 어떤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하여 내거나 잘 알아맞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천지불통 {쪽집게는} 큰애기가한쌍이 노리개로구나 어붐바라 잘헌다 붐붐바라 잘헌다 니가잘허먼 내아들 내가잘허먼 느각시다 붐붐바라 /<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넌 내가 몰라보게 사람이 달라졌다구, 과거의 성낙준이가 아니라구 생각하는 거지? 그렇지?" " {쪽집게} 점쟁이구나.<윤흥길, 비늘> ¶긍게 말여어! 으원도 하늘이 내렸다고 허지만 초포땍네 친정오마니도 영락없이 {쪽집게지} 머셔, 앙그려?<이병철, 모래내 모래톱> ¶그리고 두 손가락으로 {족집게를} 만들어 정말로 그의 놀란 속눈썹 하나를 뽑으려 하였다.<최명희, 혼불> ¶그리고, 일금 이십 원을 내시고 사용하시는 손님에게는 감사하다는 뜻에서 플라스틱제 구두 헤라와 여자분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족집게}, 귀후비개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최창학, 창> ¶위아래를 통틀어 겨우 일곱 개밖에 남지 않았는데, 난데없이 무쇠로 만든 커다란 {족집게가} 입 안으로 쑥 들어오더니 기중 실하게 붙어 있던 이빨 하나를 우지끈 잣뜨려 놓고 달아나는 꿈을 꾸었다는 것이다.<윤흥길, 장마> ¶비단 맞춤법뿐만이 아니라 여간해서 일반인은 눈치 못 채는 전문지식의 오류마저 {족집게처럼} 정확히 집어내는 대목과 턱 마주칠 때는 차라리 감탄의 경지를 넘어 교정장이로서의 고유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느낌과 함께 단단히 수모를 받은 기분이어서 도리어 분노마저 느낄 지경이 되곤 하는 것이었다.<윤흥길, 무제>
지역 전북.

쪽쪽허다 형 [발음] [쪽쪼거다/쪽쪼커다] [대응어] 촘촘하다.
틈이나 간격이 매우 좁거나 작다.
지역 전북.

쪽허니 부 [발음] [쪼거니/쪼커니] [대응어] 곧바로.
☞쭉허니.
지역 익산.

쫀쫀히 부 [대응어] 쫀쫀히.
보통보다 정도가 심하게. ¶며느리 늙은 것이 시어미라던가, 아내는 어느새 집주인 행세를 {쫀쫀히} 하려들었다.<윤흥길,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지역 전북.

쫄가리 명 [대응어] 줄기.
풀의 작은 가지나 잎이 붙는 중심되는 부분. ¶김장할 때 무시 {쫄가리를} 말려서 씨레기 만들면 겨울 내동 먹을 수 있어요.<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전북.

쫌매다 동 [대응어] 잡아매다.
☞찜매다. ¶한쪽 다리를 {쫌맸다} 그 말이여,

<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남원.

쫌뿌생이 명 [대응어] 구두쇠.
돈이나 재물 따위를 쓰는 데에 몹시 인색한 사람. ¶지 마누라, 지 아들헌테도 베푸는 벱이 없는 {쫌뿌생이여}. 저러고 살믄 누가 지를 따르겄냐고?
지역 무주.

쫌생이 명 [대응어] 좀생이.
성질이 잘고 옹졸한 사람. ¶나가 내기 땀시 그러는 {쫌생이로} 뵈냐?<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쫍다 형 [대응어] 좁다.
면이나 바닥 따위의 면적이 작다. 너비가 작다. ¶어떻게 {쫍던지} 요만하게 손가락을 가르키며 댓님짝만해 갖고.<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그 {쫍은} 질로 쑥 들어간게 그가서 들어가니까 아, 들도 있고, 논도<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해설 '쫍다'는 '좁다'에 어두 경음화가 적용된 결과이다. '고추장~꼬추장', '던지다~떤지다', '불다~뿔다', '세다~쎄다' 등 어두의 평음 '/ㄱ/, /ㄷ/, /ㅂ/, /ㅅ/, /ㅈ/'이 경음 '/ㄲ/, /ㄸ/, /ㅃ/, /ㅆ/, /ㅉ/'으로 발음되는 일은 전북 방언뿐 아니라 다른 방언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음운 현상이다.

쫍장하다 형 [대응어] 조붓하다.
☞좁장하다. ¶새로 지은 저고리가 동정선은 이쁘게 잘 빠졌는디 허리 품이 어째 {쫍짱한} 듯 보여.
지역 완주.

쫏다 동 [대응어] 쪼다.
뾰족한 끝으로 쳐서 찍다. ¶"어떻게 올라 왔냐?" 그런개, "도치(도끼)로 꼭꼭 {쫏고} 올라 왔어." <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아 짜면 물 타고 싱거면 장 타고 그래도 못 먹을 입은 그런 입은 폿독으로 꼭꼭 {쫏아} 버려야지, 아 뭐혀? 두었다가. 그게 갖고 처녀가 몇 사람들의 시집 하나 못 살고 쬐껴나는디.<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전북.

쫑구라기박 명 [대응어] 표주박.
조롱박이나 둥근 박을 반으로 쪼개어 만든 작은 바가지. ¶{쫑구라기박에} 있는 물을 마셨다.
지역 고창.

쫑구래기박 명 [대응어] 표주박.
☞쫑구라기박.
지역 고창.

쫑그래기 명 [대응어] 종구라기.
☞종그래기. ¶쪽박시킨게 {쫑그래기} 시킨다. <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전북.

쫑그레기 명 [대응어] 종구라기.
☞종그래기.
지역 전북.

쫑쫑 부 [대응어] 송송.
연한 물건을 조금 잘게 빨리 써는 모양. ¶매온 꼬추를 소곰이나 젓으다가 절였다가 {쫑쫑} 썰어 내놓으먼 아조 매옴서 감칠맛이 있지요.<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그런 누물 인제 뽕 여넌놈, 끄테 여넌 느물 {쫑쫑} 쓰러서 뿌리주먼 뜨더머그머는 나나리 달라요, 이놈 누여가.<2009 전북 임실>

지역 임실.

쫴끔 부 [대응어] 조금.

양이나 정도가 적게. 또는 시간적으로 짧게. ¶국이 싱거운께 소곰 {쫴끔} 다오. ¶미란이가 먹고 있는 빵이 너무나 맛이 있어 보여 {쫴끔만} 달라고 사정했다. ¶여그서 {쫴끔} 기달려라잉. ¶일을 {쫴끔하고} 아프다하니 저 아이는 엄살쟁이구나.

지역 전북.

쬐간하다 형 [대응어] 조그마하다.

☞쬐깐하다. ¶응. 9형제를 날 것인게 낭중으 뫼를 봉분(封墳)을 {쬐간하게} 히놓고 낭중으 살드래도 정문을 짓지 마라.<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그 활을 들고 있는 분이 그 큰 짐승이 {쬐간한} 것을 죽일라고 헌단 말이야.<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할머니가 꿈을 꿨는데 {쬐간한} 암탉이 손에 잡히더래. 그 꿈을 꾸고 나서 엄마를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었대. ¶{쬐간한} 것이 나한테 까불고 있제.

지역 전북.

쬐게 부 [대응어] 조금.

☞쪼깨. ¶그 구녁이 쬐게만게도 쌀이 {쬐게} 나온다고 그냥 쑤셔 버린게,<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전북.

쬐그맣다 형 [대응어] 쪼그맣다.

크기가 매우 작거나 수량이 매우 적다. ¶자돈 씨는 목구멍으로 털어넣어 봤자 간에 기별도 않을 {쬐그만} 잔에다 양주를 받아 들었다.<최창학, 심야의 정담> ¶한음 대감 상에는 감을 {쬐그만} 거 하나를 놓고, 오성 대감 앞에는 감을 큰 것을 놓았어. 상을 쏙 차려 놓은깨<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체구가 {쬐그맣게} 생긴 꼬마가 정말로 잘 달리고 있다.

지역 남원.

쬐깐하다 형 [대응어] 조그맣다.

크기가 매우 작거나 수량이 매우 적다. ¶"……반지 파넌 가게서 {쬐깐한} 여학생이 반지 찐다구 숭보면 어쩔래?"<채만식, 태평천하>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쬐깐하다'는 표준어 '조그맣다'보다 의미가 강하여 "아주 작다"를 의미한다. 전남에서는 '쪼깐허다'를 주로 쓰고, 전북에서는 '쬐깐허다'를 주로 쓴다. 부사 '조금'을 '쪼깐, 쬐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접미사 '-하-'가 연결되어 형용사가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쬐깨 부 [대응어] 조금.

☞쪼깨.

지역 전북.

쬐꼬만하다 형 [대응어] 쪼그마하다.

크기가 조금 작다. ¶그래도 평생 고상허서 {쬐꼬만한} 집 한나, 땅 뙈기 몇 마지기라도 지음서 사니께 감사헌 일이지. ¶{쬐꼬만한} 놈들이 질깥으서 댐배나 피고 있으니 느네 부모가 한심허다. ¶{쬐꼬만한} 것이 나한테 까불고 있네. ¶"하하하, 아이참, {쬐꼬만한} 새서방이라믄 왜 그렇게 질색을 허꼬!"<채만식, 두순정>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쬐그만하다'는 표준어 '조그마하다'에 대응한다. 그러나 '조그마하다'가 "조금 작거나 적다"의 의미를 가지는 데 비해, '쬐그만하다'는 "아주 작거나 적다"의 의미를 띤다. '조그만하다'가 첫음절 초성이 경음화를 겪으면 '쪼그만하다, 쬐그만하다, 쪼꼬만하다, 쬐꼬만하다' 따위로 쓰인다.

쬐꼬맣다 형 [대응어] 쪼그맣다.

☞쬐그맣다. ¶으런들 말씀허시는디 어디 {쬐꼬만헌} 놈들이 와서 소란을 피우냐.
지역 완주.

쬧기다 동 [대응어] 쫓기다.
억지로 내몰리거나 뒤따름을 당하다. ¶못헐 것 같으면 군수가 파직을 당허는디 시방도 그르지. 어느 분네 땅으서 처리 못헌다 소리 까딱허면 {쬧겨} 가는 것이여. 걱정이지 인자 파직 당허게 생겼은게.<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셋째더러, "너는 어째 왔냐?" "나는 하도 집안이 구질구질해서 책읽다가, 소방간(변소) 가서 책 좀 읽다가 {쬧겨} 왔네."<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우리 어머니보고 바느질감을 좀 맡어서 말여. 내가 이만저만히서 여그서 오늘 저녁으내가 바느질감 못 맡아 오먼은 여그서 {쬧겨나게} 된게로 우리 어머니보고 이얘기를 잘 히서 나 바느질감을 맡어서나 갖고니라.<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하숙비로 영화보로 댕기고 군것질만하다가 겔국 하숙집으서 {쬧기게} 생겼응게 아부지 한터 싹싹빌고 살려달라고 혔지.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부안, 임실, 정읍, 군산.
해설 '쬧기다'는 '쫓기다'의 음절 '기'에 있는 모음 /ㅣ/로 인해 음절 '쫓'이 '쬧'으로 변하였다. 이것은 전북 방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음운 현상이다.

쭈게이 명 [대응어] 쭉정이.
☞쭈겡이.
지역 고창.

쭈겡이 명 [대응어] 쭉정이.
껍질만 있고 속에 알맹이가 들지 않은 곡식이나 과일 따위의 열매. 또는 쓸모없게 되어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키질을 헌다구 허잖어. 그거이 다 {쭈겡이를} 골라낼려구 그러는 거여. ¶즈그 애비 그렇게 죽고 나서 아주 {쭈겡이맨치로} 산다니께.
지역 남원, 고창.

쭈구렁살 명 [발음] [쭈구렁쌀] [대응어] 주름살.
피부가 쇠하여 생긴 잔줄. ¶나이든게로 {쭈구렁살이} 생깄어.
지역 전북.

쭈글탱이 명 [대응어] 늙은이.
주름이 많은 사람. 또는 노인을 비하하여 이르는 말. ¶나도 인자 {쭈글탱이} 할멈이 다 되얐어.
지역 전북.

쭈금살 명 [대응어] 주름살.
피부가 쇠하여 생긴 잔줄. ¶얼굴에 {쭈금살} 천지다
지역 무주.

쭈름살 명 [대응어] 주름살.
피부가 쇠하여 생긴 잔줄. ¶{쭈름살이} 자글자글하다
지역 전북.

쭉대기 명 [대응어] 날갯죽지.
날개가 몸에 붙어 있는 부분. ¶메뚜기 쭉대기 떼어 버리고 볶아 먹어. 날아다니는 거.
지역 전북.

쭉때기 명 [대응어] 죽지.
날개가 몸에 붙어 있는 부분. ¶떠가지고 날다보니 앉을 데가 있어야지. 허허, 앉을 데가 없단 말이여. 아 앉을 데가 없어서 낭중에 이제 {쭉대기} 아파 놀릴 수가 있어야지. 하하하<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콩쭉대기는} 아무리 까도 알 콩이 거의 없다.
지역 남원.

쭉젱이 명 [대응어] 쭉정이.

껍질만 있고 속에 알맹이가 들지 않은 곡식이나 과일 따위의 열매. 또는 쓸모없게 되어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알맹이가 안 들고 주거부렀따고.(알맹이가 안 들고 죽어버렸다고.) 쭉 {쭉젱이가} 돼갇꼬.(쭉 쭉정이가 돼가지고.) 맨 {쭉젱이빼끼다고}.(모두 쭉정이밖에없다고.)<2009 전북 임실> ¶엄마는 밭에서 주운 콩대를 키에 들까불어 {쭉젱이를} 날려 버렸다. ¶콩타작하고 남은 {콩쭉젱이를} 걸러 내거라. ¶지 형이 자 뒤치다꺼리 다 해주고 그렀어. 자는 기양 {쭉젱이지}. ¶넘보다 잘은 못히도 중간이라도 가야지. {쭉젱이} 같은 인간아.

지역 전북.

쭉지 명 [대응어] 죽지.

☞쭉때기. ¶우마가 보읍도 안 하지, 학이 와서 이렇게 {쭉지를} 피고 있은개 그 애기를 도로 키웠다고.<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꿩이 한 마리 꺼끌 허고 {쭉지} 떨고 끌끌거려. 저 {쭉지는} 떼여서 우리 어머니를 주고지고 끄끄 우는 저 목성은 시아버지나 주고지고<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그꽁잡아 나를주면/.발목뎅이는 동세님의 상에놓고 쫑굴쫑굴 주뎅이는 시누님의 상에놓고 따둑따둑 {쭉질락헌} 임의상에나 올리줌세(그 꿩 잡아 나를 주면 발목은 동서님 상에 놓고 쪼글쪼글 주둥이는 시누님의 상에 놓고 따둑따둑 날갯죽지는 임의 상에나 올려줌세)<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고창, 군산, 김제, 남원, 부안, 정읍.

쭉지때기 명 [대응어] 죽지.

날개가 몸에 붙어 있는 부분. ¶"설마 니가 갈란가."허고 해 버렸네. "옳다. 그러면 그렇지 너허고 나허고 혼줄이 되냐?" 양쪽에다가 양쪽 {쭉지때기에다가} 딱 쥐고는 하늘로 올라 가버린개. 허두 장군(허망한 장군)이 되어 버렸어.<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남원.

쭉징이 명 [대응어] 쭉정이.

☞쭉젱이.

지역 무주.

쭉허니 부 [발음] [쭈거니/쭈커니] [대응어] 곧바로.

굽거나 기울지 아니하고 곧은 방향으로. ¶이 질을 따라 {쭉허니} 가믄 우체국이 나와. ¶농협 옆에 {쭉허니} 가다보면 버스정류장이 있다.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사람들이 {쭉허니} 늘어 서있길래 나도 언능 뒤에 가 서 보았지. 근디 아무것도 아녀. ¶우체국을 가는 길은 이 길로 {쭉허니} 가면 된다.

지역 익산.

쭉흐니 부 [발음] [쭈그니/쭈크니] [대응어] 곧바로.

굽거나 기울지 아니하고 곧은 방향으로.

지역 전북.

쭐구다 동 [대응어] 줄이다.

물체의 길이나 넓이, 부피 따위를 본디보다 작게 하다. ¶큰 옷을 {쭐구어서} 입는다.

지역 전북.

해설 '쭐구다'는 '줄다'에 사동 접미사 '-이-' 대신 '-구-'가 결합한 '줄구-'에 다시 어두 경음화가 적용된 결과이다.

쭐다 동 [대응어] 줄다.

물체 본래의 길이나 넓이, 부피 따위가 작아지거나 수량이 적어지다. ¶천 리 밖에서 진을 친 수많은 빨갱이야 안직 무서울 것 읎지만 바로 옆구리에 붙어 있는 빨갱이가 문제다 그것이요. 고것덜이 예삿것들이 아닌디다가, 군인도 수가 팍

{쭐어} 붙지 안했냐 말이오.<조정래, 태백산맥> ¶“.염전 빼고, 핵교재산 빼고, 그러다봉께 우리 차지가 을매나 {쭐어} 뿌렀냔 말이여.”<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쭐이다 동 [대응어] 줄이다.
물체의 길이나 넓이, 부피 따위를 본디보다 작게 하다. ¶아이고, 머심살이 인자사 담살잉게 앞으로도 창창허지마는, 그런다고 누가 땡게서 {쭐여} 주도 안헌디 속만 태우먼 멋히여어?<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쫌매다 동 [대응어] 잡아매다.
☞찜매다.
지역 부안.

쯔봉 (←<프>jupon) 명 [대응어] 바지.
☞쓰봉. ¶“이짜식, 못 들은 척하려 들어. 안 되겠군. {쯔봉} 벗어, 훈도시까지. 어디 찐뽀 한번 꺼내나 봐.”<최창학, 심야의 정담>
지역 전북.

쯤매다 동 [대응어] 잡아매다.
☞찜매다. ¶그 잔치집으루 갔어. 가서는 그 끈을 끌러서 지게 목발에다 {쯤매} 놓았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완주.

찌거미 명 [대응어] 비듬.
살가죽, 특히 두피에 생기는 회백색의 잔 비늘. ¶머리에 {찌거미가} 많다.
지역 김제, 완주.

찌게 부 [대응어] 조금.
☞쪼깨.
지역 전북.

찌게미 명 [대응어] 비듬.
☞찌거미.
지역 전북.

찌그락거리다 동
사이가 나빠 자주 싸우다. ¶그저 지보담 잘난 놈은 무조건허고 인정허덜 못허겄다는 것 땀시 {찌그락거린단} 말이시.<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찌깐허다 형 [대응어] 조그맣다.
☞쩨깐하다. ¶아직 중핵교도 안간 {찌깐헌} 놈들이 벌써 댐배를 피고 댕겨?
지역 전북.

찌꺼리 명 [대응어] 찌꺼기.
쓸 만하거나 값어치가 있는 것을 골라낸 나머지. ¶밥 먹구 남은 {찌꺼리는} 모아다가 마당 구석이다가 묻어. 고것이 썩으면은 인제 퇴비가 된다구.
지역 고창.

찌께기 명 [대응어] 찌꺼기.
쓸 만하거나 값어치가 있는 것을 골라낸 나머지. ¶고기 사다가 오빠만 주구 왜 나는 안 주는데, 나는 남이 먹구 남는 {찌께기나} 먹으라 이거야?
지역 전북.

찌끄래기 명 [대응어] 찌꺼기.
쓸 만하거나 값어치가 있는 것을 골라낸 나머지. ¶이런 것을 인자 다 비고(베고) {찌끄래기를} 갖다 뒤엄자리다 내쏘고, 내쏘고 그런다 그말입니다.<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초원다방에 가믄 펄펄 나는 젊은 처녀가 쌔고쌨는디 니는 하필이모 홍마담을 찍었노? 그 여자, 술

집 {찌끄래기} 아이드나?<양귀자, 찻집 여자> ¶양반은 상놈한테 먼 짓 해도 상관없고, 상놈은 양반 옆에 {찌끄래기만} 줏어 먹어도 죽을 죄냐? 아 느그 양반들은 종도 많고 머심도 많고 호제도 많드라?<최명희, 혼불> ¶공것으로 준 것인디 어찌 좋은 것만 있겄소. 실헌 놈도 있고 {찌끄래기도} 있고 허겄지. ¶좋은 것은 다 골라가고 나머지 {찌끄래기는} 우리가 가질것이니라.
지역 김제, 임실, 군산, 완주, 무주, 남원.

찌끄럭지 명 [대응어] 찌꺼기.
쓸 만하거나 값어치가 있는 것을 골라낸 나머지. ¶하루 점드락 낚시대를 놓고 있으믄 뭣혀, 맨 {찌그럭지만} 잡아 올리는디.
지역 전북.

찌끄레기 명 [대응어] 찌꺼기.
☞찌끄래기. ¶"왜놈들 {찌끄레기에} 불과헌 완장이 그렇게도 부럽 뵈고 그렇게도 탐나드냐?"<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군산, 완주.

찌끄리기 명 [대응어] 찌꺼기.
☞찌끄래기.
지역 무주.

찌끄리다 동 [대응어] 끼얹다.
액체나 가루 따위를 다른 것 위에 흩어지게 내던지듯 뿌리다. ¶게란 양념 {찌끄린따}.<2009 전북 임실> ¶더위 가시게 물 퍼다가 마당에 {찌끄리렴}.
지역 전북.

찌끌 명 [대응어] 찌꺼기.
쓸 만하거나 값어치가 있는 것을 골라낸 나머지. ¶찌참에 성안을 갔도만 펀대기, 오빠시 벌도 추워징게 없어 불고 {찌끌} 진물 나는 늘근 상소리 낭구들은 고대로 있습디다. ¶카만이 나또야~ 매급시 긁어 갖고 썽나먼 {찌끌만} 더 생깅게.
지역 고창.

찌끌다 동 [대응어] 끼얹다.
액체나 가루 따위를 다른 것 위에 흩어지게 내던지듯 뿌리다. ¶개가 해 넘어가그라 허고 오래 오래 흘레붙는 꼬라지 비기 싫으먼 찬물 {찌끌어} 대서 떠놓는 것 말이시.<조정래, 태백산맥> ¶긍게, 놀부 심보지라우~ 불난 디다 지름 {찌끄러} 버린 거시나 진배 없당게요. ¶소망에 가서 소매 한 박작 퍼다가 확 {찌끄러} 버리기 전에 후딱 인나라이.<고창방언> ¶아주머니 한 참 싸우다가 상대방 얼굴에 물을 짝 {찌끌었다}.
지역 전북.

찌끔 부 [대응어] 조금.
☞쬐끔. ¶말이 다른 디는 안 가고 가다가 쉬고 가다가 쉬더니, {찌끔} 가더니 거가서 탁 스는디, 그 자리를 본게 천하여 대지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찌끼다 동 [대응어] 쫓기다.
억지로 내몰리거나 뒤따름을 당하다. ¶똥을 풍! 풍! 뀐개 배가 우시시! 우시시! 떨어진개, 그런데 그놈을 황아 장사도 먹고 그 사람도 먹고 친정에 {찌께} 가니깨 배가 고픈개 자기도 먹고.<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남원.

찌다[1] 동
소매를 대다. ¶반호장 {찌고} 이쁘게 입고 오지.
지역 전북.

찌다[2] 동 [대응어] 끼다.
벌어진 사이에 무엇을 넣고 죄어서 빠지지 않게

하다. 또는 옆에 두고 가까이 하다. 또는 어떤 것이 펴져서 보이던 것을 가리다. ¶강돌 강돌 강도령/강돌책을 옆에 {찌고}/ 무장땅으 장개간게/서른 두 칸 대문 달고/인물 평푼 둘러 치고/하지 평푼 둘러 치고(완주 강실도령-“강돌 강돌 강도령”)<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옆눈이로 실쩍 보니/ 진주낭군이/ 하눌 같은 말을 타고/ 구름 같은 갓을 씨고/ 기생첩을 옆으 {찌고}/ 본치 만치 지내가데(완주 시집살이노래-“빨래질 가자 빨래질 가자”)<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솥뚜껑을 열고 보니/삼년 묵은 녹이 {쪘네}/어허 품바나 잘 헌다(부안 각설이타령-품바타령)<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저 건네 갈미봉 새넌 거멍 안개가 {쪄들온디}/ 언제 서 마지기 배미럴 다 심고서 밤마실을 갈꺼나(저 건너 갈매봉 사이에는 검은 안개가 끼어오는데/ 언제 서 마지기 배미를 다 심고서 밤마실을 갈까나)(익산 모심는 소리/상사소리/자진 상사소리)<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전북.

찌다[3] 동 [대응어] 찧다.

굵은 알갱이를 부스러뜨려서 가루로 만들다. ¶메주 방애를 콩콩 찧거든? 아, 그 메주 방애 좀 {찌서} 주고 좀 얻어 먹어까 싶어서<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방앗간에서 메주를 {찌어} 와야 된장 만들 때 쓰지.

지역 남원, 정읍.

찌라기 명 [대응어] 악질.

못된 성질의 사람. ¶자네 마누라, 참말 {찔악이시}! 고게 먼 벼슬이라고 나 마누라의 결 채가스니 말여.<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찌럭배기 명

크고 억센 황소처럼 어깃장을 부리는 행동이나 그러한 사람. ¶이런 {찌럭배기} 봤냐. 왜 자꾸 건드러.<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찌럭찌럭 부

자꾸 건들거나 귀찮게 하는 모양. ¶오사고 암만 장마철이라고는 흐지만 지영때만되믄 {찌럭찌럭} 잡녀르 비가 왓쌋능가 모르긋다. ¶그렁게, {찌럭찌럭} 건등게 올라타고 엥길라고 허제. ¶나 시방 디지게 생겼응게 {찌럭찌럭} 건들지 마시요. ¶오사고 하래 점드락 {찌럭찌럭} 왓쌋능가 끄끕시랍고 꾼적그리고 차말로 못살긌소.

지역 고창.

찌르다 동 [대응어] 꽂다.

물체의 안쪽으로 박아 세우거나 끼우다. ¶삔을 머리에 {찌른다}.

지역 고창, 김제,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정읍.

찌륵찌륵 부

자꾸 건들거나 귀찮게 하는 모양. ¶이트까, 참을 만큼 지두리다 참었응게로 인자, 고만 {찌륵찌륵} 건드시요 이~. ¶{찌륵찌륵} 건들지 마라 이~ 싸대기 확, 볼라버릴랑게 이! ¶{찌륵찌륵} 건들다가 그것도 말을 싸가지없게 히 갖고 귀싸대기와 쌍코피 터져 부렀어라우.

지역 고창.

찌른내 명 [대응어] 지린내.

☞지른내.

지역 전북.

찌릉내 명 [대응어] 지린내.

☞지른내. ¶“옳여, 워디서 {찌릉내가} 폴폴 나쌓등마 바로 김 동무가 오짐 방울 덜 털고 옷에다가 들겨서 그런 것이로구마!”<조정래, 태백산

맥>

지역 전북.

-찌리 접 [대응어] -끼리.

'그 부류만이 서로 함께'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나중으, '어서 살며 뭣허고….' 인자 들어가서 그 거시기가 그 {하인들찌리} 한 번 물어봤단 말여. 근게로 '무슨 정승판서가 뭐 오삼촌여<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그래, 그때에 아들은 사랑에 먼저 나가 버려서 없고. 그래 {고부찌리} 있어. 그래 며느리가 나가서 고구마를 찌는디,<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전북.

찌린내 명 [대응어] 지린내.

☞지른내. ¶"아서, 아서, 아까 나가 헌 말 까묵어부렀냐. 사람얼 아무도 못 알아보는디다가 그 방에 들어가먼 쿠린내에다가 {찌린내}, 늙은이냄새꺼정 진동해서 속 다 뒤집어진다. 니 사람 노릇 잘못헌다고 나무랠 사람덜 없응게 절로 가서편허니 앉기나 허자."조정래, 아리랑>

지역 무주, 임실, 장수.

찌벅거리다 동 [대응어] 집적거리다.

자꾸 남을 건드려 성가시게 하다. ¶나한테 {찌벅거리지} 말고 저리 좀 가라.<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저놈은 어렸을 때 남 {찌벅거리기} 대장이었어. 안 그요?<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전북.

찌우뚱짜우뚱 부 [대응어] 갸우뚱갸우뚱.

물체가 이쪽저쪽으로 자꾸 갸울어지며 흔들리는 모양. ¶그때까지만 해도 효원은, 머리꽁지를 내려뜨린 대가리를 {찌우뚱짜우뚱} 하며 말문을 못 여는 콩심이가 한편 우습기도 하고<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의 의태어 부사 '짜우뚱'은 표준어로 '갸우뚱'이다. '찌우뚱짜우뚱'은 '짜우뚱' 부사가 두 번 중복되면서 제1 음절의 모음을 교체한 것이다.

찌우르다 형 [대응어] 기울다.

한쪽이 낮아지다. 또는 생각이 한쪽으로 쏠리다. ¶구들장 한쪽이 {찌울렀다} ¶한번 {찌우른} 마음은 되돌리기 힘들다 ¶애초부터 {찌울러져} 있는 짐이 넘어가지나 않을까 불안혔지".

지역 전북.

찌웃찌웃 부 [대응어] 기웃기웃.

무엇을 보려고 고개나 몸 따위를 이쪽으로 조금씩 자꾸 기울이는 모양. 또는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으로 슬금슬금 자꾸 넘겨다 보는 모양. ¶저녁밥을 먹고 있는 판인데, 그래 이제, 둘허고 선생허고는 몸이 고된게 드러누워 자. 근디 이놈은 잠도 안 자. 요렇게 {찌웃찌웃} 댕겨 본게는, 정지문 옆에가 큰 떡시루 하나가 게 앉아 있어. "하 이 집안 오늘 저녁 제산가부다."<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어디 저 남산공원도 갔다날마다 귀경만 허는디, 그러자 어니 창경원을 가본게 아 그 동네 사는 그 여자 하나가 만나서 {찌웃찌웃} 구다봐, 여자를. 아무개떡 아니냐고. 그서 걍 고개를 홰딱 돌아갔어요. 말을 안 헐라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낯선 사람이 이집 저집을 {찌웃찌웃} 하고 있다. ¶이웃 집에어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여 뒷꿈치를 들고 {찌웃찌웃} 넘겨다 보았다.

지역 전북.

찌크름 명 [대응어] 미끄럼.

((흔히 '지치다', '타다' 따위와 함께 쓰여)) 미끄러운 곳에서 미끄러지는 일. 또는 그런 놀이. ¶물이 언 곳에서 {찌크름을} 탄다. ¶깔크막에서 한

눈 팔다가 {찌크름을} 탔더니 궁딩이가 아직도 욱신욱신허네.
지역 전북.

찌크리다 동 [대응어] 끼얹다.
☞찌끌다. ¶두룸박으로 물 한 두룸박 퍼가꼬 걍 등으다가 짝 {찌클이먼} 얼마나 시원허까?<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전북.

찌클다 동 [대응어] 끼얹다.
곳곳에 흩어지도록 던지거나 떨어지게 하다. 또는 액체나 가루 따위를 다른 것 위에 흩어지게 내던지듯 뿌리다. ¶서방님 발치 마당에다가 짝, 자숫물을 {찌크러} 버리고는,<최명희, 혼불> ¶넘의 일이라고 말을 막 {찌클어} 불먼 안 되제이. ¶지가 말을 싹동머리 없이 {찌클어} 버링게 그러지라우. ¶나이도 쥐알태기만큼 {찌큰} 놈 언다 대고 반말을 찍찍 깔긴다냐?
지역 고창.
해설 전북 방언 '찌클다'는 표준어 '뿌리다'와는 다르게 감정적인 어조가 있는 어휘이다. 전라 방언에서 '물을 찌클다'라는 표현은 "상대방에게 기분이 좋지 않거나 개인의 마음에 차지 않아서 물을 뿌리는 일"을 일컫는 경우가 많다. '찌클어 버리다'의 표현이 흔히 쓰인다.

찍게 명 [대응어] 집게.
끝이 두 가닥으로 갈라져 있는, 물건을 집는 데 쓰는 도구. ¶애기 때 인제 잘못허면 우리 아부지한티 {찍게}, 연탄 찝는 {찍게로} 허벌나게 맞었어.
지역 고창, 완주, 임실, 무주.

찐데기 명 [대응어] 진드기.
☞찐디기.
지역 전북.

찐드기 명 [대응어] 진드기. ¶매급시 그러지 말드라고. 내가 무신 거마리, {찐드기맹이로} 들러붙어서 떨어지도 안허고 살자고 그러께미 미리부텀 장개 안 간다고 으름짱 놓능 거 내가 다 앙게로 오.<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찐디기 명 [대응어] 진드기. ¶치리부장이 다시 말했다. "선지자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따, 그 사람 {찐디기맨치로} 에지간히 구찮게 달라붙고 야단이네!" 종술이 벌컥 신경질을 부렸다. "엿 줄라고 보잔다든가, 떡 줄라고 보잔다든가?"<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찐따 명 [대응어] 절름발이.
한쪽 다리가 짧거나 다치거나 하여 걷거나 뛸 때에 몸이 한쪽으로 자꾸 거볍게 기우뚱거리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거 다리불구덜얼 가지구 {찐따라구} 하지.
지역 전북.

찐보 명 [대응어] 울보.
찔찔거리며 잘 우는 아이. ¶맨나 찔찔거리고 울던 {찐보가} 이렇게 컸어?
지역 전북.

찔긋찔긋허다 형 [발음] [찔근찔그더다/찔근찔그터다] [대응어] 질기다.
물건이 쉽게 해지거나 끊어지지 아니하고 견디는 힘이 세거나 오래 가다. ¶풀솜을 그놈을 갖다가 뉘어 키고 뉘어 이케 실 쓰먼 실 찌갱이가 말려놨다가 걸어놓고 이롷게 이롷게 허먼 걍 {찔긋찔긋헌} 풀솜이 나와 ¶걸어놓고 이렇게 허먼 {찔긋찔긋허니} 쨰끔 이렇게 띠어다 비벼야 실이 잇어져. ¶그놈 말려가꼬 말리먼 인제 손으로

찢으면 {찔긋찔긋허니} 부허니 인자 소캐 같이 되야.
지역 전북.

찔꺼리 명 [대응어] 찌꺼기.
☞찌꺼리.
지역 고창.

찔끔거리다 동 [대응어] 잘금거리다.
☞잴금거리다. ¶야 이년아, 뭣이 서럽다고 그렇게 눈물을 {찔끔거리나}.
지역 완주.

찔렁새비 명 [대응어] 새우(민물, 大).
강이나 호수 따위의 염분이 없는 물에서 사는 큰 새우. ¶{찔렁새비} 넣고 라면 끓여 먹으면 그게 또 별미제.
지역 고창.

찔레다 동 [대응어] 찔리다.
끝이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것에 물체의 겉면이 뚫어지거나 쑥 들어가도록 세차게 들이밀리다. ¶꽃에 {찔레도} 아프지 않다 ¶까시에 {찔렌} 자리가 오래가더니 고름이 잽혔네.
지역 완주.

찔롱 명 [대응어] 찔레.
찔레나무. 또는 찔레나무의 어린 순. 봄에 부드러운 새순은 껍질을 벗겨서 먹기도 한다. ¶먹을게 있간디? 산에 가서 {찔롱} 꺼끄다 먹고.
지역 전북.

찔룩 명 [대응어] 찔레.
찔레나무. 또는 찔레나무의 어린 순. 봄에 부드러운 새순은 껍질을 벗겨서 먹기도 한다. ¶{찔룩은} 가시가 많다.
지역 전북.

찔배 명 [대응어] 아그배.
아그배나무의 열매. 모양은 배와 비슷하나 아주 작고 맛이 시고 떫다. ¶{찔배가} 쪼꼬만허도 신맛이 잘 나고 좋네잉.
지역 전북.

찔벅거리다 동 [대응어] 집적거리다.
말이나 행동으로 자꾸 남을 건드려 성가시게 하다. ¶알콜 솜으로 자리를 닦아놓고서 기다리다 못해 간호부가 {찔벅거리는} 바람에 승재는 눈을 도로 뜨고 가까스로 주사 한 대를 마쳤다. <채만식, 탁류>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찔벅거리다'는 표준어 '집적거리다'가 가지고 있는 "아무 일에나 함부로 자꾸 손을 대거나 참견하다"의 의미는 없고, 오히려 "남을 건드려 성가시게 하다"라는 의미만 가진다.

찔벅이다 동 [대응어] 집적이다.
아무 일에나 함부로 손대거나 참견하다. ¶아무데나 {찔벅이지} 말아라 ¶겔혼이 급허지만 아무 여자 한티나 {찔벅이고} 댕긴게 너 보고 농판이라고 허는 거여.
지역 전북.

찔벅찔벅허다 동 [발음] [찔벅찔버거다/찔벅찔버커다] [대응어] 집적거리다.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도록(눈이나) 남이 안 보게 손으로 자꾸 찌르거나 밀치다. ¶나보고 허라고 자꾸 {찔벅찔벅히싼게}.
지역 전북.

찜 쪄 먹다 【관용표현】 [대응어] 능가하다.
능력이나 수준 따위가 비교 대상을 훨씬 넘어서다. 쪄 먹다 ¶기생오라비 {찜 쪄 먹을} 요란한

차림을 늘 자랑하고 다니는 것으로 유명했다. <윤흥길, 빛가운데로걸어가면, 997, , 50> ¶"하이고, 이 도령 {찜쪄묵게} 잘나 뵈능구만그랴." <조정래, 아리랑, 995, 4, 89>
지역 전북.

찜 쪄 묵다 【관용표현】
☞찜 쪄 먹다. 쪄 묵다 ¶"하이고, 이 도령 {찜 쪄 묵게} 잘나 뵈능구만그랴."<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찜매다 동 [대응어] 잡아매다.
흩어지지 않게 한데 매다. ¶다른 대감들이 {찜매} 준 놈이라 나쁜짓 헐 수도 없고,<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조선 때 지방장관이나 견외사신(遣外使臣)을 수행하던 관원. 히서 {찜매} 주었어.<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어머니는 끈으로 무를 {찜매서} 가져왔다.
지역 전북.

찝게손가락 명 [대응어] 집게손가락.
☞집기손구락. ¶내 옆꾸리를 {찝게손가락으로} 쿡쿡 찌른 것이 누구여. 노처녀 구제 히 준거를 고맙게 생각혀야지.
지역 완주.

찝어까다 동 [대응어] 꼬집다.
주로 손가락을 이용하여, 살을 잡아 비틀다. ¶기다리다 못한 옹구네가 편잔을 준다. "말로 허제 왜 {찝어까고} 그런당교?" 아마 허리를 꼬집혔는지 움찔하더니 춘복이는 목소리를 낮춘다.<최명희, 혼불> ¶동생이 좀 {찝어깠다고} 너도 똑 같이 허냐?
지역 전북.

찡구다 동 [대응어] 꽂다.
물체의 안쪽으로 박아 세우거나 끼우다. ¶귀거기 안마즈 안마증깨 인재 고 고 사이사이는 이르캐 인재 잔돌로 가따가 점부 잔돌로 가따가 {찡궈요}.(규격이 안 맞으 안 맞으니까 이제 그 그 사이사이는 이렇게 이제 잔돌로 갖다가 전부 잔돌로 갖다가 끼워요.)<지역어 자료 총서, 무주> ¶아침 일찍부터 부고장을 동네 싸립문에다 {찡구고} 돌아 댕겼다. ¶메모한 내용을 책속에 {찡구었다}.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찡기다[1] 동 [대응어] 끼우다.
벌어진 사이에 무엇을 넣고 죄어서 빠지지 않게 하다.한 무리에 섞거나 덧붙여 들게 하다. ¶내오간에 오손적도손적으로 정을 나누는 마당에 깔쪽허면 하 목사를 새중간에 {찡겨} 옇고 지랄이냐?<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리 갖고 세놈이 그 재산이 많혀서 사방에다 {찡겨} 논 놈 다 빼 먹고 서이 나가서<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찡기다[2] 동 [대응어] 끼이다.
틈새에 박히다. ¶이것을 안 딱아서 뒤집어 내쏘야 한 번 쓰지 더 못 써네. {찡겨서}. 그런개 탁 달라붙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그런디 도둑놈은 오양간 옆에 가서 소 오양 있는디 가서 {찡겨} 앉구, 도둑놈 사람은 더구나 위로 올라가구.<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전북.

찡기다 동 [대응어] 끼다(끼이다, 挾, 가시가).
벌어진 사이에 무엇인가가 들어가 죄어서 빠지지 않게 되다. ¶소를 몰러갔는디, 호랭이(호랑이)가 소를 또 갖다 먹을라구 소를 또 몰러갔어. 그런디 도둑놈은 오양간 옆에 가서 소 오양 있는디

가서 {찡겨} 앉구, 도둑놈 사람은 더구나 위로 올라가구, 둘이 이제 그 안방에서 다 기척이 없어 자야만 소를 몰구 나갈껀디,<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거둬내며는 그 밑에 가서 인저 자갈도 없고 모래도 없고 매끌매끌한 흙이 많이 든 데도 있고 작게 든 데도 있고 {찡겨} 갖고 있어라우. 그것도 있는 데나 있지 없어라우. 긍게 고놈얼 인자 파 와.<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7>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진안.

{{



차금 명

공기놀이를 할 때 손등에 다섯 개의 공기돌을 올려 놓고 손바닥을 뒤집어 받는 일. ¶지금은 손이 이렇게 갈쿠손이 돼가꼬 안 되지만 그 전이는 손이 지드란허니 옴팍히서 착 차금 받기 잘혔네이.

지역 전북.

차끄 부 [대응어] 자꾸.

잇달아서 여러 번 계속하여. ¶그것이 인자 {차끄} 그런 얘기가 전파가 되고 어찌고 헌게.<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차꾸 부 [대응어] 자꾸.

잇달아서 여러 번 계속하여. ¶근게 팥죽을 사갖고 들고 오다서는 손꾸락을 {차꾸} 건드기를 젓었쌌거든. "얌마! 뭐 손꾸락으로 그러나."<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들어가서 명지베거튼 거 뭐 중국에서 나온 공단거튼 거 뭐 전부 훔쳐갖고는 그 구녁으로 {차꾸} 내 보녀.<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정읍, 고창, 무주, 임실.

차단쓰 (←<일>chadansu(茶簞笥)) 명 [대응어] 서랍.

책상, 장롱, 화장대, 문갑 따위에 끼웠다 빼었다 하게 만든 뚜껑이 없는 상자. ¶{차단쓰에} 잘 넣어 두어라.

지역 무주.

차대기 명 [대응어] 자루.

속에 물건을 담을 수 있도록 헝겊 따위로 길고 크게 만든 주머니. ¶깨를 달래갖고는 깨를 인제 주닌게로 한 모싹씩 퍼준게로 밑없는 {차대기다} 받았으니 조르르 빠질 것 아닌가?<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옛날에 저 사웃감을 골를라고 찰밥을 쩌서 그때는 인자 {차대기다가} 느서 들치미고 인자 사웃감을 고르로 가는디.<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차두 명 [대응어] 자두.

자두나무의 열매. 살구보다 조금 크고 껍질 표면은 털이 없이 매끈하며 맛은 시큼하며 달콤하다. ¶아를 뱄을 때는 속이 미식거린게 새코롬한 {차두가} 그렇게 땡겼어.

지역 남원, 순창.

차마리 명 [대응어] 잠자리.

☞자마리.

지역 전북.

차말 명 [대응어] 참말.

사실과 조금도 틀림이 없는 말. ¶{차말이어라우}. 허는 일 없이 징허고 오사허게 바빴당게요
지역 고창.

차말로 부 [대응어] 참말로.
사실과 조금도 다름이 없이 과연. ¶으찐 때는 나지매도 훽 허니 퍼붓고 먼 산너머로 기여저 도망가고 끄끕시랍고 꾼적그리고 {차말로} 못살긋쏘. ¶징허게 일도 앙굴고 {차말로} 옹삭흐고 까깝시랍고 지발 낼부텀 한사날 빼 해쓰믄 쓰긋다. ¶긍게, 지비는 {차말로} 영판 오지겄서 이~. ¶근디, {차말로} 해찰도 모르요? ¶글고 어지께는 삼대일에 삼대삼에 또 져버링게 비아나갖고 맨마든 쌍욕으로 사람들의 맘은 {차말로} 간사 헌거시다.
지역 고창.

차몰미 명 [대응어] 차멀미.
차를 탔을 때 메스껍고 어지러워 구역질이 나는 일. 또는 그런 증세. ¶{차몰미가} 심히 갖고 차를 오래 탈 수가 없네.
지역 전북.

차복차복 부 [대응어] 차근차근.
서두르지 않는 모양. ¶볏가리를 {차복차복} 쌓으면 지붕보다 더 높게 쌓을 수가 있어요.<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방안으로 오기가 나게 버티고 들어가 윗목에 오똠하게 앉은 옹구네는 웬일로 거치는 것 없이 {차복차복} 공배네를 닦아세웠다.<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차서숙 명 [대응어] 차조.
찰기가 있는 조. ¶{차서숙을} 섞어 밥을 짓는다. ¶{차서숙으로} 밥을 해서 그런지 밥이 참 찰지구나.
지역 남원, 순창, 임실, 장수, 고창, 무주.

차수숙 명 [대응어] 차조.
☞차서숙.
지역 고창, 무주.

차오다 형 [대응어] 쌀쌀하다.
날씨나 바람 따위가 음산하고 상당히 차갑다. 또는 사람의 성질이나 태도가 정다운 맛이 없고 차갑다. ¶아직 팔월인디 아침 공기가 솔찬히 {차온} 것이 인자 가을이 올랑가벼. ¶그 댁 신랑이 뭔 죄를 저질렀는가 몰러도 부인이 아주 {차와}. 한번 쳐다를 안 보드라구.
지역 남원, 무주, 장수.

차운밥 명 [대응어] 찬밥.
지은 지 오래되어 차가워진 밥. ¶먼길 나가는 양반한티 {차운밥을} 내줄 수가 없어서 누룽지라도 팔팔 끓여서 내쵔지. ¶{차운밥은} 솥에다 좀 데워서 먹으면 좋겠다.
지역 무주.

차웁다 형 [대응어] 쌀쌀하다.
날씨나 바람 따위가 음산하고 상당히 차갑다. 또는 사람의 성질이나 태도가 정다운 맛이 없고 차갑다. ¶운명이 그들의 발걸음을 자연스럽게 한강둔치로 인도했다. "물이 솔찮이 {차웁겄지}?" 둔치 가장자리의 호안(護岸) 방축을 긴 혀로 찰싹찰싹 핥으며 벙벙히 흐르는 한강물을 어둠 속에서 한참이나 굽어보다<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 남자는 {차웁기로} 소문이 났다. ¶너희 엄마는 {차웁게} 보여.
지역 남원, 장수.

차짓돌 명 [대응어] 비석.
돌로 만든 비. 또는 비석 옆에 있는 비슷한 기능의 돌. ¶엄정승 묘가 있는디 난리가 나갖고 싹 덮어버렸어. 근게 자손들이(그 묘를) 찾을라고 헌

게 찾을 수가 없어. 근디 수백 년이 되얐는디, 중간이 비가 많이 와갖고 산태미가 났는디 엄정승 {차짓돌이} 거그서 나와버렸어.
지역 전북.

차푀 (←車票) 명 [대응어] 차표.
차 따위를 타기 위하여 돈을 주고 사는 표. ¶부산으로 가는 {차푀를} 샀다. ¶무전여행을 허는 사람이 {차푀} 살 돈이 어딨어 그냥 역 담벽을 넘어 떼뽀차를 타고 댕기는 것이지.
지역 전북.

찬기름 명 [대응어] 참기름.
참깨를 짜내 얻은 기름. ¶인자 영감하고 싸운 날이는, 양푼 하나 턱 꺼내가지구 콩너물, 무시나물, 열무랑 김치 쫑쫑 쓸어넣구, 꼬치장 크게 하나 넣고, 막판에 {찬기름을} 쪼로록 해갖구 처덕처덕 비벼서. ¶{찬기름을} 치고 나물을 넣어 밥을 비벼 먹으면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몰라.
지역 고창.

찬나 명 [대응어] 찹쌀.
☞찬나락.
지역 무주.

찬나락 명 [대응어] 찹쌀.
찰벼를 찧은 쌀. ¶올해 거둔 {찬나락이} 좋다.
지역 무주, 임실.

찬지름 명 [대응어] 참기름.
참깨를 짜내 얻은 기름. ¶그러니깨 그 구미호란 년이 밤마다 이르케 손이다가 {찬지름을} 발러가지구서는 말궁딩이다가 똥구녁이다 느가지구서는 간을 내 먹더라는 거여. ¶{찬지름도} 조선꽤를 사다가 집이서 짜가꼬 쓰야 맛이 있어요. ¶우선 밥을 고실고실허게 히갖고 밥으다 콩너물 쌂은 것을 넣고, 찹쌀 꼬창을 넣고 {찬지름을} 느서 볶아요. ¶시방 쓰는 {찬지름은} 꼬순 맛이 그전치보단 덜헌 것 같혀. ¶참 그전으 먹던 {찬지름은} 참 꼬솼지. ¶옛날으는 지름장시 할머니가 동네 집집마다 댕기면서 지름을 팔었는디 쬐깐헌 병에다가 {찬지름을} 단 한빵울도 흘리지 않고 따르는디 기가 멕힌 재주를 가졌지. ¶송편을 쪄서 {찬지름을} 발라 놓으면 붙지 않아 먹기 좋아.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순창, 군산, 완주, 장수, 정읍, 임실.

찬지림 명 [대응어] 참기름.
☞찬지름.
지역 임실.

찰강내이 명 [발음] [찰강내~이] [대응어] 찰옥수수.
☞찰강냉이.
지역 고창, 남원, 무주, 임실.

찰강냉이 명 [대응어] 찰옥수수.
찰기가 있는 옥수수. ¶{찰강냉이는} 얼매썩 안 시머, 찰강냉이는 쪼끔씩 심그제.(찰옥수수는 얼마씩 안 심어, 찰옥수수는 조금씩 심지.)<지역어 자료 총서, 중국 무주촌> ¶그며는 점부다 {찰강냉이만} 시머?(그러면은 전부다 찰옥수수만 심어?) 007 찰강냉이만 시무먼 안되야.(찰옥수수만 심으면 안 돼.)<지역어 자료 총서, 중국 무주촌>
지역 전북.

찰방지다 형 [대응어] 옹골지다.
실속이 있게 속이 꽉 차 있다. ¶넘들이 못헌다고 손놓은 걸 {찰방지게} 해내 부렀다.
지역 전북.

찰보리 명 [대응어] 쌀보리. ¶보리도 찰지게 먹을 수 있지.{찰보리가} 보통 보리보담 찰기가 있응

게.
지역 고창, 남원.

찰비 명 [대응어] 찹쌀.
찰벼를 찧은 쌀. ¶{찰비로} 밥을 해먹는다.
지역 임실.

찰서숙 명 [대응어] 차조.
찰기가 있는 조. ¶{찰서숙을} 섞어 밥을 짓는다.
지역 남원, 고창, 김제, 완주, 정읍, 군산.

찰수시 명 [대응어] 찰수수.
찰기가 있는 수수. ¶{찰수시를} 섞어 밥을 짓는다.
지역 고창.

찰스숙 명 [대응어] 차조.
☞찰서숙.
지역 고창, 김제, 완주, 정읍.

찰스슥 명 [대응어] 차조.
☞찰서숙.
지역 군산.

찰쑤수 명 [대응어] 찰수수.
퍽퍽하지 않고 끈기가 많은 수수. ¶{찰쑤수로} 수수부꾸미두 히먹고 그러지.
지역 임실.

찰쑤시 명 [대응어] 찰수수.
퍽퍽하지 않고 끈기가 많은 수수. ¶{찰쑤시가} 읻꼬 메수수 모쑤시가 읻꼬 그러지<2008 전북고창>
지역 남원, 무주, 완주, 임실, 군산, 고창.

찰조 명 [대응어] 차조.
찰기가 있는 조. ¶그 옹구네가 참 그네의 노랫가락 문자마따나 총각낭군 임의 방으로 놀러나 가서, {차조밥을} 먹었는지 새우젓을 먹었는지 그까짓 것 이제는 궁금할 것도 없어서 따지고 싶지도 않았지만,<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찰지다 형 [대응어] 차지다.
반죽이나 밥, 떡 따위가 끈기가 많다. 또는 말이나 성질이 야무지고 깐깐하다. ¶날이 갈수록 요요하여지던 홍씨부인의 아름다움이 허리가 휘게 팽팽하여지는가 싶더니, 드디어 사람들의 입살에도 그만큼 {찰지게} 오르내렸다.<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참거리 명 [발음] [참꺼리] [대응어] 곁두리.
새참이 될 만한 음식. ¶곁두리/명/ *새꺼리 {정문연}<전북>[군산, 익산, 완주, 진안, 김제, 부안, 임실, 남원], *새꺼리 {정문연}<전북>[장수], *새끄리 {정문연}<전북>[순창], *새 {정문연}<전북>[무주], *새밥 {정문연}<전북>[진안, 김제, 부안], *때꺼리 {정문연}<전북>[정읍], *아침 {때꺼리} {정문연}<전북>[정읍], *술창꺼리 {정문연}<전북>[고창], <한국방언어휘자료집_전북편> ¶곁두리 {참꺼리}, 새꺼리<2008전북고창>
지역 고창.

참기왓장 명
하나하나 낱장의 참기와. ¶고놈 빵구먼은, 그놈도 {참기왓장} 있고 개기왓장 있고 그랬지?
지역 장수.

참깨방정 명 [대응어] 오두방정.
몹시 방정맞은 행동. ¶“으쩌자고 풍장까장 쳐댐시나 저 {참깨방정을} 떨어대고 야단들인고!”<윤흥길, 낫>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참깨방정'은 표준어 '오두방정'에 해당하는 어휘로, '참깨'와 '방정'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속담에서 '참깨'는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을 비유하고 있다. 이런 말에서 연유하여 '참깨방정'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참꼿 명 [대응어] 진달래.
¶봄이면 {참꼿을} 따다가 화전도 해먹구 그르지. ¶두견주라 허서 충청도에서 자랑하는 전통주가 있는디 {참꼿으로} 술을 담은 것이라네.
지역 남원, 순창, 임실, 장수.

참꽃나무술 명 [대응어] 진달래술.
진달래꽃을 넣어 빚은 술. ¶봄에 담가둔 {참꽃나무술을} 여름에 마신다. ¶봄에 산에 나는 참꽃을 따다가 {참꽃나무술을} 담그면 그 맛이 참으로 별미지.
지역 전북.

참꽃술 명 [대응어] 진달래술.
진달래꽃을 넣어 빚은 술. ¶봄에 담가둔 {참꽃술을} 여름에 마신다.
지역 장수.

참꽤 명 [대응어] 참깨. ¶{참꽤} 볶는 냄새가 고소하다. ¶올히는 기후가 잘 맞어서 {참꽤가} 솔찮히 나왔당게.
지역 전북.

참나무숫 명 [대응어] 참숯.
참나무 따위를 구워서 만든 숯. ¶{참나무숫을} 태워 고기를 굽는다.
지역 고창, 남원.

참마리 명 [대응어] 잠자리
☞자마리.
지역 전북.

참바리 명 [대응어] 잠자리
☞자마리.
지역 전북.

참밥 명 [대응어] 찬밥.
지은 지 오래되어 식은 밥. 또는 중요하지 아니한 하찮은 인물이나 사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부안, 익산, 임실, 정읍.

참숫 명 [대응어] 참숯.
참나무 따위를 구워서 만든 숯. ¶참나무를 구워 {참숫을} 만든다.
지역 김제, 부안,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정읍, 진안.

참지름 명 [대응어] 참기름.
참깨를 짜내 얻은 기름. ¶"응, 참지름을 보르고 올라 왔어. 앞집에서 참지름을 얻어 보르고 올라 왔어." {참지름을} 보른개로 미끄러서 작작 나무 우그로 못 올라가.<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근게 에이 이년, 게 {참지름이다냐} 뭔 지름을 끓여가지고는 배이다 붓으믄 죽는다고드만, 소리도 못 허고. 그렇게 히서 딱 준비히가지고는 그렇게 히서 죽였단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참깨로 짜낸 {참지름이라} 그런지 유난히 고소하구나.
지역 남원, 정읍, 진안.

참참이 부 [대응어] 짬짬이.
짬이 나는 대로 그때그때. ¶쉴 때 {참참이} 책을 읽어두는 것이 좋다.
지역 고창.

참챔이 부 [대응어] 짬짬이.
짬이 나는 대로 그때그때. ¶쉴 때 {참챔이} 책을

읽어두는 것이 좋다.
지역 남원, 무주, 완주, 익산, 장수, 진안.

찹다 [형] [대응어] 차다(冷).
물건이나 공기 중의 온도가 낮다. ¶“이놈 삼수야, 워째 그리 소까죽낯짝이냐. 이 {차운} 날 불 뜨끈뜨끈허게 때서 봉알 노골노골허니 풀리게 허준께로 헌다는 보답이 덤테기 씌우는 것이냐.” 지삼봉이도 입심이 만만하지 않았다.<조정래, 태백산맥> ¶물이 {찹다고} 세수를 안 허고 그냥 들어왔어? ¶방이 {차와}.
지역 무주.

창깨 [명] [대응어] 참깨. ¶들깨 주머니에서 {참깨를} 가리듯 혹은 참깨 주머니에서 들깨를 가리듯 나뭇가지를 스치는 바람 소리 속에서 여치의 울음과 귀뚜라미의 울음을 따로따로 구분하여<윤흥길, 장마> ¶“올 처갓집 농사는 잘 되았능가 모르겄네요?” “잘 되았다네. 응짓골 {참깨는} 어치케나 이삭이 크덩가 두 모가지만 털어도 한 됫박은 좋이 될 것이고만그려!”<이병철, 모래내 모래톱> ¶나물 무침에는 볶은 {참깨를} 빻아 넣어 무치면 맛있다.
지역 고창, 군산, 정읍, 완주, 임실.

창께 [명] [대응어] 참깨.
☞창깨.
지역 완주.

창꽤 [명] [대응어] 참깨.
☞참꽤.
지역 김제, 무주, 순창, 군산, 익산, 임실, 장수.

창사 [명] [대응어] 창자.
큰 창자와 작은 창자를 통틀어 이르는 말. ¶치듯 참지 못하고 툭툭, 말을 뱉어 내는 것이었다. “이노무 자석아, 좀 색여라 색여. 뱃속에 들은 오장육부 {창사가} 왜 그렇게 꼬불꼬불헌지 아냐? 불끈 성질 치미는 대로 말허지 말고 열두굽이 구곡간장 돌아 나옴서, 생각 한번 해<최명희, 혼불>
지역 고창,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창사구 [명] [대응어] 창자.
☞창사. ¶그 말을 듣고 누군가 큰 소리로 웃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자 외할머니의 눈이 단박에 세모꼴로 변했다. “어떤 {창사구} 빠진 잡놈이 그렇게 히득거리고 섰냐. 누구냐, 어서 이리 썩 나오니라. 주리댈 놈!” 외할머니의 대갈호령에 사람들은 쥐죽은<윤흥길, 장마>
지역 전북.

창새 [명] [대응어] 창자.
☞창새기. ¶똥이 안 빠져서 똥구녁 찢어진 놈이 어디 한둘이었가니? 인자는, 똥구녁끄장 갈 것도 없이 {창새부터} 짝 짝 찢어지겄네.”<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창새기 [명] [대응어] 창자.
위에서 항문까지 이어지는 뱃속에 있는 소화 기관. 큰 창자와 작은 창자가 있다. 또는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생각이나 줏대. ¶그놈덜언 동학군얼 생포허먼 총에 달린 칼로 갈가리 찢어죽이고, 그 폴다리고 {창새기럴} 나뭇가지에 빨래 널디끼 널었어. 그라고, 총맞어 죽은 시체도 목얼다 짤라가뿔어 장사도 못 지내게 맹글어뿌렀어.<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완주, 익산, 임실.

창시 [명] [대응어] 창자.
위에서 항문까지 이어지는 뱃속에 있는 소화 기관. 큰 창자와 작은 창자가 있다. 또는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생각이나 줏대. ¶근게 저그 오빠

들이 엿을 본게로 저그 동생이 방에서 나오더니 폴뚝을 걷더만 말 똥구넉에다 손을 쑥 너갖고는 {창시를} 내서 먹고 먹고 그드라우.<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저녁에 먹은 음식이 상했는지 {창시가} 뒤틀리고 아파 죽겠다. ¶사람의 껍데기만 둘러썼제 어디 사램이랄 수도 없이 살어는 왔다마는, 내가 무신 개 돼야지도 아니고, {창시} 빠진 무골충이도 아닌디……. 살다 살다 벨노무 우스깡시러운 꼬라지를 다 보겄그만잉, 잉?<최명희, 혼불> ¶그게 사람이 헐 짓여, {창시} 빠진 놈들.

지역 전북.

해설 채만식의 작품에서 '창사, 창시, 창아리' 따위가 쓰이는데, 특히 '창사구'가 많이 나타난다. '배창시'로도 많이 쓰인다.

창씨 명 [대응어] 창자.

☞창시.

지역 전북.

창아리 명 [대응어] 창자.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생각이나 줏대. ¶어머니는 도끼눈을 지릅떠 장작 패듯 형의 정수리를 쾅쾅 내리찍었다. "{창아리} 빠진 잡소리 다 들어주다간 똑같이 창아리 빠진 잡놈 된다, 이놈아! 지랄버릇 고만 떨고 싸게 나와서 밥값이나 혀."<윤흥길, 소라단 가는 길>

지역 전북.

채곡채곡 부 [대응어] 차곡차곡.

말이나 행동 따위를 아주 찬찬하게 순서에 따라 조리 있게 하는 모양. 또는 물건을 가지런히 겹쳐 쌓거나 포개는 모양. ¶그러고서는 들어가서 앉았은개, 앉았은개 콩을 {채곡채곡} 내 줘.<한국구비문학대계, 전북전주시·완주군편> ¶주먹코는 여러 개 {채곡채곡} 쌓아놓은 양접시의 맨 밑에치를 가리킨다.<채만식, 염마>

지역 전북.

채다 동 [대응어] 차이다.

발로 힘 있게 치이거나 밀리다. ¶영감아 영감으으/칠월 콩밭 만두레 때/뫼뚜기한티 {채아} 죽은 영감아(옥구 산아)<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군산.

채리다 동 [대응어] 차리다.

기운이나 정신 따위를 가다듬어 되찾다. ¶지발, 속 좀 {채려라} 이~. ¶인자, 속 좀 {채리제} 낯바닥이 성헌 디가 항개도 없꾸만 이~. ¶댔다 허믄 아산 인냇강에 독자갈 떤지기고 큰 고무다라에 목새 떤지기니 해 볼 재간이 업구만이 은제들 속들 {채릴랑가} 아이고, 속터져.

지역 전북.

채소고리 명 [대응어] 소쿠리.

☞채소구리. ¶{채소고리} 하나 들고 이리 따라온나. ¶{채소구리} 머리에 이고 나갔제.

지역 전북.

채소구리 명 [대응어] 소쿠리.

☞채소고리. ¶{채소구리에} 찬밥을 담다.

지역 전북.

채수 명 [대응어] 채소.

식용으로 하기 위해 밭에서 기르는 농작물. ¶{봄채수라고}, {채수} 가꽈 묵는다고<2005 전북 남원>

지역 고창, 남원, 무주,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진안.

채양받이 (遮陽받이) 명 [대응어] 처마.

벽면 밖으로 나와 있는 지붕의 부분. ¶{채양받이} 아래에서 비를 피하다

지역 임실.

채잡다 동 [대응어] 채잡다.
나서서 일을 주도하다. ¶인자, 문중으서 서들어서 막 뭇을 히얀디 안 허고 혼자만 허다가 안 들어준게 허다 말어 버린게 없어지고 그렇터제. 누가 {채잡고} 히얀디, 나도 모른다고 안 헌게. 무슨 일을 모더지.
지역 전북.

채전 명 [대응어] 채소밭.
☞채전밧. ¶그러다가 노름을 허는 집이, {채전도} 있고 양쪽으로 집이 있는 부잣집인디, 거그 가서 가만히 엿들어. 여자가. 이 눔이 돈을 으치기(어떻게) 땄든가.<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부안.

채전밧 (菜田밭) 명 [대응어] 채소밭.
채소를 심어 가꾸는 밭. ¶나 우리, 우리 저, {채전밧} 저짝에 가넌디. 응. 거기다 약칠라 가능거.(나 우리, 우리 저,(채소밭 저쪽에 가는데 응. 거기다 약 치려 가는 거야}.
지역 전북.

채조 명 [대응어] 차조.
☞차조.
지역 완주.

채지 명 [대응어] 생채.
무를 가늘게 채썰어 담은 김치. ¶무 쓸어서 채지도 히서 먹고.
지역 전북.

채표 (-票) 명 [대응어] 차표.
차 따위를 타기 위하여 돈을 주고 사는 표. ¶아이놈아 버스를 탈라면 {채표부텀} 끊어와야지 않겄어!
지역 전북.

책괴 (冊櫃) 명 [대응어] 책궤.
책을 넣어 두는 궤짝. ¶{책괴를} 열다
지역 전북.

챔빗 명 [대응어] 참빗.
빗살이 아주 촘촘하고 가는 빗. ¶{챔빗이} 돼가지고서 그놈으로 각시 머리를 빗을라먼은 설설설설 내려가고, 임금 머리를 빗을라먼은 오독 오독 궤뜯고,<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머릿니나 서캐가 많은 애들은 {챔빗으로} 빡빡 빗어주기도 허고 이가 많은 애덜은 디디티를 뿌리줬당게. ¶서카래를 잡으려면 {챔빗으로} 빗어야 해.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챙이질 명 [대응어] 키질.
키로 곡식 따위를 까부르는 일. 또는 일이나 감정을 부추기어 더욱 커지게 하는 일. ¶{챙이질도} 쉬운 거 아녀.
지역 진안.

챙이질허다 동 [대응어] 키질하다.
키로 곡식 따위를 까부르다. 또는 일이나 감정을 부추기어 더욱 커지게 하다. ¶챙이로 {챙이질헤서} 까불고. ¶콩이나 꽤 겉은 거 {챙이질허고}.
지역 진안.

챙지름 명 [대응어] 참기름.
참깨를 짜내 얻은 기름. ¶거 그른개 {챙지름을} 나무에 발르먼은 그게 미끄러서 올라갈 수가 있간디, 호랭이가 몇 번을 자빠지는 거여.
지역 익산.

ㅊ

챙피허다 형 [대응어] 창피하다.
체면이 깎이는 일을 당하여 부끄럽다. ¶우리가 이 앞으로는 인자 술을 안 먹고 정신을 가다듬고 한 번 살아보세. 그러나 이 동네서는 인자 살지 못허것네. {챙피허니깐}, 우리 여그서는 못 살고 내오간에 만주지방 같은 디를 한 번 올라가서 다시 이 앞으로 희망을 찾게 한 번 돈을 벌어 보자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여보 여그서는, 동네서는 당신 일할 지를 모르지 우리가 뭣 헌게로 {챙피헌게} 뜹시다. 바닥을 떠야겄소.<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내가 욕설을 하다니 아휴, {챙피혀}.
지역 군산, 남원, 부안, 정읍, 김제.

처리 부 [대응어] 저리.
저곳으로. 또는 저쪽으로.
지역 전북.

처마끗 명 [대응어] 처마.
벽면 밖으로 나와 있는 지붕의 부분. ¶{처마끗에서} 우는 새소리에 단잠을 깨기도 한다.
지역 완주.

처매 명 [대응어] 처마.
벽면 밖으로 나와 있는 지붕의 부분. ¶그 총잽이가 말려둬서 바짝 말린 놈을 거시기 저 칙간 더그매 변소가 있는 처마 밑에다가 갖다가 디룽디룽 연저뒀대. 얹어두었대. {처매에다가}.<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어떻게 산골로 어디로 발자국이 들어서가지고서 인가도 못만나고 이거 헐 수 없이 하룻저녁 어디 {처매} 밑이서라도 의지허얄랑가 비다고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고창,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익산, 장수, 정읍.

처매끄터리 명 [대응어] 처마.
벽면 밖으로 나와 있는 지붕의 부분. ¶그 물동우를 이고 들어간디 이렇게 기서 들어간디 그 오막살이 집에, 근게로 그냥 그 {처매끄터리} 가서 걸린게로 이렇게 업져서 들어가더라.<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처매끄터리에} 매달린 고드름을 본지도 퍽 오래 되었네. ¶운 겨울이 되면 {처매끄터리에} 고드름이 대롱대롱 매달리기도 하였지.
지역 남원, 정읍.

처매끗 명 [대응어] 처마.
벽면 밖으로 나와 있는 지붕의 부분. ¶그 안날 저녁 꿈을 뀐게 우리 {처매끗이서} 용이 올라가는디 아무도 안 오더니 당신만 와서 거그 섰어요. 한 종일 섰어요. 그서 그 참으 과거에 대과를 헐 중을 알고 내가 일부러 매를 때렸소.<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남원, 무주, 정읍.

처매물 명 [대응어] 낙숫물.
지붕 끝에서 떨어지는 물. ¶그러치, 고 제 지붕 끄트머리가 처마라고 그랴. 거 거그서 떠러지는 무리 {처매물},(그렇지, 그 제 지붕 끄트머리가 처마라고 그래. 그 거기서 떨어지는 물이 기스락물)<지역어 자료 총서, 무주>
지역 남원, 무주.

처묵다 동 [대응어] 처먹다.
'먹다'를 속되게 이르는 말. ¶아따, 묵을 때나 팬히 {처묵게} 나 두씨요 싱간이나 팬허게. ¶아야, 거시가 느그들 글라믄 딴디 가서 {처묵으랑게}. ¶아따 - 으그댐서 찬찬이 싸목싸목 {처묵으랑게} 선전포고까장 험서 지랄허고 있네이. ¶나가 꼴배기 싫어서 간다 헌담서 주딩이 꽉 물고 밥 못 {처묵을} 때까지 안 올랑께.
지역 고창.

처므냐 명 [대응어] 처음. ¶{처므냐는} 사람이 갠찬했어. 근디 슬슬 돈맛을 봄서 벤허드라고.

지역 전북.

처진거리 명 [대응어] 찌꺼기.

필요하거나 값어치 있는 것을 골라낸 나머지. ¶{처진거리는} 닭 주고.

지역 전북.

처질르다 동 [대응어] 태우다.

불씨나 높은 열로 불을 붙여 번지게 하거나 불꽃을 일어나게 하다. ¶재산내끼는 되게 꽈서 큰 독에다가 딱 놓고는 그대로 {처질렀단} 말이여.<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그 인자 초록동이가 헌대로 틀림없이 여자가 당돌허게도 그런 행동을 취허기 때미 그 담배를 또 한쪽으로 부텀 태우고 또 {처질르고} 또 처질르고 허넌게 그 여자의 낯곳이 벤허는디 차차, 차차 그 참 블코롬헌 얼굴이 외색 변허듯 허는디, 결국으니 하얀허니 다 죽어 가는디.<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이년들 집 {처질르구서} 염치없은 개는 이지랄들 하구서 온다구, 아 영감이 살았구먼, 꿀 따먹을라구 대가리를 푹 처박었다가 대가리를 벌들이 다 뜯어먹었다구 하더니, 저놈이 그짓꿀을 해도 그렇게 으스딱딱하게 한다구. 꿀은 무슨 꿀을 따냐고, 어디 잿날맹이 올라가다가 이놈이 톱하구 도치하구 가져온다구 보냈더니, 그 지랄하구 왔다구, 다시는 그짓꿀도 말구, 일하지도 말구. <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전북.

척첵이 부 [대응어] 축축이.

물기가 있어 조금 젖은 듯이. ¶간밤에 비가 좀 왔는가, 땅바닥이 {척첵이} 젖은 거 같어.

지역 진안.

천상 (←天生) 부 [대응어] 천생.

어쩔 수 없이. ¶배움이 적어갖곤 {천상} 농사꾼이나 시킬 수배끼 없는디, 나 모냥.<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천신 (←處身) 명 [대응어] 처신.

세상을 살아가는 데 가져야 할 몸가짐이나 행동. ¶아이고, 지발 지비나 {천신} 잘 허거?

지역 고창.

천채이 부 [대응어] 천천히(마셔라).

동작이나 태도가 급하지 아니하고 느리게. ¶앞차가 {천채이} 간다

지역 전북.

천첸이 부 [대응어] 천천히(마셔라).

동작이나 태도가 급하지 아니하고 느리게. ¶시간이 많으니 {천첸이} 해라

지역 김제, 임실.

철골허다 (徹骨허다.) 형 [대응어] 철골하다.

몸이 바싹 야위어 뼈만 남아 앙상하다. ¶일로 근심해서 몸이 점점 쇠약허게 되야. 한 사람이 가서 진맥을 히본게 이것이 아무 병도 아닌디 몸이 {철골허거든}. ¶조그마헌 실비암 하나가 목고녁으로 넘어가드라. 그래서 그로 인해 갖고 이렇게 내 몸이 철골허다.

지역 전북.

철기씬 명 [대응어] 활대.

활등을 이루는 대. 활의 몸체를 이른다. ¶{철기씬이} 한껏 휘다.

지역 무주.

철딱사니 명 [대응어] 철딱서니.

'철'을 속되게 이르는 말. ¶잘 났다고 까불고 지

랄 허등만 {철딱사니} 없이 무신 개망신이다여? ¶안 헐말 맹글어 갖고 그럼서 그래 갖고 {철딱사니도} 드럽게 업씨 그 말 새씰로 꼬랑지 잽혀 갖고 물마금까장 댐서.

지역 고창.

철시꼿 명 [대응어] 철쭉. ¶{철시꽃이} 피었다.

지역 익산.

첫들머리 명 [대응어] 어귀.

드나드는 목의 첫머리. ¶동네 들오는 {첫들머리서}.

지역 전북.

첫모냐 명 [대응어] 처음.

시간적으로나 순서상으로 맨 앞. ¶{첫모냐} 열 때는 파랗고.

지역 전북.

첫참 명 [대응어] 처음. ¶"(방구를) 뀌어 봐라." 궁딩이를 활딱 까고는 뀌는디 {첫참을} '땅땅' 허야 나중으 '또당땅 또당땅' 허거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청기 (靑氣) 명 [대응어] 멍.

심하게 맞거나 부딪쳐서 살갗 속에 퍼렇게 맺힌 피. ¶멍 {청기}, 멍:졌따 08 멍울 알뺀따 그러제,<2008 전북 고창>

지역 고창.

청맥가리 (靑麥가리) 명

덜 익은 보리를 빻아서 체로 쳤을 때 체 밑으로 빠지는 곱고 보드라운 가루. ¶{청맥가리로} 죽 쒀 먹어. 무거리는 밥히 먹고. 무거리밥이다고.

지역 전북.

청맥죽 (靑麥粥) 명

아직 익지 않은 푸른 보리를 뜯어다 만든 죽. ¶그전에는 보리 모개를 끊어다가 들익었을 적으 풋보리를 좃아가꼬 그놈으로 죽을 써. 그게 {청맥죽여}.

지역 전북.

청숫물 (淸水물) 명 [대응어] 정화수.

이른 새벽에 길은 우물물. 조왕이나 천룡에게 가족들의 평안을 빌면서 정성을 들이거나 약을 달이는 데 쓴다. ¶천룡으다 {청숫물} 떠 놓고 빌어.

지역 전북.

청장뫽 (←靑腸木) 명

질이 좋고 파란 소나무. 황장목(黃腸木)의 짝이 되는 말. ¶제비원에다 솔씨를 받아/소평 대평에 던졌더니/그 솔이 점점 자라나/소부뒴이 되었구나/대부뒴이 되었구나/황장뫽이 되었네/{청장뫽이} 되었네(무주 성주굿)<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 민요해설집>

지역 무주.

청태 (靑태) 명 [대응어] 청솔.

베어 낸 지 얼마 안 되어 아직 푸른 잎이 마르지 아니한 소나무. ¶{청태}, 소나무 안 마른 거로 불무질히서 불 때고.

지역 전북.

청호박 (靑호박) 명 [대응어] 떡호박.

다 익어도 겉껍질이 청색인 호박. 다 익었을 때의 크기는 일반 호박이 익었을 때의 크기와 같은데 일반 호박보다 살이 두껍고 속이 빨갛다. ¶호박. 저것이 맛있어. {청호박}. 속이 빨겨. 메느리가 저번 날 갖고 간다고 허드니 하나 안 갖고 갔어. 호박죽 쒀먹는다고. ¶호박 색깔이 새파려다고 {청호박}. 새파려. 안 익었을 때도 저렇게

시푸러고, 익었을 때도 저렇게 시푸러고. 씨도 많어. 살이 두껍고 속이 빨겨. 살이 두꺼워. 두껍고 맛이 더 좋아, 달아. 속이 쪼개면 빨겨.
지역 순창.

체겡 (←體鏡) 명 [대응어] 거울.
몸 전체를 비추어 볼 수 있는 큰 거울. ¶*체겡 {정문연}<전북>[순창], <한국방언어휘자료집_전북편>
지역 순창.

체광지리 명 [대응어] 광주리.
☞광지리.
지역 전북.

체면닦음 (體面닦음) 명 [대응어] 체면치레.
체면이 서도록 일부러 하는 행동. ¶일 터지고 낭게 {체면닦음을} 하러 왔냐?<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체증하다 (滯症하다) 동 [발음] [체쯩아다] [대응어] 체하다.
먹은 음식이 잘 소화되지 아니하고 배 속에 답답하게 처져 있다. ¶얼라, 시방 더우묵고 {체증허요}?<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첼로 (←第一로) 부 [대응어] 가장.
다른 것보다 으뜸으로. ¶부모님이 {첼로} 좋다. ¶우리반으서 공부는 니가 {첼로} 잘허지만 제기차기는 어림이 없지.
지역 전북.

쳇바꾸 돌다 【관용표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걸음만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개미 {쳇바꾸 돌덧기} 콩팔칠팔 밤새드락 따져봤자 괘얀시 조반상만 늦어집니다요.<윤흥길, 낫> ¶내가 사는 이런 속 터지는 세상을 그놈이 커서는 또 그대로 살 거인디. 무신 웬수로 원통헌 신세 {쳇바꾸를 돈다요}?<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해설 흔히 '다람쥐 쳇바퀴를 돌다'란 관용 표현이 많이 쓰인다. "같은 일만을 반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표현"이다.

쳉이 명 [대응어] 키(箕).
곡식 따위를 까불러서 쭉정이나 티끌을 골라내는 도구. ¶애, {쳉이로} 까불라가꼬.<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쌀에 바구미가 생겼으면 {쳉이로} 까불어 골라내도록 해.
지역 남원, 무주, 완주, 임실, 진안.

초가실 (初가실) 명 [대응어] 초가을.
이른 가을. ¶아적은 성급한 {초가실} 색바람 바람뜩에 가만히 안자 잇응게.
지역 고창.

초갓집 (草家집) 명 [대응어] 초가집.
짚이나 새, 갈대 따위로 지붕을 인 집. ¶긍게 그 양반이 인제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산다구 그래, 그래서 산속에서 어째 사냐 한개로 {초갓집} 져 갖구 살면 된다 그러는거여.
지역 군산.

초건지 (初건지) 명 [대응어] 애벌.
여러 차례 같은 일을 거듭하여야 할 때에 맨 처음 대강 하여 내는 차례. ¶일단 {초건지로} 대충 빨아 놓다.
지역 남원.

초랭이 명 [대응어] 촐랑이.
자꾸 방정맞게 까부는 사람. ¶아조 {초랭이} 방

정 자발 떰서 지랄 임병허고 자빠졌네이.
지역 고창.

초매 명 [대응어] 치마.
허리부터 다리 부분까지 하나로 이어져 가랑이가 없는 아래옷. ¶츄천을 하려할 졔 슈화 유문 초록 장옷 남방사 홋단 {초미} 휠휠 버셔 거러두고 <완판본 열여춘향수절가上> ¶곽씨부인 노산이 오미 {헌초미의} 외씨 ᄲᅢ지듯 순산ᄒᆞ여<심청전上>지역 전북.
지역 전북.
해설 '치마'와 관련된 가장 이른 시기의 어형은 15세기 국어에 나타나는 '치마'이다. '치마' 외에도 16세기 문헌에 나타나는 '쵸마'와 '츄마'를 감안하면, '치마'는 '치마' 계통의 어형과 '쵸마', 또는 '츄마' 계통의 어형이 공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초마'가 19세기까지 나타나다가 20세기에는 '치마'로 통일되었다.

초벌매다 동
논밭의 잡풀을 일차로 뽑아내다. ¶농기구라구지 지시미라고그러지 지심맨다 {초벌매는거} {초벌맬} 써그는 두벌매는거 두벌맬써그는<완주_지역어_텍스트> ¶편하게 제초제를 쓰려면 {초벌매지} 않아도 된다. ¶{초벌매기라} 힘이 좀 들거야.
지역 고창.

초새 명 [대응어] 억새. ¶속동 벌안으서 연 날려. 늦가을에 {초새는} 다 비어버리고.
지역 전북.

초새받기 명 [대응어] 공기(놀이).
밤톨만 한 돌 다섯 개 또는 여러 개를 땅바닥에 놓고, 일정한 규칙에 따라 집고 받는 아이들의 놀이. 또는 그 돌들. ¶애덜은 저그 모여서 {초새받기를} 하고 있던디.
지역 남원, 순창.

초집 (草집) 명 [대응어] 초가집.
짚이나 새, 갈대 따위로 지붕을 인 집. ¶내가 사실이 지차 지차 히서, 내가 살기는 아무 골 허랑의 그 {초집으} 사는디요. 초집이 사는데 으떤 지사들이 둘이 오셔갖고서는 자고 가자 겨서 밥을 못허드리고 어머니가 죽을 쑤어 줬어요.<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무주, 순창, 군산, 완주, 정읍, 진안.

초하레보름 (初----) 명 [대응어] 삭망.
음력 초하룻날과 보름날을 아울러 이르는 말. ¶{초하레보름이} 되얐다
지역 고창.

초하루삭망 (初----) 명 [대응어] 삭망.
음력 초하룻날과 보름날을 아울러 이르는 말. ¶{초하루삭망이} 되다
지역 완주, 무주.

초하룻삭망 (初하룻朔望) 명 [대응어] 삭망.
☞초하루삭망.
지역 무주.

촉촉이 부 [대응어] 촉촉이.
물기가 있어 조금 젖은 듯이. ¶아 인제 서방이 보니께로 새악시 눈가가 {촉촉이} 젖은 것이 시어매한테 딱 혼난 꼴이여.
지역 전북.

총각무시 명 [대응어] 무. ¶{총각무시로} 김치를 담그다 ¶{총강무시가} 익으면 따글따글허고 새콤히서 맛있어요.
지역 남원.

총구녕 명 [대응어] 총구멍.

총알이 나가는 총의 앞쪽 끝부분. 또는 총알에 맞아 생긴 구멍. ¶몸덜 뽀오짝 붙이고, 총언 {총구녕} 하늘로 솟기게 허덜 말고 한 방이라도 지대로 쏘씨요이!<조정래,태백산맥,2001,10,307> <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총대 명 [대응어] 지주목, 버팀목.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세워 두는 말뚝. ¶저 양반은 인삼 심을라고 {총대} 싣고 가는고만.

지역 전북.

총소레 (銃소레) 명 [대응어] 총소리.

총을 쏠 때 총알의 뇌관 속에 있던 화약이 터지면서 내는 소리. ¶갑작기 군인덜이 몰려온게 무섭지 그럼, 빵빵 {총소레도} 나구.

지역 고창, 순창, 장수.

쵀다 동 [대응어] 빌리다(借).

곡식이나 돈 등을 나중에 돌려주기로 하고 일정 기간 동안 쓰다. ¶돈을 {쵀} 쓰고 난중에 갚을 것이다.

지역 무주.

추게들다 동 [대응어] 추어올리다.

실제보다 높여 칭찬하다. ¶아 그 영감이 그리 올라오더니 그 자리가 서서, 좋기는 좋다만은 그러거든. 근게 여기 좋아라오 허고는, 서로 동장이 {추게들고} 수랑의 구녁에 가서 도골도골 둥그러 버렸다오.

지역 전북.

추녈 명 [대응어] 추녀.

네모지고 끝이 번쩍 들린, 처마의 네 귀에 있는 큰 서까래. 또는 그 부분의 처마. ¶{추녈} 아래 그늘에서 쉬다

지역 남원.

추레내다 동 [대응어] 가려내다.

여럿 가운데에서 분간하여 골라내다. ¶아따 그 성님이 눈썰미가 을매나 좋은가, 점빵에 한번 왔던 사람덜언 바로 {추레낸당게}. ¶동생은 밥을 먹을 때마다 콩을 {추레낸다}. ¶허는 짓이 모두 그놈이 그놈이라 특출헌 애를 {추레내기가} 쉽덜 않네. ¶많은 콩 중에서 못생긴 콩을 {추레내었다}.

지역 고창, 남원, 임실, 순창.

추렷하다 형 [발음] [추려다다/추려타다] [대응어] 추레하다.

겉모양이 깨끗하지 못하고 생기가 없다. 또는 태도 따위가 너절하고 고상하지 못하다. ¶그래도 핏줄이 무엇인지, 누이동생의 {추렷한} 얼굴이 눈에 밟히면서 불쌍한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지 않질 못하였다.<채만식, 이런 男妹, 987, 457>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추렷하다'는 표준어 '추레하다'에 해당하는 어휘이다. 주로 "사람의 모양이나 태도가 깨끗하지 못하다"를 의미한다.

추리내다 동 [대응어] 가려내다.

☞추레내다.

지역 순창.

추리다 동 [대응어] 치르다.

무슨 일을 겪어 내다. ¶오만 일 다 {추릴란게} 바쁘제.

지역 전북.

추리하다 형 [대응어] 추레하다.

체면이 깎이거나 아니꼬운 일을 당해 볼 낯이 없거나 떳떳하지 못하다. ¶남자가 {추리하게} 꽃바구니나 들고 다니고.

지역 전북.

추매 명 [대응어] 추녀.

네모지고 끝이 번쩍 들린, 처마의 네 귀에 있는 큰 서까래. 또는 그 부분의 처마. ¶{추매} 끝에 풍경을 달다

지역 남원.

추미 명 [대응어] 꾸미.

국이나 찌개에 넣는 고기붙이. ¶{추미를} 넣은게로 국이 좀더 맛이 나는구만.

지역 남원.

추우 명 [대응어] 추위.

추운 기운이나 정도. ¶엊저녁까정 더웁다가 갑작기 {추우가} 찾어와부렀어.

지역 무주, 부안.

추우다 동 [대응어] 추다(춤).

춤 동작을 보이다. ¶그때넌 동넷 사럼덜이 모여 가꼬 춤을 {추우는} 거야

지역 정읍.

추자 (楸子) 명 [대응어] 가래.

가래나무의 열매. 호두와 비슷하나 좀 갸름하며, 두껍고 거무데데한 내과피(內果皮) 속의 살을 먹기도 한다. ¶{추자라고} 그리써<2009 전북 임실> ¶{추자낭구에} 달려 있든 {추자를} 따 묵을 때가 좋았지.

지역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추학 명 [대응어] 초학.

처음으로 앓는 학질. 또는 하루씩 걸러서 앓는 학질. ¶학질(격일)/명/*메누릿심{정문연}<전북>[완주], *이틀거리{정문연}<전북>[완주], *{초학}{정문연}<전북>[군산, 익산, 완주, 진안, 부안, 정읍], *추학{정문연}<전북>[무주, 김제, <한국방언어휘자료집_전북편>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순창, 익산, 임실, 장수.

축대기다 동 [대응어] 부추기다.

남을 이리저리 들쑤셔서 어떤 일을 하게 만들다. 또는 감정이나 상황 따위가 더 심해지도록 영향을 미치다. ¶"아매 그리 될 모냥인갑소. 아그덜 아부지가 일얼 {축대기고} 나서서 더 심들게 생겼소."<조정래, 태백산맥> ¶화를 {축대기다}.

지역 전북.

축돌 명 [대응어] 댓돌.

집채의 낙숫물이 떨어지는 안쪽으로 마당보다 높게 돌려 가며 놓은 돌. ¶{축돌에} 올라섰다. ¶{축돌} 아래로 내려갔다.

지역 고창.

축축이 부 [대응어] 축축히.

물기가 있어 조금 젖은 듯이. ¶호젓한 냇가에서 더러 빨아 입기는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땀이 썩은 더러운 쉰내를 풍기며, {축축히} 몸을 휘감아 구역질을 일으켰다.<박상륭, 죽음의 한 연구> ¶아 그 십년을 다 댕기고 내일 모리가 십년째인디 오늘 저녁으는 비가 {축축히} 오는디 저런 산골짝이를 인자 들어 가.<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고창, 부안, 순창, 임실.

축칙이 부 [대응어] 축축이.

물기가 있어 조금 젖은 듯이. ¶자다가 인나서 본개로 요가 기양 {축칙이} 젖어 있는 거여.

지역 전북, 정읍.

춘서 명 [대응어] 추녀.

네모지고 끝이 번쩍 들린, 처마의 네 귀에 있는 큰 서까래. 또는 그 부분의 처마. ¶{춘서} 끝에

고드름이 달려 있다
지역 순창.

춘설 명 [대응어] 추녀.
네모지고 끝이 번쩍 들린, 처마의 네 귀에 있는 큰 서까래. 또는 그 부분의 처마. ¶{춘설에서} 물이 떨어진다.
지역 전북.

춘세 명 [대응어] 추녀.
네모지고 끝이 번쩍 들린, 처마의 네 귀에 있는 큰 서까래. 또는 그 부분의 처마. ¶{춘세에서} 물이 떨어지다
지역 남원.

충거리다 동 [대응어] 꾸물거리다.
게으르고 굼뜨게 행동하다. ¶부지런히 움직이지 왜 그렇게 {충거리고} 있느냐.
지역 전북.

췌다 동 [대응어] 꾸다(借).
뒤에 도로 갚기로 하고 남의 것을 얼마 동안 빌려 쓰다. ¶돈을 {췌서라도} 공부를 하고 싶었다 ¶오늘은 옆집에서 {췌서라도} 큰애 월사금은 들려보내야지<완주>.
지역 김제, 무주, 임실.

취다[1] 동 [대응어] 꾸다.
남의 물건이나 돈 따위를 나중에 도로 돌려주거나 대가를 갚기로 하고 얼마 동안 쓰다. ¶돈을 좀 {취어} 달라고 하다 ¶{취여}, {취여} 도라고, 췬다, 꾼다, 꾼다, 빌린다<2005 전북 남원> ¶농협서 취어다 쓴 돈만 히도 겁나.
지역 고창, 김제, 남원, 순창, 군산, 정읍, 진안, 무주, 임실.

취다[2] 동 [대응어] 추다(춤).
춤 동작을 보이다. ¶줄기차게 노랫가락으로 주문을 외고, 쉼없이 춤을 {취어} 가며 그 긴 예식을 지치는 기색 하나 없이 치러내고 있는 소화를 지켜보며 이지숙은 오히려 자기가 지칠 지경에 이르고 있었다.<조정래, 태백산맥> ¶언제 춤을 {취} 봤는가? ¶안팎의 사람들은 덩실 춤이라도 {추는} 시늉을 하여 불빛 아래 술상을 내고, 받고, 따르고 하였으나, 강모와 효원은 각각 혼곤하여 차라리 멍하고 무감하였다.<최명희, 혼불>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취허다 동 [대응어] 꾸다(借).
뒤에 도로 갚기로 하고 남의 것을 얼마 동안 빌려 쓰다. ¶돈을 {취해서} 급한 문제를 해결했다.
지역 정읍.

칙이다 동 [대응어] 축이다(물로).
물 따위에 적시어 축축하게 하다. ¶밭일이 끝나믄 인제 막걸리를 사가는 거야. 목을 {칙일라고}. ¶데리미 질을 헐라먼 마른 빨래에 물을 좀 {칙여서} 데려야 판판히 펴지는 거여.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츠음 명 [대응어] 처음.
시간적으로나 순서상으로 맨 앞. ¶아, 우리가 {츠음} 만나든 그 시절 말이여. 그날 밤에 널금 저수지 물 가생이서 자기가 김부월이 날것으로 회쳐 먹을 욕심으로 만판 불량을 떨든 그 사건 그새 잊어뿌렀어?"<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츤찬히 부 [대응어] 천천히(마셔라).
동작이나 태도가 급하지 아니하고 느리게. ¶물을 {츤찬이} 마셔라

지역 완주.

츤츤히 뿌 [대응어] 천천히(마셔라).
☞츤찬히. ¶{츤츤이} 가도 늦지 않다 ¶일을 너무 서두르지 말고 {츤츤이} 해야 실수가 없단다.
지역 고창, 무주, 완주.

츰 명 [대응어] 처음.
시간적으로나 순서상으로 맨 앞. ¶아직 나이가 어리서 {츰부터} 죄다 갈칠라먼 심들텐디.
지역 전북.

치겡 (←體鏡) 명 [대응어] 거울.
☞체경.
지역 전북.

치끼 의명 [대응어] 듯이.
유사하거나 같은 정도의 뜻을 나타내는 말. 또는 짐작이나 추측의 뜻을 나타내는 말. ¶매급시, 양전헌 {치끼} 헝 것이 아닝게, 니가 그럴줄 알았당게.
지역 고창.

치나다 동 [대응어] 비끼다.
무엇을 피하여 있던 곳에서 한쪽으로 자리를 조금 옮기다. ¶인자, 고만 뽀짝꺼리고 써만치 가등가 허고, 안 갈러먼 {치나야} {치나}! ¶인자, 고만 뽀짝꺼리고 써만치 가등가 허고, 안 갈러먼 {치나야} 치나!
지역 고창.

치내다 동 [대응어] 치우다.
가로 막거나 방해하고 있는 것을 치우다. ¶짐 정리를 다 못했다이. 그 상자 {치내고} 거그 앉어라이. ¶다리 저리 {치내}. 냄새 나.
지역 전북.

치다 동 [대응어] 치우다.
물건을 다른 데로 옮기다. 또는 청소하거나 정리하다. ¶밥은 천상(불가피하게) 참 거그서 인자 밤에 인자 그럭을 다 {치고} 인자 밤에 오먼 그 밥을 갖다가 인자 지금으로 말허자믄<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방을 {치어라} 좀.
지역 전북.

치다보다 동 [대응어] 쳐다보다.
위를 향하여 올려 보거나 얼굴을 들어 바로 보다. ¶해필 오늘 그속 지피도 {치다봉게} 인정 당군 사랑 미소 크게도 보인다. ¶아따, 후딱도 먹었는게비요 이~ 긍게, 멀뚱멀뚱 거시기허게 {치다보네}. ¶꼭, 뽄 뜬것 같으네이~ 차말로 빼다 박었구만이~ 글고, 민경 {치다보는} 것 같네이~. ¶몰고름허게 {치다보는} 쩍으 저 굉이 눈빛이 으멍허기 짝이 없구만이~.
지역 고창.

치매 명 [대응어] 치마.
허리부터 다리 부분까지 하나로 이어져 있으며, 가랑이가 없이 밑이 하나로 터져 있는 아래옷. ¶"웃통 벗어라." 아 헌다고 맹시혔은게 히야지 웃통 벗어. "속 적삼도 벗어라." 벗어. " {치매도} 벗어라 단속곳도 벗어라." 채곡 채곡 다 그렇게 활씬 벗기 놨어. 인제 그양 활씬 빗겨 놨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금한덩어리가 있어서 가지구 내려오면서, 어서 내려오라구. 여기 금 있다구 며느리가 {치매에다} 금을 싸 가지구 내려오더래.<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아, 자, 그 콩똥 속으가 엽전이 걍 한 무더기 있네, 근게 그 부인이 {치매를} 벗어가지고 걍 그 엽전을 전부 걍 싸버렸어 전부, 근게 한 보따리 이고 와버렸어.<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임실, 완주, 부안,

ㅊ

군산, 정읍.

치키 의명 [대응어] 듯이.
유사하거나 같은 정도의 뜻을 나타내는 말. ¶친헌 {치키} 험서 내 살전 다 빼돌라 갖고 으딘가로 토껴버렸써라우.
지역 고창.

칙간 (←廁間) 명 [대응어] 변소.
대소변을 보도록 만들어 놓은 곳. ¶"송광사 {칙간이} 얼매나 깊간디 그롷게 소문이 굉장허니 났냐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칙간에} 가서 대소변을 보아라.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해설 '칙간'은 '측간'의 음운론적 이형태로, '츠>치'의 전설 모음화를 겪은 형태이다. 19세기 말 '스, 즈, 츠>시, 지, 치'와 같이 치찰음 뒤 전설 모음화가 발생하였다. '측간'의 의미는 "대소변을 보도록 만들어 놓은 곳"으로 '변소'와 의미 차이가 없다.

칙넌출 명 [대응어] 칡덩굴.
칡의 뻗은 덩굴. ¶여기 섰노라 湖水와 같은 그리움으로, 이 싸늘한 돌과 돌 새이 얼크러지는 {칙넌출} 밑에 푸른 숨결은 내것이로다. 세월이 아조 나를 못쓰는 띠끌로서 허공에, 허공에,<서정주, 시집>
지역 정읍.

칙넝출 명 [대응어] 칡덩굴.
☞칙넌출.
지역 임실, 장수.

칙넝쿨 명 [대응어] 칡덩굴.
칡의 뻗은 덩굴. ¶그 두 사램의 관계가 어찌나 복잡허던지 왠만한 {칙넝쿨이} 얽히고 설킨 것은 비할 게 아니더만.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군산, 완주, 익산, 진안.

칙뿌렁구 명 [대응어] 칡뿌리.
☞칙뿌룽구.
지역 전북.

칙뿌룽구 명 [대응어] 칡뿌리.
칡의 뿌리. ¶뒷산으 가서 {칙뿌룽구} 캐오면 용돈 좀 챙겨 줄라니 얼른 챙기고 댕겨와.
지역 장수.

칙뿌리 명 [대응어] 칡뿌리.
칡의 뿌리. ¶{칙뿌리를} 캐다가 차를 끓여 마시면 고것이 바로 약이지.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정읍, 진안.

칙순 (칙筍) 명 [대응어] 칡덩굴.
칡의 뻗은 덩굴. ¶{칙순얼} 뜯어다가 목에다 걸고 고것이 목걸이네 뭐네하면서 소꿉놀이하믄서 어른 숭내내고 그러고 놀았었지.
지역 고창, 남원.

칙술 명 [대응어] 칡덩굴.
☞칙순.
지역 남원.

칠거지 명 [대응어] 칡. ¶가스나 방이 이게 다 뭐다냐? 아주 {칠거지가} 엉켜 있는 것보다 더 하고만.
지역 무주.

칭거리다 동 [대응어] 꾸물거리다.
☞충거리다.
지역 전북.

칭아 명 [대응어] 차이.

서로 같지 아니하고 다름. 또는 그런 정도나 상태. ¶서로 비슷헌 사람까지 만나야지 집안으로나 사는 것으로나 {칭아} 나면 못 쓰는 것여.

지역 전북.

칭이 명 [대응어] 키(箕).

☞챙이. ¶그러면 {칭이로} 까부는 거 말고, 다른 거로는 앙까불라?<2005 전북 남원>

지역 남원.



카만이 부 [대응어] 가만히.

움직이지 않거나 아무 말 없이. ¶드럽게 자발떨고 있네이~ {카만이} 쫌 자빠져 있제이~. ¶오도방정 떨지말고, 나대지 말고 {카만이} 자빠져 있으랑게. ¶{카만이} 나또야~ 매급시 긁어 갖고 썽나면 찌끌만 더 생깅게. ¶아그야, 지발 서대지 말고 조까 {카만히} 앙거 있써라.

지역 전북.

칼국시 명 [대응어] 칼국수.

밀가루 반죽을 방망이로 얇게 밀어서 칼로 가늘게 썰어 만든 국수.

지역 무주, 장수, 정읍.

칼도매 명 [대응어] 칼도마.

칼로 음식의 재료를 썰거나 다질 때에 밑에 받치는 것. ¶떡국떡은 방앗간으서 갓 뽑아온 가래떡을 꼬돌꼬돌하게 말려갖고 어느 정도 굳은 것을 갖다가 {칼도매에} 올려 놓고 딱딱 썰어야지 식감이 좋고 좋단게.

지역 전북.

칼재비 명 [대응어] 칼국수.

☞칼제비.

지역 임실.

칼제비 명 [대응어] 칼국수.

밀가루 반죽을 방망이로 얇게 밀어서 칼로 가늘게 썰어 만든 국수. ¶그러니께, 그 매를 갈어서, 밀을 매를 갈어가지고 국수를 허먹을라고 가루를 장만해논 거 있어. 인자 다른 거는 해줄 것 없고 {칼제비라고} 있죠. 왜, 늘어 가지고 응, 그걸 죽,[바꿔서], 수제비를 히줬단 말여. 수제비 두 그럭 떡바쳐.<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 편>

지역 고창, 김제, 부안, 완주, 임실, 무주, 군산, 익산.

칼지비 명 [대응어] 칼국수.

☞칼제비.

지역 무주, 군산, 익산.

칼치 명 [대응어] 갈치.

길고 납작하며 은색을 띠는 생선. ¶{칼치가} 살이 올라서 맛이 좋다 ¶이번 추석에 일가친척들이 오면 머글거시 인써야 하지안켇서. 긍게로 군산에 가서 생선 좀 사와야 되겓구면. {칼치} 한 짝 사고.

지역 전북.

칼칼하다 형 [대응어] 시원하다.

사람의 성격이나 사물 따위가 더럽지 않고 시원하다. ¶그 부서진 금으로 어스름은 스며들어, {칼칼하게} 목마른 선(線)을 천공에 곧추세우고

있는 붓자국을 적시며<최명희, 혼불> ¶성질 깔끔하고 {칼칼한} 여인이여<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의 형용사 '칼칼하다'에서 '칼칼'은 의태어로 보인다. '칼칼하다'는 주로 전남에서 많이 쓰이나 전북의 접촉 지역에서도 쓰인다. '성질이 칼칼하다'라는 표현에서도 쓰이는데 이는 "날카롭다", "바르다"라는 뜻이다. '맛이 칼칼하다'는 "시원하다"의 의미를 갖는다.

칼칼허다 형 [대응어] 시원하다.
☞칼칼하다.
지역 전북.

칼칼히 부 [대응어] 시원스레.
사람의 성격이나 사물 따위가 더럽지 않고 시원스레. ¶간간히 불어와서 {칼칼히} 씻어내는 바람으로 그 시각이 오지 말아야한다는 또 다른 태깔의 망설임<이시연, 갈증> ¶오류골댁은 겨우내 덮었던 이불과 요의 호청을 뜯어 {칼칼히} 빨아 냈다.<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의 부사 '칼칼히'는 형용사 '칼칼하다'에서 온 말이다. '칼칼'은 의태어로 보인다. '칼칼하다'는 주로 전남에서 많이 쓰이나 전북의 접촉 지역에서도 쓰인다. '칼칼히'는 전북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다.

캐다 동 [대응어] 도리다(칼로).
둥글게 빙 돌려서 베거나 파다. ¶옹이는 칼로 {캐} 냈다고는 허는디 깨깟이 안 됐구마이.
지역 고창, 순창.

캔시개캔시개 명, 감 [대응어] 곤지곤지.
젖먹이에게 왼손 손바닥에 오른손 집게손가락을 댔다 뗐다 하라는 뜻으로 내는 소리. 또는 젖먹이가 왼손 손바닥에 오른손 집게손가락을 댔다 뗐다 하는 동작. ¶{캔시개캔시개} 하면 아가 까르르 웃고 그러제.
지역 전북.

커기 명 [대응어] 너비, 크기.
평면이나 넓은 물체를 가로로 건너지른 거리. ¶{커기가} 얼매나 되는지 모르겄는디 좀 넓은갑소.
지역 순창.
해설 '커기'는 '크기'의 어두 음절 모음 /ㅡ/가 /ㅓ/로 바뀐 결과이다. '크기'는 본래 "사물의 넓이, 부피, 양 따위의 큰 정도"라는 뜻인데 해당 지역에서는 '너비'와 구별되어 사용되지 않는다.

커나다 동 [대응어] 자라다.
생물이 생장하거나 성숙하여지다. ¶{커난다} {정문연}<전북>[익산], <한국방언어휘자료집_전북편> ¶들몰에서 {커난} 그녀는 그 누구 못지않게 소작농의 배고픔과 슬픔을 잘 알았다.<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익산.

커다 동, 형 [대응어] 크다. ¶자기가 눈을 감아야 소원이 없겠다는 데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또 사람은 자꾸 {커고} 나이도 먹고. 에, 그러니깐 그 사람이 뭐야 유 효자(柳孝子)라고 그래.<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전북.

커다 동 [대응어] 자라다.
생물의 외형이나 일의 규모가 더 많은 정도로 변하다. ¶그 놈 잘 {커면} 사위 삼아야제.
지역 완주, 정읍, 순창.

커리 명 [대응어] 켤레.
신, 양말, 버선, 방망이 따위의 짝이 되는 두 개를 한 벌로 세는 단위. ¶"이 신 얼매요?" "얼매

요.” “그러냐.” 고. 근게 인자 돈을 그 놈을 주고 서 신을 두 {커리를} 사. 한 {커리는} 꽁무니에 매 달고, 한 {커리는} 신고 그러거든.<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신 사 신을 디젔? 큰일 났그든. 그러자 어치게 뒤여를 한 번 본게 주맥이 있는디 지신을 삼어 신고 고놈 한 {커리를} 대바구리다 매달어 놨그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그런개 중신애비들이 중신을 잘허면 보선이 한 {커리고} 못허면 빰이 석 자리라고<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컬레 명 [대응어] 켤레.

신, 양말, 버선, 방망이 따위의 짝이 되는 두 개를 한 벌로 세는 단위. ¶“날이 어두우면 불을 쓰는 법인데, 왜 불을 안 쓰고 이러나?” 고 그런개. “신 한 {컬레씩} 팔아봐야 쌀 한 되씩 팔아 먹을라고 하지<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그서 가본게 방문 앞에가 메투리가 한 {컬레} 있거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함버는 그 동네가 참! 어떤 그 이튿날 아치메 어떤 쪼그만 한 여남사리나 나마 머근 애가 집씬 집씬 열 {컬레}, 그거보고 한 주기라고 허거등, 열커레럴 가지고 와서, 다 나놔준다 그마리여.<지역어 자료 총서, 고창>

지역 전북.

컬리 명 [대응어] 켤레.

☞컬레.

지역 완주.

컴방 명 [대응어] 큰방.

집안의 가장 어른이 되는 부인이 거처하는 방이라는 뜻으로, ‘안방’을 달리 이르는 말. ¶(그 주인이 자고 있는 주인이 자고 있는 거기는 무슨 방이라고 그래요?) {컴방}.(큰방.)<지역어 자료 총서, 무주>

지역 무주.

케우다 동 [대응어] 가꾸다(꽃을), 키우다.

☞키우다.

지역 임실.

코딱징이 명 [대응어] 코딱지.

콧구멍에 콧물과 먼지가 섞여 말라붙은 것. ¶{코딱징이} 먹는 놈 보소. ¶세놈이 앉아서 밤새도록 담배만 피우닌게 참 {코딱징이} 지고 눈꼽장이 자꾸 질 게 아니여? 그 독한 걸 핑게.

지역 무주.

-코롬 【연결어미】 [대응어] -게.

((주로 ‘이렇-, 그렇-, 저렇-, 어떻-’ 등의 대용어 뒤에서 쓰여서)) ‘어떤 정도로’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를 만드는 말. ¶발이 {이러코롬} 생겨서 방으로 들어가것나<최전승 외(1992)> ¶난중이는 요만헌 놈허다 {그러코롬} {저러코롬} 히갖고 저그 읍내 가서 큰 송방을 하나 사갖고 {요러코롬} 돈을 잘 벌었어.<최전승 외(1992)> ¶그떡은 그 영감님이 쌀 그놈 후허니 {그러코롬} 줌시롱 도독질 말고 달리 벌어먹으라고 {이러코롬} 히싸서<최전승 외(1992)> ¶아이가 {워쩌코롬} 이렇게 잘논데요. ¶맨날 니 멋대로 {고로코롬} 헐래?

지역 전북.

코밋쉬엠 명 [대응어] 콧수염.

코 아래에 난 수염. ¶허천나게 급허게 먹더니만 {코밑쉬엠에까지} 다 묻히고 먹었네. 휴지 좀 주쇼.

지역 고창.

코보 명 [대응어] 코흘리개.

항상 코를 질질 흘리고 다니는 아이. ¶어렸을 때

하도 코를 흘리고 댕여서 별명이 {코보였제}.
지역 전북.

코빡 명 [대응어] 코빼기.
'코'를 속되게 이르는 말. ¶기냥, 내싸두랑게~ 매급씨 뽀짝거렸다가 {코빡}, 대그빡 다칭게 앙거 있어야. ¶안 되는 놈헌티는 디져라 디져라 헌당게로~ 뒤로 자빠졌는디 {코빡이} 깨지고 재수가 옴 붙었는개비라우. ¶뒤엄 자리에 {코빡이나} 처박어 버려라 이~.
지역 고창.

코쉬엄 명 [대응어] 콧수염.
코 아래에 난 수염. ¶{코쉬엄} 좀 깎아서 좀 깔끔허게 하고 다닐 수 없냐?
지역 군산.

코엣피 명 [대응어] 코피.
코에서 흘러나오는 피. ¶{코엣피가} 쏟아지게 치고 박고.
지역 전북.

코팽이 명 [대응어] 고삐.
☞꼬뺑이.
지역 전북.

콤물 명 [대응어] 콧물.
☞콩물.
지역 고창, 남원, 완주.

콧구넝 명 [대응어] 콧구멍.
☞콧구녕.
지역 전북.

콧구녕 명 [대응어] 콧구멍.
코에 뚫린 두 구멍. ¶그렁게 개좆뿌리가 되갖구 말이여. 되갖고 귀신이 머리를 콱 잡고 {콧구녕으로} 콱 밀으면서 눈물이 철철나구, 개좆뿌리가 들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용천배기 {콧구녕으서} 마널씨를 뽑아먹구 말지, 내가 칙살시럽게 인력거 공짜루 타겄넝가!…… 을매(얼마) 받을랑가? 바른 대루 말허소!"<채만식, 태평천하>
지역 전북.

콧구먹 명 [대응어] 콧구멍.
코에 뚫린 두 구멍. ¶{콧구먹이} 단단히 맥혔능가 코맹맹이 소리를 많이 허네. 병원 한 번 가봐야 쓰겄어.
지역 김제, 남원, 부안, 익산, 임실, 장수.

콧쉬엄 명 [대응어] 코털.
콧구멍 속에 난 털. ¶콧속으 {콧쉬엄이} 바깥으로 삐적삐적 나왔응게 거울 보고 정리 좀 허요. 동네 챙피시러운게.
지역 고창, 남원, 군산, 완주, 임실, 진안, 장수, 무주, 정읍.

콧쉬옴 명 [대응어] 코털.
☞콧쉬엄.
지역 장수.

콧시엄 명 [대응어] 코털.
☞콧쉬엄.
지역 무주, 군산, 정읍.

콩기럼[1] 명 [대응어] 콩기름.
콩에서 짜낸 기름.
지역 전북.

콩기럼[2] 명 [대응어] 콩나물.
콩에 물을 주어 자라게 한 것. 또는 그것으로 만든 나물. ¶{콩기럼} 질궈서 너멀해 먹으면 맛나고 좋아.

지역 전북.

콩기럼너물 명 [대응어] 콩나물(무친 것).
☞콩지럼너물.
지역 장수.

콩기럼밥 명 [대응어] 콩나물밥.
콩나물을 넣어 지은 밥. ¶인자 먹어야 산게 숯구댕이 일허러 간다고 항게, {콩기럼밥을} 히다 줄라고 남편이라고. 그래서 그놈을 인자 갖고 갔나봐요.
지역 장수.

콩깍대기 명 [대응어] 콩깍지.
콩을 털어 내고 남은 겉껍질. ¶날이 추운게 {콩깍대기를} 태워 불을 피웠어요.
지역 고창, 무주, 임실, 남원.

콩깍데기 명 [대응어] 콩깍지.
☞콩깍대기.
지역 남원.

콩껍데기 명 [대응어] 콩깍지.
콩을 털어 내고 남은 겉껍질. ¶그래 가지구 솥에다가 붓구 쑤지. 메주 쑤는 거는 {콩껍데기} 안까.<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18> ¶벌어진 {콩껍데기} 안에는 콩알이 들어 있어. ¶콩이 잘 말라서 {콩껍데기가} 잘 벗겨졌다.
지역 남원.

콩나물너물 명 [대응어] 콩나물(무친 것).
콩나물을 데쳐 물기를 뺀 후에 갖은양념을 하여 무친 반찬. ¶동네에서는 옛날에는 인자, 아 콩너물 가튼 거또 질러 가고, {콩나물너물이랑} 히먹고 그랬는디
지역 군산, 정읍.

콩너물 명 [대응어] 콩나물.
콩에 물을 주어 자라게 한 것. 또는 그것으로 만든 나물. ¶콩너물을 지르다(기르다) ¶콩너물을 무치다 ¶반찬으로는 {콩너물이} 최고지. ¶인자 삼년상 인자, 소상때 대상때넌 인자, 미리 날짜가 에정되야 이끼 때미네 미리 {콩너물} 한시리썩 지러다가 한시리썩 주고, 이러케 지냈써.(이제 삼년상 인이제, 소상 때 대상 때는 이제, 미리 날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콩나물 한 시루씩 길러다가 한 시루씩 주고, 이렇게 지냈어.)<2008 전북 고창> ¶그 저네는 동네에 혼인대사나 큰 잔치가 이뜬지, 환갑짠치 이따고 그러머는 가정에서인자 반찬, 인자 반찬 될 꺼슬, 묵도 쑤어가고, 쉽께 마래서 간장, 간장, 간장도 가쥬고 가고. 마니 수거댕게, {콩너물} 질러서도 가쥬가고.{그 전에는 동네 하면은 혼인대사나 큰 잔치가 있던지, 환갑잔치 있다고 그러면은 가정에서 반찬, 이제 반찬 될 것을, 묵도 쑤어가고, 쉽게 말해서 간장, 간장, 간장도 가지고 가고. 많이 수거되니까, 콩나물 길러서도 가지고 가고}.<2008 전북 고창>
지역 고창, 남원, 부안, 순창, 임실, 정읍.

콩너물국 명 [대응어] 콩나물국.
콩나물을 넣어서 끓인 국. ¶{콩너물국은} 전주가 최고 아닌가?
지역 고창, 순창, 정읍.

콩너물무침 명 [대응어] 콩나물(무친 것).
콩나물을 데쳐 물기를 뺀 후에 갖은양념을 하여 무친 반찬. ¶두 가지 김치와 계란찜?김? {콩나물무침} 뜨물을 받아 멸치를 넣고 끓인 무국, 그리고 간장 한 종지가 반찬의 전부였다.<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콩너물밥 명 [대응어] 콩나물밥.

콩나물을 넣어 지은 밥. ¶{콩너물밥을} 히서 저녁을 먹었어 먹고 잠을 잘라는디 잘 수가 있어야제
지역 고창, 무주, 부안, 순창, 정읍.

콩똥 명
콩대를 묶은 것. ¶그때 가실인게로 {콩똥이} 콩을 이렇게 비어가지고 쨈매서 세워놓고는 {콩똥이} 있는디 가서, {콩똥을} 허부적거리고 갔다 처박고 처박고<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전북.

콩물 명 [대응어] 콧물.
콧구멍에서 흘러나오는 액체. ¶저그 저 사람이 지금은 저리 점잖어 보여도 애였을 때는 {콩물을} 질질질 흘리고 다니던 사람이었어. 코찔찔이가 언지 저렇게 어른이 되얐는지, 시간 참 빠르네.
지역 군산.

콩벌거지 명 [대응어] 바구미.
¶{콩벌거지가} 시커멓게 꼬였드라고.
지역 전북.

콩손님 명 [대응어] 열꽃.
홍역이나 수두 따위를 앓을 때, 열이 나면서 살갗의 여기저기에 돋아나는 붉은 점. ¶온몸에 {콩손님이} 돋았나 왜 몸이 빨개져?
지역 부안.

콩지럼 명 [대응어] 콩나물.
콩에 물을 주어 자라게 한 것. 또는 그것으로 만든 나물.
지역 전북.

콩지럼 명 [대응어] 콩기름.
☞콩지름.
지역 남원, 무주, 장수.

콩지럼국 명 [대응어] 콩나물국.
콩나물을 넣어서 끓인 국. ¶콩지럼만 있으면 {콩지럼국을} 끓이기야 일도 아니지라우.
지역 남원, 장수, 임실.

콩지럼너물 명 [대응어] 콩나물(무친 것).
콩나물을 데쳐 물기를 뺀 후에 갖은양념을 하여 무친 반찬. ¶동네에서는 옛날에는 인자, 아 콩지럼 가튼 것도 질러 가고, {콩지럼너물이랑} 히 먹고 그랬는디
지역 남원.

콩지룸 명 [대응어] 콩기름.
☞콩지름.
지역 완주.

콩지름[2] 명 [대응어] 콩나물.
콩에 물을 주어 자라게 한 것. 또는 그것으로 만든 나물.
지역 전북.

콩지름 명 [대응어] 콩기름.
콩에서 짜낸 기름. ¶콩은 버릴 것이 없고만, 지름까지 짜내믄 꼬소한 {콩지름으로도} 써 먹을 수 있고.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콩질금 명 [대응어] 콩나물.
콩에 물을 주어 자라게 한 것. 또는 그것으로 만든 나물. ¶{콩질금} 무친 것 보면 요리 실력 알 수 있어.
지역 전북.

콩팟 명 [대응어] 콩팥.
척추동물의 비뇨 기관과 관련된 장기의 하나. ¶{콩파시라는} 거시 읻쩨<2008 전북 고창>
지역 고창, 군산, 남원, 완주, 임실.

쾡이 명 [대응어] 괭이.
☞깨~이.
지역 전북.

크단썩허다 형 [대응어] 큼직하다.
꽤 큰 듯하다. ¶닭이 {크단썩혀}. 그리가꼬 연정이 한 마리 쐶아주라고 췄고만.
지역 전북.

크닿다 형 [대응어] 커닿다.
매우 크다. 또는 아주 큼직하다. ¶요쪽 큰 디, 쪼깨 {크닿는} 디는 배추 갈고 저쪽 찌깐헌 디는 상추 갈고.
지역 전북.

크댄허다 형 [대응어] 커다랗다.
매우 크다. 또는 아주 큼직하다. ¶잎사구가 {크댄헌디}.
지역 전북.

크릇 명 [대응어] 그릇.
음식이나 그밖에 것을 담는 물건을 통틀어 이르는 말.
지역 남원.

크막하다 형 [발음] {크마가다/크마카다} [대응어] 큼지막하다.
꽤 큼직하다. ¶동네 뒤편짝에 야트막헌 당산이 엎어져 있고 그 너머에 널금이라고 {크막헌} 저수지 하나가 누워 있는디……<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큰 마느래가 그냥 어른 나가서 가 대처 옹팅이를 갖괐던지 꽝아리를 갖괐던지 뭐 {크막헌} 그릇을 갖과서는 낳는 놈을 그냥 보도 못허게 혀 놔. 한쪽으서 담아 버렸어. 담아 번지고는 뒤섞어 번졌으니 나중이 어떤 놈이 지가 난 놈인지 알것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허우대는 {크막헌} 놈이 왜 그렇게 속이 없다냐. ¶꼬마였던 네가 벌써 {크막하게} 컸구나. ¶단호박을 많이 두고 팥고명도 많이 두고 한 지름한 호박떡을 {크막한} 사기함에 담아 뚜껑 덮고<채만식, 여인전기>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크막하다'는 '크다'의 어간에 형용사를 파생시키는 접미사 '-으막하-'가 연결된 것이다. 접미사 '-으막하-'는 전라 방언에서 형용사에 주로 연결되는데, '짤막하다', '야트막하다', '나지막하다', '그들막하다'에서와 같이 생산적으로 쓰이고 있다.

큰댓님 명 [대응어] 허리끈.
허리띠로 쓰는 끈. ¶{큰댓님이란} 것은 인자 허리끈보고 {큰댓님이라고} 헌다.<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큰댓님을} 팽팽하게 당겨야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는다.
지역 임실.
해설 '큰'과 '대님'의 합성어로 허리끈을 가리킨다. '큰댓님, 중댓님, 작은댓님'의 형태로 쓰여 각기 '허리끈, 행전, 대님'을 말한다.

큰뚜랑물 명 [대응어] 개울.
골짜기나 들에 흐르는 작은 물줄기.
지역 전북.

큰뱅 (←큰房) 명 [대응어] 큰방.
집안의 가장 어른이 되는 부인이 거처하는 방이라는 뜻으로, '안방'을 달리 이르는 말. ¶안방이 {큰뱅이랑게}<2009 전북 임실> ¶하루는 밥을 안 줘. 죽도 안 줘, 또 하루 안 줘. 아 사흘을 안 준단 말여. 이 어쩐 일이나 포도시 일어나서

{큰뱅} 방문을 내실 방문을 떡 열고 본게 전부 이불 속이 가서 일은 안 허고 기양 피어서 드러누웠단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고창, 군산, 무주, 부안, 임실, 남원, 장수, 순창, 익산.

큰시암 명 [대응어] 두레박우물.

두레박으로 물을 긷는 우물. ¶두룸박으로 {큰시암서} 물도 짇고 빨래도 허고.

지역 전북.

큰아번님 명 [대응어] 백부(호칭).

아버지의 형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

지역 전북.

큰아부지 명 [대응어] 백부(호칭).

아버지의 형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 ¶인자 즈그 큰 아버지는 {큰아부지대로} 모시고 저는 저대로 또 인자 즈그 식구들이 살음서 그양 참 호위호식(好衣好食)으로 참 오래오래 참 잘 허고 잘 살드래요.<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야 이 자식들아. 건너마을 건너 가서 느그 {큰아부지를} 불러라.<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가만히 즈 {큰아부지가} 말여, 인자 즈 큰집 {큰아부지} 아녀?<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큰아부지라도}, 작은아부지라도, 누구 아부지 피 섞이고 탁인 사람 한 번만 봤으면. 그런 사람 만나먼, 이러어케 손 한번 대 보먼 아부지 살 같을 것맹이여."<최명희, 혼불> ¶{큰아부지}, 어디 가세요?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군산.

큰악시 명 [대응어] 처녀.

결혼하지 않은 성년 여자. ¶대감집 {큰악시가} 시집간다 소문이 나니께로 온 마을 사내놈들이 다 몰려들어서 난장판이 돼부렀다니까.

지역 순창.

큰애기 명 [대응어] 처녀.

결혼하지 않은 성년 여자. ¶그전에 노처녀로 딱 허니 되어버렸는디, 아 이거 데려 갈 놈이 있어야지. 그런디, 웃음 {큰애기는} 시집을 못가서 말 글자 그대로 환장을 허고 말이여, 큰애기가 시집을 못 가면 환장을 하는 것이거든.<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주인네 집에 19살 먹은 큰애기가 있는디, 그 예울라고 하다가 즈그 어매가 죽어서 못 예우고, 복(服) 벗고 예울라고 {큰애기로} 있단 말이여.<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시집갈 {큰애기가} 언제 철이 들꼬? ¶{큰애기} 서너명이 함께 걸어가고 있으니 모든 남자들의 눈길이 쏠아지고 있구나.

지역 군산,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임실, 장수, 정읍, 진안.

큰엄매 명 [대응어] 큰어머니.

아버지 형의 아내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안 보다가 {큰엄매} 만나면 좀 서먹서먹허지.

지역 전북.

큰옴마 명 [대응어] 큰어머니.

아버지 형의 아내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큰옴마를} 만나다 ¶절은 큰아빠한티 혔는디 세뱃돈은 {큰옴마}가 주셨어. ¶본디 둘째 {큰옴마}가 너그덜 한티 제일 잘 혀 주셨지.

지역 전북.

클다 동 [대응어] 끄르다.

맺은 것이나 맨 것을 풀다. ¶문 {클어} 놓고 다니면 도둑 들제.

지역 전북.

큼방 (←큼房) 명 [대응어] 큰방.

☞큼뱅.

지역 고창, 남원, 임실, 장수.

큼뱅 (←큼房) 명 [대응어] 큰방.

☞큰뱅.

지역 남원, 무주, 순창, 익산, 임실, 장수.

키다 동 [대응어] 키우다.

동식물을 돌보아 기르다. ¶인제 텃밧, 저어그 앞에 텃밧에다가 상치도 {키고}, 오이도 {키고}, {키는} 거이야 많지. ¶동생은 텃밭에 여러 가지 채소를 {키며} 행복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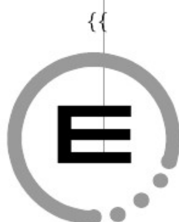
지역 고창, 김제,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익산, 정읍, 진안.

키발제 명 [대응어] 발돋움.

키를 돋우려고 발밑을 괴고 서거나 발끝만 디디고 섬. ¶{키발제} 헌다고 키가 커지는 게 아니랑게.

지역 전북.

{{



타다[1] 동 [대응어] 가르다(배를).
쪼개거나 나누어 양쪽으로 열어젖히다. ¶싹싹 씻어줌서 본게 큰 괴기를 하나 물고왔어. “이것이나 지져먹을라네. 우리 개도 욕보고 했은게 지져먹는다.” 거를(거기를) {탄게} 아 그 또드락 방맹이 거그 들었네 그려.<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타다[2] 동 [대응어] 오르다.
몸 따위에 살이 많아지다. ¶고구마 살이 {타야지} 이것도. 너무 커도 안 좋지만 빼짝 말라도 안 좋아.
지역 전북.

타발 명 [대응어] 다발.
꽃이나 푸성귀, 돈 따위의 묶음. 또는 그런 묶음을 세는 단위. ¶지폐 {타발} ¶장미 한 {타발}
지역 전북.

타시 명
남의 일에 이렇고 저렇고 말을 많이 하는 것. 주로 부정적인 뜻으로 쓰인다. ¶저그 집도 니미 기구절창하게 삼서 뭔 넘으 집가꼬 그러니 저러니 {타시를} 하냐고 막. 그것이 타시여,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했싼 것이 {타시라고} 그러지.
지역 장수.

탁걸리 명 [대응어] 막걸리.
우리나라 고유한 술의 하나. 맑은술을 떠내지 아니하고 그대로 걸러 짠 술로 빛깔이 흐리고 맛이 텁텁하다. ¶급헌 승질 다음달 시월이 단풍 가실 속 진득허게 파묻혀 {탁걸리} 쉰 목소리 팅김서.
지역 고창.

탁나다 동
곶감 같은 데 검은 곰팡이가 끼다. ¶곶감이 다 탁났어. 날씨가 안 존게.
지역 전북.

탁하다 (託하다) 동 [발음] {타가다/타카다} [대응어] 닮다.
사람 또는 사물의 생김새나 성질 따위가 다른 사람이나 사물과 서로 비슷하다. ¶자세히 뜯어놓고 볼 양이면, 이목구비나 손발 어느 구석이고 한 곳은 나를 {탁한} 데가 있을 것이다.<채만식, 탁류>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에서는 ‘누구를 닮았다’라는 표현을 ‘누구를 탁했다’라고 말한다. 얼굴을 닮은 것도 ‘탁했다’라고 하고, 행동을 비슷하게 하는 것도 ‘탁했다’라고 한다. ‘탁했다’라는 말은 ‘탁하

여 있다'가 줄어서 형성된 말이다.

탁해다 동 [발음] [타개다] [대응어] 닮다.
서로 비슷한 생김새나 성질을 지니다. ¶저놈이 나를 {탁했으면} 심바람도 잘 할틴디, 당신 {탁해서}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거요.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탁허다 동 [발음] [타거다/타커다] [대응어] 닮다.
사람이나 짐승이 서로 비슷한 면이 있다. ¶암먼요, 우리 정옥이가 개차반 즈그 애비를 {탁허서는} 절대 안 되지라우.<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잘 본게 자기 {탁혔어}닮았어).<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그놈의 새끼 미련허고 못난 것이 딱 니년얼 {탁헌} 것이 아니먼머시냐.<조정래, 아리랑>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해설 '닮다'에 비해 '탁허다'는 그 대상이 사람이나 짐승에 한정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반해 '닮다'는 사물의 유사성을 가리킬 때 많이 사용된다.

탁히다 동 [대응어] 닮다.
☞타개다. ¶긍게 비가 안 옹게 비아나서 보다 매급씨 놀부 심뽀 {탁허} ¶아따, 고 자슥 지그 애비 {탁허} 갖고 아구똥허네이~ 뽀시락장난도 잘허고. ¶으따, 사내 새끼가 지조도 없이 이랬다 저랬다 허고 자빠졌네 영락없이 지그 삼춘 {탁허} 갖고. ¶밑에 사진 봉게로 때까우는 절대 아니고 왜가리, 학, 백로는 뻥아리 눈물만치 쩨까 {탁혔는디-}. ¶으메~ 아따, 겁나게도 {탁혔네} 이~. ¶서리 맞은 굼벵이 {탁혔능가} 오사허게 느리대네 이~.
지역 전북.

탈박 명 [대응어] 쇠죽바가지.
쇠죽을 푸는 데 쓰는 바가지. ¶{탈박으로} 소죽을 구유에 퍼붓다.
지역 정읍.

탐박질 명 [대응어] 달음박질.
급히 뛰어 달려감. ¶언능, 후딱, {탐박질로} 꺼져야 쓰겄는디.
지역 고창.

탐박질하다 동 [대응어] 달음박질하다.
급히 뛰어 달려가다. ¶아이고 굼벵이 같은 놈, {탐박질해} 갖고 언능 후딱 조까 와 분져야! ¶또 백군 되어 대그빡에 끈 쨈미고 또 백 메타 {탐박질했다}. ¶이녁한티로 후딱 가고 자퍼서 {탐박질해} 갖고 갈라다가 독자갈에 되게 걸려 자빠징거시 해필이먼 소똥 싸 논디에 궁글어갖고 그날은 재수 옴 붙은 날이당게요.
지역 고창.

태가리 명 [대응어] 턱.
☞테가리. ¶으런이 앞으서 말씀을 허시는디 그렇게 {태가리를} 받치고 있으먼 쓰겄냐.
지역 전북.

태역나다 동
안 쓰던 근육을 무리해서 써서 그 부위가 뻐근하고 누르면 아프다. ¶오랜만에 농사일을 거들었더니 {태역났다}. ¶어제 등산히서 종아리 {태역났다}.
지역 전북.

태입삭 명 [대응어] 자리개질.
자리개로 곡식 단을 타작하는 일. ¶짚단을 빠짝 몰린 다음 {태입삭을} 히지.
지역 남원.

택도 없다 【관용표현】

도저히 될 가능성이 없다. 또는 사정에 전혀 맞지 않다. ¶깟난애기 암죽만 낄일라도 그께잇 거 갖꼬는 어림 {택도 없겄다}.<최명희, 혼불> ¶아 돌아서 가서 이렇게 쪼그리고 보니 감히 이거 뭐 {택도 없어요}.<한국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편>

지역 전북.

해설 의존 명사 '턱'은 "마땅히 그리하여야 할 까닭이나 이치" 의 뜻을 갖는다. 이 '턱'이 '턱도 없다'의 구성으로 쓰이면 극단의 부정의 의미를 포함하여 "가능성이 전혀 없다"를 의미한다.

택쉬염 (←택鬚髥) 명 [대응어] 구레나룻.

밑에서 턱까지 잇따라 난 수염. ¶뭔 {택쉬염을} 도사님처럼 저렇게나 길게 길렀디야?

지역 남원.

택에쉬염 "(←택에鬚髥) " 명 [대응어] 구레나룻.

☞택쉬염.

지역 남원.

택조가리 명 [대응어] 턱주가리.

'아래턱'을 속되게 이르는 말. ¶해보자는 드끼 {택조가리를} 쳐들고 나를 보더라고. ¶애린놈이 뭘 잘혔다고 {택조가리} 놀리고 있어.

지역 전북.

택주바리 명 [대응어] 턱주가리.

'아래턱'을 속되게 이르는 말. ¶해보자는 드끼 {택주바리를} 쳐들고 나를 보더라고.

지역 전북.

탯불 명

아기를 낳으면 문이나 집 밖에 걸어두는 불. ¶애기 낳고 {탯불을} 걸어야는디 지름이 없어서 못 걸어.

지역 전북.

탱이 명 [대응어] 곰팡이.

곶감 같은 데 끼는 검은 곰팡이. ¶곶감 욕보고 깎아서 지지리 말려 논게 비 와서 다 {탱이} 났어.

지역 전북.

터 팔다 【관용표현】

아우를 보다. 팔다 ¶밥 한 그럭 이러케 고사허게 다마오먼, 고놈 두번 땅 머그먼 된디.(그놈 인제 혼자 먹을 때는 첫 애기 날 때는 인제, 밥 한 그릇 이렇게 높게 담아오면, 그놈 두 번 딱 먹으면 되는데). 인자. {터 팔아가꼬} 인자, 절 띠긴노미 이쓰머는 인자.(터 팔아가지고 인제, 젖 뗀 놈이 있으면 인제.)<2005 전북 남원> ¶새터택은 보름이 낳고 벌써 {터 팠는가}. ¶첫 아이가 {터를 잘 팔어야} 아들을 난다는디 어찔랑가 몰라. ¶가시내 {터 팔았디야}?

지역 전북.

터막 명 [대응어] 목침.

나무토막으로 만든 베개. ¶{토막이} 높아서 목이 아프다

지역 전북.

터판쟁이 명

갓 낳은 아이의 바로 손위 형제. ¶{터판쟁이는} 애기 위에 형.

지역 전북.

턱쉬엄 명 [대응어] 턱수염.

아래턱에 나는 수염. ¶매급시 {턱쉬엄을} 쓰다듬는다. ¶할아버지는 막걸리를 마실 때마다 {턱쉬엄을} 만지셨다. ¶아버지의 {턱쉬엄이} 많아 아침에 면도로 깎고 출근을 하였다.

지역 고창, 군산, 김제, 완주, 남원, 임실.

텁쉬염 명 [대응어] 구레나룻.
☞텁쉬엄. ¶너도 제법 {텁쉬염이} 낟따이, 이제사 으른이 되는감만. 긍게로 이제부터 이 성보고 성이라고 불라라잉. 알것냐?
지역 고창, 군산, 김제, 부안, 완주, 익산, 정읍.

털미기 명 [대응어] 짚신.
볏짚으로 만든 신. ¶지푸라기로 {털미기를} 만들어 신다.
지역 장수, 임실.

털불다 동 [대응어] 투레질하다.
젖먹이가 두 입술을 떨며 투루루 소리를 내다. ¶애기가 {털불머는} 꼭 비가 온다고 혔어.
지역 전북.

테가리 명 [대응어] 턱.
입의 위와 아래에 있는, 발음을 하거나 씹는 일을 하는 기관. ¶암것도 안 허고 {테가리를} 괴고 앉어만 있더라고.
지역 무주, 부안, 군산, 완주, 익산, 진안.
해설 '테가리'는 '텍'에 접미사 '-아리'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텍'은 '턱'이 주격 조사 '이' 따위와 결합할 때 '텍이'와 같이 /ㅣ/ 모음 역행 동화를 겪은 후 어간이 '텍'으로 재분석되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아리'는 '히마리', '주둥아리'에서와 같이 어근 뒤에 붙어 "비하의 의미"를 더하는 접미사이다.

텍 명 [대응어] 턱.
((흔히 어미 '-을' 뒤에서 '없다'와 함께 쓰이거나, '있다'와 함께 반어형으로 쓰여))마땅히 그리하여야 할 까닭이나 이치. ¶나가 요래뵈야도 성령을 받은 뫼인디 옛날맨치로 저따우 인간한티 질래 뚜덜겨맞고 지낼 성불르요? {텍도} 없는 말씸이여라우!<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텍도 없다 【관용표현】
☞택도 없다. 없다
지역 전북.

토가리 명 [대응어] 뚝배기.
☞투가리.
지역 김제.

토개이 명 [대응어] 토끼.
☞퇴깽이.
지역 전북.

토깨이 명 [대응어] 토끼.
☞퇴깽이.
지역 전북.

토깽이 명 [대응어] 토끼.
☞퇴깽이.
지역 무주.

토막 명 [대응어] 목침.
나무토막으로 만든 베개. ¶마루에서 {토막을} 베고 자다
지역 전북.

토막신 명 [대응어] 나막신.
신의 하나. 나무를 파서 만든 것으로 앞뒤에 높은 굽이 있어 비가 오는 날이나 땅이 진 곳에서 신었다. ¶{토막신을} 신다
지역 전북.

토맥이 명 [대응어] 토막.
크고 덩어리가 진 도막. ¶{토맥이} 끊어자친게.
지역 전북.

토방 (土房) 명 [대응어] 뜰.
집 안의 앞뒤나 좌우로 가까이 딸려 있는 빈터. 화초나 나무를 가꾸기도 하고, 푸성귀 따위를 심기도 한다. ¶또 {토방에서} 마루를 바라본개 천하만하하게 높아.<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툇마루에 곤두박이는 것을 가까스로 모면한 신세호는 버선발로 {토방에} 내려섰다. <조정래, 아리랑>
지역 고창, 군산, 김제, 부안, 순창, 완주, 임실.

토세기 명
목화에서 씨를 빼낸 것. 또는 그것을 세는 단위. ¶한 토세기 차면은, 미영 잣은 토세기. 미영 잣은 놈, 쏙 뺀 놈을 그게 토세기여. ¶미영 잣어서 틀어서 뭉치를 몰아가꼬 몬 놈을 이만씩 허게, 한 토세기가 되면 빼.
지역 전북.

토손 명 [대응어] 토시.
추위를 막기 위하여 소매에 끼는 것. ¶추운게 목도리도 둘르고 {토손도} 꼈제.
지역 군산.

토씨 (套手) 명 [대응어] 토시.
추위를 막기 위하여 소매에 끼는 것. ¶긍개 이런디 춥따고 {토시} 맨드라서 기양 토시 찌고.<2009 전북 임실> ¶할머니는 조각천을 모아 {토시를} 만들어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셨다.
지역 고창, 남원, 무주, 완주, 임실.

톱간 명 [대응어] 제재소.
베어 낸 나무로 재목을 만드는 곳. ¶톱간이서 다 해와. 나무도 찌고 다 짜서 가져와.
지역 전북.

톱톱허다 형 [발음] {톱토버다/톱토퍼다} [대응어] 톡톡하다.
재산이나 살림살이 따위가 실속 있고 넉넉하다. ¶얘기값 {톱톱허니} 내놓고 가야 쓰겄소 인자.
지역 고창.

통놈 명 [대응어] 통것.
나누지 아니한 전부. ¶해가 중천에 떠오드락 토끼 한 마리 못 먹고 배가 고파서 헤메는디 어느 사람이 더운게 꾀를 할딱 벗고 펜티만 입고 뭘 허고 있어. 호랭이가 본게 옷 벗길 것도 없이 {통놈으로} 막 먹게 생겼단 말여.
지역 전북.

통보 명 [대응어] 애꾸.
눈이 한쪽 먼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사고로 {통보가} 되었다.
지역 장수.

통시 명 [대응어] 뒷간.
대소변을 보도록 만들어 놓은 곳. ¶어제는 {통시에} 빠져서 똥칠갑을 했는데, 똥 묻은 옷으로 동네방네 싸돌면서.<김원일, 불의 제전> ¶"니네없이 설사깨나 뺀다고 {통시} 출입이 꽤 바쁠 끼다."<김원일, 노을> ¶{통시에도} 몽당빗자루에도 잡기(雜鬼)가 붙어 있지라우.<한무숙, 만남> ¶"와따매, 이 썩는 눔에 {통시깐} 냄새!"<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진안, 무주.

통시암 명
샘(泉)의 일종. ¶빨래, 통시암이라고 있어요. 임해 들어가는 입구에 가서 통시암이 있는디 거그 가서 빨래를 헌게,
지역 전북.

통싯간 명 [대응어] 뒷간.
대소변을 보도록 만들어 놓은 곳. ¶{통싯간에서}

냄새가 진동한다.

지역 무주.

해설 '통싯간'은 '통숫간'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통숫간'은 '통수+ㅅ(사이시옷)+간'으로 분석된다. '통수'는 "물이 통하여 흐름. 또는 그렇게 되게 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수>스(제1 음절 모음의 원순성에 따른 이화)>시(치찰음의 전설 모음화)'의 과정을 거쳐 '통시'가 되고, 여기에 "장소"를 의미하는 접미사 '-간'이 결합하여 '통싯간'이 형성되었다.

퇴깽이 명 [대응어] 토끼.

'퇴끼'를 낮잡거나 친근하게 이르는 말. ¶뒷산에 가면 {퇴깽이} 잡으려고 덫을 놔 두었으니 조심해라. ¶동쪽으로 5키로만 가면 들 가운데 {퇴깽이} 같이 생긴 바우가 잇는디 이것을 {퇴깽이} 섬이라고 헙니다. ¶우리집에 있는 {퇴깽이가} 내가 풀을 뜯어다 주면 얼마나 잘 먹는지 너무 귀엽기만 하단다.

지역 전북.

해설 '퇴깽이'는 '퇴끼+-앵이'로 분석된다. '퇴끼'는 '토끼'의 제1 음절 모음 /ㅗ/가 후행하는 /ㅣ/의 전설성에 동화되어 전설 모음 /ㅚ/로 바뀐 것이다. 지소사 '-앵이' 역시 '-앙이'가 /ㅣ/ 모음 역행 동화에 의해 '-앵이'로 바뀐 것이다. 지소사 '-앙이'는 어근에 붙어 "작은 것" 또는 "비하"의 의미를 더해 주는 접미사이다.

퇴끼 명 [대응어] 토끼.

¶호랭이란 놈은 저 높은 산중으서 그 {퇴끼를} 잡어먹을라고 또 아장아장 내론다고.<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이렇게 죄아서 거식히 갖고 인자 군사들이 인자 {퇴끼랑} 뭐 노루랑 잡어갖고 가는 판인디,<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고창, 김제, 남원,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해설 '퇴끼'는 '토끼'의 제1 음절의 후설 모음 /ㅗ/가 후행 음절의 전설 모음 /ㅣ/에 동화되어 전설 모음인 /ㅚ/로 바뀐 것이다. 움라우트는 전북 방언의 특징적인 음운 현상 중 하나로, '먹이다~멕이다', '학교~핵교', '참빗~챔빗' 등 적용 환경이 갖추어진 대부분의 어휘에서 확인할 수 있다.

퇴끼풀 명 [대응어] 토끼풀.

세 쪽 또는 네 쪽 겹잎으로 나는 콩과의 여러해살이풀. ¶{퇴끼풀은} 땅을 비옥하게 헌다고 혀. ¶잔디밭에 {퇴끼풀이} 오보록하게 나서 뽑아야 해.

지역 고창, 김제, 남원,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툐주박 명 [대응어] 표주박.

조롱박이나 둥근 박을 반으로 쪼개어 만든 작은 바가지. ¶{툐주박으로} 물을 떠 먹다

지역 완주.

투가리 명 [대응어] 뚝배기.

찌개 따위를 끓이거나 설렁탕 따위를 담을 때 쓰는 오지그릇. ¶"내가 저녁으 자다 느닷없이 배가 아프면 물을 {투가리로} 하나 허고 밥을 한 그릇을 먹어야 내가 배가 갈앉제 글 안허믄 절대 내가 배가 안가라앉소. 그러니 나 미역국 한 그릇허고 밥 한 그릇허고 빨리 히서 날 주시오."<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밥 한 {투가리허고} 국 한 {투가리만} 히갖고 오먼 내가 갈처 줌세."<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고창, 군산, 남원, 무주, 순창, 익산, 임실, 장수, 진안, 김제.

투겡이 명 [대응어] 뚝배기.

찌개 따위를 끓이거나 설렁탕 따위를 담을 때 쓰는 오지그릇. ¶아, 이놈의 한두 개는 냉길 것

이 아니라, 다 깨졌어. {투갱이나} 되는 놈이 다 깨졌단 말여.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도 억울허고 원통허서 말여, 두 다리를 쭉 뻗고 걍 울었어. <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투드리다 동 [대응어] 두드리다(문을).

소리가 나도록 잇따라 치거나 때리다. ¶열어젖힘써 이렇께 언뜻 쳐다보니깐 키가 구척같은 놈들이 한 댓이 왔어. 그런디 그것도 본동만동허고 막 관 구석데기를 찾어댕김서 빈망치로 막 {투드리는} 거요. 하이튼. "이 미친 놈들아, 곽백이 죽어서 시방 입관하는디도 못보냔 말여. 정신나간 놈들이라고 누구 찾냐?" 고 그러면서<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그래서 좀 뭣을 어떻게 먹었더니 어떻게 {투드러} 패던지, 뚜두러 팼던지 내가 다리를 절심절심(쩔뚝쩔뚝)하고 내가 죽겠다." 그러드랑만. 그렇게 꿈을 꿔어주드래.<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막 호랭을 치고 히서 아 그 박주부를 인자 {투드러} 맞을 놈을 인자 업고 갔다. 업고 집이로 가서 구완을 힜어. "아 그 보아허니 상신(상인, 喪人) 같은디 용산을 힜소?<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완주.

투래 명 [대응어] 소라. ¶나뭇꾼복 뜬음서 인사를 힜단 말여. 허고는, "낼 아침이 진지는 집이 와 잡수기라오." "오냐." 나온게 걍 머 {투래다}, "니가 뭣이로 그 어른 진지를 대접헐라고 그런 소리를 허고 왔냐?" "아 나 먹는 대로 대접허면 그만이지 뭐<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투룸 명 [대응어] 트림.

☞트름.

지역 무주.

투어리 명 [대응어] 둥우리.

닭이 알을 낳거나 품을 수 있도록 짚이나 댑싸리 따위로 만든 그릇 모양의 물건. ¶[투어리가], 이쁘게 잘 맨들어졌네.

지역 전북.

투탁 부 [대응어] 후딱.

매우 날쌔게 행동하는 모양. 또는 시간이 매우 빠르게 지나가는 모양. ¶어디 가서 걍 {투탁} 사냥히다가 구워서 먹고 막 그러고 댕김서 그렇게 댕겨.<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전북.

툭배기 명 [대응어] 뚝배기.

찌개 따위를 끓이거나 설렁탕 따위를 담을 때 쓰는 오지그릇. ¶찌개를 {툭배기에다} 가득 담아서 상 위에 올려놓았다.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부안, 완주, 임실, 정읍.

툼벙 명 [대응어] 늪.

땅바닥이 우묵하게 뭉떵 빠지고 늘 물이 괴어 있는 곳. 진흙 바닥이고 침수 식물이 많이 자란다. ¶{툼벙에서} 빨래도 허고 멱도 감고 했는디, 짚은 {툼벙은} 빠지면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짚은 곳도 있어.

지역 전북.

퉁겁다 형 [대응어] 굵다.

물체의 둘레나 너비가 넓다. ¶남정네 {퉁겁고} 실헌 연장이 거그럴 채우지 않고서야 나을 병이 아니제.<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해설 전라 방언 '퉁겁다'는 "굵다"의 의미를 가진다. '뜨겁다, 싱겁다'는 '뜨뜻하다, 승승하다(심심하다)'에 형용사 파생 접미사 '-겁-'이 연결되

어 만들어진 어휘이다. '퉁겁다'는 형용사 '퉁퉁하다'에 접미사 '-겁-'이 연결되어 만들어진 어휘로 보인다.

퉁생이 명 [대응어] 퉁.
퉁명스러운 핀잔. ¶너, 니그 아부지한테 {퉁생이} 들을라고 그러냐?, 넘들한티 {퉁생이} 들을 거 겁나서 어디 일을 하겄냐.<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전북.

퉁셍이 명 [대응어] 퉁.
퉁명스러운 핀잔. ¶{퉁셍이} 듣고 다닌다.
지역 전북.

퉁수 명 [대응어] 퉁소.
대나무로 만든 목관 악기. ¶소리를 불고서는 인자 그러고서는 나중으는 그 스이 느이만 알아들으라고 {퉁수를} 불었어.<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그 하늘서 내리와서 신선이 내리와서 {퉁수를} 불었는디 무슨 당신이 퉁수를 불어야고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전북.

퉁어리 명 [대응어] 둥우리.
싸리나 짚 등으로 고구마나 감자 등의 곡식을 보관하기 위해 만든 것. 보통 늦가을에 마당 한가운데나 마당 한켠에 세운다. ¶고구마는 {퉁어리} 만들어서 거따 보관히서 겨울내 꺼내먹어.
지역 전북.

퉁우리 명 [대응어] 둥우리.
닭이 알을 낳거나 품을 수 있도록 짚이나 댑싸리 따위로 만든 그릇 모양의 물건. ¶닭이 {퉁우리에} 앉았는 거 봉게 알 낳을라나벼.
지역 전북.

퉤다 동 [대응어] 튀기다(기름, 불에).
끓는 기름에 넣어서 부풀어 나게 하다. ¶새비랑 쓰래미랑은 지름으다 {퉸어}.
지역 순창, 장수.

퉤지다 동 [대응어] 튀다.
탄력 있는 물체가 솟아오르다. ¶공이 {퉤지면서} 저그로 갔어.
지역 익산.

튀어지다 동 [대응어] 튀다.
탄력 있는 물체가 솟아오르다. ¶공이 {튀어지믄서} 울타리를 넘어가 부렀어.
지역 고창, 순창, 군산.

튕기치다 동 [대응어] 튀다.
탄력 있는 물체가 솟아오르다. ¶공이 {튕기치믄서} 저그로 갔어.
지역 장수.

트람 명 [대응어] 트림.
☞트름.
지역 진안.

트룸 명 [대응어] 트림.
☞트름.
지역 김제, 남원, 무주, 순창.

트름 명 [대응어] 트림.
먹은 음식이 위에서 소화가 잘되지 아니하여서 생긴 가스가 입으로 복받쳐 나오는 것. 또는 그 가스. ¶"어허, 동상은 역시 무식허네그려. 요 무시가 속 답답허고 소화 안되는 디는 질이시. 요것얼 묵고 {트름} 서너 분만 허불먼 속이 씨원해져뿌네. 동상도 묵어볼랑가?" 김종연이 무를 내밀었다.<조정래, 태백산맥> ¶엄마는 동생에게

우유를 먹인 후 꼭 {트름을} 시킨 후 이부자리에 눕혔어.
지역 고창, 군산, 김제, 남원, 부안,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진안, 정읍, 무주, 순창.

트버리 명 [대응어] 탈.
걱정할 만한 사고. ¶먼 {트버리가} 났는지.<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트재기 명 [대응어] 트집.
공연히 조그만 흠을 들추어내어 불평을 하거나 말썽을 부림. 또는 그 불평이나 말썽. ¶그 전이는 잘 혔어. 근디 장개(장가) 감서부터 {트재기를} 논게.
지역 전북.

틀부다 형 [대응어] 다르다.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
지역 전북.
지역 전북.

틀붇다 동 [대응어] 투레질하다.
젖먹이가 두 입술을 떨며 투루루 소리를 내다. ¶야가 {틀부는} 걸 보니께 비가 올랑갑네.
지역 전북.

틀선반 명 [대응어] 선반.
물건을 얹어 두기 위하여 까치발을 받쳐서 벽에 달아 놓은 긴 널빤지. ¶바느질 그릇을 {틀선반에다} 딱 얹어 놓구 나오는디 비가 막 쏟아지는 것이여
지역 전북, 무주.

틀섬반 명 [대응어] 선반.
☞틀선반.
지역 무주.

틀어지다 동 [대응어] 토라지다.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뒤틀리어서 싹 돌아서다. ¶정신을 바로 차리자면 신문을 똑똑히 읽어야 허지 안컸는가." 송수익은 좀 어이없는 기분으로 정재규를 바라보았다. 이 사람 마음이 {틀어진} 것인가, 그 위태한 한량기가 동했는가, 그는 생각하고 있었다.<조정래, 아리랑> ¶아랫입술 한가운데 마치 검뎅이 한 점을 찍어 놓은 것같이 박힌 검은 점을 웃이빨로 앙다물어 심사가 {틀어진} 표를 낸다. "아이고오, 더워. 내 속으다 불 때지 마. 글 안해도 입이서 단내가 풀풀 낭게." <최명희, 혼불> ¶기세 시퍼렇게 호령하며 조리돌리고, 덕석말이를 해서 몽둥이로 치는 서슬인데, 노비?상민은 더 말할 것도 없었다. "그저 조께만 비우에 {틀어지면} 그렇게, 꺼떡허면 잡어다가 덕석에 몰아서 치는 거이 일임서도,<최명희, 혼불>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부안, 정읍, 진안.

틈새기 명 [대응어] 틈.
벌어져 사이가 난 자리. ¶아직도 마냥 어려운 상대로만 느껴지는 시어머니와 호말만한 의붓딸 {틈새기에} 끼여 비록 단칸방에서 뜬눈으로 새우다시피 선잠을 자야 하는 옹색스런<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도망 헐라고 인자 날새기를 기다리네. 가만히 본게로 아 {틈새기로} 본게로 날이 훤하게 새거든.<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어떤 행동을 할 만한 기회. ¶갓난애기 자는 {틈새기에} 잠깐씩 자는 거지 안그러믄 잘 시간이 읎어. ¶문이 삐끄덕거리니 {틈새기에다} 종이를 접어 끼워라.
지역 남원.

틉틉하다 형 [발음] [틉트바다/틉트파다] [대응어] 톱톱하다.
액체가 맑지 아니하고 농도가 진하다. ¶괴기 지

글지글 꾸워 쐬주 한잔 허는 것도 좋제만 그보담도 {틉틉헌} 막걸리 한사발 쭈욱 허고 코 톡 쏘는 홍어 한점 척 걸치면 더 부런 것이 머시가 <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티결 명 [대응어] 티끌.
티와 먼지를 통틀어 이르는 말. ¶술병치레 볼작시면 {티결} 업난 …… 엽낙금정 오동병과 목진 …… 당화병 쇄금병<완판본 열여춘향수절가上>
지역 전북.

티껄 명 [대응어] 티끌.
먼지같이 아주 잔 부스러기. ¶풍구라구 그릳써 나락을 부칠때 {티껄} 드러와따고 그러지<완주_지역어_텍스트> ¶할머니 오신다고 얼마나 깨끗이 청소를 했는지 {티껄을} 찾아 볼 수 없구만.
지역 전북.
해설 '티껄'은 '티끌'과 관련된 형태이다. '티끌'의 제2 음절 모음 /ㅡ/가 /ㅓ/로 변한 것으로, 이는 /ㅓ/가 /ㅡ/로 고모음화하는 음운 현상이 반대로 적용된 것이다. /ㅓ/>/ㅡ/ 고모음화는 '어른~으른', '더럽다~드럽다' 등 어두 음절 모음에서 주로 일어나는 음운 현상이다.

티끄락 명 [대응어] 티끌.
먼지같이 아주 잔 부스러기. ¶모래바람에 내 눈이 {티끄락이} 들었는디 당초 안 나오는구만. ¶거짓말 헐 생각은 꿈도 꿔지말고 {띠끄락만헌} 것이라도 다 말을 히야헌다. 알겄냐.
지역 임실.

티끼 명 [대응어] 티끌.
티와 먼지로 매우 작거나 적음. ¶쓰잘데기라곤 한 {티끼도} 갖추잖은 것덜 허고는.<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티리 명 [대응어] 티끌.
먼지같이 아주 잔 부스러기. ¶{티리} 한 조각도 없다.
지역 무주.

티미하다 형 [대응어] 투미하다.
어리석고 아둔하다. ¶유셈이 고 자슥은 머가 고리 {티미허}? ¶고게 으디 갸가 {티미헌} 거나, 다 여편네가 불량헝게 고 모냥이제.<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티밥 명 [대응어] 튀밥.
쌀을 볶아 튀긴 것. ¶어머이는 저러케 지낼란고 흐고 아더리 쳐다봗띠야. 그러니까 여기 저 {티밥을} 영감이 튀는데, 티밥쟁이라고 한 집이 영감이 죽었는데 이제 며느리가<2009 전북 임실> ¶살 빼려면 {티밥을} 먹는다는데 그건 잘못 아는 상식이래. ¶{티밥} 쌀티밥을 먹으면 참 맛이 최고야.
지역 무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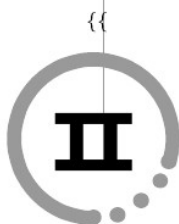
티크락 명 [대응어] 티끌.
티와 먼지를 통틀어 이르는 말. ¶너도 사람이면 {티크락만치라도} 미안헌 마음이 들 턴디.
지역 전북.

-팅게 【연결어미】 [대응어] -터이니까.
처한 형편이나 기회가 뒤 절에 대한 원인이나 이유가 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내가 이놈을 성님기로 {보낼팅게}<조봉래, 풀벨골> ¶요시 동니 놈덜 모다 버릇없이 돼가는 작태는 나가 기연시 고쳐 {놓을팅게} 그리 알고 각오덜을 단단히 허라 일러라.<조봉래, 풀벨골> ¶글찮음 내 내 보껴 {죽을팅게}, 알겄냐?<조봉래, 풀벨골> ¶만약으 사람덜이 그걸 알기만 허면 다른 속임

수를 쓰기도 {헐팅게} 앙그렇겄냐?<이병천, 모래내모래톱> ¶허기는 달챙이 숟가락 하나라도 빼놓고 가면 거그서 {아쉬울팅게} …….<이병천, 모래내모래톱> ¶인나 이 쥐새끼야! 이판에는 아주 배때기를 {질러버릴팅게}!<이병천, 모래내모래톱> ¶어떠? 내가 술 한잔 {살팅게로} 배달쪼매 나허고 동무험서나 같이 안 나갈랑가?<이병천, 모래내모래톱> ¶머리 짤라서 짚신이라도 {삼어드릴팅게} 지발허고 목심 하나 구해만 주씨요!<이병천, 모래내모래톱>

지역 전북.

{{



파글파글허다 형 [대응어] 퍅퍅하다.

음식이 물기나 끈기가 적어 목이 멜 정도로 메마르고 부드럽지 못하다. ¶근닥헙디다. 반감자가 {파글파글허디여}. 그리고 시안에는 물크덩허고. ¶호박감자는 {파글파글허}. 팔 때는, 추석 안에는 파글파글헌디 추석 쇠고 캐먼은 가을에 캐먼은 좋드라고. 쪄노먼 노리가꼬(노래가지고) 달아. 달아. ¶파글파글헌게 목마치(목마쳐).

지역 순창.

파래 명 [대응어] 파루.

☞바래. ¶남문 열고 {파래를} 치면 계명 산천이 밝어나 온다/에헤야아아 하 헤 헤에헤에이 히 헤 헤헤야 허(완주 논매는 소리/방개소리)<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완주.

파른 (←琺瑯) 명 [대응어] 법랑.

사기그릇이나 쇠그릇 겉에 발라 굽는 유약(釉藥)의 한 종류. 광물을 원료로 하여 만들며, 사기그릇의 겉에 올려 불에 구우면 밝은 윤기가 나고 쇠 그릇에 올려서 구우면 사기그릇의 잿물처럼 된다. ¶팔모깎이 우산대/은소복으 연변대/주석대 백통대/{파른} 받침 구리 동고리대/소상간죽으 별간죽/금사오죽에 양철간죽을/마치 맞게 잘 맞촤/네 구석으 세워두니/방안치레가 훌륭하네(진안 고사풀이)<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진안.

판속 명 [대응어] 판국.

벌어진 일의 형편이나 국면. ¶더 치밀고, 그렇지만 이판에 부아를 돋구어주는 거리면 차라리 해롭잖을 {판속입니다}.<채만식, 태평천하> ¶이것도 헌 것이지 이것도 인사라고. 돌아눕길래 '아이, 어떻게 된 {판속이냐고} 나, 어머니 아버지 모시러 왔다'고 말여. 근디 가만히 생각헌게<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시끄러운 {판속을} 좋아하는 도둑의 심보로 시한부 종말론에 껴묻어 한몫 단단히 잡을 결심을 했을 때,<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해설 '판'은 '일이 벌어진 자리. 또는 그 장면'을 말한다. 이 '판'에서 일이 벌어진 형편을 표준어에서는 '판국'이란 어휘를 사용한다. 전북 방언의 '판속'도 마찬가지로 '판의 속'이란 뜻으로 '판'과 '속'이 복합되어 이루어진 복합명사이다.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보일 때 주로 사용하는 어휘이다.

팔갱기 명 [대응어] 토시.

추위를 막기 위하여 소매에 끼는 것. ¶추운게 목도리도 둘르고 {팔갱기도} 꼈제.

지역 군산.

팔굼치 명 [대응어] 팔꿈치.

팔의 위아래 마디가 붙은 관절의 바깥 부분. ¶아내는 눈치 없는 남편의 옆구리를 {팔굼치로} 우악살스레 찔렀다. ¶호영이는 얄미운 친구를 {팔굼치로} 탁 쳐버렸다.

지역 군산.

팔꼬맨딩이 명

옷의 팔꿈치 부분이 닳아서 떨어지지 않도록 헝겊이나 가죽 따위로 덧댄 부분. ¶{팔꼬맨딩이가} 다 해지도록 오래 입었어.

지역 무주.

팔꼽 명 [대응어] 팔꿈치.

팔의 위아래 마디가 붙은 관절의 바깥 부분. ¶눈치 없이 씨부리 쌓는 친구의 옆구리를 {팔꼽으로} 쿡 찔렀다.

지역 무주.

팔꽁새이 명 [대응어] 팔꿈치.

☞팔꽁생이.

지역 완주.

팔꽁생이 명 [대응어] 팔꿈치.

팔의 위아래 마디가 붙은 관절의 바깥 부분. ¶하도 오래 입어서 {팔꽁생이가} 다 해졌어.

지역 완주.

팔꽁오 명 [대응어] 팔꿈치.

팔의 위아래 마디가 붙은 관절의 바깥 부분. ¶{팔꽁오로} 엉금엉금 기어간다.

지역 무주.

팔다 동 [대응어] 사다(곡식을).

값을 치르고 어떤 물건이나 권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다. ¶그럼 쌀은 어디서 {팔아다} 먹어?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팔뚝 명 [대응어] 팔뚝.

'팔'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영감쟁이 같으니라고! "이구, 이 웬숫덩어리야!"하면서 {팔뚝을} 사정없이 꼬집어 뜯었다.

지역 전북.

해설 현대 국어의 '팔뚝'은<내훈>에서 '볼독'으로,<두시언해>에서 '폴톡'으로 처음 확인되는데, 이는 다시 '팔+-독'으로 분석할 수 있다.

팔뚝공새이 명 [대응어] 팔꿈치.

팔의 위아래 마디가 붙은 관절의 바깥 부분. ¶염치 없는 놈에게 {팔뚝공새이로} 옆구리를 쿡 찔렀다.

지역 완주.

팔랭개비 명 [대응어] 팔랑개비.

어린이 장난감의 하나. 빳빳한 종이 또는 색종이를 여러 갈래로 자르고 그 귀를 구부려 한데 모은 곳에 철사 따위를 꿰어 가늘고 길쭉한 막대에 붙여서 바람이 불면 빙빙 돌게 만든다. ¶가시내가 {팔랭개비처럼} 방정을 떨며 뛰댕기더만 발이 걸려 곤두박질을 치더라고. ¶아이들이 {팔랭개비를} 들고 바람을 맞으며 신나게 뛰어다닌다.

지역 전북.

팔매 명 [대응어] 판매.

누에 고치 따위를 팖.

지역 전북.

팔매소 명 [대응어] 판매소.

누에 고치 따위를 사는 곳. ¶고치 갖고 가서 {팔매소다} 팔아.

지역 전북.

팔매허다 동 [대응어] 판매하다.

누에 고치 따위를 팔다. ¶고치만 팔매헌다고 그려.

지역 전북.

팔부리 명 [대응어] 담뱃대.

담배를 피우는 데 쓰는 기구. 담배통, 담배설대, 물부리로 이루어져 있다. ¶{팔부리} 끝에서 담배가 빨갛게 탄다.

지역 전북.

팔짱찌다 동 [대응어] 팔짱끼다.

두 손을 각각 다른 쪽 소매 속에 마주 넣거나, 두 팔을 마주 끼어 손을 두 겨드랑이 밑으로 각각 두다. ¶다정한 친구인 미호와 영미는 항상 {팔짱찌고} 다닌다.

지역 남원, 무주, 완주.

팜나 명 [대응어] 밤낮.

☞밤낮. ¶언능 속을 채려야허는디 자는 {팜나} 헌다는 짓이 그 모냥여.

지역 완주.

팡지다 뿌 [대응어] 지치다.

힘든 일을 하거나 어떤 일에 시달려서 기운이 빠지다. ¶잔디에서 불이 댈구 타 들어오는데 그 개가 보닝게는, 주인은 깨울 용기두 없구, 그래서 불이가 이렇게 타오는 대로 그 또랑이 가찹던가 물에가 빠져가지구서는 잔디밭에가 굴르구 또 빠져가지구서는 잔디밭에가 굴르구 그래가지구, 나중에 주인이 실컷 자구서 일어나 보니까 개가 {팡져서} 그냥 죽었드리야.<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전북.

팥돌 명 [대응어] 줌돌.

확에서 곡식을 갈 때 쓰는 작은 돌. ¶{팥돌로} 막 갈아. 보리쌀 먹을라면.

지역 전북.

패지 (牌紙) 명 [대응어] 딱지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의 일종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두꺼운 종이. ¶애들이 만화영화 그림이 그려진 {패지를} 가지고 많이 놀았지.

지역 전북.

팩성질 명 [대응어] 불뚝성.

갑자기 욱하고 화를 내는 마음. ¶성질모리가 매사에 모다 {팩성질이라데}.<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팬안허다 (←便安허다) 형 [대응어] 편안하다.

편하고 걱정 없이 좋다. ¶시얌도 늦게 가믄 일찍 온 동네사람들이 싹 질러 가 갖고 짚은 디서 포도시 질러 갖고 그르다가 어느날잉가 짝뚜샘을 집집마다 파 갖고 참 {패난혔는디}.

지역 전북.

팬허다 (便허다) 형 [대응어] 편하다.

몸이나 마음이 거북하거나 괴롭지 아니하여 좋다. ¶신간 {팬허게} 째까 먹고 째까만 쌀라요. ¶아따, 묵을 때나 팬히 처묵게 나 두씨요 싱간이나 {팬허게}.

지역 전북.

팬히 (←便히) 뿌 [대응어] 편히.

몸이나 마음이 거북하거나 괴롭지 아니하여 좋게. ¶아따, 묵을 때나 {팬히} 처묵게 나 두씨요 싱간이나 팬허게.

지역 전북.

팸팸히 뿌 [대응어] 팽팽히.

줄 따위가 늘어지지 않고 힘 있게 곧게 펴져서 튀기는 힘이 있는 정도로. ¶설달 그믐날 동네 사

람은 실을 양쪽으로 {팸팸이} 쥐고 우아래 바우 틈새기로 밀고 나가 보는디<구비문학대계 김제군>

지역 김제.

팽맹이질 명 [대응어] 방망이질.

방망이로 치거나 두드리거나 다듬는 일. ¶시상일 야지랑 깜서 정칫일 말(言) {팽맹이질} 험서 창문 밖 모양성 철쭉 유혹에 굴풋 삼겹살 냄시 꼬심 속에 낯같 이름조차 까먹은 무심함에 건성나발 옹삭허게 해찰허면서.

지역 고창.

팽에 부 [대응어] 어차피.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또는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내가 {팽에} 따라가야 헌게.

지역 전북.

퍼그러니 부

팔다리를 아무렇게나 뻗어서. ¶어른들 앞으 {퍼그러니} 안 앉는다고 히서 에렸을 때부터 이러고 앙거서 나는 이게 편혀.

지역 전북.

퍼다 동 [대응어] 퍼지다.

끓이거나 삶은 것이 불어서 커지거나 잘 익다. ¶(팥죽 쑬 때) 쌀이 엔간히 {펄} 무렵에(새알을) 느야 혀.

지역 전북.

퍼대기 명 [대응어] 포대기.

어린아이의 작은 이불. 덮고 깔거나 어린아이를 업을 때 쓴다. ¶"아주머이, 아 내가 동네서, 요 잔등이를 넘어서 오는디, 아주 부잣집 노적 밑에가 애기를 쑥떡배 {퍼대기다} 싸서 쑥덕배 저고리를 입혀 갖고 딱 뉘여 놨는디, 애기가 울어 쌌습니다."<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그러머는 나를 귀허다 길를 적에 그 {퍼대기다} 싸놨다는데 그 {퍼대기}, 아니 떨어진 쪼가리라도 혹시 그런 나에 증거품이 될만헌 뭣이 암것도 없느냐?"<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무주, 군산, 익산, 장수, 남원.

퍼라리 명 [대응어] 누더기.

누덕누덕 기운 헌 옷.

지역 전북.

퍼리 명 [대응어] 파리. ¶그?어. '푸른 {퍼리가} 붓대를 흔든다.' 아, 이상헌 소리지. {퍼리가} 와서 어떻게 붓대를 흔들겄어?<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김제, 군산, 완주, 익산, 장수.

펄쎄 부 [대응어] 벌써.

예상보다 빠르게 어느새. 또는 이미 오래 전에.

지역 전북.

펄씨 부 [대응어] 벌써.

예상보다 빠르게 어느새. 또는 이미 오래전에. ¶"흐이구야, 아측을 {펄씨} 히먹었다냐아, 죽도 못 끓여서 공염불만 허고 앉었다냐?"<이병천, 모래내 모래톱> ¶졸업도 마치기 전인디 {펄씨 부텀} 대한민국허고도 사면팔방에서 난다 긴다 허는 방짜배기 회사들이 임정옥 학상 즈그가 먼첨 뫼셔가겄다고 대그빡이 터지드락 서로 쌈질이 붙은 판이다.<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임종술이 완장 졸업헌 지는 {펄씨} 오래 전이요.<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펄씨'는 표준어 '벌써'에 대응하는 어휘이다. 전북에서는 '펄씨'가 많이 쓰이고 전남에서는 '폴새'가 많이 쓰인다.

펄씨케 부 [대응어] 벌써.

예상보다 빠르게 어느새. 또는 이미 오래전에. ¶인자 {펄씨케가} 되아 버린 어저께의 일들이 고것들은 추억의 불장난이란 말잉가. 이미 오래전에. ¶글도 고창은 나지 때는 겁나게 푹 헝게 짐장도 {펄씨케} 히 버렷당게요.

지역 고창.

펏죽 (펏粥) 명 [대응어] 팥죽.

팥을 푹 삶아서 체에 으깨어 밭인 물에 쌀을 넣고 쑨 죽.

지역 전북

페기 명 [대응어] 덤불.

어수선하게 엉클어진 수풀.

지역 전북.

페다 동 [대응어] 바루다.

비뚤어지거나 구부러지지 않도록 바르게 하다. ¶옷깃을 {페고} 조용히 밖으로 나간다.

지역 남원, 부안, 임실, 장수.

해설 '페다'는 '펴다'의 어두 음절 모음이 'ㅕ> ㅔ'로 단순모음화한 결과이다. '뼈~뻬', '결혼~겔혼' 등에서도 이러한 음운 현상을 볼 수 있다. 한편 '바루다'는 전북 방언에서 '펴다'와 구별되지 않고 사용됨을 알 수 있다.

펜상 (←平生) 명 [대응어] 평생.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동안. ¶{펜상} 함께하다

지역 전북.

펜지 (←便紙) 명 [대응어] 편지.

안부, 소식, 용무 따위를 적어 보내는 글. ¶{펜지} 왔네 {펜지} 왔네/임 죽었다고 {펜지} 왔네/한 손으로 받아 갖고/두 손으로 피어보니/임 죽은 {펜지러라}/붓을라컨 입에 물고/책일라컨 옆에 찌고/신은 벗어 손에 들고(남원 시집살이노래-"시누가 깬 옥동우를")<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이방이 와. "네 {펜지} 한 장 써라. 그리고 삼촌한테다가 인제 안부 편지 쓰고, 내가 오시라고 청유하는 편지를 써라."<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너, 니가 그 주인일 것 같으면은 늬가 뭔 두드러진 양반이간디 팔도 감사한테 {펜질} 받았냐? 그러고 팔도 감사 {펜지} 받은 건 뭐 좋지마는 박문수 박어사가 너한테 편지한 일이 있더냐?"<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예 이게 아무개 정승댁이십니껴?" "음 그렇다." "뭔 {펜지를} 전하락 해서 왔읍니다." "편지는 누가 전허락 했냐?"<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아근디 {펜지를} 갖다준게로 그 백정이 마룽으서 편지를 떡 띠어서 한참 읽다는 편지를 갸 짝 찢어번져.<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남원, 정읍.

펭강 명 [대응어] 편강.

얇게 저며서 설탕에 조려 말린 생강. ¶{펭강을} 힜는디 먹어봐.

지역 전북.

평상 명 [대응어] 평생.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동안. ¶그러믄 사람은 혼인이라는 것은 {평상으} 한번 뺴이 없는 것인디 될 수 있으면 본인이 맘으 드는 디로 여워줘야 헐 것 아니요.<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전북.

포구 의명 [대응어] 포기.

뿌리를 단위로 한 초목의 낱개를 세는 단위. ¶우구려라 우구려라 우루려라/우굴 우굴 우굴 우굴 우굴 우굴 우구려라아아아 허어허어어/열이 열두 {포구럴} 한 낫질로 걸구서/당그래 낫질로만 우구려라아어/어디 허고!(옥구 벼베는 소리/산야)

<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군산.

포근허다 형 [대응어] 포근하다.
도톰한 물건이나 자리 따위가 보드랍고 따뜻하다. 또는 감정이나 분위기 따위가 보드랍고 따뜻하여 편안한 느낌이 있다. ¶아 여보쇼, 쇠돌(새털)같이 많은 날 오늘 저녁 하루저녁 빠진다고 몹쓸랍디여? 비도 온게 오늘 저녁 가지 말고 여그서 그냥 {포근허니} 쉬쇼.<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군산.

포도시 부 [대응어] 간신히.
겨우 또는 가까스로. ¶뒤엿사람은 가난허게 사는디, 쪼그만헌 집이 가난허게 사는디 참 {포도시} 먹고 산단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아 하루는 밥을 안 줘. 죽도 안 줘, 또 하루 안 줘. 아 사흘을 안 준단 말여. 이 어쩐 일이나 {포도시} 일어나서 큰방 방문을 내실 방문을 떡 열고 본게 전부 이불 속이 가서 일은 안 허고 기양 피어서 드러 누웠단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글고, 해지름때가 됭게 옛날 생각이 {포도시} 나요-. ¶알탕갈탕 {포도시} 히 놓았도만 역시 건성나발이구만이~. ¶{포도시} 깐닥깐닥 허요 이~. ¶시얌도 늦게 가믄 일찍 온 동네사람들이 싹 질러 가 갖고 짚은 디서 {포도시} 질러 갖고 그르다가 어느날잉가 짝뚜샘을 집집마다 파 갖고 참 패난혔는디. ¶{포도시} 회사다가 차 입고 흐고 유모차 끌고 오는디 시상으 굴찌고라당 너머승게 질갓이 개안흔 거 잇지롸우 시서그픕디다. ¶공부 잘헌다고 소문은 컸었는디 서울은 커녕 지방대학도 {포도시} 들어갔대야.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포도시} 빠져나왔다.
지역 남원, 임실, 정읍.

포두 명 [대응어] 포도. ¶{포두를} 따다
지역 전북.

포랗다 형 [대응어] 파랗다.
맑은 가을 하늘이나 깊은 바다, 새싹과 같이 밝고 선명하게 푸르다. ¶하늘이 {포란게로} 마음이 다 시원네.
지역 전북.

포릇포릇 부 [대응어] 파릇파릇.
군데군데 파릇한 모양. ¶그때 누렇게 마른 겨울 풀잎 사이에서 이제 막 {포릇포릇} 돋아나는 새 풀에 담뱃불이 떨어지자 그것은 안으로 시들어지듯 오그라졌다.<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해설 표준어 '파릇파릇'이 큰말이라면 전북 방언의 '포릇포릇'은 작은말이다. '포릇포릇'은 '파랗다'를 의미하는 부사형 '포릇'이 반복되는 복합부사이다.

포리 명 [대응어] 파리.
☞파리. ¶"아구가 바람을 휙휙 시게 품어 싼개 {포리가} 위로 날아갈 거 아니냐? 코 밑에다 써 놓으면 코바람이.<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부안, 순창, 임실, 정읍.

포리약 (포리藥) 명 [대응어] 파리약.
파리를 잡는 데 쓰는 살충제. ¶대아지막 저태 때까우도 자울자울 알랑헌 짓 조까 힛도만 {포리약} 핑겻능가 나도 자울자울.
지역 고창.

포리족족허다 형 [발음] [포리족쪼거다/포리족쪼커다] [대응어] 푸르죽죽하다.
칙칙하고 고르지 않게 푸르스름하다. ¶찬바람을 맞아 입술이 {포리족족허게} 변했구만.
지역 전북.

포자 명 [대응어] 늪.
땅바닥이 우묵하게 뭉떵 빠지고 늘 물이 괴어 있는 곳. 진흙 바닥이고 침수 식물이 많이 자란다. ¶큰비가 내려 땅바닥이 {포자가} 되어 버렸다.
지역 전북.

포자기 명 [대응어] 보자기.
☞보재기. ¶남원 읍내 가서 원님이라고 허는 분네가 {백포자기} 청포자기 씌워논 사람이 겁나단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정읍.

포재기 명 [대응어] 보자기.
☞보재기. ¶죄수들을 내놓고는 걍 백포재기를 씌운 놈 {청포재기} 씌운 놈을 걍 딱 뒤집어 눌러놓고 마당으다 내놓고는 봄새 땃땃헌디다 내놓고는 다 사형을 시킨다고 허고 고형을 시킨다고 허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정읍.

폭거리 명 [대응어] 포기.
뿌리를 단위로 한 초목의 낱개. 또는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뿌리를 단위로 한 초목의 낱개를 세는 단위. ¶벼 {포꺼리} ¶배추 한 {포꺼리}
지역 전북.

폭삭허다 형 [발음] [폭싸거다/폭싸커다] [대응어] 포근하다.
도톰한 물건이나 자리 따위가 보드랍고 따뜻하다. ¶잘 말룬게로 이불이 {폭싹허니} 좋구만.
지역 무주.

폭신 부 [대응어] 푹.
속의 것이 물러지도록 흠씬. ¶팟이 {폭신} 삶아질 때까지 때.
지역 전북.

폭신그리다 동
도톰한 물건이나 자리 따위가 보드랍고 따뜻한 느낌을 지니다. ¶{폭신그리는} 이불 ¶{폭신그리는} 침대에서 자 보는게 소원이었는디 이참에 잘 사들여 놓았어.
지역 군산.

폭폭증 (폭폭症) 명 [대응어] 갑갑증.
갑갑하게 느껴지는 증세. 또는 가슴 깊숙이 박힌 슬픔이나 한으로 인해 생긴 울화증. ¶그려 사는 중인데 저짝으서는 인자 오지도 안흔게 {폭폭증이} 나다 말어 버렸다 그말여.<한국구비문학대계, 정주시편>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폭폭증'은 '폭폭하다'의 어근 '폭폭'에 한자어 '증(症)'이 연결된 복합어이다. 표준어에서는 '갑갑하다'의 어근 '갑갑'에 한자어 '증(症)'이 연결된다.

폭폭하다 형 [발음] [폭포가다/폭포카다] [대응어] 갑갑하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애가 타고 갑갑하다. ¶대복이가 윤직원네 영감한테 지청구를 먹고는 홧김에 써보고, 편잔을 듣고는 {폭폭하여} 써보내고 하던, 그야말로 눈물의 투서였던 것입니다.<채만식, 태평천하>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폭폭하다'는 표준어 '답답하다'와 의미가 유사하다. 표준어에는 '폭폭'이란 부사가 사용되어, '속을 폭폭 썩이다.'와 같은 표현에 쓰고 있다. 전북 방언 '폭폭하다'는 '폭폭'이라는 부사에서 형용사파생접미사 '-하-'가 붙어 파생된 것으로 보인다.

폭폭허다 형 [발음] [폭포거다/폭포커다] [대응어] 답답하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애가 타고 갑갑하다. ¶계봉이는 도로 형의 무릎에 가 엎드러진다. {폭폭허다} 못해 하는 소리요, 말하는 그대로지, 말이외의 다른 의미는 없던 것이다.<채만식, 탁류> ¶지지리 못난 것 같으니로고! 못났거든 국으루 못나지 이마빡에 피두 안 마른 것이 벌써 버틈 기집 역성 드느라구 에민 {폭폭허라구} 그래. 시방 사약사발 들이킨 꼬락사니루구면?<채만식, 女子의 一生> ¶왜 무담시 {폭폭허게} 허냔 말여라?<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폴거리 명

팔 소매가 더러워지지 말라고 끼는 헝겊. ¶멍청허게 {폴거리} 찔지도 모르고, 옷만 빨아댔는가몰라.

지역 전북.

폴꼼치 명 [대응어] 팔꿈치.

☞팔굼치.

지역 남원.

폴꽁새이 명 [대응어] 팔꿈치.

☞팔꽁생이.

지역 전북.

폴꽁생이 명 [대응어] 팔꿈치.

☞팔꽁생이.

지역 임실.

폴목 명 [대응어] 팔목.

손과 팔이 잇닿은 부분. ¶오도카니 혼자 앉아서 {폴목의} 시계만 거듭 보고 보고 한다. ¶첫날 부임헌 날 자기 부인에 여그(여기) 손목에다가 {폴목에다가} 명주실을 쨈맸어요(묶었어요).

지역 남원, 임실, 순창.

폴목쟁이 명 [대응어] 팔목.

팔과 손이 잇닿는 부분을 낮잡아 이르거나 친근하게 이르는 말. ¶보시요 {폴목쟁이가} 가느름이 늘궈진 걸.<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폴씨께 부 [대응어] 벌써.

이미 오래전에. ¶인자 {폴씨께가} 되아 버린 어저께의 일들이 고것들은 추억의 불장난이란 말잉가.

지역 전북.

폴짱 동 [대응어] 팔짱.

두 손을 각각 다른 쪽 소매 속에 마주 넣거나, 두 팔을 마주 끼어 손을 두 겨드랑이 밑으로 각각 두는 일. ¶인자 나갈라는디 고놈이 현관 앞이서 떡허니 {폴짱을} 끼고 버티고 있드라고.

지역 임실.

폴짱찌다 동 [대응어] 팔짱끼다.

두 손을 각각 다른 쪽 소매 속에 마주 넣거나, 두 팔을 마주 끼어 손을 두 겨드랑이 밑으로 각각 두다. ¶{폴짱찌구} 댕이네<2009 전북 임실>

지역 고창, 임실.

폴죽 (폴粥) 명 [대응어] 팥죽.

팥을 푹 삶아서 체에 으깨어 받인 물에 쌀을 넣고 쑨 죽. ¶거기 가서 인자 불도 때주고 어쩌고 험서 {폿죽} 한 그륵씩 얻어 먹고 참 연명을 허고 지내는디.<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아 이 메추리란 놈이 가만히 있은게 여자가 고개다가 밥을 한 꽝아리를 반찬조차 한 고개 이고 땀을 {폿죽} 같은 땀을 흘리고 오거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그 그전에는 대감집 앞을 갈라치면 꼭 {폿죽} 장사

가 있었다등만.<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부안, 순창, 임실, 정읍.

푀기 명 [대응어] 그루터기(벼).
풀, 나무, 곡식 따위를 베어 낸 뒤에 남은 밑동. ¶그러치요, 거시건 페를 인자 그 {푀기} 논 디다가 다 함 포기썩 찔르지요. 못줄. 못줄을 이렇게 띠워놓으면<지역어 자료 총서, 임실>
지역 김제, 남원, 무주, 순창, 완주, 임실, 장수, 진안.

푀지 명 [대응어] 놀이딱지.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의 하나. 종이를 네모나게 접어 만들거나, 두꺼운 종이쪽에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쓴 것으로, 종류와 노는 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푀지}. 딱지닥 허드라 시방은. ¶시방 아그들은 사서 허드만. {푀지}. {푀지} 딱 딱 넘어가먼 먹고. 푀지 쳐. ¶신문도 없어서 사료 푸대도 없어서 양 {푀지가} 귀히제. 푀지도 먼 푀지 있고 먼 푀지 있고 두 가지여. 이렇게 접어서 허는 놈 있고 이렇게 니모빤듯헌 놈 있고. ¶그냥 만드는 놈은 나는 만들겄다. 근디 사각으로 허는 놈은 못 만들아. 이놈 너무 질다이. 이롷게 히가꼬 여그다. 근게 그런 {푀지만} 나는 맹글제. ¶이런 {푀지}. 종우
지역 고창.

푀지치기 명 [대응어] 딱지치기.
놀이딱지 한 장을 땅바닥에 놓고, 다른 딱지로 쳐서 뒤집히면 따먹는 아이들 놀이. ¶그 {푀지치기}. 넘어가면 그 푀떼기를 내가 가좌.
지역 고창.

푸근덩거리다 동
알갱이가 크고 거칠어 잘 씹히지 않다. ¶입속으서 {푸근덩거리는} 보리밥을 먹기가 좋지 않어.
지역 전북.

푸근푸근 부
떡 고물을 많이 올려 두툼하거나 풍성한 모양. ¶고물을 한 둘금 {푸근푸근} 허쳐.
지역 전북.

푸근푸근허다 형
푹 익어서 무르다. ¶콩 {푸근푸근허고만}. 그만 때도 씨겄어잉?
지역 전북.

푸근허다 형 [대응어] 푸근하다.
두툼한 물건이나 자리 따위가 부드럽고 따뜻하다. ¶찹쌀가루 한번 둘르고 그 우게다 고물을 {푸근허니} 허쳐.
지역 전북.

푸다 동 [대응어] 피우다.
어떤 물질에 불을 붙여 연기를 빨아들이었다가 내보내다. ¶한강에다 모를 부어 모 쪄내기가 난감하네/어서야 펄펄 모쪄놓고 연초 담배 한 대 {푸어} 보세/들어내세 들어를 내세 이 모자리 들어 내세/어서야 펄펄 들어나 내고 연초담배 {푸어나} 보세(무주 모찌는 소리)<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무주.

푸대[1] (←包袋) 명 [대응어] 자루(袋).
속에 물건 따위를 담을 수 있도록 헝겊 따위로 길고 크게 만든 주머니. ¶하얀 밀가루 {푸대에} 반 넘게 담긴 그 무엇이 꽤 되는 것이다.<이병철, 모래내 모래톱> ¶그녀의 엄마는 오랬동안 종이 {푸대를} 파는 가게를 운영했다. ¶쌀을 {쌀푸대에} 담아야겠다.
지역 군산.

푸대[2] 명 [대응어] 바보.

지능이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또는 어리석고 멍청하거나 못난 사람을 욕하거나 비난하여 이르는 말. ¶고놈이 날 아주 {푸대} 취급을 하더라구.
지역 전북.

푸대쌈 명 [대응어] 보쌈.
☞부대쌈.
지역 전북.

푸르족족하다 형 [발음] [푸르족쪼가다/푸르족쪼카다] [대응어] 푸르죽죽하다.
하고 고르지 않게 푸르스름하다. ¶말처럼 기다란 얼굴이 바탕은 {푸르족족한} 게 표독스럽고 입술은 상스럽게 두꺼웠다.<채만식, 生命>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푸르족족하다'는 표준어 '파랗다, 푸르스름하다'와 의미가 유사하다. '푸르다'에 형용사 파생 접미사 '-족족하-'가 연결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노랗다, 붉다'에 연결되어 '노르족족하다, 볼그족족하다'로 쓰인다.

푸상가리 명 [대응어] 푸성귀.
☞푸성가리.
지역 무주.

푸섭 동 [대응어] 풀숲.
풀이 무성한 수풀. ¶{푸섭에} 숨어서 군인 놀이하믄 정말로 재미지당게.
지역 무주.

푸성가리 명 [대응어] 푸성귀.
채소와 나물을 아울러 이르는 말. ¶{푸성가리로} 반찬을 만들었어. ¶봄철에 입맛 돋우는 것으로는 {푸성가리}가 최고지. ¶{푸성가리로} 무쳐 먹으면 싱싱하고 맛있다.
지역 무주, 완주, 임실.

푸성제 명 [대응어] 푸성귀.
채소와 나물을 아울러 이르는 말. ¶{푸성제를} 심어 먹은게로 반찬 걱정은 따로 안 허.
지역 군산.

푸세푸세허다 동 [대응어] 잘난 체하다.
실속없이 큰소리 치고 나서며 잘난 체하다. ¶저러고 {푸세푸세허고} 댕긴게 누가 좋아라 허.
지역 전북.

푸여다 형 [대응어] 부옇다.
연기나 안개가 낀 것처럼 선명하지 못하고 조금 허옇다. ¶푸여다고, 쌀 뜪은 물이 {푸여제}. 쌀 뜪으먼 물이 푸여제. ¶쌀뜨물이 {푸여제} 뭇이 푸여. 우유도. 흐거다고 안 허고 푸여다고, 틉틉허다고. 부옇다.[02], ¶큰딸은 마흔 둘인가 일곱인가 야달 먹었어도 시방 큰애기 같여. {푸여니}. {푸여니} 시방도 큰애기 같여. ¶얼굴도 {푸여} 갖고 모시매가. 얼굴이 푸여.
지역 순창.

푸죽다 형 [대응어] 풀이 죽다.
기운이나 힘이 빠지다. ¶"자네가 {푸죽은} 반쪽 사람으로 언제까지고 있는 걸 보고 말 수가 없어! 단연코 용서 안할 테야!"<채만식, 아름다운 새벽>
지역 전북.
해설 '풀'은 '쌀이나 밀가루 따위의 전분질에서 빼낸 끈끈한 물질.'을 말한다. '풀이 죽다.'는 흔히 쓰는 관용구이다. 이 관용구가 '풀죽다>푸죽다'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푸중가리 명 [대응어] 푸성귀.
채소와 나물을 아울러 이르는 말.
지역 고창.

푸초 명
생잎담배를 건조해서 피우는 담배. ¶담배 좋아하는 사람은 {푸초도} 갖다가 피고 그려.
지역 전북.

푼칼 명
모시나무를 꺾어 껍질을 벗긴 다음 껍질의 푸른 겉껍질을 벗기는 ㄱ자 모양의 작은 칼. ¶이놈을 푼칼로 혀. 이것 허는 것이 {푼칼이다고}. 이렇게 허면 껍데기 쭉 벳게져. {푼칼} 있어. 껍줄은 딱 벳게져 버리고.
지역 전북.

풀강아지 명 [대응어] 애송이.
어린 티가 나는 사람이나 물건. ¶"어디서 이런 {풀강아지들이} 굴러 왔어?"<송기숙, 녹두장군> ¶작자는 어디서 이런 {풀강아지가} 나타났나 하는 눈이었다.<송기숙, 녹두장군>
지역 전북.

풀때죽 명 [대응어] 풀떼죽.
멀거니 끓인 죽. ¶그때는 쌀이나 있가니? 흐거니 {풀때죽} 쒀 먹고 그랬제.
지역 전북.

풀망 명 [대응어] 소입막이.
소의 입을 막는 도구. ¶쇠코뚜레랑, {풀망이랑} 챙기가서 먼저 밭이서 기다려라잉. 나도 곧 갈랑게.
지역 김제.

풀매다 동 [대응어] 김매다.
논밭의 잡풀을 뽑아내다. ¶일손은 계속 놀려야 하고, 한증막이 따로 없었다. 그래서, 목화밭 {풀매기} 한나절에 속곳밑 파고든 훈김으로 새댁 거기 다 익어버린다는 말이<조정래, 태백산맥> ¶여름엔 마당을 {풀매지} 않으면 풀이 금세 자란다. ¶장마가 끝나고 나니 밭에 풀이 너무 많아 엄마와 함께 {풀매러} 밭에 갔다.
지역 군산, 임실.

풀뭇가 명 [대응어] 대장간.
☞불뭇간.
지역 완주.

풀뭇간 명 [대응어] 대장간.
☞불뭇간. ¶{풀뭇간에} 가서 낫 한자루 맞추어 와야것소.
지역 김제, 군산, 완주, 정읍.

풀미쟁이 명 [대응어] 대장장이.
☞불미재이.
지역 전북.

풀비 명 [대응어] 귀얄.
풀칠이나 칠을 할 때에 쓰는 솔의 한 가지. 주로 돼지털 같은 것을 묶어서 넙적스름하게 만든다. ¶놈들이 주욱 앞으 스고 생이 뒤에는 망부석 짊어진 놈, {풀비} 가지 온 놈, 풀그릇 들고 온 놈, 대들보 짊어진<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고창, 군산,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풀섭 명 [대응어] 풀숲.
풀이 무성한 수풀. ¶그런디 이 사람네들도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라 그랬는지 어쩌는지는 몰라도, 들어가면서 그 허술한 보재기로 싹 그놈을 울타리 밑에 어디 {풀섭} 움썩헌 디다 집어넣어 놓고는 들어간다 그 말이여.<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남원, 무주, 군산, 임실, 장수, 익산.

풀소김 명 [대응어] 풀솜.

ㅍ

실을 켤 수 없는 허드레 고치를 삶아서 늘여 만든 솜. ¶그 실 그놈 {풀소감} 있어. 걸어놓고 이렇게 허먼 찔긋찔긋허니 째끔 이렇게 띠어다 비벼야 실이 잇어져. ¶베가 떨어지먼 그놈이 아무케나 잇는 것이 아녀. 그놈을 가닥 맞춰서 헐라믄 참 심들거든. {풀소감} 있어.
지역 전북.

품삭 명 [대응어] 품삯.
품을 판 대가로 받거나, 품을 산 대가로 주는 돈이나 물건. ¶밑이 가머는 참도저 챔선이라고는 과수(과부)가 사나 사는디, 아 거가서 일도 히주고 인자 품을 팔어다 먹고 그러든게벼. 거가 인자 선 {품삭이라도} 쌀되나 얻어다서 밥을, 손님들 밥얻어 대접헐라고 거를 갔던게벼. 아 가서 날이 도로새서 갔던게벼. 아 가본게 사릿문을 안 열었거든.<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남원, 완주, 임실.

품앗이 명 [대응어] 품앗이.
힘드는 일을 서로 거들어 주면서 품을 지고 갚고 하는 일. ¶넘어와서 그집 와서, 하루 놀고 헐때에 다정시러운개 이애기도 허고 술도 먹고 허다가 또 점심도 거기서 잘 먹고 피차가, {품앗이지} 왔다갔다 놀아.<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2살에 결혼했는디 그 안에 9살부터 {품앗이를} 다녔어. 삼품앗이를 미영(무명) 잦고, 시방, 각씨들 노인들이 별놈의 이야기를 안 허요? 거기서 들은 것이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아 그 동네 젊은 사람들도 그놈하고 {품앗이를} 안혀. 농사짓는디…. “이놈 홀애아들놈의 새끼다고 말여. 느들 다 키운 저 죽은 뒤 홀어머니가 느그들 키울라고 얼매나 욕을 봤냐?<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고창, 군산, 남원, 무주, 완주, 임실.

품팔이 명 [대응어] 놉.
하루하루 품삯과 음식을 받고 일을 하는 품팔이 일꾼. 또는 그 일꾼을 부리는 일. ¶사람은 농사를 쪼금 짓는디, 농사가 쪼금 지니까 일년 양석(양식)을 못허고 남 {품팔이를} 히먹어요. 근디 하루는 그 농사 짓는 사람이 밥을 더러 굶고 이러닝가<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내다가 재산을 탕진허고 서촌에 들어가서 참 아닌게 아니라 근근히 생활허면서 그저 {품팔이로} 생활허고 심부름이나 댕기고 이러닌게 상놈이 되야버렸어.[조사자 : 예.], 그러나 자기<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임실.

풋놈 명
아직 익지 않은 것. ¶보리 {풋놈은} 여간 히서 껍딱 안 벳겨져.
지역 전북.

풋독 명 [대응어] 줌돌.
확 속에 곡식이나 채소를 넣고 갈 때 사용하는 작은 돌. ¶학독으다가 {풋독으로} 막 갈아. ¶또 아침에 학독으다 가는 것은 보리쌀 간다고, 밥히 먹을라고 갈아, 아적으 새북에 일어나서. 풋독을 업져서 막 갈아. 물 붓고.
지역 고창.

풋머리 명
곱게 빗어 귀밑머리를 넘겨 땋은 머리가 아닌 그냥 뒤로 넘겨 질끈 묶은 머리. ¶나는 {풋머리로는} 한번도 안 묶었어. 귀양머리 이렇게 싹 넘겨서 언지나 묶었제.
지역 전북.

풍고 명 [대응어] 풍구.
곡물에 섞인 쭉정이, 겨, 먼지 따위를 날려서 제거하는 농기구. 한쪽에 큰 바람구멍이 있고, 큰 북 모양의 통 내부에 있는 여러 개의 넓은 깃이

달린 바퀴를 돌려서 낟알과 잡물을 가려낸다. ¶{풍고로} 부치먼, 싹 보리때 가틍거, 보리 그, 싸고 인는 보리껍찔 고롱건 저리 싹 나가고 알곡 써건 요리 빠지제.<2005 전북 남원> ¶옛날에 그 {풍고} 거그다 여 우에다 부수먼, 졸졸졸졸 내려감선 인재, 이렇게 나무때기로 요로케 요로케 요로케 손이로 돌리먼 고고시 돌아감선 부체저.<2005 전북 남원>
지역 남원.

풍노 명 [대응어] 풍구.
☞풍고. ¶{풍노로} 인자 정서늘 허던지, 그러치 아느면 풍선 머여 풍석찌리라고 그레요, 풍석찌를 해가지고 그 바라멀 일으켜서 그거슬 다 날려가지고 어 수화글 하게커럼 돼요.<지역어 자료 총서, 군산>
지역 군산.

풍담 명 [대응어] 허풍.
실제보다 지나치게 과장하여 믿음성이 없는 말이나 행동. ¶저 양반은 온 동네가 아는디 맨나 {풍담} 떠는고.
지역 전북.

풍데이 명 [대응어] 풍뎅이. ¶{풍데이} 잡아 와서 그렇게 치다만 보고 있어. {풍데이에} 푹 빠지서 산당게.
지역 전북.

풍신나다 형
아주 형편없고 초라하다. ¶바구리라고는 {풍신나게} 생겼네.
지역 전북.

풍천짱어 (←風川長魚) 명 [대응어] 풍천 장어.
고창군 풍천강 지역에서 잡히는 뱀장어.
지역 전북.

퓡기다[1] 동 [대응어] 풍기다.
곳곳에 흩어지도록 던지거나 떨어지게 하다. ¶모구약 {퓡게}.
지역 전북.

퓡기다[2] 동 [대응어] 튀기다(물방울을).
작은 물체나 액체 방울을 위나 옆으로 세게 흩어지게 하다. ¶냇가에 앉아 물을 {퓡긴다}.
지역 순창.

피고물 명
팥이나 콩을 고물로 쓸 때 삶아서 그냥 찧기만 한 고물. 껍질을 벗겨서 찧은 것과 대조된다. ¶떡을 후딱 헐라믄 {피고물로} 둘금둘금 허치제.
지역 전북.

피다 동 [대응어] 깔다.
바닥에 펴 놓다. ¶잠을 자려고 이불을 {핀다}. ¶장마당에 자리를 {핀지} 한 시간도 안 되어 물건은 동이 나버렸다.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부안,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진안.
해설 '피다'는 '펴다'의 이형태로, 전북 방언에서는 '(요를)깔다'의 뜻으로 '피다'를 사용한다.

피등어 명 [대응어] 피문어.
문어의 어린 새끼. 모양은 문어처럼 보이지만 몸통, 다리 색이 핏빛 색을 띄고 있다. ¶시방 밑반찬 시원찮응게 고 질긴 년을 {피등어} 다리로 생각을 험서나 반찬거리로 잘근거리란 말여.<조봉래, 풀벨골>
지역 고창, 군산, 부안.

피라지 명 [대응어] 피라미.
잉엇과의 민물고기. 또는 하찮은 존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내가 이 새복에 {피라지만} 허

천나게 잡을라고 배에 오른게 아닌디. ¶{파라지} 같은 녀석, 넌 크려면 아직 멀었어. ¶{피라지} 낚시로 피라지를 낚아서 국을 끓여 먹으면 얼마나 맛이 좋은지.
지역 완주.

피랭이 명 [대응어] 피라미.
잉엇과의 민물고기. 또는 하찮은 존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그물질을 백날 히 봤자 {피랭이만} 걷어 올려지고. 먹고 살기 참 힘들구만. ¶내 동생이 그 때만 히도 아주 {피랭이였는데} 이제는 어엿하게 자리를 잡고 성공도 히서 난 참 대견스럽고 좋으네.
지역 남원.

피런허다 (←蔽一言하다) 명 [대응어] 폐일언하다.
((주로 '피런허고' 꼴로 쓰여)) 이러니저러니 할 것 없이 한 마디로 휩싸서 말하다. ¶정월 대보름날 이 댁에 와서 {피런허고} 비애지가 찢어지게 먹었네./그러고, {피런허고} 배꼭지가 요강꼭지가 되드락 솟아버렸어.(진안 성주풀이)<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진안.

피리 명 [대응어] 피라미.
잉엇과의 민물고기. 또는 하찮은 존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낚시를 갔으믄 {피리라도} 잡아 와야지. ¶전주천 한벽루 근처에는 {피리를} 잡아서 오모가리탕을 해주던 가게가 버드나무천변에 주욱허니 늘어서 있었는디. ¶아니, 이런 {피리들} 가지고 뭘 알아낼 수 있냐 말이여. 배후를 알려면 적어도 중간 관리자 급은 잡아들이야지.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

피뽑다 동 [대응어] 김매다.
논밭의 잡풀을 뽑아내다. ¶여름에는 {피뽑니라} 정신이 없제.
지역 임실.

피사리하다 동 [대응어] 김매다.
논밭의 잡풀을 뽑아내다. ¶팥을 {피사리하느라} 바쁘다. ¶아부지는 논에 {피사리하러} 나간지가 언진디 너는 아직까지 자고 있냐? ¶논에 피가 너무 많으니 우리 가족 모두 {피사리하러} 가자.
지역 김제.

피우다 동 [대응어] 바루다.
☞페다.
지역 고창, 무주.

피창 감 [대응어] 순대.
돼지의 창자 속에 고기붙이, 두부, 숙주나물, 파, 선지, 당면, 표고버섯 따위를 이겨서 양념을 하여 넣고 양쪽 끝을 동여매고 삶아 익힌 음식. ¶별도로 먹고 싶으면 사야지. {피창도} 있고.
지역 전북.

핀지 명 [대응어] 편지.
안부, 소식, 용무 따위를 적어 보내는 글. ¶"{핀지도} 안 허겟스까?" "아, 핀지허실 양반이 그러고 지겟스까잉, 여그서 거그가 머 멫 천릿질이라고."<최명희, 혼불> ¶"아저씨 너그 아저씨를 꼭 찾어 보고 과거 마당을 가야 헌다." 허고 {핀지를} 하나 써 줘. {핀지를} 인자 써 갖고는 갖고는 인자 갔단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핀지하다 동 [대응어] 편지하다.
편지를 보내다. ¶"핀지도 안 허겟스까?" "아, {핀지허실} 양반이 그러고 지겟스까잉, 여그서 거그가 머 멫 천릿질이라고."<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필베 명
필 단위로 돌돌 말아서 세워 놓거나 짐에 없는 베를 통째로 이르는 말. ¶시집올 때 {필베로} 히 갖고 와. {필베는} 보통 명주베지.
지역 전북.

필치 의명 [대응어] 필지.
논 넓이의 단위. '한 필치'가 구백 평이다. ¶논이 딱 {필치로} 딱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딱 {필치로}. 요놈 장판 떨어지드끼 딱 떨어졌는디 여그 하나에 얼매씩 떨어지냐면 구백평씩 딱 떨어졌어. 한 {필치가} 구백 평.
지역 전북.

핏뎅이 명 [대응어] 핏덩이.
피가 엉겨 이루어진 덩이. 또는 '갓난아이'나 갓 낳은 짐승의 새끼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사람 시늉만 헌 {핏뎅이가} 이쁘고 밉고가 워딨다냐. 핏줄이라고 헌께 중히 생각키고 맴이 씨이고 허제 그냥 {핏뎅이로만} 봄사 모다 정내미 떨어지고 징상시럽제.<조정래, 태백산맥> ¶"저 시뻘건 {핏뎅이} 말이시." 지삼출이 세차게 혀를 찼다. "이, 저것이 불뎅이제 어디 핏뎅이간디. 일장기, 해란 말이시, 해." 손판석은 곧이곧대로 말을 받았다.<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핑기다 동 [대응어] 풍기다.
냄새가 나다. 으디선가 구릉내 살살 {핑긴다}.
지역 전북.

핑등그리 부 [대응어] 핑그르르.
몸이나 물건 따위가 넓게 한 바퀴 도는 모양. ¶반어질 상자도 덥벅 만져 보고 빗던 빗접도 {핑등그리} 더져도 보고<완판본 심청전上>
지역 전북.

핑허니 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게 마지막인게 요 앞집이만 {핑허니} 갔다 와.
지역 전북.

퍽각질 명 [대응어] 딸꾹질.
가로막의 경련으로 들이쉬는 숨이 방해를 받아 목구멍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증세. ¶{퍽각질} 두세 번의 숨이 덜걱 지니<완판본 심청전上>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퍽각질'(패깍질)은 주로 접촉 지역에서 나는 현상으로 '태깍질'과 '포깍질'이 혼태되어 나는 현상이다.

{{



ㅎ

하꼬방 (←<일>hako房) 명 [대응어] 가게.

작은 규모로 물건을 파는 집이나 방. ¶다섯 달 전에도 보았던 대폿집, 약방, 병원, 세탁소, 이발관, 양복점, 양화점, 미장원, 목욕탕, 여관, 양품점, 문구점, 골목길로 접어들어서 {하꼬방} 호떡집, 한식 주택, 타일 이층 주택, 식료품 잡화 상회, 만화 가게……<최창학, 창> ¶어뚱게 술집을 맨들었는고니, 인자 안주먼 안주 쪽-놓고서는, 여그서 안주 한 접시 하나 집어가지고서는 고 술파는 디 거그를 가머는 {하꼬방처럼} 이렇게 지어놓고서는 쪼그만허게 떨어놔.<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군산.

해설 일본어로 'hako'는 상자를 뜻으로, 하꼬방은 흔히 '판잣집, 판자촌'을 의미한다. 즉 상자같이 작은 방에 물건을 두고 파는 곳을 말한다.

하나 부 [대응어] 담뿍.

넘칠 정도로 가득하거나 소복한 모양. ¶그륵으가 사과에, 배에, 하이간 뭐가 {하나} 들었드랑게.

지역 전북.

하널 명 [대응어] 하늘(天).

지평선이나 수평선 위로 보이는 무한대의 넓은 공간. ¶{하널이} 날 보살피 준다 했소

지역 장수.

하누바람 명 [대응어] 하늬바람.

서쪽에서 부는 바람. ¶자빠트려 노코 오라고 오라고 오라고만 그러면 사랑 사랑의 石榴꽃 낭기 낭기 {하누바람} 이랑 별이 모다 웃습네요.<서정주, 시집> ¶첩첩 산중에 첩첩이 피는 닢에 눈부비며 우름우는 뻐꾹새와같이 {하누바람}, 마ㅎ바람 회오리 바람같이, 움직이는 바다ㅅ물에 사는 고기같이 내, 오늘은 西歸로 간다.<서정주, 시집>

지역 전북.

하눌 명 [대응어] 하늘(天).

지평선이나 수평선 위로 보이는 무한대의 넓은 공간. 또는 하느님이나 하느님이 있는 세계. ¶자아!" "술? 조오치!" 창선이 쾌히 응락을 하던 것이고 한편에서는 도영이 기세를 올려…… "그야 이를 말인가! {하눌이} 두쪽이 나두…… 자아 병정들 돌아우편 앞으로오옷! 선두는 강윤달!" "술은 해선 멀 해애!"<채만식, 젊은날의 한 구절> ¶한낫 꽃같은 心臟으로 沈沒하라. 아 - 스스로히 푸르른 정열에 넘쳐 둥그란 {하눌을} 이고 웅얼거리는 바다, 바다의깊이우에 네구멍 뚤린 피리를 불고…<서정주, 시집> ¶조오타! 하시던 적벽가 새타령 하까요?" "하아따! 고년이 섯바닥은 짤뤄두 침은 멀리 비얕넌다더니, 이년아, 늬가 적벽가 새타령을 허머넌 나는 {하눌서} 빌을 따오겄다!"<채만식, 태평천하> ¶아이고 웬수 같은

비, {하눌}이 빵꾸가 났는가 왜 이리 쏟아 붓는다냐. ¶가만히 숨어서 들은게 서이 회의를 허는디, “난리는 임진난리가 8년을 아주 정히 놨어.” 인자 회의를 허는디 가만히 들은게 {하눌서} 내로 온 양반은, “흉년으로 8년을 허자.”<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고창, 남원, 부안, 완주, 임실, 정읍, 진안.

하래 명 [대응어] 하루.

스물네 시간 또는 온종일 동안의 시간. 또는 막연한 어떤 날. ¶사멀 초난날, 사멀 초난날 실랑 오고, 인자 {하래} 쉬어서.(삼월 초난날, 삼월 초난날 신랑 오고, 인제 하루 쉬어서.)<2005 전북 남원> ¶근게 지그 아부지 허는 말이, “야 이놈아! 니기 삼촌이 너 맹그는디 굿이나 봤냐? 해도 그날 {하래} 못 참을랴다?” 그래. 그런게 할 수 없제. 부모라놔서….<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굶어 죽제 살 수가 없은게 자기 마누래가 {하래는} 가서 낚시질 헌 디를 가만히 망을 보고 있은게 낚수 꼿꼿헌 낚수에다가 밥만 꽂아서 딱 찡기고 있으믄<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고창, 정읍, 남원.

하랫날 명 [대응어] 하룻날.

매달 첫째 날 또는 어느 한 날. ¶{하랫날} 아측에 인자 즈그 시아버님한테 인사를 디릴라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하레 명 [대응어] 하루.

스물네 시간 또는 온종일 동안의 시간. 또는 막연한 어떤 날. ¶저녁 안무거찌 나제 안무거찌, 두 끄니 그러케 굴머 불고, 고로게 {하레} 점드락 실갱이럴 헝개.<2005 전북 남원>

지역 고창, 남원.

하루내 명 [대응어] 해종일.

하루 종일. ¶나를 이렇게 패 죽일라고 이렇게 댕기니 나 좀 숨겨줍쇼.” 그른게, 그 홀엄씨가 대처 {하루내} 죽일라고 쫓아 다녀 쌌고, 근게 숨겨 달라고 혔싼게, “그럼 방으로 들어 가라고.” <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자신은 시방 변함이 없어. 이 놈을 갈친 거여 인자. 다섯 살 여설 살 되어서 갈친디, {하루내} 천자문 하나를 천지현황(天地玄黃)을 갈쳐도 그것을 못 외아. 백치라. 그래도 꾸준히 인내심을 갖고 그 놈을<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영이는 {하루내} 햇빛아래 있어서 얼굴이 탔다.

지역 전북.

하루사리 명 [대응어] 하루거리.

하루씩 걸러서 앓는 학질. ¶높은 열이 {하루사리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분명 학질이구만.

지역 군산.

하루쥉일 명 [대응어] 하루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동안. ¶밥허고 반찬허고 아적때를 든든히 챙겨야 {하루쥉일} 고생을 안 하는 것이여. ¶아 이 {하루쥉일} 뭣이냐 산으로 뭣이냐 돌아대님서 여시 잡을라고 돌아대닌게 이놈으 작대기만 암시랑 않고 울도 안 허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하룻불 (←火爐불) 명 [대응어] 화롯불.

☞화릿불.

지역 고창.

하리 명 [대응어] 부젓가락.

화로에 꽂아 두고 불덩이를 집거나 불을 헤치는 데 쓰는 쇠로 만든 젓가락.

지역 고창, 부안, 순창, 정읍.

하리거리 명 [대응어] 하루거리.
하루씩 걸러서 앓는 학질. ¶동네 사람 중에 {하리거리를} 앓은 사람이 있는디 지금도 얼굴이 영판 아니여.
지역 고창, 순창, 정읍.

하릿불 (←火爐불) 명 [대응어] 화롯불.
☞화릿불.
지역 고창, 정읍.

하마나 부 [대응어] 이제나저제나.
어떤 일이 일어나는 때가 언제일지 알 수 없을 때 쓰는 말. 흔히 어떤 일을 몹시 안타깝게 기다릴 때 쓴다. ¶어지 뜯는 바라구/어지 뜯고 그지 뜯었시믄/{하마나} 다 뜯은 걸/아이구 차차 잊었구야/정저님네 씨든 호뭉이도 내어 놓소(임실 발매는 소리)<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임실.

하마터라먼 부 [대응어] 하마터면.
자칫 조금만 잘못하였더라면. ¶가매솥에 밥 안쳐 놓구서는 깜빡 잠이 들어뻐려가지구, {하마터라먼} 집이 홀랑 다 타버릴 뻔 했다니께는.
지역 고창, 진안, 김제, 부안, 군산, 익산, 임실, 정읍, 무주, 순창, 장수.

하마트라먼 부 [대응어] 하마터면.
☞하마터라먼.
지역 군산, 김제, 부안, 익산, 임실, 정읍.

하마트먼 부 [대응어] 하마터면.
☞하마터라먼.
지역 고창, 김제.

하매 부 [대응어] 벌써.
예상보다 빠르게. 또는 이미 오래전에. ¶1시쯤 출발했은게 지금쯤 {하매} 도착했겄다.
지역 전북.

하매트라먼 부 [대응어] 하마터면.
☞하마터라먼.
지역 무주.

하숙쟁이 (下宿쟁이) 명 [대응어] 하숙생.
하숙하는 사람을 좀 낮추어 부르는 말.
지역 전북.

하실 명
좋지 않은 베나 옷감. 또는 그 베나 옷감을 버리는 일. ¶독 맞아도 독 맞은 디가 이런 가상으로 가게 허먼 {하실이} 안 되고.(옷감을 가위질을 잘 해서 구멍 난 부분을 감추면 옷감을 버리는 일이 없다는 말)
지역 전북.

하얀허다 형 [대응어] 하얗다.
깨끗한 눈처럼 빛깔이 밝고 선명하다. ¶락스 한 방울 치면 {하얀허게} 빨아지잖여.
지역 전북.

하외일 (←火曜日) 명 [대응어] 화요일.
월요일을 기준으로 한 주의 둘째 날.
지역 정읍.

하요일 (←火曜日) 명 [대응어] 화요일.
월요일을 기준으로 한 주의 둘째 날.
지역 고창.

하음 명 [대응어] 하품.
졸리거나 고단하거나 배부르거나 할 때, 절로 입이 벌어지면서 하는 깊은 호흡. ¶{하음} 그만허고 얼른 세수 한 번 바싹허고 다시 교실로 들어와라.
지역 고창.

하장실 (←化粧室) 명 [대응어] 변소.
대소변을 보도록 만들어 놓은 곳. ¶{하장실이} 다 머당가, 여그서는 그냥 벤소지, 벤소.
지역 임실, 정읍, 군산.
해설 '하장실'은 '화장실'의 제1 음절 모음의 반모음 w가 탈락한 형태이다.

하줄 명 [대응어] 하졸.
전통 혼례식에서 가마를 메는 사람. ¶너머 가깐게로 가매 타고 올 것이 없어. 여 신송서 여리온게. 일부러 돌아서 왔지. 금방 와버린게. 시방 {하줄들은} 다 있는디 너무나 거식허잖아.
지역 전북.

하지감자 (夏至감자) 명 [대응어] 감자. ¶이 근방에서는 대개 콩하고 국 고구마, {하지 감자}, 고추, 인자 근래 와서는 땅콩도 있고 생강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것은 대규모로 하지를 않고 조금씩,<2007 전북 군산> ¶주로 콩얼 마니 싱그고 폴, 또 인제 감자 노코, 저 {하지 감자} 캐내고, 고구마럴 노코<2009 전북 임실> ¶하지 경에나 캔다고 히서 {하지감자래야}. ¶올해는 {하지감자를} 마니 심어야지.
지역 남원, 완주, 임실, 정읍.
해설 전북 방언권에서 '하지감자'는 일반적으로 '감자'를 일컫는다. 이런 지역에서는 주로 '고구마'는 '감자'를, '하지감자'는 '감자'를 일컬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구마'를 '감자'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졌다.

하지마 (夏至마) 명 [대응어] 감자.
지역 전북.

하짓감자 명 [대응어] 감자.
☞하지감자.
지역 군산.

하토 (←花鬪) 명 [대응어] 화투.
48장으로 된 놀이용 딱지. ¶{하토} 좋아 허는 놈은, 깐난애기 어렸을 쩍에도 하토짝 줌서 "아나, {하토}" 험서 손에다 쥐어 주면 냉큼 울음을 뚝 끄쳐버렸당게요.
지역 고창.

하토짝 (←花鬪짝) 명 [대응어] 화투짝.
화투의 낱장. ¶하토 좋아 허는 놈은, 깐난애기 어렸을 쩍에도 {하토짝} 줌서 "아나, 하토" 험서 손에다 쥐어 주면 냉큼 울음을 뚝 끄쳐버렸당게요.
지역 고창.

학구[1] 명 [대응어] 상자.
물건을 넣어 두기 위하여 나무, 대나무, 두꺼운 종이 같은 것으로 만든 네모난 그릇. ¶{학구다} 두부 붓어서 가둬.
지역 전북.

학구[2] 명
벼를 자루에 담을 때 쓰는 도구. 쓰레받기 모양으로 중간에 나무를 가로질러 손으로 잡도록 되어 있다. ¶나락 담는 학구. 손잡이 달리고. 그 전에는 소쿠리.
지역 전북.
해설 함석을 재료로 한 것이 보편적인데 함석으로 된 것이 나오기 전에는 짚을 엮어 만들어 썼다. 짚으로 만든 것은 소쿠리라고 한다.

학구맞다 동
두 편으로 나누어 풍물 칠 때 두 기가 합해지다. ¶양쪽 둘이 서로 합해지는 걸 {학구맞는다고} 그러대.
지역 전북.

학구짝 명 [대응어] 상자.

물건을 넣어 두기 위하여 나무, 대나무, 두꺼운 종이 같은 것으로 만든 네모난 그릇. ¶신랑 인자 재배허고 신부가 출에서 나올 판인디, 이전엔 상각을 가믄은 가서 {학구짝에} 가서 귀경허자고 허는 수가 있지. 상각에 가서, 그짝에 가서 보고 있지.<구비문학대계 전북 고창군편>

지역 전북.

학도 명 [대응어] 방아확.

☞학독.

지역 고창.

학도이 명 [대응어] 돌확.

돌로 만든 조그만 절구.

지역 전북.

학독 명 [대응어] 방아확.

☞학돌. ¶"겉보리는 {학독}, 에다 박박 간 후에 밥을 허야지 꺼끄라서 밥이 목구녕으로 넘어가겄냐?". ¶{학독에다} 보리를 갈아서 밥을 지어먹으니 참 부드러웠다.

지역 고창, 군산, 무주, 부안, 완주, 임실.

학독질 명

확에서 고추나 보리 등을 가는 일. ¶그때는 맨 {학독질을} 히싼게.

지역 전북.

학돌 명 [대응어] 돌확.

돌로 만든 조그만 절구. ¶어떤 아낙네가 보리를 디딜방애 {학돌에다} 넣고 찧고 있었는디…… 힘이 들어서 방애 확돌 옆이다 내래놓고 찧었어 <구비문학대계 정읍군> ¶보리쌀을 {학돌에} 갈아 부드럽게 만들어 밥을 지을 때가 엊그제 일처럼 생각된다.

지역 전북.

학상 명 [대응어] 학생.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하는 사람. ¶있는 놈들 중에서도 우리 벗어배기 영감은 말허자면 예수를 선상으로 뫼신 {학상이나} 마찬가지란 말여. 그러니 신세가 고단헐 것은 당연지사지. 싫어도 벨수없이 예수 선상님이 내준 숙제를 푸는 숭내라도 내니라고 따른 부자들 않는 짓을 자기 혼차 도맡어서 헐라니깨.<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한 허리 하다 【관용표현】

허리를 펴고 잠시 쉬다. ¶논매기가 재근하면/에헤 루 방아호/말초 한 대 피워보세/에헤로 방아호/에 헤로 방애 호/에헤로 방아호/허리 아픈데 한 허리 합시다(무주 논매는 소리/방아타령)<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무주.

한가우 명 [대응어] 한가위.

음력 팔월 십오일에 맞는 명절의 하나. 송편이나 햇과일을 먹는다. ¶에루야기야 어기어차 어기로구나 칠월 칠석 드는 액은 팔월 {한가우로} 막고 팔월 {한가우로} 드는 액은 구월 구일로 다 막아 낸다 에루야기야 에루야기야어기어차 어기로구나<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팔월이라 {한가우는} 세곡식도 반바른디 불쌍허다 울어머니<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무주, 남원.

한갑 (←還甲) 명 [대응어] 환갑.

육십갑자의 '갑(甲)'으로 되돌아온다는 뜻으로, 예순한 살을 이르는 말. ¶얘기 다 허면 기가 맥히지 뭐. 우리 친정어머니도 {한갑이} 안 됐지, 그때 한갑이 안 돼서<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16>

지역 고창,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해설 '한갑'은 '환갑'의 어두 모음 /wa/에서 반모음 /w/가 탈락한 형태이다.

한갑잔치 명 [대응어] 환갑잔치.

환갑이 되는 해에 베푸는 잔치. ¶"이거 야단났군!…… 오늘 두시에 동부인합시구 제 동무네 친정집 {한갑잔치에} 가기루 했었는데. 그만 깜박 잊었지!…… 안 잊었어두 보던 일이야<채만식, 탁류> ¶어제는 우리 큰 할아버지의 {한갑잔치가} 있어 많은 친척들이 다녀가셨지.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한기데목 명 [대응어] 밭둑.

밭과 밭 사이의 경계를 이루고 있거나 밭가에 둘려 있는 둑.

지역 전북.

한기두럭 명 [대응어] 밭둑.

밭과 밭 사이의 경계를 이루고 있거나 밭가에 둘려 있는 둑.

지역 순창.

한나 부 [대응어] 담뿍.

넘칠 정도로 가득하거나 소복한 모양. ¶나무럴 지게에다 {한나} 싫고 산을 내룐다.

지역 전북.

한나 수 [대응어] 하나.

수효를 세는 맨 처음 수. ¶거꾸로. 또 {한나가} 홀딱 던지니깨, "이놈은 우리 어머니 주고." 또 던진개. "이놈은 아버지 주고."<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어디를 간게 홀어머니 {한나허고} 딸 하나허고 사는디 큰애기가 참 참 좋드래여. 그리서 자는디 거그서 잠을 자고 아침 저녁으 인자 밥값을 준게 안 받드래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소강절의 유서 자기 집앞에다가 말여이 매화나무 {한나 그루)를 심궈놨어. 매화나무 매화나무를 사랑방 앞에다 떡-심궈놨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한나부니 명 [대응어] 할아버지.

☞한아부지.

지역 전북.

한나지때 명 [대응어] 낮때.

한낮을 중심으로 한 한동안. ¶뜨가. 한나지때 들어가먼 이런 사람들은 더워.

지역 전북.

한데기목 명 [대응어] 밭둑.

밭과 밭 사이의 경계를 이루고 있거나 밭가에 둘려 있는 둑.

지역 부안.

한데칙간 명 [대응어] 바깥변소.

집 울타리 밖에 있는 변소. ¶아들놈이 {한데칙간에} 갔는간만.

지역 남원, 완주, 장수, 진안, 김제, 부안, 순창, 익산, 정읍.

한데칫간 명 [대응어] 바깥변소.

☞한데칙간.

지역 전북.

한데통시 명 [대응어] 바깥변소.

집 울타리 밖에 있는 변소. ¶아들놈이 {한데통시에} 갔는간만.

지역 임실.

한둘금 명 [대응어] 한줄기.

한 번 세게 쏟아지는 소나기 따위의 빗줄기. ¶아따, 물팍허고 삭신 쑤시는 것을 봉게 가실 쏘나기라도 {한둘금} 퍼부슬랑갑따~. ¶쏘내기라도 {한둘금} 오제마는 지기랄. ¶쐬나기 {한둘금} 퍼붓었으면 좋겄네에.
지역 고창.

한디 명 [대응어] 한데.
사방, 상하를 덮거나 가리지 아니한 곳. ¶낼은 더 춥당게 {한디가} 있지 말고 안씨라 죽긌디?
지역 고창.

한디변소 명 [대응어] 바깥변소.
집 울타리 밖에 있는 변소. ¶{한디변소는} 지나가는 사람이 자꼬 보니께로 가기가 좀 민망혀.
지역 무주, 익산.

한디소망 명 [대응어] 바깥변소.
집 울타리 밖에 있는 변소. ¶하룻저녁에는 인자 {한디소망을} 갈라구 나갔어.
지역 고창.

한디칙간 명 [대응어] 바깥변소.
☞한데칙간.
지역 김제, 부안, 순창, 익산, 정읍.

한디칫간 명 [대응어] 바깥변소.
☞한데칙간.
지역 전북.

한목이 부 [대응어] 한꺼번에.
몰아서 한 차례에. 또는 죄다 동시에. ¶옛날에 받은 불효를 {한목이} 몽씬 복수허겄다, 그런 생각이지라우?<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한목지기 부 [대응어] 한꺼번에.
몰아서 한 차례에. 또는 죄다 동시에. ¶{한목지기}/위야 호호/심을 써서/위야 호호/여기도 매고/위야 호호/저기도 매고(무주군 무주읍 오산리)<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무주.

한물 명 [대응어] 홍수.
비가 많이 와서 강이나 개천에 갑자기 크게 불은 물. ¶비가 한 일주일 내동 오는 {한물} 때문에 집은 다 떠내려가고 폭폭히서 못 살겄네.
지역 김제, 완주, 익산.

한소금 명 [대응어] 한숨.
잠깐 동안의 휴식이나 잠. ¶이 사람들아 집에 가면은/초저녁잠 많은 사람들은/벌쎄 {한소금썩} 잤것네 이 사람들아/빨리 빨리 쳐내고 집으로 가서/저녁 먹고 마누래하고 품자리으 잠들 자세/에헤 에우 허구(옥구 벼베는 소리)<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군산.

한소대 명 [대응어] 반소매, 반팔.
소매가 팔꿈치쯤에 오거나 팔꿈치 조금 못 미치게 오는 상의. ¶여름날에는 {한소대} 입고 다니고 겨울에는 털옷 입고 다녀.
지역 고창.

한솔 명 [대응어] 조선소나무.
지역 전북.

한수대 명 [대응어] 반소매, 반팔.
☞한소대 ¶더운게 {한수대} 입어. 진 놈 입지 말고.
지역 고창.

한아부니 명, 감 [대응어] 할아버지.
☞한아부지. ¶"여그서 저그서 오신 명문 말허자

믄 그 지관들을 뫼시고 다 틀렸다고 그서 내가 {한아부니를} 모시고 내가 유선 하나 헐라고닌게 거가 장군칠전 자리가 꼭 되시먼은 택일을 히 주셔야 겄다." 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정읍.

한아부지 명, 감 [대응어] 할아버지.

부모님의 아버지 또는 그 항렬에 있는 남자. 또는 늙은 남자를 친근하게 이르거나 부르는 말. ¶쪼금 앉었은게 소복헌 그 부인이 말여 밥상을 갖다가 자기 {한아부지가} 됐든 아부지가 됐든 간에 챙겨 왔다 그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내가 이러고 저러고 왔으니 {한아부지} 할머니 저 굶어죽으셨다고 허신 것 조금도 서운허지 마시라고 그 염라당에 가서 아버님께 이런 말씀 허먼 얼매나 아버님께서 하나버지께서 즐겨허시겄냐?"<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명], ¶오늘은 우리 시아부지가 아무 {한아부지} 묘 장소를 가서 묘를 평을 헐테니까 지사님이 대답허기를 그것은 그 호랭이 명당이넌게 호랭이는 이 일곱 달 만에 아 새끼를 나니까 이 호랭이 명당이라고 인정을 허고 이건 호랭이 명당인게로 일곱 달 만에 아들을 나야 이것이 명당이다. 이렇게만 평을 히 주쇼 <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명], ¶근디 그 {한아부지가} 선을 보러 갈 그시보텀 안 가고 친구집이로 갔대요.<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남원, 부안, 순창, 임실, 정읍.

한아씨 명, 감 [대응어] 할아버지.

부모님의 아버지 또는 그 항렬에 있는 남자. 또는 늙은 남자를 친근하게 이르거나 부르는 말. ¶"그러나 아이나(아니나) 요쩩에 우리 {한아씨가} 있소. {한아씨가} 있은개 우리 {한아씨} 집으로 갑시다." 우리 한아씨네 집에 간다면서 그 큰 대양에다가 불겅 물(붉은 물) 한나 되게 딱 풀어서 해 갖고는 사방에다가 씨트려(끼얹어).<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그 돈을 찾어 가지고 오믄서 참 좋다고 히는디 어떤 초립동이 하나가 썩 나오더니 갱변인디 말여 저짝 동네를, 우리 {한아씨가} 심바람을 갔다 오라고 흔다고 저짝 동네를 간다고 아랫두리를 딱딱 걷어치고 건네간다 그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명], ¶{한아씨덜한테} 막 달라들고 그려. 그런 놈덜이. 그럼 막 {한아씨드리} 그려, 하이그, 불고자같은 놈덜, 배우도 몬헌 놈우 자씩덜이 잘몬핸따 안어고 막 달라든다고 까딱으먼 맞아주께 생기떠라고 그러고 오덩마는 하나씨더리.<2009 전북 임실>[감], ①부모님의 아버지를 부르는 말.[감],

지역 남원, 부안, 순창, 임실, 정읍, 고창.

한압씨 명, 감 [대응어] 할아버지.

☞한아씨.

지역 전북.

한애비 명 [대응어] 할아버지.

부모님의 아버지 또는 그 항렬에 있는 남자. 또는 늙은 남자를 친근하게 이르는 말.

지역 임실.

한이나 부 [대응어] 행여나.

그러할 리는 없지만 만일에. 어쩌다가 우연히. ¶나랑 약속은 힜는디 {한이나} 왔다 그냥 갔을개비 맴이 안 좋아.

지역 전북.

한이불 명 [대응어] 솜이불.

안에 솜을 넣어 만든 이불. ¶저그가 나한질라 {한이불을} 덮고 자는 사람이여.

지역 군산, 완주.

한지 조 [대응어] 조차, 까지, 마저.

이미 있는 것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질한지} 맥히서 어찐다냐(길까지 막혀서 어떻게 한다니)<김옥화(2001)> ¶체장사란 놈이 인자 송장 그놈을 질머지고 그 {질한지나} 사난 놈으 질을 터덕터덕 오는디, 호랭이는 뒤이서 여자가 쫓고 따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한질라 조 [대응어] 조차, 까지, 마저.
이미 있는 것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너그덜한질라} 아푼디 내가 어디를 간다냐<김옥화(2001)> ¶{성부한질라} 와 있어(형부까지 와 있어)<김옥화(2001)> ¶{풋한질라} 많이 쌂었는디(팥까지 많이 삶았는데)<김옥화(2001)> ¶아이, 이 할아버지가 방을 뜯어 고칠라니 어트게 뜯겄어. {기운한질라} 없는디.<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시집을 못 갔는갑대요. 기양 거기서 늙어죽고 기양 그나마 또 재산 {한질라} 많겄다.<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한짝 명 [대응어] 한쪽.
어느 하나의 편 또는 방향. ¶거그 가서 인자 채려서 인자 어더머그러 댕기는 냥바니라고 워따가따 중게 인자 거 어디 {한짝} 구영텡이 마랑이서 그 바블 머걷써요.<2008 전북 고창>
지역 전북.

한축 (寒縮) 명 [대응어] 학질
말라리아 병원충을 가진 학질모기에게 물려서 감염되는 법정 전염병. ¶급한 것 몇가지만 빨아, 짜 널고는 들어와 {한축을} 하고 앓기 시작하였다. 몸이 불덩이같이 끓고, 밤에는 헛소리까지 하면서 밤새도록 앓았다.<채만식, 심봉사> ¶바로 그때부터 시작된 {한축이었다}.<윤흥길, 소라단가는길> ¶텅 빈 동헌만 지키고 앉았을 터무니가 없는 것이었다. 제일에 밤이면 귀신 우는 소리에 사뭇 {한축이} 날 지경이었다.<채만식, 심봉사> ¶우아래로 쏟더니 인자 {한축이} 나는 디 이불을 뒤집어써도 쇠용이 없더라고.
지역 전북.

한축기 (寒縮氣) 명 [대응어] 한축.
추워서 기운을 내지 못하고 움츠림. ¶나는 여름에 애기를 났드니 {한축기} 허드라고.
지역 전북.

한테가 조 [대응어] 에게.
어떤 행동이 미치는 대상을 나타내는 격 조사. ¶그 거지한테가 머시 있겄는가<이태영(1988)>
지역 전북.

한통아리 명 [대응어] 한통속.
한통속. ¶검찰하고 이멩백이허고 한통아리라고.
지역 전북.

한티 조 [대응어] 한테.
((사람이나 동물 따위를 나타내는 체언 뒤에 붙어)) 어떤 행동이 미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운이한티} 누가 기별혀?<이태영(1986)>
지역 전북.

한평상 명 [대응어] 한평생.
살아 있는 동안. ¶그리가지고서는 그 사람은 그 재산 가지고서는, 아 금항 일곱 개 파도 얼매가 갈 것인디. 그렇게 혀서 거부가, 자기 {한평상을} 살드래야.<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전북.

할압시 명, 감 [대응어] 할아버지.
☞한아씨.

ㅎ

지역 완주.

할개눈 명 [대응어] 사팔눈.

양쪽 눈의 방향이 달라서 양쪽 눈의 시선이 평행하지 않은 두 눈의 상태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성대의 눈은 짝눈이다. 부모가 살아 계실 때 정형까지 한 {할개눈이었다}.<이정환, 샛강> ¶나한티 {할개눈을} 뜨고 바라보는디 뭔 불만있어? ¶원이는 {할개눈} 때문에 남들의 오해를 받을 때가 많다.

지역 임실.

할대 명 [대응어] 활대.

활등을 이루는 대. 활의 몸체를 이른다.

지역 고창.

할라 조 [대응어] 조차, 까지, 마저.

이미 있는 것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비할라} 오네<김옥화(2001)> ¶'뭣헐라고 니미 {비할라} 축축허니 오는디 나보고 나가라는고' 허고 가만히 마리 밑이가 들은게로<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아덜만 불량시런지 알었등마 {엄씨할라 뻔뻔시럽소이}.<조정래, 태백산맥> ¶지금이야 찾아가도 그 못된 썩을 년이 {니할라} 폴아 묵을라고 들 것 아니겄냐?<조정래, 아리랑> ¶큰 놈이 인자 맷돌 이 놈을 짊어지고 {무겁기할라} 헌 놈을 짊어지고는 인자 갈려서 인자 가는디<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그런디다가 일곱살이 먹어서아 {안부모할라} 세상을 떠버렸어요.<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김가가 망태를 올려준개, 박가란 놈이 김가 {삼망태기할라} 지 {망태기할라} 갖고 도망가 버렸어.<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전북.

할래 조 [대응어] 조차.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비할래} 와서 못하<이혁화(2005)> ¶나는 {설사할래} 나논게 죽겄는디, 큰일이네유.<송기숙, 녹두장군> ¶그렇지만은 내 자식도 있고, 어치게 내 {자식들할래} 괄씨허는디 어치게 살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그려서 그 놈을 다 싸서 간직해두고, {의복할래} 다 팔아서 놓고, 그 다음날 아침이 날새기가 바쁘게 동생놈이 왔어.<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전북.

할마씨 명, 감 [대응어] 할머니.

☞할무씨. ¶"요런 숭악헌 눔덜아 비켜나그라! 사람이 죽었으면 그만이제 저런 법이 워디 있냐. 비켜나, 이눔덜아!" 호산댁이 지팡이를 치켜들었다. "{할마씨}, 존 말로 헐 때 집에 가 있으씨요. 다 빨갱이 자석 둔 죈께." 한 경찰이 내쏘았다. <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무주.

할마이 명 [대응어] 할머니.

부모의 어머니. 또는 늙은 여자를 친근하게 이르거나 부르는 말. ¶"자네가 그 우리 {할마이허고} 우리 아들 은인이여, 나허고. 자네 때문에 우리 아들이 살았어.<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명], ¶그래서 인자, "어쩌면 되겠냐?" 고 그런개. "아무데를 가면 영감 할마니 둘이 살고 있다. 아무데를 가면 영감 {할마이} 둘이 살고 있는데, 그 {할마이한테} 여의주가 있다! {할마이한테} 여의주가 있다." 하닌게,<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긍게 여자가 {할마이가} 뭔 쇳대(산대) 요만헌 것 가지고 딸랑딸랑 해가믄선 점을 친다 이거여.<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아, 뒤에 여자가, 계집애가 하나 있는디,(정승이) 마상(馬上)하고 지난디, 말을 타고 지난디, 그 계집애가 떡 파는 {할마이} 뒤에가 있는데, 그거이 복덩이라.<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참

당신이 그 {할마이를} 찔벅거리면서, "가서 어트게 먹을 것좀 준비히 보소." 귀에다 대고 수군수군 허신다 이런 얘기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감], ¶할마이가 그랬어. "진짜요?" 그런게, "진짜요, 가 떠들어 보시요. {할마이가} 떠들어 보시오."<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남원, 완주, 부안, 임실.

할망구 명
나이 든 아내나 늙은 여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 ¶지긋지긋한 임종술의 얼굴이 곁에 있는 점 역시 이승하고 똑같았다. "저기 보이는 저 {할망구가} 바로 내 안사람이오."<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근디 이 {할망구가} 무슨 수가 있는고 허니, 밤낮 영감님보고 그려. "우리가 두 늙은이 이러고 있을 것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감나무 댁 {할망구가} 욕심이 많아 감이 주렁주렁 열렸는데도 옆집과 나눠 먹을 줄을 모르는 구나.
지역 김제, 남원, 부안, 완주, 임실, 진안.

할망빠지다 형
앞뒤가 없고 사리 분별에 맞지 않다. ¶요른 말 히싸먼 신천 빠지고 {할망빠졌다고} 헐지도 모른디 가난헌 것도 선상님이랑게요. ¶눈깔 조리개 속에 딱 걸려 잽힌 {할망빠진} 이드름 두개의 탄생은 여름 한나절 같은 한참 속에 그 범인과 원인을 찾게 맹근다.
지역 고창.

할망탕구 명 [대응어] 할망구(비칭).
나이 든 아내나 늙은 여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 ¶이노무 {할망탕구}, 나 밥도 안 주고 어딜 누웠어.
지역 고창, 무주, 장수.

할망태기 명 [대응어] 할망구(비칭).
나이 든 아내나 늙은 여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 ¶누가 다 늙은 {할망태기가} 허는 말을 들어 주겄어.
지역 순창, 임실.

할매 명 [대응어] 할머니.
나이 든 아내나 늙은 여자를 친근하게 이르거나 부르는 말. ¶{할매가} 자꾸 하라버지랑 이 아랜목 뜨건데 와서 자라, 자거라 허더라고. 그리선자 막. 막 이불, 이불 둘러쓰고<2007 전북 군산> ¶일월 초닷새가 {할매} 제사이니 모두 모여라. ¶사람들이 마당가로 뚤방으로 나가 서고 상주들이 하나씩 허던 일들을 멈추고 상여 뒤를 따라 술 취한 소리로 아이고 {할매}, 아이고 {할매}, 불쌍한 우리 {할매} 하며 우는 시늉들을 내기 시작했읍니다.<김용택, 맑은 날> ¶두 {할매는} 낮 동안 고부랑고부랑 고사리도 같이 끊으러 산을 헤매고, 강물에 다슬기를 잡아 팔아 전기세도 주고.<김용택, 그리운 꽃편지> ¶쥐도 모르는디 사당으서 {할매} 할아씨가 불러갖고 아 세상으 그렸다니 환장헐 일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당신하고 나하고 둘이 가다 가다가 얻어먹다가 굶어죽든지 둘이 나갑시다. 이렇게 다 마다하니 어떻게 살겠오." 아 그래, 영감 {할매가} 단봇짐을 짊어지고 지팡막대기를 둘이 쥐고는 끝도 갓도 없이 갔어(한없이 갔어). 끝도 갓도 없이 가는디. 산골로 들어갔는디, 어두컴컴하단 말이여,<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무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할매꼿 명 [대응어] 할미꽃.
지역 전북.

할머씨 명 [대응어] 할망구.
나이 든 아내나 늙은 여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

¶시장에서 할머씨허구 시비가 붙었어.
지역 순창.

할모니 명, 감 [대응어] 할머니.
☞할무니.
지역 진안, 남원.

할무니 명 [대응어] 할머니.
나이 든 아내나 늙은 여자를 친근하게 이르거나 부르는 말. ¶나(어메)허고 {할무니는} 꼬치장 당가 놓고나서 내일 외갓집 갈 때 각고 갈 거 챙개야 쓰것다. ¶지녁마다 작은방으서는 엄니허고 {할무니허고} 가매니를 짜든 시절.
지역 고창.

할무시 명, 감 [대응어] 할머니.
☞할무씨. ¶그 집에 며칠 있다가 그 할매 방에를 들어 갔다! 들어 가서 구 아들이 시긴 대로(시킨 대로) {할무시허고} 하루저녁에 첫날저녁을 잘 지냈는디, 아 그 아침에, 또 전같이, 할머니 성질이 거시기(고약하다는 말) 해서, 아들이 떡 일찍 나온개,<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남원.

할무씨 명, 감 [대응어] 할머니.
나이 든 아내나 늙은 여자를 낮잡아 이르거나 부르는 말. ¶그래 그 영감을, 하루 저녁에는, "영감님, 들어 오시오!" 해 갖고, "영감님, {할무씨} 안 계시지요?"그런개, "네, 없소." "그러면 날 따라 갑시다. 그래<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남원.

할미 명 [대응어] 할머니.
나이 든 아내나 늙은 여자를 친근하게 이르거나 부르는 말. ¶아무 소식도 못 가지고 빈 손으로 간다면, 내, 면목이 없어서 그런다. 이 {할미} 심정을 알겠지……? {할미가} 미리 알아서 날받이도 다 해놨단다." 청암부인의 목소리에서는 끈끈한 침이 묻어났다.<최명희, 혼불> ¶"이 엄동설한에 {할미} 죽으면은 초상 치르니라고 우리 만재 꼬추랑 붕알이랑 꽁꽁 다 얼어터질 틴디, 내 새깽이 불쌍허서 어쩐다냐."<윤흥길, 소라단 가는 길> ¶바깥에서 가만히 가서 사흘간을 손을 쳐어 낮에 보고. 그런데, 아 제기, 소자라고 소문난 놈이 영감 {할미는} 우케명석, 우케명석, 나락, 시방은 그냥 찧지 않는가, 옛날에는 그냥 막 말렸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물론 옛적 신라나라의 탈해왕도 여인국 왕녀의 소생이라는 우리 설화도 있었고 말고! 이 {할미도} 그렇지만, 그래서 나라 안의 사람들이 모두 여인국을 동경했더란다. 거기가 바로 무릉도원이라는 얘기 때문이었지 뭐냐.<이병철, 모래내 모래톱> ¶오래 도를 닦아 거기서 우러나는 기품이 아닌가 싶었다. 월공은 잠깐 밖으로 나가더니 보살 {할미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다.<송기숙, 녹두장군>
지역 완주, 고창.

할아부지 명, 감 [대응어] 할아버지.
부모님의 아버지 또는 그 항렬에 있는 남자. 또는 늙은 남자를 친근하게 이르거나 부르는 말. ¶저그 아부지가 조사허기 땜이 하나씨 {할아부지} 밑이서 살았단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귀 하나는 참말로 잠결으도 양글양글 허구만이! 그려, {할아부지네} {할아부지} 지사랴. 오늘 말짓을 허다가는 우리 식구덜모다 모래내 다리 아래로 이사가야 헐팅게 조심혀야 혀!"<이병철, 모래내 모래톱> ¶우리 임씨덜뚜, 시방, 우리 하라버지 항녀리 한무니 사러계셔. 나하고 {하라부지} 항녀리. 근디 그 양바니 지금 구십 하낭가 된는디 안 도라가셔씨.(우리 임씨들도 지금, 우리 할아버지 항렬이 한 분이 살아 계셔. 나하고 할아버지 항렬이. 그런데 그 양반이 지금 구십 하나인가 되는데 안 돌아가셨어.)<2007 전북 군산>[명], ¶얼마나 부르니

까, 문을 철컥 열더니 나오시는디 보니까 호연헌 {할아부지} 한 분이 요새 연세로서 한 팔구십객 되시는 {할아부지} 한 분이 나오신다 이런 얘기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그 {할아부지한테} 월천을 허고 그런 글을 받고 보넌게 겁이나.<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성근:(김선달 앞으로 가서) {할아부지}. 김선달: 워야.<채만식, 사라지는 그림자> ¶긍개 안들 모르듣 허고 가가꼬는, 애기가 와서 군인 옷얼 입꼬 옹개 하나버지 보고, {하라부지} {하라부지} 저게 누구여, 그러더랴. 응. 긍개 그게 너그 아부지다<2009 전북 임실> ¶게 영감이, "아이고!" 금서, "야, 나 못살겄다. 나 내일 도망갈란다." " {할아부지} 절대 도망가지 마시요." <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아 근게 마부가 딱 나오더니, " {할아부지}, 이 자리가 장군칠전 확실헙니다. 걱정 말으쇼."<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고창, 김제, 무주, 완주, 익산, 장수, 진안, 군산, 부안, 정읍, 남원, 임실.

할압시 명, 감 [대응어] 할아버지.

☞한아씨. ¶이게 느그 {할압시}가 늘 애끼던 족보책여.

지역 완주, 진안.

할압씨 명 [대응어] 할아버지.

부모님의 아버지 또는 그 항렬에 있는 남자. 또는 늙은 남자를 친근하게 이르거나 부르는 말. ¶우리 {할압씨넌} 넘들 앞이서는 무섰는디 속으로는 나를 많이 애껴줬어.

지역 전북.

할애비 명 [대응어] 할아버지.

부모님의 아버지 또는 그 항렬에 있는 남자. 또는 늙은 남자를 친근하게 이르는 말. ¶군화 수입 잘 안 돼 있으면 약혼녀 아니라 그 {할애비가} 왔대도 일없다."<최창학, 심야의 정담> ¶"너 이 놈, 시방 당장 가서 네 {할애비} 불러 오니라. 당장 불러 와!"<채만식, 태평천하> ¶어느 집안에 삼동서찌리 메느리(며느리)가 밭을 매러 가는디, 집 부근 어디로 가찹게 밭을 매러갔던개벼. 그런디 {할애비가} 장손자와 손자 애기를 보게 생였어.<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이 녀석아, 그렇게 거북해할 양이면, 나나 너나 무슨 술맛이 나겠느냐. 노소동락이란 말도 있는데 {할애비와} 손자가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도, 신시대의 풍류라면 풍류 아니겠느냐며 성규를 편하게 해주었다.<최일남, 흐르는 북>

지역 익산, 임실, 완주, 정읍, 부안.

할추다 동 [대응어] 핥다.

혀가 물체의 겉면에 살짝 닿으면서 지나가게 하다. ¶아니, 입주변을 휴지로 닦으믄 되지, 왜 셋바닥으로 {할춰서} 닦는 것이여?

지역 군산.

할키다 동 [대응어] 할퀴다(얼굴을).

손톱이나 날카로운 물건 따위로 긁어 상처를 내다. ¶솔직히 좋아서 낫 갈러 갈 때 이웃집의 큰 애기가 내 손목 잡네 손목을 놓게 내 손목을 놓게 연약한 내 손목 다 {할켜지네}<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이발소냄새가 떨어져 나가지를 않아 머리칼을 쥐어뜯고, 옷을 찢고, 제살을 {할키면서} 땅바닥에 디굴디굴 딩굴고, 길길이 날뛰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지랄을 쳐대던 친구녀석의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도 웃음이 솟는다.<유재용, 성역>

지역 남원, 무주, 임실, 정읍, 진안, 군산.

할트다 동 [대응어] 핥다.

☞핡다. ¶여자도 잘났지만 그 남자가 그렇게 잘 생겼어. 도레 곱고 이쁘게 생겼단 말여. 양 {핥으고} 자퍼 그냥.<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

읍군편>
지역 전북.

핥다 동 [대응어] 핥다.
허가 물체의 겉면에 살짝 닿으면서 지나가게 하다. ¶개가 엄청시리 배가 고팠나 그릇까지 {핥고} 있네잉. ¶멍멍이가 잠자고 있는 동생의 얼굴을 {핥고} 있었다.
지역 정읍.

함마니 명, 감 [대응어] 할머니.
☞할매. ¶나는 사과 조각 하나를 들고 외할머니 옆으로 다가앉는다. "{함마니},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자고 가요?"<이병철, 모래내 모래톱>
지역 전북.

함마트라먼 부 [대응어] 하마터면.
자칫 조금만 잘못하였더라면. ¶영감이 술먹고 집이 오다가 또랑에서 자빠져부렀어. 야츠막했으니 다행이지 {함마트라먼} 초상날 뻔 했지. ¶니가 아부지보다 먼저 집에 들어 왔응게 망정이지 {함마트라먼} 난리날뻔 혔어.
지역 군산, 순창, 장수.

함마트먼 부 [대응어] 하마터면.
자칫 조금만 잘못하였더라면. ¶오밤중에 산에를 넘어가다가 {함마트먼} 호랭이밥이 될 뻔 했지 뭐야. ¶정월 보름이라고 불장난 허다가 {함마트먼} 우리집 꼬실라 먹을 뻔 혔어.
지역 순창, 완주, 임실.

함머니 명, 감 [대응어] 할머니.
☞할매. ¶옛날 개울가에서 굶어 죽었다는 자기 할머니와 자기 모습을 이 {함머니와} 아이한테서 연상하고 돈을 쥐어준 것이 아닌가 싶었다. <송기숙, 녹두장군>
지역 전북.

함물. 명 [대응어] 홍수.
비가 많이 와서 강이나 개천에 갑자기 크게 불은 물. ¶그 이듬해 그냥 막 비가 퍼붓어서 {함물이} 진게 그냥 밤자고 인난 게 그냥 모래가 확 패달아나서 그냥 즈 아버지 묘를 저 거시기 늘을 잃어버?<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전북.

함바트면 부 [대응어] 하마터면.
☞함마트먼.
지역 고창, 김제.

함박지 명 [대응어] 함지박.
통나무의 속을 파서 큰 바가지같이 만든 그릇. ¶{함박지} 가득 떡을 담아서 이웃집이 돌리라. 그러믄서 이사왔다고 잘 봐달라고 인사는 것이여.
지역 전북.

함불로 부 [대응어] 함부로.
조심하거나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마구. ¶아무리 옆에서 들었다고 {함불로} 그로코 앞뒤가 딱딱 맞게 하는 소리가 어디서 그것이 들은 풍월이겄어.<송기숙, 녹두장군>
지역 전북.

함석 명 [대응어] 함지.
나무로 네모지게 짜서 만든 그릇. ¶두부를 {함석에} 담아가지고 이리로 갖고 오니라.
지역 남원.

함팡눈 명 [대응어] 함박눈.
굵고 소담스럽게 내리는 눈. ¶{함팡눈이} 펑펑 쏟아진다.
지역 전북.

핫대 명 [대응어] 횃대.
방안에 옷을 걸기 위해 대나무를 길게 걸어놓은 것. ¶우리 클 때만 해도 {핫대가} 있었어요. 벼랑빡에다가 대나무 걸어서 옷을 걸었지.<구비문학대계 김제군> ¶옛날에 놓은 옷 거는 디가 없었은게, {핫대가} 꼭 필요했어요.
지역 김제, 정읍.

핫대보 명
횃대에 먼지가 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또는 미관상 덮어 두던 보. ¶{핫대보다도} 수 놓고, 상보으다고 수 놓고, 비겟잇에다도 수 놓고.
지역 전북.

항가꾸 명 [대응어] 엉겅퀴. ¶{항가꾸는} 가시가 많아서 따듬을 때 조심해야 해.
지역 남원.

항가우 명 [대응어] 한가위.
☞한가우. ¶{항가우라고}, 추석, 추서기라고 <2005 전북 남원>
지역 남원.

항꼬 부 [대응어] 함께. ¶아 그러니 이거 큰일났거든. 아 그 권이 그 {항꼬} 온 놈 그놈을 다롸.<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항송아리젓 명 [대응어] 황석어젓. ¶아따, 으찌나 피곤헝가 젓동우 속에 {항송아리젓} 되엇써라우~.
지역 고창.

항와리 명 [대응어] 항아리.
위아래가 좁고 가운데가 불룩한 질그릇. ¶쌀은 {항와리에다} 보관히야지.
지역 전북.

핱옷 명 [대응어] 겹옷.
솜을 두지 않고 거죽과 안을 맞붙여 지은 옷.
지역 전북.

해그름 명 [대응어] 해거름.
☞해기룸 ¶점드락 해가 쨍쨍하드니 {해그름이} 된게 좀 서늘해졌어. ¶요새는 더워서 낮에 작업은 못허고 {해그름}판이나 한번 나가서 돌아보고 와야겄네.
지역 김제, 남원, 무주, 군산, 완주, 진안.

해그름판 명 [대응어] 해거름.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는 일. 또는 그런 때.
지역 전북.

해글참 명 [대응어] 해거름.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는 일. 또는 그런 때. ¶너 이따 {해글참에} 거기로 나와.<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늦어도 {해글참에는} 들어온나이.<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전북.

해기 명 [대응어] 새꽤기.
☞홰기.
지역 군산.

해기룸 명 [대응어] 해거름.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는 일. 또는 그런 때. ¶{해기룸에는} 집에 들어와야 혀.
지역 장수, 정읍.

해기룸판 명 [대응어] 해거름.
☞해기룸.
지역 전북.

해기름 명 [대응어] 해거름.
☞해그름.
지역 정읍.

해기름판 명 [대응어] 해거름.
☞해기름.
지역 전북.

해꼬지 명 [대응어] 해코지.
남을 해치고자 하는 짓. ¶글갖고 무담시 남헌티 {해꼬지만} 허제.<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해다가다 동
날이 저물다. 또는 시간이 매우 지체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해다가기} 전에 끝내알틴다. ¶{해다가면} 얼른 집이 들와.
지역 전북.

해머리 명 [대응어] 햇무리.
햇빛이 대기 중의 수증기에 비치어 해 언저리에 둥그렇게 나타나는 빛깔이 있는 테두리. ¶{해머리가} 지는 걸 보니 내일 비가 오겄네.
지역 고창, 남원, 순창, 군산, 임실, 장수, 정읍.

해바래기 명 [대응어] 해바라기.
국화과의 한해살이풀. 또는 양지바른 곳에서 햇볕을 쬐는 일. ¶임우 다다른 이 絶頂에서 사랑이 어떻게 兩立하느냐 {해바래기} 줄거리로 十字架를 엮어 죽이리로다. 고요히 침묵하는 내닭을죽여… 카인의<서정주, 시집> ¶노인들이 길가에 죽 앉어서 {해바래기를} 허고 앉었어.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정읍, 진안.

해반닥허다 형 [발음] [해반다거다/해반다커다]
옆으로 넓고 반질반질하다. ¶솟이 해반닥 안 허? {해반닥헌게} 중도리까지 물을 붓어.
지역 전북.

해실허다 동
팔방 같이 금을 그어 놓고 하는 놀이에서 금을 밟다. ¶{해실허면} 죽어. 기려 논 금 볿으면 {해실헌게} 죽어.
지역 전북.

해오룸 명 [대응어] 해거름.
해가 넘어가는 일. 또는 그런 때. ¶오늘은 {해오름} 때 들어올게.
지역 고창.

해이나 (←행여나) 부 [대응어] 幸이나.
그럴 리야 없겠지만 혹시. ¶{해이나} 그 녀석이 훔쳐간 것이라면 어쩌지.
지역 전북.

해장꼬치 명 [대응어] 고춧가루.
고추 씨가 보이도록 굵게 빻은 고춧가루. ¶꼬치 까리는 {해장꼬치를} 주로 씨는디, 꼬치 씨가 보이게코롬 틍겁게 빵굽니다.<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전북.

해지럼 명 [대응어] 해거름.
☞해그름.
지역 순창, 부안.

해지름 명 [대응어] 해거름.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는 일. 또는 그런 때. ¶글고, {해지름} 때가 됭게 옛날 생각이 포도시 나요-.
지역 고창.

해치 명 [대응어] 수채.

집 안에서 버린 물이 집 밖으로 흘러 나가도록 만든 시설. ¶{해치를} 뚫어 논게로 증말로 편하더구만. 밖으로 물 내쏱 일도 읎고.
지역 무주.

해치간 (해치間) 명 [대응어] 수채.
집 안에서 버린 물이 집 밖으로 흘러 나가도록 만든 시설.
지역 순창.

해칫간 (해칫間) 명 [대응어] 수채.
집 안에서 버린 물이 집 밖으로 흘러 나가도록 만든 시설. ¶{해칫간이} 막히다
지역 장수, 순창.

해팔 (←下筆) 명 [대응어] 하필.
붓을 대어 쓴다는 뜻으로, 시나 글을 짓는 것을 이르는 말. ¶다 늙어서 요즘 취미가 하나 생겼어. 요즘 나는 {해팔을} 하는 재미에 폭 빠져 있다네.
지역 전북.

해풀이 (←火풀이) 명 [대응어] 화풀이.
화난 감정을 푼다는 뜻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화를 냄. ¶즈그 엄니헌티 되게 지천 들은 거시, 맨마든 가시내 동상헌티 {해풀이} 허네이~.
지역 고창.

해필 (←何必) 부 [대응어] 하필.
다른 방도를 취하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꼭. ¶째까는 일이지만, 재수 대가리가 옴붙었능가 시 달에 한 번 잡어논 짓날이 {해필} 빙원 검진날허고 접쳤응게 탈탈 굴머야제 어쩌겄소. ¶거짐 다 왔는디, {해필} 거그서. ¶{해필} 오늘 그속 지피도 치다 봉게 인정 당군 사랑 미소 크게도 보인다. ¶이녁한티로 후딱 가고 자퍼서 탐박질히갖고 갈라다가 독자갈에 되게 걸려 자빠징거시 {해필이먼} 소똥 싸 논디에 궁글어갖고 그날은 재수 옴 붙은 날이당게요.
지역 고창.

핵고 (←學校) 명 [대응어] 학교.
☞핵교. ¶인자 그 양반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고 인자 말이자믄 그 할머니로 허믄 손자를 인자 {핵고를} 보내는 거여. 시방으로 허믄 {핵고} 선상(선생). 선생이 아니라 거시기 뭐냐 서당을 보내는 거여.<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전북.

핵교 (←學校) 명 [대응어] 학교.
일정한 목적˙교육 과정˙설비˙제도 및 법규에 의하여 교사가 계속적으로 학생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그 오라부니가 여동생을 갈치는디, 참 글 재주가 있어갖구, {핵교를} 대니먼은 상장만 타와.<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아, 너 알 일이 아니다. 어서 {핵교나} 가거라." 학교를 갔어.<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아들을 나가지고 그 아들을 참 그 때는 여 저 보통 {핵교라고} 그 졸업을 맡아가지고 참 재주가 있던 모냥이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넘들 {핵교} 댕기는 것이 부럽겄지만 여자가 핵교 댕기는 일이 우리 행펜으로는 쉬운 것이 아녀. ¶미란아, 빨리 밥먹고 {핵교가야지}!
지역 전북.

햄모리 명 [대응어] 햇무리.
☞햇머리.
지역 진안, 무주.

햇머리 명 [대응어] 햇무리.
햇빛이 대기 중의 수증기에 비치어 해 언저리에 둥그렇게 나타나는 빛깔이 있는 테두리. ¶{햇머

리가} 부연 걸 봉게 낼은 비가 오겄구먼.
지역 고창, 김제, 부안, 완주, 익산.

햇불 명 [대응어] 횃불.
홰에 붙인 불. ¶날이 어둑해진게 {햇불을} 들고 산을 뒤졌어.
지역 전북.

햇지 명 [대응어] 햇김치.
봄에 새로 난 배추나 무 따위로 담근 김치. ¶묵은짐치, {햇지} 나드락 먹어. 햇지. 김장허드락까지 먹는다고. 햇짐치 짐장허드락, 지금도 있을 것여.
지역 순창.

햇짐치 명 [대응어] 햇김치.
새로 담은 김치를 말함. ¶{햇짐치} 담은 거, 설에. 설에 먹을라고 담었어. ¶묵은짐치, 햇지 나드락 먹어. 햇지. 김장허드락까지 먹는다고. {햇짐치} 짐장허드락, 지금도 있을 것여.
지역 전북.

행괴 (←鄕校) 명 [대응어] 향교.
고려·조선 시대에, 지방에 있던 문묘(文廟)와 그에 속한 관립(官立) 학교. ¶나는 이 {행괴를} 지키는 행괴지긴디 나마저 나가 버리면 누가 이 {행괴를} 보살피겠느냐<구비문학대계 남원편> ¶뒤에 오는 군사들은 이 {행괴에다} 조금도 손대지도 말고 다치게 하지도 말라는 글을 써서 붙였다.<구비문학대계 남원편> ¶다른 골으 {행괴는} 다 불타 버렸는디 이 장수으 행괴는 그대로 남게 됐답니다.<구비문학대계 남원편>
지역 남원.

행기 명 [대응어] 행주.
☞행주.
지역 고창.

행기포 명 [대응어] 행주.
☞행줏보.
지역 전북.

행길 명 [대응어] 한길.
사람이나 차가 많이 다니는 넓은 길. ¶그러구서는 인제, {행길로만} 가는데, 좋은 길로, 걸어다니기 좋은 길로만 아 그래 인저, 장참(계속) 인저 정일(종일) 가는디, 가다가설랑은, 인저 그 {행길이} 곧은 외길루 접구서는 재를 넘구 산중에서 당하지 아니하?<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아이 영감님 어짠 일이여." "게 뉘시요." "예, 나 홍도령이요." "아! 홍도령이 아니었으면 내 하마터면 죽을 뻔했소." "이리 나오시오. {행길로} 나갑시다." 그 손을 잡고 나갔던 모냥여.<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군산, 남원, 부안, 완주, 정읍.

행랑각시 (←香娘閣氏) 명 [대응어] 노래기.
마디발동물 중 다리가 가장 많고 몸에서는 노린내가 나는 벌레. ¶{행랑각시} 속거천리 ¶{행랑각시를} 쫓기 위해 부적을 쓰기도 한다.
지역 전북.
해설 향랑각시[香娘閣氏]의 1음절이 움라우트된 형태이다. 징그럽고 싫은 벌레를 향기 나는 여성인 '향랑각시'라는 반어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노래기를 쫓기 위해서 "행랑각시여 빨리 천리 밖으로 가라(행랑각시 속거천리)"라고 부적을 쓸 때 사용하는 말이다.

행장 명 [대응어] 저수지.
물을 모아 두기 위하여 하천이나 골짜기를 막아 만든 큰 못. ¶행장 물이 쏙 빠졌다. ¶가물먼 {행장} 물 빼서 모 심어야지.
지역 전북.

행전 명 [대응어] 대님.
바짓가랑이를 좁혀 보행과 행동을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정강이에 감아 무릎 아래에 매는 물건. ¶땟국 전 괴나리봇짐을 지고 {행전을} 친 게 나그네 형색이었다.<송기숙, 녹두장군> ¶마느래가 그냥 {행전} 치라고 행전도 만들어 주고 그냥 여러 가지 그 준비를 다 히줘 마느래가.<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가래중우를 입고 {행전을} 요리 처논게 가래중우를 입은지 좋은 옷을 입은지 모르지 시방.<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군산, 남원, 완주, 정읍.
해설 이 행전을 중댓님이라 부르기도 한다.

행주치매 명 [대응어] 행주치마.
부엌일을 할 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기 위해 덧입는 치마. ¶다 떨어져 갖고 어디 입고 나가기도 뭣헌게 {행주치매로나} 입으야지.
지역 전북.

행줏보 명 [대응어] 행주.
식기, 밥상 따위를 닦는 데 쓰는 헝겊. ¶내가 학교럴 작파해 버리고 장 판개 선생헌터 일년 육개월얼 {행줏보} 노릇얼 하고 안 했소.<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11>
지역 전북.

행지 명 [대응어] 행주.
그릇, 밥상 따위를 닦거나 씻는 데 쓰는 헝겊. ¶밥상 한 번 딲으면 {행지는} 꼭 빨아야 해.
지역 남원.

행지간 (←兄弟間) 명 [대응어] 형제간.
☞형지간. ¶{행지간에는} 화목충신/동네 울천으 이름충신/시가 전으 시가충신 둥 둥둥 내 딸이야/어화 둥둥 내 딸이야<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완주 자장가-"자장 자장 우리 애기" 완주군 구이면 항가리 신전)
지역 전북.

행지보 명 [대응어] 행주.
☞행줏보.
지역 전북.

행질 명 [대응어] 한길.
차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큰길. ¶조 아래 집약국 앞에선데, 대낮 {행질서} 행팰 부리데.<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행투 (←行套) 명 [대응어] 행티, 행짜.
심술을 부려 남을 해롭게 하는 행위. ¶그놈의 {행투로} 보아, 며칠 두고 농락이나 하고 나서 헌신짝 버리듯 버려버릴 것이니,<채만식, 許生傳>
지역 전북.

허겋다 형 [대응어] 허옇다.
다소 탁하고 흐릿하게 희다. ¶이율곡의 부모가 첫애기럴 났넌디 하루넌 어떤 {허건} 노파가 와서 애기럴 좀 뵈여 돌라고 히서 뵈여 주었더니 그 노파가 간 뒤에 봉게 애기가 없어졌어.<구비문학대계 임실군편> ¶동학군이 일어서면 {허건} 옷 입은 사람헌티 가려서 죽창은 안 비여서 백산(白山)이 됐다고 헌다.<구비문학대계 임실군편>
지역 임실.

허고 조 [대응어] 하고.
(구어체로) 다른 것과 비교하거나 기준으로 삼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또는 일 따위를 함께 하거나 상대로 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아 그런디 아들 결혼식을 인자 그 {총각허고} 히갖고 결혼식히갖고 사는데 기룰 것 없

이 사는디<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매허고} 강 끄고 잡을란게 거시기 {매허고} 박적 {하나허고} 또 소쿠리 {하나허고} 그렇게 시가지를 가지고 댕임서<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아버지의 고독헌 생활을 모면허기 위해서 제가 어머니를 하나 구해서 {아버니허고} 같이 동거토록 했읍니다.<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대답을 딱 허고는 {동오허고} {바가지허고} 물 떠 붓을라고 바가지 허고 이렇게 가지고 갔다 이말이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그런개 남편이 시기넌깨, 뭐 {지금허고} 그전허고 틀리지 않해?<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아들이 자기 {아들허고} 자기 {아버지허고} 장으를 가서 늦게 안 오니가<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이 다른 동물보담도 손발을 잘 맨들어놨어. {손허고} {발허고} 잘 맨들어졌지.<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허구 조 [대응어] 하고.

☞허고. ¶다시 한번 얘기해 두겠는데, 밤나들인 여기서 아주 위험해. 그 {짐승허구} 맞닥뜨리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정말 조심해야만 돼.<윤흥길, 비늘> ¶"차돌아!" "네!" "요전에 한라산으루 {너허구} 같이 놀러 가지 않었드냐?<채만식, 배비장> ¶일러루 색시 {하나허구} 계집애 {하나허구} 도망가는 것 못 봤수.<채만식, 무장삼동> ¶"보잘것없이 툭툭헌 무명베 앞에서 광목이 잘 먹히는 것이야 당연지산디, {분허구} 구루무도 그리 잘 팔리네그려. 기생년덜이 분허고 구루무만 발라대는감?"<조정래, 아리랑> ¶집으로 오는데두 그 {애들허구} 굶어 죽었나 어쩐가 궁금헌데 오면서 집 어귀에 오면은<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그 가운데 상제가 간다구. 간다구 하닝게, {형님허구} 그 {끄티동상허구} 허는 말이<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틀림없이 사람마냥 하구 앉었난 말이여. 무조건허구 처돌리연 여시를 죽여놓는디, {주인허구} 상의는 있어야 할 것 같구<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아, 저 집에 가면 오늘 술이 생기겄다." 아, {지관쟁이허구} {이언쟁이허구} 따러가지.<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인자 모셔 놓고는 널리 채려놓고는, 거기서 인제 자기 딸이 {아버지허구} 화해를 시킨 거여, 친아버지허고 이제 그 시아버님허구. "아버님은 항상<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전북.

허다 동 [대응어] 하다(爲). ¶나는 너 하나 키울 적에 네가 네 새끼 예뻐헌 것보다 나는 더 귀엽고 더 예쁘게 키웠다. 인제 네가, 내가 늙어 죽게 되닌개 이런 짓을 {허냐}?<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여러 날 사방으로 다 통문을 히서 그걸 갈치내라고, 막대기를 다 사방 거시기로 보내야 상하를 개리낸 사람이 하나도 없이 기 참 임김이 그걸 걱정을 {허고} 있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허고 황개 삼 년 묵은 놈 푸연 황개 한 마리 걍 팍신 통놈으로 삶고 백일주 한 통허고 걍 동동주를 다 떠뜨려서 뜨고 그놈 가지면 약 {을 헐} 수 있다.<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전북.

허다허다 부

하다 못해 심지어. ¶나중에 하다하다 못 히 가지고 술을 멕이 갖고 잘 의복을 입혀 놓고 물어도 대답을 않고 나중에는 {허다허다} 대답을 안 헌게. ¶누가 이 숭헌 것을 당긴다더냐! 빌어먹을 놈들이 {허다허다} 못허닝게 옷 입는 것까지 참견을 허는구나……<채만식, 인형의 집> ¶그러다가 {허다허다} 못허닌게 아무리 달개도 듣질 안허니까<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그 눈치를 보닝개, 그러다 {허다허다} 새끼 두 마리를 바우에다가 대가리를 뒷다리만 잡고<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했다가 정

못하게 생기고 시간은 곧 다가오고 해서 그냥 {허다허다} 거시기 해서 칼로 찔러 버렸던가. <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전북.

허룸박 명 [대응어] 목물.

팔다리를 뻗고 엎드린 사람의 허리 위에서부터 목까지를 물로 씻겨 주는 일. ¶더울 때는 {허룸박을} 하면 시원하다

지역 남원.

해설 '허룸+박'으로 분석할 수 있다. '허룸'은 '허리'의 변형된 형태이고, '박'은 '막'이 변형된 형태로 보인다. '허리를 목욕하는 것'이 바로 '허룸박'인 것이다.

허르끈 명 [대응어] 허리띠.

바지 따위가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옷의 허리 부분에 매는 띠. ¶{허르끈을} 단단히 짬매고 질을 나섰다.

지역 부안, 임실, 장수, 고창.

해설 '허리끈'에서 변한 것으로 추정된다. '허르'는 '허리'의 어말 모음 /ㅣ/가 /ㅡ/로 변한 것이다. 전북 방언에서 '모르다~모리다' 등과 같이 /르/>/리/의 전설모음화를 보인는 예가 있는데, '허르'는 이러한 전설모음화를 지나치게 의식한 결과 나타난 과도교정형 정도로 생각된다.

허르다 형 [대응어] 싸다.

☞헐하다. ¶아주 제일로 땅깝 {허르고}, 도동놈들 저녀게 도독찔 허러 몯깐다는 디여. 왜 그래냐머는 돌 걸려서 자빠지면 중는다고<완주_지역어_텍스트>

지역 완주.

허리깐 명 [대응어] 허리띠.

☞허르끈.

지역 고창.

허리끼 명 [대응어] 허리띠.

바지 따위가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옷의 허리 부분에 매는 띠. ¶바지가 질질 흘러내링게 {허리끼럴} 좀 잘 쫌매라.

지역 진안.

허리뛰 명 [대응어] 허리띠.

바지 따위가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옷의 허리 부분에 매는 띠. ¶뜀박질을 헐래믄 {허리뛰럴} 쫌매야지. ¶민수가 상대 선수와 유도 시합을 하기 전에 {허리뛰를}조르며 바라보았다.

지역 고창, 남원, 군산, 김제, 무주, 완주, 진안.

허리막 명 [대응어] 목물.

팔다리를 뻗고 엎드린 사람의 허리 위에서부터 목까지를 물로 씻겨 주는 일.

지역 순창, 정읍.

해설 '허리+막'으로 분석할 수 있다. '허리'는 '상반신의 뒷쪽의 아랫부분'을 의미하고, '막'은 '목'이 변형된 형태로, '목욕'의 의미이다. 즉, '허리를 목욕하는 것'이 바로 '허리막'인 것이다.

허리빵 명 [대응어] 허리띠.

바지 따위가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옷의 허리 부분에 매는 띠. ¶배가 고픈게 정신없이 막 묵었어. {허리빵까지} 끌러 놓고.

지역 무주.

허면 부 [대응어] 그리하면.

앞의 내용을 받아들이거나 그것을 전제로 새로운 주장을 할 때 쓰는 접속 부사. ¶{허면} 은제까장 물색없는 말로 넘우 속을 썩여야 허겄나?<조봉래, 풀벨골> ¶"{허면}, 정자를 앉힐 만한 자리에는." "소를 매 놓았더라."<최명희, 혼불> ¶{허면} 그만 뚝, 앙알이다가 그쳐 버리고 그쳐 버리고 그러드러만.<구비문학, 남원시>

지역 무주.

허벅다리 명 [대응어] 허벅지, 넓적다리.

허벅다리 안쪽의 살이 깊은 곳. 또는 넓적다리의 위쪽 부분. ¶만일 이때에 빠져나오지 않는다면, 정강이에서 그 다음 {허벅다리로}, 허벅다리에서 배꼽으로, 배꼽에서 가슴패기로, 모가지로 이마로, 그리고는 영영 퐁당……<채만식, 민족의 죄인> ¶피가 한 방울이라도 덜 나오게 {허벅다리럴} 묶어야제라.<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고창, 군산, 남원, 순창, 완주, 임실, 장수, 정읍, 진안, 김제, 부안.

해설 표준어에서 '허벅지'는 '허벅다리 안쪽의 살이 깊은 곳'을 의미하고 '허벅다리'는 '넓적다리의 위쪽 부분'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북 방언에서 둘은 구별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허벅다리미 명

다리미의 일종. ¶인두는 바느질헐 때 대리는 것이고 빨래는 {허벅다리미라고} 있어. 그놈으로 대려.

지역 전북.

허벅단지 명 [대응어] 허벅다리.

넓적다리에서 위쪽 부분. ¶어제 죙일 걸었드만 {허벅단지가} 땡기네. ¶어제 안 하던 밭일을 왼종일 했더니 {허벅단지가}당겨 혼났어. ¶니 {허벅단지는} 운동을 많이 했나 튼튼하구나.

지역 고창.

허벌나다 동 [대응어] 굉장하다.

양이 매우 많거나 정도가 심하다. ¶닭도 토종닭이 {허벌나게} 좋다고 험서 값도 엥간히 비싸잖어.<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해설 주로 '허벌나게'의 형태로 쓰인다.

허부레기 명 [대응어] 찌꺼기.

제대로 된 것이나 쓸 만한 것이 아닌 나머지. ¶뉘에 이케 실 쓰고도 꼭 안 나오고 이케 {허부레기가} 있어. ¶{허부레기는}, 그놈을 말려가꼬 풀솜 만들아.

지역 전북.

허부적거리다 동 [대응어] 헤적거리다

쌓인 물건을 자꾸 함부로 들추어 헤치다 ¶그때 가실인게로 콩똥이 콩을 이렇게 비어가지고 쩸매서 세워놓고는 콩똥이 있는디 가서, 콩똥을 {허부적거리고} 갖다 처박고 처박고<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전북.

허북다리 명 [대응어] 허벅다리.

넓적다리에서 위쪽 부분. ¶대수리를 잡을라고 바지럴 {허북다리까정} 올리고 냇가로 들어갔어.

지역 무주.

해설 '허북다리'는 '허벅다리'의 제2 음절 모음 /ㅓ/가 /ㅡ/로 고모음화한 후에 선행 자음 /ㅂ/의 양순성에 동화되어 원순모음 /ㅜ/가 된 것으로 보인다.

허북지 명 [대응어] 허벅지.

넓적다리의 위쪽 부분. ¶하도 뺄소리를 해 대길래 {허북지럴} 꼬집어 부렀지.

지역 전북.

해설 '허북지'는 '허벅지'의 제2 음절 모음 /ㅓ/가 /ㅡ/로 고모음화한 후에 선행 자음 /ㅂ/의 양순성에 동화되어 원순모음 /ㅜ/로 변한 것이다.

허불허불하다 형 [대응어] 흐물흐물하다.

푹 익어서 매우 무르다. ¶메주 콩 다 쌂아졌고만. 허불허불혀.

지역 전북.

허비다 동 [대응어] 흩다(모이를).

한데 모였던 것을 따로따로 떨어지게 하다. ¶이렇게 쌀 한 주먹을 {허벼} 준게 닭이 와 줏어먹드라.

지역 군산.

허새비 명 [대응어] 허수아비.

곡식을 해치는 새, 짐승 따위를 막기 위하여 막대기와 짚 따위로 만들어 논밭에 세워 놓는 사람 모양의 물건. ¶"아! 여보, 당신 저녁에 나를 {허새비} 만들어 갖고, 두루매기를 딱 입혀서, 갓을 딱 씌어서 술취한 매냥해서 베개 입혀서 딱 뉘어 놓고, 당신이 초석 딱 들러 놓고 고 속에가 앉었으라고. 구석에 가 앉었어 보라."고 그러드랴.<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들판을 쳐다본게 {허세비를} 앉혀서 입성을 모다 갖다 걸어놨거든.<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남원, 군산.

허성허다 형 [대응어] 헐겁다.

낄 물건보다 낄 자리가 꼭 맞지 아니하고 크다. 가벼운 느낌이 들다. ¶꽉 죄야도 어찌 {허성허네}. 더 꽉 죄야는가.

지역 전북.

허실삼아 부

크게 기대를 하지 않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영호는 이렇게 애초부터 생각을 하고 그야말로 {허실삼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채만식, 염마>

지역 전북.

해설 '허실 삼아'와 같은 관용 구성에서 출발하여 완전히 부사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때 '허실'은 '헛되이 잃음'의 뜻을 가지기 때문에 '허실삼아'는 '잃는 셈치고'와 같은 뜻이 있다.

허여멀건하다 형 [대응어] 희멀겋다.

얼굴에 혈색이 없이 하얗다. 또는 날이 환하여 밝다. ¶그는 아직 총각이었는데 생긴 것도 기생오라비처럼 {허여멀건해} 가지고 잔뜩 모양이나 내는 쪽이기보다는, 기생동생처럼 곱상한 얼굴에 다 일부러 멋을 내는 것도 아닌데 멋이 자연스럽게 풍겨 나오는 그런 타입이었습니다.<최일남, 춘자의 사계> ¶그의 백치다운 {허여멀건} 얼굴과 천진스럽기 그지없는 웃음 저쪽 편에서 우리는 똑똑히 검은 날개를 볼 수 있었다.<윤흥길, 양> ¶논길 산길 힘줄이 땡기고 식은땀이 비오듯 허는디 {허여멀건} 웬놈이 사진 찍자 줄 서란다 <김용택, 맑은 날> ¶{허여멀건} 대낮에 풀도적들 판을 치고 앞산 뒷산 바라보니.<김용택, 맑은 날>

지역 전북.

허여멀금하다 형 [대응어] 희멀겋다.

☞허여멀건하다. ¶"이렇게 {허여멀금하게} 생긴 새끼가 빨갱이라니." 그는 민욱을 끌고 퀀셋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최창학, 심야의 정담>

지역 전북.

허이 부

하얗게. ¶북방색이 허이다 못해가꼬 {허이} 막 빌그랜 놈을 입고

지역 전북.

허이다 형 [대응어] 하얗다. ¶북방색이 {허이다} 못해가꼬 허이 막 빌그랜 놈을 입고.

지역 전북.

허재기다 동

한쪽으로 잘 모아 놓다. ¶밥을 히서이 안으로 이렇게 이렇게 {허재기고} 밥을 푸거든.

지역 전북.

ㅎ

허직거리다 동 [대응어] 흩다(모이를).

한데 모였던 것을 따로따로 떨어지게 하다. ¶거마당으서 모이 좀 {허직거리고} 있으라.

지역 부안, 완주, 익산.

허직이다 동 [대응어] 흩다(모이를).

한데 모였던 것을 따로따로 떨어지게 하다. ¶모이를 {허직여서} 줘야지 뭉텡이로 주면 삥아리가 잘 먹을 수 있겠어?

지역 고창, 익산.

허천나다 동

몹시 굶주리거나 굶주린 듯 지나치게 음식을 탐하다. ¶고놈의 새끼 {허천난능게비요}. ¶오메, {허천났구만} 그러다 등짝 터지고 배통아지 터지겄소.

지역 전북.

허천백이 명 [대응어] 걸신쟁이.

음식을 지나치게 탐하거나 게걸스럽게 먹는 사람. ¶"……맛이 고수하냐? 천하 배라먹을 것! {허천백이} 삼신이더냐?……"<채만식, 탁류>

지역 전북.

해설 '-백이'는 '-뱅이'와 같이 사람에 붙어 쓰이는 접미사로 주로 비하하는 말에 사용된다.

허천병 명

먹을 것만 보면 무엇이든 허겁지겁 막 먹어대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못 멕여 키웠드만 {허천병이} 났나벼.

지역 전북.

허천병나다 동 [대응어] 걸신들리다.

몹시 굶주리어 병적으로 지나치게 음식을 탐하다. ¶고런 것도 모름서 시방 먼 먹잘것 있다고 {허천병나게} 우르르 몰려나온겨?<조봉래, 풀벨골> ¶아, 내가 장개를 못가서 시방 {허천병나서} 에 지내 가다가 시방 들왔다.<구비문학대계, 남원시>

지역 전북.

허청 명 [대응어] 헛간.

여러 가지 물건을 쌓아 두는 광. ¶"아이, 그러믄 어디 {허청도} 없소." "아이, {허청은} 저짝이 있소." "아, 그럼 나 {허청으서} 짚다발이라도 깔고 조께 자고 갈라우." 근게 그 {허청을} 가서 갈쳐준게 인제 그리 업고 저 어마니 업고 오는디 짚은 한 다발 갓다 줘.<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허청서라도} 자고 가라.'고 여자가 승낙을 혀서 {허청서} 잠을 자게 되는디 아 밥 한 숟갈도 안 주고 그양 마릅디다요. 밥 하나 안 먹고, 그냥 말길래 그냥 {허청으서} 그냥 그날 저녁으 잠을 잘라고 생각을 헌게 폭폭허고 참 잠은 안 오고헌디<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나 토방에서라도 저 {허청에서라도} 조깨 자고 갈란다." "그러먼 {허청에서} 조깨 자고 가시라."고 글드라우. 그서 인자 {허청에} 가 있은게 가만히 큰애기가 생각허본게 못 쓰겄드라우.<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이 싸리비를 {허청에} 갔다놓고 오너라.

지역 고창, 임실, 정읍.

허치다[1] 동 [대응어] 갈다(볍씨).

농작물의 씨앗을 심어 가꾸다. ¶삼베는 인자 가러. 이르케 노가리로 막 씨를 뿌려. 싹 쟁기질 히서 막 거름 깔고 인자 판판~너이 고쳐노코 막 {허쳐}, 씨를 이르케.(삼베는 이제 갈아. 이렇게 노가리로 막 씨를 뿌려. 싹 쟁기질 해서 막 거름 깔고 이제 판판하게 고쳐 놓고 막 뿌려, 씨를 이렇게.)<2005 전북 남원> ¶무수씨를 밭꼬랑으다 {허쳐} 놓고 빗지락으로 살살 씰어주면 거짐다 싹이 나더라고.

지역 김제, 무주, 익산, 남원.

허치다[2] 동 [대응어] 헤치다.

속에 든 물건을 드러나게 하려고 덮인 것을 파거나 젓히다. ¶그럼, 저기 나무 밑이 안 뵈요? 거그 가서 낙엽을 이렇게 {허치면} 옴팍헌디 가서 물이 괴얏소.<구비문학대계 전북 고창군편>

지역 전북.

허클다[1] 동 [대응어] 엎지르다.

☞어클다. ¶그놈을 셋을 사가지고 와서는 여 물동우 세 개를 히갖고는 이 사다리 타고 올라 가서 이놈을 한 방울 안 {허클게} 와 갖고는 조르르 내노먼 그 놈 데릭고 산다고 헌게,<한국구비문학대계, 전북정주시·정읍군편>

지역 전북.

허클다[2] 동 [대응어] 헝클다(옷들을).

어떤 물건 따위를 한데 뒤섞어 놓아 몹시 어지럽게 하다 ¶방에 들어가 본게 사방에 옷을 다 {허클고} 아주 기양, 난리여 난리.

지역 정읍.

허클어지다 동 [대응어] 엎질러지다.

담긴 그릇에서 액체 따위가 쏟아져 나오게 되다. ¶그런께는 인자 그런께 {허클어진} 물은 한번 {허클러지믄} 못 쓸어 담고 한번 땅에 떨어진 말은 못 줏어 담는다. 그래서 그런 논지(論旨)에서 난 말이라요. 그 말이. 근게 중간만 대강대강 혔제.<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정읍.

허퉁허다 형 [대응어] 허망하다.

기대와 달리 보람이 없다. ¶서로 험담허고 욕해쌈서 이빨 드러내도, 당허는 이편 맘이 {허퉁허덜} 않고 밤새 속쓰려 약 먹지를 않음 다 풀어지게 돼부리는 거 아니겄소.<조봉래, 풀벨골> ¶아따, 술찬허고 드럽게 {허퉁허고만} 이~. ¶아따, 인자 개안허요 이~ 근디, 어째 쪼까 {허퉁허요}.

지역 전북.

허트러지다 동 [대응어] 흐트러지다.

여럿이 마구 늘어놓아져서 크게 한판을 이루게 되다. ¶이 단 저 단 왜단이며/꽃수불저까지/{허트러졌다} 면초우/주황색 초초우 초단/ 뭉게뭉게 구름단/신기한 곡 둥둥울려/ 항복 받은 왜단이며(순창 고사풀이)<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순창.

허트로 부 [대응어] 허투루.

아무렇게나 마구 되는 대로. ¶느놈덜이 평소에 울덜을 하시헝게 고놈덜도 {허트로} 본 거여.<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허트리다 동 [대응어] 흩트리다.

흩어지게 하다. ¶풀풀 날리는 솜먼지를 허옇게 뒤집어쓴 옹구네가 한 손으로는 그것을 {허트리며} 한 손으로는 코를 막는다.<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허튼수작 (허튼酬酌) 명 [대응어] 허튼수작.

쓸데없이 함부로 하는 말이나 행동. ¶머어여, 다 끝장난 장기판을 뒤집고는 먼 놈의 {허튼수작여}? 조봉래 ¶초봉이는 제호의 이야기에 끌려 {허튼수작에} 대거리는 하고 있어도, 시방 딴 걱정에 도무지 건성이다.<채만식, 탁류> ¶괜히 {허튼수작} 하지 말구 냉큼 나가. 저엉 그렇게 추근거리다가는 순사 불러낼 테니.<채만식, 탁류>

지역 전북.

허틀다 동 [대응어] 헝클다(옷들을).

☞헌틀다.

지역 고창, 김제, 진안.

허틀어지다 동 [대응어] 헝클어지다.

실 따위의 가늘고 긴 물건이나 감정 따위가 풀기 힘들 정도로 얽히다. ¶다 떨어진 베치마을 반만 두루고 {허틀어진} 멀이털은 두귀 밋테 눌이고 비갓치 흘르는 두 눈물은 옷깃세 사못친다 <완판본 심청전> ¶형식은 {허틀어진} 싱각을 슈습지 못ᄒᆞ야 좁은 마당으로 얼마 동안 그닐다가 방에 들어와 옷도 닙은 채로 자리에 누엇다.<이광수, 무정>

지역 전북.

허패 명 [대응어] 허파.

가슴안의 양쪽에 있는, 원뿔을 반 자른 것과 비슷한 모양의 호흡을 하는 기관. ¶그것도 비아난 맘 따독임서 삥아리 눈물 맹큼이나 손 업는 날로 짐장날 늦게 자버논 아짐들 {허패} 빠진날 되아 간다. ¶거시기 헐라면 진작에 허등가 허제, 인자사 헐라고 헝게 {허패} 빠져 디질라고 허제이. ¶아이고, {허패} 빠져 뒤지 것네이~ 인내강에 독자갈 떤지기네 이~

지역 전북.

허폐 명 [대응어] 허파.

☞허패. ¶"자네가 이판에는 {허폐} 빠진 소리를 허네 그려! 아, 고게 얼매나 귀헌디이!"<이병천, 모래내 모래톱>

지역 전북.

허피니 부 [대응어] 헤프다.

물건이나 돈 따위를 아끼지 아니하고 함부로. ¶거부 막둥이 아들이 원청 돈을 {허피니} 쓰고 헌게.

지역 전북.

헌겁 명 [대응어] 헝겊.

☞헝굪.

지역 고창.

헌디 부 [대응어] 그런데.

화제를 앞의 내용과 관련시키면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때 쓰는 접속 부사. ¶사기넌 삽시다. {헌디}, 즘 과허니 조깨만 드을 냅시다.<채만식, 태평천하> ¶{헌디}, 전과 보고넌 어찌허능가요?<조정래, 아리랑> ¶그러기넌 {헌디}, 어째야 헐꼬?<조정래, 아리랑> ¶그려도 농사꾼덜언 배곯코 살아도 장사꾼덜언 다 하로 세 끄니 찾아묵고 사는 법 아니여. {헌디}, 무신 장사럴 해야 좋을랑고?<조정래, 아리랑> ¶자네가 내 사우가 안되았어도 나넌 자네 학비에 돈얼 보탰을 것이여. {헌디} 사우꺼정 됐시니 얼매나 잘된 일인가.<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헌뜻허다 형 [발음] [헌뜨더다/헌뜨터다] [대응어] 훤칠하다.

훤칠하다. ¶{헌뜻허니} 좋잖여. 야튼 크고 봐야 허.

지역 전북.

헌치다 동 [대응어] 헤치다.

속에 든 물건을 드러나게 하려고 덮인 것을 파거나 젖히다.

지역 무주.

헌튼모 명 [대응어] 허튼모, 막모.

못줄을 안 대고 심은 모. ¶못줄 안 대고 심을 때는 {헌튼모라고} 허.

지역 전북.

헌틀다 동 [대응어] 헝클다(옷들을).

어떤 물건 따위를 한데 뒤섞어 놓아 몹시 어지럽게 하다 ¶아침 내동 책을 간지런히 꼽아 뒀더

만 누가 또 {헌틀어} 놓았나? ¶바둑판에 있는 바둑돌을 마구 {헌틀었다}.

지역 남원, 무주, 순창, 군산, 완주, 임실, 장수, 정읍, 진안, 고창, 김제.

헐다 동 [대응어] 흩다(모이를).

한데 모였던 것을 따로따로 떨어지게 하다. ¶쟁에 놓은 곡석을 마당으다가 {헐는} 것이라.

지역 부안.

헐북허다 형 [발음] [헐부거다/헐부커다]

여유가 있다. ¶이번에는 연휴가 진게 왔다 갈라믄 저그들도 {헐북허고}. 쓰겄드만.

지역 전북.

헐하다 형 [대응어] 싸다.

물건값이나 사람 또는 물건을 쓰는 데 드는 비용이 보통보다 낮다. ¶그런가 하면, 맨 {헐한} 방으로 골라서 묵을값에 조선호텔에서 유숙을 했다는 걸로 '양반'의 긍지를 만족삼는 분네가 있고……<채만식, 금의 정열> ¶그런개 들판을 말하자면 사라 이거여. 그런개 {헐한} 값으로 산거지 뭐.<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21215 {헐하다나} 인저 싸다나 이그 가튼 마린디<완주_지역어_텍스트> ¶삥아리 새끼를 샀는디 봉동장 보다 삼리(삼례)장이 훨씬 {헐히서} 몇 마리를 더 사왔지.

지역 김제, 무주, 완주.

헐허다 동 [대응어] 헐하다.

가던 길을 멈추어서 쉬다. ¶다리가 넘나 아픈 게 저그쯤 가서 {헐허게요}.

지역 김제.

헐히다 동 [대응어] 헐하다.

가던 길을 멈추어서 쉬다. ¶빨랑 가자고!! {헐힐수록} 더 가기 싫은게, 조금만 힘내자고!!

지역 완주.

험살궂이 부

옷 따위가 거칠고 너절하게. ¶옷안칠라 {험살궂이} 입고 나와서.

지역 전북.

헛고상 명 [대응어] 헛고생.

아무런 보람도 없이 고생함. 또는 그런 고생. ¶하여튼간에 둘 다 건성나발이랑게 긍게로 맨나 {헛고상만} 히쌌지 이~.

지역 고창.

헛바늘 명 [대응어] 혓바늘.

혓바닥에 좁쌀알같이 돋아 오르는 붉은 살

지역 군산.

헛바닥 명 [대응어] 혓바닥.

혀의 윗면. 또는 '혀'를 낮잡아 이르는 말. ¶불길은 마치 뱀 {헛바닥이} 날름거리듯 빠른 속도로 지푸라기에 번져나갔다.<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고창.

헛박사 명

아는 것이 많은 듯하지만 실제로는 아는 것이 별로 없는 사람. ¶자네, {헛박사여}. 우리 세대 때는 그런 얘기를 험서 웃었는디 지금 사람들은 아무런 해당이 안 되는 얘기여.

지역 전북.

헛부자 명

부자라고 소문은 났으나 실제로 빚이 많거나 가진 것이 별로 없는 부자. ¶그 사람은 {헛부자여}. 융자 빚이 얼만디. 말만 부자제.

지역 전북.

헛시암 명

여러 군데서 들어오는 건수로 이루어진 샘. ¶{헛시암은} 은지 팠다고 허는갑드만. 헛시암은 은지 팠담서? 헛시암은 난중으 팠는갑드만. ¶{헛시암은} 우리 알아, 멫 살이나 먹었는가는 몰라도. 헛시암 팠어. 거가 방천인디 다 독 줏어내고. ¶{헛시암} 가 빨래허고.
지역 고창.

헛질 명 [대응어] 헛짓.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헛수고만 하고 가거나 옴. ¶근디 그 뒤여 가야 늘 과거를 못히여. {헛질만} 허고 댕인게 그서 나중으는 그 뒤 자기 집으로 와갖고 자기가 그랬다 소리는 않고.
지역 전북.

헛통시 명 [대응어] 바깥 변소.
집 밖에 대소변을 보도록 만들어 놓은 곳. ¶탈이 나서 밤새 {헛통시럴} 들락거렸어.
지역 순창.

헝겁 명 [대응어] 헝겊.
천의 조각. ¶쪼각난 {헝겁얼} 갖다가 책보도 맨들고 밥상 덮개도 맨들어.
지역 전북.

헝겁딱 명 [대응어] 헝겊.
천의 조각. ¶백통 각뒤를 그렇게 {헝겊딱} 색색이로 그렇게 박어.
지역 전북.

헝굽 명 [대응어] 헝겊.
천의 조각. ¶바지가 솔찮이 많이 찢어졌네. {헝굽을} 잘라 덧대 꼬매야 쓰겄네.
지역 남원.

헤겁다 형 [대응어] 가볍다.
☞헤껍다.

지역 남원, 무주, 순창, 군산, 완주, 임실, 장수, 정읍, 진안, 고창, 김제.

헤껍다 형 [대응어] 가볍다.
무게가 일반적이거나 기준이 되는 대상의 것보다 적다. ¶뭘 못 먹어서 그런가 몸이 {헤껍네}. 살 좀 찌소.
지역 전북.

헤리다 동
무슨 일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진행되는 일이 방해 받아 차질이 생기다. ¶니가 들오는 바람에 다 {헤려} 버렸다.
지역 전북.

헤벌레허다 형 [대응어] 헤벌어지다.
틈이 벌어지고 너덜너덜하다. ¶바느질도 잘히야제. 잘못 꼬매면 그놈이 {헤벌레헌게}. 못 써.
지역 전북.

헤비다 동 [대응어] 후비다.
도구를 사용하여 물체의 표면을 돌려 파내거나 구멍 속을 긁어 파내다. 또는 마음 따위를 몹시 괴롭게 하다. ¶옛날에는 엽전 아니요? 엽전. 따라 간개로 어느 산골짜기로 가드니, 막 땅을 이렇게 {헤비드랴}. "그러면 파 보란 말이냐?" 그러니깨, "파라." 고.<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울댈락헌 시아버지 상에 놓고 짝짝 {헤비는} 발목뎅이는 동세님의 상에놓고 쫑굴쫑굴 주뎅이는 시누님의 상에놓고 따둑따둑 쭉질락헌 임의상에나 올리줌세<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멀쩡허니 있는 사람 왜 그렇게 속을 {헤비놓나}.
지역 남원, 장수, 진안.

헤성헤성하다 형 [대응어] 헤싱헤싱하다.
촘촘하거나 가득하지 않아 헐겁고 허전한 느낌이

있다. ¶승객이 탈 만큼 거진 다 탔는지 북적하던 선창이 엔간히 {헤성헤성했다}.<채만식, 아름다운새벽>

지역 전북.

해설 의태어인 '헤성헤성'에 용언을 만드는 접미사 '-하-'가 연결되어 형용사가 된 것으로 보인다.

헤집거리다 형

무엇을 잃거나 의지할 곳이 없어진 것같이 서운한 느낌이 있다. ¶하나 있는 것보다는 낫대. 하나가 없으면 {헤집거리는가벼}. 저그까지 말짓도 허고 뭐까지도 먹고. 혼자 있은게 너무나 허전하다. 혼자 있는 것보다는 저그까지 도란도란 좋잖아. 그것보고 {헤집거린다고려}.

지역 전북.

헤터댕기다 동 [대응어] 찾아다니다.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혹은 무엇을 얻기 위하여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이 강가란 놈 어디 있나." 막 사방으 {헤터댕겨}.<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군산.

헤피 부 [대응어] 헤프게.

물건이나 돈, 또는 말이나 행동 따위를 아끼지 않고 함부로. ¶비누를 {헤피} 쓰지 말거라. ¶더우기 화폐라는 것이 물자소비(物資消費)의 매개물일진댄 물자를 {헤피} 할 수없는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한층 더 그러하리라 싶었다.<채만식, 아름다운 새벽> ¶그런 말은 신중하지 못하게 {헤피} 내뱉으면 안 된다.

지역 전북.

헹기다 동 [대응어] 가시다(그릇을, 洗).

물 따위로 깨끗이 씻거나 이미 씻은 것을 다시 한 번 씻다. ¶그저 이 설운 세상 무거운 눈물 다 씻어 {헹기시고}, 개버운 혼 말강물로 개완허게 극락왕생을 하옵소사. 왕생극락을 하옵실<최명희, 혼불> ¶엄마가 주방에서 식기를 여러번 {헹기었다}.

지역 고창, 군산, 부안, 완주, 익산, 임실, 정읍, 순창, 진안.

혁띠 (革띠) 명 [대응어] 가죽띠, 허리띠.

바지 따위가 흘러내리지 아니하게 옷의 허리 부분에 둘러매는 띠 중에서 가죽으로 만든 것. ¶엉덩이에 주사 맞아야 헌게 얼른 {혁띠를} 끌르고 기다리고 계셔.

지역 무주, 완주, 장수.

현밋저 명 [대응어] 쌀겨.

쌀을 찧을 때 나오는 고운 벼의 껍질. ¶처음에 멘저 다음에 베낀 것이 현미저다. ¶현미쩌라고잉 쌀껴, {현미쩌}.(현미겨라고), 쌀겨, 현미겨.)<2008 전북 고창>

지역 고창.

형지간 (←兄弟間) 명 [대응어] 형제간.

형과 아우 사이. ¶그저 그냥 즈그, 형제간덜 망코 허면, {형지간덜} 쵀며네도 항가지 더사고 안 살껏또 사고, 그렁거시제.(자기 그냥 자기, 형제간들 많고 하면, 형제간들 체면에도 한 가지 더 사고 안 살 것도 사고 그런 것이지)<2005 전북 남원> ¶"그러믄 그러자." 그 얼매를 들있던지 다리를 놓았어, 냇물이다. 근게 인자 발섶 안히도 자기 {형지간에} 인자 공부 왔다 갔다 허고 그 선생님도 인자 자기 집이 올때 인자 발섶 안허고 오고, 동네 사람들도 인자 발 안 빼고 건너댕이고 헌게 참 좋단 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뭐라고 허는고니, "동생도 이 근방서 명의로 큰 이름을 얻은 분이고 나도 명사라고 명색이 땅을 좀 본다고 사람이고 허니 {형지간이} 서로 기술이 누 기술이 신통허니 좋

은가를 모르니, 둘이 한번 엽전 한 냥씩을 가지고서 삼천리강산 박람박식(博覽博識)히감서 구경차로 나서 보세."<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형지간에는} 항상 서로 양보하고 잘 지내야 한다.

지역 전북.

헤염 명 [대응어] 헤엄.

사람이나 물고기 등이 물속에서 나아가기 위하여 팔다리나 지느러미를 움직이는 일. ¶번쩍이는 비눌을 단 고기들이 {헤염치는} 초록의 강 물결 어우러져 날르는 애기 구름 같었읍니다 신령님…….<서정주, 시집>

지역 전북.

호끈허다 형 [대응어] 후끈하다.

몸이나 쇠 따위가 뜨거운 기운을 받아 갑자기 몹시 달아오르는 느낌이 있다. ¶방이 호끈허다. ¶정지 들어선게 호끈헌 내가 나드란게.

지역 전북.

호꼼 부 [대응어] 흠뻑.

분량이 차고도 남도록 아주 넉넉하게. 또는 물이 쭉 내배도록 몹시 젖은 모양. ¶정이 {호꼼} 들었는지 떨어지기 싫어허드라고. ¶어디 냇가에라도 뛰어들었다 나온 거마냥 {호꼼} 젖어가지고 저러고 다니니께 꺽정시럽구만.

지역 전북.

호꾸 명 [대응어] 곡괭이.

쇠로 황새의 부리처럼 양쪽으로 길게 날을 내고 가운데 구멍에 긴 자루를 박은 괭이.

지역 임실.

호끔 부 [대응어] 함빡.

분량이 차고도 남도록 넉넉하게. 또는 물이 물이 쭉 내배도록 젖은 모양. ¶오리란 놈이 뭣이냐 그 재주방죽 와서 {호끔} 노닌게로 부락에 가서 누가 오리를 잡을락 헌게로 뭣이냐,<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소나기가 와서 한 순간에 {호끔} 젖어 버렸어.

지역 전북.

호도 (胡桃) 명 [대응어] 호두.

호두나무의 열매.

지역 고창, 군산.

호라이 명 [대응어] 호랑이.

☞호랭이.

지역 전북.

호래이 명 [대응어] 호랑이.

☞호랭이. ¶아 시방 냉장고가 있어도 유월달에 홍시가 없는디, 아 그래서 멧뚱(墓)에서 기도를 하고 절을 하자닝개, {호래이가} 한 마리가 어르렁- 하며 나오더래 뭣이? 호랑이가, 어르렁- 하고 나오더래. 나오더래.<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완주.

호랭기 명 [대응어] 회전기.

벼, 보리 따위의 이삭에서 낟알을 떨어내는 농기계.

지역 순창.

호랭이 명 [대응어] 호랑이.

누런 갈색의 등에 검은 가로줄무늬가 있는 맹수. 또는 몹시 사납고 무서운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근게 우둑허니 강둑으가 앉었어. 앉었은게 {호랭이가} 내리와. {호랭이가} 내로더니만 꽁댕이를 휘휘 침서나. "아이고 호랑아,"<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너 이놈들 인자막 {호랭이} 도망가는 것 봤냐? 확연히 봤거든. 내가 나라에 진상갈라고 말야 산 {호랭이} 서른

마리를 내가 잡어갖고서 시방 나라 진상 갈라는 디 너희들이 오다가 그 산 {호랭이를} 다 쫓아 버렸으니 너그들 어찔래 말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인자 거그서 서너달 묵었응게 봄 찜 됐지. 봄찜 돼가지고 집이로 온게로 시한삼동 묵고 봄찜 돼서 저 그집 와본게 {호랭이} 물려간 중(줄) 알고 집이서 낙심을 했는지 와서, "서울 갔다 왔다." 고. 허거든 어디 갔다 왔냐 헌게.<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근게 이놈이 비야난게 영감님한테 쫓아가서 뭐도 모리고. {호랭이} 굴인지 너구리 굴인지도 모르고 쫓아갔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한덕문은 다시 끌려가고 있는 죄수의 뒷모양을 우두커니 바라다보면서, '제엔장, 양반 호랑이도 지질한데, 우환중에 왜놈 {호랭이까지} 들어와서 이 등쌀이니, 갈수록 죽어나는 건 만만한 백성뿐이로구나.' '쯧, 번연히 알면서 왜 채를 쓰는 사람이 잘못이지, 누구를 원망하나.' <채만식, 논 이야기>

지역 남원, 군산, 임실, 부안, 완주, 정읍.

호룅 명 [대응어] 호롱.
석유를 담아 불을 켜는 데에 쓰는 작은 병 모양의 그릇. ¶호롱뿔, 요매::는 흐::연 {호룅이라고} 인시머는 뚜껑 불씬디가 이짜너요?(호롱불, 이만한 하얀 호롱불이라고 있으면 뚜껑 불 켜는 데가 있잖아요?)<2009 전북 임실>

지역 임실.

호룡기 명 [대응어] 회전기.
벼, 보리 따위의 이삭에서 낟알을 떨어내는 농기계.

지역 순창.

호루개 명 [대응어] 솔개. ¶{호루개는} 매 편이다

지역 군산, 완주, 익산.

호룽기 명 [대응어] 회전기.
벼, 보리 따위의 이삭에서 낟알을 떨어내는 농기계.

지역 완주.

호리개 명 [대응어] 솔개. ¶{호리개가} 날아다니면 삥아리들이 지들이 알아서 숨어.

지역 김제, 군산.

호리깨 명 [대응어] 도리깨.
긴 장대 끝에 매달려 있는 회초리를 빙빙 돌려가면서 곡식의 낟알을 두드려서 떠는 데 쓰는 농기구. ¶보리 타작을 할 때 {호리깨를} 쓴다.

지역 전북.

호릿바 명 [대응어] 고삐.
☞바.

지역 고창.

호매 명 [대응어] 호미.
김을 매거나 감자나 고구마 따위를 캘 때 쓰는 쇠로 만든 농기구.

지역 남원, 완주, 부안.

호매이 명 [발음] [호매~이] [대응어] 호미.
☞호맹이. ¶남자들이 {호매이로} 먼저 감자밭을 파 긁어 놓으면 여자들이 뒤따르면서 감자를 줏어 담지.

지역 남원, 고창.

호맹 명 [대응어] 호미.
☞호맹이.

지역 무주.

호맹이 명 [대응어] 호미.
세모 모양의 쇠붙이를 나무 자루에 박아 김을 매거나 감자나 고구마 따위를 캘 때 쓰는 조그

만 농기구. ¶"가시내야, 콩조지는 벌써 매구 들왔는디 너는 인제까지 매구 들오나?" 하고 쫓아내. 그런 것이 아니라 {호맹이가} 뿌러져서 그랬다구.<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밭을 매러 가라고 하먼은, 즈이 딸은 쇠 {호맹이를} 주고, 팥조지는 나무때기 {호맹이를} 주고. 즈이 딸은 쇠 {호맹이를} 주고 모래밭을 주더래.<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호랭이가 물어 가!" 그런개 밭을 매고 있다가, 어찌 되었던지 제 속으로 난 애기란게 중하기가 기가 막히재. 밭 매다가 {호맹이를} 들고 쫓아올라가.<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요걸 주어가지고선 마당으다 집어내버려서는 저쇠를 챈단 말여. 방으다 밥상을 놓고 게 방으 밥상을 인제 수저나 저분은 안먹지. 마루밑이 있는 {호맹이} 달은 것. 소시랑 달은 것. 막 집어먹어.<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일도 잘 못허는 놈이 외약 {호맹이}를 찾으니 그게 암디나 있겄소?

지역 전북.

호멩이 명 [대응어] 호미.

☞호맹이.

지역 전북.

호무 명 [대응어] 호미.

세모 모양의 쇠붙이를 나무 자루에 박아 김을 매거나 감자나 고구마 따위를 캘 때 쓰는 조그만 농기구. ¶{호무를} 확 찍은 것이 꿩은 날러가 버리고 그 대목을 찍어 버?드래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다도 맸네 다도나 맸네 {호무} 자루 싯쳐 들고 집이로나 가세/응아어 응허 오호 로다<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완주 논매는 소리/완주군 용진면 운곡리 지동 /방개소리) ¶밭 풀을 뽑을려면 {호무가} 있어야지.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임실, 정읍.

호뭉이 명 [대응어] 호미.

☞호맹이. ¶아이구 차차 잊었구야/정저님네 씨든 {호뭉이도} 내어 놓소/아이구 너그 성 씨든 {호뭉이} 정지 말쿠지에 걸렸다 내다 놔라<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임실 밭매는 소리-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천담)

지역 임실.

호복하다 형 [발음] [호보가다/호보카다] [대응어] 수북하다.

쌓이거나 담긴 물건 따위가 불룩하게 많다. ¶날도 가문디 비나 {호복하게} 왔으면 좋겄다.

지역 전북.

호복히 부 [대응어] 함빡, 흠씬.

흠씬 익도록 삶거나 고거나 끓이는 모양. ¶닭 한 마리를 호복이 삶아서 갖다 준게 닭 한 마리를 싹 자시거든.<구비문학대계 전북 고창군편>

지역 전북.

호빡 부 [대응어] 흠뻑, 흠씬.

물 따위가 쭉 내배도록 모자라지 않고 충분히. ¶해 뜨면 고추모종에 물 호빡 줘라이. ¶아들이랑 냇가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더니 옷도 {호빡} 젖어 버렸네.

지역 전북.

호생 (←好喪) 명 [대응어] 호상.

복을 누리고 오래 산 사람의 상사(喪事). ¶{호생일레} {호생일레} 돌아가신 맹인이 {호생일레}/어리가리 허허노오 어허화 허허노(순창 상여소리)<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순창.

호세 (虎세) 명 [대응어] 호랑이. ¶암만 거식해도 밤을 샜지, 그러고 정녕 그 골짝이 깊던가 골짝에

서 {호세} 만난 것같다고, 풍수쟁이를 데리고, 동원을 해가지고 갔더래, 아니나 달라, 그 골짝에가 피묻은 그애 옷이 찢어져 산발을 해서 걸어놨네,<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넘어 뛰더니만 그게 즈 각신게. {호세} 각신게 오더니만 하 뭐라하더니, 눈을 두 귀는 바짝 붙잡고 떠 넌게로 나가더래요. {호세가} 무섭다고 죽더라는가 몰라. 죽더라는게요.<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아뿔사." 그러더랴.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호세} 물어갈 팔자라고 하더랴.<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군산, 완주.

호시 (虎시) 명 [대응어] 호랑이.
☞호세. ¶산중으 사는 노인네가 예. 범이 와서나 그 시어머니를 물고 갔어요. 예. 간 후에 아들이 들왔어요. 그서, "어머니가 {호시여} 물려갔다." 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을 전부 청내히서 풍문(풍물)을 치고 쫓아갔어요.<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전북.

호아지다 명 [대응어] 누그러지다.
거칠거나 빳빳하지 않고 물러지다. ¶무생채에 죽을 많이 느서 {호아졌어}. 부드러워졌다고.
지역 전북.

호악돌 명 [대응어] 돌확.
돌로 만든 조그만 절구. ¶{호악돌로} 찌어서 양식을 마련했어.
지역 전북.

호작질 명 [대응어] 손장난.
좀스럽게 손을 놀려서 하는 일. ¶쌍금 쌍금 쌍가락지/수시때기 밀가락지/{호작질로} 딲아내야/그 가락지 누가 주데(무주군 무풍면 지성리 율오)<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무주.

호주머이 명 [발음] [호주머~이] [대응어] 호주머니.
옷의 일정한 곳에 헝겊을 달거나 옷의 한 부분에 헝겊을 덧대어 돈, 소지품 따위를 넣도록 만든 부분. ¶인자 그놈을 참 단단히 {호주머이다} 놓고서는 이제 거그를 인자 갔읍니다.
지역 완주.

혹뎅이 명
'혹'을 속되게 이르는 말. 또는 짐스런운 물건이나 일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니넌 복뎅이가 붙은 것이고 나만 {혹뎅이가} 붙은 것이여.<조정래, 아리랑> ¶누가 들으면 이 김부월이가 {혹뎅이맨치로} 달고 들어온 전냄편 소생인지 알겄네. 자기 딸이니깨 자기 맴대로 허드라고!<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혼구멍 (魂구멍) 명
'혼'을 낮잡아서 이르는 말. ¶그렇 야단도 치고, {혼구멍을} 내는 거여.<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혼레 (←婚禮) 명 [대응어] 혼례.
두 남녀가 부부가 되는 의식(儀式).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 농사질 때 도와주는 게는 업써도 가령 제사가, 상을 치룬다거나, 아니면 머 자식뜰 {홀레를} 치룰려면 또 이러케 좀 서로 부조를 좀 마:니 헤 준다거나<2008 전북 고창>
지역 고창, 정읍.

혼리 (←婚禮) 명 [대응어] 혼례.
☞혼레.
지역 장수.

혼역 (←紅疫) 명 [대응어] 홍역. ¶{호녀글} 허머는

{호녁혈} 저게 뿔근 뿔그더게 뭐가 생기고<완주_지역어_텍스트> ¶빚쟁이들이 벌떼처럼 달리들면서 내돈 내라고 허는디 아주 {혼역}을 치뤘어.

지역 전북.

혼연 (←婚姻) 명 [대응어] 결혼.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의 관계를 맺음.

지역 순창.

혼연식 (←婚姻式) 명 [대응어] 결혼식.

부부 관계를 맺을 것을 서약하는 의식. ¶{혼연식도} 안 올리고 같이 산다냐. ¶{혼연식에} 너희 시누이도 오신다고 하더냐?

지역 순창.

혼차 명, 부 [대응어] 혼자.

다른 사람과 어울리거나 함께 있지 아니하고 그 사람 한 명만 있는 상태. 또는 다른 사람과 어울리거나 함께 있지 아니하고 동떨어져서. ¶메누리만 믿는디 메누리가 밥해 놓고 저 {혼차만} 먹거든.<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실:랭이나 조깨 두루와서 자바주먼 조치마넌 또 {혼차라},(신랑이나 조금 들어와서 잡아주면 좋지만은 또 혼자라,)<2009 전북 임실> ¶"자그 죽고 나 죽어야지 내가 {혼차는} 안 죽는다고. 말 옳게 허라."고 다짐을 받지.<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나 좋자고, 나 {혼차서만} 잘살겄다고 시커먼 복장으로 허는 소리 아닌 지 잘 아심시나 으째 종술이 맴을 그렇게도 모라주시요?<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달아 달아 밝은 달아/임의 창문에 비친 달아/우련 님은 어디를 가시고/나는 {혼차} 독수공방 어쩌라고(임실 신세타령-"달아 달아 밝은 달아") <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아, 아들은 뭐허러 갔간디 이렇게 {혼차} 노인이 계시냐?" 고 그런개,<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뒤안 가운데 복숭꽃이 웃어도 누가 소리가 없어. {혼차} 가만히 앉었으니 뭔 소리가 나.<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임실, 남원, 군산, 부안, 완주, 정읍.

홀개 명 [대응어] 솔개. ¶없어진 닭은 {홀개가} 잡아먹었다도만.

지역 완주.

홀그딩이 명 [대응어] 사팔뜨기.

사팔눈을 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눈이 왜 {홀그딩이처럼} 그러냐?

지역 전북.

홀기다 동 [대응어] 홀리다.

유혹에 넘어가 마음을 빼앗겨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 또는 그렇게 만들다. ¶참말 그땐 내가 뭣에 {홀겼는가} 모르겄당게. ¶염병허고 사람 {홀기지} 말어. 나가 아무리 무식혀도 그런 소리에 넌 안 넘어간다.<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남원, 무주.

홀껍데기 명 [대응어] 홑옷.

한 겹으로 지은 옷. ¶겨울에 {홀껍데기를} 입고 한양을 간다는 것은 미친 짓이다.

지역 고창.

홀롱개 명 [대응어] 올가미.

새끼나 노 따위로 옭아서 고를 내어 짐승을 잡는 장치. ¶{홀롱개를} 만들어 산짐승 잡으로 댕겨.

지역 전북.

홀메기 명 [대응어] 손목.

손과 팔이 잇닿은 부분.

지역 임실.

홀목 명 [대응어] 손목.
손과 팔이 잇닿은 부분. ¶"월레? 월레? 글씨 무장 무장 더허네. 요 오사헐 중넘이 미쳤단다 글매 내가 죽겄은개, 날 좀 노씨요! 내 {홀목} 좀 놓으랑개, {홀목} 좀 놔라우!" 그제 이르러 그것은 울었다.<박상륭, 죽음의 한 연구> ¶"저리 산보나 가자." 그러구 동생을, {홀목을} 잡구 가닌개 어떤 남자 여자가 또 오더래요, 그리.<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지역 무주, 완주.

홀애비 명 [대응어] 홀아비.
아내를 잃고 홀로 자식을 키우며 사는 남자. ¶근게 딸허고 둘이 살어, {홀애비가}. 사는디 띠미고 가서는 딸 방으다 푹 놓고는 문 닫은디 배깥이서 딱 장과번지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내가 그 각시를 얻었다 가는 자슥하나 있는 것도 못 키우겄다.' 통 거절히 버리고 인제 {홀애비가} 아들을 키워.<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마느래도 없고 {홀애비}로 산다." 헌게, "그러믄 {홀애비도} 마느래가 들오고 그 뫼을 쓰먼은 그럴 것이다." 헌게,<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홀애비} 삼 년에 서캐가 서말이라는 말이 있지.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홀어마니 명 [대응어] 홀어미.
남편을 잃고 혼자 자식을 키우며 사는 여자. ¶옛날에 어떤 {홀어마니가} 말야 가난해. 근디 애들이 일곱여. 아 그런게 인제 만날 넘의 집이 가서 빨래해 주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완주, 임실.

홀엄씨 명 [대응어] 홀어미.
남편을 잃고 혼자 자식을 키우며 사는 여자. ¶더덕머리 총각이 넘의 집을 사는디. 아 {홀엄씨} 집이라고 사랑에 가 자고, 아침에 해가 동동헌 연후에 밥 먹으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후관을 헌다먼 아주 천허게 봐. 아들나도 천허게 보고 그러닌게로 시집을 안 갔어. 그른게 {홀엄씨로} 가서 밤중으 가서 이불로 이렇게 싸다가 그렇게 허서 하는 부대쌤이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고창, 순창, 정읍.

홀에미 명 [대응어] 홀어미.
남편을 잃고 혼자 자식을 키우며 사는 여자. ¶지집이 없어서 그 얌전헌 시악시 다 마다허고, 기껏 골르고 골라서 자식 딸린 {홀에미여어}. 또 {홀에미도} 홀에미 나름이제.<최명희, 혼불>
지역 김제, 남원, 무주, 군산, 진안.

홀여먹다 동 [대응어] 홀리다.
유혹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다 ¶날 {홀여먹난} 불여수나<완판본 열여춘향수절가上> ¶너어만이 너을 나셔 곱도 곱게 질너 ᄒᆞ여 날만 {홀여먹그랴고} ᄒᆞ겨는야<완판본 열여춘향수절가上>
지역 전북.

홀온허다 형 [대응어] 선선하다.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로 서늘하다. ¶아적질에 {홀온헐} 때나. 낮이는 벳 난게 뜨그먼 못 짜. 아적질이 그때나. 한낮에는 못 짜. 모시베는. ¶비오고 나먼 이렇게 {홀온허니} 비 오먼 추져서 못 짜고. 비가 많이 오먼 추져서 뵉이 안 들어간게 못 짜고.
지역 전북.

홀온히 부 [대응어] 선선히.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로 서늘하게. ¶모시베는 잘못허먼 다 부서져 버려. 이럴 때 {홀온히} 이

럴 때 짜야지. 아적질에 홀온헐 때나. 낫이는 볏 난게 뜨그먼 못 짜.
지역 전북.

홀태 명 [대응어] 그네(홀태).
벼 이삭을 넣고 벼의 알을 훑는 쇠로 만든 농기구. ¶나라근 {홀태다} 홀텄꼬?<2005 전북 남원>
지역 고창, 군산,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진안.

홀탯발 명 [대응어] 그네(홀태).
벼 이삭을 넣고 벼의 알을 훑는 쇠로 만든 농기구. ¶옛날에는 집이서 나락을 {홀태빨로} 홅았제.
지역 고창.

홅다 동 [대응어] 훑다.
붙어 있는 것을 떼기 위하여 다른 물건의 틈에 끼워 죽 잡아당기다. ¶나락 비늘 히, 히놔따가 인자, 홀태럴 인자 하레 멘써글 어가꼬(얻어가지고) {홀타야제(홅아야제)}.<2005 전북 남원> ¶또 두지(뒤주)를 허러서 인자 디려. 디려가지고는 인자 고까느로 드러가지. 막 {홀타가지고는} 언제 다머가지고, 깨끄시 시서비 히야허는디(깨끗이 해야 하는데) 그 시가니 업씅게 그냥 두지를 만드러서 두지에다 쟁이지.<2008 전북 고창>
지역 순창, 정읍, 고창, 남원.

홅아지다 동 [대응어] 홅이다.
다른 물건의 틈에 끼워 죽 잡아당기어 붙어 있는 것이 떼어지게 하다. ¶요로코 홀태빨에 넣고 댕기면 나락이 {홅아져}.
지역 순창.

홋거 명 [대응어] 홑옷.
한 겹으로 지은 옷.
지역 군산.

홍당허다 형 [대응어] 흥건하다.
물 따위가 푹 잠기거나 고일 정도로 많다. ¶물을 {홍당허니} 붓어. 팥 쌂을라먼.
지역 전북.

홍두깨 명 [대응어] 다듬잇방망이.
다듬이질을 할 때 쓰는 한 쌍의 나무 방망이. ¶문경새재야 박달나무 {홍두깨} 방망치로 다나간다<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완주.
해설 중앙어에서 '홍두깨'는 '다듬잇감을 감아서 다듬이질할 때에 쓰는, 단단한 나무로 만든 도구'라는 의미이나 완주 방언에서는 '다듬잇방망이'와 '홍두깨'를 구별하여 쓰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홍수 명 [대응어] 홍시.
물렁하게 잘 익은 감. ¶뜨건 디에 있었드니 얼굴이 똑 {홍수마냥} 발그레허졌네.
지역 전북.

홍수감 명 [대응어] 홍시.
☞홍시감.
지역 전북.

홍시감 명 [대응어] 홍시.
물렁하게 잘 익은 감. ¶예끼, 여보쇼! 차라리 슨지자님이 애기를 뱄다고 주장허는 편이 낫겄소. {홍시감} 먹다가 이빨 뿌러질 고따우 그짓말은 임종술이 앞에서 애시당초 빛감도 허들 마시오.<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홍에 (←洪魚/魟魚) 명 [대응어] 홍어. ¶{홍엔지} 가오린지 구부늘 잘 모대요.<완주_지역어_텍스

트>
지역 완주.

홍진 (紅疹) 명 [대응어] 열꽃.
홍역이나 수두 따위를 앓을 때, 열이 나면서 살갗의 여기저기에 돋아나는 붉은 점. ¶동상 글씨여. 저그 오빠놈이 본게.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아버지한티 가서 상의를 헌게, "아 기다. 아 근디 엊저녁으 틀림없이 그놈들이, {홍진허서} 죽어서 갖다 내미어다 넣어놨는디 어쩧게 살아났었거나. 거 잘된 일이다 가 봐라." 헌게 사인교를 띠미고 대처 인자 왔다 이말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고창, 남원, 무주, 부안, 임실, 장수, 정읍.

홍회연 (←洪魚鳶) 명 [대응어] 가오리연.
가오리 모양으로 만들어 꼬리를 길게 단 연. ¶저거 {홍회연이여} 가오리연이여? 다 같은 거 아녀?
지역 임실.

홑것 명 [대응어] 홑옷.
한 겹으로 지은 옷. ¶{홑것을} 입다 ¶"이 추운 시한에 {홑것} 하나만 걸치고 어떻게 산다냐?
지역 고창,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진안, 군산.

홑적 명 [대응어] 홑적삼.
홑겹으로 된 윗도리. ¶{홑적으로} 히입고 와.
지역 전북.

화독 명 [대응어] 방아확.
☞학독.
지역 임실.

화딱지 (火딱지) 명 [대응어] 화.
못마땅하거나 언짢아서 생기는 답답한 감정. ¶중말 {화딱지나게} 깐보어 싼네!<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화래 (←火爐) 명 [대응어] 화로.
불씨를 보존하거나 난방을 위하여 숯불을 담아 놓는 그릇. ¶그서는 그렇게 오더니 그저는 그냥 저 큰애기 저놈을 가서는 그저는 그냥이 총객이 감히 본게 이런 {화래가} 있드라우. "이게 무슨 {화래냐}?" 고 근게로, "거다가 불 담아 놓고 있다."<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정읍.

화루 (←火爐) 명 [대응어] 화로.
불씨를 보존하거나 난방을 위하여 숯불을 담아 놓는 그릇. ¶아, 그렁게로 아들이, 거 못 쓸게 한 것이 아니라, 아 화리. {화루}!, 잉. {화루에다가} 숯불을 막 일궈.<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군산.

화리[1] 명 [대응어] 에누리.
물건 값을 받을 값보다 더 많이 부르거나 깍는 일. 또는 그리한 물건의 값. ¶그 가게는 몫이 좋고, 지나댕기는 사람도 많고, 장사도 잘 되야서 권리금을 더 받으면 더 받았제, 그 가게는 니 속이고 {화리를} 부르고 그러고 할 디가 아녀. ¶{화리를} 적당히 눈치 봐감서 잘 혀 줘야 단골도 많이 생기고 글지.
지역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화리[2] (←火爐) 명 [대응어] 화로.
☞화루. ¶허물이 어디에 들어가요? {화리로} 화로불을 놨는디, 괄죽 가져간다고 험서 {화리를} 가지고 들어갔구만. 응. 그래 인자 들어가 버렸다고.<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아, 그렁게로 아들이, 거 못 쓸게 한 것이 아니라, 아

{화리}. 화루!, 잉. 화루에다가 숯불을 막 일궈. <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정읍, 부안, 남원, 군산, 임실.

화릿불 (←火爐불) 명 [대응어] 화롯불.

화로에 담아 놓은 불. ¶그 참 담뱃대허고 담배허고 {화릿불을} 밤새드락 안꺼지게 갖다놓고, 안꺼질만헌 정도로 히서 담어다놓고 그러고서는 <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고창, 군산,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임실, 장수, 진안, 정읍.

화젓가락 명 [대응어] 부젓가락.

화로에 꽂아 두고 불덩이를 집거나 불을 헤치는 데 쓰는 쇠 젓가락. ¶손구락을 {화젓가락맹키} 허고서나 울덜 눈탱이를 막 쓰시려 덤비데.<조봉래, 풀벨골> ¶{화젇꾸래기} 업따.<전북지역어, 임실군>

지역 전북.

화젓구락 명 [대응어] 부젓가락.

☞화젓가락

지역 완주, 임실.

확뜩 명 [대응어] 방아확.

☞학독.

지역 전북.

환자 (還子) 명

논을 빌려주고 가을에 받는 돈이나 곡식. 또는 그런 일. ¶논 내주고 가실에 {환자} 받고 그려.

지역 전북.

활랑활랑 부 [대응어] 활활.

부채로 바람을 자꾸 세게 일으키는 모양. 또는 더워서 옷을 빠르게 벗는 모양. ¶유난히 챙이 넓은 모자를 벗어서 얼굴에 대고 {활랑활랑} 부치던 아가씨가 호들갑을 떠는 소리였다.<윤흥길, 완장> ¶당연히 뒤따라 들어와 {활랑활랑} 옷가지를 벗어던지며 침대 위로 뛰어오를 줄만 알았던 남자가<윤흥길, 빛가운데로걸어가면>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의태어 부사인 '활랑'은 단독으로 '옷을 활랑 벗다'와 같은 구문에 쓰여 옷을 빠르게 벗는 모양을 나타낸다. '활랑활랑'은 '활랑'이 반복되어 합성어가 된 것이다.

홧짐에 (火김에) 부 [대응어] 홧김에.

화가 와락 난 마음에. ¶"미안혀, {홧짐에} 하늘같은 서방님도 몰라보고 마구잽이로 행짜를 놔뿌러서 나가 쪼깨 염치가 없구만."<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욱 허니 {홧짐}에 집을 나왔지만 어디 갈디가 있어야지 참 나. ¶철수는 {홧김에} 돌을 발로 차다가 발을 다치고 말았다.

지역 전북.

황새기 (黃새기) 명 [대응어] 황석어.

민어과의 바닷물고기. 참조기를 이르는 말. ¶김장 할 때는 멜치 젓이 낫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디, {황새기로} 맨들은 것이 최고지. 여기 사람들은 {황새기} 젓으로 김장을 담아요

지역 고창.

황새깨이 명 [대응어] 곡괭이.

쇠로 황새의 부리처럼 양쪽으로 길게 날을 내고 가운데 구멍에 긴 자루를 박은 괭이. ¶{황새깨이} 한 자루 좀 줘봐.

지역 임실.

황소리 명 [대응어] 상수리.

상수리나무의 열매. ¶거그 들어가면 {황소리가} 얼매나 마니 있능가 몰러.

지역 전북.

황애장사 (荒애장사) 명 [대응어] 황아장수.

집집을 찾아다니며 끈목, 담배쌈지, 바늘, 실 따위의 자질구레한 일용 잡화를 파는 사람. ¶장사 장사 {황애장사}/걸머진 게 그 뭣인고/앵두창칼 유동피리/바리기상 머리댕기(무주군 무풍면 지성리)<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무주.

황장뫽 (←黃腸木) 명 [대응어] 황장목.

임금의 관을 만드는 데 쓰던, 질이 좋은 소나무. ¶제비원에다 솔씨를 받아/소평 대평에 던졌더니/그 솔이 점점 자라나/소부됨이 되었구나/대부됨이 되었구나/{황장뫽이} 되었네/청장뫽이 되었네(무주 성주굿)<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무주.

황포묵 (黃泡묵) 명 [대응어] 황포묵.

치자로 노랗게 물들인 녹두묵. ¶비임밥 속으는 계절에 따라 다른디 나물로는요 표고버섯, 쑥갓너물, 고사리너물……콩너물, {황포묵이} 들어가고요.<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전북.

황포장사 (黃泡장사) 명 [대응어] 청포장수.

노랗게 치자물을 들인 녹두묵을 파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새야 새야 파랑새야/녹두나무 앉지 마라/녹두꽃이 떨어지먼/황포장사 울고 간다(완주 "새야 새야 파랑새야")<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완주.

해설 "새야 새야 파랑새야"는 한국 전역에 퍼진 전래민요로 '청포장수 울고간다'는 대목이 등장한다. 이 지역에서는 '청포장수' 대신 '황포장사'가 나오는데 같은 의미이다. 녹두로 만든 묵을 모두 일컫는 말이 '청포묵', 그 중 치자로 노랗게 물들인 것을 '황포묵'이라고 한다.

홰기 명 [대응어] 새꽤기.

갈대, 띠, 억새, 짚 따위의 껍질을 벗긴 줄기. ¶{홰기로} 이를 쑤시고 다니는고만. 뵈기 싫게.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군산.

홰때기 명 [대응어] 호드기.

봄철에 물오른 버드나무 가지의 껍질을 고루 비틀어 뽑은 껍질이나 짤막한 밀짚 토막 따위로 만든 피리. ¶에렜을 때는 {홰때기} 불고 다니고 그랬지.

지역 전북.

횃짐 (←火짐) 명 [대응어] 홧김.

화가 나는 기회나 계기.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 '홰찜'은 표준어 '홧김'이 구개음화되어 '화찜'이 되고, 다시 '이' 모음 역행 동화를 일으켜 '홰찜'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회기 (←會計) 명 [대응어] 회계.

나가고 들어오는 돈을 따져서 셈을 함. ¶시골서 농사지어 가꼬는 {회기가} 닿들 안해. 갈치도 모더고.

지역 전북.

회뙤기 명 [대응어] 새꽤기.

갈대, 띠, 억새, 짚 따위의 껍질을 벗긴 줄기.

지역 임실.

회뜨기나무 명 [대응어] 버드나무. ¶강 옆으로 {회뜨기나무가} 쭉 늘어서 있어.

지역 전북.

회산물 명 [대응어] 시멘트.

석회석과 진흙과 적당량의 석고를 섞어 이긴 것

ㅎ

을 구워서 가루로 만든 건축 재료. ¶야, 후딱 와 봐. 여그 올라오기 좋게 누가 {회산물로} 계단을 맨들어 놨어야.
지역 고창.

회손 명 [대응어] 흙손.
이긴 흙이나 시멘트 따위를 떠서 바르고 그 겉 표면을 반반하게 하는 연장. ¶좋게 히가꼬 쎄멘 발러. 반드르르혀. {회손이로} 이렇게. 발러야 혀.
지역 전북.

회우리바람 명 [대응어] 회오리바람.
☞휘오리바람.
지역 전북.

회자 (←孝子) 명 [대응어] 효자.
부모를 잘 섬기는 아들. ¶응, 유씨. 유씨가 사는 디. 그게 임진왜란 적으 {회자라고} 명(名)이 난 개, 일본놈들이 와서 '네가 참말로 {회자냐} 아니냐'고 시험을 해 봐.<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어사가 물팍을 치면서, 참 왈 열녀집안이라고. 그런개 그것이 {회자} 열녀여. <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고창, 순창, 임실, 부안, 완주.

회차리 명 [대응어] 회초리.
어린아이를 벌주거나 마소를 부릴 때 쓰는 가는 나뭇가지. ¶{회차리} 쪼그만헌 놈 하나 갖고 오더니 뱁이라고 떠먹게 위에 발 들어 딱 때린게 딱 부러져.<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사실적으로 말허자면은 하나님 아바지한티 고만침 아푸게 {회차리를} 맞고도 여적지 정신을 못 채렸다는 증거지라우.<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오늘 친구와 나쁜 짓을 하였으니 {회차리로} 맞아겠다 그러니 종아리 좀 걷거라.
지역 완주, 임실, 정읍.

회파람 명 [대응어] 휘파람.
입술을 좁게 오므리고 혀끝으로 입김을 불어서 맑게 내는 소리. ¶{회파람을} 불다 ¶"밤에 {회파람}을 불먼 비얌 나오는거 너는 알고 있냐?".
지역 군산.

횟가리 (灰가리) 명 [대응어] 횟가루.
'산화칼슘'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횟가리가} 떨어져서 바닥히 허옇게 됐어.
지역 전북.

횟바람 명 [대응어] 휘파람.
입술을 좁게 오므리고 혀끝으로 입김을 불어서 맑게 내는 소리. ¶이고요한 산중에 어디에서 들리는 {횟바람} 소리인고!
지역 무주, 완주, 임실.

후내명년 (後來明年) 명 [대응어] 내후년.
☞내멩년.
지역 전북.

후닥지다 형 [대응어] 후지다.
품질이나 성능이 다른 것에 비해 뒤떨어지다. ¶{후닥진} 살림 처부서 버리고 새 집 졌어(지었어).
지역 전북.

후덕지근하다 형 [대응어] 후텁지근하다.
조금 불쾌할 정도로 끈끈하고 무더운 기운이 있다. ¶어따 글고 이럴 썩엔 징허게 {후덕지근도} 헝게. ¶마파람도 앵간치 불어오고 부석짝 욱에 같이 {후덕지근험서} 등걸짝 난닝구 척척해 가는디.
지역 고창.

후드근허다 형

놀라 겁이나는 느낌이 있다. ¶허구헌날 소란허니 크는 아덜 본뜰까 봐 속이 {후드근허니} 무섭네.<조봉래, 풀벨골>

지역 전북.

후드러치다 동

사람, 동물 등을 세게 휘둘러 치다. ¶지지리 몬나게 물러빠져 갖고 야물기는커녕, 허고헌 맨날 {후드러쳐} 맞고 댕깅게 속이 지랄 갓지라우~ 오메,

지역 고창.

후드러패다 동

사람, 동물 등을 세게 휘둘러 패다. ¶심심허믄 간장이나 퍼 먹제, 으찌 {후드러팬다요}?

지역 전북.

후루마기 명 [대응어] 두루마기.

주로 외출할 때 입는 우리나라 고유의 웃옷.

지역 정읍.

후미 명 [대응어] 그네.

밑신개를 두 줄로 매달아 놓고 사람이 올라타서 앞뒤로 왔다갔다 하면서 노는 설비.

지역 전북.

후비다 동 [대응어] 후비다.

☞헤비다.

지역 전북.

후승 (←後生) 명 [대응어] 후생.

죽은 뒤의 생애를 이르는 말. ¶농창 농창 베루 끝에 시누 올키 빠졌다네/나도나 죽어 {후승} 가서 우련 님을 셈길라네(무주 모심는 소리-모노래)<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무주.

후춧가리 명 [대응어] 후춧가루.

후추를 갈아서 만든 가루. 양념으로 쓴다. ¶{후춧가리를} 뿌려 먹으면 들 밍밍한가?

지역 전북.

후타리 명 [대응어] 울타리.

☞훌타리. ¶저 {후타리서} 뽀글뽀글 집시랑 물이 흘러. 뿌굴뿌굴뿌굴 나와. {후타리} 밑에서 쥐구먹 같은데서 물이 나와.<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지역 고창, 남원, 부안, 순창, 정읍, 무주, 김제, 군산, 익산, 임실, 장수.

후허다 (厚허다) 형 [대응어] 후하다.

마음 씀씀이나 태도가 너그럽다. ¶술값 {후허게} 주고 지사를 제일(祭日) 받어가지고서 그 지사를 다시 지냈어.<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아 이 사람 윈 진짜로 잘 거식헌 양반은 그 뒤여는 {후허게} 대접을 안 허고 그놈, 갑자 을축 찾는 놈만 잘 대접허서 여비까지 {후허게} 줘가지고는 그 이튿날 가는디 보내드래여.<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그 되놈들을 {후헌} 대접 허서 선물까장 듬뿍 쥐여 보냈담서<김용택, 꽃산 가는 길>

지역 임실, 군산, 정읍.

훈지 명 [대응어] 그네.

밑신개를 두 줄로 매달아 놓고 사람이 올라타서 앞뒤로 왔다갔다 하면서 노는 설비.

지역 전북.

훌따리 명 [대응어] 울타리.

☞훌타리.

지역 무주.

훌레물레 부

건더기는 적고 물을 많은 모양. ¶죽을 {훌레물

레} 끓여가꼬.
지역 전북.

훌릉하다 형 [대응어] 훌륭하다.
썩 좋아서 나무랄 곳이 없다. ¶그 정도면 {훌릉해}. 안 근가?
지역 전북.

훌쳉이 명 [대응어] 극젱이.
땅을 가는 데 쓰는 농기구. 쟁기와 비슷하나 쟁깃술이 곧게 내려가고 보습 끝이 무디다. 보통 소 한 마리로 끄는데, 소가 들어가기 힘든 곳에서는 사람이 끌기도 한다. 쟁기로 갈아 놓은 논밭에 골을 타거나, 흙이 얕은 논밭을 가는 데 쓴다. ¶밭 갈 때 {훌쳉일} 써.
지역 김제, 진안, 무주.

훌치기 명 [대응어] 벼훑이.
두 개의 나뭇가지나 수숫대 또는 댓가지의 한끝을 동여매어 집게처럼 만들고 그 틈에 벼 이삭을 넣고 벼의 알을 훑는 농기구. ¶{훌치기로} 나락을 훑지. ¶에전에는 베를 쌓아 놨다가 {훌치기로} 훑었지.
지역 완주.

훌칭이 명 [대응어] 극젱이.
☞훌쳉이.
지역 무주.

훌칭이날 명 [대응어] 보습.
쟁기나 극쟁이의 끝에 달아서 땅을 갈아 흙덩이를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쇳조각.
지역 무주.

훌타리 명 [대응어] 울타리.
풀이나 나무 따위를 얽거나 엮어서 담 대신에 경계를 지어 막는 물건. ¶"그리야고 그러먼은 그 집의 {훌타리허고} 우리집 {훌타리허고} 진간드깨를 하나 걸쳐 주시요." 그러드리야.<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아 잠을 자는디 참 아까 이 사람 말대로 과수가 자다가 꿈을 꿘게아 {훌타리} 밑이서 막 청룡황룡이 들어 올리드래. 그런게 깨서 종을 저 몸종, 몸종을 깨서, "가 {훌타리} 밑이가 문을 열고 봐서 뭣이든지 있으먼 가 데리오라."고.<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지역 고창, 김제, 군산, 익산, 임실, 장수, 정읍.

훌태 명 [대응어] 그네.
벼 이삭을 넣고 벼의 알을 훑는 쇠로 만든 농기구. ¶베 훑는 거가 {훌태랑게}. ¶옛날에는 벼를 베서 덕석에 깔고 {훌태로} 훑었단다. ¶오늘은 마을 사람이 모여 {훌태로} 우리 집 벼이삭을 훌 정리할 거야.
지역 고창, 무주, 군산, 남원, 부안, 익산, 임실, 정읍, 진안.

훌팅이날 명 [대응어] 보습.
쟁기나 극쟁이의 끝에 달아서 땅을 갈아 흙덩이를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쇳조각. ¶나무뿌리가 억세게 뒤엉켜서 {훌팅이날이} 뚝뚝 부러져 나갔다.
지역 무주.

훑어지다 동 [대응어] 훑이다.
붙어 있는 것을 떼기 위하여 다른 물건의 틈에 끼워 죽 잡아당기는 것을 당하다. 또는 부풋하고 많던 것이 다 빠져서 졸아들다. ¶벼가 {훑어진게} 내가 다 부자가 된 것 같어. ¶밥을 안 먹어서 그런가 내 뱃가죽이 {훑어지면서} 꼬부라지더니 이렇게 콕콕 쑤시고 아프다니께.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부안,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훑우다 동 [대응어] 훑다.
붙어 있는 것을 떼기 위하여 다른 물건의 틈에 끼워 죽 잡아당기다. ¶나락 농사 마는 사라믄 여난명 드려서서 {훌투고} 인자 농사 쬐깬 사라믄 하루 이틀 기양 훌터버리먼 업꼬.<2009 전북 임실> ¶{훑워} 내려갔다
지역 남원, 임실, 장수.

훔치다 동 [대응어] 닦다.
때, 먼지 녹 따위의 더러운 것을 없애거나 윤기를 내려고 거죽을 문지르다. ¶갈자리 방바닥을 걸레로 {훔치던} 공배네가 못마땅한 기색으로 옹구네를 치켜보고, 부수수한 머리를 이고 앉아 있던 공배는 쩟, 혀를 차며 곰방대를 당겼다.<최명희, 혼불>
지역 전북.

훔키다 동 [대응어] 할퀴다(얼굴을).
손톱이나 날카로운 물건으로 긁어 상처를 내다. ¶고양이는 이쁘기는 헌데 허구헌날 {훔켜} 대싸서 키우기가 버겁기는 허다고 하더라고
지역 부안.

훗가리 명
밀을 갈 때 나중에 나오는 가루. 처음에 나오는 가루와 마찬가지로 질이 낮은 가루로 친다.
지역 전북.

훗내명년 (後來明年) 명 [대응어] 내후년.
☞내멩년.
지역 고창.

훗년 (後年) 명 [대응어] 후년.
뒤에 오는 해. ¶{훗년을} 기다려. ¶{훗년으로} 갈수록 ¶{훗년으는} 빚도 다 갚을 것잉게 인자 너도 장개 갈 준비를 히야지.
지역 남원.

훗어매 명 [대응어] 의붓어미.
아버지가 재혼함으로써 생긴 어머니.
지역 전북.

훗에미 명 [대응어] 의붓어미.
아버지가 재혼함으로써 생긴 어머니. ¶{훗에미를} 친어미처럼 생각하나 보도만.
지역 전북.

훌칭이 명 [대응어] 볏.
보습 위에 비스듬하게 덧댄 쇳조각. 보습으로 갈아 넘기는 흙을 받아 한쪽으로 떨어지게 한다.
지역 무주.
해설 '훌칭이'는 '훑칭이'의 제1 음절말 자음군 중 /ㄹ/이 탈락된 결과이다. '훑칭이'는 전북 방언에서 '벼훑이'를 의미하는데 '볏'과도 통용됨을 볼 수 있다. 한편 음절말의 'ㄹㅌ' 중 /ㅌ/이 탈락되는 '훌칭이(날)'도 볼 수 있다.

훨썩 부 [대응어] 훨씬.
정도 이상으로 차이가 나게. ¶긍게, 안 허는거시 {훨썩} 낫겄지라우? ¶차라리 배랑빡에다 나발거리능게 {훨썩} 낫겄소! ¶차라리, 마져 버링게 신간짝이 {훨썩} 핀허요. ¶째깐은 놈이 {훨썩} 야물딱지당게요~. ¶으따메, 모다덜 우 허니 달라들드라고 이~ 그러믄 {훨썩} 개벼울 팅게로~. ¶지 사료 밥보담 {훨썩} 더 잘 먹읍디다. ¶긍게로 성님 별호가 바람 좋아헝게 바람보담 {훨썩} 쎈 김태풍이지라우.
지역 고창.

훼까닥거리다 동
잇따라 한눈을 팔거나 정신을 놓다. ¶지도 나이 드러강게 긍가, 인자는 정신줄이 {훼까닥거린당게요}.
지역 고창.

훼때기 명 [대응어] 새꽤기.
☞회뙤기.
지역 전북.

훼비다 동 [대응어] 후비다.
☞헤비다.
지역 임실.

훼파람 명 [대응어] 휘파람.
☞회파람
지역 군산.

휘낀 부 [대응어] 훨씬.
정도 이상으로 차이가 나게. ¶당연허지. 고향이 불르는 소리가 아까보담 {휘낀} 더 가찹게 들리기 시작헌 탓일 거여.<윤흥길, 소라단 가는 길> ¶"배보담도 배꼽이 {휘낀} 더 컸디야."<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역 전북.

휘생 (←犧牲) 명 [대응어] 희생.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 재산, 명예, 이익 따위를 바치거나 버림. 또는 그것을 빼앗김. ¶요즘으는 똑부러지게 자기 거 챙기가믄서 살아야지, 부모자슥 간에도 {휘생허고} 그러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된당게.
지역 전북.

휘오리바람 명 [대응어] 회오리바람.
지면에서부터 깔대기 모양으로 불어올라가는 바람. 갑자기 생긴 저기압 주변으로 한꺼번에 모여든 공기가 나선 모양으로 일으키는 선회(旋回) 운동.
지역 전북.

휫바람 명 [대응어] 휘파람.
입술을 좁게 오므리고 혀끝으로 입김을 불어서 맑게 내는 소리. ¶{휫바람을} 불다
지역 남원.

흐다 동 [대응어] 하다(爲). ¶아 또 두째딸네 집으로 갔더만 두째 딸 역시도 아 나는 새끼 안 나간디, 없간디야고 이렇게 말을 {흐니} 아 세째 딸 집 갔더니 아 세째 딸년도 그렇게 흐드라고.<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전북.

흐리다 동 [대응어] 흐르다(流).
액체나 시간 따위가 순리대로 떨어지거나 지나가다. 또는 윤기나 광택 따위가 번지르르하게 나다. ¶보이소, 이 손모가지에 피 {흐리는} 거 보란 말이니더. 이런 녀니 가시나가 백의 천사라니……<최창학, 동물과 그들의 시간> ¶윤기가 {흐리다}
지역 고창, 남원, 무주, 순창, 정읍.

흐안하다 (←稀罕하다) 형 [대응어] 희한하다.
매우 드물거나 신기하다. ¶{흐안하게} 계산이 맞지 않네. ¶이런 마술을 보니 참 {흐안하기도} 하지?
지역 전북.

흐치다 동 [대응어] 흘리다.
물이나 작은 알갱이 따위를 밖으로 새게 하거나 떨어뜨리다. ¶아이구, 밥 다 {흐치고} 먹네.
지역 전북.

흐커다 형 [대응어] 허옇다.
다소 탁하고 흐릿하게 희다. ¶{흐컨} 말의 넙덕지나 백마에 히프짝이나. ¶드럽게 까깝허네이~ 에이 애통 터징게 기냥 {흐컨} 새라고 히 둡시다.
지역 고창.

흐크다 형 [대응어] 허옇다.
다소 탁하고 흐릿하게 희다. ¶지까심은 똥값이고 꼬칫금 새비젓값은 금값잉게 짐치를 {흐크게} 당그도 못허고.
지역 고창.

흑 명 [대응어] 흙.
지구의 표면을 덮고 있는, 바위가 부스러져 생긴 가루인 무기물과 동식물에서 생긴 유기물이 섞여 이루어진 물질. ¶메칠 때문 인제 방이 인제 {흑이} 바싹 말른담 마리여<지역어 자료 총서, 무주> ¶{흑이} 좋아야 농사도 잘 되는 벱이여.
지역 전북.

흑배랑빡 명 [대응어] 흙벽.
흙을 재료로 하여 만든 벽. ¶{흑배랑빡을} 세우다 ¶{흑배랑빡}이 오래되면 갈러지고 부스러져서 흙가루가 떨어지기 마련여.
지역 전북.

흑벽 (-壁) 명 [대응어] 흙벽.
흙을 재료로 하여 만든 벽. ¶{흙벽을} 세우다
지역 김제, 무주, 장수, 고창, 순창, 군산, 임실, 정읍.

흔겁 명 [대응어] 헝겊.
☞헝굪.
지역 고창.

흔늘거리다 동 [대응어] 흐늘거리다.
늘어져 느리게 자꾸 흔들리다 ¶아장거려 {흔늘거려} 가만가만 나올 져긔<완판본 열여춘향수절가上>
지역 전북.
해설 전북 방언에서는 반복 합성어 '흔늘흔늘'이 쓰이고 있다. 따라서 '흔늘'이라는 어근이 확인된다. 여기에 동사를 파생시키는 접미사 '-거리다'가 붙어 '흔늘거리다'가 쓰이고 있다.

흔늘흔늘 부 [대응어] 흐늘흐늘.
늘어져 자꾸 느리게 흔들리는 모양. ¶버들은 유록장 둘너 한 가지 느러지고 한 가지 펑퍼져 광풍을 계워 {흔늘흔늘} 춤을 추난듸<완판본 열여춘향수절가上>
지역 전북.

흔설기 명 [대응어] 백설기.
☞흰슬기.
지역 전북.

흔틀박틀하다 동 [대응어] 흔들흔들하다.
자꾸 이리저리 흔들리다. ¶물이 많으먼 {흔틀박틀해요}.
지역 전북.

흔틀어지다 동 [대응어] 헝클어지다.
☞허틀어지다. ¶이때까지 꼼작도 하지 않고 누어 있든 이설은 마츰 억쇠의 담배재 떠는 소리를 듣자 조용히 이러나 앉으며 뜯기이고 {흔트러진} 머리를 쓰러 넘겨 비녀를 꽂으며 긴 한숨을 짓는다.<김동리, 황토기>
지역 전북.

흘르다 동 [대응어] 흐르다(流).
액체나 시간 따위가 순리대로 떨어지거나 지나가다. 또는 윤기나 광택 따위가 번지르르하게 나다. ¶야, 오늘 저녁으 손님도 멀리서 오신 손님도 있고 또 시간도 이렇게 {흘르고} 혔응게로 오늘 저녁은 가서 니 어머니하고 같이 자거라.<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중놈은 빼드러져 죽었지. 신랑은 그냥 칵 잡고 땀을 펄펄 {흘르고} 소리를 지르지. 처녀는 벌써 쓰러졌지.<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하

ㅎ

먼, 그 포르스롬헌 색깔에 윤기가 자르르 {흘르는} 날개럴 퍼덕이든 놈을 잡아묵기는 아까웠제.<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김제, 부안,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진안.

흘리다 동 [대응어] 흘기다.
눈동자를 옆으로 굴리어 못마땅하게 노려보다. ¶말끝마다 번번이 서방을 걸고 넘어지는 악독한 마누라를 향해 눈을 한번 질끈 {흘리고} 나서 종술은 얼렁뚱땅 엉너릿손을 쓰기 시작했다.<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음마, 멀라고 요런 것얼." 수국이는 눈을 살짝 {흘리며} 사탕봉지를 받아들었다.<조정래, 아리랑>
지역 전북.

흙덤벵이 명 [대응어] 흙덩어리.
흙이 엉기어 뭉쳐진 덩어리. ¶{흑떰벵이가} 뭉쳐갖꼬(흙덩어리가 뭉쳐져 가지고) <2009 전북 임실> ¶밭가에 있는 {흙덤벵이} 좀 치워주세요.
지역 임실.

흙받이 명 [대응어] 흙받기.
흙손질할 때에, 이긴 흙이나 시멘트를 받쳐 드는 네모난 연장. ¶{흙받이로} 흙을 받아야 벽 아래로 흙이 안 떨어지제.
지역 고창, 군산, 남원.

흙받침 명 [대응어] 흙받기.
흙손질할 때에, 이긴 흙이나 시멘트를 받쳐 드는 네모난 연장. ¶게 가따주머는 이제 토수는 그 흑 흑쏜 쇠 쇠로 맨등거 베름빠게다 대고 이르캐 이르캐 발라 자꾸 자꾸 발라 이르캐. 그 발르능거 흑쏜, 요건 인재 반는(받는) {흑빠침}.<지역어 자료 총서, 무주>
지역 임실, 무주.

흙베랑박 명 [대응어] 흙벽.
흙을 재료로 하여 만든 벽. ¶{흙베랑박을} 세워 바람 막아.
지역 부안, 완주, 익산, 진안, 정읍.

흙베랑벡 명 [대응어] 흙벽.
☞흙베랑박.
지역 정읍.

흙벡 명 [대응어] 흙벽.
흙을 재료로 하여 만든 벽.
지역 고창, 순창, 군산, 임실, 정읍.

흠허다 동 [대응어] 험하다.
겉모양이나 옷차림이 호졸근하고 궁상스럽다. 보잘것없고 변변하지 못하다. ¶의복은 {흠허게} 입었어도 얼굴을 보니 꾹, 그 뭣이냐 의복 도간 주인 사람 같이 생겼다 그 말여.
지역 전북.

흥검 명 [대응어] 헝겊.
☞헝굽.
지역 남원.

흥겁 명 [대응어] 헝겊.
천의 조각. ¶못쓰는 {흥겊도} 많이 뫼아두면 밥상보를 맨들 수 있어.
지역 고창, 무주, 부안, 완주, 익산, 정읍, 군산, 남원.

흥겁때기 명 [대응어] 헝겊.
천 조각을 낮잡아 이르는 말. ¶팔꿈치가 헤어졌으니 {흥겊때기를} 대고 꼬매야겠구나.
지역 전북.

흥겁쪼가리 명 [대응어] 헝겊.
작은 천 조각. ¶잠깐 놀믄 그냥. 이 납따건 {헝겁쪼가리} 이씨면. 그냥 삽 끙꺼서 되련해보기.

진 다라보기. 그냥. 항:시 고렁거.{놀, 잠깐 놀면 그냥, 이 납짝한 헝겊조각이 있으면, 그냥 삽 끊어서 도련해보기, 깃 달아보기, 그냥, 항시 그런 것}.<2005 전북 남원> ¶{헝겊쪼가리라는} {헝겊쪼가리는} 막 그냥 다 줏어서는 인자 한 보따리를 줏어가지고서 바늘허고 실을 구혀가지고서는 그놈을 가지고서 엉금엉금, 그냥 참 눈만 흘겨도 찢어질 정도로 엉금엉금 그놈을 잇었어. <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옷이 헤어진 곳에 {흥겁쪼가리를} 대고 꼬매면 됩니다.

지역 남원, 군산.

흥급 명 [대응어] 헝겊.

☞흥겊.

지역 무주.

흥아적 명

다른 사람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거나 자랑할 수 있는 체면. ¶벌초조께 허고 그 {흥아적을} 낸게 누가 듣기 좋겄냐?

지역 전북.

희멀건허다 형 [대응어] 희멀겋다.

하얀 빛깔이 선명하지 않고 흐릿하다. ¶그 {희멀건하게} 붉은 해가 현란한 빛으로 충만한 노을을 거느릴 리 없었다.<조정래, 아리랑> ¶그리 중한 눈 중에 하나가 검은자위가 없어져 {희멀건하게} 되었으니 그 꼴의 흉하기란 아들인데도 빡빡 얽은 곰보나, 눕지도 엎드리지도 못하게 생긴 앞뒤꼽추는 댈 것이 아니었다. 남들이 하는 말로<조정래, 아리랑> ¶눈앞에는 두 여자가 {희멀건하게} 웃고 서 있었다.<조정래, 태백산맥>

지역 전북.

희미롭다 (稀微롭다) 형 [대응어] 희미하다.

분명하지 못하고 어렴풋하다. ¶불빛이 {희미로운게로} 밤질 갈 때 잘 안 보이지.

지역 전북.

희번하다 형 [대응어] 희번하다.

동이 트며 허연 빛살이 약간 비쳐서 조금 훤하다. ¶아침이 {희번하게} 밝아 오다

지역 전북.

희상 (←犧牲) 명 [대응어] 희생.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 재산, 명예, 이익 따위를 바치거나 버림. ¶즈그 누나는 공부도 잘 했는디 남동생 하나 있는 거 크게 키우겄다고 공장으서 돈 벌고 시집도 못가고 온갖 {희상을} 다허고 있은게 남동생도 서울서 겁나게 공부를 잘 히고 있다고 하더라고.

지역 전북.

희자오 명 [대응어] 흰자위(눈).

눈알의 흰 부분. ¶잠을 이래저래 뒤척이면서 자서 그렁가 어찌나 눈이 따가운지 거울을 들여다보닝께 {희자오가} 뻘개져있더랑게.

지역 전북.

흰개다리콩 명 [대응어] 백목태(白目太).

콩나물로 재배하는 흰콩. ¶콩너물 콩은 저그 임실서 나는 쥐눈이콩이 월등허니 구수허고 맛이 있는디 조깨 껌웅게 상품으로는 많이 씨덜 안허고, {흰개다리콩을} 주로 사용하지요.<전라북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지역 전북.

흰동자 명 [대응어] 흰자위(눈).

눈알의 흰 부분. ¶갸는 눈이 참 이뻐. {흰동자허고} 눈동자허고 흑백대비가 뚜렷히갖고 눈이 겁나게 또렷하고 깊어 보인당게. 매력적이여.

지역 무주.

ㅎ

흰떡 명 [대응어] 가래떡.
가는 원통형으로 길게 뽑은 흰떡 ¶또, 이 또, {힌떠건} 맵쌀로 찌어가끄 폭 찌어가끄 그때는 고로케 인자, 지그먼 기게에다 헝개 그제, 엔나레는 반주걸 혀, 맵쌀로. 반죽, 반주걸 헤서 뚝뚝 띠어너서 한 죄끼 짐 올리고,<2005 전북 남원> ¶금방 뺀 {흰떡이} 끈적끈적 손에 붙는구나. ¶제사 때는 인제 방지사는 이런 시루떵만 흐는디 배깥지사는 막 {흰떡}, 인절미, 또 시루떡 세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지끄믄 사다놔버린개 한가지고 안놔보고 그러등마뇨. 안 지내부러, 지사도.<2009 전북 임실>
지역 고창, 군산,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흰머리 명 [대응어] 백설기.
멥쌀가루로 하얗게 만든 시루떡. 어린아이의 삼칠일, 백일, 돌이나 고사(告祀) 따위에 쓴다. ¶{흰머리는} 아 백일 때도 먹고 평소에도 만들어 먹고 해.
지역 김제, 임실, 남원, 무주, 완주, 장수, 진안.

흰모리 명 [대응어] 백설기.
☞흰머리.
지역 김제.

흰무리 명 [대응어] 백설기.
☞흰머리.
지역 남원, 무주, 완주, 장수, 진안.

흰슬기 명 [대응어] 백설기.
멥쌀가루로 하얗게 만든 시루떡. 어린아이의 삼칠일, 백일, 돌이나 고사(告祀) 따위에 쓴다.
지역 무주.

흰자 명 [대응어] 흰자위(눈).
눈알의 흰 부분. ¶그이 이야기가 어찌나 웃긴지 듣는 사람들마다 {흰자만} 보일 정도로 눈이 뒤집히도락 웃어재낀당게.
지역 고창, 완주.

흰자사 명 [대응어] 흰자위(달걀).
새알이나 달걀 따위의 속에 노른자위를 둘러싼 빛이 흰 부분. ¶고명을 올릴 때는 {희자사허고} 노른자사허고 분리혀서 지져야 색이 이쁘다니께. 긍게로 섞지 말어.
지역 무주.

흰젓 명 [대응어] 흰자위(달걀).
새알이나 달걀 따위의 속에 노른자위를 둘러싼 빛이 흰 부분. ¶빵 만들고 헐 때는 달걀 {흰젓만} 넣고 반죽혀야 혀.
지역 정읍, 고창, 남원, 부안, 군산, 임실, 진안, 완주.

흰좃 명 [대응어] 흰자위(달걀).
☞흰젓.
지역 고창, 남원, 부안, 군산, 임실, 진안.

흰좆 명 [대응어] 흰자위(달걀).
☞흰젓.
지역 완주.

흰죽 명 [대응어] 미음.
입쌀이나 좁쌀에 물을 충분히 붓고 푹 끓여 체에 걸러 낸 걸쭉한 음식. 흔히 환자나 어린아이들이 먹는다. ¶뭐 그때에 {흰죽을} 끓여 가지고 해서 인자 마당에다 갖다 내주면 개맹이로 퍼먹으랴.<구비문학대계 전북 남원군편>
지역 임실.

흰창 명 [대응어] 흰자위(눈).
눈알의 흰 부분. ¶서방이 눈병에 걸렸는지 {흰창

이} 빨갛게 충혈 되어 있었어. ¶"니 어디서 그리 존 생각이 나디냐?" 저 구름에 비 들었으랴 싶은데 소나기 쏟아지더라고 백종두는 눈 하나가 {흰창뿐인} 아들을 신기하게 바라보았다.<조정래, 아리랑> ¶그는 예사로 욕이 섞이는 말을 내뱉았고, 행동도 그에 걸맞게 거칠었다. 그리고 얼굴에 찬 기운이 서린 가운데, {흰창이} 많은 눈에 독기를 품고 있었다. 변하지 않은 것이라고는 여자에게나 어울릴 것 같은 하야말쑥한 피부색이었다.<조정래, 태백산맥> ¶화상을 입었는지 얼굴이 온통 흉터였고 눈도 한쪽은 {흰창만이} 있었다. 거기에다 무슨 병이 있는지 몸도 전체적으로 부석부석했다.<최창학, 지붕>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흰푸드래허다 형 [대응어] 희끄무레하다.
희끄무레하다. ¶옛날 고구마순은 {흰푸드래허}. 호박고구마는 말리면 노로꼬롬허고.
지역 전북.

히놀놀허다 형 [대응어] 파리하다.
얼굴에 핏기나 생기가 없다. ¶애기가 {히놀놀허니} 아무 힘아대기가 없나?
지역 전북.

히다 동 [대응어] 하다(爲).
¶배를 통히서 손꼬락으다 놨다 이거여. 그렁게 깜짝 놀래서 손을 팍 뺀쳤다 그말여. 뺀힌게나 탯줄논게 참 쑥 솟아나왔다 그말여. 출산을 {힜다} 그말여. 그렁게 산모는 그 놈 땜에 죽었지 병 나 죽은건 아니잖냐 그저 살린 것이다.<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그런게, "아무말도 안 {힜다."} 그런디, "나 죽은 뒤여 기별을 허믄 인지 그 양반이 올 것여, 와. 오면 그 양반시긴대로 해라."<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너 이 놈, 어서 그 따우 집을 하느냐?" 어끄저끼 생인난 사람도 다 잡혀갔답니다. 때리고, 불으라고 히도 안헌것을 {힜다고} 할 것이여?<구비문학대계 전북 부안군편> ¶해가졌거든. 근게 종년더러 물었어. "그 어쩐 일이냐?" 인게, "어제 그 온 손님이 돈 닷 냥을 줘서 {힜다."} 근게, 아 그저는 영갬이 물팍을 탁 침서 <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그서 아들들 삼형제를 과거를 보러 보냈단 말여. 과거허서 장원급제 {힜다고} 소문이 들와.<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고창, 김제, 남원, 부안, 순창, 군산, 완주, 임실, 정읍.

히들어지다 동
생기가 없이 축 늘어지다. 꽃이나 풀 따위의 끝이 아래로 처지거나, 몸에 기운이 없이 숙어지다. ¶무덤산에 고사리는/밤이슬 맞고 {히들어졌네}/ 우리 집에 우리 올키/잠이 와서 {히들어졌네}(무주 삼삼는 소리곡)<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민요해설집>
지역 무주.

히마가리 명 [대응어] 힘.
힘을 좀 낮추어 부르는 말. ¶밥을 안 먹었디야? 몸뗑이가 아무 {히마가리} 하나 없어.
지역 전북.

히말테기 명 [대응어] 힘.
'힘'을 낮잡아 이르는 말. ¶늙어 {히말테기가} 없고, 시상 형편에 딸구지 못허는 게 큰 죄인겨. <조봉레, 풀벨골>
지역 전북.

히발유 (←揮發油) 명 [대응어] 휘발유.
석유의 휘발 성분을 이루는 무색의 투명한 액체. ¶"뱃속으 회를 없인다고 {히발유}를 먹는 사람도 있었당게." ¶주유소에 가서 {히발유} 좀 넣어

야겠다.
지역 전북.

히비다 동 [대응어] 후비다.
☞헤비다.
지역 무주.

히어지다 동 [대응어] 헤어지다.
모여 있던 사람들이 따로따로 흩어지다. ¶한 번 이나 인연 있으믄 또 만나자고 인자 {히어져서} 갔는디 그 홍진사네 집이를 왔어.<구비문학대계 전북 정주시 정읍군편>
지역 남원, 정읍.

히푸다 형 [대응어] 헤프다.
물건이 쉽게 닳거나 없어지는 기간이 짧다. 또는 물건이나 돈, 말이나 행동 따위를 아끼지 않는 경향이 있다. ¶비누를 싸게 판다고 허서 사 왔더니 왜 이렇게 {히푸다냐} 벌써 다 닳어 버렸어. ¶그집 오래비가 씀씀이가 {히푸니까는} 철마다 집이 와가지구 돈을 뀌가는 거여. ¶영진이는 씀씀이가 너무나 {히퍼서} 언제 돈을 모을지 몰라. ¶아따 그 아지매가 얼매나 {히푼지}, 여집이고 저집이고 아주 남자들이 한트럭이여. ¶그러케, 씨석거림서 웃음이 {히풍게} 지똑에 바람 들것 따 이~. ¶저 미친년은 웃음이 {히푸니까} 남자들이 깝죽거리지.
지역 전북.

히피 부
아끼는 데가 없이 마구. ¶저렇게 {히피도} 응게, 몇 조금 가것능가 ? ¶땅깔로 봤능가 밸 오만 잡것들이 {히피} 보고 달라 드네 이~.
지역 고창.

히허옇다 형 [대응어] 새허옇다.
매우 하얗다. ¶땅에 긴 긴 입마춤은 오오 몸서리친 쑥니풀 지근지근 니빨이 {히허여케} 즘생스런 우슴은 달드라 달드라 우름가치 달드라.<서정주, 가시내>
지역 전북.
해설 서정주의 시에 나오는 '히허여케'는 '히허옇다'인데 이는 '희고 하얗다.'를 합성시킨 것으로 보인다.

힌칭이 명 [대응어] 잠보(잠꾸러기).
잠이 몹시 많은 사람을 이르는 말. ¶일은 안 허고 {힌칭이맹키로} 잠만 자 쌓네.
지역 장수.

힝구다 동 [대응어] 헹구다.
빨거나 씻은 것을 다시 맑은 물에 넣어 흔들어 씻다. ¶빨랫거리를 {힝구먼서} 여인네들끼리 속닥거리는 소리가 좋구만.
지역 남원, 무주, 진안.

힝재 (←橫財) 명 [대응어] 횡재.
뜻밖에 재물을 얻음. ¶으매, 믄 놈우 {힝재다요}? 겁나게도 좋겄소.
지역 고창.

대응어 · 표제어 찾아보기

가(邊) • 가상, 가상이, 가석, 가테, 갓, 끄트리
가게 • 과게, 하꼬방
가까이 • 가차이
가깝다 • 가까다, 가착다, 가찹다
가꾸다(꽃을), 기르다 • 질구다
가꾸다(꽃을), 키우다 • 케우다
가꾸다 • 가꼬다
가난뱅이 • 가난배기, 가난쟁이
가난하다 • 가난허다, 빈하다
가느스름하다 • 가느두름허다, 가느소롬하다, 간소롬하다, 갠소롬하다
가는귀먹다 • 실먹다
가늘가늘하다 • 가녈가녈하다
가늘다 • 가눌다, 가늘가늘하다, 가늘허다
가늠 • 가남, 가남생이
가늠하다 • 가남하다
가닥 • 가다구
가닥가닥 • 까락까락
가닥김치 • 가닥지, 가닥짐치
가두다 • 가도다
가득하다 • 까득하다
가든그리다 • 가둥끄리다
가뜩 • 깝북, 답신
가락고리 • 가락골, 개고동
가락지 • 까락지
가랑비 • 까랑비
가랑이 • 가래이, 가랭이, 가르쟁이, 가리재이, 가지라이, 가지랑1, 가지래이, 가지랭이
가래 • 추자
가래떡 • 가래흰떡, 떡가래, 떡국떡, 떡사실, 흰떡
가래톳 • 가라투, 가래또리, 가래똘, 가래투, 가래틋, 가리때
가려내다 • 가리내다, 가리니다, 개레내다, 개려내다, 개리내다, 추레내다, 추리내다
가렵다 • 가랍다, 가룹다, 개랍다, 개룹다, 개릅다
가루 • 가리, 까루
가루나무, 솔가리 • 가루나무
가루비누 • 가리비누
가르다 • 갈러다
가르다(둘 이상으로) • 갈르다
가르다(배를) • 따다, 타다1
가르마 • 가늠배, 가래매, 가루마, 가루매, 가르매, 가름배, 가리마, 가리매, 가리미, 그르매
가르치다 • 가라치다, 가리치다, 갈체다, 갈츠다, 갈치다, 아르치다
가르키다 • 갈키다1
가리 • 새반가리
가리나무 • 갈쿠나무, 갈키나무
가리다 • 개레다, 개리다

가리사니 • 가리생이
가마(轎) • 가매
가마(旋毛) • 머리가매
가마니 • 가마이, 가매니, 가맹이
가마니틀 • 가마이틀
가마솥, 가마(釜) • 가마솟, 가매솟, 가매솥
가마솥 • 꺼먹솟, 꺼멍솟
가만히 • 가마이2, 카만이
가물가물하다 • 저물저물허다
가뭄 들다 • 불이 들다
가뭄 • 가물엄, 가물움, 가믐
가볍다 • 가법다, 가붑다, 개밥다, 개법다, 개볍다, 개봅다, 개붑다, 개웁다, 헤겁다, 헤껍다
가부좌 • 발개
가붓가붓 • 개붓개붓
가붓하다, 거붓하다 • 개붓하다, 개붓허다
가뿐하다 • 개픈하다
가슴 • 가심1
가슴패기 • 가슴배기, 가심배기
가시 • 고자리, 괴자리, 귀더리, 귀도리
가시나무 • 까시나무, 까시낭구, 낭가시
가시넝쿨 • 까시넝쿨
가시다(그릇을, 洗) • 헹기다
가시덤불 • 가시장클, 까시덤풀, 까시덩풀
가시덩굴 • 까시덩굴, 까시덩쿨
가시랭이 • 가시라구, 가시랑풀, 까스리기
가시버시 • 가시보시, 가시부치, 까시버시, 까시보시
가시아버지 • 가시아범
가없다 • 개엽다, 안씨럽다, 짠하다
가오리 • 가우리, 강개미, 강지미
가오리연 • 홍회연
가운데 • 가온대, 가온데
가운뎃손가락 • 가온데손가락, 가운데손가락, 가운데손고락, 가운데손구락, 가운데손그락, 가운데송꾸락
가위 • 가새, 가새기, 가오, 가우, 가이, 까새
가위다리 • 가새다리
가을 • 가실2, 가얼
가을무 • 가을무수, 가을무시
가을보리 • 갈버리, 갈보리
가을일 • 가실일, 갈일
가을일하다 • 갈일치다
가을하다 • 가실하다, 가실허다, 가실히다, 가을일허다, 가을허다
가자미 • 가재미, 납조리, 납주래기
가자미젓 • 가재미젓
가장 • 첼로
가장자리 • 가상다리, 가생이, 끄터리
가재 • 게실레, 게실레기, 까재
가져오다 • 가조다, 가주고오다, 가주오다, 가지고오다
가죽 • 까죽
가죽띠, 허리띠 • 가죽허르끈, 가죽허리끈, 가죽허리빵, 혁띠
가죽띠 • 각두, 각뛰, 각띠
가증스럽다 • 가징스럽다
가지 • 까지
가지김치 • 까지김치
가지나물 • 까지너물
가지런하다 • 가조롱하다
가지런히 • 가조롱히, 주룬히
가지말랭이 • 가지꼬시래기, 까지꼬시래기, 까지몰림
가지전 • 까지적, 까지전
가직하다 • 가직허다
가파르다 • 까파르다, 까팍지다
가풀막 • 갈크막, 까그막, 까꿀막, 깔꾸막, 깔끄막, 깔쿠, 깔크막, 깔키, 옹깔끄막
가풀막지다 • 깔끄막지다, 깔끄막지다
각목, 받침목 • 각귀목, 각기목
간덩이 • 간뎅이, 간딩이

간살부리다 • 안살부리다
간수 • 간물
간신히 • 간신이, 갠신이, 보도시, 보도씨, 보독시, 포도시
간잔지런하다 • 간잔조름하다, 간잔조름허다, 간잔주름하다, 갠잔주럼하다, 갠잔주롬하다, 갠잔주름하다, 갠잔즈럼하다, 갠잔즈롬하다, 갠잔즈름하다, 갠잔지럼하다
간장종지 • 장깍지, 장종구래기
간절하다 • 간절허다, 간절흐다
간지럼 • 간지람, 간지랍밥, 간지름, 간질밥
간지럽다 • 간지라다, 간지랍다, 간지러다, 근지러다
간지럽히다, 간질이다 • 가림질치다
간지럽히다 • 간지람 멕이다, 간지랍밥 멕이다
간짓대 • 간두깨, 간드깨, 간대, 간짓개
갇히다 • 가둬지다
갈고랑이 • 갈쿠랭이, 알쿠랭이
갈고리 • 깔뿌리, 깔코리, 깔쿠리, 쇠까꾸랭이
갈다(볍씨) • 놓다, 뿌리다, 삘다, 허치다1
갈다 • 노타리치다
갈대밭 • 갈대밧
갈림길 • 갈랫질
갈매기 • 갈마기
갈모 • 갓모
갈치 • 칼치
갈퀴 • 갈쿠, 갈키
갈퀴나무 • 깔키나무
갈퀴질 • 갈쿠질, 갈키질
감 • 가음, 깜
감기 • 강기, 개좆버리, 개좆부리, 개주꼽재기, 개주뻐리, 개주뿔, 개줌머리, 개지삐리, 고풀, 꼬뿔
감기다(머리가, 被動) • 깜기다
감기다(머리를, 使動) • 갱기다
감나무 • 감낭구
감다(머리를) • 깜다
감당하다 • 바우다
감발 • 발쌍개, 발쏘시개
감발하다 • 간발허다
감실감실 • 가무와 감실이
감아지다 • 깜아지다, 깽께지다
감옥 • 감악소
감옥살이 • 감악살이
감자 • 감저, 북감자, 붓감자, 하지감자, 하지마, 하짓감자
감주 • 단밥
감쪽같이 • 감짝같이
감추다 • 감차다, 감초다, 숭기다, 숭키다
갑(匣) • 각귀
갑갑증 • 폭폭증
갑갑하다 • 깝깝하다, 폭폭하다
갑자기 • 감재기, 감재끼, 갑자게, 갑자께, 갑자끼, 갑자키, 갑재기, 갑재키, 갑지기, 들이당장
값지다 • 목지다
갓김치 • 갓지, 갓짐치
갓난아기 • 깟난애기
갓난아이 • 떡애기
강낭콩 • 봄콩
강냉이 • 강내이, 옥수수튀밥, 옥수시튀밥
강단지다 • 각단지다
강아지 • 강애지, 갱아지
강아지풀 • 갱아지풀, 수수풀
강중강중 • 강종강종
강짜 • 끙짜
강추위 • 강치
강판 • 광판
강피 • 잿피
갖신 • 깢신
같다 • 같으다
개 • 멍구
개골창 • 개고랑창, 개울창, 깨골창, 깨굴창, 깨

울창
개구리 • 개고리, 개구락지, 개구래기, 개굴태기, 깨고락지, 깨고래기, 깨고리, 깨구락지, 깨구래기, 깨구리
개굴개굴 • 깨골깨골, 깨굴깨굴, 꾸루룩, 빡빡, 와과와과, 응애응애
개꽃 • 개꼿
개다 • 떠들다1
개다리소반 • 개다리상, 동군상, 똥고란상, 머심밥상, 소반
개미 • 감치, 갬지, 갬치, 깨미
개뿔 • 개코
개상 • 공상1, 광상, 메질
개새끼 • 강아지새끼, 개놈우새끼, 개새깽이, 개시끼, 개시끼, 개자석
개숫물 • 설거짓물, 자신물
개암 • 개밥, 깨금, 깨암
개운하다 • 개안하다, 개안허다, 개안흐다, 개온하다, 개완하다, 깨온하다
개운해지다 • 개완해지다
개울 • 개, 개골창, 개올, 냇갈, 또랑1, 물똘, 큰뚜랑물
개울가 • 또랑가상
개울물 • 개골물, 개올물, 깨골창물, 깨굴창물, 냇갓물
개지랄 • 개지럴
개집 • 개막
개평 • 개펭, 깨평
객귀(客鬼) • 객고
객스럽다 • 객광스럽다, 객광시럽다, 깩광스럽다
갯값 • 갯갑
갯강구 • 강구
갯벌 • 갱번
갱엿 • 갠엿
갱죽 • 김치죽, 무수죽, 짓입죽
갸름하다 • 개롬하다, 자롬하다, 자롬허다, 자르허다, 자름하다, 잘쪽하다, 질쭉하다
갸우뚱갸우뚱 • 짜우뚱짜우뚱, 찌우뚱짜우뚱
갸우뚱하다 • 자우뚱하다, 짜우뚱하다
갸울어지다 • 자올라지다
갸웃거리다 • 짜웃거리다
갸웃이 • 자웃이
거간꾼 • 거간쟁이, 궈간, 소개자
거기 • 거게1, 거그
거꾸로 • 까꿀로, 꺼꿀로
거나하다 • 건취하다
거드럭거리다 • 거드렁거리다, 더부렁거리다
-거든 • -거등1, -거등2, -그던, -그덩
거들다(일을) • 거달다, 그달다
거들먹거리다 • 거덜먹거리다, 거들먹거리다
거들먹대다 • 가지랑대다
거뜬거뜬하다 • 거뚱거뚱하다
-거라 • -그라
거름 • 거룸
거리 • 가심2
거머리 • 그마리, 그머리, 그무락지, 그므락지, 꺼마리, 꺼머리, 꾸무락지, 거마리, 거머락지, 거무락지
거무스름하다 • 거무야하다, 검우야하다
거무튀튀하다 • 거머투테허다
거미 • 거무, 고무
거북이 • 거뷕이
거북하다 • 거럽다
거스르다 • 거슬르다
거스름돈 • 거시럼돈, 거시름돈, 거시림돈, 나머짓돈, 남언돈, 남은돈, 남제기, 남제깃돈, 낭거지
거시기 • 거석, 므시기
거울 • 섁경, 셱경, 쇡경, 쉿경, 식경, 식경, 체겡, 치겡
거위 • 거시, 게시, 게우, 때까오, 때까오리, 때까우, 때까우리, 때께우, 때꼐우

거의 • 거게2, 거반, 거자, 거작, 거작이, 거즘, 거지, 거지반, 거진, 거짐
거의거의 • 거운거운
거적 • 꺼적, 꺼적때기, 꺼직, 꺼직이, 끄적
거적눈 • 까라진눈, 꺼적눈
거절하다 • 마대다
거지 • 거라지, 거러지, 거럭시, 거렁뱅이, 걸배이, 그지, 동냥아치, 얻어멕이, 얻어뱅이, 질배이
거짓말 • 거릿말, 거짓갈, 거짓골, 거짓깔, 거짓꼴, 거짓솔, 공갈, 그짓갈, 그짓굴, 그짓솔
거처 • 거치
거쳐 오다 • 둘러오다
거품 • 거끔, 버큼, 뽀꿈
걱정 • 걱젱
건건이 • 경개, 경건이, 경게, 경궤
건구역질 • 건게옥질
건기침 • 건지침
건너가다 • 건네가다
건너다(냇물을) • 건니다
건너다 • 건네다
건너편 • 건네펜
건더기 • 건덕지, 건데기, 국건데기, 국건지, 껀덕지, 껀디기
건방지다 • 건방구지다, 건방궂다
건성 • 건성나발
건성건성 • 건정건정
걷다 • 걸음허다, 걿다
걸다(낫을) • 걸다
걸다 • 거판스럽다, 거판시럽다, 걸우다, 걸판나다, 걸판시럽다, 글다1
걸려들다 • 걸레들다
걸리적거리다, 거치작거리다 • 걸치작거리다
걸리적거리다 • 걸기작거리다
걸신들리다 • 허천병나다
걸신쟁이 • 허천백이
걸음걸이 • 걸음발이
걸음마 • 걸엄마
걸쭉하다 • 걸찍하다, 걸찍허다
걸판지다, 거방지다 • 거판지다
걸판지다 • 걸퍽지다
걸핏하면 • 건듯하면, 건뜻하면, 껀뜻하면, 뻔뜩하먼
검댕 • 껌장
검불 • 검부쟁이, 검부적, 검부제기, 검북댕이, 묵지
검은자위 • 검은창, 꺼먹창, 꺼멍창, 검엉창, 꺼먹동자, 눈창, 망자
검정 고무신 • 검엉고무신
검지 • 곤지
검지손가락 • 두채손구락, 두채손그락, 집게가락, 집게손그락, 집기손고락
겁쟁이 • 겁재이
것 • 야2
겉가루 • 겉가리, 껕까리
겉놀다 • 각놀다
겉돌다 • 겔돌다
겉보리 • 껍보리, 껕보리
겉잎 • 껕입, 절입
겉절이 • 상추절이
-게 • -간1, -간디1, -구로, -니, -소, -코롬
게거품 • 게버큼, 기버큼
게으르다(사람이) • 게우르다, 게울르다, 게을르다
게으름뱅이 • 게으름배기, 게으름보, 게으름재이, 게을바이, 게을배기, 기을배기
-겠- • -겄-1, -긋-
-겠어 • -을라디야
겨 • 맵저, 죽제
겨누다 • 가누다, 고누다
겨드랑 • 저드랑, 저드랑이, 저드래이, 저드렁, 저트랑

겨우 • 게우, 기우, 뽀도시, 제와, 제우, 제워나
겨우살이 • 겨울살이
겨울 • 게울, 게을, 겨을, 세안, 저슬, 저실, 저을, 지안
겪다 • 젂다, 쩩다
견디다 • 전디다
겯지르다 • 걷질르다
결 • 절
결국 • 겔국
결딴나다 • 어장나다
결혼 • 겔혼, 혼연
결혼식 • 겔혼식, 혼연식
겸사겸사 • 그첨저첨, 이첨저첨
겸사겸사하다 • 그첨저첨하다, 이참저참하다
겹다(설움에) • 젭다
겹두루마기 • 접두루매기
겹바지 • 접바지
겹옷 • 적것, 접것, 접옷, 젓것, 핱옷
겹이불 • 접이불, 접이울
겹치다 • 접치다
경솔하다 • 갱솔허다
경우 • 겡오, 경오
경험 • 갱험
곁눈질 • 젙눈질
곁두리 • 땟거리, 샛밥, 샛거리, 술찬거리, 술참, 쉴참, 참거리
곁들이다 • 암냥하다
곁방살이 • 젓방살이
계란 꾸러미 • 게란줄
계란껍질 • 달갈껍닥, 달갈껍덕, 달갈껍데기, 달갈껍질, 알껍닥, 알껍데기
계란꾸러미 • 달걀꾸러미
계시다 • 게시다, 겨다, 기시다, 지시다
계집 혼불 • 지집혼불
계집 • 게집, 제집, 지집
계집아이 • 가이나, 가이내, 가이네, 제집아, 제집에, 지집아
계집애 • 기집아, 기집애
계집질 • 각시질, 게집질, 지집질, 지집질
계화 • 대화1, 제화
곗날 • 짓날
고가 • 고종집
고갱이 • 배추속, 배추속깡, 배추알, 속깡
고구마 줄기 • 고구마순, 고구마입사구, 고구마죽다리, 고구마죽데기, 고구마줄거리, 고구맛대, 고구매대, 고구매순
고구마 • 감자, 감재, 고고마, 고구매
고구마줄기 • 감잣대, 감잣순, 감잣줄거리, 감잣질고리, 감잿대, 감잿순
고기 • 괴기, 물괴기
고기(魚) • 물괴기
고기덩어리 • 고기토막
고기잡이 • 고기잽이
고깃덩어리 • 고깃뎅이, 괴기토막, 괴깃덩어리, 괴깃뎅이
고깔 • 꼬깔, 꾀깔, 샛갓
고다(엿) • 곱다, 꼬다2, 꽇다
고단하다 • 고단허다, 대근하다
고달이 • 곳달이
고달프다 • 고다푸다, 고달푸다, 고푸다
고드름 • 고더럼, 고더롬, 고도롬, 고도룸, 고도름, 고두럼, 고두룸, 고두름, 고드럼, 고드롬
고들빼기 • 고돌빼기, 고둘개, 꼬돌빼기, 꼬두배기, 꼬들빼기, 꼬들삐기, 싸랑부리, 씬나물, 씬너물
고들빼기김치 • 고들빼기지, 고들빼기짐치, 꼬들빼기지, 꼬들빼기짐치
고등어 • 고두어, 고둥에, 꼬등에
고등학생 • 고등학상
고따위 • 고다구, 고따구
고래실 • 고라실
고려장 • 고리장

ㄱ

고름 • 고럼, 고롬, 고룸, 고림
고리다 • 고리다, 괴리다
고린내 • 고랑내, 고른내, 꼬랑내, 꼬룬내, 꼬린내, 꼬린네, 꾸른내
고릿적 • 고리때
고맙다 • 아슴찮다
고명 • 고멩, 괴명, 우찌새, 우찌시, 우찜
고명딸 • 양님딸
고목나무 • 고목낭구
고무래 • 강그래, 고모래, 고모레, 곰부레, 당그래
고물 • 고무락지
고봉 • 고봉태미
고봉밥 • 꽃봉오리밥
고부리다 • 꼬구리다
고부장하다 • 고부장장허다
고비 • 괴침
고삐 • 고빠이, 고빼이, 깨뺑이, 꼬뺑이, 꼬삐, 꼬피, 꼼삐, 꼽뱅이, 꾀삐, 꾀피
고사리 • 꼬사리
고생 • 고상
고생하다 • 고상허다
고소하다 • 고소롬하다, 고소름하다, 고솝다, 고수다, 고수렇다, 고수하다, 고숩다, 고시허다, 꼬숳ㅜㅎ다, 꼬소롬하다
고수레 • 고시레, 꼬시래, 꼬시레, 되시레, 무랍, 뱅애, 뱅에
고수머리 • 고시랑머리, 곱슬배기, 꼬시락머리, 꼬시랑머리, 꼬시래기, 꼽슬머리, 꼽슬배기, 꼽실머리, 꼽쓸머리
고스란히 • 고시란히, 오부래기, 오부루기, 오스라니, 오시래기, 옴시레기, 온건히
고슬고슬하다 • 고실고실하다
고슴도치 • 고신돗, 고심도치
고약 • 괴악, 괴약
고양이 • 개이2, 고냥이, 고닝이, 고야이, 고얭이, 고엥이, 괘이1, 괭이1, 괴냉이, 괴야이
고욤 • 개암감, 고염, 고욤감, 고용감, 괴얌감, 괴양감, 괴염, 괴염감, 괴옴, 괴옴감
고운체 • 가는체, 몽근체, 밴체, 밴체입, 뵌치
고자질 • 밀대질
고자질하다 • 밀대질하다, 조아바치다
고장물 • 꼬장물
고쟁이 • 고재이, 꼬양중의, 꼬자이, 꼬장주우, 꼬장중우, 꼬재이, 꼬쟁이, 꼬쟁중우, 단속곳, 단손꼿
고조할머니 • 고조할매
고조할아버지 • 고조한아씨
고종시 • 고동시
고집 • 고집머리
고추 • 고치, 꼬초, 꼬추, 꼬치
고추장 • 고초장, 고치장, 꼬창, 꼬치장
고춧가루 • 고칫가리, 꼬춧가루, 꼬춧가리, 꼬칫가루, 꼬칫가리, 해장꼬치
고춧잎김치 • 고춧잎짐치, 고칫잎짐치, 꼬칫잎짐치
고치 • 누어고초, 눼꼬치, 뉘고치, 뉘꼬추, 뉘꼬치
고치다(버릇을) • 곤치다
고치다 • 낫우다
고함 • 괴함
고해바치다 • 꼬아바치다, 꼬아부치다
고향, 본토박이 • 본토쟁이
곡괭이 • 곡개이, 곡갱이, 꼬개이, 꼭갱이, 꼭괭이, 꼭깨이, 꼭깽이, 꼭껭이, 꼭꽤이, 꼭꽹이
곡식 • 곡석, 곡섹
곤달비쌈 • 곤달로쌈
곤두박질 • 꼰두박질
곤란스럽다 • 곤작스럽다
곤소금 • 고운소금
곤지곤지 • 곤지곤지, 깬재깬재, 자깡자깡, 재깡재깡, 지깡지깡, 지껑지껑, 캔시개캔시개

곧바로 • 바루, 쭉허니, 쭉허니, 쭉흐니
골 • 고랑2
골목 • 싸리막
골목길 • 고샷질
골몰히 • 고몰에
골무 • 골매이, 골맹이
골뱅이 • 까네미
골짝논 • 골배기논
골칫덩이 • 우황단지, 우황덩어리
골탕 • 골아시, 끕끕수
곪기다 • 곪기다
곪다 • 골무다
곰곰이 • 곰굄이, 곰굼이, 공곰이, 공굄이, 공굼이
곰기다 • 굄기다
곰보 • 꼼보, 억배기, 얼근배기, 얼금배기, 얽배기, 얽어배기
곰팡이 • 곰패이, 곰팽이, 탱이
곱절 • 곱재기, 곱쟁이
곱하다 • 곱치다, 곱허다
곳간 • 고앙, 곡간, 도장, 도장방, 두지
공구리 • 공고리
공글리다 • 공그리다
공기(놀이) • 독받기, 독뱉기, 독사리, 독잽기, 독줏기, 독줏어묵기, 독지기, 독지께, 돌받기, 돌뱉기
공기 • 공구
공기놀이 • 공기집기, 독치기
공연스레, 괜히 • 무단스레, 무단시, 무단시리, 무단씨, 무단이, 무담시
공연스레 • 공연시리, 권연시리, 귀년시리
공연히 • 매다굽시, 매칼없이, 매커랍시
공일 • 갱일, 갱일날, 굉일
곶감 • 꽂감, 꽂갬
과부 • 과수
과부댁 • 과부덕
과수원 • 가수원
과연 • 대차, 대차나, 대처나
과일 • 가실1, 가일, 실과
과자 • 가자, 깨잘, 꽈자
-관대(-기에) • -간디2
-관데, -기에 • -가니2
관솔 • 간솔, 간술, 관술, 광솔, 솔괭이
관자놀이 • 관자, 관지통, 눈꽁댕이
괄시 • 반절
광 • 진광
광주리 • 강주리, 과아리, 광아리, 광저리, 깡아리, 꽈아리, 꽝아리, 꽝우리, 꽝재리, 꽝저리
괜스레, 공연히 • 고연시리
괜스레 • 괜시리
괜찮다 • 갈람시르다, 갈람시릅다, 개찮다, 갱기찬허다, 갱기찮다, 겐찬허다, 괜잖다, 괸잔허다, 괸찬허다
괜하다, 공연하다 • 괴연하다
괜히 • 공연시, 먼났다고
괭이 • 개이1, 갱이, 괘이2, 깨이, 깽이1, 꽤이, 꾕이, 꿰이, 퀭이
괴다(溜) • 괴다, 괴이다, 굅히다
괴머리기둥 • 설대
괴이하다 • 고옇다
굄목 • 깔목
굉장하다 • 허벌나다
굉장히, 지독하게 • 오사게
교만 • 가지랑2
교만하다 • 가지랑시럽다
교통(交通) • 괴통
구겨지다 • 꾸거지다, 꾸걱지다, 꾸게지다, 꾸구러지다, 꾸구미지다, 꾸굴지다, 꾸꿈지다, 꾸룸지다, 꾸져지다, 꾹적거리다
구경 • 귀경
구경하다 • 귀경허다
구기다 • 꾀기적거리다, 꾸게다, 꾸구리다, 꾸굴

치다, 꾸굼지다, 꾸기다, 꾸적이다, 꾸지다, 뀌기다
구기적거리다 • 꾸구적거리다, 꾸구적그리다, 꾸구적기리다, 꾸그적거리다, 꾸꾸적거리다, 뀌구적기리다, 뀌기적거리다
구더기 • 구더리, 구데기, 똥버럭지, 똥벌거지, 소망버러지, 소망벌거지
구덩이 • 구뎅이, 구딩이
구두쇠 • 구두새, 꼽꼽쟁이, 야꼽쟁이, 진저리꼽재기, 진저리꼽쟁이, 진지꼽재기, 진지리꼬꼽쟁이, 진지리꼽재기, 쫌뿌생이
구듯주걱 • 구두연발, 구두염발, 구둣주벅, 주걱2
구들 • 구들장, 구들쟁이, 방독, 방돌
구렁이 • 구랭이, 대맹이
구렁텅 • 구렁창
구레나룻 • 괴알쉬엄, 괴알쉬염, 괴알시엄, 괴알시염, 괴야수염, 구레쉬엄, 구리시염, 굴레쉬엄, 굴레쉬염, 굴레쉬옴
구르다 • 굴르다
구름 • 구룸
구리다(방귀 냄새가) • 꾸르다, 꾸리다
구린내 • 구런내, 구렁내, 구룬내, 구룽내, 귀린내, 꾸룬내, 꾸릉내, 꾸린내, 꾼내, 똥구른내
-구먼 • -고마, -고만, -구만1
구멍 • 구넉, 구녁, 구녕, 구먹, 구명, 구묵, 궁기
구멍가게 • 구몽가게
구석 • 구석대기, 구석대니, 구석댕이, 구석데기, 구석재기, 구석태기, 구섥, 구속대기, 구속데기, 구숭테이
구석빼기 • 귀역때기
구수하다 • 구수룸허다, 구시하다, 꾸수하다
구슬 • 구설, 구술
구시렁거리다 • 고시랑거리다
구역질 • 개욕질, 게옥질, 에욱질, 외옥질
구유 • 구세, 구수, 구시, 말구시, 소죽통, 쇠구시, 여물통
구접스럽다 • 구잡시럽다
구정물 • 꾸정물, 꾸종물, 꾸중물
구질구질 • 구지런히
구질구질하다 • 구질털털하다
국물(김치의) • 짐치몰국
국물 • 국말국, 국멀국, 국몰국, 국물국, 말국, 멀국, 멀궉, 몰국
국수 • 국시
군내 • 군동내, 군둥내
군데 • 간디
군말 • 구누름, 구느름
굳다 • 어리다
굳은살 • 괭이2, 꾸둑살, 꾸뚝살, 뚝살
굴건 • 굴간, 굴권
굴뚝 • 굴똑, 귀뚤, 귀뚝, 귀새, 꿀뚝, 엔기통
굴렁쇠 • 궁글패, 도롱태, 동굴태, 동글태, 동글테, 둥글테, 둥글페, 뚱굴패, 뚱글패
굴레 • 굴리, 멍앳줄
굴리다(굴렁쇠를) • 궁구르다, 돌리다
굴리다 • 궁글리다, 궁글치다
굴통 • 궁글통
굵다 • 퉁겁다
굵은체 • 굵운체, 얼멍체, 얼멩이, 얼미기체, 엉근체
굶기다 • 궒기다, 귕기다
굶다 • 궒다
굼벵이 • 굼빙이
굼실- • 곰슬, 곰실
굽다(燒) • 구다, ㄱㅜㅄ다, ㄱㅜㆆ다, 꾸다, 꿋다
굽다 • 꼬부레허다, 꼽다
굽도리 • 굽더리, 굽드리, 뒤장, 디장, 디지, 떼지, 뛰지, 띠지, 젠두리, 중두리
굽도리지 • 굽돌지, 굽둘지, 도랜지, 도런지, 도련지, 되련지
굽이굽이 • 구부구부
굽히다 • 굽이다, 굮히다
궁둥방아 • 궁뎅이방아, 궁뎅이방애, 궁둥방애

궁둥이 • 궁데이, 궁뎅이, 궁두이, 궁둥입, 궁둥짝, 궁뒹이, 궁디, 궁딩이, 넙덕지, 방뎅이
궁벽지다 • 꼴착지다
권주가 • 권줄개
권투 • 건토, 건투, 곤토, 권토
궐련 • 골련
귀 질기다 • 귀 질기다
귀(耳) • 귀때기, 귀띠기
귀뚜라미 • 귀똘개미, 귀뚜래미, 귀뚜래비, 기뚜라미, 꾸뚜래미
귀머거리 • 구먹자가리, 귀먹장구, 귀먹쟁이
귀밑 • 귀믿, 귀밋
귀신 • 구신
귀싸대기 • 귀쌈
귀얄 • 귀알, 풀비
귀엣머리 • 귀영머리
귀엽다 • 구엽다
귀이개 • 귀오지개, 귀지개, 귀호부작, 귀호지개, 기지개
귀찮다 • 귀찮시럽다
귀청 • 귀고막
귀퉁이 • 구석탱이, 구퉁이, 귀영치, 귀영탱이, 귀챙이, 귀탱이, 귀테이, 귀퉁
귓구멍 • 귀구먹, 귓구녁, 귓구녕, 깃구넝
귓불 • 귀밥, 귀촛, 귓념
그글피 • 그그페, 그글피
그까짓 • 그께잇
그끄저께 • 그그저끄, 그끄저끄, 저아레
그냥 • 걍, 기양
그냥저냥 • 고냥조냥
그네 • 쇠홀태, 왜홀태, 홀태, 홀탯발, 군디, 권디, 근데
그네(홀태) • 왜홀태, 홀태, 홀탯발
그따위 • 그따우
그래 • 그레, 그려, 그룽지
그래서 • 갖곤, 갖고는
그러게 • 글게
그러께, 재작년 • 그럭끼레
그러니까 • 그니께, 그닝게, 그렁게로, 긍게1, 긍게로
그러면 • 그먼, 글면, 글먼
그러모으다 • 긁어모드다, 긁어모투다, 긁어뫼다
그러하다 • 글다2
그럭저럭 • 그작저작, 기영기영
그런데 • 근디, 헌디
그렇게 • 고로코롬, 골코롬, 그르코롬
그렇게끔 • 그러게코롬, 그러코롬
그렇겠지요 • 글것지라
그렇지 • 그라제, 글장
그루터기(땔감) • 끄렁나무
그루터기(벼) • 끄털, 똥구먹, 푀기
그루터기 • 고자배기, 그루타기, 끌텅, 등걸, 등커지, 등크럭, 뜽컬
그릇 • 그럭, 크륵
그리 • 거리, 고리
그리고 • 글고
그리다(그림을) • 기리다
그리마 • 시래미
그리하면 • 허면
그림 • 기림
그림자 • 그름자, 그림재, 기름자, 기림자
그립다 • 기립다
그만 • 그처
그만큼 • 그만썩
그물 • 구물
그믐께 • 그믐끄, 그믐끼
그슬리다 • 꺼실다
그을다(그을음이) • 끄실다
그을리다, 그슬리다 • 끄슬러지다, 끄실러지다, 끄실르다, 끄실리다
그을리다 • 끄시르다, 끼실리다
그을음, 검댕 • 검당, 검장, 그름, 그시럼, 끌목

그을음 • 꺼시름, 끄름, 끄시럼, 끄시름, 끄실먹, 끄실목, 끄으름, 끄을목, 끄을음, 끌미
그이 • 그그자
그저께 • 그저끄, 아레, 아레께
그적 • 그쩍
그제야 • 그때사, 그때서야, 그적새사
그치다 • 근치다, 끄치다, 끈치다
극젱이 • 깍쟁기, 깔쟁기, 꼭젱이, 밭쟁기, 훌쳉이, 훌칭이
근육 • 건육
근지럽다, 가렵다 • 근지럽다
근지럽다, 간지럽다 • 근시러다
근지럽다, 군시럽다 • 근시럽다
근천 • 근천끼
글쎄 • 금매, 금메
글페 • 구페, 구피, 그페, 그피, 글페
긁히다 • 끍히다, 실키다
금게 • 뽀각기
금덩이 • 금뎅이
금봉채 • 건붕채
금줄 • 임줄
급(急)히 • 깁히, 싸게
급자기 • 급작히, 급재기, 급재키
급작스럽다 • 급작시럽다
긋다 • 그시다2, 그시다1
긋다(劃) • 그시다1
기계국수 • 기겟국수, 기기국수, 빽국수
기구하다 • 기구절창하다
기껏해야 • 내나해야, 내내야
기다랗다 • 지댄썩허다, 지댄하다, 지드란하다, 지드란허다
기다려지다 • 기다레지다, 지다리지다, 지달라지다, 지달러지다, 지달리지다, 지둘러지다
기다리다 • 기둘리다, 지다리다, 지달리다, 지두리다, 지둘르다, 지둘리다
기대다 • 지대다
기둥 • 지둥
기러기 • 기려기
기르다 • 기루다1, 길루다, 길르다, 멕이다, 지루다, 질루다, 질르다
기름 • 지름
기름병 • 지름병
기뻐하다 • 짓거하다
기스락물 • 지시락물
기어이, 기어코 • 기어니, 기엉코
기어이 • 기엉씨
기연히 • 기연시, 기연씨, 기연이
기와집 • 지와집
기우제 • 지우제
기울다 • 지울다, 찌우르다
기웃거리다 • 지웃거리다
기웃기웃 • 짜웃짜웃, 찌웃찌웃
기죽다 • 야코죽다
기지개 • 지지개, 지지개
기차 화통을 삶아먹다 • 기차 화통 삶아묵다
기침 • 지침
기침하다 • 지침하다
기함하다 • 기얌허다, 기함허다
길가 • 질가, 질갓, 질깔
길다 • 질다
길들이다 • 질들이다
길마 • 질마, 질마재, 질매
길목 • 질초
길이 • 기럭지
길쭉하다 • 길쭘하다
김매다 • 기심매다, 논매다, 밭매다, 지심매다, 풀매다, 피뽑다, 피사리하다
김장 • 짐장
김제 만경 • 징게맹게
김제 • 짐제
김치 • 짐치
김칫거리 • 지까심, 짓거리2

김칫국 • 짓국
김칫국물 • 짐치말국
김칫독 • 짓독
깁다 • 꾸매다, 줍다, 줩다, 지다1, 지우다, 짛다
깃발 • 짓발
깊다 • 깊수룸하다, 지푸다, 짚다
깊이 • 짚이1, 짚이2
까다롭다 • 까다랍다, 까딱스럽다, 깨까더랍다, 깨다랍다, 대태시릅다
까닥 • 끈덕
까딱 • 끈떡
까딱하다 • 까딱허다, 깐딱하다, 깨딱허다, 끄덕허다, 끄떡허다
까딱하면 • 까닥허먼, 까딱허믄, 까딱후먼, 까딱흐먼, 깐닥하면, 깐딱허먼, 깨딱하면, 깨딱허면, 꺼떡하면, 꺼떡허면
까마득하다 • 까막허다
까막까치 • 까막깐치
까무러지다 • 자물씨다
까무러치다 • 자무러지다
까바치다 • 고바치다
까불다 • 까부르다, 날랑거리다
까지 • -끄지, 까장2, 깨지, 끄지, -안칠라
까치 • 간치, 깐치
까탈스럽다 • 까딱시롭다, 까탈시럽다
깍두기 • 아따꼴
깍듯하다 • 깍다분허다
깍쟁이 • 깍정이2
깍지(콩) • 깍정이1
깎다 • 끊다, 떨다1, 짜리다
깎이다 • 깩이다
깔개 • 앉을개
깔다 • 피다
깔보다, 얕보다 • 시삐보다, 시퍼보다
깔보다 • 깐보다
깜빡 • 깜뿍, 꺼뻑
깨끗이 • 깨깟이
깨끗하다 • 개끗허다, 깨깟하다, 깨깟허다
깻묵 • 깻목, 꽴목
깻잎 김치 • 깻잎지, 깻잎짐치
꺼림칙하다 • 꺼림직하다, 껄쩍지근하다, 께름직하다
꺼멓다 • 꺼머다
꺾다(삭정이를) • 껑크다
꺾이다(被動) • 꺾이다
껌 • 끔
껌값 • 끔갑
껍데기 • 껍닥, 껍디기, 껍적
껍질 • 껌대기, 껍덕, 껍줄
껑충하다 • 건잠허다
-께 • -끈내
께끄름하다 • 깨끄름하다
껴입다 • 쪄입다
꼬깃꼬깃하다 • 꾸적꾸적허다
꼬드기다 • 꼬세다
꼬들꼬들하다 • 꼽꼽허다1
꼬락서니 • 꼬라지2
꼬랑이 • 꼬랭이
꼬마둥이 • 꼬마둥, 꼬마딩기, 꼬마딩이
꼬부장하다 • 꼬부댕댕하다, 꼬부댕허다
꼬불치다 • 꼽치다, 꼽쳐먹다
꼬불탕하다 • 꼬불탱허다
꼬집다 • 찝어까다
꼭대기 • 봉댕이, 뽕닥지, 뽕대기, 뽁대기, 뽕댕이, 우댕이
꼭지 • 꼬투래기, 꼭대기
꼴값 • 꼴갑
꼴값하다 • 꼴갑하다
꼴뚜기 • 꼬록
꼴뚜기젓 • 꼬록젓
꼴머슴 • 깔딴살이
꼴찌 • 꼬래비

ㄱ

꼼꼼하다, 인색하다 • 꼬꼽하다, 꼬꼽허다, 꼬꼽히다, 꼽꼽하다, 꼽꼽허다2
꼼꼼하다 • 꼼꾐하다, 꼼지다, 꼽꼽시롭다, 자각시럽다, 자정시럽다
꼽히다 • 꼽히다
꽁무니, 꼬랑이 • 꼬랑댕이, 꽁댕이
꽁무니 • 꽁딩이
꽂다 • 꼽다, 찌르다, 찡구다
꽂히다 • 꼽히다
꽃게 • 꽃기, 뻘떡기
꽃봉오리 • 꽃망우리, 꽃봉다리, 꽃봉새이, 꽃봉생이, 꽃봉우리, 꽃봉지, 꽃봉튕이
꽃송이 • 꽃소오리, 꽃송오리, 꽃쇵이, 꽃수오리, 꽃숭오리
꽃신 • 꼬팍신, 꽃박신
꽈리 • 꽈루, 딸광, 때깔, 때꽐, 때왈
꽈리불다 • 꽈리불다
꽹과리 • 깬새기, 깬시기, 깽마기, 깽매기, 깽맹이, 깽메기, 깽쇠, 괜새기, 꽹가리, 꽹매기
꾀꼬리 • 깨그마리, 께그마리, 꾀꼴새
꾀다 • 꼬다1, 꼬시다1, 꼬오다, 꼬이다
꾀병 • 깨병
꾸기적거려지다 • 꾸적거리지다
꾸다(夢, 꿈을) • 꿰다, 뀌다1
꾸다(借) • 얻다, 용대하다, 용도하다, 췌다, 취허다
꾸다 • 취다1
꾸러미 • 꾸레미
꾸물거리다 • 충거리다, 칭거리다
꾸미 • 꾀미, 뀌미, 뀌미개, 염장, 추미
꾸미다 • 뀌미다1
꾸부정하다 • 꼽장허다
꾸불텅하다 • 꾸불퉁하다
꾸역꾸역 • 뀌역뀌역, 미역뿌역
꾸지람, 핀잔 • 머퉁이
꾸지람 • 머퉁사니
꿀꿀 • 구룩구룩, 국국, 깩깩, 꾸룩꾸룩, 꿀꿀
꿀어앉히다 • 꿀앉치다
꿇다 • 꿇다, 꾸ㅇ다, 꿀다, 꿇우다
꿇리다 • 꿀치다
꿇어앉다 • 꿇고앉다
꿈꾸다 • 꿈뀌다
꿈지럭거리다 • 꿈직거리다
꿍지다 • 꿍지다
꿩병아리 • 꿩새끼, 꿩새키
꿰다(실을) • 께다, 꼬미다, 뀌다3, 끼다
꿰뚫다 • 꾀뚫다
꿰매다(바늘로) • 꼬매다, 꾀매다, 꾸메다, 꿈매다, 뀌매다, 뀌미다2
꿰매다 • 껄매다, 떠매다
꿰미 • 뀌엄지, 뀌염지
끄나풀 • 끄난풀, 끈나풀, 끈내풀
끄덕그덕하다 • 끄덕끄덕허다
끄덩이 • 끄데이, 끄뎅, 끄뎅이, 끙뎅이
끄르다 • 끄리다, 끌다, 클다
끄지르다 • 끼대다
끄집어내다 • 끄져내다
끄트머리 • 끄턴머리, 끄틈머리
끈 • 끈내기, 끈내키
끊기다 • 끊기다
끊다(손톱을) • 깎으다, 베다, 짜르다, 짤르다
끊다(切) • 띠다
끊다(차표를) • 끊으다
끌다 • 끄스다, 끄슥다, 끄시다, 끄식다, 끄ㅇ다, 끄지다, 끄직다, 끄집다, 끄짓다, ㄲㅡㅎ다, 끗다
끌러지다 • 끄러지다, 끌러지다, 따지다
끌려가다 • 끌례가다, 낀게가다
끌려다니다 • 끗게댕기다
끌리다 • 끄식기다, 끅기다, 끼끼다, 낀기다
끌어가다 • 끄집어가다
끌어내다 • 끄식어내다, 끄저내다

끌어내리다 • 끄슥어내리다, 끄식어내리다, 끄저내리다
끌어들이다 • 끄슥어들이다, 끄식어들이다, 끄저들이다
끌어올리다 • 끄슥어올리다, 끄식어올리다, 끄저올리다
끓다 • 끓으다
끔벅거리다 • 검벅거리다, 껍벅거리다
끝끝내 • 끼끗내
끝나다, 끝내다 • 막음하다
끝내 • 질래
끝동 • 끝동
끼니 • 꺼니, 끄니
끼다(기미가) • 실리다
끼다(끼이다, 挾, 가시가) • 찡기다
끼다(진딧물이) • 일다
끼다 • 찌다2
-끼리 • -까니, -까장1, -찌리
끼얹다 • 찌끄리다, 찌끌다, 찌크리다, 찌클다
끼우다 • 찡기다, 낑귀다, 찡기다1
끼워 주다 • 우수 주다
끼이다 • 찡기다2
-ㄴ 거야 • -ㅇ겨
-ㄴ가 • -ㄴ개, -ㅇ개비네
-ㄴ가 보네 • -ㅇ개비네
-ㄴ가 보다 • -ㅇ갑다
-ㄴ가 보더라 • -ㅇ갑드라
-ㄴ가 보더만 • -응갑드만
-ㄴ고 • -ㅇ고
-ㄴ다고 하네 • -ㄴ다네
-ㄴ다고 하면서 • -ㄴ담서
-ㄴ다니까 • -ㄴ당개
나누다, 가르다 • 노누다
나누다 • 나노다, 나느다, 노느다, 저지르다
나다니다 • 나댕기다
나락 • 알나락
나란하다 • 짜란허다, 짱짜란하다, 짱짜란허다
나란히 • 짜란히
나루터 • 나르터, 배썩, 배터, 뱃마당, 뱃자리
나르다 • 나리다
나른하다 • 나르지근하다
나막신 • 게다, 굼나묵개, 기따, 나막개, 나막개신, 나맥개, 나맥게, 나목신, 나무겟대, 나묵괘, 나묵신, 쉐자, 쉬여자, 토막신,
나머지 • 나무지, 남재기, 남저지, 남지기, 남치기
나무 • 나모, 남기, 낭구, 낭기
나무뿌리 • 낭구뿌링이
나무집 • 받침집
나물 • 나믈, 남물, 넘새
나박김치 • 나박김치, 나박물짐치, 나박지, 나박짐치, 무시나박지
나발 • 빈나발통
나부대다 • 나분대다
나부랭이 • 나부래기
나비, 나방 • 나부
나비잠 • 나부잠
나쁘다, 형편없다 • 물짜다
나우 • 나수
나중 • 나꼬, 난중, 난참
나중에 • 낭제
나즈막이 • 나지맥히
나지막하다 • 나차막하다, 나참막허다, 나침막허다
나풀나풀 • 나훌나훌
나흗날 • 나흐레
낙숫물 • 집시락물, 낙수물, 지붕처매물, 처매물
낚시 • 낚수
낚시질 • 낚수질, 낚이질, 낶이질
낚시질하다 • 낚수질허다
낚싯대 • 낚숫대, 낚잇대, 낶잇대
낚싯밥 • 낚밥

낚싯줄 • 낵이줄
난쟁이 • 난장이, 난재이
낟가리 • 나락가리, 베가리, 베눋가리, 베눌, 벳가리, 벳누리, 벼널, 벼눌가리, 벼늘, 비늘, 비늘가리, 삐까리, 짐늘, 짚베늘, 짚비늘
날개 • 날감지, 널개
날갯죽지 • 날갯죽, 날갯죽대기, 쭉대기
날뛰다 • 납뛰다
날라가다 • 널러가다
날래다 • 남싸다
날름거리다 • 날람거리다, 낼룽그리다
날름날름 • 날람날람, 낼름낼름
날리다(돈을) • 때이다
날리다 • 날키다
날벌레 • 날버러지, 날버럭지, 날버레기, 날벌거지, 날타리
날쌔다 • 날싸다
날아가다 • 날라가다
날아다니다 • 널러댕이다
날짐승 • 날짐생, 새짐성, 새짐승
날짝지근하다 • 나르지근허다
날카롭다 • 날캄하다, 날커랍다, 멀금허다
날파람스럽다 • 날파람나다
남기다 • 냄기다, 냉겨먹다
남동생 • 남동상, 남동새
남우세스럽다 • 넘세스럽다
남자 • 나매
남자아이 • 머스마, 머스마그, 머스매, 머시매, 머이매, 머이매
남짓 • 나무, 나므, 남진, 이슷
남짓하다 • 남짓허다
남편 • 남펜, 냄편
납작납작 • 나팔나팔
납작하다 • 납작허다
낫다 • 나다, 놓다
낭떠러지 • 낭끄텡이, 낭떠리, 엉떠러지, 엉떠러진데
낭창거리다, 낭창낭창하다 • 난장허다
낮다 • 나찹다, 나춥다, 낮다, 애찹다, 야찹다
낮도깨비 • 낮도채비
낮때 • 한나지때
낮추다 • 얕추다
낮 • 낫반대기, 낫짝
낯가리다 • 놈타다, 선낯하다
낯바닥 • 낫바대기, 낫부닥
낯부끄럽다 • 꾸리꾸리허다
내(煙氣) • 끄으른내, 낸내, 불내
내 • 냇가창, 냇걸
내다 • 냏다, 지르다1
내두르다 • 내둘르다
내려다보다 • 낮차보다, 내리다보다, 네리다보다
내려지다 • 널어지다
내발리다 • 내발기다
내버려두다 • 내비두다, 내싸두다, 내쏴두다, 냅두다
내버리다 • 내번지다, 내벌다, 내베리다
내숭 • 숭포
내숭스럽다 • 숭포스럽다
내쏘다 • 쏴질르다
내외간 • 내오간
내의 • 내뷕, 내의
내일 • 내알, 니얼
내종사촌 • 내사촌, 내사춘
내처 • 내처
내친김 • 내친짐
내키다 • 맘씨기다
내후년 • 내멩년, 내훗년, 저내후년, 후내명년, 훗내명년
냄비 • 남배기
냄새 • 남새, 내굼새, 내김새, 내얌새, 내음새
냅다(연기가) • 내립다1, 내옵다, 내웁다, 시다1
냅다 • 내립다2, 냅대

냇가 • 냇가상
냉랭하다 • 생클하다
냉이 • 나숭개, 나승개, 나싱개, 매운때, 아숭개, 야숭개
냉혹하다 • 냉칼하다
-냐 • -나
-냐고 하니까 • -냥게
-냐고 • -야고
냠냠거리다 • 냥냥거리다
너구리 • 너꾸리, 너우리
너럭바위 • 너벙바우
너르다 • 너럽다, 너룹다, 널러다, 널럽다, 널루다, 널룹다, 널르다, 널릅다, 널리다
너머 • 너메
너무나 • 너머나, 너머다
너부데데하다 • 너푸데허다
너부죽하다 • 너브덕덕하다, 너브데데하다
너비, 크기 • 커기
너비 • 널베기, 널부
너울 • 물농울
너풀너풀 • 너훌너훌
너희 • 너그, 너그들, 너기, 너이덜, 느그, 느이
넉넉하다 • 보듬허다
넉넉히 • 넉닉히, 넉넥히
넉동 • 넉동사니, 늑동, 막동, 전막
넋 • 너갱이
넋두리 • 넉더리
널따랗다 • 널따란하다
널리(소문이) • 넓이
널빤지 • 널빤대기, 널빤때기, 널판지
널찍하다 • 너룬장허다
넓다(마당 넓이가) • 너루다, 너릅다, 널립다
넓이 • 너벅지, 널벅지1
넓적다리 • 납작다리, 너벅다리, 넙덕다리, 넙적다리, 넙적지, 넙턱치
넓히다 • 널쿠다, 넓이다, 넙히다

넘겨다보다 • 넹게다보다
넘기다 • 넹기다1, 넹기다2
넘어뜨리다 • 넴과불다, 자빨치다
넝쿨 • 낭쿨, 넌풀, 영꿀
넣다 • 너다, 옇다
네까짓 • 너까짓, 니까진, 니깨잇
네모지다 • 사무지다
넨장맞을, 넨장칠 • 젠장맞을, 젠장칠
넨장맞을 • 닌장맞을
노글노글하다 • 노골노골허다
노끈 • 노끄내기, 노끈내기, 노끈내끼, 노끈내키, 노나끈, 논나끈, 논내끈, 삼노, 실내끼
노닥거리다 • 노닥질하다, 뇌작거리다
노랗다(黃) • 노러다, 노루다, 노리다, 놀허다, 누르다
노랗다 • 노라다, 노란허다, 노래다, 노로꼬롬하다, 노로다, 노르께하다, 노르끄름허다, 노르맹허다, 노리끼리하다, 놀짝지근허다, 놀짱허다, 놀짱흐다, 놀하다, 뇌란하다, 뇌란허다
노래기 • 노내기, 노래기, 노랭이, 사내기, 사녀기, 사니기, 싸내기, 요내기, 요냉이, 행랑각시
노려보다(사람을) • 네려보다, 앵글쎄보다, 앵기레보다, 앵길쎄보다
노루 • 너루, 노리
노루발 • 노리발, 주데이2
노르스름하다 • 노랑노랑허다, 노로꼬롬허다, 노르끄름허다
노른자위 • 노란자사, 노란젓, 노란좃, 노랑자사, 노랑자시, 노랑자위, 노랑재, 노랑젓, 노랑제란, 노랑좃, 노랑창
노름판 • 제기판
노릇노릇 • 놀놀, 뉘릿뉘릿
노리다 • 뇌리다
노을 • 북새, 북쇠, 북쉐
노처녀 • 노큰애기
녹이다(使動) • 녹후다, 녹히다, 뇍이다, 뇍히다

논두렁 • 갈강, 갈개, 논두럭, 논두렉, 물길배미
논둑 • 갈갯둑, 논두락, 논두룩, 방천
놀라다 • 놀래다
놀래다 • 놀랴다
놀이 • 사리
놀이딱지 • 퇴지
놈 • 놈씨
놈팡이 • 놈생이, 놈팽이
놉 • 날품, 싹꾼, 일꾼, 품팔이
농기구 • 농구, 연장, 으장, 이은장
농담 • 농지기1
농번기 • 농방
농사 • 농새
농사꾼 • 농새꾼
높다 • 높우다, 높으다, 높으단허다, 높으담하다, 높으댄하다, 높으뎅허다, 높으막허다, 뇦다
높이 • 공상2, 뇦이
놓치다 • 떨추다, 떨쿠다1, 떨키다, 뜰키다
누구 아기의 이름 • 뉘애기 이름, 뉘집애기 이름
누그러지다 • 호아지다
누더기 • 누덕때기, 누덕지, 누데기, 누디기, 느더기, 느데기, 두덕바지, 두덕지, 두데기, 두둑바지, 두뒤기, 두디기, 두제기, 뒤데기, 지운옷
누덕누덕 • 누덩누덩, 더덕더덕, 두덕두덕, 뚜덕뚜덕
누렇다 • 뉘런허다, 뉘렇다
누룽지 • 감밥, 강눈밥, 까룸밥, 깐밥, 깜밥, 깡밥, 누룽기, 마른누룸밥
누명 • 에멘땜
누비다 • 뉘비다
누비이불 • 뉘비, 뉘비이불
누비저고리 • 뉘비저고리
누비포대기 • 뉘비포대기
누에 • 누예, 뉘어, 뉘에, 뉘여, 뉘예
누에고치 • 뉘어고초, 뉘어꼬초, 뉘어꼬치, 뉘에꼬초, 뉘에꼬치, 뉘여꼬추
누에나방 • 나비, 뉘나부, 뉘나비, 뉘어나부, 뉘어나비, 뉘에나부, 뉘에나비, 뉘여나부, 뉘여나비, 뉘예나부, 뉘예나비
눈 • 눈잔재레기
눈곱 • 애주가리
눈곱자기 • 눈꼽재가리, 눈꼽재기, 눈곱재가리, 눈곱쟁이, 눈꼽재기
눈구멍 • 눈구녕
눈까풀 • 눈까풀이
눈꺼풀 • 눈껍데기, 눈껍따기, 눈껍질, 눈떠불, 눈떠풀, 눈뚜껑, 눈뚜껭
눈대중 • 눈대죽
눈두덩 • 눈가죽, 눈두덕, 눈등, 눈딱지, 눈떠그리, 눈떠버리, 눈뚜덕, 눈탱이
눈병 • 눈애피
눈썰매 • 산써르매, 산썰매
눈엣가시 • 연덕
눈웃음 • 눈윗음, 눈잇임
눈자위 • 검엉자, 눈가시, 눈갓, 눈자새, 눈자시, 동자
눈주름 • 눈가상으주름, 눈가상주름, 눈주룸, 눈주룸살, 눈초리주룸, 실금주름살
눈초리 • 눈찌리
눌은밥 • 누룸밥, 눈밥, 밥누렁가지, 솥글겅이, 솥글겡이
느글느글하다 • 느글느글허다
느끼다 • 니끼다
-느니라 • -니라
느닷없이 • 느닷읎이
-느라고 • -니라고
느릅나무 • 누룩치나무
느리다 • 느러테허다, 느리지근하다, 느적지근하다, 늘적지근허다, 니리다
느릿느릿 • 느시렁느시렁
-는 것이야 • -능겨
-는- • -넌-

-는가 보고만 • -능갑만
-는가 보구만 • -는감만
-는가 보네 • -능갑네
-는가 보다 • -능갑다
-는가 보데 • -능갑데
-는가 봅디다 • -응갑디다
-는가 봐 • -능가미, -능개미
-는가 • -는당가, -능가, -능게
-는가요, -ㄴ가요 • -ㅇ기요
-는가요 • -는기요, -능교, -능기요
는개 • 안개비
-는고 • -능고
-는구나 • -ㄴ구나, -는고나
-는구먼 • -느만, -는만, -능가만, -능고마
-는다 • -은다
-는데 • -가니1, -가디, -구만2, -ㄴ디, -는디, -는디, -은디2
늘그막 • 늑밭
늘리다 • 늘구다, 늘쿠다, 늘키다
늘씬 • 낙신, 늑신
늘씬하다 • 늑신하다
늘어지다 • 늘이지근하다
늘이다 • 닐이다
늙은이 • 노따리, 느른니, 쭈글탱이
능가하다 • 찜 쪄 먹다
능글능글하다 • 능글능글허다
늦둥이 • 늦퉁이
늦잡죄다 • 늦잡도리하다
늦추다 • 늦구다
늪 • 툼벙, 포자
-니 • -이니
-니까 • -니깨, -니께로, -닝가니, -ㅇ게로, -ㅇ깨, -ㅇ께로, -응개
-다고 하더구먼 • -다드만
-다고 해 • -닥혀
다그치다 • 답치다
-다는가 • -다능가
-다니까 • -당게, -당개, -당게로
다니다 • 대니다, 대이다, 댕기다1, 댕이다
-다데 • -다카데
다듬다듬 • 따듬따듬
다듬이 • 다담이, 다둠이
다듬이질 • 다듬방맹이질, 다딤이질, 대듬이질, 따듬방맹이질
다듬잇돌 • 다담잇독, 다둠독, 다듬독, 다듬잇독, 다딤돌, 따듬돌
다듬잇방망이 • 다둠이방맹이, 다듬방맹이, 다딤이방맹이, 따듬방맹이, 홍두깨
다라이 • 다란니
다락 • 다랙, 정젯벡장
다람쥐 • 다램이, 다럼쥐
다랑이; 마지기 • 다랭이
다래(목화) • 명다래, 명따래
다래 • 목하다래, 목하열마, 목핫다래, 목해다래, 목해쉼이, 미엉다래, 미엉따래, 미영다래, 미영따래
다래끼 • 다라시, 다랏, 다래께, 송도리시
다르게 • 달케
다르다 • 달부다, 달브다, 틀부다
다른 • 다린
다리 • 다루
다리몽둥이 • 다리몽생이, 다리몽셍이
다리미 • 대리미, 대리비, 양복대리미, 조선대리미
다리샅 • 똥가래
다리쇠 • 삼발
다림질 • 대리미질, 대림질
다만 • 다먼
다물다 • 다멀다
다발 • 따발, 타발
다복솔 • 솔다방
다슬기 • 고동, 다사리, 다실개, 다실기, 대사리,

대수리, 물고동
다시 • 다쌔, 다씨
다시마 • 다시매
다식판 • 다석판
-다오 • -다우
닦다 • 딲다, 훔치다
단김에 • 단짐에
단단하다 • 깡깡하다, 꽝깡허다, 꽝꽝하다, 뜬뜬하다
단무지 • 단무시
단번 • 단배기
단번에, 대번에 • 단박에
단번에 • 단껍에
단속곳 • 단중우
단수수 • 단수숫대, 단수시, 단수싯대
단수수의 줄기 • 단쒸싯대
단쒸시 • 단쒸시
단추 • 댄추
달걀 • 게란, 게랄, 닥알, 달게알, 달괄, 당갈, 알걀
달구질 • 다구질
달다(용돈을) • 돌다
달덩이 • 달뎅이
달떡 • 보깨떡
달라붙다 • 디링기다, 씨실거리다
달래 • 달레이, 달롱개, 달루께, 달룽개
달래다 • 달개다
달무리 • 달머리, 달모리, 달무니
달보드레하다 • 달보드라허다, 달보드롬허다
달음박질 • 달음박글, 담박질, 당막질, 탐박질
달음박질치다 • 달음방하다, 담박질치다
달음박질하다 • 탐박질하다
달이다 • 댈이다
달차근하다 • 달치근하다
달콤하다 • 달코롬하다
달팽이 • 달파이, 달판이, 달팡이
닭똥 • 닥똥, 달구똥, 달기똥
닭의어리 • 닥가리, 닥퉁어리, 달구가리, 달그가리, 달기통, 덕가리
닭장 • 닥집, 달구통, 달기장, 달기장태, 달기통아리, 달기퉁어리, 장태, 장테
닳다 • 달무다, 탁하다, 탁해다, 탁허다, 탁히다
담 • 다무락, 다므락, 다우락
담그다(술을) • 담구다, 당고다
담배 • 담부, 댐배
담배설대 • 대꼭대기, 대똥, 대통, 댐뱃대
담배쌈지 • 담배쌈지, 담배지갑, 담뱃대꽃인통, 댐배쌈지, 부수쌔미, 쌈지
담배통 • 댐배꼭대기, 댐배꼭지, 댐배통
담뱃대 • 곰방대, 금사오죽, 대통대, 동고릿대, 물부리개, 물조롱, 물조리개2, 물주개, 빠이뿌, 소상간죽, 양철간죽, 조롱, 주석대, 팔부리,
담벼락 • 담배기, 담베락, 담벽
담뿍 • 따뿍, 잠뿍, 하나, 한나
담사하다 • 담싸허다
담요 • 담유
담쟁이 • 괭이넝쿨, 담자이, 담저이
답답증 • 오발딱지
답답하다 • 폭폭허다
당감이 • 당갬기
당기다 • 다클다, 당개다, 대끼다, 댕기다2
당나귀 • 당나구, 당나기, 당내귀
당달봉사 • 날봉사, 달달봉사, 당알봉사
당돌하다 • 아구똥하다, 아구똥허다
당신 • 이녁, 집이
당연하다 • 댕연허다
당장 • 대까닥
당황스럽다 • 꾀꽝시럽다
-대 • -데야, -당가, -대야, -댜2
대가리 • 대갱이
대갈빡 • 대가빡, 대그박
대갈빼기 • 대갈배기, 대갈빡, 대갈빼기, 대갈뺑

이, 대갈패기, 대골패기
대갈장군 • 대갈보
대갈통 • 대골통, 대구통
대강 • 상대강
대개 • 재개
대근하다 • 대간하다, 재근하다
대길하다 • 대질허다
대님 • 닷님, 댓님, 잿님, 행전
대단하다 • 끄리끄리허다, 끄릿끄릿하다
대담하다 • 담보있다
대독 • 수퉁아리2
대돗 • 대돋
대들다 • 엉부리다
대롱 • 때롱
대롱꽃 • 대롱꼿
대롱대롱 • 댈롱댈롱, 댈룽댈룽
대롱대롱하다 • 댈롱댈롱허다, 댈룽댈룽허다, 디롱디롱허다
대막대기 • 대막가지
대머리 • 민둥머리, 민둥이, 벗거지, 벗어배기, 빈대머리, 뻐꺼지
대문 밖 • 거르막, 걸막
대바구니 • 대바고리, 대소코리
대번에 • 대박에, 대빵에, 댄반에, 댐방
대부등 • 대부됨
대소변 • 대소매
대소쿠리 • 대나무소코리
대수롭지 않다 • 그댁잔허다, 그댁잖다
대야 • 대양, 디양
-대요 • -다요1, -다요2
대장간 • 대정간, 불뭇간, 성냥간, 성녕간, 승냥간, 승녕간, 풀뭇가, 풀뭇간
대장장이 • 대장자이, 대장쟁이, 대정, 대정정이, 불미재이, 성냥쟁이, 성녕잽이, 성녕쟁이, 풀미쟁이
대접 • 대집
대체 • 대깽이
대통 • 대꼭지
대학생 • 대학상
댁네 • 덕네
댓돌 • 뚜룽, 신방독, 심방독, 심빵독, 축돌
-더- • -드-
-더구먼 • -더구마, -더구만, -더만, -던만, -등마
-더군 • -도만
-더냐 • -댜1, -드냐, -디아, -디여
더덕 • 더벅
더디다 • 더도다
-더라 • -데이, -드라
-더라고 하면서 • -드람서
-더라고 • -드라고
-더라니까 • -드랑개
-더라도 • -드래도
-더래 • -드래여
더럽다(醜) • 더러다, 드러다
더럽다 • 드럽다, 든지럽다
더럽히다(옷을) • 더러지다, 드럽헤지다, 드럽혀지다, 드럽히다, 드럽히지다, 드렙헤지다, 드렙히다
-더만 • -드만
더미 • 데미
더벅머리 • 더덕머리, 더충머리
더운밥 • 따순밥, 따순뱁, 따숨밥, 뜨근밥, 뜨신밥
더위 • 더우
덕지덕지하다 • 데글데글허다
-던가 보다 • -던게비, -등가비
-던가 봐 • -덩가베
-던가 • -든가
-던데 • -든디1, -든디2
던지다 • 띵기다
덜거덕거리다 • 떨그덕거리다

덜컥 • 달파
덜퍼덕, 덥석 • 덜퍽
덤 • 우수
덤벙거리다 • 덤성거리다
덤불 • 더우락, 더풀, 덤부락, 덤부리기, 덤뿔, 덩부렁이, 덩풀, 페기
덥다 • 더웁다, 더읍다
덥석 • 덤벅
덧니 • 쪽니
덧문 • 검문, 덤문, 접문
덧버선 • 덧보신, 웃버선
덧붙이 • 덧붙이기
덩그렇다 • 들뭇하다, 들뭇허다
덩어리 • 덤버지, 덩가리
덩이, 덩어리 • 둥치
덩이 • 더갱이, 뎅이
덩이덩이 • 덩클덩클
덫 • 지끼돗
-데 • -디
데려가다 • 데꼬가다, 델꼬가다
데려다주다 • 디다주다
데려오다 • 데꼬다, 델꼬다, 디꼬오다
데리다(데리고) • 듥다, 데링다, 데루다, 델다, ㄷㅔㅎ다
데릴사위 • 데리사우, 데릿사우, 드릴사우
데우다 • 데다
도급 • 돗내기
도깨비 • 도채비, 도치기, 되채비, 되체비
도깨비바늘 • 까막사리, 도깨비풀, 도꼬마리, 도꾸마리, 도꾸머리, 도독놈, 도독놈풀, 도둑까시, 도둑놈까시, 도둑놈풀, 뙤꼬마리, 쇠물팍, 옷도독놈, 옷도둑놈까시, 우술
도깨비방망이 • 또닥방맹이, 또드락방맹이
도끼 • 도지, 도치, 도키, 돌치
도도하다 • 되되하다
도둑 • 도독
도둑고양이 • 도독괭이, 도독귀앵이, 도독귀양이, 도둑괭이, 산괭이
도드리장단 • 또드락장단
도라지 • 돌가지
도랑 • 갱또랑, 개울창, 개탕, 꼬랑, 꼴창
도랑물 • 꼴짱물, 꼴창물
도람직하다 • 도렴직하다
도련님(호칭) • 데렌님, 데린님, 도렌님, 되린님
-도록 • -더락, -드락
도롱이 • 대로이, 도래이, 도랭이, 도리1, 되로이, 두러이, 둥구지, 둥쿠리
도루마 • 도리마
도리깨 • 도로깨, 도로캐, 도리끼, 도리채, 도리캐, 돌캐, 호리깨
도리깨꼭지 • 까꾸랭이, 도리깨귀, 도리깨꼭지, 도리깨어시, 도리깻열가락지, 도리채고리
도리깻열 • 도로캐열, 도로캣열, 도루깨날, 도리깨열, 도리깨이을, 도리깨입삭
도리깻장부 • 도로깨어시, 도로캐깡치, 도리깨대, 도리깨장치, 도리채자루
도리다(칼로) • 되리다, 캐다
도리어 오히려 • 뎁데고깔
도리어 • 데따, 데떼, 뎁다, 뎁데, 뎁세, 됩대, 됩대로, 됩더, 됩데, 됩디, 됩시, 뒈따, 뒈떼, 뒈비,
도마 • 또매
도마뱀 • 도마배암, 도마비암, 도막비얌, 도매비얌, 도애배암, 도애비암, 동아뱀, 동아비얌, 동알비얌, 동애배암, 동애비얌, 동우배암 ,
도맡다 • 도마리허다
도미 • 되미
도배 • 되배, 되비
도시락 • 도시랙, 벤또
도토리 • 대투리, 도투리
도투마리 • 도토마리
도포 • 도복, 두렁치, 두렝이

독 • 도가, 도가니, 도가지, 수탱이, 수튕이, 수퉁아리1, 수퉁이, 수튕이
독경 • 됙경
독뱀 • 독배암
독별나다 • 뚝별나다
돈내기 • 돈냉기
돋보기 • 독뵈기, 돋배기, 돋베기, 돋뵈기, 돕뵈기, 됟베기, 됟뵈기
돋우다 • 도디다
돌게 • 돌기
돌나물김치 • 돗나물지, 돗나물짐치, 돗너물지, 돗너물짐치
돌담 • 독다무락
돌덩이 • 독뎅이, 독때기, 돌뎅이
돌막 • 독막
돌매, 맷돌 • 독매
돌멩이 • 독팡구, 돌팍
돌배 • 독배, 똘배1
돌부처 • 독부체
돌뽕나무 • 똘뽕나무
돌잔치 • 똘잔체
돌장이 • 독재이
돌절구 • 독도구
돌집 • 독집
돌쩌귀 • 도쪼고, 돌쩌구, 돌쪼구, 돌쭉, 돌추, 문베기, 문제비
돌차기 • 강뛰기
돌팔매질 • 돌폴매질
돌확 • 학도이, 학돌, 호악돌
돔방거리다 • 돔방거리다
돕다(助) • 도웁다
돕지 • 덥배
돗바늘 • 독바늘
동갑 • 동갑걸림
동강 • 동갈
동강이 • 돔방이, 동갈이
동그라미 • 똥글배기
동그랗다 • 동그람하다, 동그랍다, 동그러다, 똥그람하다, 똥그럽다
동글 • 둥그마치
동글동글하다 • 똥골똥골하다, 뚱굴빵굴허다
동기 • 동구
동냥아치 • 동나그치, 동나치, 똥냥아치
동네 • 동니
동발 • 지겟동발
동상례 • 동상리
동생 • 동상, 동싱
동서 • 동세, 동시
동아줄 • 동아, 동앳줄
동옷 • 돔뱅이
동이 • 동우
동자승 • 새끼중
동정 • 동전
동티 • 동태
동풍(東風) • 동핑
돼지 • 도야지, 되아지, 두아지, 두애지, 뒤아지, 뒤애지, 뒤야지
돼지우리 • 돼지마구, 돼지막, 돼짓간, 되아지굴, 되아지막, 되아지울청, 되아지울청막, 되아지집, 되아지청, 뒤아지막, 뒤아지우리, 뒤애지막, 뒤애지우리, 뒤애짓간, 울청
되게, 매우 • 시게
되게 • 디게
되는대로 • 되는양
되바라지다 • 돌라까지다
되작거리다 • 대작거리다
된김 • 된짐
된서리 • 댄써리
된장 • 댄장, 덴장, 댄장
두꺼비 • 두께비, 두끼비, 뚜끼비
두껍다 • 두꺼다, 두꼅다, 두텁다, 뚜껍다
두께 • 두꺼, 두끄, 두끼

ㄱ

두다 • 뒤다2
두더지 • 두더쥐, 두쥐기, 두지기, 뒤제기, 뒤지개, 뒤지기, 뚜두지
두동무니 • 두동, 두동사니, 두동산, 두동새니, 두동세이
두드러기 • 두두럭, 두두레기, 두드럭, 두드레기, 두드룩, 두드리기, 두디레기, 두디리기, 뚜두럭, 뚜두레기, 뚜드룩
두드리다(문을) • 뚜두리다, 뚜딜다, 띠딜다, 투드리다
두드리다 • 뚜드리다, 뚜디리다
두들기다 • 뚜대기다, 뚜댈기다, 뚜들기다, 뚜들다, 뚜딜기다
두락, 마지기 • 두랑
두런두런 • 두세두세, 우세두세
두런두런하다 • 두세두세하다, 우세두세하다
두렁이 • 네리다지, 두렁치매, 두룽치, 두링이, 드링이, 몽당치, 배가림, 샅싸기
두레박 • 두루막, 두루박, 두룽박, 두름박, 들박, 뚬박
두레박우물 • 두룸박샘, 두룸박세앰, 두룸박시암, 두룸샘, 큰시암
두레박질 • 두룸박질
두레박질하다 • 두룸박질허다
두루마기 • 두루래기, 두루매기, 두르매기, 후루마기
두루미 • 두루마리, 두리미
두루주머니 • 동글주머니, 염낭, 염낭주머니
두름 • 두룸, 두룹, 두릅, 둘굼, 둘금1, 뭉팅이
두벌 • 덮장, 재벌
두부 • 뚜부, 뜨부
두엄 • 거럼, 뒤엠, 뒤음
둑 • 데붓두덕, 데붓둑
둑새풀 • 독새기, 독쇄기풀
둑이 터지다 • 방천나다
둔갑 • 둔갭

둘레 • 도랑
둘레둘레 • 뚤레뚤레, 똘레똘레
둥그러미 • 뚱그레미
둥그렇다 • 둥그럽다, 뚱그러다
둥그스름하다 • 똘뱅하다
둥글다 • 뚱굴다
둥우리 • 두우리, 둥게, 둥구리, 투어리, 퉁어리, 퉁우리
-둥이 • -됭이
둥주리감 • 두리감, 수실감
둥치 • 뚱치
뒤꼍 • 되안마당, 뒈니, 뒤안, 뒤앙간, 뒤에터, 뒴마당, 뒷되안
뒤꿈치 • 뒤꼼치, 뒤끔치, 뛰꿈치
뒤숭숭하다 • 두두리숭숭허다
뒤엉키다 • 고동그러지다
뒤주 • 두제, 뒤주기, 뒤죽, 디주, 찻독
뒤지다 • 더트다, 뒤다
뒤집다 • 되씨다, 뒤쎄다
뒤집어쓰다 • 두집어쓰다, 뒤쎄쓰다
뒤집어씌우다 • 두집어씌우다
뒤집히다 • 두비지다
뒤집히다 앞뒤 또는 위아래가 바뀌다 • 되짐바라지다
뒤통수 • 뒤꼭때기, 뒤꼭지, 뒤꾹찌, 뒤통, 뒤통세기, 뒤퉁수, 뒷봉, 디퉁시, 뛰꼭지
뒷간 • 동수간, 동숫간, 동시간, 동싯간, 딧간, 똥돗간, 똥둑간, 똥새, 북간, 통시, 통싯간
뒷구멍 • 뒷구녕
뒷덜미 • 되수기, 뒤구땡이, 뒷모가지, 뒷목, 뒷목덜미, 머리끗
뒷동산 • 뒷등매
뒹굴다 • 궁글다, 둥글다
드러눕다 • 둔누다
드문드문 • 더문더문, 드믄드믄
드물다 • 두물다

드세다 • 어구다, 에구다
드시다 • 들으시다
득시글거리다 • 드글거리다, 드글대다
득시글득시글 • 드글드글
득시글하다 • 드글드글하다
듣그럽다, 시끄럽다 • 드끄럽다
듣다(聽) • 들으다, 딛다
-들 • -덜1
들기름 • 들지럼, 들지름
들깨 • 들꽤
들락거리다 • 들랑거리다, 뻘짝거리다
들볶이다(아이들한테) • 들볶애다, 들볶에다, 들뽂이다, 보대끼다
들썩이다 • 들쌕이다
들어가다 • 들가다
들어오다 • 들오다
들여다보다(방안을) • 데라다보다, 데레다보다, 델다보다, 델이다보다, 들어다보다, 들에다보다, 디다보다, 딜에다보다, 딜이다보다
들여다보다 • 구다보다, 구부다보다, 대다보다, 들이다보다
들이다 • 덜다, 딜이다1
들이지르다 • 든지르다, 든질르다
들입다 • 딜입다, 딜입대
들추어내다 • 들쳐내다
들치다 • 거뜨다
들판 • 덜판
듬쑥하다 • 뜸쑥허다
듯이 • 딧기, 치끼, 치키
-듯이 • -드끼
등 • 대수기, 드어리, 등거리, 등짝
등겨 • 거청저, 고운딩기, 곤딩기, 덩게, 등저, 몽강저, 몽곤저, 몽곤지, 몽군딩기, 몽군저, 몽근딩기, 몽근저, 죽기
등목 • 등막, 등맥, 등메, 등메기, 등멕, 등묵, 등물, 등발
등성이 • 등셍이, 장등이
디딜방아 • 드들방아, 드들방애, 드딜방아, 드딜방애, 디들방애, 디딜방애, 좀방애
디딤돌 • 디듬독, 디듬돌
따갑다 • 뙤약허다
따끔거리다 • 띠약거리다
따끔따끔하다 • 땟땟하다, 뙤얏뙤얏허다
따끔하다 • 띠앗허다
따라오다 • 딸오다
따로 • 따니로
따로나다 • 땅나다
따로따로 • 따로따로, 따루따루, 제금제금
따르다(逐) • 따로다, 따루다, 따리다
따르다(注, 물을) • 딸다
따르다 • 딸구다, 딸쿠다
따위 • 따우
따지다 • 끌어지다
딱따구리 • 딱따가리, 딱대구리, 목수새, 소새, 짜짜구리
딱정벌레 • 닥쟁이, 닥젱이, 딱쟁이
딱지 • 패지, 따가리, 따그랑이, 따그랭이, 딱지랭이
딱지치기 • 퇴지치기
딱하다 • 따까웁다
딴딴하다 • 땡때하다
딴살림 • 제금살이
딸기 • 따올, 따올기, 따왈, 따울
딸꾹질 • 픽각질
딸싹이다 • 딸쌕이다
땀띠 • 땀때기, 땀떼기, 땀띠기
땅 • 땅깔
땅값 • 땅갑, 땅검, 땅금
땅거미 • 땅개미1, 땅검, 땅게미, 땅그미, 땅금, 땅기미, 어둑발
땅덩이 • 땅뎅이
땅벌 • 따빠더리, 때끼벌, 땡기벌, 오빠시, 오빠

지
때려죽이다 • 쌔레죽이다
때려치우다 • 때레치우다
때리다 • 쌔리다
때문에 • 땀새, 땀시, 때미, 땜시
때우다 • 때울르다
땟국물 • 때깡물, 땟구정물
땡땡이중, 동자승 • 때깨중, 때끼중
땡땡이중 • 땡중
땡잡다 • 땅잡다
떠꺼머리 • 더꺼머리
떠내려가다 • 떠널러가다
떠들다 • 떠들다2, 떠들르다, 떠들씨다
떠들썩하다 • 떠도름시롭다, 떠부세하다
떠맡다 • 떠마트다
떠메다 • 떼메다, 뛰메다, 띠메다, 띠미다
떠벌리다 • 떠벌레다, 떠벌이다
떠안다 • 떼안다
떡갈나무 • 가람나무, 떡가람나무, 떡가랑나무, 비등나무, 종가랑나무
떡국 • 떡귂
떡살 • 떡사레, 떡사리, 떡자
떡호박 • 청호박
떨어뜨리다 • 내부치다, 널추다, 널치다
떨어지다 • 날치다, 네레찌다, 네리치다
떨치다 • 떨쿠다2
떫다 • 떨다2, 떫드림허다, 뜰다, 뚧다
떳떳하다 • 뜻뜻허다
떼어 내다 • 띠내다
뗏장 • 띳장
또아리 • 또가리, 또개미, 또바리, 똥아리
똑딱김치 • 똑딱지
똑똑이 • 똑똑사니, 똑똑새
똑똑하다 • 독독하다
똑바르다 • 똑바라지다
똥개 새끼 • 똥개새깽이
똥구멍 • 똥구녕, 똥구먹2
똥그랗다 • 똥그랍다
똥마렵다 • 뒤마렵다
똥오줌 • 똥소매
똥장군 • 똥통, 부낭, 소매통, 옹기장구, 장구네, 장구통
똬리 • 따뱅이, 뚜아미
뙈기밭 • 떼밧, 떼전, 뙤갱이밧, 뙤밧, 뙤전
뚜껑 • 두껑, 두꽁, 떠꿍, 뚜경, 뚜깨, 뚜깽, 뚜께리, 뚜꼉, 뚜꽁, 뛰꼉
뚝배기 • 오갈솟1, 오모가리, 옴박지, 옹구데미, 토가리, 투가리, 투겡이, 툭배기
뚫다 • 뚤부다, ㄸㅜㅎ다, 뚫부다, 뚭다
뚫리다 • 뚧어지다, 뚧어지다
뚱그렇다 • 뚱그럽다
뚱뚱이 • 뚱뛩이, 뚱띵이
뚱뚱하다 • 뚱실뚱실허다
뛰어나다 • 뛰나다
뛰박질하다 • 뛰엄박질하다
뜨다 • 쩔다
뜨듯하다 • 뜨시다, 뜨시하다, 뜨십다
뜨뜻하다 • 뜨뜻허다
뜨물 • 뚜물, 뜬물, 뚬물, 뜸믈, 뜨믈, 뜬물
뜨악하다 • 뜨광하다, 뜨광허다
뜬금없다 • 뜬금읎다
뜬금없이 • 뜬금읎이, 뜽금없이
뜯기다(풀을) • 띠기다
뜯기다 • 떼끼다
뜯다 • 띧다
뜰 • 뚤방, 뚤팡, 뜨렁, 뜰광, 마당터, 울안, 토방
뜸부기 • 뚬버기, 뚬벅새, 뚬베기, 뚬뵈기, 뚬부기, 뜸베기, 뜸벵이, 뜸뵈기, 뜸북새, 뜸비기, 뜸뿍새
뜸하다 • 꺼끔하다
뜸해지다 • 꺼끔해지다
띄우다 • 띄다1

띠 • 띠풀
-ㄹ 테야 • -ㄹ텨
-ㄹ거나 • -끄나
-ㄹ게요 • -께라우, -ㄹ께라우
-ㄹ까 보니까 • -ㄹ깜슨게
-ㄹ까 봐 • -ㄹ깜솨
-ㄹ까 • -까이, -ㄹ끄나
-ㄹ래요 • -ㄹ라요
-ㄹ세 • -시1
-ㄹ수록 • -ㄹ수락, -ㄹ쎄락, -ㄹ쑤락
-라고 하면서는 • -람선
-라고 • -라궈
-라는 • -닷
라는가 • -라구능가
-라니까 • -랑게
-라니까는 • -랑게로
-라도 • -ㄹ깝새
라디오 • 나조, 나지오
라면 • 나멘, 나멩, 나면
-라면서 • -람서
-라야 • -라사, -래야
라이터 • 나이타
-란다오 • -란다우
-러 • -로
러닝 • 난냉구, 난닝구
-려고 하는가 • -ㄹ라카능가
-려고 하니까 • -ㄹ랑개
-려고 하다가 • -ㄹ라다가
-려고 해 • -ㄹ라고려
-려고 • -ㄹ라고
-려는가 • -ㄹ랑가
-려면 • -ㄹ라먼, -ㄹ라문
-렵니까 • -ㄹ람니까
로 • 로가서, 로다가
륙색 • 니꾸사꾸
리어카 • 니야까
마구 • 들고
마구간 • 마붓간, 막간
마누라 • 마누래
마늘 • 마널, 마눌
마늘종 • 마늘쫑지기
마다 • 마닥, 마도, 마동
마디 • 마두, 매디, 모디
마렵다 • 마라다, 마랍다, 매라다, 매랍다, 매렵다
마루 • 마루꽝, 마루캉, 마룽, 마리, 마캉, 말레이, 말로, 망깡, 모렝이, 모링이
마르다(물이) • 말르다, 몰르다
마르다 • 보타다
마른버짐 • 마른버듬, 마린버짐, 모룬버짐
마른신 • 마린신
마름 • 개마람, 마람, 모람, 몰밤, 물밤
마름질 • 말름개질
마리 • 바리
마방 • 마뱅
마소 • 소말
마을 • 마실, 모실, 부랙
마음 • 마엄
마음고생 • 마음고상, 맘고상
마음보, 심보 • 맘보자기
마음보 • 맘보재기, 맴보따리, 맴보재기
마장 • 마정
마지기 • 사발다랭이, 서되지기
마찬가지 • 마천가지
마침맞다 • 꼭맞다, 똑맞다, 마치맞다
막가다 • 넉동가다, 막동가다, 전막가다
막걸리 • 탁걸리
막내 • 막냉이, 막두이, 말자치
막내아들 • 끝에아들
막대기 • 나무때기, 막가대기, 막가지, 짝대기
막히다 • 맥히다, 믹해지다

ㄱ

만날 • 맨나, 맨날
만들다 • 맨글다, 맨들다, 맹글다, 맹길다
만만하다 • 맨만허다, 맨맛하다, 맨맛허다
만만히 • 맨맛이
만물, 만도리, 세벌매기 • 마무리지심, 만도리, 만두레, 만두리, 만드레, 만드리
만물, 만도리, 세벌-매기 • 시벌
만일 • 만단간
만족스럽다 • 오구감탕시럽다
만지작거리다 • 문청거리다
만치, 만큼 • 마치2
만큼 • 마시, 맨치
많다 • 겁나다, 많이다, 숱허다
맏딸 • 몯딸
맏며느리, 큰며느리 • 장메누리
말간 • 말간
말끔 • 맬캉
말끔하다 • 말금하다, 맬거하다
말끔히 • 말금히
말다(둥글게) • 몰다
말대꾸 • 앙알이
말대꾸하다 • 앙알이허다
말더듬이 • 더듬바리, 반봉오리
말리다(둥글게) • 말어지다
말리다(빨래를) • 몰리우다
말리다 • 말기다
말발 • 말바치
말썽질하다 • 제냥떨다, 제낭치다, 제양떨다, 제양치다
말씀 • 말쌈
말아지다 • 몰아지다
말짱하다 • 말짱허다
말코지 • 말쿠지
맑스그레하다 • 말고롬허다, 맬금하다
맛 • 맛탱이
망가뜨리다 • 어긋내다

망둑어 • 운지리
망아지 • 말새끼, 말섀끼, 메아지, 새끼말, 새끼망아지
망울망울 • 망올망올
망월 • 망올, 망우리, 망월이
망인 • 맹연, 맹인
망차기, 돌차기 • 마차기
망태기 • 구덕, 구럭, 망대, 망팅이
맞닥치다 • 맞다치다
맞방아 • 맞도고질
맞방아하다 • 맞도고질허다
맞추다 • 맞초다, 맞치다
맡기다 • 맽기다, 보관히다
맡다 • 마뜨다
매끈매끈 • 매꼼매꼼
매끈하다, 깔끔하다 • 매꼼하다
매끈하다 • 매꼬롬하다, 매꼬롬허다
매끈히 • 매꼬롬히
매끼 • 매댕이
매다(김을) • 미다2
매다 • 짜미다
매달다 • 달애매다, 달어매다, 달이매다, 매딸다
매달리다 • 달레다, 대롱개타다, 대롱구타다, 대룽개타다, 매달레다, 매달르다
매듭 • 매답, 이시매
매일 앓는 학질 • 메느릿심
매짝 • 밍짝
매품 • 매품장이
매형 • 마향, 매항, 매행, 매향, 매헹
맥 • 맥살2, 맥아리
맥없이 • 매급시, 맥살없이
맨날 • 빼나, 빼날
맨몸 • 깰탕
맷방석 • 매방석
맹감 • 땡감
맹근하다 • 맹간허다, 맹건허다, 밍근하다

머리카락 • 머리커락, 머리터럭, 머카락, 머크락, 멀끄락, 멀카락, 멀크락
머무적거리다, 서성거리다 • 둔전거리다, 둔전기리다
머뭇머뭇하다 • 뒨정뒨정하다
머슴 • 머섬, 머심
머슴살이 • 담살이, 머심살이
먹구렁이 • 먹구렝이
먹다(食) • 묵다
먹칠하다 • 멕칠하다
먹히다 • 멕히다, 뭑히다, 믹히다
먼저 • 먼야, 먼염, 먼영, 먼예, 먼제, 먼지, 먼차, 먼처, 먼첨, 몬야, 몬자, 몬춤, 앞에, 앞우, 앞으
멀겋다 • 멀건하다, 멀건허다, 밀건허다, 밀금하다, 밀긴허다, 삘겋다
멀미 • 몰미
멀어지다 • 이나다
멈추다 • 멈치다
멈칫거리다 • 무춧거리다
멋들어지다 • 멋덜어지다, 멋들어지다
멍 • 먹장, 청기
멍석 • 덕석, 멍성, 방석
멍석딸기 • 먹딸, 먹딸광, 먹딸기, 먹때깔, 멍덕따올, 멍덕딸, 멍덕때왈, 벅때왈
멍석말이 • 덕석말이, 덕석멀이, 덕석몰이
멍울 • 망우리, 몽오리, 몽울, 앙아리
멍청이 • 먹중
멍충이 • 반농판이, 어주리
멍하다 • 의존허다
메 • 메밥, 뫼밥
메공이 • 메갱이
메기 • 미기
메꾸다 • 미꾸다
메다 • 메이다, 목마히다, 몽치다, 미다3, 미어지다, 미이다, 잼기다
메다꽂다, 메어꽂다 • 메다박다
메떡 • 무떡
메뚜기 • 땅개미2, 땅개비, 땅구, 메때기, 메떼기, 메뙤기, 메뛰기, 메띠기, 뫼뚜기
메롱이다 • 내롱이다
메밀 • 메물
메수수 • 메수수, 메쑤시, 멧수수, 며수수, 모쑤시
메스껍다 • 미스껍다, 미시껍다, 미시끕다
메슥거리다 • 미식거리다
메슥메슥 • 미슥미슥, 미식미식
메옥수수 • 메강냉이, 메옥수수
메우다 • 메쿠다, 미다1, 미우다
메워지다 • 메워지다, 메쿼지다
메조 • 메서숙, 메스숙, 메스슥, 멧서숙, 모스숙, 모조, 미주2, 서숙, 수숙, 스숙, 스슥
메주 • 미주1
메주콩 • 메물콩
메추라기 • 메추래기
메치다 • 메뎅이치다
멜빵 • 띠빠
멥쌀 • 멥쌀, 몝쌀, 뫱쌀
멧돼지 • 멧되아지, 멧되야지, 멧뒤지
며느리(婦) • 매누리, 메누리, 메눌아기, 메느리, 메니리, 며누리, 며늘애기, 미너리, 미느리
며느리 • 미누리
며칟날 • 메칠날, 미칟날, 미칠날
며칠 • 메칠, 미칠
멱 • 멱동가지, 멱둥갱이
멱둥구미 • 꼴망태, 꼴모꾸리, 꼴목따리, 꼴미꾸리, 멕다리, 멱다리, 멱사리, 옹텡이
멱살 • 맥살, 멕동가지, 멕사리, 멕살
멱서리 • 꼴목꼬리
-면 • -머는, -먼
면경 • 민경
면도 • 멘도, 민도
면도칼 • 민도칼

-면서 • -ㅁ서, -ㅁ성, -ㅁ시로, -ㅁ시롱, -먼서, -멘서
-면서나 • -ㅁ시로나
-면야 • -ㅁ사
면장 • 멘장, 민장
멸치 • 멜따구, 멜치, 밀따구, 밀치
명경 • 맹경, 멩경, 밍경
명매기 • 맹애기, 앵매기, 왱매기
명아주 • 명화대
명절 • 명월
명주 • 멩주베, 멩지, 멩지베, 명주베, 명지, 명지베
명주베 • 멩지비
명주실 • 멩주실, 멩지실, 명지실
명태 • 밍태
몇 조금 • 멧조금
모가지, 멱살 • 매가지
모가지 • 메가지, 모강뎅이
모과 • 모가, 모개2
모금 • 머금, 모곰
모기 • 모고, 모구
모내기 • 이양
모내기하다 • 모내기허다
모닥불 • 모더락불, 목대불
모되 • 납대기
모두 • 모다, 모도, 옴빡, 옴싹
모두머리 • 모듬머리
모란꽃 • 목단꼿
모래 • 모새, 목새
모롱이 • 모룽이
모루 • 따배기, 마루쇠, 마릿돌, 마릿동, 말띵이, 머릿-독, 머릿돌, 머릿딩이, 모루쇠, 모룻독쇠, 모리, 모리쇠 ,
모루채 • 미로, 쇠메
모르다 • 몰루다, 물르다
모서리 • 모실배기, 밥상귀
모숨 • 주먹
모시 • 모시베
모시다 • 뫼시다
모양 • 모냥
모양새 • 모냥다리
모으다 • 모들치다, 모우다, 모태다
모이 • 모시
모이다 • 모다지다, 뫼다
모이어 앉다 • 뫼앉다
모지락스럽다 • 모지락시럽다, 모지랍시럽다, 몰악시럽다
모지랑숟가락 • 달챙이
모처럼 • 모초럼, 모초롬
모춤 • 모타래
모퉁이(산의) • 빈탈
모퉁이 • 곱은댕이, 모띠이, 모랭이, 모숭테이, 모테이, 모텡이, 모통아리, 모튕이, 모투이, 모퉁, 모퉁아리, 모퉁이, 모팅이, 옹댕이,
목구멍 • 목구녕
목구멍의 때를 벗기다 • 목구녁의 때를 벳기다
목덜미 • 목덜메기, 목델미
목말 • 고깔, 목모룸, 목발, 우등
목메다 • 목영치다
목물 • 허룸박, 허리막
목수 • 대목쟁이
목숨 • 목심
목욕 • 모욕, 목간, 뫼옥
목젖 • 목젓
목침 • 모침, 몽침, 자방침1, 터막, 토막
목화 • 미영, 목하, 목하쉥이, 목해, 목회, 미엉
목화꽃 • 미영꼿
목화밭 • 목케밧
목화송이 • 미영쉥이, 미영숭어리, 미영쉉이
목화씨 • 목하씨, 목해씨, 미영씨
몫 • 모착, 목시
몰래 • 속새로

몸 고생 • 몸고상
몸덩이 • 몸뎅이
몸뚱이 • 몸뚱아리, 몸띠, 몸띵이
몸살 나다 • 몸치나다
몸소 • 당부데이
몹시 • 들싸
못난이 • 몬생이
못마땅하다 • 몰뚝자다
못쓰다 • 못씨다
못자리 • 모자리, 못잘
못자리판 • 모자리판
못자리하다 • 모자리하다
못하다 • 못허다
몽둥이 • 몽낭구, 몽뒹이, 몽딩이
몽땅 • 몽창, 솔빠시
몽똑하다 • 몽창허다
뫼 • 뫼똥아지
묏등, 묘 • 묏동, 묏둥, 묫동
묏자리 • 묫자리, 밋자리
무 • 무수, 무시, 무시뿌랭이, 무우, 총각무시
무궁화 • 무개나무
무궁화나무 • 무계나무
무김치 • 무수지, 무시지, 무시짐치, 무지, 무짐치
무너지다 • 무네지다, 무녀지다
무넘기 • 문넹기
무늬 • 무네, 무누
무당 • 당골, 당골네, 당골에미, 당골이, 당꼴내, 무댕, 보살
무더기 • 모데기, 모뎅이, 모드레기, 모타리, 무데기, 무드레기, 무디기
무덤 • 밋둑
무렵 • 무럽
무릇 • 물곳
무릎 • 무룹, 무르팍, 무름팍, 무릅, 물방댕이, 물팍
무말랭이 • 무수고시래기, 무수꼬시래기, 무수우거리, 무시오가리, 무시우거지, 무우말랭이
무명 • 명뵈, 미영베, 미영뵈
무명실 • 광목실, 명실, 미영실
무서워하다 • 무서무서하다, 무서하다
무섬증 • 무섬정
무섭다 • 무서다
무성하다 • 우우하다
무쇠 • 무세
무싯날 • 무심날
무엇 하다 • 머더다
무엇이 • 머시
무엇이라고 하냐 • 머시다냐
무엇이야 • 므여, 머여
무엇인고 하니 • 머신고니, 먼고니
무작스레 • 모작스레
무청 • 무사구이팔, 무수이파리, 무수이팔, 무수입, 무수입사구, 무수입삭, 무수입새, 무숫입, 무시이파리, 무시이퍼리, 무시입, 무시입삭, 무시잎사구, 무싯입, 무이파리
무청시래기 • 씬거리
묵히다 • 묵후다
묶다 • 묶우다, 묶으다, 뭉꾸다, 뭉끄다, 삶다, 쨈미다
묶음 • 묶움
묶이다 • 묶이지다, 뭉꺼지다, 뭉께지다, 뭉끼다, 뭐이다, 묑끼다
문간채 • 문칸채
문고리 • 문고려, 뭉고리
문구멍 • 문구녁, 문구녕
문둥이 • 문더이, 문데이, 문두이, 문딩이, 썩문둥이, 용총배기
문득 • 문특
문안인사 • 안인사
문지르다 • 문태다
문지방 • 무너미, 문두방, 문텍

물다 • 뭃다, 무다, 물다, 뭃다
물가 • 물가상
물결 • 물겔
물고추 • 물꼬추
물김치 • 물짐치
물꼬 • 물귀
물다 • 물우다
물독 • 물독아지, 물통, 물황, 물황아리, 수팅
물동이 • 물당애, 물동오, 물동우, 물반대기
물둑, 제방, 둑 • 대봇둑
물러서다 • 무너나다
물레 괴 • 괴물
물레방아 • 물레방애, 물레뱅아, 물방아
물레방앗간 • 물레방아실
물리다 • 뉘나다, 니나다
물리치다 • 물러내다
물방개 • 둥개, 물각세기, 물강구, 물강생이, 물광구, 물깡구, 물꽝구, 물반두, 물빵개
물복숭아 • 물복송
물부리 • 무초리, 무추리, 물뿌리, 물주리, 물처리, 물추리, 물푸리, 빠뿌리, 빠이뿌리, 빨뿌리, 빨뿌리기, 빨쭈, 빨찌, 빰뿌리,
물뿌리개 • 조랭이
물알 • 새싸래기
물오르다 • 물올르다
물장군 • 물소, 물장구
물지게 • 무지게, 물지기
물크러지다, 물커지다 • 물캐지다
물통 • 물토롱, 질통
묽다 • 눍다, 물그름하다
뭇, 덩어리 • 덤벵이
뭉그러지다 • 농그라지다, 몽구레지다
뭉근하다 • 자지근허다, 지지근허다
뭉기다 • 뭉게다
뭉뚱그리다 • 몽똥거리다, 몽똥그리다
뭉치 • 떰뱅이
뭉클뭉클 • 느클느클허다
뭉텅이 • 뭉퉁
뭉툭하다 • 똠박허다
미꾸라지 • 미구라지, 미까랑댕이, 미꼬라미, 미꼬라지, 미꼬랭이, 미꾸라미, 미꾸락지, 미꾸람지, 미꾸랑지, 미꾸래미, 미꾸래지, 미꾸랭이, 미꾸리, 옹구락데기, 웅그레기
미끄러뜨리다 • 미끌치다
미끄럼 • 꼬숨, 뚜꾸람, 미끄름, 찌크름
미끈거리다, 미끈둥거리다 • 미끈덕거리다
미끈둥하다 • 미끈덕하다
미끈하다 • 미끔하다, 밋꿈하다
미끼 • 게기밥, 괴기밥, 낚숫밥, 넦잇밥, 물고기밥, 밋감, 밋갑, 입갑, 입밥
미나리 김치 • 미나리지, 미나리짐치
미나리 물김치 • 미나리싱건지
미나리 • 돌미나리, 메나리, 물미나리
미닫이 • 미리탕, 밀챙
미닫이창 • 밀창
미련퉁이 • 미럭둥이, 미련곰탱이
미숫가루 • 미숫가루, 미숫가리
미음 • 맘죽, 미엄, 흰죽
미장이 • 미자이
미적거리다 • 미척이다, 미치적거리다
미적미적 • 미척미척
미적미적하다 • 미척미척하다
미지근하다 • 밍간허다, 밍건허다
미치광이 • 미추갱이, 미춘강이
미친년이 널뛰다 • 미친년 널뛰다
미투리 • 메터리, 메투리, 미커리, 숭마
민들레 • 머심달래, 머심둘레, 민들리, 보리뱅이
민물고기 • 민물게기, 민물괴기
밀가루 • 밀가리
밀기울 • 밀껍닥, 밀주을, 밀지울, 지을
밀다 • 미클다
밀물 • 들물

밀물지다 • 들물허다
밀삐 • 띠빵
밀치다 • 밀어부치다
밉다 • 미웁다
밋밋하다 • 맨드롬하다, 민두룸하다, 민두름하다
밑구멍 • 밑구녕
밑신개 • 발판, 앉일개1
밑씻개 • 짚북세미
-ㅂ니까 • -ㅂ니겨, -ㅂ니어
-ㅂ디까 • -ㅂ뎌, -ㅂ등거, -ㅂ디껴, -ㅂ디여, -ㅂ딩겨
-ㅂ시오 • -겨, -ㅂ쇼
바가지 • 바가치, 박작, 박적
바구니 • 도방구리, 모코리, 바구리, 바꾸1, 밥고리, 밥바구리, 밥소쿠리, 보고리1, 어까리, 장대미소쿠리
바구미 • 뒤미, 바게미, 바구니, 바귀미, 바기미, 바김, 빠깨미, 빠꾸미, 콩벌거지
바깥 변소 • 뜰통시, 바깥변소, 바깔칙간, 배깔칙간, 사랑칙간, 헛통시
바깥 • 바깟, 배깟, 배깥
바깥변소 • 한데칙간, 한데칫간, 한데통시, 한디변소, 한디소망, 한디칙간, 한디칫간
바깥애 • 배깟애
바깥양반 • 배깥양반
바꾸다 • 까파치다, 바꼬다, 바꿔치기하다, 바끄다
바꿔치기하다 • 바꽈치기하다
바뀌다 • 배께다, 배끼다
바느질 • 바너질, 바너질아치, 바누질, 바느질아치, 자봉
바늘 • 바널, 바눌, 바늘
바늘구멍 • 바늘구녕
바닷고기 • 바닷괴기, 바닷물괴기, 바대고기
바둑 • 바돌, 바둘
바디집비녀 • 보디집비녀
바라다보다 • 바러다보다
바람 • 바램
바람벽 • 바람뚝, 베랑박, 벼람박
바랑 • 바랭
바래다(색이) • 날아나다
바랭이 • 바라구
바로, 금방 • 고닥기, 고닥, 고닥새, 금새
바루다 • 바로다, 잡으다, 페다, 피우다
바르다 • 바리다, 발르다, 보르다
바보, 밥통 • 머거죽, 머거죽이
바보 • 벙태, 벙탱이, 벙퉁이, 엉구, 푸대2
바쁘다 • 바뿌다
바사기 • 여덥달
바서지다 • 뿌수어지다, 뿌시거지다
바스라기 • 뿌시레기
바위 • 독바우, 바오, 바우, 바이, 엉바구
바위너설 • 돌너설
바지 • 쓰봉, 중우, 즈봉, 쯔봉
바지락 • 반지락
바지락젓 • 반지락젓
바지랑대 • 간지랑대, 바지라이, 줄짝지
바지를 벗다 또는 발가벗다 • 깨를 벗다
바짝 • 뽀짝
바짝바짝 • 오그작오그작
바퀴 • 바꾸2, 바꿔, 발통, 쇠발통
박꽃 • 박꼿
박수 • 당골애비, 법사
박우물 • 박적시암
박쥐 • 복주, 복쥐, 빡주, 빡쥐, 빡지, 뽁주, 뽁쥐, 뽁지, 뿍주, 뿍쥐, 쥐새, 지새 ,
박히다 • 백이다, 백히다
밖에 • 백에, 백이, 빽이, 뿐이
반거충이 • 반거챙이, 반거충이
반공일 • 반갱일, 반굉일
반닫이 • 앞닫이2
반드시 • 반다시

반듯이 • 빤듯이
반듯하다 • 반지름하다, 빤뜻허다
반딧불 • 개똥불, 깨똥불, 반뎃불, 벙갯불, 새똥불, 쇠똥불, 아랫불
반딧불이 • 개똥버러지, 개똥버럭지, 개똥벌거지, 개똥벌래
반말 • 반거지
반반하다 • 민핀허다
반소매, 반팔 • 한소대, 한수대
반주그레하다 • 밴조고름하다, 밴조고름허다, 빤조롬허다
반짇고리 • 바누지광지, 바느직그릇, 바느질그럭, 바느질꽝우리, 바늘쌈지, 바늘쌍재, 반지그럭, 반짇구리, 반짇그럭, 반짇그륵, 반짇상자그릇, 반짇상잣그륵, 반질광지리, 일그럭, 일글짝
반짝거리다 • 빤닥거리다
반짝반짝하다 • 빤닥빤닥하다
반편이 • 반팽이, 반펭이, 범파니
반회장 • 반호장
반회장저고리 • 바느장거리
받들다 • 우대다
받침 • 받침개
발가락 • 발고락, 발구락, 발그락
발가벗다 • 깨벗다, 껠딱벗다, 꽤벗다, 꾀벗다, 삘기벗다
발갛다 • 발그란하다, 빌그렇다, 발그랗다
발꿈치 • 뒷구머리, 발꼼치, 발꽁치
발돋움 • 개발디딤, 끈지발, 꼽발, 키발제
발돋움하다 • 끈지발스다, 끈지스다
발뒤꿈치 • 발뒤꼬모리, 발뒤꼭지, 발뒤꼼치, 발뒤꽁치, 발뒤꿍치, 발뒤끔치
발름발름 • 발심발심, 벌씸벌씸
발름발름하다 • 발람발람하다, 발심발심하다
발모가지 • 발모감지, 발목데기, 발목뎅이, 발목때기, 발목땡이
발목 • 발묵
발버둥 • 발버등
발자국 • 발자꾸
발채 • 바소쿠리, 바작, 바잭, 바지개, 바지기, 바직, 발때
발톱 • 발툽, 발특, 발톱
밝아지다 • 밝어지다
밝혀내다 • 알케내다
밝히다 • 밝헤다
밟다 • 볼부다, 볿다
밟히다 • 볿히다
밤나무 • 밤낭구
밤낮 • 밤낫, 팜나
밤송이 • 밤숑이, 밤쉉이
밤윷 • 밤윳
밥알 • 밥태기
밥주걱 • 나무주걱, 박죽, 밥주개, 밥주벅, 밥주법, 밥죽, 뿔주벅, 쇠주걱, 쇠주벅, 주걱1, 주겁, 주벅 ,
방게 • 둥둥기
방고래 • 방골
방귀 • 방구, 빵구
방긋이 • 빵긋이
방망이 • 방마이, 방마치, 방망치, 방매, 방매이, 방몽치, 방추, 방치
방망이질 • 팽맹이질
방석 • 자부동
방아 • 바애, 방애, 방하, 빵애
방아깨비(수컷) • 땅개비숫놈, 때때, 때때기, 때때시, 수땅개비
방아깨비(암컷) • 땅개비암놈
방아깨비 • 땅개미3, 땅게비, 뙤뙤, 바아개비, 바아깨비, 방아땅개, 방아땅구, 방애땅개, 방애땅개비, 연치, 왕땅개비
방아확 • 도구통, 학도, 학독, 화독, 확똑
방앗공이 • 도굿대, 도긋대, 방아고, 방앗고, 방애고, 방애괴, 방애코, 방앳고, 방으고, 좀방애

고
방정 • 욜래통
방정맞다 • 오전스럽다
방한모 • 감토, 아마구
밭고랑 • 고랑1, 고랭, 꼴착, 또랑2, 박고랑, 밭고랑, 밭골
밭다 • 보트다
밭두둑 • 두덩, 두둑, 두럭, 두룩, 두릉, 막두릉, 밭두덕, 밭두둑, 밭두득
밭두렁, 밭두둑 • 밭두럭, 밭두렉, 밭두룩, 밭드럭, 밭살피
밭두렁 • 밭두렁, 밭두렝, 밭두룽, 밭드렁
밭둑 • 살페, 어덱, 엉떡, 한기데목, 한기두럭, 한데기목
밭은기침 • 볽은기침
밭은소리 • 볽은소리
밭이랑 • 두렁, 밭꼬랑, 이랑, 이랭
배 • 배아지, 비애지
배고프다 • 굴풋하다
배꼽 • 배고마, 배꼭지, 배꾸라지, 배꾸리, 배꿉
배때기 • 배대기, 배대지, 배따지, 배때아지, 배얄때기, 배통아지
배우다 • 배다, 배오다
배젊다 • 배어리다
배짱 • 간보, 뱃보
배추 • 배차, 배치
배추김치 • 배추지, 배추짐치
배추속대 • 속배추
배코 • 배고
백김치 • 백지1, 백짐치
백목태(白目太) • 흰개다리콩
백부(호칭) • 큰아번님, 큰아부지
백설기 • 백시리, 백시리떡, 백지2, 백지떡, 서리떡, 신무리, 신무리떡, 심무리떡, 흔설기, 흰머리, 흰모리, 흰무리, 흰슬기
백수건달 • 먹고대학생
백양나무 • 뽀뿌레나무, 뽐뽀리나무
백여우 • 백여구, 빽여꾸
밴댕이속 • 빈댕이속
뱀 • 배암, 배얌, 비암, 비앰, 비얌, 비얨
뱀딸기 • 배암딸, 배암때왈, 배얌딸, 배얌때왈, 뱀때왈, 베암때왈, 비암따왈, 비암딸, 비암때왈, 비얌딸, 비얌때왈
뱀띠 • 배얌띠
뱀장어 • 민물짱어, 배암자어, 배암장어, 배얌장어, 뱀댕이, 뱀장우, 밤장애, 부어지, 비암자어, 비암장애, 비암장어, 비얌장애, 비얌장어, 비얌장에, 짜아
뱃대끈 • 뱃대끼끈
뱃사람 • 뱃동무
뱉다 • 비얏다
버글버글하다 • 벙을벙을허다
버드나무 • 버들나무, 회뜨기나무
버르장머리 • 버르쟁머리
버릇 • 버럿, 버릿
버리다 • 내비리다, 내삐리다, 내뻘다, 내뿐지다, 내쓰다, 베르다, 베리다, 부리다, 불다
버마재비 • 거마재비, 도마재비, 배아재비, 버마자비, 버무땅개비, 버아재비, 사마구, 숟구락도독놈
버무리다 • 버무르다, 버물다, 속박다
버선 • 버신, 버신데기, 보선, 보손, 보순, 보싱
버선발, 맨발 • 단순발
버스 • 빠쓰, 뻐쓰, 뽀쑤, 뽀쓰
버티다 • 버팅기다, 쌔기다
버팀목 • 버틈개
벅적 • 수두룩벅적
번 • 볼탱이, 자리2
번다하다 • 번다허다
번성하다 • 번성허다
번하다 • 빤허다
벌거벗기다 • 꾀대기빗기다, 꾀댕이빗기다, 꾀빗

ㄱ

기다
벌거벗다 • 꾀대기벗다, 꾀댕이벗다, 꾀벅다
벌거숭이 • 꽤복쟁이, 꾀복쟁이
벌겋다 • 벌그렇다
벌레 • 버러지, 버럭지, 버레기, 벌거지, 벌기
벌름 • 벌씸
벌름거리다 • 벌씸거리다
벌름벌름하다 • 벌씸벌씸하다
벌름하다 • 벌씸하다
벌샘 • 벌시암
벌써 • 그새보, 버쎄, 보로1, 볼쌔, 볼쎄, 볼쎄로, 볼씨, 펄쎄, 펄씨, 펄씨케, 폴씨께, 하매 ,
벌어먹다 • 벌어묵다
벌어지다 • 벙글어지다
벌판 • 버나벌판
범아귀 • 범아구지
법랑 • 파른
법석대다 • 부랑이치다
벗겨지다 • 벳게지다
벗기다 • 벳기다, 빗기다
벙어리 • 버버리, 봉오리2
벚꽃 • 사꾸라
베개 • 벼개, 비개
베갯모 • 베갯모서리
베갯속 • 비개속, 비갯속
베갯잇 • 베갯이, 비개창, 비개호창, 비개호청, 비개홋, 비개홋이, 비개홋이불, 비갯예, 비갯요, 비갯이, 비갯입
베다 • 비다2
베짱이 • 베짜이
베틀신 • 끄식개신
벼 이삭 • 모개
벼, 쌀 • 나락
벼 • 나륵
벼락 • 바락, 베락
벼랑 • 깔막, 낭떨배기, 베랑, 베루3, 비랑1, 어덕, 엉덕
벼루 • 베루1, 비루
벼룩 • 베룩
벼리다 • 날내다, 벨르다, 벨리다
벼슬 • 베실, 벼실
벼이삭 • 나락모가지, 나락모갱이, 나락이삭, 나락이시락, 베이삭, 벳모가지
벼훑이 • 가락, 훑치기
벽 • 담배락, 담백, 베락박, 베람박, 베름박, 베릉박, 벼락박, 병박
벽돌 • 벡돌, 빅돌
벽돌담 • 벡돌담
벽장 • 벡장, 빅장
벽지 • 벡지
변덕스럽다 • 빈덕시럽다
변소 • 뒷간, 들통시, 똥독, 벤소, 벤솟간, 변솟간, 부칙간, 소망, 칙간, 하장실
변통머리 • 빈통머리
별 • 비얼
별꼴 • 벨꼴
별나다 • 뙤똥허다, 벨쭝맞다, 벨축스럽다
별놈 • 벨짜
별똥별 • 빌똥
별로 • 벨라, 벨로, 비랑2, 빌로
별스럽다 • 벨시럽다
별스레 • 별시리
별일 • 벨일, 벨일
볍씨 • 나락종자, 씻나락
볏 • 쟁깃보십, 훌칭이
볏가리 • 나락베늘, 나락벼널, 나락줄가리, 버눌가리, 베눌가리, 베늘가리, 짓가리, 짚빗가리
볏단 • 나락다발, 나락단, 나락뭇, 나락바심, 나락주먹, 뭇단, 벳다발, 벳단, 벳뭇, 볏뭇
볏짚 • 벳집, 볏집, 지푸락2, 짚눌, 짚다발
병 • 벵개, 병개
병마개 • 벵마개

병신 • 빙충이
병아리 • 벵아리, 비아리, 빙아리, 삥아리, 뺑아리, 삐아리, 삐애리, 삐야리, 삥아리
병어 • 벵치
병원 • 빙원
보고 • 보로2
보늬 • 비널, 비눌, 비닐
보다 • 비다4, 보단, 보담, 부다
보듬다 • 보돔다
보라색 • 보래색
보름 • 보럼, 보롬
보리 • 버리, 부리
보리밟기 • 보리볿기
보리쌀 • 버리쌀
보릿겨 • 괵기, 버리곤딩기, 버리몽곤지, 버릿딩이, 보룻저, 보리껍디기, 보릿저, 보릿제
보스락장난 • 뽀시락장난
보스락장난하다 • 뽀시락장난하다
보습 • 보솝, 보숲, 보슴, 보십, 훌칭이날, 훌팅이날
보시기 • 보세기
보쌈 • 부대쌈, 푸대쌈
보얗다 • 보소롬허다
보이다 • 베이다, 비다3
보자기 • 보재기, 포자기, 포재기
보조개 • 보제기, 보지개
복더위 • 복더우
복덩이 • 복뎅이
복보수 • 복포시
복보수하다 • 복포시하다
복사뼈 • 복상씨2, 복상뼈, 복성씨2, 복송뼤, 복송씨2, 복숭빼
복숭아 • 벅성, 벅송, 복상, 복성, 복송, 복송아, 복숭, 봉송
복숭아씨 • 복상씨1, 복성씨, 복송씨1
복슬강아지 • 복실강아지
복어 • 복쟁이
복지깨 • 복지똥
볶다 • 보꾸다
볶이다 • 볶이다, 볶아지다, 볶에다, 뵊이다
본(本) • 뻔, 뽄
본때 • 뽄때
본뜨다 • 본보다, 뻔따다, 뽄보다
본받다 • 번보다, 본얼 뜨다, 뻔 따르다, 뻔얼 따다, 뻔얼 받다, 뽄받다, 뽄보다2, 뽄얼 받다
본보다 • 뽄따다
본새 • 뽄새
본전을 추리다 • 본을 추다
본체만체 • 본등만등, 본등본등
볼(顔) • 볼태기, 볼토가지, 볼퉁이, 볼팅이
볼거리 • 볼부시
볼따구니 • 볼따구, 볼따귀
볼때기 • 벌태기
볼록하다, 뽈록하다 • 뽀속하다
볼록하다 • 뽀속허다
봄보리 • 볼버리, 봄버리
봇도랑 • 벗도랑, 벳도랑, 봇돌
봉분하다 • 분봉하다
봉숭아 • 봉사꼿, 봉송아, 봉숭와
봉우리, 꼭대기 • 뽕아리
봉우리 • 보우리, 봉도리, 봉아리, 봉오리1, 뽀우리
봉투 • 봉토
봉황 • 봉댁, 봉학
부끄럽다 • 부끄룹다, 뿌럽다, 에서룹다, 여룹다
부담스럽다 • 부담시럽다
부둑부둑 • 배득배득
부둥키다 • 보둥키다, 보딩끼다
부드럽다(柔) • 보드랍다, 부드랍다
부뚜막 • 부또막, 부뚜맥, 부뚱, 부뜽
부라부라 • 고내고내, 곤내곤내, 달강달강, 달깡달깡, 둥개둥개, 들깡달깡, 들깡들깡, 불무불무,

불무불무대불무, 불무야불무야
부러뜨리다 • 끈치르다, 끈칠다, 뿌러뜨리다
부러워지다 • 불버지다
부러지다 • 뿌지러지다, 뿌질러지다
부럽다, • 불버다
부럽다 • 북다, 불거다, 불겁다, 불법다, 붊다
부릅뜨다 • 부룸뜨다, 부름뜨다
부리나케 • 불나케
부리다, 넘어뜨리다 • 보독시리다, 보독씨리다
부리망 • 입망
부산스레 • 부산나게, 부산나케
부산하다 • 부산나다
부삽 • 부등카래, 부석삽, 부슬, 불삽, 불손, 불주걱, 오삽
부서뜨리다 • 부닥씨리다
부서지다 • 보닥타라지다
부석부석하다 • 부세부세허다
부손 • 불숟갈, 불숟구락
부수다 • 부세다, 뿌석다, 뿌소다, 뿌수다, 뿌숙다, 뿌스다, 뿌시다, 뿌식다, 뿟다
부스러기 • 뽀시레기, 뿌시래기
부스럼 • 부수목, 부순목, 부술목, 부술묵, 부스렘, 부슬먹, 부슬멕, 부승무, 부시럼, 부시레기, 부시룸, 부시름, 부시먹, 부실먹, 부실목
부스스 • 어세부세
부시 • 부석
부시다 • 바시다
부싯깃 • 불쑥
부싯돌 • 부석돌, 부숫돌, 부싯독, 부치, 불독, 불섭돌
부아 • 비아
부앗김 • 부앳짐
부엌 • 부석짝, 부스짝, 부억, 부웍, 비억, 정제, 정지, 정짓간
부여잡다 • 부어잡다
부옇다 • 뿌허다, 푸여다
부잡스럽다 • 지양시럽다
부장품 • 무둠실음
부전 • 당그래부전
부전??? • 꼬치부전
부젓가락 • 부저붐, 부지개이, 불삼, 불저범, 불저분, 불저붐, 불적가락, 불젓가락, 불젓고락, 불젓구락, 불젓그락, 불지개, 불지깨, 불짓가락, 윤두
부조 • 부주
부조하다 • 부주허다
부좇돈 • 부줏돈
부지깽이 • 부수땡이, 부시땅, 부시탱이, 부주땡이, 부지땅이, 부지땡이
부추 • 부초, 솔, 정구지
부추기다 • 축대기다
부추김치 • 솔지, 솔짐치
부치가래 • 부치가래
부침개 • 민문지, 부껭이, 부치개, 부치기, 부칭개, 적반
부터 • 버텀, 버텅
부티 • 부테
부프다 • 부푸다
북한 • 북선
분가하다 • 제금나다
분명하다 • 분멩하다
분명히 • 분멩히
분별없다 • 분없다
분지르다 • 부지르다, 부질르다, 분질다, 뿌질르다, 뿐지르다, 뿐질다
붇다 • 붏다
불가사리 • 사파리
불거지다 • 볼가지다
불그대대하다 • 불그테테허다
불그레하다 • 불그롬하다
불그스름하다, 불그죽죽하다 • 불그족족하다, 붉으딕딕하다

불그죽죽하다 • 불그딕디그리하다
불끈, 얼른 • 발깡, 빨깡
불덩이 • 불뎅이
불뚝성 • 뚝성질, 팩성질
불량품 • 뚝다리
불룩하다 • 뿔속허다
불리다 • 불구다
불쏘시개 • 부싸개, 불잘개, 쏘시개
불쑥 • 뿔쑥
불쑥불쑥 • 뿔쑥뿔쑥
불알 • 붕알
불여우 • 불여수
불잉걸 • 불잉그락
불투명하다 • 지리허다
불퉁스럽다 • 불뚝스럽다, 불뚱스럽다
불퉁하다 • 뿔뚱허다
불티나다 • 단새나다
불편하다, 못마땅하다 • 몰뚝잔하다, 몰뚝잖다
붉다 • 뿕다
붉어지다 • 뻙어지다, 뿕어지다
붐비다 • 부풀다
붓두껍 • 붓뚜벙
붙잡다 • 붙잽다
비꾸러지다 • 비끌어지다1
비끼다 • 치나다
비녀 • 비네
비누 • 베누, 비녹
비단 • 부벽사
비대발괄 • 비비갈갈
비둘기 • 비달기, 비덜기, 비들구, 비들키, 삐달구, 삐달쿠, 삐덜기, 삐덜쿠, 삐덜키, 삐둘구, 삐둘기, 삐둘쿠, 삐둘키, 삐들키,
비듬 • 비김, 비누룩, 비짐, 지검, 지게미, 찌거미, 찌게미
비료(肥料) • 비류
비름 • 비름입
비몽사몽 • 우멍자멍, 이몽자몽
비비다 • 뭉글다
비비적거리다 • 빼비작이다
비빔밥 • 비임밥
비석 • 산짓돌, 차짓돌
비손하다 • 손빌다
비스름하다 • 비수름허다
비슥하다 • 아식하다
비슷이 • 비젓이
비슷하다 • 비스무리하다, 비슥하다, 비슷허다, 비슷히다, 비시하다, 비싯하다, 비쓱하다, 비씩허다, 비젓하다, 비젓허다
비실비실하다 • 비글비글허다, 이서렁하다
비위 • 비우, 비우때기, 비위댕이
비위짱 • 비우짱
비지 • 배게, 베제, 비게, 삐지
비지떡 • 비지떽
비지죽 • 비짓죽
비질 • 빗지락질
비집다 • 삐집다
비척비척 • 삐척삐척
비척비척하다 • 삐척삐척허다
비켜서다 • 빔서다
비탈 • 번덕지, 비탈, 빈닥, 뻔덕지1, 삐딱, 삐탈, 삔닥
비탈지다 • 가판지다, 꼬빡지다, 빈탄지다
비틀다 • 삐틀다
비틀어지다 • 비끌어지다2
비하다 • 전허다
비행기 • 비항기, 비향기, 비흥기
빈털털이 • 맹깽깽이
빌리다(借) • 꿔다2, 빌레다, 쵀다
빗자루 • 대빗지락, 빗자락, 빗자리
빙장 • 빈장
빠개지다 • 뽀개지다
빠끔빠끔 • 빼꼼빼꼼

빠끔히 • 빼끔히, 빼미시
빠듯이 • 뽀독시
빠듯하다 • 뽀닷하다
빠뜨리다 • 빠치다, 빨뜨리다, 빨치다
빠지다 • 빼지다
빤질거리다 • 뺀질거리다, 삔질거리다
빤질빤질 • 삔질삔질
빤질빤질하다 • 뺀질뺀질하다
빨강 • 뻘겅
빨갛다 • 빨글허다, 빨갛다, 뻘그렇다, 뿔긓다, 뻘건하다, 뻘그렇다, 뻘그룷다
빨갱이 • 뻘갱이, 뻘갱이
빨다 • 빨리다, 시치다
빨딱 • 뽈딱
빨래 • 서답
빨래터 • 빨래샘, 빨랫독
빨래하다 • 세분허다
빨랫방망이 • 물방맹이, 빨래방마치, 빨래방망치, 빨래방맹이, 빨랫방마이, 빨랫방매이, 빨랫방맹이
빨랫비누 • 서답비누
빨랫줄 • 빨래줄, 서답줄
빨리 • 빨랑
빨리다 • 뽈리다1
빨리빨리 • 싸그싸그
빨부리 • 빨침
빨아내다 • 뽈아내다
빨아먹다 • 뽈아묵다
빰따귀 • 싸다구, 싸대기
빻다 • 빠수다, 빠시다, 빵고다, 빵구다, 뽀수다
빼다 • 기루다2
빼닮다, 빼쏘다 • 빼다박다
빼돌리다 • 빼돌르다, 빼수니허다
빼물다 • 삐물다
빽질이 • 삔질이
뺨 • 빰, 빰마대기
뺨따귀 • 빠마대기, 빰싸대기, 뺌따구, 뺌때구, 뺌때기, 뺌싸다구, 뺌싸닥, 뺌싸대기, 뺨딱지, 뺨싸구, 뺨싸대기
뺨치다 • 여대치다
뻐꾸기 • 뿌꾹새
뻐꾹 • 삐니
뻐꾹뻐꾹 • 까까까, 뿌꾹뿌꾹, 수꾹수꾹, 쑤꾹쑤꾹, 쑤둑쑤둑
뻐드렁니 • 뻐등니
뻐르적뻐르적 • 삐리적삐리적
뻐르적뻐르적하다 • 삐리적삐리적하다, 삐리적삐리적허다
뻐세다 • 뻐시다
뻔득뻔득 • 뻔덕뻔덕
뻔뜩거리다 • 뻔덕거리다
뻔지르르하다 • 뻰지리허다
뻔질거리다 • 뻰질그리다
뻔하다 • 뻔말다
뻗다 • 뻘치다
뻘겋다 • 뻘겋다, 뻘겋다, 뻘긓다
뻘때추니 • 뻘때충이
뻣세다 • 뻣시다
뼈 • 뻴다구
뼈다귀 • 뼉다구
뼘 • 삐엄, 삐염, 지뼘
뽀르르 • 뽀르르니
뽈록 • 뿔떡
뽑히다(被動) • 뽑아지다, 뽑히다
뽕나무 • 뿡나무
뽕밭 • 뿡밧
뾰로통하다 • 뚜데허다, 뚜떼허다
뾰족구두 • 뾰쪽구두, 삐딱구두, 삐쪽구두
뾰족이 • 삐죅이
뾰족하다 • 빼족허다, 빼쭉하다, 빼쭉허다, 삐족하다, 삐쪽하다, 삐쪽허다, 삐쪽히다, 삐쫏하다, 뾰쪽허다, 삐쪽하다, 삐쭉흐다

뿌리 • 뿌당구, 뿌랑구, 뿌렁가지, 뿌렁이, 뿌렝이, 뿌리
뿌리다(보리) • 삐다
뿌리다 • 지르다2
뿌옇다 • 뿌연허다
뿔 • 뿔따구
뿔그름하다 • 뿔구룸허다
삐거덕 • 삐그럭, 삐드덕
삐다(팔이) • 가무지다, 빼이다, 삐다, 뻬다
삐딱하다 • 삐득하다, 삐득허다, 삐뚝하다, 삐뚝허다
삐주룩하다 • 삐쭈룸허다
삐죽이 • 끈보, 꼴보
삐지다 • 삣다
삐쭉거리다 • 삐쪽거리다
삐치다 • 삐꾸다
삘기 • 삐기, 삐드기, 삐리기, 삐비, 삐삐, 삐피, 삘구, 삘기, 삠뿌리
사귀다(친구를) • 사기다
사글세, 월세 • 사걸세
사금파리 • 새금치, 새금파리, 새금팔, 새금피
사나이 • 사나해
사나흘 • 사날
사납다 • 사나다, 싸납다, 싸눕다, 쌍그라다, 쌍그랍다, 쌍그럽다
사내놈 • 사낫놈
사냥꾼 • 사양꾼
사다(곡식을) • 팔다
사다리 • 사드래, 새다리, 새더리
사닥다리 • 새닥다리
사람 • 사램
사레 • 살레
사르다 • 사리다, 살르다
사립 • 새렙, 새룹
사립문 • 싸름문, 싸리문, 싸림문, 싸립문, 싸문
사립짝 • 싸립짝, 삽작
사마귀 • 사마기
사모 • 사무
사발 • 사그달
사슴 • 사심
사양 • 쌩깔, 쌩칼
사위(지칭) • 사우
사이 • 새이
사자(獅子) • 사재
사자막이 • 사자맥이
사침대 • 시침대
사타구니 • 사타구, 사타리, 사태, 사태구니, 사태기, 사태이, 사탱이, 새타구니
사투리 • 사토리
사팔눈 • 할개눈
사팔뜨기 • 옆네산보래기, 옆죽거리, 홀그딩이
사흗날 • 샇날
사흘, 초사흘 • 사헐
삭망 • 보름삭망, 보름식망, 초하레보름, 초하루삭망, 초하룻삭망
삭이다(음식을) • 색이다
삭정이 • 삭가지, 삭다라지, 삭다리, 삭달가지, 삭대기, 삭동가지, 삭되기, 삭두가지, 삭디기, 삭정가지, 삭젱이, 상쪼가리, 송추목, 알초지, 자장가리
삭히다 • 삭후다, 색히다, 식후다2
삯 • 싹
산기슭 • 산기슥, 산기슬, 산아래, 산지슬
산길 • 산질
산꼭대기 • 산몬댕이, 산뽁대기, 산뽕대기
산돼지 • 산되아지, 산뒤아지
산등성이 • 날뚱, 등서이, 산등서이
산딸기 • 산딸광
산뜻하다 • 쌈빡하다
산마루 • 날망, 날맹이, 산날망, 잿날맹이
산마루;모퉁이, 모롱이 • 모롱이
산봉우리 • 산봉오리

산비탈 • 산지락
산사태 • 산태미2
산토끼 • 산토깽이
살강 • 사랑
살강거리다 • 뽈껑거리다
살결 • 꽃결
살그미 • 살곰이, 살근이, 살망이
살금살금 • 살망살망
살금이 • 살금이
살랑거리다 • 사운거리다
살랑대다 • 사운대다
살랑살랑 • 사운사운
살며시 • 살맹이
살무사 • 까치독사
살살 • 쌀쌀
살점 • 살점배기
살짝, 살포시 • 살푸시
살짝 • 가만이, 모리게, 몰리, 살짹, 살째이
살캉거리다 • 뻐그럭거리다
살쾡이 • 사꽤이, 살가지, 살과지, 살괘이, 살쾌이, 삵아지, 새꽤미, 쌀가지
살포시 • 애살포오시
삵괭이 • 쪽지비
삶다 • 때끼다
삼거리 • 삼갈렛질, 삼거릿질
삼노끈 • 삼놋내끈, 삼노내끈
삼발이 • 삼발구
삼신(三神) • 삼시랑
삼신할머니 • 삼신할매
삼일열 • 세지기
삼촌(호칭) • 삼춘, 아재
삼키다 • 넴기다, 닝기다, 샘키다, 생키다
삼태기 • 거랭이, 꺼랭이, 꺼렁탱이, 산대미, 산태, 산태꺼랭이, 산태미1, 옹탱이2, 재소코리, 잿소쿠리, 짚소코리
삽가래 • 썁가래
삽살개 • 사지개
삽삽하다, 싹싹하다, 상냥하다 • 썁썁하다
삿자리 • 갈대자리, 삽자리
상당히 • 솔찬히, 솔첸히
상등 • 수등
상보(床褓) • 상포
상수리 • 굴밤, 떡굴밤, 상소리, 황소리
상수리나무 • 굴피나무, 떡굴밤나무, 상소리나무, 쏙소리나무
상어 • 사어, 상에
상여(喪輿) • 생에, 생이, 저승가매
상여 • 상게
상여꾼 • 당군, 상두꾼, 유대꾼
상엿소리 • 생에소리
상인(喪人) • 생인
상자 • 상지, 상지깍, 학구1, 학구짝
상추 • 상초
상판대기 • 쌍탱이, 쌍판때기
샅 • 사탄
새까맣다 • 새캄하다
새꽤기 • 나락홰기, 솔캥이, 쐐때기, 짚촐갱이, 짚홰기, 해기, 홰기, 회뙤기, 훼때기
새끼(繩) • 사나끈, 사내끼, 사창구, 사챙구, 사키, 산내키, 새깨이, 새나끈, 새나큰, 새내끼, 새새끼, 새새키, 싸깨이
새끼(짐승의) • 쇄끼
새끼 • 새깽이, 새내키, 새키, 시끼, 시키
새끼발가락 • 께끼발꾸락
새끼벌레, 애벌레 • 새끼벌거지
새끼손가락 • 깨끼, 깨끼손가락, 깨끼손구락, 깨끼손꾸락, 깨끼썽꾸락, 깽끼, 깽끼손가락, 깽끼손고락, 깽끼손구락, 깽끼송까락, 새끼손고락, 새끼손구락, 새끼썽구락, 생끼손가락, 생끼손그락
새끼손구락 • 새끼손그락
새끼손톱 • 새끼손톱

새끼줄 • 새챙이
새다(물이) • 섀다
새뜻하다 • 쌔뜩허다, 쌔뜻허다
새로, 다시 • 새치로, 새칠로
새로 • 새시로, 새실로, 새씰로
새무룩하다, 시무룩하다 • 쌔코롬하다
새무룩하다 • 쌔코롬허다
새벽 • 새벅, 새복
새벽동자 • 새복동자, 새북동자
새벽밥 • 새벅밥, 새복밥, 섀복밥
새빨갛다 • 새빨거다
새살 • 시살
새살거리다, 놀소리하다 • 새살까다2, 새살떨다2
새삼스럽다 • 꾸척시럽다, 새뚱빠지다
새색시 • 꽃각시, 새각시, 새샥시, 새시악시
새아기 • 새아그, 새애기
새알심 • 새알수지비, 새알시미, 시아심, 시알수지비, 시알시미, 시알심, 인절미
새옹 • 새운
새우 • 징기미, 새옹개, 새웅개, 생개
새우(민물, 大) • 새옹개, 새웅개, 생개, 왕새비, 질럼지, 질레미, 징검새오, 찔렁새비
새우(민물, 小) • 나무생개, 남새오, 새붕개
새우(바다, 大) • 강새비, 대새비, 대화2, 왕새오
새우(바다, 小) • 개새비, 생새우, 잔새비
새우등 • 새비등, 새오등
새우등(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 섀우등
새우젓 • 새비젓, 새와젓
새잡이 • 새잽이, 새채비
새참, 곁두리 • 샛거리, 샛그리
새참 • 새이때
새카맣다 • 새캄허다
새콤하다 • 새코롬허다
새허옇다 • 히허옇다
색갈이 • 색그리
색대님 • 꽃대미
색동 • 꽃동
색동저고리 • 꽃동저고리, 꽃동조고리, 샐동저고리
색실 • 곶감실, 색색이실
샌님 • 시안님
샘(泉) • 공동샴, 공동시암, 도내기시암, 생숫구녁, 시앙수, 시얌, 옹달시암
샘 • 시암거리
샘나다 • 시해나다
샘내다 • 시해내다
샘물 • 시암물
샛별 • 새벅별, 왕벨, 왕별
생각 • 상각
생각하다 • 생각허다
생강 • 새앙1, 시앙, 시양, 싱강
생것 • 생놈
생고기 • 생괴기
생기다 • 삼기다, 생이다
생김치 • 생지
생담배 • 쌩담배
생땅 • 생바닥
생떼 • 띵깡
생뚱하다 • 쌩뚱허다
생마늘 • 날마늘
생맥주 • 날맥주
생머리 • 쌩머리
생먹다 • 생묵다
생무지 • 쌩내기, 쌩뎅이
생선 • 갯고기, 생것
생소나무 • 쌩솔깽이
생소하다 • 설소하다
생손앓이 • 손앓이
생솔 • 생태
생인손 • 생손, 생손가락
생전 • 생견
생쥐 • 사시랑쥐, 새끼쥐, 쇄앙쥐, 쉬앙쥐, 시앙

지
생채 • 무채, 생차, 채지
서걱거리다, 서걱대다 • 서걱이다
서까래 • 서글새, 서깔, 서껄, 서끄, 서끌, 써걸, 써까래, 써끌, 쎄까래, 쎄꺼리, 쎄껄, 쎄끌, 쎄낄, 쎠까래, 쒜꺼리
서랍 • 빼다리, 빼닫이, 빼달캉, 빼닷간, 빼더리, 빼도리, 빼도지, 빼두리, 빼드리, 앞닫이1, 차단쓰
서럽다, 섧다 • 스럽다, 스룹다
서럽다 • 서러다
서로 • 서루
서름서름하다 • 설뚝멀뚝하다
서리 • 써리
서리다 • 세리다
서먹하다 • 서뜨하다
서방님 • 시아자, 시아재, 시아재님, 시아좀, 씨아재
서생원 • 서새원
서서히, 천천히 • 셔나셔나
서캐 • 서대기, 서크래, 세캐, 써카래, 써캐, 쎄캐, 씨가리
서풍 • 곤심풍
석경(石鏡) • 색경, 색경
석경 • 섹경, 섹겡, 쇅경, 쇙겡, 시경, 쎅경
석동(나다) • 석동
석동 • 서거리, 석동사니, 석동새니
석동무니 • 석동산, 석동세, 석지마지, 시동산
석쇠 • 적사, 적새, 적세, 적쇠
석수장이 • 석수쟁이, 석자이
석양 • 섹양
석양판 • 섹양판
석유 • 석고, 섹오, 섹오지름, 섹우, 섹우지름, 섹유, 섹우, 쇡위, 쇡이
석유통 • 납대기병
선득선득하다 • 썬득썬득하다
선들선들 • 썬들썬들
선반 • 섬반, 실겡이, 틀선반, 틀섬반
선생 • 선상, 슨상
선생님 • 선상님, 슨상님
선생질 • 선상질, 슨상질
선생질하다 • 선상질허다, 슨상질하다
선선하다 • 홀온허다
선선히 • 홀온히
섣달 그믐날 • 섣달그뭄날
섣달그믐 • 슫달그믐
설거지 • 구멍, 기멍, 씨서리
설거지하다 • 구멍치다, 기멍치다
설기 • 모집
설레발 • 얼레발
설마 • 셀마
설치다 • 서대다, 설비다
설핏 • 슬픗
설핏하다 • 살픗하다, 슬픗허다
섬기다 • 셍기다, 쉥기다
섬마섬마 • 걸음마걸음마, 고노고노, 고누고누, 꼬대꼬대, 떵기떵기
성교하다 • 빽허다
성깔 • 꼬라지1, 승질머리
성나다 • 썽나다
성내다 • 꼬라지내다, 썽내다, 씅내다
성냥갑 • 성냥곽
성싶다 • 상부르다
성질 • 승질
성질부리다 • 승질내다
성하다, 멀쩡하다 • 썽썽하다
세다 • 시다2, 시어지다, 씨다4
세뱃돈 • 복돈
세벌매기, 만도리, 만물 • 세벌, 세벌 마무리 지심
세상 • 시상
세상살이 • 시상살이

세상에 • 시상에, 시상으
세상일 • 시상일
세수(洗手) • 시수
세수 • 뙷장
세숫대야 • 놋대양, 대야
-세요 • -이쏘
세우다 • 시우다, 씨다3
세월 • 시월
세이레 • 셋이레
세한 • 시한
셋방 • 싯방
-셔요 • -으씨요
셔츠 • 사쓰
소 • 억대, 억댕이
소갈머리, 소갈딱지 • 속창아리
소경 • 눈머륵때기, 망인, 본사, 쇠경
소고기 • 소게기
소금 • 소곰, 소굼
소금장수 • 소곰장사, 소곰장시
소금쟁이 • 물자마리, 물징게미, 소곰쟁이, 소굼쟁이, 소금바우, 소금장수
소꿉놀이 • 까끔살이, 까끔새기
소꿉장난 • 빠꿈살이, 새금박질, 소꼽장난
소꿉질 • 가끔사리, 동니깨, 바까마리, 바꼬매기, 바꼼새기, 바꾸매기, 바꿈사리, 바꿈새기, 바꿈애기, 바끔, 바끔사리, 방주깨미, 빠꿈새기, 빠끔새기, 새꿈박질
소나기 • 소낙비, 소내기, 쏘나기, 쏘낙비, 쏘내기, 쐬나기
소나무 • 솔낭구
소낙비 • 왁달비
소라 • 소래, 투래
소래기, 자배기 • 널벅지2
소래기 • 반대기1, 반지레기, 밴드레기, 소라기
소로 • 소랫질, 소리질
소름 • 소롬, 소룸
소리개 • 솔깨미
소마, 소변 • 소매
소마보다, 소변보다 • 소매보다
소마항아리 • 소맷귀댕이, 소맷단지, 소맷동우
소말뚝 • 소망치1
소변 • 소벤
소복하다 • 쏘독하다
소부등 • 소부됨, 소부됭
소설 • 소실
소슬바람 • 쇠실바람
소용 • 소양
소입막이 • 소입막애, 쇠멍, 풀망
소제 • 소지
소주 • 쇠주, 쇠주래기, 쏘주, 쐬주
소죽통 • 소구시
소쩍새 • 소딱새, 소짝새, 소짝재기
소쿠리 • 대바구리, 소꾸리, 소코리, 소쿠리때기, 채소고리, 채소구리
소피 보다 • 쇠피보다
속 보이다 • 속 앗이다
속 시끄럽다 • 속 시끄럽다
속눈썹 • 겉눈썹, 속눈쎕, 아랫눈썹, 웃눈썹
속다 • 쇡다
속닥거리다 • 쏙닥거리다
속병 • 속애피
속삭이다 • 속댁이다, 쏘색이다, 쏙삭이다
속앓이 • 속볼퉁이
속이다 • 꼬아먹다, 꼬와먹다, 꽈먹다
손가락 • 손고락, 손구락, 손그락
손금 • 손검, 손굼
손녀 • 손녜, 손뇨, 솔녀, 솔려
손녀딸 • 손지딸
손등 • 손등거리
손모가지 • 손목때기
손목 • 손마들가지, 손홀목, 홀메기, 홀목
손수 • 손수껏, 손시

손수레 • 똥차
손아귀 • 손아구니, 손아구지, 손아기, 아구니
손위 • 손우
손잡이 • 손잽이
손장난 • 호작질
손주 • 손지놈
손톱 • 손툽, 손특
손톱깎이 • 손틉깽이
손해보다 • 밑가다
솔가리 • 소깽, 솔가루, 솔갈비, 솔거울
솔가지 • 솔갱이2, 솔깽이
솔개 • 둑수리, 소리개, 소리갱이, 소릭, 솔개미, 솔갱이1, 솔꽹이, 호루개, 호리개, 홀개
솔잎 • 솔잎사구
솜 • 소옴, 소캐
솜옷 • 미영옷
솜이불 • 소캐이불, 손이불, 솜이블, 한이불
솜털 • 개터럭, 밍지털
솟다 • 솟기다
솟을대문 • 소실문
송곳 • 소롯
송기 • 생키
송두리 • 송도리
송두리째 • 송도리채, 송두리조차, 송두리차, 송두리채
송사리 • 꼰자리, 꽁자리, 누룬재기, 눈재기, 눈챙이, 는쟁이, 소아리, 송아리, 쏭사리
송송 • 쫑쫑
송아리 • 송다리
송아지 • 새아치, 소망치2, 소앙치, 송아치, 송안치, 송앙치, 쇠앙지, 쇠치, 쇵앙치, 어시새끼
송이 • 숑이
송충이 • 송추이, 송치, 송치이
송편 • 셍핀, 숑펜, 숑편, 숑핀
솥 • 솟
솥검정 • 솥검당
솥단지 • 솟단지
솥뚜껑(나무) • 나무뚜껑, 나무소당깨, 나무소두방
솥뚜껑 • 소당깨, 소도방, 소도방개, 소돵뚜겅, 소두광뚜껑, 소두랑, 소두방, 소두방개, 소두방뚜껑, 소드랑개, 소드랑깨, 소드랑뚜겅, 소땅개, 솟뚜껑, 솟뚜껑
쇠 파이프 • 쌔빠이쁘
쇠고기 • 소괴기, 쇠괴기
쇠고삐 • 쇳괴삐
쇠꼬리 • 소꼬랑지, 소꽁지, 쇠꼬라지, 쇠꼬랭이, 쇠꽁지
쇠꼴 • 쇠깔
쇠다(냉이가~) • 씨다1
쇠대가리 • 소대가리, 소대그빡, 소머리
쇠두엄 • 쇠귀엄, 쇠두염
쇠발굽 • 쇠발툽, 쇠발틉, 소발굽, 소발톱, 소발툽, 소발틉, 쇠발톱
쇠발톱 • 소굽
쇠비름 • 쇠비럼, 쇠비림
쇠스랑 • 소스락, 소스랑, 쇠시랑
쇠죽 • 소죽, 쇠물
쇠죽바가지 • 가매바가치, 가매박적, 개막박적, 남팍, 두레바가지, 소주걱, 소죽바가치, 소죽쪽박, 쇠물남팍, 쇠물바가지, 쇠물젓이, 쇠죽바가치, 쇠죽젓이, 쇠쪽박, 탈박
쇠죽솥 • 쇠물솟
쇠코뚜레 • 쇠코뚤개
쇠털 • 소팅이
쇠파리 • 세파리, 소포리, 쇠포리
쇠풍경 • 소핑겡이
쇳가루 • 쐣가리
쇳덩어리 • 쇳더어리, 쇳덩거리
쇳덩이 • 쇠더이, 쎄땡이
수고양이 • 수쾡이, 숨괭이, 숩고양이, 숫고앵이, 숫귀엥이

수그러지다 • 스그러지다
수꿩 • 숩꿩, 숫닥껑
수놈 • 숫놈
수두룩하다, 벅적하다 • 수두룩벅적하다, 수두룩벅적허다
수두룩하다 • 수더럭하다, 수두럭벅적하다
수레 • 구루마, 구룸마, 구르마, 구리마, 순레
수발 • 수바라지
수북수북하다, 수북하다 • 수둑수둑하다
수북하다 • 호복하다, 싸박허다
수세미 • 수시미, 쑤세미, 쑤시미
수소, 황소 • 뿌사리, 숨소, 숩소
수수 • 쑤수, 쑤시
수수경단 • 수수망생이, 쑤수망생이, 쑤시망생이
수수깡 • 깡내이, 깡탱이, 쑤쑤깡
수수께끼 • 수수꺼끼, 준추게끼, 준치새끼, 줌치새끼
수수밥 • 수수밥, 쑤시밥
수숫대, 수수깡 • 수수때기, 수수때이, 수수땡이, 스싯대, 쑤수대, 쑤수때기, 쑤숫대, 쑤시때기, 쑤씻대, 쒸싯대
수양부모 • 시영부모
수양아들 • 시영아들
수염 • 쉬엄, 쉬옴, 우엄, 위엄, 위염
수음 • 용두
수제비 • 뜯어넌죽, 수저부, 수지비
수중다리 • 수퉁다리
수채 • 수챗고랑, 해치, 해치간, 해칫간
수캐 • 숨캐, 숩캐, 숫개, 숭캐
수키와 • 숩기와, 숫기와, 숫지와
수탉 • 숨닥, 숨탁, 숩닥, 숫닥
수톨쩌귀 • 숨돌쭈구, 숩돌, 숩돌쪼구, 숩돌쪽, 숩돌쭈귀
수통 • 수퉁
수풀 • 수뿌
수확하다 • 내먹다2

숙이다 • 숙임막하다, 쉭이다
순대 • 피창
순둥이 • 순더기
순전히 • 순전
숟가락 • 숟구락, 숟구락몽댕이, 숟그락, 숟기락
술기운 • 술바람
술래잡기 • 닥개비질
술버릇 • 술속
술주정뱅이 • 술주정배이
숨기다 • 꿍겨놓다, 꿍겨박다, 꿍기다, 숨키다, 쉉기다, 쉉키다, 쒕키다
숨바꼭질 • 봉사살이, 수꾸막질, 수므깍질, 숨구잽기, 숨기새기, 숨꾸내기, 숨바깍질, 쉉끼잽기, 습바깍질
숫돌 • 술독, 술둑, 술둘, 술목, 숫독, 숫두, 숫둑, 쉿돌, 쉿둘
숭늉 • 숭냥물, 숭냉, 숭넝, 숭님, 숭양
숯 • 꺼망
숯가마(窯) • 숯구동이, 숯구뒹이, 숯구딩이, 숯무지
숯가마 • 숯구덕
숯검정 • 숫검당, 숫검장
숱하다 • 수지다
쉬다(목이) • 쇠다
쉬다 • 쉐다
쉬슬다 • 쉬깔리다, 쉬실다, 쉬실르다
쉬파리 • 쉬퍼리, 쉬포리
쉰둥이 • 쉰뒹이
-스럽다 • -시롭-
스르르 • 스르라니
-스름하- • -롬하-, -ㅁ허- 접, -소롬하-
스멀스멀 • 숭실숭실
스멀스멀하다 • 숭실숭실허다
스무날 • 시무날
스타킹 • 살양발
슬며시 • 슬거시, 슬그시, 슬그자이, 슬머시, 슬

므시
슬슬 • 실실
슬쩍 • 시르르
-습니다 • -서라오, -서라우, -지라오
-습디까 • -습디여
-시- • -기-
시건방지다 • 시건방구지다
시계 • 시기
시궁창 • 시구랑, 시구렁, 시구창, 시금창
시금치 • 시금추
시금치나물 • 시금치너물
시꺼멓다 • 시컴하다
시끄럽다 • 시끄랍다
시끌벅적 • 시끌짝
시끌벅적하다 • 시끌짝짝하다, 시끌짝하다
시끌시끌 • 시끌덤벙, 시끌버끌
시끌시끌하다 • 시끌덤벙하다, 시끌버끌하다, 시끌사끌허다
시내 • 세내
시늉 • 수중
시달리다 • 닦이다
시답잖다 • 실답잖다
시답찮다 • 시덥잖다
시동생(지칭) • 시동상
시들병 • 시드른병
시들하다 • 시장스럽다, 시춤하다
시래깃국 • 실가릿국
시렁 • 시렁가리, 실겅
시름시름 • 넝창넝창
시멘트 • 쎄무레, 회산물
시묘 • 시모살이
시부렁시부렁 • 시붕시붕
시쁘둥하다 • 시쁘듬하다
시시껄렁하다 • 시시껍적하다
시시하다 • 쎄시락허다
시아버지 • 시아바니, 시아버니, 시아버이
시아주버니 • 시아제
시악 • 시악배기, 시악질
시어머니 • 시어머이
시어미 • 시에미
-시었- • -겼-2, -겠-, -겼-
시원스레 • 칼칼히
시원찮다 • 센찬허다, 시언찮다, 신찬허다, 신찮다, 쎈찮다
시원하다 • 개운허다, 션하다, 시언하다, 시연허다, 신하다, 쎈하다, 썬하다, 쒼하다, 씨언하다, 씨연하다, 씬허다, 칼칼하다, 칼칼허다
시원히 • 씨언코, 씨언쿠, 씨엉쿠, 씬코
시위적시위적 • 싸드락싸드락
시합 • 어루매기
시향 • 새앙2
시허옇다 • 씻허옇다
식구 • 갠수
식모 • 정제가시나, 정제가시내, 정제가이내, 정제꾼, 정제년, 정지가시나, 정지꾼
식혜, 감주 • 식헤
식혜 • 식히
식히다 • 식호다, 식후다1
신간 • 싱간
신경(神經) • 신갱
신년 • 새년
신의대 • 시누대
신출내기 • 신초리
신트림 • 신트럼
싣다 • 싫다
실떡실떡 • 실떡벌떡, 씹떡껍떡
실랑이 • 실거리, 실랑질, 실래기, 실벤, 실변
실밥 • 실푸레기
실뿌리 • 실뿌랭이
실없다 • 시대부대하다, 시데부데하다
실없이 • 시대부대
실컷 • 실컨, 잘컨

실켜다 • 실쓰다
싫다 • 마다
심다, 갈다(볍씨) • 싱구다
심다, 갈다 • 심으다
심다 • 숨고다, 숨구다, 숨다, 숭구다, 숭다, 쉼구다, 시무다, 심구다
심마니 • 심메마니, 심뫼마니
심부름 • 신바람, 신부름, 심바람
심부름꾼 • 심방꾼, 심버럼꾼
심술궂다 • 심술곱다
심심하다 • 개심심하다, 게심심하다, 게심심허다
싱건김치 • 승건김추
싱겁다 • 맹깽깽이다, 슴슴하다, 싱거다
싱숭생숭하다 • 심숭삼숭하다
싱싱하다 • 성하다, 싱하다
싶다 • 시푸다2, 싶으다, 자다, 자프다, 잡다, 잪다, 지다2
싸납쟁이 • 싸남배기, 싸납빼기, 싸납쟁이
싸다 • 허르다, 헐하다
싸다니다 • 싸댕기다
싸라기 • 싸래기
싸라기눈 • 싸래기눈
싸리문 • 싸릿문
싸우다 • 싸오다
싸움박질 • 쌈박질
싸이다 • 쐐다
싸지르다 • 싸불르다, 싸지르다
싸하다 • 싸아하다, 쌔허다, 쐬하다
싹수 • 느자구, 보초대가리, 싹동머리
쌀겨 • 쌀제, 쌀져, 쌀쩨, 현밋저
쌀독 • 쌀도가지
쌀뒤주 • 쌀궤짝, 쌀귀짝, 쌀두지, 쌀뒤지, 쌀통
쌀밥 • 쌀뱁
쌀벌레 • 쌀고라지, 쌀바게미, 쌀버러지, 쌀버럭지, 쌀버레기, 쌀벌가지, 쌀벌거지
쌀보리 • 메보리, 쌀버리, 찰보리
쌀쌀하다 • 쌩코롬하다, 차오다, 차웁다
쌈 • 산쌈
쌉싸름하다 • 쌉쏘롬하다
쌍 • 장오, 장운
쌍둥이 • 쌍대이, 쌍댕이, 쌍도이, 쌍두이
쌓다 • 재다, 재이다, 쟁기다, 쟁이다
쌓이다 • 쌯이다
써걱써걱 • 써그럭써그럭
써걱써걱하다 • 써그럭써그럭하다, 써벅써벅하다
써늘하다 • 썬득하다
써레 • 써릿발, 써우질, 써으리, 쓰레
써레질 • 가다리, 쓰리, 써우레질
써렛발 • 써렛니
써리다 • 쓰리다
써먹다 • 써묵다
썩히다 • 썩호다, 썩후다, 쎅히다
썰다 • 쓰리다, 쓸다
썰매 • 구격지, 미끄럼판, 미끄름판, 서르매, 스께또, 스께트, 시게또, 쓰깨, 쓰께, 쓰께토, 쓰께트, 쓰케트, 쓸매, 씨께또, 씨케또
썰컹썰컹하다 • 쓸컹쓸컹허다
쏘다니다 • 쏘댕기다
쏘대다, 쏘다니다 • 써대다, 쏘다댕기다
쏘삭거리다 • 쑤석거리다
쏘삭쏘삭하다 • 쏘사악쏘삭허다, 쏘삭쏘삭하다, 쏘삭쏘삭허다
쏘시개 • 쏘새기, 쏘시래기
쐐기 • 보족, 보직, 쇠악, 쉬악, 쉬야기, 쐐베기, 쐐악, 쐬악, 쒜약
쑤다 • 쏘다
쑤석이다 • 쑤셱이다
쑤시개 • 쒸시개
쑤시다 • 쑤세다, 쒸세다
쑥덕이다 • 쑥덕이다, 쑥덱이다
쑥버무리 • 쑥버물, 쑥버물떡
쑥부쟁이 • 수꾸재미

ㄱ

쑥쓰럽다 • 쑥시룹다
쓰다(모자를) • 씨다2
쓰다 • 씨겁다
쓰다듬다 • 쓰담다, 씨다듬다, 씨담다
쓰라리다 • 씨라리다
쓰러지다 • 씨러지다
쓰레기 • 시레기, 싸레기, 써레기, 쓰렝이, 씨리개, 씨리기, 진테미
쓰레받기 • 씨레밷기
쓰르라미 • 씨르라미
쓰리다 • 씨랍다, 씨름씨름하다, 씨릅다, 씨리다, 씨릿씨릿하다
쓰잘머리 • 쓰잘데기, 씨알데기, 씨잘데기
쓸개 • 쓸게, 씰개
쓸다 • 씰다
쓸데 • 씨알디기, 씨질디기, 씰닥쟁이, 씰데, 씰디
쓸데없다 • 쓰잘데기없다, 쓰잘데없다, 쓰잘디없다, 쓰잘디읎다, 씨알데기없다, 씨알데없다, 씨알데읎다, 씨알디기없다, 씨잘데기없다, 씰데없다, 씰디없다
쓸데없이 • 씨알데기없이
쓸리다 • 쓸키다, 씰어지다
쓸모 • 씰모
쓸어안다 • 씰어안다
쓿다(쌀을) • 따끄다, 싯그다
쓿다 • 싫다
씀바귀 • 사랑부리, 신너멀, 썩서구, 씀바구, 씀바꿔, 씀바퀴, 씬너멀, 씸바구, 씸바구리
씀씀이 • 씸씸이
씁쓰레하다 • 씹쓰름하다, 씹씨름허다
씌우다 • 씨우다, 씌다
씨름꾼 • 씨림꾼
씨름판 • 씨림판
씨부렁거리다 • 씨붕거리다
씨부렁씨부렁 • 쌔왈대왈, 씨월데월
씨부리다 • 쌔와리다
씨불거리다 • 쌔왈거리다, 씨월거리다
씨불대다 • 씨월대다
씨불이다 • 쌔왈이다
씨아 • 시앗2, 쐐시, 씨가시, 씨아시, 씨웨시, 씨웻
씨알 • 씨아리
씨알머리 • 씨알탱이
씨앗 • 시앗1
-씩 • -썩
씻기다 • 싯기다, 싳어지다
씻김굿 • 곽거리, 곽머리굿, 시껭굿, 싯겜굿, 씨께이굿, 씨끔, 씨끔굿
씻다 • 쉬다, 싯다, 싳다, 씨치다, 씻치다
아가리 • 아구지, 아구탱이, 아구통
아가미 • 구세미, 구시렁탱이, 날개미, 날비, 미우, 아가지, 아갈치, 아감지, 아개미, 아골뎅이, 알감지, 인나부리 ,
아구지 • 아굴지
아궁이 • 벅짝, 아궁지
아귀차다 • 아구차다
아귀힘, 손힘 • 손씸
아귀힘 • 아구심, 아굿심
아그배 • 아거배, 아구배, 찔배
아까 • 아까막새, 아까막시, 아까정께, 아까지, 아까참에, 아까침에, 아깜새
아끼다 • 애끼다
아니다 • 아이다
아들 • 아덜
아따 • 와따, 워따
아랑주 • 아래이, 아랭이
아래쪽 • 아래짝
아랫도리 • 아랫더리, 아랫두리, 아랫터리
아랫마을 • 아랫것, 아리춤
아랫목 • 부둘막
아랫입술 • 아랫입설, 아랫입소리

아름드리 • 아라내기
아리다 • 시럽다
아마 • 아매
아무것 • 암끗
아무도 • 암도
아무래도 • 암치께도
아무렇게 • 아무케, 암치케
아무렇게나 • 되나무때나
아무렇다 • 암스렁하다
아무렇지 않다 • 암시랑 않다
아무렇지도 않다 • 암사랑토 않다
아무려면 • 아무러믄
아무럼 • 그람, 아무럼, 아문, 아믄, 암만
아무튼 • 아마트
아버님 • 아부님
아버지 • 아부씨, 아부지
아쉽다 • 아숩다
아스라하다 • 아슥하다
아슴푸레 • 아삼삼, 아심프레
아슴푸레하다, 아스라하다 • 아시무락하다, 아시므레허다
아슴푸레하다 • 아스므레하다, 아슨풀하다, 아슴하다
아우 • 아오
아우님 • 아오님
아우보다 • 동생보다, 아수보다, 아수타다, 아시보다, 아시타다
아이 • 아그, 애기
아이고 • 아이가2, 아이갸
아장아장 • 담방담방, 따박따박, 아그장아그장, 짜박짜박
아저씨 • 아자씨
아주 • 겁나, 겁나게, 아조, 영판
아주까리 • 아주가리
아주머니 • 아주마니, 아지미, 아짐, 아짐씨
아주버님 • 아지버님
아지랑이 • 아지라이
아지랭이 • 아지래이, 애매미
아직 • 여녕
아차 • 인자깨2
아침 • 아적, 아적때, 아척, 아칙
아침결 • 아침절
아침곁두리 • 아침땟거리
아침길 • 아직질
아침나절 • 아직때
아침노을 • 아적북새, 아칙북새, 아침북새
아침밥 • 아칙조반, 아침뱁
아퀴 • 가토, 가투, 가티, 개투, 아코, 알투, 애투
아흐레 • 아으레
악물다 • 응등물다
악쓰다 • 악씨다
악질 • 모질병, 찌라기
안경 • 앙경, 앤경, 앵경
안경집 • 앙경집, 앵경집
안기다, 품기다 • 바둠기다, 보돔기다, 보둠기다, 앤키다
안기다 • 안그다2, 안끼다, 앤기다, 앵기다
안다, 보듬다, 품다 • 바듬다
안뒷간 • 내치, 안벤소, 안벤솟간, 안변소, 안칫간, 안통시, 암벤소
안력 • 안질
안머슴 • 안머심
안방 • 안뱅, 암방, 암뱅
안사람 • 안견숙
안심찮다 • 아즘찮다, 아짐찬허다, 아짐찮다
안쓰럽다 • 아씨럽다, 안씨랍다
안옷고름 • 속옷고름
안장 • 완장
안절부절 • 부쩌지
안절부절못하다 • 애탕애탕거리다
안주머니 • 안봉창
안타까이 • 애돌애돌

ㄱ

안타깝다 • 애돌하다, 애둘애둘하다
안팎 • 안암팎
앉다 • 안그다1, 앙그다
앉은뱅이 • 앉을방이, 앉을뱅이, 앙진뱅이
앉히다 • 앙치다
알겨먹다 • 돌라먹다, 돌라묵다, 발가먹다, 발겨먹다
알고명, 지단 • 게란양념
알랑거리다 • 알롱거리다
알랑방귀 • 알랑방구
알려지다(이름이) • 알리지다
알려지다 • 알례지다
알리다 • 알키다
알맞게 • 알마침
알맹이 • 알레미
알몸 • 깨댕이
알밤 • 밤퉁이, 밤팅이, 알뱀
알싸하다 • 알캐하다
알아내다 • 갈쳐내다
알항아리 • 궁탱이
암고양이 • 암고앵이, 암고얭이, 암괭이, 암귀엥이, 암쾡이
암만하다 • 암만허다, 암만히다
암소 • 암쇠
암송아지 • 암소아치
암쇠 • 개십보지
암쇠(맷돌, 위) • 맷돌씹, 암돌, 암돌쪼구, 암새, 암중쇠
암자 • 암재
암짝 • 암돌쩌구, 암돌쪽, 암돌추
암키와 • 암기와, 암지와
암탉 • 암닭
앙가슴, 명치 • 오목가슴
앙갚음 • 보갚움, 보갚이
앙갚음하다 • 보갚다
앙심 • 앙가심
앙알거리다 • 앙당거리다, 앙알이다, 앵당거리다
앙알앙알 • 앙당앙당, 앙알봉알, 앵당앵당
앙알앙알하다 • 앙당앙당하다, 앵당앵당하다
앙칼 • 보풀떨이, 보풀증
앙칼스럽다 • 보풀스럽다
앜 • 악, 악
앞이마 • 앞이매
앞잡이 • 개다리
앞정강이 • 앞장갱이
앞지르다 • 앞둥지르다, 앞성질르다
앞치마 • 앞치매
애꾸 • 애꼬, 애꼬눈, 애꾸쟁이, 외눈백이, 외알때눈, 외알때백, 외통배기, 외통쟁이, 통보
애꾸눈이 • 애꼬쟁이, 외눈쟁이
애달프다 • 애돌오다
애매하다 • 애무하다
애먼 • 애믄, 애민, 어만, 어먼, 어문간, 어믄, 에멘
애면글면 • 알탕갈탕, 애탄가탄
애물단지 • 애물건지
애벌 • 아시, 초건지
애보개 • 애기담사리
애새끼 • 아새끼
애석하다 • 애도롭다, 애드릅다
애송이 • 애둥이, 풀강아지
애어른 • 어런아기
애장 • 애장터
애처롭다 • 애처럽다
애타다 • 애잦다
액땜 • 먹매, 재소때암, 재수땜
액막이 • 매기, 메기
액막이하다 • 막암허다, 매기허다, 메기허다
액자 • 사진깍
앳되다 • 앳드다, 앳디다
앵돌아서다 • 앵돌아스다
앵속각 • 앵숙갓

야 • 사, 얌마
야 인마 • 얌마
-야 • -야
야금야금 • 솔레솔레, 야몽야몽
야무지다 • 당시랗다, 새알지다, 야물딱스럽다, 야물딱시럽다, 야물딱지다, 야물지다
야물다 • 양글다
야바위 • 야바우
야바위꾼 • 야바우꾼
야바위판 • 야바구판, 야바우판
야살스럽다 • 야살피우다
야심하다 • 야식하다
야주지다 • 매시랍다
야트막하다 • 낮참하다, 야차막하다
야하다 • 야시럽다
약막대기 • 약꼬쟁이
약삭빠르다 • 눈치싸다
약손가락 • 깨끼안손구락, 네채손구락, 넷채손구락, 닛치손구락, 무멩지, 무멩지손고락, 무멩지손구락, 무멩지손그락, 반지손가락, 약손고락, 약손구락, 약손그락, 약송가락, 약지송고랙, 양지
약을 올리다 • 보고리 채다
얄궂다 • 재장궂다
얄망궂다 • 얄랑궂다
얄브스름하다 • 앏시락하다, 앏시럼하다, 앏시롬하다, 앏시름하다
얄팍얄팍 • 얄풋얄풋
얇다(공책이) • 야룹다, 얄부다, 얄붑다, 얄브다
양념 • 양넴, 양넴, 양님
양념장 • 양님장
양달쪽 • 양달이쪽
양병 • 앵병
양은솥 • 백솟
양쪽 • 양피짝
양파 • 다마내기
얕다 • 야트다, 나추다, 야춥다, 야칩다
얕보기 • 막보기
얘 • 야1
어 • 아이가1
-어 • -녀, -으1, -으2
어간대청 • 어간자청
어귀 • 첫들머리
어긋나다 • 어정나다
어기대다 • 어구대다, 어긋장부리다, 으그대다
어기적어기적 • 아그작아그작, 애비작애비작
어기차다 • 어구쎄다, 어구차다
어느덧 • 어느젓
어느새 • 어느새끼
-어도 • -이도
어둠발 • 어습발, 어심발
어둡다 • 어돕다, 어두다
어디 • 으디
어디에다가 • 읏다가
어따 • 으따, 으따메
어떡하다 • 으떡허다
어떤 • 워떤, 으떤, 으찐
어떻게 • 어티게, 어툭해서, 어떠케, 어떠코롬, 어쩌코롬, 어찌게, 어찮게, 어치게, 어치기, 어찮게, 어터게, 어ㅌㅓㅎ게, 어퉇게, 어퉿게, 워뚷게
어떻게 해서 • 어툭해서
어떻다 • 어찌다2, 어처다, 어찮다
-어라 • -ㄴ나
어레미 • 어게미, 어리미, 얼게미, 얼기미, 얼릉개, 얼메이, 올롱개
어련하다 • 비문하다
어련히 • 베문히, 여년히
어렵다 • 어러웁다, 어럽다, 어렙다, 어려웁다, 어룹다, 어립다, 에럽다, 에룹다
어르다 • 어루다
어르신 • 어러신

어르신네 • 어러신네
어리광 • 어리꽝질, 어린양, 얼싸
어리광하다 • 어린양허다
어리다 • 에리다
어리둥절하다 • 뚤럼하다
어린애 • 어른아, 어른애, 에린애, 왕애기
어림없다, 어처구니없다 • 어서리없다
어림짐작하다 • 땅띔하다
어마어마하다, 무시무시하다 • 어마무시하다
어마어마하다 • 어마무시허다
어머나 • 으메, 으미
어머니 • 어멍이, 엄니
어머머 • 어메메
어벙하다 • 어리버리하다, 얼빵하다
어서 • 어여
-어서 • -으서
-어서라도 • -어라도
어설피 • 어성찬히
어수룩하다 • 숫두룸하다
어스레 • 어둑스레
어스레하다 • 어둑거리다, 어심어심허다
어스름하다 • 어스륵허다
어슥어슥 • 어식어식
어슬렁어슬렁, 슬렁슬렁 • 슬멍슬멍
어슷비슷 • 어슥비슥, 어실가실
어슷비슷하다 • 어실가실하다
-어야 하지 • -이야지
-어야 • -으야
어영부영 • 어영구영
-어요 • -요, -으요
어이없다 • 에설없다
어저께 • 어저끄, 어제께, 어지께, 어지끄
어젯밤 • 어짓밤
어중간하다 • 어정간하다
어지간하다 • 앵간허다
어지간히 • 앵간치, 엔간치, 엥간히
어째 • 으째
어째서 • 어짜서, 어쩌서, 어치서
어쨌든 • 어쨌든, 어쨌든
어쩌다 • 어짜다, 워짜다, 워찌다, 으짜다, 으찌다
어쩌다가 • 어떡해서, 어짜다가, 어짜다가, 어쯔다가, 어찌다1, 어치다가, 오쩌다가, 으짜다가
어쩌면 • 으쩌먼
어찌 • 어쩌, 어치2, 오째서, 오찌, 오트게, 워찌, 으찌
어찌어찌 • 어채어채
어차피 • 어채피, 팽에
어험 • 에함
억새 • 새때기, 새풀, 왁새, 으악새, 초새
억세다 • 어세다, 억시다
억지 • 어거지
억지로 • 역질로
억척스럽다 • 억시럽다
언덕배기 • 고바위
언제 • 언지, 원제, 은제, 은지
언치 • 어치1
얹다 • 얹치다, 연자다, 연지다, 영그다
얹혀살다 • 영체살다, 영처살다
얼간이 • 써금발이
얼굴 • 구녁새, 낫바닥, 낫반데기, 낫반디기, 쌍통, 얼골
얼굴의 생김새 • 면상
얼떨결 • 얼낌덜낌
얼렁뚱땅 • 눈깜땡깜
얼레 • 연자사, 자새, 자새, 자세
얼레빗 • 어리빗, 얼개빗, 얼거빗, 얼게미빗, 얼게빗, 얼그빗, 얼기빗
얼룩덜룩하다 • 얼쑥덜쑥허다
얼른 • 얼럼, 얼름, 얼릉, 얼찐
얼리다 • 얼구다, 얼료다, 얼류다

얼마 • 얼매, 을마
얼마나 • 을매나
얼버무리다 • 얼범부리다
얼요기 • 얼요구
얼음썰매 • 앉일개2
얼크러지다 • 설크러지다
얼핏얼핏 • 얼칫얼칫
얽다 • 얼그다
엄마 • 어매, 오매, 오메1, 옴마
엄살 • 숭물
엄지손가락 • 앵기손고락, 엄지손거락, 엄지손고락, 엄지손구락, 엄지손그락, 엄지송가락, 엄지송고락, 엄지송구락, 엉지손그락, 엥기, 옴기손구락, 옹기손구락, 음지손가락, 잉끼손구락,
엄청 • 언청, 원청
업히다 • 어입히다, 엎히다, 엡히다, 윕히다
없다 • 읎다, 읎다, 읎다
없애다 • 없이다, 읎애다, 읎이다, 읎애다
엇갈리다 • 비끌리다
엇비슷이 • 엇비식이
엇비슷하다 • 어덩덩하다, 어등등하다, 에등등하다
-었- • ~~-읐-~~
엉거주춤 • 엉거지침
엉겁결 • 겁짐, 엉겁절, 엉겁질, 엉접질
엉겅퀴 • 엉겅쿠, 항가꾸
엉덩방아 • 궁둥방아, 넙덕방아, 도구방애, 똥구먹방애, 엉덩방애, 엉둥방애, 엉딩이방애, 응뎅이방애, 응등방애, 응등이방아
엉덩이 • 넙턱지, 방둥이, 엉뎅이, 엉딩이, 응뎅이, 응등이, 응딩이
엉덩짝 • 엉치짝
엉뚱하다 • 깽뚱하다, 새수빠지다, 엉뚱깽뚱하다, 엉뚱깽뚱허다
엉치등뼈 • 똥때뼈
엊그저께 • 엊그저끄
엊저녁 • 엇지녁
엎드리다 • 엎데리다, 엎디리다, 엎지다
엎지르다 • 어클다, 허클다1
엎질러지다 • 어클어지다, 허클어지다
에 • 가서, 어, 에가, 에가서, 여가, 으3, 으가, 이2, 이가2
에게 • 기가, 으게, 한테가
에게다 • 기다
에게로 • 기로
에게서 • 기서
에끼 • 대끼, 대끼순
에누리 • 에너리, 에노리, 에느리, 외누리, 화리1
에다 • 여다, 으다, 이다
-에다 • -어다
에다가 • 여다가, 으다가, 이다가
에서 • 여서, 으서, 이서
에서랑 • 으서랑
엔간하다 • 엥간하다, 엥간허다
엔만찮다 • 엔만찮다
여기 • 여그
여기저기 • 여그저그
여뀌 • 여쿠대
여남은 • 여나뭇, 여남
여닫이 • 고리문
여닫이문 • 쌍닫이문, 쌍바라지문
여닫이창 • 쌍창문
여드레 • 야드레
여드름 • 이두룸, 이드룸, 이드름
여때껏 • 여적지
여럿 • 여러
여물광 • 여물간, 여물곳간, 여물섬, 여물청
여물다 • 따갈따갈하다
여미다 • 오미다
여우 • 여시, 여오, 여호, 여후
여우비 • 여시비
여의다 • 에우다, 여우다, 예우다

여자아이 • 가시나, 가시내, 게집아, 게집애
여태 • 여적, 여직, 이트
여태껏 • 여태깔로, 여태끈, 여태끔, 이트까, 인드까
여편네 • 예펜네
역아 • 꺼꿀이
엮다 • 여끄다, 영끄다, 엮다
연계 • 잉계
연기 • 내급, 냉갈, 엔기, 옌기
연분 • 질연
연어 • 연에
연자방아 • 독방아, 연자방애
연하다 • 사글사글허다
열꽃 • 꽤손님, 열꼿, 콩손님, 홍진
열다 • 끌르다
열불나다 • 열불나다
열쇠 • 쇳대, 쇳돼, 열대, 열새, 일쇠
열없다 • 애서럽다, 열적다
엷다 • 야터다, 약허다, 여트다
염낭 • 양낭
염병 • 염벵, 옘병, 임병
염병을 하다 • 염빙을 하다
염병하다 • 육병하다, 임뱅허다, 임병허다
염소 • 맴생이, 맴소, 맹생이, 멤생이, 멤소, 몀생이, 몀셍이, 몀소, 밈소, 염새이, 염생이, 염셍이 ,
염알이하다 • 여마리허다
엿 먹이다 • 엿 멕이다
엿기름 • 엿지름, 엿질굼, 엿질금
엿듣다 • 엿드다
엿보다(기회를) • 엿어보다
엿보다 • 나중보다
엿장수 • 엿장시
영감쟁이 • 영감쟁이
영감태기 • 영감때기, 영감태기
영글다 • 영글다

옆 • 옆댕이
옆구리 • 여꾸리, 옆굴창, 옆굴탱이, 옆불텡이, 옆사댕이, 옆텡이
예단 • 인사옷
예쁘다 • 이삐다
예의 • 에의
옛날 • 엣날, 잇날
옛날이야기 • 엣날얘기, 엣날이얘기, 옛날얘기, 옛날이애기, 옛날이얘기, 옛얘기
옛말 • 엿말
오가리솥 • 오갈솟2
오광(五光) • 오괭
오그라뜨리다 • 오불치다
오그라지다 • 꼽송그러지다, 오구라지다
오그리다 • 오그레다, 옹구리다, 옹글씨다
오긋이 • 오그당히
오긋하다 • 오긋하다, 오그당당하다, 오그당하다, 오그댕댕하다, 오곰하다
오기 • 오구
오냐 • 옹야
오늘 내일 • 오널낼
오늘 • 오날
오늘날 • 오날날
오두막 • 오도막
오두막집 • 오도막집, 오드막집, 오마집, 오막살이집, 오막집
오두방정 • 오도방정, 참깨방정
오디 • 오드개
오뚝하다 • 오꼼하다
오라기 • 오락실
오라버니 • 오라바니, 오라바이
오라비 • 오랍씨, 오래비
오랑캐꽃 • 쌀밥나무
오래오래 • 꿀꿀꿀, 도루돌돌돌, 도르래도르래, 도르르돌돌, 돌돌돌, 똘똘똘, 오루오루, 오르래오르래

오례쌀 • 욀베쌀
오르다 • 타다2
오른손 • 오룬손, 오린손
오른손잡이 • 바른손잽이
오른짝 • 오린짝
오른쪽 • 오룬쪽, 오린쪽
오른팔 • 오른폴
오리 • 외리
오리다 • 외리다
오막살이 • 오두막살이
오목오목하다 • 오목오목허다
오목하다 • 옴망허다
오므리다 • 오물쎄다
오붓하다 • 뽀땃하다, 옴팍지다, 옴팍하다
오비작거리다 • 외비작거리다
오순도순 • 오손적도손적, 오순적도순적
오이 김칫국 • 오이김치국, 오이김치죽
오이(瓜) • 물오이, 물외
오이소박이 • 물외장아치, 물외짐치, 물외짱아치, 속백이, 오이김치, 오이짐치, 외김치, 외지, 외짐치
오이지 • 물외소곰지, 물외소곰치, 오이너물, 오이장아치, 오장치1, 왜짱에치, 외장아치, 외장알치, 외짱아치
오자미 • 오재미
오쟁이 • 오장치2
오죽이 • 오직이
오줌 • 오좀, 오즘, 오짐
오줌보 • 오줌깨
오지그릇 • 옹탱이1
오지랖 • 오지랍, 오시락짝, 오지락, 오지랍싹, 옷지랍
오징어 • 수래미, 수루매, 수루미, 수리미, 쑤래미, 쑤리미, 쓰래미, 오둥어, 오지어, 오지에, 오징에
오히려 • 외려
옥수수 • 깡냉이, 옥구시, 옥소꾸, 옥수시, 옥수쑤
옥수숫대 • 깡냉잇대
온- • 왼-
온공일 • 온굉일, 왼굉일
온몸 • 온뫔, 왼몸, 왼뫔
올가미 • 몰링개, 몽매, 얼룽개, 올개미, 올개이, 올랭이, 올룽개, 올말, 올무개, 홀룽개
올려다보다 • 올레보다
올빼미 • 옥배미, 올삐미
올챙이 • 올채이
올케 • 동상으댁, 동상으덕, 동생떡, 오라부덕
옭매다 • 왱이매다
옭매듭 • 옭매답
옮기다 • 외기다, 윍기다, 욍기다
옴 • 오돌
옴팍하다 • 옴싸허다
옷 • 우티
옷고름 • 옷거름, 옷고롬, 옷고룸, 옷구룸, 옷구룸짝
옷깃 • 옷짓
옹골지다 • 옹구락지다, 옹판지다, 찰방지다
옹기 • 옹구, 왕기
옹기그릇 • 옹구그럭, 옹구그릇, 옹기거럭, 옹기그럭
옹기장이 • 옹구쟁이
옹기전 • 옹구전
옹달샘, 샘 • 옹다리시암, 옹담새암
옹달샘 • 옹조리샘
옹동그리다 • 옹동글씨다
옹색하다 • 앵생하다, 옹삭시럽다, 옹삭하다
옹이 • 공이, 굉이, 솔콩이
옹자배기 • 옴배기
완두콩 • 애콩
왕겨 • 껍불제, 맵재, 맵제, 맵지, 멥겨, 멥재, 왕가루, 왕저, 왕제, 왕지, 왱게, 왱겨, 왱기

ㄱ

왕잠자리 • 왕자마리, 장구잠마리
왜간장 • 애간장, 왜장
왜국(倭國) • 왜궉
왜놈 • 애놈, 왜뇜
외골수 • 마캥이
외국 • 외궉
외따로 • 웹두로
외딴집 • 외떤집, 외똔집, 외뜬집
외딴집/웨딴집 • 웹딘집
외사촌 • 외사춘
외삼촌 • 오삼춘, 외삼춘
외손녀 • 외손지딸
외손자 • 외손지
외아들 • 외아들
외양간 • 소막, 소막, 오양간
외욕질, 구역질 • 오약질
외욕질 • 애옥질
외지다 • 웹디다
외치다 • 외오치다
외투 • 외통
외할머니 • 외할매, 외할머이
외할아버지 • 외한아씨, 외할아부지
왼눈 • 외약눈
왼발 • 외약발
왼뺨 • 외약빰
왼새끼 • 외약사내끼, 외약사내키, 왼사내끼, 왼새끼
왼손 • 외약손, 왹손
왼손잡이 • 외약대재, 외약대재이, 외약대잽이, 외약손잽이, 외약잽이
왼쪽 • 외악쪽, 외악짝, 외약쪽, 왼짝
왼팔 • 외약팔
요강 • 오강, 오강단지, 요강단지
요것 • 요곳
요때기 • 오대기, 요대구, 요대기, 요대이
요란하다 • 요란뻑적지근하다
요렇게 • 요랗고, 요롷고
요번 • 요참번
요사이 • 요시
요의 • 요껍닥, 요껍대기, 요껍디기, 요속, 요안, 요판, 요홑이불
요즈음 • 요새, 요세, 요좀, 요지음, 요짐, 이새
욕쟁이 • 욕보
욧잇 • 요혼지, 요홍지, 요홑니, 욧이
용마루 • 용마람, 용마름, 지붕말랭이
용마름 • 용마리, 용모롬, 용모룸
우격다짐 • 막자치기
우그러뜨리다 • 우굴치다
우그리다 • 우구리다
우글거리다 • 우클하다
우두커니 • 멀주거니, 멀주커니, 오두개미
우뚝우뚝 • 들뭇들뭇
우뚝우뚝하다 • 들뭇들뭇하다
우람하다 • 우작허다
우렁이 • 우렁, 우렁세이, 울벵이
우려내다 • 우레내다
우려먹다 • 우레묵다
우리 • 우르
우리다 • 울구다
우리들 • 울덜
우물 • 쪽박샘
우박 • 누리, 느래, 느레, 느리
우수리 • 끝돈, 끝전
우스꽝스럽다 • 우시꽝시롭다
우악스럽다 • 우왁스럽다, 우작시럽다
우엉 • 우벙, 우웡, 우헝
욱신거리다 • 득신거리다, 우끈거리다
욱신욱신 • 우끈우끈
욱신욱신하다 • 우끈우끈하다
울렁울렁 • 월닝월닝, 월렁월렁
울보 • 움보, 찐보
울창하다 • 울미하다, 울비하다

울타리 • 후타리, 훌따리, 훌타리
움막 • 울막
움직거리다 • 움즉거리다
움직대다 • 움적디다
움직이다 • 움줙이다
웃자라다 • 미치다2
웅덩이 • 둠벙, 뚬벙, 방죽, 웅뎅이
워낙 • 어너니, 어눠니, 워낙이, 워너니, 원팡
원두막 • 외막
원망 • 언망
원숭이 • 원새이, 원생이, 원수이, 원싱이, 잔내미, 잔내비, 잰나비
월요일(月曜日) • 얼외일, 월오일
위 • 우게
위아래로 • 우알로
위태롭다 • 우태럽다
위턱 • 우게텍, 우그턱
윗동네 • 우촘, 우츰
윗마을 • 웃거티, 웃걷, 웃동네, 웃듬, 웃마실, 웃마을, 윗덤
윗목 • 울목, 웃목
윗입술 • 웃입설, 웃입솔, 웃입술, 윗입설
유과 • 부수개, 부시개
유기장사 • 유구장시
유방 • 유박
유별나다 • 별쭉나다
윷가락 • 윷짝
으깨다 • 잉까리다, 잉깨다, 잉끄리다
으깨지다 • 잉깨지다
-으니까 • -으니깨, -으닝게, -은게
-으라고 그래 • -으라구랴
-으라고 하냐 • -으라구냐
-으라고 하지 • -으라구지, -으라구카지, -으라카지
-으라고 해 • -으라캐, -으라캬
-으라고 • -어라고
-으라니까 • -으란깨
-으래요 • -으래여
-으러 • -우러, -으로
-으레- • -우룸-
-으려 • -을라
-으려고 하냐고 • -을라냐고
-으려고 하네 • -을라네
-으려고 하데요 • -을랍디여
-으려고 하려나 • -을랑가
-으려고 한다 • -을라곤다, -을란다
-으려고 합니다 • -을랍니다
-으려고 해도 • -을래도
-으려고 해야 • -을래야
-으려고 • -을라고
-으려나 • -을라나
-으려면 • -을라먼
-으려오 • -을라요, -을라우
으로 • 우로, 이로
으로다 • 으로다
으르다 • 왈기다
으르렁거리다 • 응흐리다
으름장 • 을름장
-으면 • -으먼, -으문
-으면서 • -으믄서
-으면이야 • -음사
으슥하다 • 아슥지다
으슬으슬하다 • 오슬하다, 으실으실허다
-으시지요 • -으시지라우
으실으실 • 으식으식, 으씩으씩
으아리 • 아아리
-으오 • -으우
으젓하잖다 • 으젓잔하다, 으젓잖다, 으짓잖다
-은 • -운, -은
-은가 보구나 • -응개비구나
-은갑다 • -은개비다

ㄱ

-은고 • -응고
-은데 • -은디1
-을 것 같으니까 • -을깜슨게
-을게 • -께
-을까 봐, -ㄹ까 봐 • -능게미
-을까 봐 • -깜시, -ㄹ깽이, -ㄹ께미, -으까미, 으까이, -으깨미, -으깽이
-을까 • -으까, -으꼬, -이까이
-을까봐 • -ㄹ까미
-을까요 • -끄라우
-을래 • -을쳐, -을텨
을수록 • -을씨락
읊다 • 을푸다, 을프다
음식 • 음석
음핵 • 알감씨
응 • 잉
응달 • 응강, 응산
응등그리다 • 응등글씨다
응어리 • 엉어리
의 • 으
의견 • 의겐
의논 • 으논
의뭉스럽다 • 우멍스럽다, 애양스럽다
의뭉하다 • 우멍하다, 으멍허다
의복 • 으복, 으상, 의빅, 입성
의붓아버지 • 이붓아부지
의붓어미 • 이붓어매, 이붓엄마, 홋어매, 홋에미
의자(椅子) • 으자, 이자
의젓잖다 • 의짓잖다
이 • 이가1, 이가서
이[蝨] • 갈강이
이글거리다 • 잉글거리다
이글이글하다 • 잉글잉글하다
이끼 • 바우손, 바우순, 바우옷, 이깨이, 잉깽이, 잉끼, 잉끼미
이따금 • 이따굼
이때껏 • 이때끔, 이때끼, 이적지, 이쩍지
-이라고 하더라 • -이락 허드라
-이라고 하지 • -이라고지
-이라고 • -이다고
-이라야 • 이라사
이랴 • 저랴
이러하게 • 이로코롬, 이케, 일케
이런 • 이른
이를테면 • 이트르먼, 일로치면, 일트레면, 일트르먼, 일트름, 일틀면
이름 • 이림
이리 • 여리
이리로 • 일로
이마 • 이망2, 이매
이마빼기 • 이마빡, 이망빵
이만저만 • 이망쿠저망쿠
이만치 • 여만치, 이맨치
이만큼 • 이마시
이만하다 • 이맨하다
이맛돌 • 이맷독
이무기 • 이무래기
이불 • 이블
이빨 • 이빠디
이삭 • 알랭이, 이삭모가지
이상스럽다 • 요상시럽다
이상하다 • 요상하다
이슥하다 • 아실하다
이슬 • 이실
이슬비 • 이스락지, 이스럭지, 이시락지, 이시럭지, 이실갱이
이야 • -시2, 이사
이야기 • 이애기, 이얘기
이엉 • 날개, 날개짱
이웃 • 유제, 이웆
이음매 • 잇음매
이자(利子) • 벤전

이제 • 인자
이제껏 • 인자까, 인자깨1, 인적지, 인제껏, 인지까
이제나저제나 • 하마나
이토록 • 일트락
이튿날 • 이틷날
이파리 • 이파랑구, 이퍼리
이혼 • 이원
인두 • 윤디
인색하다 • 약약스럽다, 약약시럽다
인적 • 인침
일가 • 자자일촌, 집안간
일다(쌀을) • 이르다
일렁일렁하다 • 일룽일룽하다
일부러 • 부러, 부로, 억실로, 역불로, 역시러, 역시로, 일부로
일어나다 • 인나다
일어서다 • 일어시다
일으키다 • 인내키다, 일내끼다, 일내키다, 일어내끼다, 일으씨다
일자무식, 판무식, 전무식 • 맹무식
잃다(돈을) • 꿇다, 뿔리다2
잃어버리다 • 잃어번지다, 잃어분지다, 잊어버르다, 잊어버리다, 잊어번지다, 잊어부르다, 잊어부리다
임자 • 임재
입길, 입방아 • 입잣
입술 • 입서리, 입설, 입셔리, 입소리, 입솔
입심 • 아구빨
입짓 • 양냥이짓
잇다 • 이수다
잇몸 • 입더물, 입드물
있다 • 유하다
잉걸 • 잉그락, 잉그륵
잉걸불 • 잉그락불, 잉그럭불, 잉글불
잉앗대 • 잉애, 잉앳대
잊어버리다 • 잊어베리다, 잊어분지다
잎사귀 • 잎사구, 잎삭, 잎새기
자갈 • 독자갈, 독작
-자고 했으면서, -자고 하면서 • -잠서
-자고 • -자구
자귀나무 • 짜부대나무
자귀나무의 줄기 • 짜긋대
자그마하다 • 자그만허다
자기 아버지 • 저가부지
자기 어머니 • 저그매
자기 엄마 • 저매
자기 • 자개, 자그, 저그, 즈그, 지그1, 지기
자꾸 • 댈구, 자꼬, 자끄, 차꼬, 차꾸
-자니까 • -장게
-자니까는 • -장게나
자두 • 차두
자라 • 자래
자라나다 • 자러나다
자라눈 • 자래눈
자라다 • 커나다, 커다
자루(袋) • 잘구, 잘기, 잘레, 잘루, 푸대1
자루 • 자리1, 장치, 차대기
자르다 • 꼉끄다, 끈ㅎ다, 비다1, 자리다, 잘르다, 짜르다, 짤르다, 짱그다, 짱그르다
자리개질 • 태입삭
자린고비 • 자진고비
자물쇠 • 대물통, 쇠통, 자불통
자발스럽다 • 자발시럽다
자발없다, 방정맞다 • 자발맞다
자밤자밤 • 자붐자붐
자빠뜨리다 • 자빠치다
자새 • 꾸리, 나틀, 실패
자세히 • 자산히, 자시
자수성가 • 자수성사
자식 • 자석, 자슥
자식새끼 • 자석새깽이

자아올리다 • 잣아올리다
자연히 • 자연시
자운영 • 자우용
자웅 • 자옹
자잘하다 • 잘므락하다, 조잘조잘하다, 짜실허다
자전거 • 자진기, 자징게, 자징기
자지러지다 • 자드라지다
자치기 • 잣대치기
자투리 • 자치레기
자투리천 • 짜시레기
작다 • 짝다, 째깐다, 째깐하다
작신 • 작신
작은놈 • 째깐놈
작은설 • 까치설, 숫달그뭄날, 짝은설
작은어머니 • 작엄마, 작으매, 작은마, 작은매, 작은엄니, 작은옴마
잔챙이 • 잔것
잘금거리다 • 잴금거리다, 쩔끔거리다
잘금잘금하다 • 잴금잴금하다
잘난 체하다 • 푸세푸세허다
잘다 • 짤다
잘쏙하다 • 잘쭉하다
잘칵하다 • 잘칵허다
잠결 • 잠정신, 잠질
잠그다(문을) • 잠구다, 장고다, 장구다, 장그다
잠그다 • 정구다
잠기다 • 쟁궈지다, 쟁기지다
잠깐 • 잠꽌, 장꽌
잠꾸러기 • 잠칭이
잠방이 • 무잠뱅이, 물잠뱅이, 잠방구, 잠뱅, 잠뱅이, 잠벵이
잠보(잠꾸러기) • 잠고래, 잠꾸레기, 힌칭이
잠보 • 잠추이, 잠충, 잠충이
잠자리 • 자마리, 참마리, 참바리, 잠마리, 짜마리, 차마리
잠포록하다 • 잠푹하다
잡것 • 작것1, 작것2
잡기장 • 작기장
잡매다 • 짬매다
잡아당기다 • 잡으땡기다
잡아떼다 • 잡아띠다
잡아매다 • 쨈매다, 쩜매다, 쫌매다, 쭘매다, 쯤매다, 찜매다
잡아채다 • 나꾸다
-잡이 • -잽이
잡채 • 냉면잡채
잡초 • 잡나랙
잡히다 • 잽히다
장가 • 장개
장구 • 장고
장구배미 • 장구바미
장구벌레 • 갈그생이, 갈그셍이, 그시랑새끼, 수채벌기, 시금창버러지, 실거생이, 실거시랑, 장구버럭지, 장구벌거지, 장구아비, 장구애비, 짱구벌레, 짱구애비
장끼 • 장꿩, 쟁기, 쟁끼, 쟁키
장다리무 • 공자리, 무공자리, 무시공자리, 장다래, 장다리, 장다리무수, 장다리무시
장도리 • 장두리, 짜구
장독대 • 장광
장롱, 찬합 • 단스
장사 • 장시
장아찌 • 장아치
장티푸스 • 장질부사
장판 • 장판때기
장판지 • 방장
장화 • 물장화
잦혀지다 • 자케지다
재롱 • 섀살
재롱(떨다) • 재롱
재롱떨다 • 새살까다1, 새살떨다1, 새살허다1, 시살떨다, 재롱하다

재롱부리다 • 이쁜짓하다
재봉틀 • 자방침2, 자방틀, 자봉침, 재봉침
재우다 • 재오다
재작년 • 개작년
재채기 • 재치개, 재침
쟁개비 • 장개미
저고리 • 저구리
저기 • 쩌그
저녁 • 지녁, 지영
저녁때 • 지녁때, 지영때
저녁밥 • 저넉밥, 지영밥
저리 • 쩌리, 처리
저리다(손이) • 재리다, 제리다
저리다 • 제랍다
저만큼 • 저마침, 저마큼
저맘때 • 저만때
저미다 • 제미다
저수지 • 행장
저울 • 장척
저이 • 쩌그자
저희 • 지그2
-적 • -즉
적다, 작다 • 쩍다
적삼 • 쩍삼
적시다 • 멍치다
전생 • 전상
전학 • 즌학
-절 • -절
절구질 • 도곳대질, 도구질
절굿공이 • 도곳대, 절긋대
절룩거리다 • 잘심거리다
절룩절룩 • 잘심잘심, 절심절심
절룩절룩하다 • 잘심잘심하다
절름발 • 짤룸발, 쩔뚝발
절름발이 • 개구다리, 뻣대, 절뚝발이, 절룩발이, 절름뱅이, 짤룩바리, 쩔뚝발이, 쩔뚝배기, 쩔름뱅이, 찐따
절미(節米) • 좀도리쌀
절이다 • 간치다, 절구다
젊어지다 • 젊어가다
점방 • 즘방
점심 • 점섬, 정심
점심밥 • 정심밥
점심참 • 정심참수
점쟁이 • 점재이
접칼 • 때개칼
접히다 • 접어지다, 젭헤지다, 젭히다
젓가락 • 저번, 저분, 저붐
젓동이 • 젓동우
젓새우 • 젓새비
정강뼈 • 장갱이뻬
정강이 • 쟁갱이
정거장 • 정거정, 정그정
정수리 • 장골배기, 장배기, 점배기, 정박지, 정배기, 정지배기
정신 • 신천
정월 • 정얼
정자나무 • 정개나무, 정기나무, 정기낭, 정지나무, 정지낭
정화수 • 청숫물
제가끔 • 제금
제각기 • 적저금
제기(놀이) • 제게, 제끼, 줴기
제기랄 • 니기럴, 지기랄
제대로 • 지대로
제랑 • 지낭
제면하다 • 재민허다
제발, 제발 덕분(에) • 지발덕덕, 지발덕분
제발 • 지발
제비 • 지비
제비초리 • 제비촐, 집촐

ㄱ

제사 • 제앙, 지사, 지앙, 지앵
제수 • 지수
제수씨 • 지수씨
제일로 • 젤로
제재소 • 톱간
제철 • 지철
제치다 • 재끼다, 제끼다
조 이삭 • 서숙모가지
조 • 서슥, 써숙, 올기쌀
조가비 • 조개비
조각 • 쪼각
조각나다 • 쪼각나다
조각배 • 조랑배
조그마하다 • 쬐간하다
조그맣다 • 쩨깐하다, 쬐깐하다, 찌깐허다
조근조근 • 조단조단
조금 • 조까, 째까, 째끔, 쪼게, 쪼곰, 쪼까, 쪼깨, 쪼께, 쪼끄매, 쫴끔, 쬐게, 쬐깨, 찌게, 찌끔,
조금씩조금씩 • 쪼츰쪼츰
조기 • 용찬, 조구
조동아리 • 조동아리, 조둥아리
조동이 • 조댕이
조롱하다 • 조롱대다
조리 • 물조리개1, 조래이, 조레이, 조렝이
조몰락조몰락 • 조몰조몰
조몰락조몰락하다 • 조몰조몰하다, 조몰조몰허다
조밥 • 서숙밥, 서숙뱁, 수숙밥, 수슥밥, 스숙밥, 스슥밥, 써슥밥
조붓하다 • 좁장하다, 쫍장하다
조선간장 • 조선장
조선소나무 • 한솔
조왕 • 지양
조이삭 • 수숙모가지, 수슥모가지, 스숙모가지, 스숙모개, 스슥모가지, 쑤수모가지
조차, 까지, 마저 • 한지, 한질라, 할라
조차 • 할래
조청 • 조총
족집게 • 쪽집게
졸다 • 자오로다, 자오루다, 자오르다, 자올다, 자올르다, 조르다, 조을다
졸리다 • 자올리다, 잠에랍다, 조를리다
졸음 • 자오름, 조으름, 졸움, 졸임
좀돌 • 붓독
좀생이 • 쫌생이
좀처럼 • 조매, 조체로, 좀치로
좁다, 좁다랗다 • 쪼브장하다
좁다 • 쫍다
좁쌀 • 서숙알, 수숙쌀, 스숙쌀, 스숙알, 스슥쌀
좁쌀떡 • 서숙떡
좁아지다 • 솔아들다
종구라기 • 종구라기, 종구래기, 종그래기1, 쫑그래기, 쫑그레기
종다리 • 종도리새, 종조리새
종이 • 종우, 종으
종이쪽 • 조우떼기, 종우때기, 종우때이
종지 • 깍쟁이, 깍젱이, 종그래기2, 종재기
좌우간 • 자우튼, 자우튼간, 장단, 좌당간, 좌우당간
좌우지간 • 자오지간
주근깨 • 주건깨, 주겅깨, 주군깨, 주궁깨, 주근끼
주둥아리 • 입주댕이, 입주둥이, 입주딩이, 주동아리
주둥이 • 주댕이, 주데이1, 주뎅이, 주둥배기, 주둥빼기, 주둥치, 주둥패기, 주둥팽이, 주뒹이, 주등이, 주딩, 주딩이, 쥐뒹이
주름살 • 구금살, 주룸살, 쭈구렁살, 쭈금살, 쭈름살
주머니 • 개와주머니, 개와주머이, 괴비, 봉창, 봉채이, 조마니, 주먼지, 주먼치, 주모치, 줌, 줌치, 쥐메이 ,
주먹밥 • 뭉치밥

주발 뚜껑 • 놋밥그럭
주색잡기 • 주색잭기
주책없다 • 연달없다
주춤주춤 • 조참조참
주춧돌 • 주춧독, 주칫돌, 지추
죽다 • 뻐드러지다
죽이다 • 줘이다
죽지 • 쭉지, 쭉때기, 쭉지, 쭉지때기
줄기 • 줄거리, 쫄가리
줄남생이 • 졸남생이
줄다 • 쫄다
줄이다 • 쫄구다, 쫄이다
줌돌 • 팔돌, 풋독
중고기 • 중테기
중신어미 • 중신에미
중턱 • 산중탈, 산중터리, 산중틀, 중터리, 중트리, 중트막, 중틀
쥐구멍 • 주구멍, 쥐구녁, 쥐구녕, 쥐구녘, 쥐구먹, 지구먹
쥐어박다 • 쥐어박치다
즉시 • 즉꼴
즐겁다 • 줄겁다
증상맞다 • 징상허다
증상스럽다 • 징상스럽다, 징상시럽다
증조할머니 • 진조할매
증조할아버지 • 진조한아씨
-지 않아 • -자녀
-지 • -장, -제, -제이, -지야
지개 • 지게
지게 • 지기2
지금껏 • 내동
지껄이다 • 지깔이다, 지꿔다, 지불지불하다
지나가다 • 돌아가다, 지내가다
지나다 • 거우르다, 지내다
지느러미 • 지느래미, 지느레미
-지는(않(못)) • -던

지랄, 개지랄 • 생지랄
지렁이 • 거시랑, 계실기, 그시, 꺼생이, 끄시랑이, 지렝이
지르다 • 질르다
-지를 • -덜2
지린내 • 지렁내, 지른내, 찌른내, 찌릉내, 찌린내
-지만 • -제만
지붕 • 지봉
-지요 • -지라우
지주목, 버팀목 • 총대
지청구하다 • 지천하다
지치다 • 팡지다
지칭개 • 지충개
지팡이 • 주렁막대기, 지파이, 지팽이
지푸라기 • 지푸락1, 지푸래기
진눈깨비 • 진눙깨미, 진는깨미, 진두깨비, 진드깨비, 진태, 진테, 진티
진달래 • 진달리, 참끗
진달래꽃 • 진다래끗, 진달리끗
진달래술 • 꽃술, 진달레꽃술, 진달레술, 진달리꼿술, 참꽃나무술, 참꽃술
진드기 • 진더개, 진더게, 진두배기, 진두베기, 진둥개, 진둥게, 진드개, 진드미, 진등개, 찐데기, 찐드기, 찐디기 ,
진득이 • 진듯이
진딧물 • 뜨물, 진뜨물
진버짐 • 진버짐
질겁하다 • 잘급하다
질경이 • 배뿌쟁이, 뱁쟁이, 베뿌젱이, 빠뿌쟁이, 빠뿌제이, 빠뿌젱이, 빼뿌쟁이, 뺍쟁이, 질갱이, 질겡이, 질겨이
질기다 • 찔긋찔긋허다
질펀하다 • 늘편하다, 늘핀하다, 늘핀허다
짐승 • 즘생, 짐성
짐작 • 어군

ㄱ

집게 • 찍게
집게손가락 • 두째소까락, 두째손거락, 두체손구락, 집기손구락, 찝게손가락
집적거리다 • 찌벅거리다, 찔벅거리다, 찔벅찔벅허다
집적이다 • 찔벅이다
짓 • 짓거리
짓궂다 • 댓궂다, 사분하다, 재살맞다
짓이겨지다 • 잉깔라지다
징거미 • 증개미
징그럽다 • 징하다
징역살이 • 진역살이
짚멍석 • 도래멍석, 동글방석
짚방석 • 멧방석
짚신 • 깊시기, 짚세기, 짚시기, 털미기
짜다 • 짜오다, 짜웁다, 짭다
짜증 • 짜가리
짝짝이 • 딱땍이, 짝짹이
짤막하다 • 잘심하다, 짤도막하다
짧다 • 잘룹다, 짜룹다
짬짬이 • 짬짬이, 짬쨈이, 참참이, 참챔이
쪼개다 • 뽀개다
쪼그리다 • 쪼그대다
쪼그마하다 • 쬐꼬만하다
쪼그맣다 • 죄끄맣다, 째끄맣다, 쬐그맣다, 쬐꼬맣다
쪼글쪼글 • 꼬그작꼬그작히
쪼다 • 좃다, 쫏다
쪼다되다 • 쪼다되다
쪼들리다 • 쪼딜리다
쪽박 • 벅짜
쫀쫀히 • 쫀쫀히
쫓기다 • 쬧기다, 찌끼다
쭈뼛쭈뼛 • 우삣쭈삣
쭉정이 • 빈깡, 빈깡태기, 쭈게이, 쭈겡이, 쭉젱이, 쭉징이
찌꺼기 • 지끄레기, 찌꺼리, 찌께기, 찌끄래기, 찌끄럭지, 찌끄레기, 찌끄리기, 찌끌, 찔꺼리, 처진거리, 허부레기
찌다(찬밥을, 蒸), 데우다 • 더끄다, 디다
찔레 • 찔롱, 찔룩
찔리다 • 찔례다
찔찔 • 삘삘
찧다 • 찌다3, ㅉㅣㅎ다
차곡차곡, 차근차근 • 따복따복, 따북따북
차곡차곡 • 채곡채곡
차근차근 • 차복차복
차다(冷) • 찹다
차리다 • 채리다
차멀미 • 차몰미
차이 • 칭아
차이다 • 채다
차조 • 차서숙, 차수숙, 찰서숙, 찰스숙, 찰스슥, 찰조, 채조
차지다 • 찰지다
차표 • 차푀, 채표
찬밥 • 씩은밥, 차운밥, 참밥
찬찬하다 • 몽골다
찬찬히 • 꼼꼼히, 꼽꼽히, 또박또박, 싸득싸득, 짠짠히
찰수수 • 찰수시, 찰쑤수, 찰쑤시
찰옥수수 • 찰강내이, 찰강냉이
참기름 • 찬기름, 찬지름, 찬지림, 참지름, 챙지름
참깨 • 조선꽤, 참꽤, 창깨, 창께, 창꽤
참말 • 차말
참말로 • 차말로
참바 • 삼끈, 시산노
참빗 • 챔빗
참숯 • 참나무숫, 참숫
찹쌀 • 찬나, 찬나락, 찰비
창자 • 창사, 창사구, 창새, 창새기, 창시, 창씨,

창아리
창자 소갈머리 • 속창시
창피하다 • 챙피허다
찾아다니다 • 헤텨댕기다
채소 • 채수
채소밭 • 채전, 채전밧
채잡다 • 채잡다
책궤 • 책괴
처녀 • 큰악시, 큰애기
처럼 • 마냥, 마니로, 마이로, 맨씨로, 맨키로, 맹기, 맹으로, 맹이, 맹이로, 맹키로
처마 • 지벙끄터리, 채양받이, 처마끗, 처매, 처매끄터리, 처매끗
처먹다 • 처묵다
처신 • 천신
처음 • 처므냐, 첫모냐, 첫참, 츠음, 츰
천 일 • 즈믄해
천덕꾸러기 • 지천꾸러기, 지천꾸레기
천생 • 천상
천생배필 • 보리배필
천천히(마셔라) • 천채이, 천첸이, 츤찬히, 츤츤히
천천히 • 서나서나, 싸묵싸묵
철골하다 • 철골허다
철딱서니 • 철딱사니
철쭉 • 개진달래, 개진달리, 철시꼿
청맹과니 • 당달이봉사
청미래덩굴 • 망개, 망개나무, 망개쟁이, 맹감, 맹개쟁이, 멍감, 멩감, 명감, 몡감, 밍감
청솔 • 청태
청수(淸水) • 말강물
청포장수 • 황포장사
체면치레 • 체면닦음
체하다 • 체증하다
쳐다보다 • 치다보다
쳐부수다 • 때레뿌수다, 때레뿌식다
초가을 • 초가실
초가집 • 짚집, 초갓집, 초집
초학 • 추학
촉촉이 • 촉칙이
촐랑이 • 초랭이
촘촘하다 • 쫀쫀허다
총각무 • 달랑무
총구멍 • 총구녕
총명하다 • 똘방지다
총소리 • 총소레
추녀 • 추녈, 추매, 춘서, 춘설, 춘세
추다(춤) • 추우다, 취다2
추레하다 • 추렷하다, 추리하다
추수하다 • 나락베다, 나락비다
추어올리다 • 추게들다
추위 • 추우
축이다(물로) • 칙이다
축축이 • 척첵이, 축칙이
축축히 • 축축이
측간 • 똥칙간
치다 • 몪다
치르다 • 추리다
치마 • 초매, 치매
치우다 • 치내다, 치다
친손자 • 윈손지
칡 • 칠거지
칡덩굴 • 칙넌출, 칙넝출, 칙넝쿨, 칙순, 칙술
칡뿌리 • 칙뿌렁구, 칙뿌룽구, 칙뿌리
칼국수 • 손국수, 칼국시, 칼재비, 칼제비, 칼지비
칼도마 • 칼도매
커다랗다 • 크댄허다
커닿다 • 크닿다
켜 • 둘금2
켜다(기지개를) • 써다
켜켜이 • 재끼재끼
켤레 • 커리, 컬레, 컬리

코딱지 • 코딱징이
코바늘 • 가게바늘
코빼기 • 코빡
코털 • 콧쉬엄, 콧쉬옴, 콧시엄
코피 • 코엣피
코흘리개 • 코보
콧구멍 • 콧구넝, 콧구녕, 콧구먹
콧물 • 콤물, 콩물
콧수염 • 우염, 웃수염, 웃쉬엄, 웃쉬옴, 웃시엄, 윗쉬엄, 코밋쉬엠, 코쉬엄
콩기름 • 콩기럼1, 콩지럼, 콩지룸, 콩지름
콩깍지 • 섭깍대기, 콩깍대기, 콩깍데기, 콩껍데기
콩나물(무친 것) • 콩기럼너물, 콩나물너물, 콩너물무침, 콩지럼너물
콩나물 • 콩기럼2, 콩너물, 콩지럼, 콩지름2, 콩질금
콩나물국 • 콩너물국, 콩지럼국
콩나물밥 • 콩기럼밥, 콩너물밥
콩팥 • 콩팟
크다 • 커다
큰 바위 • 엉박
큰방 • 컴방, 큰뱅, 큼방, 큼뱅
큰소리, 소래기 • 소락댕이, 소락대기, 소락배기
큰어머니 • 큰엄매, 큰옴마
큼지막하다 • 크막하다
큼직하다 • 크단썩허다
키(箕) • 쳉이, 칭이
키우다 • 쑤다, 키다
키질 • 챙이질
키질하다 • 챙이질허다
타작 • 들타주
탁하다 • 꾸정하다
탄저병 • 산자, 산자병
탈 • 트버리
탈곡기 • 기게홀태
탈탈 • 달래달래
태연하다 • 으스딱딱허다, 으시딱딱하다
태우다 • 끄실르다, 처질르다
터 • 덩걸
-터이니까 • -팅게
턱 • 태가리, 테가리, 텍
턱수염 • 시엄1, 아랫수염, 아랫쉬엄, 아랫쉬옴, 아랫시엄, 턱쉬엄
턱주가리 • 택조가리, 택주바리
털실 • 게실
털썩 • 대싹
토끼 • 토개이, 토깨이, 토깽이, 퇴깽이, 퇴끼
토끼풀 • 퇴끼풀
토라지다 • 틀어지다
토막 • 똠박, 똥가리, 토맥이
토시 • 토손, 토씨, 팔갱기
톡톡하다 • 톱톱허다
톱 • 거두
톱톱하다 • 틉틉하다
통것 • 통놈
통발 • 쑤기
통조림 • 간수메
툇마루 • 뒷마루, 뒛마롱, 뒷마롱, 뒷마루, 뒷마룽, 뒷마리, 뒷말컹, 말캉
투레질하다 • 털불다, 틀불다
투미하다 • 티미하다
퉁 • 퉁생이, 퉁셍이
퉁명스럽다 • 불퉁시럽다
퉁소 • 퉁수
튀기다(기름, 불에) • 퉤다
튀기다(물방울을) • 튕기다2
튀다 • 퉤지다, 튀어지다, 튕기치다
튀밥 • 티밥
트림 • 개트름, 투룸, 트람, 트룸, 트름
트집 • 트재기
트집하다 • 뜨자구뜯다

튼튼하다 • 짱짱허다
틈 • 문새, 틈새기
티끌 • 띠끄락, 티결, 티껄, 티끄락, 티끼, 티리, 티크락
파랗다 • 포랗다
파루 • 바래, 파래
파릇파릇 • 새팔새팔, 포릇포릇
파리 • 퍼리, 포리
파리약 • 포리약
파리하다 • 히놀놀허다
파이프 • 빠이쁘
팍팍하다 • 파글파글허다
판국 • 판속
판매 • 팔매
판매소 • 팔매소
판매하다 • 팔매허다
팔꿈치 • 팔굼치, 팔꼽, 팔꽁새이, 팔꽁생이, 팔꽁오, 팔뚝공새이, 폴꿈치, 폴꽁새이, 폴꽁생이
팔뚝 • 팔뚝
팔랑개비 • 팔랭개비
팔목 • 폴목, 폴목쟁이
팔아먹다 • 내먹다1
팔짱 • 깔짱, 폴짱
팔짱끼다 • 팔짱찌다, 폴짱찌다
팥죽 • 펏죽, 폳죽
팥칼국수 • 낭와
패다(장작을) • 짜개다
팬티 • 빤쓰, 속빤쓰
팽개치다 • 때기치다
팽이 • 빼미, 빼오리, 뺑오리, 뺑이
팽이채 • 뺑오리채
팽팽히 • 팸팸히
퍼붓다 • 때레붓다
퍼지다 • 퍼다
펌프 • 뽐뿌샘, 자끼샘, 자끼샴, 작기시암, 작도샴, 작두샘, 작두샴, 작두시암, 작두우물, 짝두샘
페인트 • 뼁끼
편강 • 펭강
편안하다 • 팬안허다
편지 • 펜지, 핀지
편지하다 • 핀지하다
편하다 • 팬허다
편히 • 팬히
평생 • 펜상, 평상
평평히 • 반도롬히
폐일언하다 • 피런허다
포근하다 • 따숩다, 따시다, 포근허다, 폭삭허다
포기 • 포구, 폭거리
포대기 • 퍼대기
포도 • 포두
포장도로 • 공고리질
표주박 • 조롱바가지, 조롱바가치, 종고래기, 쪽바가지, 쫑구라기박, 쫑구래기박, 토주박
푸근하다 • 푸근허다
푸르죽죽하다 • 포리족족허다, 푸르족족하다
푸성귀 • 푸상가리, 푸성가리, 푸성제, 푸중가리
푹 • 폭신
풀떼죽 • 풀때죽
풀무 • 불무
풀무질 • 불무질
풀무치 • 불무치
풀솜 • 풀소김
풀숲 • 푸섭, 풀섭
풀이 죽다 • 푸죽다
품다 • 뿜다
품삯 • 싹품, 품삭
품앗이 • 돌량, 품앗이
풍구 • 풍고, 풍노
풍기다 • 그따구, 퓡기다1, 핑기다
풍뎅이 • 풍데이
풍천 장어 • 풍천짱어

피곤하다 • 빼치다
피라미 • 피라지, 피랭이, 피리
피문어 • 피등어
피우다 • 푸다
필지 • 필치
필통 • 연필깍
핏덩이 • 핏뎅이
핑그르르 • 핑등그리
하고 • 허고, 허구
하나 • 한나
하늘(天) • 하널, 하눌
하늬바람 • 하누바람
하다(爲) • 허다, 흐다, 히다
하루 • 하래, 하레
하루거리 • 하루사리, 하리거리
하루종일 • 하루쬥일
하룻날 • 하랫날
하마터면 • 하마터라먼, 하마트라먼, 하마트먼, 하매트라먼, 함마트라먼, 함마트먼, 함바트면
하숙생 • 하숙쟁이
하얗다 • 하얀허다, 허이다
하여튼 • 야튼
하졸 • 하줄
하품 • 하음
하필 • 해팔, 해필
학교 • 핵고, 핵교
학생 • 학상
학질 • 한축, 얭이락, 메누릿심, 메느리심
학질(매일) • 얭이락
한가위 • 한가우, 항가우
한가하다 • 널널허다
한길 • 행길, 행질
한꺼번에 • 한목이, 한목지기
한데 • 한디
한숨 • 한소금
한줄기 • 한둘금
한쪽 • 삐짝, 한짝
한축 • 한축기
한테 • 한티
한통속 • 한통아리
한평생 • 한평상
한풀이 • 원성풀이
할망구(비칭) • 노망구, 할망탕구, 할망태기
할망구 • 할머씨
할머니 • 할마씨, 할마이, 할매, 할모니, 할무니, 할무시, 할무씨, 할미, 함마니, 함머니
할미꽃 • 할매꼿
할아버지 • 한나부니, 한아부니, 한아부지, 한아씨, 한압씨, 한애비, 할압시, 할아부지, 할압시, 할압씨, 할애비
할퀴다(얼굴을) • 갈키다2, 할키다, 훔키다
핥다 • 할추다, 할트다, 핡다
함께 • 항꼬
함박눈 • 함팡눈
함부로 • 대나개나, 함불로
함빡, 흠씬 • 호복히
함빡 • 호끔
함지 • 석짝, 함석
함지박 • 함박지
항아리 • 항와리
해거름 • 해그름, 해그름판, 해글참, 해기룸, 해기룸판, 해기름, 해기름판, 해오룸, 해지럼, 해지름
해나다 • 날떠들다
해마다 • 연연이
해바라기 • 해바래기
해종일 • 하루내
해코지 • 해꼬지
햇김치 • 햇지, 햇짐치
햇무리 • 해머리, 햄모리, 햇머리
행여나 • 한이나
幸이나 • 해이나

행전 • 중대님, 중댓님
행주 • 행기, 행기포, 행줏보, 행지, 행지보
행주치마 • 행주치매
행티, 행짜 • 행투
향교 • 행괴
향내 • 상내
향단이 • 상단이
허리끈 • 큰댓님
허리띠 • 괠띠, 허르끈, 허리껀, 허리끼, 허리뛰, 허리빵
허리춤 • 골마리
허망하다 • 허퉁허다
허물없다, 임의롭다 • 이무럽다
허벅다리 • 허벅단지, 허북다리
허벅지, 넓적다리 • 허벅다리
허벅지 • 허북지
허수아비 • 허새비
허옇다 • 허겋다, 흐커다, 흐크다
허투루 • 허트로
허튼모, 막모 • 헌튼모
허튼소리 • 뻴소리
허튼수작 • 허튼수작
허파 • 서패, 허패, 허폐
허파에 바람 들다 • 서패에 바람이 갑북 들다
허풍 • 풍담
허황하다 • 부황부황하다, 부황하다
헐겁다 • 허성허다
헐뜯다 • 먹어대다, 묵어대다
헐방 • 을방
헐하다 • 헐허다, 헐히다
험하다 • 흠허다
헛간 • 잿간, 허청
헛고생 • 헛고상
헛짓 • 헛질
헝겊 허리띠 • 괴알띠, 귀알띠
헝겊 • 헌겁, 헝겁, 헝겁딱, 헝굽, 흔겁, 흥검, 흥겁, 흥겁때기, 흥겁쪼가리, 흥급
헝클다(옷들을) • 허클다2, 허틀다, 헌틀다
헝클어지다 • 허틀어지다, 흔틀어지다
헤벌어지다 • 헤벌레허다
헤싱헤싱하다 • 헤성헤성하다
헤어지다 • 히어지다
헤엄 • 시엄2, 헤염
헤적거리다 • 허부적거리다
헤치다 • 허치다2, 헌치다
헤프게 • 헤피
헤프다 • 시푸다1, 허피니, 히푸다
헹구다 • 힝구다
혀 • 섭바닥, 섯바닥, 셋바닥, 셔, 쎄, 쎗바닥, 쎗바닥
혓바늘 • 섯바늘, 썻반, 쎗바늘, 헛바늘
혓바닥 • 셧바닥, 헛바닥
형님 • 성님, 셍님
형제간 • 성지간, 행지간, 형지간
형편없다 • 물량나다
호다 • 숨트다
호두 • 호도
호드기 • 꾀때기, 홰때기
호랑이 • 오랭이, 호라이, 호래이, 호랭이, 호세, 호시
호롱 • 호룅
호리호리하다 • 갤상갤상허다
호미 • 호매, 호매이, 호맹, 호맹이, 호멩이, 호무, 호뭉이
호미씻이 • 술뮈기
호상 • 호생
호주머니 • 개찜, 개비, 개아짐, 개아찜, 개와, 게비, 게야침, 호주머이
혹 • 남봉
혼례 • 혼레, 혼리
혼수 • 농중, 농지기2
혼자 • 혼차

홀리다 • 돌루다, 홀기다, 홀여먹다
홀아비 • 홀애비
홀어미 • 과택, 홀어마니, 홀엄씨, 홀에미
홀치다 • 숭치다
홅이다 • 홅아지다, 홅어지다
홍수 • 대수, 수파, 한물, 함물
홍시 • 홍수, 홍수감, 홍시감
홍어 • 홍에
홍역 • 앞시기, 앞시기뒷시기, 혼역
홑옷 • 홀껍데기, 홋거, 홑것
홑적삼 • 홑적
화 • 화딱지
화나다 • 비아나다
화로 • 화래, 화루, 화리2
화롯불 • 하룻불, 하릿불, 화릿불
화요일 • 하외일, 하요일
화투 • 하토
화투짝 • 하토짝
화풀이 • 부아풀이, 부애풀이, 해풀이
확실하다 • 딱 부러지다
환갑 • 한갑
환갑잔치 • 한갑잔치
활대 • 끄실끼, 용두마리, 용두머리, 철기씬, 할대
활활 • 활랑활랑
홧김 • 홧짐
홧김에 • 부앳짐에, 부얏짐에, 부얏짐이, 홧짐에
황석어 • 황새기
황석어젓 • 항송아리젓
황아장수 • 황애장사
황장목 • 황장뫽
황포묵 • 황포묵
횃대 • 핫대
횃불 • 햇불
회계 • 회기
회오리바람 • 소소리바람, 소수리바람, 쇠수리바람, 회우리바람, 휘오리바람
회전기 • 호랭기, 호룡기, 호룽기
회초리 • 매차리, 회차리
횟가루 • 횟가리
횡재 • 힝재
효부 • 소부
효자 • 소자됭이, 회자
후끈하다 • 호끈허다
후년 • 훗년
후딱 • 투탁
후려치다 • 뙤기치다
후비다 • 헤비다, 후비다, 훼비다, 히비다
후생 • 후승
후지다 • 후닥지다
후춧가루 • 후춧가리
후텁지근하다 • 후덕지근하다
후하다 • 후허다
훌륭하다 • 훌릉하다
훌쩍 • 덜썩, 덜씬
훑다 • 훑다, 훑우다
훔치다(물건을) • 돌라가다
훔치다 • 쌔비다, 쎄비다, 옴부다
훤칠하다 • 헌뜻허다
훨씬 • 훨썩, 휘낀
휘발유 • 히발유
휘정거리다 • 구정키리다, 꾸정크리다, 꾸정키리다
휘파람 • 회파람, 횟바람, 훼파람, 휫바람
흉내 • 숭내
흉내질하다 • 숭내다
흉년 • 숭년
흉보다 • 숭보다
흉악하다 • 수악하다, 숭악하다, 숭악허다, 쑹악허다
흉측스럽다 • 숭시럽다
흉측하다 • 숭칙하다

흉터 지다 • 숭게지다
흉터 • 숭개
흉하다 • 숭없다
흐늘거리다 • 흔늘거리다
흐늘흐늘 • 흔늘흔늘
흐르다(流) • 흐리다, 흘르다
흐리다(기억/판단력이) • 꾸정끼리다
흐물흐물하다 • 허불허불허다
흐물흐물해지다 • 노그라지다
흐지부지 • 시시부지, 시시부진
흐트러지다 • 허트러지다
흔들흔들하다 • 흔틀박틀하다
흘기다 • 흘리다
흘리다 • 흐치다
흙 • 흑
흙덩어리 • 흙덤벵이
흙받기 • 받을손, 흙받이, 흙받침
흙벽 • 맴벡, 흑배랑빡, 흑벽, 흙베랑박, 흙베랑벡, 흙벡
흙손 • 쇠선, 쇠손, 쇠순, 회손
흠빽, 흠씬 • 호빡
흠빽 • 호꼼
흠씬맞다 • 작신맞다
흠집 • 기스
흥건하다 • 홍당허다
흩다(모이를) • 허비다, 허직거리다, 허직이다, 헐다
흩트리다 • 허트리다
희끄무레하다 • 흰푸드래허다
희멀겋다 • 허여멀건하다, 허여멀금하다, 희멀건허다
희미하다 • 희미롭다
희번하다 • 희변하다
희생 • 휘생, 희상
희한하다 • 흐안하다
흰자위(눈) • 쉰창, 희자오, 흰동자, 흰자, 흰창
흰자위(달걀) • 흰자사, 흰젓, 흰좃, 흰좆
힘 • 시마자구, 시말타구, 히마가리, 히말테기
힘껏 • 심껏, 심끗, 씸껏
힘들다(아주) • 기역시럽다
힘들다 • 심들다, 써빠지다, 쎄빠지다
힘차다 • 심지다, 심차다
경우 있다 • 겡오지다, 겡우지다

참고문헌

자료집

<2005 지역어자료조사보고서_남원>
<2007 지역어자료조사보고서_군산>
<2008 지역어자료조사보고서_고창>
<2008 지역어자료조사보고서_임실>
<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완판본 심청전>
<완판본 열여춘향수절가>
<지역어자료총서, 고창>
<지역어자료총서, 군산>
<지역어자료총서, 남원>
<지역어자료총서, 임실>
<지역어자료총소, 완주>
<한국구비문학대계 고창군>
<한국구비문학대계 군산군>
<한국구비문학대계 김제군>
<한국구비문학대계 남원군>
<한국구비문학대계 완주군>
<한국구비문학대계 임실군>
<한국구비문학대계 전주시 • 완주군편>
<한국구비문학대계 정읍군>
<한국구비문학대계 진안군>
<한국구비문학대계, 옥구군>
<한국민요대전- 전라북도민요해설집>
<효녀실긔심청(박순호소장본)>

문학작품

김동리 <황토기>
김승옥 <동두천>
김영랑 <연>
김영랑 <행군>

김용택 <강같은 세월>
김용택 <그리운 꽃편지>
김용택 <꽃산 가는 길>
김용택 <맑은 날>
김용택 <섬진강>
김용택 <아들아, 내 아들아>
김용택 <연애시집>
김용택 <저자들은 애국자>
김용택 <해와 달>
김정한 <옥심이>
문순태 <피아골>
박상륭 <죽음의 한 연구>
서정주 <가시내>
서정주 <金庾信風>
서정주 <단골 巫堂네 머슴 아이>
서정주 <大兇年>
서정주 <마지막 남은 것>
서정주 <무슨 꽃으로>
서정주 <바람>
서정주 <밤이 깊으면>
서정주 <보릿고개>
서정주 <뻐꾹새 울음>
서정주 <娑蘇 두 번째의 편지 斷片>
서정주 <四十>
서정주 <시월이라 상달되니>
서정주 <시집>
서정주 <암순이네집 밥상머리>
서정주 <어느날午後>
서정주 <逆旅>
서정주 <竹窓>
서정주 <花蛇>
송기숙 <녹두장군>
송기숙 <녹두장군>.
송기숙 <자랏골의 비가>
신경숙 <풍금이 있던 자리>
신석정 <悲歌>
양귀자 <녹>
양귀자 <멀고 아름다운 동네>

양귀자 <숨은 꽃>
양귀자 <얼룩>
양귀자 <찻집 여자>
윤흥길 <날개 또는 수갑>
윤흥길 <낫>
윤흥길 <무제>
윤흥길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
윤흥길 <비늘>
윤흥길 <빙청과 심홍>
윤흥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윤흥길 <소라단 가는 길>
윤흥길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윤흥길 <양>
윤흥길 <완장>
윤흥길 <장마>
윤흥길 <직선과 곡선>
이병천 <모래내 모래톱>
이병천 <삼가여국>
이정환 <샛강>
이태영 <전라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조봉래 <풀벨골>
조정래 <아리랑>
조정래 <태백산맥>
채만식 <가죽버선>
채만식 <강선달>
채만식 <과도기>
채만식 <그의 가정풍경>
채만식 <近日>
채만식 <금의 정열>
채만식 <金의 情熱>
채만식 <낙조>
채만식 <냉동어>
채만식 <女子의 一生>
채만식 <女子의一生>
채만식 <논 이야기>
채만식 <늙은極東選手>
채만식 <童話>
채만식 <두순정>

채만식 <落照>
채만식 <맹순사>
채만식 <明日>
채만식 <무장삼동>
채만식 <미스터 방>
채만식 <민족의 죄인>
채만식 <裵裨將>
채만식 <보리방아>
채만식 <貧第一章>
채만식 <사라지는 그림자>
채만식 <四號一段>
채만식 <산적>
채만식 <上京半折記>
채만식 <生命>
채만식 <생명의 유희>
채만식 <세 길로>
채만식 <少妄>
채만식 <심봉사>
채만식 <아름다운 새벽>
채만식 <얼어 죽은 모나리자>
채만식 <여인전기>
채만식 <염마>
채만식 <영계>
채만식 <예수나 안 믿었더면>
채만식 <옥랑사>
채만식 <왕치와 소새와 개미>
채만식 <龍洞宅>
채만식 <이런 男妹, 987, 457>
채만식 <이런 처지, 1987, 311>
채만식 <인형의 집>
채만식 <젊은날의 한 구절>
채만식 <停車場近處>
채만식 <정자나무 있는 挿畵>
채만식 <집>
채만식 <車中에서>
채만식 <천하태평춘>
채만식 <탁류>
채만식 <태평천하>

채만식 <邂逅>
채만식 <許生傳>
채만식 <懷>
채만식 <흘러간 고향>
최명희 <혼불>
최일남 <무화과꽃은 언제 피는가>
최일남 <서울의 초상>
최일남 <숙부는 늑대>
최일남 <장씨의 수염>
최일남 <춘자의 사계>
최일남 <흐르는 북>
최창학 <동물과 그들의 시간>
최창학 <바다 위를 나는 목>
최창학 <심야의 정담>
최창학 <지붕>
최창학 <창>

연구논문

권병로(1987),「무풍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권병로(1979),「무주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규남(1987),「부안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전북대 석사학위논문.
김규남(1991),「전북방언의 ㅂ불규칙 활용과 재구조화」, 어학 18, 전북대.
김규남(1998),「전북 정읍시 정해마을 언어사회의 음운변이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옥화(2000),「전북방언 '-어X'계 어미의 재구조화」, 국어학36: 97-131, 국어학회.
김옥화(2004),「 전북 서부 지역어의 격조사」, 어문연구 32-2, 어문연구학회.
김옥화(2001),「부안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옥화(2003),「 부안지역어의 특수조사」, 관악어문연구 28,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옥화(2008),「 융합형의 분석과 종결어미 목록: 전북 부안지역어를 대상으로」, 우리말연구 42, 우리말글학회.
김중진(1976),「 전북 고창지역어의 경어법 연구」, 국어문학18(전북대) 석사논문.
김중진(1984a),「존대소 '-겨-'에 대한 고찰」, 국어국문학연구 10.
김중진(1984b),「 전북서남방언의 종결어미」, 국어문학 24,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회.
김해정(1979),「전북 익산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야천 김교선선생 정년기념논총, 형설출판사.
김해정(1977),「전북 익산 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해정(1988),「전북 선유도 방언 연구」, 한국언어문학 25.
김해정(1982),「전북 임실 방언 연구」, 논문집 4, 우석대.

김해정(1989), 「전북 위도방언의 음운」, 인문논총 2, 우석대.
박종희(1979), 「중간자음 탈락과 그 흔적에 대하여 : 전라방언을 중심으로」, 향토문화연구 2, 원광대.
박종희(2003), 「 전북방언 모음조화의 불투명성」, 국어국문학134.
백은아(2006), 「/ㄹ/과 관련된 전주방언의 음운현상과 연결제약」,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백은아(2016), 「전북방언의 형태음운 현상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서주열(1981), 「전라,경남방언의 등어지대 연구」, 정화출판문화사.
소강춘(1983), 「남원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소강춘(1988b), 「움라우트 현상에 의한 전북방언의 공시적 분화상에 대하여」, 어학 15, 전북대.
소강춘(1988a), 「전북방언의 모음조화 현상에 의한 공시적 언어 분화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99.
소강춘(1984), 「음운 경계의 위계에 대하여－남원지역어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23.
소강춘(1989), 「방언분화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 한신문화사」, 전북대 박사학위논문.
송기창(1995), 「전북부안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우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송순강(1986), 「전북 서부방언의 한 연구」, 국어국문학연구4(원광대학교), 방언학연구논문집 전라도편에 재수록.
심병기(1985), 「임실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규창(1984), 「전북방언 개관」, 어학연구 3, 군산대.
이기갑(1998), 「 서남 방언」, 새국어생활 8-4, 국립국어연구원.
이기동(1983), 「 전북 임실지역어의 음운론적 고찰」, 한국언어문학 22.
이기동(1986), 「임실지역어의 모음교체」, 어문논집 26, 고려대.
이기동(1990), 「 전북 부안지역어의 음운론적 고찰」, 한국어학신연구, 한신문화사.
이길재(1991), 「남원지역 방언의 음운변화에 대한 연령별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길재(2001), 「전이지대의 언어변이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병근(1971), 「운봉지역어의 움라우트 현상」, 김형규박사송수기념논총, 일조각.
이상신(1983), 「 장수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승재(1983), 「혼효형 형성에 대한 문법론적 고찰」, 어학연구 19-1, 서울대.
이승재(1980), 「남부방언의 형식명사 '갑'의 문법」, 방언 4.
이승재(1987), 「전북방언의 연구와 특징에 대하여」, 국어생활8: 80-88, 국어연구소.
이승재(1997), 「전북 지역의 모음조화 현상에 대하여」, 한국어문학논고, 서울: 태학사.
이윤구(2001), 「 무주방언 종결어미의 언어지리학적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윤구(1985), 「무주 안성 지역어의 의문형 어미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은선(2011), 「전주 지역어의 어두 경음화 현상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익섭(1970), 「전라북도 동북부 지역의 언어분화」, 어학연구 6-1, 서울대.
이태영(1992), 「 전북방언 문법연구의 현황과 과제」, 전라문화논총5.
이태영(1983), 「전북방언의 격조사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태영(1986), 「 전북 방언의 특수조사에 대하여」, 국어문학 26, 국어문학회.
이태영(1987), 「동사 '겨다'의 문법화 과정」, 한국언어문학 25.
이태영(1988), 「국어 동사의 문법화 연구」, 한신문화사.
이태영(1991), 「접속어미 {-관대}의 변천과정과 방언의 {-간디}」, 갈음김석득교수회갑논총.

이태영(2009), 「윤흥길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에 나타난 언어, 문체의 변화와 그 효용성」, 국어문학 47.
이태영(2009), 「전라방언 내비두다, 내쏴두다의 어간 재구조화와 의미 변화」, 방언학.
이태영(2011), 『전라북도 방언 연구』, 역락, 2011..
이태영(2012), 『국어사와 방언사 연구』, 역락, 2012..
이태영(1984), 「동사 '가다'의 문법화에 대하여－전북방언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92.
이태영(1986), 「전북방언의 특수조사에 대하여」, 국어문학 26.
이태영(2004ㄱ), 「문학 작품에 나타난 방언의 기능」, 어문론총 41호.
이태영(2004ㄴ), 「문학 작품과 방언 연구」, 한국어학 25호.
이태영(2004ㄷ), 「혼불에 쓰인 방언의 기능과 등장 인물의 성격」, 혼불의 언어세계, 혼불학술총서2.
이태영(2006ㄱ), 「윤흥길의 소라단 가는 길에 나타난 일상어의 특징, 국어국문학」, 제142호.
이태영(1996), 「전라방언 '-ㅂ디어?' 구성의 의문법과 경어법」, 국어문학 31.
이태영(2010), 「전라방언 융합형 '-ㄴ고니'의 문법과 화용적 특성」, 언어문학 75.
이혁화(2005), 「무주`영동`김천 방언의 움운론적 대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장승익(2008), 「김제방언의 모음 변화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장은주(2004), 「전북 익산 방언의 문미 억양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전광현(1977), 「전라북도 익산지역어의 음운론적 고찰」, 어학4: 71-92, 전북대 어학연구소.
전광현(1981), 「전라북도 옥구지역어의 음운론적 고찰」, 국어학논집10: 3-27, 단국대 국문과.
전광현(1983), 「 영동`무주 접촉지역어의 음운론적 고찰」, 동양학13, 이병근`곽충구 편(1998)에 재수록.
전광현(1995), 「전라북도 방언구획 시고」, 동양학25: 1-18, 단국대동양학연구소.
전광현(1977), 「남원지역어의 기초어휘 조사 연구」, 야천 김교선 선생 정년논문집.
전광현(1983ㄷ), 「온각서록과 정읍지역어」, 국어학논집 11, 단국대.
전북대(1983), 「제4차 학술조사 보고서－고창군 무장면－」, 국어문학 23.
정경용(1988), 「설천지역어의 언어분화상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정영인(1988), 「전북지역어의 치음에 대한 역사적 고찰」, 논문집 10, 우석대.
정주환(1981), 「전북방언의 고찰 : 특히 서남 고창방언을 중심으로」, 논문집 7, 전북대부속 간호전문대학.
최명옥,김옥화(2001), 「 전북방언 연구」, 어문학 73, 한국어문학회.
최전승(1996), 「아주낮춤의 종결어미 '-ㄹ다'와 예사낮춤의 '-ㄹ세/-ㄹ시/-시'의 형성과 방언적 발달」, 『한국어 방언의 공시적 구조와 통시적 변화』.
최전승(1988), 「파생법에 의한 음성변화와 어휘 대치의 몇 가지 유형에 대하여」, 한글 200호.
최전승(2000),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의 처소격 조사 부류의 특질과 변화의 방향」, 우리 말글20: 101-152, 우리 말글학회.
최전승(2004c), 「詩語와 方言－'기룹다'와 '하냥'의 음운,형태론과 의미론－」, 한국어 방언의 공시적 구조와 통시적 변화에 소재.
최전승(2009), 「국어사와 국어방언사와의 만남」, 도서출판 역락.
최전승(1982), 「비어두음절 모음의 방언적 분화－u-i와 접미사 i의 기능－」, 백영 정병욱 선생 환갑기념논총.
최전승(1986),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의 음운현상과 그 역사성」, 한신문화사.
최전승(1990), 「판소리 사설에 반영된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의 특질－경어법체계를 중심으로－」, 한글 210호, 한글학회.

최전승,김홍수,김창섭,김중진,이태영(1992), 「전북방언의 특징과 변화의 방향」, 어학19, 전북대학교 어학연구소.
최태영(1973), 「존대법 연구－전라북도 동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어학1, 전북대.
최태영(1981), 「전주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최태영(1978a), 「전주방언의 움라우트 현상」, 어학 5, 전북대.
최태영(1978b), 「전주방언의 이중모음」, 국어문학 19.
최태영(1982), 「전주지역어의 몇 가지 음운현상」, 백영 정병욱선생 환갑기념논총, 신구문화사.
최학근(1976a), 「전라도 방언연구, 음운편 : 모음」, 국어국문학 70.
한영균(1980), 「완주지역어의 움라우트 현상」, 관악어문연구 6.
홍윤표(1978), 「전주방언의 격연구, 어학」, 전북대 5.